

BibleFrame 한국어 가톨릭 성경 73권

Public Domain WEB-C 기반 · Qwen3-Next 80B 기계 번역·교정

가톨릭 성경 기반 비공인 기계 번역 초안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공용 번역본이 아니며 전례용·교리 판정용이 아닙니다.

한국어 본문·데이터 CC0-1.0 · 코드 MIT

<https://github.com/jsbang01357/BibleFrame>

목차

창세기 Genesis	6
탈출기 Exodus	75
레위기 Leviticus	132
민수기 Numbers	173
신명기 Deuteronomy	230
여호수아기 Joshua	277
판관기 Judges	311
룻기 Ruth	342
사무엘기 상권 1 Samuel	346
사무엘기 하권 2 Samuel	388
열왕기 상권 1 Kings	426
열왕기 하권 2 Kings	467
역대기 상권 1 Chronicles	507
역대기 하권 2 Chronicles	548
에즈라기 Ezra	596
느헤미야기 Nehemiah	610
토빗기 Tobit	630
유딧기 Judith	643
에스테르기 Esther (Greek)	663
마카베오기 상권 1 Maccabees	676
마카베오기 하권 2 Maccabees	713
욥기 Job	742

시편 Psalms	781
잠언 Proverbs	866
코헬렛 Ecclesiastes	897
아가 Song of Songs	908
지혜서 Wisdom	912
집회서 Sirach	931
이사야서 Isaiah	984
예레미야서 Jeremiah	1039
애가 Lamentations	1105
바룩서 Baruch	1111
에제키엘서 Ezekiel	1121
다니엘서 Daniel (Greek)	1186
호세아서 Hosea	1214
요엘서 Joel	1222
아모스서 Amos	1225
오바드야서 Obadiah	1232
요나서 Jonah	1233
미카서 Micah	1236
나훔서 Nahum	1240
하바쿱서 Habakkuk	1243
스바니아서 Zephaniah	1246
하깨이서 Haggai	1249
즈카르야서 Zechariah	1251
말라키서 Malachi	1261

마태오 복음서 Matthew	1264
마르코 복음서 Mark	1311
루카 복음서 Luke	1343
요한 복음서 John	1393
사도행전 Acts	1431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Romans	1478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 Corinthians	1496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2 Corinthians	1516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Galatians	1529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Ephesians	1535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Philippians	1541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Colossians	1545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 Thessalonians	1549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2 Thessalonians	1554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 Timothy	1557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2 Timothy	1562
티토에게 보낸 서간 Titus	1566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Philemon	1569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Hebrews	1570
야고보 서간 James	1585
베드로의 첫째 서간 1 Peter	1590
베드로의 둘째 서간 2 Peter	1595
요한의 첫째 서간 1 John	1598
요한의 둘째 서간 2 John	1603

요한의 셋째 서간 3 John	1604
유다 서간 Jude	1605
요한 묵시록 Revelation	1606

창세기 | Genesis

창세기 1장

- ¹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 ² 땅은 공허하고 텅 빈 채였으며, 어둠이 깊이의 표면 위에 있었고, 하느님의 영이 물의 표면 위를 움직이고 계셨다.
- ³ 하느님께서 이르셨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다.
- ⁴ 하느님께서 빛을 보셨고, 그것이 좋음을 보셨다. 하느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 ⁵ 하느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첫째 날이 되었다.
- ⁶ 하느님께서 이르셨다. "물들 사이에 하늘의 겹층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게 하라."
- ⁷ 하느님께서 겹층을 만들고, 겹층 아래의 물과 겹층 위의 물을 나누셨다. 그렇게 되었다.
- ⁸ 하느님께서 겹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둘째 날이 되었다.
- ⁹ 하느님께서 이르셨다.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게 하여,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라." 그렇게 되었다.
- ¹⁰ 하느님께서 마른 땅을 "땅"이라 부르셨고, 물들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그것이 좋음을 보셨다.
- ¹¹ 하느님께서 이르셨다. "땅은 풀과 씨를 맺는 풀과 씨를 안고 자기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땅 위에서 낼지이다." 그렇게 되었다.
- ¹² 땅은 풀과 씨를 맺는 풀과 씨를 안고 자기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냈다. 하느님께서 그것이 좋음을 보셨다.
- ¹³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셋째 날이 되었다.
- ¹⁴ 하느님께서 이르셨다. "하늘의 겹층에 빛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표징과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게 하라."
- ¹⁵ "그리고 하늘의 겹층에서 땅 위에 빛을 비추게 하라." 그렇게 되었다.
- ¹⁶ 하느님께서 두 큰 빛을 만드셨다. 큰 빛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한 별들을 만드셨다.
- ¹⁷ 하느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겹층에 두어 땅 위에 빛을 비추게 하셨다,
- ¹⁸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그것이 좋음을 보셨다.
- ¹⁹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넷째 날이 되었다.
- ²⁰ 하느님께서 이르셨다. "물들은 생물을 풍성하게 낳고, 새들이 땅 위, 하늘의 겹층을 향해 날게 하라."
- ²¹ 하느님께서 큰 바다 짐승들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물이 풍성하게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자기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자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것이 좋음을 보셨다.
- ²² 하느님께서 그것들을 축복하시며 이르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땅 위에서 새들이 번성하라."
- ²³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다섯째 날이 되었다.
- ²⁴ 하느님께서 이르셨다. "땅은 자기 종류대로 살아 있는 생물을,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낼지이다." 그렇게 되었다.
- ²⁵ 하느님은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느님은 보시니 좋았다.
- ²⁶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것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 ²⁷ 하느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그분이 창조하셨다.
- ²⁸ 하느님은 그들을 복주시며 말씀하셨다. "열매를 맺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 차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 ²⁹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땅 위의 모든 씨를 맺는 풀과 씨를 맺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것들이 너희의 음식이 될 것이다."
- ³⁰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의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에게 나는 모든 푸른 풀을 먹이로 주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

³¹ 하느님은 자기가 만든 모든 것을 보셨다. 보니 아주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여섯째 날이 되었다.

창세기 2장

¹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² 일곱째 날에 하느님은 자신이 하신 모든 일을 마치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자신이 하신 모든 일을 쉬셨다.

³ 하느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분이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⁴ 하느님께서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의 세대 기록은 이러하다.

⁵ 땅 위에는 들의 식물이 아직 없었고, 들의 풀도 아직 자라지 않았다. 주님 하느님께서서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⁶ 그러나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땅의 온 표면을 적셨다.

⁷ 주님 하느님께서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⁸ 주님 하느님께서 에덴 동쪽에 정원을 심으시고, 자신이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⁹ 주님 하느님께서서 땅에서 모든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그 나무들은 눈에 아름답고 음식으로 좋았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생명의 나무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도 있었다.

¹⁰ 한 강이 에덴에서 나와 정원을 적셨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강이 되었다.

¹¹ 첫째 강의 이름은 피손이다. 이 강은 화빌라 땅 전체를 흐르며, 그 땅에는 금이 있다.

¹² 그 땅의 금은 좋다.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옥석도 있다.

¹³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다. 이 강은 쿠스 땅 전체를 흐른다.

¹⁴ 셋째 강의 이름은 학데겔이다. 이 강은 아시리아 앞을 흐른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¹⁵ 주님 하느님께서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정원에 두시고, 그 정원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¹⁶ 주님 하느님께서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너는 정원의 모든 나무에서 마음껏 먹어도 된다."

¹⁷ 그러나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서만은 먹지 말아라. 네가 그 나무에서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¹⁸ 주님 하느님께서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해 그와 맞는 도우미를 만들겠다."

¹⁹ 주님 하느님께서서 땅에서 모든 들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를 빚으시고, 그들을 사람에게 데려와서 무엇이든 부를지 보셨다. 사람이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무엇이든 부르든,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

²⁰ 사람은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으나, 사람을 위해 그와 맞는 도우미는 발견되지 않았다.

²¹ 주님 하느님께서서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사람이 잠들었을 때, 그분은 그의 갈비뼈 하나를 빼내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²² 주님 하느님께서서 사람에게서 빼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사람에게 데려오셨다.

²³ 사람은 말했다. "이제야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육 중의 육이다. 이는 '여자'라 불릴 것이다. 이는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²⁴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류하며, 둘은 한 육체가 될 것이다.

²⁵ 사람과 그의 아내는 모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창세기 3장

- 1 뱀은 주님 하느님이 만드신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교활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하느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이 정원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 2 여자가 뱀에게 말했다. "우리는 정원의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 3 정원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한다.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것을 먹지 말고, 만져서도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 4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 5 하느님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아신다."
- 6 여자가 그 나무가 먹음직스럽고, 눈에 아름답고, 지혜를 얻게 해 준다고 생각하여,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그도 먹었다.
- 7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꿰매어 자신들을 가리기 위한 띠를 만들었다.
- 8 그들이 하루 중 시원한 때에 정원에서 걷는 주님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 남자와 그의 아내는 정원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 주님 하느님의 앞을 피했다.
- 9 주님 하느님이 남자에게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 10 남자가 말했다. "내가 정원에서 당신의 소리를 들었고, 내가 벌거벗었기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 11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누가 너에게 네가 벌거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네가 먹었느냐?"
- 12 남자가 말했다. "당신이 저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주었으므로, 제가 먹었습니다."
- 13 주님 하느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 14 주님 하느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 일을 하였으므로,
- 15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원수의 적대감을 두고,
- 16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임신 고통을 크게 늘릴 것이다.
- 17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 18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줄 것이다.
- 19 네가 땀으로 이마를 적시며 빵을 먹을 것이며, 네가 흙에서 났으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 20 남자는 그의 아내를 에바라 불렀다. 그녀가 모든 살아 있는 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21 주님 하느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
- 22 주님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그 남자가 우리 중 하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 나무에서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자."
- 23 그러므로 주님 하느님이 그를 에덴 정원에서 내보내어, 그가 났던 땅을 일하게 하셨다.
- 24 그리고 그는 그 남자를 내쫓았으며, 에덴 정원 동쪽에 그룹들을 두고, 사방으로 빠르게 회전하는 불꽃 칼을 세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창세기 4장

- ¹ 그 남자가 아내 에바를 알았다. 그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말했다. "주님의 도움으로 내가 남자를 얻었다."
- ² 그녀가 다시 아이를 낳아, 가인의 형제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갈아짓는 자였다.
- ³ 때가 흐르자, 가인은 땅의 열매로 주님께 제물을 드렸다.
- ⁴ 아벨도 자기 양 떼의 처음 난 것들과 그 기름을 가져왔다. 주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존중하셨다.
- ⁵ 그러나 그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존중하지 않으셨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얼굴이 처졌다.
- ⁶ 주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왜 화가 났느냐? 왜 네 얼굴이 처졌느냐?"
- ⁷ 네가 잘한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네가 잘하지 못한다면, 죄가 문 앞에 얹드려 있다. 죄는 너를 탐하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 ⁸ 가인이 형제 아벨에게 말했다. "들로 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형제 아벨을 쳐서 죽였다.
- ⁹ 주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제 아벨은 어디 있느냐?"
- ¹⁰ 주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 형제의 피가 땅에서 내게 외치고 있다."
- ¹¹ 이제 네가 땅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땅이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형제의 피를 받았기 때문이다.
- ¹² 네가 땅을 갈아짓더라도, 땅은 네게 그 힘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네가 땅 위에서 도망자요 방랑자가 될 것이다.
- ¹³ 가인이 주님께 말했다.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큼니다."
- ¹⁴ 보십시오, 오늘 당신이 저를 땅의 표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얼굴을 피하게 될 것이고, 땅 위에서 도망자요 방랑자가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자는 누구나 저를 죽일 것입니다.
- ¹⁵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가인을 죽는 자는 일곱 배의 복수를 받을 것이다." 주님은 가인에게 표징을 주어, 그를 만나는 자가 그를 치지 못하게 하셨다.
- ¹⁶ 가인은 주님의 앞을 떠나 에덴 동쪽의 땅 노드에 거주하였다.
- ¹⁷ 가인이 아내를 알았다. 그녀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는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불렀다.
- ¹⁸ 에녹에게 이라드가 태어났다. 이라드는 메후야엘의 아버지가 되었고, 메후야엘은 메두사엘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메두사엘은 라멕의 아버지가 되었다.
- ¹⁹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 첫째의 이름은 아다였고, 둘째의 이름은 질라였다.
- ²⁰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천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 ²¹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수금과 피리 다루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 ²² 질라도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철로 만든 모든 도구를 만드는 자였다. 두발가인의 누이 이름은 나아마였다.
- ²³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했다. "아다와 질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 ²⁴ 가인은 일곱 번 복수를 받을 것이니,
- ²⁵ 아담이 다시 아내를 알았고, 그녀가 아들을 낳아 세트라 이름 지었으며, 말했다. "하느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 대신에 나에게 또 다른 아이를 주셨다."
- ²⁶ 세트에게도 아들이 태어나서 그는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창세기 5장

- ¹ 이것은 아담의 계보이다. 하느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 하느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들었다.
- ² 그분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이 창조된 날, 그분은 그들을 아담이라 이름지었다.
- ³ 아담은 백삼십 년을 살다가, 자기 모양과 본래의 모습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셋이라 지었다.
- ⁴ 셋을 낳은 후 아담이 산 날은 팔백 년이었고, 그는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 ⁵ 아담이 산 모든 날은 구백삼십 년이었고, 그는 죽었다.
- ⁶ 셋은 백오 년을 살다가 에노스를 낳았다.
- ⁷ 에노스를 낳은 후 셋이 산 날은 팔백칠 년이었고, 그는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 ⁸ 셋이 산 모든 날은 구백십이 년이었고, 그는 죽었다.
- ⁹ 에노스는 구십 년을 살다가 케난을 낳았다.
- ¹⁰ 케난을 낳은 후 에노스가 산 날은 팔백십오 년이었고, 그는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 ¹¹ 에노스가 산 모든 날은 구백오 년이었고, 그는 죽었다.
- ¹² 케난은 칠십 년을 살다가 마할렐렐을 낳았다.
- ¹³ 마할렐렐을 낳은 후 케난이 산 날은 팔백사십 년이었고, 그는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 ¹⁴ 케난이 산 모든 날은 구백십 년이었고, 그는 죽었다.
- ¹⁵ 마할렐렐은 육십오 년을 살다가 예레드를 낳았다.
- ¹⁶ 예레드를 낳은 후 마할렐렐이 산 날은 팔백삼십 년이었고, 그는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 ¹⁷ 마할렐렐이 산 모든 날은 팔백구십오 년이었고, 그는 죽었다.
- ¹⁸ 예레드는 백육십이 년을 살다가 에녹을 낳았다.
- ¹⁹ 에녹을 낳은 후 예레드가 산 날은 팔백 년이었고, 그는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 ²⁰ 예레드가 산 모든 날은 구백육십이 년이었고, 그는 죽었다.
- ²¹ 에녹은 육십오 년을 살다가 메두셀라를 낳았다.
- ²² 메두셀라가 태어난 후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삼백 년을 살며,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 ²³ 에녹이 산 모든 날은 삼백육십오 년이었다.
- ²⁴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걸었으나,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하느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 ²⁵ 메두셀라는 백팔십칠 년을 살다가 라멕을 낳았다.
- ²⁶ 라멕을 낳은 후 메두셀라는 칠백팔십이 년을 더 살면서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 ²⁷ 메두셀라가 산 모든 날은 구백육십구 년이었고, 그는 죽었다.
- ²⁸ 라멕은 백팔십이 년을 살다가 아들을 낳았다.
- ²⁹ 그는 그의 이름을 노아라 지으며 말했다. "이 아이가 우리를, 주님이 저주하신 땅에서 우리 손의 수고와 고생으로부터 위로해 줄 것이다."
- ³⁰ 노아를 낳은 후 라멕은 오백구십오 년을 더 살면서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 ³¹ 라멕이 산 모든 날은 칠백칠십칠 년이었고, 그는 죽었다.
- ³² 노아는 오백 살이 되었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창세기 6장

- ¹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을 때,
- ²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답다는 것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이를 아내로 삼았다.
- ³ 주님은 말씀하셨다. "내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는 육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될 것이다."
- ⁴ 그때 땅 위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자식을 낳을 때에도 있었다.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 유명한 사람들이다.
- ⁵ 주님은 사람이 땅 위에서 얼마나 악한지 보셨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함을 보셨다.
- ⁶ 주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어놓은 것을 후회하셨고, 마음속으로 슬퍼하셨다.
- ⁷ 주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땅 위에서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워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까지도, 내가 그들을 지어놓은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 ⁸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눈에 은총을 받았다.
- ⁹ 노아의 후손들의 계보는 이러하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그 시대 사람들 사이에서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걸었다.
- ¹⁰ 노아는 세 아들을 낳았다. 셈과 함과 야벳이다.
- ¹¹ 땅은 하느님 앞에서 부패했고, 땅은 폭력으로 가득 찼다.
- ¹² 하느님은 땅을 보셨고,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자기 길을 부패시켰음을 보셨다.
- ¹³ 하느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든 육체를 끝내겠다. 그들이 땅에 폭력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그들과 땅을 멸망시키겠다."
- ¹⁴ 고퍼 나무로 배를 만들라. 배 안에 방들을 만들고, 안팎으로 채로 단단히 막아라.
- ¹⁵ 이렇게 만들라. 배의 길이는 삼백 규빗, 너비는 오십 규빗, 높이는 삼십 규빗이 되어야 한다.
- ¹⁶ 배 위에 지붕을 만들고, 위로 한 규빗까지 마무리하라. 배의 옆면에 문을 달아라. 아래층, 둘째 층, 셋째 층으로 만들라.
- ¹⁷ 내가, 곧 내가 이 땅 위에 홍수를 내려, 하늘 아래 모든 숨을 지닌 육체를 멸망시키겠다. 땅 위의 모든 것이 죽을 것이다.
- ¹⁸ 그러나 나는 너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아들들의 아내들이 배에 들어오라.
- ¹⁹ 모든 육체 중에서, 살아 있는 것들 각 종류마다 둘씩 배에 데려오라. 그것들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기 위함이다. 수컷과 암컷이 되어야 한다.
- ²⁰ 새는 종류대로, 가축은 종류대로,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종류대로, 각 종류마다 둘씩 네게로 나아와 살아남게 하리라.
- ²¹ 먹는 모든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서 네게 모아두라. 그것이 너와 그들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다.
- ²² 이처럼 노아는 하였다. 하느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가 행하였다.

창세기 7장

- ¹ 주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네 가족을 모두 데리고 방주에 들어오너라. 내가 이 세대에서 네가 나 앞에 의로운 자임을 보았다."
- ² 너는 깨끗한 모든 짐승을 일곱 쌍씩, 수컷과 암컷으로 데려오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은 둘씩, 수컷과 암컷으로 데려오너라.
- ³ 하늘의 새들도 일곱 쌍씩, 수컷과 암컷으로 데려오너라. 이는 지면 위의 모든 생물의 씨를 살아 있게 하기 위함이다.
- ⁴ 일곱 날 후에, 내가 사십 일 밤낮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릴 것이다. 내가 땅 위에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겠다.
- ⁵ 노아는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 행하였다.
- ⁶ 노아가 육백 살이 되었을 때, 홍수가 땅에 닥쳤다.
- ⁷ 노아는 그의 아들과 아내와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홍수 때문에 방주에 들어갔다.
- ⁸ 깨끗한 짐승과 깨끗하지 않은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
- ⁹ 한 쌍씩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왔으며, 수컷과 암컷이었고, 하느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 ¹⁰ 일곱 날이 지난 후, 홍수가 땅에 닥쳤다.
- ¹¹ 노아가 육백 살이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열일곱째 날에, 그날 모든 깊은 샘의 샘물이 터져 나왔고, 하늘의 문들이 열렸다.
- ¹² 사십 일 밤낮 동안 땅 위에 비가 내렸다.
- ¹³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의 세 아내가 방주에 들어갔다.
- ¹⁴ 그들과 모든 생물이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어다니는 생물이 종류대로, 모든 새가 종류대로, 모든 종류의 새들이 함께 들어갔다.
- ¹⁵ 숨결이 있는 모든 육체가 한 쌍씩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왔다.
- ¹⁶ 들어간 자들은 하느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었고, 그 후 주님이 그를 문 안에 닫아주셨다.
- ¹⁷ 홍수는 사십 일 동안 땅 위에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 방주를 들어 올리고, 방주가 땅 위로 떠올랐다.
- ¹⁸ 물이 불어나 땅 위에 크게 넘쳤고, 방주는 물 위에 떠다녔다.
- ¹⁹ 물이 땅 위에 매우 높이 불어올랐다. 하늘 아래 모든 높은 산들이 모두 덮였다.
- ²⁰ 물이 십오 큐빗이나 더 높이 불어올라 산들이 덮였다.
- ²¹ 땅 위를 움직이는 모든 육체, 곧 새와 가축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어다니는 생물과 모든 사람이 죽었다.
- ²² 마른 땅 위에 있어 숨결, 곧 생명의 영의 숨을 가진 모든 것이 죽었다.
- ²³ 땅 위에 있던 모든 생물, 곧 사람과 가축과 기어다니는 생물과 하늘의 새들이 멸망되었다. 그들은 땅에서 멸망되었다. 오직 노아와 방주 안에 함께 있던 자들만 남았다.
- ²⁴ 물이 땅 위에 백오십 일 동안 불어넘쳤다.

창세기 8장

- ¹ 하느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배 안에 있던 모든 동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셨다. 하느님은 땅 위로 바람을 일으키셨다. 물이 물러갔다.
- ²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막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쳤다.
- ³ 물이 계속해서 땅에서 물러갔다. 백 오십 일 후에 물이 물러갔다.
- ⁴ 배는 일곱 번째 달, 그 달 열일곱째 날에 아라랏 산들 위에 정박했다.
- ⁵ 물은 계속해서 물러가서 열 번째 달까지 이르렀다. 열 번째 달 첫째 날에 산들의 꼭대기가 드러났다.
- ⁶ 사십 일 후에 노아는 자신이 만든 배의 창문을 열었다.
- ⁷ 그는 까마귀를 보냈다. 까마귀는 땅 위의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했다.
- ⁸ 그는 또 비둘기를 보내어 땅 위의 물이 줄었는지 알아보았다.
- ⁹ 그러나 비둘기는 발을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온 땅 위에 물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에게로 돌아와 배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손을 뻗어 비둘기를 잡아 배 안으로 데려왔다.
- ¹⁰ 그는 또 일주일을 더 기다린 후에 다시 비둘기를 배에서 보냈다.
- ¹¹ 비둘기는 저녁에 그에게로 돌아왔고, 보라, 그 입에는 새로 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었다. 이로써 노아는 땅 위의 물이 줄었음을 알았다.
- ¹² 그는 또 일주일을 더 기다린 후 비둘기를 보냈다. 그런데 비둘기가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 ¹³ 육백년째 해, 첫째 달, 그 달의 첫째 날에 땅 위의 물이 마르고, 노아는 배의 덮개를 벗고 바라보았다. 땅의 표면이 마른 것을 보았다.
- ¹⁴ 둘째 달, 그 달의 스물일곱째 날에 땅이 마르렀다.
- ¹⁵ 하느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 ¹⁶ "네가 배에서 나와라.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아들의 아내들과 함께 나와라."
- ¹⁷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을 너와 함께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이 땅에서 번성하고, 번식하며, 땅에서 많이 늘게 하라.
- ¹⁸ 노아는 그의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 ¹⁹ 모든 짐승과 모든 기어다니는 것과 모든 새, 땅 위를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그들의 종족대로 배에서 나왔다.
- ²⁰ 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깨끗한 모든 짐승과 깨끗한 모든 새를 가져다가 제단에 번제를 드렸다.
- ²¹ 주님은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 주님은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는 내가 한 것처럼 모든 생물을 치지 않겠다."
- ²² 땅이 있는 동안에는 파종과 수확,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창세기 9장

- ¹ 하느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내리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실을 맺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 ²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에게 미칠 것이며,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 손에 넘겨질 것이다.
- ³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의 음식이 될 것이다. 내가 녹색 풀을 너희에게 준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 ⁴ 그러나 생명을 지닌 고기, 곧 그 피는 먹지 말아야 한다.
- ⁵ 내가 너희의 피를 반드시 요구할 것이다. 모든 짐승의 손에서 내가 그것을 요구할 것이며,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내가 사람의 생명을 요구할 것이다.
- ⁶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의 손에 의해 그 피가 흘릴 것이다. 하느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 ⁷ 과실을 맺고 번성하여라. 땅 위에서 풍성히 번성하고 그 안에서 번성하여라.
- ⁸ 하느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 ⁹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내 언약을 세운다.
- ¹⁰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살아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 배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과도 언약을 세운다.
- ¹¹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홍수의 물로 다시는 모든 육체를 끊지 않을 것이다. 땅을 파괴하는 홍수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¹² 하느님은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살아 있는 생물 사이에 영원한 세대를 위하여 세우는 언약의 표징이다.
- ¹³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놓을 것이며,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 ¹⁴ 내가 땅 위에 구름을 드리우면, 그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 ¹⁵ 내가 나와 너희와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살아 있는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을 기억할 것이며, 물이 다시는 모든 육체를 파괴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 ¹⁶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살아 있는 생물과 하느님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 ¹⁷ 하느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징이다."
- ¹⁸ 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으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이다.
- ¹⁹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이 채워졌다.
- ²⁰ 노아는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심었다.
- ²¹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그는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다.
- ²²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
- ²³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두 어깨에 걸고 뒤로 돌아가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었다. 그들은 얼굴을 돌리고 있었으므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못하였다.
- ²⁴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 자기 막내아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알았다.
- ²⁵ 그는 말했다. "가나안은 저주받을 자다. 그는 형제들의 종이 되어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 ²⁶ 그는 말했다. "셈의 하느님, 주님을 찬미하라."
- ²⁷ 하느님이 야벳을 넓히시기를 바란다.
- ²⁸ 홍수 이후 노아는 삼백 오십 년을 살았다.
- ²⁹ 노아의 모든 날은 구백 오십 년이었고, 그 후에 그는 죽었다.

창세기 10장

- ¹ 이것은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 야벳의 후손들의 역사이며, 홍수 이후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 ²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 마고그, 마다이, 야완, 두발, 메섹, 티라스였다.
- ³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켄나즈, 리파트, 도가르마였다.
- ⁴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 타르시스, 키팀, 도다님이었다.
- ⁵ 이들로부터 열국의 섬들이 그들의 땅과 언어와 가족과 나라에 따라 나뉘어졌다.
- ⁶ 함의 아들들은 쿠스, 미스라임, 푸트, 가나안이었다.
- ⁷ 쿠스의 아들들은 세바, 히빌라, 사브타, 라마, 사브테가였다. 라마의 아들들은 세바와 덴단이었다.
- ⁸ 쿠스는 니므롯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그는 땅에서 힘센 자가 되기 시작하였다.
- ⁹ 그는 주님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앞에서 니므롯처럼 힘센 사냥꾼"이라고 한다.
- ¹⁰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나르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카드와 갈레였다.
- ¹¹ 그는 그 땅에서 아시리아로 나가서 니네베와 르호보트이르와 칼라를 건설하였다.
- ¹² 그리고 니네베와 큰 도시 칼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다.
- ¹³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뫼와 레하빔과 나프트힘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 ¹⁴ 바트루심과 카술힘(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으며)과 카프토림의 아버지가 되었다.
- ¹⁵ 가나안은 시돈(그의 맏아들)과 헛과
- ¹⁶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 ¹⁷ 히위 사람과 아르키 사람과 시닌 사람의 아버지가 되었고,
- ¹⁸ 아르바드 사람과 세마르 사람과 하마트 사람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 후 가나안 자손의 가족들이 퍼져 나갔다.
- ¹⁹ 가나안 사람들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게라르 방향으로, 가사에서부터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세보임 방향으로, 라사까지 이르렀다.
- ²⁰ 이것은 가족과 언어와 땅과 나라에 따라 나뉜 함의 아들들이다.
- ²¹ 야벳의 형이었던 셈에게도 자녀들이 태어났으며, 그는 에버의 모든 자손의 아버지가 되었다.
- ²²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아시르, 아르파크삿, 루드, 아람이었다.
- ²³ 아람의 아들들은 우스, 헐, 게더, 마스였다.
- ²⁴ 아르파크삿은 셀라의 아버지가 되었고, 셀라는 에버의 아버지가 되었다.
- ²⁵ 에버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다. 하나의 이름은 브레그였는데, 그의 시대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그의 동생의 이름은 요칸이었다.
- ²⁶ 요칸은 알모다드, 셀레프, 하사르마벳, 여라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 ²⁷ 하도람, 우살, 디클라의 아버지가 되었고,
- ²⁸ 오발, 아비마엘, 세바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 ²⁹ 오빌, 히빌라, 요밥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 모든 이들은 요칸의 아들들이었다.
- ³⁰ 그들의 거주지는 메사에서부터 동쪽 산지인 스바르까지 퍼져 있었다.
- ³¹ 이것은 셈의 아들들이 가족과 언어와 땅과 나라에 따라 나뉜 것들이다.
- ³² 이것은 노아의 아들들이 세대를 따라 나뉜 가족들이다. 홍수 이후 이들로부터 땅 위에 나라들이 나뉘었다.

창세기 11장

- ¹ 전 지구는 한 언어와 한 말을 사용했다.
- ²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시날 땅에 평원을 발견하고 거기서 살았다.
- ³ 그들이 서로 말했다. "오라, 벽돌을 만들어 불로 태우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썼고, 모르타르 대신 타르를 썼다.
- ⁴ 그들이 말했다. "오라, 우리를 위해 도시를 건설하고 하늘에 닿는 탑을 세우자. 그리하여 우리가 이름을 떨치자. 그래야 우리가 온 지구의 표면에 흠어지지 않을 것이다."
- ⁵ 주님은 그들이 건설한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 ⁶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그들은 한 백성이고 모두 한 언어를 쓰고 있다. 이것이 그들이 시작하는 일이다. 이제 그들이 하려는 일은 무엇이든 막히지 않을 것이다."
- ⁷ 오라,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 ⁸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을 거기서 온 지구의 표면으로 흠어뜨리셨다. 그들은 도시 건설을 멈추었다.
- ⁹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다. 거기서 주님께서 온 지구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고, 주님은 그들을 거기서 온 지구의 표면으로 흠어뜨리셨다.
- ¹⁰ 셈의 후손들의 계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 뒤 이 년 후 백 살에 아르파크삿을 낳았다.
- ¹¹ 셈은 아르파크삿을 낳은 후 오백 년을 살며 또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 ¹² 아르파크삿은 삼십오 살에 셀라를 낳았다.
- ¹³ 아르파크삿은 셀라를 낳은 후 사백삼 년을 살며 또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 ¹⁴ 셀라는 삼십 살에 에벨을 낳았다.
- ¹⁵ 셀라는 에벨을 낳은 후 사백삼 년을 살며 또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 ¹⁶ 에벨은 삼십사 살에 벨렉을 낳았다.
- ¹⁷ 에벨은 벨렉을 낳은 후 사백삼십 년을 살며 또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 ¹⁸ 벨렉은 삼십 살에 레우를 낳았다.
- ¹⁹ 벨렉은 레우를 낳은 후 이백구 년을 살며 또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 ²⁰ 레우는 삼십이 살에 세룩을 낳았다.
- ²¹ 레우는 세룩을 낳은 후 이백칠 년을 살며 또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 ²² 세룩은 삼십 살에 나홀을 낳았다.
- ²³ 세룩은 나홀을 낳은 후 이백 년을 살며 또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 ²⁴ 나홀은 이십구 살에 데라를 낳았다.
- ²⁵ 나홀은 데라를 낳은 후 백십구 년을 더 살며 또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 ²⁶ 데라는 칠십 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 ²⁷ 이제 데라의 후손들의 계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 ²⁸ 하란은 그의 태어난 땅, 갈대아의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을 때 죽었다.
- ²⁹ 아브람과 나홀은 아내를 맞이하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으며, 그녀는 하란의 딸이었고, 하란은 이스카의 아버지이기도 하였다.
- ³⁰ 사래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녀는 자식이 없었다.
- ³¹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람과, 아들 하란의 아들 롯과, 며느리인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살았다.
- ³² 데라의 나이는 이백오 년이었다.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다.

창세기 12장

- ¹ 주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 ²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복 주어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 ³ 너를 복되게 하는 자들에게 나는 복을 내리고, 너를 경멸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 ⁴ 아브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칠십오 세였다.
- ⁵ 아브람은 그의 아내 사래와, 그의 형제의 아들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 ⁶ 아브람은 땅을 가로질러 세겜까지 갔다. 그는 모레의 상수리나무에 이르렀다. 그때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살고 있었다.
- ⁷ 주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 ⁸ 그는 거기서 떠나 베델 동편의 산으로 올라가 장막을 치고, 베델은 서쪽에, 아이는 동쪽에 두었다. 그는 거기서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다.
- ⁹ 아브람은 계속 남쪽으로 나아가며 여행하였다.
- ¹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아브람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외국인으로 살았다.
- ¹¹ 그가 이집트에 들어가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아내 사래에게 말했다. "보라, 나는 네가 아름다운 여자임을 알고 있다."
- ¹² 이집트 사람들이 네를 보고, "이 사람은 그의 아내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죽이고, 너는 살려둘 것이다."
- ¹³ 내가 네가 내 누이라 말하게 해다오. 그러면 너 때문에 내가 잘될 것이고, 나의 생명이 너로 인해 보존될 것이다."
- ¹⁴ 아브람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몇몇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자가 매우 아름답다는 것을 보았다.
- ¹⁵ 바로의 귀족들이 그 여자를 보고 바로에게 칭찬하였고, 그 여자는 바로의 궁전으로 끌려갔다.
- ¹⁶ 그는 그 여자를 위해 아브람을 잘 대우하였다. 그는 양과 소와 수나귀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 ¹⁷ 주님은 사래, 곧 아브람의 아내 때문에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 ¹⁸ 바로는 아브람을 불러서 말했다. "네가 내게 무슨 일을 했느냐? 왜 그 여자가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 ¹⁹ 왜 "그녀는 내 누이다"라고 말하여 내가 그녀를 아내로 삼게 했느냐? 이제 네 아내를 보아라. 그녀를 데리고 가라."
- ²⁰ 바로는 아브람을 위해 사람들을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데리고 그를 내보냈다.

창세기 13장

- ¹ 아브람은 아내와 자신이 가진 모든 것과 롯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남방으로 올라갔다.
- ²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매우 부유하였다.
- ³ 그는 남방에서 벨엘까지 여정을 이어갔다. 그곳은 처음에 그의 천막이 있던 곳으로, 벨엘과 아이 사이였다.
- ⁴ 그는 처음에 그가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갔다. 아브람은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었다.
- ⁵ 아브람과 함께 갔던 롯도 양 떼와 소 떼와 천막을 가지고 있었다.
- ⁶ 그 땅은 그들이 함께 살기에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가 없었다.
- ⁷ 아브람의 가축 치는 자들과 롯의 가축 치는 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과 베리즈 족속이 살고 있었다.
- ⁸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다. "내가 너와 사이가 나빠지지 않게 해 주고, 네 가축 치는 자들과 내 가축 치는 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해 주자. 우리는 친척이다."
- ⁹ 전 땅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나와 갈라지게 해 주어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 ¹⁰ 롯이 눈을 들어 요단 평야를 바라보니, 소도르와 고모라가 주님의 앞에서 멸망되기 전에, 그 땅은 온통 물이 풍부하여 마치 주님의 정원 같고, 이집트 땅처럼 아름다웠다. 그곳은 소아르 방향으로 가는 길이었다.
- ¹¹ 그래서 롯은 요단 평야를 자기에게 선택하였다. 롯은 동쪽으로 떠나서 서로 갈라졌다.
- ¹²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평야의 성읍들에 살며 천막을 소도르까지 옮겼다.
- ¹³ 소도르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매우 악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이었다.
- ¹⁴ 롯이 아브람과 갈라진 후에,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 ¹⁵ 네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 ¹⁶ 내가 네 자손을 흙의 먼지처럼 많게 하리니, 사람이 흙의 먼지를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 ¹⁷ 일어나 이 땅을 길이와 너비로 걸어다녀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때문이다.
- ¹⁸ 아브람은 천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에 와서 살며, 거기서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창세기 14장

- ¹ 아므라펠이 신나르의 왕이었고, 아리옥이 엘라사르의 왕이었으며, 케돌라오머가 엘람의 왕이었고, 디달이 고이임의 왕이었던 시대에,
- ² 그들은 소돔의 왕 베라, 고모라의 왕 브리샤, 아다마의 왕 시나브, 세보임의 왕 세메베르, 그리고 벨라(즉, 소아르라고도 불리는)의 왕과 전쟁을 벌였다.
- ³ 이 모든 왕들이 시딤 골짜기, 곧 소금 바다라고도 불리는 곳에 모였다.
- ⁴ 그들은 열두 해 동안 케돌라오머에게 복종했고, 열세 번째 해에 반란을 일으켰다.
- ⁵ 열네 번째 해에 케돌라오머와 그와 함께한 왕들이 아스로트 카르나임에서 레파임을 치고, 하마에서 주짐을, 시바에 키리아임에서 에미를 치고,
- ⁶ 호르 족속을 세일 산에서 쳐서, 광야 근처의 엘 파란에 이르렀다.
- ⁷ 그들은 돌아와서 에인 므시파트, 곧 카데스라고도 불리는 곳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자손 다마르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치고,
- ⁸ 소돔의 왕, 고모라의 왕, 아다마의 왕, 세보임의 왕, 그리고 벨라(소아르라고도 불리는)의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대치하며 전열을 갖추었다.
- ⁹ 그들은 엘람의 왕 케돌라오머, 고이임의 왕 디달, 신나르의 왕 아므라펠, 엘라사르의 왕 아리옥과 맞서 싸웠다. 다섯 왕이 네 왕과 싸웠다.
- ¹⁰ 시딤 골짜기는 아스팔트 구덩이로 가득했다.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도망쳤고, 그들 중 일부는 그곳에 빠졌다. 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쳤다.
- ¹¹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과 식량을 약탈하고 떠났다.
- ¹² 그들은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람의 형제의 아들 롯과 그의 재산을 빼앗고 떠났다.
- ¹³ 도망친 자 한 사람이 와서 히브리인 아브람에게 알렸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족속인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에 거주하고 있었고, 마므레는 에스골과 애너의 형이었다. 이들은 아브람의 동맹자들이었다.
- ¹⁴ 아브람이 그의 친척이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난 삼백십팔 명의 훈련된 병사들을 이끌고 다니까지 쫓아갔다.
- ¹⁵ 그는 밤에 그와 그의 하인들을 나누어 그들을 공격하고, 다메섹 왼쪽에 있는 호바까지 쫓아갔다.
- ¹⁶ 그는 모든 재산을 되찾았고, 그의 친척 롯과 그의 재산, 그리고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모두 되찾아왔다.
- ¹⁷ 아브람이 케돌라오머와 그와 함께한 왕들을 치고 돌아온 후, 샤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서 소돔의 왕이 그를 맞이하였다.
- ¹⁸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였다.
- ¹⁹ 그는 아브람에게 축복하며 말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축복이 아브람에게 있사옵나이다.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신 그분이며,"
- ²⁰ "당신의 원수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찬미하소서." 아브람은 그에게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드렸다.
- ²¹ 소돔의 왕이 아브람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재산은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 ²² 아브람이 소돔의 왕에게 말했다. "나는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 ²³ "당신의 것이라면 가닥 하나도, 싹 하나도, 당신의 모든 것 중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내가 아브람을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 ²⁴ "나는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간 자들, 곧 애너, 에스골, 마므레의 몫만 받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몫을 가져가게 하소서."

창세기 15장

- ¹ 이 일들 후에 주님의 말씀이 아브람에게 환상 속에서 임하여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람. 나는 네 방패요, 너에게 매우 큰 보상이다."
- ² 아브람이 말했다. "주님 하느님, 저는 자식이 없으니, 제가 무엇을 받을 것입니까? 집안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의 엘리에 제르입니다."
- ³ 아브람이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집에서 태어난 자가 제 상속자입니다."
- ⁴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이 사람은 네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며, 네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 ⁵ 주님은 그를 밖으로 데려가며 이르셨다. "하늘을 올려다보아, 별들을 셀 수 있다면 셀 수 있다." 그리고 아브람에게 이르셨다.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 ⁶ 그는 주님을 믿었고, 주님은 그것을 그에게 의로움으로 돌렸다.
- ⁷ 주님은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갈대아의 우르에서 너를 끌어내어, 이 땅을 네가 상속하게 하려는 주님이다."
- ⁸ 그가 말했다. "주님 하느님, 제가 어떻게 이 땅을 상속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까?"
- ⁹ 주님은 그에게 이르셨다. "나에게 세 살 된 암소와 세 살 된 암염소와 세 살 된 수양과 비둘기와 새끼 비둘기를 데려오라."
- ¹⁰ 그는 이 모든 것을 데려와서 중간에서 갈라 각각의 반을 마주하게 놓았으나, 새들은 갈라지지 않았다.
- ¹¹ 먹이를 노리는 새들이 시체 위로 내려왔고, 아브람이 그들을 쫓아냈다.
- ¹² 해가 지려고 할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들었다. 그리고 공포와 큰 어둠이 그에게 내렸다.
- ¹³ 그가 아브람에게 말했다. "너의 자손이 타국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며,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을 분명히 알라. 그들이 사백 년 동안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 ¹⁴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은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 ¹⁵ 너는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좋은 노년에 장사될 것이다.
- ¹⁶ 네 번째 세대가 다시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기 때문이다.
- ¹⁷ 해가 지고 어두워졌을 때, 연기 나는 화로와 불꽃이 되는 횃불이 그 조각들 사이를 지나갔다.
- ¹⁸ 그날 주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었다.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땅을."
- ¹⁹ 케니인, 케니즈인, 카드몬인의 땅,
- ²⁰ 헤트인, 페리즈인, 레파임의 땅,
- ²¹ 아모리인, 가나안인, 기르가시인, 여부스인의 땅이다.

창세기 16장

- ¹ 사라는 아브람의 아내였으나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녀는 이집트 여자 하갈이라는 시녀를 두고 있었다.
- ² 사라가 아브람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 시녀에게 가십시오.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람은 사라의 말을 들었다.
- ³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살던 지 십 년이 되었을 때, 사라는 아브람의 아내로서 이집트 여자 하갈을 데려와 그를 남편의 첩으로 주었다.
- ⁴ 아브람이 하갈에게 들어가자, 그녀는 임신하였다.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 그녀의 주인은 그녀 눈에 천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 ⁵ 사라가 아브람에게 말했다. "이 불의는 당신의 탓입니다. 내가 내 시녀를 당신 품에 넣었더니,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 나를 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 ⁶ 그러나 아브람이 사라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좋다고 여기는 대로 그녀에게 하십시오." 사라는 그녀를 괴롭히고, 그녀는 그녀의 얼굴 앞에서 도망쳤다.
- ⁷ 주님의 천사가 광야의 샘 곧 술로 가는 길가의 샘에서 그녀를 만났다.
- ⁸ 그가 말했다. "하갈, 사라의 시녀여,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 ⁹ 주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네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손아귀 아래 굴복하라."
- ¹⁰ 주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네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니, 그 수가 셀 수 없을 것이다."
- ¹¹ 주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보라, 네가 임신하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부를 것이니, 주님께서 네 고통을 들었기 때문이다."
- ¹²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야생 당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의 손은 모든 사람을 대적할 것이고, 모든 사람의 손도 그를 대적할 것이다. 그는 형제들 모두와 대립하여 살 것이다.
- ¹³ 그녀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당신은 나를 보시는 하느님"이라 불렀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보고도 살아 남았는가?"
- ¹⁴ 그러므로 그 샘은 베엘라하이로이라 불렸다. 보라, 그것은 카데스와 베레드 사이에 있다.
- ¹⁵ 하갈은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았다.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다.
- ¹⁶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람은 팔십육 세였다.

창세기 17장

- 1 아브람이 아흔아홉 살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나 앞에서 걸어가며 완전하라."
- 2 나는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너를 매우 많이 번성하게 하겠다."
- 3 아브람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하느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 4 "보아라,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 5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일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 6 나는 너를 매우 번성하게 하여, 너로 하여금 민족들이 되게 할 것이다.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 7 나는 나와 너와 너의 후손들 사이에 세대를 거쳐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나는 너와 너의 후손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 8 너와 너의 후손들이 여행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 9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와 너의 후손들이 세대를 거쳐 나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
- 10 이것이 나와 너와 너의 후손들 사이에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 11 너는 너의 음경의 살갓을 할례하여,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되게 하라."
- 12 너희 세대의 모든 남자 중, 집에서 태어난 자나 너희가 돈으로 산 외국인 중, 여덟째 날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 13 너의 집에서 태어난 자와 너의 돈으로 산 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나의 언약은 너희 살갓에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 14 음경의 살갓을 할례하지 않은 남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는 나의 언약을 어긴 것이다."
- 15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내 사라는 더 이상 사래라 부르지 말고,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 16 나는 그녀를 복되게 하며, 그녀에게서 네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그녀를 복되게 하여, 그녀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민족들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올 것이다."
- 17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백 살 된 사람이 아이를 낳 수 있겠는가? 아흔 살인 사라는 낳을 수 있겠는가?"
- 18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말했다. "이스마엘이 주님 앞에서 살게 해 주소서!"
- 19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아니, 네 아내 사라는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을 것이다. 내가 그와 그의 후손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 20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었다. 보아라, 내가 그를 복되게 하여, 그를 번성하게 하고 매우 많이 늘리겠다. 그는 열두 명의 족장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 21 그러나 나는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사라는 내년 이때에 네게 그를 낳아줄 것이다."
- 22 하느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 23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와, 돈으로 산 모든 남자를 데리고, 하느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 모두 할례를 행하였다.
- 24 아브라함은 음경의 살갓을 할례받을 때 아흔아홉 살이었다.
- 25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을 때 열세 살이었다.
- 26 그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모두 할례를 받았다.
- 27 그의 집의 모든 남자, 집에서 태어난 자들과 외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창세기 18장

- 1 주님은 낮의 더위 가운데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는 장막 문에 앉아 있었다.
- 2 그가 눈을 들어 보니, 세 사람이 그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그들을 보고 장막 문에서 달려 나가 그들에게 맞아 나아가 땅에 머리를 숙였다.
- 3 그가 말했다.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당신의 종을 떠나지 마십시오."
- 4 조금의 물을 가져오셔서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 5 제가 빵 한 조각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마음을 편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야 당신은 당신의 종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당신의 종에게 오셨으니 말입니다."
- 6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말했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되를 반죽해서 빵을 구워라."
- 7 아브라함은 우마리로 달려가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 종에게 주었다. 그는 급히 그것을 요리했다.
- 8 그는 버터와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를 그들 앞에 내놓았다. 그는 나무 아래에서 그들 곁에 서 있었고, 그들이 먹었다.
- 9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사라, 당신의 아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 10 그가 말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보아라, 사라,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 11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이미 늙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나이를 지났다.
- 12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말했다. "내가 늙었는데, 내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내 주도 늙었는데."
- 13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고 말했느냐?"
- 14 주님께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내가 정해진 시기에 네게 돌아와서 계절이 되면 사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 15 사라가 부인하며 말했다. "나는 웃지 않았어요." 그녀는 무서웠기 때문이다.
- 16 그 남자들이 그곳에서 일어나 소돔을 향해 바라보았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길을 떠나는 것을 보려고 그들과 함께 갔다.
- 17 주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 18 아브라함은 반드시 위대하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은 그를 통해 복을 받을 텐데.
- 19 나는 그를 알았으니, 그가 자기 자녀와 자기 집안이 그 뒤를 따라 주님의 길을 지켜 의로움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로써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그에 관해 말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 20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무거우니,
- 21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내게 전해진 보고처럼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리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알게 될 것이다."
- 22 그 남자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했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었다.
- 23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며 말했다. "의로운 자를 악한 자와 함께 멸하시려는 겁니까?"
- 24 만일 그 성 안에 의로운 자가 오십 명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위해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명의 의로운 자를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까?
- 25 당신이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지요.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함께 죽여, 의로운 자가 악한 자처럼 되게 하실 리가 없지요. 그런 일이 당신에게서 멀리 떠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땅의 심판자가 정의를 행하지 않으실 리가 있습니까?
- 26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소돔 성 안에서 오십 명의 의로운 자를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 27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보십시오, 저는 흙과 재에 불과한 자인데도 주님께 말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 28 오십 명의 의로운 자 중 다섯 명이 부족하면, 그 다섯 명을 위해 도시 전체를 멸하시겠습니까?
- 29 그가 다시 그에게 말하며 이르렀다. "거기서 사십 명을 찾으면 어떡합니까?"
- 30 그가 말했다. "주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어떡합니까?"
- 31 그가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께 말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스무 명을 찾으면 어떡합니까?"
- 32 그가 말했다. "주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단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거기서 열 명을 찾으면 어떡합니까?"
- 33 주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고 떠나셨고, 아브라함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창세기 19장

- ¹ 두 천사가 저녁에 소돔에 도착했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며 땅에 얼굴을 대고 절했다.
- ² 그가 말했다. "보소서, 제 주님들, 제 집에 들어오셔서 밤을 보내시고, 발을 씻으신 후,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십시오."
- ³ 그가 크게 권유하자, 그들은 그와 함께 들어가 그의 집에 머물렀다. 그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 그들이 먹었다.
- ⁴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성의 남자들, 곧 소돔의 모든 남자들, 젊은이와 늙은이가 모두 그 집을 둘러쌌다.
- ⁵ 그들이 롯을 불러서 말했다. "오늘 밤 당신에게 들어온 남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 ⁶ 롯이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문을 뒤로 닫았다.
- ⁷ 그가 말했다. "제발, 형제들아, 이렇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 ⁸ 보소서, 저는 처녀인 두 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그들을 당신들에게 데려다 드리십시오. 당신들이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 남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 지붕 아래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 ⁹ 그들이 말했다. "물려서라!" 그리고 말했다. "이 한 사람이 외국인으로 들어와서 스스로 재판관이 되었구나. 이제 우리는 그들보다 더 심하게 너를 대할 것이다!" 그들은 롯을 힘껏 밀며 문을 부수려고 다가왔다.
- ¹⁰ 그러나 그 남자들이 손을 뻗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며 문을 닫았다.
- ¹¹ 그들은 집 문에 있던 남자들, 어린이와 어른을 모두 눈이 멀게 하여, 그들이 문을 찾지 못하게 하고 힘을 다해 헤매게 했다.
- ¹² 그 남자들이 롯에게 말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이 더 있습니까? 사위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데려내십시오."
- ¹³ "우리가 이 곳을 멸망시키려 합니다. 이 곳에 대한 신음이 주님 앞에 너무 커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어 이 곳을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 ¹⁴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말했다. "일어나라! 이 곳에서 빠져나가라. 주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 ¹⁵ 아침이 되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했다. "일어나라! 여기 있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 그래야 이 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 ¹⁶ 그러나 롯이 주저하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아, 주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를 끌고 성 밖으로 내보냈다.
- ¹⁷ 그들이 그들을 성 밖으로 데려낸 후, 그가 말했다. "네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평지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여라. 그래야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 ¹⁸ 롯이 그들에게 말했다. "아, 제발 그렇지 마십시오, 제 주님."
- ¹⁹ 보소서, 당신의 종은 당신의 눈에 은총을 입었고, 당신은 저를 구원하시며 저에게 보이신 자비를 크게 확장하셨습니다. 제가 산으로 도망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악이 저를 따라잡아 죽게 될 것입니다."
- ²⁰ 보소서, 이 성은 도망하기에 가까우며, 작습니다. 제발 거기로 도망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영이 살 것입니다."
- ²¹ 그가 그에게 말했다. "보라, 내가 네가 말한 이 일에 대해서도 네 간청을 허락하였다. 내가 네가 말한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 ²² 서둘러 거기로 도망하여라. 네가 거기에 도달하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소아라라 불렀다.
- ²³ 롯이 소아라에 도착할 때, 해가 땅 위로 떠올랐다.

- 24 그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내리셨다.
- 25 그는 그 도시들과 온 평지와 그 도시들의 모든 주민들과 땅 위에 자라는 모든 것을 뒤집어엎었다.
- 26 그러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 27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 앞에 서 있던 그 자리로 올라갔다.
- 28 그는 소돔과 고모라와 평지의 온 땅을 바라보았는데, 땅에서 연기가 풀무불의 연기처럼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 29 하느님이 평지의 도시들을 멸망시키실 때,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살던 도시들을 뒤집어엎을 때 롯을 그 중에서 내보내셨다.
- 30 롯은 소아르에서 올라가 산에 살았고, 그의 두 딸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는 소아르에 살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는 두 딸과 함께 동굴에 살았다.
- 31 맏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땅 위에 우리와 같이 행동할 남자가 아무도 없다."
- 32 오라, 우리가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자서 우리 아버지의 가문을 이어가자."
- 33 그들은 그 밤에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맏딸이 들어가 아버지와 함께 잤다. 그는 그가 누웠을 때도, 일어났을 때도 알지 못했다.
- 34 다음 날, 맏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보라, 어젯밤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잤다. 오늘 밤에도 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그와 함께 자서 우리 아버지의 가문을 이어가자."
- 35 그들도 그 밤에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어린 딸이 들어가 그와 함께 잤다. 그는 그가 누웠을 때도, 일어났을 때도 알지 못했다.
- 36 이렇게 롯의 두 딸 모두 아버지에게서 잉태되었다.
- 37 맏딸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모압이라 지었다. 그는 오늘날까지 모압 사람들의 조상이다.
- 38 어린 딸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벤암이라 지었다. 그는 오늘날까지 암몬 자손들의 조상이다.

창세기 20장

- ¹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남방 땅으로 떠나 카데스와 숨 사이에 거주하였고, 게라르에서 외국인으로 살았다.
- ²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 대해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게라르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왔다.
- ³ 그러나 하느님께서 밤에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 말씀하셨다. "보라, 너는 죽을 사람이다. 네가 데려온 여자 때문에 그렇다. 그녀는 남자의 아내이다."
- ⁴ 아비멜렉은 아직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주님, 의로운 나라조차도 죽이려 하십니까?"
- ⁵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 그녀도 스스로 말하기를, "그는 내 형입니다." 저는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순결함으로 이 일을 하였습니다.
- ⁶ 하느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마음의 성실함으로 이 일을 한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너로 내게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그녀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다."
- ⁷ 이제 그러므로 그의 아내를 돌려주어라. 그는 예언자이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너는 살 것이다. 만약 그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너와 네 모든 것이 죽을 것임을 분명히 알라.
- ⁸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하인을 불러모아 이 모든 일을 그들에게 전하였다. 그 남자들은 매우 두려워하였다.
- ⁹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말했다. "너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와 내 왕국에 큰 죄를 안겼느냐? 네가 나에게 해야 할 일이 아닌 일을 하였도다!"
- ¹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이 일을 하였느냐?"
- ¹¹ 아브라함은 말했다. "내가 생각하기를, '분명히 이 곳에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들은 나의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 ¹² 게다가 그녀는 진실로 내 누이이다. 내 아버지의 딸이지만,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다. 그녀가 내 아내가 되었다.
- ¹³ 하느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나를 떠나게 하셨을 때,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것이 네가 나에게 베푼 은혜이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에 대해 '그는 내 형이다'라고 말하여라."
- ¹⁴ 아비멜렉은 양과 소, 남종과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를 그에게 돌려주었다.
- ¹⁵ 아비멜렉은 말했다. "보라, 내 땅이 네 앞에 있다. 네가 좋아하는 곳에 거하라."
- ¹⁶ 그는 사라에게 말했다. "보라, 내가 네 형에게 천 냥 은을 주었다. 보라, 이 은은 너를 둘러싼 모든 이들의 눈을 가리는 덮개이다. 모든 이 앞에서 너는 정당하게 입증되었다."
- ¹⁷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고치셨고, 그들이 아이를 낳았다.
- ¹⁸ 주님께서 사라, 곧 아브라함의 아내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 모든 여자의 태를 닫아버리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21장

- 1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 2 사라가 임신하여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시기에 맞춰서였다.
- 3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신에게 낳아준 아들을 이삭이라 불렀다.
- 4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여덟째 날에 그를 할례하였다.
- 5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 살이었다.
- 6 사라가 말했다. "하느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나를 듣는 이들은 모두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 7 그녀가 말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젖을 물릴 아이를 낳으리라고 누가 말했겠는가? 내가 노년에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
- 8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베풀었다.
- 9 사라가 하갈, 즉 이집트 여자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을 조롱하는 것을 보았다.
- 10 그래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 11 아브라함은 아들 때문에 이 일이 매우 슬프게 여겨졌다.
- 12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이와 여종 때문에 네 마음이 괴롭지 않게 하라. 사라가 네게 말하는 모든 것을 들어라. 네 후손은 이삭을 통해 이름을 얻을 것이다."
- 13 내가 이 여종의 아들도 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는 네 아들이다."
- 14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병을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고 어깨에 메게 한 후, 아이를 주어 그녀를 보냈다. 그녀가 떠나 베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다.
- 15 물병의 물이 다 떨어지자, 그녀는 아이를 한 덩불 아래에 뉘어놓았다.
- 16 그녀는 멀리 떨어져, 활 쏘는 거리쯤 떨어져 앉아 말했다. "내가 아이의 죽음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 그녀는 아이와 마주 앉아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 17 하느님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 18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손으로 붙들어서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 19 하느님이 그녀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녀는 물 샘을 보았다. 그녀가 가서 물병에 물을 채우고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 20 하느님이 아이와 함께 하셨고, 그는 자라나 광야에서 살며 성장하여 활잡이가 되었다.
- 21 그는 파란 광야에서 살았다. 그의 어머니가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
- 22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피콜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하느님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과 함께 하십니다."
- 23 이제, 하느님을 두고 나에게 맹세하여, 나나 내 아들, 또는 내 손자에게 배신하지 말고, 내가 당신에게 베푼 자비를 따라, 당신도 나와 당신이 거류한 땅에 베풀어 주십시오."
- 24 아브라함이 말했다.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 25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하인들이 강제로 빼앗아간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불만을 제기했다.
- 26 아비멜렉이 말했다. "나는 이 일을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하지도 않았고, 오늘까지 나는 이 일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 27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두 사람이 계약을 맺었다.
- 28 아브라함은 양 떼에서 일곱 마리의 암양을 따로 놓아두었다.
- 2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당신이 따로 놓아둔 이 일곱 마리의 암양은 무슨 뜻입니까?"
- 30 그가 말했다. "이 일곱 마리의 암양을 내 손에서 받아주십시오. 이는 내가 이 우물을 파냈다는 증거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 31 그러므로 그곳을 베엘세바라고 불렀다. 거기서 두 사람이 맹세했기 때문이다.
- 32 그들이 베엘세바에서 계약을 맺었다.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 피콜과 함께 일어나 필리스티인의 땅으로 돌아갔다.

³³ 아브라함은 베엘세바에서 티마르스크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

³⁴ 아브라함은 필리스티인의 땅에서 많은 날을 외국인으로 살았다.

창세기 22장

¹ 이 일들 후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아브라함아!"

² 그분이 이르셨다. "네 아들, 네 외아들 이사악, 네가 사랑하는 그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말할 산 중 하나에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³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명의 젊은 종과 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갔다. 그는 번제를 위한 나무를 깎아 준비하고, 일어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떠났다.

⁴ 사흘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서 그 장소를 보았다.

⁵ 아브라함이 젊은 종들에게 말했다.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려라. 나와 아들은 저쪽으로 가서 숭배한 후에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⁶ 아브라함은 번제를 위한 나무를 이사악 자기 아들에게 지우고,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길을 갔다.

⁷ 이사악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아버지?"

⁸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하느님께서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을 스스로 준비하실 것이다, 아들아." 그래서 둘이 함께 갔다.

⁹ 그들은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곳에 도착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정리한 후, 아들 이사악을 묶어 제단 위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¹⁰ 아브라함은 손을 뻗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아 죽이려 했다.

¹¹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¹² 그가 말했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제 나는 네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다. 네가 네 외아들을 내게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¹³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뒤쪽 덩불에 수양이 뿔에 걸려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수양을 잡아 아들의 대신 번제로 바쳤다.

¹⁴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주님께서 준비하실 곳"이라 불렀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고 한다.

¹⁵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렀다.

¹⁶ 그가 말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스스로 맹세한다. 네가 이 일을 행하고, 네 외아들을 내게 아끼지 않았으므로,"

¹⁷ "내가 너를 크게 복 주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늘리겠다. 네 자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¹⁸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¹⁹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젊은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둘이 함께 브엘세바로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았다.

²⁰ 이 일들 후에 아브라함에게 소식이 전해졌다. "보아라, 므르카도 네 형 나홀에게 아이들을 낳았다.

²¹ 장남은 우스이고, 그의 형은 부스이며, 게무엘은 아람의 아버지이다.

²² 게세드, 하소, 필다스, 이드라프, 베두엘이다."

²³ 베두엘은 레베가의 아버지가 되었다. 므르카가 나홀에게 낳은 이 아이들은 여덟 명이었다.

²⁴ 그의 첩 이름은 르우마였는데, 그녀도 테바, 가함, 타하스, 마아가를 낳았다.

창세기 23장

- ¹ 사라가 일백이십칠 년을 살았다. 이것이 사라의 삶의 길이였다.
- ² 사라가 가나안 땅의 키프라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울었다.
- ³ 아브라함은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헷 족속에게 말하였다.
- ⁴ "나는 너희 가운데서 외국인과 거류민이다. 내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장사하기 위해, 너희 가운데서 묘지 땅을 내게 주어라."
- ⁵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 ⁶ "주님, 우리에게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하느님의 영주입니다. 우리 중 가장 좋은 무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우리 중 누구도 당신에게 자신의 무덤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 ⁷ 아브라함은 일어나 땅의 백성, 곧 헷 족속에게 절하였다.
- ⁸ 그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장사하려면, 너희가 동의한다면 내 말을 들어라. 나를 위해 소하르의 아들 에브론을 간청하여,"
- ⁹ "그가 내게 마켈라의 동굴을, 그가 가진 그 동굴을, 그의 밭 끝에 있는 그 동굴을, 전액으로 내게 팔아 주게 하라. 너희 가운데서 내가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는 소유지로 주게 하라."
- ¹⁰ 그때 에브론은 헷 족속 가운데 앉아 있었다. 헷 사람 에브론은 헷 족속과 그 도시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이들의 귀에 들리도록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 ¹¹ "아니오, 주님,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밭을 주고, 그 안에 있는 동굴도 줍니다. 내 백성의 자녀들 앞에서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 ¹² 아브라함은 땅의 백성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
- ¹³ 그는 땅의 백성 앞에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밭의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것을 내게서 받아 주십시오. 내가 거기서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겠습니다."
- ¹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 ¹⁵ "주님,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사백 세켈의 은은 나와 당신 사이에서 땅 값으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 ¹⁶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귀에 들리도록 에브론에게 그가 말한 대로 사백 세켈의 은을 무게로 달아 주었다. 그것은 상인들의 통용 기준이었다.
- ¹⁷ 그러므로 마켈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마므레 앞에 있는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과 그 밭의 모든 나무들, 그 경계 안의 모든 것이,
- ¹⁸ 헷 족속 앞과 그 도시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이들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소유지로 넘겨졌다.
- ¹⁹ 이후에 아브라함은 사라, 곧 자기 아내를 마므레 앞, 곧 헤브론에 있는 마켈라 밭의 동굴에 장사하였다.
- ²⁰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은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장사지로 소유지로 넘겨주었다.

창세기 24장

- 1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늙어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일에서 복주셨다.
- 2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가장이자 자기 모든 소유를 다스리는 늙은 종에게 말했다. "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어다."
- 3 내가 하늘의 주님과 땅의 주님을 따라 너에게 맹세하게 하리니, 내가 사는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 오지 말아야 한다."
- 4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데려오라."
- 5 종이 그에게 말했다. "그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의 아들을 당신이 나온 땅으로 데려가야 합니까?"
- 6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말아야 한다."
- 7 하늘의 주님, 곧 내 아버지 집과 내 태어난 땅에서 나를 데려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시며,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분이, 너 앞에 그의 천사를 보내실 것이니,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올 것이다."
- 8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 맹세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말아야 한다."
- 9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해 그에게 맹세했다.
- 10 종은 주인의 낙타 열 마리를 끌고 떠나, 주인의 좋은 물건들을 모두 지니고 갔다. 그는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도시에 이르렀다.
- 11 그는 낙타들을 도시 바깥, 저녁때가 되어 여자들이 물을 길기 위해 나오는 샘 옆에 무릎을 꿇게 했다.
- 12 그가 말했다. "주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오늘 저에게 성공을 주시고,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 13 보십시오, 저는 샘 옆에 서 있습니다. 도시 남자들의 딸들이 물을 길기 위해 나오고 있습니다.
- 14 제가 "제가 물을 좀 마실 수 있게 그릇을 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젊은 여자에게, 그녀가 "마시십시오. 제가 당신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녀가 주님께서 당신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여자입니다. 이로써 제가 주님께서 제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 15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레베카가 나타났다. 그녀는 나홀의 아내 므가의 아들 베투엘의 딸이었고, 어깨에 그릇을 메고 있었다.
- 16 그 젊은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고, 처녀였다. 어떤 남자도 그녀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샘으로 내려가 그릇을 채우고 올라왔다.
- 17 종이 그녀에게 달려가 말했다. "제가 당신 그릇에서 조금의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 18 그녀가 말했다. "주님, 마시십시오." 그녀는 서둘러 그릇을 손에 내리고 그에게 물을 주었다.
- 19 그녀가 그에게 물을 주고 나서 말했다. "제가 당신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마실 때까지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 20 그녀는 서둘러 그릇을 사육장에 쏟아부은 후, 다시 샘으로 달려가 물을 길고, 그의 모든 낙타에게 물을 주었다.
- 21 그 남자는 그녀를 꼼짝 않고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셨는지 확인하려 했다.
- 22 낙타들이 마시기를 마치자, 그 남자는 반 세겔 무게의 금 반지와, 각각 열 세겔 무게의 금으로 된 두 개의 팔찌를 가져와 그녀에게 주었다.
- 23 그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의 딸입니까? 제게 알려주십시오. 당신 아버지 집에 우리를 머물게 할 공간이 있습니까?"
- 24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저는 므가가 나홀에게 낳은 베투엘의 딸입니다."
- 25 그녀는 그에게 더해 말했다. "우리에게는 짚과 사료가 충분하고, 숙박할 공간도 있습니다."
- 26 그 남자는 머리를 숙이고 주님을 경배했다.
- 27 그는 말했다. "내 주 아브라함의 하느님, 주님을 찬미하소서. 그분이 내 주를 향해 그분의 자비와 진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보니, 주님께서 저를 내 주의 친척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 28 젊은 여자는 달려가서 어머니의 집에 이 말을 전했다.
- 29 리브가에게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 이었다. 라반은 그 남자에게로, 샘물가로 달려나갔다.
- 30 그가 누이의 손에 있는 반지와 팔찌를 보고, 누이 리브가가 말한 것을 들었다. 그녀는 말했다. "이 남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 남자에게로 나아갔다. 보라, 그는 샘물가에서 낙타 곁에 서 있었다.
- 31 그는 말했다.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십시오. 왜 밖에 서 있습니까? 내가 집과 낙타를 위한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 32 그 남자는 집에 들어가서 낙타를 내렸다. 그는 낙타에게 짚과 사료를 주고, 자신과 함께 온 사람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었다.
- 33 그 앞에 음식이 차려졌으나, 그는 말했다. "내가 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말해보십시오."
- 34 그는 말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인입니다."
- 35 주님께서 내 주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분은 크게 부유해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양과 소,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 36 내 주의 아내 사라가 늙었을 때 내 주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 37 내 주가 나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데려오지 마라.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말이다."
- 38 그러나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친척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데려오라."
- 39 내가 내 주에게 물었다. "그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요?"
- 40 그가 내게 말했다. "내가 걸어가는 앞에 계신 주님께서 너와 함께 천사를 보내어 네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데려올 것이다."
- 41 네가 내 친척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 여자를 네게 주지 않는다면, 너는 내 맹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 42 오늘 내가 샘물가에 이르러 말했다. "내 주 아브라함의 주님, 지금 제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 주신다면,"
- 43 보라, 나는 이 물샘 곁에 서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나와 물을 길어올 때,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제발, 당신의 항아리에서 조금 물을 주시겠습니까?"
- 44 그러면 그녀가 내게 말하기를, "마시십시오.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주님께서 내 주의 아들을 위해 정하신 여자일 것입니다."
- 45 내가 마음속으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항아리를 메고 나왔다. 그녀는 샘물가로 내려가 물을 길었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제발, 제가 마시게 해 주십시오."
- 46 그녀는 급히 어깨에서 항아리를 내리며 말했다. "마시십시오.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셨고, 그녀도 낙타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 47 내가 그녀에게 물어 말했다. "당신은 누구의 딸입니까?" 그녀가 말했다. "베두엘의 딸입니다. 나홀의 아들로, 밀가가 그에게 낳아준 자입니다." 나는 그녀의 코에 반지를, 손에 팔찌를 씌웠습니다."
- 48 내가 머리를 숙이고 주님을 경배하며, 내 주 아브라함의 주님을 찬미했다. 그분께서 내 주의 형제의 딸을 내 주의 아들을 위한 아내로 데려오게 하시려고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 49 내 주인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대해 주신다면, 알려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 50 라반과 베두엘은 대답하여 말했다. "이 일은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나쁘거나 좋게 말할 수 없습니다."
- 51 보십시오, 레베카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녀를 데려가고 떠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 52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머리를 숙여 주님께 경배하였다.
- 53 종은 은과 금으로 만든 보석들과 옷들을 꺼내 레베카에게 주었고, 그녀의 형과 어머니에게도 귀중한 선물을 주었다.
- 54 그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그 밤을 보냈다. 아침이 되자 그는 말했다. "내 주인에게로 보내주십시오."

- 55 그녀의 형과 어머니는 말했다. "젊은 여자에게 몇 날만 더 머물게 해 주십시오. 적어도 열 날입니다. 그 후에 그녀가 떠나게 하겠습니다."
- 56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주님이 제 길을 잘 이끌어 주셨으니, 저를 막지 마십시오. 제가 제 주인에게로 가게 보내주십시오."
- 57 그들은 말했다. "젊은 여자를 불러서 물어보겠습니다."
- 58 그들은 레베카를 불러서 그녀에게 말했다. "이 남자와 함께 가겠습니까?"
- 59 그들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과 함께 레베카, 즉 그들의 누이를 보냈다.
- 60 그들은 레베카에게 축복을 내리며 말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수만 수만의 자손의 어머니가 되고, 네 자손이 네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게 되기를."
- 61 레베카는 시녀들과 함께 일어나 낙타에 올랐고, 그 남자를 따라갔다. 종은 레베카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
- 62 이삭은 베엘라하이로이의 길에서 왔다. 그는 남방 땅에 살고 있었다.
- 63 이삭은 저녁에 들로 나가 묵상하고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 보니, 낙타들이 오고 있었다.
- 64 레베카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렸다.
- 65 그녀가 종에게 말했다. "들로 우리를 맞으러 오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 66 종은 이삭에게 자신이 한 모든 일을 말해 주었다.
- 67 이삭은 레베카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데려가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였다. 이처럼 이삭은 어머니의 죽음 후에 위로를 받았다.

창세기 25장

- 1 아브라함은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의 이름은 케투라였다.
- 2 그녀는 그에게 시므란, 요칸, 메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
- 3 요칸은 세바와 뎃난의 아버지가 되었고, 뎃난의 아들들은 아수림, 레투심, 레우민이었다.
- 4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아였다. 이 모두가 케투라의 자녀들이었다.
- 5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다.
- 6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첩들의 아들들에게 선물을 주었고, 살아 있을 때 그들을 아들 이삭에게서 떠나 동쪽 땅으로 보냈다.
- 7 아브라함이 산 날들의 연수는 일백칠십오 년이었다.
- 8 아브라함은 숨을 거두고, 좋은 노년에, 늙고 연세가 충만하여 자기 백성에게로 모셔졌다.
- 9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를 히트 사람 소하르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마벨라 동굴에 장사하였다.
- 10 이 밭은 아브라함이 히트 족속의 아들들로부터 산 것이며, 아브라함은 거기서 아내 사라와 함께 장사되었다.
- 11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느님은 그의 아들 이삭을 복되게 하셨다. 이삭은 베엘라하로이에 살았다.
- 12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이다. 이스마엘은 이집트 여자 하갈, 곧 사라의 여종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다.
- 13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탄생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 느바웃, 그 다음은 케다르, 아드벨, 미브삼,
- 14 미스마, 두마, 마사,
- 15 하달, 데마, 이투르, 나피시, 케데마이다.
- 16 이것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며, 그들의 이름은 그들의 마을과 진영에 따라 알려져 있다. 그들은 자기 민족에 따라 열두 명의 족장이었다.
- 17 이스마엘의 삶의 연수는 일백삼십칠 년이었다. 그는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모셔졌다.
- 18 그들은 히빌라에서 이집트 앞에 있는 숨까지 살았으며, 아시리아로 향하는 길을 따라 있었다. 그는 자기 모든 친척과 마주하여 살았다.
- 19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가 되었다.
- 20 이삭은 사십 세에 아람의 파단에서 온 베두엘의 딸, 곧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 레베가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 21 이삭은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므로 주님께 간구하였다. 주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의 아내 레베가는 잉태하였다.
- 22 그녀의 태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니, 그녀가 말했다. "만일 이렇게 되면, 왜 나는 살아 있나?" 그녀는 주님께 물어보러 갔다.
- 23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네 태 안에 두 민족이 있다.
- 24 그녀의 출산 시기가 되었을 때, 보라, 태 안에 쌍둥이가 있었다.
- 25 첫째 아이가 붉고 온몸이 털로 덮여 있어 마치 털옷 같았다. 그에게 에서라 이름 지었다.
- 26 그 후에 그의 형제가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었다. 그에게는 야곱이라 이름 지었다. 이삭이 그들을 낳을 때 마흔 여섯 살이었다.
- 27 아이들이 자라났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천막에 살았다.
- 28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그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다. 레베카는 야곱을 사랑했다.
- 29 야곱이 국을 끓였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는데, 매우 배고팠다.
- 30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다. "이 붉은 국을 조금이라도 나에게 먹게 해줘. 내가 매우 배고프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불렀다.
- 31 야곱이 말했다. "먼저 너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³² 어서가 말했다. "보아라, 내가 죽어가고 있다. 내게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³³ 야곱이 말했다. "먼저 나에게 맹세해라."

³⁴ 야곱은 에서에게 빵과 콩국을 주었다.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떠났다. 이렇게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경멸했다.

창세기 26장

- 1 그 땅에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기근에 이어 또 다른 기근이 들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게라르로 갔다.
- 2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네게 말할 땅에 머물러라."
- 3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복 주리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며,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게 맹세한 나의 맹세를 굳게 세우리라.
- 4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며,
- 5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내 규례와 명령과 법령과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다."
- 6 이삭은 게라르에 머물렀다.
- 7 그 땅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묻자, 그는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 아내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이 땅 사람들이 레베가가 아름답기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8 그가 그곳에 오래 머무르던 어느 날,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이삭이 아내 레베가를 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 9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말했다. "보아라, 그녀는 분명히 네 아내다. 어찌하여 네가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라고 말했느냐?"
- 10 아비멜렉이 말했다. "네가 우리에게 이같은 일을 어찌 하였느냐? 한 사람이라도 네 아내와 관계를 맺었으면, 우리가 죄를 뒤집어썼을 것이었다."
- 11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만지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 12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렸고, 같은 해에 심은 것의 백 배를 거두었다. 주님께서 그를 복 주셨다.
- 13 그 사람은 점점 더 커지고, 더욱 더 커져서 매우 부유하게 되었다.
- 14 그는 양 떼와 소 떼, 그리고 큰 가축을 소유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질투하였다.
- 15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파던 모든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 흠으로 메웠다.
- 16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 "우리에게서 떠나라. 너는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이다."
- 17 이삭은 그곳을 떠나 게라르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았다.
- 18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파던 우물들을 다시 파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죽음 후에 그것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붙인 이름대로 불렀다.
- 19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고, 거기에서 흐르는 물이 나는 우물을 발견하였다.
- 20 게라르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말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라." 그래서 그는 그 우물의 이름을 에섹이라 불렀다. 그들이 그와 다투었기 때문이다.
- 21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니, 그들도 그 우물에 대해 다투었다. 그래서 그는 그 우물의 이름을 시트나라 불렀다.
- 22 그는 그곳을 떠나 또 다른 우물을 파았다. 그들은 그 우물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 우물의 이름을 레호봇이라 불렀다. 그는 말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 23 그는 그곳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 24 그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복 주고, 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네 자손을 많이 하리라."
- 25 그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천막을 치었다.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다.
- 26 그때 아비멜렉이 그라르에서 아후사스와 함께,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피콜과 함께 이삭에게로 왔다.
- 27 이삭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너희에게서 내보냈는데, 왜 내게 왔느냐?"
- 28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주님이 너와 함께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이제 우리 사이,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우고, 너와 언약을 맺자."

- ²⁹ "너는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너를 만지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좋은 일만 해주고 평화롭게 보냈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 ³⁰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그들이 먹고 마셨다.
- ³¹ 그들은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서로에게 맹세하고,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화롭게 그를 떠났다.
- ³²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가 파던 우물에 대해 그에게 말하며 말했다. "우리는 물을 찾았습니다."
- ³³ 그는 그것을 "시바"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베엘세바"이다.
- ³⁴ 에서가 사십 세가 되었을 때, 히위 사람 베에리의 딸 유디트와 히위 사람 엘론의 딸 바스마트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 ³⁵ 그들이 이삭과 레베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창세기 27장

- 1 이삭이 나이가 많아지고 눈이 어두워져 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장남 에서를 불러서 말했다. "아들아?"
- 2 그가 말했다. "보아라, 나는 이제 늙었다. 내가 어느 날 죽을지 모르겠다."
- 3 그러므로 지금, 네 무기, 곧 화살통과 활을 가져다가 들판으로 나가서 사냥하여 나에게 고기를 가져와라.
- 4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네게 내 영혼의 축복을 베풀게 하라.
- 5 리브가가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에서는 들판으로 가서 사냥하여 고기를 가져오려고 나갔다.
- 6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 7 "고기를 가져다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어 내가 먹고, 주님 앞에서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라."
- 8 그러므로 지금, 아들아, 내가 네게 명령하는 대로 내 말을 따라라.
- 9 양 떼로 가서 거기서 나에게 좋은 염소 두 마리를 가져와라. 내가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 10 그것을 네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먹게 하라.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게 하라.
- 11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털이 없는 사람입니다."
- 12 만약 아버지가 나를 만지신다면, 나는 속이는 자처럼 보일 것이고, 저주를 받게 되지,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 13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내가 네게 저주를 받게 하리라, 아들아. 오직 내 말을 따르고, 나를 위해 그것을 가져와라."
- 14 그는 가서 그것을 가져와서 어머니에게 주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
- 15 리브가는 집 안에 있던 장남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 16 그녀는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매끄러운 목에 두르었다.
- 17 그녀는 준비해 둔 맛있는 음식과 빵을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다.
- 18 그가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말했다. "아버지?"
- 19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는 에서, 아버지의 장자입니다. 아버지가 제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일어나 앉으셔서 제 고기를 드시고, 제 영혼을 축복해 주십시오."
- 20 이삭이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빨리 이것을 찾았느냐?"
- 21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다. "가까이 와서 내가 네 몸을 만져 보게 하라, 아들아. 네가 진짜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알아보자."
- 22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가 만져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지만, 손은 에서의 손이다."
- 23 그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를 축복했다.
- 24 그가 말했다. "너는 진짜 내 아들 에서냐?"
- 25 그가 말했다.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내 아들의 사슴고기를 먹어, 내 영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리라."
- 26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다. "이제 가까이 와서 나를 입맞추어라, 내 아들아."
- 27 그가 가까이 와서 그를 입맞추었다. 그는 그의 옷 냄새를 맡고 축복하며 말했다. "보아라, 내 아들의 냄새가"
- 28 하느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풍요를 네게 주시며,
- 29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절하리라.
- 30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앞에서 나가자마자, 그의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들어왔다.
- 31 그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왔다. 그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일어나, 아들의 사슴고기를 드셔서, 내 영혼을 축복해 주소서."
- 32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다. "네가 누구냐?"
- 33 이삭은 크게 떨며 말했다. "누가 사슴고기를 잡아 내게 가져왔느냐? 내가 네가 오기 전에 모두 먹었고, 그를 축복하였다. 그가 축복을 받으리라."
- 34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매우 크고 슬픈 외침을 지르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나도 축복해 주소서, 아버지여, 나도!"
- 35 그가 말했다. "네 형이 속임수로 와서 네 축복을 빼앗았구나."

- 36 그가 말했다. "그가 이름이 야곱이 맞지 않습니까? 그가 이미 두 번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내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십시오, 이제는 내 축복까지 빼앗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를 위한 축복은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 37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했다. "보아라, 내가 그를 네 주인으로 삼았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의 종으로 주었다. 내가 곡식과 새 포도주로 그를 부유하게 하였다. 그러면 내 아들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 38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여, 단지 하나의 축복밖에 없으십니까? 나도 축복해 주소서, 아버지여." 그리고 에서는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 39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했다. "보아라, 네 거처는 땅의 기름진 곳이 되고,
- 40 네가 칼로 생계를 꾸리며, 네 형을 섬기리라.
- 41 에서는 아버지가 그에게 내린 축복 때문에 야곱을 미워했다. 에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의 장례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그때 내가 형 야곱을 죽이리라."
- 42 에서의 말, 곧 그의 만아들에 대한 말이 레베가에게 전해졌다. 그녀는 보내어 막내아들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말했다. "보아라, 네 형 에서는 네가 죽기를 꾀하며 위로를 얻고 있다."
- 43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이, 내 말을 들어라. 일어나, 내 형 라반의 집, 하란으로 도망가라.
- 44 너의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와 함께 머물러라.
- 45 너의 형의 분노가 너에게서 사라지고, 네가 그에게 한 일을 잊을 때까지 머물러라. 그 후에 내가 보내어 너를 거기서 데려오리라. 내가 하루아침에 너희 둘을 잃게 되려느냐?
- 46 레베가가 이삭에게 말했다. "내가 헷의 딸들 때문에 내 생명이 싫습니다. 야곱이 이 땅의 딸들, 곧 헷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는다면, 내 생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28장

- ¹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명령했다. "카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마라."
- ² 일어나, 너의 어머니 아버지 베틀의 집이 있는 파단아람으로 가라. 거기서 라반, 네 어머니의 형제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와라.
- ³ 전능하신 하느님이 너를 복되게 하시고,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너를 많이 늘리셔서, 너는 여러 민족의 무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란다.
- ⁴ 또 아브라함의 축복을 너와 너와 함께하는 네 자손에게 주셔서, 네가 여행하는 땅을 물려받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 땅은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다.
- ⁵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베틀의 아들인 시리아인 라반에게로 가서,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레베가의 형이었다.
- ⁶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파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데려오게 했고, 그가 축복하며 명령한 것을 보았다. "카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마라."
- ⁷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따르고 파단아람으로 떠났다.
- ⁸ 에서는 카나안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보았다.
- ⁹ 그래서 에서는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이미 가진 아내들 외에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마할랏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자 네바이웃의 누이였다.
- ¹⁰ 야곱은 베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떠났다.
- ¹¹ 그는 어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밤을 보냈다. 그는 그곳의 돌들 중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 밑에 놓고 그곳에서 잠을 잤다.
- ¹² 그는 꿈을 꾸어 땅 위에 놓인 사다리를 보았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었다. 보라,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 ¹³ 보라, 주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 ¹⁴ 네 자손은 땅의 흙처럼 많아질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너와 네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 ¹⁵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다줄 것이다. 내가 네게 말한 것들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 ¹⁶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몰랐다."
- ¹⁷ 그는 무서워하며 말했다. "이곳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는 곧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 ¹⁸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머리 밑에 둔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 ¹⁹ 그는 그 장소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으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는 루스였다.
- ²⁰ 야곱은 서원하며 말했다. "만약 하느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 ²¹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이 내 하느님이 되게 하소서.
- ²²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느님의 집이 될 것이다. 네가 내게 주는 모든 것 중에서 내가 반드시 십분의 일씩 네게 드리겠다.

창세기 29장

- 1 야곱은 여정을 계속하여 동방의 땅에 이르렀다.
- 2 그가 눈을 들어 보니 들에 우물이 있고, 그 옆에 양 떼 세 무리가 누워 있었다.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주었기 때문이다. 우물 입구의 돌이 컸다.
- 3 모든 양 떼가 거기 모이면, 그들은 우물 입구의 돌을 굴려 양에게 물을 주고, 그 돌을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았다.
- 4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 5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 6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는 잘 지내느냐?"
- 7 그가 말했다. "보라, 아직 낮이 한가운데다. 가축을 모으는 시간이 아니다. 양에게 물을 주고, 가서 풀을 먹이게 하라."
- 8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모든 양 떼가 모일 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물 입구의 돌을 굴려야, 그때야 양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다."
- 9 그가 그들과 말을 나누고 있을 때, 라헬이 아버지의 양 떼를 이끌고 왔다. 그녀가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 10 야곱은 라헬, 곧 그의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딸과, 라반의 양을 보고 가까이 나아가, 우물 입구의 돌을 굴려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주었다.
- 11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 12 야곱은 라헬에게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의 친척이며, 레베가의 아들임을 말했다. 그녀는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알렸다.
- 13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 그를 맞이하며 안아주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야곱은 라반에게 이 모든 일을 말했다.
- 14 라반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분명히 내 뼈와 내 살이다." 야곱은 한 달 동안 그와 함께 머물렀다.
- 15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너는 내 친척이니, 그래서 나를 위해 무보수로 일해야 하느냐? 내게 말해보아라, 네 급여는 무엇이나?"
- 16 라반에게 딸 둘이 있었다. 큰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 17 레아의 눈은 약했지만,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다.
- 18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당신의 작은딸 라헬을 위해 일곱 해를 일하겠습니다."
- 19 라반이 말했다. "내가 그녀를 다른 남자에게 주는 것보다 네게 주는 것이 낫다. 나와 함께 머물러라."
- 20 야곱은 라헬을 위해 일곱 해를 일했다. 그 기간이 그에게는 며칠처럼 느껴졌다. 그가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 21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내 아내를 주십시오. 내 기간이 차서 그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 22 라반은 그 지역의 모든 남자를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 23 저녁에 그는 딸 레아를 데려와 야곱에게 주었다. 야곱은 그녀에게 들어갔다.
- 24 라반은 자기 하녀 질파를 딸 레아의 하녀로 주었다.
- 25 아침이 되자, 보라, 그녀는 레아였다! 그는 라반에게 말했다. "내게 이 일을 왜 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 당신과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속였습니까?"
- 26 라반은 말했다. "우리 곳에서는 맏아들을 먼저 시집보내고, 어린아이를 나중에 시집보내는 것이 관습입니다."
- 27 이 아이의 칠일을 채우고 나면, 우리가 당신이 나와 일할 또 일곱 년 동안, 다른 딸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 28 야곱은 그렇게 하여 그 일주일을 채웠다. 그는 그의 딸 라헬을 아내로 주었다.
- 29 라반은 그의 여종 빌하를 딸 라헬의 여종으로 주었다.
- 30 그는 또한 라헬에게 들어가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고, 또 일곱 년을 더 일했다.
- 31 주님은 레아가 미워받고 있음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지만,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다.
- 32 레아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다. 그녀는 말했다. "주님께서 내 고통을 돌아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 33 그녀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했다. "주님께서 내가 미워받고 있음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주셨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었다.

³⁴ 그녀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말했다. "이제 내 남편이 나와 결합할 것입니다. 내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그래서 그의 이름을 레위라 불렀다.

³⁵ 그녀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말했다. "이제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유다라 지었다. 그 후 그녀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

창세기 30장

- 1 라헬이 자신이 야곱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누이를 질투하였다. 그녀가 야곱에게 말했다. "아이를 내게 주지 않으면, 나는 죽겠소."
- 2 야곱은 라헬에게 분노하여 말했다. "하느님의 자리에 내가 있느냐? 내가 태에서 열매를 빼앗아 네게 주지 않았느냐?"
- 3 그녀가 말했다. "보소서, 내 시녀 빌하입니다. 그녀에게 가서,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아이를 낳게 하소서. 그러면 나도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 수 있겠소."
- 4 그녀는 자기 하녀 빌하를 야곱의 아내로 주었고, 야곱은 그녀에게 들어갔다.
- 5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다.
- 6 라헬이 말했다. "하느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시어, 나에게 아들을 주셨도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이름을 단이라 불렀다.
- 7 라헬의 하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두 번째 아들을 낳았다.
- 8 라헬이 말했다. "내가 누이와 힘껏 싸워 이겼도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이름을 납탈리라 불렀다.
- 9 레아가 아이를 낳는 일을 마친 것을 보고, 자기 하녀 질바를 데려다가 야곱의 아내로 주었다.
- 10 레아의 하녀 질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다.
- 11 레아가 말했다. "행복하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이름을 갓이라 불렀다.
- 12 레아의 하녀 질바가 야곱에게 두 번째 아들을 낳았다.
- 13 레아가 말했다. "내가 복받았도다. 딸들이 나를 복받은 자라 부를 것이니." 그래서 그녀는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불렀다.
- 14 르우벤이 밀 수확 시기에 밭에 나가 만드라케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왔다. 그때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다. "제발, 당신 아들의 만드라케를 조금 나에게 주소서."
- 15 레아가 그녀에게 말했다. "내 남편을 빼앗는 것이 작다고 생각하느냐? 이제는 내 아들의 만드라케까지 빼앗으려 하는가?"
- 16 야곱이 저녁에 밭에서 돌아왔을 때, 레아가 나가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당신은 반드시 나에게 들어오셔야 합니다. 내가 내 아들의 만드라케로 당신을 고용했으니."
- 17 하느님이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는 임신하여 야곱에게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 18 레아가 말했다. "하느님이 내게 내 고용료를 주셨도다. 내가 내 하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이니." 그래서 그녀는 그의 이름을 잇사갈이라 불렀다.
- 19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여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 20 레아가 말했다. "하느님이 나에게 좋은 혼수를 주셨도다.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니, 내가 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니." 그래서 그녀는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불렀다.
- 21 그 후에 그녀는 딸을 낳아, 그녀의 이름을 디나라 불렀다.
- 22 하느님이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어,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 23 그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했다. "하느님이 나의 수치를 제거하셨도다."
- 24 그녀는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불렀다. "주님이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시기를."
- 25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은 라반에게 말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내 고향과 내 땅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 26 내가 당신을 위해 일한 대가로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을 나에게 주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당신은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섬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 27 라반은 그에게 말했다. "만약 내가 당신 눈에 은총을 입었다면, 여기에 머물러 주십시오. 내가 점치기를, 주님이 당신 때문에 나를 복 주셨다고 알았습니다."
- 28 그는 말했다. "내게 내 보수를 정해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지불하겠습니다."
- 29 야곱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섬겼는지,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 나와 함께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 30 내가 오기 전에는 당신이 거의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수가 많아졌습니다. 내가 있는 곳마다 주님이 당신을 복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집에도 제대로 대접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 31 라반은 말했다. "내가 무엇을 당신에게 주어야 합니까?"
- 32 오늘 내가 당신의 모든 양무리에서 반점이 있고 무늬가 있고, 양 중에서는 모든 검은 것과 염소 중에서는 반점이 있고 무늬가 있는 것을 모두 빼내겠습니다. 이것이 내 보수가 되겠습니다."
- 33 이후에 당신이 내 보수를 확인하러 올 때, 내 의로움이 나를 대변할 것입니다. 염소 중에서 반점이 없고 무늬가 없으며, 양 중에서 검지 않은 것들 중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모두 도둑질한 것이라 여겨져야 합니다."
- 34 라반은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 35 그날, 그는 줄무늬가 있고 반점이 있는 수염소들과, 반점이 있고 무늬가 있는 모든 암염소들, 흰 부분이 있는 모든 것들과 양 중의 모든 검은 것들을 빼내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겼다.
- 36 그는 자신과 야곱 사이에 사흘 길이의 거리를 두고,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무리를 치게 되었다.
- 37 야곱은 신선한 흰양나무와 아몬드나무와 벚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흰 줄무늬를 벗겨내어 가지 안에 흰 부분을 드러냈다.
- 38 그는 벗긴 가지들을 물가에 있는 먹이통 앞에, 양무리가 마실 때마다 놓아두었다. 양무리가 마실 때 잉태되었다.
- 39 양무리가 가지 앞에서 잉태되어, 줄무늬가 있고 반점이 있고 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았다.
- 40 야곱은 어린 양들을 분리하고, 라반의 양무리 중에서 줄무늬가 있는 것들과 모든 검은 것들에만 양무리의 얼굴을 향하게 하였다. 그는 자신의 무리들을 따로 두고, 그것을 라반의 양무리에 섞지 않았다.
- 41 양무리가 강한 때마다 야곱은 물가에 가지를 양무리의 눈 앞에 놓아, 가지 앞에서 잉태하게 하였다.
- 42 그러나 양무리가 약할 때에는 가지를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었고, 강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 43 그 사람은 매우 부유해져서 큰 양무리들과 여종들과 남종들과 낙타들과 당나귀들을 갖게 되었다.

창세기 31장

- 1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것에서 이 모든 부를 얻었다."는 말을 들었다.
- 2 야곱은 라반의 얼굴 표정을 보니, 이전처럼 자신을 향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
- 3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조상의 땅과 친척들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 4 야곱은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들판으로 불러, 자기 양 떼에게로 오게 하였다.
- 5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 아버지의 얼굴 표정을 보니, 이전처럼 나를 향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
- 6 너희는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내 힘을 다해 섬겼음을 알고 있다.
- 7 너희 아버지는 나를 속였고, 내 월급을 열 번이나 바꾸었지만, 하느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 8 그가 말하기를, "점박이 것이 너희 월급이 되리라." 하면, 모든 양 떼가 점박이를 낳았고, 그가 말하기를, "줄무늬가 너희 월급이 되리라." 하면, 모든 양 떼가 줄무늬를 낳았다.
- 9 이처럼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
- 10 번식 시기에 나는 눈을 들어 꿈을 보니, 보라, 양 떼 위로 뛰어오르는 수염소들이 줄무늬와 점박이, 무늬가 섞인 것이었다.
- 11 하느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내게 말했다. "야곱." 내가 대답했다. "여기 있습니다."
- 12 그가 말했다. "지금 눈을 들어 보아라. 양 떼 위로 뛰어오르는 모든 수염소들이 줄무늬와 점박이, 무늬가 섞인 것이니, 내가 라반이 너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 13 나는 베엘의 하느님이다. 너는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부었고, 나에게 서원을 하였다. 이제 일어나, 이 땅에서 떠나, 네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라."
- 14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했다. "우리에게 아버지 집에서 아직도 뭇이나 상속이 남아 있습니까?"
- 15 그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를 팔아 버렸고, 우리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 16 하느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모든 부는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 17 그러자 야곱은 일어나 아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웠다.
- 18 그는 자기 모든 가축과, 자신이 모은 모든 소유물, 즉 파단아람에서 얻은 가축을 모두 데리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
- 19 라반은 양을 깎으러 떠났고, 라헬은 아버지의 테라핌을 훔쳤다.
- 20 야곱은 라반 아람 사람을 속였는데, 그가 도망간다는 것을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 21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데리고 도망쳤다. 일어나 강을 건너 길르앗 산으로 향했다.
- 22 셋째 날, 라반은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 23 그는 친척들을 데리고 일곱 날 동안 따라가서 길르앗 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 24 하느님께서 밤에 꿈으로 라반 아람 사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네가 야곱에게 선이나 악이나 말하지 말아라."
- 25 라반은 야곱을 따라잡았다. 야곱은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은 그의 친척들과 함께 길르앗 산에 진을 쳤다.
- 26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잡힌 자처럼 데려갔느냐?
- 27 어찌하여 몰래 도망쳐 나를 속이고, 내가 기쁨과 노래와 타임보와 수금으로 너를 보내줄 수 있게 말하지 않았느냐?
- 28 내 아들과 딸들에게 키스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네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 29 내 손에는 네게 해를 끼칠 힘이 있다. 그러나 네 아버지의 하느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했다. "야곱에게 선이나 악이나 말하지 말라."
- 30 지금 네가 떠나고 싶은 것은 네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기 때문이지만, 어찌하여 내 신들을 훔쳤느냐?
- 31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했다. "나는 두려워서 도망쳤다.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딸들을 힘으로 빼앗을까 봐' 했기 때문이

다."

32 네가 내게서 네 신을 찾는 자는 죽을 것이다. 우리 친척들 앞에서 내게 있는 네 물건을 찾아내어 가져가라." 야곱은 라헬이 그 신들을 훔쳤다는 것을 몰랐다.

33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했다. 그는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다.

34 라헬은 그 신들을 가져다가 낙타의 안장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이 장막 전체를 뒤졌으나, 찾지 못했다.

35 그녀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내 주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제가 월경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뒤졌으나, 신들을 찾지 못했다.

36 야곱은 화가 나서 라반과 다투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했다. "내 죄는 무엇이나? 내 죄악은 무엇이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격렬히 쫓아왔느냐?"

37 네가 내 모든 물건을 뒤졌으니, 네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았느냐? 그것을 내 친척들과 네 친척들 앞에 놓아, 우리 둘 사이를 판단하게 하라.

38 "이 스무 해 동안 내가 네 곁에 있었다. 네 양과 암염이 새끼를 낳지 못했고, 네 양 떼의 수양은 내가 먹지 않았다.

39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은 내가 네게 가져오지 않았다. 내가 그 손실을 감당했다. 낮에 도둑맞거나 밤에 도둑맞은 것이든, 내 손에서 내가 요구했다.

40 "이것이 내 상황이었다. 낮에는 가뭄이 나를 소모하고, 밤에는 서리가 내게 덮쳤으며, 내 눈에서 잠이 떠났다.

41 "이 스무 해 동안 내가 네 집에 있었다. 내가 네 딸 둘을 위해 십사 년을 일하고, 네 양 떼를 위해 육 년을 일했으며, 네가 내 월급을 열 번이나 바꾸었다.

42 "내 아버지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두려움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지금 네가 빈손으로 나를 내보냈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내 고통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너를 꾸짖으셨다."

43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했다. "내 딸들은 내 딸들이고, 내 자녀들은 내 자녀들이며, 내 양 떼는 내 양 떼이며, 네가 보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44 이제 와서, 우리 둘이 언약을 맺자. 그것이 나와 너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하자."

45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46 야곱이 그의 친척들에게 말했다. "돌을 모으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더미를 쌓았다. 그들은 그 더미 옆에서 먹었다.

47 라반은 그것을 예가르사하두타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드라고 불렀다.

48 라반이 말했다. "이 더미가 오늘 나와 너 사이의 증거이다." 그래서 그것을 갈레드라고 불렀다.

49 미자파라 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주님이 나와 당신 사이를 지켜 주시기를."

50 당신이 내 딸들을 괴롭히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데려오면, 우리 사이에 누군가가 함께하지 않으니, 보십시오, 하느님이 나와 당신 사이의 증인이 되십니다.

51 라반은 야곱에게 말했다. "보라, 이 더미와 내가 나와 당신 사이에 세운 기둥을."

52 이 더미가 증인이 되고, 이 기둥이 증인이 되기를, 내가 이 더미를 넘어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당신도 이 더미와 이 기둥을 넘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를.

53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나홀의 하느님, 그들의 조상의 하느님이 우리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두려워하며 맹세하였다.

54 야곱은 산에서 제물을 바치고, 친척들을 불러 빵을 먹게 하였다. 그들이 빵을 먹고, 산에서 밤을 보냈다.

55 아침 일찍 라반은 일어나 아들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였다. 라반은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창세기 32장

- 1 야곱은 길을 떠나는데,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를 맞이하였다.
- 2 그가 그들을 보고 말했다. "이것은 하느님의 군대다." 그는 그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다.
- 3 야곱은 형 에서에게, 세일 땅, 에돔 들로 가는 길에 사자를 먼저 보냈다.
- 4 그는 사자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당신의 종 야곱이 말하니, 내가 라반과 함께 외국인으로 지내며 지금까지 머물렀습니다.""
- 5 나는 소와 당나귀와 양 떼와 남종과 여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주께 알리려고 보낸 것은, 제가 당신의 눈에 은총을 입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 6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가 당신을 만나려고 오고 있으며, 사백 명의 남자들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 7 야곱은 크게 두려워하고 근심하였다. 그는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양 떼와 소 떼와 낙타를 두 무리로 나누었다.
- 8 그는 말했다. "에서가 한 무리에게 달려들어 치면, 남은 무리가 도망칠 수 있을 것이다."
- 9 야곱은 말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 나에게 "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네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 10 주님이 주신 모든 자비와 진실 가운데, 제가 가장 작은 것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두 무리가 되었습니다."
- 11 제 형의 손, 에서의 손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저는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와서 저와 어머니들과 아이들을 칠까 염려됩니다."
- 12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하여,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 13 그는 그 밤에 머물며,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골랐다.
- 14 염소 암컷 이백 마리와 수컷 이십 마리, 양 암컷 이백 마리와 수컷 이십 마리,
- 15 젖 나는 낙타 서른 마리와 그 새끼들, 젖소 마흔 마리, 수소 열 마리, 당나귀 암컷 스무 마리와 새끼 열 마리.
- 16 그는 이것들을 종들에게 넘겨 주어, 각 떼를 따로 떼어 놓고, 종들에게 말했다. "내 앞을 지나가며, 떼와 떼 사이에 간격을 두어라."
- 17 그는 맨 앞선 종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내 형 에서가 너희를 만나서, "너희는 누구의 것인가? 어디로 가는가? 너희 앞에 있는 이들은 누구의 것인가?"라고 묻거든,
- 18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이것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내 주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보십시오, 그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 19 그는 뒤이어 오는 둘째, 셋째, 그리고 모든 떼를 따르는 종들에게도 명령하여 말했다. "너희가 그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여라.
- 20 "그뿐 아니라, 보십시오, 당신의 종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내가 앞서 보내는 선물로 그를 달래고, 그 후에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어쩌면 그가 나를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 21 그러므로 선물은 그 앞을 지나갔고, 그는 그 밤에 진영에 머물렀다.
- 22 그는 그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야보크 강을 건넜다.
- 23 그는 그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건너보냈다.
- 24 야곱은 혼자 남아, 날이 밝을 때까지 그 사람과 힘을 겨루었다.
- 25 그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오금을 만졌으므로, 야곱의 허벅지 오금이 싸우는 동안 늘어났다.
- 26 그 사람은 말했다. "아침이 밝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 27 그는 그에게 물었다. "네 이름이 무엇이나?"
- 28 그는 말했다. "네 이름은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네가 하느님과 사람들과 싸워

이겼기 때문이다."

²⁹ 야곱이 그에게 물었다. "제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³⁰ 야곱은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다. 그는 말했다. "나는 하느님을 얼굴을 마주하고 보았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³¹ 그가 브니엘을 지나갈 때 해가 떠올랐고, 그는 허벅지 때문에 절었다.

³²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까지 허벅지 오금 위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 이는 그가 야곱의 허벅지 오금, 곧 힘줄을 만졌기 때문이다.

창세기 33장

¹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오고 있었고, 그와 함께 사백 명의 남자들이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레아, 라헬, 그리고 두 여종 사이에 나누어 배치하였다.

² 그는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을 그 뒤에,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었다.

³ 자신은 그들 앞을 지나가며 땅에 일곱 번 절을 하였고, 형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까지 그렇게 하였다.

⁴ 어서는 그를 맞으러 달려가서 안아주고, 그의 목에 기대어 입을 맞추며 울었다.

⁵ 그가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말했다. "이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까?"

⁶ 그러자 여종들이 그들의 아이들과 함께 가까이 다가와 절을 하였다.

⁷ 레아도 그녀의 아이들과 함께 가까이 다가와 절을 하였다. 그 뒤에 요셉이 라헬과 함께 가까이 다가와 절을 하였다.

⁸ 어서는 말했다. "내가 만난 이 모든 무리들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야곱은 대답했다. "제 주님의 눈에 은총을 얻기 위함입니다."

⁹ 어서는 말했다.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야. 네가 가진 것은 네가 가지게 하라."

¹⁰ 야곱은 말했다. "아니오, 제 주님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셨다면, 제 손에서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얼굴을 마치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았고, 주님께서 제게 기뻐하셨습니다."

¹¹ "제가 당신을 위해 가져온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셨고,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를 간청했고, 그는 그것을 받았다.

¹² 어서는 말했다. "우리가 떠나서 함께 가자. 내가 너보다 앞서 갈 것입니다."

¹³ 야곱은 그에게 말했다. "제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어리고, 제게 있는 양과 소들은 새끼를 낳았습니다. 하루라도 그들을 몰아붙이면, 모든 가축이 죽을 것입니다."

¹⁴ 제 주님께서 제 종보다 앞서 가주십시오. 저는 제 앞에 있는 가축의 걸음과 아이들의 걸음에 따라 천천히 가서, 제가 세 일에 있는 제 주님께 도달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¹⁵ 어서는 말했다.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 일부를 너와 함께 떠나게 하자."

¹⁶ 그래서 에서는 그날 자기 길을 따라 세일로 돌아갔다.

¹⁷ 야곱은 수곳으로 떠나 집을 지었고, 자기 가축을 위한 우막을 지었다.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수곳이라 부르게 되었다.

¹⁸ 야곱은 파단아람에서 돌아와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성에 평안히 도착하여, 성 앞에 장막을 치고 야영하였다.

¹⁹ 그는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에게서, 자기가 장막을 친 땅 한 뼘을 백 개의 은전에 사들었다.

²⁰ 그는 거기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창세기 34장

- 1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 2 히위 족속의 하모르의 아들 스켄이 그 여자를 보고 끌고 가서 그녀를 굴복시켰다.
- 3 그의 마음이 야곱의 딸 디나와 뭉쳐서 그 젊은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젊은 여자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 4 스켄이 아버지 하모르에게 말했다. "이 젊은 여자를 내 아내로 맞아주십시오."
- 5 야곱은 자기 딸 디나가 더럽혀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들은 가축과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침묵했다.
- 6 스켄의 아버지 하모르가 야곱에게 가서 그와 대화하려 나갔다.
- 7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슬퍼하며 매우 분노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 야곱의 딸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다.
- 8 하모르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 아들 스켄의 마음이 너희 딸을 향해 끌린다. 그녀를 그의 아내로 주어주라."
- 9 우리와 혼인을 맺어라.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너희가 데려가라.
- 10 너희는 우리와 함께 살며,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어라. 여기서 살고 거래하며, 이 땅에서 소유를 얻어라.
- 11 스켄이 그녀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 눈에 은총을 입게 해주십시오. 너희가 내게 무엇을 요구하든, 내가 다 주겠습니다."
- 12 내게 큰 혼수를 요구하십시오. 너희가 내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여자를 내 아내로 주어주십시오."
- 13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 곧 자기 누이를 더럽힌 탓에, 속임수로 스켄과 그의 아버지 하모르에게 대답했다.
- 14 그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누이를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주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가 됩니다."
- 15 오직 이 조건에서만 우리는 너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다면,
- 16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딸들을 주고,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살고 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 17 그러나 너희가 우리 말을 듣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 18 그들의 말이 하모르와 그의 아들 스켄에게 기쁘게 들렸다.
- 19 그 젊은이는 이 일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야곱의 딸을 사랑했고,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존중받았다.
- 20 하모르와 그의 아들 스켄이 자기 성문으로 나가서, 자기 성의 남자들에게 말했다.
- 21 "이 사람들은 우리와 평화롭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땅에 살며 거래하게 하십시오. 보십시오, 이 땅은 충분히 넓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우리 아내로 맞이하고,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주어라."
- 22 오직 이 조건에서만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며 한 백성이 되기를 동의합니다. 우리 모든 남자가 그들이 받은 것처럼 할례를 받는다면 말입니다."
- 23 그들의 가축과 소유와 모든 물건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우리만 그들에게 동의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 24 그 성문 밖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이 하모르와 그의 아들 스켄의 말을 듣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
- 25 세 번째 날,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아들들 중 디나의 형제 시메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잡고 방심한 도시로 나아가 모든 남자를 죽였다.
- 26 그들은 하모르와 그의 아들 세겜을 칼날로 죽이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려내고 떠났다.
- 27 야곱의 아들들이 시체 위로 나아가 도시를 약탈하였다. 이는 그들이 자기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 28 그들은 양 떼와 소 떼와 나귀와 도시 안의 것들과 들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 29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았다. 그들은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아내들을 사로잡아 집 안의 모든 것을 약탈하였다.
- 30 야곱이 시메온과 레위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괴롭혀, 가나안 사람들과 베리즈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싫어하게 만들

었다. 나는 수가 적다. 그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할 것이고, 나는 나와 내 집안이 멸망할 것이다."

³¹ 그들이 말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우해야 합니까?"

창세기 35장

- 1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뱀엘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라. 네가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나신 하느님을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 2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함께 있는 모든 이에게 말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몸을 깨끗이 하며, 옷을 갈아입어라."
- 3 "우리가 일어나 뱀엘로 올라가자. 내가 내 고통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을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
- 4 그들은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귀에 달린 반지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곁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
- 5 그들이 떠나자, 하느님의 두려움이 그들 주변 도시들 위에 임하여,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을 쫓지 않았다.
- 6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뱀엘에 도착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였다.
- 7 그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장소를 엘 뱀엘이라 불렀다. 그는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칠 때에 하느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곳이었기 때문이다.
- 8 리브가의 유모 데보라가 죽었고, 그녀는 뱀엘 아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혔다. 그 나무의 이름은 알론 바꾸트라 불렀다.
- 9 야곱이 파단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하느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 그를 축복하셨다.
- 10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 그분은 그를 이스라엘이라 이름지으셨다.
- 11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이다. 열매를 많이 맺고 번성하여라. 너로부터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일어나고, 왕들이 네 몸에서 나올 것이다."
- 12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
- 13 하느님께서 그와 대화하시던 그 장소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 14 야곱은 그가 하느님과 대화하시던 그 장소에 돌기둥을 세웠다. 그는 그것 위에 술을 부었고, 기름을 부었다.
- 15 야곱은 하느님께서 그와 대화하시던 그 장소를 뱀엘이라 불렀다.
- 16 그들은 뱀엘을 떠나 에브라트에 도달하기까지 아직 거리가 있었다. 라헬이 고통스럽게 분만하였다.
- 17 그녀가 고통스럽게 분만할 때, 산파가 그녀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네가 또 아들을 낳을 것이다."
- 18 그녀의 영이 떠나가려 할 때(그녀가 죽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아이를 베노니라 이름지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이름지었다.
- 19 라헬이 죽었고, 에브라트(곧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곳)로 가는 길에 묻혔다.
- 20 야곱은 그녀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다. 오늘날까지 그 기둥은 라헬의 무덤 기둥으로 불린다.
- 21 이스라엘이 떠나 에델의 탑 너머로 장막을 치고 야영하였다.
- 22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관계를 맺었고,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게 되었다.
- 23 레아의 아들들: 르우벤(야곱의 장자),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불론.
- 24 라헬의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
- 25 빌하의 아들들(라헬의 여종): 단과 납탈리.
- 26 질파의 아들들(레아의 여종): 갓과 아셀. 이들은 야곱에게 파단아람에서 태어난 아들들이다.
- 27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서, 마므레에 있는 기리아트아르바(곧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나그네로 살았다.
- 28 이삭의 나이는 백팔십 년이었다.
- 29 이삭은 숨을 거두고 죽었으며, 나이가 많고 날들이 충만하여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

창세기 36장

- ¹ 이것은 에서(곧 에돔)의 후손들의 역사이며,
- ² 어서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들을 맞이하였다. 히타이트인 일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인 시베온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 ³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이자 네바이오토의 누이인 바스마트를 아내로 삼았다.
- ⁴ 아다는 에서에게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마트는 르우엘을 낳았다.
- ⁵ 오홀리바마는 여우, 자람,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에서에게 태어난 아들들이다.
- ⁶ 어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안의 모든 구성원들과, 자기의 가축들과, 모든 동물들과,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소유물을 데리고, 형 야곱에게서 떠나 땅으로 떠났다.
- ⁷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고, 그들이 유랑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 때문에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⁸ 어서는 세일 산지에 거주하였다. 에서가 곧 에돔이다.
- ⁹ 이것은 세일 산지에 거주한 에돔 족장의 아버지 에서의 후손들의 역사이며,
- ¹⁰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와, 에서의 아내 바스마트의 아들 르우엘이다.
- ¹¹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마르와 세포와 갓암과 케나스이다.
- ¹² 팀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었고, 그녀는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았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들이다.
- ¹³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하트와 세라와 샘마와 미자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트의 자손들이다.
- ¹⁴ 오홀리바마, 곧 아나의 딸이자 시베온의 딸, 에서의 아내는 에서에게 여우와 자람과 고라를 낳았다.
- ¹⁵ 에서의 아들들 중, 장남 엘리바스의 족장들은 이러하다. 족장 데만, 족장 오마르, 족장 세포, 족장 케나스,
- ¹⁶ 족장 고라, 족장 갓암, 족장 아말렉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서 엘리바스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다. 이들은 아다의 자손들이다.
- ¹⁷ 르우엘, 곧 에서의 아들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족장 나하트, 족장 세라, 족장 샘마, 족장 미자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서 르우엘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트의 자손들이다.
- ¹⁸ 오홀리바마, 곧 에서의 아내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족장 여우, 족장 자람, 족장 고라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 곧 아나의 딸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다.
- ¹⁹ 이것은 에서(곧 에돔)의 아들들이고, 이들은 그들의 족장들이다.
- ²⁰ 이것은 땅의 호리 족속 세일의 아들들이다. 로탄과 쇼발과 시베온과 아나,
- ²¹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서 세일의 자손인 호리 족속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다.
- ²² 로탄의 아들들은 호리와 헤만이다. 로탄의 누이 이름은 팀나이다.
- ²³ 쇼발의 아들들은 알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세포와 온암이다.
- ²⁴ 시베온의 아들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이 아나는 아버지 시베온의 나귀를 치다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이다.
- ²⁵ 아나의 자녀들은 디혼과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이다.
- ²⁶ 디혼의 자녀들은 험담, 에스반, 이드란, 그리고 게란이다.
- ²⁷ 에제르의 자녀들은 빌한, 자아완, 그리고 야칸이다.
- ²⁸ 디산의 자녀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 ²⁹ 호리 사람들의 족장들은 로탄, 쇼발, 시본, 아나,
- ³⁰ 디혼, 에제르, 디산이다. 이들은 세일 땅에서 그들의 족장들에 따라 나온 호리 사람들의 족장들이다.
- ³¹ 이스라엘 자손 위에 어떤 왕도 통치하기 전에 에돔 땅에서 통치한 왕들은 다음과 같다.
- ³² 베울이 베오르의 아들로 에돔에서 왕이 되었으며, 그의 도시 이름은 디나바였다.
- ³³ 베울이 죽고, 보스라의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³⁴ 요밥이 죽고, 테마니 사람들의 땅에서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³⁵ 후삼이 죽고, 모압 들판에서 미디안을 친 베다드의 아들 하답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의 도시 이름은 아비트이었다.
- ³⁶ 하답이 죽고, 마스레카의 삼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³⁷ 삼라가 죽고, 강가의 레호봇의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³⁸ 사울이 죽고, 아크보르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³⁹ 아크보르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의 도시 이름은 파우였다. 그의 아내 이름은 메헤타벨로, 마트레드의 딸, 메자하브의 손녀이다.
- ⁴⁰ 예사우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들의 가족과 거주지와 이름에 따라 다음과 같다. 팀나, 알바, 예테스,
- ⁴¹ 오홀리바마, 엘라, 피논,
- ⁴² 케나즈, 테만, 미바자르,
- ⁴³ 마그디엘, 이람이다. 이들은 그들이 점유한 땅에서 그들의 거주지에 따라 에돔의 족장들이다. 이는 에돔 사람들의 아버지 예사우이다.

창세기 37장

- 1 야곱은 그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 곧 가나안 땅에 살았다.
- 2 야곱의 후손들의 역사는 이러하다. 요셉은 열일곱 살이었고, 그의 형들과 함께 양 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빌하와 질파, 즉 아버지의 첩들의 아들과 함께 있었다. 요셉은 그들이 행한 나쁜 일들을 아버지에게 고하였다.
- 3 이스라엘은 모든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늙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라, 그에게 여러 가지 색의 옷을 지어 입혔다.
- 4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으며, 평화롭게 그에게 말하지 못하였다.
- 5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하자, 그들은 더욱 그를 미워하였다.
- 6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곧 이 꿈을:
- 7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을 때, 내 단이 일어나 서 있었고, 너희 단들이 나아와 내 단 앞에 절하였다.
- 8 그의 형들이 그에게 물었다. "네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릴 것인가? 정말로 우리 위에 통치할 것인가?" 그들은 그의 꿈과 말 때문에 더욱 그를 미워하였다.
- 9 그는 또 다른 꿈을 꾸었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며 말하였다. "보라, 내가 또 다른 꿈을 꾸었으니, 보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하였다."
- 10 그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다. 아버지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네가 곧 이 꿈이 무엇이냐? 내가 네 어머니와 네 형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할 것인가?"
- 11 그의 형들은 그를 질투하였고, 아버지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겼다.
- 12 그의 형들은 스켄에서 아버지의 양 떼를 치러 갔다.
- 13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 형들이 시켄에서 양 떼를 치고 있지 않느냐? 가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여기 있습니다."
- 14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네 형들이 잘 있는지, 양 떼가 잘 있는지 살펴보고, 다시 나에게 보고하여라." 그래서 그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보내었고, 요셉은 스켄에 이르렀다.
- 15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 보니, 그가 들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네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 16 그가 대답하였다. "내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제발, 그들이 어디서 양 떼를 치는지 알려주세요."
- 17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은 이곳을 떠났습니다. 내가 그들이 도탄으로 가자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 18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다.
- 19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온다."
- 20 이제 와서, 우리가 그를 죽이고, 한 우물에 던져 놓자. 그리고 우리는 말하자.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될지 보자.
- 21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그를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말하였다. "우리가 그의 생명을 빼앗지 말자."
- 22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에 있는 이 우물에 던져라. 그러나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는 그를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는 것이었다.
- 23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여러 가지 색의 옷을 벗겼다.
- 24 그들은 그를 끌고 가서 우물에 던져 넣었다. 그 우물은 비어 있었고, 물이 없었다.
- 25 그들은 빵을 먹기 위해 앉아 있었고, 눈을 들어 보니 길르앗에서 오는 이스마엘 사람들의 상인단이 보였고, 그들의 낙타에는 향신료와 박하,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다.
- 26 유다가 형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우리 형을 죽이고 그의 피를 가린다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 27 "자, 우리 형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우리 손으로 그를 해치지 말자. 그는 우리 형이요, 우리 육체이기 때문이다." 그의 형들은 그의 말을 들었다.
- 28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이 와서 요셉을 우물에서 끌어올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스물 동전에 팔았다. 그 상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다.

- ²⁹ 르우벤이 우물로 돌아가 보니 요셉이 우물에 없었다. 그는 옷을 찢었다.
- ³⁰ 그는 형들에게 돌아가 말했다. "아이가 없어졌구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 ³¹ 그들은 요셉의 옷을 가져가서 수염소를 잡고, 그 옷을 피에 담그었다.
- ³² 그들은 색이 다양한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했다. "우리가 이것을 찾았습니다. 지금 보시고, 이것이 당신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 ³³ 그는 그것을 알아보고 말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먹어치웠다. 요셉은 분명히 찢겨 죽었다."
- ³⁴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베 자루를 허리에 두르고, 아들을 위하여 많은 날 동안 애곡하였다.
- ³⁵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딸들이 그를 위로하려고 일어났으나, 그는 위로를 거부했다. 그는 말했다. "내가 슬퍼하며 아들을 찾아 스올로 내려가리라." 그의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울었다.
- ³⁶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가서 파라오의 궁내 경비대장인 포티페라에게 팔았다.

창세기 38장

- 1 그때에 유다는 형제들에서 내려가서 히라라 이름하는 어떤 아둘람 사람을 찾아갔다.
- 2 거기서 유다는 수아라 이름하는 어떤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았다. 그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와 동침하였다.
- 3 그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는 그 아이를 에르라 이름하였다.
- 4 그녀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녀는 그 아이를 오난이라 이름하였다.
- 5 그녀는 또 다시 아들을 낳아 셀라라 이름하였다. 그녀가 그를 낳을 때 그는 게지브에 있었다.
- 6 유다는 장자 에르에게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 여자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 7 유다의 장자 에르는 주님의 눈에 악한 자였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를 죽이셨다.
- 8 유다는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의 아내에게로 들어가서 형제의 의무를 그녀에게 행하고, 형을 위하여 자손을 일으켜라."
- 9 오난은 그 자손이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형의 아내에게로 들어가서 땅에 정액을 흘려, 형을 위하여 자손을 낳지 않게 하였다.
- 10 그가 한 그 일은 주님의 눈에 악한 것이었고, 주님은 그도 죽이셨다.
- 11 그때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너는 네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라.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그는 말하였다. "그도 형들처럼 죽을까 두려워서." 다말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살았다.
- 12 많은 날이 지난 후,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이 죽었다. 유다는 위로를 받고, 친구 히라와 함께 티르마로 올라가서 양털 깎는 일을 보러 갔다.
- 13 다말은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보라, 네 사위가 양털 깎으러 티르마로 올라가고 있다."
- 14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로 몸을 가리고, 몸을 감싸고, 티르마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문에 앉았다. 그녀는 셀라가 자랐고, 자신이 그의 아내로 주어지지 않았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 15 유다가 그녀를 보고, 그녀가 창녀라고 생각하였다. 그녀가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다.
- 16 그는 길에서 그녀에게로 돌아서서 말하였다. "부디 와서, 내가 너와 동침하게 해주어라." 그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임을 알지 못하였다.
- 17 그가 말하였다. "내가 양 떼에서 어린 염소를 보내주겠다."
- 18 그가 말하였다. "내가 무엇을 보증으로 드릴까?"
- 19 그녀는 일어나 가서 베일을 벗고, 과부의 옷을 입었다.
- 20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을 빌려 어린 염소를 보내어 그 여자의 손에서 보증을 받으려 하였으나, 그는 그 여자를 찾지 못하였다.
- 21 그는 그 지역 사람들을 물어보았다. "길가 에나임에 있던 창녀는 어디에 있는가?"
- 22 그는 유다에게 돌아와 말하였다. "나는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기에는 창녀가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23 유다가 말하였다. "그녀가 그것을 가지게 하라.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라, 나는 이 어린 염소를 보냈는데, 너희는 그녀를 찾지 못하였다."
- 24 약 세 달 후, 유다는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네 며느리 다말이 창녀 노릇을 하였고, 보라, 그녀는 창녀 노릇으로 임신하였다."
- 25 그녀가 끌려나올 때, 장인에게 보냈다. "이것들을 가진 남자와 제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이 반지와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알아봐 주세요."
- 26 유다는 그것을 알아보고 말했다. "나보다 그녀가 더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내 아들 세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 27 그녀가 분만할 때, 보라, 태속에 쌍둥이가 있었다.
- 28 그녀가 분만할 때, 한 아이가 손을 내밀었고, 산파가 그것을 잡아 붉은 실을 그 손에 매달며 말했다. "이 아이가 먼저 나

왔습니다."

²⁹ 그가 손을 빼자, 보라, 그의 형제가 나왔고, 그녀가 말했다. "너는 왜 너 자신을 위해 틈을 냈느냐?"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다.

³⁰ 그 후에 붉은 실이 손에 매달린 그의 형제가 나왔고,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다.

창세기 39장

¹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내려갔다. 바로의 신하이자 군대 장관인 이집트인 포티파르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사들였다.

² 주님은 요셉과 함께하셨고, 그는 번영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기 주인인 이집트인의 집에 있었다.

³ 그의 주인은 주님이 그와 함께하시며, 주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번성하게 하심을 보았다.

⁴ 요셉은 그의 눈에 은총을 얻었다. 그는 그를 섬기고, 포티파르는 그를 집 전체의 감독으로 세우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겼다.

⁵ 그가 그를 자기 집과 자기 모든 소유를 맡은 관리로 세운 이래로, 주님은 요셉의 덕분에 이집트인의 집을 복되게 하셨다. 주님의 복은 그의 집 안과 밭의 모든 것 위에 있었다.

⁶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⁷ 이 일들 이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와 함께 자자."

⁸ 그러나 그는 거절하고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제 주인은 제 집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 손에 맡기셨습니다."

⁹ 이 집에서 나보다 더 큰 자는 아무도 없고,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느님께 죄를 지리이까?

¹⁰ 그 여자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했지만, 그는 그녀와 함께 자거나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듣지 않았다.

¹¹ 이 무렵, 그는 집에 들어가서 일하러 갔는데, 집 안에 남자들은 아무도 없었다.

¹² 그녀는 그의 옷을 잡으며 말했다. "나와 함께 자자!"

¹³ 그녀가 그가 자신의 옷을 손에 남긴 채 밖으로 달아났음을 보고,

¹⁴ 자기 집의 남자들을 불러서 말했다. "보아라, 우리가 데려온 히브리 종이 우리를 조롱하려고 들어왔다. 그가 나에게 와서 나와 자려 했고,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¹⁵ 내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그는 내 곁에 옷을 버리고 밖으로 달아났다."

¹⁶ 그녀는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간직했다.

¹⁷ 그녀는 그에게 이런 말로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들어와서 나를 조롱하려 했습니다."

¹⁸ 내가 소리를 높여 외쳤을 때, 그는 내 옆에 옷을 버리고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¹⁹ 그의 주인은 아내가 자신에게 말한 말, 즉 '이 사람이 내게 이같이 하였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²⁰ 요셉의 주인은 그를 데려다가 왕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 넣었고, 그는 거기서 감금되었습니다.

²¹ 그러나 주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감옥 지기의 눈에 띄게 하셨습니다.

²² 감옥 지기는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든, 요셉이 그 모든 일을 책임졌습니다.

²³ 감옥 지기는 자기 손아귀에 있는 모든 일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주님이 그 일을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0장

- ¹ 이 일들 후에, 이집트 왕의 술 시중들던 자와 빵 굽는 자가 그 주인인 이집트 왕을 불만족하게 했다.
- ² 바로는 그의 두 신하, 즉 주요 술 시중들던 자와 주요 빵 굽는 자에게 분노했다.
- ³ 그는 그들을 사령관의 집, 곧 요셉이 갇혀 있던 감옥에 가두었다.
- ⁴ 사령관은 그들을 요셉에게 맡겼고, 요셉은 그들을 돌보았다. 그들은 감옥에 많은 날을 머물렀다.
- ⁵ 그 둘은 같은 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자 자기 꿈을 꾸었고, 그 꿈의 해석대로, 이집트 왕의 감옥에 갇혀 있던 술 시중들던 자와 빵 굽는 자였다.
- ⁶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보니, 그들이 슬퍼 보였다.
- ⁷ 그는 자기 주인의 집에서 함께 갇혀 있던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었다. "오늘 왜 그렇게 슬퍼 보이냐?"
- ⁸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 ⁹ 주요 술 시중들던 자가 요셉에게 자기 꿈을 말하며 말했다. "내 꿈에 보니, 나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고,
- ¹⁰ 그 포도나무에 세 개의 가지가 있었다. 그것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그 덩어리에서 익은 포도를 맺었다.
- ¹¹ 이집트 왕의 잔이 내 손에 있었고, 나는 포도를 따서 이집트 왕의 잔에 짜서, 그 잔을 이집트 왕의 손에 드렸다."
- ¹² 요셉이 그에게 말했다. "이것이 그 해석입니다. 세 가지는 사흘을 뜻합니다."
- ¹³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 당신을 당신의 직책으로 복귀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이집트 왕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릴 것이며, 당신이 술 시중들던 자였을 때처럼 할 것입니다."
- ¹⁴ 그러나 당신이 잘될 때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자비를 베풀어 주고, 바로에게 나를 언급해 주어, 이 집에서 나를 빼내 주십시오."
- ¹⁵ 실제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고, 여기에서도 내가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 ¹⁶ 주요 빵 굽는 자가 그 해석이 좋음을 보고 요셉에게 말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니, 내 머리 위에 흰 빵 세 바구니가 있었다."
- ¹⁷ 가장 위쪽 바구니에는 바로를 위한 모든 종류의 구운 음식이 들어 있었고, 새들이 내 머리 위의 바구니에서 그것을 먹어 치웠습니다."
- ¹⁸ 요셉이 대답했다. "이것이 그 해석입니다. 세 바구니는 사흘을 뜻합니다."
- ¹⁹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당신에게서 들어 올려, 당신을 나무에 매달아 버릴 것입니다.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당신에게서 먹어치울 것입니다."
- ²⁰ 사흘째 되는 날, 바로의 생일이었고, 그는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으며, 그의 신하들 중에서 주요 술 시중들던 자의 머리와 주요 빵 굽는 자의 머리를 들어 올렸다.
- ²¹ 그는 주요 술 시중들던 자를 다시 자신의 직책으로 복귀시켜, 그의 손에 잔을 드렸다.
- ²² 그러나 그는 주요 빵 굽는 자를 매달아 죽였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대로였다.
- ²³ 그러나 주요 술 시중들던 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그를 잊어버렸다.

창세기 41장

- 1 두 해가 완전히 지나자,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그가 강가에 서 있었다.
- 2 보라, 일곱 마리의 소가 강에서 올라왔다. 그것들은 윤택하고 살이 찼으며, 갈대밭에서 풀을 뜯었다.
- 3 보라, 그 뒤에 또 일곱 마리의 소가 강에서 올라왔는데, 마르고 추악하며 날씬했고, 강가에 서 있는 다른 소들 곁에 섰다.
- 4 마르고 추악한 소들이 윤택하고 살이 찬 일곱 마리의 소를 모두 먹어치웠다. 그러자 파라오는 깨어났다.
- 5 그가 잠들어 다시 꿈을 꾸었는데, 보라, 한 줄기에서 일곱 개의 이삭이 자라나 건강하고 좋았다.
- 6 보라, 그 뒤에 또 일곱 개의 이삭이 자라났는데, 마르고 동풍에 타서 말라비틀어졌다.
- 7 마르고 말라비틀어진 이삭들이 건강하고 가득 찬 일곱 개의 이삭을 모두 삼켰다. 파라오는 깨어났는데, 보라, 그것은 꿈이었다.
- 8 아침이 되자 그의 마음이 불안해져서, 이집트의 모든 마법사와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들였다. 파라오는 그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했지만, 그 중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다.
- 9 그때 술 담당관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오늘 제가 저의 죄를 기억합니다.
- 10 파라오께서 제 종들에게 분노하셔서, 저를 사령관의 감옥에 가두셨고, 빵 담당관과 함께 있었습니다.
- 11 우리 둘은 같은 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자 자기 꿈의 해석대로 꿈을 꾸었습니다.
- 12 거기 우리와 함께 있었던 젊은이가 한 명 있었는데, 사령관의 하인으로서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꿈을 말했더니, 그가 우리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는 각자의 꿈에 따라 해석해 주었습니다.
- 13 그가 우리에게 해석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제 직무로 복귀시켰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 14 그러자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들였고, 그들은 그를 감옥에서 급히 데려왔다. 그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나아갔다.
- 15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꿈을 듣기만 하면 해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16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그것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파라오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 17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 꿈에서, 보라, 내가 강가에 서 있었고,
- 18 보라, 일곱 마리의 살이 찬 윤택한 소가 강에서 올라왔다. 그것들이 갈대밭에서 풀을 뜯었으며,
- 19 보라, 그 뒤에 또 일곱 마리의 소가 올라왔는데, 마르고 매우 추악하며 날씬하여, 내가 이집트 땅 전체에서 이토록 추악한 소를 본 적이 없습니다."
- 20 마르고 추악한 소들이 첫 번째 일곱 마리의 살이 찬 소를 모두 먹어치웠으며,
- 21 그것들이 먹어치운 후에도 그것들이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없었고, 여전히 처음과 같이 추악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깨어났습니다."
- 22 내 꿈에서, 보라, 한 줄기에서 일곱 개의 이삭이 자라나 가득하고 좋았으며,
- 23 보라, 그 뒤에 또 일곱 개의 이삭이 자라났는데, 마르고 날씬하며 동풍에 타서 말라비틀어졌습니다."
- 24 마르고 날씬한 이삭들이 좋은 일곱 개의 이삭을 모두 삼켰습니다. 나는 이것을 마법사들에게 말했지만, 나에게 설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 25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파라오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느님께서 하려 하시는 일을 파라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 26 좋은 소 일곱 마리는 일곱 해이며, 좋은 곡식 이삭 일곱 개도 일곱 해입니다. 이 꿈은 하나입니다."
- 27 그 뒤에 올라온 마르고 추한 소 일곱 마리도 일곱 해이며, 동풍에 타서 텅 빈 곡식 이삭 일곱 개도 일곱 해의 기근입니다."
- 28 내가 파라오에게 말한 바로 그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파라오에게 하려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 29 보십시오. 이집트 땅 전역에 걸쳐 일곱 해의 풍요로움이 다가옵니다."
- 30 그 뒤에 일곱 해의 기근이 일어나, 이집트 땅에서 풍요로움이 모두 잊히게 될 것입니다. 기근이 땅을 삼킬 것입니다,"
- 31 그 뒤따르는 기근 때문에 풍요로움이 땅에서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근은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 32 꿈이 두 번 반복된 것은 이 일이 하느님께서 확정하셨고, 하느님께서 곧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33 그러므로 파라오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찾아 이집트 땅 위에 그를 세우십시오."
- 34 파라오는 이렇게 하십시오. 땅 위에 감독들을 임명하여, 풍요로운 일곱 해 동안 이집트 땅의 수확물의 오분의 일씩을 거두십시오."
- 35 이 좋은 해들 동안 나오는 모든 식량을 모아, 도시들 안에서 파라오의 손 아래 곡식을 저장하고, 그것을 보관하십시오."
- 36 그 식량은 이집트 땅에서 일어날 일곱 해의 기근을 대비하여 땅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땅이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게 하십시오."
- 37 이 일은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좋게 보였습니다."
- 38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처럼 하느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 39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으니, 너처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 40 너는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내 백성은 모두 네 말에 따라 다스려질 것이다. 왕좌에서는 내가 너보다 뿐만 아니라."
- 41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 땅 전역 위에 세웠다."
- 42 파라오는 자기 손에서 인장 반지를 벗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고운 베옷을 입히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었다."
- 43 그는 요셉을 자기가 가진 둘째 수레에 태웠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외쳤다. "무릎을 꿇어라!" 그는 요셉을 이집트 땅 전역 위에 세웠다."
- 44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파라오이다. 네가 없으면 이집트 땅 전역에서 아무도 손이나 발을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 45 파라오는 요셉의 이름을 사프나트-바네아라고 불렀다. 그는 요셉에게 온의 사제 포티페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다. 요셉은 이집트 땅 전역을 돌아다녔다."
- 46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섰을 때 서른 살이었다. 요셉은 파라오의 앞에서 나와 이집트 땅 전역을 돌아다녔다."
- 47 풍요로운 일곱 해 동안 땅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다."
- 48 그는 이집트 땅에서 일어난 일곱 해 동안의 모든 식량을 모아 도시들 안에 저장하였다. 그는 각 도시 주변의 들판에서 나온 식량을 그 도시 안에 저장하였다."
- 49 요셉은 바다의 모래처럼 곡식을 쌓아두었고, 매우 많이 쌓아서 셀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 50 기근이 오기 전에, 요셉에게 아스낫, 곧 온의 사제 포티페라의 딸이 두 아들을 낳아 주었다."
- 51 요셉은 맏아들의 이름을 마나세라 지었다. 그는 말했다. "하느님께서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해 주셨다."
- 52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지었다. "하느님께서 내 고난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해 주셨다."
- 53 이집트 땅에 있던 일곱 해의 풍년이 끝났다."
- 54 일곱 해의 기근이 요셉이 말한 대로 시작되었다. 모든 땅에 기근이 있었으나, 이집트 땅 전역에는 빵이 있었다."
- 55 이집트 땅 전역이 기근으로 힘들어지자,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빵을 달라고 외쳤다. 파라오는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말했다. "요셉에게 가라.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 56 기근은 온 땅에 퍼져 있었다.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의 기근은 심각했다."
- 57 모든 나라가 이집트로 와서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 했다. 온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다."

창세기 42장

- 1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보고 아들들에게 말했다. "어째서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느냐?"
- 2 그가 말했다. "보아라, 내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 사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살아서 죽지 않을 수 있다."
- 3 요셉의 열 명의 형들은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기 위해 내려갔다.
- 4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 요셉의 동생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아마도 그에게 해가 생길까 봐."
- 5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와서 곡식을 사려고 왔다. 이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다.
- 6 요셉은 그 땅의 통치자였고, 그가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땅에 얼굴을 대고 그에게 절했다.
- 7 요셉은 형들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에게는 낯선 사람처럼 행동하며 거칠게 말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 8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 9 요셉은 자신이 그들을 위해 꾸었던 꿈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너희는 이 땅의 허점을 엿보려고 왔다."
- 10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주님. 당신의 종들이 먹을 음식을 사려고 왔습니다."
- 11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 12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아니, 너희는 이 땅의 허점을 엿보려고 왔다!"
- 13 그들이 말했다. "우리, 당신의 종들은 열두 명의 형제입니다.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보십시오,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명은 더 이상 없습니다."
- 14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말한 대로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 15 이것으로 너희를 시험하겠다.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건대, 너희의 막내 동생이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여기서 떠나지 못할 것이다.
- 16 너희 중 한 사람을 보내어 너희 동생을 데려오게 하라. 너희는 갇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 말이 진실한지 시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건대, 너희는 정탐꾼이다.
- 17 그는 그들을 모두 삼 일 동안 감옥에 가뒀다.
- 18 사흘째 되는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을 하면 살아남을 것이다. 나는 하느님을 두려워한다."
- 19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을 너희 감옥에 가두어라. 너희는 가서 너희 집안의 기근을 해결할 곡식을 가져오라.
- 20 너희 막내 동생을 내게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확인되고,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 21 그들이 서로에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 형제에 대해 죄가 있다. 그가 고통을 겪을 때 우리에게 간청했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고통이 우리에게 닥쳤다."
- 22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이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피가 요구되고 있다."
- 23 그들은 요셉이 그들의 말을 이해한다는 것을 몰랐다. 그들 사이에 통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 24 그는 그들을 향해 등을 돌리고 울었다. 그 후 그는 다시 돌아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 중 시므온을 뽑아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했다.
- 25 그러자 요셉은 그들의 가방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되돌려 주며, 길에 먹을 음식을 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대로 행해졌다.
- 26 그들은 나귀에 곡식을 싣고 그곳에서 떠났다.
- 27 그들 중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을 때, 자기 돈이 보였다. 보라, 그것이 자루 입구에 있었다.

- 28 그는 형들에게 말했다. "내 돈이 돌아왔구나! 보라, 그것이 내 자루에 있다!" 그들의 마음은 떨렸고, 떨리는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셨다니, 이건 무엇인가?"
- 29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하며,
- 30 "그 땅의 주인은 우리에게 거칠게 말하며, 우리를 그 땅의 정찰꾼으로 여기셨습니다."
- 31 우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정찰꾼이 아닙니다."
- 32 우리는 열두 형제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는 더 이상 없고, 막내는 오늘날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 33 그 땅의 주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너희가 정직한 사람임을 알겠다.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을 내게 남겨두고, 너희 집안의 기근을 해결할 곡식을 가져가고 떠나라."
- 34 너희 막내 형제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정찰꾼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임을 알겠다. 그때 내가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려주고, 너희가 이 땅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하겠다."
- 35 그들이 자루를 비울 때, 보라, 각자의 돈 묶음이 자기 자루에 있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묶음을 보고 두려워했다.
- 36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내 아이들을 모두 빼앗아 갔구나! 요셉은 없고, 시몬도 없으며, 너희는 베냐민까지 데려가려 한다. 이 모든 일이 내게 반대되고 있다."
- 37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내가 그를 데려오지 못하면, 내 아들 두 명을 죽이십시오. 그를 내 손에 맡기십시오. 내가 그를 꼭 데려오겠습니다."
- 38 그가 말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의 형은 죽었고, 그 하나만 남아 있다. 너희가 가는 길에 그에게 해가 생기면, 너희가 내 흰 머리카락을 슬픔으로 죽음에 내려보낼 것이다."

창세기 43장

- 1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 2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고 나서,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조금 더 음식을 사오너라."
- 3 유다가 그에게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단단히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 4 만약 너희가 우리 형제를 우리와 함께 보내준다면, 우리는 내려가서 너희를 위해 음식을 사오겠습니다.
- 5 그러나 만약 그를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 6 이스라엘이 말했다. "왜 너희는 그 사람에게 너희에게 또 다른 형제가 있다고 말했느냐?"
- 7 그들이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대해 직접 물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 있느냐? 너에게 또 다른 형제가 있느냐?' 우리는 그의 질문에 단지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가 '너의 형제를 데려오라'라고 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 8 유다가 이스라엘, 곧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떠나면, 우리가 살아서 죽지 않고, 우리와 당신과 우리 어린 아이들도 모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 9 내가 그를 보증하겠습니다. 내 손에서 그를 요구하십시오. 내가 그를 당신에게 데려오지 못하고 당신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제가 영원히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 10 만약 우리가 늦추지 않았다면, 벌써 두 번째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 11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했다. "만약 그래야 한다면, 이렇게 하여라. 너희 가방에 이 땅의 최고의 열매를 담아, 그 사람에게 선물을 가져가거라. 약간의 향유와 꿀과 향신료와 몰약과 호두와 아몬드를 가지고 가거라."
- 12 또 너희 손에 두 배의 돈을 챙기고, 너희 자루 입구에 돌아온 돈을 돌려주어라. 아마도 그건 실수였을 것이다."
- 13 너희 형제도 데리고 일어나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거라."
- 14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너희의 다른 아들과 베냐민을 풀어주게 하시기를 바란다. 내 아이들을 모두 잃는다면, 내가 잃는 것이다."
- 15 그 남자들은 그 선물을 가지고, 손에 두 배의 돈을 챙기고 베냐민을 데리고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다.
- 16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의 집사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라. 짐승을 잡아 준비하여라. 이 사람들이 낮에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 17 그 사람은 요셉의 명령을 따르고,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갔다.
- 18 그 남자들은 요셉의 집으로 데려온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말했다. "우리가 처음에 자루에 돌아온 돈 때문에 이곳으로 끌려온 것 같다. 그는 우리에게 기회를 찾아 공격하여 우리를 노예로 잡고, 우리 나귀까지 빼앗으려는 것이다."
- 19 그들은 요셉의 집사에게 가까이 나아가 집 문에서 그에게 말했다.
- 20 그들이 말했다. "아, 제군님, 저희는 처음에 음식을 사려고 내려왔습니다."
- 21 우리가 숙소에 도착하여 자루를 열었더니, 각자의 돈이 자루 입구에 그대로 있었고, 우리 돈이 전부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손에 들고 돌아왔습니다."
- 22 우리는 또 다른 돈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사려고 합니다. 누가 우리 자루에 우리 돈을 넣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 23 그가 말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하느님과 너희 아버지의 하느님이 너희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셨다. 나는 너희 돈을 받았다." 그는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려왔다.
- 24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에게 사료를 주었다.
- 25 그들은 낮에 요셉이 오실 때 선물을 준비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빵을 먹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 26 요셉이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손에 든 선물을 집 안으로 가져다가 땅에 머리를 숙여 절했다.
- 27 그는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말했다. "너희 아버지는 잘 계시느냐? 너희가 말했던 그 늙은이는 여전히 살아 있느냐?"

- ²⁸ 그들이 대답했다.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는 잘 계십니다.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겸손하게 절했다.
- ²⁹ 그는 눈을 들어, 자기 동생이자 어머니의 아들인 베냐민을 보고 말했다. "이것이 너희가 내게 말했던 너희 막내 동생이냐?" 그는 이어 말했다. "내 아들이, 하느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 ³⁰ 요셉은 마음이 형제를 향해 축축해져서 급히 자리를 떠나 울 곳을 찾았다. 그는 방에 들어가 거기서 울었다.
- ³¹ 그는 얼굴을 씻고 밖으로 나왔다. 자신을 다스리고 말했다. "식사를 차려라."
- ³² 그들은 요셉에게는 따로, 그들 자신에게는 따로, 그리고 그와 함께 먹는 이집트인들에게도 따로 음식을 내놓았다.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집트인들에게 혐오스러운 일이다.
- ³³ 그들은 요셉 앞에 앉았는데, 맏아들은 장자권에 따라, 막내는 어린 나이에 따라 앉았다. 그 남자들은 서로를 보며 놀라워했다.
- ³⁴ 그는 자신 앞에서 음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나, 베냐민의 몫은 다른 이들의 다섯 배나 되었다. 그들은 마시며 그와 함께 즐거워했다.

창세기 44장

- 1 그는 자기 집의 관리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사람들의 가방에 그들이 질 수 있는 만큼 음식을 가득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그 가방 입구에 넣어라."
- 2 "내 은잔, 곧 내 은잔을 가장 어린 아들의 가방 입구에, 그의 곡식 돈과 함께 넣어라." 그는 요셉이 말한 대로 하였다.
- 3 아침이 밝자마자 그 사람들은 보내졌고, 그들과 그들의 나귀도 함께 떠났다.
- 4 그들이 도시를 나와서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이 자기 관리에게 말했다. "일어나, 그 사람들을 뒤따라가라. 네가 그들을 따라잡으면, 그들에게 물어라. '어찌하여 너희는 선을 악으로 갚는가?'"
- 5 "내 주가 마시는 잔이 이것 아니냐? 그가 이것으로 점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은 악한 일이다."
- 6 그는 그들을 따라잡아, 그들에게 이 말을 하였다.
- 7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 8 보십시오, 우리가 가방 입구에서 발견한 돈을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가져와서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훔치겠습니까?
- 9 주님의 종 중에서 그것이 발견되는 자는 죽고, 우리도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 10 그가 말했다. "지금도 너희 말대로 하리라. 그것이 발견된 자는 내 종이 되고, 너희는 죄가 없을 것이다."
- 11 그러자 그들은 급히 움직여 각자 자기 가방을 땅에 내려놓고, 각자 자기 가방을 열었다.
- 12 그는 맨 처음에 가장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하여, 가장 어린 자까지 찾아보았다. 잔은 베냐민의 가방에서 발견되었다.
- 13 그러자 그들은 옷을 찢고, 각자 자기 나귀에 짐을 싣고 도시로 돌아갔다.
- 14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왔을 때, 요셉은 아직 거기 있었다. 그들은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 15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 일을 어찌하여 하였느냐? 내가 점치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 16 유다가 말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주님의 종들의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모두, 그리고 잔이 발견된 자까지도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 17 그가 말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니, 잔이 발견된 자는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 18 그러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 말했다. "주님, 청하오니, 주님의 종이 주님의 귀에 한 마디 말을 하게 하소서. 주님의 진노가 주님의 종에게 쏟아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은 바로와 같으십니다."
- 19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버지나 형제가 있느냐?"
- 20 우리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늙은 사람이고, 노년에 얻은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형은 죽었고, 그는 어머니에게서 남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사랑합니다."
- 21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내게 데려오너라. 내가 그를 보고 싶다."
- 22 우리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 23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막내 형제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 24 우리가 주님의 종인 우리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 25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했다. '다시 가서 우리에게 식량을 조금 사오라.'
- 26 우리가 말했다. '우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린 동생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 어린 동생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 27 당신의 종인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아내로부터 아들 둘을 낳았음을 알고 있다.'
- 28 한 아들이 나를 떠나갔고, 나는 그가 찢겨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후로 나는 그를 보지 못했다.
- 29 너희가 이 아들도 내게서 데려가서 그에게 해가 생기면, 너희는 내 회개회개한 머리카락을 슬픔으로 음부에 내려보낼 것이다.
- 30 이제 내가 당신의 종인 내 아버지에게 가면,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그 아이의 생명과 연결

되어 있습니다.

³¹ 그가 아이가 더 이상 없음을 보게 되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당신의 종들인 우리들은 슬픔으로 아버지인 당신의 종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음부에 내려보낼 것입니다.

³² 내가 아버지에게 아이에 대한 보증이 되어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당신에게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지게 될 것입니다.'

³³ 이제 그러므로, 제발 당신의 종이 아이 대신 당신 주님의 종으로 남게 하시고, 아이는 형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³⁴ 아이가 나와 함께 있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닥칠 화를 보지 않도록 말입니다.

창세기 45장

- 1 그러자 요셉은 자기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을 참지 못하고 외쳤다. "모두 나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렸다.
- 2 그는 큰 소리로 울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의 울음소리를 듣고, 파라오의 집안도 들었다.
- 3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나는 요셉이다. 내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 계시는가?"
- 4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왔다. 그가 말했다. "나는 너희 형 요셉이다. 너희가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사람이다."
- 5 이제 너희는 이곳에 나를 팔아넘긴 일로 슬퍼하거나 스스로를 탓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나를 보내어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다.
- 6 이제 이 땅에 기근이 두 해 동안 계속되었고, 앞으로 다섯 해가 더 남아 있다. 그 동안은 씨를 뿌리지도, 수확도 없을 것이다.
- 7 하느님께서 너희를 위해 땅 위에 살아남은 자들을 남기고, 큰 구원으로 너희를 살리려고 나를 너희보다 먼저 보내셨다.
- 8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보내셨다. 그분께서는 나를 파라오의 아버지로, 그의 온 집안의 주인으로,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 9 서둘러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말하라. "네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께서 나를 이집트 온 땅의 주인으로 삼으셨다. 내게로 내려와라. 기다리지 마라.』"
- 10 너는 고센 땅에 거주할 것이며,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과 네 양 떼와 소 떼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 곁에 있게 될 것이다.
- 11 거기서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릴 것이다. 기근이 다섯 해나 더 남아 있기 때문이다. 너희와 너희 집안, 그리고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가난에 빠지지 않도록 말이다.
- 12 보아라, 너희 눈과 내 형 베냐민의 눈이, 바로 내 입이 너희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 13 너희는 내 아버지에게 이집트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영광과 너희가 본 모든 일을 알려라. 서둘러 내 아버지를 이곳으로 데려오라.
- 14 그는 형 베냐민의 목에 안기며 울었고, 베냐민도 그의 목에 안기며 울었다.
- 15 그는 모든 형제들을 입맞추고 그들에게 울었다. 그 후에 형제들이 그와 대화했다.
- 16 파라오의 집안에서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고 하였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 소식을 매우 기뻐했다.
- 17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너는 네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하여라. 너희 짐승에 짐을 싣고,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 18 너의 아버지와 너희 집안을 데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이집트 땅의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는 그 땅의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 19 너는 또한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 이집트 땅에서 수레를 가져와 너희 어린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
- 20 너희의 소유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이집트 땅의 좋은 것이 모두 너희 것이라.
- 21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하였다. 요셉은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에 필요한 양식도 주었다.
- 22 그는 각 형제에게 옷 한 벌씩 주었으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 냇과 옷 다섯 벌을 주었다.
- 23 그는 아버지에게 다음을 보냈다. 이집트의 좋은 물건으로 가득 찬 나귀 열 마리와, 곡식과 빵과 길에 필요한 양식으로 가득 찬 암나귀 열 마리.
- 24 그리고 그는 형제들을 보내어 떠나게 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길에서 다투지 마라."
- 25 그들은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 26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요셉은 여전히 살아 있으며, 그는 이집트 땅 전체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졌으

니, 그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

²⁷ 그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한 모든 말을 그에게 전했다. 요셉이 그를 데려오기 위해 보낸 수레를 보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다.

²⁸ 이스라엘이 말했다. "이것으로 족하다. 내 아들 요셉이 여전히 살아 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러 가겠다."

창세기 46장

- 1 이스라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베엘세바에 이르러,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다.
- 2 하느님이 밤의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야곱아, 야곱아."
- 3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네 아버지의 하느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 4 나는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요셉이 네 눈을 감아줄 것이다.
- 5 야곱은 베엘세바에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어린 자녀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그를 데려가기 위해 보낸 수레에 태웠다.
- 6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과 재산을 모두 가지고 이집트로 왔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이 함께였다.
- 7 그는 아들들과 손자들, 딸들과 손녀들, 그리고 모든 자손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갔다.
- 8 이집트로 들어온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르우벤, 야곱의 장자.
- 9 르우벤의 아들들: 하녹, 발루, 헤스론, 카르미.
- 10 시므온의 아들들: 여무엘, 야민, 오하드, 야킨, 소하르, 그리고 가나안 여자에게서 난 사울.
- 11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핫, 메라리였다.
- 12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였으나, 에르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었다.
- 13 이사갈의 아들들은 도라, 뿌바, 요브, 시몬이다.
- 14 스불론의 아들들은 세레드, 엘론, 야헬이다.
- 15 이들은 레아가 파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이다. 그녀의 딸 디나도 포함된다. 그의 아들들과 딸들의 총 수는 삼십삼 명이다.
- 16 갓의 아들들은 시피온, 하기, 수니, 에즈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이다.
- 17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 이스바, 이스비, 베리아, 그리고 그들의 누이 세라이다. 베리아의 아들들은 헤베르와 말키엘이다.
- 18 이들은 라반께서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질파의 아들들이다. 그녀가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은 모두 열여섯 명이다.
- 19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 20 요셉에게 이집트 땅에서 마나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다. 그들은 온의 사제 포티페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준 아들들이다.
- 21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 베커,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무피뎀, 휘피뎀, 아르드이다.
- 22 이것은 야곱에게 태어난 라헬의 아들들이다. 그들의 총 수는 열네 명이다.
- 23 단의 아들은 후시뎀이다.
- 24 납탈리의 아들들은 아르젤, 구니, 예제르, 실렘이다.
- 25 빌하가 라반에게서 레아의 딸에게 주어진 아들들이다. 그녀가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이다. 모두 일곱 명이다.
- 26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온 그의 직계 자손과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을 모두 합치면, 모두 육십육 명이다.
- 27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아들들은 둘이다. 야곱의 집안에서 이집트에 온 모든 사람의 수는 칠십 명이다.
- 28 야곱은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내어 고센 땅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게 하였다. 그들이 고센 땅에 도착하였다.
- 29 요셉은 자기 병거를 준비하고 고센으로 가서 이스라엘, 곧 아버지를 맞이하였다. 그는 아버지에게 나아가 목에 안기어 아버지의 목에 오래 동안 울었다.
- 30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네가 아직 살아 있구나."
- 31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올라가서 파라오에게 말하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으나, 나에게 왔습니다.'"
- 32 이 사람들은 목동입니다. 그들은 가축을 기르는 자들이며, 양 떼와 소 떼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데려왔습니다.'
- 33 파라오가 너희를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나?' 하고 묻게 될 것이다.

³⁴ 그러면 너희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목동이었습니다.’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모든 목동이 이집트인들에게 가증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47장

- 1 그러자 요셉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와 형제들, 그들의 양 떼와 소 떼,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가나안 땅에서 데려왔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고센 땅에 있습니다."
- 2 그는 형제들 중 다섯 명을 뽑아 파라오에게 데려왔다.
- 3 파라오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 4 그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이 땅에 외국인으로 거주하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종들의 양 떼를 먹일 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해 주십시오."
- 5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네 아버지와 네 형제들이 너에게 왔구나."
- 6 이집트 땅은 너희 앞에 있다. 네 아버지와 네 형제들을 땅의 가장 좋은 곳에 거주하게 하라.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라.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다면,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 7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데려와 파라오 앞에 세웠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을 베풀었다.
- 8 파라오가 야곱에게 물었다. "당신은 몇 살이십니까?"
- 9 야곱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내가 떠돌이로 살아온 연세는 백삼십 년입니다. 내 삶의 날들은 적고 악했습니다. 내 조상들이 떠돌이로 살아온 날들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 10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을 베풀고 파라오의 앞에서 나갔다.
- 11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데려와 이집트 땅의 가장 좋은 곳, 라메시스 땅에 땅을 주어 거주하게 하였다. 이는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였다.
- 12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가족에게 가족 수에 따라 빵을 공급하였다.
- 13 온 땅에 빵이 없었다. 기근이 매우 심하여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힘을 잃었다.
- 14 요셉은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지불한 모든 돈을 모아 파라오의 집으로 가져왔다.
- 15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다 떨어지자,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나아가며 말했다. "우리에게 빵을 주십시오. 어찌하여 우리를 당신 앞에서 죽게 하십니까? 우리의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 16 요셉이 말했다. "너희의 가축을 내게 주어라. 내가 너희 가축을 위해 빵을 주겠다. 너희 돈이 다 떨어졌으니."
- 17 그들이 가축을 요셉에게 데려왔고, 요셉은 말과 양 떼와 소 떼와 나귀를 대신하여 빵을 주어 그들을 먹였다. 그 해 동안 그들은 모든 가축을 바꾸어 빵을 얻었다.
- 18 그 해가 끝나자, 그들이 두 번째로 그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주인님께 숨기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돈은 다 떨어졌고, 가축도 모두 주인님의 것입니다. 주인님 앞에 남은 것은 우리 몸과 땅뿐입니다."
- 19 어찌하여 우리와 우리의 땅이 주인님 앞에서 죽게 하십니까? 우리와 우리의 땅을 빵과 바꾸어 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와 우리의 땅은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서 죽지 않게 하고, 땅이 황폐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 20 그래서 요셉은 모든 이집트 땅을 파라오를 위해 사들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기근이 심하여 자신의 밭을 팔았고, 땅은 모두 파라오의 것이 되었다.
- 21 요셉은 백성들을 이집트 경계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도시로 옮겼다.
- 22 그러나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파라오로부터 일정한 몫을 받았고, 파라오가 주는 몫으로 먹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땅을 팔지 않았다.
- 23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했다. "보라, 오늘 내가 너희와 너희 땅을 파라오를 위해 사들였다. 보라, 여기 너희를 위한 씨가 있다. 너희는 땅에 파종하라."
- 24 수확할 때, 너희는 그 열매의 오분의 일로 파라오에게 바치고, 나머지 사 분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곡식의 씨앗으로, 너희와 너희 가족의 식량으로, 너희 어린이들의 식량으로 쓰라."
- 25 그들이 말했다.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

습니다."

²⁶ 요셉은 이날까지 이집트 땅에 관해 법령을 정했다. 바로가 오분의 일씩 받도록 하였고, 오직 제사장들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²⁷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 곧 고센 땅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재산을 얻고 번성하여 매우 많아졌다.

²⁸ 야곱은 이집트 땅에서 열일곱 년을 살았다. 그리하여 야곱의 삶의 날들, 곧 그의 생애는 일백사십칠 년이었다.

²⁹ 이스라엘이 죽을 시기가 가까워지자, 그는 아들 요셉을 불러서 말했다. "만약 내가 당신의 눈에 은총을 입었다면, 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대고, 나에게 자비롭고 진실하게 대해 주십시오. 나를 이집트에 장사하지 마십시오."

³⁰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면, 나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장사된 곳에 장사해 주십시오." 요셉이 말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³¹ 이스라엘이 말했다. "나에게 맹세하십시오." 그가 그에게 맹세하자, 이스라엘은 침상 끝에서 몸을 굽혔다.

창세기 48장

- 1 이 일들 후에, 누군가가 요셉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병들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 마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다.
- 2 야곱에게 소식이 전해졌다.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대에 앉았다.
- 3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전능하신 하느님이 가나안 땅의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축복하셨으며,
- 4 내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여, 너를 많이 늘리고,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무리가 되게 하며,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 5 지금, 네가 이집트에 오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마나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그들도 내 것이라.
- 6 그 뒤에 네가 낳은 자식들은 네 것이라. 그들은 형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유산을 받을 것이다.
- 7 나는 파단에서 왔을 때, 라헬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 함께 죽었는데, 에브라스에 도착하기 직전이었다. 나는 그녀를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묻었다. (그곳은 베들레헴이라고도 한다.)
- 8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말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 9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들은 하느님이 저에게 이곳에서 주신 제 아들들입니다."
- 10 이스라엘의 눈은 나이로 인해 흐릿하여 잘 보이지 않았다. 요셉이 그들을 그에게 가까이 데려왔더니, 그가 그들을 안아 입을 맞추었다.
- 11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네 얼굴을 다시 보리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보라, 하느님이 나로 하여금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 12 요셉이 그들을 무릎 사이에서 끌어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 13 요셉이 둘을 모두 잡아,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 쪽에, 왼손으로 마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 쪽에 놓고 그들을 가까이 데려왔다.
- 14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뻗어, 어린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을 마나세의 머리 위에 얹었는데, 마나세는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의도적으로 움직였다.
- 15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말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온 하느님,
- 16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천사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기를 빈다.
- 17 요셉이 아버지가 오른손을 어린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마나세의 머리로 옮기려 했다.
- 18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오른손을 그의 머리 위에 얹으십시오."
- 19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며 말했다. "내가 알지, 내 아들, 내가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고, 그도 커지리라. 그러나 그의 어린 형제가 그보다 더 크고, 그의 후손은 여러 나라가 되리라."
- 20 그가 그날 그들을 축복하며 말했다. "이스라엘이 너희를 따라 이렇게 축복하리라. '하느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마나세처럼 만들지어다.'" 그는 에브라임을 마나세보다 앞에 두었다.
- 21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보라, 내가 죽으려 한다. 그러나 하느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너를 네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 22 또한 내가 네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네게 주었으니, 그것은 내가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내 칼과 활로 빼앗은 것이다."

창세기 49장

- 1 야곱이 아들들에게 불러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 주겠다."
- 2 모여서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 3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힘의 시작이요, 내 강함의 첫열매니, 존엄과 권능에서 뛰어나다.
- 4 물이 끓어 넘치듯, 너는 뛰어나지 못할 것이니,
- 5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무기다.
- 6 내 영혼아, 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말고, 내 영광아, 그들의 회합에 참여하지 말라.
- 7 그들의 분노는 저주받을지어다. 그것이 잔인했고, 그들의 노여움은 흑독했도다.
- 8 "유다야, 네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 9 유다는 사자의 새끼다.
- 10 권좌가 유다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지휘봉이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 그가 올 때까지 그에게 복종할 자가 올 때까지.
- 11 그는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어린 나귀의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리라.
- 12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고, 그의 이는 우유로 희다.
- 13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할 것이다.
- 14 "이사갈은 힘센 나귀다.
- 15 그는 편안한 침터를 보고 그것이 좋음을 알았으며,
- 16 "단은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 17 단은 길 위의 뱀이 되어, 길가의 독사가 되어, 말의 발굽을 물어 떨어뜨릴 것이다.
- 18 주님, 나는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 19 "갓은 침략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 20 "아셀의 음식은 풍부할 것이다.
- 21 "납탈리는 풀려난 암사슴이요, 아름다운 새끼를 낳는 자다.
- 22 "요셉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요, 샘 곁의 포도나무라.
- 23 화살수는 그를 괴롭히고, 원수들이 그를 미워하며,
- 24 그러나 그의 활은 견고하게 남아 있었고, 그의 팔은 강하게 되었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목자이자 바위이신 이가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 25 너의 아버지의 하느님께서 너를 도우시며,
- 26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내 조상들의 축복을 능가하니,
- 27 "베냐민은 사나운 늑대다.
- 28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이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그들을 축복하였다. 그는 각자에게 자기의 축복에 따라 축복하였다.
- 29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나는 내 백성에게로 모셔질 것이다.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나를 장사하라.
- 30 마크펠라 밭에 있는 그 동굴, 곧 마머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의 동굴이다.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그 밭과 함께 구입하여 묘지로 삼은 곳이다.
- 31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고, 이사악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
- 32 이 밭과 그 안의 동굴은 헷 자손들로부터 사들인 것이다.
- 33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령을 마치고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창세기 50장

- ¹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 위에 몸을 누었고, 그에게 울며 입을 맞추었다.
- ² 요셉은 자기 하인들인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아버지를 시신에 처리하게 했다. 의사들이 이스라엘의 시신을 시신처리했다.
- ³ 사십 일 동안 그를 위해 시신처리를 했다. 이는 시신처리에 필요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일흔 날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 애도했다.
- ⁴ 그가 애도하던 날들이 끝난 후, 요셉은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 눈에 은총을 입었다면, 파라오의 귀에 말해 주십시오.
- ⁵ "내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죽는다. 내가 가나안 땅에서 스스로 파 놓은 무덤에 나를 장사해 달라." 그러니 이제, 나를 보내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 후에 나는 돌아오겠습니다."
- ⁶ 파라오가 말했다.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여라. 그가 네게 맹세한 대로 하여라."
- ⁷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갔다. 그와 함께 파라오의 모든 하인들과 그의 집안의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들이 올라갔다.
- ⁸ 요셉의 온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도 모두 올라갔다. 단지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가축들과 양 떼들은 고센 땅에 남겨두었다.
- ⁹ 전차와 기마대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그들은 매우 큰 무리였다.
- ¹⁰ 그들은 요단 강 너머 아담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매우 크고 슬픈 애도를 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일곱 날 동안 애도했다.
- ¹¹ 그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사람들은 아담의 타작마당에서의 애도를 보고 말했다. "이것은 이집트인들의 심한 애도로구나. "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불렀다. 이곳은 요단 강 너머이다.
- ¹² 그의 아들들은 그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에게 행하였다.
- ¹³ 그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 마므레 근처의 마켈라 동굴에 장사하였다. 이 동굴은 아브라함이 에브론 히스 사람에게서 밭과 함께 산 것인데, 묘지로 사용하기 위한 소유지였다.
- ¹⁴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한 후,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장사하러 함께 올라갔던 모든 이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다.
- ¹⁵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말했다. "아마도 요셉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갚을지도 모른다."
- ¹⁶ 그들은 요셉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명령하셨다.
- ¹⁷ "너는 요셉에게 말하여라. "지금은 형제들의 불순종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악을 행했으니." 이제, 당신의 아버지의 하느님의 종들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 요셉은 울었다.
- ¹⁸ 그의 형제들도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말했다.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 ¹⁹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 있는가?
- ²⁰ 너는 나를 해치려고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은 그것을 선을 위해 사용하셔서, 오늘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 ²¹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먹여 살리겠다.
- ²² 요셉은 이집트에서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살았다. 요셉은 백십 년을 살았다.
- ²³ 요셉은 에브라임의 자손을 삼대까지 보았다. 므낫세의 아들 마기르의 자손들도 요셉의 무릎 위에서 태어났다.
- ²⁴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나는 죽으려 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이 땅에서 끌어올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 ²⁵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받으며 말했다. "하느님이 너희를 꼭 돌보실 것이며,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갈 것이다."
- ²⁶ 요셉은 백십세에 죽었고, 시신을 향료로 처리하여 이집트에 상자에 넣어두었다.

탈출기 | Exodus

탈출기 1장

- ¹ 이제 이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이다. 그들은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왔으며, 각각의 남자와 그의 가족이 함께 왔다.
- ²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 ³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 ⁴ 단과 납탈리, 갓과 아셀.
- ⁵ 야곱에게서 나온 모든 영혼은 칠십 명이었고,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다.
- ⁶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죽었으며, 그 모든 세대도 죽었다.
- ⁷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하여 크게 불어나고, 풍성하게 증가하며, 매우 강력해졌고, 땅이 그들로 가득 찼다.
- ⁸ 이제 이집트에 새로운 왕이 일어났는데, 그는 요셉을 알지 못했다.
- ⁹ 그가 자신의 백성에게 말했다.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은 우리보다 많고 강력하다.
- ¹⁰ 자,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대처하자. 그들이 더 많이 번성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우리 원수들과 결합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땅에서 빠져나갈지도 모른다."
- ¹¹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감독들을 세워 무거운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혔다. 그들은 파라오를 위해 저장 도시들을 세웠다. 피돔과 라암세스.
- ¹²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괴롭힐수록, 그들은 더 많이 번성하고 더 많이 퍼져나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 ¹³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잔혹하게 노동시켰다.
- ¹⁴ 그들은 그들의 삶을 벽돌과 흙과 들판의 모든 노동으로 괴롭히며 쓰라리게 만들었고, 그들이 잔혹하게 그들을 노동시킨 모든 노동을 시켰다.
- ¹⁵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했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는 시프라이고, 다른 하나는 푸아였다.
- ¹⁶ 그가 말했다. "히브리 여자들에게 산파의 임무를 수행할 때, 그들이 분만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거든, 아들이라면 죽이고, 딸이라면 살려두어라."
- ¹⁷ 그러나 산파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 ¹⁸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왜 너희가 이 일을 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 ¹⁹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와 다릅니다. 그들은 활발하여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낳습니다."
- ²⁰ 하느님은 산파들에게 잘하셨고, 백성은 번성하며 매우 강력해졌다.
- ²¹ 산파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에게 가족을 주셨다.
- ²² 파라오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태어나는 모든 아들은 강물에 던져라. 그러나 모든 딸은 살려두어라."

탈출기 2장

- 1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 2 그 여자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녀는 세 달 동안 그를 숨겨두었다.
- 3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녀는 갈대로 된 바구니를 가져와서 아스팔트와 타르로 칠하였다. 그녀는 아들을 그 바구니에 넣고 강가의 갈대 속에 놓아두었다.
- 4 그의 누이가 멀리 서서,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았다.
- 5 바로의 딸이 강가에 내려와 목욕하러 왔다. 그녀의 시녀들이 강가를 따라 걷고 있었다. 그녀는 갈대 사이에 바구니를 보고, 하인을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 6 그녀가 그것을 열고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다. 그녀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다." 하고 말하였다.
- 7 그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히브리 여자들 중에서 젖먹이를 불러와서, 그 아이를 위해 젖을 먹이게 드릴까요?"
- 8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가라."
- 9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려가서 내 대신 젖을 먹여라. 내가 네게 보수를 주겠다."
- 10 아이가 자라자, 그녀는 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다. 그는 그녀의 아들이 되었고, 그녀는 그에게 모세라고 이름 지어, "내가 그를 물에서 끌어냈다." 하고 말하였다.
- 11 그때 모세가 자라서, 그는 형제들에게로 나가서 그들의 노동을 보았다. 그는 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그의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 12 그는 이리저리 살펴보았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숨겼다.
- 13 그는 이튿날 나가서, 히브리 사람 두 명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잘못된 자에게 말하였다. "네가 어찌하여 네 동료들을 치는가?"
- 14 그가 말하였다. "누가 너를 우리 위에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는가?"
- 15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앞에서 도망쳐 미디안 땅에 머물렀고, 그는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 16 미디안의 사제는 일곱 딸을 두고 있었다. 그 딸들이 나가서 물을 길어, 아버지의 양 떼를 먹이기 위해 먹이통을 채웠다.
- 17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었으나,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주고, 그 양 떼에게 물을 주었다.
- 18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오자, 그가 말하였다. "오늘은 어찌하여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 19 그들이 말하였다. "한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었고, 또 우리에게 물을 길어 주고 양 떼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 20 그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는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내버려두었느냐? 그를 불러서 빵을 먹게 하라."
- 21 모세는 그 사람과 함께 살기로 만족하였다. 그는 모세에게 자기 딸 시포라를 주었다.
- 22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그는 그에게 게르솜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는 말하였다.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다."
- 23 그 많은 날이 지나면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해 신음하며 외쳤고, 그들의 외침이 하느님께로 올라갔다.
- 24 하느님은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고, 하느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 25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보시고, 알아차리셨다.

탈출기 3장

- 1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자 장인인 이드로의 양 떼를 치고 있었다. 그가 양 떼를 광야 끝으로 이끌고 가서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 2 주님의 천사가 불꽃으로 된 불길 속에서 가시나무 한그루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다. 모세가 보니, 가시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으나, 가시나무는 타지 않았다.
- 3 모세가 말했다. "나는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려 한다. 왜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지 알고 싶다."
- 4 주님께서 그가 가까이 와서 보려는 것을 보시고, 가시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모세야, 모세야."
- 5 그분이 말씀하셨다. "가까이 오지 마라.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땅은 성스러운 땅이다."
- 6 또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네 조상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 7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옥들에게서 받는 압박 때문에 그들이 내 부르짖음을 들었다. 나는 그들의 슬픔을 알고 있다."
- 8 나는 그들을 이집트인의 손에서 구출하고, 그 땅에서 끌어내어 넓고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 한다. 그 땅은 가나안 사람, 히타이트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이다."
- 9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다. 나는 이집트인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 10 그러므로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게 하리라."
- 11 모세가 하느님께 말했다. "나는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 12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이것이다. 너는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후, 이 산에서 하느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 13 모세가 하느님께 말했다.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당신들의 조상의 하느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내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 14 하느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있는 그대로이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내가 있는 그대로인 분이 너희에게 보내셨다.'"
- 15 하느님이 모세에게 더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라. '당신들의 조상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인 주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요, 내가 모든 세대에 기억될 이름이다."
- 16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라. 그들에게 말하라. '당신들의 조상의 하느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를 분명히 돌아보았고,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다.'
- 17 나는 말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통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사람, 히타이트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 18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너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집트 왕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느님인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사할 길쯤 광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 19 나는 이집트 왕이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을 안다. 그는 강한 손으로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
- 20 나는 내 손을 뻗어 이집트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할 모든 기적을 내리겠다.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 21 나는 이 백성이 이집트인들 앞에서 은총을 얻게 하리라. 너희가 떠날 때, 텅 빈 손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 22 모든 여자들은 이웃 여자와 자기 집을 방문하는 여자에게 은과 금의 보석과 옷을 청할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아들과 딸들에게 입히고, 이집트인들을 약탈할 것이다."

탈출기 4장

- 1 모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믿지 않을 것이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당신께 나타나신 적이 없다' 할 것입니다."
- 2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 3 그가 말했다. "땅에 던져라."
- 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뻗어 꼬리를 잡아라."
- 5 "이것은 그들이, 그 조상들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인 주님이 너에게 나타나셨음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 6 주님께서 그에게 더하여 말씀하셨다. "이제 손을 옷 안에 넣어라."
- 7 그가 말했다. "손을 다시 옷 안에 넣어라."
- 8 "그들이 너를 믿지 않거나, 첫 번째 표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뒤의 표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 9 "그들이 이 두 표징도 믿지 않거나, 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강물에서 물을 가져다가 마른 땅에 붓아라. 네가 강에서 가져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 10 모세가 주님께 말했다. "주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전에도 그렇고,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래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더디고 혀가 무겁습니다."
- 11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또는 말 못하게 하거나, 귀 먹게 하거나, 보게 하거나, 못 보게 하는 이가 누구냐? 내가 아닌가, 주님이다."
- 12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네가 무엇을 말할지 가르쳐 주겠다."
- 13 모세가 말했다. "주님,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 14 주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셨다. "네 형제 아론, 레위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말을 잘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 보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올 것이다. 그가 너를 보고 마음으로 기뻐할 것이다."
- 15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넣어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과 함께 있어 네가 무엇을 할지 가르쳐 주겠다."
- 16 그가 너를 위해 백성에게 말할 자가 될 것이다. 그가 너를 위해 입이 되고, 너는 그를 위해 하느님이 될 것이다."
- 17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쥐어라. 이 지팡이로 표징을 행할 것이다."
- 18 모세가 떠나서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이집트에 있는 제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여전히 살아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 19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는 모든 자들이 죽었다."
- 20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모세는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다.
- 2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집트로 돌아갈 때, 내가 네 손에 주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가 백성을 보내지 않게 할 것이다."
- 22 너는 바로에게 말하라. "주님이 말한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첫째 아들이다."
- 23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내가 그를 섬기게 하라." 하였으나, 너는 그를 보내지 않았다. 보라, 내가 네 첫째 아들을 죽일 것이다."
- 24 여행 중 숙소에서, 주님이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셨다.
- 25 지포라가 화염석을 가져와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던지며 말했다. "너는 나에게 피의 신랑이로구나."
- 26 그러자 주님은 그를 놔두셨다. 지포라는 할례 때문에 "너는 피의 신랑이로구나."라고 말했다.
- 27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 28 모세는 아론에게 주님이 자신을 보내시며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자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표적을 말해 주었다.
- 29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 30 아론은 주님이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의 눈앞에서 그 표적들을 행하였다.
- 31 백성은 믿었고,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셨음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

탈출기 5장

- ¹ 그 후 모세와 아론이 나아가서 파라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나를 위해 축제를 열게 하라."
- ² 파라오가 말했다. "주님이 누구인데, 내가 그의 목소리에 따라 이스라엘을 보내야 하느냐?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며, 게다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 ³ 그들이 말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삼 일 길이 광야로 가서 우리 하느님 주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전염병이나 칼로 내리칠지 모릅니다."
- ⁴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왜 백성을 일에서 떼어놓느냐? 너희는 무거운 짐으로 돌아가라!"
- ⁵ 파라오가 말했다. "보아라, 이 땅의 백성이 이제 많아졌다. 너희가 그들을 일에서 쉬게 하려 한다."
- ⁶ 그날 파라오는 백성의 감독들과 그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했다.
- ⁷ 너희는 이제 이전처럼 백성에게 벽돌을 만들기 위한 짚을 주지 말아라. 그들이 스스로 짚을 줌게 하라.
- ⁸ 그들이 이전에 만든 벽돌의 수를 그대로 요구하라. 그 수를 한 개도 줄이지 말아라. 그들은 게으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다. '우리가 가서 우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자.'
- ⁹ 그 남자들에게 더 무거운 일을 시켜서 그들이 그 일에 몰두하게 하라. 그들이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 ¹⁰ 백성의 감독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했다. "파라오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겠다."
- ¹¹ 너희는 스스로 가서 어디서든 짚을 줌거나 하라. 너희의 일은 한 치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 ¹² 그러자 백성은 이집트 땅 전역에 흩어져서 짚을 줌기 위해 갈퀴를 모았다.
- ¹³ 감독들은 재촉하며 말했다. "매일 일정한 양을 채우라. 짚이 있었을 때처럼 말이다."
- ¹⁴ 파라오의 감독들이 그 위에 세운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리들이 매를 맞고, "왜 어제나 오늘이나 이전처럼 벽돌을 만드는 일정량을 채우지 못했느냐?" 하고 물었다.
- ¹⁵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리들이 나아가 파라오에게 외쳤다. "왜 당신은 당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 ¹⁶ 당신의 종들에게는 짚이 주어지지 않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은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 ¹⁷ 그러나 파라오가 말했다. "너희는 게으르다! 너희는 게으르다! 그래서 너희가 말한다. '우리가 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자.'"
- ¹⁸ 그러니 지금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너희는 이전과 같은 수의 벽돌을 내놓아야 한다.
- ¹⁹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리들은 매일 벽돌의 일정량을 한 치도 줄이지 말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들이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다.
- ²⁰ 그들은 파라오에게서 나와 길에서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만났다.
- ²¹ 그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너희를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너희가 우리를 파라오와 그의 종들의 눈앞에서 혐오받는 존재로 만들었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 ²² 모세는 주님께로 돌아가 말했다. "주님, 왜 이 백성에게 환난을 끼치셨습니까? 왜 제가 당신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 ²³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파라오에게 나아간 이래로, 그는 이 백성에게 환난을 끼쳤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전혀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탈출기 6장

- 1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그가 그들을 보내고, 강한 손으로 그들을 자신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 2 하느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주님이다."
- 3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느님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의 이름인 주님으로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 4 나는 또한 그들과 언약을 맺어, 그들이 거류하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 5 또한 나는 이집트인이 노예로 억압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 소리를 들었고, 나는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 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무거운 짐 아래에서 끌어내고, 그들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며, 강한 손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 7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느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의 무거운 짐 아래에서 너희를 끌어내는 주님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8 내가 너희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데려다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나는 주님이다."
- 9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말했으나, 그들은 마음의 고통과 잔인한 노예 생활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 10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11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라고."
- 12 모세가 주님 앞에서 말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조차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파라오가 내 말을 들겠습니까? 나는 말이 막힌 입을 가졌습니다."
- 13 주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어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명령을 내리셨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야 한다.
- 14 이들은 그 조상들의 가족 족장들이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카르미이며, 이들은 르우벤의 가족들이다.
- 15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하르와 가나안 여자에게서 난 사울이며,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들이다.
- 16 레위의 아들들은 그 세대별로 다음과 같다. 게르손과 고핫과 메라리이다. 레위가 산 연수는 백삼십칠 년이었다.
- 17 게르손의 아들들은 가족에 따라 리브니와 시메이다.
- 18 고핫의 아들들은 아람과 이스하르와 헤브론과 우찌엘이다. 고핫의 수명은 백삼십삼 년이었다.
- 19 메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은 레위 족속의 세대별 가족들이다.
- 20 아람은 아버지의 누이인 요케벳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녀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람의 수명은 백삼십칠 년이었다.
- 21 이스하르의 아들들은 고라와 느페그와 지크리이다.
- 22 우찌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판과 시드리이다.
- 23 아론은 아민답의 딸이자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녀는 나답과 아비후, 엘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다.
- 24 고라의 아들들은 아시르와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다. 이들이 고라 자손의 가족들이다.
- 25 아론의 아들 엘아살은 푸티엘의 딸 중 한 명을 아내로 맞아서 그녀에게서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은 가족별로 레위 지파의 조상 가족들의 수장들이다.
- 26 이들이 곧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군대에 따라 끌어내라고 말씀하신 아론과 모세이다.
- 27 이들이 곧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끌어내기 위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한 자들이다. 이들이 곧 모세와 아론이다.

²⁸ 주님이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날에,

²⁹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내가 네게 말하는 모든 것을 파라오, 이집트 왕에게 말하여라."

³⁰ 모세가 주님 앞에서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말이 둔한 입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찌 파라오가 내 말을 들으려 할까요?"

탈출기 7장

- 1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하느님처럼 만들었다. 네 형 아론은 너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 2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말하라. 네 형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하도록 하라.
- 3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집트 땅에서 내 표적과 기적을 많이 보이겠다.
- 4 그러나 파라오는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손을 이집트에 대고, 내 군대, 곧 이스라엘 자손을 큰 심판으로 이집트 땅에서 끌어낼 것이다.
- 5 내가 손을 이집트에 펼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6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하였다.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행하였다.
- 7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할 때, 그는 팔십 세였고, 아론은 팔십삼 세였다.
- 8 주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 9 "파라오가 너희에게 말하여, "기적을 보여라!" 하면,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네 지팡이를 가져다가 파라오 앞에 던져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 10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나아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 11 그러자 파라오도 현자들과 마법사들을 불러들였다.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같은 일을 하였다.
- 12 그들이 각자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들을 삼켰다.
- 13 파라오의 마음은 완악해졌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그들을 듣지 않았다.
- 14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의 마음은 굳어져 있다. 그는 백성을 보내기를 거부한다.
- 15 아침에 파라오에게 나아가라. 보아라, 그가 물가로 나가고 있다. 너는 강가에 서서 그를 맞이하라. 네 손에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잡아라.
- 16 그에게 말하여라. "하느님, 히브리 사람들의 주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분이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보아라, 지금까지 네가 듣지 않았다."
- 17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보아라, 내가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강의 물을 칠 것이니, 그것들이 피가 될 것이다.
- 18 강에 있는 물고기들은 죽을 것이고, 강은 더러워질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강물조차 마시기를 싫어할 것이다.
- 19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네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물, 곧 그들의 강과 시내와 연못과 모든 물 저장소 위에 손을 펼쳐라. 그것들이 피가 되게 하라. 이집트 땅 전역,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피가 가득할 것이다."
- 20 모세와 아론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강의 물을 치니,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강의 모든 물이 피가 되었다.
- 21 강에 있던 물고기들이 죽었고, 강은 더러워졌다. 이집트 사람들은 강물조차 마실 수 없었다. 피가 이집트 땅 전역에 가득 하였다.
- 22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같은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파라오의 마음은 완악해졌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그들을 듣지 않았다.
- 23 파라오는 돌아가서 자기 집으로 들어갔고, 이 일조차 마음에 두지 않았다.
- 24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강 주변을 파서 마실 물을 찾았다. 그들은 강물조차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 25 주님이 강을 친 후 일곱 날이 지났다.

탈출기 8장

- 1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내가 그들에게 봉사하게 하라."
- 2 네가 그들을 보내지 않기로 한다면, 보라, 내가 네 경계 전체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하겠다.
- 3 강이 개구리로 가득 차서 그들이 올라와 네 집과 네 침실과 네 침대 위로, 네 종들의 집으로, 네 백성에게로, 네 화로와 반죽통으로 들어가겠다.
- 4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종 위로 올라오겠다."
- 5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네 지팡이를 들어 강과 하천과 연못 위에 펼쳐라. 이집트 땅 위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라."
- 6 아론은 이집트 물 위에 손을 펼쳤다. 그러자 개구리가 올라와 이집트 땅을 덮었다.
- 7 마법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같은 일을 하여 이집트 땅 위로 개구리를 불러올렸다.
- 8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다. "주님께 간구하여 이 개구리들을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해 달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보내어 주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 9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다. "당신이 내가 당신과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영광을 드립니다. 이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멸망하고 강에만 남게 하소서."
- 10 파라오가 말했다. "내일로 하자." 모세가 말했다. "당신의 말대로 되게 하소서. 그러면 당신이 우리 하느님 주님처럼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되리라."
- 11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과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백성에게서 떠나 강에만 남겠사오니.
- 12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서 나와서 모세가 파라오에게 내린 개구리들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였다.
- 13 주님은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 집과 마당과 들에서 개구리들이 죽어 갔다.
- 14 사람들이 그것을 더미로 쌓아 올렸고, 땅이 악취를 풍겼다.
- 15 그러나 파라오가 여유가 생긴 것을 보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였다.
- 16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흙을 치라. 그리하면 이집트 땅 전역에 이가 생기게 하라."
- 17 그들이 그렇게 하였다. 아론은 지팡이를 들어 땅의 흙을 치니, 사람과 짐승 위에 이가 생겼고, 이집트 땅 전역의 흙이 이가 되었다.
- 18 마법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이를 만들어 보려 했으나 할 수 없었다. 사람과 짐승 위에 이가 생겼다.
- 19 그러자 마법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느님의 손가락이다."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였다.
- 20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라. 보라, 그가 물가로 나가니, 그에게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내가 그들에게 봉사하게 하라."
- 21 네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기로 한다면, 보라, 내가 벌 무리로 네게와 네 종들과 네 백성에게, 그리고 네 집에 내리겠다. 이집트인들의 집은 벌 무리로 가득 차고, 그들이 서 있는 땅도 마찬가지로 되리라.
- 22 그날에는 내가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벌 무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써 네가 내가 땅 위에 있는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 23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라. 이 표징은 내일 이루어지리라.
- 24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 심각한 벌 무리가 파라오의 집과 그의 종들의 집에 들어왔고, 이집트 전역의 땅이 벌 무리로 더럽혀졌다.
- 25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다. "가서 너희 하느님을 위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 26 모세가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의 가증한 것을 주님 우리 하느님께 바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의 가증한 것을 그들의 눈앞에서 바친다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

을까요?"

²⁷ 우리는 사흘 길을 떠나 광야로 가서, 주님 우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입니다."

²⁸ 바로가 말했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광야에서 주님 너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주겠다. 다만 멀리 가지는 말아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²⁹ 모세가 말했다.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떠나갑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여 내일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에게서 파리 떼가 떠나가게 하겠습니다. 다만 바로가 다시는 백성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³⁰ 모세는 바로를 떠나 주님께 기도했다.

³¹ 주님은 모세의 말대로 하셔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에게서 파리 떼를 모두 제거하셨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

³² 바로는 이번에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탈출기 9장

- 1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느님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내가 그들을 섬기게 하라."
- 2 만약 네가 그들을 보내지 않고 붙잡아 두면,
- 3 보아라, 주님의 손이 네 들판에 있는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 떼와 양 떼 위에 심각한 전염병을 내릴 것이다.
- 4 주님은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별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축 중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 5 주님은 특정한 시기를 정하시며 말씀하셨다. "내일 이때에 주님이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 6 주님은 이튿날 이 일을 행하셨다.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하나도 죽지 않았다.
- 7 파라오가 보내어 살펴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 중 하나도 죽지 않았다.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그는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 8 주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화로의 재를 한 줍씩 쥐어라. 모세는 파라오의 눈앞에서 하늘을 향해 그 재를 뿌려라."
- 9 그 재는 이집트 온 땅 위에 가루가 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와 물집이 나게 될 것이다.
- 10 그들은 화로의 재를 가져다가 파라오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그 재를 뿌렸다. 그 재는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와 물집이 나게 되었다.
- 11 마법사들은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설 수 없었다. 종기는 마법사들과 이집트 모든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 12 주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였다.
- 13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느님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내가 그들을 섬기게 하라."
- 14 이번에는 내가 네 마음과 네 신하들과 네 백성에게 내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네가 온 땅 위에 나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 15 지금이라도 내가 손을 들어 너와 네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려, 너를 땅에서 끊어버릴 수 있었다.
- 16 그러나 나는 이 일을 위해 너를 일으켜 세웠다. 이는 내 힘을 네게 보여주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해지게 하려는 것이다.
- 17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자신을 높이고 있다.
- 18 보아라, 내일 이때쯤 내가 이집트 땅에 이전에 없던 심각한 우박을 내릴 것이다. 이집트가 나라가 된 이래 오늘날까지 이런 우박은 없었다.
- 19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네가 들판에 있는 모든 가축과 네 소유물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명령하여라. 들판에 남아 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 20 파라오의 신하들 중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그들의 하인들과 가축을 집으로 데려왔다.
- 21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은 자는 그들의 하인들과 가축을 들판에 그대로 두었다.
- 22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라. 이집트 온 땅에 우박이 내리게 하여라. 사람과 짐승과 들판의 모든 풀 위에 우박이 내리게 하라."
- 23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뻗으니, 주님은 천둥과 우박을 내리시고, 번개가 땅으로 내려왔다. 주님은 이집트 땅에 우박을 내리셨다.
- 24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매우 심한 우박이 내렸고, 우박과 번개가 섞여 있었는데, 이집트가 나라가 된 이래 이런 우박은 없었다.
- 25 우박이 이집트 땅 전체에 내려, 들판에 있는 모든 것을 치니, 사람과 가축을 가리지 않았고, 들판의 모든 풀과 나무를 부수었다.
- 26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 27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 ²⁸ 주님께 기도하여라. 이 강한 천둥과 우박이 이미 충분하다. 너희를 보내주겠다. 더 이상 머무르지 말아라."
- ²⁹ 모세가 그에게 말했다. "내가 도시 밖으로 나가자마자, 나는 주님께 손을 펼치겠다. 천둥은 그칠 것이고, 더 이상 우박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땅이 주님의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 ³⁰ 그러나 너와 네 신하들은 아직도 주님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안다.
- ³¹ 아마와 보리는 치였는데, 보리는 익었고 아마는 꽃을 피웠기 때문이다.
- ³² 그러나 밀과 이탈리는 치지 않았는데, 이는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 ³³ 모세는 바로에게서 도시 밖으로 나가서 주님께 손을 펼쳤다. 그러자 천둥과 우박이 그치고, 땅 위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 ³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보고, 더욱 죄를 지었고, 그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 ³⁵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졌고, 주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탈출기 10장

- ¹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으니, 이는 내가 그들 가운데 내 표징들을 보여 주려 함이라."
- ² 너는 네 아들과 네 손자의 귀에 이르러, 내가 이집트에 무엇을 행했고, 그들 가운데 내 표징들을 어떻게 행했는지를 말하라. 그리하여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 ³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느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언제까지 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거부할 것인가? 내 백성을 떠나 보내어, 내가 그들에게 봉사하게 하라.'"
- ⁴ 만일 네가 내 백성을 떠나 보내지 않으면, 보라, 내일 내가 네 땅에 메뚜기를 들이겠다.
- ⁵ 그 메뚜기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 땅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다. 그들은 우박으로부터 남은 것들을 모두 먹고, 밭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 ⁶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 그리고 모든 이집트인들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는 네 조상들과 네 조상들의 조상들이 땅 위에 있었던 이 날부터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일이다." 그는 고개를 돌려 파라오 앞에서 나갔다.
- ⁷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함정이 되려는가? 이 남자들을 떠나 보내어, 그들이 그들의 하느님 주님을 봉사하게 하라. 네가 아직도 이집트가 파멸되었다는 것을 모르는가?"
- ⁸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불러갔다.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했다. "가서, 너희의 하느님 주님을 봉사하라. 그러나 누구들이 함께 가는가?"
- ⁹ 모세가 말했다. "우리는 어린이들과 노인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들과 딸들과, 양 떼와 소 떼와 함께 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 ¹⁰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주님이 너희와 너희 어린이들과 함께하길 바라! 보라, 너희의 앞에는 악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 ¹¹ 그렇지 않다.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님을 봉사하라.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파라오의 앞에서 쫓겨났다.
- ¹²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 땅 위로 손을 뻗어 메뚜기를 불러들이라. 그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와, 땅의 모든 풀과 우박이 남긴 모든 것을 먹게 하라."
- ¹³ 모세가 이집트 땅 위로 지팡이를 뻗으니, 주님께서 그날 하루 종일과 밤새도록 동풍을 땅 위에 불어넣으셨다. 아침이 되자,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였다.
- ¹⁴ 메뚜기들이 이집트 온 땅 위로 올라와, 이집트 경계 전체에 앉았다. 그 메뚜기는 매우 심각하였다. 그들처럼 심각한 메뚜기는 이전에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 ¹⁵ 그 메뚜기들이 온 땅의 표면을 덮어, 땅이 어두워졌고, 땅의 모든 풀과 우박이 남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치웠다. 이집트 온 땅에는 나무나 밭의 풀이나, 녹색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 ¹⁶ 그때 파라오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다. "내가 너희의 하느님 주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 ¹⁷ 이제 내 죄를 다시 용서해 주고, 너희의 하느님 주님께 기도하여, 이 죽음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 ¹⁸ 모세는 파라오 앞에서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였다.
- ¹⁹ 주님께서 매우 강한 서풍을 보내어 메뚜기를 들어 올리고, 붉은 바다로 몰아넣으셨다. 이집트 경계 전체에 메뚜기 하나도 남지 않았다.
- ²⁰ 그러나 주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보내지 않았다.
- ²¹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라. 이집트 땅 위에 어둠이 내리게 하라. 그 어둠은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짙은 어둠이 되리라."
- ²²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어두움이 내렸다.
- ²³ 사람들이 서로를 보지 못했고, 사흘 동안 아무도 제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거처에는 빛이 있었다.
- ²⁴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서 말했다. "가서, 주님을 봉사하라. 오직 너희 양 떼와 소 떼는 뒤에 두어라. 너희 어린이들도 함께

가게 하라."

²⁵ 모세가 말했다. "우리가 주님 우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과 번제를 우리에게 넘겨주셔야 합니다."

²⁶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갑니다. 발굽 하나도 뒤에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그 것들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우리는 그곳에 도달하기 전까지 알지 못합니다."

²⁷ 그러나 주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²⁸ 파라오가 그에게 말했다. "내게서 떠나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 네가 죽을 것이다!"

²⁹ 모세가 말했다. "당신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탈출기 11장

¹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와 이집트에 또 하나의 재앙을 내리겠다.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그가 너희를 보내줄 때, 반드시 너희를 모두 쫓아낼 것이다."

² 이제 백성의 귀에 말하여, 각 남자가 이웃에게, 각 여자가 이웃에게 은과 금의 보물을 달라고 하라."

³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은총을 주셨다. 또한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의 눈앞에서 매우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⁴ 모세가 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반야중에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나아갈 것이다."

⁵ 이집트 땅의 모든 만아들이 죽을 것이다. 보좌에 앉은 바로의 만아들부터, 손수레를 돌리는 여종의 만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축의 모든 만아들까지."

⁶ 이집트 땅 전역에 큰 외침이 있을 것이니, 이전에는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⁷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 어느 누구에게도 개가 짖거나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이로써 너희는 주님께서 이집트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을 두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⁸ 너의 모든 신하들이 내게로 내려와 내게 절하며, "너와 너를 따르는 모든 백성과 함께 나가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 후에야 나는 나갈 것이다." 그는 분노에 차서 파라오를 떠났다.

⁹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내 기적들을 더 많이 보이려 함이다."

¹⁰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이 모든 기적을 행하였으나, 주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탈출기 12장

- 1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 2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될 것이며, 너희에게 일년의 첫째 달이 될 것이다.
- 3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이 달 열흘째 날에, 각자는 자기 조상의 가족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 한 가정
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이다.
- 4 만약 가족이 어린 양 한 마리에 너무 적다면, 그는 자기 집 옆 이웃과 함께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 너희는 각자
의 식량에 따라 어린 양의 수를 정해야 한다.
- 5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하며, 일 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너희는 양이나 염소에서 그것을 골라야 한다.
- 6 너희는 그것이 이 달 열네째 날 저녁까지 보관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그 저녁에 그것을 잡아야 한다.
- 7 그들은 피 일부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먹을 집의 두 문설주와 문틀 위에 바르고,
- 8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굽어 먹어야 한다. 무교병과 쓴 채소와 함께 먹어야 한다.
- 9 생으로 먹지 말고, 물에 삶지도 말고, 오직 불에 굽어 먹어야 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함께 먹어야 한다.
- 10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워 버려야 한다.
- 11 이렇게 너희는 그것을 먹어야 한다. 허리에 띠를 매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재촉하여 먹어야 한다.
이는 주님의 유월절이다.
- 12 그 밤에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다니며, 이집트 땅의 모든 만아들, 사람과 짐승을 칠 것이다. 나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
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 13 피가 너희가 있는 집에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지나쳐 갈 것이며,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에
게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 14 이 날은 너희를 위한 기념일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날을 주님의 축제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영원히 세대를 거쳐 이 축
제를 지켜야 한다.
- 15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에는 너희 집에서 누룩을 모두 치워야 한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
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 16 첫째 날에는 너희에게 성회가 있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있을 것이다. 그 날들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다만 각자가
먹을 것만은 할 수 있다.
- 17 너희는 무교병 축제를 지켜야 한다.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
원히 세대를 거쳐 이 날을 지켜야 한다.
- 18 첫째 달 열네째 날 저녁부터 이십일째 날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 19 일주일 동안 너희 집에서는 누룩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누룩이 들어간 것을 먹는 자는 이집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
도, 그 땅에서 태어난 자라도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 20 너희는 누룩이 들어간 것을 아무것도 먹지 말라.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 21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가족에 따라 어린 양을 끌어내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 22 너희는 화산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 안의 피에 담그고, 그 피로 문틀과 두 문설주에 칠하라. 너희 중 누구도 아침까
지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 23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치기 위해 지나가실 것이다. 주님께서 문틀과 두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실 때, 주님은 문을 지나
쳐 가시며, 멸망자로 하여금 너희 집에 들어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 24 너희는 이 일을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
- 25 당신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에게 주실 땅에 들어갈 때, 이 예식을 지켜야 합니다.
- 26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에게 물을 때,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라고 할 것입니다.
- 27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유월절 제물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들을 지나
가실 때, 이집트인들을 치시고 우리 집들을 보호하셨습니다.'

- 28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가서 그대로 행하였다. 주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였다.
- 29 한밤중에 주님이 이집트 땅의 모든 만아들을 치셨다. 즉, 왕좌에 앉아 있는 파라오의 만아들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만아들까지, 그리고 가축의 모든 만아들을 치셨다.
- 30 파라오가 밤중에 일어나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도 일어났다. 이집트 전역에 큰 외침이 일어났다. 어느 집에도 죽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 31 그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다. "일어나서, 내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가라. 너희가 말한 대로 주님을 섬기러 가라."
- 32 너희가 말한 대로 양 떼와 소 떼를 모두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나에게도 복을 빌어 주라!
- 33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땅에서 빨리 내보내려고 재촉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모두 죽은 자가 되었으니."
- 34 백성은 반죽이 발효되기 전에 반죽을 떼서, 반죽통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갔다.
- 35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이집트 사람에게 은과 금의 보물과 옷을 청하였다.
- 36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 백성에게 은총을 주셔서, 그들이 청한 것을 모두 주게 하셨다.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약탈하였다.
- 37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암세스에서 수코트로 떠났다. 도보로 나선 남자는 육십만 명이었고, 어린아이들도 함께였다.
- 38 그들과 함께 다양한 민족들도 올라갔고, 양 떼와 소 떼, 그리고 매우 많은 가축도 함께였다.
- 39 그들이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다. 그 반죽은 발효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기다릴 수 없었고, 자기들 스스로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40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 거주한 기간은 사백삼십 년이었다.
- 41 사백삼십 년이 끝나는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 42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밤으로, 주님께 크게 지켜야 할 밤이다. 이 밤은 주님의 밤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에 걸쳐 지켜야 할 밤이다.
- 43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유월절의 규정이다. 외국인은 이 제물을 먹지 못한다."
- 44 그러나 돈으로 산 네 종은 네가 그를 할례로 깨끗하게 한 후에는 그도 먹을 수 있다.
- 45 외국인과 고용된 종은 이 제물을 먹지 못한다.
- 46 이 제물은 한 집에서만 먹어야 한다. 고기를 집 밖으로 가져가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부수지 말아야 한다.
- 47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은 이 제물을 지켜야 한다.
- 48 너와 함께 외국인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한다면, 그의 모든 남자 자손을 할례로 깨끗하게 하라. 그 후에 그가 나아와서 지킬 수 있다. 그는 그 땅에서 태어난 자처럼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이 제물을 먹지 못한다.
- 49 집에서 태어난 자에게나 너희 중에 외국인으로 거주하는 자에게나 한 법이 같으리라.
- 50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그렇게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였다.
- 51 그날 바로, 주님께서 군대를 이루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빼내셨다.

탈출기 13장

- 1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여는 모든 첫째아들, 즉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나에게 성별하여라. 그것은 내 것이다."
- 3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이 날을 기억하여라. 너희는 강한 손으로 주님께서 애굽, 곧 노예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 날이다. 누룩이 들어간 빵은 먹지 말아야 한다."
- 4 오늘 너희는 아비브 달에 나왔다.
- 5 주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때, 그분이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면, 너희는 이 달에 이 의식을 지켜야 한다.
- 6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주님을 위한 축제가 있을 것이다.
- 7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만 먹어야 한다. 너희에게는 누룩이 들어간 빵이 보이지 않아야 하며, 너희 경계 안 어디에서도 누룩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 8 그 날에 너희는 아들에게 말하여라. "이는 주님이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행하신 일 때문이다."
- 9 이것은 너희 손에 있는 표징이요, 너희 이마 사이의 기념이 되어, 주님의 율법이 너희 입에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 10 그러므로 너희는 해마다 이 규정을 정한 시기에 지켜야 한다.
- 11 "주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때, 그분이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실 때,
- 12 너희가 태를 여는 모든 것을 주님께 성별하고, 너희가 가진 짐승 중에서 태를 여는 모든 첫째아들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수컷은 모두 주님의 것이다.
- 13 당나귀의 첫째아들은 어린 양으로 속전을 치려야 한다. 만약 너희가 그것을 속전으로 사지 않으면, 그 목을 부러뜨려야 한다. 너희 아들 중에서 사람의 첫째아들은 모두 속전으로 사야 한다.
- 14 미래에 너희 아들이 너희에게 물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너희는 그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애굽, 노예의 집에서 인도해 내셨다."
- 15 바로가 우리를 보내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했을 때, 주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첫째아들을 죽이셨다. 사람의 첫째아들과 가축의 첫째아들 모두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태를 여는 모든 수컷을 주님께 바치지만, 내 아들들의 첫째아들은 모두 속전으로 사고 있다."
- 16 이것은 너희 손에 있는 표징이요, 너희 이마 사이의 기념이 되리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 17 바로가 백성을 보내자, 하느님께서 그들이 가까운 필리스티아 땅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이 전쟁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된다."
- 18 그러나 하느님께서 붉은 바다를 따라 광야 길로 백성을 우회하여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무기를 든 채 애굽 땅에서 올라갔다.
- 19 모세는 요셉의 뼈를 함께 데리고 갔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게 했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를 꼭 돌보실 것이니,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함께 데리고 가야 한다."
- 20 그들은 수코트에서 떠나 에담에 진을 쳤다. 그곳은 광야의 끝자락이었다.
- 21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 낮과 밤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 22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탈출기 14장

- 1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뒤로 물러서 피하히로트 앞, 미그돌과 바다 사이, 바알 세폰 앞에 진을 치게 하여라. 너희는 바다 맞은편에 진을 치게 될 것이다."
- 3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할 것이다. "그들이 땅에 갇혔다. 광야가 그들을 막아섰다."
- 4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가 그 뒤를 쫓을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을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였다.
- 5 이집트 왕은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백성에 대해 변하여, 말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였기에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게 놔두었는가?"
- 6 그는 병거를 준비하고, 자기 군대를 데리고 나갔다.
- 7 그는 육백 대의 골라넨 병거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데리고 나갔으며, 각 병거에 장관들을 두었다.
- 8 주님은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갔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개를 높이 들고 나갔다.
- 9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갔다. 바로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마대와 군대가 바다 곁, 피하히로트 앞, 바알 세폰에서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았다.
- 10 바로가 가까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뒤따라 오고 있었다.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 11 그들은 모세에게 말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려온 것입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같이 대우합니까?"
- 12 이집트에서 우리에게 말했던 말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놔두어 이집트인을 섬기게 하소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았습니까?"
- 13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행하실 구원을 보아라. 너희는 다시는 오늘 보았던 이집트 사람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 14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 15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 16 너는 네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손을 뻗어 그 바다를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 17 보아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들도 그 뒤를 쫓아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거와 기마대를 통해 나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 18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마대를 통해 나의 영광을 얻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19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느님의 천사가 움직여 뒤로 옮겼고,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떠나 뒤로 옮겨 섰다.
- 20 그 구름은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놓였다. 구름은 어둠이 되었으나, 밤에는 빛을 비추었다. 그 밤 동안 한 쪽이 다른 쪽에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 21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뻗으니, 주님이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며, 물들을 갈라놓으셨다.
- 22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으로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 벽처럼 서 있었다.
- 23 이집트 사람들은 쫓아가서, 바로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마대를 이끌고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 24 새벽 경, 주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셨고,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 25 그가 그들의 병거 바퀴를 떨어뜨리셨으므로, 그들이 무겁게 몰았으며, 이집트인들이 말했다.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자. 주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이집트인들과 싸우고 있다."
- 26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바다 위로 뻗어라. 그러면 물이 다시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마대를 덮

을 것이다."

²⁷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뻗으니, 아침이 밝아올 때 바다가 제 힘을 되찾았고, 이집트인들이 그 속으로 도망쳤다. 주님께서 바다 한가운데서 이집트인들을 뒤엎으셨다.

²⁸ 물이 되돌아와 병거와 기마대를 덮었으며, 바다로 들어가 그 뒤를 따랐던 파라오의 모든 군대를 덮었다. 그들 중 하나도 남지 않았다.

²⁹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걸어갔고, 물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 벽처럼 되었다.

³⁰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날 이스라엘을 이집트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은 해변에 죽은 이집트인들을 보았다.

³¹ 이스라엘은 주님이 이집트인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보고, 백성이 주님을 두려워하였으며, 주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탈출기 15장

- 1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이 말했다.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니, 그분이 영광스럽게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 2 주님은 내 힘과 찬미이다.
- 3 주님은 전쟁의 군주이시다.
- 4 그분은 파라오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 5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다.
- 6 주님, 당신의 오른손은 힘으로 영광스럽습니다.
- 7 당신의 위엄의 커다란 힘으로, 당신은 당신을 거스르는 자들을 무너뜨리십니다.
- 8 당신의 콧구멍의 숨결로, 물들이 쌓였습니다.
- 9 적은 말했다. "내가 뒤쫓아 잡아낼 것이며,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 10 당신은 바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 11 하느님들 사이에 주님과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 12 당신은 오른손을 펴셨습니다.
- 13 "당신은 자비로운 사랑으로, 당신이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 14 민족들이 들었습니다.
- 15 그러자 에돔의 족장들이 놀라 떨어졌습니다.
- 16 두려움과 떨림이 그들에게 미쳤습니다.
- 17 당신은 그들을 데려오셔서, 당신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이며,
- 18 주님은 영원히,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 19 파라오의 말들이 그의 병거와 기마대와 함께 바다로 들어갔을 때, 주님은 바다의 물을 그 위로 되돌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걸어갔다.
- 20 아론의 누이 예언자 미리암이 손에 북을 들고 나갔다. 모든 여자들도 그녀를 따라 북과 춤으로 나갔다.
- 21 미리암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주님께 노래하라. 그분이 영광스럽게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 22 모세가 붉은 바다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아가, 숨의 광야로 나갔다. 그들이 광야에서 사흘을 걸었으나 물을 찾지 못했다.
- 23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물을 마실 수 없었다. 그 물이 쓰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곳 이름을 마라라 불렀다.
- 24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 25 그러자 그는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은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다. 거기서 그는 그들에게 법과 규정을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 26 그분은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목소리에 꼼꼼히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눈에 옳은 일을 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듣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주님이기 때문이다."
- 27 그들은 열두 개의 샘물과 일흔 그루의 야자나무가 있는 엘림에 이르렀다. 그들은 그 물가에 진을 쳤다.

탈출기 16장

- 1 그들은 엘림에서 떠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두 번째 달 십오일에 엘림과 시나이 사이의 광야에 이르렀다.
- 2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 3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님의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을 때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이 온 회중을 굶주림으로 죽이려 한다."
- 4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위해 빵을 내리겠다. 백성은 나가서 매일 하루 분량씩 모을 것이며, 이로써 내가 그들이 내 율법을 따르는지 시험하겠다."
- 5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가져오는 것을 준비할 것이며, 그것은 매일 모으는 양의 두 배가 될 것이다.
- 6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말했다. "저녁이 되면 너희는 주님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 7 아침에 너희는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는 너희가 주님께 투덜거리는 소리를 그분이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투덜거리는가?
- 8 모세가 말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를 채워 주실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분께 투덜거리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이냐? 너희의 투덜거림은 우리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향한 것이다."
- 9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그분이 너희의 투덜거림을 들으셨다.'"
- 10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 1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12 "이스라엘 자손의 투덜거림을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를 채울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13 저녁에 메추라기들이 올라와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영 주위에 맺혔다.
- 14 내려 있던 이슬이 사라진 후, 보라, 광야의 표면에 작은 둥글고, 땅 위의 서리처럼 작은 무언가가 있었다.
- 15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말했다. "이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주님이 너희가 먹게 하시기 위해 주신 빵이다."
- 16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것이다. "각자 자기가 먹을 만큼만 모으라. 머리당 오머 하나씩, 너희가 있는 사람 수에 따라 가져오되, 각자 자기 텐트에 있는 자들을 위해 가져라."
- 17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했는데, 일부는 더 많이 모으고, 일부는 적게 모았다.
- 18 그들이 오머로 재어 보니, 많이 모은 자도 남는 것이 없었고, 적게 모은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각자 자기가 먹을 만큼만 모았다.
- 19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마라."
- 20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일부는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썩어 버렸다. 모세는 그들에게 화가 났다.
- 21 그들은 아침마다 각자 자기가 먹을 만큼만 모았다. 해가 뜨고 따뜻해지면 그것이 녹아 없어졌다.
- 22 여섯째 날, 그들은 두 배의 빵, 곧 각자 두 오머씩 모았다.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와서 모세에게 알렸다.
- 23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내일은 휴식의 날, 주님을 위한 거룩한 안식일이다. 너희가 굶고 싶은 것은 굶고, 끓이고 싶은 것은 끓여라. 남은 것은 모두 간직하여 아침까지 보존하라."
- 24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보관했더니, 썩지 않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 25 모세가 말했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은 이것을 먹어라. 오늘은 너희가 들판에서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 26 여섯 날은 그것을 줍지만,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 27 일곱째 날에 어떤 백성이 나가서 줍고자 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 28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주는 내 명령과 법을 얼마나 오래 거부할 것인가?"
- 29 보아라, 주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셨으므로, 여섯째 날에 이틀 치 빵을 너희에게 준다. 각자 자기 자리에 머물러라.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자기 자리에서 나가지 말아라.
- 30 그러므로 백성은 일곱째 날에 쉬었다.
- 31 이스라엘 집은 그것을 '마나'라고 불렀다. 그것은 귀리 씨처럼 희고, 맛은 꿀이 바른 웨이퍼 같았다.
- 32 모세가 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 세대에 걸쳐 마나 한 오멜을 보관하여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빵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 33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한 그릇을 가져다가 마나 한 오멜을 그 안에 담고, 주님 앞에 보관하여라. 너희 세대에 걸쳐 보존하게 하라."
- 34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은 그것을 증거 앞에 보관하였다.
- 35 이스라엘 자손은 사십 년 동안 마나를 먹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이르기까지 마나를 먹었으며, 가나안 땅 경계에 이르기까지 마나를 먹었다.
- 36 오멜은 에바의 십분의 일이다.

탈출기 17장

-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의 광야에서 떠나 주님의 명령에 따라 립디딤에 진을 쳤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 2 그래서 백성은 모세와 다투며 말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 3 거기서 백성은 물을 갈망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는가?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축을 목마름으로 죽이려는 것인가?"
- 4 모세는 주님께 부르짖어 말했다. "이 백성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은 곧 저를 돌로 칠 것 같습니다."
- 5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 앞을 나아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네가 나일 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가라."
- 6 보아라, 내가 호렘의 바위 위에서 네 앞에 서겠다. 너는 그 바위를 치라. 그러면 물이 그 바위에서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눈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 7 그는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와 메리바라 불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고, 주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아닌가?" 하였기 때문이다.
- 8 그때 아말렉이 립디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 9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뽑아라.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 내일 나는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산 꼭대기에 서 있다."
- 10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 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 12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졌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그 밑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였다.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한쪽, 다른 사람은 다른 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 들었다. 그의 손은 해가 질 때까지 꾸준히 들려 있었다.
- 13 여호수아는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물리쳤다.
- 14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억으로 남기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새겨라. 내가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서 완전히 지워버릴 것이다."
- 15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 기치"라 불렀다.
- 16 그는 말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다. 주님은 세대에서 세대까지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탈출기 18장

- 1 미디안의 사제이자 모세의 장인인 예드로는 하느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하신 모든 일, 주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일을 듣고,
- 2 예드로, 모세의 장인은 모세의 아내 시포라를 데리고 왔다. 그는 그녀를 보낸 후에,
- 3 그녀의 두 아들까지 데리고 왔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숨이었는데, 모세가 말하기를, "나는 외국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다."고 했다.
- 4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예제르였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하느님이 나를 도우시어 파라오의 칼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했다.
- 5 예드로, 모세의 장인은 모세의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하느님의 산에서 모세가 진을 친 광야로 찾아왔다.
- 6 그가 모세에게 말했다. "내가 네 장인 예드로로서, 네 아내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네게 왔다."
- 7 모세는 장인을 맞으러 나가서 절을 하고 그를 안아 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텐트로 들어갔다.
- 8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이 이집트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 길에서 그들이 겪은 모든 고난,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모두 말해 주었다.
- 9 예드로는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일, 곧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로 인해 기뻐했다.
- 10 예드로가 말했다. "주님을 찬미하라. 그분이 너희를 이집트인들의 손과 파라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백성을 구원해 주셨도다."
- 11 이제 나는 주님이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대했기 때문이다.
- 12 예드로, 모세의 장인은 하느님을 위한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렸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하느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빵을 먹었다.
- 13 다음 날, 모세는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앉아 있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주위에 서 있었다.
- 14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말했다. "네가 백성에게 하는 이 일은 무엇이나? 왜 너는 혼자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주위에 서 있는가?"
- 15 모세가 장인에게 말했다. "백성이 하느님께 물어보려고 내게 옵니다."
- 16 그들이 사건이 있을 때, 내게 와서 내가 한 사람과 그의 이웃 사이를 심판하고, 하느님의 율법과 법령을 그들에게 알려 줍니다."
- 17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했다. "네가 하는 이 일은 좋지 않다."
- 18 너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모두 지치게 될 것이다. 이 일은 너에게 너무 무겁다. 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 19 지금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조언을 주겠다. 하느님이 너와 함께하시기를 바란다. 너는 백성을 대신하여 하느님 앞에 서고, 그들의 사건을 하느님께 가져가라.
- 20 너는 그들에게 율법과 법령을 가르치고, 그들이 따라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 주라.
- 21 또한 모든 백성 중에서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부정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 있는 자들을 뽑아, 그들을 백성 위에 세워 천 명을 다스리는 자, 백 명을 다스리는 자, 오십 명을 다스리는 자, 열 명을 다스리는 자로 삼아라.
- 22 그들이 항상 백성을 심판하게 하라. 큰 사건은 모두 너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그들이 스스로 심판하게 하라. 그러면 너는 편안해지고, 그들도 너와 함께 짐을 나누게 될 것이다.
- 23 네가 이 일을 하여 하느님이 너에게 명령하신다면, 너는 견뎌낼 수 있고, 이 모든 백성도 평안히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 24 그러므로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모두 실천했다.
- 25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골라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들은 천 명을 다스리는 자, 백 명을 다스리는 자, 오십 명을 다스리는 자, 열 명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 26 그들은 항상 백성을 심판하였다.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왔지만, 작은 일은 스스로 심판하였다.
- 27 모세는 장인을 보내주었고, 그는 자기 땅으로 떠났다.

탈출기 19장

- 1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세 달째 되는 날,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 2 그들이 르피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이 그 산 앞에 진을 쳤다.
- 3 모세가 하느님께로 올라가니, 주님께서 그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 4 너희가 내가 이집트인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보았고, 내가 어떻게 수리나무 날개로 너희를 메어 내게로 데려왔는지 보았다.
- 5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에 진심으로 복종하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모든 땅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 6 너희는 내게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야 할 말이다."
- 7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그들 앞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을 제시하였다.
- 8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 9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구름이 두꺼운 가운데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는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할 때 그 소리를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는 백성의 말을 주님께 전하였다.
- 10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들이 옷을 씻게 하라."
- 11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님께서 모든 백성의 눈앞에 시내 산에 내려오실 것이다."
- 12 너는 백성 주위에 경계를 정하여 말하여라. "산에 올라가거나 그 경계에 손을 대지 말라.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 13 누구도 그를 만져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화살로 쏘아 죽을 것이다. 동물이든 인간이든,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나팔이 길게 울리면, 그들은 산으로 올라올 것이다.
- 14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이 옷을 씻었다.
- 15 그가 백성에게 말했다. "세 번째 날을 준비하여라. 여자와 정을 드리지 말아라."
- 16 세 번째 날 아침이 되자, 천둥과 번개가 치고, 산 위에는 짙은 구름이 끼었으며, 매우 큰 나팔 소리가 울렸다. 진영에 있던 모든 백성이 떨었다.
- 17 모세가 백성을 진영에서 이끌고 나가 하느님을 맞이하게 하고, 그들이 산 아래에 서게 했다.
- 18 모든 시내 산이 연기로 뒤덮였는데, 주님께서 불로 그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그 연기는 화로의 연기처럼 치솟았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 19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지자, 모세가 말했고, 하느님이 목소리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 20 주님께서 시내 산에 내려와 산 꼭대기에 이르셨다. 주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셨고, 모세가 올라갔다.
- 2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여라. 그들이 주님을 보려고 뚫고 나와서, 그 중 많은 이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라."
- 22 주님께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도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라. 그래야 주님께서 그들에게 범람하지 않으실 것이다.
- 23 모세가 주님께 말했다. "백성은 시내 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산 주위에 경계를 두고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24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라. 너는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은 뚫고 나와 주님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범람하실 것이다."
- 25 모세는 백성에게 내려가 그들에게 말했다.

탈출기 20장

- 1 하느님은 이 모든 말을 하셨다.
- 2 “나는 주님 너의 하느님이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노예의 집에서 끌어내었다.
- 3 “너는 나보다 앞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한다.
- 4 “너는 스스로를 위해 우상이나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 아래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
- 5 너는 그들에게 절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나 주님 너의 하느님은 질투하는 하느님이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에게서 자식에게로, 셋째와 넷째 대까지 벌한다.
- 6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자비를 베푼다.
- 7 “너는 주님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야 한다. 주님은 그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를 죄없이 않게 두지 않으신다.
-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 9 너는 여섯 날 동안 일하여 네 모든 일을 하라.
- 10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님 너의 하느님의 안식일이다. 너도, 네 아들도, 네 딸도, 네 남종도, 네 여종도, 네 가축도, 네 문 안에 있는 타국인도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 11 이는 주님이 여섯 날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다.
- 1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하면 주님 너의 하느님이 네게 주는 땅에서 네 날이 길어질 것이다.
- 13 “너는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
- 14 “너는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
- 15 “너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 16 “너는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 17 “너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 너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야 한다.
- 18 모든 백성은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이 연기로 뒤덮인 것을 보았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떨며 멀리 서 있었다.
- 19 그들은 모세에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들겠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 20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이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오셨고, 너희가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21 백성은 멀리 서 있었고, 모세는 하느님이 계신 어두운 구름 속으로 나아갔다.
- 22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내가 하늘에서 너희와 말한 것을 스스로 보았다.’
- 23 너는 은으로 만든 신이나 금으로 만든 신을 나와 함께 만들지 말아야 한다.
- 24 너는 나를 위해 흙으로 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너의 번제와 화평제를 바쳐라. 너의 양과 소를.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하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 25 너는 나를 위한 제단을 돌로 만들면, 다듬은 돌로 지어서는 안 된다. 네가 그 위에 도구를 휘두르면, 너는 그것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 26 너는 계단을 타고 내 제단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래야 네가 벌거벗은 몸을 그 위에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탈출기 21장

- 1 “이제 너희는 그들 앞에 이 법규를 세워야 한다.
- 2 너는 히브리인 남자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일하고 일급 해가 되면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나가야 한다.
- 3 그가 혼자 왔다면 혼자 나가고, 결혼했다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야 한다.
- 4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에게 아들딸을 낳게 하였다면,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은 그 주인의 소유가 되고, 그는 혼자 나가야 한다.
- 5 그러나 그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합니다. 저는 자유롭게 나가지 않겠습니다.’라면,
- 6 그의 주인은 그를 하느님 앞에 데려가고, 문이나 문설주에 데려가서, 주인이 그의 귀에 뚫개를 꿰어 그가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여야 한다.
- 7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면, 그 여종은 남자 종들처럼 나가지 않는다.
- 8 그 여종이 그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아 그가 자기 아내로 삼았다면, 그는 그 여종을 속량하게 해야 한다. 그는 그 여종을 외국 민족에게 팔 권한이 없다. 그가 그 여종을 속여 대했기 때문이다.
- 9 그가 그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아내로 주면, 그는 그 여종을 딸처럼 대해야 한다.
- 10 그가 또 다른 아내를 자기에게 취하면, 그는 그 여종의 음식과 옷과 부부의 의무를 줄이지 말아야 한다.
- 11 그가 그 여종을 위해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그 여종은 아무 돈도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 12 누구든지 사람을 쳐서 죽게 하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 13 그러나 그것이 의도적이지 않고 하느님이 그 일을 일어나게 하셨다면, 나는 너희가 그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 주겠다.
- 14 누구든지 음모를 꾸미고 이웃을 향해 고의로 죽이려 한다면, 너희는 그를 내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 15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 16 누구든지 사람을 납치하여 팔거나, 그가 그의 손에 잡혀 있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 17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 18 사람들이 다투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가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한다면,
- 19 그가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잡고 걸어 다닐 수 있다면, 그를 친 자는 죄가 면제된다. 다만 그는 그가 일하지 못한 시간의 손해를 보상하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 20 누구든지 자기 종이나 여종을 지팡이로 쳐서 그가 그의 손에 죽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 21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 후에 일어난다면, 그는 벌을 받지 않는다. 그 종은 그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 22 사람들이 싸우다가 임신부를 쳐서 유산하게 하였으나, 그 후에 다른 해가 없다면, 그는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고 재판관들이 허락한 대로 벌금을 내야 한다.
- 23 그러나 만약 다른 해가 따르면, 생명은 생명으로,
-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
- 25 불에 대한 불, 상처에 대한 상처, 멍에 대한 멍.
- 26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치고 그것을 망가뜨리면, 그는 눈을 대신하여 그를 자유롭게 보내야 한다.
- 27 만일 그가 그의 남종의 이빨이나 여종의 이빨을 치고 그것을 빠뜨리면, 그는 이빨을 대신하여 그 종을 자유롭게 보내야 한다.
- 28 만일 황소가 남자나 여자를 죽이면, 그 황소는 반드시 돌로 치워야 하며,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황소의 주인은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
- 29 그러나 그 황소가 과거에 쏘아대는 성향이 있었고, 그것이 주인에게 증명되었으며, 주인이 그것을 가두지 않았더니, 그

것이 남자나 여자를 죽였다면, 그 황소는 돌로 치워야 하며, 그 주인도 죽임을 당해야 한다.

³⁰ 만일 그에게 손해배상금이 부과된다면, 그는 부과된 대로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야 한다.

³¹ 그 황소가 아들이나 딸을 쏘아 죽였든, 이 판결에 따라 그에게 행해져야 한다.

³² 만일 황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쏘아 죽이면, 그 주인에게 은 서른 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치워야 한다.

³³ 만일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파거나, 우물을 파고 덮지 않아서 황소나 나귀가 그 안에 떨어지면,

³⁴ 우물의 주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는 돈을 그 소유주에게 주고, 죽은 동물은 그의 것이 되어야 한다.

³⁵ 만일 한 사람의 황소가 다른 사람의 황소를 다치게 하여 죽게 하면, 그들은 살아 있는 황소를 팔아 그 값을 나누고, 죽은 황소도 나누어야 한다.

³⁶ 또 그 황소가 과거에 쏘아대는 성향이 있었고, 그 주인이 그것을 가두지 않았다면, 그는 황소를 황소로 갚아야 하며, 죽은 황소는 그의 것이 되어야 한다.

탈출기 22장

- 1 만약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죽이거나 팔면, 소에 대해서는 소 다섯 마리를, 양에 대해서는 양 네 마리를 갚아야 한다.
-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다가 맞아 죽으면, 그에게 피를 흘린 죄가 없다.
- 3 해가 뜬 후에 그를 쳐 죽이면, 그에게 피를 흘린 죄가 있다. 그는 갚아야 한다. 만약 그에게 재산이 없으면, 그는 도둑질한 죄로 팔려야 한다.
- 4 도둑질한 물건이 살아서 그의 손에 잡혀 있으면, 소든 나귀든 양이든, 그는 두 배를 갚아야 한다.
- 5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축을 풀어 놓아 타인의 밭이나 포도원을 먹게 하면, 그는 자신의 가장 좋은 밭과 가장 좋은 포도원에서 갚아야 한다.
- 6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붙어 곡식 더미나 자라 있는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지핀 자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
- 7 만약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기면, 그것이 그 집에서 도둑맞았을 때, 도둑이 잡히면 그는 두 배를 갚아야 한다.
- 8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집 주인은 하느님께 나아가서 자기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 9 소나 나귀나 양이나 옷이나 어떤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양측의 쟁점은 하느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하느님이 유죄라고 판결한 자는 이웃에게 두 배를 갚아야 한다.
- 10 만약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어떤 동물이라도 맡기면,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도망가서 아무도 보지 않았다면,
- 11 주님의 맹세가 그들 사이에 있을 것이며, 그는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 소유주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는 갚지 않아도 된다.
- 12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서 도둑맞았다면, 도둑은 소유주에게 갚아야 한다.
- 13 만약 그것이 찢어졌다면, 그는 증거로 그것을 가져와야 한다. 찢어진 것은 갚지 않아도 된다.
- 14 만약 어떤 사람이 이웃의 물건을 빌려서 그것이 다치거나 죽었고, 그 소유주가 함께 있지 않았다면, 그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
- 15 만약 그 소유주가 함께 있다면, 그는 갚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임대한 물건이라면, 임대료로 인해 그 책임이 면제된다.
- 16 만약 어떤 사람이 혼약하지 않은 처녀를 꺾어 그녀와 관계를 맺으면, 그는 반드시 그녀의 시집갈 돈을 내어 그녀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
- 17 그녀의 아버지가 그를 절대적으로 거부한다면, 그는 처녀의 시집갈 돈에 따라 돈을 내야 한다.
- 18 마법부리는 여자를 살려두지 말아야 한다.
- 19 동물과 관계를 맺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 20 오직 주님만을 향해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멸망해야 한다.
- 21 외국인을 괴롭히지 말고 억압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이었기 때문이다.
- 22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
- 23 너희가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을 것이다.
- 24 내 진노가 불타오르고, 너희를 칼로 죽일 것이며,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 25 너는 너와 함께 있는 내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에게 이자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 26 네 이웃의 옷을 보증으로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27 그것은 그의 유일한 덮개이자 피부를 위한 옷이니, 그가 무엇으로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로운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 28 너는 하느님을 모독하지 말고, 네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
- 29 너는 네 수확물과 네 압착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너는 네 아들들의 만아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 30 너는 네 소와 양에도 똑같이 하여라. 그것은 어미와 일주일 동안 함께 있어야 하고, 여덟째 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³¹ 너는 나에게 성결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고기는 먹지 말고, 개들에게 던져라.

탈출기 23장

- 1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악한 자들과 손을 잡아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 2 악을 행하려고 무리의 뒤를 따르지 말라. 재판에서 다수를 따라 공정을 왜곡하는 증언을 하지 말라.
- 3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를 편들지 말라.
- 4 네 원수의 소나 당나귀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 5 네가 미워하는 자의 당나귀가 짐에 눌러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를 방치하지 말라. 반드시 그와 함께 그 짐을 들어 올려야 한다.
- 6 네 백성 중 가난한 자들의 소송에서 정의를 거부하지 말라.
- 7 거짓 고발에서 멀리 떠나라. 무죄하고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한 자를 옳다고 선언하지 않을 것이다.
- 8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보는 자를 눈 멀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왜곡한다.
- 9 외국인을 억압하지 말라. 너희는 외국인의 마음을 알지 않느냐?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이었기 때문이다.
- 10 여섯 해 동안은 네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수확물을 거두어들일 것이며,
- 11 일곱 번째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하고 황폐하게 두어, 네 백성 중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들이 남긴 것은 들짐승이 먹을 것이다. 너는 포도원과 올리브나무밭에도 이와 같이 하라.
- 12 여섯 날 동안은 네 일을 하되,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그리하면 네 소와 당나귀도 쉬고, 네 종의 아들과 외국인도 쉬어 기운을 회복할 것이다.
- 13 내가 네게 말한 모든 일을 꼭 지켜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그것들이 네 입에서조차 들리지 않게 하라.
- 14 너는 일년에 세 번 나를 위한 축제를 지켜야 한다.
- 15 무교절을 지켜라. 일곱 날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내가 아비브 달에 네게 명령한 대로, 이 달에 너는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누구도 내 앞에 빈 손으로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 16 수확의 축제, 곧 네가 밭에 뿌린 일의 처음 열매를 거둔 축제와, 해가 끝날 때 밭에서 네 일을 거두어들일 때의 추수의 축제를 지켜라.
- 17 일년에 세 번, 네 모든 남자가 주님 앞에 나타나야 한다.
- 18 내 희생의 피를 누룩 있는 빵과 함께 바치지 말라. 내 축제의 기름진 것을 밤새도록 둔 채 아침까지 두지 말라.
- 19 네 땅의 첫 열매를 주 너의 하느님의 집으로 가져오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 20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를 지키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데려다줄 것이다.
- 21 그를 주의 깊게 보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를 자극하지 말라. 그는 너희의 불순종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 22 그러나 너희가 그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내가 말한 모든 일을 행한다면, 나는 너희 원수들에게 적이 되고 너희 대적들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 23 내 천사가 너희보다 앞서 나아가서 아모리 족, 히타이트 족, 베리지 족, 가나안 족, 히위 족, 여부스 족을 이끌어 낼 것이며, 내가 그들을 멸절할 것이다.
- 24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며,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너희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의 돌기둥을 부수어야 한다.
- 25 너는 주님 너의 하느님을 섬기리니, 그분이 네 빵과 물을 복되게 하시고, 내가 너 가운데서 병을 제거하리라.
- 26 너의 땅에는 유산하지 않는 자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네 날들을 충족시키리라.
- 27 내가 네 앞에 나의 두려움을 보내어, 네가 가는 모든 민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 뒤로 도망하게 하리라.
- 28 내가 말벌을 네 앞에 보내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 29 내가 그들을 한 해 안에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리니, 땅이 황폐해지고 들의 짐승들이 네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³⁰ 점차 점차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어,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³¹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리니, 내가 그 땅의 주민들을 네 손에 넘겨주어,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³²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한다.

³³ 그들이 네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로 하여금 나를 향해 죄를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일 네가 그들의 신들을 섬긴다면, 그것은 분명히 너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탈출기 24장

¹ 그가 모세에게 말했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일흔 명은 주님께 올라오라. 그러나 멀리서 경배하여라."

² 오직 모세만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다른 이들은 가까이 오지 말아야 한다. 백성도 그와 함께 올라오지 말아야 한다."

³ 모세가 내려와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규례를 전했다. 그러자 백성은 한 목소리로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⁴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후,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여 열두 기둥을 세웠다.

⁵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젊은이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를 주님께 화평제로 바치게 했다.

⁶ 모세는 피의 절반을 대야에 담고, 나머지 절반을 제단에 뿌렸다.

⁷ 그는 언약의 책을 가져와 백성의 귀에 읽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말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하며, 순종하겠습니다."

⁸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다. "보라, 이는 주님이 너희와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맺으신 언약의 피이다."

⁹ 그러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일흔 명이 올라갔다.

¹⁰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보았다. 그분의 발 아래에는 마치 청금석으로 단단히 다져진 작업물처럼, 하늘처럼 맑았다.

¹¹ 그분은 이스라엘 자손의 귀족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그들은 하느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¹²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에게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 머물러라. 내가 네게 돌 판과 내가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주겠다. 너는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쳐라."

¹³ 모세는 그의 종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느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¹⁴ 그는 장로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보라, 아론과 허는 너희와 함께 있다. 누구든지 다툼이 있으면 그들에게 나아가라."

¹⁵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¹⁶ 주님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내려앉아 여섯 날 동안 구름으로 산을 덮었다. 일곱째 날에 그분은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불렀다.

¹⁷ 주님의 영광의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산 꼭대기에서 타는 불처럼 보였다.

¹⁸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로 올라갔다. 모세는 산 위에서 사십 일 밤을 보냈다.

탈출기 25장

-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나를 위한 헌물로 드리게 하라. 마음이 자발적으로 나를 향하는 자마다 나의 헌물을 드리게 하라.
- 3 이것이 너희가 그들로부터 받을 헌물이다. 곧 금과 은과 놋이니,
- 4 파랑과 보라와 붉은 자주색 실과 고운 베 실과 염소 털이요,
- 5 붉게 염색한 숫양의 가죽과 바다 소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이니,
- 6 등불을 위한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이요,
- 7 오닉스 돌과 에포드와 흉패에 끼울 돌들이니,
- 8 그들이 나를 위한 성소를 지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 9 내가 네게 보여 주는 것처럼, 성막의 형상과 그 모든 기구의 형상대로 너는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
- 10 그들이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어야 한다. 그 길이는 이 박반, 너비는 박반과 반, 높이도 박반과 반이려야 한다.
- 11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덮어야 한다. 안팎으로 모두 순금으로 덮고, 그 주위에 금 테를 만들라.
- 12 너는 그것을 위해 네 개의 금 고리를 주조하여, 그 네 발에 달아라. 한쪽 옆에 두 개의 고리를, 다른 쪽 옆에도 두 개의 고리를 달라.
- 13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막대를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덮어라.
- 14 너는 그 막대를 궤 양쪽의 고리에 꿰어 궤를 메게 하라.
- 15 막대는 궤의 고리에 있어야 한다. 그것들을 궤에서 빼지 말아야 한다.
- 16 내가 네게 주는 언약을 궤 안에 넣어라.
- 17 너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 그 길이는 이 박반, 너비는 박반과 반이려야 한다.
- 18 너는 두 개의 그룹을 두드려 만든 금으로 만들라. 속죄소 양끝에 두 개를 만들라.
- 19 한쪽 끝에 하나의 그룹을, 다른 쪽 끝에 하나의 그룹을 만들라. 그룹들은 속죄소의 양끝에서 한 조각으로 만들어야 한다.
- 20 그룹들은 위로 날개를 펼쳐 속죄소를 날개로 덮고, 그 얼굴은 서로를 향하게 하라. 그룹들의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
- 21 너는 속죄소를 궤 위에 놓고, 궤 안에는 내가 네게 줄 언약을 넣어라.
- 22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서, 언약의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말하겠다.
- 23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라. 그 길이는 두 박반, 너비는 박반, 높이는 박반과 반이려야 한다.
- 24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덮고, 그 주위에 금 테를 만들라.
- 25 너는 그것 주위에 손 한 줌 너비의 테를 만들고, 그 테 위에 금으로 장식을 만들어야 한다.
- 26 너는 그것에 금 고리 네 개를 만들고, 그 고리를 발 네 개의 네 모서리에 달아야 한다.
- 27 고리는 테 가까이 두어, 상을 메는 막대를 넣을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 28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막대를 만들고, 그것에 금을 입혀 상을 메게 하여야 한다.
- 29 너는 그것의 접시, 숟가락, 국자, 그리고 제물을 붓는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들을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 30 너는 항상 내 앞에 진설병을 상 위에 놓아야 한다.
- 31 너는 순금으로 등불대를 만들어야 한다. 등불대는 두들겨 만든 일체의 작업물이어야 한다. 그 밑받침과 줄기와 잔과 새싹과 꽃은 모두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
- 32 그것의 옆에서 여섯 개의 가지가 나와야 한다. 한쪽에서 세 개의 가지가 나고, 다른 쪽에서도 세 개의 가지가 나와야 한다.
- 33 한 가지에는 아몬드 꽃처럼 만든 잔 세 개와 새싹 하나와 꽃 하나가 있고, 다른 가지에도 아몬드 꽃처럼 만든 잔 세 개와 새싹 하나와 꽃 하나가 있어야 한다. 이는 등불대에서 나온 여섯 개의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
- 34 등불대에는 아몬드 꽃처럼 만든 잔 네 개와 그 새싹과 꽃이 있어야 한다.

- ³⁵ 등불대에서 나온 여섯 개의 가지 각각에 대해, 두 가지 아래에는 하나의 조각으로 된 새싹이 있고, 또 다른 두 가지 아래에는 하나의 조각으로 된 새싹이 있으며, 또 다른 두 가지 아래에도 하나의 조각으로 된 새싹이 있어야 한다.
- ³⁶ 그 새싹과 가지들은 모두 하나의 조각으로, 순금으로 두들겨 만든 일체의 작업물이어야 한다.
- ³⁷ 너는 그것의 등불 일곱 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켜서 앞쪽 공간을 밝히게 하여야 한다.
- ³⁸ 그 등불집게와 재받이도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 ³⁹ 그것은 순금 한 달란트로, 이 모든 부속품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
- ⁴⁰ 너는 산에서 네게 보여준 본을 따라 이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탈출기 26장

- ¹ 너는 천사의 형상이 자수로 직조된 고운 베 실과 푸른색, 보라색, 붉은색 실로 열 개의 휘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 휘장들은 숙련된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야 한다.
- ² 각 휘장의 길이는 스물여덟 큐빗이고, 너비는 네 큐빗이어야 한다. 모든 휘장은 같은 치수를 가져야 한다.
- ³ 다섯 개의 휘장을 서로 연결하고, 나머지 다섯 개의 휘장도 서로 연결해야 한다.
- ⁴ 너는 첫 번째 연결부의 가장자리에 푸른색 고리를 만들고, 두 번째 연결부의 가장자리에도 같은 방식으로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 ⁵ 한 휘장의 가장자리에 마흔다섯 개의 고리를 만들고, 두 번째 연결부의 가장자리에도 마흔다섯 개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 고리들은 서로 마주보게 놓아야 한다.
- ⁶ 너는 마흔다섯 개의 금 자루를 만들고, 이 자루로 휘장들을 서로 연결하여 성막이 하나가 되게 하여야 한다.
- ⁷ 너는 염소 털로 된 휘장을 만들어 성막 위에 덮개로 삼아야 한다. 열한 개의 휘장을 만들어야 한다.
- ⁸ 각 휘장의 길이는 서른 큐빗이고, 너비는 네 큐빗이어야 한다. 열한 개의 휘장은 모두 같은 치수를 가져야 한다.
- ⁹ 너는 다섯 개의 휘장을 따로 연결하고, 여섯 개의 휘장을 따로 연결한 후, 여섯 번째 휘장을 장막 앞부분에서 두 배로 접어야 한다.
- ¹⁰ 너는 연결부의 가장자리에 있는 한 휘장의 가장자리에 마흔다섯 개의 고리를 만들고, 두 번째 연결부의 가장자리에 있는 휘장의 가장자리에도 마흔다섯 개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 ¹¹ 너는 마흔다섯 개의 놋 자루를 만들고, 이 자루를 고리에 끼워 장막을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야 한다.
- ¹² 장막 휘장의 남은 부분, 즉 남은 반 휘장은 성막의 뒤쪽에 매달려야 한다.
- ¹³ 장막 휘장의 길이에서 남은 한 큐빗은 양쪽 측면에 매달려 성막의 양쪽을 덮어야 한다.
- ¹⁴ 너는 붉게 염색한 숫양의 가죽으로 장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 위에 바다 소의 가죽 덮개를 더해야 한다.
- ¹⁵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의 판을 세워서 만들어야 한다.
- ¹⁶ 각 판의 길이는 열 큐빗이고, 너비는 한 큐빗 반이다.
- ¹⁷ 각 판에는 두 개의 돌기부가 있어 서로 맞물리게 되어야 한다. 성막의 모든 판은 이와 같이 만들어야 한다.
- ¹⁸ 너는 성막의 남쪽 면을 위해 스물 개의 판을 만들어야 한다.
- ¹⁹ 너는 스물 개의 판 아래에 은으로 된 마흔 개의 받침을 만들어야 한다. 한 판 아래에는 두 개의 받침이 있어 두 돌기부를 받고, 다른 판 아래에도 두 개의 받침이 있어 그 판의 두 돌기부를 받게 하여야 한다.
- ²⁰ 성막의 북쪽 면에도 스물 개의 판을 만들어야 한다.
- ²¹ 그 판 아래에는 마흔 개의 은 받침이 있어, 한 판 아래에는 두 개의 받침이 있고, 다른 판 아래에도 두 개의 받침이 있어야 한다.
- ²² 성막의 서쪽 끝 면을 위해 여섯 개의 판을 만들어야 한다.
- ²³ 성막의 서쪽 끝 면의 모서리 부분을 위해 두 개의 판을 만들어야 한다.
- ²⁴ 이 판들은 아래에서 두 배로 되어 위로는 한 고리까지 완전히 이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두 판 모두가 되어야 하며, 이들은 두 모서리를 위한 것이다.
- ²⁵ 팔 개의 판이 있으며, 그 기초는 은으로 되어 열여섯 개가 될 것이다. 한 판 아래에 두 개의 기초가 있고, 다른 판 아래에도 두 개의 기초가 있을 것이다.
- ²⁶ 당신은 아카시아 나무로 막대를 만들되, 성막의 한쪽 판 다섯 개를 위한 막대를 만들고,
- ²⁷ 성막의 다른 쪽 판 다섯 개를 위한 막대와, 성막의 측면, 즉 서쪽 끝 쪽 판 다섯 개를 위한 막대를 만들 것이다.
- ²⁸ 판들의 중앙에 있는 중앙 막대는 끝에서 끝까지 통과할 것이다.
- ²⁹ 당신은 판들을 금으로 입히고, 막대를 끼울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며, 막대들도 금으로 입힐 것이다.
- ³⁰ 당신은 산에서 당신에게 보여준 대로 성막을 세울 것이다.
- ³¹ 당신은 푸른색, 자주색, 붉은색, 고운 베실로 짠 휘장을 만들되, 그 위에 그룹들을 새겨 넣을 것이다. 그것은 숙련된 장인

의 작품이 될 것이다.

³² 당신은 금으로 입힌 아카시아 나무 기둥 네 개에 그것을 매달고, 그 갈고리는 금으로 만들며, 그 기초는 은으로 네 개를 만들 것이다.

³³ 당신은 휘장을 잠금장치 아래에 매달고, 언약의 궤를 휘장 안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휘장은 당신을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눌 것이다.

³⁴ 당신은 지성소에서 언약의 궤 위에 속죄소를 놓을 것이다.

³⁵ 당신은 휘장 밖에 상을 두고, 등잔대를 상과 마주보게 성막의 남쪽 측면에 놓을 것이다. 상을 북쪽에 놓을 것이다.

³⁶ 당신은 장막의 문을 위한 휘장을 푸른색, 자주색, 붉은색, 고운 베실로 짜서, 자수로 만든 작품으로 만들 것이다.

³⁷ 당신은 휘장을 위한 아카시아 나무 기둥 다섯 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힐 것이다. 그 갈고리는 금으로 만들고, 그 기초 다섯 개는 놋으로 부어 만들 것이다.

탈출기 27장

- 1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가 다섯 큐빗이고 너비가 다섯 큐빗이 되게 하여라. 제단은 정사각형이 되어야 한다. 그 높이는 세 큐빗이 되어야 한다.
- 2 너는 그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들을 만들되, 그 뿔들은 제단과 한 덩어리가 되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동으로 덮어야 한다.
- 3 너는 그 재를 치우기 위한 그릇들과, 삽들과, 대야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불그릇들을 만들되, 그 모든 기구를 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 4 너는 그 제단을 위해 철망으로 된 그물을 만들되, 그 그물의 네 모퉁이에 네 개의 동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 5 너는 그 그물을 제단 아래 둘레의 테 아래에 놓아, 그 그물이 제단의 반쯤 높이에 닿게 하여라.
- 6 너는 제단을 메기 위한 지렛대를 만들되, 그 지렛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것을 동으로 덮어야 한다.
- 7 그 지렛대는 고리에 꽂히게 하여라. 제단을 메고 다닐 때, 그 지렛대는 제단의 양쪽에 있게 되어야 한다.
- 8 너는 그것을 판자로 빈껍질처럼 만들되, 네가 산에서 보여 준 대로 만들어야 한다.
- 9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되, 남쪽으로 향한 남쪽 면에는 한쪽에 길이가 백 큐빗인 고운 뿔은 자수 실크로 된 휘장들을 두어야 한다.
- 10 그 기둥은 스물 개이고, 그 받침은 스물 개이며, 모두 동으로 만들되, 기둥의 갈고리들과 그 띠들은 은으로 만들어야 한다.
- 11 북쪽 면의 길이에든 마찬가지로, 길이가 백 큐빗인 휘장들을 두고, 그 기둥은 스물 개, 그 받침은 스물 개이며, 모두 동으로 만들되, 기둥의 갈고리들과 그 띠들은 은으로 만들어야 한다.
- 12 서쪽 면의 뜰 너비에는 오십 큐빗의 휘장들을 두고, 그 기둥은 열 개, 그 받침은 열 개로 하여라.
- 13 동쪽 면의 뜰 너비는 오십 큐빗이 되어야 한다.
- 14 문의 한쪽 휘장은 십오 큐빗이 되고, 그 기둥은 세 개, 그 받침은 세 개로 하여라.
- 15 다른 쪽에도 십오 큐빗의 휘장들을 두고, 그 기둥은 세 개, 그 받침은 세 개로 하여라.
- 16 뜰의 문은 이십 큐빗의 휘장으로 하되, 푸른색과 보라색과 자주색과 고운 뿔은 자수 실크로, 자수를 한 손길로 만들며, 그 기둥은 네 개, 그 받침은 네 개로 하여라.
- 17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은 은으로 띠를 두르고, 그 갈고리들은 은으로, 그 받침들은 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 18 뜰의 길이는 백 큐빗이고, 너비는 오십 큐빗이며, 높이는 오십 큐빗으로, 고운 뿔은 자수 실크로 만들고, 그 받침들은 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 19 성막의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말뚝들과 뜰의 모든 말뚝들은 모두 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 20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네게 순수한 처낸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라. 그것은 끊임없이 불을 붙이기 위한 등불을 위해 쓰일 것이다.
- 21 증거의 휘장 앞, 만남의 장막 밖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님 앞에서 그 등불을 지키며 정돈해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대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가 되어야 한다.

탈출기 28장

- 1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타마르를 너에게로 불러 가가 이 오게 하여, 그가 사제의 직무를 내 앞에서 수행하게 하라.
- 2 너는 아론 너의 형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어, 그가 영광과 아름다움을 지니게 하라.
- 3 너는 내게 지혜의 영을 채워 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만들어 그를 거룩하게 하며, 그가 사제의 직무를 내 앞에서 수행하게 하라.
- 4 그들이 만들 옷은 다음과 같다. 흉패, 에포드, 겹옷, 속옷, 두건, 띠이다. 그들은 아론 너의 형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어, 그가 사제의 직무를 내 앞에서 수행하게 하라.
- 5 그들은 금과 푸른색, 자주색, 붉은색, 고운 베를 사용할 것이다.
- 6 그들은 에포드를 금과 푸른색, 자주색, 붉은색, 고운 꼬인 베로, 숙련된 장인의 손길로 만들 것이다.
- 7 그것은 두 어깨 끈을 가지고, 그 끝에 붙여져서 서로 연결되게 될 것이다.
- 8 그 위에 있는 숙련된 직조된 띠는 그 작품과 같고, 한 조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금과 푸른색, 자주색, 붉은색, 고운 꼬인 베로 만들 것이다.
- 9 너는 두 개의 옥석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그 위에 새기라.
- 10 한 돌에는 여섯 이름을, 남은 여섯 이름은 다른 돌에, 그들의 출생 순서대로 새기라.
- 11 석공의 기술로, 인장에 새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대로 두 돌을 새기고, 금으로 된 고정틀에 넣어라.
- 12 너는 두 돌을 에포드의 어깨 끈 위에 두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기념석으로 하라. 아론은 그들의 이름을 자신의 두 어깨 위에 주님 앞에 메고 기념으로 삼을 것이다.
- 13 너는 금으로 고정틀을 만들고,
- 14 순금으로 된 두 개의 사슬을 만들되, 땅은 줄처럼 만들고, 그 땅은 사슬을 고정틀에 달아라.
- 15 너는 심판의 흉패를 숙련된 장인의 손길로 만들되, 에포드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고, 금과 푸른색, 자주색, 붉은색, 고운 꼬인 베로 만들 것이다.
- 16 그것은 정사각형이 되고, 두 겹으로 접혀야 한다. 길이와 너비가 모두 한 손바닥이 되게 하라.
- 17 너는 그 위에 돌을 고정시켜, 네 줄로 배열하되, 첫 번째 줄에는 홍옥, 황옥, 청옥을 놓고,
- 18 두 번째 줄에는 청금석, 보석, 옥을 놓고,
- 19 세 번째 줄에는 자수정, 사암, 자수정을 놓고,
- 20 네 번째 줄에는 황옥, 옥, 홍옥을 놓아라. 이 돌들은 모두 금으로 된 고정틀에 놓여져야 한다.
- 21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따라 열두 개가 되어야 하며, 각각의 이름에 따라 인장에 새긴 것처럼, 열두 지파를 위해 각자의 이름으로 새겨져야 한다.
- 22 너는 흉패 위에 순금으로 땅은 줄처럼 사슬을 만들고,
- 23 흉패 위에 두 개의 금 고리도 만들고, 그 두 고리를 흉패의 양 끝에 달아라.
- 24 너는 두 개의 땅은 금 사슬을 흉패 양 끝의 두 고리에 달아라.
- 25 두 갈래로 꼬아 만든 사슬의 다른 두 끝을 두 개의 고정판에 달아, 에포드의 어깨 끈 앞쪽에 달아라.
- 26 너는 두 개의 금 고리를 만들어, 유리판의 두 끝에, 에포드 안쪽 측면에 가까운 가장자리에 달아라.
- 27 너는 두 개의 금 고리를 만들어, 에포드의 어깨 끈 아래쪽, 앞쪽에, 그 연결부 근처에, 에포드의 정교하게 짠 띠 위에 달아라.
- 28 그들은 파란 실로 만든 끈을 사용하여 유리판의 고리들을 에포드의 고리에 매어, 유리판이 에포드의 정교하게 짠 띠 위에 있게 하고, 유리판이 에포드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라.
- 29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 심판의 유리판을 가슴에 메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기념으로 주님 앞에 항상 지니라.
- 30 너는 심판의 유리판에 우림과 둠밈을 놓아라. 그들은 아론이 주님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있게 될 것이다. 아론은 주님 앞에 항상 이스라엘 자손들의 심판을 가슴에 메고 지니라.

- ³¹ 너는 에포드의 겹옷을 온통 파란색으로 만들라.
- ³² 그것은 중앙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이 있어야 하며, 그 구멍 주위에는 갑옷의 구멍처럼 짜서 만든 끈으로 둘러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
- ³³ 그것의 가장자리에 파란색, 보라색, 붉은색으로 된 석류를 모두 둘러 만들고, 그 사이와 주위에 금 종을 달아라.
- ³⁴ 금 종 하나와 석류 하나, 금 종 하나와 석류 하나를 겹옷의 가장자리 주위에 달아라.
- ³⁵ 아론이 섬길 때 그 옷을 입어야 한다. 그가 주님 앞의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려야 하며, 그가 죽지 않게 하라.
- ³⁶ 너는 순금으로 된 판을 만들어, 인장의 새김처럼 그 위에 ‘주님께 성결하다’라고 새기라.
- ³⁷ 너는 그것을 파란 실로 만든 끈에 달아, 띠 위에 두어라. 그것은 띠의 앞쪽에 있어야 한다.
- ³⁸ 그것은 아론의 이마에 있어야 하며,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성물 제물로 성결하게 한 것들의 죄를 지고, 그것이 항상 그의 이마에 있어, 그들이 주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게 하라.
- ³⁹ 너는 고운 베로 속옷을 짜고, 고운 베로 두건을 만들며, 자수로 만든 띠를 만들라.
- ⁴⁰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두건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이루라.
- ⁴¹ 너는 그 옷들을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나를 위하여 사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라.
- ⁴² 너는 그들의 몸을 가리기 위하여 베로 바지를 만들라. 그 바지는 허리에서 허벅지까지 이어져야 한다.
- ⁴³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거나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바지를 입어야 하며, 그들이 죄를 지어 죽지 않게 하라. 이것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규정이 되리라.

탈출기 29장

- 1 "이것이 너희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사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행할 일이다. 흠 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와 흠 없는 수양 두 마리를 가져라.
- 2 무교병과 기름을 섞은 무교떡, 그리고 기름을 바른 무교과자를 가져라. 너희는 고운 밀가루로 이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 3 이것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 수소와 두 마리의 수양과 함께 그 바구니를 가져오라.
- 4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의 문 앞으로 데려오고, 물로 그들을 씻으라.
- 5 옷들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에봇의 겹옷과 에봇과 흉패를 입히며, 에봇의 정교하게 짠 띠를 그에게 두르라.
- 6 그의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그 두건 위에 성한 관을 얹으라.
- 7 그리고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붓고, 그를 기름부어 거룩하게 하라.
- 8 그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속옷을 입히라.
- 9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두르고 머리에 두건을 씌우라. 그들은 영원한 법으로 사제의 직분을 맡을 것이다. 너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라.
- 10 "수소를 회막의 문 앞으로 데려오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수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라.
- 11 너는 회막의 문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라.
- 12 수소의 피를 가져다가 네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피를 모두 제단 밑에 쏟아부어라.
- 13 내장 위를 덮는 모든 기름과 간의 덮개,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태워라.
- 14 그러나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배설물은 진 밖에서 불로 태워라. 이것은 죄의 제물이다.
- 15 "또 한 마리의 수양을 가져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라.
- 16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뿌리라.
- 17 너는 그 수양을 조각으로 자르고, 내장과 다리를 씻어 조각과 머리와 함께 놓으라.
- 18 너는 그 수양 전체를 제단 위에 태워라.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번제이다. 그것은 주님께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불제물이다.
- 19 "너는 다른 수양을 가져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라.
- 20 그리고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조금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 끝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 끝, 그들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과 오른발 큰발가락에 바르고, 나머지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라.
- 21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다.
- 22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 꼬리 기름, 내장 위를 덮는 기름, 간의 덮개,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그리고 오른다리(이는 거룩하게 하는 수양이기 때문이다)를 가져라.
- 23 또 주님 앞에 놓인 무교병 바구니에서 빵 한 덩이와 기름을 바른 떡 한 덩이와 과자 한 장을 가져라.
- 24 너는 이것들을 모두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넣고, 주님 앞에서 흔들어 예물로 드리라.
- 25 너는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 태우는 제물 위에 제단에서 불사르라. 그것은 주님 앞에 달콤한 냄새가 되며, 주님께 드리는 화제이다.
- 26 너는 아론의 위임 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서 흔들어 예물로 드리라. 그것은 너의 몫이 될 것이다.
- 27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위임 양의 흔들 예물의 가슴과, 들어 올린 흔들 예물의 허벅지를 성화하라.
- 28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영원한 몫이 될 것이며, 그것은 흔들 예물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화평 제물에서 주님께 드리는 흔들 예물이 될 것이다.
- 29 아론의 성한 옷은 그의 뒤를 잇는 아들들이 입을 것이며, 그 옷을 입고 기름을 부어 받고 위임받을 것이다.
- 30 그의 자리를 잇는 아들은 칠 일 동안 그 옷을 입고,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 만남의 장막에 들어갈 때마다 입을 것이다.
- 31 너는 위임 양을 가져다가 성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으라.

- ³²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만남의 장막 문에서 그 양의 고기와 바구니 안의 빵을 먹을 것이다.
- ³³ 그들은 속죄를 위해 드러진 것들을 먹을 것이며, 그것으로 위임하고 성화할 것이다. 그러나 타인이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니, 그것은 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 ³⁴ 만약 위임 제물의 고기나 빵이 아침까지 남아 있다면, 너는 남은 것을 불로 태워 버릴 것이다. 그것은 성한 것이므로 먹지 못할 것이다.
- ³⁵ 너는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며, 칠 일 동안 그들을 위임할 것이다.
- ³⁶ 너는 매일 속죄를 위한 수소를 드릴 것이며, 제단을 속죄할 때마다 그것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것을 기름으로 바르고 성화할 것이다.
- ³⁷ 너는 칠 일 동안 제단을 속죄하고 성화할 것이며, 제단은 지극히 성한 것이 될 것이다. 제단에 닿는 모든 것은 성한 것이 될 것이다.
- ³⁸ 너는 제단에 드릴 것이 이것이다. 하루에 한 마리씩, 연령 일 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를 계속 드릴 것이다.
- ³⁹ 하나는 아침에 드리고, 다른 하나는 저녁에 드릴 것이다.
- ⁴⁰ 하나의 어린 양과 함께,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사분의 일 히인의 으깬 기름과 섞고, 사분의 일 히인의 포도주를 음료 제물로 드릴 것이다.
- ⁴¹ 저녁에는 다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의 소제물과 그 음료 제물과 같은 방식으로 드러라. 그것은 주님 앞에 달콤한 냄새가 되며, 주님께 드리는 화제이다.
- ⁴² 이것은 너희 세대에 걸쳐 만남의 장막 문 앞, 주님 앞에서 계속 드리는 태우는 제물이 될 것이며,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서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 ⁴³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며, 그곳은 내 영광으로 성화될 것이다.
- ⁴⁴ 내가 만남의 장막과 제단을 성화할 것이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성화하여 사제의 직무를 내 앞에서 섬기게 할 것이다.
- ⁴⁵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 ⁴⁶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느님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그들의 하느님이 된 자이다.

탈출기 30장

- 1 너는 향을 태울 제단을 만들어야 한다. 아카시아 나무로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
- 2 그 길이는 한 큐빗이고, 너비도 한 큐빗이어야 한다. 그것은 정사각형이 되고, 높이는 두 큐빗이어야 한다. 그 뿔들은 제단과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 3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덮어야 한다. 그 윗면과 양쪽 면과 뿔들을 모두 순금으로 덮고, 그 주위에 금 테를 만들어야 한다.
- 4 너는 그 테 아래 양쪽 옆면에 각각 금 고리 두 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들은 제단을 메는 지렛대를 끼울 자리가 되어야 한다.
- 5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지렛대를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덮어야 한다.
- 6 너는 그것을 증거궤 위의 은총의 자리 앞, 곧 증거궤 앞의 휘장 앞에 두어야 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 7 아론은 아침마다 달콤한 향을 그것 위에 태워야 한다. 그가 등불을 정리할 때에 그것을 태워야 한다.
- 8 아론이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그것을 태워야 한다. 이 향은 너희 세대에 걸쳐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태워지는 향이 되어야 한다.
- 9 너는 그것 위에 다른 향을 태우지 말고, 번제나 곡식 제물을 바치지 말며, 전제를 붓지 말아야 한다.
- 10 아론은 일년에 한 번, 속죄의 속죄 제물의 피로 그 뿔들 위에 속죄를 해야 한다. 너희 세대에 걸쳐 일년에 한 번씩 그것에 속죄를 해야 한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 가장 성스러운 것이다.
- 1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12 이스라엘 자손을 수로 세는 때에, 그들이 세어지는 자마다 각자가 자기 영혼을 위하여 주님께 속전을 바쳐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들을 세는 동안 그들 사이에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13 그들은 세어지는 자마다 모두 성소의 시켈에 따라 반 시켈을 바쳐야 한다. (시켈은 이십 게라이다.) 이 반 시켈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된다.
- 14 세어지는 자 중 이십 세 이상의 모든 자는 주님께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 15 부자는 반 시켈보다 더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자도 반 시켈보다 적게 내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주님께 예물을 바쳐서 자기 영혼들을 속죄해야 한다.
- 16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죄의 돈을 받아서 회막 섬김을 위하여 쓰고,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억이 되게 하여 주님 앞에서 너희 영혼들을 속죄하게 하라.
- 17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18 너는 놋으로 대야를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고, 거기서 씻게 하여야 한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물을 채워야 한다.
- 19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안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 20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그래야 죽지 않을 것이다. 또는 그들이 불로 바치는 제물을 주님께 드리려고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씻어야 한다.
- 21 그들은 손과 발을 씻어 죽지 않게 하라. 이것은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 22 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3 너는 정제된 향재료를 가져라. 액체 몰약 오백 시켈과, 향기로운 육계의 반량, 곧 이백오십 시켈과, 향기로운 갈대 이백오십 시켈을.
- 24 그리고 카시아 오백 시켈을 성소의 시켈에 따라, 그리고 올리브 기름 한 힌을.
- 25 너는 그것을 성스러운 기름으로 만들되, 향수 제조 기술에 따라 섞은 향기로운 기름이 되게 하여라. 그것은 성스러운 기름이 될 것이다.
- 26 너는 그것을 가지고 회막과 언약의 궤에 바르고,
- 27 상과 그 위의 모든 기구와 등대와 그 부속품과 향단에 바르며,
- 28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대야와 그 받침에도 바르라.

- 29 너는 그것을 통해 그것들을 성결하게 하여, 가장 성결하게 되게 하라. 그것에 닿는 것은 모두 성결하게 될 것이다.
- 30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이 내 앞에서 사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라.
- 31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 기름은 너희 세대에 이르기까지 내게 성스러운 기름이 될 것이다.'
- 32 이 기름을 사람의 살에 붓지 말고, 그 성분대로 그것을 닦은 것을 만들지 말라. 그것은 성결하다. 너희에게도 성결하게 될 것이다.
- 33 이와 같은 것을 섞는 자나 이 기름을 타인에게 바르는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 3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단향수, 나무향, 오니케, 갈바נם을 가져라. 순수한 유향과 함께 단향수를 섞어라. 각각의 무게는 같게 하라.'
- 35 너는 이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수 제조 기술에 따라 섞고, 소금을 섞어 순결하고 성결하게 하라.
- 36 너는 그 일부를 아주 가루처럼 갈아서, 내가 너와 만나는 회막 안에서 언약 앞에 놓아라. 그것은 너희에게 가장 성결한 것이 될 것이다.
- 37 너는 이 향의 성분대로 그것을 너희를 위해 만들지 말라. 그것은 주님께 성결한 것이 될 것이다.
- 38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 향기를 맡는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탈출기 31장

- 1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보아라, 나는 허의 아들, 우리의 아들 베사렐을 이름 불러 불렀다. 그는 유다 지파 출신이다.
- 3 나는 그에게 하느님의 영, 지혜와 이해와 지식과 모든 기술을 채워주었다.
- 4 정교한 일을 설계하고, 금과 은과 청동으로 일하게 하려는 것이다.
- 5 돌을 깎아 박아 넣고, 나무를 새기며, 모든 기술로 일하게 하려는 것이다.
- 6 보아라, 나는 그와 함께 다니 지파의 아히사마르크의 아들 오홀리압을 임명하였다. 또 모든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넣어,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려는 것이다.
- 7 모임의 장막과 언약의 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장막의 모든 기구를
- 8 상과 그 기구들과, 모든 기구를 갖춘 순수한 등대와, 향단을,
- 9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양동이와 그 받침을,
- 10 정교하게 만든 옷들, 즉 사제 아론을 위한 성스러운 옷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옷들을,
- 11 기름 부음의 기름과, 성소를 위한 달콤한 향료를 만들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모두 행할 것이다.
- 12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13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말하여라. 너희는 분명히 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너희 세대를 통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니,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임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 14 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너희에게 성스러운 것이다. 누구든지 이를 더럽히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안에서 일을 하면, 그 영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 15 여섯 날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일곱째 날은 주님을 위한 엄숙한 안식일이다.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을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 1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세대를 거쳐 안식일을 지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한다.
- 17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여섯 날 동안 주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 기력을 회복하셨기 때문이다.
- 18 그가 시내 산에서 그와 말을 마친 후, 모세에게 언약의 두 돌판, 하느님의 손으로 쓴 돌판을 주셨다.

탈출기 32장

- 1 사람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모임을 이루어 아론에게 나아가서 말했다. "오라, 우리를 위해 신들을 만들어라. 우리 앞에서 행하게 하자. 이 모세,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올린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 2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의 귀에 달린 금 고리를 벗겨 내어 나에게 가져오라."
- 3 모든 사람이 귀에 달린 금 고리를 벗겨 내어 아론에게 가져왔다.
- 4 그가 그들이 건넨 것을 받아 들고 조각 도구로 다듬어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이것들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올린 너희 신들이다."
- 5 아론이 이것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말했다. "내일은 주님을 위한 축일이 될 것이다."
- 6 그들은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평제를 가져왔으며, 백성은 앉아 먹고 마시고 일어나 놀았다.
- 7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끌어올린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 8 그들이 내가 명령한 길을 금방 떠나 버렸다. 그들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바치며, "이것들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올린 너희 신들이다."라고 말하였다.
- 9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보았다. 보라, 그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다."
- 10 이제 나를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를 불태우고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 11 모세는 주님 자신의 하느님께 간청하여 말했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의 진노가 당신의 백성에게 불타오르십니까? 당신은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끌어내셨습니다."
- 12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을 해치려고 그들을 끌어내어 산에서 죽이고 땅 위에서 멸망시키려 한다."고 하게 하려 하십니까? 당신의 격노를 돌이키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이 악을 돌이키소서."
- 13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맹세하시고 그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을 번성하게 하며,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어 영원히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 14 그래서 주님은 그가 그의 백성에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악에서 돌아서셨다.
- 15 모세가 돌아서서, 두 판의 언약을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왔다. 그 판들은 양쪽 면에 글이 쓰여 있었다. 한쪽 면과 다른 쪽 면에 모두 쓰여 있었다.
- 16 그 판들은 하느님의 작품이었고, 글씨는 하느님의 글씨였으며, 판에 새겨져 있었다.
- 17 여호수아가 백성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했다. "진영에 전쟁의 소리가 있습니다."
- 18 그가 말했다. "그것은 승리의 함성도 아니고, 패배의 비명도 아닙니다. 내가 듣는 소리는 노래하는 소리입니다."
- 19 그가 진영에 가까이 다가서자, 송아지와 춤추는 광경을 보았다. 그러자 모세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판들을 산 아래에서 땅에 던져 부수었다.
- 20 그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로 태우고, 가루로 갈아서 물에 뿌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시게 했다.
- 21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무엇을 하여서, 너로 하여금 그들에게 큰 죄를 범하게 하였느냐?"
- 22 아론이 말했다. "제 주님의 분노가 치밀지 마소서. 당신은 이 백성이 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 23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서 가는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올려낸 그 사람,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 24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금이 있으면 그것을 벗어 내라." 그래서 그들이 내게 주었고, 나는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 25 모세가 백성이 통제를 잃고 방종한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방임하여 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 26 그때 모세가 진의 문에 서서 말했다. "주님의 편에 선 자는 모두 내게로 와라!"
- 27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각자 칼을 허벅지에 차고, 진 안을 문에서 문

으로 왕복하며, 각자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

²⁸ 레위의 아들들이 모세의 말에 따라 행동했다. 그날 백성 중 약 삼천 명이 쓰러졌다.

²⁹ 모세가 말했다. "오늘 너희는 주님을 위해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각자가 아들과 형제를 대적했기 때문에, 오늘 너희에게 복을 베풀게 될 것이다."

³⁰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큰 죄를 지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너희의 죄를 속죄해 보겠다."

³¹ 모세가 주님께 돌아가 말했다. "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고,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³² 그러나 지금,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기록하신 책에서 나를 지워 주십시오."

³³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죄를 지은 자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 버리겠다."

³⁴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너보다 앞서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벌을 내릴 날에는, 내가 그들의 죄로 그들을 벌겠다."

³⁵ 주님께서 백성을 치셨다. 이는 아론이 만든 송아지로 그들이 한 죄 때문이었다.

탈출기 33장

- 1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끌어올린 이 백성을 데리고 여기서 떠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 2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히타이트 족속과 페리시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낼 것이다.
- 3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간 길에서 너희를 멸망시킬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 4 백성이 이 나쁜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아무도 자기 보물을 입지 않았다.
- 5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다.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는 자기 보물을 벗어버려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할지 알 수 있다.'"
- 6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 산에서부터 자기 보물을 벗어버렸다.
- 7 모세는 장막을 가져다가 진 밖으로 옮겨서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 그것을 '만남의 장막'이라 불렀다. 주님을 찾는 자는 모두 진 밖에 있는 만남의 장막으로 나아갔다.
- 8 모세가 장막으로 나갈 때마다, 백성 모두가 일어나서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다.
- 9 모세가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장막 문에 서서, 주님은 모세와 대화하셨다.
- 10 백성 모두가 구름 기둥이 장막 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모두가 일어나서 자기 장막 문에서 경배하였다.
- 11 주님은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셨다. 마치 친구가 친구에게 말하듯이 말이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오면, 그의 종 논의 아들 여호수아, 젊은이도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 12 모세가 주님께 말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끌어올려라' 하셨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네가 내 눈에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13 이제, 제가 주님의 눈에 은총을 입었다면, 제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소서. 그래야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눈에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소서.
- 14 주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며, 너에게 편안함을 주겠다."
- 15 모세가 그에게 말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여기서 끌어올리지 마십시오."
- 16 주님과 저와 주님의 백성이, 땅 위의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 17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겠다. 네가 내 눈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 18 모세가 말했다. "제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소서."
- 19 주님은 말씀하셨다. "내 모든 선함이 너 앞을 지나가게 하리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내가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며,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 20 그는 말씀하셨다.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사람은 나를 보고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 21 주님은 또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 곁에 한 장소가 있다. 너는 그 바위 위에 서라."
- 22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너를 가릴 것이며, 내가 지나간 후에 손을 거두리라.
- 23 그리고 내가 손을 거두면, 너는 내 뒷모습을 볼 것이지만,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탈출기 34장

- 1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처음과 같은 돌 두 판을 깎아내어 가져오너라. 내가 처음 판에 썼던 말을 이 판에 쓰리니, 네가 깨뜨린 그 판들이다."
- 2 아침에 준비하여 시내 산으로 올라오너라. 산 꼭대기에서 나에게 나타나너라.
- 3 누구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못하며, 그 산 어디에서도 보이지 못하게 하라. 그 산 앞에서 양 떼나 소 떼가 풀을 뜯지 못하게 하라.
- 4 모세는 처음과 같은 돌 두 판을 깎아내고,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의 명령대로 시내 산으로 올라가 손에 돌 두 판을 들고 갔다.
- 5 주님은 구름 속에 내려와 그와 함께 서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 6 주님은 그의 앞을 지나며 선포하셨다. "주님, 주님, 자비롭고 은총이 풍성하신 하느님,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고, 인자함과 진실이 풍성한 분이시다."
- 7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인자함을 지키시며, 죄악과 불순종과 죄를 용서하시나, 죄 없는 자를 결코 면죄하지 않으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과 자식의 자식, 셋째와 넷째 대에 이르기까지 벌하시느니라.
- 8 모세는 곧 머리를 땅에 숙이고 경배하였다.
- 9 그가 말했다. "주님, 제가 지금 당신의 은총을 얻었다면, 이 딱딱한 목을 가진 백성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니시게 하소서. 우리의 죄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소서."
- 10 그가 말했다. "보아라, 내가 언약을 세운다. 네가 있는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땅 전체나 어떤 민족에서도 행하지 않은 놀라운 일을 행하리니, 네가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행하심을 보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일은 위엄 있는 일이니라."
- 11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을 지켜라. 보아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타이트 족속과 브리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리라.
- 12 네가 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라가미가 되리라.
- 13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들의 돌 기둥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베어버려라.
- 14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 주님, 곧 질투하는 이름을 가진 분은 질투하는 하느님이시니라.
- 15 "너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하고,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들이 너를 불러 그 제물을 먹게 될 것이니라."
- 16 "너는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에게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하면, 그들이 네 아들들도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하게 만들리라."
- 17 "너는 스스로를 위한 주조된 우상을 만들지 말라."
- 18 너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일곱 날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내가 아비브 달에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브 달에 이집트에서 나온 때에 그렇게 하라.
- 19 모든 만아들은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수컷 만이, 소와 양의 만이도 내 것이니라.
- 20 당나귀의 만이를 어린 양으로 속전을 치러야 한다. 만약 속전을 치르지 않으면, 그 목을 부러뜨려야 한다. 네 아들들의 모든 만이를 속전으로 치러야 한다. 누구도 내 앞에 빈 손으로 나타나지 못하리라.
- 21 여섯 날은 일하되, 일곱째 날은 쉬어야 한다. 씨 뿌릴 때와 추수할 때에도 쉬어야 한다.
- 22 너는 밀 수확의 첫 열매로 칠칠절을 지키고, 해가 끝날 때에 추수절을 지켜야 한다.
- 23 매년 세 번, 네 모든 남자가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앞에 나타나야 한다.
- 24 내가 네 앞에서 민족들을 쫓아내고 네 경계를 넓히리니, 네가 해마다 세 번 주 너의 하느님 앞에 나타나러 올라갈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 25 너는 누룩을 넣은 빵과 함께 내 희생의 피를 바치지 말아야 한다. 유월절의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아야 한다.
- 26 너는 네 땅의 첫 열매를 주 너의 하느님의 집으로 가져오라. 어린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끓이지 말아야 한다.
- 27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들에 따라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

- ²⁸ 그는 주님과 함께 사십 일 밤을 보냈다. 그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두 돌판에 언약의 말, 곧 열 계명을 기록하였다.
- ²⁹ 모세가 두 언약의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올 때,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는 자신의 얼굴 피부가 그와 대화한 탓에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 ³⁰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보니, 그의 얼굴 피부가 빛나는 것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 ³¹ 모세가 그들을 불렀다. 그러자 아론과 공동체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에게로 돌아와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 ³² 그 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가까이 와서, 모세는 그들에게 주님이 시내 산에서 그와 대화하신 모든 계명을 전하였다.
- ³³ 모세가 그들과 말을 마치고 나서, 자신의 얼굴에 면체를 씌웠다.
- ³⁴ 그러나 모세가 주님 앞에 들어가 그와 대화할 때에는 면체를 벗었고, 나올 때까지 벗은 채 있었다. 그가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하였다.
- ³⁵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고, 모세는 다시 자신의 얼굴에 면체를 씌웠다. 그가 주님과 대화하려 들어갈 때까지 면체를 쓴 채 있었다.

탈출기 35장

- 1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너희가 행해야 할 말씀이다."
- 2 "여섯 날은 일할 수 있으나,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성일이니, 주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이 날에 누구든지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 3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 거처 어디에서도 불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
- 4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 5 "너희 중에서 주님을 위한 헌물을 가져오라. 마음이 자발적인 자는 주님의 헌물로 금, 은, 놋을 가져오라."
- 6 파랑, 보라, 붉은 자색 실, 가는 베 실, 염소 털을,
- 7 붉게 염색한 숫양의 가죽, 바다소의 가죽, 아카시아 나무를,
- 8 등불을 위한 기름과, 기름 부음용 기름 및 향기로운 향을 위한 향료를,
- 9 오닉스 돌과 에포드와 흉패에 끼울 돌들을 가져오라."
- 10 "너희 중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라."
- 11 성막과 그 외부 덮개와 그 천장과 그 잠금장치와 그 판과 그 막대와 그 기둥과 그 받침을,
- 12 궤와 그 막대와 속죄소와 가리개를,
- 13 상과 그 막대와 모든 기구 및 진설병을,
- 14 등잔대와 그 등불을 밝히기 위한 기구와 등불, 그리고 등불을 위한 기름을,
- 15 향단과 그 막대, 기름 부음용 기름, 향기로운 향, 성막 문 앞의 문가리개를,
- 16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막대와 모든 기구, 양동이와 그 받침을,
- 17 마당의 휘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 그리고 마당 문의 가리개를,
- 18 성막의 말뚝과 마당의 말뚝, 그리고 그 줄을,
- 19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세공된 옷, 곧 제사장 아론을 위한 성복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만들라. 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섬기리라."
- 20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모세의 앞에서 물러갔다.
- 21 마음이 감동되어 자발적으로 나선 자들이 모두 와서, 회막의 일과 그 모든 섬김과 성복을 위한 주님의 헌물을 가져왔다.
- 22 남녀 모두, 마음이 자발적인 자들이 와서, 귀걸이, 코고리, 반지, 팔찌 같은 금으로 만든 모든 보석을 가져왔다. 주님께 금 헌물을 드리는 자가 모두 있었다.
- 23 파랑, 보라, 붉은 자색 실, 가는 베 실, 염소 털, 붉게 염색한 숫양의 가죽, 바다 소 가죽을 가진 자들이 모두 그것을 가져왔다.
- 24 은과 놋을 헌물로 드리는 자들이 모두 주님의 헌물을 가져왔고, 어떤 일에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자들이 그것을 가져왔다.
- 25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모든 여자들이 손으로 실을 뽑아, 자신들이 뽑은 청색, 자주색, 붉은색, 그리고 고운 베를 가져왔다.
- 26 마음에 지혜를 느껴 자극을 받은 모든 여자들이 염소 털을 뽑았다.
- 27 지도자들이 옥석과 에포드와 흉패에 끼울 돌들을 가져왔다.
- 28 등불을 위한 향유와 바르는 기름, 그리고 향기로운 향을 가져왔다.
- 29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자발적인 헌물을 드렸다. 남자와 여자 모두,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일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바치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다.
- 30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다. "보라, 주님께서 유다 지파의 허르의 아들, 우리의 아들 베사렐을 이름으로 불러 세우셨다."
- 31 그에게 하느님의 영을 채우셨으니, 지혜와 이해와 지식과 모든 기술을 주셨다.
- 32 금, 은, 청동으로 숙련된 작품을 만들게 하셨다.

³³ 돌을 깎아 끼우고, 나무를 새기며, 모든 숙련된 기술로 일하게 하셨다.

³⁴ 그와 단 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가르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지혜를 넣으셨다.

³⁵ 그가 그들에게 마음의 지혜를 채우셔서, 조각공, 숙련된 기술자, 자수공이 청색, 자주색, 붉은색, 고운 베로 일하게 하시고, 직공과 모든 기술을 다루는 자들과 숙련된 작품을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

탈출기 36장

- 1 "베살렐과 오홀리압은 주님께서 지혜와 통찰력을 주신 모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소의 모든 일을 수행할 것이다."
- 2 모세는 베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 모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모두 마음이 일에 나아가고자 열정을 느낀 자들이었다.
- 3 그들은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의 일을 위해 바친 모든 헌물들을 받았다. 그들은 아침마다 자발적인 헌물들을 그에게 가져왔다.
- 4 성소의 모든 일을 수행한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각자 자신이 하던 일에서 나와 모세에게 왔다.
- 5 그들은 모세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의 헌물로 너무나 많이 가져왔습니다. 충분히 넘칩니다."
- 6 모세는 명령을 내려 진영 전체에 선포하게 했다. "어떤 남자나 여자도 성소를 위한 헌물로 더 이상 무엇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은 헌물을 가져오는 것을 멈추었다.
- 7 그들이 가진 재료는 모든 일을 하기에 충분했고, 오히려 넘쳤다.
- 8 일을 하는 모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천 열 장을 만들었는데, 이 천들은 가는 뽕은 베로, 푸른색, 보라색, 붉은색으로 짜고, 세라핌을 수놓아 숙련된 장인의 솜씨로 만들었다.
- 9 각 천의 길이는 스물여덟 큐빗이고, 너비는 네 큐빗이었다. 모든 천은 같은 치수였다.
- 10 그는 다섯 장의 천을 서로 연결하고, 다른 다섯 장의 천도 서로 연결했다.
- 11 그는 연결된 천의 가장자리에 푸른색 고리들을 만들었고, 두 번째 연결된 천의 가장자리에도 같은 방식으로 고리들을 만들었다.
- 12 그는 한 천에 오십 개의 고리를 만들었고, 두 번째 연결된 천의 가장자리에도 오십 개의 고리를 만들었다. 고리들은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었다.
- 13 그는 오십 개의 금 자루를 만들고, 자루로 천들을 서로 연결하여 성막을 하나로 만들었다.
- 14 그는 염소 털로 성막을 덮을 천 열한 장을 만들었다.
- 15 각 천의 길이는 서른 큐빗이고, 너비는 네 큐빗이었다. 열한 장의 천은 모두 같은 치수였다.
- 16 그는 다섯 장의 천을 한 묶음으로, 여섯 장의 천을 다른 묶음으로 연결했다.
- 17 그는 연결된 천의 가장자리에 오십 개의 고리를 만들었고, 두 번째 연결된 천의 가장자리에도 오십 개의 고리를 만들었다.
- 18 그는 낫으로 오십 개의 자루를 만들어 천막을 연결하여 하나로 만들었다.
- 19 그는 붉게 염색한 숫양의 가죽으로 천막을 덮었고, 그 위에 바다 소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었다.
- 20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의 판을 만들고, 세워 놓았다.
- 21 각 판의 길이는 열 큐빗이고, 너비는 한 큐빗 반이었다.
- 22 각 판에는 두 개의 돌기들이 있어 서로 맞물리게 되어 있었다. 그는 성막의 모든 판을 이 방식으로 만들었다.
- 23 그는 성막의 판을 남쪽으로 스물 장 만들었다.
- 24 그는 스물 판 아래에 은으로 사십 개의 받침을 만들었다. 한 판 아래에는 두 개의 받침이, 그 판의 두 돌기 아래에 각각 하나씩 놓였고, 다른 판 아래에도 두 개의 받침이, 그 판의 두 돌기 아래에 각각 하나씩 놓였다.
- 25 그는 성막의 두 번째 측면, 즉 북쪽 측면을 위해 스무 개의 판을 만들었다.
- 26 그리고 그 판들의 은 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는데, 한 판 아래에는 두 개의 받침이 있고, 다른 판 아래에도 두 개의 받침이 있었다.
- 27 그는 성막의 서쪽 끝부분을 위해 여섯 개의 판을 만들었다.
- 28 그는 성막의 끝부분 모서리 부분을 위해 두 개의 판을 만들었다.
- 29 그 판들은 밑부분에서 두 겹이었고, 위로 끝까지 한 쌍의 고리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었다. 그는 이 두 모서리 판 모두에 이렇게 하였다.

- ³⁰ 그 판들은 여덟 개였고, 그들의 은 받침은 열여섯 개였으며, 각 판 아래에 두 개의 받침이 있었다.
- ³¹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막대를 만들었는데, 성막의 한 측면 판들을 위한 다섯 개를 만들었다.
- ³² 그리고 성막의 다른 측면 판들을 위한 다섯 개의 막대와, 성막의 서쪽 끝부분 판들을 위한 다섯 개의 막대를 만들었다.
- ³³ 그는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판들 가운데를 통과하도록 중앙 막대를 만들었다.
- ³⁴ 그는 판들을 금으로 입혔고, 막대를 끼울 고리를 금으로 만들었으며, 막대들도 금으로 입혔다.
- ³⁵ 그는 푸른 자주색, 붉은색, 가는 베 실로 만든 휘장을 만들었고, 그 위에 그룹들을 수놓았다. 그는 이 휘장을 숙련된 장인의 손으로 만들었다.
- ³⁶ 그는 그것을 위해 아카시아 나무로 네 개의 기둥을 만들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혔다. 그 기둥의 갈고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 기둥을 위한 은 받침 네 개를 주조하였다.
- ³⁷ 그는 장막의 문을 위한 휘장을 푸른 자주색, 붉은색, 가는 베 실로 만들었고, 자수를 한 장인의 손으로 만들었다.
- ³⁸ 그리고 그 휘장을 지탱하는 다섯 개의 기둥과 그 갈고리를 만들었으며, 그 기둥의 머리와 띠를 금으로 입혔고, 그 다섯 개의 받침은 청동으로 되어 있었다.

탈출기 37장

- ¹ 베살렐은 아카시아나무로 궤를 만들었다. 그 길이는 두 자 반, 너비는 한 자 반, 높이도 한 자 반이다.
- ² 그는 그것을 안팎으로 순금으로 입히고, 주위에 금 테를 만들었다.
- ³ 그는 궤의 네 발에 금 고리 네 개를 주조하여, 한쪽에 두 개, 다른 쪽에도 두 개를 달았다.
- ⁴ 그는 아카시아나무로 막대를 만들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혔다.
- ⁵ 그는 그 막대를 궤의 양쪽에 달린 고리에 꿰어 궤를 메게 했다.
- ⁶ 그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다. 그 길이는 두 자 반, 너비는 한 자 반이다.
- ⁷ 그는 순금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고, 속죄소 양끝에서 두드려 만든 것이었다.
- ⁸ 한쪽 끝에 한 그룹, 다른 쪽 끝에 한 그룹을 만들었고, 그룹들은 속죄소 양끝과 한 덩어리로 만들어졌다.
- ⁹ 그룹들은 위로 날개를 펼쳐 속죄소를 날개로 덮었고, 그들의 얼굴은 서로를 향했다. 그룹들의 얼굴은 속죄소를 향해 있었다.
- ¹⁰ 그는 아카시아나무로 상을 만들었다. 그 길이는 두 자, 너비는 한 자, 높이는 한 자 반이다.
- ¹¹ 그는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고, 주위에 금 테를 만들었다.
- ¹² 그는 그것 주위에 손바닥 너비의 테를 만들고, 그 테 위에 금 테를 두르게 했다.
- ¹³ 그는 상을 위해 금 고리 네 개를 주조하여, 네 발의 네 모서리에 고리를 달았다.
- ¹⁴ 고리는 테 가까이에 있었고, 상을 메기 위한 막대를 끼울 자리였다.
- ¹⁵ 그는 아카시아나무로 막대를 만들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혀 상을 메게 했다.
- ¹⁶ 그는 상 위에 놓을 그릇들, 즉 접시, 숟가락, 그릇, 붓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 ¹⁷ 그는 순금으로 등불대를 만들었고, 두드려 만든 것이었다. 그 밑받침, 줄기, 잔, 새싹, 꽃은 모두 한 덩어리로 되어 있었다.
- ¹⁸ 그것의 양쪽에서 여섯 개의 가지가 나왔는데, 한쪽에서 세 개, 다른 쪽에서도 세 개의 가지가 나왔다.
- ¹⁹ 한 가지에는 아몬드꽃처럼 만든 잔 세 개와 새싹 하나, 꽃 하나가 있었고, 다른 가지에도 아몬드꽃처럼 만든 잔 세 개와 새싹 하나, 꽃 하나가 있었다. 이처럼 등불대에서 나온 여섯 개의 가지였다.
- ²⁰ 등불대에는 아몬드꽃처럼 만든 잔 네 개와 그 새싹과 꽃들이 있었다.
- ²¹ 각각 두 개의 가지 아래에는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된 새싹이 하나씩 있었고, 여섯 개의 가지 아래에 모두 새싹이 있었다.
- ²² 그 새싹들과 가지들은 모두 한 덩어리로 되어 있었다. 전체가 순금으로 두드려 만든 것이었다.
- ²³ 그는 등불대의 등불 일곱 개와 등불집게와 재받이를 순금으로 만들었다.
- ²⁴ 그는 등불대와 그 모든 그릇을 순금 일 달란트로 만들었다.
- ²⁵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다. 그것은 정사각형이었고, 길이는 한 큐빗이었으며, 너비도 한 큐빗이었다. 높이는 두 큐빗이었고, 그 뿔들은 단과 한 몸이었다.
- ²⁶ 그는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다. 윗면과 주변 벽과 뿔들을 모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주위에 금 테를 만들었다.
- ²⁷ 그는 단의 테 아래, 양쪽 옆면에 금 고리 두 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메기 위한 지렛대를 꿰기 위한 자리로 삼았다.
- ²⁸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지렛대를 만들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혔다.
- ²⁹ 그는 향료 장인의 기술에 따라 거룩한 기름과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탈출기 38장

- 1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다. 그것은 정사각형이었고, 길이가 다섯 큐빗이었으며, 너비가 다섯 큐빗이었고, 높이가 세 큐빗이었다.
- 2 그는 그 단의 네 모퉁이에 뿔들을 만들었고, 그 뿔들은 단과 한 몸이었으며, 그 위를 동으로 덮었다.
- 3 그는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 즉, 냄비, 삽, 대야, 갈고리, 불그릇을 만들었고, 그 모든 기구를 동으로 만들었다.
- 4 그는 단 아래 주위 테두리 아래에 네트 모양의 동 그물을 만들어 반쯤 높이까지 만들었다.
- 5 그는 동 그물의 네 모퉁이에 네 개의 고리를 주조하여 지렛대를 끼울 자리로 만들었다.
- 6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지렛대를 만들고 그 위를 동으로 덮었다.
- 7 그는 지렛대를 단 양쪽 고리에 꽂아 그것을 옮기게 하였다. 그는 단을 판자로 빈 껍데기처럼 만들었다.
- 8 그는 동으로 대야를 만들고 그 받침도 동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회막 문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의 거울에서 만들었다.
- 9 그는 뜰을 만들었다. 남쪽으로는 뜰의 휘장이 고운 자수린 베로 되어 백 큐빗이었고,
- 10 그 기둥은 스물 개였고, 그 받침도 스물 개였으며, 동으로 되었고, 기둥의 갈고리와 그 띠는 은으로 되었다.
- 11 북쪽으로도 백 큐빗이었고, 그 기둥은 스물 개였고, 그 받침도 스물 개였으며, 동으로 되었고, 기둥의 갈고리와 그 띠는 은으로 되었다.
- 12 서쪽으로는 오십 큐빗의 휘장이 있었고, 그 기둥은 열 개였고, 그 받침도 열 개였으며, 기둥의 갈고리와 그 띠는 은으로 되었다.
- 13 동쪽으로는 오십 큐빗이었고,
- 14 한쪽 휘장은 십오 큐빗이었고, 그 기둥은 세 개였고, 그 받침도 세 개였으며,
- 15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뜰의 문 양쪽에 십오 큐빗의 휘장이 있었고, 그 기둥은 세 개였고, 그 받침도 세 개였다.
- 16 뜰 주위의 모든 휘장은 고운 자수린 베로 되었다.
- 17 기둥의 받침은 동으로 되었고, 기둥의 갈고리와 그 띠는 은으로 되었으며, 그 머리장식은 은으로 덮였고, 뜰의 모든 기둥은 은 띠로 되어 있었다.
- 18 뜰의 문을 가리기 위한 휘장은 자수꾼의 작품으로, 청색, 보라, 붉은색, 고운 자수린 베로 만들었고, 길이는 스물 큐빗이었으며, 높이는 너비와 함께 다섯 큐빗이었고, 뜰의 휘장과 같았다.
- 19 그 기둥은 네 개였고, 그 받침도 네 개였으며, 동으로 되었고, 그 갈고리는 은으로 되었고, 그 머리장식과 띠는 은으로 되었다.
- 20 성막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은 모두 동으로 되었다.
- 21 이것은 증거의 장막을 위한 재료의 총량으로, 모세의 명령에 따라 레위인들의 봉사를 위해 이다마르, 아론의 아들에 의해 계산된 것이다.
- 22 유다 지파의 우리의 아들 베살렐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 23 그와 함께 다니 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있었는데, 그는 조각가이자 숙련된 기술자이며, 청색, 보라, 붉은색, 고운 베로 자수를 하는 자였다.
- 24 성소의 모든 일에 쓰인 모든 금, 곧 헌금의 금은 성소의 시켈 기준으로 이십구 달란트와 삼백 칠십 시켈이었다.
- 25 공동체에서 계수된 자들의 은은 백 탈란트와 천칠백칠십오 세겔이었으며, 이는 성소의 세겔 기준에 따른 것이었다.
- 26 한 사람당 베카, 즉 성소의 세겔 기준으로 반 세겔로, 이십 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에게 적용되었다.
- 27 백 탈란트의 은은 성소의 받침과 휘장의 받침을 주조하는 데 쓰였으며, 백 개의 받침에 백 탈란트를 사용하여, 하나의 받침당 한 탈란트씩 썼다.
- 28 천칠백칠십오 세겔로 그는 기둥의 갈고리를 만들고, 그 머리부분을 덮으며, 그 기둥을 연결하는 띠를 만들었다.
- 29 제물의 낫은 칠십 탈란트와 이천사백 세겔이었다.
- 30 이 낫으로 그는 만남의 장막 문의 받침과 낫 제단과 그 제단의 낫 그물, 그리고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

³¹ 마당 주위의 받침과 마당 문의 받침, 성막의 모든 말뚝, 그리고 마당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탈출기 39장

- 1 그들은 푸른색, 보라색, 자주색으로 거룩한 곳에서 봉사할 때 입을 세밀하게 짠 옷을 만들었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 2 그는 금, 푸른색, 보라색, 자주색, 가늘게 엮은 베로 에포드를 만들었다.
- 3 그들은 금을 얇은 판으로 두드리고 가늘게 쪼개어 푸른색, 보라색, 자주색, 가늘게 엮은 베에 섞어 숙련된 장인의 솜씨로 직조하였다.
- 4 그들은 그것을 위해 어깨 끈을 만들어 연결하였고, 그 끝 두 곳에서 서로 연결되었다.
- 5 그것을 매달기 위한 세밀하게 짠 띠는 에포드와 같은 재료로, 금, 푸른색, 보라색, 자주색, 가늘게 엮은 베로 만들었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 6 그들은 금으로 만든 틀에 옥석을 돌려싸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대로 도장처럼 새겼다.
- 7 그는 그 돌들을 에포드의 어깨 끈 위에 놓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는 돌로 삼았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 8 그는 숙련된 장인의 솜씨로 흉패를 만들었는데, 에포드와 같은 솜씨로, 금, 푸른색, 보라색, 자주색, 가늘게 엮은 베로 만들었다.
- 9 그것은 정사각형이었고, 흉패를 두 겹으로 만들었으며, 길이와 너비가 한 줄기씩이었다.
- 10 그들은 그 안에 네 줄의 돌을 놓았는데, 첫 번째 줄은 홍옥, 황옥, 백옥이었고,
- 11 두 번째 줄은 청옥, 청금석, 녹옥이었고,
- 12 세 번째 줄은 자수정, 사암, 자홍옥이었고,
- 13 네 번째 줄은 황옥, 옥석, 홍마노였다. 그 돌들은 모두 금 틀에 돌려싸였다.
- 14 그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에 따라 열두 개였고, 각각의 이름대로 도장처럼 새겨져, 열두 지파를 위한 것이었다.
- 15 그들은 순금으로 엮어 만든 끈처럼 흉패에 사슬을 만들었다.
- 16 그들은 두 개의 금 틀과 두 개의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두 고리를 흉패의 양 끝에 달았다.
- 17 그들은 금으로 엮은 두 개의 사슬을 흉패 양 끝의 두 고리에 달았다.
- 18 그들은 두 개의 엮은 사슬의 다른 끝을 두 개의 금 틀에 달아 에포드의 어깨 끈 앞쪽에 붙였다.
- 19 그들은 두 개의 금 고리를 만들고, 흉패의 가장자리, 에포드 안쪽 측면을 향한 끝에 달았다.
- 20 그들은 또 두 개의 금 고리를 만들고, 에포드의 어깨 끈 아래 앞쪽, 에포드의 세밀하게 짠 띠 위에 그 연결부 근처에 달았다.
- 21 그들은 푸른색 끈으로 흉패의 고리와 에포드의 고리를 매어, 흉패가 에포드의 세밀하게 짠 띠에 붙게 하고, 흉패가 에포드에서 풀리지 않게 하였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 22 그는 에포드의 겹옷을 모두 푸른색으로 직조하여 만들었다.
- 23 그 겹옷의 중앙에 있는 입구는 갑옷의 입구처럼 되어, 그 입구 주위에 끈으로 둘러서 찢어지지 않게 하였다.
- 24 그들은 겹옷의 밑단에 푸른색, 보라색, 자주색, 엮은 베로 석류를 만들었다.
- 25 그들은 순금으로 종을 만들고, 옷의 끝자락 주위에 석류 사이에 종을 달았다.
- 26 종 하나와 석류 하나, 종 하나와 석류 하나를 옷의 끝자락 주위에 달아, 주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봉사하게 하였다.
- 27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고운 베로 짠 속옷을 만들었다.
- 28 고운 베로 만든 두건과 고운 베로 만든 머리띠, 고운 엮은 베로 만든 바지,
- 29 고운 엮은 베로 만든 푸른, 자주, 붉은 띠는 자수로 만든 것이며, 주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 30 그들은 순금으로 성결한 관의 판을 만들고, 인장의 새김처럼 '주님께 성결하다'라고 글자를 새겼다.
- 31 그들은 푸른 끈을 그것에 매달아, 주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두건 위에 고정하였다.
- 32 이처럼 장막, 곧 만남의 장막의 모든 일은 끝났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였

다.

³³ 그들은 장막을 모세에게 데려왔다. 곧 장막과 그 모든 기구, 그 잠금장치, 그 판들, 그 막대기, 그 기둥, 그 받침대,

³⁴ 붉게 물든 숫양의 가죽 덮개, 바다소 가죽 덮개, 휘장의 막,

³⁵ 언약의 궤와 그 지게, 속죄소,

³⁶ 상과 그 모든 기구, 진설병,

³⁷ 순금 등잔대와 그 등불, 곧 정결할 등불과 그 모든 기구, 등불을 켜기 위한 기름,

³⁸ 금 제단과 기름 부음의 기름과 향기로운 향과 장막 문의 휘장,

³⁹ 동 제단과 그 동그라미, 그 지게, 그 모든 기구, 양동이와 그 받침대,

⁴⁰ 마당의 휘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대, 마당 문의 휘장과 그 줄과 그 말뚝, 그리고 만남의 장막을 위한 모든 봉사 도구,

⁴¹ 성소에서 봉사하기 위한 고운 직물로 만든 옷, 아론 사제를 위한 성물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 사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옷들.

⁴² 주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든 일을 하였다.

⁴³ 모세는 모든 일을 보고, 보라, 그들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두 하였음을 알았다. 그들은 그대로 하였고, 모세는 그들을 축복하였다.

탈출기 40장

-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첫째 달 첫째 날에 너는 만남의 장막을 세워라.
- 3 너는 증거의 궤를 그 안에 넣고, 궤를 가리는 장막을 치라.
- 4 상을 들고 그 위에 있는 물건들을 차려라. 등대를 들고 그 등불을 켜라.
- 5 너는 증거의 궤 앞에 향을 태울 금 제단을 두고, 장막의 문 막을 달아라.
- 6 너는 만남의 장막 문 앞에 번제 제단을 두라.
- 7 너는 만남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놋 상자를 두고 그 안에 물을 채워라.
- 8 너는 그 주위에 돌을 세우고, 돌 문의 막을 달아라.
- 9 너는 기름을 가져다가 장막과 그 안의 모든 것을 기름부어 성결하게 하라. 그 모든 가구를 성결하게 하면 그것도 성결하게 될 것이다.
- 10 너는 번제 제단과 그 모든 기구를 기름부어 제단을 성결하게 하라. 제단은 지극히 성결할 것이다.
- 11 너는 놋 상자과 그 받침을 기름부어 성결하게 하라.
- 12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만남의 장막 문으로 데려오고, 물로 그들을 씻어라.
- 13 너는 아론에게 성스러운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성결하게 하여, 그가 내 앞에서 사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라.
- 14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라.
- 15 너는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들이 내 앞에서 사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라. 그들의 기름부음은 그들의 대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사제직이 될 것이다.
- 16 모세는 그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두 행하였다.
- 17 두 번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장막이 세워졌다.
- 18 모세가 장막을 세우고 그 받침을 놓고, 판을 세우고, 막대를 끼우고, 기둥을 세웠다.
- 19 그가 장막 위에 천을 덮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장막의 지붕을 그 위에 올렸다.
- 20 그가 증거의 궤에 넣고, 궤에 막대를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올렸다.
- 21 그가 궤를 장막 안으로 들고, 가리는 장막을 치고, 증거의 궤를 가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 22 그가 상을 만남의 장막 안, 장막의 북쪽, 장막의 장막 바깥에 두었다.
- 23 그가 주님 앞에 빵을 차려 놓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 24 그가 등대를 만남의 장막 안, 상과 마주보는 장막의 남쪽에 두었다.
- 25 그는 주님 앞에 등불을 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 26 그는 금 제단을 증거의 장막 안에서 휘장 앞에 놓았다.
- 27 그는 그 위에 향료를 태워 분향하였는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 28 그는 장막의 문 막을 세웠다.
- 29 그는 증거의 장막 문 앞에 번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번제와 곡식 제물을 바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 30 그는 증거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양동이를 놓고, 그 안에 물을 채워 씻게 하였다.
- 31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곳에서 손과 발을 씻었다.
- 32 그들이 증거의 장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갈 때마다 씻었는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 33 그는 장막과 제단 주위에 돌을 세우고, 돌의 문 막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모세는 일을 마쳤다.
- 34 그때 구름이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주님의 영광이 장막을 가득 채웠다.
- 35 모세는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물렀고, 주님의 영광이 장막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 36 구름이 장막 위에서 올라갈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정을 계속하였다.
- 37 그러나 구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들은 구름이 올라가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다.
- 38 이스라엘 집 전체가 보는 앞에서,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장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그 구름 속에 불이 있었다.

레위기 | Leviticus

레위기 1장

- ¹ 주님께서 모세를 불러 만남의 천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 ²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너니, 너희 중 누구든지 주님께 번제를 드리려 하면, 소나 양떼에서 제물을 드리되,
- ³ "만일 그의 제물이 소떼에서 드리는 번제라면, 흠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그는 만남의 천막 문앞에서 그것을 드려야 하며, 그가 주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 ⁴ 그는 손을 번제의 머리 위에 얹을 것이며, 그러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이루어질 것이다.
- ⁵ 그는 소를 주님 앞에서 잡을 것이며, 아론의 아들들인 사제들이 피를 가져다가 만남의 천막 문앞에 있는 제단 주위에 뿌릴 것이다.
- ⁶ 그는 번제를 벗겨서 조각으로 나눌 것이다.
- ⁷ 아론의 아들들인 사제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불 위에 나무를 차례로 놓을 것이며,
- ⁸ 아론의 아들들인 사제들이 조각과 머리와 기름을 차례로 불 위에 놓인 나무 위에 놓을 것이며,
- ⁹ 그러나 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다. 사제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 불사르며,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것은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불제물이 될 것이다.
- ¹⁰ "만일 그의 제물이 양떼에서 드리는 번제라면, 양이나 염소에서 흠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 ¹¹ 그는 그것을 제단 북쪽에서 주님 앞에서 잡을 것이며, 아론의 아들들인 사제들이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릴 것이다.
- ¹² 그는 그것을 조각으로 나누되, 머리와 기름을 함께 할 것이며, 사제가 그것을 불 위에 놓인 나무 위에 차례로 놓을 것이며,
- ¹³ 그러나 내장과 다리는 물로 씻을 것이다. 사제가 그것을 모두 드려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것은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번제, 불제물이 될 것이다.
- ¹⁴ "만일 그의 주님께 드리는 제물이 새의 번제라면, 그는 비둘기나 어린 비둘기로 제물을 드려야 한다.
- ¹⁵ 사제가 그것을 제단으로 데려와서 머리를 뜯어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피는 제단 옆에 흘려야 하며,
- ¹⁶ 그는 그의 창자와 깃털을 떼어내어 재를 버리는 곳, 제단 동편에 버릴 것이다.
- ¹⁷ 그는 날개를 찢어도 몸을 둘로 나누지 말아야 한다. 사제가 그것을 제단 위, 불 위에 놓인 나무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것은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번제, 불제물이 될 것이다.

레위기 2장

- ¹ 누구든지 주님께 곡식 예물을 드릴 때에는 고운 밀가루로 드려야 한다. 그는 그것에 기름을 부어 향을 얹어야 한다.
- ² 그는 그것을 아론의 아들들, 즉 사제들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는 고운 밀가루와 기름, 그리고 모든 향을 한 줍씩 쥐어, 사제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하여 주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야 한다.
- ³ 곡식 예물에서 남은 부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그것은 주님의 화제 중 가장 성한 부분이다.
- ⁴ 너는 풀무에 구운 곡식 예물을 드릴 때, 기름을 섞은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웨이퍼로 드려야 한다.
- ⁵ 네가 그릴 위에서 드리는 곡식 예물이라면, 기름을 섞은 무교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야 한다.
- ⁶ 그것을 조각으로 자르고 기름을 부어라. 그것은 곡식 예물이다.
- ⁷ 네가 냄비에서 드리는 곡식 예물이라면, 기름과 함께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야 한다.
- ⁸ 너는 이와 같이 만든 곡식 예물을 주님께 데려가야 한다. 그것을 사제에게 바치면, 사제가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 놓을 것이다.
- ⁹ 사제는 곡식 예물에서 기념할 부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며, 주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야 한다.
- ¹⁰ 곡식 예물에서 남은 부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그것은 주님의 화제 중 가장 성한 부분이다.
- ¹¹ 너는 주님께 드리는 모든 곡식 예물에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누룩이나 꿀을 주님께 화제로 불사르지 말아야 한다.
- ¹² 너는 그것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께 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제단 위에서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 ¹³ 너는 네가 드리는 모든 곡식 예물에 소금을 넣어야 한다. 네가 드리는 곡식 예물에는 네 하느님과 맺은 언약의 소금이 빠지지 않게 하라. 너는 모든 제물에 소금을 함께 드려야 한다.
- ¹⁴ 너는 주님께 처음 익은 열매로 곡식 예물을 드릴 때, 불로 볶아 으갠 신선한 곡물 알을 드려야 한다.
- ¹⁵ 그 위에 기름을 부어 향을 얹어라. 그것은 곡식 예물이다.
- ¹⁶ 사제는 그 으갠 곡물의 일부와 기름의 일부, 그리고 모든 향을 가져다가 화제로 제단 위에 불사르며 주님께 드려야 한다.

레위기 3장

- ¹ “만일 그의 희생 제물이 평화 제물이라면, 소 떼에서 바치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이 없이 주님 앞에 바쳐야 한다.
- ² 그는 자신의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회중의 장막 문에서 그것을 잡아 죽을 것이다. 아론의 아들들, 곧 사제들이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릴 것이다.
- ³ 그는 평화 제물에서 불로 바치는 제물로 주님께 드릴 것이다. 내장 위를 덮는 지방과 내장 위에 있는 모든 지방을 드릴 것이다.
- ⁴ 그리고 두 콩팥과 콩팥 위에 있는 지방, 곧 허리 옆에 있는 지방과 간 위의 덮개와 콩팥을 모두 가져올 것이다.
- ⁵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번제 위, 곧 불 위에 놓인 나무 위에서 태울 것이다. 그것은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불로 바치는 제물이다.
- ⁶ “만일 그의 평화 제물이 양 떼에서 주님께 바쳐지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이 없이 바쳐야 한다.
- ⁷ 그가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면, 그것을 주님 앞에 바칠 것이다.
- ⁸ 그는 자신의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회중의 장막 앞에서 그것을 잡아 죽을 것이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릴 것이다.
- ⁹ 그는 평화 제물에서 불로 바치는 제물로 주님께 드릴 것이다. 꼬리 끝까지의 지방을 척추 근처에서 가져올 것이며, 내장 위를 덮는 지방과 내장 위에 있는 모든 지방을 드릴 것이다.
- ¹⁰ 그리고 두 콩팥과 콩팥 위에 있는 지방, 곧 허리 옆에 있는 지방과 간 위의 덮개와 콩팥을 모두 가져올 것이다.
- ¹¹ 사제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 것이다.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불로 바치는 제물의 음식이다.
- ¹² “만일 그의 제물이 염소라면, 그것을 주님 앞에 바쳐야 한다.
- ¹³ 그는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회중의 장막 앞에서 그것을 잡아 죽을 것이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릴 것이다.
- ¹⁴ 그는 그것에서 불로 바치는 제물로 주님께 드릴 것이다. 내장 위를 덮는 지방과 내장 위에 있는 모든 지방을 드릴 것이다.
- ¹⁵ 그리고 두 콩팥과 콩팥 위에 있는 지방, 곧 허리 옆에 있는 지방과 간 위의 덮개와 콩팥을 모두 가져올 것이다.
- ¹⁶ 사제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 것이다.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불로 바치는 제물의 음식이며, 모든 지방은 주님의 것이다.
- ¹⁷ “이것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 세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너희는 지방도 피도 먹지 말아야 한다.

레위기 4장

-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일 중 하나를 무심코 지키지 않고 죄를 지으면,
- 3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 백성에게 죄를 끼친다면, 그는 주님께 죄를 지은 대가로 흠 없는 수소 한 마리를 죄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한다.
- 4 그는 그 수소를 주님 앞,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손을 수소의 머리 위에 얹고, 주님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야 한다.
- 5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수소의 피 일부를 가져다가 회막으로 가져가야 한다.
- 6 제사장은 손가락을 피에 담그어 성소의 휘장 앞에서 주님 앞에 피를 일곱 번 뿌려야 한다.
- 7 제사장은 회막 안에 있는 주님 앞의 향단의 뿔에 피 일부를 바르고, 수소의 나머지 피는 회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의 바닥에 쏟아야 한다.
- 8 그는 죄 희생 제물인 수소에서 모든 기름을 가져온다. 즉, 내장 위를 덮는 기름과 내장 위에 있는 모든 기름을,
- 9 그리고 두 콩팥과 콩팥 위에 있는 허리 옆의 기름, 그리고 콩팥과 함께 있는 간의 덮개를 모두 제거한다.
- 10 이것은 평화 제물인 수소에서 제거하는 것과 같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번제단 위에서 태워야 한다.
- 11 그는 수소의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배설물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
- 12 즉, 수소의 나머지 부분을 모두, 재를 쏟아내는 깨끗한 곳 밖으로 끌고 나가서, 나무 위에 불을 지르고 태운다. 그것은 재를 쏟아내는 곳에서 태워야 한다.
- 13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어, 회중의 눈에 숨겨졌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일 중 하나를 행하여 죄를 지었으면,
- 14 그들이 지은 죄가 드러나면, 회중은 죄 희생 제물로 흠 없는 수소 한 마리를 바치고,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고 와야 한다.
- 15 회중의 장로들이 주님 앞에서 수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수소를 주님 앞에서 잡아야 한다.
- 16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수소의 피 일부를 회막으로 가져가야 한다.
- 17 제사장은 손가락을 피에 담그어 휘장 앞에서 주님 앞에 피를 일곱 번 뿌려야 한다.
- 18 그는 주님 앞, 곧 회막 안에 있는 제단의 뿔에 피 일부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회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의 바닥에 쏟아야 한다.
- 19 그는 수소의 모든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태워야 한다.
- 20 그는 이 수소에 대해 이와 같이 행한다. 죄 희생 제물인 수소에 대해 행한 것처럼, 이 수소에 똑같이 행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들을 위하여 속죄를 행하고,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 21 그는 수소를 밖으로 끌고 나가, 먼저 태운 수소처럼 태운다. 이것은 회중을 위한 죄 희생 제물이다.
- 22 "지도자가 죄를 지어, 주님 자신의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일 중 하나를 무심코 지키지 않고 죄를 지었으면,
- 23 그가 지은 죄가 그에게 알려지면, 그는 흠 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죄 희생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 24 그는 손을 수염소의 머리 위에 얹고, 주님 앞에서 번제를 잡는 곳에서 그 수염소를 잡아야 한다. 이것은 죄 희생 제물이다.
- 25 사제는 죄 헌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조금 떼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낼 것이다.
- 26 그는 그 헌물의 모든 기름을 평화 헌물의 기름처럼 제단 위에 태울 것이다. 사제는 그의 죄를 위하여 속죄를 행할 것이며,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 27 "만약 일반 백성 중 누구든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어떤 일들을 무심코 지켜서 죄를 범하고,
- 28 그가 범한 죄가 그에게 알려지면, 그는 자신의 죄를 위하여 흠 없는 암염소를 헌물로 끌고 와야 한다.
- 29 그는 죄 헌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번제를 잡는 곳에서 그 죄 헌물을 잡을 것이다.
- 30 사제는 그 피를 손가락으로 조금 떼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낼 것이다.
- 31 그는 그 헌물의 모든 기름을 평화 헌물에서 기름을 떼어내는 것처럼 떼어내고, 사제는 그것을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제단 위에 태울 것이다. 사제는 그를 위하여 속죄를 행할 것이며,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³² "만약 그가 죄 헌물로 양을 바치면, 흠 없는 암양을 바쳐야 한다.

³³ 그는 죄 헌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번제를 잡는 곳에서 그 죄 헌물을 잡을 것이다.

³⁴ 사제는 죄 헌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조금 떼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모든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낼 것이다.

³⁵ 그는 양의 기름을 평화 헌물에서 떼어내는 것처럼 모든 기름을 떼어낼 것이다. 사제는 그것을 주님께 불로 바치는 헌물 위에 태울 것이다. 사제는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를 행할 것이며,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레위기 5장

¹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증언하라는 맹세를 듣고도 증인으로서, 보았든 알았든, 그것을 보고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² "또 누구든지 부정한 것, 즉 부정한 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기어다니는 생물의 시체에 손을 대면, 그것이 그에게 숨겨져 있어도, 그는 부정하게 되고 죄가 있다.

³ "또 누구든지 사람의 부정, 즉 그가 부정하게 된 어떤 부정한 것에 손을 대고 그것이 그에게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그는 죄가 있다.

⁴ "또 누구든지 입으로 서두르게 맹세하여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맹세로 서두르게 말하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이 그에게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그는 이 중 하나에 죄를 지은 것이다.

⁵ 그가 이 중 하나에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해야 한다.

⁶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위하여 주님께 손상 제물을 바치되, 양무리에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암컷으로 가져와 죄 제물로 바치며, 사제가 그의 죄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다.

⁷ "그가 어린 양을 감당할 수 없으면,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손상 제물로 주님께 비둘기 두 마리나 새끼 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되, 하나는 죄 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친다.

⁸ 그는 그것들을 사제에게 데려가야 한다. 사제는 먼저 죄 제물로 드릴 것을 잡아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떼어내되, 완전히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⁹ 그는 죄 제물의 피를 조금씩 제단 옆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아낸다. 그것은 죄 제물이다.

¹⁰ 그는 두 번째 것을 정해진 규례대로 번제물로 바치며, 사제가 그가 지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¹¹ "그가 비둘기 두 마리나 새끼 비둘기 두 마리를 감당할 수 없으면,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제물로 고운 밀가루 일식 분을 바친다. 그는 그것에 기름을 바르지 말고, 향을 조금도 뿌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죄 제물이다.

¹² 그는 그것을 사제에게 데려가야 한다. 사제는 그의 손으로 한 줌을 가져다가 기억물로 제단 위, 주님의 불로 드리는 제물 위에 태우며, 그것은 죄 제물이다.

¹³ 사제가 그가 이 중 어느 것에서나 지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는 용서받을 것이며, 남은 것은 사제의 몫이 되어 음식 제물이 될 것이다.'

¹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¹⁵ "누구든지 주님의 성물에 대해 무심코 잘못을 저질러 죄를 지으면, 그는 주님께 손상 제물을 바쳐야 한다. 양무리에서 흠 없는 수양을 가져오되, 당신이 은으로 추정한 몫, 즉 성소의 시켈로, 손상 제물로 바친다.

¹⁶ 그는 성물에 대해 잘못된 것을 보상하고, 그에다 오분의 일까지 더하여 사제에게 주어야 한다. 사제가 손상 제물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¹⁷ "누구든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일을 저지르며 죄를 지는데, 그가 그것을 알지 못했더라도, 그는 여전히 죄가 있고, 자신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¹⁸ 그는 양무리에서 흠 없는 수양을 가져와, 당신이 추정한 몫으로 사제에게 손상 제물로 바치며, 사제가 그가 죄를 지었고 알지 못했던 일에 대하여 속죄하면,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¹⁹ 그것은 손상 제물이다. 그는 주님 앞에서 분명히 죄가 있다.

레위기 6장

-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누구든지 죄를 지어 주님께 불신실을 범하고, 이웃과 관련하여 위탁물이나 거래나 강탈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이웃을 억압하거나,
- 3 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거짓말을 하며 거짓 맹세를 하거나, 사람이 자신의 행동으로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 4 그가 죄를 지고 유죄임을 인정하면, 그는 강탈한 것, 억압으로 얻은 것, 자신에게 위탁된 것, 또는 발견한 잃어버린 것을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
- 5 또는 거짓 맹세한 모든 것을 그는 전액으로 돌려주고, 그에다 오분의 일까지 더해 주어야 한다. 그는 유죄가 드러난 그 날에 그 물건의 주인에게 그것을 돌려주어야 한다.
- 6 그는 주님께 손해배상 제물을 바쳐야 한다. 곧 양 떼에서 흠 없는 수양을, 너희가 평가한 대로, 사제에게 손해배상 제물로 바쳐야 한다.
- 7 사제는 주님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를 행할 것이며, 그는 유죄가 된 모든 일에 관해 용서를 받을 것이다.
- 8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9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말하여라. ‘이것은 번제의 법이다. 번제는 제단 위의 불판 위에 밤새도록 놓아두고 아침까지 태워야 한다. 제단의 불은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 10 사제는 자수색 옷을 입고, 몸에 자수색 바지를 입은 후, 제단 위에서 번제를 태운 불이 남긴 재를 제거하여 제단 옆에 놓아야 한다.
- 11 그는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은 후, 그 재를 진 밖 깨끗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 12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하며, 꺼지지 않아야 한다. 사제는 아침마다 나무를 제단 위에 넣어 태워야 한다. 그는 번제를 그 위에 차례대로 놓고 평화 제물의 기름을 태워야 한다.
- 13 제단 위의 불은 끊임없이 타오르게 해야 한다. 꺼지지 않아야 한다.
- 14 “‘이것은 곡식 제물의 법이다.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앞에서 주님 앞에 바쳐야 한다.
- 15 그는 곡식 제물의 가루와 기름, 그리고 곡식 제물 위에 놓인 모든 유향을 한 줍씩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태워,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그 기억의 일부로 바쳐야 한다.
- 16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어야 한다. 그것은 효모 없이 성스러운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들은 회막 마당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 17 그것은 효모를 넣어 구워서 안 된다. 나는 그것을 내 불로 바치는 제물 중 그들의 몫으로 주었다. 그것은 죄 제물과 손해배상 제물처럼 가장 성스러운 것이다.
- 18 아론의 모든 남자 자손은, 너희의 모든 세대에 걸쳐, 주님의 불로 바치는 제물 중 그들의 몫으로 그것을 먹을 것이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모두 성결하게 될 것이다.’
- 19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0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부음을 받는 날에 주님께 바칠 제물이다. 곧 하루에 한 에바의 가루로 된 곡식 제물을 항상 바치되, 아침에 반을, 저녁에 반을 바친다.
- 21 그것은 기름을 바른 팬에서 만들어야 한다. 물에 불린 후에 가져오고, 구운 조각으로 곡식 제물을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바쳐야 한다.
- 22 그의 아들들 중에서 그의 자리를 이을 기름부음을 받은 사제가 그것을 바쳐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법으로, 주님께 모두 태워 바쳐야 한다.
- 23 사제의 모든 곡식 제물은 모두 태워 바쳐야 한다.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 2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5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이것은 속죄제의 법이다. 번제를 잡는 곳에서 속죄제를 주님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

것은 가장 성스러운 것이다.'

²⁶ 속죄제를 바치는 사제가 그것을 먹어야 한다. 그것은 성소에서, 회막 마당에서 먹어야 한다.

²⁷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모두 성스러워진다. 그 피가 옷에 튀면, 그 피가 튀은 옷을 성소에서 씻어야 한다.

²⁸ 그것을 끓인 흙으로 만든 그릇은 부수어야 한다. 놋그릇에 끓였다면, 그 그릇을 닦고 물로 행궤야 한다.

²⁹ 사제 중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어야 한다. 그것은 가장 성스러운 것이다.

³⁰ 그 피가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죄를 위한 제사로 바쳐진 속죄제는 아무도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로 태워야 한다.

레위기 7장

- 1 "이것은 범죄 제물의 법이다. 그것은 가장 성한 것이다."
- 2 번제를 잡는 곳에서 그는 범죄 제물을 잡을 것이며,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릴 것이다.
- 3 그는 그 모든 기름을 바칠 것이다. 꼬리 기름과 내장 덮개 기름과,
- 4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콩팥 위의 기름, 허리 옆에 있는 기름과 간 위의 덮개를 콩팥과 함께 가져올 것이다.
- 5 사제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르며 주님께 화제로 드릴 것이다. 그것은 범죄 제물이다.
- 6 사제 중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성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것은 가장 성한 것이다.
- 7 "죄 제물과 같이 범죄 제물도 같다. 그 둘에는 같은 법이 있다. 그들을 통해 속죄를 행하는 사제가 그것을 가질 것이다."
- 8 어떤 이의 번제를 드리는 사제는 그가 드린 번제의 가죽을 자기 것으로 가질 것이다.
- 9 풀무에 구운 모든 곡식 제물과 팬에서 준비된 것과 그릴에서 만든 것 모두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제의 것이 된다.
- 10 기름이 섞인 것이든 말린 것이든 모든 곡식 제물은 아론의 모든 아들들에게 속하며,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나누어 가질 것이다.
- 11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화평 제물의 법이다."
- 12 그가 감사 제물로 드린다면, 그는 기름이 섞인 무교병과 기름을 바른 무교 웨이퍼와 기름이 섞인 빵을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릴 것이다.
- 13 그는 감사 제물로 드리는 화평 제물과 함께 발효된 빵을 드릴 것이다.
- 14 그는 각 제물에서 하나씩 헌물로 주님께 드릴 것이며, 이는 화평 제물의 피를 뿌리는 사제의 것이 될 것이다.
- 15 그의 감사 제물로 드리는 화평 제물의 고기는 그가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어야 한다. 그는 그 어떤 것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 16 "그러나 그가 드리는 제물이 서원 제물이거나 자발적 제물이라면, 그가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며, 다음 날에는 남은 것을 먹을 것이다."
- 17 그러나 세 번째 날에 남은 제물의 고기는 불에 태워야 한다.
- 18 만약 화평 제물의 고기가 세 번째 날에 먹힌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그 제물을 드린 자에게도 계산되지 않는다. 그것은 가증한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자신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 19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깨끗한 자는 누구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 20 그러나 주님께 속한 화평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서도 부정한 상태에 있는 자는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 21 누구든지 부정한 것, 즉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동물이나 어떤 부정한 가증한 것을 만지고, 주님께 속한 화평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 22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3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아야 한다."
- 24 자연사한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으나, 너희는 결코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 25 사람들이 불로 주님께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그 영혼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 26 너는 어떤 거주지에서도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아야 한다.
- 27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그 영혼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 28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9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평화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자는 그 평화 제물에서 주님께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 30 그는 자신의 손으로 주님께 불로 드리는 제물을 가져올 것이다. 그는 기름과 가슴을 함께 가져와서, 가슴을 주님 앞에서 흔들며 드리는 흔들기 제물로 삼아야 한다.
- 31 사제는 제단 위에 기름을 태울 것이고,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될 것이다.
- 32 너는 너희 평화 제물에서 오른다리를 사제에게 드려 들기 제물로 주어야 한다.
- 33 평화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아론의 아들들 중 누구든지 그 오른다리를 몫으로 얻을 것이다.

- ³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평화 제물에서 흔들기 가슴과 들기 다리를 가져와서, 아론 사제와 그의 아들들에게 영원히 그들의 몫으로 주었다.'
- ³⁵ 이것은 주님께서 불로 드리는 제물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성별된 몫으로, 그들이 사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간 날에 주신 것이다.
- ³⁶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이 기름부음을 받던 날에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몫으로, 그들의 대대에 걸쳐 영원한 몫이다.
- ³⁷ 이것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즉위제, 그리고 평화 제물의 율법이다.
- ³⁸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제물을 주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신 날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 곳은 시내 광야였다.

레위기 8장

-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옷들과 기름과 죄 헌물의 수소와 수양 두 마리, 그리고 무교병 한 바구니를 데려오라.
- 3 모든 회중을 회막의 문 앞에 모으라.
- 4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모든 회중을 회막의 문 앞에 모았다.
- 5 모세가 회중에게 말했다.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도록 명령하신 일이다."
- 6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와 물로 씻었다.
- 7 그는 그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겹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에봇의 정교하게 짠 띠를 매어 그에게 고정하였다.
- 8 그는 흉패를 그에게 걸었고, 우림과 둠뎀을 흉패 안에 넣었다.
- 9 그는 그의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두건 앞면에 금판, 곧 성결한 관을 씌웠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 10 모세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기름부어 성결하게 하였다.
- 11 그는 그것을 제단에 일곱 번 뿌리고, 제단과 그 모든 기구, 그리고 대야와 그 받침을 기름부어 성결하게 하였다.
- 12 그는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조금 붓고, 그를 기름부어 성결하게 하였다.
- 13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와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두건을 씌웠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 14 그는 죄 헌물의 수소를 데려왔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 15 그는 그것을 잡고,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들 주위에 바르고,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피를 제단 밑에 쏟아 부어 그것을 성결하게 하여 속죄하였다.
- 16 그는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간의 덮개, 그리고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와 제단 위에 태웠다.
- 17 그러나 수소와 그 가죽과 고기와 배설물을 모두 진 밖에서 불로 태웠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 18 그는 번제 헌물의 수양을 데려왔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 19 그는 그것을 잡고, 모세는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렸다.
- 20 그는 수양을 조각으로 찢개고, 모세가 머리와 조각과 기름을 태웠다.
- 21 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고, 모세가 그 수양 전체를 제단 위에 태웠다.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번제였고, 주님께 드리는 화제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 22 그는 다른 수양, 곧 위임 헌물의 수양을 데려왔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 23 그는 그것을 잡고, 모세는 그 피를 조금 가져와 아론의 오른쪽 귀 끝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큰발가락에 바르고,
- 24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와 모세가 그들의 오른쪽 귀 끝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큰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렸다.
- 25 그는 기름과 꼬리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간의 덮개와 두 콩팥과 그 기름,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를 가져왔다.
- 26 주님 앞에 놓인 무교병이 들어 있는 바구니에서 그는 무교병 한 덩이와 기름을 바른 빵 한 덩이와 얇은 과자 한 개를 가져와서 기름과 오른쪽 허벅지 위에 놓았다.
- 27 그는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올려 주님 앞에서 흔들며 예물로 드렸다.
- 28 모세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 제단 위, 번제 위에 불로 태웠다.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봉헌물이었고, 화제였다.
- 29 모세는 가슴을 가져와 주님 앞에서 흔들며 예물로 드렸다. 이는 주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봉헌양의 몫으로 받은 것이었다.
- 30 모세는 기름부음의 기름과 제단 위에 있던 피를 조금씩 가져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고,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성결하게 하였다.
- 31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회중의 장막 문에서 고기를 삶아 거기서 먹고, 봉헌의 바구니에 있는 빵도 먹어

라. 내가 명령한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³² 남은 고기와 빵은 불로 태워 버려라.

³³ 너희는 일주일 동안 회중의 장막 문 밖으로 나가지 말고, 거기 머물러라. 너희의 봉헌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가 너희를 일주일 동안 성결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³⁴ 오늘 행한 일은 주님이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이다.

³⁵ 너희는 일주일 동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회중의 장막 문 앞에 머물러 주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³⁶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일을 행하였다.

레위기 9장

¹ 여덟째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다.

² 그는 아론에게 말했다. "소 떼에서 죄 헌물로 송아지를 하나 잡고, 희생 제물로 흠 없는 수양을 하나 잡아, 주님 앞에 바쳐라."

³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죄 헌물로 수염소를 하나 잡고, 희생 제물로 흠 없는 일 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각각 하나 잡아라."

⁴ 또 주님 앞에 평화 헌물로 수소와 수양을 잡고, 기름과 섞인 곡식 제물을 바쳐라. 오늘 주님이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

⁵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것을 회막 앞에 가져왔다. 모든 회중이 나아와 주님 앞에 서 있었다.

⁶ 모세가 말했다. "이것이 주님이 너희가 행하도록 명령하신 일이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⁷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제단에 가까이 나아가서, 너를 위한 죄 헌물과 번제를 바치고, 너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여라.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제물을 바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라."

⁸ 아론은 제단에 가까이 나아가서, 자기를 위한 죄 헌물인 송아지를 잡았다.

⁹ 아론의 아들들이 그의 피를 가져왔고, 그는 손가락을 피에 담그어 제단의 뿔에 바르고, 피를 제단 밑에 쏟아부었다.

¹⁰ 그는 죄 헌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의 덮개를 제단 위에 불태웠다. 이는 주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¹¹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로 태웠다.

¹² 그는 번제를 잡았고,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가져와서, 제단 주위에 뿌렸다.

¹³ 그들은 번제를 조각마다, 그리고 머리까지 그에게 가져왔고, 그는 그것을 제단 위에 불태웠다.

¹⁴ 그는 내장과 다리를 씻어 번제 위에 제단 위에 불태웠다.

¹⁵ 그는 백성을 위한 제물을 가져와서, 백성을 위한 죄 헌물인 염소를 잡고, 처음과 같이 죄 헌물로 바쳤다.

¹⁶ 그는 번제를 가져와서, 규정에 따라 바쳤다.

¹⁷ 그는 곡식 제물을 가져와서, 거기서 손을 가득 채워서, 아침 번제 외에 제단 위에 불태웠다.

¹⁸ 그는 백성을 위한 평화 헌물인 수소와 수양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가져와서, 그가 제단 주위에 뿌렸다.

¹⁹ 수소와 수양의 기름, 꼬리 기름과 내장을 덮는 기름, 콩팥, 그리고 간의 덮개를 가져왔다.

²⁰ 그들은 기름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고, 아론은 제단 위에 기름을 불태웠다.

²¹ 아론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가슴과 오른쪽 다리를 주님 앞에서 흔들어 헌물로 드렸다.

²² 아론은 손을 백성 위로 들어 올려 축복하고, 죄 헌물과 번제, 평화 헌물을 마친 후에 내려왔다.

²³ 모세와 아론은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 앞에 나타났다.

²⁴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의 번제와 기름을 태웠다.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외치며 땅에 엎드렸다.

레위기 10장

- ¹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넣고 향을 올리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이방의 불을 주님 앞에 드렸다.
- ²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 그들이 주님 앞에서 죽었다.
- ³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이다. 내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아론은 침묵했다.
- ⁴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찌엘의 아들 여무엘과 스캠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다가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밖으로 옮겨라."
- ⁵ 그들이 다가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을 입은 채 진 밖으로 옮겼다.
- ⁶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너희 머리카락을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라. 그래야 너희가 죽지 않고, 주님께서 온 회중을 향해 분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온 집은 주님이 불태우신 것을 애도하게 하라."
- ⁷ 너희는 회막의 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래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기름이 너희 위에 있음이라." 그들은 모세의 말대로 하였다.
- ⁸ 그 후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 ⁹ "너와 네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포도주나 강한 음료를 마시지 마라. 그래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 대대에 영원한 율법이 될 것이다."
- ¹⁰ 너는 거룩한 것과 보통의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야 한다.
- ¹¹ 너는 모세를 통해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 ¹²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주님의 불제물 중 남은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제단 곁에서 누룩 없이 먹어라.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 ¹³ 너는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그것은 너와 네 아들들이 주님의 불제물에서 받을 몫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같이 명령받았기 때문이다.
- ¹⁴ 너와 네 아들들과 네 딸들은 정한 곳에서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허벅지를 먹을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평 제물에서 너와 네 아들들에게 주어진 몫이기 때문이다.
- ¹⁵ 그들은 기름의 불제물과 함께 들어 올린 허벅지와 흔든 가슴을 가져와 주님 앞에서 흔들어 흔든 제물로 드릴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너와 네 아들들의 영원한 몫이 될 것이다.
- ¹⁶ 모세가 속죄 제물의 염소를 꼼꼼히 찾아보니, 그것이 타서 없어져 있었다. 그는 남은 아론의 아들 엘아살과 이다말을 향해 분노하며 말했다.
- ¹⁷ "이 속죄 제물을 어찌 성소 안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며,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회중의 죄악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서 그들을 속죄하게 하신 것 아니냐?"
- ¹⁸ 보라,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오지 않았다.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는 성소 안에서 그것을 먹었어야 했다.
- ¹⁹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오늘 그들이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오늘 속죄 제물을 먹었다면, 주님의 눈에 기쁘게 여겨졌겠습니까?"
- ²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레위기 11장

- 1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이르셨다.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땅 위의 모든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생물은 다음과 같다.
- 3 짐승 중에서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 4 "그러나 되새김질하거나 발굽이 갈라진 동물 중에서 너희는 다음을 먹지 말아야 한다.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갈라지지 않아 너희에게 부정하다.
- 5 토끼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갈라지지 않아 너희에게 부정하다.
- 6 여우토끼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갈라지지 않아 너희에게 부정하다.
- 7 돼지는 발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 너희에게 부정하다.
- 8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시체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 9 "물속의 것들 중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바다와 강물 속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진 것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 10 바다와 강물 속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을 갖지 않은 모든 것, 물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 11 너희는 그것을 혐오해야 한다.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시체를 혐오해야 한다.
- 12 물속에서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 13 "새들 중에서 너희는 다음을 혐오해야 한다. 그것들은 가증하므로 먹지 말아야 한다. 독수리, 수리부엉이, 검은수리,
- 14 붉은매, 모든 종류의 검은매,
- 15 모든 종류의 까마귀,
- 16 뿔부엉이, 부엉이, 갈매기, 모든 종류의 매,
- 17 작은부엉이, 바다매, 큰부엉이,
- 18 흰부엉이, 사막부엉이, 수리부엉이,
- 19 백로, 모든 종류의 저어새, 두루미, 박쥐.
- 20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날개 달린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 21 그러나 너희는 다음을 먹을 수 있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날개 달린 곤충 중에서 땅 위에서 뛰어다닐 수 있는 긴 관절 다리를 가진 것들.
- 22 너희는 다음을 먹을 수 있다. 메뚜기의 모든 종류, 벌레의 모든 종류, 메뚜기의 모든 종류, 메뚜기의 모든 종류.
- 23 그러나 네 발을 가진 날개 달린 기어다니는 곤충은 모두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 24 "이것들로 인해 너희는 부정하게 된다. 그것들의 시체에 손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 25 그들의 시체의 어떤 부분이라도 메는 자는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 26 "발굽이 갈라졌으나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모든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모두 부정할 것이다.
- 27 네 발로 걷는 모든 짐승 중에서 발바닥으로 걷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들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 28 그들의 시체를 메는 자는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 29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 중에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족제비, 쥐, 모든 종류의 큰 도마뱀,
- 30 도마뱀, 거북이, 벽등걸이, 도마뱀, 그리고 변화무쌍한 도마뱀이다.
- 31 이것들은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 중에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것들이 죽었을 때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 32 그들이 죽었을 때 떨어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 나무로 만든 그릇이든, 옷이든, 가죽이든, 자루이든, 어떤 도구라도 그 것에 일하는 것이 있다면, 물에 담그어야 한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후에야 깨끗해질 것이다.
- 33 그들 중 하나가 떨어져 들어간 모든 흙으로 만든 그릇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 그 그릇은 부수어야 한다.

- ³⁴ 물에 젖은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은 부정하다. 그런 그릇에 담긴 마실 수 있는 모든 음료도 부정하다.
- ³⁵ 그들의 시체의 일부가 떨어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 화로나 냄비를 놓는 곳이라도 부수어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하며, 너희에게 부정할 것이다.
- ³⁶ 그러나 물이 모인 샘이나 우물은 깨끗하다. 그러나 그것들의 시체에 닿는 것은 부정하다.
- ³⁷ 만약 그들의 시체의 일부가 뿌릴 씨앗에 떨어지면, 그 씨앗은 깨끗하다.
- ³⁸ 그러나 씨앗에 물이 뿌려졌고, 그들의 시체의 일부가 그것에 떨어지면,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 ³⁹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 중 하나가 죽으면, 그 시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 ⁴⁰ 그 시체를 먹는 자는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시체를 메는 자도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 ⁴¹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어다니는 생물은 가증한 것이다.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 ⁴² 배로 기어다니는 것,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 다리가 많은 것, 곧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어다니는 생물은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한다. 그것들은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 ⁴³ 너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어떤 기어다니는 생물로도 스스로 가증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그것들로 스스로 부정하게 하지 말고, 그것들로 인해 더럽혀지지 말아야 한다.
- ⁴⁴ 나는 너희 하느님 주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땅 위를 움직이는 어떤 기어다니는 생물로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 ⁴⁵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어 너희의 하느님이 되기 위해 주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나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 ⁴⁶ “이것은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 관한 법이다.
- ⁴⁷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는 살아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살아 있는 것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레위기 12장

- ¹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²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일곱 날 동안 부정하다. 월경 기간과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 ³ 여덟째 날에 그의 음경의 살갓을 할례한다.
- ⁴ 그녀는 피의 정결 기간 동안 삼십삼 일 동안 머물러야 한다. 그녀는 어떤 성물에도 만지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녀의 정결 기간이 끝날 때까지다.
- ⁵ 그러나 여자를 낳으면 두 주 동안 부정하다. 월경 기간과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그녀는 피의 정결 기간 동안 육십육 일 동안 머물러야 한다.
- ⁶ “아들 또는 딸을 낳은 후 정결 기간이 끝나면, 그녀는 장막의 문 앞에서 사제에게 일 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비둘기 또는 비둘기 새끼를 죄 제물로 데려가야 한다.
- ⁷ 사제는 그것을 주님 앞에 바쳐 그녀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다. 그 후 그녀는 피의 원천에서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아들 또는 딸을 낳은 여자를 위한 법이다.”
- ⁸ 만약 양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그녀는 비둘기 두 마리나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야 한다. 하나는 번제로, 다른 하나는 죄 제물로 한다. 사제가 그녀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녀는 깨끗해질 것이다.”

레위기 13장

- 1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 2 사람이 몸의 피부에 부종이나 딱지, 또는 밝은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피부에 나병의 병으로 나타나면, 그는 아론 사제나 그의 아들들 중 한 명인 사제에게 데려가야 한다.
- 3 사제는 그 몸의 피부에 있는 병을 살펴보아야 한다. 병이 있는 곳의 털이 하얗게 변하고, 병이 피부보다 깊이 침범했다면, 그것은 나병의 병이다. 그러므로 사제는 그를 살펴보고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 4 그가 몸의 피부에 하얀 반점이 있다면, 그것이 피부보다 깊이 침범하지 않고, 그 털이 하얗게 변하지 않았다면, 사제는 그 감염된 자를 일곱 날 동안 격리해야 한다.
- 5 사제는 일곱 번째 날에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보라, 만약 그의 눈에 병이 멈추고 병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다면, 사제는 그를 또 일곱 날 동안 격리해야 한다.
- 6 사제는 일곱 번째 날에 다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보라, 만약 병이 희미해지고 피부에 퍼지지 않았다면, 사제는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딱지이다. 그는 옷을 빨아야 하며, 깨끗해질 것이다.
- 7 그가 사제에게 깨끗함을 받기 위해 나타난 후에 딱지가 피부에 퍼진다면, 그는 다시 사제에게 나타나야 한다.
- 8 사제는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보라, 만약 딱지가 피부에 퍼졌다면, 사제는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나병이다.
- 9 사람에게 나병의 병이 생기면, 그는 사제에게 데려가야 한다.
- 10 사제는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보라, 만약 피부에 하얀 부종이 있고, 그 털이 하얗게 변하며, 부종 안에 생육이 있다면,
- 11 그것은 그의 몸의 피부에 있는 만성 나병이다. 사제는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를 격리하지 말라. 이미 부정하기 때문이다.
- 12 나병이 몸의 피부 전체에 퍼져서, 감염된 자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부 전체를 덮어 사제의 눈에 보인다면,
- 13 사제는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보라, 만약 나병이 그의 육체 전체를 덮었다면, 사제는 그를 병에서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모두 하얗게 변했기 때문이다. 그는 깨끗하다.
- 14 그러나 그 안에 생육이 나타날 때마다, 그는 부정하다.
- 15 사제는 생육을 살펴보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생육은 부정하다. 그것은 나병이다.
- 16 또는 생육이 다시 변하여 하얗게 변한다면, 그는 사제에게 나아가야 한다.
- 17 사제는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보라, 만약 병이 하얗게 변했다면, 사제는 그를 병에서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깨끗하다.
- 18 몸의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낫고,
- 19 그 종기 자리에 하얀 부종이나 붉은하얀 반점, 또는 하얀 반점이 생기면, 그것을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 20 사제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보라, 만약 그것이 피부보다 깊이 침범하고, 그 털이 하얗게 변했다면, 사제는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나병의 병이다. 그것은 종기에서 생겨났다.
- 21 그러나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아, 그것에 하얀 털이 없고, 피부보다 깊이 침범하지 않으며, 색이 흐릿하다면, 사제는 그를 일곱 날 동안 격리해야 한다.
- 22 그것이 피부에 퍼진다면, 사제는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병이다.
- 23 그러나 만약 반점이 제자리에 머물고 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종기의 흉터이다. 사제는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 24 또는 몸의 피부에 불에 탄 상처가 생겨서, 그 상처의 생육이 붉은하얀 반점이나 하얀 반점이 되면,
- 25 그때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보라, 만약 밝은 반점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그 모양이 피부보다 깊다면, 그것은 나병이다. 그것은 화상의 부위에서 퍼져 나온 것이며, 사제는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나병의 재앙이다.
- 26 그러나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아, 만약 밝은 반점에 하얀 머리카락이 없고, 피부보다 깊지 않으며, 색이 바랬다면, 사제는

그를 일주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²⁷ 사제는 일곱째 날에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그것이 피부에 퍼졌다면, 사제는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나병의 재앙이다.

²⁸ 만약 밝은 반점이 제자리에 머물고 피부에 퍼지지 않으며 색이 바랬다면, 그것은 화상의 부종이며, 사제는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화상의 흉터이기 때문이다.

²⁹ "남자나 여자가 머리카락이 수염에 재앙을 얻으면,

³⁰ 사제가 그 재앙을 살펴보아야 한다. 보라, 만약 그 모양이 피부보다 깊고 그 안의 머리카락이 노랗고 가늘다면, 사제는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두드러기이다. 그것은 머리카락이 수염의 나병이다.

³¹ 사제가 두드러기의 재앙을 살펴보아, 만약 그 모양이 피부보다 깊지 않고 그 안에 검은 머리카락이 없다면, 사제는 그 두드러기에 걸린 자를 일주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³² 일곱째 날에 사제가 그 재앙을 살펴보아야 한다. 보라, 만약 두드러기가 퍼지지 않고 그 안에 노란 머리카락이 없으며, 두드러기의 모양이 피부보다 깊지 않다면,

³³ 그는 머리를 깎아야 하지만, 두드러기 부위는 깎지 말아야 한다. 그 후 사제는 그 두드러기를 가진 자를 또 일주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³⁴ 일곱째 날에 사제가 그 두드러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보라, 만약 두드러기가 피부에 퍼지지 않고 그 모양이 피부보다 깊지 않다면, 사제는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옷을 빨아야 깨끗해진다.

³⁵ 그러나 그가 깨끗해진 후에 두드러기가 피부에 퍼진다면,

³⁶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보라, 만약 두드러기가 피부에 퍼졌다면, 사제는 노란 머리카락을 찾지 말아야 한다. 그는 부정하다.

³⁷ 그러나 만약 그의 눈에 두드러기가 멈추고 그 안에 검은 머리카락이 자랐다면, 그 두드러기는 낫는 것이다. 그는 깨끗하다. 사제는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³⁸ "남자나 여자가 몸의 피부에 밝은 반점을 얻고, 그것이 흰 밝은 반점이라면,

³⁹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보라, 만약 그들의 몸 피부의 밝은 반점이 희미한 흰색이라면, 그것은 해롭지 않은 발진이다. 그것은 피부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깨끗하다.

⁴⁰ "남자의 머리카락이 머리에서 빠졌다면, 그는 대머리이다. 그는 깨끗하다.

⁴¹ 만약 그의 머리카락이 이마 앞쪽에서 빠졌다면, 그의 이마는 대머리이다. 그는 깨끗하다.

⁴² 그러나 만약 대머리 머리카락이 이마에 붉은흰색의 재앙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대머리 머리카락이 대머리 이마에 나타난 나병이다.

⁴³ 그때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보라, 만약 그의 대머리 머리카락이 대머리 이마에 있는 재앙의 부종이 붉은흰색이고, 몸의 피부에 있는 나병의 모양과 같다면,

⁴⁴ 그는 나병 환자이다. 그는 부정하다. 사제는 분명히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의 재앙은 그의 머리에 있다.

⁴⁵ "나병 환자에게 재앙이 있다면, 그는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의 머리카락을 풀어헤쳐야 한다. 그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한다.

⁴⁶ 재앙이 그에게 있는 동안 모든 날,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하다. 그는 혼자 살며, 그의 거처는 진 밖이어야 한다.

⁴⁷ "나병의 재앙이 있는 옷은, 양모 옷이든, 베 옷이든,

⁴⁸ 그것이 직선이든, 횡선이든, 베이든, 양모이든, 가죽이든, 가죽으로 만든 어떤 것이든,

⁴⁹ 만약 옷이나 가죽이나 직선이나 휘선, 또는 어떤 가죽으로 만든 것에 녹색이나 붉은색의 병변이 있다면, 그것은 문둥병의 병변이며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⁵⁰ 사제는 그 병변을 살펴보아 일곱 날 동안 고립시켜야 한다.

⁵¹ 사제는 일곱째 날에 그 병변을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병변이 옷이나 직선이나 휘선이나 가죽, 즉 가죽이 쓰이는 어떤 것에도 퍼졌다면, 그것은 파괴적인 곰팡이이다. 그것은 부정하다.

⁵² 사제는 그 병변이 있는 옷, 즉 양모나 실크로 된 직선이나 휘선, 또는 어떤 가죽이라도 불에 태워야 한다. 그것은 파괴적

인 곰팡이이기 때문이다. 불에 태워야 한다.

⁵³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다, 병변이 옷이나 직선이나 휘선이나 어떤 가죽에도 퍼지지 않았다면,

⁵⁴ 사제는 병변이 있는 것을 씻으라고 명령하고, 다시 일곱 날 동안 고립시켜야 한다.

⁵⁵ 그 후 사제는 병변을 씻은 후에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병변의 색깔이 변하지 않고 병변이 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부정하다. 너는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것은 곰팡이 자국이다.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상관없다.

⁵⁶ 사제가 살펴보다, 병변이 씻은 후에 희미해졌다면, 그는 그것을 옷에서, 또는 가죽에서, 또는 직선에서, 또는 휘선에서 떼어내야 한다.

⁵⁷ 그리고 만약 그것이 옷, 즉 직선이나 휘선, 또는 어떤 가죽에 다시 나타난다면, 그것은 퍼지고 있는 것이다. 너는 병변이 있는 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⁵⁸ 너는 씻은 옷, 즉 직선이나 휘선, 또는 어떤 가죽이라도, 병변이 그것들에서 사라졌다면, 다시 한 번 씻어야 하며,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⁵⁹ 이것은 양모나 실크로 된 옷, 또는 직선이나 휘선, 또는 어떤 가죽에 있는 곰팡이 병변에 관한 법이다. 그것을 깨끗하다고 선언하거나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데 쓰인다.

레위기 14장

-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다. 그는 사제에게 끌려가야 한다.
- 3 사제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검사할 것이다. 보라, 나병 환자의 병이 낫았다면,
- 4 사제는 그를 깨끗하게 할 자를 위해 두 마리의 살아 있는 깨끗한 새와 백향목과 붉은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고 명령할 것이다.
- 5 사제는 그들에게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흠으로 만든 그릇 안에서 잡으라고 명령할 것이다.
- 6 사제는 살아 있는 새와 백향목과 붉은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죽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담그고,
- 7 나병 환자에게 일곱 번 뿌리고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한 후, 살아 있는 새를 들판으로 보내야 한다.
- 8 "깨끗하게 될 자는 옷을 빨고, 모든 머리카락을 깎고, 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깨끗해질 것이다. 그 후에 그는 진영에 들어가지만, 칠 일 동안 자기 천막 밖에 머물러야 한다.
- 9 일곱째 날에는 그가 머리와 수염과 눈썹의 모든 머리카락을 깎아야 한다. 그는 모든 머리카락을 깎고,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 그때 그는 깨끗해질 것이다.
- 10 "여덟째 날에는 그는 흠 없는 수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암양 한 마리, 기름과 섞인 고운 가루 세 십분의 일 에바와 기름 한 로를 가져야 한다.
- 11 그를 깨끗하게 할 사제는 깨끗하게 될 자와 이 물건들을 회막 문 앞에서 주님 앞에 세워야 한다.
- 12 "사제는 수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죄에 대한 속건제로 드리고, 기름 한 로와 함께 그것을 주님 앞에서 흔들여 예물로 드려야 한다.
- 13 그는 성소의 장소에서 죄제와 번제를 잡는 곳에서 수양을 잡을 것이다. 죄제가 사제의 것이듯, 속건제도 사제의 것이다. 그것은 가장 성한 것이다.
- 14 사제는 속건제의 피를 조금 가져다가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귀 끝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큰발가락에 바르고,
- 15 사제는 기름 한 로의 일부를 가져다가 자기 왼손의 손바닥에 붓고,
- 16 사제는 오른손 손가락으로 왼손에 있는 기름을 찍어 주님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다.
- 17 사제는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의 일부를 속건제의 피 위에,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귀 끝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큰발가락에 바를 것이다.
- 18 사제는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깨끗하게 될 자의 머리에 바르고, 주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할 것이다.
- 19 "사제는 죄제를 드려, 그의 부정함 때문에 깨끗하게 될 자를 위해 속죄할 것이다. 그 후에 사제는 번제를 잡을 것이다.
- 20 그리고 사제는 제단 위에 번제와 소제를 드릴 것이다. 사제는 그를 위해 속죄하고, 그는 깨끗해질 것이다.
- 21 "그가 가난하여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는 속건제로 흔들여 드릴 수양 한 마리와 기름과 섞인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와 기름 한 로를 가져야 한다.
- 22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비둘기 두 마리나 새끼비둘기 두 마리를 가져야 한다. 하나는 죄제로, 다른 하나는 번제로 드릴 것이다.
- 23 "여덟째 날에는 그는 깨끗해지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회막 문 앞, 주님 앞에 사제에게 데려갈 것이다.
- 24 사제는 속건제의 수양과 기름 한 로를 가져다가 주님 앞에서 흔들여 예물로 드릴 것이다.
- 25 그는 속죄의 어린 양을 잡을 것이다. 사제는 속죄의 피 일부를 가져다가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귀 끝과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발 큰발가락에 바를 것이다.
- 26 사제는 자기 왼손의 손바닥에 기름 일부를 붓을 것이다.
- 27 사제는 왼손에 있는 기름 일부를 오른손가락으로 일곱 번 주님 앞에 뿌릴 것이다.
- 28 그 후 사제는 자기 손에 있는 기름 일부를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귀 끝과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발 큰발가락에, 속죄의 피가 놓인 곳에 바를 것이다.
- 29 사제는 자기 손에 남아 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바르며, 주님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다.

- 30 그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대로 비둘기 한 마리나 새끼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릴 것이다.
- 31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종류로, 하나는 죄 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로, 곡식 제물과 함께 드릴 것이다. 사제는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다.
- 32 이것은 나병이 있으면서도 정결함을 위한 제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를 위한 법이다.
- 33 주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 34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 소유의 집에 퍼지는 곰팡이를 두면,
- 35 그 집의 주인은 사제에게 가서 말할 것이다. "내 집에 어떤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 36 사제는 집 안의 모든 것을 비우라고 명령할 것이다. 사제가 병을 살펴보기 전에 집 안의 모든 것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후 사제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볼 것이다.
- 37 그는 병을 살펴볼 것이다. 보라, 만약 집 벽에 함몰된 줄무늬가 있고, 녹색이나 붉은색이며, 벽보다 더 깊어 보인다면,
- 38 그러면 사제는 집 밖으로 나가서 집 문을 닫고 일곱 날 동안 집을 봉쇄할 것이다.
- 39 사제는 일곱째 날에 다시 와서 살펴볼 것이다. 만약 집 벽에 병이 퍼졌다면,
- 40 사제는 병이 있는 돌들을 빼내어 성 밖의 더러운 곳에 버리라고 명령할 것이다.
- 41 그는 집 안을 온통 긁어낼 것이다. 그들은 긁어낸 석회를 성 밖의 더러운 곳에 버릴 것이다.
- 42 그들은 다른 돌들을 가져와 그 돌들을 대신할 것이며, 다른 석회를 가져와 집을 다시 칠할 것이다.
- 43 "만약 병이 다시 생겨, 돌들을 빼내고 집을 긁어낸 후에 다시 칠한 집에 다시 나타난다면,
- 44 그러면 사제는 들어가서 살펴볼 것이다. 보라, 만약 병이 집 안에 퍼졌다면, 그것은 집 안의 파괴적인 곰팡이다. 그것은 더럽다.
- 45 그는 그 집을 헐어버릴 것이다. 그 집의 돌들과 나무들과 모든 석회를 헐어내어 성 밖의 더러운 곳으로 옮길 것이다.
- 46 "또한 집이 봉쇄된 동안 집 안에 들어간 자는 저녁까지 더러울 것이다.
- 47 집 안에서 자는 자는 옷을 빨아야 하며, 집 안에서 먹는 자도 옷을 빨아야 한다.
- 48 "사제가 들어가서 살펴보면, 집을 칠한 후에 병이 집 안에 퍼지지 않았다면, 사제는 그 집을 깨끗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병이 낫았기 때문이다.
- 49 집을 정결하게 하려면 그는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붉은 실과 우슬초를 가져야 한다.
- 50 그는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흙으로 만든 그릇 안에서 죽일 것이다.
- 51 그는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 실과 살아 있는 새를 가져다가 죽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담그고 집을 일곱 번 뿌릴 것이다.
- 52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 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 53 그러나 그는 살아 있는 새를 성읍 밖 들판으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그는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집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 54 이것은 모든 나병의 징후와 가려움증에 관한 법이다.
- 55 옷의 부패한 곰팡이와 집에 관한 법이며,
- 56 부어오름과 비듬과 밝은 반점에 관한 법이다.
- 57 그것이 부정할 때와 정결할 때를 가르치기 위한 법이다.

레위기 15장

- 1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너니, 어떤 남자가 몸에서 분비물이 나면, 그 분비물 때문에 그는 부정하다.
- 3 그의 분비물로 인한 그의 부정은 이러하다. 몸에서 분비물이 흐르든, 분비물이 멈추든, 그것이 그의 부정이다.
- 4 "그 분비물이 나는 자가 누운 모든 침대는 부정하고, 그가 앉은 모든 것은 부정하다.
- 5 그 침대를 만지는 자는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은 후, 저녁까지 부정하다.
- 6 그 분비물이 나는 자가 앉은 것을 앉은 자는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은 후, 저녁까지 부정하다.
- 7 "그 분비물이 나는 자의 몸을 만지는 자는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은 후, 저녁까지 부정하다.
- 8 "그 분비물이 나는 자가 깨끗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그는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은 후, 저녁까지 부정하다.
- 9 "그 분비물이 나는 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은 부정하다.
- 10 그가 밑에 앉았던 것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 물건들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은 후, 저녁까지 부정하다.
- 11 "그 분비물이 나는 자가 손을 물로 씻지 않고 만지는 자는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은 후, 저녁까지 부정하다.
- 12 "그 분비물이 나는 자가 만진 흙으로 만든 그릇은 부수어야 하며, 나무로 만든 모든 그릇은 물에 행궤야 한다.
- 13 "그 분비물이 나던 자가 그 분비물을 깨끗이 치료받으면, 그는 치유를 위해 일곱 날을 세고, 옷을 빨며,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 깨끗해질 것이다.
- 14 "여덟째 날에 그는 비둘기 두 마리나 새끼 비둘기 두 마리를 가져와, 회막 문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사제에게 주어야 한다.
- 15 사제는 그것을 바치되, 하나는 속죄제로, 다른 하나는 번제로 드릴 것이다. 사제는 주님 앞에서 그의 분비물로 인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다.
- 16 "어떤 남자가 정액을 배출하면, 그는 온 몸을 물에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 17 정액이 묻은 모든 옷과 모든 가죽은 물에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 18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여 정액이 배출되면, 둘 다 물에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 19 "여자가 분비물이 나서, 그 몸에서 피가 흐르면, 그녀는 일곱 날 동안 부정하다. 그녀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 20 "그녀가 부정한 동안 누운 모든 것은 부정하고, 그녀가 앉은 모든 것도 부정하다.
- 21 그녀의 침대를 만지는 자는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은 후, 저녁까지 부정하다.
- 22 그녀가 앉은 것을 만지는 자는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은 후, 저녁까지 부정하다.
- 23 그것이 침대 위이거나, 그녀가 앉은 것 위에 있으면, 그것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 24 "어떤 남자가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의 월경이 그에게 묻으면, 그는 일곱 날 동안 부정하며, 그가 누운 모든 침대는 부정하다.
- 25 '여자가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오래도록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을 넘어서 피를 흘리면, 그녀의 부정한 분비가 있는 모든 날은 월경 기간과 같아야 한다. 그녀는 부정하다.'
- 26 그녀가 분비가 있는 동안 누운 모든 침대는 그녀의 월경 기간의 침대와 같고, 그녀가 앉은 모든 것은 그녀의 월경 기간의 부정과 같이 부정하다.'
- 27 이런 것들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되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 28 '그러나 그녀가 분비에서 깨끗해지면, 일곱 날을 세고 그 후에야 깨끗해질 것이다.'
- 29 여덟째 날에 그녀는 비둘기 두 마리나 새끼 비둘기 두 마리를 가져다가 회막의 문으로 사제에게 나아가야 한다.'
- 30 사제는 하나를 속죄 제물로, 다른 하나를 번제물로 드리고, 주님 앞에서 그녀의 분비로 인한 부정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다.'
- 31 '이렇게 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에서 떼어내어, 그들이 내 곁에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힐 때에 그 부정으로 인해 죽지 않게 하라.'

³² 이것은 분비가 있는 자와 정액을 흘리는 자의 법이며, 그것으로 인해 부정하게 되는 법이다.

³³ 월경이 있는 자와 남자나 여자에게 분비가 있는 자, 그리고 부정한 여자와 동침한 자의 법이다.

레위기 16장

- 1 주님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다 죽었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 네 형제에게 말하여, 임의의 때에 휘장 안에 있는 가장 성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곳은 궤 위에 있는 자비의 자리다. 그가 죽지 않게 하라. 나는 구름 속에서 자비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다."
- 3 "아론은 죄의 제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수양 한 마리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
- 4 그는 거룩한 베옷을 입고, 베 바지를 몸에 두르며, 베 띠를 띠고, 베 관을 쓰고 있어야 한다. 이는 거룩한 옷이다. 그는 물로 몸을 씻은 후, 이 옷을 입어야 한다."
- 5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죄의 제물로 수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수양 한 마리를 가져오라.
- 6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의 제물인 수소를 바쳐, 자신과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 7 그는 두 마리의 수염소를 가져와, 회막 문 앞에서 주님 앞에 놓아야 한다.
- 8 아론은 두 마리의 수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다른 하나는 속죄염소를 위하여 뽑아야 한다.
- 9 아론은 주님을 위하여 뽑힌 수염소를 데려와, 죄의 제물로 바쳐야 한다.
- 10 그러나 속죄염소를 위하여 뽑힌 수염소는 살아 있는 채로 주님 앞에 데려와, 속죄를 위하여 드리고, 광야로 보내어 속죄염소로 삼아야 한다.
- 11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의 제물인 수소를 데려와, 자신과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한 후, 자기를 위한 죄의 제물인 수소를 잡아야 한다."
- 12 그는 주님 앞의 제단에서 불이 붙은 숯을 화로에 가득 채우고, 갈아서 작은 가루로 만든 향을 두 줌 가져와, 휘장 안으로 들고 들어가야 한다.
- 13 그는 주님 앞에서 불 위에 향을 놓아, 향의 구름이 증거궤 위의 자비의 자리 위를 덮게 하여, 그가 죽지 않게 하라.
- 14 그는 수소의 피를 조금 취해, 손가락으로 동쪽 자비의 자리 위에 뿌리고, 자비의 자리 앞에 피를 일곱 번 뿌려야 한다.
- 15 "그 후 그는 백성을 위한 죄의 제물인 수염소를 잡고,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서, 수소의 피를 다룬 것처럼 그 피를 다루어, 자비의 자리 위와 자비의 자리 앞에 뿌려야 한다."
- 16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죄, 곧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해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이 부정한 가운데 거하는 회막을 위하여도 같은 일을 하여야 한다.
- 17 그가 성소에서 속죄를 마칠 때까지, 누구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가 자신과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를 마칠 때까지, 아무도 들어서지 못한다.
- 18 "그는 주님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가서, 그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수소의 피와 수염소의 피를 조금씩 취하여, 제단 뿔들 주위에 바르고, 그 위에 뿌려야 한다."
- 19 그는 손가락으로 그 피를 일곱 번 뿌려,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 20 "그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를 마친 후, 살아 있는 수염소를 데려와야 한다."
- 21 아론은 두 손을 살아 있는 수염소의 머리 위에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과 범죄와 죄를 고백하여, 그 죄들을 수염소의 머리 위에 얹고, 준비된 한 남자의 손으로 광야로 보내야 한다.
- 22 그 수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자기 몸에 지고 황폐한 땅으로 가서, 광야에서 풀려나야 한다.
- 23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베옷을 벗고, 그곳에 두어야 한다."
- 24 그 후 그는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신의 옷을 입은 후,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바치고,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 25 죄 헌물의 기름을 제단 위에 태울 것이다.
- 26 염소를 속죄 염소로 보내는 자는 옷을 씻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야 진영으로 들어갈 것이다.
- 27 죄 헌물로 드리는 수소와 죄 헌물로 드리는 염소, 그 피가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위해 쓰인 것은 진영 밖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들의 가족과 고기와 배설물을 불로 태울 것이다.
- 28 그것들을 태우는 자는 옷을 씻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야 진영으로 들어갈 것이다.

- ²⁹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 것이다. 일곱째 달 열째 날에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히고, 본토 출신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이든,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 ³⁰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이루어져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주님 앞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 ³¹ 이것은 너희에게 엄숙한 안식일이 되며,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힐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법규이다.
- ³² 기름을 부음받아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 사제가 되는 사제가 속죄를 행하고, 성스러운 베옷을 입을 것이다.
- ³³ 그는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며, 사제들과 공동체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다.
- ³⁴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 년에 한 번씩 속죄를 행할 것이다.

레위기 17장

- ¹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²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이다:
- "
- ³ 이스라엘 집안의 어떤 사람이든, 진영 안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거나, 진영 밖에서 잡으면,
- ⁴ 그것을 회막의 문으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피를 그에게 돌릴 것이다. 그는 피를 흘렸다.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 ⁵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제사로 바치는 제물을 모두 주님께, 회막의 문으로, 제사장에게 가져오게 하여, 주님께 화평 제물을 바치게 하려는 것이다.
- ⁶ 제사장은 회막의 문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 그 피를 뿌리고, 기름을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태울 것이다.
- ⁷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음행을 범하는 산염소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율법이 될 것이다."
- ⁸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집안의 어떤 사람이든,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번제나 제물을 주님께 바치는 자가,"
- ⁹ 그것을 회막의 문으로 가져가서 주님께 제사로 바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 ¹⁰ "이스라엘 집안의 어떤 사람이든,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어떤 피라도 먹는 자가 있으면, 나는 그 피를 먹는 영혼을 향해 내 얼굴을 겨누고, 그를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 ¹¹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너희에게 제단에 주어 너희 영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속죄를 이룬다."
- ¹²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너희 중 누구도 피를 먹지 말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 ¹³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사냥으로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잡는 자는,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 ¹⁴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너는 어떤 육체의 피라도 먹지 말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먹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 ¹⁵ "자기 몸에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는 자는, 토착민이든 외국인이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후에는 깨끗해질 것이다."
- ¹⁶ 그러나 그가 옷을 빨지 않거나 몸을 씻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를 짊어질 것이다."

레위기 18장

-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너니, 나는 너희 하느님 주님이다."
- 3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에서 하는 일처럼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에서 하는 일처럼 하지 말며,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 4 너희는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너희 하느님 주님이다.
- 5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한다. 사람이 이것을 실천하면 그로 인해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 6 "아무도 가까운 친족에게 가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 7 "너는 네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고, 네 어머니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그녀는 네 어머니이다. 너는 그녀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 8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네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이다."
- 9 "너는 네 아버지의 딸이거나 네 어머니의 딸인 네 여동생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났건 외부에서 태어났건 간에 말이다."
- 10 "너는 네 아들의 딸이나 네 딸의 딸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벌거벗은 몸도 바로 너의 벌거벗은 몸이다."
- 11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와 낳은 딸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그녀는 네 여동생이다."
- 12 "너는 네 아버지의 누이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그녀는 네 아버지의 가까운 친족이다."
- 13 "너는 네 어머니의 누이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그녀는 네 어머니의 가까운 친족이다."
- 14 "너는 네 아버지의 형제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고, 그의 아내에게 가서는 안 된다. 그녀는 네 이모이다."
- 15 "너는 네 사위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그녀는 네 아들의 아내이다. 너는 그녀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 16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네 형제의 벌거벗은 몸이다."
- 17 "너는 한 여자와 그녀의 딸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너는 그녀의 아들의 딸이나 그녀의 딸의 딸을 데려와서 그녀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가까운 친족이다. 그것은 악행이다."
- 18 "너는 여동생이 살아 있는 동안, 그녀의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여 경쟁자로 삼아 그녀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 19 "너는 여자가 그녀의 부정한 기간 동안 그녀에게 가서 그녀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 20 "너는 이웃의 아내와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지 말고, 그녀로 인해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 21 "너는 네 자녀 중 아무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지 말아야 한다. 너는 네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 22 "너는 남자와 여자처럼 남자와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혐오스러운 일이다."
- 23 "너는 어떤 동물과도 관계를 맺어 그로 인해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어떤 여자도 동물에게 몸을 내주어 그와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다."
- 24 "이 모든 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일로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 25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나는 그 땅의 죄악을 벌하여 그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해냈다.
- 26 그러므로 너희는 내 율법과 규례를 지켜서, 이 가증한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 땅에서 태어난 자도, 너희 가운데 외국인으로 거주하는 자도 모두 그러해야 한다.
- 27 (이는 너희보다 먼저 그 땅에 살던 자들이 모두 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 28 너희가 그 땅을 더러워서 그 땅이 너희를 또한 토해내지 않도록 하라. 그 땅은 너희보다 먼저 살던 민족을 토해냈다.
- 29 "누구든지 이 가증한 일 중 하나를 행하는 자는 그 일을 행한 영혼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³⁰ 그러므로 너희는 내 요구를 지켜서, 너희보다 먼저 행해졌던 이 가증한 풍속을 아무것도 행하지 말고, 그것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나는 너희 주님이다.”

레위기 19장

-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너니,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주님 너희 하느님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 3 "각자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주님 너희 하느님이다."
- 4 "너는 우상으로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 부어 만든 신들을 만들지 말라. 나는 주님 너희 하느님이다."
- 5 "너희가 주님께 화평 제물을 바칠 때에는, 너희가 받아들여지도록 바치라."
- 6 "그것은 너희가 바치는 그날과 그 다음 날에 먹어야 한다. 남은 것이 사흘째까지 남아 있다면, 불로 태워야 한다."
- 7 "사흘째에 그것을 먹는다면, 그것은 가증한 일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 8 "그것을 먹는 자는 모두 죄를 짊어질 것이다. 그가 주님의 성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 영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 9 "너희가 너희 땅의 수확을 거둘 때, 너희 밭의 모서리를 다 베지 말고, 수확한 뒤에 남은 것을 줍지 말라."
- 10 "너는 포도원의 열매를 줍지 말고, 포도원에서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라. 그것을 가난한 자와 외국인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주님 너희 하느님이다."
- 11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말하지 말라. 너는 이웃을 속이지 말라."
- 12 "너는 내 이름으로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라. 너는 네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님이다."
- 13 "너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그를 강탈하지 말라. 고용된 자의 월급은 너에게 밤새 머물러서는 안 되며,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 14 "너는 귀머거리에게 저주를 퍼부어선 안 되고, 눈먼 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라. 그러나 너는 네 하느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님이다."
- 15 "너는 재판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라. 가난한 자를 편애하지 말고, 위대한 자를 아첨하지 말라. 너는 의로움으로 이웃을 판단하라."
- 16 "너는 백성 가운데서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는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님이다."
- 17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이웃을 책망하고, 그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
- 18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네 백성의 자손에 대해 원한을 품지 말라. 너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나는 주님이다."
- 19 "너는 내 율법을 지키라. 너는 다른 종류의 동물을 교배하지 말라. 너는 두 가지 씨를 가지고 네 밭에 뿌리지 말라. 너는 두 가지 재료로 만든 옷을 입지 말라."
- 20 "만약 어떤 남자가 결혼 약속을 받고도 해방되지 않은 여종과 정욕을 채운다면, 그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그 여자는 자유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 21 "그는 그 죄를 지은 것을 속죄하기 위해 주님께, 회막 문 앞에 속죄 양을 가져올 것이다."
- 22 "사제는 그가 지은 죄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그 속죄 양으로 속죄를 행할 것이며, 그가 지은 죄는 용서될 것이다."
- 23 "너희가 땅에 들어가서, 모든 먹을 나무를 심으면, 그 열매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삼 년 동안은 너희에게 금지되어 먹지 못할 것이다."
- 24 "그러나 네 번째 해에는 그 나무의 모든 열매가 거룩하여, 주님께 찬미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 25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으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수확을 가져다줄 것이다. 나는 너희 하느님 주님이다."
- 26 피가 남아 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 점치는 일을 하지 말고, 마법을 쓰지 말라.
- 27 머리 양쪽의 머리카락을 깎지 말고, 수염 끝을 깎아내지 말라.
- 28 죽은 자를 위해 몸에 상처를 내지 말고,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라. 나는 주님이다.
- 29 네 딸을 더럽혀 창녀로 만들지 말라. 그래야 땅이 음행으로 물들지 않고, 땅이 악으로 가득 차지 않을 것이다.
- 30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주님이다."

- ³¹ 유령을 부르는 자들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들을 찾아내어 그들로 인해 더럽혀지지 말라. 나는 너희 하느님 주님이다.
- ³² 흰 머리 앞에서는 일어나라. 노인의 얼굴을 존중하라. 그리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님이다.
- ³³ 너희 땅에서 나그네로 함께 사는 타인을 괴롭히지 말라.
- ³⁴ 너희 땅에서 나그네로 함께 사는 타인은 너희 가운데 태어난 자처럼 여기고, 자신처럼 사랑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하느님 주님이다.
- ³⁵ 재판에서, 길이, 무게, 양의 측정에서 부정의를 행하지 말라.
- ³⁶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예바, 공정한 히인을 가져야 한다. 나는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느님 주님이다.
- ³⁷ 내 모든 규례와 모든 법령을 지켜 실천하라. 나는 주님이다.

레위기 20장

-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누구든지, 또는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 누구든지, 자기 자손을 몰렉에게 바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땅의 백성은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 3 나도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겨누어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가 자기 자손을 몰렉에게 바쳐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 4 그가 자기 자손을 몰렉에게 바칠 때, 그 땅의 백성이 모두 그 사람을 보지 않은 채하며 그를 죽이지 않는다면,
- 5 나는 그 남자와 그의 가족에게 내 얼굴을 겨누어 그를 끊어버리고, 그를 따라 몰렉과 음행하는 자들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 6 "마음이 미혹된 자들과 점쟁이들에게로 돌아가 음행하는 자에게 나는 내 얼굴을 겨누어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 7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자가 되어라. 나는 너희 하느님 주님이다.
- 8 너는 내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여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 9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다. 그의 피는 그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 10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거나,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 11 "남자가 아비의 아내와 동침하여 아비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면, 둘 다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의 피는 그들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 12 "남자가 며느리와 동침하면, 둘 다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의 피는 그들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 13 "남자가 남자와 여자처럼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의 피는 그들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 14 "남자가 아내와 그 어머니를 모두 아내로 삼으면, 그것은 악행이다. 그와 그들 모두를 불로 태워 죽여, 너희 가운데 악행이 없게 하라.
- 15 "남자가 짐승과 동침하면,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며,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다.
- 16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가까이 가서 그와 동침하면, 너희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일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의 피는 그들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 17 "남자가 자기 누이, 곧 아비의 딸이거나 어미의 딸을 아내로 삼아 그녀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그녀도 그의 벌거벗은 몸을 보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들은 자기 백성의 자손들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는 자기 누이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냈다. 그는 자기 죄를 짊어질 것이다.
- 18 "남자가 여자의 월경 기간에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면, 그는 그녀의 샘을 드러냈고, 그녀는 자기 피의 샘을 드러냈다. 둘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 19 "너는 어미의 누이나 아비의 누이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말라. 그는 자기 가까운 친척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냈다. 그들은 자기 죄를 짊어질 것이다.
- 20 남자가 삼촌의 아내와 동침하면, 그는 삼촌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냈다. 그들은 자기 죄를 짊어질 것이며,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다.
- 21 "남자가 형제의 아내를 아내로 삼으면, 그것은 부정이다. 그는 형제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냈다. 그들은 자식 없을 것이다.
- 22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율법과 모든 규례를 지켜 실천하여, 내가 너희를 데려가 살게 할 땅이 너희를 뱉어내지 않게 하라.
- 23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습을 따라 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싫어하였

다.

²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어 소유하게 하리니, 그것은 우유와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서 구별한 너희 하느님이다.

²⁵ 그러므로 너희는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사이, 그리고 깨끗한 새와 부정한 새 사이에 구별을 두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부정하게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인해 너희 자신을 가증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²⁶ 너희는 나에게 성결해야 한다. 나는 주님인데, 나는 성결하다. 내가 너희를 모든 백성들에서 구별하여 내 것으로 삼았다.

²⁷ 마법사이거나 점쟁이인 남자나 여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들은 돌로 쳐 죽일 것이다. 그들의 피는 그들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레위기 21장

-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아들들인 사제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너니, 사제는 자기 백성 중에서 죽은 자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 2 그러나 가까운 친척, 곧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를 위해서는 더럽힐 수 있다.
- 3 또한 남편이 없는, 자신과 가까운 처녀 자매를 위해서도 더럽힐 수 있다.
- 4 그는 자기 백성 중에서 지도자이므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 5 "그들은 머리를 밀지 말고, 수염의 모서리를 깎지 말며, 육체에 상처를 내지 말아야 한다."
- 6 그들은 하느님께 성결해야 하며,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불로 바치는 주님의 제물, 곧 하느님의 빵을 드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결해야 한다.
- 7 "그들은 창녀나 더럽혀진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사제는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하느님께 성결하기 때문이다."
- 8 그러므로 너희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너희 하느님의 빵을 드리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에게 성결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성결하게 하는 주님, 곧 성결한 이다.
- 9 "어떤 사제의 딸이라도 창녀가 되어 자신을 더럽히면, 그는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 여자는 불로 태워야 한다."
- 10 "그의 형제들 중에서 기름을 머리에 부어받고, 옷을 입고 성별된 대사제는 머리카락을 풀어헤치지 말고, 옷을 찢지 말아야 한다."
- 11 그는 어떤 시신에도 들어가지 말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 12 그는 성소 밖으로 나가지 말고, 자신의 하느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그의 머리에는 하느님의 기름 부음의 관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주님이다.
- 13 "그는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 14 그는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더럽혀진 여자나 창녀와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아내로 맞아야 한다.
- 15 그는 자기 백성 중에서 자손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나는 그를 성결하게 하는 주님이다.
- 16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17 "아론에게 이르너니, 네 자손 중에서 어떤 세대라도 흠이 있는 자는 네 하느님의 빵을 드리러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 18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한다. 눈이 멀거나, 다리가 절단되었거나, 코가 평평하거나, 신체에 기형이 있는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한다.
- 19 발이나 손에 상처가 있거나,
- 20 등이 굽었거나, 키가 작거나, 눈에 흠이 있거나, 가려움병이나 종기나 고환에 상처가 있는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한다.
- 21 아론 사제의 자손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불로 바치는 주님의 제물을 드리러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는 흠이 있으므로, 하느님의 빵을 드리러 가까이 오지 못한다.
- 22 그는 가장 거룩한 빵과 거룩한 빵을 먹을 수 있다.
- 23 그는 흠이 있으므로, 휘장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제단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는 내가 성결하게 하는 성소를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다. 나는 그 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주님이다.
- 24 이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였다.

레위기 22장

-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위해 거룩하게 한 성물에서 떠나게 하라. 그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나는 주님이다."
- 3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 대대로 모든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한 성물에 가까이 오는 자가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그 영혼은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 4 "아론의 자손 중에서 나병 환자이거나 분비물이 있는 자는 깨끗해질 때까지 성물을 먹지 못한다. 죽은 자로 인해 부정해진 것을 만진 자나 정액을 흘린 자는,
- 5 또는 부정하게 만드는 기생충을 만진 자나 부정하게 된 사람을 만진 자, 그가 가진 어떤 부정이든,
- 6 이러한 것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는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성물을 먹지 못한다.
- 7 해가 지면 그는 깨끗해진다. 그 후에 그는 성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그의 빵이기 때문이다.
- 8 그는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말라.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님이다.
- 9 "그러므로 그들은 내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그것을 더럽혀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 10 "어떤 외국인도 성물을 먹지 못한다. 사제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고용된 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
- 11 그러나 사제가 자신의 돈으로 산 종은 그것으로 먹을 수 있고, 그의 집에서 태어난 자들은 그의 빵으로 먹을 수 있다.
- 12 사제의 딸이 외국인과 결혼하면, 그녀는 성물의 헌물은 먹지 못한다.
- 13 그러나 사제의 딸이 과부이거나 이혼했으며 자식이 없고, 어릴 적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면, 그녀는 아버지의 빵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외국인도 그것을 먹지 못한다.
- 14 "어떤 사람이 무심코 성물을 먹으면, 그는 그 가치의 오분의 일만큼 더 보태어 사제에게 성물을 바쳐야 한다."
- 15 사제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바치는 성물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 16 그들이 성물을 먹을 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 17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18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집안의 자손이거나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그가 번제로 주님께 드리는 예물, 즉 서원이나 자발적 헌물의 예물을 드릴 때,
- 19 너희가 받아들여지려면, 수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 20 그러나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 21 누구든지 화평제를 주님께 드려 서원을 이루거나, 소나 양 무리에서 자발적 헌물을 드릴 때, 그것은 완전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 흠이 없어야 한다.
- 22 너희는 주님께 눈이 멀거나 상처 입거나 불구가 되거나 종기나 궤양이나 흐르는 상처가 있는 것을 드리지 말고, 제단 위에서 불로 바치지 말라.
- 23 소나 양이 몸의 일부에 흠이 있거나 부족한 것은 자발적 헌물로는 드릴 수 있으나, 서원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24 너희는 주님께 고환이 찢기거나 눌리거나 부서지거나 잘린 것을 드리지 말라.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
- 25 외국인의 손에서 이런 것들을 너희 하느님의 빵으로 바치지 말라. 이는 그것들 안에 흠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를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 26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7 황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일곱 날 동안 그 어미와 함께 있어야 한다. 여덟 번째 날부터는 그것이 주님께 불제물로 바쳐질 수 있다.
- 28 소든 암양이든, 그 어미와 새끼를 하루 안에 함께 잡지 말라.
- 29 너희가 주님께 감사제를 바칠 때에는, 너희가 받아들여지도록 제물을 바쳐야 한다.
- 30 그것은 그날에 먹어야 한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나는 주님이다.

³¹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실천하라. 나는 주님이다.

³²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³³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어 너희의 하느님이 되기 위해 나온 주님이다.

레위기 23장

- 1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성회로 선포할 주님의 정한 절기들은 이와 같다. 이는 내 정한 절기들이다."
- 3 "여섯 날은 일할 수 있으나, 일곱째 날은 엄숙한 안식일이니, 성회이다.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 모든 거처에서 주님의 안식일이다."
- 4 "이것이 주님의 정한 절기들, 곧 너희가 정한 시기에 선포할 성회들이다."
- 5 첫째 달 열네째 날 저녁에는 주님의 유월절이다.
- 6 같은 달 열다섯째 날은 주님을 위한 무교절이다. 일곱 날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 7 첫째 날에는 성회가 있다. 너희는 어떤 정해진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 8 일곱 날 동안 너희는 불로 바치는 제물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일곱째 날에는 성회가 있다. 너희는 어떤 정해진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 9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수확을 거둘 때, 너희는 너희 수확의 첫 열매의 단을 사제에게 데려오라."
- 11 그 사제는 그 단을 주님 앞에서 흔들어 너희를 위해 받아들여지게 하라. 안식일 다음 날에 사제가 그것을 흔들어야 한다.
- 12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는, 흙 없는 일 년 된 수양을 주님을 위한 번제로 드려야 한다.
- 13 그와 함께 드리는 소제는 고운 가루 두 십분의 일에 기름을 섞은 것이며,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불제물이다. 그와 함께 드리는 전제는 포도주로, 히 의 사분의 일이다.
- 14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제물을 데려오기 전까지는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신선한 곡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이는 너희 모든 거처에서 너희 대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법이다.
- 15 "안식일 다음 날부터, 너희가 흔들어 드린 단을 데려온 그 날부터 일곱 안식일이 완전히 지나도록 계산하라."
- 16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 날부터 신 날을 계산하여, 주님을 위한 새 소제를 드려야 한다.
- 17 너희는 너희 거처에서 고운 가루 두 십분의 일로 만든 빵 두 개를 흔들어 드리는 제물로 가져오라. 그것들은 누룩을 넣어 구워야 하며, 주님을 위한 첫 열매이다.
- 18 너희는 그 빵과 함께 흙 없는 일 년 된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젊은 수소 한 마리와 수양 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 그것들은 주님을 위한 번제로, 그 소제와 전제와 함께 향기로운 불제물이 되어야 한다.
- 19 너희는 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를 드리고, 평화 제물로 일 년 된 수양 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
- 20 사제는 그 두 마리의 어린 양과 함께 첫 열매의 빵을 주님 앞에서 흔들어 드려야 한다. 그것들은 사제를 위해 주님께 성물이 되어야 한다.
- 21 너희는 그날에 성회를 선포하여, 어떤 정해진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너희 모든 거처에서 너희 대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법이다.
- 22 "너희가 너희 땅의 수확을 거둘 때, 너희 밭의 모서리를 다 베지 말고, 수확한 뒤에 남은 것을 줍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가난한 자와 외국인들을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너희 하느님이다."
- 23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4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일곱째 달 첫째 날에는 너희를 위한 엄숙한 안식일이 있을 것이며,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성회이다."
- 25 너는 어떤 정해진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주님께 불로 바치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
- 26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7 "그러나 이 일곱째 달 열째 날은 속죄의 날이다. 그것은 너희를 위한 성회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자신을 괴롭히고, 주님께 불로 바치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

- 28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너희를 위해 주님 너희 하느님 앞에서 속죄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 29 그날에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 30 그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멸망시킬 것이다.
- 31 너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 대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법규이다.
- 32 이것은 너희를 위한 엄숙한 안식의 날이니, 너희는 자신을 괴롭혀야 한다. 달의 아홉째 날 저녁부터 저녁까지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 33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34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은 일주일 동안 주님을 위한 초막절이다."
- 35 첫째 날은 성회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어떤 정해진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 36 일주일 동안 너희는 주님께 불로 바치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 여덟째 날은 너희를 위한 성회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주님께 불로 바치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것은 엄숙한 모임이니, 너희는 어떤 정해진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 37 "이것들이 주님의 정해진 절기들이다. 너희는 이를 성회로 선포하여, 주님께 불로 바치는 제물, 즉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와 술제를 각 날에 드려야 한다—
- 38 주님의 안식일들과, 너희가 드리는 모든 예물들과, 너희가 드리는 모든 서원들과, 너희가 주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모든 자원제를 더하여 드려야 한다.
- 39 "그러므로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 너희가 땅의 열매를 모두 거둔 후, 너희는 일주일 동안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째 날은 엄숙한 안식일이 되고, 여덟째 날도 엄숙한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
- 40 첫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와 야자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드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너희는 일주일 동안 주님 너희 하느님 앞에서 기뻐해야 한다.
- 41 너는 해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을 위한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 대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법규이다.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켜야 한다.
- 42 너는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해야 한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주해야 한다,
- 43 이렇게 하여 너희 대대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했음을 알게 되리라. 나는 너희 하느님 주님이다."
- 44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정해진 절기들을 선포하였다.

레위기 24장

- ¹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²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깨끗한 올리브유를 으깨어 네게 가져오게 하라. 그것은 지속적으로 등불을 태우기 위한 것이다.
- ³ 증거의 휘장 밖, 만남의 장막에서 아론은 주님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지속적으로 그 등불을 정리하라. 이것은 너희 세대에 걸쳐 영원한 규정이 될 것이다.
- ⁴ 그는 주님 앞에서 깨끗한 금 등잔대 위의 등불을 지속적으로 정리할 것이다.
- ⁵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열두 개의 떡을 굽되, 한 떡에 이분의 일 에바를 쓰라.
- ⁶ 그것들을 두 줄로 배열하여, 한 줄에 여섯 개씩, 주님 앞의 깨끗한 금 상 위에 놓아라.
- ⁷ 각 줄 위에 깨끗한 유향을 놓아, 그것이 떡을 위한 기억의 제물이 되게 하라.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불제물이다.
- ⁸ 매 안식일마다 그는 그것을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정리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다.
- ⁹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것이다. 그들은 성한 곳에서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것은 주님께 불로 드리는 제물 중 가장 성한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규정이다.
- ¹⁰ 이스라엘 여자와 이집트 남자의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나갔다. 그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과 이스라엘 남자 한 사람이 진영에서 싸우다가,
- ¹¹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그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였다. 그들이 그를 모세에게 데려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다브리의 딸 세로미트이었고, 단 지파 출신이었다.
- ¹² 그들은 그를 감금하여, 주님의 뜻이 그들에게 알려질 때까지 기다렸다.
- ¹³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¹⁴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그를 들은 자들은 모두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 ¹⁵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자신의 하느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죄를 짊어질 것이다."
- ¹⁶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온 회중이 반드시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외국인이나 토착민이나, 누구나 그 이름을 모독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 ¹⁷ "누구든지 사람을 치다가 죽게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 ¹⁸ 동물을 치다가 죽게 하면 그 동물의 값을 갚아야 한다.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라.
- ¹⁹ 누구든지 이웃을 다치게 하면, 그가 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다.
- ²⁰ 뼈가 부러지면 뼈를, 눈을 빼면 눈을, 이빨을 빼면 이빨을, 그가 남에게 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다.
- ²¹ 동물을 죽인 자는 그 값을 갚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 ²² 외국인이나 토착민이나, 모두 한 가지 법을 따를 것이다. 나는 너희 하느님 주님이다.
- ²³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고, 그들은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레위기 25장

- 1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은 주님을 위하여 안식을 지켜야 한다.
- 3 여섯 해 동안은 너희 밭에 씨를 뿌리고, 여섯 해 동안은 너희 포도원을 다듬어 그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것이며,
- 4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주님을 위한 엄숙한 안식의 해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포도원을 다듬지도 말아야 한다.
- 5 자연히 자라는 것은 거두지 말고, 다듬지 않은 포도나무의 포도도 모으지 말아야 한다. 그 해는 땅을 위한 엄숙한 안식의 해가 될 것이다.
- 6 그 땅의 안식은 너희를 위한 음식이 될 것이다. 너희와 너희 하인과 여종과 고용된 자, 그리고 너희와 함께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음식이 될 것이다.
- 7 너희 가축과 너희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위하여도 그 땅의 모든 수확물이 음식이 될 것이다.
- 8 일곱 번의 안식년, 곧 일곱 번 일곱 해를 세어, 일곱 번의 안식년이 모여 사십구 년이 되게 하라.
- 9 그리고 일곱째 달 열째 날, 속죄의 날에 너희 땅 전역에 큰 나팔을 울려라.
- 10 오십 년을 거룩하게 하여, 너희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은 너희를 위한 회년이 될 것이며, 각자는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자는 자기 가족으로 돌아갈 것이다.
- 11 그 오십 년은 너희를 위한 회년이 될 것이다. 그 해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자연히 자라는 것을 거두지도 말며, 다듬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도 모으지 말아야 한다.
- 12 이것은 회년이니, 너희를 위한 거룩한 해이다. 너희는 밭에서 그 수확물을 먹을 것이다.
- 13 이 회년에는 각자가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다.
- 14 너희가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이웃에게서 무엇을 사더라도, 서로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
- 15 회년 이후의 해 수에 따라 이웃에게서 사야 한다. 그가 너희에게 파는 것은 그 해의 수확량에 따라야 한다.
- 16 해의 수가 많을수록 가격을 높이고, 해의 수가 적을수록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 그가 파는 것은 수확량의 수이기 때문이다.
- 17 서로를 속이지 말고, 너희 하느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너희 주님이다.
- 18 그러므로 너희는 내 율법을 지키고, 내 규례를 지켜 실천하여, 안전하게 그 땅에 거주하라.
- 19 그 땅은 그 열매를 내어, 너희는 충분히 먹고, 안전하게 그 땅에 거주할 것이다.
- 20 너희가 말하기를, ‘일곱째 해에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도 하지 않으니,’ 하면,
- 21 내가 여섯째 해에 너희를 위하여 내 축복을 명령하여, 그 땅이 세 해의 수확을 내게 할 것이다.
- 22 여덟째 해에는 씨를 뿌리되, 구식 저장 곡식을 먹다가 아홉째 해까지 그 수확이 들어올 때까지 구식 저장 곡식을 먹을 것이다.
- 23 땅은 영원히 팔리지 않는다. 땅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게서 외국인으로 거주하는 나그네이다.
- 24 너희가 소유한 땅 전역에서, 땅을 속전할 수 있도록 하라.
- 25 만약 당신의 형제가 가난해져서 자신의 재산 일부를 팔면, 그의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가 판 것을 손금해야 한다.
- 26 그를 손금할 사람이 없고, 그가 부유해져서 그를 손금할 충분한 재산을 얻으면,
- 27 그는 그 재산이 팔린 이후의 연수를 계산하여, 그가 판 사람에게 그 초과분을 돌려주고, 자신의 재산으로 돌아가야 한다.
- 28 그러나 그가 스스로 그것을 되찾을 능력이 없으면, 그가 판 것은 그 산 자의 손에 남아 있다가 회년이 이르면 해방되어, 그는 자신의 재산으로 돌아간다.
- 29 만약 어떤 사람이 성벽이 있는 도시에서 집을 팔면, 그는 팔린 후 일 년 동안 그 집을 손금할 권리가 있다.
- 30 일 년 안에 손금하지 않으면, 성벽이 있는 도시의 그 집은 그 산 자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소유가 되며, 회년에 해방되지 않는다.
- 31 그러나 성벽이 없는 마을의 집들은 들의 밭과 같아서, 손금할 수 있으며, 회년에 해방된다.

- 32 레위인들의 도시에서는, 레위인들이 언제든지 자기 소유의 도시에서 팔린 집을 손금할 수 있다.
- 33 레위인은 팔린 집과 자기 소유의 도시를 손금할 수 있으며, 희년에 해방된다. 이는 레위인들의 도시 집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 34 그러나 그들의 도시의 목초지 받은 팔지 못하며, 그것은 그들의 영구한 소유이다.
- 35 만약 당신의 형제가 당신들 가운데 가난해져서 스스로를 지탱할 힘이 없으면, 너는 그를 돕고, 그가 당신과 함께 외국인 과 임시 거주자처럼 살게 하라.
- 36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이익을 취하지 말라. 당신의 형제가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당신의 하느님을 두려워하라.
- 37 너는 그에게 돈을 이자로 빌려주지 말고, 음식을 이익을 얻기 위해 주지 말라.
- 38 나는 너희 하느님인 주님으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내어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의 하느님이 되려는 자이다.
- 39 만약 당신의 형제가 당신들 가운데 가난해져서 당신에게 팔리면, 너는 그를 노예로 부리지 말라.
- 40 그는 고용된 종과 임시 거주자처럼 너와 함께 있어야 하며, 희년이 이르기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 41 그러면 그와 그의 자녀가 너에게서 나가서, 자기 조상의 가족과 소유로 돌아가리라.
- 42 그들은 내 종들이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냈다. 그들은 노예로 팔리지 말아야 한다.
- 43 너는 그를 잔혹하게 다스리지 말고, 당신의 하느님을 두려워하라.
- 44 너는 주변 민족들로부터 남자와 여자 노예를 얻을 수 있으며, 그들로부터 남자와 여자 노예를 사라.
- 45 또한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들과, 그들이 너희 땅에서 낳은 그들의 가족들로부터도 사서, 그들은 너희 소유가 되리라.
- 46 너는 그들을 너희 자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 소유로 삼을 수 있으며, 그들로부터는 영원히 노예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이를 잔혹하게 다스리지 말라.
- 47 너와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임시 거주자가 부유해져서, 그 곁에 있는 당신의 형제가 가난해져서, 그가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의 가족에게 팔리면,
- 48 그가 팔린 후에도 손금될 수 있다. 그의 형제 중 한 사람이 그를 손금할 수 있다.
- 49 그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전으로 풀어줄 수 있으며, 그의 가족 안의 가까운 친척이면 누구나 그를 속전으로 풀어줄 수 있다. 또는 그가 부유해져서 스스로를 속전으로 풀어줄 수도 있다.
- 50 그는 자신을 산 자와, 자신이 그에게 팔린 해부터 희년 해까지의 해수를 계산하여, 그의 판매 가격을 해수에 따라 산정할 것이다. 그는 고용된 종처럼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 51 여전히 많은 해가 남아 있다면, 그는 자신이 산 가격에서 그 해수에 비례하여 속전을 돌려줄 것이다.
- 52 희년 해까지 몇 해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는 그와 계산하여, 자신의 봉사 연수에 따라 속전을 돌려줄 것이다.
- 53 그는 해마다 고용된 종처럼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앞에서 그를 잔혹하게 다스리지 말아야 한다.
- 54 이러한 방법으로 그가 풀려나지 못한다면, 희년 해에 그와 그의 자녀들이 함께 풀려날 것이다.
- 55 이스라엘 자손은 내게 종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낸 내 종들이다. 나는 너희 주님 하느님이다.

레위기 26장

- 1 너희는 아무 우상도 만들지 말고, 조각한상이나 기둥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무늬가 있는 돌을 두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느님 주님이다.
- 2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주님이다.
- 3 너희가 내 율법을 따르고, 내 계명을 지켜 실천한다면,
- 4 내가 너희에게 제때에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수확을 내며, 들의 나무들은 그 열매를 맺게 하리라.
- 5 너희가 벼를 타작하는 것이 포도 수확 때까지 이어지고, 포도 수확이 파종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며, 너희는 빵을 충분히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 6 내가 땅에 평화를 주리라. 너희는 누워서 두려움 없이 잠들 것이며, 내가 땅에서 악한 짐승들을 제거하고, 칼이 너희 땅을 지나지 못하게 하리라.
- 7 너희는 너희 적들을 쫓아내며,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 8 너희 중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을 것이며, 너희 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 9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많이 늘리며,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 10 너희는 오래 보관한 옛 식량을 먹고, 새것을 위해 옛것을 치우리라.
- 11 내가 너희 가운데 내 장막을 세우고, 내 영혼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으리라.
- 12 내가 너희 가운데 걸어나니, 너희의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 13 나는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그들의 종이 되지 않게 한 너희 하느님 주님이다. 내가 너희 멍에의 막대를 부수고, 너희가 곧게 걷게 하였노라.
- 14 그러나 너희가 나를 듣지 않고, 이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 15 내 율법을 거부하고, 내 규례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긴다면,
- 16 나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공포를 보내고, 소모성 질병과 열병을 보내어, 너희 눈을 소모시키고, 너희 영혼을 약하게 하리라. 너희가 씨를 뿌려도 헛되이 될 것이며, 너희 적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 17 내가 너희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너희가 너희 적들 앞에서 무너지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지배할 것이며, 아무도 쫓지 않아도 너희는 도망치리라.
- 18 만약 너희가 이 일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듣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 죄를 따라 일곱 배나 더 벌하리라.
- 19 내가 너희 힘의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쇠처럼, 너희 땅을 놋처럼 만들리라.
- 20 너희의 힘이 헛되이 소모될 것이며, 너희 땅은 그 수확을 내지 못하고, 땅의 나무들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 21 만약 너희가 나와 대적하여 걷고, 나를 듣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 죄를 따라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리리라.
- 22 내가 너희 가운데 돌짐승을 보내어, 너희 자녀들을 빼앗고, 너희 가축을 파괴하며, 너희 수를 줄이리라. 너희 길들은 황폐해지리라.
- 23 만약 너희가 이 일들로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나와 대적하여 걷는다면,
- 24 나도 너희와 대적하여 걷고,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치리라.
- 25 나는 칼을 너희 위에 보내어 언약의 보복을 실행하리니, 너희는 도시 안에 모일 것이며, 나는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리라. 너희는 적의 손에 넘겨지리라.
- 26 내가 너희의 빵의 지팡이를 꺾을 때, 열 명의 여자가 한 화로에서 너희 빵을 굽고, 그들이 무게를 달아 너희 빵을 되돌려 주리라. 너희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리라.
- 27 "만일 너희가 이 일에도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와 대적하여 행한다면,
- 28 나도 너희와 대적하여 분노로 행하리라.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일곱 배로 벌하리라.
- 29 너희는 아들들의 고기를 먹고, 딸들의 고기를 먹으리라.
- 30 나는 너희 높은 곳들을 파괴하고, 분향단들을 베어버리며, 너희 시체를 너희 우상들의 시체 위에 던지리라. 내 영혼은 너희를 싫어하리라.

- 31 나는 너희 도시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너희 성소들을 황폐하게 하리라. 너희 제물의 달콤한 냄새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 32 나는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땅에 거주하는 너희 적들이 그것에 놀라게 하리라.
- 33 나는 너희를 열국 사이에 흩어버리고, 너희 뒤에 칼을 빼들리라. 너희 땅은 황폐해지고, 너희 도시들은 폐허가 되리라.
- 34 그때 땅은 너희가 적의 땅에 있을 동안, 황폐한 동안 안식일을 누리리라. 그때도 땅은 쉬고 안식일을 누리리라.
- 35 황폐한 동안 땅은 쉬리라.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할 때 너희 안식일에 받지 못했던 그 쉼을 받으리라.
- 36 "남아 있는 너희 중에서, 내가 그들의 적의 땅에서 허약함을 그들의 마음에 보내리라. 흔들리는 잎사귀의 소리만으로도 그들이 도망치고, 칼을 피하듯 도망치리라. 아무도 쫓지 않아도 그들이 넘어지리라.
- 37 그들은 아무도 쫓지 않아도 서로에게 걸려 넘어지리라. 너희는 너희 적 앞에 설 힘이 없으리라.
- 38 너희는 열국 가운데 멸망하리라. 너희 적의 땅이 너희를 삼키리라.
- 39 남아 있는 너희는 너희 적의 땅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쇠약해지리라. 또 너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함께 쇠약해지리라.
- 40 "만일 그들이 자기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내가 대적하여 행한 그 죄를 고백하며, 나와 대적하여 행했음을 고백한다면,
- 41 나도 그들과 대적하여 행하여 그들을 그들의 적의 땅으로 끌어들었노라. 만일 그들의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들이 자기 죄악의 벌을 받아들인다면,
- 42 나는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리고 땅을 기억하리라.
- 43 땅도 그들이 떠나 황폐할 동안 안식일을 누리리라. 그들이 내 율례를 거부하고, 내 규례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죄악의 벌을 받으리라.
- 44 비록 그들이 그들의 적의 땅에 있더라도, 나는 그들을 거부하지도, 싫어하지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도, 내 언약을 파괴하지도 않으리라. 나는 그들의 주님이기 때문이다.
- 45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리라. 나는 그들을 열국의 눈앞에서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하느님이 되려 하였노라. 나는 주님이다.'
- 46 이것은 주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율례와 규례와 법이다.

레위기 27장

-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너니, 사람이 주님께 서원으로 사람을 바칠 때에는, 너희가 정한 평가에 따라,
- 3 스물세 살에서 마흔여섯 세까지의 남자는 성소의 시켈로 오십 시켈의 은이 될 것이며,
- 4 여자라면 평가가 삼십 시켈이 될 것이다.
- 5 다섯 세에서 스물세까지의 사람은 남자라면 이십 시켈, 여자라면 십 시켈이 될 것이다.
- 6 한 달에서 다섯 세까지의 사람은 남자라면 오 시켈의 은, 여자라면 삼 시켈의 은이 될 것이다.
- 7 육십 세 이상의 사람은 남자라면 십오 시켈, 여자라면 십 시켈이 될 것이다.
- 8 그가 너희의 평가보다 가난하다면, 그를 사제 앞에 세우고, 사제가 그의 능력에 따라 평가할 것이다.
- 9 "사람이 주님께 제물로 바치는 동물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런 동물을 주님께 바치면 그것이 성물이 된다.
- 10 그는 그것을 바꾸지 말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바꾸지 말며,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바꾸지 말라. 만약 그가 동물을 동물로 바꾼다면, 그 동물과 바꾼 동물 모두가 성물이 될 것이다.
- 11 그가 바치는 동물이 주님께 제물로 바치지 않는 부정한 동물이라면, 그는 그 동물을 사제 앞에 세우고,
- 12 사제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할 것이다. 사제가 평가한 대로 그것이 될 것이다.
- 13 그러나 그가 그것을 손에 넣고자 한다면, 그는 평가액의 오분의 일만큼 더 보태야 한다.
- 14 "사람이 자기 집을 주님께 성물로 바칠 때에는, 사제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할 것이며, 사제가 평가한 대로 그것이 될 것이다.
- 15 그 집을 바친 사람이 그 집을 다시 손에 넣고자 한다면, 그는 평가액의 오분의 일만큼 더 보태야 하며, 그 집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 16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을 주님께 바칠 때에는, 너희의 평가는 그 밭에 뿌릴 씨의 양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한 호멜의 보리 씨를 뿌릴 밭은 오십 시켈의 은으로 평가될 것이다.
- 17 그가 희년 해에 그 밭을 바친다면, 너희의 평가대로 그것이 될 것이다.
- 18 그가 희년 이후에 그 밭을 바친다면, 사제는 희년까지 남은 해수에 따라 그에게 돈을 계산하고, 너희의 평가액에서 감액할 것이다.
- 19 그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다시 손에 넣고자 한다면, 그는 평가액의 오분의 일만큼 더 보태야 하며, 그 밭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 20 그가 그 밭을 다시 손에 넣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밭을 팔면, 더 이상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없을 것이다.
- 21 그러나 그 밭이 희년에 돌아갈 때에는 주님께 성물이 되어 바쳐진 밭이 되며, 사제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 22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닌, 자기가 산 밭을 주님께 바친다면,
- 23 사제는 희년까지의 평가액을 그에게 계산하고, 그는 그날 그 평가액을 성물로 주님께 드릴 것이다.
- 24 희년 해에 그 밭은 그에게 돌아갈 것이며, 곧 그 밭의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 25 당신의 평가는 모두 성소의 세겔에 따라야 합니다. 한 세겔은 이십 게라입니다.
- 26 "그러나 주님의 첫째 태어난 자로서 주님의 것인 동물의 첫째 태어난 자는 어떤 사람도 바칠 수 없습니다. 소든 양이든,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 27 그것이 부정한 동물이라면, 그는 당신의 평가한 가격으로 그것을 되사고 그에다 그 값의 오분의 일까지 더해야 합니다. 혹은 그것이 속전으로 풀리지 않으면, 당신의 평가한 가격으로 팔아야 합니다.
- 28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 즉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기 소유의 밭을 주님께 바친 물건은 팔지도 되사지도 못합니다. 영구히 바친 것은 모두 주님께 가장 성스러운 것입니다.
- 29 "사람 중에서 멸망에 바친 자는 결코 속전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 30 "땅의 모든 십일조,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성스러운 것입니다.
- 31 누군가 자신의 십일조 중 무엇인가를 되사려 하면, 그는 그에다 오분의 일까지 더해야 합니다.

³² 소떼나 양떼의 모든 십일조는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는 것마다 열째가 주님께 성스러운 것입니다.

³³ 그는 그것이 좋거나 나쁘거나 살펴보지 말고, 그것을 바꾸지도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가 그것을 바꾼다면, 그것과 바꾼 것 모두 성스러워집니다. 그것은 되사지 못합니다.”

³⁴ 이것은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명령들입니다.

민수기 | Numbers

민수기 1장

- 1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두 해째, 둘째 달 첫째 날, 시내 광야에서 만남의 천막에서 모세에게 말씀 하셨다.
- 2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들의 가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름을 따라 수를 세어라. 모든 남자를 하나씩 세어라."
- 3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스물 세 살 이상의 모든 남자를 세어라. 너와 아론은 그들을 부대별로 세어라.
- 4 너와 함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조상의 가문의 수장이 함께하리라.
- 5 이들은 너와 함께할 사람들의 이름이다.
- 6 시므온 지파에서는 스루밀이 드리사대이의 아들이다.
- 7 유다 지파에서는 나손이 아민답의 아들이다.
- 8 잇사갈 지파에서는 네다넬이 수아의 아들이다.
- 9 스불론 지파에서는 엘리압이 헬론의 아들이다.
- 10 요셉의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엘리사마가 암미후드의 아들이고, 므낫세 지파에서는 갈말리엘이 베다스술의 아들이다.
- 11 베나민 지파에서는 아비단이 길레오니의 아들이다.
- 12 단 지파에서는 아히에셀이 암시다이의 아들이다.
- 13 아셀 지파에서는 파기엘이 욱란의 아들이다.
- 14 갓 지파에서는 엘리아사프가 데우엘의 아들이다.
- 15 납탈리 지파에서는 아히라가 예난의 아들이다."
- 16 이들은 회중에서 불러 지명된 자들, 조상의 가문을 따르는 지파의 수장들로서, 이스라엘의 천부장들이다.
- 17 모세와 아론은 이름이 기록된 이들을 불러 모았다.
- 18 그들은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아, 그들의 가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름을 따라, 스물 세 살 이상의 모든 남자를 하나씩 세었다.
- 19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는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세었다.
- 20 이스라엘의 장자인 르우벤 자손들은 그들의 세대와 가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름을 따라, 스물 세 살 이상의 모든 남자를 하나씩 세었는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다.
- 21 르우벤 지파에서 세어진 자들은 사만 육천 오백 명이었다.
- 22 시므온 자손들은 그들의 세대와 가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름을 따라, 스물 세 살 이상의 모든 남자를 하나씩 세었는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다.
- 23 시므온 지파에서 세어진 자들은 오십구천 삼백 명이었다.
- 24 갓 자손들은 그들의 세대와 가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름을 따라, 스물 세 살 이상의 모든 남자를 하나씩 세었는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다.
- 25 갓 지파에서 세어진 자들은 사만 오천육백오십이었다.
- 26 유다 자손들, 그들의 세대별로, 그들의 가족별로, 그들의 조상 가문별로, 이름의 수에 따라, 스물 세 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들:
- 27 유다 지파에서 세어진 자들은 일흔사만 육백이었다.
- 28 이사갈 자손들, 그들의 세대별로, 그들의 가족별로, 그들의 조상 가문별로, 이름의 수에 따라, 스물 세 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들:
- 29 이사갈 지파에서 세어진 자들은 오만 사천사백이었다.
- 30 스불론 자손들, 그들의 세대별로, 그들의 가족별로, 그들의 조상 가문별로, 이름의 수에 따라, 스물 세 살 이상으로, 전쟁

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들:

³¹ 스불론 지파에서 세어진 자들은 오만 칠천사백이었다.

³²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 자손들, 그들의 세대별로, 그들의 가족별로, 그들의 조상 가문별로, 이름의 수에 따라, 스물 세 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들:

³³ 에브라임 지파에서 세어진 자들은 사만 오백이었다.

³⁴ 마나세 자손들, 그들의 세대별로, 그들의 가족별로, 그들의 조상 가문별로, 이름의 수에 따라, 스물 세 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들:

³⁵ 마나세 지파에서 세어진 자들은 삼만 이천이백이었다.

³⁶ 베나민 자손들, 그들의 세대별로, 그들의 가족별로, 그들의 조상 가문별로, 이름의 수에 따라, 스물 세 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들:

³⁷ 베나민 지파에서 세어진 자들은 삼만 오천사백이었다.

³⁸ 단 자손들, 그들의 세대별로, 그들의 가족별로, 그들의 조상 가문별로, 이름의 수에 따라, 스물 세 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들:

³⁹ 단 지파에서 세어진 자들은 육만 이천칠백이었다.

⁴⁰ 아셀 자손들, 그들의 세대별로, 그들의 가족별로, 그들의 조상 가문별로, 이름의 수에 따라, 스물 세 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들:

⁴¹ 아셀 지파에서 세어진 자들은 사만 일천오백이었다.

⁴² 납탈리 자손들, 그들의 세대별로, 그들의 가족별로, 그들의 조상 가문별로, 이름의 수에 따라, 스물 세 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들:

⁴³ 납탈리 지파에서 세어진 자들은 오만 삼천사백이었다.

⁴⁴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세어낸 자들이며, 이스라엘의 열두 지도자들이 각각 조상 가문에 따라 세어낸 자들이다.

⁴⁵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 중, 조상 가문별로, 스물 세 살 이상으로,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을 세어 보니,

⁴⁶ 세어낸 자 모두 여섯십삼천오백오십이었다.

⁴⁷ 그러나 레위인들은 조상의 지파에 따라 그들 중에 세어지지 않았다.

⁴⁸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⁴⁹ 레위 지파만은 세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을 수계하지 말아야 한다.

⁵⁰ 오히려 레위 사람들을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 및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맡기어라. 그들은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옮기고, 그 장막을 돌보며, 그 주위에 진을 치게 하라.

⁵¹ 장막을 옮길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풀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세운다. 가까이 오는 타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⁵²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부대의 진을 치고, 각자 자기 기표를 따라, 자기 부족의 배열대로 진을 치리라.

⁵³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증거의 장막 주위에 진을 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임에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하라. 레위 사람들은 증거의 장막을 책임져야 한다.

⁵⁴ 이스라엘 자손은 이와 같이 하였다. 주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모두 그렇게 하였다.

민수기 2장

- ¹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 ²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조상의 가문에 따라 깃발을 달고, 증거의 장막을 중심으로 주위에 진을 치되,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진을 치라."
- ³ 동쪽, 해가 뜨는 쪽에 진을 치는 자들은 유다 진영의 깃발을 따르며, 그들의 부대별로 진을 치리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아민답의 아들 나손이니라.
- ⁴ 그의 부대와 그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일십사천육백 명이니라.
- ⁵ 그 옆에 진을 치는 자들은 잇사갈 지파이니, 잇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아의 아들 네다넬이니라.
- ⁶ 그의 부대와 그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오만사천사백 명이니라.
- ⁷ 스불론 지파이니,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니라.
- ⁸ 그의 부대와 그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오만칠천사백 명이니라.
- ⁹ 유다 진영에서 계수된 자들은 모두 일십팔만육천사백 명이니, 그들의 부대별로 그러하니라. 그들은 먼저 떠나리라.
- ¹⁰ 남쪽에는 르우벤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부대별로 달리리라. 르우벤 자손의 족장은 세두어의 아들 엘리스우르이니라.
- ¹¹ 그의 부대와 그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사만육천오백 명이니라.
- ¹² 그 옆에 진을 치는 자들은 시므온 지파이니, 시므온 자손의 족장은 수리사대이의 아들 셀루미엘이니라.
- ¹³ 그의 부대와 그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오만구천삼백 명이니라.
- ¹⁴ 갓 지파이니, 갓 자손의 족장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야사프이니라.
- ¹⁵ 그의 부대와 그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사만오천육백오십 명이니라.
- ¹⁶ 르우벤 진영에서 계수된 자들은 모두 일십오만일천사백오십 명이니, 그들의 군대별로 그러하니라. 그들은 둘째로 떠나리라.
- ¹⁷ 그 후에 증거의 장막이 떠나리라. 레위인들의 진이 다른 진들 사이에 있느니라. 그들이 진을 치는 대로 떠나리라. 각자는 자기 자리에, 깃발을 따라 떠나리라.
- ¹⁸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부대별로 달리리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아미후드의 아들 엘리사마이니라.
- ¹⁹ 그의 부대와 그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사만오백 명이니라.
- ²⁰ 그 옆에 진을 치는 자들은 므낫세 지파이니, 므낫세 자손의 족장은 베다스우르의 아들 가말리엘이니라.
- ²¹ 그의 부대와 그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삼만이천이백 명이니라.
- ²² 베냐민 지파이니, 베냐민 자손의 족장은 기데오니의 아들 아비단이니라.
- ²³ 그 군대와 그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삼만오천사백 명이니라.
- ²⁴ 에브라임 진영에서 계수된 자들은 모두 일십팔만일백 명이니, 그들의 부대별로 그러하니라. 그들은 셋째로 떠나리라.
- ²⁵ 북쪽에는 단 지파가 그들의 부대에 따라 깃발을 치며 진을 칠 것이다. 단 자손의 지도자는 아미사대이의 아들 아히에셀이 될 것이다.
- ²⁶ 그의 부대와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는 육만 이천칠백 명이었다.
- ²⁷ 그 옆에 진을 칠 자들은 아셀 지파일 것이다. 아셀 자손의 지도자는 오크란의 아들 파기엘일 것이다.
- ²⁸ 그의 부대와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는 사만 천오백 명이었다.
- ²⁹ 납탈리 지파는, 납탈리 자손의 지도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일 것이다.
- ³⁰ 그의 부대와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는 오만 삼천사백 명이었다.
- ³¹ 단 진에 계수된 모든 자는 십오만 칠천육백 명이었다. 그들은 깃발을 따라 마지막으로 떠날 것이다.
- ³² 이것은 아버지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이스라엘 자손의 수이다. 군대에 따라 진을 친 모든 자의 수는 육십삼천오백오십 명이었다.
- ³³ 그러나 레위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되지 않았다.

³⁴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들은 깃발을 따라 자기 가문과 조상의 가족에 따라 진을 치고 떠났다.

민수기 3장

- 1 이것은 주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시던 날에 아론과 모세의 후손들의 계보이다.
- 2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남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마르이다.
- 3 이것은 기름부음을 받고 사제 직무를 수행하도록 성별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다.
- 4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주님 앞에 이상한 불을 바치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고, 자식이 없었다. 엘르아살과 이다마르는 아버지 아론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하였다.
- 5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6 “레위 지파를 데려와 아론 사제 앞에 세우라. 그들이 그를 섬기게 하라.
- 7 그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서 아론의 요구와 온 회중의 요구를 지키며 성막의 봉사를 수행할 것이다.
- 8 그들은 증거의 장막의 모든 기구와 이스라엘 자손의 의무를 지키며 성막의 봉사를 수행할 것이다.
- 9 너는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아론에게 완전히 주어진 자들이다.
- 10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그들이 사제 직분을 지키게 하라. 그러나 가까이 오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 11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12 “보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태를 여는 첫째아들 대신 레위 사람들을 내 것으로 취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 13 모든 첫째아들은 내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첫째아들을 치던 날, 나는 이스라엘에서 모든 첫째아들, 사람과 짐승을 내 것으로 삼아 성별하였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 14 주님이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15 “너는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 가문과 가족별로 세어라.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를 세어라.”
- 16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받은 대로 그들을 세었다.
- 17 레위의 아들들은 이름별로 게르손과 고핫과 메라리였다.
- 18 게르손의 아들들은 가족별로 리브니와 시메이였다.
- 19 고핫의 아들들은 가족별로 암람과 이스하르와 헤브론과 우찌엘이다.
- 20 메라리의 아들들은 가족별로 마흘리와 무시이다.
- 21 게르손의 가족은 리브니 가문과 시미 가문이다. 이들이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다.
- 22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를 세어 본 결과, 그들 중 세어진 자는 칠천오백 명이였다.
- 23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칠 것이다.
- 24 게르손 자손의 조상 가문의 수장은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될 것이다.
- 25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서의 임무는 장막과 그 휘장과 그 덮개와 회막 입구의 막이요,
- 26 마당의 휘장과 장막 입구의 막, 그리고 제단 주위의 휘장과 그 모든 봉사에 쓰이는 줄이니,
- 27 고핫 자손은 암람 가문, 이스할 가문, 헤브론 가문, 우찌엘 가문이니, 이들이 고핫 자손의 가문들이다.
- 28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 수에 따라, 성소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는 팔천육백 명이였다.
- 29 고핫의 아들들 가문은 장막의 남쪽에 진을 치리라.
- 30 고핫 자손 가문들의 족장 수장은 우찌엘의 아들 엘리사반이라.
- 31 그들의 임무는 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그들이 섬기는 성소의 기구들과 휘장과 그 모든 봉사니,
- 32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들의 수장들 중 수장이 되어 성소의 임무를 감독하리라.
- 33 머라리 자손은 마흘 가문과 무시 가문이니, 이들이 머라리 자손의 가문들이다.
- 34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 수에 따라 그들을 계수한 자는 육천이백 명이였다.
- 35 머라리 자손 가문들의 족장 수장은 아비힐의 아들 주리엘이니, 그들은 장막의 북쪽에 진을 치리라.
- 36 머라리 자손의 임무는 장막의 판들과 막대들과 기둥들과 받침들과 모든 기구들과 그 모든 봉사요,

- 37 그 주위 마당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이니,
 38 장막 앞 동쪽, 곧 회막 입구와 해 뜨는 쪽에 진을 치는 자는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니,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임무를 위해 성소의 임무를 지키리라. 가까이 오는 외인은 죽임을 당하리라.
 39 모세와 아론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가문별로 계수한 레위인들,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이만이천 명이였다.
 40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여 그 이름을 기록하여라."
 41 너는 내 것인 나 주님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 취하고, 레위인들의 가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가축 대신 취하라. 나는 주님이다.
 42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을 계수하였다.
 43 계수된 자들 중 한 달 이상 된 모든 맏아들 남자들은 이만이천이백칠십삼 명이였다.
 4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45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인들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 대신 레위인들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들은 내 것이니, 나는 주님이다."
 46 레위인의 수를 넘는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 이백칠십삼 명을 속전으로 속량하려면,
 47 한 사람당 오 세겔씩 받으라.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이십 게라니라.)
 48 그 남은 자들의 속전으로 받은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
 49 모세는 레위인들로 속량된 자들의 수를 넘는 자들로부터 속전을 거두었으며,
 50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들로부터 성소의 세겔 기준으로 천삼백육십오 세겔을 거두었으며,
 51 모세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민수기 4장

- 1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 2 "레위 사람 중에서 고핫의 아들들을 가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수를 세어라.
- 3 서른 세 살 이상 오십 세 이하의 자들로, 회막에서 일하기 위해 봉사에 들어가는 자들을 세어라.
- 4 "이것이 고핫의 아들들이 회막에서 가장 성스러운 물건들을 다루는 봉사이다.
- 5 진영이 이동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증거의 궤를 가리개의 장막으로 덮고,
- 6 그 위에 바다표범 가죽 덮개를 깔고, 파란 천을 펴서 덮은 뒤, 그 지렛대를 넣어라.
- 7 "진설병 상 위에 파란 천을 펴고, 그 위에 접시와 숟가락과 그릇과 붓을 놓고, 항상 놓아두는 빵을 그 위에 두어라.
- 8 그 위에 붉은 천을 펴고, 바다표범 가죽 덮개로 덮은 뒤, 그 지렛대를 넣어라.
- 9 "그들은 파란 천을 가져다가 등불대와 그 등불과 가위와 재받이와 그 모든 기름 그릇, 즉 그것에 봉사하는 모든 도구를 덮어라.
- 10 그들은 그것과 그 모든 도구를 바다표범 가죽 덮개 안에 넣고, 받침대 위에 놓아라.
- 11 "황금 제단 위에 파란 천을 펴고, 바다표범 가죽 덮개로 덮은 뒤, 그 지렛대를 넣어라.
- 12 "그들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 도구를 가져와 파란 천으로 싸고, 바다표범 가죽 덮개로 덮은 뒤, 받침대 위에 놓아라.
- 13 "그들은 제단에서 재를 치우고, 그 위에 보라색 천을 펴라.
- 14 그들은 제단 주위에서 봉사하는 모든 도구, 즉 불판과 고기 갈고리와 삽과 대야, 즉 제단의 모든 도구를 그 위에 놓고, 바다표범 가죽 덮개를 펴서 덮은 뒤, 그 지렛대를 넣어라.
- 15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어 마친 후, 진영이 이동할 때, 고핫의 아들들이 와서 그것을 메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를 한 순간이라도 만지지 말라. 그래야 그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회막의 모든 물건을 메어야 한다.
- 16 "아론 사제의 아들 엘라살의 책임은 등불의 기름과 향기로운 향과 항상 드리는 곡식 제물과 기름 부음의 기름, 그리고 모든 장막과 그 안의 모든 것, 성소와 그 기구의 요구사항이다."
- 17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 18 "고핫 자손의 가족들을 레위 사람들 중에서 끊어내지 말라.
- 19 그들이 성스러운 물건에 가까이 갈 때, 그들이 살아서 죽지 않도록 이 일을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자에게 그의 봉사와 짐을 지정하라.
- 20 그들은 성소를 한 순간이라도 보지 말라. 그래야 그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 2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2 "게르손의 아들들도 조상의 가문과 가족에 따라 수를 세어라.
- 23 서른 세 살 이상 오십 세 이하의 자들을 세어라. 그들은 회막에서 봉사하고 일하기 위해 들어오는 자들이다.
- 24 "게르손 자손들의 가족들의 봉사는 봉사하고 짐을 메는 일이다.
- 25 그들은 장막의 휘장과 만남의 장막, 그 위의 덮개, 그 위의 가죽 덮개, 만남의 장막 문의 휘장을 메고 다닐 것이다.
- 26 마당의 휘장과 장막 주변 및 제단 주변의 마당 문의 휘장, 그 줄들과 모든 봉사 도구, 그리고 그것들로 행해지는 모든 일을 메고 다닐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봉사할 것이다.
- 27 게르손 자손들의 모든 봉사, 모든 짐과 모든 임무에 관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에 따라 행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모든 책임에 따라 그들에게 임무를 지정할 것이다.
- 28 이것은 만남의 장막에서 게르손 자손들의 가족들이 수행하는 봉사이다. 그들의 임무는 사제 아론의 아들 이스마르의 손 아래 있을 것이다.
- 29 "메라리 자손들에 관하여, 너희는 그들의 가족과 조상의 집에 따라 그들을 계수할 것이다.
- 30 서른 세부터 마흔아홉 세까지, 만남의 장막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모든 자를 계수할 것이다.

- 31 그들의 짐의 임무는, 만남의 장막에서 그들의 모든 봉사에 따라, 장막의 판들, 그 막대들, 그 기둥들, 그 받침들이다.
- 32 장막 주변 마당의 기둥들, 그 받침들, 그 말뚝들, 그 줄들, 모든 도구들과 모든 봉사 도구들이다. 너희는 그들의 짐의 임무에 해당하는 도구들을 이름으로 그들에게 지정할 것이다.
- 33 이것은 만남의 장막에서 메라리 자손들의 가족들이 수행하는 봉사이다. 그들의 임무는 사제 아론의 아들 이스마르의 손아래 있을 것이다."
- 34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탃 자손들을 그들의 가족과 조상의 집에 따라 계수하였다.
- 35 서른 세부터 마흔아홉 세까지, 만남의 장막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모든 자를 계수하였다.
- 36 그들의 가족에 따라 계수된 자는 이천칠백오십 명이었다.
- 37 이것은 고탃 자손들의 가족들 중 만남의 장막에서 봉사하는 모든 자의 계수 결과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를 통해 그들을 계수하였다.
- 38 게르손 자손들 중, 그들의 가족과 조상의 집에 따라 계수된 자는,
- 39 서른 세부터 마흔아홉 세까지, 만남의 장막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모든 자였으며,
- 40 그들의 가족과 조상의 집에 따라 계수된 자는 이천육백삼십 명이었다.
- 41 이것은 게르손 자손들의 가족들 중 만남의 장막에서 봉사하는 모든 자의 계수 결과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계수하였다.
- 42 메라리 자손들의 가족들 중, 그들의 가족과 조상의 집에 따라 계수된 자는,
- 43 서른 세부터 마흔아홉 세까지, 만남의 장막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모든 자였으며,
- 44 그들의 가족에 따라 계수된 자는 삼천이백 명이었다.
- 45 이것은 메라리 자손들의 가족들 중 모세와 아론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를 통해 계수한 자들이다.
- 46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계수한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과 조상의 집에 따라,
- 47 서른 세부터 마흔아홉 세까지, 만남의 장막에서 봉사와 짐 메기의 일을 하는 모든 자였으며,
- 48 그들 중 계수된 자는 팔천오백팔십 명이었다.
- 49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그들을 수세하였으니, 각자 그들의 직무와 짐에 따라 수세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수세하였다.

민수기 5장

- 1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진영 밖으로 모든 나병 환자와 분비물이 나는 자, 그리고 시체로 더러워진 자를 내 보내게 하라.
- 3 남자나 여자나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야 그들이 내가 거주하는 진영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 4 이스라엘 자손은 그대로 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다.
- 5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6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남자나 여자가 사람들의 일반적인 죄를 범하여 주님께 범죄하고, 그 영혼이 죄책을 지게 되면,
- 7 그는 자신이 범한 죄를 고백하고, 그 죄책에 대한 보상을 전액으로 갚은 뒤, 그에게 오분의 일까지 더하여, 자신이 죄를 지은 자에게 바쳐야 한다.
- 8 그러나 만일 그 죄책에 대한 보상을 바칠 친척이 없다면, 주님께 바치는 죄책의 보상은 사제의 것이 된다.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의 어린 양과 함께 바쳐지는 것이다.
- 9 이스라엘 자손이 사제에게 바치는 모든 성물의 헌물은 모두 사제의 것이 된다.
- 10 모든 사람의 성물은 그 사람의 것이며, 누구든지 사제에게 주는 것은 모두 사제의 것이 된다."
- 11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1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만일 어떤 남자의 아내가 범죄하여 그 남자를 배신하고,
- 13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 일이 그 남편의 눈에 드러나지 않으며, 숨겨져 있고, 그 여자가 더러워졌으나, 그를 고발하는 증인이 없고, 그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았다면,
- 14 그 남자의 질투의 영이 일어나 그 여자를 질투하여 그 여자가 더러워졌거나, 또는 그 남자의 질투의 영이 일어나 그 여자를 질투하였으나 그 여자가 더러워지지 않았다면,
- 15 그 남자는 그 아내를 사제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리고 그 여자를 위하여 제물로 보리가루 열분의 일 에바를 가져오되,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향을 얹지 말라. 이는 질투의 제물이요, 기억의 제물로서 죄악을 상기시키는 제물이다.
- 16 사제는 그 여자를 데려다가 주님 앞에 세우고,
- 17 흙으로 만든 그릇에 성수를 담고, 성막 바닥에서 땅의 먼지를 조금 채취하여 그 물에 넣을 것이다.
- 18 사제는 그 여자를 주님 앞에 세우고,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풀어헤치며, 기억의 제물인 질투의 제물을 그 여자의 손에 들려주고, 저주를 가져오는 쓴 물을 손에 들고,
- 19 사제는 그 여자에게 맹세하게 하여 말할 것이다. "만일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고, 남편의 권위 아래서 부정을 범하지 않았다면, 이 저주를 가져오는 쓴 물에서 벗어나라.
- 20 그러나 만일 남편의 권위 아래서 범죄하여 더러워졌고,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면—"
- 21 사제는 그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여 말할 것이다. "주님이 너를 네 백성 가운데 저주와 맹세의 대상으로 만들며, 주님이 네 허벅지를 쇠약하게 하고, 네 몸이 부풀게 하게 하기를 원한다.
- 22 이 저주를 가져오는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몸을 부풀게 하고, 네 허벅지를 쇠약하게 하리라." 그 여자는 말할 것이다. "아멘, 아멘."
- 23 "사제는 이 저주를 책에 기록하고, 그 글자를 쓴 물에 닦아내야 한다.
- 24 사제는 그 여자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물을 마시게 하리니, 저주를 가져오는 물이 그 여자 안에 들어가서 쓰게 될 것이다.
- 25 제사장은 그 여자의 손에서 질투의 제물 곡식을 받아 주님 앞에서 그 곡식을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 26 제사장은 그 곡식의 일부를 한 줌 쥐어 기억하는 부분으로 삼아 제단에서 태우고 나서 그 여자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
- 27 그가 그 여자에게 물을 마시게 한 후, 만약 그 여자가 더럽혀져서 남편에게 죄를 지었다면,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 녀 안에 들어가서 쓰러려지고, 그녀의 몸이 부풀며 허벅지가 쪼개질 것이다. 그 여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 저주가 될 것이다.

²⁸ 만약 그 여자가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다면, 그녀는 자유로워지고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²⁹ "이것은 질투의 법이다. 아내가 남편 아래에 있으면서 범죄하여 더럽혀질 때,

³⁰ 또는 남자가 질투의 영을 받아 아내를 시기할 때, 그는 그 여자를 주님 앞에 세우고 제사장이 그 여자에게 이 모든 법을 집행한다.

³¹ 그 남자는 최악에서 자유롭고, 그 여자는 자기 최악을 짊어질 것이다."

민수기 6장

- 1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너니,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을 하여, 곧 나지르인의 서원을 하여 주님께 구별되려면,
- 3 그는 포도주와 강한 음료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식초나 발효된 음료의 식초도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신선한 포도나 말린 포도도 먹지 말아야 한다.
- 4 그가 구별된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씨앗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모두 멀리해야 한다.
- 5 "그가 주님께 구별된 모든 날 동안 그의 머리에 나이프를 대지 말아야 한다. 그가 주님께 구별된 날이 끝날 때까지 그는 거룩해야 한다. 그는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며 두어야 한다.
- 6 "그가 주님께 구별된 모든 날 동안 죽은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 7 그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그는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의 머리에 하느님께 구별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 8 그가 구별된 모든 날 동안 그는 주님께 거룩하다.
- 9 "만약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곁에서 죽으면, 그는 구별된 머리를 더럽히게 된다. 그는 정결하게 되는 날에 머리를 깎아야 한다. 일곱째 날에 그 머리를 깎아야 한다.
- 10 여덟째 날에 그는 비둘기 두 마리나 새끼 비둘기 두 마리를 사제에게, 곧 회막의 문으로 가져가야 한다.
- 11 사제는 그 중 하나를 속죄 제물로, 다른 하나를 번제물로 바치고, 그가 죽은 자 때문에 범한 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날 바로 그의 머리를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 12 그는 주님께 자신의 구별된 날들을 다시 바치고, 일년 된 수양을 속건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그 전의 날들은 무효가 된다. 그의 구별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 13 "이것은 나지르인의 법이다. 그가 구별된 날이 끝나면, 그는 회막의 문으로 나아가야 한다.
- 14 그는 주님께 제물을 바치되, 흠 없는 일년 된 수양을 번제물로, 흠 없는 일년 된 암양을 속죄 제물로, 흠 없는 수양을 화평 제물로 바쳐야 한다.
- 15 또 무교병 한 바구니와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로 만든 떡들과 기름을 바른 무교 웨이퍼들과 그들의 소제물과 그들의 전제물을 바쳐야 한다.
- 16 사제는 이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의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 17 그는 그 수양을 주님께 화평 제물로 바치되, 무교병 바구니와 함께 바친다. 사제는 그 소제물과 전제물도 바쳐야 한다.
- 18 나지르인은 회막의 문에서 자신의 구별된 머리를 깎고, 그 머리의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화평 제물 아래 불에 놓아야 한다.
- 19 사제는 그 수양의 삶은 어깨와, 바구니에서 하나의 무교병과 하나의 무교 웨이퍼를 가져와, 나지르인이 자신의 구별된 머리를 깎은 후 그의 손에 놓아야 한다.
- 20 사제는 이것들을 주님 앞에서 흔들여 예물로 드려야 한다. 이들은 사제에게 성물이 되며, 흔든 가슴과 바친 허벅지와 함께 사제의 것이 된다. 그 후에 나지르인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 21 "이것은 나지르인이 서원을 하고 주님께 자신의 구별을 위해 바치는 제물의 법이다.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외에도, 그가 서원한 대로 그는 자신의 구별의 법에 따라 행해야 한다."
- 22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3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너니,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라.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너니,
- 24 "주님이 너를 축복하고 지키시며,
- 25 주님께서 당신에게 얼굴을 비추시며
- 26 주님께서 당신을 향해 얼굴을 돌며

²⁷ 그리하여 그들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리니, 내가 그들을 복주리라.

민수기 7장

- 1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그와 그 안의 모든 기구를 기름으로 바르고 성결하게 하며, 제단과 그 모든 기구를 기름으로 바르고 성결하게 한 그날,
- 2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그 조상들의 가족 족장들이 헌물로 드렸다. 이들은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으며, 인구 조사에 등록된 자들을 감독한 자들이었다.
- 3 그들은 주님 앞에 헌물로, 여섯 대의 덮인 수레와 열두 마리의 소를 데려왔다. 지도자 두 명마다 수레 한 대씩, 각자 소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은 이것들을 성막 앞에 바쳤다.
- 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5 "이것들을 그들로부터 받아들여서, 회막 섬기는 일에 쓰게 하라. 너는 그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되, 각자 그의 일에 따라 나누어 주어라."
- 6 모세는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 7 그는 게르손 자손들에게 그들의 일에 따라 수레 두 대와 소 네 마리를 주었다.
- 8 그는 메라리 자손들에게 그들의 일에 따라 수레 네 대와 소 여덟 마리를 주었으며,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스마르의 지도 아래 이루어졌다.
- 9 그러나 고핫 자손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그들은 성소의 일을 맡아 어깨에 메고 옮겼기 때문이다.
- 10 제단이 기름으로 바르인 그날, 지도자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해 헌물로 드렸다. 지도자들은 제단 앞에서 그들의 헌물을 드렸다.
- 1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매일 한 지도자가 그날에 헌물을 드려 제단을 봉헌하라."
- 12 첫째 날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의 아민답의 아들 나손이었다.
- 13 그의 헌물은 다음과 같았다.
- 14 열 세겔 무게의 금 대접 하나에 향을 가득 채운 것,
- 15 한 마리의 젊은 수소,
- 16 죄를 위한 한 마리의 수염소,
- 17 화목제를 위한 소 두 마리, 수양 다섯 마리, 수염소 다섯 마리, 일 년 된 수양 다섯 마리였다. 이는 아민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다.
- 18 둘째 날,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인 수아의 아들 네다넬이 헌물을 드렸다.
- 19 그가 헌물로 드린 것은 다음과 같았다.
- 20 열 세겔 무게의 금 대접 하나에 향을 가득 채운 것,
- 21 한 마리의 젊은 수소,
- 22 죄를 위한 한 마리의 수염소,
- 23 화목제를 위한 소 두 마리, 수양 다섯 마리, 수염소 다섯 마리, 일 년 된 수양 다섯 마리였다. 이는 수아의 아들 네다넬의 헌물이었다.
- 24 셋째 날,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로,
- 25 그의 제물을 바쳤다:
- 26 열 세겔 무게의 금 대접 하나로, 향을 가득 채운 채;
- 27 어린 수소 한 마리,
- 28 죄 속죄를 위한 수염소 한 마리,
- 29 화평 제물을 위해, 수소 두 마리, 수양 다섯 마리, 수염소 다섯 마리, 그리고 일 년 된 수양 다섯 마리였다.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제물이었다.
- 30 네 번째 날, 세두어의 아들 엘리스우르,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가
- 31 그의 제물을 바쳤다:

- 32 열 세겔 무게의 금 대접 하나로, 향을 가득 채운 채;
 33 어린 수소 한 마리,
 34 죄 속죄를 위한 수염소 한 마리,
 35 화평 제물을 위해, 수소 두 마리, 수양 다섯 마리, 수염소 다섯 마리, 그리고 일 년 된 수양 다섯 마리였다. 이는 세두어의 아들 엘리스우르의 제물이었다.
 36 다섯 번째 날, 수리사대이의 아들 셀루미엘,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가
 37 그의 제물을 바쳤다:
 38 향을 가득 담은 열 세겔 무게의 금 대접 하나,
 39 어린 수소 한 마리,
 40 죄 속죄를 위한 수염소 한 마리,
 41 화평 제물을 위해, 수소 두 마리, 수양 다섯 마리, 수염소 다섯 마리, 그리고 일 년 된 수양 다섯 마리였다. 이는 수리사대이의 아들 셀루미엘의 제물이었다.
 42 여섯째 날, 데우엘의 아들 엘리아사프, 갓 자손의 지도자가
 43 그의 제물을 바쳤다:
 44 향을 가득 담은 열 세겔 무게의 금 대접 하나,
 45 어린 수소 한 마리,
 46 죄 속죄를 위한 수염소 한 마리,
 47 화평 제물을 위해, 수소 두 마리, 수양 다섯 마리, 수염소 다섯 마리, 그리고 일 년 된 수양 다섯 마리였다. 이는 데우엘의 아들 엘리아사프의 제물이었다.
 48 일곱째 날, 아미후드의 아들 엘리사마,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가
 49 그의 제물을 바쳤다:
 50 열 세겔 무게의 금 대접 하나로, 향을 가득 채운 채;
 51 어린 수소 한 마리,
 52 죄 속죄를 위한 수염소 한 마리,
 53 화평 제물을 위해, 수소 두 마리, 수양 다섯 마리, 수염소 다섯 마리, 그리고 일 년 된 수양 다섯 마리였다. 이는 아미후드의 아들 엘리사마의 제물이었다.
 54 여덟째 날, 마나세 자손의 지도자인 베다스술의 아들 가말리엘은,
 55 그의 제물을 바쳤다:
 56 열 세겔 무게의 금 대접 하나로, 향을 가득 채운 채;
 57 어린 수소 한 마리,
 58 죄 속죄를 위한 수염소 한 마리,
 59 화평 제물을 위해, 수소 두 마리, 수양 다섯 마리, 수염소 다섯 마리, 그리고 일 년 된 수양 다섯 마리였다. 이는 베다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제물이었다.
 60 아홉째 날, 비냐민 자손의 지도자인 기데오니의 아들 아비단은,
 61 그의 제물을 바쳤다:
 62 열 세겔 무게의 금 대접 하나로, 향을 가득 채운 채;
 63 어린 수소 한 마리,
 64 죄 속죄를 위한 수염소 한 마리,
 65 화평 제물을 위해, 수소 두 마리, 수양 다섯 마리, 수염소 다섯 마리, 그리고 일 년 된 수양 다섯 마리였다. 이는 기데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제물이었다.
 66 열째 날, 단 자손의 지도자인 아미사다이의 아들 아히에셀은,
 67 그의 제물을 바쳤다:

- 68 열 세겔 무게의 금 대접 하나로, 향을 가득 채운 채;
 69 어린 수소 한 마리,
 70 죄 속죄를 위한 수염소 한 마리,
 71 화평 제물을 위해, 수소 두 마리, 수양 다섯 마리, 수염소 다섯 마리, 그리고 일 년 된 수양 다섯 마리였다. 이는 아미사다
 이의 아들 아히에셀의 제물이었다.
 72 열한째 날, 아셀 자손의 지도자인 오크란의 아들 파기엘은,
 73 그의 제물을 바쳤다:
 74 향을 가득 담은 열 세겔짜리 금 대접 하나,
 75 어린 수소 한 마리,
 76 죄를 속하기 위한 수염소 한 마리,
 77 화평 제물을 위해, 수소 두 마리, 수양 다섯 마리, 수염소 다섯 마리, 그리고 일 년 된 수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은 오크란
 의 아들 파기엘의 제물이었다.
 78 열두 번째 날, 에난의 아들 아히라, 납탈리 자손의 족장이
 79 그의 제물을 바쳤다:
 80 향을 가득 담은 열 세겔짜리 금 대접 하나,
 81 어린 수소 한 마리,
 82 죄를 속하기 위한 수염소 한 마리,
 83 화평 제물을 위해, 수소 두 마리, 수양 다섯 마리, 수염소 다섯 마리, 그리고 일 년 된 수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제물이었다.
 84 이것은 이스라엘 족장들이 제단을 기름 부을 날에 제단을 위한 기념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즉, 은 대접 열두 개, 은 그릇
 열두 개, 금 대접 열두 개였다.
 85 각 은 대접은 백 삼십 세겔이고, 각 그릇은 칠십 세겔이었으며, 모든 그릇의 은은 성소의 세겔 기준으로 이천 사백 세겔
 이었다.
 86 향을 가득 담은 금 대접 열두 개는 각각 성소의 세겔 기준으로 열 세겔씩 무게가 나갔으며, 모든 금 대접의 금은 백 이십
 세겔이었다.
 87 번제를 위한 모든 소는 수소 열두 마리, 수양 열두 마리, 일 년 된 수양 열두 마리, 그리고 그들의 곡식 제물이었고, 죄를
 속하기 위한 수염소 열두 마리였다.
 88 화평 제물을 위한 모든 소는 수소 스물네 마리, 수양 육십 마리, 수염소 육십 마리, 그리고 일 년 된 수양 육십 마리였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제단을 위한 기념 제물이었다.
 89 모세가 증거의 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서 주님과 대화하려고 회막에 들어갈 때, 그는 두 그룹 사이에서 그의 음성을 듣
 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민수기 8장

- 1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 2 아론에게 일러라. '네가 등불을 켤 때, 일곱 등불은 등대 앞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
- 3 아론은 그렇게 했다. 그는 등대 앞쪽을 밝히기 위해 등불을 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 4 이 등대는 금으로 두드려 만든 작품이었다. 밀받침에서 꽃까지 모두 두드려 만든 것이었다. 그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 주신 형식에 따라 등대를 만들었다.
- 5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 6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뽑아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 7 그들을 정결하게 하려면, 정결의 물을 그 위에 뿌리고, 그들이 전신을 면도칼로 깎으며, 옷을 씻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게 하여라.
- 8 그리고 그들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그 소제, 곧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져오게 하며, 죄 제물로 또 다른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여라.
- 9 너는 레위인들을 회막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라.
- 10 너는 레위인들을 주님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손을 레위인들에게 얹게 하여라.
- 11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 드려, 그들이 주님의 봉사를 하게 하여라.
- 12 레위인들은 수소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는 죄 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로 주님께 드려, 레위인들을 위하여 속죄 하라.
- 13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그들을 주님께 흔들어 드려라.
- 14 이렇게 하여 너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별하여, 레위인들은 내 것이 되게 하라.
- 15 "그 후에 레위인들은 회막의 봉사를 하러 들어가야 한다.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주님께 흔들어 드려라."
- 16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게 완전히 주어진 자들이다. 내가 그들을 내 것으로 삼은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곧 모든 태를 여는 자를 대신하여이다.
- 17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두 내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맏아들을 친 그 날에, 나는 그들을 내 것으로 성별하였다.
- 18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뽑았다.
- 19 내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봉사를 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올 때, 그들 사이에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20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레위인들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 주님께서 레위인들에 관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에게 행하였다.
- 21 레위인들은 죄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씻었으며, 아론은 그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 드려,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속죄하였다.
- 22 그 후에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그들의 봉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들에 관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그들에게 행하였다.
- 23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4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규정은 이러하다. 스물다섯 세 이상은 회막의 봉사 일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다."
- 25 오십 세부터는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더 이상 봉사하지 않으며,
- 26 그러나 회막에서 형제들을 도와 직무를 수행하되, 직접 봉사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너희는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민수기 9장

- ¹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두 해째 첫째 달에,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²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시기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 ³ 이 달 열네째 날 저녁에, 너희는 정해진 시기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모든 규례와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한다."
- 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알렸다.
- ⁵ 그들은 첫째 달 열네째 날 저녁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행하였다.
- ⁶ 어떤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시체로 인해 부정하여 그날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고, 그들이 그날 모세와 아론 앞에 나아왔다.
- ⁷ 그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의 시체로 인해 부정합니다. 우리를 왜 제쳐두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정해진 시기에 주님의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십니까?"
- ⁸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너희는 잠시 기다려라. 내가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명령하실지 들어보겠다."
- ⁹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¹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중 누구든지 죽은 시체로 인해 부정하거나 먼 길을 떠나 있으면, 그도 주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 ¹¹ 둘째 달 열네째 날 저녁에 그들은 그것을 지키며, 무교병과 쓴 채소와 함께 먹어야 한다."
- ¹² 그들은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부수지 말아야 한다. 유월절의 모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지켜야 한다."
- ¹³ 그러나 부정하지 않고 먼 길을 떠나 있지 않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영혼이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가 정해진 시기에 주님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죄를 짊어질 것이다."
- ¹⁴ "너희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그도 유월절의 규례와 법령에 따라 행해야 한다. 너희는 외국인과 그 땅에서 태어난 자에게 한 가지 규례를 두어야 한다."
- ¹⁵ 성막이 세워진 그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있었고, 마치 불의 모습 같았으며, 아침까지 그랬다.
- ¹⁶ 이러한 일이 항상 계속되었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의 모습이 있었다.
- ¹⁷ 성막 위의 구름이 올라갈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은 떠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은 진을 쳤다.
- ¹⁸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은 떠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진을 쳤다.
- ¹⁹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머무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떠나지 않았다.
- ²⁰ 가끔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 머무르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진을 쳤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떠났다.
- ²¹ 가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무르면, 아침에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이 떠났다. 혹은 낮과 밤 동안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이 떠났다.
- ²² 구름이 성막 위에 이틀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또는 일 년 동안 머무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진을 쳤고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이 떠났다.
- ²³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진을 쳤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떠났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민수기 10장

- ¹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² 은으로 두 개의 나팔을 만들어라. 너희는 그것들을 두드려 만든 방식으로 만들고, 회중을 불러모으고, 진을 이동시키는 데 사용하라.
- ³ 그들이 나팔을 불면, 모든 회중이 만남의 장막 문 앞에 너에게 모일 것이다.
- ⁴ 한 개만 불면, 이스라엘의 천부장들이 너에게 모일 것이다.
- ⁵ 당신이 경고음을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진들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 ⁶ 당신이 두 번째로 경고음을 불면, 남쪽에 진을 친 진들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들은 이동할 때마다 경고음을 불 것이다.
- ⁷ 그러나 회중이 모일 때에는 나팔을 불되, 경고음을 내지 말라.
- ⁸ 아론의 아들들, 곧 사제들이 나팔을 불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 세대에 걸쳐 영원한 율법이 될 것이다.
- ⁹ 너희가 땅에서 너희를 괴롭히는 적과 싸울 때에는 나팔로 경고음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기억될 것이고, 너희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 ¹⁰ 너희가 기뻐하는 날과 정한 절기와 월초에는 번제와 화평제 위에 나팔을 불어라. 그것들은 너희 하느님 앞에서 기억물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느님 주님이다.
- ¹¹ 두 번째 해, 둘째 달, 그 달 스무 번째 날, 언약의 장막 위의 구름이 올라갔다.
- ¹²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 여정을 시작했고, 구름은 파란 광야에 머물렀다.
- ¹³ 그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지시를 따라 먼저 나아갔다.
- ¹⁴ 유다 자손들의 진의 깃발이 그들의 군대에 따라 먼저 나아갔다. 나손은 아민나답의 아들로 그 군대를 이끌었다.
- ¹⁵ 네다넬은 수아르의 아들로 잇사갈 자손들의 군대를 이끌었다.
- ¹⁶ 엘리압은 헬론의 아들로 스불론 자손들의 군대를 이끌었다.
- ¹⁷ 장막이 풀리고, 게르손의 아들들과 메라리의 아들들, 곧 장막을 메는 자들이 먼저 나아갔다.
- ¹⁸ 르우벤 자손들의 진의 깃발이 그들의 군대에 따라 나아갔다. 엘리스우르는 세두어의 아들로 그 군대를 이끌었다.
- ¹⁹ 셀루미엘은 수리사대이의 아들로 시므온 자손들의 군대를 이끌었다.
- ²⁰ 엘리아스압은 데우엘의 아들로 갓 자손들의 군대를 이끌었다.
- ²¹ 고핫 자손들이 성소를 메고 나아갔다. 다른 자들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장막을 세웠다.
- ²² 에브라임 자손들의 진의 깃발이 그들의 군대에 따라 나아갔다. 엘리사마는 아미후드의 아들로 그 군대를 이끌었다.
- ²³ 가말리엘은 베다술의 아들로 므나세 자손들의 군대를 이끌었다.
- ²⁴ 아비단은 기드오니의 아들로 베냐민 자손들의 군대를 이끌었다.
- ²⁵ 다니 자손의 진영 깃발은 모든 진영의 뒤쪽을 맡아, 그들의 군대에 따라 진군하였다. 아히에셀은 아미사다이의 아들로, 그의 군대를 이끌었다.
- ²⁶ 파기엘은 오크란의 아들로, 아셀 자손의 지파 군대를 이끌었다.
- ²⁷ 아히라는 에난의 아들로, 납탈리 자손의 지파 군대를 이끌었다.
- ²⁸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군대에 따라 진군하였다.
- ²⁹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바브, 곧 자기 장인에게 말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나고 있다. 우리와 함께 가라. 우리가 너에게 잘 해줄 것이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좋은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 ³⁰ 그가 그에게 말했다.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내 고향과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겠다."
- ³¹ 모세가 말했다.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치는지를 알고 있으니, 우리 눈이 되어 주십시오."
- ³²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실 때마다, 그 좋은 일을 당신에게도 하겠습니다."

³³ 그들은 주님의 산에서 사흘 길을 떠나 진군하였다. 주님의 언약 궤가 그들 앞에서 사흘 길을 앞서가며 그들을 위한 쉼 곳을 찾아주었다.

³⁴ 그들이 진을 떠나 진군할 때,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

³⁵ 궤가 진군할 때, 모세가 말했다. "일어나소서, 주님! 주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게 하소서!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도망치게 하소서!"

³⁶ 궤가 쉼 때, 그가 말했다. "돌아오소서, 주님! 이스라엘의 만만의 수많은 자들에게."

민수기 11장

- 1 백성들이 주님의 귀에 불평하였다. 주님께서 들으시자 분노가 치밀었고, 주님의 불이 그들 사이에서 타오르며 진영의 외곽 일부를 태워버렸다.
- 2 백성들이 모세에게 외쳤고,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
- 3 그 장소의 이름은 타베라라 불렸다. 이는 주님의 불이 그들 사이에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 4 그들 사이에 있던 혼합된 무리가 심히 탐내었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인가?"
- 5 우리는 이집트에서 공짜로 먹었던 생선을 기억한다. 오이와 멜론과 파와 양파와 마늘도.
- 6 그러나 지금은 우리 입맛이 사라졌다. 우리는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 7 만나는 고수씨처럼 생겼고, 베델룸처럼 보였다.
- 8 백성들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주워서 밀에 갈거나 으깨고 냄비에 끓여서 떡을 만들었다. 그 맛은 신선한 기름 맛과 같았다.
- 9 밤에 진영 위로 이슬이 내릴 때마다 만나도 내렸다.
- 10 모세는 백성들이 각 가족마다 자기 장막 문 앞에서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고, 주님의 분노가 심히 치밀었으며, 모세도 기분이 나빴다.
- 11 모세가 주님께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의 종을 이렇게 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는 당신의 눈에 은총을 입지 못하여 이 모든 백성의 무거운 짐을 제게 지우시나이까?"
- 12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아내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들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간호부가 아기에게 하듯이,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 13 이 모든 백성에게 고기를 주어 먹일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내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 14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이 너무 무겁습니다.
- 15 만약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하신다면, 제가 당신의 눈에 은총을 입었다면, 지금 바로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내가 내 비참함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 16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서 내가 너에게 알려 준, 백성의 장로이자 그들을 다스리는 관리들인 칠십 명을 내게 모으고, 그들을 회막으로 데려와서 너와 함께 서 있게 하라."
- 17 나는 내려가서 너와 거기서 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있는 영을 빼서 그들에게 주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지게 될 것이며, 너는 혼자 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 18 "백성에게 말하여라. "내일을 위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너희는 고기를 먹을 것이다. 너희가 주님의 귀에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인가?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편안했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실 것이며, 너희가 먹을 것이다."
- 19 너희가 하루나 이틀이나 다섯 날이나 열 날이나 스무 날만 먹는 것이 아니라,
- 20 한 달 동안 먹을 것이다. 너희 콧구멍에서 나오기까지, 너희에게 역겨워질 때까지 먹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계신 주님을 거부하고, 그분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이집트에서 나왔는가?"라고 했기 때문이다.
- 21 모세가 말하였다. "제가 있는 이 백성은 육십만 명이나 되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22 그들에게 충분한 만큼 양과 소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모아서 그들에게 충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 23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네가 내 말이 네게 이루어질지 보리라."
- 24 모세가 나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의 장로들 중 칠십 명을 모아서 회막 주위에 앉혔다.
- 25 주님은 구름으로 내려와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있던 영에서 일부를 취하여 칠십 명의 장로들에게 내려주셨다. 영이

그들에게 내리자 그들은 예언했으나, 더 이상 예언하지 않았다.

²⁶ 그러나 두 사람이 진에 머물러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영이 그들에게 내렸다. 그들은 기록된 자들 중이었으나 회막으로 나가지 않았고, 진에서 예언했다.

²⁷ 젊은이가 달려가 모세에게 알리며 말했다.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²⁸ 모세의 종이자 그의 골라낸 자 중 한 사람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답했다. "주님, 모세여, 그들을 막으소서!"

²⁹ 모세가 그에게 말했다. "너는 내 때문에 질투하는가? 내가 주님의 모든 백성이 예언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주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내려주시기를!"

³⁰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진으로 들어갔다.

³¹ 주님의 바람이 불어나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가져와 진 주변에 떨어뜨렸다. 이는 진의 양쪽으로 하루 길이씩, 진을 둘러싸고 땅 위 약 두 자 높이까지였다.

³² 백성은 그날 하루 종일, 그 밤 내내, 그리고 다음 날 하루 종일 일어나 메추라기를 모았다. 가장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머를 모았고, 그들은 모두 진 주변에 펼쳐 놓았다.

³³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 있었고, 씹히기도 전에 주님의 분노가 백성에게 일어나, 주님은 백성에게 매우 심한 재앙을 내리셨다.

³⁴ 그 장소의 이름은 기브로트 하타아와라 불렸다. 거기서 그들은 탐욕을 부린 백성을 장사지냈다.

³⁵ 기브로트 하타아와에서 백성은 하세로트로 떠나, 하세로트에 머물렀다.

민수기 12장

¹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결혼한 쿠시 여인 때문에 모세를 비난했다. 그가 쿠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다.

² 그들이 말했다. "주님께서 모세만과 말씀하셨던가?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던가?"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³ 모세는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 훨씬 온화하였다.

⁴ 주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셋은 모임의 장막으로 나아오라."

⁵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내려와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다. 그 둘은 나아갔다.

⁶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예언자가 있다면, 나는 주님으로서 그에게 환상으로 나를 알리고, 꿈으로 그와 말한다."

⁷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온 집에서 충성스럽다.

⁸ 나는 그와 입으로 입을 대고, 명백하게, 은유가 아니라 말한다. 그는 주님의 형체를 본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 종, 곧 모세를 향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⁹ 주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불타올랐고, 그분은 떠나가셨다.

¹⁰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 보라,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었다. 아론이 미리암을 바라보니, 그녀는 나병이 걸려 있었다.

¹¹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오, 나의 주님, 저희가 어리석게 행동하고 죄를 지은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소서."

¹² 그녀가 태에서 나올 때 몸이 절반이나 썩어버린 죽은 자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¹³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말했다. "하느님, 그녀를 낫게 해 주소서!"

¹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그녀는 일곱 날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았겠느냐? 그녀를 진영 밖에 일곱 날 동안 가두어라. 그 후에야 그녀를 다시 데려오라."

¹⁵ 미리암은 진영 밖에 일곱 날 동안 가두어졌다. 백성은 미리암이 다시 데려와질 때까지 여행을 하지 않았다.

¹⁶ 그 후 백성은 하세로트에서 떠나 파란 광야에 진을 쳤다.

민수기 13장

- 1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주는 가나안 땅을 정찰할 남자를 보내라. 그들의 조상의 모든 지파에서 한 명씩, 각자 그들 가운데 두목을 보내라."
- 3 모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두목들이었다.
- 4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 5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샤파트였다.
- 6 유다 지파에서는 예후네의 아들 갈렙이었다.
- 7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었다.
- 8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였다.
- 9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푸의 아들 팔티였다.
- 10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간디엘이었다.
- 11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간디였다.
- 12 단 지파에서는 게마리의 아들 암미엘이었다.
- 13 아셀 지파에서는 미카엘의 아들 세투르였다.
- 14 납탈리 지파에서는 보프시의 아들 나비였다.
- 15 갓 지파에서는 마키의 아들 게우엘이었다.
- 16 이들은 모세가 땅을 정찰하라고 보낸 남자들의 이름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
- 17 모세는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찰하라고 보내며 말했다. "남쪽으로 올라가서 산지로 올라가라.
- 18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보라.
- 19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거주하는 성들이 진영인지 요새인지 보라.
- 20 그 땅이 비옥한지 가난한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라. 용감해져서 그 땅의 열매를 조금이라도 가져오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는 시기였다.
- 21 그들은 진정 광야에서 하맛의 입구까지 가나안 땅을 정찰하였다.
- 22 그들은 남쪽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난의 자손인 아히만과 세새이와 탈마이가 있었다. (이때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일곱 해 전에 지어졌다.)
- 23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덩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내어 두 사람이 지팡이에 메고 옮겼다. 그들은 또한 석류와 무화과도 가져왔다.
- 24 그 곳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베어낸 포도 덩이 때문에 에스골 골짜기라 불렸다.
- 25 그들은 사십 일 후에 땅을 정찰하고 돌아왔다.
- 26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가서, 파란 광야의 카데스에 이르러, 그들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었다.
- 27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땅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이것이 그 땅의 열매입니다."
- 28 그러나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은 강력하고, 그 도시들은 견고하게 쌓아 올려져 있고 매우 큼니다. 게다가 우리는 거기에서 아낙의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 29 아말렉 사람은 남부 땅에 거주합니다.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주합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다와 요르단 강 가에 거주합니다.
- 30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그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 31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간 남자들은 말했다. "우리는 그 백성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³² 그들은 그들이 정찰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악한 보고를 하며 말했다. "우리가 정찰하러 다녔던 그 땅은 그 땅의 주민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입니다."

³³ 거기서 우리는 느필림, 곧 아낙의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느필림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메뚜기처럼 보았고, 그들 앞에서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았습니다.

민수기 14장

- 1 모든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그 밤에 백성이 울었다.
- 2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혹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어땠을까!"
- 3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칼에 쓰러지게 하십니까? 우리의 아내들과 어린 아이들이 사로잡히거나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 아닙니까?
- 4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지도자를 하나 골라 이집트로 돌아가자."
- 5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 6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후느의 아들 갈렙은 옷을 찢었다.
- 7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정탐하러 지나간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 8 만약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유와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 9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에게 빵과 같습니다. 그들의 보호는 그들 위에서 사라졌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 10 그러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위협하였다.
- 1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나를 얼마나 오래 경멸할 것인가?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모든 표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얼마나 오래 믿지 않을 것인가?"
- 12 나는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고, 그들을 끊어버리며, 너로 하여금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 13 모세가 주님께 말하였다.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힘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 14 그들은 이 땅의 주민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신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는 얼굴을 마주 보고 나타나시고,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행하십니다.
- 15 이제 만약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처럼 죽이신다면, 주님의 소문을 들은 모든 민족이 말할 것입니다.
- 16 "주님은 그분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을 데려올 수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셨다."
- 17 이제 주님의 능력이 크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나타내소서.
- 18 "주님은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며, 죄와 불순종을 용서하시지만, 결코 죄 없는 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아버지들의 죄를 그 자손들에게, 셋째와 넷째 대까지 벌하십니다."
- 19 주님의 자비가 크신 대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소서.
- 20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하였다."
- 21 그러나 내가 살아 있고, 온 땅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임을 두고 말하노니,
- 22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내 영광과 표적들을 모두 보았으나, 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때문에,
- 23 그들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며, 나를 싫어한 자는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 24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정신을 가지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내가 그를 그가 갔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 25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골짜기에 거주하고 있으니, 내일 너희는 돌아서 홍해 길로 광야로 떠나라.
- 26 주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 27 "이 악한 회중이 나를 불평하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해 푸는 불평을 내가 들었다.

- 28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산다고, 주님이 말한다.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 29 너희 시체들이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며, 너희 중에서 스무 살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불평한 자 모두가 쓰러질 것이다.
- 30 내가 너희에게 거주하게 하리라고 맹세한 땅에는 너희 중 누구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단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들어갈 것이다.
- 31 그러나 너희가 사로잡히거나 죽을 것이라 말한 어린 아이들은 내가 그들을 데려올 것이며, 너희가 거부한 그 땅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 32 그러나 너희는 너희 시체들이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다.
- 33 너희 자녀들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할 것이며, 너희의 음행을 짚어질 것이다.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 34 너희가 그 땅을 탐정한 날 수, 사십 일에 따라, 하루에 일 년씩, 너희는 너희 죄악을 사십 년 동안 짚어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떠났음을 알게 될 것이다.'
- 35 나, 주님, 말했다. 내가 이 악한 회중, 곧 나를 대적하여 모인 자들에게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 광야에서 그들이 소멸되어 거기서 죽을 것이다.'
- 36 모세가 보낸 땅을 탐정하러 갔다가 돌아와 악한 보고를 하여 회중이 그를 향해 불평하게 만든 그 남자들,
- 37 곧 그 땅에 대해 악한 보고를 한 그 남자들은 주님 앞에서 전염병으로 죽었다.
- 38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땅을 탐정하러 갔던 그 남자들 중에서 살아남았다.
- 39 모세가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전하니, 백성이 크게 슬퍼하였다.
- 40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말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 41 모세가 말했다. "어찌하여 이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 42 올라가지 마라.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시니, 너희가 원수 앞에서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 43 거기에는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 까닭에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 44 그러나 그들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스스로 나섰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 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
- 45 그때 아말렉 족속과 그 산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이 내려와 그들을 공격하여 호르마까지 쳐부수었다.

민수기 15장

- 1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너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가 거주할 땅에 들어갈 때에,
- 3 소나 양떼에서 태워 바치는 제물, 곧 서원을 이루거나, 자발적인 헌물이나, 너희의 정해진 축일에 주님께 불로 바치는 제물을 드릴 때,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려면,
- 4 그 제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한 에바의 십분의 일에 사분의 일 히난의 기름을 섞어 주님께 곡식 제물을 드릴 것이며,
- 5 너는 각 어린 양에 대해 태워 바치는 제물이나 헌물에 사분의 일 히난의 포도주를 음료 제물로 준비할 것이며,
- 6 "수양을 위한 곡식 제물로는 고운 가루 이 에바의 십분의 둘에 삼분의 일 히난의 기름을 섞어 준비할 것이며,
- 7 음료 제물로는 삼분의 일 히난의 포도주를 주님께 드려 기쁨을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며,
- 8 너희가 소를 태워 바치는 제물이나 헌물로, 서원을 이루거나 주님께 화평 제물을 드릴 때,
- 9 그는 소와 함께 고운 가루 세 에바의 십분의 삼에 반 히난의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을 드릴 것이며,
- 10 음료 제물로는 반 히난의 포도주를 주님께 불로 바치는 제물로 드려 기쁨을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며,
- 11 이와 같이 소마다, 수양마다, 수양의 새끼나 어린 염소마다 행할 것이니,
- 12 너희가 준비하는 수에 따라 각각 그 수에 맞게 행할 것이며,
- 13 "모든 토착 이스라엘 사람은 이와 같이 주님께 불로 바치는 제물을 드려 기쁨을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며,
- 14 너희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이나 너희 세대에 이르기까지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주님께 불로 바치는 제물을 기쁨을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려 할 때에는 너희가 행하는 대로 그도 행할 것이며,
- 15 공동체를 위해 너희와 거류하는 외국인 사이에 한 가지 법이 있을 것이며, 너희 세대에 영원한 법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러하듯, 외국인도 주님 앞에서 그러할 것이다.
- 16 너와 너희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에게는 한 가지 법과 한 가지 규정이 있을 것이다."
- 17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18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너니,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땅에 들어갈 때에,
- 19 너희가 그 땅의 빵을 먹게 되면, 주님께 파도치는 제물을 드릴 것이며,
- 20 너희 반죽의 처음 것을 한 덩어리로 파도치는 제물로 드릴 것이니, 타작 마당의 파도치는 제물처럼 그것을 들어 올릴 것이며,
- 21 너희 반죽의 처음 것을 너희 세대에 걸쳐 주님께 파도치는 제물로 드릴 것이니,
- 22 "너희가 잘못하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 23 곧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 세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지 않을 때,
- 24 그러면 회중이 무지하게 행하였다면, 회중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기 위해 한 마리 젊은 수소를 태워 바치는 제물로 드리되, 그 곡식 제물과 음료 제물은 규정에 따라 드리고, 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를 드릴 것이니,
- 25 사제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들은 용서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실수한 것이며, 그들이 화제 희생을 주님께 드리고, 죄 희생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다.
- 26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까지 모두 용서될 것이다. 이는 모든 백성에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이다.
- 27 "누구든지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는 일 년 된 암염소를 죄 희생으로 드려야 한다.
- 28 사제는 주님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은 자의 영혼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는 용서될 것이다.
- 29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어난 자와 그들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 모두에게, 무의식적으로 무엇을 행한 자에게는 한 가지 법이 적용될 것이다.
- 30 "그러나 고개를 높이고 행동하는 자, 곧 태어난 자이든 외국인이든, 그는 주님을 모독한다. 그 영혼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 31 그가 주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영혼은 완전히 끊어질 것이다. 그의 죄악은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 32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줍는 사람을 발견하였다.
- 33 그 나뭇가지를 줍는 사람을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데려왔다.
- 34 그들을 그를 감금하였다. 왜냐하면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35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온 회중은 그를 진 밖에서 돌로 쳐 죽여야 한다.”
- 36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데려가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돌로 쳐 죽였다.
- 37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38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세대를 거쳐 옷자락에 털실을 달게 하며, 각 자락 끝에 푸른 끈을 매라고 일러라.
- 39 그 털실은 너희에게 기호가 되어, 너희가 그것을 보고 주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며, 그것을 지키며, 너희가 옛적에 음행 하던 너희 마음과 눈을 따르지 않게 할 것이다.
- 40 이렇게 하여 너희는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며, 너희 하느님께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라.
- 41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느님이 된 주님, 너희 하느님이다.”

민수기 16장

- ¹ 한때 이스라엘의 아들 레위의 손자 고핫의 아들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เบน의 아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เบน의 아들 벨레스의 아들 온이 몇 사람을 끌어모았다.
- ²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일부와 함께 모세 앞에 일어나, 공동체의 이백 오십 명의 지도자, 곧 모임에 불린 유명한 자들을 이끌고 왔다.
- ³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모여들어 말했다. "너희는 너무나도 자기를 높입니다. 이 공동체의 모든 이들이 거룩하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주님의 공동체 위에 자신을 높입니까?"
- ⁴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 ⁵ 그는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 누구는 자기 것이며, 누구는 거룩한지 보여 주실 것이다. 그분이 선택하시는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실 것이다."
- ⁶ 이것을 하여라.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는 화분을 가져라.
- ⁷ 그 안에 불을 넣고 내일 주님 앞에 향을 올려라. 주님이 선택하시는 자가 거룩할 것이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지나치게 행동했다!"
- ⁸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다. "들어라, 레위 자손들아!
- ⁹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떼어내어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님의 장막에서 섬기게 하시며, 공동체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나?
- ¹⁰ 그분께서 너희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너희 형제들인 레위 자손들도 모두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제사장직까지도 탐하는가?
- ¹¹ 그러므로 너희와 너희 무리는 모두 주님을 대적하여 모인 것이다. 아론이 무엇이기에 너희가 그를 향해 불평하는가?
- ¹² 모세는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오려고 사자를 보냈으나,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 ¹³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올려 광야에서 죽게 하였을 뿐 아니라, 또 우리 위에 스스로를 지배자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 작은 일이나?
- ¹⁴ 게다가 당신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지도 않았고, 밭과 포도원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지도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의 눈을 빠려는 것입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 ¹⁵ 모세는 매우 화가 나서 주님께 말했다. "그들의 제물을 존중하지 마소서. 나는 그들 중 한 나귀라도 빼앗지 않았고, 그들 중 한 사람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 ¹⁶ 모세는 고라에게 말했다. "내일 너와 네 무리, 그리고 아론도 주님 앞에 나아가라."
- ¹⁷ 각자 화분을 가져다가 향을 올리고, 각자 주님 앞에 자신의 화분을 가져오되, 이백 오십 개의 화분을 가져오고, 너와 아론도 각자 자신의 화분을 가져오라."
- ¹⁸ 그들은 각자 화분을 가져다가 불을 넣고 향을 올린 후, 모세와 아론과 함께 증거의 장막 문 앞에 서 있었다.
- ¹⁹ 고라는 모든 공동체를 모아 그들 앞, 증거의 장막 문 앞에 세웠다.
- ²⁰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 ²¹ "이 공동체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하겠다."
- ²²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다. "하느님, 모든 육체의 영의 하느님,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온 공동체를 향해 분노하십니까?"
- ²³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²⁴ "공동체에게 말하여라.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 주변에서 떠나라.""
- ²⁵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갔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를 따랐다.
- ²⁶ 그가 공동체에게 말했다. "이 악한 자들의 장막에서 떠나십시오. 그들의 모든 것을 만지지 마십시오. 그래야 당신들이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 ²⁷ 그래서 그들은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에서 사방으로 떠났다.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아내와 아들들과 어린 아이들

과 함께 자기 장막 문 앞에 나와 서 있었다.

28 모세가 말했다. "여기서 당신들은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일들은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29 만일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겪는 보통의 죽음을 맞이하거나,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을 경험한다면, 주님은 나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뜻이다.

30 그러나 만일 주님이 새로운 일을 하셔서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키고, 그들이 살아서 스올로 내려가면,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경멸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31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 아래의 땅이 갈라졌다.

32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고라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삼켰다.

33 그러므로 그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가 살아서 스올로 내려갔다. 땅이 그 위를 덮고, 그들은 공동체 가운데서 멸망하였다.

34 그들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들의 외침을 듣고 도망쳤다. 그들이 말했다. "땅이 우리를 삼키지 않을까?"

35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친 이 백이십 오 명을 삼켰다.

36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7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하여, 그가 불타는 화환을 주워서 진 밖으로 불을 흘으라고 하라. 이 화환들은 성물이다."

38 이 화환들은 자기 생명을 거스려 죄를 지은 자들의 것이다. 그것을 두드려 제단의 덮개로 만들라. 그들은 주님 앞에 바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성물이다. 이 화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39 사제 엘라살은 불타서 죽은 자들이 바친 놋 화환을 주워서 두드려 제단의 덮개로 만들었다.

40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념이 되어, 아론의 자손이 아닌 외국인이 주님 앞에 향을 태우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가 고라와 그의 무리처럼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였다.

41 그러나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며 말했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42 모든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모여들었을 때, 그들은 회막을 바라보았다. 보라,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43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나아갔다.

44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45 "이 공동체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46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네 화환을 가져가서 제단에서 불을 그 안에 담고, 향을 그 위에 올려 빨리 공동체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라. 주님의 진노가 나왔고, 전염병이 시작되었다."

47 아론은 모세의 말대로 하여 공동체 한가운데로 달려갔다. 이미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 있었다. 그가 향을 올리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48 그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니, 전염병이 멈추었다.

49 아울러 고라의 일로 죽은 자들을 포함하여, 전염병으로 죽은 자는 일만 사천칠백 명이었다.

50 아론은 장막의 문으로 모세에게로 돌아갔고, 전염병이 멈추었다.

민수기 17장

- ¹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²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의 족장들 각자에게서 지팡이 하나씩 받아라. 그들의 족장들 중에서 아버지의 집마다 하나씩, 모두 열두 개의 지팡이를 받아라. 각 사람의 이름을 그의 지팡이에 써라.
- ³ 너는 아론의 이름을 레위의 지팡이에 써라. 아버지의 집마다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한다.
- ⁴ 너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앞,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에 두어라.
- ⁵ 내가 택한 사람의 지팡이가 싹을 틔울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불평하는 그 불평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겠다.
- ⁶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고, 그들의 모든 족장들이 그에게 지팡이를 주었는데, 족장마다 하나씩, 아버지의 집마다 하나씩, 모두 열두 개의 지팡이였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 지팡이들 사이에 있었다.
- ⁷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앞에 주님 앞에 두었다.
- ⁸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갔더니, 보라, 레위의 집을 위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익은 아몬드를 달고 있었다.
- ⁹ 모세가 주님 앞에서 모든 지팡이들을 꺼내어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이 보고 각자 자기 지팡이를 가져갔다.
- ¹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 앞에 되돌려 놓아, 반역하는 자들을 상기하는 표로 간직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내게 불평하는 것을 그치게 하고, 그들이 죽지 않게 하라."
- ¹¹ 모세가 그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하였다.
- ¹²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했다. "보소서,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멸망했습니다!"
- ¹³ 주님의 장막에 가까이 가는 자마다 죽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게 될까요?"

민수기 18장

- 1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네 아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의 죄를 짊어질 것이며, 너와 네 아들은 사제직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 2 너의 형제들인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너와 함께 데려오라. 그들이 너와 함께 합류하여 너를 섬기게 하되, 너와 네 아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서야 한다.
- 3 그들은 너의 명령과 장막 전체의 임무를 지킬 것이며, 성소의 기구들과 제단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야 그들도 너도 죽지 않을 것이다.
- 4 그들은 너와 합류하여 만남의 장막의 책임을 지킬 것이며, 장막의 모든 섬김을 수행할 것이다. 외인은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 5 "너는 성소의 임무와 제단의 임무를 수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가 더 이상 임하지 않게 하라."
- 6 보라, 내가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에게 주었다. 그들은 주님께 바쳐진 선물로서 만남의 장막을 섬기게 될 것이다.
- 7 너와 네 아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을 수행하며 사제직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사제직의 섬김을 선물로 주었다. 가까이 오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 8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에게 내 흔들어 드리는 예물의 권한을 주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성물들을 너에게 주었다. 나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 너와 네 아들에게 영원한 몫으로 주었다."
- 9 너는 불로 바친 성물 중 가장 성한 것들을 가질 것이다. 그들이 내게 바치는 모든 소제물과 모든 속죄제물과 모든 속건제물은 너와 네 아들에게 가장 성한 것이 될 것이다.
- 10 너는 그것들을 가장 성한 것처럼 먹을 것이다.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을 수 있으며, 그것은 너에게 성한 것이다.
- 11 "또 너는 그들이 드리는 흔들어 드리는 예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흔들어 드리는 예물을 가질 것이다. 내가 너와 네 아들과 네 딸들에게 영원한 몫으로 주었다. 네 집안에서 깨끗한 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 12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바치는 모든 기름의 최상품과 포도주와 곡식의 최상품, 곧 그들의 첫 열매를 주었다."
- 13 그들이 주님께 바치는 땅의 모든 첫 열매는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네 집안에서 깨끗한 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 14 "이스라엘에서 바쳐진 모든 바친 물건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 15 그들이 주님께 바치는 모든 육체의 첫 태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두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의 첫째 아들을 반드시 속량하고, 부정한 동물의 첫째 새끼도 속량해야 한다.
- 16 너는 한 달 된 그들을 속량할 때, 너희가 정한 가격으로, 성소의 세겔로 다섯 세겔의 은을 주어야 한다. 이 세겔은 이십 게라의 무게이다.
- 17 "그러나 소의 첫째 새끼나 양의 첫째 새끼나 염소의 첫째 새끼는 속량하지 말라. 그것들은 성한 것이다. 너희는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로 태워 주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야 한다."
- 18 그 고기는 너희 것이 될 것이며, 흔들어 드리는 가슴과 오른쪽 허벅지처럼 너희 것이 될 것이다.
- 19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바치는 모든 성물의 흔들어 드리는 예물은 내가 너와 네 아들과 네 딸들에게 영원한 몫으로 주었다. 이것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님 앞에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 20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 기업을 가지지 못할 것이며, 그들 가운데 몫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몫이요, 너의 기업이다."
- 21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이는 그들이 만남의 장막을 섬기는 섬김의 대가로 주는 것이다."
- 22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만남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야 그들이 죄를 짓고 죽지 않을 것이다.
- 23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만남의 장막을 섬기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이것은 너희 세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은 기업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 ²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흔들여 드리는 십일조를 내가 레위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은 기업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 ²⁵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²⁶ "너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너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십일조를 너희가 받을 때,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주님을 위하여 파도치는 예물로 드려야 한다."
- ²⁷ 너희가 드리는 파도치는 예물은 타작마당의 곡식과 포도즙 틀의 가득 찬 포도주처럼 너희에게 계산될 것이다.
- ²⁸ 이와 같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받는 모든 십일조 중에서 주님을 위한 파도치는 예물을 드리고, 그 중에서 아론 제사장에게 주님의 파도치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
- ²⁹ 너희가 드리는 모든 예물 중에서, 그 모든 것의 가장 좋은 부분, 곧 그 성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주님을 위한 파도치는 예물로 드려야 한다."
- ³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너니, 너희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떼어 올릴 때, 그것은 타작마당의 수확과 포도즙 틀의 수확처럼 레위 사람들에게 계산될 것이다."
- ³¹ 너희와 너희 가족은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는 너희가 회막에서 섬기는 일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 ³² 너희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떼어 올렸을 때, 너희는 그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민수기 19장

- ¹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 ²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규정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흠 없고 결함이 없으며, 아직 멍에를 메지 않은 붉은 암소를 너에게 데려오게 하라."
- ³ 너는 그 암소를 엘라자르 사제에게 넘기고, 그는 그 암소를 진 밖으로 데려가서, 누구든지 그 앞에서 그 암소를 죽일 것이다.
- ⁴ 엘라자르 사제는 손가락으로 그 암소의 피를 조금 떼서, 만민의 천막 앞을 향해 일곱 번 뿌릴 것이다.
- ⁵ 누군가가 그 암소를 그의 눈앞에서 태울 것이며, 그의 피부와 고기와 피와 배설물을 모두 태울 것이다.
- ⁶ 사제는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 실을 가져다가, 암소를 태우는 불가운 중앙에 던질 것이다.
- ⁷ 그 후 사제는 옷을 씻고, 몸을 물로 씻을 것이며, 그 후에 진으로 들어갈 것이다. 사제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 ⁸ 그 암소를 태운 자도 옷을 물로 씻고, 몸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 ⁹ "깨끗한 자가 그 암소를 태운 후의 재를 모아서, 깨끗한 곳에 진 밖에 두어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공동체가 부정을 씻는 물로 사용하기 위해 간직될 것이다. 그것은 죄의 속죄제이다."
- ¹⁰ 그 암소의 재를 모은 자는 옷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에게 영원한 규정이 될 것이다.
- ¹¹ "어떤 사람의 시체에 닿는 자는 일곱 날 동안 부정할 것이다."
- ¹² 그는 셋째 날에 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일곱째 날에는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셋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일곱째 날에도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
- ¹³ 사람의 시체, 즉 죽은 자의 시체에 닿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장막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 영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에게 부정을 씻는 물이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부정할 것이며, 그의 부정은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다.
- ¹⁴ "사람이 천막 안에서 죽을 때의 율법은 이러하다. 천막에 들어가는 자나 천막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일곱 날 동안 부정할 것이다."
- ¹⁵ 덮개가 단단히 묶이지 않은 모든 열린 그릇은 부정하다.
- ¹⁶ "들에서 누구든지 칼에 맞아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에 닿는 자는 일곱 날 동안 부정할 것이다."
- ¹⁷ "부정한 자를 위해, 그들은 죄의 속죄제를 태운 후의 재를 가져다가, 그 재를 그릇에 담고 흐르는 물을 그 위에 부을 것이다."
- ¹⁸ 깨끗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물에 담그고, 천막과 모든 그릇과 그 안에 있던 사람들과, 뼈나 죽은 자나 시체나 무덤에 닿은 자에게 뿌릴 것이다.
- ¹⁹ 깨끗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자에게 뿌릴 것이다. 일곱째 날에 그는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는 옷을 씻고 몸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에는 깨끗해질 것이다.
- ²⁰ 그러나 부정한 자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는 주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부정을 씻는 물이 그에게 뿌려지지 않았으므로, 그는 부정하다.
- ²¹ 이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규정이 될 것이다. 부정을 씻는 물을 뿌리는 자는 옷을 씻을 것이며, 부정을 씻는 물에 닿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 ²² "부정한 자가 무엇에 닿으면, 그것도 부정해질 것이며, 그것을 닿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민수기 20장

- 1 이스라엘 자손, 곧 온 공동체가 첫째 달에 신 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카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매장되었다.
- 2 공동체에 물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발하였다.
- 3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에 죽었더라면 어땠을까!"
- 4 왜 당신들이 주님의 공동체를 이 광야로 데려왔습니까? 우리와 우리 가축이 여기서 죽게 하려는 것입니까?
- 5 왜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올려, 이 나쁜 곳으로 데려왔습니까? 이곳은 씨앗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으며, 마실 물조차 없습니다."
- 6 모세와 아론은 공동체 앞에서 회막 문으로 나아가 땅에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 7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8 "지팡이를 가져라. 너와 네 형 아론을 모아 공동체를 모으고, 그들의 눈 앞에서 바위에 말하여,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라. 너는 그 바위에서 물을 끌어내어,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에게 마실 물을 주어야 한다."
- 9 모세는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가져왔다.
- 10 모세와 아론은 바위 앞에 공동체를 모아 놓고, 그들에게 말했다. "들어라, 너희 반역자들아!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를 위해 물을 내어줄 것인가?"
- 11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치니, 물이 흘러나왔다.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마셨다.
- 12 주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이 공동체를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 13 이것이 메리바의 물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고, 주님께서 그들 속에서 거룩하게 되셨다.
- 14 모세가 카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했다. "너의 형 이스라엘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을 알고 있다."
- 15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이집트에서 오래 살았다. 이집트인들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다.
- 16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 보라, 우리는 너희 경계 끝에 있는 카데스 성에 있다."
- 17 "우리가 너희 땅을 지나게 해 주십시오. 들판이나 포도원을 지나지 않으며, 우물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왕의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너희 경계를 지나기 전까지 길을 갈 것입니다."
- 18 에돔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내 땅을 지나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칼을 들고 너를 치겠다."
- 19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왕의 길을 따라 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너희 물을 마신다면, 내가 나와 내 가축의 물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발로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 20 그가 말했다. "너는 지나가지 못한다." 에돔은 많은 사람과 강한 힘을 가지고 그를 향해 나왔다.
- 21 이처럼 에돔은 이스라엘이 자기 경계를 지나가게 해 주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를 떠나 돌아섰다.
- 22 그들은 카데스에서 떠나, 이스라엘 자손, 곧 온 공동체가 호르 산에 이르렀다.
- 23 주님이 호르 산, 에돔 땅 경계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 24 "아론은 그의 백성에게로 모셔질 것이다. 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메리바의 물에서 내 말에 반역했기 때문이다."
- 25 아론과 그의 아들 엘아살을 데리고 호르 산으로 올라가라.
- 26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그곳에서 모셔질 것이며, 거기서 죽을 것이다.
- 27 모세는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 그들은 모든 회중의 눈앞에서 호르 산으로 올라갔다.
- 28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산 꼭대기에서 죽었고, 모세와 엘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 29 모든 회중이 아론이 죽었음을 보고, 이스라엘 온 집이 삼십 일 동안 아론을 위하여 슬퍼하였다.

민수기 21장

- 1 남부에 거주하던 아랏의 왕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타림 길로 다가오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들 중 일부를 사로잡았다.
- 2 이스라엘이 주님께 서원하며 말했다. "당신이 이 백성을 제 손에 넘겨주신다면, 그들의 모든 성을 완전히 파괴하겠습니다."
- 3 주님은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넘겨주셨다. 그들은 그들과 그들의 성들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그 장소의 이름을 호르마라 불렀다.
- 4 그들은 호르 산에서 붉은 바다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가며 여행하였다. 여행이 힘들어 백성의 마음이 지쳐 버렸다.
- 5 백성이 하느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하였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끌어올렸습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으며, 이 비참한 음식이 우리 마음에 역겨워집니다!"
- 6 주님은 백성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셨다. 그 독사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다.
- 7 백성이 모세에게 나아가 말했다. "우리는 주님과 당신을 향해 죄를 지었습니다. 그 독사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였다.
- 8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독사 하나를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라. 그것이 보이면, 그것에게 물린 자는 모두 살아날 것이다."
- 9 모세는 뿔로 독사를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았다. 어떤 사람이 독사에게 물리면, 그가 뿔 독사를 쳐다보면 살아났다.
- 10 이스라엘 자손이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 11 그들은 오봇에서 떠나 모압 앞 광야, 동쪽을 향한 이야아바림에 진을 쳤다.
- 12 거기서 떠나 세레드 골짜기에 진을 쳤다.
- 13 거기서 떠나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다. 이 아르논 강은 아모리 사람의 경계에서 나오는 광야에 있으며,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람 사이의 경계이다.
- 14 그러므로 주님의 전쟁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수파의 바헤브, 아르논 골짜기들,
- 15 아르의 거처를 향해 기울어진 골짜기 경사면은 모압의 경계에 닿아 있다."
- 16 거기서 그들은 베엘로 떠나갔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우물이다.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
- 17 그때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불렀다. "우물아, 솟아올라라! 그것에게 노래하라,
- 18 이 우물은 지도자들이 파고,
- 19 마탄나에서 나하리엘로, 나하리엘에서 바모트로,
- 20 바모트에서 모압 들판의 골짜기로, 피스가 꼭대기까지 이르렀다. 그 꼭대기는 광야를 내려다본다."
- 21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였다.
- 22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들판이나 포도원으로 벗어나지 않으며, 우물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왕의 대로를 따라 당신의 경계를 지나가겠습니다."
- 23 시혼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경계를 지나가게 허락하지 않았다. 시혼은 자기 모든 백성을 모아 광야로 나와 야하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 24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를 치고, 아르논 강에서 야복 강까지,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암몬 자손의 경계는 요새로 되어 있었다.
- 25 이스라엘은 이 모든 성들을 점령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성들, 즉 헤스본과 그 모든 마을에 살았다.
- 26 헤스본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의 도시였다. 그는 이전 모압 왕과 싸워 그의 땅을 모두 빼앗아 아르논까지 장악했다.
- 27 그러므로 속담을 말하는 자들이 말한다.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 28 왜냐하면 헤스본에서 불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 29 오, 모압아, 화가 있을지어다!

³⁰ 우리는 그들을 향해 쏘았으니, 메데바까지 이르렀도다.

³¹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살았다.

³² 모세는 자이저를 정찰하러 보냈다. 그들은 그 성의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냈다.

³³ 그들은 바산 길로 돌아서 올라갔다. 바산의 왕 움이 그들을 맞아 싸우려 나왔고, 그와 온 백성이 에드레이에서 전투를 벌였다.

³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다. 너는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에게 한 것처럼 그에게 할 것이다."

³⁵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온 백성을 쳐서 생존자가 하나도 남지 않게 하였고, 그의 땅을 차지하였다.

민수기 22장

- 1 이스라엘 자손이 떠나 요단 강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 2 시포르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
- 3 모압은 그 백성이 많아서 매우 두려워하였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근심하였다.
- 4 모압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 무리가 들의 풀을 소가 핥아먹듯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핥아먹을 것이다."
- 5 그는 그의 백성의 땅, 강가에 있는 페토르에 있는 베울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를 불러서 말하였다. "보라, 이 집스에서 나온 백성이 있다. 보라, 그들이 땅의 표면을 덮고 있고, 나와 마주하여 머무르고 있다."
- 6 "이제 와서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저주해 주십시오. 그들은 나보다 너무 강합니다. 아마도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 당신이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 7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점치는 상금을 손에 들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전하였다.
- 8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밤은 여기서 유숙하라.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 9 모압의 귀족들이 발람과 함께 머물렀다.
- 10 하느님이 발람에게 이르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 11 발람이 하느님께 말하였다. "모압의 왕 시포르의 아들 발락이 내게 말하기를,"
- 12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땅의 표면을 덮고 있다.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아마도 내가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13 하느님이 발람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 14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 15 모압의 귀족들이 일어나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합니다."
- 16 발락이 또 다른 사자를 보냈는데, 이전보다 더 많고 더 존중받는 자들이었다.
- 17 그들이 발람에게 이르러 말하였다. "시포르의 아들 발락이 말하기를, "너는 나에게 오는 것을 아무것도 막지 말라,"
- 18 "내가 너를 매우 큰 명예로 높이겠고, 네가 내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 내가 다 하리라. 그러므로 와서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저주해 주라."
- 19 발람이 발락의 하인들에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내게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집을 줄지라도, 나는 내 하느님 주님의 말씀을 넘어 조금이라도 덜하거나 더할 수 없다."
- 20 이제 그러므로 이 밤도 여기서 유숙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나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실지 알 수 있습니다.
- 21 밤에 하느님이 발람에게 이르셨다. "만일 그 사람들이 와서 너를 부른다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만을 하라."
- 22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떠났다.
- 23 그가 떠난 것을 보고 하느님의 진노가 일어나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의 길에 대적으로 서서 그를 막았다. 그는 나귀에 타고 있었고, 그의 두 하인이 그와 함께 있었다.
- 24 나귀가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든 채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이 나귀를 때려 길로 돌리려 하였다.
- 25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서 있었는데, 이쪽은 담이고 저쪽도 담이었다.
- 26 당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 벽으로 몸을 밀어붙였으며, 그로 인해 발라암의 발이 벽에 부딪혔다. 그는 다시 당나귀를 치었다.
- 27 주님의 천사는 더 나아가 좌우로 꺾을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서 있었다.
- 28 당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 발라암 아래에 누웠다. 발라암은 분노하여 지팡이로 당나귀를 치었다.

- 28 주님께서 당나귀의 입을 열어 주셨다. 당나귀는 발라암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서, 이 세 번이나 당신에게 맞았습니까?"
- 29 발라암은 당나귀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조롱했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당신을 죽였을 것입니다."
- 30 당나귀는 발라암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의 당나귀가 아니었습니까? 당신은 오늘까지 평생 내 위에 타고 다녔습니다. 내가 이전에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 31 그제서야 주님께서 발라암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는 길 위에 서서 칼을 뽑아든 주님의 천사를 보고 머리를 숙이고 땅에 얼굴을 대었다.
- 32 주님의 천사는 그에게 말했다. "왜 당신은 당신의 당나귀를 이 세 번이나 치셨습니까?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내 앞에서 꺾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대적으로 나왔습니다."
- 33 당나귀는 나를 보고 이 세 번이나 내 앞에서 피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신을 죽이고 그녀는 살려 두었을 것입니다.
- 34 발라암은 주님의 천사에게 말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당신이 내 앞에 서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 35 주님의 천사는 발라암에게 말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할 말만 말하라."
- 36 발라크가 발라암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논 강 경계의 가장 끝에 있는 모압의 성으로 나가 그를 맞이했다.
- 37 발라크는 발라암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불러오려고 진심으로 보냈는데, 왜 너는 내게 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존중하게 만들 능력이 없었는가?"
- 38 발라암은 발라크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 힘이 있습니까? 하느님이 내 입에 두시는 말만 말하겠습니다."
- 39 발라암은 발라크와 함께 떠나 키리아트후스트에 도착했다.
- 40 발라크는 소와 양을 잡아 희생제물을 드리고, 발라암과 그와 함께한 귀족들에게 보냈다.
- 41 아침에 발라크는 발라암을 데리고 바알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 거기서 백성의 일부를 보았다.

민수기 23장

- 1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여기 내게 제단 일곱 개를 쌓고, 소 일곱 마리와 수양 일곱 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 2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했다. 발락과 발람은 각 제단에 소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를 번제로 바쳤다.
- 3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당신은 번제 곁에 서 있으면서, 나는 가겠습니다. 혹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 분이 나에게 보여 주시는 것을 모두 당신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4 하느님이 발람을 만나셨다.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제단 일곱 개를 쌓고, 각 제단에 소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를 번제로 바쳤습니다."
- 5 주님이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와 같이 말하라."
- 6 그가 그에게 돌아가니, 보라, 그는 번제 곁에 서 있었고, 모압의 모든 귀족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 7 그가 시를 시작하여 말했다. "아람에서 발락이 나를 데려왔고,"
- 8 하느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이를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겠는가?
- 9 내가 바위 꼭대기에서 그를 보니,
- 10 야곱의 흠을 누가 셀 수 있겠는가?
- 11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당신이 내게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당신을 불러서 내 원수들을 저주하게 했는데, 보십시오, 당신은 그들을 모두 축복했습니다."
- 12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이 내 입에 넣어 주신 말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 13 발락이 그에게 말했다. "제발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그들의 일부만 보실 수 있고, 모두는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 14 그가 그를 콘의 들판으로 데려가서, 피스가 꼭대기에 올라 제단 일곱 개를 쌓고, 각 제단에 소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를 번제로 바쳤다.
- 15 그가 발락에게 말했다. "당신은 여기서 번제 곁에 서 있으면서, 나는 저쪽에서 하느님을 만나겠습니다."
- 16 주님이 발람을 만나시고, 그의 입에 말씀을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와 같이 말하라."
- 17 그가 그에게 가니, 보라, 그는 번제 곁에 서 있었고, 모압의 귀족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말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18 그가 시를 시작하여 말했다. "일어나라, 발락아, 들어라!
- 19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 20 보라, 나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 21 그분은 야곱 안에 죄악을 보지 않으셨고,
- 22 하느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다.
- 23 야곱에게는 점치는 일이 없고, 마술도 없다. "하느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 24 보라, 한 민족이 사자 암컷처럼 일어선다.
- 25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그들을 전혀 저주하지 말고, 전혀 축복하지도 마라."
- 26 그러나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 27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이제 와 보아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리니, 아마 거기서 하느님이 너로 하여금 그들을 나를 위해 저주하게 되기를 원하실지도 모른다."
- 28 발락은 발람을 봉우리 페오르로 데려갔다. 그곳은 광야를 내려다보는 곳이었다.
- 29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여기서 나를 위해 일곱 제단을 쌓고, 일곱 수소와 일곱 수양을 여기서 준비해 주어라."
- 30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여, 각 제단 위에 수소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를 바쳤다.

민수기 24장

- 1 발람이 주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이전처럼 점술을 하러 가지 않고, 광야를 향해 얼굴을 돌렸다.
- 2 발람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자기 지파대로 거주하는 것을 보니,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 3 그는 시를 시작하여 말했다. "베오르의 아들 발람이 말한다.
- 4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한다.
- 5 야곱의 장막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 6 그것들은 골짜기처럼 펼쳐져,
- 7 그의 양동이에서 물이 흐르며,
- 8 하느님이 그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신다.
- 9 그는 누워서 사자처럼 웅크리고, 널리 축복하는 자는 모두 축복을 받고, 널리 저주하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는다."
- 10 발락은 발람에게 분노가 치밀어 손을 치며 말했다. "내가 네가 내 원수들을 저주하게 부르렀건만, 보라, 네가 이 세 번이 나 모두 그들을 축복하였다."
- 11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제 곳으로 도망가라. 내가 네게 큰 명예를 주리라 하였으나, 보라, 주님이 네게 명예를 주지 않으셨다."
- 12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가 나에게 보낸 사자들에게도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 13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자기 집을 내게 주더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넘어, 내 마음대로 선이나 악을 할 수 없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말하겠다."라고 말했느냐.
- 14 이제 내가 내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오라, 내가 이 백성이 마지막 날에 너희 백성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 15 그는 시를 시작하여 말했다. "베오르의 아들 발람이 말한다.
- 16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한다.
- 17 나는 그를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 18 에돔은 그의 소유가 될 것이며,
- 19 야곱에서 한 사람이 통치할 것이며,
- 20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며 시를 시작하여 말했다. "아말렉은 열국 중 최초였으며,
- 21 그는 겐인을 바라보며 시를 시작하여 말했다. "네 거처는 견고하며,
- 22 그러나 겐은 멸망할 것이며,
- 23 그는 시를 시작하여 말했다. "아, 하느님이 이 일을 행할 때, 누가 살아남으리요?
- 24 그러나 키팀 해안에서 배들이 올 것이다.
- 25 발람은 일어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제 길로 갔다.

민수기 25장

- ¹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렀을 때,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을 시작하였다.
- ² 그들이 백성을 불러서 자기들의 신들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백성은 그 제물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다.
- ³ 이스라엘이 바알 뚜오르와 결합하였고, 주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타올랐다.
- 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을 잡아서, 해가 지기 전에 주님 앞에 매달아라. 그래야 주님의 격노가 이스라엘에서 물러갈 것이다."
- ⁵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모든 사람은 바알 뚜오르와 결합한 자기 사람들을 죽이라."
- ⁶ 보라, 이스라엘 사람 중 한 사람이 그의 형제들 앞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다. 그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그들이 증막의 문 앞에서 울고 있을 때 그 여인을 데리고 왔다.
- ⁷ 사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를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뛰어나갔다.
- ⁸ 그는 이스라엘 사람을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과 그 여인을 모두 창으로 찔러 죽였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재앙이 멈추었다.
- ⁹ 재앙으로 죽은 자는 이만 사천 명이었다.
- ¹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¹¹ "사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진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돌이켰다. 그가 내 질투로 그들 가운데 질투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 질투로 이스라엘 자손을 소멸하지 않았다."
- ¹² "보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준다."
- ¹³ "그것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사제직의 언약이 될 것이다. 그가 내 하느님을 위하여 질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 ¹⁴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은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시므리였고, 그는 살루의 아들로, 시몬 지파의 족장 가문의 지도자였다.
- ¹⁵ 죽은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즈비였고, 그녀는 추르의 딸이었다. 그녀는 미디안의 족장 가문의 수장이었다.
- ¹⁶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¹⁷ "미디안 사람들을 괴롭히고 치라."
- ¹⁸ "그들은 너희를 괴롭혔고, 뚜오르 사건과 미디안의 지도자 딸 고즈비의 사건에서 너희를 속였기 때문이다. 그 여인은 재앙이 일어났던 날, 뚜오르 사건과 관련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민수기 26장

- ¹ 재앙이 끝난 후, 주님은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 ²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조사하여, 스물 세 살 이상으로서,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세어라."
- ³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변의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말했다.
- ⁴ "주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스물 세 살 이상으로서 조사를 하라."
- ⁵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하녹의 가문은 하녹 족속이고, 발루의 가문은 발루 족속이며,
- ⁶ 헤스론의 가문은 헤스론 족속이고, 카르미의 가문은 카르미 족속이다.
- ⁷ 이것이 르우벤 족속의 가문들이다. 그들이 세어진 자는 사만 삼천 칠백삼십 명이었다.
- ⁸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다.
- ⁹ 엘리압의 아들들은 네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에 의해 불린 자들로서, 고라가 주님을 거역할 때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 자들이다.
- ¹⁰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고라를 함께 삼켜 버렸다. 그 때 회중이 죽었고, 불이 이백 오십 명을 삼켜 버렸으며, 그들은 표적이 되었다.
- ¹¹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 ¹² 시므온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문에 따라 다음과 같다. 네무엘의 가문은 네무엘 족속이고, 야민의 가문은 야민 족속이며,
- ¹³ 야긴의 가문은 야긴 족속이고, 세라의 가문은 세라 족속이며, 사울의 가문은 사울 족속이다.
- ¹⁴ 이것이 시므온 족속의 가문들이다. 그들이 세어진 자는 이만 이천 이백 명이다.
- ¹⁵ 갓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문에 따라 다음과 같다. 세폰의 가문은 세폰 족속이고, 하기의 가문은 하기 족속이며,
- ¹⁶ 수니의 가문은 수니 족속이고, 오즈니의 가문은 오즈니 족속이며,
- ¹⁷ 아로드의 가문은 아로드 족속이고, 아렐리의 가문은 아렐리 족속이다.
- ¹⁸ 이것이 세어진 가문들에 따른 갓의 아들들의 가문들이다. 그들이 세어진 자는 사만 오백 명이다.
- ¹⁹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다.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 ²⁰ 유다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문에 따라 다음과 같다. 셀라의 가문은 셀라 족속이고, 베레스의 가문은 베레스 족속이며, 세라의 가문은 세라 족속이다.
- ²¹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의 가문은 헤스론 족속이고, 하물의 가문은 하물 족속이다.
- ²² 이것이 세어진 자들에 따른 유다 족속의 가문들이다. 그들이 세어진 자는 칠만 육천 오백 명이다.
- ²³ 이사갈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문에 따라 다음과 같다. 도라의 가문은 도라 족속이고, 뿌바의 가문은 뿌바 족속이며,
- ²⁴ 야삽의 가문은 야삽 족속이고, 시몬의 가문은 시몬 족속이다.
- ²⁵ 이들은 계수된 이사갈의 가족들이다. 그들의 수는 육만 사천 삼백이었다.
- ²⁶ 세불론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다음과 같다. 세레드의 가족은 세레디족이고, 엘론의 가족은 엘론족이며, 야헬엘의 가족은 야헬엘족이다.
- ²⁷ 이들은 계수된 세불론족의 가족들이다. 그들의 수는 육만 오천이었다.
- ²⁸ 요셉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마나세와 에브라임이다.
- ²⁹ 마나세의 아들들은 마키르이고, 마키르의 가족은 마키르족이며, 마키르는 길르앗의 아버지가 되었고, 길르앗의 가족은 길르앗족이다.
- ³⁰ 길르앗의 아들들은 이에제르와 헬렉과 아시엘과 시켄과 세미다와 헤페르이다. 이에제르의 가족은 이에제르족이고, 헬렉의 가족은 헬렉족이다.
- ³¹ 아시엘의 가족은 아시엘족이고, 시켄의 가족은 시켄족이며,
- ³² 세미다의 가족은 세미다족이고, 헤페르의 가족은 헤페르족이다.
- ³³ 헤페르의 아들 셀로페하드는 아들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다. 셀로페하드의 딸들의 이름은 마할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

가와 디르사였다.

³⁴ 이들은 마나세의 가족들이다. 그들의 계수된 수는 오만 이천 칠백이었다.

³⁵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다음과 같다. 술탈라의 가족은 술탈라족이고, 베크의 가족은 베크족이며, 타한의 가족은 타한족이다.

³⁶ 술탈라의 아들들은 에란이고, 그의 가족은 에란족이다.

³⁷ 이들은 계수된 에브라임의 가족들이다. 그들의 수는 삼만 이천 오백이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들이 그들의 가족대로이다.

³⁸ 베나민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다음과 같다. 벨라의 가족은 벨라족이고, 아스벨의 가족은 아스벨족이며, 아히람의 가족은 아히람족이다.

³⁹ 세푸팜의 가족은 셉팜족이고, 후팜의 가족은 후팜족이다.

⁴⁰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드와 나아만이었다. 아르드의 가족은 아르드족이고, 나아만의 가족은 나아만족이다.

⁴¹ 이들은 베나민의 아들들이 그들의 가족대로이다. 그들의 계수된 수는 사만 오천 육백이었다.

⁴² 단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숨암이었다. 이들은 단의 가족들이다.

⁴³ 숨암족의 모든 가족들, 그들의 계수된 수는 육만 사천 사백이었다.

⁴⁴ 아셀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임나의 가족은 임니족이고, 이스비의 가족은 이스비족이며, 베리아의 가족은 베리아족이다.

⁴⁵ 베리아의 아들들은 헤베르와 말기엘이다. 헤베르의 가족은 헤베르족이고, 말기엘의 가족은 말기엘족이다.

⁴⁶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였다.

⁴⁷ 이들은 계수된 아셀의 아들들의 가족들이다. 그들의 수는 오만 삼천 사백이었다.

⁴⁸ 납탈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야세엘의 가족은 야세엘족이고, 군이의 가족은 군이족이다.

⁴⁹ 예저의 가족은 예저인 가족이고, 실렘의 가족은 실렘인 가족이다.

⁵⁰ 이것은 납탈리의 가족들이다. 그들 중 계수된 자는 사만 오천사백 명이었다.

⁵¹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된 자들이다. 육십만 일천삼백 명이다.

⁵²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⁵³ "이 자들에게 땅을 그들의 이름 수에 따라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⁵⁴ 많은 자에게는 더 많은 유산을, 적은 자에게는 적은 유산을 주어라. 각자에게는 그가 계수된 수에 따라 그의 유산을 주어 야 한다.

⁵⁵ 그러나 땅은 제비로 나누어져야 한다. 그들의 조상의 지파 이름에 따라 그들이 유산을 얻을 것이다.

⁵⁶ 제비에 따라 그들의 유산은 많은 자와 적은 자 사이에 나누어질 것이다."

⁵⁷ 이들은 가족별로 계수된 레위 사람들이다. 게르손의 가족인 게르손인들, 고핫의 가족인 고핫인들, 메라리의 가족인 메라리인들이다.

⁵⁸ 이들은 레위의 가족들이다. 리브니인들의 가족, 헤브론인들의 가족, 마흘리인들의 가족, 무시인들의 가족, 고라인들의 가족이다. 고핫은 아람을 낳았다.

⁵⁹ 아람의 아내 이름은 요케벳이었는데, 그녀는 이집트에서 레위에게 태어난 딸이었다. 그녀는 아람에게 아론과 모세, 그리고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⁶⁰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마르가 태어났다.

⁶¹ 나답과 아비후는 주님 앞에 이상한 불을 바칠 때 죽었다.

⁶² 그들 중 계수된 자는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요, 이십삼천 명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계수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유산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⁶³ 이들은 모세와 사제 엘르아살이 모압 평야, 요르단 강변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한 자들이다.

⁶⁴ 그러나 이들 중 모세와 사제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할 때 계수된 자 중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⁶⁵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들 중 예외 없이 남은 자는 예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뿐이었다.

민수기 27장

- 1 그리고 헤페르의 아들, 길르앗의 아들, 마키르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인 세로브합의 딸들이 나아왔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마할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 2 그들은 회막 문 앞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하였다.
- 3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고라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대적하여 모인 자들 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죽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 4 그가 아들을 두지 않았으므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가족에서 사라져야 합니까?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사이에 소유를 주소서.
- 5 모세가 그들의 사건을 주님 앞에 아뢰었다.
- 6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7 “세로브합의 딸들이 말한 것이 옳다. 너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형제들 사이에 기업으로 땅을 주어야 한다.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 8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다면, 너는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 9 그가 딸이 없다면, 너는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주어야 한다.
- 10 그가 형제가 없다면, 너는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어야 한다.
- 11 그의 아버지가 형제가 없다면, 너는 그의 기업을 그의 가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야 하며, 그가 그것을 소유하게 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규정과 법칙이다.’
- 12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보아라.
- 13 너는 그것을 본 후에, 네 형 아론처럼 네 백성에게로 모임을 받을 것이다.
- 14 이는 너희가 신의 광야에서 회중과 다룰 때, 그들의 눈앞에서 물가에서 나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의 광야에서 카데스의 메리바의 물이다.)
- 15 모세가 주님께 말하였다.
- 16 “모든 육체의 영의 주님께서,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세워 주소서.
- 17 그가 그들 앞에 나가고, 그들 앞에 들어가며,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여, 주님의 회중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 18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영이 있는 여호수아, 눈의 아들을 데려와서, 네 손을 그 위에 얹어라.
- 19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눈앞에서 그에게 위임하라.
- 20 너는 그에게 권위를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 21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서, 우리의 판단을 통해 주님 앞에서 물을 것이다. 그의 말에 따라 그와 이스라엘 자손 전체, 곧 온 회중이 나가고, 그의 말에 따라 그와 이스라엘 자손 전체, 곧 온 회중이 들어갈 것이다.”
- 22 모세가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는 여호수아를 데려와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웠다.
- 23 그는 그에게 손을 얹고, 주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위임하였다.

민수기 28장

- 1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말하여라. '내가 불로 바치는 제물, 곧 내 음식을 정해진 시기에 향기로운 냄새로 내게 드리도록 하여라.'"
- 3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것이 너희가 주님께 불로 바칠 제물이다. 해마다 한 살 된 흠 없는 수양 두 마리를 하루에 한 마리씩, 계속되는 번제로 드려라.'
- 4 아침에 한 마리를 드리고, 저녁에 다른 한 마리를 드려라.
- 5 그리고 가루가 곱은 밀가루 일식의 십분의 일에, 으깬 기름 사분의 일과 섞어 소제로 드려라.
- 6 이것은 시내 산에서 정해진 계속되는 번제로,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불로 바치는 제물이다.
- 7 각 수양에 대한 술 제물은 사분의 일 히인이다. 너희는 성소에서 주님께 강한 술을 술 제물로 부어라.
- 8 저녁에는 다른 한 마리 수양을 드려라. 아침의 소제와 그 술 제물처럼, 너희는 그것을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불로 바치는 제물로 드려라.
- 9 "안식일에는 흠 없는 해마다 한 살 된 수양 두 마리와, 기름과 섞은 밀가루 십분의 이를 소제로 드리고, 그 술 제물도 드려라."
- 10 이것은 매 안식일의 번제로, 계속되는 번제와 그 술 제물에 더하여 드리는 것이다.
- 11 "매 달 초에는 주님께 번제를 드려라. 젊은 수소 두 마리와 수양 한 마리, 해마다 한 살 된 흠 없는 수양 일곱 마리를 드려라."
- 12 각 수소에 대해 기름과 섞은 밀가루 십분의 삼을 소제로 드리고, 수양 하나에 대해 기름과 섞은 밀가루 십분의 이를 드려라.
- 13 각 수양 하나에 대해 기름과 섞은 밀가루 십분의 일씩 드려라. 이것은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번제이다.
- 14 그 술 제물은 수소 하나에 대해 반 히인, 수양에 대해 삼분의 일 히인, 수양 하나에 대해 사분의 일 히인이다. 이것은 일 년 사계절 동안 매 달의 번제이다.
- 15 또 계속되는 번제와 그 술 제물에 더하여, 주님께 속죄제로 수염소 한 마리를 드려라.
- 16 "첫째 달 열네째 날은 주님의 유월절이다."
- 17 이 달 열다섯째 날은 축제가 되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 18 첫째 날에는 성회가 열리며,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
- 19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 불로 바치는 번제를 드려야 한다. 젊은 수소 두 마리와 수양 한 마리, 해마다 한 살 된 흠 없는 수양 일곱 마리를 드려라.
- 20 그리고 그 소제로 기름과 섞은 밀가루를 드려라. 수소 하나에 십분의 삼을, 수양 하나에 십분의 이를 드려라.
- 21 일곱 마리 수양 각각에 대해 십분의 일씩 드려라.
- 22 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 수염소 한 마리를 드려라.
- 23 이것들을 계속되는 번제인 아침 번제에 더하여 드려라.
- 24 이와 같이 일주일 동안 매일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불로 바치는 제물의 음식을 드려라. 이것은 계속되는 번제와 그 술 제물에 더하여 드리는 것이다.
- 25 일곱째 날에는 성회를 열어야 한다. 너희는 어떤 정해진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 26 너희가 주님께 칠칠절의 첫 열매로 새 곡식 제물을 바치는 날에도 성회를 열어야 한다. 너희는 어떤 정해진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 27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 향기로운 번제를 바쳐야 한다. 젊은 수소 두 마리와 수양 한 마리, 일년 된 수양 일곱 마리를 바쳐야 한다.
- 28 그리고 그들의 곡식 제물은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로, 수소 각각에 세 십분의 일, 수양에는 두 십분의 일씩 바쳐야 한다.

- ²⁹ 일곱 마리의 어린 양 각각에 십분의 일씩 바쳐야 한다.
- ³⁰ 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할 수염소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 ³¹ 지속적인 번제와 그 곡식 제물 외에, 너희는 이것들과 그들의 술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흠이 없어야 한다.

민수기 29장

- 1 "일곱째 달 첫째 날에는 성회를 열고, 일상적인 일을 하지 마라. 이 날은 너희를 위한 나팔 불어대는 날이다."
- 2 주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번제를 드리되, 흠 없는 일년 된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일년 된 수양 일곱 마리를 드리되,
- 3 그들의 소제는 기름과 섞은 고운 밀가루로, 송아지에는 세 십분의 일, 수양에는 두 십분의 일,
- 4 일곱 마리의 양 각각에는 십분의 일씩 드리되,
- 5 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 수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 6 새 달의 번제와 그 소제, 그리고 항상 드리는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술제를 정해진 규례대로 주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것 외에 드리라.
- 7 "이 일곱째 달 열째 날에는 성회를 열고, 너희 영혼을 괴롭히며, 어떤 일도 하지 마라."
- 8 주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번제를 드리되, 흠 없는 일년 된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일년 된 수양 일곱 마리를 드리되,
- 9 그들의 소제는 기름과 섞은 고운 밀가루로, 송아지에는 세 십분의 일, 수양에는 두 십분의 일,
- 10 일곱 마리의 양 각각에는 십분의 일씩 드리되,
- 11 속죄를 위한 수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이는 속죄의 속죄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술제 외에 드리는 것이다.
- 12 "일곱째 달 십오째 날에는 성회를 열고, 일상적인 일을 하지 마라. 너희는 주님 앞에서 일곱 날 동안 축제를 지켜라."
- 13 주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번제를 드리되, 열세 마리의 수송아지, 두 마리의 수양, 일년 된 흠 없는 수양 열네 마리를 드리되,
- 14 그들의 소제는 기름과 섞은 고운 밀가루로, 열세 마리의 송아지 각각에는 세 십분의 일, 두 마리의 수양 각각에는 두 십분의 일,
- 15 열네 마리의 양 각각에는 십분의 일씩 드리되,
- 16 또 항상 드리는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술제 외에 속죄를 위한 수염소 한 마리를 드리라.
- 17 "둘째 날에는 열두 마리의 수송아지, 두 마리의 수양, 일년 된 흠 없는 수양 열네 마리를 드리되,
- 18 송아지, 수양, 양 각각에 따라 그들의 소제와 술제를 규례대로 드리되,
- 19 또 항상 드리는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술제 외에 속죄를 위한 수염소 한 마리를 드리라.
- 20 "셋째 날에는 열한 마리의 수송아지, 두 마리의 수양, 일년 된 흠 없는 수양 열네 마리를 드리되,
- 21 송아지, 수양, 양 각각에 따라 그들의 소제와 술제를 규례대로 드리되,
- 22 또 항상 드리는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술제 외에 속죄를 위한 수염소 한 마리를 드리라.
- 23 "넷째 날에는 열 마리의 수송아지, 두 마리의 수양, 일년 된 흠 없는 수양 열네 마리를 드리되,
- 24 송아지, 수양, 양 각각에 따라 그들의 소제와 술제를 규례대로 드리되,
- 25 죄를 위한 염소 한 마리를 더 바치되, 지속적인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술 제물에 더하여 바치라.
- 26 "다섯째 날에는 황소 아홉 마리, 수양 두 마리, 해가 들지 않은 일년 된 수양 열네 마리를 바치되,
- 27 황소와 수양과 양들의 소제와 술 제물을 그 수에 따라 규정에 따라 바치고,
- 28 죄를 위한 염소 한 마리를 더 바치되, 지속적인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술 제물에 더하여 바치라.
- 29 "여섯째 날에는 황소 여덟 마리, 수양 두 마리, 해가 들지 않은 일년 된 수양 열네 마리를 바치되,
- 30 황소와 수양과 양들의 소제와 술 제물을 그 수에 따라 규정에 따라 바치고,
- 31 죄를 위한 염소 한 마리를 더 바치되, 지속적인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술 제물에 더하여 바치라.
- 32 "일곱째 날에는 황소 일곱 마리, 수양 두 마리, 해가 들지 않은 일년 된 수양 열네 마리를 바치되,
- 33 황소와 수양과 양들의 소제와 술 제물을 그 수에 따라 규정에 따라 바치고,
- 34 죄를 위한 염소 한 마리를 더 바치되, 지속적인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술 제물에 더하여 바치라.

- 35 "여덟째 날에는 성회를 열어라. 일상적인 일을 하지 말고,
 36 주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번제를 바치되, 황소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해가 들지 않은 일년 된 수양 일곱 마리를 바치되,
 37 황소와 수양과 양들의 소제와 술 제물을 그 수에 따라 규정에 따라 바치고,
 38 죄를 위한 염소 한 마리를 더 바치되, 지속적인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술 제물에 더하여 바치라.
 39 "너희는 너희의 정해진 축일에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되, 너희의 서원과 자발적인 헌물에 더하여, 너희의 번제와 소제와 술 제물과 화평 제물을 바치라."
 40 모세는 주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다.

민수기 30장

- 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장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이다."
 2 남자가 주님께 서약을 하거나, 자신의 영혼을 결박하는 맹세를 하면, 그는 자신의 말을 어기지 말고, 입에서 나온 모든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3 여자가 주님께 서약을 하거나, 젊은 시절에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 영혼을 결박하는 맹세를 하면,
 4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서약과 자기 영혼을 결박한 맹세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녀의 모든 서약은 유효하고, 자기 영혼을 결박한 모든 맹세도 유효하다.
 5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듣는 날에 그녀를 금지하면, 그녀의 모든 서약과 자기 영혼을 결박한 모든 맹세는 유효하지 않다. 주님은 그녀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6 만약 그녀가 결혼했다면, 그녀의 서약이나 자기 영혼을 결박한 입으로 나온 무모한 말이,
 7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듣는 날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녀의 모든 서약은 유효하고, 자기 영혼을 결박한 모든 맹세도 유효하다.
 8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듣는 날에 그녀를 금지하면, 그는 그녀의 서약과 자기 영혼을 결박한 입으로 나온 무모한 말을 무효로 만든다. 주님은 그녀를 용서하실 것이다.
 9 과부나 이혼한 여자의 서약은, 자기 영혼을 결박한 모든 것이 그녀에게 유효하다.
 10 만약 그녀가 남편의 집에서 서약을 하거나 맹세로 자기 영혼을 결박했다면,
 11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침묵하며 그녀를 금지하지 않으면, 그녀의 모든 서약은 유효하고, 자기 영혼을 결박한 모든 맹세도 유효하다.
 12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듣는 날에 그것들을 무효로 만들면, 그녀의 서약이나 자기 영혼을 결박한 맹세에 관한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유효하지 않다.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로 만들었다. 주님은 그녀를 용서하실 것이다.
 13 그녀가 자기 영혼을 괴롭히기 위해 한 모든 서약과 모든 결박하는 맹세는,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확정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있다.
 14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날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는 그녀의 모든 서약과 모든 맹세를 확정하는 것이다. 그가 듣던 날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그것을 확정한 것이다.
 15 그러나 그가 듣고 나서 그것을 무효로 만들면, 그는 그녀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16 이것은 주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어린 나이에 있는 딸과 아버지 사이에 적용되는 규례이다.

민수기 31장

-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미디안 사람에게 보복하여라. 그 후에는 네가 네 백성에게로 모여들 것이다."
- 3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 중에서 전쟁에 나설 남자를 무장시켜 미디안 사람에게 나아가라. 주님의 보복을 미디안 사람에게 행하라."
- 4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천 명씩 보내어 전쟁에 나서게 하라."
- 5 이스라엘에서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전쟁에 무장한 열두 천 명이 넘겨졌다.
- 6 모세는 그들을 보냈다.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였으며, 그는 성소의 기구들과 경고를 위한 나팔을 손에 들고 있었다.
- 7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사람과 싸웠다. 그들은 모든 남자를 죽였다.
- 8 그들은 미디안의 왕들, 곧 에비, 레켄, 추르, 허르, 레바, 이 다섯 왕을 다른 죽은 자들과 함께 죽였으며, 벨라암, 베오르의 아들도 칼로 죽였다.
- 9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의 모든 가축과 양 떼와 재산을 모두 노략물로 가져갔다.
- 10 그들은 그들이 거주하던 모든 성읍과 모든 진영을 불로 태웠다.
- 11 그들은 모든 사로잡힌 자들과 모든 노략물, 곧 사람과 가축을 모두 가져왔다.
- 12 그들은 사로잡힌 자들과 노략물과 함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데려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에 있는 진영에 이르렀다.
- 13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진영 밖으로 나와 그들을 맞이하였다.
- 14 모세는 전쟁에서 돌아온 군대의 장관들, 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분노하였다.
- 15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모든 여자를 살아남게 했느냐?"
- 16 보라, 이 여자들이 벨라암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베올의 일로 주님께 범죄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주님의 회중 사이에 재앙이 일어났다.
- 17 그러므로 이제 어린아이들 중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남자와 잠자리에 들었던 모든 여자를 죽이라.
- 18 그러나 남자와 잠자리에 들지 않은 모든 소녀들은 너희를 위해 살아두어라.
- 19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진을 치라.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나 죽은 자를 만진 자는 삼일째와 칠일째에 너희와 너희 사로잡힌 자들을 정결하게 하라."
- 20 너희는 모든 옷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라."
- 21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의 규정이다."
- 22 그러나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주석과 납은,
- 23 모든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불을 통과하게 하여야 하며, 그것들은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부정의 물로 정결하게 해야 한다. 불에 견딜 수 없는 것은 물을 통과하게 하라.
- 24 일곱째 날에는 너희 옷을 빨아야 하며,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그 후에야 너희는 진영에 들어갈 수 있다."
- 25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6 "전쟁에 나갔던 자들과 엘라자르 사제, 그리고 공동체의 가족 족장들과 함께, 사람과 가축으로부터 얻은 전리품을 수계하라."
- 27 전리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라. 전쟁에 나갔던 전사들과 온 공동체 사이에 나누어라.
- 28 전쟁에 나갔던 자들 중에서 주님께 바칠 공물을 바치되, 오백 명당 한 명씩, 사람과 소와 나귀와 양떼에서 뽑아라.
- 29 그들의 반분에서 이 공물을 뽑아 엘라자르 사제에게 주어, 주님께 드리는 파도 예물로 바치라.
- 30 이스라엘 자손의 반분에서, 사람과 소와 나귀와 양떼, 모든 가축에서 오십 마리마다 한 마리씩 뽑아 레위인들에게 주라. 그들은 주님의 장막을 섬기는 자들이다."

- 31 모세와 엘라자르 사제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 32 전쟁에 나갔던 자들이 빼앗은 전리품 외에 남은 전리품은 양이 육십만 칠천 오백 마리였으며,
- 33 소가 칠만 이천 마리였으며,
- 34 나귀가 육만 한천 마리였으며,
- 35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여자들이 삼만 이천 명이었다.
- 36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반분은 양이 삼십만 칠천 오백 마리였으며,
- 37 주님께 바친 양의 공물은 육백 칠십 오 마리였다.
- 38 소는 삼만 육천 마리였고, 주님께 바친 공물은 칠십 이 마리였다.
- 39 나귀는 삼만 오백 마리였고, 주님께 바친 공물은 육십 일 마리였다.
- 40 사람은 만 육천 명이었고, 주님께 바친 공물은 삼십 이 명이었다.
- 41 모세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 드리는 파도 예물인 공물을 엘라자르 사제에게 주었다.
- 42 모세가 전투에 나선 자들로부터 빼낸 이스라엘 자손의 반분은,
- 43 곧 공동체의 반분은 양이 삼십만 칠천 오백 마리였으며,
- 44 소가 삼만 육천 마리였으며,
- 45 나귀가 삼만 오백 마리였으며,
- 46 사람이 만 육천 명이었다.
- 47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반분에서, 사람과 가축을 오십 마리마다 한 마리씩 뽑아 레위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은 주님의 장막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 48 군대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아왔다.
- 49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당신의 종들이 우리 아래에 있는 전쟁에 나선 모든 남자를 계산했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 50 우리는 각자가 얻은 것들, 곧 금으로 만든 장신구, 팔찌, 손목장식,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를 주님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로써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서 속죄하려는 것입니다."
- 51 모세와 사제 엘라자르가 그 금, 곧 모두 다듬은 보석들을 받았다.
- 52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주님께 바친 파도 제물의 금은 모두 만육천칠백오십 세겔이었다.
- 53 전쟁에 나선 남자들은 각자 자기 몫의 전리품을 가져갔다.
- 54 모세와 사제 엘라자르가 천부장과 백부장들의 금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 앞에서 기념물로 삼을 수 있도록 회막 안에 넣었다.

민수기 32장

- 1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매우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야세르 땅과 길르앗 땅을 보고, 그곳이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곳임을 알았다.
- 2 그러자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 3 아달롯, 디본, 야세르, 님라, 헤스본, 엘레알레, 세바무, 느보, 베온,
- 4 이 땅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치신 땅이며,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땅입니다. 당신들의 종들은 가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 5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당신의 은총을 입었다면, 이 땅을 당신들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십시오. 우리를 요단 강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지 마십시오."
- 6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했다. "너희가 여기 앉아 있어도, 너희 형제들이 전쟁에 나가겠느냐?"
- 7 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낙심시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게 하지 않으려 하는가?
- 8 내가 카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을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게 했을 때, 너희 조상들이 그와 같이 하지 않았느냐?
- 9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로 올라가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낙심시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 10 그날 주님의 진노가 일어나, 그분이 맹세하며 말씀하셨다.
- 11 "이집트에서 올라온 이십 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내 말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 12 오직 쾰니즈 족속의 예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주님을 온전히 따랐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볼 것이다.
- 13 주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일어나, 그들을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왔다 갔다 하게 하셨다. 이는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모든 세대가 소멸될 때까지였다.
- 14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자리를 이어, 죄악을 범하는 자들의 무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격노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 15 만약 너희가 그분을 떠나면, 그분은 다시 그들을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며, 너희는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 16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 말했다. "우리는 우리 가축을 위해 양우리를 여기에 짓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성을 세울 것입니다."
- 17 우리는 무장하여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나아가, 그들이 자기 땅에 도달할 때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땅의 주민들을 두려워하여 요새화된 성에 거할 것입니다.
- 18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자기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 19 우리는 요단 강 저편과 그 너머에서 그들과 함께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업은 요단 강 이편 동쪽에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 20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 일을 하려 한다면, 너희가 무장하여 주님 앞에 전쟁에 나아가면,
- 21 너희 무장한 모든 자가 주님 앞에 요단 강을 건너, 그분이 그분의 원수들을 그 앞에서 쫓아낼 때까지 머무르면,
- 22 그 땅이 주님 앞에 정복될 때, 그 후에야 너희는 돌아와서 주님과 이스라엘 앞에서 죄책을 벗게 될 것이다. 그때 이 땅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 23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보라, 너희는 주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 24 너희 어린이들을 위해 성을 짓고, 너희 양을 위해 우리를 세우라. 너희 입에서 나온 말을 행하라."
- 25 갓의 자손과 르우벤의 자손이 모세에게 말했다. "당신의 종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 26 우리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양 떼와 모든 가축은 길르앗의 성들에 있을 것입니다.
- 27 그러나 당신의 종들은 주님 앞에서 전쟁을 위해 무장하고 모두 건너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싸우겠습니다."
- 28 그러므로 모세는 엘아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관해 명령했다.

- ²⁹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갓의 자손과 르우벤의 자손이 너희와 함께 요르단을 건너, 주님 앞에 무장하고 전쟁에 나서고, 땅이 너희 앞에 정복된다면, 너희는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소유로 주어야 한다."
- ³⁰ 그러나 그들이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건너가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 가운데서 소유를 얻을 것이다."
- ³¹ 갓의 자손과 르우벤의 자손이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 ³² 우리는 주님 앞에 무장하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소유는 요르단 저편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 ³³ 모세는 그들에게, 곧 갓의 자손과 르우벤의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아모리 족의 왕 시혼의 왕국과 바산의 왕 옥의 왕국, 곧 그 땅과 그 성들과 경계들과 주변의 성들을 주었다.
- ³⁴ 갓의 자손이 디본과 아달롯과 아로엘을 건축하였다.
- ³⁵ 아드로스십안과 야세르와 요그베하를 건축하였다.
- ³⁶ 베트님라와 베트하란을 건축하였다. 이들은 성곽이 있는 성들과 양을 위한 우리였다.
- ³⁷ 르우벤의 자손이 헤스본과 엘레알과 키리아임을 건축하였다.
- ³⁸ 네보와 바알메온을 건축하였다. (그들의 이름을 바꾸었고), 시브마를 건축하였다. 그들은 건축한 성들에 다른 이름을 붙였다.
- ³⁹ 므낫세의 아들 마기르의 자손이 길르앗으로 가서 그것을 점령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 족을 쫓아냈다.
- ⁴⁰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기르에게 주었고, 그가 그곳에 살았다.
- ⁴¹ 므낫세의 아들 하이르가 가서 그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곳을 하이르의 마을이라 불렀다.
- ⁴² 노바가 가서 케나트와 그 마을들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 그곳을 노바라 불렀다.

민수기 33장

- 1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모세의 지휘 아래 군대를 이루고 이집트 땅에서 떠날 때의 여정들이다.
- 2 모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여정의 출발 지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그들의 출발 지점에 따른 여정들이다.
- 3 그들은 첫째 달 십오일에 라암셋을 떠나 여행하였고, 유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집트인의 눈앞에서 높은 손을 들고 떠났다.
- 4 이집트인들은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 모든 맏아들을 장사하고 있었다. 주님은 또한 그들의 신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다.
- 5 이스라엘 자손은 라암셋을 떠나 수곳에 진을 쳤다.
- 6 그들은 수곳을 떠나 광야 가장자리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 7 그들은 에담을 떠나 바알 세폰 앞에 있는 피하히로트로 돌아가서 미글돌 앞에 진을 쳤다.
- 8 그들은 피하히로트를 떠나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건너갔다. 그들은 에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쳤다.
- 9 그들은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렀다. 엘림에는 물샘 열두 개와 일흔 그루의 야자나무가 있었고, 그들은 거기서 진을 쳤다.
- 10 그들은 엘림을 떠나 붉은 바다 가에 진을 쳤다.
- 11 그들은 붉은 바다에서 떠나 신 광야에 진을 쳤다.
- 12 그들은 신 광야를 떠나 도파카에 진을 쳤다.
- 13 그들은 도파카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쳤다.
- 14 그들은 알루스를 떠나 레피딤에 진을 쳤다.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 15 그들은 레피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쳤다.
- 16 그들은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로트 하타아바에 진을 쳤다.
- 17 그들은 기브로트 하타아바를 떠나 하세로스에 진을 쳤다.
- 18 그들은 하세로스를 떠나 리스마에 진을 쳤다.
- 19 그들은 리스마를 떠나 리몬 베레스에 진을 쳤다.
- 20 그들은 리몬 베레스를 떠나 리브나에 진을 쳤다.
- 21 그들은 리브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쳤다.
- 22 그들은 리사를 떠나 케헬라다에 진을 쳤다.
- 23 그들은 케헬라다를 떠나 세페르 산에 진을 쳤다.
- 24 그들은 세페르 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쳤다.
- 25 그들은 하라다에서 떠나 마헬롯에서 진을 쳤다.
- 26 그들은 마헬롯에서 떠나 타핫에서 진을 쳤다.
- 27 그들은 타핫에서 떠나 테라에서 진을 쳤다.
- 28 그들은 테라에서 떠나 미트카에서 진을 쳤다.
- 29 그들은 미트카에서 떠나 하시몬나에서 진을 쳤다.
- 30 그들은 하시몬나에서 떠나 모세롯에서 진을 쳤다.
- 31 그들은 모세롯에서 떠나 베네야아칸에서 진을 쳤다.
- 32 그들은 베네야아칸에서 떠나 호르 하기디갓에서 진을 쳤다.
- 33 그들은 호르 하기디갓에서 떠나 요트바하에서 진을 쳤다.
- 34 그들은 요트바하를 떠나 아브로나에서 진을 쳤다.
- 35 그들은 아브로나에서 떠나 에츠온 그베르에서 진을 쳤다.
- 36 그들은 에츠온 그베르에서 떠나 신 광야의 카데스에서 진을 쳤다.
- 37 그들은 카데스에서 떠나 에돔 땅 경계의 호르 산에서 진을 쳤다.

- 38 아론 사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호르 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사십 년째, 다섯 번째 달, 그 달 첫째 날이었다.
- 39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을 때 나이는 백이십삼 세였다.
- 40 가나안 땅 남부에 살던 아라드의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오는 것을 들었다.
- 41 그들은 호르 산에서 떠나 살몬나에서 진을 쳤다.
- 42 그들은 살몬나에서 떠나 푸논에서 진을 쳤다.
- 43 그들은 푸논에서 떠나 오벳에서 진을 쳤다.
- 44 그들은 오벳에서 떠나 모압 경계의 이에 아바림에서 진을 쳤다.
- 45 그들은 이에 아바림에서 떠나 디본 가드에서 진을 쳤다.
- 46 그들은 디본 가드에서 떠나 알몬 디블라임에서 진을 쳤다.
- 47 그들은 알몬 디블라임에서 떠나 느보 앞의 아바림 산지에서 진을 쳤다.
- 48 그들은 아바림 산지에서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야에서 진을 쳤다.
- 49 그들은 요르단 강가, 모압 평지의 벵에시못에서 아벨 시팀까지 진을 쳤다.
- 50 주님께서 모압 평지, 요르단 강가 여리고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51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요르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 52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모든 돌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파괴하며, 그들의 모든 높은 곳을 헐어버려야 한다.
- 53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거주하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 54 너희는 제비를 뽑아 아버지들의 지파에 따라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큰 족속에게는 큰 유산을, 작은 족속에게는 작은 유산을 주어야 한다. 누구에게 제비가 떨어지면, 그곳이 그의 유산이 될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들의 지파에 따라 유산을 받을 것이다.
- 55 "그러나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뉘우쳐 놓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 56 내가 그들에게 하려고 생각한 대로, 나도 너희에게 할 것이다."

민수기 34장

-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땅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어질 땅이며, 그 경계에 따라 가나안 땅이니,
- 3 너희 남쪽 경계는 시인 광야를 따라 에돔 경계를 따라야 하며, 남쪽 경계는 소금 바다 끝에서 동쪽으로 향해야 한다.
- 4 경계는 아크라빔 고개를 남쪽으로 돌아서 시인으로 이어지고, 카데스 바르네아를 남쪽으로 지나야 하며, 거기서 하자르 아다르로 이어지고, 아즈몬으로 향해야 한다.
- 5 경계는 아즈몬에서 이집트 강으로 돌아서 바다에 이르러 끝나야 한다.
- 6 "서쪽 경계는 큰 바다와 그 경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이다.
- 7 "북쪽 경계는 큰 바다에서 호르 산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
- 8 호르 산에서 하마트 입구로 향하고, 경계는 세다드를 지나야 한다.
- 9 그리고 경계는 시프론으로 이어져 하자르 에난에 이르러 끝나야 한다. 이것이 너희의 북쪽 경계이다.
- 10 "동쪽 경계는 하자르 에난에서 세팸으로 향해야 한다.
- 11 경계는 세팸에서 리블라로 내려가 아인의 동쪽에 이르고, 다시 내려가 키네레트 바다 동쪽 경계에 이르러야 한다.
- 12 경계는 요르단 강으로 내려가 소금 바다에 이르러 끝나야 한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이다."
- 13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로 물려받을 땅이다. 주님께서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땅이다.
- 14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유산을 받았다.
- 15 이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요르단 강 건너편, 여리고 동쪽, 해가 뜨는 쪽에서 유산을 받았다."
- 16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17 "이 땅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유산으로 주는 자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 18 너희는 각 지파에서 한 명의 지도자를 뽑아 땅을 나누어 유산으로 주게 하라.
- 19 이들이 그 이름이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후네의 아들 갈렙이다.
- 20 시므온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후드의 아들 시므엘이다.
- 21 베냐민 지파에서는 키슬론의 아들 엘리닷이다.
- 22 단 자손의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부키이다.
- 23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의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하니엘이다.
- 24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서는 시프탄의 아들 케무엘이다.
- 25 제브ulun 자손의 지파에서 한 족장은 파르나크의 아들 엘리사판이었다.
- 26 이사갈 자손의 지파에서 한 족장은 아잔의 아들 팔티엘이었다.
- 27 아셀 자손의 지파에서 한 족장은 셀로미의 아들 아후드이었다.
- 28 납탈리 자손의 지파에서 한 족장은 아미후드의 아들 베다엘이었다.
- 29 이들은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명령하신 자들이다.

민수기 35장

- 1 주님께서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유산에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도시를 주게 하라. 너희는 그 도시 주변에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한다.
- 3 그들은 그 도시들에서 거주할 것이며, 그들의 목초지는 그들의 가축과 소유물과 모든 동물들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 4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주는 도시의 목초지는 도시의 담에서 바깥으로 사방으로 천 규빗이다.
- 5 너희는 도시 밖을 측량하여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잴다. 도시는 그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도시들의 목초지가 될 것이다.
- 6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주는 도시들 중 여섯 도시는 피난도시가 될 것이며, 그 도시들에 도망가서 살인자가 피할 수 있도록 하라. 그 외에도 너희는 사십이 도시를 더 주어야 한다.
- 7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주는 모든 도시는 목초지와 함께 사십팔 도시가 될 것이다.
- 8 이스라엘 자손의 유산에서 너희가 주는 도시들에 관하여, 많은 것에서 많이 주고, 적은 것에서 적게 줄 것이며, 각자는 자기 얻은 유산에 따라 레위인들에게 도시들을 일부 주어야 한다."
- 9 주님께서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너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 11 너희를 위한 피난도시를 정하여,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곳으로 도망칠 수 있게 하라.
- 12 그 도시들은 너희를 복수자로부터 피하게 하여,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죽지 않게 하라.
- 13 너희가 주는 도시들은 여섯 개의 피난도시가 될 것이다.
- 14 요단 강 너머로 세 도시를 주고, 가나안 땅으로 세 도시를 줄 것이며, 그것들이 피난도시가 될 것이다.
- 15 이 여섯 도시는 이스라엘 자손과 나그네와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외국인 모두를 위한 피난도시가 되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곳으로 도망칠 수 있게 하라.
- 16 "그가 쇠기구로 그를 치고 죽였다면, 그는 살인자이다.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 17 그가 손에 돌을 들어 그를 치고 죽였다면, 그는 살인자이다.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 18 또는 그가 손에 나무 무기로 그를 치고 죽였다면, 그는 살인자이다.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 19 피의 복수자는 그 살인자를 직접 죽일 것이다. 그가 그를 만나면 그를 죽일 것이다.
- 20 그가 원한으로 그를 밀었거나, 은밀히 기다리다가 그에게 무엇인가를 던져 죽였다면,
- 21 또는 적대감으로 그의 손으로 그를 치고 죽였다면, 그를 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그는 살인자이다. 피의 복수자는 그가 그를 만나면 그 살인자를 죽일 것이다.
- 22 "그가 원한 없이 갑자기 그를 밀었거나, 은밀히 기다리지 않고 그에게 무엇인가를 던졌다면,
- 23 또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돌을 보지 못하고 그에게 던져 죽였고, 그가 그의 원수도 아니었으며, 그를 해치려는 의도도 없었다면,
- 24 그러면 회중은 친자와 피의 복수자 사이를 이 규정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 25 공동체는 살인자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가 도망친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 대제사장은 성스러운 기름으로 기름부음을 받았다.
- 26 그러나 살인자가 도망친 도피성 경계를 벗어나서,
- 27 복수하는 자가 도피성 경계 밖에서 그를 만나서 살인자를 죽인다면, 그는 피를 흘린 죄를 지지 않는다.
- 28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 29 이 모든 것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 세대에 걸쳐 법규와 규정이 되어야 한다.
- 30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죽인 자는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 사형을 받아야 한다. 한 명의 증인만으로는 어떤 사람도 죽게 하지 못한다.

- ³¹ 또한 사형에 처할 죄를 범한 살인자의 생명을 대신할 몸값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 ³² 너희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와 거주할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도망친 자에게 몸값을 받지 말아야 한다.
- ³³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피는 땅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피가 흘려진 땅을 위한 속죄는 그 피를 흘린 자의 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³⁴ 너희는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나는 주님으로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주하기 때문이다.'

민수기 36장

- ¹ 마나세의 아들 마키르, 마나세의 아들 갈르앗의 가족 중 아버지 가문의 수장들이 나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아버지 가문의 수장들인 지도자들 앞에서 말하였다.
- ² 그들이 말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제비로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우리 형제 젤로페하드의 재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 ³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아들들 중 한 사람과 결혼한다면, 그들의 재산은 우리 조상들의 재산에서 빼앗겨 그들이 속하게 될 지파의 재산에 합쳐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유산의 제비에서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 ⁴ 이스라엘 자손의 회년이 오면, 그들의 재산은 그들이 속하게 될 지파의 재산에 합쳐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재산은 우리 조상들의 지파의 재산에서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 ⁵ 모세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요셉의 아들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
- ⁶ 이것이 주님께서 젤로페하드의 딸들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와 결혼하게 하되, 오직 아버지의 지파 가족 안에서만 결혼하게 하라.
- ⁷ 이스라엘 자손의 재산은 지파에서 지파로 옮겨지지 않도록 하라.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자기 조상의 지파의 재산을 지키게 하라.
- ⁸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지파라도 재산을 소유한 딸은 아버지의 지파 가족 안의 한 사람과 결혼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 조상의 재산을 소유하게 하라.
- ⁹ 이스라엘 자손의 재산은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지 않도록 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은 각각 자기 자신의 재산을 지키게 하라."
- ¹⁰ 젤로페하드의 딸들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 ¹¹ 젤로페하드의 딸들인 마할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느오가는 아버지의 형제들의 아들들과 결혼하였다.
- ¹² 그들은 요셉의 아들 마나세의 가족 안에 결혼하였다. 그들의 재산은 아버지의 지파 가족 안에 머물렀다.
- ¹³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압 평지, 요르단 강변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린 명령과 규례이다.

신명기 | Deuteronomy

신명기 1장

- 1 이것은 모세가 요단 건너편 광야에서, 수프 맞은편 아라바에서, 파란과 도펠과 라반과 하세로트와 디자하브 사이에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한 말들이다.
- 2 호렙에서 세일 산을 거쳐 카데스 바네아까지는 열하루 길이다.
- 3 사십 년째 해, 열한 번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고 지시하신 모든 것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 4 모세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혼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 왕 옥을 친 후에 이 말을 하였다.
- 5 요단 건너편 모압 땅에서 모세는 이 율법을 선포하기 시작하여 말하였다.
- 6 “우리 하느님 주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산에서 오래 머물렀다.
- 7 돌아서서 길을 떠나 아모리 족의 산지와 그 근처 모든 곳으로 가라.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의 땅과 레바논까지,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 8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 들어가서 주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라.’”
- 9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 혼자서는 너희를 감당할 수 없다.
- 10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를 많이 늘리셨으니, 보아라, 너희는 오늘 하늘의 별처럼 많다.
- 11 너희 조상의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를 너희 현재 수의 천 배나 더 많이 하시고, 그분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복주시기를!
- 12 내가 혼자서 어떻게 너희의 짐과 부담과 다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 13 너희 지파들 사이에서 지혜롭고 통찰력 있고 존경받는 자들을 뽑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위에 두겠다.’
- 14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네가 말한 대로 하기에 좋다.’
- 15 그러므로 내가 너희 지파들의 지도자들, 지혜롭고 존경받는 자들을 뽑아 너희 위에 두어,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지파별 관리로 삼았다.
- 16 그때 내가 너희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말하였다. ‘너희 형제들 사이의 사건을 들어 공정하게 판단하라. 남과 그의 형제, 그리고 그와 함께 사는 타인 사이를 공정하게 판단하라.
- 17 재판에서 편견을 보이지 말라. 작은 자와 큰 자를 가리지 말고 모두 들어라.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재판은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풀기 어려운 사건은 내게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 18 그때 내가 너희에게 해야 할 모든 일을 명령하였다.
- 19 우리는 호렙에서 떠나, 우리 하느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의 산지로 가서 카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 20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님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족의 산지에 이르렀다.
- 21 보아라, 주님 너희 하느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너희 조상의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 22 너희 모두가 내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우리 앞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땅을 탐사하고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들어갈 도시들을 알려주게 하자.’
- 23 이 말이 내게 좋았다. 내가 너희 중에서 열두 명을 뽑아,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보내었다.
- 24 그들이 떠나 산지로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 땅을 탐사하였다.
- 25 그들은 그 땅의 열매를 몇 가지 손에 들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다시 소식을 전하며 말했다. “우리 하느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참으로 좋은 땅이다.”
- 26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려 하지 않고, 너희 하느님 주님의 명령에 반역하였다.

- 27 너희는 장막에서 불평하며 말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신다."
- 28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려 하는가? 우리 형제들이 우리 마음을 녹여 말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크고 키가 크며, 그 도시들은 크고 하늘까지 견고하게 쌓아 올려져 있다. 게다가 우리는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
- 29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 30 너희 앞서 가시는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너희 눈앞에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따라하실 것이다.
- 31 또 너희가 광야에서 보았듯이,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를 모든 길에서, 마치 사람이 아들을 메듯이 메어 주셨다.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그랬다.
- 32 그러나 너희는 이 일에 너희 하느님 주님을 믿지 않았다.
- 33 그분은 너희 앞서 길을 가시며, 너희가 장막을 칠 곳을 찾아 주셨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 주셨다.
- 34 주님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분노하시며 맹세하셨다.
- 35 "이 악한 세대의 이 사람 중 누구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좋은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 36 오직 예후네의 아들 갈렙만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가 주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 37 주님께서도 너희 때문에 나에게도 분노하시며 말씀하셨다. "너도 거기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 38 너 앞에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거기서 들어가리라. 그를 격려하여라.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 39 또 너희가 포로로 잡히거나 죽을 것이라 말한 너희 어린 아이들, 오늘날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이 거기서 들어가리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 40 그러나 너희는 돌아서서 붉은 바다 쪽으로 광야로 가는 길을 따라 떠나라.
- 41 그때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말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우리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너희 각자는 무기를 착용하고 산지로 올라가려고 스스로 나섰다.
- 42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도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서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 43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너희는 주님의 명령에 반역하여 스스로 뻔뻔하게 산지로 올라갔다.
- 44 그 산지에 거주하던 아모리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 나와 벌처럼 쫓아가며 세일에서 호르마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쳐부수었다.
- 45 너희는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울었으나, 주님께서 너희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셨고, 너희를 향해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
- 46 그러므로 너희는 카데스에서 많은 날을 머물렀다. 너희가 머문 날들만큼이다.

신명기 2장

- 1 그리고 나서 우리는 돌이켜 붉은 바다 쪽으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떠났다. 이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였다. 우리는 세일 산을 여러 날 동안 둘러돌았다.
- 2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 3 "너는 이 산을 둘러돌다니는 데 충분히 오래 머물렀다. 북쪽으로 돌아라.
- 4 너는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너희 형제인 에서의 자손, 세일에 거주하는 자들의 경계를 지나가야 한다.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심하여라.
- 5 그들과 다투지 말라. 내가 그들의 땅에서 너희에게 한 치도 주지 않겠다. 그들의 발바닥이 디딜 만큼조차 주지 않겠다. 나는 세일 산을 에서의 소유로 주었기 때문이다.
- 6 너희는 돈으로 그들로부터 음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물을 사서 마셔야 한다.
- 7 주님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그분은 너희가 이 큰 광야를 지나다니는 것을 알고 계셨다. 이 사십 년 동안, 주님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셨다. 너희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 8 그러므로 우리는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을 따라 아라바 길, 엘랏과 에시온게베르를 지나 지나갔다. 그리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을 지나갔다.
- 9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전쟁을 벌이지 말라. 내가 그들의 땅에서 너희에게 한 치도 주지 않겠다. 나는 아르를 롯의 자손의 소유로 주었기 때문이다."
- 10 (그 땅에는 이전에 에밐이 살았는데, 그들은 크고 많으며 아낙인처럼 키가 컸다.
- 11 이들도 레파임으로 여겨졌는데, 아낙인처럼 보였다. 그러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밐이라 부른다.
- 12 또한 이전에 호리인도 세일에 살았으나,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자리에 살았는데, 마치 이스라엘이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소유의 땅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
- 13 "이제 일어나, 제레드 시내를 건너라." 우리는 제레드 시내를 건넜다.
- 14 우리가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떠나 제레드 시내를 건널 때까지의 날들은 삼십팔 년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전쟁에 나선 모든 세대가 진중에서 다 소멸될 때까지였다. 이는 주님이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였다.
- 15 또한 주님의 손이 그들을 대적하여 진중에서 그들을 멸망시키셨다. 그들이 다 소멸될 때까지였다.
- 16 그러므로 모든 전쟁에 나선 남자들이 백성 중에서 다 소멸되고 죽었을 때,
- 17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 18 "오늘 너는 모압의 경계인 아르를 지나가야 한다.
- 19 너는 아모니 자손의 경계에 가까이 다가갈 때,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내가 아모니 자손의 땅에서 너희에게 한 치도 주지 않겠다. 나는 그것을 롯의 자손의 소유로 주었기 때문이다."
- 20 (그 땅도 레파임의 땅으로 여겨졌다. 그 땅에는 이전에 레파임이 살았으나, 아모니 사람들은 그들을 자즈무밐이라 부른다.
- 21 그들은 크고 많으며 키가 커서 아낙인처럼 보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멸망시키셨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자리에 살게 되었다.
- 22 마치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에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호리인을 그들 앞에서 멸망시키셨고,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 살게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그대로이다.
- 23 그리고 가사까지 이르는 마을에 살던 아브빔은, 카프토르에서 나온 카프토르인들이 쫓아내고 그들의 자리에 살게 되었다.)
- 24 "일어나, 길을 떠나 아논 골짜기를 건너라. 보라, 내가 헤스본 왕 시혼, 아모리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의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고, 그와 전쟁을 벌이라.
- 25 오늘부터 내가 하늘 아래 모든 민족 위에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는 마음을 뿌리겠다. 그들은 너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너희 때문에 떨며 극심한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 ²⁶ 나는 키데모트의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평화의 말을 전하는 사신들을 보냈다.
- ²⁷ 내가 너의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나는 대로를 따라 가겠습니다. 오른쪽도 왼쪽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 ²⁸ 내가 먹을 음식을 돈으로 사게 해 주고, 내가 마실 물을 돈으로 주십시오. 내가 발로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 ²⁹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들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들이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주님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으로 요단을 건너기 전까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³⁰ 그러나 헤스본 왕 시혼은 우리를 그의 땅을 지나가게 하지 않았다. 주님 너희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의 영을 굳게 하셔서, 오늘처럼 너희 손에 넘기려 하셨다.
- ³¹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너 앞에 넘겨 주기 시작했다. 시작하여 그 땅을 차지하여 유산으로 얻어라."
- ³² 그러자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과 함께 야하스에서 우리와 싸우려 나왔다.
- ³³ 주님 우리 하느님께서 그를 우리 앞에 넘겨 주셨다.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치고 쳤다.
- ³⁴ 우리는 그때 그의 모든 성을 빼앗아,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하여 거주하는 모든 성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우리는 아무도 남기지 않았다.
- ³⁵ 우리는 오직 가축만을 전리품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가져왔고, 우리가 빼앗은 성들의 전리품도 함께 가져왔다.
- ³⁶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안의 성, 그리고 길르앗까지, 우리에게 높아서 넘지 못할 성은 하나도 없었다. 주님 우리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앞에 넘겨 주셨다.
- ³⁷ 오직 아모니 자손들의 땅에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야보크 강의 모든 제방과 산지의 모든 성과, 주님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하신 모든 곳에는 가지 않았다.

신명기 3장

- 1 그때 우리는 돌이켜 바산으로 가는 길을 올라갔다. 바산의 왕 옥이 에드레이에서 우리를 맞아 싸우려고 나왔고, 그와 모든 백성도 함께였다.
- 2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다. 네가 헤스본에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에게 한 것처럼 그에게도 할 것이다."
- 3 그러므로 주 우리 하느님께서도 바산의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우리는 그를 쳐서 생존한 자가 하나도 남지 않게 하였다.
- 4 그때 우리는 그의 모든 성을 빼앗았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성을 빼앗았으니, 그 성들은 여섯십 성이었고, 모두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인 아르고브 지역이었다.
- 5 이 모든 성들은 높은 성벽과 문과 빗장으로 견고히 지어졌고, 성벽이 없는 수많은 마을들도 있었다.
- 6 우리는 헤스본의 왕 시혼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거주한 성을 멸망시켰다.
- 7 그러나 가축과 성에서 빼앗은 전리품은 우리 자신을 위해 전리품으로 가져갔다.
- 8 그때 우리는 요단 건너편에 있는 두 아모리 왕의 손에서 땅을 빼앗았으니,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였다.
- 9 (시돈 사람들은 헤르몬을 시리온이라 부르고, 아모리 사람들은 세니르라 부른다.)
- 10 우리는 평지의 모든 성과 길르앗과 바산의 모든 땅을 살레카와 에드레이까지 빼앗았으니, 이 성들은 모두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에 속한 성들이었다.
- 11 (바산의 왕 옥만이 레파임의 잔여자 중 남아 있었다. 보라, 그의 침대는 철로 된 침대였다. 이 침대는 아모니 자손의 라바에 있지 않은가? 그 길이는 아홉 규빗, 너비는 네 규빗이니, 사람의 규빗으로 재었다.)
- 12 그때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였다. 아르논 골짜기 옆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의 산지의 절반과 그 성들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으며,
- 13 길르앗의 나머지 땅과 바산, 곧 옥의 왕국을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곳은 아르고브의 모든 지역, 곧 바산의 모든 땅이며, 이곳은 레파임의 땅이라 불린다.
- 14 므낫세의 아들 자이르가 아르고브의 모든 지역, 곧 게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 빼앗아, 그곳을 자기 이름을 따라 하봇자이라 불렀으니,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남아 있다.
- 15 나는 길르앗을 마기르에게 주었다.
- 16 나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길르앗에서 아르논 골짜기까지, 골짜기의 중앙과 그 경계, 곧 아모니 자손의 경계인 아보크 강까지 주었다.
- 17 아라바와 요단과 그 경계를, 키네레트에서 아라바의 바다, 곧 소금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피스가 산비탈의 동쪽 경계까지 주었다.
- 18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말하였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 중 모든 용사는 무기를 들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 앞을 먼저 건너가라."
- 19 그러나 너희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들에 머무르라. 너희가 가축이 많음을 내가 안다.
- 20 주께서 너희 형제들에게 너희처럼 안식을 주시고,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주 너희 하느님이 그들에게 주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러하라. 그때 너희는 각자 내가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다.
- 21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말하였다. "너는 주 너희 하느님이 이 두 왕에게 하신 모든 일을 눈으로 보았다. 주께서 너희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 22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 23 그때 내가 하느님께 간청하여 말하였다.
- 24 "주 하느님, 주께서 주의 종에게 주의 위대함과 강한 손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 위나 땅 아래 주와 같은 일을 하시고 주와 같은 위대한 행적을 보이시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 25 제가 건너가서 요르단 저편에 있는 좋은 땅과 그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 ²⁶ 그러나 주님은 너희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셔서 내 말을 듣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만 하라.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마라.'
- ²⁷ 피스가 꼭대기로 올라가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눈으로 바라보아라. 네가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²⁸ 그러나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그를 격려하며 힘을 주어라. 그가 이 백성 앞에서 건너가서 네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 ²⁹ 그러므로 우리는 벳페오르 근처 골짜기에서 머물렀다.

신명기 4장

- ¹ 이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령을 들어라. 그것들을 지켜 행하여 살아서, 주님, 곧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 ²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빼내지도 말아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님 너희 하느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어라.
- ³ 너희 눈이 주님께서 바알페오르 때문에 하신 일을 보았다. 주님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바알페오르를 따르는 모든 남자를 멸하였다.
- ⁴ 그러나 너희 중 주님 너희 하느님에게 충성한 자들은 오늘 모두 살아 있다.
- ⁵ 보아라, 내가 주님 내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에게 규례와 법령을 가르쳤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가운데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 ⁶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지키고 행하여라. 이는 너희가 만민 앞에서 지혜와 명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말하기를, ‘참으로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명철한 백성이다.’ 할 것이다.
- ⁷ 어느 위대한 민족이 우리 하느님 주님처럼, 우리가 그를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시는가?
- ⁸ 어느 위대한 민족이 오늘 내가 너희 앞에 놓는 이 율법처럼 공정한 규례와 법령을 가지고 있는가?
- ⁹ 오직 조심하여, 네 영혼을 꼼꼼히 지켜라. 네 눈이 본 일을 잊지 말고, 평생 동안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네 자녀들과 네 자녀의 자녀들에게 알리어라.
- ¹⁰ 너희가 호렙에서 주님 너희 하느님 앞에 섰던 날을 기억하여라.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을 내게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내가 땅 위에서 평생 동안 두려워하며 살도록 하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 ¹¹ 너희는 가까이 나아가 산 아래에 섰다. 산은 불타서 하늘의 중심까지 타올랐고, 어둠과 구름과 짙은 어둠으로 덮여 있었다.
- ¹²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말의 소리를 들었지만,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너희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다.
- ¹³ 그분은 너희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언약, 곧 십계명을 선포하셨다. 그분은 그것을 두 돌판에 기록하셨다.
- ¹⁴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여 너희에게 규례와 법령을 가르치게 하셨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 ¹⁵ 너희는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날에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므로, 매우 조심하여라.
- ¹⁶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남자나 여자나 어떤 형상의 조각상이라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 ¹⁷ 땅 위의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하늘을 나는 어떤 날짐승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 ¹⁸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의 어떤 물고기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 ¹⁹ 너희가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해와 달과 별, 곧 하늘의 모든 별을 보고 유혹을 받아 그것들을 숭배하고 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는 주님 너희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 ²⁰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를 데려다가, 이집트에서 철로 된 용광로에서 끌어내어, 오늘과 같이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다.
- ²¹ 주님께서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내가 요르단 강을 건너지 못하고, 주님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그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맹세하셨다.
- ²²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나는 요르단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 ²³ 너희는 조심하여, 주님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말고, 주님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금지하신 어떤 형상이라도 조각하여 스스로 부패시키지 말아라.
- ²⁴ 주님 너희 하느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느님이시다.
- ²⁵ 당신이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의 자녀들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되었을 때, 타락하여 어떤 형상이라도 조각한 우상

을 만들고, 주님 당신 하느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할 것이다.

²⁶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당신을 대적하여 증인으로 삼는다. 당신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하려는 그 땅에서 곧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²⁷ 주님은 당신을 민족들 사이에 흩어 버릴 것이며, 주님이 당신을 데려가실 그 나라들에서 당신은 적은 수가 될 것이다.

²⁸ 거기서 당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한다.

²⁹ 그러나 거기서 당신은 주님 당신 하느님을 찾을 것이며,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그를 갈망할 때, 당신은 그를 찾을 것이다.

³⁰ 당신이 고통을 당하고, 이 모든 일이 당신에게 닥쳤을 때, 후일에 당신은 주님 당신 하느님에게로 돌아가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³¹ 주님 당신 하느님은 자비로운 하느님이시다. 그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며, 당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³² 지금이라도 옛날 날들, 즉 하느님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하늘 끝까지, 이런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었는가? 혹은 이런 일처럼 들은 일이 있었는가?

³³ 어떤 민족이 불가운 중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살아남은 일이 있었던가?

³⁴ 어느 하느님이 다른 민족에서 한 민족을 데려내어, 시험과 표징과 기적과 전쟁과 강한 손과 펴진 팔과 큰 공포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 하였는가? 주님 당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눈앞에서 이집트에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따라 말이다.

³⁵ 이것은 당신이 주님이 하느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하려고 당신에게 보여 주신 것이다.

³⁶ 그분은 하늘에서 당신의 귀에 그의 목소리를 들려주어 당신을 가르치려 하였고, 땅에서는 당신의 눈에 그의 큰 불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당신은 불가운 중에서 그의 말을 들었다.

³⁷ 그분이 당신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자손을 택하시고, 그분의 위대한 힘과 함께 당신을 이집트에서 데려내셨다.

³⁸ 당신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당신 앞에서 쫓아내어, 당신을 데려들여 그들의 땅을 당신의 유산으로 주려 하신 것이다. 오늘날 그대로이다.

³⁹ 그러므로 오늘 당신은 알며, 마음에 새기라. 하늘 위와 땅 아래에서 주님이 바로 하느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⁴⁰ 오늘 내가 당신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이 잘 살고, 주님 당신 하느님이 당신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당신의 날이 길어질 것이다.

⁴¹ 그때 모세는 요단 건너편 동쪽으로 세 도시를 따로 지정하였다.

⁴² 이 도시들에 도망가는 자가 이웃을 의도치 않게 죽이고, 옛날부터 그를 미워하지 않았던 자가 도망가서 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⁴³ 루벤 자손을 위한 광야의 베세르, 가드 자손을 위한 길르앗의 라못, 마나세 자손을 위한 바산의 고란이다.

⁴⁴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세운 율법이다.

⁴⁵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선포한 증거와 율법과 규례이다.

⁴⁶ 요단 건너편, 벤브오르 맞은편 골짜기에서, 헤스본에서 살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땅에서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그를 치고,

⁴⁷ 그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다. 이 둘은 요단 건너편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었다.

⁴⁸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헤르몬 산(또는 시온 산)까지이다.

⁴⁹ 요르단 강 저편 동쪽의 아라바 전 지역과, 비스가 산기슭 아래에 이르는 아라바의 바다까지

신명기 5장

- 1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령을 들어라. 너희는 그것을 배우고 지켜 실천하라."
- 2 주님 우리 하느님은 호렙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 3 주님은 우리 조상들과 이 언약을 맺지 않으셨고, 오늘 여기에 살아 있는 우리와 맺으셨다.
- 4 주님은 불가운데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하고 산에서 말씀하셨다.
- 5 (그때 나는 주님과 너희 사이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 주었다. 너희는 불을 무서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 6 "나는 이집트 땅, 노예의 집에서 너희를 끌어내어 준 주님 너희 하느님이다."
- 7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한다."
- 8 "너는 스스로를 위한 조각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
- 9 너는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나 주님 너희 하느님은 질투하는 하느님이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에게서 자식에게, 셋째와 넷째 대까지 벌하는 하느님이다.
- 10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총을 베푼다.
- 11 "너는 주님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야 한다. 주님은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않으신다."
- 12 "주님 너희 하느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 13 너는 여섯 날 동안 일하고 모든 일을 마쳐야 한다.
- 14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님 너희 하느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도, 네 아들도, 네 딸도, 네 남종도, 네 여종도, 네 소도, 네 나귀도, 네 모든 가축도, 네 성문 안에 있는 타국인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네 남종과 여종도 너처럼 쉴 수 있기 때문이다.
- 15 너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았음을 기억하여라. 주님 너희 하느님이 그곳에서 강한 손과 펼쳐진 팔로 너희를 끌어내셨다. 그러므로 주님 너희 하느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 16 "주님 너희 하느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장수하고, 주님 너희 하느님이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 17 "너는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
- 18 "너는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
- 19 "너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 20 "너는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 21 "너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야 한다. 너는 이웃의 집, 이웃의 밭, 이웃의 남종, 이웃의 여종, 이웃의 소, 이웃의 나귀,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
- 22 주님은 불과 구름과 어두운 안개 속에서 큰 음성으로 이 모든 말씀을 너희 공동체 전체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이 외에 더 추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 말씀들을 두 돌판에 기록하여 나에게 주셨다.
- 23 너희가 어두움 속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산이 불타고 있을 때, 너희 모든 지파의 수장들과 장로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 24 말했다. "보소서, 주님 우리 하느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불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이 사람과 대화하시고, 그분이 살아 계심을 보았습니다."
- 25 이제 우리가 어찌하여 죽어야 합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모두 태워 없앨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 하느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게 되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 26 육체를 가진 자 중에, 살아 계신 하느님께서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도 살아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 27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우리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 하느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²⁸ 당신이 나에게 말한 말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한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이 옳습니다."

²⁹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항상 내 모든 계명을 지키는 마음을 가졌다면 좋겠소. 그리하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잘 살 수 있으리라.

³⁰ 너는 그들에게 가서, "너희는 장막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라.

³¹ 그러나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내가 너에게 모든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알려주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할 땅에서 그들이 이를 실천하게 하라.

³² 그러므로 너희는 주님 너희 하느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실천하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라.

³³ 너희는 주님 너희 하느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을 걸아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잘 살며, 너희가 차지하게 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어지리라.

신명기 6장

- 1 이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령은 너희가 들어가 점유할 땅에서 너희가 지키게 하려고 너희를 가르치라고 너희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 2 이는 너희와 너희 아들과 너희 손자들이 평생 동안 주를 두려워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며, 너희의 날들이 길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 3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것을 지켜 행하여 잘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님,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 4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님은 우리 하느님이시며, 주님은 한 분이시다.
-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 6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너희 마음에 새겨야 한다.
- 7 너는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을 논하라.
- 8 너는 그것을 손에 매어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여 전두대로 삼아라.
- 9 너는 그것을 네 집 문설주와 문에 써라.
- 10 주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겠다고 하신 땅에 너희를 인도하실 때,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좋은 성읍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 11 너희가 채우지 않은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들과,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들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나무들이 있을 것이며, 너희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 12 그때 너희는 이집트 땅, 노예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 13 너는 주 너희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 14 너는 너희 사방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 15 너희 가운데 계신 주님은 질투하는 하느님이시니, 주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일어나 땅 위에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게 하라.
- 16 너는 마사에서 너희가 시험했던 것처럼 주님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
- 17 너는 주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부지런히 지켜라.
- 18 너는 주님의 눈에 옳고 선한 일을 행하여, 네가 잘되고 주님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좋은 땅에 들어가 점유하게 하라.
- 19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앞에서 모든 원수를 쫓아내게 하라.
- 20 미래에 네 아들이 네게 물어, "우리 하느님 주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
- 21 너는 네 아들에게 말하라. "우리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였고,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
- 22 주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의 온 집에 크고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이셨다.
- 23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내사,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주려고 우리를 데려오셨다.
- 24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게 하셨고, 우리 하느님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항상 잘하게 하시고,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 있게 하셨다.
- 25 우리가 주님 우리 하느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실천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될 것이다.

신명기 7장

- 1 주님 너의 하느님이 너를 인도하여 네가 차지하려는 땅에 이르게 하시고, 너 앞에서 헛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실 때, 이 일곱 민족은 너보다 크고 강할 것이다.
- 2 주님 너희 하느님이 그들을 너희 앞에 넘겨주실 때, 너희는 그들을 모두 쳐서 멸망시켜야 한다.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아야 한다.
- 3 당신은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당신의 아들에게 며느리로 맞이하지 말아야 한다.
- 4 그러면 그들이 당신의 아들들을 떠나 나를 따르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니, 주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일어나 당신을 급히 멸망시키실 것이다.
- 5 그러나 당신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해야 한다.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들의 돌기둥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베어버리고, 그들의 새긴 우상을 불로 태워야 한다.
- 6 당신은 주님 당신의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주님 당신의 하느님은 땅 위의 모든 민족 중에서 당신을 택하여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
- 7 주님은 당신이 다른 민족보다 더 많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거나 택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었다.
- 8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서약을 지키려 하셔서, 강한 손으로 당신을 이집트의 노예 집에서 인도해 내시고 속량하셨다.
- 9 그러므로 당신은 주님 당신 하느님이 하느님이시며, 성실하신 하느님이심을 알라. 그는 사랑하는 자들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 대까지 언약과 자비를 지키신다.
- 10 그러나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향해 보복하여 멸망시킨다. 그는 미워하는 자를 결코 느슨히 두지 않으며, 그에게 얼굴을 향해 보복한다.
- 11 그러므로 오늘 내가 당신에게 명령하는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켜 실천하라.
- 12 당신이 이 규례를 듣고 지키며 실천할 때, 주님 당신 하느님이 당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자비를 당신과 함께 지키실 것이다.
- 13 그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는 당신의 몸에서 난 열매와 땅에서 난 열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당신의 가축과 양 떼의 새끼를 축복하실 것이며, 당신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이를 이루실 것이다.
- 14 당신은 모든 민족 위에 복을 받을 것이다. 당신과 당신의 가축 사이에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가축 사이에도 없을 것이다.
- 15 주님은 당신에게서 모든 질병을 제거하시고, 당신이 아는 이집트의 모든 악한 질병을 당신에게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오히려 그것을 당신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릴 것이다.
- 16 주님 당신 하느님이 당신에게 넘겨주는 모든 민족을 모두 멸망시켜야 한다. 당신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 17 당신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할지라도,
- 18 당신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당신 하느님이 바로와 이집트 전체에게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라.
- 19 당신의 눈이 본 큰 시험과 표적과 기적, 그리고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당신을 이끌어내셨다.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당신이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 20 또한 너희의 하느님이 그들 사이에 말벌을 보내어, 남아서 숨는 자들이 너희 앞에서 멸망할 때까지 그들을 괴롭히실 것이다.
- 21 당신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당신 가운데 계시며, 위대하고 두려운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 22 주님 너희 하느님이 너희 앞에서 그 민족들을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한 번에 그들을 모두 멸망시킬 수 없으니,

들의 짐승이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²³ 그러나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그들을 당신 앞에 넘겨주셔서, 큰 혼란을 일으켜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²⁴ 그분이 그들의 왕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며, 당신은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끊어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모두 멸망시킬 때까지, 아무도 당신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²⁵ 너는 그들의 신들의 조각된 우상을 불로 태워야 한다. 그것들 위에 있는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것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것은 주님 너의 하느님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²⁶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어서 그것처럼 바쳐진 물건이 되지 말라. 너는 그것을 싫어하고 기피해야 한다. 그것은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이다.

신명기 8장

¹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살아나고 번성하며,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² 너는 주님 너의 하느님께서 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분은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시험하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 아닐지 알아보시려는 것이다.

³ 그분은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주리게 하시며, 너도 모르고 네 조상들도 모르던 만나로 너를 먹이셨다. 이는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이다.

⁴ 이 사십 년 동안 너희의 옷은 낡지 않았고, 너희의 발은 부어오르지 않았다.

⁵ 너는 네 마음에 생각하여라. 사람이 아들을 훈계하듯이, 주님 너의 하느님도 너를 훈계하신다는 것을.

⁶ 너는 주님 너의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⁷ 주님 너의 하느님께서 너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 땅은 시내와 샘과 골짜기와 언덕으로 흐르는 물이 있는 땅이다.

⁸ 그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가 있는 땅이며, 올리브나무와 꿀이 풍부한 땅이다.

⁹ 너는 그 땅에서 빵을 넉넉히 먹고, 무엇이든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며, 그 산들에서 동을 캐 수 있다.

¹⁰ 너는 먹고 배부르며, 주님 너의 하느님께 그분이 너에게 주신 좋은 땅을 위하여 축복을 드리라.

¹¹ 너는 주님 너의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으로써.

¹² 너는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들을 지어 거주하게 되었을 때,

¹³ 너의 가축과 양 떼가 번성하며, 은과 금이 늘어나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늘어날 때,

¹⁴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주님 너의 하느님을 잊지 말라. 그분은 너를 종살이하던 땅,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다.

¹⁵ 그분은 너를 거대하고 무서운 광야로 인도하셨다. 거기에는 독사와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이었으며, 그분은 반석에서 물을 흘러내어 너에게 마시게 하셨다.

¹⁶ 그분은 너를 광야에서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먹이셨다.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시험하여, 결국 너를 복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¹⁷ 너는 마음속으로 말하지 말라. '내 힘과 내 손의 힘이 이 재물을 내게 얻어주었다.'

¹⁸ 그러나 너는 주님 너의 하느님을 기억하여라. 그분이 너에게 재물을 얻을 힘을 주시는 분이다. 이는 그분이 오늘처럼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확립하시려는 것이다.

¹⁹ 너는 주님 너의 하느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한다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²⁰ 주님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는 나라들처럼,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 너의 하느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명기 9장

- 1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는 요르단을 건너서, 너보다 더 크고 더 강한 민족들을 몰아내고, 하늘까지 이르는 크고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갈 것이다.
- 2 그들은 크고 키가 큰 백성으로, 아낙의 자손들이다. 너는 그들을 알고,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아낙의 자손들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 3 그러므로 오늘 너는 알아야 한다. 주님 너의 하느님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지셔서 소멸하는 불이 되실 것이다. 그들을 멸하시고 너 앞에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이 네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그들을 몰아내고 빠르게 멸할 것이다.
- 4 주님 너의 하느님이 그들을 너 앞에서 쫓아낸 후에, 너는 마음속으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내 의로움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소유하게 하신 것이다.’ 주님은 이 민족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그들을 너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 5 너의 의로움이나 네 마음의 정직함 때문에 너는 그들의 땅을 소유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 너의 하느님은 이 민족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그들을 너 앞에서 몰아내시며, 주님이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 6 그러므로 너는 알아야 한다. 주님 너의 하느님은 너의 의로움 때문에 이 좋은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는 목이 굳은 백성이다.
- 7 광야에서 주님 너의 하느님을 격노하게 한 일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너희가 이집트 땅을 떠나 이곳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항상 주님에게 반역하였다.
- 8 호렙에서도 너희는 주님을 격노하게 하였고, 주님은 너희를 멸하려고 분노하셨다.
- 9 내가 주님과 너희를 맺으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나는 사십 일 밤을 산에 머물렀다. 나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 10 주님은 내게 두 돌판을 주셨다. 그 돌판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쓰여 있었다. 그 위에는 주님이 모임의 날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하신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
- 11 사십 일 밤이 끝나자, 주님은 나에게 두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셨다.
- 12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여기서 빨리 내려가라. 너는 이집트에서 데려온 네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이 내가 명령한 길을 빨리 떠나,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었다.’
- 13 또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았다. 보라, 그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다.’
- 14 내게서 떠나라. 내가 그들을 멸하고 하늘 아래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내가 너로 그들을 능가하는 더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겠다.’
- 15 내가 돌아서 산에서 내려오니, 산은 불타고 있었다. 내가 두 손에 언약의 두 돌판을 들고 있었다.
- 16 내가 보니, 너희는 주님 너희 하느님을 거역하여,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고, 주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길을 빨리 떠났다.
- 17 내가 두 돌판을 잡아 두 손에서 떨어뜨려, 너희의 눈 앞에서 부수었다.
- 18 내가 처음처럼 사십 일 밤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다. 나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이는 너희가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여 그분을 격노하게 한 모든 죄 때문이었다.
- 19 내가 주님이 너희에게 분노하셔서 너희를 멸하시려는 격노와 진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다.
- 20 주님은 아론을 멸하려고 매우 분노하셨다. 나는 그때 아론을 위하여도 기도하였다.
- 21 내가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불로 태우고, 으깨어 아주 가루처럼 자세히 갈아서, 먼지처럼 만들었다. 나는 그 먼지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에 던졌다.
- 22 타베라와 마사와 키브로트 하타아바에서도 너희는 주님을 격노하게 하였다.
- 23 주님이 카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를 보내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주님 너희 하느님의 명령에 반역하여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 ²⁴ 내가 너희를 알게 된 날부터 너희는 주님에게 반역하였다.
- ²⁵ 나는 주님 앞에 마흔 날과 마흔 밤을 엎드려 지냈다. 이는 주님이 너희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 ²⁶ 나는 주님께 기도하여 말했다. '주 하느님,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유산을, 주님의 위대함으로 구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이를 멸하지 마십시오.'
- ²⁷ 주님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이 백성의 고집과 악행과 죄를 보지 마십시오.
- ²⁸ 주님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해내셨다고, '주님은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올 능력이 없었고, 그들을 미워하여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내셨다'고 그 땅이 말하지 않게 하십시오.
- ²⁹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유산이며, 주님의 위대한 힘과 펼쳐진 팔로 인도해내신 자들입니다.

신명기 10장

- 1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처음과 같은 돌 판 두 개를 깎아 내어 나에게 산으로 올라오너라. 그리고 나무로 궤를 만들어라."
- 2 내가 처음에 네가 부수었던 판 위에 있던 말들을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궤에 넣어라."
- 3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 판 두 개를 깎아 내어 두 판을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 4 주님께서 처음에 쓴 것과 똑같이 그 판 위에 열 계명을 쓰셨다. 이 계명들은 모임의 날에 불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
- 5 나는 돌아서 산에서 내려와, 내가 만든 궤에 그 판들을 넣었다. 그 판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곳에 있다.
- 6 이스라엘 자손은 베롯 브네 야아칸에서 모세라로 떠났다. 거기서 아론이 죽었고, 거기서 장사지냈다. 그의 아들 엘아살이 그의 뒤를 이어 사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 7 거기서 그들은 구도다로 떠나고, 구도다에서 요브다로 갔다. 이곳은 물이 흐르는 땅이다.
- 8 그때 주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셔서, 주님의 언약 궤를 메고, 주님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오늘날까지 그대로이다.
- 9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들과 함께 몹이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주님께서 그의 기업을 되셨으니, 이는 주님 너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이다.
- 10 나는 처음과 같이 산에서 사십 일 사십 밤을 머물렀다. 그때도 주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주님께서 너희를 멸하지 않으셨다.
- 11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백성 앞에서 길을 떠나라. 그들이 들어가서 내가 그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 12 이제 이스라엘아, 너희의 하느님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나? 그것은 너희의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모든 길을 걷고, 그를 사랑하며,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너희의 하느님을 섬기는 것뿐이다.
- 13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뿐이 아니냐?
- 14 보라,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속해 있다.
- 15 오직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시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후손으로서 오늘날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택하셨다.
- 16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더 이상 목이 굳어지지 마라.
- 17 주님 너희 하느님은 신들 중의 신이요, 주들 중의 주이시며, 위대하시고, 강하시며, 두려우신 분이시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 18 그분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공의를 실현하시고, 나그네에게 음식과 옷을 주며 그들을 사랑하신다.
- 19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 20 너는 주님 너의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붙어 있으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 21 그분이 너희의 찬양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너희 눈이 본 바와 같이, 너희를 위하여 위대하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
- 22 너희 조상들은 일흔 명으로 이집트에 내려갔다. 이제 너희의 하느님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하셨다.

신명기 11장

- 1 그러므로 너희는 주님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령과 계명을 항상 지켜야 한다.
- 2 오늘 이 날을 알라. 너희 자녀들은 주님 너희 하느님의 징벌을 알지 못했고, 그분의 위대함과 강한 손과 펼쳐진 팔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 3 그분이 이집트 땅 가운데서 바로, 이집트 왕과 그의 온 땅에 행하신 표징과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 4 그분이 이집트 군대와 그들의 말들과 병거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쫓아올 때 붉은 바다의 물이 그들을 덮치게 하신 일과, 주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을 멸하신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 5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 6 그분이 르우벤의 아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생물을 이스라엘 온 가운데서 삼킨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 7 그러나 너희 눈은 주님이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보았다.
- 8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는 강해지고, 들어가서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을 얻을 것이다.
- 9 그리하여 너희가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와 너희 자손의 날이 길어질 것이다.
- 10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않다. 이집트 땅에서는 씨를 뿌리고 밭로 물을 주어 채소밭처럼 다루었지만,
- 11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하늘의 비를 마시는 땅이다.
- 12 그 땅은 주님 너희 하느님이 항상 돌보는 땅이다. 주님 너희 하느님의 눈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땅 위에 항상 머물러 있다.
- 13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계명을 잘 듣고, 주님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그분을 섬기면,
- 14 내가 너희 땅에 제때에 비를 내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겠다.
- 15 내가 너희 들에 풀을 주어 너희 가축이 먹게 하리니, 너희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 16 너희 마음이 속임을 받아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 17 그러면 주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일어나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고, 땅이 그 소출을 내지 않게 하셔서, 너희가 주님이 너희에게 주는 좋은 땅에서 빨리 멸망할 것이다.
- 18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마음과 정신에 새기고, 손에 매어 표징으로 삼으며, 이마에 두어 전두엽으로 삼아라.
- 19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그 것에 대해 말하라.
- 20 너희는 그것을 너희 집 문설주와 문에 써라.
- 21 그리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의 날들이, 하늘 위의 하늘과 땅 위의 땅처럼 주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길어지게 하라.
- 22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을 잘 지켜, 그것을 실천하고, 주님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길을 걷고, 그분께 붙어 있으면,
- 23 주님이 너희 앞에서 이 모든 민족을 쫓아내실 것이며, 너희는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몰아낼 것이다.
- 24 너희 발바닥이 밟는 모든 땅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서쪽 바다까지 너희 경계가 될 것이다.
- 25 누구도 너희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주님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위에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놓으실 것이며, 이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이다.
- 26 보아라, 오늘 내가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놓는다.

²⁷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님 너희 하느님의 명령을 듣는다면, 그것이 축복이다.

²⁸ 그러나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님 너희 하느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그것이 저주이다.

²⁹ 주님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때, 너희는 축복을 게리짐 산에, 저주를 에발 산에 놓을 것이다.

³⁰ 그 산들은 요르단 강 건너편, 해가 지는 쪽 끝에 있으며, 아라바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 길갈 가까이 모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 있지 않은가?

³¹ 너희는 요르단 강을 건너서, 주님 너희 하느님이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 것이다.

³² 오늘 내가 너희 앞에 놓는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 실천해야 한다.

신명기 12장

- 1 이것은 너희가 살아 있는 모든 날 동안,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인 주님이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령이다.
- 2 너희가 몰아내려는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긴 모든 곳, 곧 높은 산들과 언덕들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를 완전히 파괴하라.
- 3 그들의 제단을 헐어 버리고, 그들의 돌기둥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불로 태워라. 너희는 그들의 신들의 새긴 상을 베어 버리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없애버려라.
- 4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 5 오직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실 곳, 곧 그분의 이름을 두실 곳으로 가서, 그분의 거처를 찾아가라. 거기로 나아가라.
- 6 너희는 거기서 번제와 희생제물과 십일조와 너희 손으로 드리는 예물과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만아들을 가져오라.
- 7 거기서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먹고, 너희와 너희 집안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신 모든 일로 기뻐하라.
- 8 너희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라.
- 9 이제까지 너희는 아직도 편안한 안식과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에게 주는 기업에 이르지 못하였다.
- 10 그러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에게 주어 물려주실 땅에 거주하게 되고,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를 둘러싼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주셔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되면,
- 11 그때에 주 너희 하느님이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실 곳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져오되, 너희의 번제와 희생제물과 십일조와 너희 손으로 드리는 예물과 주께 서원한 모든 헌물들을 가져오라.
- 12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라. 너희와 너희 아들과 딸들과 남종과 여종과 너희 문 안에 있는 레위인도 기뻐하라. 그는 너희와 함께 몹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 13 너희는 보는 곳마다 어디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 14 오직 주께서 너희 지파 중 하나에서 선택하실 곳에서만 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일을 그곳에서 행하라.
- 15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을 따라, 너희 모든 성문 안에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다.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모두 사슴과 사슴처럼 그것을 먹을 수 있다.
- 16 오직 피는 먹지 말라. 땅에 물처럼 쏟아 버려라.
- 17 너희는 너희 성문 안에서 곡식의 십일조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십일조나 너희 소나 양의 만아들, 또는 너희가 서원한 모든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이나 너희 손으로 드리는 예물을 먹지 말라.
- 18 오직 주 너희 하느님이 선택하실 곳에서,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너희와 너희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너희 문 안에 있는 레위인이 함께 먹고,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로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라.
- 19 너희가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버리지 말라.
- 20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를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너희 땅 경계를 넓히실 때, 너희가 마음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여,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말하면,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 21 주 너희 하느님이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이 너희에게 너무 멀다면, 주께서 너희에게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가 명령한 대로 고기를 잡고, 너희 성문 안에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
- 22 사슴과 사슴을 먹는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모두 그것을 함께 먹을 수 있다.
- 23 오직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말라.
- 24 너희는 그것을 먹지 말라. 땅에 물처럼 쏟아 버려라.
- 25 너는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너와 너의 후손들이 주님의 눈에 옳은 일을 할 때에 잘될 것이다.

- ²⁶ 너는 자신이 가진 성물과 서원을 가지고 주님이 택하실 곳으로 가야 한다.
- ²⁷ 너는 번제를 주님 너의 하느님의 제단 위에서, 고기와 피를 함께 바쳐야 한다. 너의 희생 제물의 피를 주님 너의 하느님의 제단 위에 붓고, 고기는 먹어야 한다.
- ²⁸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잘 지키고 듣거라. 그래야 너와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잘될 것이며, 주님 너의 하느님의 눈에 선하고 옳은 일을 할 때에 그러할 것이다.
- ²⁹ 주님 너의 하느님이 네가 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을 민족들을 네 앞에서 끊어 버리실 때, 네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면,
- ³⁰ 그들이 네 앞에서 멸망한 후에 그들의 길을 따르며 유혹받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들의 신들을 묻지 말아라. ‘이 민족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들을 섬기느냐? 나도 것처럼 하리라.’ 하고 말하지 말아라.
- ³¹ 너는 주님 너의 하느님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그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였다. 그들은 심지어 자기 아들과 딸들을 불에 태워 그들의 신들에게 바쳤다.
- ³²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일을 너희는 지켜 행하여라. 그것을 더하지 말고, 빼내지 말아라.

신명기 13장

- ¹ 너희 중에 예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너희에게 표적이나 기사를 보여 주면,
- ² 그 표적이나 기사가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져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다른 신들을 따르자"(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 "우리가 그들을 섬기자" 하면,
- ³ 너는 그 예언자의 말이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 주님 너희 하느님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 주님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고 계신다.
- ⁴ 너는 주님 너희 하느님을 따르며, 그를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에 복종하라. 너희는 그를 섬기고, 그에게 붙어 있으라.
- ⁵ 그 예언자나 꿈꾸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는 주님 너희 하느님을 거역하여,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노예의 집에서 속량하신 주님 너희 하느님의 길에서 너희를 떠나게 하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는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 ⁶ 너의 어머니의 아들인 형제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네 품에 안긴 아내나, 네 영혼과 같은 친구가 속삭이며 너를 유혹하여, "우리가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고 말하면—너도,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신들이라면,
- ⁷ 너희 둘레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 가까이 있는 것이든, 멀리 떨어진 것이든, 땅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 ⁸ 너는 그를 동의하지도 말고, 그의 말을 듣지도 말라. 너의 눈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너는 그를 아끼지도 말며, 그를 숨기지도 말라.
- ⁹ 너는 반드시 그를 죽여야 한다. 너의 손이 먼저 그에게 닿아 그를 죽이고, 그 후에 모든 백성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 ¹⁰ 너는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가 주님 너희 하느님, 이집트 땅, 노예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주님 너희 하느님을 떠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 ¹¹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너희 중에 다시는 이런 악한 일을 하지 않으리라.
- ¹² 너희가 주님 너희 하느님이 너희에게 거주하게 주신 도시 중 하나에서,
- ¹³ 어떤 악한 자들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그 도시의 주민들을 유혹하여, "우리가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고 말하였다면—너희도,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신들이라면,
- ¹⁴ 너는 조사하고 탐문하며 꼼꼼히 물어보아라. 보아라, 그 일이 참되고 확실하여, 너희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일어났다면,
- ¹⁵ 너는 그 도시의 주민들을 칼날로 쳐서 모두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가축까지 칼날로 멸망시키라.
- ¹⁶ 너는 그 도시의 모든 탈취물을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로 모아서, 주님 너희 하느님 앞에서 그 도시와 그 모든 탈취물을 불로 태워버리라. 그것은 영원히 더미가 되고, 다시는 세워지지 않으리라.
- ¹⁷ 너는 바쳐진 물건을 아무것도 네 손에 붙이지 말라. 그리하면 주님은 그의 진노의 불길에서 돌이키시고,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 ¹⁸ 너는 주님 너희 하느님의 목소리에 복종하여,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주님 너희 하느님의 눈에 옳은 일을 행하라.

신명기 14장

- ¹ 당신은 주님 당신의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 몸을 बे지 말고, 눈썹 사이에 대머리가 되지 마십시오.
- ² 당신은 주님 당신의 하느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은 땅 위의 모든 백성 위에서 당신을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 ³ 당신은 어떤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도 먹지 마십시오.
- ⁴ 당신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 양, 염소,
- ⁵ 사슴, 여우사슴, 수사슴, 야생 염소, 이브렉스, 야생 소, 그리고 카모스입니다.
- ⁶ 모든 동물 중에서 발굽이 갈라지고, 그 발굽이 두 갈래로 나뉘며, 되새김질하는 것은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 ⁷ 그러나 되새김질하는 자나 발굽이 갈라진 자 중에서 다음 것은 먹지 마십시오. 낙타, 토끼, 토끼. 그들은 되새김질하지만 발굽이 갈라지지 않으므로 당신에게 부정합니다.
- ⁸ 돼지는 발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지 않으므로 당신에게 부정합니다. 그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그 시체에 손대지 마십시오.
- ⁹ 물속에 있는 것 중에서 당신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진 것 모두입니다.
- ¹⁰ 지느러미와 비늘을 갖지 않은 것은 먹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에게 부정합니다.
- ¹¹ 모든 깨끗한 새는 먹을 수 있습니다.
- ¹² 그러나 당신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수리, 수리부엉이, 수리매,
- ¹³ 붉은 매, 매, 어떤 종류의 매라도,
- ¹⁴ 어떤 종류의 까마귀라도,
- ¹⁵ 타조, 부엉이, 갈매기, 어떤 종류의 매라도,
- ¹⁶ 작은 부엉이, 큰 부엉이, 뿔부엉이,
- ¹⁷ 물수리, 수리부엉이, 바다수리,
- ¹⁸ 기러기, 그 종류의 백로, 황새, 박쥐입니다.
- ¹⁹ 날개 달린 기생충은 모두 당신에게 부정합니다. 그것들을 먹지 마십시오.
- ²⁰ 모든 깨끗한 새는 먹을 수 있습니다.
- ²¹ 자연사한 것은 먹지 마십시오. 당신의 문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주어 그가 먹게 하거나, 외국인에게 팔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 당신의 하느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입니다.
- ²² 당신은 매년 밭에서 나는 모든 씨앗의 열매를 십일조로 드리십시오.
- ²³ 당신은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당신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당신의 소와 양의 말아들을 주님 앞에서 먹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은 항상 주님 당신의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 ²⁴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서 당신을 복주시더라도, 그가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무 멀어서 당신이 그것을 옮기기 힘들다면,
- ²⁵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손에 돈을 쥐고,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택하실 곳으로 가야 한다.
- ²⁶ 당신은 그 돈으로 마음이 원하는 무엇이든 사라.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술이나, 마음이 요구하는 무엇이든 사라. 당신은 주님 당신의 하느님 앞에서 그곳에서 먹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기뻐하라.
- ²⁷ 당신은 당신 문 안에 있는 레위인을 버리지 말라. 그는 당신과 함께 몫이나 유산이 없기 때문이다.
- ²⁸ 매 삼년 말에 그 해의 모든 십일조를 가져다가 당신 문 안에 저장하라.
- ²⁹ 당신과 함께 몫이나 유산이 없는 레위인과, 당신 중에 거주하는 타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는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당신을 복주시기 때문이다.

신명기 15장

- 1 매일 일곱 해가 끝날 때마다, 너는 빚을 면제해야 한다.
- 2 이것이 그 행하는 방식이다: 모든 채권자는 이웃에게 빌려준 것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 그는 이웃과 형제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주님의 면제가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 3 외국인에게는 빚을 요구할 수 있지만, 네 형제에게 있는 것은 네 손이 놓아야 한다.
- 4 그러나 너에게 가난한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는 너희의 하느님이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실 땅에서 너희를 반드시 복주시기 때문이다.
- 5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려면, 너희는 주님 너희 하느님의 목소리에 꼼꼼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 6 주님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를 복주시며, 너는 많은 나라에 빌려주겠지만, 빌리지 않을 것이고, 많은 나라를 다스릴 것이지만, 그들은 너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 7 네가 주님 너의 하느님이 네게 주는 땅의 어느 문안에서든지, 네 형제 중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너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네 가난한 형제에게 손을 닫지 말아야 한다.
- 8 오히려 너는 그에게 손을 반드시 펴서, 그가 부족한 것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 9 너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즉, '일곱 해, 면제의 해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며, 네 가난한 형제에게 창피한 눈길을 보내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주님께 너를 향해 부르짖을 것이며,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 10 너는 반드시 주어야 하며, 그에게 주는 마음에 슬픔이 없어야 한다. 이는 너희의 하느님이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를 복주시기 때문이다.
- 11 가난한 자는 땅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네 형제와, 네 땅의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반드시 손을 벌려라.
- 12 네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려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기면, 일곱 해가 되면 너는 그를 너에게서 자유롭게 보내야 한다.
- 13 너는 그를 너에게서 자유롭게 보낼 때, 공수로 보내지 말아야 한다.
- 14 너는 너의 양 떼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풍성하게 그에게 줘야 한다. 너희의 하느님이 너희를 복주시듯이, 너희도 그에게 줘야 한다.
- 15 너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고, 주님 너의 하느님이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 명령을 너에게 한다.
- 16 그가 네게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서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며, 너와 네 집을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잘 지낸다면,
- 17 너는 뿔개를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뚫어라. 그러면 그는 영원히 너의 종이 될 것이다. 네 여종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
- 18 그를 너에게서 자유롭게 보내는 것이 너에게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 말라. 그는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기며 고용된 일꾼의 두 배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 너의 하느님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너를 복주시리라.
- 19 너는 네 소 떼와 양 떼에서 태어나는 모든 말이 수컷을 네 하느님께 바쳐야 한다. 너는 네 소의 만으로 일을 하지 말고, 네 양의 만이를 깎지 말아야 한다.
- 20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주님이 선택하시는 곳에서 주님 너의 하느님 앞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 21 그것에 흠이 있으면, 즉 다리가 절뚝거리거나 눈이 멀거나, 어떤 흠이라도 있으면, 너는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지 말아야 한다.
- 22 너는 네 문 안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부정한 자와 정한 자가 모두 그것과 같이 먹을 수 있으니, 사슴과 염소처럼이다.
- 23 오직 그 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땅에 물처럼 쏟아야 한다.

신명기 16장

- 1 아비브 달을 지켜 주님 너희 하느님을 위한 유월절을 지키라. 아비브 달에 주님 너희 하느님이 밤에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다.
- 2 너는 양 떼와 소 떼 중에서 주를 위한 유월절 제물을, 주께서 그의 이름이 머무르게 하실 곳에서 바쳐야 한다.
- 3 너는 그것과 함께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말라. 일곱 날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곧 고통의 빵을 먹으라. 이는 너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는 평생 동안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날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 4 일곱 날 동안 너의 모든 경계 안에는 누룩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네가 첫째 날 저녁에 바친 제물은 밤새도록 남아 있어서는 안 되며, 다음 날 아침까지 보존되어서는 안 된다.
- 5 너는 주님께서 너에게 주는 어떤 성문 안에서도 유월절 제물을 바치지 말라.
- 6 오직 주님 너희 하느님이 그의 이름이 머무르게 하실 곳에서, 해가 지는 저녁때, 곧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시기에 유월절 제물을 바쳐야 한다.
- 7 너는 주님 네 하느님이 선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굽고 먹어야 한다. 아침이 되면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
- 8 여섯 날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너희의 하느님을 위한 성회가 열리며,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 9 너는 칠 주를 세어라. 곡식을 베기 위해 낫을 대는 그때부터 칠 주를 세기 시작하라.
- 10 너는 주님을 위한 칠주절을 지켜야 한다. 네 손이 자유롭게 드리는 예물, 곧 주님이 너에게 복 주신 대로 드려야 한다.
- 11 너는 주님 너의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라. 너와 네 아들, 네 딸, 네 남종, 네 여종, 그리고 네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기뻐하라. 주님 너의 하느님이 그의 이름이 머무르게 하실 곳에서 그렇게 하라.
- 12 너는 이집트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는 이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라.
- 13 너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수확물을 모은 후 일곱 날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 14 너는 너와 네 아들, 네 딸, 네 남종, 네 여종,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와 함께 네 성문 안에서 절기를 지키며 기뻐하라.
- 15 너는 주님이 선택하신 곳에서 일곱 날 동안 주님을 위한 절기를 지켜야 한다. 주님이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므로, 너는 온전히 기뻐할 것이다.
- 16 매년 세 번, 너희 모든 남자는 주님이 선택하신 곳에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 곧 누룩 없는 빵의 절기와 칠주절과 초막절이다. 그들은 공수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
- 17 각 사람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복에 따라, 능력에 따라 예물을 드려야 한다.
- 18 너는 주님께서 너에게 주는 모든 성문마다, 너희 지파에 따라 재판관과 관리들을 세우라. 그들은 공정한 재판으로 백성을 판단해야 한다.
- 19 너는 정의를 왜곡하지 말라. 편견을 보이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현자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뒤바꾼다.
- 20 너는 온전히 공정한 일만 따르라. 그리하면 너는 살아서 네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을 얻을 것이다.
- 21 너는 주님 너의 하느님의 제단 곁에 어떤 나무라도 아세라를 심지 말아야 한다.
- 22 너는 주님 네 하느님이 미워하는 세운 돌을 세우지 말라.

신명기 17장

- 1 너는 주님 너의 하느님께 소나 양을 희생제물로 바치지 말아야 한다. 그 안에 흠이나 악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는 주님 너의 하느님께 가증한 일이기 때문이다.
- 2 너희 중 어느 성문 안에서, 주님 너의 하느님이 너희에게 주는 곳에서, 남자나 여자가 주님 너의 하느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며 그의 언약을 어기는 일이 발견되면,
- 3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숭배하거나,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별을 숭배하는데, 내가 명령하지 않은 것이라면,
- 4 너희가 듣고 이 소식을 들으면,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 보아라, 그것이 진실하고 확실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해졌다면,
- 5 너는 그 악한 일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너희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 6 두 세 명의 증인의 말에 따라 죽을 자가 죽음을 당한다. 한 명의 증인의 말만으로는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 7 증인들의 손이 먼저 그를 죽이게 하고, 그 후에 모든 백성의 손이 그를 죽인다. 이처럼 너희는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 8 너희가 판단할 때, 피와 피 사이, 소송과 소송 사이, 상처와 상처 사이에 너무 어려운 사건이 생겨, 너희 성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너희는 일어나 주님 너의 하느님이 택하시는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
- 9 너는 그때의 레위인 사제들과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물어보아야 한다. 그들이 너희에게 판결을 알려줄 것이다.
- 10 너는 주님이 택하시는 그 장소에서 그들이 내리는 판결에 따라 행해야 한다. 그들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모든 것을 꼭 지켜 행해야 한다.
- 11 그들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율법의 판결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판단에 따라 행해야 한다. 그들이 너희에게 선포하는 판결에서 오른쪽도 왼쪽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 12 주님 너의 하느님 앞에서 섬기기 위해 서 있는 사제나 재판관의 말을 고의로 듣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 13 모든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더 이상 고의로 행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 14 너희가 주님 너의 하느님이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며,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처럼 나 위에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할 때,
- 15 너는 주님 너의 하느님이 택하시는 자를 너희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한다.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너희 형제가 아닌 외국인을 너희 위에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 16 그는 스스로 말을 많이 모으지 말고, 말을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다.
- 17 그는 스스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그의 마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한다.
- 18 그가 그의 왕위에 앉을 때, 레위인 사제들 앞에 놓인 율법의 책에서 스스로 한 권을 복사하여 가져야 한다.
- 19 그는 그 책을 항상 곁에 두고, 평생 그 책을 읽어, 주님 그의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이 율법과 규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 20 그가 형제들보다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고, 명령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왕위를 오래 누리게 하라.

신명기 18장

- ¹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곧 레위 지파 전체는 이스라엘과 함께 몫이나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불로 드리는 제물과 그의 몫을 먹을 것이다.
- ² 그들은 형제들 사이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이다.
- ³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로부터 드려져야 할 몫이다. 곧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는 자들이 제사장에게 드려야 할 몫은 어깨와 두 뺨과 내장이다.
- ⁴ 너는 그에게 네 곡식의 처음 익은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의 처음 것을, 그리고 네 양의 털의 처음 것을 줄 것이다.
- ⁵ 주님 너의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택하셔서, 그와 그의 아들들이 영원히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 ⁶ 레위인이 네가 사는 이스라엘 모든 성문 중 어느 곳에서든 와서, 마음의 모든 갈망을 가지고 주님이 택하실 그 장소로 오면,
- ⁷ 그는 그의 하느님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주님 앞에 서 있는 모든 형제 레위인들과 같이 섬길 것이다.
- ⁸ 그들은 가족의 재산을 팔아 얻은 것 외에도, 다른 레위인들과 같은 몫을 먹을 것이다.
- ⁹ 너는 주님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의 가증한 일을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 ¹⁰ 너는 아들이나 딸을 불을 통과시키는 자, 점치는 자, 복을 빌어주는 자, 마법을 부리는 자, 주술을 쓰는 자를 너희 가운데서 찾아내지 말아야 한다.
- ¹¹ 또한 주문을 부르는 자, 유령과 통하는 자, 점쟁이, 죽은 자를 소환하는 자도 없어야 한다.
- ¹²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모두 주님께 가증한 자이다. 이 가증한 일들 때문에 주님 너의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신다.
- ¹³ 너는 주님 너의 하느님 앞에서 완전해야 한다.
- ¹⁴ 너는 쫓아낼 그 민족들은 점술사들과 점치는 자들의 말을 듣는다. 그러나 너는 주님 너의 하느님께서 너에게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 ¹⁵ 주님 너의 하느님께서서는 너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를 위해 한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는 나와 같을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 ¹⁶ 이것은 너희가 호렙에서 공동체의 날에 주님 너의 하느님께 구한 것과 같다.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 내 하느님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도 더 이상 보지 않게 하소서. 그래야 제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 ¹⁷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말한 것이 참으로 좋다."
- ¹⁸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를 그들에게 일으키겠다.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게 하겠다.
- ¹⁹ 내가 그의 이름으로 말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가 그에게 물어보겠다.
- ²⁰ 그러나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무모하게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 "
- ²¹ 너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말을 알 수 있을까?"
- ²²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말이다. 그 예언자가 무모하게 말한 것이다.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신명기 19장

- ¹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땅에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실 때, 당신은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도시와 집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 ² 당신은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당신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의 중앙에 세 도시를 따로 지정해야 합니다.
- ³ 길을 준비하고,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당신에게 물려주실 땅의 경계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도망칠 수 있게 하십시오.
- ⁴ 이것은 도망하여 살 수 있는 살인자의 경우이다. 누구든지 이웃을 의도하지 않고 죽였고, 과거에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면,
- ⁵ 사람이 이웃과 함께 숲에 들어가 나무를 베려고 도끼를 휘두르는데, 도끼 머리가 손잡이에서 빠져 이웃을 맞혀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이 도시 중 하나로 도망가 살아야 한다.
- ⁶ 그렇지 않으면, 피의 원수가 분노로 가득 차 그 살인자를 쫓아 멀리 떨어진 길을 따라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그를 미워하지 않았으므로 죽을 만한 죄가 아니다.
- ⁷ 그러므로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령하여, 당신을 위해 세 도시를 따로 지정하라.
- ⁸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당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의 경계를 넓히시고, 당신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모두 주신다면,
- ⁹ 당신이 오늘 내가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을 지켜, 주님 당신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을 걷는다면, 당신은 이 세 도시에 더하여 또 세 도시를 더 지정해야 한다.
- ¹⁰ 이것은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당신에게 물려주실 땅의 중앙에 무죄한 피가 흘리지 않게 하여, 당신에게 피의 죄를 남기지 않기 위함이다.
- ¹¹ 그러나 누구든지 이웃을 미워하여 그를 노리고, 일어나 그를 치고 죽이고, 이 도시 중 하나로 도망한다면,
- ¹² 그의 성읍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그곳으로 끌어내어 피의 원수의 손에 넘겨 죽게 하라.
- ¹³ 당신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이스라엘에서 무죄한 피를 제거하여 당신이 잘되게 하라.
- ¹⁴ 당신은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당신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서, 옛적에 세워진 이웃의 경계 표지를 옮기지 말라.
- ¹⁵ 어떤 죄나 죄악에 대해서도 한 증인만이 사람을 대적하여 증언하지 못한다.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야 비로소 일이 확정된다.
- ¹⁶ 만약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 어떤 사람을 대적하여 그가 행한 악을 증언한다면,
- ¹⁷ 그 분쟁이 있는 두 사람은 주님 앞, 그때의 사제들과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한다.
- ¹⁸ 재판관들은 꼼꼼히 조사할 것이며, 보라, 만약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라서 그의 형제를 향해 거짓으로 증언했다면,
- ¹⁹ 당신은 그가 그의 형제에게 하려고 했던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다. 이처럼 당신은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할 것이다.
- ²⁰ 남은 자들은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악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 ²¹ 당신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신명기 20장

- ¹ 당신이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때, 말과 병거와 당신보다 더 많은 백성을 보게 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는 당신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당신과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 ² 당신이 전투에 가까이 다가갈 때, 사제가 나아가 백성에게 말할 것입니다.
- ³ 그는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당신은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떨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 ⁴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당신과 함께 나아가셔서, 당신을 위해 원수들과 싸우시고,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 ⁵ 장교들이 백성에게 말할 것입니다. "누가 새 집을 지었지만 아직 그 집을 봉헌하지 않았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전투에서 죽고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봉헌하는 일을 피하게 하라."
- ⁶ 누가 포도원을 심었지만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않았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전투에서 죽고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을 피하게 하라."
- ⁷ 누가 아내와 약혼했지만 아직 그 여자를 데려오지 않았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전투에서 죽고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데려가는 일을 피하게 하라."
- ⁸ 장교들이 백성에게 더 말할 것입니다. "누가 두려워하고 마음이 약한가?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그래야 그의 형제의 마음도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 ⁹ 장교들이 백성에게 말을 마치면, 그들은 백성의 앞에 군대의 장관들을 임명할 것이다.
- ¹⁰ 당신이 도시에 다가가서 그것과 싸우려 할 때, 먼저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 ¹¹ 그 도시가 평화의 대답을 주고 당신에게 문을 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은 당신을 위해 노동하게 되고, 당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 ¹² 그 도시가 평화를 맺지 않고 당신과 싸우려 하면, 당신은 그 도시를 포위하십시오.
- ¹³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그것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시면, 당신은 그 도시의 모든 남자를 칼날로 죽일 것입니다.
- ¹⁴ 그러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도시 안의 모든 것을, 곧 그 도시의 모든 전리품은 당신의 몫으로 가져가십시오.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당신에게 주신 원수들의 전리품을 당신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¹⁵ 이와 같이, 당신은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진, 이 민족들의 도시가 아닌 모든 도시에 이같이 하십시오.
- ¹⁶ 그러나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당신에게 유산으로 주는 이 민족들의 도시들에서는, 숨을 쉬는 것을 하나도 살려두지 마십시오.
- ¹⁷ 오직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십시오. 이는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당신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 ¹⁸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위해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당신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 ¹⁹ 당신이 오랜 기간 도시를 포위하며 그것과 싸워서 빼앗으려 할 때, 그 도시의 나무를 도끼로 찍어 파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것에서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베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들의 나무가 사람인가, 그것이 당신에게 포위될 이유가 있는가?
- ²⁰ 오직 음식이 되지 않는 나무들만은 베어내어 파괴하십시오. 당신은 그것이 당신과 싸우는 도시를 향해 토성을 쌓아, 그것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신명기 21장

- 1 만약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서 당신이 차지하게 주신 땅에서 누군가가 살해된 채 들에 누워 있고, 그를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 2 당신의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시신 주변의 도시들을 측량할 것이다.
- 3 그 시신과 가장 가까운 도시의 장로들은, 아직 쓰지 않고 멩에를 메지 않은 젖소 한 마리를 소떼에서 끌어낼 것이다.
- 4 그 도시의 장로들은 그 젖소를 흐르는 물이 있는 골짜기로 끌고 내려가, 갈지 않고 파종하지 않은 곳에서 그 젖소의 목을 부러뜨릴 것이다.
- 5 레위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다.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자신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에 따라 모든 분쟁과 모든 폭행이 판결될 것이다.
- 6 그 시신과 가장 가까운 도시의 모든 장로들은 골짜기에서 목이 부러진 젖소 위에 손을 씻을 것이다.
- 7 그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 눈도 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 8 주님, 당신이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무죄한 피를 허락하지 마소서." 그 피는 그들에게 용서될 것이다.
- 9 당신은 주님의 눈에 옳은 일을 할 때, 당신들 가운데서 무죄한 피를 제거할 것이다.
- 10 당신이 당신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때,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손에 넘기시고 당신이 그들을 사로잡으면,
- 11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끌려 그녀를 아내로 삼고 싶어 한다면,
- 12 당신은 그녀를 당신 집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녀는 머리를 깎고 손톱을 깎을 것이다.
- 13 그녀는 포로의 옷을 벗고 당신 집에 머물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달 동안 애도할 것이다. 그 후에 당신은 그녀에게 가서 그녀의 남편이 되고, 그녀는 당신의 아내가 될 것이다.
- 14 만약 당신이 그녀를 기뻐하지 않게 되면, 당신은 그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그녀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은 그녀를 돈으로 결코 팔지 말고, 당신이 그녀를 굴욕시켰기 때문에 그녀를 노예처럼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
- 15 만약 한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와 미워하는 아내를 두고, 둘 다 그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라면,
- 16 그가 아들들에게 그가 가진 것을 상속하게 하는 날에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보다 먼저 미아들의 권리로 세우지 말아야 한다.
- 17 그는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 곧 미아들을 인정하여 그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두 배로 주어야 한다. 그는 그의 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미아들의 권리는 그에게 속한다.
- 18 만약 한 남자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가 그를 꾸짖어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이고 반항적인 아들을 두었다면,
- 19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를 잡아 그의 도시의 장로들과 그의 문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 20 그들은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 우리 아들은 고집불통이고 반항적입니다.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방탕하고 술에 취합니다."
- 21 그의 도시의 모든 남자들이 돌로 그를 쳐 죽일 것이다. 이처럼 당신은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 22 만약 한 남자가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매달렸다면,
- 23 그 시신은 나무 위에 밤새도록 머물지 말고, 그날 안에 반드시 묻어야 한다. 하느님께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린 자이기 때문이다.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신명기 22장

- 1 너는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떠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반드시 그것을 네 형제에게 돌려줘야 한다.
- 2 네 형제가 가까이 있지 않거나 네가 그를 모르면, 너는 그것을 네 집으로 데려와서 네 형제가 찾아오기까지 네 곁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너는 그것을 그에게 돌려줘야 한다.
- 3 네 형제의 나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하며, 그의 옷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하며, 네가 찾은 네 형제의 잃어버린 모든 물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하여라. 너는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 4 너는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쓰러진 것을 보고도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반드시 그를 도와 그것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 5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주님 네 하느님께 가증한 자이다.
- 6 네가 길을 가다가 나무 위나 땅 위에 새 둥지를 만나, 새끼나 알이 있고, 암컷이 새끼 위에 앉아 있거나 알 위에 앉아 있으면, 너는 암컷을 새끼와 함께 데려가지 말아야 한다.
- 7 너는 반드시 암컷을 놓아주고, 새끼는 너 자신을 위해 가져가라. 그러면 너는 복을 받고, 날이 길어질 것이다.
- 8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네 지붕 주위에 난간을 만들라. 그래야 누군가가 그곳에서 떨어져서 네 집에 피를 쏟는 일이 없을 것이다.
- 9 너는 네 포도원에 두 가지 씨를 뿌리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뿌린 씨와 포도원의 수확이 모두 더럽혀질 것이다.
- 10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 메고 갈지 말아야 한다.
- 11 너는 양털과 베로 짠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
- 12 너는 네가 몸을 덮는 겹옷의 네 모서리에 털실을 달아야 한다.
- 13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아서 그녀와 동침한 후에 그녀를 싫어하면,
- 14 그녀에게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다고 고발하며, 그녀에게 나쁜 이름을 붙이고, "나는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나, 가까이 갔을 때 그녀에게 처녀의 증표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면,
- 15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젊은 여자의 처녀 증표를 가지고 성문에서 성의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야 한다.
- 16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내 딸을 이 남자의 아내로 주었으나, 그가 그녀를 싫어합니다."
- 17 보십시오, 그는 내 딸에게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다고 말하며, "당신 딸에게 처녀의 증표를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내 딸의 처녀 증표입니다." 그들은 그 천을 성의 장로들 앞에 펼쳐야 한다.
- 18 그 성의 장로들은 그 남자를 끌고 와서 벌을 주어야 한다.
- 19 그들은 그에게 은 백 세켈을 벌금으로 물리고, 그것을 젊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한다. 그는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나쁜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 그는 평생 동안 그녀를 내보내지 못한다.
- 20 그러나 만약 이 일이 참이라서 그 젊은 여자에게 처녀의 증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 21 그들은 그 젊은 여자를 그 아버지 집 문으로 끌고 나가, 그 성의 남자들이 돌로 그녀를 쳐 죽여야 한다. 그녀가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 아버지 집에서 창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 22 만약 어떤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와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을 발견하면, 그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어야 한다. 이처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 23 만약 약혼한 처녀가 있고,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성 안에서 만나서 그녀와 잠자리에 드는 경우,
- 24 그러면 너희는 그 둘을 그 성 문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여자는 성 안에서 있었음에도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모욕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 25 만약 어떤 남자가 약혼한 여자를 들판에서 만나서 그 여자를 강제로 붙잡고 관계를 맺는다면, 그 관계를 맺은 남자만 죽을 것이다;
- 26 그러나 그 여자에게는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말아야 한다. 그 여자에게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 이는 마치 어떤 남

자가 이웃을 공격하여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²⁷ 그는 들판에서 약혼한 여자를 발견했고, 그 여자는 소리쳤으나 구원해 주는 이가 없었다.

²⁸ 만약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서 붙잡고 관계를 맺고 그들이 발각된다면,

²⁹ 그 관계를 맺은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마흔다섯 세겔을 지불해야 한다. 그는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굴욕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평생 동안 그 여자를 내보내지 못한다.

³⁰ 사람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버지의 옷자락을 벗기지 말아야 한다.

신명기 23장

- ¹ 고환을 눌러 없애거나 절단당한 자는 주님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 ² 금지된 관계에서 태어난 자는 주님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십 대까지도 주님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 ³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주님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의 자손은 영원히 십 대까지도 주님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 ⁴ 이유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길에서 빵과 물로 맞이하지 않았고,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베토르의 브올의 아들 발람을 고용하여 너희를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다.
- ⁵ 그러나 주님 너희 하느님은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셨다. 주님 너희 하느님은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
- ⁶ 너는 평생 동안 그들의 평화와 번영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 ⁷ 에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희 형제이기 때문이다. 이집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너희가 그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 ⁸ 그들에게서 태어난 셋째 대의 자손은 주님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다.
- ⁹ 너희가 나가서 적과 대치하여 진을 칠 때에는 모든 악한 일을 멀리해야 한다.
- ¹⁰ 너희 중에 밤에 일어난 일로 부정한 자가 있다면, 그는 진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 ¹¹ 그러나 저녁이 되면 그는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해가 지면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 ¹² 너희가 나가서 변을 보려면 진 밖에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 ¹³ 너는 무기 중에 삽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너는 변을 볼 때 그 삽으로 땅을 파고 뒤돌아서 너의 배설물을 덮어야 한다.
- ¹⁴ 너희의 진영 한가운데에서 주님 너희 하느님이 걷고 계시며,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 앞에 원수들을 내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진영은 거룩해야 하며, 그분이 너희 가운데 부정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¹⁵ 네 주인에게서 도망쳐 네게 온 종을 그 주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 ¹⁶ 그는 네가 선택한 성문 중 하나에서 네 가운데서 원하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 너는 그를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
- ¹⁷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 창녀가 없어야 하며,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 남창도 없어야 한다.
- ¹⁸ 창녀의 값음이나 남창의 월급을 주님 너희 하느님의 집에 서원의 제물로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 이 둘 모두 주님 너희 하느님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 ¹⁹ 너는 네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 돈의 이자, 음식의 이자, 이자를 받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로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
- ²⁰ 너는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네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 이는 주님 너희 하느님이 너희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 ²¹ 너는 주님 너희 하느님께 서원을 하면, 그것을 갚는 데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주님 너희 하느님이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실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죄가 될 것이다.
- ²² 그러나 서원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 ²³ 너는 네 입에서 나온 말을 지키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 네가 입으로 약속한 주님 너희 하느님께 드리는 자원하는 예물은 반드시 행해야 한다.
- ²⁴ 너는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면, 원하는 대로 포도를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그릇에 담아서 안 된다.
- ²⁵ 네가 이웃의 서 있는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손으로 이삭을 뜯어먹을 수 있지만, 이웃의 서 있는 곡식 밭에 낫을 대서는 안 된다.

신명기 24장

- ¹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하면, 그가 그 여자에게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부당한 일을 발견하였을 때,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주고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 ²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다.
- ³ 후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남자가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주고 집에서 내보내거나, 또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후의 남자가 죽으면,
- ⁴ 그 여자를 내보낸 전 남자는 그 여자가 더럽혀진 후에 다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 이는 주님 앞에 가증한 일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님 너희 하느님이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⁵ 남자가 신부를 맞이하면, 군대에 나가지 말고,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집에서 일년 동안 자유롭게 지내며, 자신이 맞이한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한다.
- ⁶ 누구든지 밀이나 윗돌을 담보로 잡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생명을 담보로 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 ⁷ 만약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중 형제 한 사람을 납치하여 노예처럼 대하거나 팔면, 그 도둑은 죽어야 한다. 이같이 너희는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 ⁸ 나병의 재앙을 조심하여, 레위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꼼꼼히 지키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행해야 한다.
- ⁹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길에서 주님 너희 하느님이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 ¹⁰ 너희가 이웃에게 어떤 빚을 빌려줄 때, 그의 집에 들어가서 담보를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
- ¹¹ 너는 밖에 서 있고, 빌려준 자가 밖에서 담보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
- ¹² 그가 가난한 자이면, 그의 담보로 밤을 새지 말아야 한다.
- ¹³ 해가 지면, 반드시 그 담보를 돌려주어, 그가 자기 옷을 입고 자게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며, 그것은 주님 너희 하느님 앞에서 너희에게 의로움이 될 것이다.
- ¹⁴ 가난하고 궁핍한 고용인을 억압하지 말라. 그는 너희 형제이거나, 너희 문안에 있는 외국인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 ¹⁵ 그가 일한 당일에 그에게 월급을 주어야 한다.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한다. 그는 가난하며, 그 월급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주님께 너희를 향해 부르짖을 것이고, 너희에게 죄가 될 것이다.
- ¹⁶ 아버지들이 아들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으며, 아들들이 아버지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해야 한다.
- ¹⁷ 외국인이나 고아에게 정의를 빼앗지 말고,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지 말아야 한다.
- ¹⁸ 너는 이집트에서 노예였음을 기억하라. 주님 너희 하느님이 거기서 너희를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한다.
- ¹⁹ 너희가 밭에서 수확할 때, 밭에 한 단을 잊어버리면,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 그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어, 주님 너희 하느님이 너희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 ²⁰ 너희가 올리브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따낼 때, 가지를 다시 흔들지 말라. 그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된다.
- ²¹ 너희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 뒤에 남은 것을 다시 줍지 말라. 그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된다.
- ²² 너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한다.

신명기 25장

- ¹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재판을 받을 때, 재판관들이 그들을 심판하면, 의로운 자를 옳다 하여 풀어주고 악한 자를 죄인으로 정죄해야 한다.
- ² 악한 자가 매를 맞을 만한 죄를 지었을 때, 재판관은 그를 앞에 눕혀 그의 죄에 따라 정해진 수만큼 매를 치게 한다.
- ³ 그에게 매를 치는 수는 사십 대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 이상을 치면, 너의 형제가 너의 눈앞에서 비참하게 되기 때문이다.
- ⁴ 소가 곡식을 밟을 때,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한다.
- ⁵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한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외인에게 시집가지 말아야 한다. 그의 시누이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삼고, 시누이의 의무를 그녀에게 다해야 한다.
- ⁶ 그녀가 낳은 첫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아,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게 해야 한다.
- ⁷ 그 남자가 시누이의 아내를 데려가기를 거부하면, 시누이의 아내는 장로들이 있는 성문으로 나아가서 말해야 한다. "내 남편의 형제가 내 남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일으키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저에게 시누이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 ⁸ 그러면 그의 고향 장로들이 그를 불러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가 서서 말하기를 "나는 그녀를 데려가기 싫습니다." 하면,
⁹ 시누이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 것이다. 그녀는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형제의 집을 세우지 않는 자에게 이와 같이 행해지리라."
- ¹⁰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신발을 벗겨진 자의 집"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 ¹¹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고 나아가 손을 뻗어 그의 생식기를 잡으면,
¹² 너는 그녀의 손을 잘라내야 한다. 너의 눈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 ¹³ 너는 주머니에 다른 무게의 저울을 두지 말아야 한다.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볍게.
- ¹⁴ 너는 집에 다른 크기의 재는 도구를 두지 말아야 한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게.
- ¹⁵ 너는 완전하고 정의로운 저울을 가져야 한다. 너는 완전하고 정의로운 재는 도구를 가져야 한다. 그리하면 주님 네 하느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어질 것이다.
- ¹⁶ 이러한 일을 하는 자, 모든 부정한 일을 하는 자는 주님 네 하느님께 가증한 자이다.
- ¹⁷ 너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길에서 아말렉이 너에게 한 일을 기억하여라.
- ¹⁸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너의 뒤에 지친 자들과 악한 자들을 모두 쳤으며, 너는 피곤하고 지쳐 있었고, 그는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 ¹⁹ 그러므로 주님 네 하느님이 네게 사방의 모든 원수로부터 안식을 주시고, 주님 네 하느님이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너는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기억을 지워버려야 한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신명기 26장

- ¹ 당신이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유산으로 주실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게 될 때,
- ² 당신은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땅에서 거두어 온 땅의 모든 첫 열매 중 일부를 가져다가 바구니에 담고,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서 그의 이름이 머무르게 하실 곳으로 가야 합니다.
- ³ 당신은 그때 그곳에 있는 사제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왔습니다."
- ⁴ 사제는 당신의 손에서 바구니를 받아 들고 주님 당신의 하느님의 제단 앞에 놓아야 합니다.
- ⁵ 당신은 주님 당신의 하느님 앞에서 대답하여 말해야 합니다. "내 조상은 망할 위기에 처한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집트로 내려가 거기서 거주했고, 인구가 적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크고 강하며 인구가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 ⁶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히며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 ⁷ 그러자 우리는 조상들의 하느님인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수고, 그리고 억압을 보셨습니다.
- ⁸ 주님은 강한 손과 펼쳐진 팔, 큰 두려움과 표징과 기적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습니다.
- ⁹ 그분은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오셔서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 ¹⁰ 이제 보십시오.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주님 당신의 하느님 앞에 놓고 주님 당신의 하느님 앞에서 경배해야 합니다.
- ¹¹ 당신과 레위인과 당신 가운데 있는 외국인과 함께,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집에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기뻐해야 합니다.
- ¹² 세 번째 해, 곧 십일조의 해에 당신이 모든 수확의 십일조를 다 바쳤을 때, 당신은 그 십일조를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이 당신의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해야 합니다.
- ¹³ 당신은 주님 당신의 하느님 앞에서 말해야 합니다. "내 집에서 성물들을 모두 제거하고,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에 따라 행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잊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 ¹⁴ 내가 슬퍼할 때 그것으로 먹지 않았고, 부정할 때 그것에서 한 조각도 옮기지 않았으며, 죽은 자를 위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 내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당신이 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랐습니다.
- ¹⁵ 하늘에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내려보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당신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축복하소서.
- ¹⁶ 오늘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이것들을 지키고 실천해야 합니다.
- ¹⁷ 오늘 당신은 주님이 당신의 하느님이시라고 선언하였고,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¹⁸ 주님은 오늘 당신이 그분의 소유가 될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은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 ¹⁹ 그분은 당신을 그분이 만든 모든 민족 위에 높이 세우셔서, 칭찬과 이름과 영광을 얻게 하시며, 당신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당신의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 1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 2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는 그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 3 너희가 요단을 건너 후에, 그 돌들 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을 기록하여,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라. 이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 4 너희가 요단을 건너 후에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 5 거기서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라. 돌로 된 제단이어야 한다. 그 위에 철제 도구를 쓰지 말라.
- 6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제단을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그 위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 번제를 바치라.
- 7 화목제를 바쳐 그곳에서 먹고,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라.
- 8 너희는 그 돌들 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을 분명히 기록하라."
- 9 모세와 레위 지파의 사제들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말했다. "침묵하고 귀를 기울여라, 이스라엘아! 오늘 너는 주 너희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다."
- 10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목소리를 따르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 11 모세는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 12 "요단을 건너 후에, 축복을 위해 게리짐 산에 서는 자들은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요셉, 베냐민이다."
- 13 "저주를 위해 에발 산에 서는 자들은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탈리이다."
- 14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말했다.
- 15 "자기 손으로 새긴 것이나 주조한 우상을 만들어, 주를 향해 가증한 것으로 삼고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 16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독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 17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 18 "길에서 눈먼 자를 잘못 이끄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 19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돌려주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 20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모독하기 때문이다."
- 21 "어떤 동물이든과 관계를 맺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 22 "자기 누이, 아버지의 딸이든 어머니의 딸이든과 관계를 맺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 23 "장모와 관계를 맺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 24 "은밀히 이웃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 25 무죄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 26 이 율법의 말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 1 너는 주님 너의 하느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실천한다면, 주님 너의 하느님은 너를 지구의 모든 민족 위에 높이 올려 세우실 것이다.
- 2 너는 주님 너의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이 모든 축복이 너를 따르고 덮칠 것이다.
- 3 너는 도시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 4 너의 몸에서 난 열매, 땅에서 난 열매, 가축에서 난 열매, 네 가축의 증가와 양 떼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 5 너의 바구니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 6 너는 들어올 때 복을 받고, 나갈 때 복을 받을 것이다.
- 7 주님은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네 원수들을 네 앞에서 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한 길로 너를 향해 나왔다가, 일곱 길로 너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 8 주님은 네 곳간과 네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명령하시고, 주님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너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 9 너는 주님 너의 하느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걷는다면, 주님은 너를 자기의 성결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며, 그분이 너에게 맹세한 대로 될 것이다.
- 10 지구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 11 주님은 너의 몸에서 난 열매, 네 가축의 열매, 땅에서 난 열매를 풍성하게 주실 것이며, 주님은 네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에서 이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 12 주님은 하늘의 풍성한 보물을 열어, 네 땅에 제때 비를 내리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에게 빌려 주고, 빌리지 않을 것이다.
- 13 주님은 너를 머리로 삼고 꼬리로 삼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주님 너의 하느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실천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 14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말에서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 15 그러나 네가 주님 너의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 모든 저주가 너를 따르고 덮칠 것이다.
- 16 너는 도시에서 저주를 받고, 들판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 17 너의 바구니와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 18 너의 몸에서 난 열매, 땅에서 난 열매, 네 가축의 증가와 양 떼의 새끼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 19 너는 들어올 때 저주를 받고, 나갈 때 저주를 받을 것이다.
- 20 주님은 네가 손을 대어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보내실 것이며, 네가 멸망하고 빨리 소멸될 때까지 이를 계속하실 것이다. 이는 네가 행한 악한 일로 인해, 곧 네가 나를 버린 때문이다.
- 21 주님은 너에게 전염병을 붙여,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에서 너를 소멸하실 것이다.
- 22 주님은 너를 소모병과 열병과 염증과 불같은 열기와 칼과 가뭄과 곰팡이로 치실 것이며, 그것들이 너를 쫓아서 너를 소멸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 23 너의 머리 위 하늘은 브론즈가 되고, 너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 24 주님은 네 땅의 비를 먼지와 황토로 바꾸어 하늘에서 내리실 것이며, 너를 소멸할 때까지 이를 계속하실 것이다.
- 25 주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원수 앞에서 치실 것이다. 당신은 한 길로 그들에게 나아가지만, 일곱 길로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당신은 지구의 모든 왕국들 사이에 흩어질 것이다.
- 26 당신의 시체는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그것을 쫓아내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 27 주님께서 당신을 이집트의 종기와 종기와 피부병과 가려움으로 치실 것이며, 그 병들은 낫지 않을 것이다.
- 28 주님께서 당신을 미치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실 것이다.

- 29 당신은 낮에 눈먼 자가 어둠 속에서 해매듯 헤매 것이며, 당신의 길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항상 억압되고 약탈당할 것이며, 당신을 구원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 30 당신은 아내를 맞이할 것이지만, 다른 남자가 그녀와 잠자릴 것이다. 당신은 집을 짓겠지만, 그 집에 살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포도원을 심겠지만, 그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 31 당신의 소는 당신의 눈 앞에서 잡혀 죽을 것이며, 당신은 그 고기를 한 점도 먹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나귀는 당신 앞에서 강제로 빼앗겨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양은 당신의 원수에게 주어질 것이며, 당신을 구원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 32 당신의 아들과 딸들은 다른 민족에게 주어질 것이다. 당신의 눈은 하루 종일 그들을 바라보며 허탈해질 것이며, 당신의 손에는 아무런 힘도 없을 것이다.
- 33 당신이 알지 못하는 민족이 당신의 땅의 열매와 당신의 모든 수고를 먹을 것이다. 당신은 항상 억압되고 짓눌릴 것이다.
- 34 당신이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당신을 미치게 할 것이다.
- 35 주님께서 당신의 무릎과 다리에 낫지 않는 심한 종기를 내리실 것이며,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모두 병들 것이다.
- 36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이 자신 위에 세울 왕을, 당신과 당신 조상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고 갈 것이다. 거기서 당신은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 37 주님께서 당신을 끌고 가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당신은 놀라움과 속담과 비유가 될 것이다.
- 38 당신은 많은 씨를 들에 뿌릴 것이지만, 적게 거둘 것이다. 메뚜기들이 그것을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 39 당신은 포도원을 심고 가꾸겠지만,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하고 포도를 수확하지도 못할 것이다. 벌레들이 그것을 먹어치울 것이다.
- 40 당신의 경계 전체에 올리브나무가 있을 것이지만, 당신은 그 기름으로 몸을 바르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올리브는 떨어질 것이다.
- 41 당신은 아들과 딸들을 낳겠지만, 그들은 당신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 42 메뚜기들이 당신의 모든 나무와 땅의 열매를 먹어치울 것이다.
- 43 당신 가운데 있는 외국인은 당신보다 높이 높이 올라가고, 당신은 낮게 낮게 떨어질 것이다.
- 44 그는 당신에게 빌려주고, 당신은 그에게 빌려주지 못할 것이다. 그는 머리가 되고, 당신은 꼬리가 될 것이다.
- 45 이 모든 저주가 당신에게 닥쳐 당신을 쫓아가며 뒤쫓아 잡을 것이며, 당신이 파멸될 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는 당신이 주님 당신 하느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가 당신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 46 이 저주는 당신과 당신의 자손에게 영원한 표징과 기적이 될 것이다.
- 47 당신이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면서도, 주님 당신 하느님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 48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실 적들, 곧 굶주림과 갈증과 벌거벗음과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당신은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는 당신의 목에 철제 멍에를 메워 당신이 파멸될 때까지 그대로 두실 것이다.
- 49 주님은 먼 곳, 땅 끝에서 독수리가 날아오듯이 당신을 향해 올 민족을 끌어올 것이다. 그 민족의 언어를 당신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 50 그 민족은 사나운 얼굴을 가졌으며, 노인을 존중하지도 않고 어린이를 아끼지도 않을 것이다.
- 51 그들은 당신의 가축과 땅의 열매를 다 먹어치울 것이다. 당신이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당신의 곡식, 새 포도주, 기름, 가축의 증가, 양떼의 새끼를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 52 그들은 당신의 모든 성문을 포위할 것이며, 당신이 의지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이 당신의 온 땅에 걸쳐 무너질 때까지 포위할 것이다.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온 땅의 모든 성문에서 그들은 당신을 포위할 것이다.
- 53 당신은 당신의 몸에서 난 열매, 곧 당신의 아들과 딸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는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녀들이며, 적들이 당신을 괴롭히는 포위와 고통 속에서 그 고기를 먹을 것이다.
- 54 당신 중에서 부드럽고 섬세한 남자는, 그의 형제에게, 그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리고 남아 있는 자녀들에게까지도 눈을 가늘게 뜰 것이다.
- 55 그는 자신이 먹을 자녀들의 고기를 아무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포위와 적들이 당신의 모든 성문에서 당신을 괴

롭히는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⁵⁶ 당신 중에서 부드럽고 섬세한 여자, 그녀는 섬세함과 부드러움 때문에 발바닥조차 땅에 대지 않으려 했던 그 여자는,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들에게, 딸에게도 눈을 가늘게 뜰 것이다.

⁵⁷ 그녀는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서 나온 어린아이와 낳은 자녀들에게도 눈을 가늘게 뜰 것이다. 그녀는 포위와 적들이 당신의 성문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여 비밀리에 그들을 먹을 것이다.

⁵⁸ 만약 당신이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주님 당신의 하느님의 이 위대하고 무서운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⁵⁹ 주님은 당신과 당신의 자손에게 무서운 재앙, 곧 크고 오래 지속되는 재앙과 심각한 병과 오래 지속되는 병을 내릴 것이다.

⁶⁰ 주님은 당신이 두려워했던 이집트의 모든 병을 다시 당신에게 내릴 것이며, 그것들이 당신에게 붙을 것이다.

⁶¹ 또 이 율법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병과 모든 재앙을 주님께서 당신에게 내릴 것이며, 당신이 멸망할 때까지 그들을 보내실 것이다.

⁶² 당신은 하늘의 별처럼 많았으나, 주님 당신의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적은 수로 남게 될 것이다.

⁶³ 주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여 당신을 복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당신을 기뻐하여 당신을 멸망시키고 파괴하실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뽑혀질 것이다.

⁶⁴ 주님은 당신을 땅 끝에서 땅 끝까지 모든 민족 사이에 흩어실 것이다. 거기서 당신과 당신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⁶⁵ 그 민족들 사이에서 당신은 편안함을 찾지 못할 것이며, 발바닥에도 쉴 곳이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에게 그곳에서 떨리는 마음과 시력의 상실과 영혼의 쇠약을 주실 것이다.

⁶⁶ 당신의 생명은 당신 앞에 불확실하게 매달릴 것이다. 당신은 낮과 밤에 두려워하며,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것이다.

⁶⁷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당신의 눈이 보게 될 광경 때문일 것이다.

⁶⁸ 주님은 당신을 배로 이집트로 다시 데려갈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결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길을 통해 말이다. 거기서 당신은 당신의 적들에게 남녀 노예로 팔려갈 것이며, 아무도 당신을 사지 않을 것이다.

신명기 29장

- 1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게 하신 언약의 말씀들이다. 이는 호레브에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 외에 추가된 것이다.
- 2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 3 너희 눈이 본 큰 시험과 표적들과 위대한 기적들이다.
- 4 그러나 오늘까지 주님께서 너희에게 마음을 주어 알게 하지 않으셨고, 눈을 주어 보게 하지 않으셨으며, 귀를 주어 듣게 하지 않으셨다.
- 5 내가 너희를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였다. 너희 옷이 너희 몸에 낡지 않았고, 너희 신발도 너희 발에 낡지 않았다.
- 6 너희는 빵을 먹지 않았고, 포도주나 강한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이는 내가 너희 하느님 주님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 7 너희가 이 땅에 이르렀을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옴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왔으나, 우리가 그들을 치고 말았다.
- 8 우리는 그들의 땅을 빼앗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 9 그러므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실천하여,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형통하게 하라.
- 10 오늘 너희 모두가 너희 하느님 주님 앞에 서 있다. 너희 머리들과 지파들과 장로들과 관리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 11 너희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너희 진영 가운데 있는 외국인들, 나무를 베는 자부터 물을 길는 자에 이르기까지,
- 12 너희가 너희 하느님 주님과 맺는 이 언약과 그분의 맹세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 너희 하느님께서 오늘 너희와 맺으시는 맹세이다.
- 13 이렇게 하여 오늘날 그가 너희를 그의 백성으로 세우고, 그가 너희의 하느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고 맹세한 대로 하신다.
- 14 내가 이 언약과 이 맹세를 너희만과 맺는 것이 아니다.
- 15 오늘 우리 앞에서 주님 우리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이들과, 오늘 여기에 없는 이들도 함께 맺는 것이다.
- 16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지나온 여러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알고 있다.
- 17 너희는 그들이 가운데 두었던 나무, 돌, 은, 금으로 만든 가증한 우상과 그들의 가증한 일을 보았다.
- 18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라도 오늘날 주님 우리 하느님을 떠나 그 나라들의 신들을 섬기려고 마음을 돌이지 않게 하라. 너희 가운데 쓴 독을 내는 뿌리가 생기지 않게 하라.
- 19 그가 이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스스로 축복하며 말하기를, "내가 마음의 고집을 따라 걷더라도 평안할 것이다." 하여 습한 것과 마른 것을 함께 멸망시키려 하리라.
- 20 주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진노와 질투가 그 사람을 향해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이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내릴 것이며, 주님은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서 지우실 것이다.
- 21 주님은 이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에 따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악을 위해 따로 구별하실 것이다.
- 22 너희 뒤에 일어날 다음 세대, 곧 너희 뒤에 일어날 너희 자녀들과 먼 땅에서 올 외국인이 그 땅의 재앙과 주님이 그 땅에 내린 질병을 볼 때,
- 23 "이 땅이 유향과 소금과 불타는 것뿐이라, 씨를 뿌리지 않으며, 열매를 맺지 않고, 풀 한 포기 자라지 않아, 주님이 진노와 분노로 무너뜨린 소돔과 고모라와 아다마와 스보임과 같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 24 모든 나라가 말할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 큰 진노의 불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25 그때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이들이 그 조상들의 하느님인 주님과,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실 때 맺으신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 26 그들은 가서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지 않으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숭배하였다.
- 27 그러므로 주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져,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이 땅에 내리게 되었다.
- 28 주님은 진노와 분노와 큰 격노로 그들을 그 땅에서 뿌리 뽑아, 오늘과 같이 다른 땅으로 쫓아내셨다.

²⁹ 은밀한 일들은 우리 하느님 주님의 것이지만, 드러난 일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속해 있어,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천하게 하신다.

신명기 30장

- ¹ 이 모든 일, 곧 내가 당신 앞에 놓은 축복과 저주가 당신에게 닥치고,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당신을 쫓아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를 마음에 새기면,
- ² 당신과 당신의 자손이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 돌아가,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을 듣고 따르면,
- ³ 그때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당신을 포로에서 풀어주시고,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돌아와서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당신을 풀어놓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을 모아들이실 것입니다.
- ⁴ 비록 당신의 망명자들이 하늘 끝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거기서 당신을 모아들이시고, 거기서 당신을 데려오실 것입니다.
- ⁵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당신을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데려오셔서, 당신도 그것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을 잘살게 하시고, 조상들보다 더 많이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 ⁶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당신이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주님 당신의 하느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 ⁷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이 모든 저주를 당신의 원수들과, 당신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 ⁸ 당신은 돌아와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 ⁹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당신의 손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의 몸에서 난 열매와, 당신의 가축에서 난 열매와, 당신의 땅에서 난 열매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조상들을 기뻐하듯, 당신을 위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 ¹⁰ 당신이 주님 당신의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 돌아간다면,
- ¹¹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너무 어렵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 ¹²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전해 주어,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게 해줄 것인가?’ 하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 ¹³ 그것은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전해 주어,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게 해줄 것인가?’ 하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 ¹⁴ 그러나 이 말씀은 당신 곁에 매우 가까워서, 당신의 입과 마음에 있어, 당신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 ¹⁵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 앞에 생명과 복, 죽음과 화를 놓았습니다.
- ¹⁶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령하는 것은, 주님 당신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걷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령을 지켜서, 당신이 살아나고 번성하며,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당신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당신을 복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 ¹⁷ 그러나 만약 당신의 마음이 돌아서서, 듣지 않고, 끌려가서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섬긴다면,
- ¹⁸ 내가 오늘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은 요단을 건너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날을 길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 ¹⁹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당신을 증거로 삼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택하여, 당신과 당신의 자손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 ²⁰ 주님 당신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게 붙어 있으십시오. 그분이 곧 당신의 생명이요, 당신의 날의 길이며, 주님께서 당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 ¹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말을 전했다.
- ²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오늘 내가 백이십 세가 되었다. 더 이상 나가 들어오지 못한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 ³ 주님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며, 너희는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보다 먼저 건너갈 것이다.
- ⁴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옥에게, 그리고 그들의 땅에 하신 일과 같을 것이다. 그분이 그들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 ⁵ 주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겨주실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에 따라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 ⁶ 강하고 담대하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가지 않으실 것이다.
- ⁷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 전체의 목전에서 그에게 말했다. "강하고 담대하거라.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주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그 땅을 물려줄 것이다."
- ⁸ 주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가지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 ⁹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님의 언약 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넘겼다.
- ¹⁰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매일 일곱 해가 지나는 해, 곧 먼지의 해에, 초막절에,
- ¹¹ 이스라엘 전체가 주님 너희 하느님께서 택하실 곳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나타날 때,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이의 귀에 들리도록 이 율법을 읽어야 한다.
- ¹² 사람들과 여자와와 어린아이들과 너희 문 안에 있는 외국인들을 모두 모아라. 그들이 듣고 배우며, 주님 너희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 ¹³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한 자녀들이 듣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점유했던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 너희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 ¹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죽을 날이 가까워왔다. 여호수아를 불러 모임의 장막으로 나아가라. 내가 그를 임명하겠다."
- ¹⁵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장막 안에 나타나셨고, 그 구름 기둥이 장막 문 위에 서 있었다.
- ¹⁶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 것이다. 이 백성이 일어나, 그들이 들어가 사는 땅의 타국의 신들을 따르며 음행할 것이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 ¹⁷ 그때 내가 그들을 버리고, 그들의 얼굴에서 내 얼굴을 가릴 것이며, 그들은 삼켜질 것이고, 많은 재난과 고통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들이 그때 말하기를, '이 재난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은 우리의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할 것이다.
- ¹⁸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간 그 모든 악 때문에, 내가 그때 그들의 얼굴을 꼭 가릴 것이다.
- ¹⁹ 그러므로 이제 이 노래를 너희가 스스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라. 그들의 입에 두어,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나의 증인이 되게 하라.
- ²⁰ 내가 그들을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끌어 들어가,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이 찌게 되면,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 그들을 섬기고, 나를 경멸하며,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 ²¹ 그들이 많은 재난과 고통을 겪을 때,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노래는 그들의 자손의 입에서 잊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길과 오늘 그들이 하는 일을 알고 있다. 내가 그들을 내가 약속한 땅에 이끌어 들어가기 전에 말이다.
- ²² 그러므로 모세는 그날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다.
- ²³ 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임명하며 말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

도할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²⁴ 모세가 이 율법의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여 마칠 때,

²⁵ 모세는 주님의 언약 궤를 메는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²⁶ "이 율법서를 가져다가 주님 당신들의 하느님의 언약 궤 옆에 두어라. 그것이 너를 대적하는 증거가 되게 하라."

²⁷ 내가 너희의 반역과 고집스러운 목을 알고 있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와 함께 살아 있는 동안에도 너희는 주님을 반역하였다. 내가 죽은 후에는 얼마나 더 심할 것인가?

²⁸ 너희 지파들의 모든 장로들과 너희의 관리들을 내게 모으라. 내가 그들의 귀에 이 말을 하며, 하늘과 땅을 그들을 대적하는 증인으로 불러들이리라.

²⁹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는 완전히 타락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에서 벗어날 것이며, 너희가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여 너희 손의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할 것이므로, 나중 날에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³⁰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의 귀에 이 노래의 말을 전하였다.

신명기 32장

- 1 하늘들아,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아, 내 입의 말을 들으라.
- 2 내 가르침은 비처럼 떨어지고, 이슬처럼 흘러내리리라.
- 3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우리 하느님의 위대함을 높이자.
- 4 바위이신 그분의 행위는 완전하며, 그분의 모든 길은 공정하다. 거짓이 없는 하느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이시다.
- 5 그들은 그분에게 패역하여, 그분의 자녀들답지 못하다. 틀린 길을 걷고, 그들의 죄로 인해 더럽혀졌다.
- 6 이것이 주님에게 보답하는 길이나? 그분이 너를 산 자로 삼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분이 너를 만들고 세우셨다.
- 7 과거의 날들을 기억하여라. 옛세대의 해를 생각하여라. 네 아버지들이 너에게 말해 주었고, 네 조상들이 너에게 이르렀다.
- 8 지극히 높으신 분이 민족들에게 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인류의 경계를 정하셨다.
- 9 주님의 몫은 그분의 백성, 야곱은 그분의 기업이다.
- 10 그분이 그를 광야에서 찾아내셨고,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서, 사자와 같은 광야에서 그를 보호하셨다.
- 11 독수리가 그의 동지를 흔들어 새끼를 일으키고, 날개를 펴서 그들을 받들고, 날개 위에 그들을 메고,
- 12 주님만이 그를 인도하셨다. 그와 함께한 이방 신은 없었다.
- 13 그분이 그를 땅의 높은 곳에서 타고 다니게 하셨다. 그가 땅의 풍성한 것을 얻게 하셨다.
- 14 소 떼의 버터와 양 떼의 우유, 그리고 양의 기름과 살찐 어린양, 아르마인의 양과 바산의 염소, 그리고 밀의 최고의 가루와 포도주로 만든 와인을 주셨다.
- 15 예수론은 살이 찌고, 똥똥해져서 발로 차버렸다. 그는 주님을 버리고, 그의 구원의 바위를 멸시하였다.
- 16 그들이 이방 신들로 인해 그분을 질투하게 만들었고, 가증한 것들로 그분을 격노하게 만들었다.
- 17 그들이 악귀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느님께 드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 18 너는 너의 아버지가 되신 바위를 잊어버렸고, 너를 낳으신 하느님을 잊어버렸다.
- 19 주님께서 보시고, 질투로 인해 싫어하셨다.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분을 격노하게 만들었다.
- 20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을 향해 내 얼굴을 가리리라. 그들이 어떤 종류의 자식인지 보아라. 그들은 신뢰할 수 없는 자식들이다.'
- 21 그들이 나를 질투하게 만들었고, 나와는 관계없는 신들로 나를 격노하게 만들었다. 내가 나와는 관계없는 민족으로 그들을 질투하게 만들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격노하게 하리라.
- 22 내 진노로 불이 타오르며, 땅의 모든 것을 삼키고, 지옥의 바닥까지 태워버릴 것이다.
- 23 '내가 그들에게 재앙들을 쏟아줄리리라. 내 화살들을 그들에게 쏘아넣으리라.'
- 24 그들은 기아와 굶주림으로 소멸되고, 열병과 썩음으로 멸망할 것이다. 나는 사자와 뱀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 25 밖에서는 칼이 젊은이와 처녀를 죽이고,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다.
- 26 내가 그들을 멀리 흩어버리고, 그들의 이름을 인류 가운데서 없애버리리라 하였으나,
- 27 내가 원수의 자극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 28 그들은 지혜가 없는 민족이다.
- 29 그들이 지혜로워서 이것을 깨닫고,
- 30 하나가 천 명을 쫓을 수 있겠느냐?
- 31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 32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왔고,
- 33 그들의 포도주가 뱀의 독이고, 독사의 잔인한 독이다.
- 34 "이것이 내게 쌓여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가?"

- 35 나는 보복하고 보상할 자이다.
- 36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며,
- 37 그가 말할 것이다. ‘그들의 신들은 어디에 있는가?
- 38 그들이 제물의 기름을 먹고 술을 마셨던 신들은 어디에 있는가?
- 39 “이제 내가 그 자체로 그분임을 보아라.
- 40 내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말한다.
- 41 내가 반짝이는 칼을 날카롭게 하며,
- 42 내 화살을 피로 취하게 하리라.
- 43 너희 민족들아, 그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 44 모세가 와서 여호수아, 눈의 아들과 함께 이 노래의 모든 말을 백성의 귀에 들려주었다.
- 45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모든 말을 마치고 나누어 주었다.
- 46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을 지켜 행하게 하라.
- 47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의 생명이며,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이 일을 통해 너희 날이 길어질 것이다.
- 48 주님께서 그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49 이 아바림 산에 올라, 모압 땅에 있는 네보 산에 올라라. 거기서 예리코 맞은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로 주는 땅이다.
- 50 네가 올라간 그 산에서 죽고, 네 조상들과 합하라. 네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조상들과 합한 것처럼.
- 51 이는 너희가 시닌 광야에서 카데스의 메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를 범하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 52 너는 그 땅을 멀리서 보겠지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신명기 33장

- 1 이것은 하느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린 축복이다.
- 2 그가 말했다. "주님께서 시내에서 오셨고,
- 3 그분은 백성을 사랑하신다.
- 4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다. 그것은 야곱의 회중의 유산이다.
- 5 그분은 예루손에서 왕이 되셨다.
- 6 "르우벤은 살아서 죽지 않으며, 그의 수가 적지 않게 되게 하소서."
- 7 유다를 위한 축복은 이러하다. 그가 말했다. "주님, 유다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 8 레위에 관해 그가 말했다. "당신의 두마와 우림은 당신의 경건한 자와 함께 있으며, 당신은 마사에서 그를 시험하셨고,
- 9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해 말하기를, "나는 그를 보지 못하였다."
- 10 그들은 야곱에게 당신의 규례를 가르칠 것이며,
- 11 주님, 그의 능력을 축복하소서.
- 12 베냐민에 관해 그가 말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는 그분의 곁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 13 요셉에 관해 그가 말했다. "그 땅은 주님의 축복을 받았으며,
- 14 태양의 귀한 열매와,
- 15 오래된 산들의 최상의 것들과,
- 16 땅과 그 모든 충만한 것들의 귀한 것들로 축복받으라.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내리게 하소서."
- 17 그의 소떼의 말아들은 위엄을 지닌다.
- 18 스불론에 관해 그가 말했다. "스불론아, 네가 나갈 때 기뻐하라.
- 19 그들은 민족들을 산으로 불러 모을 것이다.
- 20 갓에 관해 그가 말했다. "갓을 넓히는 자는 복받았다.
- 21 그는 자신을 위해 첫 부분을 마련하였다.
- 22 단에 관해 그가 말했다. "단은 사자의 새끼이다.
- 23 납탈리에 관해 그가 말했다. "납탈리는 은총으로 만족하였으며,
- 24 아셀에 관해 그가 말했다. "아셀은 자녀로 복받았다.
- 25 너의 문살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다.
- 26 예수론아, 하느님처럼 이 같은 이는 아무도 없다.
- 27 영원하신 하느님이 너의 거처이다.
- 28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주하며,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다.
- 29 이스라엘아, 너는 복이 있다!

신명기 34장

- ¹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나아가 니보 산, 피스가 꼭대기에 올라 예리코와 마주 보는 곳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그에게 길라드 땅을 다니 보여 주셨다.
- ² 납탈리 땅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 유다 땅 전체를 서쪽 바다까지 보여 주셨다.
- ³ 남쪽과, 야자수 도시인 예리코 골짜기 평지까지 소아르에 이르기까지 보여 주셨다.
- 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던 땅이다.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으나, 너는 저쪽으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 ⁵ 그러므로 주님의 종 모세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압 땅에서 죽었다.
- ⁶ 주님께서 그를 모압 땅의 골짜기, 벳베오르와 마주 보는 곳에 장사지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의 무덤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
- ⁷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백이십 세였다. 그의 눈은 흐릿하지 않았고, 그의 힘도 약해지지 않았다.
- 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서른 날 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날들이 끝날 때까지였다.
- ⁹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모세가 그에게 손을 얹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 ¹⁰ 이후 이스라엘에는 모세처럼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 보고 아는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 ¹¹ 주님께서 그를 보내어 이집트 땅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을 향해 행하게 하신 모든 표적과 기적을, 모세가 행하였다.
- ¹² 모세는 이스라엘 온 백성의 눈앞에서 모든 강력한 손길과 위대한 기적을 행하였다.

여호수아기 | Joshua

여호수아기 1장

- ¹ 모세, 주님의 종이 죽은 후에, 주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곧 모세의 종에게 말씀하셨다.
- ² "모세, 내 종이 죽었다. 이제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너, 너와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내가 그들에게 주려는 땅, 이스라엘 자손의 땅으로 가라.
- ³ 너의 발바닥이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에게 주었다.
- ⁴ 광야에서 이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히타이트 사람들의 온 땅과, 서쪽 바다에 이르기까지, 네 경계가 될 것이다.
- ⁵ 네 평생 동안, 아무도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 ⁶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겠다고 한 땅으로 물려받게 할 것이다.
- ⁷ 오직 강하고 매우 담대하라.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 ⁸ 이 율법의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낮과 밤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모두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며,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 ⁹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 ¹⁰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 ¹¹ "진영 중앙을 지나가서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라. '음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는 이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 ¹² 여호수아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나세 반 지파에게 말했다.
- ¹³ "주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기억하라. 그가 말하기를,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 ¹⁴ 너희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은 요르단 저편, 모세가 너희에게 준 땅에 머무르라. 그러나 너희는 무장한 용사들, 곧 모든 용감한 자들이 너희 형제들 앞에 먼저 건너가서 도와주라.
- ¹⁵ 주님이 너희 형제들에게 너희가 받은 것처럼 안식을 주시고, 그들도 주 너희 하느님이 그들에게 주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 그 후에야 너희는 너희가 소유한 땅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요르단 동편에 너희에게 준 땅이다."
- ¹⁶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이며,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어디든지 우리가 갈 것입니다.
- ¹⁷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다만 주 너희 하느님이 모세와 함께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 ¹⁸ 당신의 명령에 반역하여, 당신이 명령하는 모든 것을 듣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기 2장

- 1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명의 정찰병을 비밀리에 보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가서 땅을 살펴보아라. 여리고까지." 그들은 떠나서 이름이 라합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였다.
- 2 여리고 왕은 소식을 듣고 말했다.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의 사람들이 오늘 밤 여기에 들어와서 땅을 정찰하고 있다."
- 3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보냈다. "네게 와서 네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라. 그들은 온 땅을 정찰하러 왔다."
- 4 그 여자는 그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겼다. 그리고 말했다. "네가 말한 그 사람들이 내게 왔지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 5 문을 닫는 시간이 되어 어두워졌을 때, 그 사람들은 나갔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빨리 그들을 쫓아가십시오. 아마도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6 그러나 그 여자는 그들을 지붕으로 올려서, 지붕에 펼쳐 놓은 대마의 줄기 아래에 숨겨두었다.
- 7 그 사람들은 요르단 강의 벵랑으로 가는 길을 따라 쫓아갔다. 그들을 쫓던 자들이 나간 직후, 그들은 문을 닫았다.
- 8 그들이 잠들기 전에, 그 여자는 지붕에서 그들에게 올라왔다.
- 9 그 여자는 그들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미쳤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여러분 앞에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 10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붉은 바다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르단 건너편에 있던 아모리인 두 왕, 시혼과 옥을 여러분이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켰는지를 들었습니다."
- 11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녹아내렸고,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느님 주님은 위 하늘과 아래 땅의 하느님이십니다."
- 12 그러므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제 아버지의 집에 친절을 베풀고, 진실한 표징을 저에게 주십시오."
- 13 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살려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구해 주십시오."
- 14 그 사람들은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의 목숨을 당신의 목숨과 바꾸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집에 친절과 진실을 베풀겠습니다."
- 15 그러자 그 여자는 창문을 통해 밧줄로 그들을 내려보냈다. 그녀의 집은 성벽 옆에 있었고, 그녀는 성벽 위에 살고 있었다.
- 16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쫓는 자들이 여러분을 발견하지 못하게 산으로 가십시오. 쫓는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곳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으십시오. 그 후에야 여러분은 길을 떠나십시오."
- 17 그 사람들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는 죄가 없을 것입니다."
- 18 보아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갈 때, 당신이 우리를 내려보낸 창문에 이 붉은 실을 매달아 두십시오.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모든 가족을 집 안으로 모으십시오."
- 19 당신 집 문 밖으로 나가 거리로 나가는 자는 그 피가 그의 머리에 있을 것이고, 우리는 죄가 없을 것입니다. 집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떤 손이 닿으면, 그 피는 우리 머리에 있을 것입니다."
- 20 그러나 만약 당신이 우리 일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맹세에 대해 죄가 없을 것입니다."
- 21 그녀는 말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보내고 그들은 떠났다. 그녀는 창문에 붉은 실을 매달았다.
- 22 그들은 떠나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머물렀다. 쫓는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쫓는 자들은 길을 따라 그들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 23 그러자 두 사람은 돌아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했다.
- 24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진실로 주님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게다가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 앞에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3장

- ¹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팀에서 떠나 이스라엘 자손 모두와 함께 요단강에 이르렀다. 그들은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 ² 사흘 후에 장교들이 진중을 두루 다니며,
- ³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언약궤를 보고, 레위인 사제들이 그것을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제자리에서 떠나 그 뒤를 따르라."
- ⁴ 그러나 너희와 그 궤 사이에는 약 이천 규빗의 거리를 두고 가라.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길을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⁵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일 주님이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 ⁶ 여호수아가 사제들에게 말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을 지나라."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을 나섰다.
- ⁷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눈앞에서 너를 높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 ⁸ 너는 언약궤를 메는 사제들에게 명령하여 말하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면, 요단강 가운데에 서서 멈추라."
- ⁹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여기로 와서,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 ¹⁰ 여호수아가 말했다. "이것으로 너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며, 그분이 카나안 족속, 히위 족속, 히위 족속, 브리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 ¹¹ 보라, 온 땅의 주님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있다.
- ¹² 그러므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열두 명을 뽑아라. 지파마다 한 명씩이다.
- ¹³ 온 땅의 주님인 하느님의 언약궤를 메는 사제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을 때, 요단강 물이 끊어질 것이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한 덩어리로 쌓일 것이다."
- ¹⁴ 백성이 장막을 치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때, 언약궤를 메는 사제들이 백성 앞을 나섰다.
- ¹⁵ 언약궤를 메는 자들이 요단강에 이르렀고, 언약궤를 메는 사제들의 발이 물가에 닿았을 때(수확철에는 요단강이 항상 제방을 넘쳐 흐르므로),
- ¹⁶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멈추고, 아담 성, 곧 사르단 곁에서 아주 멀리까지 한 덩어리로 쌓였으며, 아라바 바다, 곧 소금 바다 쪽으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때 백성은 여리고 가까이에서 건너갔다.
- ¹⁷ 주님의 언약궤를 메는 사제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마른 땅 위를 건너서 온 나라가 완전히 요단강을 건너갔다.

여호수아기 4장

- 1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너자,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 2 "백성 중에서 열두 명을 뽑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라.
- 3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열두 개의 돌을 가져와, 너희와 함께 옮겨, 오늘 밤 너희가 야영할 곳에 놓아라."
- 4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미리 준비해 둔 열두 명의 남자를 불러,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다.
- 5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주님 여러분의 하느님의 궤 앞에서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각자 한 돌을 들어 어깨에 메라.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에 따라 하라.
- 6 이것이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게 하라. 너희 자손이 나중에 물어보며,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게 하기 위함이다.
- 7 그러면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요단의 물이 주님의 언약 궤 앞에서 갈라졌기 때문이다. 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의 물이 갈라졌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기념물이 될 것이다."
- 8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동하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에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열두 개의 돌을 들어, 야영할 곳으로 옮겨 거기에 놓았다.
- 9 여호수아는 요단 가운데, 언약 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열두 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은 오늘날까지 그 곳에 있다.
- 10 언약 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요단 가운데에 서 있었다. 이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따랐다. 백성은 서둘러 건넜다.
- 11 모든 백성이 완전히 건너자, 주님의 궤가 제사장들 앞에서 백성의 눈앞으로 건너갔다.
- 12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반 지파의 므낫세 자손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무장한 채 건넜다.
- 13 약 사만 명의 남자, 전쟁에 준비되고 무장한 자들이 주님 앞에서 여리고 평야로 나아가 싸움에 나섰다.
- 14 그날, 주님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이셨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평생 동안 모세를 두려워하듯 두려워하였다.
- 15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 16 "언약 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 17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요단에서 올라오라!"
- 18 주님의 언약 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올라와,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에 닿자, 요단의 물이 제 자리로 돌아와, 이전처럼 모든 제방을 넘쳤다.
- 19 백성은 첫째 달 열째 날에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다.
- 20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개의 돌을 길갈에 세웠다.
- 21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미래에 너희 자손이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 돌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고 묻거든,
- 22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알려라.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이 요단을 건넜다."
- 23 주님 여러분의 하느님께서 너희가 건너기 전까지 요단의 물을 너희 앞에서 말렸다. 마치 주님 여러분의 하느님께서 붉은 바다에서 우리 앞에서 물을 말렸던 것처럼,
- 24 이렇게 하여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손이 강력함을 알게 하며, 너희가 주님 여러분의 하느님을 평생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호수아기 5장

- ¹ 요르단 강 건너편 서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들과, 바다 가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요르단 강 물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가 건너간 것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더 이상 용기를 잃었다.
- ²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석도를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한 번 할례하라."
- ³ 여호수아는 석도를 만들어, 벌거벗은 자의 언덕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할례하였다.
- ⁴ 여호수아가 그들을 할례한 이유는,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남자, 곧 전쟁에 나간 모든 남자가 이집트에서 나온 후 길에서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 ⁵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와 길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 ⁶ 이스라엘 자손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행군하였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민족, 곧 전쟁에 나간 모든 남자가 다 죽을 때까지 그랬다. 그들이 주님의 음성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기를,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여 주겠다고 하신 것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다.
- ⁷ 주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을 그들의 자리에 일으키셨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할례하였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길에서 그들을 할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⁸ 모든 백성을 할례한 후, 그들은 진영에서 제자리에 머물며 낮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
- ⁹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이집트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냈다."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린다.
- ¹⁰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쳤다. 그들은 그 달 십사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 ¹¹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산으로 만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 ¹²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멈추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먹지 않았고, 그 해에는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
- ¹³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있을 때, 그가 눈을 들어 보니, 손에 칼을 빼든 한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아가며 말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우리 원수 편입니까?"
- ¹⁴ 그가 대답했다. "아니오. 나는 주님의 군대 장군으로 지금 왔습니다."
- ¹⁵ 주님의 군대 장군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신발을 벗으시오. 당신이 서 있는 땅은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였다.

여호수아기 6장

- 1 예리코는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단단히 봉쇄되었다.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아무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 2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예리코와 그 왕과 용감한 병사들을 네 손에 넘겼다."
- 3 너의 모든 병사들이 도시를 한 바퀴씩 돌며, 이들 동안 매일 한 번씩 도시를 돌 것이다.
- 4 일곱 사제가 주님의 궤 앞에서 일곱 개의 양 뿔 나팔을 들고 갈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도시를 일곱 번 돌고, 사제들이 나팔을 불 것이다.
- 5 양 뿔 나팔이 길게 울릴 때,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칠 것이다. 그때 성벽이 평평하게 무너질 것이며, 백성은 각자 자기 앞쪽으로 성 안으로 올라갈 것이다."
- 6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사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언약의 궤를 들어 올리고, 일곱 사제가 주님의 궤 앞에서 일곱 개의 양 뿔 나팔을 들고 가라."
- 7 그들이 백성에게 말했다. "진격하여라! 도시를 돌고, 무장한 병사들이 주님의 궤 앞에서 앞서가라."
- 8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을 마치자, 주님의 궤 앞에서 일곱 개의 양 뿔 나팔을 든 일곱 사제가 나아가서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의 궤가 그 뒤를 따랐다.
- 9 무장한 병사들이 나팔을 불던 사제들 앞서 가고, 궤가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가는 동안 나팔이 울렸다.
- 10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목소리를 내지 말며,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고 말할 날까지 너희 입에서 한 마디도 내지 말아라. 그때 너희는 외쳐라."
- 11 그러므로 그는 주님의 궤를 도시를 한 바퀴 돌게 했다. 그 후 그들은 진으로 돌아와 진에 머물렀다.
- 12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사제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 올렸다.
- 13 주님의 궤 앞에서 일곱 개의 양 뿔 나팔을 든 일곱 사제가 계속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다. 무장한 병사들이 그들 앞서 가고, 후방 부대가 주님의 궤 뒤를 따랐다. 그들이 가는 동안 나팔이 울렸다.
- 14 두 번째 날에도 그들은 도시를 한 번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이 일을 여섯 날 동안 계속했다.
- 15 일곱째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뜨자마자 도시를 같은 방식으로 일곱 번 돌았다. 이 날에만 그들은 도시를 일곱 번 돌았다.
- 16 일곱 번째로 사제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외쳐라! 주님이 너희에게 이 도시를 주셨다!"
- 17 이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 바쳐져야 한다.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자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녀가 우리가 보낸 정찰원을 숨겼기 때문이다."
- 18 그러나 너희는 바쳐진 것들에서 스스로를 지켜라. 너희가 바쳐진 것을 취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을 저주하고 괴롭힐 것이다."
- 19 그러나 모든 은과 금, 그리고 놋과 철로 만든 그릇들은 주님께 성물이다. 그것들은 주님의 보물창고로 들어가야 한다."
- 20 그러므로 백성이 외치고 사제들이 나팔을 불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으니, 큰 소리로 외쳤고, 성벽이 평평하게 무너져서 백성이 각자 자기 앞쪽으로 성 안으로 올라가서 도시를 빼앗았다.
- 21 그들은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칼날로 멸망시켰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노인, 소와 양과 나귀까지 모두 칼날로 죽였다.
- 22 여호수아가 땅을 정찰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했다.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데려와라. 너희가 그녀에게 맹세한 대로 하라."
- 23 정찰원이었던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데려왔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친척들도 데려와서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내보냈다.
- 24 그들은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오직 은과 금, 그리고 놋과 철로 만든 그릇들만 주님의 집 보물창고에 넣었다.
- 25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여호수아는 살아남게 하였다. 그녀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살고 있는데, 이는 그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찰하러 보낸 사자를 숨겼기 때문이다.

- ²⁶ 그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맹세를 걸며 말하였다. "주님 앞에서 저주받을 자는 이 여리고 성을 일으켜 세우는 자다. 그의 맏아들을 잃고서야 그 성의 기초를 놓고, 그의 막내아들을 잃고서야 그 성의 문을 세울 것이다."
- ²⁷ 그러므로 주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였고, 그의 명성은 온 땅에 퍼졌다.

여호수아기 7장

- 1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바쳐진 물건들에 범죄하였다. 유다 지파의 자손인 카르미의 아들, 자브디의 아들,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쳐진 물건들 중 일부를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 2 여호수아는 벤엘 동편, 벤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사자를 보냈고, 그에게 말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정찰하여라."
- 3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말했다. "모든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이천에서 삼천 명 정도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십시오. 모든 백성을 그곳에서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아주 적습니다."
- 4 그래서 백성 중 약 삼천 명이 올라갔으나, 아이 사람들의 앞에서 도망쳤다.
- 5 아이 사람들이 그들 중 삼십육 명을 쳤다. 그들은 성문 앞에서부터 세바림까지 쫓아가며, 내려가는 곳에서 그들을 쳤다. 백성의 마음은 녹아 물처럼 되었다.
- 6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주님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엎드려 있었다. 그들은 머리에 흙을 뿌렸다.
- 7 여호수아가 말했다. "아, 주 하느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어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편에서 만족하며 살았다면 그랬을 텐데요!"
- 8 주님,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등을 돌린 후에 제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 9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땅에서 끊어버릴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 10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네가 이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가?"
- 11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내게 명령한 언약을 어겼고, 바쳐진 물건들 중 일부를 가져가 훔치고 속였으며, 그것을 자기 물건들 사이에 넣었다.
- 12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원수 앞에 설 수 없다. 그들은 원수 앞에서 등을 돌리는데, 이는 그들이 멸망을 위해 바쳐졌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 중에서 바쳐진 물건들을 없애기 전까지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 13 일어나라!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리고 말하여라. "내일을 위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가운데 바쳐진 물건이 있다. 너희가 너희 적들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바쳐진 물건을 제거할 때까지 말이다."
- 14 그러므로 아침에 너희는 지파별로 가까이 나아오리라. 주님이 선택한 지파는 가족별로 가까이 나아오리라. 주님이 선택한 가족은 가정별로 가까이 나아오리라. 주님이 선택한 가정은 한 사람씩 가까이 나아오리라.
- 15 바쳐진 물건을 드러낸 자는 불로 태워지리라. 그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 16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니, 유다 지파가 선택되었다.
- 17 그는 유다의 가족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여, 세라의 가족을 선택하였다. 그는 세라의 가족을 한 사람씩 가까이 나아오게 하니, 자브디가 선택되었다.
- 18 그는 그의 가정을 한 사람씩 가까이 나아오게 하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아들 자브디의 아들 카르미의 아들 아간이 선택되었다.
- 19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고백하여라. 지금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게 말하여라. 내게 숨기지 말아라!"
- 20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진실로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이렇습니다."
- 21 나는 전리품 가운데 아름다운 바빌론 옷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 무게의 금 덩어리를 보고, 그것들을 탐내어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에 묻혀 있고, 은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 22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니, 그들이 뛰어가서 장막을 찾아보니, 그것이 그의 장막 안에 묻혀 있었고, 은은 그 아래에 있었다.

²³ 그들은 장막 가운데서 그것을 가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 끌고 와서, 주님 앞에 놓아두었다.

²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아간, 세라의 아들, 그의 은, 그의 옷, 그의 금 덩어리,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그의 가축, 그의 나귀, 그의 양, 그의 장막,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올라갔다.

²⁵ 여호수아가 말했다. "왜 우리를 괴롭혔느냐?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괴롭히실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쳤고, 불로 태운 뒤 다시 돌로 쳤다.

²⁶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주님께서 자신의 분노의 격렬함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불린다.

여호수아기 8장

- 1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너와 함께 모든 병사들을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도시와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 2 너는 아이와 그 왕에게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되, 그 도시의 재물과 가축은 너희가 차지하라. 도시 뒤에 기습을 설치하라."
- 3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든 병사들과 함께 일어나 아이로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감한 병사 삼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
- 4 그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보라, 너희는 도시 뒤에 기습을 설치하라.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지 말고, 모두 준비하라."
- 5 나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은 도시에 가까이 갈 것이다. 그들이 처음처럼 우리를 향해 나왔을 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 6 그들은 우리를 쫓아 도시 밖으로 나올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도시에서 멀리 끌어내기 전까지 쫓아올 것이다. 그들은 말할 것이다. "그들이 처음처럼 우리 앞에서 도망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 7 너는 기습에서 일어나 도시를 점령하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 도시를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 8 너는 도시를 점령한 후에 그 도시에 불을 지르라. 너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일을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다."
- 9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기습을 설치하러 가서 아이의 서쪽, 벰엘과 아이 사이에 머물렀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과 함께 머물렀다.
- 10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소집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갔다.
- 11 그와 함께한 모든 병사가 올라가 도시에 가까이 다가가, 아이의 북쪽에 진을 쳤다. 그와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 12 그는 약 오천 명을 뽑아 도시 서쪽, 벰엘과 아이 사이에 기습을 설치했다.
- 13 그러므로 그들은 도시 북쪽에 모든 군대를 배치하고, 도시 서쪽에 기습을 배치했다. 여호수아는 그 밤에 골짜기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 14 아이의 왕이 이것을 보고, 조속히 일찍 일어나 도시의 모든 남자들을 이끌고 아라바 앞에서 정해진 시간에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갔다. 그러나 그는 도시 뒤에 기습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 15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패한 척하며 광야 길로 도망쳤다.
- 16 도시에 있던 모든 백성이 그들을 쫓기 위해 모두 모였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쫓아 도시에서 멀어졌다.
- 17 아이나 벰엘에는 이스라엘을 쫓아 나가지 않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도시를 열어두고 이스라엘을 쫓아갔다.
- 18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에 든 창을 아이 쪽으로 뻗어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 19 기습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손을 뻗자마자 달려가 도시에 들어가 그것을 점령했다. 그들은 조속히 도시에 불을 지르렀다.
- 20 아이의 남자들이 뒤를 돌아보니, 도시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어느 쪽으로든 도망칠 힘이 없었다. 광야로 도망친 백성은 추격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 21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이 기습대가 도시를 점령하고 도시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돌아서서 아이의 남자들을 죽였다.
- 22 다른 자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들을 공격했으므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 있게 되었고, 이쪽과 저쪽에 있었다. 그들은 그들을 치고, 그들 중 아무도 남기지 않고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
- 23 그들은 아이의 왕을 생포하여 여호수아에게 끌고 왔다.
- 24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들을 쫓아가며 아이의 모든 주민을 다 죽이고, 칼날에 쓰러뜨려 모두 소멸한 후, 모든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가 칼날로 그 도시를 치었다.
- 25 그 날 죽은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열두 천 명이었으며, 이는 모두 아이의 백성들이었다.
- 26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주민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손을 뻗어 들었던 창을 끌어당기지 않았다.

- ²⁷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도시의 가축과 재산만을 차지하였다.
- ²⁸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태워서 오늘날까지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였다.
- ²⁹ 여호수아는 아이의 왕을 나무에 매달아 저녁까지 두었다. 해가 지자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도시 문 입구에 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오늘날까지 남겨두었다.
- ³⁰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인 주님을 위하여 에발 산에 제단을 쌓았다.
- ³¹ 이는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였다. 즉,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이었고, 그 위에 쇠 도구를 들어 올린 적이 없었다. 그들은 그 위에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평제를 바쳤다.
- ³²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돌에 복사하여 썼다.
- ³³ 이스라엘 전체, 곧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이 레위 제사장들 곁에 서서, 주님의 언약 궤를 메고 있는 궤 앞에 양쪽에 나뉘어 섰다. 외국인도 토착민도 마찬가지였다. 절반은 게르리짐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다. 이는 주님의 종 모세가 처음에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 ³⁴ 그 후 여호수아는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를 포함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읽었다.
- ³⁵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곧 여자와들 어린아이들과 그들 가운데 있는 외국인 앞에서 읽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기 9장

- 1 요단 강 저편의 산지와 평지, 그리고 레바논 앞쪽 큰 바다 해안에 사는 모든 왕,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한 일을 들었을 때
- 2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다.
- 3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한 일을 듣고,
- 4 속임수를 써서 사절처럼 위장하고, 나귀에 낡은 가죽 주머니를 신고, 낡고 찢어져서 꿰매어진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 5 발에는 낡고 수선한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었다. 그들이 지니고 온 모든 빵은 마르고 곰팡이가 핀 상태였다.
- 6 그들은 길가에 있는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십시오."
- 7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족속에게 말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한다면, 어떻게 너희와 언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 8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 9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우리 종들은 주님 당신의 하느님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유명한 일들, 즉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 10 요단 강 저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아스다롯에 거주한 그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 11 우리 장로들과 우리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식량을 손에 쥐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 12 이 빵은 우리가 당신을 만나려고 떠나던 날 우리 집에서 따뜻한 상태로 가져온 식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마르고 곰팡이가 핀 상태입니다.
- 13 이 포도주 부대는 우리가 채웠을 때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찢어졌습니다. 이 옷과 신은 아주 긴 여정 때문에 낡아졌습니다."
- 14 사람들은 그들의 식량을 맛보았고, 주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
- 15 여호수아는 그들과 평화를 맺고, 그들이 살아남도록 하는 언약을 맺었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다.
- 16 그들과 언약을 맺은 지 사흘 후,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웃이며 그들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 17 이스라엘 자손은 떠나서 사흘 만에 그들의 도시에 도착했다. 그 도시들은 기브온과 케피라와 베에로스와 기리아트 여아림이었다.
- 18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을 향해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이다. 모든 공동체가 지도자들에게 불만을 품었다.
- 19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공동체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을 향해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 20 우리는 이처럼 그들에게 행하고 그들을 살려두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진노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 21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을 살려두어라."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들이 말한 대로, 모든 공동체를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길는 자가 되었다.
- 22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말했다. "왜 너희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여, '우리는 당신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라고 했느냐? 너희는 우리 가운데 거주하고 있지 않느냐?"
- 23 그러므로 너희는 저주를 받았다. 너희 중 일부는 결코 끊어지지 않고, 내 하느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길는 노예가 될 것이다."
- 24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 종들은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하고 당신들에게 모든 땅을 주라고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우리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매우 두려워서 이 일을 하였습니다."

²⁵ 이제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좋고 옳다고 여기는 대로 우리에게 하십시오.

²⁶ 그는 그들에게 그대로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내어, 그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²⁷ 그 날 여호수아가 그들을 회중과 주님의 제단을 위한 나무 벌목꾼과 물 길는 자로 삼아, 오늘날까지 그가 택할 곳에 두었다.

여호수아기 10장

- 1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정복하고 완전히 파괴했음을 들었는데, 그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도 한 것을 알고,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평을 맺고 그들 가운데 있음을 알았다.
- 2 그들은 기브온이 큰 도시이며 왕실 도시 중 하나이고, 아이보다 더 크며 그 모든 남자들이 용감함을 알고 매우 두려워하였다.
- 3 그러므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 아르무트 왕 피람, 라기스 왕 야피아, 에글론 왕 데비르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 4 "나에게 올라와 나를 도우라. 기브온을 치자.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평을 맺었기 때문이다."
- 5 이에 아모리 족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아르무트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모여 올라가 그들과 모든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에 진을 치고 그 도시와 싸우기 시작하였다.
- 6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당신의 종들을 버리지 마소서. 빨리 우리에게 올라와 구원해 주소서. 도우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향해 모였습니다."
- 7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올라가 그와 함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용감한 자들까지 모두 데리고 갔다.
- 8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겼다. 그들 중 아무도 네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 9 여호수아는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달려갔다. 그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진군하였다.
- 10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셨다. 주님께서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벳호론의 오르막 길을 따라 쫓아가 아제카와 마게다까지 치셨다.
- 11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며 벳호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그들에게 내리셨고, 그들은 죽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 12 그날 주님께서 아모리 족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기실 때, 여호수아가 주님께 말하였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아이알론 골짜기에서 멈추어라!"
- 13 태양은 멈추고 달은 그대로 머물렀다. 백성이 원수들에게 보복을 마칠 때까지. 이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던가? 태양은 하늘의 한가운데 머물며 하루 종일 빨리 지지 않았다.
- 14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은 없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 15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 16 그 다섯 왕은 도망쳐 마게다의 동굴에 숨었다.
- 17 여호수아에게 보고되었다. "다섯 왕이 마게다의 동굴에서 발견되어 숨어 있습니다."
- 18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큰 돌을 굴려 동굴 입구를 막고 그 곁에 사람을 세워 그들을 지키라."
- 19 "그러나 거기 머무르지 마라. 너희 원수를 쫓아 뒤에서 공격하여 그들이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셨다."
- 20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쳐서 거의 다 죽이고, 남은 자들이 요새 도시로 들어가기까지 마쳤을 때,
- 21 모든 백성이 마게다에 있는 여호수아의 진영으로 평안히 돌아왔다. 이스라엘 자손 중 누구도 한 사람을 향해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 22 그때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동굴 입구를 열고 그 다섯 왕을 동굴에서 내게 데려오라."
- 23 그들이 그렇게 하여 다섯 왕을 동굴에서 데려왔는데,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아르무트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었다.
- 24 그들이 그 왕들을 여호수아 앞으로 데려왔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와 함께 나아간 군대의 장관들에게 말하였다.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에 밧을 올려라."
- 25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용감하고 강하게 행동하여라. 주님께서 너희가 싸우는 모든 적들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 26 그 후 여호수아가 그들을 치고 죽이고 다섯 그루의 나무에 매달았다. 그들은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 27 해가 지는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서 그들이 숨었던 동굴에 던지고, 동굴 입구에 큰 돌들을 쌓아 올렸다. 그 돌들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 28 여호수아는 그날 마게다를 취하고 그 도시와 그 도시의 왕을 칼날로 쳐서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없앴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했다. 여호수아는 마게다의 왕에게 예리코의 왕에게 한 것처럼 하였다.
- 29 여호수아는 마게다에서 떠나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리브나로 가서 리브나와 싸웠다.
- 30 주님도 그 도시와 그 도시의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는 칼날로 그 도시를 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죽였다. 그 안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했다. 여호수아는 그 도시의 왕에게 예리코의 왕에게 한 것처럼 하였다.
- 31 여호수아는 리브나에서 떠나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라기스로 가서 그 도시를 둘러싸고 싸웠다.
- 32 주님은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는 이틀째 날에 그 도시를 취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서, 리브나에 한 것처럼 하였다.
- 33 그때 게제르의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돕기 위해 올라왔으나,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그에게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다.
- 34 여호수아는 라기스에서 떠나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예글론으로 가서 그 도시를 둘러싸고 싸웠다.
- 35 그들은 그날 그 도시를 취하고 칼날로 쳐서, 라기스에 한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 36 여호수아는 예글론에서 올라가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헤브론으로 가서 그 도시와 싸웠다.
- 37 그들은 그 도시를 취하고 칼날로 쳐서 그 도시의 왕과 그 도시의 모든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죽였다. 그는 예글론에 한 것처럼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고, 그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 38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데비르로 돌아가서 그 도시와 싸웠다.
- 39 그는 그 도시와 그 도시의 왕과 그 도시의 모든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다. 여호수아는 헤브론과 그 왕에게 한 것처럼 데비르와 그 왕에게도 하였고, 리브나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였다.
- 40 이처럼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들을 쳤다. 그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고,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숨 쉬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 41 여호수아는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고센 땅 전체를 거쳐 기브온까지 쳤다.
- 42 여호수아는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취하였다.
- 43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다.

여호수아기 11장

- ¹ 하초르의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의 왕 요압과 시몬과 아크사프의 왕들에게 사자를 보냈다.
- ² 또 서쪽의 도르 고지와, 남쪽의 키네롯 바다 아래 아라바, 그리고 북쪽의 산지와 평지에 있는 왕들에게 보냈다.
- ³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히타이트 사람, 페리시 사람, 산지의 여부스 사람, 그리고 민사바 땅의 헤르몬 아래에 있는 히위 사람들을 포함하였다.
- ⁴ 그들은 모두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와,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백성과, 매우 많은 말과 병거를 지니고 나왔다.
- ⁵ 이 모든 왕들이 모여, 메롬 물가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였다.
- ⁶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때에 내가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 앞에서 죽여 줄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발목을 끊고, 병거를 불로 태워라."
- ⁷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든 용사들과 함께 갑작스럽게 메롬 물가로 나아가 그들을 공격하였다.
- ⁸ 주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치고, 큰 시돈과 미스레봇 마임, 그리고 민사바 동쪽 골짜기까지 쫓아갔다. 그들은 그들을 모두 쳐서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만들었다.
- ⁹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였다. 그는 그들의 말을 발목을 끊고, 병거를 불로 태웠다.
- ¹⁰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가 하초르를 취하고, 그 도시의 왕을 칼로 쳐 죽였다. 하초르는 그 모든 왕국들의 머리였기 때문이다.
- ¹¹ 그들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서 완전히 멸망시켰다. 숨을 쉬는 자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는 하초르를 불로 태웠다.
- ¹² 여호수아는 그 모든 왕들의 도시들과 그 왕들을 모두 잡아 칼날로 쳐서 완전히 멸망시켰다. 이는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다.
- ¹³ 그러나 흙무더기 위에 세워진 도시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오직 하초르만 여호수아가 불태웠다.
- ¹⁴ 이스라엘 자손은 이 도시들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과 가축을 자기들의 전리품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멸망시켰으며, 숨을 쉬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 ¹⁵ 주님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였다.
- ¹⁶ 이처럼 여호수아는 산지와 남부와 고센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모두 정복하였다.
- ¹⁷ 하랄 산, 곧 세일로 이어지는 곳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왕들을 잡아 쳐서 죽였다.
- ¹⁸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들과 오랫동안 전쟁을 벌였다.
- ¹⁹ 이스라엘 자손과 평화를 맺은 도시는 기브온에 사는 히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전쟁으로 정복하였다.
- ²⁰ 이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서게 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신 것이었으며,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었다.
- ²¹ 그때 여호수아는 유다 산지와 이스라엘 산지 전체에서, 헤브론과 데비르와 아나브와 모든 산지에서 아낙 자손을 쳐서 끊어버렸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그들의 도시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 ²² 이스라엘 땅에는 아낙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다만 가사와 갓과 아스돗에는 일부가 남아 있었다.
- ²³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의 분깃대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 땅은 전쟁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여호수아기 12장

- ¹ 이제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강 너머 동쪽,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그리고 모든 아라바 동쪽 지역에서 치고 차지한 왕들이다.
- ² 헤스본에 거주하며,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중앙, 그리고 갈아드의 절반을 다스린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이다. 그의 경계는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보크 강까지 이르렀다.
- ³ 동쪽으로는 키네롯 바다까지, 아라바 바다, 곧 소금 바다까지, 벤에시못으로 가는 길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피스가 산 기슭 아래까지였다.
- ⁴ 레파임의 잔여자들 중 바산 왕 옵의 경계는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며,
- ⁵ 헤르몬 산과 살카, 그리고 모든 바산을 다스렸다. 그의 경계는 게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 이르렀고, 갈아드의 절반은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였다.
- ⁶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주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으로 주었다.
- ⁷ 이제 이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강 너머 서쪽에서 친 왕들이다.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하랄 산까지이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들의 분배대로 주었다.
- ⁸ 이 땅은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지에 있었으며, 히타이트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였다.
- ⁹ 여리고의 왕, 하나;
- ¹⁰ 예루살렘의 왕, 하나;
- ¹¹ 야르무트의 왕, 하나;
- ¹² 에글론의 왕, 하나;
- ¹³ 데비르의 왕, 하나;
- ¹⁴ 호르마의 왕, 하나;
- ¹⁵ 리브나의 왕, 하나;
- ¹⁶ 마게다의 왕, 하나;
- ¹⁷ 타푸아의 왕, 하나;
- ¹⁸ 아펙의 왕, 하나;
- ¹⁹ 마돈의 왕, 하나;
- ²⁰ 시몬 메론의 왕, 하나;
- ²¹ 타나아의 왕, 하나;
- ²² 게데스의 왕, 하나;
- ²³ 도르의 높은 곳에 있는 도르의 왕, 하나;
- ²⁴ 티르사의 왕, 하나.

여호수아기 13장

- 1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고 늙었으며, 여전히 점령하지 못할 땅이 매우 많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 2 "남아 있는 땅은 이와 같다. 모든 블레셋 지역과 모든 게술 사람들의 땅;
- 3 이집트 앞 시홀 강에서부터 에그론 경계까지 북쪽으로, 이곳은 가나안 사람으로 간주된다. 블레셋의 다섯 족장, 가자 사람, 아스돗 사람, 아스겔론 사람, 길리트 사람, 에그론 사람, 그리고 아브임도 포함된다.
- 4 남쪽에는 모든 가나안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메아라, 아펙까지, 아모리 사람의 경계까지이다.
- 5 게발 사람의 땅과 레바논 전체, 동쪽으로 바알가드에서 헤르몬 산 아래까지, 하맛의 입구까지이다.
- 6 레바논에서 미스레봇 마임까지의 모든 산지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들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어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하라.
- 7 이제 그러므로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어라.
- 8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도 그들에게 모세가 요단 동쪽에 주었던 기업을 받았다. 이는 주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었다.
- 9 아로엘, 곧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와 골짜기 중앙에 있는 성과, 메데바 전체 평지에서 디본까지이다.
- 10 아모리 족장 시혼이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모든 성과,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이다.
- 11 길르앗과 게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 그리고 헤르몬 산 전체와 바산의 살레카까지이다.
- 12 바산의 옥 왕국 전체, 그가 아스다룟과 에드레에서 다스렸다. 이는 러파임의 생존자 중 남은 자였다. 모세가 이들을 치고 쫓아냈다.
- 13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게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게술과 마아가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한다.
- 14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불로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이다.
- 15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를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다.
- 16 그들의 경계는 아로엘, 곧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와 골짜기 중앙에 있는 성과, 메데바 전체 평지이다.
- 17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 디본, 바모트바알, 뵤바알메온,
- 18 야하스, 케데못, 메파앗,
- 19 기리아임, 시봄, 골짜기 산의 세레트사하르,
- 20 뵤페오르, 피스가 기슭, 뵤에시모트,
- 21 평지의 모든 성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장 시혼의 왕국 전체. 모세가 미디안의 족장들, 에비, 레켄, 츠르, 후르, 레바를 치고 시혼을 쳤다. 이들은 땅에 거주하던 시혼의 족장들이었다.
- 22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점쟁이 바라암, 베오르의 아들을 칼로 죽였으니, 그들은 전투에서 죽은 자들 중 하나였다.
- 23 르우벤 자손의 경계는 요단 강변이었다. 이는 르우벤 자손의 가족대로 주어진 기업, 곧 성과 그 마을들이다.
- 24 모세가 갓 자손의 지파, 곧 갓 자손을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다.
- 25 그들의 경계는 야자르와 길르앗의 모든 도시, 그리고 아몬 자손들의 땅의 절반으로, 라바 가까이 있는 아로엘까지였다.
- 26 헤스본에서부터 민페의 람앗과 베토님에 이르고, 마하나임에서부터 데비르의 경계까지였다.
- 27 평야에는 뵤하람, 뵤님브라, 숙곳, 자폰이 있었으며, 이는 헤스본 왕 시혼의 왕국의 나머지 부분이었고, 요르단 강변을 따라 요르단 동편으로 키네레트 바다의 끝까지 이르렀다.
- 28 이것은 가드 자손들이 그들의 족속에 따라 받은 유산, 곧 그 도시들과 그 마을들이다.
- 29 모세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을 주었다. 그것은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가 그들의 족속에 따라 받은 유산이었다.
- 30 그들의 경계는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 전체, 바산 왕 옴의 왕국 전체, 그리고 바산에 있는 아이르의 모든 마을, 곧 육십 도시까지였다.

- ³¹ 길르앗의 절반과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는, 바산에서 옴의 왕국의 도시들이었으며, 므나세의 아들 마기르의 자손, 곧 마기르 자손의 반 지파가 그들의 족속에 따라 받았다.
- ³² 이것은 모세가 모압 평지, 여리고 건너편, 동편에서 나누어 준 유산들이다.
- ³³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유산을 주지 않았다.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그들의 유산이 되셨으니,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였다.

여호수아기 14장

- ¹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으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제비로 나누어 주었다.
- ² 이 유산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제비로 나누어졌으며, 아홉 지파와 반 지파를 위한 것이었다.
- ³ 모세는 요르단 강 저편에 있는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유산을 주었으나, 레위 지파에는 그들 가운데 유산을 주지 않았다.
- ⁴ 요셉의 자손은 두 지파,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으므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일부를 주지 않았다. 다만 그들이 거주할 도시들과 그 도시 주변의 목초지, 즉 그들의 가축과 소유를 위한 곳만 주었다.
- ⁵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행동하여 땅을 나누었다.
- ⁶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갔다. 켄이즈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카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관해 모세, 하느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신 일을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 ⁷ 주님의 종 모세가 카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게 했을 때, 나는 사십 세였다. 나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 ⁸ 그러나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였으나, 나는 주님 내 하느님을 온전히 따랐다.
- ⁹ 모세가 그날 맹세하며 말했다. "너는 주님 내 하느님을 온전히 따랐으니, 네가 걸어 다닌 땅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이 될 것이다."
- ¹⁰ 지금 보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날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보한 이 사십오 년 동안, 나를 살아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팔십오 세입니다.
- ¹¹ 오늘도 내가 모세가 나를 보낸 그날과 같이 힘이 세습니다. 그때와 같이 지금도 내가 전쟁을 위해 나가고 들어올 힘이 있습니다.
- ¹²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이 산지, 곧 그때 당신이 들었듯이 아낙 자손과 크고 견고한 성들이 있는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 ¹³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고, 갈렙의 아들 여분네에게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다.
- ¹⁴ 그러므로 헤브론은 오늘날까지 켄이즈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었는데,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 ¹⁵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아트 아르바였는데, 이는 아낙 자손 중 가장 큰 자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그 땅은 전쟁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여호수아기 15장

- ¹ 유다 자손의 족속들에 따라 그들의 제비는 에돔 경계까지, 남쪽 끝의 시인 광야에 이르렀다.
- ² 그들의 남쪽 경계는 소금 바다의 끝에서 남쪽을 향한 만에서 시작하였다.
- ³ 그 경계는 아크라빔 고개를 남쪽으로 향해 나아가 시인으로 이어지고, 카데스 바네아의 남쪽을 따라 올라가 에스론을 지나 아달로 올라가 카르카를 향해 돌았다.
- ⁴ 그 경계는 아즈몬으로 이어져 이집트 시내에 이르렀고, 경계는 바다에서 끝났다.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이다.
- ⁵ 동쪽 경계는 소금 바다로, 요르단 강 끝까지이다. 북쪽 지경은 요르단 강 끝에서 바다의 만에서 시작하였다.
- ⁶ 경계는 벵호글라로 올라가 벵아라바의 북쪽을 따라 이어지고, 르우벤의 아들 보한의 돌까지 올라갔다.
- ⁷ 경계는 아코르 골짜기에서 데비르로 올라가 길갈을 향해 북쪽으로 이어졌고, 강 남쪽에 있는 아두민 고개를 마주 보았다. 경계는 에네셈메스 물가로 이어져 에네로겔에서 끝났다.
- ⁸ 경계는 힌놈의 아들 골짜기를 따라 예부스인의 땅, 곧 예루살렘의 남쪽으로 올라가, 힌놈 골짜기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이어졌고, 그 산은 레파임 골짜기 북쪽 끝에 있다.
- ⁹ 경계는 산 꼭대기에서 네프토아의 샘물로 이어져 에브론 산의 마을들로 나아가 바라라, 곧 기랴야아림으로 이어졌다.
- ¹⁰ 경계는 바라라에서 서쪽으로 돌아 세일 산으로 이어지고, 북쪽에 있는 기랴 산, 곧 케살론의 측면을 따라 이어져 벵세메스로 내려가 티마나를 지나갔다.
- ¹¹ 경계는 에그론의 북쪽 측면으로 나아가 시커론으로 이어져 바라라 산을 따라 야브넬로 이어졌고, 경계의 끝은 바다였다.
- ¹² 서쪽 경계는 큰 바다의 해안이다. 이것이 유다 자손의 족속들에 따른 그들의 경계이다.
- ¹³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예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 가운데서 기랴아르바, 곧 아난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헤브론을 땅으로 주었다.
- ¹⁴ 갈렙은 아난의 세 아들, 세새와 아히만과 탈마이를 쫓아내었다.
- ¹⁵ 그는 데비르에 거주하는 자들을 치러 올라갔다. 데비르의 옛 이름은 기랴세페르였다.
- ¹⁶ 갈렙이 말했다. "기랴세페르를 공격하여 빼앗는 자에게는 내 딸 아스사를 아내로 주겠다."
- ¹⁷ 갈렙의 형제인 케나스의 아들 오스니엘이 그것을 빼앗았고, 갈렙은 그에게 자신의 딸 아스사를 아내로 주었다.
- ¹⁸ 그녀가 도착하자, 그녀는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발을 달라고 청하게 했다. 그녀는 나귀에서 내려서 갈렙이 말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 ¹⁹ 그녀가 말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남쪽 땅에 살게 하셨으니, 물샘도 저에게 주십시오."
- ²⁰ 이것은 유다 자손의 족속들에 따른 그들의 유산이다.
- ²¹ 유다 자손의 족속들이 에돔 경계를 향해 남쪽 끝에 이르는 성들은 카브젤, 에데르, 야구르였다.
- ²² 키나, 디모나, 아다다,
- ²³ 게데스, 하소르, 이스난,
- ²⁴ 지프, 테레멘, 베알롯,
- ²⁵ 하소르 하다타, 케리오트 헤스론(또는 하소르라 불림),
- ²⁶ 아만, 세마, 모라다,
- ²⁷ 하자르 가다, 헤스몬, 벵페레트,
- ²⁸ 하살 수알, 베엘세바, 비오시아,
- ²⁹ 바라와, 이임, 에젬,
- ³⁰ 엘톨랏, 게시르, 호르마,
- ³¹ 지클라그, 마드마나, 산사나,
- ³² 레바오토, 실림, 아이, 그리고 리몬. 이 도시들은 모두 스물아홉 개이며, 그 마을들과 함께 있다.
- ³³ 평야에는 에스타울, 조라, 아스나,
- ³⁴ 자노아, 엔가님, 타꾸아, 엔암,

- 35 야르무트, 아둘람, 소고, 아제카,
 36 샤라임, 아디타임, 게데라(또는 게데로타임); 열네 도시와 그 마을들.
 37 제난, 하다사, 미글라드 갓,
 38 딜레안, 미스바, 요크텔,
 39 라기스, 보스카스, 에골론,
 40 카뵘, 라흐맘, 키틀리스,
 41 게데롯, 벳다곤, 나아마, 마케다; 열여섯 도시와 그 마을들.
 42 리브나, 에테르, 아산,
 43 이프타, 아스나, 네지브,
 44 케일라, 아크지브, 마레사; 아홉 도시와 그 마을들.
 45 에그론과 그 도시들과 그 마을들;
 46 에그론에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아스돗 옆에 있는 모든 도시들과 그 마을들.
 47 아스돗과 그 도시들과 그 마을들; 가사와 그 도시들과 그 마을들; 이집트 시내와 큰 바다와 그 해안까지.
 48 산지에는 샤미르, 야티르, 소고,
 49 다나, 기리앗사나(이는 데비르이다),
 50 아난, 에스렘오, 아님,
 51 고센, 호론, 길로; 이 도시들과 그 마을들을 합쳐 열한 도시이다.
 52 아라브, 두마, 에산,
 53 야님, 벤탠포아, 아페카,
 54 훔타, 기리앗아르바(이는 헤브론이라 불린다), 시오르; 이 도시들과 그 마을들을 합쳐 아홉 도시이다.
 55 마온, 카르멜, 지프, 유타,
 56 예스레엘, 요크드암, 자노아,
 57 카인, 기브아, 티마나; 이 도시들과 그 마을들을 합쳐 열 도시이다.
 58 할홀, 벵수르, 고돌,
 59 마라트, 벤아노트, 엘테곤; 이 도시들과 그 마을들을 합쳐 여섯 도시이다.
 60 기리앗바알(이는 기리앗야림이라 불린다), 라바; 이 도시들과 그 마을들을 합쳐 두 도시이다.
 61 광야에서, 벵아라바, 미딘, 세카카,
 62 니브산, 소금의 도시, 엔게디; 이 도시들과 그 마을들을 합쳐 여섯 도시이다.
 63 예부스 족속, 곧 예루살렘 주민은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오늘날까지 예부스 족속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한다.

여호수아기 16장

- ¹ 요셉 자손의 제비는 요르단 강에서 여리고부터 나왔는데, 여리고의 물가 동쪽, 광야를 지나 여리고에서 산지로 올라가 벤엘에 이르렀다.
- ² 그 경계는 벤엘에서 루스로 이어지고, 아르키 사람들의 경계를 따라 아트로스에 이르렀다.
- ³ 그리고 서쪽으로 내려가 야플레티 사람들의 경계를 지나 아래 벤오론의 경계를 거쳐 게셀에 이르며, 바다에서 끝났다.
- ⁴ 요셉의 자손, 마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
- ⁵ 에브라임 자손의 가족별 경계는 이러하였다. 그들의 기업의 동쪽 경계는 아트로스 아다르에서 위 벤오론까지였다.
- ⁶ 경계는 북쪽의 미케마타에서 서쪽으로 나아갔다. 그 경계는 동쪽으로 휘어져 타아나트 실로에 이르고, 요나아의 동쪽을 따라 흘렀다.
- ⁷ 그 경계는 요나아에서 아트로스,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에 이르고, 요단강으로 나아갔다.
- ⁸ 타푸아에서 경계는 카나 강을 따라 서쪽으로 흘러 바다에 이르렀다.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족속들에 따른 그들의 유산이다.
- ⁹ 마나세 자손의 유산 가운데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 구별된 도시들과 그 도시들의 마을들을 포함하였다.
- ¹⁰ 그들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땅에 거주하며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다.

여호수아기 17장

- 1 마나세 지파의 제비는 이러하였다. 그는 요셉의 맏아들이다. 마나세의 맏아들 마키르는 길르앗의 아버지였고, 전사였으므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다.
- 2 이처럼 마나세의 나머지 자손들이 그들의 가족에 따라 제비를 받았다. 아비에셀의 자손, 헬렉의 자손, 아스리엘의 자손, 세겜의 자손, 헤페르의 자손, 세미다의 자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마나세의 남자 자손들이었고, 그들의 가족에 따라 분배되었다.
- 3 그러나 헤페르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키르의 증손, 마나세의 현손인 세로브함은 아들 없이 딸들만 있었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마할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 4 그들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우리 형제들 사이에 기업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형제들 사이에 기업을 주었다.
- 5 마나세에게는 요단 강 너머의 길르앗과 바산 땅을 포함하여 열 부분이 주어졌다.
- 6 마나세의 딸들이 그의 아들들 사이에 기업을 받았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마나세의 나머지 아들들에게 속하였다.
- 7 마나세의 경계는 아셀에서 세겜 앞의 미크마타스까지 이르렀다. 그 경계는 오른쪽으로 향하여 엔 타푸아의 주민들까지 이어졌다.
- 8 타푸아 땅은 마나세에게 속하였으나, 마나세 경계에 있는 타푸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다.
- 9 경계는 카나 강물가로 내려갔고, 그 강의 남쪽이었다. 이 도시들은 마나세의 도시들 가운데 에브라임에게 속하였다. 마나세의 경계는 강의 북쪽에 있었고, 바다까지 이르렀다.
- 10 남쪽은 에브라임의 것이었고, 북쪽은 마나세의 것이었으며, 바다가 그 경계였다. 그들은 북쪽으로 아셀과 동쪽으로 잇사갈에 이르렀다.
- 11 마나세는 잇사갈 지파 안에 세 개의 언덕과, 아셀 지파 안에 벵세안과 그 소속 마을들, 이블람과 그 소속 마을들, 도르와 그 소속 마을들, 엔도르와 그 소속 마을들, 타아나크와 그 소속 마을들, 메기도와 그 소속 마을들을 가졌다.
- 12 그러나 마나세 자손은 그 도시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머물렀다.
- 13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지자,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부려 사용하였고,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
- 14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백성인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단지 하나의 제비와 한 부분만 기업으로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 15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많은 백성이라면, 산림으로 올라가서, 페리즈 사람과 레파임 사람의 땅에서 너희를 위한 땅을 정리하여라. 에브라임 산지가 너희에게는 너무 좁다."
- 16 요셉의 자손들이 말하였다. "산지가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지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철제 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벵세안과 그 소속 마을들에 있는 자들과, 예스레엘 평지에 있는 자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 17 여호수아가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마나세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많은 백성이고 큰 힘을 지녔다. 너희는 단지 하나의 제비만 받지 않을 것이다.
- 18 산지는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비록 숲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베어내고 그 끝까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철제 병거를 가진 강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것이다."

여호수아기 18장

-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만남의 장막을 세웠다. 땅은 그들 앞에서 정복되었다.
- 2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일곱 지파가 아직 자기 유산을 나누지 못했다.
- 3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너희가 주님,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을 이리 오래 미루려 하는가?"
- 4 너희 각 지파에서 세 명씩 사람을 뽑아라. 내가 그들을 보내어 땅을 돌아다니며 그 유산에 따라 그 지형을 기록하게 하니, 그 후에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 5 그들은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눌 것이다. 유다는 남쪽 경계 안에서 살고, 요셉의 집은 북쪽 경계 안에서 살 것이다.
- 6 너희는 땅을 일곱 부분으로 측량하여 그 기록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위해 여기서 주님 우리 하느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 7 그러나 레위인들은 너희 가운데서 유산을 받지 못한다. 그들의 유산은 주님의 사제직이다. 갓과 르우벤과 반 지파의 므나세는 요르단 강 동쪽에서 모세, 주님의 종이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다.
- 8 사람들이 일어나 떠났다. 여호수아는 땅을 측량하러 가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가서 땅을 돌아다니며 측량하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겠다."
- 9 사람들이 떠나 땅을 돌아다니며 도시별로 일곱 부분으로 기록하여 책에 적었다. 그들은 실로에 있는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왔다.
- 10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았다. 거기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다.
- 11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의 제비가 그들의 가족대로 뽑혔다. 그들의 제비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에 있었다.
- 12 그들의 북쪽 경계는 요르단 강에서 시작하여 예리코의 북쪽 끝까지 올라가서 서쪽 산지로 향하였다. 그 경계는 벳아웬 광야에서 끝났다.
- 13 그 경계는 거기서 루스, 곧 루스(또는 벤엘)의 측면을 따라 남쪽으로 지나갔다. 그 경계는 벳오론 아래 산 아래에 있는 아다르 아타롯까지 내려갔다.
- 14 그 경계는 벳오론 아래 산 앞의 산을 따라 서쪽으로 뻗어 남쪽으로 휘어져서, 키리아트 바알(또는 키리아트 예아림)에 이르렀다. 이 도시는 유다 자손의 도시였다. 이것이 서쪽 경계였다.
- 15 남쪽 경계는 키리아트 예아림의 가장 먼 부분에서 시작하였다. 그 경계는 서쪽으로 향하여 네프토아의 샘물에 이르렀다.
- 16 그 경계는 힌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의 끝으로 내려가서, 레파임 골짜기 북쪽으로 흘러갔다. 그 경계는 힌놈 골짜기로 내려가서, 예부스 사람의 측면을 따라 남쪽으로 흘러가서 에녹 로젤에 이르렀다.
- 17 그 경계는 북쪽으로 뻗어 에넴 세메스로 나아가서 게릴롯에 이르렀다. 이곳은 아두민의 오르막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 경계는 르우벤의 아들 보한의 돌까지 내려갔다.
- 18 그 경계는 아라바의 측면을 따라 북쪽으로 지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
- 19 그 경계는 벳호글라의 측면을 따라 북쪽으로 지나가서, 소금 바다의 북쪽 끝, 요르단 강의 남쪽 끝에서 끝났다. 이것이 남쪽 경계였다.
- 20 요르단 강이 그들의 동쪽 경계였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의 유산이었으며, 그들의 가족대로 둘러싼 경계를 따라 주어진 것이었다.
- 21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도시들은 예리코, 벳호글라, 에메크케지즈였으며,
- 22 벳아라바, 세마라임, 벤엘,
- 23 아비움, 파라, 오브라,
- 24 케바르 아모니, 오브니, 게바였다. 이 도시 열두 곳과 그 마을들이었다.
- 25 기브온, 라마, 베로트,
- 26 미스페, 케피라, 모자,

²⁷ 레켄, 이르필, 타라라

²⁸ 젤라, 엘레프, 예부스인(즉, 예루살렘), 기브아, 그리고 기리아트; 열네 도시와 그 마을들이다.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에 따라 받은 유산이다.

여호수아기 19장

- 1 두 번째 제비는 시므온 지파, 곧 시므온 자손의 족속들에 따라 뽑혔다. 그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의 유산 가운데 있었다.
- 2 그들의 유산으로는 베엘세바(또는 세바)와 모라다를 받았다.
- 3 하살 수알, 바라, 에젼,
- 4 엘톨랏, 베틀, 호르마,
- 5 지글라그, 베타르카보트, 하자르수사,
- 6 베타르보트, 그리고 샤루헴; 열세 도시와 그 마을들;
- 7 아인, 리몬, 에테르, 그리고 아산; 네 도시와 그에 속한 마을들;
- 8 이 도시들 주변의 모든 마을을 포함하여 바알라트베엘, 남쪽의 라마까지이다. 이는 시므온 자손의 족속들에 따른 그들의 유산이다.
- 9 시므온 자손의 유산은 유다 자손의 영역에서 나온 것이었다. 유다 자손의 몫이 그들에게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유산 가운데서 유산을 얻었다.
- 10 세 번째 제비는 세불론 자손의 족속들에 따라 뽑혔다. 그들의 유산 경계는 사리드까지 이르렀다.
- 11 그 경계는 서쪽으로 올라가 마랄라에 이르고, 다베세스에 이르렀다. 그 경계는 요크니암 앞의 시내에 이르렀다.
- 12 그 경계는 사리드에서 동쪽으로, 해가 뜨는 쪽으로 향하여 키슬롯 타보르의 경계에 이르렀다. 그 경계는 다베라트에 이르러 야피아로 올라갔다.
- 13 거기서 동쪽으로 가서 갓 헤헤르와 에스카진을 지나 림몬에 이르며, 나아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
- 14 경계는 북쪽으로 돌아 하나톤에 이르고, 이프타엘 골짜기에서 끝난다.
- 15 카타드, 나할랄, 시몬, 이달라, 베들레헴; 열두 도시와 그 마을들.
- 16 이것은 세불론 자손이 그 족속대로 받은 유산, 곧 이 도시들과 그 마을들이다.
- 17 네 번째 제비는 잇사갈 지파, 곧 잇사갈 자손의 족속들을 위하여 뽑혔다.
- 18 그들의 경계는 예스레엘, 케슬롯, 손넴을 지나며,
- 19 하파라임, 시온, 아나라드를 지나,
- 20 라비드, 키키온, 에베스를 지나,
- 21 레멧, 앵가님, 엔 하다드, 베드 파제즈에 이른다.
- 22 경계는 타보르, 샤하주마, 베드 세메스에 이르며, 요르단 강에서 끝난다. 열여섯 도시와 그 마을들이다.
- 23 이것은 잇사갈 지파가 그 족속대로 받은 유산, 곧 이 도시들과 그 마을들이다.
- 24 다섯 번째 제비는 아셀 지파, 곧 아셀 자손의 족속들을 위하여 뽑혔다.
- 25 그들의 경계는 헬카드, 하리, 베틀, 아크사프,
- 26 아라멜렉, 아마드, 미살이었으며, 이 경계는 서쪽으로 카르멜과 시호르리바나트에 이르렀다.
- 27 이 경계는 동쪽으로 벳다곤을 향해 돌았고, 잇바알의 골짜기 북쪽으로 벳에메크와 느일에 이르렀다. 그 후 왼쪽으로 카불에 이르렀다.
- 28 에브론, 레흠, 하몬, 가나에 이르러 큰 시돈에 이르렀다.
- 29 이 경계는 라마와 시돈의 요새 도시를 향해 돌았고, 호사에 이르렀다. 이 경계는 아크시브 지역에서 바다에 이르러 끝났다.
- 30 우마와 아페크와 레흠도 포함되었다. 이 지역에는 스물두 개의 도시와 그 마을들이 있었다.
- 31 이것은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에 따라 받은 유산, 곧 그 도시들과 그 마을들이었다.
- 32 여섯 번째 제비는 납탈리 자손에게, 곧 납탈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에 따라 받은 것이었다.
- 33 그들의 경계는 헬렙에서, 사안님의 상수리나무에서, 아다미네케브와 야브넬을 지나 라쿰에 이르렀다. 이 경계는 요르단 강에 이르러 끝났다.
- 34 이 경계는 서쪽으로 아스놋 타보르를 향해 돌았고, 거기서 흑곡으로 이어졌다. 이 경계는 남쪽으로 잇바불과 서쪽으로

아셀과 동쪽으로 요르단강을 향해 유다에 이르렀다.

³⁵ 요새 도시들은 지딤, 세르, 하맛, 라캇, 키네레스,

³⁶ 아다마, 라마, 하소르,

³⁷ 케데스, 에드레, 에나 하소르,

³⁸ 이론, 미갈엘, 호렘, 벳아나드, 벳세메스였다. 이 지역에는 열아홉 개의 도시와 그 마을들이 있었다.

³⁹ 이것은 납탈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에 따라 받은 유산, 곧 그 도시들과 그 마을들이었다.

⁴⁰ 일곱 번째 제비는 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에 따라 받은 것이었다.

⁴¹ 그들의 유산의 경계는 소라, 에스다울, 이르세메스,

⁴² 살라빈, 아야론, 이슬라,

⁴³ 엘론, 티마나, 에그론,

⁴⁴ 엘테케, 길브본, 바알랏,

⁴⁵ 예후드, 베네브라크, 가트림몬,

⁴⁶ 메야르콘과 라콘, 그리고 요파를 마주한 경계였다.

⁴⁷ 단 자손의 경계는 그들의 영역을 넘어서 확장되었다. 단 자손은 레셈을 치기 위해 올라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칼날로 쳐서 점령하고 거기서 살며,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 불렀다.

⁴⁸ 이것은 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에 따라 받은 유산, 곧 그 도시들과 그 마을들이었다.

⁴⁹ 그리고 그들은 경계에 따라 땅을 유산으로 나누는 일을 끝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유산을 주었다.

⁵⁰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그가 요청한 도시, 에브라임 산지의 팀낫세라를 그에게 주었고, 그는 그 도시를 건설하여 거기에서 살았다.

⁵¹ 이것들이 에레자르 사제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의 가족 족장들이 실로에서 주님 앞, 회막의 문에서 제비를 뽑아 나누어 준 유산이다. 그들이 땅을 나누는 일을 마쳤다.

여호수아기 20장

¹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²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모세를 통해 네게 지시한 피난 도시들을 지정하여라.

³ 실수나 의도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곳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하여라. 그 도시들은 피를 갚는 자로부터 너희를 위한 피난처가 될 것이다.

⁴ 그는 그 도시 하나로 도망가서 그 도시 문입구에 서서 그 도시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알릴 것이다. 그들은 그를 데려들어 도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주어 그가 그들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⁵ 피를 갚는 자가 그를 추적하더라도, 그는 이전에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고 실수로 친 것이므로, 그 죽인 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⁶ 그는 그 도시에 머물러야 하며, 그 시대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회중 앞에서 재판받을 때까지 머무를 것이다. 그 후에 그 죽인 자는 돌아가서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도망쳤던 도시로 돌아갈 것이다."

⁷ 그들은 납탈리 산지의 갈릴리에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에 스켐, 유다 산지에 기리아스아르바(곧 헤브론)를 따로 지정하였다.

⁸ 요르단 강 건너편 여리고 동쪽으로, 르우벤 지파의 광야 평지에 베셀을, 갈르앗에 라못을, 바산에 골란을 마나세 지파에서 지정하였다.

⁹ 이것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타국인 모두를 위한 지정된 도시들이었다.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곳으로 도망쳐 피를 갚는 자의 손에 죽지 않고, 회중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호수아기 21장

- 1 그러자 레위인들의 가족 수장들이 제사장 엘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장들에게 나아갔다.
- 2 그들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함께 갖춘 도시들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 3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의 유산에서 레위인들에게 도시들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다.
- 4 고핫 자손들의 가족들에게는 제비가 뿔혔다. 레위인 중 아론 제사장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제비로 열세 도시를 받았다.
- 5 고핫의 나머지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반지파의 절반에서 제비로 열 도시를 받았다.
- 6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바산에 있는 반지파의 절반에서 제비로 열세 도시를 받았다.
- 7 머라리 자손들은 그들의 가족에 따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에서 열두 도시를 받았다.
- 8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제비로 레위인들에게 이 도시들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다.
- 9 그들은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에서 다음처럼 이름이 언급된 도시들을 주었다.
- 10 이 도시들은 레위 자손 중 고핫 자손의 가족에 속한 아론 자손들에게 주어졌으며, 그들에게 제비가 먼저 뿔혔다.
- 11 그들은 유다 산지에 있는 아낙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부른 키리아트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다.
- 12 그러나 그 도시의 들과 그 마을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소유로 주어졌다.
- 13 그들은 아론 제사장의 자손들에게 헤브론과 그 주변의 목초지, 살인자를 위한 피난 도시를 주었고, 리브나와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으며,
- 14 야티르와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고, 에스드모아와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으며,
- 15 홀론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고, 데비르와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으며,
- 16 아인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고, 유태와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으며, 벤세메스와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다. 이 두 지파에서 아홉 도시를 주었다.
- 17 베냐민 지파에서 기브온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고, 게바와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으며,
- 18 아나돗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고, 알몬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다. 네 도시이다.
- 19 아론 제사장의 자손들이 받은 모든 도시는 열세 도시와 그 주변의 목초지였다.
- 20 레위인 중 고핫 자손의 가족, 곧 고핫의 나머지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제비로 도시들을 받았다.
- 21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과 그 주변의 목초지, 살인자를 위한 피난 도시를 주었고, 게제르와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으며,
- 22 키브자임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고, 뽀오론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다. 네 도시이다.
- 23 단 지파에서 엘테게와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고, 금베본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으며,
- 24 아이알론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고, 가스 림몬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다. 네 도시이다.
- 25 마나세 반 지파에서 타아나크와 그 목초지, 그리고 갓 리몬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이는 두 도시이다.
- 26 고핫의 나머지 자손 가족들이 받은 모든 도시는 열 도시와 그 목초지였다.
- 27 그들은 레위 자손인 게르손 자손에게 마나세 반 지파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목초지, 즉 살인자의 피난도시를 주었고, 베 에스테라와 그 목초지도 주었으니, 이는 두 도시이다.
- 28 이사갈 지파에서 기시온과 그 목초지, 다베라트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며,
- 29 아르무트와 그 목초지, 엔가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이는 네 도시이다.
- 30 아셀 지파에서 미살과 그 목초지, 아본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며,
- 31 헬카트와 그 목초지, 레흠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이는 네 도시이다.
- 32 납탈리 지파에서 갈릴리의 케데스와 그 목초지, 즉 살인자의 피난도시, 하못도르와 그 목초지, 그리고 카르탄과 그 목초

지를 주었으니, 이는 세 도시이다.

³³ 게르손 자손의 가족별로 받은 모든 도시는 열세 도시와 그 목초지였다.

³⁴ 레위 자손 중 메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는 스불론 지파에서 요크니암과 그 목초지, 카르타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며,

³⁵ 디마나와 그 목초지, 나할랄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이는 네 도시이다.

³⁶ 르우벤 지파에서 베셀과 그 목초지, 야하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며,

³⁷ 케데못과 그 목초지, 메파아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이는 네 도시이다.

³⁸ 갓 지파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목초지, 즉 살인자의 피난도시,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며,

³⁹ 헤스본과 그 목초지, 야자르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모두 네 도시이다.

⁴⁰ 이 모든 도시는 메라리 자손의 가족별로 받은 도시, 곧 레위 자손의 나머지 가족들의 도시였다. 그들의 분깃은 열두 도시였다.

⁴¹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지 안에 있는 레위 자손의 모든 도시는 마흔여덟 도시와 그 목초지였다.

⁴² 이 모든 도시는 그 주변에 목초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모든 도시가 다 그러하였다.

⁴³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들은 그것을 차지하고 그곳에 거주하였다.

⁴⁴ 주님은 그들에게 주변에서 평안을 주셨으니,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들의 모든 원수 중 누구도 그들을 대적하지 못하였다. 주님은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⁴⁵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하신 좋은 모든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 모두 이루어졌다.

여호수아기 22장

- 1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반 지파의 므낫세 자손을 불러서,
- 2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주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켰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들었다.
- 3 오늘까지도 너희는 형제들을 이처럼 오래 떠나지 않고, 너희 하느님 주님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 4 이제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분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이다. 그러므로 이제 돌아가서, 너희가 소유하는 땅으로, 곧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땅으로 가라.
- 5 그러나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율법을 꼼꼼히 지켜라. 너희 하느님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걷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께 붙들려 있고, 너희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겨라."
- 6 이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 7 모세는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바산에 땅을 주었고, 여호수아는 다른 반 지파에게 요단 서편, 형제들 사이에 땅을 주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자기 장막으로 보내며 복을 내리고,
- 8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풍부한 재산을 가지고 장막으로 돌아가라. 가축도 매우 많고, 은과 금과 놋과 철과 매우 많은 옷을 가지고 돌아가라. 너희가 얻은 전리품을 형제들과 나누어라."
- 9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 지파는 시로에서, 가나안 땅에서 떠나, 자기들이 소유한 땅인 길르앗 땅으로 돌아갔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였다.
- 10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 가까운 지역에 이르렀을 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 지파는 요단 가에 큰 제단을 쌓아, 보기에 뚜렷하게 만들었다.
- 11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말했다. "보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 지파가 가나안 땅 경계에, 요단 근처, 이스라엘 자손들의 쪽에 제단을 쌓았다."
- 12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 온 회중은 시로에 모여 그들을 치러 올라갔다.
- 13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 지파가 있는 길르앗 땅으로 보냈다.
- 14 그와 함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족장 열 명이 함께 갔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천 명 단위에서 각 족장의 수장들이었다.
- 15 그들은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말했다.
- 16 "주님의 온 회중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 하느님께 무슨 죄를 지어, 오늘날 주님을 따르지 않고, 너희 자신을 위해 제단을 쌓아, 오늘날 주님을 거역하는가?"
- 17 베울의 죄악이 우리에게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가? 그 죄로 인해 주님의 회중에게 재앙이 내렸던 것을 아직도 깨끗이 하지 못했으니,
- 18 너희가 오늘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너희가 오늘날 주님을 거역한다면, 내일 주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분노하실 것이다."
- 19 그러나 너희가 소유하는 땅이 부정하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장막이 있는 주님의 소유 땅으로 넘어와서, 우리 가운데서 소유를 얻어라. 그러나 너희 하느님 주님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아, 주님을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지 말라."
- 20 아칸이 짐승의 바치는 물건을 훔쳐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분노가 내리지 않았던가? 그 사람은 자기 죄로만 멸망하지 않았다."
- 21 그러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 지파가 대답하여 이스라엘의 천 명 단위의 수장들에게 말했다.
- 22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 아신다. 이스라엘도 알 것이다. 우리가 만약 주님을 거역하거나 죄를 지어, 주님을 떠나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면,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지 마라."
- 23 우리가 주님을 떠나기 위해 제단을 쌓았거나,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고, 또는 화평제를 드리려고 쌓았다면, 주님께서 직접 그 죄를 물으시기를 바란다."

- ²⁴ "우리가 이 일을 걱정과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였다. "미래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느님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 ²⁵ 주님께서 우리와 당신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로 삼으셨습니다. 당신들은 주님과 관련된 몫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 자손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 ²⁶ 그러므로 우리는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 제단을 쌓으려 합니다. 번제나 희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 ²⁷ 그러나 이 제단은 우리와 당신 사이, 그리고 우리 후손과 당신 후손 사이에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와 희생 제물과 화평 제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서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로써 당신의 자손들이 장차 우리 자손에게 '당신들은 주님에게 몫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²⁸ 그러므로 우리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때에 그들이 우리나라 우리 자손에게 이것을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는 주님의 제단의 형상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든 이 제단은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입니다."
- ²⁹ 우리는 오늘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떠나, 주님 우리 하느님의 장막 앞에 있는 그의 제단 외에 번제나 곡식 제물이나 희생제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세우려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 ³⁰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의 족장들, 즉 천 명 단위의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이 말한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 ³¹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았다. 너희가 주님께 이 불법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 ³²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족장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있는 길르앗 땅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렀고, 다시 그들에게 말을 전하였다.
- ³³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쁨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느님을 찬미하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을 치러 올라가 전쟁을 벌이거나 파괴하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 ³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그 제단을 "주님이 하느님이심을 증언하는 우리 사이의 증거"라고 이름지었다.

여호수아기 23장

- 1 많은 날이 지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방의 모든 적들로부터 안식하게 하신 후,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고 늙어가고 있었다.
- 2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장로들과 두목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나이가 많고 늙어가고 있다."
- 3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때문에 이 모든 민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 4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요단 강에서부터 해가 지는 쪽의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내가 끊어버린 모든 민족과 함께 너희 지파들의 유산으로 분배하였다.
- 5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희 눈앞에서 몰아낼 것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 6 그러므로 너희는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매우 용감하여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 7 너희는 이 남아 있는 민족들 중 하나라도 섞이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며, 그들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지도 말고, 그들을 섬기지도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아야 한다.
- 8 오직 주 너희 하느님을 붙들여라. 너희가 오늘까지 그랬던 것처럼.
- 9 주님께서 너희 앞에서 크고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셨다. 그러나 너희는 오늘까지 너희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 10 너희 중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을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이다.
- 11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를 잘 주의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 12 그러나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 남은 자들과 결합하고, 그들과 혼인하며, 그들에게로 들어가고,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간다면,
- 13 너희는 분명히 알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더 이상 이 민족들을 너희 눈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너희에게 올라가와 덮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매가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 14 보아라, 오늘 내가 모든 땅의 길을 가고 있다. 너희는 너희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으로 알라.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좋은 일들 중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모두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하나도 빠짐이 없었다.
- 15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좋은 일이 너희에게 이르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모든 악한 일을 가져오실 것이다. 그가 너희를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시킬 때까지.
- 16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게 되면, 주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불타오를 것이며, 너희는 곧장 그가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여호수아기 24장

- 1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겔으로 불러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두목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들였다. 그들이 하느님 앞에 나아왔다.
- 2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옛날에 강 저편,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땅에서 살았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
- 3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데려왔고, 가나안 땅 전체를 거닐게 하였으며, 그의 자손을 많이 늘려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 4 내가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물려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이집트로 내려갔다.
- 5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되,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대로 하였고, 그 후에 너희를 데려냈다.
- 6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데려냈다. 너희가 바다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인들이 병거와 기마병을 이끌고 너희 조상을 붙잡으려 홍해까지 쫓아왔다.
- 7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내가 너희와 이집트인 사이에 어둠을 두었고, 바다를 그들에게 덮쳐 그들을 가렸다. 너희 눈은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을 보았다. 너희는 광야에서 많은 날을 살았다.
- 8 내가 너희를 요단 저편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데려왔다. 그들이 너희와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망시켰다.
- 9 그 후에 모압 왕 시포르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였다. 그는 베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너희를 저주하게 보냈다.
- 10 그러나 나는 발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다. 내가 그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 11 너희가 요단을 건너 예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리고의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과 페리즈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타이트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너희와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 12 내가 너희 앞에 말벌을 보내어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까지도 쫓아냈다.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라.
- 13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지은 도시들을 주었고, 너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나무 열매를 먹고 있다.
- 14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두려워하고 진실과 진정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주님을 섬기라.
- 15 너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면, 오늘날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 강 저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인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인지.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다.
- 16 백성이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 17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노예의 집에서 데려내어 우리 눈앞에서 큰 표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느님 주님입니다.
- 18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땅에 살던 모든 민족, 곧 아모리 사람까지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 19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주님을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느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느님이시다. 너희의 불순종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 20 너희가 주님을 버리고 외국의 신들을 섬기면, 그분은 돌이켜 너희에게 해를 끼치고,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선을 베풀었음에도 말이다.
- 21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 22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가 스스로 주님을 택하여 그분을 섬기기로 한 것을 너희가 증인으로 삼으라."
- 23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외국의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로 기울이라."

- ²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 하느님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 ²⁵ 그날 여호수아가 백성과 언약을 맺고, 시킴에서 그들을 위한 법령과 규정을 세웠다.
- ²⁶ 여호수아는 이 말들을 하느님의 율법 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참나무 아래에 세웠다.
- ²⁷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보아라, 이 돌이 우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돌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될 것이니, 너희가 너희 하느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²⁸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각자의 유산으로 보냈다.
- ²⁹ 이 일들 후에,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열하나 살을 마치고 죽었다.
- ³⁰ 그들은 그를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의 북쪽에 있는 티브네스세라의 유산 경계에 장사했다.
- ³¹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과 여호수아를 이어 살아남은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주님을 섬겼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
- ³²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온 요셉의 뼈를, 야곱이 시킴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에게서 은 백 세겔에 산 땅에, 시킴에 장사했다. 이 땅은 요셉의 자손의 유산이 되었다.
- ³³ 아론의 아들 엘아살이 죽었다. 그들은 그를 에브라임 산지에 주어진 그의 아들 비느하스의 산에 장사했다.

판관기 | Judges

판관기 1장

- 1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물어 말했다. "우리가 먼저 카나안 사람과 싸우러 올라갈 자는 누구입니까?"
- 2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겼다."
- 3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내 분깃으로 올라와서 카나안 사람과 싸우자. 나도 또한 네 분깃으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래서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갔다.
- 4 유다가 올라가자, 주님께서 카나안 사람과 베리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들이 베섹에서 만 명을 쳤다.
- 5 그들이 베섹에서 아도니베섹을 만나 싸웠다. 그들이 카나안 사람과 베리즈 사람을 쳤다.
- 6 그러나 아도니베섹이 도망쳤다. 그들이 그를 쫓아가서 잡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큰발가락을 잘랐다.
- 7 아도니베섹이 말했다. "내가 치고 다녔던 칠십 명의 왕들이, 내 식탁 밑에서 엄지손가락과 큰발가락이 잘린 채 떠돌았다. 내가 한 대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다."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그가 거기서 죽었다.
- 8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싸워 그것을 빼앗고, 칼날로 쳤으며, 그 도시에 불을 질렀다.
- 9 그 후에 유다 자손이 산지와 남부와 평지에 거주하는 카나안 사람과 싸우러 내려갔다.
- 10 유다가 헤브론에 거주하는 카나안 사람과 싸웠다. (그 전에 헤브론의 이름은 기리아트아르바였다.) 그들이 세새와 아히만과 탈마이를 쳤다.
- 11 그가 거기서 데비르에 거주하는 자들과 싸웠다. (그 전에 데비르의 이름은 기리아트세페르였다.)
- 12 갈렙이 말했다. "기리아트세페르를 쳐서 빼앗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아스가를 아내로 주겠다."
- 13 갈렙의 어린 형제인 게나스의 아들 오스니엘이 그것을 빼앗았으므로, 갈렙이 그에게 자기 딸 아스가를 아내로 주었다.
- 14 그녀가 도착하자, 그녀는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발을 달라고 청하게 했다. 그녀가 나귀에서 내려서, 갈렙이 그녀에게 말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 15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내게 축복을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남부 땅에 안치셨으니, 물샘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갈렙이 그녀에게 위쪽 물샘과 아래쪽 물샘을 주었다.
- 16 모세의 장인인 겐인의 자손들이, 종려나무 도시에서 유다 자손과 함께 유다 광야로 올라갔다. 그 광야는 아라드 남쪽에 있다. 그들은 가서 그 백성과 함께 살았다.
- 17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세파드에 거주하는 카나안 사람을 쳐서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 도시의 이름을 호르마라 불렀다.
- 18 유다가 가자와 그 경계, 아스겔론과 그 경계, 에그론과 그 경계를 빼앗았다.
- 19 주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는 산지에 거주하는 자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그는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들을 쫓아낼 수 없었는데, 그들이 철수를 가졌기 때문이다.
- 20 그들은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는데, 이는 모세가 말한 대로였다. 그가 거기서 아난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 21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고, 여부스 사람은 오늘날까지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한다.
- 22 요셉의 집안도 베엘과 싸우러 올라갔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 23 요셉의 집안이 베엘을 정찰하러 보냈다. (그 전에 그 도시의 이름은 루스였다.)
- 24 정찰꾼들이 한 남자가 도시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도시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에게 친절히 대하겠습니다."
- 25 그가 그들에게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를 보여 주었고, 그들은 칼날로 도시를 치고 그 남자와 그의 온 가족을 풀어 주었다.
- 26 그 남자는 히타이트 땅으로 가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이름을 루스라 불렀다.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그대로이다.
- 27 마나세는 벵세안과 그 소속 마을, 타아나크와 그 소속 마을, 도르와 그 소속 마을, 이블람과 그 소속 마을, 메기도와 그

소속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머물렀다.

²⁸ 이스라엘이 강성해지자,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노동에 동원했지만,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

²⁹ 에브라임은 게셀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게셀에 머물렀다.

³⁰ 스불론은 킷론과 나할울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머물며 노동에 동원되었다.

³¹ 아셀은 아코와 시돈과 아할라와 아크시브와 헬바와 아픽과 레흠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³² 아셀 사람들은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 가운데 머물렀다. 그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³³ 납탈리는 벤세메스와 벤아난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는 가나안 사람, 곧 땅의 주민 가운데 머물렀다. 그러나 벤 세메스와 벤아난의 주민들은 노동에 동원되었다.

³⁴ 아모리 사람들은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고, 그들이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

³⁵ 아모리 사람들은 헤레스 산과 아이야론과 살빔에 머물렀다. 그러나 요셉 가문의 힘이 강하여 그들은 노동에 동원되었다.

³⁶ 아모리 사람들의 경계는 아크라빔 고개, 바위에서부터 위로 이어졌다.

판관기 2장

- 1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보킴으로 올라왔다. 그가 말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겠다고 한 땅으로 데려왔다. 나는 말했다.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겠다.'"
- 2 너희는 이 땅에 사는 자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려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너희가 왜 이 일을 했느냐?
- 3 그러므로 나는 말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너희 옆에 머물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라가미가 될 것이다.'
- 4 주님의 천사가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하니, 백성이 큰 소리로 울었다.
- 5 그들은 그 장소의 이름을 보킴이라 부르고, 거기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 6 여호수아가 백성을 해산한 후,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기업을 차지하러 가서 땅을 소유하였다.
- 7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살아남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을 목격한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 백성은 주님을 섬겼다.
- 8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세에 죽었다.
- 9 그들은 그를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의 북쪽에 있는 팀나 헤레스의 경계에 있는 자기 기업 땅에 장사하였다.
- 10 그 모든 세대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후, 그 뒤에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 11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다.
- 12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끌어내신 조상들의 하느님, 주님을 버리고, 그들 사방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 다른 신들을 따랐으며, 그들에게 절하며, 주님을 격노하게 하였다.
- 13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 14 주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불타올랐고, 그분은 그들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분은 그들을 사방의 원수들의 손에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은 원수들 앞에 설 수 없게 되었다.
- 15 그들이 어디로 나가든지 주님의 손이 그들에게 해를 끼쳤으니,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였다. 그들은 매우 고통받았다.
- 16 주님은 사사들을 일으키셨고, 그 사사들이 그들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 17 그러나 그들은 그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음행하며 절하였다. 그들은 조상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던 길에서 빠르게 벗어나,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
- 18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일으키실 때, 주님은 그 사사와 함께 하셔서, 사사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을 사방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는 그들이 압제하고 괴롭히는 자들 때문에 신음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 19 그러나 사사가 죽은 후, 그들은 돌아가서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절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그치지 않았고, 고집스러운 길을 버리지 않았다.
- 20 주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불타올랐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 민족이 내가 그 조상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기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 21 내가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모든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 22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조상들이 따랐던 주님의 길을 그들이 지키며 걷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 23 그러므로 주님은 그 민족들을 빠르게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셨다. 그분은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판관기 3장

- 1 이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남겨두신 나라도 이들이다. 이들은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이다.
- 2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이 전쟁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특히 이전에 전쟁을 전혀 알지 못했던 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 3 필리스티아의 다섯 족장과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그리고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맛의 입구까지이다.
- 4 주님께서는 이들을 남겨두어 이스라엘이 주님의 명령을 듣는지를 시험하시려 하셨다. 이 명령은 모세를 통해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리신 것이었다.
- 5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히타이트 족속, 아모리 족속, 페리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과 함께 살았다.
- 6 그들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시집보내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 7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고, 그들의 하느님 주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 8 그러므로 주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쏟아졌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왕 쿠산 리사타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쿠산 리사타임을 팔 년 동안 섬겼다.
- 9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그는 칼렙의 아우 케나스의 아들 오드니엘이었다.
- 10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였다. 그는 전쟁에 나아가,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쿠산 리사타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의 손이 쿠산 리사타임을 이겼다.
- 11 그 땅은 사십 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 그 후 오드니엘, 케나스의 아들이 죽었다.
- 12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강하게 하셨다. 이는 그들이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 13 그는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치고, 종려나무 도시를 점령하였다.
- 14 이스라엘 자손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 15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위한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 에훗이었고, 왼손잡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통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
- 16 에훗은 양날이 있는 칼을 스스로 만들었는데, 길이가 한 큐빗이었다. 그는 그것을 오른쪽 허벅지에 옷 속에 차고 다녔다.
- 17 그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 에글론은 매우 뚱뚱한 사람이었다.
- 18 에훗이 공물을 바친 후, 공물을 나르는 사람들을 보냈다.
- 19 그러나 그는 길갈 옆에 있는 돌상들을 뒤로 하고 돌아서서 말했다. "왕님, 저에게 비밀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 20 에훗이 그에게 나아갔을 때, 그는 시원한 뒷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말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 21 에훗은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꺼내 그의 몸에 찔러넣었다.
- 22 칼자루도 칼날 뒤로 들어갔고, 살이 칼날을 감싸며, 그가 칼을 몸에서 빼지 않았기 때문에, 칼이 뒤로 나왔다.
- 23 그 후 에훗은 베란다로 나가 뒷방의 문을 닫고 잠그었다.
- 24 그가 떠난 후, 그의 하인들이 뒷방의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분명히 그가 뒷방에서 발을 가리고 있을 것이다."
- 25 그들은 부끄러워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보라, 그가 위층 방의 문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열쇠를 가져와 문을 열었더니, 그들의 주인이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었다.
- 26 에후드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도망쳐 돌상들을 지나 세이라로 도주하였다.
- 27 그가 도착하자,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지에서 그와 함께 내려와 그를 따랐다.
- 28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너희의 원수인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그를 따랐고,

모압 사람들을 향해 요단강의 건너기 쉬운 곳을 점령하여 아무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²⁹ 그때 그들은 약 만 명의 모압 남자를 쳤다. 모든 용사와 용감한 자들이었다.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³⁰ 그날 모압은 이스라엘의 손 아래 복종하였다. 그 뒤로 그 땅은 팔십 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

³¹ 그 후 사마르가 아나트의 아들로 나타나, 소를 물던 채찍으로 블레셋 사람 육백 명을 쳤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판관기 4장

- ¹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 ² 주님은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주셨다. 야빈은 하소르에서 통치하였고,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고니스에 거주하는 시사라였다.
- ³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으니, 이는 시사라가 철로 된 병거 아흔백 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스무 해 동안 심하게 억압하였기 때문이다.
- ⁴ 그때 디보라라는 여자 예언자가 라피도트의 아내로서 이스라엘을 판단하였다.
- ⁵ 그녀는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와 벵엘 사이에 있는 디보라의 야자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녀에게 판단을 구하러 올라갔다.
- ⁶ 그녀가 보내어 납탈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암의 아들 바라크를 불러서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님이 너에게 명령하셨다. 타보르 산으로 올라가서, 납탈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에서 만 명을 데리고 가라."
- ⁷ 내가 시사라, 야빈의 군대 장관과 그의 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으로 끌어낼 것이며,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 ⁸ 바라크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갈 것이지만, 네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
- ⁹ 그녀가 말하였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나 네가 가는 이 길은 네 영광이 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시사라를 한 여자의 손에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디보라가 일어나 바라크와 함께 게데스로 갔다.
- ¹⁰ 바라크가 스불론과 납탈리를 불러서 게데스로 모았다. 만 명이 그를 따랐고, 디보라 또한 그와 함께 올라갔다.
- ¹¹ 그때 케인인 헤벨이 케인인들, 곧 모세의 장인 호باط의 자손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게데스 가까이 사안님의 상수리나무까지 장막을 치고 거주하였다.
- ¹² 그들은 시사라에게 바라크, 아비노암의 아들이 타보르 산으로 올라갔음을 알렸다.
- ¹³ 시사라는 자기 모든 병거, 곧 철로 된 병거 아흔백 대와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를 하로셋 고니스에서 기손 강으로 모았다.
- ¹⁴ 디보라가 바라크에게 말하였다. "일어나라. 오늘은 주님이 시사라를 네 손에 넘겨주는 날이다. 주님이 네 앞에서 나가지 아니하셨느냐?" 바라크는 타보르 산에서 내려왔고, 만 명의 군대가 그를 따랐다.
- ¹⁵ 주님은 바라크 앞에서 시사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모든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뜨리셨다. 시사라는 자기 병거를 버리고 발로 도망쳤다.
- ¹⁶ 바라크는 병거와 군대를 따라 하로셋 고니스까지 쫓아갔다. 시사라의 모든 군대가 칼날에 쓰러졌고, 한 명도 남지 않았다.
- ¹⁷ 그러나 시사라는 발로 도망하여 케인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달려갔다. 이는 하소르 왕 야빈과 케인인 헤벨의 집 사이에 평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 ¹⁸ 야엘이 나가서 시사라를 맞이하여 말하였다. "주님, 제게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그녀의 장막으로 들어가자, 그녀가 양탄자로 그를 덮었다.
- ¹⁹ 그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금 물을 주십시오. 목이 말라서요."
- ²⁰ 그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장막 문에 서서, 어떤 사람이 와서 네게 묻고, '여기에 남자가 있느냐?' 하면, 네가 '아니오'라고 말하라."
- ²¹ 그러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져다가 손에 망치를 들고 조용히 그에게 가서 그의 사원에 말뚝을 박았고, 말뚝이 땅속까지 관통하였다.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기절하여 죽었다.
- ²² 바라크가 시사라를 쫓아올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이하며 말하였다. "오십시오. 내가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녀에게로 가니, 시사라가 죽어 누워 있었고, 장막 말뚝이 그의 사원에 박혀 있었다.
- ²³ 그러므로 주님은 그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 ²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점점 더 강력해져서, 가나안 왕 야빈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그를 공격하였다.

판관기 5장

- 1 그때 디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라크가 그날 노래하여 말하였다.
- 2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 3 “들으라, 왕들이여!
- 4 “주님, 당신이 세일에서 나올 때,
- 5 산들이 주님의 앞에서 떨렸다.
- 6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시대에,
- 7 이스라엘에서 통치자들이 멈추었다.
- 8 그들은 새로운 신들을 택했다.
- 9 내 마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로 향한다.
- 10 “흰 나귀를 탄 자들아, 말하라.
- 11 활 쏘는 자들의 소란에서 멀리 떨어진 물을 길는 곳에서, ‘그때 주님의 백성이 문으로 내려갔다.’
- 12 ‘일어나라, 일어나라, 디보라!
- 13 “그때 귀족들의 잔여와 백성이 내려왔다.
- 14 아말렉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자들이 에브라임에서 나왔고,
- 15 이사살의 지도자들이 디보라와 함께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큰 결심으로 가득했다.
- 16 어찌하여 너희는 양우리 사이에 앉아 있었느냐?
- 17 길르앗은 요단 너머에 살았고, 아셀은 바다의 항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 18 스불론은 목숨을 내놓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위험을 감수한 백성이었다.
- 19 “왕들이 와서 싸웠고,
- 20 하늘에서 별들이 싸웠다.
- 21 키손 강이 그들을 쓸어갔고,
- 22 그때 말의 발굽이 뛰는 소리로 땅을 밟았다.
- 23 ‘메로스를 저주하라,’ 주님의 천사가 말했다. ‘그 주민들을 심히 저주하라.
- 24 “야엘은 여자들 위에 복을 받을 것이다.
- 25 그가 물을 청했다.
- 26 그녀는 장막 말뚝에 손을 대어 그의 머리를 관통했고, 그의 측두부를 꿰뚫고 치었다.
- 27 그는 그녀의 발 앞에서 굽혀 쓰러져 누웠다.
- 28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그녀가 외쳤다. ‘왜 그의 병거가 이렇게 오래 오지 않는가?’
- 29 그녀의 지혜로운 여인들이 그녀에게 대답했다. 예, 그녀는 스스로에게 답을 되돌렸다.
- 30 ‘그들이 전리품을 찾지 못했는가? 나누지 않았는가?’
- 31 “주님, 이와 같이 당신의 모든 원수들이 망하소서.

판관기 6장

- 1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일곱 년 동안 그랬다.
- 2 미디안 사람의 손이 이스라엘을 압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 때문에 산속의 굴과 동굴과 요새에 은신하였다.
- 3 이스라엘이 씨를 뿌릴 때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자손들이 그들에게 쳐들어왔다.
- 4 그들은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땅의 수확물을 파괴하였으며, 가자에 이르기까지 그랬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아무런 양식도 남기지 않았고, 양도, 소도,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
- 5 그들은 가축과 천막을 끌고 와서, 메뚜기처럼 수가 많았다. 그들과 그들의 낙타는 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며, 땅을 파괴하려 들어왔다.
- 6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 때문에 매우 비참해졌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 7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 8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셨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에서 너를 올려냈고, 종의 집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 9 내가 이집트인과 너희를 괴롭히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였으며,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 10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 하느님 주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 11 주님의 천사가 오브라에 있는 아비에르 사람 요아스의 참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서 숨기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쳐내고 있었다.
- 12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용감한 용사여!"
- 13 기드온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 제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하며,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올려내지 아니하셨는가?' 하던 그 모든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 14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네가 가진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 15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아, 주님,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가난하고, 저는 제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 16 주님께서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처럼 칠 것이다."
- 17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만약 제가 지금 당신의 눈에 은총을 입었다면, 제가 당신과 대화하고 있다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 주십시오."
- 18 제가 당신에게로 가서 제 예물을 가져와서 당신 앞에 놓을 때까지,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 19 기드온이 들어가서 어린 염소 한 마리와 에바 분량의 가루로 만든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하였다. 그는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을 냄비에 담아, 참나무 아래로 가져와서 그에게 드렸다.
- 20 하느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고기와 누룩 없는 떡을 이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을 부어라."
- 21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손에 쥔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없는 떡을 만졌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일어나 고기와 누룩 없는 떡을 태워버렸다. 그 후 주님의 천사가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 22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임을 알고 말하였다. "아, 주님 하느님! 제가 주님의 천사를 얼굴을 마주 보고 보았으니, 내가 죽게 되었군요!"
- 23 주님께서 그에게 말하였다. "평화가 너와 함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 24 그러자 기드온은 그곳에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주님은 평화이시다'라고 불렀다. 오늘날까지 그 제단은 아비에르 사람의 오브라에 있다.

- 25 그 같은 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의 황소, 곧 일곱 살 된 두 번째 황소를 끌고 와서, 네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베어라."
- 26 그리고 이 요새 꼭대기에 네 하느님 주님을 위한 제단을 차근차근 쌓고, 두 번째 황소를 가져다가, 네가 베어낸 아세라 목상의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 27 그리디온은 그의 하인 열 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가족과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두려워서 낮에는 할 수 없었으므로, 밤에 하였다.
- 28 도시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바알의 제단이 헐려 있고, 그 옆의 아세라 목상도 베어져 있었으며, 두 번째 황소가 쌓아 올린 제단 위에서 번제로 드려져 있었다.
- 29 그들은 서로 말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
- 30 그러자 도시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했다. "네 아들을 끌어내어 죽여라.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옆의 아세라 목상을 베었기 때문이다."
- 31 요아스는 그를 반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해 싸우려는가? 아니면 그를 구원하려는가? 그를 위해 싸우는 자는 아침 전에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가 신이라면, 스스로 싸우게 하라. 누군가가 그의 제단을 헐었기 때문이다!"
- 32 그러므로 그 날부터 그를 여루바알이라 불렀다. "그가 그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그와 싸우게 하라."
- 33 그리고 모든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자손들이 모여 함께 모였으며, 건너가서 예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 34 그러나 주님의 영이 그리디온에게 임하시고, 그는 나팔을 불었다. 아비에제르 사람들이 모여 그를 따랐다.
- 35 그는 마나세 전 지역에 사자를 보내어, 그들도 모여 그를 따르게 하였다. 그는 아셀과 스불론과 납탈리에 사자를 보내었고, 그들이 나와서 그들과 합류하였다.
- 36 그리디온이 하느님께 말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면,"
- 37 "보십시오. 저는 타작마당에 양털 한 덩어리를 놓겠습니다. 양털에는 이슬만 내리고, 땅은 모두 마르면, 당신이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38 그러므로 그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을 꼬집어 이슬을 짜내었고, 그릇 한 가득 물이 나왔다.
- 39 그리디온이 하느님께 말했다. "당신이 저에게 노하지 마소서. 제가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양털로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땅에는 모두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 40 하느님께서 그 밤에 그렇게 하셨다. 양털만 마르고, 땅에는 모두 이슬이 내렸다.

판관기 7장

- 1 그때 예루바알, 곧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로드 샘 옆에 진을 쳤다. 미디안의 진은 그들 북쪽, 모레 산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 2 주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이스라엘이 너에게 사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할 것이다."
- 3 이제 백성의 귀에 공포하라. "두려워하고 떨리는 자는 돌아가 길르앗 산으로 가라."" 그러자 백성 중 이만 이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다.
- 4 주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여전히 백성이 너무 많다. 그들을 물가로 내려가게 하여 내가 거기서 너를 위해 그들을 시험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 자는 너와 함께 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자만이 너와 함께 가고, 내가 '이 자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다'라고 말하는 자는 가지 못할 것이다."
- 5 그가 백성을 물가로 내려가게 하니, 주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혀로 물을 핥아 마시는 자, 마치 개가 핥듯이, 그를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마찬가지로 세우라."
- 6 손을 입에 대고 핥아 마신 자는 삼백 명이었고, 나머지 모든 백성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 7 주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핥아 마신 삼백 명으로 너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모든 백성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게 하라."
- 8 그러자 백성은 손에 음식과 나팔을 들고,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모든 남자를 각자의 장막으로 보내고 삼백 명만 남겼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 9 그날 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진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 10 그러나 네가 내려가 두려우면, 네 종 푸라와 함께 진으로 내려가라.
- 11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라. 그 후 네 손이 강해져 진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종 푸라와 함께 진의 가장 바깥쪽, 무장한 자들 사이로 내려갔다.
- 12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의 모든 자들이 골짜기에 메뚜기처럼 널려 있었고, 그들의 낙타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 13 기드온이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자기 동료에게 꿈을 말하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보라,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보리 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닿아 그것을 치니, 그것이 쓰러져 뒤집히고 말았다."
- 14 그의 동료가 대답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느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 15 기드온이 꿈과 그 해석을 듣고 경배했다. 그 후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가 말했다. "일어나라. 주님이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 16 그는 삼백 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모두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어 주었다.
- 17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와 같이 하라. 보라, 내가 진의 바깥쪽에 도달할 때,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하라."
- 18 내가 나팔을 불면, 나와 나와 함께한 자들이 모두 나팔을 불고, 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외쳐라. "주님과 기드온을 위하여!"
- 19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 명은 중간 경비가 새로 시작될 무렵, 진의 바깥쪽에 도착했다. 그들이 나팔을 불고 손에 든 항아리를 부수었다.
- 20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며, 왼손에는 횃불을,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며 외쳤다. "주님과 기드온의 칼!"
- 21 그들은 진 주위에 각자 제자리에 서서, 온 군대가 도망쳤다. 그들이 외치며 그들을 쫓아냈다.
- 22 삼백 명이 나팔을 불었고, 주님께서 각자의 칼을 자기 동료와 온 군대에게 향하게 하셨다. 군대는 벳시타까지, 세라까지, 아벨 메홀라와 타밧 경계까지 도망쳤다.

²³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탈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 모두 모여 미디안을 쫓았다.

²⁴ 기드온이 에브라임 산지 전역에 사자를 보내어 말했다. "내려와 미디안을 치고, 그들 앞의 물을 벳바라까지, 요단강까지 잡아라." 그래서 에브라임의 모든 남자가 모여 벳바라까지, 요단강까지 물을 잡았다.

²⁵ 그들은 미디안의 두 왕자, 오렘과 즈엡을 잡았다. 그들은 오렘을 오렘의 바위에서 죽이고, 즈엡을 즈엡의 포도주 틀에서 죽였으며, 미디안을 추격하던 중 그들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요단 건너편으로 가져갔다.

판관기 8장

- 1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셨습니까?" 그들은 그를 격하게 책망했다.
- 2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지금 당신들에 비해 무엇을 하였습니까? 에브라임의 포도 따기보다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이 더 낫지 않습니까?"
- 3 하느님께서 너희 손에 미디안의 수령 오렙과 즈엡을 넘겨주셨다. 내가 당신들에 비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이 말을 하자 그들의 분노가 그를 향해 가라앉았다.
- 4 기드온이 요르단에 이르러 건너갔다. 그와 함께한 삼백 명의 사람들도 지쳐 있었지만, 뒤를 쫓았다.
- 5 그가 수코트 사람들에게 말했다. "제가 뒤를 쫓는 이 사람들에게 빵을 좀 주십시오. 그들은 지쳐 있고, 저는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고 있습니다."
- 6 수코트의 수령들이 말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당신 손에 잡혀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당신 군대에 빵을 줄 수 있겠습니까?"
- 7 기드온이 말했다. "주님이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사막의 가시와 가시덤불로 당신들의 살을 찢겠다."
- 8 그는 페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같은 말을 했다. 페누엘 사람들도 수코트 사람들처럼 그에게 대답했다.
- 9 그가 페누엘 사람들에게도 말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탑을 허물겠다."
- 10 세바와 살문나는 카르코르에 있었고, 그들과 함께한 군대도 있었는데, 모두 약 만 오천 명이었다. 이는 동방의 아들들이 남긴 군대의 전부였다. 왜냐하면 칼을 든 자가 십이만 명이나 쓰러졌기 때문이다.
- 11 기드온은 노바와 요게바의 동쪽에 거주하는 자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서 군대를 치니, 그 군대는 안심하고 있었다.
- 12 세바와 살문나는 도망쳤고, 그는 뒤를 쫓았다. 그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다.
- 13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의 고개에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다.
- 14 그는 수코트 사람 중 한 젊은이를 붙잡아 물어보았다. 그는 그에게 수코트의 수령들과 장로들, 일흔일곱 명을 설명해 주었다.
- 15 그는 수코트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비웃음을 당했던 세바와 살문나가 여기 있다. 너희가 말하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당신 손에 잡혀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피곤한 당신의 사람에게 빵을 줄 수 있겠습니까?'"
- 16 그는 그 도시의 장로들을 잡아 사막의 가시와 가시덤불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수코트 사람들을 벌했다.
- 17 그는 페누엘의 탑을 허물고 그 도시의 사람들을 죽였다.
- 18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했다. "너희가 타보르에서 죽인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 19 그가 말했다. "그들은 내 형제들, 내 어머니의 아들들입니다. 주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희가 그들을 살아 있게 했다면, 나는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 20 그가 맏아들 이세르에게 말했다. "일어나서 그들을 죽여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칼을 뽑지 않았다. 그는 젊었기 때문에 두려워서였다.
- 21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다. "네가 일어나서 우리를 쓰러뜨려라. 사람의 힘만큼 그의 힘이 있다."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매달린 초승달 장신구를 빼앗았다.
- 22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다. "우리를 다스려라. 너와 네 아들, 그리고 네 손자까지도. 너는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 23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주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 24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희 각자가 전리품에서 귀고리를 하나씩 내게 주는 것이다." (그들은 이스마엘 사람이라서 금 귀고리를 가지고 있었다.)
- 25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옷을 펼치고, 각자 노략한 것에서 귀고리를 던져 넣었다.

- ²⁶ 그가 요구한 금 귀고리의 무게는 일천칠백 세겔의 금이었고, 거기에 더하여 미디안 왕들이 입고 있던 반달 모양의 장신구와 매달린 장신구, 자주색 옷, 그리고 그들의 낙타 목에 걸린 사슬들이 더해졌다.
- ²⁷ 기드온은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자기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다. 그 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였고, 그것은 기드온과 그의 집에게 올라가미가 되었다.
- ²⁸ 이처럼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였고,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동안 땅은 사십 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
- ²⁹ 요아스의 아들 여루바알은 자기 집으로 가서 살았다.
- ³⁰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몸에서 난 아들 일흔 명을 두었다.
- ³¹ 그의 첩이 시켄에 있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고, 그는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지었다.
- ³²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장수하여 죽었고, 그는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 아비에셀 족속의 오브라에 장사되었다.
- ³³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바알들을 따르며 음행하였고, 바알 베리트를 자기들의 하느님으로 삼았다.
- ³⁴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의 모든 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자기들의 하느님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 ³⁵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모든 은혜를 따라, 여루바알, 곧 기드온의 집에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판관기 9장

- 1 아비멜렉은 여룹바알의 아들로, 세켄으로 가서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과 어머니의 아버지 집안의 모든 가족과 말하였다.
- 2 "세켄의 모든 남자들에게 말하여라. "여룹바알의 아들들, 칠십 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은가? 또한 나는 너희의 뼈와 살이다."
- 3 어머니의 형제들이 세켄의 모든 남자들에게 아비멜렉에 관해 이 모든 말을 전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아비멜렉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다." 하였다.
- 4 그들은 바알 베리트의 집에서 은 일흔 닢을 주어 아비멜렉이 허튼짓을 좋아하고 무모한 자들을 고용하게 하니, 그들은 그를 따랐다.
- 5 그는 오브라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아버지 여룹바알의 아들들, 곧 칠십 명을 한 돌 위에서 죽였으나, 여룹바알의 막내아들 요담은 숨어 있어서 살아남았다.
- 6 세켄의 모든 사람들이 밀로의 모든 집안과 함께 모여서 세켄에 있는 기둥 나무 아래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 7 요담이 이 소식을 듣고 게리짐 산 꼭대기로 올라가 목소리를 높여 외쳐 말하였다. "세켄의 모든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래야 하느님도 너희를 들으실 것이다."
- 8 나무들이 자기들 위에 왕을 세우려고 나섰다. 그들이 올리브나무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다스려라."
- 9 "그러나 올리브나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기름을 끊어, 그것으로 하느님과 사람을 존경받게 하는 일을 그만두고, 나무들 위에서 흔들거릴 것인가?"
- 10 "나무들이 무화과나무에게 말하였다. "오라, 우리를 다스려라."
- 11 "그러나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달콤함과 좋은 열매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서 흔들거릴 것인가?"
- 12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하였다. "오라, 우리를 다스려라."
- 13 "그러나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버리어, 그것으로 하느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그만두고, 나무들 위에서 흔들거릴 것인가?"
- 14 "그러자 모든 나무들이 가시덤불에게 말하였다. "오라, 우리를 다스려라."
- 15 "가시덤불이 나무들에게 말하였다. "진실로 너희가 나를 너희 위에 왕으로 기름 부었다면, 와서 내 그늘 아래 피하라. 그렇지 않다면, 가시덤불에서 불이 나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삼켜라."
- 16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여룹바알과 그의 집에 대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을 했는가? 너희가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했는가?"
- 17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싸우고, 목숨을 걸고,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 18 그러나 너희는 오늘날 내 아버지의 집을 거스르고, 그의 아들들, 칠십 명을 한 돌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세켄 사람들 위에 왕으로 세웠다. 그는 너희 형제이기 때문이다."
- 19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날 여룹바알과 그의 집에 대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을 했다면, 아비멜렉을 기뻐하고, 그도 너희를 기뻐하라.
- 20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서 세켄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삼키고, 세켄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서 아비멜렉을 삼켜라."
- 21 요담은 도망쳐 피하여 브엘로 가서 거기서 살았다. 그는 형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였다.
- 22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위에 삼 년 동안 통치하였다.
- 23 그러나 하느님께서 아비멜렉과 세켄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세켄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다.
- 24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들 칠십 명에게 행해진 폭력이 보복을 받고, 그 피가 그들을 죽인 형 아비멜렉과, 그의 형제들을 죽이도록 그를 돕던 세켄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 25 세켄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그를 위해 매복을 설치하고, 그 길을 지나는 모든 이들을 약탈하였다. 아비멜렉은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

- 26 에벳의 아들 가알이 형제들과 함께 와서 세겜으로 들어갔다. 세겜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였다.
- 27 그들은 밭으로 나가 포도원을 수확하고 포도를 밟으며 축제를 벌이고, 그들의 신의 집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 28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했다. "아비멜렉이 누구이며, 세겜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느냐? 그는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세불은 그의 관리가 아니냐?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을 섬기라.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느냐?"
- 29 내가 이 백성을 내 손에 두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겠다." 그는 아비멜렉에게 말했다. "군대를 더 늘려서 나가라!"
- 30 성의 통치자 세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다.
- 31 그는 아비멜렉에게 사자를 조심스럽게 보내어 말했다.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왔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성을 선동하여 당신을 대적하게 하고 있습니다."
- 32 그러므로 밤에 당신과 함께하는 백성과 함께 올라가 밭에 매복하십시오.
- 33 아침이 되어 해가 떠오르면 일찍 일어나 성을 공격하십시오. 보십시오, 그와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당신을 향해 나올 때,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들에게 행하십시오.
- 34 아비멜렉은 밤에 일어나,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과 함께 세겜을 향해 매복하였다. 그들은 네 부대로 나뉘었다.
- 35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 성문 입구에 서 있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하는 백성은 매복에서 일어났다.
- 36 가알이 백성을 보고 세불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산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 37 가알이 다시 말했다. "보십시오, 땅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고, 한 부대가 메오니님의 상수리나무 길로 오고 있습니다."
- 38 그러자 세불이 그에게 말했다. "지금 당신의 입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느냐?' 했던 그 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당신이 업신여긴 백성이 아니냐? 지금 나가서 그들과 싸우십시오."
- 39 가알은 세겜 사람들과 함께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 40 아비멜렉은 그를 쫓아 그가 그 앞에서 도망쳤고,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어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다.
- 41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머물렀고, 세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였다.
- 42 다음 날, 백성은 밭으로 나갔다. 그들은 아비멜렉에게 이를 알렸다.
- 43 그는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누어 밭에 매복하게 하고, 바라보니 성에서 사람들이 나왔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향해 일어나 공격하였다.
- 44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하는 부대는 성문 입구로 달려가 성문에 서 있었고, 나머지 두 부대는 밭에 있는 모든 이들을 공격하여 쳤다.
- 45 아비멜렉은 하루 종일 성을 공격하여 성을 빼앗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다. 그는 성을 허물고 소금을 뿌렸다.
- 46 세겜의 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에벨리트의 집의 요새로 들어갔다.
- 47 아비멜렉은 세겜의 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모여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 48 아비멜렉은 자르몬 산으로 올라가,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과 함께 갔다. 아비멜렉은 도끼를 손에 들고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 들어 올려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하는 백성에게 말했다. "내가 한 일을 보았으니, 서둘러 나처럼 하라!"
- 49 모든 사람이 각자 가지를 베어 아비멜렉을 따르며, 그것들을 요새의 바닥에 쌓고 불을 지르니, 세겜 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남녀 약 천 명도 함께 죽었다.
- 50 그 후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가서 데베스를 에워싸고 점령했다.
- 51 그러나 그 도시 안에 튼튼한 탑이 있었고, 도시의 모든 남녀가 그곳으로 도망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탑의 지붕으로 올라갔다.
- 52 아비멜렉이 탑에 이르러 그 탑과 싸우며, 탑의 문에 가까이 다가가 불을 지르려 했다.
- 53 어떤 여자가 위쪽 돌미를 아비멜렉의 머리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수었다.

- ⁵⁴ 그는 곧 자신의 갑옷을 메는 젊은 종을 불러서 말했다.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그래야 사람들이 "한 여자가 나를 죽였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 젊은 종이 그를 찔러 죽였다.
- ⁵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 ⁵⁶ 이처럼 주님은 아비멜렉이 그의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 곧 일흔 명의 형제를 죽인 악행을 갚으셨다.
- ⁵⁷ 주님은 세겜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셨다. 예후암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내렸다.

판관기 10장

- ¹ 아비멜렉 이후에, 도도의 손자이자 푸아의 아들인 이사갈 사람 톨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의 샘르에 살았다.
- ² 그는 이스라엘을 이십삼 년 동안 다스렸고, 죽어 샘르에 매장되었다.
- ³ 그 후에 길르앗 사람 하이르가 일어났다. 그는 이스라엘을 이십이 년 동안 다스렸다.
- ⁴ 그는 삼십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은 삼십 마리의 암나귀 새끼를 탔다. 그들이 소유한 삼십 개의 도시들은 오늘날까지 길르앗 땅에 있는 하보트하이르라 불린다.
- ⁵ 하이르가 죽어 카몬에 매장되었다.
- ⁶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그분을 섬기지 않았다.
- ⁷ 주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쏟아졌고, 그분은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 ⁸ 그들은 그 해에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억압하였다. 열여덟 년 동안 그들은 요르단 강 너머 아모리 땅, 곧 길르앗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였다.
- ⁹ 암몬 자손들이 요르단 강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집과도 싸우므로 이스라엘이 매우 고통받았다.
- ¹⁰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어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하느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 ¹¹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과 아모리인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 ¹² 시돈인과 아말렉인과 마온인도 너희를 억압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을 때,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 ¹³ 그러나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 ¹⁴ 가서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그들이 너희가 고통받을 때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 ¹⁵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하소서. 다만 오늘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 ¹⁶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있는 외국 신들을 버리고 주님을 섬겼다. 그분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불타는 자비로 움직이셨다.
- ¹⁷ 그때 암몬 자손들이 모여 길르앗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 민사바에 진을 쳤다.
- ¹⁸ 길르앗의 백성과 지도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누가 먼저 암몬 자손들과 싸우러 나설 것인가?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리라."

판관기 11장

- 1 길르앗 사람 여압은 용감한 용사였다. 그는 창녀의 아들이었고, 길르앗이 여압의 아버지였다.
- 2 길르앗의 아내는 그에게 아들들을 낳았다.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여압을 쫓아내며 그에게 말했다. "네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네가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 3 그러자 여압은 형제들을 피하여 도브 땅으로 도망가 살았다. 도적들이 여압에게 합류하여 그와 함께 나갔다.
- 4 잠시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다.
- 5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킬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도브 땅에서 여압을 데려오려고 갔다.
- 6 그들이 여압에게 말했다. "오라. 우리 지도자가 되어 암몬 자손과 싸우자."
- 7 여압이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냐? 지금 너희가 곤경에 처했으니 왜 내게로 왔느냐?"
- 8 길르앗의 장로들이 여압에게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다시 너에게로 돌아왔다. 너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고, 우리를 위한 길르앗 모든 주민의 지도자가 되어라."
- 9 여압이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다시 데려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신다면, 내가 너희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 10 길르앗의 장로들이 여압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 되실 것이다. 우리가 네 말대로 하겠다."
- 11 그러자 여압은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가서, 백성이 그를 지도자이자 우두머리로 세웠다. 여압은 민사에서 주님 앞에서 모든 말을 하였다.
- 12 여압이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했다. "내 땅에 와서 나와 싸우려고 하는 것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 13 암몬 자손의 왕이 여압의 사자들에게 대답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 강에서 야보크 강까지, 그리고 요르단 강까지 내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을 평화롭게 돌려주어라."
- 14 여압이 다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냈다.
- 15 그가 그에게 말했다. "여압이 말한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지 않았다."
- 16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와 홍해를 지나 광야를 거쳐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 17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했다. "내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에돔 왕은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모압 왕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보냈으나, 그도 거절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다.
- 18 그 후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가서, 모압 땅의 동쪽으로 가서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다. 그러나 그들은 모압 땅 경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아르논 강이 모압의 경계였기 때문이다.
- 19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혼, 아모리 족속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했다.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 20 그러나 시혼은 이스라엘이 그의 경계를 지나가기를 신뢰하지 않았다. 시혼은 자기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다.
- 21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고, 아모리 족속,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의 땅을 차지하였다.
- 22 그들은 아모리 족속의 모든 경계를 차지하였다. 아르논 강에서 야보크 강까지, 광야에서 요르단 강까지였다.
- 23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런데 네가 그 땅을 차지하려 하는가?
- 24 네가 네 신 케모스가 네게 주는 땅을 차지하지 않느냐? 우리 하느님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쫓아낸 자들은,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 25 너는 모압 왕 시포르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가? 그가 이스라엘과 싸우거나 그들과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던가?
- 26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도시들, 아로엘과 그 도시들, 그리고 아르논 곁의 모든 도시들에 산 지 삼백 년이나 되었다! 그 시간 안에 너희는 왜 그것을 되찾지 않았느냐?

- 27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죄를 지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나와 싸우고 있다. 오늘 주님, 심판자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 28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예후다가 보낸 말을 듣지 않았다.
- 29 그때 주님의 영이 예후다에게 임하였고,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민사바로 갔으며, 길르앗의 민사바에서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갔다.
- 30 예후다는 주님께 서원을 하며 말했다. "만약 당신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 31 내가 평안히 암몬 자손에게서 돌아올 때, 내 집 문 밖에서 나를 맞이하여 나오는 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것이 될 것이며, 나는 그것을 번제로 바치겠다."
- 32 그래서 예후다는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 나아갔고, 주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 33 그는 아로엘에서 민니드까지, 이십 도시와 아벨크라림에 이르기까지 치명적인 대학살을 벌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였다.
- 34 예후다가 민사바로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보라, 그의 딸이 타임브라와 춤으로 그를 맞이하였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자식이었다. 그에게는 그녀 외에 아들도 딸도 없었다.
- 35 그가 그녀를 보자, 옷을 찢으며 말했다. "아, 내 딸아! 네가 나를 크게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 중 하나가 되었구나. 내가 주님께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 없다."
- 36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 당신이 주님께 입을 열었으니, 주님께서 당신의 원수, 곧 암몬 자손에게 보복하셨으니, 당신이 입으로 말한 대로 나에게 행하십시오."
- 37 그러자 그녀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 일을 나를 위해 해주십시오. 두 달 동안 나를 혼자 두소서. 내가 산으로 가서 나와 내 친구들과 함께 내 처녀성을 슬퍼하게 하소서."
- 38 그가 말했다. "가라." 그는 그녀를 두 달 동안 보내었고,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산에서 처녀성을 슬퍼하였다.
- 39 두 달이 지나 그녀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주님께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였다. 그녀는 처녀였다. 이 일이 이스라엘에서 풍속이 되었으며,
- 40 이스라엘의 딸들이 매년 사흘 동안 길르앗 사람 예후다의 딸을 기념하였다.

판관기 12장

- ¹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진군하여 예후스에게 말했다. "너는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갔는데, 왜 우리를 함께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가 네 집을 불로 태워 없애겠다!"
- ² 예후스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심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부르렀을 때 너희는 내 손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
- ³ 내가 너희가 나를 구원하지 않을 것을 보고, 내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갔더니, 주님이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다. 그런데 오늘날 왜 나를 향해 올라와 싸우려 하는가?
- ⁴ 그 후 예후스가 길르앗의 모든 남자를 모아 에브라임과 싸웠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치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의 도망자이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다."고 했다.
- ⁵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막기 위해 요단강의 건너기 쉬운 곳을 지켰다. 에브라임의 도망자가 "내가 건너가게 해 달라."고 말할 때, 길르앗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에브라임 사람인가?" 그가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 ⁶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그러면 '시볼레스'라고 말해 보아라." 그가 "시볼레스"라고 말했으니, 그가 그 말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붙잡아 요단강의 건너기 쉬운 곳에서 죽였다. 그때 에브라임에서 사만 이천 명이 죽었다.
- ⁷ 예후스가 이스라엘을 여섯 해 동안 심판하였다. 그 후 길르앗 사람 예후스가 죽어 길르앗의 도시들에 장사되었다.
- ⁸ 그 후 베들레헴의 임잔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였다.
- ⁹ 그는 아들 서른 명을 두었고, 딸 서른 명을 자기 족속 밖으로 시집보내었으며, 외족에서 딸 서른 명을 데려와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는 이스라엘을 일곱 해 동안 심판하였다.
- ¹⁰ 임잔이 죽어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 ¹¹ 그 후 세불론 사람 일론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였고, 그는 이스라엘을 열 해 동안 심판하였다.
- ¹² 세불론 사람 일론이 죽어 세불론 땅의 아이야론에 장사되었다.
- ¹³ 그 후 비라톤 사람 힐렐의 아들 아브돈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였다.
- ¹⁴ 그는 아들 마흔 명과 손자 서른 명을 두었는데, 그들은 일흔 마리의 어린 나귀를 탔다. 그는 이스라엘을 여덟 해 동안 심판하였다.
- ¹⁵ 힐렐의 아들 비라톤 사람 아브돈이 죽어 에브라임 땅의 비라톤, 아말렉 사람들의 산지에 장사되었다.

판관기 13장

- 1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니, 주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셨다. 사십 년 동안 그랬다.
- 2 소라에 사는 단 지파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고,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다.
- 3 주님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보아라, 너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이가 없으나,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 4 그러므로 이제 조심하여 포도주나 강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 5 보아라,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머리에 삭도가 닿지 않을 것이다.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느님을 위한 나지르인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 6 그 여자가 가서 남편에게 말했다. "하느님의 사람이 내게 와서, 그의 얼굴이 하느님의 천사의 얼굴처럼 매우 무서웠다. 나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고, 그도 내게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다."
- 7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아라,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부터 포도주나 강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느님을 위한 나지르인이다."라고 하였다.
- 8 마노아가 주님께 간구하여 말했다. "오 주님, 주께서 보내신 그 하느님의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 와서,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 9 하느님께서 마노아의 음성을 들으셨다. 하느님의 천사가 그 여자가 들에서 앉아 있을 때 다시 그녀에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다.
- 10 그 여자가 뛰어가서 남편에게 말했다. "저번에 내게 온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 11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말했다. "당신이 내 아내에게 말했던 그 사람입니까?"
- 12 마노아가 말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아이의 삶의 방식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 13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다. "내가 그 여자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녀가 조심해야 한다."
- 14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아무것도 먹지 말고, 포도주나 강한 술을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 15 마노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말했다. "우리가 어린 염소를 준비하여 당신께 드리게 해 주소서."
- 16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다. "비록 내가 너와 함께 머물더라도, 네 빵은 먹지 않겠다. 만약 번제를 드리고 싶다면,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마노아는 그가 주님의 천사임을 알지 못했다.
- 17 마노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말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경할 수 있게 해 주소서."
- 18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 19 그래서 마노아가 어린 염소와 함께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주님께 드렸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천사가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
- 20 제단에서 불이 하늘로 올라갈 때, 주님의 천사가 제단의 불길 속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 21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다시 마노아나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마노아는 그가 주님의 천사임을 알았다.
- 22 마노아가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 23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으로 번제와 곡식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며, 이런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 주지 않으셨을 것이고, 지금 이때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 24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삼손이라 지었다. 그 아이가 자라나,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
- 25 주님의 영이 그를 마하네 단,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서 감동하시기 시작하셨다.

판관기 14장

- ¹ 삼손이 티르나에 내려가서 티르나에서 블레셋 여자들 중 한 여자를 보았다.
- ² 그는 올라가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티르나에서 블레셋 여자들 중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내 아내로 맞아주십시오."
- ³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네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 하는가?"
- ⁴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것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할 기회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 ⁵ 삼손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티르나로 내려가서 티르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보라, 젊은 사자가 그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 ⁶ 주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히 임하여, 그는 손으로 아무 도구도 없이 어린 염소를 찢듯이 그 사자를 찢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다.
- ⁷ 그는 내려가서 그 여자와 대화했고, 그 여자는 삼손에게 매우 마음에 들었다.
- ⁸ 잠시 후 그는 그 여자를 맞으러 돌아왔고, 사자의 시체를 보러 가서 보라, 사자의 시체 안에 벌 무리가 떼를 지어 있고 꿀이 있었다.
- ⁹ 그는 그것을 손에 쥐고 가면서 먹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먹었으나, 그는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 ¹⁰ 그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가서, 삼손은 그곳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던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 ¹¹ 그들이 그를 보고, 그와 함께 있을 서른 명의 동료로 데려왔다.
- ¹²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겠다. 잔치 일곱 날 동안에 너희가 그 답을 알아내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너희에게 서른 베 옷과 서른 벌의 갈아입을 옷을 주겠다."
- ¹³ 그러나 너희가 그 답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너희가 나에게 서른 베 옷과 서른 벌의 갈아입을 옷을 주어야 한다."
- ¹⁴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 ¹⁵ 일곱째 날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했다. "네 남편을 꺾어서, 그가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풀어주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로 태우겠다. 너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들인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
- ¹⁶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말했다. "너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네가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지만, 나에게만은 말하지 않았다."
- ¹⁷ 그녀는 잔치 기간 동안 일곱 날 동안 그 앞에서 울었고, 일곱째 날에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가 그를 심하게 압박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수수께끼를 자기 백성의 자녀들에게 말했다.
- ¹⁸ 그 도시의 사람들이 해가 지기 전 일곱째 날에 그에게 말했다. "꿀보다 달은 것이 무엇이나? 사자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나?" "네가 내 암소로 갈아엎지 않았다면,"
- ¹⁹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히 임하시니, 그는 아스켈론으로 내려가 그들 중 서른 명을 쳤다. 그는 그들의 전리품을 빼앗아,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갈아입을 옷을 주었다. 그의 분노가 치밀어,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 ²⁰ 그러나 삼손의 아내는 그의 친구였던 동료에게 주어졌다.

판관기 15장

- ¹ 잠시 후, 밀 수확 시기에 삼손은 어린 염소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갔다. 그는 말했다. "내가 아내의 방에 들어가겠다."
- ² 그의 장인은 말했다. "나는 당신이 그녀를 완전히 싫어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당신의 동반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누이가 그녀보다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대신 그녀를 데려가십시오."
- ³ 삼손은 그들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칠 때 죄가 없을 것입니다."
- ⁴ 삼손은 가서 여우 삼백 마리를 잡고 횃불을 가져와 꼬리와 꼬리를 맞대고, 각 두 꼬리 사이 중간에 횃불을 놓았다.
- ⁵ 횃불을 붙태운 후, 그는 그것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서 있는 곡식에 보내어, 곡식 낫과 서 있는 곡식뿐 아니라 올리브 나무 숲까지 태워버렸다.
- ⁶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다. "이 일을 한 자가 누구입니까?"
- ⁷ 삼손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보복할 것이며, 그 후에야 내가 멈출 것이다."
- ⁸ 그는 그들을 허벅지와 엉덩이까지 크게 쳐죽이고, 에담 바위의 동굴로 내려가 거기서 살았다.
- ⁹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퍼져 나갔다.
- ¹⁰ 유다 사람들은 말했다. "왜 우리에게 대적하여 올라왔습니까?"
- ¹¹ 그러자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담 바위의 동굴로 내려가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¹²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려고 내려왔습니다."
- ¹³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아니, 우리는 당신을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새 로프 두 가닥으로 그를 결박하고 바위에서 끌어올렸다.
- ¹⁴ 그가 레히에 이르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만나며 외쳤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히 임하여, 그의 팔에 묶인 로프들이 불에 탄 대마처럼 되었고, 그의 손에서 끈들이 떨어졌다.
- ¹⁵ 그는 나귀의 새 턱뼈를 찾아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 그것으로 천 명을 쳐죽였다.
- ¹⁶ 삼손은 말했다. "나귀의 턱뼈로, 더더욱 쌓아올렸다. 나귀의 턱뼈로 나는 천 명을 쳐죽였다."
- ¹⁷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손에서 던졌을 때, 그 장소는 라마 레히라고 불리게 되었다.
- ¹⁸ 그는 매우 목이 말랐고, 주님을 불러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종의 손으로 이 위대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갈증으로 죽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까?"
- ¹⁹ 그러나 하느님이 레히의 움푹 들어간 곳을 갈라 주셨고, 물이 그곳에서 솟아나왔다. 그가 마신 후, 그의 영이 다시 돌아와 기운을 되찾았다. 그래서 그 곳은 오늘날까지 엔 하코레라고 불리며, 레히에 있다.
- ²⁰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스물 해 동안 심판하였다.

판관기 16장

- 1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 들어갔다.
- 2 가자 사람들은 "삼손이 여기 있다!" 하고 소문을 들었다. 그들은 그를 둘러싸고 성문에서 밤새 기다렸으며, 밤새 조용히 있었다. 그들이 말했다. "아침 빛이 오기를 기다려라. 그때 우리는 그를 죽일 것이다."
- 3 삼손은 자정까지 누워 있다가 자정에 일어나 성문의 문짝 두 개와 그 문틀을 붙잡아 뽑아 올리고, 막대기까지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까지 올려갔다.
- 4 그 후에 그가 소렉 골짜기의 한 여자에게 끌렸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데릴라였다.
- 5 필리스티아의 족장들이 그녀에게 찾아와서 말했다. "그를 유혹하여, 그의 큰 힘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그를 제압할 수 있는지 알아내어, 그를 결박하여 괴롭히게 해라. 그러면 우리 각자가 네게 은 천 일백 닢을 주겠다."
- 6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했다. "부디 내게 말해 주세요.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으로 당신이 결박되어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지."
- 7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다. "그들이 나를 마르지 않은 일곱 개의 녹색 줄로 묶으면,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되겠소."
- 8 그러자 필리스티아의 족장들이 마르지 않은 일곱 개의 녹색 줄을 그녀에게 가져와서, 그녀가 그를 그 줄로 묶었다.
- 9 그녀는 안방에 병정을 숨겨두고 있었다.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삼손아,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너를 쫓고 있소!" 그는 불에 닿은 대마실처럼 줄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그의 힘이 드러나지 않았다.
- 10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했다. "보아라, 네가 나를 조롱하고 거짓말을 했구나. 이제 나에게 네가 어떻게 묶일 수 있는지 알려주게."
- 11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들이 나를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만 묶으면,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되겠소."
- 12 그래서 데릴라는 새 밧줄을 가져와서 그를 그 줄로 묶고, 그에게 말했다. "삼손아,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너를 쫓고 있소!" 병정은 안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줄을 실처럼 팔에서 끊어버렸다.
- 13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했다. "지금까지 당신은 나를 조롱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당신이 묶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14 그녀는 그를 핀으로 고정하고 말했다. "삼손아,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너를 쫓고 있소!" 그는 잠에서 깨어나서 보의 핀과 직물을 뽑아냈다.
- 15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마음이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 세 번이나 나를 조롱했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 16 그녀가 매일 그에게 말을 걸며 재촉하자, 그의 영혼은 죽을 지경이 되었다.
- 17 그가 그녀에게 모든 마음을 털어놓으며 말했다. "내 머리 위에는 한 번도 면도칼이 닿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뱃속부터 하느님을 위해 나자르인이다. 내가 면도된다면, 내 힘이 떠나가서 약해져서 다른 어떤 사람처럼 되겠소."
- 18 데릴라가 그가 모든 마음을 털어놓았음을 보고, 필리스티아의 족장들을 불러서 말했다. "한 번만 이곳에 올라오세요. 그가 내게 모든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필리스티아의 족장들이 그녀에게로 올라와서 손에 돈을 들고 왔다.
- 19 그녀가 그를 무릎 위에 눕혀 잠들게 하고, 한 남자를 불러서 그의 머리카락 일곱 가닥을 깎아냈다. 그녀는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의 힘이 그에게서 떠났다.
- 20 그녀가 말했다. "삼손아,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너를 쫓고 있소!"
- 21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눈을 멀게 하고,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돗사슬로 묶었다. 그는 감옥에서 손발을 돌렸다.
- 22 그러나 그가 깎인 후에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 23 필리스티아의 족장들이 모여서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였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 24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였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 신이 우리 원수이자 우리 땅을 파괴한 자, 우리 중 많은 이를 죽인 자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 25 그들이 기분이 좋아졌을 때, 그들이 말했다. "삼손을 불러와서 우리를 즐겁게 하게 해라." 그들이 감옥에서 삼손을 불러 왔고, 그는 그들 앞에서 놀아주었다. 그들이 그를 기둥 사이에 세웠다.
- 26 삼손이 자기 손을 잡고 있던 소년에게 말했다. "내가 집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만져보게 해주오. 내가 그 기둥들에 기대게 하소서."
- 27 그때 집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가득했고, 모든 블레셋의 영주들이 거기에 있었으며, 지붕 위에는 삼손이 놀아주는 것을 보는 남자와 여자 약 삼천 명이 있었다.
- 28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어 말했다. "주 하느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느님, 나를 단 한 번만 더 힘주어 주소서. 내가 내 두 눈을 위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 29 삼손은 집을 지탱하는 두 중앙 기둥을 잡고, 오른손으로 하나에, 왼손으로 다른 하나에 기댔다.
- 30 삼손이 말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으리라!" 그는 온 힘을 다해 몸을 굽혔다. 그러자 집이 그 안에 있던 영주들과 모든 백성 위로 무너졌다.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들이 그가 살아 있을 때에 죽인 자들보다 더 많았다.
- 31 그 후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가족이 내려와 그를 데려가서,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묘지인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에 장사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스무 해 동안 심판하였다.

판관기 17장

- 1 에브라임 산지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가였다.
- 2 그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당신에게서 빼앗긴 일천오백 데라의 은에 대해 당신이 저주를 퍼부었고, 또한 내 귀에 말했지만, 보십시오, 그 은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 3 그가 어머니에게 일천오백 데라의 은을 돌려주자,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내 손으로 이 은을 주님께 바쳐 내 아들을 위해 새긴 우상과 주조한 우상을 만들겠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것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 4 그가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어머니는 이백 데라의 은을 가져다가 은세공인에게 주어 그것으로 새긴 우상과 주조한 우상을 만들게 했다. 그 우상은 미가의 집에 있었다.
- 5 그 남자 미가는 신상이 있는 집을 만들었고, 에포드와 테라핌을 만들며, 자기 아들 중 한 명을 성별하여 그를 사제로 삼았다.
- 6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각자가 자기 눈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였다.
- 7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온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유다 가족의 레위 사람이었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 8 그 남자가 그 도시, 곧 유다의 베들레헴을 떠나 살 곳을 찾아 떠나다, 여행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 9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 10 미가가 그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살며 나의 아버지이자 사제가 되어라. 내가 매년 열 데라의 은과 옷 한 벌과 음식을 주겠다." 그러자 레위 사람이 들어갔다.
- 11 레위 사람은 그 남자와 함께 살기로 만족했고, 그 젊은이는 그에게 자기 아들처럼 되었다.
- 12 미가는 그 레위 사람을 성별했고, 그 젊은이는 그의 사제가 되어 미가의 집에 머물렀다.
- 13 그러자 미가가 말했다. "이제 나는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알았다. 내가 레위 사람을 내 사제로 두었기 때문이다."

판관기 18장

- 1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때에는 단 지파가 거주할 상속지를 찾고 있었는데, 그날까지 그들의 상속지는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주어지지 않았다.
- 2 단 자손들은 자기들 중에서 용감한 남자 다섯 명을 졸리와 에스다울에서 보내어 땅을 정찰하고 탐사하게 하였다.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땅을 탐사해 보아라."
- 3 그들이 미가의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레위 젊은이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곳으로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이는 누구입니까?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 4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미가가 나에게 이렇게 하였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그의 사제로 삼았습니다."
- 5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가는 길이 험통한지 알기 위해 하느님께 여쭙보아 주십시오."
- 6 사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평안히 가십시오. 너희가 가는 길은 주님 앞에 있다."
- 7 그 다섯 사람은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의 방식으로 안전하게 살고 있었고, 조용하고 안심하고 있었다. 그 땅에는 권력을 행사하여 그들을 부끄럽게 할 자가 없었고, 그들은 시돈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다른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았다.
- 8 그들은 졸리와 에스다울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형제들이 물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 9 그들이 말하였다. "일어나서 그들에게 쳐들어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보았는데, 보라, 아주 좋다. 너희는 왜 가만히 있느냐? 가서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을 게으르지 말아라."
- 10 너희가 가면 무방비한 백성에게 이르게 될 것이며, 그 땅은 넓다. 하느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땅 위에 있는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은 곳이다.
- 11 단 지파의 가족은 졸리와 에스다울에서 무기로 무장한 남자 여섯 백 명을 이끌고 떠났다.
- 12 그들은 올라가 유다 땅의 기랴야아림에 진을 쳤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오늘날까지 마하네 단이라 부른다. 보라, 그것은 기랴야아림 뒤에 있다.
- 13 그들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 14 그때 라이스 땅을 정찰하러 갔던 다섯 명이 돌아와서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집들 안에 에포드와 테라핌과 조각된 우상과 주조된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라."
- 15 그들은 그곳으로 가서 레위 젊은이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 16 단 자손의 여섯 백 명은 무기로 무장한 채 문입구 옆에 서 있었다.
- 17 땅을 정찰하러 갔던 다섯 명은 올라가 들어가서 조각된 우상, 에포드, 테라핌, 주조된 우상을 가져갔다. 사제는 무기로 무장한 여섯 백 명과 함께 문입구에 서 있었다.
- 18 이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조각된 우상, 에포드, 테라핌, 주조된 우상을 가져갔을 때, 사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 19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침묵하여라. 네 입에 손을 대고 우리와 함께 가라. 우리를 위한 아버지이자 사제가 되어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을 위한 사제가 되는 것이 좋으냐,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가족을 위한 사제가 되는 것이 좋으냐?"
- 20 사제의 마음이 기뻐서 에포드, 테라핌, 조각된 우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떠났다.
- 21 그러므로 그들은 돌아서 떠나 어린아이들과 가족과 재산을 앞세웠다.
- 22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꽤 멀리 떨어졌을 때, 미가의 집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추적하였다.
- 23 그들이 단 자손을 붙렸을 때, 그들은 돌아서 미가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이렇게 큰 무리를 이끌고 와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 24 그가 말하였다. "내가 만든 신들과 사제를 빼앗아 가버렸구나! 내가 더 이상 무엇을 가지고 있단 말이나? 어찌하여 너희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느냐?"
- 25 단 자손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 사이에서 네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그래야 분노한 자들이 너를 덮쳐, 너와 네 집안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 ²⁶ 단 자손은 길을 떠났다. 미가가 그들이 자신보다 강함을 보고,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 ²⁷ 그들은 미가가 만든 것과 그가 세운 사제를 데리고 라이스로 가서, 평온하고 경계하지 않는 백성에게 칼날로 찼다. 그 후 그들은 도시를 불로 태웠다.
- ²⁸ 구원자가 없었으니, 이 도시는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다른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았다. 이 도시는 벨레호브 곁의 골짜기에 있었다.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그 안에 살았다.
- ²⁹ 그들은 그 도시를 단이라 불렀다. 이는 그들의 조상인 단의 이름을 따서, 그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 도시의 옛 이름은 라이스였다.
- ³⁰ 단 자손은 자신들을 위해 새긴 우상을 세웠다. 그레손의 아들 요나단, 곧 모세의 아들인 그와 그의 아들들이 땅이 포로로 잡히는 날까지 단 지파의 사제가 되었다.
- ³¹ 그들은 미가가 만든 새긴 우상을 자신들을 위해 세웠고, 하느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그 우상은 계속 있었다.

판관기 19장

- 1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의 먼 곳에 사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베들레헬유다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 2 그의 첩이 그를 배반하여 그의 집을 떠나 베들레헬유다로 돌아가, 그곳에서 네 달을 지냈다.
- 3 그 남편이 일어나 그녀를 찾아가 부드럽게 말하며 데려오려고, 그의 하인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갔다. 그녀는 그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갔다.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며 맞이하였다.
- 4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그곳에 머물게 하여, 사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그곳에 머물렀다.
- 5 네 번째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나려 했다.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했다. "조금 빵으로 힘을 보태고 나서 떠나라."
- 6 그래서 그들은 앉아 함께 먹고 마셨다. 그 후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 남자에게 말했다. "잠시 밤을 보내고,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 7 그 남자가 일어나 떠나려 했으나, 장인은 그를 붙잡아 다시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 8 다섯 번째 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나려 했다.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말했다. "힘을 보태고 낮이 저물 때까지 머무르십시오." 그들은 함께 먹었다.
- 9 그 남자가 떠나려 할 때, 그와 그의 첩과 그의 하인, 그리고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이제 낮이 저물고 있습니다. 밤새 머무르십시오. 낮이 다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러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 집으로 가십시오."
- 10 그러나 그 남자는 그 밤에 머무르지 않고 일어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예부스에 가까이 갔다. 그와 함께 나귀 두 마리가 있었고, 그의 첩도 그와 함께 있었다.
- 11 그들이 예부스에 다다랐을 때, 낮이 이미 늦었다. 하인이 주인에게 말했다. "부디 들어가서 이 예부스 사람들의 도시에 머무르십시오."
- 12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외국인의 도시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기브아로 지나가겠습니다."
- 13 그가 하인에게 말했다. "오라, 우리가 이곳의 어느 곳에 가까이 가자. 기브아나 라마에서 밤을 보내자."
- 14 그래서 그들은 지나가서 길을 계속 가다가,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한 기브아 근처에서 해가 지었다.
- 15 그들은 거기로 가서 기브아에서 밤을 보내려 했다. 그가 들어가서 성 안의 광장에 앉았는데, 그들을 집에 들여주려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 16 그때 저녁이 되어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다. 그 남자는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었고, 기브아에 살았으나, 그 지역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
- 17 그 노인이 눈을 들어 성 안의 광장에 앉아 있는 여행자를 보고 말했다.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 18 그가 대답했다. "우리는 베들레헬유다에서 에브라임 산지의 먼 곳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 출신인데, 베들레헬유다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를 집에 들여주려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 19 우리 나귀를 위한 짚과 사료도 있고, 저와 당신의 하인과 당신의 하인들과 함께 있는 젊은이를 위한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 20 그 노인이 말했다. "평화가 함께하소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광장에서 자지 마십시오."
- 21 그러자 그는 그를 집으로 데려가서 나귀에게 사료를 주었고, 그들은 발을 씻고 먹고 마셨다.
- 22 그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있을 때, 그 도시의 악한 자들이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인 노인에게 외쳤다. "당신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우리가 그와 동침하겠습니다!"
- 23 집주인인 그 남자가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했다. "아니오, 형제들아, 이같이 악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남자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 24 보십시오, 제 딸은 처녀이고, 그의 첩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들을 데려내겠습니다. 그들에게 수치를 주고, 마음

에 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²⁵ 그러나 그 남자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 남자는 자기 첩을 끌어내어 그들에게 내주었고, 그들은 그 밤새도록 그 여자를 범하고 학대하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그녀를 놓아주었다.

²⁶ 그 여자는 아침이 밝아오자 일어나서 주인의 집 문 앞에 쓰러져서 낮이 밝아질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²⁷ 그 주인은 아침에 일어나 집 문을 열고 길을 떠나려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보니, 그의 첩이 집 문 앞에 문지방에 손을 얹은 채 쓰러져 있었다.

²⁸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일어나서 가자!"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 여자를 나귀에 태웠고, 그 남자는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났다.

²⁹ 그가 자기 집에 도착하자, 칼을 가져다가 자기 첩을 잘라서 관절마다 열두 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온 경계에 보내었다.

³⁰ 그 일을 본 모든 이가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은 결코 행해지지도, 보아지도 않았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하며 말하라."

판관기 20장

- 1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여 단에서 베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까지 모두 하느님 앞에 밋스바에서 한 사람처럼 모였다.
- 2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느님의 백성 모임에 나아와, 칼을 든 보병 사십만 명이 되었다.
- 3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밋스바로 올라갔음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했다. "우리에게 말해라. 이 악행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 4 그 여자를 살해당한 자의 아내를 둔 레위인이 대답했다. "나는 베냐민 땅에 속한 기브아에 나와 내 첩과 함께 밤을 보내려고 들어갔다."
- 5 기브아 사람들은 나를 치려고 밤에 집을 에워쌌으며, 나를 죽이려 했고, 내 첩을 강간하여 그녀가 죽었다.
- 6 나는 내 첩을 끌어내어 그녀를 조각내어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 보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음란과 어리석음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 7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모두 여기 모여서 조언과 계획을 내려라."
- 8 모든 백성이 한 사람처럼 일어나 말했다.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누구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 9 이제 우리가 기브아에 대해 할 일은 이러하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 그 도시를 치겠다.
- 10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백 명 중 열 명, 천 명 중 백 명, 만 명 중 천 명을 뽑아 백성에게 식량을 공급하게 하여, 베냐민의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기브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모든 어리석은 일을 그대로 처리하게 하겠다."
- 11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그 도시를 향해 모여 한 사람처럼 뭉쳤다.
- 12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 전체에 사자를 보내며 말했다. "너희 가운데서 이와 같은 악행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 13 이제 그 악한 자들, 기브아에 있는 자들을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겠습니다.
- 14 베냐민 자손들이 도시들에서 모여 기브아로 모여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려고 나갔다.
- 15 그날 베냐민 자손들은 도시들에서 칼을 든 남자 이만 육천 명을 세었고, 기브아 주민들은 칠백 명의 골라진 남자를 더해 세었다.
- 16 이 모든 병사들 가운데 칠백 명의 왼손잡이 골라진 자들이 있었고, 그들 각자는 머리카락 같은 작은 목표를 향해 돌을 던져도 빗나가지 않았다.
- 17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 남자들은 칼을 든 사십만 명으로 세어졌으며, 이 모두가 전사들이었다.
- 18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느님께 자문을 구했다. 그들이 묻기를, "우리가 베냐민 자손들과 싸우려면 먼저 누가 나서야 합니까?"
- 19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에 진을 쳤다.
- 20 이스라엘 남자들이 베냐민과 싸우려고 나가, 기브아에서 그들을 향해 전열을 정비했다.
- 21 베냐민 자손들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 이스라엘 남자 이만 이천 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 22 이스라엘 백성, 곧 남자들이 자신들을 격려하여 첫째 날에 진을 친 그 자리에 다시 전열을 정비했다.
- 23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라가 주님 앞에서 저녁까지 울며 주님께 물었다. "내가 다시 베냐민 내 형제와 싸우려고 나아가야 합니까?"
- 24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 번째 날 베냐민 자손들에게로 나아갔다.
- 25 베냐민은 두 번째 날에 기브아에서 나와 이스라엘 자손을 공격하여, 그들 중 열팔천 명을 죽였다. 이 모든 자들은 칼을 들고 있었다.
- 26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과 온 백성이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앉아 울며 그날 저녁까지 금식하였고, 그 후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 27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물었다. (그때 그곳에 하느님의 언약의 궤가 있었고,
- 28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때 그 궤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이 말했다. "내가 다시 베냐민, 내 형제와 싸

우러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만둬야 할까요?"

²⁹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변에 매복병을 배치하였다.

³⁰ 이스라엘 자손은 세 번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향해 올라가 기브아에 진을 치고, 이전처럼 배열하였다.

³¹ 베냐민 자손이 백성을 향해 나와 도시에서 끌어내었고, 이전처럼 길에서, 곧 벧엘로 올라가는 길과 기브아로 가는 길, 들에서 이스라엘 사람 약 서른 명을 치고 죽이기 시작하였다.

³² 베냐민 자손이 말했다. "그들이 우리 앞에서 쓰러졌으니, 처음과 같구나."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말했다. "우리는 도망치자. 그들을 도시에서 길로 끌어내자."

³³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제자리에서 일어나 바알 타마르에 배열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의 매복병들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마레 게바에서 나와 공격하였다.

³⁴ 이스라엘 전체에서 택한 만 명이 기브아를 향해 나아가 싸움이 심각해졌으나, 그들은 재앙이 곧 자신들에게 닥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³⁵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날 베냐민 중 이만 오천 백 명을 죽였다. 이 모든 자들은 칼을 들고 있었다.

³⁶ 그러자 베냐민 자손은 자신들이 쓰러졌음을 알았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베냐민을 허락한 것은, 그들이 기브아를 향해 배치한 매복병을 신뢰했기 때문이었다.

³⁷ 매복병들이 서둘러 기브아로 달려가, 매복병들이 퍼져 나가 칼날로 도시 전체를 쳤다.

³⁸ 이스라엘 남자와 매복병 사이에 정해진 신호는 도시에서 큰 연기 기둥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³⁹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투에서 돌격하자, 베냐민이 이스라엘 남자들 약 서른 명을 치고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했다. "분명히 그들이 우리 앞에서 쓰러졌으니, 처음 전투와 같구나."

⁴⁰ 그러나 연기 기둥이 도시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자, 베냐민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보라, 도시 전체가 하늘까지 연기로 올라가고 있었다.

⁴¹ 이스라엘 남자들이 돌격했고, 베냐민 사람들이 놀라 떨어졌다. 그들은 재앙이 자신들에게 닥쳤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⁴²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향해 광야로 향하는 길을 뒤로 돌렸으나, 전투가 뒤에서 끈질기게 추격하였고, 도시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쳤다.

⁴³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둘러싸고 쫓아가, 해가 뜨는 쪽 기브아 가까이까지 그들이 쉬는 곳에서 밟아 죽였다.

⁴⁴ 베냐민에서 열팔천 명이 쓰러졌으니, 이 모든 자들은 용감한 남자들이었다.

⁴⁵ 그들은 광야로 도망쳐 리몬 바위로 향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그들 중 오천 명을 죽였고, 그들을 뒤쫓아 긴돔까지 가서 그들 중 이천 명을 죽였다.

⁴⁶ 그러므로 그날 베냐민에서 쓰러진 자는 모두 이만 오천 명이었고, 이 모든 자들은 용감한 남자들이었다.

⁴⁷ 그러나 육백 명이 도망쳐 광야로 리몬 바위로 향하여, 그 바위에서 네 달을 머물렀다.

⁴⁸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시 베냐민 자손을 향해 돌격하여, 칼날로 도시 전체와 가축과 그들이 발견한 모든 것을 죽였으며, 그들이 발견한 모든 도시를 불태웠다.

판관기 21장

- 1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사에서 맹세하여 말했다. "우리 중 누구도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
- 2 사람들이 베델로 와서 하느님 앞에서 저녁까지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슬퍼하였다.
- 3 그들이 말했다.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오늘 이스라엘에 한 지파가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4 다음 날,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평제를 드렸다.
- 5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했다. "민사에 주님께 나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누가 없었는가?" 그들은 민사에 주님께 나아오지 않은 자에 대해 큰 맹세를 하여 말했다.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 6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슬퍼하며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졌습니다."
- 7 우리는 주님께 맹세하여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했으니, 살아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 8 그들이 말했다. "민사에 주님께 나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보라, 야베스길르앗에서 아무도 진영에 모임에 나아오지 않았다.
- 9 사람들을 세어 보니, 야베스길르앗 주민 중 아무도 그곳에 없었다.
- 10 모임은 가장 용감한 남자 만두천 명을 그곳에 보내어 명령했다. "가서 야베스길르앗 주민을 칼날로 쳐서 여자와 어린아 이까지 모두 죽이라."
- 11 너희가 할 일은 이러하다. 남자 모두와 남자와 관계를 맺은 모든 여자를 완전히 멸망시켜라.
- 12 그들은 야베스길르앗 주민 중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네 백 명의 처녀를 찾아내어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로 데려왔다.
- 13 모임은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들에게 보내어 평화를 선포하였다.
- 14 그때 베냐민이 돌아왔고, 그들은 야베스길르앗 여자들 중 살아남은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다.
- 15 사람들은 주님이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틈을 만드셨기 때문에 베냐민을 위하여 슬퍼하였다.
- 16 그때 모임의 장로들이 말했다. "여자들이 베냐민에게서 모두 사라졌으니, 살아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 17 그들이 말했다. "베냐민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유산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18 그러나 우리는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줄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맹세하여 말했다.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 19 그들이 말했다. "보라, 실로에는 매년 주님의 축제가 있다. 그것은 베델의 북쪽, 베델에서 세켄으로 오르는 길의 동쪽, 레보나의 남쪽에 있다."
- 20 그들은 베냐민 자손들에게 명령했다. "포도원에 숨어 기다려라."
- 21 그리고 보아라. 실로 딸들이 춤추는 축제에 나올 때, 포도원에서 나와서 각자 실로 딸 중 한 명을 잡아 아내로 데리고 베냐민 땅으로 가라.
- 22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우리에게 불만을 제기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말하겠다. "그들을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십시오. 우리는 전쟁 중에 각자 아내를 데려오지 않았고, 너희도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죄를 지었을 것이다."
- 23 베냐민 자손들이 그대로 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 수만큼 아내를 데려왔다. 그들은 가서 자기 유산으로 돌아가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에 살았다.
- 24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자기 유산으로 나아갔다.
- 25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였다.

룻기 | Ruth

룻기 1장

- ¹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베들레헬유다의 한 남자가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
- ²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마홀론과 기론이었으며, 그들은 베들레헬유다의 에브라트 사람들이다. 그들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다.
- ³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녀는 두 아들만 남게 되었다.
- ⁴ 그들이 모압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다. 한 명의 이름은 오르파였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이 거기서 약 열 해를 살았다.
- ⁵ 마홀론과 기론도 죽었고, 그 여자는 두 아들과 남편을 모두 잃었다.
- ⁶ 그때 그녀는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 모압 땅에서 돌아가려 했다. 그녀는 모압 땅에서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빵을 주시며 그들을 돌아보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 ⁷ 그녀는 살던 곳을 떠나며 두 며느리도 함께 갔다.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는 길을 떠났다.
- ⁸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다. "가라. 각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주님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베푼 자비처럼 너희에게도 자비를 베풀기를 바란다."
- ⁹ 주님이 너희가 각자 남편의 집에서 편안함을 얻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 ¹⁰ 그들이 그녀에게 말했다. "아니오. 우리는 당신과 함께 당신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 ¹¹ 나오미가 말했다. "돌아가라, 내 딸들아. 왜 나와 함께 가려 하는가? 내게 아직 아들이 있겠느냐? 내 태속에 남편이 될 아들이 있겠느냐?"
- ¹² 돌아가라, 내 딸들아. 가라. 나는 남편을 얻을 만큼 나이가 많다. 내가 "내가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해도, 오늘 밤에 남편을 얻고 아들을 낳는다 해도,
- ¹³ 너희가 그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남편을 얻지 않겠다고 막겠느냐? 아니오, 내 딸들아. 너희 때문에 나의 슬픔이 심하다. 주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 ¹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고,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났으나, 룻은 그녀와 함께 머물렀다.
- ¹⁵ 그녀가 말했다. "보라, 네 시누이가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 네 시누이를 따라가라."
- ¹⁶ 룻이 말했다. "나를 떠나라고 재촉하지 마라. 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라. 네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네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무리리라. 네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네 하느님이 내 하느님이 되리라."
- ¹⁷ 네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고, 거기서 내가 묻히리라. 주님이 나에게 이같이 하시고, 더욱 더 하시기를 바란다. 죽음 외에는 무엇도 나와 너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다."
- ¹⁸ 나오미가 룻이 자신과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하지 않았다.
- ¹⁹ 그러므로 둘이 함께 베들레헬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헬에 도착하자, 온 성이 그들을 보고 흥분하여 "이것이 나오미냐?" 하고 물었다.
- ²⁰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에게 매우 쓰라린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 ²¹ 나는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님이 나를 텅 빈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왜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주님이 나를 증거 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셨기 때문이다."
- ²²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왔고,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도 함께 돌아왔다. 그들이 보리 수확 시작 때 베들레헬에 도착하였다.

룻기 2장

- ¹ 나오미의 시부모의 친척으로, 엘리멜렉 가문의 부유한 용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 ²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제가 지금 밭에 가서, 제가 은총을 입은 자의 뒤에서 곡식을 줍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다. "가라, 내 딸아."
- ³ 그녀는 가서 수확꾼 뒤에서 밭에서 곡식을 줍기 시작했고, 우연히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보아스의 밭 부분에 이르렀다.
- 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수확하는 자들에게 말했다.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 ⁵ 그러자 보아스가 수확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자기 종에게 물었다. "이 젊은 여자는 누구의 딸인가?"
- ⁶ 수확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하인이 대답했다. "그녀는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입니다."
- ⁷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발, 수확꾼 뒤에서 이삭을 줍게 해 주세요." 그래서 그녀는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 집에서 잠시 쉼 적이 있을 뿐입니다."
- ⁸ 그러자 보아스는 룻에게 말했다. "내 딸아, 들어라. 다른 밭에서 곡식을 줍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내 여종들 곁에 머물러라."
- ⁹ 그들이 베는 밭을 눈여겨보며 그 뒤를 따라가라. 내가 젊은이들에게 네게 손을 대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하면, 그릇에 가서 젊은이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 ¹⁰ 그러자 그녀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했다. "제가 외국인인데도, 어찌하여 제게 은총을 베푸시고 저를 알아 보십니까?"
- ¹¹ 보아스는 그녀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를 위해 한 모든 일과, 당신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태어난 땅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왔다는 것을 모두 들었습니다."
- ¹² 주님께서 당신의 행위를 갚아 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느님 아래서 피난처를 찾은 당신에게 풍성한 보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 ¹³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내 주님, 제가 당신의 눈에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저를 위로하시고, 비록 제가 당신의 하녀 중 하나도 아니지만, 저에게 친절하 말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 ¹⁴ 식사 시간에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했다. "여기 와서 빵을 좀 먹고, 식초에 덩어리를 담그어라."
- ¹⁵ 그녀가 곡식을 줍기 위해 일어나자, 보아스는 자기 젊은 종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그녀가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게 내 버려 두고, 그녀를 꾸짖지 마라."
- ¹⁶ 또 단에서 일부를 꺼내 놓아두어라. 그녀가 줍게 내버려 두고, 그녀를 꾸짖지 마라."
- ¹⁷ 그러므로 그녀는 저녁까지 들에서 줍고, 줍은 것을 두들겨서 보리 한 에바 정도를 모았다.
- ¹⁸ 그녀는 그것을 들고 도시로 들어갔다.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가 줍고 온 것을 보고,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꺼내 그녀에게 주었다.
- ¹⁹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줍고, 어디서 일했느냐? 너를 알아본 자가 복받기를."
- ²⁰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서 그의 자비를 끊지 않은 주님께 복받기를. 그 남자는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요, 우리 가족의 가까운 친지다."
- ²¹ 모압 여자 룻이 말했다. "네가 말했듯이,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수확을 마칠 때까지 내 젊은 종들 곁에 머물러라.'"
- ²²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했다. "내 딸아, 그의 여종들과 함께 나가서 다른 밭에서 해를 입지 않는 것이 좋다."
- ²³ 그러므로 그녀는 보아스의 여종들 곁에 머물며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이 끝날 때까지 줍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룻기 3장

- 1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말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편안한 곳을 찾아주지 않을까? 그러면 네가 잘될 것이다."
- 2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 아니냐? 네가 그의 처녀들과 함께 일했지 않느냐? 보라, 그는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퍼낼 것이다.
- 3 그러므로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그러나 그가 먹고 마시고 쉬기 전까지는 그에게 네가 누구인지 알리지 말아라.
- 4 그가 누울 때, 그가 누운 자리를 알아두어라. 그 후에 들어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줄 것이다.
- 5 그녀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 6 그녀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대로 하였다.
- 7 보아스가 먹고 마신 후, 마음이 기분이 좋아져서 곡물 더미 끝에 누웠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누웠다.
- 8 한밤중에 그 남자가 놀라서 몸을 돌려보니, 보라, 한 여자가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
- 9 그가 말했다. "너는 누구냐?"
- 10 그가 말했다. "내 딸아, 주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큰 자비를 보였구나. 네가 가난한 젊은이든 부유한 젊은이든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 11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해주겠다. 내 백성의 온 도시가 네가 훌륭한 여자임을 알고 있다.
- 12 내가 가까운 친척이긴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 13 이 밤을 여기서 지내라. 아침에 그가 네게 친척의 의무를 이행하려 한다면, 좋다. 그가 친척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네게 친척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네게 친척의 의무를 이행하겠다.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
- 14 그녀는 그의 발치에 아침까지 누워 있었고, 사람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기 전에 일어났다. 그가 말하기를, "여자가 타작마당에 왔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게 하라." 하였기 때문이다.
- 15 그가 말했다. "네가 입고 있는 겹옷을 가져와서 잡아라." 그녀가 그것을 잡으니, 그가 보리 여섯 되를 재어 그녀 위에 올려놓고 도시로 들어갔다.
- 16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어떻게 되었느냐, 내 딸아?" 그녀는 그 남자가 자신에게 한 모든 일을 시어머니에게 말하였다.
- 17 그녀가 말했다. "그가 나에게 이 보리 여섯 되를 주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빈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마라.' 하셨습니다."
- 18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기까지 기다려라. 그 남자는 오늘 안으로 이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룻기 4장

- 1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말한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말했다. "여기로 와서 앉으십시오." 그가 와서 앉았다.
- 2 보아스는 그 도시의 장로 열 명을 데려와서 말했다. "여기 앉으십시오." 그들이 앉았다.
- 3 그가 가까운 친족에게 말했다.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 엘리멜렉의 땅을 팔고 있습니다."
- 4 내가 당신에게 말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을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사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땅을 속량하고자 한다면 속량하십시오. 그러나 속량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알게 되겠습니다. 당신 외에는 이 땅을 속량할 사람이 없고, 나는 당신 다음입니다."
- 5 그러자 보아스가 말했다.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사는 그 날, 네가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도 함께 사야 한다. 이는 죽은 자의 이름을 그 유산 위에 세우기 위함이다."
- 6 가까운 친족이 말했다. "내가 스스로 속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내 유산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내 속량권을 당신에게 양도하십시오. 나는 속량할 수 없습니다."
- 7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속량하거나 교환할 때 모든 일을 확정하기 위해, 한 사람이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거래를 공식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8 그러자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에게 말했다. "당신이 사십시오." 그리고 그는 신을 벗었다.
- 9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엘리멜렉과 키리온과 마홀론의 모든 것을 사왔습니다."
- 10 또한 마홀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도 내 아내로 삼아, 죽은 자의 이름을 그 유산 위에 세우려 합니다. 죽은 자의 이름이 그 형제들 사이와 그의 고향 성문에서 끊기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 11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 집에 들어온 이 여자를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둘은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습니다. 또 당신을 에브라타에서 존중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 12 당신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당신에게 내려 주실 자손들로 말미암아요.
- 13 그러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가 그녀에게 가까이 가니, 주님께서 그녀가 임신하게 하였고,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 14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주님을 찬양하소서. 오늘도 당신에게 가까운 친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 15 그는 당신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당신의 늙은 날을 돌보아 줄 것입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당신을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존재로 그를 낳았습니다.
- 16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젖먹이가 되었다.
- 17 이웃 여자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며 말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지었다. 그는 이새의 아버지이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 18 이제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다. 베레스는 헤스론의 아버지가 되었고,
- 19 헤스론은 람의 아버지가 되었고, 람은 아민나답의 아버지가 되었고,
- 20 아민나답은 나손의 아버지가 되었고, 나손은 살몬의 아버지가 되었고,
- 21 살몬은 보아스의 아버지가 되었고, 보아스는 오벳의 아버지가 되었고,
- 22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었다.

사무엘기 상권 | 1 Samuel

사무엘기 상권 1장

- ¹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타임소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카나였고, 예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수프의 현손이었으며,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 ² 그는 아내 둘을 두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페니냐였다. 페니냐는 자녀가 있었으나, 한나는 자녀가 없었다.
- ³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동네에서 올라가서 실로에서 만군의 주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거기에는 주님의 사제인 엘리의 두 아들 호브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다.
- ⁴ 엘카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면, 그는 아내 페니냐와 그녀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었다.
- ⁵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배의 몫을 주었는데, 그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주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아 두셨기 때문이다.
- ⁶ 그녀의 경쟁자 페니냐는 주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아 두셨기 때문에, 그녀를 심하게 자극하여 괴롭혔다.
- ⁷ 그래서 해마다 그녀가 주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녀의 경쟁자가 그녀를 괴롭혔다. 그래서 한나는 울고 먹지 않았다.
- ⁸ 그의 남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했다. "한나야, 네가 왜 울고 있느냐? 왜 먹지 않느냐? 왜 마음이 슬퍼 있느냐? 내가 네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 ⁹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는 일어났다. 그때 사제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 ¹⁰ 그녀는 마음이 괴로워서 주님께 기도하며 심히 통곡하였다.
- ¹¹ 그녀는 서원하며 말했다. "만군의 주님, 주께서 당신의 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당신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는 그 아이를 평생 주님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 ¹² 그녀가 주님 앞에서 기도를 계속하자, 엘리는 그녀의 입술을 보았다.
- ¹³ 한나는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었고, 입술만 움직일 뿐,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였다.
- ¹⁴ 엘리가 그녀에게 말했다. "네가 얼마나 오래 술에 취해 있을 것인가? 와인을 떼어 버려라!"
- ¹⁵ 한나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제 주님, 저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저는 포도주나 강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오직 주님 앞에 제 영혼을 쏟아부었을 뿐입니다."
- ¹⁶ "당신의 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제 슬픔과 괴로움이 넘쳐서 말한 것입니다."
- ¹⁷ 그러자 엘리가 대답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네가 그분께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
- ¹⁸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는 길을 떠나 먹었고, 더 이상 슬픈 표정이 아니었다.
- ¹⁹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엘카나가 아내 한나를 알았고, 주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다.
- ²⁰ 때가 되자,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으며, 말했다. "내가 그를 주님께 구했기 때문입니다."
- ²¹ 그 남자 엘카나와 그의 온 가족은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올라갔다.
- ²² 그러나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다.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다. "아이가 젖을 떼기 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 후에 제가 데려가서 주님 앞에 나타나게 하고, 그곳에 영원히 머물게 하겠습니다."
- ²³ 그녀의 남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했다.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라. 아이가 젖을 떼기까지 기다려라. 다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바란다."
- ²⁴ 그녀가 아이를 젖을 떼자, 세 마리의 황소와 한 예바의 밀가루, 그리고 한 병의 포도주를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실로의 주님의 집으로 올라갔다. 아이는 아직 어렸다.
- ²⁵ 그들은 수소를 잡아 희생하고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갔다.

²⁶ 그녀가 말했다. "내 주님,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저는 여기서 당신 곁에 서서 주님께 기도했던 그 여자입니다.

²⁷ 나는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고, 주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한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²⁸ 그러므로 나는 이 아이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주님께 드려집니다." 그는 거기서 주님께 경배했다.

사무엘기 상권 2장

- 1 하나나가 기도하며 말했다. "내 마음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춤춘다.
- 2 주님처럼 거룩한 이는 아무도 없다.
- 3 "지나치게 교만하게 말하지 마라. 너희 입에서 교만한 말이 나오지 않게 하라.
- 4 "용사들의 활은 부서진다.
- 5 배부르던 자들은 빵을 얻기 위해 일한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자가 일곱을 낳았다.
- 6 "주님은 죽이고 살린다.
- 7 주님은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한다.
- 8 그는 가난한 자를 흙에서 일으킨다.
- 9 그는 그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신다.
- 10 주님과 다투는 자들은 부서져 흩어진다. "주님은 땅 끝까지 심판하신다.
- 11 엘카나는 라마로 돌아가 집으로 갔다. 아이는 사제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겼다.
- 12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다.
- 13 사제들이 백성과 함께하는 관습은, 누구든지 제물을 바칠 때, 고기가 끓고 있는 동안 사제의 하인이 세 갈래 이빨을 가진 포크를 들고 와서,
- 14 냄비나 솥이나 그릇에 찢어 넣어, 포크에 걸린 것을 모두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실로에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 15 그들이 지방을 태우기 전에, 사제의 하인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자에게 말했다. "사제에게 굶은 고기를 주어라. 그는 너희에게서 삶은 고기를 받지 않으며, 생고기만 받는다."
- 16 만약 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먼저 지방을 태운 다음, 네 마음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하면, 그는 대답했다. "아니, 지금 바로 내게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힘으로 빼앗겠다."
- 17 이 젊은이들의 죄는 주님 앞에서 매우 컸다. 그들은 주님의 제물을 경멸하였다.
- 18 그러나 사무엘은 어린아이로서, 세마포 에포드를 입고 주님 앞에서 섬겼다.
- 19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작은 옷을 지어 매년 남편과 함께 연례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에게 가져다주었다.
- 20 엘리는 엘카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며 말했다.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너희가 주님께 구한 바를 따라 자손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 21 주님은 하나나를 돌보셨고, 그녀는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 아이 사무엘은 주님 앞에서 자라났다.
- 22 엘리는 매우 늙었고, 그는 자기 아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행한 일과, 회막 문에서 봉사하는 여자들과 함께 자는 일을 모두 들었다.
- 23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어째서 너희는 이런 일을 하는가? 나는 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너희의 악한 행실을 듣는다."
- 24 아니, 내 아들들아, 내가 듣는 소문은 좋지 않다. 너희는 주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다.
- 25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느님이 그를 심판하시지만, 사람이 주님에게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는가?
- 26 아이 사무엘은 자라나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더 받았다.
- 27 하느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아버지의 집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에 종으로 억압받을 때에 그들에게 나를 드러내지 않았느냐?
- 28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로 하여금 내 제단에 올라가며 분향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의 집에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바치는 모든 불제물을 주지 않았느냐?
- 29 너는 내가 명령한 내 거처에서 내 제물과 내 헌물을 밟으며, 나보다 너희 아들들을 더 존중하여 이스라엘, 곧 내 백성의 모든 제물 중 최고의 것을 먹고 배부르게 하느냐?
- 30 그러므로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말한다. "내가 진실로 네 집과 네 아버지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걸게 하리라 하

였으나, 이제 주님은 말한다.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³¹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아버지 집의 팔을 꿇을 날이 온다. 그때에는 네 집에 늙은이가 없을 것이다.

³²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모든 부를 보면서, 네 집에 영원히 늙은이가 없을 것을 네가 볼 것이다.

³³ 내 제단에서 내가 꿇지 않는 네 집의 남자는 네 눈을 소모시키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네 집의 모든 자손이 젊은 나이에 죽을 것이다.

³⁴ 너의 두 아들, 호브니와 비느하스에게 닥칠 이 징표가 될 것이다. 하루 안에 둘 다 죽을 것이다.

³⁵ 내가 나를 위해 충성스러운 사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내 마음과 내 뜻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해 확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그는 내 기쁨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걷을 것이다.

³⁶ 네 집에 남은 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와서 은 한 뉘과 빵 한 덩이를 달라며 절하며 말할 것이다. "제발 저를 사제들의 한 직무에 넣어 주소서. 빵 한 조각이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

사무엘기 상권 3장

¹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겼다. 그 시대에는 주님의 말씀이 드물었고, 환상도 많지 않았다.

² 그때 엘리가 제자리에서 눕고 있었는데, 그의 눈이 흐려져 보이지 않았다.

³ 하느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느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눕고 있었다.

⁴ 주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다. 그가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⁵ 그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⁶ 주님께서 다시 불렀다. "사무엘!"

⁷ 그때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않았다.

⁸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로 불렀다.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⁹ 그러자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했다. "가서 눕거라. 그가 네게 부르면,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제자리로 가서 눕혔다.

¹⁰ 주님께서 와서 서서, 이전처럼 불렀다. "사무엘! 사무엘!"

¹¹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일을 하려 한다. 그 일을 듣는 자들의 두 귀가 모두 울릴 것이다."

¹² 그 날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내가 그에게 말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낼 것이다.

¹³ 내가 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할 것이다. 그는 그의 아들이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것을 알고도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¹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맹세하였다. 엘리의 집의 죄악은 희생 제물이나 예물로 영원히 사해지지 않을 것이다.

¹⁵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주님의 성전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엘리에게 그 환상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¹⁶ 그러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했다. "사무엘, 내 아들아!"

¹⁷ 그가 말했다. "그가 너에게 무엇을 말했느냐? 내게 숨기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고, 더욱 더 하시기를 바란다. 네가 내게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숨긴다면."

¹⁸ 사무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한 가지도 숨기지 않았다.

¹⁹ 사무엘은 자라났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며, 그의 말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²⁰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이는 사무엘이 주님의 예언자로 굳게 세워졌음을 알았다.

²¹ 주님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다. 주님께서 실로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사무엘기 상권 4장

- 1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르렀다.
- 2 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대치하여 전투를 벌였고, 이스라엘이 빌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여 전장에서 사병 약 사천 명이 죽었다.
- 3 백성이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했다. "오늘 우리가 빌레셋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실로에서 주님의 언약 궤를 가져와 우리 가운데로 데려오자. 그래야 우리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 4 그래서 백성이 실로로 사람을 보내어,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언약 궤를 가져왔다. 엘리의 두 아들 호브니와 비느하스도 하느님의 언약 궤와 함께 있었다.
- 5 주님의 언약 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은 큰 함성을 지르며 외쳤다. 그 소리가 땅을 울렸다.
- 6 빌레셋 사람들이 그 함성 소리를 듣고 말했다. "히브리인 진영에서 이 큰 함성 소리가 무엇인가?" 그들은 주님의 궤가 진영에 들어왔음을 알았다.
- 7 빌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말했다. "하느님이 진영에 들어왔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에게 화가 이르렀도다! 이런 일은 전에 없었다."
- 8 우리에게 화가 이르렀도다! 누가 우리를 이 강력한 신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는가? 이 신들이 광야에서 이집트를 온갖 재앙으로 친 신들이다."
- 9 빌레셋 사람들아, 용감해지고 남자처럼 행동하여 히브리인들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것처럼. 남자처럼 힘을 내어 싸우라!"
- 10 빌레셋 사람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고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다. 큰 학살이 일어났다. 이스라엘의 보병 삼만 명이 쓰러졌다.
- 11 하느님의 궤가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호브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다.
- 12 베냐민 사람 한 명이 군대에서 달려나와 그날 실로에 도착했고,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 13 그가 도착했을 때, 엘리는 길가에 앉아 주님의 궤를 염려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안에 들어가 소식을 전하자, 성 전체가 울부짖었다.
- 14 엘리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말했다. "이 소란의 소리가 무엇인가?"
- 15 엘리는 아흔여덟 살이었고, 눈이 흐릿하여 보지 못했다.
- 16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했다. "나는 군대에서 나온 자입니다. 오늘 군대에서 도망쳤습니다."
- 17 소식을 전한 사람이 대답했다. "이스라엘이 빌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사이에도 큰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호브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느님의 궤가 빼앗겼습니다."
- 18 그가 하느님의 궤에 대해 말하자,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옆에 쓰러졌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는 나이가 많고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사십 년 동안 심판했다.
- 19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하여 임산부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하느님의 궤가 빼앗겼고, 시부모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몸을 굽히고 아이를 낳았다. 그녀의 진통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 20 그녀가 죽을 무렵, 그녀 곁에 서 있던 여자들이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신경도 쓰지 않았다.
- 21 그녀는 아이 이름을 이카보드라 지었고 말했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도다!" 하느님의 궤가 빼앗겼고, 시부모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 22 그녀는 말했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도다. 하느님의 궤가 빼앗겼기 때문이다."

사무엘기 상권 5장

- ¹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하느님의 궤를 빼앗아 에베네제르에서 아스돗으로 옮겼다.
- ² 블레셋 사람들은 하느님의 궤를 데간의 집으로 옮겨 데간 옆에 놓았다.
- ³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데간이 주님의 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데간을 들어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 ⁴ 그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데간이 주님의 궤 앞에서 다시 땅에 얼굴을 대고 쓰러져 있었고, 데간의 머리와 양손의 손바닥은 문지방에서 잘려 나가 있었으며, 몸통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 ⁵ 그러므로 아스돗에서 데간의 제사장들과 데간의 집에 들어가는 자들은 오늘날까지도 데간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 ⁶ 그러나 주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 위에 무겁게 내려져 그들을 멸망시키고 종기로 치셨다. 아스돗과 그 경계 지역 모두가 그랬다.
- ⁷ 아스돗 사람들이 그 일이 이렇게 되었음을 보고 말했다. "이스라엘 하느님의 궤를 우리와 함께 두지 말자. 그분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데간에게까지 심하게 내리고 있다."
- ⁸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 말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느님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할까?"
- ⁹ 그들이 궤를 그곳으로 옮긴 후, 주님의 손이 그 성에 내려서 큰 혼란을 일으키셨다. 그분이 성 안의 모든 사람, 어린이와 어른을 가리지 않고 치셨고, 그들에게 종기가 생겼다.
- ¹⁰ 그러므로 그들은 하느님의 궤를 에크론으로 보냈다.
- ¹¹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 말했다. "이스라엘 하느님의 궤를 우리에게서 내보내어 제자리로 돌려보내라. 그래야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성 전체에 죽음의 공포가 퍼져 있었다. 거기에는 하느님의 손이 매우 무거웠다.
- ¹² 죽지 않은 사람들은 종기로 치임을 받았고, 성의 외침이 하늘까지 올라갔다.

사무엘기 상권 6장

- ¹ 주님의 궤가 블레셋 땅에 일곱 달 동안 있었다.
- ²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말했다. "주님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제자리로 보내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 ³ 그들이 말했다. "이스라엘 하느님의 궤를 보내려면 공허하게 보내지 마라. 반드시 그분께 범죄 헌물로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낫고, 그분의 손이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 ⁴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그분께 돌려줄 범죄 헌물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 ⁵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종기와 땅을 해치는 쥐들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야 그분이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손을 떼실지도 모른다.
- ⁶ 왜 너희는 이집트 사람과 파라오가 마음을 굳게 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굳게 하는가? 그분이 그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그들은 백성을 보내지 않았던가? 그들은 떠나지 않았던가?
- ⁷ 이제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준비하고, 아직 멍에를 메지 않은 젖 나는 암소 두 마리를 잡아라. 그 암소들을 수레에 매고, 그 새끼들을 그들 곁에서 데려가라.
- ⁸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 위에 올려라. 너희가 범죄 헌물로 그분께 돌려주는 금으로 만든 보물들을 상자에 담아 궤 옆에 놓아라. 그리고 보내라. 그것이 가게 하라.
- ⁹ 보아라. 그것이 자기 경계를 따라 뱌세메스로 올라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이 그분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 뿐이다.
- ¹⁰ 그 남자들이 그대로 하여, 젖 나는 암소 두 마리를 잡아 수레에 매고, 그 새끼들을 집에 가두었다.
- ¹¹ 그들은 주님의 궤를 수레 위에 올리고, 금으로 만든 쥐들과 종기들의 형상이 들어 있는 상자를 그 옆에 놓았다.
- ¹² 암소들은 뱌세메스로 가는 길을 직진하여, 길을 따라 가면서 울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아서 가지 않았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그 뒤를 따라 뱌세메스 경계까지 갔다.
- ¹³ 뱌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 수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 ¹⁴ 수레가 뱌세메스의 여호수아 밭에 들어가서, 큰 돌이 있는 곳에 멈춰 섰다. 그들은 수레의 나무를 갈라서 암소들을 주님께 번제로 바쳤다.
- ¹⁵ 레위 사람들은 주님의 궤와 그 옆에 있던 금 보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내려서 큰 돌 위에 올려놓았다. 뱌세메스 사람들은 그날 주님께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렸다.
- ¹⁶ 블레셋의 다섯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날 에크론으로 돌아갔다.
- ¹⁷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께 범죄 헌물로 돌려준 금 종기들은 다음과 같다. 아스돗에는 하나, 가사에는 하나, 아스켈론에는 하나, 가드에는 하나, 에크론에는 하나이다.
- ¹⁸ 금 쥐들은 블레셋의 다섯 지도자에게 속한 모든 도시의 수에 따라, 요새 도시와 시골 마을까지, 주님의 궤를 놓은 큰 돌까지 포함한다. 그 돌은 오늘날까지 뱌세메스의 여호수아 밭에 남아 있다.
- ¹⁹ 그분은 주님의 궤를 들여다본 뱌세메스 사람들을 치셨다. 그분이 남자 다섯만 칠천 명을 치셨다. 그때 백성은 슬퍼하며, 주님이 큰 살육으로 백성을 치셨기 때문이다.
- ²⁰ 뱌세메스 사람들은 말했다. "이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 누가 서서 견딜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서 그분이 어디로 올라가실 수 있겠는가?"
- ²¹ 그들은 기리아스여아림 주민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습니다. 내려와서 우리에게로 끌어올리십시오."

사무엘기 상권 7장

- ¹ 기리아트여아림 사람들은 주님의 궤를 데려와,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놓고, 그의 아들 엘라자르를 세워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 ² 궤가 기리아트여아림에 머문 날부터 긴 시간이 흘렀다. 이는 스무 해나 되었고, 이스라엘 온 집은 주님을 향해 애통해하였다.
- ³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집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선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치워 버리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며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 ⁴ 이스라엘 자손은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치워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겼다.
- ⁵ 사무엘이 말하였다. "이스라엘을 모두 미스바로 모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겠다."
- ⁶ 그들은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주님 앞에 쏟아부었고, 그 날을 금식하며 말하였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심판하였다.
- ⁷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 ⁸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위해 우리 하느님 주님께 끊임없이 울부짖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 ⁹ 사무엘은 젖먹이 어린 양을 잡아 주님께 전번 제물로 바쳤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였고, 주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 ¹⁰ 사무엘이 전번 제물을 바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나 그날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위에 큰 천둥을 치시며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고,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졌다.
- ¹¹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나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벤카르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치고 쳤다.
- ¹²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져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제라 하여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 ¹³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굴복하였고, 이스라엘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다. 사무엘의 평생 동안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였다.
- ¹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도시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왔으니, 에크론에서부터 가트에 이르기까지였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경계를 회복하였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 ¹⁵ 사무엘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심판하였다.
- ¹⁶ 그는 해마다 벳엘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였다.
- ¹⁷ 그의 귀향지는 라마였으니, 그의 집이 거기 있었고, 그는 거기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였다. 그는 거기서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

사무엘기 상권 8장

- ¹ 사무엘이 늙었을 때,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세웠다.
- ² 그의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였다. 그들은 베엘세바에서 재판관으로 일했다.
- ³ 그의 아들들은 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받고, 정의를 왜곡했다.
- ⁴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찾아갔다.
- ⁵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른 모든 민족처럼 우리를 심판할 왕을 세워 주십시오."
- ⁶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를 심판할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사무엘은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 ⁷ 주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네게 하는 말을 모두 들어라. 그들이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그들의 왕으로서 거부한 것이다."
- ⁸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내게서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긴 것처럼, 그들도 지금 너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
- ⁹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보여주어라.
- ¹⁰ 사무엘은 왕을 달라고 요청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전했다.
- ¹¹ 그가 말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가서 자기의 병거와 말을 위한 종으로 삼고, 자기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 ¹² 그는 그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고, 일부는 땅을 갈고 수확을 하게 하며, 전쟁 기계와 병거의 도구를 만들게 할 것이다.
- ¹³ 그는 너희 딸들을 데려가서 향수 제조부, 요리부, 빵 굽는 부로 삼을 것이다.
- ¹⁴ 그는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 곧 너희의 가장 좋은 땅을 빼앗아 그의 종들에게 줄 것이다.
- ¹⁵ 그는 너희 씨앗과 포도원의 십분의 일씩을 빼앗아 그의 관리들과 종들에게 줄 것이다.
- ¹⁶ 그는 너희 남종과 여종과 가장 좋은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빼앗아 자기 일에 쓸 것이다.
- ¹⁷ 그는 너희 양 떼의 십분의 일씩을 빼앗을 것이며,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 ¹⁸ 그때 너희는 너희가 스스로 선택한 왕 때문에 외칠 것이다. 그러나 그날 주님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지 않을 것이다.
- ¹⁹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말했다. "아니오, 우리는 우리 위에 왕이 있어야 합니다."
- ²⁰ 우리도 다른 모든 민족처럼 되고, 우리의 왕이 우리를 심판하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 ²¹ 사무엘은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주님의 귀에 전했다.
- ²² 주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들에게 왕을 세워라."

사무엘기 상권 9장

- 1 베냐민 지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스였고, 그는 아비엘의 아들, 세로르의 아들, 베코라의 아들, 아피아의 아들, 베냐민 사람이다. 그는 용감한 용사였다.
- 2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고, 그는 훌륭한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자손 중 사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은 없었다. 어깨 위로 그는 모든 백성보다 키가 컸다.
- 3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암나귀들이 길을 잃었다.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말했다. "지금 네 종 중 한 사람을 데리고 일어나서, 암나귀들을 찾아라."
- 4 그는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지나갔으나, 찾지 못했다. 그 후 살림 땅을 지나갔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그는 베냐민 땅을 지나갔으나, 찾지 못했다.
- 5 그들이 셉 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자기 곁에 있던 종에게 말했다. "자, 돌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잊고 우리를 걱정하게 될 것이다."
- 6 종이 그에게 대답했다. "보십시오, 이 성에 하느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 아마 그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 7 사울이 종에게 말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가면 무엇을 그 사람에게 드릴까요? 우리 주머니에 빵은 다 떨어졌고, 하느님의 사람에게 드릴 선물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 8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했다. "보십시오, 제 손에 은 한 세켈의 네 분의 일쯤 있습니다. 제가 그 은을 하느님의 사람에게 드려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하겠습니다."
- 9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하느님께 물을 때, "자, 우리가 보는 자에게 가자."라고 말했다. 지금은 예언자라 불리는 이는 이전에는 보는 자라 불렸다.)
- 10 사울이 종에게 말했다. "좋은 말이네. 자, 가자."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갔다.
- 11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던 중, 물을 길기 위해 나온 젊은 여자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물었다. "보는 자가 여기 있습니까?"
- 12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있어요. 보십시오, 그가 앞에 있습니다. 서두르세요. 오늘 그가 성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 13 너희가 성에 들어가자마자,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를 만날 것이다. 백성들은 그가 오기 전에는 먹지 않는다. 그가 제사를 축복하기 때문이다. 그 후에 초대받은 자들이 먹는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라. 지금 그를 만날 것이다.
- 14 그들이 성으로 올라갔다. 성 안에 들어서자, 사무엘이 그들을 맞이하러 나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했다.
- 15 그날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시하셨다. 말씀하셨다.
- 16 "내일 이때쯤,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를 이스라엘 내 백성의 지도자로 기름을 부어 기름 부음 받게 하라. 그가 내 백성을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돌아보았으니,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기 때문이다."
- 17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사람이다. 그가 내 백성의 권위를 가질 것이다."
- 18 그때 사울이 성문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 말했다. "부디 알려주십시오. 보는 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 19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했다. "내가 바로 보는 자입니다. 나보다 앞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침에 내가 너를 보내고,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 20 삼 일 전에 잃어버린 네 암나귀들에 대해 신경 쓰지 마라. 그들은 이미 찾았다. 이스라엘 전체가 누구를 원하는가? 네가 아니냐? 그리고 네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
- 21 사울이 대답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가문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문 중 가장 작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22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손님 방으로 들어가, 초대받은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다. 그들은 약 서른 명이었다.

²³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주고, '따로 두라.'고 말했던 그 부분을 가져오라."

²⁴ 요리사가 허벅지와 그 위에 있는 것을 가져와 사울 앞에 놓았다. 사무엘이 말했다. "보라, 예비해 둔 것이 여기 있다. 너 앞에 놓고 먹어라. 이는 정해진 때를 위해 너를 위해 보존된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백성을 초대하였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울은 그날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²⁵ 그들이 높은 곳에서 도시로 내려오자, 그는 집 지붕에서 사울과 대화하였다.

²⁶ 그들은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 해가 뜨기 직전에 사무엘은 집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말하였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사울이 일어나, 그와 사무엘은 함께 밖으로 나갔다.

²⁷ 그들이 도시 끝을 내려가며 가고 있을 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하였다. "종에게 앞서 가게 하라." 그가 앞서 가자, 사무엘은 말하였다. "그러나 잠시 서 있어라.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겠다."

사무엘기 상권 10장

- 1 사무엘이 기름 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으며 입을 맞추고 말했다. "주님이 당신을 그의 기업의 통치자로 기름부으셨지 않습니까?"
- 2 오늘 당신이 나를 떠나면 베냐민 지경 젤자에서 라헬의 무덤 곁에 두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당신이 찾던 나귀들이 발견되었고, 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나귀들을 잊고 당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합니다.
- 3 그 후 당신은 그곳을 떠나 타보르의 참나무에 이를 것이다. 거기서 세 사람이 당신을 만나는데, 그들은 벤엘로 올라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중이다. 한 사람은 세 마리 어린 염소를, 또 한 사람은 빵 세 덩이를,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있다.
- 4 그들이 당신을 맞이하고 빵 두 덩이를 주며, 당신은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을 것이다.
- 5 그 후 당신은 블레셋 사람의 요새가 있는 하느님의 언덕에 이를 것이다. 당신이 그 성읍에 도착할 때, 높은 곳에서 내려오며 수금과 탬버린과 피리와 거문고를 앞에 들고 있는 예언자 무리와 마주칠 것이다.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 6 그때 주님의 영이 당신에게 강력히 임할 것이며,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 7 이 모든 징표가 당신에게 일어날 때, 그때에 당신은 그 상황에 맞는 일을 하라.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다.
- 8 내가 길갈로 먼저 내려가라. 보라, 내가 당신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평제를 바칠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이르기까지 일곱 날을 기다리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줄 것이다.
- 9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 돌아서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다. 그날 모든 징표가 일어났다.
- 10 그들이 언덕에 이르렀을 때, 예언자 무리가 그를 맞이하였다.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히 임하여 그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언하였다.
- 11 그 전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고 서로 말했다.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는가?"
- 12 그 지역의 한 사람이 대답했다.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 말이 속담이 되었다.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는가?"
- 13 그가 예언을 마치고 높은 곳에 이르렀다.
- 14 사울의 삼촌이 그와 그의 시종에게 말했다. "너희는 어디에 다녀왔느냐?"
- 15 사울의 삼촌이 말했다. "사무엘이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내게 말해 주오."
- 16 사울이 삼촌에게 말했다. "그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나귀들이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한 왕국에 관한 일은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 17 사무엘이 백성을 모아 주님께로 미스바로 이끌었다.
- 18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올려왔고, 너희를 이집트인의 손과 너희를 짓누르던 모든 왕국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다."
- 19 그러나 너희는 오늘날, 너희의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너희 하느님을 거부하였다. 너희는 그분께 말했다. "아니오. 우리 위에 왕을 세워 주소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 지파와 천 단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 20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불러왔고,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 21 그가 베냐민 지파를 가족 단위로 가까이 불러왔고, 마트리 가족이 뽑혔다. 그 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러나 그를 찾으려고 하니, 그가 보이지 않았다.
- 22 그러므로 그들이 주님께 더 묻기를, "여기 올 사람이 또 있습니까?"
- 23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려왔다. 그가 백성 가운데 서자, 그는 어깨 위로 모든 백성보다 키가 컸다.
- 24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주님이 뽑으신 이 사람을 보지 못하느냐? 이 사람처럼 훌륭한 자가 너희 중에 누구 있느냐?"
- 25 사무엘은 백성에게 왕국의 규정을 알려주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주님 앞에 두었다. 그 후 사무엘은 모든 백성을 각자

의 집으로 보냈다.

²⁶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하느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신 자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그와 함께 갔다.

²⁷ 그러나 몇몇 무가치한 자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어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를 경멸하며 공물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침묵했다.

사무엘기 상권 11장

¹ 그러자 암몬 사람 나아스가 올라와 길르앗의 야베스를 에워싸고 진을 쳤다. 야베스의 모든 남자들이 나아스에게 말했다. "우리와 계약을 맺으소서.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²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와 계약을 맺으려면, 너희 모든 오른쪽 눈을 빼내야 한다. 내가 이 수치를 이스라엘 전체에 안겨주겠다."

³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말했다. "일주일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모든 경계에 사신들을 보내겠습니다. 그 후, 만약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나아가겠습니다."

⁴ 그 사신들이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이르러 백성의 귀에 이 말을 전하니,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었다.

⁵ 보라, 사울이 밭에서 소를 끌고 오고 있었다. 사울이 말했다. "백성들이 왜 울고 있는가?" 그들은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그에게 전했다.

⁶ 사울이 그 말을 들으니,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고, 그의 분노가 치밀었다.

⁷ 그는 소 한 쌍을 잡아 조각내어 사신들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경계에 보내며 말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의 소처럼 되리라." 주님께 대한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고, 그들은 한 사람처럼 모두 나왔다.

⁸ 그는 베섹에서 그들을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은 삼십만 명이었고, 유다 사람들은 삼만 명이었다.

⁹ 그들은 사신들에게 말했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라. 내일 해가 뜨고 날이 더워질 무렵,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신들이 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기뻐했다.

¹⁰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말했다. "내일 우리는 당신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좋다고 여기는 대로 하십시오."

¹¹ 다음 날, 사울은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누어 아침 경비 시간에 진중으로 쳐들어가, 암몬 사람들을 낮이 더워질 때까지 치고, 살아남은 자들은 흩어져 둘도 없이 흩어졌다.

¹²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누가 말하기를, '사울이 우리를 다스릴 것인가?' 하였던가? 그 자들을 끌어내어 죽이자!"

¹³ 사울이 말했다. "오늘은 아무도 죽지 않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¹⁴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오라. 길갈로 가자. 거기서 왕권을 다시 확정하자."

¹⁵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화평 제물을 바쳤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크게 기뻐했다.

사무엘기 상권 12장

- 1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보라, 내가 너희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들었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 2 이제 보라, 왕이 너희 앞에서 행하고 있다. 나는 늙고 머리가 희다. 보라, 내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서 행해왔다.
- 3 내가 여기 있다. 주님과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를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억압했느냐? 내가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아 내 눈을 멀게 했느냐?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 4 그들이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억압하지도 않았으며, 아무도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 5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주님은 너희를 증언하시고,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한다. 너희는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 6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 7 이제 가만히 서라.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을 너희와 논의하리라.
- 8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너희 조상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다.
- 9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하느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을 하소르 군대 장관 시세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이 그들과 싸웠다.
- 10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어 말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 11 주님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예드와 사무엘을 보내어 너희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사방에서 구원하셨고, 너희는 안전하게 살았다.
- 12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에게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에게 말했다. '아니오, 우리 위에 왕이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나 그때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 왕이셨다."
- 13 이제 너희가 선택하고 구한 왕을 보아라. 보아라, 주님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 14 만약 너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반역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너희 위에 다스리는 왕도 모두 너희 하느님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다.
- 15 그러나 너희가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반역한다면, 주님의 손이 너희를 칠 것이며, 이는 너희 조상들을 친 것처럼 될 것이다.
- 16 이제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너희 눈앞에서 하실 이 위대한 일을 보아라.
- 17 오늘은 밀 수확 시즌이 아니냐?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 천둥과 비를 보내게 하리니, 너희는 너희가 주님의 눈앞에서 왕을 구하는 일로 행한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보게 될 것이다.
- 18 그러므로 사무엘이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은 그날 천둥과 비를 보내셨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였다.
- 19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느님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왕을 구하는 이 악한 일을 하여 우리 모든 죄에 더하였습니다."
- 20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정말로 이 모든 악을 저질렀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을 그치지 말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 21 이익도 구원도 주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마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다.
- 22 주님은 그분의 위대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 23 게다가 나에게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고 주님께 죄를 지는 것이 결코 있을 수 없다. 나는 너희에게 선하고 올바른 길을 가르치겠다.

24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고,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라.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아라.

25 하지만 너희가 계속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도 소멸될 것이다.

사무엘기 상권 13장

1 사울이 왕이 될 때 삼십 세였고, 이스라엘을 사십이 년 동안 다스렸다.

2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삼천 명을 골라, 그 중 이천 명은 미스마와 벳엘 산에서 사울과 함께 있었고, 천 명은 베냐민의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함께 있었다. 그는 나머지 백성을 각자의 장막으로 보냈다.

3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전초기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은 온 땅에 나팔을 불며 말했다. "히브리 사람들이 들으라!"

4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사울이 블레셋의 전초기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음을 듣고, 사울을 따라 길갈로 모였다.

5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 삼만 대의 병거와 육천 명의 기마병과 바다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벳아웬 동쪽 미스마에 진을 쳤다.

6 이스라엘 사람들이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 백성은 동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무덤과 웅덩이에 숨었다.

7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르단 강을 건너 가드와 길르앗 땅으로 도망갔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길갈에 있었고, 모든 백성은 떨어져 그를 따랐다.

8 사울은 사무엘의 정한 기간 동안 일곱 날을 기다렸다. 그러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않았고, 백성은 그를 떠나 흩어졌다.

9 사울이 말했다. "여기로 번제를 가져오고, 화평제도 가져오게." 그가 번제를 드렸다.

10 그가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다. 사울은 나가서 그를 맞아 인사하려 했다.

11 사무엘이 말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12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내게 내려올 것이고, 나는 주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강제하여 번제를 드렸다.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너는 어리석은 일을 했다. 네 하느님 주님께서 네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지금 주님께서 네 왕국을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려 하셨을 것이다."

14 그러나 이제 네 왕국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를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네가 주님께서 네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15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베냐민의 기브아로 떠났다. 사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세어 보니 약 육백 명이었다.

16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백성은 베냐민의 게바에 머물렀고, 블레셋 사람들은 미스마스에 진을 쳤다.

17 블레셋 진영에서 약탈자들이 세 무리로 나와 나갔다. 한 무리는 오브라로 가는 길, 술 땅으로 향했고;

18 다른 한 무리는 벳오론으로 가는 길로 향했고, 또 다른 한 무리는 세보임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경계 길로 향했다.

19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대장장이가 없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고 했다.

20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가서 자기 농기구, 곧 쟁기날, 삽, 도끼, 낫을 날을 갈았다.

21 날을 갈아주는 가격은 삽, 쟁기날, 갈고리, 도끼, 채찍마다 한 파이임이었다.

22 그러므로 전투 날이 되었을 때,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23 블레셋의 전초기지는 미스마스 고개로 나갔다.

사무엘기 상권 14장

- 1 한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갑옷을 메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오라. 우리가 저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로 건너가자."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다.
- 2 사울은 기브아의 가장 끝 부분,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고 있었고,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은 약 육백 명이었다.
- 3 아히둡의 아들 아히야, 곧 실로에서 주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손자이자 피니하스의 아들, 이카보드의 형제가 에포드를 입고 있었다. 백성은 요나단이 떠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 4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로 건너가려고 했던 두 고개 사이에는 한쪽에는 바르세스라는 바위 절벽이 있고, 다른 쪽에는 세네라는 바위 절벽이 있었다.
- 5 한쪽 절벽은 미크마스 앞쪽 북쪽에 솟아 있었고, 다른 쪽은 게바 앞쪽 남쪽에 있었다.
- 6 요나단이 자기 갑옷을 메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오라. 우리가 이 할레받지 못한 자들의 요새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지도 모른다. 주님께는 많으나 적으나 구원하실 수 있는 제한이 없다."
- 7 그의 갑옷을 메는 자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가십시오. 제가 당신의 마음에 따라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 8 그러자 요나단이 말했다.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 9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는 제자리에 멈춰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 10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그러면 우리는 올라갈 것이다. 주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징표가 될 것이다."
- 11 두 사람이 모두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에 자신을 드러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다.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오고 있다!"
- 12 요새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갑옷을 메는 자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가 너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
- 13 요나단은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갑옷을 메는 자도 뒤따라 올라갔다.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졌고, 그의 갑옷을 메는 자가 그 뒤를 따라 그들을 죽였다.
- 14 요나단과 그의 갑옷을 메는 자가 처음으로 벌인 학살은 약 이십 명이었고, 그 범위는 한 갈퀴 길이의 반 정도 되는 땅이었다.
- 15 진영과 들판과 모든 백성 사이에 떨림이 일어났고, 요새와 습격자들도 떨렸으며, 땅이 요동쳤다. 그래서 매우 큰 떨림이 일어났다.
- 16 베나민의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바라보니, 보라, 무리가 녹아서 흩어지고 있었다.
- 17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다. "지금 수를 세어 보아, 우리 중 누가 빠졌는지 보아라." 그들이 수를 세어 보니, 요나단과 그의 갑옷을 메는 자가 보이지 않았다.
- 18 사울이 아히야에게 말했다. "주님의 궤를 여기로 가져오시오." 그때 주님의 궤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 19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일어난 소란은 계속되고 더욱 커졌다. 그러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했다. "손을 빼시오!"
- 20 사울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전장으로 나아갔다. 보라, 그들이 모두 칼로 서로를 치며 매우 큰 혼란 속에 있었다.
- 21 그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있었고, 그들과 함께 진영으로 올라왔던 히브리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 곧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 22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던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친 것을 듣고, 전투에서 그들을 뒤쫓았다.
- 23 그러므로 주님이 그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전투는 벳아웬을 지나갔다.
- 24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을 겪었다.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저녁이 될 때까지 어떤 음식이라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백성 중 아무도 음식을 맛보지 않았다.

25 모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갔다. 땅 위에 꿀이 있었다.

26 백성이 숲에 이르렀을 때, 꿀이 떨어지고 있었으나, 아무도 손을 입에 대지 않았다. 백성이 맹세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27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가 맹세로 백성을 명령한 것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 끝을 꿀집에 담고 그 손은 입에 대니, 그의 눈이 밝아졌다.

28 그러자 백성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맹세하기를, 오늘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힘을 잃었다.

29 요나단이 말했다. "내 아버지가 땅을 괴롭혔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았더니, 내 눈이 얼마나 밝아졌습니까."

30 만약 오늘 백성이 자신들이 발견한 적의 전리품을 자유롭게 먹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지금도 필리스티인들 사이에 큰 학살이 없었습니다.

31 그들은 그날 미스마스에서 아아론까지 필리스티인들을 치고, 백성은 매우 힘들었다.

32 백성이 전리품을 뒤쳐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아 땅 위에서 잡아 죽이고, 피를 섞어 먹었다.

33 그러자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백성이 피를 섞어 고기를 먹으며 주님께 죄를 지고 있습니다."

34 사울이 말했다. "백성들 사이로 흩어져서, 각자에게 말하라. '너는 너의 소를, 너는 너의 양을 데려와 여기서 잡고 먹어라. 피를 섞어 고기를 먹으며 주님께 죄를 지지 말라.'"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자 자신의 소를 데려와 그곳에서 잡아 죽였다.

35 사울이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 이것이 그가 주님을 위해 쌓은 첫 번째 제단이었다.

36 사울이 말했다. "밤에 필리스티인들을 뒤쫓아 내려가서, 아침 빛이 떠오르기 전까지 그들 사이에서 전리품을 가져오자. 그들 중 한 사람도 놓치지 말자."

37 사울이 하느님께 물었다. "내가 필리스티인들을 뒤쫓아 내려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까?" 그러나 그날 하느님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38 사울이 말했다. "여기로 모두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오게 하여,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보아라."

39 사울이 말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말한다. 비록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백성 중 그에게 대답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40 그러자 그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했다. "너희는 한쪽에 서고,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다른 쪽에 서자."

41 그러므로 사울이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말했다. "바른 것을 보여 주소서."

42 사울이 말했다.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제비를 던져 보자."

43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했다. "네가 무엇을 했는지 말해 보아라!"

44 사울이 말했다. "하느님께서 이와 같이, 그리고 더 많이 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요나단아."

45 백성이 사울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에서 이 위대한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말합니다.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가 오늘 하느님과 함께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요나단을 구해내어 그가 죽지 않게 하였다.

46 그러자 사울은 필리스티인들을 뒤쫓는 일을 그만두고 올라갔다. 필리스티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47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후, 그는 사방의 모든 원수들과 싸웠다.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조바의 왕들과 필리스티인들과 싸웠다. 그가 어디로 돌이키든, 그는 그들을 이겼다.

48 그는 용감히 행동하여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49 사울의 아들들은 요나단과 이스비와 말기수아였고,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였다: 맏딸은 메라브이고, 둘째 딸은 미갈이었다.

50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나암으로, 아히마아스의 딸이었다. 그의 군대 장관의 이름은 아비넬로, 네르의 아들이며, 사울의 삼촌이었다.

51 키시는 사울의 아버지였고, 네르는 아비넬의 아버지이며, 아비엘의 아들이다.

⁵² 사울이 살아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심한 전쟁이 계속되었다.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을 보면 그를 자기 편으로 데려왔다.

사무엘기 상권 15장

- 1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셨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 2 주님의 군대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기억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길에서 그가 그들을 대적한 일을."
- 3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모두 멸망시켜라. 그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모두 죽이라."
- 4 사울은 백성을 불러 모아 텔라임에서 수를 세니, 보병이 이십만 명과 유다 사람 만 명이었다.
- 5 사울은 아말렉의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매복을 설치하였다.
- 6 사울이 그 케니인들에게 말했다. "가서 떠나라. 아말렉 사람들 사이에서 내려가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그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케니인들은 아말렉 사람들 사이에서 떠났다.
- 7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향해 히빌라에서 이집트 앞에 있는 숨까지 쳤다.
- 8 그는 아말렉의 왕 아가그를 생포하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 9 그러나 사울과 백성은 아가그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과 살진 송아지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모든 것을 살려두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천한 것과 버려진 것들은 모두 멸망시켰다.
- 10 그때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
- 11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화가 나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 12 사무엘이 아침에 일어나 사울을 만나러 갔다. 사무엘에게 전해졌다. "사울이 카르멜에 이르러 자기에게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서서 길갈로 내려갔다."
-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다. 사울이 그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당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 14 사무엘이 말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울음과 내가 듣는 소의 우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 15 사울이 말했다. "그것들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가져온 것입니다. 백성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살려두었고, 나머지는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 16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잠시 멈추십시오. 내가 어제 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17 사무엘이 말했다. "당신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였지만,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셨습니다."
- 18 주님께서 당신을 길을 떠나게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말렉 죄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 19 그러면 어찌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노략물을 취하여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까?"
- 20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보내신 길을 따라가며, 아말렉의 왕 아가그를 데려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 21 그러나 백성이 노략물에서 양과 소를 가져와, 가장 좋은 바쳐진 것들을 길갈에서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 22 사무엘이 말했다. "주님께서 번제와 희생제물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보십시오. 듣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 23 "반역은 마법의 죄와 같고, 고집은 우상 숭배와 테라핌과 같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으므로, 주님도 당신을 왕으로서 거부하셨습니다."
- 24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나는 백성을 두려워

하여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²⁵ 이제 그러므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돌아가서 주님을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²⁶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나는 너와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 네가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으므로, 주님도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거부하셨다."

²⁷ 사무엘이 돌아서서 떠나려 할 때, 사울이 그의 겹옷의 끝을 잡았더니, 그것이 찢어졌다.

²⁸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왕국을 당신에게서 떼어내어, 당신보다 나은 당신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²⁹ 이스라엘의 힘은 거짓말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³⁰ 그러자 사울이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돌아가서, 주님, 당신의 하느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³¹ 이에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돌아갔고, 사울은 주님을 예배하였다.

³² 사무엘이 말했다. "아말렉의 왕 아가그를 내게 데려오시오!" 아가그가 기쁨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아가그가 말했다. "죽음의 고통은 정말 끝났구나."

³³ 사무엘이 말했다. "네 칼이 여자들을 아이 없는 자로 만들었으니, 네 어머니도 여자들 사이에서 아이 없는 자가 되리라. " 그런 후 사무엘은 길갈에서 주님 앞에서 아가그를 조각내어 죽였다.

³⁴ 그 후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자기 집인 사울의 기브아로 올라갔다.

³⁵ 사무엘은 사울이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다. 주님은 이스라엘 위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음을 후회하셨다.

사무엘기 상권 16장

- 1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위하여 얼마나 오래 슬퍼하려는가?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거부하였다. 너의 뿔에 기름을 채우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여시의 집으로 보내겠다. 내가 그의 아들들 가운데 나를 위한 왕을 골라냈다."
- 2 사무엘이 말했다. "어떻게 제가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 3 "여시를 제사에 불러오라. 내가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를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 것이다."
- 4 사무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두려워하며 그를 맞이하여 말했다. "평안히 오셨습니까?"
- 5 그가 말했다. "평안히 왔습니다. 나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제사에 오십시오." 그는 여시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여 제사에 불러들였다.
- 6 그들이 이르자, 그는 엘리압을 보고 말했다. "분명히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가 이 앞에 있다."
- 7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외모나 키가 큰 것을 보지 마라. 내가 그를 거부하였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
- 8 그러자 여시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였다. 그가 말했다. "주님은 이 사람도 선택하지 않으셨다."
- 9 그러자 여시는 샘마를 불러 지나가게 하였다. 그가 말했다. "주님은 이 사람도 선택하지 않으셨다."
- 10 여시는 아들 일곱 명을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였다. 사무엘이 여시에게 말했다. "주님은 이들 중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다."
- 11 사무엘이 여시에게 말했다. "너의 모든 아들이 여기에 다 있느냐?"
- 12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붉은 빛을 띠고, 아름다운 얼굴과 좋은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사람이 바로 그다."
- 13 그러자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의 형들 사이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날부터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힘 있게 임하였다. 사무엘은 일어나 라마로 떠났다.
- 14 그러나 주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주님에서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혔다.
- 15 사울의 시종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주님에서 온 악한 영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 16 "당신의 앞에 서 있는 당신의 시종들 중 한 사람을 명령하여, 연주에 능한 하프 연주자를 찾아오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에서 온 악한 영이 당신에게 임할 때, 그가 손으로 하프를 연주하면, 당신이 기분이 나아질 것입니다."
- 17 사울이 그의 시종들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연주에 능한 사람을 한 명 찾아오게 하고, 그를 내게 데려오라."
- 18 그러자 한 젊은이가 대답하여 말했다. "보십시오, 베들레헴 사람 여시의 아들 다윗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는 하프 연주에 능하고, 용감한 용사이며, 전쟁에 익숙하고, 말을 잘하며, 외모가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 19 그러므로 사울은 여시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했다. "내게 네 아들 다윗을 보내어라. 그는 양들과 함께 있다."
- 20 여시는 빵을 가득 싣고, 포도주 한 병과 어린 염소를 한 마리 싣고 나귀에 실어,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었다.
- 21 다윗이 사울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서니, 사울은 그를 매우 사랑했고, 그를 무기 부대원으로 삼았다.
- 22 사울은 여시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했다. "다윗을 내 앞에 세워두게 해 주십시오. 그가 내 눈에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 23 하느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마다, 다윗은 하프를 가져와 손으로 연주하였다. 그러면 사울은 기분이 가라앉고 기분이 나아졌으며,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

사무엘기 상권 17장

- 1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 전투에 임했고,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에페스담밈에서 소고와 아제카 사이에 진을 쳤다.
- 2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모여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했다.
- 3 블레셋 사람들은 한쪽 산에 서 있고, 이스라엘은 다른 쪽 산에 서 있었으며,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다.
- 4 블레셋 진영에서 한 용사가 나왔는데, 그는 가트의 골리앗이라 불리며, 키가 여섯 큐빗과 한 갈래였다.
- 5 그는 놋 투구를 머리에 쓰고, 철갑을 입었는데, 그 철갑의 무게는 오천 세겔의 놋이었다.
- 6 그는 다리에 놋으로 된 종아리 깔창을 착용하고, 어깨 사이에 놋 창을 들고 있었다.
- 7 그의 창자루는 식물 기계의 기둥처럼 굽었고, 창날의 무게는 육백 세겔의 철이었다. 그의 방패를 든 자가 그 앞에서 나아갔다.
- 8 그가 나아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외쳐 말했다. "너희가 왜 전투를 벌이려고 나왔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다.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 그를 내게로 내려오게 하라."
- 9 그가 나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그를 이기고 죽이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리라."
- 10 블레셋 사람이 말했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도전한다. 한 사람을 내게 내어라. 우리가 함께 싸우자!"
- 11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무서워했다.
- 12 다윗은 베들레헴유다의 에브라다 사람 여세의 아들이었고, 그는 여덟 아들을 두었다. 그는 사울 시대에 늙은이었다.
- 13 여세의 세 아들 중 장남은 엘리압이었고, 둘째는 아비나답이며, 셋째는 샘마였는데, 이 세 사람은 사울과 함께 전투에 나갔다.
- 14 다윗은 막내였고, 세 장남들은 사울을 따랐다.
- 15 다윗은 사울에게서 왔다 갔다 하며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
- 16 블레셋 사람은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사십 일 동안 나타났다.
- 17 여세가 아들 다윗에게 말했다. "너는 네 형들에게 이 곡식 한 에바와 이 열 개의 빵을 가져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네 형들에게 전해라."
- 18 그리고 이 열 개의 치즈를 그들의 백인대장에게 가져가고, 네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 소식을 전해오라."
- 19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다.
- 20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을 간수자에게 맡기고, 여세가 명령한 대로 음식을 가지고 떠났다. 그가 군대가 전투를 위해 나아가는 곳에 도착했을 때, 군대가 전투를 외치고 있었다.
- 21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맞대어 전투를 벌였다.
- 22 다윗은 짐을 짐을 맡은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에 달려가서 형들에게 인사했다.
- 23 그가 그들과 말을 나누고 있을 때, 가트의 블레셋 용사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같은 말을 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었다.
- 24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도망쳐 두려워했다.
- 25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다. "이 올라온 자를 보았느냐?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올라왔다. 이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 왕은 큰 부를 주고, 그의 딸을 주며,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에서 세금 면제로 만들 것이다."
- 26 다비드는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수치를 없애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살아 계신 하느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그는 누구인가?"
- 27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 28 장남 엘리압은 그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다비드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말했다. "네가 왜 내려왔느냐? 광야에 남겨 둔 그 몇 마리 양은 누구와 함께 두었느냐?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악을 내가 안다. 네가 전투를 보려고 내려온 것뿐이다."

- 29 다비드가 말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걸 당연한 일이 아니냐?"
- 30 그는 그를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 다시 같은 말을 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다시 같은 대답을 했다.
- 31 다비드가 한 말이 들리자, 사람들이 사울 앞에 그 말을 전했다. 사울은 그를 불러들였다.
- 32 다비드가 사울에게 말했다. "그 사람 때문에 누구의 마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종이가 나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 33 사울이 다비드에게 말했다. "네가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 할 수 없어. 너는 젊은이일 뿐이고, 그는 어릴 때부터 전사인 사람이다."
- 34 다비드가 사울에게 말했다. "당신의 종은 아버지의 양을 지켰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한 마리 양을 빼앗을 때,"
- 35 저는 뒤를 쫓아가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양을 빼앗아냈습니다. 그가 저를 공격할 때, 저는 그의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 36 당신의 종은 사자와 곰을 모두 쳤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 37 다비드가 말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 38 사울은 다비드에게 자신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는 낫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혔습니다.
- 39 다비드는 칼을 허리에 차고 움직여 보았으나, 그는 그 무기를 시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비드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이것들로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시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벗어냈습니다.
- 40 그는 지팡이를 손에 쥐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 목동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매는 손에 있었고, 그는 블레셋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 41 블레셋 사람이 걸어 다비드에게 다가왔고, 방패를 든 자가 그 앞을 걷고 있었습니다.
- 42 블레셋 사람이 주위를 둘러보고 다비드를 보고는 그를 경멸했습니다. 그는 젊은이였고, 붉고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43 블레셋 사람이 다비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개냐? 네가 지팡이로 내게 오느냐?" 블레셋 사람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비드를 저주했습니다.
- 44 블레셋 사람이 다비드에게 말했습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네 살을 하늘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 45 그러자 다비드가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로 온다. 나는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느님의 이름으로 너에게로 간다. 너는 그분을 모욕했다."
- 46 오늘 주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하늘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하느님이 계심을 알게 하리라.
- 47 이 모든 공동체가 주님이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전투는 주님의 것이며,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 48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걸어 다비드에게 다가오자, 다비드는 빨리 달려 블레셋 사람을 맞이하러 나아갔다.
- 49 다윗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 하나를 꺼내 매에 올리고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혔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고,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다.
- 50 이렇게 다윗은 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치고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 51 그러자 다윗이 달려가 블레셋 사람 위에 서서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었다.
- 52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일어나 외치며 블레셋 사람들을 가이까지, 에크론 문까지 쫓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아라이부터 가드, 에크론까지 길에 쓰러졌다.
- 53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다니다가 돌아와 그들의 진영을 약탈했다.
- 54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가져 예루살렘으로 가져갔고, 그의 갑옷은 자기 장막에 두었다.
- 55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나가는 것을 보고 군대 장관 아브너에게 말했다. "아브너, 이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

가?" 아브너가 대답했다. "왕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저는 알지 못합니다."

⁵⁶ 왕이 말했다. "이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아라!"

⁵⁷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너가 그를 데리고 와서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손에 들고 사울 앞에 세웠다.

⁵⁸ 사울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젊은이여, 네가 누구의 아들인가?"

사무엘기 상권 18장

- 1 그가 사울에게 말을 마치고 나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고, 요나단은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하였다.
- 2 사울은 그날 다윗을 데려와, 더 이상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 3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었는데, 요나단이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 4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의 옷과 칼과 활과 띠까지 모두 주었다.
- 5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가서 현명하게 행동하였고, 사울은 그를 군대의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이 일은 모든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 앞에서도 좋게 여겨졌다.
- 6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도시에서 여자들이 나와서 타임브라이와 기쁨과 악기로 왕 사울을 맞이하며 노래하고 춤추었다.
- 7 여자들이 노래하며 서로 대답하여 말하였다. "사울은 천 명을 죽였고,
- 8 사울은 매우 화가 나서, 이 말이 그의 마음에 거슬렸다. 그가 말하였다. "그들은 다윗에게는 만 명을 돌렸고, 나에게만 오직 천 명밖에 돌리지 않았다. 그가 얻을 것이 무엇이나? 왕위뿐이 아니냐?"
- 9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시하였다.
- 10 다음 날, 하느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려와 집 한가운데서 예언하였다. 다윗은 평소처럼 손으로 수금을 연주하였고,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다.
- 11 사울은 창을 던져 말하였다. "내가 다윗을 벽에 꽂아 버리겠다!" 다윗은 그의 앞에서 두 번이나 피하였다.
- 12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였는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사울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이다.
- 13 그러므로 사울은 그를 자기 앞에서 떠나보내어 천 명의 장관으로 임명하였고, 그는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다.
- 14 다윗은 모든 일에서 현명하게 행동하였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 15 사울은 그가 매우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 16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백성이 다윗을 사랑하였는데,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 17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 장녀 메라브를 네게 아내로 주겠다. 다만 나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고, 주님의 전쟁에 나서라." 사울은 말하였다. "내 손이 그에게 닿지 않게 하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그에게 닿게 하라."
- 18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나는 누구이며, 내 생명이나 이스라엘 내 아버지의 가문이 어찌하여 왕의 사위가 되어야 합니까?"
- 19 그러나 메라브, 사울의 딸이 다윗에게 주어져야 할 시기에, 그녀는 메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어졌다.
- 20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였고, 그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졌으며, 그 일은 사울에게 기쁘게 여겨졌다.
- 21 사울이 말하였다. "내가 그녀를 그에게 주어, 그가 밋에 걸리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그에게 닿게 하리라."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말하였다. "오늘 네가 내 사위가 되리라."
- 22 사울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다윗에게 은밀히 말하여라. "보아라, 왕은 너를 기뻐하며, 그의 모든 신하들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이제 왕의 사위가 되어라.""
- 23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의 귀에 그 말을 전하였다. 다윗이 말하였다. "내가 가난하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자인데,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벼운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 24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보고하였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 25 사울이 말했다. "다비드에게 전하여라. "왕은 다른 어떤 혼인비도 요구하지 않으며, 오직 필리스티인들의 할례받지 않은 음경 피부 백 개만을 요구한다. 이는 왕의 원수들을 보복하기 위함이다."" 사울은 다비드가 필리스티인들의 손에 죽기를 바랐다.
- 26 그의 시종들이 다비드에게 이 말을 전하니, 다비드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매우 기뻐했다. 마감기일 전에,
- 27 다비드는 일어나 나가 그의 사람들과 함께 필리스티인들 중 이백 명을 죽였다. 그 후 다비드는 그들의 할례받지 않은 음경 피부를 가져와, 정해진 수만큼 왕에게 바쳤다. 그리하여 그는 왕의 사위가 되었다. 그때 사울은 그의 딸 미카엘을 다비

드의 아내로 주었다.

²⁸ 사울은 주님이 다비드와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다. 사울의 딸 미카엘도 다비드를 사랑하였다.

²⁹ 사울은 더 이상 다비드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사울은 항상 다비드의 원수가 되었다.

³⁰ 그 후 필리스티인들의 지도자들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나갈 때마다, 다비드는 사울의 모든 시종들보다 더 현명하게 행동하였고, 그의 이름은 크게 존경받게 되었다.

사무엘기 상권 19장

- ¹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요나단, 사울의 아들은 다윗을 매우 기뻐했다.
- ²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아침에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머물며 숨으세요."
- ³ 나는 밖으로 나가, 당신이 있는 들판에서 아버지 곁에 서서 당신에 관해 아버지와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당신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 좋은 말을 하며 말했다. "왕께서는 당신의 종 다윗에게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고, 당신에게 매우 좋은 일을 해왔습니다;
- ⁵ 그는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을 쳤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큰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고한 피를 흘려,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 ⁶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들었고, 사울은 맹세했다. "주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 ⁷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서 사울이 한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려 주었다. 그 후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가니, 그는 이전처럼 사울 앞에 있었다.
- ⁸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다윗은 나가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죽였고, 그들은 그 앞에서 도망쳤다.
- ⁹ 주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가 집에서 창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을 때, 다윗은 손으로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다.
- ¹⁰ 사울은 창으로 다윗을 벽에 꿰뚫으려 했으나, 다윗은 사울의 앞에서 벗어나 도망쳤고, 사울은 창을 벽에 꽂아 버렸다. 다윗은 그 밤에 도망쳐 탈출했다.
- ¹¹ 사울은 다윗의 집에 사자를 보내어 그를 감시하고 아침에 죽이게 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그에게 말했다. "오늘 밤에 당신의 목숨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 당신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 ¹²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냈다. 그는 떠나 도망쳐 탈출했다.
- ¹³ 미갈은 테라핌을 가져다가 침대에 놓고, 그 머리에는 염소 털로 만든 베개를 대고 옷으로 덮었다.
- ¹⁴ 사울이 사자를 보내어 다윗을 잡으라고 했을 때, 그녀는 말했다. "그는 병이 났습니다."
- ¹⁵ 사울은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고 명령했다. "그를 침대에 누여 데려오시오. 내가 그를 죽이려 합니다."
- ¹⁶ 사자들이 들어가 보니, 침대 위에는 테라핌이 있었고, 그 머리에는 염소 털로 만든 베개가 있었다.
- ¹⁷ 사울은 미갈에게 말했다. "왜 이렇게 나를 속이고 내 원수를 놓아 주어 도망치게 했소?"
- ¹⁸ 다윗은 도망쳐 탈출하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신에게 한 모든 일을 말해 주었다. 그와 사무엘은 나이 옷에 가서 함께 살았다.
- ¹⁹ 사울은 소식을 듣고 말했다. "보라, 다윗이 라마의 나이옷에 있다."
- ²⁰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 사자를 보냈다. 그런데 그들이 예언자 무리가 예언하며, 사무엘이 그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하느님의 영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여, 그들도 예언했다.
- ²¹ 사울이 소식을 듣고 다른 사자를 보냈으나, 그들도 예언했다. 사울은 세 번째로 사자를 보냈으나, 그들도 예언했다.
- ²² 그러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렀다. 그가 물었다. "사무엘과 다윗은 어디 있소?"
- ²³ 그는 라마의 나이옷으로 갔다.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여, 그는 계속 예언하며 라마의 나이옷에 이르기까지 갔다.
- ²⁴ 그는 옷을 벗어 버렸다. 그는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그날 밤새도록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다. "사울도 예언자들 사이에 있소?"

사무엘기 상권 20장

- 1 다윗은 라마의 나뭇에서 도망쳐 나와 요나단에게 이르렀다.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 아버지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가 내 목숨을 찾는 것입니까?"
- 2 그가 그에게 말했다. "아니, 결코 그렇지 않다.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보라, 내 아버지는 나에게 알리지 않고 큰일도 작은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이 일을 나에게 숨기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
- 3 다윗은 다시 맹세하며 말했다. "당신 아버지는 내가 당신의 눈에 은총을 입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요나단에게 이 일을 알리지 마라. 그가 슬퍼할까 봐.'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당신의 생명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 한 걸음뿐이다."
- 4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내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 5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했다. "보라, 내일은 초하루이다. 나는 왕과 함께 식사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나를 보내주어 내가 들에 숨어 사흘 밤을 지내고, 사흘째 저녁까지 머물게 해달라."
- 6 만약 당신 아버지가 나를 찾는다면, 이렇게 말하라. '다윗이 나에게 간청하여 베들레헴, 곧 그의 고향으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년 가족 전체를 위한 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 7 그가 '좋다'라고 말한다면, 당신 종은 평안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화를 낸다면, 그가 나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 8 그러므로 당신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은 당신 종을 주님과 맺은 언약에 끌어들이셨습니다. 만약 내게 죄가 있다면, 당신이 나를 치십시오.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당신 아버지에게로 끌고 가려 하는 것입니까?
- 9 요나단이 말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내 아버지가 너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너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 10 그러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당신에게 거칠게 대답한다면, 누가 나에게 알려줄 것입니까?"
- 11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오라. 우리가 들로 나가자." 둘 다 들로 나갔다.
- 12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일 이때나 사흘째에 내가 내 아버지를 시험해보면, 다윗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보내어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겠느냐?"
- 13 내 아버지가 너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이같이 하고 더 많이 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않고 너를 평안히 보내지 않는 한,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시기를.
- 14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어 내가 죽지 않게 하라.
- 15 또한 주님이 다윗의 모든 원수를 땅 위에서 끊어버리실지라도, 당신은 내 집에서 당신의 자비를 영원히 끊지 마라.
- 16 이따라서 요나단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며 말했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이 일을 요구하실 것이다."
- 17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게 했다. 그가 다윗을 사랑한 까닭이었다. 그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 다윗을 사랑하였다.
- 18 그러자 요나단이 그에게 말했다. "내일은 초하루이다. 당신의 자리는 비어 있을 것이므로, 당신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 19 삼일을 머문 후에 빠르게 내려가서 이 일이 시작될 때 당신이 숨었던 곳으로 가서 에셀 바위 곁에 머물러라.
- 20 내가 그 옆으로 화살 세 개를 쏠 것이다. 마치 내가 표적을 향해 쏘는 것처럼.
- 21 보라, 내가 아이를 보내어 말하겠다. '가서 화살을 찾아라.' 내가 아이에게 '보라, 화살은 너의 이쪽에 있다. 거두어라.'라고 말한다면, 오너라.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말하건대, 너에게 평안이 있고 위험은 없다.
- 22 그러나 내가 아이에게 '보라, 화살은 너의 저편에 있다.'라고 말한다면, 가라. 주님이 너를 보내셨다.
- 23 우리가 말한 이 일에 관하여, 보라, 주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 24 이에 다윗은 들에 숨었다. 초하루가 되자, 왕은 음식을 먹기 위해 앉았다.
- 25 왕은 다른 날처럼 벽 옆의 의자에 앉아 있었고, 요나단은 일어섰으며, 아브너는 사울 옆에 앉아 있었으나,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²⁶ 그러나 그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다. 그는 부정하다. 분명히 부정하다."

²⁷ 새달 다음 날, 즉 두 번째 날,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말했다. "예수의 아들이 어제나 오늘 이나 와서 먹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나?"

²⁸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했다. "다윗이 제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 달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²⁹ 그는 말했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도시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형이 제게 거기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만약 제가 당신의 눈에 은총을 입었다면, 제게 허락하여 제 형들을 보게 해 주세요." 그러므로 그가 왕의 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³⁰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가 치밀어 올라 그에게 말했다. "네가 허물과 반역의 여자에게 난 아들이라니, 내가 네가 예수의 아들을 선택하여 네 몸의 수치와 네 어머니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져오는 줄을 모르겠느냐?"

³¹ 예수의 아들이 땅 위에 사는 한, 너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며, 네 왕국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³²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그가 왜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³³ 사울이 창을 그에게 던져 치려 했다. 이로써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굳게 결심했음을 알았다.

³⁴ 요나단은 분노로 상에서 일어나, 그 달의 두 번째 날에는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다윗을 수치스럽게 대우했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 슬퍼했다.

³⁵ 아침에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들판으로 나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갔다.

³⁶ 그가 어린아이에게 말했다. "달려가서 내가 쏜 화살을 찾아라." 아이가 달리자, 요나단은 그의 앞을 넘어 화살을 쏘았다.

³⁷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요나단은 아이 뒤를 쫓아 외쳤다.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³⁸ 요나단이 아이 뒤를 쫓아 외쳤다. "빨리 가라! 서두르라! 늦추지 마라!" 아이가 화살을 주워서 주인에게로 돌아왔다.

³⁹ 그러나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다. 오직 요나단과 다윗만이 이 일을 알고 있었다.

⁴⁰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어린아이에게 주며 말했다. "가서 그것들을 도시로 가져가라."

⁴¹ 아이가 떠난 직후, 다윗은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얼굴을 대고 세 번 절했다. 그들은 서로를 안아 키스하며 울었고, 다윗이 더 많이 울었다.

⁴²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평안히 가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말했다. "주님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나의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영원히 계신다." 그는 일어나 떠났고, 요나단은 도시로 들어갔다.

사무엘기 상권 21장

- 1 다윗이 노브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갔다. 아히멜렉이 떨리며 다윗을 맞이하여 그에게 말했다. "어떻게 해서 혼자 오셨습니까? 왜 아무도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 2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말했다. "왕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고, 나에게 말했다. '네가 나에게 보내는 이 일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네게 명령한 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나는 젊은이들을 특정한 곳으로 보냈다.'"
- 3 그러니 지금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내 손에 빵 다섯 개만 주어라. 또는 무엇이든 있는 대로 주어라.
- 4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일반적인 빵은 없지만, 거룩한 빵은 있다. 다만 젊은이들이 여зал들과 더불어 정결하게 지켰다면."
- 5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가 보통처럼 이 삼일 동안 여зал들과 더불어 정결하게 지냈습니다. 내가 나올 때 젊은이들의 물건들은 성결했습니다. 비록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었지만, 하물며 오늘은 그들의 물건들이 얼마나 더 성결하지 않겠습니까?"
- 6 그래서 제사장이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거기에는 전식 빵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서 가져와서 그날 새 빵으로 갈아치우기 위해 빼낸 것이었다.
- 7 그날 사울의 하인 중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에그 에돔 사람이었고, 사울의 양치기들 중 가장 뛰어난 자였다.
- 8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했다. "여기 당신 손에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내가 내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왕의 일 때문에 급히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 9 제사장이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에포드 뒤에 옷에 싸여 있습니다. 원하시면 가져가십시오. 여기에는 그것 외에 다른 칼이 없습니다."
- 10 다윗은 그날 일어나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쳐 가트 왕 아기스에게 갔다.
- 11 아기스의 하인들이 그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 그를 두고 춤추며 노래하던 말이, '사울은 수천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을 죽였도다.'"
- 12 다윗은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가드 왕 아기스를 매우 두려워하였다.
- 13 그는 그들 앞에서 행동을 바꾸어 미친 척하며, 문문에 흘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떨어뜨렸다.
- 14 그러자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보아라, 그 남자가 미쳤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 15 내가 미친 자들이 부족해서, 이 놈을 내 앞에서 미친 척하게 데려왔느냐? 이 놈이 내 집에 들어오게 하려는가?

사무엘기 상권 22장

- 1 다윗은 그곳을 떠나 아둘람 동굴로 도망쳤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가족이 그 소식을 듣고 그에게로 내려왔다.
- 2 모든 고통을 겪는 자, 모든 빚진 자, 모든 불만을 품은 자들이 그에게 모여들었고, 그는 그들을 지휘관으로 삼았다. 그와 함께한 사람은 약 사백 명이었다.
- 3 다윗은 그곳에서 모압의 민셋으로 갔다. 그는 모압 왕에게 말했다. "제가 하느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하실지 알 때까지,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당신께 맡겨 주십시오."
- 4 그는 그들을 모압 왕 앞에 데려갔다. 다윗이 요새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그와 함께 살았다.
- 5 예언자 가드가 다윗에게 말했다. "요새에 머물지 마라. 떠나 유다 땅으로 가라."
- 6 사울은 다윗이 드러났고, 그와 함께한 자들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울은 라마의 티마르스크 나무 아래 기브아에 앉아 있었고, 손에 창을 들고 있었으며, 모든 하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서 있었다.
- 7 사울은 자신을 둘러싼 하인들에게 말했다. "이제 들어라, 베나민 사람들아! 여세의 아들이 너희 각각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너희를 모두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 8 내 아들이 여세의 아들과 계약을 맺고, 너희 중 아무도 나에게 알리지 않으며, 나를 위해 슬퍼하는 자도 없고, 내 아들이 내 하인을 내게 대적하게 하여 오늘처럼 은밀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희 중 아무도 내게 알리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이유냐?
- 9 그때 사울의 하인들 곁에 서 있던 에돔 사람 도에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나는 여세의 아들이 노브에 가서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을 보았습니다."
- 10 그가 주님께 그를 위하여 물었고, 그에게 음식을 주었으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 11 그러자 왕이 아히둡의 아들인 사제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가족, 곧 노브에 있던 모든 사제들을 불러들였다. 그들이 모두 왕에게로 왔다.
- 12 사울이 말했다. "이제 들어라, 아히둡의 아들아."
- 13 사울이 그에게 말했다. "네가 왜 나와 여세의 아들과 꾀하여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해 하느님께 물어보았느냐? 그가 나를 대적하여 오늘처럼 은밀히 기다리게 하려는 것이냐?"
- 14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당신의 모든 하인 중에 다윗처럼 충성스러운 이가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사위이며, 당신의 친위대장이며, 당신의 집에서 존경받는 자입니다."
- 15 오늘 제가 그를 위해 하느님께 물어본 것이 처음입니까? 그런 일이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제 왕께서는 당신의 하인과 제 아버지의 온 집안에 아무런 죄도 돌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하인은 이 일의 전말을 전혀 몰랐습니다.
- 16 왕이 말했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히멜렉아.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안이."
- 17 왕이 자기 주변에 서 있는 경비대에게 말했다. "돌아서 주님의 사제들을 죽여라. 그들의 손도 다윗과 함께 있고, 그들이 그가 도망쳤음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의 하인들은 주님의 사제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 18 왕이 도에그에게 말했다. "돌아서 사제들을 공격하여라!"
- 19 그는 사제들의 도시인 노브를 칼날로 쳐서,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와 나귀와 양까지 모두 칼날로 죽였다.
- 20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한 명인 아비아달이 도망쳐 다윗을 따라 도주했다.
- 21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사울이 주님의 사제들을 죽였다고 알렸다.
- 22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내가 그날 도에그 에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그가 분명히 사울에게 알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네 아버지 집안의 모든 사람의 죽음은 내 책임이다."
- 23 내 곁에 머물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목숨을 찾는 자가 네 목숨도 찾는다. 너는 나와 함께 안전할 것이다."

사무엘기 상권 23장

- 1 다윗에게 보고되었다. "보라, 블레셋 사람들이 기라아와 싸우며 타작마당을 약탈하고 있다."
- 2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물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겠습니까?"
- 3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유다에서조차 두려워하는데,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 기라아로 가면 얼마나 더 두려울까요?"
- 4 그러자 다윗이 다시 주님께 물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일어나, 기라아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 5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기라아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의 가축을 빼앗으며 큰 살육을 벌였다. 이로써 다윗은 기라아 주민들을 구원하였다.
- 6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기라아로 다윗에게 도망쳐 왔을 때, 그는 손에 에포드를 들고 있었다.
- 7 사울은 다윗이 기라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다. "하느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문과 빗장을 가진 성안에 갇혔기 때문이다."
- 8 사울은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 전쟁에 나서 기라아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려 했다.
- 9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해치려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에포드를 여기로 가져오너라."
- 10 그러자 다윗이 말했다.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의 종은 분명히 사울이 나 때문에 기라아를 파괴하려고 내려올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 11 기라아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줄까요? 사울이 주님의 종이 들은 대로 내려올까요?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제 종에게 알려주소서."
- 12 그러자 다윗이 말했다. "기라아 사람들이 나와 내 부하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까요?"
- 13 다윗과 그의 부대, 약 육백 명은 기라아에서 일어나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곳으로 떠났다. 사울은 다윗이 기라아에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을 포기했다.
- 14 다윗은 시프 광야의 요새들에 머물며, 시프 광야의 산지에 머물렀다. 사울은 매일 그를 찾았지만, 하느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 15 다윗은 사울이 자기 목숨을 찾으러 나왔음을 알았다. 다윗은 시프 광야의 숲속에 있었다.
- 16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일어나 숲속으로 다윗에게 가서 하느님 안에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해주었다.
- 17 그가 그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 곁에 있을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도 그것을 알고 있다."
- 18 그 둘은 주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 후 다윗은 숲속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갔다.
- 19 그때 시프 사람들이 기브아로 사울에게 올라와 말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숲속의 요새들, 사막 남쪽의 하킬라 산에서 숨어 있지 않습니까?"
- 20 이제 왕이여, 내려오십시오. 왕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려오십시오. 우리에게는 왕의 손에 그를 넘겨주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 21 사울이 말했다. "너희는 주님께 복을 받았다.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기었기 때문이다."
- 22 이제 좀 더 확실히 알아보아라. 그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의 은신처를 알고, 누구에게서 그가 거기서 보였는지 알아보아라. 나는 그가 매우 교활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 23 그러므로 그가 숨어 있는 모든 은신처를 살펴보고, 확실히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그가 땅에 있다면, 내가 유다의 모든 천 명 가운데서 그를 찾아낼 것이다."
- 24 그들은 일어나 사울 앞서 시프로 갔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부대는 마온 광야, 사막 남쪽의 아라바에 있었다.
- 25 사울과 그의 군대가 그를 찾으러 갔다. 다윗이 소식을 듣고 마온의 광야로 내려가 바위에 머물렀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마온의 광야에서 다윗을 쫓았다.

²⁶ 사울은 산의 이쪽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군대는 산의 저쪽으로 갔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빨리 도망쳤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과 그의 군대를 둘러싸서 잡으려 했기 때문이다.

²⁷ 그러나 사울에게 사자가 달려와 말했다. "빨리 와 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략했습니다!"

²⁸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쫓는 것을 그만두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갔다. 그래서 그곳을 세라 하마레코트라고 불렀다.

²⁹ 다윗은 그곳에서 올라가 엔게디의 요새에 머물렀다.

사무엘기 상권 24장

- 1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고 돌아온 후, 그에게 보고되었다. "보라, 다윗이 은게디 광야에 있다."
- 2 그러자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삼천 명의 골라낸 병사를 뽑아, 암염소 바위에서 다윗과 그의 부대를 찾으러 갔다.
- 3 그는 길가에 있는 양우리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동굴이 있었다. 사울은 변변을 보러 그 동굴에 들어갔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대는 동굴의 가장 안쪽에 머물고 있었다.
- 4 다윗의 부대원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라,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보라,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겨줄 터이니, 네가 그에게 네가 좋다고 여기는 대로 하라.'" 그러자 다윗은 일어나 사울의 옷자락을 몰래 자르고 말았다.
- 5 그 후 다윗은 자기 마음이 괴로워졌다. 그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탓이었다.
- 6 그는 부대원들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내 주, 곧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이같은 일을 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내가 그에게 손을 대지 않으리니, 그는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 7 이렇게 다윗은 부대원들을 말로 억누르고, 사울을 대적하게 하지 않았다. 사울은 동굴에서 일어나 길을 떠났다.
- 8 그 후 다윗도 일어나 동굴 밖으로 나가 사울을 불렀다. "내 주, 왕이여!"
- 9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당신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보라, 다윗이 당신을 해치려 한다'고 말합니까?"
- 10 오늘 당신의 눈이 보았듯이, 주님께서 오늘 동굴에서 당신을 내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죽이라고 나를 재촉했지만, 나는 당신을 살려두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내 주에게 손을 대지 않으리니, 그는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 11 또한, 아버지여, 보십시오. 제 손에 있는 당신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자르고도 당신을 죽이지 않은 것을 보고, 내가 손에 악이나 불순종을 품지 않았음을 알고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당신이 내 목숨을 빼앗으려 쫓고 있지만 말입니다.
- 12 주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에게 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손은 당신에게 닿지 않겠습니다.
- 13 옛사람들의 속담이 말하길, '악한 자에게서 악이 나온다.' 그러나 내 손은 당신에게 닿지 않겠습니다.
- 14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쫓아 나왔습니까? 당신이 쫓는 이는 누구입니까? 죽은 개입니까? 벼룩입니까?
- 15 그러므로 주님께서 판단자 되어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고, 보시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사, 당신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16 다윗이 사울에게 이 모든 말을 마친 후, 사울이 말했다. "내 아들 다윗의 목소리인가?" 사울은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 17 그는 다윗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보다 의로운 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악을 행했지만, 당신은 나에게 선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 18 오늘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선을 행했는지를 당신이 밝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었을 때,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19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무사히 놓아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당신이 나에게 행한 선을 갚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 20 지금,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왕국이 당신의 손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 21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의 자손을 끊지 않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없애지 않기를 맹세하십시오.
- 22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했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대는 요새로 올라갔다.

사무엘기 상권 25장

- 1 사무엘은 죽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모여 그를 애도하며 라마에 있는 자기 집에 장사했다.
- 2 마온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재산은 카르멜에 있었다. 그 남자는 매우 부유하였다. 그는 양 삼천 마리와 염소 천 마리를 가지고 있었고, 카르멜에서 양을 털고 있었다.
- 3 그 남자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자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으나, 그 남자는 고집이 세고 악한 행동을 하였다. 그는 칼렙의 가문에서 나왔다.
- 4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이 양을 털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 5 다윗은 열 명의 젊은이들을 보냈다.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말했다. "카르멜로 올라가서 나발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인사 하여라."
- 6 그에게 말하라. "장수하소서! 평화가 당신에게 있고, 당신의 집에 있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있기를 바랍니다!"
- 7 나는 당신이 양을 털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양치기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는 그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카르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 중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 8 당신의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날에 당신의 젊은이들이 당신의 눈에 은총을 입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을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주십시오."
- 9 다윗의 젊은이들이 와서 나발에게 다윗의 이름으로 모든 말을 전하고 기다렸다.
- 10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들이 많다."
- 11 내가 내 양털을 털고 있는 자들을 위해 잡은 빵과 물과 고기를 가져다가, 내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주어야 하나?"
- 12 그래서 다윗의 젊은이들이 길을 돌려 돌아가서, 와서 다윗에게 모든 말을 전했다.
- 13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했다. "모든 사람이 칼을 차라!"
- 14 그러나 한 젊은이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에서 사자를 보내어 우리 주인에게 인사를 했으나, 그가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 15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매우 친절했고, 우리는 해를 입지 않았으며, 우리가 그들과 함께 들판에 있을 동안 아무것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 16 우리가 양을 지킬 때, 그들은 낮과 밤 모두 우리를 방패처럼 지켜주었습니다.
- 17 그러므로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우리 주인과 그의 온 집에 해가 결정되었으니, 그는 너무나 무가치한 자라서 그에게 말을 걸 수가 없습니다."
- 18 그러자 아비가일은 급히 빵 이백 개와 포도주 두 병과 다듬어진 양 다섯 마리와 붉은 밀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 덩이와 무화과 떡 이백 개를 가져다가 나귀 위에 실었다.
- 19 그녀가 자기 젊은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보다 앞서 가라. 보라, 나는 뒤따라 갈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 20 그녀가 나귀에 올라 산에 가려져 내려오고 있을 때, 보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내려오며 그녀를 만났다.
- 21 다윗이 말했다. "내가 이 자의 모든 것을 광야에서 지켜주었으니, 그의 것 중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 22 하느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이같이 하시고, 더욱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침 빛이 떠오를 때까지 그의 것 중 벽에 소변을 누는 자 하나라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 23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 앞에 엎드려 절했다.
- 24 그녀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말했다. "내 주여, 저에게 죄가 있습니다. 저에게 죄가 있습니다. 제 종이 당신의 귀에 말을 하게 하소서. 제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 25 제가 주님께 간청합니다. 이 무가치한 자,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의 이름처럼 그는 그 자체입니다. 나발이 그

의 이름이고, 어리석음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하인들이 주님께서 보내신 그 젊은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26 그러므로 이제, 주님,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주님께서 피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스스로 보복하지 않게 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원수들과 주님에게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나발처럼 되게 하소서.

27 이제 제가 주님의 하인으로서 주님께 드린 이 선물은, 주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주십시오.

28 주님의 하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을 견고한 집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전쟁을 싸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들 동안 악이 주님에게서 발견되지 않으리입니다.

29 비록 사람들이 일어나 주님을 쫓고 주님의 영혼을 찾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영혼은 주님의 하느님과 함께 생명의 묶음에 묶일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원수들의 영혼을 매에서 빼내듯 던지실 것입니다.

30 주님께서 주님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을 주님에게 행하시고, 주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31 주님께서 무고한 피를 흘리거나, 주님께서 스스로 보복하신 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근심이나 슬픔이 생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하인에게 선을 베푸실 때, 주님의 하인을 기억하소서.

32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을 찬양하라. 오늘 주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셨도다."

33 당신의 지혜를 찬양하라. 당신은 오늘 나로 하여금 피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내 손으로 스스로 보복하지 않게 하셨도다.

34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당신을 해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만일 당신께서 서둘러 나를 만나러 오지 않으셨다면, 아침 빛이 떠오를 때까지 나발에게는 벽에 소변을 누는 자 하나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35 그러므로 다윗은 아비가일의 손에서 그녀가 가져온 것을 받았다. 그 후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평안히 집으로 올라가시오. 내가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고, 당신의 간청을 받아들였소."

36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이르렀다. 보라, 그는 마치 왕의 잔치처럼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나발의 마음은 즐겁고, 그는 매우 취해 있었다. 그러므로 그녀는 아침 빛이 떠오를 때까지 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37 아침이 되어 나발의 술이 깨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모든 일을 말했다. 그의 마음은 죽었고, 그는 돌처럼 되었다.

38 열흘쯤 지나, 주님께서 나발을 치셨고, 그가 죽었다.

39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서 나의 모욕을 나발의 손에서 갚아 주셨고, 주님의 하인을 악에서 지켜 주셨도다. 주님께서서는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 위로 돌려주셨도다."

40 다윗의 하인들이 카멜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녀에게 말했다. "다윗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을 그의 아내로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41 그녀는 일어나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며 말했다. "보소서, 주님의 하인의 하녀는 주님의 하인들의 발을 씻는 종입니다."

42 아비가일은 급히 일어나 나귀에 올라, 뒤를 따르는 다섯 시녀와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43 다윗은 이스라엘의 아히노암도 맞이하였다. 두 사람 모두 그의 아내가 되었다.

44 사울은 그의 딸 미갈, 곧 다윗의 아내를 갈림의 라이시의 아들 팔티에게 주었다.

사무엘기 상권 26장

- 1 지프 사람들이 기브아로 사울에게 와서 말했다. "다윗이 사막 앞에 있는 하킬라 산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 2 그러자 사울은 일어나 지프 사막으로 내려갔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골라낸 삼천 명의 병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지프 사막에서 다윗을 찾으려 했다.
- 3 사울은 사막 앞, 길가에 있는 하킬라 산에 진을 쳤다. 그러나 다윗은 사막에 머물며 사울이 사막으로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보았다.
- 4 그래서 다윗은 경찰병을 보내어 사울이 분명히 왔음을 확인했다.
- 5 다윗은 일어나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서, 사울이 누워 있는 곳과 그의 군대 장관인 네르의 아들 아브너를 보았다. 사울은 수레 둘레 안에서 누워 있었고, 백성들은 그를 둘러싸고 진을 쳤다.
- 6 다윗은 히위 사람 아히멜렉과 여루사야의 아들 아비새에게 말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습니까?" 아비새가 대답했다. "저는 당신과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 7 그러므로 다윗과 아비새는 밤에 그 군대에게로 갔다. 보라, 사울은 수레 둘레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의 창은 머리 옆 땅에 꽂혀 있었으며, 아브너와 백성들은 그를 둘러싸고 잠들어 있었다.
- 8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창으로 그를 땅에 한 번에 찌르겠습니다. 두 번 찌르지 않겠습니다."
- 9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다. "그를 죽이지 마라. 누가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어 죄가 없을 수 있겠느냐?"
- 10 다윗이 말했다. "주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말한다. 주님이 그를 치실 것이며, 그의 날이 이르러 죽거나, 전투에 나가서 멸망할 것이다."
- 11 주님이 내 손으로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지금은 그의 머리 옆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져가자.
- 12 다윗은 사울의 머리 옆에서 창과 물병을 가져갔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고, 아무도 알지 못했으며,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다. 모두가 잠들어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깊은 잠을 그들에게 내리셨기 때문이다.
- 13 그러고 나서 다윗은 저편으로 건너가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에 서서, 그들 사이에 큰 거리가 있었다.
- 14 다윗이 백성과 네르의 아들 아브너에게 외쳤다. "아브너야, 대답하지 않느냐?"
- 15 다윗이 아브너에게 말했다. "당신은 남자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당신처럼 된 자가 누구입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의 주인인 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백성 중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의 주인인 왕을 죽이려 했습니다."
- 16 이 일은 좋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말합니다. 당신은 죽을 자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왕의 창과 그의 머리 옆에 있던 물병이 어디에 있습니까?
- 17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했다. "이 목소리가 당신의 목소리입니까, 내 아들 다윗이냐?"
- 18 그가 말했다. "어찌하여 주님은 당신의 종을 쫓으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제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 19 이제 내 주인인 왕이여, 당신의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일 주님이 나를 향해 당신을 자극하셨다면, 그분께 제물로 받으소서.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나를 쫓는 것이라면, 그들은 주님 앞에서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저를 쫓아내어 주님의 기업에 붙잡히지 못하게 하며, 말하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합니다.
- 20 이제 내 피가 주님 앞에서 땅에 쏟아지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 왕이 산에서 트라우트를 잡듯이, 한 마리 벼룩을 쫓아 나왔습니다.
- 21 사울이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내 아들 다윗이여. 내가 다시는 당신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눈에 내 생명이 귀중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어리석게 행동하고 심히 잘못했습니다."
- 22 다윗이 대답했다. "보십시오, 왕이여, 이 창입니다. 젊은이 중 한 명이 건너와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십시오."
- 23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의로움과 충성심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나는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 24 보십시오, 오늘 당신의 생명이 내 눈에 귀중했던 것처럼, 내 생명도 주님의 눈에 귀중하게 여겨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

를 모든 압박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²⁵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너는 복받은 자,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반드시 큰 업적을 이뤄 승리할 것이다."

사무엘기 상권 27장

¹ 다윗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다. 나에게 더 나은 길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나를 더 이상 찾지 않고 포기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

² 다윗은 일어나, 함께한 육백 명의 남자와 함께 가드 왕 마오크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³ 다윗과 그의 사람들, 각자 가족과 함께 아기스와 함께 가드에 머물렀다. 다윗은 두 아내, 예스레엘 출신 아히노암과 카르멜 출신 아비가일, 곧 나발의 아내와 함께 있었다.

⁴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는 일을 그만두었다.

⁵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다. "만약 제가 당신의 눈에 은총을 입었다면, 이 땅의 도시 중 하나에 작은 자리를 주셔서 제가 그곳에 살게 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당신의 종이 당신과 함께 왕의 도시에 머물러야 합니까?"

⁶ 그날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라를 주었다. 그래서 시글라는 오늘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어 있다.

⁷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머문 날 수는 일년 사개월이었다.

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게술 사람, 기르지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약탈했다. 이들은 옛날부터 숨 지역, 곧 이집트 땅까지 이르는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었다.

⁹ 다윗은 그 땅을 침공하여 남자나 여자 한 명도 생존시키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모두 빼앗았다. 그런 후 그는 돌아와 아기스에게로 왔다.

¹⁰ 아기스가 말했다. "오늘 당신은 누구를 치고 약탈해 왔습니까?"

¹¹ 다윗은 그들을 가드로 데려가기 위해 남자나 여자 한 명도 생존시키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 말하기를, '다윗이 이 일을 했고, 그가 블레셋 땅에 머무는 동안 항상 이런 방식으로 행동해 왔다'고 하지 못하게 하려고."

¹² 아기스는 다윗을 믿었다. 그는 말했다. "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미워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는 영원히 내 종이 될 것이다."

사무엘기 상권 28장

- 1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였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분명히 나와 함께 군대에 나갈 것이며, 나와 네 사람들도 함께 갈 것이다."
- 2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영원히 내 개인 경비대장으로 삼겠다."
- 3 이제 사무엘은 죽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여 라마, 곧 그의 고향 도시에 장사하였다. 사울은 땅에서 유령을 부르는 자들과 점쟁이들을 쫓아냈다.
- 4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숨에 진을 치고, 사울은 이스라엘을 모두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다.
- 5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마음이 크게 떨렸다.
- 6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은 꿈이나 우림이나 예언자들을 통해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 7 그때 사울이 자기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유령을 부르는 여자 한 명을 내게 찾아라. 내가 그녀를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 8 사울은 옷을 갈아입고 위장한 채, 두 사람과 함께 밤에 그 여자에게로 갔다. 그가 말하였다. "부디 유령을 부르게 해서, 내가 네게 이름을 말하는 자를 끌어올려 주어라."
- 9 여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사울이 무엇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땅에서 유령을 부르는 자들과 점쟁이들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내 목숨을 위협하여 나를 죽이려 합니까?"
- 10 사울이 주님을 가리켜 그녀에게 맹세하였다. "주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 일로 인해 네게 벌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 11 그러자 여자가 말하였다. "누구를 당신에게 끌어올리겠습니까?"
- 12 여자가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속였습니다! 당신은 사울입니다!"
- 13 왕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 14 그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그는 어떤 모습이야?"
- 15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왜 나를 괴롭혀서 나를 끌어올렸느냐?"
- 16 사무엘이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묻느냐? 주님이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 17 주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너에게 행하셨다. 주님이 왕권을 네 손에서 빼앗아 네 이웃, 곧 다윗에게 주셨다.
- 18 네가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에게 주님의 격노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다.
- 19 또 주님이 이스라엘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며,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군대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 20 사울은 즉시 땅에 몸을 펴고 쓰러져, 사무엘의 말에 떨어졌다. 그는 하루 종일, 밤새도록 빵을 먹지 않아 힘이 없었다.
- 21 여자가 사울에게 다가가 그가 매우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종은 당신의 목소리에 순종하였고, 제 목숨을 내걸고 당신이 제게 말한 말을 들었습니다."
- 22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종의 목소리도 들어주십시오. 제가 빵 한 조각을 당신 앞에 놓겠습니다. 먹으십시오. 그래야 길을 가는 데 힘이 날 것입니다."
- 23 그러나 그는 거절하며 말하였다. "내가 먹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하인들과 그 여자가 그를 강제로 설득하여, 그는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땅에서 일어나 침대에 앉았다."
- 24 그 여자는 집에 살이 찐 송아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가져와 반죽하여 무교병을 굽었다.
- 25 그녀는 그것을 사울과 그의 종들 앞에 가져왔으니, 그들이 먹고 나서 그 밤에 일어나 떠났다.

사무엘기 상권 29장

- ¹ 필리스티인들이 모두 군대를 모아 아페크로 나아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스레엘에 있는 샘 옆에 진을 쳤다.
- ² 필리스티인들의 장관들이 백 명씩, 천 명씩 지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아기스 뒤에 따라 나아갔다.
- ³ 그러자 필리스티인들의 장관들이 말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인가?" 아기스가 필리스티인들의 장관들에게 대답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이틀이나 몇 년이나 머물렀다. 그가 내게 온 이래로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다."
- ⁴ 그러나 필리스티인들의 장관들은 그에게 화가 났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당신이 그에게 정해진 곳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가 우리와 함께 전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전투에서 우리에게 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그의 주인에게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 사람들의 머리들로 화해하지 않겠습니까?"
- ⁵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춤추며 서로 불렀던 다윗이 아니냐? "사울은 수천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을 죽였다고."
- ⁶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말하건대, 당신은 정직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군대에 참여한 것이 내 눈에 좋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온 이래로 오늘까지 나는 당신에게서 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관들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 ⁷ 그러므로 지금 돌아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그래야 필리스티인들의 장관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⁸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서 있는 이 날까지 당신이 내 시종에게서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 ⁹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내 눈에 좋고, 마치 하느님의 천사 같음을 압니다. 그러나 필리스티인들의 장관들이 말하기를, '그는 우리와 함께 전투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 ¹⁰ 그러므로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 당신과 함께 온 당신의 주인의 시종들과 함께 떠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빛이 나면 떠나십시오."
- ¹¹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나, 필리스티인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필리스티인들은 예스레엘로 올라갔다.

사무엘기 상권 30장

- 1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세 번째 날에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하여 시글락을 치고 불로 태웠다.
- 2 그들은 그곳에 있는 모든 여자와 어린이와 어른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아무도 죽이지 않고 모두 끌고 가서 떠났다.
- 3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 보라, 그 도시는 불에 타서 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과 딸들이 사로잡혀 갔다.
- 4 그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
- 5 다윗의 두 아내가 사로잡혔다. 하나는 이스라엘 출신의 아히노암이고, 다른 하나는 카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다.
- 6 다윗은 매우 괴로웠다. 모든 사람들이 돌로 치자고 말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슬퍼서, 각자가 자기 아들과 딸들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 자신의 하느님을 힘입어 굳건히 마음을 다잡았다.
- 7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이제 에봇을 여기로 가져다 주십시오." 아비아달은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다 주었다.
- 8 다윗은 주님께 물었다. "내가 이 무리 뒤를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 9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육백 명의 사람들이 떠나, 베소르 시내에 이르렀다. 거기서 뒤에 남아 있던 자들이 머물렀다.
- 10 그러나 다윗은 네 백 명과 함께 쫓아갔다. 이백 명은 뒤에 남아 있었는데, 그들은 힘이 약해 베소르 시내를 건널 수 없었다.
- 11 그들은 들판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그를 다윗에게 데려왔고, 빵을 주어 먹이고, 물을 주어 마셨다.
- 12 그들은 그에게 무화과 떡 한 조각과 건포도 두 덩이를 주었다. 그가 먹고 나서, 그의 정신이 다시 살아났다. 그는 사흘 밤낮 동안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 13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의 사람인가? 어디서 왔느냐?"
- 14 우리는 그레셋 사람들의 남부와 유다의 땅, 그리고 갈렙의 남부를 습격하여 시글락을 불로 태웠습니다.
- 15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나를 이 무리에게로 데려가겠느냐?"
- 16 그가 그를 데려가자, 보라, 그들은 온 땅에 흩어져 앉아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다. 그들은 필리스티아 땅과 유다 땅에서 빼앗은 풍성한 전리품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었다.
- 17 다윗은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다만 낙타를 타고 도망한 사백 명의 젊은이들만 살아남았다.
- 18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간 모든 것을 되찾았고, 자신의 두 아내도 구출하였다.
- 19 그들에게 빠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전리품이든, 빼앗긴 것이든, 다윗은 모두 되돌려 주었다.
- 20 다윗은 그들이 끌고 온 모든 가축과 소떼를 가져와 말했다.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 21 다윗은 힘이 약해 다윗을 따라가지 못하고 베소르 시내에 머물게 된 이백 명에게 이르렀다. 그들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마주치기 위해 나왔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인사했다.
- 22 그때 다윗과 함께한 악한 자들과 무가치한 자들이 모두 대답하여 말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우리가 되찾은 전리품 중에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단지 각자의 아내와 자녀들만 주어, 그들이 데리고 가게 하자."
- 23 그러나 다윗이 말했다. "내 형제들아, 그러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에게 대적하여 온 무리를 넘겨주셨다."
- 24 이 일에 너희의 말을 누가 따르겠느냐? 전장에 나간 자의 몫과, 짐을 지고 남아 있는 자의 몫은 같아야 한다.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가지리라.
- 25 그 날부터 그는 이스라엘을 위한 법령과 규정으로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 26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하자, 그는 유다의 장로들, 곧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리품의 일부를 보내며 말했다. "보라, 주님의

원수들로부터 얻은 전리품에서 너희를 위한 선물이다."

²⁷ 그는 베엘에 있는 자들에게, 남쪽의 라못에 있는 자들에게, 자티르에 있는 자들에게 보냈다.

²⁸ 아로엘에 있는 자들에게, 시포모에 있는 자들에게, 에스트모아에 있는 자들에게

²⁹ 라칼에 있는 자들에게, 예라므엘 사람들의 도시에 있는 자들에게, 게니 사람들의 도시에 있는 자들에게

³⁰ 호르마에 있는 자들에게, 보라산에 있는 자들에게, 아타크에 있는 자들에게

³¹ 헤브론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다윗 자신과 그의 사람들이 늘 머물던 모든 곳에

사무엘기 상권 31장

¹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쳐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²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쫓아잡아,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³ 전투가 사울에게 심히 악화되었고, 활꾼들이 그를 쫓아잡아, 활꾼들 때문에 그가 크게 고통받았다.

⁴ 그러자 사울이 자기 무기사에게 말했다. "칼을 뽑아 나를 찢어 죽여라. 이 할레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찢어 모욕하게 내버려두지 마라." 그러나 무기사는 무서워서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사울이 칼을 뽑아 스스로 몸을 칼에 기댔다.

⁵ 무기사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몸을 기대어 그와 함께 죽었다.

⁶ 이처럼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과 무기사와 그의 모든 군인들이 그날 함께 죽었다.

⁷ 계곡 저편과 요르단 저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쳤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성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성들에 살았다.

⁸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시체를 벗기러 오니,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⁹ 그들은 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겨, 블레셋 땅 전역에 보내어, 자기들의 우상들의 집과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

¹⁰ 그들은 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를 뱀산의 성벽에 매달았다.

¹¹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듣고,

¹² 모든 용감한 자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뱀산 성벽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와, 야베스로 와서 거기서 불태웠다.

¹³ 그들은 그들의 뼈를 가져와 야베스의 흑단나무 아래에 묻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였다.

사무엘기 하권 | 2 Samuel

사무엘기 하권 1장

- ¹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무르고 있을 때,
- ² 세 번째 날, 한 남자가 사울의 진영에서 나와서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쓰고 나타났다. 그가 다윗에게 이르러 땅에 엎드려 절했다.
- ³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 ⁴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어떻게 되었느냐? 나에게 말해 주어라."
- ⁵ 다윗이 자기에게 말한 젊은이에게 말했다. "너는 어떻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느냐?"
- ⁶ 그가 대답했다. "내가 갈보아 산에 우연히 이르렀을 때, 사울이 창에 기대어 있었다. 그리고 병거와 기마대가 그 뒤를 따라 붙어 있었다."
- ⁷ 그가 뒤를 돌아보니 나를 보고 불렀다. 내가 대답했다. "여기 있습니다."
- ⁸ 그가 내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내가 그에게 대답했다.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 ⁹ 그가 내게 말했다.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여라. 고통이 나를 사로잡았고, 내 생명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
- ¹⁰ 그래서 나는 그 곁에 서서 그를 죽였다. 그가 쓰러진 후에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 내고, 팔에서 팔찌를 떼어 내어 내 주님께 가져왔다."
- ¹¹ 그러자 다윗은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했다.
- ¹²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집을 위하여 슬퍼하며 울고, 저녁까지 금식했다. 그들이 칼에 쓰러졌기 때문이다.
- ¹³ 다윗이 자기에게 말한 젊은이에게 말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 ¹⁴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어찌하여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손을 뻗었느냐?"
- ¹⁵ 다윗이 젊은이 중 한 명을 불러 말했다. "가까이 와서 그를 베어라!" 그가 그를 치니 죽었다.
- ¹⁶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네 피는 네 머리에 돌아가리라. 네 입이 네게 증거를 했으니, 네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하였기 때문이다."
- ¹⁷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하여 이 애가를 지어 슬퍼하였다.
- ¹⁸ (그는 유다 자손들에게 활의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보라, 그것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 ¹⁹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꼭대기에서 쓰러졌도다!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졌느냐!"
- ²⁰ 가스에 알리지 말고, 아스켈론의 거리에 전하지 말아라.
- ²¹ 갈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하라. 너희 위에 제물의 발도 생기지 못하게 하라.
- ²² 죽은 자들의 피에서,
- ²³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 있을 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도다.
- ²⁴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하여 울어라.
- ²⁵ 전사들이 전장 한가운데서 어떻게 쓰러졌는가!
- ²⁶ 내 형 요나단아, 내가 너를 위해 슬퍼한다.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여자들의 사랑보다 더 뛰어났다.
- ²⁷ 전사들이 어떻게 쓰러졌는가.

사무엘기 하권 2장

- 1 이 일 후에 다윗이 주님께 물었다. "나는 유다의 어떤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 2 그래서 다윗은 두 아내, 예스레엘 출신의 아히노암과 카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과 함께 그곳으로 올라갔다.
- 3 다윗은 자신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의 성읍들에 살게 했다.
- 4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을 유다 가문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웠다. 그들이 다윗에게 말했다. "야베스길라드 사람들은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입니다."
- 5 다윗은 야베스길라드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말했다. "주님의 축복을 받아 주인인 사울에게 이와 같은 자비를 베풀고 그를 장사한 것은 복된 일입니다."
- 6 이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인자함과 진실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 자비를 갚아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이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 7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의 손을 강하게 하고 용감하게 행동하십시오. 당신들의 주인 사울은 죽었고, 유다 가문도 나를 그들을 위한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 8 사울의 장군인 네르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옮겼다.
- 9 그는 이스보셋을 길르앗과 아술 사람과 예스레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 세웠다.
- 10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에서 왕위에 오를 때 사십 세였고, 이년 동안 왕으로 재위했다. 그러나 유다 가문은 다윗을 따랐다.
- 11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가문을 다스린 기간은 칠년 반 이었다.
- 12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하인들이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나왔다.
- 13 세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하인들이 나와서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못의 한쪽 편에 앉고, 다른 쪽 편에는 그들 자신이 앉았다.
- 14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했다. "젊은이들을 일으켜 우리 앞에서 경기를 하게 해 주십시오."
- 15 그러자 그들이 일어나서 수를 세어 나갔다.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위해 열두 명, 다윗의 하인들을 위해 열두 명이었다.
- 16 그들은 각자 자기 상대의 머리를 잡고 칼을 그의 옆구리에 찔러 함께 땅에 쓰러졌다. 그래서 기브온 그곳은 헬카트 하주림이라 불리게 되었다.
- 17 그날 전투는 매우 치열했고,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하인들 앞에서 패배했다.
- 18 세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거기에 있었다. 아사엘은 야생 사슴처럼 발이 빠르다.
- 19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았다. 그는 아브넬을 쫓는 동안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아서지 않았다.
- 20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네가 아사엘인가?"
- 21 아브넬이 그에게 말했다. "오른쪽으로 돌아서거나 왼쪽으로 돌아서서 젊은이 중 하나를 잡고 그의 무기를 빼앗아라." 그러나 아사엘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
- 22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말했다. "내 뒤를 쫓지 마라. 내가 너를 땅에 쓰러뜨릴 이유가 무엇이나? 그러면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마주볼 수 있겠느냐?"
- 23 그러나 아사엘은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브넬이 창의 뒷부분으로 그의 몸을 찔러 창이 그의 뒤로 나오게 하였고, 그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그 장소에 이르는 모든 이들이 멈춰 서 있었다.
- 24 그러나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쫓았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기브온 광야 길에 있는 기아 앞에 있는 아마의 언덕에 이르렀다.
- 25 베냐민 자손들이 아브너를 따라 모여 한 무리가 되어 언덕 꼭대기에 서 있었다.
- 26 아브너가 요압을 불러 말했다. "칼이 영원히 삼킬 것인가? 네가 마지막에 쓰라림이 올 줄 모르는가? 언제쯤이면 네가 백성에게 형제를 쫓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할 것인가?"
- 27 요압이 말했다. "하느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만약 당신이 말하지 않았다면, 아침이 되기 전에 백성은 모두

떠나서 각자 형제를 쫓지 않았을 것입니다."

²⁸ 그래서 요압이 나팔을 불었다. 모든 백성이 멈춰 서서 이스라엘을 쫓지 않고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

²⁹ 아브너와 그의 사람들은 그 밤새 아라바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비드론 전체를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³⁰ 요압은 아브너를 쫓던 것을 그만두고 모든 백성을 모으니, 다윗의 사람 중 열아홉 명과 아사엘이 빠져 있었다.

³¹ 그러나 다윗의 종들이 베냐민과 아브너의 사람들을 치니 삼백육십 명이 죽었다.

³² 그들은 아사엘을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베들레헴에 장사했다. 요압과 그의 사람들은 밤새 길을 가다가 해가 뜨자 헤브론에 이르렀다.

사무엘기 하권 3장

- 1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장기간 전쟁이 있었다. 다윗은 점점 더 강해졌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졌다.
- 2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얻었다. 맏아들은 예스레엘 사람 아히노암의 아들 아몬이었고,
- 3 둘째는 카일라브로, 그의 어머니는 카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고, 셋째는 아브살롬으로, 그의 어머니는 게술 왕 탈마이의 딸 마아가였다.
- 4 넷째는 하기트의 아들 아도니아였고, 다섯째는 아비탈의 아들 세파티아였으며,
- 5 여섯째는 에글라, 다윗의 아내의 아들 이드레암이었다. 이들은 모두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태어났다.
- 6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권력을 강화하였다.
- 7 사울은 아야의 딸 리스바를 첩으로 두고 있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당신이 내 아버지의 첩에게 접근합니까?"
- 8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말에 크게 분노하여 말했다. "내가 유다의 개 머리라도 되는가? 오늘 내가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그런데도 오늘 당신은 이 여자 일로 나에게 죄를 물으려 하는가?"
- 9 주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그에게 이같이 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아브넬에게 이같이 하시고, 더욱 더 하시기를 바란다.
- 10 사울의 집에서 왕권을 빼앗아, 이스라엘과 유다에 걸쳐 다윗의 왕좌를 세우리라.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 11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 12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했다. "이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와 계약을 맺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손을 들어 이스라엘 전체를 당신에게로 이끌겠습니다."
- 13 다윗이 말했다. "좋다. 내가 너와 계약을 맺겠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요구한다. 네가 내 얼굴을 보려고 오기 전에, 먼저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는 네 얼굴을 보지 않겠다."
- 14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했다. "내 아내 미갈을 내게 돌려주어라. 나는 그녀를 데리기 위해 필리스티아인의 음경 백 개를 바쳤다."
- 15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그녀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팔티엘에게서 데려왔다.
- 16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따라가며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갔다. 그때 아브넬이 그에게 말했다. "가라! 돌아가라." 그러자 그는 돌아갔다.
- 17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교섭하며 말했다. "과거에 너희는 다윗이 너희 위에 왕이 되기를 원했다.
- 18 이제 그 일을 하여라. 주님이 다윗에 관해 말씀하셨다. '내 종 다윗의 손을 통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의 손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 19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도 말했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에 좋은 일이라 여겨지는 모든 것을 말했다.
- 20 아브넬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왔고, 그와 함께 스무 명의 사람들이 왔다. 다윗은 아브넬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 21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가 일어나서 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내 주 왕에게로 모아, 그들이 당신과 계약을 맺게 하고, 당신이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보내주었고, 그는 평안히 떠났다.
- 22 보라, 다윗의 종들과 요압이 습격에서 돌아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아브넬은 헤브론에 다윗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윗이 그를 보내어 평안히 떠나보냈기 때문이다.
- 23 요압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요압에게 말했다. "아브넬, 네르의 아들이 왕에게 왔고, 왕이 그를 보내어 평안히 떠나보냈습니다."
- 24 요압이 왕에게 가서 말했다.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다? 아브넬이 당신에게 왔습니다.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떠나보내셨습니까? 이미 그는 떠났습니다."

- 25 너는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를 알고 있다. 그는 너를 속이려 왔고, 너의 나가기와 들어오기를 알아보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을 파악하려 했다.
- 26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온 뒤, 그는 사자를 보내어 아브네르를 뒤쫓아 시라의 우물에서 데려왔으나, 다윗은 그것을 몰랐다.
- 27 아브네르가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요압은 그를 성문 한가운데로 데려가 조용히 말을 나누다가 그의 몸을 치어 죽였으니, 이는 그의 형 아사헬의 피를 갚기 위함이었다.
- 28 그 후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말했다. "나와 내 왕국은 주님 앞에서 영원히 아브네르, 네르의 아들의 피에 무죄하다."
- 29 요압과 그의 아버지 집안 위에 이 모든 것이 떨어지게 하소서. 요압의 집안에서 비뇨증 환자나 나병 환자, 지팡이에 기대는 자, 칼에 쓰러지는 자, 빵이 부족한 자가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 30 이하므로 요압과 그의 형 아비새가 아브네르를 죽였으니, 이는 그가 전투에서 긴본에서 그들의 형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다.
- 31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아브네르 앞에서 슬퍼하여라." 왕 다윗은 관을 따랐다.
- 32 그들은 아브네르를 헤브론에 장사지냈다. 왕은 아브네르의 무덤에서 목소리를 높여 울었고, 모든 백성도 울었다.
- 33 왕은 아브네르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말했다. "아브네르가 어리석은 자처럼 죽어야 했던가?"
- 34 네 손은 묶이지 않았고, 네 발은 족쇄에 잡히지 않았다. 불의한 자들의 앞에서 사람이 쓰러지듯, 네가 쓰러졌구나.
- 35 모든 백성이 낮 동안 다윗이 빵을 먹도록 권했으나, 다윗은 맹세하며 말했다. "하느님이 나에게 이같이 하시고, 더욱 더 하시기를, 해가 지기 전까지 내가 빵이나 다른 무엇이라도 맛보지 않겠습니다."
- 36 모든 백성이 이를 보고 기뻐하였으니, 왕이 무엇을 하든 모든 백성이 기뻐하던 것처럼.
- 37 그러므로 그날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은 아브네르, 네르의 아들을 죽인 것이 왕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 38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왕자이자 위대한 인물이 쓰러졌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 39 나는 오늘 약하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세루야의 아들들은 나보다 훨씬 강하다. 주님께서 악행을 한 자에게 그의 악행에 따라 보응하시기를 바란다."

사무엘기 하권 4장

- ¹ 사울의 아들이 아브너가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이 힘없이 처졌으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
- ² 사울의 아들에는 두 명의 강도 두목이 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바아나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레하브였으며, 둘 다 베로스 사람 리몬의 아들들이었다. 그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다. (베로스로 베냐민의 일부로 여겨졌다.)
- ³ 베로스 사람들은 기타임으로 도망쳐서 오늘날까지 그곳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다.
- 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발이 절뚝거리는 아들을 두었다. 그가 다섯 살 때, 이스라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쳤다. 그녀가 급히 도망치는 도중에 아이가 떨어져 절뚝거리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메비보셋이었다.
- ⁵ 베로스 사람 리몬의 아들들, 레하브와 바아나가 나가서, 낮의 더위가 가장 심한 때에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는 집에 도착했다.
- ⁶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밀을 가져오려는 척하며 그를 치고, 레하브와 그의 동생 바아나는 도망쳤다.
- ⁷ 그들이 그가 침실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집안으로 들어가 그를 쳐서 죽이고, 목을 베어 머리를 가지고 아라바 길을 따라 밤새도록 갔다.
- ⁸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져가서 왕에게 말했다. "보소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곧 당신의 원수이자 당신의 목숨을 노린 자의 머리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주님 왕을 위하여 사울과 그의 자손을 갚으셨습니다."
"
- ⁹ 다윗이 레하브와 그의 동생 바아나, 베로스 사람 리몬의 아들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내 영혼을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신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말하건대,"
- ¹⁰ 누군가 내게 말하기를, '보소서,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한 줄 알았을 때, 나는 그를 잡아 시글라그에서 죽였으니, 그가 전한 소식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죽였던 것이다.
- ¹¹ 그런데 악한 자들이 의로운 사람을 자기 집 안, 침대 위에서 죽였는데, 내가 그 피를 너희 손에서 요구하지 않고, 너희를 땅에서 없애지 않겠느냐?
- ¹² 다윗이 자기 젊은 종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잘라 헤브론의 못가에 매달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너의 무덤에 장사했다.

사무엘기 하권 5장

- 1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아와서 말했다.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뼈와 살입니다.
- 2 과거 사울이 우리 위에 왕으로 있었을 때에도, 당신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 3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아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 4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서른 살이었고, 사십 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 5 그는 헤브론에서 유다를 위해 일곱 년 여섯 달을 통치했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모두 위해 삼십삼 년을 통치했습니다.
- 6 왕과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 땅의 주민인 여부스 사람들을 치려 하였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눈먼 자와 절뚝거리는 자라도 당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 7 그러나 다윗은 시온의 요새를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도시입니다.
- 8 그날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물길을 따라 올라가, 다윗의 마음이 미워하는 절뚝거리는 자와 눈먼 자를 치라."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눈먼 자와 절뚝거리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 9 다윗은 요새에 거주하며 그것을 다윗의 도시라 불렀습니다.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둘러 쌓아 성을 건축했습니다.
- 10 다윗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만군의 주님,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 11 티레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어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 12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왕국을 높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 13 그가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첩과 아내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더 많은 아들과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 14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샘무아, 소바브, 나단, 솔로몬,
- 15 이바르, 엘리수아, 네페그, 야피아,
- 16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브엘렛입니다.
- 17 페리스티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다윗을 찾아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 18 페리스티 사람들은 와서 레파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 19 다윗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페리스티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까?"
- 20 다윗이 바알 브라지임에 이르러 그들을 거기서 치니, 그가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들을 내 앞에서 물의 터짐처럼 부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장소를 바알 브라지임이라 불렀습니다.
- 21 그들이 그곳에 우상들을 버리고 갔고, 다윗과 그의 군대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 22 페리스티 사람들은 다시 올라와서 레파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 23 다윗이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올라가지 마라. 그 뒤로 돌아서, 무화과나무 앞에서 그들을 치라."
- 24 네가 무화과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 움직여라. 그때 주님이 네 앞에서 페리스티 군대를 치러 나가셨기 때문이다."
- 25 다윗은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게바에서 게제르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렀다.

사무엘기 하권 6장

- 1 다윗이 이스라엘의 골라진 자들을 다시 모아 삼만 명이나 되게 하였다.
- 2 다윗은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과 함께 바알레유다에서 출발하여, 그곳에서 주님의 궤를 올려왔다. 이 궤는 그 이름으로 불리는, 그룹 위에 앉으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지닌 것이다.
- 3 그들은 하느님의 궤를 새 수레에 올려,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끌어냈다.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자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 4 그들은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느님의 궤를 끌어냈다. 아히오는 궤 앞에서 나아갔다.
- 5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은 모든 종류의 전나무로 만든 악기, 곧 수금과 현악기와 타임브라인과 카스테넷과 제금을 들고 주님 앞에서 노래하며 춤추었다.
- 6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허덕이자, 우자가 하느님의 궤를 잡아 붙잡았다.
- 7 주님께서 우자에게 진노하셔서, 그의 잘못으로 그를 치셨다. 그는 하느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 8 다윗은 주님께서 우자에게 벌을 내리셨다는 것에 기뻐하지 못하고, 그 장소를 오늘날까지 '우자의 파괴'라 불렀다.
- 9 그날 다윗은 주님을 두려워하며 말했다. "주님의 궤가 어찌하여 내게로 오려 하는가?"
- 10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자기 도시로 옮기지 않고, 그 궤를 이트기 사람 오벧에돔의 집으로 옮겼다.
- 11 주님의 궤는 이트기 사람 오벧에돔의 집에 세 달 동안 머물렀다. 주님께서 오벧에돔과 그의 온 집을 복 주셨다.
- 12 다윗 왕은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하느님의 궤 때문에 오벧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복 주셨다."라고 하였다.
- 13 주님의 궤를 메는 자들이 여섯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그는 소 한 마리와 살진 송아지를 희생 제물로 바쳤다.
- 14 다윗은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서 춤추었고, 다윗은 베로 된 에포드를 입었다.
- 15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은 함성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궤를 올려 끌어들었다.
- 16 주님의 궤가 다윗의 도시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주님 앞에서 뛰며 춤추는 다윗 왕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경멸하였다.
- 17 그들은 주님의 궤를 끌어들여, 다윗이 그를 위해 친 천막 한가운데에 두었다. 그리고 다윗은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 18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마친 후,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다.
- 19 그는 이스라엘 온 무리, 남녀 모두에게 빵과 무화과 떡과 건포도를 한 몫씩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 20 그 후 다윗은 자기 집안을 축복하러 돌아갔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이하며 말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얼마나 위대한가! 오늘 자기 하인들의 여종들 앞에서 몸을 벌거벗기며, 허튼 농처럼 부끄러움 없이 벌거벗고 춤추다니!"
- 21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 한 일이며, 주님께서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떠나 나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 곧 주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앞에서 춤출 것이다."
- 22 나는 이보다 더 천하게 행동하고, 내 눈에는 더 천한 존재가 되겠다. 그러나 네가 말한 여종들은 나를 존중할 것이다.
- 23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사무엘기 하권 7장

- 1 왕이 자기 집에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주셨다.
- 2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살고 있지만, 하느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습니다."
- 3 나단이 왕에게 말했다. "가서, 네 마음에 있는 대로 모두 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 4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다.
- 5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 주려는가?'"
- 6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집에 살지 않았고, 휘장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 7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모든 곳을 다닐 때, 내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양하라고 명령한 자에게 한 번이라도 '왜 나는 백향목으로 된 집을 지어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 8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양 떼 뒤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웠다.'
- 9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했고, 네 앞에서 네 모든 원수를 제거하였다. 내가 너로 하여금 땅 위의 위대한 자들처럼 위대한 이름을 얻게 하리라.'
- 10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장소를 정하고, 그들을 심어 그들이 자기 땅에 거주하게 하리니,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들이 그들을 처음과 같이 괴롭히지 못하리라.'
- 11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재판관을 세운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제거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너에게 이끄기를, 주님께서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다.'
- 12 네가 조상들과 함께 눕고, 네 날이 차면, 내가 네 몸에서 난 자를 네 뒤에 세워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라.'
- 13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며, 내가 그의 왕좌를 영원히 굳게 세우리라.'
- 14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지팡이로 그를 벌하고, 인자의 매로 그를 징벌하리라.'
- 15 그러나 내 자비는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사울을 네 앞에서 버렸다.'
- 16 네 집과 네 왕국은 너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네 왕좌는 영원히 견고히 세워지리라.'"
- 17 나단이 다윗에게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환상을 전하였다.
- 18 그때 다윗 왕이 들어가서 주님 앞에 앉아 말했다. "주 하느님,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며, 이렇게까지 저를 이끌어 오셨습니까?"
- 19 주 하느님, 이는 눈에 작은 일에 불과했지만, 당신은 당신 종의 집을 먼 미래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간들 앞에서, 주 하느님!
- 20 다윗이 당신께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 하느님, 당신은 당신 종을 알고 계십니다.
- 21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마음에 따라, 당신은 이 모든 위대한 일을 행하셔서, 당신 종이 이를 알게 하셨습니다.
- 22 그러므로 주 하느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귀로 듣는 바와 같이, 당신과 같은 분은 없고, 당신 외에는 다른 하느님이 없습니다.
- 23 지상의 어느 민족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당신은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시며, 당신의 땅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로부터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 24 당신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셨고, 주님, 당신은 그들의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 25 주 하느님, 주께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관해 말씀하신 말을 영원히 굳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소서.
- 26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아지게 하소서. '주 만군의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하느님이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굳게 서리라'고 말하게 하소서.
- 27 주 만군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께서 주의 종에게 계시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마음속으로 이 기도를 주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²⁸ 주 하느님, 주께서 참으로 하느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진리이시며,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 좋은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²⁹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집을 복되게 하시어, 주 앞에 영원히 계속되게 하소서. 주 하느님,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주의 복으로 영원히 복되게 되게 하소서.

사무엘기 하권 8장

¹ 이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들을 복종시켰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본도를 그들의 손에서 빼앗았다.

² 그는 모압을 정복하고 줄로 재어 그들을 땅에 누이게 하였으며, 두 줄은 죽이기 위해, 한 줄은 살려두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공물을 바쳤다.

³ 다윗은 또 조바의 왕 레훅의 아들 하다드에제르가 강가에서 그의 영역을 회복하려 할 때 치고 격파하였다.

⁴ 다윗은 그에게서 일천칠백 명의 기마병과 이만 명의 보병을 빼앗았다. 다윗은 병거 말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나, 백 대의 병거를 위해 충분한 말은 남겨두었다.

⁵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조바의 왕 하다드에제르를 돕기 위해 왔을 때, 다윗은 시리아 사람 중 이만 이천 명을 죽였다.

⁶ 그리고 다윗은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땅에 요새를 설치하였다. 시리아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공물을 바쳤다. 주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다.

⁷ 다윗은 하다드에제르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⁸ 다윗은 하다드에제르의 도시인 베타와 베로타이에서 많은 양의 청동을 빼앗았다.

⁹ 하마트의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드에제르의 모든 군대를 치는 것을 듣고,

¹⁰ 그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인사하고 축복하게 하였다. 그는 하다드에제르와 싸워 그를 격파했기 때문이었고, 하다드에제르는 도이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요람은 은 그릇과 금 그릇, 청동 그릇을 가지고 왔다.

¹¹ 다윗 왕은 또한 그 모든 그릇들과, 복종시킨 모든 민족들로부터 빼앗은 은과 금을 주님께 바쳐 헌물로 드렸다.

¹² 시리아, 모압, 암몬 자손, 블레셋, 아말렉, 그리고 조바의 왕 레훅의 아들 하다드에제르의 전리품을 바쳤다.

¹³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시리아 사람 만팔천 명을 치고 돌아오면서 명성을 얻었다.

¹⁴ 그는 에돔 땅에 요새를 설치하였다. 에돔 전역에 요새를 두었고, 모든 에돔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었다. 주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다.

¹⁵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렸고,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의로움을 베풀었다.

¹⁶ 세루야의 아들 요압이 군대를 지휘하였고, 아힐루드의 아들 여호사밋이 기록관이었으며,

¹⁷ 아히둡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사제였고, 세라야가 서기관이었으며,

¹⁸ 요이다의 아들 베나야가 그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명령하였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의 최고 관리들이었다.

사무엘기 하권 9장

- ¹ 다윗이 말했다. "사울의 집에서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가? 내가 요나단의 덕분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 ² 사울의 집에 종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지바였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에게 불러왔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네가 지바인가?"
- ³ 왕이 말했다. "사울의 집에서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가? 내가 하느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고 싶다."
- ⁴ 왕이 그에게 말했다. "그는 어디에 있는가?"
- ⁵ 그러자 왕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아미엘의 아들 마기르의 집에서, 로드바르에 있는 그를 데려왔다.
- ⁶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메피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얼굴을 대고 절했다. 다윗이 말했다. "메피보셋이냐?"
- ⁷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의 덕분에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네 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네게 돌려줄 것이다. 너는 내 상에서 항상 빵을 먹을 것이다."
- ⁸ 그가 몸을 굽혀 말했다. "내가 무엇이기예,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는가?"
- ⁹ 그러자 왕이 사울의 종 지바를 불러서 말했다. "내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
- ¹⁰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이 그 땅을 경작하여 수확물을 가져오라. 그래야 네 주인의 아들이 빵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메피보셋은 내 상에서 항상 빵을 먹을 것이다."
- ¹¹ 그러자 지바가 왕에게 말했다. "내 주 왕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은 모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메피보셋은 왕의 아들들처럼 왕의 상에서 빵을 먹었다.
- ¹² 메피보셋은 어린 아들을 두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가였다. 지바의 집에 사는 모든 이들은 메피보셋의 종들이었다.
- ¹³ 그래서 메피보셋은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그는 항상 왕의 상에서 빵을 먹었다. 그는 두 발이 절뚝였다.

사무엘기 하권 10장

- ¹ 이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² 다윗이 말했다. "나는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은 그의 종들을 보내어 하논에게 아버지의 죽음에 위로를 전하게 했다. 다윗의 종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들어갔다.
- ³ 그러나 암몬 자손의 귀족들이 하논, 그들의 주에게 말했다. "당신은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를 존중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당신에게 위로자를 보낸 것이 그 이유입니까? 다윗이 그의 종들을 보내어 도시를 정찰하고 은밀히 살피며 뒤엎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 ⁴ 그래서 하논은 다윗의 종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아내고, 그들의 옷을 허리에서 아래로 잘라 엉덩이까지 드러내고 그들을 쫓아냈다.
- ⁵ 그들이 다윗에게 이 일을 알리자, 다윗은 그들을 맞이하러 보냈다. 그 남자들은 매우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왕이 말했다. "에리코에서 머물며 수염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돌아오라."
- ⁶ 암몬 자손이 자신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받았음을 알고, 벰레호브의 시리아인들과 조바의 시리아인들을 고용하여 보병 이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일천 명, 그리고 도브의 자손 열이천 명을 데려왔다.
- ⁷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요압과 모든 용사들의 군대를 보냈다.
- ⁸ 암몬 자손이 나와서 성문 입구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조바와 레호브의 시리아인들과 도브와 마아가의 자손들은 들에서 따로 전열을 갖추었다.
- ⁹ 요압이 전투가 자신 앞뒤로 펼쳐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선발된 병사들을 골라 시리아인들과 대항하여 전열을 갖추었다.
- ¹⁰ 나머지 백성은 그의 형제 아비새의 손에 맡기고, 그를 암몬 자손과 대항하여 전열을 갖추게 했다.
- ¹¹ 그가 말했다. "시리아인이 나보다 강하면, 당신이 나를 도우라. 그러나 암몬 자손이 당신보다 강하면, 내가 와서 당신을 도우리라."
- ¹² 용감해지고, 우리 백성과 우리 하느님의 도시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주님이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 ¹³ 그래서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시리아인들과 대항하여 전투에 나아가자, 시리아인들이 그 앞에서 도망쳤다.
- ¹⁴ 암몬 자손이 시리아인들이 도망친 것을 보고, 역시 아비새 앞에서 도망쳐 성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요압은 암몬 자손에게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 ¹⁵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보고, 모여들었다.
- ¹⁶ 하다드에제르가 강 건너편의 시리아인들을 불러들여 헬람으로 보내었고, 그들의 우두머리는 하다드에제르의 군대 장관 쇼바크였다.
- ¹⁷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모두 모아 요단을 건너 헬람으로 나아갔다. 시리아인들이 다윗과 대항하여 전열을 갖추고 그와 싸웠다.
- ¹⁸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쳤고, 다윗은 시리아인의 병거 일천 명과 기마병 사만 명을 죽였으며, 그들의 군대 장관 쇼바크를 치니 그가 그곳에서 죽었다.
- ¹⁹ 하다드에제르의 종이 되었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평을 맺고 그들을 섬겼다. 그래서 시리아인들은 더 이상 암몬 자손을 돕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사무엘기 하권 11장

- 1 해가 돌아가는 시기, 즉 왕들이 출전하는 시기에, 다윗은 요압과 그의 종들과 이스라엘 전체를 보내어 아몬 자손을 치고 라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 2 저녁이 되어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었다. 지붕에서 그는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다.
- 3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그 여자를 알아보니, 그가 말하였다. "이 여자는 엘리암의 딸이자 히위 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바스 세바가 아닙니까?"
- 4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그 여자를 데려왔고, 그 여자는 그에게로 와서 그와 동침하였다. (그녀는 부정함에서 깨끗해진 후였다.) 그 후 그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 5 그 여자는 임신하였다. 그녀가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였다. "저는 임신했습니다."
- 6 다윗이 요압에게 보냈다. "히위 사람 우리아를 나에게로 보내라."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냈다.
- 7 우리아가 그에게 이르자,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요압은 잘 지내느냐? 백성은 잘 지내느냐? 전쟁은 잘 풀리느냐?"
- 8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우리아는 왕의 집을 떠나갔고, 왕이 그를 따라 선물을 보냈다.
- 9 그러나 우리아는 주인의 모든 종들과 함께 왕궁 문 앞에서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 10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하였다.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여행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
- 11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행장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천막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주인 요압과 제주의 종들이 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찌 집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저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 12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오늘도 여기 머물러라. 내일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그러므로 우리아는 그날과 그 다음 날도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 13 다윗이 그를 불러서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하였고, 그를 취하게 만들었다. 저녁이 되어 그는 주인의 종들과 함께 자기 침상에 누웠으나,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 14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을 빌려 보냈다.
- 15 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의 선두로 보내고, 그를 뒤로 물러나게 하여 그가 전사하게 하라."
- 16 요압이 성을 둘러보며, 용감한 자들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 17 성 안의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싸웠다. 백성 중 일부가 죽었고, 다윗의 종들 중에서도 죽은 자가 있었다. 히위 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 18 요압이 사자를 보내어 다윗에게 전쟁에 관한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 19 그는 사자에게 명령하였다. "네가 왕에게 전쟁에 관한 모든 일을 다 보고한 후,
- 20 만일 왕이 분노하여 네게 묻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성에 가까이 나아가서 싸웠느냐? 벽에서 화살을 쏘는 것을 몰랐느냐?" 라면,
- 21 "아비멜렉, 예루베셋의 아들이 누구에게 맞아 죽었느냐? 한 여자가 성벽에서 쏜 돌을 그에게 던져 테브스에서 죽게 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성벽에 가까이 나아갔느냐?" 하면, 너는 말하라, "당신의 종 히위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 22 그러므로 사자는 떠나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자신에게 시킨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 23 사자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기고 들로 나와서 우리를 쫓아왔으며, 우리도 그들을 성문 입구까지 쫓아왔습니다."
- 24 성벽에서 당신의 종들을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왕의 종들 중 일부가 죽었고, 당신의 종 히위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²⁵ 다윗이 사자에게 말했다. "요압에게 전하여라. ㄱ"이 일로 마음 쓰지 마라. 칼은 이도 잡아먹고 저도 잡아먹는다. 도시에 더 강하게 싸워서 그것을 무너뜨려라. ㄱ" 그를 격려하여라."

²⁶ 우리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위하여 애도하였다.

²⁷ 애도 기간이 끝난 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다윗이 한 그 일은 주님의 마음에 거슬렸다.

사무엘기 하권 12장

- ¹ 주님은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 그가 다윗에게 이르러 말했다.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다.
- ² 부자는 매우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었다.
- ³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의 어린 양밖에 없었는데, 그는 그것을 사서 키웠다. 양은 그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고, 그의 음식을 먹고, 그의 잔에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워서 그에게 딸처럼 여겨졌다.
- ⁴ 한 여행자가 부자에게 왔을 때, 부자는 자기 양떼나 소떼에서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에게 온 여행자를 위해 준비하지 않고, 대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그에게 온 사람을 위해 준비했다."
- ⁵ 다윗은 그 남자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나단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 일을 한 자는 죽어야 한다!
- ⁶ 그는 네 배의 양을 갚아야 한다. 이 일을 했고,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 ⁷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당신이 바로 그 남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웠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였다.
- ⁸ 내가 네 주인의 집과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안겨 주었으며,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을 주었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면,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더해 주었을 것이다.
- ⁹ 그러므로 어찌하여 너는 주님의 말씀을 경멸하여 그의 눈에 어두운 일을 행하였느냐? 너는 히위 사람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았으며, 아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다."
- ¹⁰ 그러므로 이제 칼이 결코 네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경멸하고, 히위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 ¹¹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네 집에서 재앙을 일으켜 네게 대적하게 하리라. 내가 네 아내들을 네 눈앞에서 빼앗아 이웃에게 주리니, 그가 네 아내들과 이 해 아래에서 동침할 것이다."
- ¹² 너는 이 일을 은밀히 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해 앞에서 행하겠다."
- ¹³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 ¹⁴ 그러나 네가 이 일을 하여 주님의 원수들이 모욕할 기회를 크게 주었으므로, 네게 태어난 아이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 ¹⁵ 그러나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 ¹⁶ 그러므로 다윗은 아이를 위해 하느님께 간청했고, 다윗은 금식하며 밤새 땅에 누워 있었다.
- ¹⁷ 그의 집안 어른들이 그를 일으켜 땅에서 일으키려고 그 옆에 서 있었으나, 그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빵도 먹지 않았다.
- ¹⁸ 일곱째 날,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하인들은 그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들이 말했다. "보라, 아이가 살아 있을 때 우리가 말해도 그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면 그가 얼마나 더 자신을 해칠까?"
- ¹⁹ 그러나 다윗이 하인들이 속삭이고 있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음을 깨달았다. 다윗이 하인들에게 말했다. "아이가 죽었느냐?"
- ²⁰ 그러자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다. 그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달라고 하자, 그들에게 빵을 차려 주었고, 그는 먹었다.
- ²¹ 그러자 그의 하인들이 그에게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아이가 살아 있을 때는 금식하고 울었으나, 아이가 죽었을 때는 일어나 빵을 먹었습니다."
- ²² 그가 말했다. "아이가 살아 있을 때는 금식하고 울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실지 모르니, 아이가 살지도 모른다."
- ²³ 그러나 이제는 죽었다. 내가 어찌하여 금식해야 하느냐? 내가 그를 다시 불러올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갈 것이지만, 그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 ²⁴ 다윗은 아내 바스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가서 그녀와 동침하였다. 그녀가 아들을 낳았고, 그는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

라 지었다.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다.

²⁵ 그는 예언자 나탄을 보내어 그 아이를 여디디아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였다.

²⁶ 요압은 암몬 자손의 라바를 공격하여 왕의 도시를 점령하였다.

²⁷ 요압은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했다. "나는 라바와 싸웠고, 물의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²⁸ 이제 나머지 백성을 모두 모아 도시를 둘러싸고 점령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이 도시를 점령하여 제 이름으로 부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²⁹ 다윗은 모든 백성을 모아 라바로 나아가 싸워 그것을 점령하였다.

³⁰ 그는 그들의 왕의 면류관을 그 머리에서 벗겨 가져왔는데, 그 무게는 일 탈렌트의 금이었고, 그 안에는 귀한 보석들이 박혀 있었다. 그 면류관을 다윗의 머리에 씌웠다. 그는 도시에서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다.

³¹ 그는 도시 안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내어 톱과 철 갈고리와 철 도끼 아래에서 노동시키고, 벽돌 굽는 굴로 보내었다. 그는 암몬 자손의 모든 도시에 이와 같이 하였다. 그 후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사무엘기 하권 13장

- 1 이 일 후에 다윗의 아들 아브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타마르였다. 다윗의 아들 아몬은 그녀를 사랑하였다.
- 2 아몬은 그의 누이 타마르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여 병이 들었다. 그녀는 처녀였고, 아몬에게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였다.
- 3 아몬에게는 시마아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다.
- 4 요나답이 그에게 물었다. "왕자의 아들아, 어찌하여 날마다 이렇게 슬퍼합니까? 나에게 말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몬이 대답하였다. "나는 내 형 아브살롬의 누이 타마르를 사랑한다."
- 5 요나답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 침대에 누워 병이 난 척하여라. 네 아버지가 와서 네를 보러 올 때, 그에게 말하여라. '내 누이 타마르가 와서 내 앞에서 빵을 만들어 주고, 내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그녀의 손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 6 그래서 아몬은 누워서 병이 난 척하였다. 왕이 와서 그를 보았을 때, 아몬이 왕에게 말하였다. "내 누이 타마르가 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빵 두 개를 만들어 주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그녀의 손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 7 그러자 다윗이 타마르에게 보내어 말하였다. "너는 네 형 아몬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여라."
- 8 타마르는 형 아몬의 집으로 갔다. 그는 누워 있었다. 그녀는 반죽을 가져와 반죽을 치고, 그의 앞에서 빵을 만들며 굽었다.
- 9 그녀는 팬을 가져와 그 앞에 빵을 내놓았으나, 그는 먹기를 거부하였다. 아몬이 말하였다. "모든 사람을 내게서 떠나게 해라." 그러자 모든 사람이 그에게서 떠났다.
- 10 아몬이 타마르에게 말하였다. "음식을 방 안으로 가져와서, 내 손에서 먹게 해 주어라." 타마르는 자신이 만든 빵을 가져와 형 아몬의 방으로 들어갔다.
- 11 그녀가 빵을 그에게 가까이 가져다 주었을 때, 그는 그녀를 붙잡고 말하였다. "오라, 나와 함께 자자, 내 누이여!"
- 12 그녀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아니오, 내 형님, 나를 강간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 13 나는 어디에 내 수치를 안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자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왕께 말씀하십시오. 그분은 저를 당신에게서 빼앗지 않으실 것입니다.
- 14 그러나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보다 힘이 강했고, 그녀를 강간하고 그녀와 함께 잤다.
- 15 그러자 아몬은 그녀를 심히 싫어하게 되었다. 그가 그녀를 싫어한 마음은 그가 그녀를 사랑했던 마음보다 더 강했다. 아몬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나가라!"
- 16 그녀가 그에게 말하였다. "아니오, 나를 내쫓는 이 큰 악행이 당신이 나에게 한 다른 죄보다 더 심합니다."
- 17 그는 자신을 섬기던 하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이 여자를 지금 내게서 내보내고, 그녀 뒤로 문을 잠그어라."
- 18 그녀는 색이 다양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왕의 딸들 중 처녀들은 이런 옷을 입었다. 그의 하인이 그녀를 내보내고, 그녀 뒤로 문을 잠그었다.
- 19 타마르는 머리에 재를 뿌리고, 입고 있던 색이 다양한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은 채, 큰 소리로 울면서 떠났다.
- 20 그녀의 형 아브살롬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 아몬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지금은 조용히 있어라, 내 누이여. 그는 네 형이니, 이 일을 마음에 두지 마라."
- 21 그러나 왕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분노하였다.
- 22 아브살롬은 아몬에게 좋은 말도 나쁜 말도 하지 않았다. 아브살롬은 그의 누이 타마르를 강간한 탓에 아몬을 미워하였다.
- 23 이후 이 년이 지나자, 아브살롬은 에브라임 곁에 있는 바알 하소르에서 양을 깎는 일을 하였다. 아브살롬은 왕의 모든 아들을 초대하였다.
- 24 아브살롬이 왕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종이 양을 깎고 있습니다. 왕과 왕의 신하들이 종과 함께 가시기를 청

합니다."

²⁵ 왕이 아브살롬에게 말했다. "아니, 내 아들이야, 우리 모두 가지 말자. 네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는 계속 간청했고, 아브살롬은 가기를 거부하고 그를 축복했다.

²⁶ 그러자 아브살롬이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제발 내 형 아몬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²⁷ 그러나 아브살롬이 계속 간청하자, 왕은 아몬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그와 함께 보내주었다.

²⁸ 아브살롬이 자기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보아라, 아몬이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아몬을 치라' 하면, 그를 죽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용감하고 용감하게 행동하여라!"

²⁹ 아브살롬의 하인들이 아몬을 아브살롬의 명령대로 처리했다. 그때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자 나귀에 올라 도망쳤다.

³⁰ 그들이 길을 가던 중, 다윗에게 소식이 전해졌다. "아브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³¹ 그러자 왕이 일어나 옷을 찢고 땅에 누웠다. 그의 모든 하인들도 옷을 찢고 곁에 서 있었다.

³² 다윗의 형 시마아의 아들 요나답이 말했다. "내 주여, 왕의 모든 젊은이들, 곧 왕의 아들들이 모두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아몬만 죽었습니다. 아브살롬은 그의 누이 타마르를 강간한 그 날부터 이 일을 계획해 왔습니다."

³³ 그러므로 내 주 왕께서는 왕의 모든 아들이 다 죽었다고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오직 아몬만 죽었습니다."

³⁴ 그러나 아브살롬은 도망쳤다. 경비를 서던 젊은이가 눈을 들어 보니, 그의 뒤로 언덕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³⁵ 요나답이 왕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왕의 아들들이 도착했습니다. 제 종의 말이 맞습니다."

³⁶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왕의 아들들이 도착하여 소리를 높여 울었다. 왕과 그의 모든 하인들도 심하게 울었다.

³⁷ 그러나 아브살롬은 도망쳐 게술 왕 아미후르의 아들 탈마이에게로 갔다. 다윗은 매일 아들을 위하여 애도했다.

³⁸ 그리하여 아브살롬은 도망쳐 게술로 가서 거기서 삼 년을 보냈다.

³⁹ 왕 다윗은 아브살롬을 만나러 나가고 싶어 했다. 아몬이 죽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사무엘기 하권 14장

- 1 이제 세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아브살롬을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 2 요압은 테코아로 보내어 그곳에서 지혜로운 여자를 데려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애도하는 자처럼 행동하고, 슬픔의 옷을 입으며, 기름을 바르지 마십시오. 죽은 자를 위하여 오래 애도하는 여자처럼 행동하십시오."
- 3 "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서 요압은 그녀의 입에 그 말을 넣어주었다.
- 4 테코아의 여자가 왕에게 말할 때, 그녀는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며 말했다. "도와주소서, 왕이여!"
- 5 왕이 그녀에게 말했다. "무슨 일로 슬퍼하는가?"
- 6 당신의 종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이 들에서 싸우다가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치고 죽였습니다.
- 7 보십시오, 온 가족이 당신의 종을 대적하여 말합니다. "그가 형을 죽인 자를 내놓으십시오. 우리가 그의 형을 죽인 대가로 그를 죽이고, 그의 형을 죽인 죄로 그의 후손까지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종이 남긴 숯불까지 꺼버리고, 당신의 종의 남편에게 땅 위에 이름이나 남은 자조차 남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 8 왕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겠다."
- 9 테코아의 여자가 왕에게 말했다. "내 주 왕이여, 죄는 저와 제 아버지의 집에 있게 하시고, 왕과 왕의 왕위는 죄없게 하소서."
- 10 왕이 말했다. "네게 무엇이랄도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 11 그러자 그 여자가 말했다. "내 주 왕이여, 당신의 주님을 기억하소서. 피를 갚는 자가 더 이상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제 아들을 멸망시키지 않게 하소서."
- 12 그 여자가 말했다. "내 주 왕이여, 당신의 종이 한 마디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 13 그 여자가 말했다. "그러면 왜 당신은 하느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을 꾸미십니까? 이 말을 하는 왕은 마치 죄인처럼, 왕은 자신이 쫓아낸 자를 다시 데려오지 않으십니다."
- 14 우리는 반드시 죽고, 땅에 쏟아진 물처럼 다시 모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지만, 쫓겨난 자가 자신에게서 버림받지 않도록 방법을 마련하십니다.
- 15 이제 제가 이 말을 내 주 왕께 하러 온 것은, 백성이 저를 두려워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종은 말했습니다. "내가 왕께 말하러 가리다. 혹시 왕께서 당신의 종의 간청을 들어주실지도 모릅니다."
- 16 왕께서는 당신의 종을, 저와 제 아들을 함께 죽이려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유산을 받은 자들입니다.
- 17 그러면 당신의 종은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의 말씀이 평안을 가져다주기를 바랍니다. 왕님은 하느님의 천사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지혜를 지니셨습니다. 당신의 하느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 18 왕이 그 여자에게 대답했다. "내가 묻는 것을 네가 숨기지 말아라."
- 19 왕이 말했다. "이 모든 일에 요압의 손이 함께 있는가?"
- 20 당신의 종 요압이 이 일을 하여 사태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내 주는 하느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워서 땅 위의 모든 일을 아십니다.
- 21 왕이 요압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다. 가서 젊은이 아브살롬을 데려오라."
- 22 요압은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며 왕을 축복했다. 요압이 말했다. "오늘 당신의 종은 내 주 왕의 눈에 은총을 입었음을 알았습니다. 왕께서 당신의 종의 간청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 23 그래서 요압은 일어나 게술로 가서 아브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 24 왕이 말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러나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아브살롬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 25 이스라엘 전역에서 아브살롬처럼 아름다움으로 칭찬받을 자는 없었다.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그에게 결함이 없었다.

- ²⁶ 그가 머리카락을 깎을 때마다(매년 말에 그가 머리카락을 깎았는데, 무겁기 때문에 그가 깎았기 때문이다) 그는 머리카락을 왕의 기준으로 두 백 세겔 무게로 달았다.
- ²⁷ 아브살롬에게 세 아들이 태어났고, 한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타마르였다. 그녀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여자였다.
- ²⁸ 아브살롬은 예루살렘에서 두 해를 완전히 지냈다. 그는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 ²⁹ 그러자 아브살롬이 요압을 보내어 왕에게로 보내 달라고 했으나, 요압은 그에게 오지 않았다. 그는 다시 두 번째로 보냈으나, 요압은 오지 않았다.
- ³⁰ 그래서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다. "보아라, 요압의 밭이 내 밭 옆에 있다. 그곳에 보리가 있다. 가서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아브살롬의 하인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 ³¹ 그러자 요압이 일어나 아브살롬의 집에 와서 그에게 말했다. "왜 당신의 하인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 ³² 아브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했다. "보아라, 내가 당신에게 보냈을 때, '이리로 와서 왕에게 보내주십시오. 왜 나는 게술에서 왔습니까?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제 제가 왕의 얼굴을 뵈게 해 주십시오. 제게 죄가 있다면, 그 분이 저를 죽이게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 ³³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가서 그에게 말했다. 왕이 아브살롬을 불러내자, 아브살롬이 왕에게 나아가 땅에 얼굴을 대고 절했고, 왕이 아브살롬을 입으로 맞아 주었다.

사무엘기 하권 15장

- 1 이후에 아브살롬은 자기에게 맞는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그 앞에서 달릴 오십 명을 데리고 다녔다.
- 2 아브살롬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 길 옆에 서 있었다. 누구든지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면, 아브살롬은 그를 불러서 말했다. "너는 어느 도시 사람인가?"
- 3 아브살롬이 그에게 말했다. "보아라, 네 일이 좋고 정당하구나. 그러나 왕에게는 네 말을 듣는 자가 없구나."
- 4 아브살롬이 더 말했다.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구든지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면 내게 와서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 수 있겠구나."
- 5 누구든지 그에게 나아와 절하려 할 때마다, 아브살롬은 손을 뻗어 그를 붙잡고 입맞추었다.
- 6 아브살롬은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였다. 그래서 아브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 7 사십 년이 지나자, 아브살롬이 왕에게 말했다. "내가 하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서원한 서원을 갚게 해 주십시오."
- 8 내가 시리아의 게술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 9 왕이 그에게 말했다. "평안히 가라."
- 10 그러나 아브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정찰대를 보내며 말했다.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즉시 말하라. '아브살롬이 하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 11 예루살렘에서 아브살롬과 함께 나간 자가 이백 명이었는데, 그들은 초대를 받아 단순한 마음으로 갔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 12 아브살롬은 자기 도시인 길로에서 다윗의 자문관 아히도벨을 불러왔다. 그가 제사를 드릴 때였다. 음모는 강력해졌고, 백성은 계속해서 아브살롬에게 더해졌다.
- 13 한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아브살롬을 따르고 있습니다."
- 14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다. "일어나라.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아무도 아브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할 것이다. 서두르지 않으면,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잡아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성을 칼날로 칠 것이다."
- 15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보소서, 주군 왕께서 명하시는 대로 우리 종들이 모두 따르겠습니다."
- 16 왕이 나가고, 그의 모든 가족이 뒤를 따랐다. 왕은 열 명의 첩을 남겨 집을 지키게 하였다.
- 17 왕이 나가고, 모든 백성이 뒤를 따랐다. 그들은 베트 메르하크에서 머물렀다.
- 18 그의 모든 신하가 그를 따라 지나갔고, 모든 케레티인과 블레티인과 급티인, 곧 그가 갓에서 따라온 육백 명의 사람들이 왕 앞에서 지나갔다.
- 19 왕이 급티인 이타이에게 말했다.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는 이유가 무엇이나? 돌아가서 왕과 함께 머물러라. 너는 외국인이고, 유랑자이니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 20 너는 어제 왔는데, 내가 오늘 너를 우리와 함께 데리고 다니겠느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돌아가서 네 형제들을 데리고 가라. 자비와 진실이 너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 21 이타이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심과, 주군 왕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주군 왕께서 계신 곳이라면, 죽음이든 생명이든, 당신의 종도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 22 다윗이 이타이에게 말했다. "가서 건너라." 이타이 급티인은 건너갔고, 그의 모든 사람과 그와 함께한 어린아이들도 함께 건너갔다.
- 23 온 땅이 큰 소리로 울었고, 모든 백성이 건너갔다. 왕도 스스로 키론 계곡을 건너,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건너갔다.
- 24 보아라, 사독도 왔고,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인들도 왔으며, 주님의 언약 궤를 메고 있었다. 그들이 주님의 궤를 내려놓았고, 아비아달은 모든 백성이 성에서 다 지나가기까지 올라갔다.
- 25 왕이 사독에게 말했다. "하느님의 궤를 도시로 되돌려 보내라. 내가 주님의 눈에 은총을 입는다면, 그분이 나를 다시 데

려오시고, 그 궤와 그분의 거처를 나에게 보여 주실 것이다.

²⁶ 만약 그분이 "나는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신다면, 보라, 내가 여기 있다. 그분이 나에게 좋다고 여기는 대로 하시게 하라."

²⁷ 왕이 사제 사독에게도 말했다. "네가 예언자 아닌가? 평안히 도시로 돌아가고, 네 아들 두 명, 즉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데리고 가라."

²⁸ 보라, 내가 광야의 건너편에 머물러 있다가, 너희가 나에게 소식을 전해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

²⁹ 그러므로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느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겼고, 거기 머물렀다.

³⁰ 다윗은 올리브 산의 오르막을 오르며 울었고, 머리는 가리고 발은 벗은 채 올라갔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도 각자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³¹ 누군가 다윗에게 말했다. "아히도벨이 아브살롬과 함께 음모를 꾸미고 있다."

³² 다윗이 산 꼭대기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주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있었다. 보라, 아르키 사람 후사이가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쓰고 그를 맞이하러 왔다.

³³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네가 나와 함께 가면, 나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³⁴ 그러나 네가 도시로 돌아가서 아브살롬에게 말하기를, "내가 왕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아버지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왕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왕님은 아히도벨의 계락을 저지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³⁵ 거기에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왕의 집에서 무엇을 듣든, 그것을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제에게 알려라.

³⁶ 보라, 그들은 그곳에 아히마스, 사독의 아들, 그리고 요나단, 아비아달의 아들을 데리고 있다. 너희가 그들을 통해 듣는 모든 것을 나에게 전해라."

³⁷ 그러므로 다윗의 친구인 후사이는 도시로 들어갔고, 아브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사무엘기 하권 16장

- 1 다윗이 언덕을 조금 넘었을 때, 메피보셋의 하인 지바가 나귀 두 마리에 안장을 얹고, 그 위에 빵 이백 개와 건포도 백 덩이와 여름 과일 백 개, 그리고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그를 맞이하였다.
- 2 왕이 지바에게 말했다. "이것들은 네가 무엇을 가지고 온 것인가?"
- 3 왕이 말했다. "네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는가?"
- 4 그러자 왕이 지바에게 말했다. "보아라, 메피보셋의 모든 것이 네 것이 되었다."
- 5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 가문의 한 남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게라의 아들 시메이였다. 그는 나와서 으면서 저주하였다.
- 6 그는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하인들에게 돌을 던졌고, 모든 백성과 모든 용사들이 그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었다.
- 7 시메이는 저주하며 말했다. "가라, 가라, 피의 사람, 악한 자여!"
- 8 주님께서 사울 가문의 모든 피를 네 위에 되돌려주셨다. 네가 그의 자리를 차지하여 왕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왕권을 네 아들 아브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보아라, 네가 네 자신의 악행에 걸려 잡혔다. 너는 피의 사람이다!"
- 9 그러자 세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말했다.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나로 하여금 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해주십시오."
- 10 왕이 말했다. "세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 11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하인들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 창자에서 나온 내 아들조차도 내 목숨을 찾고 있다.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 더 그러하지 않겠느냐? 그를 놔두어라.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어라. 주님께서 그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 12 주님께서 나에게 행해진 이 불의를 돌아보시고, 오늘 나를 저주한 것에 대해 나에게 선을 갚아 주실지도 모릅니다.
- 13 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가고, 시메이는 그의 반대편 산비탈을 따라가며 가는 길에 저주를 퍼부었고, 돌을 던지고 흙을 뿌렸다.
- 14 왕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은 피곤하여 도착했고, 그는 거기서 휴식을 취하였다.
- 15 아브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왔다.
- 16 다윗의 친구인 아르키 사람 후사이가 아브살롬에게 이르렀을 때, 후사이는 아브살롬에게 말했다. "왕께서 만세를 누리소서! 왕께서 만세를 누리소서!"
- 17 아브살롬이 후사이에게 말했다. "네가 친구에게 이처럼 자비로운가? 네가 왜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 18 후사이는 아브살롬에게 말했다. "아니오. 주님과 이 백성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선택한 자를 내가 따르며, 그와 함께 머물겠습니다."
- 19 내가 또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그의 아들의 앞에서 섬기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당신 아버지의 앞에서 섬긴 것처럼, 내가 당신의 앞에 있을 것입니다."
- 20 그러자 아브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조언을 말해라."
- 21 아히도벨이 아브살롬에게 말했다. "네 아버지가 집을 지키게 둔 그의 첩들에게 들어가라.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네가 네 아버지에게 미움받고 있음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손이 강해질 것이다."
- 22 그들이 아브살롬을 위해 집 꼭대기에 천막을 치고, 아브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첩들에게 들어갔다.
- 23 아히도벨이 그때 주었던 조언은 마치 사람이 하느님의 성소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확실하였다. 아히도벨의 모든 조언은 다윗에게도, 아브살롬에게도 이와 같았다.

사무엘기 하권 17장

- 1 아히도벨이 아브살롬에게 말했다. "지금 나에게 열두 천 명의 군사를 뽑게 해 주십시오. 내가 밤새도록 일어나 다윗을 쫓아가겠습니다."
- 2 그가 피로하고 지쳐 있을 때 그를 덮쳐 두려움에 떨게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은 도망칠 것입니다. 나는 왕 한 사람만 치겠습니다."
- 3 그리고 모든 백성을 당신에게 데려오겠습니다.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은 마치 모두 돌아온 것처럼 될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 4 이 말은 아브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기쁘게 들렸다.
- 5 그때 아브살롬이 말했다. "이제 아르키 사람 후사이드 불러서, 그가 무엇이랴 말하는지 들어보자."
- 6 후사이가 아브살롬에게 이르자, 아브살롬이 그에게 말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그의 말을 따를까? 아니면, 말해 보아라."
- 7 후사이는 아브살롬에게 말했다. "이번에 아히도벨이 제안한 계획은 좋지 않습니다."
- 8 후사이는 더하여 말했다. "당신은 아버지와 그의 군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용감한 사람들이며, 들에서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마음이 거칠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의 남자이며, 백성과 함께 머무르지 않습니다."
- 9 보십시오, 그는 지금 어떤 웅덩이나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 중 몇 명이 먼저 쓰러지면, 그것을 듣는 이는 말할 것입니다. '아브살롬을 따르는 백성들 사이에 학살이 일어났다!'"
- 10 비록 그가 용감하고 마음이 사자처럼 강한 자라도, 완전히 녹아내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아버지가 용감한 남자이며,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용감한 자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 11 그러나 나는 모든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바다 모래처럼 많이 모여 당신에게로 모이도록 권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직접 전쟁에 나서십시오."
- 12 그러면 우리가 그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 그를 덮쳐,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처럼 그를 덮칠 것이며,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 중 하나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 13 게다가 그가 어떤 성으로 들어갔다면, 모든 이스라엘이 그 성으로 밧줄을 가져와서, 그 성을 강으로 끌어내려, 그 안에 작은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습니다."
- 14 아브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다. "아르키 사람 후사이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낫다." 주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무너뜨리시려고 정하셨으니, 이는 주님께서 아브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셨기 때문이다."
- 15 그때 후사이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아히도벨은 아브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16 이제 빨리 보내서 다윗에게 말하십시오. '오늘 밤에는 광야의 건너편에서 자지 마시고, 반드시 강을 건너십시오. 그래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 17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예녹 로겔에 머물러 있었다. 한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은 나가서 왕 다윗에게 알렸다. 그들은 도시로 들어오는 것을 들킬까 두려워했다."
- 18 그러나 한 소년이 그들을 보고 아브살롬에게 알렸다. 그들은 빨리 도망쳐 바후림에 있는 한 사람의 집에 이르렀다. 그 집 마당에 우물이 있었고, 그들은 그 우물로 내려갔다."
- 19 그 여자는 우물 입구에 덮개를 펴고, 그 위에 갈아놓은 곡식을 퍼 놓았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 20 아브살롬의 하인들이 그 여자의 집에 와서 말했다. "아히마스와 요나단은 어디 있습니까?"
- 21 그들이 떠난 후, 그들은 우물에서 올라와 나가서 왕 다윗에게 알렸다. 그들이 다윗에게 말했다. "일어나서 물을 빨리 건너십시오. 아히도벨이 당신을 향해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22 그러자 다윗이 일어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다. 아침빛이 비출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 23 아히도벨이 자기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자기 성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한

후,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그는 죽어 아버지의 무덤에 장사되었다."

²⁴ 그때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아브살롬은 요단강을 건너,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건너갔다.

²⁵ 아브살롬은 요압 대신 아마사를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의 아들이었으며, 그는 나하스의 딸 아비가일과 관계를 맺었는데, 아비가일은 요압의 어머니인 쥬루야의 누이였다.

²⁶ 이스라엘과 아브살롬은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²⁷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암몬 자손의 라바에서 온 나하스의 아들 세비와 로데바에서 온 암미엘의 아들 마기르, 그리고 로게림의 길르앗 사람 바실라이가 그를 맞이하였다.

²⁸ 침대와 대야와 흙으로 만든 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물과 콩과 렌즈콩과 볶은 곡식을 가져왔다.

²⁹ 꿀과 버터와 양과 소의 치즈를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였는데, 그들은 말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며 목마르다."

사무엘기 하권 18장

- 1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세어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웠다.
- 2 다윗은 백성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하나는 요압의 지휘 아래, 하나는 세루야의 아들 아비새의 지휘 아래, 하나는 기대인 이따이의 지휘 아래 보냈다. 왕이 백성에게 말했다. "나도 분명히 너희와 함께 나가겠다."
- 3 그러나 백성이 말했다. "당신은 나가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도망친다 해도 그들은 우리를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절반이라도 죽는다 해도 그들은 우리를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 만 명에 견주어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은 도시에서 우리를 돕는 데 준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 4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가 가장 좋다고 여기는 대로 하겠다."
- 5 왕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따이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나를 위해 젊은이 아브살롬을 부드럽게 대하라." 모든 백성이 왕이 아브살롬에 관해 모든 장관들에게 명령할 때 들었다.
- 6 그러므로 백성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들로 나갔고, 전투는 에브라임의 숲에서 벌어졌다.
- 7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종들 앞에서 거기서 큰 타격을 입었고, 그날 그곳에서 이만 명이 죽었다.
- 8 전투는 그날 온 땅에 퍼져 있었고, 숲이 그날 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 9 아브살롬이 다윗의 종들을 우연히 만났다. 아브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고, 그 노새가 큰 참나무의 두꺼운 가지 아래로 들어갔다. 그의 머리가 참나무에 걸려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렸고, 그 아래에 있던 노새는 계속 가버렸다.
- 10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알리며 말했다. "보십시오, 제가 아브살롬이 참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11 요압이 그에게 말했다. "네가 그것을 보았는데, 어찌하여 그를 그 자리에서 땅에 쳐서 죽이지 않았느냐? 내가 네게 은 열냥과 띠를 주었을 텐데."
- 12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했다. "비록 내가 내 손에 천 냥의 은을 받는다 해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로는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따이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젊은이 아브살롬에게 아무도 손을 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 13 만약 내가 그의 생명을 배신했다면 (그것은 왕에게 숨겨진 일이 없으니), 당신 자신이 나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 14 그러자 요압이 말했다. "나는 이렇게 너와 함께 기다리지 않겠다." 그는 손에 세 개의 창을 쥐고, 상수리나무 한가운데서 살아 있는 아브살롬의 가슴을 꿰뚫었다.
- 15 요압의 갑옷을 메고 있던 열 명의 젊은이들이 둘러싸서 아브살롬을 치고 그를 죽였다.
- 16 요압이 나팔을 불자, 백성은 이스라엘을 쫓는 것을 멈추고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을 막았기 때문이다.
- 17 그들은 아브살롬을 끌고 숲 속의 큰 구덩이에 던져 넣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더미를 쌓았다. 그 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 18 아브살롬은 생전에 왕의 골짜기에 기둥을 세워 놓았다. 그는 말했다. "나는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아들이 없다." 그래서 그는 그 기둥을 자신의 이름으로 불렀다. 오늘날까지 그것을 아브살롬의 기념비라고 부른다.
- 19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말했다. "지금 제가 달려가서 왕에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원수들에게서 그를 보복하셨다는 소식일요."
- 20 요압이 그에게 말했다. "오늘은 네가 소식을 전할 사람이 아니다. 다른 날에 전해라. 오늘은 소식을 전하지 말아라.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 21 요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말했다. "가서 왕에게 네가 본 것을 전하여라!" 에티오피아 사람은 요압에게 절을 하고 달려갔다.
- 22 그러자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말했다. "어떤 일이 있든, 저도 에티오피아 사람 뒤를 따라 달리게 해 주십시오."
- 23 "어떤 일이 있든," 그가 말했다. "저는 달리겠습니다."
- 24 다윗은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파수꾼이 문의 지붕 위로 올라가 성벽 위에 올라서서 눈을 들어 보니, 혼자 달려오는

한 남자가 보였다.

²⁵ 파수꾼이 소리치며 왕에게 알렸다. 왕이 말했다. "그가 혼자라면, 그 입에는 소식이 있다." 그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²⁶ 파수꾼은 또 다른 남자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문지기에게 외쳤다. "보아라, 혼자 달려오는 남자가 있다!"

²⁷ 파수꾼이 말했다. "나는 첫 번째 사람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처럼 달리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²⁸ 아히마스가 외쳐서 왕에게 말했다. "모든 것이 잘되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절하며 말했다. "내 주 왕을 대적하여 손을 치켜든 자들을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서 넘겨주셨으니, 주님, 당신의 하느님을 찬미하소서!"

²⁹ 왕이 말했다. "젊은이 아브살롬은 잘 있습니까?" 아히마스가 대답했다. "요압이 왕의 종, 곧 당신의 종 저를 보냈을 때, 저는 큰 혼란을 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³⁰ 왕이 말했다. "여기 와서 서 있어." 그는 와서 가만히 서 있었다.

³¹ 보아라, 쿠시 사람이 왔다. 쿠시 사람이 말했다. "내 주 왕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자들을 갚아주셨습니다."

³² 왕이 쿠시 사람에게 말했다. "젊은이 아브살롬은 잘 있습니까?"

³³ 왕은 크게 슬퍼하여 문 위의 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가 가면서 말했다. "내 아들 아브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아브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브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사무엘기 하권 19장

- 1 요압은 소식을 듣고, "보라, 왕이 아브살롬을 위해 울고 슬퍼하고 있다."라고 했다.
- 2 그날의 승리는 모든 백성에게 슬픔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그날, "왕이 아들을 위해 슬퍼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 3 그날 백성들은 전투에서 도망치며 부끄러워하는 자처럼 조용히 도시로 들어갔다.
- 4 왕은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내 아들 아브살롬아, 아브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 5 요압이 왕의 집에 들어가서 말했다. "오늘 당신은 오늘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과 딸들의 생명과 아내들과 첩들의 생명을 구한 모든 신하들의 얼굴을 수치롭게 하셨습니다."
- 6 당신은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오늘 당신은 왕자들과 신하들이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공표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만약 아브살롬이 살아 있고 우리가 모두 오늘 죽었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더 기쁘게 여겨졌을 것임을 깨닫습니다."
- 7 이제 일어나서 나가서 당신의 신하들을 위로하는 말을 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당신이 나가지 않는다면, 오늘 밤 당신과 함께 남아 있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악보다 더 나쁠 것입니다."
- 8 그러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 모든 백성은 소식을 듣고, "보라, 왕이 성문에 앉아 있다."고 했다. 모든 백성이 왕 앞에 나아왔다. 이스라엘은 모두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다.
- 9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 그들이 말했다. "왕이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지금은 아브살롬 때문에 땅에서 도망치셨다."
- 10 우리가 우리 위에 기름을 부어 세운 아브살롬이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을 다시 데려오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 11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보내어 말했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말하여라. '모든 이스라엘이 왕을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말을 왕에게 전했건만, 왜 너희는 왕을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가장 늦게 행동하는가?'"
- 12 너희는 내 형제들이다. 내 뼈와 내 살이다. 그런데 왜 너희는 왕을 다시 데려오는 데 가장 늦는가?"
- 13 아마사에게 말하여라. '네가 내 뼈와 내 살이 아니냐? 내가 너를 요압 대신 항상 내 군대의 장군으로 두지 않으면, 하느님이 나에게 이처럼, 더 많이 행하시기를!'"
- 14 그는 유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한 사람처럼 굴복시켜, 왕에게 보내어 말했다. "돌아오소서. 당신과 당신의 모든 신하들 이어."
- 15 그러자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렀다. 유다가 길갈로 나아가 왕을 맞이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였다.
- 16 바후림 출신 베나민 사람 가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내려와 유다 사람들과 함께 왕 다윗을 맞이하였다.
- 17 그와 함께 베나민 사람 천 명이 있었고, 사울 집의 하인 시바와 그의 아들 열다섯 명, 하인 스무 명도 함께하였다. 그들은 왕 앞에서 요단을 건너갔다.
- 18 왕의 가족을 건너게 하고, 왕이 좋다고 여기는 일을 하기 위해 배가 나왔다. 가라의 아들 시므이는 요단을 건넌 후 왕 앞에 엎드렸다.
- 19 그가 왕에게 말했다. "내 주여, 저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내 주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던 그날 저의 종이 악의를 범한 일을 기억하지 마소서. 왕께서 그 일을 마음에 두지 마소서."
- 20 내 종은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요셉의 온 집안 중에서 먼저 내 주 왕을 맞이하러 내려왔습니다."
- 21 그러나 세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했다. "그가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으니, 시므이를 죽이지 말 것이냐?"
- 22 다윗이 말했다. "세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나? 너희가 오늘 내 대적이라니? 오늘 이스라엘에서 누구를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겠느냐?"
- 23 왕이 시므이에게 말했다.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왕이 그에게 맹세하였다.
- 24 사울의 아들 메비보셋이 왕을 맞이하러 내려왔다. 왕이 떠나던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는 발을 씻지도 않고, 수

염을 깎지도 않고, 옷을 씻지도 않았다.

25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이할 때, 왕이 그에게 말했다. "메피보셋아, 네가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26 그가 대답했다. "내 주 왕님, 제 종이 저를 속였습니다. 제 종이 말하기를, '나는 나를 위해 나귀를 안장하여 타고 왕과 함께 가리라' 하였으니, 이는 제 종이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27 그가 내 주 왕님께 제 종을 헐뜯었지만, 내 주 왕님은 하느님의 천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왕님의 눈에 좋은 대로 하소서."

28 제 아버지의 온 집은 내 주 왕님 앞에서 이미 죽은 자들뿐이었으나, 왕님은 제 종을 왕님의 상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왕님께 다시 뭘 청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29 왕이 그에게 말했다. "네 일에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하노니, 너와 지바가 땅을 나누어 가지라."

30 메피보셋이 왕에게 말했다. "그가 모두 다 가지게 하소서. 내 주 왕님께서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31 길르앗 사람 바실라이가 로게림에서 내려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왕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데려다주었다.

32 바실라이기는 매우 늙은 사람이었고, 팔십 세였다. 그는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 왕에게 식량을 제공했으며, 그는 매우 큰 사람이었다.

33 왕이 바실라이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건너오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를 부양하겠다."

34 바실라이가 왕에게 말했다. "내 삶의 연수가 얼마나 되어, 내가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까?"

35 나는 오늘 팔십 세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제 종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노래하는 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제 종이 내 주 왕님께 짐이 되어야 합니까?"

36 제 종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왕님은 제 종에게 이토록 큰 보상을 주려 하십니까?"

37 제 종이 다시 돌아가서,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자기 고향에서 죽게 하소서. 그러나 보십시오, 제 종 김함을 보내소서. 그가 내 주 왕님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왕님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하소서."

38 왕이 대답했다.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라. 내가 네가 좋은 대로 그에게 하리라. 네가 내게 무엇을 청하든지, 내가 다 해주리라."

39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왕도 건너갔다. 그 후 왕은 바실라이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했으며,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40 왕은 길갈로 건너갔고, 김함도 그와 함께 건너갔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왕을 데려왔고,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도 함께했다.

41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왕에게 나아와 왕에게 말했다.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왕을 빼앗아, 왕과 왕의 가족, 그리고 다윗의 모든 사람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였습니까?"

42 유다의 모든 남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대답했다. "왕이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로 너희는 화를 내십니까? 우리가 왕의 비용으로 무엇을 먹었습니까? 또는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었습니까?"

43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유다의 남자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는 왕에게 열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다윗에 대한 청구권이 너희보다 더 큼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경멸하여, 우리 조언을 왕을 되돌려 데려오는 일에서 먼저 듣지 않았습니까?" 유다 사람들의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거칠었다.

사무엘기 하권 20장

- 1 거기에는 악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베냐민 사람 비키리의 아들 세바였다. 그가 나팔을 불며 말했다. "우리는 다윗에게 몫도 없고, 여세의 아들에게 유산도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제 장막으로 돌아가라!"
- 2 이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다윗을 따르던 것을 그만두고 비키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을 따라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했다.
- 3 다윗이 예루살렘 자기 집에 돌아왔다. 왕은 집을 지키게 둔 열 명의 첩들을 데려와 감금하고 생계를 제공했지만, 그들과 함께 자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날까지 과부처럼 간혀 지냈다.
- 4 그때 왕이 아마사에게 말했다. "삼 일 안에 유다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여기에 나와라."
- 5 아마사는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러 갔으나, 정해진 시한보다 오래 머물렀다.
- 6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다. "지금 비키리의 아들 세바가 아브살롬보다 우리에게 더 큰 해를 끼칠 것이다. 주님의 종들을 데리고 그를 쫓아가라. 그가 요새를 쌓고 우리 눈앞에서 도망치기 전에."
- 7 요압의 군인들과 그레티 사람들, 블레티 사람들, 모든 용사들이 그를 쫓아 예루살렘을 떠났다.
- 8 그들이 기베온에 있는 큰 돌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을 맞이하러 나왔다. 요압은 전투복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는데, 그 칼은 칼집에 들어 있었고, 걷는 도중 칼집에서 떨어졌다.
- 9 요압이 아마사에게 말했다. "형제야, 네가 잘 지내고 있느냐?" 요압은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맞추려 했다.
- 10 그러나 아마사는 요압 손에 든 칼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자 요압이 그 칼로 그의 몸을 찌르고 창자들을 땅에 흘려 놓았으며, 다시 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요압과 그의 형 아비새는 비키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갔다.
- 11 요압의 젊은 종 한 사람이 그 곁에 서서 말했다. "요압을 따르는 자와 다윗을 따르는 자는 모두 요압을 따라라!"
- 12 아마사는 길 한가운데 피에 흠뻑 젖은 채 누워 있었다. 그 사람이 모든 백성이 멈춰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길에서 발로 옮겨 덮개를 덮어 주었다. 그는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멈춰 서 있는 것을 보았다.
- 13 아마사가 길에서 옮겨진 후, 모든 백성이 요압을 따라 비키리의 아들 세바를 쫓았다.
- 14 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거쳐 아벨, 벤마아가, 모든 베리 사람들의 땅으로 갔다. 그들은 모두 모여 그를 따라갔다.
- 15 그들은 아벨 벤마아가에서 그를 포위하고 성을 향해 흙무더기를 쌓아 올렸다. 그 무더기는 성벽에 닿아 있었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허물기 위해 벽을 두드렸다.
- 16 그때 한 현명한 여자가 성에서 외쳤다. "들으시오, 들으시오! 요압에게 말하십시오. "가까이 오소서. 제가 당신과 말하겠습니다.""
- 17 그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여자가 말했다. "당신이 요압입니까?"
- 18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옛날에 사람들이 말하곤 했습니다. "아벨에서 반드시 상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들은 일을 해결했습니다."
- 19 나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성스러운 자들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안에서 한 도시와 그 어머니를 파괴하려 합니다. 어찌하여 주님의 유산을 삼키려 합니까?
- 20 요압이 대답했다. "아니, 아니오. 내가 삼키거나 파괴하려는 일이 결코 아니오."
- 21 그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한 남자, 비키리의 아들 세바가 왕, 곧 다윗을 거역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를 내어주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도시에서 떠나겠습니다."
- 22 그 여자는 지혜롭게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그들이 비키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져 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불자, 백성들이 도시에서 흩어져 각자 제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 후 요압은 왕에게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 23 요압은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지휘했고, 여호야다의 아들 베나야는 그레티 사람들과 블레티 사람들을 지휘했다.
- 24 아도람은 강제 노동자들을 지휘했고, 아힐룸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었다.
- 25 세바가 서기관이었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사제였으며,
- 26 아이르 사람 이라가 다윗의 총리였다.

사무엘기 하권 21장

- 1 다윗 시대에 세 해 동안 기근이 지속되었다. 다윗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사울과 그의 피로 물든 집 때문이다.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 2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들의 잔여자들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열정으로 그들을 죽이려 하였다.)
- 3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무엇으로 속죄를 하여, 너희가 주님의 기업을 축복하게 할 수 있을까?"
- 4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와 사울 또는 그의 집 사이에는 은이나 금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죽이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 5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핍박하고, 이스라엘 경계 어디에도 남아 있지 못하게 하려던 그 사람에게서,"
- 6 그의 아들 일곱 명을 우리에게 넘겨 주소서.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에서 기브아, 사울의 도시에서 매달겠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 7 그러나 왕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메비보셋을 살려 두었다. 이는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맺어진 주님의 맹세 때문이었다.
- 8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에게 낳은 두 아들, 아르모니와 메비보셋을 잡아냈으며, 사울의 딸 메라브이 바질라이나의 아들 아드리엘에게 낳은 다섯 아들을 잡아냈다.
- 9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주었더니, 그들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산에서 매달았다. 일곱 명이 모두 함께 죽었다. 그들은 수확 시기, 곧 보리 수확의 첫날에 죽임을 당하였다.
- 10 아야의 딸 리스바는 베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 놓고, 수확이 시작된 날부터 하늘에서 비가 그 위에 쏟아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그녀는 낮에는 하늘의 새들이 그 시신 위에 쉬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의 짐승들이 그 위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 11 다윗은 사울의 첩이었던 아야의 딸 리스바가 한 일을 듣게 되었다.
- 12 다윗은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가져왔는데,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에서 사울을 죽인 날, 뱀산 거리에 매달아 둔 그 뼈들을 훔쳐간 자들이었다.
- 13 그는 거기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올려왔다. 그들은 또한 매달린 자들의 뼈도 모았다.
- 14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베냐민 땅 세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그들은 왕이 명령한 모든 일을 수행하였다. 그 후에 하느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셨다.
- 15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다시 전쟁을 벌였고, 다윗은 그의 종들과 함께 내려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다윗은 힘을 잃었다.
- 16 거인의 자손 중 하나인 이시비노브가 있었는데, 그의 창은 청동으로 무게가 삼백 세켈이었고, 새 칼을 찌므로 그는 다윗을 죽일 것이라 생각하였다.
- 17 그러나 세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를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죽였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맹세하며 말하였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마십시오."
- 18 이후에 광에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후사 사람 시브카이가 거인의 아들 중 한 명인 사프를 죽였다.
- 19 또 광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다. 베들레헴 출신인 야아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은 길리앗 사람 골리앗의 형제를 죽였는데, 그의 창대는 직물 직기의 기둥처럼 굽었다.
- 20 다시 가스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거기에는 몸집이 매우 큰 사람이 있었는데, 손마다 여섯 개의 손가락과 발마다 여섯 개의 발가락을 가졌고, 모두 스물네 개였다. 이 사람도 거인의 자식이었다.
- 21 그가 이스라엘을 도전했을 때, 다윗의 형 샘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²² 이 네 사람은 가스에서 거인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며, 다윗과 그의 종들의 손에 쓰러졌다.

사무엘기 하권 22장

- 1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날, 이 노래의 말을 주님께 드렸다.
- 2 주님은 내 바위이다.
- 3 하느님은 내가 피하는 내 바위이시며,
- 4 나는 칭찬받을 만한 주님을 부른다.
- 5 죽음의 물결이 나를 둘러쌌고,
- 6 스올의 줄이 나를 감쌌다.
- 7 내 고통 속에서 내가 주님을 부르고, 내 하느님께 부르짖었다.
- 8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렸다.
- 9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왔고, 그의 입에서 타는 불이 나왔다.
- 10 그는 하늘을 굽히고 내려오셨다.
- 11 그는 그룹 위에 타고 날아다니셨다.
- 12 그는 어둠을 자신의 덮개로 삼으시고, 물의 모임과 하늘의 두꺼운 구름으로 둘러싸셨다.
- 13 그의 앞에 빛이 번쩍이며,
- 14 주님이 하늘에서 천둥을 치셨다.
- 15 그는 화살을 쏘아 흠으셨고,
- 16 그때 바다의 물길도 드러났다.
- 17 그는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잡아끌었고,
- 18 나를 내 강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 19 그들은 내 환난의 날에 나를 공격했고,
- 20 그는 나를 넓은 곳으로 끌어내셨다.
- 21 주님은 내 의로움에 따라 나를 보상하셨다.
- 22 나는 주님의 길을 지켰고,
- 23 그의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었으며,
- 24 나는 그분 앞에서 완전하였다.
- 25 그러므로 주님은 내 의로움에 따라 나를 보상하시고, 내 눈앞에서의 깨끗함에 따라 나를 갚으셨다.
- 26 자비로운 자에게는 당신이 자비롭게 나타나십니다.
- 27 순결한 자에게는 당신이 순결하게 나타나십니다.
- 28 당신은 곤경에 처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 29 주님, 당신은 내 등불이십니다.
- 30 당신을 통해 나는 군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 31 하느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 32 주님 외에 또 누가 하느님이라?
- 33 하느님은 내 강한 요새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 34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 35 그분은 내 손으로 싸우게 가르쳐 주십니다.
- 36 당신은 내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습니다.
- 37 당신은 내 발걸음을 내 아래 넓히셨습니다.
- 38 나는 내 원수들을 쫓아가서 멸망시켰습니다.
- 39 나는 그들을 소멸시켰고, 그들은 내 발 아래 쓰러졌습니다.
- 40 당신은 내게 전투를 위한 힘을 주셨습니다.

- ⁴¹ 당신은 내 원수들이 내 뒤로 등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 ⁴² 그들은 보았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 ⁴³ 나는 그들을 땅의 먼지처럼 쳤고, 길의 진흙처럼 으깨어 흩어뜨렸습니다.
- ⁴⁴ 당신은 내 백성의 다툼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 ⁴⁵ 외국인들이 나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 ⁴⁶ 외국인들은 기운을 잃고 사라질 것입니다.
- ⁴⁷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 ⁴⁸ 나를 위해 복수를 행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 ⁴⁹ 주님은 나를 내 원수들에서 구원하시며, 나를 일어나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로 높이 올리십니다.
- ⁵⁰ 그러므로 주님, 내가 열국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⁵¹ 주님은 자신의 왕에게 큰 구원을 베푸십니다.

사무엘기 하권 23장

- 1 이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 2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하였다.
- 3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의로움으로 다스리는 자는,
- 4 비가 내린 후 맑게 빛나는 아침 햇살처럼, 땅에서 연한 풀이 돋아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다.’
- 5 내 집은 하느님과 이렇게 맺어져 있지 않은가? 그분이 그것을 번성하게 하지 않으실까?
- 6 그러나 모든 불의한 자들은 쫓아내어질 가시덤불과 같을 것이며,
- 7 그들을 만지는 자는 쇠창과 창자루로 무장해야 한다. 그들은 제자리에서 불로 완전히 타버릴 것이다.’
- 8 다윗이 가진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타헤모니 사람 요셉바스세벳은 장군들의 우두머리였으며, 그는 에즈니 사람 아디노라고도 불렸다. 그는 한 번에 여덟백 명을 죽였다.
- 9 그 뒤에는 아호이 사람 도다의 아들 엘라사르가 있었다. 그는 다윗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전투를 벌일 때 그들과 함께 있었던 세 용사 중 한 명이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쳤다.
- 10 그는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을 치다가 손이 지칠 때까지 쳤고, 손이 칼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주님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고, 백성은 약탈을 챙기기 위해 그 뒤를 따랐다.
- 11 그 뒤에는 하라리 사람 아게의 아들 샘마가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완두콩이 가득한 밭에 모여들었고,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도망쳤다.
- 12 그러나 그는 밭 한가운데에 서서 그곳을 지키며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고, 주님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다.
- 13 삼십 명의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수확 시기에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로 내려갔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레파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
- 14 다윗은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전방 기지가 베들레헴에 있었다.
- 15 다윗이 간절히 말했다. “베들레헴 성문 곁의 우물에서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 16 그 세 용사들은 블레셋 군대를 뚫고 성문 곁의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져왔으나, 그는 그것을 마시지 않고 주님께 부어버렸다.
- 17 그는 말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하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은 목숨을 걸고 가서 끌어온 이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그것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들은 이 일을 행하였다.
- 18 세루야의 아들 요압의 형제 아비새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창을 들어 삼백 명을 죽였고, 세 용사 중 이름을 날렸다.
- 19 그는 세 용사 중 가장 존경받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는 그들의 지휘관이 되었으나, 세 용사 중 한 명으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 20 카브셀 사람 여호야다의 아들 베나야는 용감한 자의 아들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자였다. 그는 모압의 아리엘의 두 아들을 죽였고, 눈이 내리는 때에 우물 한가운데에서 사자를 죽이기도 했다.
- 21 그는 거대한 이집트인을 죽였는데, 그 이집트인은 창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베나야는 지팡이만을 들고 그에게 내려가 이집트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의 창으로 그를 죽였다.
- 22 여호야다의 아들 베나야는 이 일을 행하였고, 세 용사 중 이름을 날렸다.
- 23 그는 삼십 명보다 더 존경받았으나, 세 용사에는 들지 못했다. 다윗은 그를 자신의 경호대장으로 임명하였다.
- 24 요압의 형제 아사헬도 삼십 명 중 한 명이었고,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이었다.
- 25 하로드 사람 샘마, 하로드 사람 엘리카,
- 26 팔티 사람 헬레츠, 테코이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
- 27 아나돗 사람 아비에제르, 후사 사람 메부나이,
- 28 아호 사람 자르몬, 네토파트 사람 마하라이,
- 29 네토파트 사람 바나아의 아들 헬렙, 베냐민 자손의 기브아 사람 리바이의 아들 이타이,

- ³⁰ 피라톤 사람 베나야, 가아스 시내의 히다이,
³¹ 아르바트 사람 아비알본, 바르훅 사람 아스마벳,
³² 샬론 사람 엘리아바, 야센의 아들 요나단,
³³ 하라 사람 샘마, 아라리 사람 샤라르의 아들 아히암,
³⁴ 마아카 사람 아하스바이의 아들 엘리페렛, 길로니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³⁵ 카르멜 사람 헤즈로, 아르비 사람 파라이,
³⁶ 조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 가드 사람 바니,
³⁷ 암몬 사람 젤렉, 베로트 사람 나하라이, 세루야의 아들 요압의 갑옷을 메는 자들,
³⁸ 이스리 사람 이라, 이스리 사람 가레브,
³⁹ 헤트 사람 우리야: 모두 삼십칠 명이다.

사무엘기 하권 24장

- 1 다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분노하셔서 다윗을 움직이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수세하라."
- 2 왕이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말했다.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두루 돌아다니며 단에서 베엘세바까지 백성을 수세하여, 내가 백성의 수를 알게 해라."
- 3 요압이 왕에게 대답했다. "내 주 왕의 하느님께서 백성을 얼마나 많으시든, 백 배나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 왕의 눈이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왜 내 주 왕께서 이 일을 즐겨워하시는지요?"
- 4 그러나 왕의 말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의 말을 이겼다. 요압과 군대 장관들은 왕의 앞에서 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수세하러 떠났다.
- 5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아로엘에 진을 치고, 가드 지역 가운데 골짜기의 도시 오른쪽에 이르렀으며, 야자르에 이르렀다.
- 6 그리고 길르앗과 타히트 호드시 땅에 이르렀으며, 단 야안에 이르러 시돈까지 둘러돌았다.
- 7 그들은 시돈의 요새와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모든 도시에 이르렀으며, 유다 남쪽 끝 베엘세바까지 갔다.
- 8 그들이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닌 뒤, 아홉 달 이십 일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 9 요압이 백성의 수세 결과를 왕에게 보고했다. 이스라엘에는 칼을 든 용감한 자가 팔십만 명이었고, 유다 사람들은 오십만 명이었다.
- 10 다윗이 백성을 수세한 후 마음이 괴로워졌다. 다윗이 주님께 말했다. "내가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주님, 당신의 종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매우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 11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의 말씀이 다윗의 예언자이자 시인인 갓에게 임했다.
- 12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세 가지를 네게 제시한다. 하나를 택하여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 13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했다. "네 땅에 일곱 년의 기근이 닥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네 원수들이 너를 쫓아 세 달 동안 도망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네 땅에 사흘간의 전염병이 닥치기를 원하는가? 이제 대답하여라. 내가 보낸 자에게 무엇이든 답할지 생각해 보아라."
- 14 다윗이 갓에게 말했다. "나는 매우 곤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자비가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 15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셨다. 아침부터 정해진 시각까지, 단에서 베엘세바까지 백성 중 칠만 명이 죽었다.
- 16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손을 펼쳤을 때, 주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시고,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이만 하라. 이제 네 손을 거두어라."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운의 타작마당에 있었다.
- 17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말했다. "보소서, 내가 죄를 지었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양들, 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 손과 내 아버지의 집에만 손을 대소서."
- 18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운의 타작마당에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라."
- 19 다윗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갓의 말을 따라 올라갔다.
- 20 아라운이 밖을 내다보니, 왕과 그의 종들이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아라운이 나와 땅에 얼굴을 대고 왕에게 절했다.
- 21 아라운이 말했다. "내 주 왕께서 어찌하여 종에게 오셨습니까?"
- 22 아라운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 주 왕께서 마음에 드는 대로 가져가서 바치십시오. 번제를 위한 소들과 타작 도구와 소들의 멍에를 나무로 쓸 수 있습니다."
- 23 "왕이여, 아라운이 왕께 모두 드립니다." 아라운이 왕에게 말했다. "내 주 왕의 하느님께서 왕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 24 왕이 아라운에게 말했다. "아니, 나는 반드시 값을 주고 사겠다. 내 하느님께 드리는 번제를 내게 아무 비용도 들지 않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은 타작마당과 소들을 은 오십 세겔에 샀다.
- 25 다윗은 그곳에서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평제를 바쳤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땅을 위해 간청을 들으시고, 이

스라엘에서 역병이 멈추었다.

열왕기 상권 | 1 Kings

열왕기 상권 1장

- ¹ 이제 다윗 왕은 나이가 많고 늙었으며, 그에게 옷을 덮어 주었으나 그는 따뜻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 ² 그래서 그의 하인들이 그에게 말했다. "내 주 왕을 위해 젊은 처녀를 한 명 찾아오게 하소서. 그녀가 왕 앞에 서서 왕을 돌보며, 왕의 품에 누워서 내 주 왕이 따뜻함을 유지하게 하소서."
- ³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아름다운 젊은 여자를 찾았고, 술람미 여자 아비사그를 찾아 왕에게 데려왔다.
- ⁴ 그 젊은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으며, 그녀가 왕을 돌보며 봉사하였으나, 왕은 그녀와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
- ⁵ 그때 하기트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 말했다. "내가 왕이 되겠다." 그는 병거와 기마대를 준비하고, 자기 앞에서 달릴 오십 명의 사람을 데리고 다녔다.
- ⁶ 그의 아버지는 그를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었으며, 그는 매우 잘생긴 남자였고, 아브살롬 이후에 태어났다.
- ⁷ 그는 세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협의하였고, 그들은 아도니아를 따르며 그를 도왔다.
- ⁸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베나야, 예언자 나단, 시미, 레이, 그리고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다.
- ⁹ 아도니아는 조헬렛 바위 곁, 에녹 베겔 옆에서 양과 소와 살진 어린 가축을 잡고, 자기 형제들인 왕의 모든 아들들과 유다의 모든 사람, 곧 왕의 하인들을 불렀다.
- ¹⁰ 그러나 그는 예언자 나단과 베나야, 용사들, 그리고 자기 동생 솔로몬은 불러들이지 않았다.
- ¹¹ 그때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스세바에게 말했다. "당신은 하기트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고, 우리 주 다윗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까?"
- ¹² 이제 그러므로, 제발 제게 조언을 드리게 하소서. 그래야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 ¹³ 왕에게 들어가서 말하십시오. "내 주 왕이여, 당신은 당신의 종에게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시어, "솔로몬 당신의 아들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 ¹⁴ 보십시오. 당신이 아직 왕과 말을 나누고 있을 때, 저도 당신 뒤에 들어가서 당신의 말을 확인하겠습니다."
- ¹⁵ 바스세바가 왕의 방에 들어갔다. 왕은 매우 늙었고, 술람미 여자 아비사그가 왕을 봉사하고 있었다.
- ¹⁶ 바스세바가 절하며 왕에게 경의를 표했다. 왕이 말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는가?"
- ¹⁷ 그녀가 말했다. "내 주여, 당신은 주님 당신의 하느님을 가리켜 당신의 종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솔로몬 당신의 아들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 ¹⁸ 이제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고, 내 주 왕이여, 당신은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 ¹⁹ 그는 풍성하게 소와 살진 어린 가축과 양을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을 불렀으나, 당신의 종 솔로몬은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 ²⁰ 내 주 왕이여, 이스라엘 모든 이의 눈이 당신에게 쏠려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를 당신의 왕의 보좌에 앉힐지 그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 ²¹ 그렇지 않으면, 내 주 왕이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을 때,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이 죄인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 ²² 그때 그녀가 왕과 말을 나누고 있을 때,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다.
- ²³ 그들이 왕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예언자 나단이 왔습니다."
- ²⁴ 나단이 말했다. "내 주 왕이여, 당신이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²⁵ 그는 오늘 내려가서 소와 살진 어린 소와 양을 풍성하게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군대의 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렀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²⁶ 그러나 그는 나, 곧 당신의 종인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베나야, 그리고 당신의 종 솔로몬을 불르지 않았습니다.
- ²⁷ 이 일이 주님 왕께서 하신 일입니까? 그런데 왕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왕의 뒤를 이어 왕좌에 앉을 자가 누구인지 알

려주지 않으셨습니까?

28 그러자 다윗 왕이 대답하여, "바스세바를 내게 불러오라." 그녀가 왕의 앞에 들어와 왕 앞에 서니,

29 왕이 맹세하며 말했다. "내 영혼을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신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30 내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을 두고 너에게 맹세한 대로,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자리에 앉으리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31 그러자 바스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에게 경의를 표하며 말했다. "주님 왕 다윗이 영원히 살아 계시기를 빕니다!"

32 다윗 왕이 말했다.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베나야를 내게 불러오라." 그들이 왕의 앞에 나아오니,

33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 주인의 하인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나귀에 태워 기혼으로 내려가라."

34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기름부어라.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쳐라.

35 그 후에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자리에 앉으리니, 그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였다.

36 여호야다의 아들 베나야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아멘. 주님, 곧 주님 왕의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빕니다."

37 주님께서 주님 왕과 함께 계신 것처럼, 그가 솔로몬과 함께 계시어, 주님 왕 다윗의 왕좌보다 더 위대한 그의 왕좌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38 그러므로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베나야, 그리고 그레셋인들과 블레셋인들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나귀에 태우고 기혼으로 데려갔다.

39 제사장 사독이 장막에서 기름이 든 뿔을 가져와 솔로몬을 기름부었다. 그들이 나팔을 불었고, 모든 백성이 말했다. "솔로몬 왕 만세!"

40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왔고, 백성은 피리로 연주하며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여, 그 소리로 땅이 진동하였다.

41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친 순간 그 소리를 들었다. 요압이 나팔 소리를 듣고 말했다. "이 도시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42 그가 아직 말을 마치지 않았을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왔다. 아도니아가 말했다. "들어오너라. 너는 훌륭한 사람이라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구나."

43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 왕 다윗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44 왕은 그와 함께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베나야, 그리고 그레셋인들과 블레셋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그를 왕의 나귀에 태웠습니다.

45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기혼에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기쁨으로 올라왔으므로, 도시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듣는 소리입니다.

46 또 솔로몬은 왕국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47 게다가 왕의 하인들이 주님 왕 다윗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느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그의 왕좌를 당신의 왕좌보다 더 위대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왕은 침상에 몸을 굽혔습니다.

48 또 왕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을 찬미하소서. 오늘 주님의 눈으로 보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내 왕좌에 앉힐 자를 주셨습니다."

49 아도니아의 모든 손님들이 두려워하여 일어나 각자 제 길로 떠났다.

50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의 뿔에 붙잡혔다.

51 솔로몬에게 보고되었다. "보라, 아도니아가 왕 솔로몬을 두려워한다. 보라, 그가 제단의 뿔에 붙잡혀 말하기를, '왕 솔로몬이 제 종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먼저 저에게 맹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2 솔로몬이 말했다. "그가 진정한 사람이라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악이 드러난다면, 그는 죽을 것이다."

53 그래서 왕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내려오게 했다. 그가 와서 왕 솔로몬에게 절했고, 솔로몬이 그에게 말했다. "네 집으로 가라."

열왕기 상권 2장

- 1 다윗의 죽음에 가까워지자, 그는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 2 나는 온 땅의 모든 이가 가는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 강하게 되어 남자답게 행동하여라.
- 3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의 가르침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의 규례와 계명과 법령과 증거를 모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일과 네가 어디로 향하든지 성공할 것이다.
- 4 그리하면 주님께서 나에 관해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 앞에서 진실하게 걷는다면, 이스라엘의 왕좌에서 네게 남은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 5 너는 또한 세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군,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이세르의 아들 아마사를 죽였고, 평화로운 시기에 전쟁의 피를 흘렸으며, 그의 허리에 두른 띠와 발에 신은 신발에 전쟁의 피를 묻혔다.
- 6 그러니 너의 지혜를 따라 행동하여, 그의 흰 머리가 평안히 스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 7 그러나 길르앗의 바실라이의 아들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라. 그들을 네 식탁에서 함께 먹는 자들로 두어라. 그들이 나의 형 아브살롬을 피하여 도망칠 때,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 8 보아라, 바후림 출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 나를 심한 저주로 욕하였다. 그러나 그는 요단강에서 나를 맞이하여 나에게 맹세하게 했고, 나는 주님을 향해 그에게 맹세하여 말했다.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 9 그러므로 지금은 그를 무죄로 여기지 말라. 너는 지혜로운 자이니, 네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이다. 너는 그의 흰 머리를 피로 스올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 10 다윗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의 도시에 장사되었다.
- 11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은 사십 년이었다. 그는 헤브론에서 일곱 년,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을 다스렸다.
- 12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아, 그의 왕국이 견고히 굳혀졌다.
- 13 하기트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스세바에게 찾아왔다. 그녀가 말했다. "평안히 오셨습니까?"
- 14 그가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일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말해보세요."
- 15 그가 말했다. "당신은 왕위가 제게 있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제게 왕이 되기를 바랐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위는 뒤집혀 제 형의 것이 되었으니, 그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 16 지금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간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 17 그가 말했다. "제가 아비사그를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솔로몬 왕께 부탁해 주십시오. 그는 당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 18 바스세바가 말했다. "좋습니다. 제가 왕께 당신을 위해 말해드리겠습니다."
- 19 바스세바는 아도니야를 위해 솔로몬 왕에게 가서 말을 하려고 갔다. 왕은 일어나 그녀를 맞이하여 절을 하고, 자기 자리에 앉은 후, 왕의 어머니를 위해 의자를 마련하게 하였다. 그녀는 왕의 오른쪽에 앉았다.
- 20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제가 당신에게 작은 간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 21 그녀가 말했다. "아비사그를 아도니야, 당신의 형에게 아내로 주어주십시오."
- 22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했다. "왜 아도니야가 아비사그를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부탁하는가? 그에게 왕위까지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냐? 그는 나의 맏형이요, 아비아달 사제와 세루야의 아들 요압과 함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 23 그러자 솔로몬 왕이 주님을 향해 맹세하며 말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같이 하시고, 더욱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도니아가 이 말을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면."
- 24 지금 내가 살아 계신 주님을 향해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세우시고, 내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히시며,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집을 주셨다. 아도니야는 오늘 반드시 죽을 것이다.
- 25 솔로몬 왕은 여호아다의 아들 베냐야를 보냈다. 그가 그를 치니, 그가 죽었다.
- 26 왕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너는 네 땅인 아나돗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라. 너는 죽을 죄를 지었지만, 내가 지금

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님 하느님의 궤를 메고 다녔고, 내 아버지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너도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27 이로써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에서 쫓아내어,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

28 요압은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아도니야를 따랐지만 아브살롬을 따르지 않았다. 요압은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제단의 뿔을 붙잡았다.

29 솔로몬 왕은 소식을 듣고, "요압이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제단 곁에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베나야를 보내며 말했다. "가서 그를 쳐라."

30 베나야가 주님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말했다. "왕이 말하기를, '나오너라.'"

31 왕이 그에게 말했다. "네가 그가 한 대로 행하여 그를 쳐서 죽이고, 그를 장사하여 요압이 무고히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떼어내어라."

32 주님은 그의 피를 그의 머리 위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가 나보다 더 의롭고 더 훌륭한 두 사람,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인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의 장군인 이세르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 다윗은 그 일을 몰랐다.

33 그러므로 그들의 피는 요압과 그의 자손의 머리 위에 영원히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좌에는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평화가 있을 것이다.

34 그러므로 여호야다의 아들 베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서 죽였고, 그를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장사하였다.

35 왕은 여호야다의 아들 베나야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제사장 사독을 아비아달의 자리에 임명하였다.

36 왕은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말했다.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어디도 가지 말아라."

37 너는 키프론 시내를 건너는 그날, 반드시 죽을 것임을 알아라. 네 피는 네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38 시므이가 왕에게 말했다. "당신의 말씀이 좋습니다. 제 주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이 따르겠습니다."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날을 살았다.

39 삼 년이 지나자, 시므이의 두 종이 가스의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갔다. 그들이 시므이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이 가스에 있습니다."

40 시므이는 일어나 나귀를 안장하고, 그의 종들을 찾으러 가스로 가서 아기스에게 이르렀다. 시므이는 가스에서 그의 종들을 데려왔다.

41 솔로몬은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가스로 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42 왕은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말했다. "내가 주님을 향해 너에게 맹세하고 경고하여, '너는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그날 반드시 죽을 것임을 알아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43 그러면 어찌하여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주님의 맹세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44 왕은 시므이에게 더하여 말했다. "네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네 마음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네 악행을 네 머리 위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45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을 것이고, 다윗의 왕좌는 주님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 있을 것이다.

46 그러므로 왕은 여호야다의 아들 베나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였다. 왕국은 솔로몬의 손에 굳게 잡혔다.

열왕기 상권 3장

- 1 솔로몬은 이집트 왕 파라오와 혼인 동맹을 맺었다. 그는 파라오의 딸을 데려와 다윗의 성으로 데려왔으나, 자기 집과 주님의 집,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을 완공할 때까지 그녀를 그곳에 두었다.
- 2 그러나 백성들은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렸다. 아직 주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3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 걸었으나,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태웠다.
- 4 왕은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그곳은 큰 높은 곳이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 천 번의 번제를 바쳤다.
- 5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엇을 달라고 할지, 내가 줄 것이다."
- 6 솔로몬이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는 진실과 의로움과 마음의 정직함으로 당신 앞에서 걸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이 큰 자비를 지켜주셔서, 오늘날처럼 그의 위에 앉을 아들을 주셨습니다."
- 7 이제 주님, 내 하느님, 당신은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당신의 종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 8 당신의 종은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백성은 수없이 많고 셀 수 없는 큰 백성입니다.
- 9 그러므로 당신의 종에게 백성을 판단할 줄 아는 통찰력 있는 마음을 주소서. 저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소서. 이 큰 당신의 백성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 10 이 요청은 주님께 기뻐받았다. 솔로몬이 이 일을 청했기 때문이다.
- 11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 일을 청했고, 네가 장수를 청하지도 않았으며, 네가 부를 청하지도 않았으며, 네가 네 원수들의 생명을 청하지도 않았고, 오직 공정을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을 청했으므로,"
- 12 보라,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마음을 주었으니, 너보다 앞선 자도 없었고, 너보다 뒤에 일어날 자도 없을 것이다.
- 13 네가 청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내가 주었으니, 네 평생 동안 네 같은 왕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 14 네가 내 길을 따라 걸어 내 율법과 명령을 지키며, 네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처럼 한다면, 내가 네 날을 길게 하리라.
- 15 솔로몬이 깨어나 보니, 그것은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의 궤 앞에 서서 번제를 바치고 화평 제물을 바치며, 모든 종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 16 그때 두 명의 창녀가 왕에게 나아와 그 앞에 서 있었다.
- 17 한 여자가 말했다.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내가 그녀와 함께 집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 18 내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후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집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으며, 다른 이는 없었습니다.
- 19 이 여자의 아이가 밤에 죽었습니다. 그녀가 아이 위에 누워서 말입니다.
- 20 그녀는 한밤중에 일어나, 당신의 종이 자는 동안 내 아들을 내 옆에서 빼앗아 자기 품에 안고, 자기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놓았습니다.
- 21 아침에 일어나 내 아이를 젖을 먹이려 보니, 보라, 그 아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 22 다른 여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살아 있는 아이는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 23 왕이 말했다. "한 여자는 '이 아이는 살아 있는 내 아들이고, 당신의 아들은 죽은 아이다'라고 말하고, 다른 여자는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은 아이이고, 내 아들이 살아 있는 아이다'라고 말합니다."
- 24 왕이 말했다. "칼을 내게 가져오게." 그래서 그들은 왕 앞에 칼을 가져왔다.
- 25 왕이 말했다. "살아 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하나에게 반을, 다른 하나에게 반을 주어라."
- 26 그때 살아 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왕에게 말했다. 그녀의 마음이 아들에 대해 갈망하여, 그녀가 말했다. "오, 내 주여, 그 아이를 그 여자에게 주고, 결코 그를 죽이지 마십시오!"

²⁷ 그러자 왕이 대답했다. "첫 번째 여자에게 살아 있는 아이를 주어라. 결코 그를 죽이지 말아라. 그녀가 그의 어머니이다. "

²⁸ 이스라엘 전체가 왕이 내린 판결을 들었고, 그들은 왕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어 공정을 행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열왕기 상권 4장

- 1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다.
- 2 그가 임명한 대신들은 다음과 같았다.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사랴,
- 3 시사의 아들 엘리호레프와 아히야, 서기들; 아힐루드의 아들 여호사밧, 기록관,
- 4 요야다의 아들 베나야가 군대를 지휘했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었다.
- 5 나단의 아들 아사랴가 관리들을 지휘했고, 나단의 아들 자부드가 주요 대신이자 왕의 친구였다.
- 6 아히사르가 궁정을 관리했고, 아브다의 아들 아도니람이 강제 노동자들을 지휘했다.
- 7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역에 열두 명의 관리들을 두어, 왕과 그의 가족을 위한 식량을 공급하게 했다. 각 사람은 일년에 한 달씩 공급을 맡았다.
- 8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았다. 에브라임 산지의 벤후르,
- 9 마카즈, 살빔, 벤세메스, 엘론 벤하난의 벤데커,
- 10 아루보트의 벤헤세드(소코와 헤헤르 땅 전체가 그의 소유였다);
- 11 도르 전체 고지의 벤아비나담(그는 솔로몬의 딸 타파스를 아내로 맞이했다);
- 12 아힐루드의 아들 바아나가 타아나크와 메기도, 그리고 예스레엘 아래, 벤세안에서 아벨 메홀라까지, 요크메암 너머까지의 벤세안 전체를 맡았다.
- 13 라못 길르앗의 벤게버(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자이르의 도시들이 그의 소유였고, 바산에 있는 아르고브 지역, 즉 성벽과 돛쇠 막대가 있는 육십 개의 큰 도시들이 그의 소유였다);
- 14 마하나임의 아히나답, 이도의 아들;
- 15 납탈리의 아히마아스(그는 솔로몬의 딸 바세마트를 아내로 맞이했다);
- 16 아셀과 벨롯의 바아나, 후사이의 아들;
- 17 이사갈의 여호사밧, 파루아의 아들;
- 18 베나민의 시미, 엘라의 아들;
- 19 우리의 아들 게버가 길르앗 땅, 아모리 족장 시혼 왕과 바산 왕 옥의 땅을 맡았다. 그는 그 땅에서 유일한 관리였다.
- 20 유다와 이스라엘은 바다 가의 모래처럼 많아져,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 21 솔로몬은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까지, 그리고 이집트 경계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렸다. 그들은 모두 솔로몬의 평생 동안 공물을 바치고 그를 섬겼다.
- 22 솔로몬의 하루 식량은 고운 밀가루 서른 고르, 밀가루 육십 메스,
- 23 살진 소 열 마리, 목초지에서 온 소 스무 마리, 양 백 마리, 그리고 사슴, 야생 염소, 야생 양, 그리고 기름지게 기른 새들이 더해졌다.
- 24 그는 강 이쪽 전 지역, 티프사에서부터 가사까지, 강 이쪽 모든 왕들을 지배했고, 그의 사방에는 평화가 있었다.
- 25 유다와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살았으며, 단에서부터 베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의 모든 날 동안 그렇게 되었다.
- 26 솔로몬은 병거를 위한 말 마구간을 사만 개 가지고 있었고, 기마병은 만이천 명이었다.
- 27 그 관리들은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위해 매달 음식을 제공했으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였다.
- 28 그들은 보리와 쭉을 말과 빠른 말을 위해 관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으며, 각자는 자신의 임무에 따라 제공하였다.
- 29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풍성한 지혜와 명철과 바다변의 모래처럼 넓은 마음을 주셨다.
- 30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이집트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 31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다. 에스라인 에단, 헤만, 칼쿨, 다르다, 마홀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웠으며, 그의 명성은 사방 모든 나라에 퍼졌다.
- 32 그는 삼천 개의 비유를 말했고, 그의 노래는 천오백 편이었다.

³³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에서 벽에서 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나무에 대해 말했고, 동물과 새와 기는 것과 물고기에도 대해 말하였다.

³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그에게 왔으며, 그의 지혜를 들은 땅의 모든 왕들이 그를 보내었다.

열왕기 상권 5장

¹ 티레의 왕 히람이 그의 종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다. 그는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듣고, 히람이 항상 다윗을 사랑해 왔기 때문이다.

²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냈다. 그가 말했다.

³ 당신은 내 아버지 다윗이 주님, 그의 하느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없었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방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며, 주님이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아래에 복종시키실 때까지 그랬습니다.

⁴ 그러나 이제 주님, 내 하느님께서 사방에서 나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적도 없고, 악한 일도 없습니다.

⁵ 보십시오, 나는 주님, 내 하느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네 자리에 앉히는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⁶ 그러므로 이제 레바논에서 내게 시나木를 베어 오도록 명령하십시오.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이며,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보수를 지불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시돈 사람들처럼 나무를 베는 기술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⁷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그가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도다."

⁸ 히람이 솔로몬에게 보냈다. "당신이 나에게 보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시나木와 전나무에 관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⁹ 내 종들이 레바논에서 나무를 바다로 내려보낼 것입니다. 나는 그것들을 뗏목으로 만들어 당신이 지정한 곳까지 바다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해체하여 당신이 받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집안에 식량을 주는 내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¹⁰ 그러므로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시나木와 전나무를 주었다.

¹¹ 솔로몬은 히람의 집안에 식량으로 매년 이만 고르의 밀과 스무 고르의 순수한 기름을 주었다.

¹²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평화가 있었고, 둘은 함께 계약을 맺었다.

¹³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노동자를 징발하여, 그 징발된 자는 삼만 명이였다.

¹⁴ 그는 그들을 레바논으로 보냈다. 매달 만 명씩 번갈아 보내니,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고, 두 달은 집에서 지냈다. 아도니람이 강제 노동자들을 감독하였다.

¹⁵ 솔로몬은 일만 명의 짐꾼과 산에서 돌을 깎는 팔만 명을 두었다.

¹⁶ 그 외에도 일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주요 관리들이 있었는데, 일하는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삼천삼백 명이였다.

¹⁷ 왕이 명령하여, 큰 돌과 귀한 돌을 깎아 집의 기초를 다듬은 돌로 놓았다.

¹⁸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게발 사람들은 그 돌들을 깎아내고, 나무와 돌을 준비하여 집을 지었다.

열왕기 상권 6장

- 1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사백팔십 년째 되는 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네 번째 해, 곧 이월인 징월에 그가 주님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 2 솔로몬 왕이 주님을 위해 건축한 집은 길이가 육십 큐빗이고, 너비가 이십 큐빗이며, 높이가 삼십 큐빗이었다.
- 3 집의 전실 앞에는 길이가 이십 큐빗이었는데, 이는 집의 너비와 같았다. 전실의 너비는 집 앞쪽으로 십 큐빗이었다.
- 4 그가 집을 위해 고정된 창살창을 만들었다.
- 5 그가 집의 벽을 따라, 곧 성소와 내성소를 둘러싸는 벽을 따라, 사방으로 층을 쌓아 올리고, 사방으로 옆방을 만들었다.
- 6 가장 아래층은 너비가 오 큐빗이었고, 중간층은 여섯 큐빗이었으며, 세 번째층은 일곱 큐빗이었다. 그는 집의 바깥쪽 벽을 따라 사방으로 흘러나온 돌기를 만들었는데, 이는 들보가 집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 7 집을 건축할 때에는 채석장에서 다듬어 놓은 돌로만 지었고, 집을 건축하는 동안 망치나 도끼나 어떤 철제 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 8 중간층 옆방의 문은 집의 오른쪽에 있었다. 그들은 나선형 계단을 통해 중간층으로 올라가고, 중간층에서 세 번째층으로 나아갔다.
- 9 그가 집을 건축하고 마쳤으며, 집을 백향목 들보와 판자로 덮었다.
- 10 그가 집을 따라 사방으로 층을 쌓아 올렸는데, 각 층의 높이는 오 큐빗이었고, 그 층은 백향목 들보로 집에 기대어 있었다.
- 11 주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 12 "네가 건축하고 있는 이 집에 관하여, 네가 내 율법을 따르고, 내 규례를 실천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한다면, 내가 네 조부 다윗에게 말한 내 말을 네게 굳게 세우겠다."
- 13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주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 14 이에 솔로몬이 집을 지어 마쳤다.
- 15 그는 집 안쪽 벽을 백향목 판자로 지었고, 집 바닥에서 천장 벽까지 안쪽으로 모두 나무로 덮었다. 집 바닥은 전나무 판자로 덮었다.
- 16 그는 집 뒤쪽 이십 큐빗을 바닥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판자로 지어 안쪽 성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 17 성소 앞은 사십 큐빗 길이였다.
- 18 집 안쪽에는 백향목으로 새긴 꽃봉오리와 핀 꽃무늬가 있었다. 모두 백향목이었고, 돌은 보이지 않았다.
- 19 그는 집 안쪽 중앙에 성소를 마련하여 주님의 언약 궤를 놓았다.
- 20 성소 안은 길이 이십 큐빗, 너비 이십 큐빗, 높이 이십 큐빗이었고, 그는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다. 제단도 백향목으로 덮었다.
- 21 이에 솔로몬은 집 안쪽을 순금으로 입혔다. 그는 성소 앞에 금 사슬을 걸고 그것을 금으로 입혔다.
- 22 그는 집 전체를 금으로 입혀 집이 모두 마칠 때까지 금으로 덮었다. 성소에 속한 제단도 전부 금으로 입혔다.
- 23 그는 성소 안에 올리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고, 각각 열 큐빗 높이였다.
- 24 그룹의 한 날개 길이는 다섯 큐빗이었고, 다른 날개 길이도 다섯 큐빗이었으며, 한 날개 끝에서 다른 날개 끝까지는 열 큐빗이었다.
- 25 다른 그룹 천사도 열 큐빗이었다. 두 그룹 천사 모두 같은 치수와 같은 형상이었다.
- 26 한 그룹 천사는 열 큐빗 높이였고, 다른 그룹 천사도 그와 같았다.
- 27 그는 그룹 천사들을 안쪽 성소 안에 놓았다. 그룹 천사들의 날개는 펼쳐져서, 한 쪽 날개는 한 벽에 닿고, 다른 그룹 천사의 날개는 다른 벽에 닿았으며, 그들의 날개들은 성소 중앙에서 서로 맞닿았다.
- 28 그는 그룹을 금으로 덮었다.
- 29 그는 성전의 모든 벽을 안팎으로 그룹, 야자나무, 피어 있는 꽃무늬로 새겼다.
- 30 그는 성전의 바닥을 안팎으로 금으로 덮었다.

- ³¹ 그는 안쪽 성소의 출입구를 올리브나무로 문을 만들었고, 문틀과 문설주는 벽의 다섯 분의 일에 해당하였다.
- ³² 그는 올리브나무로 문 두 개를 만들었고, 그 위에 그룹 천사들과 야자나무, 피어 있는 꽃무늬를 새기고 금으로 덮었다. 그는 그룹 천사들과 야자나무 위에 금을 입혔다.
- ³³ 그는 성전의 문설주도 올리브나무로 만들었으며, 이는 벽의 넷 분의 일에 해당하였다.
- ³⁴ 그는 전나무로 문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한 문의 두 판은 접이식이었고, 다른 문의 두 판도 접이식이었다.
- ³⁵ 그는 그룹 천사들과 야자나무, 피어 있는 꽃무늬를 새기고, 새긴 무늬에 맞게 금을 덧씌웠다.
- ³⁶ 그는 안쪽 마당을 세 층의 다듬은 돌과 한 층의 백향목 들보로 쌓았다.
- ³⁷ 주님의 집의 기초는 네 번째 해, 지브 달에 놓였다.
- ³⁸ 열한 번째 해, 불 달, 곧 여덟 번째 달에, 집은 모든 부분과 모든 규정에 따라 완성되었다. 그는 집을 지으느라 일곱 해를 보냈다.

열왕기 상권 7장

- 1 솔로몬은 자기 집을 열세 년 동안 지었고, 모든 건물을 마쳤다.
- 2 그는 레바논 숲의 집을 지었는데, 그 길이는 백 큐빗, 너비는 오십 큐빗, 높이는 삼십 큐빗이었고, 네 줄의 전나무 기둥 위에 전나무 들보가 놓였다.
- 3 그 위는 기둥 위에 놓인 사십오 개의 들보 위로 전나무로 덮였고, 한 줄에 열다섯 개씩이었다.
- 4 들보는 세 줄로 되어 있었고, 창문은 세 층으로 마주 보였다.
- 5 모든 문과 기둥은 들보와 함께 사각형으로 만들었고, 창문은 세 층으로 마주 보였다.
- 6 그는 기둥이 있는 홀을 지었는데, 그 길이는 오십 큐빗, 너비는 삼십 큐빗이었고, 그 앞에 현관과 기둥과 문지방이 있었다.
- 7 그는 왕이 재판할 자리인 왕좌의 현관, 곧 재판의 현관을 지었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전나무로 덮었다.
- 8 그가 거주할 집, 즉 현관 안쪽에 있는 다른 마당은 같은 공법으로 지었다. 그는 또한 솔로몬이 아내로 맞이한 파라오의 딸을 위한 집도 이 현관과 같게 지었다.
- 9 이 모든 것은 귀한 돌, 측량에 맞게 다듬은 돌로 되어 있었고, 안팎으로 톱으로 자르고, 기초에서 마감석까지, 그리고 바깥쪽으로 큰 마당까지 마쳤다.
- 10 기초는 귀한 돌, 곧 십 큐빗 크기의 돌과 팔 큐빗 크기의 돌로 되어 있었다.
- 11 그 위는 측량에 맞게 다듬은 돌과 전나무로 되어 있었다.
- 12 큰 마당 주위는 세 층의 다듬은 돌과 한 층의 전나무 들보로 되어 있었고, 주님의 집 안마당과 집의 현관과 같았다.
- 13 솔로몬 왕은 티레에서 히람을 불러들였다.
- 14 그는 납탈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로, 아버지는 티레 사람으로 낫쇠 일꾼이었으며, 낫쇠로 모든 일을 할 지혜와 이해력과 기술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솔로몬 왕에게 이르러 그의 모든 일을 수행하였다.
- 15 그는 낫쇠로 두 기둥을 만들었는데, 각각 높이가 열여덟 큐빗이었고, 둘레는 열두 큐빗이었다.
- 16 그는 두 기둥 꼭대기에 놓을 낫쇠로 만든 두 개의 머리장을 만들었는데, 한 머리장의 높이는 다섯 큐빗이고, 다른 머리장의 높이도 다섯 큐빗이었다.
- 17 기둥 꼭대기의 머리장에는 격자 무늬의 그물과 사슬 무늬의 화관이 있었는데, 한 머리장에는 일곱 개, 다른 머리장에도 일곱 개였다.
- 18 그는 기둥을 만들었고, 한 그물 주위에 두 줄로 석류를 두어 기둥 꼭대기의 머리장을 덮었고, 다른 머리장에도 그렇게 하였다.
- 19 현관 위 기둥 꼭대기의 머리장은 연꽃 무늬로 되어 있었고, 높이가 네 큐빗이었다.
- 20 그물 옆에 있는 기둥의 배부분 위에도 두 기둥 위에 머리장이 있었고, 다른 머리장 주위에는 석류가 이백 개로 줄지어 있었다.
- 21 그는 기둥을 성전 현관에 세웠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불렀다.
- 22 기둥 꼭대기에는 연꽃 무늬가 있었다. 기둥의 작업은 마쳤다.
- 23 그는 낫으로 된 바다를 만들었는데,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까지 열 큐빗이었고, 둥글었다. 높이는 다섯 큐빗이었고, 둘레는 삼십 큐빗이었다.
- 24 그 바다 가장자리 아래 주위에는 열 큐빗을 감싸는 열매 무늬가 있었고, 그 열매는 두 줄로 되어 있었으며, 바다가 부어질 때 함께 주조되었다.
- 25 이것은 열두 마리의 소 위에 서 있었는데,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는 그 위에 놓였고, 모든 소의 뒷부분은 안쪽을 향하였다.
- 26 이것은 한 손 너비 두께이었고,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처럼, 백합꽃의 꽃처럼 장식되었다. 이는 이천 바스를 담을 수 있었다.

- 27 그는 놋으로 열 개의 받침대를 만들었다. 한 받침대의 길이는 네 큐빗이었고, 너비도 네 큐빗이었으며, 높이는 세 큐빗이었다.
- 28 받침대의 제작은 이러하였다: 그들은 판을 가지고 있었고, 받침대의 테두리 사이에 판들이 있었다.
- 29 받침대의 테두리 사이의 판들 위에는 사자들과 소들과 그룹들이 있었고, 테두리 위에는 받침대가 있었으며, 사자들과 소들 아래에는 매달린 장식의 화관들이 있었다.
- 30 각 받침대는 네 개의 놋바퀴와 놋축을 가지고 있었고, 네 발에는 받침대가 있었다. 그 받침대들은 대야 아래에 주조되어, 각 측면에 화관이 있었다.
- 31 그것의 윗부분 안쪽과 위쪽은 한 큐빗이었고, 그 입은 받침대의 모양처럼 둥글었으며, 한 큐빗 반이었으며, 그 입에는 새겨진 문양이 있었고, 그 판들은 둥글지 않고 사각형이었다.
- 32 네 개의 바퀴는 판 아래에 있었고, 바퀴의 축은 받침대 안에 있었다. 한 바퀴의 높이는 한 큐빗 반이었다.
- 33 바퀴의 제작은 마차 바퀴의 제작과 같았다. 그 축들과 바퀴테들과 나선들과 중심부들은 모두 주조된 금속이었다.
- 34 각 받침대의 네 모서리마다 네 개의 받침대가 있었다. 그 받침대들은 받침대 자체에서 나온 것이었다.
- 35 받침대의 윗부분에는 반 큐빗 높이의 둥근 띠가 있었고, 받침대의 윗부분에는 그 받침대들과 판들이 같았다.
- 36 그는 그 받침대의 판들과 그 판들 위에 그룹들과 사자들과 야자나무를 각각 그 자리를 따라 새겼고, 모든 주위에 화관을 두었다.
- 37 그는 열 개의 받침대를 이와 같이 만들었는데, 모두 한 번에 주조되고, 같은 치수와 같은 형상이었다.
- 38 그는 놋으로 열 개의 대야를 만들었다. 한 대야는 사십 바스를 담을 수 있었고, 모든 대야는 네 큐빗이었다. 열 개의 받침대 각각 위에 한 대야씩 놓았다.
- 39 그는 받침대들을 성전 오른쪽에 다섯 개, 왼쪽에 다섯 개 놓았다.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쪽을 향해, 남쪽을 향해 놓았다.
- 40 히람은 냄비들과 삽들과 대야들을 만들었다. 히람은 주님의 집에서 솔로몬 왕을 위해 일한 모든 일을 마쳤다.
- 41 두 기둥과, 기둥 꼭대기에 있는 두 개의 윗부분과, 기둥 꼭대기에 있는 두 개의 윗부분을 덮는 두 개의 그물들;
- 42 두 개의 그물들을 위해 사백 개의 석류들, 각 그물마다 두 줄의 석류들로, 기둥 위의 두 개의 윗부분을 덮었으며;
- 43 열 개의 받침대들과, 받침대 위의 열 개의 대야들;
- 44 하나의 바다와, 바다 아래의 열두 마리의 소들;
- 45 냄비들과 삽들과 대야들. 히람이 주님의 집을 위해 솔로몬 왕을 위해 만든 이 모든 기구들은 모두 광택을 낸 놋이었다.
- 46 왕은 요르단 평야, 수곳과 사레단 사이의 점토 땅에서 이것들을 주조하였다.
- 47 솔로몬은 그 기구들을 모두 무게를 달지 않았다. 그 기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놋의 무게를 알 수 없었다.
- 48 솔로몬은 주님의 집 안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 곧 금으로 만든 제단과, 진설병을 놓는 상이었다.
- 49 안쪽 성소 앞에 금으로 만든 등불받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다섯 개는 왼쪽에 놓였고, 꽃들과 등불들과 집게들도 금으로 되어 있었다.
- 50 잔과 등불집게와 대야와 숟가락과 화로는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으며, 내전, 곧 지성소의 문과 성전의 문을 여닫는 문살도 금으로 만들었다.
- 51 이제 솔로몬 왕이 주님의 집에서 한 모든 일은 끝났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집의 보물창고에 넣었다.

열왕기 상권 8장

- 1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지파의 두목들과 가족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모아, 시온에 있는 다윗의 도시에 서 주님의 언약 궤를 올려오게 하였다.
- 2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칠월인 에타님 달의 축제 기간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
- 3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사제들이 궤를 들어 올렸다.
- 4 그들은 주님의 궤와 만남의 장막, 그리고 장막 안에 있던 모든 성물들을 올려왔다. 사제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것들을 올렸다.
- 5 솔로몬 왕과 그에게 모인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은 궤 앞에 서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과 소를 희생제물로 바쳤다.
- 6 사제들이 주님의 언약 궤를 그 자리, 곧 집의 내부 성소, 즉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옮겨 넣었다.
- 7 그룹들이 날개를 펼쳐 궤 위를 덮었고, 그룹들이 궤와 그 지렛대를 덮었다.
- 8 지렛대가 길어서 내부 성소 앞의 성소에서 그 끝이 보였으나,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 지렛대는 오늘날까지 그 자리에 있다.
- 9 궤 안에는 모세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을 때, 주님이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록한 돌 두 장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 10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왔을 때, 구름이 주님의 집을 가득 채웠다.
- 11 그러므로 구름 때문에 사제들이 봉사할 수 없었다. 이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 12 그때 솔로몬이 말했다. "주님께서 어두운 구름 속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13 "내가 진실로 당신을 위하여 거할 집을 지었고, 당신이 영원히 거하실 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 14 왕은 얼굴을 돌려 모인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축복하였고, 모든 회중은 일어섰다.
- 15 그가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을 찬미하라. 당신이 입으로 당신의 종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손으로 그 말씀을 이루셨으니, 오늘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 16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한 도시를 택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다윗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였다."
- 17 "내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 18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잘한 일이었다."
- 19 "그러나 네가 그 집을 지을 수는 없다. 네 몸에서 나올 네 아들이 그 집을 내 이름을 위하여 지을 것이다."
- 20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이어 앉아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 21 여기 내가 궤를 두었으니, 그 안에는 주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들어 있다."
- 22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펼쳤다.
- 23 그가 말했다.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하늘 위나 땅 아래에 당신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당신은 온 마음으로 당신 앞에서 걸어가는 당신의 종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십니다."
- 24 당신은 당신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당신이 입으로 말씀하시고, 오늘날처럼 손으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 25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이 당신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 주소서.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에 앉아 있을 사람이 네 앞에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단지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주의 깊이 지켜, 네가 내 앞에서 걷듯이 내 앞에서 걷는 한에서 말이다.'
- 26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이 당신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27 하지만 하느님께서 진실로 땅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조차도 당신을 담아낼 수 없사옵니
다. 이 내가 지어 놓은 이 집이 어찌 당신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 28 그러나 주님 내 하느님, 당신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소서. 오늘 내가 당신 앞에서 드리는 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
소서.
- 29 이 집을 향해 밤낮으로 당신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당신이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장소를 향해,
당신의 종이 이 장소를 향해 드리는 기도를 들으소서.
- 30 당신의 종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장소를 향해 기도할 때, 그들의 간구를 들으소서. 하늘, 당신의 거처에서 들으시
고, 들으실 때 용서하소서.
- 31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지어, 그에게 맹세하게 하여 맹세하게 하면, 그가 와서 이 집의 제단 앞에서 당신 앞에 맹세할 때,
32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동하시며, 당신의 종들을 심판하소서. 악한 자는 그의 죄악을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는
그의 의로움에 따라 보상하소서.
- 33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당신께 대적하여 적 앞에서 무너질 때, 그들이 다시 돌아와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고,
이 집에서 당신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 34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다시 이끌어 주소서.
- 35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들이 당신께 죄를 지어, 그들이 이 장소를 향해 기도하고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며,
당신이 그들을 괴롭힐 때 그들의 죄에서 돌아설 때,
- 36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이 걸어야 할 선한 길을 가르치시고,
당신이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려 주소서.
- 37 만약 그 땅에 기근이 들거나 전염병이 퍼지거나 곰팡이가 생기거나 서리가 내리거나 메뚜기나 애벌레가 생기거나, 그들
의 원수가 그들의 성읍 땅에서 그들을 에워싸거나, 어떤 재앙이든지, 어떤 병이든지,
- 38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모두, 각자 자기 마음의 재앙을 알고 이 집을 향해 손을 펼칠 때,
39 그러면 하늘, 곧 당신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행동하시고, 그의 마음을 아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그의 모든 길
에 따라 보답하소서. (당신, 오직 당신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 40 그들이 당신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평생 동안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 41 또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인이 먼 땅에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곳에 와서,
- 42 (그들은 당신의 위대한 이름과 강한 손과 펼쳐진 팔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가 와서 이 집을 향해 기도할 때,
43 하늘, 곧 당신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그 외국인이 당신께 부르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당신의 이
름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당신을 두려워하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
니다.
- 44 만약 당신의 백성이 당신이 보내시는 어떤 길로든지 그들의 원수와 싸우러 나가서, 당신이 택하신 성읍과 내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집을 향해 주님께 기도할 때,
- 45 그러면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소서.
- 46 그들이 당신께 죄를 지으면 (죄를 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노하시어 그들을 원수에게 넘
겨 주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시되,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 47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사로잡아 간 자들의 땅에서 당신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
었고, 악행을 저질렀으며, 악독하게 행동했습니다.'라고 할 때,
- 48 그들이 사로잡혀 간 원수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당신께 돌아와, 당신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당신이
택하신 성읍과, 내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집을 향해 기도할 때,
- 49 하늘, 곧 당신의 거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소서.
- 50 당신께 죄를 지은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범한 모든 죄과를 사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아
끌고 간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게 하소서.
- 51 그들은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기업이며, 당신이 철로 된 굴 한가운데에서 끌어내신 것임을 기억하소서.

- 52 당신의 종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당신의 눈이 항상 열어두시고, 그들이 당신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소서.
- 53 당신이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실 때, 모든 땅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갈라내어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주 하느님.
- 54 솔로몬이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드린 후, 그는 주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하늘을 향해 손을 펼치고 무릎을 꿇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 55 그는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축복하며 말했다.
- 56 "주님을 찬미하라.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분이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선한 약속 중,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 57 우리 조상들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해 주소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마소서,
- 58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로 기울이시어, 당신의 모든 길을 걷고, 당신이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게 하소서.
- 59 내가 주님 앞에서 간구한 이 말들이, 주 우리 하느님 앞에 낮과 밤으로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당신의 종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권리를 매일의 필요에 따라 지켜주소서.
- 60 이렇게 하여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이 하느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 61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처럼 주 우리 하느님의 길을 걷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너희 마음을 그분께 완전히 바치라."
- 62 왕과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서 제물을 드렸다.
- 63 솔로몬은 주님께 드리는 화평제를 위해 소 이만 이천 마리와 양 십이만 마리를 바쳤다. 이처럼 왕과 이스라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집을 봉헌하였다.
- 64 그날 왕은 주님의 집 앞에 있는 안뜰의 중앙을 성화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번제와 소제, 화평제의 기름진 부분을 바쳤다. 주님 앞에 있던 놋 제단이 번제와 소제, 화평제의 기름진 부분을 다 받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65 이처럼 솔로몬은 그대에 큰 모임을 열어, 하마스 문에서 이집트 시내까지, 주 우리 하느님 앞에서 일곱 날을 더하여 열네 날을 지켰다.
- 66 여덟째 날, 그는 백성을 보내주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이 가득하여 왕을 축복하고,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는 주님이 그분의 종 다윗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은혜 때문이었다.

열왕기 상권 9장

- ¹ 솔로몬이 주님의 집과 왕의 집,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는 모든 일을 건축한 뒤에,
- ² 주님께서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 ³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가 내 앞에서 바친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내가 네가 건축한 이 집을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 내 눈과 내 마음도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 ⁴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마음의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고,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킨다면,
- ⁵ 내가 네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굳게 세우겠다.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네게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자가 끊어지지 않으리라" 하였으니,
- ⁶ 그러나 너희나 너희 자손이 나를 떠나,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명령과 율법을 지키지 않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한다면,
- ⁷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집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비유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 ⁸ 비록 이 집이 높아 보이더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흐직거리며, "어찌하여 주님이 이 땅과 이 집에 이같이 하셨는가?" 하고 말할 것이다.
- ⁹ 그들이 대답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님, 그들의 하느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 ¹⁰ 솔로몬이 주님의 집과 왕의 집을 건축한 이십 년이 지나서,
- ¹¹ (티로의 왕 히람이 솔로몬의 모든 소원에 따라 백향목과 전나무, 금을 제공하였으므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성읍 스무 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 ¹² 히람은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들을 보러 티로에서 나와서 갔으나, 그 성읍들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 ¹³ 그가 말했다. "형제여, 네가 내게 준 이 성읍들은 무엇이나?" 그는 그 땅을 오늘날까지 카불 땅이라 불렀다.
- ¹⁴ 히람은 왕에게 금 백이십 달란트를 보냈다.
- ¹⁵ 솔로몬 왕이 징발한 노역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님의 집과 자기 집, 밀로, 예루살렘의 성벽, 하소르, 메기도, 게셀을 건축하기 위함이었다.
- ¹⁶ 이집트 왕 파라오가 올라와서 게셀을 정복하고 불로 태우고, 그 도시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죽인 뒤, 자기 딸, 곧 솔로몬의 아내에게 결혼 선물로 주었다.
- ¹⁷ 솔로몬은 게셀과 아래 벰오론을 건축하였다.
- ¹⁸ 바알랏과 사막의 다마르를 건축하였다.
- ¹⁹ 솔로몬이 가진 모든 창고 도시들과, 그의 병거를 위한 도시들과, 그의 기마대를 위한 도시들과,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자기 통치의 온 땅에서 기쁨을 위해 건축하고자 한 모든 것을 건축하였다.
- ²⁰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페리시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중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나머지 백성들—
- ²¹ 그들의 자손들 중 땅에 남아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완전히 멸하지 못한 자들 중에서, 솔로몬은 오늘날까지 노예로 징발하였다.
- ²²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지 않았다. 그들은 군인들이었고, 그의 시종들과 귀족들과 장관들과 병거와 기마대의 지휘관들이었다.
- ²³ 이들은 솔로몬의 공사 위에 있는 오백 오십 명의 우두머리 관리들이었으며, 공사에 종사하는 백성을 다스렸다.
- ²⁴ 그러나 파라오의 딸은 다윗의 성에서 나와 솔로몬이 그녀를 위해 건축한 집으로 올라갔다. 그 후에 솔로몬은 밀로를 건축하였다.
- ²⁵ 솔로몬은 주님을 위해 지은 제단에 해마다 세 번 번제와 화평제를 바치고, 주님 앞에 있는 제단에 향을 태웠다. 이렇게 그는 집을 완성했다.

- ²⁶ 솔로몬 왕은 에돔 땅에 있는 엘롯 옆 에시온 게버 해안에 배단을 건설했다.
- ²⁷ 히람은 바다에 능통한 자기 종들, 곧 선원들을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배에 보냈다.
- ²⁸ 그들은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사백이십 탈란트를 가져와 솔로몬 왕에게 바쳤다.

열왕기 상권 10장

- ¹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이 주님의 이름으로 얻은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러 왔다.
- ² 그녀는 향신료와 매우 많은 금과 보석을 짊어진 낙타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녀가 솔로몬에게 이르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와 이야기하였다.
- ³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질문에 답하였다.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 ⁴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지은 집을 보고,
- ⁵ 그의 식탁의 음식과 그의 하인들의 자세, 그의 관리들의 시중들기, 그들의 옷차림과 그의 잔을 드는 자들, 그리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그의 오르는 길을 보고, 더 이상 기운이 없어졌다.
- ⁶ 그녀가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땅에서 당신의 일과 당신의 지혜에 관한 진실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 ⁷ 그러나 내가 오기 전까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들은 것의 절반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명성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 ⁸ 당신의 사람들이 복받았습니다! 당신 앞에 항상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이 하인들이 복받았습니다.
- ⁹ 당신의 하느님,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기뻐하시어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세워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 ¹⁰ 그녀는 왕에게 금 백이십 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신료와 보석을 주었다.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향신료처럼 풍부한 것은 이후로 다시 없었다.
- ¹¹ 히람의 함대가 오피르에서 금을 가져온 것처럼, 오피르에서 매우 많은 알무그 나무와 보석도 가져왔다.
- ¹² 왕은 그 알무그 나무로 주님의 집과 왕의 집에 기둥을 만들었고, 노래하는 자들을 위한 수금과 비파도 만들었다. 오늘날 까지 그런 알무그 나무는 오지도, 보이지도 않았다.
- ¹³ 솔로몬 왕은 세바의 여왕이 원하는 모든 것과 그녀가 요청한 것을 모두 주었고, 솔로몬이 그녀에게 베푼 왕실의 은혜도 더해 주었다. 그녀는 그녀의 하인들과 함께 돌아가서 자기 땅으로 갔다.
- ¹⁴ 한 해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육백육십육 달란트였다.
- ¹⁵ 그것에 더하여 상인들이 가져온 것과 상업상 거래한 것, 모든 혼혈 민족의 왕들과 지방 관리들의 바친 것들이 있었다.
- ¹⁶ 솔로몬 왕은 이백 개의 두꺼운 금 방패를 만들었고, 하나의 방패에 금 육백 세켈이 들었다.
- ¹⁷ 그는 삼백 개의 금 방패를 만들었고, 하나의 방패에 금 삼 미나가 들었다. 왕은 그것들을 레바논 숲의 집에 두었다.
- ¹⁸ 또 왕은 상아로 큰 왕좌를 만들고, 가장 정교한 금으로 덮었다.
- ¹⁹ 왕좌에는 여섯 단계의 계단이 있었고, 왕좌 뒤쪽은 둥글게 마무리되었다.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옆에는 두 마리의 사자가 서 있었다.
- ²⁰ 여섯 단계의 양쪽에는 각각 열두 마리의 사자가 서 있었다. 이와 같은 것은 어느 왕국에서도 만들지 않았다.
- ²¹ 솔로몬 왕의 모든 마시는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숲의 집의 모든 그릇도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가치가 낮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 ²² 왕은 히람의 함대와 함께 타르시스의 함대를 바다에 보냈다. 타르시스의 함대는 세 년에 한 번씩 돌아와서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가져왔다.
- ²³ 이처럼 솔로몬 왕은 부와 지혜에서 땅의 모든 왕들을 능가하였다.
- ²⁴ 땅의 모든 백성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그의 앞에 나아왔다.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 ²⁵ 매년마다 각 사람이 공물을 바쳤다. 은으로 만든 그릇, 금으로 만든 그릇, 옷, 갑옷, 향신료, 말, 노새였다.
- ²⁶ 솔로몬은 병거와 기병을 모았다. 그는 병거 천 대와 기병 만 이천 명을 가졌다. 그는 이를 병거 도시들과 예루살렘에서 왕과 함께 보관하였다.
- ²⁷ 왕은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처럼 흔하게 만들었고, 평야에 있는 무화과나무처럼 전나무를 흔하게 만들었다.
- ²⁸ 솔로몬이 가진 말들은 이집트에서 들여왔다. 왕의 상인들이 무리로 말을 받아들었으며, 각 무리는 정해진 가격으로였다.
- ²⁹ 이집트에서 들여온 병거 하나는 은 육백 세켈이었고, 말 하나는 은 백 오십 세켈이었다. 그들은 이를 히타이트 왕들과 시

리아 왕들에게 모두 수출하였다.

열왕기 상권 11장

- ¹ 솔로몬 왕은 파라오의 딸을 비롯하여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히위의 많은 외국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 ²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들 민족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너희 마음을 끌어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나, 솔로몬은 이 여인들과 사랑에 빠졌다.
- ³ 그는 일백 칠백 명의 아내와 삼백 명의 첩을 두었고,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빼앗았다.
- ⁴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끌어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의 마음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주님 그의 하느님과 완전히 함께하지 않았다.
- ⁵ 솔로몬은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의 가증한 신 밀콤을 따랐다.
- ⁶ 솔로몬은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 ⁷ 그는 예루살렘 앞 산에 모압의 가증한 신 케모스를 위한 높은 산당을 세우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한 높은 산당도 세웠다.
- ⁸ 그는 자기 모든 외국 아내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 ⁹ 주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인 주님에게서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미 두 번 그에게 나타나셨다.
- ¹⁰ 주님은 그에게 이 일에 관해 명령하셨다. 그가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솔로몬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 ¹¹ 그러므로 주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 일을 행하였고, 내가 네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왕국을 네 손에서 빼앗아 네 종에게 주겠다."
- ¹²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네 생전에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 내가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주겠다.
- ¹³ 그러나 내가 왕국을 모두 빼앗지는 않겠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네 아들에게 한 지 파만 주겠다.
- ¹⁴ 주님은 솔로몬을 대적하여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셨다. 그는 에돔 왕가의 자손이었다.
- ¹⁵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장관 요압이 시신을 장사지내기 위해 올라가, 에돔의 모든 남자를 죽였으므로,
- ¹⁶ 요압과 이스라엘은 여섯 달 동안 그곳에 머물며 에돔의 모든 남자를 없앴다.
- ¹⁷ 하닷은 어린아이였을 때, 그의 아버지 종들 몇 명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쳤다.
- ¹⁸ 그들은 미디안에서 일어나 파란에 이르렀고, 파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르렀다. 파라오는 그에게 집을 주고, 음식을 지급하며, 땅을 주었다.
- ¹⁹ 하닷은 파라오의 눈에 크게 은총을 입어, 파라오의 아내 타펜네스의 누이를 아내로 주었다.
- ²⁰ 타펜네스의 누이는 하닷에게 게누바트라는 아들을 낳았고, 타펜네스가 파라오의 궁전에서 그 아이를 젖에서 떼어 기르었다. 게누바트는 파라오의 아들들 가운데서 파라오의 궁전에서 자랐다.
- ²¹ 하닷이 이집트에서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군대 장관 요압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 ²² 파라오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와 함께 무엇을 부족하게 여기느냐? 어찌하여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 ²³ 주님은 솔로몬을 대적하여 엘리아다의 아들 레손을 일으키셨다. 그는 조바 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친 자였다.
- ²⁴ 그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군대의 장관이 되었고, 다윗이 조바 사람들을 쳤을 때, 그들은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서 살며, 다마스쿠스에서 왕이 되었다.
- ²⁵ 그는 하닷의 악행에 더하여, 솔로몬이 살아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적대자였으며,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시리아를 다스렸다.
- ²⁶ 에브라임 지파 세레다 출신으로, 느바트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하인으로, 그의 어머니는 세루아였으며 과부였다. 그도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 ²⁷ 그가 왕에게 반기를 든 이유는 이러하였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의 허물어진 부분을 수

리했기 때문이다.

²⁸ 그 남자 여로보암은 용감한 용사였으며, 솔로몬은 그 젊은이가 부지런함을 보고 그를 요셉의 집 모든 노동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²⁹ 그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왔을 때, 실로 사람 아히야 예언자가 길에서 그를 만났다. 아히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고, 둘은 들판에서 혼자였다.

³⁰ 아히야는 자신이 입고 있던 새 옷을 가져다가 열두 조각으로 찢었다.

³¹ 그가 여로보암에게 말했다. "열 조각을 가져라.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왕국을 빼앗아 열 지파를 네게 주겠다.

³² (그러나 그는 한 지파를 가질 것이다. 이는 나의 종 다윗과, 내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택한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이다.)

³³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크모스와, 아모니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길을 따르지 않고, 내 눈에 옳은 일을 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아버지 다윗이 지켰던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³⁴ "그러나 나는 그의 손에서 왕국 전체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를 평생 동안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그는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켰다."

³⁵ "그러나 나는 그의 아들 손에서 왕국을 빼앗아, 너에게 열 지파를 주겠다."

³⁶ "나는 그의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어, 나의 종 다윗이 내 앞에 예루살렘, 곧 내가 내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한 성에서 항상 등불을 비추게 하리라."

³⁷ "나는 너를 데려다가,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가 통치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리라."

³⁸ "네가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듣고, 내 길을 걷으며, 내 눈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율법과 명령을 내 종 다윗이 지켰던 것처럼 지킨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처럼 네게 확실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³⁹ "나는 이 일로 다윗의 자손을 괴롭히겠지만, 영원히는 아니리라."

⁴⁰ 이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였으나, 여로보암은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다.

⁴¹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그리고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행적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⁴² 솔로몬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며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기간은 사십 년이었다.

⁴³ 솔로몬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왕기 상권 12장

- ¹ 레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이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에 모였기 때문이다.
- ² 네바트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아직 이집트에 있었는데, 그는 솔로몬 왕의 앞에서 도망쳐 이집트에 머물고 있었다.
- ³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와서 레호보암에게 말했다.
- ⁴ 그들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와서 레호보암에게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떠맡긴 무거운 노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 ⁵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세 날 후에 다시 내게로 오너라."
- ⁶ 왕 레호보암은 솔로몬, 곧 그의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그 앞에 서 있던 늙은이들로부터 조언을 구했다. 그가 말했다. "이 사람들에게 대답할 어떤 조언을 주십니까?"
- ⁷ 그들이 대답했다. "오늘 당신이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 ⁸ 그러나 그는 늙은이들이 그에게 준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나 그 앞에 서 있던 젊은이들로부터 조언을 구했다.
- ⁹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이 내게 '당신 아버지가 떠맡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어떤 조언을 주십니까?"
- ¹⁰ 그와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내게 '당신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니, 그것을 우리에게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이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내 작은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습니다.'"
- ¹¹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떠맡겼지만, 나는 너희 멍에에 더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벌했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로 벌할 것이다."
- ¹² 그러므로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왕이 말한 대로 사흘째 되는 날 레호보암에게 왔다.
- ¹³ 왕은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하고, 늙은이들이 그에게 준 조언을 버리고,
- ¹⁴ 젊은이들이 준 조언에 따라 그들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가 너희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너희 멍에에 더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벌했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로 벌할 것이다."
- ¹⁵ 이에 왕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는 주님께서 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었는데, 주님께서서는 시론 사람 아히아를 통해 네바트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다.
- ¹⁶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왕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백성이 왕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다윗에게 무슨 몫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여세의 아들에게 유산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각자 제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네 집을 돌보라." 이에 이스라엘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 ¹⁷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호보암이 다스렸다.
- ¹⁸ 그때 왕 레호보암은 강제 노역을 맡은 아도람을 보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왕 레호보암은 빨리 자기 병거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 ¹⁹ 이로써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 ²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공동체에 불러들여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웠다.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는 유다 지파뿐이었다.
- ²¹ 레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집과 베냐민 지파를 모아, 전사로 선발된 열 팔만 명을 모아 이스라엘의 집과 싸워 솔로몬의 아들 레호보암에게 왕국을 다시 돌려주려 했다.
- ²²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사람 세마야에게 임했다.
- ²³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레호보암과 유다 온 집과 베냐민과 나머지 백성에게 말하여라.
- ²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거나 올라가지 말라. 각자 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나에서 온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길을 떠났다.

- ²⁵ 예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설하고 그곳에 살았다. 그는 거기서 나와서 베누엘을 건설하였다.
- ²⁶ 예로보암은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이 백성이 주님의 집인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면, 이 백성의 마음이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 ²⁷ "그러면 그들은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 ²⁸ 그래서 왕은 상의하고 금으로 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스라엘아, 보아라.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올려보낸 너희 신들이다."
- ²⁹ 그는 하나를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를 단에 두었다.
- ³⁰ 이 일은 죄가 되었다. 백성은 그곳에 있는 송아지 앞에 경배하려고 단까지도 나아갔다.
- ³¹ 그는 높은 곳의 제단을 만들고, 레위 자손이 아닌 모든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다.
- ³² 예로보암은 유다에서 지내는 축제와 같이, 여덟 번째 달 십오 일에 축제를 정하고 제단에 올라갔다. 그는 베델에서 자신이 만든 송아지들을 위해 제물을 바치고, 자신이 만든 높은 곳의 제사장을 베델에 두었다.
- ³³ 그는 자신이 마음대로 정한 달, 즉 여덟 번째 달 십오 일에 베델에 자신이 만든 제단에 올라가 분향을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축제를 정하고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였다.

열왕기 상권 13장

- 1 보라, 한 하느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에서 베델로 나왔는데,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향을 태우고 있었다.
- 2 그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단을 향해 외쳐 말했다. "제단아, 제단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는 이름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너 위에 고지에서 향을 태우는 제사장들을 잡아 바칠 것이며, 그들이 너 위에 사람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 3 그는 그날 징표를 주며 말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징표이다. 보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의 재가 쏟아질 것이다."
- 4 왕이 베델에서 하느님의 사람이 외친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뻗어 "그를 잡아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그를 향해 뻗은 손이 마르고, 다시 제 몸으로 끌어올 수 없게 되었다.
- 5 제단도 갈라지고, 그 위의 재도 하느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내린 징표대로 쏟아졌다.
- 6 왕이 하느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내가 주님, 곧 당신의 하느님을 위하여 간구해 주십시오. 제 손이 제 몸에 돌아오게 기도해 주십시오."
- 7 왕이 하느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쉬며, 내가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 8 하느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했다. "비록 당신이 당신 집의 절반을 나에게 주더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도 않고, 이곳에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 9 이는 주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명령하신 바, "너는 빵을 먹지 말고, 물을 마시지 말며, 네가 온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다.
- 10 그러므로 그는 다른 길로 가서, 베델로 온 길로 돌아가지 않았다.
- 11 베델에는 한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 하나가 와서 하느님의 사람이 그날 베델에서 한 모든 일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그가 왕에게 한 말도 전했다.
- 12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는 어느 길로 갔느냐?" 그의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 보았다.
- 13 그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나귀를 안장하라." 그래서 그들이 나귀를 안장하고, 그는 그 위에 올라탔다.
- 14 그는 하느님의 사람을 따라가서, 그가 참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당신은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입니까?"
- 15 그가 그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빵을 먹으시오."
- 16 그가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도, 당신과 함께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 17 이는 주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한 바, "너는 그곳에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네가 온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다.
- 18 그가 그에게 말했다. "나도 당신처럼 예언자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천사가 내게 말하여, "그를 데려와서 네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빵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였다." 그는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
- 19 그래서 그는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 20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그를 데려온 예언자에게 임했다.
- 21 그가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에게 외쳐 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 너의 하느님이 네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며,"
- 22 "되돌아와서, 주님이 너에게 "빵을 먹지 말고, 물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는 네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 23 그가 빵을 먹고 물을 마신 후, 그가 데려온 예언자를 위해 나귀를 안장했다.
- 24 그가 떠난 후, 길에서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려졌고, 나귀는 그 곁에 서 있었으며, 사자도 시체

곁에 서 있었다.

²⁵ 보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길에 던져진 시체와 그 옆에 서 있는 사자를 보고, 그 일을 옛 예언자가 사는 도시에 알렸다.

²⁶ 그를 길에서 데려온 예언자가 그 소식을 듣고 말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느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셨다. 사자는 그를 물어 죽였고,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²⁷ 그는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게 나귀를 안장하라." 그래서 그들이 나귀를 안장했다.

²⁸ 그는 가서 시체가 길에 던져져 있는 것을 보았고, 나귀와 사자가 시체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사자는 시체를 먹지 않았고, 나귀를 물어 해치지도 않았다.

²⁹ 예언자는 하느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태우고 돌아왔다. 그는 옛 예언자의 도시에 이르러 그를 애도하고 장사지냈다.

³⁰ 그는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안장하고, 그를 애도하며 말했다. "아, 내 형제여!"

³¹ 그가 그를 장사한 후,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하느님의 사람이 안장된 무덤에 나를 장사하고,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어라."

³² 그가 벤엘의 제단과 사마리아의 모든 도시에 있는 고상한 제사장들의 집들을 향해 주님의 말씀으로 외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³³ 이 일 이후, 여로보암은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다시 모든 백성 중에서 고상한 제사장을 세웠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를 그가 성별하여, 고상한 제사장을 만들었다.

³⁴ 이 일은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을 땅 위에서 끊고 멸망하게 되었다.

열왕기 상권 14장

- 1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 2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했다. "일어나서 몰래 나가라. 네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아보이지 마라. 실로로 가라. 보라, 거기에서 예언자 아히야가 있는데, 그가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3 빵 열 개와 과자 몇 개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줄 것이다."
- 4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히야는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나이 때문에 흐려져 있었다.
- 5 주님께서 아히야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와서 자기 아들에 대해 네게 묻고 있다. 그가 병들었기 때문이다. 너는 이렇게 말하라. 그녀가 들어올 때, 그녀는 다른 여자처럼 위장할 것이다."
- 6 아히야가 그녀가 문으로 들어오는 발소리를 듣고 말했다. "들어오라, 여로보암의 아내여! 왜 다른 사람인 척하느냐? 나는 너에게 무거운 소식을 전하러 보냄을 받았다."
- 7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웠다.
- 8 내가 다윗의 집에서 왕권을 빼앗아 너에게 주었으나, 너는 나의 종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 다윗은 내 계명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 나를 따르며, 내 눈에 옳은 일만을 행하였다.
- 9 그러나 너는 나보다 앞선 모든 이보다 더 악을 행했고, 가서 다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어 나를 격노하게 하였으며, 나를 뒤로 버렸다.
- 10 그러므로 보라,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의 집안에서 벽에 소변을 누는 자도, 갇힌 자도, 자유로운 자도 모두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마치 사람이 분노를 쏟아버리듯이 완전히 쏟아버릴 것이다."
- 11 여로보암의 집안에서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판에서 죽는 자는 하늘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이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 12 그러므로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도시에 들어서는 순간,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 13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장사할 것이다. 여로보암의 집안에서 그 아이만이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그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 앞에서 어떤 선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 14 주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자기 자신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 왕이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 날이 바로 그날이다! 지금이라도.
- 15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물 속에서 흔드는 갈대처럼 치실 것이다. 내가 그 조상들에게 준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뿌리 뽑아 버리고, 강 너머로 흩어버릴 것이다. 이는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주님을 격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 16 주님께서 여로보암이 범한 죄와,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죄로 인해 이스라엘을 버릴 것이다."
- 17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떠나서 디르사에 이르렀다. 그녀가 집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 아이가 죽었다.
- 18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의 종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따라 그를 장사하고 슬퍼하였다.
- 19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그가 싸운 일과 그가 통치한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다.
- 20 여로보암이 통치한 날은 이십이 년이었다. 그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의 아들 나단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21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왕이 되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시작할 때 나이가 사십일 세였고, 예루살렘에서 열일곱 년을 통치하였다. 예루살렘은 주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자기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한 도시였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
- 22 유다가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고,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 조상들이 행한 어떤 일보다도 더하여 주님을 시기하게 하였다.
- 23 그들은 높은 언덕마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높은 제단과 석주와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 24 그 땅에는 남창도 있었다. 그들은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모든 민족의 가증한 일을 그대로 행하였다.

- ²⁵ 레호보암 왕의 다섯 번째 해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올라왔다.
- ²⁶ 그는 주님의 집과 왕의 집의 보물을 모두 가져갔다. 솔로몬이 만든 모든 금 방패까지도 가져갔다.
- ²⁷ 레호보암 왕은 그 대신 놋 방패를 만들고, 왕의 집 문을 지키는 경비대 장관들의 손에 맡겼다.
- ²⁸ 왕이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경비대가 그 방패를 들고 나갔다가, 다시 경비실로 돌려놓았다.
- ²⁹ 레호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 ³⁰ 레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다.
- ³¹ 레호보암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의 도시에서 조상들과 함께 매장되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암몬 여자 나아마였다. 그의 아들 아비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왕기 상권 15장

- 1 이스라엘 왕 네바트의 아들 여로보암의 열여덟째 해에, 아비얌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 2 그는 예루살렘에서 삼 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다.
- 3 그는 아버지가 자기 이전에 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였고, 그의 마음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주님 그의 하느님과 완전히 함께하지 않았다.
- 4 그러나 다윗을 위하여, 그의 하느님 주님은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어 그의 아들을 그 뒤에 세우고 예루살렘을 굳게 하셨다.
- 5 다윗은 주님의 눈에 옳은 일을 하였고, 평생 동안 그가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 오직 히위 사람 우리아의 일만 제외하였다.
- 6 아비얌이 살아 있는 동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었다.
- 7 아비얌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아비얌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 8 아비얌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들은 그를 다윗의 도시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9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스무 번째 해에, 아사가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 10 그는 예루살렘에서 사십일 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다.
- 11 아사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주님의 눈에 옳은 일을 하였다.
- 12 그는 그 땅에서 남색을 하는 자들을 몰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하였다.
- 13 그는 또한 어머니 마아가를 왕비 자리에서 쫓아내었다. 그녀가 아세라를 위한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사는 그 우상을 베어내어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웠다.
- 14 그러나 높은 곳들은 제거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은 평생 동안 주님과 완전히 함께하였다.
- 15 그는 아버지가 바친 것과 자기가 바친 은과 금과 기구들을 주님의 집으로 가져왔다.
- 16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그들의 평생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다.
- 17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 라마를 쌓아, 유다 왕 아사에게 누구도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 18 그때 아사는 주님의 집과 왕의 집 보물창고에 남아 있던 모든 은과 금을 가져다가 그의 신하들에게 넘겼다. 그리고 아사 왕은 그들을 다마스쿠스에 거주하는 시리아 왕 베나하드, 티브림몬의 아들, 헤지온의 손자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 19 “내가 너와 계약을 맺자. 마치 내 아버지와 네 아버지 사이에 맺은 계약처럼. 보라,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을 선물로 보냈다. 가서 네가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계약을 깨라. 그가 나에게서 떠나게 하라.”
- 20 베나하드는 아사 왕의 말을 듣고, 자기 군대의 장관들을 이스라엘의 도시들에 보내어 이윤과 단과 아벨 뽕마아가와 모든 기네롯과 납탈리 땅 전체를 치게 하였다.
- 21 바아사가 이 소식을 듣고 라마의 공사를 멈추고 티르사에 머물렀다.
- 22 그때 아사 왕은 유다 전체에 명령을 내렸다. 누구도 면제되지 않았다. 그들은 바아사가 라마를 쌓을 때 쓴 돌과 나무를 모두 가져와서, 아사 왕은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믹사파를 쌓았다.
- 23 아사의 모든 행적과 그의 모든 힘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쌓은 도시들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의 늙은 날에는 발에 병이 들었다.
- 24 아사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여호사밋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25 예로보암의 아들 나다브가 유다 왕 아사의 두 번째 해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을 두 해 동안 다스렸다.
- 26 그는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했고, 아버지의 길을 따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그의 죄를 계속했다.
- 27 이사삭의 집에서 나온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반역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속한 기브톤에서 그를 쳤다. 나다

브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괴브톤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²⁸ 유다 왕 아사의 세 번째 해에 바아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자리를 차지했다.

²⁹ 그가 왕이 되자마자 예로보암의 온 집을 쳤다. 그는 예로보암에게 숨 쉬는 자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주님께서 그의 종 실론 사람 아히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그를 멸망시켰다.

³⁰ 이는 예로보암이 지은 죄, 곧 그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죄와,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을 격노하게 한 그의 자극 때문이었다.

³¹ 나다브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³²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그들의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³³ 유다 왕 아사의 세 번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티르사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 시작하여 스물네 해 동안 왕이 되었다.

³⁴ 그는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했고, 예로보암의 길을 따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그의 죄를 계속했다.

열왕기 상권 16장

- 1 주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바아사에 대하여 이르렀다.
- 2 "내가 너를 흙에서 일으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웠으나, 네가 느바트의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죄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여 나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 3 보라, 내가 바아사와 그의 집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네 집을 느바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만들겠다.
- 4 바아사의 자손 중 성안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하늘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 5 바아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일과 그의 힘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 6 바아사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티르사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7 또 주님의 말씀이 예언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통해 바아사와 그의 집에 이르렀다. 이는 그가 주님의 눈에 악을 행하여 자신의 손으로 한 일로 주님을 격노하게 하였고, 여로보암의 집과 같아졌으며, 그가 예후를 치았기 때문이다.
- 8 유다 왕 아사의 스물여섯 해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티르사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여 두 해 동안 왕이 되었다.
- 9 그의 하인인 임마리, 곧 그의 전차 절반을 지휘하는 장관이 그를 반역하였다. 그는 티르사에 있었고, 티르사의 궁정을 맡은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
- 10 짐리가 들어가서 그를 치고 죽였으며, 유다 왕 아사의 스물일곱 해에 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11 그가 왕이 되자마자 즉위한 날, 그는 바아사의 온 집을 죽였다. 그는 자기 친척이나 친구 중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 12 이처럼 짐리는 예언자 예후를 통해 주님께서 바아사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 바아사의 온 집을 멸망시켰다.
- 13 이는 바아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범한 모든 죄와, 그들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을 격노하게 한 그들의 허망한 일 때문이었다.
- 14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 15 유다 왕 아사의 스물일곱 해에, 짐리가 티르사에서 일곱 일 동안 왕이 되었다. 그때 백성은 필리스티아인의 땅인 기브톤을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었다.
- 16 진에 있던 백성은 짐리가 반역하여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진에서 군대 장관 옴리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 17 옴리는 기브톤에서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와 함께하여 티르사를 포위하였다.
- 18 짐리가 성이 함락된 것을 보고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 왕궁을 불태워 자신을 태워 죽였다.
- 19 이는 그가 주님의 눈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기 위해 행한 죄 때문이었다.
- 20 짐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저지른 배신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 21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 부류로 나뉘었다. 백성의 절반은 긴앗의 아들 티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옴리를 따랐다.
- 22 그러나 옴리를 따르던 백성이 긴앗의 아들 티브니를 따르던 백성보다 강하여, 티브니가 죽고 옴리가 왕이 되었다.
- 23 유다 왕 아사의 서른한 해에, 옴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여 열두 년 동안 왕이 되었다. 그는 티르사에서 여섯 년 동안 왕이 되었다.
- 24 그는 세머르의 산을 은 이 탈렌트에 사서,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산의 주인인 세머르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사마리아라 불렀다.
- 25 옴리는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고, 자기 이전의 모든 이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였다.
- 26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따르고, 그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죄악을 행하여, 그들의 허무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을 격노하게 하였다.
- 27 옴리가 행한 나머지 일들과 그가 보인 힘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 28 옴리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29 유다 왕 아사의 삼십팔년에, 옴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옴리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이

스라엘을 이십이 년 동안 다스렸다.

³⁰ 옴리의 아들 아합은 자기 이전의 모든 이보다 더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³¹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르는 것이 그에게는 가벼운 일처럼 여겨졌으므로, 그는 시돈 왕 에드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 바알을 섬기고 그를 숭배하였다.

³²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집 안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세웠다.

³³ 아합은 아세라를 만들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이전 왕들보다 더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격노하게 하기 위해 더 많이 행하였다.

³⁴ 그 시대에, 베델리 사람 힐이 여리고를 건설하였다. 그는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기초를 놓고, 막내아들 세굽을 잃고 문을 세웠다. 이는 주님의 말씀, 곧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다.

열왕기 상권 17장

- 1 길르앗의 거주자 중 한 사람인 디스베의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나 앞에 서 계신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앞으로 몇 해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 말대로 될 것이다."
- 2 그때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 3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에 있는 케리트 강가에 숨어 있어라."
- 4 "너는 그 강물에서 마실 것이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거기서 너를 먹일 것을 명령하였다."
- 5 그는 일어나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여 요단 앞에 있는 케리트 강가로 가서 거기서 살았다.
- 6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왔고, 그는 강물에서 마셨다.
- 7 잠시 후,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강물이 마르고 말았다.
- 8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 9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페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보아라, 내가 거기서 한 과부에게 네게 먹을 것을 제공하게 명령하였다."
- 10 그는 일어나 사르페로 갔다. 그가 성문에 도착했을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불러 말했다. "잠시 물 한 그릇을 가져다 주십시오. 마시고 싶습니다."
- 11 그녀가 물을 길으려 할 때, 그가 다시 불러 말했다. "손에 빵 한 조각이라도 가져다 주십시오."
- 12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의 하느님,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저는 빵을 굽은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한 줌의 밀가루와 한 병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는 나뭇가지 두 개를 줍고 있는데, 돌아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그걸 굽고 먹은 뒤에 죽으려 합니다."
- 13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서 네가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한 덩이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나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어라."
- 14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밀가루가 담긴 병은 다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담긴 병은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땅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 15 그녀는 일어나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그녀와 그와 그의 가족은 여러 날 동안 먹었다.
- 16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밀가루가 담긴 병은 다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이 담긴 병은 고갈되지 않았다.
- 17 이 일들 뒤에, 그 집의 여주인의 아들이 병들었고, 병이 심각하여 숨조차 쉰 수 없었다.
- 18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하느님의 사람, 당신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상기시키고, 내 아들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 19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네 아들을 내게 주십시오." 그는 아들을 그녀의 품에서 끌어내어 자기가 머무는 방으로 데려가서 자기 침대 위에 눕혔다.
- 20 그는 주님께 외쳐 말했다. "주님, 제 하느님, 제가 머무는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려고, 그녀의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 21 그는 아이 위에 세 번 몸을 펴고 주님께 외쳐 말했다. "주님, 제 하느님, 이 아이의 영혼을 다시 그에게 되돌려 주소서."
- 22 주님은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의 영혼이 그에게 돌아왔고, 그는 다시 살아났다.
- 23 엘리야는 아이를 데리고 방에서 내려와 집으로 데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건네며 말했다. "보아라, 네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 24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당신이 하느님의 사람임을 알고, 당신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상권 18장

- 1 많은 날이 지난 후, 세 번째 해에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에 비를 내리겠다."
- 2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갔다. 사마리아에는 심한 기근이 들었다.
- 3 아합은 궁정을 맡은 오바디야를 불러서 말했다. (오바디야는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였으;
- 4 이자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오바디야는 예언자 백 명을 데려다가 오십 명씩 동굴 두 곳에 숨기고 빵과 물로 먹였다.)
- 5 아합이 오바디야에게 말했다. "땅을 두루 다니며 모든 샘물과 시내를 찾아라. 혹시 풀을 찾아 말과 노새를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야 모든 가축을 잃지 않을 것이다."
- 6 그래서 그들은 땅을 나누어 각자 다니기로 했다. 아합은 홀로 한 길을 가고, 오바디야는 홀로 다른 길을 갔다.
- 7 오바디야가 길을 가는데, 엘리야가 그를 만났다. 오바디야가 그를 알아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말했다. "당신이 바로 내 주 엘리야입니까?"
- 8 엘리야가 대답했다. "내가 바로 그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여라. '보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
- 9 오바디야가 말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 하십니까?"
- 10 주님, 내 주의 하느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당신의 주께서 당신을 찾으려고 보낸 나라는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가 여기 없다'고 하면, 그는 그 나라와 민족에 맹세를 시켜 당신을 찾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 11 지금 당신은 '가서 네 주에게 말하여라. 보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하십니다.
- 12 내가 당신을 떠나자마자 주님의 영이 당신을 어디론가 데려갈 것입니다. 내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면,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고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어릴 때부터 주님을 두려워해 왔습니다.
- 13 이자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내가 주님의 예언자 백 명을 오십 명씩 동굴 두 곳에 숨기고 빵과 물로 먹였다는 것을 내 주께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 14 지금 당신은 '가서 네 주에게 말하여라. 보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는 나를 죽일 것입니다.
- 15 엘리야가 말했다.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오늘 그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 16 그러므로 오바디야는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고,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 17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말했다.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사람인가?"
- 18 엘리야가 대답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주님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 19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온 백성을 카멜 산으로 불러 모으고, 바알의 예언자 사백 오십 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사백 명을 불러라. 그들은 이자벨의 상에 함께 먹는 자들이다.
- 20 아합은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명령하여 예언자들을 카멜 산으로 불러 모았다.
- 21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말했다. "너희는 언제까지 두 가지 사이에서 흔들릴 것인가? 주님이 하느님이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 22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했다. "나만이 주님의 예언자로 남아 있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들은 사백 오십 명이다."
- 23 그러므로 두 마리 수소를 한 마리씩 주여라. 너희는 한 마리를 골라 쪼개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아래에 놓지 말고, 나는 다른 수소를 준비하여 나무 위에 놓고 불을 아래에 놓지 않겠다.
- 24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불로 응답하는 자가 곧 하느님이 되게 하자.
- 25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스스로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먼저 준비하라. 너희가 많으니,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그것 밑에 불을 피우지 말라."
- 26 그들은 주어진 송아지를 가져와서 준비하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바알, 우리를 들으소서!"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소리도 없고, 대답하는 자도 없었다. 그들은 만든 제단 주위를 뛰어다녔다.
- 27 낮이 지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했다. "소리 질러라! 그는 신이니라. 어쩌면 깊이 생각에 잠겨 있거나, 어딘가

로 떠났거나, 여행 중이거나, 어쩌면 잠들어 있어서 깨워야 할지도 모른다."

²⁸ 그들은 소리 질렀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베어 피가 몸에 흘러넘치도록 하였다.

²⁹ 낮이 지나고, 그들은 저녁 제물의 시간까지 예언하였으나, 소리도 없고, 대답하는 자도 없었으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³⁰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내게 가까이 오라!" 모든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수리하였다.

³¹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 곧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신 열두 지파의 수에 맞춰 돌 열두 개를 가져왔다.

³² 그는 그 돌들로 주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씨 두 되를 담을 수 있을 만큼 깊은 웅덩이를 파냈다.

³³ 그는 나무를 정리하고, 송아지를 조각내어 나무 위에 놓았다. 그는 말했다. "물병 네 개를 채워서 번제와 나무 위에 부어라."

³⁴ 그는 말했다. "두 번 더 하라." 그들이 두 번째로 하였다. 그는 말했다. "세 번째로 하라." 그들이 세 번째로 하였다.

³⁵ 물이 제단 주위를 흘러넘쳤고, 그는 웅덩이까지 물로 채웠다.

³⁶ 저녁 제물의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했다.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 오늘 제가 주님의 종임을,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음을 이스라엘에서 알게 하소서."

³⁷ 주님, 저를 들으소서. 이 백성이 주님, 곧 주님께서 하느님이심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음을 알게 하소서.

³⁸ 그제야 주님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워버리고, 웅덩이의 물까지 말려버렸다.

³⁹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들이 말했다. "주님, 그분이 하느님이십니다! 주님, 그분이 하느님이십니다!"

⁴⁰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붙잡아라. 그들 중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⁴¹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일어나 먹고 마셔라. 비가 많이 내릴 소리가 들린다."

⁴² 아합은 먹고 마시려고 올라갔다. 엘리야는 갈멜 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⁴³ 그는 자기 시종에게 말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⁴⁴ 일곱 번째로 그가 말했다. "보라, 사람의 손만 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다."

⁴⁵ 잠시 후, 하늘은 구름과 바람으로 어두워졌고, 큰 비가 내렸다. 아합은 말을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⁴⁶ 주님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그는 겹옷을 허리에 넣고 아합 앞에서 이스라엘 문까지 달려갔다.

열왕기 상권 19장

- ¹ 아하브는 이자벨에게 엘리야가 모든 일을 어떻게 했고, 칼로 모든 예언자를 죽였는지를 모두 알렸다.
- ² 그러자 이자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했다. "내가 내일 이때쯤 네 생명을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처럼 만들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이처럼 하고 더 많이 하도록 하라!"
- ³ 엘리야가 그 일을 보고는 자기 목숨을 피하여 브엘세바로 도망갔다. 그것은 유다 땅에 속한 곳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시종을 둔 채 혼자 떠났다.
- ⁴ 그는 하루 동안 광야로 들어가서 한 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빼앗아 달라고 간청하며 말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주님,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 ⁵ 그는 대나무 아래에 누워 잠들었다. 그런데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다. "일어나서 먹어라!"
- ⁶ 그가 눈을 떠보니, 그의 머리 옆에 숯불에 구운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 ⁷ 주님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갈 길이 너무 멀다."
- ⁸ 그는 일어나 먹고 마신 뒤, 그 음식의 힘을 받아 사십 일 밤낮 동안 호렙 산, 곧 하느님의 산에 이르렀다.
- ⁹ 그는 거기서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 야영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했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 ¹⁰ 그가 대답했다. "저는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 버리고, 칼로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을 빼앗으려 합니다."
- ¹¹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가서, 주님 앞에서 산 위에 서 있어라."
- ¹² 지진이 지나간 후에 불이 지나갔다. 그러나 주님은 불 안에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후에 조용하고도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 ¹³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는 자기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밖으로 나가 동굴 입구에 서 있었다. 그런데 목소리가 그에게 이르렀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 ¹⁴ 그가 대답했다. "저는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 버리고, 칼로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을 빼앗으려 합니다."
- ¹⁵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네 길을 돌아서 다마스쿠스 광야로 가라. 거기에 도착하면 하사엘을 시리아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 ¹⁶ 니므시의 아들 여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또 아벨 메홀라의 아들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예언자로 삼아라.
- ¹⁷ 하사엘의 칼에서 벗어난 자는 여후가 죽이고, 여후의 칼에서 벗어난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 ¹⁸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서 일만 명을 남겨 두었는데, 그들 중 모든 무릎은 바알에게 꿇지 않았고, 모든 입술은 그를 입맛 추지 않았다.
- ¹⁹ 그는 그곳을 떠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았다. 엘리사는 열두 쌍의 소를 앞에 끌고 밭을 갈고 있었고, 그는 열두 번째로 소를 몰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에게로 다가가서 자기 겹옷을 그에게 덮어주었다.
- ²⁰ 엘리사는 소를 놓아두고 엘리야를 따라 달려가며 말했다. "제가 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그 후에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 ²¹ 그는 엘리야를 따라가던 길을 돌아가서, 소 열두 쌍을 잡아 죽이고, 소를 끄는 기구로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었고, 그들은 먹었다. 그 후 그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를 섬겼다.

열왕기 상권 20장

- 1 아람의 왕 벤하닷이 모든 군대를 모아, 말과 전차를 탄 삼십이 명의 왕들과 함께 올라가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그 도시와 싸웠다.
- 2 그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도시로 사자를 보내어 말했다. "벤하닷이 말한다.
- 3 "네 은과 네 금은 내 것이고,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 심지어 가장 좋은 것들도 내 것이다."
- 4 이스라엘 왕이 대답했다. "내 주, 왕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저는 당신의 것이며, 제가 가진 모든 것도 당신의 것입니다."
- 5 사자들이 다시 와서 말했다. "벤하닷이 말한다. '내가 먼저 네게 보냈을 때, 네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고 했지만,
- 6 내가 내 하인들을 내일 이때쯤 네게 보내서, 네 집과 네 하인들의 집을 뒤지게 하리라. 네 눈에 보이는 것 중 무엇이든 그들이 손에 잡아 가져갈 것이다.'"
- 7 이스라엘 왕이 땅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계획을 품고 있는지 보아라. 그가 내 아내들과 자녀들과 은과 금을 내게 요구했지만, 나는 그를 거절하지 않았다."
- 8 모든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그에게 말했다. "그의 말을 듣지 말고, 동의하지 마라."
- 9 그래서 그는 벤하닷의 사자들에게 말했다. "내 주 왕께 전하라. '처음에 당신이 당신의 종에게 요구한 것은 모두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 10 벤하닷이 그에게 보내어 말했다. "하느님께서 내게 이같이 하시고,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마리아의 흙이 내 뒤를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 한 줌씩도 충분하지 못할지라도."
- 11 이스라엘 왕이 대답했다. "그에게 전하라. '무기 입은 자가 무기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말라.'"
- 12 벤하닷이 술을 마시며, 천막에 앉아 있는 왕들과 함께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하인들에게 말했다. "공격 준비를 하라!" 그래서 그들은 도시를 공격할 준비를 했다.
- 13 보라, 한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까이 와서 말했다. "주님이 말한다. '네가 이 거대한 군대를 보았느냐? 보라, 내가 오늘 이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주님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 14 아합이 말했다. "누가 합니까?"
- 15 그는 지방의 왕자들 중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이백삼십이 명이 되었고,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 모두, 칠천 명을 불러 모았다.
- 16 그들은 정오에 나갔다. 그런데 벤하닷은 천막에서 술에 취해 있었고, 그와 함께 있는 삼십이 명의 왕들도 술에 취해 있었다.
- 17 지방의 왕자들 중 젊은이들이 먼저 나갔다. 벤하닷이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물었다.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온다."
- 18 그가 말했다. "그들이 화평을 위해 나온 것이면, 살아서 잡아라. 또는 전쟁을 위해 나온 것이면, 살아서 잡아라."
- 19 그러므로 지방의 왕자들 중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나왔고, 그들을 따르는 군대도 함께 나왔다.
- 20 그들은 각자 자기의 적을 죽였다. 아람 사람들이 도망쳤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았다. 아람 왕 벤하닷은 말과 기마병과 함께 도망쳤다.
- 21 이스라엘 왕이 나와서 말과 전차를 치고, 아람 사람들을 큰 살육으로 죽였다.
- 22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까이 와서 말했다. "가서 힘을 기르고, 네가 해야 할 일을 계획하여라. 연말에 아람 왕이 네게 대항하여 올라올 것이다."
- 23 아람 왕의 하인들이 그에게 말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니,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분명히 우리가 그들보다 강해질 것입니다."
- 24 이 일을 하여라. 모든 왕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장관들을 두어라.
- 25 너가 잃어버린 군대처럼 군대를 모집하여 말은 말로, 병거는 병거로 대체하라.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리니, 분명히 우리가 그들보다 강할 것이다.

- 26 해가 돌아오자, 벤하닷은 아람 사람들을 모집하고 아펙으로 올라가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였다.
- 27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집되어 식량을 받고 그들에게 나아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 앞에 두 마리의 어린 염소 떼처럼 진을 치고, 아람 사람들은 온 땅을 가득 채웠다.
- 28 하느님의 사람이 다가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람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은 산의 신이지만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 큰 무리를 모두 네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 29 그들은 일곱 날 동안 마주 보고 진을 쳤다. 일곱째 날에 전투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루 동안 아람 사람의 보병 십만 명을 죽였다.
- 30 나머지 자들은 도망하여 아펙의 성으로 들어갔다. 성벽이 남은 이만 칠천 명을 덮쳐 죽였다.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 안의 안방으로 들어갔다.
- 31 그의 하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소서, 우리는 이스라엘 왕가의 왕들이 자비로운 왕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 굶은 베를 입히고 머리에 밧줄을 두르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소서. 아마도 그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 32 그러므로 그들은 몸에 굶은 베를 입히고 머리에 밧줄을 두르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당신의 종 벤하닷이 말하기를, '제발 제 생명을 살려 주소서.'"
- 33 그때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급히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는 당신의 형제 벤하닷입니다."
- 34 벤하닷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내가 돌려주리라. 당신은 다마스쿠스에 길을 내어 당신을 위하여 만들 것이니, 마치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길을 내었듯이." 아합이 말하였다. "나는 이 계약으로 너를 놓아주겠다." 그래서 그는 그와 계약을 맺고 그를 놓아주었다.
- 35 어떤 예언자의 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그의 동료에게 말하였다. "제발 나를 치소서."
- 36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보라, 네가 나를 떠나는 즉시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가 그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다.
- 37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말하였다. "제발 나를 치소서."
- 38 그러므로 예언자는 떠나서 길에서 왕을 기다리며 눈에 두건을 씌웠다.
- 39 왕이 지나가자 그가 왕에게 외쳐 말하였다. "당신의 종이 전장 한가운데로 나갔더니, 보소서, 한 사람이 와서 나에게 한 사람을 데려와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켜라. 만일 그가 잃어버리면, 네 생명이 그의 생명으로 대신하고,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한다.'"
- 40 "당신의 종이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 그가 사라졌습니다."
- 41 그는 급히 두건을 눈에서 벗기니, 이스라엘 왕은 그가 예언자 중 하나임을 알아보았다.
- 42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가 멸망시키기로 정한 사람을 네 손에서 놓아주었으니, 그러므로 네 생명이 그의 생명으로 대신하고, 네 백성이 그의 백성으로 대신할 것이다.'"
- 43 이스라엘 왕은 우울하고 분노한 채 집으로 돌아가 사마리아에 이르렀다.

열왕기 상권 21장

- ¹ 이 일들 후에, 예스레엘 사람 나보트가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전 옆에 있는 예스레엘에 포도원을 가졌다.
- ² 아합이 나보트에게 말했다. "네 포도원을 내게 주어라. 내가 그곳에 채소밭을 만들고 싶은데, 내 집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네게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아니면 네가 좋아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 ³ 나보트가 아합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나를 금하시기를! 내가 내 조상들의 유산을 네게 주지 않겠다."
- ⁴ 아합은 예스레엘 사람 나보트가 자기에게 한 말 때문에 슬프고 분노하여 집으로 들어갔다. 나보트가 말하기를, "내 조상들의 유산을 네게 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빵을 먹지 않았다.
- ⁵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네가 왜 이렇게 슬퍼서 빵을 먹지 않느냐?"
- ⁶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예스레엘 사람 나보트에게 말했지. '네 포도원을 돈으로 내게 주어라. 아니면 네가 좋아한다면, 네게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 그런데 그가 대답하기를,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않겠다.'고 했다."
- ⁷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했다. "네가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지 않느냐? 일어나 빵을 먹고 기분을 풀어라. 내가 네게 예스레엘 사람 나보트의 포도원을 주겠다."
- ⁸ 그녀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그의 인장을 떼어 붙이고, 나보트와 함께 그 도시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그 편지를 보냈다.
- ⁹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보트를 백성들 사이에서 높은 자리에 앉혀라."
- ¹⁰ 그의 앞에 악한 자 두 명을 앉히고, 그들이 그를 향해 증언하게 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주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리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라."
- ¹¹ 그 도시의 사람들, 곧 그 도시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이 편지로 보내어 가르친 대로 행하였다.
- ¹²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보트를 백성들 사이에서 높은 자리에 앉혔다.
- ¹³ 악한 자 두 명이 들어와 그 앞에 앉았다. 그 악한 자들이 백성들 앞에서 나보트를 향해 증언하며 말했다. "나보트가 주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들은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 ¹⁴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세벨에게 보내어 말했다. "나보트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 ¹⁵ 이세벨이 나보트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에게 말했다. "일어나, 나보트 예스레엘 사람의 포도원을 차지하여라. 그가 돈으로 네게 주기를 거부한 그 포도원을. 나보트는 살아 있지 않고 죽었으니."
- ¹⁶ 아합이 나보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보트 예스레엘 사람의 포도원으로 내려가서 그것을 차지하려 일어났다.
- ¹⁷ 주님의 말씀이 티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다.
- ¹⁸ "일어나,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라. 그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다. 보아라, 그는 나보트의 포도원에 내려가서 그것을 차지하려 한다."
- ¹⁹ 너는 그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사람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빼앗았느냐?" 너는 그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개들이 나보트의 피를 핏났던 그 자리에서, 개들이 네 피를 핏할 것이다."
- ²⁰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내 원수를 찾았느냐?"
- ²¹ 보아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를 완전히 쓸어버리며,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집안에서 벽에 소변을 누는 자도, 갇힌 자도, 자유로운 자도 모두 끊어버리겠다.
- ²² 내가 네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만들겠다. 이는 네가 나를 격노하게 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탓이다."
- ²³ 주님께서도 이세벨에 관해 말씀하셨다. "개들이 예스레엘 성벽에서 이세벨을 먹어치울 것이다."
- ²⁴ 아합의 집안에서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하늘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 ²⁵ 아합처럼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팔아넘긴 사람은 없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다.
- ²⁶ 그는 아모리 족속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우상들을 따르며 매우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주님은 그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셨다.
- ²⁷ 아합이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고, 베옷 위에 앉아 슬퍼하며 다녔다.

²⁸ 주님의 말씀이 티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내렸다.

²⁹ "아합이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아라. 그가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으니, 나는 그의 생전에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아들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열왕기 상권 22장

- 1 그들은 삼 년 동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다.
- 2 세 번째 해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왔다.
- 3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라못길라드가 우리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람 왕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지 않는가?"
- 4 그가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너는 나와 함께 라못길라드로 나아가 전쟁에 임하겠느냐?"
- 5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말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묻게 해 주십시오."
- 6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이 예언자들을 불러 모아 약 사백 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라못길라드로 나아가 전쟁에 임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
- 7 그러나 여호사밧이 말했다.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묻게 해 주십시오."
- 8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님께 묻기 위해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다. 임라의 아들 미가야다. 그러나 나는 그를 싫어한다. 그는 내게 좋은 일만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만 예언하기 때문이다."
- 9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이 한 관리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즉시 임라의 아들 미가야를 데려오라."
- 10 이때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각자 자기 왕좌에 앉아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입구의 넓은 곳에 앉아 있었고, 모든 예언자들이 그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다.
- 11 게나아의 아들 스테키아가 철로 뿔을 만들어 말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뿔로 네가 아람 사람들을 쳐서 다 없앨 것이다.'"
- 12 모든 예언자들이 이렇게 예언하며 말했다. "라못길라드로 올라가서 형통하라. 주님이 그 땅을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 13 미가야를 불러 오려 갔던 사자가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모든 예언자들이 한 입으로 왕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처럼 말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십시오."
- 14 미가야가 말했다. "주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말하건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할 것입니다."
- 15 그가 왕에게 이르렀을 때, 왕이 그에게 말했다. "미가야야, 우리가 라못길라드로 나아가 전쟁에 임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
- 16 왕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네게 몇 번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만 말하라고 맹세하게 해야 하느냐?"
- 17 그가 말했다. "내가 이스라엘이 산 위에 양처럼 흩어져, 목자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주인이 없다. 각자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 18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만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만 예언한다고."
- 19 미가야가 말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주님이 자기 왕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있는 것을 보았다."
- 20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합을 유혹하여 그가 라못길라드로 올라가서 거기서 쓰러지게 할 자가 누구냐?" 한 이는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이는 저렇게 말했다.
- 21 한 영이 나와서 주님 앞에 서서 말했다. "내가 그를 유혹하겠다."
- 22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어떻게 하겠느냐?"
- 23 이제 보라, 주님이 이 모든 네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 영을 넣으셨다. 주님이 너에게 나쁜 일을 예언하셨다.
- 24 그러자 게나아의 아들 스테키아가 가까이 나와 미가야의 뺨을 치며 말했다. "주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서 네게 말하려 간 길이 어디냐?"
- 25 미가야가 말했다. "보아라, 그날에 네가 숨으려고 안방에 들어갈 때, 네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 26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미가야를 데려가서 성의 총독 아몬과 왕의 아들 요아스에게로 보내라."
- 27 "왕이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고통의 빵과 고통의 물로 먹여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 28 미가야가 말했다. "네가 평안히 돌아온다면, 주님은 나를 통해 말하지 않으셨다." 그는 말했다. "모든 백성들아, 들어라!"
- 29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라뭇길르앗으로 올라갔다.
- 30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복장을 갈아입고 전투에 나가겠고, 너는 왕복을 입어라." 이스라엘 왕은 복장을 갈아입고 전투에 나갔다.
- 31 아람 왕은 자기 병거 기병 장관 삼십이 명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상대하라."
- 32 병거 기병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말했다. "분명히 그가 이스라엘 왕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공격하러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외쳤다.
- 33 병거 기병 장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는 그를 쫓는 것을 멈추고 돌아섰다.
- 34 어떤 사람이 무작위로 활을 쏘아 이스라엘 왕의 갑옷 틈새를 맞혔다. 그래서 그는 병거 기사에게 말했다. "돌아서 나를 전투에서 빼내라. 나는 중상을 입었다."
- 35 그날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다. 왕은 병거에 기대어 아람 사람을 향해 서 있었고, 저녁에 죽었다. 피가 상처에서 병거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 36 해가 지는 소리가 군대 전체에 퍼졌다. "모든 자, 각자 자기 도시로, 각자 자기 고향으로!"
- 37 이에 왕이 죽었고, 사마리아로 옮겨져 사마리아에서 장사지냈다.
- 38 사마리아의 연못가에서 병거를 씻었고, 창녀들이 몸을 씻던 곳에서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 39 아합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그가 지은 상아 집과 그가 건설한 모든 성읍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 40 아합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41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네 번째 해에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 42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삼십다섯 세였고, 예루살렘에서 스물다섯 해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실히의 딸 아수바였다.
- 43 그는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을 따랐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눈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 그러나 높은 곳들은 제거되지 않았다. 백성들은 여전히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 44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화평을 맺었다.
- 45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보인 힘과 그가 싸운 일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 46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 있던 남창들을 그는 땅에서 몰아냈다.
- 47 예돔에는 왕이 없었고, 총독이 다스렸다.
- 48 여호사밧은 오빌로 금을 구하려고 타르시스 배를 만들었으나, 배가 에시온게베르에서 좌초되어 가지 못했다.
- 49 그러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배에 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호사밧은 허락하지 않았다.
- 50 여호사밧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51 유다 왕 여호사밧의 열일곱째 해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여 이스라엘에서 두 해 동안 왕으로 재위하였다.
- 52 그는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고,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 그리고 이스라엘을 최악에 빠뜨린 네바트의 아들 예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 53 그는 바알을 섬기고 그를 숭배하며, 아버지가 한 모든 방식으로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격노하게 하였다.

열왕기 하권 | 2 Kings

열왕기 하권 1장

- ¹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에 반역하였다.
- ² 아하즈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상층 방의 틀을 통해 떨어져 병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말했다. "가서 에크론의 신 바알 세불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것인가?"
- ³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릿시 사람 엘리야에게 말했다. "일어나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러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에 하느님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 세불에게 물어보러 가는가?'"
- ⁴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한다.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엘리야는 떠났다.
- ⁵ 사자들이 그에게 돌아왔고,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왜 너희는 돌아왔는가?"
- ⁶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한 사람이 우리를 만나러 와서 우리에게 말했다. '가서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에 하느님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 세불에게 물어보러 가는가?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 ⁷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를 만나서 이 말을 전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 ⁸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그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두른 사람입니다."
- ⁹ 그러자 왕은 오십 명을 거느린 장관을 그에게 보내었다. 그가 올라가서 보니, 그가 언덕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그가 그에게 말했다. "하느님의 사람아, 왕이 말했다. '내려오라!'"
- ¹⁰ 엘리야가 오십 명을 거느린 장관에게 대답했다.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네 오십 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오십 명을 태워버렸다.
- ¹¹ 왕은 또 다른 오십 명을 거느린 장관을 그에게 보냈다. 그가 그에게 말했다. "하느님의 사람아, 왕이 말했다. '빨리 내려오라!'"
- ¹²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네 오십 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하느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오십 명을 태워버렸다.
- ¹³ 왕은 세 번째 오십 명을 거느린 장관을 보냈다. 세 번째 장관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며 그에게 말했다. "하느님의 사람아, 제 생명과 이 오십 명의 종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소서."
- ¹⁴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전 두 오십 명의 장관과 그들의 오십 명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생명을 귀하게 여기소서."
- ¹⁵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그와 함께 내려가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 ¹⁶ 그가 그에게 말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에크론의 신 바알 세불에게 물어보려고 사자를 보낸 것은, 이스라엘에 그의 말씀을 묻기 위한 하느님이 없기 때문인가?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 ¹⁷ 그러므로 그는 엘리야가 말한 주님의 말씀대로 죽었다.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두 번째 해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 ¹⁸ 아하즈야가 행한 나머지 일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열왕기 하권 2장

- 1 주님이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실 때, 엘리야는 길갈에서 엘리사와 함께 떠났다.
- 2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라. 주님이 벳엘까지 나를 보내셨다."
- 3 벳엘에 있던 예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말했다. "당신은 오늘 주님이 당신의 스승을 당신 위에서 데려가실 줄 알고 있습니까?"
- 4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다. "엘리사, 여기서 기다려라. 주님이 여리고까지 나를 보내셨다."
- 5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은 오늘 주님이 당신의 스승을 당신 위에서 데려가실 줄 알고 있습니까?"
- 6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라. 주님이 요단강까지 나를 보내셨다."
- 7 예언자들의 아들들 중 오십 명이 나와서 멀리서 그들을 마주 보고 서 있었고, 둘 다 요단강 가에 서 있었다.
- 8 엘리야가 자신의 겹옷을 말아서 물을 치니,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둘 다 마른 땅을 건너갔다.
- 9 건너가고 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서 떠나기 전에,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요?" 엘리사가 말했다. "제가 당신의 영을 두 배로 받게 해주십시오."
- 10 그가 말했다. "너는 어려운 일을 청했다. 네가 내가 나에게서 떠날 때 나를 보거든,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보지 못하면, 그대로 되지 않으리라."
- 11 그들이 계속 가며 말을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불의 병거와 불의 말들이 그들을 갈라놓았고,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 12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외쳤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대여!"
- 13 그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겹옷을 주워 들고 돌아가서 요단강 기슭에 서 있었다.
- 14 그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겹옷을 집어 들고 물을 치며 말했다. "엘리야의 하느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가 물을 치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졌고, 엘리사가 건너갔다.
- 15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들의 아들들이 그를 마주 보고 보고 말했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무르고 있다." 그들은 그를 맞이하러 나와서 땅에 머리를 숙였다.
- 16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의 하인들 중에 오십 명의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서 당신의 스승을 찾아주십시오. 혹시 주님의 영이 그를 데려가서 어떤 산이나 골짜기에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 17 그들이 그를 꾸짖어 부끄럽게 만들자, 그가 말했다. "보내라."
- 18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는 여리고에 머물고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이미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 19 그 도시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이 도시의 위치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물은 나쁘고,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 20 그가 말했다. "새로운 항아리를 가져오고, 그 안에 소금을 넣어라." 그들이 그것을 그에게 가져왔다.
- 21 그는 물의 샘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안에 뿌리며 말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들을 고쳤다. 이곳에서 더 이상 죽음이나 열매 없는 땅이 없으리라.'"
- 22 그러므로 그 물들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오늘날까지 고쳐졌다.
- 23 그는 그곳에서 벳엘로 올라갔다. 그가 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을 때, 도시에서 몇 명의 젊은이들이 나와서 그를 조롱하며 말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 24 그는 뒤를 돌아보며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렸다. 그러자 두 마리 암곰이 숲에서 나와서 그 젊은이들 사십이 명을 물어뜯었다.
- 25 그는 거기서 갈멜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열왕기 하권 3장

- 1 아합의 아들 요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의 열여덟째 해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여 열두 해를 다스렸다.
- 2 그는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했으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돌기둥을 치워버렸다.
- 3 그러나 그는 느바트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죄들을 계속 지켰다. 그는 그것들에서 떠나지 않았다.
- 4 모압 왕 메사가 양을 기르는 사람이었고,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 양 백만 마리와 수양 백만 마리의 털을 바쳤다.
- 5 아합이 죽은 후,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반역했다.
- 6 그때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모두 동원했다.
- 7 그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며 말했다. "모압 왕이 나에게 반역했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모압과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 8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했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합니까?" 요람이 대답했다. "에돔 광야의 길로 올라갑시다."
- 9 이스라엘 왕은 유다 왕과 에돔 왕과 함께 일곱 날 동안 굶어진 길을 행군했다. 군대와 그 뒤를 따르는 짐승들에게 물이 없었다.
- 10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아, 주님이 이 세 왕을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셨구나!"
- 11 그러나 여호사밧이 말했다. "여기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를 통해 주님께 물어볼 수 있을까요?"
- 12 여호사밧이 말했다. "주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갔다.
- 13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예언자들과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 가십시오."
- 14 엘리사가 말했다. "내가 서 있는 주님,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말하건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을 보지도, 당신을 바라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 15 "이제 나에게 음악가를 불러오십시오." 음악가가 연주할 때, 주님의 손이 그에게 임했다.
- 16 그가 말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에 웅덩이들을 가득 채우라.'"
- 17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나, 이 골짜기는 물로 가득 차고, 너희와 너희 가족과 다른 모든 짐승들이 마실 것이다.'"
- 18 이것은 주님의 눈에는 쉬운 일이다. 그는 또한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 19 너는 모든 요새 도시와 모든 아름다운 도시를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며, 모든 샘물을 막고, 모든 좋은 땅을 돌로 망가뜨릴 것이다."
- 20 아침이 되어, 제물을 바치는 시간쯤 되었을 때,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왔고, 그 땅이 물로 가득 찼다.
- 21 모압 사람들이 왕들이 자신들을 치러 올라온 것을 듣고, 무기 착용할 수 있는 모든 자, 젊은이와 늙은이가 모여 국경에서 있었다.
- 22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물 위에 비치자,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 앞의 물을 피처럼 붉게 보았다.
- 23 그들이 말했다. "이것은 피다. 왕들이 분명히 멸망했고, 서로를 치고 죽었구나. 이제 모압아, 노략하러 가자!"
- 24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모압 사람들을 쳤고, 그들은 그들 앞에서 도망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땅으로 나아가 모압 사람들을 공격했다.
- 25 그들은 도시들을 공격하여, 좋은 땅마다 각자 돌을 던져 메웠다. 그들은 모든 샘물의 물을 막고 좋은 나무들을 모두 베어 버렸다. 결국 기르하레셋에는 돌들만 남아 있었고, 매석을 쏘는 자들은 그 도시를 둘러싸며 공격하였다.
- 26 모압 왕이 전투가 자신에게 너무 격렬하다는 것을 보고, 칼을 든 일천 명을 데리고 에돔 왕에게 돌파하려 했으나, 그들은 할 수 없었다.
- 27 그러자 그는 자기 뒤를 잇게 될 맏아들을 데리고 성벽 위에서 번제로 바쳤다. 이에 이스라엘을 향해 큰 분노가 일어났고,

그들은 그를 떠나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열왕기 하권 4장

- 1 어떤 여자가 예언자들의 아들들의 아내 중 한 사람으로, 엘리사에게 와서 외쳤다. "당신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은 아시다시피, 제 남편은 주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빗쟁이가 와서 제 아들 둘을 종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 2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말해 보아라."
- 3 그가 말했다. "가서, 네 이웃들 모두에게 빈 그릇을 빌려라. 몇 개만 빌리지 말고."
- 4 들어가서 너와 네 아들들을 문 안에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가득 찬 그릇들은 곁에 두어라."
- 5 그녀는 그를 떠나서 들어가, 자신과 아들들을 문 안에 닫았다. 그들이 그릇들을 그녀에게 가져왔고, 그녀는 기름을 부었다.
- 6 그릇들이 다 가득 찼을 때, 그녀가 아들에게 말했다. "다른 그릇 하나를 가져다줘."
- 7 그녀는 가서 하느님의 사람에게 가서 말했다. 그가 말했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빛을 값아라.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아들들이 살아라."
- 8 어느 날 엘리사가 손넬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유명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그에게 빵을 먹게 해주었다. 그래서 그가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 들러 빵을 먹었다.
- 9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은 우리를 지나다니는 하느님의 성인입니다."
- 10 우리가 지붕에 작은 방을 마련해 주자.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불대를 갖춰 놓자. 그가 우리에게 왔을 때 거기서 머무를 수 있게 하자."
- 11 어느 날 그가 그곳에 와서 그 방에 들어가 거기서 누웠다.
- 12 그가 자기 하인 게하지에게 말했다. "이 손넬 여자를 불러라." 그가 그녀를 불렀더니, 그녀가 그 앞에 서 있었다.
- 13 그가 그에게 말했다. "그녀에게 말해라. '보라, 너는 이 모든 정성으로 우리를 돌보았다.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네 이름을 청원해 주어야 할까?'"
- 14 그가 말했다. "그러면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
- 15 그가 말했다. "그녀를 불러라." 그가 그녀를 불렀더니, 그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 16 그가 말했다. "내년 이맘때쯤,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 17 그 여자는 임신하여,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시기에 아들을 낳았다.
- 18 아이가 자라서, 어느 날 그가 수확하는 자들에게로 아버지에게 갔다.
- 19 그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버지가 하인에게 말했다. "그를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 20 그가 그를 데려다가 어머니에게 넘겼더니, 그는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 낮까지 있었고, 그 후에 죽었다.
- 21 그녀는 올라가서 그 아이를 하느님의 사람의 침대 위에 눕히고,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다.
- 22 그녀가 남편을 불러서 말했다. "제발, 제게 하인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 주십시오. 제가 하느님의 사람에게 달려가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 23 그가 말했다. "오늘은 왜 그에게 가려는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느냐?"
- 24 그녀는 나귀에 안장을 얹고 하인에게 말했다. "재촉하여 가라! 내가 네게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는 천천히 가지 말아라."
- 25 그녀는 떠나서 카멜 산에 있는 하느님의 사람에게 갔다. 하느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녀를 보고 그의 종 게하지에게 말했다. "보아라, 쉬는 여자다."
- 26 "지금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서, '네가 잘 지내느냐? 네 남편이 잘 지내느냐? 네 아이가 잘 지내느냐?' 하고 물어보아라." 그녀가 대답했다. "잘 지냅니다."
- 27 그녀가 산에 있는 하느님의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발을 붙잡았다. 게하지가 가까이 나아가 그녀를 밀어내려 했으나, 하느님의 사람이 말했다. "그녀를 놓아라. 그녀의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어한다.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숨기셨고, 내게 알려주지 않으셨다."
- 28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주님? 내가 '나를 속이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 29 그러자 그가 게하지에게 말했다. "네 겹옷을 허리에 차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누구든지 너에게 인사해도 대답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 30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당신의 생명을 두고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 31 게하지가 그들 앞서 나가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숨소리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그를 만나 말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 32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어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 33 그는 들어가서 두 사람을 함께 문 안에 가두고, 주님께 기도했다.
- 34 그는 위로 올라가 아이 위에 몸을 뉘었고, 입을 아이의 입에, 눈을 아이의 눈에,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아이 위에 몸을 펴 놓았다. 그러자 아이의 살이 뜨거워졌다.
- 35 그는 다시 돌아와서 집 안을 한 번 왔다 갔다 하더니, 다시 올라가 아이 위에 몸을 펴 놓았다. 그러자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
- 36 그가 게하지를 불러서 말했다. "이 쉬는 여자를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가 그녀를 불러들였다.
- 37 그녀가 들어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땅에 머리를 숙이고, 아들을 끌어안고 밖으로 나갔다.
- 38 엘리사가 길갈로 다시 돌아왔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예언자들의 아들들이 그 앞에 앉아 있었다. 그가 그의 종에게 말했다. "큰 뱀비를 가져와서, 예언자들의 아들들을 위해 국을 끓여라."
- 39 한 사람이 들로 나가 풀을 캐다가 야생 포도나무를 보고, 그것에서 한 주먹 가득 야생 호박을 캐서 와서 국 뱀비에 썰어 넣었다. 그들은 그것들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 40 그러자 그들이 사람들에게 국을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국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외쳤다. "하느님의 사람, 이 뱀비에 죽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지 못했다.
- 41 그러나 그가 말했다. "그러면 밀가루를 가져오너라." 그가 그것을 뱀비에 넣고 말했다. "사람들에게 내어라. 그들이 먹게 하여라." 뱀비 안에는 해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 42 바알 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이 하느님의 사람에게 첫 열매의 빵을 가져왔다. 그의 가방에는 보리 빵 스무 개와 익지 않은 곡식의 이삭이 들어 있었다. 엘리사가 말했다.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여라."
- 43 그의 종이 말했다. "이것을 백 명 앞에 놓으라고요?"
- 44 그가 그것을 그들 앞에 놓으니, 그들이 먹고 남기도 했다. 이는 주님의 말씀대로였다.

열왕기 하권 5장

- 1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주인 앞에서 위대한 인물이요 존경받는 자였는데, 주님께서 그를 통해 아람에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용감한 전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 2 아람 사람들이 무리지어 나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소녀를 사로잡아 왔고,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겼다.
- 3 그녀가 여주인에게 말했다. "제가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에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 4 누군가 들어가서 주인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 5 아람 왕이 말했다. "가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낼 것이다."
- 6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하며 말했다. "이 편지가 당신에게 도달할 때, 보십시오. 내가 나아만, 내 하인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그의 나병을 고쳐 주십시오."
- 7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읽고 옷을 찢으며 말했다. "내가 하느님이라 죽이고 살리는 자인지, 이 사람이 나에게 나병을 고치라고 보낸단 말인가? 그러나 그가 나와 다투려는 의도를 잘 살펴보라."
- 8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보내며 말했다.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를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9 나아만은 말과 병거를 끌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 10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 말했다. "요르단 강에 일곱 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것이다."
- 11 그러나 나아만은 화가 나서 돌아서며 말했다. "내가 생각하기를, 그는 분명히 나에게 나와 서서 주님 그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 나병 환자를 고쳐줄 줄 알았다."
- 12 "다마스쿠스의 아바나와 파르파르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않은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는 화를 내며 돌아섰다.
- 13 그의 하인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 예언자가 큰 일을 하라고 하셨다면, 당신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당신에게 '씻고 깨끗해지라'고 말했을 때, 더욱더 그 말을 들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 14 그는 내려가서 하느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처럼 회복되어 깨끗해졌다.
- 15 그는 하느님의 사람과 그의 모든 종들을 데리고 돌아와 그 앞에 서서 말했다. "이제 저는 온 땅에 하느님이 없고 오직 이스라엘에만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이제 제 하인의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 16 그러나 그는 말했다. "내가 서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 17 나아만이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제 하인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두 나귀가 메고 갈 수 있는 흙을 주십시오. 이로부터 제 하인은 다른 신들에게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드리겠습니다."
- 18 그러나 이 일에 대해 주님께서 제 하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주인이 리몬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할 때, 그가 제 손을 의지하고, 제가 리몬의 집에서 절할 때, 주님께서 제 하인의 이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 19 그가 그에게 말했다. "평안히 가라." 그래서 그는 그에게서 조금 떨어져 떠났다.
- 20 그러나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의 하인 게하시는 말했다. "보십시오. 제 주인은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을 아껴서 그가 가져온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제가 그를 쫓아가서 무언가를 받아오겠습니다."
- 21 그래서 게하시는 나아만을 쫓아갔다. 나아만이 뒤에서 달려오는 이를 보고 병거에서 내려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모든 일이 잘되었습니까?"
- 22 그가 말했다. "모든 일이 잘되었습니다. 제 주인이 저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두 젊은이가 예언자의 아들들로서 내게 왔습니다. 은 한 탈란트와 옷 두 벌을 주십시오.'"
- 23 나아만이 말했다. "두 탈란트를 받아주십시오." 그가 그를 재촉하자, 나아만은 은 두 탈란트를 두 주머니에 담고 옷 두 벌을 함께 싸서 그의 두 하인에게 맡기고, 그들이 그 앞에서 나르게 했다.
- 24 그가 언덕에 도착하자, 그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집에 보관했다. 그 후 그는 그 남자들을 보내어 떠나게 했다.

²⁵ 그는 들어가서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게하지?"

²⁶ 그가 그에게 말했다.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지금이 돈과 옷과 올리브나무와 포도원과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을 받을 때냐?"

²⁷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달라붙을 것이다."

열왕기 하권 6장

- 1 예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당신과 함께 모임을 갖는 곳이 우리에게 너무 좁습니다."
- 2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각자 거기서 들보 하나를 잘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십시오."
- 3 한 사람이 말했다. "제 종들과 함께 가주십시오."
- 4 그래서 그는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 5 그런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베고 있을 때, 도끼 머리가 물에 빠졌다. 그가 외쳐 말했다. "아, 제 주님! 그것은 빌린 것이었습니다."
- 6 하느님의 사람은 물어보았다. "그것이 어디에 빠졌습니까?" 그가 그 장소를 가리켰다. 그는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 그곳에 던지니, 철이 떠올랐다.
- 7 그가 말했다. "잡아라." 그래서 그가 손을 뻗어 그것을 잡았다.
- 8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신하들에게 상의하며 말했다. "내 진영은 저기 저곳에 있을 것이다."
- 9 하느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며 말했다. "아람 사람들이 그곳으로 내려오고 있으니, 그곳을 지나지 마십시오."
- 10 이스라엘 왕은 하느님의 사람이 알려 준 그 장소에 보내 경고를 하였고, 그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곳에서 자신을 보호했다.
- 11 아람 왕은 이 일에 매우 마음이 불안해졌다. 그는 신하들을 불러 말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을 돕는 우리 중 누가 있는지 너희가 알려 주지 못하겠느냐?"
- 12 그의 신하 한 사람이 말했다. "아닙니다, 제 주님, 왕이여.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예언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말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 줍니다."
- 13 그가 말했다. "가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아라. 내가 보내서 그를 잡아오겠다."
- 14 그래서 그는 말과 전차, 큰 군대를 그곳에 보냈다. 그들이 밤에 와서 그 도시를 둘러쌌다.
- 15 하느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가 보니, 말과 전차로 가득한 군대가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의 종이 그에게 말했다. "아, 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16 그가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보다 더 많다."
- 17 엘리사가 기도하며 말했다. "주님, 제발 그의 눈을 열어 보이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 젊은이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가 보니, 엘리사 주위에 불의 말과 전차로 산이 가득했다.
- 18 그들이 그에게 내려올 때,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며 말했다. "제발 이 백성에게 눈멀게 하소서."
- 19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 길이 아니고, 이 도시도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다." 그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갔다.
- 20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말했다. "주님,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 보이게 하소서."
- 21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여, 내가 그들을 치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치겠습니까?"
- 22 그가 대답했다. "너는 그들을 치지 마라. 네가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네가 치겠느냐? 그들 앞에 빵과 물을 내어 놓아, 그들이 먹고 마신 후에 그들의 주인에게 가게 하라."
- 23 그는 그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이 먹고 마신 후, 그는 그들을 보내어 그들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였다. 그 때부터 아람의 무리가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않았다.
- 24 이 일 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모든 군대를 모아 올라가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 25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들었다. 보라, 그들이 성을 포위하여 나귀 머리 하나를 은 팔십 세겔에 팔고, 비둘기 배설물의 사분의 일까지도 은 다섯 세겔에 팔았다.
- 26 이스라엘 왕이 성벽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한 여자가 그에게 외쳐 말했다. "제군님, 왕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 27 그가 말했다. "주님이 너를 도우지 않으신다면, 내가 어디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타작마당에서냐, 포도주 틀에서냐?"

"

²⁸ 그러자 왕이 그 여자에게 물었다. "네가 무슨 고통을 겪고 있느냐?"

²⁹ 내 아들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이튿날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십시오. 우리가 먹겠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숨겨버렸습니다.

³⁰ 왕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옷을 찢었다. 그는 성벽을 지나가고 있었고, 백성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보라, 그의 몸에는 자비를 나타내는 베옷이 입혀져 있었다.

³¹ 그러자 그가 말했다. "하느님이 나에게 이같이 하시고, 더욱 더 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에리사, 샤파트의 아들이 오늘날 머리를 그 몸에 그대로 두면 말입니다."

³² 그러나 에리사는 집에 앉아 있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었다. 왕은 그 앞에서 한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사자가 그에게 도착하기 전에, 그는 장로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보낸 것을 보느냐? 보라, 사자가 오면 문을 닫고, 그를 문 밖에 막아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 들리지 않느냐?"

³³ 그가 그들과 말을 나누고 있을 때, 보라, 사자가 그에게 내려왔다. 그가 말했다. "보라, 이 재앙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어찌하여 주님을 더 기다리랴?"

열왕기 하권 7장

- ¹ 엘리사가 말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일 이때쯤,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아가 한 세겔에, 보리 두 세아가 한 세겔에 팔릴 것이다."
- ² 그때 왕이 기대던 장군이 하느님의 사람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보라, 하느님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다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 ³ 성문 입구에 나병 환자 네 명이 있었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기만 할 이유가 무엇인가?"
- ⁴ 우리가 '성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면, 성안에는 기근이 있으니 거기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역시 죽는다. 그러니 이제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고, 죽이면 죽는 것뿐이다.
- ⁵ 그들이 저녁 흐릿한 빛 속에 일어나 아람 진영으로 갔다. 그들이 아람 진영의 바깥쪽에 이르렀을 때, 아무도 없었다.
- ⁶ 주님께서 아람 군대가 병거의 소리와 말의 소리, 큰 군대의 소란을 듣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에게 말했다. "보라, 이스라엘 왕이 히타이트 왕들과 이집트 왕들을 고용하여 우리를 공격하게 했다."
- ⁷ 그래서 그들은 저녁 흐릿한 빛 속에 일어나 도망쳤고, 자기들의 천막과 말과 나귀와 진영을 그대로 두고 생명을 부지하려 도망쳤다.
- ⁸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의 바깥쪽에 이르러 한 천막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옷을 가져다가 숨겼다. 그 후 다시 돌아가 다른 천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물건을 가져와 숨겼다.
- ⁹ 그들이 서로에게 말했다. "우리는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는 침묵하고 있다. 아침 빛이 오기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를 덮칠 것이다. 그러니 이제 가서 왕의 집안에 알려라."
- ¹⁰ 그들이 가서 성문 지키는 자들을 불러서 말했다. "우리가 아람 진영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고, 사람의 목소리조차 없었습니다. 말은 매여 있고, 나귀도 매여 있으며, 천막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 ¹¹ 그러자 성문 지키는 자들이 외쳐서 왕의 집안에 그 소식을 전했다.
- ¹² 왕이 밤에 일어나 신하들에게 말했다. "내가 아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들은 우리가 굶주렸음을 알고, 진영에서 나와 들에 숨었으니, '성에서 나올 때 그들을 생포하여 성안으로 들어가자'고 말하고 있을 것이다."
- ¹³ 그의 한 신하가 대답했다. "제발, 성안에 남아 있는 말 다섯 마리를 몇 명이 타고 가게 하소서. 보라, 그것들은 성안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와 같고, 소멸된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와 같으니, 보내어 보게 하소서."
- ¹⁴ 그래서 그들은 말 두 마리를 끈 병거 두 대를 가져가서 왕이 아람 군대를 향해 보냈다. 왕이 말했다. "가서 보아라."
- ¹⁵ 그들이 그들을 따라 요단강까지 갔다. 보라, 모든 길이 아람 사람들이 급히 도망치며 버린 옷과 기구로 가득했다. 사신들이 돌아와 왕에게 보고했다.
- ¹⁶ 사람들이 나가 아람 진영을 약탈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세아가 한 세겔에, 보리 두 세아가 한 세겔에 팔렸다.
- ¹⁷ 왕은 자신이 기대던 장군을 성문을 맡게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고, 그는 하느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죽었는데, 그 말은 왕이 그에게 내려올 때 한 말이었다.
- ¹⁸ 하느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대로 일어났다. 그가 말하기를, "내일 이때쯤,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세아가 한 세겔에, 고운 밀가루 한 세아가 한 세겔에 팔릴 것이다."
- ¹⁹ 그 장군이 하느님의 사람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보라, 하느님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다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느님의 사람이 말했다. "보라, 네가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 ²⁰ 그 일이 그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사람들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기 때문이다.

열왕기 하권 8장

- 1 엘리사가 자신이 죽음에서 되살린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일어나서 너와 네 집안을 이끌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곳에 머물러라. 주님이 기근을 불러일으키셨다. 이 기근이 그 땅에 일곱 해 동안 올 것이다."
- 2 그 여자는 일어나 하느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였다. 그녀는 집안을 이끌고 블레셋 땅에 머물며 일곱 해를 보냈다.
- 3 일곱 해가 끝나자 그 여자는 블레셋 땅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집과 땅을 청하였다.
- 4 그때 왕은 하느님의 사람의 시종 게하지와 대화하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엘리사가 한 위대한 일들을 모두 내게 말해 주 오."
- 5 그가 죽은 자를 되살린 일을 왕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가 죽음에서 되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왕에게 자신의 집과 땅을 청하였다. 게하지가 말했다. "주님, 왕이여,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이며, 이 아이는 엘리사가 죽음에서 되살린 그 아이입니다."
- 6 왕이 그 여자에게 물으니, 그녀가 말하였다. 그러자 왕은 한 관리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그녀의 모든 것을 되돌려 주고, 그녀가 땅을 떠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밭의 모든 수확물도 되돌려 주어라."
- 7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이르렀다.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어 있었다. 그에게 알려졌다. "하느님의 사람이 여기에 왔다."
- 8 왕이 하사엘에게 말했다. "네 손에 선물을 들고 나아가 하느님의 사람을 만나라. 주님께 물어보아라.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 9 하사엘은 그를 만나러 가서 다마스쿠스의 모든 좋은 물건을 들고, 사십 마리의 낙타에 짐을 싣고 와서 그 앞에 서서 말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 10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가서 그에게 말하라. '네가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보여 주신 바에 의하면, 그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 11 그는 그를 굳게 바라보았고, 그가 부끄러워할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 후 하느님의 사람이 울었다.
- 12 하사엘이 말했다. "주님, 왜 울고 계십니까?"
- 13 하사엘이 말했다. "저는 개 같은 종에 불과한데, 어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주님이 내게 보여 주신 바에 의하면,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 14 그는 엘리사에게서 떠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 주인이 그에게 물었다. "엘리사가 네게 무엇이라 말했느냐?"
- 15 다음 날, 그는 두꺼운 천을 가져와 물에 적신 후 왕의 얼굴에 덮어놓아서 왕을 죽였다. 그 후 하사엘이 왕위에 올랐다.
- 16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의 다섯 번째 해, 유다 왕 여호사밋이 그때 왕이었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밋의 아들 요람이 왕위에 올랐다.
- 17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삼십이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팔 년을 다스렸다.
- 18 그는 아합의 집과 같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으며, 아합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는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 19 그러나 주님은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그에게 약속하여,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 20 그 시대에 에돔은 유다의 손에서 벗어나 반역하여 스스로 왕을 세웠다.
- 21 요람은 자이르로 건너가, 모든 전차를 데리고 갔다. 그는 밤에 일어나 전차 장관들과 함께 자신을 둘러싼 에돔 사람들을 치고, 백성은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 22 그러므로 에돔은 오늘날까지 유다의 손에서 벗어나 반역하였다. 그때 리브나도 함께 반역하였다.
- 23 요람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 24 요람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25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통치한 열두 해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즈야가 왕위에 올랐다.
- 26 아하즈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는 이십이 살이었으며, 예루살렘에서 일 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이스라엘 왕 옴리의 딸 아달리아였다.

- ²⁷ 그는 아합의 집의 길을 따르며 아합의 집처럼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였기 때문이다.
- ²⁸ 그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라못길르앗에서 시리아의 왕 하사엘과 싸우러 갔고, 시리아인들이 요람을 상처 입혔다.
- ²⁹ 왕 요람은 시리아인들이 라못길르앗에서 그에게 입힌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 예스레엘로 돌아갔다.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즈야는 요람, 곧 아합의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예스레엘로 내려가 그를 보러 갔다.

열왕기 하권 9장

- 1 예언자 엘리사가 예언자들의 아들 중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했다.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이 기름 병을 손에 들고 라모트길라드로 가라."
- 2 너는 거기 도착하면, 님시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여후를 찾아내어 그의 형들 사이에서 일으켜 세우고, 안방으로 데려가라.
- 3 그리고 그 기름 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라. 그리고 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었다." 그런 다음 문을 열고 도망쳐라. 아무도 기다리지 말라.
- 4 그러므로 그 젊은이, 곧 젊은 예언자가 라모트길라드로 갔다.
- 5 그가 도착하자, 보라, 군대의 장관들이 앉아 있었다. 그가 말했다. "장관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씀이 있다."
- 6 그가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주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었다."
- 7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쳐서, 내가 내 종 예언자들과 주님의 모든 종들의 피를 이세벨의 손에서 갚게 하리라.
- 8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할 것이다. 내가 아합의 집에서 벽에 소변을 누는 자, 곧 갇힌 자도, 자유로운 자도 모두 끊어버리리라.
- 9 내가 아합의 집을 느바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만들리라.
- 10 이세벨은 이스라엘 땅에서 개들이 그의 시체를 먹을 것이며, 그녀를 장사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는 문을 열고 도망쳤다.
- 11 여후가 그의 주인의 하인들에게 나왔을 때, 한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모두 잘 되었습니까? 이 미친 자가 왜 당신에게 왔습니까?"
- 12 그들이 말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말해보세요."
- 13 그러자 그들은 서둘러 각자 자기 겹옷을 벗어 계단 꼭대기에 펼치고, 나팔을 불며 말했다. "여후가 왕이다."
- 14 그러므로 님시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여후가 요람을 반역하였다.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느라 라모트길라드를 지키고 있었고, 그와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있었다.)
- 15 그러나 왕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여후가 말했다. "만약 이것이 너희의 뜻이라면, 아무도 도시 밖으로 나가서 이스라엘에 알리지 못하게 하라."
- 16 그러므로 여후는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서, 요람이 거기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유다 왕 아하시야가 요람을 보러 내려왔다.
- 17 이스라엘의 탑에 파수꾼이 서 있었는데, 여후가 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나는 무리가 보입니다."
- 18 그래서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그를 맞이하여 말했다. "왕이 말씀하십니다. 평화입니까?"
- 19 그러자 그는 또 다른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렀다. "왕이 말씀하십니다. 평화입니까?"
- 20 파수꾼이 말했다. "그가 그들에게 다가왔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의 말달리기는 님시의 아들 여후의 말달리기와 같습니다. 그는 격렬하게 달립니다."
- 21 요람이 말했다. "준비해라!"
- 22 요람이 여후를 보고 말했다. "여후, 평화입니까?"
- 23 요람이 몸을 돌려 도망치며 아하시야에게 말했다. "이건 배신이야, 아하시야!"
- 24 여후가 힘을 다해 활을 쏘아 요람의 팔 사이를 관통했고, 화살이 그의 심장을 뚫고 나가며 그는 병거 안에 쓰러졌다.
- 25 여후가 자기 장군 비드가르에게 말했다. "그를 들어 올려서, 이스라엘 사람 나보트의 밭에 있는 땅에 던져라. 너와 내가 그의 아버지 아합을 따라 함께 수레를 몰던 날, 주님이 그에게 이 짐을 내리셨음을 기억하라."
- 26 "나는 어제 나보트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다." 주님이 말한다. "내가 이 땅에서 너를 갚아주겠다." 주님이 말한다. 그러니 이제 그를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던져라.
- 27 유다 왕 아하즈야가 이것을 보고 정원 집 길로 도망쳤다. 여후가 뒤를 쫓아가며 말했다. "그도 수레 안에서 처라!" 그들

은 구르의 오르막길, 이블라임 근처에서 그를 쳤다. 그는 메기도로 도망쳐 거기서 죽었다.

²⁸ 그의 하인들이 그를 수레에 태워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다윗의 도시에서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무덤에 장사했다.

²⁹ 아합의 아들 요람의 열한 번째 해에, 아하즈야가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³⁰ 예후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눈을 칠하고 머리를 단장한 채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³¹ 예후가 문으로 들어서자, 그녀가 말했다. "네가 평안히 오느냐, 네 주를 죽인 지므리야?"

³² 예후가 창문을 향해 얼굴을 들고 말했다. "누가 내 편이냐? 누구냐?"

³³ 그가 말했다. "그녀를 아래로 던져라!" 그래서 그들이 그녀를 아래로 던졌고, 그녀의 피가 벽과 말들에 튀었다. 그 후 그녀는 그녀를 발로 밟았다.

³⁴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신 후, 말했다. "이 저주받은 여자를 처리해서 장사해라. 그녀는 왕의 딸이니."

³⁵ 그들이 그녀를 장사하러 갔으나, 그녀의 시체에서 머리뼈와 발과 손바닥밖에 찾지 못했다.

³⁶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다.

³⁷ 이세벨의 시체는 이스라엘 땅의 발 위에 더미처럼 버려질 것이니, 사람들이 "이것은 이세벨이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열왕기 하권 10장

- 1 아합은 사마리아에 아들 일흔 명을 두고 있었다. 예후는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있는 예스레엘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그리고 아합의 아들을 양육하는 자들에게 보냈다. 그는 말했다,
- 2 “이 편지가 너희에게 도착하자마자, 너희 주인의 아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에게 병거와 말, 요새화된 성, 무기들이 있다면,
- 3 너희 주인의 아들들 중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자를 골라 그를 아버지의 왕좌에 앉히고, 너희 주인의 집을 위해 싸우라.”
- 4 그러나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말했다. “보라, 두 왕조차 그 앞에 서지 못했다. 우리가 어찌 그 앞에 서서 견딜 수 있겠는가?”
- 5 가정을 맡은 자와 성을 맡은 자, 장로들,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한 자들이 예후에게 보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이 명령하시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당신 눈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 6 그러자 예후는 다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듣는다면, 너희 주인의 아들들의 머리를 베어 내일 이때까지 예스레엘로 내게 가져오라.”
- 7 편지가 그들에게 도착하자, 그들은 왕의 아들들을 잡아 죽이고, 일흔 명의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 예스레엘로 예후에게 보냈다.
- 8 사자가 와서 그에게 말했다. “왕의 아들들의 머리가 도착했습니다.”
- 9 아침에 그는 나가서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의로운 자들이다. 보라, 나는 내 주인을 배반하고 죽였지만, 이 모든 자들을 죽인 자는 누구인가?”
- 10 주님께서 아합의 집에 관해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너희는 알라. 주님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루셨다.”
- 11 예후는 예스레엘에 남아 있던 아합의 집의 모든 자, 그의 큰 신하들과 친구들과 사제들을 쳐서, 한 명도 남기지 않았다.
- 12 그는 일어나 떠나 사마리아로 가다가, 길에서 목자들의 양털 베는 집에 이르렀다.
- 13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며 물었다. “너희는 누구냐?”
- 14 그가 말했다. “살아 있는 채로 잡아라!”
- 15 그가 그곳을 떠나자, 레합의 아들 예호나답이 그를 맞으러 오는 것을 보았다. 예후가 인사하며 그에게 말했다. “너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이 정직한가?” “그렇다면 내 손을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자, 예후는 그를 병거에 태웠다.
- 16 예후가 말했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보아라.” 그래서 그는 그를 자신의 병거에 태웠다.
- 17 그가 사마리아에 이르러, 사마리아에 남아 있던 아합의 모든 자를 쳐서,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 18 예후는 모든 백성을 모아 그들에게 말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그를 훨씬 더 많이 섬기겠다.”
- 19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바알의 모든 예언자들과 그의 모든 숭배자들과 모든 사제들을 불러오라. 한 사람도 빠지지 말라. 나는 바알을 위한 큰 제사를 드릴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빠지면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바알의 숭배자들을 멸망시키려는 의도로 속임수를 썼다.
- 20 예후가 말했다. “바알을 위한 큰 모임을 성결하게 하라!”
- 21 예후는 이스라엘 전역에 메신저를 보내니, 바알의 모든 숭배자들이 모여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다. 그들은 바알의 집에 들어가서, 집 안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득 찼다.
- 22 그가 옷을 지키는 자에게 말했다. “바알의 모든 숭배자들을 위한 옷을 꺼내어라!”
- 23 예후는 레합의 아들 예호나답과 함께 바알의 집에 들어가서, 바알의 숭배자들에게 말했다. “찾아보아라. 너희 가운데 주님의 종이 한 명도 없도록 하라. 오직 바알의 숭배자들만 있어야 한다.”
- 24 그들이 들어가서 제사와 번제를 드리고 있었다. 예후는 밖에 팔십 명을 배치하고 말했다. “내가 너희 손에 넘긴 자 중 한

명이라도 도망치면, 그를 놓아준 자는 그의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갚을 것이다.”

²⁵ 그가 번제를 마친 직후, 여후가 경비대와 장관들에게 말했다. "들어가서 그들을 죽여라.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은 칼날로 그들을 치고, 경비대와 장관들이 시체들을 밖으로 던져 버린 뒤, 바알의 집 안쪽 성소로 들어갔다.

²⁶ 그들은 바알의 집 안에 있던 기둥들을 꺼내 불태웠다.

²⁷ 그들은 바알의 기둥을 부수고, 바알의 집을 헐어 버리고, 오늘날까지 변소로 만들었다.

²⁸ 이렇게 여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없앴다.

²⁹ 그러나 여후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죄란 벰엘과 단에 있는 황금 송아지들이었다.

³⁰ 주님은 여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 눈에 옳은 일을 잘 수행하고, 아합의 집에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행했으니, 네 자손이 네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것이다."

³¹ 그러나 여후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인 주님의 율법을 온 마음으로 따르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³² 그때부터 주님은 이스라엘의 땅을 점점 줄이기 시작하셨다. 하살이 이스라엘의 모든 경계에서 그들을 치고,

³³ 요르단 동편, 길르앗 땅 전체, 갓 족속과 르우벤 족속, 마나세 족속을 치며, 아르로어, 곧 아르논 골짜기 옆에 있는 곳부터 길르앗과 바산에 이르기까지 쳤다.

³⁴ 여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힘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³⁵ 여후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들은 그를 사마리아에 장사했다. 그의 아들 여호아하즈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³⁶ 여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이십팔 년이었다.

열왕기 하권 11장

- 1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리야가 아들이 죽었음을 보고 일어나 왕실의 모든 자손을 죽였다.
- 2 그러나 요람 왕의 딸이자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세바는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죽임을 당한 왕자의 자손들 사이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겼다. 그들은 요아스를 아달리야로부터 숨겨서 그가 죽지 않게 하였다.
- 3 그는 아달리야가 땅을 다스리는 동안 육 년 동안 주님의 집에서 그녀와 함께 숨어 지냈다.
- 4 일곱 번째 해에 여호야다가 카르티 사람들과 경비대의 백인대장들을 불러다가 주님의 집으로 데려왔고, 그들과 주님의 집에서 언약을 맺으며 왕의 아들을 보여 주었다.
- 5 그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 중 삼분의 일은 왕의 집을 지키는 경비대가 되고,
- 6 삼분의 일은 수르 문에 있고, 삼분의 일은 경비대 뒤 문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집을 지키는 경비대가 되어 장벽이 되어야 합니다.
- 7 안식일에 나가는 자들 중 두 부대는 모두 왕 주변에서 주님의 집을 지켜야 합니다.
- 8 여러분은 각자 무기를 손에 쥐고 왕을 둘러싸십시오. 행렬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십시오. 왕이 나갈 때와 들어올 때는 왕과 함께 있으십시오."
- 9 백인대장들은 여호야다 사제가 명령한 대로 모두 행동하였다. 그들은 각자 안식일에 들어올 자들과 나갈 자들을 이끌고 여호야다 사제에게 나아갔다.
- 10 사제는 주님의 집에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인대장들에게 넘겼다.
- 11 경비대는 각자 무기를 손에 쥐고 집의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제단과 집을 따라 왕을 둘러쌌다.
- 12 그는 왕의 아들을 데려와서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언약서를 주었으며, 그를 왕으로 삼고 기름을 부었다. 그들은 손뼉을 치며 외쳤다. "왕께서 만세를 누리소서!"
- 13 아달리야가 경비대와 백성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집으로 나아가 백성 가운데로 들어왔다.
- 14 그녀가 보니, 왕이 전통에 따라 기둥 옆에 서 있었고, 백인대장들과 나팔수들이 왕 곁에 있었다. 땅의 모든 백성은 기뻐하며 나팔을 불었다. 아달리야는 옷을 찢고 외쳤다. "배신이다! 배신이다!"
- 15 여호야다 사제는 군대를 지휘하는 백인대장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그녀를 행렬 사이로 끌어내라. 그녀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칼로 죽이라." 사제는 말했다. "그녀를 주님의 집에서 죽이지 말라."
- 16 그들은 그녀를 붙잡아 왕의 집으로 가는 말의 입구 길을 따라 끌고 가서 그곳에서 죽였다.
- 17 여호야다는 주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어,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었다.
- 18 땅의 모든 백성은 바알의 집으로 가서 그것을 헐어버렸다. 그들은 그의 제단과 우상을 부수어 완전히 없애고, 바알의 사제 마탄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사제는 주님의 집을 지키는 관리들을 임명하였다.
- 19 그는 백인대장들과 카르티 사람들과 경비대와 땅의 모든 백성을 데리고 주님의 집에서 왕을 내려보내어 경비대 문 길을 따라 왕의 집으로 갔다. 그는 왕들의 위에 앉았다.
- 20 그러므로 땅의 모든 백성은 기뻐하였고, 도시는 고요하였다. 그들은 아달리야를 왕의 집에서 칼로 죽였다.
- 21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일곱 살이었다.

열왕기 하권 12장

- 1 예호아스는 헤후의 일곱 번째 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베엘세바 출신의 시비아였다.
- 2 예호아스는 사제 요아다가 그를 가르쳐 주는 동안 주님의 눈에 드는 일을 모두 행하였다.
- 3 그러나 높은 곳들은 제거되지 않았다. 백성들은 여전히 높은 곳에서 희생을 드리며 향을 피웠다.
- 4 예호아스가 사제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성물의 돈, 즉 각 사람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현금과, 누구든지 마음에 떠올려 주님의 집에 바치는 모든 돈을,
- 5 사제들이 각자 기부자로부터 받아서, 어디서든 손상이 발견되면 그 집을 수리하도록 하라."
- 6 그러나 예호아스 왕의 이십삼 년이 되도록 사제들이 집의 손상을 수리하지 않았다.
- 7 그때 예호아스 왕이 사제 요아다와 다른 사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는 집의 손상을 수리하지 않는가? 이제부터 너희는 재정관들로부터 더 이상 돈을 받지 말고, 그 돈을 집의 손상 수리에 바쳐라."
- 8 사제들은 백성으로부터 더 이상 돈을 받지 않기로 동의하였고, 집의 손상을 수리하지도 않았다.
- 9 그러나 사제 요아다가 상자를 가져와 그 뚜껑에 구멍을 뚫고, 주님의 집으로 들어서는 길에 오른쪽 제단 옆에 두었다. 문지기 사제들이 주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돈을 그 상자에 넣었다.
- 10 상자 안에 돈이 많이 쌓인 것을 보고, 왕의 서기관과 대사제가 올라와서 돈을 주머니에 담고 주님의 집에서 발견된 돈을 세었다.
- 11 그들은 무게를 잰 돈을 주님의 집을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겼다. 그들은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하여 주님의 집을 수리하였다.
- 12 그리고 석공들과 돌 깎는 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집을 수리하기 위한 나무와 다듬은 돌을 사는 데 썼으며, 집을 수리하기 위해 지출된 모든 비용을 그들에게 주었다.
- 13 그러나 주님의 집을 위해 은으로 된 잔, 불씨 자르는 도구, 대야, 나팔, 금이나 은으로 만든 어떤 그릇도 만들지 않았다. 그 돈은 주님의 집에 들어온 것이었다.
- 14 그 돈은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 주님의 집을 수리하는 데 쓰였다.
- 15 그들은 돈을 받아 일을 하는 자들에게 지급하는 자들에게 회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이다.
- 16 죄와 허물에 대한 속죄 제물의 돈은 주님의 집에 들여지지 않았다. 그것은 사제들의 것이었다.
- 17 그때 시리아의 왕 하아젤이 올라가 가트를 공격하여 빼앗았고, 하아젤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려고 마음을 굳혔다.
- 18 유다의 왕 예호아스는 그의 조상들인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즈야가 바친 모든 성물과 자기가 바친 성물들, 그리고 주님의 집과 왕의 집 보물창고에서 발견된 모든 금을 가져다가 시리아의 왕 하아젤에게 보냈다. 그 후 그는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 19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 20 그의 하인들이 일어나 음모를 꾸미고, 밀로의 집에서 시라로 내려가는 길에서 요아스를 치고 죽였다.
- 21 그의 하인인 시마앗의 아들 요사아르와 쇼머의 아들 여호자바드가 그를 치니, 그가 죽었다. 그들은 그를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마자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왕기 하권 13장

- 1 유다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가 왕으로서 이십삼 년째 되는 해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열일곱 년을 재위하였다.
- 2 그는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고, 느바트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죄들을 따랐다. 그는 그것을 떠나지 않았다.
- 3 주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불타올랐고, 그분은 그들을 시리아 왕 하사엘의 손과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계속해서 압제를 받았다.
- 4 여호아하스가 주님께 간구하였고, 주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시리아 왕이 그들을 어떻게 압제하는지를 보셨기 때문이다.
- 5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주셔서, 그들이 시리아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전처럼 천막에서 살았다.
- 6 그러나 그들은 느바트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죄들을 떠나지 않았고, 그 죄들을 따라 걸었다.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상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 7 그는 여호아하스에게 오십 명의 기마병과 열 대의 병거와 만 명의 보병밖에 남기지 않았다. 이는 시리아 왕이 그들을 멸망시켜 마치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만들었기 때문이다.
- 8 여호아하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힘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 9 여호아하스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들은 그를 사마리아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요아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10 유다 왕 요아스가 왕으로서 삼십칠 년째 되는 해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십육 년을 재위하였다.
- 11 그는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는 느바트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모든 죄들을 떠나지 않았고, 그 죄들을 따라 걸었다.
- 12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그리고 유다 왕 아마시아와 싸우며 보인 그의 힘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 13 요아스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여로보암이 그의 왕좌에 앉았다. 요아스는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었다.
- 14 엘리사가 죽게 된 병에 걸렸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그를 위하여 울며 말하였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대여!"
- 15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너라."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왔다.
- 16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네 손을 활 위에 올리라." 그가 손을 활 위에 올렸다. 엘리사가 자신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다.
- 17 그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열어라." 그가 창문을 열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아라." 그가 쏘았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이는 주님의 승리의 화살, 곧 시리아에 대한 승리의 화살이다. 네가 아פק에서 시리아인을 치고 그들을 다 소멸할 것이다."
- 18 그가 말하였다. "화살들을 가져오너라." 그가 가져왔다.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라." 그가 세 번 치고 멈추었다.
- 19 하느님의 사람은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네가 다섯 번이나 여섯 번 치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네가 시리아인을 다 소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네가 시리아인을 세 번밖에 치지 못할 것이다."
- 20 엘리사가 죽었고, 그들은 그를 장사하였다. 그해가 되자 모압 군대가 그 땅을 침입하였다.
- 21 어떤 사람이 장사되던 중, 그들은 강도 무리의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 넣었다.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는 살아나서 일어나 발로 서 있었다.

²² 시리아 왕 하사엘은 여호아하스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다.

²³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들을 돌보셨다. 주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아직까지 그들을 자신의 앞에서 버리지 않으셨다.

²⁴ 시리아 왕 하사엘이 죽었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²⁵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는 하자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그의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전쟁으로 빼앗겼던 도시들을 되찾았다. 여호아스가 벤하닷을 세 번 치고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회복하였다.

열왕기 하권 14장

- 1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지 이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야가 왕위에 올랐다.
- 2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스물다섯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예루살렘 출신 여호아딘이다.
- 3 그는 주님의 눈에 옳은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한 대로 모두 행하였다.
- 4 그러나 높은 곳들은 제거되지 않았다. 백성들은 여전히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 5 왕권이 그의 손에 확립되자, 그는 자기 아버지 왕을 죽인 시종들을 죽였다.
- 6 그러나 그는 살인자들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는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바, '아버지들이 아들들 때문에 죽지 않으며, 아들들이 아버지들 때문에 죽지 않는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라고 하신 대로였다.
- 7 그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전쟁으로 세라를 점령하여 그 이름을 요게텔이라 불렀다.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다.
- 8 그때 아마사야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 요아하스의 아들, 여후의 아들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마주 보자.'
- 9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 왕 아마사야에게 보내어 말했다. "레바논에 있던 엉겅퀴가 레바논에 있던 백향목에게, '네 딸을 내 아들 아내로 주라'고 보냈다. 그런데 레바논에 있던 들짐승이 지나가며 그 엉겅퀴를 밟아 버렸다."
- 10 너는 에돔을 치고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 영광을 즐기며 집에 머물러라. 어찌하여 너는 해를 끼칠까 하여 개입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무너지려 하는가?
- 11 그러나 아마사야는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가서, 유다 왕 아마사야와 벰세메스에서 마주 보았다. 벰세메스는 유다의 땅이었다.
- 12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패배하였고, 각자는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 13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벰세메스에서 유다 왕 아마사야, 요아스의 아들, 아하시야의 손자를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에브라임 문에서 모서리 문까지 사백 큐빗에 이르는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었다.
- 14 그는 주님의 집과 왕의 궁전의 보물창고에서 발견된 모든 금과 은과 모든 그릇들과 인질들을 가져다가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 15 요아스가 한 나머지 일들과 그의 용맹과 유다 왕 아마사야와의 싸움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 16 요아스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17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야는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십오 년을 더 살았다.
- 18 아마사야의 나머지 행적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 19 예루살렘에서 그를 반대하는 음모가 일어나자, 그는 라기스로 도망쳤다. 그러나 그들은 라기스로 그를 쫓아가 그곳에서 그를 죽였다.
- 20 그들은 말에 그를 태워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다윗의 도시에서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였다.
- 21 유다 모든 백성이 십육 세의 아사랴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야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웠다.
- 22 그는 엘랏을 건설하여 유다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 후 왕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 23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야의 십오 번째 해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위에 올라 사십일 년을 다스렸다.
- 24 그는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하였고, 이스라엘을 최악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 25 그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하마스의 입구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그의 종, 아미타

이의 아들 예언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다. 요나는 갓 헤페르 출신이었다.

²⁶ 주님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셨다. 그 고난은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에게 매우 가혹했고, 이스라엘을 도울 이가 아무도 없었다.

²⁷ 주님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²⁸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그의 힘, 그가 싸운 일, 그리고 유다의 것이었던 다마스쿠스와 하마스를 이스라엘에게 되찾은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²⁹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왕기 하권 15장

- 1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스물일곱째 해에, 유다 왕 아사랴의 아들 아사랴가 왕위에 올랐다.
- 2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열여섯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오십이 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예루살렘 출신 예콜리아였다.
- 3 그는 아버지 아마시아가 행한 대로 주님의 눈에 어울리는 일을 하였다.
- 4 그러나 높은 곳들은 없어지지 않았다. 백성들은 여전히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 5 주님께서 그 왕을 치셨으므로,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였고, 별도의 집에서 살았다. 왕의 아들 요담이 왕실을 다스리며 땅의 백성을 심판하였다.
- 6 아사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 7 아사랴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들은 그를 다윗의 도시에서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8 유다 왕 아사랴의 삼십팔년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아들 여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여섯 달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
- 9 그는 조상들이 행한 대로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하였고, 이스라엘을 최악에 빠뜨린 느바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 10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그를 치고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11 여가랴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다.
- 12 이것은 주님께서 여후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네 번째 세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것이다." 그 말이 이루어졌다.
- 13 유다 왕 우시야의 삼십구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위에 올라 한 달 동안 통치하였다.
- 14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올라와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치고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15 살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일으킨 반역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다.
- 16 그때 므나헴은 티프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과 그 경계 지역을 공격하였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시를 공격하였고, 임신한 모든 여인들을 배를 갈라 죽였다.
- 17 유다 왕 아사랴의 삼십구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 해 동안 통치하기 시작하였다.
- 18 그는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하였고, 이스라엘을 최악에 빠뜨린 느바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동안 떠나지 않았다.
- 19 아시리아 왕 푸르가 그 땅에 쳐들어왔고, 므나헴은 푸르에게 은 천 탈란트를 바쳐, 그의 손이 자신과 함께 있어 왕위를 굳히게 하였다.
- 20 므나헴은 이스라엘의 모든 부유한 자들로부터 돈을 걷어, 각자 오십 세겔의 은을 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바쳤다. 그때 아시리아 왕은 돌아가서 그 땅에 머무르지 않았다.
- 21 므나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 22 므나헴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의 아들 베가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23 유다 왕 아사랴의 오십년에, 므나헴의 아들 베가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이 년 동안 통치하기 시작하였다.
- 24 그는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하였고, 이스라엘을 최악에 빠뜨린 느바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 25 그의 장군인 레마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을 꾸미고 사마리아의 왕궁 요새에서 아르고브와 아리에와 함께 그를 공격했다. 그와 함께는 길르앗 사람 다섯십 명이 있었다. 그는 그를 죽이고 그의 자리를 차지했다.
- 26 베가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한 모든 행위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다.
- 27 유다 왕 아사랴의 52년에, 레마리아의 아들 베가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여 스무 해 동안 왕이 되었다.

- ²⁸ 그는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했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 ²⁹ 이스라엘 왕 베가의 시대에, 아시리아 왕 티글랏빌레세가 와서 이온, 아벨 벤마아가, 야노아, 게데스, 하소르, 길르앗, 갈릴리, 곧 납탈리의 온 땅을 빼앗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갔다.
- ³⁰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레마리아의 아들 베가를 반역하여 공격하고 죽이고,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의 20년에 그의 자리를 차지했다.
- ³¹ 베가가 한 모든 일과 그가 한 모든 행위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다.
- ³² 이스라엘 왕 레마리아의 아들 베가의 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올랐다.
- ³³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스물다섯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 동안 왕으로 재위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사독의 딸 여루사였다.
- ³⁴ 그는 주님의 눈에 옳은 일을 행했다. 그는 아버지 우시야가 한 모든 일을 그대로 따랐다.
- ³⁵ 그러나 높은 곳들은 없어지지 않았다. 백성은 여전히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태웠다. 그는 주님의 집 위쪽 문을 지었다.
- ³⁶ 요담이 한 모든 일과 그가 한 모든 행위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 ³⁷ 그 시대에, 주님은 아람 왕 르신과 레마리아의 아들 베가를 유다를 치게 하셨다.
- ³⁸ 요담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조상들과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아하즈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왕기 하권 16장

- ¹ 레마리아의 아들 베가가 왕으로서 열일곱 번째 되는 해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즈가 왕위에 올랐다.
- ² 아하즈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스물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주님 그의 하느님의 눈에 어긋나는 일을 하였다.
- ³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불을 통과시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민족들의 가증한 풍습에 따라 행하였다.
- ⁴ 그는 높은 곳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태웠다.
- ⁵ 그때 시리아 왕 레진과 이스라엘 왕 레마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전쟁을 벌였다. 그들은 아하즈를 포위했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 ⁶ 그때 시리아 왕 레진이 엘랏을 시리아로 되찾아,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쫓아냈다. 시리아 사람들은 엘랏로 들어가서 오늘날까지 그곳에 살고 있다.
- ⁷ 아하즈는 아시리아 왕 티글랏빌레세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했다. "나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둘은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 ⁸ 아하즈는 주님의 집과 왕의 궁전에서 발견된 은과 금을 가져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 ⁹ 아시리아 왕은 그의 말을 들었고, 아시리아 왕은 다마스쿠스를 치러 올라가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 주민들을 키르로 사로잡아 끌고 가며 레진을 죽였다.
- ¹⁰ 아하즈 왕은 아시리아 왕 티글랏빌레세를 만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제단의 그림과 그것을 지을 계획을 사제 우리야에게 보냈다.
- ¹¹ 사제 우리야는 아하즈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보낸 그림과 계획에 따라, 아하즈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올 때를 위해 제단을 지었다.
- ¹²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오자, 왕은 그 제단을 보고 제단에 가까이 나아가 그 위에 제물을 바쳤다.
- ¹³ 그는 번제와 소제를 태우고, 술제를 붓고, 화평제의 피를 제단에 뿌렸다.
- ¹⁴ 주님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집 앞에서, 그의 제단과 주님의 집 사이에서 끌어내어, 그의 제단의 북쪽에 놓았다.
- ¹⁵ 아하즈 왕은 사제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큰 제단 위에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 왕의 번제와 소제, 그리고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와 소제와 술제를 태우고, 번제의 피와 희생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려라. 그러나 놋 제단은 내가 묻기 위한 것이 될 것이다."
- ¹⁶ 사제 우리야는 아하즈 왕이 명령한 대로 모두 행하였다.
- ¹⁷ 아하즈 왕은 받침대의 판을 잘라내고, 그 위의 대야를 제거하며, 그 아래에 있던 놋 소들에서 바다를 내려, 돌로 만든 바닥 위에 놓았다.
- ¹⁸ 그는 집 안에 그들이 안식일을 위해 지은 덮개 길과, 왕이 주님의 집을 위한 외부 출입구를, 아시리아 왕 때문에 제거하였다.
- ¹⁹ 아하즈가 행한 나머지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 ²⁰ 아하즈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왕기 하권 17장

- 1 유다 왕 아하즈의 열두 번째 해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아홉 년 동안 왕이 되었다.
- 2 그는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그보다 앞선 이스라엘 왕들처럼 하지는 않았다.
- 3 아시리아 왕 살마나셀이 그를 치러 올라왔고, 호세아는 그의 종이 되어 공물을 바쳤다.
- 4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매년 바치던 공물을 바치지 않는 것을 알고, 음모를 꾸몄음을 알아챘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 5 그 후 아시리아 왕이 온 땅을 휩쓸고 올라와 사마리아를 쳐서 삼 년 동안 포위하였다.
- 6 호세아의 아홉 번째 해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빼앗아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하랄과 하보르, 고잔 강변과 메디아의 성읍들에 살게 하였다.
- 7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이집트 땅,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이끌어 올리신 주님, 그들의 하느님께 죄를 지었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 8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민족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왕들이 만든 규례를 따랐다.
- 9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 그들의 하느님께 은밀히 옳지 않은 일을 행하였고, 모든 성읍에서, 망대에서부터 요새 성까지 스스로 높은 곳들을 쌓았다.
- 10 그들은 모든 높은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돌기둥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 11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낸 민족들이 하던 것처럼 모든 높은 곳에서 향을 태우고, 주님을 격노하게 할 만한 악한 일을 행하였다.
- 12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들을 섬겼다.
- 13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예언자와 모든 보는 자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 증거하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 14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주님, 그들의 하느님을 믿지 아니한 조상들의 목처럼 고집을 부렸다.
- 15 그들은 그분의 규례와 그분이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과, 그분이 그들에게 증거하신 증거들을 거부하고, 허무한 것을 따랐으며, 허무해졌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변 민족들을 따랐다.
- 16 그들은 주님, 그들의 하느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스스로 주조된 우상을 만들었으며, 송아지 돌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별을 숭배하며 바알을 섬겼다.
- 17 그들은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을 통과하게 하며 점치고 마법을 썼으며,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팔았다.
- 18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심히 진노하셔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떠나보내셨다. 유다 지파만 남았다.
- 19 유다도 주님, 그들의 하느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만든 규례를 따랐다.
- 20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거부하시고, 그들을 괴롭히시며,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분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기까지였다.
- 21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갈라놓으셨고, 그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큰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
- 22 이스라엘 자손은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랐고, 그것에서 떠나지 않았다.
- 23 주님께서 그분의 모든 종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자기 앞에서 떠나보내셨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서 아시리아로 끌려가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 24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쿠타와 아바와 하마트와 스바르임에서 사람들을 데려와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이스라엘 자손 대신에 살게 하였고,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들에 살았다.
- 25 그들이 그 땅에 처음으로 정착했을 때,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 사이에 사자를 보내어 그들 중 일부를 죽이셨다.
- 26 그래서 그들은 아시리아 왕에게 말했다. "당신이 옮겨서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정착시킨 민족들은 그 땅의 신의 법을 알

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신이 사자를 그들 사이에 보내어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²⁷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명령했다. "여기서 데려온 제사장 중 한 명을 그곳으로 보내라. 그가 가서 그곳에 정착하여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하라."

²⁸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끌려온 제사장 중 한 명이 와서 베델에 정착하여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두려워해야 할지를 가르쳤다.

²⁹ 그러나 각 민족은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운 높은 곳의 제단에 두었으며, 각 민족은 자기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에 그 신들을 두었다.

³⁰ 바빌론 사람들은 수코트 베노트를 만들었고, 쿠트 사람들은 네갈을 만들었으며, 하마트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³¹ 아브비 사람들은 니바즈와 타르타크를 만들었고, 스바르비 사람들은 스바르바이의 신들인 아드람멜렉과 아나멜렉에게 자기 자녀들을 불 속에 태웠다.

³²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자기들 사이에서 높은 곳의 제사장을 세워 자기들을 위해 높은 곳의 제단에서 희생을 드렸다.

³³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자기들의 신들을, 자신들이 끌려온 민족들의 방식대로 섬겼다.

³⁴ 오늘날까지 그들은 이전에 하던 대로 행한다.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야곱의 자손, 곧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자들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법령과 율법과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

³⁵ 주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절지도 말며,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에게 희생을 드리지도 말라." 하셨다.

³⁶ 오직 너희는 큰 힘과 펼쳐진 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절하며, 그분께 희생을 드려야 한다.

³⁷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기록하신 규례와 법령과 율법과 계명을 너희는 영원히 지켜 행해야 한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³⁸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³⁹ 오직 너희는 너희 하느님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너희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⁴⁰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이전에 하던 대로 행했다.

⁴¹ 이러한 민족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자기들의 조각한 우상을 섬겼다. 그들의 자녀들도 그와 같이 하였고, 그들의 손자들도 그와 같이 하였다. 오늘날까지 그들은 조상들이 하던 대로 행한다.

열왕기 하권 18장

- 1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재위한 지 세 해가 되는 해에, 유다 왕 아하즈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다.
- 2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스물다섯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세가라의 딸 아비였다.
- 3 그는 아버지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주님의 눈에 어울리는 일을 행하였다.
- 4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기둥들을 부수며, 아세라 상을 베어냈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놋뿔을 부수어 버렸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놋뿔에 분향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느후스탄이라 불렀다.
- 5 그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을 신뢰하였으므로, 그 이후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도, 그 이전의 모든 왕들 중에서도 그처럼 된 자는 없었다.
- 6 그는 주님과 함께하였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을 지켰다.
- 7 주님은 그와 함께하셨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역하여 그를 섬기지 않았다.
- 8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가사와 그 경계까지, 망대에서부터 요새 도시에 이르기까지 정복하였다.
- 9 히스기야 왕 네 번째 해,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재위한 일곱 번째 해에, 아시리아 왕 산마니에셀이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와 그 도시를 포위하였다.
- 10 삼 년 후에 그 도시가 함락되었다. 히스기야 왕 여섯 번째 해,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재위한 아홉 번째 해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
- 11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하불, 고잔 강변과 메디아의 여러 성읍에 살게 하였다.
- 12 이는 그들이 주님 그들의 하느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고,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언약을 어기며, 듣지도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13 히스기야 왕 열네 번째 해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 도시를 치러 올라와 그들을 모두 빼앗았다.
- 14 유다 왕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에게서 물러나 주십시오. 당신이 내게 떠넘긴 것을 내가 모두 감수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삼백 달란트와 금 삼십 달란트를 바치도록 명령하였다.
- 15 히스기야는 주님의 집과 왕의 궁전의 보물창고에 있던 모든 은을 그에게 주었다.
- 16 그때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 문짝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덧칠한 기둥들에서 금을 벗겨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 17 아시리아 왕은 타르탄과 라브사리스와 라브쉐가를 라기스에서 보냈다. 그들은 큰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히스기야 왕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올라와서 상부 연못의 수로, 곧 세탁부들의 들길에 이르러 서 있었다.
- 18 그들이 왕을 불렀을 때, 궁정총관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김과 서기관 세바나, 기록관 아사프의 아들 요아가 나아가 그들에게 나왔다.
- 19 라브쉐가는 그들에게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거대한 왕, 아시리아 왕이 말한다. 네가 의지하는 이 신위는 무엇이나?
- 20 너는 말한다. "전략과 군사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말뿐이다. 네가 나에게 반역한 이유로 무엇을 의지하는가?
- 21 보라, 네가 이 상처 난 갈대 지팡이, 곧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다. 사람이 그것에 기대면, 그것이 손에 들어가서 찢려 넣을 것이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하듯이.
- 22 그러나 너희가 내게 "우리는 우리 하느님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한다면, 그분이 바로 히스기야가 없애버린 산당들과 제단들을 가진 분이 아니냐?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의 제단 앞에서만 숭배하라"고 말하였다.
- 23 그러므로 이제 내 주 아시리아 왕에게 맹세를 하라. 내가 너에게 이천 마리의 말을 주겠다. 네가 그 말에 기사를 태울 수 있다면 말이다.
- 24 내 주의 가장 작은 신하의 장관 한 명의 얼굴을 어떻게 뒤로 돌릴 수 있느냐? 너희는 병거와 기마대를 위해 이집트를 의지하는가?
- 25 내가 주님의 뜻 없이 이곳을 파괴하려고 올라왔는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땅에 올라가서 그것을 파괴하라.'

- 26 그러자 힐키야의 아들 엘리아김과 세바나, 아삽의 아들 요아가 라브사게에게 말했다. “우리 종들에게 아람어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의 귀에 들리지 않게 유다어로 우리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 27 그러나 라브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 주가 나를 보내어 너희 주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했는가? 내 주가 나를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벽 위에 앉아서 자기 배설물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냐?”
- 28 그러자 라브사게가 일어나 유다어로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아시리아 대왕의 말을 들어라.
- 29 왕이 말한다. ‘히즈키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 30 히즈키야가 너희로 하여금 주님을 신뢰하게 하지 마라. 그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 성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 못하게 하라.
- 31 히즈키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 왕이 말한다. ‘나와 화평을 맺고 내게로 나와라. 너희 각자는 자기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먹고, 자기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먹으며, 자기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 32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와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 빵과 포도원, 올리브나무와 꿀이 풍부한 땅으로 데려갈 때까지 살아서 죽지 않게 하리라. 히즈키야가 너희를 설득하며 말하기를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거든 그 말을 듣지 마라.
- 33 이방들의 신들 중에 누구도 자기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한 적이 있는가?
- 34 하마트과 아르파드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스바르바임과 헤나와 이와와 신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원했느냐?
- 35 이제 모든 나라의 신들 중에 누구도 자기 땅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 36 그러나 백성은 침묵하며 그에게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왕의 명령이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였기 때문이다.
- 37 그러자 궁정을 맡은 힐키야의 아들 엘리아김과 서기관 세바나, 기록관 아삽의 아들 요아가 옷을 찢고 히즈키야에게 나아가 라브사게의 말을 전했다.

열왕기 하권 19장

- 1 히스기야 왕이 이를 듣고 옷을 찢고 굶은 베를 입고 주님의 집으로 갔다.
- 2 그는 가정을 맡은 엘리아김과 서기관 세브나, 그리고 굶은 베를 입은 제사장들의 장로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 3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오늘은 고통과 책망과 버림받는 날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려는 순간에 이르렀으나, 그들을 낳을 힘이 없습니다."
- 4 아마도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서 아시리아 왕, 당신의 주인께서 보내어 살아 계신 하느님을 모독한 랍사게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서 들으신 그 말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 5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로 왔다.
- 6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한 그 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 7 보아라, 내가 그에게 영을 넣어 그가 소식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자기 땅에서 칼에 쓰러뜨리겠다."
- 8 그러자 랍사게가 돌아가 아시리아 왕이 리브나와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라기스에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 9 그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카에 대해 들었다. "보아라, 그가 나와 싸우려고 나왔다." 하여 그는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했다.
- 10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네가 의지하는 네 하느님이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 11 보아라, 네가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땅에 행한 일을 들었으니, 그들이 모두 완전히 파괴하였다. 네가 구원받겠느냐?
- 12 내 조상들이 파괴한 나라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하였느냐? 고산, 하란, 레스페, 텔아살르에 있던 에덴의 자손들이었느냐?
- 13 하마트의 왕, 아르파드의 왕, 스바르바임의 도시, 헤나, 이바의 왕은 어디에 있는가?
- 14 히스기야는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 그 후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주님 앞에 펼쳤다.
- 15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했다.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그롭 위에 앉으신 분이시여, 당신은 천하 만국의 하느님이시며, 오직 당신만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 16 주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주님, 눈을 떠서 보소서. 아시리아 왕 세나케립이 살아 계신 하느님을 모독하기 위해 보낸 말을 들으소서.
- 17 진실로 주님,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나라와 그 땅들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 18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습니다. 그 신들은 참으로 신이 아니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의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을 파괴했습니다.
- 19 이제, 우리 주 우리 하느님, 당신이 오직 유일하신 하느님이심을 천하 만국이 알게 하시려고,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 20 그러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아시리아 왕 세나케립을 향해 내게 기도하였고, 나는 네 기도를 들었다."
- 21 주님께서 그에 관해 말씀하신다. "시온의 처녀가 너를 경멸하고, 예루살렘의 딸이 너를 비웃는다. 그녀가 머리를 흔든다."
- 22 네가 누구를 모독하고, 누구를 향해 나를 비방하였느냐? 네가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높이 들어 올린 대상은 누구이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다!
- 23 네 사자들을 통해 주님을 모독하고, "내가 수많은 병거로 산의 꼭대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올라가, 그 높은 백향목과 그

선한 전나무를 베고, 그의 가장 먼 거처, 그의 열매 맺는 들판의 숲에 들어가리라"고 말하였다.

²⁴ 내가 우물을 파고 낮선 물을 마셨으며,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을 말리리라."

²⁵ 너는 내가 오래전에 이 일을 행하고 옛적부터 이를 이루어왔음을 듣지 못했느냐? 이제 내가 이를 이루었으니, 네가 요새 도시들을 폐허 더미로 만들게 되었다.

²⁶ 그러므로 그들의 주민들은 힘이 약했다. 그들은 놀라서 당황했으며, 들판의 풀과 푸른 풀처럼, 지붕 위의 풀과 자라기 전에 타버린 곡식처럼 되었다.

²⁷ 내가 네가 앉는 것과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 그리고 네가 나를 향해 분노하는 것을 알고 있다.

²⁸ 내가 나를 향해 분노하고, 네 교만이 내 귀에 이르렀으므로, 내가 네 코에 갈고리를, 네 입술에 막대기를 넣고, 네가 온 길로 되돌려보내겠다.

²⁹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올해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다음 해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으며, 세 번째 해에는 씨를 뿌리고 수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³⁰ 유다 집안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³¹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나갈 것이며, 시온 산에서 도망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주님의 열정이 이 일을 이루게다.

³² 그러므로 주님은 아시리아 왕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그는 이 성에 오지 않을 것이며, 여기에 화살을 쏘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방패를 들고 이 성 앞에 나아오지 않으며, 이 성을 향해 흙무더기를 쌓지도 않을 것이다.'

³³ 그는 자기가 온 길로 돌아갈 것이며, 이 성에 오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³⁴ '내가 나의 이름과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지켜 구원하겠다.'

³⁵ 그 밤, 주님의 천사가 나와 아시리아 진영에서 일십팔만 오천 명을 치셨다. 아침이 되어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모두 시체들이었다.

³⁶ 이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은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니네베에 머물렀다.

³⁷ 그가 그의 신 니스로크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아드람멜렉과 샬레제르가 칼로 그를 찔고, 그들은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다. 그의 아들 에사르하돈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왕기 하권 20장

- ¹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집안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 ² 그러자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말했다.
- ³ "주님, 지금 제게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걸었고, 주님의 눈에 좋은 일을 해왔음을." 히스기야는 심하게 울었다.
- ⁴ 이사야가 도시 한가운데로 나가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 ⁵ "돌아가서 내 백성의 왕 히스기야에게 말하여라. 네 조상 다윗의 하느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도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사흘 후에 너는 주님의 집에 올라갈 것이다."
- ⁶ 내가 네 날에 십오 년을 더해 주겠다.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나는 나의 이름과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지킬 것이다."
- ⁷ 이사야가 말했다. "무화과 떡을 가져오십시오."
- ⁸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주님이 나를 낫게 하시고, 내가 사흘 후에 주님의 집에 올라갈 것이라는 표징은 무엇입니까?"
- ⁹ 이사야가 말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표징이 이것이다. 그림자가 열 걸음 앞으로 나아가겠느냐, 아니면 열 걸음 뒤로 물러나겠느냐?"
- ¹⁰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그림자가 열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아니, 그림자를 열 걸음 뒤로 돌려주십시오."
- ¹¹ 예언자 이사야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은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내려온 그림자를 열 걸음 뒤로 돌려주셨다.
- ¹² 그때에 바빌론 왕 벨로닥발라단, 발라단의 아들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신과 선물을 보냈다.
- ¹³ 히스기야는 그들을 맞아들여, 자기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 주었다. 은, 금, 향신료, 귀한 기름, 무기고, 그리고 자기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었다. 히스기야의 집 안이나 자기 영토 전체에서 그에게 보여 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 ¹⁴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말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 ¹⁵ 그가 말했다. "그들이 당신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 ¹⁶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 ¹⁷ "보아라, 날들이 이르러, 네 집안에 있는 것과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무 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 ¹⁸ "네게서 날 것이며, 네가 낳을 네 아들들 중 일부가 끌려가서 바빌론 왕의 궁전에서 환관이 될 것이다."
- ¹⁹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당신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좋습니다." 그는 더하여 말했다. "내가 사는 동안에 평화와 진실이 있다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 ²⁰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모든 힘, 그리고 그가 연못과 수로를 만들고 물을 도시로 끌어들이는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 ²¹ 히스기야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왕기 하권 21장

- 1 마나세는 열두 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오십오 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였다.
- 2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민족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 3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문 높은 곳들을 다시 쌓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세우며,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하늘의 모든 군대를 숭배하고 그들을 섬겼다.
- 4 그는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리라' 하신 주님의 집 안에 제단들을 세웠다.
- 5 그는 주님의 집 안 두 마당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한 제단들을 세웠다.
- 6 그는 자기 아들을 불을 통과하게 하며, 마법을 행하고, 점치고, 유령과 마법사들과 교제하였다. 그는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많이 행하여 주님을 격노하게 하였다.
- 7 그는 주님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 두리라' 하신 집 안에 자신이 만든 아세라 상을 세웠다.
- 8 그들이 내가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발이 내가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더 이상 떠나지 못하게 하리라.'
- 9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마나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그들을 유혹하였다.
- 10 주님께서 그의 종들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 11 "유다 왕 마나세가 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자기 앞에 있던 아모리 족속보다 더 악하게 행하며, 그의 우상들로 유다를 죄악에 빠뜨렸기 때문에,
- 12 이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런 재앙을 내리리니, 그것을 듣는 자의 두 귀가 울릴 것이다.'
- 13 내가 사마리아의 줄과 아합의 집의 수평자를 예루살렘 위에 펼치리라. 내가 사람처럼 그릇을 닦듯이 예루살렘을 닦고 뒤집어 버리리라.'
- 14 내가 내 유산의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은 모든 원수들의 노략물과 약탈물이 될 것이다.'
- 15 그들이 내 눈에 악한 일을 행하고, 그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나를 격노하게 해왔기 때문이다.'
- 16 또한 마나세는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려 예루살렘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채웠다. 그는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여 유다를 죄악에 빠뜨린 죄를 더하였다.
- 17 마나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범한 죄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 18 마나세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우자의 정원, 곧 자기 집 정원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19 아몬은 이십두 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두 해 동안 통치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브아의 하루스의 딸 메솔레멧이었다.
- 20 그는 아버지 마나세가 행한 것처럼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 21 그는 아버지가 걸었던 모든 길을 따라 걸으며, 아버지가 섬긴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을 숭배하였다.
- 22 그는 조상들의 하느님 주님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 23 아몬의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여 왕을 자기 집에서 죽였다.
- 24 그러나 땅의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모든 자들을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다.
- 25 아몬이 한 나머지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 26 그는 우자 정원에 있는 자신의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왕기 하권 22장

- 1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여덟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일 년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보스카스의 아다야의 딸 여디다였다.
- 2 그는 주님의 눈에 옳은 일을 하였고, 아버지 다윗의 모든 길을 따랐으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 3 요시아 왕 열여덟째 해에, 왕은 서기관 아사랴의 아들 메술람의 아들 샤판을 주님의 집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 4 "힐기야 대제사장에게 가서,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주님의 집에 들어온 돈을 세게 하라.
- 5 그 돈을 주님의 집을 감독하는 일꾼들의 손에 넘기고, 주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주어, 집을 수리하는 데 쓰게 하라.
- 6 목수들과 건축가들과 돌공에게 주어, 집을 수리할 나무와 다듬은 돌을 사게 하라.
- 7 그들이 받은 돈에 대해 그들에게 계산을 요구하지 말라. 그들은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이다."
- 8 힐기야 대제사장이 서기관 샤판에게 말했다. "내가 주님의 집에서 율법의 책을 발견하였다." 힐기야가 그 책을 샤판에게 주었고, 그가 그것을 읽었다.
- 9 서기관 샤판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보고하며 말했다. "당신의 종들이 집 안에서 발견된 돈을 모두 꺼내어, 주님의 집을 감독하는 일꾼들의 손에 넘겼습니다."
- 10 서기관 샤판이 왕에게 말했다. "제사장 힐기야가 저에게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샤판은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었다.
- 11 왕이 율법의 책의 말을 듣고 옷을 찢었다.
- 12 왕은 제사장 힐기야와 샤판의 아들 아히캄과 미가야의 아들 아크보르와 서기관 샤판과 왕의 하인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 13 "이 책에서 발견된 말에 관해 나와 백성과 유다 전체를 위해 주님께 물어보아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에게 기록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불타오르고 있다."
- 14 그래서 제사장 힐기야와 아히캄과 아크보르와 샤판과 아사야는 틱바의 아들 하르하스의 아내인 예언자 헨다에게 갔다. 그녀는 옷장 관리인으로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와 대화했다.
- 15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내게 보낸 그 사람에게 말하여라."
- 16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곳과 그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왕이 읽은 이 책의 모든 말을.
- 17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손으로 한 모든 일로 나를 격노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곳에 진노를 불태우고 꺼지지 않게 하겠다."
- 18 그러나 주님께 물으러 온 유다 왕에게는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가 들은 말에 관해,
- 19 네 마음이 부드럽고, 내가 이 곳과 그 주민들에게 재앙과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한 것을 듣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기 때문에,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20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 네 조상들에게로 모을 것이며, 너는 평안히 무덤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눈은 내가 이 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 말을 왕에게 전했다.

열왕기 하권 23장

- ¹ 왕이 사자를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신에게 불러모았다.
- ² 왕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고, 유다 모든 남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과 함께 갔다.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 작은 자와 큰 자까지도 함께하였다. 왕은 주님의 집에서 발견된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읽어주었다.
- ³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고, 그의 명령과 증거와 율법을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지키며,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확정하기로 언약을 맺었다. 모든 백성이 그 언약에 동의하였다.
- ⁴ 왕은 대제사장 힐기야와 둘째 등급의 사제들과 문지기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해 만든 모든 기구를 꺼내오게 하였다. 왕은 그것들을 예루살렘 밖, 키론 골짜기 들판에서 불태우고, 그 재를 베델로 옮겼다.
- ⁵ 왕은 유다 왕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주변의 높은 곳에서 향을 피우도록 세운 우상의 사제들을 모두 없앴다. 그들은 또한 바알과 태양과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모든 군대에 향을 피웠다.
- ⁶ 왕은 주님의 집에서 아세라를 꺼내 예루살렘 밖으로 가져가 키론 골짜기에서 불태우고, 가루가 되도록 부수어, 일반 백성의 무덤 위에 그 먼지를 뿌렸다.
- ⁷ 왕은 주님의 집 안에 있던 남자 창녀들의 집들을 헐어버렸다. 거기서 여자들이 아세라를 위해 장식용 망을 짜고 있었다.
- ⁸ 왕은 유다 모든 도시에서 사제들을 불러내어, 게바에서 베엘세바까지 사제들이 향을 피웠던 높은 곳들을 더럽혔다. 또 왕은 도시 문 입구에 있는 여호수아 도시 총독의 문 옆에 있던 문들의 높은 곳들을 헐어버렸다.
- ⁹ 그러나 높은 곳의 사제들은 예루살렘의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않았고, 그들은 형제들 사이에서 무교병을 먹었다.
- ¹⁰ 왕은 히논 자녀들의 골짜기 안에 있는 도페트를 더럽혀, 아무도 자기 아들이나 딸을 몰렉에게 불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 ¹¹ 왕은 주님의 집 입구에 있는, 유다 왕들이 태양을 위해 바친 말들을 제거하고, 나단멜렉이라는 관원의 방 옆, 안뜰에 있던 그것을 없앴다. 왕은 태양의 전차들을 불태웠다.
- ¹² 왕은 아하스의 위층 지붕 위에 있던 제단들과, 유다 왕들이 세운 제단들과, 마나세가 주님의 집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그곳에서 내려서 그 재를 키론 골짜기로 버렸다.
- ¹³ 왕은 예루살렘 앞에 있는,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는 높은 곳들을 더럽혔다. 이곳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들의 가증한 크모스와, 아몬 자녀들의 가증한 밀곰을 위해 세운 곳이었다.
- ¹⁴ 왕은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베어내며, 그 자리를 사람들의 뼈로 채웠다.
- ¹⁵ 또 베델에 있는 제단과, 이스라엘을 최악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든 높은 곳까지도 왕은 헐어버렸다. 왕은 그 높은 곳을 불태우고, 가루가 되도록 부수어, 아세라 목상을 불태웠다.
- ¹⁶ 요시야가 돌아서서 그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무덤에서 뼈들을 꺼내어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하느님의 사람의 예언에 따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제단을 더럽혔다.
- ¹⁷ 그가 말했다. “내가 보는 이 기념비는 무엇인가?”
- ¹⁸ 그가 말했다. “그를 그대로 두어라. 그의 뼈를 움직이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나온 예언자의 뼈를 그대로 두었다.
- ¹⁹ 이스라엘 왕들이 주님을 격노하게 하기 위해 세운 사마리아 모든 도시의 높은 곳의 집들을 요시야가 모두 제거하고, 베델에서 한 모든 행위를 그들에게 적용하였다.
- ²⁰ 왕은 그곳의 모든 높은 곳의 사제들을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 위에 사람들의 뼈를 불태웠다. 그 후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 ²¹ 왕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이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느님 주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 ²²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심판관들의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시대나 유다 왕들의 모든 시대에도 이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 ²³ 오직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위한 유월절이 지켜졌다.

- 24 요시아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보였던 유령을 부르는 자들과 점쟁이들과 테라핌들과 우상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여, 주님의 집에서 대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확정하였다.
- 25 그보다 앞서 주님께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힘을 다해,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돌아선 왕은 없었으며, 그 이후로도 그와 같은 왕은 일어나지 않았다.
- 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유다를 향해 그의 큰 진노의 격렬함을 돌이지 않으셨다. 이는 마나세가 그를 자극하여 일으킨 모든 자극 때문이었다.
- 27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이스라엘을 내 눈앞에서 제거한 것처럼 유다를 내 눈앞에서 제거할 것이며, 내가 택한 이 성읍, 곧 예루살렘과 내가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그 집을 버릴 것이다."
- 28 요시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 29 그 시대에 이집트 왕 느코가 유프라테스 강까지 아시리아 왕과 싸우려 올라갔다. 왕 요시아가 그에게 맞서 나갔으나, 느코가 그를 메기도에서 만나 죽였다.
- 30 그의 신하들이 그의 시신을 병거에 실어 메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고, 그를 자신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땅의 백성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와 기름을 부어 그를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웠다.
- 31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이십삼 세였고, 예루살렘에서 삼 개월 동안 왕으로 재위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리브나 사람 여레미야의 딸 하무탈이었다.
- 32 그는 조상들이 행한 모든 악행에 따라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 33 이집트 왕 느코는 그를 하마트 땅의 리블라에서 옥에 넣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재위하지 못하게 하였고, 땅에 은 백 탈란트와 금 일 탈란트의 공물을 부과하였다.
- 34 이집트 왕 느코는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 아버지 요시아의 뒤를 이게 하였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그는 여호아하스를 데려가 이집트로 보내어 거기서 죽게 하였다.
- 35 여호야김은 은과 금을 이집트 왕에게 주었으나, 그는 땅의 백성에게 세금을 매겨 이집트 왕의 명령에 따라 돈을 걷었다. 그는 땅의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평가에 따라 은과 금을 징수하여 이집트 왕 느코에게 바쳤다.
- 36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이십오 세였고, 예루살렘에서 열일일 년 동안 왕으로 재위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루마 사람 베다야의 딸 세비다였다.
- 37 그는 조상들이 행한 모든 악행에 따라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열왕기 하권 24장

- 1 그 시대에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올라와서 여호야김은 삼 년 동안 그의 종이 되었다. 그 후 여호야김은 그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 2 주님은 갈대아인 무리와 시리아인 무리와 모압 무리와 암몬 자손 무리를 그에게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이는 주님께서 그의 종들 곧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에 따라 유다를 멸망시키려 하심이었다.
- 3 분명히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일이 유다에 임한 것은, 마나세가 행한 모든 죄악 때문에 그들을 주님의 앞에서 제거하려 하심이었다.
- 4 또한 그가 흘린 무죄한 피 때문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 무죄한 피로 가득 채웠고, 주님은 용서하지 않으셨다.
- 5 여호야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 6 여호야김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7 이집트 왕은 더 이상 그의 땅을 떠나지 않았다. 이는 바빌론 왕이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왕의 모든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 8 여호야킨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열여덟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세 달 동안 왕으로 재위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예루살렘 사람 엘나단의 딸 느후스타였다.
- 9 그는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처럼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 10 그때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의 신하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도시를 포위하였다.
- 11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그의 신하들이 도시를 포위하고 있을 때 도시에 이르렀다.
- 12 유다 왕 여호야킨은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공신들과 관리들과 함께 바빌론 왕에게 나아갔다. 바빌론 왕은 그의 통치 여덟 번째 해에 그를 사로잡았다.
- 13 그는 주님의 집과 왕의 집의 모든 보물을 모두 가져갔으며,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에서 만든 모든 금 기구를 주님의 말씀대로 부수어 버렸다.
- 14 그는 예루살렘 전체와 모든 공신들과 모든 용감한 전사들, 즉 만 명의 포로들과 모든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을 사로잡아 끌고 갔다. 땅의 가장 가난한 자들만 남았다.
- 15 그는 여호야킨과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그의 관리들과 땅의 귀족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끌려갔다.
- 16 일곱 천 명의 용감한 전사들과 천 명의 장인들과 대장장이들, 곧 모두 전쟁에 적합한 강한 자들이 바빌론 왕에 의해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끌려갔다.
- 17 바빌론 왕은 여호야킨의 아버지의 동생인 마타냐를 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다.
- 18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스물한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열일 년 동안 왕으로 재위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리브나 사람 여레미야의 딸 하맛달이었다.
- 19 그는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처럼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 20 이것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주님의 분노로 인해 일어났으며, 그들이 주님의 앞에서 쫓겨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열왕기 하권 25장

- 1 그가 통치한 아홉 번째 해, 열 번째 달, 그 달 열 번째 날에, 바빌론 왕 느부카드네자르가 그의 모든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와서 그 도시를 둘러싸고 요새를 쌓았다.
- 2 그리하여 도시는 시드기야 왕의 열일 번째 해까지 포위되었다.
- 3 네 번째 달 아홉 번째 날에 도시에 기근이 극심하여 땅의 백성에게 빵이 없었다.
- 4 그러자 도시에 틈이 생기고, 모든 군인들이 밤에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해 도망쳤다. 그 문은 왕의 정원 근처에 있었다. (이때 갈대아인들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다.) 왕은 아라바 길로 떠났다.
- 5 그러나 갈대아 군대가 왕을 쫓아 예리코 평야에서 그를 붙잡았고, 그의 모든 군대는 그에게서 흩어졌다.
- 6 그들이 왕을 붙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올라가 그에게 재판을 내렸다.
- 7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멀게 한 뒤, 그를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 8 다섯 번째 달, 그 달 일곱 번째 날, 즉 바빌론 왕 느부카드네자르의 열아홉 번째 해에, 바빌론 왕의 시종인 수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 9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의 집,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웠다. 그는 큰 집들을 모두 불로 태웠다.
- 10 수비대장과 함께한 갈대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을 모두 허물었다.
- 11 수비대장 느부사라단은 도시에 남아 있던 나머지 백성과 바빌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 즉 나머지 모든 무리를 사로잡아 끌고 갔다.
- 12 그러나 수비대장은 땅의 가장 가난한 자들을 몇 명 남겨 포도원과 밭을 일하게 했다.
- 13 갈대아 사람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놋기둥들과 받침대들과 주님의 집에 있는 놋 바다를 부수고 그 놋조각들을 바빌론으로 옮겼다.
- 14 그들은 냄비들과 삽들과 집게들과 숟가락들과 봉사에 쓰는 모든 놋기구들을 가져갔다.
- 15 수비대장은 불을 담는 그릇들과 대야들과 금으로 된 것들과 은으로 된 것들을 가져갔다.
- 16 솔로몬이 주님의 집을 위해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대들에 쓰인 놋은 모두 무게를 달지 않았다.
- 17 한 기둥의 높이는 열여덟 규빗이었고, 그 위에는 놋으로 된 머리장식이 있었다. 머리장식의 높이는 세 규빗이었으며, 그 머리장식 주위에는 그물과 석류가 놋으로 되어 있었다. 또 다른 기둥과 그 그물도 이와 같았다.
- 18 수비대장은 대제사장 세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니야, 그리고 문지기 세 명을 잡아갔다.
- 19 그는 도시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자들을 감독하던 관리 한 명을 끌어내었고, 왕의 얼굴을 본 자들 중에서 도시에서 잡힌 다섯 명과, 땅의 백성을 정리하던 서기관과 군대의 장관, 그리고 도시에서 잡힌 땅의 백성 여섯십 명을 끌어냈다.
- 20 수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끌고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로 데려갔다.
- 21 바빌론 왕이 그들을 공격하여 하마트 땅의 리블라에서 죽였다. 이로써 유다는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 22 바빌론 왕 느부카드네자르가 유다 땅에 남겨둔 백성들 위에 그는 아히캄의 아들, 사판의 아들인 그달야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 23 모든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부대가 바빌론 왕이 게다랴를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민사바로 와서 게다랴를 찾아왔다. 그들 중에는 네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 탄후메스의 아들 세라야, 마야카 사람의 아들 야아즈니야와 그들의 부대가 모두 포함되었다.
- 24 게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부대에게 맹세하며 말했다. "갈대아인들의 하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땅에 머물며 바빌론 왕을 섬기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 25 그러나 일곱째 달에,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왕족 출신으로, 열 명과 함께 와서 므사에서 게다랴를 쳐 죽였으며, 그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도 함께 죽였다.
- 26 작고 큰 모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갔다.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 27 유다 왕 여호야킨이 포로로 잡힌 지 삼십칠 년째, 열두 번째 달, 그 달 스물일곱째 날에, 바빌론 왕 에빌멜로닥이 왕위에

오른 그 해에, 여호야킨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²⁸ 그는 여호야킨을 친절히 대우하며, 바빌론에 함께 있던 모든 왕들의 자리보다 높은 자리를 주었다.

²⁹ 그는 여호야킨의 옥중 옷을 갈아입혔다. 여호야킨은 평생 동안 그 앞에서 끊임없이 빵을 먹었다.

³⁰ 그의 생계비로, 왕이 평생 동안 매일 일정한 몫을 주었다.

역대기 상권 | 1 Chronicles

역대기 상권 1장

- ¹ 아담, 셋, 에노스,
- ² 케난, 마할라렐, 예레드,
- ³ 에녹, 메두셀라, 라멕,
- ⁴ 노아, 셈, 함, 야벳.
- ⁵ 야벳의 아들들: 고멜, 마고그, 마다이, 야완, 두발, 메섹, 티라스.
- ⁶ 고멜의 아들들: 아스나즈, 디파스, 도가르마.
- ⁷ 야완의 아들들: 엘리사, 타르시스, 키팀, 로다님.
- ⁸ 함의 아들들: 쿠스, 미스라임, 푸트, 가나안.
- ⁹ 쿠스의 아들들: 세바, 히빌라, 사브타, 라마, 사브테가. 라마의 아들들: 세바와 데단.
- ¹⁰ 쿠스는 니므롯을 낳았다. 그는 땅에서 힘 있는 자가 되기 시작하였다.
- ¹¹ 미스라임은 루딤, 아나뮴, 레하빔, 나프트힘을 낳았고,
- ¹² 바트루심, 카스루힘(비리스티인들이 나온 곳), 카프토림을 낳았다.
- ¹³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헛을 낳았고,
- ¹⁴ 예부스인, 아모리인, 기르가스인,
- ¹⁵ 히비스인, 아르키인, 시닌,
- ¹⁶ 아르바디인, 세마르인, 하마티인을 낳았다.
- ¹⁷ 셈의 아들들: 엘람, 아시르, 아르파크삿, 루드, 아람, 우스, 헐, 게셀, 메섹.
- ¹⁸ 아르파크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버를 낳았다.
- ¹⁹ 에버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다. 하나의 이름은 브레그였는데, 그의 시대에 땅이 나뉘었고, 그의 형의 이름은 요칸이었다.
- ²⁰ 요칸은 알모다드, 셀레프, 하사르마벳, 여라를 낳았고,
- ²¹ 하도람, 우살, 디클라,
- ²² 에발, 아비마엘, 세바,
- ²³ 오피르, 히빌라, 요밥을 낳았다. 이 모든 이들이 요칸의 아들들이었다.
- ²⁴ 셈, 아르파크삿, 셀라,
- ²⁵ 에버, 베레그, 레우,
- ²⁶ 세룩, 나홀, 테라,
- ²⁷ 아브람(곧 아브라함).
- ²⁸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 ²⁹ 이들이 그들의 후손이다. 이스마엘의 말아들은 네바요트이고, 그 다음은 케다르, 아드베엘, 미브삼,
- ³⁰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다드, 테마,
- ³¹ 유텔, 나비시, 케데마이다.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 ³² 아브라함의 첩 케투라의 아들들은 시므란, 요산, 메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이다. 요산의 아들들은 세바와 덤단이다.
- ³³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아이다. 이 모두가 케투라의 아들들이다.
- ³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이삭의 아들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 ³⁵ 에서의 아들들은 엘리파스, 르우엘, 여우스, 자람, 고라이다.
- ³⁶ 엘리파스의 아들들은 테만, 오마르, 세피, 가담, 케나즈, 티마나, 아말렉이다.
- ³⁷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하트, 세라, 샘마, 미자이다.
- ³⁸ 세일의 아들들은 로탄, 쇼발, 시보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다.

- ³⁹ 로탄의 아들들은 호리와 호맘이며, 티마나는 로탄의 누이이다.
- ⁴⁰ 쇼발의 아들들은 아리안, 마나핫, 예발, 세피, 온남이다. 시보온의 아들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 ⁴¹ 아나의 아들은 디산이다. 디산의 아들들은 하르만, 에스반, 이드란, 케란이다.
- ⁴² 에셀의 아들들은 빌한, 자아완, 야아칸이다. 디산의 아들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 ⁴³ 이스라엘 자손 위에 어떤 왕도 통치하기 전에 에돔 땅에서 통치한 왕들은 이러하다. 벨라는 베오르의 아들이며, 그의 도시 이름은 디나하바였다.
- ⁴⁴ 벨라가 죽고, 보스라의 세라의 아들 요압이 그의 뒤를 이어 통치하였다.
- ⁴⁵ 요압이 죽고, 테마니 사람들의 땅에서 후사가 그의 뒤를 이어 통치하였다.
- ⁴⁶ 후사가 죽고, 모압 들에서 미디안을 친 베다드의 아들 하다드가 그의 뒤를 이어 통치하였으며, 그의 도시 이름은 아비트이었다.
- ⁴⁷ 하다드가 죽고, 마스레카의 삼라가 그의 뒤를 이어 통치하였다.
- ⁴⁸ 삼라가 죽고, 강가의 레호봇의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 통치하였다.
- ⁴⁹ 사울이 죽고, 아크보르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⁵⁰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다드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며, 그의 도시 이름은 파이였다. 그의 아내 이름은 메헤타벨로, 그녀는 마트레드의 딸이자 메자하브의 손녀였다.
- ⁵¹ 그 후 하다드가 죽었다. 에돔의 족장들은 다음과 같았다: 팀나 족장, 아리아 족장, 예테스 족장,
- ⁵²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피논 족장,
- ⁵³ 케나즈 족장, 테만 족장, 미바르 족장,
- ⁵⁴ 마그디엘 족장, 그리고 이람 족장이다. 이들이 에돔의 족장들이다.

역대기 상권 2장

- 1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불론,
- 2 단, 요셉, 베냐민, 납탈리, 갓, 아셀이다.
- 3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 오난, 셀라이다. 이 셋은 가나안 여인인 수아의 딸로부터 그에게 태어났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의 눈에 악한 자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치셨다.
- 4 그의 며느리 타마르는 그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유다의 아들들은 모두 다섯 명이었다.
- 5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 6 세라의 아들들은 임리, 에단, 헤만, 칼골, 달라이다. 모두 다섯 명이다.
- 7 카르미의 아들은 아가르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로, 바친 물건에 대해 죄를 지은 자이다.
- 8 에단의 아들은 아사라이다.
- 9 헤스론에게 태어난 아들들은 여라므엘과 람과 헬루바이다.
- 10 람은 아민답을 낳았고, 아민답은 유다 자손의 지도자 나손을 낳았다.
- 11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다.
- 12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여세를 낳았다.
- 13 여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들 아비나답과 셋째 아들 시므아를 낳았다.
- 14 넷째는 네다넬, 다섯째는 래다이,
- 15 여섯째는 오젬, 일곱째는 다윗이었다.
- 16 그들의 누이들은 쥬루야와 아비가일이었다. 쥬루야의 아들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로, 셋이었다.
- 17 아비가일은 아마사르를 낳았고, 아마사르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이세르였다.
- 18 헤스론의 아들 칼렘은 아주바라는 아내와 여러웃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다. 그들의 아들들은 여세르와 쇼바브와 아르돈이었다.
- 19 아주바가 죽자, 칼렘은 에브라트와 결혼하였고, 그녀는 그에게 허르를 낳았다.
- 20 허르는 우리르를 낳았고, 우리르는 베사렘을 낳았다.
- 21 그 후 헤스론은 길르앗의 아버지 마키르의 딸과 결혼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그때 그는 육십 세였다. 그녀는 세굽을 낳았다.
- 22 세굽은 야이르를 낳았고, 야이르는 길르앗 땅에 성을 스물세 개 가졌었다.
- 23 게술과 아람은 야이르의 성들과 케나드와 그 마을들을 빼앗아, 모두 육십 성을 차지하였다. 이 모든 성들은 길르앗의 아버지 마키르의 아들들이었다.
- 24 헤스론이 칼렘 에브라타에서 죽은 후, 그의 아내 아비야는 아스후르를 낳았는데, 그는 테고아의 아버지였다.
- 25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므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람과 부나와 오렌과 오젬과 아히야였다.
- 26 여라므엘은 또 다른 아내를 두었는데, 그 이름은 아타라였다. 그녀는 오남의 어머니였다.
- 27 여라므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커였다.
- 28 오남의 아들들은 삼마이와 자다였다. 삼마이의 아들들은 나다브와 아비술이었다.
- 29 아비술의 아내 이름은 아비하일이었고, 그녀는 아반과 몰리드를 낳았다.
- 30 나다브의 아들들은 세레드와 아빠임이었으나, 세레드는 자식 없이 죽었다.
- 31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였고,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었으며, 세산의 아들은 아라이였다.
- 32 샤파이의 형제 자다의 아들들은 여테르와 요나단이었고, 여테르는 자식 없이 죽었다.
- 33 요나단의 아들들은 펠레스와 자자였다. 이들은 여라므엘의 아들들이었다.
- 34 이제 세산은 아들 없이 딸들만 있었다. 세산은 이집트인 중 하나를 두었는데, 그 이름은 자라였다.
- 35 세산은 자기 딸을 자기 중 자라에게 아내로 주었고, 그녀는 아타이를 낳았다.
- 36 아타이는 나단을 낳았고, 나단은 자바드를 낳았으며,

- 37 자바드는 에플랄을 낳았고, 에플랄은 오벳을 낳았으며,
 38 오벳은 여후를 낳았고, 여후는 아사랴를 낳았으며,
 39 아사랴는 헤레스를 낳았고, 헤레스는 엘라사를 낳았으며,
 40 엘라사는 시스마이를 낳았고, 시스마이는 살룸을 낳았으며,
 41 살룸은 예카미야를 낳았고, 예카미야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42 여라므엘의 형제 갈렙의 아들들은 만아들 메사로, 그는 지프의 아버지였고, 마레사의 아들들은 헤브론이었다.
 43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탐후와 레겜과 세마였다.
 44 세마는 라함을 낳았고, 라함은 요르케암을 낳았으며, 레겜은 삼마이를 낳았다.
 45 사마이의 아들은 마온이었고, 마온은 벳수르의 아버지였다.
 46 갈렙의 첩 에파는 하란과 모자와 가제스를 낳았으며, 하란은 가제스의 아버지가 되었다.
 47 야다이의 아들들은 레겜과 요탄과 계산과 펠렛과 에파와 샤페였다.
 48 갈렙의 첩 마아카는 세베르와 티르하나를 낳았다.
 49 그녀는 또한 마드마나의 아버지인 샤프와, 마크베나와 기베아의 아버지인 세바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아스사였다.
 50 이들은 에브라타의 장자인 허르의 아들 갈렙의 아들들이다. 곧 기랴트여아림의 아버지인 소발,
 51 베들레헴의 아버지인 살마와, 베트가데르의 아버지인 하레프이다.
 52 기랴트 여아림의 아버지인 소발은 아들들을 낳았으니, 하로에와 메뉴호트의 절반이다.
 53 기랴트 여아림의 가족들은 이드리트, 푸티트, 수마티트, 미스라티트이다. 그들 가운데서 조라티트와 에스타올리트가 나왔다.
 54 살마의 아들들은 베들레헴과 네토파티트, 아트로스 베트요압, 마나하티트의 절반, 그리고 조리트이다.
 55 야베츠에 거주하는 서기관들의 가족들은 티라티트, 시마티트, 수카티트이다. 이들은 하마트의 아들인 레하브의 집에서 나온 케인 사람들이다.

역대기 상권 3장

- ¹ 다윗의 아들들은 헤브론에서 태어났다. 맏아들은 예스레엘 사람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아몬이었고, 둘째는 카르멜 사람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다니엘이었으며,
- ² 셋째는 가스술 왕 탈마이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아브살롬이었고, 넷째는 하기트에게서 태어난 아도니아였으며,
- ³ 다섯째는 아비탈에게서 태어난 세파티야였고, 여섯째는 그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태어난 이드람이었다.
- 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여섯 아들이 태어났다. 그는 거기서 일곱 년과 여섯 달을 통치했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을 통치했다.
- ⁵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아들들은 시메아, 소바브, 나단, 솔로몬이었는데, 이 넷은 아미엘의 딸 바트세바에게서 태어났다.
- ⁶ 이브아르, 엘리사마, 엘리브엘레트,
- ⁷ 노가, 네페그, 아피아,
- ⁸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페레트—아홉 명이었다.
- ⁹ 이 모든 이들은 다윗의 아들들이었고, 첩의 아들들까지 포함하면, 그들의 누이 타마르도 있었다.
- ¹⁰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었고,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아였으며, 아비아의 아들은 아사였고, 아사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었으며,
- ¹¹ 그의 아들은 요람이었고,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가었고, 그의 아들은 요아스였으며,
- ¹² 그의 아들은 아마시야가었고, 그의 아들은 아사랴가었고, 그의 아들은 요담이었으며,
- ¹³ 그의 아들은 아하스였고, 아하스의 아들은 히스기야였고,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였으며,
- ¹⁴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이었고, 아몬의 아들은 요시야였다.
- ¹⁵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룸이었다.
- ¹⁶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여고니야와 시드기야였다.
- ¹⁷ 포로로 잡혀간 여고니야의 아들은 실라티엘이었고,
- ¹⁸ 말기람, 페다야, 선아자르, 예가미야, 호사마, 네다비아였다.
- ¹⁹ 페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미였고,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메술람과 하나냐였으며, 그들의 누이 이름은 셀로미트이었다.
- ²⁰ 하수바, 오헬, 베레기야, 하사디야, 유사브 헤세드—다섯 명이었다.
- ²¹ 하나냐의 아들들은 벨라티야와 예사야였고, 레파야의 아들들은 아르난이었으며, 아르난의 아들들은 오바댜였고, 오바댜의 아들들은 세가냐였다.
- ²² 세가냐의 아들은 세마야였고, 세마야의 아들들은 하뭇스, 이갈, 바리아, 나리아, 샤폍트—여섯 명이었다.
- ²³ 나리아의 아들들은 엘레오나이, 히스기야, 아즈리캄—세 명이었다.
- ²⁴ 엘레오나이의 아들들은 호다비야, 엘리아십, 펠라야, 아끄굽, 요하난, 데라야, 아나니—일곱 명이었다.

역대기 상권 4장

- ¹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 헤스론, 카르미, 허르, 그리고 소발이었다.
- ² 소발의 아들 레아이야는 야핫을 낳았고, 야핫은 아후마이와 라하드를 낳았다. 이들은 조라족의 가족들이다.
- ³ 에탐의 아버지의 아들들은 예스르엘, 이스마, 이드바시였다. 그들의 누이의 이름은 하젤레폰이었다.
- ⁴ 페누엘은 게도르의 아버지였고, 에제르는 후사의 아버지였다. 이들은 에프라타의 장자인 허르의 아들들이다. 허르는 베들레헴의 아버지였다.
- ⁵ 테코아의 아버지인 아스후는 헬라와 나아라를 아내로 맞이했다.
- ⁶ 나아라가 그에게 아후잠, 헤페르, 테메니, 하아하스타리를 낳았다. 이들은 나아라의 아들들이다.
- ⁷ 헬라의 아들들은 세레스, 이자르, 에스난이었다.
- ⁸ 하코즈는 아논과 조베바, 그리고 하룸의 아들 아헬헬의 가족들을 낳았다.
- ⁹ 아베스는 형제들보다 더 존경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아베스라 이름지었는데, 말하기를, "내가 슬픔으로 그를 낳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 ¹⁰ 아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기도하며 말했다. "내가 진실로 복을 받게 하시고, 제 경계를 넓히시며, 주님의 손이 저와 함께하여 악에서 보호하시고, 제가 고통을 주지 않게 하소서."
- ¹¹ 슈하의 형제 케롭은 메히르를 낳았고, 메히르는 에스통을 낳았다.
- ¹² 에스통은 벨라파와 파사아, 그리고 에히나를 낳았는데, 에히나는 이르나사를 낳았다. 이들은 레가의 사람들이다.
- ¹³ 케나즈의 아들들은 오스니엘과 세라야였다. 오스니엘의 아들은 하타스였다.
- ¹⁴ 메오노타이가 오브라의 아버지가 되었고, 세라야가 요압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요압은 게하라시임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이들은 장인들이었다.
- ¹⁵ 예후네의 아들 칼렙의 아들들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이었고, 엘라의 아들은 케나즈였다.
- ¹⁶ 예할렐의 아들들은 지프와 지파와 티리아와 아사렐이었다.
- ¹⁷ 에스라의 아들들은 이테르와 메레드와 에버와 자론이었고, 메레드의 아내는 미리암과 샘마이와 이스바를 낳았으며, 이스바는 에스드모아의 아버지가 되었다.
- ¹⁸ 그의 아내 이스라엘 여인은 게도르의 아버지 여레드와 소코의 아버지 헤베르와 자노아의 아버지 예후티엘을 낳았으니, 이들은 바로의 딸 비티아의 아들들이었고, 메레드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 ¹⁹ 호디아의 아내, 나함의 누이의 아들들은 가르미트인 키라와 마야카인 에스드모아의 아버지들이었다.
- ²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틸론이었고, 이시의 아들들은 조벳과 벤조벳이었다.
- ²¹ 유다의 아들 셀라의 아들들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과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 그리고 아스베아의 집에서 고운 베를 만드는 자들의 가족들이었다.
- ²² 요킴과 코제바의 사람들과 요아스와 사라프는 모압에서 통치하였고, 야수빌레헴도 그러하였으니, 이 기록들은 오래된 것이다.
- ²³ 이들은 도기장이들이었고, 네타임과 게데라의 주민들이었으며, 그들은 왕의 일을 위해 그곳에 살았다.
- ²⁴ 시몬의 아들들은 네무엘과 야민과 자립과 세라와 사울이었다.
- ²⁵ 샬롬은 그의 아들, 미브삼은 그의 아들, 미스마는 그의 아들이다.
- ²⁶ 미스마의 아들들은 함무엘과 자꾸르와 시메이다.
- ²⁷ 시미는 열여섯 아들과 여섯 딸을 두었으나, 그의 형제들은 자식이 많지 않았고, 그들의 가족은 유다의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다.
- ²⁸ 그들은 베엘세바와 모라다와 하라르수알에 살았다.
- ²⁹ 빌하와 에셈과 도라드에서,
- ³⁰ 베투엘과 호르마와 시글라그에서,
- ³¹ 베트마르카봇과 하자수심과 베트비리와 샤라임에 있었다. 이들은 다윗의 통치까지 그들의 도시들이었다.

- ³² 그들의 마을들은 에탐과 아인과 리몬과 도첸과 아산이었으며, 다섯 마을이었다.
- ³³ 바알까지 이르는 같은 도시들 주변의 모든 마을들이었다. 이들은 그들의 정착지였으며, 그들은 족보를 유지하였다.
- ³⁴ 메소밥과 암멜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
- ³⁵ 요엘과 요시비아의 아들 여후와 세라야의 아들과 아시엘의 아들
- ³⁶ 엘리오내와 야아코바와 예쇼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예시미엘과 베나야
- ³⁷ 시피의 아들 시자와 알론의 아들과 여다야의 아들과 시므리의 아들과 세마야의 아들—
- ³⁸ 이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들의 가족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의 조상의 집안은 크게 번성하였다.
- ³⁹ 그들은 양 떼를 위한 목초지를 찾아 게도르의 입구, 곧 골짜기 동쪽 끝까지 갔다.
- ⁴⁰ 그들은 풍요롭고 좋은 목초지를 발견하였고, 땅은 넓고 조용하며 평화로웠다. 그 땅에 먼저 살던 자들은 함의 자손이었다.
- ⁴¹ 이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 거기서 발견된 메우님의 장막을 치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그곳에 살며, 그곳에 양 떼를 위한 목초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 ⁴² 그들 중 시므온의 아들들 중 오백 명이 세일 산으로 가서, 그들의 장군으로는 이시의 아들들인 벨라티야와 나아리야와 레파야와 우찌엘을 두었다.
- ⁴³ 그들은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오늘날까지 그곳에 살고 있다.

역대기 상권 5장

- ¹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เบน의 아들들이라. (그는 장자였으나, 아버지의 침상더러 더럽혔으므로, 그의 장자권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 주어졌고, 족보는 장자권에 따라 기록되지 않았다.)
- ² 유다는 형제들보다 뛰어나서, 그에게서 왕이 나왔으나, 장자권은 요셉의 것이었다—
- ³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เบน의 아들들: 하녹, 발루, 헤스론, 카르미이다.
- ⁴ 요엘의 아들들: 그의 아들 세마야, 그의 손자 고그, 그의 증손 시미이다.
- ⁵ 그의 증손 미가, 그의 현손 레아야, 그의 손자 바알이다.
- ⁶ 그의 아들 비에라도 있다. 그는 아시리아 왕 틸글랏빌네세르에게 사로잡혀 갔다. 그는 르우벤 족장이었다.
- ⁷ 그의 가족별 형제들, 그들의 세대 족보가 기록될 때, 족장은 여이엘과 스가랴였다.
- ⁸ 아자스의 아들 벨라, 세마의 아들, 요엘의 아들로, 아로엘에서부터 느보와 바알 메온까지 살았다.
- ⁹ 그는 유프라테스 강 동쪽 사막 입구까지 살았으니, 그들의 가축이 길르앗 땅에서 번성했기 때문이다.
- ¹⁰ 사울의 날에, 그들은 하그리인들과 싸워 그들을 치고, 길르앗 동쪽 땅 전체에 그들의 장막을 치고 살았다.
- ¹¹ 갓 자손은 그들과 함께 바산 땅, 사레카까지 살았다.
- ¹² 그들의 족장은 요엘, 둘째는 사팜, 요나히, 바산에서 사팜이다.
- ¹³ 그들의 아버지 집안의 형제들: 미가엘, 메술람, 세바, 요라이, 야칸, 시아, 에버, 일곱 명이다.
- ¹⁴ 이들은 후리의 아들 아비하일, 야로아의 아들, 길르앗의 아들, 미가엘의 아들, 예시새의 아들, 야도의 아들, 브우스의 아들이다.
- ¹⁵ 아브디엘의 아들 아히, 군니의 아들로, 그들의 아버지 집안의 족장이다.
- ¹⁶ 그들은 바산의 길르앗과 그 도시들과, 그들의 경계까지의 샤론 모든 목초지에 살았다.
- ¹⁷ 이 모든 이들은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날에 족보로 기록되었다.
- ¹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반 지파 므낫세 자손 중, 용감한 자들,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쏘 줄 알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 사만 사천 칠백육십 명이었다.
- ¹⁹ 그들은 하그리인들과, 여투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웠다.
- ²⁰ 그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하그리인들과 그들과 함께한 모든 자들이 그들의 손에 넘겨졌으니, 그들이 전투 중에 하느님께 부르짖었고, 그들이 그분을 신뢰하였으므로, 그분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 ²¹ 그들은 그들의 가축을 빼앗았으니, 낙타 다섯만 마리, 양 이십오만 마리, 나귀 이천 마리, 사람 십만 명이다.
- ²² 많은 자들이 죽었으니, 이 전쟁은 하느님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로잡힐 때까지 그 땅에 살았다.
- ²³ 반 지파 므낫세의 자손들이 그 땅에 살았고,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세니르와 헤르몬 산까지 번성하였다.
- ²⁴ 그들의 아버지 집안의 족장들은 에브르, 이시, 엘리엘, 아스리엘, 예레미야, 호다비야, 야디엘이다. 이들은 용감한 자들, 유명한 자들, 그들의 아버지 집안의 족장들이다.
- ²⁵ 그들은 조상들의 하느님을 배반하고, 하느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땅 백성들의 신들에게 음행하였다.
- ²⁶ 이에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아시리아 왕 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아시리아 왕 틸가트필레세르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반 지파의 므낫세 자손을 잡아 하라와 하보르과 하라와 고잔 강으로 끌고 갔다. 오늘날까지 그들은 거기에 있다.

역대기 상권 6장

- 1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메라리였다.
- 2 고핫의 아들들은 암람, 이스할, 헤브론, 우찌엘이었다.
- 3 암람의 자녀들은 아론, 모세, 미리암이었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마르였다.
- 4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았고, 비느하스는 아비슈아를 낳았다.
- 5 아비슈아는 부키를 낳았고, 부키는 우찌를 낳았다.
- 6 우찌는 세라야를 낳았고, 세라야는 메라웃을 낳았다.
- 7 메라웃은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았다.
- 8 아히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았다.
- 9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았다.
- 10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는데,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집에서 사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 11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았다.
- 12 아히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살룸을 낳았다.
- 13 살룸은 힐기야를 낳았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았다.
- 14 아사랴는 세라야를 낳았고, 세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다.
- 15 여호사닥은 주님이 느부카드네자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사로잡아 갈 때 사로잡혀 갔다.
- 16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메라리였다.
- 17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리브니와 시메이였다.
- 18 고핫의 아들들은 암람, 이스할, 헤브론, 우찌엘이었다.
- 19 메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였다. 이들은 아버지의 가족에 따라 레위인들의 가족들이었다.
- 20 게르손의 후손들: 그의 아들 리브니, 그의 손자 야핫, 그의 증손 짐마,
- 21 그의 증손 요아, 그의 현손 이도, 그의 현손 세라, 그의 현손 여아드라이다.
- 22 고핫의 아들들: 그의 아들 암미나답, 그의 손자 고라, 그의 증손 아시르,
- 23 그의 증손 엘가나, 그의 현손 에비아습, 그의 현손 아시르,
- 24 그의 현손 타핫, 그의 현손 우리엘, 그의 현손 우찌야, 그의 현손 사울이다.
- 25 엘카나의 아들들은 아마새와 아히뭇이었다.
- 26 엘카나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조파이, 그의 아들 나핫,
- 27 그의 아들 엘리압, 그의 아들 여로암, 그의 아들 엘카나였다.
- 28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아였다.
- 29 메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 그의 아들 리브니, 그의 아들 시메이, 그의 아들 우자,
- 30 그의 아들 시메아, 그의 아들 하가야, 그의 아들 아사야였다.
- 31 이들은 궤가 그곳에 안정된 후, 주님의 집에서 찬양 봉사를 맡은 자들이다.
- 32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집을 지을 때까지 회막, 곧 만남의 장막 앞에서 찬양으로 봉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직무를 순서대로 수행하였다.
- 33 이들이 봉사한 자들과 그들의 아들들이다. 고핫 자손 중에서 찬양자 헤만은 요엘의 아들, 사무엘의 아들,
- 34 엘카나의 아들, 여로암의 아들, 엘리엘의 아들, 도아의 아들,
- 35 수프의 아들, 엘카나의 아들, 마핫의 아들, 아마새의 아들,
- 36 엘카나의 아들, 요엘의 아들, 아사랴의 아들, 스바냐의 아들,
- 37 타핫의 아들, 아시르의 아들, 에비아스압의 아들, 고라의 아들,
- 38 이스르의 아들, 고핫의 아들, 레위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 39 그의 형제 아사프는 그의 오른쪽에 서 있었는데, 아사프는 베레기야의 아들, 시메아의 아들,

- 40 미가엘의 아들, 바세야의 아들, 말기야의 아들,
 41 에스니의 아들, 세라의 아들, 아다야의 아들,
 42 예단의 아들, 짐마의 아들, 시메이의 아들,
 43 야합의 아들, 게르손의 아들, 레위의 아들이다.
 44 왼쪽에는 그들의 형제인 머라리 자손들이 서 있었는데, 예단은 기시의 아들, 아브디의 아들, 말룩의 아들,
 45 하사비아의 아들, 아마지야의 아들, 힐기야의 아들,
 46 암시의 아들, 바니의 아들, 세머의 아들,
 47 마홀리의 아들, 무시의 아들, 머라리의 아들, 레위의 아들이다.
 48 그들의 형제인 레위인들은 하느님의 집의 모든 봉사를 맡았다.
 49 그러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번제단과 향단에서 봉사하였으며, 가장 거룩한 장소의 모든 일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를,
 하느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
 50 아론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그의 아들 엘르아살, 그의 손자 비느하스, 그의 증손 아비슈아,
 51 그의 증손 부키, 그의 손자 우지, 그의 손자 세라야,
 52 그의 손자 메라이오토, 그의 손자 아마랴, 그의 손자 아히둡,
 53 그의 손자 사독, 그의 손자 아히마아스이다.
 54 이제 그들이 거주한 곳은 그들의 영역 안에서의 진영에 따라 이러하다. 코하트 자손의 가족 중 아론 자손은 첫 번째 제비를 받았으므로,
 55 유다 땅에서 헤브론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으며,
 56 그 도시의 밭과 그 마을들은 여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57 아론 자손에게는 피난 도시인 헤브론과 그 주변의 목초지, 린바와 그 주변의 목초지, 야티르와 에스드모아와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으며,
 58 힐렌과 그 주변의 목초지, 데비르와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으며,
 59 아산과 그 주변의 목초지, 벵세메스와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으며,
 60 베냐민 지파에서 게바와 그 주변의 목초지, 알레메스와 그 주변의 목초지, 아나돗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다. 그들의 가족 전체에 걸쳐 그들이 받은 도시는 열세 도시였다.
 61 코하트의 나머지 아들들은 제비를 통해, 그 지파의 가족 중 반 지파인 므낫세 반 지파에서 열 도시를 받았다.
 62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가족에 따라, 잇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서 열세 도시를 받았다.
 63 머라리 자손은 그들의 가족에 따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열두 도시를 제비로 받았다.
 64 이스라엘 자손은 레위 사람에게 도시와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다.
 65 그들은 유다 자손 지파와 시므온 자손 지파와 베냐민 자손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도시들을 주었다.
 66 코하트 자손의 일부 가족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 안에서 도시를 받았다.
 67 그들은 그들에게 피난 도시인 에브라임 산지의 스킴과 그 주변의 목초지, 게제르와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으며,
 68 요크므암과 그 주변의 목초지, 벵오론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으며,
 69 아이알론과 그 주변의 목초지, 가스 림몬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으며,
 70 므낫세 반 지파에서 애너와 그 주변의 목초지, 빌레암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코하트 자손의 나머지 가족에게 주었다.
 71 게르손 자손은 므낫세 반 지파의 가족에서 바산의 고란과 그 주변의 목초지, 아스다롯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받았으며,
 72 잇사갈 지파에서 게데스와 그 주변의 목초지, 다베라스와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다.
 73 라못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아넴과 그 목초지;
 74 아셀 지파에서 마살과 그 목초지, 아본과 그 목초지,
 75 후곡과 그 목초지, 그리고 레흠과 그 목초지;

- ⁷⁶ 납탈리 지파에서 갈릴리의 케데스와 그 목초지, 하몬과 그 목초지, 그리고 기리아타임과 그 목초지.
- ⁷⁷ 레위인들 중 메라리의 아들들에게는 세불론 지파에서 리므논과 그 목초지, 타보르와 그 목초지가 주어졌으며,
- ⁷⁸ 요르단 강 건너편 여리고, 요르단 강 동쪽에서 르우벤 지파에서 베셀과 그 목초지, 야하스와 그 목초지가 주어졌으며,
- ⁷⁹ 케데못과 그 목초지, 그리고 메파얏과 그 목초지;
- ⁸⁰ 갓 지파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목초지,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
- ⁸¹ 헤스본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야제르와 그 목초지.

역대기 상권 7장

- ¹ 이사갈의 아들들은 도라, 푸아, 야습, 시몬으로, 네 명이었다.
- ² 도라의 아들들은 우찌엘, 레파야, 여리엘, 야마이, 임삼, 세무엘로, 이들은 도라의 가문의 족장들이며, 그 세대의 용감한 용사들이었다. 다윗 시대에 그들의 수는 이만 이천육백이었다.
- ³ 우찌엘의 아들은 이스라야였다. 이스라야의 아들들은 미가엘, 오바다, 요엘, 이스야로, 다섯 명이었으며, 모두 족장들이었다.
- ⁴ 그들과 함께, 그들의 세대를 따라,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전쟁을 위한 군대 부대가 삼만 육천 명이었는데, 그들은 아내와 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 ⁵ 이사갈의 모든 가문 가운데 그들의 형제들, 용감한 용사들로, 족보에 기록된 전체 수는 일만 칠천 명이었다.
- ⁶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 베키, 여디엘로, 세 명이었다.
- ⁷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 우찌, 우찌엘, 여리못, 이리로, 다섯 명이었으며, 이들은 조상 가문의 족장들이고 용감한 용사들이었다. 그들의 족보에 기록된 수는 이만 이천삼십사 명이었다.
- ⁸ 베키의 아들들은 세미라, 요아스, 엘리에셀, 엘리오나이, 옴리, 여리못, 아비야, 아나돗, 아레멧이었다. 이 모두가 베키의 아들들이었다.
- ⁹ 그들은 세대를 따라 족보에 기록되었으며, 조상 가문의 족장들이고 용감한 용사들이었으니, 그 수는 이만 이백 명이었다.
- ¹⁰ 여디엘의 아들은 빌하였다. 빌하의 아들들은 여우스, 베냐민, 에훗, 케나아나, 세탄, 타르시스, 아히사하르였다.
- ¹¹ 이 모두가 여디엘의 아들들이었으며, 조상 가문의 족장들로서 용감한 용사들이었고, 전쟁을 위해 나갈 수 있는 자는 일만 칠천이백 명이었다.
- ¹² 수빔과 휘피빔은 이르의 아들들이었고, 후시빔과 아헤르의 아들들도 있었다.
- ¹³ 납탈리의 아들들은 야흐치엘, 구니, 여제르, 샬롬, 빌하의 아들들이었다.
- ¹⁴ 마나세의 아들들은 아스리엘로, 그의 첩인 아람 여인이 낳았다. 그 여인은 길르앗의 아버지 마키르를 낳았다.
- ¹⁵ 마키르는 휘피빔과 수빔의 딸 중 한 명과 결혼하였는데, 그 여자의 누이 이름은 마아카였다. 둘째 이름은 세로페하드였고, 세로페하드에게는 딸들이 있었다.
- ¹⁶ 마키르의 아내 마아카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페레스라 지었고, 그의 형제는 세레스였으며, 페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켄이었다.
- ¹⁷ 울람의 아들은 베단이었다. 이들이 길르앗의 자손으로, 길르앗은 마키르의 아들, 마키르는 마나세의 아들이다.
- ¹⁸ 그의 누이 하몰레케트는 이스돗, 아비에셀, 마라를 낳았다.
- ¹⁹ 세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 세켄, 리키, 아니암이었다.
- ²⁰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술탈라, 그의 아들 베레드, 그의 아들 타합, 그의 아들 엘라다, 그의 아들 타합,
- ²¹ 자바드, 그의 아들 술탈라, 에제르, 엘라드인데, 그들은 땅에서 태어난 가스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들이 가축을 빼앗으려고 내려왔기 때문이다.
- ²²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은 많은 날 동안 애곡하였고, 그의 형제들이 와서 그를 위로하였다.
- ²³ 그가 아내에게 들어가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는 그 이름을 베리아라 지었으니, 그의 집에 환난이 있었기 때문이다.
- ²⁴ 그의 딸은 세라였으며, 그녀는 아래 뱀호론과 위 뱀호론, 그리고 우젠세라를 건축하였다.
- ²⁵ 레파는 그의 아들이고, 레쉐프는 그의 아들이며, 테라하는 그의 아들이고, 타한은 그의 아들이다.
- ²⁶ 라단은 그의 아들이고, 아미후드는 그의 아들이며, 엘리사마는 그의 아들이다.
- ²⁷ 눈은 그의 아들이고, 여호수아는 그의 아들이다.
- ²⁸ 그들의 소유와 거주지는 뱀엘과 그 도시들, 동쪽으로는 나아란, 서쪽으로는 게제르와 그 도시들, 그리고 스켄과 그 도시들, 아자와 그 도시들까지였다.
- ²⁹ 마나세 자손의 경계를 따라, 뱀세안과 그 도시들, 타아나크와 그 도시들, 메기도와 그 도시들, 그리고 도르과 그 도시들

이다.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들이 이곳에 거주하였다.

³⁰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 이스바, 이스비, 베리아였다. 세라가 그들의 누이였다.

³¹ 베리아의 아들들은 헤베르와 말키엘인데, 말키엘은 비라이스의 아버지였다.

³² 헤베르는 야플렛, 쇼머, 호담, 그리고 그들의 누이 수아를 낳았다.

³³ 야플렛의 아들들은 파사크, 빈할, 아스밧이다. 이들은 야플렛의 자손들이다.

³⁴ 세머의 아들들은 아히, 로가, 예후바, 아람이다.

³⁵ 그의 형제 헬렘의 아들들은 조파, 임나, 셀레스, 아말이다.

³⁶ 조파의 아들들은 수아, 하르네퍼, 수알, 베리, 임라이다.

³⁷ 베제르, 호드, 샘마, 실사, 이드란, 비에라이다.

³⁸ 예테르의 아들들은 예후네, 피스바, 아라이다.

³⁹ 올라의 아들들은 아라, 하니엘, 리자이다.

⁴⁰ 이 모든 이들이 아셀의 자손들로서, 가족의 수장이요, 용감하고 탁월한 용사들로, 지도자들 중 최고였다. 그들의 족보에 기록된 전쟁에 나서는 자의 수는 이만 육천 명이였다.

역대기 상권 8장

- 1 베냐민은 첫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 셋째 아하라를 낳았으며,
- 2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파를 낳았다.
- 3 벨라의 아들들은 아다르와 게라와 아비후드이다.
- 4 아비스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이다.
- 5 게라와 세푸판과 후람이다.
- 6 이들은 에후드의 아들들이다. 이들은 게바에 사는 자들의 가족 족장들로, 마나하드로 사로잡혀 간 자들이다.
- 7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가 그들을 사로잡아 갔으며, 그는 우자와 아히후드를 낳았다.
- 8 샤라임은 아내들을 내보낸 후 모압 땅에서 자녀들을 낳았다. 후시와 바아라가 그의 아내들이었다.
- 9 그의 아내 호데시가 그에게 요밥과 지비아와 메사와 말감을 낳아주었으며,
- 10 여우와 샤키아와 미르마를 낳아주었다. 이들은 그의 아들들로, 가족 족장들이다.
- 11 후시를 통해 그는 아비투브와 엘파알을 낳았다.
- 12 엘파알의 아들들은 에버와 미삼과 세메드인데, 그는 오노와 로드 및 그 도시들을 건설하였다.
- 13 베리아와 세마는 아야론에 사는 자들의 가족 족장들로, 가드에 사는 자들을 쫓아냈다.
- 14 아히오와 샤삭과 예르못이,
- 15 세바디아와 아라드와 에더가,
- 16 베리아의 아들들인 미카엘과 이스파와 요아가,
- 17 세바디아와 메술람과 히즈키와 헤버가,
- 18 이스머라이와 이즐리아와 요아브가, 엘파알의 아들들이다.
- 19 야킴과 지크리와 잠비가,
- 20 엘레나이와 질레타이와 엘리엘이,
- 21 아디아와 베라야와 시므라트가, 시메이의 아들들이다.
- 22 이스판과 에버와 엘리엘이,
- 23 아브돈과 지크리와 한난이,
- 24 하나냐와 엘람과 안토티야가 있다.
- 25 이프데야, 페누엘, 샤삭의 아들들,
- 26 삼세라이, 세하랴, 아달리야,
- 27 야아레스야, 엘리야, 지크리, 그리고 예로함의 아들들.
- 28 이들은 세대를 거쳐 가족의 수장들이었고, 우두머리들이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살았다.
- 29 기브온의 아버지는 마아카라는 아내를 두고 기브온에 살았다.
- 30 그의 맏아들 아본, 주르, 키흐, 바알, 나다브,
- 31 게도르, 아히오, 세케르,
- 32 미클롯은 시메아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들은 또한 예루살렘에서 자기 가족과 함께 친척들 곁에 살았다.
- 33 네르는 키흐의 아버지가 되었고, 키흐는 사울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사울은 요나단, 말기시우아, 아비나답, 에스바알의 아버지가 되었다.
- 34 요나단의 아들들은 메립바알이었고, 메립바알은 미가의 아버지가 되었다.
- 35 미가의 아들들: 피톤, 멜렉, 타레아, 아하즈.
- 36 아하즈는 여호아다의 아버지가 되었고, 여호아다는 알레멧, 아스마벳, 짐리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짐리는 모자의 아버지가 되었다.
- 37 모자는 비네아의 아버지가 되었고, 라파는 그의 아들, 엘라사도 그의 아들, 아젤도 그의 아들이다.
- 38 아젤은 여섯 아들을 두었는데, 그 이름들은 아릭람, 보케루, 이스마엘, 세아랴, 오바댜, 하난이다. 이 모두가 아젤의 아들

들이다.

³⁹ 에세크의 아들들: 맏아들 우람, 둘째 여우스, 셋째 엘리브엘.

⁴⁰ 우람의 아들들은 용감한 용사들로, 활을 쏘는 자들이었으며, 아들과 손자들이 많아서 일백 오십 명이나 되었다. 이 모두가 베냐민의 아들들이다.

역대기 상권 9장

- 1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족보에 따라 등록되었으며, 보라, 그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 2 그들의 소유지와 도시에서 먼저 살게 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하인들이었다.
- 3 예루살렘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살았다.
- 4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서, 아미후드의 아들 우타이, 옴리의 아들, 임리의 아들, 바니의 아들이다.
- 5 실론 사람 중에서 아사야가 맏아들이며, 그의 아들들이다.
- 6 세라의 아들들 중에서 예우엘과 그의 형제들, 여섯백 구십 명이다.
- 7 베냐민의 아들들 중에서 메술람의 아들 살루, 호다비야의 아들, 하스누아의 아들이다.
- 8 예로함의 아들 이브네야, 우찌의 아들 엘라, 미히리의 아들, 세파티아의 아들 메술람, 레우엘의 아들, 이브니야의 아들이다.
- 9 그들의 형제들은 족보에 따라 아홉백 오십육 명이었으며, 이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집안을 이끄는 가족의 수장들이었다.
- 10 사제들 중에서 여다야, 여호야립, 야긴이다.
- 11 힐기야의 아들 아사랴, 메술람의 아들, 사독의 아들, 메라옷의 아들, 아히둡의 아들로, 하느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이다.
- 12 예로함의 아들 아다야, 파스후르의 아들, 말기야의 아들, 아디엘의 아들 마아사이, 야세라의 아들, 메술람의 아들, 메실레밋의 아들, 임멜의 아들이다.
- 13 그들의 형제들, 즉 아버지의 집안을 이끄는 수장들은 일천칠백육십 명이었으며, 그들은 하느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에 매우 능숙한 사람들이었다.
- 14 레위인들 중에서 하숨의 아들 세마야, 아즈리캄의 아들, 하사비야의 아들로, 메라리의 자손이다.
- 15 바크바카르, 헤레스, 갈랄, 미가의 아들 마타니야, 지크리의 아들, 아사프의 아들이다.
- 16 세마야의 아들 오바다, 갈랄의 아들, 여두둔의 아들, 아사의 아들 베레기야, 엘가나의 아들로, 네토파티 사람들의 마을에 살았다.
- 17 문지기들: 살룸, 아꾸브, 탈몬, 아히만,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살룸이 우두머리였다).
- 18 그들은 이전에 왕의 동문에서 봉사하였다. 그들은 레위 자손의 진영 문지기들이었다.
- 19 살룸은 고레의 아들, 에비아스프의 아들, 고라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의 집안, 곧 고라 자손들은 장막의 문지기로서 문턱을 지켰다. 그들의 조상들은 주님의 진영을 지키며 입구를 맡았다.
- 20 엘르아살의 아들 비니아스가 옛적에 그들을 다스렸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셨다.
- 21 메세멜야의 아들 스가라가 만남의 장막 문지기였다.
- 22 문지기로 임명된 이들, 곧 문턱을 지키는 자들은 모두 이백십이 명이었다. 그들은 마을의 족보에 따라 등록되었으며, 다윗과 예언자 사무엘은 그들에게 신뢰받는 직무를 맡겼다.
- 23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하느님의 집, 곧 장막의 문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다.
- 24 문지기들은 사방, 곧 동쪽, 서쪽, 북쪽, 남쪽에 배치되었다.
- 25 그들의 형제들은 마을에서 일정한 주기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 26 이 네 명의 주요 문지기들은 레위 사람들로, 신뢰받는 직무를 맡아 하느님의 집의 방들과 보물창고를 감독했습니다.
- 27 그들은 하느님의 집 주변에 머물며 그 임무를 수행했고, 아침마다 문을 여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 28 어떤 이들은 봉사에 쓰이는 기구를 맡아, 그것들을 수를 세어 넣고 수를 세어 꺼냈습니다.
- 29 어떤 이들은 가구와 성소의 모든 기구, 고운 밀가루, 포도주, 기름, 유향, 향신료를 맡았습니다.
- 30 사제들의 아들들 중 일부는 향을 쬐는 일을 맡았습니다.
- 31 코라의 자손인 살룸의 장남인 마티디아는 레위 사람으로, 팬에 구운 음식을 맡는 신뢰받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 32 고핫의 자손들 중 일부는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 33 이들은 레위 사람들의 가족 족장들로서 노래하는 자들이며, 방에서 살며 다른 임무에서 해방되어 낮과 밤으로 그들의 일

에 전념했습니다.

³⁴ 이들은 세대를 거쳐 이어진 레위 사람들의 가족 족장들로서 주요 인물들이었으며,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³⁵ 기브온의 아버지 여이엘은 아내의 이름이 마야카였으며, 기브온에 살았습니다.

³⁶ 그의 맏아들은 아본이고, 그 다음은 주르, 키흐, 바알, 네르, 나다브였습니다.

³⁷ 게도르, 아히오, 스가랴, 미클롯이었습니다.

³⁸ 미클롯은 시마암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자기 친척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³⁹ 네르는 키흐의 아버지가 되었고, 키흐는 사울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사울은 요나단, 말기시우아, 아비나답, 에스바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⁴⁰ 요나단의 아들은 메립바알이었고, 메립바알은 미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⁴¹ 미가의 아들들은 피톤, 멜렉, 타레아, 아하즈였습니다.

⁴² 아하즈는 자라의 아버지가 되었고, 자라는 알레멧, 아스마벳, 짐리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짐리는 모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⁴³ 모자는 비네아의 아버지가 되었고, 비네아의 아들은 레파야, 레파야의 아들은 엘라사, 엘라사의 아들은 아젤이었습니다.

⁴⁴ 아젤은 여섯 아들을 두었는데, 그 이름은 아리카암, 보케루, 이스마엘, 세아랴, 오바다, 한난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젤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역대기 상권 10장

¹ 필리스티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리스티인 앞에서 도망쳐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죽었다.

² 필리스티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뒤쫓아 붙었고, 필리스티인들은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시우아를 죽였다.

³ 전투가 사울에게 심하게 밀리자, 활꾼들이 그를 쫓아붙었고, 활꾼들 때문에 그는 고통을 받았다.

⁴ 그러자 사울이 자기 무기병에게 말했다. "칼을 뽑아 나를 찔러 죽여라.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모욕하지 못하게."

⁵ 무기병이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스스로 떨어져 죽었다.

⁶ 이렇게 사울은 세 아들과 함께 죽었고,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⁷ 계곡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도망친 것을 보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도시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자 필리스티인들이 와서 그 도시들에 살게 되었다.

⁸ 이튿날, 필리스티인들이 죽은 자들의 시체를 벗기러 오니,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⁹ 그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무기를 벗겨, 필리스티인 땅 전역에 보내어 자기들의 우상들과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

¹⁰ 그들은 그의 무기를 자기들의 신들의 집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집에 매달았다.

¹¹ 야베스 길르앗의 모든 사람들이 필리스티인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듣고,

¹² 모든 용감한 자들이 일어나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와 야베스로 옮기고, 그 뼈들을 야베스의 참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였다.

¹³ 사울은 주님을 거스려 범한 죄로 인해 죽었으니, 그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또한 유령을 부르는 자에게 물어보려고 상의했기 때문이다.

¹⁴ 그가 주님께 물어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왕국을 여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다.

역대기 상권 11장

- 1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모여들어 말했다.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뼈와 살입니다.
- 2 과거 사울이 왕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끌어 들어왔습니다.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 3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왕에게 나아가, 다윗이 주님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 곧 사무엘을 통해 한 말씀에 따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 4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예부스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올라갔다. 예부스 족속, 곧 그 땅의 주민들이 그곳에 있었다.
- 5 예부스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했다. "당신은 여기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의 요새를 빼앗았다. 그것이 곧 다윗의 도시이다.
- 6 다윗이 말했다. "예부스 족속을 먼저 치는 자가 장군이 되고 지휘관이 될 것이다." 세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 장군이 되었다.
- 7 다윗은 요새에 살았으므로, 그곳을 다윗의 도시라고 불렀다.
- 8 그는 밀로를 시작으로 도시를 사방으로 쌓아 올렸고, 요압은 나머지 도시를 수리하였다.
- 9 다윗은 점점 더 커졌으니, 만군의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이다.
- 10 이제 이들은 다윗이 가진 용감한 용사들의 수장들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그의 왕국에서 힘을 보였고, 이는 이스라엘을 위한 주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었다.
- 11 다윗이 가진 용감한 용사들의 수는 이러하다. 하크모니 사람의 아들 야소베암은 삼십 명의 수장이었으며, 그가 한 번에 창을 들어 삼백 명을 죽였다.
- 12 그 뒤에는 아호이 사람의 아들 도도의 아들 엘라사르가 있었는데, 그는 삼인의 일원이었다.
- 13 그는 다윗과 함께 파스담민에 있었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를 위해 모여들었으며, 보리가 가득한 밭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도망쳤다.
- 14 그들은 밭 한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지키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며, 주님께서 큰 승리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 15 삼십 명의 수장 중 세 사람이 다윗이 있는 바위로 내려가, 아둘람 동굴에 이르렀다. 그때 블레셋 군대는 레파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
- 16 그때 다윗은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전방 부대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 17 다윗이 갈망하며 말했다. "아, 베들레헴 성문 곁의 우물에서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싶다!"
- 18 그 세 사람은 블레셋 군대를 뚫고 성문 곁의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다윗에게 가져왔으나, 다윗은 그것을 마시지 않고 주님께 부어 버렸다.
- 19 그리고 말했다. "내 하느님,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게 하소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피를 내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감한 용사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 20 요압의 형제 아비새는 삼인의 수장이었으니, 그가 창을 들어 삼백 명을 죽였고, 삼인 중에 이름을 떨쳤다.
- 21 그는 삼인 중에서 두 사람보다 더 존경받아 그들의 지휘관이 되었으나, 삼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 22 예호야다의 아들 베나야는 카브셀의 용감한 자의 아들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자였다. 그는 모압의 아리엘의 두 아들을 죽였고, 눈이 내리는 날에는 우물 한가운데에 있는 사자를 죽였다.
- 23 그는 다섯 규빗이나 되는 큰 키의 이집트인을 죽였다. 그 이집트인의 손에는 직물 직기의 빔처럼 긴 창이 있었고, 베나야는 지팡이만을 들고 그에게 내려가 이집트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의 창으로 그를 죽였다.
- 24 예호야다의 아들 베나야는 이런 일을 하였고, 삼인의 용감한 용사들 중에 이름을 떨쳤다.
- 25 보라, 그는 삼십 명보다 더 존경받았으나, 세 명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이 그를 자신의 경비대장으로 임명하였다.
- 26 군대의 용사들에는 요압의 형제 아사헬과 베들레헴의 도도의 아들 엘하난도 포함된다.

- 27 하로리 사람 샤모트, 펠로니 사람 헬레츠,
- 28 테코이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
- 29 후사트 사람 시브카이, 아호이 사람 일라이,
- 30 네토파트 사람 마하라이, 바나아의 아들 네토파트 사람 헬레드,
- 31 베냐민 자손의 기브아 사람 리바이의 아들 이타이, 피라톤 사람 베나야,
- 32 가아스 시내의 하루이, 아르바트 사람 아비엘,
- 33 바후림 사람 아스마벳, 살본 사람 엘리야바,
- 34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 하라리 사람 샤희의 아들 요나단,
- 35 하라리 사람 사카르의 아들 아히암, 우르의 아들 엘리발,
- 36 메케라트 사람 헤페르, 펠로니 사람 아히야,
- 37 카르멜 사람 헤스로, 에스바이의 아들 나라이,
- 38 나단의 형제 요엘, 하그리의 아들 미바르,
- 39 암몬 사람 젤렉, 베로트 사람 나하라이(세루야의 아들 요압의 갑옷을 메는 자),
- 40 이드리 사람 이라, 이드리 사람 가레브,
- 41 히위 사람 우리야, 아하라이의 아들 자바드,
- 42 르우벤 사람 시자의 아들 아디나(르우벤 족장 중 한 사람)와 그와 함께한 삼십 명,
- 43 마아가의 아들 하난, 미스니 사람 요사밧,
- 44 아스다롯 사람 우찌엘, 아로에르 사람 호담의 아들 샤마와 여엘,
- 45 시미리의 아들 여디엘과 그의 형제 티스 사람 요하,
- 46 마하비트 사람 엘리엘, 예리바이, 요사비야, 엘나암의 아들들, 모압 사람 이스마,
- 47 엘리엘, 오벳, 메조바이 사람 야시엘.

역대기 상권 12장

- 1 이들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서 도망치고 있던 동안 시글락으로 찾아온 자들이다. 그들은 용감한 전사들로, 전쟁에서 그를 돕는 자들이었다.
- 2 그들은 활을 들고 오른손과 왼손 모두로 돌을 던지고 활로 화살을 쏠 수 있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사울의 친척들이었다.
- 3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었고, 그 다음은 기브아 사람 세마아의 아들 요아스, 아스마벳의 아들 예지엘과 벨렛, 베라카, 아나돗 사람 여후;
- 4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는 삼십 명 중 용감한 자이자 삼십 명의 지도자였으며, 예레미야, 야히젤, 요하난, 게데라 사람 요사밧;
- 5 엘루자이, 예리못, 베알랴, 세마랴, 하룻 사람 세파티야;
- 6 엘가나, 이시아, 아사렐, 요에셀, 요사브암, 고라 자손들;
- 7 그리고 게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아와 세바다.
- 8 일부 갓 자손들이 광야의 요새에서 다윗에게 합류하였다. 그들은 용감한 전사들로, 전투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알았으며, 그들의 얼굴은 사자처럼 용감하고, 산에서 사슴처럼 빠르었다.
- 9 우두머리는 에셀이었고, 둘째는 오바다, 셋째는 엘리압;
- 10 넷째는 미스마나, 다섯째는 예레미야;
- 11 여섯째는 아타이, 일곱째는 엘리엘;
- 12 여덟째는 요하난, 아홉째는 엘자밧;
- 13 열째는 예레미야이고, 열한째는 마크바나이었다.
- 14 이 갓 자손들은 군대의 장관들이었다. 가장 약한 자도 백 명에 견줄 수 있었고, 가장 뛰어난 자는 천 명에 견줄 수 있었다.
- 15 이들은 첫째 달에 요르단 강이 범람하여 제방을 넘었을 때 강을 건너, 동쪽과 서쪽의 골짜기에 사는 모든 자들을 쫓아냈다.
- 16 베냐민과 유다 자손들 중 일부가 요새로 다윗에게 왔다.
- 17 다윗이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평화롭게 내게 와서 도와주려는 것이라면, 내 마음이 너희와 하나가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 원수들에게 나를 배신하려는 것이라면, 내 손에 죄가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책망하시기를 바란다."
- 18 그때 아마새, 삼십 명의 우두머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가 말하였다. "다윗, 우리는 당신의 것이며, 당신 편입니다. 평화가 당신에게, 당신의 도움을 주는 자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느님께서 당신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부대의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 19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사울과 싸우러 갈 때, 일부 마나세 자손도 그에게 합류하였다. 그러나 블레셋 지도자들이 그를 보내버렸다. 그들은 상의 끝에 말하였다. "그가 우리 머리를 위태롭게 하려고 주인 사울에게로 도망칠 것이다."
- 20 그가 시글락으로 가는 도중, 마나세 자손들 중 아드나, 요사밧, 여디엘, 미가엘, 요사밧, 엘리후, 질레타이가 그에게 합류하였다. 이들은 마나세 지파에서 천 명을 이끄는 장관들이었다.
- 21 이들은 모두 용감한 전사들로, 군대의 장관들이었고, 다윗을 도와 강도 무리와 싸웠다.
- 22 그때부터 날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를 도왔고, 결국 그의 군대는 하느님의 군대처럼 커졌다.
- 23 이들은 무기를 든 자들의 수장들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와서 사울의 왕국을 그에게 넘긴 자들이다.
- 24 방패와 창을 든 유다 자손은 육천팔백 명으로, 전투에 준비된 자들이었다.
- 25 시므온 자손 중 전쟁에 능한 용사들은 일만 일백 명이었다.
- 26 레위 자손 중 사천육백 명이었다.

- 27 여호야다가 아론 가문의 우두머리였고, 그와 함께 삼천칠백 명이 있었다.
- 28 젊고 용감한 사독과 그의 아버지 집안에서 이십이 명의 장관들이 있었다.
- 29 베나민 자손, 곧 사울의 친척들 중 삼천 명이었는데, 그때까지 그들 대부분은 사울의 집안에 충성하고 있었다.
- 30 에브라임 자손 중 이만 팔백 명이었는데, 이들은 아버지들의 집안에서 유명한 용사들이었다.
- 31 마나세 반 지파 중 열여덟천 명이었는데, 그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왔다.
- 32 이사갈 자손 중 시대를 이해하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자들이 이백 명이었고, 그들의 모든 형제들은 그들의 명령을 따랐다.
- 33 스불론 자손 중 전쟁에 나갈 수 있고 모든 무기로 전열을 갖추 수 있는 자들이 오만 명이었는데, 그들은 마음이 두 가지가 아니었다.
- 34 납탈리 자손 중 천 명의 장관들과 그들과 함께 방패와 창을 든 삼만 칠천 명이 있었다.
- 35 단 자손 중 전열을 갖추 수 있는 자들이 이만 팔천육백 명이었다.
- 36 아셀 자손 중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전열을 갖추 수 있는 자들이 사만 명이었다.
- 37 요단 건너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마나세 반 지파 중 전투에 쓸 모든 무기를 지닌 자들이 십이만 명이었다.
- 38 이 모든 자들은 전투를 지휘할 수 있는 용사들이었고, 온 이스라엘을 위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마음을 다해 헤브론에 왔다. 이스라엘의 나머지 모든 자들도 한마음이 되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
- 39 그들은 다윗과 사할 동안 먹고 마셨다.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 40 또 이사갈, 스불론, 납탈리까지 가까운 이들이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빵을 싣고 왔다. 곧 밀가루와 무화과 떡과 건포도 덩어리와 포도주와 기름, 소와 양이 풍족했으니, 이스라엘에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역대기 상권 13장

- 1 다윗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상의하였다.
- 2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모임에게 말했다. "너희가 좋게 여기고, 우리 하느님 주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땅 전역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목초지가 있는 성읍들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이게 하자."
- 3 또 우리 하느님의 궤를 다시 우리에게로 끌어오자. 사울의 시대에는 우리가 그것을 찾지 않았다."
- 4 모든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일은 모든 백성의 눈에 옳았기 때문이다.
- 5 다윗이 이집트의 시호르 강에서 하마트의 문까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모아 기리아트여아림에서 하느님의 궤를 옮겼다.
- 6 다윗은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함께 바라아, 곧 유다에 속한 기리아트야아림으로 올라가, 그룹 위에 앉아 계시고 그 이름으로 불리는 주님의 궤를 끌어올렸다.
- 7 그들은 하느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끌어냈다. 우짜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
- 8 다윗과 이스라엘 전체는 힘껏 하느님 앞에서 노래하며, 수금과 현악기와 타임버와 제레용 장구와 나팔로 연주하였다.
- 9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찌엘이 소들이 뛰어넘는 것을 보고 손을 내밀어 궤를 잡았다.
- 10 주님께서 우찌엘에게 진노하셔서, 그가 궤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를 치셨다. 그는 하느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 11 다윗은 주님께서 우짜를 치셨기에 기뻐하지 못했다. 그는 그 장소를 페레즈 우짜라 불렀다.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 12 그날 다윗은 하느님을 무서워하며 말했다. "어떻게 내가 하느님의 궤를 내게로 데려올 수 있겠는가?"
- 13 그러므로 다윗은 궤를 자기 도시로 옮기지 않고, 그티 사람 오베드에돔의 집으로 옮겨 놓았다.
- 14 하느님의 궤는 오베드에돔의 집에서 그 가족과 함께 세 달 동안 머물렀다. 주님께서 오베드에돔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축복하셨다.

역대기 상권 14장

- ¹ 티레의 왕 히람이 대나무가 아니라 시더 나무와 석공과 목수를 다윗에게 보내어 그를 위해 집을 지어 주었다.
- ² 다윗은 주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깨달았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의 왕국을 크게 높이셨다.
- ³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아내를 맞이하였고, 다윗은 더 많은 아들과 딸을 얻었다.
- ⁴ 그가 예루살렘에서 얻은 자녀들의 이름은 샘무아, 소바브, 나단, 솔로몬이었다.
- ⁵ 이바르, 엘리수아, 엘페레트,
- ⁶ 노가, 네페그, 야피아,
- ⁷ 엘리사마, 벨리다아, 엘리페레트였다.
- ⁸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기름부음 받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다윗을 찾아 나섰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맞서 나갔다.
- ⁹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와서 려파임 골짜기에서 습격을 가했다.
- ¹⁰ 다윗이 하느님께 물었다. "내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향해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까?"
- ¹¹ 그들이 바알 베라짐으로 올라왔을 때, 다윗은 그들을 거기서 치부하였다. 다윗이 말했다. "하느님께서 내 손으로 내 원수들을 물처럼 흘려넘치게 부수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장소의 이름을 바알 베라짐이라 불렀다.
- ¹²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그곳에 버려두었고, 다윗은 명령을 내려 그 신들을 불로 태웠다.
- ¹³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또 다른 습격을 골짜기에서 가했다.
- ¹⁴ 다윗이 다시 하느님께 물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따라 올라가지 마라. 그들을 뒤로 돌려서 무화과 나무 숲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다려라."
- ¹⁵ 네가 무화과나무 꼭대기에서 행진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때 전투에 나서라. 하느님께서 필리스티아 군대를 치기 위해 네 앞서 나가셨다.
- ¹⁶ 다윗은 하느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고, 그들은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필리스티아 군대를 공격하였다.
- ¹⁷ 다윗의 명성은 온 땅에 퍼졌고,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역대기 상권 15장

- ¹ 다윗은 다윗의 도시에 집을 지었고, 하느님의 궤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여 그 위에 천막을 치웠다.
- ² 그러자 다윗이 말했다. "하느님의 궤를 옮기는 자는 레위 사람들뿐이어야 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느님의 궤를 옮기고, 영원히 그분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 ³ 다윗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전체를 모아, 주님의 궤를 그가 미리 준비한 장소로 올리게 하였다.
- ⁴ 다윗은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 ⁵ 고탕의 자손들 중에서는 우리엘을 두목으로 하고, 그의 형제들 백이십 명이었으며,
- ⁶ 마라리의 자손들 중에서는 아사야를 두목으로 하고, 그의 형제들 이백이십 명이었으며,
- ⁷ 게르손의 자손들 중에서는 요엘이 두목이고, 그의 형제들이 백삼십 명이었으며,
- ⁸ 엘리사반의 자손들 중에서는 세마야가 두목이고, 그의 형제들이 이백 명이었으며,
- ⁹ 헤브론의 자손들 중에서는 엘리엘이 두목이고, 그의 형제들이 팔십 명이었으며,
- ¹⁰ 우찌엘의 자손들 중에서는 우민답을 두목으로 하고, 그의 형제들 백십이 명이었다.
- ¹¹ 다윗은 사제인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 사람인 우리엘, 아사야, 요엘, 세마야, 엘리엘, 아민답답을 불러,
- ¹²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다. 너희와 너희 형제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느님인 주님의 궤를 내가 준비한 장소로 옮기도록 하라."
- ¹³ 처음에 너희가 그것을 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느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드러내셨다. 우리는 규정에 따라 그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¹⁴ 이에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느님의 궤를 옮겼다.
- ¹⁵ 레위인들의 아들들이 모세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막대기를 메고 하느님의 궤를 어깨에 지고 옮겼다.
- ¹⁶ 다윗이 레위인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여, 형제들을 악기 곧 줄 악기와 수금과 제금을 연주하는 노래꾼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하며 기쁨으로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였다.
- ¹⁷ 이에 레위인들이 요엘의 아들 헤만을, 그의 형제들 중에서 베레기야의 아들 아사프를, 그리고 메라리의 아들들 중에서 쿠사야의 아들 에단을 임명하였다.
- ¹⁸ 그들과 함께 둘째 등급의 형제들인 세가랴, 벤, 야아지엘, 세미라못, 여후엘, 우니, 엘리압, 베냐민, 마아세야, 마티디야, 엘리벨레후, 미크네야, 오벰에돔, 그리고 문지기인 예이엘을 두었다.
- ¹⁹ 이에 노래꾼 헤만과 아사프와 에단에게는 큰 소리로 울리는 청동 제금이 주어졌다.
- ²⁰ 세가랴, 아지엘, 세미라못, 여후엘, 우니, 엘리압, 마아세야, 베냐민은 알라못에 맞춘 줄 악기를 연주하였다.
- ²¹ 마티디야, 엘리벨레후, 미크네야, 오벰에돔, 예이엘, 아자지야는 여덟 줄의 수금에 맞춰 연주하며 앞장섰다.
- ²² 레위인들의 우두머리인 케나니아는 노래를 감독하였다. 그는 능숙했기 때문에 노래꾼들을 가르쳤다.
- ²³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의 문지기였다.
- ²⁴ 세바니야, 요사밧, 네다넬, 아마새, 세가랴, 베냐민, 엘리예제르 사제들이 하느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고, 오벰에돔과 예히야는 궤의 문지기였다.
- ²⁵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기쁨으로 오벰에돔의 집에서 주님의 언약 궤를 끌어올렸다.
- ²⁶ 하느님께서 주님의 언약 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수소 일곱 마리와 수양 일곱 마리를 희생제물로 바쳤다.
- ²⁷ 다윗은 고운 베로 된 옷을 입었고, 궤를 메는 모든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노래 지휘자인 케나니아도 같은 베 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베로 된 에포드를 입고 있었다.
- ²⁸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은 주님의 언약 궤를 소리 높여 외치며, 나팔과 트럼펫과 제금과 줄 악기와 수금 소리로 끌어올렸다.
- ²⁹ 주님의 언약 궤가 다윗의 도시에 도착할 때, 사울의 딸 미카엘은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며 다윗 왕이 춤추며 연주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경멸하였다.

역대기 상권 16장

- 1 그들은 하느님의 궤를 가져다가 다윗이 그를 위해 친 천막 한가운데에 놓고, 하느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 2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마친 후,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다.
- 3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덩이와 건포도 떡 하나를 나누어 주었다.
- 4 그는 레위 사람 중 일부를 임명하여 주님의 궤 앞에서 섬기게 하고,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였다.
- 5 아사프를 수장으로 하고, 그 뒤에 세가랴, 여이엘, 세미라못, 여이엘, 마티디아, 엘리압, 베나야, 오벰에돔, 여이엘을 두어 현악기와 수금으로 연주하게 하였으며, 아사프는 큰 소리로 제금을 치게 하였다.
- 6 베나야와 야하지엘 사제들이 하느님의 계약 궤 앞에서 끊임없이 나팔을 불었다.
- 7 그날에 다윗은 아사프와 그의 형제들을 통해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 8 주님께 감사하라.
- 9 그분을 찬양하라.
- 10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라.
- 11 주님과 그분의 힘을 구하라.
- 12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
- 13 이스라엘, 그의 종의 자손들아,
- 14 그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 15 그분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여라,
- 16 그분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 17 그분이 야곱에게 율법으로 확정하시며,
- 18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 19 너희가 매우 적은 수의 사람으로, 그 땅에서 외국인으로 있었을 때에.
- 20 그들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다니며,
- 21 그분은 아무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위해 왕들을 책망하시며,
- 22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만지지 말라!
- 23 땅의 모든 자들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날마다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여라.
- 24 열국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여라.
- 25 주님은 위대하시며, 매우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 26 모든 민족의 신들은 우상입니다.
- 27 존엄과 위엄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 28 민족들의 모든 가족들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 29 주님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 30 땅의 모든 자들아, 그 앞에서 떨라.
- 31 하늘이 기뻐하라.
- 32 바다가 그 가득함과 함께 포효하라.
- 33 그때 산림의 나무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리라.
- 34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 35 "우리 구원의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라.
- 36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을 찬미하라.
- 37 그가 아사프와 그의 형제들을 주님의 언약 궤 앞에 남겨 두어, 매일의 일에 따라 궤 앞에서 끊임없이 섬기게 하였으며,
- 38 오벰에돔과 그의 육십팔 명의 친척들을 두었고, 오벰에돔은 예두톤의 아들이며 호사도 문지기로 두었으며,

³⁹ 사제 사독과 그의 형제 사제들을 기브온의 높은 곳에 있는 주님의 장막 앞에 두었으며,

⁴⁰ 매일 아침과 저녁에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게 하였으며,

⁴¹ 그들과 함께 헤만과 예두톤과 그 밖에 이름이 지명된 선택된 자들을 두어, 주님께 감사하게 하였으니, 그의 자비가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이다.

⁴² 그들과 함께 헤만과 예두톤은 큰 소리로 울리는 나팔과 제금을 들고, 하느님의 노래를 위한 악기를 사용하였으며, 예두톤의 아들들은 문지기로 일하였다.

⁴³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자기 집을 축복하러 돌아갔다.

역대기 상권 17장

- 1 다윗이 자기 집에 살고 있을 때,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언약 궤는 천막 안에 있습니다."
- 2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당신이 마음에 품은 대로 다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 3 그 밤에 하느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다.
- 4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지어주지 말아야 한다."
- 5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올린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집에 살지 않았고, 천막에서 천막으로, 이 천막에서 저 천막으로 옮겨 다녔다.
- 6 내가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다니는 모든 장소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임명한 재판관 중 누구에게도 '왜 나는 백향목으로 된 집을 지어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 7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양을 치던 곳에서 너를 데려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 8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했고, 네 앞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네 앞에서 제거하였다. 내가 너를 땅 위의 위대한 이들처럼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 9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장소를 정해 주고, 그들을 심어 놓아,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며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악한 자들이 그들을 처음처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 10 내가 이스라엘을 위한 재판관을 세운 날부터, 내가 네 모든 원수를 굴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님이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
- 11 네가 조상들과 함께 누워야 할 날이 차면, 내가 너의 후손,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네 뒤에 세워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겠다.
- 12 그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며, 내가 그의 왕좌를 영원히 굳게 세우겠다.
- 13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너보다 앞선 자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내 자비를 빼앗지 않겠다.
- 14 그러나 나는 그를 내 집과 내 왕국에 영원히 굳게 세우겠다. 그의 왕좌는 영원히 굳게 서리라.
- 15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환상에 따라 다윗에게 말하였다.
- 16 그때 다윗 왕이 들어가 주님 앞에 앉아 말했다. "주 하느님, 저는 누구이며, 제 집은 무엇이기며, 이렇게까지 저를 이끌어 오셨습니까?"
- 17 하느님, 이는 당신 눈에는 작은 일일지 모르나, 당신은 당신 종의 집을 먼 미래까지 말씀하시고, 저를 높은 신분의 사람처럼 존중하셨습니다. 주 하느님.
- 18 당신이 당신 종에게 베푸신 이 영광에 대해, 다윗이 또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당신 종을 알고 계십니다.
- 19 주님, 당신의 종을 위해, 당신의 마음에 따라, 이 모든 위대한 일을 하셔서, 이 모든 위대한 일을 알리셨습니다.
- 20 주님, 당신과 같은 분은 없고, 우리가 귀로 들은 대로, 당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 21 지상의 어느 민족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되었습니까? 당신은 그들을 구속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라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며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당신은 이집트에서 구속하신 그들을 통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 22 당신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님, 당신은 그들의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 23 이제 주님, 당신이 당신 종과 그의 집에 관해 말씀하신 말씀이 영원히 굳게 서게 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 24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굳게 서고 존엄하게 되게 하소서. '만군의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십니다. 다윗 당신의 종의 집은 당신 앞에 굳게 서 있습니다.'
- 25 내 하느님, 주께서 당신의 종에게 당신이 그를 위해 집을 지으실 것이라고 드러내셨으므로, 당신의 종은 주님 앞에서 기

도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²⁶ 이제, 주님, 주께서 하느님이시며, 당신의 종에게 이 좋은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²⁷ 이제 주께서 당신의 종의 집을 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그것이 주님 앞에서 영원히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그것이 영원히 복받게 되었습니다.

역대기 상권 18장

¹ 이후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도시들을 빼앗았다.

² 그는 모압을 쳤고,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³ 다윗은 조바의 왕 하닷에셀을 쳤는데, 그는 유브라테 강가에 자신의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나아가던 중이었다.

⁴ 다윗은 그에게서 병거 천 대, 기마병 일만 칠천 명, 보병 이만 명을 빼앗았다. 다윗은 병거 말들의 모든 발목 힘줄을 끊었으나, 병거 백 대에 쓸 만큼만 남겨두었다.

⁵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조바의 왕 하닷에셀을 돕기 위해 왔을 때, 다윗은 시리아 사람 이만 이천 명을 쳤다.

⁶ 그리고 다윗은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땅에 요새를 두었고, 시리아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주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다.

⁷ 다윗은 하닷에셀의 종들이 가진 금 방패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⁸ 다윗은 하닷에셀의 도시인 티브합과 쿤에서 매우 많은 청동을 빼앗았고, 솔로몬은 이 청동으로 바다와 기둥들과 청동 그릇들을 만들었다.

⁹ 하마트의 왕 두오가 다윗이 조바의 왕 하닷에셀의 모든 군대를 쳤다는 소식을 듣고,

¹⁰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인사하고 축복하였다. 그는 하닷에셀과 싸워 그를 쳤기 때문이었고, 하닷에셀은 두오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금과 은과 청동으로 만든 각종 그릇들을 가지고 왔다.

¹¹ 다윗 왕은 또한 에돔, 모압, 암몬 자손, 블레셋, 아말렉에서 빼앗은 모든 은과 금과 함께 이 물건들을 주님께 바쳐 성물로 바쳤다.

¹² 또 세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일만 팔천 명을 쳤다.

¹³ 그는 에돔에 요새를 두었고, 모든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주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다.

¹⁴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렸고, 그는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의로움을 베풀었다.

¹⁵ 세루야의 아들 요압이 군대를 지휘했고, 아힐룸의 아들 여호사밧이 기록관이었으며,

¹⁶ 아히둡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이 사제였고, 샤바사가 서기관이었으며,

¹⁷ 예호야다의 아들 베나야가 그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명령했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섬기는 주요 관리들이었다.

역대기 상권 19장

- ¹ 이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² 다윗이 말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 ³ 그러나 암몬 자손의 귀족들이 하눈에게 말했다. "네 아버지에게 다윗이 존경을 보인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위로하는 자들을 네게 보냈기 때문에? 그의 종들이 네게 와서 정찰하고, 뒤집어엎고, 땅을 엿보려고 오지 않았느냐?"
- ⁴ 그래서 하눈은 다윗의 종들을 붙잡아 수염을 깎고, 엉덩이 중간에서 옷을 자르고 그들을 쫓아냈다.
- ⁵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그 남자들이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알렸다. 다윗은 그들을 맞이하려 보냈다. 그들은 크게 수치를 당했기 때문이다. 왕이 말했다. "예리코에 머물러 수염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돌아오라."
- ⁶ 암몬 자손이 자신들이 다윗에게 원망을 사았음을 알고, 하눈과 암몬 자손은 메소포타미아와 아람 마아가와 조바에서 병거와 기마병을 고용하기 위해 은 천 탈란트를 보냈다.
- ⁷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삼만 이천 대의 병거와 마아가 왕과 그의 백성을 고용했다. 그들은 메데바 근처에 진을 쳤다. 암몬 자손은 자기 도시들에서 모여 전투에 나섰다.
- ⁸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요압과 모든 용사들의 군대를 보냈다.
- ⁹ 암몬 자손이 나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전열을 갖추었고, 온 왕들은 들판에 혼자 서 있었다.
- ¹⁰ 요압이 전투가 자신 앞뒤로 펼쳐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선발된 병사들 중 일부를 골라 아람 사람들을 향해 진을 치게 했다.
- ¹¹ 나머지 백성은 그의 형 아비새의 손에 맡겼고, 그들은 암몬 자손을 향해 진을 치게 했다.
- ¹² 그가 말했다. "아람 사람들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도우라. 그러나 암몬 자손들이 네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 ¹³ 용감해져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주님의 도시들을 위해 힘을 내자. 주님이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일을 하시기를.
- ¹⁴ 그래서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은 아람 사람들을 향해 전투에 나아가니, 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쳤다.
- ¹⁵ 암몬 자손이 아람 사람들이 도망친 것을 보고, 역시 요압의 형 아비새 앞에서 도망쳐 성으로 들어갔다. 그때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 ¹⁶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보고, 사자를 보내어 강 건너편의 아람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하다드에제르의 군대 장관 쇼파크가 그들을 이끌게 했다.
- ¹⁷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모두 모아 요단강을 건너 그들에게 나아가 전열을 갖추고 맞서 싸웠다. 다윗이 아람 사람들을 향해 전열을 갖추자, 그들이 그와 싸웠다.
- ¹⁸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쳤고, 다윗은 아람 병거 기사 일만 칠천 명과 보병 사만 명을 죽였으며, 군대 장관 쇼파크도 죽였다.
- ¹⁹ 하다드에제르의 종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보고, 다윗과 화평을 맺고 그를 섬겼다. 아람 사람들은 더 이상 암몬 자손을 도우지 않았다.

역대기 상권 20장

- ¹ 해가 돌아오는 시기, 즉 왕들이 출정하는 시기에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아몬 자손의 땅을 침략하고 라바를 포위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이 라바를 공격하여 정복했다.
- ² 다윗은 그들의 왕의 면류관을 그 머리에서 벗겨내었는데, 그 무게가 일 탈렌트의 금이었고, 그 안에는 귀한 보석들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썼고, 그 도시에서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다.
- ³ 그는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내어 톱과 철 갈고리와 도끼로 베어 죽였다. 다윗은 아몬 자손의 모든 도시에 이와 같이 하였다. 그 후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 ⁴ 이후 게제르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후사인 시브개가 거인의 자손인 시파를 죽였고, 그들은 항복했다.
- ⁵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다. 야이르의 아들 엘하난이 길리앗 사람 골리앗의 형제 라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식물 기계의 나무틀처럼 굽었다.
- ⁶ 또 가드에서 큰 키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여섯 개씩, 모두 스물네 개였다. 그도 거인의 자손이었다.
- ⁷ 그가 이스라엘을 도전했을 때, 다윗의 형 시메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 ⁸ 이들은 가드에서 거인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며, 다윗과 그의 종들의 손에 죽었다.

역대기 상권 21장

- 1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유혹하여 이스라엘을 수세하게 했다.
- 2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가서 베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수세하고, 내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보고해라."
- 3 요압이 말했다.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금의 백배나 더 늘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주 왕님, 그들이 모두 내 주의 종들이 아니겠습니까? 왜 내 주께서 이 일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죄를 끼치려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4 그러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이겼다. 그래서 요압은 떠나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 5 요압이 백성의 수세 결과를 다윗에게 보고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칼을 든 자는 백십만 명이었고, 유다에서는 사십칠만 명이 칼을 들었다.
- 6 그러나 그는 레위와 베냐민을 수세하지 않았다. 이는 왕의 명령이 요압에게 꺼림직했기 때문이다.
- 7 하느님께서 이 일을 불쾌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을 치셨다.
- 8 다윗이 하느님께 말했다. "내가 이 일을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종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시오. 나는 매우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 9 주님이 다윗의 예언자 갓에게 말씀하셨다.
- 10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세 가지를 네게 제시한다. 그중 하나를 택하여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게 하라.'"
- 11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선택하라:'"
- 12 세 해의 기근이니, 혹은 네 원수 앞에서 세 달 동안 멸망당하며 네 원수의 칼이 너를 추격하니, 혹은 주님의 칼, 곧 땅에 퍼지는 전염병이 세 날 동안 이스라엘 전 경계를 휩쓸며 주님의 천사가 멸망시키는 것이니, 이제 네가 내게 보내는 자에게 무엇이랴 답할지 생각해라."
- 13 다윗이 갓에게 말했다. "나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의 손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자비가 매우 큼니다. 사람이 나를 치게 하지 마십시오."
- 14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셨고, 이스라엘에서 칠만 명이 죽었다.
- 15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다. 그가 멸망시키려 할 때, 주님이 보시고 재앙을 그치시며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이만 하라. 이제 네 손을 거두어라." 주님의 천사는 예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 16 다윗이 눈을 들어 보니, 주님의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에 서서 예루살렘 위로 칼을 빼들고 있었다.
- 17 다윗이 하느님께 말했다. "내가 백성을 수세하라고 명령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고 매우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양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 내 하느님, 당신의 손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만 내리시고, 당신의 백성에게는 내리지 마소서. 그들이 치명적인 재앙을 받지 않게 하소서."
- 18 그때 주님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전하게 하였다. "다윗은 올라가서 예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라."
- 19 다윗은 주님의 이름으로 갓이 말한 대로 올라갔다.
- 20 오르난이 뒤를 돌아보니 천사를 보고, 함께 있던 네 아들들은 숨었다. 오르난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 21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렀을 때, 오르난이 눈을 들어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땅에 얼굴을 대고 절했다.
- 22 그때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했다. "이 타작마당의 땅을 내게 팔아라. 내가 그 위에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자 한다. 네가 그 값을 제대로 받고 내게 팔아라. 그래야 백성에게 내리는 전염병이 멈추리라."
- 23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가 그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 주 왕께서 마음에 드는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소를 번제로 드리고, 타작 도구를 불태울 나무로 드리며, 밀을 소제로 드립니다. 모두 다 드립니다."
- 24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말했다. "아니, 나는 반드시 제 값을 치르고 사겠다. 내가 주님을 위한 제물로 네 것을 가져가지 않

겠고, 내게 아무 비용도 들지 않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²⁵ 이에 다윗은 그 장소를 위해 오르난에게 무게로 육백 세겔의 금을 주었다.

²⁶ 다윗은 거기서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평제를 바치며 주님을 부르니, 주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 제단 위에 응답하셨다.

²⁷ 그때 주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시자, 천사는 칼을 그 자루에 다시 넣었다.

²⁸ 그때 다윗은 오르난 젓부인의 타작마당에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셨음을 보고, 거기서 제물을 바쳤다.

²⁹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님의 장막과 번제 제단은 그때 기브온의 높은 곳에 있었다.

³⁰ 그러나 다윗은 주님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그 제단 앞에 나아가 하느님께 물어보지 못했다.

역대기 상권 22장

¹ 그러자 다윗이 말했다. "이곳은 주님 하느님의 집이며,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단이다."

²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모두 불러모으라고 명령하고, 돌을 다듬어 하느님의 집을 지을 목수들을 세웠다.

³ 다윗은 문과 문짝의 못들과 연결부를 위한 철을 풍부히 준비하고, 무게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을 준비하였다.

⁴ 또 시돈 사람들과 두르 사람들은 다윗에게 많은 백향목을 가져왔으므로, 다윗은 백향목을 수없이 준비하였다.

⁵ 다윗이 말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하다. 주님을 위해 지을 집은 모든 나라에서 유명하고 영광스러울 정도로 매우 위대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를 위해 준비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풍부히 준비하였다.

⁶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을 위해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였다.

⁷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다. "나는 내 마음에 주님 내 하느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생각하였다."

⁸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리고 큰 전쟁을 많이 벌였다. 그러므로 너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수 없다. 너는 내 눈앞에서 땅 위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⁹ 보아라, 네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며, 그는 평화로운 사람이다. 내가 그를 모든 적들로부터 둘러싸인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 될 것이며, 내가 그의 날들에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리라.

¹⁰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며,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그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굳게 세우리라.

¹¹ 이제 내 아들이, 주님이 너와 함께하여 네가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 네 하느님의 집을 지으시기를 바란다. 그분이 너에 관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¹² 주님이 너에게 지혜와 통찰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며, 주님 네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¹³ 그러면 주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해 정하신 규례와 법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용감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¹⁴ 보아라, 내가 고난 속에서 주님의 집을 위해 백만 탈렌트의 금과 천만 탈렌트의 은, 그리고 무게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과 철을 준비하였다. 이는 풍부하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나무와 돌도 준비하였다. 너는 이것들을 더 보태라.

¹⁵ 너와 함께 있는 일꾼들도 풍부하다. 돌과 나무를 다듬는 자들과 모든 종류의 기술을 가진 일꾼들이 있다.

¹⁶ 금, 은, 동, 철의 수는 셀 수 없다. 일어나서 일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하시기를.

¹⁷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돕도록 명령하였다.

¹⁸ "주님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그분이 너희를 사방에서 편안하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분이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땅은 주님과 그분의 백성 앞에 복종하였다."

¹⁹ 이제 너희는 마음과 영혼을 다해 주님 너희 하느님을 따르라. 그러므로 일어나서 주님 하느님의 성소를 건설하여, 주님의 언약계와 하느님의 성물들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을 집으로 옮기라.

역대기 상권 23장

- 1 다윗은 나이가 많고 세월이 충분히 지났다. 그는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 2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모았다.
- 3 레위인들은 서른 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다. 그들의 수는 한 사람씩 세어 보니 삼만 팔천 명이었다.
- 4 다윗이 말했다. "이들 중 이만 사천 명은 주의 집 일에 감독으로 일하게 하고, 육천 명은 관리와 재판관으로 하며,
- 5 사천 명은 문지기로, 사천 명은 내가 찬양을 위해 만든 악기로 주를 찬양하게 하리라."
- 6 다윗은 레위인들을 레위의 아들들에 따라 부대로 나누었다. 그라손, 고탕, 메라리이다.
- 7 그라손 자손은 라단과 시메이다.
- 8 라단의 아들들은 예헬이 우두머리이고, 세담과 요엘, 이 셋이다.
- 9 시메이의 아들들은 셀로못과 하초르와 하란, 이 셋이다. 이들은 라단의 가족 족장들이다.
- 10 시메이의 아들들은 야합과 시나와 여우스와 베리아이다. 이 넷이 시메이의 아들들이다.
- 11 야합이 우두머리였고, 시자가 둘째였으나, 여우스와 베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한 가족 족장으로 계수되었다.
- 12 고탕의 아들들은 암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찌엘, 이 넷이다.
- 13 암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였다. 아론은 가장 성스러운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따로 세워졌으며, 그와 그의 아들들이 영원히 주님 앞에 분향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다.
- 14 그러나 하느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에 속하게 되었다.
- 15 모세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셀이었다.
- 16 게르손의 아들 중 우두머리는 세부엘이었다.
- 17 엘리에셀의 아들은 우두머리 레하비아였으며, 엘리에셀은 다른 아들이 없었고, 레하비아의 아들들은 매우 많았다.
- 18 이스할의 아들 중 우두머리는 셀로밋이었다.
- 19 헤브론의 아들들은 예리야가 우두머리이고, 아마라가 둘째, 야하지엘이 셋째, 예카마암이 넷째이다.
- 20 우찌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가 미가이고, 둘째가 우시아이다.
- 21 메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이다.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리살과 키티이다.
- 22 엘리살은 죽고 아들은 없고 딸들만 있었다. 그의 친척들인 키티의 아들들이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 23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예르모트, 이 셋이다.
- 24 이들은 아버지들의 가족 집단에 따라 레위인들의 자손들이다. 즉, 이름을 세어 계수된 자들 중, 스무 세 이상으로 주님의 집 봉사 일을 맡은 자들의 가족 족장들이다.
- 25 다윗이 말했다.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고, 그분은 영원히 예루살렘에 계신다."
- 26 또한 레위 사람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메고 봉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 27 다윗의 마지막 말에 따라 레위 사람들의 자손들은 스무 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다.
- 28 그들의 임무는 주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 아론의 자손들을 돕는 것이었으니, 곧 안뜰과 방들에서 모든 성물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느님의 집을 섬기는 모든 일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 29 또 진설병과 제사 드릴 고운 밀가루, 발효하지 않은 전병이나 팬에 구운 것, 또는 물에 불린 것, 그리고 모든 양과 크기의 축정을 맡았다.
- 30 그들은 아침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서 있었다.
- 31 그들은 안식일과 월삭과 정해진 축일마다 주님께 모든 번제를 정해진 수량에 따라 끊임없이 드렸다.
- 32 그들은 천막의 임무와 성소의 임무, 그리고 주님의 집을 섬기는 그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들을 돕는 임무를 지켰다.

역대기 상권 24장

- ¹ 아론의 아들들의 부대는 이러하였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마르였다.
- ²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마르가 사제로 봉사하였다.
- ³ 다윗은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의 사독과 이다마르의 아들들 중의 아히멜렉과 함께 그들의 봉사 순서에 따라 그들을 나누었다.
- ⁴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에서 더 많은 족장들이 발견되었으므로, 그들은 이렇게 나뉘었다.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에서 열여섯 명의 족장들이 있었고, 이다마르의 아들들 중에서는 아버지의 집안에 따라 여덟 명이었다.
- ⁵ 이처럼 그들은 제비를 뽑아 공정하게 나뉘었는데, 이는 엘르아살의 아들들과 이다마르의 아들들 모두 성소의 지도자들과 하느님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이다.
- ⁶ 레위 사람인 서기관 네다넬의 아들 세마야가 왕과 지도자들과 사제 사독,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사제들과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 앞에서 기록하였다. 하나는 엘르아살을, 하나는 이다마르를 위한 것이었다.
- ⁷ 첫 번째 제비는 여호야립에게 떨어졌고, 두 번째는 여다야에게 떨어졌으며,
- ⁸ 세 번째는 하림에게, 네 번째는 세오림에게 떨어졌고,
- ⁹ 다섯 번째는 말기야에게, 여섯 번째는 미야민에게 떨어졌으며,
- ¹⁰ 일곱 번째는 하코스에게, 여덟 번째는 아비아에게 떨어졌고,
- ¹¹ 아홉 번째는 여수아에게, 열 번째는 세가냐에게 떨어졌으며,
- ¹² 열한 번째는 엘야시브에게, 열두 번째는 야김에게 떨어졌고,
- ¹³ 열세 번째는 후바에게, 열네 번째는 예세브압에게 떨어졌으며,
- ¹⁴ 열다섯 번째는 빌가에게, 열여섯 번째는 임멜에게 떨어졌고,
- ¹⁵ 열일곱 번째는 헤지르에게, 열여덟 번째는 하피즈즈에게 떨어졌으며,
- ¹⁶ 열아홉 번째는 뎃하야에게, 스무 번째는 여헤겔에게 떨어졌고,
- ¹⁷ 스물한 번째는 야킨에게, 스물두 번째는 가문에게 떨어졌으며,
- ¹⁸ 스물세 번째는 데라야에게, 스물네 번째는 마아지야에게 떨어졌다.
- ¹⁹ 이것이 그들의 봉사 순서였는데, 그들은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서 아론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규칙에 따라 주님의 집에 들어갔다.
- ²⁰ 레위 사람들의 나머지 아들들 중에서: 암람의 아들들 중에서 수바엘,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서 여데야였다.
- ²¹ 레하비야의 아들들 중에서: 레하비야의 아들들 중에서 족장 이시야였다.
- ²²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셀로못, 셀로못의 아들들 중에서 야핫이었다.
- ²³ 헤브론의 아들들: 여리아, 둘째는 아마랴, 셋째는 하지엘, 넷째는 예게마암이었다.
- ²⁴ 우찌엘의 아들들: 미가, 미가의 아들들 중에서 삼이르였다.
- ²⁵ 미가의 형제는 이시야였고,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세가랴가 있었다.
- ²⁶ 머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였고, 야사야의 아들들은 베노였다.
- ²⁷ 야사야의 후손들 중 머라리의 아들들은 베노, 쇼함, 자꾸르, 이브리였다.
- ²⁸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라살이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없었다.
- ²⁹ 키스의 아들은 여라므엘이었다.
- ³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리못이었다. 이들은 아버지의 가문에 따라 레위 사람들의 아들들이었다.
- ³¹ 이들 역시 다윗 왕과 사독, 아히멜렉, 사제들과 레위 사람들의 가문의 수장들 앞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대제사장들의 가문이 어린 형제들의 가문과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았다.

역대기 상권 25장

- ¹ 또 다윗과 군대의 장관들이 아사프, 헤만, 여두둔의 아들들 중에서 일부를 골라 하르파와 현악기와 심벌즈로 예언하게 하여 봉사하게 하였다. 그들이 봉사에 따라 일한 자들의 수는 다음과 같았다.
- ² 아사프의 아들들: 자꾸르, 요셉, 네다니야, 아세라엘. 아사프의 아들들은 아사프의 지휘 아래 있었고, 아사프는 왕의 명령에 따라 예언하였다.
- ³ 여두둔의 아들들: 게다리아, 세리, 예사야, 시메이, 하사비야, 마티디아. 이 여섯 명은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있었고, 여두둔은 하르파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예언하였다.
- ⁴ 헤만의 아들들: 부기야, 마타니야, 우찌엘, 세부엘, 여리모트, 하나니야, 하나니, 엘리야타, 기달티, 로마미에제르, 요스베카사, 말로티, 호티르, 마하시웃.
- ⁵ 이 모든 이들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왕의 예언자인 헤만의 아들들이었고, 그는 뿔을 높이 들었다. 하느님께서 헤만에게 아들 열네 명과 딸 세 명을 주셨다.
- ⁶ 이 모든 이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주님의 집에서 심벌즈, 현악기, 하르파로 하느님의 집의 봉사를 하였다. 아사프, 여두둔, 헤만은 모두 왕의 명령 아래 있었다.
- ⁷ 그들과 주님을 찬양하도록 가르침을 받은 모든 숙련된 형제들의 수는 이백팔십팔 명이었다.
- ⁸ 그들은 작은 자도, 큰 자도, 스승도, 제자도 모두 동일하게 제비를 뽑아 직분을 정하였다.
- ⁹ 첫 번째 제비는 아사프에게서 요셉에게 뽑혔고, 두 번째 제비는 게다리아에게 뽑혔으며,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은 열두 명이었다.
- ¹⁰ 세 번째 제비는 자꾸르에게 뽑혔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열두 명이었다.
- ¹¹ 네 번째 제비는 이스리에게 뽑혔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열두 명이었다.
- ¹² 다섯 번째 제비는 네다니야에게 뽑혔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열두 명이었다.
- ¹³ 여섯 번째는 부기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이었다.
- ¹⁴ 일곱 번째는 예사라엘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이었다.
- ¹⁵ 여덟 번째는 예사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이었다.
- ¹⁶ 아홉 번째는 마타니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이었다.
- ¹⁷ 열 번째는 시메이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이었다.
- ¹⁸ 열한 번째는 아사렐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이었다.
- ¹⁹ 열두 번째는 하사비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이었다.
- ²⁰ 열세 번째는 술바엘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이었다.
- ²¹ 열네 번째는 마티디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이었다.
- ²² 열다섯 번째는 여리모트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이었다.
- ²³ 열여섯 번째는 하나니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이었다.
- ²⁴ 열일곱 번째는 요스베카사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이었다.
- ²⁵ 열여덟 번째는 하나니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이었으며,
- ²⁶ 열아홉 번째는 말로티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이었으며,
- ²⁷ 스무 번째는 엘리야타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이었으며,
- ²⁸ 스물한 번째는 호티르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이었으며,
- ²⁹ 스물두 번째는 기달티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이었으며,
- ³⁰ 스물세 번째는 마히아돗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이었으며,
- ³¹ 스물네 번째는 로마미에제르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이었다.

역대기 상권 26장

- ¹ 문지기들의 부대는 다음과 같았다. 고라 자손 중 메세마야는 고레의 아들이고, 아사프 자손 중에서도 있었다.
- ² 메세마야는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은 세가랴, 둘째는 여디엘, 셋째는 세바다, 넷째는 야스니엘,
- ³ 다섯째는 엘람, 여섯째는 여호하난, 일곱째는 엘리호내였다.
- ⁴ 오벰에돔은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은 세마야, 둘째는 여호자밧, 셋째는 요아, 넷째는 사가르, 다섯째는 느느넬,
- ⁵ 여섯째는 아미엘, 일곱째는 이사갈, 여덟째는 브울타이였다. 하느님께서 그를 복 주셨기 때문이다.
- ⁶ 세마야의 아들들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집을 다스렸다. 그들은 용감한 용사들이었다.
- ⁷ 세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 레파엘, 오벰, 엘자바드였고, 그들의 친척들은 용감한 자들인 엘리부와 세마가였다.
- ⁸ 이 모든 이들은 오벰에돔의 아들들과 형제들로, 힘이 강하여 봉사할 수 있는 자들이었으며, 오벰에돔의 가족은 모두 여섯 십이 명이었다.
- ⁹ 메세마야는 아들들과 형제들을 두었는데, 용감한 자들이 열여덟 명이었다.
- ¹⁰ 또 메라리 자손 중 호사도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은 시므리였다. 비록 그가 장남은 아니었으나, 아버지가 그를 장남으로 삼았다.
- ¹¹ 둘째는 힐기야, 셋째는 데발랴, 넷째는 세가랴였다.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모두 열세 명이었다.
- ¹² 이들이 문지기들의 부대였으며, 그 지도자들은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집에서 봉사할 직무를 맡았다.
- ¹³ 그들은 어린이와 어른을 막론하고, 아버지들의 가족에 따라 모든 문을 위해 제비를 뽑았다.
- ¹⁴ 동쪽 문의 제비는 세레마야에게 떨어졌고, 그의 아들 세가랴는 지혜로운 상담자였으므로, 그에게 북쪽 문의 제비가 떨어졌다.
- ¹⁵ 오벰에돔에게는 남쪽 문의 제비가 떨어졌고, 그의 아들들에게는 창고가 주어졌다.
- ¹⁶ 수빔과 호사에게는 서쪽 문, 살레케트 문이 주어졌으며, 오르는 길에 있는 경비원은 마주 보고 서 있었다.
- ¹⁷ 동쪽에는 레위인 여섯 명, 북쪽에는 하루에 네 명, 남쪽에는 하루에 네 명, 창고에는 두 명씩이 맡았다.
- ¹⁸ 파르바르 서쪽에는 길에 네 명, 파르바르에는 두 명이 맡았다.
- ¹⁹ 이들이 문지기들의 부대였으며, 고라 자손과 메라리 자손의 자손들이었다.
- ²⁰ 레위인 중 아히야는 하느님의 집과 바쳐진 물건의 보물창고를 맡았다.
- ²¹ 라단 자손, 레위인 중 게르손 자손의 가족 수장들은 여히엘이다.
- ²² 여히엘의 아들들은 세담과 그의 형제 요엘로, 주님의 집의 보물창고를 맡았다.
- ²³ 암람 자손, 이스할 자손, 헤브론 자손, 우찌엘 자손들 중에서,
- ²⁴ 모세의 손자인 게르손의 아들 세부엘은 보물창고를 다스렸다.
- ²⁵ 그의 형제들: 엘리사벨의 아들 라하비야, 라하비야의 아들 여사야, 여사야의 아들 요람, 요람의 아들 지크리, 지크리의 아들 셀로모트.
- ²⁶ 이 셀로모트와 그의 형제들은 다윗 왕과 조상 가족의 수장들, 천부장과 백부장들, 그리고 군대의 장관들이 바친 바친 물건들의 모든 보물창고를 맡았다.
- ²⁷ 그들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 일부를 주님의 집을 수리하는 데 바쳤다.
- ²⁸ 보시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 네르의 아들 아브넬, 세루야의 아들 요압이 바친 모든 것, 누구든지 바친 어떤 물건이라도 셀로모트와 그의 형제들의 손에 맡겨졌다.
- ²⁹ 이사르 자손들 중에서 케나니아와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외부 업무를 맡아 관리자들과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 ³⁰ 헤브론 자손들 중에서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들, 일천칠백 명의 용감한 자들이 요르단 강 서쪽 이스라엘 전역의 주님의 일과 왕의 일에 관한 모든 업무를 감독하였다.
- ³¹ 헤브론 자손들 중에서 여리야가 조상 가족에 따라 헤브론 자손들의 수장이 되었다. 그들은 다윗 왕의 40년째 통치 해에 찾아졌으며, 길르앗의 야세르에서 용감한 자들이 발견되었다.
- ³² 그의 친척들, 용감한 자들, 이천칠백 명의 조상 가족의 수장들이 다윗 왕에 의해 르우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과 므낫세 반

지파의 모든 일, 곧 하느님의 일과 왕의 일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도록 임명되었다.

역대기 상권 27장

- 1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수에 따라, 가족의 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해마다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부대의 모든 일에 왕을 섬긴 관리들로 구성되었다. 각 부대는 이만 사천 명이었다.
- 2 첫째 달 첫 번째 부대를 이끈 이는 자비엘의 아들 야소베암이었고, 그의 부대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 3 그는 더레의 자손으로, 첫째 달 모든 군대 장관 중 최고의 지휘관이었다.
- 4 둘째 달 부대를 이끈 이는 아호이 사람 도다이였고, 그의 부대를 이끈 이는 미클롯이었으며, 그의 부대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 5 셋째 달 군대의 세 번째 장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베냐미인이었고, 그의 부대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 6 이 베냐미인은 삼십 명 중 용사였고, 삼십 명을 지휘하였다. 그의 부대에는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었다.
- 7 넷째 달 장관은 요압의 형제 아사헬이었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은 그의 아들 세바댜였다. 그의 부대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 8 다섯째 달의 장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였고, 그의 부대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 9 여섯째 달 장관은 테코이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였고, 그의 부대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 10 일곱째 달 장관은 벨론 사람 헤레즈로, 에브라임 자손이었다. 그의 부대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 11 여덟째 달 장관은 후사 사람 시브개로, 세라 자손이었다. 그의 부대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 12 아홉째 달 장관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로, 베냐민 자손이었다. 그의 부대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 13 열째 달 장관은 네토파트 사람 마하라이로, 세라 자손이었다. 그의 부대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 14 열한째 달 장관은 피라톤 사람 베냐야로, 에브라임 자손이었다. 그의 부대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 15 열두째 달 장관은 네토파트 사람 헬다일로, 오드니엘의 자손이었다. 그의 부대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 16 이스라엘 지파들 위에 임명된 자들은 다음과 같았다. 르우벤 지파에는 지크리의 아들 엘리에셀이 지휘관이었고, 시므온 지파에는 마아가의 아들 세파티야가 지휘관이었으며,
- 17 레위 지파에는 켈멜의 아들 하사비야가 지휘관이었고, 아론 가문에는 사독이 지휘관이었으며,
- 18 유다 지파에는 다윗의 형제 중 한 사람인 엘리후가 지휘관이었고, 잇사갈 지파에는 미가엘의 아들 옴리가 지휘관이었으며,
- 19 스불론 지파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가 지휘관이었고, 납탈리 지파에는 아스리엘의 아들 예레못이 지휘관이었으며,
- 20 에브라임 자손에는 아사지아의 아들 호세아가 지휘관이었고, 반지파의 절반인 므나세 지파에는 페다야의 아들 요엘이 지휘관이었으며,
- 21 길르앗에 있는 므나세 지파의 절반에는 세가랴의 아들 이도가 지휘관이었고, 베냐민 지파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 지휘관이었으며,
- 22 단 지파에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 지휘관이었다. 이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휘관들이었다.
- 23 다윗은 스무 살 이하의 자들을 수세하지 않았다. 이는 주님이 하늘의 별처럼 이스라엘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 24 세루야의 아들 요아브가 수세를 시작했으나 끝내지 못했고, 이 일로 이스라엘에 진노가 임하였다. 이 수치는 다윗 왕의 연대기에 기록되지 않았다.
- 25 왕의 보물은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벳이 맡았고, 들판과 도시와 마을과 탑에 있는 보물은 우자야의 아들 요나단이 맡았다.
- 26 농사일을 맡아 땅을 경작하는 자들은 케룹의 아들 에즈리가 맡았다.
- 27 포도원은 라마티의 시미가 맡았고, 포도원에서 나는 수확물을 포도주 저장고에 보관하는 일은 시프미의 자바디가 맡았다.
- 28 평야에 있는 올리브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게데르의 바알 하난이 맡았고, 기름 저장고는 요아스가 맡았다.

²⁹ 사론에 있는 소 떼는 사론의 시트라이가 맡았고, 골짜기의 소 떼는 아드라이의 아들 샤파트가 맡았다.

³⁰ 낙타는 이시마엘의 오빌이 맡았고, 당나귀는 메로노트의 여호다야가 맡았으며, 양 떼는 하그리의 자지즈가 맡았다.

³¹ 이 모든 이들은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었다.

³² 또한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조언자이자 지혜로운 사람이며 서기관이었고, 하크모니의 아들 여후엘은 왕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

³³ 아히도벨은 왕의 조언자였고, 아르키의 후사이는 왕의 친구였다.

³⁴ 아히도벨 이후에는 베냐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이 조언자로 있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

역대기 상권 28장

- ¹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곧 지파의 지도자들과 왕을 섬기는 부대의 장관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스리는 관리들과 장관들과 용감한 군인들, 곧 모든 용감한 용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 ² 그때 다윗 왕이 일어나 서서 말했다. "내 형제들과 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주님의 언약궤를 위한 편안한 집과 우리 하느님의 발자국 받침을 위한 집을 지으려고 마음에 품었고, 그 건축을 위해 준비를 해왔다."
- ³ 그러나 하느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을 수 없다. 너는 전쟁을 벌인 사람이고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 ⁴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서서는 내 아버지의 온 집안에서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다. 그분은 유다를 지도자로 택하셨고, 유다의 집안, 곧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나를 택하시어 나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다.
- ⁵ 내 아들들 중에서(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아들을 주셨으므로), 그분은 솔로몬, 내 아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왕국의 왕좌에 앉히시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 ⁶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집과 내 돌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를 내 아들로 택했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 ⁷ 그가 오늘처럼 내 명령과 규례를 계속 지킨다면, 나는 그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겠다."
- ⁸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주님의 공동체 앞, 그리고 우리 하느님의 앞에서, 너희 하느님 주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이 좋은 땅을 얻고,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 ⁹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네 아버지의 하느님을 알라. 온전한 마음과 기꺼운 뜻으로 그를 섬겨라. 주님은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의 이치를 이해하신다. 네가 그를 구하면 그를 만나게 될 것이지만, 네가 그를 버리면 그는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 ¹⁰ 이제 주의하여라. 주님께서 너를 성소를 위한 집을 지을 자로 택하셨다. 용감하고 힘을 내어 일을 해라."
- ¹¹ 그리고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의 현관과 그 집들과 그 보물창고들과 그 윗방들과 그 안방들과 은총의 자리가 있는 장소의 계획을 주었다.
- ¹² 또 주님의 집의 뜰들과 그 주변의 모든 방들과 하느님의 집의 보물창고들과 바쳐진 물건들의 보물창고들을 위한, 그가 성령을 통해 받은 모든 계획을 주었다.
- ¹³ 또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부대와 주님의 집에서의 모든 섬김의 일과 주님의 집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을 위한 계획을 주었다.
- ¹⁴ 모든 종류의 금 기구를 위한 금의 무게와, 모든 종류의 은 기구를 위한 은의 무게를 주었다.
- ¹⁵ 또 금 등불대와 그 등불들을 위한 무게, 각 등불대와 그 등불을 위한 금의 무게와, 은 등불대와 그 등불을 위한 무게, 각 등불대와 그 등불을 위한 무게를, 각 등불대의 사용에 따라 주었다.
- ¹⁶ 또 진설병 상을 위한 금의 무게, 각 상을 위한 것이며, 은 상을 위한 은의 무게를 주었다.
- ¹⁷ 또 순금으로 만든 포크와 대야와 잔들과, 각 대접을 위한 금 대접의 무게와, 각 은 대접을 위한 은 대접의 무게를 주었다.
- ¹⁸ 또 분향단을 위한 정제된 금의 무게와, 수례의 계획을 위한 금과, 주님의 언약궤를 펼쳐 덮는 그릇들을 위한 금을 주었다.
- ¹⁹ "이 모든 것," 다윗이 말했다. "내가 주님의 손으로부터 글로써 알게 되었으니, 이 모형의 모든 일들이다."
- ²⁰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다. "용감하고 담대하여 일을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주님 하느님, 곧 내 하느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주님의 집을 섬기는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 ²¹ 보아라, 하느님의 집을 섬기는 모든 일에 대해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부대가 있다. 어떤 일든지 기술이 있는 기꺼운 자는 모든 일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관들과 모든 백성도 너의 명령에 완전히 복종할 것이다.

역대기 상권 29장

- ¹ 다윗 왕이 모든 회중에게 말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오직 하느님께서만 택하신 분이지만, 아직 어리고 연약하며, 해야 할 일은 크다. 이 궁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하느님을 위한 것이다."
- ² 내가 내 힘을 다해 내 하느님의 집을 위해 금은 금품을, 은은 은품을, 동은 동품을, 철은 철품을, 나무는 나무품을 준비했으며, 또한 옥석과 세공할 돌, 다양한 색깔의 모자이크용 돌, 모든 종류의 귀한 돌, 그리고 풍부한 대리석도 준비했다.
- ³ 또한 내가 내 하느님의 집을 사랑하여, 내가 스스로 소유한 금과 은의 보물을, 내가 성소를 위해 이미 준비한 것보다 더해, 내 하느님의 집에 드린다.
- ⁴ 오피르 금 삼천 달란트와 정제된 은 일만 달란트를 드리며, 집의 벽을 덮는 데 쓰려 한다.
- ⁵ 금은 금품을, 은은 은품을, 그리고 모든 종류의 공예품을 제작하는 데 쓰려 한다. 오늘날 누구나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 자신을 바치려 하는가?
- ⁶ 그러자 조상 가문의 족장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과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왕의 일에 관리된 자들이 자발적으로 드렸다.
- ⁷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위한 봉사에 금 오천 달란트와 만 다릭, 은 만 달란트, 동 만팔천 달란트, 철 십만 달란트를 드렸다.
- ⁸ 귀한 돌을 발견한 자들은 그 돌들을 게르손 족의 여히엘의 손을 통해 주님의 집 보물창고에 바쳤다.
- ⁹ 그러자 백성은 자발적으로 드렸기에 기뻐하였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발적으로 드렸기에 기뻐하였다. 다윗 왕도 큰 기쁨으로 기뻐하였다.
- ¹⁰ 그러므로 다윗은 모든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미하며 말했다. "주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영원히 찬미 받으실 분이십니다."
- ¹¹ 주님, 당신께서는 위엄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존엄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왕국이 있으며, 당신은 모든 위에 높이 올라 계십니다.
- ¹² 부와 존엄은 모두 당신에게서 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당신의 손에는 권능과 힘이 있으며, 당신의 손은 모든 이를 크게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 ¹³ 이제 우리 하느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미합니다.
- ¹⁴ 그러나 나는 누구이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이처럼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온 것이며, 우리는 당신의 것 중에서 당신께 드릴 뿐입니다.
- ¹⁵ 우리는 당신 앞에서 나그네이자 외국인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땅 위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으며,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 ¹⁶ 주님 우리 하느님, 우리가 당신의 성스러운 이름을 위해 지으려고 준비한 이 모든 재산은 당신의 손에서 온 것이며,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 ¹⁷ 내 하느님, 나는 당신이 마음을 시험하시고 정의로움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에 모인 당신의 백성이 자발적으로 당신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보았습니다.
- ¹⁸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 이 소원을 영원히 당신 백성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당신을 향해 준비시키소서.
- ¹⁹ 내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사, 당신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행하며, 내가 준비한 궁전을 지을 수 있게 하소서.
- ²⁰ 그러자 다윗이 모든 회중에게 말했다. "이제 너희의 하느님 주님을 찬미하라."
- ²¹ 그들은 그 다음 날 주님께 제물을 바치고, 번제를 주님께 드렸다. 황소 천 마리, 수양 천 마리, 어린 양 천 마리와 그들의 술 제물과 풍성한 희생 제물을 이스라엘 모든 자에게 드렸다.
- ²² 그들은 그날 주님 앞에서 큰 기쁨으로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시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로 왕으로 세우고, 주님 앞에서 그를 임금으로 기름을 부어 안장하며, 사독을 사제로 안장하였다.
- ²³ 그러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이어 주님의 보좌에 앉아 왕이 되었고, 번영하였으며, 이스라엘 모든 자가 그를

복종하였다.

²⁴ 모든 족장들과 용사들과 다윗 왕의 모든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였다.

²⁵ 주님은 솔로몬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 앞에서 크게 높이시고,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앞선 어떤 왕에게도 없었던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셨다.

²⁶ 이제 여세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렸다.

²⁷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사십 년이었다. 헤브론에서 일곱 년,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을 다스렸다.

²⁸ 그는 나이가 많고, 날들이 충만하며, 부와 영광이 가득한 상태로 죽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²⁹ 이제 다윗 왕의 행적, 처음부터 끝까지는 보라, 사무엘 보는 자의 기록과, 나단 예언자의 기록과, 갓 보는 자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다.

³⁰ 그의 모든 통치와 힘,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과 땅의 모든 왕국과 관련된 사건들이 그것들에 기록되어 있다.

역대기 하권 | 2 Chronicles

역대기 하권 1장

- ¹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의 왕국을 견고히 다졌고, 그의 하느님은 그와 함께하시며 그를 매우 위대하게 하셨다.
- ²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체, 즉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 곧 가족의 족장들에게 말하였다.
- ³ 그때 솔로몬과 그와 함께한 모든 공동체는 기브온에 있는 높은 곳으로 갔다. 거기에는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느님의 만남의 장막이 있었다.
- ⁴ 그러나 다윗은 기랴야아림에서 하느님의 궤를 끌어올려, 다윗이 예루살렘에 마련한 곳으로 옮겼다. 그는 그 궤를 위해 장막을 치기 때문이다.
- ⁵ 또 베살렐이 우리의 아들, 허르의 손자로서 만든 놋 제단도 주님의 장막 앞에 있었다. 솔로몬과 공동체는 그곳에서 조언을 구하였다.
- ⁶ 솔로몬은 만남의 장막 앞에 있는 주님 앞의 놋 제단으로 올라가 거기에서 번제를 천 마리 드렸다.
- ⁷ 그 밤에 하느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네가 무엇을 구하려는지 말하여라. 내가 네게 주겠다."
- ⁸ 솔로몬이 하느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고, 제게 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앉히셨습니다."
- ⁹ 이제 주 하느님,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굳게 서게 하소서. 당신은 저를 흠처럼 많은 백성 위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 ¹⁰ 이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소서. 그래야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이 큰 당신의 백성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 ¹¹ 하느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 마음을 품고, 부와 재물과 영광이나 네 원수들의 생명이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오직 나의 백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그들의 왕으로 세웠다."
- ¹²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이 너에게 주어졌다. 내가 너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리니, 너보다 앞선 어떤 왕도, 너보다 뒤에 올 어떤 왕도 가진 바 없을 정도로 주리라.
- ¹³ 이에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높은 곳에서, 만남의 장막 앞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 ¹⁴ 솔로몬은 병거와 기마대를 모았다. 그는 병거 천 대와 기마대 만이천 명을 병거 도시들에 배치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함께 두었다.
- ¹⁵ 왕은 예루살렘에서 은과 금을 돌처럼 흔하게 만들었고, 평지의 무화과나무처럼 전나무를 흔하게 만들었다.
- ¹⁶ 솔로몬이 가진 말들은 이집트와 쿠에서 들여왔다. 왕의 상인들이 쿠에서 그 말들을 구입하였다.
- ¹⁷ 그들은 이집트에서 병거를 은 육백 세겔에 사서 내보냈고, 말은 은 백오십 세겔에 사서 내보냈다. 그들은 또한 히타이트 왕들과 시리아 왕들에게도 그 병거와 말을 내보냈다.

역대기 하권 2장

- ¹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그리고 자기 왕국을 위한 집을 짓기로 결정했다.
- ² 솔로몬은 집을 나르는 자로 일흔 만 명을, 산에서 돌을 깎는 자로 팔만 명을, 그리고 그들을 감독할 자로 삼천육백 명을 선정했다.
- ³ 솔로몬은 두르의 왕 훌람에게 보냈다. 그가 말했다. "너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것처럼, 그가 거주할 집을 짓기 위해 백향목을 보냈듯이, 나에게도 그렇게 해 주어라."
- ⁴ 보라, 나는 내 하느님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짓고자 한다. 그 집을 그분께 바치고, 그분 앞에서 향료의 향을 태우며, 항상 놓는 진설병과 아침과 저녁의 번제를 드리려 한다. 이는 주 우리 하느님의 안식일과 월삭과 정해진 축일에 드리는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규정이다.
- ⁵ "내가 짓고자 하는 집은 크리라. 우리 하느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 ⁶ 그러나 하늘과 하늘의 하늘조차도 그분을 담아낼 수 없다면, 누가 그분을 위해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 이기에, 그분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분 앞에서 향을 태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⁷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금, 은, 놋, 철, 보라색, 자주색, 청색으로 일할 줄 알고, 조각을 새길 줄 아는 숙련된 사람을 보내어라. 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숙련된 자들과 함께 있게 해 주어라. 이들은 내 아버지 다윗이 미리 준비해 둔 자들이다."
- ⁸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전나무와 알감나무를 나에게 보내어라. 네 종들이 레바논에서 나무를 베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보라, 내 종들이 네 종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 ⁹ 그리고 나를 위해 풍부한 나무를 준비하게 해 주어라. 내가 짓고자 하는 집은 크고 뛰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 ¹⁰ 보라, 내가 너의 나무를 베는 종들에게 밀 이만 고르, 보리 이만 바스, 포도주 이만 바스, 기름 이만 바스를 주겠다."
- ¹¹ 그러자 두르의 왕 훌람은 글로 답장을 보내어 솔로몬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너를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다."
- ¹² 훌람은 이어 말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을 찬미하라. 그분이 다윗 왕에게 지혜롭고 통찰력과 이해력이 풍부한 아들을 주셨으니, 그는 주님을 위한 집과 그분의 왕국을 위한 집을 짓게 될 것이다."
- ¹³ "이제 나는 통찰력과 이해력이 풍부한 숙련된 사람, 훌람-아비를 보내었다."
- ¹⁴ 그는 단의 딸 중 한 명의 아들로, 아버지는 두르 사람이다. 그는 금, 은, 놋, 철, 돌, 나무, 보라색, 청색, 세마포, 자주색으로 일할 줄 알고, 어떤 조각도 새길 수 있으며, 어떤 장식도 설계할 수 있다. 그를 네 숙련된 자들과 내 주인 다윗 왕의 숙련된 자들과 함께 두어라."
- ¹⁵ "그러므로 이제 내 주인이 말한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그의 종들에게 보내주어라."
- ¹⁶ 우리는 네가 필요로 하는 만큼 레바논에서 나무를 베어, 바다를 따라 뗏목으로 요파에 보내겠다. 그 후에 너는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라."
- ¹⁷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미 조사한 대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외국인을 세었다. 그 결과, 일백오십삼천육백 명이 나왔다.
- ¹⁸ 그는 그들 중 일흔 만 명을 집을 나르는 자로, 팔만 명을 산에서 돌을 깎는 자로, 삼천육백 명을 감독으로 세워 백성에게 일의 책임을 맡겼다.

역대기 하권 3장

- ¹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서 주님의 집을 지으려고 시작했다. 이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며, 다윗이 미리 정해 둔 곳, 오르난 절부의 타작마당이었다.
- ² 그는 왕위에 오른 지 네 번째 해, 둘째 달 이틀째 날에 공사를 시작했다.
- ³ 솔로몬이 하느님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놓은 것은 이러하였다. 첫 번째 측정법에 따라 길이는 육십 큐빗, 너비는 이십 큐빗이었다.
- ⁴ 집 앞에 있는 현관은 집의 너비를 따라 길이가 이십 큐빗이고, 높이는 백이십 큐빗이었으며, 그는 그 안을 순금으로 덮었다.
- ⁵ 그는 큰 방의 천장을 전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정제된 금을 덮으며 야자수와 사슬 무늬로 장식하였다.
- ⁶ 그는 집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귀한 돌을 사용하였다. 그 금은 파르바임에서 온 금이었다.
- ⁷ 그는 집과 서까래와 문지방과 벽과 문을 모두 금으로 덮었고, 벽에 그룹을 새겼다.
- ⁸ 그는 가장 성소를 지었다. 그 길이는 집의 너비를 따라 이십 큐빗이고, 너비도 이십 큐빗이었으며, 그는 그 안을 정제된 금으로 덮어 육백 달란트에 이르게 하였다.
- ⁹ 못의 무게는 오십 세켈의 금이었고, 그는 윗방들을 금으로 덮었다.
- ¹⁰ 그는 가장 성소 안에 두 그룹을 조각하여 만들고, 그 위에 금을 덮었다.
- ¹¹ 그룹의 날개는 길이가 이십 큐빗이었는데, 한 날개는 다섯 큐빗으로 집의 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다섯 큐빗으로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 ¹² 다른 그룹의 날개는 다섯 큐빗으로 집의 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다섯 큐빗으로 다른 그룹의 날개와 연결되었다.
- ¹³ 이 두 그룹의 날개는 펼쳐져 이십 큐빗을 이루었고, 그들은 발로 서 있었으며, 그들의 얼굴은 집을 향해 있었다.
- ¹⁴ 그는 청색, 자주색, 붉은색, 정제된 베로 장막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장식하였다.
- ¹⁵ 그는 집 앞에 높이 삼십오 큐빗인 기둥 두 개를 세웠고,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장식은 다섯 큐빗이었다.
- ¹⁶ 그는 내성 안에 사슬을 만들고, 기둥 꼭대기에 달았으며, 백 개의 석류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다.
- ¹⁷ 그는 성전 앞에 기둥 두 개를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놓았다.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 불렀다.

역대기 하권 4장

- ¹ 그는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이십 큐빗이고, 너비가 이십 큐빗이며, 높이가 십 큐빗이었다.
- ² 또 그는 십 큐빗 지름의 주조된 바다를 만들었는데,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까지 둥글고, 높이가 오 큐빗이며, 둘레가 삼십 큐빗이었다.
- ³ 그 아래에는 소의 형상이 있어, 바다를 둘러싸고 십 큐빗을 감싸고 있었다. 소들은 두 줄로 되어 있었고, 그것들이 주조될 때 함께 주조되었다.
- ⁴ 그것은 열두 마리의 소 위에 놓여 있었는데,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다. 바다는 그 위에 놓였고, 모든 소의 뒷다리는 안쪽을 향하였다.
- ⁵ 그것은 한 손바닥 두께였고,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처럼, 백합화의 꽃처럼 되어 있었다. 그것은 삼천 바스를 받고 보존하였다.
- ⁶ 그는 또한 십 개의 대야를 만들고, 다섯 개는 오른쪽에, 다섯 개는 왼쪽에 놓아, 그 안에서 씻게 하였다. 번제의 물건들은 그 안에서 씻었으나, 바다는 사제들이 씻기 위해 사용하였다.
- ⁷ 그는 규정에 따라 금으로 열 개의 등대를 만들고, 성전 안에 다섯 개는 오른쪽에, 다섯 개는 왼쪽에 놓았다.
- ⁸ 그는 또한 십 개의 상을 만들고, 성전 안에 다섯 개는 오른쪽에, 다섯 개는 왼쪽에 놓았다. 그는 금으로 백 개의 대야를 만들었다.
- ⁹ 그는 사제들의 마당과 큰 마당을 만들고, 마당의 문들을 만들며, 그 문들을 놋으로 덮었다.
- ¹⁰ 그는 바다를 집의 오른쪽, 동쪽을 향해, 남쪽에 놓았다.
- ¹¹ 후람은 냄비와 삽과 대야를 만들었다.
- ¹² 두 기둥과 그릇들과 기둥 꼭대기에 있는 두 개의 머리장식과, 기둥 꼭대기의 두 개의 머리장식을 덮는 두 개의 그물들을 만들었으며,
- ¹³ 두 개의 그물들을 위해 사백 개의 석류를 만들었는데, 각 그물마다 두 줄의 석류가 있어 기둥 위의 머리장식의 두 개의 그릇을 덮었다.
- ¹⁴ 그는 받침대들을 만들고, 그 받침대들 위에 대야들을 만들었으며,
- ¹⁵ 하나의 바다와 그 아래의 열두 마리의 소들을 만들었다.
- ¹⁶ 후람아비는 왕이 주님의 집을 위해 만든 냄비와 삽과 포크와 모든 기구들을 밝은 놋으로 만들었다.
- ¹⁷ 왕은 수고트와 세레다 사이의 요르단 평야의 진흙 땅에서 이것들을 주조하였다.
- ¹⁸ 이처럼 솔로몬은 이 모든 기구들을 매우 풍부하게 만들었으므로, 놋의 무게를 측정할 수 없었다.
- ¹⁹ 솔로몬은 하느님의 집 안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으니, 금으로 된 제단과, 진설병이 놓인 상들과,
- ²⁰ 내성 앞에서 규정에 따라 태우기 위한 등대와 그 등불들, 순금으로 만든 것들이다.
- ²¹ 꽃들과 등불들과 포크들은 가장 순수한 금으로 되어 있었고,
- ²² 집계들과 대야들과 숟가락들과 불판들은 모두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집의 입구와 가장 거룩한 곳을 위한 안쪽 문들과 성전의 주된 마당의 문들은 금으로 되어 있었다.

역대기 하권 5장

- ¹ 솔로몬이 주님의 집을 위해 한 모든 일은 끝났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바친 것들, 곧 은과 금과 모든 그릇들을 가져다가 하느님의 집의 보물창고에 넣었다.
- ² 그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수장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족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모아, 다윗의 도시, 곧 시온에서 주님의 언약 궤를 올려왔다.
- ³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칠월의 축제 기간에 왕에게 모였다.
- 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왔고, 레위인들이 궤를 들어 올렸다.
- ⁵ 그들은 궤와 만남의 장막과 장막 안의 모든 성물들을 올려왔다. 레위인 사제들이 이것들을 올렸다.
- ⁶ 솔로몬 왕과 그에게 모인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궤 앞에 서서,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양과 소를 희생제물로 바쳤다.
- ⁷ 사제들이 주님의 언약 궤를 그 자리, 곧 집의 안쪽 성소, 곧 지성소로 가져다가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두었다.
- ⁸ 그룹들이 날개를 펼쳐 궤 위를 덮었고, 그룹들의 날개가 궤와 그 지렛대를 덮었다.
- ⁹ 지렛대가 길어서 궤 앞쪽 안쪽 성소에서 그 끝이 보였으나,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 ¹⁰ 궤 안에는 모세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주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념하여 놓은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 ¹¹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왔을 때, 그때 모든 사제들, 곧 그 자리에 있던 사제들이 모두 깨끗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제반 직무를 따르지 않았다.
- ¹² 또한 아사프와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인 노래하는 레위인들이 모두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편에 서서, 제금과 현악기와 수금을 들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일백 이십 명의 사제들이 나팔을 불었다.
- ¹³ 나팔수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한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 한 음성을 내었을 때, 그들이 나팔과 제금과 악기로 소리를 높여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그분은 선하시니,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 ¹⁴ 그때 구름이 가득 차서 사제들이 섬길 수 없었으니, 이는 주님의 영광이 하느님의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역대기 하권 6장

- 1 솔로몬이 말했다. "주님은 어두운 구름 속에 머무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2 그러나 저는 당신을 위해 집을 지었고, 영원히 머무실 장소로 삼았습니다."
- 3 왕은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축복했고, 모든 이스라엘 회중은 일어섰다.
- 4 그가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을 찬미하소서. 당신은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손으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 5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한 도시를 골라 내 이름을 두기 위해 집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을 골라내지 않았다."
- 6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을 골라 내 이름을 두기로 했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골랐다."
- 7 내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었다.
- 8 그러나 주님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좋았다."
- 9 그러나 네가 그 집을 지을 수는 없다. 네 몸에서 나올 네 아들이 그 집을 내 이름을 위해 지을 것이다."
- 10 "주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이어 앉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았고,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었습니다."
- 11 여기 내가 궤를 두었으니, 이 궤에는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 12 그는 모든 이스라엘 회중의 앞에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손을 펼쳤다.
- 13 (솔로몬은 높이 세 큐빗, 길이와 폭이 각각 다섯 큐빗인 청동 대를 만들고, 마당 한가운데에 놓았다. 그는 그 위에 서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펼쳤다.)
- 14 그가 말했다.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하늘 위나 땅 아래에 당신처럼 존재하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당신은 온 마음으로 당신 앞에서 걸어가는 당신의 종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십니다."
- 15 당신은 내 아버지 다윗이라는 당신의 종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당신은 입으로 말씀하시고, 오늘날처럼 손으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 16 "이제,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이 내 아버지 다윗이라는 당신의 종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 주소서. 당신은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들이 내 법을 따라 걸어, 내가 전에 걸어온 대로 그들의 길을 지킨다면, 네 앞에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 17 이제,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이 당신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18 "그러나 하느님이 진실로 땅 위에서 사람과 함께 머무르실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하늘과 하늘의 하늘조차도 당신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얼마나 더 이 내가 지은 집이겠습니까?"
- 19 그러나 주님, 내 하느님, 당신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소서. 당신의 종이 당신 앞에서 드리는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소서.
- 20 당신의 눈이 이 집을 낮과 밤에 향해 열리게 하시고,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하신 이 장소를 향해, 당신의 종이 이 장소를 향해 드리는 기도를 들으소서.
- 21 당신의 종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장소를 향해 기도할 때, 그들의 간구를 들으소서. 당신의 거처,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 용서하소서.
- 22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지어, 그에게 맹세하게 하여 맹세하게 하면, 그가 와서 이 집의 제단 앞에서 당신 앞에 맹세하면,
- 23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동하시며, 당신의 종들을 심판하소서. 악한 자에게는 그의 악행이 그의 머리 위에 돌아가게 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그의 의로움에 따라 보상하소서."
- 24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께 죄를 지어 적군 앞에서 무너져 쓰러질 때, 그들이 다시 돌아와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고, 이 집에서 당신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 25 그러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을 당신이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 26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들이 당신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이 이 곳을 향해 기도하며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고, 당신이 그들을 괴롭힐 때 그들의 죄에서 돌아선다면,
- 27 그러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의 종이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이 걸어야 할 선한 길을 가르치시고, 당신이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려 주소서.
- 28 만일 땅에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퍼지며, 해충이나 곰팡이, 메뚜기나 애벌레가 생기고, 그들의 원수가 그들이 사는 성읍들을 에워싸며, 어떤 재앙이나 병이든지,
- 29 어떤 사람이든, 또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모두 각자의 재앙과 슬픔을 알고, 이 집을 향해 손을 펼칠 때,
- 30 그러면 당신의 거처인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죄하시며, 각 사람에게 그의 모든 길에 따라 보답하소서. 당신은 그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 오직 당신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 31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여, 당신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평생 동안 당신의 길을 걷게 하소서.
- 32 또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인이, 당신의 위대한 이름과 강한 손과 펼쳐진 팔을 위하여 먼 땅에서 와서, 이 집을 향해 기도할 때,
- 33 그러면 하늘, 곧 당신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그 외국인이 당신께 간구하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당신의 이름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당신을 두려워하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 34 당신의 백성이 당신이 보내시는 어떤 길로든 그들의 원수와 싸우러 나가서, 당신이 택하신 이 성과, 내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집을 향해 기도할 때,
- 35 그러면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 주소서.
- 36 그들이 당신께 죄를 지으면 (죄를 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당신이 그들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 주어, 멀리 있거나 가까운 땅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신다면,
- 37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돌아서서,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 당신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악행을 저질렀으며, 악독하게 행동했습니다.’라고 한다면,
- 38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당신께 돌아와, 당신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당신이 택하신 성과, 내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집을 향해 기도한다면,
- 39 그러면 하늘, 곧 당신의 거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 주시며, 당신께 죄를 지은 당신의 백성을 사죄하소서.
- 40 이제, 내 하느님, 제발, 당신의 눈이 이 곳을 향해 열리시고, 당신의 귀가 이 곳에서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 41 이제 일어나소서, 주 하느님, 당신의 안식처로 들어가소서. 당신과 당신의 힘의 궤를 함께 데려가소서. 주 하느님, 당신의 사제들이 구원으로 입을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의 성도들이 선함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 42 주 하느님, 당신의 기쁨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돌이키지 마소서. 당신의 종 다윗을 향한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소서.

역대기 하권 7장

- ¹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와 희생 제물을 태우고, 주님의 영광이 집을 가득 채웠다.
- ²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 ³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불이 내려오고 주님의 영광이 집 위에 있음을 보고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였다. 그들이 말했다. "그분은 선하시니,"
- ⁴ 그때 왕과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다.
- ⁵ 왕 솔로몬은 소 이만 이천 마리와 양 십이만 마리를 희생 제물로 드렸다. 이처럼 왕과 모든 백성이 하느님의 집을 봉헌하였다.
- ⁶ 제사장들은 제자리에 서 있었고, 레위인들도 다윗 왕이 주님께 감사 드리기를 위해 만든 악기로 함께 하였다. 다윗이 그들의 봉사로 찬양할 때 말하였다.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계속되니." 제사장들은 그들 앞에서 나팔을 불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서 있었다.
- ⁷ 솔로몬은 주님의 집 앞 마당 중앙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번제와 평화 제물의 기름을 드렸다. 솔로몬이 만든 놋 제단이 번제와 곡식 제물과 기름을 모두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 ⁸ 이에 솔로몬은 그때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베풀었고,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하였다. 이는 하마스 문에서 이집트 시내까지 이르는 매우 큰 모임이었다.
- ⁹ 여덟 번째 날에는 엄숙한 모임을 열었다. 그들은 제단을 봉헌한 일주일과 축제 일주일을 지켰기 때문이다.
- ¹⁰ 일곱 번째 달 이십삼 일에 그는 백성을 각자의 장막으로 보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선하심을 기억하며 떠났다.
- ¹¹ 이처럼 솔로몬은 주님의 집과 왕의 집을 완성하였고, 주님의 집과 자기 집에서 자기 마음에 떠오른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 ¹² 그때 주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나를 위한 제사의 집으로 택하였다."
- ¹³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를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내 백성 사이에 전염병을 보내면,
- ¹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나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 ¹⁵ 이제 내 눈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열어 두고, 내 귀는 그것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 ¹⁶ 이제 나는 이 집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영원히 거기 있게 하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 ¹⁷ 너는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며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 ¹⁸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네 왕위를 굳게 세우리라.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서 네게서 통치할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 ¹⁹ 그러나 너희가 떠나 내 율법과 명령, 내가 너희 앞에 둔 것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면,
- ²⁰ 내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를 뿌리째 뽑아 버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집을 내 앞에서 내쫓아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
- ²¹ 이 집은 높고 위엄있으니,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하리라. "어찌하여 주님이 이 땅과 이 집에 이같이 하셨는가?"
- ²² 그들은 대답하리라. "그들이 그 조상들의 하느님, 곧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취하여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역대기 하권 8장

- ¹ 솔로몬이 주님의 집과 자기 집을 지은 이십 년이 끝날 무렵,
- ² 솔로몬은 훌람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도시들을 건설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곳에 살게 하였다.
- ³ 솔로몬은 하마츠소바로 나아가 그곳을 정복하였다.
- ⁴ 그는 사막에 타드모르를 건설하고, 하마에 있는 모든 창고 도시들을 건설하였다.
- ⁵ 또 상베트호론과 하베트호론을 건설하여 성벽과 문과 빗장을 갖춘 요새 도시로 만들었다.
- ⁶ 그리고 바알랏과 솔로몬이 소유한 모든 창고 도시들과, 그의 전차를 위한 도시들과, 그의 기마대를 위한 도시들과,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자기 통치 지역 전역에서 즐거움을 위해 건설하고자 한 모든 것을 건설하였다.
- ⁷ 히트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페리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중 이스라엘 사람이 멸하지 않은 나머지 백성들에 대하여,
- ⁸ 그들의 자손들 중 땅에 남아 있던 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멸하지 않은 자들 중에서, 솔로몬은 오늘날까지 노역을 시켰다.
- ⁹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는 솔로몬이 그의 노동을 위한 노예로 삼지 않았다. 그들은 전사들이었고, 그의 장군들과, 그의 전차와 기마대의 지휘관들이었다.
- ¹⁰ 이들은 솔로몬 왕의 주요 관리들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이백 오십 명이었다.
- ¹¹ 솔로몬은 다윗의 도시에서 파라오의 딸을 데려와, 그녀를 위해 자기가 지은 집으로 옮겼다. 그는 말하였다. "내 아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집에 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궤가 들어간 곳은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이다."
- ¹² 그리고 솔로몬은 복도 앞에 자기가 건설한 주님의 제단에 번제를 바쳤다.
- ¹³ 매일 정해진 의무에 따라, 안식일과 월삭과 정해진 절기들, 즉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일년 세 번씩, 모세의 명령에 따라 제물을 바쳤다.
- ¹⁴ 그는 아버지 다윗의 규정에 따라 제사장들의 부대를 그들의 직무에 따라 배치하고, 레위인들을 그들의 직무에 따라 배치하여, 매일 정해진 의무에 따라 제사장들 앞에서 찬양하고 섬기게 하였으며, 문지기들도 각 부대에 따라 모든 문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는 하느님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 ¹⁵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어떤 일이나 재물에 관해 왕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 ¹⁶ 주님의 집의 기초를 놓은 날부터 완성될 때까지, 솔로몬의 모든 일은 완수되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집은 완성되었다.
- ¹⁷ 그 후 솔로몬은 에돔 땅 해안가의 에시온게베르와 엘랏으로 나아갔다.
- ¹⁸ 훌람은 그에게 바다를 아는 자들을 시종으로 보내어, 그들이 솔로몬의 시종들과 함께 오피르로 가서 거기서 사백 오십 달란트의 금을 가져와 솔로몬 왕에게 전달하였다.

역대기 하권 9장

- 1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 왔다. 그녀는 향신료와 풍부한 금, 귀한 보석을 실은 낙타 무리와 함께 큰 행렬을 이끌고 왔다. 그녀가 솔로몬에게 이르러 그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다.
- 2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질문에 답하였다.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 3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지은 집을 보았을 때,
- 4 그의 식탁에 놓인 음식, 그의 하인들의 자리 배열, 그의 신하들의 시중들, 그들의 옷차림, 그의 잔을 드는 자들과 그들의 옷차림, 그리고 그가 주님의 집에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나서, 그녀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 5 그녀가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땅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관한 진실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 6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지혜의 절반도 내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당신은 제가 들은 명성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 7 당신의 신하들이 행복하고, 당신 앞에 항상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이 하인들이 행복합니다.
- 8 당신의 하느님, 주님을 찬미하소서. 그분은 당신을 기뻐하시어 당신을 그분의 보좌에 앉히사 당신의 하느님, 주님을 위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그들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은 공정과 의로움을 행하려고 말입니다."
- 9 그녀는 왕에게 금 백이십 달란트와 풍부한 향신료와 귀한 보석을 바쳤다.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바친 향신료처럼 그 전에 그런 향신료는 없었다.
- 10 후람의 하인들과 솔로몬의 하인들이 오피르에서 금을 가져온 것처럼, 알굼나무와 귀한 보석도 가져왔다.
- 11 왕은 알굼나무로 주님의 집과 왕의 집을 위한 계단을 만들었고, 노래하는 자들을 위한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 유다 땅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전에 없었다.
- 12 솔로몬 왕은 세바의 여왕이 원하는 모든 것, 즉 그녀가 왕에게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녀에게 주었다. 그녀는 그녀의 하인들과 함께 돌아가서 자기 땅으로 갔다.
- 13 솔로몬에게 한 해에 들어온 금의 무게는 육백육십육 달란트였다.
- 14 그것에 더하여 상인들과 상업인들이 가져온 것도 있었다.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지방의 총독들이 매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바쳤다.
- 15 솔로몬 왕은 두백 개의 큰 방패를 두드려 만든 금으로 만들었다. 하나의 큰 방패에는 육백 세켈의 두드려 만든 금이 들었다.
- 16 그는 세백 개의 방패를 두드려 만든 금으로 만들었다. 하나의 방패에는 삼백 세켈의 금이 들었다. 왕은 그것들을 레바논 숲의 집에 두었다.
- 17 또 왕은 상아로 큰 왕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덮었다.
- 18 왕좌에는 여섯 단계의 계단이 있었고, 금으로 만든 발받침이 왕좌에 고정되어 있었으며, 앉는 자리 양쪽에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옆에는 두 마리의 사자가 서 있었다.
- 19 여섯 단계의 계단 양쪽에는 각각 열두 마리의 사자가 서 있었다. 이와 같은 것은 다른 어떤 왕국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 20 솔로몬 왕의 모든 마시는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숲의 집의 모든 그릇도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 21 왕은 후람의 하인들과 함께 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가지고 있었다. 타르시스의 배는 삼 년에 한 번씩 돌아와서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가져왔다.
- 22 이처럼 솔로몬 왕은 부와 지혜에서 땅의 모든 왕들을 능가하였다.
- 23 땅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와 그의 마음에 하느님이 주신 지혜를 듣고자 하였다.
- 24 그들은 매년 은 그릇, 금 그릇, 옷, 갑옷, 향신료, 말, 노새를 공물로 바쳤다.
- 25 솔로몬은 말과 병거를 위한 사천 개의 마구간과 만이천 명의 기마병을 가졌으며, 그들을 병거 도시들과 예루살렘에서 왕

과 함께 배치하였다.

²⁶ 그는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이집트 경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들을 통치하였다.

²⁷ 왕은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처럼 흔하게 만들었고, 평지에 있는 무화과나무처럼 전나무를 풍부하게 하였다.

²⁸ 그들은 이집트와 모든 땅에서 솔로몬을 위한 말을 가져왔다.

²⁹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 처음과 끝은 선지자 나단의 역사와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 그리고 네바트의 아들 여로보암에 관한 보는 자 이도의 환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³⁰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사십 년 동안 통치하였다.

³¹ 솔로몬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자리를 계승하여 통치하였다.

역대기 하권 10장

- ¹ 레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이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에 모였기 때문이다.
- ² 네바트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솔로몬 왕의 앞에서 도망쳐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 ³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와서 레호보암에게 말하였다.
- 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둔 무거운 노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 ⁵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삼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 ⁶ 왕 레호보암은 솔로몬, 곧 그의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그 앞에 서 있던 늙은이들과 상의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너희가 나에게 어떤 조언을 주겠느냐?"
- ⁷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이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며, 좋은 말로 대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 ⁸ 그러나 그는 그의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그 앞에 서 있던 늙은이들이 주었던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나서 그 앞에 서 있던 젊은이들과 상의하였다.
- ⁹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당신 아버지가 둔 멍에를 가볍게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너희가 나에게 어떤 조언을 주느냐?"
- ¹⁰ 그와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그것을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당신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작은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습니다.'"
- ¹¹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웠다면, 나는 너희 멍에에 더할 것이다. 내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벌했다면, 나는 너희를 전갈로 벌겠다."
- ¹² 그러므로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왕이 말한 대로 사흘 후에 레호보암에게 왔다.
- ¹³ 왕은 그들에게 거칠게 대답하였다. 왕 레호보암은 늙은이들의 조언을 버리고,
- ¹⁴ 젊은이들의 조언에 따라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그것을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벌했다면, 나는 너희를 전갈로 벌겠다."
- ¹⁵ 그러므로 왕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는 주님이 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었는데, 그 말씀은 실론 사람 아히야가 네바트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한 것이었다.
- ¹⁶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왕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백성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 무슨 몫이 있느냐? 우리에게서 여세의 아들에게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제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제 당신은 당신의 집을 돌보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제 장막으로 돌아갔다.
- ¹⁷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호보암이 다스렸다.
- ¹⁸ 그때 왕 레호보암은 강제 노역을 맡은 하도람을 보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왕 레호보암은 빨리 자기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 ¹⁹ 이러므로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역대기 하권 11장

- 1 레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의 가족을 모아, 전사로 선정된 열팔만 명을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워 왕국을 다시 자기에게 돌려받으려 하였다.
- 2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사람 세마야에게 임하였다.
- 3 "솔로몬의 아들인 유다 왕 레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 4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나로부터 온 것이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과 싸우려는 일을 그만두고 돌아갔다.
- 5 레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유다에 방어 도시들을 건설하였다.
- 6 그는 베들레헬, 에담, 테코아를 건설하였다.
- 7 베수르, 소코, 아둘람을 건설하였다.
- 8 가스, 마레사, 시프를 건설하였다.
- 9 아도라임, 라기스, 아제카를 건설하였다.
- 10 조라, 아이알론, 헤브론을 건설하였는데, 이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요새 도시들이다.
- 11 그는 요새들을 견고히 하고, 그곳에 장관들을 두어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비축하였다.
- 12 그는 모든 성에 방패와 창을 두고, 그것을 매우 견고하게 만들었다. 유다와 베냐민은 그의 것이 되었다.
- 13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그의 편에 서서, 자기들의 모든 영토에서 그에게로 왔다.
- 14 레위인들은 그들의 목초지와 소유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배척하여, 주님을 위한 사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 15 그는 자신이 만든 높은 곳들과 수염소와 송아지 우상들을 위해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 16 그 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주님, 이스라엘 하느님을 찾으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조상들의 하느님인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 17 그러므로 그들은 유다의 왕국을 견고히 하고, 솔로몬의 아들 레호보암을 삼 년 동안 강하게 하였다. 이는 그들이 삼 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 18 레호보암은 자기 아내로 다윗의 아들 여리모의 딸 마할랏과, 여시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할을 맞이하였다.
- 19 그녀는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 여우, 세마랴, 자함을 낳았다.
- 20 그 후, 그는 아브살롬의 손녀 마아가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녀는 그에게 아비야, 아타이, 지자, 셀로미트를 낳았다.
- 21 레호보암은 자기 모든 아내들과 첩들 위에 아브살롬의 손녀 마아가를 사랑하였다. 그는 열여덟 명의 아내와 육십 명의 첩을 맞이하여, 스물여덟 명의 아들과 육십 명의 딸을 낳았다.
- 22 레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주요한 자로 임명하여, 형제들 가운데 두목으로 삼았으니, 그는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다.
- 23 그는 지혜롭게 행동하여, 자기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땅, 곧 모든 요새 성으로 흩어보냈다. 그는 그들에게 풍족한 음식을 주었고, 그들에게 많은 아내들을 구하였다.

역대기 하권 12장

- ¹ 레호보암의 왕국이 굳어지고 힘이 강해지자, 그는 주님의 법을 버리고, 이스라엘 전체도 그와 함께 했다.
- ² 레호보암 왕의 다섯 번째 해에, 이집트 왕 시삭이 그들이 주님을 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치고 올라왔다.
- ³ 그는 천이백 대의 전차와 육만 명의 기병을 이끌고 올라왔으며, 그와 함께 온 이집트 사람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들은 루비무, 수키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었다.
- ⁴ 그는 유다의 요새 도시들을 모두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 ⁵ 그때 예언자 스마야가 레호보암과 유다의 모든 귀족들에게 이르렀는데, 그들은 시삭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내버려 두겠다."
- ⁶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왕이 스스로 낮추었고, 그들이 말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 ⁷ 주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낮춘 것을 보시고,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스스로 낮췄다.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느 정도 구원을 주어, 내 진노가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아지지 않게 하리라."
- ⁸ 그러나 그들은 그의 종이 되어, 내가 주는 섬김과 나라들의 섬김을 알게 될 것이다.
- ⁹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주님의 집과 왕의 집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갔다. 그는 모두 가져갔다. 또한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빼앗아 갔다.
- ¹⁰ 레호보암 왕은 그 대신 놋 방패를 만들고, 왕궁 문을 지키는 경비대 장관들의 손에 맡겼다.
- ¹¹ 왕이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경비대가 그 방패들을 들고 나왔다가, 다시 경비대 방으로 돌려놓았다.
- ¹² 그가 스스로 낮출 때, 주님의 진노가 그에게서 돌이켜, 그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다. 또한 유다에는 좋은 일들이 있었다.
- ¹³ 이에 레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힘을 얻어 왕위에 앉았다. 레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사십일 세였고, 예루살렘에서 열일곱 해를 다스렸다. 이 도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자기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한 곳이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몬 사람 나아마였다.
- ¹⁴ 그는 주님을 찾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했다.
- ¹⁵ 레호보암의 처음과 마지막 일은, 예언자 스마야와 환상가 이도의 연대기와 계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레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다.
- ¹⁶ 레호보암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의 도시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역대기 하권 13장

- ¹ 여로보암 왕의 열여덟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 ² 그는 예루살렘에서 삼 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기브아의 우리엘의 딸 미가야였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 ³ 아비야는 용감한 전사 사십만 명을 이끌고 전투에 임하였고, 여로보암은 팔십만 명의 용감한 전사들을 배열하여 그를 맞이하였다.
- ⁴ 아비야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마라임 산에 서서 말하였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 ⁵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이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영원히 주신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는 소금의 언약으로 말이다.
- ⁶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종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의 주인을 반역하였다.
- ⁷ 무가치한 자들이 그에게 모여들어 악한 자들이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공격하였다. 그때 르호보암은 젊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들을 이기지 못하였다.
- ⁸ 지금 너희는 다윗의 자손의 손에 있는 주님의 왕국에 맞서려 한다. 너희는 큰 무리이며,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해 만든 황금 송아지들이 너희의 신들이다.
- ⁹ 너희는 주님의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고, 다른 땅들의 백성들의 길을 따라 너희 자신을 위한 제사장을 세웠다. 누구든지 젊은 수소 한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면, 그가 그 신들 아닌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 ¹⁰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하느님이시며, 우리는 그를 버리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 ¹¹ 그들은 아침과 저녁마다 주님께 번제와 향을 바치며, 순결한 상 위에 진설병을 차려 놓고, 금 등불대와 그 등불들을 매일 저녁에 태우기 위해 돌보아 왔다. 우리는 우리 하느님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만, 너희는 그를 버렸다.
- ¹² 보라,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머리가 되어 계시며, 그의 제사장들이 너희를 향해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주님과 싸우지 말라. 너희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 ¹³ 그러나 여로보암은 뒤에서 기습을 벌이게 하여, 그들은 유다 앞에 있었고, 기습대는 뒤에 있었다.
- ¹⁴ 유다가 뒤를 돌아보니, 전투가 앞과 뒤에 있었다.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 ¹⁵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외쳤다. 유다 사람들이 외칠 때, 하느님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 ¹⁶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앞에서 도망쳤고, 하느님이 그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 ¹⁷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그들을 크게 쳐서 이스라엘에서 오십만 명의 골라낸 전사들이 쓰러져 죽었다.
- ¹⁸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굴복하였고, 유다 자손들이 승리하였다. 그들은 조상들의 하느님 주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 ¹⁹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추격하여 그의 도시들을 빼앗았다. 벳엘과 그에 속한 마을들, 예사나와 그에 속한 마을들, 에브론과 그에 속한 마을들이다.
- ²⁰ 아비야의 생애 동안 여로보암은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주님이 그를 치셨고, 그는 죽었다.
- ²¹ 그러나 아비야는 강성해져서 아내 열네 명을 취하고, 아들 스물두 명과 딸 열여섯 명을 낳았다.
- ²²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길과 말은 예언자 이도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다.

역대기 하권 14장

- ¹ 아비아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들은 그를 다윗의 도시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며, 그의 시대에 땅은 열 해 동안 평화로웠다.
- ² 아사는 주님 자신의 하느님 앞에서 선하고 올바른 일을 하였다.
- ³ 그는 외국의 제단들과 높은 곳들을 없애고, 돌기둥들을 부수며, 아세라 목상을 베어버렸다.
- ⁴ 유다에게 명령하여 조상들의 하느님인 주님을 구하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따르게 하였다.
- ⁵ 그는 유다 모든 성읍에서 높은 곳들과 태양의 상들을 없앴다. 그의 앞에서 왕국은 평화로웠다.
- ⁶ 그는 유다에 요새 도시들을 건설하였다. 땅이 평화로웠고, 그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으니, 이는 주님이 그에게 편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 ⁷ 그가 유다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설하고, 탑과 문과 빗장을 갖춘 성벽을 두르자. 땅은 아직 우리 앞에 있다. 우리가 우리 하느님 주님을 구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를 구하였더니, 그가 사방에서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건설하여 번성하였다.
- ⁸ 아사에게는 유다에서 방패와 창을 든 삼십만 명의 군대가 있었고, 베냐민에서 방패를 들고 활을 쏘는 이십팔만 명이 있었다. 이 모두가 용감한 용사들이었다.
- ⁹ 에티오피아인 세라가 백만 명의 군대와 삼백 대의 전차를 이끌고 그들에게 맞서 마레사로 나아왔다.
- ¹⁰ 아사는 그를 맞이하여 마레사의 세파다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 ¹¹ 아사는 주님 자신의 하느님께 외쳐 말했다. "주님, 주님 외에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를 도울 이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하느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에 맞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 ¹² 그러므로 주님은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티오피아인들을 치셨고, 에티오피아인들은 도망쳤다.
- ¹³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은 그들을 게라까지 쫓아갔다. 에티오피아인들이 너무 많이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님과 그의 군대 앞에서 멸망하였기 때문이다. 유다 군대는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다.
- ¹⁴ 그들은 게라 주변 모든 성읍을 치니,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쳤다. 그들은 모든 성읍을 약탈하였으니, 그 성읍들에는 풍부한 전리품이 있었기 때문이다.
- ¹⁵ 그들은 가축을 가진 자들의 천막도 치고, 양과 낙타를 풍부히 가져갔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역대기 하권 15장

- ¹ 하느님의 영이 오돏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였다.
- ² 그가 아사에게 나아가며 말했다. "아사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자여,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그를 따르면 주님은 너희와 함께하시며, 너희가 그를 구하면 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 ³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참 하느님 없이, 가르치는 사제 없이, 율법 없이 있었다.
- ⁴ 그러나 그들이 환난을 겪을 때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을 향해 돌아서서 그를 구하면, 그는 그들에게 발견되었다.
- ⁵ 그 시대에는 나가는 자에게도 들어오는 자에게도 평화가 없었고,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큰 환난이 있었다.
- ⁶ 나라가 나라에, 도시가 도시에 부서졌으니,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역경으로 괴롭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 ⁷ 그러나 너희는 강건하라! 너희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의 일이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 ⁸ 아사가 이 말과 예언자 오데드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땅과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가 빼앗은 도시들에서까지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주님의 담장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수리하였다.
- ⁹ 그는 유다와 베냐민 온 백성과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에서 그와 함께 살던 자들을 모두 모으니, 그들이 그의 하느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풍성하게 그에게로 왔다.
- ¹⁰ 그러므로 그들은 아사의 통치 제십오년째 되는 해의 세 번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 ¹¹ 그날 그들은 자신들이 노획한 전리품으로 소 일천마리와 양 일만마리를 주님께 바쳤다.
- ¹² 그들은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조상들의 하느님을 찾기로 언약을 맺었다.
- ¹³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찾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크고 작고 남자나 여자나 모두 죽임을 당하도록 하였다.
- ¹⁴ 그들은 큰 소리로, 함성으로, 나팔과 나팔로 주님께 맹세하였다.
- ¹⁵ 유다 모든 백성은 그 맹세를 기뻐하였다. 그들은 온 마음으로 맹세하고 온 정열로 그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사방에서 평안하게 하셨다.
- ¹⁶ 또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를 여왕 어머니 자리에서 폐하였다. 그녀가 아세라 상을 만든 까닭이었다. 아사는 그녀의 상을 베어내어 가루로 갈아서 키론 시내에서 불태웠다.
- ¹⁷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높은 곳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은 그의 평생 동안 완전하였다.
- ¹⁸ 그는 아버지가 바친 것과 자기가 바친 것,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느님의 집에 가져다 놓었다.
- ¹⁹ 아사의 통치 제삼십오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역대기 하권 16장

- ¹ 아사가 통치한 지 삼십육 년째에,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 라마를 쌓아, 유다의 왕 아사에게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 ² 그때 아사는 주님의 성전과 왕의 궁전의 보물에서 은과 금을 꺼내어, 다마스쿠스에 거주하는 시리아의 왕 벤하닷에게 보냈으며, 이렇게 말했다,
- ³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나와 당신 사이에도 동맹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보냈습니다. 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맺은 당신의 동맹을 깨뜨리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에게서 떠날 것입니다."
- ⁴ 벤하닷은 아사 왕의 말을 듣고, 자신의 군대 장관들을 이스라엘의 도시들에 보내어, 이온과 단과 아벨 마이음과 납탈리의 모든 창고 도시들을 공격하였다.
- ⁵ 바아사가 이 소식을 듣고, 라마를 쌓는 일을 멈추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 ⁶ 그때 아사 왕은 유다 전체를 동원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쌓을 때 쓴 돌과 나무를 모두 옮겨, 그로 가바와 믹사바를 쌓았다.
- ⁷ 그때 예언자 하나니가 유다의 왕 아사에게 나아와 말했다. "당신이 시리아의 왕을 의지하고, 당신의 하느님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시리아의 왕의 군대가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 ⁸ 에티오피아인들과 루빔은 병거와 매우 많은 기마병을 가진 거대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주님을 의지했으므로, 그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 ⁹ 주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그의 마음을 온전히 그에게 바친 자들을 위하여 힘을 나타내십니다. 당신은 이 일에서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전쟁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 ¹⁰ 그러자 아사는 예언자에게 분노하여 그를 옥에 가두었다. 그는 이 일로 그에게 화가 나 있었고, 동시에 일부 백성도 억압하였다.
- ¹¹ 아사의 처음과 마지막 행적은 모두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 ¹² 그가 통치한 지 삼십구 년째에, 아사는 발에 병이 들었다. 그 병이 매우 심각했으나, 그는 병이 들었을 때 주님을 구하지 않고 오직 의사들만 찾았다.
- ¹³ 아사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통치한 지 사십일 년째에 죽었다.
- ¹⁴ 그들은 그를 자기가 다윗의 도시에서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장사하고, 향료 장인들이 만든 다양한 향기로운 향과 향신료로 가득 채운 침대 위에 눕혔다. 그리고 그를 위해 매우 큰 불을 피웠다.

역대기 하권 17장

- ¹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에 대비하여 힘을 기르었다.
- ² 그는 유다의 모든 요새 도시에 군대를 배치하고,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유다 땅과 에브라임의 도시들에 요새를 두었다.
- ³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처음 길을 따르고, 바알들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 ⁴ 그는 아버지의 하느님을 구하고, 그의 계명을 따르며, 이스라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 ⁵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의 손에 왕국을 굳게 세우셨다. 유다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공물을 바쳤고, 그는 풍부한 재물과 영예를 누렸다.
- ⁶ 그의 마음은 주님의 길에서 높아졌으며, 그는 유다에서 높은 곳들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였다.
- ⁷ 그가 왕위에 오른 세 번째 해에, 그는 그의 공신들, 곧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네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게 하였다.
- ⁸ 그들과 함께 레위인들, 곧 세마야와 네다냐와 세바다와 아사헬과 세미라못과 여호난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곧 레위인들과, 엘리사마와 여호람, 곧 사제들을 보냈다.
- ⁹ 그들은 주님의 율법서를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 모든 도시를 돌아다니며 백성 가운데 가르쳤다.
- ¹⁰ 주님의 두려움이 유다 주변의 모든 땅의 왕국들 위에 떨어져, 그들이 여호사밧과 싸우지 않았다.
- ¹¹ 일부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바치고 공물로 은을 바쳤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또한 그에게 가축을 바쳤다. 일만 오천마리의 수양과 일만 오천마리의 수염소였다.
- ¹² 여호사밧은 매우 커졌고, 유다에 요새와 창고 도시들을 건설하였다.
- ¹³ 그는 유다의 도시들에 많은 사업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용감한 용사들이 많았다.
- ¹⁴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수를 세었으니, 유다에서 천부장들은 아드나가 장관이었고, 그와 함께 용감한 용사가 삼십만 명이었으며,
- ¹⁵ 그 다음으로 요하난이 장관이었고, 그와 함께 이십팔만 명이었으며,
- ¹⁶ 그 다음으로 시크리의 아들 아마시야가 있었는데, 그는 자발적으로 주님께 자신을 바쳤고, 그와 함께 용감한 용사가 이십만 명이었다.
- ¹⁷ 베냐민에서: 엘리다, 용감한 용사로, 그와 함께 활과 방패를 든 용사가 이십만 명이었으며,
- ¹⁸ 그 다음으로 여호자바드가 있었고, 그와 함께 전쟁을 준비한 용사가 백팔만 명이었다.
- ¹⁹ 이들은 왕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유다 전역의 요새 도시들에 왕이 배치한 자들 외의 자들이다.

역대기 하권 18장

- 1 요사밧은 부와 영예를 풍부히 누렸고, 아합과 동맹을 맺었다.
- 2 몇 해 후, 그는 사마리아로 내려가 아합을 찾아갔다. 아합은 그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양과 소를 풍성히 잡아 대접하며, 그를 데리고 라못길르앗으로 올라가자고 권유했다.
- 3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요사밧에게 말했다. "너는 나와 함께 라못길르앗으로 올라가겠느냐?"
- 4 요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먼저 주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 5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들을 불러 모아 사백 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라못길르앗으로 나가 전투를 벌일 것인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
- 6 그러나 요사밧이 말했다.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또 한 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 7 이스라엘 왕이 요사밧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님께 물어볼 수 있는 한 사람만 더 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싫어한다. 그는 내게 좋은 일만 예언한 적이 없고, 항상 나쁜 일만 말하기 때문이다. 그는 임라의 아들 미가야다."
- 8 이스라엘 왕은 한 관리에게 불러서 말했다. "임라의 아들 미가야를 빨리 데려오라."
- 9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요사밧은 각자 왕좌에 앉아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입구의 넓은 곳에 앉아 있었다. 모든 예언자들이 그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다.
- 10 게나아의 아들 스데키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 말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뿔로 네가 아람 사람들을 쳐서 다 없앨 것이다.""
- 11 모든 예언자들이 이렇게 예언하며 말했다. "라못길르앗으로 올라가라. 형통할 것이다. 주님이 그 땅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 12 미가야를 불러오려 갔던 사자가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예언자들이 모두 한 입으로 왕에게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들과 같이 좋은 말을 하십시오."
- 13 미가야가 말했다. "주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말하건대, 나는 내 하느님의 말씀을 말할 뿐입니다."
- 14 그가 왕에게 이르렀을 때, 왕이 그에게 말했다. "미가야야, 우리는 라못길르앗으로 나가 전투를 벌일 것인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
- 15 왕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네게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만 말하라고 몇 번이나 맹세했느냐?"
- 16 그가 말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산 위에 양처럼 흩어져, 목자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주인이 없다. 각자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 17 이스라엘 왕이 요사밧에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그가 내게 좋은 말을 하지 않고, 항상 나쁜 말만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 18 미가야가 말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주님이 그분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19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아합 이스라엘 왕을 유혹하여 라못길르앗으로 올라가게 하여 그가 거기서 쓰러지게 할 것인가?" 한 이는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이는 저렇게 말했습니다.
- 20 한 영이 나와서 주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유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 21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 영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를 유혹하고, 성공할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라.""
- 22 "이제 보십시오. 주님이 이 너희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 영을 두셨고, 주님이 너희에게 나쁜 일을 말씀하셨다."
- 23 그러자 게나아의 아들 스데키야가 나아가 미가야의 뺨을 치며 말했다. "주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서 너에게로 가서 말하게 된 길이 어디냐?"
- 24 미가야가 말했다. "보라, 그 날에 네가 숨으려고 안방으로 들어갈 때를 네가 볼 것이다."
- 25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미가야를 데려가서 성의 통치자 아몬과 왕의 아들 요아스에게 보내고,

- 26 그들에게 말하라. "왕이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고통의 빵과 고통의 물로 먹여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 27 미가야가 말했다. "네가 평안히 돌아온다면, 주님은 나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는 말했다. "들어라, 너희 모두!"
- 28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라못길르앗으로 올라갔다.
- 29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복장을 갈아입고 전장에 나가겠고, 너는 왕복을 입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복장을 갈아입었고, 그들은 전장으로 나아갔다.
- 30 아람 왕은 자기 전차 장관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을 상대하라."
- 31 전차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서서 그를 공격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외치자, 주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그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 32 전차 장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그를 쫓는 것을 멈추고 돌아섰다.
- 33 어떤 사람이 무작위로 활을 쏘아 이스라엘 왕의 갑옷 틈새를 맞혔다. 그래서 그는 전차 기사에게 말했다. "돌아서서 나를 전장에서 빼내라. 나는 중상이다."
- 34 그날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전차에 기대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람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해질 무렵에 죽었다.

역대기 하권 19장

- 1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렀다.
- 2 예언자 하나니의 아들 여후가 나와서 그를 맞아 말했다. "너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려 하는가? 이 때문에 주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였다."
- 3 그러나 너에게 좋은 일이 있다. 네가 땅에서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하느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했기 때문이다.
- 4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베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기까지 백성 사이를 돌아다니며, 조상들의 하느님인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 5 그는 유다의 모든 요새 도시마다 재판관을 임명하였다.
- 6 그가 재판관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하는 일을 신중히 생각하여라. 너희가 사람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다. 그가 너희와 함께 재판하시기 때문이다."
- 7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조심하고 행동하여라. 우리 하느님 주님께는 불의도 없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으며, 뇌물을 받지도 않는다.
- 8 예루살렘에서는 여호사밧이 레위인들과 사제들과 이스라엘의 가족 족장들을 임명하여, 주님을 위한 재판과 분쟁을 처리하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 9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너희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이것을 행해야 한다."
- 10 너희 형제들이 자기 도시에서 너희에게 오는 모든 분쟁, 곧 피와 피 사이, 법과 계명 사이, 율법과 규정 사이의 분쟁이 있을 때, 너희는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짓지 않게 하여라. 그래야 너희와 너희 형제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행하면 너희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 11 보아라, 아마라는 주님의 모든 일에 너희 위에 있는 대제사장이며, 이스마엘의 아들 세바다는 왕의 모든 일에 유다의 집을 다스리는 자이다. 또한 레위인들이 너희 앞에서 관리가 될 것이다. 용감히 행동하여라. 주님께서 선한 자들과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역대기 하권 20장

- 1 이 일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몇 명의 메운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맞서 전쟁을 일으켰다.
- 2 그때 어떤 이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알렸다. "큰 무리가 시리아에서 바다 건너편으로부터 당신에게 쳐들어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하자손 타마르에 있습니다." (이는 엔게디입니다.)
- 3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여 주님을 구하기 위해 힘썼다. 그는 유다 전역에 금식을 선포했다.
- 4 유다가 주님을 구하려 모였다. 유다 모든 성에서 사람들이 나와 주님을 찾았다.
- 5 여호사밧은 주님의 집, 새 마당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임에 서서,
- 6 말했다.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 당신은 하늘의 하느님이 아니십니까? 모든 나라의 왕권을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능력과 힘이 당신의 손에 있으니, 누구도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 7 우리 하느님, 당신은 이 땅의 주민들을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않으셨습니까?
- 8 그들이 그 땅에 살며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곳에 성전을 지었고, 말했습니다.
- 9 "만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되, 칼이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라도, 우리는 이 성전 앞과 당신 앞에 서서(당신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음이니), 고통 중에 당신께 부르짖을 것이며, 당신은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 10 이제 보십시오,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산의 자손들이, 당신이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그 땅을 침입하지 못하게 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물리치고 멸하지 않았습니다.
- 11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보답하듯이, 당신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합니다.
- 12 우리 하느님, 당신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 큰 무리와 맞서 싸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 13 유다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 있었다.
- 14 그때 주님의 영이 아사프의 자손인 베나야의 아들, 세가랴의 아들, 야하지엘이라는 레위인에게 임하여, 모임 중에 말하였다.
- 15 그가 말했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왕 여호사밧아, 들어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큰 무리 때문에 놀라지 말라. 이 전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다.
- 16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맞서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시스 고개를 따라 올라온다. 너희는 예루엘 광야 앞, 골짜기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 17 너희는 이 전투에 싸울 필요가 없다. 서서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에게 맞서 나아가라.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 18 여호사밧은 얼굴을 땅에 대고 머리를 숙였고,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 19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의 레위인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을 크게 찬양하였다.
- 20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테코아 광야로 나아갔다. 그들이 나아가자, 여호사밧이 서서 말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주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릴 것이다. 너희는 그의 예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 21 그가 백성과 상의한 후, 군대 앞에서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할 자들을 세웠다. 그들은 말했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계속됨이니라."
- 22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자, 주님은 유다를 치려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산의 자손들을 매복시켜 치셨다.
- 23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세일 산의 주민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완전히 죽이고 멸망시켰다. 그들이 세일 산의 주민들을 모두 죽인 후, 모두가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였다.
- 24 유다가 광야를 내려다보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무리를 바라보았다. 보라, 땅에 쓰러진 시체들뿐이었고, 도망간 자는 한 명도 없었다.

- ²⁵ 요사밧과 그의 백성이 약탈물을 가져오러 갔을 때, 그들은 풍부한 재물과 귀중한 보석을 둘러싼 시체들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그것들을 모두 벗겨서 자기들에게 가져갔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 다 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사흘 동안 약탈물을 가져갔다.
- ²⁶ 네 번째 날, 그들은 베라카 골짜기에서 모여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베라카 골짜기'라 불리게 되었다.
- ²⁷ 그 후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요사밧을 앞세워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주님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치셔서 그들이 기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 ²⁸ 그들은 수금과 하프와 나팔을 들고 주님의 집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 ²⁹ 그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셨음을 들었을 때, 모든 나라의 왕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였다.
- ³⁰ 이러므로 요사밧의 왕국은 평온하였다. 그의 하느님께서 그를 사방에서 편안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 ³¹ 요사밧이 유다를 다스렸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삼십다섯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스물다섯 해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실히의 딸 아수바였다.
- ³² 그는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랐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눈에 어울리는 일을 행하였다.
- ³³ 그러나 높은 곳들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조상들의 하느님을 향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
- ³⁴ 요사밧의 나머지 행적, 처음과 끝을 보면, 이는 하나니의 아들 여후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 포함되어 있다.
- ³⁵ 이후 유다 왕 요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스야와 결합하였다. 그는 매우 악한 일을 행하였다.
- ³⁶ 그는 아하스야와 함께 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기로 하였다. 그들은 예시온게베르에서 배를 만들었다.
- ³⁷ 그때 마레사의 도다바후의 아들 엘리에제르가 요사밧을 향해 예언하여 말하였다. "너는 아하스야와 결합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 일을 파괴하셨다." 배는 부서져 타르시스로 갈 수 없게 되었다.

역대기 하권 21장

- ¹ 요사밧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의 도시에서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요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² 그에게는 요사밧의 아들들인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베다가 형제로 있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왕 요사밧의 아들들이었다.
- ³ 그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은과 금과 귀중한 물건과 유다의 요새 도시들을 많이 주었으나, 왕위는 장자인 요람에게 주었다.
- ⁴ 요람이 아버지의 왕위에 오르고 권력을 굳힌 후, 칼로 모든 형제들과 이스라엘의 일부 공작들을 죽였다.
- ⁵ 요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삼십이 세였고, 예루살렘에서 팔 년 동안 왕으로 재위하였다.
- ⁶ 그는 아합의 집과 같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으니, 그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 ⁷ 그러나 주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과,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집을 멸하지 않으셨다.
- ⁸ 그의 시대에 에돔은 유다의 손에서 벗어나 반역하여 스스로 왕을 세웠다.
- ⁹ 요람은 장관들과 자기의 모든 병거를 이끌고 그곳으로 나아갔다. 그는 밤에 일어나 자신을 둘러싼 에돔 사람들과 병거 장관들을 치었다.
- ¹⁰ 이러므로 에돔은 오늘날까지 유다의 손에서 벗어나 반역하였다. 그때 리브나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 반역하였으니, 이는 그가 조상들의 하느님 주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 ¹¹ 그는 유다의 산들에 높은 곳들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음란하게 만들며 유다를 미혹하였다.
- ¹² 그에게 예언자 엘리야의 편지가 왔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의 조상 다윗의 하느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버지 요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 ¹³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르며, 아합의 집처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음란하게 만들었고, 또 네 아버지의 집에서 너보다 더 나은 형제들을 죽였으므로,
- ¹⁴ 보라, 주님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소유를 큰 질병으로 칠 것이다.
- ¹⁵ 너는 장기의 질병으로 심한 병에 걸려, 그 병으로 인해 날마다 네 장기가 빠져나갈 것이다."
- ¹⁶ 주님은 필리스티아인들과 에티오피아 옆에 있는 아라비아인들의 영을 요람에게 대적하게 일으키셨다.
- ¹⁷ 그들이 유다를 침입하여 들어와 왕의 집에서 발견된 모든 소유를 약탈하였고, 왕의 아들과 아내들도 끌고 갔다. 그 결과 요람에게 남은 아들은 막내인 요아하즈뿐이 되었다.
- ¹⁸ 이 모든 일 후에 주님은 요람의 장기에 낫지 않는 병을 내리셨다.
- ¹⁹ 이윽고 이년이 지나 그의 장기가 병으로 인해 빠져나가고, 그는 심한 병으로 죽었다. 그의 백성은 조상들처럼 그를 위해 불을 피우지 않았다.
- ²⁰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삼십이 세였고, 예루살렘에서 팔 년 동안 왕으로 재위하였다. 그는 아무도 그를 아쉬워하지 않고 떠났다. 그들은 그를 다윗의 도시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무덤에는 묻지 않았다.

역대기 하권 22장

- ¹ 예루살렘 주민들은 아하지야를 그의 막내아들로 왕으로 세웠다. 그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진영에 와서 모든 만아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지야가 왕이 되었다.
- ² 아하지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사십이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일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옴리의 딸 아달리야였다.
- ³ 그는 또한 아합의 집의 길을 따랐다. 그의 어머니가 악을 행하는 데 그의 조언자였기 때문이다.
- ⁴ 그는 아합의 집처럼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그들은 그의 조언자들이 되어 그의 멸망을 초래하였다.
- ⁵ 그는 또한 그들의 조언을 따르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함께 라못길르앗에서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려 갔다. 시리아 사람들이 여호람을 상처 입혔다.
- ⁶ 그는 라못에서 하사엘 왕과 싸우다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이스르엘로 돌아왔다.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병든 여호람의 아들 여호람을 보러 이스르엘로 내려갔다.
- ⁷ 아하지야의 멸망은 하느님의 뜻이었다. 그가 여호람을 찾아갔기 때문이다. 그가 도착하자 그는 여호람과 함께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님시의 아들 여후를 향해 나갔다. 주님은 그를 세워 아합의 집을 끊게 하셨다.
- ⁸ 여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할 때 유다의 귀족들과 아하지야를 섬기는 아하지야의 형제들의 아들들을 만나 그들을 죽였다.
- ⁹ 그는 아하지야를 찾았고, 그가 사마리아에서 숨어 있음을 알고 잡아 여후에게 데려가 죽였다. 그들은 그를 장사지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한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아하지야의 집은 왕위를 지킬 힘이 없었다.
- ¹⁰ 아하지야의 어머니 아달리야가 아들이 죽었음을 보고 일어나 유다 왕가의 모든 왕실 자손을 죽였다.
- ¹¹ 그러나 왕의 딸 여호사바트가 아하지야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왕의 아들들 중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 사이에서 몰래 구해내어 침실에 그와 그의 유모를 숨겼다. 여호사바트는 왕 여호람의 딸이었고, 사제 여호야다의 아내였으며, 아하지야의 누이였다. 그녀는 아달리야로부터 요아스를 숨겨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 ¹² 아달리야가 땅을 다스리는 동안 요아스는 여섯 해 동안 하느님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숨어 지냈다.

역대기 하권 23장

- 1 일곱 번째 해에 여호야다가 힘을 내어 백인대장들—예로함의 아들 아사랴,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랴,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과 언약을 맺었다.
- 2 그들은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며 유다 모든 성읍에서 레위인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불러 모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 3 모든 회중이 하느님의 집에서 왕과 언약을 맺었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했다. "보라, 왕의 아들이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에 관해 말씀하신 대로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 4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안식일에 근무하는 자들 중 삼분의 일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서 문지기로 임명되어 문턱을 지킬 것이다.
- 5 삼분의 일은 왕의 집에서 지키고, 삼분의 일은 기초 문지기로 지킬 것이다. 모든 백성은 주님의 집 안뜰에 있어야 한다.
- 6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외에는 누구도 주님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거룩하므로 들어올 수 있지만, 모든 백성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 7 레위인들은 각자 무기를 들고 왕을 둘러싸라. 누구든지 집에 들어오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하라. 왕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너희는 그와 함께 있어야 한다."
- 8 그러므로 레위인들과 유다 모든 백성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 그들은 안식일에 근무할 자들과 안식일에 풀려날 자들을 각자 이끌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근무 교대를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9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느님의 집에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와 투구를 백인대장들에게 넘겼다.
- 10 그는 모든 백성을 집의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제단과 집 주변에 무기를 들고 배치하여 왕을 둘러쌌다.
- 11 그들은 왕의 아들을 데려와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언약을 주며 그를 왕으로 세웠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말했다. "왕께서 만세를 누리소서!"
- 12 아달랴가 백성의 함성과 왕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집으로 나왔다.
- 13 그녀가 보니, 왕이 문입구의 기둥 옆에 서 있었고, 백인대장들과 나팔수들이 왕 곁에 있었다. 땅의 모든 백성은 기뻐하며 나팔을 불었고, 노래자들도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 노래를 이끌었다.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쳤다. "배신이다! 배신이다!"
- 14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지휘하는 백인대장들을 데려와 그들에게 말했다. "그녀를 병사들 사이로 끌어내라. 그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제사장은 말했다. "주님의 집 안에서 그녀를 죽이지 말라."
- 15 그러므로 그들은 길을 열어 주었다. 그녀는 왕의 집으로 가는 말 문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그녀를 죽였다.
- 16 여호야다가 자신과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맺어,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 17 모든 백성이 바알의 집으로 가서 그것을 헐고, 그의 제단과 우상을 부수며, 바알의 제사장 마탄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 18 여호야다가 다윗이 주님의 집에 배치했던 레위 제사장들을 주님의 집의 관리로 임명하여,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번제를 드리게 하였고, 다윗이 명령한 대로 기쁨과 노래로 드리게 하였다.
- 19 그는 주님의 집 문지기들을 문들에 배치하여, 어떤 부정한 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 20 그는 백인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땅의 모든 백성을 데리고 주님의 집에서 왕을 내려보냈다. 그들은 위 문을 통해 왕의 집으로 들어가 왕을 왕위에 앉혔다.
- 21 그러므로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고, 도시는 고요하였다. 그들은 아달랴를 칼로 죽였다.

역대기 하권 24장

- 1 요아스가 일곱 살 때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베엘세바 출신의 시비아였다.
- 2 요아스는 사제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 주님의 눈에 어울리는 일을 모두 행하였다.
- 3 여호야다가 그에게 두 명의 아내를 주었고, 그는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 4 그 후에 요아스는 주님의 집을 복구하려고 계획하였다.
- 5 그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매년 주님의 집을 수리할 돈을 모으라. 이 일을 빨리 처리하라." 그러나 레위인들은 즉시 행동하지 않았다.
- 6 왕은 수석 사제 여호야다를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레위인들에게 모세, 주님의 종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증거의 장막을 위해 내린 세금을 가져오게 하지 않는가?"
- 7 그 악한 여인 아달리야의 아들들이 하느님의 집을 파괴하였고, 주님의 집의 모든 바쳐진 물건들을 바알들에게 주었다.
- 8 그래서 왕은 명령하여 상자를 만들고, 주님의 집 문 밖에 두었다.
- 9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를 내려, 하느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명한 세금을 주님께 바치게 하였다.
- 10 모든 귀족과 백성이 기뻐하며 돈을 가져와 상자에 넣었고, 상자가 가득 찰 때까지 계속하였다.
- 11 레위인들이 상자를 왕의 관리들에게 가져올 때마다, 그들이 돈이 많음을 보고 왕의 서기관과 대사제의 관리가 와서 상자를 비우고,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옮겼다. 이처럼 그들은 매일 이렇게 하여 많은 돈을 모았다.
- 12 왕과 여호야다는 그 돈을 주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주님의 집을 복구하기 위해 석공과 목수를 고용하였고, 또한 주님의 집을 수리하기 위해 철과 동을 다루는 자들을 고용하였다.
- 13 그러므로 일꾼들이 일했고, 수리 작업은 그들의 손에서 진행되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원래 설계대로 세우고 튼튼히 했다.
- 14 그들이 일을 마친 후,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에 가져갔다. 그 돈으로 주님의 집을 위한 그릇들을 만들었는데, 이 그릇들은 섬기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숟가락들과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이었다. 그들은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 주님의 집에서 계속하여 번제를 드렸다.
- 15 그러나 여호야다는 늙고 나이가 많아 죽었다. 그가 죽을 때 나이는 백삼십 세였다.
- 16 그들은 그를 다윗의 도시에 왕들 사이에 장사하였다. 그가 이스라엘과 하느님과 그의 집을 향해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 17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귀족들이 왕에게 나아와 절했다. 그때 왕은 그들의 말을 들었다.
- 18 그들은 조상들의 하느님인 주님의 집을 버리고 아세라 상들과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려졌다.
- 19 그러나 하느님은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증거를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 20 하느님의 영이 사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였다. 그가 사람들 위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다. '어찌하여 너희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번영하지 못하게 하는가?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므로, 그분도 너희를 버리셨다.'"
- 21 그들은 그를 모함하고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 마당에서 돌로 쳐 죽였다.
- 22 이처럼 왕 요아스는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 그가 죽을 때 요아스는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보응하시기를 바랍니다."
- 23 일년이 지나지 시리아 군대가 그를 치러 올라왔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 모든 귀족들을 죽이고, 그들의 모든 전리품을 다마스쿠스 왕에게 보냈다.
- 24 시리아 군대는 적은 병력으로 왔으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군대를 넘겨주셨다. 이는 그들이 조상들의 하느님인 주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아스에게 심판을 내렸다.

- ²⁵ 그들이 그를 떠난 후에(그들은 그를 심하게 상처 입힌 채 떠났다), 그의 시종들이 사제 요아다의 아들들을 죽인 피 때문에 그를 모살하고, 침대 위에서 그를 죽였으며, 그는 죽었다. 그는 다윗의 도시에 장사되었으나, 왕들의 무덤에는 장사되지 않았다.
- ²⁶ 그를 모살한 자들은 아몬 여자 시마앗의 아들 자바드와 모압 여자 시미릿의 아들 여호자바드이다.
- ²⁷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일과, 그에게 떠넘겨진 무거운 책임들, 그리고 하느님의 집의 재건에 관하여, 보라, 그것들은 왕들의 책에 기록된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아마자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역대기 하권 25장

- 1 아마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스물다섯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예루살렘 출신 여호아단이였다.
- 2 그는 주님의 눈에 선한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 3 왕국이 그에게 확립된 후, 그는 자기 아버지인 왕을 죽인 시종들을 죽였다.
- 4 그러나 그는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고,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즉, '아버지들이 아들들 때문에 죽지 않으며, 아들들이 아버지들 때문에 죽지 않는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 5 아마시아는 유다를 모아 조상의 가문에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두어, 유다와 베냐민 전체를 정리하였다. 그는 스물세상 이상의 남자를 세어, 창과 방패를 다룰 수 있는 삼십만 명의 선발된 병사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 6 그는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병사 백만 명을 일백 달란트의 은으로 고용하였다.
- 7 한 하느님의 사람이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당신과 함께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은 에브라임의 모든 자손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 8 그러나 당신이 가려 한다면, 용감히 행동하고 전투에 강해지십시오. 하느님께서 원수 앞에서 당신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도우실 힘이 있으시며, 무너뜨릴 힘도 가지셨습니다.
- 9 아마시아가 하느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던 일백 달란트는 어떻게 할까요?"
- 10 그러자 아마시아는 에브라임에서 그에게 온 군대를 떼어 보내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유다에 대해 격렬한 분노를 품고, 격노한 채 고향으로 돌아갔다.
- 11 아마시아는 용기를 내어 자기 백성을 이끌고 소금 골짜기로 나아가, 세일 자손 만 명을 치고 죽였다.
- 12 유다 자손은 만 명을 생포하여 바위 꼭대기로 끌어올리고, 그 바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모두 부서지게 하였다.
- 13 그러나 아마시아가 전투에 동원하지 않고 돌려보낸 군인들은 사마리아에서 벧호론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성들을 습격하여 삼천 명을 죽이고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다.
- 14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인 후,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절하며 향을 피웠다.
- 15 그러므로 주님의 분노가 아마시아에게 일어나, 그에게 예언자를 보내어 말하게 하셨다. "당신은 왜 자기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 그 백성의 신들을 추구합니까?"
- 16 그가 그와 말을 나누고 있을 때,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왕의 참모로 임명했습니까? 그만두십시오! 왜 당신은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 17 그 후 유다 왕 아마시아가 자기 참모들과 상의하여 이스라엘 왕 요아스, 요아하스의 아들, 여후의 손자에게 보냈다. "오십시오. 우리 둘이 마주 보고 대면합시다."
- 18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보냈다. "레바논에 있던 영경귀가 레바논에 있던 백향목에게 보낸 말이, '당신의 딸을 내 아들의 아내로 주십시오.' 하였더니, 레바논에 있던 들짐승이 지나가며 그 영경귀를 밟아 부수었습니다."
- 19 당신은 '내가 에돔을 치고,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자랑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에 머무십시오. 왜 당신은 곤란에 개입하여, 당신과 함께 유다가 무너지려 합니까?
- 20 그러나 아마시아는 듣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에돔의 신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려 하셨기 때문이다.
- 21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가서, 그와 유다 왕 아마시아가 유다에 속한 벧세메스에서 마주 보았다.
- 22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패배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 23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벧세메스에서 유다 왕 아마시아, 요아스의 아들, 요아하스의 손자를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에브라임 문에서 모서리 문까지 사백 큐빗에 이르는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었다.
- 24 그는 하느님의 집에서 오벰에돔과 함께 발견된 모든 금과 은, 그리고 왕의 궁전의 보물들과 인질들을 약탈하여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 25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자야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 십오 년을 더 살았다.

- ²⁶ 아마자야의 나머지 행적, 처음과 끝을 보라, 그것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 ²⁷ 아마자야가 주님을 따르지 않기로 떠난 이후, 예루살렘에서 그를 반대하는 음모가 일어났다. 그는 라기스로 도망쳤으나, 그들이 라기스로 그를 쫓아가서 거기서 죽였다.
- ²⁸ 그들은 말을 태워 그를 데려와 유다의 도시에서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였다.

역대기 하권 26장

- ¹ 유다 모든 백성이 열여섯 살이었던 우시야를 왕으로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자야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였다.
- ² 그는 예루살렘을 건설하여 유다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 후에 왕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 ³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열여섯 살이었으며, 예루살렘에서 오십이 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예루살렘 출신의 예키릴리아였다.
- ⁴ 그는 아버지 아마자야가 행한 모든 일에 따라 주님의 눈에 옳은 일을 하였다.
- ⁵ 그는 하느님의 환상을 아는 세가랴의 시대에 하느님을 구하였으며, 그가 주님을 구하는 한 동안 하느님께서 그를 번영하게 하셨다.
- ⁶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 가스의 성벽과 야브네의 성벽과 아스돗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성들을 건설하였다.
- ⁷ 하느님께서 그를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메운 사람들에 대항하여 도우셨다.
- ⁸ 암몬 자손은 우시야에게 공물을 바쳤다. 그의 이름은 이집트 경계까지 퍼졌으니, 그가 매우 강성해졌기 때문이다.
- ⁹ 우시야는 예루살렘의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벽의 굽은 곳에 탑을 건설하여 견고히 하였다.
- ¹⁰ 그는 사막에 탑을 건설하고 많은 우물도 파냈다. 그는 평야와 들에 많은 가축을 소유하였고, 산과 비옥한 땅에는 농부와 포도원 지기들을 두었으니, 그는 농사에 애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 ¹¹ 우시야는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을 부대별로 조직하였으며, 이들의 수는 서기관 여엘과 관리 마아세야가 계산하여 대장 한나냐의 지휘 아래 두었다.
- ¹² 가족의 수장들, 곧 용감한 용사들의 총수는 이천육백 명이었다.
- ¹³ 그들 아래에는 삼십만 칠천오백 명의 군대가 있었으며, 이들은 강력한 힘으로 왕을 도와 적과 싸웠다.
- ¹⁴ 우시야는 그들, 곧 모든 군대를 위해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투석용 돌을 준비하였다.
- ¹⁵ 예루살렘에서 그는 능숙한 자들이 고안한 기계들을 만들어 탑과 성벽 위에 설치하여 화살과 큰 돌을 쏘게 하였다. 그의 이름은 멀리 퍼졌으니, 그가 강해질 때까지 하느님께서 기묘하게 도우셨기 때문이다.
- ¹⁶ 그러나 그가 강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불의한 일을 저질렀고, 그는 주님 자신의 하느님께 범죄하여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단 위에 향을 태웠다.
- ¹⁷ 제사장 아사랴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가고, 그와 함께 주님의 용감한 제사장 여든 명이 들어갔다.
- ¹⁸ 그들은 왕 우시야를 저지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우시야여, 주님께 향을 태우는 것은 당신의 권리가 아니다. 오직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이 향을 태우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성소에서 나가라. 당신은 범죄하였고, 주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영광을 주지 않으실 것이다."
- ¹⁹ 그러자 우시야가 분노하였다. 그는 향을 태우려고 향로를 손에 들고 있었고, 제사장들에게 분노하면서도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주님의 성전에서, 분향단 곁에 나타났다.
- ²⁰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들이 그를 보니,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다. 그들은 그를 곧장 밖으로 쫓아냈다. 그 자신도 주님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에 빨리 나가려고 했다.
- ²¹ 왕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문둥병 환자였으며, 별도의 집에서 살았고 문둥병 환자였다. 그는 주님의 성전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의 집을 다스리며 땅의 백성을 심판하였다.
- ²² 우시야의 나머지 행적,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다.
- ²³ 우시야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들은 그를 왕들의 묘지인 묘지 밭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였다. 그들은 말하였다. "그는 문둥병 환자이다." 그의 아들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역대기 하권 27장

- ¹ 요담은 스물다섯 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사독의 딸 여루사였다.
- ² 그는 아버지 우시야가 한 대로 주님의 눈에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백성들은 여전히 타락한 행동을 하였다.
- ³ 그는 주님의 집의 위쪽 문을 건축하였고, 오펠의 성벽에 많은 건축물을 더 지었다.
- ⁴ 그는 또한 유다의 산지에 성들을 건축하였고, 숲속에 요새와 탑들을 지었다.
- ⁵ 그는 암몬 자손의 왕과 싸워 그들을 이겼다. 암몬 자손은 그해에 그에게 은 백 달란트와 밀 만 고르, 보리 만 고르를 바쳤다. 암몬 자손은 둘째 해와 셋째 해에도 그에게 같은 양을 바쳤다.
- ⁶ 이처럼 요담은 강력해졌는데, 이는 그가 주님 자신의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길을 바로잡았기 때문이다.
- ⁷ 요담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그의 생활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 ⁸ 그는 스물다섯 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 동안 통치하였다.
- ⁹ 요담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들은 그를 다윗의 도시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하즈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역대기 하권 28장

- 1 아하즈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스무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는 아버지 다윗처럼 주님의 눈에 좋은 일을 하지 않았다.
- 2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르며, 바알들을 위해 주조된 우상을 만들었다.
- 3 그는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향을 태우고, 자신의 아들을 불에 굽히며,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민족들의 가증한 풍습을 따랐다.
- 4 그는 산 위와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태웠다.
- 5 그러므로 그의 하느님 주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그를 치고 많은 포로를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그는 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넘겨져 큰 학살을 당했다.
- 6 레마라의 아들 베가가 하루 만에 유다에서 십이만 명을 죽였는데, 모두 용감한 전사들이었다. 그들은 조상들의 하느님 주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 7 에브라임의 용사 지크리가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궁중의 통치자 아즈리감, 그리고 왕 곁에 있던 엘카나를 죽였다.
- 8 이스라엘 자손은 그 형제들로부터 이십만 명의 여자와 아들딸들을 사로잡아 끌고 가고, 그들로부터 많은 전리품을 빼앗아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 9 그때 주님의 예언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오데드였다. 그는 사마리아로 오는 군대를 만나러 나가 그들에게 말했다. "보아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주님이 유다를 노여워하셔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나 너희는 하늘에 닿을 만큼 격노하여 그들을 죽였다."
- 10 너희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남녀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 너희에게도 너희 하느님 주님께 범한 죄가 없느냐?
- 11 그러므로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형제들로부터 잡아온 포로들을 돌려보내라. 주님의 격노가 너희 위에 있다.
- 12 그때 에브라임 자손 중 일부 지도자들, 요한안의 아들 아스라, 메실레모트의 아들 베레기야,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 하들라이의 아들 아마사가 전쟁에서 돌아온 자들 앞에 일어났다.
- 13 그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이곳에 포로들을 데려오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주님께 죄를 지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의 죄와 죄과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과는 이미 크고, 이스라엘에 대해 격렬한 분노가 있다."
- 14 그래서 무장한 자들은 포로들과 전리품을 총독들과 모든 공동체 앞에 남겨두고 떠났다.
- 15 이름이 언급된 그 남자들이 일어나 포로들을 데려가고, 전리품으로 그들 중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을 모두 옷으로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며,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예리코, 즉 종려나무 도시로 데려가 그들의 형제들에게 인도했다. 그 후 그들은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 16 그때 아하즈 왕은 자신을 도와달라고 아시리아 왕들에게 보냈다.
- 17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포로들을 끌고 갔다.
- 18 빌레스티인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부 지역의 도시들을 침입하여 벤세메스, 아아론, 게드로트, 소코와 그 마을들, 티마나와 그 마을들, 그리고 긴모와 그 마을들을 빼앗았으며, 그들은 그곳에 정착했다.
- 19 주님은 이스라엘 왕 아하즈 때문에 유다를 낮추셨다. 그는 유다에서 방종하게 행동하며 주님께 심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 20 아시리아 왕 틸그랏빌레세르가 그에게 와서 고통을 주었지만, 그를 강화하지는 않았다.
- 21 아하즈는 주님의 집에서 일부 물건을 가져오고, 왕과 총독들의 집에서도 가져와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지만, 그것은 그를 도와주지 못했다.
- 22 그가 고통을 받을 때, 이 같은 아하즈 왕은 더욱더 주님께 죄를 지었다.
- 23 그는 자신을 이긴 다마스쿠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는 말했다. "시리아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들에게 제물을 바쳐 그들이 나를 도우게 하리라." 그러나 그 신들은 그와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이 되었다.
- 24 아하즈는 하느님의 집의 모든 기구를 모아 하느님의 집의 기구를 부수고 주님의 집의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예루살렘

의 모든 모퉁이에 제단을 만들었다.

²⁵ 유다의 모든 성에서 그는 높은 곳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향을 태우며,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격노하게 했다.

²⁶ 그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모든 행위, 처음과 끝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²⁷ 아하즈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들은 그를 예루살렘 도시에 장사하였는데, 이는 그를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 안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역대기 하권 29장

- 1 히스기야는 스물다섯 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자가랴의 딸 아비야였다.
- 2 그는 아버지 다윗이 행한 모든 일에 따라 주님의 눈에 좋은 일을 행하였다.
- 3 그가 왕이 된 첫 해 첫 달에, 그는 주님의 집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
- 4 그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 동쪽 넓은 마당에 모으고,
- 5 그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라, 레위인들아! 지금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인 주님의 집을 성결하게 하여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모두 내보아라.
- 6 우리 조상들은 불충성하였고, 우리 하느님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며 그를 버리고, 주님의 거처에서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렸다.
- 7 그들은 현관의 문들을 닫고 등불을 끄며,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향을 태우지도,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다.
- 8 그러므로 주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쏟아졌고, 그분은 그들을 끌려다니게 하여 놀람과 조롱거리로 내버려 두셨다. 너희가 눈으로 보는 바로 그 모습이다.
- 9 보라, 우리 조상들은 칼에 죽었고, 우리 아들과 딸들과 아내들은 이 때문에 포로로 잡혀 있다.
- 10 이제 나는 우리 하느님 이스라엘의 주님과 언약을 맺고자 마음에 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격노가 우리에게서 돌이키게 하려 한다.
- 11 내 아들들아, 지금은 게으르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여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게 하셨고, 너희가 그분의 봉사자들이 되어 향을 태우게 하셨다.
- 12 그러자 레위인들이 일어났다. 고탕 자손 중 아마새의 아들 마하스와 아사랴의 아들 요엘, 그리고 메라리 자손 중 아브디의 아들 키호와 여훤렐의 아들 아사랴, 게르손 자손 중 짐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이 일어났다.
- 13 엘리사반 자손 중 시므리와 여무엘, 아삽 자손 중 스가랴와 마다냐가 일어났다.
- 14 헤만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 예두둔 자손 중 세마야와 우찌엘이 일어났다.
- 15 그들은 형제들을 불러 모아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왕의 명령에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집을 정결하게 하러 들어갔다.
- 16 사제들이 주의 집 안쪽으로 들어가 정결하게 하여 주의 성전에서 발견된 모든 부정한 것을 주의 집 마당으로 내보냈다. 레위인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키론 시내로 옮겼다.
- 17 그들은 첫 달 첫째 날부터 성결하게 하기 시작하여, 그 달 여덟째 날에 주의 현관에 이르렀다. 그들은 여덟 날 동안 주의 집을 성결하게 하였고, 첫 달 십육일에 마쳤다.
- 18 그러고 나서 그들은 히스기야 왕의 궁전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우리는 주의 집 전체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 그리고 진설병 상과 그 모든 기구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 19 또한 우리 왕 아하스가 불충성한 시기에 버린 모든 기구를 준비하고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이 주님의 제단 앞에 있습니다.
- 20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족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집으로 올라갔다.
- 21 그들은 왕국과 성소와 유다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황소 일곱 마리, 수양 일곱 마리, 어린 양 일곱 마리, 수염소 일곱 마리를 끌고 왔다. 그는 아론의 자손인 사제들에게 주님의 제단 위에 이 제물을 바치도록 명령하였다.
- 22 그들이 황소를 잡으니, 사제들이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 그들이 수양을 잡으니, 사제들이 피를 제단에 뿌렸다. 그들이 어린 양을 잡으니, 사제들이 피를 제단에 뿌렸다.
- 23 그들은 왕과 회중 앞에 속죄제를 위한 수염소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손을 얹었다.
- 24 그러자 사제들이 그들을 잡아 그 피로 제단에 속죄제를 드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하였다.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 25 그는 레위 사람들을 주님의 집에 세워 심벌즈와 현악기와 수금을 갖추었는데, 이는 다윗의 명령과 왕의 선견자 간과 예

언자 나단의 명령에 따라 행한 것이었다. 이 명령은 주님의 말씀으로 그의 예언자들을 통해 내린 것이었다.

²⁶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들고, 사제들은 나팔을 들고 서 있었다.

²⁷ 히즈키야는 그들에게 제단에 번제를 바치도록 명령했다. 번제가 시작되자, 주님의 노래도 함께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나팔과 악기들도 울려 퍼졌다.

²⁸ 모든 회중이 경배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하며, 나팔수들이 불었다. 이 모든 일은 번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²⁹ 그들이 제사를 마친 후, 왕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몸을 굽혀 경배했다.

³⁰ 또 히즈키야 왕과 관리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과 아사프의 선견자의 말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명령했다.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며 머리를 숙이고 경배했다.

³¹ 그때 히즈키야가 대답하여 말했다. "이제 너희는 주님을 위해 스스로 성결하게 하였다. 가까이 나아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주님의 집에 가져오라." 회중은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고, 마음이 즐거운 자들은 모두 번제를 가져왔다.

³² 회중이 가져온 번제는 황소 일흔 마리, 수양 백 마리, 어린 양 이백 마리였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번제였다.

³³ 성결하게 바친 짐승은 소 육백 마리와 양 삼천 마리였다.

³⁴ 그러나 사제들이 너무 적어서 모든 번제를 벗기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사제들을 도와 일의 끝까지 돕고, 사제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될 때까지 함께 일하였다. 이는 레위 사람들이 사제들보다 마음이 더 정직하여 스스로 성결하게 하려는 뜻이 강했기 때문이다.

³⁵ 또한 번제가 풍성하였고, 화평 제물의 기름과 모든 번제를 위한 술 제물도 함께 있었다. 이로써 주님의 집의 봉사가 제대로 정비되었다.

³⁶ 히즈키야와 모든 백성은 하느님이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일로 기뻐하였다. 이 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역대기 하권 30장

- ¹ 히스기야는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이에게 보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한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
- ² 왕은 그의 귀인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공동체와 상의하여, 유월절을 둘째 달에 지키기로 결정했다.
- ³ 그때는 제사장들이 충분히 성결하게 되지 못했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다.
- ⁴ 이 일은 왕과 모든 공동체의 눈에 옳았다.
- ⁵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 베엘세바에서 단까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한 유월절을 지키도록 공포할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그 기록된 방식대로 큰 수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 ⁶ 그러자 사자들이 왕과 그의 귀인들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며, 왕의 명령에 따라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이 아시리아 왕들의 손에서 벗어난 너희 남은 자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 ⁷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느님 주님을 범하여,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그분이 그들을 황폐하게 내버려두셨다.
- ⁸ 지금은 너희 조상들처럼 고집스럽게 굴지 말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영원히 성결하게 하신 성소에 들어가서, 너희 하느님 주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분의 격노가 너희에게서 물러갈 것이다.
- ⁹ 너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들은 너희를 사로잡은 자들에게 자비를 입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 하느님 주님은 은총과 자비로우시며, 너희가 그분께로 돌아오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다.
- ¹⁰ 그러자 사자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 심지어 스불론까지 도시에서 도시로 다니며 전했으나, 백성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 ¹¹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의 몇몇 사람들이 겸손해져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 ¹² 또 하느님의 손이 유다를 잡아, 왕과 귀인들의 명령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셨다.
- ¹³ 많은 백성이 둘째 달에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매우 큰 모임이 되었다.
- ¹⁴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을 치워버리고, 향을 태우는 모든 제단들을 가져다가 키론 시내에 버렸다.
- ¹⁵ 그리고 그들은 둘째 달 열네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았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부끄러워하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님의 집에 번제를 가져왔다.
- ¹⁶ 그들은 하느님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자리에 서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의 손에서 받은 피를 뿌렸다.
- ¹⁷ 모임에 성결하게 되지 못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부정한 자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을 주님께 성결하게 하였다.
- ¹⁸ 많은 백성,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잇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이들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으나, 기록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유월절을 먹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말했다. "선한 주님께서,
- ¹⁹ 자신의 마음을 조상들의 하느님 주님을 찾으려는 모든 이에게 용서하소서. 비록 그들이 성소의 정결의 규정에 따라 깨끗하지 않더라도."
- ²⁰ 주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 ²¹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곱 날 동안 큰 기쁨으로 무교절을 지켰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큰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미하였다.
- ²² 히스기야는 주님의 봉사에 능숙한 모든 레위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일곱 날 동안 축제 기간 동안 먹으며, 화평 제물을 바치고 조상들의 하느님 주님께 고백하였다.
- ²³ 모든 공동체가 또 일곱 날을 더 지키기로 상의하여, 기쁨으로 또 일곱 날을 지켰다.
- ²⁴ 유다 왕 히스기야가 공동체를 위해 화평 제물을 위해 소 천 마리와 양 일만 칠천 마리를 드렸고, 귀인들이 공동체를 위해 소 천 마리와 양 만 마리를 드렸으며, 많은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였다.

²⁵ 유다의 모든 회종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에서 나온 모든 회종,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나와 유다에 거주한 외국인들이 기뻐하였다.

²⁶ 예루살렘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은 없었다.

²⁷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였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기도가 그의 성스러운 거처, 곧 하늘에 이르렀다.

역대기 하권 31장

- ¹ 이 모든 일이 끝나자, 함께 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유다의 성읍들로 나가서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베어내며 유다와 베냐민 전 지역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의 높은 곳들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렸다. 그 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 자기 성읍들로 돌아갔다.
- ²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들의 직무에 따라 부서를 정하여, 각각 그들의 직무에 따라 번제와 화평제를 드리며 섬기고 감사하며 주님의 진영 문에서 찬양하게 하였다.
- ³ 그는 또한 왕이 소유한 재산 중 일부를 번제를 위한 몫으로 정하여, 아침과 저녁 번제와 안식일과 월삭과 정해진 축일의 번제를 드리게 하였다. 이는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였다.
- ⁴ 또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몫을 주도록 명령하여, 그들이 주님의 율법에 전념하게 하였다.
- ⁵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곡식, 새 포도주, 기름, 꿀, 그리고 밭의 모든 수확물의 첫 열매를 풍성히 바쳤고, 모든 것의 십일조를 풍성히 가져왔다.
- ⁶ 유다 성읍들에 거주하던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이 가축과 양의 십일조와 주님 그들의 하느님께 바친 물건의 십일조를 가져와 더미로 쌓았다.
- ⁷ 셋째 달에 그들은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칠째 달에 마쳤다.
- ⁸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들을 보고 주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다.
- ⁹ 그러자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더미들에 관해 물었다.
- ¹⁰ 사독의 자손인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말했다. "사람들이 주님의 집에 제물을 가져오기 시작한 이래로, 우리는 먹고 충분히 채웠으며, 남은 것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이 바로 이 거대한 저장물입니다."
- ¹¹ 그러자 히스기야가 주님의 집 안에 방들을 마련하라고 명령하였고, 그들이 방들을 마련하였다.
- ¹² 그들은 헌물과 십일조와 바친 물건들을 성실히 가져왔다. 레위인 코나니아가 그들을 감독하였고, 그의 형제 시메이는 그 뒤를 따랐다.
- ¹³ 예히엘, 아사지아, 나훔, 아사헬, 여리못, 요사밧, 엘리엘, 이스마야, 마하트, 베냐민은 히스기야 왕과 하느님의 집을 감독하는 아사랴의 명령에 따라 코나니아와 그의 형제 시메이의 지휘 아래 감독자들이 되었다.
- ¹⁴ 레위인 임나의 아들 고레는 동문의 문지기로서 하느님의 자발적 헌물의 관리자로 임명되어, 주님의 헌물과 가장 성한 물건을 나누어 주었다.
- ¹⁵ 그 아래에는 에덴, 미나민, 여수아, 세마야, 아마랴, 세가니아가 있었는데, 그들은 제사장들의 성읍들에서 신뢰받는 직무를 맡아, 큰 자와 작은 자를 막론하고 제사장들의 부서별로 그들의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¹⁶ 세 살 이상의 남자들 중에서, 매일 주님의 집에 들어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들의 족보에 기록된 자들을 포함하여,
- ¹⁷ 아버지의 집에 따라 기록된 제사장들의 족보와 스무 살 이상의 레위인들의 족보를, 그들의 부서별로 직무에 따라 기록하였다.
- ¹⁸ 모든 공동체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아들과 딸들의 족보도 기록하였다. 그들은 신뢰받는 직무를 맡아 성결함으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였다.
- ¹⁹ 또한 그들의 성읍의 목초지에 거주하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각 성읍마다,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사장들 중 모든 남자들과 레위인들 중 족보에 기록된 자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었다.
- ²⁰ 히스기야는 유다 전 지역에서 이와 같이 행하였고, 그는 그의 하느님 주님 앞에서 선하고 옳으며 성실한 일을 행하였다.
- ²¹ 그가 하느님의 집의 섬김과 율법과 명령을 따라 그의 하느님을 구하는 모든 일에, 그는 온 마음을 다하여 행하였고, 그는 성공하였다.

역대기 하권 32장

- 1 이 일들과 이 충성 이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와서 유다에 들어가, 성곽을 쌓은 도시들을 둘러싸고 그 도시들을 자신에게로 빼앗으려 하였다.
- 2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보고,
- 3 그는 귀인들과 용감한 장수들과 상의하여 도시 밖의 샘물들을 막기로 결정했고, 그들은 그를 도왔다.
- 4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샘물과 땅 가운데로 흐르는 시내를 막아 버렸다. 그들이 말했다. "아시리아 왕들이 와서 풍부한 물을 얻게 놔두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나?"
- 5 그는 무너진 모든 성벽을 견고히 쌓아 탑 높이까지 올리고, 외부에 또 다른 성벽을 더 쌓으며, 다윗의 도시에서 밀로를 견고히 하고, 무기와 방패를 풍부히 만들었다.
- 6 그는 백성 위에 전쟁 지휘관들을 세우고, 그들을 성문의 넓은 광장으로 모아 놓고,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였다. 그가 말했다.
- 7 "용감하고 담대하라. 아시리아 왕과 그와 함께한 모든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그와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크다.
- 8 그에게는 육체의 팔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한 것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주님 우리 하느님이시다." 백성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에 의지하였다.
- 9 이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은 그의 하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는 라키스를 공격하고 있었고, 그의 모든 군대가 그와 함께 있었다.) 그는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보내며 말했다.
- 10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말한다.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여 예루살렘에서 포위를 당하고 있는가?"
- 11 히스기야가 너희를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게 하려고 너희를 속이고, "주님 우리 하느님이 우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 12 그 히스기야가 스스로 높은 곳들과 제단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한 제단 앞에서만 숭배하고, 그 위에 향을 피워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 13 내가 내 조상들이 모든 땅의 모든 민족에게 행한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그 땅들의 민족들의 신들이 내 손에서 그들의 땅을 구원한 적이 있었느냐?
- 14 내 조상들이 완전히 파괴한 그 모든 민족들의 신들 중에,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신이 어느 하나라도 있었느냐? 너희의 하느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 15 그러므로 이제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이와 같이 설득하지 못하게 하라. 그를 믿지 마라. 어떤 나라나 왕국의 신도 내 손과 내 조상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였다. 하물며 너희의 하느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 16 그의 하인들은 주님 하느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더욱 비방하였다.
- 17 그는 또한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써서, 그를 비방하며 말했다. "지상의 모든 민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듯이, 히스기야의 하느님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 18 그들은 유다 사람들의 언어로 성벽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에게 큰 소리로 외쳐서, 그들을 무서워하게 하고 괴롭히며, 도시를 빼앗으려 하였다.
- 19 그들은 예루살렘의 하느님을 인류의 신들처럼 말하였다. 그 신들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다.
- 20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는 이 일로 기도하며 하늘에 부르짖었다.
- 21 주님은 천사를 보내어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서 모든 용감한 용사들과 지도자들과 장수들을 죽이셨다. 그러자 그는 수치를 안 채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그가 자기 신의 집에 들어갔을 때, 자기 몸에서 나온 자들이 그를 거기에서 칼로 죽였다.
- 22 이처럼 주님은 아시리아 왕 산헤립과 그의 모든 다른 손들로부터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방으로 인도하셨다.
- 23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물을 바치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귀중한 물건들을 바쳤다. 그 결과 그는 그 후로 모든 민

죽 앞에서 높임을 받았다.

²⁴ 그때에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렸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징표를 주셨다.

²⁵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합당하게 보답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

²⁶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의 마음의 교만 때문에 겸손해졌고,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함께 겸손해졌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존 기간 동안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²⁷ 히스기야는 매우 풍부한 재산과 영예를 누렸다. 그는 은과 금과 보석과 향료와 방패와 모든 귀중한 그릇을 위한 창고를 마련하였다.

²⁸ 또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저장고와, 모든 종류의 가축과 양 떼를 위한 우마장을 마련하였다.

²⁹ 그는 또한 도시들과 풍부한 양과 소의 재산을 마련하였다. 이는 하느님이 그에게 풍성한 재산을 주셨기 때문이다.

³⁰ 이 히스기야는 기혼의 위쪽 샘물을 막아서 다윗의 도시 서쪽으로 물을 직접 끌어내렸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든 사업에서 성공하였다.

³¹ 그러나 바빌론 왕자들의 사절들이 그에게 보내져 땅에서 일어난 기적을 묻는 일에 관해, 하느님은 그를 내버려 두어 그를 시험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셨다.

³²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선한 행위들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의 환상과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³³ 히스기야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는 다윗의 아들들의 무덤으로 올라가는 곳에 장사되었다. 유다 전체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그의 죽음에 존경을 표하였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역대기 하권 33장

- 1 마나세는 열두 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오십오 년 동안 통치하였다.
- 2 그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주님께서 쫓아낸 민족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 3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높은 곳들을 다시 쌓았고, 바알들을 위한 제단들을 세우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대를 숭배하며 그들을 섬겼다.
- 4 그는 주님의 집 안에 제단들을 세웠다. 주님께서는 '내 이름은 예루살렘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 5 그는 주님의 집 안 두 마당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한 제단들을 세웠다.
- 6 그는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을 통과하게 했으며, 점술과 마법과 주술을 행하고 유령과 마법사들과 교제하였다. 그는 주님의 눈에 큰 악을 행하여 주님을 격노하게 하였다.
- 7 그는 자신이 만든 우상의 새긴 상을 하느님의 집 안에 세웠다. 하느님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예루살렘을 택하여 이 집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 8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령을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나는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정한 땅에서 결코 떠나보내지 않겠다.
- 9 마나세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유혹하여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주님께서 멸하신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게 하였다.
- 10 주님께서 마나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 11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마나세를 사슬로 묶고 족쇄로 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 12 그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는 자기 하느님인 주님께 간구하며 조상들의 하느님 앞에서 크게 겸비하였다.
- 13 그가 주님께 기도하자, 주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를 은헤로이 여기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다시 왕위에 앉히셨다. 그제야 마나세는 주님이 하느님이심을 알았다.
- 14 이후에 그는 기혼의 서쪽 계곡에, 물고기 문까지 이르는 다윗 성의 외벽을 쌓았으며, 오펔을 그 둘레로 둘러싸고 매우 높게 쌓아 올렸다. 그리고 유다 모든 요새 도시에 용감한 장관들을 두었다.
- 15 그는 주님의 집에서 외국 신들과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의 산과 예루살렘에 자신이 세운 모든 제단들을 치워 도시 밖으로 버렸다.
- 16 그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쌓고, 화평 제사와 감사 제사를 그 위에 바치며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였다.
- 17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렸으나, 오직 자기 하느님 주님께만 드렸다.
- 18 마나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하느님께 드린 기도와,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말한 예언자들의 말은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에 기록되어 있다.
- 19 그의 기도와 하느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신 일, 그의 모든 죄와 불법, 그리고 그가 겸비하기 전에 세운 높은 곳들과 아세라 목상과 새긴 우상들의 위치는 호사이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 20 마나세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는 자기 집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21 아몬은 이십두 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두 해 동안 통치하였다.
- 22 그는 아버지 마나세처럼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고, 아버지 마나세가 만든 모든 새긴 우상들을 제사하며 그들을 섬겼다.
- 23 그는 아버지 마나세처럼 주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범죄하였다.
- 24 그의 신하들이 그를 모반하여 자기 집에서 그를 죽였다.
- 25 그러나 땅의 백성은 아몬 왕을 반역한 모든 자를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웠다.

역대기 하권 34장

- 1 요시아는 여덟 살 때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삼십일 년을 다스렸다.
- 2 그는 주님의 눈에 옳은 일을 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 3 그가 왕위에 오른 여덟 번째 해, 아직 어렸을 때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하느님을 구하기 시작했고, 열두 번째 해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높은 곳들과 아세라 상들과 새긴 상들과 주조한 상들을 없앴다.
- 4 그는 그의 앞에서 바알들의 제단들을 헐어 버리고, 그 위에 놓인 향단들을 잘라내었다. 그는 아세라 상들과 새긴 상들과 주조한 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숭배하던 자들의 무덤 위에 흩어 놓았다.
- 5 그는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의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 6 그는 므나세, 에브라임, 시므온의 도시들, 나아갈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폐허 주변에서 이 일을 행하였다.
- 7 그는 모든 제단들을 헐어 버리고 아세라 상들과 새긴 상들을 가루로 만들며 이스라엘 온 땅의 모든 향단들을 잘라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 8 그가 왕위에 오른 열여덟 번째 해, 땅과 하느님의 집을 정결하게 한 후에 그는 아자랴의 아들 샤판과 도시의 총독 마아세야, 기록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내어 그의 하느님 주님의 집을 수리하게 하였다.
- 9 그들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하느님의 집에 들어온 돈을 넘겼다. 이 돈은 레위인들, 문지기들이 마나세,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유다와 베냐민, 예루살렘 거민들의 손에서 모은 것이었다.
- 10 그들은 주님의 집을 감독하는 일꾼들의 손에 그 돈을 넘겼다. 주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그 돈을 받아 집을 수리하고 고치는 데 썼다.
- 11 그들은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나무를 사서 연결재를 만들고 유다 왕들이 파괴한 집들의 들보를 만드는 데 썼다.
- 12 그 남자들은 성실히 일을 하였다. 그들의 감독은 메라리의 자손인 레위인 야함과 오바댜였고, 고핫의 자손인 스가랴와 메술람이 지도를 맡았으며, 다른 레위인들은 모두 악기 다루는 데 능숙하였다.
- 13 그들은 짐을 나르는 자들을 감독하고 모든 종류의 노동을 하는 자들을 지도하였다. 레위인들 중에는 서기관들과 관리들과 문지기들이 있었다.
- 14 그들이 주님의 집에 들어온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주신 주님의 율법서를 발견하였다.
- 15 힐기야가 서기관 샤판에게 말했다. "내가 주님의 집에서 율법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힐기야는 그 책을 샤판에게 넘겼다.
- 16 샤판은 그 책을 왕에게 가져가며 왕에게 보고했다. "당신의 종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17 그들은 주님의 집에서 발견된 돈을 모두 꺼내어 감독들과 일꾼들의 손에 넘겼습니다.
- 18 서기관 샤판이 왕에게 말했다. "제사장 힐기야가 저에게 한 권의 책을 넘겼습니다." 샤판은 그 책을 왕 앞에서 읽어 주었다.
- 19 왕이 율법의 말을 들으니 그는 옷을 찢었다.
- 20 왕은 힐기야와 샤판의 아들 아히캄과 미가의 아들 아본과 서기관 샤판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 21 "나를 위해,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해 주님께 물어보아라. 이 책에 기록된 말에 관하여. 우리 조상들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흘러넘치고 있다."
- 22 그래서 힐기야와 왕이 명령한 자들이 옷장지기 도카스의 아들 토키타의 아들 하사라의 아내 예언자 헨다에게 갔다. 그녀는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그와 같은 말을 전하였다.
- 23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나에게 보낸 그 사람에게 말하여라,'"
- 24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곳과 그곳에 사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유다 왕 앞에서 읽힌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리라.'"
- 25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손으로 만든 모든 일을 통해 나를 격노하게 했으므로, 내 진노가 이 곳에 쏟아졌고, 꺼지지 않을 것이다.'

- ²⁶ 그러나 주님을 묻기 위해 너를 보낸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들은 말들에 관하여,
- ²⁷ 네 마음이 온유하고, 이 곳과 그 주민들을 향한 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졌으며, 나 앞에서 옷을 찢고 울었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 ²⁸ 보아라, 나는 너를 네 조상들에게로 모을 것이며, 너는 평안히 조상들의 무덤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눈은 내가 이 곳과 그 주민들에게 내릴 모든 악을 보지 않을 것이다.'
- ²⁹ 그리고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 ³⁰ 왕은 유다 모든 남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모든 백성, 큰 자와 작은 자를 이끌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 주님의 집에서 발견된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읽어 주었다.
- ³¹ 왕은 제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주님을 따르며 그의 명령과 증거와 율법을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 ³² 그는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모든 자를 불러 세웠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느님의 언약에 따라 행동하였다.
- ³³ 요시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소유한 모든 땅에서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자로 하여금 주님, 곧 그들의 조상들의 하느님을 섬기게 하였다. 그의 평생 동안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느님, 주님을 따르는 것을 떠나지 않았다.

역대기 하권 35장

- 1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위한 유월절을 지켰다. 그들은 첫째 달 열네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았다.
- 2 그는 사제들을 그들의 직무에 배치하고, 주님의 집에서의 봉사를 하도록 그들을 격려했다.
- 3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치고 주님께 성결한 레위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집에 성물 궤를 두어라. 이제는 너희 어깨에 짊어질 필요가 없다. 이제 너희는 너희 하느님 주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겨라."
- 4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글에 따라, 너희 조상의 가문과 부대에 따라 준비하라.
- 5 너희 형제인 백성의 자손들의 조상 가문의 부대에 따라 성소에 서고, 레위인의 각 조상 가문마다 한 부분을 주어라.
- 6 유월절 양을 잡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너희 형제들을 위해 준비하여, 모세를 통해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라.
- 7 요시아는 함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양과 어린 염소를 삼만 마리와 황소 삼천 마리를 주었다. 이들은 왕의 소유에서 나온 것이었다.
- 8 그의 귀족들은 사제들과 레위인들에게 자발적 헌금을 드렸다. 하일키야와 세가랴와 여히엘, 하느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들은 사제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이천육백 마리의 소와 황소 삼백 마리를 주었다.
- 9 고나니야와 세마야와 느다넬, 그의 형제들과 하사비야와 여히엘과 요자밧, 레위인의 우두머리들은 레위인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오천 마리의 소와 황소 오백 마리를 주었다.
- 10 이렇게 봉사가 준비되었고, 사제들은 그들의 자리에 서고, 레위인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부대에 따라 섰다.
- 11 그들은 유월절 양을 잡았고, 사제들은 손에서 받은 피를 뿌리고, 레위인들은 가죽을 벗겼다.
- 12 그들은 번제를 제거하여, 주님께 드리기 위해 백성의 조상 가문의 부대에 따라 나누어 주었고, 이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였다. 그들은 황소에도 같은 일을 하였다.
- 13 그들은 규정에 따라 불로 유월절 양을 구웠다. 그들은 냄비와 솥과 팬으로 성물들을 끓여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빠르게 나누어 주었다.
- 14 그 후 그들은 자신들과 사제들을 위해 준비하였다. 아론의 아들들인 사제들은 밤까지 번제와 기름을 드리느라 바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자신들과 아론의 아들들인 사제들을 위해 준비하였다.
- 15 아삽의 아들들인 노래꾼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예두둔, 왕의 예언자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자리에 서 있었고, 문지기들은 모든 문에 있었다. 그들의 형제 레위인들이 그들을 위해 준비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봉사를 떠날 필요가 없었다.
- 16 이렇게 그날 모든 주님의 봉사가 준비되어 유월절을 지키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를 드렸다. 이는 요시아 왕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 17 그때 함께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 축제를 지냈다.
- 18 예언자 사무엘의 날 이후 이스라엘에서 이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요시아처럼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함께 이런 유월절을 지킨 자가 없었다.
- 19 이 유월절은 요시아가 왕으로 재위한 열여덟째 해에 지켜졌다.
- 20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요시아가 성전을 정비한 뒤, 이집트 왕 느코가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카르케미시와 싸우려고 올라왔고, 요시아는 그를 맞아 싸우려 나갔다.
- 21 그러나 그는 사자를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왜 너, 유다 왕과 관계가 있어야 하느냐? 오늘 나는 너를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 중인 집과 싸우려고 온 것이다. 하느님이 내게 서두르라고 명령하셨다. 너는 조심하여,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 22 그러나 요시아는 그를 향한 얼굴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위장하여 그와 싸우려 하였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온 느코의 말을 듣지 않고, 메기도 골짜기에서 싸우려 나갔다.
- 23 활꾼들이 요시아 왕을 향해 화살을 쏘자, 왕은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데려가라. 나는 중상을 입었다!"
- 24 그러므로 그의 종들이 그를 전차에서 내려, 그가 가진 두 번째 전차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 그는 죽었고, 조상들의 무덤에 장사되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이가 요시아를 위하여 애도하였다.

²⁵ 예레미야는 요시야를 위해 애가를 부르었고, 모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들도 오늘날까지 그 애가에서 요시야를 노래한다. 그들은 이 애가를 이스라엘의 규례로 정하였다. 보라, 그것들은 애가에 기록되어 있다.

²⁶ 요시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선한 일들에 대하여,

²⁷ 그의 처음과 마지막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역대기 하권 36장

- 1 그러자 땅의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잡아 그의 아버지 대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세웠다.
- 2 여호아하스는 왕위에 오를 때 이십삼 세였고, 예루살렘에서 삼 개월 동안 다스렸다.
- 3 이집트 왕이 그를 예루살렘에서 폐하고, 땅에 은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의 벌금을 물렸다.
- 4 이집트 왕이 그의 형제 엘리아김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아김으로 바꾸었다. 느고는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잡아 이집트로 끌고 갔다.
- 5 여호아김은 왕위에 오를 때 이십오 세였고,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그의 하느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 6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치러 올라와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 7 느부갓네살은 또 주님의 성전의 일부 기구를 바빌론으로 옮겨 그의 바빌론 사원에 두었다.
- 8 여호아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서 발견된 일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9 여호야킨은 왕위에 오를 때 팔 세였고, 예루살렘에서 삼 개월과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 10 해가 돌아오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내 그를 바빌론으로 데려오고, 주님의 성전의 귀중한 기구들과 함께, 그의 형제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웠다.
- 11 시드기야는 왕위에 오를 때 이십일 세였고,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 12 그는 주님 그의 하느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 해지지 않았다.
- 13 그는 하느님을 향해 맹세하여 그를 세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반역하였고, 목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 돌아서려는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 14 또 모든 제사장들의 수장들과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매우 심하게 범죄하였고, 예루살렘에 그가 거룩하게 만든 주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 15 그들의 조상들의 하느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사자들을 보내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내셨다. 그는 자기 백성과 자기 거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 16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의 말씀을 경멸하며, 그의 예언자들을 비웃었고, 결국 주님의 진노가 그의 백성에게 일어나, 더 이상 치유할 수 없게 되었다.
- 17 그러므로 그는 갈대아 왕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성소 안에서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고, 젊은이도 처녀도, 늙은이도 병든 자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모두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 18 그는 하느님의 성전의 모든 기구, 크고 작은 것들과, 주님의 성전의 보물들과, 왕과 그의 귀족들의 보물들을 모두 바빌론으로 옮겼다.
- 19 그들은 하느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며, 그 모든 궁전들을 불로 태우고, 그 모든 귀중한 기구들을 파괴하였다.
- 20 그는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그와 그의 아들들의 종으로 삼았으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가 시작될 때까지 그랬다.
- 21 이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으니, 땅이 안식년을 누릴 때까지였다.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년을 지켜 칠십 년을 채웠다.
- 22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첫째 해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이루어지려 하여, 주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는 온 왕국에 공포를 내리고, 서면으로도 다음과 같이 공포하였다.
- 23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느님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왕국을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를 위한 집을 건축하게 하셨다. 너희 중에 그의 모든 백성 중에 누구든지, 그의 하느님 주님이 그와 함

께 하기를 바라며, 올라가라."

에즈라기 | Ezra

에즈라기 1장

- ¹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원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 하여, 주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는 온 왕국에 공포를 내리고, 글로도 기록하여 말하였다.
- ²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모든 땅의 왕국들을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셔서,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분을 위한 집을 건축하게 하셨다.
- ³ 너희 중 그의 백성 중 누구든지, 그의 하느님이 그와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이 하느님이시다.)
- ⁴ 그가 사는 어떤 곳이든 남아 있는 자들은, 은과 금과 재산과 가축으로 그를 도와야 한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을 위한 자발적인 헌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 ⁵ 그러자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과 사제들과 레위인들, 그들의 마음을 하느님께서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자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을 건축하려 하였다.
- ⁶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이들이 은과 금과 재산과 가축과 귀중한 물건으로 그들을 돕고, 자발적으로 바친 모든 것을 더하였다.
- ⁷ 또 고레스 왕은 느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와 그의 신들의 집에 두었던 주님의 집의 그릇들을 꺼내어,
- ⁸ 그 그릇들을 재무장관 미스르다드의 손으로 꺼내어 유다의 총독 세스바자르에게 세어 주었다.
- ⁹ 이것들의 수는 다음과 같다. 금으로 만든 접시 서른 개, 은으로 만든 접시 천 개, 칼 이십아홉 자루,
- ¹⁰ 금으로 만든 그릇 서른 개, 둘째 종류의 은 그릇 사백십 개, 그리고 다른 그릇 천 개이다.
- ¹¹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그릇의 수는 오천사백 개였다. 세스바자르는 포로들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모든 것을 가져왔다.

에즈라기 2장

- 1 이제 이들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서 바빌론 왕 느부카드네자르가 바빌론으로 잡아간 후, 예루살렘과 유다로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온 성읍 출신들의 자손들이다.
- 2 이들은 스룹바벨, 여호수아, 느헤미야, 세라야, 레엘라야, 모르데개, 빌산, 미스파르, 비가이, 레훅, 바나아와 함께 왔다.
- 3 파로스의 자손은 이천백칠십이 명이다.
- 4 세파티야의 자손은 삼백칠십이 명이다.
- 5 아라의 자손은 칠백칠십오 명이다.
- 6 파하모압의 자손, 곧 여호수아와 요압의 자손은 이천팔백십이 명이다.
- 7 엘람의 자손은 천이백오십사 명이다.
- 8 자투의 자손은 구백사십오 명이다.
- 9 자카이의 자손은 칠백육십 명이다.
- 10 바니의 자손은 육백사십이 명이다.
- 11 베바이의 자손은 육백이십삼 명이다.
- 12 아스갯의 자손은 천이백이십이 명이다.
- 13 아도니캄의 자손은 육백육십육 명이다.
- 14 빅바이의 자손은 이천오십육 명이다.
- 15 아딘의 자손은 사백오십사 명이다.
- 16 아테르, 히즈기야의 자손은 구십팔 명이다.
- 17 베자이의 자손은 삼백이십삼 명이다.
- 18 요라의 자손은 백십이 명이다.
- 19 하숨의 자손은 이백이십삼 명이다.
- 20 기바르의 자손은 구십오 명이다.
- 21 베들레헴의 자손은 백이십삼 명이다.
- 22 네토파의 남자들은 오십육 명이다.
- 23 아나돗의 남자들은 백이십팔 명이다.
- 24 아스마벳의 자손은 사십이 명이다.
- 25 키리아트아림, 케피라, 베에로스의 자손은 칠백사십삼 명이었다.
- 26 라마와 게바의 자손은 육백이십일 명이었다.
- 27 미크마스의 남자들은 백이십이 명이었다.
- 28 베델과 아이의 남자들은 이백이십삼 명이었다.
- 29 네보의 자손은 오십이 명이었다.
- 30 마기브의 자손은 백오십육 명이었다.
- 31 다른 엘람의 자손은 천이백오십사 명이었다.
- 32 하림의 자손은 삼백이십 명이었다.
- 33 로드, 하디드, 오노의 자손은 칠백이십오 명이었다.
- 34 여리고의 자손은 삼백사십오 명이었다.
- 35 세나아의 자손은 삼천육백삼십 명이었다.
- 36 제사장들: 여호수아의 가문에서 온 여다야의 자손은 구백칠십삼 명이었다.
- 37 이머의 자손은 천백오십이 명이었다.
- 38 파스후르의 자손은 천이백사십칠 명이었다.
- 39 하림의 자손은 천십칠 명이었다.

- 40 레위인들: 여호수아와 카드미엘의 자손, 곧 호다비아의 자손은 칠십사 명이었다.
- 41 노래하는 자들: 아사프의 자손은 백이십팔 명이었다.
- 42 문지기들의 자손: 샬롬의 자손, 아테르의 자손, 탈몬의 자손, 아끄부의 자손, 하티타의 자손, 소바이의 자손은 모두 백삼십구 명이었다.
- 43 성전 하인들: 지하의 자손, 하스우파의 자손, 타바오트의 자손,
- 44 케로스의 자손, 시아하의 자손, 파돈의 자손,
- 45 레바나의 자손, 하가바의 자손, 아끄부의 자손,
- 46 하가브의 자손, 삼라이의 자손, 한난의 자손,
- 47 기델의 자손, 가하르의 자손, 레아야의 자손,
- 48 레신의 자손, 네코다의 자손, 가자름의 자손,
- 49 우자의 자손, 파사하의 자손, 베사이의 자손,
- 50 아스나의 자손, 메우님의 자손, 느피심의 자손,
- 51 바크부크의 자손, 하쿠파의 자손, 하르후르의 자손,
- 52 바술롯의 자손, 메히다의 자손, 하르사의 자손,
- 53 바르코스의 자손, 시세라의 자손, 테마의 자손,
- 54 네자야의 자손, 하티파의 자손.
- 55 솔로몬의 하인들의 자손: 소타이의 자손, 하스보레트의 자손, 페루다의 자손,
- 56 야알라의 자손, 다크온의 자손, 기델의 자손.
- 57 세파티야의 자손, 하티르의 자손, 포케레트 하즈베임의 자손, 아미의 자손.
- 58 모든 성전 하인들과 솔로몬의 하인들의 자손은 모두 삼백구십이 명이었다.
- 59 이들은 텔멜라, 텔하르사, 케롭, 아단, 임머에서 올라온 자들이었으나, 조상의 가문과 자손을 증명할 수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의 후손인지 알 수 없었다.
- 60 데라야의 자손, 도비아의 자손, 네크다의 자손, 여섯백오십이 명.
- 61 사제의 자손 중 하바야의 자손, 하코스의 자손, 그리고 바르질라이의 자손들인데, 그들은 길르앗 사람 바르질라이의 딸 중 한 명과 결혼하여 그들의 이름으로 불렸다.
- 62 이들은 족보에 기록된 자들 중 자리를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하여, 사제직에서 제외되었다.
- 63 총독은 그들이 우림과 투뮐을 가진 사제가 일어날 때까지 성물 중 가장 거룩한 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했다.
- 64 모든 공동체가 합쳐서 사만이천삼백육십 명이었으며,
- 65 그들의 남종과 여종은 칠천삼백삼십칠 명이었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도 이백 명이 있었다.
- 66 그들의 말은 칠백삼십육 마리였고, 노새는 이백사십오 마리였으며,
- 67 낙타는 사백삼십오 마리였고, 당나귀는 육천칠백이십 마리였다.
- 68 가문의 수장들 중 일부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집을 제자리에 세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하느님의 집을 위해 헌금하였다.
- 69 그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사 재정에 금 육만일천 다릭, 은 오천 미나, 그리고 사제의 옷 백 벌을 기부하였다.
- 70 이처럼 사제들과 레위인들, 일부 백성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성전 하인들이 각자의 도시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전체도 각자의 도시에 거주하였다.

에즈라기 3장

- ¹ 일곱 번째 달이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 ² 그때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의 형제 사제들과, 실아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친척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하느님의 제단을 쌓아, 모세 하느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번제를 드렸다.
- ³ 주변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은 제단을 그 기초 위에 세우고,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 ⁴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매일 정해진 수량에 따라 규정에 따라 번제를 드렸다.
- ⁵ 그 후에 계속되는 번제와 월삭 제물과, 주님의 모든 정해진 축제 제물과, 주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하는 제물을 드렸다.
- ⁶ 일곱 번째 달의 첫째 날부터, 그들은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를 시작했으나, 주님의 성전의 기초는 아직 놓이지 않았다.
- ⁷ 그들은 석공과 목수들에게 돈을 주었고,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음식과 음료와 기름을 주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허락한 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바다로, 요파까지 운반하게 했다.
- ⁸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의 집에 도착한 지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에, 실아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의 형제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자들이 일손을 잡고, 스물세 살 이상의 레위인들을 임명하여, 주님의 집 공사의 감독을 맡겼다.
- ⁹ 그때 여호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카드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들이 함께 모여, 하느님의 집에서 일하는 자들을 감독했고, 헤나다드의 자손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인 레위인들도 함께했다.
- ¹⁰ 건축자들이 주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사제들은 제복을 입고 나팔을 불었고, 레위인들인 아사프의 아들들은 제금을 들어,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 ¹¹ 그들은 서로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였다.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자비가 이스라엘을 향해 영원히 계속된다." 주님을 찬양할 때,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는 주님의 집의 기초가 놓였기 때문이었다.
- ¹² 그러나 많은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가족의 수장들, 곧 이전의 집을 본 노인들이 이 집의 기초가 그들의 눈앞에 놓이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다. 많은 이들이 기쁨으로 큰 소리로 외쳤다.
- ¹³ 그래서 백성들은 기쁨의 외침과 백성의 울음소리를 구분할 수 없었다.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고, 그 소리는 멀리까지 들렸다.

에즈라기 4장

- 1 유다와 베냐민의 원수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인 주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 2 스룹바벨과 가족의 수장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자. 너희가 찾는 하느님을 우리도 찾고 있으며, 아시리아 왕 에사르하돈이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온 이래로 그분께 제사를 드려 왔다."
- 3 그러나 스룹바벨과 여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가족 수장들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우리의 하느님을 위한 집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는 관계가 없다. 우리 자신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의 주님을 위해 함께 건축하겠다."
- 4 그러자 그 땅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만들고,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 5 그들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모든 재위 기간 동안,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시기까지,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 상담자들을 고용하였다.
- 6 아하수에로의 통치 시기, 그의 통치 초반에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 7 아다르셀세스의 시대에, 비술람, 미트라다트, 타베엘,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페르시아 왕 아다르셀세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의 글은 시리아어로 쓰여 시리아어로 전달되었다.
- 8 총리 르훔과 서기관 시므새가 아다르셀세스 왕에게 예루살렘을 향해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 9 그러자 총리 르훔과 서기관 시므새,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인 디나이 사람들과 아파르사스치 사람들, 타르펠리 사람들, 아파르시 사람들, 아르케비 사람들, 바빌로니아 사람들, 수사칸치 사람들, 데하이 사람들, 엘람 사람들,
- 10 그리고 위대하고 존엄한 오스나파르가 데려와 사마리아 성과 강 너머의 그 밖의 땅에 정착시킨 나머지 민족들이 함께 편지를 보냈다.
- 11 이것은 그들이 보낸 편지의 사본이다. 왕 아다르셀세스께, 강 너머의 당신의 종들인 우리들이 드립니다.
- 12 왕께 알려 드립니다. 왕께로부터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반역적이고 악한 성을 건축하고 있으며, 성벽을 완성하고 기초를 수리하였습니다.
- 13 왕께 알려 드립니다. 이 성이 건축되고 성벽이 완성된다면, 그들은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며, 결국 왕들에게 해를 끼칠 것입니다.
- 14 우리는 왕궁의 소금을 먹고 있으므로, 왕의 수치를 보는 것이 마땅치 않으므로, 우리는 왕께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보냈습니다.
- 15 왕의 조상들의 기록책을 조사해 보십시오. 기록책에서 보시면, 이 성이 옛적부터 왕들과 지방들에게 반역적이며 해로운 성이며, 그 안에서 과거에 반란이 일어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 파괴된 것입니다.
- 16 우리는 왕께 알려 드립니다. 이 성이 건축되고 성벽이 완성된다면, 왕은 강 너머의 땅을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 17 그러자 왕은 르훔 총리와 시므새 서기관, 그리고 사마리아와 강 너머의 그 밖의 땅에 거주하는 그들의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평화를 빈다."
- 18 너희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내 앞에서 분명히 읽혔다.
- 19 나는 명령을 내려 조사를 하였고, 이 성이 옛적부터 왕들에게 반역을 일으켰고, 그 안에서 반란과 폭동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다.
- 20 예루살렘에는 강력한 왕들이 있었고, 그들은 강 너머의 온 땅을 통치하였으며,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그들에게 바쳤다.
- 21 지금 너희는 이 사람들을 멈추게 하는 명령을 내려, 내가 명령을 내릴 때까지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 22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왜 왕들에게 해가 커지게 하려는가?
- 23 그러자 아다르셀세스 왕의 편지 사본이 르훔과 시므새 서기관과 그들의 동료들 앞에서 읽히자, 그들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다 사람들에게 무력으로 건축을 중단시켰다.
- 24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 건축이 중단되어,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두 번째 해까지 멈추어 있었다.

에즈라기 5장

- ¹ 그때 예언자 하까이와 이도의 아들 스카르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언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예언하였다.
- ² 그때 실아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고, 그들과 함께 하느님의 예언자들이 그들을 돕고 있었다.
- ³ 동시에 강 건너편 총독 타텐과 세타르보제나이 및 그의 동료들이 그들에게 이르러 물었다. "이 집을 건축하고 이 담을 완성하도록 누구의 명령을 받았느냐?"
- ⁴ 그들은 또한 이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물었다.
- ⁵ 그러나 그들의 하느님의 눈은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머물렀고, 그들이 그 일을 멈추지 못하게 하였다. 그 일이 다리우스에게 이르고 그에 관한 서신으로 답장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 ⁶ 강 건너편 총독 타텐과 세타르보제나이, 그리고 강 건너편에 있는 아파르사키트 동료들이 다리우스 왕에게 보낸 서신의 사본은 다음과 같다.
- ⁷ 그들은 그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다리우스 왕께, 평안을 비옵나이다."
- ⁸ 왕께 알려 드리오니, 우리는 유다 지방에 가서 큰 돌과 나무로 벽을 세우며 건축 중인 위대한 하느님의 집을 보았습니다. 이 일은 성실히 진행되어 그들의 손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 ⁹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장로들에게 물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건축하고 이 담을 완성하도록 누구의 명령을 받았습니까?"
- ¹⁰ 우리는 또한 그들의 이름을 물어, 우리가 그들을 이끄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였습니다.
- ¹¹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느님의 종입니다. 이 집은 수년 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건축하고 완성한 집입니다.
- ¹²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느님을 격노하게 하자, 그분께서 그들을 바빌론 왕, 갈대아인의 느부카드네자르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집을 파괴하고 백성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 ¹³ 그러나 고레스 바빌론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은 이 하느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¹⁴ 느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가져와 바빌론의 성전으로 옮긴 하느님의 집의 금과 은의 그릇들을, 고레스 왕도 바빌론의 성전에서 가져와, 그에게 명하여 총독으로 임명한 세스바자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 ¹⁵ 그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그릇들을 가져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두고, 그 자리에 하느님의 집을 건축하라."
- ¹⁶ 그러므로 세스바자르가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집은 계속 건축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 ¹⁷ 그러므로 지금,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바빌론에 있는 왕의 보물창고에서 조사하여,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이 하느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렸는지 확인하시고, 이 일에 관해 왕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 주시기를 청합니다."

에즈라기 6장

- 1 그러자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리고, 바빌론에 보관된 문서 보관소를 수색하였다.
- 2 메디아 지방에 있는 아크마타 궁전에서 한 권의 권서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 3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을 건축하라. 제물을 바치는 곳이 되게 하고, 그 기초를 견고히 쌓아라. 높이는 육십 큐빗, 너비도 육십 큐빗으로 하라.
- 4 큰 돌 세 층과 새 나무 한 층으로 쌓고, 공사 비용은 왕의 궁전에서 지급하라.
- 5 또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가져와 바빌론으로 옮긴 하느님의 집의 금과 은 그릇들을 되돌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다시 가져오고, 각각 제자리에 놓아라. 너희는 그것들을 하느님의 집에 두어야 한다.
- 6 그러므로 이제 강 건너편 총독 타텐이와 세타르보제나이, 그리고 강 건너편에 있는 아파르사크 사람들아, 그곳에서 멀리 떠나라.
- 7 이 하느님의 집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유다 총독과 유다 장로들이 그 자리에서 이 하느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라.
- 8 또 나는 이 하느님의 집을 건축하는 유다 장로들을 위해 이렇게 칙령을 내린다. 왕의 재산, 곧 강 건너편에서 내는 세금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위해 모든 성의를 다해 비용을 지급하여, 그들이 방해받지 않게 하라.
- 9 그들이 하늘의 하느님께 번제로 바칠 젊은 수소, 수양, 어린 양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제들의 말에 따라 매일 곡식, 소금, 포도주, 기름을 빠짐없이 지급하라.
- 10 그들이 하늘의 하느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고, 왕과 그의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 11 나는 또한 이 명령을 바꾸는 자에 관해 칙령을 내렸다.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 그를 그것 위에 매달고, 그의 집을 더미 더미로 만들라.
- 12 그 이름을 그곳에 거하게 하신 하느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느님의 집을 파괴하려고 손을 뻗는 모든 왕과 백성을 멸망시키시기를 원한다. 나는 다리오가 칙령을 내렸다. 모든 성의를 다해 이 일을 행하라.
- 13 그러므로 강 건너편 총독 타텐이와 세타르보제나이,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은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린 대로 모두 성의를 다해 행동하였다.
- 14 유다 장로들은 하카이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즈카르야의 예언을 통해 건축하고 성공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느님의 명령과, 고레스와 다리오와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칙령에 따라 건축하여 완성하였다.
- 15 이 집은 다리오 왕 통치 여섯 번째 해 아달 달 삼일에 완성되었다.
- 16 이스라엘 자손과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포로에서 돌아온 나머지 자손들이 기쁨으로 이 하느님의 집의 봉헌식을 지켰다.
- 17 그들은 이 하느님의 집의 봉헌식에 수소 백 마리, 수양 이백 마리, 어린 양 사백 마리를 바쳤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죄헌물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수염소 열두 마리를 바쳤다.
- 18 그들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따라 사제들을 반으로 나누고 레위인들을 직무별로 배치하였다.
- 19 포로에서 돌아온 자손들이 첫째 달 십사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 20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두가 깨끗하였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자손과, 그들의 형제인 사제들과 자신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았다.
- 21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땅의 민족들의 더러움에서 떠나 이스라엘 하느님을 구하려는 모든 자들이 먹었다.
- 22 그들은 기쁨으로 일곱 날 동안 누룩 없는 빵 축제를 지켰다. 이는 주님이 그들을 기쁘게 하시고,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도와, 이스라엘 하느님의 집에서 일하는 그들의 손을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에즈라기 7장

- 1 이 일들 후에,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통치 시대에, 에즈라는 사라야의 아들, 아사랴의 아들, 힐기야의 아들이다.
- 2 살룸의 아들, 사독의 아들, 아히투브의 아들이다.
- 3 아마랴의 아들, 아사랴의 아들, 메라이오토의 아들이다.
- 4 제레야의 아들, 우지의 아들, 부키의 아들이다.
- 5 아비슈아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다.
- 6 이 에즈라가 바빌론에서 올라갔다. 그는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숙한 서기관이었고, 그의 하느님인 주님의 손이 그에게 있음에 따라 왕은 그가 구하는 것을 모두 허락하였다.
- 7 이스라엘 자손 중 일부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성전 하인들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의 일곱 번째 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 8 그는 왕의 일곱 번째 해 다섯 번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 9 그는 첫 번째 달 첫째 날에 바빌론에서 떠나기 시작하여, 다섯 번째 달 첫째 날에 그의 하느님의 좋은 손이 그에게 있음에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 10 에즈라는 주님의 율법을 구하고 이를 실천하며 이스라엘에서 규정과 법령을 가르치려고 마음을 굳게 정했다.
- 11 이것은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제사장이자 서기관인 에즈라에게 준 서신의 사본이다. 그는 주님의 명령과 규정을 이스라엘에 전하는 서기관이다.
- 12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들의 왕이, 하늘의 완전하신 하느님의 율법의 서기관인 에즈라 제사장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이제,
- 13 내가 명령한다. 내 영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자들은 모두 너와 함께 가라.
- 14 너는 왕과 그의 일곱 명의 고문들로부터 파견되어, 네 손에 있는 네 하느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조사하러 간다.
- 15 왕과 그의 고문들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며, 그의 거처는 예루살렘에 있다.
- 16 또 네가 바빌론 온 지방에서 찾게 될 모든 은과 금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느님의 집을 위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가라.
- 17 그러므로 이 돈으로 신속히 수소, 수양, 어린 양과 그들의 곡식 헌물과 술 헌물을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네 하느님의 집의 제단에 바쳐라.
- 18 은과 금의 나머지 부분으로 너와 네 형제들이 좋다고 여기는 일을 무엇이든 하라. 그것은 네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라.
- 19 너에게 주어진 네 하느님의 집을 섬기기 위한 그릇들은 예루살렘의 하느님 앞에 바쳐라.
- 20 네 하느님의 집을 위해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네가 필요로 하는 만큼 왕의 보물창고에서 지급하여라.
- 21 나, 곧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이 강을 건너편에 있는 모든 세관장들에게 명령한다. 하늘의 하느님의 율법의 서기관인 제사장 에즈라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신속히 수행하라.
- 22 은은 최대 백 탈런트, 밀은 최대 백 코르, 포도주는 최대 백 바스, 기름은 최대 백 바스, 소금은 제한 없이 주어지도록 하라.
- 23 하늘의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 하느님의 집을 위해 정확히 행하라. 왕과 그의 아들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 24 또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하느님의 집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성전 하인들과 종들에 대해서는 세금, 관세, 통행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라.
- 25 너, 에즈라여, 네 손에 있는 네 하느님의 지혜를 따라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심판할 관리들과 재판관들을 임명하여라. 그들은 모두 네 하느님의 법을 알고 있으니,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가르쳐라.

- ²⁶ 네 하느님의 법과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는 사형, 추방, 재산 몰수, 또는 감금이라는 모든 엄중한 처벌을 신속히 집행하라.
- ²⁷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 주님을 찬미하라. 그분이 왕의 마음에 이와 같은 일을 붙여넣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을 아름답게 하셨도다.
- ²⁸ 또 왕과 그의 고문들과 왕의 모든 권세 있는 귀족들 앞에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도다. 나는 내 하느님 주님의 손이 나에게 있음을 따라 힘을 얻어 이스라엘에서 주요 인물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다.

에즈라기 8장

- 1 이제 이들은 그 조상 가족의 수장들이며,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 재위 기간에 나와 함께 바빌론에서 올라온 자들의 족보이다.
- 2 핀니아스의 자손은 게르숨이고, 이스마르의 자손은 다니엘이며, 다윗의 자손은 하투스이다.
- 3 세가니야의 자손 중 파로스의 자손인 스가랴와,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 백오십 명이 있었다.
- 4 파하모압의 자손은 세라야의 아들 엘리호에나이이며, 그와 함께 남자 이백 명이 있었다.
- 5 세가니야의 자손은 아히엘의 아들이며, 그와 함께 남자 삼백 명이 있었다.
- 6 아딘의 자손은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며, 그와 함께 남자 오십 명이 있었다.
- 7 엘람의 자손은 아탈리야의 아들 예사야이며, 그와 함께 남자 칠십 명이 있었다.
- 8 세파티야의 자손은 미가엘의 아들 세바디아이며, 그와 함께 남자 팔십 명이 있었다.
- 9 요아브의 자손은 여후엘의 아들 오바댜이며, 그와 함께 남자 이백십팔 명이 있었다.
- 10 셀로미스의 자손은 요시피아의 아들이며, 그와 함께 남자 백육십 명이 있었다.
- 11 베바이의 자손은 베바이의 아들 스가랴이며, 그와 함께 남자 이십팔 명이 있었다.
- 12 아스갓의 자손은 하카탄의 아들 요하난이며, 그와 함께 남자 백십 명이 있었다.
- 13 아도니코암의 자손 중 마지막이었던 자들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엘과 세마야이며, 그들과 함께 남자 육십 명이 있었다.
- 14 빅바이의 자손은 우타이와 잠부드이며, 그들과 함께 남자 칠십 명이 있었다.
- 15 나는 아하바로 흐르는 강가에 그들을 모아 사흘 동안 야영하였다. 그 후 나는 백성과 사제들을 둘러보았으나, 레위의 자손이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 16 나는 엘리에제르와 아리엘과 세마야와 엘나단과 자리브와 엘나단과 나단과 즈카르야와 메술람, 즉 주요 인물들과, 교사인 요아립과 엘나단을 불렀다.
- 17 나는 그들을 카시피아에 있는 지도자 이도에게 보냈으며, 그들에게 이도와 카시피아에 있는 성전 하인들인 그의 형제들에게 전할 말을 지시하였다. 그들은 우리 하느님의 집을 섬길 사역자들을 우리에게 데려오도록 해야 했다.
- 18 우리 하느님의 좋은 손이 우리 위에 있음에 따라, 그들은 레위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인 마홀리의 아들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여덟 명을 우리에게 데려왔다.
- 19 그리고 하사비아와 그와 함께 메라리의 자손인 예사야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들들, 스무 명을 데려왔다.
- 20 또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인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 주었던 성전 하인들 중에서 이백이십 명을 데려왔다. 그들 모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 21 그때 나는 아하바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자녀들과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하여 우리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우리를 위한 평탄한 길을 그분께 구하였다.
- 22 나는 길에서 적을 대적하기 위해 왕에게 병사들과 기마병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우리가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느님의 손은 그분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시나, 그분의 능력과 진노는 그분을 버리는 모든 자에게 미친다."고 했기 때문이다.
- 23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며 이 일에 대해 우리 하느님께 간구하였고, 그분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 24 그리고 나는 사제들의 지도자 열두 명을 골라,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들과 함께한 열 명의 형제들을 뽑았다.
- 25 나는 그들에게 은과 금과 그릇, 곧 왕과 그의 고문들과 귀족들과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하느님의 집을 위해 바친 헌물의 무게를 측정하여 주었다.
- 26 나는 그들의 손에 은 육백 오십 달릭, 은 그릇 백 달릭, 금 백 달릭을 측정하여 주었다.
- 27 천 다릭 무게의 금 그릇 스무 개와 금처럼 귀한 고운 반짝이는 놋그릇 두 개를 주었다.
- 28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주님께 성결한 자들이다. 그 그릇들도 성결하다.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주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헌물이다."
- 29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 안방에서 이스라엘의 족장 가문의 수장들과 레위인들과 사제들의 수장들 앞에서 무게를 재

기까지 주의 깊게 지켜라.

³⁰ 그러므로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은과 금과 그릇의 무게를 받아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느님의 집으로 가져갔다.

³¹ 그리고 우리는 달력 첫째 달 열두 번째 날 아하바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떠났다. 우리 하느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었고, 길에서 우리를 적과 강도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³²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사흘 동안 머물렀다.

³³ 네 번째 날에 은과 금과 그릇들이 우리 하느님의 집 안에서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메레모트의 손에 측정되었다. 그와 함께는 핀냐스의 아들 엘라사르가 있었고, 레위인들은 여수아의 아들 요자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야가 함께 있었다.

³⁴ 모든 것을 세어 측정하였고, 그때 모든 무게를 기록하였다.

³⁵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황소 열두 마리, 수양 아흔여섯 마리, 어린 양 일흔일곱 마리, 죄를 위한 염소 열두 마리였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드리는 번제였다.

³⁶ 그들은 왕의 명령서를 왕의 지방 관리들과 강 너머의 관리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백성과 하느님의 집을 돕게 되었다.

에즈라기 9장

- ¹ 이 일들이 끝난 후에, 관리들이 내게 나아와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과 사제들과 레위 사람들이 땅들의 민족들에서 분리 되지 않고,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곧 가나안 사람들, 히위 사람들, 브리즈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아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 ² 그들은 그들의 딸들을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에게 아내로 맞이하여, 거룩한 자손들이 땅들의 민족들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관리들과 지도자들의 손이 이 최악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 ³ 내가 이 말을 듣고, 내 옷과 겹옷을 찢고, 내 머리카락과 수염에서 머리카락을 뽑아내며, 낙담한 채 앉아 있었다.
- ⁴ 그때 주님 이스라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이 유배자들의 죄악 때문에 내게 모여들었고, 나는 저녁 제물이 드릴 때까지 낙담한 채 앉아 있었다.
- ⁵ 저녁 제물 때에 나는 내 낙담에서 일어나, 내 옷과 겹옷이 찢긴 채로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주님 내 하느님께 펼쳤다.
- ⁶ 내가 말했다. "내 하느님, 우리 죄악이 우리 머리 위로 커져 하늘에 이르렀으므로, 나는 부끄러워서, 수치를 느껴서, 내 얼굴을 당신께 들지 못합니다. 내 하느님."
- ⁷ 우리 조상들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심히 죄를 지어 왔습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사제들이 땅들의 왕들의 손에 넘겨져 칼과 사로잡힘과 약탈과 수치를 당해 왔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말입니다."
- ⁸ 지금까지 주님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살아남은 자들을 남기시고, 당신의 성소에서 우리에게 자리를 주시어,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 노예 생활 속에서 조금이나마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 ⁹ 우리는 종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노예 생활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페르시아 왕들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 하느님의 집을 세우시며, 그 폐허를 수리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우리를 위한 담을 주셨습니다.
- ¹⁰ "이제 우리 하느님, 이 일 이후에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 ¹¹ 당신은 당신의 종들 예언자들을 통해 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그 땅 백성들의 부정과 그들의 가증한 일로 더럽혀진 땅이다. 그들이 그 부정으로 땅의 끝에서 끝까지 가득 채웠다.'
- ¹² 그러므로 이제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데려오지 말며, 그들의 평화나 번영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강하게 되어 그 땅의 좋은 것을 먹고, 그것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남길 수 있다.'
- ¹³ "우리의 악한 행위와 큰 죄악으로 인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지만, 우리 하느님, 당신께서는 우리 죄악이 마땅히 받을 만큼 더 많이 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살아남은 자들을 남겨주셨습니다.
- ¹⁴ 그러면 우리가 다시 당신의 명령을 어기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백성들과 결합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소멸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살아남은 자도, 도망가는 자도 없게 하실 것 아닙니까?
- ¹⁵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남은 자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당신 앞에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도 당신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에즈라기 10장

- 1 에스라가 기도하며 회개하고, 하느님의 집 앞에서 울며 땅에 엎드릴 때, 이스라엘에서 많은 남녀와 어린이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다. 그들은 매우 슬피 울었다.
- 2 엘람의 아들 예히엘의 아들 세가니야가 에스라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는 우리 하느님께 죄를 지었고, 이 땅의 민족들의 외국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에 대해 이스라엘을 위한 희망이 있습니다."
- 3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느님과 계약을 맺어, 우리 주님과 우리 하느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조언에 따라, 모든 아내들과 그들로부터 태어난 자들을 내보내겠습니다. 이 일을 율법에 따라 행합시다.
- 4 일어나십시오. 이 일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용기를 내고 이 일을 하십시오."
- 5 그러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의 수장들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이 말에 따라 행동할 것을 맹세하게 했다. 그들은 맹세했다.
- 6 에스라는 하느님의 집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그곳에 도착하자,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죄로 인해 슬퍼했다.
- 7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포로들 모두에게 공지를 내려,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을 명령했다.
- 8 그리고 세 일 안에 오지 않는 자는,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조언에 따라, 그의 재산이 몰수되고, 포로들의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했다.
- 9 그러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남자들이 사흘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그때는 아홉 번째 달, 그 달 스무 번째 날이었다. 모든 백성은 하느님의 집 앞 넓은 마당에 앉아, 이 일과 큰 비로 인해 떨고 있었다.
- 10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죄를 지었고, 외국 여자들과 결혼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더했습니다."
- 11 그러므로 이제 주님, 곧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 회개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의 민족들과 외국 여자들에서 떠나십시오."
- 12 그러자 모든 공동체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 13 그러나 백성이 많고, 지금은 비가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은 하루나 이틀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 14 우리의 지도자들을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여 임명하고, 우리 도시들에 있는 외국 여자들과 결혼한 자들을 정해진 시기에 오게 하며, 각 도시의 장로들과 재판관들과 함께 그들을 보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하느님의 격노가 우리에게서 돌이켜질 때까지, 이 일을 해결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 15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틱바의 아들 야혜자야만 이 일에 반대하며 일어났고, 레위인 메술람과 사베타이가 그들을 도왔다.
- 16 포로들의 자손들은 그대로 행했다. 에스라 제사장과 가족의 수장들, 각 가문별로, 그들의 이름을 모두 기록하여, 열 번째 달 첫째 날부터 이 일을 조사하기 위해 앉았다.
- 17 그들은 외국 여자들과 결혼한 모든 남자들을 첫 번째 달 첫째 날까지 조사해 마쳤다.
- 18 제사장의 자손들 중 외국 여자들과 결혼한 자들이 발견되었다. 요사닥의 아들 여수아의 자손들 중 마아세야, 엘리에제르, 자립, 게다랴가 있었다.
- 19 그들은 아내들을 내보낼 것을 약속하며, 죄를 지었으므로 양 떼에서 수양을 희생제물로 바쳤다.
- 20 임멜의 자손들 중 하나니와 세바다가 있었다.
- 21 하림의 자손들 중 마아세야, 엘리아, 세마야, 여후엘, 우자야가 있었다.
- 22 파스홀의 자손들 중 엘레오나이, 마아세야, 이스마엘, 느느넬, 요사밧, 엘라사가 있었다.
- 23 레위인들 중 요사밧, 시메이, 케라야(또는 켈리타), 베다야, 유다, 엘리에제르가 있었다.
- 24 노래하는 자들 중 엘리아십이 있었고, 문지기들 중 살롬, 테레름, 우리가 있었다.
- 25 이스라엘 사람 중 파로스의 아들들: 라미야, 이스야, 말기야, 미자민, 엘리아살, 말기야, 베나야.

- ²⁶ 엘람의 아들들: 마타니아, 스가랴, 여히엘, 아브디, 여레못, 엘리야.
- ²⁷ 자투의 아들들: 엘레오나이, 엘리아십, 마타니아, 여레못, 자바드, 아지자.
- ²⁸ 베바이의 아들들: 여호하난, 한니야, 자바이, 아들라이.
- ²⁹ 바니의 아들들: 메술람, 말룩, 아다야, 야습, 세알, 여레못.
- ³⁰ 파하모압의 아들들: 아드나, 케랄, 베나야, 마아세야, 마타니아, 베사렐, 빈누이, 마나세.
- ³¹ 하림의 아들들: 엘리에셀, 이시야, 말기야, 세마야, 시므온,
- ³² 베나민, 말룩, 세마랴.
- ³³ 하숨의 아들들: 마테나이, 마타타, 자바드, 엘리벨렛, 여레마이, 마나세, 시므이.
- ³⁴ 바니의 아들들: 마다이, 암람, 웨엘,
- ³⁵ 베나야, 베다야, 케루히,
- ³⁶ 바니야, 메레못, 엘리아십,
- ³⁷ 마타니아, 마타나이, 야수,
- ³⁸ 바니, 빈누이, 시므이,
- ³⁹ 셀레미야, 나탄, 아다야,
- ⁴⁰ 마크나데바이, 샤사이, 샤라이,
- ⁴¹ 아사렐, 셀레미야, 세마랴,
- ⁴² 샬룸, 암랴, 요셉.
- ⁴³ 네보의 아들들: 여이엘, 마디디야, 자바드, 세비나, 이도, 요엘, 베나야.
- ⁴⁴ 이 모든 사람들이 외국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들 중 일부는 그 여인들로부터 자식을 낳았다.

느헤미야기 | Nehemiah

느헤미야기 1장

¹ 하카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² 내 형제 한아니와 유다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와서, 나는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 살아남아 남아 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대해 물었다.

³ 그들이 내게 말했다. "거기 성령지에서 살아남은 포로들은 큰 고통과 모욕을 겪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졌고, 그 문들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며칠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느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⁵ 내가 말했다. "주님, 하늘의 하느님, 위대하고 두려운 분이시여,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시여,

⁶ 지금 이때, 낮과 밤으로 당신의 종이 당신 앞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소서. 당신의 종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우리가 당신께 범한 죄를 고백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⁷ 우리는 당신께 매우 악독하게 행동하였고, 당신이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다.

⁸ "내가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사이에 흩어버리리라."

⁹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비록 너희가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모아서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데려다주리라."

¹⁰ "이제 이들은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위대한 힘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속량하셨습니다."

¹¹ 주님, 제발 지금 당신의 종의 기도와,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을 기뻐하는 당신의 종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소서. 오늘 당신의 종이 형통하게 하시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소서."

느헤미야기 2장

- 1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의 스물째 해, 니산 달에, 왕 앞에 포도주가 놓여 있을 때, 내가 포도주를 들어 왕에게 드렸다. 나는 그전까지 그 앞에서 슬픈 표정을 한 적이 없었다.
- 2 왕이 나에게 말했다. "네가 병이 아닌데 왜 얼굴이 슬픈가? 이건 마음의 슬픔밖에는 아니다."
- 3 내가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 영원히 살아나소서!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이 황폐하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버렸는데, 어찌 내 얼굴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 4 그러자 왕이 나에게 말했다. "네가 뭘 원하는가?"
- 5 내가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그리고 당신의 종이 당신의 눈에 은총을 입었다면, 저를 유다로 보내 주소서.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으로 가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
- 6 왕이 나에게 말했다. (왕비도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여정은 얼마나 길겠느냐? 언제 돌아오겠느냐?"
- 7 또 내가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강 너머 지방의 총독들에게 편지를 내려 주소서. 제가 지나가게 하여 유다에 이르게 하소서."
- 8 또 왕의 숲을 맡은 아사프에게도 편지를 내려 주소서. 그가 성전 옆 성채의 문들과 성벽과 제가 거주할 집을 지을 나무를 주게 하소서."
- 9 그러고 나서 나는 강 너머 지방의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편지를 넘겼다. 왕은 나와 함께 군대 장관들과 기마병들을 보냈다.
- 10 산발랏 호로니트와 아몬 사람 도비야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근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의 복을 구하려는 사람이 왔기 때문이다.
- 11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거기서 사흘을 보냈다.
- 12 나는 밤에 일어나 나와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움직였다. 나는 내 하느님이 나의 마음에 넣어주신 예루살렘을 위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다른 동물은 아무것도 없었다.
- 13 나는 밤에 골짜기 문을 통해 악어 우물 쪽으로 나가서 쓰레기 문에 이르렀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살펴보니 무너져 있고, 그 문들은 불에 타서 소멸되어 있었다.
- 14 그 후 나는 샘 문과 왕의 연못 쪽으로 나아갔으나, 내가 타고 있던 말이 지나갈 만한 길이 없었다.
- 15 그리고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펴보았다. 그 후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가서 돌아왔다.
- 16 지도자들은 내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아직 유다인들에게나 사제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지도자들에게나 일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
- 17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우리가 처한 나쁜 상황을 보고 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 있고, 그 문들이 불에 타 버렸다. 와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자. 그래야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 18 나는 그들에게 내 하느님의 좋은 손이 나에게 임한 일과, 왕이 내게 말한 말들을 알려주었다.
- 19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며 경멸하며 말했다. "너희가 하는 이 일은 무엇이냐? 왕에게 반역하려는 것이냐?"
- 20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하늘의 하느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종들이니 일어나 건설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몫도, 권리도, 기념도 없으니."

느헤미야기 3장

- 1 그러자 대제사장 엘리아시브가 그의 형제인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였다. 그들은 그것을 성결하게 하고 문을 달았다. 그들은 하메아 탑까지, 하나넬 탑까지 그것을 성결하게 하였다.
- 2 그 옆으로 예리코 사람들이 건축하였다. 그들 옆으로 임리의 아들 자꾸르가 건축하였다.
- 3 하세나아의 아들들이 물고기 문을 건축하였다. 그들은 그 문의 들보를 놓고 문과 빗장과 막대기를 달았다.
- 4 그 옆으로 우리아의 아들, 하코스의 손자인 메르모트가 수리하였다. 그 옆으로 베레기야의 아들, 메세자벨의 손자인 메솔람이 수리하였다. 그 옆으로 바아나의 아들인 사독이 수리하였다.
- 5 그 옆으로 테코아 사람들이 수리하였으나, 그들의 귀족들은 주의 일을 위해 목을 굽히지 않았다.
- 6 파사야의 아들 요이다와 베소다야의 아들 메솔람이 옛 문을 수리하였다. 그들은 그 문의 들보를 놓고 문과 빗장과 막대기를 달았다.
- 7 그 옆으로 기베온 사람 멜라티야와 메로노트 사람 야돈, 그리고 기베온과 민스바 사람들은 강 너머 총독의 저택을 수리하였다.
- 8 그 옆으로 하라야의 아들 우찌엘, 곧 금장인들이 수리하였다. 그 옆으로 향을 만드는 자 한니아가 수리하였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났은 성벽까지 견고히 하였다.
- 9 그 옆으로 예루살렘 반 지역의 지도자인 허의 아들 레파야가 수리하였다.
- 10 그 옆으로 하루마프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맞은편에서 수리하였다. 그 옆으로 하사브니야의 아들 하둠이 수리하였다.
- 11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파앗모압의 아들 하숨이 또 다른 구간과 군불 탑을 수리하였다.
- 12 그 옆으로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 예루살렘 반 지역의 지도자인 그와 그의 딸들이 수리하였다.
- 13 하논과 자노아 주민들이 골짜기 문을 수리하였다. 그들은 그것을 건축하고 문과 빗장과 막대기를 달았으며, 배설물 문까지 성벽을 천 큐빗이나 건축하였다.
- 14 르카브의 아들 말기야, 벤하케렘 지역의 지도자가 배설물 문을 수리하였다. 그는 그것을 건축하고 문과 빗장과 막대기를 달았다.
- 15 콜호세의 아들 살룬, 민스바 지역의 지도자가 샘 문을 수리하였다. 그는 그것을 건축하고 천장으로 덮고 문과 빗장과 막대기를 달았으며, 왕의 정원 옆 셀라 연못의 성벽을 다윗의 도시로 내려가는 계단까지 수리하였다.
- 16 그 뒤로 아스부크의 아들 느헤미야, 벤스르 반 지역의 지도자가 다윗의 무덤 맞은편과 만든 연못과 용사들의 집을 수리하였다.
- 17 그 뒤로 레위인들, 즉 바니의 아들 르훔이 수리하였다. 그 옆으로 �라의 반 지역의 지도자 하사비야가 자기 지역을 위해 수리하였다.
- 18 그 뒤로 그들의 형제, 헤나답의 아들 바바이, �라의 반 지역의 지도자가 수리하였다.
- 19 그 옆으로 예수아의 아들 에제르, 민스바의 지도자가 병기고로 올라가는 길과 성벽의 굴곡 지점 맞은편에서 또 다른 구간을 수리하였다.
- 20 그 뒤로 잃바이의 아들 바룩이 열심히 수리하였으니, 성벽의 굴곡 지점에서 대제사장 엘리아시브의 집 문까지였다.
- 21 그 뒤로 우리아의 아들, 하코스의 손자인 메르모트가 또 다른 구간을 수리하였으니, 엘리아시브의 집 문에서 엘리아시브의 집 끝까지였다.
- 22 그 뒤로 주변 지역의 제사장들이 수리하였다.
- 23 그 뒤로 베냐민과 하숨이 자기 집 맞은편에서 수리하였다. 그 뒤로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 옆에서 수리하였다.
- 24 그 뒤로 헤나답의 아들 빈누이가 또 다른 구간을 수리하였으니, 아사랴의 집에서 성벽의 굴곡 지점까지, 그리고 모서리까지였다.
- 25 우자이의 아들 파랄은 성벽의 굴곡과, 경비대 마당 근처에 있는 왕의 상궁집 옆 뽕죽한 탑을 마주보고 수리하였다. 그 뒤에 파로시의 아들 페다야가 수리하였다.

- ²⁶ 성전 하인들은 동쪽으로 물문을 마주보는 오펔 지역에 살았으며, 뿔족한 탑 근처에도 살았다.
- ²⁷ 그 뒤에 테코인들이 또 다른 구간을 수리하였는데, 큰 뿔족한 탑을 마주보고 오펔의 성벽까지 이어졌다.
- ²⁸ 말문 위쪽에서 사제들이 수리하였으며, 각자 자기 집을 마주보고 일하였다.
- ²⁹ 그 뒤에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을 마주보고 수리하였다. 그 뒤에 세가니아의 아들 세마야, 동문의 문지기가 수리하였다.
- ³⁰ 그 뒤에 세레마야의 아들 하나니아와 살라프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또 다른 구간을 수리하였다. 그 뒤에 베레기야의 아들 메술람이 자기 방을 마주보고 수리하였다.
- ³¹ 그 뒤에 성전 하인들의 집과 상인들 중 한 명인 말기야가 하미프카드 문을 마주보고 모서리 오르막까지 수리하였다.
- ³² 모서리 오르막과 양문 사이에서 금세공인들과 상인들이 수리하였다.

느헤미야기 4장

- 1 그러나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매우 격분하며 유대인들을 비웃었다.
- 2 그는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했다. "이 약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려는가? 스스로를 방어할 것인가? 희생을 드릴 것인가? 하루 만에 마칠 것인가? 타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돌을 되살려낼 것인가?"
- 3 아몬 사람 도비야가 그 곁에 서서 말했다. "그들이 건축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우가 그것에 올라가도 그들의 돌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 4 "우리 하느님, 들어주소서. 우리는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소서. 그들을 사로잡힌 땅에서 노략의 대상으로 내버려두소서."
- 5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소서. 그들의 죄를 당신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들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 6 그래서 우리는 성벽을 건축했다. 모든 성벽이 그 절반 높이까지 연결되었으니, 백성들이 일할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 7 그러나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아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의 수리가 진행되고, 틈들이 메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분노하였다.
- 8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모여 예루살렘을 치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꾸뻘었다.
- 9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느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낮과 밤으로 경비를 섰다.
- 10 유다 사람들은 말했다. "짐을 나르는 자들의 힘이 약해지고, 흠더미가 많아서 성벽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 11 우리 적들은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 사이로 들어가 그들을 죽이고, 일을 멈추게 할 때까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이다."
- 12 그 곁에 살던 유대인들이 와서, 열 번이나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말했다. "어디로 돌아서든 그들이 공격할 것입니다."
- 13 그래서 나는 성벽 뒤쪽 낮은 곳과 열린 곳에 경비를 배치했다. 나는 가족 단위로 사람들을 배열하고, 칼과 창과 활을 들게 했다.
- 14 나는 보고 일어나서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크고 무서운 주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들과 아들과 딸들과 아내들과 집들을 위하여 싸우라."
- 15 우리 적들이 우리가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음을, 하느님이 그들의 계획을 무효로 만드셨음을 듣고, 모두 성벽으로 돌아가 각자 자신의 일로 돌아갔다.
- 16 그때부터 내 하인들 중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을 들고 있었다. 관리들은 유다 모든 집을 뒤에서 지켰다.
- 17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과 짐을 나르는 자들은 모두 자기 한 손으로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다.
- 18 건축하는 자들 각자는 곁에 칼을 차고 건축했다. 나팔을 불던 자는 내 곁에 있었다.
- 19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다. "일이 크고 넓게 퍼져 있으며, 우리는 성벽을 따라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 20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곳으로 내게로 모여라. 우리 하느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 21 그래서 우리는 일을 했다. 백성의 절반은 아침 해가 뜨는 때부터 별이 뜨는 때까지 창을 들고 있었다.
- 22 같은 시기에 나는 백성에게 말했다. "모든 사람은 자기 하인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라. 밤에는 우리를 지키고, 낮에는 일하게 하라."
- 23 그래서 나도, 내 형제도, 내 하인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들도 옷을 벗지 않았다. 모두 물가에 무기를 들고 있었다.

느헤미야기 5장

- 1 그때에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이 자기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큰 소리로 항의했다.
- 2 어떤 이들은 말했다. "우리와 우리 아들들과 딸들이 많습니다.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합니다."
- 3 어떤 이들은 말했다. "우리는 우리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담보로 잡혀 곡식을 얻어야 합니다. 기근 때문입니다."
- 4 어떤 이들은 말했다. "우리는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 왕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 5 그러나 지금 우리 몸은 우리 형제들의 몸과 같고, 우리 아이들은 그들의 아이들과 같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아들과 딸들을 노예로 팔아 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딸들 중 일부는 이미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도울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밭과 포도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6 내가 그들의 외침과 이 말을 듣고 매우 분노했다.
- 7 그러고 나서 나는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형제에게서 이자를 받고 있다." 나는 그들을 향해 큰 모임을 소집했다.
- 8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형제인 유대인들을 민족들에게 팔려 간 것을 사서 풀어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형제를 팔아 우리에게 팔려게 하려는가?" 그들은 입을 다물고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 9 나는 또 말했다. "너희가 하는 이 일은 좋지 않다. 너희는 우리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원수인 민족들의 비난을 피해야 하지 않느냐?"
- 10 나도 내 형제들과 내 하인들이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다. 이제 이 이자를 그만두자.
- 11 오늘 바로, 너희가 그들에게서 빼앗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나무와 집, 그리고 너희가 그들에게 부과한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분의 일까지 돌려주어라.
- 12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 13 나는 또한 내 옷자락을 흔들며 말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을 그의 집과 그의 노동에서 흔들어 내시고, 비어버리게 하소서."
- 14 또한 내가 유다 땅에서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된 때,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의 스물째 해부터 삼십이번째 해까지, 곧 열두 해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양식을 먹지 않았다.
- 15 그러나 나보다 앞선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떠받들려 그들로부터 빵과 포도주를 받았고, 은 마흔 세켈까지 더 받았다. 그들의 하인들도 백성을 다스렸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 16 나는 또한 이 성벽의 공사에 계속 참여했다. 우리는 땅을 사지 않았다. 내 모든 하인들은 그 공사에 모여들었다.
- 17 또한 내 식탁에는 유대인들과 관리들만 해도 백오십 명이 있었고, 우리 주변의 이방 민족들로부터 온 사람들도 더 있었다.
- 18 하루에 준비된 음식은 한 마리의 소와 여섯 마리의 선정된 양이었고, 나는 새고기를 준비받았으며, 열흘에 한 번씩 다양한 포도주를 비축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총독의 보수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 백성에게는 노예의 무거운 짐이 있었기 때문이다.
- 19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해 주소서, 내 하느님.

느헤미야기 6장

- ¹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우리 적들의 나머지가, 내가 성벽을 쌓았고, 그 성벽에는 아직 틈이 없으며(비록 그때까지 나는 문을 문짝에 달지 않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 ² 산발랏과 게셈이 나에게 보내어 말했다.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의 마을에서 함께 모이자."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치려는 의도였다.
- ³ 나는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했다. "나는 큰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다. 내가 그 일을 떠나 너희에게 내려가면, 그 일이 멈추지 않겠느냐?"
- ⁴ 그들이 이와 같이 네 번이나 나에게 보냈으나, 나는 그들에게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 ⁵ 그러자 산발랏이 다섯 번째로 그의 하인을 나에게 보냈는데, 그의 손에는 열린 편지가 있었다.
- ⁶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야기가 여러 나라에 퍼졌고, 가슈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인들은 반역하려 한다. 그래서 너희는 성벽을 쌓고 있다. 너희는 이 말들에 따라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 ⁷ 너는 또한 예언자들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위해 선포하게 하여, '유다에 왕이 있다!' 하고 말하고 있다. 이제 이 말들이 왕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와서, 우리가 함께 상의하자.
- ⁸ 나는 그에게 보냈다. "네가 말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네 마음속에서만 일어난 상상일 뿐이다."
- ⁹ 그들은 모두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려 했고,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일에서 약해져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소서.
- ¹⁰ 나는 데라야의 아들, 메헤베델의 아들인 세마야의 집에 갔는데, 그는 집 안에 갇혀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우리가 주님의 집, 곧 성전 안에서 만나자. 성전의 문을 닫자. 그들이 와서 너를 죽이려 한다. 보라, 밤에 그들이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 ¹¹ 나는 말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도망치겠느냐?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 목숨을 구하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 ¹² 나는 깨달았다. 보라, 주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니었고, 그는 나를 향해 이 예언을 했다.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고용한 것이었다.
- ¹³ 그는 내가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게 만들고, 죄를 지우려고 고용된 것이며, 그들이 나를 비난할 악한 소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 ¹⁴ "내 주님, 도비야와 산발랏을 그들의 행위대로 기억하소서. 또한 예언자 여자 노아디아와 나를 두려워하게 하려 했던 나머지 예언자들을 기억하소서."
- ¹⁵ 그러므로 성벽은 엘룰월 스물다섯째 날, 오십이 일 만에 완성되었다.
- ¹⁶ 우리 모든 적이 그것을 듣고,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며 자신감을 잃었다. 그들은 이 일이 우리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¹⁷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에게 많은 편지를 보내었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도착했다.
- ¹⁸ 유다에는 그가 아라의 아들 세카니야의 사위이기 때문에, 그에게 맹세한 사람이 많았다. 그의 아들 여호호난은 베레기아의 아들 메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 ¹⁹ 그들은 또한 내 앞에서 그의 선한 행위를 말하고, 내 말을 그에게 전했다. 도비야는 나를 두려워하게 하려고 편지를 보냈다.

느헤미야기 7장

- 1 성벽이 완공되고 문들이 설치되었으며,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임명되었을 때,
- 2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요새의 총독 하나니야를 예루살렘의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그는 신실한 사람으로서 많은 이들보다 하느님을 두려워하였다.
- 3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의 문들은 해가 뜨고 날이 더워질 때까지 열지 말고, 경비원들이 지키는 동안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라. 예루살렘 주민들을 각자의 경비 시간에 배치하여, 각자 자기 집 근처에서 경비하게 하라."
- 4 그때 도시는 넓고 광대하였으나,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적었고, 집들은 지어지지 않았다.
- 5 내 하느님께서 내 마음에 들게 하셔서, 귀족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모아 족보에 기록하게 하셨다. 나는 처음에 올라온 자들의 족보 책을 찾아내었고, 그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 6 이들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속국 출신으로, 바빌론 왕 느부카드네자르가 포로로 잡아간 자들로서, 각자 자기 도시로 돌아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자들이다.
- 7 이들은 스룹바벨, 여호수아, 느헤미야, 아사랴, 라마야, 나하마니, 모르데개, 빌산, 미스페르, 비가이, 느훔, 바나아와 함께 왔다.
- 8 파로스의 자손: 이천백칠십이 명.
- 9 세파티야의 자손: 삼백칠십이 명.
- 10 아라의 자손: 육백오십이 명.
- 11 야수아와 요압의 자손 중 파하모압의 자손: 이천팔백십팔 명.
- 12 엘람의 자손: 천이백오십사 명.
- 13 잣투의 자손: 팔백사십오 명.
- 14 자카이의 자손: 칠백육십 명.
- 15 빈누이의 자손: 육백사십팔 명.
- 16 베바이의 자손: 육백이십팔 명.
- 17 아즈가드의 자손: 이천삼백이십이 명.
- 18 아도니캄의 자손: 육백육십칠 명.
- 19 비가이의 자손: 이천육십칠 명.
- 20 아딘의 자손: 육백오십오 명.
- 21 아테르의 자손, 히즈기야의 자손: 구십팔 명.
- 22 하숨의 자손: 삼백이십팔 명.
- 23 베자이의 자손: 삼백이십사 명.
- 24 하립의 자손: 백십이 명.
- 25 기베온 사람들의 자손: 아흔다섯.
- 26 베들레헴과 네토파 사람들의 남자: 백팔십팔.
- 27 아나돗 사람들의 남자: 백이십팔.
- 28 베트 아즈마벳 사람들의 남자: 마흔둘.
- 29 기리아트 여아림과 케피라와 베에로스 사람들의 남자: 일곱백사십삼.
- 30 라마와 게바 사람들의 남자: 육백이십일.
- 31 미크마스 사람들의 남자: 백이십이.
- 32 베델과 아이 사람들의 남자: 백이십삼.
- 33 다른 느보 사람들의 남자: 오십이.
- 34 다른 엘람 사람들의 자손: 천이백오십사.
- 35 하림 사람들의 자손: 삼백이십.

- 36 예리코 사람들의 자손: 삼백사십오.
- 37 로드, 하디드, 오노 사람들의 자손: 칠백이십일.
- 38 세나아 사람들의 자손: 삼천구백삼십.
- 39 사제들: 여수아의 집에서 온 여다야의 자손: 구백칠십삼.
- 40 임멜의 자손: 천백오십이.
- 41 파스후르의 자손: 천이백사십칠.
- 42 하림의 자손: 천십칠.
- 43 레위인들: 여수아와 카드미엘과 호데바의 자손들: 칠십사.
- 44 노래하는 자들: 아사프의 자손: 백사십팔.
- 45 문지기들: 살룸의 자손, 아테르의 자손, 탈몬의 자손, 아끄부의 자손, 하티타의 자손, 소바이의 자손: 백삼십팔.
- 46 성전 하인들: 지하의 자손, 하스우파의 자손, 타바오트의 자손,
- 47 케로스의 자손, 시아의 자손, 파돈의 자손,
- 48 레바나의 자손, 하가바의 자손, 살마이의 자손,
- 49 하난의 자손, 기들의 자손, 가하르의 자손,
- 50 레아야의 자손, 레신의 자손, 네크다의 자손,
- 51 가자암의 자손, 우자의 자손, 파사야의 자손,
- 52 베사이의 자손, 메우님의 자손, 느푸세심의 자손,
- 53 바크부크의 자손, 하쿠페의 자손, 하르후르의 자손,
- 54 바질렛의 자손, 메히다의 자손, 하르사의 자손,
- 55 바르코스의 자손, 시세라의 자손, 테마의 자손,
- 56 네지아의 자손, 하티파의 자손.
- 57 솔로몬의 하인들의 자손: 소타이의 자손, 소페레스의 자손, 페리다의 자손,
- 58 야라의 자손, 다크온의 자손, 기들의 자손,
- 59 세파티아의 자손, 하티르의 자손, 포체레트 하즈베임의 자손, 그리고 아몬의 자손.
- 60 모든 성전 하인들과 솔로몬의 하인들의 자손은 모두 삼백구십이 명이였다.
- 61 이들은 텔멜라, 텔하르사, 케롭, 아돈, 임머에서 올라온 자들이었으나, 그들의 조상의 집과 자손을 증명할 수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의 후손인지 알 수 없었다.
- 62 델라야의 자손, 도비야의 자손, 네크다의 자손: 육백사십이 명.
- 63 사제들 중에는 호바야의 자손, 하코스의 자손, 바르질라이의 자손이 있었는데, 바르질라이 갈르아디트의 딸 중 한 명과 결혼하여 그들의 이름으로 불렸다.
- 64 이들은 족보 기록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제직에서 제외되고 불합격자로 간주되었다.
- 65 총독은 우림과 둠임을 통해 봉사할 사제가 일어날 때까지 그들이 가장 거룩한 것들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 66 모든 공동체의 총 수는 사만이천삼백육십 명이였으며,
- 67 그들의 남종과 여종은 칠천삼백삼십칠 명이였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이백사십오 명이였다.
- 68 그들의 말은 칠백삼십육 마리였고, 노새는 이백사십오 마리였으며,
- 69 낙타는 사백삼십오 마리였고, 당나귀는 육천칠백이십 마리였다.
- 70 어떤 집안의 수장들이 공사에 기부하였다. 총독은 금 다리크 천 개, 은 대접 오십 개, 사제들의 옷 오백삼십 벌을 재정에 기부하였다.
- 71 어떤 집안의 수장들이 공사 재정에 금 다리크 이만 개와 은 미나 이천이백 개를 기부하였다.
- 72 나머지 백성들이 기부한 것은 금 다리크 이만 개, 은 미나 이천 개, 사제들의 옷 육십칠 벌이었다.
- 73 그러므로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일부 백성들과 성전 하인들과 이스라엘 전체가 각자의 도시에 살았다. 일곱 번째 달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도 각자의 도시에 살고 있었다.

느헤미야기 8장

- ¹ 모든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의 넓은 마당에 모여 에스라 서기관에게 가서 모세의 율법서를 가져오도록 요청하였다. 이 율법서는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
- ² 에스라 사제는 일곱째 달 첫째 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앞에 세우고 율법서를 가져왔다.
- ³ 그는 물문 앞의 넓은 마당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이들 앞에서 그 책을 읽었다. 모든 백성의 귀는 율법서에 집중하였다.
- ⁴ 에스라 서기관은 그 목적을 위해 만든 나무로 된 강단 위에 섰고, 그의 오른쪽에는 마티디아, 세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야가 서 있었고, 왼쪽에는 베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다나, 스가랴, 메술람이 서 있었다.
- ⁵ 에스라는 모든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펼쳤다. 그는 모든 백성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책을 펼치자 모든 백성이 일어서었다.
- ⁶ 에스라는 위대하신 주님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 ⁷ 예수아, 바니, 세레비아, 야민, 아굽, 샤벳새, 호디아, 마아세야, 켈리타, 아사랴, 요자벳, 하난, 펠라야와 레위인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해석하여 이해하게 하였다. 백성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 ⁸ 그들은 하느님의 율법서를 명확하게 읽었고, 그 뜻을 설명하여 사람들이 읽은 내용을 이해하게 하였다.
- ⁹ 총독 느헤미야와 사제이자 서기관인 에스라,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너희 하느님 주님께 성스러운 날이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백성은 율법의 말을 듣고 모두 울고 있었다.
- ¹⁰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달콤한 것을 마시며, 준비한 것이 없는 이에게는 나누어 주어라. 오늘은 우리 주님께 성스러운 날이다. 슬퍼하지 말라. 주님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 ¹¹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하였다. "침묵하라. 오늘은 성스러운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 ¹² 모든 백성은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즐거워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선포된 말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 ¹³ 이튿날, 모든 백성의 가족 족장들과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에스라 서기관에게 모여 율법의 말을 연구하였다.
- ¹⁴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을 발견하였다. 주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곱째 달 축제에 초막에 거주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었다.
- ¹⁵ 그들은 모든 도시들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고 공포하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산으로 나가서 올리브 가지와 야생 올리브 가지, 몰약 가지, 종려 가지, 그리고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와서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어라."
- ¹⁶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그 가지들을 가져와서 각자 자기 집 지붕 위와 마당과 하느님의 집 마당과 물문 앞의 넓은 마당, 에브라임 문 앞의 넓은 마당에 초막을 지었다.
- ¹⁷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공동체가 초막을 지어 그 안에 거주하였다. 이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와 같이 하지 않았던 일이다. 매우 큰 기쁨이 있었다.
- ¹⁸ 또한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그는 하느님의 율법서를 읽었다. 그들은 일곱 날 동안 축제를 지켰고, 여덟째 날에는 규정에 따라 엄숙한 모임을 가졌다.

느헤미야기 9장

- ¹ 이 달의 이십사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굶은 배를 입고 흠을 몸에 바르고 있었습니다.
- ² 이스라엘의 자손은 모든 외국인과 떨어져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 ³ 그들은 제자리에 서서 하느님 주님의 율법 책에서 하루의 네 분의 일 동안 읽었고, 네 분의 일 동안은 죄를 고백하며 하느님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 ⁴ 레위인 예수, 바니, 카드미엘, 세바니야, 부니, 세레비야, 바니, 켄니니가 계단에 서서 큰 소리로 하느님 주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 ⁵ 레위인 예수, 카드미엘, 바니, 하사브니야, 세레비야, 호디아, 세바니야, 베타히야가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너희 하느님 주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모든 축복과 찬양보다 높이 높아지게 하소서!"
- ⁶ 당신은 주님, 오직 당신만이 주님입니다. 당신은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그 모든 군대, 땅과 땅 위의 모든 것, 바다와 바다 속의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모두를 보존하십니다. 하늘의 군대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 ⁷ 당신은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의 우르에서 그를 이끌어내시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느님 주님입니다.
- ⁸ 당신은 그의 마음이 당신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기로 언약을 맺으셨고, 당신은 의로우시므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 ⁹ 당신은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당한 고난을 보시고, 붉은 바다에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 ¹⁰ 당신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땅의 모든 백성에게 표적과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교만하게 행동함을 아셨고, 오늘날처럼 당신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 ¹¹ 당신은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 그들이 마른 땅으로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게 하셨으며, 그들을 쫓던 자들을 바위처럼 강한 물속에 던지셨습니다.
- ¹² 당신은 구름 기둥으로 낮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밤에 그들에게 빛을 주어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 ¹³ 당신은 시내 산에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올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 ¹⁴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리시고,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명령과 율례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 ¹⁵ 당신은 그들의 굶주림을 위해 하늘에서 빵을 주시고, 그들의 갈증을 위해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셨으며, 당신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 ¹⁶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은 교만하게 행동하고, 목을 굳게 하며, 당신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 ¹⁷ 그들은 당신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지 않고, 목을 굳게 하며, 반역하여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용서하기를 기꺼이 하시고, 은총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느님이시며,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 ¹⁸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려온 당신의 하느님이다."라고 말하며, 끔찍한 모독을 저질렀을 때에도,
- ¹⁹ 당신은 당신의 풍성한 자비로 광야에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서 떠나지 않아 길을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에게 빛과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 ²⁰ 당신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당신의 선한 영을 주셨고, 그들의 입에서 만사를 거두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갈증을 위해 물을 주셨습니다.
- ²¹ 네십 년 동안 당신은 그들을 광야에서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옷은 낡지 않았고, 그들의 발은 부어오르지 않았습니다.
- ²² 당신은 그들에게 왕국들과 민족들을 주셨고, 그들의 몫에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혼의 땅,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옹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 ²³ 당신은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당신이 그 조상들에게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땅

으로 그들을 데려오셨습니다.

²⁴ 그러므로 그 자손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고, 당신은 그들 앞에서 그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을 굴복시키시고, 그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의 왕들과 그 땅의 백성들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²⁵ 그들은 요새 도시들과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고, 모든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들과 파낸 우물들과 포도원들과 올리브나무 숲들과 풍성한 과일나무들을 소유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배를 채우고 살이 찌며, 당신의 위대한 은총을 즐겼다.

²⁶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하고 당신을 거역하여, 당신의 율법을 뒤로 던져 버리고, 그들을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증언한 당신의 예언자들을 죽였으며, 끔찍한 모독을 저질렀다.

²⁷ 그래서 당신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 주셨다. 그 원수들이 그들을 괴롭혔다. 그들이 곤경에 빠졌을 때, 그들이 당신께 부르짖으니, 당신은 하늘에서 들으셨고, 당신의 풍성한 자비에 따라, 그들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 구원자들을 주셨다.

²⁸ 그러나 그들이 안식을 얻은 후, 다시 당신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내버려 두어, 원수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당신께 부르짖을 때, 당신은 하늘에서 들으셨고, 당신의 자비로 수많은 번을 그들을 구원하셨다.

²⁹ 당신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을 당신의 율법으로 돌아오게 하려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여, 당신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그 율법의 규정을 어겼다.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는 그것으로 인해 살 것이다.) 그들은 등을 돌리고, 목을 굳게 하며, 듣지 않았다.

³⁰ 그러나 당신은 많은 해 동안 그들을 참아 주셨고, 당신의 영을 통해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증언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을 땅의 민족들의 손에 넘겨 주셨다.

³¹ 그러나 당신의 풍성한 자비로 인해, 당신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는 당신이 은총과 자비로운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³² 이제 그러므로, 우리 하느님, 위대하시고, 강하시며, 두려우신 하느님,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시여, 아시리아 왕들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사제들과 우리 예언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닥친 고난이 당신 앞에서 작게 보이지 않게 하소서.

³³ 그러나 당신이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에서 공의로우신 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은 진실하게 행하셨으나, 우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³⁴ 우리 왕들과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사제들과 우리 조상들도 당신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당신이 그들에게 증언하신 당신의 명령들과 증거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³⁵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주신 위대한 은총과, 그들이 앞서 얻은 광대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당신을 섬기지 않았고, 그들의 악한 행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³⁶ 보소서, 오늘날 우리는 종입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 그 열매와 좋은 것을 먹게 하신 땅에서, 보소서, 우리는 그 땅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³⁷ 이 땅은 우리의 죄로 인해, 당신이 우리 위에 세우신 왕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줍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의 몸과 가족을 마음대로 지배하며, 우리는 큰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³⁸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며,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인들과 우리 사제들이 그것을 인봉합니다.

느헤미야기 10장

- 1 서명한 자들은 다음과 같았다. 행정관 느헤미야, 하칼랴의 아들, 그리고 세드키야,
- 2 세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 3 파스후르, 아마랴, 말기야,
- 4 하투스, 세바냐, 말룩,
- 5 하림, 메르모트, 오바다,
- 6 다니엘, 긴느돈, 바룩,
- 7 메술람, 아비아, 미야민,
- 8 마아자야, 빌가이, 세마야. 이들은 사제들이었다.
- 9 레위인들은 아자냐의 아들 여수아, 헤나답의 자손 빈누이, 카드미엘이다.
- 10 그들의 형제들인 세바냐, 호디아, 켈리타, 펠라야, 한난,
- 11 미가, 레훅, 하사비아,
- 12 자꾸르, 세레비아, 세바냐,
- 13 호디아, 바니, 베니누이다.
- 14 백성의 지도자들은 파로스, 파하모압, 엘람, 자투, 바니,
- 15 부니, 아즈가드, 베바이,
- 16 아도니아, 비그바이, 아딘,
- 17 아테르, 헤즈기야, 아주르,
- 18 호디아, 하숨, 베자이,
- 19 하리프, 아나돗, 노바이,
- 20 마기파스, 메술람, 헤지르,
- 21 메세자벨, 사독, 야두아,
- 22 펠라티야, 한난, 아나야,
- 23 호세아, 한냐, 하숨,
- 24 할로헤스, 필라, 쇠백이다.
- 25 레훅, 하사브나, 마아세야,
- 26 아히아, 하난, 아난,
- 27 말룩, 하림, 바나아.
- 28 나머지 백성과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문지기들과 찬양자들과 성전 하인들과, 땅의 민족들에서 떨어져 하느님의 율법을 따르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지식과 이해를 가진 모든 자들이—
- 29 형제들과 귀족들과 함께 결합하여 저주와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느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리 주 하느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과 법령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30 우리는 땅의 민족들에게 우리 딸들을 주지 않으며, 그들의 딸들을 우리 아들들의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 31 땅의 민족들이 안식일이나 성일에 상품이나 곡식을 가져와 팔 때, 우리는 그날에 그들로부터 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일곱 번째 해의 수확을 포기하고 모든 빚을 징수하지 않겠습니다.
- 32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에게 규정을 정하여 매년 하느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 세겔의 세 분의 일씩 내기로 하였습니다.
- 33 이것은 진설병과 지속적인 제물과 지속적인 번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해진 축제, 성물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의 죄제물, 그리고 우리 하느님의 집의 모든 일을 위해입니다.
- 34 우리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백성은 나무를 바치기 위해 제비를 뽑아, 우리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매년 정해진 시기에 주님 우리 하느님의 제단에서 태우기 위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집으로 가져오겠습니다.
- 35 우리는 매년 땅의 첫 열매와 모든 나무의 열매 중 첫 열매를 주님의 집으로 가져오겠습니다.

- ³⁶ 또한 우리 아들과 가축의 맡아들들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느님의 집으로,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섬기는 사제들에게 가져오겠습니다.
- ³⁷ 우리는 우리 반축의 첫 열매와 흔들어 바치는 제물과 모든 나무의 열매, 새 포도주와 기름을 사제들에게, 우리 하느님의 집의 방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의 십일조를 레위인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레위인들이 우리 모든 농촌에서 십일조를 받기 때문입니다.
- ³⁸ 사제, 아론의 자손은 레위인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십일조의 십일조를 우리 하느님의 집, 곧 보물 창고로 올려야 합니다.
- ³⁹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흔들어 바치는 제물을, 성소의 기구가 있는 방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사제들과 문지기들과 찬양자들이 그곳에서 섬깁니다. 우리는 우리 하느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느헤미야기 11장

- ¹ 백성의 귀족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다. 나머지 백성은 열 명 중 한 명이 예루살렘, 곧 성스러운 도시에 거주하도록 제비를 뽑았고, 나머지 아홉 명은 다른 도시들에 살았다.
- ²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려고 나선 모든 남성들에게 백성은 축복을 베풀었다.
- ³ 이제 예루살렘에 살던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였다. 유다의 도시들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소유지에서 살았으며, 그 도시들에는 이스라엘과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하인들과 솔로몬의 하인들의 자손들이 살았다.
- ⁴ 유다의 자손들과 베냐민의 자손들 중 일부가 예루살렘에 살았다. 유다의 자손들 중에는 아사야가 있었는데, 그는 우시아의 아들, 스가랴의 아들, 아마랴의 아들, 세파티야의 아들, 마할랄렐의 아들, 더레의 자손이었다.
- ⁵ 또 마아세야가 있었는데, 그는 바룩의 아들, 골호세의 아들, 하자야의 아들, 아다야의 아들, 요아립의 아들, 스가랴의 아들, 실로니 사람이었다.
- ⁶ 예루살렘에 살던 더레의 모든 아들들은 사백육십팔 명의 용감한 남자들이었다.
- ⁷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다: 살루는 메술람의 아들, 요엣의 아들, 페다야의 아들, 코라야의 아들, 마아세야의 아들, 이디엘의 아들, 예사야의 아들이다.
- ⁸ 그 뒤에 갑바이와 살라이가 있었는데, 아홉백이십팔 명이었다.
- ⁹ 그들의 감독은 지키리의 아들 요엘이었고, 하세누아의 아들 유다가 도시의 부감독이었다.
- ¹⁰ 사제들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 있었다.
- ¹¹ 힐기야의 아들 세라야, 메술람의 아들, 사독의 아들, 메라옷의 아들, 아히둡의 아들, 하느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가 있었다.
- ¹² 그들의 형제들 중 하느님의 집에서 일하는 자들은 팔백이십이 명이었고, 여로함의 아들 아다야, 벨라야의 아들, 암시의 아들, 스가랴의 아들, 파스후르의 아들, 말기야의 아들도 있었다.
- ¹³ 그의 형제들, 곧 조상 가문의 수장들은 이백사십이 명이었고, 아자렐의 아들 아마샤, 아하자이의 아들, 메실레못의 아들, 임멜의 아들도 있었다.
- ¹⁴ 그들의 형제들, 용감한 자들은 백이십팔 명이었고, 그들의 감독은 하게돌림의 아들 자비델이었다.
- ¹⁵ 레위인들 중에는 하숨의 아들 세마야, 아즈리캄의 아들, 하사비야의 아들, 부니의 아들이 있었다.
- ¹⁶ 또 레위인들의 지도자들 중 샤벳과 요사답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느님의 집의 외부 업무를 감독하였다.
- ¹⁷ 또 마타니아가 있었는데, 그는 미가의 아들, 잔비의 아들, 아사프의 아들로,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는 수장이었고, 그의 형제들 중 둘째는 바크부키아였으며, 샘우아의 아들 아브다는 갈랄의 아들, 예두둔의 아들이다.
- ¹⁸ 성스러운 도시에 있던 모든 레위인은 이백팔십사 명이었다.
- ¹⁹ 또 문지기들, 아쿱과 탈몬과 그들의 형제들, 문을 지키는 자들은 일백칠십이 명이었다.
- ²⁰ 이스라엘의 나머지 자손들과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유다의 모든 도시들에 살았으며, 각자 자신의 소유지에 거주하였다.
- ²¹ 그러나 성전 하인들은 오펔에 살았고, 시하와 기스파가 성전 하인들을 감독하였다.
- ²² 예루살렘에서 레위인들을 감독한 자는 바니의 아들 우지, 하사비야의 아들, 마타니아의 아들, 미가의 아들, 아사프의 자손들 중 하느님의 집의 봉사를 맡은 노래꾼이었다.
- ²³ 그들에게는 왕의 명령이 있었고, 매일 필요한 대로 노래꾼들을 위한 정해진 공급이 있었다.
- ²⁴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인 메세자벨의 아들 페다히아는 백성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왕의 대리인으로 일하였다.
- ²⁵ 마을과 그 들판들에서, 유다 자손 일부가 키리아트아르바와 그 도시들, 디본과 그 도시들, 예가브셀과 그 마을들에 살았다.
- ²⁶ 예수아, 모라다, 뱌페렛에,
- ²⁷ 하라르술, 베엘세바와 그 도시들에,
- ²⁸ 치클락, 메코나와 그 도시들에,
- ²⁹ 엔리몬, 소라, 야르무트에,

³⁰ 자노아, 아둘람과 그 마을들, 라기스와 그 들판들, 아제카와 그 도시들에 살았다. 그들은 베엘세바에서 힌놈 골짜기까지
진을 쳤다.

³¹ 베냐민 자손도 게바부터, 미크마스와 아야, 벤엘과 그 도시들에 살았다.

³² 아나돗, 노브, 아나니아에,

³³ 하초르, 라마, 깃타임에,

³⁴ 하딧, 세보임, 네발랏,

³⁵ 로드와 오노, 공예인들의 골짜기.

³⁶ 레위인들 중 일부 부족은 유다 지경에서 베냐민 지경에 정착하였다.

느헤미야기 12장

- 1 이제 이들은 세르불벨, 실티엘의 아들,와 여수아와 함께 올라간 사제들과 레위인들이다: 세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 2 아마리아, 말룩, 하두스,
- 3 세가니아, 르흠, 메레모트,
- 4 이도, 긴느또이, 아비야,
- 5 미자민, 마아디아, 빌가,
- 6 세마야, 요아립, 여다야,
- 7 살루, 아모크, 힐기야, 그리고 여다야. 이들은 여수아 시대의 사제들과 그들의 형제들의 수장들이었다.
- 8 또한 레위인들은 여수아, 빈누이, 카드미엘, 세레비야, 유다, 그리고 감사의 노래를 맡은 마타니야와 그의 형제들이었다.
- 9 바크부키야와 우노, 그들의 형제들도 그들의 직무에 따라 그들과 가까이 있었다.
- 10 여수아는 요아킴의 아버지가 되었고, 요아킴은 엘리시브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엘리시브는 요아다의 아버지가 되었고,
- 11 요아다는 요나단의 아버지가 되었고, 요나단은 야두아의 아버지가 되었다.
- 12 요아킴 시대에 사제들, 가족의 수장들은 이러하였다: 세라야의 경우, 메라야; 예레미야의 경우, 하나니아;
- 13 에스라의 경우, 메술람; 아마리아의 경우, 여호하난;
- 14 말룩의 경우, 요나단; 세바니야의 경우, 요셉;
- 15 하림의 경우, 아드나; 메라웃의 경우, 헬카이;
- 16 이도의 경우, 스가랴; 긴느또이의 경우, 메술람;
- 17 아비야의 경우, 지크리; 미니아민과 모아디아의 경우, 필타이;
- 18 빌가의 경우, 샘무아; 세마야의 경우, 요나단;
- 19 요아립의 경우, 마테나이; 여다야의 경우, 우지;
- 20 살라이의 경우, 카라이; 아모크의 경우, 예버;
- 21 힐기야의 경우, 하사비야; 여다야의 경우, 네스넬.
- 22 레위인들에 관해, 엘리시브, 요아다, 요하난, 야두아 시대에 가족의 수장들이 기록되었고, 또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재위 기간 동안 사제들도 기록되었다.
- 23 레위인들의 아들들, 가족의 수장들은 연대기 책에 요하난, 엘리시브의 아들 시대까지 기록되었다.
- 24 레위인들의 수장들은 하사비야, 세레비야, 카드미엘의 아들 여수아와 그들의 형제들로, 하느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에 따라, 서로 이어지는 부서마다 찬양하고 감사하였다.
- 25 마타니야, 박부키야, 오바디아, 메술람, 탈몬, 아꾸브는 문지기로서 문의 창고에서 경비를 맡았다.
- 26 이들은 여호야킴, 즉 여수아의 아들로 요사닥의 손자 시대와, 총독 느헤미야와 사제이자 서기관인 에스라 시대에 있었다.
- 27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 날, 그들은 모든 곳에서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고, 기쁨으로 봉헌식을 지키게 하였으며,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제금과 현악기와 수금을 사용하였다.
- 28 노래하는 자들의 자손들이 예루살렘 주변 평지와 네토파티 사람들의 마을에서 모여들었다.
- 29 또 벤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벳의 들에서도 왔다. 이는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을 지었기 때문이다.
- 30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였고, 백성과 문들과 성벽도 정결하게 하였다.
- 31 그 후 나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려 데리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행진할 두 큰 무리를 지정하였다.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성벽을 따라 쓰레기 문 쪽으로 갔다.
- 32 그 뒤로 호사야와 유다 지도자 절반이 함께 갔다.
- 33 아사랴와 에스라와 메술람과,
- 34 유다와 베냐민과 세마야와 예레미야와,
- 35 나팔을 든 사제들의 아들들 몇 명: 곧 요나단의 아들, 세마야의 손자, 마타니야의 증손자, 미가야의 현손자, 자꾸르의 손

자, 아사프의 아들 세가랴와,

³⁶ 그의 형제들 세마야와 아사렐과 미랄라이와 길랄라이와 마이와 네다넬과 유다와 하나니가, 하느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와 함께 갔다.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 앞에 서 있었다.

³⁷ 그들은 샘 문을 지나, 다윗의 도시의 계단을 따라, 성벽을 오르며 다윗의 집 위로, 동쪽으로 물 문에 이르렀다.

³⁸ 다른 감사의 무리는 그들을 맞이하러 가며, 나는 그 뒤를 따랐고, 백성 절반은 성벽 위의 군불 탑에서 넓은 성벽까지 따라갔다.

³⁹ 에브라임 문 위로, 옛 문을 지나, 물고기 문, 하넬의 탑, 하마야의 탑을 거쳐 양 문에 이르렀다. 그들은 경비 문에서 멈추었다.

⁴⁰ 이처럼 하느님의 집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두 무리는 서 있었고, 나는 지도자 절반과 함께 있었다.

⁴¹ 사제들 엘리아킴과 마아세야와 미니아민과 미가야와 엘레오나리와 세가랴와 하나니야가 나팔을 불었다.

⁴² 마아세야와 세마야와 엘레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예제르도 함께 있었다. 노래하는 자들은 예사라야가 감독하는 가운데 큰 소리로 노래하였다.

⁴³ 그날 그들은 큰 제물을 바치며 기뻐하였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자들과 어린 이들도 기뻐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의 기쁨이 멀리까지 들렸다.

⁴⁴ 그날에는 창고를 맡을 자들이 임명되었으니, 헌물과 첫 열매와 십일조를 모으는 자들이었으며, 이들은 법에 따라 정해진 몫을 도시의 밭에서 모아 사제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유다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섬기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⁴⁵ 그들은 하느님의 임무와 정결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하였다.

⁴⁶ 다윗과 옛적 아사프 시대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있었고, 하느님께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있었다.

⁴⁷ 제르루벨과 느헤미야 시대에 온 이스라엘은 매일 필요한 대로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몫을 주었으며,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을 따로 구별하였고, 레위인들은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는 것을 따로 구별하였다.

느헤미야기 13장

- 1 그 날 그들은 백성의 귀에 들리도록 모세의 책을 읽었는데, 그 안에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하느님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 2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빵과 물을 주지 않고, 오히려 발람을 고용하여 그들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었으나, 우리 하느님께서서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
- 3 그들이 율법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모든 혼합된 무리를 떼어냈다.
- 4 이전에 제사장 엘리아시비는 우리 하느님의 집의 방들을 맡아 관리하던 자로서, 도비아와 연관되어 있었다.
- 5 그는 도비아를 위해 큰 방을 마련했는데, 그곳에는 전에 바치던 제물과 유향과 그릇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명령에 따라 주어졌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사제들을 위한 파문 제물이 놓여 있었다.
- 6 그러나 그 모든 동안 나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바빌론 왕의 삼십이년에 나는 왕에게 갔고, 며칠 후 왕의 허락을 구하였다.
- 7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엘리아시비가 하느님의 집 안뜰에 도비아를 위해 방을 마련한 악행을 알게 되었다.
- 8 나는 심히 슬퍼하였다. 그래서 나는 도비아의 모든 가구를 그 방에서 밖으로 던져냈다.
- 9 그 후 나는 명령하여 그 방들을 정결하게 씻었고, 하느님의 집의 그릇들과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 안에 넣었다.
- 10 나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져야 할 몫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자 자신의 밭으로 도망갔음을 알았다.
- 11 그때 나는 관리들과 다투며 말하였다. "어찌하여 하느님의 집이 버려졌는가?" 나는 그들을 모아서 제자리에 세웠다.
- 12 그러자 유다 전체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창고에 가져왔다.
- 13 나는 창고 관리자들을 세웠다. 사제 셀레마야와 서기관 사독,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서 베다야를 그로 하여금 창고를 맡게 하였고, 그 옆에는 마타냐의 아들, 자꾸르의 아들 하난이 있었다. 이들은 충성스럽고, 그들의 임무는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 14 나의 하느님, 이 일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하느님의 집과 그 의식을 위해 내가 행한 선한 일들을 지우지 마소서.
- 15 그때 나는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포도즙을 짜고, 곡식을 들여오며, 나귀에 포도, 무화과와 모든 종류의 짐을 지워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음식을 팔던 그 날에 그들을 책망하였다.
- 16 또 어떤 티로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물고기와 모든 종류의 상품을 들여와 안식일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팔았다.
- 17 그때 나는 유다의 귀족들과 다투며 그들에게 말했다. "어떤 악한 일을 너희가 하는가? 안식일을 더럽히는가?"
- 18 당신들의 조상들이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느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도시에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당신들은 안식일을 더럽힘으로 이스라엘에게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19 예루살렘의 문들이 안식일 전에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나는 문들을 닫아 안식일이 지나기 전까지 열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나는 내 하인들 몇 명을 문에 세워 안식일에 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 20 그러자 상인들과 모든 종류의 상품을 파는 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한두 번이나 야영하였다.
- 21 나는 그들을 책망하며 말했다. "왜 너희는 성벽 주변에 머무는가? 만약 다시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손을 대겠다. " 그때부터 그들은 안식일에 오지 않았다.
- 22 나는 레위인들에게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와서 문을 지키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였다. 나의 하느님, 이 일로도 나를 기억해 주시고, 당신의 크신 자비를 따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 23 그때 나는 아스돗의 여자, 암몬의 여자, 모압의 여자와 결혼한 유다 사람들을 보았다.
- 24 그들의 아이들은 아스돗 말의 절반을 쓰고, 유다 사람들의 언어를 말할 수 없었으며, 각 민족의 언어로 말하였다.
- 25 나는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일부를 치고 그들의 머리카락을 뽑아 하느님을 향해 맹세하게 했다. '너는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 자신에게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 26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이 일로 죄를 지었지 않았던가? 그러나 것처럼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그와 같은 왕은 없었고, 그

는 그의 하느님께 사랑받아 하느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여자들이 그를 죄 짓게 만들었다.

²⁷ 우리가 이처럼 큰 악을 저지르며 외국 여자들과 결혼함으로써 우리 하느님을 범하려고 너희 말을 들겠는가?

²⁸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 중 한 명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나는 그를 내게서 쫓아냈다.

²⁹ 이들을 기억하소서, 내 하느님. 그들이 사제직과 레위인의 언약을 더럽혔습니다.

³⁰ 이처럼 나는 그들을 모든 외국인에게서 정결하게 하고 사제들과 레위인들에게 각자의 일에 따라 직무를 맡겼다.

³¹ 정해진 때에 나무 헌물과 첫 열매를 바치게 하였습니다. 나를 선하게 기억하소서, 내 하느님.

토빗기 | Tobit

토빗기 1장

- ¹ 토빗트의 말들에 관한 책으로, 토빗트는 토비엘의 아들, 아나니엘의 아들, 아두엘의 아들, 가바엘의 아들, 아시엘의 후손이며, 납탈리 지파의 자손이다.
- ² 그는 아시리아 왕 에네메사르 시대에, 갈릴리 아세르 위쪽에 있는 납탈리의 케데스 오른쪽에 있는 티스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
- ³ 나 토빗트는 평생 진리와 의로움의 길을 걸었으며, 나와 함께 아시리아 땅, 니네베로 끌려간 내 친척들과 내 민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
- ⁴ 내가 내 고향 이스라엘 땅에 있었고, 아직 젊었을 때, 내 아버지의 모든 납탈리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선택된 예루살렘의 집을 떠나 버렸다. 이곳은 모든 지파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선택되었고, 가장 높으신 분의 거처인 성전이 영원히 거룩하게 지어진 곳이었다.
- ⁵ 함께 떠난 모든 지파들은 바알의 수소에 제사를 드렸고, 내 아버지의 납탈리 집안도 그랬다.
- ⁶ 나만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원한 법으로 정해진 대로, 모든 축일마다 예루살렘에 자주 올라갔다. 나는 내 소득의 첫 열매와 십분의 일, 그리고 처음 깎은 것을 제단에서 아론의 아들들인 사제들에게 드렸다.
- ⁷ 나는 내 모든 소득의 십분의 일로 예루살렘에서 봉사하는 레위 자손들에게 주었고, 또 다른 십분의 일은 팔아 매년 예루살렘에서 썼다.
- ⁸ 세 번째 십분의 일은 내 아버지의 어머니인 데보라가 내게 명령한 대로, 마땅한 이들에게 주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고아가 되었기 때문이다.
- ⁹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내 가족의 혈통에서 온 애나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녀와 함께 나는 토비아스의 아버지가 되었다.
- ¹⁰ 내가 니네베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내 모든 친척과 친지들이 이방인의 빵을 먹었다.
- ¹¹ 그러나 나는 그 빵을 먹지 않았다.
- ¹² 이는 내가 온 마음으로 하느님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 ¹³ 그러므로 가장 높으신 분께서 내게 은총과 은혜를 베푸사, 에네메사르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게 하셨고, 나는 그의 구매대리인이 되었다.
- ¹⁴ 나는 메디아로 가서, 메디아의 라게스에 가브리아스의 형제인 가바엘에게 은 열 탈렌트를 맡겼다.
- ¹⁵ 에네메사르가 죽고 그의 아들 세나케립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길들이 혼란스러워져, 나는 더 이상 메디아로 갈 수 없게 되었다.
- ¹⁶ 에네메사르의 시대에, 나는 내 친척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 나는 배고픈 이들에게 내 빵을 주고, 벌거벗은 이들에게 내 옷을 주었다.
- ¹⁷ 내가 내 동족의 시체가 니네베 성벽에 버려진 것을 보면, 나는 그것을 묻어주었다.
- ¹⁸ 세나케립 왕이 유다에서 도망치는 자들을 죽일 때, 나는 그 시체들을 은밀히 묻어주었다. 그는 분노로 많은 사람을 죽였고, 왕은 시체들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 ¹⁹ 그러나 한 니네베 사람이 왕에게 나의 행위를 고발하였다. 내가 시체들을 묻고 숨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내가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알고, 두려움에 도망쳤다.
- ²⁰ 내 모든 재산은 강제로 빼앗겼고, 남은 것은 내 아내 애나와 내 아들 토비아스뿐이었다.
- ²¹ 그 후 오십오 일도 지나지 않아, 그의 두 아들이 그를 죽이고 아라랏 산으로 도망갔다. 그의 아들 에사르하돈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그는 내 형제의 아들인 아히카르를 자신의 모든 재정과 사무를 맡기는 자로 임명하였다.
- ²² 아히카르는 나를 불러 니네베로 오게 하였다. 아히카르는 잔을 드는 자이자 인장 관리자, 재정 총괄관, 감독이었고, 에사르하돈은 그를 자신 곁에 두었으나, 그는 내 형제의 아들이다.

토빗기 2장

- ¹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아내 애나가 내게 돌아왔고, 내 아들 토비아스도 함께 있었다. 오순절, 즉 일주일의 일곱 주간을 기념하는 성한 축일에, 나를 위해 좋은 식사가 차려졌고, 나는 앉아서 먹기 시작했다.
- ² 나는 풍성한 고기들을 보고 아들에게 말했다. "너는 우리 혈족 중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가난한 자를 한 명이라도 찾아서 데려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 ³ 그러자 그가 와서 말했다. "아버지, 우리 동족 중 한 사람이 목이 조여져서 시장에 버려져 있습니다."
- ⁴ 나는 아무것도 맛보기 전에 일어나 그를 방으로 옮겨 해가 지기까지 두었다.
- ⁵ 그 후 나는 몸을 씻고, 슬픔 속에서 빵을 먹었다.
- ⁶ 그리고 아모스의 예언을 떠올렸다. 그가 말하기를, "너희의 축제들은 슬픔으로, 너희의 모든 즐거움은 애곡으로 바뀔 것이다."
- ⁷ 그래서 나는 울었고, 해가 지자 나는 나가서 무덤을 파고 그를 장사했다.
- ⁸ 내 이웃들이 나를 조롱하며 말했다. "이제 그는 이 일로 죽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구나. 그런데도 그는 도망쳤다. 보아라, 그가 다시 시체를 장사하고 있다."
- ⁹ 같은 밤, 나는 장사한 후 돌아와 마당 벽 옆에서 잠들었고, 내 얼굴은 드러나 있었다.
- ¹⁰ 나는 벽에 참새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내 눈은 뜬 채였고, 참새들이 따뜻한 배설물을 내 눈에 떨어뜨렸다. 내 눈에는 흰 막이 생겼다. 나는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아히카르가 나를 먹여 살렸고, 나는 엘리마이스로 떠날 때까지 그의 돌봄을 받았다.
- ¹¹ 내 아내 애나는 여성들의 방에서 직물을 짰다.
- ¹² 그녀는 작업물을 주인들에게 돌려주었고, 주인들은 그녀에게 월급을 주었을 뿐 아니라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었다.
- ¹³ 그 염소 새끼가 내 집에 도착하자 울기 시작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 염소 새끼는 어디서 왔느냐? 도둑질한 것이냐? 주인에게 돌려줘라. 도둑질한 것은 먹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
- ¹⁴ 그러나 그녀는 말했다. "이것은 월급보다 더한 선물로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그녀를 믿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요구했고, 그녀에게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대답하여 내게 말했다. "당신의 자선과 의로운 행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아라, 당신과 당신의 모든 행위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토빗기 3장

- ¹ 나는 슬퍼하며 울고, 슬픔 속에서 기도하여 말했다,
- ²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며, 모든 당신의 행위와 모든 길은 자비와 진리이며, 당신은 영원히 진실하고 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 ³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바라보소서. 나의 죄와 무지, 그리고 나의 조상들이 당신 앞에서 범한 죄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 ⁴ 그들은 당신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노략의 대상으로, 포로로, 죽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흠어진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 ⁵ 지금 당신의 심판은 많고 진실하니, 우리 조상들과 내가 당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당신 앞에서 진리로 걸어오지 않았으므로, 나를 내 죄와 조상들의 죄에 따라 대우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 ⁶ 지금 당신의 뜻에 맞는 대로 나를 대우하소서. 내 영을 내게서 빼앗아 주소서. 내가 풀려나 흠이 되게 하소서. 나는 죽는 것이 산 것보다 더 나으니, 거짓 비난을 들었고, 내 안에 큰 슬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고통에서 나를 풀어 주시고, 영원한 곳으로 가게 하소서.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지 마소서.
- ⁷ 같은 날, 메디아의 에크바타나에서 라구엘의 딸 사라도 아버지의 여종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 ⁸ 그녀는 일곱 남편에게 주어졌으나, 악한 영 아스모데우스가 그들이 그녀와 동침하기 전에 모두 죽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녀에게 말했다. “네가 네 남편들을 질식시키는 줄을 모르느냐? 네가 이미 일곱 남편을 가졌으나, 그들 중 누구의 이름도 남기지 못했다.
- ⁹ 왜 우리는 너 때문에 꾸짖음을 받는가? 그들이 죽었으면, 그들과 함께 가라. 우리에게서 너로부터 아들이나 딸을 결코 보지 못하게 하라.
- ¹⁰ 그녀가 이 말을 듣고 매우 슬퍼하여 스스로 목을 매려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말했다. “나는 아버지의 유일한 딸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아버지에게 수치가 되고, 그의 늙은 날을 슬픔으로 무덤까지 이끌게 될 것입니다.
- ¹¹ 그러고 나서 그녀는 창문 곁에서 기도하며 말했다. “축복받으소서, 나의 하느님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존엄하신 이름이 영원히 축복받으소서! 당신의 모든 행위가 영원히 당신을 찬양하소서!
- ¹² 지금, 주님, 저는 제 눈과 제 얼굴을 당신께 향했습니다.
- ¹³ 저를 땅에서 풀어 주시고, 더 이상 비난을 듣지 않게 하소서.
- ¹⁴ 주님, 저는 남자와의 모든 죄에서 순결함을 알고 계십니다,
- ¹⁵ 제가 포로지의 땅에서 제 이름이나 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적이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일한 딸이며, 아버지에게는 그의 상속자가 될 자식도 없고, 가까운 형제도 없고, 아들도 없어, 제가 그를 위해 몸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 일곱 남편은 이미 죽었습니다. 왜 제가 살아야 합니까? 만약 당신이 저를 죽이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저를 돌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더 이상 비난을 듣지 않게 하소서.
- ¹⁶ 두 사람의 기도는 위대하신 하느님의 영광 앞에서 들리었습니다.
- ¹⁷ 라파엘도 두 사람을 치유하러 보내졌는데, 토비트의 눈에서 흰 막을 벗겨내고, 라구엘의 딸 사라를 토비아의 아내로 주며, 악한 영 아스모데우스를 결박하려 하셨다. 이는 토비아가 그녀를 상속할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바로, 토비트는 돌아와 집에 들어왔고, 라구엘의 딸 사라는 위층에서 내려왔다.

토빗기 4장

- 1 그날 토비트는 미디아의 라게스에 가바엘에게 맡겨둔 돈을 떠올렸다.
- 2 그는 스스로 말했다. "나는 죽음을 간구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아들 타비아스를 불러서 그 돈에 대해 설명해야 하지 않겠는가?"
- 3 그리고 그를 불러 말했다. "내 아들이야, 내가 죽으면 나를 장사지내라. 네 어머니를 경멸하지 말라. 네 평생 동안 그녀를 공경하고, 그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며, 그녀를 슬프게 하지 말라."
- 4 내 아들이야, 기억하라. 네가 그녀의 태속에 있을 때, 그녀는 네 때문에 많은 위험을 겪었다. 그녀가 죽으면, 나와 함께 한 무덤에 장사지내라.
- 5 내 아들이야, 네 평생 동안 우리 하느님 주님을 기억하고,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나 그분의 계명을 어기려는 마음을 품지 말라. 네 평생 동안 의로움을 실천하고, 불의의 길을 따르지 말라.
- 6 너는 진실한 일을 하면, 네 행위가 너와 의로움을 실천하는 모든 이에게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다.
- 7 네 소유에서 자선을 베풀라. 자선을 베풀 때, 네 눈을 시기하게 하지 말라. 어떤 가난한 자의 얼굴도 돌리지 말라. 그러면 하느님의 얼굴도 너에게서 돌리지 않을 것이다.
- 8 네 소유가 얼마나 되든, 그에 따라 네 풍요에 맞춰 자선을 베풀라. 네가 적게 가졌더라도, 그 적은 것으로 자선을 베풀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 9 너는 필요할 날을 위해 스스로를 위한 좋은 보물을 쌓는 것이다.
- 10 자선은 죽음에서 구원하고, 어둠에 들어가지 않게 해준다.
- 11 자선은 모든 베푸는 이 앞에서 가장 높으신 분의 눈에 좋은 선물이다.
- 12 내 아들이야, 모든 음행을 경계하고, 먼저 네 조상의 혈통에서 아내를 택하라. 네 조상의 지파가 아닌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라. 우리는 예언자들의 후손이다. 내 아들이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옛 조상들이 모두 자기 혈족에서 아내를 맞이했고, 그들의 자손에게 복을 받았으며, 그들의 후손이 땅을 계승할 것임을 기억하라.
- 13 이제 내 아들이야, 네 친족을 사랑하고, 네 친족과 네 백성의 아들과 딸들을 마음속으로 경멸하지 말라. 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 경멸은 파멸과 큰 고통을 가져오고, 게으름은 쇠퇴와 큰 결핍을 가져오며, 게으름은 기근의 어머니이다.
- 14 네게 일하는 모든 이의 임금을 네게 머물게 하지 말고, 즉시 그에게 주라. 네가 하느님을 섬기면, 네가 보상을 받을 것이다. 내 아들이야, 네 모든 행위에 신중하고, 모든 행동에 지혜롭게 행동하라.
- 15 네가 스스로 싫어하는 일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취하게 술을 마시지 말고, 취함을 네 길에 동반하지 말라.
- 16 주린 자에게는 네 빵을, 벌거벗은 자에게는 네 옷을 베풀라. 네 풍요의 전부에서 자선을 베풀라. 자선을 베풀 때, 네 눈을 시기하게 하지 말라.
- 17 의로운 자의 장례에 네 빵을 쏟아부어라. 죄인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
- 18 모든 지혜로운 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유익한 조언을 경멸하지 말라.
- 19 항상 너의 하느님 주님을 찬미하고, 네 길이 곧아지며, 네 모든 길과 계획이 번영하게 해달라고 그분께 구하라. 모든 민족은 자기 나람의 계획이 없으나, 주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며, 원하시는 대로 낮추신다. 이제 내 아들이야, 내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이 네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라.
- 20 이제 내가 미디아의 라게스에 가바엘의 아들 가브리야스에게 맡겨둔 은 열 탈렌트에 대해 너에게 설명한다.
- 21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이야. 우리가 가난해졌다고 해도, 네가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 그분의 눈에 기쁨이 되는 일을 하면, 네게는 풍부한 재산이 있다.

토빗기 5장

- 1 그러자 토비아스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 당신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 2 그러나 저는 그를 모르는데,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 3 그는 그에게 서류를 주며 말했다. "너와 함께 갈 사람을 찾아라. 내가 살아 있는 동안 그에게 보수를 주겠다. 가서 돈을 받아라."
- 4 그는 함께 갈 사람을 찾으러 나가서 라파엘을 만났는데, 그는 천사였다.
- 5 그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가 그에게 말했다. "나와 메디아의 라게스로 가줄 수 있습니까? 그곳을 잘 아십니까?"
- 6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나도 함께 갈 것이다. 길을 잘 알고 있다. 우리 형제 가바엘의 집에 묵었던 적이 있다."
- 7 토비아스가 그에게 말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 8 그가 말했다. "가라. 기다리지 마라." 그는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와 함께 갈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 그리고 너와 함께 갈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알아보자."
- 9 그래서 그는 그를 불러들였고, 그는 들어와 서로 인사했다.
- 10 토비트가 그에게 말했다. "형제여, 어느 지파 출신이며, 어떤 가문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 11 그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지파와 가문을 찾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아들과 함께 갈 고용인을 찾는 것입니까?" 토비트가 그에게 말했다. "형제여, 당신의 혈통과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 12 그가 말했다. "저는 아나니아의 아들 아자리아입니다. 당신의 혈족입니다."
- 13 그가 그에게 말했다. "환영합니다, 형제여. 당신의 지파와 가문을 묻는 것 때문에 나를 화내지 마십시오. 당신은 저와 같은 정직하고 선한 혈통의 형제입니다. 저는 세마야의 아들 아나니아와 야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드리며 처음 난 것과 수확의 십분의 일을 바칠 때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우리 혈족의 잘못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큰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 14 그러나 말해보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얼마의 보수를 주어야 합니까? 하루에 드라크마 하나와 제 아들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 15 게다가, 만약 두 분이 모두 무사히 돌아온다면, 제가 보수에 더해 드리겠습니다.
- 16 그러므로 그들은 합의했다. 그가 토비아스에게 말했다. "여행을 준비하라. 하느님이 너를 복되게 하시기를." 그래서 그의 아들은 여행에 필요한 것을 준비했고,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말했다. "이 사람과 함께 가라.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너의 여정을 복되게 하시리라. 그의 천사가 너와 함께하기를." 그 둘은 떠났고, 젊은이의 개도 그들과 함께 갔다.
- 17 그러나 그의 어머니 애나는 울며 토비트에게 말했다. "왜 당신은 우리 아이를 보냈습니까? 그는 우리 손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앞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 18 돈을 더 많이 모으려는 탐욕을 버리십시오. 우리 아이보다 돈이 더 귀한 것이 아닙니다.
- 19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필요는 충분합니다.
- 20 토비트가 그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자매여. 그는 무사히 돌아올 것이고, 네 눈으로 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21 좋은 천사가 그와 함께 갈 것이다. 그의 여정은 복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는 무사히 돌아올 것이다.
- 22 그러자 그녀는 울음을 그쳤다.

토빗기 6장

- ¹ 그들이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저녁에 티그리스 강에 이르러 그곳에서 묵었다.
- ² 그러나 젊은이가 몸을 씻으려 강가로 내려가자, 물고기 하나가 강에서 뛰어올라 그 젊은이를 삼키려 했다.
- ³ 그러나 천사는 그에게 말했다. "그 물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젊은이가 물고기를 잡아 육지로 끌어올렸다.
- ⁴ 천사는 그에게 말했다. "그 물고기를 갈라서 심장과 간과 담즙을 가져다가 너와 함께 보관해라."
- ⁵ 젊은이는 천사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하였으나, 그들은 물고기를 구워 먹었다. 그 둘은 에크바타나에 가까이 다다를 때까지 여정을 계속했다.
- ⁶ 젊은이가 천사에게 말했다. "아자리아 형제, 이 물고기의 심장과 간과 담즙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 ⁷ 그가 그에게 말했다. "심장과 간에 관해 말하자면, 만일 악령이나 악한 영이 어떤 사람을 괴롭힌다면, 우리는 그것을 태워 그 남자나 여자 앞에 연기를 피워야 한다. 그러면 그 고통이 도망칠 것이다."
- ⁸ 그러나 담즙은 눈에 흰 막이 생긴 사람을 바르기에 좋다. 그러면 그는 낫게 될 것이다.
- ⁹ 그들이 라게스에 가까이 다다르자,
- ¹⁰ 천사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형제야, 오늘 우리는 라구엘과 함께 묵을 것이다. 그는 네 친척이다. 그에게 사라라는 딸이 있는데, 내가 그녀에 관해 말하여 그녀를 네 아내로 주게 하겠다."
- ¹¹ 그녀의 유산은 네 것이며, 너만이 그녀의 친족이다.
- ¹² 그녀는 아름답고 지혜롭다.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말하겠다. 라게스에서 돌아오면 우리는 혼인을 축하할 것이다. 나는 라구엘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다른 이에게 시집보낼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유산을 상속할 자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너이기 때문이다.
- ¹³ 그러나 젊은이가 천사에게 말했다. "아자리아 형제, 나는 이 소녀가 일곱 남자에게 시집갔고, 그들 모두 신방에서 죽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 ¹⁴ "지금 나는 아버지의 외아들입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저 앞선 이들처럼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 악령이 그녀를 사랑하는데, 그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오직 그녀에게 오는 자들을 해칩니다. 지금 나는 내가 죽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명을 나로 인해 슬픔 속에 무덤으로 끌고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나 외에 다른 아들이 없어서 그들을 장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 ¹⁵ 그러나 천사는 그에게 말했다. "네 아버지가 네게 명령한 말, 곧 네 종족의 여자와 결혼하라는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내 말을 들어라, 형제야. 그녀가 네 아내가 될 것이다. 악령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밤에 그녀가 네 아내로 주어질 것이다."
- ¹⁶ 네가 신방에 들어가면, 향의 재를 가져다가 그 위에 물고기의 심장과 간 일부를 놓고 연기를 피워라.
- ¹⁷ 악령은 그 냄새를 맡고 도망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에게 가까이 갈 때, 너희 둘은 일어나 자비로 우신 하느님께 부르짖어라.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는 한처음에 네게 준비된 자이다. 너는 그녀를 구원할 것이고, 그녀는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그녀와 아이들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비아가 이 말을 듣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의 영혼이 그녀와 강하게 결합되었다.

토빗기 7장

- ¹ 그들은 에크바타나에 도착하여 라구엘의 집에 이르렀다. 그런데 사라가 그들을 만나 인사했고, 그들도 그녀에게 인사했다. 그녀는 그들을 집 안으로 데려갔다.
- ² 라구엘은 아내 에드나에게 말했다. "이 젊은이가 정말 내 사촌 토비트와 닮았구나!"
- ³ 그는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친척들아?"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니네베에서 포로로 잡힌 납탈리의 자손입니다."
- ⁴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 형제 토비트를 아느냐?"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그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다. "그는 건강하냐?"
- ⁵ 그들이 말했다. "그는 살아 있고 건강합니다." 토비아스가 말했다. "그는 제 아버지입니다."
- ⁶ 라구엘은 일어나 그를 안고 울며,
- ⁷ 그를 축복하며 말했다. "너는 정직하고 선한 사람의 아들이다." 토비트가 눈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슬퍼하며 울었고,
- ⁸ 그의 아내 에드나와 딸 사라도 울었다. 그들은 그들을 기쁘게 맞이하여 양 떼에서 수양을 잡아 음식을 대접했다. 그러나 토비아스가 라파엘에게 말했다. "아자리아 형제여, 길에서 말했던 일을 지금 말해 주십시오. 이 일을 마무리합시다."
- ⁹ 그래서 그는 그 일을 라구엘에게 전했다. 라구엘은 토비아스에게 말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 ¹⁰ 너는 내 딸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겠다.
- ¹¹ 나는 내 딸을 우리 친척 일곱 명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그녀에게 들어가면 모두 밤에 죽었다. 그러나 지금은 즐거워하라. " 토비아스가 말했다. "여기서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동의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 ¹² 라구엘이 말했다. "이제부터 관습에 따라 그녀를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 너는 그녀의 친척이고, 그녀는 너의 것이다. 자비로운 하느님이 너에게 모든 좋은 성공을 주실 것이다."
- ¹³ 그는 딸 사라를 불러 손을 잡고 토비아스의 아내로 주며 말했다. "보아라,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너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를 네 아버지에게 데려가라." 그리고 그는 그들을 축복했다.
- ¹⁴ 그는 아내 에드나를 불러 책을 가져와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다.
- ¹⁵ 그리고 그들은 식사를 시작했다.
- ¹⁶ 라구엘은 아내 에드나를 불러 그녀에게 말했다. "자매여, 다른 침실을 준비하고 그녀를 거기로 데려가라."
- ¹⁷ 그녀는 그가 시킨 대로 하여 그녀를 거기로 데려갔다. 그녀는 울었고, 딸의 눈물을 받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 ¹⁸ "자식아, 위로를 받으라. 하늘과 땅의 주님께서 이 슬픔을 인해 너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시기를 바란다. 위로를 받으라, 내 딸아."

토빗기 8장

- 1 그들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토비아스를 그녀에게 데려왔다.
- 2 그가 가는 도중 라파엘의 말을 떠올리며 향의 재를 가져다가 물고기의 심장과 간을 그 위에 올려놓고 연기를 냈다.
- 3 악령이 그 냄새를 맡고 이집트의 가장 높은 곳으로 도망쳤으며, 천사는 그를 결박했다.
- 4 그러나 둘이 함께 방에 갇힌 후, 토비아스는 침대에서 일어나 말했다. "자매여,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기도합시다."
- 5 그리고 토비아스가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당신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은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하늘과 모든 피조물이 당신을 찬미하게 하소서."
- 6 당신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도움이자 지지자가 되도록 이브를 아내로 주셨습니다. 그들로부터 인류의 씨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와 같은 도움을 주는 이를 만들자."
- 7 이제, 주님, 저는 이 자매를 육욕으로 취하지 않고 진정으로 취합니다. 저로 하여금 그녀와 함께 자비를 얻고 늙게 하소서.
- 8 그녀도 그와 함께 말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그 밤 모두 잠들었다.
- 9 라구엘은 일어나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 10 그가 말했다. "그도 죽을지도 모른다."
- 11 라구엘은 집으로 들어가,
- 12 아내 에드나에게 말했다. "하녀 한 명을 보내어 그가 살아 있는지 보게 하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를 장사할 것이며,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 13 그러므로 하녀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둘 다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 14 나와서 그가 살아 있다고 알렸다.
- 15 그러자 라구엘은 하느님을 찬미하며 말했다. "당신은 모든 순결하고 거룩한 축복으로 찬미받으소서! 당신의 성인들이 당신을 찬미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당신을 찬미하게 하소서! 당신의 모든 천사들과 당신의 택한 자들이 영원히 당신을 찬미하게 하소서!"
- 16 당신은 저를 기쁘게 하셨으니, 찬미받으소서. 제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당신은 당신의 큰 자비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 17 당신은 부모의 외아들인 두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찬미받으소서. 주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건강과 기쁨과 자비로 충만하게 하소서.
- 18 그는 하인들에게 무덤을 메우라고 명령했다.
- 19 그는 그들에게 결혼 잔치를 열네 날 동안 베풀었다.
- 20 결혼 잔치의 날들이 끝나기 전에, 라구엘은 그에게 잔치 열네 날이 끝날 때까지 떠나지 말 것을 맹세하고,
- 21 그 후에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며, 나머지는 내가 아내와 함께 죽을 때 주겠다고 말했다.

토빗기 9장

- ¹ 또 토비아스가 라파엘을 불러서 말했다.
- ² "형제 아자리아야, 하인 한 명과 낙타 두 마리를 데리고 메디아의 라게스로 가서 가바엘을 찾아 내 돈을 받아오고, 그를 혼인 잔치에 데려와라.
- ³ 라구엘은 내가 떠나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 ⁴ 내 아버지는 날 세고 계신다. 내가 오래 기다리면 그분은 매우 슬퍼하실 것이다."
- ⁵ 그러자 라파엘은 길을 떠나 가바엘과 함께 묵었고, 서신을 건네주었다. 그러자 가바엘은 봉인된 가방들을 꺼내 그에게 주었다.
- ⁶ 그리고 그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혼인 잔치에 도착했다. 토비아스는 아내에게 축복을 내렸다.

토빗기 10장

- ¹ 토빗은 아버지가 매일 날을 세었다. 여행의 날들이 지나고도 그들이 오지 않으니,
- ² 그는 말했다. "그가 어쩌면 길에서 갇혔는가? 아니면 가바엘이 죽었는가? 그래서 그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없는가?"
- ³ 그는 매우 슬퍼했다.
- ⁴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아이가 죽었소. 오래 기다리고 있으니." 그녀는 그를 애도하기 시작하며 말했다,
- ⁵ "내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소, 내 아이여. 내가 네 눈의 빛을 보내주었으니."
- ⁶ 토빗이 그녀에게 말했다. "침묵하라. 걱정하지 마라. 그는 건강하니."
- ⁷ 그러나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침묵하라. 나를 속이지 마라. 내 아이가 죽었소." 그녀는 매일 그들이 간 길로 나가서 낮에는 빵도 먹지 않고, 아들 토비아스를 위해 온 밤을 애도하며 울었으니, 라구엘이 그가 거기서 보내기로 맹세한 열네 날의 혼인 잔치 기간이 지날 때까지였다. 그때 토비아스가 라구엘에게 말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더 이상 나를 보려 하지 않으십니다."
- ⁸ 그러나 장인은 그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머무르라. 내가 네 아버지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이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 ⁹ 토비아스가 말했다. "아니오. 나를 내 아버지에게 보내주소서."
- ¹⁰ 라구엘이 일어나 그의 딸 사라를 아내로 주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과 하인들과 가축과 돈을 주었으며,
- ¹¹ 그는 그들을 축복하며 보내며 말했다. "하늘의 하느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너희를 복되게 하시기를, 내 자녀들아."
- ¹² 그는 딸에게 말했다. "장인과 장모를 공경하라. 그들이 이제 너희 부모이니라. 너희에 대한 좋은 소식을 내게 들려주어라." 그리고 그는 그녀를 입맞추었다. 에드나가 토비아스에게 말했다. "하늘의 주님께서 당신을 회복하시고, 내가 당신의 딸 사라의 자녀들을 보게 하시어, 주님 앞에서 기뻐하게 해 주시기를. 보소서, 내가 내 딸을 당신에게 특별한 신뢰로 맡깁니다. 그녀를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토빗기 11장

- ¹ 이 일들 후에 토비아스도 길을 떠나, 여정이 잘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느님을 찬양하였고, 라구엘과 그의 아내 에드나를 축복하였다. 그 후 그들은 니네베에 가까이 다가갈 때까지 길을 계속하였다.
- ² 라파엘은 토비아스에게 말했다. "형제야, 네가 아버지를 어떻게 떠났는지 모르느냐?"
- ³ 아내보다 먼저 앞서 가서 집을 준비하자.
- ⁴ 그러나 물고기의 담즙을 손에 쥐어라." 그래서 그들은 길을 떠났고, 개도 그 뒤를 따랐다.
- ⁵ 안나는 아들을 기다리며 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 ⁶ 그녀는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아들이 당신과 함께 갔던 그 사람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 ⁷ 라파엘은 말했다. "토비아스야, 내가 네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될 것을 안다."
- ⁸ 그러므로 그의 눈에 담즙을 바르면, 그것에 자극을 받아 그가 눈을 비비면, 흰 막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는 너를 볼 것이다."
- ⁹ 안나는 달려가 아들의 목에 안기며 말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 아들아!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둘 다 울었다.
- ¹⁰ 토빗은 문 쪽으로 가다가 걸음이 허물어졌으나, 그의 아들이 달려가서
- ¹¹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의 눈에 담즙을 바르며 말했다. "기뻐하십시오, 아버지."
- ¹² 그의 눈이 아프기 시작하자, 그는 눈을 비볐다.
- ¹³ 그러자 눈의 모서리에서 하얀 막이 벗겨졌고, 그는 아들을 보고 그의 목에 안겼다.
- ¹⁴ 그는 울며 말했다. "주님, 당신은 복되시며,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복되소이다! 당신의 모든 성스러운 천사들이 복되소이다!"
- ¹⁵ 당신은 나를 벌하셨지만,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제 아들 토비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기뻐하며 안으로 들어가, 메디아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큰 일들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 ¹⁶ 토빗은 니네베 성문에서 며느리를 맞이하러 나가며 기뻐하고 하느님을 찬미했다. 그를 본 사람들은 그가 시력을 회복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 ¹⁷ 토빗은 그들 앞에서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을 감사했다. 토빗이 며느리 사라에게 다가가 그녀를 축복하며 말했다. "환영합니다, 딸아! 당신을 우리에게 이끄신 하느님은 복되시며,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복되소이다." 그리고 니네베에 있던 그의 모든 친척들 사이에 기쁨이 넘쳤다.
- ¹⁸ 아히카르와 그의 형제의 아들 나스바스가 왔다.
- ¹⁹ 토비아의 혼인 잔치는 큰 기쁨으로 일곱 날 동안 열렸다.

토빗기 12장

- 1 또 토빗트가 아들 토비아스를 불러서 말했다. "보아라, 내 아들이야, 너와 함께 갔던 그 사람에게 그가 받을 보수를 주어라. 너는 그에게 더 주어야 한다."
- 2 그가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가져온 것의 절반을 그에게 주는 것이 저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 3 그는 저를 안전하게 데려다주었고, 제 아내를 고쳐주었으며, 제 돈을 가져왔고, 또한 아버지를 고쳐주셨습니다."
- 4 늙은이가 말했다. "그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
- 5 그가 천사를 불러서 말했다. "당신이 가져온 모든 것의 절반을 받아라."
- 6 그리고 그가 둘을 따로 불러서 말했다.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며, 그분을 높이고, 살아 있는 모든 이 앞에서 그분께 감사드리라. 너희에게 행하신 그분의 일을 위하여.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좋고, 하느님의 행적을 존엄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다. 그분께 감사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 7 왕의 비밀을 숨기는 것이 좋지만, 하느님의 행적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좋다.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악이 너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 8 기도와 금식과 자선과 의로움이 좋다. 의로움과 함께하는 적은 것이 불의와 함께하는 많은 것보다 낫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금을 쌓는 것보다 낫다."
- 9 자선은 죽음에서 구원하고, 모든 죄를 씻어낸다. 자선을 베풀고 의로움을 실천하는 자들은 생명으로 가득 찰 것이다."
- 10 그러나 죄를 지은 자들은 자기 생명의 원수가 된다."
- 11 내가 너희에게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가 말했다. "왕의 비밀을 숨기는 것이 좋지만, 하느님의 행적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좋다."
- 12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와, 너희 며느리 사라가 기도할 때, 나는 너희 기도의 기억을 거룩한 이 앞에 가져왔다. 너희가 죽은 자를 장사지낼 때, 나도 너희와 함께 있었다."
- 13 너희가 식사를 멈추지 않고 일어나서, 죽은 자를 덮으러 가기 위해 떠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너희의 선한 행위는 내게 숨겨지지 않았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었다."
- 14 지금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희와 너희 며느리 사라를 고치게 하셨다."
- 15 나는 라파엘이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느님 앞에 바치고 거룩한 이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일곱 거룩한 천사 중 하나이다."
- 16 그러자 둘 모두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었다."
- 17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모두가 평화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 18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너희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영원히 찬미하여라."
- 19 이제까지 나는 너희 앞에 나타났다.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지만, 너희 모두는 환상을 보았다."
- 20 이제 하느님께 감사하여라.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올라간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책에 기록하여라."
- 21 그러자 그들은 일어나서,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했다."
- 22 그들은 하느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행적과,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일을 고백했다.

토빗기 13장

- ¹ 토비아는 기쁨의 기도를 썼다. 그는 말했다. "영원히 사시는 하느님을 찬미하라! 그분의 왕국을 찬미하라!"
- ² 그분은 징벌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 그분은 스무레로 내려가시고 다시 끌어올리신다. 누구도 그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 ³ 이스라엘 자손들아, 모든 이방인 앞에서 그분께 감사하라. 그분이 너희를 그들 가운데 흠으셨기 때문이다.
- ⁴ 거기서 그분의 위대함을 선포하라. 모든 살아 있는 자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은 우리 주님이시며, 하느님은 영원히 우리 아버지이시다.
- ⁵ 그분은 너희의 죄악으로 너희를 징벌하시고 다시 자비를 베푸시며, 너희가 흠어진 모든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으실 것이다.
- ⁶ 너희가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그분께 돌아가 그분 앞에서 진리를 행한다면, 그분도 너희에게 돌아오셔서 얼굴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실지 보라. 온 입으로 그분께 감사하라. 의로움의 주님을 찬미하라. 영원한 왕을 높이 올리라. 나는 나의 포로 생활의 땅에서 그분께 감사하며 죄인의 나라에 그분의 힘과 위엄을 드러낸다. 죄인들아, 돌아서서 그분 앞에서 의로움을 행하라. 그분이 너희를 받아들이시고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실지 누가 알겠느냐?
- ⁷ 나는 내 하느님을 높이 올린다. 내 영혼은 하늘의 왕을 높이 올리며 그분의 위대함으로 기뻐한다.
- ⁸ 모든 사람이 말하고 예루살렘에서 그분께 감사하라.
- ⁹ 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아, 그분은 네 아들들의 행위로 너를 징벌하시고 의로운 자들의 아들들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 ¹⁰ 선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영원한 왕을 찬미하라. 그분의 장막이 너 안에 다시 기쁨으로 세워지며, 그분이 너 안에서 포로들을 기쁘게 하고, 너 안에서 비참한 자들을 영원히 사랑하게 하도록.
- ¹¹ 많은 민족들이 멀리서 주 하느님의 이름을 위하여 손에 예물을 들고 올 것이며, 하늘의 왕께 예물을 바칠 것이다. 수많은 세대가 너를 찬양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 ¹²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 ¹³ 의로운 자들의 아들들아,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그들은 모여서 의로움의 주님을 찬미할 것이다.
- ¹⁴ 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너의 평화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너의 모든 징벌을 위해 슬퍼했던 모든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너의 모든 영광을 보고 너를 위해 기뻐할 것이며,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 ¹⁵ 내 영혼이 위대한 왕 하느님을 찬미하리라.
- ¹⁶ 예루살렘은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귀한 보석으로 지어질 것이며, 네 성벽과 탑과 성벽의 토대는 순금으로 될 것이다.
- ¹⁷ 예루살렘의 거리는 베릴과 카르복넬과 오피르의 돌로 포장될 것이다.
- ¹⁸ 그녀의 모든 거리가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찬양하며 말하리라. "영원히 너를 높이신 하느님을 찬미하라!"

토빗기 14장

- ¹ 그리고 토비는 감사의 기도를 마쳤다.
- ² 그는 오십팔 세에 시력을 잃었다. 여덟 해 후에 다시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는 구제를 베풀었고, 주 하느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그에게 감사하였다.
- ³ 그는 매우 늙었고, 아들과 아들의 여섯 아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내 아들이야, 네 아들들을 데리고 가라. 보라, 나는 늙었고, 이 생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 ⁴ 내 아들이야, 메디아로 가라. 나는 예언자 요나가 니네베에 관해 말한 모든 일을 확신한다. 그 도시는 무너질 것이지만, 메디아에는 잠시 동안 평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혈족은 좋은 땅에서 땅 끝까지 흩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질 것이고, 그 안에 있는 하느님의 집은 불태워져 잠시 동안 황폐해질 것이다.
- ⁵ 하느님은 다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들을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그들은 집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 집은 이전의 집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시대의 때가 채워질 때까지 그러할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은 포로 생활의 장소에서 돌아와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다. 하느님의 집은 예언자들이 그것에 관해 말한 대로, 영원히 영광스러운 건물로 세워질 것이다.
- ⁶ 모든 민족은 참으로 주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우상을 묻을 것이다.
- ⁷ 모든 민족은 주를 찬미할 것이고, 그의 백성은 하느님께 감사할 것이며, 주는 그의 백성을 높이실 것이다. 진실과 의로움으로 주 하느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는 기뻐하며 우리 혈족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 ⁸ 이제 내 아들이야, 니네베에서 떠나라. 예언자 요나가 말한 그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 ⁹ 너는 율법과 규정을 지키고, 자비롭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 네가 잘되게 하라.
- ¹⁰ 나를 제대로 장사지내고, 어머니도 나와 함께 묻어라. 니네베에 머무르지 마라. 보아라, 내 아들이야, 아만이 아히카르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히카르를 빛에서 어둠으로 끌어내고, 그가 그에게 베푼 모든 보응을. 아히카르는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자는 그 보응을 받고 어둠으로 내려갔다. 마나세는 자선을 베풀었고, 자신이 놓은 죽음의 덫에서 벗어났으나, 아만은 그 덫에 빠져 멸망하였다.
- ¹¹ 이제 내 아들들아, 자선이 무엇을 하는지, 의로움이 어떻게 구원을 가져오는지 생각하여라.
- ¹² 안나가 죽었을 때, 그는 그녀를 아버지 곁에 묻었다. 그러나 토비아스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에크바타나로 떠나, 장인인 라구엘에게로 갔다.
- ¹³ 그는 존경받으며 늙었고, 장인과 장모를 화려히게 장사지내었으며, 그들의 재산과 아버지 토비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 ¹⁴ 그는 메디아의 에크바타나에서 백이십칠 세의 나이로 죽었다.
- ¹⁵ 그가 죽기 전에, 느부카드네자르와 아하수에로가 니네베를 점령하여 파괴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죽기 전에 니네베의 멸망을 기뻐하였다.

유딧기 | Judith

유딧기 1장

- ¹ 네부카드네자르가 아시리아의 큰 도시 니네베에서 통치한 열두 번째 해, 에바타나에서 메디아를 통치하던 아르파크삿의 시대에,
- ² 에바타나 주변에 넓이 세 큐빗, 길이 여섯 큐빗인 다듬은 돌로 성벽을 쌓고, 성벽의 높이를 칠십 큐빗, 폭을 오십 큐빗으로 만들었으며,
- ³ 성문 위에 탑을 세워 높이를 백 큐빗으로 하고, 기초의 폭을 육십 큐빗으로 하였으며,
- ⁴ 문을 일곱십 큐빗 높이로 만들고, 그 폭을 사십 큐빗으로 하여, 그의 강대한 군대가 나갈 수 있게 하고, 그의 보병을 배열할 수 있게 하였다.
- ⁵ 그때에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큰 평야에서 아르파크삿 왕과 전쟁을 벌였다. 이 평야는 라가우 경계에 있다.
- ⁶ 그에게 맞서 나온 이들은 산지에 사는 모든 자들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히다스페 강가에 사는 모든 자들과, 엘레마이 안의 왕 아리오크의 평야에 사는 모든 자들이었다. 켈롯의 아들들 중 많은 민족들이 전투에 모였다.
- ⁷ 네부카드네자르 아시리아 왕은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과, 서쪽에 사는 모든 자들과, 킬리키아에 사는 자들과, 다마스쿠스, 레바논, 아닐리바누스에 사는 모든 자들과, 해안가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보냈다.
- ⁸ 카멜과 길르앗에 사는 민족들과, 더 높은 갈릴리와 에스드라엘론의 큰 평야에 사는 자들에게도 보냈다.
- ⁹ 사마리아와 그 도시들에 있는 모든 이들과, 요르단 강 너머 예루살렘, 베타네, 켈루스, 카데스, 이집트 강, 타프네스, 라메세스, 그리고 고센 땅 전체에 이르기까지,
- ¹⁰ 타니스와 멤피스까지, 그리고 이집트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에티오피아 경계에 이르기까지,
- ¹¹ 그 땅 전체에 사는 모든 자들이 아시리아 왕 느부카드네자르의 명령을 경시하고,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는 그들 앞에서 단지 한 사람에 불과했다. 그들은 그의 사자들을 무시하며 수치스럽게 쫓아냈다.
- ¹² 느부카드네자르는 이 모든 땅에 대해 심히 분노하여, 자기 왕좌와 왕국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그는 실릴리아,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모든 해안지대에 보복할 것이며, 모압 땅의 모든 주민들과 암몬 자손들과 유다 땅 전체, 그리고 이집트에 사는 모든 자들을 칼로 죽일 것이라고, 두 바다 경계에 이르기까지 말하였다.
- ¹³ 그는 제십칠 년에 자신의 군대를 배열하여 아르파크삿 왕과 싸웠고, 전투에서 승리하여 아르파크삿의 모든 군대와 그의 모든 말과 병거들을 몰아냈다.
- ¹⁴ 그는 그의 도시들을 점령하였다. 에크바타나에 이르러 탑들을 장악하고, 거리들을 약탈하며, 그 도시의 아름다움을 수치로 바꾸었다.
- ¹⁵ 그는 라가우 산에서 아르파크삿을 사로잡아, 화살로 그를 관통하여 오늘날까지 완전히 멸망시켰다.
- ¹⁶ 그는 그와 함께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이끌고 니네베로 돌아왔다. 그는 매우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백이십 일 동안 자신과 군대와 함께 편안히 쉬며 잔치를 베풀었다.

유딧기 2장

- 1 아시리아 왕 느부카드네자르의 열여덟 번째 해, 첫째 달 이십이일에, 느부카드네자르가 모든 땅을 보복하려 한다는 소문이 그의 궁중에 퍼졌다. 그가 말한 대로였다.
- 2 그는 모든 신하들과 모든 큰 신하들을 불러모아 그들에게 자신의 비밀 계획을 밝히고, 직접 입으로 모든 땅의 악행을 말하였다.
- 3 그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따르지 않는 모든 육체를 파괴하기로 결정하였다.
- 4 그가 자신의 계획을 마친 후, 아시리아 왕 느부카드네자르는 자기 다음으로 위대한 군대 총사령관 호로페네스를 불러서 말하였다.
- 5 "모든 땅의 주인이신 위대한 왕이 말한다. 보라, 너는 내 앞에서 나가서,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들을 데리고, 보병 십이만 명과 기마병 만 이천 명을 이끌어라."
- 6 너는 내가 입으로 명령한 것을 거역한 서쪽 땅 전체를 향해 나아가라.
- 7 너는 그들에게 땅과 물을 준비하라고 선포하여라. 내가 분노로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내 군대의 발로 땅의 온 표면을 덮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군대가 그들을 약탈할 것이다.
- 8 그들의 시체가 골짜기와 시내를 가득 채우고, 강은 그들의 시체로 넘쳐 흐를 것이다.
- 9 나는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끝까지 이끌어갈 것이다.
- 10 그러나 너는 먼저 그들의 모든 해안을 내 앞에 차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항복한다면, 그들을 내 앞에 보존하여, 그들이 책망을 받는 날까지 지켜라.
- 11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네 눈이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네 땅 전체에서 그들을 죽이고 약탈하게 하라.
- 12 내가 살아 있고, 내 왕국의 권능으로 말하노니, 내가 말한 것을 내 손으로 반드시 이루겠다.
- 13 너는 네 주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반드시 다 이루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수행하는 것을 미루지 말라.
- 14 그러므로 호로페네스는 주인의 앞에서 나와 아시리아의 군대의 모든 총독들과 장관들과 사령관들을 불러모았다.
- 15 그는 주인이 그에게 명령한 대로, 전투에 쓸 선발 병사들을 십이만 명과 기마 궁수 만 이천 명으로 선정하였다.
- 16 그는 그들을 대군이 전쟁을 위해 배열되는 대로 정렬하였다.
- 17 그는 짐을 나르기 위해 낙타와 당나귀와 노새를 가져왔고, 그 수가 매우 많았으며, 양과 소와 염소를 수없이 많이 준비하여 군대의 식량으로 삼았다.
- 18 그리고 모든 병사들을 위한 풍부한 식량과 왕궁에서 가져온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준비하였다.
- 19 그는 자기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출발하여, 느부카드네자르 왕 앞에 나아가고, 병거와 기마병과 선발 보병으로 서쪽 땅의 온 표면을 덮으려 하였다.
- 20 많은 민족들의 큰 무리가 그들과 함께 나와 메뚜기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었다.
- 21 그들은 니네베에서 삼 일 길을 떠나 베헤레스 평야로 나아가, 베헤레스 근처, 상실리시아 왼쪽 산기슭에 진을 쳤다.
- 22 그는 자기 모든 군대, 보병과 기마병과 병거를 이끌고 그곳을 떠나 산지로 나아갔다.
- 23 그는 푸트와 루드를 멸망시키고, 셀리안 땅 남쪽 사막을 따라 살던 라세스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모두 약탈하였다.
- 24 그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메소포타미아를 지나, 아르보나이 강변의 모든 높은 성들을 무너뜨리며 바다에 이르기까지 나아갔다.
- 25 그는 기릴리키아의 경계를 장악하고, 저항하는 자들을 모두 죽인 후, 남쪽으로 이어진 야벳의 경계에 이르렀다.
- 26 그는 미디안의 모든 자손을 둘러싸고 그들의 천막에 불을 지르며 양무리를 약탈하였다.
- 27 그는 밀 수확 시기에 다마스쿠스 평야로 내려가, 그들의 모든 밭에 불을 지르고, 가축과 양떼를 완전히 파괴하며, 도시를 약탈하고, 평야를 황폐화시키며, 모든 젊은이들을 칼날로 죽였다.
- 28 그의 두려움과 공포가 바닷가에 사는 자들과 시돈과 두르의 자들, 수르와 오키나에 사는 자들과 점마안에 사는 모든 자

들에게 미쳤다. 아소드와 아스칼론에 사는 자들은 그를 매우 두려워하였다.

유딧기 3장

- ¹ 그들은 평화의 말을 전하기 위해 그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 ² 보소서, 우리는 위대한 왕 느부카드네자르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 ³ 보소서, 우리의 거처와 우리 모든 땅과 모든 밀밭과 우리 양과 소, 그리고 우리 천막의 모든 양떼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것들을 사용하소서.
- ⁴ 보소서, 우리의 도시들과 그 안에 거주하는 자들도 당신의 종들입니다. 와서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들을 대하소서.
- ⁵ 그러므로 그 남자들이 호로페네스에게 이르러 이 말대로 전하였다.
- ⁶ 그는 그의 군대와 함께 바닷가로 내려가 높은 성읍들에 요새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선발된 자들을 동맹군으로 뽑아냈다.
- ⁷ 그들과 그 주변의 모든 땅은 화관과 춤과 타임블로 그를 맞이하였다.
- ⁸ 그는 그들의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성스러운 숲을 베어냈다. 그에게는 그 땅의 모든 신들을 파괴할 권한이 주어졌으니, 모든 민족이 오직 느부카드네자르만을 숭배하고, 모든 언어와 모든 족속이 그를 신으로 부르게 하려는 것이었다.
- ⁹ 그는 유다의 큰 능선과 마주한 도타에 근처 에스드라엘론으로 나아갔다.
- ¹⁰ 그는 게바와 스코토폴리스 사이에 진을 쳤다. 그는 한 달 동안 그곳에 머물며 그의 군대의 모든 짐을 모았다.

유딧기 4장

- ¹ 유다에 거주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시리아 왕 느부카드네자르의 총사령관 호로페네스가 모든 민족에게 행한 일과, 그가 모든 사원을 약탈하고 완전히 파괴한 일을 듣고,
- ² 그가 다가오자 크게 두려워하며, 예루살렘과 그들의 하느님인 주님의 성전을 걱정하였다.
- ³ 그들은 최근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고, 유다의 모든 백성도 최근에 모여들었으며, 기구들과 제단과 성전이 더럽혀진 후에 다시 성화되었기 때문이다.
- ⁴ 그들은 사마리아의 모든 지방, 코나에, 벳오론, 벨마임, 여리고, 호바, 에소라, 그리고 살렘 골짜기로 사자를 보냈다.
- ⁵ 그들은 모든 높은 산의 정상들을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마을들을 요새화하며, 전쟁을 위한 식량을 비축하였다. 그들의 밭은 최근에 수확되었기 때문이다.
- ⁶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 요아킴은 베툴리아와 베토메스타임에 사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베토메스타임은 도타임 근처 평원을 향해 에스드라엘론과 마주하고 있었다.
- ⁷ 그는 그들에게 산지의 고개들을 장악하라고 명령하였다. 그 고개들이 유다로 들어가는 입구였고, 그 길이 좁아서 최대 두 명밖에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적군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쉬웠기 때문이다.
- ⁸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제사장 요아킴이 명령한 대로 하였고, 예루살렘에서 열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원로원도 그렇게 하였다.
- ⁹ 이스라엘의 모든 이는 큰 진정으로 하느님께 부르짖었고, 큰 진정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낮추었다.
- ¹⁰ 그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가축들과, 그들이 돈으로 산 모든 나그네와 고용인과 종들이 허리에 베옷을 두르고,
- ¹¹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와 어린아이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전 앞에 엎드려 머리에 재를 뿌리고, 베옷을 주님 앞에 펼쳤다. 그들은 제단 주위에 베옷을 두르고,
- ¹² 한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그들의 자녀들이 노략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아내들이 약탈당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상속지의 성읍들이 파괴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성소가 더럽혀지고 비방의 대상이 되어 민족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 ¹³ 주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서 주님 만군의 하느님의 성소 앞에서 많은 날 동안 금식을 계속하였다.
- ¹⁴ 대제사장 요아킴과 주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허리에 베옷을 두르고, 끊임없는 번제와 서원과 백성의 자발적 헌물들을 드렸다.
- ¹⁵ 그들은 두건에 재를 묻히고, 온 힘을 다해 주님께 부르짖어, 그가 이스라엘 온 가족을 선하게 보시기를 간청하였다.

유딧기 5장

- ¹ 아시리아 군대의 최고 사령관 호로페네스는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을 준비하고, 산지의 통로를 막으며, 모든 높은 언덕의 꼭대기를 요새로 삼고, 평원에 장벽을 설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 ² 그러자 그는 매우 분노하여 모압의 모든 귀족들과 암몬의 장관들과 해안 지방의 모든 총독들을 불러들였다.
- ³ 그러고 나서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내게 말해라, 가나안 자손들아, 이 산지에 거주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거주하는 도시들은 무엇인가? 그들의 군대는 얼마나 큰가? 그들의 힘과 권세는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군대를 이끄는 왕은 누구인가?"
- ⁴ 그들이 서쪽에 사는 모든 자들보다 더하여 나를 맞이하러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⁵ 그러자 암몬 자손들의 모든 지도자 아히오르가 그에게 말했다. "내 주여, 당신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한 마디를 들어주시시오. 내가 당신이 거주하는 곳 가까이 산지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종의 입에서 거짓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다."
- ⁶ 이 백성은 갈대아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 ⁷ 그들은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에 머물렀는데, 갈대아 땅에 있던 조상들의 신들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 ⁸ 그들은 조상들의 길을 버리고, 그들이 아는 하늘의 하느님을 숭배했습니다. 조상들은 그들을 자기 신들의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들은 메소포타미아로 도망쳐서 그곳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 ⁹ 그러자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들이 머무르던 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살며 금과 은과 매우 많은 가축으로 번성했습니다.
- ¹⁰ 그 후 그들은 모든 가나안 땅을 덮은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자라날 때까지 머물렀고, 그곳에서 큰 무리가 되어 그들의 민족의 인구를 셀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 ¹¹ 그러자 이집트 왕이 그들을 대적하여 교활하게 대우하며 그들을 낮추고 벽돌을 빚게 하여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 ¹² 그들이 그들의 하느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이집트 온 땅에 치유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자기 눈앞에서 쫓아냈습니다.
- ¹³ 하느님께서 그들의 앞에서 붉은 바다를 마르게 하셨고,
- ¹⁴ 그들을 시나이와 카데스 바르네아의 길로 인도하시며, 광야에 사는 모든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 ¹⁵ 그들은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살며 헤스본에 사는 모든 자를 자신의 힘으로 멸망시켰습니다. 요르단을 건너 그들은 산지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 ¹⁶ 그들은 그들 앞에서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시켄 사람, 그리고 모든 기르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 땅에 오래 살았습니다.
- ¹⁷ 그들이 그들의 하느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을 때,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이는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느님이 그들과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 ¹⁸ 그러나 그들이 그분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날 때, 그들은 여러 심각한 전투에서 멸망하고, 자기 땅이 아닌 땅으로 사로잡혀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하느님의 성전은 땅에 허물어졌고, 그들의 도시들은 그들의 적들에게 점령되었습니다.
- ¹⁹ 이제 그들은 다시 그들의 하느님께로 돌아왔고, 흩어졌던 곳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황폐해진 산지에 정착했습니다.
- ²⁰ 그러므로 이제, 내 주이자 주인님, 이 백성에게 어떤 잘못이 있고, 그들이 그들의 하느님께 죄를 범한다면, 우리가 그들이 넘어지는 그 잘못을 알아낼 것이며, 올라가서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 ²¹ 그러나 그들의 민족 안에 불법이 없다면, 내 주께서 지금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며, 우리가 온 땅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 ²² 아히오르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장막 주변에 서 있던 모든 백성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호로페네스의 귀족들과 해안 지방과 모압에 사는 모든 자들이 그를 죽여야 한다고 말했다.
- ²³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보라, 그들은 전투를 강하게 할 힘도 능력도 없는 백성이

다."

²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올라가리라. 그들은 당신의 모든 군대가 삼킬 전리품이 될 것입니다, 주님 호로페네스여."

유딧기 6장

¹ 모임 주변의 사람들이 잠잠해지자, 아시리아 군대의 최고 장군 호로페네스는 모든 외국인 앞에서 아히오르와 모임의 모든 자손에게 말했다.

² 아히오르야, 네가 누구이며, 에브라임의 용병들이 누구이기에,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예언하여 이스라엘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말했느냐? 그들의 하느님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이나? 하느님이라면, 네부카드네자르 외에 또 누구냐?

³ 그가 자신의 힘을 보내어 그들을 땅 위에서 멸망시킬 것이며, 그들의 하느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의 종들이니, 한 사람처럼 그들을 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 기병의 힘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⁴ 우리는 그들을 불태울 것이다. 그들의 산들은 그들의 피로 취할 것이며, 그들의 평원은 그들의 시체로 가득 찰 것이다. 그들의 발자국은 우리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은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이는 땅의 모든 주인인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말한 바이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말한 말은 헛되지 않으리라' 하였으니.

⁵ 그러나 너, 아모니의 고용인 아히오르여, 네 죄의 날에 이런 말을 하였으니, 이 날 이후로 내가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의 족속을 보복할 때까지는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⁶ 그때 내 군대의 칼과 내를 섬기는 자들의 무리가 네 옆을 지나갈 것이며, 내가 돌아올 때 네가 그들의 살해된 자들 사이에 쓰러질 것이다.

⁷ 내 하인들이 너를 산지로 데려가서, 통로 근처의 한 도시에 두겠다.

⁸ 너는 그들과 함께 멸망할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⁹ 네 마음속으로 그들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면, 얼굴을 떨어뜨리지 말라. 내가 말하였으니, 내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¹⁰ 그러자 호로페네스는 자기 장막에서 기다리던 하인들에게 명령하여 아히오르를 데려가서 베툴리아로 보내고,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기게 하였다.

¹¹ 그러자 그의 하인들이 그를 빼내어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평야를 지나 산지로 올라가 베툴리아 아래의 샘물에 이르렀다.

¹²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들이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을 보고, 무기를 들고 산 꼭대기로 나와 그들을 맞이하였다. 매를 쓰는 자들은 모두 그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며 돌을 던졌다.

¹³ 그들은 산기슭에 숨어 아히오르를 묶고 떨어뜨려 산기슭에 버려두고,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¹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시에서 내려와 그에게 이르러 그의 묶인 줄을 풀고 베툴리아로 데려가서, 도시의 지도자들에게 데려다주었다.

¹⁵ 그 지도자들은 그때 시몬 지파의 미가의 아들 오자이아와, 고톤니엘의 아들 카브리스와, 멜키엘의 아들 카르미스였다.

¹⁶ 그러자 그들은 도시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모으고, 젊은이들과 여자들이 모두 모임에 모였다. 그들은 아히오르를 모든 백성 가운데 세우고, 오자이아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¹⁷ 그는 대답하여 호로페네스의 모임에서의 말과, 아시리아 자손의 왕자들 앞에서 자신이 한 모든 말과, 호로페네스가 이스라엘 집안에 대해 한 모든 큰 말을 그들에게 밝혔다.

¹⁸ 그러자 백성은 땅에 엎드려 하느님을 경배하며 외쳤다.

¹⁹ "하늘의 주 하느님,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우리 족속의 비참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날 당신께 성화된 자들의 얼굴을 돌아보소서."

²⁰ 그들은 아히오르를 위로하며 그를 크게 칭찬하였다.

²¹ 그러자 오자이아는 그를 모임에서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장로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고, 그들은 그 밤새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도움을 간구하였다.

유딧기 7장

- 1 다음 날, 호로페네스는 자기 모든 군대와 자신에게 동맹한 모든 백성에게 베툴리아로 진을 치고, 산지의 고개를 점령하며 이스라엘 자손과 전쟁을 벌이라 명령했다.
- 2 그날 모든 용사들이 움직였다. 그들의 전투병은 보병 일십칠만 명과 기마병 만이천 명이었으며, 수송대와 함께 걷는 자들을 포함하여, 그 수는 매우 많았다.
- 3 그들은 베툴리아 근처 샘물 옆 계곡에 진을 쳤다. 그들은 도타임에서 벨마임까지 넓게 퍼졌고, 베툴리아에서 에스드라론 가까운 카이몬까지 길게 뻗었다.
- 4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수를 보고 두려워하여, 각자 이웃에게 말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온 땅의 얼굴을 핏아 버릴 것이다. 높은 산도, 골짜기도, 언덕도 그들의 무계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 5 모든 사람이 전쟁 무기를 들고, 자기 탑에 불을 피우며 그 밤새도록 지켜보았다.
- 6 그러나 이튿날 되는 날, 호로페네스는 베툴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앞으로 자기 모든 기마대를 이끌고 나갔다.
- 7 그는 성으로 오르는 길을 살펴보고, 물의 샘을 찾아내어 점령한 뒤, 그곳에 전투병을 주둔시켰다. 그 후 그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 8 에사우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압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과 해안의 장관들이 그에게 나아가 말했다.
- 9 "내 주여, 이제 한 마디를 들어주소서. 내 주의 군대에 손해가 생기지 않게 하소서."
- 10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창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거주하는 산의 높이를 의지합니다. 그들의 산 꼭대기에 오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11 그러므로 내 주여, 그들과 전투를 벌일 때처럼 싸우지 마소서. 그러면 내 주의 백성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 12 내 주는 진을 그대로 지키고, 모든 병사를 안전하게 지키소서. 당신의 하인들이 산기슭에서 흐르는 샘물을 장악하게 하소서.
- 13 베툴리아의 모든 주민들이 그 샘물에서 물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갈증으로 죽을 것이고, 성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 후 우리와 우리 백성은 가까운 산 꼭대기에 올라가 그곳에 진을 치고, 성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지켜보겠습니다.
- 14 그들은 기아로 소멸될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요, 칼이 그들에게 닥치기 전에, 자기들이 사는 거리에서 쓰러질 것입니다.
- 15 그들이 반역하고, 당신을 평화롭게 맞이하지 않았으므로, 당신은 그들에게 악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 16 그들의 말은 호로페네스와 그의 모든 하인들에게 기쁘게 여겨졌고, 그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라고 명령했다.
- 17 아만 자손의 군대가 움직였고, 그들과 함께 아시리아 자손의 오천 명이 함께하여 계곡에 진을 쳤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물과 샘물을 점령했다.
- 18 에사우 자손은 아만 자손과 함께 올라가 도타임 근처 산지에 진을 쳤다. 그들은 남쪽과 동쪽, 휘시 근처 에크레벨로 보냈다. 이곳은 모크무르 시내 가까이에 있다. 나머지 아시리아 군대는 평야에 진을 쳐서 땅의 온 얼굴을 덮었다. 그들의 천막과 수송대가 매우 많은 인파로 그 위에 설치되었다. 그들은 매우 큰 무리였다.
- 19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하느님 주님께 부르짖었으니, 그들의 정신이 허탈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모든 원수가 그들을 둘러쌌고, 그들 사이에서 도망갈 길이 없었다.
- 20 아시리아의 모든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의 보병과 전차와 기마병이 사십사일 동안 그들을 둘러쌌다. 베툴리아의 모든 주민들의 물통이 모두 마르고 말았다.
- 21 우물이 모두 텅 비었고, 그들은 하루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없었으며, 물을 정해진 양으로 나누어 마셨다.
- 22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힘을 잃었고, 여자와 젊은이들은 갈증으로 쓰러졌다. 그들은 성의 거리와 문의 통로에 쓰러졌고, 더 이상 힘이 없었다.
- 23 젊은이들과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이 오자이아와 성의 지도자들에게 모여들어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 ²⁴ "하느님께서 우리와 당신들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아시리아 자손과 평화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 ²⁵ 이제 우리는 도울 이가 없으니,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들 앞에서 갈증과 큰 파멸 속에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 ²⁶ 이제 그들을 불러들여, 이 도시 전체를 호로페네스의 백성과 그의 모든 군대에게 노략물로 넘기십시오.
- ²⁷ 우리가 그들에게 잡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종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고, 우리 아이들의 죽음과 아내들과 자녀들이 죽음에 기진맥진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 ²⁸ 우리는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과 주님을 증인으로 불러, 그분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에 따라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한 대로 하십시오!
- ²⁹ 그러자 모임 전체가 한마음으로 큰 슬픔을 토로하며, 주 하느님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 ³⁰ 오지아스가 그들에게 말했다. "형제들아, 용기를 내십시오! 다섯 날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 동안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 ³¹ 그러나 이 날들이 지나고 아무런 도움도 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 ³²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을 각자의 진영으로 흩어보냈다. 그들은 도시의 성벽과 탑으로 돌아갔다. 그는 여자와 어린이들을 집으로 보내었다. 도시 안은 매우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

유딧기 8장

- 1 그때에 유딧은 이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메라리의 딸이었고, 메라리는 옥의 아들이었고, 옥은 요셉의 아들이었고, 요셉은 오시엘의 아들이었고, 오시엘은 엘키야의 아들이었고, 엘키야는 아나니아스의 아들이었고, 아나니아스는 기드온의 아들이었고, 기드온은 라파임의 아들이었고, 라파임은 아히투브의 아들이었고, 아히투브는 엘리후의 아들이었고, 엘리후는 엘리압의 아들이었고, 엘리압은 나다나엘의 아들이었고, 나다나엘은 살라미엘의 아들이었고, 살라미엘은 살사다이의 아들이었고, 살사다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었다.
- 2 그녀의 남편은 마나세스였고, 그는 그녀의 지파와 가족에서 나왔다. 그는 보리 수확 시기에 죽었다.
- 3 그는 밭에서 단을 묶는 자들을 감독하던 중, 뜨거운 햇빛에 쓰러져 침대에 누워 베허리아라는 그의 도시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는 도타임과 바라몬 사이에 있는 밭에서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
- 4 유딧은 집에서 과부로 삼 년 사개월을 보냈다.
- 5 그녀는 자기 집 지붕 위에 천막을 치고 허리에 굵은 베를 두르며, 과부의 옷을 입었다.
- 6 그녀는 과부가 된 날들 동안 매일 금식했다. 안식일 전날, 안식일, 월삭 전날, 월삭, 이스라엘 집의 축제와 기쁨의 날들만 제외하고.
- 7 그녀는 외모가 아름답고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남편 마나세스는 그녀에게 금과 은과 남종과 여종과 가족과 땅을 남겼다. 그녀는 그 땅에 머물렀다.
- 8 그녀에 대해 누구도 나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느님을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 9 그녀는 사람들이 지도자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물이 부족하여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유딧은 오자이아스가 그들에게 한 모든 말을 들었다. 그는 이 다섯 일 안에 주님이 그들을 도우시지 않으면 도시를 아시리아인들에게 넘기겠다고 그들에게 맹세했다.
- 10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관리하는 시녀를 보내어 자기 도시의 장로들인 오자이아스, 카브리스, 카르미스를 불러오게 했다.
- 11 그들이 그녀에게 왔을 때,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들어라, 베허리아 주민들의 지도자들이여! 너희가 오늘 백성 앞에서 한 말은 옳지 않다. 너희는 하느님과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우고, 이 며칠 안에 주님이 너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원수들에게 도시를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 12 지금 너희는 누구이기에 오늘 하느님을 시험하고, 인간의 자녀들 사이에서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는가?
- 13 지금 주권자 하느님을 시험해 보아라. 그러면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 14 사람의 마음 깊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가 생각하는 일을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을 어떻게 찾아내어 그의 마음을 알고 그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니, 내 친척들이여, 우리 주 하느님을 노하게 하지 마라!
- 15 만일 그가 이 다섯 일 안에 우리를 도우시기로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그가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지켜 주실 힘이 있으시거나, 우리 원수들의 앞에서 우리를 멸하실 힘이 있으시다.
- 16 그러나 우리 주 하느님의 계획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위협을 받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간청으로 움직이지 않으신다.
- 17 그러므로 그에게서 오는 구원을 기다리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가 기뻐하신다면 그분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 18 우리 시대에는 우리 중에 누구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늘도 우리 중에 지파나 친족이나 가족이나 도시가 없어, 옛날처럼 손으로 만든 신들을 숭배하지 않는다.
- 19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은 칼에 넘겨지고, 약탈당하며, 우리 원수들 앞에서 큰 파멸로 쓰러졌다.
- 20 그러나 우리는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을 알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나라 우리 후손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 21 만일 우리가 사로잡히면, 유다 전체가 사로잡히고, 우리의 성소가 약탈될 것이며, 그분은 그것을 더럽힌 죄로 우리의 피를 요구하실 것이다.

- ²² 우리 친족의 학살과 땅의 포로 생활과 우리 유산의 황폐함을,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 머리 위에 내리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소유하려는 자들에게 모욕과 비방이 될 것이다.
- ²³ 우리의 사로잡힘은 유익을 위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것을 수치로 돌리실 것이다.
- ²⁴ 그러므로 이제, 친척들이여, 우리 친족들에게 본을 보이자. 그들의 생명은 우리에게 달려 있고, 성소와 집과 제단도 우리에게 달려 있다.
- ²⁵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시는 주님 우리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 ²⁶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일과 이사악을 시험하신 모든 일, 그리고 시리아의 메소포타미아에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양을 치던 야곱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하십시오.
- ²⁷ 그분은 그들을 시험하시듯 우리를 불로 시험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지도 않으셨으며, 우리에게 복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께 가까이 오는 자들을 책망하시기 위해 꾸짖으십니다.
- ²⁸ 오자이아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 올바른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신의 말을 부정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 ²⁹ 이것이 당신의 지혜가 처음으로 드러난 날이 아니라, 당신의 생애 초반부터 모든 백성이 당신의 통찰력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마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 ³⁰ 그러나 백성은 매우 목마르고, 우리가 그들에게 말한 대로 하도록 우리를 강요했으며, 우리가 깨지지 않을 맹세를 스스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 ³¹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경건한 여자이니, 주님께서 우리 우물에 비를 내려 주셔서 더 이상 힘을 잃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 ³² 그러자 유딧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 조상의 자손들 사이에서 모든 세대에 전해질 일을 하겠다."
- ³³ 오늘 밤 너희는 모두 성문 앞에 서라. 나는 여종과 함께 나가겠다. 너희가 우리 적에게 도시를 넘겨주겠다고 말한 그 날들 이후에, 주님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 ³⁴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묻지 마라. 내가 하는 일이 끝날 때까지는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 ³⁵ 그러자 오자이아와 장로들이 그녀에게 말했다. "평안히 가라. 주님 우리 하느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우리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기를 바란다."
- ³⁶ 그러자 그들은 장막에서 돌아와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유딧기 9장

- ¹ 유딧은 얼굴을 땅에 대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입고 있던 베옷을 벗어 던졌다. 그날 저녁 예루살렘 하느님의 집에서는 향이 바쳐지고 있었고, 유딧은 큰 소리로 주님께 외쳐 말했다,
- ² “내 조상 시메온의 주 하느님, 당신이 그에게 칼을 주어 처녀의 띠를 풀고 그녀를 더럽히며, 그녀의 허벅지를 드러내어 수치를 주고, 그녀의 자궁을 더럽혀 모욕하게 한 외국인들을 벌하게 하신 분이시여, 당신이 ‘그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 ³ 그래서 당신은 그들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속임을 당한 여인을 위해 부끄러웠던 그들의 침상은 피로 물들이셨으며, 종들을 주인 위에, 주인들을 그들의 왕좌 위에 치셨습니다.
- ⁴ 그들의 아내들을 노략의 대상으로, 그들의 딸들을 포로로, 그들의 모든 전리품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이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향한 열정으로 움직였고, 자기 피의 더러움을 혐오하며 당신에게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오 하느님, 오 내 하느님, 나 과부의 기도도 들어주소서.
- ⁵ 당신은 그 이전의 일들을 이루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며, 그 이후의 일들도 이루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획하셨고,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 ⁶ 당신이 결정하신 일들은 당신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길은 준비되어 있고, 당신의 심판은 미리 알고 계십니다.’
- ⁷ 보소서, 아시리아인들은 그들의 힘으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과 병거로 자랑합니다. 그들은 보병의 힘을 자랑하며, 방패와 창과 활과 매듭줄에 의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전투를 꺾는 주님임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이름입니다.
- ⁸ 당신의 힘으로 그들의 힘을 꺾고, 당신의 분노로 그들의 세력을 무너뜨리소서. 그들은 당신의 성소를 더럽히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머무는 장막을 더럽히며, 당신의 제단의 뿔을 칼로 부수려 합니다.
- ⁹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당신의 분노를 내리소서. 나 과부의 손에 내가 간구하는 힘을 주소서.
- ¹⁰ 내 입술의 속임수로 종을 왕에게, 왕을 그의 종에게 치게 하소서. 한 여인의 손으로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소서.
- ¹¹ 당신의 힘은 군대의 수에 있지 않고, 당신의 힘은 강한 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통받는 자들의 하느님이시며, 억압받는 자들의 도우시는 분이시고, 약한 자들의 도우시는 분이시며, 버림받은 자들의 보호자이시며, 희망 없는 자들의 구원자이십니다.
- ¹² 오 내 조상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유산의 하느님, 하늘과 땅의 주님, 물들을 창조하신 분,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의 왕이시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 ¹³ 내 말과 속임수가 그들의 상처와 멍이 되게 하소서. 그들은 당신의 언약과 당신의 성스러운 집, 시온의 꼭대기, 그리고 당신 자녀들의 소유의 집을 해치려 합니다.
- ¹⁴ 당신이 모든 민족과 지파 앞에서, 당신이 모든 힘과 권능의 하느님이심을, 이스라엘의 씨를 보호하는 이는 오직 당신뿐임을 알게 하소서.

유딧기 10장

- 1 그녀가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부르짖기를 마치고 이 모든 말을 다 한 후에,
- 2 그녀는 쓰러져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시녀를 불러, 안식일과 제사 날에 살던 집으로 내려갔다.
- 3 그녀는 입고 있던 베옷을 벗고 과부의 옷을 벗으며 온 몸을 물로 씻고 진한 향유로 몸을 바르고 머리카락을 땀은 후 그 위에 관을 썼다. 그녀는 남편 마나세스가 살아있던 날들에 입던 기쁨의 옷을 입었다.
- 4 그녀는 발에 신을 신고 발목걸이, 팔찌, 반지, 귀걸이, 그리고 모든 보석을 착용했다. 그녀는 자신을 매우 아름답게 꾸며, 자신을 보는 모든 남자의 눈을 속였다.
- 5 그녀는 시녀에게 포도주가 담긴 가죽 주머니와 기름 한 병을 주고, 붉은 곡물, 무화과 덩어리, 고운 빵으로 가방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모든 그릇들을 한데 모아 자신 위에 놓았다.
- 6 그녀들은 베투리아 성문에 이르러 오자이아와 성의 장로들, 카브리스와 카르미스가 그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 7 그러나 그들이 그녀를 보니 그녀의 얼굴이 변하고 옷차림이 달라져서 그녀의 아름다움에 크게 놀라며 그녀에게 말했다.
- 8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존엄을 위해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를." 그녀는 하느님께 경배했다.
- 9 그리고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다. "성문을 저를 위해 열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저에게 말한 일을 이루기 위해 나가겠습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에게 그녀의 말대로 문을 열도록 명령했다.
- 10 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때 유딧은 그녀와 그녀의 시녀와 함께 나갔다. 성의 남자들은 그녀가 산을 내려가고 골짜기를 지나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녀를 지켜보았다.
- 11 그녀들은 골짜기에서 곧장 나아갔다. 아시리아의 파수병들이 그녀를 만났다.
- 12 그들이 그녀를 붙잡고 물었다. "당신은 어느 민족의 사람입니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 합니까?" 그녀가 말했다. "저는 히브리인의 딸입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당신들에게 넘겨져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13 저는 당신 군대의 총사령관 호로페네스의 앞에 나아가 진실한 말을 전하러 합니다. 저는 그에게 산악 지대 전체를 정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의 군대 중 누구도 빠지지 않고, 한 생명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 14 그 남자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의 얼굴을 살펴보니, 그녀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눈에 매우 놀라웠다. 그들이 그녀에게 말했다.
- 15 "당신은 우리 주인의 앞에 빨리 내려온 덕분에 자신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제 그의 천막으로 오십시오. 우리 중 몇 명이 당신을 인도하여 그의 손에 넘겨줄 때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 16 그러나 그가 앞에 서 있을 때,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방금 말한 대로 그에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당신을 잘 대접할 것입니다."
- 17 그들은 그들 중에서 백 명을 뽑아 그녀와 그녀의 시녀를 동행하게 하고, 그들을 호로페네스의 천막으로 데려갔다.
- 18 그녀의 도착이 천막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진영 전체가 크게 들썩었다. 그들은 그녀가 호로페네스의 천막 밖에 서 있는 동안 둘러싸고 서 있었으며, 그에게 그녀에 대해 알릴 때까지 기다렸다.
- 19 그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라며, 그녀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놀랐다. 각자가 이웃에게 말했다. "이런 여자들을 가진 이 민족을 어찌 경멸할 수 있겠는가?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다. 그들이 풀려나면 온 땅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 20 그러자 호로페네스의 경비병들과 그의 모든 하인들이 나와 그녀를 천막으로 데려갔다.
- 21 호로페네스는 자주색, 금, 에메랄드, 귀한 보석으로 짜인 천장 아래 침대에 누워 있었다.
- 22 그들이 그에게 그녀에 대해 알리니, 그는 은으로 만든 등불들이 앞서는 가운데 자기 천막 앞으로 나왔다.
- 23 유딧이 그와 그의 하인들 앞에 이르자, 모두 그녀의 얼굴 아름다움에 놀랐다. 그녀는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했으나, 그의 하인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유딧기 11장

- ¹ 홀로페르네스가 그녀에게 말했다. "여자야, 용기를 내라.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전지전능한 땅의 왕 느부카드네자르를 섬기기로 선택한 자를 결코 해치지 않았다."
- ² 지금, 너희가 산지에 거주하는 백성이 나를 경멸하지 않았다면, 나는 내 창을 그들에게 들이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이 일을 저질렀다.
- ³ 지금, 너희가 그들로부터 도망쳐 우리에게 온 이유를 말해보아라. 너희는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용기를 내라. 오늘 밤 너는 살고, 그 후에도 살 것이다.
- ⁴ 너를 해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며, 모두가 내 주 느부카드네자르 왕의 종들에게 하는 대로 너를 잘 대접할 것이다.
- ⁵ 유딧이 그에게 말했다. "내 주의 종의 말을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여종이 당신 앞에서 말하게 하소서. 오늘 밤 저는 내 주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 ⁶ 당신이 내 여종의 말을 따르신다면, 하느님께서 그 일을 완전히 이루게 하실 것이며, 내 주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결코 이루지 못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 ⁷ 전지전능한 땅의 왕 느부카드네자르가 살아 계심을, 그리고 그의 권능이 살아 있음을, 그가 모든 생물을 보존하기 위해 당신을 보내셨음을 나는 맹세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들의 짐승과 가축과 하늘의 새들도 느부카드네자르와 그의 온 집안의 시대에 당신의 힘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 ⁸ 우리는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영혼의 교묘한 계획을 들었습니다. 온 땅에 퍼져 있는 소문은, 당신만이 온 왕국에서 용감하고, 지식이 뛰어나며, 전쟁의 공적에서 놀라운 자라고 합니다.
- ⁹ 지금, 아히오르가 당신의 회의에서 말한 내용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베툴리아 사람들은 그를 구해내어, 그가 당신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밝혔습니다.
- ¹⁰ 그러므로 내 주이자 주인님, 그의 말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소서. 그것은 진실입니다. 우리 족속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칼이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그들의 하느님께 죄를 지을 때만입니다.
- ¹¹ 지금, 내 주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며, 죽음이 그들에게 닥치게 하려면, 그들의 죄가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하느님을 노하게 할 것입니다.
- ¹² 그들의 식량이 떨어지고, 모든 물이 부족해지자, 그들은 가축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하느님이 그들에게 주신 법으로 먹지 말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 ¹³ 그들은 하느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서 있는 사제들을 위해 성화하고 보존해 둔 곡식의 첫 열매와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소비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이는 아무도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¹⁴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일을 했다고 하여, 장로들의 협의회로부터 허락을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 ¹⁵ 이 명령이 그들에게 도달하고 그들이 그것을 행할 때, 그들은 그날 바로 당신에게 넘겨져 멸망할 것입니다.
- ¹⁶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그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과 함께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그것을 듣는 모든 이가 놀라게 될 것입니다.
- ¹⁷ 내 주님, 저는 경건한 자이며, 하늘의 하느님을 낮과 밤에 섬깁니다. 이제 내 주님, 저는 당신과 함께 머물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밤에 골짜기로 나가서, 하느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를 저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 ¹⁸ 그 후에 제가 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가실 수 있으며, 그들 중 누구도 당신을 저항하지 못할 것입니다.
- ¹⁹ 그리고 저는 당신을 유다 땅을 가로질러 이끌어, 예루살렘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왕좌를 그 가운데에 세울 것입니다. 당신은 목자가 없는 양처럼 그들을 몰아넣을 것이며, 개조차도 당신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미리 알고, 저에게 알려졌으며, 당신에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 ²⁰ 그녀의 말은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모든 하인들 앞에서 기쁨을 주었다. 그들은 그녀의 지혜에 놀라며 말했다.
- ²¹ "지구 끝에서 끝까지 이런 여자는 없었다. 얼굴의 아름다움과 말의 지혜가 이와 같은 여자는."

²² 홀로페르네스가 그녀에게 말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백성 앞에 보내신 것이 잘한 일이다. 이로써 힘이 우리 손에 있고, 내 주를 경멸한 자들에게 멸망이 닥치게 되었으니."

²³ 지금 당신은 얼굴이 아름답고 말이 지혜롭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행한다면, 당신의 하느님은 내 하느님이 되고, 당신은 느부카드네자르 왕의 궁전에 거주하며 온 땅에 유명해질 것입니다.

유딧기 12장

- 1 그는 그녀를 자신의 은제 그릇이 놓인 곳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그의 하인들에게 그의 특별한 음식을 몇 가지 준비하게 하며, 그녀가 그의 와인을 마시게 하였다.
- 2 유딧은 말했다.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것들로 제 양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3 홀로페르네스는 그녀에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지고 온 것이 다 떨어지면, 어디서 더 가져와서 당신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당신과 같은 민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 4 유딧은 그에게 말했다. "내 주님의 생명을 두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 손으로 이루실 일을 제가 이루기 전까지, 제가 가지고 온 것들을 쓰지 않겠습니다."
- 5 그러자 홀로페르네스의 하인들이 그녀를 장막으로 데려가니, 그녀는 밤중까지 잠들어 있었다. 그 후 그녀는 아침 경비 시간이 되어 일어났다.
- 6 그리고 홀로페르네스에게 보냈다. "내 주님께서 지금 명령하셔서, 당신의 하인이 기도하러 나가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7 홀로페르네스는 경비원들에게 그녀를 막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녀는 사흘 동안 진영에 머물며, 매일 밤 베툴리아 골짜기로 나가 진영의 샘에서 몸을 씻었다.
- 8 그녀가 올라오면서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께 간청하여, 당신의 백성의 자손이 승리하게 하시도록 그녀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 9 그녀는 깨끗한 상태로 들어가서 저녁에 음식을 먹을 때까지 장막에 머물렀다.
- 10 네 번째 날이 되자, 홀로페르네스는 자기 하인들만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관리들은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다.
- 11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맡은 시종 바고아스에게 말했다. "가서, 너와 함께 있는 이 히브리 여자에게 다가가서, 그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게 설득해라."
- 12 "보아라, 만약 우리가 이런 여자를 데리고 오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수치다. 우리가 그녀를 우리에게 끌어들이지 않으면, 그녀가 우리를 조롱할 것이다."
- 13 바고아스는 홀로페르네스의 앞에서 나와 그녀에게 들어가 말했다. "이 아름다운 여인께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주님께 나아가 그의 앞에서 존중받고, 와인을 마시며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며, 오늘 하루를 네부카드네자르 왕궁에서 봉사하는 아시르 자손의 딸들 중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 14 유딧은 그에게 말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내 주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즉시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죽을 날까지 기쁨이 될 것입니다."
- 15 그녀는 일어나 옷과 모든 여성의 복장을 단장하였다. 그녀의 시종이 나가서 바고아스로부터 받은 일상용 양털을 땅에 깔아 홀로페르네스 옆에 놓아, 그녀가 앉아서 먹을 수 있게 하였다.
- 16 유딧이 들어와 앉으니, 홀로페르네스의 마음은 그녀에게 사로잡혔다. 그의 정욕이 일어나 그녀의 동행을 간절히 원하였다. 그는 그녀를 본 날부터 그녀를 속일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 17 홀로페르네스는 그녀에게 말했다. "지금 마셔라.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라."
- 18 유딧은 말했다. "내 주님, 제가 지금 마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태어난 이래로, 제 생명이 그 어느 날보다도 더 빛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 19 그러자 그녀는 그의 앞에서 그녀의 시종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마셨다.
- 20 홀로페르네스는 그녀를 매우 기뻐하며, 태어난 이래로 하루에 마신 것 중 가장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마셨다.

유딧기 13장

- 1 그러나 저녁이 되자, 그의 하인들이 서둘러 떠났다. 바고아스는 천막 밖을 잠그고 주인 앞에서 기다리던 자들을 모두 물러나게 했다. 그들은 모두 잠자리로 갔다. 잔치가 길었기 때문에 모두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 2 그러나 유딧은 홀로 천막에 남아 있었고, 호로페르네스는 포도주에 취해 침상에 누워 있었다.
- 3 유딧은 자기 하녀에게 침실 밖에 서서, 매일처럼 자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녀는 기도하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바고아스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
- 4 모든 이들이 그녀 앞에서 떠나갔고, 침실 안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유딧은 그의 침상 곁에 서서 마음속으로 말했다. "오, 모든 권능의 주, 이때에 나의 손이 행하는 일을 보소서. 예루살렘을 높이기 위함이니이다."
- 5 이제는 당신의 기업을 도우시고,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난 원수들을 멸망시키려 내가 계획한 일을 행하실 때입니다.
- 6 그녀는 호로페르네스의 머리 옆에 놓인 침대 기둥에 걸려 있던 칼을 가져왔다.
- 7 그녀는 침상에 가까이 다가가 그의 머리카락을 잡고 말했다. "이제, 이스라엘의 주, 나를 힘주소서."
- 8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의 목을 두 번 치고 그의 머리를 베어냈다.
- 9 그녀는 그의 시체를 침상에서 떨어뜨리고, 기둥에서 천막을 내렸다. 잠시 후 그녀는 밖으로 나가 호로페르네스의 머리를 하녀에게 주었다.
- 10 그녀는 그것을 음식 가방에 넣었다. 둘은 모두 예전처럼 기도하러 나갔다. 그들은 진영을 지나, 그 골짜기를 돌아서 베틀리아의 산으로 올라가, 그 성문에 이르렀다.
- 11 유딧은 성문의 경비원들에게 멀리서 외쳤다. "열어라, 지금 바로 성문을 열어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그분의 권능을 다시 보이시고, 오늘처럼 원수에게 그분의 힘을 나타내셨다."
- 12 그녀의 도시 사람들이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곧바로 도시 성문으로 내려가, 도시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 13 그들은 모두,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달려나와, 그녀가 돌아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들은 성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였으며, 불을 피워 빛을 밝히고 그들을 돌려보냈다.
- 14 그녀는 큰 소리로 그들에게 말했다. "하느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느님을 찬양하라.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집에서 그분의 자비를 거두지 않으셨고, 오늘 밤 내 손으로 우리 원수들을 멸망시키셨기 때문이다."
- 15 그러고 나서 그녀는 가방에서 머리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보라, 아시리아 군대의 총사령관 호로페르네스의 머리다. 보라, 그가 취해 누웠던 천막이다. 주님께서 여인의 손으로 그를 치셨다."
- 16 내가 걸어온 길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말하건대, 내 얼굴이 그를 속여 그의 멸망을 이끌었고, 그는 나와 죄를 범하지 않아 나를 더럽히거나 수치스럽게 하지 않았다.
- 17 모든 백성은 매우 놀라며 몸을 굽혀 하느님을 경배하고, 한마음으로 말했다. "우리 하느님, 오늘 당신의 백성의 원수들을 낮추신 것을 찬양하나이다."
- 18 오지아스가 그녀에게 말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앞에서, 온 땅의 모든 여인보다 당신은 복되도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원수의 수장의 머리를 베게 하신 주 하느님도 복되도다."
- 19 하느님의 힘을 영원히 기억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소망은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 20 당신이 우리 민족의 고난을 이유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멸망에서 막아내며 우리 하느님 앞에 굳은 길을 걸었으므로, 하느님께서 이 일을 당신에게 영원한 찬양으로 돌려주시고, 선한 일을 통해 당신을 방문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딧기 14장

- ¹ 유딧이 그들에게 말했다. "지금 내 말을 들어라, 내 친척들아. 이 머리를 가져다가 너희 성벽의 난간에 매달아라."
- ² 아침이 밝고 해가 땅 위로 떠오르면, 너희 각자는 전쟁 무기를 들고, 너희 중 용감한 자들은 모두 도시 밖으로 나가라. 너희는 그들을 이끌어 아시르 자손의 경비대를 향해 평야로 내려가는 듯이 장관을 세우되, 너희는 실제로 내려가지 말아라.
- ³ 그들이 온전한 갑옷을 입고 아시르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 장군들을 깨울 것이다. 그들은 호로페네스의 장막으로 달려갈 것이지만, 그를 찾지 못할 것이다. 두려움이 그들에게 덮일 것이며, 너희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 ⁴ 너희와 이스라엘 모든 경계에 거주하는 자들은 그들을 쫓아가며 그들이 가는 길에 쓰러뜨릴 것이다.
- ⁵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아모니 사람 아히오르를 내게 불러오라. 그가 이스라엘 집을 멸시하고, 마치 죽음으로 보내던 그 자를 보고 알게 하려 함이라.
- ⁶ 그들이 아히오르를 오자이아의 집에서 데려왔으나, 그가 와서 백성 모임에서 호로페네스의 머리를 한 남자의 손에 든 것을 보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정신을 잃었다.
- ⁷ 그러나 그들이 그를 깨우니, 그는 유딧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유다의 모든 장막에서 너는 복받은 자로다! 모든 민족에서 네 이름을 듣는 자들은 떨리리라."
- ⁸ "이제 이 날들 동안 네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해다오." 유딧은 백성 앞에서 자기가 나간 날부터 그들에게 말한 때까지 한 모든 일을 그에게 밝혔다.
- ⁹ 그러나 유딧이 말을 마치자,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치며 도시에서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 ¹⁰ 그러나 아히오르가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하느님을 매우 믿게 되어, 그의 음경의 살을 할례하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집에 합류하였다.
- ¹¹ 그러나 아침이 밝자, 그들은 호로페네스의 머리를 성벽에 매달고, 각자 전쟁 무기를 들고 산비탈로 무리지어 나아갔다.
- ¹² 아시르 자손들이 그들을 보고,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소식을 전했으며, 그들은 장관들과 부관들과 모든 지도자들에게로 달려갔다.
- ¹³ 그들은 호로페네스의 장막에 이르러, 그 위에 있는 자에게 말했다. "주인을 깨우시오. 노예들이 우리를 치려고 용감하게 내려왔사오니,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하소서."
- ¹⁴ 바고아스가 들어가 장막의 바깥 문을 두드렸다. 그는 호로페네스가 유딧과 함께 자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¹⁵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그는 문을 열고 침실로 들어가 보니, 호로페네스가 문지방에 쓰러져 죽어 있었고, 그의 머리는 베어져 있었다.
- ¹⁶ 그는 큰 소리로 울며 신음하고 외치며, 옷을 찢었다.
- ¹⁷ 그는 유딧이 묵었던 장막으로 들어갔으나, 그를 찾지 못했다. 그는 백성 앞으로 뛰쳐나가 큰 소리로 외쳤다.
- ¹⁸ "노예들이 배신했습니다! 히브리 여자 한 명이 느부카드네자르 왕의 집에 수치를 안겼습니다. 보십시오, 호로페네스가 땅에 쓰러져 있고, 그의 머리는 그의 몸에 없습니다!"
- ¹⁹ 그러나 아시르 군대의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었고, 마음이 매우 근심하였다. 진영 한가운데에서 울부짖음과 매우 큰 소란이 일어났다.

유딧기 15장

- ¹ 텐트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듣고 놀라움을 느꼈다.
- ²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미쳤고, 아무도 이웃의 앞에 머무르지 못하고, 한마음으로 뛰쳐나가 평지와 산지의 모든 길로 도망쳤다.
- ³ 베클리아 주변 산지에 진을 친 자들은 도망쳤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 즉 그들 중 모든 용사는 그들을 쳐 나눴다.
- ⁴ 오자이아는 베토마스타임, 바비, 호바이, 코라와 이스라엘의 모든 경계에 사자를 보내어 일어난 일을 알리고, 모두가 적을 쳐서 멸망시키러 나서게 했다.
- ⁵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한마음으로 그들을 쳐서 호바이까지 쫓아갔다. 예루살렘과 모든 산지에서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적진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왔으며, 길르앗과 갈릴리에 있던 자들도 그들의 측면을 공격하여 큰 학살을 벌였고, 그들은 다마스커스와 그 경계를 넘어갔다.
- ⁶ 베클리아에 머물던 나머지 백성들이 아시리아 진영을 쳐서 약탈하고, 매우 풍요로워졌다.
- ⁷ 이스라엘 자손들이 학살 후 돌아와 남은 것을 차지했다. 산지와 평지에 있는 마을들과 도시들이 많은 전리품을 얻었으니, 그 물건이 매우 풍부했기 때문이다.
- ⁸ 대제사장 요아킴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푼 선한 일을 보려고, 유딧을 보고 인사하러 왔다.
- ⁹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러 모두 한마음으로 그녀를 축복하며 말했다. "너는 예루살렘의 존엄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광이요, 우리 족속의 큰 기쁨이다."
- ¹⁰ 너는 손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 너는 이스라엘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였고, 하느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너를 복되게 하시기를!" 모든 백성이 말했다. "아멘!"
- ¹¹ 백성은 삼십 일 동안 진영을 약탈하였다. 그리고 홀로페르네의 장막과 그의 모든 은잔, 침대, 그릇, 그리고 모든 가구를 유딧에게 주었다. 그녀는 그것을 가져다 나귀에 싣고 수레를 준비하여 그 위에 쌓아 올렸다.
- ¹²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이 그녀를 보려고 모여들었고, 그녀를 축복하며 그녀를 위해 춤을 추었다. 그녀는 손에 가지를 들고 함께 있는 여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¹³ 그리고 그녀와 그녀와 함께한 자들은 올리브 가지로 화관을 만들었고, 그녀는 모든 백성 앞에서 춤을 추며 모든 여자를 이끌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무기를 착용하고 화관을 두르며 입으로 노래를 부르며 그 뒤를 따랐다.

유딧기 16장

- ¹ 유딧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모든 백성도 큰 목소리로 이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 ² 유딧이 말했다. "타임브렐로 내 하느님을 찬양하라. 심벌즈로 내 주님을 노래하라. 시편과 찬미로 그에게 음악을 드리라. 그를 높이고 그의 이름을 부르라."
- ³ 주님은 전투를 산산조각 내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백성 가운데 자신의 군대로 나를 박해하던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 ⁴ 아시리아가 북쪽 산에서 나왔고, 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다. 그 군대의 수는 강물을 막아 버렸고, 그 기마대는 언덕을 덮었다.
- ⁵ 그는 내 경계를 불태우고, 내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며, 내 젖먹이 아이들을 땅에 던지고, 내 유아들을 노략물로 주며, 내 처녀들을 약탈하리라고 말했다.
- ⁶ 전능하신 주님은 한 여자의 손으로 그들을 무력화하셨다.
- ⁷ 그들의 강력한 자는 젊은이들에 의해 쓰러지지 않았고, 타이탄의 아들들도 그를 치지 않았다. 키가 큰 거인들도 그를 공격하지 않았다. 오직 메라리의 딸 유딧이 그의 얼굴의 아름다움으로 그를 약하게 만들었다.
- ⁸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높이기 위해 과부의 옷을 벗어 던지고, 얼굴에 향유를 바르며, 머리카락을 관으로 묶고, 그를 속이기 위해 베옷을 입었다.
- ⁹ 그녀의 신발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아름다움이 그의 영혼을 포로로 잡았다. 칼이 그의 목을 관통했다.
- ¹⁰ 페르시아인들은 그녀의 용감함에 떨어졌고, 메디아인들은 그녀의 담대함에 겁을 먹었다.
- ¹¹ 그때 내 낮은 자들이 큰 소리로 외쳤고, 내 억압받는 백성은 두려움에 떨며 떨어졌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자, 원수가 도망쳤다.
- ¹² 노예 여자의 아들들이 그들을 찢어 상처를 입히고, 도망자들의 자식처럼 그들을 해쳤다. 그들은 내 주님의 군대에 의해 멸망했다.
- ¹³ "내 하느님께 새 노래를 부르리라.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고, 힘으로 놀라우시며, 견딜 수 없으십니다.
- ¹⁴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당신이 말씀하시니 그것들이 생겼고, 당신이 당신의 영을 보내시니 그것들이 세워졌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저항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 ¹⁵ 산들은 물과 함께 그 기초에서 움직이고, 바위들은 당신의 앞에서 밀랍처럼 녹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비로우십니다.
- ¹⁶ 모든 제물은 달콤한 냄새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고, 모든 기름진 것들은 당신을 위한 전번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끊임없이 위대합니다.
- ¹⁷ "내 씨족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민족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 복수하시며, 그들의 육체에 불과 벌레를 내리실 것이니, 그들은 영원히 울며 고통을 느낄 것이다."
- ¹⁸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하느님을 경배하였다. 백성이 정결해진 후, 그들은 전번제와 자원제와 예물을 드렸다.
- ¹⁹ 유딧은 백성이 그녀에게 준 호로페르네스의 모든 물건을 바치고, 그의 침실에서 자신을 위해 가져온 천막을 주님께 예물로 드렸다.
- ²⁰ 그리고 백성은 성소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세 달 동안 잔치를 베풀었고, 유딧은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 ²¹ 이러한 날들이 지난 후, 모든 이는 자기 상속지로 돌아갔다. 유딧은 베헤리아로 가서 자기 소유에 머물며, 온 땅에서 그 시대에 존경받았다.
- ²² 많은 이가 그녀를 원했으나, 그녀의 남편 마나세스가 죽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간 날부터 그녀의 평생 동안 어떤 남자도 그녀를 알지 못하였다.
- ²³ 그녀는 매우 위대해졌고, 남편의 집에서 백오년까지 장수하였다. 그녀는 시녀를 자유롭게 해방하였다. 그 후 그녀는 베헤리아에서 죽었고, 그녀의 남편 마나세스의 무덤에 묻혔다.
- ²⁴ 이스라엘 집은 그녀를 위해 일주일 동안 애도하였다. 그녀는 죽기 전에 남편 마나세스의 가장 가까운 친족들과 자기 친

족들 모두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²⁵ 유딧의 날들에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었고, 그가 죽은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자가 없었다.

에스테르기 | Esther (Greek)

에스테르기 1장

¹ 아하수어로 대왕이 통치한 두 번째 해, 니산월 첫째 날, 베냐민 지파 출신인 야이르의 아들, 시메이의 아들, 키스의 아들인 모르데개가 수사 성에 거주하는 유대인이었고, 왕궁에서 큰 권위를 지닌 자였다. 그는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유다 왕 여호야킨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 중 한 사람이었다. 그가 본 꿈은 이러하였다. 보라, 소리와 시끄러운 소음, 천둥과 지진, 땅 위에 혼란이 일어났다. 그리고 두 마리 큰 뱀이 나와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뱀들로부터 큰 소리가 났다. 모든 민족이 그 소리에 따라 전쟁을 준비하여 의로운 민족과 싸우려 하였다. 보라, 어두움과 검은 어둠, 고통과 괴로움, 슬픔과 혼란이 땅 위에 가득하였다. 모든 의로운 민족이 두려워하며 자기들의 환난을 걱정하였다.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며 하느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서 작은 샘에서 많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큰 강이 흘러나왔다. 빛과 해가 떠올라 겸손한 자들이 높아지고 존귀한 자들이 삼켜졌다. 모르데개는 이 꿈과 하느님이 하려 하시는 일을 보고 일어나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였고, 밤이 될 때까지 그 뜻을 해석하려 애썼다. 모르데개는 왕의 두 시종인 가바타와 타라가와 함께 왕궁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다. 이들은 왕궁을 지키는 환관들이었다. 그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그들의 계획을 알아내었다. 그들은 아하수어로 왕에게 손을 대려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렸다. 왕은 두 시종을 심문하였다. 그들은 자백하였고, 잡혀가서 처형되었다. 왕은 이 일을 기록으로 남겼다. 모르데개도 이 일에 관해 기록하였다. 왕은 모르데개에게 왕궁에서 봉사하도록 명령하고, 이 봉사를 위해 선물을 주었다. 그러나 하메다타의 아들인 하만은 왕 앞에서 존중받았고, 왕의 두 시종 때문에 모르데개와 그의 백성을 해치려 하였다.

² 그때에 아하수어로 왕이 수사 성에 왕위에 앉아 있었는데,

³ 그가 통치한 세 번째 해에, 그는 친구들과, 다른 모든 민족의 사람들과,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귀족들과, 지방 총독들의 수장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⁴ 이 일 후, 그는 백팔십 일 동안 자신의 왕국의 부와 그의 풍성한 재산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⁵ 잔치의 날들이 끝난 후, 왕은 성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왕궁 안뜰에서 여섯 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⁶ 그곳은 고운 베와 아마로 장식되었고, 고운 베와 자주색 줄로 흰 대리석과 돌 기둥에 매달려 있었다. 천연석과 진주와 흰 대리석으로 만든 바닥 위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침상이 놓여 있었고, 투명한 천은 다양한 꽃무늬로 장식되어 주위에 장미가 배열되어 있었다.

⁷ 금과 은으로 된 잔들이 놓여 있었고, 삼만 탈란트의 가치를 지닌 석류석으로 만든 작은 잔도 마련되었으며, 풍부하고 달콤한 포도주가 있었고, 왕 자신이 마셨다.

⁸ 이 잔치는 정해진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고, 왕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왕은 시종들에게 자신의 뜻과 잔치 참석자들의 뜻을 따르도록 명령하였다.

⁹ 또 왕비 바시티는 아하수어로 왕이 거주하는 궁전에서 여성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¹⁰ 일곱째 날, 왕이 취한 상태에서 하만, 바잔, 타라가, 바라제, 자톨타, 아바타자, 타라바라는 아하수어로 왕의 일곱 시종에게 말하였다.

¹¹ 그들에게 왕비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여, 그녀를 왕좌에 앉히고 관을 씌우며, 귀족들에게 그녀를 보여주고, 모든 민족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이려 하였다. 그녀는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¹² 그러나 왕비 바시티는 시종들의 부름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왕은 슬퍼하고 분노하였다.

¹³ 그러자 왕은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바시티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니 이 사건에 대해 너희의 법적 판단을 내려라."

¹⁴ 그러자 왕 곁에 있어 왕과 함께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던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귀족 아르케세우스, 사르사테우스, 마리세아가 왕에게 나아갔다.

¹⁵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긴 바시티 왕비에게 법에 따라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할지, 왕에게 보고하였다.

¹⁶ 그러자 머우칸이 왕과 귀족들에게 말하였다. "왕비 바시티는 왕만을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왕의 모든 관리들과 귀족들도 불순종하였습니다."

- ¹⁷ 왜냐하면 그녀가 왕의 말을 듣고 왕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아하수어로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처럼,
¹⁸ 오늘날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귀족들의 다른 아내들이 그녀가 왕에게 한 말을 듣고, 그녀처럼 남편들을 모욕하려 할 것입니다."
- ¹⁹ 그러므로 왕께서 기쁘시다면, 왕은 왕명을 내려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기록하고, 그것을 바꾸지 않게 하소서. "왕비를 다시 왕께 뵙지 못하게 하시고, 왕은 그녀의 왕비 지위를 그녀보다 더 나은 여자에게 주소서."
- ²⁰ 왕이 내리는 이 법이 왕국 전역에 널리 선포되게 하소서. 그러면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존중하게 될 것이며, 가난한 자부터 부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러할 것입니다."
- ²¹ 이 조언은 왕과 귀족들에게 기쁘게 여겨졌고, 왕은 매우칸의 말대로 행하였다.
- ²² 그리고 왕은 각 지방에 편지를 보내어, 각 언어로 그 뜻을 전하여, 남편들이 자기 집에서 두려움을 받게 하였다.

에스테르기 2장

- ¹ 이 일 후에 왕의 분노가 가라앉아 더 이상 바시티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바시티가 한 말과 자신이 그녀를 폐한 것을 기억하였다.
- ² 그러자 왕의 신하들이 말했다. "왕께 어울리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젊은 처녀들을 찾아내소서."
- ³ 왕께서는 자신의 왕국 모든 지방에 지방 관리들을 임명하여, 아름답고 순결한 젊은 여인들을 선정하여 수사 성으로 데려오게 하소서. 그들은 왕의 내시이자 여인들을 감독하는 자에게 맡겨지며, 정화에 필요한 것들과 다른 필요 물품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하소서.
- ⁴ "왕이 기뻐하는 여인이 바시티 대신 왕비가 되게 하소서." 이 제안은 왕에게 기쁨을 주었고, 왕은 그대로 행하였다.
- ⁵ 수사 성에 유대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드개였다. 그는 자이르의 아들, 시메이의 아들, 키흐의 아들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
- ⁶ 그는 바빌론 왕 느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끌고 간 포로였다.
- ⁷ 그는 아미나답의 딸, 즉 자기 아버지의 형제의 딸을 양녀로 돌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에스더였다. 그녀의 부모가 죽은 후, 그는 그녀를 자기 딸처럼 키워 성년에 이르게 하였다. 이 여인은 아름다웠다.
- ⁸ 왕의 명령이 공포되자, 많은 여인들이 헤가의 손에 따라 수사 성으로 모여들었고, 에스더도 여인들을 감독하는 헤가에게 데려다졌다.
- ⁹ 그 여인은 그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의 눈에 호감을 샀다. 그는 곧바로 그녀에게 정화에 필요한 것들과 그녀의 몫, 그리고 궁중에서 지정된 일곱 명의 시녀들을 주었다. 그는 여인들의 침실에서 그녀와 그녀의 시녀들을 잘 대우하였다.
- ¹⁰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데카이가 그녀에게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 ¹¹ 모르데카이는 매일 여인들의 마당을 거닐며,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 살펴보았다.
- ¹² 이제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가 되었는데, 그녀가 열두 달을 채운 후였다. 이는 정결의 날들이 이렇게 완성되기 때문이었다. 여섯 달은 몰약 기름으로 몸을 기름칠하고, 여섯 달은 향과 여성들의 정결 의식으로 보냈다.
- ¹³ 그리고 그 여인이 왕에게 나아갔다. 왕이 명령한 관리가 그 여인을 여성들의 침실에서 왕의 침실로 데려왔다.
- ¹⁴ 그녀는 저녁에 들어가고 아침에 헤가이, 즉 왕의 내시가 여성들을 감독하는 여성들의 둘째 침실로 떠났다. 그녀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한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다.
- ¹⁵ 모르데카이의 아버지의 형제 아미나답의 딸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가 되자, 그녀는 내시이자 여성들의 감독이 명령한 것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에스더는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이의 눈에 은총을 얻었다.
- ¹⁶ 그러므로 에스더는 왕의 일곱 번째 통치 해에, 즉 아달 달에 왕 아하수에로스에게 나아갔다.
- ¹⁷ 왕은 에스더를 사랑했고, 그녀는 다른 모든 처녀들보다 더 큰 은총을 받았다. 왕은 그녀에게 왕비의 면류관을 씌웠다.
- ¹⁸ 왕은 칠 일 동안 모든 친구들과 귀족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고, 에스더의 혼인을 크게 축하하며, 자기 통치 아래 있는 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 ¹⁹ 그 동안 모르데카이는 궁전 안뜰에서 봉사했다.
- ²⁰ 에스더는 자기 나라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모르데카이가 그녀에게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으며, 그녀가 그와 함께 있을 때와 같이 행동했기 때문이다. 에스더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 ²¹ 왕의 두 내시, 즉 친위대의 장관들이 모르데카이가 승진한 것을 보고 분노하여 왕 아하수에로스를 죽이려 하였다.
- ²² 그러나 이 일은 모르데카이에게 드러났고, 그는 에스더에게 이를 알렸다. 에스더는 왕에게 이 음모의 사실을 고발하였다.
- ²³ 왕은 두 내시를 심문하여 그들을 매달았다. 그 후 왕은 모르데카이가 보인 충성에 대해 왕실 도서관에 기록을 남기도록 명령하여 그를 칭찬하였다.

에스테르기 3장

- ¹ 이 후에 아하수어로 왕은 부가인 하메다타의 아들 하만을 크게 존중하였다. 그를 높여 모든 친구들 위에 앉히었다.
- ² 궁 안의 모든 이들이 그에게 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이었고, 그러나 모르데카이는 그에게 절하지 않았다.
- ³ 왕의 궁 안의 사람들이 모르데카이에게 말하였다. "모르데카이야, 어찌하여 너는 왕의 명령을 어기느냐?"
- ⁴ 그들은 매일 그에게 물었으나,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하만에게 모르데카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보고하였고, 모르데카이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그들에게 밝혔다.
- ⁵ 하만이 모르데카이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알고 매우 분노하였다.
- ⁶ 그는 아하수어로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유대인을 완전히 멸망시키려 꾸몄다.
- ⁷ 아하수어로의 통치 제12년에 하만은 날과 달을 제비로 뽑아 모르데카이의 족속을 하루 만에 죽이기로 결정하였다. 제비는 아달 달의 열네째 날에 떨어졌다.
- ⁸ 그러므로 그는 아하수어로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온 왕국 안에 모든 민족 사이에 흩어져 있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모든 민족과 다릅니다. 그들은 왕의 법을 어깁니다. 왕이 그들을 용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⁹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그들을 멸망시키는 조서를 내리소서. 저는 왕의 국고에 만 탈란트의 은을 바치겠습니다."
- ¹⁰ 그러자 왕은 자신의 반지를 벗어 하만의 손에 주어 유대인을 향한 조서에 인장을 찍게 하였다.
- ¹¹ 왕이 하만에게 이르기를, "은은 네가 가져라. 그 민족을 네 뜻대로 대하라."
- ¹² 그러므로 첫째 달 열세째 날에 왕의 기록관들이 불러와서, 하만의 명령에 따라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일백 이십칠 개의 성에 있는 장군들과 총독들에게 기록하였다. 그리고 각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아하수어로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였다.
- ¹³ 아하수어로 왕국 전역에 사신들이 파견되어, 제십이 달, 즉 아달월의 첫째 날에 유대인의 씨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게 하였다. [이것은 그 편지의 사본이다. "위대한 왕 아하수어로가 그 아래에 있는 일백 이십칠 개 성의 지도자들과 총독들에게, 그 아래에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에게 보내는 말이다. 나는 많은 민족을 다스리며 온 세계를 정복하였으므로, 권력에 대한 자신감에 겨워서가 아니라 항상 큰 절제와 온화함으로 행동하며, 내 백성들의 삶을 끊임없이 평온하게 하려고 결심하였다. 왕국을 최대한으로 조용하고 질서 있게 유지하고, 모든 이가 바라는 평화를 회복하려는 바였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실현할지 내 고문들에게 묻자, 우리 가운데 판단력이 뛰어나고, 명백히 변함없이 불굴의 충성심을 지니며 왕국에서 두 번째 지위를 차지한 하만이 우리에게 알렸다. 세계 모든 지파 사이에 흩어져 있는 어떤 악의적인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법은 모든 다른 민족과 대립하며, 왕의 명령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게 다스리는 통치가 조용히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이 항상 모든 이에게 대적하며, 외국의 법을 도입하여 우리 이익과 왕국의 안정된 기반에 최악의 악을 꾀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 아래에 공공 업무를 맡고 우리 두 번째 총독인 하만이 쓴 이 편지에 따라,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모두 칼로 멸망시키되, 아무도 불쌍히 여기거나 아끼지 말고, 올해 제십이 달 아달월 열네째 날에 죽이도록 명령한다. 이처럼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악의를 품었던 이 민족이 하루 만에 폭력적으로 죽임을 당함으로써, 향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잘 정비되고 조용한 상태를 확보하게 하리라."
- ¹⁴ 이 편지의 사본은 각 성에 공포되었고, 모든 민족에게 그 날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 ¹⁵ 수사에서 이 일은 빨리 진행되었다. 왕과 하만은 마시기 시작했으나, 성은 혼란에 빠졌다.

에스테르기 4장

- 1 모르데카이는 일어난 일을 알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며 흙을 머리에 뿌렸다. 그는 성문을 지나며 큰 소리로 외쳤다. "무죄한 민족이 멸망하려 한다!"
- 2 그는 왕의 문 앞에 이르러 서 있었는데, 베옷과 재를 입은 채 궁전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3 서신이 공포된 모든 지방에서 유대인들은 울부짖고 애곡하며 큰 슬픔을 느꼈다. 그들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렸다.
- 4 여왕의 시녀들과 시종들이 들어가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그녀가 일어난 일을 듣고 크게 근심하였다. 그녀는 모르데카이에게 옷을 보내 베옷을 벗게 하려 했으나, 그는 거절하였다.
- 5 에스더는 자신을 섬기는 시종 하타크를 불러, 모르데카이가 무슨 일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보게 하였다.
- 7 모르데카이는 그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말하고, 하만이 왕에게 만 달란트를 국고에 바치겠다고 약속하며 유대인을 멸망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 8 그는 수사에서 유대인의 멸망에 관해 공포된 문서의 사본을 하타크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주게 하고, 그녀에게 왕에게 들어가 간청하라고 명령하였다. "너의 겸손한 시절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품에 안아 기르던 날들을 기억하라.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하만이 우리를 향해 죽음의 음모를 꾸몄다. 주님을 부르고, 왕에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라."
- 9 하타크는 들어가 에스더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였다.
- 10 에스더는 하타크에게 말하였다. "모르데카이에게 가서 말하여라,"
- 11 "제국의 모든 민족이 알고 있듯이, 왕의 안뜰에 불려지지 않고 들어가는 남자나 여자는 모두 죽음에 처해진다. 다만 왕이 금 지팡이를 펼쳐 주면 그 사람은 살 것이다. 나는 이미 삼십 일 동안 왕에게 불려가지 못하였다."
- 12 하타크는 에스더의 모든 말을 모르데카이에게 전하였다.
- 13 그러자 모르데카이는 하타크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녀에게 말하여라. 에스더야, 너 자신이 유대인들 중 유일하게 왕국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 14 "이때에 침묵한다면, 유대인을 위한 구원과 구원은 다른 곳에서 올 것이지만,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이때를 위해 여왕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 15 에스더는 자신에게 온 사자를 모르데카이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 16 "가서 수사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모으고, 나를 위해 삼 일 동안 금식하라.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라. 나와 내 시녀들도 금식할 것이다. 그 후 나는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겠다. 죽는다면 죽으리라."
- 17 그러므로 모르데카이는 에스더가 명령한 모든 일을 행하였다.
- 18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모든 행적을 기억하였다.
- 19 그는 말하였다. "주 하느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시여,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으며, 주님의 이스라엘 구원의 뜻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 20 "주님은 하늘과 땅과 하늘 아래 모든 놀라운 것을 만드셨습니다."
- 21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며, 주님을 거스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 22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이 일을 한 것은 오만이나 교만, 영광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교만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 23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 저는 그의 발바닥에 입을 맞추는 것을 기꺼이 하였을 것입니다."
- 24 "그러나 저는 사람의 영광을 하느님의 영광 위에 두지 않기 위해 이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주님, 제 주님 외에는 누구도 숭배하지 않으며, 이 일을 교만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 25 "이제, 주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왕이시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려 꾸미고, 당신의 옛 유산을 파괴하려 합니다."
- 26 당신이 이집트 땅에서 스스로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 27 내 기도를 들으소서. 당신의 기업에 자비를 베풀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을 찬양하는 자들의 입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마소서.

28 이스라엘 전체가 힘껏 외쳤다. 죽음이 그들의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29 왕비 에스데르는 죽음의 고통에 빠진 듯 주님께 피난하였다.

30 그녀는 화려한 옷을 벗고 슬픔과 애도의 옷을 입었다. 향기로운 향신료 대신에 그녀는 머리에 재와 부스러기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몸을 크게 낮추었고, 자신이 즐거움으로 장식하던 모든 곳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풀어놓았다.

31 그녀는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을 간청하며 말했다. "오 나의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를 도우소서. 저는 가난하고, 당신 외에는 도우는 이가 없습니다."

32 제 위험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33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제 족속의 지파에서 들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우리 조상들을 모든 친족 가운데서 뽑아내어 영원한 기업을 삼으셨고,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34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당신 앞에 죄를 지었고, 당신은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35 이는 우리가 그들의 신들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36 그러나 지금 그들은 우리 노예의 쓴맛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의 우상의 손을 우리 손에 얹었습니다.

37 당신의 입에서 나온 명령을 폐지하고, 당신의 기업을 완전히 멸망시키며, 당신을 찬양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 당신의 집과 제단의 영광을 끄려 합니다.

38 또 이방인들의 입을 열어 허무한 것들을 찬양하게 하고, 한 죽을 자의 왕이 영원히 존경받게 하려 합니다.

39 주님, 당신의 지팡이를 존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주지 마시고, 그들이 우리의 몰락을 보고 웃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계획을 그들 자신에게 돌리시고, 우리를 해치려 시작한 자를 본보기로 삼으소서.

40 주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 고통의 때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소서. 저를 격려하소서. 하느님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의 주재이시여!

41 사자 앞에서 제 입에 조화로운 말을 넣으시고, 그의 마음을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미워하게 하소서. 그와 동조하는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소서.

42 그러나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혼자이며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는 저를 도우소서. 주님.

43 모든 것을 아시며, 제가 범죄자의 영광을 미워하고, 할례받지 못한 자와 모든 외국인의 침상을 혐오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44 당신은 제 곤경을 아십니다. 제가 영광스러운 날들에 머리에 쓰는 제 고귀한 지위의 상징을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월경하는 옷처럼 혐오하며, 제 평온한 날들에는 그것을 쓰지 않습니다.

45 당신의 종은 하만의 상을 먹지 않았고, 왕의 잔치를 존중하지 않았으며, 제물의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46 제가 승진된 날부터 지금까지, 주 아브라함의 하느님 외에는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47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느님, 절망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 두려움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에스테르기 5장

¹ 세 번째 날이 되어 그가 기도를 마친 후, 그는 하녀의 옷을 벗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다. 아름답게 단장하고, 모든 것을 감독하고 보존하시는 하느님을 부르며, 그는 두 시녀를 데리고, 한 명의 어깨에 기대어 부드러운 여인처럼 걸었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옷자락을 메고 뒤를 따랐다. 그는 아름다움의 완전함으로 피어나 있었다. 그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아름다워 보였으나,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문을 지나쳐 그는 왕 앞에 섰다. 왕은 왕좌에 앉아 있었고, 모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금과 귀한 보석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매우 무서운 모습이었다. 왕은 영광으로 빛나는 얼굴을 들어 격렬한 분노로 바라보았다. 여왕은 쓰러져 기색이 변하며 기절하였다. 그는 앞서 걸던 시녀의 머리 위로 몸을 기울였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왕의 마음을 온화하게 바꾸셨고, 왕은 강한 감정에 사로잡혀 왕좌에서 뛰어내려 그를 품에 안아, 그가 회복될 때까지 붙들어 주었다. 그는 평화로운 말로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에스테르야, 무슨 일인가? 나는 네 친척이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명령은 네게 공개적으로 선언되었다. '다가오라.'"

² 그가 금으로 된 왕관을 들어 그녀의 목에 얹고 안아주며 말했다. "내게 말해라." 그녀가 대답했다. "제가 주님을 보니 하느님의 천사 같았고,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하여 제 마음이 떨렸습니다. 주님, 제게는 주님께서 놀라우시며, 주님의 얼굴에는 은총이 가득합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기절하여 쓰러졌다. 그러자 왕은 당황했고, 그의 모든 시종들이 그녀를 위로했다.

³ 왕이 말했다. "에스테르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청하느냐?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청해라. 네 것이 될 것이다."

⁴ 에스테르가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왕과 하만을 제가 오늘 준비하는 잔치에 초대해 주십시오."

⁵ 왕이 말했다. "즉시 하만을 여기로 데려오너라. 에스테르가 말한 대로 하리라." 그래서 둘 다 에스테르가 말한 잔치에 왔다.

⁶ 잔치에서 왕이 에스테르에게 말했다. "에스테르 왕비여,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요구하는 것을 모두 줄 것이다."

⁷ 그녀가 말했다. "제가 구하는 것과 간청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⁸ 만약 제가 왕의 눈에 은총을 입었다면, 내일 왕과 하만이 다시 제가 준비할 잔치에 오시고, 내일 저는 오늘과 같이 하겠습니니다.

⁹ 그러므로 하만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왕의 앞에서 나갔으나, 하만이 궁전에서 유대인 모르데개를 보고 크게 분노하였다.

¹⁰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는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불렀다.

¹¹ 그는 왕이 자신에게 주신 부와 영광, 그리고 자신을 왕국의 최고 통치자로 높였음을 그들에게 보여 주었다.

¹² 하만이 말했다. "여왕은 왕과 함께 잔치에 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고, 나는 내일 초대되었다."

¹³ 그러나 내가 궁전에서 유대인 모르데개를 보는 한, 이 모든 것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한다."

¹⁴ 그러자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을 위해 높이 오십 큐빗인 교수대를 만들십시오. 아침에 왕에게 말하여 모르데개를 그 교수대에 매달게 하고, 당신은 왕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 즐기십시오." 이 말이 하만에게 기쁘게 여겨져 교수대가 준비되었다.

에스테르기 6장

- ¹ 그 밤에 주님께서 왕에게 잠을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왕은 그의 하인에게 책과 일일 기록을 가져오게 하여 읽어 주게 했다.
- ² 그리고 왕은 모르도카이가 왕의 두 시위대 장관이 경비를 서던 중 아하수제로를 해치려 한다고 왕에게 알린 일에 관한 기록을 발견했다.
- ³ 왕이 말했다. "우리는 모르도카이에게 어떤 명예나 은혜를 베풀었는가?" 왕의 하인들이 대답했다. "당신은 그에게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 ⁴ 왕이 모르도카이의 공로를 묻고 있을 때, 하만이 궁전 마당에 서 있었다. 왕이 말했다. "마당에 누가 있는가?" 하만은 모르도카이를 매달기 위해 미리 준비한 갈보를 가지고 왕에게 말하려고 들어왔다.
- ⁵ 왕의 하인들이 말했다. "보소서, 하만이 마당에 서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를 불러라!"
- ⁶ 왕이 하만에게 말했다. "내가 명예를 주고 싶은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만은 속으로 생각했다. "왕이 명예를 주고 싶어 할 사람은 나 외에 누구겠는가?"
- ⁷ 그가 왕에게 말했다. "왕이 명예를 주고 싶어 하는 그 사람에게,
- ⁸ 왕의 하인들이 왕이 입는 고운 베의 옷과 왕이 타는 말을 가져오게 하며,
- ⁹ 그 옷과 말을 왕의 존귀한 친구 중 한 사람에게 주어, 왕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 옷으로 입히고 말에 태우며, 도시의 거리에서 선포하게 하십시오. 그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왕이 명예를 주는 자에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 ¹⁰ 그러자 왕이 하만에게 말했다. "네 말이 옳다. 이스라엘 사람 모르도카이에게, 궁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그대로 하라. 네가 말한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라!"
- ¹¹ 그러자 하만은 옷과 말을 가져와 모르도카이를 입히고 말에 태우고 도시의 거리를 지나다니며 선포했다. "왕이 명예를 주고 싶어 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 ¹² 그 후 모르도카이는 궁전으로 돌아갔고, 하만은 슬퍼하며 머리를 가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 ¹³ 하만은 자기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말했다. 그들의 친구들과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모르도카이가 유대인의 혈통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복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와 함께 살아 계신 분께서 있기 때문입니다."
- ¹⁴ 그들이 아직 말을 마치지 않았을 때, 시위대 장관들이 도착하여 하만을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로 데려갔다.

에스테르기 7장

- ¹ 그러므로 왕과 하만은 왕비와 함께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
- ² 왕이 두 번째 날 잔치에서 에스더에게 말했다. "왕비 에스더야,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간청하는가? 네가 원하는 대로, 내 왕국의 절반까지도 네게 주겠다."
- ³ 그녀가 대답하여 말했다. "만일 내가 왕의 눈에 은총을 입었다면, 제 목숨을 제 간청으로, 제 백성을 제 소원으로 허락해 주소서."
- ⁴ 저와 제 백성이 파멸과 약탈과 학살을 위해 팔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녀와 함께 남녀 노예로 팔렸다면, 저는 왕께 귀찮게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왕의 궁전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 ⁵ 왕이 말했다. "누가 이 일을 감행했던 말인가?"
- ⁶ 에스더가 말했다. "적은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러자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무서워 떨어졌다.
- ⁷ 왕은 잔치에서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다. 하만은 큰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왕비에게 자비를 간청하기 시작했다.
- ⁸ 왕이 정원에서 돌아왔을 때, 하만은 침상에 쓰러져 왕비에게 자비를 간청하고 있었다. 왕이 말했다. "내 집에서 내 아내를 강간하려 한다는 말인가?" 하만이 이 말을 듣자 얼굴색이 변했다.
- ⁹ 한 명의 시종들던 자인 부가단이 왕에게 말했다. "보소서, 하만은 왕을 위해 말한 모드카이를 위해 이미 나무 갈고리를 준비했습니다. 그 갈고리는 높이가 오십 큐빗이나 되며 하만의 재산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를 그 갈고리에 매달아라!"
- ¹⁰ 그러므로 하만은 모드카이를 위해 준비했던 갈고리에 매달렸다. 그제서야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에스테르기 8장

- ¹ 그 날, 아하수어로 왕은 햄안의 허위 비방자에게 속한 모든 것을 에스더에게 주었다. 왕은 모르데카이를 불렀는데, 에스더가 그가 자기와 친척임을 말했기 때문이다.
- ² 왕은 햄안에게서 빼앗은 반지를 가져와 모르데카이에게 주었다. 에스더는 모르데카이를 햄안의 모든 소유물 위에 임명했다.
- ³ 그녀는 다시 왕에게 말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햄안이 유대인들에게 행한 악행과 그 모든 일을 되돌려 달라고 간청했다.
- ⁴ 그러자 왕은 금 지팡이를 에스더에게 뺏어 주었고, 에스더는 일어나 왕 곁에 서 있었다.
- ⁵ 에스더가 말했다. "만약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제가 왕의 눈에 은총을 입었다면, 햄안이 보낸 서신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그 서신은 왕의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쓰여졌습니다."
- ⁶ 어떻게 제가 제 백성의 고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제 친척의 멸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 ⁷ 그러자 왕이 에스더에게 말했다. "내가 햄안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그가 유대인들에게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를 나무에 매달았는데, 네가 또 무엇을 더 구하느냐?"
- ⁸ 내 이름으로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쓰고, 내 반지로 도장을 찍어라. 왕의 명령으로 쓰이고 내 반지로 도장이 찍힌 것은 모두 취소할 수 없다.
- ⁹ 그러므로 첫째 달, 곧 니산월의 이십삼일에 서기관들이 불러 와서, 왕이 명령한 대로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일백 이십칠 개의 지방과 그 지방의 총독들과 관리들에게 명령을 써서 보냈다. 각 지방의 언어로 쓰였다.
- ¹⁰ 이 명령은 왕의 명령에 따라 쓰여지고, 그의 반지로 도장이 찍혔으며, 사자들이 이를 전달했다.
- ¹¹ 그 안에는 각 도시에서 자기들의 법을 사용하여 서로를 돕고, 적대자들과 자신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마음대로 대하도록 명령했다.
- ¹² 아하수어로 왕의 나라 전역에서, 열두 번째 달, 곧 아달월의 열셋째 날에.
- ¹³ 이것은 명령을 담은 서신의 사본이다: [위대한 왕 아하수어로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일백 이십칠 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지배자들에게 인사한다. 이는 우리 이익을 지키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이들이 자주 그들의 후원자들의 풍성한 자비로 존경을 받았으나, 야심 찬 계획을 품고, 단지 우리 백성들을 해치려는 것을 넘어서, 변명을 견디지 못하여 오히려 자신의 후원자들을 공격하려 한다. 그들은 인간 사이에서 감사의 마음을 완전히 없애려 하며, 또한 선한 것에 대해 무지한 자들의 자랑에 취해, 항상 보시는 분의 죄를 미워하시는 보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악한 권유는 종종 무고한 피를 흘리는 죄에 동참하게 만들고, 친구들의 일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많은 권위 있는 자들을 돌이킬 수 없는 재난에 빠지게 했다. 악한 성향의 거짓 논리로, 통치권을 가진 자들의 순진한 선의를 속였다. 이는 오래된 전통적 기록보다, 바로 지금 당신이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악한 자들이 행한 악행을 조사함으로써 쉽게 볼 수 있다. 미래를 대비하여, 모든 이들에게 평화로운 통치를 유지하고, 필요한 변화를 도입하며,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 햄안은 마케도니아 출신으로, 하메다타의 아들로서, 페르시아 혈통과는 전혀 다른 자이며, 우리 정책과도 크게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환대하여, 우리 아버지라 불리고, 왕좌 다음으로 존경받는 자가 되게 하였으나, 그는 교만에 빠져 우리 통치권과 생명을 빼앗으려 하였다. 그는 여러 가지 교묘한 수단으로 우리 구원자이자 영원한 후원자인 모르데카이와, 우리 왕국의 흥잡을 데 없는 배우자인 에스더와 그들의 온 백성을 멸망시키려 하였다. 그는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빠졌을 때, 페르시아의 통치권을 마케도니아로 옮기려 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비열한 자에 의해 멸망의 대상이 된 유대인들이 악인들이 아니라, 가장 정의로운 법에 따라 살아가며, 살아계신 분, 가장 높고 강대하신 분의 아들들임을 알게 되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에게 왕국을 가장 훌륭한 질서로 유지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메다타의 아들 햄안이 보낸 서신을 따르지 말라. 그가 행한 이 모든 일을 하여,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수사의 문 앞에서 매달렸으니, 전능하신 분께서 그에게 합당한 벌을 빠르게 내리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서신의 사본을 모든 곳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합법적인 관습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들을 강화하라. 열두 번째 달, 아달월의 열셋째 날에, 그들이 고통의 시기에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라. 선택된 백성의 멸망을 위해, 전능하신 분께서 그들에게 기쁨의

시기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의 명절 중에 특별한 날을 정하여 모든 즐거움으로 지키라. 이 날이 지금과 앞으로 우리와 페르시아를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우리를 공모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기억이 되게 하라. 이에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도시와 지방은 창과 불로 멸망할 것이며, 인간에게만 아니라, 야수와 새들에게도 영원히 혐오스러운 곳이 될 것이다.] 이 사본을 나라 전역의 명확한 장소에 게시하라. 모든 유대인들이 이 날을 위해 적들을 대항할 준비를 하라.

¹⁴ 그러므로 기마대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빠르게 출발했다. 이 명령은 수사에서도 공포되었다.

¹⁵ 모르데카이는 왕실의 옷을 입고, 금 관과 고급 자주색 베로 만든 관을 쓰고 나왔다. 수사의 백성들이 이를 보고 기뻐했다.

¹⁶ 유대인들에게는 빛과 기쁨이 있었다.

¹⁷ 명령이 공포된 모든 도시와 지방에서, 유대인들은 기쁨과 즐거움, 잔치와 환회를 누렸다. 많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였다.

에스테르기 9장

- 1 열두 번째 달, 즉 아달월 열세 번째 날에, 왕이 내린 서신이 도착하였다.
- 2 그날, 유대인의 원수들이 모두 죽었으니, 그들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였다.
- 3 지방 총독들의 지도자들과 귀족들과 왕실 서기관들이 유대인을 존중하였으니, 이는 모르데카이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쳤기 때문이다.
- 4 왕의 명령이 그를 왕국 전역에서 존경받게 하였기 때문이다.
- 6 수사 성에서 유대인들이 오백 명을 죽였으며,
- 7 바르사네스, 델폰, 파스가,
- 8 파라다타, 바레아, 사르바카,
- 9 마르마시마, 루페우스, 아르사우스, 자부타이우스를 포함하여,
- 10 유대인의 원수인 하메다타의 아들 하만의 열 아들들을 죽였고, 그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였다.
- 11 수사에서 죽은 자들의 수가 왕에게 보고되었다.
- 12 그러자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였다. "유대인들이 수사 성에서 오백 명을 죽였구나. 그들이 나머지 땅에서는 무엇을 하였을까? 네가 더 무엇을 바라느냐?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해 주리라."
- 13 에스더가 왕에게 말하였다. "내일도 유대인들이 그들과 같은 일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달아 주십시오."
- 14 왕은 그대로 하도록 허락하였고, 수사 성의 유대인들에게 하만의 아들들의 시체를 달아 주도록 허락하였다.
- 15 유대인들이 아달월 열네 번째 날에 수사에서 모여 삼백 명을 죽였으나, 재산은 약탈하지 않았다.
- 16 왕국의 나머지 유대인들도 모여 서로 돕고,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얻었으니, 그들이 아달월 열세 번째 날에 일만 오천 명을 죽였으나, 아무것도 약탈하지 않았다.
- 17 그들은 그 달 열네 번째 날에 안식하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날을 지켰다.
- 18 수사 성의 유대인들도 열네 번째 날에 모여 안식하였고, 열다섯 번째 날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켰다.
- 19 이러한 이유로, 외국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아달월 열네 번째 날을 기쁨으로 거룩한 날로 지키며, 이웃에게 음식을 선물한다.
- 20 모르데카이는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아하수어로 왕의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 가까운 자와 먼 자에게 보내었으며,
- 21 이 날들을 기쁨의 날로 정하고, 아달월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날을 지키게 하였다.
- 22 이 날들에 유대인들이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얻었고, 그 달, 곧 아달월에 그들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애도에서 축제로 바뀌었으니, 그들은 온 달을 즐겁고 기쁜 날들로 보내며, 친구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 23 유대인들은 모르데카이가 그들에게 보낸 대로 이에 동의하였다.
- 24 하만이 하메다타의 아들로 마케도니아 사람으로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명령을 내리고 제비를 뽑았음을 보여 주었으며,
- 25 그가 왕에게 나아가 모르데카이를 매달아 달라고 말했으나, 그가 유대인들에게 내리려 했던 모든 재앙이 그 자신에게 돌아왔고, 그와 그의 아들들이 매달렸음을 보여 주었다.
- 26 그러므로 이 날들은 그들의 언어에서 제비를 '푸림'이라 부르기 때문에 '푸림'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이 편지의 내용과, 이 때문에 그들이 겪은 모든 고난과 일어난 모든 일 때문이었다.
- 27 모르데카이가 이를 확립하고, 유대인들은 자신과 자손 및 자신에게 합류한 이들에게 이 날들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도 이를 바꾸지 않기로 하였다. 이 날들은 모든 세대와 도시와 가족과 지방에서 기념되어야 했다.
- 28 이 푸림의 날들은 영원히 지켜질 것이며, 그 기념은 어떤 세대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29 아미나답의 딸인 여왕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데카이가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을 기록하고, 푸림에 관한 편지의 확정을 내렸다.
- 31 모르데카이와 여왕 에스더가 자신의 안녕을 바탕으로 이 결정을 확립하였다.

³² 에스더가 명령을 내려 이를 영원히 확립하였고, 기념으로 기록되었다.

에스테르기 10장

- ¹ 왕은 육지와 바다를 통해 자신의 왕국에 세금을 부과하였다.
- ² 그의 힘과 용감함, 그리고 그의 왕국의 부와 영광을 보라. 그것들은 기념으로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 ³ 모르데카이는 아하수에로스 왕의 부왕이었고, 왕국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어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았으며, 자신의 민족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생을 마쳤다.
- ⁴ 모르데카이가 말했다. "이 모든 일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 ⁵ 내가 이 일들에 관해 곧 꿈을 기억한다. 그 모든 세부 사항 하나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 ⁶ 작은 샘물이 강이 되었고, 빛이 있었으며, 태양과 많은 물이 있었다. 그 강은 에스테르이며, 왕이 그녀와 결혼하여 왕비로 세운 자이다.
- ⁷ 두 뱀은 하만과 나이다.
- ⁸ 그 민족들은 유대인의 이름을 멸하려고 결합한 자들이다.
- ⁹ 그러나 내 민족은 이스라엘이다. 곧 하느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모든 환난에서 구해내셨고, 하느님께서는 민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표적과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 ¹⁰ 그러므로 그분은 두 개의 제비를 정하셨다. 하나는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다른 민족을 위한 것이었다.
- ¹¹ 이 두 제비는 정해진 시기와 하느님 앞에서의 심판의 날, 그리고 모든 민족 앞에서 이루어졌다.
- ¹²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기업을 옹호하셨다.
- ¹³ 그들은 아달 달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날에, 하느님 앞에서 모임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날들을 세대를 거쳐 영원히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지킬 것이다.
- ¹⁴ 프톨레마이오스와 클레오파트라 통치 네 번째 해에, 제사장이자 레위인이라 말한 도시테우스와 그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푸림의 편지를 가져왔으며, 그들은 이것이 진실하다고 말했고, 예루살렘에 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아들 리시마코스가 이를 해석했다.

마카베오기 상권 | 1 Maccabees

마카베오기 상권 1장

- 1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 필리포스의 아들, 키티م 땅에서 나와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왕 다리우스를 친 후, 그가 그를 치고 나서 옛날에 그리스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
- 2 그는 많은 전투를 벌이고, 많은 요새를 정복하며, 땅의 왕들을 죽였다.
- 3 그는 땅 끝까지 진군하여 많은 민족들의 전리품을 빼앗았다. 땅은 그 앞에서 평온했고, 그는 높이 올라갔으며, 그의 마음은 교만해졌다.
- 4 그는 매우 강력한 군대를 모아 나라들과 민족들과 족장들을 다스렸고, 그들은 모두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 5 이 일들 후에 그는 병들어 죽게 될 것을 깨달았다.
- 6 그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난 존경받는 신하들을 불러와, 아직 살아 있을 때에 그들에게 자신의 왕국을 나누어 주었다.
- 7 알렉산드로는 열두 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그 후 죽었다.
- 8 그 후 그의 신하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통치했다.
- 9 그들이 모두 그가 죽은 후에 왕관을 썼고, 그들의 아들들도 그 후 수년 동안 그렇게 했다. 그들은 땅 위에 악을 많이 늘렸다.
- 10 그들 가운데서 최악의 뿌리가 나왔으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이다. 그는 로마에서 인질로 지냈던 왕 안티오코스의 아들로, 그리스 왕국의 137년째에 왕위에 올랐다.
- 11 그때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말했다. "우리가 이 주변 이방인들과 계약을 맺자. 우리들이 그들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재난이 우리에게 닥쳤다."
- 12 그 제안은 그들의 눈에 좋았다.
- 13 어떤 백성들이 왕에게 열심히 나아가자, 왕은 그들이 이방인들의 규례를 따르게 허락하였다.
- 14 그러므로 그들은 이방인들의 법에 따라 예루살렘에 체육관을 세웠다.
- 15 그들은 할례를 없애고, 거룩한 언약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뭉쳐 악을 행하기 위해 자신들을 팔았다.
- 16 왕국은 안티오코스 앞에서 굳혀졌고, 그는 이집트를 지배하여 두 왕국을 모두 통치하려 계획하였다.
- 17 그는 수많은 병력, 전차, 코끼리, 기마대, 그리고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이집트에 진입하였다.
- 18 그는 이집트 왕 톨레마이오스와 전쟁을 벌였다. 톨레마이오스는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도망쳤으며,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고 죽었다.
- 19 그들은 이집트 땅의 요새 도시들을 점령하고, 이집트의 전리품을 빼앗았다.
- 20 안티오코스는 이집트를 정복한 후, 백사십삼 년에 돌아와 거대한 병력과 함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다.
- 21 그는 무례하게 성소에 들어가서 황금 제단과 등불대, 그리고 그 모든 기구들을 빼앗았다.
- 22 그는 진설병상과 술제물 잔과 그릇들과 황금 향로와 휘장과 면류관들과 성전 앞면의 황금 장식들을 모두 뜯어내어 빼앗았다.
- 23 그는 은과 금과 귀중한 기구들을 빼앗았고, 발견한 숨겨진 보물들도 가져갔다.
- 24 그가 이것들을 모두 빼앗은 후, 자기 땅으로 떠났다. 그는 큰 학살을 저지르고 매우 교만하게 말하였다.
- 25 이스라엘 전역에 큰 슬픔이 닥쳤다.
- 26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신음했고, 처녀들과 젊은이들은 힘을 잃었으며, 여인들의 아름다움이 변하였다.
- 27 모든 신랑이 애곡을 부르고, 혼방에 앉은 자가 슬퍼하였다.
- 28 땅은 그 주민들 때문에 흔들렸고, 야곱의 온 집이 수치로 덮였다.
- 29 두 해가 완전히 지나자, 왕은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수장 하나를 보내었고, 그는 큰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 30 그는 교활하게 평화의 말로 그들에게 말했고, 그들은 그를 믿었다. 그 후 그는 갑작스럽게 도시를 습격하여 심하게 치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31 그는 도시의 전리품을 약탈하고, 도시에 불을 지르며, 모든 쪽의 집과 성벽을 허물었다.

32 그들은 여자와들 어린이들을 사로잡아 끌고, 가축을 빼앗았다.

33 그들은 큰 견고한 성벽과 강한 탑으로 다윗의 성을 요새화하여 그들의 요새로 만들었다.

34 그들은 법을 어기는 최악된 민족을 그곳에 두고, 그곳에서 힘을 기르며 굳건히 자리 잡았다.

35 그들은 무기와 식량을 저장하고, 예루살렘의 전리품을 모아 그곳에 쌓아두었으며, 그들은 큰 위협이 되었다.

36 그곳은 성소를 노리는 은밀한 곳이 되었고,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악한 적대자가 되었다.

37 그들은 성소 주변 어디에서나 무죄한 피를 흘리고, 성소를 더럽혔다.

38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여 도망쳤다. 그 도시는 외국인의 거처가 되었고, 그 안에서 태어난 자들에게는 이방지가 되었으며, 그 자녀들은 그녀를 버렸다.

39 그녀의 성소는 광야처럼 황폐해졌고, 그녀의 축일은 애곡으로 바뀌었으며, 그녀의 안식일은 모욕이 되고, 그녀의 영광은 비난이 되었다.

40 그녀의 영광에 따라 그녀의 수치가 더해졌고, 그녀의 존엄은 슬픔으로 바뀌었다.

41 안티오크 왕은 그의 온 왕국에 편지를 보내어 모든 사람이 한 민족이 되고,

42 각자가 자신의 법을 버리도록 명령하였다. 모든 민족이 왕의 말에 따라 동의하였다.

43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이 그의 숭배에 동의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안식일을 더럽혔다.

44 왕은 사신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에 편지를 보내어, 그들이 땅에 익숙하지 않은 법을 따르도록 명령하였다.

45 그리고 성소에서 번제와 제사와 술 제물을 금지하며, 안식일과 축일을 더럽히고,

46 성소와 거룩한 자들을 더럽히도록 명령하였다.

47 그리고 우상들을 위한 제단과 사원과 우상 숭배의 장소를 짓고, 돼지 고기와 부정한 짐승을 제사하도록 명령하였다.

48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을 할례하지 않도록 하며, 모든 부정과 더러움으로 그들의 영혼을 가증하게 만들도록 하였다.

49 그들이 율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규정을 바꾸게 하려고.

50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음에 처할 것이다.

51 그는 이 모든 명령을 자신의 온 왕국에 보냈고, 모든 백성 위에 감독을 임명하며,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했다.

52 율법을 버린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모여들어, 땅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53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들이 가진 모든 피난처에 숨기게 했다.

54 백사십오년 키스레우월 십오일에, 그들은 제단 위에 황폐의 가증한 것을 세우고, 유다의 모든 도시 주변에 우상 제단을 세웠다.

55 그들은 집 문과 거리에서 향을 태웠다.

56 그들은 발견되는 율법의 책들을 찢어 불태웠다.

57 언제든지 언약의 책을 소지한 자나 율법을 지키는 자를 발견하면, 왕의 명령에 따라 그를 죽음에 처했다.

58 그들은 이처럼 매달 도시에서 잡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힘을 다해 행했다.

59 그들은 달의 이십오일에, 번제단 위에 세운 우상 제단에 제물을 바쳤다.

60 그들은 자녀를 할례한 여자들을 명령에 따라 죽였다.

61 그들은 그 아이들을 어머니의 목에 매달고, 그 집들과 할례한 자들을 함께 처형했다.

62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이 결심하고 굳게 다짐하여,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다.

63 그들은 음식으로 더럽혀지지 않으며, 거룩한 언약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죽음을 택했고, 그들은 죽었다.

64 이스라엘 위에 매우 큰 분노가 내렸다.

마카베오기 상권 2장

- 1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온 요아립의 자손인 사제 요한의 아들, 시메온의 손자 마타티아가 일어나 모딘에 살았다.
- 2 그에게 아들 다섯이 있었다. 가디스라 불리는 요한;
- 3 타시라 불리는 시몬;
- 4 마카베오스라 불리는 유다;
- 5 아바란이라 불리는 엘라자르와 애프스라 불리는 요나단이었다.
- 6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모독을 보았다.
- 7 그가 말했다. "아, 내게 무슨 화가 이리도 크냐! 어찌하여 나는 내 백성의 멸망과 성스러운 도시의 파괴를 보고, 그 도시가 원수의 손에 넘겨지고, 성소가 이방인의 손에 들어가 있을 때에 태어났단 말인가?
- 8 그녀의 성전은 영광스러운 자처럼 되었다.
- 9 그녀의 영광스러운 기구들은 사로잡혀 끌려가고, 그녀의 어린아이들은 그녀의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며, 그녀의 젊은이들은 원수의 칼에 죽는다.
- 10 그녀의 궁전을 상속하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으며, 그녀의 전리품을 차지하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단 말인가?
- 11 그녀의 아름다움은 모두 빼앗겼다. 자유로운 여인에서 노예가 되었다.
- 12 보라, 우리의 성물과 아름다움과 영광이 파괴되었다. 이방인들이 그것을 더럽혔다.
- 13 우리가 어찌하여 더 이상 살겠는가?
- 14 마타티아와 그의 아들들은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크게 슬퍼하였다.
- 15 왕의 사신들이 이방 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러 모딘 성에 들어와 제사를 드리려 했다.
- 16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모여들었고, 마타티아와 그의 아들들도 모여들었다.
- 17 왕의 사신들이 마타티아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당신은 이 성에서 지도자이자 존경받고 위대한 인물이며, 아들과 친척들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 18 그러므로 이제 먼저 나서서 왕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했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은 왕의 친구로 간주될 것이며,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은과 금과 많은 선물로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 19 마타티아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왕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민족이 왕의 말을 듣고, 각자 조상들의 신을 버리고 왕의 명령을 따르기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 20 나와 내 아들과 내 친척들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따를 것이다.
- 21 우리는 율법과 규례를 버릴 수 없다.
- 22 우리는 왕의 말을 듣지 않겠다. 우리 숭배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떠나지 않겠다."
- 23 그가 이 말을 마치자, 한 유대인이 모든 사람의 앞에서 모딘에 있는 제단에 왕의 명령에 따라 제사를 드리려 나아왔다.
- 24 마타티아가 그것을 보고 열정이 불타올랐으며, 그의 내장이 떨렸고, 그는 정의에 따라 분노를 터뜨리며 달려가 제단 위에서 그를 죽였다.
- 25 그는 사람들을 희생하도록 강요하던 왕의 관리들을 죽이고, 제단을 헐어버렸다.
- 26 그는 핀카스가 살루의 아들 시므리에게 한 것처럼 율법을 위해 열심을 냈다.
- 27 마타티아스가 성안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율법을 위해 열심을 내고 언약을 지키는 자는 모두 나를 따르라!"
- 28 그와 그의 아들들은 산으로 도망쳐서 성안에 남겨둔 모든 것을 버렸다.
- 29 그때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았다—
- 30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가족들이었다—그 이유는 그들에게 재앙이 점점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 31 그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막의 은신처로 내려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다윗의 성에 있는 왕의 관리들과 군대에 전해졌다.
- 32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따라잡고, 안식일에 그들을 둘러싸고 전투를 벌이기 위한 배열을 펼쳤다.

- 33 그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이만 하라! 나와서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 모두가 살 것이다!"
- 34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 우리는 안식일을 더럽히기 위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 35 그러자 적군이 그들을 급습하려 했다.
- 36 그들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았고, 돌을 던지지도 않았으며, 그들의 은신처를 막지도 않았다,
- 37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무죄한 상태로 모두 죽자. 하늘과 땅이 우리를 증언하리라. 너희가 우리를 부당하게 죽였다는 것을."
- 38 그러므로 그들은 안식일에 그들을 공격했고, 그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가축들이 죽었다. 남자들만 일천 명이었다.
- 39 마타티아스와 그의 동료들이 그 일을 듣고 크게 슬퍼했다.
- 40 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말했다. "우리가 모두 우리 친척들이 한 것처럼 하여, 우리 생명과 우리의 규례를 위해 이방인들과 싸우지 않는다면, 그들은 곧 우리를 땅에서 멸망시킬 것이다."
- 41 그러므로 그들은 그날 결정했다. "안식일에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와 싸우자. 우리 친척들이 은신처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는 결코 모두 죽지 않겠다."
- 42 그때 이스라엘의 용감한 자들 중, 율법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바친 하시다인들의 무리가 그들에게 합류했다.
- 43 악행에서 도망친 모든 자들이 그들에게 합류하여 그들을 돕았다.
- 44 그들은 군대를 조직하고, 죄인들을 분노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노여움으로 치고, 나머지 자들은 안전을 찾아 이방인들에게 도망갔다.
- 45 마타티아스와 그의 동료들은 돌아다니며 제단들을 헐어버렸다.
- 46 그들은 이스라엘 땅의 경계에서 발견되는 모든 할례받지 않은 소년들을 강제로 할례시켰다.
- 47 그들은 교만한 자들을 쫓아다녔고, 그들의 손으로 일이 성공했다.
- 48 그들은 율법을 이방인들과 왕들의 손에서 구해냈다. 그들은 결코 죄인의 승리를 허용하지 않았다.
- 49 마타티아스의 죽음의 날이 가까워오자, 그는 아들들에게 말했다. "지금 교만과 경멸이 힘을 얻었고, 이는 붕괴와 분노의 시기이다."
- 50 이제, 내 아들들아, 율법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너희 조상들의 언약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라.
- 51 너희 조상들이 세대를 거쳐 행한 일을 기억하여라. 그러면 큰 영광과 영원한 이름을 얻으리라.
- 52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신실함을 보였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움으로 계산되지 않았던가?
- 53 요셉은 고난의 시기에 계명을 지켰고, 이집트의 주인이 되었다.
- 54 우리 조상 피니아스는 매우 열심을 내어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얻었다.
- 55 여호수아는 말씀을 성취함으로 이스라엘의 심판관이 되었다.
- 56 갈렙은 공동체에서 증언함으로 땅의 기업을 얻었다.
- 57 다윗은 자비로움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왕좌를 물려받았다.
- 58 엘리야는 율법을 위하여 매우 열심을 내어 하늘로 올려졌다.
- 59 하나니아와 아사랴와 미사엘은 믿음으로 불길에서 구원을 받았다.
- 60 다니엘은 그의 순결함으로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받았다.
- 61 "이러하니 세대에서 세대까지 생각하여라. 누구든지 그를 신뢰하는 자는 힘을 잃지 않을 것이다."
- 62 죄 많은 자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영광은 분노와 벌레가 될 것이다.
- 63 오늘 그는 높아지겠으나, 내일은 결코 발견되지 못할 것이다. 그는 흠으로 돌아가고, 그의 생각은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 64 너희, 내 아들들아, 강하게 되어 율법을 위하여 남자답게 행동하라. 너희는 그 안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 65 보라, 너희 형제 시몬은 조언을 가진 사람임을 내가 안다. 항상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 66 유다 마카베오스는 어릴 때부터 강하고 용감하였다. 그가 너희의 지휘관이 되어 백성의 전투를 이끌 것이다.
- 67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들을 모아라. 너희 백성에게 가해진 불의를 보복하라.
- 68 이방인들에게 보복하고, 율법의 계명을 따르라.

⁶⁹ 그는 그들을 축복한 후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⁷⁰ 그는 사백육십육년에 죽었고, 그의 아들들이 그를 모단의 조상들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를 위하여 큰 애도를 하였다.

마카베오기 상권 3장

- 1 그의 아들 유다, 즉 마카베오라고 불리는 자가 그의 뒤를 이어 일어났다.
- 2 그의 모든 친척들이 그를 도왔고, 그의 아버지와 함께한 모든 이들도 그를 도왔으며, 그들은 이스라엘의 전투를 기쁨으로 싸웠다.
- 3 그는 자기 백성에게 큰 영광을 안겼고, 거인처럼 갑옷을 입고 전투 장비를 둘러매며 전열을 정리하고 칼로 군대를 보호하였다.
- 4 그는 그의 행동에서 사자 같았고, 사자의 새끼가 먹이를 향해 으르렁대는 것 같았다.
- 5 그는 불법적인 자들을 사냥하고 추적하며,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불태웠다.
- 6 불법적인 자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섰고,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크게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손에서 구원이 번성하였다.
- 7 그는 많은 왕들을 분노하게 하고, 야곱을 그의 행위로 기쁘게 하였다. 그의 기억은 영원히 복되다.
- 8 그는 유다의 모든 성들을 지나가며 땅에서 불경한 자들을 없애고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돌이켰다.
- 9 그는 지극히 먼 땅까지 유명해졌으며, 멸망할 위기에 처한 자들을 모아 모았다.
- 10 아폴로니우스는 사마리아에서 큰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출진하였다.
- 11 유다는 이를 알고 나가 그를 맞아 치고 죽였으며, 많은 자들이 상처를 입고 죽었고, 나머지는 도망쳤다.
- 12 그들은 전리품을 약탈하였고, 유다는 아폴로니우스의 칼을 가져다가 평생 그것을 가지고 싸웠다.
- 13 시론, 시리아 군대의 장관은 유다가 많은 무리를 모으고, 그와 함께 머무는 충성스러운 자들의 무리를 이끌고 전쟁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 출전하였다.
- 14 그는 말했다. "내가 내 이름을 떨치고 왕국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나는 유다와 그와 함께한 자들을 치리라. 그들은 왕의 명령을 경멸한다."
- 15 불경한 자들의 강력한 군대가 그를 돕기 위해 함께 올라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복수하려 하였다.
- 16 그는 벳오론의 고개에 가까이 이르렀고, 유다는 소수의 무리와 함께 그를 맞이하였다.
- 17 그러나 그들이 군대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유다에게 말했다. "어떻게 우리가 소수로 이렇게 크고 강한 군대와 싸울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음식을 맛보지 못하여 힘이 없다."
- 18 유다는 말했다. "많은 자들이 소수의 손에 포위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늘은 많으나 적으나 구원하는 데에 동일하다."
- 19 전투의 승리는 군대의 수에 있지 않고, 힘은 하늘에서 온다.
- 20 그들은 교만과 불법으로 가득 차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약탈하려고 우리에게로 온다.
- 21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율법을 위하여 싸운다.
- 22 그분께서 우리 앞에서 그들을 산산조각 내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 23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시론과 그의 군대를 갑작스럽게 공격하였고, 그들은 그 앞에서 패배하였다.
- 24 그들은 벳오론의 내리막길을 따라 평지까지 쫓아가 그들 중 약 팔백 명을 죽였고, 나머지는 필리스티인의 땅으로 도망쳤다.
- 25 유다와 그의 일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둘러싼 민족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
- 26 그의 명성은 왕에게까지 이르렀고, 모든 민족이 유다의 전투를 전했다.
- 27 그러나 안티오코스 왕이 이 말을 듣고 분노로 가득 찼으며, 자기 영토의 모든 군대를 모아 매우 강력한 군대를 일으켰다.
- 28 그는 국고를 열어 군대에게 일 년치 복무료를 지급하고, 모든 필요에 대비하여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 29 그는 자신의 보물이 고갈되었고, 나라의 조세가 적어졌음을 알았다. 이는 그가 땅에 내린 분열과 환난으로 인해, 처음부터 있던 법들을 없애려 했기 때문이었다.
- 30 그는 과거처럼 관례대로 관리들에게 관리비와 선물을 넉넉히 주는 데 충분한 자금이 없을까 두려워했다. 그는 자신이 이전의 왕들보다 더 관대하게 선물을 주어 왔다.
- 31 그는 마음이 매우 혼란스러워졌고, 페르시아로 가서 그 지역들의 조세를 걷고 많은 돈을 모으기로 결심했다.

- 32 그는 존경받는 인물이자 왕가의 혈통을 이은 리시아스를 임명하여,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집트 국경까지 왕의 사무를 맡기고,
- 33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아들 안티오코스를 양육하게 했다.
- 34 그는 리시아스에게 자신의 군대의 절반과 코끼리들을 넘겨주고, 자신이 하려는 모든 일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에 관한 사항을 맡겼다.
- 35 즉,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의 힘과 예루살렘의 잔여 세력을 뿌리 뽑아 없애고, 그들의 이름을 그 땅에서 지워버리게 하며,
- 36 그들의 모든 영토에 외국인을 살게 하고, 그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 37 왕은 남은 군대의 절반을 거느리고, 147년째 해에 자신의 왕도 안티오키아를 떠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상부 지역으로 떠났다.
- 38 리시아스는 도리메네스의 아들 톨레마이오스와 니카노르, 고르기아를 골라, 왕의 친구들 중 용감한 자들로 삼았다.
- 39 그는 이들과 함께 보병 사만 명과 기마병 일만 칠천 명을 보내 유대 땅으로 들어가 왕의 명령에 따라 그 땅을 파괴하게 했다.
- 40 그들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출발하여 에마오스 평야 근처에 진을 쳤다.
- 41 그 땅의 상인들이 그들의 명성을 듣고 많은 은과 금, 축쇄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사들이려고 진영에 들어왔다. 시리아와 블레셋 땅의 군대도 그들과 합세했다.
- 42 유다와 그의 일가는 환난이 점점 늘어나고, 군대가 자기들의 국경에 진을 친 것을 보고, 왕이 백성을 멸망시키고 끝내려고 명령한 말을 알게 되었다.
- 43 그러자 그들은 각자 이웃에게 말했다. "우리 백성의 폐허를 수리하자. 우리 백성과 성소를 위하여 싸우자."
- 44 공동체가 모여 전투에 대비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였다.
- 45 예루살렘은 사막처럼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다. 그녀의 자손 중 누구도 들어가거나 나가지 않았다. 성소는 짓밟혔고, 외국인의 자녀들이 요새에 살고 있었다. 이방인들이 그곳에 거주했다. 야곱의 기쁨이 사라졌고, 피리와 수금의 소리가 끊어졌다.
- 46 그들은 예루살렘 근처의 민스페로 모여들었다. 민스페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의 장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 47 그들은 그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었다.
- 48 그리고 율법서를 펴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우상의 형상에 물어보는 일을 알아보았다.
- 49 그들은 사제들의 옷과 첫 열매와 십일조를 가져왔다. 그들은 기간을 마친 나자르인들을 일깨웠다.
- 50 그들은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로 끌고 가야 할까?"
- 51 당신의 성소는 짓밟히고 더럽혀졌습니다. 당신의 사제들은 수치 속에서 슬퍼합니다.
- 52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모여 우리를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꾸미는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 53 당신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 54 그들은 나팔을 불고 큰 함성을 질렀다.
- 55 이후 유다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임명했다. 천부장, 백부장, 오십인장, 십인장들을 세웠다.
- 56 그는 집을 짓고, 아내를 맞이하고, 포도원을 심은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법에 따라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 57 군대가 진출하여 엠마우스 남쪽에 진을 쳤다.
- 58 유다는 말했다. "무기들을 들고 용감한 남자가 되어라! 내일 아침에 우리를 멸망시키려 모인 이방인들과 싸우기 위해 준비하라."
- 59 우리 민족과 성소의 환난을 보는 것보다 전장에서 죽는 것이 낫다.
- 60 그러나 하늘의 뜻이 어떠하든, 그가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마카베오기 상권 4장

- 1 고르기아스는 보병 오천 명과 선발 기마병 천 명을 이끌고 밤에 군대를 움직였다.
- 2 이는 유대인의 군대를 급습하여 갑작스럽게 치기 위함이었다. 성채의 사람들이 그의 안내자들이었다.
- 3 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용감한 자들과 함께 움직여 에마우스에 있는 왕의 군대를 치려 하였다.
- 4 군대가 진영에서 아직 흩어져 있을 때였다.
- 5 고르기아스는 밤에 유다의 진영에 도착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산속을 찾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 자들은 우리를 피해서 도망쳤다." 하였다.
- 6 아침이 되자, 유다는 삼천 명의 병사와 함께 평지에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은 원하던 갑옷과 칼을 갖추지 못하였다.
- 7 그들은 이방인들의 진영이 견고하고 요새화되어 있으며, 주위에 기마병이 가득하고, 이들이 전쟁에 능숙함을 보았다.
- 8 유다는 자신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의 수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돌격할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 9 우리 조상들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했을 때였다.
- 10 이제 하늘에 부르짖자. 만일 그가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 앞에서 이 군대를 멸하시기를.
- 11 그러면 모든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구원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 12 외국인들이 눈을 들어, 그들이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 13 그들은 진영에서 나와 전투를 벌였고, 유다와 함께한 자들이 나팔을 불었다.
- 14 그리고 전투에 돌입했다. 이방인들은 패배하여 평원으로 도망쳤다.
- 15 그러나 뒤에 있던 모든 자들이 칼에 쓰러졌다. 그들은 가자라와 이두메아의 평원, 아소트, 암몬까지 쫓아갔다. 그들 중 약 삼천 명이 쓰러졌다.
- 16 그러자 유다와 그의 군대는 쫓는 일을 그치고 돌아왔다.
- 17 그가 백성에게 말했다. "전리품을 탐내지 마라. 우리 앞에 전투가 남아 있다.
- 18 고르기아스와 그의 군대가 우리 곁 산에 가까이 있다. 이제 적들을 향해 서서 싸우고, 그 후에 용감하게 전리품을 가져라.
- "
- 19 유다가 이 말을 마치려는 순간, 산에서 그들 일부가 나타났다.
- 20 그들은 자기 군대가 패배했고, 유대인들이 진영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보이는 연기만으로도 일어난 일이 드러났다.
- 21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매우 두려워했다. 유다의 군대가 평원에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 22 그러자 그들은 모두 필리스티인의 땅으로 도망쳤다.
- 23 유다는 진영을 약탈하고 돌아왔고, 그들은 많은 금과 은, 청색, 바다 자주색, 그리고 풍부한 재산을 얻었다.
- 24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늘을 찬양하였다.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이다.
- 25 그날 이스라엘은 큰 구원을 얻었다.
- 26 도망친 외국인들이 와서 리시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렸다.
- 27 그가 이 소식을 듣고 당황하고 좌절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원하던 일을 이루지 못했고, 왕이 그에게 명령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8 다음 해에 그는 육만 명의 선발 보병과 오천 명의 기병을 모아 그들을 복종시키려 했다.
- 29 그들은 이두메아로 들어가 벳수라에 진을 쳤다. 유다는 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맞이했다.
- 30 그는 군대가 강력함을 보고 기도하며 말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여, 당신은 당신의 종 다윗의 손으로 강한 용사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요나단, 사울의 아들과 그의 갑옷을 메는 자의 손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넘기셨습니다."
- 31 이 군대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의 군대와 기병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 32 그들에게 마음의 약함을 주시고, 그들의 힘의 담대함을 녹아내리게 하시며, 그들의 멸망 앞에서 떨게 하소서.
- 33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칼로 그들을 쳐서, 당신의 이름을 아는 모든 이가 감사로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 34 그들은 전투를 벌였고, 리시아의 군대에서 약 오천 명이 쓰러졌다. 그들은 그들 곁에 쓰러졌다.
- 35 그러나 리시아가 자신의 병사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유다와 함께한 자들에게 일어난 담대함과 그들이 존엄하게 살거나 죽을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 안티오키아로 물러나 용병을 모아 더 큰 군대를 이끌고 유다로 다시 오려 했다.
- 36 그러나 유다와 그의 가족은 말했다. "보라, 우리의 원수들이 패배하였다. 우리가 올라가 성소를 정결히 하고 다시 봉헌 하자."
- 37 모든 군대가 모여 시온 산으로 올라갔다.
- 38 그들은 성소가 황폐해지고, 제단이 더럽혀지고, 문들이 불태워졌으며, 안뜰에는 숲이나 산의 한가운데처럼 덩불이 자라고, 사제들의 침실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았다.
- 39 그들은 옷을 찢고 큰 슬픔을 표현하며 머리에 재를 뿌렸다.
- 40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공식적인 나팔을 불며 하늘을 향해 외쳤다.
- 41 그러자 유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할 때까지 성채에 있는 자들과 싸울 자들을 임명했다.
- 42 그는 율법에 충성하는 흠 없는 사제들을 골라냈다.
- 43 그들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더러워진 돌들을 부정한 곳으로 옮겼다.
- 44 그들은 더럽혀진 번제단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했다.
- 45 그들은 좋은 계획을 세웠다. 이방인들이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수치가 되지 않도록 제단을 헐어버리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제단을 헐어냈다.
- 46 그리고 그 돌들을 성전 언덕의 적절한 장소에 쌓아두고, 그에 관해 답을 주는 예언자가 올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
- 47 그들은 율법에 따라 온전한 돌들을 가져와 이전과 같은 새 제단을 세웠다.
- 48 그들은 성소와 성전의 안쪽 부분을 지었고, 안뜰을 성화했다.
- 49 그들은 새로운 성물들을 만들고, 등잔대와 분향단과 상을 성전으로 옮겼다.
- 50 그들은 분향단에 향을 태우고, 등잔대 위의 등불을 켜서 성전 안에 빛을 비추었다.
- 51 그들은 상 위에 떡을 놓고, 장막을 달고, 자신들이 한 모든 일을 마쳤다.
- 52 그들은 그 해의 148년, 아홉 번째 달, 키슬레우 달의 스물다섯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 53 자신들이 만든 새 번제단에 법에 따라 번제를 바쳤다.
- 54 그들이 성전을 더럽힌 때와 날에, 그때에 노래와 수금과 비파와 제금으로 그 성전을 봉헌하였다.
- 55 모든 백성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늘을 향해 찬양을 드렸다. 하늘은 그들에게 좋은 성공을 주셨기 때문이다.
- 56 그들은 봉헌을 여덟 날 동안 축하하며 기쁨으로 번제를 바치고, 구원과 찬미의 제물을 드렸다.
- 57 그들은 성전 앞을 금으로 만든 화관과 작은 방패로 장식하고, 문들과 사제들의 침실을 봉헌하며 문을 만들었다.
- 58 백성 사이에 매우 큰 기쁨이 있었고, 이방인들의 모욕이 사라졌다.
- 59 유다와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는, 매년 키슬레우 달 스물다섯째 날부터 여덟 날 동안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헌의 날을 지키기로 정하였다.
- 60 그때에 그들은 시온 산을 높은 담과 튼튼한 탑으로 둘러싸서, 이방인들이 다시 와서 그들을 짓밟는 일을 막았다.
- 61 유다는 그곳을 지키기 위해 병영을 배치하였다. 그들은 베트수라를 견고히 하여, 백성이 이두메아 근처에 요새를 갖게 하였다.

마카베오기 상권 5장

- 1 이방인들이 주위에서 제단이 다시 지어지고 성소가 이전과 같이 봉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분노하였다.
- 2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있는 야곱의 후손을 멸망시키려고 모의하고, 백성 가운데서 살해와 파괴를 시작하였다.
- 3 유다는 예돔 땅의 아크라바티네에서 에사우의 자손들과 싸웠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을 크게 치고, 그들을 굴복시키며, 그들의 전리품을 빼앗았다.
- 4 그는 백성에게 올가미와 걸림돌이 되어 길에서 그들을 노리는 바에안의 자손들의 악행을 기억하였다.
- 5 그는 그들을 탐에 가두었고, 그들을 향해 진을 치며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곳의 탐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이를 불로 태웠다.
- 6 그는 아몬 자손들의 땅으로 건너가, 티모테우스를 장군으로 삼은 강력한 병력과 많은 백성을 만났다.
- 7 그는 그들과 여러 번 싸웠고, 그들은 그의 앞에서 패배하였다. 그는 그들을 치고,
- 8 아제르와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한 후,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
- 9 길르앗에 있던 이방인들이 경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여 멸망시키려고 모였다. 그들은 다테마의 요새로 도망쳤다.
- 10 그리고 유다와 그의 친척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말했다. "우리 주변의 이방인들이 모여 우리를 멸망시키려 합니다."
- 11 "그들은 우리가 피신한 요새를 점령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티모테우스가 그들의 군대 장관입니다."
- 12 "그러므로 지금 당장 와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중 많은 이가 죽었습니다."
- 13 "우리의 모든 친척들이 투비아 땅에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자녀, 소유물을 사로잡혀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약 천 명을 죽였습니다."
- 14 편지가 읽히고 있는 도중, 갈릴리에서 온 다른 사자들이 옷을 찢고 와서 비슷한 소식을 전하였다.
- 15 "탈레마이스, 시돈, 두로의 사람들과 모든 이방인의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 우리를 멸망시키려 합니다."
- 16 유다와 백성이 이 말을 듣고, 고통받고 공격받는 친척들을 돕기 위해 대규모 모임을 열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였다.
- 17 유다는 형제 시몬에게 말했다. "사람들을 뽑아 갈릴리에 있는 네 친척들을 구원하러 가라. 나는 나의 형제 요나단과 함께 길르앗 땅으로 갈 것이다."
- 18 그는 자카리아의 아들 요셉과 아자리아를 유다 땅에 남겨, 남은 군대와 함께 그 땅을 지키게 하였다.
- 19 그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이 백성을 돌보아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이방인들과 싸우지 말라."
- 20 그리고 시몬에게는 갈릴리로 가기 위해 삼천 명을, 유다에게는 길르앗 땅으로 가기 위해 팔천 명을 배정하였다.
- 21 시몬은 갈릴리로 들어가 이방인들과 여러 번 싸웠고, 이방인들은 그의 앞에서 패배하였다.
- 22 그는 그들을 탈레마이스의 성문까지 쫓아갔다. 이방인 중 약 삼천 명이 죽었고, 그는 그들의 전리품을 빼앗았다.
- 23 그는 갈릴리와 아르바타에 있던 사람들과 그들의 아내, 자녀, 모든 소유물을 데려와 큰 기쁨으로 유다 땅으로 데려왔다.
- 24 유다 마카베오와 그의 형제 요나단은 요르단 강을 건너 사흘 동안 광야를 행군하였다.
- 25 그들은 나바테아인들과 만났고, 그들은 평화롭게 그들을 맞이하여 길르앗 땅에서 그들의 친척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려 주었다.
- 26 그들이 보소라, 보소르, 알레마, 카스포르, 마케드, 카르나임에 갇혀 있다는 것—이 모든 도시들은 견고하고 크다—
- 27 그리고 길르앗 땅의 나머지 도시들에 갇혀 있다는 것, 그리고 내일 그들이 요새를 공격하여 그들을 빼앗고 하루 안에 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 28 유다와 그의 군대는 황야 길로 돌려 보소라로 향했고, 그는 그 도시를 빼앗아 칼날로 모든 남자를 죽이고, 모든 전리품을 약탈하며, 도시를 불태웠다.
- 29 그는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고, 요새에 이르기까지 행군했다.
- 30 아침이 되자, 그들은 눈을 들어 보니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사다리와 공성 기계를 들고 요새를 빼앗으려 하며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 31 유다는 전투가 시작되었고, 도시의 외침이 나팔과 큰 소리로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 32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 군대에게 말했다. "오늘은 너희 친척들을 위해 싸우라!"
- 33 그러자 그는 세 부대로 뒤에서 나아갔다. 그들은 나팔을 불고 기도의 외침을 올렸다.
- 34 티모테우스의 군대는 그것이 마카베오임을 알고 그 앞에서 도망쳤다. 유다는 그들을 크게 치고, 그날 그들 중 약 팔천 명이 쓰러졌다.
- 35 그는 민스페로 돌아가 그곳을 공격하여 빼앗고,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전리품을 약탈하며, 불태웠다.
- 36 그리고 그는 거기서 진군하여 카스포르, 마케드, 보소르, 그리고 길르앗 땅의 다른 도시들을 빼앗았다.
- 37 이 일들 이후에, 티모테우스는 또 다른 군대를 모아 강 너머 라폰에 진을 쳤다.
- 38 유다는 군대를 정찰시켜 그들의 움직임을 살피보게 했고, 그들은 돌아와 말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이 모여서 그들과 합류하였고, 매우 거대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 39 그들은 아라비아인들을 고용하여 도움을 받고 있으며, 강 너머에 진을 치고 있어 당신에게 맞서 싸우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다.
- 40 유다와 그의 군대가 물가에 가까이 다가오자, 티모테우스는 자신의 장교들에게 말했다. "그가 먼저 우리 쪽으로 건너온다면, 우리는 그를 막지 못할 것이다. 그는 분명히 우리를 이길 것이다."
- 41 그러나 그가 두려워하여 강 너머에 진을 치면, 우리는 그에게 건너가서 그를 이길 것이다."
- 42 유다가 물가에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백성의 서기관들을 강가에 머물게 하고 명령했다. "어떤 사람도 진을 치지 못하게 하고, 모두 전투에 참여하게 하라."
- 43 그리고 그는 먼저 강을 건너 그들을 향해 나아갔고, 모든 백성도 그 뒤를 따랐다. 모든 이방인들은 그의 앞에서 무너져 무기를 버리고 카르나임의 사원으로 도망쳤다.
- 44 그들은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사원을 불태웠다. 카르나임은 항복했다. 그들은 유다의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 45 유다는 길르앗 땅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소유를 모두 모아 매우 거대한 군대를 이루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려 했다.
- 46 그들은 에프론까지 왔는데, 이 도시는 크고 매우 견고하였다. 그들이 가려는 길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반드시 도시의 중앙을 통과해야만 했다.
- 47 도시 주민들은 그들을 막아서고 성문을 돌로 막았다.
- 48 유다는 그들에게 평화의 말을 전해 보냈다. "우리는 우리 땅으로 가기 위해 당신들의 땅을 지나갈 뿐이며, 아무도 당신들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발로만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 문을 열지 않았다.
- 49 그러자 유다가 군대에 명령을 내려, 각자가 있는 곳에 진을 치도록 하였다.
- 50 그래서 군인들이 진을 치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 도시를 공격하였고, 도시는 그의 손에 넘겨졌다.
- 51 그는 모든 남자를 칼날로 죽이고, 도시를 허물며, 전리품을 약탈하고, 죽은 자들 위로 도시를 지나갔다.
- 52 그들은 요르단을 건너 벳산 근처의 큰 평원으로 갔다.
- 53 유다는 뒤처진 자들을 모아 모든 길에서 백성을 격려하며, 유다 땅에 이르기까지 이끌었다.
- 54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온 산에 올라가 번제를 드렸다. 그들이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들 중 한 사람도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 55 유다와 요나단이 길르앗 땅에 있을 때, 그의 형제 시몬은 필리마이스 앞 갈릴리에 있었다.
- 56 자카리아의 아들 요셉과 아자리아가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그들의 용감한 행동과 전쟁,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을 듣고,
- 57 이르기를, "우리도 명성을 얻자.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방인들과 싸우자."라고 말했다.
- 58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있는 군대에게 명령을 내려, 암니아로 나아갔다.
- 59 고르기아스와 그의 군대가 도시에서 나와 그들을 맞아 싸웠다.
- 60 요셉과 아자리아는 도망쳤고, 유다 지경까지 쫓겨났다. 그날 이스라엘에서 약 이천 명이 죽었다.
- 61 백성 사이에 큰 패배가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유다와 그의 친족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떤 공격을 세우려 했기 때문이다.

⁶²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사람들의 가문이 아니었다.

⁶³ 유다와 그의 친족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그들의 이름이 들리는 모든 이방인들 앞에서 크게 존경받았다.

⁶⁴ 사람들이 그들에게 모여들어 그들을 찬양했다.

⁶⁵ 유다와 그의 친족은 남쪽 땅에 있는 에서의 자손들과 싸우러 나갔다. 그는 헤브론과 그 마을들을 치고, 그 요새들을 허물며, 주변의 탑들을 모두 불태웠다.

⁶⁶ 그는 필리스티인들의 땅으로 나아가 사마리아를 지나갔다.

⁶⁷ 그날 일부 사제들이 그곳에서 공격을 세우려 하여, 무모하게 전투에 나가 전사했다.

⁶⁸ 그러나 유다는 필리스티인들의 땅인 아소트로 돌아가,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신상들을 불로 태우며, 그들의 도시들의 전리품을 약탈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

마카베오기 상권 6장

- 1 안티오크스 왕은 상부 지방을 여행하던 중, 페르시아의 엘레마이스에 부유한 도시가 있고, 그 도시는 은과 금으로 유명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 2 그 도시의 성전은 특히 풍요로웠으며, 그 안에는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드로, 곧 그리스인들 중 최초로 왕위에 오른 자가 그곳에 남긴 금 방패와 갑옷, 무기들이 있었다.
- 3 그래서 그는 그 도시를 공격하여 약탈하려 했으나, 도시 주민들이 그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 4 그러자 그들은 그를 향해 전투를 벌였고, 그는 패배하여 큰 실망을 안고 바빌론으로 도망쳤다.
- 5 그때 어떤 사람이 페르시아에 와서 그에게, 유다 땅을 침공하던 군대가 패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 6 리시아스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먼저 나섰으나, 그들은 그를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그들은 무기와 힘, 그리고 자신들이 격파한 군대에서 빼앗은 전리품으로 힘을 얻었다.
- 7 그들은 예루살렘 제단 위에 그가 세운 가증한 것을 헐어 없앴고, 성소를 이전처럼 높은 담으로 둘러쌌으며, 그의 도시 베스수라까지도 둘러쌌다.
- 8 왕이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동요하였다. 그는 침대에 누워 슬픔으로 병이 들었는데, 그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9 그는 그곳에서 여러 날을 보냈고, 큰 슬픔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며, 자신이 죽을 것임을 깨달았다.
- 10 그는 자신의 모든 친구들을 불러서 말했다. "내 눈에서 잠이 떠나고, 내 마음은 근심으로 약해졌다."
- 11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말했다. "어떤 고통에 이르렀는가! 지금 내가 빠진 홍수는 얼마나 큰가! 나는 내 힘으로 은총을 입고 사랑받았으니."
- 12 그러나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서 내가 저지른 악행을 기억한다. 내가 그 안에 있던 모든 은과 금 기구를 빼앗아, 유다 주민들을 무고하게 멸망시키려 보냈다.
- 13 이것이 바로 이 재앙이 내게 닥친 이유임을 깨닫는다. 보라, 나는 이방 땅에서 큰 슬픔으로 죽어가고 있다.
- 14 그러고 나서 그는 친구 중 한 사람인 필리포스를 불러, 자신의 모든 왕국을 그에게 맡겼다.
- 15 그는 그에게 왕관과 왕복, 그리고 인장 반지를 주어, 안티오크스 자기 아들을 돌보며 키우고 왕으로 세우게 했다.
- 16 그리고 안티오크스 왕은 그 해 149년에 그곳에서 죽었다.
- 17 리시아스가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릴 때부터 키워온 안티오크스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고, 그의 이름을 예우파토르라 불렀다.
- 18 성채에 있던 자들은 이스라엘을 성소 주변에 가두고, 항상 그들을 해치려 하며 이방인들을 강화하려 했다.
- 19 유다는 그들을 멸망시키려 계획하고,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을 포위했다.
- 20 그들은 150년에 모여 그들을 포위하였고, 투석기와 전쟁 기계를 만들었다.
- 21 포위된 자들 중 일부가 밖으로 나왔고, 이스라엘의 불경한 자들 중 일부가 그들과 합류했다.
- 22 그들은 왕에게 가서 말했다. "당신은 언제까지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 친척을 위해 보복하지 않으십니까?"
- 23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를 섬기고, 그의 말을 따르며, 그의 명령을 지키려 했습니다.
- 24 그러므로 우리 백성의 자녀들이 성채를 포위하여 우리를 배신하였고, 그들이 잡을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우리의 상속재산을 약탈했습니다.
- 25 그들은 우리만을 향해 손을 뻗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경계를 향하기도 하였다.
- 26 보라, 오늘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채를 공격하여 빼앗으려고 진을 치고 있다. 그들은 성소와 벳수라를 요새화하였다.
- 27 당신이 그들을 빨리 막지 않으면, 그들은 이보다 더 큰 일을 저지러 것이며, 당신은 그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28 왕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모든 친구들과 군대의 장관들과 기병을 지휘하는 자들을 모았다.
- 29 다른 왕국들과 바다의 섬들에서 고용된 병사들이 그에게로 왔다.
- 30 그의 군대는 보병 십만 명과 기병 이만 명, 그리고 전쟁에 훈련된 코끼리 서른두 마리였다.
- 31 그들은 이두메아를 지나 벳수라에 진을 치고 그곳을 여러 날 동안 공격하며 전쟁 기계를 만들었다. 유대인들이 밖으로

나와 기계들을 불로 태우고 용감히 싸웠다.

³² 유다와 그의 군대는 성채를 떠나 왕의 진영 가까이 벳사카리아에 진을 쳤다.

³³ 왕은 아침 일찍 일어나 군대를 이끌고 벳사카리아로 가는 길을 빠르게 진군하였다. 그의 군대는 전투를 준비하고 나팔을 불었다.

³⁴ 그들은 코끼리들에게 포도즙과 뽕나무 열매를 주어 전투에 대비하게 하였다.

³⁵ 그들은 코끼리들을 방진들 사이에 배치하였다. 각 코끼리 옆에 철갑과 놋 투구를 쓴 천 명의 병사들을 배치하였고, 각 코끼리에 오백 명의 선발된 기병을 지정하였다.

³⁶ 이들은 코끼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코끼리가 가는 곳 어디에나 그들도 따라갔으며, 코끼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³⁷ 코끼리 위에는 튼튼한 나무로 만든 천막이 하나씩 올려져 있었고, 단단한 고정장치로 고정되어 있었다. 각 천막 위에는 인도자 외에 네 명의 용감한 병사들이 타고 있었다.

³⁸ 나머지 기병들은 군대의 양쪽 측면에 배치하여 적을 공포에 빠뜨리고 방진들에 의해 보호받았다.

³⁹ 태양이 금과 놋으로 만든 방패들을 비추자, 산들이 빛나며 불타는 횃불처럼 타올랐다.

⁴⁰ 왕의 군대 일부는 높은 언덕에 퍼져 있고, 일부는 낮은 땅에 있었으며, 단단하고 질서 있게 진군하였다.

⁴¹ 그들의 군대의 소란과 진군 소리, 무기의 요란한 소리를 듣는 모든 이들이 떨었다. 그 군대는 매우 크고 강력했기 때문이다.

⁴² 유다와 그의 군대가 전투에 가까이 다가가자, 왕의 군대에서 육백 명이 쓰러졌다.

⁴³ 아바란이라 불리는 엘레아저는 왕의 갑옷을 입은 코끼리 한 마리를 보았는데, 그것은 모든 코끼리들보다 컸고, 왕이 그 위에 타 있는 듯 보였다.

⁴⁴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영원한 이름을 얻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⁴⁵ 그는 용감히 방진의 한가운데로 달려가 오른쪽과 왼쪽을 치며, 그들이 이쪽과 저쪽으로 빠져나갔다.

⁴⁶ 그는 코끼리 밑으로 기어 들어가 밑에서 찌르고, 그 코끼리를 죽였다. 코끼리는 그 위로 땅에 쓰러졌고, 그는 그곳에서 죽었다.

⁴⁷ 그들은 왕국의 힘과 군대의 격렬한 공격을 보고 그들을 향해 뒤로 물러났다.

⁴⁸ 그러나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그들을 맞이하였고, 왕은 유다와 시온 산 쪽에 진을 쳤다.

⁴⁹ 그는 벳수라 주민과 화평을 맺었다. 그들은 그곳에 식량이 없어 포위를 견디지 못했고, 그날은 땅의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다.

⁵⁰ 왕은 벳수라를 점령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병력을 배치했다.

⁵¹ 그는 성소를 향해 여러 날 동안 진을 쳤고, 거기서 투석기와 전쟁 기계, 불과 돌을 던지는 기계, 화살을 쏘는 무기, 매슬기를 설치했다.

⁵² 유대인들도 그들의 기계에 대항해 전쟁 기계를 만들고 여러 날 동안 싸웠다.

⁵³ 그러나 성소에는 식량이 없었다. 그것은 일곱 번째 해였고, 이방인들 중에서 유다로 피신한 자들이 남은 식량을 모두 다 먹어치웠기 때문이다.

⁵⁴ 성소에는 단지 몇 사람만 남아 있었다. 기근이 그들을 압도하여, 각자 자기 고향으로 흩어졌기 때문이다.

⁵⁵ 리시아스는 안티오크스 왕이 생전에 아들 안티오크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임명했던 필리포스가

⁵⁶ 페르시아와 메디아에서 돌아왔고, 왕과 함께 갔던 군대를 이끌고 있으며, 정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⁵⁷ 그는 급히 움직여 떠날 명령을 내렸다. 그는 왕과 군대 지도자들과 병사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식량은 부족하며, 우리가 진을 친 곳은 견고하며, 왕국의 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⁵⁸ 그러므로 이제 이 사람들과 화해하고, 그들과 그들의 온 민족과 평화를 맺자.

⁵⁹ 그들과 계약하여, 그들이 이전처럼 자신의 법에 따라 살게 하자. 우리가 그들의 법을 폐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분노하여, 이 모든 일을 저지른 것이다."

⁶⁰ 이 말은 왕과 귀족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는 평화를 청하러 그들에게 사자를 보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⁶¹ 왕과 귀족들은 그들에게 맹세했다. 이 조건으로 그들은 요새에서 나왔다.

⁶² 그러자 왕은 시온 산에 들어갔다. 그는 그곳의 견고함을 보고, 자신이 맹세한 서약을 어기고, 주위의 성벽을 모두 헐어버릴 명령을 내렸다.

⁶³ 그는 급히 떠나 안티오케아로 돌아가서, 필리포스가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그와 싸워 도시를 무력으로 점령했다.

마카베오기 상권 7장

- 1 제151년에, 세레우코스의 아들 데메트리오가 로마에서 나와 몇 명의 사람과 함께 바닷가의 한 도시로 올라가서 거기서 왕위에 올랐다.
- 2 그가 조상들의 왕국의 궁전으로 들어가려 할 때, 군대가 안티오코스와 리시아스를 붙잡아 그들을 그에게 데려왔다.
- 3 그 일은 그에게 알려졌고, 그는 말했다. "그들의 얼굴을 내게 보이지 마라!"
- 4 그래서 군대가 그들을 죽였다. 그 후 데메트리오가 자신의 왕국의 왕좌에 앉았다.
- 5 이스라엘의 모든 불법적이고 불경한 자들이 그에게로 몰려왔다. 알키모스가 그들의 지도자였으며, 대제사장이 되고자 했다.
- 6 그들은 왕에게 백성들을 고발하며 말했다. "유다와 그의 일족이 당신의 모든 친구들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우리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 7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어, 그가 우리에게 내린 모든 파괴와 왕의 땅에 미친 피해, 그리고 그가 그들과 그를 돕는 모든 자들에게 내린 처벌을 살펴보게 하소서."
- 8 그래서 왕은 강을 건너편 땅의 총독이자 왕국에서 큰 인물이며 왕에게 충성하는 친구 바키비데스를 골랐다.
- 9 그는 그와 불경한 알키모스를 보냈다.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수하도록 명령했다.
- 10 그들은 출발하여 큰 군대를 이끌고 유다 땅으로 들어갔다. 그는 유다와 그의 일족에게 평화의 말을 속임수로 전했다.
- 11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이 큰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 12 일부 서기관들이 모여 알키모스와 바키비데스에게 공정한 조건을 요구했다.
- 13 하시다인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평화를 구한 첫 번째 집단이었다.
- 14 그들은 말했다.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이 군대와 함께 왔으니, 그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 15 그는 그들에게 평화의 말을 하며 그들에게 맹세했다. "우리는 너희와 너희 친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 16 그들은 그를 믿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 중 육십 명을 붙잡아 하루 동안 죽였는데, 이는 기록된 말씀대로였다.
- 17 "너희 성도들의 육체와 그들의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흘러졌고,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었다."
- 18 그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모든 백성에게 미쳤다. 그들은 말했다. "그들에게는 진실도 정의도 없다. 그들은 맹세한 언약과 서약을 어겼다."
- 19 바키비데스는 예루살렘에서 물러나 베세트에 진을 쳤다. 그는 자신과 함께 있던 탈영병들과 일부 백성들을 붙잡아 죽이고 큰 구덩이에 던졌다.
- 20 그는 알키모스를 땅의 통치자로 임명하고 그를 돕기 위한 병력을 남겼다. 그 후 바키비데스는 왕에게로 돌아갔다.
- 21 알키모스는 대제사장의 직위를 유지하려 애썼다.
- 22 자신의 백성을 괴롭힌 모든 자들이 그에게 합류하여 유다 땅을 장악하고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입혔다.
- 23 유다는 알키모스와 그 일당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저지른 모든 악행, 즉 이방인들보다 더 심한 악행을 보았다.
- 24 그는 유다의 모든 경계로 나가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복수했고, 그들은 땅으로 나가지 못하게 억제되었다.
- 25 알키모스가 유다와 그의 동료들이 강성해진 것을 보고, 자신이 그들을 견디지 못할 것임을 알고, 왕에게 돌아가 그들을 향해 악의적인 고발을 했다.
- 26 그러자 왕은 그의 존경받는 귀족 중 한 사람인 니카노르를 보내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들의 원수였으며, 그에게 백성을 멸망시키라고 명령했다.
- 27 니카노르는 큰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유다와 그의 가족에게 평화로운 말로 속임수를 써서 보냈다.
- 28 "나와 당신 사이에 전쟁이 없기를 바란다. 나는 몇 명의 사람과 함께 와서 평화롭게 당신들의 얼굴을 보겠다."
- 29 그는 유다에게 가서 서로 평화롭게 인사했다. 그러나 적들은 유다를 폭력으로 붙잡으려 준비했다.
- 30 유다는 그가 속임수로 왔음을 알게 되었고, 그를 매우 두려워하여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 31 니카노르는 자신의 계획이 들통났음을 알고, 카파르살라마 곁에서 유다와 전투를 벌이기 위해 나아갔다.
- 32 니카노르의 군대 중 약 오백 명이 쓰러졌고, 나머지는 다윗의 성으로 도망쳤다.

- 33 이 일 후, 니카노르는 시온 산으로 올라갔다. 일부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성소에서 나와 평화롭게 그를 맞이하며, 왕을 위해 바치는 온전한 번제를 보여주었다.
- 34 그는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비웃으며, 수치스럽게 모욕하고, 교만하게 말했다.
- 35 분노하며 맹세하여 말했다. "유다와 그의 군대가 지금 내 손에 넘겨지지 않는다면, 내가 안전하게 돌아온다면, 이 집을 불 태워 버리겠다!" 그리고 그는 격분한 채 떠났다.
- 36 제사장들이 들어가 제단과 성전 앞에 서서 울며 말했다.
- 37 "당신은 이 집을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한 기도와 간구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 38 이 사람과 그의 군대를 벌하소서. 그들이 칼에 쓰러지게 하소서. 그들의 모독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그들을 살게 내버려 두지 마소서."
- 39 그 후 니카노르는 예루살렘을 떠나 베트호론에 진을 쳤고, 거기서 시리아 군대가 그를 맞이했다.
- 40 유다는 삼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다사에 진을 쳤다. 유다가 기도하며 말했다.
- 41 "왕에게서 온 자들이 모독했을 때, 당신의 천사가 나아가 그들 사이에 일만 팔천오백 명을 치셨습니다.
- 42 이와 같이 오늘도 이 군대를 우리 앞에서 꺾으소서. 나머지 모든 이들이 그가 당신의 성소를 향해 악독하게 말했음을 알게 하소서. 그를 그의 악행에 따라 심판하소서."
- 43 아다르 달의 열세 번째 날, 양측 군대가 전투를 벌였다. 니카노르의 군대는 패배했고, 그 자신이 전투에서 먼저 쓰러졌다.
- 44 그의 군대가 니카노르가 쓰러진 것을 보고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다.
- 45 그들은 아다사에서부터 가자라에 이르기까지 하루 동안 그들을 추격하며, 뒤에서 나팔을 불어 경고했다.
- 46 유다 주변의 모든 마을에서 사람들이 나와 그들을 둘러쌌다. 그들은 그들을 뒤로 밀어내어 모두 칼에 쓰러뜨렸다. 그들 중 살아남은 자는 한 명도 없었다.
- 47 유다인들은 전리품과 전리물을 가져갔고, 니카노르의 머리와 그가 교만하게 뻗었던 오른손을 잘라내어 예루살렘 옆에 매달았다.
- 48 백성은 매우 기뻐하며 그 날을 큰 기쁨의 날로 지켰다.
- 49 그들은 아달월 열세째 날에 매년 이 날을 지키기로 정했다.
- 50 그러므로 유다 땅은 며칠 동안 평안을 누렸다.

마카베오기 상권 8장

- 1 유다스는 로마인들의 명성을 듣고, 그들이 용감한 사람들이며, 자신들에게 합류하는 모든 이들과 친분을 맺고, 찾아오는 모든 이들과 우호를 나눈다는 것을 알았다.
- 2 그들은 갈리아 땅에서 벌인 전쟁과 공적을 들려주었고, 어떻게 그들을 정복하여 공물을 바치게 했는지 말해 주었다.
- 3 그들이 이베리아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말해 주었는데, 그곳의 은과 금 광산을 장악하려는 것이었다.
- 4 그들은 정책과 인내로 그 모든 땅을 정복했으며, 그 땅은 그들에게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끝까지 땅 끝에서부터 온 왕들을 격파하고 심하게 치부했으며, 나머지 이들은 해마다 공물을 바치고 있다.
- 5 그들은 키티모의 왕 필리포스와 페르세우스를 비롯하여 자신들에게 반기를 든 자들을 전투에서 격파하고 정복했다.
- 6 아시아의 큰 왕 안티오코스도 그들에게 맞서 전투를 벌였는데, 코끼리 백이십 마리와 기마병, 전차, 그리고 매우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왔으나, 그들에게 패배했다.
- 7 그들은 그를 생포하고, 그와 그의 뒤를 잇는 모든 왕들이 그들에게 큰 공물을 바치고, 인질을 내주며, 그들의 지방 중 최고의 땅 일부를 내주도록 규정했다.
- 8 그들은 인도, 메디아, 리디아의 땅을 그에게서 빼앗아 에우메네스 왕에게 주었다.
- 9 유다스는 그리스인들이 와서 그들을 멸망시키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 10 그러나 이 소식이 그들에게 알려져, 그들은 그들을 향해 장군을 보내 싸우게 했고,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고 죽었으며,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사로잡고, 그들을 약탈하며, 그들의 땅을 정복하고, 그들의 요새를 허물고, 그들을 약탈하여 오늘날 까지 노예로 삼았다.
- 11 그들이 언제든지 일어나 반기를 든 나머지 왕국들과 섬들은 모두 파괴되어 그들의 종이 되었다.
- 12 그러나 그들의 친구들과 그들에게 의지하는 자들과는 우호를 유지했다. 그들은 가까운 왕국들과 먼 왕국들을 정복했으며, 그들의 명성을 듣는 모든 이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
- 13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도우려고 하고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자들을 왕으로 세우며, 자신들이 원하는 자들을 폐위한다. 그들은 매우 높이 올라가 있다.
- 14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누구도 왕관을 쓰지 않았고,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자주색 옷을 입지 않았다.
- 15 유다스는 그들이 원로원을 세우고, 매일 삼백이십 명이 모여서 항상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상의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 16 그들은 매년 한 사람에게 정부를 맡겨 그가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의 모든 땅을 다스리게 하며, 모두가 그 한 사람에게 복종하며, 그들 사이에 질투나 경쟁이 없다는 것도 들었다.
- 17 이에 유다스는 요한의 아들 아코스의 아들 에우폴레모스와 엘라자르의 아들 야손을 선택하여 로마에 보내, 그들과 우호와 동맹을 맺게 했다.
- 18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벗어버리게 하려 했다. 그들은 그리스인들의 왕국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 19 그들은 매우 긴 여정을 떠나 원로원에 들어가 말했다.
- 20 "유다스, 곧 마카베오라고도 불리는 자와 그의 가족, 그리고 유대인들의 백성이 우리를 당신들에게 보내어, 당신들과 동맹과 평화를 맺고, 당신들의 동맹자이자 친구로 등록되게 하려 합니다."
- 21 이 일은 그들에게 기쁘게 여겨졌다.
- 22 이것은 그들이 낫판에 써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평화와 동맹의 기념으로 간직하게 한 문서의 사본이다.
- 23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의 백성에게, 바다와 땅 위에서 영원히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칼과 원수는 그들로부터 멀리 떠나기를 바랍니다."
- 24 "만일 로마를 먼저, 또는 그들의 모든 영토 안의 모든 동맹자들을 향해 전쟁이 일어난다면,"
- 25 유대인 민족은 기회가 허락하는 대로,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동맹자로서 돕는다.
- 26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에게는 식량, 무기, 돈, 배를 주지 않으며, 이는 로마가 좋게 여긴 대로이며, 그들은 아무 대가도 받

지 않고 이 조건을 지킨다.

²⁷ 마찬가지로, 유대인 민족이 먼저 전쟁을 당하면, 로마인들은 기회가 허락하는 대로, 온 마음을 다해 동맹자로서 그들을 돕는다.

²⁸ 그들과 싸우는 자들에게는 식량, 무기, 돈, 배를 주지 않으며, 이는 로마가 좋게 여긴 대로이다. 그들은 이 조건을 속이지 않고 지킨다.

²⁹ 이 조건에 따라 로마인들은 유대인 민족과 조약을 맺었다.

³⁰ 만약 향후 어느 한 쪽이 무엇을 추가하거나 줄이기를 결정하면, 그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추가하거나 빼는 모든 것은 승인된다.

³¹ 데메트리우스 왕이 그들에게 행하는 악행에 관해, 우리는 그에게 써서 말했다.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 친구이자 동맹자인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명예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³² 그러므로 만약 그들이 다시 당신을 항의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고, 바다와 육지에서 당신과 싸우겠다.

"

마카베오기 상권 9장

- 1 데메트리우스는 니카노르가 그의 군대와 함께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키디스와 알키모스를 다시 유다 땅으로 보내며, 자신의 군대의 오른쪽 날개를 그들과 함께 파견했다.
- 2 그들은 길갈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 아르벨라에 있는 메사롯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며 많은 사람을 죽였다.
- 3 오백십이년의 첫째 달에, 그들은 예루살렘 앞에 진을 쳤다.
- 4 그러고 나서 그들은 보레아로 진군하여 보병 이만 명과 기마병 이천 명을 이끌고 갔다.
- 5 유다는 엘라사에 진을 치고, 골라낸 병사 삼천 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 6 그들은 적군의 수가 많음을 보고 두려워하여, 군대에서 많은 이들이 도망쳤다. 그들 가운데 남은 자는 팔백 명을 넘지 않았다.
- 7 유다는 자신의 군대가 도망치고 전투가 급히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매우 괴로워하였다. 그는 그들을 모으는 시간이 없었고, 힘이 빠졌다.
- 8 그는 남은 자들에게 말했다. "일어나서 우리 적군을 향해 올라가자. 혹시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 9 그들은 그를 말리며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목숨을 살리고, 우리 친척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과 싸우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적습니다."
- 10 유다는 말했다. "내가 그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시기가 왔다면, 우리 친척을 위해 남자답게 죽고, 우리의 명예에 모욕의 이유를 남기지 않자."
- 11 군대는 진에서 나와 적군과 마주하고 섰다. 기마병은 두 부대로 나뉘었고, 투석병과 활병은 군대 앞에 나아가며, 전투의 선두에서 싸우는 용감한 자들 모두가 앞장섰다.
- 12 바키디스는 오른쪽 날개에 있었다. 보병대는 두 부대로 나뉘어 전진했고, 그들은 나팔을 불었다.
- 13 유다의 편에 있는 자들도 나팔을 불었고, 군대의 함성에 땅이 진동하며 전투가 시작되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 14 유다는 바키디스와 그의 군대의 강력한 부대가 오른쪽에 있음을 보고, 마음이 용감한 자들이 모두 그를 따라갔다.
- 15 오른쪽 날개가 그들에게 패배하고, 그는 아조트 산까지 그들을 추격했다.
- 16 왼쪽 날개에 있던 자들은 오른쪽 날개가 패배한 것을 보고 뒤돌아 유다와 그와 함께한 자들의 뒤를 따랐다.
- 17 전투는 극심해졌고, 양쪽 모두에서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고 죽었다.
- 18 유다가 쓰러지고, 나머지 자들은 도망쳤다.
- 19 요나단과 시몬은 그들의 형 유다를 거두어 모딘에 있는 조상들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 20 그들은 그를 위해 울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를 위해 큰 애도를 하며 여러 날을 슬퍼하며 말했다.
- 21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어떻게 쓰러졌는가!"
- 22 유다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전쟁, 그가 행한 용감한 업적과 그의 위대함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도 많은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 23 유다가 죽은 후, 이스라엘 모든 경계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일어났다. 모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일어났다.
- 24 그때에 매우 큰 기근이 있었고, 땅이 그들의 편으로 기울었다.
- 25 바키데스는 불경한 자들을 골라서 그들을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했다.
- 26 그들은 유다의 친구들을 수사하고 찾아내어 바키데스에게 끌고 가서, 그는 그들에게 복수하며 잔혹하게 대우했다.
- 27 이스라엘에는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기 시작한 이래로 이런 큰 고통이 없었다.
- 28 유다의 모든 친구들이 모여서 요나단에게 말했다.
- 29 "당신의 형 유다가 죽었으니, 우리 적들과 바키데스, 그리고 우리 민족 중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과 싸울 만한 사람을 더 이상 찾지 못했습니다.
- 30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당신을 그의 뒤를 잇는 우리 지도자이자 장군으로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 31 이에 요나단은 그때부터 지도권을 맡고 형 유다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32 바키데스가 이를 알고 요나단을 죽이려 했다.

33 요나단과 그의 형 시몬,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모든 이들은 이를 알고 테코아 광야로 도망가서 아스파르 연못의 물가에 진을 쳤다.

34 바키데스는 안식일에 이를 알고, 그와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왔다.

35 요나단은 군중의 지도자인 그의 형을 보내어 나바테아인들에게 자신들의 많은 짐을 맡겨두도록 간청했다.

36 암브리의 자손들이 메다바에서 나와 요한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대로 떠났다.

37 그러나 그 후, 요나단과 그의 형 시몬에게 소식이 전해졌다. 암브리의 자손들이 큰 혼인잔치를 열고, 가나안의 한 큰 귀족의 딸을 나다바트에서 큰 호위를 받으며 신부로 데려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38 그들은 형 요한을 떠올리고 올라가서 산의 그늘에 숨었다.

39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많은 짐을 지고 거대한 행렬이 보였다. 신랑이 친구들과 친척들과 함께 탬버린과 악기, 그리고 많은 무기를 들고 그들을 맞이하러 나왔다.

40 그들은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 그들을 공격하여 죽였고,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고 죽었다. 생존자들은 산으로 도망갔고, 유다인들은 그들의 모든 전리품을 빼앗았다.

41 이에 혼인잔치는 애도로 바뀌었고, 그들의 악사들의 음악은 슬픔의 노래로 변했다.

42 그들은 형의 피를 완전히 갠고 요단강의 습지로 돌아왔다.

43 바키데스가 이를 듣고 안식일에 큰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변으로 왔다.

44 요나단이 자신의 부대에게 말했다. “지금 일어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자. 오늘의 상황은 언제나 그 전날과 다르다.

45 보라, 전투는 우리 앞과 뒤에 있다. 게다가 요단강의 물은 이쪽과 저쪽에 있고, 습지와 수풀이 있다. 도망갈 곳이 없다.

46 그러므로 하늘을 향해 외쳐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적들의 손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47 이에 전투가 벌어졌고, 요나단은 손을 뻗어 바키데스를 치려 했으나, 그는 뒤로 물러났다.

48 요나단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요단강에 뛰어들어 건너편으로 헤엄쳐 갔다. 적들은 요단강을 건너 그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49 그날 바키디스의 부대에서 약 천 명이 죽었다;

50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유다에 있는 강력한 성들, 즉 예리코의 요새와 에마우스, 베티호론, 베델, 티마트, 파라톤, 테폰을 높은 성벽과 문과 빗장으로 견고히 하였다.

51 그는 이 성들에 병영을 설치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52 그는 벳수라와 가자라, 그리고 성채를 견고히 하여 군대와 식량을 비축하였다.

53 그는 땅의 귀족들의 아들들을 인질로 잡아 예루살렘 성채에 감금하였다.

54 백오십삼년 둘째 달에 알키모스는 성전 안뜰의 담을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였고, 예언자들의 공작물도 헐어버렸다.

55 그가 혈기 시작하자, 알키모스는 갑자기 병에 걸려 그의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의 입이 막히며 마비에 시달려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에 관한 명령도 내리지 못하였다.

56 알키모스는 그때 큰 고통 속에서 죽었다.

57 바키디스는 알키모스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왕에게로 돌아갔다. 그때 유다 땅은 이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

58 그때 모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모여 상의하여 말하였다. “보라, 요나단과 그의 사람들이 편안히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바키디스를 불러서, 그가 한밤중에 그들을 모두 사로잡게 하자.”

59 그들은 가서 그와 상의하였다.

60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에 있는 모든 동맹자들에게 비밀리에 서신을 보내어 요나단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하였으나, 그들의 계획이 들통나서 성공하지 못하였다.

61 요나단의 사람들은 그 땅에서 악행의 주범이 된 자들 약 오십 명을 사로잡아 죽였다.

62 요나단과 시몬,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은 광야에 있는 벳바시로 떠나, 혈린 것을 다시 쌓아 견고히 하였다.

63 바키디스는 이를 알고, 자신의 모든 군대를 모아 유다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 ⁶⁴ 그는 벳바시로 나아가 그 성을 공격하여 여러 날 동안 싸우고 전쟁 기계를 만들었다.
- ⁶⁵ 요나단은 형 시몬을 성 안에 남겨두고, 땅으로 나가 몇 명의 병사와 함께 떠났다.
- ⁶⁶ 그는 오도메라와 그의 일가, 그리고 파시론의 자손들이 머무는 장막을 공격하였다.
- ⁶⁷ 그들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성에서 나와 전쟁 기계에 불을 지르고,
- ⁶⁸ 바키디스와 싸워 그를 패배시켰다. 그들은 그를 심하게 괴롭혔으니, 그의 계획과 원정은 허사였기 때문이다.
- ⁶⁹ 그들은 바키디스를 땅으로 보내도록 조언한 불법자들을 매우 분노하여, 그들 중 많은 수를 죽였다. 그 후 그는 자기 땅으로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 ⁷⁰ 요나단은 이를 알고 사절을 보내어 그와 화평을 맺고, 그가 잡아간 포로들을 돌려주도록 요청하였다.
- ⁷¹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그의 말대로 행하고, 그의 생애 동안 그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 ⁷² 그는 유다 땅에서 이전에 잡아간 포로들을 모두 돌려주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 더 이상 그들의 경계로 들어오지 않았다.
- ⁷³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에서 칼이 멈추었다. 요나단은 미크마스에 머물렀으며, 그는 백성을 심판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에서 불경건한 자들을 없앴다.

마카베오기 상권 10장

- 1 제160년에 안티오코스의 아들 알렉산데르 에피파네스가 올라가 톨레마이스를 점령하였다. 그들은 그를 맞이하였고, 그는 거기서 왕이 되었다.
- 2 데메트리우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큰 군대를 모아 그를 맞아 싸우려 나섰다.
- 3 데메트리우스는 요나단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 그를 존중하려 하였다.
- 4 그는 말했다. "우리가 그가 우리를 향해 알렉산데르와 평화를 맺기 전에 먼저 그들과 평화를 맺자."
- 5 그는 우리가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기억할 것이다."
- 6 그는 요나단에게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준비하며 자신의 동맹이 되게 하는 권한을 주었고, 성채에 있는 인질들을 그에게 풀어주라고 명령하였다.
- 7 요나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백성과 성채에 있는 자들의 앞에서 그 편지를 읽었다.
- 8 그들은 왕이 요나단에게 군대를 모으는 권한을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였다.
- 9 성채에 있던 자들은 요나단에게 인질들을 풀어주었고, 그는 그들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 10 요나단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을 건설하고 다시 세우기 시작하였다.
- 11 그는 공사를 맡은 자들에게 성벽을 쌓고 시온 산을 정사각형의 돌로 둘러싸서 방어하게 명령하였고,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 12 바키디스가 건설한 요새에 있던 외국인들은 도망쳤다.
- 13 각자 자기 고향으로 떠나갔다.
- 14 오직 벳수라에는 율법과 계명을 버린 자들이 몇 명 남아 있었는데, 그곳은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었기 때문이다.
- 15 알렉산데르 왕은 데메트리우스가 요나단에게 보낸 모든 약속들을 듣고, 그와 그의 가족이 벌인 전투와 용감한 행위, 그리고 그들이 겪은 고난들을 들었다.
- 16 그는 말했다. "우리에게 저와 같은 사람을 또 찾을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그를 우리의 친구이자 동맹자로 삼자."
- 17 그는 편지를 써서 그에게 보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18 "알렉산데르 왕이 그의 형제 요나단에게 인사드립니다.
- 19 나는 당신이 용감한 용사이며 우리 친구가 될 만한 사람임을 들었다.
- 20 지금 나는 당신을 오늘부터 당신 민족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왕의 친구라 불리게 하며,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우호를 유지하게 한다." 그는 또한 자주색 옷과 금관을 그에게 보냈다.
- 21 요나단은 제160년의 일곱 번째 달, 초막절에 성스러운 옷을 입었고,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풍부히 준비하였다.
- 22 데메트리우스가 이 모든 일을 듣고 슬퍼하며 말하였다.
- 23 "우리가 무엇을 하였기에 알렉산데르가 유대인들과 우호를 맺어 자신을 강화하는 데 우리보다 앞서게 되었는가?
- 24 나도 그들에게 격려와 존경과 선물을 주는 편지를 써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어 나를 돕게 하리라."
- 25 그는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냈다. "데메트리우스 왕이 유대 민족에게 인사드립니다."
- 26 당신들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고, 우리와의 우정을 계속 유지하며, 우리 적들과 결탁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듣고 기뻐합니다.
- 27 지금도 우리에게 충실함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에게 베푼 선한 행동에 보답하겠습니다.
- 28 우리는 당신들에게 많은 면제를 주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 29 지금 내가 당신들과 모든 유대인들을 세금, 소금세, 왕관세에서 해방합니다.
- 30 내가 받을 씨앗의 세 분의 일과 나무 열매의 절반을, 이 날부터 앞으로는 면제합니다. 유다 땅과 그에 더해진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의 세 지역에서, 이 날부터 영원히 내가 그것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 31 예루살렘은 성스럽고 자유로워야 하며, 그 경계와 십일조와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32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채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고, 대제사장에게 넘깁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그곳에 배치하여 지키게 하십시오.

- 33 유다 땅에서 내 왕국의 어느 곳으로든 포로로 끌려간 모든 유대인들을, 돈을 내지 않고 해방합니다. 모든 관리들도 그들의 가축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십시오.
- 34 모든 축제와 안식일, 월삭과 정해진 날들, 축제 전 삼일과 축제 후 삼일은, 내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면제와 자유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 35 그들 중 누구에게도 어떤 것을 강제로 걷거나, 어떤 일로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 36 왕의 군대에 유대인 약 삼만 명을 등록하고, 그들에게 왕의 모든 군대에게 주는 보수를 지급하십시오.
- 37 그들 중 일부는 왕의 큰 요새에 배치하고, 일부는 왕국의 중요한 사무를 맡아 신뢰받는 직책을 맡게 하십시오. 그들을 지휘하는 자들과 그들의 지도자는 그들 자신이 되고, 그들은 유다 땅에서 왕이 명령한 대로 자신의 법을 따르게 하십시오.
- 38 사마리아 지방에서 유다에 더해진 세 지역은 유다에 합병되어, 한 통치자 아래에 놓이게 하여, 대제사장 외의 다른 권위에 복종하지 않게 하십시오.
- 39 내가 톨레마이스와 그 땅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의 비용을 위해 선물로 주었습니다.
- 40 또한 매년 왕의 수입에서 적절한 곳에서 나온 은 십오천 세겔을 드리겠습니다.
- 41 왕의 사무를 맡은 자들이 처음 몇 년 동안 내지 않았던 추가 자금은, 이제부터 성전 사업을 위해 지급해야 합니다.
- 42 그리고 성소의 수입에서 매년 받았던 오천 세겔은, 그곳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속한 것이므로, 이제 면제합니다.
- 43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그 경계 안으로 도망친 자는, 왕에게 빚진 돈이 있거나 다른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자유롭게 되며, 내 왕국에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44 성전의 건축과 개보수를 위한 비용도 왕의 수입에서 지급됩니다.
- 45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과 그 주변의 방어 시설 공사, 그리고 유다 지역의 성벽 건축을 위한 비용도 왕의 수입에서 지급됩니다.
- 46 요나단과 백성이 이 말을 듣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큰 악과, 그가 그들을 매우 심하게 괴롭혔던 일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 47 그들은 알렉산더를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평화의 말을 먼저 한 자였고, 그들은 항상 그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 48 알렉산더 왕은 큰 군대를 모아 디메트리우스 근처에 진을 쳤습니다.
- 49 두 왕이 전투를 벌였고, 알렉산더의 군대는 도망쳤으며, 데메트리우스가 뒤를 쫓아 그들을 격파하였다.
- 50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전투를 격렬히 이어갔고, 데메트리우스는 그날 전사하였다.
- 51 알렉산더는 이집트 왕 톨레마이에게 사절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 52 “내가 내 왕국으로 돌아와 내 조상들의 왕좌에 앉아 내 지배권을 확립하고, 데메트리우스를 무너뜨리며 우리 땅을 점령 하였으니—
- 53 내가 그와 전투를 벌였고, 그와 그의 군대는 우리에게 패배하였으며, 우리는 그의 왕국의 왕좌에 앉았다—
- 54 이제 우리 사이에 우호를 맺자. 내 아내로 네 딸을 주어라. 내가 너와 결합하고, 너와 그녀에게 네 가치에 맞는 선물을 줄 것이다.
- 55 왕 톨레마이는 대답하여 말했다. “네가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와 그들의 왕국의 왕좌에 앉은 날은 복된 날이다.
- 56 지금 내가 네가 쓴 대로 네게 해주겠다. 그러나 톨레마이스에서 나를 만나라. 우리가 서로를 보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너와 결합하겠다.
- 57 이러자 톨레마이는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이집트를 떠나, 162년에 톨레마이스에 도착하였다.
- 58 왕 알렉산더가 그를 맞이하여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주었고, 왕들이 하는 대로 톨레마이스에서 그녀의 혼인잔치를 화려하게 베풀었다.
- 59 왕 알렉산더는 요나단에게 자신을 맞이하러 오라고 쓰었다.
- 60 요나단은 화려한 예식으로 톨레마이스에 가서 두 왕을 맞이하였다. 그는 그들과 그들의 친구들에게 은과 금과 많은 선물을 주었고, 그들의 눈에 호감을 샀다.
- 61 이스라엘에서 일부 불만을 품은 자들, 곧 율법을 어긴 자들이 모여 그를 비난하려 하였으나, 왕은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

았다.

62 왕은 요나단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히라고 명령하였고, 그들이 그렇게 하였다.

63 왕은 그를 자기 옆에 앉히고, 자신의 귀신들에게 말했다. “그를 도시 한가운데로 데리고 나가, 아무도 그에게 어떤 이유로도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게 선포하고, 아무도 그를 어떤 이유로도 괴롭히지 못하게 하라.

64 그를 비난하던 자들이 그가 선포된 대로 존중받는 모습과 자주색 옷을 입은 모습을 보고 모두 도망쳤다.

65 왕은 그에게 존경을 베풀고, 자신의 주요 친구들 중 하나로 등록하며, 한 지방의 장군이자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66 그러자 요나단은 평화와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67 165년에, 데메트리우스의 아들 데메트리우스가 크레타에서 조상들의 땅으로 나왔다.

68 왕 알렉산더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며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69 데메트리우스는 코일레시리아의 총독 아폴로니오를 임명하였고, 그는 큰 군대를 모아 암니아에 진을 치고 대제사장 요나단에게 보냈다. 그는 말했다.

70 “너만이 우리에게 맞서서 스스로 높아지지만, 나는 너 때문에 조롱과 수치를 당한다. 네가 왜 산지에서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가?

71 그러므로 네가 네 힘을 믿는다면, 평지로 내려와 우리와 그곳에서 힘을 겨루자. 도시들의 힘은 내 편에 있다.

72 누가 나인지, 그리고 우리를 돕는 이들이 누구인지 물어보아라. 그들은 말한다. ‘너의 발은 우리 앞에 설 수 없다. 너희 조상들은 자기 땅에서 두 번이나 쫓겨났다.’

73 이제 너는 돌이나 자갈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는 평원에서 기마병과 이와 같은 군대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74 요나단이 아폴로니오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 만 명의 병사를 뽑아 예루살렘에서 나아갔다. 그의 형제 시몬이 그를 돕기 위해 그를 맞이하였다.

75 그러자 그는 요파에 진을 쳤다. 그 도시의 백성들은 아폴로니오스가 요파에 병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막아 세웠다.

76 그러자 그들은 그 도시를 공격하였다. 도시 백성들은 두려워하여 문을 열었고, 요나단은 요파를 장악하였다.

77 아폴로니오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마병 삼천 명과 큰 군대를 모아 마치 여행하듯 아소스로 나아갔으며, 동시에 기마병이 많아 신뢰하던 평원으로 전진하였다.

78 그는 요나단을 아소스까지 쫓아가 두 군대가 전투를 벌였다.

79 아폴로니오스는 뒤에 천 명의 기마병을 은밀히 남겨두었다.

80 요나단은 뒤에 매복이 있음을 알았다. 그들은 요나단의 군대를 둘러싸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살을 쏘았다.

81 그러나 백성들은 요나단이 명령한 대로 굳게 버텼고, 적의 말들은 지쳐갔다.

82 그때 시몬이 군대를 이끌고 방진과 전투를 벌였는데, 기마병은 이미 지쳐 있었고, 그들은 시몬에게 패하여 도망쳤다.

83 기마병은 평원에서 흩어져 아소스로 도망쳐 다곤의 우상 사당으로 들어가 목숨을 구했다.

84 요나단은 아소스와 그 주변 도시들을 불태우고 전리품을 약탈하였다. 그는 다곤의 사당과 그 안에 피신한 자들을 불로 태웠다.

85 칼에 맞아 죽은 자와 불에 타 죽은 자가 모두 약 팔천 명이었다.

86 그 후 요나단은 아스칼론으로 떠나 진을 쳤다. 그 도시 백성들은 큰 화려했으므로 그를 맞으러 나왔다.

87 요나단과 그의 동지들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88 알렉산드로스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요나단을 더욱 존중하였다.

89 그는 요나단에게 금제를 보내어 왕족에게 주는 관습대로 예우하였고, 에크론과 그 땅 전체를 그의 소유로 주었다.

마카베오기 상권 11장

- 1 이에 이집트 왕이 바다변의 모래처럼 많은 병력과 많은 배를 모아, 아렉산드로스의 왕국을 속임수로 장악하고 자신의 왕국에 합병하려 하였다.
- 2 그는 평화의 말을 가지고 시리아로 나아갔다. 그 도시들의 백성들이 문을 열고 그를 맞이하였다. 이는 아렉산드로스 왕이 그들을 명령하여 그를 맞이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다.
- 3 그가 톨레마이스의 도시들에 들어서자, 각 도시에 병력을 주둔시켰다.
- 4 그가 아소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다곤의 사원이 불에 타서 파괴되고, 아소스와 그 목초지가 파괴되었으며, 시체들이 버려졌고, 전쟁 중에 그가 태워 죽인 자들의 시체들이 그의 길에 더미처럼 쌓여 있음을 보여 주었다.
- 5 그들은 요나단이 한 일을 왕에게 알렸다. 이는 그를 탓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왕은 침묵하였다.
- 6 요나단은 요파에서 왕을 화려하게 맞이하였고, 그들은 서로 인사하고 그곳에서 자였다.
- 7 요나단은 왕과 함께 엘레우테로스 강까지 동행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 8 그러나 톨레마이왕은 해안가의 도시들, 곧 바다변의 셀루키아까지 장악하고, 아렉산드로스를 해치려 음모를 꾸몄다.
- 9 그는 데메트리우스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하였다. "오라. 우리가 서로 계약을 맺자. 내가 아렉산드로스가 가진 내 딸을 네게 주리라. 그러면 네가 네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리라."
- 10 "내가 내 딸을 그에게 주었음을 후회한다. 그가 나를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 11 그는 그의 왕국을 탐내었기 때문에 그를 비난하였다.
- 12 그는 그의 딸을 그에게서 빼앗아 데메트리우스에게 주었고, 아렉산드로스와 단절되어, 그들의 적대감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 13 톨레마이가 안티오크에 들어가 아시아의 왕관을 썼다. 그는 머리에 이집트의 왕관과 아시아의 왕관을 두 개 썼다.
- 14 그때 아렉산드로스 왕은 킬리키아에 있었다. 그 지역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 15 아렉산드로스가 이 소식을 듣고 전쟁으로 그를 치러 나아갔다. 톨레마이는 강력한 병력으로 나아가 그를 맞이하여 그를 패퇴시켰다.
- 16 아렉산드로스는 아라비아로 도망쳐 그곳에서 은신하려 하였으나, 톨레마이왕은 승리하였다.
- 17 아라비아인 자브디엘이 아렉산드로스의 머리를 베어 톨레마이에게 보냈다.
- 18 톨레마이왕은 그 후 사흘 만에 죽었고, 그의 요새에 있던 자들은 그 요새의 주민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 19 데메트리우스가 167년에 왕이 되었다.
- 20 그때 요나단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채를 빼앗기 위해 유다인들을 모집하고, 그 성채를 공격할 여러 전쟁 기계를 만들었다.
- 21 자신의 민족을 미워하는 몇 명의 불법자들이 왕에게 가서 요나단이 성채를 포위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 22 왕은 그 말을 듣고 분노하였으나, 곧바로 일어나 톨레마이스로 나아가 요나단에게 편지를 보내어, 성채를 포위하지 말고, 빨리 톨레마이스로 와서 그와 대화하라고 명령하였다.
- 23 그러나 요나단이 이 말을 듣고 포위를 계속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사제들 중 일부를 골라,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 24 은과 금과 옷과 여러 가지 선물을 가지고 톨레마이스로 가서 왕을 만나니, 왕의 눈에 은총을 입었다.
- 25 그 민족 가운데 일부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그를 향해 불만을 제기하였다,
- 26 그러자 왕은 그에게 이전 왕들이 그에게 행한 대로 하여, 그의 모든 친구들 앞에서 그를 높였다,
- 27 그에게 대제사장의 직분과 이전에 가졌던 모든 영예를 확정해주고, 그의 주요 친구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지위를 주었다.
- 28 요나단은 왕에게 유다와 세 지방, 사마리아 땅을 세금 면제로 해방해 달라고 청하였고, 그 대가로 삼백 탈란트를 바치겠다고 약속하였다.
- 29 왕은 승낙하고, 요나단에게 이 모든 일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

- 30 "디메트리우스 왕이 그의 형제 요나단과 유대인의 민족에게 인사드립니다.
- 31 우리가 우리 친척 라스테네스에게 당신들에 관해 보낸 서신의 사본을, 당신도 볼 수 있도록 당신에게도 보냅니다.
- 32 "디메트리우스 왕이 그의 아버지 라스테네스에게 인사드립니다.
- 33 우리는 우리에게 충성하고 정의를 지키는 우리 친구인 유대인의 민족을 잘 대우하기로 결정하였다.
- 34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의 경계를 확정해주었고, 아페레마, 릿다, 라마타임의 세 지방도 그들에게 주었는데, 이들은 사마리아 땅에서 유다에 편입된 지역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자들을 위해, 왕이 이전에 그들로부터 매년 땅의 수확과 나무의 열매에서 받던 세금을 대신하여, 그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 35 이제부터 우리에게 속한 다른 모든 세금, 즉 십일조와 세금, 소금 우물,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관세는 모두 그들에게 돌려주겠다.
- 36 이제부터 영원히 이 모든 혜택은 폐지되지 않을 것이다.
- 37 그러므로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사본으로 만들어 요나단에게 주고, 성산의 적절하고 눈에 띄는 곳에 세우라."
- 38 디메트리우스 왕은 땅이 그 앞에 평온하고 저항이 없음을 보고, 모든 병사를 각자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가 이방인의 섬들에서 모집한 외국 병사들만은 남겨두었다. 이로 인해 그의 조상들의 모든 병사들이 그를 미워하게 되었다.
- 39 트리폰은 이전에 알렉산더의 편에서 있던 자 중 한 사람이었고, 모든 군대가 디메트리우스를 향해 불만을 품고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알렉산더의 어린 아들 안티오코스를 키우고 있던 아라비아의 임알쿠에게 가서,
- 40 그를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다. 그는 그에게 디메트리우스가 한 모든 일과 그의 병사들이 그를 미워하는 이유를 모두 말해주었고, 그곳에 여러 날 머물렀다.
- 41 요나단은 디메트리우스 왕에게 예루살렘의 성채와 요새에 주둔한 병사들을 철수해 달라고 보냈다. 그 병사들은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 42 디메트리우스는 요나단에게 보냈다. "나는 너와 너의 민족을 위해 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주어진다면 너와 너의 민족을 크게 존중하겠다.
- 43 그러므로 지금 너는 나를 위해 싸울 병사들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 모든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 44 그래서 요나단은 안티오케로 삼천 명의 용감한 병사들을 보냈다. 그들이 왕에게 도착하자, 왕은 그들의 도착을 기뻐하였다.
- 45 도시의 백성들이 도시의 중심으로 모여, 열두만 명이 되었고, 왕을 죽이려 하였다.
- 46 왕은 궁전의 안뜰로 도망쳤고, 도시의 백성들은 도시의 주요 거리를 장악하고 싸움을 시작하였다.
- 47 왕은 유대인들을 도와달라고 불렀고, 그들은 즉시 모여들어 도시 곳곳에 퍼져 나가, 그날 약 열만 명을 죽였다.
- 48 그들은 도시에 불을 지르고, 그날 많은 전리품을 빼앗아 왕을 구해냈다.
- 49 시민들은 유다 사람들이 도시를 마음대로 장악한 것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서 왕에게 간청하며 외쳤다,
- 50 "당신의 오른손을 주시고,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도시와 싸우는 것을 그치게 해 주십시오."
- 51 그들은 무기를 버리고 평화를 맺었다. 유다 사람들은 왕과 그의 왕국에 있는 모든 이 앞에서 영광을 얻었고, 그들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 52 이처럼 데메트리오 왕은 자신의 왕국의 왕좌에 앉아, 그의 앞에서 땅은 평온하였다.
- 53 그는 말한 모든 것을 거짓으로 했고, 요나탄과 멀어져서, 요나탄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따라 보답하지 않았으며, 그를 매우 가혹하게 대우하였다.
- 54 이후 트리폰이 돌아왔고, 그와 함께 어린 안티오쿠스가 왕위에 올라 왕관을 썼다.
- 55 데메트리오가 수치스럽게 내보낸 모든 군대가 그에게 모여들어 그와 싸우니, 그는 도망쳐 패배하였다.
- 56 트리폰은 코끼리들을 빼앗고 안티오키아를 장악하였다.
- 57 어린 안티오쿠스는 요나탄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했다. "나는 너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승인하고, 네가 네 지역을 다스리게 하며, 왕의 친구 중 한 사람으로 삼겠다."
- 58 그는 금으로 만든 그릇과 상을 위한 가구를 그에게 보내고, 금 그릇으로 마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며, 금 띠를 매는 것을 허락하였다.

- 59 그는 요나탄의 형제 시몬을 티로의 사다리에서 이집트 경계까지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 60 요나탄은 강을 건너 여러 도시를 지나 여행을 떠났다. 시리아의 모든 군대가 그의 동맹군이 되어 그에게 모여들었고, 그는 아스칼론에 이르러 도시 주민들이 존중하는 태도로 그를 맞이하였다.
- 61 그는 거기서 가자로 떠났으나, 가자 사람들은 그를 문밖으로 내쫓았다. 그래서 그는 그 도시를 포위하고 목초지를 불태우며 약탈하였다.
- 62 가자 사람들은 요나탄에게 간청했고,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오른손을 주어 평화를 맺고, 그들의 귀족들의 아들들을 인질로 잡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 후 그는 다마스쿠스까지 땅을 지나갔다.
- 63 그때 요나탄은 데메트리오의 장군들이 갈릴리에 있는 케데스에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의 직위를 빼앗으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 64 그는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으나, 형제 시몬을 땅에 남겨두었다.
- 65 시몬은 베타수라를 에워싸고 여러 날 동안 그 도시를 공격하며 포위하였다.
- 66 그들은 그에게 자신의 오른손을 주기를 청했고, 그는 그들에게 주었다. 그는 그들을 그곳에서 몰아내고 도시를 장악하며 요새를 설치하였다.
- 67 요나탄과 그의 군대는 게네사렛의 물가에 진을 치고, 아침 일찍 하술의 평원으로 진군하였다.
- 68 보라, 외국인들의 군대가 평원에서 그를 맞이하였다. 그들은 산속에 매복을 설치했으나, 그들 자신은 요나탄과 마주하여 싸우려 나섰다.
- 69 그러나 매복한 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전투에 뛰어들었고, 요나탄의 편에 서 있던 모든 이들이 도망쳤다.
- 70 그 중 남아 있던 자는 아브살롬의 아들 마타티아와 칼피의 아들 유다, 두 장군뿐이었다.
- 71 요나탄은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뿌리며 기도하였다.
- 72 그는 다시 그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패퇴시키고, 그들은 도망쳤다.
- 73 그의 편에서 도망친 자들이 이것을 보고 그에게로 돌아와서 그와 함께 케데스까지 쫓아가서 그곳에 진을 쳤다.
- 74 그날 외국인 중 약 삼천 명이 쓰러졌다. 그 후 요나탄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마카베오기 상권 12장

- 1 요나단은 그에게 유리한 시기가 왔음을 보고 사람들을 골라 로마에 보내어, 그들이 맺었던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 갱신하게 하였다.
- 2 그는 스파르타인들과 다른 곳들에도 비슷한 서신을 보냈다.
- 3 그들은 로마에 이르러 원로원 회의실에 들어가 말하였다. "고제사장 요나단과 유대 민족이 우리를 보내어, 과거와 같이 그들이 당신들과 맺은 우호와 동맹을 갱신하게 하였습니다."
- 4 그들은 각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유다 땅으로 가는 길에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 주도록 서신을 보냈다.
- 5 이것은 요나단이 스파르타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사본이다.
- 6 "고제사장 요나단과 민족의 원로원, 사제들과 유대인들의 나머지 백성이, 그들의 친족인 스파르타인들에게 인사드립니다.
- 7 이전에 아리우스가 당신들 사이에서 왕으로 재위할 때, 그는 온니아스 고제사장에게 서신을 보내어, 당신들이 우리와 친족임을 밝혔습니다. 아래에 기록된 사본이 이를 증명합니다.
- 8 온니아스는 그 사자를 존중하게 맞이하고, 동맹과 우호가 선언된 서신을 받았다.
- 9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우리 손에 있는 성서를 통해 위로를 얻고,
- 10 당신들과의 형제애와 우호를 갱신하려고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당신들과 완전히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서신을 보낸 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 11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쉬지 않고, 제사와 기도에서, 축제일과 다른 적절한 날마다, 친족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 12 또한 당신들의 영광을 기뻐합니다.
- 13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많은 전쟁이 둘러싸였으며, 우리 주변의 왕들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 14 우리는 이 전쟁에서 당신들과 우리 다른 동맹자들과 친구들에게 귀찮음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 15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도움을 받았고, 우리 적들을 구원받았으며, 우리 적들은 굴복당했습니다.
- 16 그러므로 우리는 안티오코스의 아들 누메니오와 야손의 아들 안티파테르를 골라 로마에 보내어, 우리가 그들과 맺었던 우호와 이전의 동맹을 갱신하게 하였습니다.
- 17 우리는 그들에게 당신들에게도 가서 인사드리고, 우호와 형제애를 갱신하는 우리의 서신을 전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18 그러므로 당신들이 우리에게 답장을 보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 19 이것은 그들이 온니아스에게 보낸 서신의 사본이다.
- 20 "스파르타의 왕 아리우스가 고제사장 온니아스에게 인사드립니다.
- 21 스파르타인들과 유대인들이 친족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문헌에 기록되어 발견되었습니다.
- 22 이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졌으니, 당신들의 평안과 번영에 관해 우리에게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23 우리 또한 우리 쪽에서 당신들에게 써서, 당신들의 가축과 재산은 우리 것이며, 우리의 것 또한 당신들의 것임을 알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에 따라 당신들에게 보고하도록 명령합니다."
- 24 요나단은 데메트리우스의 장군들이 이전보다 더 큰 군대를 이끌고 다시 그를 공격하러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 25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하마트 땅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땅에 발을 디딜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 26 그는 경찰병을 그들의 진영에 보내었고, 경찰병들이 돌아와 밤에 그들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27 그러나 해가 지자 곧장 요나단은 자기 부대에게 경계를 서고 무장을 하라고 명령하여 밤새도록 전투에 대비하게 했다. 그는 진영 주위에 경비병을 배치했다.
- 28 적들은 요나단과 그의 부대가 전투에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마음이 떨렸다. 그들은 진영에서 불을 피우고 철수했다.
- 29 그러나 요나단과 그의 부대는 아침이 될 때까지 이를 몰랐다. 그들은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 30 요나단은 그들을 뒤쫓았으나 따라잡지 못했다. 그들은 에우테로스 강을 건너갔기 때문이다.

- 31 그러자 요나단은 자바다이인 아라비아인들에게로 돌아가 그들을 치고 전리품을 빼앗았다.
- 32 그는 그곳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이르렀고, 온 땅을 가로질러 행군했다.
- 33 시몬은 나가서 아스칼론과 그 근처의 요새까지 행군했다. 그 후 그는 요파로 돌아가 그곳을 점령했다.
- 34 그는 그들이 요새를 데메트리우스의 부대에 넘기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곳에 병력을 주둔시켜 지켰다.
- 35 그러자 요나단은 돌아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그들과 함께 유다에 요새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 36 그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더 높이 쌓고, 성채와 도시 사이에 큰 흠더미를 쌓아 성채를 도시에서 분리하려 했다. 이로써 성채의 병력이 도시와 교역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 37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모였다. 동쪽에 있는 시내의 성벽 일부가 무너졌으므로, 그는 카페나타라고 불리는 구간을 수리했다.
- 38 시몬은 평야 지대에 아디다를 건설하고, 그것을 견고히 하며 문과 빗장을 설치했다.
- 39 트리폰은 아시아를 지배하고 스스로 왕관을 쓰며 왕 안티오코스에게 손을 뻗으려 했다.
- 40 그는 요나단이 자신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과 싸울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요나단을 붙잡아 없애려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래서 그는 출발하여 벳산에 이르렀다.
- 41 요나단은 전투에 선정된 사만 명의 병사와 함께 나가 벳산에 이르렀다.
- 42 트리폰은 요나단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을 보고 그에게 손을 뻗을 용기를 잃었다.
- 43 그는 요나단을 존중하게 맞이하고, 모든 친구들에게 그를 추천하며 선물을 주었고, 자기 자신처럼 그의 부대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했다.
- 44 그는 요나단에게 말했다. "우리 사이에 전쟁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 모든 사람들을 이토록 고생하게 했는가?"
- 45 이제 그들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너 자신과 함께할 몇 명의 병사만 골라 나와 함께 톨레마이스로 오너라. 내가 그 도시와 나머지 요새들, 그리고 나머지 병력과 왕의 모든 관리들을 네게 주겠다. 그 후 나는 돌아서 떠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온 이유다."
- 46 요나단은 그를 믿고 그의 말대로 하여 병력을 돌려보냈고, 그들은 유다 땅으로 떠났다.
- 47 그러나 그는 세천 명의 병사를 자기 편으로 남겨두었고, 그 중 이천 명을 갈릴리에 남기고, 천 명은 자신과 함께 갔다.
- 48 요나단이 톨레마이스에 들어서자마자, 톨레마이스 사람들은 성문을 닫고 그를 붙잡았다. 그들은 그와 함께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칼로 죽였다.
- 49 트리폰은 갈릴래아와 큰 평원에 군대와 기병을 보내어 요나단의 모든 병사들을 멸망시키려 했다.
- 50 그들은 요나탄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붙잡혀 죽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가까이 모여 서서 싸울 준비를 했다.
- 51 그들을 뒤따르던 자들은 그들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를 했다는 것을 보고 되돌아갔다.
- 52 그들은 모두 평화롭게 유다 땅으로 들어왔고, 요나탄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을 위하여 애도하며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 스라엘 전체가 큰 슬픔으로 애도하였다.
- 53 그들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 했다. 그들은 말했다. "그들에게 지도자도, 도우는 자도 없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맞서 싸워서, 그들의 이름을 인류 가운데서 없애자."

마카베오기 상권 13장

- 1 시몬은 트리폰이 막대한 군대를 모아 유다 땅으로 와서 완전히 파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 2 그는 백성이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백성을 모았다.
- 3 그는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며 말했다. "너희는 내가 내 친척들과 내 조상의 집이 법과 성소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겪은 전투와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해왔는지 모두 알고 있다.
- 4 이 때문에 내 모든 형제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죽었고, 나는 혼자 남았다.
- 5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의 시기에 내 생명을 아끼려 한다면, 그것은 내 친척들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것이 될 것이다.
- 6 그러나 나는 내 민족과 성소, 그리고 우리 아내들과 자녀들을 위해 보복할 것이다. 이는 모든 이방인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증오로 모였기 때문이다.
- 7 백성은 이 말을 듣자마자 용기를 되찾았다.
- 8 그들은 큰 소리로 대답하여 말했다. "당신은 우리 형제 유다와 요나단의 뒤를 이어 우리 지도자입니다.
- 9 우리의 전투를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 10 그는 모든 병사를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그 성을 사방으로 견고히 다졌다.
- 11 그는 아브살롬의 아들 요나단을 보내어 큰 군대와 함께 요파로 가게 했다. 그는 그 안에 있던 자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머물렀다.
- 12 트리폰은 톨레마이스에서 막대한 군대를 이끌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려 했고, 요나단은 그와 함께 감시 아래 있었다.
- 13 그러나 시몬은 평원 가까이 아디다에 진을 쳤다.
- 14 트리폰은 시몬이 그의 형 요나단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와 전투를 벌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사절들을 보내며 말했다.
- 15 "우리가 요나단, 곧 당신의 형을 붙잡아 두는 것은 그가 왕의 국고에 빚진 돈 때문입니다. 그가 맡았던 직무 때문입니다.
- 16 이제 은 백 탈란트와 그의 아들 둘을 인질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가 풀려난 후 우리에게 반역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그를 풀어주겠습니다.
- 17 시몬은 그들이 속임수로 말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백성 사이에 큰 적대감이 생기지 않도록 돈과 아이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 18 그러지 않으면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가 돈과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라고 할까 봐 두려웠다.
- 19 그래서 그는 아이들과 백 탈란트를 보냈으나, 트리폰은 거짓말을 하고 요나단을 풀어주지 않았다.
- 20 이후 트리폰은 땅을 침략하고 파괴하려 하며 아도라로 가는 길을 따라 움직였다. 시몬과 그의 군대는 그가 가는 모든 곳에 따라가며 그를 추적했다.
- 21 성채의 백성들은 트리폰에게 사절을 보내어 사막을 통해 그들에게로 와서 음식을 보내달라고 간청했다.
- 22 그래서 트리폰은 모든 기마병을 준비하여 출발했으나, 그 밤에 매우 무거운 눈이 내려 눈 때문에 그는 오지 못했다. 그는 떠나 길르앗 땅으로 갔다.
- 23 그가 바스카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요나단을 죽이고 그곳에 장사했다.
- 24 그리고 트리폰은 돌아서 자신의 땅으로 떠났다.
- 25 시몬은 사신을 보내어 형 요나단의 뼈를 가져와 조상들의 도시 모딘에 장사하였다.
- 26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를 위하여 큰 애도를 하며 여러 날 동안 그를 슬퍼하였다.
- 27 시몬은 아버지와 조상들의 무덤 위에 기념비를 세우고, 앞뒤로 광택을 낸 돌로 덮어 높이 올려 보이게 하였다.
- 28 그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네 형제를 위해 일렬로 일곱 개의 피라미드를 세웠다.
- 29 그는 그 주위에 큰 기둥들을 세우고, 기둥 위에 영원한 기념으로 갑옷을 새겼으며, 갑옷 옆에는 배들을 조각하여 바다를 향해하는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 30 이것이 시몬이 모딘에 세운 무덤이다.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 31 트리폰은 젊은 왕 안티오코스를 속여 그를 죽였고,
- 32 그의 자리를 차지하여 아시아의 왕관을 쓰고 땅에 큰 환난을 가져왔다.

- 33 시몬은 유다의 요새들을 견고히 하고, 높은 탑들과 큰 성벽, 문과 빗장을 두르며 요새 안에 식량을 비축하였다.
- 34 시몬은 사람들을 선정하여 데메트리우스 왕에게 보내어, 트리폰이 모든 것을 약탈하므로 그 땅에 세금 면제를 허락해 달라고 청하였다.
- 35 데메트리우스 왕은 이 말에 따라 그에게 답장을 보내어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 주었다.
- 36 “데메트리우스 왕은 대제사장이자 왕들의 친구인 시몬과 유대인의 장로들과 백성에게 인사드립니다.
- 37 당신이 보낸 황금 왕관과 야자나무 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굳건한 평화를 맺고, 우리 관리들에게 세금 납부를 면제하라고 명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38 당신에게 승인해 준 모든 일은 확정되었습니다. 당신이 세운 요새들은 당신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 39 이제까지 범한 모든 과실과 잘못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내야 했던 왕관 세금도 면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부과된 다른 세금이 있다면 더 이상 걷지 마십시오.
- 40 당신 백성 중 내 왕실에 등록할 자격이 있는 자들은 등록하게 하며,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 41 일백칠십년에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멍에서 벗어났다.
- 42 사람들은 문서와 계약서에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시몬, 대제사장이자 유대인의 지휘관이자 지도자인 자의 첫째 해.”
- 43 그때 시몬은 가자라를 포위하고 군대를 돌려쌌다. 그는 공성 기계를 만들고 도시로 끌고 가서 탑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다.
- 44 기계 안에 있던 자들이 도시로 뛰어들었고, 도시 안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
- 45 도시 백성은 옷을 찢고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성벽에 올라 큰 소리로 외쳐 시몬에게 자비를 구하였다.
- 46 그들은 말했다. “우리의 악행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마시고, 당신의 자비에 따라 우리를 대하소서.”
- 47 그래서 시몬은 그들과 화해하여 싸우지 않았고, 그들을 도시에서 쫓아내어 우상이 있던 집들을 정결히 하고, 노래와 찬양을 하며 그 도시에 들어갔다.
- 48 그는 도시에서 모든 부정을 제거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배치하여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자신을 위한 거처를 그 안에 지었다.
- 49 예루살렘 요새에 있던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거나 땅으로 나가지 못했고, 장사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배고파졌고, 많은 이들이 기아로 죽었다.
- 50 그러자 그들은 시몬에게 손을 내밀어 달라고 외쳤다. 시몬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으나,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내고 요새를 더럽힘에서 정결하게 했다.
- 51 시몬은 일백칠십일년 둘째 달 이십삼일에 찬양과 종려가지와 수금과 제금과 현악기와 찬송과 노래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큰 적이 멸망되었기 때문이다.
- 52 시몬은 그 날을 매년 기쁨으로 지키도록 규정했다. 그는 요새 옆에 있던 성전 언덕을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살았다.
- 53 시몬은 자기 아들 요한이 장성한 사람임을 보고, 그를 자기 모든 군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요한은 가자라에 살았다.

마카베오기 상권 14장

- ¹ 제172년에 데메트리우스 왕이 군대를 모아 메디아로 가서 트리폰과 싸우기 위해 도움을 청했다.
- ²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왕 아르사케스가 데메트리우스가 자신의 국경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생포하려고 자신의 한 왕자를 보냈다.
- ³ 그 왕자는 데메트리우스의 군대를 공격하여 그를 붙잡아 아르사케스에게 데려갔고, 아르사케스는 그를 감금했다.
- ⁴ 시몬이 사는 동안 땅은 평화를 누렸다. 그는 자기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고, 그의 권위와 영광은 그의 평생 동안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다.
- ⁵ 그는 모든 영광 속에서 요파를 항구로 삼아 바다의 섬들로 들어가는 입구로 만들었다.
- ⁶ 그는 자기 백성의 경계를 넓히고 땅을 장악했다.
- ⁷ 그는 많은 포로들을 모아 가자, 베클수라, 그리고 성채를 장악하고 그곳의 부정을 모두 제거했다. 그를 저항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 ⁸ 사람들은 평화롭게 땅을 경작했고, 땅은 풍성한 수확을 내었으며, 평야의 나무들도 열매를 맺었다.
- ⁹ 늙은이들은 거리에 앉아 좋은 일들에 대해 서로 대화했고, 젊은이들은 영광스럽고 전투적인 옷을 입었다.
- ¹⁰ 그는 도시들에 식량을 공급하고 방어 수단을 마련하여, 그의 이름의 영광이 땅 끝까지 알려지게 했다.
- ¹¹ 그는 땅에 평화를 이루었고, 이스라엘은 큰 기쁨으로 즐거워했다.
- ¹² 각 사람은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두려울 것이 없었다.
- ¹³ 땅에는 그들을 대적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때 모든 왕들이 패배했다.
- ¹⁴ 그는 자기 백성 중 겸손한 자들을 격려하고, 율법을 탐구하며, 모든 불법적이고 악한 자를 제거했다.
- ¹⁵ 그는 성소를 영광스럽게 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더 보탤다.
- ¹⁶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로마와 스파르타에도 전해졌고, 그들은 매우 슬퍼했다.
- ¹⁷ 그러나 그가 그의 형제 시몬이 그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어 그 땅과 그 안의 도시들을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자,
- ¹⁸ 그들은 브론즈 판에 글을 새겨, 그의 형제 유다와 요나단과 맺었던 우호와 동맹을 시몬과 다시 맺기로 했다.
- ¹⁹ 이 글은 예루살렘의 공동체 앞에서 낭독되었다.
- ²⁰ 이것은 스파르타 사람들이 보낸 편지의 사본이다. "스파르타의 지도자들과 도시가, 우리와 혈연을 맺은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시몬과 장로들과 사제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인사드립니다."
- ²¹ 우리 백성에게 파견된 사절들이 당신들의 영광과 존엄에 대해 우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도착을 기뻐했습니다.
- ²² 우리는 그들이 말한 내용을 공식 기록에 다음과 같이 등록했습니다. "안티오코스의 아들 누메니오스와 이아손의 아들 안티파테르, 유대인 사절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맺었던 우호를 갱신하려 했습니다."
- ²³ 스파르타 백성은 이 사람들을 존중하게 대접하고, 그들의 말의 사본을 공식 기록에 두어 스파르타 백성이 이를 기록으로 간직하게 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의 사본을 대제사장 시몬에게 보냈습니다."
- ²⁴ 이후 시몬은 천 마나 무게의 금 방패를 들고 누메니오스를 로마에 파견하여 그들과의 동맹을 확정짓게 했다.
- ²⁵ 그러나 백성이 이 말을 듣고 말했다. "우리는 시몬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
- ²⁶ 그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조상의 집은 스스로 힘을 기르고 싸워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에 자유를 확립 하였기 때문이다."
- ²⁷ 그래서 그들은 놋판에 기록하여 시온 산에 기둥에 세웠다. 이는 그 기록의 사본이다. "제172년, 엘룰월 18일, 즉 시몬 대사제의 세 번째 해에,
- ²⁸ 아사라멜에서 사제들과 백성과 민족의 지도자들과 나라의 장로들이 모인 큰 모임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었다:"
- ²⁹ "국가에서 전쟁이 자주 일어나자, 요아립의 손자인 마타티아의 아들 시몬과 그의 형제들은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족의 원수들을 맞서 싸워 성소와 율법을 확립하고, 민족을 위대한 영광으로 빛나게 하였다."
- ³⁰ 요나단은 민족을 일으켜 그들의 대사제가 되었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 ³¹ 그들의 원수들은 나라를 침략하여 그 나라를 완전히 파괴하고, 성소를 침범하려 꾸었다."

- 32 그러자 시몬이 일어나 민족을 위해 싸웠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많이 써서 민족의 용감한 자들을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월급을 주었다."
- 33 그는 유다의 성읍들과 유다 경계에 있는 벳수라를 견고히 하여, 거기에는 원수들의 무기들이 저장되어 있었고, 그곳에 유다인 병력을 주둔시켰다."
- 34 그는 바다에 위치한 요파와 아소드 경계에 있는 가자라를 견고히 하여, 원수들이 살던 곳에 유다인들을 정착시키고, 그들의 복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
- 35 백성은 시몬의 신실함과 그가 민족에 가져오려는 영광을 보고,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했고, 그가 민족에 대해 정의와 신실함을 지켰으며, 자기 백성을 높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에, 그를 지도자이자 대사제로 삼았다."
- 36 그의 시대에 그의 손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여, 이방인들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고, 다윗의 성 안에 있었고, 예루살렘 안에 있었으며, 성소 주변을 더럽히고 심각한 피해를 입힌 그들의 요새를 만든 자들도 쫓겨났다."
- 37 그는 그곳에 유다인들을 정착시키고, 나라와 성을 보호하기 위해 요새를 견고히 하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높였다."
- 38 데메트리우스 왕은 이 모든 일에 따라 시몬에게 대사제 직분을 승인하고,
- 39 그를 자신의 친구로 삼아 큰 영예로 그를 존중하였다.
- 40 이는 로마인이 유다인들을 친구이자 동맹자이자 친족이라 불렀고, 시몬의 사절들을 존중 있게 대접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 41 유다인들과 사제들이 시몬이 예언자가 일어날 때까지 영원히 그들의 지도자이자 대사제가 되기를 기뻐하였고,
- 42 그가 그들을 다스리며 성소를 관리하고, 그들의 일과 땅과 무기와 요새를 책임지며, 성소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 43 모든 사람이 그를 복종하며, 나라의 모든 계약이 그의 이름으로 기록되며, 그가 자수색 옷을 입고 금을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 44 누구든지 이 모든 것을 무효화하거나 그가 말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그 없이 나라에서 모임을 열거나, 자수색 옷을 입거나, 금으로 된 끈을 매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 45 이러한 일을 저지르거나 이 중 어떤 것을 무효화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 46 모든 백성은 시몬이 이 말대로 행동하도록 승인하였다.
- 47 그러자 시몬은 이를 받아들이고, 대사제가 되며 유다인들과 사제들의 지휘관이자 통치자이자 모든 이의 보호자가 되기로 동의하였다.
- 48 그들은 이 기록을 놋판에 새겨 성소 안의 눈에 띄는 곳에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 49 또 그 복사본들을 창고에 두어 시몬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갖도록 하라.

마카베오기 상권 15장

- 1 왕 디메트리오스의 아들 안티오코스가 바다의 섬들에서 편지를 보내어 유대인들의 사제이자 총독인 시몬과 모든 민족에게 보냈다.
- 2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왕 안티오코스가 유대인들의 대사제이자 총독인 시몬과 유대인의 민족에게 인사한다."
- 3 어떤 악당들이 우리 조상들의 왕국을 장악하였으나, 나는 왕국을 회복하여 이전과 같이 되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나는 많은 외국 병사를 모집하고 전함을 준비하였다.
- 4 나는 땅에 상륙하여 우리 땅을 파괴한 자들과 왕국의 많은 도시들을 황폐하게 만든 자들을 벌하려 한다.
- 5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이전 왕들이 너희에게 면제해 준 모든 세금 면제와 그들이 너희에게 주었던 모든 선물들을 확정한다.
- 6 너희가 너희 땅을 위해 스스로 도장을 찍어 화폐를 주조하는 것을 허락한다.
- 7 그러나 예루살렘과 성소는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준비한 모든 무기와 너희가 건설한 요새들, 너희가 소유한 것들은 모두 너희의 것이 되리라.
- 8 왕에게 빚진 모든 빚과 앞으로 영원히 왕에게 빚질 것들은 모두 너희에게 면제된다.
- 9 또한 내가 왕국을 확립하면, 너희와 너희 민족과 성전을 큰 영광으로 높여, 너희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리라.
- 10 백칠십사년에 안티오코스가 조상들의 땅으로 들어갔다. 모든 군대가 그에게 모여들었으므로, 트리폰을 따르는 자는 거의 없어졌다.
- 11 왕 안티오코스가 그를 추격하여 그가 도망친 도르, 곧 바닷가에 이르렀다.
- 12 그는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재난이 닥쳤고, 자신의 군대가 그를 버렸음을 알았다.
- 13 안티오코스는 도르에 진을 치고, 그와 함께 십이만 명의 병사와 팔천 명의 기병을 거느렸다.
- 14 그는 도시를 둘러싸고, 함대가 바다에서 공격에 합류하였다. 그는 육지와 바다에서 도시를 괴롭히며 누구도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 15 누메니오스와 그의 일행이 로마에서 왔으며, 왕들과 나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 16 "로마의 집정관 루키우스가 왕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인사한다."
- 17 유대인들의 사절들이 우리와의 오래된 우호와 동맹을 갱신하기 위해, 대사제 시몬과 유대인들의 민족으로부터 파견되어 우리에게 왔다.
- 18 그들은 또한 천 미나 무게의 금 방패를 가져왔다.
- 19 그러므로 우리는 왕들과 나라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유대인들과 그들의 도시들과 땅을 해치거나 그들과 싸우지 않으며, 그들과 싸우는 자들과 동맹을 맺지 않도록 명령하였다.
- 20 또한 우리는 그들로부터 방패를 받는 것이 좋다고 여겼다.
- 21 그러므로 만약 어떤 악당들이 그들의 땅에서 너희에게 도망쳤다면, 그들을 대사제 시몬에게 넘겨라. 그가 그들의 법에 따라 그들을 벌하게 하라."
- 22 그는 같은 내용을 왕 디메트리오스와 아탈루스와 아라테스와 아르사케스에게도 보냈다.
- 23 모든 나라들과 삼프사메스와 스파르타와 델로스와 민도스와 시키온과 카리아와 사모스와 판필리아와 리키아와 할리카르나소스와 로도스와 파셀리스와 코스와 시데와 아라두스와 고르티나와 크니두스와 키프로스와 케레네에도 보냈다.
- 24 그들은 또한 이 사본을 대사제 시몬에게 보냈다.
- 25 그러나 안티오코스 왕은 이틀째 도르에 진을 치고 계속해서 군대를 진격시켜 전쟁 기계를 제작하며, 트리폰이 들어가거나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 26 시몬은 그에게 이길 수 있도록 이천 명의 선발된 병사를 보내고, 은과 금, 그리고 풍부한 전쟁 도구를 제공했다.
- 27 그는 그것을 받지 않고, 이전에 그와 맺었던 모든 계약을 무효로 만들고 그와 멀어졌다.
- 28 그는 친구 중 한 명인 아테노비우스를 시몬에게 보내어 그와 협의하게 하며 말했다. "너는 요파와 가자라, 그리고 예루살

렘의 성채를 점령하고 있다. 이들은 내 왕국의 도시들이다."

²⁹ 너는 그 지역들을 파괴하고 땅에 큰 해를 끼쳤으며, 내 왕국의 많은 장소들을 장악하고 있다.

³⁰ 그러므로 이제 너는 점령한 도시들과 유다 국경 밖에서 장악한 지역들의 세금을 넘겨라.

³¹ 아니면 그것들에 대해 오백 탈란트의 은을 내라. 그리고 너의 행한 해악과 도시들의 세금에 대해 또 다른 오백 탈란트를 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와서 너를 복종시킬 것이다."

³² 왕의 친구 아테노비우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가 시몬의 영광,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의 보물창고, 그리고 그의 거대한 수행원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왕의 말을 시몬에게 전했다.

³³ 시몬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타인의 땅을 빼앗지 않았고,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유산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 동안 우리 적들의 부당한 점유 아래 있었다."

³⁴ 그러나 우리는 기회를 얻자, 우리 조상들의 유산을 단단히 지키고 있다.

³⁵ 너는 요파와 가자라를 요구한다. 이 도시들은 우리 온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쳤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백 탈란트를 내겠다." 아테노비우스는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³⁶ 분노한 채 왕에게 돌아가서 이 말들과 시몬의 영광, 그리고 자신이 본 모든 것을 보고했다. 왕은 매우 분노했다.

³⁷ 한편 트리폰은 배에 올라 오르토시아로 도주했다.

³⁸ 왕은 켄데바이오스를 해안 지방의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보병과 기병 부대를 주었다.

³⁹ 그는 켄데바이오스에게 유다에 진을 치고, 키론을 재건하며 성문을 강화하고, 백성과 싸우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왕은 트리폰을 추격했다.

⁴⁰ 그러므로 켄데바이오스가 암니아에 도착하여 백성을 자극하고 유다를 침공하며 백성을 사로잡고 죽이기 시작했다.

⁴¹ 그는 키론을 건설하고 거기에 기병과 보병을 주둔시켜, 왕이 그에게 명령한 대로 유다의 도로를 습격하게 했다.

마카베오기 상권 16장

- ¹ 요한은 가자라에서 올라가서 아버지 시몬에게 켄데바이오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했다.
- ² 시몬은 두 아들 유다와 요한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나와 내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은 어릴 때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을 위한 전투를 싸워 왔다. 하느님께서 우리 손에 복을 주셔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자주 구원해 왔다."
- ³ 이제 나는 늙었고, 너희도 그분의 자비로 충분히 성숙하였다. 나와 내 형제의 자리를 대신하여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 싸우라. 하늘에서 오는 도움이 너희와 함께하길 바란다.
- ⁴ 그는 나라에서 이만 명의 병사와 기병을 뽑아 켄데바이오스를 치기 위해 나아가 모딘에서 밤을 보냈다.
- ⁵ 아침에 일어나 그들은 평야로 나아갔다. 그런데 보라, 보병과 기병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대가 그들을 맞이하러 왔다. 그들 사이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 ⁶ 그는 그와 그의 백성과 함께 그들 가까이에 진을 쳤다. 그는 백성들이 시냇물을 건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먼저 건넜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 뒤를 따라 건넜다.
- ⁷ 그는 백성을 나누어 보병 사이에 기병을 배치했으나, 적의 기병은 매우 많았다.
- ⁸ 그들은 나팔을 불었다. 켄데바이오스와 그의 군대는 도망쳤고, 많은 자들이 상처를 입고 죽었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요새로 도망쳤다.
- ⁹ 그때 유다, 곧 요한의 형은 상처를 입었으나, 요한은 그들을 쫓아 켄데바이오스가 건설한 키프론에 이르렀다.
- ¹⁰ 그들은 아소트의 들판에 있는 탑으로 도망갔다. 요한은 그 탑들을 불태웠고, 그들 중 약 이천 명이 죽었다. 그 후 그는 평안히 유다로 돌아왔다.
- ¹¹ 아부부스의 아들 톨레마이오스는 여리고 평야의 총독으로 임명되었고, 많은 은과 금을 소유하고 있었다.
- ¹² 그는 대제사장의 사위였기 때문이다.
- ¹³ 그의 마음은 교만해져서 나라를 장악하려 하였고, 시몬과 그의 아들들을 없애려고 속임수를 꾸몄다.
- ¹⁴ 시몬은 나라의 도시들을 순회하며 그들의 필요를 돌보았다. 그는 일백칠십칠년, 열한 번째 달, 즉 세바트 달에 자신과 아들 마타티아스와 유다를 데리고 여리고로 내려갔다.
- ¹⁵ 아부부스의 아들은 그들을 자신이 건설한 도크라 불리는 작은 요새로 속여 들여보내고 큰 잔치를 베풀며 그 안에 병사들을 숨겨두었다.
- ¹⁶ 시몬과 그의 아들들이 술에 취한 뒤, 톨레마이오스와 그의 부하들이 일어나 무기를 들고 잔치 장소로 쳐들어가 시몬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일부 하인들을 죽였다.
- ¹⁷ 그는 큰 죄를 저질러 선을 악으로 갚았다.
- ¹⁸ 톨레마이오스는 이 일을 기록하여 왕에게 보내어 자신을 돕기 위한 군대를 보내고, 그의 땅과 도시들을 넘겨주도록 요청했다.
- ¹⁹ 그는 다른 자들을 가자라에 보내어 요한을 죽이게 했고, 천부장들에게는 자신에게로 오라며 은과 금과 선물을 주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 ²⁰ 그는 다른 자들을 예루살렘과 성전 언덕을 장악하게 보냈다.
- ²¹ 한 사람이 앞서 가자라로 달려가 요한에게 아버지와 친척들이 모두 죽었고, 자신도 죽이려고 보낸 자들이 왔다고 알렸다.
- ²² 그가 이 말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 온 자들을 붙잡아 죽였으니, 그들이 자신을 없애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²³ 요한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전쟁과 용감한 업적, 그가 쌓은 성벽과 그의 공적들에 대해,
- ²⁴ 보라, 그것들은 그가 아버지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된 때부터 기록된 그의 대제사장 직무 연대기들에 기록되어 있다.

마카베오기 하권 | 2 Maccabees

마카베오기 하권 1장

- ¹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다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집트 전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인사와 평안을 보냅니다.
- ²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분의 충성스러운 종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며,
- ³ 너희 모두에게 강한 마음과 기쁜 영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 ⁴ 하느님께서 너희 마음을 그분의 율법과 규례에 열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며,
- ⁵ 너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너희와 화해하시며, 악한 시기에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 ⁶ 지금 우리는 여기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 ⁷ 데메트리우스 왕의 통치 기간, 169년째에, 우리는 이 해 동안 우리에게 닥친 고통과 환난 속에서, 이사와 그의 일당이 성지와 왕국에서 반역한 이래로, 너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 ⁸ 그들은 문을 불태우고, 무죄한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했고,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을 드렸으며, 등불을 켜고, 진설병을 놓았습니다.
- ⁹ 그러므로 너희는 188년째에 키스레브 달에 장막 축제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 ¹⁰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사람들과 원로원, 유다가, 아리스토틀로스에게, 톨레마이오스 왕의 스승이자 기름 부음받은 제사장의 후손이며,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인사와 건강을 전합니다.
- ¹¹ 우리는 큰 위험에서 하느님의 구원을 받아, 마치 왕에 맞서 싸우는 자들처럼, 그분께 크게 감사드립니다.
- ¹² 그분께서 우리를 공격하던 자들을 페르시아로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 ¹³ 그 지도자가 군대를 이끌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의 군대는 마치 막을 수 없는 듯 보였으나, 나나에아의 제사장들의 배신으로 나나에아의 사원에서 전멸당했습니다.
- ¹⁴ 안티오코스는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핑계로, 그의 동료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왔으며, 큰 재산을 혼수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 ¹⁵ 나나에아 사원의 제사장들이 재산을 내놓고, 그가 성역의 담장 안에 소수의 동료들과 들어왔을 때,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 성전 문을 잠그고 말았습니다.
- ¹⁶ 그들은 천장의 비밀 문을 열고, 돌을 던져 그 지도자를 쓰러뜨렸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베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 ¹⁷ 모든 일에서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소서. 그분께서 불경한 자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 ¹⁸ 우리는 이제 키스레브 달 25일에 성전 정결의 날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장막 축제를 지키고, 느헤미야가 성전과 제단을 건축한 후 제물을 드릴 때 주어진 불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 ¹⁹ 우리 조상들이 페르시아 땅으로 끌려가려 할 때, 그 시대의 경건한 제사장들이 제단의 불 일부를 가져다가 물이 없는 우물 속 빈 공간에 숨겼으며, 그 장소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 ²⁰ 그 후 많은 해가 지나, 하느님의 뜻에 따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받아, 그 불을 숨긴 제사장의 후손들을 보내어 찾게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불은 찾지 못했고, 진한 액체만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 ²¹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 액체를 조금 떠서 그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제물을 드린 후,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에게 그 액체로 나무와 그 위에 놓인 것들을 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 ²² 그 일이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이전에는 구름에 가려져 있던 태양이 떠올랐을 때, 큰 불길이 타올라 모든 사람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 ²³ 제물이 타는 동안 제사장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요나단이 이끌었고, 나머지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 ²⁴ 그 기도는 이와 같았습니다. “오 주님, 주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여, 당신은 놀라우시고, 강하시며,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직 당신만이 왕이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 ²⁵ 당신만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당신만이 의로우시며,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모든 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조상들을 선택하시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분입니다.
- ²⁶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한 제물을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몫을 지키시며, 그것을 성화하소서.
- ²⁷ 흩어진 우리 백성을 모으시고, 이방인들 사이에 붙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며, 경멸받고 미워받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이방인들이 당신이 우리의 하느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 ²⁸ 우리를 억압하고 교만하게 모욕하는 자들을 벌하소서.
- ²⁹ 모세가 말한 대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성한 곳에 심으소서.
- ³⁰ 그리고 사제들이 찬미가를 불렀다.
- ³¹ 제물이 모두 타버리자, 느헤미야는 남은 액체를 큰 돌 위에 부으라고 명령했다.
- ³² 이 일이 끝나자 불이 일어났으나, 제단에서 비치는 빛이 반사되자 그 불은 꺼졌다.
- ³³ 이 일이 알려지자, 페르시아 왕은 사제들이 끌려가면서 숨겨두었던 불의 장소에,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제물을 정결하게 한 액체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 ³⁴ 그러자 왕은 그 장소를 둘러싸고, 일을 조사한 후 그곳을 성화했다.
- ³⁵ 왕이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 때마다, 많은 선물을 주며 그들에게 이 액체를 일부 주었다.
- ³⁶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자들은 이 것을 ‘네프타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정결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네프타이’라고 부른다.

마카베오기 하권 2장

- 1 또한 예레미야 예언자가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불을 일부 가져가도록 명령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되었다.
- 2 그 예언자는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율법을 주며, 주님의 법령을 잊지 말고, 금과 은의 우상과 그 장식을 볼 때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명령했다.
- 3 그는 이와 같은 다른 말들로 그들을 권면하여,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였다.
- 4 그 예언자는 하느님의 경고를 받아, 모세가 올라가 하느님의 기업을 본 산으로 떠날 때 성막과 궤가 그와 함께 가도록 명령했다는 기록이 있다.
- 5 예레미야는 동굴을 찾아내어 성막과 궤와 분향단을 그 안으로 옮기고, 입구를 봉인하였다.
- 6 그와 함께 갔던 일부 사람들이 길을 표시하려고 그곳에 왔으나, 그 길을 찾지 못하였다.
- 7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일을 듣고 그들을 꾸짖으며 말했다. "그 장소는 하느님이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 8 그때 주님은 이 일들을 드러내시며, 구름과 함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모세에게 보이신 것처럼, 또한 솔로몬이 그 장소를 크게 성화해 달라고 간구한 것처럼.
- 9 그는 지혜를 지니고 성전의 봉헌과 완성의 제사를 드렸다고도 전해진다.
- 10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물을 태웠듯이, 솔로몬도 기도하자 불이 내려 번제를 태웠다.
- 11 모세는 말했다. "죄의 제물이 먹히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태워졌다."
- 12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여덟 날을 지켰다.
- 13 이러한 일들은 공식 기록과 느헤미야의 기록에도 보고되었으며, 그가 서재를 세우고 왕들과 예언자들의 책들과 다윗의 글들과 성물에 관한 왕들의 서신들을 모았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다.
- 14 마찬가지로 유다도 전쟁으로 흩어진 모든 책들을 우리를 위해 모아 모았으며, 지금도 우리 손에 있다.
- 15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필요로 한다면, 가져오도록 몇 사람을 보내라.
- 16 우리가 이제 정결함을 기념할 예정이므로, 너희에게 이 글을 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날들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 17 하느님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 왕국과 사제직과 성화를 함께 주어 모든 이에게 유산을 회복하셨다.
- 18 그분이 율법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하느님을 바라며, 그분이 곧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늘 아래 모든 곳에서 우리를 모아 그분의 성소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다. 그분은 우리를 큰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그 장소를 정결하게 하셨다.
- 19 유다 마카베오와 그 형제들에 관한 일들, 가장 큰 성전의 정결함, 제단의 봉헌,
- 20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그의 아들 유파토르에 대한 전쟁,
- 21 유대인의 신앙을 위해 용감히 싸운 자들에게 하늘에서 나타난 기적들로 인해, 그들은 적은 수였으나 온 땅을 장악하고 야만적인 무리를 쫓아내며,
- 22 세상 전역에 유명한 성전을 회복하고, 도시를 해방하며, 멸망의 위기에 처한 율법을 회복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 23 이사야가 쓴 다섯 권의 책에 기록된 이 일들을, 우리는 한 권의 책으로 간략히 요약하려 한다.
- 24 그러한 역사의 이야기를 들어가려는 자들이 방대한 내용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 25 우리는 읽기를 희망하는 이들이 끌리고, 우리를 좋아하는 이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며, 모든 독자들이 이익을 얻도록 신경 썼습니다.
- 26 우리가 요약이라는 고통스러운 노동을 감당한 자로서, 이 작업이 쉽지 않고 땀과 수면 부족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지만,
- 27 마치 잔치를 준비하고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에게도 가벼운 일이 아니듯이, 그러나 많은 이들의 감사의 마음을 위해 우리는 기꺼이 이 고통스러운 노동을 견뎌내겠습니다.
- 28 모든 세부 사항을 정확히 다루는 것은 역사가의 몫으로 남기고, 우리는 요약의 골격을 채울 힘이 없습니다.

- ²⁹ 새 집을 지을 때 주건축가는 전체 구조를 돌보며, 장식과 그림을 맡는 이는 그 집을 아름답게 꾸미기에 적합한 것들을 찾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³⁰ 땅을 차지하고 긴 논의를 펼치며 세부 사항에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역사의 최초 저자에게 어울립니다.
- ³¹ 그러나 표현의 간결함을 추구하고, 처리 방식에서 과도한 꼼꼼함을 피하는 것은 글을 새로운 형태로 정리하려는 이에게 주어지는 바입니다.
- ³²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말한 것에 이 정도만 더 보태며, 역사의 긴 서론을 만들고 역사 자체를 요약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카베오기 하권 3장

- 1 거룩한 도시가 평화롭게 지내고, 대제사장 온니아의 경건함과 악을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법들이 매우 잘 지켜질 때,
- 2 왕들조차 그 장소를 존중하고, 가장 귀중한 선물로 성전을 영광스럽게 했다.
- 3 아시아의 왕 셀레우코스조차 제물의 봉사에 드는 모든 비용을 자신의 수입으로 부담했다.
- 4 그러나 베냐민 지파 출신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의 감독이 되어, 도시의 시장 운영에 대해 대제사장과 의견이 달랐다.
- 5 그가 온니아를 이기지 못하자, 그는 당시 코일레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총독이었던 타르소스의 아폴로니우스에게 갔다.
- 6 그는 예루살렘의 재정고에 수많은 돈이 가득 차 있어, 그 금액이 셀 수 없을 정도이며, 이 돈은 제물에 관한 계정에 속하지 않고, 이 돈이 왕의 권세 아래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 7 아폴로니우스가 왕을 만나, 자신이 들은 그 돈에 대해 보고하자, 왕은 자신의 재상인 헬리오도로스를 임명하여, 보고된 돈을 몰수하라는 명령을 내려 보냈다.
- 8 그러므로 헬리오도로스는 즉시 떠나, 겉으로는 코일레시리아와 페니키아의 도시들을 방문하려는 척했으나, 실제로는 왕의 뜻을 실행하려고 했다.
- 9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도시의 대제사장에게 예의 있게 맞이받자, 그는 자신이 들은 정보를 말하고, 왜 왔는지를 밝히며, 그 일이 사실인지 물었다.
- 10 대제사장은 그에게 재정고에 과부들과 고아들의 예치금이 있다고 설명했다.
- 11 또한, 불경한 시몬이 거짓으로 주장한 것과는 달리,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토비아의 아들 흐르카노스의 돈도 있었다. 총액은 은 네 백 탈란트와 금 이 백 탈란트였다.
- 12 그는 이 모든 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존중받는 이 장소의 거룩함과 성전의 위엄과 침해 불가능한 성결함을 신뢰한 자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13 그러나 헬리오도로스는 왕이 자신에게 내린 명령 때문에, 어쨌든 이 돈을 왕의 재정고에 몰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14 그러므로 그는 날을 정하고, 이 일들을 조사하러 들어갔다. 그로 인해 온 도시에 큰 고통이 퍼졌다.
- 15 사제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은 채 제단 앞에 엎드려, 예치물에 관한 법을 주신 분께 간청하여, 예치한 자들을 위해 이 보물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했다.
- 16 대제사장의 모습을 본 누구나 마음이 아팠다. 그의 얼굴과 변색된 표정이 그의 영혼의 고통을 드러냈다.
- 17 그 사람에게에는 두려움과 몸의 떨림이 덮쳤고, 이로 인해 그의 마음속의 고통이 그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분명히 드러났다.
- 18 집에 있던 이들이 몰려나와, 이 장소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보편적인 간구를 했다.
- 19 여자들은 가슴 아래에 베를 두르고 거리에 몰려들었고, 안에 갇혀 있던 처녀들은 문으로, 성벽으로, 창문으로 달려나왔다.
- 20 모든 이들이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진지한 간구를 드렸다.
- 21 그때 그들이 모두 뒤섞여 엎드려 있는 모습과, 대제사장이 큰 고통 속에서 보이는 불안은 비참해 보였다.
- 22 그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것을, 맡긴 자들을 위해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전능하신 주님께 간청하는 동안,
- 23 헬리오도로스는 이미 결정된 일을 실행하려 했다.
- 24 그러나 그가 경비병들과 함께 재정고 근처에 도달하자, 영과 모든 권세의 주님께서 위대한 계시를 베푸셨다. 그와 함께 온 자들은 하느님의 권능에 놀라 떨며 기절했다.
- 25 그들은 아름다운 장식을 단 무서운 기수를 탄 말을 보았고, 그 말은 격렬하게 달려가 헬리오도로스를 앞발로 치는 듯했다. 말 위에 앉은 자가 완전히 금으로 된 갑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 26 또 다른 두 젊은이가 그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은 힘으로 뛰어나고 영광스럽고 옷차림이 화려하여 그의 양쪽에 서서 끊임없이 매질하며 수많은 심한 타박상을 입혔다.
- 27 그가 갑자기 땅에 쓰러지고 큰 어둠이 그를 덮자, 그의 시종들이 그를 들어 침상에 올렸다.
- 28 그는 방금 전에 큰 수행단과 모든 경비를 이끌고 위에 언급된 보고에 들어왔던 자였으나, 이제는 완전히 무력해져서 하

느님의 주권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29 그러므로 그는 하느님의 행하심으로 말을 잃고 모든 희망과 구원을 잃은 채 쓰러져 누워 있었다.

30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의 장소를 위해 기묘하게 행동하신 주님을 찬양하였다. 잠시 전까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성전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후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찼다.

31 그러나 헬리오도로스의 친한 친구들 중 몇 명이 급히 오니아를 불러, 죽음의 직전에 누워 있는 이에게 생명을 주시도록 가장 높으신 분께 간청하게 하였다.

32 대사제는 왕이 헬리오도로스에게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몄다고 생각할까 두려워, 그 남자의 회복을 위해 제물을 바쳤다.

33 그러나 대사제가 속죄 제물을 바치고 있을 때, 같은 두 젊은이가 다시 헬리오도로스에게 나타나 이전과 같은 옷을 입고 서서 말했다. "그대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오니아 대사제에게 큰 감사를 드리십시오."

34 "하늘에서 매질을 받은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주권적 위엄을 선포하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마치고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35 그러므로 헬리오도로스는 주님께 제물을 바치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께 큰 서원을 하고, 오니아와 작별한 뒤 군대를 이끌고 왕에게로 돌아갔다.

36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본 가장 위대하신 하느님의 일들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였다.

37 왕이 헬리오도로스에게 예루살렘에 다시 한 번 보내기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물었을 때, 그는 말했다.

38 "당신이 적이나 국가에 반역하는 음모자라면, 그를 그곳에 보내십시오. 그가 생명을 붙잡고 돌아오더라도, 심하게 매맞은 채로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진실로 하느님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39 "하늘에 거하시는 분이 그곳을 직접 주시하며 도우십니다. 그곳을 해치려 오는 자들은 그분이 치고 멸망시키십니다."

40 이것이 헬리오도로스와 보고의 보호에 관한 역사였다.

마카베오기 하권 4장

- ¹ 이전에 언급된 시몬은 자기 조국에 대한 돈의 정보를 제공한 뒤, 오니아를 헐담하며, 그가 헬리오도로스를 부추긴 자이며, 이 모든 악의 진정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 ² 그는 도시의 은인이고, 동족의 수호자이며, 율법을 위한 열성자인 그를 국가에 반역하는 음모자라고 불렀다.
- ³ 시몬의 증오가 이토록 심해져서, 시몬의 승인을 받은 대리인을 통해 살인까지 일어났을 때,
- ⁴ 오니아는 분쟁의 위험을 보았고, 코일레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총독인 메네스테우스의 아들 아폴로니우스가 시몬의 악의를 부추기고 있음을 알았다.
- ⁵ 그는 자신의 동포를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공공과 사적을 막론하고 모든 백성의 이익을 바라며, 왕에게 호소했다.
- ⁶ 그는 왕의 개입 없이 국가가 평화를 얻을 수 없으며, 시몬이 미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보았기 때문이다.
- ⁷ 셀레우코스가 죽고, 에피파네스라 불리는 안티오코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오니아의 형제인 이아손이 형을 밀어내고 대제사장의 직위를 차지했다.
- ⁸ 그는 왕과의 면담에서 은 360 탈렌트와 또 다른 자금에서 80 탈렌트를 약속했다.
- ⁹ 그는 이 외에도, 왕의 권한으로 체육관을 세우고 그 안에서 훈련받을 젊은이들을 조직하며, 예루살렘 주민들을 안티오크 시민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락받는다면, 추가로 150 탈렌트를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 ¹⁰ 왕이 동의하자, 이아손은 직위를 장악하자마자, 자기 민족의 사람들을 그리스 문화로 전환시켰다.
- ¹¹ 요한, 즉 유피레모스의 아버지가 로마에 사절로 파견되어 우호와 동맹을 수립할 때 내려진 유대인을 위한 왕의 특별한 친조를 폐기하고, 합법적인 생활 방식을 무너뜨리려 하며, 율법에 금지된 새로운 풍습을 도입했다.
- ¹² 그는 성채 바로 아래에 체육관을 세우고, 가장 귀족적인 젊은이들에게 그리스 모자를 씌웠다.
- ¹³ 이로 인해 이아손의 극심한 불경과 타락으로 인해 헬레니즘의 극치와 외래 종교의 확산이 일어났다. 그는 불경한 자였고, 대제사장이 아니었다.
- ¹⁴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제단의 봉사에 더 이상 열정을 보이지 않았고, 성소를 경멸하며 제사를 소홀히 하면서, 디스코스 던지기 대회에 불려가며 불법적으로 마련된 것들을 즐기기 위해 서둘렀다.
- ¹⁵ 그들은 조상들의 영광을 경멸하고, 그리스인들의 명예를 가장 높이 평가했다.
- ¹⁶ 이 때문에 그들에게 심각한 재난이 닥쳤다. 그들이 열심히 따르고, 모든 면에서 자신들과 같아지려고 애쓰던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원수가 되어 그들을 벌했다.
- ¹⁷ 하느님의 율법을 경멸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나중에 일어날 사건들이 이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 ¹⁸ 타이르에서 다섯 년마다 열리는 어떤 경기대회가 열리고, 왕이 참석했을 때,
- ¹⁹ 비열한 이아손은 예루살렘의 안티오크인으로서 성스러운 사절들을 보내어 헤라클레스에게 바칠 은 300 드라크마를 전달했다. 그러나 그 돈을 운반한 자들조차 그것이 어떤 제사에도 쓰기에 부적절하다고 여겨, 다른 용도로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 ²⁰ 보낸 자는 이 돈을 헤라클레스의 제사에 쓰려고 의도했으나, 당시의 상황 때문에 그 돈은 삼단선 전함 건조에 쓰였다.
- ²¹ 메네스테우스의 아들 아폴로니우스가 필로메토르를 이집트 왕으로 즉위시키기 위해 이집트에 파견되었을 때, 안티오크스는 필로메토르가 정부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알고 자신의 영토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그는 요파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다.
- ²² 이아손과 도시로부터 화려했게 환영받은 그는 햇불과 함성과 함께 들어왔다. 그 후 그는 군대를 이끌고 페니키아로 내려갔다.
- ²³ 그 후 3년이 지나, 이아손은 이전에 언급된 시몬의 형제인 메넬라오를 보내어 돈을 왕에게 전달하고, 몇 가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보고하게 했다.
- ²⁴ 그러나 그는 왕에게 칭찬을 받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한 뒤, 이아손을 능가하는 은 300 탈렌트를 제시하며 대제사장의 직위를 자기 것으로 삼았다.
- ²⁵ 왕의 명령을 받은 후, 그는 고제사장의 자격에 합당한 것을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돌아왔으며, 잔인한 폭군의 열정과

야수의 광기를 지니고 있었다.

26 그러므로 자기 형제를 몰아낸 이사온은 또 다른 자에게 몰려 추방되어 암몬 땅으로 도망쳤다.

27 메넬라오스는 그 직위를 차지했으나, 왕에게 약속된 돈은 제대로 지불되지 않았다. 비록 성채의 총독 소스트라토스가 그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8 그의 임무는 세수를 모으는 것이었기 때문에, 왕은 둘 다 자신 앞에 불러들였다.

29 메넬라오스는 자신의 동생 리시마코스를 고제사장의 대리로 임명했고, 소스트라토스는 키프로스 사람들을 지배하던 크라테스를 대리로 남겼다.

30 이때 타르소스와 말루스의 백성들이 왕의 첩 안티오키스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반란을 일으켰다.

31 그러자 왕은 빠르게 그 일을 해결하러 가면서 안드로니코스라는 고위 인사를 대리로 임명했다.

32 그러자 메넬라오스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둑질한 성전의 금제품들을 안드로니코스에게 바쳤다. 그는 이미 다른 것들을 시돈과 인근 도시들에 팔아치웠다.

33 오니아스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자, 안티오키아 근처 다프네에 있는 성소로 몰려나 그를 강하게 책망했다.

34 그러자 메넬라오스는 안드로니코스를 끌어내어 오니아스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 안드로니코스는 오니아스를 찾아가, 배신을 하도록 설득받고 친구처럼 대접받아, 손을 잡으며 맹세를 하였다. 오니아스는 의심했으나, 성소에서 나와 그를 따르도록 설득당했다. 그는 정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즉시 그를 죽였다.

35 이 때문에 유대인뿐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들도 그 무고한 자의 부당한 살해에 분노하고 불만을 품었다.

36 왕이 쿨리키아의 지역에서 돌아오자, 도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인들과 함께 악행에 대한 증오를 함께하며 왕에게 안드로니코스를 고발하고, 오니아스가 부당하게 살해되었다고 주장했다.

37 안티오키스는 그 죽은 자의 온화하고 질서 있는 삶을 보고 마음이 아파하며 슬퍼하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

38 분노에 불타서 왕은 즉시 안드로니코스의 자홍색 외투를 벗기고 속옷을 찢은 뒤, 그를 도시 전체를 돌며 오니아스를 학살한 그 장소로 끌고 가서, 주님께서 그가 마땅히 받을 벌을 그에게 내리셨다.

39 리시마코스가 메넬라오스의 동의 하에 도시에서 많은 성전 훼손 행위를 저질렀고, 그 소문이 외부로 퍼지자, 많은 금제품들이 이미 도난당한 후, 백성들이 리시마코스를 향해 모였다.

40 우리가 그를 향해 분노하며 일어나자, 리시마코스는 삼천 명을 무장시켜, 나이도 많고 어리석음도 그만큼 심한 하우란이라는 자의 지휘 아래 부당한 폭력으로 공격을 개시했다.

41 그러나 그들은 리시마코스의 공격을 눈치채고, 일부는 돌을 주워 들고, 일부는 나무를 들고, 또 일부는 가까이 떨어진 재를 주먹에 쥐어, 모두가 혼란스럽게 리시마코스와 그의 동료들에게 던졌다.

42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다치고, 일부는 죽었으며, 나머지는 도망치게 되었고, 훼손의 주범은 바로 보물창고 옆에서 살해되었다.

43 그러나 이 일에 대해 메넬라오스에게 고발이 제기되었다.

44 왕이 시돈에 도착하자, 원로원에서 파견된 세 명의 대표가 그 앞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45 그러나 메넬라오스는 자신이 패배할 것임을 알고, 도리메네스의 아들 톨레마이오스에게 많은 돈을 약속하여 왕을 설득하게 했다.

46 그러자 톨레마이오스는 왕을 복도로 데려가,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는 듯이 하여 왕의 마음을 바꾸게 했다.

47 모든 악의 원흉인 메넬라오스는 고발에서 풀려났으나, 이 불쌍한 자들, 즉 스키티아인들 앞에서도 무죄로 풀려날 수 있을 이들을 그는 사형에 처했다.

48 도시와 이스라엘 가족들과 성물들을 대표하던 이들은 곧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

49 그러므로 어떤 티로 사람들은 악행에 대한 증오심에 이끌려 그들의 장례를 화려하게 치렀다.

50 그러나 메넬라오스는 권력을 잡은 자들의 탐욕스러운 행위로 인해 여전히 자신의 직위에 머물며 악행을 더해가고, 동료 시민들에 대한 위대한 음모의 주모자로 굳혀졌다.

마카베오기 하권 5장

- 1 이 무렵 안티오코스가 이집트에 두 번째로 침공했다.
- 2 거의 사십 일 동안 도시 전역 하늘 중앙에 기마병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나타났는데, 금으로 짠 옷을 입고 창을 들고 전투를 위한 병력으로 무장했다.
- 3 검을 뽑고, 정렬된 기마대가 충돌하고 추격하며, 방패를 흔들고, 수많은 창이 휘두르며, 투척무기가 날아가고, 금으로 장식된 갑옷이 반짝이며, 모든 종류의 갑옷을 착용했다.
- 4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 현상이 선한 뜻으로 주어졌기를 기도했다.
- 5 안티오코스가 죽었다는 거짓 소문이 퍼지자, 이사온은 천 명 이상의 병사를 이끌고 도시를 갑작스럽게 습격했다. 성벽 위의 자들이 무너지고 도시가 거의 점령될 때, 메넬라오스는 요새로 피신했다.
- 6 이사온은 자국민들을 자비 없이 학살했으며, 친족을 상대한 성공이 가장 큰 불행임을 생각하지 않고, 적을 상대하여 공을 세우는 것처럼 여기고, 동포를 상대하여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 7 그는 정권을 장악하지 못했고, 음모의 결과로 수치를 받고 다시 아몬 사람의 땅으로 도망쳤다.
- 8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의 궁정에 갇힌 채, 도시에서 도시로 도망치며 모든 사람에게 추격당하고, 법을 배반한 반역자로 미워받고, 조국과 동포를 학살한 자로 혐오받던 그는 이집트 해안에 떠밀려 죽었다.
- 9 많은 이들을 자신의 땅에서 추방했던 자가, 추방지에서 죽었으며, 라케다이몬 사람들에게 도망쳐 그들과 혈연 관계가 있다는 희망을 안고 바다를 건넜다.
- 10 많은 시신을 묻지 않은 자는 그를 애도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의 장례는 전혀 없었고, 조상의 무덤에도 자리가 없었다.
- 11 왕이 그가 행한 일을 듣고 유대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여 분노하여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무력으로 도시를 점령했다.
- 12 그는 병사들에게 길에서 만난 자들을 자비 없이 베어죽이고, 집에 들어간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 13 그러자 젊은이와 노인, 소년과 여자와 어린이, 처녀와 유아들이 모두 학살되었다.
- 14 총 세 일 동안 팔만 명이 죽임을 당했으며, 그 중 사만 명이 근접전에서 살해되었고, 노예로 팔린 자의 수는 살해된 자의 수보다 적지 않았다.
- 15 그는 이 모든 땅에서 가장 성스러운 성전에 들어가려 했으며, 그의 안내자는 법과 조국에 배신한 메넬라오스였다.
- 16 그는 더럽혀진 손으로 성스러운 기구를 가져가고, 다른 왕들이 그 장소의 영광과 존엄을 높이기 위해 바친 제물들을 불경스러운 손으로 끌어내렸다.
- 17 안티오코스는 도시에 사는 자들의 죄로 인해 주권자 주님이 잠시 진노하셨고, 따라서 주님의 눈이 그 장소에서 돌이키셨음을 알지 못했다.
- 18 그러나 그들이 이미 많은 죄에 매여 있지 않았다면, 이 사람도 셀레우코스 왕이 재산을 살피기 위해 보낸 헬리오도로스처럼, 그가 다가오자마자 매를 맞고 그 대담한 행위에서 뒤로 물러났을 것이다.
- 19 그러나 주님은 장소를 위해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 장소를 선택하셨다.
- 20 그러므로 그 장소 자체도 민족이 겪은 환난을 함께 겪은 후, 그들의 복을 함께 누렸다. 전능자의 분노로 버려진 장소는 위대한 주권자의 화해로 모든 영광을 회복하였다.
- 21 안티오코스는 성전에서 천팔백 탈란트를 빼앗은 후, 자만심에 차서 땅 위를 향해하고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여겼으며, 빠르게 안티오케이아로 돌아갔다.
- 22 그는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위해 지방 관리들을 남겼다. 예루살렘에는 프리기아 출신의 필리포스를, 그의 성격은 그를 임명한 자보다도 더 야만적이었다.
- 23 게리짐에는 안드로니쿠스를, 그리고 그 외에도 메넬라오스를 남겼는데, 그는 모두 중에서 가장 악랄하여 동포들을 대적하며 스스로를 높였다. 그는 자신이 시민으로 삼은 유대인들에게 악의를 품고 있었다.
- 24 그는 이십이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부정의 주인 아폴로니오스를 보내어, 성년에 이른 자들을 모두 죽이고, 여자와 소년

들을 노예로 팔도록 명령했다.

²⁵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평화로운 사람처럼 위장하고, 안식일이라는 성일을 기다렸다. 유대인들이 일에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병사들에게 완전히 무장한 채 행진하라고 명령했다.

²⁶ 그는 행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칼로 죽였다. 무장한 병사들과 함께 도시로 돌입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²⁷ 그러나 마카베오라고도 불리는 유다와 그의 동료 약 아홉 명은 떨어져 나와 산속에서 야생 동물처럼 생존하며 지냈다. 그들은 더러움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자연히 자라는 것을 먹으며 지냈다.

마카베오기 하권 6장

- 1 이 일 이후 곧바로, 왕은 아테네에서 온 한 노인을 보내어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법을 버리고 하느님의 법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하였다.
- 2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올림피안 제우스라 부르게 하며, 게리짐의 성전에는 외국인의 수호자 제우스라 부르게 하였다. 이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던 이름이었다.
- 3 이 악의 침입은 잔혹하고 극심한 고통이었다.
- 4 이방인들이 성전을 채우고 음란과 흥청망청한 잔치를 벌였으며, 창녀들과 사귀고 성스러운 땅 안에서 여성과 관계를 맺었으며, 더불어 부적절한 것들을 안으로 들여왔다.
- 5 제단은 법에 금지된 그 추한 것들로 가득 찼다.
- 6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도, 조상들의 축일을 지키지도 못했으며, 심지어 자신이 유대인임을 고백하는 것조차 할 수 없었다.
- 7 매달 왕의 생일날, 그들은 쓰라린 강제로 제물의 고기를 먹어야 했다. 디오니시아 축일이 오면, 그들은 자작나무 화관을 쓰고 디오니소스를 기리기 위해 행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다.
- 8 프톨레마이오스의 제안에 따라, 인근 그리스 도시들에 명령이 내려져 유대인들에게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그들이 제물의 고기를 먹도록 강요하라고 하였다.
- 9 그리고 그리스 의식에 합류하지 않기를 선택한 자들을 죽이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이 고통은 모두가 볼 수 있게 되었다.
- 10 예를 들어, 두 여자가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이유로 잡혀왔다. 그들은 아기들을 가슴에 매달고 도시를 공개적으로 끌고 다닌 뒤, 성벽에서 떨어뜨려 죽였다.
- 11 다른 이들은 가까운 동굴에 모여 칠일을 비밀리에 지키려 했으나, 필리포스에게 고발되어 모두 불태워졌다. 그들은 그 가장 신성한 날의 존엄을 지키려 하여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12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 나는 재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이 처벌이 우리 민족의 파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화를 위한 것임을 깨달으라고 권한다.
- 13 실제로, 불의한 자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고 즉시 보응을 받는 것은 큰 자비의 표징이다.
- 14 다른 민족들의 경우, 주권자이신 주님은 그들이 죄의 전부를 쌓을 때까지 인내하며 벌을 미룬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
- 15 우리가 죄의 절정에 이르고 나서야 보복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 16 그러므로 그는 결코 우리에게 그 자비를 거두지 않으신다. 비록 재난으로 교화하시더라도, 그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 17 그러나 우리가 이 말로 여러분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몇 마디를 더한 뒤, 우리는 이제 이야기로 돌아가야 한다.
- 18 엘라자르는 주요 서기관 중 한 사람으로, 이미 나이가 많고 고귀한 얼굴을 지닌 자였다. 그는 돼지 고기를 먹도록 강요받았다.
- 19 그러나 그는 오염된 삶보다는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여 스스로 고문 도구 앞으로 나아갔으며, 먼저 고기를 뱉어냈다.
- 20 이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사랑조차도 맛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거부할 결심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였다.
- 21 그러나 그 금지된 제물 잔치를 맡은 자들은 옛날부터 그와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를 끌어내어 속삭였다. 그에게 자신이 준비한 고기를 가져오고, 그가 마치 왕의 명령에 따라 제물의 고기를 먹는 척하도록 하자고 부탁하였다.
- 22 그러면 그는 죽음을 면하고, 그들과의 오래된 우정이 따뜻하게 대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 23 그러나 그는 자신의 나이와 노년의 존엄, 존엄히 얻은 흰 머리카락, 어릴 때부터 받은 훌륭한 교육, 혹은 오히려 하느님의 명령에 따른 성스러운 법을 바탕으로 단단한 결심을 굳혔다. 그는 그들에게 빨리 자신을 하데스로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 24 “우리의 나이는 거짓을 행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는 말했다. “많은 젊은이들이 아흔 살의 남자 엘라자르가 이방 종교

로 넘어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을.

²⁵ 그러므로 나는 내 속임수로 인해, 이 잠시요 일시적인 생명을 위해, 그들이 나로 인해 미혹되며, 내 늙은 나이에 나 자신을 더럽히고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다.

²⁶ 비록 지금은 내가 사람들의 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살아 있든 죽었든, 전능하신 분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²⁷ 그러므로 지금 내 생명을 용감히 버림으로써, 나는 내 늙은 나이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며,

²⁸ 젊은이들에게 존경받고 거룩한 법을 위해 기꺼이 그리고 존엄하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훌륭한 본보기를 남기리라.

²⁹ 그들이 그에게 이전까지 보였던 좋은 마음을 그의 말이 그들 눈에는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여 악의로 바꾸었을 때,

³⁰ 그가 타격을 받으며 죽어가며 큰 소리로 신음하며 말했다. "성스러운 지식을 가진 주님께는 내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는 매질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영혼으로는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기쁘게 견디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³¹ 이처럼 이 사람도 죽었고, 그의 죽음은 젊은이들뿐 아니라 그의 민족 전체에게도 존엄함의 본보기이자 덕행의 기념이 되었다.

마카베오기 하권 7장

- 1 일곱 형제와 그들의 어머니가 왕의 명령에 따라 잡혀 채찍과 줄로 부당하게 대우받아, 더럽고 돼지의 고기를 맛보게 하려 했다.
- 2 그들 중 한 사람이 대표로 나서며 말했다.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무엇을 알아내려 합니까? 우리는 조상들의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죽는 것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3 왕은 분노하여 냄비와 솥을 데우라고 명령했다.
- 4 그 냄비와 솥이 즉시 뜨거워지자, 왕은 그들 중 대표로 나선 자의 허를 잘라내고 두피를 벗기며 사지를 절단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그 광경을 지켜보는 가운데.
- 5 그가 완전히 불구가 된 후, 왕은 그를 아직 살아 있는 상태로 불에 가져가 냄비에 굽게 명령했다. 냄비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멀리 퍼지자, 그들과 그의 어머니도 서로에게 용감하게 죽음을 권하며 말했다.
- 6 "주 하느님께서 보시며, 모세가 그의 노래에서 백성 앞에서 증언한 대로, 우리를 진실로 간청받으신다. 그는 말했다. '그는 그의 종들을 자비로우시리라.'"
- 7 첫째가 이렇게 죽은 후, 둘째를 끌어내어 조롱했다. 그의 머리 위의 피부와 머리카락을 벗기며 물었다. "네 몸이 온몸의 지체에 고통을 받기 전에, 네가 고기를 먹겠느냐?"
- 8 그러나 그는 조상들의 언어로 대답하며 말했다. "아니." 그래서 그도 첫째가 겪은 대로 다음 고문을 받았다.
- 9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말했다. "너 같은 악인아, 우리를 이 현세에서 해방시켜라. 그러나 세계의 왕이, 그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회복으로 일으키실 것이다."
- 10 그 후 셋째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그가 요구를 받자, 곧바로 허를 내밀고 용감하게 손을 뻗었다.
- 11 그리고 용감하게 말했다. "이것들은 하늘에서 받은 것이다. 그의 율법을 위해 나는 이것들을 경멸한다. 그로부터 나는 다시 이것들을 받기를 바란다."
- 12 이에 왕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젊은이의 영혼에 놀라움을 느꼈다. 그는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듯 여겼기 때문이다.
- 13 그도 죽은 후, 넷째도 마찬가지로 부당하게 대우받고 고문을 받았다.
- 14 그가 죽음에 가까워지며 말했다. "사람들의 손에서 죽는 것이 좋고, 하느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 15 그 후 다섯째를 끌어내어 부당하게 대우했다.
- 16 그러나 그는 왕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썩어질 인간이지만, 인간들 사이에서 권세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행한다. 그러나 우리 족속이 하느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 17 너의 길을 고집하라. 그분의 존엄한 위엄이 어떻게 너와 네 자손들을 괴롭힐지 보아라!
- 18 그 후 여섯째를 끌어왔다. 그가 죽음에 임했을 때 말했다. "허탄하게 속이지 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를 지어 하느님께 범한 대로 이 고통을 받는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 19 그러나 하느님과 싸우려 했으니, 너희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 20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머니는 놀라우며 존경받을 만했다. 하루 동안 일곱 아들을 잃는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그녀는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용감하게 이를 견뎠다.
- 21 그녀는 조상들의 언어로 각각을 격려하며, 고귀한 정신으로 가득 차 있고, 남성의 용기를 가지고 여성의 마음을 일깨우며 말했다.
- 22 "너희가 어떻게 내 태에 들어왔는지는 내가 모른다. 너희의 영과 생명을 준 것도 내가 아니고, 너희 각자의 처음 원소들을 정리한 것도 내가 아니다."
- 23 그러므로 인간의 처음 원천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처음 원천을 설계하신 세계의 창조주께서, 너희가 그의 율법을 위해 스스로를 경멸하는 이때, 너희의 영과 생명을 자비로 다시 주실 것이다.
- 24 그러나 안티오코스는 자신이 경멸받고 있다고 여기며, 가장 어린 아들이 아직 살아 있는 동안, 말로 그를 설득할 뿐 아니라, 동시에 맹세로 그를 약속했다. 그는 조상들의 길을 버리고, 자신을 친구로 삼으며, 공공의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하며,

그를 부유하게 하고 높은 영예로 높여주겠다고 말했다.

²⁵ 그러나 젊은이가 결코 귀를 기울이지 않자, 왕은 그의 어머니를 불러서 젊은이가 자신을 구원하도록 설득하게 했다.

²⁶ 많은 말로 그녀를 설득한 뒤, 그녀는 아들을 설득하기로 결심했다.

²⁷ 그러나 그녀는 아들에게 몸을 기울이며 잔인한 폭군을 비웃으며 조상들의 언어로 말했다. "내 아들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 어라. 나는 너를 아홉 달 동안 배에 품고, 세 해 동안 젖을 주며, 키우고 길러 이 나이까지 이르게 하였고, 너를 지켜주었다."

²⁸ 내 아들이야, 하늘과 땅을 바라보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로부터 하느님이 만드셨음을 깨달아라. 이처럼 인류가 생겨났다.

²⁹ 이 도살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네 형제들에 합당한 자가 되어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느님의 자비로 내가 너와 네 형제들과 함께 너를 다시 받을 것이다.

³⁰ 그러나 그녀가 말을 마치기 전에 젊은이가 말했다. "너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모세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명령을 따른다."

³¹ 너는 히브리인들에게 온갖 악을 꾸며낸 자이니, 결코 하느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³²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³³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징벌하기 위해 잠시 진노하셨으나, 곧 다시 그의 종들에게 화해하실 것이다.

³⁴ 그러나 너, 불경한 자이자 모든 사람 중 가장 비열한 자여, 허망한 교만과 불확실한 희망으로 자만하지 말고, 하늘의 자녀들에게 손을 들어서는 안 된다.

³⁵ 너는 모든 것을 보시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심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³⁶ 이 우리 형제들은 짧은 고통을 견디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제 하느님의 언약 아래 죽었다. 그러나 너는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 네 교만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다.

³⁷ 나도 내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조상들의 율법을 위해 몸과 영혼을 바치며, 하느님께서 곧 우리 민족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너는 시련과 재앙 속에서 그분만이 하느님이심을 고백하게 되기를 간구한다.

³⁸ 내가와 내 형제들을 통해 전 인류에게 정당하게 내린 전능하신 분의 진노가 끝나게 되기를 간구한다.

³⁹ 그러나 왕은 분노에 휩싸여, 그의 조롱에 격분하여 나머지 모두보다 더 잔혹하게 그를 대했다.

⁴⁰ 그리고 그도 순결하게 죽었으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다.

⁴¹ 마지막으로, 아들들 뒤에 어머니도 죽었다.

⁴² 이제 이 정도로 제사와 극심한 고문에 관해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마카베오기 하권 8장

- 1 그러나 마카베오라고도 불리는 유다와 그와 함께한 자들은 비밀리에 마을들로 들어가 친척들을 불러모았다. 유대인의 신앙을 지켜온 자들을 모집하여 약 육천 명을 모았다.
- 2 그들은 주님께, 모든 사람에게 억압받는 백성을 돌아보시고, 불경한 자들에 의해 더럽혀진 성소를 불쌍히 여기시며,
- 3 파괴되어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한 도시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께 외치는 피를 들으시며,
- 4 무고한 어린 아이들의 불법적인 학살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이름에 대한 모독을 기억하시며, 악행에 대한 그분의 증오를 드러내시기를 간청하였다.
- 5 마카베오가 자신의 병사들을 훈련시킨 후, 이방인들은 즉시 그를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주님의 진노가 자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 6 그는 예고 없이 나타나 도시와 마을에 불을 지르고, 가장 중요한 요충지를 되찾으며, 적군 수많은 자들을 몰아냈다.
- 7 그는 특히 밤을 이용해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의 용감함은 온 곳에서 널리 알려졌다.
- 8 그러나 필리포스는 그가 점점 힘을 키우고 성공을 거둬하는 것을 보고, 코일레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총독인 톨레마이오에게 편지를 보내어 왕의 사업을 돕도록 요청하였다.
- 9 톨레마이오가 즉시 왕의 주요 친구 중 한 명인 파트로클로스의 아들 니카노르를 임명하여, 모든 민족에서 이만 명 이상의 병력을 이끌고 유다의 온 백성을 멸망시키게 보냈다. 그와 함께 전쟁에 능숙한 장군 고르기아스도 합류하였다.
- 10 니카노르는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을 팔아, 로마에 바쳐야 할 이천 탈렌트의 공물을 보충하려고 계획하였다.
- 11 그는 즉시 해안 도시들에 편지를 보내어 유대인 노예를 사라고 권유하며, 한 탈렌트에 일흔 명의 노예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는 자신을 덮칠 전능자의 심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 12 유다는 니카노르의 침공 소식을 듣고, 자신과 함께한 자들에게 군대가 도착했다고 알렸다.
- 13 그러자 겁이 나고 하느님의 심판을 믿지 못한 자들이 도망쳐 땅을 떠났다.
- 14 다른 이들은 남은 모든 재산을 팔며, 불경한 니카노르가 그들을 만날 때까지 노예로 팔린 자들을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 15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위해,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간청하였다.
- 16 그러므로 마카베오가 육천 명의 병사들을 모아,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법적으로 그들에게 대항하는 이방인의 거대한 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존엄하게 싸우라고 권면하였다.
- 17 그는 그들의 눈앞에, 성소에 자행된 불법적인 모독과, 조롱받는 도시의 고통,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받은 생활 방식의 파괴를 상기시켰다.
- 18 "그들은 무기와 대담한 행동을 신뢰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느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고개 끄덕임으로도 우리를 침공하는 자들을 무너뜨리실 수 있으며, 심지어 온 세계를도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 19 또한 그는 조상들의 시대에 주어졌던 도움을 그들에게 회상하였다. 세나케립의 시대에 십팔만 오천 명이 죽은 날들과,
- 20 바빌론 땅에서 갈라타인들과 벌어진 전투에서, 모두 팔천 명이 전장에 나아갔고, 그중 사천 명은 마케도니아인들이었으며, 마케도니아인들이 위기에 처하자, 육천 명이 하늘의 도움으로 십이만 명을 격파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은 일을 말하였다.
- 21 그가 이 말로 그들을 용감하게 만들고, 율법과 조국을 위해 죽을 준비를 마친 후, 군대를 네 부대로 나누었다.
- 22 그는 형제 시몬, 요셉, 요나단을 각 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각각 천오백 명을 지휘하게 하였다.
- 23 또한 엘라자르도 성서를 읽어 주고, 전투 구호로 "하느님의 도움"이라고 외친 후, 선두 부대를 이끌고 니카노르와 전투를 벌였다.
- 24 전능하신 분이 그들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적군 중 아홉천 명 이상을 죽이고, 니카노르의 군대 대부분을 상처 입히거나 무력화시켜, 모두 도망치게 만들었다.
- 25 그들은 그곳에 와서 그들을 노예로 사려던 자들의 돈을 빼앗았다. 그들은 그들을 일정 거리까지 추격한 후, 하루의 시간

이 늦어져 되돌아왔다.

²⁶ 그날은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멀리 추격하지 않았다.

²⁷ 그들은 적의 무기를 모두 모아 전리품을 벗긴 후, 안식일을 지켰다. 그들은 주님을 크게 찬양하고 감사하였는데, 주님께서 이 날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기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²⁸ 안식일 후, 그들은 전리품의 일부를 불구자들과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과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²⁹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그들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자비로운 주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완전히 화해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³⁰ 티모테오와 바키디스의 군대와 전투를 벌인 그들은 그들 중 이만 명 이상을 죽이고, 매우 견고한 요새들을 장악하며 풍부한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고, 불구자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노인들에게도 자신들과 동일한 몫을 주었다.

³¹ 그들은 적의 무기를 모두 모아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신중히 보관하고, 나머지 전리품은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³² 그들은 티모테오의 부대 장관인, 유대인들에게 큰 해를 끼친 매우 불경한 자를 죽였다.

³³ 그들은 조상들의 도시에서 승리의 축제를 벌이며, 성전 문을 불태운 자들, 즉 작은 집에 숨었던 칼리스테네스를 불태웠다. 그들은 자신의 불경함에 합당한 보상을 받았다.

³⁴ 천 명의 상인을 데리고 유대인들을 노예로 사려던 삼배나 최악스러운 니카노르는,

³⁵ 주님의 도움으로 그의 눈에는 가장 하찮은 자들로 여겨졌던 자들에 의해 굴복당하여, 자신의 영광스러운 옷을 벗고, 나라를 가로질러 도망자처럼 모든 사람을 피하며 안티오키아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의 군대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행운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³⁶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로잡아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확보하려 했던 그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위해 싸우는 이가 있으며, 그들이 그가 정하신 법을 따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결코 무적임을 널리 퍼뜨렸다.

마카베오기 하권 9장

- 1 그 무렵, 안티오크스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혼란스럽게 후퇴했다.
- 2 그는 페르세폴리스라는 도시에 들어가 신전을 약탈하고 도시를 장악하려 했다. 그러자 군중들이 몰려들어 그 땅의 사람들이 무기로 자기를 방어하기 시작했고, 안티오크스는 그 땅의 사람들에게 쫓겨나 수치스럽게 진을 치고 떠났다.
- 3 그가 에크바타나에 있었을 때, 니카노르와 티모테오의 군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이 그에게 전해졌다.
- 4 분노에 사로잡힌 그는 자신을 쫓아낸 자들의 악행 때문에 유대인들을 벌하려 계획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리는 심판이 지금도 그를 따르는 가운데, 그는 수레기수에게 쉬지 않고 달리게 명령하여 여정을 마치게 했다. 그는 교만하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거기에 도착할 때,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의 공공 묘지로 만들겠다."
- 5 그러나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그에게 치명적이고 보이지 않는 벌을 내리셨다. 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의 장부에 치유되지 않는 통증이 몰아치고, 내장의 고통스러운 괴로움이 그를 짓눌렀다.
- 6 그는 다른 사람들의 장부를 여러 가지 기이한 고통으로 괴롭혔으므로, 이는 매우 공정한 벌이었다.
- 7 그러나 그는 그의 무례한 교만을 전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욱 교만해져 유대인들에게 향한 분노로 불을 뿜으며 여정을 가속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의 수레가 빠르게 달리던 중 그는 수레에서 떨어져 심한 충격을 받아 온몸의 관절이 고통스러워졌다.
- 8 자신이 신성한 위엄으로 바다의 파도를 지휘할 수 있다고 여기고, 산의 높이를 저울에 달아보려 했던 그는 이제 땅에 떨어져 침상에 실려 다니며, 그 힘이 분명히 하느님의 것임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 9 그 불경한 자의 몸에서 벌레들이 떼를 지어 나왔고, 그가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 있는 동안 그의 살이 썩어 떨어졌으며, 그 냄새 때문에 군대 전체가 그의 부패를 보고 역겨워했다.
- 10 조금 전만 해도 하늘의 별에 손을 닿을 수 있다고 여겼던 그는, 그의 참을 수 없는 냄새 때문에 아무도 그를 메고 다니지 못했다.
- 11 그러므로 그는 점차 교만을 멈추고, 영혼이 무너지며 하느님의 매질 아래서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다. 그의 고통은 한 순간도 줄어들지 않았다.
- 12 자신의 냄새조차 견디지 못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께 복종하는 것이 옳고, 죽을 자가 하느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 13 그 비열한 자는 이제 더 이상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주권자 하느님께 서원했다.
- 14 그가 급히 가서 평지로 만들고 공공 묘지로 만들려 했던 성소를, 그는 자유로운 도시로 선포하겠다고 했다.
- 15 그가 심지어 장사지내기조차 가치 없다고 여겨, 아이들과 함께 동물들에게 던져 새들이 먹게 하려 했던 유대인들을, 그는 모두 아테네 시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했다.
- 16 그가 이전에 약탈했던 성소를, 그는 최고의 제물로 장식하고, 모든 성물들을 수십 배로 되돌려주며, 자신의 수입으로 제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다.
- 17 게다가 그는 유대인이 되어 모든 거주지에 다니며 하느님의 권능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 18 그러나 그의 고통이 전혀 멈추지 않았다. 하느님의 공정한 심판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리고, 아래와 같은 간청의 성격을 지닌 편지를 유대인들에게 보냈다.
- 19 "유대인 시민 여러분께, 안티오크스, 왕이자 장군이며, 기쁨과 건강과 번영을 많이 기원합니다.
- 20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일들이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 내 희망을 두고,
- 21 여러분의 존엄과 선의를 애정을 가지고 기억했습니다. 페르시아 지역에서 돌아오면서 불쾌한 병에 걸리자,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해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 22 나 자신을 절망하지 않고, 병에서 벗어날 큰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 23 내 아버지도 상지에 군대를 이끌고 갔을 때, 후계자를 지명했음을 생각했습니다.
- 24 그리하여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거나 불쾌한 소식이 전해질 때, 그 땅의 사람들이 국가가 누구에게 맡겨졌는지를 알고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려고 말합니다.

²⁵ 또한 내 왕국의 경계와 이웃에 있는 지도자들이 기회를 노리고 미래의 사건을 엿보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내 아들 안티오코스를 왕으로 임명하였다. 내가 상부 지방으로 급히 떠날 때, 나는 그를 자주 너희 대부분에게 맡기고 추천하였다. 나는 아래에 기록된 바를 그에게 써 보냈다.

²⁶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각자에게 나와 내 아들에게 베풀어진 공통적이고 개별적인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 각자가 나와 내 아들에 대한 현재의 친애를 지키도록 간청하고 부탁한다.

²⁷ 나는 그가 온화하고 자비로워서 내 뜻을 따르며 너희를 절제와 자비로 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²⁸ 그러므로 살인자이자 신성모독자인 그는,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행한 대로 가장 격렬한 고통을 겪은 끝에, 이방 땅의 산 속에서 비참한 운명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²⁹ 그의 양육자인 필리포스가 시신을 데려가고, 안티오코스의 아들을 두려워하여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필로메토르게로 도망쳤다.

마카베오기 하권 10장

- 1 마카베오와 그와 함께한 자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전과 도시를 회복하였다.
- 2 그들은 외국인들이 시장에 세운 제단들과 성스러운 담장을 허물었다.
- 3 성소를 정결하게 한 후, 그들은 또 다른 번제단을 만들었다. 돌을 부딪혀 불을 피우고, 이년 동안 끊어졌던 제사를 드리며, 향을 태우고, 등불을 켜며, 진설병을 놓았다.
- 4 이 일을 마친 후, 그들은 땅에 엎드려 주님께 간청하여 다시는 이런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만약 그들이 죄를 지더라도, 주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징벌하시고, 모독하고 야만적인 이방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 5 외국인들이 성소를 더럽힌 그날과 정확히 같은 날, 성소가 정결하게 되었으니, 바로 그 달의 이십오일, 키스레우월이었다.
- 6 그들은 잠시 전, 초막절 기간에 산과 동굴에서 야수처럼 떠돌았던 것을 기억하며, 초막절 축제의 방식으로 여덟 날을 기쁨으로 지켰다.
- 7 그러므로 앞서기로 꾸민 지팡이와 아름다운 가지와 종려가지를 들고, 자기의 장소를 정결하게 하신 분께 감사의 찬미를 드렸다.
- 8 그들은 또한 온 유대 민족을 위해 공식적인 법령과 조서를 제정하여, 매년 이 날들을 지키도록 하였다.
- 9 이것이 에피파네스라 불린 안티오코스의 말년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 10 이제 우리는 불경한 자의 아들로 드러난 안티오코스 유파토르 아래에서 일어난 일을 밝히고, 전쟁의 주요 악행들을 요약하겠다.
- 11 이 사람은 왕위에 오르자, 리시아스를 총리이자 코일레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최고 통치자로 임명하였다.
- 12 마크론이라 불리는 톨레마이오스는 유대인들에게 가해진 불의를 인식하고, 그들에게 정의롭게 대하려고 노력하였다.
- 13 그러자 그는 왕의 친구들에게 고발되어, 필로메토르가 맡긴 키프로스를 버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로 돌아왔으며, 자신의 직무의 명예를 지키지 않았다고 매일매일 배신자라 불리자, 독을 마시고 자살하였다.
- 14 그러나 고르기아스가 지방 통치자로 임명되자, 그는 용병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유대인들과 전쟁을 벌였다.
- 15 이두메아인들도 중요한 요새를 장악하고 유대인들을 괴롭히며, 예루살렘에서 피신한 자들을 수용하여 전쟁을 계속하려고 노력하였다.
- 16 그러나 마카베오와 그의 부대는 엄숙한 간구를 드리고, 주님께서 자신들의 편이 되어 싸워주시기를 간청한 후, 이두메아인들의 요새로 돌진하였다.
- 17 그들은 격렬하게 공격하여 요새를 장악하고, 성벽에서 싸우는 모든 자들을 밀어내고 마주친 자들을 죽였으며, 이만 명 이상을 죽였다.
- 18 아홉천 명 이상이 두 개의 매우 견고한 탑으로 도망쳐, 포위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 19 마카베오는 시몬과 요셉, 그리고 자카이와 그와 함께한 자들을 충분한 병력으로 남겨 포위하게 하고, 자신은 가장 시급한 곳으로 떠났다.
- 20 그러나 시몬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탐욕에 굴복하여, 탑 안에 있던 자들로부터 일흔만 드라크마를 받고, 그들 중 일부를 도망치게 해주었다.
- 21 그러나 마카베오가 그들이 한 일을 듣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 그들이 돈을 받고 형제를 팔아 적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게 했다고 비난하였다.
- 22 그는 이 배신자들을 죽이고 즉시 두 탑을 장악하였다.
- 23 그는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무기로 성공하여, 두 요새에서 이만 명 이상을 파괴하였다.
- 24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패배했던 티모테오스는 수많은 외국 병력을 모으고, 아시아에서 온 수많은 기병을 모아, 무력으로 유다를 점령하려고 왔다.
- 25 그러나 그가 가까이 다가올 때, 마카베오와 그의 부대는 머리에 흙을 뿌리고 베옷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하느님께 간구하

였다.

²⁶ 그리고 제단 앞 계단에 엮드려, 그분이 그들을 은총으로 여기시고, 그들의 원수를 원수로, 그들의 적을 적으로 대항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이는 율법이 선포하는 바였다.

²⁷ 기도를 마친 그들은 무기를 들고 도시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적들에게 가까이 다다랐을 때, 멈춰 섰다.

²⁸ 아침이 밝아오자, 두 군대가 전투를 벌였다. 한편은 덕행 외에 승리의 보증으로 주님께 피난처를 구했고, 다른 한편은 열정을 전투의 지도자로 삼았다.

²⁹ 전투가 치열해지자, 하늘에서 다섯 명의 아름다운 자들이 금으로 된 말구속을 단 말을 타고 적들에게 나타났으며, 그 중 두 명이 유대인들을 이끌었다.

³⁰ 그들은 마카베오를 그들 사이에 끼우고 자신들의 갑옷으로 그를 덮어 상처로부터 지켰으며, 적들에게 화살과 천둥을 쏘아대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멀고 혼란에 빠져, 놀라움으로 가득 차 끊어져 쓰러졌다.

³¹ 이들 중 이만 오백 명과 기마병 육백 명이 살해되었다.

³² 티모테오 자신은 가자라라는 이름의 요새로 도망쳤는데, 이 요새는 매우 견고했고, 카레아스가 지휘하고 있었다.

³³ 그러자 마카베오와 그의 부대는 기뻐하며 사흘 동안 그 요새를 포위했다.

³⁴ 안에 있던 자들은 그 장소의 견고함을 믿고 심히 모독하며 불경한 말을 쏟아냈다.

³⁵ 그러나 다섯째 날 아침, 마카베오의 부대 중 몇 명의 젊은이들이 그 모독에 분노하여 용감하고 격노한 힘으로 성벽을 공격하여 길에 나타나는 자를 모두 쳤다.

³⁶ 다른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올라가면서 적들이 안으로 침입한 자들에 집중해 있을 때 탑에 불을 지르고, 모독하는 자들을 살아서 태워 죽였으며, 다른 이들은 문을 부수고 나머지 부대를 안으로 들여보내어 도시를 점령했다.

³⁷ 그들은 우물에 숨어 있던 티모테오와 그의 형제 카레아스, 아폴로파네스를 죽였다.

³⁸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그들은 찬미와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승리를 주시는 분을 찬미했다.

마카베오기 하권 11장

- 1 한참 뒤에, 왕의 보호자이자 친척이며 재상인 리시아스가 일어난 일들에 매우 불만을 품고,
- 2 팔만 명의 보병과 모든 기병을 모아 유대인들에게 맞서 나아가, 그 도시를 그리스인들의 거주지로 만들고,
- 3 다른 민족들의 성지처럼 성전에 세금을 부과하며, 매년 대제사장 직을 매매하려 계획하였다.
- 4 그는 하느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팔만 명의 보병과 수천 명의 기병, 그리고 여든 마리의 코끼리에 힘써 자만하였다.
- 5 유다 땅으로 들어와 예루살렘에서 약 다섯 스타디온 떨어진 요새인 벳수론에 다다라, 그 성을 격렬히 포위하였다.
- 6 마카베오와 그의 부하들이 그가 요새를 포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백성과 함께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한 천사를 보내달라고 간청하였다.
- 7 마카베오가 먼저 무기를 들고, 자신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친척을 돕도록 다른 이들을 격려하자, 그들은 기꺼이 그를 따라 나섰다.
- 8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을 때, 흰 옷을 입고 금으로 된 무기를 휘두르는 기마병이 그들의 앞에 나타났다.
- 9 그들은 모두 자비로운 하느님을 찬양하며, 마음이 더욱 굳어져, 단지 사람뿐 아니라 가장 사나운 짐승들과 철로 만든 성벽까지도 공격할 준비를 하였다.
- 10 그들은 하늘에 계신 분이 그들의 편에서 싸워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진을 구성하여 전진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 11 그들은 사자처럼 적에게 돌진하여 보병 일만 천 명과 기병 천육백 명을 죽이고, 나머지 모든 병력을 도망치게 만들었다.
- 12 대부분의 병사들은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채 도망쳤다. 리시아스 자신도 부끄러운 도주로 목숨을 건졌다.
- 13 그러나 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패배를 깊이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유대인들의 편에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보내며,
- 14 그들이 모든 권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화해를 맺도록 설득하고, 왕을 설득하여 그들의 친구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15 마카베오는 리시아스가 제안한 모든 조건에 동의하였으며, 공동체의 이익을 염려하였다. 마카베오가 유대인들을 위해 리시아스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모든 요청을 왕은 승인하였다.
- 16 리시아스가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은 다음과 같았다. "리시아스가 유대인들의 백성에게 인사드립니다.
- 17 당신들이 파견한 요한과 아브살롬이 아래에 기록된 문서를 전달하며, 그 안에 기록된 사항들에 관해 요청하였습니다.
- 18 그러므로 왕께 제출해야 할 사항들은 모두 전달하였고,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항들은 왕이 승인하였습니다.
- 19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정부에 대한 좋은 뜻을 계속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20 이와 관련하여, 저는 이 사람들과 제가 파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협의하도록 자세히 지시하였습니다.
- 21 안녕하십시오. 제148년 디오코린티우스 달 24일에 작성됨."
- 22 왕의 서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였다. "안티오코스 왕이 그의 형제 리시아스에게 인사드립니다.
- 23 우리 아버지께서는 왕국의 백성들이 평화롭게 지내며 자신의 일에 전념하기를 바라시며 신들께로 떠나셨습니다.
- 24 우리는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가 그들을 그리스인의 풍습으로 전환하려는 뜻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자신들의 율법의 풍습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소식을 듣고,
- 25 따라서 이 민족도 평화로움을 누리게 하려 하여, 우리는 그들의 성전을 그들에게 복원하고, 조상들의 시대에 따랐던 관습에 따라 살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 26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우호의 악수를 주고, 그들이 우리의 뜻을 알게 하여 마음을 편히 하고, 자신의 일에 기쁘게 전념하게 하라.
- 27 민족에게 왕의 편지는 다음과 같았다. "안티오코스 왕이 유대인 원로원과 다른 모든 유대인들에게 인사드립니다."
- 28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다면, 그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우리도 건강합니다.
- 29 메넬라오스가 우리에게, 여러분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일에 전념하려는 뜻을 밝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 30 그러므로 자산티코스 달의 서른째 날까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우리 친선을 누리며, 충분한 허가를 받을 것이다.

- ³¹ 유대인들은 과거와 같이 자신의 음식을 먹고 자신의 법을 지키며, 무지로 행한 일로 인해 누구도 괴롭힘을 받지 않으리라.
- ³² 또한 나는 메넬라오를 보내어 너희를 격려하게 하였다.
- ³³ 안녕히 계십시오. 제148년, 산티쿠스월 15일에 쓰였다.
- ³⁴ 로마인들도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로마의 사절 퀸투스 멤미우스와 티투스 마니우스가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인사드립니다."
- ³⁵ 리시아스가 왕의 친척으로서 너희에게 허락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우리도 동의한다.
- ³⁶ 그러나 그가 왕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검토한 후 빠르게 대표를 보내라. 그러면 우리는 너희 사정에 맞는 조치를 공포할 것이다. 우리는 안티오크로 가는 중이기 때문이다.
- ³⁷ 그러므로 빨리 대표를 보내어 우리도 너희의 뜻을 알게 해 주기 바란다.
- ³⁸ 안녕히 계십시오. 제148년, 산티쿠스월 15일에 쓰였다.

마카베오기 하권 12장

- 1 이 계약이 맺어진 후, 리시아스는 왕에게로 떠났고, 유대인들은 농사일에 힘썼다.
- 2 그러나 일부 지방 총독들, 즉 게나이오스의 아들 티모테오스와 아폴로니오스, 그리고 히에로니모스와 데모폰, 그리고 키 프로스의 총독 니카노르는 그들이 평화롭게 지내고 안정을 누리지 못하게 했다.
- 3 요파의 사람들이 이 큰 불경을 저질렀다.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살던 유대인들을 자기들이 준비한 배에 태우자고 초대했으며, 마치 그들에게 악의가 전혀 없는 것처럼 했다.
- 4 유대인들은 도시의 공식 투표를 믿고, 평화롭게 살고 싶어하며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바다로 데려가서 적어도 이백 명을 익사시켰다.
- 5 유다가 동족에게 가해진 잔혹함을 듣고, 자신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 6 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느님을 부르며, 자기 친척을 살해한 자들에게 나아가 밤에 항구에 불을 지르고 배들을 태우며, 그곳으로 도망친 자들을 칼로 죽였다.
- 7 그러나 도시의 문이 닫히자, 그는 물러나 요파의 모든 주민들을 뿌리 뽑으려고 다시 돌아오려 했다.
- 8 그러나 암니아의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같은 일을 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 9 그는 밤에 암니아인들을 공격하여 항구와 함대에 불을 지르니, 그 불빛이 이백 사십 프루고스 떨어진 예루살렘에서도 보였다.
- 10 그들이 그곳에서 아홉 프루고스를 더 가서 티모테오스를 공격하려 할 때, 아라비아인들의 군대가 그를 공격했으며, 보병 만도 오천 명 이상과 기병 오백 명이었다.
- 11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유다와 그의 부대는 하느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여, 유목민들이 패배하자 유다에게 우호를 청하며 가축을 주고, 그의 백성에게 다른 모든 방면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 12 유다는 그들이 여러 면에서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합의하고, 우호의 증표를 받은 후 그들은 텐트로 돌아갔다.
- 13 그는 또한 성벽과 흙으로 만든 방어 시설로 견고히 방어된 도시를 공격했는데, 그곳은 다양한 민족들이 혼합되어 살고 있었고, 이름은 카스핀이었다.
- 14 안에 있던 자들은 성벽의 견고함과 비축된 식량을 믿고, 유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며 비난하고, 더 나아가 신성모독하며 불경한 말을 했다.
- 15 그러나 유다와 그의 부대는 여호수아 시대에 양과 전쟁 기계 없이도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세계의 위대한 주권자이신 하느님을 부르며, 성벽을 향해 격렬히 돌진했다.
- 16 하느님의 뜻으로 도시를 점령한 그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학살을 저질렀다. 그 정도가 인접한 호수, 폭이 이 프루고스인 호수가 피의 홍수로 가득 찬 듯 보일 정도였다.
- 17 그들이 그곳에서 칠백 오십 프루고스를 더 가서, 투비에니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 사는 카라크스로 향했다.
- 18 그들은 그 지역에서 티모테오스를 찾지 못했다. 그는 이미 아무 성과도 없이 그 지역을 떠나, 한 곳에 매우 강력한 병영을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 19 그러나 마카베오스의 부관인 도시테오스와 소시파테르가 나아가 티모테오스가 요새에 남겨둔 자들을 쳐서, 만 명이 넘는 자들을 죽였다.
- 20 마카베오스는 자신의 군대를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 둘을 각 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보병 십이만 명과 기병 이천 오백 명을 거느린 티모테오스를 향해 서둘러 진격했다.
- 21 티모테오스가 유다의 접근을 듣고, 즉시 여성과 어린이, 짐을 카르니온이라 불리는 요새로 보냈다. 그곳은 모든 방향으로 진입로가 좁아 포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 22 유다의 선봉 부대가 나타나자,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의 나타남이 적들에게 닥쳐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다. 그래서 그들은 사방으로 도망쳤고, 서로 부딪히며 상처를 입었으며, 자기들의 칼날에 찔리기도 했다.
- 23 유다는 더욱 격렬히 추격하여 악한 자들을 칼로 죽였고, 삼만 명을 죽였다.

- 24 티모테오스는 도시테오스와 소시파테르의 부대와 마주치자, 그의 손에 많은 이들의 부모와 친척들이 잡혀 있으므로,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교활한 속임수로 간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소중히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 25 그러자 그는 많은 말로 그들을 해치지 않고 돌려보내기로 약속을 확정짓자, 그들은 자기 친척을 구원하려고 그를 방류하였다.
- 26 그 후 유다가 카르니온과 아테르가티스의 사원을 공격하여 이십오천 명을 죽였다.
- 27 그가 이들을 몰아내고 멸망시킨 후, 에프론이라는 강력한 성을 향해 진군하였다. 이 성에는 모든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였고, 성벽 위에 배치된 젊고 강한 병사들이 격렬하게 방어하였다. 거기에는 전쟁 기계와 화살이 풍부하게 비축되어 있었다.
- 28 그러나 강력하게 적의 힘을 부수시는 주권자에게 간구하자, 그들은 그 성을 장악하고 그 안에 있던 이십오천 명을 죽였다.
- 29 그곳을 떠나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육백 폴랑 떨어진 스키토폴리스를 급히 향해 진군하였다.
- 30 그러나 그곳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스키토폴리스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보여준 친절과, 그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자신들을 따뜻하게 대접한 것을 증언하자,
- 31 그들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앞으로도 자기 민족을 잘 대접해 달라고 그들에게 권면하였다. 그 후 그들은 오순절이 가까워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 32 그러나 오순절 축제가 끝난 후, 그들은 이두메아의 총독 고르기아스를 급히 공격하였다.
- 33 고르기아스는 보병 삼천 명과 기병 사백 명을 이끌고 나왔다.
- 34 그들이 진을 치고 전투를 시작하자, 몇 명의 유대인이 쓰러졌다.
- 35 바케노르의 부대에 속한 말을 탄 강한 병사 도시테우스가 고르기아스를 급습하여 그의 겹옷을 잡아 끌어당겼다. 그는 저주를 받은 자를 생포하려 했으나, 한 명의 트라키아 기병이 그에게 돌진하여 어깨를 다치게 하여, 고르기아스는 마리스로 도주하였다.
- 36 에스드리스와 함께 싸우던 자들이 오래 싸워 지쳐 있을 때, 유다는 주님께 간구하여 자신들이 편에 서서 전투를 이끌어 달라고 청하였다.
- 37 그러자 그는 조상들의 언어로 전투 함성을 외치며 찬미를 불렀다. 그 후 그는 고르기아스의 군대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돌격하여 그들을 몰아냈다.
- 38 유다는 군대를 모아 아둘람 성으로 갔다. 일곱 번째 날이 다가오자, 그들은 관습에 따라 몸을 정결히 하고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켰다.
- 39 다음 날, 그들은 쓰러진 자들의 시체를 수습하고, 친척들과 함께 조상들의 무덤으로 데려가려고 나섰다.
- 40 그러나 각 죽은 자의 옷 아래에서 야미니아의 우상들의 성물이 발견되었다. 이 성물들은 율법이 유대인들이 가질 것을 금지하였다. 이로 인해 그들이 죽었음이 모두에게 분명해졌다.
- 41 그러므로 모두가 주님, 곧 숨은 일을 드러내시는 의로운 심판자께서 하신 길을 찬양하였다.
- 42 그들은 기도하며, 범한 죄를 완전히 지워 달라고 간구하였다. 존엄한 유다는 무리에게 죄를 범하지 말 것을 권면하였다. 그들은 죽은 자들의 죄로 인해 일어난 일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 43 그는 한 사람씩 돈을 모아 은 이천 드라크마를 모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그는 부활을 염두에 두고 이 일을 매우 잘하고 존엄하게 행하였다.
- 44 만일 그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허사이고 무의미했을 것이다.
- 45 그러나 그가 경건하게 죽은 자들을 위한 존엄한 기억과 감사의 보화를 기대했다면, 그 생각은 거룩하고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은 자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려 그들이 죄에서 해방되게 하였다.

마카베오기 하권 13장

- 1 백사십구년에, 유다와 그의 동료들에게 안티오코스 유파토르가 대군을 이끌고 유다로 올라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2 그와 함께 그의 보호자이자 재상인 리시아스도 왔으며, 각각 보병 십일만 명, 기마병 오천삼백 명, 코끼리 이십두, 낮이 달린 전차 삼백 대를 지니고 있었다.
- 3 메넬라오도 그들과 합류하여 위선적으로 안티오코스를 격려했는데, 그의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정권을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 4 그러나 만왕의 왕께서는 악한 자에 대한 안티오코스의 분노를 일으키셨다. 리시아스가 이 자가 모든 악의 원인임을 보고 하자, 왕은 그를 베로에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죽이라고 명령했다.
- 5 그곳에는 오십 큐빗 높이의 탑이 있는데, 재로 가득 차 있고, 그 주위에는 모든 측면이 가파르게 재로 기울어진 원형 테두리가 있었다.
- 6 여기서 성전을 훼손한 자나 다른 죄악으로 악명 높은 자는 파멸로 밀어넣어진다.
- 7 이러한 운명으로 법을 어긴 자 메넬라오가 죽었는데, 땅에 무덤조차 얻지 못하고, 마땅한 대가를 받았다.
- 8 그는 제단, 곧 그 불과 재가 성스러운 곳에 대해 많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는 재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 9 이제 왕은 분노에 차서, 아버지 시대에 유다인들에게 가해졌던 최악의 고통을 다시 유다인들에게 가하려고 올라왔다.
- 10 그러나 유다가 이 소식을 듣고, 백성에게 하느님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도록 명령했다. 이전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법과 조국과 성전을 빼앗기려 하는 자들로부터 구원을 청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11 그리고 새로 회복되기 시작한 백성이 불경한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했다.
- 12 그러므로 그들이 모두 함께 모여, 사흘 동안 쉬지 않고 눈물과 음식과 몸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자비로운 주님께 간청한 후, 유다가 그들을 격려하며 자신과 합류하라고 명령했다.
- 13 장로들과 비밀리에 상의한 뒤, 왕의 군대가 유다에 들어와 도시를 장악하기 전에, 그들은 하느님의 도움을 빌어 이 문제를 결정하기로 결심했다.
- 14 세계의 주님께 그 결정을 맡기고, 자신과 함께한 이들에게 법과 성전과 도시와 조국과 생활 방식을 위해 죽을 때까지 용감히 싸우도록 권면한 뒤, 그는 모딘에 진을 쳤다.
- 15 그는 병사들에게 슬로건인 "승리는 하느님의 것"을 주었고, 가장 용감한 젊은이들로 구성된 선발대를 이끌고 밤에 왕의 천막을 습격하여 적군 두 천 명을 죽이고, 탑 위에 있던 코끼리와 그 위에 탄 자를 쓰러뜨렸다.
- 16 결국 그들은 적군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리고 성공적으로 물러났다.
- 17 이 일은 주님의 보호로 유다를 도우신 덕분에 아침이 밝아오기 직전에 이루어졌다.
- 18 그러나 왕은 유다인들의 놀라운 용감함을 맞본 뒤, 그들의 진지를 공격하기 위해 전략을 세웠다.
- 19 그리고 유다인들의 요새인 벳수라를 공격했다. 그는 진격했으나 뒤로 물러나고, 실패하며 패배했다.
- 20 유다는 벳수라 안에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냈다.
- 21 그러나 유다인 진영에서 온 로도코스가 적에게 비밀을 누설했다. 그는 추적되어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
- 22 왕은 벳수라에서 두 번째로 그들과 협상하여 손을 주고 그들의 손을 잡은 뒤 떠나 유다의 군대를 공격했으나 패배했다.
- 23 안티오크에 총리로 남겨졌던 필리포스가 방종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하여, 유다인들에게 평화 제의를 하였고, 자신을 복종시키며 그들의 모든 권리를 인정할 것을 맹세하고, 그들과 합의를 맺고 제물을 바치며 성소와 그 장소를 존중하였다.
- 24 그는 자비를 베풀고 마카베오를 우대하며, 페르가모스에서 헤게모니데스를 게렌니아까지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 25 그들은 톨레마이스에 이르렀다. 톨레마이스 사람들은 이 조약에 불만을 품었는데, 그들은 유대인에게 매우 큰 분노를 느꼈고, 계약의 조항을 폐기하려 했다.
- 26 리시아스가 나아가서 가능한 최선의 변호를 하며 설득하고 진정시키고 그들의 호의를 얻은 후 안티오키아로 떠났다. 이것이 왕의 공격과 철수의 결과였다.

마카베오기 하권 14장

- 1 세 해 후, 세레우코스의 아들 데메트리우스가 막대한 군대와 함대를 이끌고 트리폴리스 항구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유다와 그의 동료들에게 전해졌다.
- 2 그는 안티오코스과 그의 보호자 리시아스를 제거하고 그 땅을 장악했다.
- 3 그러나 알키모스는 전에 대제사장이었으나, 이방인과 교류하지 않던 시기에 스스로를 더럽힌 자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더 이상 성소의 제단에 나아갈 수 없다고 여겼다.
- 4 그는 약 151년째 해에 왕 데메트리우스에게 가서 금관과 야자나무 가지, 그리고 성전의 축제용 올리브 가지 몇 개를 바쳤다. 그날 그는 침묵했다.
- 5 그러나 자신이 미친 행동을 더 확장할 기회를 얻어, 데메트리우스에게 그의 참모 회의에 불려가 유대인들의 상황과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자, 그는 대답했다.
- 6 "유다 마카베오스가 지도하는 하시디아인이라 불리는 유대인들은 전쟁을 계속하며 반란을 일으키고 있어, 왕국이 평온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 7 그러므로 나는 조상의 영광, 즉 대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 이제 여기에 왔습니다.
- 8 첫째로, 왕의 이익을 진심으로 걱정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내 동포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자들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 전체 민족은 큰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 9 왕이여, 이 일들을 알고 나의 조국과 적들에 둘러싸인 우리 민족을, 당신이 모든 이에게 베푸시는 자비로운 은총에 따라 신경 써 주십시오.
- 10 유다가 살아 있는 한, 정부가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 11 그가 이런 말을 하자, 왕의 다른 친구들 중 유다를 미워하는 자들이 데메트리우스를 더욱 격앙시켰다.
- 12 그는 즉시 코끼리 부대의 장관이었던 니카노르를 임명하여 유다의 총독으로 삼았다. 그를 파견했다.
- 13 유다를 직접 죽이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흩어버리며, 큰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알키모스를 세우라는 서면 지시를 주었다.
- 14 유다를 유배보낸 유대 땅의 자들은 무리지어 니카노르에게 몰려들었으며, 유대인들의 불행과 재난이 자기들의 성공이 될 것이라 여겼다.
- 15 그러나 유대인들이 니카노르의 진격과 이방인들의 공격을 듣고, 머리에 흙을 뿌리고, 자기 백성을 영원히 세우시고, 항상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며 자기 소유를 지키시는 분께 엄숙한 기도를 올렸다.
- 16 지도자가 명령을 내리자, 그는 즉시 그곳을 떠나 레사우라는 마을에서 그들과 전투를 벌였다.
- 17 그러나 유다의 형제 시몬은 적들의 갑작스러운 공포로 지연되어, 늦게야 니카노르를 만나게 되었다.
- 18 그러나 니카노르는 유다와 함께한 자들의 용맹과 조국을 위해 싸우는 그들의 용기를 듣고, 이 일을 칼로 결정하는 것을 꺼렸다.
- 19 그러므로 그는 포시도니우스와 테오도토스, 마타티아스를 보내어 우호의 서약을 주고받게 하였다.
- 20 이러한 제안이 오랫동안 검토되고, 지도자가 군대에 이를 알린 후, 모두가 같은 뜻임이 드러나자, 그들은 조약에 동의하였다.
- 21 그들은 서로 단독으로 만나기로 날을 정하였다. 각 군대에서 병거가 나아왔고, 존경받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22 유다는 적들이 갑자기 배신할까 두려워, 적절한 장소에 무장한 병사들을 배치하였다. 그들은 마땅한 방식으로 회의를 열었다.
- 23 니카노르는 예루살렘에 머물며 아무런 혼란도 일으키지 않았고, 모여든 무리들을 해산시켰다.
- 24 그는 유다를 항상 곁에 두었으며,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애정을 품게 되었다.
- 25 그는 그에게 결혼하여 자식을 낳도록 권면했다. 그는 결혼하고 조용히 정착하여 일반적인 삶에 참여했다.
- 26 그러나 알키모스는 그들 사이에 존재하던 우호적인 관계를 알고, 맺어진 계약서를 장악한 후, 데메트리우스에게 가서 니카노르가 정부에 불충성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의 왕국에 반역자인 유다를 후계자로 임명했다고 했다.

- 27 왕은 분노에 휩싸여 그 가장 악랄한 자의 거짓 고발에 격분하여 니카노르에게 편지를 써서, 그가 맺은 계약에 불만이 있음을 밝히고, 마카베오를 빠르게 안티오키아로 사로잡아 보내라고 명령했다.
- 28 이 메시지가 니카노르에게 도달하자, 그는 당황했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그 사람과 합의한 조항을 폐기할 생각에 매우 괴로워했다.
- 29 그러나 왕에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전략을 통해 이 목적을 실행할 기회를 노렸다.
- 30 그러나 마카베오가 니카노르가 자신에게 더 잔혹하게 대하고, 평소의 태도로 통치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알고, 이 잔혹함 이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자신의 많은 부하들을 모아 니카노르에게서 숨었다.
- 31 그러나 다른 쪽은 유다가 전략으로 자신을 용감히 물리쳤음을 알고, 제사장들이 흔히 드리는 제사를 바치고 있을 때, 크고 성스러운 성전에 이르러 그들을 시켜 그 사람을 넘기라고 명령했다.
- 32 그들이 맹세하며 자신들이 그가 찾는 그 사람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자,
- 33 그는 오른손을 성소 쪽으로 뻗으며 이 맹세를 했다. "너희가 유다를 포로로 내게 넘기지 않는다면, 내가 이 하느님의 성전을 땅과 평평하게 만들고 제단을 무너뜨리며, 여기에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디오니소스를 위한 성전을 세우겠다."
- 34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는 떠났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손을 하늘 쪽으로 뻗으며 우리 민족을 항상 위해 싸우시는 분을 이렇게 부르짖었다.
- 35 "주님, 만물의 주재여, 당신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지만, 당신의 거처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 36 그러므로 이제, 모든 거룩함의 거룩한 주님, 최근에 정결하게 된 이 집을 영원히 더럽히지 마소서.
- 37 이제 니카노르에게 예루살렘의 장로 중 한 사람인 라지스에 대한 정보가 전해졌다. 그는 동포들을 사랑하고 매우 좋은 평판을 가진 자였으며, 그의 선한 뜻 때문에 유대인들의 아버지라 불렸다.
- 38 이전에는 이방인들과 혼합되지 않았을 때, 그는 유대인들의 종교를 따랐다고 비난받았고, 유대인들의 종교를 위해 몸과 생명을 모두 진심으로 위험에 빠뜨렸다.
- 39 니카노르는 유대인들에게 품은 악의를 드러내고자, 그를 체포하기 위해 오백 명 이상의 병사를 보냈다.
- 40 그는 그를 체포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상처를 주리라 생각했다.
- 41 그러나 병사들이 탑을 포위하고 안뜰의 문을 강제로 열려 하며 문을 불태우기 위해 불을 요구할 때, 그는 사방에서 둘러싸이자 칼로 자결했다.
- 42 그는 악한 자들의 손에 떨어져 자신의 고귀함에 어울리지 않는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존엄하게 죽는 것을 택했다.
- 43 그러나 싸움의 격렬함으로 인해 그의 칼질이 빗나가자, 군중들이 문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는 용감히 벽으로 달려가 군중들 사이로 몸을 던졌다.
- 44 그러나 군중들이 빠르게 뒤로 물러서자 틈이 생겼고, 그는 옆구리 중앙에 떨어졌다.
- 45 그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고, 분노로 불타올랐다. 그는 일어나 피가 흐르고 상처가 심각했으나, 군중을 뚫고 달려가 가파른 바위 위에 서서,
- 46 피가 거의 다 빠져나가자, 상처를 통해 창자를 꺼내 양손으로 잡고 군중들에게 흔들며, 생명과 영의 주님께 그의 창자를 다시 돌려주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이렇게 죽었다.

마카베오기 하권 15장

- 1 그러나 니카노르는 유다와 그의 동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식일에 완전히 안전하게 그들을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 2 그를 따라가야 했던 유다인들이 말했다. "이렇게 잔인하고 야만적으로 파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 다른 모든 날보다 존중하고 성화하신 이 날에 마땅한 영광을 돌리십시오."
- 3 그러자 그 쓰레기 같은 자가 물었다. "하늘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주권자가 있는가?"
- 4 그들이 대답했다.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늘에서 주권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일곱째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5 그는 대답했다. "나도 땅 위의 주권자이며, 너희에게 무기를 들고 왕의 일을 수행하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그는 잔인한 계획을 실행하지는 못했다.
- 6 니카노르는 극도로 교만하고 자만심에 차서, 유다와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완전히 정복한 기념비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 7 그러나 마카베오스는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모든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신뢰했다.
- 8 그는 동료들에게 이방인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에 하늘로부터 자주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며, 이제도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그들에게 임할 승리를 기대하라고 권면했다.
- 9 그는 율법과 예언서를 들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이겨낸 싸움들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지를 더욱 고취시켰다.
- 10 그가 그들의 용기를 고취한 후, 이방인들의 배신과 그들이 맹세를 어긴 사실을 지적하며 명령을 내렸다.
- 11 그는 각자에게 방패와 창 같은 확실한 방어 무기보다는 좋은 말의 격려로 무장시키고, 또한 믿을 만한 꿈을 이야기함으로써 모두를 크게 기쁘게 했다.
- 12 그 꿈의 비전은 이러했다. 전 고대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가, 고귀하고 선한 사람으로, 겸손한 태도와 온화한 성품, 훌륭한 말재주를 지니고, 어릴 때부터 모든 덕을 익힌 이가, 두 손을 뻗어 유다인 전체를 위해 축복을 기원하고 있었다.
- 13 그러자 그는 노년의 위엄과 뛰어난 영광을 지닌 한 남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주위에는 놀라우며 가장 위엄 있는 존엄함이 깃들어 있었다.
- 14 오니아스가 대답하며 말했다. "이분은 친족을 사랑하시며, 백성과 성스러운 도시를 위해 많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 15 예레미야가 오른손을 뻗어 유다에게 황금 칼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 16 "이 성스러운 칼, 하느님의 선물로 받으라. 이 칼로 너희는 적들을 치겠다."
- 17 유다가 말한 고귀하고 효과적인 말들, 즉 덕을 일깨우고 젊은이들의 영혼을 용감하게 자극하는 말들에 격려받아 그들은 전쟁을 벌이기보다는 적에게 굳건히 돌진하여, 모든 용기를 다해 손에 손을 잡고 싸워 이 일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도시와 성소와 성전이 위협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 18 그들은 아내와 자녀, 그리고 가족과 친척들을 걱정하는 것보다, 성화된 성소를 걱정하는 것이 더 크고 우선적이었다.
- 19 또 도시에 갇혀 있던 자들도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야외에서의 전투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었다.
- 20 모든 이가 이제 결말을 기다리고 있었고, 적군은 이미 전투를 시작했으며, 군대는 배열을 갖추었고, 코끼리들은 적당한 위치로 끌려왔으며, 기병은 양쪽 날개에 배치되었다.
- 21 마카베오스는 군대의 존재와 그들이 지닌 다양한 무기, 그리고 코끼리들의 잔인함을 보고, 하늘에 손을 들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부르며, 승리는 무기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에 따라 그분께 합당한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 22 그리고 그는 하느님을 부르며 말했다. "주권자이신 주님, 유다 왕 히즈키야 시대에 당신의 천사를 보내어 세나케립의 군대에서 일만 팔천오백 명을 죽이셨습니다."
- 23 "이제도 하늘의 주권자여, 우리 앞에 선한 천사를 보내어 두려움과 떨림을 일으키소서."
- 24 "당신의 팔의 위대함으로, 당신의 성스러운 백성에게 모독을 퍼붓고 이곳에 온 자들이 놀라 떨게 하소서." 그가 이 말을

마치자,

²⁵ 니카노르와 그의 부대는 나팔을 불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전진했다;

²⁶ 그러나 유다와 그의 부대는 기도와 간구를 바치며 적과 싸웠다.

²⁷ 손으로 싸우면서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한 그들은 삼만 오천 명 이상을 죽였고, 하느님의 나타남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였다.

²⁸ 전투가 끝나고 기쁨으로 돌아오던 중 그들은 전장에 완전히 갑옷을 입은 채 죽어 있는 니카노르를 발견했다.

²⁹ 그러자 함성과 소란이 일어나 그들은 조상들의 언어로 주권자 주님을 찬양하였다.

³⁰ 자신의 동포들을 위해 몸과 마음으로 최고의 용사였고, 평생 동안 동포들에게 품었던 선한 뜻을 지켰던 그는 니카노르의 머리와 손과 팔을 베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도록 명령했다.

³¹ 그가 그곳에 도착하여 동포들을 모으고 제사장들을 제단 앞에 세운 후, 성채에 있던 자들을 불러들였다.

³² 그는 비열한 니카노르의 머리와, 거만한 자랑으로 전능하신 분의 성전을 향해 뻗었던 그 불경한 자의 손을 보여주며,

³³ 불경한 니카노르의 혀를 잘라내어 새들에게 던져 주겠다고 말하며, 그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 보상을 성소 가까이 걸어두겠다고 했다.

³⁴ 그들은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을 나타내신 주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자신의 장소를 더럽히지 않고 지키신 분이 복되도다!"

³⁵ 그는 니카노르의 머리와 어깨를 성채에 매달아, 주님의 도움이 모든 이에게 분명히 드러나게 하였다.

³⁶ 그들은 모두 공동의 결의로 이 날을 결코 무시하지 말고, 연말 열세 번째 날(시리아어로 아다르라고 부름)을, 모르데카이의 날 하루 전을 명예롭게 기념하기로 결정했다.

³⁷ 이것이 니카노르의 시도에 관한 기록이며, 그때부터 도시는 히브리인들이 지배하게 되었다. 나도 이 책을 여기서 마치겠다.

³⁸ 내가 내 이야기를 잘하고 요점을 잘 잡아 썼다면, 이것이 바로 내가 바랐던 바이다. 그러나 만약 나약하고 평범하게 썼다면,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³⁹ 술만 마시는 것이 싫고, 물만 마시는 것도 싫듯이, 술과 물을 섞으면 맛이 한층 더 즐거워지듯이, 언어의 조형도 이야기를 읽는 이들의 귀를 기쁘게 한다. 여기서 마친다.

욥기 | Job

욥기 1장

- ¹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은 흠 없고 정직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었다.
- ²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났다.
- ³ 그의 소유는 양 일만 마리, 낙타 삼천 마리, 소 오백 쌍, 나귀 오백 마리, 그리고 매우 큰 가족이었으며, 그는 동방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 ⁴ 그의 아들들은 각자의 생일에 집에서 잔치를 열고, 누이들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셨다.
- ⁵ 잔치의 날이 끝나면, 욥은 사람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수만큼 번제를 바쳤다. 욥은 말했다. "내 아들들이 죄를 지어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저버렸을지도 모른다." 욥은 항상 그렇게 했다.
- ⁶ 하느님의 아들들이 주님 앞에 나아와서 자기 앞에 서던 날, 사탄도 그들 사이에 왔다.
- ⁷ 주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 ⁸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생각해 보았느냐? 땅 위에 그와 같은 사람은 없으니, 흠 없고 정직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다."
- ⁹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여 말했다. "욥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익한 것입니까?"
- ¹⁰ 당신이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사방으로 울타리로 둘러싸고, 그의 손이 하는 일을 복 주셔서 그의 재산이 땅에서 늘어났지 않습니까?
- ¹¹ 그러나 이제 손을 뻗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만지십시오. 그러면 그는 당신을 얼굴을 보고 저버릴 것입니다.
- ¹²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네 손에 달려 있다. 다만 그 자신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 ¹³ 그의 아들과 딸들이 만형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을 때,
- ¹⁴ 한 사자가 욥에게 와서 말했다. "소들이 밭을 갈고, 나귀들이 곁에서 풀을 뜯고 있을 때,"
- ¹⁵ 사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모두 빼앗았고, 칼날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저는 혼자서 도망쳐서 이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 ¹⁶ 그가 아직 말을 마치지 않았을 때, 또 다른 사자가 와서 말했다. "하느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태워 버리고 모두 소멸시켰습니다. 저는 혼자서 도망쳐서 이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 ¹⁷ 그가 아직 말을 마치지 않았을 때, 또 다른 사자가 와서 말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로 나뉘어 낙타를 습격하여 빼앗았고, 칼날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저는 혼자서 도망쳐서 이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 ¹⁸ 그가 아직 말을 마치지 않았을 때, 또 다른 사자가 와서 말했다.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만형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을 때,"
- ¹⁹ 보십시오, 광야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집의 네 모서리를 치고, 집이 젊은이들 위로 무너져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도망쳐서 이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 ²⁰ 그러자 욥은 일어나 옷을 찢고, 머리를 깎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 ²¹ 그가 말했다.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고 거기로 돌아가리라.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빼앗으셨으니, 주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소서."
- ²² 이 모든 일에서 욥은 죄를 짓지 않았고, 하느님을 향해 잘못을 돌리지 않았다.

욥기 2장

- ¹ 다시 한 번, 하느님의 아들들이 주님 앞에 나아와서 드러나는 날에, 사탄도 그들 사이에 와서 주님 앞에 드러났다.
- ²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 ³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생각해 보았느냐? 땅 위에 그와 같은 자는 없으니, 그는 흠 없고 정직하여 하느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이다. 비록 네가 나를 격동하여 그를 무죄한 채 멸망시키려 했으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순수함을 지키고 있다."
- ⁴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여 말했다. "피부는 피부로 바꾸는 것이지,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자기 생명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다."
- ⁵ 그러나 이제 손을 뻗어 그의 뼈와 살에 닿게 하소서. 그러면 그는 당신을 얼굴을 마주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 ⁶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그는 네 손에 있다. 다만 그의 생명만은 살려라."
- ⁷ 그러므로 사탄은 주님의 앞에서 나가서 욥을 치되,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아픈 종기로 치료하였다.
- ⁸ 그는 자기 몸을 긁기 위해 조각난 뱀비 조각을 가져다가 재 속에 앉았다.
- ⁹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너는 여전히 자신의 순수함을 지키려 하는가?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 ¹⁰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고 있다. 무엇이냐? 우리는 하느님의 손에서 선을 받지 않으면서 악을 받지 않겠느냐?"
- ¹¹ 욥의 세 친구가 그에게 닥친 이 모든 재난을 듣고, 각자 자기 고향에서 왔다. 테만 사람 엘리파스, 수히 사람 빌다드, 나아마 사람 소바르였다. 그들은 함께 모여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러 왔다.
- ¹²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 그를 보았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으며, 각자 자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흠을 머리에 뿌렸다.
- ¹³ 그러므로 그들은 땅에 욥과 함께 일주일 동안, 일곱 날 밤 동안 앉아 있었고, 아무도 그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의 슬픔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욥기 3장

- ¹ 이 일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였다.
- ²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 ³ 내가 태어난 그 날이 사라지기를.
- ⁴ 그 날은 어둠이 되기를. 위에서 하느님이 그 날을 찾지 않기를, 빛이 그 위에 비추지 않기를.
- ⁵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그 날을 차지하여 자기 것처럼 삼기를.
- ⁶ 그 밤은 짙은 어둠이 잡아채기를. 그 밤이 일 년의 날들 사이에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달의 수에 들지 못하게 하시기를.
- ⁷ 보라, 그 밤은 열매 없는 날이 되기를.
- ⁸ 그 날을 저주하는 자들, 레비아탄을 일으키려는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기를.
- ⁹ 그 밤의 해질 무렵 별들은 어두워지기를. 아침의 눈꺼풀도 그 날을 보지 못하게 하시기를.
- ¹⁰ 그 날은 내 어머니의 태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 ¹¹ 내가 태에서 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¹² 무엇 때문에 무릎이 나를 받았는가?
- ¹³ 지금이라도 나는 누워 조용히 쉬었을 텐데.
- ¹⁴ 땅의 왕들과 참모들과 함께.
- ¹⁵ 또는 금을 가진 왕자들과 함께.
- ¹⁶ 아니면 숨겨진 유산으로 태어나지 않고,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더라면.
- ¹⁷ 거기서 악인들은 괴롭힘을 멈춘다.
- ¹⁸ 거기서 옥중의 죄수들은 평안히 함께 있다.
- ¹⁹ 작은 자와 큰 자가 모두 거기에 있다.
- ²⁰ 왜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이 주어지는가?
- ²¹ 죽음을 갈망하지만 죽음이 오지 않는 자에게.
- ²²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 ²³ 왜 길이 숨겨진 사람에게 빛이 주어지는가?
- ²⁴ 내가 먹기 전에 탄식이 먼저 흘러나온다.
- ²⁵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내게 닥친다.
- ²⁶ 나는 편안하지도 않고, 조용하지도 않으며, 쉬지도 않는다.

욥기 4장

- ¹ 그러자 테만 사람 엘리파스가 대답하여,
- ² “누군가 당신과 말을 나누려 하면, 당신은 괴로워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말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 ³ 보십시오, 당신은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 ⁴ 당신의 말은 흔들리는 자를 건디게 했습니다.
- ⁵ 그러나 이제 그 일이 당신에게 닥쳐서, 당신은 힘을 잃습니다.
- ⁶ 당신의 경건함이 당신의 신뢰가 아니었습니까? 당신의 길의 정직함이 당신의 소망이 아니었습니까?
- ⁷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순전한 자가 누구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 ⁸ 내가 본 바에 의하면, 불의를 뿌리는 자들은,
- ⁹ 하느님의 숨결로 멸망합니다.
- ¹⁰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 ¹¹ 늙은 사자가 먹이가 없어 멸망합니다.
- ¹² “이제 어떤 일이 내게 은밀히 전해졌습니다.
- ¹³ 밤의 환상 속에서 생각이 내게 이르렀을 때,
- ¹⁴ 두려움이 나를 덮었고, 떨림이 내 모든 뼈를 떨게 했습니다.
- ¹⁵ 그러자 한 영이 내 얼굴 앞을 지나갔습니다.
- ¹⁶ 그것은 멈춰 섰지만, 나는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 ¹⁷ ‘사람이 하느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 ¹⁸ 보십시오, 그분은 그의 종들을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 ¹⁹ 흙으로 만든 집에 거주하며, 흙에서 기반을 두고, 나방 앞에서 부서지는 자들에 대해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 ²⁰ 아침과 저녁 사이에 그들은 멸망합니다.
- ²¹ 그들의 천막 줄이 그들 안에서 뽑히지 않습니까?

욥기 5장

- 1 지금 부르어 보아라. 누구라도 네게 응답하겠느냐?
- 2 분노가 어리석은 자를 죽이며,
- 3 내가 어리석은 자가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았다.
- 4 그의 자식들은 안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 5 그의 수확은 굶주린 자들이 먹어치우고,
- 6 고통은 흙에서 나오지 않으며,
- 7 사람은 고난을 타고난다.
- 8 그러나 나로서는 하느님을 구하리라.
- 9 그는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시며,
- 10 땅에 비를 내리시며,
- 11 낮은 자들을 높은 곳에 올리시고, 슬퍼하는 자들을 안전으로 높이 올리신다.
- 12 그는 교활한 자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며,
- 13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의 교활함으로 사로잡으신다.
- 14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며,
- 15 그는 그들의 입의 칼에서 구원하시며, 약한 자를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 16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 17 보아라, 하느님이 징계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므로 전능자의 책망을 경멸하지 말라.
- 18 그는 상처를 주시고 치유하시며,
- 19 네가 여섯 가지 환난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일곱 가지 환난에서도 악이 네게 닿지 않으리라.
- 20 기근 속에서 그가 너를 죽음에서 구속하시며,
- 21 네가 혐의 치명적인 위협에서 숨을 것이며,
- 22 파괴와 기근을 웃으며, 땅의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 23 네가 들의 돌들과 화친할 것이며,
- 24 네 장막이 평안함을 알게 될 것이다.
- 25 너는 네 자손이 많음을 알게 될 것이며,
- 26 너는 풍성한 나이로 무덤에 이르러 죽을 것이며,
- 27 보라, 우리가 이것을 조사하였다. 그러하다.

욥기 6장

- 1 그러자 욥이 대답했다.
- 2 내 슬픔이 저울에 달리고,
- 3 그때 내 고통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텐데.
- 4 전능자의 화살이 내 안에 있다.
- 5 풀을 먹는 야생 당나귀가 울겠는가?
- 6 맛이 없는 것은 소금 없이 먹을 수 있는가? 달걀 흰자에 맛이 있는가?
- 7 내 영혼은 그것들을 만지기조차 거부한다.
- 8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즉,
- 9 하느님께서 나를 부수시기를.
- 10 그것이 여전히 내 위로가 되기를,
- 11 내 힘이 무엇이기에 내가 기다려야 하는가?
- 12 내 힘이 돌처럼 단단한가?
- 13 내 안에 도움이 전혀 없는가?
- 14 기진맥진한 이에게 친구는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 15 내 형제들은 시냇물처럼 속임수를 쓴다.
- 16 그 시냇물은 얼음 때문에 검다.
- 17 건조한 계절이 오면 그들은 말라버린다.
- 18 그 곁을 지나는 상인 무리가 길을 돌린다.
- 19 테마의 상인 무리가 그를 바라보았다.
- 20 그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탓에 낙담했다.
- 21 지금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 22 내가 '너희가 나에게 주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 23 아니면 '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 24 내가 잘못을 가르쳐 주면, 나는 침묵할 것이다. 내 잘못을 깨닫게 해 주어라.
- 25 정의로운 말이 얼마나 강력한가!
- 26 당신은 말을 책망하려는 것입니까? 절망한 자의 말은 바람과 같지 않은가?
- 27 당신은 고아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까지 합니다.
- 28 이제 내게 눈을 돌려 주십시오.
- 29 돌아오십시오. 다시 돌아오십시오.
- 30 내 혀에 불의가 있습니까?

욥기 7장

- ¹ 사람이 땅에서 노동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날들이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않습니까?
- ² 그림자를 갈망하는 종처럼,
- ³ 나도 고통의 달들을 받게 되었나이다.
- ⁴ 내가 누우면, ‘언제 일어나며 밤이 지나가겠는가?’ 하고 말합니다.
- ⁵ 내 살은 벌레와 흙 덩어리로 덮였나이다.
- ⁶ 내 날들은 직기의 자개보다 빠르나이다.
- ⁷ 내 생명이 숨결임을 기억하소서.
- ⁸ 나를 보던 눈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리이다.
- ⁹ 구름이 사라지고 없어지듯,
- ¹⁰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리이다.
- ¹¹ 그러므로 나는 침묵하지 않으리라.
- ¹² 내가 바다이거나 바다의 괴물이기에,
- ¹³ 내가 말하기를, ‘내 침상이 나를 위로하리라.’ 하면,
- ¹⁴ 당신은 꿈과 환상으로 나를 무서워하게 하시며,
- ¹⁵ 내 영혼이 질식을 택하게 하시나이다.
- ¹⁶ 나는 내 생명을 싫어하나이다.
- ¹⁷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이 그를 존중하시며,
- ¹⁸ 매일 아침 그를 돌아보시며,
- ¹⁹ 당신은 언제까지 나를 떠보지 않으실 것입니까?
- ²⁰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사옵니까, 사람을 지켜보시는 분이여?
- ²¹ 어찌하여 당신은 내 불순종을 용서하지 않으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지 않으십니까?

욥기 8장

- ¹ 그러자 숨 사람 빌다가 대답하였다.
- ² 너는 이 말들을 얼마나 오래 하려는가?
- ³ 하느님께서 정의를 왜곡하시랴?
- ⁴ 네 자녀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으면,
- ⁵ 네가 진심으로 하느님을 구하려 한다면,
- ⁶ 네가 순결하고 정직하다면,
- ⁷ 비록 네 시작은 작았으나, 네 끝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 ⁸ 과거 세대들을 물어보아라.
- ⁹ 우리는 어제나 다름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 ¹⁰ 그들이 너에게 가르쳐 주지 않겠느냐? 네게 말해주지 않겠느냐?
- ¹¹ 갈대는 진흙 없이 자랄 수 있는가?
- ¹² 그것이 아직 녹색일 때, 베어내지 않았을 때,
- ¹³ 이것이 하느님을 잊는 모든 자의 길이다.
- ¹⁴ 그들의 신뢰는 부서지고, 그들의 의지가 거미줄과 같으니,
- ¹⁵ 그는 자기 집에 기대지만, 그 집은 서지 못할 것이다.
- ¹⁶ 그는 태양 앞에서 푸르다.
- ¹⁷ 그의 뿌리는 바위 더미를 감싸고 있다.
- ¹⁸ 그가 자기 자리에서 파괴된다면,
- ¹⁹ 보아라, 이것이 그의 길의 기쁨이다.
- ²⁰ 보아라, 하느님께서서는 흠 없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
- ²¹ 그분은 네 입을 웃음으로 채우실 것이며,
- ²² 네를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입을 것이다.

욥기 9장

- 1 그러자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 2 나는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3 그가 그와 다투기를 기뻐한다면,
- 4 하느님은 마음에 지혜가 있고 힘이 강하시다.
- 5 그는 산들을 옮기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 6 그는 땅을 그 자리에서 흔들어 놓으시며, 그 기둥들이 떨린다.
- 7 그는 태양에게 명령하여 떠오르지 못하게 하신다.
- 8 그분만이 하늘을 펼치신다.
- 9 그는 곰과 오리온과 히아데스를 만드신다.
- 10 그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수없이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 11 보라, 그가 내 곁을 지나가지만, 나는 그를 보지 못한다.
- 12 보라, 그가 빼앗아 가신다.
- 13 하느님은 그분의 분노를 거두지 않으신다.
- 14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 15 비록 내가 의로우더라도, 나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 16 내가 부르면 그가 대답해 주신다면,
- 17 그는 폭풍으로 나를 부수신다.
- 18 나가 숨을 돌릴 여유도 주지 않으신다.
- 19 힘의 문제라면, 보라, 그는 강력하시다!
- 20 비록 내가 의로우나,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으나, 그것이 나를 악의적이라고 증명할 것이다.
- 21 나는 흠이 없다.
- 22 모두 똑같다.
- 23 채찍이 갑자기 죽음으로 이끈다면,
- 24 땅은 악인의 손에 주어진다.
- 25 내 날들은 달리기꾼보다 빠르다.
- 26 빠른 배처럼 지나갔다.
- 27 내가 말하기를, '내 원망을 잊어버리리라,' 하면,
- 28 내가 내 모든 슬픔을 두려워한다.
- 29 나는 정죄받을 것이다.
- 30 만일 내가 눈으로 몸을 씻고,
- 31 여전히 당신은 나를 구덩이에 던지실 것이며, 내 옷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 32 그는 나처럼 사람이 아니므로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고,
- 33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없으니,
- 34 그가 나에게서 그의 막대기를 떼어내시고, 그의 두려움이 나를 떨게 하지 않게 하소서.
- 35 그러면 내가 말할 수 있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욥기 10장

- ¹ 내 영혼은 내 생명에 지쳐 있습니다.
- ² 내가 하느님께 말하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 ³ 당신이 압제하는 것이 당신에게 좋습니까?
- ⁴ 당신의 눈은 육체의 눈입니까?
- ⁵ 당신의 날들이 사람의 날들과 같습니까?
- ⁶ 당신이 내 죄를 조사하십니까?
- ⁷ 당신은 내가 악하지 않음을 아시지만, 당신의 손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 ⁸ '당신의 손이 나를 빚어 내고 온전히 만들었으나, 이제는 나를 파괴하십니다.'
- ⁹ 나를 흙으로 빚어 내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 ¹⁰ 당신은 나를 우유처럼 부어 내셨으며,
- ¹¹ 당신은 나를 피부와 살로 덮으셨으며,
- ¹² 당신은 나에게 생명과 자비를 주셨습니다.
- ¹³ 그러나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숨기셨습니다.
- ¹⁴ 내가 죄를 지으면, 당신은 나를 기록하십니다.
- ¹⁵ 내가 악하면, 내게 화가 있습니다. 내가 의로우면, 내 머리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 ¹⁶ 내 머리를 들면, 당신은 사자처럼 나를 쫓으십니다.
- ¹⁷ 당신은 나를 대적하는 증인들을 새로이 세우시며,
- ¹⁸ '그러면 왜 당신은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 ¹⁹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되었어야 했습니다.
- ²⁰ 내 날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까?
- ²¹ 나가서는 결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기 전에,
- ²² 어두운 밤처럼 어두운 땅으로,

욥기 11장

- ¹ 그러자 나아마 사람 소바르가 대답하여 말했다.
- ² 말이 많으면 대답하지 않아야 할까?
- ³ 네가 자랑하며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려는가? 네가 조롱할 때, 아무도 네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 ⁴ 네가 말하기를, '내 교리는 순수하다.'라고 하지 않는가?
- ⁵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 ⁶ 그분이 너에게 지혜의 비밀을 보여 주시기를!
- ⁷ 네가 하느님의 신비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 ⁸ 그것은 하늘처럼 높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 ⁹ 그 길이는 땅보다 길며,
- ¹⁰ 그분이 지나가거나 가두면,
- ¹¹ 그분은 거짓된 자들을 모두 아신다.
- ¹² 허튼 생각만 가득한 자는 야생 당나귀 새끼처럼 태어나야 비로소 지혜로워질 수 있다.
- ¹³ 네 마음을 바로잡고,
- ¹⁴ 네 손에 불의가 있다면 멀리 치워라. 네 장막에 불의가 머무르지 못하게 하라.
- ¹⁵ 그러면 네 얼굴은 흠 없이 들려 올라갈 것이다.
- ¹⁶ 네 고통을 잊어버릴 것이다.
- ¹⁷ 네 삶은 정오처럼 밝아질 것이며, 어둠이 있어도 아침처럼 밝아질 것이다.
- ¹⁸ 네가 안전할 것이다.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 ¹⁹ 네가 누워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며, 많은 이들이 네 친절을 구할 것이다.
- ²⁰ 그러나 악인들의 눈은 힘을 잃을 것이다.

욥기 12장

- ¹ 그러자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 ² 분명히 당신들이 사람들이라면,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지혜가 있습니다.
- ³ 나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이해력이 있습니다.
- ⁴ 나는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 ⁵ 안락한 자는 재난을 경멸합니다.
- ⁶ 도적들의 천막은 번창하고, 하느님을 자극하는 자들은 안전합니다.
- ⁷ 그러나 이제는 짐승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들이 당신들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 ⁸ 또는 땅에게 말해보십시오. 그것이 당신들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 ⁹ 이 모든 것에서 누가 알지 못합니까?
- ¹⁰ 모든 살아 있는 것의 생명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 ¹¹ 귀는 말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 ¹² 늙은 자들에게 지혜가 있고, 오래 산 자들에게 명철이 있습니다.
- ¹³ 하느님께는 지혜와 힘이 있습니다.
- ¹⁴ 보십시오. 그가 무너뜨리면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 ¹⁵ 보십시오. 그가 물을 막으면 마르고, 그가 풀어주면 흐릅니다.
- ¹⁶ 그에게는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 ¹⁷ 그는 조연자들을 벌거벗긴 채 끌어냅니다.
- ¹⁸ 그는 왕들의 끈을 풀어줍니다.
- ¹⁹ 그는 사제들을 벌거벗긴 채 끌어냅니다.
- ²⁰ 그는 신뢰받는 자들의 말을 빼앗습니다.
- ²¹ 그는 왕족들에게 경멸을 쏟아붓습니다.
- ²² 그는 어둠 속의 깊은 일을 드러냅니다.
- ²³ 그는 민족들을 놀리고,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는 민족들을 넓히고, 그들을 사로잡아 끌고갑니다.
- ²⁴ 그는 땅의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지혜를 빼앗습니다.
- ²⁵ 그들은 빛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맨다.

욥기 13장

- ¹ 보라, 내 눈이 이 모든 것을 보았다.
- ² 너희가 아는 것, 나도 안다.
- ³ 내가 전능자에게 말하고자 한다. 내가 하느님과 논의하고 싶다.
- ⁴ 그러나 너희는 거짓을 꾸며내는 자들이다.
- ⁵ 너희가 완전히 침묵하기를 바란다!
- ⁶ 지금 내 논거를 들어라.
- ⁷ 너희가 하느님을 위해 부당하게 말하려는가?
- ⁸ 너희가 그를 편애하려는가?
- ⁹ 그가 너희를 조사하는 것이 좋은 일인가?
- ¹⁰ 너희가 은밀히 편애하면, 그분은 분명히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 ¹¹ 그분의 위엄이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인가?
- ¹² 너희의 유명한 말들은 재의 속담이고, 너희의 방어는 진흙의 방어이다.
- ¹³ 침묵하라! 내게 오는 대로 오게 하라.
- ¹⁴ 내가 내 육체를 이빨로 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 ¹⁵ 보라, 그분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도 나는 그분 앞에서 내 길을 지키겠다.
- ¹⁶ 이것도 내 구원이 될 것이다.
- ¹⁷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어라.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리게 하라.
- ¹⁸ 보라, 내가 내 쟁점을 정리하였다.
- ¹⁹ 누가 나와 다툴 수 있는가?
- ²⁰ 오직 나에게 두 가지 일을 하지 말아라,
- ²¹ 너의 손을 내게서 멀리 떼어라,
- ²² 그러면 부르라. 내가 대답하겠다.
- ²³ 내 죄와 죄악이 얼마나 많은가?
- ²⁴ 왜 당신은 얼굴을 가리시는가?
- ²⁵ 당신은 흔들리는 잎사귀를 괴롭히려 합니까?
- ²⁶ 당신은 나에게 쓰라린 일을 기록합니다,
- ²⁷ 당신은 내 발을 족쇄에 넣고,
- ²⁸ 나는 썩어가는 것처럼 썩어가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 ¹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무엇입니까?
- ² 꽃처럼 자라나서 꺾입니다.
- ³ 당신이 그런 이를 눈여겨보십니까?
- ⁴ 부정한 것에서 정결한 것을 어찌 낼 수 있겠습니까?
- ⁵ 그의 날들이 정해져 있고,
- ⁶ 그를 떠나서 쉬게 하소서,
- ⁷ 나무는 베어져도 희망이 있습니다.
- ⁸ 그 뿌리가 땅에서 늙어도,
- ⁹ 물의 향기를 맡으면 새싹을 틔웁니다.
- ¹⁰ 그러나 사람은 죽고 누워 있으며, 사람이 영을 내놓으면,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 ¹¹ 바다의 물이 마르듯,
- ¹² 사람도 누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 ¹³ 오, 나를 스올에 숨겨 주소서,
- ¹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겠습니까?
- ¹⁵ 당신이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 ¹⁶ 그러나 지금 당신은 내 걸음을 세고, 내 죄를 지켜보지 않습니까?
- ¹⁷ 내 불순종은 주머니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 ¹⁸ 그러나 무너지는 산은 소용없습니다.
- ¹⁹ 물이 돌을 닳게 하고, 당신은 사람의 희망을 파괴합니다.
- ²⁰ 당신은 영원히 그를 이기고, 그는 떠납니다.
- ²¹ 그의 아들들이 존경을 받지만, 그는 알지 못합니다.
- ²² 그의 육체는 자신에게 고통을 느낍니다.

욥기 15장

- 1 그러자 ते만 사람 엘리파스가 대답하여 말했다.
- 2 지혜로운 자가 허무한 지식으로 대답하겠습니까?
- 3 그가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습니까?
- 4 네가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 5 네 최악이 네 입을 가르치며,
- 6 네 입이 너를 정죄하고, 내가 아니라, 네 입술이 너를 증언한다.
- 7 네가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인가? 네가 산들보다 먼저 나왔는가?
- 8 하느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네가 들었는가?
- 9 우리가 모르는 것을 네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 10 우리와 함께 늙은 자들과 오래 산 자들이 있다.
- 11 하느님의 위로가 네게는 너무 작으냐? 네게 부드럽게 말하는 그 말씀이?
- 12 어찌하여 네 마음이 너를 끌고 가는가?
- 13 네가 네 영을 하느님께 대적하게 하는가?
- 14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 15 보라, 그분은 그의 성자들을 신뢰하지 않으신다.
- 16 더욱이 부정하고 부패한 자가 어찌 깨끗하겠느냐?
- 17 내가 너에게 보여 주겠다. 내 말을 들어라.
- 18 (지혜로운 자들이 조상들로부터 들은 바이며,
- 19 그들에게만 땅이 주어졌으며,
- 20 악한 자는 그의 모든 날을 고통으로 뒤집어쓰며, 압제자의 수명이 정해진 해수까지 괴로워한다.
- 21 그의 귀에는 공포의 소리가 들린다.
- 22 그는 어둠에서 벗어나 돌아올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 23 그는 빵을 찾아 떠돌며, '그것은 어디 있는가?' 하고 말한다.
- 24 고통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한다.
- 25 그가 하느님을 향해 손을 뻗었기 때문에,
- 26 그는 고개를 뻗뻗이 든 채 그에게 달려들며,
- 27 그가 자신의 살집으로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 28 그는 황폐한 성읍들에서 살며,
- 29 그는 부유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재산도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 30 그는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31 허무한 것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
- 32 그것은 그의 정해진 때보다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 33 그는 포도나무처럼 익지 않은 포도를 떨어뜨릴 것이며,
- 34 불경한 자들의 모임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며,
- 35 그들은 악을 잉태하고 불의를 낳는다.

욥기 16장

- ¹ 그러자 욥이 대답했다.
- ² 나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 ³ 허튼 말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 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 ⁵ 그러나 나는 내 입으로 너희를 격려하려 합니다.
- ⁶ 내가 말해도 내 슬픔이 가라앉지 않고, 침묵해도 내가 무엇이 나아지겠습니까?
- ⁷ 이제, 하느님, 당신은 나를 지치게 하셨습니다.
- ⁸ 당신은 나를 말라비틀게 하셨습니다. 이는 나를 대적하는 증거입니다.
- ⁹ 그는 분노로 나를 찢고, 나를 괴롭히셨습니다.
- ¹⁰ 그들은 입을 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 ¹¹ 하느님은 나를 불경한 자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 ¹² 나는 평안히 지내고 있었는데, 그가 나를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그는 내 목을 잡아 산산조각 내고, 나를 자기의 표적으로 세웠습니다.
- ¹³ 그의 화살수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 ¹⁴ 그는 틈을 이어 틈을 내어 나를 부수셨습니다.
- ¹⁵ 나는 베옷을 내 피부에 꿰맸습니다.
- ¹⁶ 내 얼굴은 눈물로 붉어졌습니다.
- ¹⁷ 비록 내 손에는 폭력이 없지만,
- ¹⁸ 땅아, 내 피를 덮지 마라.
- ¹⁹ 지금도 보라,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신다.
- ²⁰ 내 친구들은 나를 조롱한다. 내 눈은 하느님께 눈물을 쏟는다.
- ²¹ 사람이 하느님과 함께 그의 권리를 지켜주기를 바라며,
- ²² 몇 해가 지나면,

욥기 17장

- 1 내 영혼은 소진되었습니다.
- 2 나와 함께 조롱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 3 지금 보증을 주십시오. 나를 위해 스스로에게 보증인이 되십시오.
- 4 당신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에서 숨기셨습니다.
- 5 자신의 친구를 약탈의 이유로 고발하는 자에게
- 6 그러나 주님은 나를 백성의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 7 내 눈도 슬픔으로 흐릿해졌습니다.
- 8 의로운 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리라.
- 9 그러나 의로운 자는 자신의 길을 굳게 잡을 것이다.
- 10 그러나 너희 모두는 돌아오라.
- 11 내 날들은 지나갔습니다.
- 12 그들은 어둠 속에서 밤을 낮으로 바꾸며, '빛이 가까워졌다'고 말한다.
- 13 내가 스올을 내 집으로 여기고, 어둠 속에 내 침상을 펼쳤다면,
- 14 내가 썩음에게 '너는 내 아버지다'라고 말했다면,
- 15 그러면 내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내 희망이 누구에게 보일 것인가?
- 16 내 희망은 나와 함께 스올의 문으로 내려가며, 흠과 함께 내려갈 것인가?

욥기 18장

- 1 그러자 숨 사람 빌다가 대답했다.
- 2 너는 언제까지 말을 찾으려고 애쓰는가?
- 3 왜 우리는 짐승처럼 여겨지는가?
- 4 분노로 자신을 찢는 너는, 바위가 제 자리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5 악인의 빛은 꺼질 것이다.
- 6 그의 천막 안에서 빛은 어두워질 것이다.
- 7 그의 힘의 발걸음은 짧아질 것이다.
- 8 그는 자신의 발로 그물에 걸리며,
- 9 덮이 그의 발뒤꿈치를 잡을 것이다.
- 10 땅속에 그를 위한 올가미가 숨겨져 있다.
- 11 공포가 그를 사방에서 두렵게 할 것이다.
- 12 그의 힘은 기아에 시달릴 것이고, 재앙이 그 옆에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 13 그의 몸의 지체들이 잡아먹힐 것이다.
- 14 그는 자신의 천막의 안전에서 뿌리째 뽑힐 것이다.
- 15 그의 천막에는 그의 것이 아닌 것이 살게 될 것이다.
- 16 그의 뿌리는 아래에서 마를 것이다.
- 17 그의 기억은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 18 그는 빛에서 어둠으로 쫓겨날 것이며,
- 19 그의 백성 가운데 아들도 손자도 없을 것이다.
- 20 그의 날을 보고 뒤에 오는 자들은 놀라게 될 것이며,
- 21 정녕 이런 것이 불의한 자의 처소이다.

욥기 19장

- 1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 2 너희가 나를 얼마나 오래 괴롭힐 것인가?
- 3 너희가 나를 열 번이나 모욕하였다.
- 4 내가 만약 잘못했다면, 그 잘못은 나 자신에게 있다.
- 5 너희가 나를 향해 스스로를 높이려 한다면,
- 6 이제 알라. 하느님이 나를 뒤집어 엎었다는 것을.
- 7 보라, 나는 부당함으로 외치지만, 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 8 그가 내 길을 담으로 둘러싸서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
- 9 그가 내 영광을 벗겨 버렸다.
- 10 그가 나를 사방에서 무너뜨리셨다. 나는 사라졌다.
- 11 그가 나를 향해 진노를 불태우셨다.
- 12 그의 군대가 한꺼번에 쳐들어온다.
- 13 그가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
- 14 내 친척들이 떠나갔다.
- 15 내 집에 사는 자들과 내 시녀들이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긴다.
- 16 내가 내 하인을 부르면, 그는 내 대답을 주지 않는다.
- 17 내 숨결은 내 아내에게 역겨운 것이다.
- 18 어린 아이들까지 나를 경멸한다. 내가 일어나면, 그들이 나를 비난한다.
- 19 내 모든 친숙한 친구들이 나를 싫어한다.
- 20 내 뼈가 내 살과 피부에 붙어 있다.
- 21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내 친구들아,
- 22 어찌하여 너희는 하느님처럼 나를 박해하는가?
- 23 내 말이 지금 기록되기를!
- 24 철필과 납으로 기록되기를!
- 25 그러나 나에게는 내가 구속자가 살아 계심을 안다.
- 26 내 살이 이 땅에서 썩은 후에도 나는 육체로 하느님을 보리라.
- 27 나, 곧 내가 그를 내 곁에서 볼 것이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타들어간다.
- 28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를 박해할까!' 한다면,
- 29 칼을 두려워하라.

욥기 20장

- 1 그러자 나아마 사람 소파르가 대답하여 말했다,
- 2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나에게 대답한다.
- 3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다.
- 4 너는 이 일을 옛날부터 알지 못하느냐,
- 5 악인의 기쁨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 6 비록 그의 높이 하늘에 닿고,
- 7 그는 자신의 분변처럼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를 본 자들이 말하리라, ‘그는 어디 있느냐?’
- 8 그는 꿈처럼 날아가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것이며, 밤의 환상처럼 쫓겨날 것이다.
- 9 그를 본 눈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 10 그의 자식들은 가난한 자들의 은혜를 구할 것이다.
- 11 그의 뼈에는 그의 젊음이 가득하다.
- 12 “비록 악행이 그의 입에 달콤하고, 그가 그것을 혀 밑에 숨기며,
- 13 그것을 간직하고 놓아주지 않더라도,
- 14 그러나 그의 창자 속 음식은 변질될 것이다.
- 15 그는 부를 삼켰으나 다시 토해낼 것이며, 하느님께서 그의 배에서 그것을 쏟아낼 것이다.
- 16 그는 독사의 독을 빨아들일 것이다.
- 17 그는 강들을 보지 못할 것이며,
- 18 그가 수고한 것을 모두 돌려주고 삼키지 않을 것이다.
- 19 그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버렸기 때문이다.
- 20 “그는 자신 안에 평온함을 알지 못했으므로,
- 21 그가 삼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 22 그가 충만할 때, 고통이 그를 덮칠 것이다.
- 23 그가 배를 채우려 할 때, 하느님께서 그의 분노의 격렬함을 그에게 쏟아부을 것이다.
- 24 그는 철제 무기에서 도망칠 것이다.
- 25 그가 그것을 뱉어내면, 그것이 그의 몸에서 나온다. 예, 반짝이는 창끝이 그의 간에서 나온다. 공포가 그를 덮친다.
- 26 그의 보물에는 모든 어둠이 쌓인다. 불이 붙지 않은 불이 그를 삼킬 것이다.
- 27 하늘은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다.
- 28 그의 집의 부가 떠나갈 것이다.
- 29 이것은 악한 자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몫이다.

욥기 21장

- 1 그러자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 2 내 말을 잘 들어라.
- 3 내가 말하게 허락해 주고, 내가 말한 뒤에는 비웃어라.
- 4 내가 원망하는 대상이 사람인가?
- 5 나를 보고 놀라라.
- 6 내가 생각할 때마다 두려워진다.
- 7 왜 악인들은 살아남으며,
- 8 그들의 자식은 그들의 눈앞에서 자라나며,
- 9 그들의 집은 두려움 없이 안전하며,
- 10 그들의 수소는 끊임없이 새끼를 낳는다.
- 11 그들은 아이들을 무리처럼 내보낸다.
- 12 그들은 탬버린과 수금에 맞춰 노래하며,
- 13 부유하게 날을 보낸다.
- 14 그들은 하느님에게 말한다. '우리에게서 떠나라.'
- 15 전능자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는가?
- 16 보아라, 그들의 번영은 그들의 손에 있지 않다.
- 17 악인의 등불이 몇 번이나 꺼지며,
- 18 그들이 바람 앞의 겨처럼 되는가?
- 19 너는 말한다. '하느님이 그의 죄를 그의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그 죄를 그 자신에게 갚아 주어, 그가 그것을 알게 하라.
- 20 그의 눈이 자신의 멸망을 보게 하라. 그가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라.
- 21 그가 자신 뒤에 남은 집을 어찌 신경 쓰겠는가?
- 22 누가 하느님께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 23 어떤 이는 풍요롭고 평온하게 죽는다.
- 24 그의 양동이에는 우유가 가득하다.
- 25 다른 이는 영혼의 쓰라림으로 죽고,
- 26 그들은 모두 흙에 누워 잠든다.
- 27 "보라, 나는 너희의 생각을 알고,
- 28 너희가 말하기를, '권세 있는 자의 집은 어디 있는가?
- 29 너희는 길을 지나는 이들을 물어보지 않았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 30 악한 자가 환난의 날까지 보존된다는 것을,
- 31 누가 그의 행위를 그의 앞에서 선포하랴?
- 32 그는 무덤으로 끌려가고, 사람들이 그의 묘를 지킨다.
- 33 계곡의 흙덩이들이 그에게 달콤하다.
- 34 그러므로 너희가 허튼말로 나를 위로할 수 있느냐? 너희의 대답에는 거짓밖에 남아 있지 않다."

욥기 22장

- 1 그러자 테만 사람 엘리파스가 대답하여 말했다,
- 2 사람이 하느님께 유익을 끼칠 수 있겠는가?
- 3 네가 의로운 것이 전능자에게 기쁨이 되는가?
- 4 네가 경건하므로 그가 너를 책망하고 너와 함께 재판에 임하는가?
- 5 네 죄악이 크지 않은가?
- 6 네가 형제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보증을 받았으며,
- 7 피로한 자에게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으며,
- 8 그러나 힘센 자는 땅을 차지하였다.
- 9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보냈다.
- 10 그러므로 울가미가 네 주위에 둘러졌고,
- 11 어둠이 있어 네가 보지 못하게 되었으며,
- 12 “하느님은 하늘의 높은 곳에 계시지 않는가?
- 13 네가 말하기를, ‘하느님께서 무엇을 아시랴?’라고 하였으니,
- 14 짙은 구름이 그를 가리므로 그가 보지 못하고,
- 15 악한 자들이 밟아 온 옛 길을 네가 지키려 하는가?
- 16 그들은 시기 전에 끌려가고,
- 17 하느님께 ‘우리에게서 떠나라!’ 하고 말한 자들이었으니,
- 18 그러나 그가 그들의 집에 좋은 것을 가득 채우셨다.
- 19 의로운 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 20 말하기를, ‘우리와 대적하던 자들이 끊어졌도다.’라고 한다.
- 21 “지금 그와 화해하고 평화를 누려라.
- 22 그의 입에서 교훈을 받으라.
- 23 네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세워질 것이며,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 24 네 보물을 흙에 두어라.
- 25 전능자가 당신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 26 그때 당신은 전능자를 기쁨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 27 당신은 그에게 기도할 것이며, 그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 28 당신이 무엇을 정하면, 그것이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 29 그들이 낮출 때, 당신은 ‘올라가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 30 그는 죄가 없는 자조차 구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손이 깨끗하므로 그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욥기 23장

- ¹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 ² “오늘도 내 원망은 반역이다.
- ³ 내가 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알았다면!
- ⁴ 내가 그 앞에서 내 사건을 정리하리라.
- ⁵ 그가 나에게 무엇이랴 답할지 내가 알리라.
- ⁶ 그가 자신의 힘의 위엄으로 나와 다투시겠는가?
- ⁷ 거기서 의로운 자가 그와 논쟁할 수 있으리라.
- ⁸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는 거기 없고,
- ⁹ 그는 북쪽에서 일하시지만 나는 그를 보지 못한다.
- ¹⁰ 그러나 그는 내가 걷는 길을 알고 계신다.
- ¹¹ 내 발은 그의 발걸음에 붙잡혀 있다.
- ¹²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떠나지 않았다.
- ¹³ 그는 혼자 서 계시며, 누가 그를 막을 수 있겠는가?
- ¹⁴ 그는 내게 정해진 일을 이루신다.
- ¹⁵ 그러므로 나는 그의 앞에서 두려워한다.
- ¹⁶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셨다.
- ¹⁷ 어둠이 오기 전에 내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욥기 24장

- 1 왜 전능자가 시기를 저장해 두지 않으십니까?
- 2 사람들이 경계를 옮기고, 양 떼를 강탈하여 먹습니다.
- 3 그들은 고아의 나귀를 몰아냅니다.
- 4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길에서 쫓아냅니다.
- 5 보십시오, 그들은 사막의 야생 당나귀처럼,
- 6 들판에서 음식을 베어 먹고, 악한 자들의 포도원을 뒤집어줍니다.
- 7 그들은 옷 없이 밤새도록 땅에 누워 있습니다.
- 8 그들은 산의 비에 젖습니다.
- 9 그들은 고아를 젖가슴에서 끌어냅니다.
- 10 그래서 그들은 옷 없이 돌아다니며, 배고파서 곡식단을 메고 다닙니다.
- 11 그들은 이 사람들의 성벽 안에서 기름을 짜냅니다.
- 12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사람들이 신음합니다.
- 13 “이들은 빛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 14 살인자는 아침빛과 함께 일어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죽입니다.
- 15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녁때를 기다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누구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 16 어둠 속에서 그들은 집을 파고듭니다.
- 17 아침은 그들에게 모두 두꺼운 어둠과 같습니다.
- 18 “그들은 물결 위의 거품입니다.
- 19 가뭄과 더위가 눈물을 소비합니다.
- 20 그의 태는 그를 잊습니다.
- 21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를 삼킵니다.
- 22 그러나 하느님은 그의 능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하십니다.
- 23 하느님은 그들에게 안전을 주시고, 그들이 그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십니다.
- 24 그들은 높아지지만, 잠시 후에는 사라집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낮아지고 길에서 제거됩니다.
- 25 지금이 그렇지 않다면, 누가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증명하겠습니까?

욥기 25장

- 1 그러자 숨 사람 빌다가 대답하였다,
- 2 “권세와 두려움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 3 그의 군대를 셀 수 있겠습니까?
- 4 그러면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어찌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 5 보라, 달조차도 빛이 없고,
- 6 벌레에 불과한 사람이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욥기 26장

- 1 그러자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 2 “힘 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단 말입니까?
- 3 지혜가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했단 말입니까?
- 4 당신이 말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 5 “죽은 영혼들이 떨고, 물 아래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떨립니다.
- 6 음부는 주님 앞에 벌거벗은 채 있습니다.
- 7 그분은 공허한 공간 위에 북쪽을 펼치시고,
- 8 무거운 구름 속에 물을 가두시며,
- 9 자신의 보좌의 얼굴을 가리시며,
- 10 물의 표면에 경계를 그으셨습니다.
- 11 하늘의 기둥들이 떨립니다.
- 12 그분의 힘으로 바다를 움직이시며,
- 13 그분의 영으로 하늘을 아름답게 꾸밈니다.
- 14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길의 가장자리에 불과합니다.

욥기 27장

- 1 욥이 다시 비유를 시작하여 말했다.
- 2 "내가 올바름을 빼앗긴 분, 하느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 3 내 생명이 내 안에 아직 남아 있으니,
- 4 내 입은 부당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내 혀는 거짓을 내지 않을 것이다.
- 5 내가 너희를 옳다고 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 6 나는 내 의로움을 붙잡고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 7 "내 원수는 악인처럼 되고,
- 8 불신자에게 죽음에 이르렀을 때 어떤 희망이 있겠느냐?
- 9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느님이 그의 외침을 들으시겠느냐?
- 10 그가 전능자에게 즐거움을 느끼겠느냐?
- 11 내가 너희에게 하느님의 손길에 대해 가르치겠다.
- 12 보아라, 너희 모두가 그것을 스스로 보았다.
- 13 "악인의 몫은 하느님 앞에서 이렇다.
- 14 그의 자식들이 많아도 칼에 죽을 것이고,
- 15 남은 자들은 죽음에 묻힐 것이다.
- 16 비록 그가 흙처럼 은을 쌓아두더라도,
- 17 그가 준비해도 의로운 자가 그것을 입을 것이고,
- 18 그는 나방처럼 집을 짓고,
- 19 부유하게 잠들지만, 다시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 20 공포가 물처럼 그를 덮친다.
- 21 동풍이 그를 끌고 가서 그를 떠나보낸다.
- 22 그것이 그를 향해 덮치고 아끼지 않으며,
- 23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손뼉을 칠 것이다.

욥기 28장

- ¹ 은을 캐는 광산이 분명히 있다.
- ² 철은 땅에서 채취된다.
- ³ 사람은 어둠의 끝을 정한다.
- ⁴ 그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강도를 뚫는다.
- ⁵ 땅에서 빵이 나온다.
- ⁶ 그것의 바위에서 사파이어가 나온다.
- ⁷ 그 길을 맹금류도 알지 못한다.
- ⁸ 거친 짐승도 밟지 않는다.
- ⁹ 그는 화강암 바위에 손을 대고
- ¹⁰ 바위 사이에 수로를 파낸다.
- ¹¹ 그는 시내들을 막아 흘러넘치지 않게 한다.
- ¹²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어지는가?
- ¹³ 사람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
- ¹⁴ 깊음이 말한다. '나에게는 없다.'
- ¹⁵ 그것은 금으로 살 수 없고,
- ¹⁶ 오히르의 금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다.
- ¹⁷ 금이나 유리도 그것과 견줄 수 없고,
- ¹⁸ 산호나 수정을 말로도 언급하지 않는다. 지혜의 값은 진주보다 더 높다.
- ¹⁹ 에티오피아의 황옥도 그것과 견줄 수 없다.
- ²⁰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 ²¹ 모든 살아 있는 자의 눈에서 그것이 숨겨져 있다.
- ²² 파멸과 죽음이 말한다. '우리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 ²³ 하느님은 그 길을 알고,
- ²⁴ 그는 땅 끝까지 바라보신다.
- ²⁵ 그는 바람의 힘을 정하시고, 물을 측량으로 나누신다.
- ²⁶ 그가 비에 법칙을 정하실 때,
- ²⁷ 그는 그것을 보시고 선포하셨다.
- ²⁸ 사람에게 그는 말씀하셨다. '보아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욥기 29장

- ¹ 욥이 다시 비유를 들어 말했다.
- ² 내가 옛날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 ³ 그의 등불이 내 머리 위에 비추던 때를.
- ⁴ 내가 젊음의 날을 보내던 때를.
- ⁵ 전능자가 여전히 나와 함께하시던 때를.
- ⁶ 내 발걸음이 버터로 씻기던 때를.
- ⁷ 내가 성문으로 나가던 때를.
- ⁸ 젊은이들이 나를 보고 숨었다.
- ⁹ 귀족들이 말을 아꼈다.
- ¹⁰ 귀족들의 목소리가 잠잠해졌다.
- ¹¹ 내가 말할 때 귀가 듣고 나를 축복하였으니,
- ¹² 내가 외치는 가난한 자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 ¹³ 죽음의 위협을 받던 자의 축복이 내게 내렸다.
- ¹⁴ 나는 의로움을 입었고, 그것이 나를 옷으로 입혔다.
- ¹⁵ 나는 눈먼 자의 눈이 되었다.
- ¹⁶ 나는 어려운 자의 아버지가 되었다.
- ¹⁷ 나는 불의한 자의 턱을 부수고,
- ¹⁸ 그때 나는 말했다. '내가 내 집에서 죽을 것이다.'
- ¹⁹ 내 뿌리는 물가로 퍼져 있다.
- ²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이 맺혀 있다.
- ²¹ 사람들이 나를 듣고 기다렸다.
- ²² 내 말 이후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 ²³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다.
- ²⁴ 그들이 희망을 잃었을 때, 나는 그들에게 미소 지었다.
- ²⁵ 나는 그들의 길을 택하고 수장처럼 앉아 있었다.

욥기 30장

- 1 지금은 나보다 어린 자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들의 아버지들은 내가 내 양 개들과도 함께 두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 2 그들의 팔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은 늙음이 이미 사라진 자들입니다.
- 3 그들은 기아와 궁핍으로 마르고 말랐습니다.
- 4 그들은 덩불에서 소금나물을 뜯어 먹습니다.
- 5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났습니다.
- 6 그러므로 그들은 무서운 골짜기에서 삽니다.
- 7 그들은 덩불 사이에서 울부짖습니다.
- 8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자식이며, 악한 자들의 자식입니다.
- 9 지금 나는 그들의 노래가 되었고,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 10 그들은 나를 싫어하며, 나를 멀리 떠납니다.
- 11 그가 내 줄을 풀어 버리고, 나를 괴롭혔습니다.
- 12 내 오른쪽에서 떼가 일어납니다.
- 13 그들이 내 길을 망가뜨립니다.
- 14 그들은 넓은 틈을 통해 쏟아져 들어옵니다.
- 15 공포가 나를 덮쳤습니다.
- 16 지금 내 영혼은 내 안에서 쏟아져 나갑니다.
- 17 밤에는 내 뼈가 내 안에서 찢립니다.
- 18 내 옷은 큰 힘으로 찢어졌습니다.
- 19 그가 나를 진흙 속에 던졌습니다. 나는 먼지와 재처럼 되었습니다.
- 20 내가 당신께 부르짖지만, 당신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 21 당신은 나에게 잔인하게 변하셨습니다.
- 22 당신은 나를 바람 위로 들어 올리고, 바람에 흩어뜨리십니다.
- 23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음으로 데려가실 줄 압니다.
- 24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손을 뻗지 않습니까?
- 25 내가 곤란한 이를 위해 울지 않았던가? 가난한 이를 위해 내 영혼이 슬퍼하지 않았던가?
- 26 내가 선을 기대할 때, 악이 닥쳤다.
- 27 내 마음은 괴로워서 쉬지 않는다.
- 28 나는 해 없이 슬퍼하며 걷는다.
- 29 나는 야생아기의 형제가 되었고,
- 30 내 살은 검게 변하여 내게서 벗겨진다.
- 31 그러므로 내 수금은 슬픔으로 바뀌었다.

욥기 31장

- 1 나는 내 눈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 2 하늘의 하느님께서 주시는 몫이 무엇이겠습니까?
- 3 그것은 불의한 자에게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 4 그분께서 내 길을 보지 않으십니까?
- 5 만일 내가 거짓과 함께 걸었고,
- 6 내가 공정한 저울에 달려보게 하소서.
- 7 내 발이 길에서 벗어났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으며, 내 손에 더러움이 붙었다면,
- 8 내가 씨를 뿌리게 하시고, 다른 이가 먹게 하소서. 내 밭의 열매가 뿌리째 뽑히게 하소서.
- 9 만일 내 마음이 여자에게 유혹받았고,
- 10 내 아내가 다른 이에게 밀을 갈게 하소서.
- 11 그것은 끔찍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 12 이는 파멸까지 태워버리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 13 만일 내가 내 남종의 권리를 경시했고,
- 14 그러면 하느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 15 태아로 나를 지으신 분이 그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분이 우리를 모두 태중에서 지으셨지 않습니까?
- 16 만일 내가 가난한 자의 갈망을 거부했고,
- 17 또는 내 한 입을 혼자 먹었고,
- 18 (아니, 어릴 때부터 그는 나와 함께 자라서 마치 아버지처럼 나를 따랐으며,
- 19 만일 내가 벌거벗은 채 죽어가는 이를 보고,
- 20 그의 마음이 나를 축복하지 않았다면,
- 21 만일 내가 고아를 향해 내 손을 들어 올렸고,
- 22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 23 하느님의 재앙이 나에게 무서움이기 때문입니다.
- 24 만일 내가 금을 내 소망으로 삼았고,
- 25 내가 내 재산이 풍부함을 이유로 기뻐했다면,
- 26 해가 빛나는 것을 보고,
- 27 내 마음이 은밀히 유혹을 받았다면,
- 28 이것도 심판관들이 벌할 죄악이 될 것이니,
- 29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보고 기뻐했다면,
- 30 내 입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면,
- 31 내 장막의 사람들이 '그의 고기를 먹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고 말하지 않았다면,
- 32 외국인이 거리에서 야영하지 않았다면,
- 33 내가 아담처럼 내 죄를 숨겼다면,
- 34 많은 무리가 두려워서,
- 35 내 말을 들어주는 이가 있다면!
- 36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고 다니리라,
- 37 내가 그에게 내 걸음 수를 모두 알리리라.
- 38 내 땅이 나를 향해 외친다면,
- 39 내가 돈을 주지 않고 그 땅의 열매를 먹었다면,
- 40 밀 대신 가시덤불이 자라나게 하소서.

욥기 32장

- ¹ 이렇게 세 사람은 욥에게 대답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자기 눈에 의로운 자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 ² 그때 부즈 출신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의 분노가 욥을 향해 일어났다. 그의 분노가 일어난 것은 욥이 하느님을 옹호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 ³ 또 그의 분노는 그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도 일어났다. 그들은 대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욥을 책망했기 때문이다.
- ⁴ 엘리후는 그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욥에게 말할 기회를 기다렸다.
- ⁵ 엘리후가 이 세 사람의 입에서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그의 분노가 일어났다.
- ⁶ 부즈 출신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했다. "나는 젊고, 너희는 아주 늙었다.
- ⁷ 나는 말했다. '날들이 말해야 하며,
- ⁸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다.
- ⁹ 큰 자들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 ¹⁰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 ¹¹ 보라, 나는 너희의 말을 기다렸다.
- ¹² 나는 너희의 말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였다.
- ¹³ 너희가 '우리가 지혜를 찾았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 ¹⁴ 그가 내게 말을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¹⁵ 그들은 놀라서 더 이상 대답하지 않는다.
- ¹⁶ 그들이 말하지 않으므로, 내가 기다릴 것인가?
- ¹⁷ 나도 내 몫을 대답하겠다.
- ¹⁸ 나는 말로 가득 차 있다.
- ¹⁹ 보라, 내 가슴은 뚫리지 않은 포도주 같다.
- ²⁰ 나는 기분이 상쾌해지려고 말할 것이다. 나는 입을 열고 대답하겠다.
- ²¹ 나는 누구의 처지라도 존중하지 않겠다.
- ²² 나는 아첨하는 말을 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욥기 33장

- 1 그러나 욥아, 내 말을 들어라.
- 2 보라, 내가 입을 열었다.
- 3 내 말은 내 마음의 정직함을 풀어낼 것이다.
- 4 하느님의 영이 나를 만들었다.
- 5 네가 능하다면, 나에게 대답해라.
- 6 보라, 나는 하느님 앞에서 네처럼 있다.
- 7 보라, 내 두려움이 너를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다.
- 8 너는 분명히 내 귀에 말했다.
- 9 나는 깨끗하고, 범죄하지 않았다.
- 10 보라, 그는 나를 겨냥해 기회를 찾는다.
- 11 그는 내 발을 나무 발가락에 넣는다.
- 12 보라, 내가 네게 대답하겠다. 네가 여기서는 옳지 않다.
- 13 네가 어찌하여 그와 다투는가?
- 14 하느님은 한 번 말씀하신다.
- 15 밤의 꿈과 환상 속에서.
- 16 그때 그는 사람들의 귀를 열고 그들의 교훈을 봉인한다.
- 17 사람이 자신의 목적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 18 그는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막아낸다.
- 19 그는 침상에서 고통으로 징벌을 받는다.
- 20 그의 생명이 빵을 싫어하게 된다.
- 21 그의 육체는 너무나 쇠약해져 보이지 않는다.
- 22 그의 영혼은 구덩이에 가까이 이른다.
- 23 만일 그 곁에 천사가 있다면,
- 24 그때 하느님은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말씀하신다. '그를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지 말라.'
- 25 그의 육체는 어린이의 육체보다 더 새롭게 될 것이다.
- 26 그는 하느님께 기도하며, 하느님은 그를 기꺼이 받아주신다.
- 27 그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며 말한다. '내가 죄를 지었고, 옳은 것을 왜곡하였다.'
- 28 그는 내 영혼을 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에서 구속하셨다.
- 29 보아라, 하느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 30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되돌려오게 하려고.
- 31 욥아, 잘 들어라. 입을 다물고 있어라. 내가 말하겠다.
- 32 네가 할 말이 있다면 대답하여라.
- 33 아니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입을 다물고 있어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가르치겠다.

욥기 34장

- 1 또 에루후가 대답하여 말했다.
- 2 지혜로운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 3 귀는 말을 시험한다.
- 4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우리 사이에 좋은 것을 알아보자.
- 5 욥이 말하기를, '나는 의로우니, 하느님이 내 의로움을 빼앗으셨다.'라고 했다.
- 6 비록 내가 의로우나, 나는 거짓말쟁이로 여겨진다.
- 7 욥과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 8 그는 불의한 자들과 함께 다니며,
- 9 그가 말하기를, '사람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했다.
- 10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 11 사람의 행위에 따라 그에게 보응하시기 때문이다.
- 12 분명히 하느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 13 누가 그에게 땅을 맡겼는가?
- 14 그가 자기 영혼에 마음을 두시면,
- 15 모든 육체가 함께 죽고, 사람이 티끌로 돌아가리라.
- 16 지금 네가 지혜가 있다면, 이것을 들어라.
- 17 공의를 미워하는 자가 다스릴 수 있겠느냐?
- 18 왕에게 '악한 자'라고 말하는 자가?
- 19 그는 왕과 귀족을 존중하지 않으신다.
- 20 한 순간에 그들은 죽고, 한밤중에 사라진다.
- 21 그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본다.
- 22 어둠이나 어두운 그림자도 그에게는 숨을 수 없다.
- 23 그는 사람을 더 이상 살피볼 필요가 없다.
- 24 그는 알아낼 수 없는 길로 강한 자들을 부수신다.
- 25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알고 계신다.
- 26 그는 악인처럼 그들을 친다.
- 27 그들이 그를 따르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 28 그들이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그에게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 29 그가 평온을 주면,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는가?
- 30 불경한 자가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고.
- 31 누구든지 하느님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 32 내가 보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불의를 저질렀다면,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 33 그의 보응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너희는 그것을 거부하는가?
- 34 지혜 있는 자들이 나에게 말할 것이며, 내 말을 듣는 모든 현명한 자들이 말하리라.
- 35 '욥은 지식 없이 말한다.'
- 36 내가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바란다.
- 37 그는 죄에 반역을 더하고 있다.'

욥기 35장

- ¹ 또 에후부가 대답하여 말했다.
- ² 너는 이것이 너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는가?
- ³ 네가 묻기를, '내가 하느님께 무엇이 이득이 되겠는가?'라고?
- ⁴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다.
- ⁵ 하늘을 올려다보아라.
- ⁶ 네가 죄를 지었어도, 그것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 ⁷ 네가 의로우면, 그에게 무엇을 주는가?
- ⁸ 네가 악을 행하면, 그것은 네가 속한 사람에게 해를 끼칠 뿐이다.
- ⁹ 압제가 많아서 그들이 외친다.
- ¹⁰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내 창조주 하느님은 어디 계신가?'
- ¹¹ 그분은 땅의 짐승보다 우리에게 더 많이 가르치신다.
- ¹² 거기서 그들이 외치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다.
- ¹³ 진실로 하느님은 허무한 외침을 들으시지 않는다.
- ¹⁴ 너는 그분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더 그분이 들으시지 않을 것인가?
- ¹⁵ 지금은 그분이 진노로 찾아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 ¹⁶ 그러므로 욥은 허무한 말로 입을 열었다.

욥기 36장

- 1 엘리후도 이어 말했다,
- 2 잠시만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 3 나는 멀리서 내 지식을 얻겠습니다.
- 4 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 5 보라, 하느님은 위대하시며 아무도 경멸하지 않으신다.
- 6 그분은 악인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신다.
- 7 그분은 의로운 자들의 눈을 떼지 않으신다.
- 8 그들이 죄사슬에 묶이면,
- 9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보여 주신다.
- 10 그분은 그들의 귀를 교훈에 열어 주신다.
- 11 그들이 듣고 그분을 섬기면,
- 12 그러나 듣지 않으면, 칼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 13 마음에 불신을 품은 자들은 분노를 쌓아 둔다.
- 14 그들은 젊은 나이에 죽는다.
- 15 그분은 고난을 통해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 16 그분은 너를 곤경에서 벗어나 넓고 제한 없는 곳으로 이끌어 주려 하셨다.
- 17 너는 악인의 판단으로 가득 차 있다.
- 18 부를 통해 분노를 유혹하지 말고, 뇌물의 크기가 너를 꺾지 못하게 하라.
- 19 네 재산이 너의 곤경을 견뎌내게 해 주겠느냐?
- 20 밤을 갈망하지 말라.
- 21 조심하여 죄악을 바라보지 말라.
- 22 보라, 하느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높이 올라 계신다.
- 23 누가 그분의 길을 정해 주었느냐?
- 24 사람들이 노래해 온 그분의 위대한 행위를 기억하라.
- 25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았다.
- 26 보라, 하느님은 크시며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한다.
- 27 그가 물방울을 끌어올리며,
- 28 하늘에서 쏟아부어,
- 29 실제로 누가 구름이 퍼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 30 보라, 그가 주변에 빛을 펼친다.
- 31 이것들로 그가 백성을 심판한다.
- 32 그가 번개로 자신의 손을 덮으며,
- 33 그 소리는 그에 대해 말한다.

욥기 37장

- 1 이것을 듣고 내 마음이 떨립니다.
- 2 들어라, 들어라, 그의 음성의 울림을.
- 3 그가 그것을 온 하늘 아래로 보낸다.
- 4 그 후에 그의 음성이 울린다.
- 5 하느님께서 그의 음성으로 놀라운 천둥을 친다.
- 6 그가 눈에게 이르기를 ‘땅에 내려라.’ 하고, 비의 소나기에게도 마찬가지로 말한다.
- 7 그가 모든 사람의 손을 봉인한다.
- 8 그러면 짐승들은 은신한다.
- 9 폭풍은 그의 처소에서 나온다.
- 10 하느님의 숨결로 얼음이 생긴다.
- 11 그가 두꺼운 구름을 수분으로 가득 채운다.
- 12 그것은 그의 인도에 따라 둥글게 돈다.
- 13 그것을 보내는 것은 징벌을 위해서인지, 그의 땅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비를 위해서인지.
- 14 이것을 들어라, 욥아.
- 15 하느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네가 아느냐?
- 16 구름의 기묘한 작용을 네가 아느냐?
- 17 남풍이 땅을 고요하게 할 때, 네 옷이 따뜻한 자여.
- 18 네가 그와 함께 하늘을 펼칠 수 있느냐? 그것은 주조된 금속 거울처럼 단단하다.
- 19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말할지 우리에게 가르쳐라.
- 20 내가 말하려 한다는 것이 그에게 전해지겠느냐?
- 21 지금 사람들은 하늘에 빛나는 빛을 보지 못한다.
- 22 북쪽에서 금빛 영광이 나온다.
- 23 우리는 전능자에게 이르지 못한다.
- 24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한다.

욥기 38장

- 1 그러자 주님이 회오리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셨다.
- 2 누가 지혜를 어둡게 하여 이런 말을 하는가?
- 3 사람처럼 단단히 허리를 졸라매라.
- 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 5 그 땅의 치수를 누가 정했는가? 네가 알거든 말해보아라.
- 6 그 기초는 무엇 위에 고정되었느냐?
- 7 아침 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느님의 모든 천사들이 환호하던 그때,
- 8 누가 바다를 문으로 닫아 막았느냐?
- 9 내가 구름을 그 옷으로 삼고, 안개를 그 유두로 덮었을 때,
- 10 내가 그 경계를 정하고,
- 11 '너는 여기까지 오라. 그 이상은 넘지 못하리라.' 하고 말했느냐?
- 12 네가 평생 동안 아침을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 13 그 아침이 땅 끝을 붙잡아 악한 자들을 흔들어내게 하였느냐?
- 14 그것은 봉인된 흙처럼 변형되며,
- 15 악한 자들의 빛은 빼앗기고,
- 16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 17 죽음의 문들이 네게 드러난 적이 있느냐?
- 18 땅의 넓이를 네가 깨달았느냐?
- 19 빛의 거처로 가는 길은 어디인가?
- 20 네가 그 길을 그 경계로 데려가고,
- 21 네가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그때 태어났으니.
- 22 네가 눈의 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 23 내가 환난의 날을 위해 예비해 둔 그것들을?
- 24 번개는 어떤 길을 통해 흩어지는가?
- 25 누가 홍수 물을 위한 수로를 파았는가?
- 26 사람이 없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
- 27 황폐하고 메마른 땅을 만족시키기 위해,
- 28 비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 29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는가?
- 30 깊은 물이 얼면 물이 돌처럼 딱딱해진다.
- 31 너는 플레이아데스 별무리의 결을 묶을 수 있느냐? 오리온의 끈을 풀 수 있느냐?
- 32 너는 별자리들을 제때에 끌어내어 데려갈 수 있느냐?
- 33 너는 하늘의 법칙을 알고 있느냐?
- 34 너는 구름을 향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느냐?
- 35 너는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할 수 있느냐? 그것들이 너에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느냐?
- 36 누가 내면에 지혜를 넣었는가?
- 37 누가 지혜로 구름을 세울 수 있느냐?
- 38 먼지가 덩어리로 굳을 때,
- 39 너는 암사자에게 사냥감을 사냥할 수 있느냐?
- 40 그것들이 등지에 웅크리고 있을 때,

41 누가 까마귀에게 사냥감을 공급하는가?

욥기 39장

1 너는 암산염이 새끼를 낳는 때를 알고 있느냐?

2 그들이 임신 기간을 채우는 달들을 세어 볼 수 있느냐?

3 그들은 몸을 굽히고 새끼를 낳으며, 고통을 끝낸다.

4 그 새끼들은 강해진다.

5 누가 야생 당나귀를 자유롭게 풀어주었느냐?

6 내가 그의 집을 황야로 삼아주었으며,

7 그는 도시의 소란을 경멸하며,

8 산들의 넓은 들판이 그의 풀밭이다.

9 야생 소가 너를 섬기기를 기꺼워하겠느냐?

10 너는 그의 멍에로 야생 소를 갈퀴에 매어 놓을 수 있느냐? 혹은 그가 너를 따라 골짜기를 갈아주겠느냐?

11 그 힘이 크기 때문에 너는 그를 믿겠느냐?

12 너는 그가 네 씨를 집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신뢰하겠느냐?

13 타조의 날개가 자랑스럽게 휘날리지만, 그것이 사랑의 깃털인가?

14 그녀는 알을 땅에 놓고,

15 발이 그것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며,

16 자식들을 잔인하게 대하며, 마치 그것들이 자기 것 같지 않은 듯하다. 비록 그녀의 수고가 헛되더라도, 그녀는 두려움이 없다.

17 이는 하느님이 그녀에게 지혜를 빼앗으셨기 때문이다.

18 그녀가 높이 날아오를 때,

19 너는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20 너는 그를 메뚜기처럼 뛰게 만들었느냐?

21 그는 골짜기에서 발굽을 치며, 자신의 힘을 기뻐한다.

22 그는 두려움을 조롱하며 놀라지 않고,

23 화살주머니가 그를 치며 울리며,

24 그는 격노와 분노로 땅을 흡수한다.

25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는 쿵쿵거리며 '아하!' 하고 외치며 멀리서 전투의 냄새를 맡는다.

26 매가 날아오르는 것이 네 지혜 때문이냐?

27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것이 네 명령 때문이냐?

28 그가 바위 위에 살며 동지를 틀는다.

29 거기서 그는 먹이를 엿본다.

30 그 새끼들도 피를 빨아들인다.

욥기 40장

- ¹ 주님은 욥에게 대답하셨다.
- ² 사람이 전능자와 다투 수 있겠느냐? 하느님과 다투는 자는 대답하게 하라.
- ³ 욥은 주님께 대답하였다.
- ⁴ 보소서, 나는 작고 무가치합니다. 내가 무엇을 당신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 ⁵ 한 번 말했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 ⁶ 주님은 회오리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셨다.
- ⁷ 이제 남자처럼 단단히 허리를 쥐어라.
- ⁸ 네가 내 판단을 무효로 만들려는가?
- ⁹ 네가 하느님처럼 팔이 있는가?
- ¹⁰ 이제 존엄과 위엄을 입어라.
- ¹¹ 분노의 진노를 쏟아라.
- ¹² 사랑하는 모든 자를 보고 낮추어라.
- ¹³ 그들을 모두 흙 속에 묻어라.
- ¹⁴ 그때 내가 너를 칭찬하겠다.
- ¹⁵ 보라, 베헤모트를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만들었다.
- ¹⁶ 보라, 그 힘은 허벅지에 있다.
- ¹⁷ 그 꼬리는 백향목처럼 움직인다.
- ¹⁸ 그 뼈는 동관처럼, 그 다리는 철봉처럼 되어 있다.
- ¹⁹ 그는 하느님이 만드신 것 중 최고이다.
- ²⁰ 산들이 그를 위해 음식을 낸다.
- ²¹ 그는 연꽃 아래에 누워 있다.
- ²² 연꽃들이 그를 그늘로 덮는다.
- ²³ 보라, 강이 범람해도 그는 떨지 않는다.
- ²⁴ 그가 경계할 때, 누구라도 그를 잡을 수 있겠느냐? 누구라도 그 코에 올가미를 끼울 수 있겠느냐?

욥기 41장

- 1 네가 리비아탄을 낚시바늘로 끌어낼 수 있느냐?
- 2 네가 그 코에 줄을 끼울 수 있느냐?
- 3 그가 네게 여러 번 간청하겠느냐?
- 4 그가 네게 계약을 맺겠느냐?
- 5 네가 그를 새처럼 놀려보겠느냐?
- 6 상인들이 그를 거래하겠느냐?
- 7 네가 그 가족에 갈고리 철을 끼울 수 있느냐?
- 8 네 손을 그에게 얹어 보아라. 전투를 떠올리고 다시는 하지 말아라.
- 9 보아라, 그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를 보는 자가 한 사람도 무너지지 않겠느냐?
- 10 그를 일으키려는 자는 아무도 없으니, 그러면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 11 누가 먼저 나에게 주어 내가 갚아야 할 것인가?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 12 내가 그의 지체와 그의 힘센 힘과 그의 아름다운 형체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
- 13 누가 그의 겹옷을 벗길 수 있느냐?
- 14 누가 그의 얼굴 문을 열 수 있느냐?
- 15 그의 비늘은 그의 자랑이며, 단단히 봉인되어 서로 붙어 있다.
- 16 하나가 다른 하나에 가까이 있다.
- 17 그것들은 서로 결합되어 있다.
- 18 그의 재채기는 빛을 발산한다.
- 19 그의 입에서 불꽃이 나고, 불씨가 튀어나온다.
- 20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고,
- 21 그의 숨은 숯불을 피운다.
- 22 그의 목에는 힘이 있다. 공포가 그 앞에서 춤춘다.
- 23 그의 살덩이가 서로 붙어 있다.
- 24 그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며, 아랫부분의 그늘 돌처럼 단단하다.
- 25 그가 일어날 때, 강한 자들도 두려워한다.
- 26 누가 칼로 그를 공격해도 이기지 못한다.
- 27 그는 철을 쥘처럼 여기고, 동을 썩은 나무처럼 본다.
- 28 화살은 그를 도망치게 할 수 없다. 매듭돌은 그에게 갈대처럼 보인다.
- 29 망치는 쥘처럼 여겨진다. 그는 창이 돌진을 웃어넘긴다.
- 30 그의 밑바닥은 날카로운 조각그릇처럼 날카롭고, 진흙 위에 갈기처럼 자국을 남긴다.
- 31 그는 깊은 바다를 끓는 냄비처럼 만든다. 바다를 향유 냄비처럼 만든다.
- 32 그는 뒤에 빛나는 길을 남긴다. 깊은 바다가 흰 머리카락을 가진 것처럼 보일 것이다.
- 33 땅 위에 그와 같은 자는 없으며, 두려움 없이 지어진 자이다.
- 34 그는 높은 모든 것을 본다. 그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다.

욥기 42장

- ¹ 욥이 주님께 대답하여 말했다.
- ² 나는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 ³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식 없이 은밀한 뜻을 가린 자는 누구인가?'
- 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 ⁵ 나는 귀로 주님을 들었지만,
- ⁶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하고, 흙과 재 속에서 회개한다.
- ⁷ 주님이 욥에게 이 말을 하신 후, 주님은 테만 사람 엘리파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진노를 품었다. 너희가 내 종 욥처럼 나에 대해 옳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⁸ 이제 너희는 일곱 수소와 일곱 숫양을 가져다가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한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나는 그를 받아들이겠다. 그래야 내가 너희의 어리석음대로 너희를 대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내 종 욥처럼 나에 대해 옳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⁹ 그러므로 테만 사람 엘리파스와 수히 사람 빌다드와 나아마 사람 소바르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였고, 주님은 욥을 받아들이셨다.
- ¹⁰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욥의 운명을 회복하셨다. 주님은 욥에게 이전보다 두 배를 주셨다.
- ¹¹ 그 후 욥의 모든 형제들과 모든 자매들과 그의 이전에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의 집에서 빵을 먹으며 그와 함께하였다. 그들은 그를 위로하고, 주님이 그에게 내린 모든 재난에 대해 위로하였다. 모두가 돈 한 톨과 금 반지 하나를 그에게 주었다.
- ¹² 주님은 욥의 나중 날을 그의 시작보다 더 많이 복 주셨다. 그는 양 만사천 마리, 낙타 육천 마리, 소 천 쌍, 나귀 천 마리를 가졌다.
- ¹³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있었다.
- ¹⁴ 그는 첫째 딸 이름을 여미마라 하고, 둘째 딸 이름을 케자야라 하고, 셋째 딸 이름을 케렌하푸크라 하였다.
- ¹⁵ 그 땅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는 없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형제들 사이에서 재산을 물려주었다.
- ¹⁶ 이후 욥은 백사십 년을 살며, 그의 아들과 손자들과 증손자들까지 네 대를 보았다.
- ¹⁷ 그리고 욥은 나이 많고 날들이 충만하여 죽었다.

시편 | Psalms

시편 1장

- ¹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 ² 그의 기쁨은 주님의 법에 있고, 그의 법을 낮과 밤에 묵상한다.
- ³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시기 적절한 대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 ⁴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 ⁵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서지 못할 것이며, 죄인들은 의로운 자들의 모임에 서지 못할 것이다.
- ⁶ 주님은 의로운 자의 길을 아신다.

시편 2장

- ¹ 어찌하여 열국이 격노하며
- ² 지상의 왕들이 일어나서
- ³ 우리가 그들의 줄을 끊고
- ⁴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다.
- ⁵ 그때 그는 분노로 그들에게 말할 것이며,
- ⁶ "그러나 내가 나의 성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
- ⁷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니:
- ⁸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열국을 네 유산으로 주리니,
- ⁹ 너는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리라.
- ¹⁰ 그러므로 이제, 왕들이여, 지혜롭게 행동하라.
- ¹¹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며,
- ¹² 아들을 진심으로 숭배하라. 그래야 그가 노하지 않아, 너희가 길에서 망하지 않을 것이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모두 복이 있다.

시편 3장

- ¹ 주님, 제 적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이 많습니다.
- ² 많은 이들이 내 영혼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에게 하느님께 도움이 없습니다." 셀라.
- ³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를 둘러싼 방패입니다.
- ⁴ 내가 내 목소리로 주님께 부릅니다.
- ⁵ 나는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 ⁶ 나는 수만 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 ⁷ 일어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 하느님!
- ⁸ 구원은 주님께 속합니다.

시편 4장

- ¹ 내가 부를 때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의 의로움의 하느님. 내 고통에서 나를 풀어주소서.
- ² 사람들의 아들들아, 내가 영광을 수치로 돌려받는 것이 얼마나 오래겠느냐?
- ³ 그러나 주님께서 경건한 자를 자신을 위해 따로 구별하셨음을 알라.
- ⁴ 두려움에 떨며 죄를 지으지 말라. 침상에서 너희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침묵하라. 셀라.
- ⁵ 의로움의 제물을 바치고 주님을 신뢰하라.
- ⁶ 많은 이들이 말하길,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것인가?'
- ⁷ 당신은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 ⁸ 평화롭게 내가 누워서 잠들겠습니다.

시편 5장

- ¹ 주님,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생각을 살피소서.
- ² 내가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왕이요 내 하느님, 주님.
- ³ 주님, 아침에 당신은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 ⁴ 당신은 악을 기뻐하시는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악은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 ⁵ 교만한 자는 당신의 눈앞에 서지 못합니다.
- ⁶ 당신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 ⁷ 그러나 저는 당신의 자비가 풍성하므로 당신의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 ⁸ 주님, 내 원수들 때문에 당신의 의로움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앞에서 당신의 길을 곧게 펴소서.
- ⁹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 ¹⁰ 하느님, 그들을 유죄로 정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꾸민 계책으로 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많은 죄악으로 인해 그들을 쫓아내소서.
- ¹¹ 그러나 당신을 피난처로 삼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항상 기쁨의 합성을 지르게 하소서. 당신이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당신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 ¹² 당신은 의로운 자를 복 주십니다.

시편 6장

- ¹ 주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진노로 나를 징벌하지 마소서.
- ²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힘이 없습니다.
- ³ 제 영혼도 크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 ⁴ 돌아오소서, 주님. 제 영혼을 구원하소서.
- ⁵ 죽음에서는 주님을 기억하는 이가 없습니다.
- ⁶ 제가 탄식하며 지치고 말았습니다.
- ⁷ 제 눈은 슬픔으로 말라가고 있습니다.
- ⁸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 ⁹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 ¹⁰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워하고 놀라게 하소서.

시편 7장

- ¹ 주님, 내 하느님, 저는 당신에게 피합니다. 저를 쫓는 모든 자들로부터 구원하시고, 건져내소서.
- ² 그들이 내 영혼을 사자처럼 찢어버리고, 아무도 구원하지 못할 때까지 찢어놓지 않게 하소서.
- ³ 주님, 내 하느님, 제가 이 일을 했다면,
- ⁴ 평화로운 이에게 악으로 보답했다면, (아니면, 나의 원수가 아닌 이를 무단으로 탈취했다면,)
- ⁵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잡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며, 내 생명을 땅에 밟아 누르게 하소서.
- ⁶ 일어나소서, 주님, 분노로! 내 원수들의 분노에 맞서 일어나소서. 나를 위해 깨어나소서. 당신은 공의를 명령하셨습니다.
- ⁷ 백성들의 모임이 당신을 둘러싸게 하소서.
- ⁸ 주님은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주님, 내 의로움에 따라 나를 심판하시고,
- ⁹ 악인들의 악을 끝내시고,
- ¹⁰ 내 방패는 하느님과 함께 있습니다.
- ¹¹ 하느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 ¹²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칼을 날카롭게 할 것이며,
- ¹³ 그는 죽음의 도구를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 ¹⁴ 보소서, 그는 불의를 잉태하고, 악을 낳았습니다.
- ¹⁵ 그는 구덩이를 팠습니다.
- ¹⁶ 그가 일으킨 고통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며,
- ¹⁷ 내가 주님의 의로움을 따라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8장

- ¹ 주님,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대한지요!
- ²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술로부터 주님은 힘을 세우셨습니다.
- ³ 내가 주님의 하늘, 주님의 손가락이 만드신 것을 생각할 때,
- 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 ⁵ 주님은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추셨고,
- ⁶ 주님은 그를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 ⁷ 양과 소와 들의 모든 짐승,
- ⁸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 그리고 바다를 지나다니는 모든 것,
- ⁹ 주님,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대한지요!

시편 9장

- 1 나는 온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당신의 모든 놀라운 일을 전하겠습니다.
- 2 나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 3 내 원수들이 뒤로 물러날 때,
- 4 당신은 내 정의로운 일을 지켜주셨습니다.
- 5 당신은 민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 6 적은 끝없는 파멸에 잡혔습니다.
- 7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 8 그분은 의로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 9 주님은 압제받는 자들을 위한 높은 탑이 되실 것입니다.
- 10 당신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당신을 의지할 것입니다.
- 11 시온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 12 피를 갹으시는 분이 그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 13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게 안고 있는 고통을 보소서.
- 14 그러면 내가 당신의 모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 15 민족들이 스스로 파낸 구덩이에 빠져 잠겼습니다.
- 16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 17 악인들은 스올로 뒤로 돌려보내질 것입니다.
- 18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잊혀지지 않으며, 궁핍한 자들의 소망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 19 일어나소서, 주님! 사람이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 20 주님,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소서. 민족들이 자신들이 단지 사람에 불과함을 알게 하소서. 셀라.

시편 10장

- 1 주님,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 2 교만한 악인들이 악한 자를 쫓아잡습니다.
- 3 악인은 마음의 욕망을 자랑합니다.
- 4 악인은 얼굴의 교만으로
- 5 그의 길은 항상 번영합니다.
- 6 그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 7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과 억압으로 가득합니다.
- 8 그는 마을 가까이에 숨어 기다립니다.
- 9 그는 사자처럼 은밀히 매복하여 기다립니다.
- 10 무력한 자들이 짓밟히고, 무너져 그의 힘 아래 쓰러집니다.
- 11 그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잊어버리셨다."
- 12 일어나시오, 주님! 악한 자들을 잊지 마소서.
- 13 어찌하여 악한 자는 하느님을 모독합니까?
- 14 하지만 당신은 고통과 슬픔을 보십니다.
- 15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 16 주님은 영원히, 영원히 왕이십니다!
- 17 주님, 당신은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 18 고아와 억압받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시편 11장

- ¹ 주님께 내가 피합니다. 어찌하여 내 영혼에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합니까?
- ² 보라, 악한 자들이 활을 당긴다.
- ³ 기초가 무너지면,
- ⁴ 주님은 그의 성전에 계신다.
- ⁵ 주님은 의로운 자를 시험하신다.
- ⁶ 악한 자 위에 뜨거운 숯과 불, 유향, 타는 바람이 비처럼 내릴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다.
- ⁷ 주님은 의로우시다.

시편 12장

- ¹ 도우소서, 주님; 경건한 자가 사라졌습니다.
- ² 모든 사람이 이웃을 향해 거짓말합니다.
- ³ 주님, 교활한 입술을 끊어버리소서.
- ⁴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우리가 승리하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에게 속한다. 누가 우리를 주관하랴?' 합니다.
- ⁵ "악한 자의 억압과 가난한 자의 탄식으로 인해,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안전하게 지키리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그를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리라."
- ⁶ 주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 ⁷ 주님, 당신은 그 말씀을 지키시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 ⁸ 악인들은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시편 13장

- ¹ 주님, 얼마나 더 당신은 저를 잊으실 겁니까? 영원히 저를 잊으실 겁니까? 얼마나 더 당신의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실 겁니까?
- ² 얼마나 더 내가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고, 매일 마음에 슬픔을 안고 살아야 합니까?
- ³ 보소서, 대답해 주십시오, 주님, 내 하느님. 내 눈을 밝히소서.
- ⁴ 내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 ⁵ 그러나 저는 당신의 자비를 신뢰합니다.
- ⁶ 저는 주님께 노래하겠습니다.

시편 14장

- ¹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말한다. "하느님은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 ² 주님은 하늘에서 인류를 내려다보셨다.
- ³ 그들은 모두 길을 벗어났다.
- 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모두 지식이 없는가?
- ⁵ 거기서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다.
- ⁶ 당신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꺾으십니다.
- ⁷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기를!

시편 15장

- ¹ 주님, 누가 당신의 성소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 ² 완전히 흠 없이 걸으며 의를 실천하는 자,
- ³ 그의 혀로 남을 헐뜯지 않는 자,
- ⁴ 비열한 자를 그의 눈에 경멸하는 자,
- ⁵ 이자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 자,

시편 16장

- ¹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저는 당신께 피합니다.
- ² 내 영혼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주님입니다. 당신 외에는 제가 좋은 것이 없습니다."
- ³ 땅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
- 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의 슬픔은 더해질 것입니다.
- ⁵ 주님께서 제 몫과 제 잔을 정해주셨습니다. 당신이 제 운명을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 ⁶ 풀이 아름다운 곳에 떨어졌습니다. 예, 저는 좋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 ⁷ 저는 저에게 조언을 주신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예, 밤새 제 마음이 저를 가르칩니다.
- ⁸ 저는 항상 주님을 제 앞에 두었습니다.
- ⁹ 그러므로 제 마음은 기뻐하고, 제 혀는 즐거워합니다.
- ¹⁰ 당신은 제 영혼을 스올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 ¹¹ 당신은 제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편 17장

- ¹ 주님, 나의 의로운 간구를 들으소서.
- ² 내 판결이 주님의 앞에서 나와야 하며, 주님의 눈이 공정을 바라보게 하소서.
- ³ 주님은 내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 ⁴ 사람들의 행위는 주님의 입의 말씀으로 인해,
- ⁵ 내 발걸음은 주님의 길을 붙잡았습니다.
- ⁶ 나는 주님을 부르짖었으니, 주님, 하느님, 나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 ⁷ 주님의 놀라운 자비를 나타내소서.
- ⁸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소서.
- ⁹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로부터,
- ¹⁰ 그들은 완악한 마음을 달아버렸습니다.
- ¹¹ 그들은 이제 우리 발걸음을 둘러쌌습니다.
- ¹² 그는 먹이를 탐하는 사자와 같으며,
- ¹³ 주님, 일어나 그를 맞서소서.
- ¹⁴ 주님의 손으로부터, 주님, 사람들을,
- ¹⁵ 나는 의로움으로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시편 18장

- 1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제 힘입니다.
- 2 주님은 제 바위이시며, 제 요새이시며, 제 구원자이십니다.
- 3 나는 칭찬받을 만한 주님을 부릅니다.
- 4 죽음의 줄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 5 스올의 줄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 6 내 고통 속에서 나는 주님을 부르니,
- 7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렸습니다.
- 8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고, 그의 입에서 타는 불이 나왔으며, 그 불로 숯이 타올랐습니다.
- 9 그는 하늘을 굽히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의 발 밑에는 짙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 10 그는 그룹 위에 타고 날아오르셨으며, 바람의 날개로 날아올랐습니다.
- 11 그는 어둠을 자신의 은신처로 삼으시고, 그의 주위에 어둠, 물의 어둠, 하늘의 짙은 구름을 천막으로 삼으셨습니다.
- 12 그의 앞에 빛이 번쩍일 때, 그의 짙은 구름이 지나가며 우박과 불뚝이 떨어졌습니다.
- 13 주님도 하늘에서 천둥을 치셨습니다.
- 14 그는 화살을 쏘아 흘으셨습니다.
- 15 그때 물의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 16 그는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 17 내 강한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 18 내 환난의 날에 그들이 나를 공격했습니다.
- 19 그는 나를 넓은 곳으로 끌어내셨습니다.
- 20 주님은 나의 의로움에 따라 나를 보상하시고,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나를 갚으셨습니다.
- 21 나는 주님의 길을 지켰습니다.
- 22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었습니다.
- 23 나는 그분 앞에서 흠이 없었습니다.
- 24 그러므로 주님은 나의 의로움과, 그분의 눈앞에서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나를 보상하셨습니다.
- 25 자비로운 이에게는 당신이 자비롭게 나타나십니다.
- 26 정결한 이에게는 당신이 정결하게 나타나십니다.
- 27 당신은 곤경에 빠진 백성을 구원하시며,
- 28 주님, 당신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 29 당신을 통해 나는 군대를 헤치고 나아갑니다.
- 30 하느님의 길은 완전하며,
- 31 주님 외에 누가 하느님이겠습니까?
- 32 내게 힘을 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느님이 누구입니까?
- 33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들어 주시며,
- 34 내 손으로 싸움을 가르치십니다.
- 35 당신은 내 구원의 방패를 주셨습니다.
- 36 당신은 내 발걸음을 넓히시어 내 발밑에 안정을 주셨습니다.
- 37 내 원수들을 쫓아 잡아넘어뜨리겠습니다.
- 38 내가 그들을 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 39 당신은 내게 전투에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 40 당신은 내 원수들이 내 뒤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 41 그들이 부르짖었지만 구원하는 이가 없었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그분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 42 내가 그들을 바람 앞의 먼지처럼 쳐부수었습니다.
- 43 당신은 내게 백성들의 다툼에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 44 그들이 나를 듣기만 하면 나에게 복종합니다.
- 45 외국인들은 기운을 잃고,
- 46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내 바위를 찬양하소서. 내 구원의 하느님을 높이 칭송하소서,
- 47 내게 복수를 베푸시는 하느님,
- 48 그분은 나를 내 원수들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일어나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로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 49 그러므로 내가 열국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50 주님께서 자신의 왕에게 큰 구원을 베푸십니다.

시편 19장

- 1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 2 하루가 또 하루에게 말을 전하고,
- 3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는 어떤 말이나 언어도 없다.
- 4 그들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해 퍼졌으며,
- 5 마치 신랑이 방에서 나와 나오는 것처럼,
- 6 그의 나아감은 하늘 끝에서 시작되며, 그 열기로부터 숨을 곳은 없다.
- 7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되살린다.
- 8 주님의 교훈은 올바르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 9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깨끗하고, 영원히 지속된다.
- 10 그것들은 금보다 더 탐스럽고, 많은 순금보다도 더 탐스럽고, 꿀보다도 더 달며, 벌집에서 뽑은 꿀보다도 더 달다.
- 11 또한 당신의 종은 그것들로 경고를 받는다.
- 12 누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은밀한 잘못들에서 나를 용서하소서.
- 13 또한 나의 종이 교만한 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완전하고, 큰 죄악에서 무죄할 것이다.
- 14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시편 20장

- 1 환난 날에 주님이 당신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 2 성소에서 당신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 3 당신의 모든 제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 4 그가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 5 우리는 당신의 구원으로 승리하겠습니다.
- 6 이제 나는 주님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 7 어떤 이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 8 그들은 굶혀지고 넘어졌습니다.
- 9 주님,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이 우리를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1장

- ¹ 주님, 왕이 당신의 힘을 기뻐하며, 당신의 구원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 ² 당신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 ³ 당신은 선한 축복으로 그를 맞이하셨습니다.
- ⁴ 그가 생명을 구했고, 당신은 그에게 주셨습니다.
- ⁵ 그의 영광은 당신의 구원으로 커다랍니다.
- ⁶ 당신은 그를 영원히 가장 복되게 하셨습니다.
- ⁷ 왕은 주님을 신뢰합니다.
- ⁸ 당신의 손은 당신의 모든 원수를 찾아낼 것입니다.
- ⁹ 당신의 분노의 때에 그들을 불의 화로 만들 것입니다.
- ¹⁰ 당신은 그들의 자손을 땅에서 끊어버릴 것입니다.
- ¹¹ 그들은 당신에게 악을 꾀했고, 성공하지 못할 악을 꾸몄습니다.
- ¹² 당신은 그들이 등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 ¹³ 주님, 당신의 힘으로 높이 들리소서.

시편 22장

- 1 내 하느님, 내 하느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 2 나는 낮동안 외치지만, 당신은 대답하지 않으시며,
- 3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시며,
- 4 우리 조상들은 당신을 신뢰했습니다.
- 5 그들은 당신께 부르짖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신뢰했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 6 나는 벌레에 불과하고, 사람도 아닙니다.
- 7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 8 "그가 주님을 신뢰하니, 주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를. 그가 그를 기뻐하시니, 주님이 그를 건지시기를."
- 9 그러나 당신은 나를 태에서 끌어내셨습니다.
- 10 나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당신께 던져졌습니다.
- 11 가까이 계셔주십시오. 고통이 가까이 왔습니다.
- 12 많은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강한 황소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 13 그들은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사자처럼 잡은 먹이를 찢으며 으르렁댁니다.
- 14 나는 물처럼 쏟아졌습니다.
- 15 내 힘은 냄비 조각처럼 마르고 말았습니다.
- 16 개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 17 내 뼈를 모두 셀 수 있습니다.
- 18 그들은 내 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 19 주님, 가까이 계셔주십시오.
- 20 칼에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 21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 당신은 나를 들소의 뿔에서 건지셨습니다.
- 22 내가 형제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공동체에서 나는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 23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야곱의 모든 자손아,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아, 그분을 두려워하라!
- 24 그분은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경멸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 25 나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 26 온유한 자들이 먹고 배부르며, 주님을 구하는 자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영원히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 27 땅 끝 모든 곳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 28 왕국은 주님의 것입니다.
- 29 땅의 모든 부자들이 먹고 숭배할 것입니다.
- 30 후손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다음 세대들은 주님에 대해 전해 들을 것입니다.
- 31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민족에게 그의 의로움을 선포할 것입니다.

시편 23장

- ¹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 ²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눕히신다.
- ³ 그분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 ⁴ 비록 내가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 ⁵ 당신은 내 앞에 상을 차려 주시고,
- ⁶ 분명히 선함과 자비가 내 평생의 날들 동안 나를 따르리니,

시편 24장

- ¹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 ² 그가 바다 위에 그것을 기초로 세우셨고,
- ³ 누가 주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 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자,
- ⁵ 그는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며,
- ⁶ 이것은 그를 찾는 세대입니다,
- ⁷ 문들아, 머리를 치켜들어라!
- ⁸ 영광의 왕은 누구십니까?
- ⁹ 문들아, 머리를 치켜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치켜들어라,
- ¹⁰ 이 영광의 왕은 누구십니까?

시편 25장

- 1 주님, 제가 제 영을 당신께 드립니다.
- 2 내 하느님, 제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저의 원수들이 저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 3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아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 4 주님, 당신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소서.
- 5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가르치소서.
- 6 주님,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소서.
- 7 제 젊음의 죄와 제 잘못을 기억하지 마소서.
- 8 주님은 선하고 정직하십니다.
- 9 그분은 겸손한 자들을 공정함으로 인도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 10 주님의 모든 길은 자비와 진리입니다.
- 11 주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 12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13 그의 영혼은 편안히 거할 것이다.
- 14 주님의 친밀함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있다.
- 15 내 눈은 항상 주님을 바라본다.
- 16 나에게 돌아오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 17 내 마음의 고난이 커졌사오니, 나를 내 곤경에서 끌어내소서.
- 18 내 괴로움과 수고를 돌아보소서.
- 19 내 원수들을 돌아보소서. 그들이 많습니다.
- 20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 21 정직과 성실이 나를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 22 하느님, 이스라엘을 속량하소서.

시편 26장

- 1 주님, 제가 정직하게 걸어왔으므로 저를 판단하소서.
- 2 주님, 저를 시험하시고 저를 알아보소서.
- 3 당신의 자비가 내 눈 앞에 있으므로,
- 4 저는 거짓된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으며,
- 5 악인들의 모임을 미워합니다.
- 6 저는 순결한 손으로 손을 씻고,
- 7 감사의 소리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 8 주님, 저는 당신의 집, 당신의 거처를 사랑합니다.
- 9 죄인들과 저의 영혼을 모으지 마시고, 피에 목마른 자들과 저의 생명을 함께 끌어모으지 마소서.
- 10 그들의 손에는 악이 가득하니,
- 11 그러나 저는 저의 정직함을 따라 걸으리이다.
- 12 제 발은 평평한 곳에 서 있습니다.

시편 27장

- 1 주님은 내 빛이요 내 구원이시다.
- 2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내 육체를 삼키려 내게 달려들 때,
- 3 비록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치고 전쟁이 나를 향해 일어나더라도,
- 4 내가 주님께 구한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추구하리니,
- 5 환난의 날에 그분이 나를 그의 천막 속에 은밀히 지키실 것이며,
- 6 이제 내 머리가 내 돌레의 원수들 위로 높이 들릴 것이며,
- 7 내가 목소리를 높여 부를 때, 주님,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 8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을 구하라" 할 때,
- 9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당신의 종을 분노로 내치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 10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지라도,
- 11 주님, 당신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 12 내 원수들의 욕망에 나를 넘기지 마소서,
- 13 나는 여전히 이것을 확신합니다:
- 14 주님을 기다리소서. 예, 주님을 기다리소서.

시편 28장

- 1 주님, 제가 당신께 부릅니다.
- 2 내가 당신께 부르짖을 때, 내 간구의 소리를 들으소서.
- 3 악인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 4 그들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악한 행실대로 보답하소서.
- 5 그들이 주님의 행위를 존중하지 않으므로,
- 6 주님을 찬미하라.
- 7 주님은 내 힘이요, 내 방패이십니다.
- 8 주님은 그들의 힘이십니다.
- 9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시편 29장

- 1 능력 있는 자들의 아들들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 2 주님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 3 주님의 음성이 물 위에 있다.
- 4 주님의 음성이 강력하다.
- 5 주님의 음성이 백향목을 부수며, 주님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부수어 조각낸다.
- 6 그가 그것들을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며,
- 7 주님의 음성이 번개를 일으킨다.
- 8 주님의 음성이 광야를 진동시킨다.
- 9 주님의 음성이 사슴으로 하여금 새끼를 낳게 하며,
- 10 주님은 홍수 위에 왕좌에 앉으셨다. 주님은 영원히 왕으로 앉아 계신다.
- 11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시편 30장

- ¹ 주님, 저는 당신을 높이 칭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들어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 ² 내 하느님 주님, 저는 당신께 부르짖었습니다.
- ³ 주님, 당신이 나의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아 있게 하셔서,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 ⁴ 그의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⁵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입니다. 슬픔은 밤 동안 머물 수 있지만,
- ⁶ 나는 내 번영 속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 ⁷ 주님, 당신이 저를 기뻐하실 때, 저의 산을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 ⁸ 주님, 저는 당신께 부르짖었습니다.
- ⁹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면, 내 파멸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 ¹⁰ 주님, 들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 ¹¹ 당신은 저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셨습니다.
- ¹² 이것은 제가 마음으로 당신을 찬양하며 잠잠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편 31장

- 1 주님, 저는 당신에게 피합니다. 제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 2 귀를 기울여 나를 들으소서.
- 3 당신은 나의 바위이자 나의 요새입니다.
- 4 그들이 은밀히 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 5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 6 거짓된 허무한 것들을 나는 미워합니다.
- 7 당신의 자비로 인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 8 당신은 나를 적의 손에 갇아두지 않으셨습니다.
- 9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 10 제 삶은 슬픔으로 소진되었습니다.
- 11 제 모든 적들 때문에 저는 이웃들에게 완전히 경멸받고 있습니다.
- 12 그들은 나를 죽은 자처럼 마음에서 잊어버렸습니다.
- 13 많은 자들의 중상과 사방의 공포를 저는 들었습니다.
- 14 그러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 15 제 시간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제 적들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 16 당신의 종 위에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
- 17 주님, 제가 당신을 부르짖었으니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스올에서 침묵하게 하소서.
- 18 거짓된 입술들이 침묵하게 하소서.
- 19 주님, 당신이 쌓아두신 선은 얼마나 크신지요! 당신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시고, 당신을 피하는 자들을 위해 행하셨습니다.
- 20 당신의 임재의 은밀한 곳에서 당신은 그들을 사람의 음모로부터 숨기실 것입니다.
- 21 주님을 찬양하라.
- 22 나는 급히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끊어졌도다." 하였습니다.
- 23 그의 성도들아, 모두 주님을 사랑하라!
- 24 강하게 되고, 너희 마음이 용기를 얻게 하라.

시편 32장

- 1 죄가 용서되고 죄악이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 2 주님이 죄악을 계산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 3 내가 침묵할 때, 내 뼈가 하루 종일 탄식하며 마르고 말았다.
- 4 주님의 손이 낮과 밤 내 위에 무거웠다.
- 5 내가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였다.
- 6 그러므로 경건한 자는 모두 주님이 찾을 수 있는 때에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 7 주님은 제가 피할 곳입니다. 주님은 제가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저를 둘러싸실 것입니다. 셀라.
- 8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겠다.
- 9 말이나 노새처럼 지혜가 없는 자가 되지 마라. 그들은 잠자리와 줄로 통제받지 않으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
- 10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따르며,
- 11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의로운 자들아, 즐거워하라!

시편 33장

- ¹ 의로운 자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 ² 울조로 주님께 감사드려라.
- ³ 그분께 새 노래를 부르라.
- ⁴ 주님의 말씀은 옳고,
- ⁵ 그분은 의로움과 정의를 사랑하신다.
- ⁶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고,
- ⁷ 바다의 물들을 더미처럼 모으셨다.
- ⁸ 모든 땅의 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라. 세상 모든 주민들이 그분을 경외하라.
- ⁹ 그분이 말씀하시니, 즉시 이루어졌다.
- ¹⁰ 주님은 민족들의 계획을 무효로 만드신다.
- ¹¹ 주님의 계획은 영원히 굳게 서 있다.
- ¹² 주님께서 하느님인 나라는 복받은 자들이다.
- ¹³ 주님은 하늘에서 바라보신다.
- ¹⁴ 자신의 거처에서 땅의 모든 주민들을 내려다보신다.
- ¹⁵ 그분은 그들의 모든 마음을 만드신 분이다.
- ¹⁶ 군대의 수가 많다고 해서 왕이 구원받지 못한다.
- ¹⁷ 말은 안전을 위한 허망한 수단이다.
- ¹⁸ 보라, 주님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있다.
- ¹⁹ 그들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 ²⁰ 우리 영혼은 주님을 기다렸다.
- ²¹ 우리 마음은 그분 안에서 기뻐한다.
- ²² 주님,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였으니, 당신의 자비가 우리 위에 있게 하소서.

시편 34장

- ¹ 나는 항상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 ² 내 영혼은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 ³ 나와 함께 주님을 크게 찬양하십시오.
- ⁴ 나는 주님을 구하였고,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 ⁵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니, 그들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 ⁶ 이 가난한 자가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 ⁷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주위에 진을 칩니다.
- ⁸ 맛보고 보아라,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 ⁹ 주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의 성도들아.
- ¹⁰ 젊은 사자들은 궁핍하고 굶주리지만,
- ¹¹ 자녀들아, 내게 와서 들으라.
- ¹² 누가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을 오래 살고 싶어 하는가?
- ¹³ 네 혀를 악에서 금하고,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끊어라.
- ¹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구하며 추구하라.
- ¹⁵ 주님의 눈은 의로운 자를 향해 있다.
- ¹⁶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있다.
- ¹⁷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으매, 주님이 듣고 구원하신다.
- ¹⁸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
- ¹⁹ 의로운 자의 고난은 많으나,
- ²⁰ 그분은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신다.
- ²¹ 악은 악인을 죽인다.
- ²² 주님은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신다. 그분께 피하는 자는 아무도 벌을 받지 않는다.

시편 35장

- 1 주님, 나와 다투는 자들과 다투소서.
- 2 방패와 투구를 잡으소서.
- 3 창을 휘두르시고 나를 쫓는 자들을 막으소서. 내 영혼에게 말하소서, '내가 네 구원이다.'
- 4 내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 5 그들을 바람 앞의 쪽정이처럼 되게 하소서.
- 6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소서.
- 7 그들이 나를 위해 이유 없이 구덩이에 그물을 숨겼음이니.
- 8 그에게 갑작스럽게 파멸이 임하게 하소서.
- 9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니.
- 10 내 모든 뼈가 말하리라, '주님, 주님과 같은 이가 누구이십니까? 주님께서 악한 자와 가난한 자를 악탈자로부터 구원하시나이다.'
- 11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 12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으니.
- 13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비단을 입었고
- 14 내가 내 친구나 형제처럼 행동하였다.
- 15 그러나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그들은 기뻐하며 모였다.
- 16 잔치에서 비웃는 무신경한 자들처럼,
- 17 주님, 언제까지 당신은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 18 나는 큰 모임에서 당신께 감사드리리이다.
- 19 내 원수들이 부당하게 나를 향해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눈을 깜빡이지 못하게 하소서.
- 20 그들은 평화를 말하지 않으며,
- 21 그들이 내게 맞서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 22 주님, 당신은 보셨습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 23 일어나서 나를 위하여 싸우소서, 내 하느님!
- 24 주님, 내 하느님, 당신의 의로움에 따라 나를 옹호하소서. 그들이 나를 향해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 25 그들이 마음속으로 '아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구나!'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우리가 그를 삼켰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 26 내 환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 27 내 의로운 일을 옹호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항상 '주님이 존엄하게 되기를!'라고 말하게 하소서.
- 28 내 혀는 하루 종일 당신의 의로움과 당신의 찬미를 말할 것입니다.

시편 36장

- ¹ 내 마음속에 악인의 불순종에 관한 계시가 있다.
- ² 그는 자기 눈앞에서 스스로를 아첨하며, 자신의 죄를 알아차리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다.
- ³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의와 속임이다.
- ⁴ 그는 침상에서 불의를 꾸민다.
- ⁵ 주님, 당신의 자비는 하늘에 있습니다.
- ⁶ 당신의 의로움은 하느님의 산들처럼 높습니다.
- ⁷ 하느님, 당신의 자비가 얼마나 귀한지요!
- ⁸ 그들은 당신 집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만족할 것이다.
- ⁹ 당신과 함께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 ¹⁰ 주님, 당신의 자비를 당신을 아는 자들에게 계속하소서.
- ¹¹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 ¹² 거기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넘어졌다.

시편 37장

- 1 악을 저지르는 자들 때문에 마음을 쓰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 질투하지 마라.
- 2 그들은 풀처럼 금방 베어지고, 초록 잔디처럼 시들 것이다.
- 3 주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여라.
- 4 주님을 즐거워하여라.
- 5 네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를 신뢰하여라. 그러면 그가 이를 것이다.
- 6 네 의로움을 빛처럼 드러내시며,
- 7 주님 앞에서 조용히 쉬고, 그를 기다려라. 자기 길에서 성공하는 자 때문에 마음을 쓰지 마라.
- 8 분노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려라. 마음을 쓰지 마라. 그것은 오직 악을 저지르게 할 뿐이다.
- 9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며,
- 10 잠시 후면 악인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네가 그의 자리라도 찾아보아도, 그는 거기 없을 것이다.
- 11 그러나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 12 악인은 의로운 자를 헤아리며 음모를 꾸민다.
- 13 주님은 그를 비웃으실 것이다.
- 14 악인들은 칼을 빼어 활을 굽혔으며,
- 15 그들의 칼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을 것이다.
- 16 의로운 자가 가진 조금이야말로 더 나은 것이다.
- 17 악인의 팔은 부러질 것이며,
- 18 주님은 완전한 자의 날들을 아신다.
- 19 그들은 환난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 20 그러나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다.
- 21 악인은 빌어도 값지 않으며,
- 22 그가 축복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 23 사람의 걸음은 주님께서 굳게 잡아 주신다.
- 24 비록 넘어지더라도, 그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 25 나는 젊었을 때도 있었고, 이제 늙었으나, 나는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자손이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노라.
- 26 그는 하루 종일 은혜를 베풀고 빌려줍니다.
- 27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 28 주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며,
- 29 의로운 자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며,
- 30 의로운 자의 입은 지혜를 말합니다.
- 31 그의 하느님의 법이 그의 마음에 있습니다.
- 32 악인들은 의로운 자를 노려봅니다.
- 33 주님은 그를 그들의 손에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 34 주님을 기다리고 그의 길을 지켜라.
- 35 나는 강력한 악인을 보았습니다.
- 36 그러나 그는 지나가 버렸고, 보라, 그는 없었습니다.
- 37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라.
- 38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 39 그러나 의로운 자의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40 주님은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시편 38장

- 1 주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진노로 나를 징벌하지 마소서.
- 2 당신의 화살이 나를 꿰뚫었으니,
- 3 당신의 진노 때문에 내 육체에 건강이 없고, 내 죄 때문에 내 뼈에 건강이 없습니다.
- 4 내 죄악들이 내 머리 위를 넘쳤습니다.
- 5 내 상처는 역겨우며 썩었습니다.
- 6 내가 고통을 느끼고 크게 굶혀 있습니다.
- 7 내 허리에는 불이 가득합니다.
- 8 내가 힘없이 쇠약하고 심하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 9 주님, 제 모든 소망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 10 제 마음이 두근두근 뛰웁니다.
- 11 제 친구들과 제 사랑하는 이들이 제 병을 피합니다.
- 12 제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가미를 놓고, 제 해를 바라는 자들이 악한 말을 합니다,
- 13 나는 마치 귀머거리처럼 듣지 않습니다.
- 14 나는 마치 듣지 않는 사람처럼 있습니다.
- 15 주님, 저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 16 내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 17 나는 넘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 18 나는 내 죄악을 고백할 것입니다.
- 19 그러나 내 원수들은 강하고 많습니다.
- 20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나의 대적입니다. 나는 선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 21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 22 나를 도우려 속히 오소서.

시편 39장

- 1 나는 말했다. "내 길을 살피어 내 혀로 죄를 짓지 않으리라. 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갈고리를 둘 것이니."
- 2 나는 침묵 속에서 말을 아꼈다.
- 3 내 마음은 내 안에서 뜨거웠다. 내가 묵상할 때, 불이 타올랐다. 내 혀로 말했다.
- 4 "주님, 내 끝을 알려 주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 5 보소서, 당신은 내 날들을 손가락 너비로 정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숨결에 불과합니다." 셀라.
- 6 "모든 사람은 그림자처럼 걸읍니다."
- 7 이제 주님, 내가 무엇을 기다리리이까?
- 8 내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어리석은 자들의 비방이 되지 않게 하소서.
- 9 나는 침묵했습니다.
- 10 당신의 매질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 11 당신이 죄악으로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할 때, 모든 사람은 단지 숨결에 불과합니다." 셀라.
- 12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외침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눈물 앞에서 침묵하지 마소서."
- 13 내가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쉬게 하소서.

시편 40장

- 1 나는 주님을 기다리며 참았습니다.
- 2 그분이 나를 끄적한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 3 그분이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습니다. 우리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많은 이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 4 주님을 자신의 신뢰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 5 내 하느님, 주님, 당신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 6 당신은 제물과 희생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 7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왔습니다.'
- 8 내 하느님,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 9 나는 큰 모임에서 의로움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보소서, 나는 내 입을 닫지 않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아십니다.
- 10 나는 당신의 의로움을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 11 주님, 당신의 자비를 나에게 아끼지 마십시오.
- 12 수없이 많은 재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 13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소서. 주님, 나를 도우시기 속히 오소서.
- 14 내 목숨을 잡으려는 자들이 모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내 고통을 즐기는 자들이 뒤로 물러나 수치를 입게 하소서.
- 15 내게 '아하! 아하!'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들의 수치로 인해 황폐해지게 하소서.
- 16 주님을 찾는 모든 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당신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소서!'
- 17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내 하느님, 늦추지 마소서.

시편 41장

- 1 가난한 이를 돌보는 자는 복이 있다.
- 2 주님은 그를 지키시고, 그를 살아 있게 하신다.
- 3 주님은 그를 병상에서 붙드신다.
- 4 내가 말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 5 내 원수들이 나를 향해 악한 말을 한다. "그가 언제 죽을까? 그의 이름이 언제 사라질까?"
- 6 그가 내게 오면, 거짓말을 한다.
- 7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함께 속삭인다.
- 8 "그에게 악한 병이 들었다."
- 9 내가 신뢰했던, 내 친밀한 친구도 나를 배반했다.
- 10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일으켜 주소서.
- 11 이로써 나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 12 주님은 나를 내 정직함으로 굳게 세우셨습니다.
- 13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을 찬미하소서. 아멘, 아멘.

시편 42장

- ¹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도 당신, 하느님을 찾습니다.
- ² 내 영혼이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을 갈망합니다.
- ³ 내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나이다. 낮과 밤으로.
- ⁴ 이 일을 기억하며, 내 영혼을 내 안에 쏟아냅니다. 내가 무리와 함께 다니며, 그들을 하느님의 집으로 인도하던 그때를.
- ⁵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하느님을 바라라!
- ⁶ 내 하느님,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낙심합니다.
- ⁷ 깊은 것이 깊은 것에 부르며, 당신의 폭포 소리에.
- ⁸ 주님은 낮 동안 당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실 것입니다.
- ⁹ 내 바위이신 하느님께 내가 말하리니, "어찌하여 나를 잊으십니까? 어찌하여 적의 압박으로 인해 내가 슬퍼하며 다니는가?"
- ¹⁰ 내 적들이 내 뼈를 치는 칼처럼 나를 모욕하며, 날마다 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하느님은 어디 있습니까?"
- ¹¹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네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느님을 바라라! 나는 여전히 그를 찬양할 것이다.

시편 43장

- ¹ 나를 변호하소서, 하느님, 불경한 민족과 싸우게 하소서. 오, 거짓되고 악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 ² 당신은 나의 힘의 하느님이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 ³ 오, 당신의 빛과 진리를 보내소서.
- ⁴ 그러면 내가 하느님의 제단에 나아가리니, 내 하느님, 내 하르파로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 ⁵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시편 44장

- ¹ 우리가 귀로 들었사오니, 하느님,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나이다. 그들의 시대에 당신이 하신 일을.
- ²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민족들을 쫓아내셨나이다.
- ³ 그들은 자신의 칼로 땅을 얻지 못했고, 자신의 팔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였나이다.
- ⁴ 하느님, 당신은 내 왕이시니, 야곱을 위하여 승리를 명령하소서!
- ⁵ 당신을 통해 우리는 우리 적들을 쳐부수고, 당신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밟으리이다.
- ⁶ 내가 내 활을 의지하지 않으며,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 ⁷ 그러나 당신은 우리를 우리 적들로부터 구원하셨나이다.
- ⁸ 우리는 하루 종일 하느님을 자랑하나이다.
- ⁹ 그러나 이제 당신은 우리를 거부하시고 우리를 수치롭게 하셨나이다.
- ¹⁰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적 앞에서 뒤로 물러서게 하셨나이다.
- ¹¹ 당신은 우리를 양처럼 먹이로 주셨나이다.
- ¹²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아무것도 받지 않고 팔았나이다.
- ¹³ 당신은 우리를 이웃들의 비웃음으로 삼으셨나이다.
- ¹⁴ 당신은 우리를 만민들 사이에서 조롱거리로 삼으셨나이다.
- ¹⁵ 하루 종일 수치가 내 앞에 있나이다.
- ¹⁶ 비난하고 모욕하는 자의 조롱 때문에.
- ¹⁷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고, 당신의 언약을 배반하지 않았나이다.
- ¹⁸ 우리 마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나이다.
- ¹⁹ 비록 당신이 우리를 하이에나의 굴에서 짓밟으셨으나.
- ²⁰ 만일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이름을 잊었다면,
- ²¹ 하느님께서 이 일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 ²² 네가 위하여 우리는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나이다.
- ²³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거부하지 마소서.
- ²⁴ 어찌하여 당신은 얼굴을 가리시나이까?
- ²⁵ 우리 영혼은 흠에 눌러 있습니다.
- ²⁶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일어나소서.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구속하소서.

시편 45장

- ¹ 내 마음이 고귀한 주제로 넘쳐납니다.
- ² 당신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은총이 당신의 입술에 부어졌으므로, 하느님께서 영원히 당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 ³ 힘 있는 분이여, 칼을 허벅지에 차십시오.
- ⁴ 진리와 겸손과 의로움을 위하여, 당신의 위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소서. 당신의 오른손이 놀라운 일을 나타내게 하소서.
- ⁵ 당신의 화살은 날카롭습니다.
- ⁶ 하느님, 당신의 보좌는 영원무궁합니다.
- ⁷ 당신은 의로움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하느님, 당신의 하느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동료들 위에 기쁨의 기름으로 기름부으셨습니다.
- ⁸ 당신의 모든 옷은 몰약과 알로에와 육계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 ⁹ 왕들의 딸들이 당신의 존귀한 여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 ¹⁰ 들어라, 딸아,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라. 네 민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라.
- ¹¹ 그러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탐내리니, 그를 존중하여라. 그는 네 주님이기 때문이다.
- ¹² 티레의 딸이 선물을 가지고 온다.
- ¹³ 안에 있는 공주는 온통 영광스럽다.
- ¹⁴ 그녀는 수놓은 옷을 입고 왕에게 끌려갈 것이다.
- ¹⁵ 기쁨과 환호로 그녀는 끌려갈 것이다.
- ¹⁶ 네 아들이 네 아버지들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 ¹⁷ 나는 네 이름을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할 것이다.

시편 46장

- ¹ 하느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자 힘이십니다.
- ² 그러므로 우리는 땅이 변하고 산들이 바다의 심장으로 흔들리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 ³ 물이 포효하고 요동치며, 산들이 그 거센 물결로 떨리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셀라.
- ⁴ 하느님의 도시를 기쁘게 하는 강이 있습니다.
- ⁵ 하느님께서 그 안에 계십니다. 그 도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아침에 그녀를 도우십니다.
- ⁶ 나라들이 떠들었고, 왕국들이 흔들렸습니다.
- ⁷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 ⁸ 오라, 주님의 행적을 보라. 그가 땅 위에 어떤 황폐를 가져왔는지를 보라.
- ⁹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신다.
- ¹⁰ 조용히 하여, 내가 하느님임을 알라.
- ¹¹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시편 47장

- ¹ 모든 민족들아, 손을 치며 승리의 함성으로 하느님께 외쳐라!
- ² 주님, 가장 높으신 분은 두려우시다.
- ³ 그분이 우리 아래에 민족들을 복종시키신다.
- 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 유산을 선택하신다.
- ⁵ 하느님께서 함성과 함께 올라가셨다.
- ⁶ 하느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라! 우리 왕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라!
- ⁷ 하느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 ⁸ 하느님은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은 당신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다.
- ⁹ 민족들의 영주들이 모여든다.

시편 48장

- ¹ 주님은 위대하시며 크게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 ² 높이에 아름답고, 온 땅의 기쁨이신 분이십니다.
- ³ 하느님께서 그 성채들에서 피난처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 ⁴ 보십시오, 왕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 ⁵ 그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 떨어졌습니다.
- ⁶ 거기서 두려움이 그들을 잡았고, 분만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아팠습니다.
- ⁷ 동풍으로 당신은 타르시스의 배들을 부수십니다.
- ⁸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굳게 세우십니다. 셀라.
- ⁹ 하느님, 우리는 당신의 자비를 생각했습니다.
- ¹⁰ 하느님, 당신의 이름처럼, 당신의 찬양은 땅 끝까지 미칩니다.
- ¹¹ 시온 산이 기뻐하라!
- ¹² 시온을 두루 돌아보라. 그 탑들을 세어보라.
- ¹³ 그 성벽을 살펴보라. 그 궁전들을 생각하여 다음 세대에 전하라.
- ¹⁴ 이 하느님은 우리 하느님이시며,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시편 49장

- ¹ 모든 백성들아, 이 말을 들어라.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 ² 낮은 자와 높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함께.
- ³ 내 입은 지혜의 말을 흘릴 것이다.
- ⁴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 ⁵ 악한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최악이 내 뒤를 둘러싸니.
- ⁶ 자기 재산을 의지하는 자들,
- ⁷ 그들 중 누구도 형제를 구속할 수 없고, 하느님에게 그의 대가를 바칠 수 없다.
- ⁸ 그들의 생명을 구속하는 대가는 비싸고,
- ⁹ 그가 영원히 살 수는 없고,
- ¹⁰ 그는 지혜로운 자들이 죽는 것을 보고, 어리석은 자와 무지한 자들도 망하는 것을 본다.
- ¹¹ 그들은 자기 집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생각한다.
- ¹² 그러나 사람은 재산이 많아도 영원히 살지 못한다.
- ¹³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운명이다.
- ¹⁴ 그들은 스올의 양 떼처럼 정해졌다. 죽음이 그들의 목자 될 것이며, 그들의 거처에서 멀리 떠나리라.
- ¹⁵ 그러나 하느님께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구속하실 것이다.
- ¹⁶ 사람이 부유해지면 두려워하지 말라.
- ¹⁷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¹⁸ 그가 살아 있을 때 자기 영혼을 축복했을지라도,
- ¹⁹ 그는 조상들의 세대로 갈 것이다.
- ²⁰ 지혜 없이 재산을 가진 사람은,

시편 50장

- ¹ 전능하신 분, 하느님, 주님이 말씀하신다.
- ² 아름다움의 완전한 곳, 시온에서 하느님이 빛나신다.
- ³ 우리 하느님이 오시며 침묵하지 않으신다.
- ⁴ 그분이 위의 하늘을 향해 부르신다.
- ⁵ “내 성도들을 내게 모아라.
- ⁶ 하늘은 그분의 의로움을 선포할 것이다.
- ⁷ “들어라, 내 백성아, 내가 말하겠다.
- ⁸ 내가 네 제사로 인해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 ⁹ 네 우물에서 온 황소를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
- ¹⁰ 모든 들짐승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 ¹¹ 내가 산의 모든 새를 알고 있다.
- ¹² 내가 주려도 네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 ¹³ 내가 황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 ¹⁴ 감사의 제사를 하느님께 드려라.
- ¹⁵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 ¹⁶ 그러나 악인에게 하느님이 말씀하신다. “너는 어찌하여 내 규례를 선포하느냐.
- ¹⁷ 네가 교훈을 미워하니,
- ¹⁸ 네가 도둑을 보고도 그와 동의했으며,
- ¹⁹ “네 입을 악에 내어주었고,
- ²⁰ 네가 앉아서 네 형제를 헐뜯는구나.
- ²¹ 네가 이런 일을 해왔으나 나는 침묵해 왔다.
- ²² “이제 이 일을 생각하라, 하느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 ²³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시편 51장

- 1 하느님, 당신의 자비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많은 인자하심에 따라 나의 죄악을 지워 주소서.
- 2 나의 불의에서 나를 깨끗이 씻으시고, 나의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 3 나는 내 죄악을 알고 있습니다.
- 4 당신, 오직 당신께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 5 보소서, 나는 죄악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 6 보소서, 당신은 내 속 깊은 곳에 진리를 원하십니다.
- 7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이고, 나를 씻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희어질 것입니다.
- 8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 9 나의 죄악에서 당신의 얼굴을 돌이키소서.
- 10 하느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 11 당신의 앞에서 나를 내쫓지 마소서.
- 12 나에게 당신의 구원의 기쁨을 되돌려 주시고, 나를 자유로운 영으로 굳게 잡아 주소서.
- 13 그러면 내가 범죄한 자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칠 것이고, 죄인들이 당신에게로 돌아설 것입니다.
- 14 하느님, 나의 구원의 하느님, 피 흘린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 15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 16 당신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 17 하느님의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 18 시온을 당신의 기뻐하시는 대로 잘 다스리소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소서.
- 19 그러면 당신은 의로운 제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시편 52장

- 1 힘 있는 자여, 어찌하여 악행을 자랑하느냐? 하느님의 자비는 항상 지속된다.
- 2 네 혀는 파멸을 꾀한다.
- 3 네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기보다 거짓을 택한다. 셀라.
- 4 네가 모든 삼키는 말을 사랑한다.
- 5 하느님도 너를 영원히 파멸시킬 것이다.
- 6 의로운 자들도 이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 7 보라, 이 사람은 하느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은 자다.
- 8 나는 하느님의 집에서 푸른 올리브나무와 같다.
- 9 나는 영원히 너에게 감사할 것이다. 이는 주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시편 53장

- 1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하느님은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 2 하느님이 하늘에서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보신다.
- 3 그들 모두가 돌아서서 부패하였다.
- 4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아무 지식도 없느냐?
- 5 거기서 그들은 두려움이 없던 곳에서 큰 두려움에 빠졌다. 하느님이 그들을 거부하셨기 때문이다.
- 6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기를!

시편 54장

- ¹ 내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느님. 당신의 힘으로 나를 옹호하소서.
- ²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느님.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 ³ 이방인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잔인한 자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 ⁴ 보소서, 하느님께서 나의 도우심이십니다.
- ⁵ 그분이 내 원수들에게 악을 갚으실 것이며, 당신의 진리로 그들을 멸하시리이다.
- ⁶ 자유로운 헌물로 내가 당신에게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 ⁷ 그분이 나를 모든 곤란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55장

- ¹ 하느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간구에서 자신을 숨기지 마소서.
- ² 나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내가 불평으로 인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 ³ 적의 소리와 악한 자들의 억압 때문입니다.
- ⁴ 내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 ⁵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덮쳤고, 공포가 나를 압도했습니다.
- ⁶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비둘기의 날개를 가졌다면! 그때 나는 날아가서 편안히 쉬리라."
- ⁷ 보소서, 나는 멀리 떠나 헤매리라.
- ⁸ "바람과 폭풍을 피할 피난처로 빨리 달려가리라."
- ⁹ 주님,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그들의 말을 어지럽히소서. 내가 성안에서 폭력과 다툼을 보았습니다.
- ¹⁰ 그들은 낮과 밤으로 성벽을 맴돕니다. 악의와 모욕도 그 안에 있습니다.
- ¹¹ 파괴의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위협과 거짓이 그 거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 ¹² 나를 모욕한 자가 원수가 아니었고,
- ¹³ 그는 나와 같은 사람이었으며,
- ¹⁴ 우리는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고, 하느님의 집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 ¹⁵ 죽음이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닥치게 하소서.
- ¹⁶ 나는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 ¹⁷ 저녁에도, 아침에도, 정오에도 나는 고통 속에서 외치겠습니다.
- ¹⁸ 그분이 나의 영혼을 평화롭게 구속하셨습니다. 나를 치는 전쟁에서, 비록 많은 이들이 나를 대적하지만.
- ¹⁹ 영원히 앉아 계신 하느님,
- ²⁰ 그는 그의 친구들에게 손을 들어 올립니다.
- ²¹ 그의 입은 버터처럼 부드러웠으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었습니다.
- ²² 주님께 네 짐을 던져라. 그분이 너를 지탱하시리라.
- ²³ 그러나 당신, 하느님, 그들을 멸망의 구렁이에 떨어뜨리실 것입니다. 피에 목마른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절반도 살지 못하리이다.

시편 56장

- ¹ 하느님, 저를 자비로우시게 하소서. 사람이 저를 삼키려 합니다.
- ² 저의 적들이 하루 종일 저를 삼키려 합니다.
- ³ 제가 두려울 때,
- ⁴ 하느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 ⁵ 그들은 하루 종일 제 말을 왜곡합니다.
- ⁶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숨어 제 발걸음을 엿봅니다.
- ⁷ 그들이 죄악으로 도망치겠습니까?
- ⁸ 주님, 제가 헤매는 것을 모두 세어 기록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주님의 책에 있지 않습니까?
- ⁹ 제가 부르는 그 날에 제 적들이 뒤로 물러설 것입니다.
- ¹⁰ 하느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 ¹¹ 저는 하느님을 신뢰합니다.
- ¹² 하느님, 주님의 서원이 저에게 있습니다.
- ¹³ 주님은 저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시편 57장

- ¹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난할 것입니다.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 ² 나는 가장 높으신 하느님께 부르짖습니다.
- ³ 그분이 하늘에서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비와 진리를 보내시리이다.
- ⁴ 내 영혼은 사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아들들로,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처럼 날카롭습니다.
- ⁵ 하느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소서!
- ⁶ 그들이 내 발걸음에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 ⁷ 하느님, 내 마음은 굳건합니다.
- ⁸ 내 영광아, 일어나라! 수금과 비파야, 일어나라!
- ⁹ 나는 민족들 사이에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 ¹⁰ 당신의 위대한 자비가 하늘에 이르며,
- ¹¹ 하느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소서. 당신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8장

- ¹ 침묵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실로 의로움을 말하는가? 인류의 아들들아, 너희가 공정하게 판단하는가?
- ² 아니, 너희는 마음속에 불의를 꾸미고 있다.
- ³ 악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잘못된 길로 떠난다.
- ⁴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고,
- ⁵ 마법사가 아무리 숙련되어도 그들은 마법사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 ⁶ 하느님, 그들의 입에 있는 이빨을 부수소서. 주님, 젊은 사자의 큰 이빨을 꺼내소서.
- ⁷ 그들이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게 하소서.
- ⁸ 그들이 달팽이처럼 녹아 사라지게 하소서.
- ⁹ 가시덤불이 냄비를 데우기 전에,
- ¹⁰ 의로운 자가 복수를 보고 기뻐할 것이며,
- ¹¹ 사람들이 말하리라, '의로운 자에게 보상이 분명히 있다. 땅을 심판하시는 하느님이 분명히 계신다.'

시편 59장

- ¹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내 하느님.
- ²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 ³ 보소서, 그들이 내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 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나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보소서, 나를 도우소서!
- ⁵ 주님, 만군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 ⁶ 그들은 저녁에 돌아와 개처럼 으르렁댁니다.
- ⁷ 보소서, 그들은 입으로 뱉어냅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듣겠는가?' 합니다.
- ⁸ 그러나 당신, 주님, 그들을 조롱하십니다.
- ⁹ 내 힘이신 분,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 ¹⁰ 내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자비로 나보다 앞서 나가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내가 원수들을 이기며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 ¹¹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그래야 내 백성이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힘으로 그들을 흠으시고, 우리 방패이신 주님, 그들을 무너뜨리소서.
- ¹² 그들의 입술의 죄와 말의 죄로 인해,
- ¹³ 분노로 그들을 소멸하소서. 소멸하여 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하느님께서 야곱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 ¹⁴ 저녁에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개처럼 으르렁거리며 성을 돌아다니게 하소서.
- ¹⁵ 그들은 음식을 찾아 헤매며 돌아다닐 것입니다.
- ¹⁶ 그러나 나는 당신의 힘을 노래할 것이며, 아침에 당신의 자비를 크게 노래할 것입니다.
- ¹⁷ 내 힘이신 분, 나는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60장

- ¹ 하느님, 당신은 우리를 거부하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하소서.
- ² 당신은 땅을 진동시키셨습니다. 그 균열을 수리하소서.
- ³ 당신은 당신의 백성에게 힘든 시련을 보이셨습니다.
- ⁴ 당신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셨습니다.
- ⁵ 이로써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 ⁶ 하느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셨다. "내가 승리하리라."
- ⁷ 길르앗은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방패요, 유다는 내 지배의 지팡이이다.
- ⁸ 모압은 내 찢는 그릇이요, 내가 에돔에 내 신을 던지리라. 내가 블레셋 위에서 승리의 함성을 지른다."
- ⁹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인도할 것인가?
- ¹⁰ 하느님, 당신은 우리를 거부하셨지 않습니까?
- ¹¹ 적대자에 대항하여 우리에게 도움을 주소서.
- ¹² 하느님을 통해 우리는 용감히 행동하리라.

시편 61장

- ¹ 하느님, 내 간청을 들으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 ² 땅 끝에서 내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하소서.
- ³ 당신은 내가 피할 보호소가 되셨습니다.
- ⁴ 내가 영원히 당신의 장막에 거주하리이다.
- ⁵ 하느님, 당신은 내 서원을 들으셨습니다.
- ⁶ 당신은 왕의 생명을 길게 하실 것입니다.
- ⁷ 그가 하느님 앞에 영원히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를 지켜 주기 위해 당신의 자비와 진실을 정하소서.
- ⁸ 그러므로 내가 영원히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노래하리이다.

시편 62장

- ¹ 내 영혼은 오직 하느님께만 안식한다.
- ² 그분만이 내 바위이시고, 내 구원이시며, 내 요새이시다.
- ³ 너는 언제까지 사람을 공격할 것인가?
- ⁴ 그들은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온통 꾀한다.
- ⁵ 내 영혼아, 오직 하느님께만 조용히 기다려라.
- ⁶ 그분만이 내 바위이시고, 내 구원이시며, 내 요새이시다.
- ⁷ 내 구원과 내 영광은 하느님께 있다.
- ⁸ 사람들아, 항상 그분을 신뢰하여라.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내어라.
- ⁹ 분명히 낮은 자들은 숨결에 불과하며,
- ¹⁰ 억압을 신뢰하지 말고, 강탈로 헛된 것을 삼지 말며, 그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 ¹¹ 하느님이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이를 들었다.
- ¹² 주님, 주님께도 자비가 속해 있습니다.

시편 63장

- ¹ 하느님, 당신은 제 하느님이십니다.
- ² 그러므로 저는 성소에서 당신을 보았고, 당신의 힘과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 ³ 당신의 자비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 ⁴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당신을 찬미하겠습니다.
- ⁵ 내 영혼은 가장 기름진 음식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 ⁶ 내가 침상에서 당신을 기억할 때,
- ⁷ 당신은 제 도움이 되셨습니다.
- ⁸ 내 영혼은 당신과 가까이 머무릅니다.
- ⁹ 그러나 내 영혼을 죽이려는 자들은,
- ¹⁰ 칼의 권세에 넘겨질 것입니다.
- ¹¹ 그러나 왕은 하느님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 맹세하는 자들은 모두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시편 64장

- ¹ 하느님, 내 간청을 들으소서. 내 생명을 적의 두려움에서 지켜주소서.
- ² 악인들의 음모로부터 나를 숨겨주소서.
- ³ 그들은 혀를 칼처럼 날카롭게 갈고,
- ⁴ 무고한 자를 은밀히 쏘려 합니다.
- ⁵ 그들은 악한 계획을 세우며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 ⁶ 그들은 불의를 꾸미며 말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 ⁷ 그러나 하느님은 그들을 쏘실 것입니다.
- ⁸ 그들의 혀가 스스로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모두가 그들을 보고 머리를 흔들 것입니다.
- ⁹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 ¹⁰ 의로운 자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시편 65장

- ¹ 하느님, 시온에서 당신을 찬양하는 것이 기다립니다. 서원을 당신에게 이행합니다.
- ² 기도를 듣는 분이신 당신에게, 모든 사람이 나아옵니다.
- ³ 죄들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 ⁴ 당신이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신 이는 복이 있습니다.
- ⁵ 당신은 우리 구원의 하느님으로, 위대한 의로움의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 ⁶ 당신은 힘으로 산을 이루시고, 힘으로 자신을 무장하십니다.
- ⁷ 당신은 바다의 포효를 잠잠하게 하시고,
- ⁸ 먼 땅에 사는 자들도 당신의 기적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아침의 새벽과 저녁을 기쁨의 노래로 부르십니다.
- ⁹ 당신은 땅을 방문하여 비를 내리십니다.
- ¹⁰ 당신은 그 땅의 갈퀴 자국을 적시십니다.
- ¹¹ 당신은 해의 해를 당신의 은총으로 관을 씌우십니다.
- ¹² 광야의 풀밭이 넘쳐 흐릅니다.
- ¹³ 초지가 양 떼로 덮입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외치며 노래합니다.

시편 66장

- 1 모든 땅이 하느님께 기쁨의 함성을 지르라!
- 2 그의 이름의 영광을 노래하라. 영광과 찬미를 드러라!
- 3 하느님께 말하라.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힘의 위대함으로,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 4 모든 땅이 당신을 경배하리니,
- 5 오라, 하느님의 일들을 보라—
- 6 그분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셨다.
- 7 그분이 영원히 힘으로 다스리신다. 반역하는 자들이 그분에게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셀라.
- 8 모든 민족들아, 우리 하느님을 찬양하라!
- 9 그분은 우리 생명을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지키시는 분이시니,
- 10 하느님, 당신은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 11 당신은 우리를 옥에 가두셨습니다.
- 12 당신은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과 물을 지나왔습니다,
- 13 내가 번제를 가지고 당신의 성전에 들어가리이다.
- 14 내 입술이 약속한 것을,
- 15 내가 기름진 짐승의 번제를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 16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오라. 들어라.
- 17 내가 내 입으로 그분께 부르짖었다.
- 18 내가 마음속에 죄악을 간직했다면,
- 19 그러나 분명히 하느님은 들어주셨다. 그분은 내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다.
- 20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신 하느님을 찬미하라!

시편 67장

- 1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셀라.
- 2 당신의 길이 땅 위에 알려지게 하소서.
- 3 민족들이여, 하느님을 찬양하소서. 모든 민족들이여, 하느님을 찬양하소서.
- 4 나라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게 하소서.
- 5 민족들이여, 하느님을 찬양하소서.
- 6 땅이 그 수확을 내놓았습니다. 하느님, 우리 자신의 하느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 7 하느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68장

- 1 하느님께서 일어나시어, 그의 원수들이 흩어지게 하소서!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그 앞에서 도망치게 하소서.
- 2 연기처럼 쫓겨나듯,
- 3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기뻐하고, 하느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환호하소서.
- 4 하느님께 노래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구름 위에 타고 다니시는 분을 높이 칭송하라.
- 5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이신 분이시며,
- 6 하느님은 홀로 있는 자를 가족 안에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을 노래하며 끌어내시나, 반역하는 자들은 햇빛에 타는 땅에 거하나이다.
- 7 하느님, 당신이 당신 백성 앞에 나아가실 때,
- 8 땅이 진동하였으며,
- 9 당신, 하느님, 풍성한 비를 내리셨습니다.
- 10 당신의 공동체가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 11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 12 “군대의 왕들이 도망친다! 도망친다!” 집에서 기다리는 여자가 전리품을 나누며,
- 13 당신이 진영의 불가운데 잠들어 있을 때, 그의 깃털은 황금빛으로 빛나나이다.
- 14 전능자가 그 땅에서 왕들을 흠으실 때, 자 산에 눈이 내렸나이다.
- 15 바산의 산들은 위엄 있는 산들이며,
- 16 왜 당신은 시끄러운 산들을 부러워하느냐? 주님께서 그곳에 영원히 거하시리라.
- 17 하느님의 병거는 수만 기, 수만 기나 되나이다.
- 18 당신은 높이 올라가셨고, 사로잡힌 자들을 이끌어가셨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선물을 받으셨고, 반역하는 자들 사이에서도 받으셨으니, 이는 주 하느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려 함이니이다.
- 19 하루하루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구원의 하느님을 찬양하라. 셀라.
- 20 하느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느님이시며,
- 21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치시며,
- 22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바산에서 다시 끌어올리리라,
- 23 너의 발을 피로 적시며 그들을 으깨게 하리라.
- 24 그들이 당신의 행렬을 보았나이다, 하느님, 곧 나의 하느님, 나의 왕이 성소로 들어가는 행렬을 보았나이다.
- 25 노래하는 자들이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뒤를 따랐다.
- 26 "모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라.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주님을 찬미하라!"
- 27 작은 베냐민이 그들의 지도자요,
- 28 당신의 하느님께서 당신의 힘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느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더욱 강화하소서.
- 29 예루살렘의 당신의 성전 때문에, 왕들이 당신에게 예물을 바칠 것입니다.
- 30 갈대의 야수를 책망하소서. 은의 막대기를 발로 짓밟으소서. 전쟁을 즐기는 민족들을 흠으소서.
- 31 왕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것이며, 에티오피아가 손을 하느님께 펴려고 빨리 달려갈 것입니다.
- 32 땅의 모든 왕국들아, 하느님께 노래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셀라—
- 33 옛날부터 있는 하늘 위 하늘을 타고 오시는 분께,
- 34 하느님께 힘을 돌리라!
- 35 당신은 당신의 성소에서 놀라우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 찬미가 있기를!

시편 69장

- 1 하느님, 나를 구원하소서.
- 2 나는 깊은 진흙에 빠져 발 디딜 곳이 없습니다.
- 3 나는 외치며 지쳤고, 내 목은 메말랐으며, 내 눈은 하느님을 기다리다 힘을 잃었습니다.
- 4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카락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를 적대시하는 자들이 강력합니다.
- 5 하느님, 당신은 제 어리석음을 아십니다.
- 6 주님, 만군의 하느님, 나로 인해 당신을 기다리는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나로 인해 당신을 구하는 이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 7 당신을 위해 내가 모욕을 받았습니다.
- 8 내가 내 형제들 사이에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 9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나를 소모합니다.
- 10 내가 울며 금식할 때,
- 11 내가 베옷을 옷으로 입을 때,
- 12 문 앞에 앉은 자들이 나를 말합니다.
- 13 나는 받아들여지는 때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느님, 당신의 자비가 풍성하니, 당신의 구원의 진리로 나에게 응답하소서.
- 14 진흙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내가 빠지지 않게 하소서.
- 15 홍수 물이 나를 덮지 못하게 하시고, 구덩이가 입을 내게 닫지 못하게 하소서.
- 16 주님, 당신의 자비가 선하니, 나에게 응답하소서.
- 17 당신의 종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 18 내 영혼에 가까이 오사 구속하소서. 내 원수들 때문에 나를 속전으로 풀어주소서.
- 19 당신은 나의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십니다.
- 20 모욕이 내 마음을 부수었고, 나는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 21 그들은 내 음식으로 독을 주었고, 내 목마름에 쓴 것을 주었습니다.
- 22 그들의 상이 그들 앞에 올가미가 되게 하소서.
- 23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소서.
- 24 당신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소서. 당신의 진노의 격렬함이 그들을 덮치게 하소서.
- 25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소서. 그들의 천막에 아무도 거주하지 못하게 하소서.
- 26 그들이 주께서 상처 입히신 이를 박해하며, 주께서 괴롭히신 자들의 고통을 전합니다.
- 27 그들에게 죄를 죄 위에 쌓으소서. 그들이 주의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게 하소서.
- 28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소서.
- 29 나는 고통과 괴로움에 빠졌사오니, 하느님, 주의 구원이 나를 보호하소서.
- 30 나는 노래로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 31 이는 뿔과 발굽을 가진 수소나 황소보다 주님께 더 기쁨을 드리리이다.
- 32 온유한 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리이다.
- 33 주님은 궁핍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 34 하늘과 땅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 35 하느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들을 건설하시리니,
- 36 그의 종들의 자손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시편 70장

- ¹ 하느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서둘러 주십시오.
- ²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내 파멸을 바라는 자들은 뒤로 물러나 수치를 입게 하소서.
- ³ 그들이 수치 때문에 뒤로 물러나게 하소서.
- ⁴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느님께서 높임을 받으소서!’
- ⁵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느님, 빨리 나에게 오소서.

시편 71장

- ¹ 주님, 저는 당신에게 피합니다.
- ² 당신의 의로움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소서.
- ³ 나에게 항상 피할 수 있는 바위의 피난처가 되소서.
- ⁴ 내 하느님, 악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 ⁵ 주 하느님, 당신은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 ⁶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당신을 의지했습니다.
- ⁷ 나는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이 되었습니다.
- ⁸ 나의 입은 당신의 찬미로 가득 찰 것입니다.
- ⁹ 나의 늙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힘이 약해질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 ¹⁰ 내 원수들이 나에 대해 수군거립니다.
- ¹¹ 그들이 말하기를, ‘하느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합니다.
- ¹² 하느님, 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마소서.
- ¹³ 나를 고발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소멸되게 하소서.
- ¹⁴ 나는 항상 희망을 두겠습니다.
- ¹⁵ 나의 입은 당신의 의로움을 전할 것입니다.
- ¹⁶ 나는 주 하느님의 위대한 행적을 전하러 갈 것입니다.
- ¹⁷ 하느님, 당신은 제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 ¹⁸ 나이가 들어 회색 머리가 되더라도, 하느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 ¹⁹ 하느님, 당신의 의로움도 하늘에 이릅니다.
- ²⁰ 많고 괴로운 시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신 당신이,
- ²¹ 나의 존엄을 높이시고,
- ²² 내 하느님, 나는 당신의 성실함을 수금으로 찬양하겠습니다.
- ²³ 내 입술은 기쁨으로 외칠 것입니다!
- ²⁴ 내 혀는 하루 종일 당신의 의로움을 말할 것입니다.

시편 72장

- ¹ 하느님, 왕에게 당신의 정의의 주소를;
- ² 그가 당신의 백성을 의로움으로 심판할 것이며,
- ³ 산들이 백성에게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며,
- ⁴ 그가 백성 중 가난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며,
- ⁵ 해가 있는 동안, 그리고 달이 있는 동안, 그를 두려워할 것이며,
- ⁶ 그가 벼인 풀 위에 내리는 비처럼 내려올 것이며,
- ⁷ 그의 시대에 의로운 자들이 번성할 것이며,
- ⁸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통치할 것이며,
- ⁹ 광야에 사는 자들이 그 앞에 엎드릴 것이며,
- ¹⁰ 타르시스와 섬들의 왕들이 공물을 바칠 것이며,
- ¹¹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절할 것이며,
- ¹² 그가 부르짖는 가난한 자를 구원할 것이며,
- ¹³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며,
- ¹⁴ 그가 그들의 생명을 억압과 폭력에서 구속할 것이며,
- ¹⁵ 그가 살며, 세바의 금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며,
- ¹⁶ 땅 전체에 곡식이 풍성할 것이며,
- ¹⁷ 그의 이름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 ¹⁸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을 찬양하라,
- ¹⁹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영원히 찬양받기를!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아멘, 아멘.
- ²⁰ 이것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를 마친다.

시편 73장

- ¹ 분명히 하느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택시다.
- ² 나는 내 발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 ³ 나는 교만한 자들을 시기했다.
- ⁴ 그들의 죽음에는 고난이 없다.
- ⁵ 그들은 사람들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롭다.
- ⁶ 그러므로 교만은 그들의 목에 사슬처럼 둘러져 있다.
- ⁷ 그들의 눈은 살이 찢고 돌출되어 있다.
- ⁸ 그들은 비웃고 악의로 말한다.
- ⁹ 그들은 입을 하늘에 올려놓았다.
- ¹⁰ 그러므로 그들의 백성이 그들에게로 돌아온다.
- ¹¹ 그들은 말한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알겠는가?’
- ¹² 보라, 이것이 악한 자들이다. 그들은 항상 편안하게 지내며 부를 더해간다.
- ¹³ 나는 내 마음을 깨끗이 씻었으나 헛된 일이었다.
- ¹⁴ 나는 하루 종일 괴로움을 겪었다.
- ¹⁵ 내가 ‘이렇게 말하겠다’고 했다면,
- ¹⁶ 내가 이것을 이해하려 애썼을 때,
- ¹⁷ 내가 하느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 ¹⁸ 분명히 당신은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셨고, 파멸로 던지셨습니다.
- ¹⁹ 그들이 갑자기 어떻게 파멸되었는가!
- ²⁰ 한 사람이 깨어날 때의 꿈처럼,
- ²¹ 내 영혼이 슬퍼하였다.
- ²² 나는 어리석고 무지하였다.
- ²³ 그러나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다.
- ²⁴ 당신은 당신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 ²⁵ 하늘에서 나는 누구를 가질 수 있습니까? 당신 외에 땅에서 내가 갈망하는 이는 없습니다.
- ²⁶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약해지지만, 하느님은 내 마음의 힘ियो, 내 영원한 몫입니다.
- ²⁷ 보십시오, 당신에게서 멀리 떠난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 ²⁸ 그러나 나는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74장

- ¹ 하느님,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 ² 옛날에 당신이 사신 공동체를 기억하소서.
- ³ 영원한 파괴의 흔적을 향해 당신의 발을 올리소서.
- ⁴ 당신의 적들이 당신의 모임 한가운데서 으르렁댔습니다.
- ⁵ 그들은 도끼를 들고 나무 숲을 베어내는 자들처럼 행동했습니다.
- ⁶ 이제 그들은 도끼와 망치로 그 모든 조각된 공작물을 부수었습니다.
- ⁷ 그들은 당신의 성소를 땅에 태워버렸습니다.
- ⁸ 그들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리라.'
- ⁹ 우리는 더 이상 기적의 표징을 보지 못합니다.
- ¹⁰ 주님, 적이 얼마나 오래 당신을 모욕할 것입니까?
- ¹¹ 어찌하여 당신은 손, 곧 당신의 오른손을 뒤로 빼십니까?
- ¹² 그러나 하느님은 옛날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 ¹³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바다를 갈라놓으셨습니다.
- ¹⁴ 당신은 레비아탄의 머리를 부수어 조각내셨습니다.
- ¹⁵ 당신은 샘과 시내를 열어주셨고, 강력한 강들을 말리셨습니다.
- ¹⁶ 하루는 당신의 것이고, 밤도 당신의 것입니다.
- ¹⁷ 당신은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 ¹⁸ 적들이 당신을 조롱했다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님.
- ¹⁹ 당신의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내주지 마소서. 당신의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 ²⁰ 당신의 언약을 존중하소서.
- ²¹ 억압받는 자가 수치를 안고 돌아가지 못하게 하소서.
- ²² 일어나소서, 하느님! 당신의 권리를 변호하소서.
- ²³ 당신의 적들의 목소리를 잊지 마소서.

시편 75장

- ¹ 하느님, 우리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이 가까우므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놀라운 일을 전합니다.
- ² 내가 정한 시기에,
- ³ 땅과 그 안의 모든 주민이 떨린다.
- ⁴ 내가 교만한 자들에게 말했다. "자랑하지 마라."
- ⁵ "높이 뿔을 들지 마라. 고개를 곧게 세우며 말하지 마라."
- ⁶ 높임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나 오지 않는다.
- ⁷ 하지만 하느님이 심판자이다.
- ⁸ 주님의 손에는 향신료가 섞인 거품이 치솟는 잔이 있다.
- ⁹ 나는 영원히 이것을 선포하겠다.
- ¹⁰ 나는 악인들의 모든 뿔을 끊겠다.

시편 76장

- ¹ 유다에서는 하느님께서 알려져 계신다. 그분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위대하다.
- ² 그분의 장막도 살렘에 있다.
- ³ 거기서 그분은 활의 불꽃 같은 화살을 부수셨다.
- ⁴ 당신은 영광스럽고 위대하십니다.
- ⁵ 용감한 자들이 약탈당해 잠들었고, 그들의 마지막 잠을 자고 말았다. 전쟁의 모든 용사들은 손을 들지 못한다.
- ⁶ 야곱의 하느님, 당신의 꾸짖음으로,
- ⁷ 당신, 오직 당신만이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당신이 분노하실 때, 누가 당신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 ⁸ 당신은 하늘에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 ⁹ 하느님이 심판을 위해 일어나실 때,
- ¹⁰ 사람의 분노도 오히려 당신을 찬양합니다.
- ¹¹ 주님 너희 하느님께 서약을 하여 그것을 지켜라. 모든 이웃들이 두려워할 분께 예물을 바치게 하라.
- ¹² 그는 왕족들의 영을 끊으신다.

시편 77장

- ¹ 내가 하느님께 외치며, 진실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 ²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 ³ 나는 하느님을 기억하고 신음합니다.
- ⁴ 당신은 내 눈꺼풀을 열어 놓으십니다.
- ⁵ 나는 옛날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 ⁶ 나는 밤에 부르던 노래를 기억합니다.
- ⁷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것입니까?
- ⁸ 그의 자비가 영원히 사라졌습니까?
- ⁹ 하느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 ¹⁰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리라.'
- ¹¹ 나는 주님의 행적을 기억하리라.
- ¹² 나는 당신의 모든 일을 묵상하리라.
- ¹³ 하느님, 당신의 길은 성소에 있습니다.
- ¹⁴ 당신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 ¹⁵ 당신은 당신의 팔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셨습니다.
- ¹⁶ 물들이 당신을 보았습니다, 하느님.
- ¹⁷ 구름들이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 ¹⁸ 당신의 천둥 소리는 회오리바람 속에 있었습니다.
- ¹⁹ 당신의 길은 바다를 통과했고, 당신의 길은 큰 물들을 지나갔습니다. 당신의 발자국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 ²⁰ 당신은 양 떼처럼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78장

- 1 내 가르침을 들으라, 내 백성아.
- 2 내가 비유로 입을 열리라.
- 3 우리가 듣고 알았던 것들,
- 4 우리는 그것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숨기지 않으리라.
- 5 그가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셨으므로,
- 6 미래 세대가 알게 하려 하시고, 태어날 아이들도 알게 하려 하셨으니,
- 7 그들이 하느님을 바라보게 하려 하시고,
- 8 그들의 조상들처럼 되지 않게 하려 하셨으니, 그 조상들은 하느님과 함께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 9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무기를 들고 활을 메었으나,
- 10 그들은 하느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 11 그분의 행적을 잊어버렸다.
- 12 그는 그들의 조상들 앞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
- 13 그가 바다를 갈라 그들을 통과하게 하셨고,
- 14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 15 광야에서 바위를 갈라,
- 16 바위에서 물줄기를 흘러내셨다.
- 17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분을 거스르며 죄를 지었고,
- 18 그들은 마음속에서 하느님을 시험하였다.
- 19 그들은 하느님을 향해 말하였다.
- 20 보라, 그가 바위를 치셨으니, 물이 솟아나고,
- 21 그러므로 주님은 듣고 분노하셨다.
- 22 그들이 하느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 23 그러나 그는 하늘 위에 명령하셨고,
- 24 그들이 먹을 만na를 하늘에서 내리셨다.
- 25 사람들이 천사들의 떡을 먹었다.
- 26 그가 하늘에서 동풍을 일으켰다.
- 27 그가 먼지처럼 그들에게 고기를 비처럼 내리셨다.
- 28 그가 그것을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에 떨어뜨리셨다.
- 29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다.
- 30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 31 하느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일어났을 때,
- 32 이 모든 일에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다.
- 33 그러므로 그가 그들의 날들을 허무하게 소진하셨다.
- 34 그가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이 그를 찾았다. 그들은 돌아와서 하느님을 간절히 구하였다.
- 35 그들은 하느님이 그들의 바위임을 기억하였다.
- 36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 그를 아첨하였다.
- 37 그들의 마음은 그와 옳바르지 않았다.
- 38 그러나 그는 자비로우셔서 죄악을 용서하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다. 그는 여러 번 그의 분노를 돌이키셨다.
- 39 그는 그들이 단지 육체에 불과함을 기억하셨다.
- 40 그들이 광야에서 그를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는가.

- 41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하느님을 시험하였다.
42 그들은 그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다.
43 그가 이집트에서 자신의 표징들을 행하신 것을,
44 그가 그들의 강들을 피로 바꾸셨음을,
45 그가 그들 사이에 파리 떼를 보내어 그들을 삼키게 하셨으며,
46 그가 그들의 수확물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47 그가 우박으로 그들의 포도나무를 파괴하셨으며,
48 그가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넘겨주셨다.
49 그는 그들에게 분노의 격렬함을 쏟아부었다.
50 그는 자신의 분노를 위한 길을 열었다.
51 이집트의 모든 만아들을 치셨다.
52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백성을 양처럼 인도하셨다.
53 그는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다.
54 그는 그들을 자신의 성소의 경계로 데려오셨다.
55 그는 그들 앞에서 민족들을 쫓아내셨다.
56 그러나 그들은 가장 높으신 하느님을 시험하고 반역하였다.
57 그들은 돌아서서 조상처럼 배신하였고, 거짓된 활처럼 꺾였다.
58 그들은 산당으로 그를 격노하게 하였다.
59 하느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셨다.
60 그래서 그는 실로의 장막을 버리셨다.
61 그는 자신의 힘을 사로잡힘에 내주셨다.
62 그는 자신의 백성을 칼에 넘겨주셨다.
63 불이 그들의 젊은이들을 삼켰다.
64 그들의 사제들이 칼에 쓰러졌다.
65 그때 주님은 잠에서 깨어난 듯 일어나셨다.
66 그는 자신의 적들을 뒤로 치셨다.
67 또 그는 요셉의 장막을 거부하셨다.
68 그러나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
69 그는 자신의 성소를 높은 곳처럼 세우셨다.
70 그는 자기 종 다윗을 택하셨다.
71 양을 치며 새끼를 낳는 양 뒤에서 그를 데려오셨다.
72 그는 그의 마음의 성실함을 따라 그들을 목자로 삼으셨다.

시편 79장

- ¹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의 유산을 차지했습니다.
- ² 그들이 당신의 종들의 시체를 하늘의 새들에게 먹이로 주었습니다.
- ³ 그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그들의 피를 물처럼 쏟았으며, 그들을 장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 ⁴ 우리는 우리 이웃들의 비웃음이 되었습니다.
- ⁵ 주님, 이 얼마나 오래도록입니까?
- ⁶ 당신의 진노를 당신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쏟으소서.
- ⁷ 그들이 야곱을 삼켰습니다.
- ⁸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 ⁹ 우리 구원의 하느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 ¹⁰ 어찌하여 민족들이 ‘그들의 하느님은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리이까? 우리 눈앞에서, 민족들 앞에 알려지게 하소서.
- ¹¹ 감옥에 갇힌 자의 탄식이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당신의 능력이 크신 대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을 보존하소서.
- ¹²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의 품에 일곱 배로 갚으소서.
- ¹³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며 당신의 목장의 양이 되어, 영원히, 대대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0장

- ¹ 이스라엘의 목자여, 우리를 들으소서. 요셉을 양 떼처럼 이끄시며 그릇 위에 앉으신 분이여, 빛을 발하소서.
- ²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당신의 힘을 일으키소서.
- ³ 하느님,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
- ⁴ 만군의 주 하느님, 당신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 언제까지 분노하시려 합니까?
- ⁵ 당신은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 ⁶ 당신은 우리를 이웃들 사이에 다툼의 원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 ⁷ 만군의 하느님,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
- ⁸ 당신은 이집트에서 포도나무를 끌어내셨습니다.
- ⁹ 당신은 그 나무를 위해 땅을 정리하셨습니다.
- ¹⁰ 그 나무의 그림자가 산들을 덮었고,
- ¹¹ 그 가지는 바다까지 뻗었으며,
- ¹² 어찌하여 당신은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까?
- ¹³ 숲에서 나온 돼지가 그것을 갇아먹고, 들짐승이 그것을 핏습니다.
- ¹⁴ 만군의 하느님, 다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 ¹⁵ 당신의 오른손이 심은 줄기와,
- ¹⁶ 그것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 ¹⁷ 당신의 오른손에 있는 그 사람 위에 당신의 손을 두소서.
- ¹⁸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 ¹⁹ 만군의 주 하느님,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시편 81장

- ¹ 하느님, 우리의 힘에게 큰 소리로 노래하여라! 야곱의 하느님에게 기쁨의 함성을 지르어라!
- ² 노래를 부르고 탬버린을 가져와라,
- ³ 초하루에 나팔을 불어라,
- ⁴ 이는 이스라엘을 위한 법규이기 때문이다.
- ⁵ 그가 요셉에게 이를 언약으로 정하셨다.
- ⁶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겼다.
- ⁷ 네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뇌성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였다. 내가 메리바의 물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 ⁸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좋겠다.
- ⁹ 너에게 이상한 하느님이 있어서는 안 되고, 너는 어떤 외국의 하느님도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
- ¹⁰ 나는 주님, 네 하느님이다. 네 입을 넓게 벌려라. 내가 그것을 채워주겠다.
- ¹¹ 그러나 내 백성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나를 원하지 않았다.
- ¹² 그래서 나는 그들이 마음의 고집을 따르게 내버려두었다.
- ¹³ 만일 내 백성이 내 말을 듣는다면,
- ¹⁴ 내가 곧 그들의 원수들을 굴복시키리라.
- ¹⁵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분 앞에서 몸을 굽히리라.
- ¹⁶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밀로도 먹이었을 것이다.

시편 82장

- ¹ 하느님께서 큰 공동체에서 재판하십니다.
- ²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불의하게 재판할 것인가?
- ³ 약한 자와 가난한 자, 고아를 옹호하라.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의 권리를 지켜라.
- ⁴ 약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하라.
- ⁵ 그들은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도 못한다.
- ⁶ 내가 말했다. '너희는 하느님들이다.'
- ⁷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고, 모든 지도자처럼 넘어질 것이다.
- ⁸ 일어나시오, 하느님, 땅을 재판하소서.

시편 83장

- ¹ 하느님, 침묵하지 마소서. 하느님, 조용히 앉아 있지 마소서.
- ² 보소서, 당신의 원수들이 움직이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 ³ 그들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 교활하게 음모를 꾸밈니다.
- ⁴ "오라, 우리가 그들을 민족으로 없애자." 그들이 말합니다.
- ⁵ 그들은 한마음으로 함께 음모를 꾸밈니다.
- ⁶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 사람들, 모압과 하그람 사람들,
- ⁷ 게발과 암몬과 아말렉, 블레셋과 시돈 사람들,
- ⁸ 아시리아도 그들과 결합하였습니다.
- ⁹ 미디안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하소서.
- ¹⁰ 그들이 엔돌에서 멸망한 것처럼.
- ¹¹ 그들의 귀족들을 오렙과 시브처럼,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을 세바와 살문나처럼 하소서.
- ¹²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느님의 목초지를 차지하자."고 하였습니다.
- ¹³ 내 하느님, 그들을 풀잎처럼, 바람 앞의 겨처럼 하소서.
- ¹⁴ 숲을 태우는 불처럼,
- ¹⁵ 당신의 폭풍으로 그들을 쫓아내소서.
- ¹⁶ 그들의 얼굴에 수치를 가득 채우소서.
- ¹⁷ 그들이 영원히 부끄러워하고 낙담하게 하소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멸망하게 하소서.
- ¹⁸ 그들이 알게 하소서. 당신만이 주님이라는 이름을 지니신 분이시며, 온 땅 위에 가장 높으신 분임을.

시편 84장

- ¹ 당신의 거처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 ² 내 영혼이 주님의 마당을 갈망하며 힘을 잃습니다.
- ³ 참으로 제비조도 제 집을 찾았고, 만군의 주님, 나의 왕이자 내 하느님의 제단 곁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 ⁴ 당신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 ⁵ 당신 안에 힘을 두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 ⁶ 그들은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며 그것을 샘물이 있는 곳으로 만듭니다. 비가 내려 축복으로 덮입니다.
- ⁷ 그들은 힘에서 힘으로 나아갑니다. 모두 시온에서 하느님 앞에 나타납니다.
- ⁸ 주님, 만군의 하느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느님,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 ⁹ 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느님.
- ¹⁰ 당신의 마당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천 날을 보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 ¹¹ 주님 하느님은 해이자 방패입니다.
- ¹² 만군의 주님, 당신을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85장

- ¹ 주님, 당신은 당신의 땅에 은총을 베푸셨고, 야곱의 운명을 회복하셨습니다.
- ² 당신은 당신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 ³ 당신은 당신의 모든 진노를 제거하셨습니다.
- ⁴ 우리를 되돌리소서, 우리 구원의 하느님,
- ⁵ 당신은 영원히 우리에게 분노하실 것입니까?
- ⁶ 우리를 다시 살리지 않으실 것입니까?
- ⁷ 주님,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당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 ⁸ 나는 하느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들으리라.
- ⁹ 분명히 그의 구원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나이다.
- ¹⁰ 자비와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로움과 평화가 입맞추었도다.
- ¹¹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 ¹² 주님께서도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 우리 땅이 그 수확을 내리라.
- ¹³ 의로움이 그의 앞에서 행하리라.

시편 86장

- ¹ 주님, 들으시고 나에게 대답하소서.
- ² 나의 영혼을 지키소서. 나는 경건합니다.
- ³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⁴ 주님의 종의 영혼에 기쁨을 주소서.
- ⁵ 주님, 당신은 선하시고, 용서를 기다리시며,
- ⁶ 주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 ⁷ 내가 환난을 당하는 날, 나는 당신을 부르리이다.
- ⁸ 주님, 모든 신들 사이에 당신과 같은 이는 없고, 당신의 행위와 같은 일도 없습니다.
- ⁹ 주님, 당신이 만드신 모든 민족이 와서 당신 앞에 경배하리이다.
- ¹⁰ 당신은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 ¹¹ 주님, 당신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 ¹² 나는 전심으로 주님, 내 하느님을 찬양하리이다.
- ¹³ 당신의 자비가 나를 향해 크기 때문입니다.
- ¹⁴ 하느님, 교만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 ¹⁵ 그러나 주님, 당신은 자비롭고 은총 많은 하느님이시며,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고, 자비와 진리가 풍성하십니다.
- ¹⁶ 나를 향해 돌아오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 ¹⁷ 당신의 선하심의 표징을 나에게 보이소서.

시편 87장

- ¹ 그의 기초는 성산에 있다.
- ² 주님은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
- ³ 하느님의 도시여, 네게 대해 영광스러운 일이 말된다. 셀라.
- ⁴ 나는 라하브와 바빌론을 나를 인정하는 자들 가운데 기록하겠다. ‘이 자는 거기서 태어났다.’
- ⁵ 시온에 대해 말하기를, ‘이 자도 저 자도 그녀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리라.
- ⁶ 주님은 백성들을 기록할 때, ‘이 자는 거기서 태어났다.’라고 기록하실 것이다. 셀라.
- ⁷ 노래하는 자들과 춤추는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내 모든 샘은 네 안에 있다.’고 한다.

시편 88장

- ¹ 주님, 나의 구원의 하느님,
- ² 내 기도가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내 외침에 귀를 기울이소서.
- ³ 내 영혼은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 ⁴ 나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 중 하나로 여김을 받습니다.
- ⁵ 죽은 자들 속에서 외로이 떨어져, 당신의 손에서 끊어졌습니다.
- ⁶ 당신은 나를 가장 깊은 구덩이에 내려놓으셨습니다.
- ⁷ 당신의 진노가 나 위에 무겁게 얹혀 있고, 당신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히셨습니다. 셀라.
- ⁸ 당신은 나의 친구들을 나에게서 빼앗으셨습니다.
- ⁹ 내 눈은 슬픔으로 흐릿해졌습니다.
- ¹⁰ 죽은 자들에게 당신은 기적을 보이십니까?
- ¹¹ 무덤에서 당신의 자비가 선포됩니까?
- ¹² 어둠 속에서 당신의 기적이 알려줍니까?
- ¹³ 그러나 주님, 나는 당신께 부르짖었습니다.
- ¹⁴ 주님, 어찌하여 당신은 내 영혼을 거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당신은 내게 얼굴을 가리시나이까?
- ¹⁵ 나는 젊음부터 괴롭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 ¹⁶ 당신의 격렬한 진노가 나를 휩쓸었습니다.
- ¹⁷ 그것들이 하루 종일 물처럼 나를 둘러쌌습니다.
- ¹⁸ 당신은 연인과 친구를 나에게서 멀리 떨어뜨리셨습니다.

시편 89장

- 1 나는 주님의 자비를 영원히 노래할 것입니다. 내 입으로 모든 세대에게 당신의 성실함을 전하겠습니다.
- 2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비는 영원히 굳게 서 있습니다.'
- 3 '나는 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 4 '나는 네 자손을 영원히 굳게 세우겠습니다.'
- 5 하늘들이 주님의 기적을 찬양합니다.
- 6 하늘에서 누가 주님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 7 거룩한 자들의 모임에서 매우 무서운 하느님,
- 8 주님, 만군의 하느님, 누구가 당신처럼 강력합니까?
- 9 당신은 바다의 교만을 다스립니다.
- 10 당신은 라하브를 죽은 자들처럼 부수셨고, 당신의 강한 팔로 당신의 원수들을 홀으셨습니다.
- 11 하늘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 12 당신은 북과 남을 창조하셨습니다. 타보르와 헤르몬이 당신의 이름으로 기뻐합니다.
- 13 당신은 강한 팔을 지니셨습니다. 당신의 손은 강력하고, 당신의 오른손은 높이 올려졌습니다.
- 14 의로움과 정의는 당신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자비와 진실이 당신의 앞에서 나아갑니다.
- 15 당신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 16 그들은 당신의 이름으로 하루 종일 기뻐합니다.
- 17 당신은 그들의 힘의 영광입니다.
- 18 우리의 방패는 주님에게 속합니다.
- 19 그때 당신은 환상으로 당신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20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았다.
- 21 내 손이 그와 함께 굳게 서 있을 것이다.
- 22 적은 그를 억압하지 못할 것이고, 악한 자는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 23 나는 그의 원수들을 그 앞에서 쳐부수겠다.
- 24 그러나 내 성실함과 내 자비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 25 나는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둘 것이다.
- 26 그가 내게 부르리라, '당신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 27 나는 그를 내 첫째 아들로 세우겠다.
- 28 나는 그에게 내 자비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 29 나는 그의 자손이 영원히 계속되게 하겠다.
- 30 만일 그의 자손들이 내 법을 버리고,
- 31 내 규례를 어기면,
- 32 나는 그들의 죄를 지팡이로 벌하겠다.
- 33 그러나 나는 그에게 내 자비를 완전히 거두지 않으며, 내 충성심을 버리지 않겠다.
- 34 나는 내 언약을 깨지 않겠다.
- 35 내 거룩함으로 맹세한 바 있음이라,
- 36 그의 자손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 37 그것은 달처럼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 38 그러나 당신은 거부하고 경멸하셨습니다.
- 39 당신은 당신 종의 언약을 폐기하셨습니다.
- 40 당신은 그의 모든 담을 허물고, 그의 요새들을 파괴하셨습니다.

- 41 모든 길을 지나가는 자들이 그를 약탈합니다.
42 당신은 그의 원수들의 오른손을 높이셨습니다.
43 당신은 그의 칼날을 뒤로 물러서게 하셨습니다.
44 당신은 그의 영광을 끝내셨습니다.
45 당신은 그의 젊음의 날들을 줄이셨습니다.
46 주님, 이 얼마나 오래겠습니까?
47 내 생명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48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겠습니까?
49 주님, 이전의 당신의 자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50 주님, 당신의 종들이 받은 모욕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마음에 모든 강한 민족들의 비방을 안고 있습니다.
51 이것으로 당신의 원수들이, 주님, 비웃었사오니,
52 주님을 영원히 찬미하소서. 아멘, 아멘.

시편 90장

- 1 주님, 당신은 모든 세대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2 산들이 태어나기 전에,
3 당신은 사람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되돌아가라, 인간의 자녀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4 당신의 눈앞에서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와도 같으니,
5 당신은 그들이 잠든 채로 쓸어버리십니다.
6 아침에는 싹이 트고 자라납니다.
7 우리는 당신의 진노로 소멸됩니다.
8 당신은 우리의 죄악을 당신 앞에 놓으셨습니다.
9 우리의 모든 날들이 당신의 분노 속에 지나갔습니다.
10 우리의 연세는 칠십 년, 힘 있는 자는 팔십 년이니,
11 누가 당신의 진노의 힘을 알겠습니까?
12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게 하소서.
13 돌아서시오, 주님!
14 아침에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15 우리가 괴롭힘을 받은 날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6 당신의 행하심을 당신의 종들에게 나타내소서.
17 주 우리 하느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의 행위를 굳게 세우소서.

시편 91장

- 1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 2 내가 주님께 말하리니, 그분은 내 피난처이자 내 요새이십니다.
- 3 그분이 사냥꾼의 올가미에서 너를 건져내실 것이며,
- 4 그분이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실 것이며,
- 5 밤에 두려운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 6 어둠 속을 걷는 전염병도, 낮에 황폐하게 하는 파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 7 너의 옆에서 천 명이 쓰러지고,
- 8 네 눈으로만 볼 것이다.
- 9 당신이 주님을 당신의 피난처로 삼았으므로,
- 10 당신에게 어떤 악도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 11 그가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며,
- 12 그들이 손으로 당신을 떠받쳐 들 것이며,
- 13 당신은 사자와 독사 위를 밟을 것입니다.
- 14 “그가 나를 사랑하므로 내가 그를 구원할 것이며,
- 15 그가 나를 부르면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며,
- 16 나는 그를 오래된 날로 만족하게 할 것입니다.

시편 92장

- 1 주님께 감사 드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 2 아침에 당신의 자비를 선포하며,
- 3 열 줄의 수금과 거문고로,
- 4 주님, 당신이 당신의 사업을 통해 저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 5 주님, 당신의 사업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 6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며, 미련한 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 7 악인들이 풀처럼 자라나지만,
- 8 그러나 주님, 당신은 영원히 높으십니다.
- 9 보십시오, 주님, 당신의 원수들,
- 10 그러나 당신은 내 뿔을 야생 소처럼 높이 올리셨습니다.
- 11 내 눈은 내 원수들을 보았습니다.
- 12 의로운 자는 야자나무처럼 번성할 것입니다.
- 13 그들은 주님의 집에 심어졌습니다. 그들은 우리 하느님의 마당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 14 그들은 늙어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 15 주님이 바르신 것을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내 반석입니다.

시편 93장

- 1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 2 주님의 보좌는 오래전부터 굳게 서 있다.
- 3 홍수가 일어나 올라왔도다, 주님,
- 4 많은 물들의 소리보다 높이
- 5 주님의 법령은 굳게 서 있다.

시편 94장

- 1 주님, 보복을 받으신 하느님, 주님, 보복을 받으신 하느님, 빛나소서.
- 2 땅의 심판자여, 일어나소서.
- 3 주님, 악인들이 얼마나 오래,
- 4 그들은 교만한 말을 쏟아냅니다.
- 5 주님, 그들은 당신의 백성을 짓밟고,
- 6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 7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은 보지 않으실 것이고,
- 8 이 미련한 백성들아, 깨닫게 되소서.
- 9 귀를 만드신 분이 들으시지 않으실까요?
- 10 열국을 교육하시는 분이 벌하지 않으실까요?
- 11 주님은 사람의 생각을 아십니다.
- 12 주님, 당신이 징계하시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 13 이로써 당신이 그에게 악한 날들에서 안식을 주시며,
- 14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 15 의로움이 다시 심판을 이끌 것입니다.
- 16 내가 악인들과 싸우려면 누가 일어나 도와줄까요?
- 17 주님께서 내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 18 내가 말하기를 "내 발이 미끄러질 것이다!" 할 때,
- 19 내 안에 많은 생각이 넘칠 때,
- 20 악의 보좌가 당신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 21 그들은 의로운 자의 생명을 공모하여,
- 22 그러나 주님은 내 높은 탑이 되셨고,
- 23 그들에게 자기 죄악을 돌려주셨습니다.

시편 95장

- 1 오라, 주님께 노래하자.
- 2 감사의 마음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자. 찬양의 노래로 그를 높이자!
- 3 주님은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다,
- 4 그의 손에는 땅의 깊은 곳이 있다.
- 5 바다는 그의 것이며, 그가 그것을 만드셨다.
- 6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엎드려 아뢰자. 우리를 만드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 7 그분은 우리 하느님이시다.
- 8 메리바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 9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던 그때처럼.
- 10 사십 년 동안 나는 그 세대를 괴롭혔다.
- 11 그러므로 내 진노로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시편 96장

- 1 주님께 새 노래를 부르라!
- 2 주님께 노래하라!
- 3 열국 사이에 그의 영광을 선포하라,
- 4 주님은 위대하시며, 매우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 5 모든 민족의 신들은 우상이니,
- 6 존엄과 위엄이 그 앞에 있다.
- 7 열국의 가족들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 8 주님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 9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경배하라.
- 10 열국 사이에서 말하라. “주님이 통치하신다.”
- 11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라.
- 12 들판과 그 안의 모든 것이 기뻐하라!
- 13 주님 앞에서; 그가 오시기 때문이다.

시편 97장

- 1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 2 구름과 어둠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
- 3 불이 그의 앞에서 나아가고,
- 4 그의 번개가 세상을 밝힌다.
- 5 산들이 주님 앞에서 왁스처럼 녹고,
- 6 하늘은 그의 의로움을 선포한다.
- 7 이미지를 숭배하는 자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 8 시온은 듣고 기뻐하였다.
- 9 주님, 당신은 땅 위 모든 이보다 높으십니다.
- 10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악을 미워하라.
- 11 의로운 자를 위하여 빛이 뿌려졌고,
- 12 의로운 자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시편 98장

- 1 주님께 새 노래를 부르라.
- 2 주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셨다.
- 3 그분은 이스라엘 집을 향한 자비와 성실을 기억하셨다.
- 4 모든 땅의 주민들아, 주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기쁨으로 외치며 노래하라, 찬양을 부르라.
- 5 수금으로 주님께 찬양을 부르라.
- 6 나팔과 양의 뿔 나팔로 주님, 곧 왕 앞에서 즐거운 소리를 내라.
- 7 바다가 그 가득함으로 웨쳐라.
- 8 강들아, 손을 치며 박수쳐라. 산들아,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라.
- 9 그들이 주님 앞에서 노래하라.

시편 99장

- ¹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민족들이 떨며, 땅이 움직이게 하소서.
- ² 주님은 시온에서 위대하시다.
- ³ 그들이 당신의 크고 무서운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 ⁴ 왕은 공의를 사랑하시며 힘이 크시다.
- ⁵ 주님 우리 하느님을 높이십시오.
- ⁶ 모세와 아론은 그의 사제들 중에 있었고,
- ⁷ 그분은 구름 기둥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⁸ 주님 우리 하느님, 당신은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 ⁹ 주님 우리 하느님을 높이십시오.

시편 100장

- ¹ 모든 땅들아, 주님께 기쁨으로 외쳐라!
- ²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가라.
- ³ 주님이 곧 하느님이심을 알아라.
- ⁴ 감사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 ⁵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시편 101장

- ¹ 나는 자비와 정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 ² 나는 흠 없이 살아가려 애쓸 것입니다.
- ³ 나는 비열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 ⁴ 곡절된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날 것입니다.
- ⁵ 나는 은밀히 이웃을 헐뜯는 자를 침묵시킬 것입니다.
- ⁶ 내 눈은 땅의 충성된 자들을 바랄 것입니다.
- ⁷ 속임수를 행하는 자는 내 집에 머무르지 못할 것입니다.
- ⁸ 매일 아침, 나는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할 것입니다.

시편 102장

- ¹ 주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간청이 주님께 이르게 하소서.
- ² 내 고통의 날에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부르는 날에 빨리 내게 응답하소서.
- ³ 내 날들이 연기처럼 소멸됩니다.
- ⁴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고 마릅니다.
- ⁵ 내 탄식의 소리 때문에,
- ⁶ 내가 사막의 황새처럼 되었습니다.
- ⁷ 내가 깨어 있어, 홀로 지붕 위에 앉은 참새처럼 되었습니다.
- ⁸ 내 원수들이 하루 종일 나를 비난합니다.
- ⁹ 내가 재를 빵처럼 먹고,
- ¹⁰ 주님의 분노와 진노 때문에,
- ¹¹ 내 날들이 긴 그림자처럼 지나갑니다.
- ¹² 그러나 주님, 주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 ¹³ 주님은 일어나 시온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며, 정해진 때가 왔습니다.
- ¹⁴ 주님의 종들이 그 돌들을 기뻐하며,
- ¹⁵ 모든 나라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땅의 모든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 ¹⁶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습니다.
- ¹⁷ 주님께서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 ¹⁸ 이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 기록될 것입니다.
- ¹⁹ 주님께서 당신의 성소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셨습니다.
- ²⁰ 감옥에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려고,
- ²¹ 사람들이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려고,
- ²² 백성들이 모일 때에,
- ²³ 주님께서 내 힘을 길에서 약하게 하셨습니다.
- ²⁴ 내가 말했습니다. ‘내 하느님, 내 날들이 한가운데에 이르기 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 ²⁵ 처음에 당신이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 ²⁶ 그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당신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 모두가 옷처럼 닳아 없어질 것입니다.
- ²⁷ 그러나 당신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 ²⁸ 당신의 종들의 자손은 계속될 것입니다.

시편 103장

- ¹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²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³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
- ⁴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는 분,
- ⁵ 좋은 것으로 네 갈망을 채워 주시며, 네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게 하시는 분,
- ⁶ 주님은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 ⁷ 모세에게 자신의 길을 알려 주셨으며,
- ⁸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고 인내가 풍부하신 분,
- ⁹ 그는 항상 책망하지 않으시며,
- ¹⁰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으며,
- ¹¹ 하늘이 땅 위에 높은 것처럼,
- ¹² 동쪽이 서쪽과 멀리 떨어진 것처럼,
- ¹³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 ¹⁴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아신다.
- ¹⁵ 사람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 ¹⁶ 바람이 그것을 스쳐 지나가면, 그것은 사라지고, 그가 있던 곳은 더 이상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 ¹⁷ 그러나 주님의 자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미치며,
- ¹⁸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미치며,
- ¹⁹ 주님은 하늘에 자신의 보좌를 굳게 세우셨다.
- ²⁰ 그분의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²¹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²² 그분의 모든 일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시편 104장

- 1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2 그분은 빛을 옷처럼 입으신다.
- 3 그분은 물 위에 방의 기둥을 놓으신다.
- 4 그분은 자신의 사자들을 바람으로, 그분의 봉사자들을 불꽃으로 만드신다.
- 5 그분이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니,
- 6 깊음이 그것을 옷처럼 덮었으며,
- 7 당신의 꾸밈음에 그들이 도망쳤고,
- 8 산들이 솟아올랐으며,
- 9 당신은 그들이 넘지 못하게 경계를 정하셨도다.
- 10 그분이 계곡에 샘을 보내시니, 그것들이 산들 사이를 흐른다.
- 11 그것들이 들의 모든 짐승에게 마실 물을 주며,
- 12 하늘의 새들이 그 곁에 둥지를 틀고,
- 13 그분이 자신의 방에서 산들을 적신다.
- 14 그분이 가축을 위해 풀을 자라게 하시며,
- 15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 16 주님의 나무들은 물을 충분히 받고,
- 17 거기서 새들이 둥지를 틀며,
- 18 높은 산들은 야생 염소들의 처소이다.
- 19 그분이 달을 계절을 위한 표징으로 정하셨고,
- 20 당신은 어둠을 만들고 밤이 되게 하시며,
- 21 젊은 사자들이 사냥한 것을 향해 으르렁댄다.
- 22 해가 떠오르면 그들은 몰래 물러가고,
- 23 사람은 자기 일로 나가서,
- 24 주님, 당신의 행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 25 거기 바다가 있고, 크고 넓으며,
- 26 거기 배들이 다니고,
- 27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 28 당신이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이 모읍니다.
- 29 당신이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 30 당신이 당신의 영을 보내시면, 그들이 창조됩니다.
- 31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 32 그가 땅을 바라보시면, 땅이 떨립니다. 그가 산들을 만지시면, 연기나옵니다.
- 33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 34 내가 묵상하는 것이 그에게 달콤하기를 바랍니다.
- 35 죄인들이 땅에서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장

- 1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 2 그에게 노래하라, 그에게 찬미를 드려라!
- 3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뻐하라.
- 4 주님과 그의 힘을 구하라.
- 5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
- 6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 7 그는 주님, 우리 하느님이시다.
- 8 그는 영원히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 9 그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 10 야곱에게 법으로 확정하셨다.
- 11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 12 그들이 매우 적은 수였고, 그 땅에서는 겨우 몇 명에 불과한 외국인이었을 때이다.
- 13 그들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떠돌았다.
- 14 그는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는 그들을 위해 왕들을 책망하셨다.
- 15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만지지 말라!
- 16 그가 그 땅에 기근을 불러일으켰다.
- 17 그는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다.
- 18 그들은 그의 발을 쇠사슬로 묶었다.
- 19 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 20 왕이 보내어 그를 풀어주었고, 민족들의 통치자도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 21 그가 그를 자기 집의 주인으로 삼았고,
- 22 그의 뜻대로 그의 귀족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 23 이스라엘도 이집트에 들어갔다.
- 24 그가 그의 백성을 크게 늘리셨다.
- 25 그가 그들의 마음을 돌려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다.
- 26 그가 그의 종 모세를 보내셨다.
- 27 그가 그들 사이에서 기적을 행하셨다.
- 28 그가 어두움을 보내어 어둡게 하셨다.
- 29 그가 그들의 물을 피로 바꾸셨다.
- 30 그들의 땅은 개구리로 가득했고, 왕들의 궁전 안까지도 그랬다.
- 31 그가 말씀하시니 파리 떼가 왔다.
- 32 그가 비 대신 우박을 주셨다.
- 33 그가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셨다.
- 34 그가 말씀하시니 메뚜기와 벌레가 수없이 왔다.
- 35 그들이 그들의 땅의 모든 식물을 먹어치웠다.
- 36 그가 그들의 땅의 모든 만아들을 치셨다.
- 37 그가 은과 금을 지니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의 지파들 사이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 38 그들이 떠날 때 이집트는 기뻐하였다.
- 39 그가 구름을 덮개로 펼치시고, 밤에는 불을 빛으로 주셨다.
- 40 그들이 요청하자 그가 메추라기를 가져오셨다.

- ⁴¹ 그가 바위를 열어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물이 메마른 땅에서 강처럼 흘렀다.
- ⁴² 그가 그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 ⁴³ 그가 그의 백성을 기쁨으로 인도하셨다.
- ⁴⁴ 그가 그들에게 열국의 땅을 주셨다.
- ⁴⁵ 그들이 그의 율법을 지키게 하려 하셨다.

시편 106장

- 1 주님을 찬양하라!
- 2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 3 정의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항상 옳은 일을 하는 자는 복이 있다.
- 4 주님, 주께서 당신 백성에게 베푸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
- 5 내가 주께서 택하신 자들의 번영을 보게 하소서.
- 6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불의를 저질렀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 7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주님의 기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 8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 9 그가 붉은 바다를 꾸짖으셨더니 마르고, 그가 사막처럼 깊은 곳을 따라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 10 그가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 11 물들이 그들의 원수들을 덮었습니다.
- 12 그때 그들은 그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 13 그들은 곧 그의 행적을 잊어버렸습니다.
- 14 그러나 사막에서 욕망에 굴복했습니다.
- 15 그가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 16 그들은 진영에서 모세를 시기했습니다.
- 17 땅이 열려 다단을 삼켰습니다.
- 18 그들의 무리 속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 19 그들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 20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 21 그들은 자기 구원자 하느님을 잊었습니다.
- 22 암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을.
- 23 그러므로 그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 24 그들은 아름다운 땅을 경멸했습니다.
- 25 그러나 그들의 천막에서 불평하였다.
- 26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 27 그들이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의 자손을 멸망시키리라.
- 28 그들은 또한 바알 베오르에 붙어 그를 숭배하였다.
- 29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행위로 그를 격노하게 하였다.
- 30 그때 핀하스가 일어나 심판을 집행하였다.
- 31 그것이 그에게 의로움으로 간주되었다.
- 32 그들은 메리바의 물에서 그를 격노하게 하였다.
- 33 그들이 그의 영에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 34 그들은 민족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다.
- 35 그러나 그들은 민족들과 섞였다.
- 36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다.
- 37 그들은 자기 아들과 딸들을 악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다.
- 38 그들은 무죄한 피, 곧 자기 아들과 딸들의 피를 흘렸다. 그들은 이 피를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바쳤다.
- 39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행위로 더러워졌다.
- 40 그러므로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 ⁴¹ 그는 그들을 민족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 ⁴² 그들의 원수들도 그들을 억압하였다.
- ⁴³ 그는 여러 번 그들을 구원하셨다.
- ⁴⁴ 그러나 그는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다.
- ⁴⁵ 그는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 ⁴⁶ 그는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 ⁴⁷ 주님, 우리 하느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 ⁴⁸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을 찬미하라. 모든 백성이 말하리라. 아멘.

시편 107장

- 1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 2 주님께서 구속하신 자들이 말하십시오. 그분이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신 자들입니다.
- 3 그분이 여러 땅들에서 모으신 자들입니다.
- 4 그들은 사막의 길에서 헤매며 방황했습니다.
- 5 굶주리고 목마르고,
- 6 그들이 고통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 7 그분이 그들을 곧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 8 그들이 주님의 자비를 찬양하십시오.
- 9 그분은 갈망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기 때문입니다.
- 10 어떤 이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 앉아, 고난과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 11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 12 그러므로 그분이 그들의 마음을 괴로움으로 낮추셨습니다.
- 13 그들이 고통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 14 그분이 그들을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에서 끌어내셨습니다.
- 15 그들이 주님의 자비를 찬양하십시오.
- 16 그분이 늦문을 부수셨기 때문입니다.
- 17 어리석은 자들이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 18 그들의 영혼은 모든 음식을 싫어합니다.
- 19 그들이 고통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 20 그분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낮게 하십니다.
- 21 그들이 주님의 자비를 찬양하십시오.
- 22 그들이 감사의 제물을 바치십시오.
- 23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는 자들이,
- 24 그들이 주님의 행적을 봅니다.
- 25 그가 명령하시니 폭풍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 26 그들은 하늘까지 올라가며 깊음으로 내려갑니다.
- 27 그들은 흔들리며 뒤뚱거리며 취한 사람처럼 휘청입니다.
- 28 그러므로 그들이 고통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 29 그가 폭풍을 고요하게 만들고,
- 30 그러므로 그들은 고요함을 보고 기뻐합니다.
- 31 그들이 주님의 자비를 찬양하게 하소서.
- 32 그들이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게 하소서.
- 33 그가 강들을 사막으로 바꾸시고,
- 34 열매 맺는 땅을 소금빛 황폐지로 만드십니다.
- 35 그가 사막을 물웅덩이로 바꾸시고,
- 36 거기서 주린 자들을 살게 하시며,
- 37 들판을 심고 포도원을 심게 하십니다.
- 38 그가 그들을 축복하시니 그들이 크게 번성합니다.
- 39 다시 그들은 줄어들고 굴복합니다.
- 40 그가 왕들을 멸시하시며,

- ⁴¹ 그러나 가난한 자를 그들의 고통에서 끌어올리시고,
⁴² 의로운 자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⁴³ 지혜로운 자는 이 일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시편 108장

- ¹ 내 마음이 굳건합니다, 하느님. 나는 노래하고, 내 영혼으로 악기를 연주하겠습니다.
² 일어나라, 수금과 비파야!
³ 나는 열국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⁴ 주님의 자비가 하늘보다 큼니다.
⁵ 하느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소서! 주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⁶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⁷ 하느님께서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셨다. "내가 승리로 세겔을 나누고 수코트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⁸ 길르앗은 내 것이요, 므낫세는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투구요, 유다는 내 지배의 지팡이이다.
⁹ 모압은 내 씻는 그릇이요, 나는 에돔 위에 내 신을 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 함성을 지르겠다."
¹⁰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인도할 것입니까?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이끌 것입니까?
¹¹ 하느님,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¹² 적에게 대항하여 우리에게 도움을 주소서.
¹³ 하느님을 통해 우리는 용감히 행동할 것입니다.

시편 109장

- 1 내 찬양의 하느님, 침묵하지 마소서.
- 2 그들은 악한 자의 입과 속임의 입을 내게 향해 열었으니,
- 3 그들은 나를 미움의 말로 둘러쌌습니다.
- 4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나, 그들은 나를 대적입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합니다.
- 5 그들은 내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 6 그 위에 악한 자를 세우소서.
- 7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유죄로 판결되게 하소서.
- 8 그의 날들을 적게 하소서.
- 9 그의 자녀들을 고아로 하소서.
- 10 그의 자녀들이 떠돌며 구걸하게 하소서. 그들이 무너진 곳에서 찾히게 하소서.
- 11 그의 모든 소유를 빗쟁이가 빼앗게 하소서. 타인이 그의 수고의 열매를 약탈하게 하소서.
- 12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게 하소서.
- 13 그의 후손을 끊어버리소서.
- 14 주님께서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우지 마소서.
- 15 그 죄악들이 주님 앞에 항상 있게 하소서.
- 16 그가 자비를 베풀기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17 그는 저주를 사랑하였고, 그것이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 18 그는 저주를 옷처럼 입었고, 그것이 물처럼 그에게 스며들었습니다.
- 19 그것이 그에게 입는 옷이 되고, 그가 둘러매는 띠가 되게 하소서.
- 20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내 대적들에게 돌아갈 보응입니다.
- 21 그러나 나를 대하소서, 하느님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 22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 23 나는 저녁 그림자처럼 사라져 갑니다.
- 24 내 무릎은 금식으로 약해졌습니다.
- 25 나도 그들에게 모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26 주님, 내 하느님, 나를 도우소서.
- 27 그들이 이것이 당신의 손임을 알게 하소서.
- 28 그들은 저주할지라도, 당신은 축복하십니다.
- 29 내 원수들이 수치로 옷을 입게 하소서. 그들이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겉옷처럼 두르게 하소서.
- 30 내가 입으로 주님께 크게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를 찬양하겠습니다.
- 31 그분이 가난한 자의 오른편에 서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장

- ¹ 주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 ² 주님께서 시온에서 당신의 힘의 지팡이를 보내실 것입니다.
- ³ 당신의 힘 있는 날에 당신의 백성들이 자원하여 성스러운 차림으로 나아옵니다. 아침 이슬처럼, 당신은 태초의 뱃속에서 젊음의 이슬을 얻으십니다.
- ⁴ 주님께서 맹세하시고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멜기세덱의 계보에 따라 영원히 사제입니다."
- ⁵ 주님께서 당신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 ⁶ 그는 열국 사이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 ⁷ 그는 길에서 시냇물에서 마실 것입니다;

시편 111장

- ¹ 주님을 찬양하라!
- ² 주님의 일들은 위대하시며, 그 일을 기뻐하는 이들이 모두 깊이 생각한다.
- ³ 그의 일은 존엄과 위엄이다.
- ⁴ 그는 그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다.
- ⁵ 그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음식을 주셨다.
- ⁶ 그는 그의 백성에게 그의 일들의 힘을 보여주셨다.
- ⁷ 그의 손의 일들은 진리와 정의이다.
- ⁸ 그것들은 영원히, 영원히 굳게 서 있다.
- ⁹ 그는 그의 백성에게 구속을 보내셨다.
- ¹⁰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시편 112장

- ¹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 ² 그의 자손은 땅에서 존귀할 것입니다.
- ³ 부와 재산이 그의 집에 있습니다.
- ⁴ 정직한 자를 위해 어둠 속에 빛이 비춥니다.
- ⁵ 은총을 베풀고 빌려주는 사람은 잘될 것입니다.
- ⁶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 ⁷ 그는 악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 ⁸ 그의 마음은 굳게 서 있습니다.
- ⁹ 그는 나누어 주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 ¹⁰ 악인들은 그것을 보고 슬퍼할 것입니다.

시편 113장

- 1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 2 주님의 이름이 복되며,
- 3 해가 떠오르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 4 주님은 모든 민족 위에 높이 계시며,
- 5 우리 하느님처럼 높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 6 하늘과 땅을 돌아보시려고 낮아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 7 그분은 가난한 이를 흙에서 일으키시고,
- 8 그를 왕족과, 곧 자기 백성의 왕족과 함께 앉히십니다.
- 9 그분은 아이 없는 여자를 집에 안정시키십니다.

시편 114장

- 1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 2 유다가 그의 성소가 되었고,
- 3 바다가 보고 도망쳤으며,
- 4 산들이 수양처럼 뛰어넘었고,
- 5 바다야, 네가 어찌하여 도망쳤느냐?
- 6 산들이야, 너희가 어찌하여 수양처럼 뛰어넘었느냐?
- 7 주님의 앞에서 땅이 떨리라,
- 8 바위를 연못으로 바꾸시고,

시편 115장

- 1 주님, 우리에게 하지 마소서, 우리에게 하지 마소서,
- 2 어찌하여 이방들이 ‘그들의 하느님은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리이까?
- 3 우리의 하느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 4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 5 그들은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 6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 7 손이 있으나 만지지 못하고,
- 8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들과 같아지고, 그것을 신뢰하는 자들은 모두 그들과 같아집니다.
- 9 이스라엘아, 주님을 신뢰하여라!
- 10 아론의 집안아, 주님을 신뢰하여라!
- 11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주님을 신뢰하여라!
- 12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복 주실 것입니다.
- 13 그분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복 주실 것입니다. 작은 자도, 큰 자도 모두입니다.
- 14 주님께서 너희를 더욱더 더하게 하시기를,
- 15 너희는 주님께 복을 받았으며,
- 16 하늘은 주님의 하늘입니다.
- 17 죽은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 18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116장

- ¹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내 목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 ²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입니다.
- ³ 죽음의 줄이 나를 둘러쌌고,
- ⁴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 ⁵ 주님은 은총과 의로움이 가득하시며, 우리 하느님은 자비로우십니다.
- ⁶ 주님은 단순한 자를 지키십니다.
- ⁷ 내 영혼아, 네 편안한 곳으로 돌아가라.
- ⁸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 ⁹ 나는 살아 있는 땅에서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 ¹⁰ 나는 믿었으므로 말했습니다. "나는 크게 괴로웠다."
- ¹¹ 나는 급히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 ¹² 내게 베푸신 주님의 모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 ¹³ 나는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 ¹⁴ 나는 주님께 서원을 갚으리라. 모든 주님의 백성 앞에서.
- ¹⁵ 주님의 눈에는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이 귀중하니.
- ¹⁶ 주님, 진실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 ¹⁷ 나는 감사의 제물을 주님께 드리며,
- ¹⁸ 나는 주님께 서원을 갚으리라. 모든 주님의 백성 앞에서.
- ¹⁹ 주님의 집 안뜰에서.

시편 117장

- ¹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² 그분의 자비가 우리에게 크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장

- 1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 2 이제 이스라엘이 말하라.
- 3 이제 아론의 집이 말하라.
- 4 이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말하라.
- 5 내가 고통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 6 주님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 7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자들 가운데 내 편이시다.
- 8 주님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
- 9 주님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
- 10 모든 민족들이 나를 둘러쌌다.
- 11 그들이 나를 둘러쌌다. 정말로 나를 둘러쌌다.
- 12 그들이 벌처럼 나를 둘러쌌다.
- 13 네가 나를 힘껏 밀어 넘어뜨리려 했으나.
- 14 주님은 내 힘이요, 내 노래이다.
- 15 의로운 자들의 장막에는 기쁨과 구원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오른손이 용감히 행동하셨다.’
- 16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셨다.
- 17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며.
- 18 주님께서 나를 심히 징벌하셨으나.
- 19 나에게 의로움의 문을 열어 주소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주님께 감사하리라.
- 20 이것은 주님의 문이다.
- 21 당신이 나를 응답해 주셨으므로, 내가 당신께 감사하리이다.
- 22 지은 자들이 버린 돌이.
- 23 이것은 주님의 하신 일이다.
- 24 이것은 주님이 만드신 날이다.
- 25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
- 26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이 있습니다!
- 27 주님은 하느님이시며,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제물을 줄로 묶어 제단의 뿔까지 이어 드리소서.
- 28 당신은 내 하느님이시며, 나는 당신께 감사하겠습니다.
- 29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장

- 1 행동이 완전한 자들은 복이 있다.
- 2 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 3 그들은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다.
- 4 당신은 당신의 계명을 명령하셨습니다.
- 5 내 길이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 6 그러면 저는 부끄러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 7 내가 당신의 공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저는 온 마음으로 당신께 감사하겠습니다.
- 8 내가 당신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십시오.
- 9 젊은이가 어떻게 자신의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 10 내가 온 마음으로 당신을 구했습니다. 당신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 11 내가 당신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 12 주님,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 13 내 입술로,
- 14 내가 당신의 증거의 길을 기뻐했습니다.
- 15 내가 당신의 계명을 묵상하겠습니다.
- 16 내가 당신의 율법을 즐거워하겠습니다.
- 17 당신의 종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 18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 19 나는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당신의 명령을 내게 숨기지 마십시오.
- 20 내 영혼은 항상 당신의 법도를 갈망하며 쇠약해집니다.
- 21 당신은 저주를 받고 당신의 명령에서 벗어난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 22 나에게 수치와 모욕을 떠나게 하십시오.
- 23 비록 왕자들이 앉아 나를 비방하더라도,
- 24 진실로 당신의 율법은 내 기쁨입니다.
- 25 내 영혼은 흠에 문혀 있습니다.
- 26 내가 내 길을 고백하였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 27 주님의 계명의 가르침을 나에게 깨닫게 하소서. 그때에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일을 묵상하리이다.
- 28 내 영혼은 슬픔으로 지쳐 있습니다.
- 29 거짓의 길에서 나를 멀리하소서.
- 30 나는 진리의 길을 택했습니다.
- 31 주님, 나는 주님의 율법을 붙잡습니다. 나를 실망시키지 마소서.
- 32 내가 주님의 계명의 길을 달립니다.
- 33 주님, 주님의 율법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 34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의 율법을 지키리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그것을 따르리이다.
- 35 주님의 계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 36 내 마음을 주님의 율법으로 향하게 하소서.
- 37 내 눈이 무가치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 38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종에게 이루소서.
- 39 내가 두려워하는 수치를 내게서 제거하소서.
- 40 보소서, 내가 주님의 계명을 갈망합니다!

- 41 주님, 주님의 자비도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42 이러면 내가 나를 비난하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으리이다.
 43 주님, 나의 입에서 진리의 말씀을 빼앗지 마소서.
 44 그러면 내가 주님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45 내가 자유롭게 걸으리이다.
 46 내가 왕들 앞에서 주님의 율법을 말하리이다.
 47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므로, 그것들로 인해 기쁨을 누리리이다.
 48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향해 내 손을 뻗으리이다.
 49 주님, 당신이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50 이것이 제가 고난을 받을 때의 위로가 됩니다.
 51 교만한 자들이 저를 심하게 비웃습니다.
 52 주님, 내가 옛적에 당신이 정하신 법규를 기억합니다.
 53 분노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54 당신의 규례들이 제 노래가 되었습니다.
 55 주님, 내가 밤에 당신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56 이것이 제 길입니다.
 57 주님은 제 몫입니다.
 58 제가 온 마음으로 당신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59 제 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60 제가 서둘러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61 악한 자들의 줄이 저를 묶었습니다.
 62 한밤중에 일어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63 나는 당신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의 친구입니다.
 64 주님, 땅은 당신의 자비로 가득합니다.
 65 주님, 당신이 당신 종을 당신 말씀대로 잘 대우하셨습니다.
 66 나에게 선한 판단과 지식을 가르치소서.
 67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길을 벗어났습니다.
 68 당신은 선하시고 선한 일을 하십니다.
 69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저에게 뒤집어씌웠습니다.
 70 그들의 마음은 기름처럼 둔해졌습니다.
 71 내가 고난을 받은 것이 나에게 좋았습니다.
 72 당신 입의 율법이 내가 소유한 금과 은 수천 타래보다 나에게 더 좋습니다.
 73 당신의 손들이 나를 만들고 다듬으셨습니다.
 74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75 주님, 나는 당신의 심판이 의로움을 압니다.
 76 당신의 말씀에 따라, 당신의 자비가 나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77 당신의 자비로운 긍휼이 내게 임하여, 내가 살게 하소서.
 78 교만한 자들이 나를 부당하게 치려 했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79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80 내 마음이 당신의 법령에 대해 흠잡을 데 없게 하소서.
 81 내 영혼이 당신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82 내 눈이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 83 나는 연기 속의 포도주 가축처럼 되었습니다.
- 84 당신의 종의 날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85 교만한 자들이 당신의 율법에 반하여 나를 위해 구덩이를 팠습니다.
- 86 당신의 모든 계명은 진실합니다.
- 87 그들이 나를 땅에서 거의 없애 버렸습니다.
- 88 당신의 자비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 89 주님, 당신의 말씀은 하늘에서 영원히 굳게 서 있습니다.
- 90 당신의 신실함은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입니다.
- 91 당신의 법은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 92 당신의 율법이 내 기쁨이 아니었다면,
- 93 나는 당신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 94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 95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 기다리지만, 나는 당신의 규례를 생각하겠습니다.
- 96 나는 모든 완전함에 경계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 97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 98 주님의 계명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 99 나는 내 모든 스승들보다 더 깊이 이해합니다.
- 100 나는 늙은이들보다 더 잘 이해합니다.
- 101 나는 모든 악한 길에서 발을 떼어 놓았습니다.
- 102 나는 주님의 법령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103 주님의 약속이 내 입에 얼마나 달콤한지요! 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 104 주님의 교훈을 통해 내가 이해하게 됩니다.
- 105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되고,
- 106 나는 맹세하고 이를 굳게 지켰습니다.
- 107 나는 심히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 108 제가 입으로 드리는 자발적인 제물을 받아주소서.
- 109 내 영혼은 늘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 110 악인들이 나를 위해 올가미를 놓았습니다.
- 111 나는 주님의 증거를 영원한 유산으로 삼았습니다.
- 112 나는 주님의 규례를 영원히 지키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 113 나는 이중적인 자들을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 114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자 방패입니다.
- 115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 116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굳게 잡아주소서. 내가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 117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안전할 것입니다.
- 118 주님은 주님의 법령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모두 거부하십니다.
- 119 주님은 땅의 모든 악인들을 쓰레기처럼 버리십니다.
- 120 내 육체는 주님을 두려워하여 떨립니다.
- 121 나는 공정하고 의로운 일을 행했습니다. 나를 학대하는 자들에게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 122 당신의 종의 평안을 보장하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학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 123 나의 눈은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며 힘겨워합니다.
- 124 당신의 자비를 따라 당신의 종을 대하십시오.

- 125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에게 이해를 주십시오.
- 126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주님,
- 127 그러므로 나는 금보다 당신의 계명을 더 사랑합니다.
- 128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모든 교훈을 옳다고 여깁니다.
- 129 당신의 증거들은 놀라웁니다.
- 130 당신의 말씀의 들어옴은 빛을 비추며, 단순한 자들에게 이해를 줍니다.
- 131 나는 입을 크게 벌리고 헐떡였습니다.
- 132 나에게 돌이키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 133 당신의 말씀으로 내 발걸음을 굳게 하십시오. 어떤 죄악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 134 사람들의 학대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당신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 135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
- 136 내 눈에서 눈물이 강처럼 흐릅니다.
- 137 주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 138 당신은 의로움으로 당신의 규례를 명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 139 내 열정이 나를 지치게 합니다.
- 140 당신의 약속들은 온전히 시험받았습니다.
- 141 나는 작고 경멸받는 자입니다.
- 142 당신의 의로움은 영원한 의로움입니다.
- 143 환난과 고통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 144 당신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웁니다.
- 145 나는 온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 146 나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 147 나는 새벽 전에 일어나 도움을 간청합니다.
- 148 나는 밤의 경비 시간 동안 눈을 뜬 채로 있습니다.
- 149 주님, 주님의 자비를 따라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 150 악을 좇는 자들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주님의 법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 151 주님,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 152 오래전부터 나는 주님의 증거들을 통해 알았습니다.
- 153 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 154 내 사건을 변호하시고 나를 속량하소서!
- 155 구원은 악인에게서 멀리 있습니다.
- 156 주님, 주님의 자비가 큼니다.
- 157 나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 158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신실한 자들을 혐오합니다.
- 159 내가 주님의 계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돌아보소서.
- 160 주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 161 왕들이 나를 무고하게 박해했습니다.
- 162 나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기뻐합니다.
- 163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주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 164 하루에 일곱 번,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 165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화가 있고, 그들에게는 넘어질 것이 없습니다.
- 166 주님,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 167 내 영혼은 주님의 증거들을 지켰습니다.
 168 나는 주님의 계명과 증거들을 지켰습니다.
 169 주님, 내 간구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이해하게 하소서.
 170 내 간청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하소서.
 171 내 입이 찬미를 발하게 하소서.
 172 내 혀가 주님의 말씀을 노래하게 하소서.
 173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려 준비되게 하소서.
 174 주님, 나는 주님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175 내 영혼이 살아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176 나는 잃어버린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시편 120장

- 1 내가 고통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 주님, 거짓된 입술로부터 제 영을 구원하소서.
 3 당신에게 무엇이 주어질 것이며, 무엇이 더해질 것입니까?
 4 강한 자들의 날카로운 화살,
 5 내가 메섹에서 살고 있으니, 내게 화가 이르렀도다.
 6 내 영이 오래도록 거주해 왔습니다.
 7 나는 평화를 원합니다.

시편 121장

- 1 나는 내 눈을 산들로 올립니다. 내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2 내 도움은 주님께에서 옵니다.
 3 그분은 네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5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다.
 6 낮에는 해가 너를 해치지 않으며,
 7 주님은 모든 화를 네게서 지켜 주신다.
 8 주님은 네 나가는 길과 들어오는 길을 지켜 주신다.

시편 122장

- 1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집으로 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습니다.
 2 우리 발은 당신의 성문 안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3 예루살렘은 단단히 뭉쳐진 도시로 지어졌습니다,
 4 거기서 지파들이 올라가며, 주님의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 올라갑니다.
 5 거기에는 심판을 위한 좌석이 놓여 있습니다,
 6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번영할 것입니다.
 7 당신의 성벽 안에 평화가 있기를,
 8 내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해,
 9 우리 하느님 주님의 집을 위해,

시편 123장

- ¹ 나는 눈을 당신에게 향합니다.
- ² 보소서,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 ³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⁴ 우리의 영혼은 안일한 자들의 조롱으로 심히 채워졌습니다.

시편 124장

- ¹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지 않으셨다면,
- ²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지 않으셨다면,
- ³ 그때 그들이 우리를 살아서 삼켜 버렸을 것이다. 그들의 분노가 우리를 향해 불타올랐을 때,
- ⁴ 물이 우리를 덮쳤을 것이며,
- ⁵ 그때 교만한 물결이 우리 영혼을 휩쓸었을 것이다.
- ⁶ 주님을 찬미하라,
- ⁷ 우리 영혼은 새처럼 사냥꾼의 덫에서 벗어났다.
- ⁸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다.

시편 125장

- ¹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시온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 ²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들처럼 주님은 그의 백성을 둘러싸신다.
- ³ 악한 자의 지배가 의로운 자들의 몫 위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 ⁴ 주님, 선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소서.
- ⁵ 그러나 곧지 않은 길로 돌아서는 자들에 대해서는

시편 126장

- ¹ 주님이 시온으로 돌아온 이들을 데려오실 때,
- ² 그때 우리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 혀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 ³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 ⁴ 주님, 우리 운명을 다시 회복하소서.
- ⁵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 ⁶ 씨를 드리고 슬피 흐느끼며 나가는 자는

시편 127장

- ¹ 주님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그 집은 헛되다.
- ² 너는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빵을 먹는 것이 헛되다.
- ³ 보라, 아이들은 주님의 유산이다.
- ⁴ 강한 자의 손에 있는 화살처럼,
- ⁵ 그의 겹침에 그것들을 가득 채운 자는 복이 있다.

시편 128장

- ¹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는 복이 있습니다.
- ²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벌어들인 것을 먹을 것입니다.
- ³ 당신의 아내는 당신 집 안에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처럼 될 것이며,
- ⁴ 보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가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 ⁵ 주님께서서 시온에서 당신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 ⁶ 당신이 당신의 손자들을 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129장

- ¹ 나의 어린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 ² 나의 어린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 ³ 농부들이 내 등에 갈아댔다.
- ⁴ 주님은 의로우시다.
- ⁵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소서.
- ⁶ 그들이 집 지붕 위의 풀처럼 되게 하소서.
- ⁷ 그 풀을 베는 자가 손을 가득 채우지 못하고,
- ⁸ 지나가는 자도 이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시편 130장

- ¹ 깊은 곳에서 나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 ² 주님,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 ³ 주님, 만약 당신이 죄를 기록하신다면,
- ⁴ 그러나 당신께는 용서가 있습니다.
- ⁵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 ⁶ 내 영혼은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 ⁷ 이스라엘아, 주님을 바라라.
- ⁸ 그분이 모든 죄에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것입니다.

시편 131장

- ¹ 주님, 제 마음은 교만하지 않으며, 제 눈은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 ² 분명히 저는 제 영혼을 진정시키고 가라앉혔습니다.
- ³ 이스라엘아, 주님을 바라라.

시편 132장

- ¹ 주님,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의 모든 고난을 기억하소서.
- ² 그가 주님께 맹세한 것을 기억하소서.
- ³ 내가 내 집의 처소에 들어가지 않겠고, 내 침상에 올라가지 않겠으며,
- ⁴ 내 눈에 잠을 주지 않겠고, 내 눈꺼풀에 졸음도 주지 않겠사오니,
- ⁵ 주님을 위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 ⁶ 보라, 우리는 에브라타에서 이를 들었소.
- ⁷ 우리가 그의 처소로 나아가서, 그의 발판 앞에서 경배하리이다.
- ⁸ 주님, 주님의 안식처로 일어나소서.
- ⁹ 주님의 사제들이 의로움으로 입게 하시고, 주님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외치게 하소서.
- ¹⁰ 주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 ¹¹ 주님은 다윗에게 진실하게 맹세하셨나이다. '내가 네 몸에서 난 열매를 네 위에 앉히리라.'
- ¹² 네 자손들이 내 언약을 지키고,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이 증거를 지키면,
- ¹³ 주님은 시온을 택하셨나이다. 그분이 자기의 거처로 삼으셨도다.
- ¹⁴ '이것이 내가 영원히 안식할 곳이니, 내가 여기에 거하리라.'
- ¹⁵ 내가 그녀의 양식을 풍성히 복 주리라.
- ¹⁶ 내가 그녀의 사제들을 구원으로 입히리라.
- ¹⁷ 내가 다윗의 뿔을 그곳에서 싹트게 하리라.
- ¹⁸ 내가 그의 원수들을 수치로 입히리라.

시편 133장

- ¹ 보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지!
- ² 머리에 부은 귀한 기름과 같고,
- ³ 헤르몬의 이슬과 같도다.

시편 134장

- ¹ 보아라!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 ² 성소에서 손을 들라.
- ³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희를 복되게 하시기를!

시편 135장

- ¹ 주님을 찬양하라!
- ² 주님의 집에서 서 있는 자들아,
- ³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은 선하시다.
- ⁴ 주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야곱을 택하셨으니,
- ⁵ 내가 주님께서 크신 분임을 안다.
- 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으니,
- ⁷ 주님께서 땅 끝에서 구름을 일으키시고,
- ⁸ 이집트의 첫째 아들, 사람과 짐승을 치셨으며,
- ⁹ 이집트, 곧 너희 가운데에 표적과 기사를 보내셨으며,
- ¹⁰ 많은 나라를 치셨고,
- ¹¹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 ¹²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며,
- ¹³ 주님,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남아 있으며,
- ¹⁴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니,
- ¹⁵ 나라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며,
- ¹⁶ 입은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 ¹⁷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며,
- ¹⁸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들과 같고, 그것을 신뢰하는 자들은 모두 그들과 같으리라.
- ¹⁹ 이스라엘 집아, 주님을 찬양하라!
- ²⁰ 레위 집아, 주님을 찬양하라!
- ²¹ 시온에서 주님을 찬미하라!

시편 136장

- ¹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 ² 하느님 중의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 ³ 주님 중의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 ⁴ 오직 그분만이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께 감사하십시오.
- ⁵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십시오.
- ⁶ 물 위에 땅을 펼치신 분께 감사하십시오.
- ⁷ 위대한 빛들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십시오.
- ⁸ 낮에 다스릴 태양을,
- ⁹ 밤에 다스릴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십시오.
- ¹⁰ 이집트의 만아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십시오.
- ¹¹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인도해 내신 분께 감사하십시오.
- ¹² 강한 손과 펼친 팔로,
- ¹³ 붉은 바다를 갈라 놓으신 분께 감사하십시오.
- ¹⁴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를 지나게 하신 분께 감사하십시오.
- ¹⁵ 그러나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붉은 바다에 멸망시키신 분께 감사하십시오.
- ¹⁶ 자신의 백성을 광야를 지나 인도하신 분께 감사하십시오.
- ¹⁷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십시오.
- ¹⁸ 강력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십시오.
- ¹⁹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을,
- ²⁰ 바산의 왕 옥을,
- ²¹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십시오.
- ²² 이스라엘, 당신의 종에게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십시오.
- ²³ 우리가 낮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십시오.
- ²⁴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께 감사하십시오.
- ²⁵ 모든 생물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
- ²⁶ 하늘의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시편 137장

- ¹ 바빌론의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서 울었다.
- ² 거기서 우리는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 ³ 거기서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했다. "시온의 노래를 하나 불러보아라!"
- ⁴ 어떻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 ⁵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이 능력을 잃게 하소서.
- ⁶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게 하소서. 내가 예루살렘을 내 기쁨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 ⁷ 주님,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 자손들을 기억하소서.
- ⁸ 파멸될 운명의 바빌론의 딸아,
- ⁹ 네 어린아이들을 반석에 부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138장

- ¹ 나는 온 마음으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 ² 나는 당신의 성전을 향해 절합니다.
- ³ 내가 부르던 날, 당신이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 ⁴ 땅의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 ⁵ 그들은 주님의 길을 노래할 것입니다.
- ⁶ 주님은 높으시나, 낮은 자를 돌아보십니다.
- ⁷ 비록 내가 환난 가운데 걸을지라도, 당신은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 ⁸ 주님은 나를 위한 일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손이 만든 일을 버리지 마소서.

시편 139장

- ¹ 주님, 당신은 나를 뒤지셨습니다.
- ² 당신은 내가 앉고 일어나는 것을 아십니다.
- ³ 당신은 내 길과 내가 누워 있는 것을 살피십니다.
- ⁴ 내 혀에 있는 말 하나도 당신께 숨겨지지 않습니다.
- ⁵ 당신은 나를 뒤와 앞에서 둘러싸셨습니다.
- ⁶ 이 지식은 나에게 너무 높습니다.
- ⁷ 어디로 가서 당신의 영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도망쳐서 당신의 앞에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 ⁸ 하늘로 올라가도 당신은 거기에 계시고,
- ⁹ 아침의 날개를 타고
- ¹⁰ 거기에서도 당신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 ¹¹ 내가 말하기를, "분명히 어둠이 나를 덮을 것이다." 하더라도,
- ¹² 어둠조차 당신에게 숨지 못하며,
- ¹³ 당신은 내 속 깊은 본성을 만드셨습니다.
- ¹⁴ 나는 당신께 감사하겠습니다.
- ¹⁵ 내 몸이 당신에게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 ¹⁶ 당신의 눈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 ¹⁷ 하느님, 당신의 생각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니까!
- ¹⁸ 그 수를 세어보려 해도 모래보다 많습니다.
- ¹⁹ 하느님, 악인들을 죽이소서.
- ²⁰ 그들은 당신을 향해 악하게 말합니다.
- ²¹ 주님,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 ²² 나는 완전한 미움으로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내 원수가 되었습니다.
- ²³ 하느님, 나를 뒤지시고 내 마음을 아십시오.
- ²⁴ 내 안에 악한 길이 있는지 보십시오.

시편 140장

- ¹ 주님, 나를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시고, 폭력적인 사람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소서.
- ² 그들은 마음속에 악한 꾀를 꾸밉니다.
- ³ 그들은 혀를 뱀처럼 날카롭게 닳았고, 독사의 독이 그 입술 아래에 있습니다. 셀라.
- ⁴ 주님, 나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 지켜주소서. 나의 발을 걸게 하려고 꾸미는 폭력적인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주소서.
- ⁵ 교만한 자들이 나를 위해 덫을 숨겼습니다.
- ⁶ 나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주님, 제 간구의 외침을 들으소서.
- ⁷ 주님, 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 ⁸ 주님, 악한 자들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소서. 그들의 악한 꾀가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소서. 셀라.
- ⁹ 나를 둘러싼 자들의 머리에,
- ¹⁰ 불붙은 숯이 그 위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들을 불 속과 진흙 구덩이에 던져 넣으소서. 거기서 그들은 결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 ¹¹ 악한 말을 하는 자는 땅 위에 굳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악이 폭력적인 자를 쫓아다니며 그를 쓰러뜨릴 것입니다.
- ¹² 나는 주님이 곤경에 빠진 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실 것을 압니다.
- ¹³ 의로운 자들이 분명히 당신의 이름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시편 141장

- ¹ 주님, 제가 당신을 부릅니다. 빨리 저에게 오십시오!
- ² 내 기도를 당신 앞에 향처럼 올려주십시오;
- ³ 주님, 내 입 앞에 경계를 세워주십시오.
- ⁴ 내 마음이 어떤 악한 일에도 기울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진미를 먹지 않게 하십시오.
- ⁵ 의로운 이가 나를 치는 것은 자비요, 그가 나를 책망하는 것은 머리에 바른 기름과 같으니, 내 머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게 하십시오.
- ⁶ 그들의 심판관들이 바위 옆에 던져지리라.
- ⁷ 마치 땅을 갈아 파는 자처럼, 우리의 뼈들이 스올의 입구에 흩어지리라.
- ⁸ 주님, 나의 눈은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홀로 버려두지 마십시오.
- ⁹ 그들이 나를 위해 놓은 올가미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 ¹⁰ 악인들이 자기들의 그물에 함께 빠지게 하십시오.

시편 142장

- ¹ 내가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부릅니다.
- ² 내가 그분 앞에 나의 불평을 쏟아냅니다.
- ³ 내 영이 내 안에서 압도당할 때,
- ⁴ 오른쪽을 보고 살피보소서. 피난처가 나에게서 떠났습니다.
- ⁵ 주님, 내가 당신께 부릅니다.
- ⁶ 내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 박해자들로부터 나를 구원주소서.
- ⁷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소서.

시편 143장

- ¹ 주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 ² 주님, 당신의 종과 심판하지 마소서.
- ³ 적군이 내 영혼을 쫓아갑니다.
- ⁴ 그러므로 내 영이 내 안에서 지쳐 버렸습니다.
- ⁵ 나는 옛날 날들을 기억합니다.
- ⁶ 나는 당신에게 손을 펼칩니다.
- ⁷ 주님, 나에게 빨리 응답하소서. 내게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 ⁸ 아침에 당신의 자비를 내게 들려주소서.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내게 알려주소서.
- ⁹ 주님,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 ¹⁰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 ¹¹ 주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소생시키소서.
- ¹² 당신의 자비로 내 원수들을 끊어버리소서.

시편 144장

- ¹ 내 바위이신 주님을 찬미하소서.
- ² 내 자비로우신 보호소, 내 요새,
- ³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 ⁴ 사람은 숨결과 같습니다.
- ⁵ 주님, 하늘을 갈라시고 내려오소서.
- ⁶ 번개를 쏘아 그들을 흠으소서.
- ⁷ 위에서 손을 뻗으소서.
- ⁸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고,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손입니다.
- ⁹ 하느님,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부르리이다.
- ¹⁰ 주께서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니,
- ¹¹ 나를 구원하시고 외국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 ¹² 그러면 우리의 아들들은 자라난 식물처럼, 우리의 딸들은 궁전을 장식하는 기둥처럼 되리이다.
- ¹³ 우리의 창고는 모든 종류의 양식으로 가득 차고, 우리 들판의 양은 수천, 수만 마리로 불어납니다.
- ¹⁴ 우리의 소들은 무거운 짐을 끌고, 침입도 없고, 떠나는 자도 없습니다.
- ¹⁵ 이러한 상황에 있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느님이 주님인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145장

- ¹ 나는 당신을 높이리이다, 내 하느님, 나의 왕이시여.
- ² 매일 내가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 ³ 주님은 크시며, 매우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 ⁴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당신의 행적을 전하리이다.
- ⁵ 나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묵상하리이다.
- ⁶ 사람들은 당신의 놀라운 행적의 힘을 말하리며, 나는 당신의 위대함을 선포하리이다.
- ⁷ 그들은 당신의 크신 선하심을 기억하리이다.
- ⁸ 주님은 은총 많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고 크신 사랑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 ⁹ 주님은 모든 이에게 선하십니다.
- ¹⁰ 당신의 모든 행적이, 주님께 감사하리이다.
- ¹¹ 그들은 당신의 왕국의 영광을 말하리이다.
- ¹²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분의 힘 있는 행적을 알리려 하리이다.
- ¹³ 당신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입니다.
- ¹⁴ 주님은 넘어지는 모든 이를 일으키십니다.
- ¹⁵ 모든 이의 눈이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 ¹⁶ 당신은 손을 펴시어,
- ¹⁷ 주님은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 ¹⁸ 주님은 자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 ¹⁹ 그분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 ²⁰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이를 보존하시며,
- ²¹ 내 입은 주님의 찬양을 말하리이다. 모든 육체가 그분의 성하신 이름을 영원히, 영원히 축복하리이다.

시편 146장

- ¹ 주님을 찬양하라!
- ²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리라.
- ³ 귀족들을 의지하지 말라.
- ⁴ 그의 영이 떠나가면, 그는 땅으로 돌아가고 그의 모든 계획은 사라진다.
- ⁵ 야곱의 하느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의 소망이 주님, 곧 그의 하느님께 있는 자는 복이 있다.
- ⁶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 ⁷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신다.
- ⁸ 주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 주신다.
- ⁹ 주님은 외국인들을 보호하신다.
- ¹⁰ 주님은 영원히 통치하신다.

시편 147장

- 1 주님을 찬양하여라.
- 2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 3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신다.
- 4 그는 별들의 수를 세신다.
- 5 우리 주님은 크시며, 능력이 막강하시다. 그의 지혜는 무한하시다.
- 6 주님은 겸손한 자들을 지켜 주신다.
- 7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 8 그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며, 산들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 9 그는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신다.
- 10 그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 11 주님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 12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13 그는 네 문밖의 막대를 견고히 하셨다.
- 14 그는 네 경계 안에 평화를 이루신다.
- 15 그는 땅에 자신의 명령을 보내신다.
- 16 그는 양털처럼 눈을 내리신다.
- 17 그는 자갈처럼 우박을 쏟아부으신다.
- 18 그는 말씀을 보내시어 그것들을 녹이신다.
- 19 그는 야곱에게 자신의 말씀을 보이신다.
- 20 그는 이와 같은 일을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하지 않으셨다.

시편 148장

- 1 주님을 찬양하라!
- 2 그의 모든 천사들아, 그를 찬양하라!
- 3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라!
- 4 하늘 위 하늘들아, 그를 찬양하라!
- 5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라.
- 6 그가 그들을 영원히, 영원히 세우셨다.
- 7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 8 번개와 우박과 눈과 구름아,
- 9 산들과 모든 언덕아,
- 10 야수들과 모든 가축과 작은 생물들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 11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아,
- 12 젊은이들과 처녀들아,
- 13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라.
- 14 그가 그의 백성, 곧 자신에게 가까운 이스라엘 자손의 뿔을 높이 올리셨다.

시편 149장

- ¹ 주님을 찬양하라!
- ²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을 기뻐하라.
- ³ 그들이 춤으로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탬버린과 수금으로 그를 찬송하라.
- ⁴ 주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 ⁵ 성도들은 존엄함으로 기뻐하며, 침상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
- ⁶ 그들의 입에는 하느님의 높은 찬양이 있기를,
- ⁷ 나라들에게 복수를 행하며,
- ⁸ 그들의 왕들을 쇠사슬로 묶으며,
- ⁹ 기록된 심판을 그들에게 실행하라.

시편 150장

- ¹ 주님을 찬양하라!
- ² 그의 위대한 행위로 그를 찬양하라!
- ³ 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라!
- ⁴ 타브린과 춤으로 그를 찬양하라!
- ⁵ 크고 울리는 심벌즈로 그를 찬양하라!
- ⁶ 숨을 쉬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라!

잠언 | Proverbs

잠언 1장

- 1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들:
- 2 지혜와 교훈을 알게 하며,
- 3 현명한 처신을 배우게 하며,
- 4 어리석은 자들에게 신중함을 주며,
- 5 지혜로운 자가 듣고 학식을 더하게 하며,
- 6 잠언과 비유를 이해하게 하며,
- 7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 8 내 아들이, 네 아버지의 교훈을 들어라,
- 9 그것은 네 머리에 은총의 화관이 되리니,
- 10 내 아들이, 죄인들이 너를 유혹하면, 그 말을 따르지 마라.
- 11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과 함께 가자.
- 12 우리는 그들을 산 채로 스올처럼 삼켜버리고,
- 13 모든 귀중한 재물을 얻으리라.
- 14 너도 우리과 함께 제비를 뽑자.
- 15 내 아들이, 그들과 함께 길을 걷지 마라.
- 16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 17 새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물이 펼쳐져도 헛일이니,
- 18 이들은 자기들의 피를 노리고 있다.
- 19 이것이 모든 탐욕을 쫓는 자의 길이다.
- 20 지혜가 거리에서 외치며, 광장에서 그 목소리를 높인다.
- 21 그녀는 시끄러운 곳의 머리에서 부르며,
- 22 "어리석은 자들이, 너희가 얼마나 오래 단순함을 사랑할 것인가?
- 23 내 책망에 돌아서라.
- 24 내가 부르짖었으나 너희가 거절하고,
- 25 너는 내 조언을 모두 무시했고,
- 26 나도 네 환난을 웃을 것이다.
- 27 재앙이 폭풍처럼 너를 덮칠 때,
- 28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르겠지만,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 29 그들이 지식을 미워했기 때문에,
- 30 그들은 내 조언을 하나도 원하지 않았다.
- 31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길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 32 어리석은 자들의 타락이 그들을 죽일 것이다.
- 33 그러나 나를 듣는 자는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잠언 2장

- ¹ 내 아들이, 네가 내 말을 받고,
- ² 지혜에 귀를 기울이려 하며,
- ³ 명철을 외쳐 구한다면,
- ⁴ 은을 찾듯이 그녀를 구한다면,
- ⁵ 그때 네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 ⁶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 ⁷ 그분은 정직한 자들을 위해 올바른 지혜를 보존하신다.
- ⁸ 공의의 길을 지키기 위해,
- ⁹ 그때 네가 의로움과 공정함을 알게 될 것이며,
- ¹⁰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오고,
- ¹¹ 명철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 ¹² 악한 길에서 너를 건져내며,
- ¹³ 정직한 길을 버리는 자들로부터,
- ¹⁴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로부터,
- ¹⁵ 그들의 길이 꺾인 자들로부터,
- ¹⁶ 이방 여인, 곧 말로 아침하는 타인으로부터 너를 건져내며,
- ¹⁷ 젊은 시절의 친구를 버리고,
- ¹⁸ 그녀의 집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 ¹⁹ 그녀에게 가는 자는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 ²⁰ 그러므로 선한 자들의 길을 걷고,
- ²¹ 정직한 자들은 땅에 거할 것이며,
- ²² 악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잠언 3장

- 1 내 아들이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마라.
- 2 그것이 네 날들을 길게 하며,
- 3 자비와 진실을 떠나지 않게 하라.
- 4 그러면 네가 은총을 얻고,
- 5 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여라.
- 6 네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여라.
- 7 네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 8 그것이 네 몸에 건강을 주며,
- 9 네 재산으로 주님을 존중하여라.
- 10 그러면 네 창고가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며,
- 11 내 아들이아, 주님의 징계를 경멸하지 말고, 그의 책망에 지치지 마라.
- 12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마다 그가 책망하시기 때문이다.
- 13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 14 그녀의 이익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 15 그녀는 홍보석보다 귀하하다.
- 16 그녀의 오른손에는 긴 생명이 있다.
- 17 그녀의 길은 기쁨의 길이다.
- 18 그녀를 붙잡는 자들에게 그녀는 생명의 나무이다. 그녀를 붙잡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
- 19 주님은 지혜로 땅을 세우셨다.
- 20 그의 지식으로 깊음이 터졌으며,
- 21 내 아들이아, 그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 22 그러면 그것들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 23 그러면 네가 안전하게 길을 걷게 될 것이다.
- 24 네가 누울 때 두려움이 없을 것이며, 네가 누우면 달콤한 잠이 올 것이다.
- 25 갑작스러운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자들의 황폐함이 닥쳐올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 26 주님께서 당신의 신뢰가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 27 당신이 마땅히 줄 자들에게 선을 아끼지 마라.
- 28 이웃에게 '가서 다시 오너라'라고 말하지 마라.
- 29 그가 너와 함께 안전히 거주하고 있으니, 이웃에게 악을 꾸미지 마라.
- 30 무해한 사람과 다투지 마라.
- 31 폭력적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의 길을 택하지 마라.
- 32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고인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 33 주님의 저주는 악인의 집에 있다.
- 34 주님께서는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시지만,
- 35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상속받고, 어리석은 자는 수치를 받는다.

잠언 4장

- 1 아들들아, 아버지의 가르침을 들어라.
- 2 내가 너희에게 바른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내 법을 버리지 말아라.
- 3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일 때,
- 4 그가 나를 가르치며 내게 말했다. '네 마음이 내 말을 간직하라.'
- 5 지혜를 얻어라. 잊지 말고, 내 입의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 6 그녀를 버리지 말라. 그래야 그녀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녀를 사랑하라. 그래야 그녀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 7 지혜가 최고이다. 네 모든 소유를 바쳐도 지식을 얻어라.
- 8 그녀를 존중하라. 그래야 그녀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 9 그녀가 네 머리에 은총의 화관을 씌우고, 영광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 10 내 아들이, 들어라. 내 말을 받아들여라.
- 11 내가 너를 지혜의 길로 가르쳤다.
- 12 네가 걸을 때 발걸음이 걸리지 않고, 달릴 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 13 교훈을 단단히 잡아라. 놓지 말아라.
- 14 악인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악한 자의 길을 걷지 말아라.
- 15 그 길을 피하고, 그 위를 지나가지 말아라.
- 16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들지 않는다.
- 17 그들은 악의 빵을 먹고,
- 18 의로운 자의 길은 아침 빛처럼 점점 밝아진다.
- 19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다.
- 20 내 아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 21 그것들이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 22 그것들은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기 때문이다.
- 23 모든 힘을 다해 네 마음을 지켜라.
- 24 비뚤어진 말을 네게서 멀리하라.
- 25 네 눈은 앞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고, 네 시선은 바로 앞에 고정하여라.
- 26 네 발의 길을 굳게 하며, 네 모든 길을 굳게 세워라.
- 27 우편으로도 기울지 말고, 좌편으로도 기울지 말아라.

잠언 5장

- ¹ 내 아들이아, 내 지혜에 귀를 기울여라.
- ² 그래야 신중함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 ³ 간음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진다.
- ⁴ 그러나 나중에는 쓸개처럼 쓰고,
- ⁵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간다.
- ⁶ 그녀는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않는다.
- ⁷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들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의 말에서 떠나지 말아라.
- ⁸ 그녀에게서 멀리 떠나라. 그녀의 집 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 ⁹ 너의 존엄을 타인에게 주지 않도록,
- ¹⁰ 타인이 너의 재산을 먹어치우지 않도록,
- ¹¹ 너는 나중에 탄식하며,
- ¹²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찌하여 나는 교훈을 미워했는가?
- ¹³ 내 스승들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 ¹⁴ 나는 완전한 멸망의 경계에 이르렀구나.’
- ¹⁵ 네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 ¹⁶ 네 샘들이 거리에 넘쳐 흐르지 않게 하라.
- ¹⁷ 그것들은 너 혼자만을 위한 것이 되게 하라.
- ¹⁸ 네 샘은 복받게 하라.
- ¹⁹ 사랑스러운 암사슴과 아름다운 수사슴이여,
- ²⁰ 내 아들이아, 어찌하여 간음하는 여자에게 사로잡히려 하는가?
- ²¹ 사람의 길은 주님의 눈앞에 드러나 있다.
- ²² 악인의 악행이 그를 사로잡는다.
- ²³ 그는 교훈을 받지 않아 죽는다.

잠언 6장

- 1 내 아들이아, 네가 이웃의 보증이 되었다면,
- 2 네 입의 말에 사로잡혔다.
- 3 지금이라도 내 아들이아, 스스로 벗어나라. 네 이웃에게 네 간청을 애타게 하라.
- 4 네 눈에 잠을 주지 말고, 네 눈꺼풀에 졸음을 주지 말라.
- 5 사냥꾼의 손에서 사슴처럼, 새잡이의 덫에서 새처럼 스스로 벗어나라.
- 6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을 살펴보아라.
- 7 그것은 지도자나 감독이나 통치자가 없어도,
- 8 여름에 그 식량을 준비하며,
- 9 게으른 자여, 네가 얼마나 오래 자려 하느냐?
- 10 잠시 자고, 잠시 졸고,
- 11 그러면 네 빈곤이 도적처럼, 네 궁핍이 무장한 자처럼 네게 닥치리라.
- 12 무가치한 자, 악한 자가 있도다.
- 13 그는 눈을 깜빡이며, 발로 신호를 보내고, 손가락으로 암호를 보내는 자로다.
- 14 그의 마음에는 꼬임이 있고,
- 15 그러므로 그의 화는 갑작스럽게 닥치리라.
- 16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여섯 가지요, 일곱 가지는 그분의 마음에 거북하도다.
- 17 교만한 눈, 거짓된 혀,
- 18 악한 꾀를 꾸미는 마음,
- 19 거짓 증언을 하며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
- 20 내 아들이아, 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
- 21 그것들을 항상 네 마음에 매어라.
- 22 네가 걸을 때에는 네 인도가 되고,
- 23 계명은 등불이요,
- 24 음란한 여자로부터 너를 지키기 위함이라.
- 25 네 마음으로 그 여자의 아름다움에 탐내지 말고, 그의 눈꺼풀로 네가 매혹되지 말라.
- 26 음란한 여자는 남자를 빵 한 조각처럼 만들기 때문이다.
- 27 사람이 품에 불을 안을 수 있느냐,
- 28 사람이 뜨거운 숯 위를 걸을 수 있느냐,
- 29 그와 같이 남의 아내에게 가는 자도 그러하다.
- 30 사람들은 도둑을 경멸하지 않지만,
- 31 그가 잡히면 일곱 배를 갚아야 한다.
- 32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지혜가 없다.
- 33 그는 상처와 수치를 받을 것이다.
- 34 질투는 남편의 분노를 일으킨다.
- 35 그는 어떤 보상도 인정하지 않는다.

잠언 7장

- 1 내 아들이아, 내 말을 지켜라.
- 2 내 계명을 지켜 살아라!
- 3 그것을 네 손가락에 매어라.
- 4 지혜에게 말하라. ‘너는 내 누이이다.’
- 5 그것들이 너를 타인의 아내에게서 지켜줄 것이니,
- 6 내 집 창문에서,
- 7 나는 단순한 자들 사이에서 바라보았다.
- 8 그 여자의 모퉁이 근처 거리를 지나는 것을 보았다.
- 9 저녁 어스름, 하루가 저물 때에,
- 10 보라, 한 여자가 창녀의 옷차림으로 그를 맞이하였다.
- 11 그 여자는 시끄럽고 반항적이다.
- 12 이제는 거리에, 이제는 광장에 있다.
- 13 그러므로 그녀가 그를 붙잡고 입을 맞췄다.
- 14 “나는 화평 제물의 제물을 가지고 있다.
- 15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만나러 나왔노라.
- 16 나는 내 침대에 자수로 만든 양탄자를 펴 놓았다.
- 17 나는 내 침대에 몰약과 알로에, 육계를 향기롭게 뿌렸다.
- 18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에 취하자.
- 19 내 남편은 집에 없다.
- 20 그는 돈 주머니를 가지고 나갔다.
- 21 그녀는 설득하는 말로 그를 미혹하였다.
- 22 그는 곧바로 그녀를 따라갔다.
- 23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관통할 때까지.
- 24 그러므로 이제, 아들들이아, 내 말을 들어라.
- 25 네 마음이 그 여자의 길로 기울지 못하게 하라. 그녀의 길에 빠지지 말라.
- 26 그녀는 많은 이들을 쓰러뜨려 상처 입게 했으니,
- 27 그녀의 집은 스올로 가는 길이다.

잠언 8장

- 1 지혜가 외치지 않는가? 명철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가?
- 2 높은 곳 꼭대기와 길가에서,
- 3 성문 옆과 성문 입구에서,
- 4 "내가 너희, 사람들아, 부른다.
- 5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을 깨달아라!
- 6 들어라. 내가 뛰어난 일을 말할 것이다.
- 7 내 입은 진리를 말한다.
- 8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움으로 가득하다.
- 9 그것들은 모두 지혜로운 자에게 명백하다.
- 10 은보다 내 교훈을 받으라.
- 11 지혜는 옥보다 낫다.
- 12 "나, 지혜가 명철을 내 거처로 삼았다.
- 13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 14 나에게는 조언과 올바른 지식이 있다. 나에게는 명철과 힘이 있다.
- 15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통치하며,
- 16 나로 말미암아 영주들이 다스린다.
- 17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나를 열심히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 18 나와 함께 부와 영광이 있다.
- 19 내 열매는 금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고, 내 소출은 귀한 은보다 낫다.
- 20 나는 의로움의 길을 걷고,
- 21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를 주며, 그들의 보물창고를 채운다.
- 22 "주님께서 당신의 일의 한처음에 나를 소유하셨다.
- 23 나는 영원한 때부터, 한처음부터 세워졌으며,
- 24 심연이 없을 때, 내가 태어났고, 물이 넘치는 샘들이 없을 때,
- 25 산들이 형성되기 전에,
- 26 땅과 들판을 아직 만드시지 않으실 때,
- 27 하느님이 하늘을 세우실 때, 나는 거기에 있었다.
- 28 하늘 위에 구름을 세우시고, 깊음의 샘들이 힘을 얻을 때,
- 29 바다에 경계를 정하시고,
- 30 그때 나는 그분 곁의 장인으로 있었다.
- 31 그분의 온 세상에서 기뻐하며, 사람들의 아들들 사이에서 즐거워하였다.
- 32 이제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 33 교훈을 듣고 지혜로워라. 그것을 거절하지 마라.
- 34 내 말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 35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 36 나를 거스르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친다.

잠언 9장

- ¹ 지혜가 자기 집을 지었고, 일곱 기둥을 세웠다.
- ² 그녀는 고기를 준비하고, 포도주를 섞으며, 상을 차렸다.
- ³ 그녀는 자기 하녀들을 보냈다.
- ⁴ "어리석은 자여, 여기로 들어오너라." 지각이 없는 자에게 그녀가 말한다.
- ⁵ "오너라, 내 빵을 먹고,
- ⁶ 어리석은 길을 버리고 살아라."
- ⁷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모욕을 초대한다.
- ⁸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래야 그가 네게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 ⁹ 지혜로운 자를 가르치면 그는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 ¹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 ¹¹ 내가 너의 날들을 늘려줄 것이다.
- ¹² 네가 지혜로우면, 네가 스스로를 위해 지혜로운 것이고, 조롱하면, 너 혼자 그 책임을 지리라.
- ¹³ 어리석은 여자는 시끄럽고, 절제가 없으며,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 ¹⁴ 그녀는 자기 집 문가에 앉아,
- ¹⁵ 지나가는 자들을 부르며,
- ¹⁶ "어리석은 자여, 여기로 들어오너라." 지각이 없는 자에게 그녀가 말한다.
- ¹⁷ "도둑맞은 물은 달콤하고,
- ¹⁸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

잠언 10장

- 1 솔로몬의 잠언.
- 2 불의한 자의 재산은 아무 이익도 주지 않는다.
- 3 주님은 의로운 자의 영혼을 굶주리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 4 게으른 손으로 일하는 자는 가난해진다.
- 5 여름에 모으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 6 의로운 자의 머리에는 축복이 있다.
- 7 의로운 자의 기억은 축복받는다.
- 8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는다.
- 9 무결하게 걷는 자는 안전하게 걷는다.
- 10 눈을 깜빡이는 자는 슬픔을 일으킨다.
- 11 의로운 자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 12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 13 지혜는 명석한 자의 입술에 있다.
- 14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쌓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파멸에 가깝다.
- 15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 16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으로 이어진다.
- 17 훈계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다.
- 18 미움을 숨기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졌다.
- 19 말이 많을수록 불순종이 빠지지 않는다.
- 20 의로운 자의 혀는 귀한 은처럼 같다.
- 21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이를 먹인다.
- 22 주님의 축복이 부를 가져온다.
- 23 어리석은 자에게는 불의를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지만, 명석한 자에게는 지혜가 즐거움이다.
- 24 악한 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에게 닥친다.
- 25 회오리가 지나가면, 악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26 식초가 이빨에 같고, 연기가 눈에 같듯이,
- 27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날들을 연장한다.
- 28 의로운 자의 소망은 기쁨이다.
- 29 주님의 길은 정직한 자의 요새이다.
- 30 의로운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 31 의로운 자의 입은 지혜를 낸다.
- 32 의로운 자의 입술은 옳은 것을 안다.

잠언 11장

- 1 거짓 저울은 주님께 가증한 일이다.
- 2 자만이 오면 수치가 오고, 겸손이 오면 지혜가 온다.
- 3 정직한 자의 성실함이 그를 인도하지만, 배신자의 사악함이 그를 멸망시킨다.
- 4 부는 진노의 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5 무죄한 자의 의로움이 그의 길을 인도한다.
- 6 정직한 자의 의로움이 그들을 구원하지만, 불신실한 자는 악한 욕망에 사로잡힌다.
- 7 악한 자가 죽을 때, 희망은 사라진다.
- 8 의로운 자는 곤경에서 구원받는다.
- 9 불경한 자는 입으로 이웃을 파괴한다.
- 10 의로운 자가 잘될 때, 성은 기뻐한다. 악한 자가 멸망할 때, 환호성이 일어난다.
- 11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성이 높아진다.
- 12 이웃을 경멸하는 자는 지혜가 없다.
- 13 풍문을 퍼뜨리는 자는 비밀을 배신하지만, 신뢰할 만한 영혼을 가진 자는 비밀을 지킨다.
- 14 현명한 지도가 없으면 민족은 무너진다.
- 15 이방인을 위해 보증한 자는 그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
- 16 은혜로운 여자는 명예를 얻지만, 폭력적인 자는 부를 얻는다.
- 17 자비로운 자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 선을 행하지만, 잔인한 자는 자신의 육체를 괴롭힌다.
- 18 악한 자들은 속임수로 보상을 받는다.
- 19 진정으로 의로운 자는 생명을 얻는다.
- 20 마음이 꼬인 자들은 주님께 가증한 자들이다.
- 21 분명히 악한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 22 돼지 코에 금반지처럼,
- 23 의로운 자의 소원은 오직 선이다.
- 24 한 사람은 흠어도 오히려 더 늘어난다.
- 25 자비로운 사람은 풍요로워진다.
- 26 곡식을 아껴두는 사람은 사람들이 저주하지만, 그것을 팔아주는 자의 머리에는 축복이 있다.
- 27 선을 열심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
- 28 자신의 부를 의지하는 자는 넘어진다.
- 29 자기 집을 어지럽히는 자는 바람을 상속받는다.
- 30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이다.
- 31 보라, 의로운 자가 땅에서 보상받는다.

잠언 12장

- 1 바르게 고치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을 미워하는 자는 어리석다.
- 2 선한 사람은 주님께 은총을 얻는다.
- 3 악한 것으로 사람은 굳게 서지 못한다.
- 4 가치 있는 여자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부끄러운 아내는 그의 뼈에 썩음과 같다.
- 5 의로운 자의 생각은 공정하다.
- 6 악한 자의 말은 피를 노리는 함정이다.
- 7 악한 자는 무너져 사라진다.
- 8 사람은 그의 지혜에 따라 칭찬을 받는다.
- 9 작게 알려져도 하인을 가진 자가 더 나은데,
- 10 의로운 자는 자신의 동물의 생명을 존중한다.
- 11 자신의 땅을 갈아서 일하는 자는 풍족한 빵을 얻는다.
- 12 악한 자는 악한 자들의 탈취물을 갈망한다.
- 13 악한 자는 입의 죄로 율매인다.
- 14 사람은 입의 열매로 선한 것을 만족한다.
- 15 어리석은 자의 길은 자기 눈에는 옳다.
- 16 어리석은 자는 그날 바로 분노를 드러낸다.
- 17 진실한 자는 정직하게 증언하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한다.
- 18 한 사람은 칼에 찢리는 듯이 무모하게 말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치유한다.
- 19 진리의 입술은 영원히 굳게 서 있다.
- 20 악을 꾀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
- 21 의로운 자에게는 어떤 화도 닥치지 않는다.
- 22 거짓된 입술은 주님께 가증한 일이다.
- 23 현명한 자는 자신의 지식을 간직한다.
- 24 부지런한 자들의 손은 다스릴 것이다.
- 25 사람의 마음속의 근심은 그것을 짓누른다,
- 26 의로운 사람은 친교에서 신중하다,
- 27 게으른 자는 사냥한 것을 구워 먹지 않는다,
- 28 의로움의 길은 생명이다;

잠언 13장

- ¹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는다.
- ² 입술의 열매로 사람은 선한 것을 누리지만, 불충실한 자는 폭력을 탐한다.
- ³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
- ⁴ 게으른 자의 영혼은 바라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자의 소망은 충분히 채워진다.
- ⁵ 의로운 자는 거짓을 미워한다.
- ⁶ 의로움은 온전한 길을 지킨다.
- ⁷ 부자인 채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있다.
- ⁸ 사람의 생명을 구속하는 것은 그의 부이다.
- ⁹ 의로운 자의 빛은 밝게 빛난다.
- ¹⁰ 교만은 오직 다툼만을 낳는다.
- ¹¹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부는 줄어든다.
- ¹² 미뤄진 소망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 ¹³ 가르침을 경멸하는 자는 그 대가를 치른다.
- ¹⁴ 지혜로운 자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다.
- ¹⁵ 현명한 이해는 은총을 얻는다.
- ¹⁶ 모든 신중한 자는 지식에 따라 행동한다.
- ¹⁷ 악한 사자는 환난에 빠진다.
- ¹⁸ 훈계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빈곤과 수치가 따른다.
- ¹⁹ 이루어진 갈망은 영혼에 달콤하다.
- ²⁰ 지혜로운 자와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워진다.
- ²¹ 재난은 죄인을 추적한다.
- ²² 선한 사람은 자손의 자손에게 유산을 남긴다.
- ²³ 가난한 자의 밭에는 풍성한 음식이 있다.
- ²⁴ 채찍을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는 그를 꾸준히 훈계한다.
- ²⁵ 의로운 자는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 먹는다.

잠언 14장

- 1 현명한 여자는 자신의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
- 2 정직하게 걷는 자는 주님을 두려워한다,
- 3 어리석은 자의 말은 그의 등에 매를 가져온다,
- 4 소가 없으면 안장이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풍성한 수확이 생긴다.
- 5 진실한 증인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 6 조롱하는 자는 지혜를 찾지만 찾지 못한다,
- 7 어리석은 자에게서 떠나라,
- 8 현명한 자의 지혜는 자신의 길을 생각하는 것이다,
- 9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속죄하는 것을 조롱하지만, 의로운 자들 사이에는 선의가 있다.
- 10 마음은 자신의 슬픔과 기쁨을 안다;
- 11 악인의 집은 무너질 것이고,
- 12 사람에게는 옳아 보이는 길이 있지만,
- 13 심지어 웃음 속에서도 마음은 슬픔을 품을 수 있다.
- 14 불충실한 자는 자신의 길로 보답을 받고, 선한 자도 자신의 길로 보상을 받는다.
- 15 단순한 자는 모든 것을 믿는다,
- 16 현명한 자는 두려워하며 악을 피한다,
- 17 급히 분노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다,
- 18 단순한 자들은 어리석음의 유산을 받지만, 현명한 자들은 지식으로 관을 쓴다.
- 19 악한 자들은 선한 자 앞에서 굽히며 엎드린다,
- 20 가난한 자는 자신의 이웃조차도 멀리한다,
- 21 이웃을 경멸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 22 악을 꾀하는 자들은 길을 잃지 않는가?
- 23 모든 성실한 노동에는 이익이 있다,
- 24 현명한 자의 관은 그들의 부요함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그들에게 어리석음의 관을 씌운다.
- 25 진실한 증인은 영혼을 구원하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부린다.
- 26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안전한 요새가 있다.
- 27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샘물이다.
- 28 많은 백성 가운데에 왕의 영광이 있다.
- 29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큰 통찰을 가진다.
- 30 몸의 생명은 평온한 마음이다.
- 31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는 자기 창조주를 경멸한다.
- 32 악인은 그의 환난 속에서 무너진다.
- 33 지혜는 통찰력을 가진 자의 마음에 머문다.
- 34 의로움은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어떤 민족에게도 수치이다.
- 35 왕의 은총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하인에게로 향한다.

잠언 15장

- 1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진정시킨다.
- 2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높이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낸다.
- 3 주님의 눈은 어디에나 있으며,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감찰하신다.
- 4 부드러운 혀는 생명의 나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거짓은 영을 짓밟는다.
- 5 어리석은 자는 아버지의 책망을 경멸하지만, 책망을 듣는 자는 지혜를 보인다.
- 6 의로운 자의 집에는 풍부한 보물이 있다.
- 7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린다.
- 8 악한 자의 제물은 주님께 가증한 것이다.
- 9 악한 자의 길은 주님께 가증한 것이다.
- 10 길을 버리는 자에게는 엄한 징계가 있다.
- 11 음부와 아바돈은 주님 앞에 드러나 있다.
- 12 조롱하는 자는 책망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 13 기쁜 마음은 즐거운 얼굴을 만든다.
- 14 지각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추구한다.
- 15 고통받는 자의 모든 날은 괴로우며,
- 16 주님을 경외함과 함께 적은 것이 더 나으니,
- 17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채소 한 상이 더 나으니,
- 18 분노가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노하기를 천천히 하는 자는 다툼을 진정시킨다.
- 19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덤불 같고,
- 20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 21 지혜 없는 자에게는 어리석음이 즐거움이니,
- 22 의논이 없으면 계획은 무너지고, 조언자가 많으면 확립된다.
- 23 입술의 대답이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 24 지혜로운 자의 삶의 길은 위로 올라간다.
- 25 주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뿌리째 뽑으신다.
- 26 주님은 악한 자의 생각을 싫어하신다.
- 27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괴롭히지만, 뇌물을 미워하는 자는 살 것이다.
- 28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신중히 헤아린다.
- 29 주님은 악한 자에게서 멀리 계신다.
- 30 눈의 빛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 31 훈계를 듣는 귀는 살 것이다.
- 32 수정을 거부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멸한다.
- 33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가르친다.

잠언 16장

- 1 사람의 마음이 꾸는 계획은 사람에게 속한다.
- 2 사람의 모든 길은 자기 눈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 3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
- 4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 만드셨다.
- 5 마음이 교만한 자는 주님께 가증한 것이다.
- 6 자비와 진리로 죄가 속죄된다.
- 7 사람의 길이 주님의 마음에 들면,
- 8 의로움과 함께 조금 있는 것이
- 9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길을 꾸며낸다.
- 10 왕의 입술에는 신령한 판단이 있다.
- 11 정직한 저울과 저울추는 주님의 것이다.
- 12 왕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 13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쁨이다.
- 14 왕의 분노는 죽음의 사자이다.
- 15 왕의 얼굴 빛은 생명이다.
- 16 금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은가! 은보다 명철을 얻는 것이 더 택받는 것이다.
- 17 정직한 자의 길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 18 교만은 파멸의 앞잡이요,
- 19 가난한 자와 함께 낮은 마음을 가진 것이
- 20 말씀을 주의 깊이 듣는 자는 복을 얻는다.
- 21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고 불린다. 입술의 달콤함은 가르침을 촉진한다.
- 22 명철은 그것을 가진 자에게 생명의 샘물이 되나, 어리석은 자의 벌은 그들의 어리석음이다.
- 23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가르친다.
- 24 달콤한 말은 꿀집과 같다.
- 25 사람에게는 옳아 보이는 길이 있지만, 그 끝은 죽음의 길이다.
- 26 일하는 자의 식욕은 그를 위해 일한다.
- 27 무가치한 자는 악을 꾸민다.
- 28 곡절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 29 폭력적인 자는 이웃을 유혹한다.
- 30 눈을 껌뻑거리며 악한 꾀를 꾸미고, 입술을 짹 다문 자는 악을 도모한다.
- 31 흰 머리카락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 32 분노를 참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 33 제비는 품에 던져진다.

잠언 17장

- 1 조용한 가운데 마른 조각이라도 나은 것이라.
- 2 지혜롭게 행동하는 하인은 부끄러움을 주는 아들을 지배한다.
- 3 은을 정련하는 것은 화로이고, 금을 시험하는 것도 화로이다.
- 4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한 입을 귀기울여 듣는다.
- 5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의 만든 이를 모욕한다.
- 6 손자들은 늙은이들의 면류관이고, 아버지들은 자식들의 영광이다.
- 7 어리석은 자에게는 뛰어난 말이 어울리지 않으며, 왕에게는 거짓된 입술이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 8 선물은 그것을 주는 자의 눈에는 귀한 보석 같다.
- 9 죄를 가리는 자는 사랑을 장려하고, 그것을 되풀이하는 자는 친교를 갈라놓는다.
- 10 지각 있는 자에게는 책망이 어리석은 자에게 백 대를 맞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
- 11 악한 자는 오직 반란만을 찾는다.
- 12 어린 곰을 빼앗긴 곰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어리석은 자가 그 어리석음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낫다.
- 13 선을 악으로 갚는 자는 재앙을 받을 것이다.
- 14 분쟁의 시작은 제방을 터뜨리는 것과 같으니, 다툼이 터지기 전에 그 다툼을 멈추어라.
- 15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로운 자를 책망하는 자는 모두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 16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사려고 손에 돈을 쥐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 17 친구는 항상 사랑한다.
- 18 지각이 없는 자는 손을 잡고 보증한다.
- 19 불순종을 사랑하는 자는 다툼을 사랑한다.
- 20 곡절된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 21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가 되는 자는 근심한다.
- 22 기쁜 마음은 좋은 약이 되나, 근심의 정신은 뼈를 마르게 한다.
- 23 악한 자는 은밀히 뇌물을 받는다.
- 24 지혜는 지각 있는 자의 얼굴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을 헤매고 다닌다.
- 25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슬픔을 가져온다.
- 26 의로운 자를 벌하는 것도 좋지 않다.
- 27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
- 28 조용히 있는 어리석은 자조차도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잠언 18장

- ¹ 혼자 끼어 사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 ² 어리석은 자는 이해를 즐기지 않는다.
- ³ 악이 오면 비난도 함께 온다.
- 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다.
- ⁵ 악인을 편애하는 것은 좋지 않다.
- ⁶ 어리석은 자의 입은 다툼을 일으킨다.
- ⁷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다.
- ⁸ 중상모략하는 자의 말은 정교한 진미와 같다.
- ⁹ 일을 게으르게 하는 자는
- ¹⁰ 주님의 이름은 강한 탑이다.
- ¹¹ 부자의 재산은 그의 강한 성이다.
- ¹² 파멸 앞에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다.
- ¹³ 들어보지 않고 대답하는 자는
- ¹⁴ 사람의 정신은 병들었을 때 그를 지탱하지만, 상처 입은 정신은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 ¹⁵ 현명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다.
- ¹⁶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 자리를 열어 준다.
- ¹⁷ 자신의 주장을 먼저 말하는 자는 옳아 보이지만, 나중에 와서 그를 묻는 자가 있다.
- ¹⁸ 제비는 분쟁을 해결한다.
- ¹⁹ 상처 입은 형제는 견고한 성보다 더 어렵다. 다툼은 요새의 쇠창살과 같다.
- ²⁰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채워진다.
- ²¹ 죽음과 생명은 혀의 권세에 있다.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 ²²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 ²³ 가난한 자는 자비를 간청한다.
- ²⁴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망할 수 있다.

잠언 19장

- 1 정직하게 걸어가는 가난한 자가 더 나으니
- 2 지식 없이 열정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으니
- 3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망치며
- 4 부유함은 많은 친구를 더하며
- 5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리니
- 6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은혜를 구하니
- 7 가난한 자의 모든 친척이 그를 멀리하며
- 8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니
- 9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리니
- 10 어리석은 자에게는 사치스러운 생활이 어울리지 않으며, 종이 왕자들을 다스리는 것은 더욱 그러하니
- 11 사람의 명철이 그로 하여금 분노를 억누르게 하니
- 12 왕의 분노는 사자의 으르렁거림 같고
- 13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의 화재니
- 14 집과 재산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이니
- 15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뜨리며
- 16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니
- 17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 주니
- 18 네 아들을 징계하라. 그에게 희망이 있으니, 그의 죽음에 동참하지 말라.
- 19 성질이 급한 자는 벌을 치러야 하니
- 20 조언을 듣고 교훈을 받아들이며
- 21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 22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는 것은 그의 자비니
- 23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으로 이끌며, 만족을 주니
- 24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담그고도 입으로 가져오지 않으니
- 25 비열한 자를 매질하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배울 것이다.
- 26 아비를 빼앗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 27 내 아들아, 교훈을 듣는 것을 그치면
- 28 부패한 증인은 정의를 조롱한다.
- 29 비열한 자들을 위한 벌이 준비되어 있다.

잠언 20장

- ¹ 포도주는 조롱하는 자요, 맥주는 싸움을 일으키는 자이다.
- ² 왕의 위엄은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같다.
- ³ 분쟁을 피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다.
- ⁴ 게으른 자는 거울에 발을 갈지 않으므로, 수확기에 구걸할 것이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 ⁵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은 깊은 물과 같다.
- ⁶ 많은 사람이 자기를 자비로운 자라 말하지만, 신실한 사람을 누가 찾을 수 있겠는가?
- ⁷ 의로운 자는 성실하게 걸어간다. 그의 자손은 그 뒤에 복을 받는다.
- ⁸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눈으로 모든 악을 쫓아낸다.
- ⁹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 ¹⁰ 서로 다른 저울과 서로 다른 재는 것,
- ¹¹ 어린아이조차 그의 행위로 자신을 드러낸다.
- ¹² 들리는 귀와 보이는 눈은,
- ¹³ 잠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야 가난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 ¹⁴ '별로야, 별로야,'라고 사는 자가 말한다.
- ¹⁵ 금과 많은 홍보석이 있으나,
- ¹⁶ 누군가 타인을 보증으로 잡아두었다면, 그의 옷을 빼앗아라.
- ¹⁷ 사기로 얻은 음식은 입에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그 입이 자갈로 가득 찬다.
- ¹⁸ 조건으로 계획이 세워진다.
- ¹⁹ 수다를 떠는 자는 비밀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입을 크게 벌리는 자와 사귀지 말라.
- ²⁰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 ²¹ 처음에 빨리 얻은 유산은 끝에서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 ²² '내가 악에 보복하겠다.'라고 말하지 말라.
- ²³ 주님은 서로 다른 저울을 싫어하신다.
- ²⁴ 사람의 걸음은 주님께로부터 온다.
- ²⁵ 사람이 서두르게 서원한 후에야 그 서원을 생각하는 것은 함정이다.
- ²⁶ 현명한 왕은 악인을 가른다.
- ²⁷ 사람의 영은 주님의 등불이다.
- ²⁸ 사랑과 성실함이 왕을 지킨다.
- ²⁹ 젊은이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다.
- ³⁰ 상처를 주는 타격이 악을 씻어낸다.

잠언 21장

- ¹ 왕의 마음은 주님의 손안에 물길처럼 있다.
- ² 사람의 모든 길은 자기 눈에는 옳아 보인다.
- ³ 의로움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주님께는 더 나은 것이다.
- ⁴ 높은 눈빛과 교만한 마음은 죄이다.
- ⁵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반드시 이익을 낳는다.
- ⁶ 거짓된 혀로 재물을 얻는 것은 죽음의 덫이다.
- ⁷ 악인의 폭력이 그들을 끌어내어 버린다.
- ⁸ 죄인의 길은 꼬불꼬불하다.
- ⁹ 지붕 모서리에 사는 것이 다투는 여자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낫다.
- ¹⁰ 악인의 영혼은 악을 갈망한다.
- ¹¹ 조롱하는 자가 벌을 받을 때, 단순한 자는 지혜를 얻는다.
- ¹² 의로운 이는 악인의 집을 살핀다.
- ¹³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는 자는
- ¹⁴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진정시킨다.
- ¹⁵ 의로운 자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은 기쁨이다.
- ¹⁶ 지혜의 길에서 벗어나 헤매는 자는 죽은 자들의 무리에 속한다.
- ¹⁷ 즐거움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 ¹⁸ 악인은 의로운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된다.
- ¹⁹ 황폐한 땅에 사는 것이 다투는 여자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낫다.
- ²⁰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귀중한 보물과 기름이 있다.
- ²¹ 의로움과 자비를 추구하는 자는 생명과 존엄을 얻는다.
- ²² 지혜로운 자는 강한 자의 성을 함락한다.
- ²³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 ²⁴ 교만하고 고집 센 자—그의 이름은 ‘조롱하는 자’이다—
- ²⁵ 게으른 자의 갈망이 그를 죽인다.
- ²⁶ 하루 종일 탐욕스럽게 탐내는 자들이 있다.
- ²⁷ 악인의 제사는 가증한 것이다.
- ²⁸ 거짓 증인은 멸망할 것이다.
- ²⁹ 악인은 얼굴을 단단히 한다.
- ³⁰ 지해도 이해도 없으며,
- ³¹ 말은 전투의 날을 위해 준비된다.

잠언 22장

- ¹ 좋은 이름은 큰 부보다 더 소중하다.
- ² 부자와 가난한 자는 모두 한 가지를 공유한다.
- ³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보고 피한다.
- ⁴ 겸손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의 결과는
- ⁵ 악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다.
- ⁶ 아이가 걸어야 할 길로 그를 가르쳐라.
- ⁷ 부자는 가난한 자를 지배한다.
- ⁸ 악을 뿌리는 자는 고통을 거둔다.
- ⁹ 자비로운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 ¹⁰ 조롱하는 자를 쫓아내면 다통도 사라지고, 갈등과 모욕도 멈춘다.
- ¹¹ 마음의 순결을 사랑하고 말을 아름답게 하는 자는
- ¹² 주님의 눈은 지식을 지켜본다.
- ¹³ 게으른 자는 말한다. '바깥에 사자가 있다!'
- ¹⁴ 간음한 여자의 입은 깊은 웅덩이이다.
- ¹⁵ 어린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묶여 있다.
- ¹⁶ 가난한 자를 억압하여 자신을 부유하게 하거나, 부자에게 주는 자는 모두 가난에 이른다.
- ¹⁷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어라.
- ¹⁸ 그것을 네 안에 간직하면 기쁨이 된다.
- ¹⁹ 오늘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너를 위해.
- ²⁰ 내가 너에게 훌륭한 일들을 서른 가지 써주지 않았던가?
- ²¹ 진리와 믿을 만한 말을 가르쳐 주기 위해.
- ²² 가난한 자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를 착취하지 말라.
- ²³ 주님께서 그들의 권리를 변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 ²⁴ 성질이 급한 자와 사귀지 말라. 분노를 품은 자와 교제하지 말라.
- ²⁵ 그의 길을 배우지 않게 하소서
- ²⁶ 손을 맞잡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 ²⁷ 당신이 값을 능력이 없다면,
- ²⁸ 옛날에 세운 경계 돌을 옮기지 마십시오.
- ²⁹ 당신은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습니까?

잠언 23장

- 1 당신이 통치자와 함께 식사할 때, 앞에 놓인 것을 신중히 생각하라.
- 2 네 목에 칼을 대라.
- 3 그의 진미를 탐내지 말라. 그것들은 속임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 4 부자가 되려고 힘쓰지 말라.
- 5 네가 보지 않는 것에 눈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나?
- 6 시기심 많은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
- 7 그는 비용을 계산하며 생각하니, 그의 마음이 그와 같으니라. 그가 네게 말하되, '먹고 마셔라!' 하더라도,
- 8 네가 먹은 한 입을 토해낼 것이다.
- 9 어리석은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 10 옛날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고아들의 발을 침범하지 말라,
- 11 그들의 구원자는 강력하기 때문이다.
- 12 네 마음을 교훈에 적용하라,
- 13 아이에게 징계를 아끼지 말라.
- 14 지팡이로 그를 벌하라,
- 15 내 아들이, 네 마음이 지혜롭다면,
- 16 내 마음도 기뻐할 것이다.
- 17 죄인들을 시기하지 말라,
- 18 분명히 미래에 소망이 있다.
- 19 들어라, 내 아들이, 지혜롭게 살아가,
- 20 술을 과하게 마시는 자들 사이에 있지 말라,
- 21 술에 취한 자와 과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니,
- 22 네 생명을 준 아버지의 말을 들어라,
- 23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 24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큰 기쁨을 누린다.
- 25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뻐하게 하라!
- 26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어라;
- 27 음란한 여자는 깊은 구덩이요,
- 28 그녀는 도적처럼 기다리며,
- 29 누가 슬픔을 겪으며,
- 30 포도주에 오래 머무는 자들이냐?
- 31 포도주가 붉게 타오를 때 보지 말고,
- 32 끝에는 뱀처럼 물고,
- 33 네 눈은 이상한 일을 보고,
- 34 네가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처럼 되리라,
- 35 "그들이 나를 치지만 나는 아프지 않다!"

잠언 24장

- 1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사귀지 마라;
- 2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꾸미기 때문이다.
- 3 지혜로 집이 세워지고,
- 4 지식으로 방들이 채워진다.
- 5 지혜로운 자는 큰 힘을 가진다.
- 6 지혜로운 모략으로 네가 전쟁을 치르기 때문이다.
- 7 지혜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너무 높다.
- 8 악을 꾸미는 자는
- 9 어리석음의 꾀는 죄이다.
- 10 환난의 날에 네가 흔들리면,
- 11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구원하여라! 진실로, 죽음으로 허덕이는 자들을 막아라!
- 12 네가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한다면, 마음을 측정하시는 분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 13 내 아들이, 꿀을 먹어라. 그것이 좋기 때문이다.
- 14 그러면 네 영혼이 지혜를 알게 될 것이다.
- 15 악한 자여, 의로운 자의 집에 기다리지 말고, 그의 안식처를 파괴하지 마라.
- 16 의로운 자는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 17 네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고, 그가 엎어질 때 마음이 즐거워하지 말라.
- 18 그러면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실까 두려워서이다.
- 19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을 쓰지 말고,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 20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 21 내 아들이, 주님과 왕을 두려워하여라. 반역하는 자들과 사귀지 마라.
- 22 그들의 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 23 이것들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이다.
- 24 악한 자에게 '네가 의로우니라' 하는 자는
- 25 하지만 죄인을 책망하는 자에게는 잘 될 것이다.
- 26 정직한 대답은
- 27 밖에서 네 일을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지어라.
- 28 무리하게 이웃을 대적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네 입술로 속이지 말라.
- 29 내가 그가 내게 한 대로 나도 그에게 하리라 하지 말라.
- 30 나는 게으른 자의 발을 지나갔다.
- 31 보라, 그것이 모두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었다.
- 32 그때 나는 보고 잘 생각하였다.
- 33 잠시 잠자고, 잠시 눈을 붙이면,
- 34 네 빈곤이 도적처럼 닥쳐올 것이다.

잠언 25장

- ¹ 이것들도 유다 왕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복사한 솔로몬의 잠언들이다.
- ² 하느님께서 일을 숨기시는 것은 영광이다.
- ³ 하늘은 높고 땅은 깊듯이, 왕들의 마음도 측량할 수 없다.
- ⁴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 ⁵ 왕의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 ⁶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이지 말라.
- ⁷ 너에게 ‘여기로 올라오라’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 ⁸ 재판소에서 갑작스럽게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
- ⁹ 네 이웃과 네 쟁점을 논하라.
- ¹⁰ 들어가는 자가 너를 수치롭게 하지 않게 하라.
- ¹¹ 적절한 시기에 말한 말은
- ¹² 금 귀고리와 정제된 금 장식 같으니,
- ¹³ 수확의 시기에 논의 서늘함 같으니,
- ¹⁴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
- ¹⁵ 인내로 통치자가 설득된다.
- ¹⁶ 네가 꿀을 찾았느냐? 네게 충분한 만큼만 먹어라.
- ¹⁷ 네 발을 이웃의 집에 자주 들이지 말라.
- ¹⁸ 이웃을 향해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 ¹⁹ 고난의 때에 신뢰할 수 없는 자를 의지하는 것은
- ²⁰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 같고,
- ²¹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 ²² 그러면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탄 숯을 쌓게 될 것이다.
- ²³ 북풍은 비를 낳는다.
- ²⁴ 지붕 모서리에 거주하는 것이
- ²⁵ 목마른 영혼에게 차가운 물과 같고,
- ²⁶ 더러워진 샘과 오염된 우물과 같으며,
- ²⁷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으며,
- ²⁸ 무너져 성벽이 없는 성과 같으니,

잠언 26장

- ¹ 여름에 눈이 내리고, 수확기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 ² 날아다니는 참새처럼
- ³ 말에는 채찍이 있고,
- ⁴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에 따라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하지 마라.
- ⁵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에 따라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하여라.
- ⁶ 어리석은 자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자는
- ⁷ 허약한 자의 다리처럼 흐물흐물한 것처럼
- ⁸ 매듭으로 돌을 묶는 자처럼
- ⁹ 술에 취한 자의 손에 가시덤불이 들어가는 것처럼
- ¹⁰ 모든 이를 상처 주는 화살수처럼
- ¹¹ 자기의 구토로 돌아가는 개처럼
- ¹²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을 보았느냐?
- ¹³ 게으른 자가 말한다. "도로에 사자가 있다!"
- ¹⁴ 문이 그 힌지 위에서 돌듯이
- ¹⁵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담근 채,
- ¹⁶ 게으른 자는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긴다.
- ¹⁷ 개의 귀를 잡는 자처럼
- ¹⁸ 불꽃, 화살, 죽음을 쏘는 미친 자처럼
- ¹⁹ 이웃을 속이고 "내가 농담한 것뿐이야."라고 말하는 자이다.
- ²⁰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진다. 중상모략이 없으면 다툼이 잠잠해진다.
- ²¹ 술이 불씨에 닿듯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
- ²² 속삭이는 자의 말은 정교한 진미처럼
- ²³ 흙으로 만든 그릇 위에 은의 찌꺼기가 있는 것처럼
- ²⁴ 악의적인 자는 입술로 자기 속마음을 숨긴다.
- ²⁵ 그의 말이 매력적이더라도 그를 믿지 마라.
- ²⁶ 그의 악의는 속임수로 숨겨질 수 있다.
- ²⁷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 ²⁸ 거짓된 혀는 자신이 상처 주는 자들을 미워한다.

잠언 27장

- 1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 2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 3 돌은 무겁고, 어리석은 자의 격노는 그것들보다 더 무겁다.
- 4 분노는 잔인하고, 질투는 누구도 버틸 수 없다.
- 5 공개적인 책망이 더 낫다.
- 6 친구의 상처는 성실하고, 원수의 입맞춤은 과도하다.
- 7 배가 불러도 꿀집을 싫어한다.
- 8 등지에서 떠도는 새처럼,
- 9 향수와 향은 마음에 기쁨을 주듯,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도 마음을 기쁘게 한다.
- 10 네 친구와 네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마라. 재난의 날에는 네 형의 집에 가지 마라.
- 11 내 아들이아, 지혜로워라.
- 12 현명한 자는 위험을 보고 피난처를 찾는다.
- 13 누군가가 타인을 보증으로 잡아두면, 그의 옷을 가져라.
- 14 아침 일찍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자는,
- 15 비 오는 날 끊임없이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 16 그 여자를 억누르는 것은 바람을 억누르는 것과 같다.
- 17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 18 무화과나무를 돌보는 자는 그 열매를 먹고, 주인을 섬기는 자는 존경받는다.
- 19 물은 얼굴을 비추듯,
- 20 음부와 아바돈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 21 은을 정련하는 것은 화로이며, 사람은 칭찬으로 정련된다.
- 22 비록 어리석은 자를 곡물과 함께 으깨는 빵치에 갈아도,
- 23 네 양 떼의 상태를 잘 알며,
- 24 부는 영원하지 않다.
- 25 풀은 제거되고 새순이 나며,
- 26 어린 양들은 당신의 옷을 위해 있으며,
- 27 염소의 젖이 당신의 식사로 충분할 것입니다.

잠언 28장

- ¹ 악한 자는 쫓는 자가 아무도 없어도 도망친다.
- ² 반역이 있을 때, 땅은 많은 통치자를 가진다.
- ³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면
- ⁴ 법을 버리는 자들은 악한 자들을 칭찬한다.
- ⁵ 악한 자들은 정의를 이해하지 못한다.
- ⁶ 자기의 성실함으로 걷는 가난한 자가 더 낫다.
- ⁷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러나 방탕한 자들과 사귀는 자는 아버지를 수치롭게 한다.
- ⁸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자는
- ⁹ 귀를 닫고 법을 듣지 않는 자는
- ¹⁰ 의로운 자를 악한 길로 빠뜨리는 자는
- ¹¹ 부자는 자기 눈에는 지혜로워 보이지만, 이해력 있는 가난한 자는 그를 꿰뚫어 본다.
- ¹² 의로운 자가 승리할 때, 큰 영광이 있다.
- ¹³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 ¹⁴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 ¹⁵ 울부짖는 사자나 덤벼드는 곰처럼
- ¹⁶ 폭군은 판단력이 부족하다.
- ¹⁷ 피의 죄로 괴로워하는 자는 죽을 때까지 도망자이다. 누구도 그를 돕지 않는다.
- ¹⁸ 완전히 걸어가는 자는 안전하게 보호된다.
- ¹⁹ 자기 땅을 일구는 자는 음식이 풍족할 것이다.
- ²⁰ 충성스러운 자는 축복으로 부유하다.
- ²¹ 편견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 ²² 인색한 자는 부를 쫓아 빨리 달린다.
- ²³ 사람을 꾸짖는 자는 나중에 더 큰 은총을 얻는다.
- ²⁴ 아비나 어미를 흠쳐서, "이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는
- ²⁵ 탐욕스러운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 ²⁶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다.
- ²⁷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않다.
- ²⁸ 악인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숨는다.

잠언 29장

- ¹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히는 자
- ² 의로운 자가 번성할 때, 백성은 기뻐한다.
- ³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에게 기쁨을 준다.
- ⁴ 정의로운 왕이 땅을 안정시킨다.
- ⁵ 이웃을 아첨하는 자
- ⁶ 악한 자는 자신의 죄에 걸려 넘어진다.
- ⁷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를 신경 쓴다.
- ⁸ 조롱하는 자들은 도시를 소요로 만든다.
- ⁹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재판을 하면
- ¹⁰ 피를 흘리는 자들은 정직한 자를 미워한다.
- ¹¹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분노를 모두 토해낸다.
- ¹² 지배자가 거짓말을 들으면
- ¹³ 가난한 자와 압제하는 자는 공통점이 있다:
- ¹⁴ 가난한 자를 공정히 심판하는 왕은
- ¹⁵ 책망의 지팡이는 지혜를 주지만, 방임된 아이는 어머니에게 수치를 준다.
- ¹⁶ 악한 자가 많아질수록 죄도 많아진다.
- ¹⁷ 네 아들을 훈계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평화를 주고, 네 영혼에 즐거움을 가져다줄 것이다.
- ¹⁸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억제를 버린다.
- ¹⁹ 말로는 하인을 교정할 수 없다.
- ²⁰ 네가 말을 서두르는 사람을 보았느냐?
- ²¹ 어릴 때부터 하인을 과잉으로 대우하는 자
- ²² 분노가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 ²³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고,
- ²⁴ 도둑의 공범은 자신의 영혼의 원수이다.
- ²⁵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가미가 된다.
- ²⁶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은총을 구한다.
- ²⁷ 부정한 자는 의로운 이를 미워한다.

잠언 30장

- 1 아굴, 야케의 아들의 말이다. 계시이다.
- 2 나는 진실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 3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 4 누가 하늘로 올라가 내려왔는가?
- 5 하느님의 모든 말씀은 완전하다.
- 6 그의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마라.
- 7 내가 당신께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저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 8 거짓과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해 주십시오.
- 9 나가 배부르게 되어 당신을 부인하고, '주님은 누구인가?'라고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 10 종을 주인에게 헐뜯지 마라.
- 11 자신의 아버지를 저주하는 세대가 있다.
- 12 자기 눈에는 깨끗한 줄 아는 세대가 있다.
- 13 눈이 높이 치켜뜬 세대가 있다.
- 14 이빨이 칼이고 이가 칼날 같은 세대가 있다.
- 15 지렁이에게 두 딸이 있다. '주어라, 주어라.' 세 가지 것은 항상 채워지지 않는다.
- 16 음부,
- 17 아버지를 조롱하는 눈,
- 18 나에게 너무나 놀라운 세 가지 일이 있다.
- 19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길,
- 20 간음하는 여자의 길도 그렇다.
- 21 땅이 떨어지는 세 가지 일은,
- 22 종이 왕이 될 때,
- 23 미움받는 여자가 결혼할 때,
- 24 땅 위에서 작은 네 가지 것이 있다.
- 25 개미는 힘센 백성이 아니지만,
- 26 하이락은 약한 종족이지만,
- 27 메뚜기는 왕이 없지만,
- 28 도마뱀은 손으로 잡을 수 있지만, 왕들의 궁전에 있다.
- 29 "세 가지 것이 행보에 웅장하다.
- 30 짐승 중에서 가장 힘센 사자,
- 31 수컷 개;
- 32 "네가 스스로를 높여 어리석게 행동했다면,
- 33 우유를 흔들면 버터가 나오고,

잠언 31장

- ¹ 레무엘 왕의 말,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 준 계시:
- ² 내 아들이, 내 태에서 난 아들이, 내 서원의 아들이!
- ³ 네 힘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고, 네 길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주지 말라.
- ⁴ 레무엘아, 왕들에게나 영주들에게는 '강한 술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 ⁵ 그들이 마시고 법을 잊으며, 모든 고통받는 자의 권리를 뒤바꾸지 않도록.
- ⁶ 죽어 가는 자에게 강한 술을 주고,
- ⁷ 그가 마시고 자신의 빈곤을 잊게 하라.
- ⁸ 말 못 하는 자들을 위하여 입을 열고,
- ⁹ 입을 열어 공정하게 재판하여,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권리를 옹호하라.
- ¹⁰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여자를 찾을 수 있겠는가?
- ¹¹ 그 여자의 남편은 그녀를 신뢰한다.
- ¹² 그녀는 그에게 선을 베풀고 해를 끼치지 않는다.
- ¹³ 그녀는 양털과 대마를 찾아낸다.
- ¹⁴ 그녀는 상선처럼 멀리서 빵을 가져온다.
- ¹⁵ 그녀는 밤이 아직 깊었을 때에도 일어나,
- ¹⁶ 들판을 살펴보고 그것을 산다.
- ¹⁷ 그녀는 힘으로 허리를 동이고,
- ¹⁸ 그녀의 상품이 이익이 됨을 깨닫는다.
- ¹⁹ 그녀는 손을 자수틀에 대고,
- ²⁰ 그녀는 가난한 자에게 팔을 벌리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민다.
- ²¹ 그녀는 집안을 위한 눈보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 ²² 그녀는 자수로 카펫을 만든다.
- ²³ 그녀의 남편은 성문에서 존경받는다.
- ²⁴ 그녀는 베옷을 만들어 팔고,
- ²⁵ 그녀의 옷은 힘과 존엄이다. 그녀는 미래를 웃어넘긴다.
- ²⁶ 그녀는 지혜로운 말로 입을 여나니, 그녀의 혀에는 자비로운 교훈이 있다.
- ²⁷ 그녀는 자기 집안의 일을 잘 살핀다.
- ²⁸ 그녀의 자녀가 일어나 그녀를 복되다 하며,
- ²⁹ "많은 여자들이 훌륭한 일을 하지만,
- ³⁰ 매력은 헛되고, 아름다움은 허영이니,
- ³¹ 그녀의 손이 열매를 맺은 것을 그녀에게 주어라!

코헬렛 | Ecclesiastes

코헬렛 1장

- ¹ 예루살렘에서 왕이었던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이다.
- ² “허무한 것들 중의 허무,” 전도자가 말한다. “허무한 것들 중의 허무, 모든 것이 허무하다.”
- ³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엇을 얻는가?
- ⁴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그대로 있다.
- ⁵ 해도 떠오르고, 해도 지며, 자기가 떠오르는 곳으로 허둥지둥 달려간다.
- ⁶ 바람은 남쪽으로 불어가고, 북쪽으로 돌아서 돌며, 계속 돌고 돌아서 바람은 제 길로 다시 돌아간다.
- ⁷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가득하지 않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다시 흘러간다.
- ⁸ 모든 것이 지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 ⁹ 지난 것은 곧 올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것은 곧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해 아래에는 새것이 없다.
- ¹⁰ 어떤 일이 있어 ‘보아라, 이것이 새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미 우리보다 앞선 옛날에 있었다.
- ¹¹ 과거의 일은 기억되지 않으며, 앞으로 올 후대의 일도 그 뒤에 올 자들에게는 기억되지 않는다.
- ¹²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전도자였다.
- ¹³ 나는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혜로 탐구하고 연구하기 위해 내 마음을 기울였다. 이는 하느님이 인류의 아들들에게 짊어지게 하신 무거운 짐이다.
- ¹⁴ 나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았다. 보아라, 모두가 허무하고 바람을 쫓는 것뿐이다.
- ¹⁵ 굶은 것은 곧게 만들 수 없고, 부족한 것은 셀 수 없다.
- ¹⁶ 나는 내 마음속으로 말했다. ‘보아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나보다 앞선 이들보다 더 큰 지혜를 얻었다. 내 마음은 지혜와 지식을 많이 경험하였다.’
- ¹⁷ 나는 지혜를 알고, 미친 것과 어리석음을 알기 위해 내 마음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것도 바람을 쫓는 것임을 깨달았다.
- ¹⁸ 지혜가 많을수록 슬픔도 많고, 지식을 늘릴수록 슬픔도 늘어난다.

코헬렛 2장

- 1 나는 내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내가 즐거움으로 나를 시험해 보리라. 그러니 즐거움을 즐겨라." 그러나 보라, 이것도 허무하였다.
- 2 나는 웃음에 대해 말했다. "이것은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즐거움에 대해 말했다. "이것이 무엇을 이룰 수 있겠는가?"
- 3 나는 내 마음속에서, 포도주로 내 육체를 기쁘게 하되, 내 마음은 지혜로 인도하며, 어리석음을 붙잡아,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이 평생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은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 4 나는 큰 일들을 지어냈다. 나는 나를 위해 집들을 지었다. 나는 나를 위해 포도원을 심었다.
- 5 나는 나를 위해 정원과 공원을 만들고, 그 안에 모든 종류의 과일나무를 심었다.
- 6 나는 나를 위해 연못들을 만들고, 나무가 자라는 숲을 관개하였다.
- 7 나는 남종과 여종을 사들였고, 내 집에서 태어난 종들을 두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나보다 앞선 이들보다 더 큰 가축과 양떼를 소유하였다.
- 8 나는 나를 위해 은과 금을 모으고, 왕들과 지방들의 보물을 쌓았다. 나는 남자와 여자 노래꾼들을 얻었고, 사람들의 즐거움인 모든 종류의 악기를 갖추었다.
- 9 그러므로 나는 위대해졌고, 예루살렘에서 나보다 앞선 이들보다 더 크게 성장하였다. 내 지혜도 나와 함께 남아 있었다.
- 10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가 거부하지 않았다. 나는 내 마음이 즐거움을 거부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내 모든 수고로 인해 기뻐하였고, 이것이 내 모든 수고에서 나의 몫이었다.
- 11 그 후 나는 내 손이 행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이룬 모든 일을 돌아보았다. 보라, 모두가 허무하고 바람을 쫓는 것이었으며, 해 아래에서 이익이 전혀 없었다.
- 12 나는 지혜와 미친 것과 어리석음을 생각해 보았다. 왕의 뒤를 잇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래전에 이미 행해진 것뿐이다.
- 13 그러나 나는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난을 보았다. 마치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처럼.
- 14 지혜로운 자의 눈은 머리에 있고,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을 걷는다. 그러나 나는 그 둘에게 같은 일이 일어남을 깨달았다.
- 15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속으로 말했다.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왜 더 지혜로웠던가?" 그리고 나는 내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것도 허무하다."
- 16 지혜로운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영원히 기억될 것이 없다. 앞으로 올 날들에 모두가 이미 잊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처럼 반드시 죽는다!
- 17 그러므로 나는 삶을 미워하였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수고가 나에게 괴로웠기 때문이다. 모두가 허무하고 바람을 쫓는 것이기 때문이다.
- 18 나는 해 아래에서 내가 수고한 모든 일을 미워하였다. 내가 뒤에 오는 자에게 그것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 19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될지 어리석은 자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그는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지혜를 보인 모든 수고를 다 다스릴 것이다. 이것도 허무하다.
- 20 그러므로 나는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일에 대해 내 마음이 절망하게 되었다.
- 21 누군가는 지혜와 지식과 숙련으로 수고하지만, 그가 그 몫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남긴다. 이것도 허무하고 큰 악이다.
- 22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마음을 써서 얻는 것이 무엇이나?
- 23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고, 그의 수고는 고통이다. 심지어 밤에도 그의 마음은 쉬지 않는다. 이것도 허무하다.
- 24 사람에게 좋은 것이란 먹고 마시며, 자신의 수고 속에서 마음이 기쁨을 누리는 것뿐이다. 이것도 내가 보니 하느님의 손에서 온 것이다.
- 25 누가 나보다 더 먹거나 즐길 수 있겠는가?
- 26 하느님께서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신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수고를 주셔서 모으고 쌓게 하시나, 그가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 이것도 허무하고 바람을 쫓는 것이다.

코헬렛 3장

- ¹ 모든 일에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 정해진 때가 있다.
- ²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 ³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다.
- 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 ⁵ 돌을 치워버릴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다.
- ⁶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다.
- ⁷ 찢을 때가 있고, 꿰매는 때가 있다.
- ⁸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 ⁹ 사람이 자기가 수고하는 일에서 무엇을 얻는가?
- ¹⁰ 나는 하느님이 인류에게 주신 고난의 짐을 보았다.
- ¹¹ 그분은 모든 일을 그 시기에 아름답게 하셨다. 또 그들에게 영원을 넣어주셨으나, 사람은 하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일을 결코 알아낼 수 없다.
- ¹² 나는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상의 것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안다.
- ¹³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수고의 모든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하느님의 선물이다.
- ¹⁴ 나는 하느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 위에 무엇을 더할 수도 없고, 그에서 무엇을 빼낼 수도 없다. 하느님은 사람이 그분을 두려워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
- ¹⁵ 지난 일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고, 앞으로 있을 일도 이미 오래전에 있었다. 하느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아내신다.
- ¹⁶ 또 나는 해 아래, 공정이 이루어지는 곳에 악이 있고,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곳에도 악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 ¹⁷ 나는 내 마음속으로 말했다. "하느님께서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과 모든 일에 정해진 때가 있기 때문이다."
- ¹⁸ 나는 내 마음속으로 말했다. "인류의 자녀들에 관해,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자신들이 짐승과 같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 ¹⁹ 인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일어난다. 그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모두 한 숨을 쉬며, 사람은 짐승보다 나은 점이 없고, 모두가 허무하다.
- ²⁰ 모두 한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왔고, 모두 흙으로 돌아간다.
- ²¹ 사람의 영이 위로 올라가는지, 짐승의 영이 땅 아래로 내려가는지 누가 알겠는가?
- ²²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의 일에서 기뻐하는 것 이상의 것이 없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누가 그를 이끌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보게 할 수 있겠는가?

코헬렛 4장

- ¹ 그러고 나서 나는 돌아가서 태양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억압을 보았다. 보라, 억압받는 자들의 눈물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위로하는 이가 없었다. 억압하는 자들의 쪽에는 힘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위로하는 이가 없었다.
- ²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 있는 자들보다 이미 오래전에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고 칭찬하였다.
- ³ 그 둘보다 더 나은 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태양 아래서 행해지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이이다.
- ⁴ 그러고 나서 나는 모든 수고와 성취를 보았다. 그것들은 이웃의 질투의 대상이었다. 이것도 허무하고 바람을 쫓는 것이다.
- ⁵ 어리석은 자는 손을 모아 자신을 파멸시킨다.
- ⁶ 조용함과 함께 한 줌이, 수고하고 바람을 쫓는 두 줌보다 낫다.
- ⁷ 그러고 나서 나는 돌아가서 해 아래의 허무를 보았다.
- ⁸ 혼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 그의 모든 수고에 끝이 없고, 그의 눈은 재산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위해 수고하며 내 영혼의 즐거움을 빼앗는가?" 이 또한 허무하다. 참으로 비참한 일이다.
- ⁹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들은 자기 수고에 좋은 보상을 얻기 때문이다.
- ¹⁰ 만약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다른 이를 일으켜 세우지만, 혼자 넘어진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가 일으켜 세울 이가 없기 때문이다.
- ¹¹ 또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그런데 혼자서 어떻게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 ¹² 혼자 있는 자를 이긴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이 그를 막을 수 있다. 세 갈래로 꼬인 줄은 금방 끊어지지 않는다.
- ¹³ 조언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늙고 어리석은 왕보다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 ¹⁴ 그는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고, 심지어 그의 왕국에서도 가난하게 태어났다.
- ¹⁵ 나는 태양 아래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이들을 보았다. 그들은 그를 따르는 젊은이, 곧 그의 뒤를 잇는 자와 함께 있었다.
- ¹⁶ 그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도 끝이 없었으나, 그 뒤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또한 허무하고 바람을 쫓는 것이다.

코헬렛 5장

- ¹ 하느님의 집에 갈 때는 네 발걸음을 주의하여라. 어리석은 자들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나아가 듣는 것이 낫다. 그들은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² 네 입을 서두르지 말고, 하느님 앞에서 마음을 급히 내뱉지 말라.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러므로 네 말은 적게 하라.
- ³ 꿈은 많은 염려와 함께 오듯, 어리석은 자의 말도 많은 말과 함께 온다.
- ⁴ 하느님께 서원을 하였다면, 그것을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그분은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네가 서원한 것을 갚아라.
- ⁵ 서원하지 않는 것이 서원하고도 갚지 않는 것보다 낫다.
- ⁶ 네 입이 죄를 범하게 내버려두지 말라. 사자 앞에서 이것이 실수였다고 변명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느님께서 네 목소리에 분노하여 네 손으로 한 일을 파괴하시려 하겠느냐?
- ⁷ 많은 꿈에는 허무한 것이 많고, 많은 말에도 허무한 것이 많다. 그러나 너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라.
- ⁸ 가난한 자들의 억압과 한 지역에서 정의와 의로움이 강탈되는 것을 보거든, 그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한 관리가 더 높은 관리의 눈치를 보고, 그 위에도 또 관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 ⁹ 또 땅의 수익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왕은 밭에서 이익을 얻는다.
- ¹⁰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가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것도 허무하다.
- ¹¹ 재산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들도 늘어나고, 그 소유주에게 이익이 무엇이냐? 오직 그 눈으로 그것을 즐기는 것뿐이다.
- ¹² 수고하는 자의 잠은 달콤하니, 적게 먹든 많이 먹든 상관없다. 그러나 부자의 풍요는 그가 잠을 잘 수 없게 한다.
- ¹³ 내가 해 아래에서 본 심각한 악이 있다. 그것은 재산이 그 소유주에게 해가 되도록 그가 간직하는 것이다.
- ¹⁴ 그 재산은 재난으로 사라지고, 그가 아들을 낳았더라도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 ¹⁵ 그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처럼, 그는 허드렛몸으로 돌아가며, 자신의 수고로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쥐고 데려가지 못한다.
- ¹⁶ 이것도 심각한 악이다. 그가 온 것처럼 그가 가고, 바람을 위해 수고하는 자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 ¹⁷ 그의 모든 날은 어둠 속에서 먹고, 좌절하며, 병과 분노를 겪는다.
- ¹⁸ 보라, 내가 좋은 것으로 옳다고 본 것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신 평생의 날들 동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일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몫이다.
- ¹⁹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를 주시고, 그것들을 먹고, 자신의 몫을 취하며, 수고하는 일에서 기뻐할 능력을 주신다면, 이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 ²⁰ 그는 자신의 평생 날들을 자주 생각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의 기쁨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코헬렛 6장

- ¹ 나는 태양 아래에서 보았는데, 사람에게 무거운 악이 하나 있다.
- ² 하느님이 그에게 재산과 부와 존엄을 주셔서 그가 마음에 바라는 것을 하나도 부족함 없이 누리게 하셨으나, 그가 그 것을 먹을 능력을 주지 않으시고, 타인이 그것을 먹는다. 이것은 허무하며, 심각한 병이다.
- ³ 만일 어떤 사람이 백 자녀를 낳고 오래 살며 그의 연세가 많아도, 그의 영혼이 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게다가 장례조차 받지 못한다면, 나는 태어나기 직전에 죽은 아이가 그보다 낫다고 말한다.
- ⁴ 그 아이는 허무로 와서 어둠으로 떠나며, 그 이름은 어둠으로 덮인다.
- ⁵ 게다가 그 아이는 해를 보지도 못했고, 그것도 알지 못한다. 이 아이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휴식을 얻는다.
- ⁶ 비록 그가 두 천 년을 살고선 선한 것을 즐기지 못하더라도, 모두 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 ⁷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입을 위한 것이지만,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다.
- ⁸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어떤 이득이 있는가? 살아 있는 자 앞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아는 가난한 자가 무엇을 가졌는가?
- ⁹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의 해매임보다 낫다. 이것도 허무하고 바람을 쫓는 것이다.
- ¹⁰ 이미 있는 모든 것은 오래전에 이름이 붙여졌고, 사람이 무엇인지 알려져 있다. 그는 자신보다 더 강한 이와 다투 수 없다.
- ¹¹ 허무를 일으키는 말이 많다.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가?
- ¹² 사람이 삶에서 무엇이 좋은지, 그가 그림자처럼 보내는 허무한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겠는가? 태양 아래 그 뒤에 무엇이 올지 누가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가?

코헬렛 7장

- ¹ 좋은 이름은 향수보다 낫고, 죽음의 날은 태어난 날보다 낫다.
- ² 상례의 집에 가는 것이 잔치의 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기 때문이며, 살아 있는 자는 이 일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 ³ 슬픔은 웃음보다 낫다. 얼굴의 슬픔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이다.
- 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상례의 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즐거움의 집에 있다.
- ⁵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 ⁶ 술 아래서 가시덤불이 타는 튀는 소리처럼, 어리석은 자의 웃음도 그러하다. 이것도 허무하다.
- ⁷ 분명히 탐욕은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이해력을 파괴한다.
- ⁸ 사물의 끝은 그 시작보다 낫다.
- ⁹ 너의 마음이 급히 분노하지 않도록 하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 ¹⁰ "왜 이전의 날들이 지금보다 더 좋았던가?"라고 말하지 말라. 너는 이 일에 대해 지혜롭게 묻지 않기 때문이다.
- ¹¹ 지혜는 유산과 같으니, 해를 보는 자들에게는 더욱 뛰어나다.
- ¹² 지혜는 돈처럼 방어가 되나, 지식의 뛰어남은 지혜가 그것을 가진 자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점이다.
- ¹³ 하느님의 행위를 생각하여라. 누가 그가 굽게 만든 것을 곧게 할 수 있겠느냐?
- ¹⁴ 행복의 날에는 기뻐하고, 어려움의 날에는 생각하여라. 하느님께서 이 돌을 나란히 두셨으니, 이는 사람이 자기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 ¹⁵ 내가 허무한 날들 동안 모두 보았다. 의로운 자가 자신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죽고, 악한 자가 자신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오래 산다.
- ¹⁶ 지나치게 의로워지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워지지 말라. 어찌하여 너는 스스로를 파괴하려 하는가?
- ¹⁷ 지나치게 악하지 말고, 어리석지도 말라. 어찌하여 너는 제때에 죽으려 하는가?
- ¹⁸ 이것을 붙잡는 것이 좋다. 저것도 놓지 말라.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이다.
- ¹⁹ 지혜는 도시에 있는 열 명의 통치자보다 지혜로운 자에게 더 강력한 힘이 된다.
- ²⁰ 분명히 땅 위에는 선을 행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
- ²¹ 또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래야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 ²² 네 마음이 자주 알고 있듯이, 너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를 저주했기 때문이다.
- ²³ 내가 지혜로써 이 모든 것을 시험해 보았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지혜로워지리라." 하였으나, 그것은 내게서 멀었다.
- ²⁴ 있는 것은 멀고 깊이가 매우 깊다. 누가 그것을 찾을 수 있겠느냐?
- ²⁵ 나는 돌아보았고, 내 마음이 지혜와 일의 계획을 알고 탐구하며 찾으려 애썼다. 악은 어리석음이며, 미친 것은 미친 것임을 알기 위해서였다.
- ²⁶ 나는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마음은 올가미와 덫이며, 손은 사슬이다.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벗어나지만, 죄인은 그녀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 ²⁷ "보라, 내가 이것을 찾았다." 전도자가 말한다. "서로에게서 해석을 찾으려고."
- ²⁸ 내 영혼이 아직도 찾고 있지만, 나는 찾지 못했다. 나는 천 명 중 한 명의 남자를 찾았으나,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는 여자를 찾지 못했다.
- ²⁹ 보라, 내가 단지 이것만을 찾았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정직하게 만드셨으나, 그들은 많은 꾸밈을 찾고 있다.

코헬렛 8장

- 1 지혜로운 자처럼 누구냐? 누가 사물의 해석을 알겠느냐? 사람의 지혜가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그의 얼굴의 굳센 기색을 바꾸어 놓는다.
- 2 내가 말한다. "하느님께 드린 맹세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켜라."
- 3 그의 앞에서 서둘러 떠나지 마라. 악한 일을 고집하지 마라. 그는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한다.
- 4 왕의 말은 최고의 권위를 지닌다. 누가 그에게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 5 명령을 지키는 자는 해를 입지 않으며, 그의 지혜로운 마음은 때와 절차를 알 것이다.
- 6 모든 일에는 때와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고통은 그에게 무겁다.
- 7 그는 장차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 누가 그에게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해 주겠느냐?
- 8 누구도 영을 지배하여 영을 억누를 힘이 없고, 죽음의 날을 지배할 힘도 없다. 전쟁에서는 면제가 없고, 악행은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 9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였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는 때가 있다.
- 10 내가 악인들이 장사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성소에서 나와서, 그들이 이 일을 한 도시에서 잊혀졌다. 이것도 허무하다.
- 11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이 서둘러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 데에 온통 빠져 있다.
- 12 비록 죄인이 백 번이나 죄를 지어도 장수하더라도, 나는 분명히 알겠다.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들이 더 나을 것이라고.
- 13 악인에게는 좋지 못할 것이며, 그는 그림자처럼 날을 길게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 14 해 아래서 행해지는 허무한 일이 있다. 악인의 행위에 따라 의로운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고, 또 의로운 자의 행위에 따라 악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다. 나는 이것도 허무하다고 말하였다.
- 15 그러므로 나는 기쁨을 칭찬하였다. 해 아래서 사람에게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기쁨이 그가 하느님께서 해 아래서 주신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의 수고를 따라 함께할 것이다.
- 16 내가 지혜를 알고,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보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을 때, (눈은 낮이나 밤이나 잠을 보지 못했지만),
- 17 내가 하느님의 모든 일을 보았다. 사람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찾을 수 없다. 비록 사람이 그것을 찾으려고 얼마나 수고하더라도, 결코 찾지 못할 것이다. 비록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는 결코 찾지 못할 것이다.

코헬렛 9장

- ¹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모든 것을 탐구하려고 했다. 의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와 그들의 행위는 모두 하느님의 손에 있으며, 사랑이든 증오든,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모든 것이 그들 앞에 있다.
- ²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난다. 의로운 자와 악한 자에게,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부정한 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에게, 한 사건이 일어난다. 선한 자처럼 죄인도 되고, 맹세하는 자처럼 맹세를 두려워하는 자도 된다.
- ³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이것이 악이다. 모든 사람에게 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미친 듯이 행동하며, 그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
- ⁴ 모든 살아 있는 자와 함께 있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다. 살아 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 ⁵ 살아 있는 자는 자신이 죽을 것임을 알고 있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더 이상 보상도 받지 못한다. 그들의 기억은 잊혀지기 때문이다.
- ⁶ 그들의 사랑과 증오와 질투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들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영원히 참여하지 못한다.
- ⁷ 너는 가서 기쁨으로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하느님은 이미 네 행위를 받아들였다.
- ⁸ 네 옷은 항상 희게 하고, 네 머리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 ⁹ 네가 해 아래에서 하느님께서 네게 주신 허무한 삶의 모든 날 동안,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기쁨으로 살아라. 그것이 네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삶과 노동에서 얻는 몫이다.
- ¹⁰ 네 손이 찾는 바를 네 힘을 다해 하라. 네가 가는 곳, 곧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 ¹¹ 나는 해 아래에서 다시 보았다.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전투가 강한 자에게 주어지지 않으며, 빵이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부가 지각 있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으며, 은총이 재주 있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때와 기회가 일어난다.
- ¹² 사람도 자신의 때를 알지 못한다. 나쁜 그물에 잡힌 물고기처럼, 나쁜 덫에 걸린 새처럼, 사람의 아들들도 나쁜 때에 걸려, 갑작스럽게 그 때가 그들에게 닥친다.
- ¹³ 나는 또한 이와 같이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았고, 그것이 나에게 매우 위대하게 보였다.
- ¹⁴ 작은 도시가 있었고, 그 안에 사람도 적었다. 그런데 큰 왕이 그 도시를 치기 위해 와서 공격하고, 큰 성벽을 쌓았다.
- ¹⁵ 그 도시에 가난한 지혜로운 자가 한 명 발견되었고, 그가 자신의 지혜로 도시를 구원하였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 ¹⁶ 그때 나는 말했다. "지혜는 힘보다 낫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지혜는 경멸받고, 그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
- ¹⁷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어리석은 자들 사이에서 외치는 자의 외침보다 낫다.
- ¹⁸ 지혜는 전쟁 무기보다 낫다. 그러나 한 죄인은 많은 선을 파괴한다.

코헬렛 10장

- 1 죽은 파리들이 향유제조자의 기름에서 악취를 일으킨다.
- 2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쪽에 있다.
- 3 어리석은 자가 길을 걸을 때에도 그의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어리석다고 말한다.
- 4 만약 통치자의 분노가 너를 향해 일어난다면, 네 자리를 떠나지 마라. 온화함은 큰 죄를 진정시킨다.
- 5 내가 해 아래에서 본 악한 일은 통치자에게서 비롯되는 잘못이다.
- 6 어리석음은 높은 지위에 앉아 있고, 부자는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
- 7 내가 말 위에 앉은 하인들과 땅 위를 하인처럼 걷는 왕자들을 보았다.
- 8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질 것이고, 담을 뚫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
- 9 돌을 깎는 자는 그 돌에 다칠 것이고, 나무를 베는 자는 그 일로 위험에 처할 것이다.
- 10 도끼가 둔해지면, 날을 갈지 않으면 힘을 더 써야 한다. 그러나 능숙함은 성공을 가져온다.
- 11 뱀이 마법으로 진정되기 전에 물면, 마법사의 혀에는 이익이 없다.
- 12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롭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입술에 삼켜진다.
- 13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시작은 어리석음이며, 그의 말의 끝은 악의적인 미친 짓이다.
- 14 어리석은 자도 말을 많이 한다.
- 15 어리석은 자의 노동은 그를 모두 피곤하게 한다. 그는 도시에 가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 16 네 왕이 어린아이일 때, 네 땅아, 화가 있을지어다.
- 17 네 왕이 귀족의 아들일 때, 네 땅아, 복이 있을지어다.
- 18 게으름으로 지붕이 처진다.
- 19 잔치는 웃음을 위해 마련된다.
- 20 왕을 저주하지 마라. 심지어 마음속으로도 하지 마라.

코헬렛 11장

- 1 물 위에 빵을 던져라;
- 2 일곱에게는 한 부분을, 심지어 여덟에게도 주어라;
- 3 구름이 비로 가득하면 땅에 비를 쏟아낸다;
- 4 바람을 지켜보는 자는 씨를 뿌리지 않는다;
- 5 네가 바람의 길이 어떻게 되는지, 뼈가 잉태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듯;
- 6 아침에 네 씨를 뿌리고,
- 7 진실로 빛은 달콤하다;
- 8 사람이 많은 해를 살면 그 모든 해를 즐거워하라;
- 9 젊은이여, 네 젊음에 즐거워하라;
- 10 그러므로 네 마음에서 슬픔을 제거하라.

코헬렛 12장

- ¹ 젊은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 ²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에,
- ³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리며,
- ⁴ 거리의 문들이 닫히고,
- ⁵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 ⁶ 은줄이 끊어지기 전에,
- ⁷ 먼지가 원래 있었던 땅으로 돌아가고,
- ⁸ “허무한 것들 중의 허무한 것”이라 전도자가 말한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 ⁹ 전도자는 지혜로웠으므로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며 많은 속담을 정리하였다.
- ¹⁰ 전도자는 받아들여질 만한 말을 찾고, 흠잡을 데 없이 쓰인 진리의 말을 추구하였다.
- ¹¹ 지혜로운 자들의 말은 채찍 같고, 공동체의 스승들의 말은 단단히 박힌 못 같으니, 이 모든 것은 한 목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 ¹² 또한 내 아들이아, 이 말로 경고한다. 책을 많이 쓰는 데는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육신을 피곤하게 한다.
- ¹³ 이것이 전부이다. 모든 것이 들렸다.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다.
- ¹⁴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며,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숨겨진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가 | Song of Songs

아가 1장

- ¹ 솔로몬의 아가, 곧 아가들 중의 아가.
- ² 그가 입술로 나를 맞아 주기를 바라나이다.
- ³ 당신의 향기로운 기름은 향기롭나이다.
- ⁴ 나를 당신과 함께 데려가소서. 우리는 당신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당신의 사랑을 더 칭찬하리이다.
- ⁵ 나는 검지만 아름답도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 ⁶ 내가 검은 까닭으로 나를 쳐다보지 마소서. 해가 나를 태웠음이라.
- ⁷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여, 나를 알려 주소서.
- ⁸ 여자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여, 네가 알지 못하면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가소서.
- ⁹ 내 사랑하는 자여, 나는 너를 말처럼 비유하노라.
- ¹⁰ 당신의 뺨은 귀걸이로 아름답도다.
- ¹¹ 우리는 당신을 금 귀걸이로 꾸미리라.
- ¹² 왕이 그의 상에 앉아 있을 때에.
- ¹³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몰약 주머니와 같도다.
- ¹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야자나무 꽃다발과 같도다.
- ¹⁵ 보라, 당신은 아름답도다, 내 사랑하는 자여.
- ¹⁶ 보라, 당신은 아름답도다, 내 사랑하는 자여, 참으로 기쁘도다.
- ¹⁷ 우리 집의 들보는 백향목이고, 우리의 천장은 전나무로 되었도다.

아가 2장

- ¹ 나는 샤론의 장미입니다.
- ² 가시덤불 사이의 백합처럼,
- ³ 숲의 나무들 사이의 사과나무처럼,
- ⁴ 그가 나를 잔치실로 데려왔습니다.
- ⁵ 건포도로 나를 힘차게 하세요,
- ⁶ 그의 왼손은 내 머리 아래에 있습니다.
- ⁷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를 맹세한다.
- ⁸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 ⁹ 내 사랑하는 자는 사슴이나 젊은 사슴 같아요.
- ¹⁰ 내 사랑하는 자가 말하여 내게 이르기를, "일어나라, 내 사랑, 내 아름다운 이여, 함께 떠나자."
- ¹¹ 보라, 겨울이 지나갔다.
- ¹² 땅에 꽃이 피어난다.
- ¹³ 무화과나무가 그 녹색 무화과를 익힌다.
- ¹⁴ 바위 틈에 있는 내 비둘기야, 내게 네 얼굴을 보여주고, 네 목소리를 들려줘.
- ¹⁵ 우리에게 여우들을 잡아라,
- ¹⁶ 내 사랑하는 자는 내 것이고, 나는 그의 것입니다. 그는 백합 사이에서 풀을 뜯습니다.
- ¹⁷ 날이 시원해지고 그림자들이 도망갈 때까지.

아가 3장

- ¹ 밤에 내 침상에서,
- ² 나는 일어나서 성을 두루 돌아다니리라.
- ³ 성을 두루 돌아다니는 경비원들이 나를 만나며 말했다.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를 보았느냐?"
- ⁴ 그들로부터 조금 지나자,
- ⁵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를 맹세한다.
- ⁶ 연기 기둥처럼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는 누구인가?
- ⁷ 보라, 그것은 솔로몬의 수레이다!
- ⁸ 그들은 모두 칼을 다루며 전쟁에 능하다.
- ⁹ 솔로몬 왕이 자신을 위한 수레를 만들었으며,
- ¹⁰ 그의 수레 기둥은 은으로 만들었고,
- ¹¹ 시온의 딸들아, 나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아가 4장

- ¹ 보아라, 너는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이여.
- ² 너의 이는 새로 깎은 양 떼처럼 고르구나.
- ³ 너의 입술은 붉은 실처럼 빛나구나.
- ⁴ 너의 목은 병기고를 위해 세운 다윗의 탑처럼 아름답구나.
- ⁵ 너의 두 젖은 백합 사이에서 풀을 뜯는 두 암사슴처럼 구나.
- ⁶ 날이 시원해지고 그림자들이 사라질 때까지.
- ⁷ 너는 온통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이여.
- ⁸ 내 아내여,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오너라.
- ⁹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내 누이여, 내 아내여.
- ¹⁰ 너의 사랑은 얼마나 아름답구나, 내 누이여, 내 아내여!
- ¹¹ 너의 입술, 내 아내여, 꿀집에서 떨어지는 꿀처럼 떨어지구나.
- ¹² 내 누이여, 내 아내여, 너는 잠긴 정원이구나.
- ¹³ 너의 싹은 석류나무와 귀한 열매로 가득한 정원이구나.
- ¹⁴ 스파이크나드와 사프란,
- ¹⁵ 정원들의 샘,
- ¹⁶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와서 내 사랑이 그의 정원에 들어오게 하여라.

아가 5장

- ¹ 나는 내 정원에 들어왔으니, 내 자매, 내 신부여. 나는 내 몰약을 향료와 함께 거두었고, 내 벌집을 꿀과 함께 먹었으며, 내 포도주를 우유와 함께 마셨다. 친구들아, 먹어라!
- ² 나는 잠들어 있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었다. '나에게 열어다오, 내 자매, 내 사랑, 내 비둘기, 내 순결한 자여,'
- ³ 나는 옷을 벗었으니, 다시 입어야 할까? 나는 발을 씻었으니, 다시 더럽혀야 할까?
- ⁴ 내 사랑하는 이가 손을 문살 틈으로 넣었다.
- ⁵ 나는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 문을 열었다.
- ⁶ 나는 내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 ⁷ 도시를 순찰하는 경비원들이 나를 만나서,
- ⁸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맹세한다. 내 사랑하는 이를 만난다면,
- ⁹ 네 사랑하는 이는 다른 사랑하는 이보다 여찌 더 낫단 말인가?
- ¹⁰ 내 사랑하는 이는 하얗고 붉다.
- ¹¹ 그의 머리는 순금처럼 맑다.
- ¹² 그의 눈은 물가의 비둘기처럼,
- ¹³ 그의 뺨은 향료로 된 침대이며, 향기로운 탑들처럼,
- ¹⁴ 그의 손은 보석으로 박힌 금 반지 같고,
- ¹⁵ 그의 다리는 대리석 기둥처럼, 정교한 금 받침 위에 놓였으며,
- ¹⁶ 그의 입은 달콤하고, 그는 온통 사랑스럽다.

아가 6장

- ¹ 아름다운 여자들 가운데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는 어디로 갔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이는 어디로 가셨기에, 우리가 당신과 함께 그를 찾을 수 있습니까?
- ² 내 사랑하는 이가 그의 정원으로 내려가셨습니다.
- ³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고, 내 사랑하는 이는 내 것입니다. 그는 백합 사이에서 풀을 뜯습니다.
- ⁴ 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무서울 정도로 위엄 있습니다.
- ⁵ 내게서 눈을 돌리십시오.
- ⁶ 당신의 이는 양 떼처럼 곧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 ⁷ 당신의 뺨은 두건 뒤의 석류 한 조각처럼 생겼습니다.
- ⁸ 여왕이 육십 명, 첩이 팔십 명,
- ⁹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이는 유일합니다.
- ¹⁰ 아침처럼 빛나며 바라보는 이는 누구입니까?
- ¹¹ 나는 호두나무 숲으로 내려갔습니다.
- ¹² 알지 못한 채,
- ¹³ 돌아오소서, 술람미여!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왜 당신은 술람미를 마치 마하나임의 춤처럼 바라보려 합니까?

아가 7장

- ¹ 모래신을 신은 당신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왕자의 딸아!
- ² 당신의 몸은 둥근 잔 같고, 석인 포도주가 결코 부족하지 않네.
- ³ 당신의 두 젖은 두 마리의 암사슴 같아, 염소사슴의 쌍둥이처럼.
- ⁴ 당신의 목은 상아로 만든 탑 같고, 당신의 눈은 바트라비민 문 옆 헤스본의 연못 같으며, 당신의 코는 다마스쿠스를 향해 바라보는 레바논의 탑 같네.
- ⁵ 당신의 머리는 카르멜 같구나.
- ⁶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얼마나 아름답고 기쁨이 가득한가!
- ⁷ 당신의 키는 야자나무 같고,
- ⁸ 내가 말했네, "내가 야자나무에 올라가리라. 당신의 젖은 포도송이처럼 되기를.
- ⁹ 당신의 입은 최고의 포도주 같아, 잠든 자들의 입술을 따라 흐르네.
- ¹⁰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니.
- ¹¹ 오라, 내 사랑하는 이여! 우리가 들판으로 나가자. 우리가 마을에서 밤을 지내자.
- ¹² 우리가 일찍 포도원으로 올라가자.
- ¹³ 만드라크가 향기를 내뿜는구나.

아가 8장

- ¹ 너는 내 형제였다면 좋겠다. 내가 길에서 너를 만나면 입맞출 텐데,
- ² 내가 너를 데리고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
- ³ 그의 왼손은 내 머리 밑에 있고,
- 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를 맹세한다.
- ⁵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는 누구인가?
- ⁶ 내 마음에 인으로 나를 두고,
- ⁷ 많은 물들도 사랑을 꺼버릴 수 없고, 사람이 사랑을 위해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바치려 해도,
- ⁸ 우리에게 어린 누이가 있다.
- ⁹ 그녀가 벽이라면,
- ¹⁰ 나는 벽이고, 내 가슴은 탑처럼 되어 있다.
- ¹¹ 솔로몬은 바알 하몬에 포도원을 가졌다.
- ¹²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다.
- ¹³ 정원에 거주하며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들아, 내게 네 목소리를 들려줘!
- ¹⁴ 내 사랑하는 자여, 빨리 와!

지혜서 | Wisdom

지혜서 1장

- ¹ 땅의 모든 재판관들아, 의로움을 사랑하라.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그를 구하라.
- ² 그분은 시험하지 않는 자들에게 발견되며, 신뢰하는 자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 ³ 왜냐하면 굽은 생각은 하느님과 떨어지기 때문이며, 그분의 능력은 시험받을 때 죄를 드러내고 어리석음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 ⁴ 왜냐하면 지혜는 악을 꾸미는 영혼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죄에 사로잡힌 몸에는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 ⁵ 거룩한 징계의 영은 속임을 피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에서 떠나며, 불의가 들어오면 부끄러워한다.
- ⁶ 지혜는 사람을 사랑하는 영이니, 그녀는 입으로 신성모독을 하는 자를 무죄로 여기지 않는다. 하느님은 그의 내면을 증인으로 삼고, 그의 마음을 진실한 감독으로 삼으며, 그의 혀를 듣는 분이기 때문이다.
- ⁷ 주님의 영이 온 세상을 채우고, 모든 것을 잇는 이는 말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 ⁸ 그러므로 불의한 말을 하는 자는 결코 숨지 못하며, 정의가 그를 책망할 때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
- ⁹ 불경한 자들의 계획은 그분의 판단으로 탐지되며, 그들의 말소리가 주님께 이르러 그들의 불법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 ¹⁰ 왜냐하면 시기 어린 귀는 모든 것을 듣고, 불평의 소리는 숨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 ¹¹ 그러므로 무익한 불평을 경계하고, 혀로 험담을 하지 마라. 아무리 은밀한 말이라도 허공으로 흘러가지 않으며, 거짓된 입은 영혼을 파괴한다.
- ¹² 너의 삶의 오류로 죽음을 유혹하지 말고, 너의 손으로 만든 일로 스스로 파멸을 불러오지 마라.
- ¹³ 하느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살아 있는 자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 ¹⁴ 그분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 세상의 생성력은 건강하며, 그 안에는 파멸의 독이 없고, 음부는 땅 위에서 왕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¹⁵ 왜냐하면 의로움은 죽지 않기 때문이다.
- ¹⁶ 그러나 불경한 자들은 손과 말로 죽음을 부르며, 그를 친구로 여기고 쇠약해진다. 그들은 그와 함께 있을 자격이 있다고 여겨 그와 계약을 맺는다.

지혜서 2장

- ¹ 그들은 스스로 잘못된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의 삶은 짧고 슬프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면 치유가 없고, 스올에서 풀려난 자는 결코 없었다."
- ²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고, 이후에는 마치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될 것이다. 우리 콧구멍의 숨은 연기이고, 이성은 우리 심장이 뛰며 일으킨 불씨일 뿐이다.
- ³ 그 불씨가 꺼지면 몸은 재가 되고, 영은 희미한 공기처럼 흩어질 것이다.
- ⁴ 우리의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이다. 아무도 우리의 업적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삶은 구름의 자취처럼 사라지고, 안개처럼 흩어질 것이다. 해의 빛에 쫓기고 그 열기에 눌러 사라지듯.
- ⁵ 우리가 주어진 시간은 그림자처럼 스쳐가는 것이고, 우리의 죽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그것은 단단히 봉인되어 있고, 아무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
- ⁶ 그러므로 와서, 존재하는 좋은 것들을 즐기자. 젊었을 때처럼 창조물을 열심히 누리자.
- ⁷ 비싼 포도주와 향수로 우리를 채우고, 봄의 꽃이 우리를 지나가게 두지 말자.
- ⁸ 그 꽃이 시들기 전에 장미꽃으로 우리를 관에 씌우자.
- ⁹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자랑스러운 잔치의 몫을 빼놓지 말자. 어디서나 즐거움의 흔적을 남기자. 이것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 ¹⁰ 의로운 가난한 자를 억압하자. 과부를 아끼지 말고, 늙은이의 흰 머리카락을 존중하지 말자.
- ¹¹ 우리의 힘이 의로움의 법이 되게 하자. 약한 것은 무용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 ¹² 그러나 의로운 자를 노리자. 그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행위에 반대하며, 우리를 율법에 대한 죄와 우리의 교육에 대한 죄로 책망하며 고발하기 때문이다.
- ¹³ 그는 하느님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님의 자식이라 칭한다.
- ¹⁴ 그는 우리 생각의 책망이 되었다.
- ¹⁵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그의 길이 낯설기 때문에, 그를 보는 것조차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다.
- ¹⁶ 그는 우리를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 길을 부정한 것처럼 피한다. 그는 의로운 자의 마지막을 복되다고 부른다. 그는 하느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자랑한다.
- ¹⁷ 그의 말이 진실인지 보자. 그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시험해 보자.
- ¹⁸ 만일 의로운 자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그는 그를 지켜주고, 그의 적들의 손에서 그를 구원할 것이다.
- ¹⁹ 우리는 그를 모욕과 고문으로 시험하여, 그가 얼마나 온화한지, 그의 인내가 얼마나 큰지 알아보자.
- ²⁰ 우리는 그를 수치스러운 죽음에 처하자. 그의 말대로 그는 보호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 ²¹ 이처럼 그들은 생각했고, 미혹당했다. 그들의 악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 ²² 그들은 하느님의 신비를 알지 못했고, 성결의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으며, 흠없는 영혼들을 위한 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 ²³ 하느님은 사람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자기 영원함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 ²⁴ 그러나 죽음은 악마의 질투로 세상에 들어왔고, 그의 소속된 자들이 그것을 경험한다.

지혜서 3장

- ¹ 의로운 자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에 있다. 어떤 고통도 그들에게 닿지 않는다.
- ²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그들이 죽은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떠남은 재앙으로 여겨졌고,
- ³ 우리로부터의 떠남은 파멸로 여겨졌으나, 그들은 평화 속에 있다.
- ⁴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징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소망은 죽음이 없는 생명으로 가득하다.
- ⁵ 그들은 잠시 동안 징벌을 겪었지만, 큰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자신에게 합당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다.
- ⁶ 그분은 그들을 화로 속의 금처럼 시험하시고, 온전히 태워 바치는 제물처럼 받아들이셨다.
- ⁷ 그들이 방문받을 때, 그들은 빛나며, 풀무더기 사이에서 떨어지는 불꽃처럼 왔다 갔다 할 것이다.
- ⁸ 그들은 민족들을 심판하고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 ⁹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진리를 이해할 것이고, 신실한 자들은 사랑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그분의 택한 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 ¹⁰ 그러나 불경한 자들은 그들의 사고가 마땅히 받을 대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의로움을 버리고 주님을 거역한 자들이다.
- ¹¹ 지혜와 교훈을 경멸하는 자는 불행하다. 그들의 소망은 허무하고, 그들의 수고는 무익하며, 그들의 행위는 쓸모없다.
- ¹² 그들의 아내들은 어리석고, 그들의 자녀들은 악하다.
- ¹³ 그들의 자손은 저주를 받는다. 죄악으로 잉태하지 않은 순결한 삭막한 여인은 복이 있다. 그녀는 하느님께서 영혼을 심판할 때 열매를 맺을 것이다.
- ¹⁴ 손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주님을 향해 악한 일을 꾸미지 않은 고안도 복이 있다. 그는 그의 충성에 귀한 선물을 받고, 주님의 성소에서 즐거운 유산을 얻을 것이다.
- ¹⁵ 좋은 노동은 큰 명예의 열매를 맺는다. 지혜의 뿌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 ¹⁶ 간음의 자식들은 성숙하지 못할 것이고, 불법적인 결합의 씨는 사라질 것이다.
- ¹⁷ 그들이 오래 살더라도 존중받지 못할 것이며, 결국 그들의 늙음은 영광이 없을 것이다.
- ¹⁸ 그들이 젊은 나이에 죽는다면, 그들에게는 희망도 없고, 심판의 날에 위로도 없을 것이다.
- ¹⁹ 불의한 세대의 끝은 항상 슬프다.

지혜서 4장

- ¹ 덕을 지닌 채 자식이 없는 것이 더 나으니, 덕의 불멸은 덕의 기억에 있기 때문이며, 그것은 하느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기 때문이다.
- ² 그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본받는다. 그것이 떠나면, 그들은 그것을 갈망한다. 모든 시대를 통해 그것은 승리의 화관을 쓰고, 더럽혀지지 않는 상을 향한 경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간다.
- ³ 그러나 불경건한 자의 번성한 자손은 아무런 이익도 없고, 그들의 불법적인 자손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며, 확고한 기반을 세우지 못한다.
- ⁴ 비록 그들이 한때 가치를 뵈고 번성하더라도, 불안정하게 서 있다가 바람에 흔들릴 것이며, 강한 바람의 폭력에 뿌리째 뽑힐 것이다.
- ⁵ 그들의 가치들은 성숙하기 전에 꺾일 것이며, 그들의 열매는 쓸모없고, 결코 익어 먹을 수 없으며, 아무런 용도도 없다.
- ⁶ 불법적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조사될 때 부모에 대한 악행의 증인이 된다.
- ⁷ 그러나 의로운 자는 비록 그의 때보다 일찍 죽더라도 편안할 것이다.
- ⁸ 존경받는 늙음은 긴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축정은 연수로 주어지지 않는다.
- ⁹ 그러나 지혜가 사람들의 회색 머리가 되고, 흠없는 삶이 성숙한 늙음이 된다.
- ¹⁰ 하느님께 기쁨이 되어 사랑받은 어떤 이가 죄인들 사이에 살면서 끌려 올라갔다.
- ¹¹ 악이 그의 이해를 변하게 하거나 속임이 그의 영혼을 속이지 못하도록, 그는 끌려 올라갔다.
- ¹² 악의 매력은 선한 것들을 어둡게 하며, 욕망의 회전은 순진한 마음을 왜곡한다.
- ¹³ 그는 빠르게 완전해져서 긴 세월을 채웠다.
- ¹⁴ 그의 영혼은 주님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는 악인들 사이에서 빨리 빠져나갔다.
- ¹⁵ 그러나 백성들은 보았으나 이해하지 못했고, 이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곧 은총과 자비가 그의 택한 자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그의 성인들을 방문한다는 것을.
- ¹⁶ 그러나 죽은 의로운 자는 살아 있는 불경건한 자들을 정죄하고, 빠르게 완전해진 젊은이는 불의한 자의 긴 노년을 정죄한다.
- ¹⁷ 불경건한 자들은 지혜로운 자의 마지막을 보고, 주님이 그에게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를 안전히 지키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 ¹⁸ 그들은 보고 경멸할 것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조롱하실 것이다. 그 후, 그들은 영원히 죽은 자들 사이에서 수치스러운 시체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 ¹⁹ 그는 그들을 말없이 땅에 부수고, 그들을 기반에서 흔들 것이다. 그들은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며, 고통 속에 빠지고 그들의 기억은 사라질 것이다.
- ²⁰ 그들의 죄가 계산될 때, 그들은 겁에 질려 올 것이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그들의 얼굴 앞에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지혜서 5장

- ¹ 그러면 의로운 이가 자신을 괴롭힌 자들과 자신의 노동을 무가치하게 여기던 자들의 앞에서 큰 담대함으로 서리라.
- ² 그들이 그를 볼 때, 끔찍한 두려움에 휩싸이고 구원의 놀라움에 놀라리라.
- ³ 그들은 서로 말하며 회개하고,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며 말하리라.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조롱하고 비방의 예로 여겼던 자였구나.'
- ⁴ 우리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삶을 미친 짓이라 여겼고, 그의 마지막을 영광 없이 여겼다.
- ⁵ 그가 어찌하여 하느님의 아들들 중에 계셨던가? 그의 몫은 성인들 중에서 어찌되었던가?
- ⁶ 우리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다. 의로움의 빛은 우리에게 비추지 않았고, 태양은 우리를 위해 떠오르지 않았다.
- ⁷ 우리는 불법과 파멸의 길을 모두 채웠고, 길이 없는 사막을 지나갔으나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 ⁸ 우리의 교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는가? 부와 자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롭게 해주었는가?
- ⁹ 이 모든 것이 그림자처럼 사라졌고, 흘러가는 소문처럼 사라졌으며,
- ¹⁰ 파도를 가르며 지나가는 배처럼, 지나간 후에는 그 흔적도 없고, 파도 위에 그 배의 허리뼈 자국도 남지 않듯이.
- ¹¹ 또는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그 지나간 흔적은 보이지 않으나, 가벼운 바람이 그 날개 치는 충격에 흔들리고, 날개의 격렬한 움직임에 찢겨져 흩어지며 지나가고, 그 후에는 그가 온 흔적이 전혀 남지 않듯이.
- ¹² 또는 목표를 향해 쏜 화살처럼, 갈라진 공기는 즉시 다시 닫히므로 사람들이 그가 어디를 지나갔는지 알지 못하듯이.
- ¹³ 이와 같이 우리도 태어나자마자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덕을 드러낼 흔적도 없었으며, 우리의 악행 속에서 완전히 소멸되었다.
- ¹⁴ 불의한 자의 소망은 바람에 날리는 겉껍질 같고, 폭풍 앞에서 사라지는 거품 같으며, 바람에 연기처럼 흩어지고, 하루만 머무는 손님의 기억처럼 사라진다.
- ¹⁵ 그러나 의로운 이들은 영원히 살리라. 그들의 보상은 주님께 있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돌봄이 그들을 덮으리라.
- ¹⁶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의 손으로 왕의 존엄과 아름다움의 관을 받으리니,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덮고 팔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 ¹⁷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열정을 완전한 갑옷으로 삼으시고, 온 창조물을 그의 원수들을 벌하는 무기로 삼으실 것이며,
- ¹⁸ 의로움을 가슴판으로 입으시고, 공정한 심판을 투구로 쓰실 것이다.
- ¹⁹ 주님께서서는 거룩함을 이길 수 없는 방패로 잡으실 것이다.
- ²⁰ 주님께서서는 단단한 분노를 칼로 날카롭게 하실 것이며, 우주는 그와 함께 그의 미친 원수들과 싸우리라.
- ²¹ 번개의 화살들이 정확한 목표를 향해 날아가며, 구름에서 마치 잘 당긴 활에서처럼 목표로 뛰어오르리라.
- ²² 분노로 가득 찬 우박이 투석기에서 쏘아져 나올 것이며, 바다의 물이 그들을 향해 분노할 것이고, 강들이 엄격하게 그들을 덮칠 것이다.
- ²³ 거대한 바람이 그들을 맞이하여, 폭풍처럼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며, 불의가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고, 그들의 악행이 왕들의 왕좌를 뒤집어엎을 것이다.

지혜서 6장

- 1 그러므로 들으라, 왕들이여, 이해하라. 땅 끝의 재판관들이여, 배우라.
- 2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 민족의 수에 자랑하지 말라.
- 3 너희의 통치는 주님께로부터 주어졌고, 너희의 주권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분은 너희의 행위를 살피시고, 너희의 계획을 조사하실 것이다.
- 4 너희가 그분의 왕국의 관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지도 않았고, 법을 지키지도 않았으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 5 그분은 빠르고 엄중하게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엄한 심판이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 6 낮은 신분의 자는 자비로 용서될 수 있지만, 강력한 자들은 강력하게 시험받을 것이다.
- 7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신 분은 누구에게도 눈치를 주지 않으시며, 위대함을 존중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작고 큰 것을 모두 만드셨고, 모두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 8 그러나 강력한 자들에게 내리는 심사는 엄격하다.
- 9 그러므로 내 말이 너희, 왕자들이여, 지혜를 배우고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10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킨 자들은 거룩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배운 자들은 변호할 말을 찾을 것이다.
- 11 그러므로 내 말에 너희의 갈망을 두라. 그것을 사모하라. 그러면 왕자들이 교육을 받을 것이다.
- 12 지혜는 빛나고 흐려지지 않으며,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쉽게 보이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발견된다.
- 13 그녀는 갈망하는 자들을 앞서가며 스스로를 드러낸다.
- 14 아침 일찍 일어나 그녀를 구하는 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는 그녀가 자기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 15 그녀를 생각하는 것은 이해의 완전함이며, 그녀를 기다리는 자는 곧 염려에서 벗어날 것이다.
- 16 그녀는 스스로 돌아다니며 그녀에게 합당한 자들을 찾고, 그들의 길에서 은혜롭게 나타나며, 모든 목적에서 그들을 만난다.
- 17 그녀의 참된 시작은 교육에 대한 갈망이며, 교육에 대한 갈망은 사랑이다.
- 18 사랑은 그녀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녀의 법을 경청하는 것은 영생을 확정한다.
- 19 영생은 하느님과의 가까움을 가져온다.
- 20 그러므로 지혜에 대한 갈망은 왕국으로 이끌어준다.
- 21 그러므로 너희, 민족들의 왕자들이여, 왕좌와 왕권을 즐거워한다면, 지혜를 존중하여 영원히 통치하라.
- 22 그러나 지혜가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났는지 내가 밝히겠다. 나는 너희에게 비밀을 숨기지 않겠다. 나는 그녀의 처음 시작에서부터 탐구하여 그녀의 지식을 명백한 빛으로 드러내고, 진리를 빠뜨리지 않겠다.
- 23 실제로 나는 탐욕으로 함께 걷지 않겠다. 탐욕은 지혜와 교제가 없기 때문이다.
- 24 그러나 많은 지혜로운 자들은 세상의 구원이며, 지혜로운 왕은 그의 백성의 안정이다.
- 25 그러므로 내 말에서 교훈을 받아 유익을 얻으십시오.

지혜서 7장

- 1 나도 모든 사람처럼 죽을 존재이며, 처음에 빚어지고 땅에서 태어난 자의 후손이다.
- 2 나는 어머니의 태속에서 열 달 동안 육신으로 빚어져, 남자의 씨와 결혼의 즐거움에서 나온 피로 이루어졌다.
- 3 나도 태어날 때 공통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친척 같은 땅에 떨어져, 모두가 처음으로 내는 같은 울음소리를 냈다.
- 4 나는 삼베에 싸여 정성스럽게 젖을 먹었다.
- 5 어떤 왕도 다른 시작을 가진 바 없다.
- 6 모든 사람은 생명에 들어서는 길이 하나이며, 떠나는 길도 같다.
- 7 이 때문에 나는 기도했고, 지혜가 내게 주어졌다. 나는 구했고, 지혜의 영이 내게 왔다.
- 8 나는 왕권과 왕좌보다 그녀를 더 선호했고, 그녀와 비교할 때 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다.
- 9 나는 그녀를 귀중한 보석과도 비교하지 않았다. 그녀 앞에서는 모든 금이 작은 모래에 불과하고, 은은 그녀 앞에서 진흙처럼 여겨진다.
- 10 나는 건강과 아름다움보다 그녀를 더 사랑했고, 빛보다 그녀를 선택했다. 그녀의 밝은 빛은 결코 잠들지 않기 때문이다.
- 11 모든 좋은 것들이 그녀와 함께 내게 왔고, 그녀의 손에는 수많은 부가 있다.
- 12 나는 그것들 모두를 기뻐했다. 지혜가 그것들을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그것들의 어머니라는 것을 몰랐다.
- 13 나는 속임 없이 배웠으므로, 시기하지 않고 전한다. 나는 그녀의 부를 숨기지 않는다.
- 14 그녀는 사람을 위한 실패하지 않는 보물이며, 그녀를 사용하는 자들은 훈련을 통해 드리는 선물로 하느님과 우정을 맺고 칭찬을 받는다.
- 15 그러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바르게 말하고, 주어진 것을 생각할 만한 생각을 갖게 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분은 지혜조차도 이끌고 지혜로운 자를 바로잡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 16 우리와 우리의 말, 그리고 모든 이해와 다양한 기술이 그분의 손에 있다.
- 17 그분께서는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알게 하셨고, 우주의 구조와 원소들의 작용을 알게 하셨다.
- 18 시대의 시작과 끝과 중간, 그리고 동지와 계절의 변화를.
- 19 연의 순환과 별들의 위치를.
- 20 생물들의 본성과 야수들의 광란, 바람의 폭력과 사람들의 생각, 식물의 다양성과 뿌리의 효능을.
- 21 나는 숨겨진 것과 드러난 모든 것을 배웠다.
- 22 모든 것을 설계한 지혜가 나를 가르쳤다. 그녀 안에는 빠르게 이해하고, 거룩하고, 유일하며, 다양하고, 미묘하며, 자유롭게 움직이고, 명확하게 말하며, 더럽혀지지 않고, 분명하며, 해를 입지 않고, 선을 사랑하며, 날카롭고, 방해받지 않는 영이 있다.
- 23 그녀는 자비롭고, 사람을 사랑하며, 굳건하며, 확실하며, 걱정이 없고, 모든 힘을 지니고, 모든 것을 살피며, 빠르게 이해하고, 순수하며, 가장 미묘한 모든 영을 관통한다.
- 24 지혜는 어떤 움직임보다도 더 움직이기 쉽다. 그녀는 자신의 순수함으로 모든 것을 관통하고 침투한다.
- 25 그녀는 하느님의 힘의 숨결이며, 전능하신 분의 영광의 순수한 흐름이다. 그러므로 더럽혀진 것은 그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 26 그녀는 영원한 빛의 반사이며, 하느님의 행위를 담은 흠없는 거울이고, 그분의 선함의 형상이다.
- 27 그녀는 하나이지만 모든 일을 할 힘을 지니고 있다. 그녀는 자신 안에 머물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세대에서 세대로 거룩한 영혼들로 이어지며, 그녀는 하느님과 예언자들의 친구가 된다.
- 28 하느님께서 지혜와 함께 사는 이를 가장 사랑하신다.
- 29 그녀는 태양보다 아름답고, 모든 별자리보다 뛰어나며, 빛보다 더 나은 존재이다.
- 30 낮은 밤에 물러서지만, 악은 지혜를 이기지 못한다.

지혜서 8장

- 1 그녀는 힘을 다해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이르며 모든 것을 잘 정리합니다.
- 2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어릴 때부터 그녀를 찾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내 아내로 맞이하려고 애썼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했습니다.
- 3 그녀는 하느님과 함께 살며 그녀의 고귀한 출신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은 그녀를 사랑합니다.
- 4 그녀는 하느님의 지식을 깨닫고 그분의 일을 선택합니다.
- 5 만약 부가 인생에서 바라는 소유라면, 모든 것을 만드는 지혜보다 더 부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 6 만약 이해력이 효과적이라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설계한 이 중 지혜보다 더 훌륭한 이가 누구입니까?
- 7 만약 사람이 의로움을 사랑한다면, 지혜의 수고의 열매는 덕입니다. 그녀는 절제와 이해와 의로움과 용기를 가르치기 때 문입니다. 인생에서 사람에게 이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 8 만약 누군가 넓은 경험을 갈망한다면, 그녀는 옛것을 알고 미래를 유추하며, 말의 미묘함과 어두운 말의 해석을 이해합 니다. 그녀는 표징과 기적, 계절과 시대의 결과를 예견합니다.
- 9 그러므로 나는 그녀를 내 곁에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좋은 조언을 주고, 걱정과 슬픔 속에서 나를 격려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 10 나는 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얻고, 장로들 앞에서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 11 나는 재판할 때 명민함을 드러낼 것이며, 통치자들 앞에서 존경받을 것입니다.
- 12 내가 침묵할 때 그들은 나를 기다릴 것이고, 내가 입을 열면 그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내가 계속 말하면 그 들은 손을 입에 대고 조용해질 것입니다.
- 13 그녀 덕분에 나는 불멸을 얻고, 내 뒤에 올 이들에게 영원한 기억을 남길 것입니다.
- 14 나는 백성을 다스릴 것입니다. 민족들이 나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 15 내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며 떨리는 왕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선하고 전쟁에서 용감함을 드러낼 것 입니다.
- 16 내가 내 집에 들어갈 때, 그녀와 함께 편안함을 찾을 것입니다. 그녀와의 대화에는 쓴맛이 없고, 그녀와 함께 사는 데에 는 고통이 없으며, 오직 기쁨과 즐거움뿐입니다.
- 17 나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서 불멸이 지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 18 그녀의 친교에는 좋은 즐거움이 있고, 그녀의 손의 수고에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부요가 있으며, 그녀의 동행에는 이해 가 있고, 그녀의 말과 교제를 통해 큰 명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 찾아 다녔습니다.
- 19 나는 지혜로운 어린아이였고, 선한 영을 받았습니다.
- 20 아니면, 선행을 지니고 순결한 몸에 들어왔습니다.
- 21 그러나 내가 하느님께서 그녀를 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지혜를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고, 은총이 누구를 통해 주어지는 지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 나는 주님께 간청하고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지혜서 9장

- ¹ 내 조상들의 하느님이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여,
- ² 당신의 지혜로 사람을 형성하시어, 당신이 만드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 ³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정직한 마음으로 공정한 심판을 행하게 하셨나이다.
- ⁴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그 지혜는 당신의 보좌 옆에 앉아 있는 이이니, 나를 당신의 종들 가운데서 버리지 마소서.
- ⁵ 나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약하고 짧은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심판과 법규를 이해할 힘이 거의 없습니다.
- ⁶ 사람이 인간들 가운데서 완전하다 하더라도, 당신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 ⁷ 당신은 나를 당신의 백성의 왕으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의 심판관으로 선택하셨습니다.
- ⁸ 당신은 당신의 거룩한 산에 성전을 짓고, 당신이 거주하시는 도시에 제단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으며, 그것은 한처음에 당신이 준비하신 거룩한 장막의 모형이었습니다.
- ⁹ 지혜는 당신과 함께 있으며, 당신의 행위를 알고, 세상을 만드실 때 함께 있었고, 당신의 눈에 기쁘게 여겨지는 것과 당신의 명령에 따라 옳은 것을 이해합니다.
- ¹⁰ 그 지혜를 거룩한 하늘에서 보내시고, 당신의 영광의 보좌에서 그 지혜를 보내어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지혜가 나와 함께 일하게 하시고, 내가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 ¹¹ 그 지혜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이해하며, 내 행동을 지혜롭게 인도할 것이며, 그 영광 속에서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 ¹² 그러면 내 행위가 받아들여질 것이며, 나는 당신의 백성을 의로움으로 심판하고, 내 아버지의 보좌에 합당한 자가 될 것입니다.
- ¹³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 ¹⁴ 사람의 생각은 불안정하고, 우리의 계획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 ¹⁵ 부패하는 몸이 영혼을 짓누르고, 흙으로 된 장막이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 ¹⁶ 우리는 땅 위에 있는 것들을 겨우 유추할 뿐, 가까운 것들을 찾기 위해 수고를 해야 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을 누가 탐구할 수 있겠습니까?
- ¹⁷ 당신이 지혜를 주지 않고, 높은 곳에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지 않는 한, 누가 당신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 ¹⁸ 이러한 이유로 땅 위에 있는 자들의 길이 바로잡히고, 사람들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배우게 되었으며, 지혜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혜서 10장

- ¹ 지혜는 세상의 첫 조상, 혼자 창조된 자를 끝까지 지켜주었고, 그가 범한 죄에서 그를 구원하였다.
- ² 그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힘을 주었다.
- ³ 그러나 불의한 자가 분노로 지혜를 떠나자, 자기가 형을 죽인 분노 속에서 스스로 멸망하였다.
- ⁴ 그의 죄로 인해 땅이 홍수로 잠기자, 지혜는 다시 그 땅을 구원하여, 허름한 나무 한 조각으로 의로운 자의 길을 인도하였다.
- ⁵ 악한 자들이 한마음으로 악을 꾀할 때, 지혜는 의로운 자를 알아보고, 그를 하느님 앞에서 흠 없이 지켜주었으며, 그가 자식을 향해 마음이 갈망할 때 그를 강하게 지켜주었다.
- ⁶ 불경한 자들이 멸망할 때, 지혜는 다섯 성읍에 하늘에서 내린 불을 피하여 도망친 의로운 자를 구원하였다.
- ⁷ 그들의 악행은 아직도 연기 나는 황폐지가 증언하고, 익지 않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증언하며, 믿지 않는 영혼은 소금 기둥이라는 기억을 남겼다.
- ⁸ 그들은 지혜를 버렸기 때문에 선한 것을 알아볼 힘을 잃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의 기념비를 삶에 남겨, 자신이 넘어진 곳에서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다.
- ⁹ 그러나 지혜는 그녀를 기다리는 자들을 환난에서 구원하였다.
- ¹⁰ 의로운 자가 형의 분노에서 도망칠 때, 지혜는 그를 곧은 길로 인도하였다. 그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성스러운 일들을 알게 해주었으며, 그의 수고를 번성하게 하고, 그의 노동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였다.
- ¹¹ 사람들이 탐욕으로 그를 학대할 때, 지혜는 그 곁에 서서 그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 ¹² 지혜는 그를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었고, 은밀히 기다리는 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였다. 그의 심각한 투쟁을 심판자처럼 지켜보아, 그가 경건함이 모든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
- ¹³ 의로운 자가 노예로 팔릴 때, 지혜는 그를 버리지 않았고, 그를 죄악에서 구원하였다. 그와 함께 감옥으로 내려갔다.
- ¹⁴ 그가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지혜는 그를 떠나지 않았고, 그에게 왕권의 지팡이와 그를 폭군처럼 대하던 자들 위에 권세를 주기까지 하였다. 또한 그를 조롱하며 고발한 자들이 거짓임을 드러내어, 그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었다.
- ¹⁵ 지혜는 억압하는 민족에서 거룩한 백성과 흠 없는 씨를 구원하였다.
- ¹⁶ 지혜는 주님의 종의 영혼에 들어가, 끔찍한 왕들을 기적과 표적으로 맞서 싸웠다.
- ¹⁷ 지혜는 거룩한 자들에게 그들의 수고의 보상을 주었고, 놀라운 길로 그들을 인도하며, 낮에는 그들을 덮는 그림자, 밤에는 별처럼 타오르는 불꽃이 되었다.
- ¹⁸ 지혜는 그들을 붉은 바다를 건너게 하고, 많은 물을 통과하게 인도하였다.
- ¹⁹ 그러나 그녀는 그들의 원수들을 물에 잠기게 하고, 깊은 바닥에서 끌어올렸다.
- ²⁰ 그러므로 의로운 자들이 불경한 자들을 약탈하였고, 그들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그들을 위해 싸우신 주님의 손을 한마음으로 높이 찬양하였다.
- ²¹ 지혜는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고, 어린아이들의 혀로 명확히 말하게 하였다.

지혜서 11장

- 1 지혜는 거룩한 예언자의 손에서 그들의 일을 번성하게 하셨다.
- 2 그들은 거주하지 않는 사막을 지나며, 길이 없는 땅에 장막을 치었다.
- 3 그들은 적들을 견디고 원수들을 물리쳤다.
- 4 그들은 갈증을 느꼈고, 당신을 부르니,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고, 딱딱한 바위에서 그들의 갈증이 치유되었다.
- 5 그들의 원수가 벌을 받은 것들로, 그들은 갈급할 때 이득을 보았다.
- 6 원수가 강의 흐르는 샘 대신 응고된 피로 괴로워할 때,
- 7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책망하시며, 당신은 그들에게 모든 소망을 초월한 풍성한 물을 주셨다.
- 8 그들이 겪은 갈증을 통해, 당신이 적들을 어떻게 벌하셨는지를 보여주셨다.
- 9 그들이 시험을 받을 때, 자비로 징계를 받으며, 불경한 자들이 진노로 심판받아 고통받는 것을 배웠다.
- 10 당신은 이들을 아버지가 자식을 꾸짖듯 시험하셨고, 저들을 엄격한 왕이 유죄를 선고하듯 조사하셨다.
- 11 그들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모두 동일하게 괴로워하였다.
- 12 이유는 두 배의 슬픔이 그들을 덮었고, 지나간 일들을 떠올리며 탄식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 13 그들이 자기들의 벌로 다른 이들이 이득을 본 것을 듣고, 주님을 알아보았다.
- 14 오래 전에 버려지고 드러난 자를 그들은 더 이상 조롱하지 않았다. 일의 끝에서, 그들은 의로운 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갈증을 느끼며 놀라움을 느꼈다.
- 15 그들이 불의한 행실의 어리석은 환상에 빠져, 비이성적인 뱀과 가련한 벌레를 숭배했으므로, 당신은 그들을 벌하기 위해 비이성적인 생물들을 수없이 보내셨다.
- 16 이는 사람이 죄를 지은 것들로 그가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 17 당신의 전능한 손은 형체 없는 물질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므로, 그들에게 많은 꿈과 사나운 사자들을 보내는 데 부족함이 없으셨다.
- 18 또는 새로 창조되고 알려지지 않은 야수들을 보내셨으니,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차, 불타는 숨을 내쉬거나 연기를 토하거나 눈에서 끔찍한 불꽃을 발산하였다.
- 19 이들은 단지 그들의 폭력으로 그들을 소멸할 뿐 아니라, 그들의 모습만으로도 그들을 두려움으로 멸할 힘을 지녔다.
- 20 그러나 이들 없이도, 정의가 추적하고 당신의 힘의 숨결이 그들을 흩어뜨리며, 그들은 한 번의 숨결로도 쓰러졌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모든 것을 측량과 수와 무게로 정하셨다.
- 21 당신은 언제나 강력하시다. 누가 당신의 팔의 힘을 견딜 수 있겠는가?
- 22 당신 앞에서 온 세상은 저울의 한 알의 곡물과 아침에 땅에 내리는 이슬 한 방울과 같다.
- 23 그러나 당신은 모든 사람을 자비로우시니,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지니시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죄를 용납하신다.
- 24 당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만든 것을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으신다. 당신이 그것을 미워했다면, 결코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 25 당신이 뜻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견뎌냈겠습니까? 또는 당신이 부르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존되었겠습니까?
- 26 그러나 당신은 모든 것을 아끼십니다. 이는 모두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살아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혜서 12장

- 1 당신의 부패하지 않는 영이 모든 것에 있습니다.
- 2 그러므로 당신은 잘못된 길에서 빠진 자들을 점차적으로 책망하시며, 그들이 죄를 지은 일들을 통해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악에서 벗어나 당신을 믿게 하십니다, 주님.
- 3 당신의 거룩한 땅의 옛 주민들은,
- 4 마법과 불경한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했으며,
- 5 무자비한 아동 학살과 남자의 육체와 피를 바치는 제사 잔치를 행했으며,
- 6 불경한 동맹을 맺고 무고한 자녀들을 살해한 자들이었으므로, 당신은 우리 조상들의 손으로 그들을 멸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 7 이렇게 하여 당신의 눈에 가장 소중한 땅이 하느님의 종들에 합당한 식민지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 8 그러나 당신은 그들을 사람으로서도 아껴 주시고, 벌을 당신 군대의 선봉으로 보내어 점차적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 9 당신은 의로운 자들의 손으로 전쟁을 벌여 불경한 자들을 굴복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며, 무서운 짐승이나 엄한 말쑼으로 그들을 즉시 제거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 10 그러나 당신은 점차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본성이 악하고, 악이 태어날 때부터 내재되어 있으며, 그들의 사고 방식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 11 그들은 처음부터 저주받은 씨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죄를 벌하지 않고 방치하신 것이 어떤 이를 두려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 12 누가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다?' 또는 '누가 당신의 심판에 맞서겠습니까?' 누가 당신이 멸망시킨 민족들에 대해 당신을 고발하겠습니까? 또는 누가 나서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 복수하려고 당신 앞에 서겠습니까?
- 13 당신 외에는 모든 것을 돌보는 하느님이 없으므로, 당신이 불의하게 심판하지 않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 14 어떤 왕이나 군주도 당신이 벌한 자들에 대해 당신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 15 그러나 당신은 의로우시므로 모든 것을 의로우게 다스리시며, 벌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정죄하는 것이 당신의 권능과 어울리지 않는 일임을 여기십니다.
- 16 당신의 힘이 바로 의로움의 근원이며, 당신이 모든 것을 지배하므로 모든 것을 참아 주십니다.
- 17 사람들이 당신이 권능에서 완전하시지 않다고 믿을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드러내시며, 그런 자들을 대할 때 그들의 과신을 혼란스럽게 하십니다.
- 18 그러나 당신은 힘에서 주권자이시며, 온화하게 심판하시고, 큰 인내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당신의 권능은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 19 그러나 당신은 이런 일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의로운 자가 자비로워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들이 좋은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 20 당신의 종들의 원수이자 죽음에 합당한 자들에게도 당신은 이렇게 신중하고 관대하게 보복하시며, 그들이 악에서 벗어나 기회와 시간을 주셨다면,
- 21 당신은 어떻게 더 깊이 당신의 아들들을 심판하셨겠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에게 당신은 선한 약속의 맹세와 언약을 주셨습니다!
- 22 그러므로 당신이 우리를 징벌할 때, 당신은 우리 원수들을 만 배나 더 심하게 벌하셔서, 우리가 심판할 때 당신의 선하심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심판받을 때 자비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 23 그러므로 어리석은 삶을 살던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도 당신은 그들의 스스로의 가증한 일들로 그들을 괴롭히셨습니다.
- 24 그들은 오직 오류의 길로 멀리 떠나, 심지어 그들의 원수들조차도 비난하는 동물들을 신으로 삼았으며, 어리석은 어린아 이처럼 속임을 받았습니다.
- 25 그러므로 당신은 무지한 어린이들에게 그들을 조롱하는 심판을 보내셨습니다.

²⁶ 그러나 부드러운 징계로 경고를 받지 않으려는 자들은 하느님의 마땅한 심판을 경험할 것입니다.

²⁷ 그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피조물들로 인해 고통을 받으면서, 그들은 이전에 알기를 거부했던 참 하느님을 보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극심한 책벌의 결과가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지혜서 13장

¹ 진실로 하느님을 인식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본성상 어리석었고, 보이는 좋은 것들로부터 존재하시는 분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의 작품에서 조각주를 알아보지 못했다.

² 그러나 그들은 불이나 바람이나 빠른 공기나 돌고 도는 별들, 또는 격렬한 물이나 하늘의 빛나는 것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들이라고 생각했다.

³ 그들이 그 아름다움의 즐거움으로 그것들을 신이라 여겼다면, 그들은 그들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이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첫 번째 아름다움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⁴ 그러나 그들이 그 힘과 영향력에 놀라서 신이라 여겼다면, 그들은 그들을 만든 이가 얼마나 더 강력한지를 그들로부터 깨달아야 한다.

⁵ 생성된 것들의 위대한 아름다움으로부터 인류는 그 창조주를 대응하는 방식으로 인식한다.

⁶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큰 비난이 없으니, 그들도 하느님을 찾고자 하며 그분을 만나려 애쓰는 도중에 길을 잃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⁷ 그들은 그분의 작품들 사이에서 살아가며 열심히 탐구하고, 자신들이 보는 것들이 아름답다고 믿는다.

⁸ 그러나 그들 역시 변명할 수 없다.

⁹ 그들이 이토록 많은 것을 인식할 힘을 가졌다면, 세상을 탐구할 수 있었다면, 어찌하여 그들은 주권자이신 주님을 더 일찍 발견하지 못했던 말인가?

¹⁰ 그들은 비참했고, 그들의 희망은 죽은 것들에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 곧 금과 은으로 정교하게 만든 것들과 동물들의 형상, 또는 오래된 손이 만든 무용한 돌을 신이라 불렀다.

¹¹ 어떤 나무꾼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정교하게 그 껍질을 모두 벗겨내어 아름다운 형태로 다듬어,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도구를 만든다.

¹² 그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의 흔적을 불태워 음식을 익히고, 배부르게 먹는다.

¹³ 그는 쓸모없는 버려진 조각, 휘어지고 마디가 많은 나무 조각을 골라, 자신의 게으름으로 정성스럽게 새기고, 자신의 게으름으로 기술을 발휘하여,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다.

¹⁴ 또는 무가치한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고, 붉은 물감으로 칠하여 붉게 물들이고, 그 위의 모든 얼룩을 덧칠한다.

¹⁵ 그는 그것에 합당한 처소를 마련하고, 벽에 고정하여 철로 단단히 고정한다.

¹⁶ 그는 그것이 쓰러지지 않도록 계획한다. 그것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진실로 그것은 형상이며,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¹⁷ 그가 재산과 결혼과 자녀에 관해 기도할 때, 생명이 없는 것에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¹⁸ 그는 건강을 위해 약한 것을 부르고, 생명을 위해 죽은 것을 간청하며, 도움을 위해 경험 없는 것을 간구한다. 좋은 여행을 위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청한다.

¹⁹ 그는 사업에서의 이익과 손의 좋은 성과를 위해, 손이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에게 능력을 구한다.

지혜서 14장

- 1 다시, 항해를 준비하고 격렬한 파도를 가로지르려는 이가, 자신을 실어 나르는 배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조각난 나무를 부른다.
- 2 이것은 이익에 대한 탐욕이 계획했고, 지혜가 그것을 지은 장인이었다.
- 3 아버지여, 당신의 섭리는 그것을 인도합니다. 이는 바다에서도 길을 주시고, 파도 속에서도 확실한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 4 이는 당신이 모든 위험에서 구원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며, 심지어 기술이 없는 사람이라도 바다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5 당신의 뜻은 당신의 지혜의 작품들이 무효로 끝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작은 조각의 나무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뗏목으로 파도를 지나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합니다.
- 6 과거에도, 교만한 거인들이 멸망할 때, 세상의 희망이 뗏목에 피난하여, 당신의 손이 인류의 세대를 이어가는 씨를 인도 하셨습니다.
- 7 의로움이 나타나는 나무는 복되니,
- 8 손으로 만든 우상은 저주받으며, 그것을 만든 자도 저주받습니다. 그가 그것을 만들었고, 썩어질 것을 하느님이라 부르었 기 때문입니다.
- 9 불경한 자와 그의 불경함은 모두 하느님께 싫어받는 것입니다.
- 10 진실로 그 행위는 그것을 저지른 자와 함께 벌을 받을 것입니다.
- 11 그러므로 민족들의 우상들에도 벌이 내릴 것입니다. 이는 그것들이 하느님이 창조한 것들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영혼에게 걸림돌이 되고, 어리석은 자들의 발에 올가미가 되도록 가증한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 12 우상의 계획이 음행의 시작이었고, 그것들의 발명이 생명의 부패였습니다.
- 13 그것들은 처음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영원히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 14 사람들의 교만으로 인해 그것들이 세상에 들어왔으므로, 빠른 종말이 그들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 15 자신의 어린아이를 갑작스럽게 빼앗긴 슬픔으로 지친 아버지가, 빨리 그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 그때 죽은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며, 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신비와 성식을 전했습니다.
- 16 그 후, 불경한 풍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강력해져 법으로 간주되었고, 새겨진 형상들은 왕들의 명령에 따라 숭배받았습니다.
- 17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들을 공개적으로 숭배할 수 없을 때,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여, 자신들이 숭배하는 왕의 형상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었으며, 그 열정으로 떠나 있는 자를 마치 함께 있는 듯이 아첨했습니다.
- 18 그러나 심지어 그를 모르는 자들까지도, 건축가의 야망에 이끌려 숭배의 수준을 더욱 높였습니다.
- 19 그는 아마도 자신의 군주를 기쁘게 하려고, 자신의 기술을 동원하여 형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 20 그러므로 다수는 그의 손길이 만든 아름다움에 유혹되어, 얼마 전까지 인간으로 숭배되었던 것을 이제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 21 이것은 함정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재난이나 폭정에 사로잡혀, 나누어져서는 안 될 이름을 돌과 나무에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 22 그 후 그들은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잘못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았고, 큰 무지의 전쟁 속에서 살아가며, 수많은 악을 평화라 부릅니다.
- 23 이는 제의를 통해 자녀를 희생하거나, 비밀 의식을 지키거나, 이방의 기이한 풍습으로 흥분한 잔치를 벌이기 때문입니다.
- 24 그들은 이제 생명이나 결혼의 순결을 지키지 않으며, 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간음으로 고통을 주거나, 배신으로 죽음을 가져옵니다.
- 25 모든 것이 피와 살인과 절도와 속임수, 부패와 불신실, 혼란과 거짓 맹세로 가득하다.

- 26 선에 대한 혼란, 은혜에 대한 잊음,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음, 영혼의 더러움, 성적 혼란, 결혼의 혼란, 간음과 방종이다.
- 27 말할 수 없는 우상 숭배는 모든 악의 시작이자 원인이며 끝이다.
- 28 그 우상 숭배자들은 미친 듯이 즐기거나 거짓을 예언하거나 부정하게 살거나 가볍게 거짓 맹세를 한다.
- 29 그들은 죽은 우상에 신뢰를 두고 악한 맹세를 하면서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 30 그러나 정의로운 심판은 두 가지 이유로 그들을 추적한다. 그들은 우상에 귀를 기울여 하느님을 악한 뜻으로 여기고, 성스러움을 경멸하며 속임수로 부정하게 맹세했기 때문이다.
- 31 사람들이 맹세하는 대상의 힘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항상 내리는 정의로운 벌이 불의한 자의 범죄를 항상 침범한다.

지혜서 15장

- 1 그러나 당신, 우리 하느님, 자비롭고 진실하시며 인내하시며 모든 것을 자비로 다스리십니다.
- 2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것이며 당신의 통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당신의 것임을 알고 있으므로 죄를 지으려 하지 않습니다.
- 3 당신을 아는 것이 완전한 의로움이며, 당신의 통치를 아는 것이 죽지 않는 삶의 근원입니다.
- 4 우리는 인간들의 악한 계획이나 화가들의 무의미한 노동, 다양한 색으로 물든 형상에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 5 그 형상을 보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을 탐욕으로 이끕니다. 그들의 욕망은 숨이 끊긴 죽은 우상의 형상입니다.
- 6 악한 것들을 사랑하고 그런 희망에 합당한 자들은 그것을 만들고, 원하고,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 7 도공은 부드러운 흙을 반죽하여 우리를 위해 각기 도구를 힘들게 빚어냅니다. 그는 같은 진흙으로 깨끗한 용도에 쓰이는 그릇과 그렇지 않은 그릇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만듭니다. 각 도구의 용도는 도공이 결정합니다.
- 8 그는 또한 악한 목적을 위해 같은 진흙으로 허무한 신을 빚어냅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 흙으로 만들어졌고, 잠시 후에는 자신이 취해진 흙으로 돌아가며, 빌려준 영을 돌려줘야 할 때가 옵니다.
- 9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이 약해질까 봐, 혹은 자신의 생명이 짧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금세공인과 은세공인을 비교하고, 청동을 빚는 자들을 모방하며, 거짓 신을 빚는 것을 위대한 일로 여깁니다.
- 10 그의 마음은 재입니다. 그의 희망은 흙보다 가치가 낮고, 그의 삶은 진흙보다 더 낮은 존엄을 가집니다.
- 11 그는 자신을 빚으신 분과, 활발한 영을 불어넣으신 분과, 생명의 영을 숨쉬게 하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12 그는 우리의 삶을 놀이로 여기고, 우리의 생애를 이익을 위한 축제로 여깁니다. 그는 말합니다. 악한 수단을 써서라도, 어찌 되었든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 13 이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흙으로 만든 부서지기 쉬운 그릇과 새긴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지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14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핍박한 자들은 가장 어리석고, 아기보다 더 비참합니다.
- 15 그들은 민족들의 모든 우상들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 우상들은 보는 데 쓰는 눈도 없고, 숨을 들이마시는 콧구멍도 없고, 듣는 귀도 없고, 만지는 손가락도 없으며, 걷는 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 16 사람이 그것들을 만들었고, 자신의 영은 빌려온 자가 그것들을 빚었습니다. 사람에게에는 자신과 같은 신을 빚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 17 그러나 그는 죽은 자로서 불법적인 손으로 죽은 것을 만듭니다. 그는 자신이 숭배하는 것보다 낮습니다. 그는 진짜 생명을 가졌지만, 그것들은 결코 생명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18 그들은 또한 가장 혐오스러운 피조물들을 숭배합니다. 감각의 부족을 비교해 보면, 이들은 다른 모든 것보다 더 나쁩니다.
- 19 그들은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해 아름답지도 않아서, 누구도 그들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찬미와 그분의 축복을 모두 벗어났습니다.

지혜서 16장

- 1 이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던 것들과 유사한 피조물들을 통해 합당한 벌을 받았고, 많은 해충들로 고통을 받았다.
- 2 이 대신, 당신은 당신의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메추라기를 음식으로 준비하셨다.
- 3 이렇게 하여, 음식을 갈망하던 당신의 적들은, 그들 가운데 보내진 끔찍한 생물들의 역겨움 때문에 필수적인 식욕조차 싫어하게 되었고, 그러나 당신의 백성은 잠시 동안 부족함을 겪었으나, 오히려 진미를 맛보게 되었다.
- 4 이는 억압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부족이 닥쳐야 했고, 당신의 백성에게는 오직 그들의 적들이 어떻게 고통받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 5 당신의 백성에게 끔찍한 야수들의 광폭이 닥쳐, 굶은 뱀들의 물림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당신의 분노는 끝까지 이르지 않았다.
- 6 그러나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경고를 받았고, 당신의 율법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구원의 표징을 받았다.
- 7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보이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구원자이신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다.
- 8 그리고 이로써 당신은 당신의 적들이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다.
- 9 참으로 메추라기와 파리의 물림이 그들을 죽였다. 그들의 생명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니, 그들은 이런 것들로 벌받을 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 10 그러나 당신의 자녀들은 독사의 이빨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당신의 자비가 그들의 곁을 지나가며 그들을 치유하셨기 때문이다.
- 11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물렸고, 빠르게 구원받아, 깊은 망각에 빠져 당신의 자비에 응답하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하셨다.
- 12 참으로 그들을 치유한 것은 약초나 연고가 아니라, 오 주님, 당신의 말씀이었으니,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치유한다.
- 13 당신은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시고, 스올의 문으로 내려가시며 다시 끌어올리신다.
- 14 사람이 악행으로 죽더라도, 떠난 영을 되찾거나 갇힌 영혼을 풀어줄 수는 없다.
- 15 그러나 당신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 16 당신을 알지 않으려는 불경한 자들은 당신의 팔의 힘으로 매질을 당하고, 이례적인 비와 우박과 끊임없는 폭풍으로 쫓기며 불로 완전히 소멸되었다.
- 17 가장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을 진정시키는 물 속에서도 불이 더 뜨겁게 타올랐다는 것이다. 이는 세상이 의로운 자를 위해 싸우기 때문이다.
- 18 어떤 때에는 불이 억제되어, 불경한 자들을 겨냥해 보내진 생물들을 태우지 않았으나, 그들이 보면서 자신들이 하느님의 심판에 쫓기는 것을 알게 하셨다.
- 19 다른 때에는 물 속에서도 불이 불보다 더 격렬하게 타올라, 불의한 땅의 열매를 파괴하였다.
- 20 이 대신, 당신은 당신의 백성에게 천사들의 음식을 먹게 하시고, 수고 없이 하늘에서 즉석으로 먹을 수 있는 빵을 주셨으며, 모든 즐거운 맛의 능력을 지니고, 모든 맛에 어울리는 빵을 주셨다.
- 21 당신의 본성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달콤함을 드러냈고, 그 빵은 먹는 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며, 각자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변형되었다.
- 22 그러나 눈과 얼음은 불을 견뎌내고 녹지 않았으니, 이는 불이 적들의 열매를 파괴하며 우박 속에서 타오르고 비 속에서 반짝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 23 그리고 이 불은 다시, 의로운 자들을 양육하기 위해, 심지어 자신의 힘조차 잊어버렸다.
- 24 창조물은 당신, 곧 그 만드신 이를 섬기며, 불의한 자들에게는 벌을 위해 힘을 쏟고,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자비로 힘을 누그러뜨린다.
- 25 그러므로 그때에도 그것은 모든 형태로 변하여, 필요를 느끼는 이들의 소망에 따라 당신의 모든 것을 기르는 은총을 섬겼습니다.
- 26 이렇게 하여,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사람이 곡식의 성장으로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지킨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²⁷ 불에 타지 않았던 것이, 희미한 햇빛에 따뜻해질 때만 녹아 없어졌습니다.

²⁸ 이것은 우리가 햇빛보다 먼저 일어나 당신께 감사드리고, 빛이 밝아올 때 당신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²⁹ 감사하지 않는 자들의 소망은 겨울의 서리처럼 녹아 없어지고, 쓸모없는 물처럼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지혜서 17장

¹ 당신의 판단은 크고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교육받지 못한 영혼들이 길을 잃었다.

²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거룩한 민족을 자기 힘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어둠의 옥중에 갇히고 긴 밤의 쇠사슬에 묶여, 자기 집 안에 갇혀 영원한 섭리에서 추방되었다.

³ 그들이 비밀스러운 죄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잊음의 어두운 장막에 의해 서로 갈라지고, 끔찍한 공포에 시달리며, 괴상한 모습들에 크게 괴로워하였다.

⁴ 그들을 가둔 어두운 구석조차 그들을 두려움에서 지켜주지 못했고, 끔찍한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으며, 웃지 않는 얼굴을 한 우울한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⁵ 불의 힘도 빛을 내지 못했고, 별들의 가장 밝은 불꽃조차 그 어두운 밤을 밝히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⁶ 그러나 그들에게는 스스로 타오르는 불빛만이 비추었고, 그 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보는 것들을 그들이 쳐다볼 수 없는 그 광경보다 더 나쁘게 여겼다.

⁷ 그들의 마법 기술은 이제 무력해졌고, 그들이 자랑하던 지혜에 대한 수치스러운 비난이 되었다.

⁸ 병든 영혼에서 공포와 혼란을 몰아내겠다고 약속했던 자들이, 터무니없는 두려움에 병들어 있었다.

⁹ 비록 그들을 괴롭히는 어떤 것도 없었음에도, 그들은 벌레가 기어다니는 소리와 뱀의 웅웅거리는 소리에 겁에 질렸다.

¹⁰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죽었고, 어느 쪽에서도 피할 수 없는 공기조차 쳐다보지 않았다.

¹¹ 내부의 증인에 의해 책망받는 악은 겁쟁이의 본성이다. 양심의 압박을 받으며 항상 최악의 결과를 예상한다.

¹² 두려움이란 이성의 도움을 포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¹³ 내부에서, 자신이 덜 고통받기를 바라는 기대가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하려는 무지로 이어진다.

¹⁴ 그러나 그들은 실로 무력한 그 밤, 무력한 음부의 깊은 곳에서 찾아온 그 밤을 지나며, 같은 잠에 빠져 있었다.

¹⁵ 그들은 이제는 괴상한 그림자에 시달리고, 이제는 영혼의 포기로 마비되었다.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닥쳤기 때문이다.

¹⁶ 그러므로 누구든 제자리에 쓰러져도, 철제로 잠그지 않은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¹⁷ 그가 농부이든 양치기이든 들판에서 수고하는 노동자이든, 그는 포획되어 피할 수 없는 형벌을 견뎌야 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어둠의 사슬로 묶여 있었다.

¹⁸ 바람이 휘파람을 불거나, 나뭇가지 사이로 새들의 아름다운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흐르는 물이 거칠게 떨어지는 소리가 나거나,

¹⁹ 떨어지는 바위의 거친 충돌음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뛰어다니는 동물들의 빠른 움직임이나, 야수들의 거친 울음소리나, 산의 움푹 들어간 곳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까지, 이 모든 것이 그들을 공포로 마비시켰다.

²⁰ 그러나 온 세상은 맑은 빛으로 환히 밝혀졌고, 방해받지 않는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²¹ 그들 위에는 무거운 밤만 퍼져 있었고, 그 뒤에 그들을 덮을 어둠의 그림자였다. 그러나 그들 자신에게는 그 어둠보다 더 무거웠다.

지혜서 18장

- 1 그러나 당신의 성스러운 자들에게는 큰 빛이 비추었다. 그들의 적들은 그들의 목소리는 들었으나 그들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도 고통을 겪었다고 기뻐했다.
- 2 그러나 그들이 이전에 자신들을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해치지 않음을 알고 감사하였으며, 자신들과 대립했음을 뉘우쳐 사과를 청했다.
- 3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 백성의 알 수 없는 여정을 인도할 불기둥을 준비하시고, 그들의 영광스러운 유량을 위해 해로움이 없는 빛을 주셨다.
- 4 이집트인들은 당신의 자녀들을 옥에 가둔 자들이므로, 빛을 빼앗기고 어둠에 갇히는 것이 마땅하였다. 그 자녀들을 통해 불멸의 빛인 율법이 인류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5 성스러운 자들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꾸민 뒤, 한 아이가 버려졌으나 구원되어 그들의 죄를 드러내게 되었을 때, 당신은 그들에게 자녀들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대한 홍수로 함께 멸하였다.
- 6 우리 조상들은 그 밤을 미리 알게 되었으므로,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이 신뢰한 맹세로 위로를 받았다.
- 7 당신의 백성은 의로운 자들의 구원과 적들의 멸망을 기다렸다.
- 8 당신은 적들을 벌할 때와 같은 수단으로, 우리를 당신께 부르시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 9 선한 자들의 성스러운 자녀들은 은밀히 제사를 드리고, 한마음으로 신성한 율법의 언약을 동의하여, 같은 선한 일과 같은 위험을 함께 나누기로 하였다. 아버지들은 이미 성스러운 찬미의 노래를 이끌고 있었다.
- 10 그러나 적들의 어긋난 외침이 울려 퍼졌고, 자녀들을 향한 애절한 애곡의 소리가 널리 퍼졌다.
- 11 종과 주인 모두 같은 공정한 형벌을 받았고, 평민도 왕과 같은 처지를 겪었다.
- 12 그들은 모두 한 형태의 죽음 아래, 수없이 많은 시체를 남겼다. 살아 있는 자들조차 그들을 장사지낼 여유가 없었으니, 단 한 번의 치명적인 타격으로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자손들이 모두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 13 그들은 마법에 의해 모든 것을 믿지 않았으나, 만아들을 잃은 뒤에야 그 백성이 하느님의 자녀임을 인정했다.
- 14 모든 것이 평화로운 침묵에 싸여 있고, 밤은 자신의 빠른 속도로 절반을 지나갔을 때,
- 15 당신의 전능한 말씀이 하늘에서, 왕좌에서 뛰어내려, 멸망의 땅 한가운데로, 엄격한 전사가 되어 내려왔다.
- 16 당신의 진실한 명령을 날카로운 칼로 지니고, 서서 모든 것을 죽음으로 가득 채우며, 하늘에 달고 땅 위에 서 있었다.
- 17 그때 즉시 꿈속의 공포스러운 환상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예기치 못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닥쳤다.
- 18 한 사람은 여기에 반쯤 죽은 채, 다른 사람은 저기에 떨어져, 왜 자신이 죽는지를 드러냈다.
- 19 꿈들이 그들을 괴롭히며, 그들이 왜 고통받는지를 알지 못한 채 죽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였다.
- 20 죽음의 경험은 의로운 자들에게도 닿았고, 광야에서 많은 자들이 멸망하였으나, 분노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 21 한 흠 없는 사람이 급히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 자신의 사역의 무기인 기도와 향의 속죄 제물을 가져왔다. 그는 분노를 막아내고 재앙을 끝내며, 자신이 당신의 종임을 보여주었다.
- 22 그는 육체의 힘도, 무기의 힘도 아닌, 그의 말로 분노를 이겼다. 그는 조상들과 맺은 맹세와 언약을 상기시켜 복수자를 굴복시켰다.
- 23 죽은 자들이 이미 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 그는 개입하여 분노를 멈추고, 그 분노가 살아 있는 자들에게로 향하는 길을 끊었다.
- 24 그의 긴 겹옷에는 온 세계가 그려졌고, 조상들의 영광은 네 줄의 귀한 보석에 새겨졌으며, 그의 머리 위 왕관에는 당신의 위엄이 있었다.
- 25 파괴자는 이들에게 굴복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분노를 시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지혜서 19장

- 1 그러나 자비 없는 분노가 불경한 자들에게 끝까지 미쳤다. 하느님께서도 그들의 미래를 미리 아셨기 때문이다.
- 2 당신의 백성을 놓아주려고 마음을 바꾸고 그들을 서둘러 보내었으나, 다시 마음을 바꾸어 그들을 추격할 것임을 아셨다.
- 3 그들이 아직 슬픔에 잠겨 죽은 자들의 무덤에서 애곡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 떠나 달라고 간청하고 쫓아낸 자들을 도망자처럼 추격했다.
- 4 그들이 마땅히 받을 벌이 그들을 그 결말로 이끌었고, 그들이 겪은 일을 잊게 하여, 아직 부족한 고통의 벌을 채우게 하였다.
- 5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은 놀라운 길을 따라 행진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 6 모든 창조물이 각기 제 종류에 따라 새로워져,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며 당신의 종들을 해치지 않게 하였다.
- 7 그때 진영을 덮던 구름이 나타났고, 물이었던 곳에서 마른 땅이 솟아올랐으며, 붉은 바다에서 막힘이 없는 길이 생기고, 격렬한 파도에서 풀이 무성한 평원이 나타났다.
- 8 당신의 손으로 덮인 그들이 이 길을 따라 온 군대를 이끌고 지나가며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
- 9 그들은 마치 말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양처럼 뛰어놀며, 그들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하였다.
- 10 그들은 유랑하던 시절에 일어난 일을 여전히 기억하였다. 소를 기르던 땅이 이가 나왔고, 물고기가 있던 강이 개구리 무리를 뱉어냈다는 것을.
- 11 그러나 그 후에는 새로운 종류의 새를 보았다. 그들이 호화로운 음식을 갈망하며 요구했을 때였다.
- 12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메추라기가 바다에서 그들에게 올라왔다.
- 13 죄인들에게 벌이 내렸는데, 이는 천둥의 폭력으로 미리 주어진 징표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악행으로 정당하게 벌을 받았으며, 손님들을 향한 그들의 증오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이다.
- 14 다른 이들은 오는 손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은인인 손님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 15 그뿐 아니라, 전자에게는 어떤 벌이 내릴 것이며, 그들이 외국인을 원수처럼 대했기 때문이다.
- 16 이들은 먼저 잔치로 환대하였으나, 그 후에는 이미 자신들과 같은 권리를 공유한 이들을 끔찍한 노동으로 괴롭혔다.
- 17 그리고 그들은 시력을 잃었다. (의로운 자의 문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깊은 어둠에 둘러싸여 각자 자신의 문으로 통하는 길을 찾으려 했다.
- 18 울무의 음색이 리듬의 성격을 바꾸듯, 원소들도 서로의 질서를 바꾸며, 일관된 소리를 계속하였다. 이는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명백히 유추할 수 있다.
- 19 육지의 생물들이 물속의 생물로 변했고, 수중의 생물들이 육지 위를 움직였다.
- 20 불은 물 속에서도 자신의 힘을 지켰고, 물은 자신의 진정하는 성질을 잊었다.
- 21 오히려 불은 그들 사이를 걷는 썩을 육체를 태우지 않았고, 쉽게 녹아내릴 수 있는 아모르시아 음식의 결정체도 녹이지 않았다.
- 22 모든 일에서, 주님,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높이셨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으며,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들의 곁에 서 계셨습니다.

집회서 | Sirach

집회서 1장

- ¹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나며,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다.
- ² 바다의 모래를 세는 자가 누구며, 빗방울을 세는 자가 누구며, 영원한 날들을 세는 자가 누구인가?
- ³ 하늘의 높이를 탐구하는 자가 누구이며, 땅의 넓이를 측량하는 자가 누구이며, 깊음과 지혜를 찾는 자가 누구인가?
- ⁴ 지혜는 모든 것보다 먼저 창조되었고, 명철의 이해는 영원 전부터 있었다.
- ⁶ 지혜의 뿌리는 누구에게 드러났는가? 그녀의 통찰력 있는 계획을 누가 알았는가?
- ⁸ 한 분의 지혜로우신 분이 계시며, 그분을 두려워할 만하며, 그분의 보좌에 앉아 계신 이는 주님이다.
- ⁹ 그분이 그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보시고 측량하셨으며, 그분이 모든 피조물 위에 그녀를 쏟아부으셨다.
- ¹⁰ 그녀는 그분의 선물에 따라 모든 육체와 함께 있다. 그분은 그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유롭게 주셨다.
- ¹¹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며, 기쁨의 면류관이다.
- ¹²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거움과 기쁨과 장수를 준다.
- ¹³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마지막에 잘될 것이며, 그의 죽음의 날에 복을 받을 것이다.
- ¹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녀는 신실한 자들과 함께 태중에서 창조되었다.
- ¹⁵ 그녀는 인간과 함께 영원한 기초를 놓았다. 그녀는 그들의 자손들 사이에서 신뢰받을 것이다.
- ¹⁶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충만함이다. 그녀는 그녀의 열매로 사람들을 취하게 한다.
- ¹⁷ 그녀는 자신의 집을 모든 바람직한 것들로 채우고, 자신의 창고를 그녀의 소출로 채운다.
- ¹⁸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면류관이며, 평화와 완전한 건강을 번성하게 한다.
- ¹⁹ 그분이 그녀를 보시고 측량하셨으며, 지혜와 명철의 지식을 비처럼 내리시고, 그녀를 붙잡는 자들의 존엄을 높이셨다.
- ²⁰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뿌리이며, 그녀의 가지들은 장수이다.
- ²² 불의한 분노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니, 그의 분노는 그의 몰락으로 저울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 ²³ 인내하는 자는 한때는 견디지만, 그 후 기쁨이 그에게 솟아날 것이다.
- ²⁴ 그는 자신의 말을 올바른 때까지 숨기며, 많은 이들의 입이 그의 통찰을 전할 것이다.
- ²⁵ 지혜의 보물 속에는 지혜로운 말이 있으며, 경건함은 죄인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 ²⁶ 너는 지혜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녀를 너에게 자유롭게 주실 것이다.
- ²⁷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교훈이며, 믿음과 겸손은 그분의 기쁨이다.
- ²⁸ 주님을 두려워함을 어기지 마라. 이중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마라.
- ²⁹ 사람들의 눈앞에서 위선자가 되지 마라. 네 입술을 지켜라.
- ³⁰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마라. 그래야 너는 넘어져 네 영혼에 수치를 안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네 비밀을 드러내고, 네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네 마음이 속임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네를 공동체 한가운데서 낮추실 것이다.

집회서 2장

- ¹ 내 아들이여, 네가 주님을 섬기려 하면, 시험에 대비하여 네 영혼을 준비하여라.
- ² 네 마음을 바르게 하여 꾸준히 인내하고, 환난의 때에 서두르지 말아라.
- ³ 그분께 붙들려 떠나지 말아라. 그래야 네 끝날에 번성할 것이다.
- ⁴ 네게 닥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욕을 당할 때 인내하여라.
- ⁵ 금은 불로 시련을 받고, 주님께 허락받은 사람은 모욕의 불길로 시련을 받는다.
- ⁶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도울 것이다. 네 길을 굳게 하여 그분을 바라보아라.
- ⁷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그분의 자비를 기다려라. 벗어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것이다.
- ⁸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러면 너희의 보상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⁹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좋은 일들을 바라며, 영원한 기쁨과 자비를 기다려라.
- ¹⁰ 옛 세대를 살펴보아라. 주님을 신뢰한 자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 있었느냐? 그분을 두려워한 자가 누구나 버림 받은 일이 있었느냐? 그분을 부르짖은 자가 누구나 그분에게 소홀히 당한 일이 있었느냐?
- ¹¹ 주님은 자비와 은혜로 가득하시다.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고, 환난의 때에 구원하신다.
- ¹² 두려운 마음을 가진 자들과 힘없는 손을 가진 자들과, 두 가지 길을 걷는 죄인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 ¹³ 힘없는 마음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 ¹⁴ 인내를 잃은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주님이 너희를 방문하실 때, 너희는 모두 무엇을 할 것인가?
- ¹⁵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길을 지킨다.
- ¹⁶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분의 기쁨을 구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으로 가득 찰 것이다.
- ¹⁷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
- ¹⁸ 우리는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손에 떨어질 것이다. 그분의 위엄이 그러하듯, 그분의 자비도 그러하다.

집회서 3장

- 1 내 자녀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듣는 대로 행하여 모두 안전하게 되어라.
- 2 주님은 아버지를 아들들 위에 존중하시며, 어머니의 판단을 아들들 위에 확정하셨다.
- 3 자신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죄를 속전할 것이다.
- 4 자신의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는 보물을 쌓는 자와 같다.
- 5 자신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자신의 자녀들 속에서 기쁨을 얻을 것이며, 기도하는 날에 들림을 받을 것이다.
- 6 자신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는 장수할 것이며, 주님을 듣는 자는 어머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 7 그는 부모를 주인처럼 섬길 것이다.
- 8 행동과 말로 아버지를 공경하여, 그로부터 복이 너에게 임하게 하라.
- 9 아버지의 복은 자녀들의 집을 굳게 세우나, 어머니의 저주는 기초를 뽑아 버린다.
- 10 네 아버지의 수치로 스스로 영광스럽게 여기지 말라. 네 아버지의 수치는 네게 영광이 되지 않는다.
- 11 사람의 영광은 그의 아버지의 존엄에서 오며, 수치를 입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모욕이 된다.
- 12 내 아들아, 네 아버지가 늙었을 때 그를 돕고, 그가 살아 있는 동안 그를 슬프게 하지 말라.
- 13 그가 이해력이 부족하면 인내하여라. 네 힘을 다해 그를 수치롭게 하지 말라.
- 14 네 아버지에 대한 자비는 잊히지 않을 것이며, 죄를 대신하여 너를 세워줄 것이다.
- 15 네 고통의 날에 그것이 네게 기억될 것이며, 열음 위의 맑은 날처럼, 네 죄들도 녹아 없어질 것이다.
- 16 자신의 아버지를 버리는 자는 모독하는 자와 같고, 어머니를 자극하는 자는 주님께 저주를 받는다.
- 17 내 아들아, 겸손히 네 일에 임하여라. 그리하면 너는 받들어지는 자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 18 네가 더 커질수록 더욱 겸손하여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은총을 얻을 것이다.
- 20 주님의 권능은 크며, 그분은 낮은 자들에 의해 영광을 받으신다.
- 21 너의 힘을 넘는 일을 구하지 말고, 너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을 탐색하지 말라.
- 22 네게 명령된 일을 생각하여라. 네게는 숨겨진 일을 알 필요가 없다.
- 23 너의 능력을 넘는 일에 지나치게 바쁘지 말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너에게 드러났다.
- 24 많은 자들의 교만이 그들을 미혹하였고, 악한 의견이 그들의 판단을 흐트러뜨렸다.
- 25 눈이 없으면 빛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없다.
- 26 고집 센 마음은 끝날 때 실패한다. 위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서 멸망한다.
- 27 고집 센 마음은 고난으로 무거워진다. 죄인은 죄를 쌓아 죄 위에 쌓는다.
- 28 교만한 자의 화는 치유되지 않는다. 그에게는 악의 잡초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 29 현명한 자의 마음은 속담을 이해한다. 지혜로운 자는 듣는 자의 귀를 갈망한다.
- 30 물은 타오르는 불을 끈다. 자선은 죄에 대한 속죄가 된다.
- 31 선을 갚는 자는 뒤에 올 일을 기억한다. 그가 넘어질 때 그는 도움을 찾을 것이다.

집회서 4장

- ¹ 내 아들이아, 가난한 자의 생계를 빼앗지 말고, 궁핍한 자가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라.
- ² 굶주린 영혼을 슬프게 하지 말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자극하지 말라.
- ³ 분노한 마음에 더 큰 고통을 더하지 말고, 필요한 자에게 주는 것을 미루지 말라.
- ⁴ 고통 속에 간청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말라.
- ⁵ 간청하는 자에게 눈을 돌리지 말라. 네게 저주를 퍼붓게 할 기회를 주지 말라.
- ⁶ 그가 마음의 쓰라림으로 네게 저주할 때, 그를 만드신 이가 그의 간구를 들으실 것이다.
- ⁷ 공동체에 친근해져라. 위대한 자에게 머리를 숙이라.
- ⁸ 가난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겸손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말로 그에게 답하라.
- ⁹ 불의를 당한 자를 불의를 저지른 자의 손에서 구원하라. 판결을 망설이지 말라.
- ¹⁰ 고아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 어머니에게 남편이 되어라. 그리하면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처럼 되고, 그는 네 어머니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실 것이다.
- ¹¹ 지혜는 그의 아들들을 높이고, 그를 찾는 자들을 붙잡는다.
- ¹²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한다. 일찍이 그를 찾는 자들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다.
- ¹³ 지혜를 꼭 붙잡는 자는 영광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 ¹⁴ 지혜를 섬기는 자들은 거룩한 이를 섬긴다. 주님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 ¹⁵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민족들을 판단할 것이고, 그 말을 따르는 자는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 ¹⁶ 그가 지혜를 신뢰하면, 그는 그것을 상속받을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그것을 소유할 것이다.
- ¹⁷ 처음에는 지혜가 그와 함께 꼬인 길을 걷고, 두려움과 떨림을 그에게 가져오며, 그의 영혼을 시험할 때까지 그를 그녀의 훈련으로 괴롭힐 것이다.
- ¹⁸ 그 후에 지혜는 그를 다시 곧은 길로 돌려놓고, 그를 기쁘게 하며, 그녀의 비밀을 그에게 드러낼 것이다.
- ¹⁹ 그가 길을 벗어나면, 지혜는 그를 버리고 그의 타락에 내버려둘 것이다.
- ²⁰ 기회를 살피고 악을 경계하라. 네 영혼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 ²¹ 죄를 가져오는 부끄러움도 있고, 영광과 은총이 되는 부끄러움도 있다.
- ²² 편향을 보이지 말아, 네 영혼을 훼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여 넘어지지 말라.
- ²³ 안전을 위한 말을 하지 않지 말라. 공정해 보이려고 지혜를 숨기지 말라.
- ²⁴ 지혜는 말로 알려지고, 교훈은 혀의 말로 드러난다.
- ²⁵ 진실을 헐뜯지 말고, 당신의 무지로 수치를 당하지 마라.
- ²⁶ 당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강물의 흐름에 거스르지 마라.
- ²⁷ 어리석은 자가 밟게 당신 자신을 땅에 눕히지 말고, 힘 있는 자에게 편향하지 마라.
- ²⁸ 진실을 위해 죽을 때까지 투쟁하라. 그러면 주 하느님이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 ²⁹ 말로 서두르지 말고, 행동으로 게으르거나 소홀하지 마라.
- ³⁰ 집에서 사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하인들을 의심하지 마라.
- ³¹ 받기 위해 손을 뻗고, 갚아야 할 때는 주먹을 쥐지 마라.

집회서 5장

- ¹ 네 재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내게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말라.
- ² 네 마음과 힘을 따라, 네 마음의 욕망을 좇지 말라.
- ³ '누가 나를 지배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지 말라. 주님은 분명히 너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 ⁴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말하지 말라. 주님은 인내하시기 때문이다.
- ⁵ 속죄를 너무 확신하여 죄 위에 죄를 더하지 말라.
- ⁶ '그의 자비가 크니, 내 죄가 많아도 그분이 진정하실 것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자비와 진노가 그분과 함께 있으며, 그분의 분노는 죄인 위에 머무른다.
- ⁷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미루지 말라. 날마다 미루지 말라. 주님의 분노가 갑작스럽게 너에게 닥쳐, 보복의 때에 네가 멸망할 것이다.
- ⁸ 부당한 이득에 마음을 두지 말라. 재난의 날에는 네가 아무 이익도 얻지 못할 것이다.
- ⁹ 모든 바람으로 벗짚을 헤치지 말라. 모든 길을 걷지 말라. 이는 이중적인 말을 하는 죄인의 행위이다.
- ¹⁰ 네 이해를 굳게 하라. 네 말을 일관되게 하라.
- ¹¹ 들음에 빠르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하라.
- ¹² 네가 이해한다면 이웃에게 대답하라. 그렇지 않다면 입에 손을 얹어라.
- ¹³ 영광과 수치는 말에 있다. 사람의 혀가 그의 파멸이 될 수 있다.
- ¹⁴ 속삭이는 자라고 불리지 말라. 네 혀로 기다리지 말라. 도둑에게는 수치가 있고, 이중적인 말을 하는 자에게는 악한 정죄가 따른다.
- ¹⁵ 크거나 작은 일에서 무지하지 말라.

집회서 6장

- 1 친구 대신 적이 되지 마라. 악한 이름은 수치와 모욕을 물려받기 때문이다. 이는 이중적인 말을 하는 죄인에게도 해당된다.
- 2 네 영혼의 상의에서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마라. 그래야 네 영혼이 황소처럼 찢기지 않을 것이다.
- 3 네가 네 앞을 다 먹어치우고, 네 열매를 파괴하며, 마른 나무처럼 남게 될 것이다.
- 4 악한 영혼은 그것을 가진 자를 파괴하고, 그를 원수들의 웃음거리로 만들 것이다.
- 5 달콤한 말은 사람의 친구를 늘려 주고, 은혜로운 말은 예의를 더해 준다.
- 6 너와 평화로운 자는 많게 하되, 네 조언자는 천 명 중 하나로 하라.
- 7 친구를 얻고 싶다면 시험의 때에 그를 얻고, 급히 그를 믿지 마라.
- 8 어떤 친구는 단지 한때의 친구일 뿐이다. 네 고통의 날에는 그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 9 어떤 친구는 적으로 변한다. 그는 네 수치를 위해 다툼을 드러낼 것이다.
- 10 어떤 친구는 식탁의 동반자일 뿐이다. 네 고통의 날에는 그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 11 네가 번영할 때 그는 네 자신처럼 행동하며, 네 하인들 앞에서 당당해질 것이다.
- 12 네가 낮아질 때 그는 네게 적대적이 되어, 네 얼굴을 피할 것이다.
- 13 네 원수들로부터 떨어져라. 네 친구들에게 주의하라.
- 14 충성스러운 친구는 강력한 방어이다. 그를 찾은 자는 보물을 찾은 것이다.
- 15 충성스러운 친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의 가치는 측량할 수 없다.
- 16 충성스러운 친구는 생명을 구원하는 약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를 찾을 것이다.
- 17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신의 친구를 올바르게 이끈다. 그가 어떤 자이든, 그의 이웃도 그와 같기 때문이다.
- 18 내 아들이아, 어릴 때부터 교훈을 모으라. 머리가 희어지더라도 너는 지혜를 찾을 것이다.
- 19 그녀에게로 가라. 곡식을 갈고 씨를 뿌리는 자처럼 하며, 그녀의 좋은 열매를 기다려라. 네 수고는 그녀를 경작하는 데 적을 것이며, 곧 그녀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 20 무지한 자에게 그녀는 얼마나 혹독한가! 지각이 없는 자는 그녀 안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 21 그녀는 그에게 시험의 거대한 돌처럼 머무른다. 그는 그녀를 자신에게서 버리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 22 지혜는 그 이름에 맞는 것이다.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 23 내 아들이아, 귀를 기울이고 내 판단을 받아들여라. 내 조언을 거절하지 마라.
- 24 네 발을 그녀의 족쇄에, 네 목을 그녀의 사슬에 두어라.
- 25 그녀의 어깨에 어깨를 기대고 그녀를 메어라. 그녀의 족쇄로 인해 슬퍼하지 말라.
- 26 네 온 정신을 다해 그녀에게 나아가라. 네 힘을 다해 그녀의 길을 지켜라.
- 27 찾고 탐구하라. 그러면 그녀가 너에게 드러날 것이다. 네가 그녀를 잡으면 절대 놓아주지 말라.
- 28 마지막에 네가 그녀 안에서 안식을 얻을 것이며, 그녀는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 29 그녀의 족쇄는 네게 힘의 덮개가 되고, 그녀의 사슬은 영광의 옷이 될 것이다.
- 30 그녀 위에는 금 장식이 있고, 그녀의 끈은 자주색 끈이다.
- 31 너는 그녀를 영광의 옷으로 입고, 기쁨의 면류관으로 쓸 것이다.
- 32 내 아들이아, 네가 원한다면 네가 교육을 받을 것이다. 네 정신을 바친다면 네가 지혜로워질 것이다.
- 33 들으기를 좋아한다면 네가 받을 것이고, 귀를 기울인다면 네가 지혜로워질 것이다.
- 34 장로들의 무리 속에 서라. 지혜로운 자에게 붙어라.
- 35 모든 경건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지혜의 속담을 놓치지 말라.
- 36 지혜로운 사람을 보거든 일찍 찾아가라. 네 발이 그의 문 앞 계단을 닦게 하라.
- 37 주님의 법령에 네 마음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계명을 끊임없이 묵상하라. 그가 네 마음을 굳게 세우시고, 너의 지혜에 대한 갈망을 주실 것이다.

집회서 7장

- 1 악을 행하지 마라. 그래야 악이 너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 2 불의에서 떠나라. 그러면 그것도 너에게서 떠날 것이다.
- 3 내 아들이아, 불의의 갈퀴에 씨를 뿌리지 마라. 그래야 일곱 배로 거두지 않을 것이다.
- 4 주님께에서 높은 지위를 구하지 마라. 왕에게서 존경받는 자리를 구하지 마라.
- 5 주님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지 마라. 왕 앞에서 너의 지혜를 과시하지 마라.
- 6 재판관이 되려 하지 마라. 그래야 불의를 제거하지 못할까 두려워, 강한 자의 얼굴을 두려워하여, 너의 의로움의 길에 걸림돌을 놓지 않을 것이다.
- 7 도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우지 마라. 무리 속에서 수치를 당하지 마라.
- 8 죄를 두 번 범하지 마라. 한 번 범해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 9 "그분이 내 헌물의 수많은 제물들을 보실 것이다. 내가 가장 높으신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면, 그분이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라.
- 10 기도에서 낙심하지 마라. 자선을 게을리하지 마라.
- 11 그가 마음의 쓰라림에 빠져 있을 때, 그를 조롱하지 마라. 낮추시고 높이시는 이가 한 분이 있기 때문이다.
- 12 네 형제를 향해 거짓말을 꾸미지 마라. 친구에게도 같은 일을 하지 마라.
- 13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런 습관은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는다.
- 14 장로들의 모임에서 떠들지 마라. 기도할 때 말을 반복하지 마라.
- 15 가장 높으신 분이 만드신 힘든 노동과 농사일을 미워하지 마라.
- 16 죄인 무리 속에 너 자신을 세우지 마라. 분노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 17 너의 영혼을 크게 낮추어라. 불경한 자의 벌은 불과 벌레이다.
- 18 친구를 무엇과도 바꾸지 마라. 오피르의 금과도 진정한 형제를 바꾸지 마라.
- 19 지혜롭고 선한 아내를 스스로 빼앗지 마라. 그녀의 은총은 금보다 더 귀하다.
- 20 성실하게 일하는 종이나 생명을 바치는 고용인을 학대하지 마라.
- 21 지혜로운 종을 네 영혼이 사랑하게 하라. 그에게 자유를 빼앗지 마라.
- 22 가축이 있느냐? 그들을 돌보아라. 그것들이 너에게 이익이 된다면, 너와 함께 있게 하라.
- 23 자녀가 있느냐? 그들을 교육하여 어릴 때부터 복종하게 하라.
- 24 딸이 있느냐? 그들의 몸을 돌보아라. 너무 관대하지 마라.
- 25 딸을 시집보내면 큰 일을 이룰 것이다. 그녀를 지혜로운 남자에게 주어라.
- 26 당신이 기뻐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그녀를 내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미워하는 자에게는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 27 전심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의 분만의 고통을 잊지 마십시오.
- 28 당신이 그들로부터 태어났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위해 한 일들에 대해 당신은 무엇으로 보답할 것입니까?
- 29 전심으로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사제들을 공경하십시오.
- 30 당신을 만드신 이를 온 힘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의 봉사자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 31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사제를 공경하십시오. 명령된 대로 그에게 뉘를 드리십시오. 곧 첫 열매, 속죄 제물, 어깨의 예물, 성화 제물, 그리고 성물의 첫 열매입니다.
- 32 가난한 자에게도 손을 내밀어, 당신의 축복이 완전하게 되게 하십시오.
- 33 선물은 모든 살아 있는 자 앞에서 은총이 됩니다. 죽은 자에게는 은총을 거두지 마십시오.
- 34 울고 있는 자들을 피하지 말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 35 병든 자를 방문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일로 당신은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 36 당신의 모든 말에서 영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회서 8장

- ¹ 강한 자와 다투지 마라. 그래야 그의 손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 ² 부자와 다투지 마라. 그래야 그가 너를 눌러버릴까 두려워한다. 금은 많은 이를 망치고 왕들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 ³ 말이 많은 자와 다투지 마라. 그의 불에 나무를 더 얹지 마라.
- ⁴ 무례한 자를 조롱하지 마라. 그래야 네 조상들이 모욕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 ⁵ 죄에서 돌아선 자를 책망하지 마라. 우리가 모두 벌받을 만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 ⁶ 늙은 자를 모욕하지 마라. 우리 중에도 많은 이가 늙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 ⁷ 누구의 죽음에도 기뻐하지 마라.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 ⁸ 지혜로운 자의 말을 소홀히 하지 마라. 그들의 속담에 익숙해져라. 그들로부터 너는 절제와 위대한 자들을 섬기는 법을 배울 것이다.
- ⁹ 늙은 자의 말을 놓치지 마라. 그들도 부모로부터 배웠기 때문이다. 그들로부터 너는 통찰을 배우고 위기의 때에 대답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 ¹⁰ 죄인의 숯불을 피우지 마라. 그래야 그 불꽃에 타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 ¹¹ 무례한 자의 앞에서 일어나지 마라. 그래야 그가 네 입을 노리고 기다리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 ¹² 네보다 강한 자에게 빌려주지 마라. 빌려준다면 손해라고 여기라.
- ¹³ 네 능력 이상으로 보증하지 마라. 보증을 서면, 반드시 갚게 될 사람처럼 생각하라.
- ¹⁴ 재판관과 소송을 벌이지 마라. 그의 명예에 따라 그를 위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 ¹⁵ 무모한 자와 함께 여행하지 마라. 그래야 너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동할 것이고, 너는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망할 것이다.
- ¹⁶ 분노가 많은 자와 싸우지 마라. 사막에서 그와 함께 여행하지 마라. 그에게는 피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도움이 없는 곳에서 그는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 ¹⁷ 어리석은 자와 상의하지 마라. 그는 비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 ¹⁸ 낯선 자 앞에서 비밀스러운 일을 하지 마라.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낼지 네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 ¹⁹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마라. 그가 너에게 은혜를 갚게 하지 마라.

집회서 9장

- ¹ 네 마음에 깊이 사랑하는 아내를 시기하지 말고, 그녀에게 네게 해로운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 ² 네 영혼을 한 여자에게 맡기지 말고, 그녀가 네 힘을 짓밟게 하지 말라.
- ³ 창녀를 만나러 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덫에 걸릴지도 모른다.
- ⁴ 노래하는 여자와 사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꾀에 걸릴지도 모른다.
- ⁵ 처녀를 바라보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 그녀 때문에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 ⁶ 창녀들에게 네 영혼을 내주지 말라. 그래야 네 상속을 잃지 않을 것이다.
- ⁷ 도시의 거리들을 두루 살피지 말라. 그 도시의 황폐한 곳을 헤매지 말라.
- ⁸ 아름다운 여자에게서 눈을 돌리고, 남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말라. 많은 이들이 여자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어, 이로 인해 정욕이 불처럼 타오른다.
- ⁹ 남편이 있는 여자와 함께 식사하지 말고, 그녀와 술잔을 기울이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네 영혼이 그녀에게로 기울고, 네 정신이 파멸로 미끄러질지도 모른다.
- ¹⁰ 오래된 친구를 버리지 말라. 새 친구는 그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 친구는 새 포도주와 같으니, 오래되면 기쁨으로 마실 수 있다.
- ¹¹ 죄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의 끝이 어찌 될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¹² 불경한 자의 즐거움을 기뻐하지 말라. 그들이 무덤까지 벌을 받지 않고 지나가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라.
- ¹³ 죽일 힘을 가진 자에게서 멀리 떠나라. 그러면 죽음의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가게 되면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네 생명을 빼앗을지도 모른다. 너는 분명히 덫들 사이를 걷고, 도시의 성벽 위를 걷고 있음을 알라.
- ¹⁴ 네 이웃을 가능한 한 잘 알아라. 현명한 자들과 상의하라.
- ¹⁵ 명철한 자들과 대화하라. 네 모든 말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으로 하라.
- ¹⁶ 네 식탁에 의로운 자들을 함께하게 하라. 네 자랑을 주님을 경외하는 데 두라.
- ¹⁷ 일은 장인의 숨씨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그의 말로 지혜롭게 여겨진다.
- ¹⁸ 말이 많은 자는 그 도시에서 위험하다. 말을 가볍게 하는 자는 미워받을 것이다.

집회서 10장

- ¹ 현명한 재판관은 백성을 가르친다. 지혜로운 자의 통치는 질서 있게 이루어진다.
- ² 백성을 심판하는 자가 누구이든, 그의 관리들도 그와 같고, 도시의 통치자가 누구이든,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자들도 그와 같다.
- ³ 무절제한 왕은 백성을 멸망시킨다. 강한 자들의 지혜로 도시가 세워진다.
- ⁴ 땅의 통치는 주님의 손에 있다. 그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을 세워 그 위에 군림하게 하신다.
- ⁵ 사람의 번영은 주님의 손에 있다. 그는 서기관에게 영광을 안긴다.
- ⁶ 이웃의 모든 잘못으로 인해 분노하지 말라. 폭력의 행위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 ⁷ 교만은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미움을 받으며, 오만은 그 둘의 판단 앞에서 혐오스럽다.
- ⁸ 불의와 폭력과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통치권은 민족에서 민족으로 옮겨진다.
- ⁹ 왜 흠과 재가 교만하랴? 내 몸이 살아 있는 동안 썩어가기 때문이다.
- ¹⁰ 긴 병은 의사조차 조롱한다. 오늘의 왕은 내일 죽는다.
- ¹¹ 사람이 죽으면 벌레와 해충과 지렁이를 상속받는다.
- ¹² 사람이 주님을 떠날 때 교만이 시작된다. 그의 마음은 자신을 지으신 이로부터 떠났다.
- ¹³ 교만의 시작은 죄이다. 그것을 지키는 자는 혐오스러운 것을 쏟아낸다. 이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이방의 재앙을 내리고 완전히 멸망시키셨다.
- ¹⁴ 주님은 통치자들의 왕좌를 땅에 떨어뜨리시고 낮은 자들을 그 자리에 앉히셨다.
- ¹⁵ 주님은 민족들의 뿌리를 뽑아내시고 낮은 자들을 그 자리에 심으셨다.
- ¹⁶ 주님은 민족들의 땅을 뒤엎고 그 기초까지 파괴하셨다.
- ¹⁷ 그는 그들 중 일부를 끌어내어 멸망시키고 그들의 기억을 땅 위에서 끊어버리셨다.
- ¹⁸ 교만은 사람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고, 분노는 여자의 자손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다.
- ¹⁹ 누구의 자손이 영광을 얻는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자손이다. 누구의 자손이 영광을 얻지 못하는가? 계명을 어기는 인간의 자손이다.
- ²⁰ 혈족 가운데서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영광을 얻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의 눈에 영광을 얻는다.
- ²² 부자, 존경받는 자, 가난한 자 모두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영광을 얻는다.
- ²³ 지혜로운 가난한 자를 모욕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죄인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마땅치 않다.
- ²⁴ 왕, 재판관, 강한 자들이 영광을 얻는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보다 더 크지 않다.
- ²⁵ 자유인들이 현명한 종을 섬기며, 지식을 가진 자는 불평하지 않는다.
- ²⁶ 네 일에 지혜를 과시하지 말고, 곤경의 시간에 자랑하지 마라.
- ²⁷ 모든 것에 풍부한 노동자보다, 자랑하며 빵이 부족한 자가 더 나으니라.
- ²⁸ 내 아들이아, 겸손으로 네 영혼을 영광스럽게 하며, 네 가치에 따라 네 자신에게 존경을 돌려라.
- ²⁹ 자기 영혼을 범한 자를 누가 정당하게 여기겠느냐? 자기 생명을 모욕한 자를 누가 존중하겠느냐?
- ³⁰ 가난한 자는 그 지식으로 존경을 받고, 부자는 그 부로 존경을 받는다.
- ³¹ 가난한 가운데 존경받는 자가 부자 가운데서는 얼마나 더 존경받겠느냐? 부자 가운데서 모욕받는 자가 가난한 가운데서는 얼마나 더 모욕받겠느냐?

집회서 11장

- 1 낮은 자의 지혜는 그의 머리를 들고 큰 자들 사이에 앉히리라.
- 2 사람을 그의 아름다운 외모로 칭찬하지 말고, 그의 겉모습으로 그를 싫어하지 말라.
- 3 벌은 날아다니는 생물들 중에 작으나, 그것이 내는 것은 가장 좋은 꿀이다.
- 4 네가 입은 옷으로 자랑하지 말고, 영예의 날에 스스로 높이지 말라. 주님의 일은 놀라우며, 그의 일은 사람들 사이에 숨겨져 있음이라.
- 5 많은 왕들이 땅에 앉았으나, 결코 생각되지 않았던 자가 왕관을 썼도다.
- 6 많은 강한 자들이 크게 수치를 당하였고, 유명한 자들이 다른 자들의 손에 넘겨졌도다.
- 7 조사하기 전에는 비난하지 말라. 먼저 이해하고 나서 책망하라.
- 8 들어보기 전에는 대답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방해하지 말라.
- 9 네게 관련되지 않은 일에 대해 다투지 말라. 죄인들이 판단할 때 그들과 함께 앉지 말라.
- 10 내 아들이아, 많은 일에 신경 쓰지 말라. 네가 많이 간섭하면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니, 네가 쫓아도 따라잡지 못하고 도망쳐도 피하지 못하리라.
- 11 어떤 이는 수고하고 애쓰며 재촉하지만, 오히려 더 뒤처지도다.
- 12 어떤 이는 게으르고 도움을 필요로 하며 힘이 부족하고 가난이 가득하지만, 주님의 눈이 그를 선하게 보시고 그의 낮은 상태에서 그를 일으키셨도다.
- 13 그의 머리를 들려 많은 이들이 그를 놀라워하게 하셨도다.
- 14 좋은 일과 나쁜 일, 생명과 죽음, 가난과 부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온다.
- 15 주님의 선물은 경건한 자에게 머무르며, 그의 기뻐하시는 바는 영원히 번성하리라.
- 16 어떤 이는 부지런함과 절제로 부자가 되며, 이것이 그의 보상의 몫이니,
- 17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안식을 얻었고, 이제 내 재산을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것들을 남에게 떠넘기고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를지 알지 못하도다.
- 18 네 언약을 굳게 지키고 그 일을 행하며, 네 일에 능어라.
- 19 죄인의 행위에 놀라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네 일에 머무라. 주님의 눈에는 가난한 자를 빠르고 갑작스럽게 부자로 만드느 일이 쉬운 일이니라.
- 20 주님의 축복은 경건한 자의 보상에 있도다. 그는 빠르게 닥쳐오는 한때에 그의 축복을 번성하게 하시도다.
- 21 너는 말하지 말라, "내가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인가? 내게 또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 22 너는 말하지 말라, "내가 충분히 가졌으니, 이제 무슨 해가 되겠는가?"
- 23 좋은 날에는 나쁜 일이 잊히고, 나쁜 날에는 좋은 일이 기억되지 아니하도다.
- 24 주님의 눈에는 죽음의 날에 사람의 길에 따라 그를 보상하는 일이 쉬운 일이니라.
- 25 한때의 고난은 기쁨을 잊게 한다. 결국, 사람의 행위가 드러난다.
- 26 죽기 전에는 아무도 행복하다고 부르지 마라. 사람은 그의 자녀들로 인해 알려진다.
- 27 모든 사람을 네 집에 들이지 마라. 속임수를 쓰는 자의 꾀가 많기 때문이다.
- 28 우물에 놓인 괴장처럼, 교만한 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그는 정찰꾼처럼 네 약점을 노린다.
- 29 그는 선한 것을 악으로 바꾸려 은밀히 기다리며, 칭찬받을 일에 책임을 떠넘긴다.
- 30 불씨 하나에서 많은 숯불이 타오르듯, 죄인도 피를 흘리려 은밀히 기다린다.
- 31 악을 행하는 자를 주의하라. 그는 악한 계획을 세우며, 네 명예를 영원히 망가뜨릴지도 모른다.
- 32 외국인을 네 집에 들여라. 그는 논쟁으로 네 마음을 흐리고, 네 가족과 멀어지게 할 것이다.

집회서 12장

- ¹ 좋은 일을 하면, 누구에게 하는지 알라. 그러면 네 선한 행위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 ² 경건한 자에게 좋은 일을 하라. 그러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그가 주지 않더라도, 지극히 높으신 분이 주실 것이다.
- ³ 악을 계속하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없고, 구제를 하지 않는 자에게도 좋은 일이 없다.
- ⁴ 경건한 자에게 주고, 죄인을 돕지 말라.
- ⁵ 낮은 자에게 좋은 일을 하라. 불경건한 자에게 주지 말라. 그의 빵을 간직하고, 그에게 주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그 빵으로 너를 굴복시킬 것이며, 네가 그에게 한 선한 일만큼 두 배의 악을 받게 될 것이다.
- ⁶ 지극히 높으신 분도 죄인을 미워하시며, 불경건한 자에게 보복을 갚으실 것이다.
- ⁷ 선한 자에게 주고, 죄인을 돕지 말라.
- ⁸ 사람의 친구는 번영 속에서 완전히 시험받지 않는다. 그의 원수는 역경 속에서 숨지 않는다.
- ⁹ 사람이 번영할 때, 그의 원수는 슬퍼한다. 그가 역경에 처할 때, 심지어 친구도 떠난다.
- ¹⁰ 절대 원수를 신뢰하지 말라. 그의 악은 동금의 부식과 같기 때문이다.
- ¹¹ 비록 그가 겸손히 하고 휘어진 채 걷는다 하더라도, 조심하고 그를 경계하라. 너는 거울을 닦아서 완전히 흐릿해지지 않게 하는 자처럼 그에게 될 것이다.
- ¹² 그를 너와 함께 앉히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뒤엎고 네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를 네 오른쪽에 앉히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네 자리를 빼앗으려 할 것이며, 결국 네가 내 말을 인정하고 내 말에 찢릴 것이다.
- ¹³ 뱀에게 물린 마법사나 야수 곁에 다가가는 자를 누가 불쌍히 여기겠느냐?
- ¹⁴ 이와 같이 죄인에게 가서 그의 죄에 동참하는 자를 누가 불쌍히 여기겠느냐?
- ¹⁵ 그는 잠시 동안 너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네가 흔들리면 그는 머물지 않을 것이다.
- ¹⁶ 원수는 입으로 달콤한 말을 하며, 마음으로는 너를 구덩이에 떨어뜨리려 계획한다. 원수는 눈으로 울 수도 있지만, 기회를 찾으면 더 많은 피를 원할 것이다.
- ¹⁷ 역경이 네게 닥칠 때, 그가 너 앞에 서 있을 것이다. 너를 돕는 척하며 너를 넘어뜨릴 것이다.
- ¹⁸ 그는 머리를 흔들고 손뼉을 치며 속삭이고, 얼굴 표정을 바꿀 것이다.

집회서 13장

- ¹ 비트에 손을 대는 자는 더러워진다. 교만한 자와 사귀는 자는 그와 같아진다.
- ² 자기 힘보다 무거운 짐을 지지 마라. 자신보다 힘 있고 부유한 자와 사귀지 마라. 흙으로 만든 냄비가 냄비와 무슨 사귀음이 있겠느냐? 냄비가 치면 흙 냄비는 부서진다.
- ³ 부자는 잘못을 저지르고 위협한다. 가난한 자는 억울함을 당하고 사과한다.
- ⁴ 네가 유용하면 그는 너를 착취할 것이고, 네가 필요하면 그는 너를 버릴 것이다.
- ⁵ 네가 무엇을 소유하면 그는 너와 함께 살 것이며, 네 자원을 빨아들일 것이고,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 ⁶ 그가 너를 필요로 하면, 그는 너를 속이고 미소 지으며 희망을 주겠다고 말할 것이다.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네가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말할 것이다.
- ⁷ 그는 너를 두세 번이나 벌거벗기기까지 정교한 음식으로 너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결국엔 너를 조롱할 것이다. 그 후 그는 너를 보고 버리며 머리를 흔들 것이다.
- ⁸ 너의 즐거움 속에서 속임을 당하고 낮춰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 ⁹ 강한 자가 너를 초대하면 조심스럽게 대하라. 그러면 그는 더 자주 너를 초대할 것이다.
- ¹⁰ 너는 그를 압박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밀려날 것이다. 너는 멀리 서 있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잊혀질 것이다.
- ¹¹ 그와 동등한 자처럼 말하려 하지 마라. 그의 많은 말을 믿지 마라. 그는 많은 말로 너를 시험하고 미소 지으며 너를 검사할 것이다.
- ¹² 자기 비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자비롭지 않다. 그는 해를 끼치고 결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 ¹³ 비밀을 지키고 조심하라. 너는 넘어질 위험을 안고 걷고 있기 때문이다.
- ¹⁴ 모든 생물은 자기 종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
- ¹⁵ 모든 육체는 자기 종류와 사귀며, 사람은 자기와 같은 자를 붙잡는다.
- ¹⁶ 늑대가 양과 무슨 사귀음이 있겠느냐? 죄인도 의로운 자와 마찬가지로이다.
- ¹⁷ 하이에나와 개 사이에 무슨 평화가 있겠느냐?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무슨 평화가 있겠느냐?
- ¹⁸ 들에서 야생 당나귀는 사자들의 먹이가 되고,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는 부자들의 먹이가 된다.
- ¹⁹ 낮은 지위는 교만한 자에게 혐오스럽고,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는 부자에게 혐오스럽다.
- ²⁰ 부자가 흔들리면 친구들이 그를 받쳐 주지만, 겸손한 자가 넘어지면 친구들조차도 밀어낸다.
- ²¹ 부자가 넘어지면 많은 도우미가 있다. 그는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사람들이 그를 옹호한다. 겸손한 자가 넘어지면 사람들이 그를 책망한다. 그는 지혜로운 말을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
- ²² 부자가 말하면 모두 침묵한다. 그가 말하는 것을 하늘까지 칭찬한다. 가난한 자가 말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말한다. 그가 넘어지면, 그를 떨어뜨리려고 도와준다.
- ²³ 부는 죄가 없으면 좋다. 가난은 불경한 자의 의견에서만 악하다.
- ²⁴ 사람의 마음은 그의 얼굴을 바꾸며, 선하거나 악하게 바꾼다.
- ²⁵ 기쁜 얼굴은 화평한 마음의 징표이다. 속담을 짜내는 것은 힘든 사고를 필요로 한다.

집회서 14장

- ¹ 입으로 실수하지 않고 죄에 대한 슬픔을 겪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 ² 자신의 영혼이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 ³ 인색한 자에게는 부가 적절하지 않다. 인색한 자가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 ⁴ 자기를 억누르며 모으는 자는 타인을 위해 모은다. 타인은 그의 재산을 즐긴다.
- ⁵ 자기 자신에게 인색한 자가 누구에게 잘할 수 있겠느냐? 그는 자신의 소유를 즐기지 못한다.
- ⁶ 자기 자신에게 인색한 자보다 더 악한 자는 없다. 이는 그의 악행에 대한 벌이다.
- ⁷ 비록 선을 행하더라도 그는 잊어버리며 행한다. 결국 그는 자신의 악행을 드러낸다.
- ⁸ 인색한 자는 악하다. 그는 돌아서서 영혼들을 무시한다.
- ⁹ 탐욕스러운 자의 눈은 자신의 뒤편에 만족하지 않는다. 악한 불의가 그의 영혼을 마르게 한다.
- ¹⁰ 인색한 자는 빵을 아끼며, 그의 상에는 빵이 부족하다.
- ¹¹ 내 아들이야, 네가 가진 것에 따라 스스로를 잘 대우하고, 주님께 합당한 제물을 바쳐라.
- ¹² 죽음은 기다려 주지 않음을 기억하라. 음부의 언약은 네게 드러나지 않았다.
- ¹³ 죽기 전에 네 친구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네 능력에 따라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어라.
- ¹⁴ 좋은 날을 스스로 빼앗지 말라. 네가 바라는 좋은 것을 네게 지나가게 하지 말라.
- ¹⁵ 네가 수고한 것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고, 네 고생은 제비로 나누어 주지 않겠느냐?
- ¹⁶ 주어라, 받으라, 스스로를 잘 대우하라. 음부에는 사치를 추구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 ¹⁷ 모든 육체는 옷처럼 늙어간다. 창조 초기에 내린 언약은, '너는 죽어야 한다!'이다.
- ¹⁸ 두꺼운 나무의 잎처럼, 어떤 것은 떨어지고 어떤 것은 자라나듯, 육과 피의 세대도 같다. 하나는 끝나고 또 하나가 태어난다.
- ¹⁹ 모든 일은 썩고 사라지며, 그 건설자는 그것과 함께 떠난다.
- ²⁰ 지혜를 묵상하고 이해로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 ²¹ 그의 마음으로 그 여인의 길을 생각하는 자는 그 여인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 ²² 그 여인을 사냥꾼처럼 쫓아가고, 그 여인의 길에 숨어 기다려라.
- ²³ 그 여인의 창문을 들여다보는 자는 그 여인의 문에서 듣게 될 것이다.
- ²⁴ 그 여인의 집 가까이에서 머무는 자는 그 여인의 벽에 못을 박게 될 것이다.
- ²⁵ 그는 그녀 곁에 장막을 치고, 좋은 것들이 있는 곳에 머무를 것이다.
- ²⁶ 그는 그의 자녀들을 그녀의 그늘 아래 두고, 그녀의 가지 아래에서 쉴 것이다.
- ²⁷ 그는 그녀로 인해 더위에서 보호받고, 그녀의 영광 속에 머무를 것이다.

집회서 15장

- ¹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것을 행할 것이며,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녀를 얻을 것이다.
- ² 그녀는 그를 어머니처럼 맞이하고, 처녀로서 결혼한 아내처럼 영접할 것이다.
- ³ 그녀는 그에게 이해의 빵을 먹이고, 지혜의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 ⁴ 그는 그녀에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녀를 신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 ⁵ 그녀는 그를 이웃들 위로 높일 것이며, 그의 입을 모임 가운데서 열 것이다.
- ⁶ 그는 기쁨을 상속받고, 즐거움의 면류관과 영원한 이름을 얻을 것이다.
- ⁷ 어리석은 자들은 그녀를 얻지 못할 것이며, 죄인들은 그녀를 보지 못할 것이다.
- ⁸ 그녀는 교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녀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 ⁹ 죄인의 입에서 찬미는 매력적이지 않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그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¹⁰ 지혜 속에서만 찬미가 말될 것이며, 주님은 그것을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 ¹¹ 너는 말하지 말라, "내가 떨어진 것은 주님의 뜻이다." 너는 그가 미워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 ¹² 너는 말하지 말라, "그가 나를 미혹하게 하셨다." 그는 죄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¹³ 주님은 모든 가증한 것을 미워하시며,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 ¹⁴ 그분은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자신의 판단에 맡기셨다.
- ¹⁵ 네가 원한다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충성하는 것은 네 선택의 문제이다.
- ¹⁶ 그분은 불과 물을 네 앞에 두셨다. 네가 원하는 쪽에 손을 뻗을 것이다.
- ¹⁷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다. 네가 원하는 쪽이 주어질 것이다.
- ¹⁸ 주님의 지혜는 크다. 그분은 능력이 강하시며, 모든 것을 보신다.
- ¹⁹ 그분의 눈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바라본다. 그분은 사람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 ²⁰ 그분은 아무도 불경건하게 살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고, 아무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지 않으셨다.

집회서 16장

- 1 이롭지 않은 자녀를 많이 바라지 말고, 불경건한 아들들을 기뻐하지 마라.
- 2 그들이 많아지더라도, 그들 안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뻐하지 마라.
- 3 그들의 생명을 신뢰하지 말고, 그들의 수를 의지하지 마라. 한 명이 천 명보다 나을 수 있고, 자식 없이 죽는 것이 불경건한 자식을 두는 것보다 낫다.
- 4 지혜로운 자 한 명으로부터 도시가 채워지지만, 악한 자의 족속은 황폐해진다.
- 5 내 눈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았다. 내 귀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들었다.
- 6 죄인들의 모임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불순종하는 민족에서는 분노가 타오른다.
- 7 그는 옛날 힘센 자들인 거인들을 향해 화를 풀지 않았다.
- 8 그는 그의 오만함을 미워한 롯의 이웃들을 아끼지 않았다.
- 9 그는 최악 속에서 끌려간 멸망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며,
- 10 마찬가지로, 마음이 완악하여 모인 욕심만 보병도 아끼지 않았다.
- 11 비록 한 명이라도 고집 센 자가 있더라도, 그가 벌을 받지 않는 것은 기적이다. 자비와 분노는 모두 용서할 힘을 가진 이에게 있으며, 그는 분노를 쏟아낸다.
- 12 그의 자비가 크듯이, 그의 징계도 크다. 그는 사람을 그의 행위에 따라 심판한다.
- 13 죄인은 약탈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경건한 자의 인내는 좌절되지 않을 것이다.
- 14 그는 모든 자비의 행위를 위해 공간을 마련할 것이며, 각 사람은 그의 행위에 따라 받을 것이다.
- 17 내가 주님에게서 숨을 수 있다고 말하지 말고, 누가 하늘에서 나를 기억하겠는가?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알려지지 않을 텐데, 내 영혼은 무한한 창조물 속에서 무엇이냐?
- 18 보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 깊음과 땅이 그가 방문할 때 움직일 것이다.
- 19 산들과 땅의 기초들이 그가 그들을 바라볼 때 떨리며 흔들린다.
- 20 어떤 마음도 이 일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그의 길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 21 사람이 볼 수 없는 폭풍처럼, 그의 대부분의 행위는 숨겨져 있다.
- 22 누가 그의 의로움의 행위를 선포할 것인가? 누가 그것을 기다릴 것인가? 그의 언약은 멀리 떨어져 있다.
- 23 지혜가 부족한 자가 이 일을 생각한다. 어리석고 잘못된 자가 어리석게 생각한다.
- 24 내 아들이야, 내 말을 들어라. 지식을 배우고, 마음으로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
- 25 내가 정확히 교훈을 주고, 정확히 지식을 선포할 것이다.
- 26 주님의 심판 속에서, 그의 행위는 처음부터 있었다. 그가 그들을 만든 때부터 그들의 경계를 정하였다.
- 27 그는 모든 시대에 걸쳐 그의 일을 정비하시고, 그 시작을 그들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루셨다. 그들은 주리지도 않고 지치지 않으며, 그들의 일을 멈추지 않는다.
- 28 누구도 이웃을 밀어내지 않는다. 그들은 그의 말씀을 결코 거역하지 않는다.
- 29 이후에 주님은 땅을 돌아보시고 그 위에 자신의 축복으로 채우셨다.
- 30 모든 생물들이 그 표면을 덮었고, 그들은 다시 그 속으로 돌아간다.

집회서 17장

- 1 주님은 흠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시 흠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 2 그는 그들에게 날들을 수로 정하시고, 정해진 시간을 주시며, 그들에게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
- 3 그는 그들에게 자기에게 어울리는 힘을 주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그들을 만드셨다.
- 4 그는 모든 육체 위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두시고, 그에게 짐승과 새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 6 그는 그들에게 조연과 혀와 눈과 귀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 7 그는 그들에게 지혜의 지식을 채우시고, 선과 악을 보여주셨다.
- 8 그는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시며, 자기의 위대한 행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 10 그들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 그의 위대한 행적을 선포할 것이다.
- 11 그는 그들에게 지식을 더하시고, 유산으로 생명의 율법을 주셨다.
- 12 그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서 내리는 법령을 보여주셨다.
- 13 그들의 눈은 그의 영광의 위엄을 보았고, 그들의 귀는 그의 음성의 영광을 들었다.
- 14 그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부정의를 경계하라." 그는 각자 이웃에 대해 명령을 주셨다.
- 15 그들의 길은 항상 그의 앞에 있다. 그들의 길은 그의 눈에서 숨겨지지 않는다.
- 17 그는 각 민족에 지도자를 세우셨으나, 이스라엘은 주님의 몫이다.
- 19 그의 앞에서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해처럼 분명하다. 그의 눈은 그들의 길을 끊임없이 지켜본다.
- 20 그들의 최악은 그의 앞에서 숨겨지지 않는다. 그들의 모든 죄는 주님의 앞에 있다.
- 22 그에게서 사람의 자선은 인장과 같고, 그는 사람의 자비를 눈동자처럼 간직하신다.
- 23 그 후에 그는 일어나 그들에게 보답하여, 그들의 머리 위에 그 보답을 내릴 것이다.
- 24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희망을 잃은 자들을 위로하신다.
- 25 주님께로 돌아오고, 죄를 버려라. 그의 앞에서 기도할 때 죄를 덜 지으라.
- 26 가장 높으신 분께로 돌아오고, 불의에서 떠나라. 가증한 것을 크게 미워하라.
- 27 음부에서 살아 있는 자처럼 감사하는 자가 누가 가장 높으신 분을 찬양하랴?
- 28 죽은 자의 감사는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사라진다. 생명과 건강을 가진 자만이 주님을 찬양한다.
- 29 주님의 자비와 그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용서가 얼마나 크신가!
- 30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 사람의 아들은 불멸이 아니기 때문이다.
- 31 태양보다 더 밝은 것이 무엇이나? 그러나 이조차 가려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육과 피는 악을 꾸민다.
- 32 그는 하늘 높이의 권능을 바라보시나, 모든 사람은 땅과 재이다.

집회서 18장

- 1 영원히 사시는 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 2 주님만이 의로우시다.
- 4 그분은 자신의 행적을 선포할 권한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으셨다. 누가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모두 밝혀낼 수 있겠는가?
- 5 누가 그분의 위엄의 힘을 측정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분의 자비를 선포할 수 있겠는가?
- 6 주님의 놀라운 행적은 빼앗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으며, 탐구할 수도 없다.
- 7 사람이 마침내 마칠 때, 비로소 시작에 이르렀다. 그가 멈출 때, 그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 8 인간이란 무엇이며, 그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들의 선은 무엇이며, 그들의 악은 무엇인가?
- 9 사람의 날 수는 최대 백 년이다.
- 10 바다의 한 방울의 물과 모래의 한 알의 자갈처럼, 몇 해는 영원의 하루에 지나지 않는다.
- 11 이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며 그 위에 자비를 쏟으셨다.
- 12 그분은 그들의 끝을 보고 알았으니, 그것이 악함을 알았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용서를 더하셨다.
- 13 사람의 자비는 이웃을 향하지만, 주님의 자비는 모든 육체를 향한다. 그분은 양치기처럼 양 떼를 책망하고 징계하며 가르치고 되돌려 놓는다.
- 14 그분은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판단을 열심히 구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 15 내 아들이야, 네 선한 행실에 책망을 더하지 말고, 네가 주는 것에 혹독한 말을 하지 말라.
- 16 이슬이 타는 더위를 덜어주지 않는가? 그러므로 말이 선물보다 낫다.
- 17 보아라, 말이 선물보다 낫지 않은가? 둘 다 은혜로운 사람에게 있다.
- 18 어리석은 자는 무례하고 모욕적이다. 인색한 자의 선물은 눈을 소모한다.
- 19 말하기 전에 배우고, 병이 오기 전에 건강을 돌보라.
- 20 심판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라. 검토의 시간에 너는 용서를 얻을 것이다.
- 21 병이 오기 전에 겸손해져라. 죄의 때에 회개하라.
- 22 약속을 제때에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아무것도 두지 말라. 죽음에 이르러야 비로소 해방될 것처럼 기다리지 말라.
- 23 서원하기 전에 준비하라.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처럼 되지 말라.
- 24 끝날의 진노와 그분이 얼굴을 돌리시는 복수의 때를 생각하라.
- 25 풍요의 때에 굶주림의 때를 기억하라. 부유한 날에 빈곤과 부족을 기억하라.
- 26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흘러가며,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빠르다.
- 27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에 신중하다. 죄를 지을 날들에는 범죄를 피한다.
- 28 지혜를 아는 모든 이해 있는 사람은, 지혜를 찾아낸 이에게 감사한다.
- 29 말에 이해가 있던 자들도 스스로 지혜로워져서 적절한 속담을 흘려냈다.
- 30 네 욕망을 따라가지 마라. 네 욕구를 억제하라.
- 31 네 영혼이 그 소원의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게 하면, 그것은 네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 32 사치로 과도하게 즐기지 마라. 그 비용에 매이지 마라.
- 33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빌린 돈으로 잔치를 벌여 가난하게 되지 마라.

집회서 19장

- ¹ 술에 취한 일꾼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 작은 일을 경멸하는 자는 점점 무너진다.
- ² 포도주와 여자는 지혜로운 자들을 미혹한다.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무모하다.
- ³ 썩음과 벌레가 그의 유산이 될 것이다. 무모한 영혼은 빼앗길 것이다.
- ⁴ 서두르며 믿는 자는 마음이 얕다. 죄를 지으면 자신의 영혼을 해친다.
- ⁵ 악행을 기뻐하는 자는 책망을 받을 것이다.
- ⁶ 풍문을 미워하는 자는 더 적은 악을 저지른다.
- ⁷ 네게 들려준 말을 결코 반복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 ⁸ 친구이든 적이든, 그 말을 전하지 마라. 네게 죄가 되지 않는 한, 드러내지 마라.
- ⁹ 그가 네 말을 듣고 네 태도를 지켜보았다면, 때가 되면 네를 미워할 것이다.
- ¹⁰ 무언가를 들었느냐? 그것을 너와 함께 물어라. 용감해져라. 그것이 네를 터뜨리지 않을 것이다!
- ¹¹ 어리석은 자는 말 때문에 고통을 겪으며,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처럼 힘들어한다.
- ¹² 허벅지 살에 박힌 화살처럼, 풍문은 어리석은 자에게 박혀 있다.
- ¹³ 친구를 물어보라. 그가 그 일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가 했다 하더라도, 다시는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 ¹⁴ 이웃을 물어보라. 그가 그 말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가 했다 하더라도, 다시는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 ¹⁵ 친구를 물어보라. 많은 경우 허위의 말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말을 믿지 마라.
- ¹⁶ 마음에서 나오지 않고도 미끄러지는 자가 있다. 누구나 혀로 죄를 지지 않았던 자가 있느냐?
- ¹⁷ 위협하기 전에 이웃을 책망하라.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의 율법을 존중하라.
- ²⁰ 모든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모든 지혜는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 ²² 악에 대한 지식은 지혜가 아니다. 죄인들의 교활함은 충고가 아니다.
- ²³ 악이 있으며,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지혜가 부족한 어리석은 자가 있다.
- ²⁴ 지혜가 적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가 많고 율법을 어기는 자보다 낫다.
- ²⁵ 정교한 교활함이 있으며, 그것은 부당하다. 은혜를 뒤집어 판결을 얻으려는 자가 있다.
- ²⁶ 악을 행하는 자가 있으며, 그는 슬픔으로 머리를 숙인다. 그러나 속으로는 속임으로 가득 차 있다.
- ²⁷ 얼굴을 숙이고 한쪽 귀는 듣지 않는 척한다. 네가 모르는 곳에서 그는 너를 이용할 것이다.
- ²⁸ 힘 부족으로 죄를 저지르지 못할 때, 기회가 오면 그는 악을 저지른다.
- ²⁹ 사람은 그의 외모로 알려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네가 그를 만나면 그의 얼굴로 알아볼 수 있다.
- ³⁰ 사람의 옷차림, 웃는 웃음, 그리고 걷는 자세가 그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집회서 20장

- 1 때에 맞지 않는 책망도 있고, 침묵할 만큼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도 있다.
- 2 분노하는 것보다 책망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자기를 고백하는 자는 해로움에서 보호받는다.
- 4 남색을 하는 자가 처녀를 정결하게 파괴하려는 욕망처럼, 폭력으로 판결을 집행하는 자도 그러하다.
- 5 침묵하는 자가 지혜롭게 여겨지기도 하고, 말이 많은 자가 미워받기도 한다.
- 6 대답할 것이 없어서 침묵하는 자도 있고, 말할 때를 알고 침묵하는 자도 있다.
- 7 지혜로운 자는 제때가 오기 전까지 침묵한다. 그러나 자랑하는 자와 어리석은 자는 제때를 놓친다.
- 8 말이 많은 자는 싫어받는다. 스스로 권위를 취하는 자는 그 권위로 인해 미워받는다.
- 9 사람이 환난 속에서 얻는 번영도 있고, 이익이 손실로 바뀌는 것도 있다.
- 10 너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선물도 있고, 두 배로 갚아주는 선물도 있다.
- 11 영광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도 있고, 낮은 지위에서 머리를 높이 드는 자도 있다.
- 12 적은 값에 많은 것을 사들이고, 그 대가를 일곱 배로 갚는 자도 있다.
- 13 말에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사랑받게 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달콤한 말은 허공에 사라진다.
- 14 어리석은 자의 선물은 너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는 한 번 대신 여러 번 보상을 바라기 때문이다.
- 15 그는 적게 주고 많이 모욕한다. 그는 외치는 자처럼 입을 벌린다. 오늘은 빌려주고 내일은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그런 자는 미워할 만한 사람이다.
- 16 어리석은 자는 말한다. "나는 친구가 없고, 내가 한 선한 일에 감사도 받지 못한다. 내 빵을 먹는 자들은 악한 혀를 가졌다."
- 17 그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조롱받을 것인가!
- 18 길바닥에서 미끄러지는 것이 혀로 미끄러지는 것보다 낫다. 이처럼 악한 자의 몰락은 빠르게 올 것이다.
- 19 은총이 없는 사람은 시기 어린 이야기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항상 있을 것이다.
- 20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비유는 거부될 것이다. 그는 적절한 때에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 21 부족함 때문에 죄를 범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가 쉬면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 22 수줍음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파멸시키는 자가 있다. 어리석은 표정으로 그는 그것을 파멸시킨다.
- 23 수줍음 때문에 친구에게 약속을 하는 자가 있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친구를 원수로 만든다.
- 24 거짓은 사람의 몸에 추한 자국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항상 있을 것이다.
- 25 도둑은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그러나 둘 다 파멸을 상속할 것이다.
- 26 거짓말하는 자의 최후는 수치다. 그의 부끄러움은 항상 그와 함께 있다.
- 27 말에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높아지고, 신중한 자는 위대한 자들에게 기쁨을 준다.
- 28 자신의 땅을 갈아서 일하는 자는 수확을 풍성히 하며, 위대한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는 죄악에 대한 용서를 얻는다.
- 29 은혜와 선물은 지혜로운 자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입에 망을 씌운 것처럼 책망을 막는다.
- 30 숨겨진 지혜와 보이지 않는 보물— 그것들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 31 자신의 어리석음을 숨기는 자는, 자신의 지혜를 숨기는 자보다 낫다.

집회서 21장

- ¹ 내 아들이아, 네가 죄를 지었느냐? 더 이상 하지 말고, 과거의 죄를 사함을 청하라.
- ² 뱀의 얼굴처럼 죄를 피하라. 가까이 가면 그것이 너를 물기 때문이다.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죽인다.
- ³ 모든 불의는 양날의 칼과 같다. 그 치는 것은 치유가 없다.
- ⁴ 공포와 폭력이 부를 소진한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의 집은 황폐해질 것이다.
- ⁵ 가난한 자의 간구는 하느님의 귀에 이르고, 그의 심판은 빠르게 내린다.
- ⁶ 책망을 미워하는 자는 죄인의 길에 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마음으로 회개할 것이다.
- ⁷ 말재주가 뛰어난 자는 멀리까지 알려지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미끄러질 때를 안다.
- ⁸ 남의 돈으로 집을 짓는 자는 자기 무덤을 위해 돌을 모으는 자와 같다.
- ⁹ 악한 자들의 모임은 불꽃이 끝에 있는 대나무 털의 묶음과 같다.
- ¹⁰ 죄인들의 길은 돌로 포장되어 있고, 그 끝에는 지옥의 구렁이가 있다.
- ¹¹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의도의 주인이 된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완성은 지혜이다.
- ¹² 지혜롭지 못한 자는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 쓴맛을 많이 내는 지혜가 있다.
- ¹³ 지혜로운 자의 지식은 홍수처럼 풍성해지고, 그의 조언은 생명의 샘과 같다.
- ¹⁴ 어리석은 자의 내면은 깨어진 그릇과 같다. 그는 아무 지식도 간직하지 못한다.
- ¹⁵ 지식 있는 자가 지혜로운 말을 들으면, 그는 그것을 칭찬하고 더한다. 방탕한 자는 그것을 듣고 기뻐하지 않으며, 뒤로 던져 버린다.
- ¹⁶ 어리석은 자의 떠들썩한 말은 길에 짐처럼 놓여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입술에는 은총이 있다.
- ¹⁷ 명철한 자의 말은 공동체에서 찾을 것이다. 그들은 그의 말을 마음으로 생각할 것이다.
- ¹⁸ 파괴된 집처럼,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어리석은 자의 지식은 무의미한 말이다.
- ¹⁹ 가르침은 어리석은 자의 발에 족쇄처럼, 오른손에 손아귀처럼 된다.
- ²⁰ 어리석은 자는 웃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 ²¹ 명철한 자에게 가르침은 금 장신구처럼, 오른팔에 팔찌처럼 된다.
- ²² 어리석은 자의 발은 집으로 뛰어들지만, 경험 많은 자는 들어가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 ²³ 어리석은 자는 집의 문을 들여다보지만, 가르침을 받은 자는 밖에 서 있다.
- ²⁴ 문 밖에서 듣는 것은 무례한 일이지만, 명철한 자는 그 수치를 보고 슬퍼한다.
- ²⁵ 외국인의 입술은 이 일들로 인해 슬퍼할 것이지만, 신중한 자들의 말은 저울에 달릴 것이다.
- ²⁶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입에 있고, 지혜로운 자들의 입은 그들의 마음이다.
- ²⁷ 불경한 자가 적을 저주할 때, 자기 영혼을 저주한다.
- ²⁸ 속삭이는 자는 자기 영혼을 더럽히며, 어디를 가든지 미워받을 것이다.

집회서 22장

- ¹ 게으른 자는 더러워진 돌과 같으니, 그가 수치를 당할 때 모든 사람이 그를 흐짖는다.
- ² 게으른 자는 분노 더미의 더러움과 같으니, 그것을 집어 드는 자는 손에서 떨어버린다.
- ³ 교육받지 못한 자식은 아버지의 수치이며, 어리석은 딸은 아버지의 손해로 태어난다.
- ⁴ 현명한 딸은 스스로 적절한 남편을 얻고, 수치를 가져오는 딸은 아버지의 슬픔이다.
- ⁵ 교만한 여자는 아버지와 남편 모두에게 수치를 안기며, 그 둘 모두에게 경멸받는다.
- ⁶ 부적절한 말은 애도 중의 음악과 같으나, 매와 징계는 모든 시기에 지혜이다.
- ⁷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자는 조각난 그릇을 붙이는 자와 같고, 깊은 잠에서 깨우는 자와도 같다.
- ⁸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자는 잠든 자를 가르치는 자와 같으니, 결국 그는 말한다. '무엇입니까?'
- ¹¹ 죽은 자를 위하여 울어라. 그는 빛을 잃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울어라. 그는 이해력이 없기 때문이다. 죽은 자를 위하여 더 달콤하게 울어라. 그는 안식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삶은 죽음보다 더 나쁘다.
- ¹² 죽은 자를 위한 애도는 일주일간 지속되나, 어리석은 자와 불경한 자를 위한 애도는 그의 평생 동안 지속된다.
- ¹³ 어리석은 자와 많이 말하지 말고, 이해력이 없는 자에게 가지 말라. 그를 조심하여, 그의 공격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라. 그에게서 떠나라. 그러면 안식을 얻고, 그의 미친 행동으로 인해 지치지 않을 것이다.
- ¹⁴ 납보다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 그 이름은 무엇이나? '어리석은 자'이다.
- ¹⁵ 모래, 소금, 철의 덩어리보다 이해력이 없는 자를 견디기 더 어렵다.
- ¹⁶ 건물에 둘러싸이고 묶인 나무는 흔들어도 풀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현명한 조언에 굳게 서 있는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 ¹⁷ 신중한 이해에 굳게 서 있는 마음은 광택 낸 벽에 칠한 석고 장식과 같다.
- ¹⁸ 높은 곳에 세운 울타리는 바람에 서지 못하듯, 어리석은 자의 상상 속에 있는 두려운 마음은 어떤 두려움에도 서지 못한다.
- ¹⁹ 눈을 찌르는 자는 눈물을 흘리게 하며, 마음을 찌르는 자는 감정을 드러나게 한다.
- ²⁰ 새에게 돌을 던지는 자는 새를 놀라게 하듯, 친구를 모욕하는 자는 우정을 해친다.
- ²¹ 친구에게 칼을 빼든 경우, 절망하지 말라. 되돌아갈 길이 있을 수 있다.
- ²² 친구에게 입을 열어 비난한 경우, 두려워하지 말라. 화해할 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욕, 교만, 비밀을 누설하거나 배신의 일격이라면, 이 모든 일로 친구는 모두 도망친다.
- ²³ 이웃이 가난할 때 그에게 신뢰를 얻어, 그가 부유해질 때 기쁨을 누리라. 그가 고난을 당할 때 그와 함께 굳게 서라. 그리하면 그의 유산을 함께 상속받을 것이다.
- ²⁴ 불 앞에는 화로의 증기와 연기처럼, 모욕은 피의 흐름 앞선다.
- ²⁵ 나는 친구를 보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그의 얼굴을 피하지 않는다.
- ²⁶ 그 때문에 나에게 어떤 악이 닥치면, 그것을 듣는 모든 이가 그를 경계할 것이다.
- ²⁷ 내 입에 지킬 자를 누구로 세우며, 내 입술에 지혜로운 봉인을 두어, 내가 그것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내 혀가 나를 파멸시키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집회서 23장

- ¹ 주님, 내 생명의 아버지이자 주님, 그들의 조언에 나를 내버리지 마소서. 그들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 ² 누가 내 생각 위에 매를 두고, 내 마음 위에 지혜의 훈계를 두어, 내 잘못을 용서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게 하시리이까?
- ³ 아니면 내 잘못이 늘어나고, 내 죄가 넘쳐흐르며, 내가 내 원수 앞에 넘어지고, 내 적이 나를 보고 기뻐할까?
- ⁴ 주님, 내 생명의 아버지이자 하느님, 나에게 교만한 눈을 주지 마소서.
- ⁵ 나에게서 악한 욕망을 떠나게 하소서.
- ⁶ 과식이나 음란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무례한 마음에 내버리지 마소서.
- ⁷ 내 아들들아, 입의 훈계를 들어라. 그것을 지키는 자는 잡히지 않을 것이다.
- ⁸ 죄인은 그의 입술로 패배할 것이다. 그 입술로 모욕하는 자와 교만한 자가 넘어질 것이다.
- ⁹ 네 입을 맹세에 익숙하게 하지 말고, 거룩한 이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습관을 들이지 말라.
- ¹⁰ 끊임없이 매를 맞는 종이 상처를 면하지 못하듯, 맹세하고 끊임없이 그 이름을 말하는 자도 죄에서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
- ¹¹ 많은 맹세를 하는 자는 불의로 가득 찰 것이다. 그 집에서 매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그에게 달릴 것이다. 그가 그것을 무시하면, 그는 두 배로 죄를 지을 것이다. 그가 거짓으로 맹세하면, 그는 의롭게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며, 그 집은 환난으로 가득 찰 것이다.
- ¹² 죽음으로 덮인 말이 있다. 그것이 야곱의 유산에 있지 않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은 경건한 자에게서 멀리 떠나며, 그들은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 ¹³ 네 입을 거친 무례함에 익숙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죄된 말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 ¹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억하라. 네가 위대한 자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 그들 앞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나쁜 습관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라며, 네 태어난 날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 ¹⁵ 욕설에 익숙한 자는 평생 동안 교정받지 못할 것이다.
- ¹⁶ 죄를 늘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타오르는 불처럼 격렬한 분노는 소멸될 때까지 꺼지지 않는다. 육신 안에서 음란을 저지르는 자는 불이 다 타버릴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 ¹⁷ 음란한 자에게는 모든 빵이 달콤하다. 그는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 ¹⁸ 자신의 결혼 침상에서 벗어나는 자는 마음속으로 말한다. "누가 나를 보겠는가? 어둠이 나를 둘러싸고, 벽이 나를 가린다.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
- ¹⁹ 사람들의 눈이 그의 두려움이지만, 그는 주님의 눈이 태양보다 만 배나 밝아, 모든 사람의 길을 보고 은밀한 곳을 들여다본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 ²⁰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에게 알려졌고, 창조된 후에도 그에게 알려져 있었다.
- ²¹ 이 사람은 도시의 거리에서 벌을 받을 것이다. 그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잡힐 것이다.
- ²² 마찬가지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서 자식을 낳는 아내도 그러하다.
- ²³ 첫째로, 그녀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에 불순종하였다. 둘째로, 그녀는 자기 남편을 배반하였다. 셋째로, 그녀는 음란을 저지르며 다른 남자에게서 자식을 낳았다.
- ²⁴ 그녀는 공동체 앞에 끌려나갈 것이며, 그녀의 벌은 그녀의 자식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 ²⁵ 그녀의 자녀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며, 그녀의 가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 ²⁶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저주로 남길 것이며, 그녀의 모욕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 ²⁷ 남아 있는 자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보다 더 달콤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집회서 24장

- 1 지혜는 자기 영혼을 찬양하고,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선포한다.
- 2 그녀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모임에서 입을 열어, 그분의 권능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선포한다.
- 3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왔으며, 안개처럼 땅을 덮었다."
- 4 나는 높은 곳에 살며, 내 보좌는 구름 기둥 위에 있다.
- 5 나는 하늘의 돌레를 홀로 둘러싸고, 심연의 깊이를 걸었다.
- 6 바다의 파도와 온 땅, 모든 민족과 나라에서, 나는 소유를 얻었다.
- 7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나는 편안함을 찾았다. 누구의 유산에 내가 머무르랴?
- 8 그때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나에게 명령을 내리셨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내 장막을 편안히 자리 잡게 하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안에 거하며, 너의 유산은 이스라엘에 있게 하라."
- 9 그분은 나를 처음부터, 세대 이전에 창조하셨다. 나는 모든 세대에 걸쳐 멈추지 않고 존재할 것이다.
- 10 거룩한 장막에서, 나는 그분 앞에서 섬겼다. 그래서 나는 시온에 굳게 서게 되었다.
- 11 사랑받는 성읍에서도, 그분은 나에게 편안함을 주셨다. 예루살렘은 내 영역이 되었다.
- 12 나는 존엄한 백성에 뿌리를 내렸다. 곧 주님의 유산이 되는 뭍에.
- 13 나는 레바논의 전나무처럼 높아졌고, 헤르몬 산의 전나무처럼 높아졌다.
- 14 나는 바닷가의 야자수처럼, 여리고의 장미 덩굴처럼, 평지의 아름다운 올리브나무처럼, 그리고 평면나무처럼 높아졌다.
- 15 계피와 아스파라투스처럼, 나는 향료에 향기를 주었고, 귀한 몰약처럼 좋은 향기를 퍼뜨렸다. 갈바넘과 옥시나, 스타크 테와 성소에서의 유향 냄새처럼.
- 16 나는 테레빈트 나무처럼 가지를 뻗었다. 내 가지들은 영광스럽고 우아하다.
- 17 나는 포도나무처럼 은총을 펼쳤다. 내 꽃들은 영광과 부의 열매이다.
- 19 "나를 원하는 모든 이들아, 나에게로 오너라. 내 열매로 채워지라."
- 20 내 기억은 꿀보다 달고, 내 유산은 꿀집보다 더하다.
- 21 나를 먹는 자들은 더 먹고 싶어 할 것이고, 나를 마시는 자들은 더 마시고 싶어 할 것이다.
- 22 나를 따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겪지 않을 것이며, 나와 함께 일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 23 이 모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언약의 책이며, 모세가 우리에게 야곱의 공동체를 위한 유산으로 명령한 율법이다.
- 25 그분은 지혜를 풍성하게 하시며, 피손과 첫 열매의 날에 티그리스 강처럼 하신다.
- 26 그분은 이해를 충만하게 하시며, 유프라테스 강과 추수의 날에 요단 강처럼 하신다.
- 27 그는 교훈을 빛처럼 빛나게 하며, 포도 수확의 날들에 기혼 강처럼 흐른다.
- 28 처음 사람도 그녀를 완전히 알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사람도 그녀를 탐구하지 못했다.
- 29 그녀의 생각은 바다에서 채워지고, 그녀의 계획은 깊은 곳에서 나온다.
- 30 나는 강에서 흘러나온 수로처럼 나왔고, 정원으로 흘러 들어가는 관개 수로처럼 나왔다.
- 31 나는 내 정원에 물을 주고, 내 정원 흙을 적시리라 하였다. 보라, 내 수로가 강이 되고, 내 강이 바다가 되었다.
- 32 나는 아침처럼 교훈을 빛나게 하여, 이 일들을 멀리서 분명히 밝히리라.
- 33 나는 예언처럼 가르침을 쏟아부어, 모든 세대에 남기리라.
- 34 내가 나만을 위해 수고하지 않았음을 보라. 나는 지혜를 성실히 구하는 모든 이를 위해 수고하였다.

집회서 25장

- ¹ 나는 세 가지 것을 기뻐하며, 그것들은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다. 곧 친족 간의 화합, 이웃 간의 우정, 그리고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이다.
- ² 그러나 내 영혼은 세 종류의 사람을 싫어하며, 그들의 삶에 크게 불만을 품다. 곧 교만한 가난한 자, 거짓말하는 부자, 그리고 간음하는 늙은 어리석은 자이다.
- ³ 네가 젊었을 때 아무것도 얻지 않았다면, 늙었을 때 무엇을 찾을 수 있겠느냐?
- ⁴ 흰 머리에 있는 판단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노인들이 현명한 조언을 아는 것은 얼마나 좋은가!
- ⁵ 노인들의 지혜와 명철과 조언은 존경받는 자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 ⁶ 많은 경험은 늙은이의 관이다. 그들의 영광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 ⁷ 나는 아홉 가지를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복된 것으로 여겼으며, 열 번째는 내 입으로 말하겠다. 곧 자녀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자, 그리고 적들의 물락을 보며 살아가는 자이다.
- ⁸ 명철한 아내와 함께 사는 자, 헛로 실수하지 않는 자,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봉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 ⁹ 현명함을 찾은 자,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자들의 귀에 말하는 자는 복이 있다.
- ¹⁰ 지혜를 찾은 자는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보다 더 위대한 자는 없다.
- ¹¹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 그것을 가진 자는 누구에 비할 수 있겠느냐?
- ¹² 마음의 상처 외에 어떤 상처가 있겠느냐? 여자의 악행 외에 어떤 악행이 있겠느냐?
- ¹³ 내가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온 재앙 외에 어떤 재앙이 있겠느냐? 원수들의 복수 외에 어떤 복수가 있겠느냐?
- ¹⁴ 뱀의 독보다 더한 독은 없다. 원수의 분노보다 더한 분노는 없다.
- ¹⁵ 나는 악한 여자와 함께 집을 지내는 것보다 사자와 용과 함께 살기를 택하겠다.
- ¹⁶ 여자의 악행은 그녀의 외모를 바꾸고, 곰처럼 그녀의 얼굴을 어둡게 한다.
- ¹⁷ 그녀의 남편은 이웃들 사이에 앉아서 그것을 듣고 슬프게 탄식한다.
- ¹⁸ 모든 악은 여자의 악보다 작다. 죄인의 몫을 그녀에게 떨어지게 하라.
- ¹⁹ 늙은이의 발에 모래 언덕을 오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말이 많은 아내가 조용한 남자에게도 그와 같다.
- ²⁰ 여자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라.
- ²¹ 여자가 남편을 부양하면 분노와 무례함과 큰 비난이 따른다.
- ²² 악한 여자는 마음의 낮춤과 얼굴의 슬픔과 상처받은 마음이다. 남편을 기쁘게 하지 않는 여자는 늘어진 손과 휘청거리는 무릎과 같다.
- ²³ 죄의 시작은 여자에게서 왔다. 그녀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죽는다.
- ²⁴ 물에 배수로를 내지 말고, 악한 여자에게 말할 자유를 주지 말라.
- ²⁵ 그 여자가 네가 지시한 대로 가지 않으면, 그녀를 네 육체에서 끊어라.

집회서 26장

- ¹ 좋은 아내를 얻은 남자는 복이 있다. 그의 날들이 두 배가 될 것이다.
- ² 충실한 아내는 남편에게 기쁨을 준다. 그는 평화롭게 평생을 마칠 것이다.
- ³ 좋은 아내는 큰 선물이다. 그녀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 ⁴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좋은 마음은 항상 기쁜 얼굴을 만든다.
- ⁵ 내 마음은 세 가지를 두려워했고, 네 번째에 대해 간구하였다. 도시의 험담, 무리의 모임, 그리고 거짓 고발이다. 이 모든 것은 죽음보다 더 참기 어렵다.
- ⁶ 다른 여자를 시기하는 여자는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다. 그녀의 혀는 이를 모두에게 드러낸다.
- ⁷ 악한 여자는 갈리는 멍에와 같다. 그녀를 잡는 자는 전갈을 움켜잡는 자와 같다.
- ⁸ 취한 여자는 큰 분노를 일으킨다. 그녀는 자신의 수치를 가리지 않는다.
- ⁹ 여자의 음행은 그녀의 눈을 올리는 데 있다. 그녀의 눈꺼풀로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 ¹⁰ 고집 센 딸을 엄히 감시하라. 그녀가 스스로 자유를 얻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
- ¹¹ 무례한 눈을 주의하라. 그것이 너에게 죄를 범할지라도 놀라지 말라.
- ¹² 그녀는 목마른 여행자처럼 입을 벌려 가까이 있는 모든 물을 마신다. 그녀는 모든 기둥에 앉아 활시위를 어떤 화살이든 풀어놓는다.
- ¹³ 아내의 은총은 남편을 기쁘게 한다. 그녀의 지식은 그의 뼈를 강하게 한다.
- ¹⁴ 침묵하는 여자는 주님의 선물이다. 잘 가르쳐진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 ¹⁵ 겸손한 여자는 은총 위에 은총이다. 자기 통제를 지닌 영혼의 가치를 달 수 있는 저울은 없다.
- ¹⁶ 주님의 높은 곳에서 떠오르는 해처럼, 좋은 아내의 아름다움은 그녀가 잘 다스리는 집 안에 있다.
- ¹⁷ 성스러운 등불대 위에 빛나는 등불처럼, 잘 생긴 몸에 어린 얼굴의 아름다움이 있다.
- ¹⁸ 은으로 된 받침 위의 금 기둥처럼, 굳센 자의 가슴에 아름다운 발이 있다.
- ²⁸ 내 마음은 두 가지 일로 슬퍼하고, 세 번째 일로 분노가 일어난다. 가난으로 고통받는 용사, 지혜로운 자들이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일, 그리고 의로움에서 죄로 돌아서는 자— 주님은 그를 칼에 대비하게 하실 것이다!
- ²⁹ 상인은 잘못을 피하기가 어렵고, 소매상은 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집회서 27장

- 1 많은 이들이 이익을 위해 죄를 지었다. 재산을 늘리려는 자는 눈을 돌린다.
- 2 못이 돌 사이 틈에 단단히 박히듯, 죄는 사고와 매매 사이에 끼어든다.
- 3 사람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꾸준히 지키지 않으면, 그의 집은 곧 무너진다.
- 4 체로 털어내면 찌꺼기가 남듯, 사람의 생각 속에도 더러움이 남는다.
- 5 로의 가마는 그릇을 시험하듯, 사람의 생각이 그를 시험한다.
- 6 나무의 열매가 그 나무의 재배를 드러내듯, 사람의 마음속 생각의 말도 그를 드러낸다.
- 7 사람의 생각을 듣기 전에는 아무도 칭찬하지 마라. 이는 사람들이 시험받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 8 너는 의로움을 따르면 그것을 얻고, 영광의 긴 겹옷을 입듯이 입을 것이다.
- 9 새들은 자기 종류로 돌아가듯, 진리는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로 돌아간다.
- 10 사자는 먹이를 노리듯, 죄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노린다.
- 11 경건한 자의 말은 항상 지혜롭지만, 어리석은 자는 달처럼 변한다.
- 12 이해력 없는 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말고, 생각 깊은 자들과 함께 굳건히 있어라.
- 13 어리석은 자들의 말은 역겨우며, 그들의 웃음은 방중한 죄이다.
- 14 그들의 말은 맹세로 가득해 털이 곧추서게 하고, 그들의 다툼은 다른 이들의 귀를 막게 한다.
- 15 교만한 자들의 다툼은 피로 이어지고, 그들이 서로를 모욕하는 것은 듣기에도 참을 수 없는 일이다.
- 16 비밀을 드러내는 자는 신뢰를 파괴하며, 가까운 친구를 얻지 못한다.
- 17 친구를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하여라. 그러나 그의 비밀을 드러내면, 너는 그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 18 누군가가 자신의 원수를 파괴하듯, 너는 이웃의 우정을 파괴한 것이다.
- 19 네 손에서 풀어준 새처럼, 너는 이웃을 놓아주었고, 다시는 그를 잡지 못할 것이다.
- 20 그를 쫓지 마라. 그는 멀리 도망쳐서 사슴이 밧에서 벗어나듯 도망쳤기 때문이다.
- 21 상처는 묶을 수 있고, 모욕 후 화해할 수 있지만, 비밀을 드러내는 자는 희망이 없다.
- 22 눈을 깜빡이는 자는 악한 일을 꾸미며, 그를 아는 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다.
- 23 네가 함께 있을 때 그는 달콤하게 말하며 네 말을 칭찬하지만, 그 후에는 말을 꼬아 네 말에 함정을 놓는다.
- 24 나는 많은 것을 싫어했지만, 것처럼 싫어한 것은 없었다. 주님도 그를 싫어하실 것이다.
- 25 돌을 곧바로 위로 던지는 자는 그 돌이 자기 머리에 떨어지게 하고, 속임수로 치는 타격은 상처를 낸다.
- 26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구덩이에 빠지고, 올가미를 놓는 자는 그 올가미에 걸린다.
- 27 악한 일을 하는 자는 그 일이 자기에게 되돌아오며, 그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 28 비웃음과 모욕은 교만한 자에게서 나온다. 복수는 그들을 사자처럼 기다린다.
- 29 의로운 자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는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그들이 죽기 전에 고통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 30 분노와 성내는 마음, 이것들도 모두 가증한 것이다. 죄인은 이것들을 소유할 것이다.

집회서 28장

- ¹ 복수를 꾀하는 자는 주님께로부터 복수를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그의 죄들을 굳게 하실 것이다.
- ² 네 이웃이 네게 끼친 상처를 용서하라. 그러면 네가 기도할 때 네 죄들이 용서될 것이다.
- ³ 누가 이웃을 향해 분노를 품고 주님께 치유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 ⁴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서, 자기 죄를 위해 간구할 수 있겠느냐?
- ⁵ 그는 육신에 불과한 자로서 분노를 키운다. 누가 그의 죄를 속죄해 주겠느냐?
- ⁶ 네 마지막 끝을 기억하고, 원수관계를 그쳐라. 부패와 죽음을 기억하며, 계명들을 지켜라.
- ⁷ 계명들을 기억하고, 네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가장 높으신 분의 언약을 기억하며, 무지를 용서하라.
- ⁸ 갈등을 피하라. 그러면 네 죄들이 줄어들 것이다. 분노가 강한 자는 갈등을 일으킨다.
- ⁹ 죄인은 친구들을 괴롭히고, 평화로운 자들 사이에 다툼을 뿌린다.
- ¹⁰ 불의 연료처럼 갈등은 타오르며, 다툼의 강도만큼 타오른다. 사람의 힘만큼 그의 분노도 강하고, 그의 부유함만큼 그의 분노도 높아진다.
- ¹¹ 서두른 시작은 불을 일으키고, 서두른 싸움은 피를 흘린다.
- ¹² 너는 불씨에 불어대면 타오르고, 침을 뱉으면 꺼진다. 이 둘 모두 네 입에서 나온다.
- ¹³ 속삭이는 자와 이중적인 혀를 저주하라. 그는 평화로운 자들을 많이 파괴했기 때문이다.
- ¹⁴ 비방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흔들며, 민족에서 민족으로 흩어지게 했으며, 강한 성들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자들의 집들을 전복시켰다.
- ¹⁵ 비방하는 자는 용감한 여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수고를 빼앗았다.
- ¹⁶ 그것을 듣는 자는 쉴 곳을 찾지 못하며, 평온히 살지 못할 것이다.
- ¹⁷ 채찍의 타격은 육신에 흔적을 남기지만, 혀의 타격은 뼈를 부수는 것이다.
- ¹⁸ 많은 이들이 칼날에 쓰러졌으나, 혀 때문에 쓰러진 자들만큼은 아니다.
- ¹⁹ 그것으로부터 보호받는 자, 그 분노를 겪지 않은 자, 그 멍에를 메지 않은 자, 그 줄에 매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 ²⁰ 그 멍에는 철의 멍에이고, 그 줄은 놋의 줄이다.
- ²¹ 그 죽음은 악한 죽음이며, 음부가 그것보다 낫다.
- ²² 그것은 경건한 자들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그 불꽃에 타지 않을 것이다.
- ²³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그것에 빠질 것이며, 그것이 그들 사이에서 타오르고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사자처럼 보내질 것이며, 표범처럼 그들을 파괴할 것이다.
- ²⁴ 네 소유를 가시로 둘러싸고, 네 은과 금을 지키듯이 하라.
- ²⁵ 너의 말에 저울과 추를 달고, 너의 입에 문과 굳은 막대기를 설치하여라.
- ²⁶ 그것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숨어 기다리는 자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집회서 29장

- ¹ 자비를 베푸는 자는 이웃에게 빌려주고, 손으로 그를 돕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 ²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에게 빌려주고, 약속한 시기에 갚아라.
- ³ 네 말을 확실히 하며 그와 신뢰를 지켜라. 그러면 언제나 네가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이다.
- ⁴ 많은 이들이 빌린 돈을 행운이라 여겨, 도움을 준 자에게 곤란을 끼쳤다.
- ⁵ 빌린 돈을 받기 전에는 남의 손을 입으로 맞춘다. 이웃의 돈을 위해 겸손한 말을 한다. 그러나 상환 시기가 되면 기한을 늘리고 핑계를 대며 계절을 불평한다.
- ⁶ 만약 그가 성공하면 채권자는 거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고, 그것을 행운이라 여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채권자의 돈을 빼앗아 무고하게 원수로 만들고, 저주와 모욕으로 보답한다. 존경 대신 수치를 주는 것이다.
- ⁷ 많은 이들이 사기 때문에 돌아섰다. 무조건 속임을 당할까 두려워서이다.
- ⁸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는 인내하라. 그가 네 자선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
- ⁹ 계명을 위해 가난한 자를 돕고, 그의 필요에 따라 허공을 보내지 말라.
- ¹⁰ 형제와 친구를 위해 네 돈을 잃어라. 돌 아래에 녹이 슬게 두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라.
- ¹¹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명에 따라 네 재산을 배분하라. 그러면 그것이 금보다 더 유익할 것이다.
- ¹² 자선을 네 창고에 쌓아두라. 그러면 그것이 모든 고통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 ¹³ 그것은 강력한 방패나 무거운 창보다 더 잘 네 원수와 싸울 것이다.
- ¹⁴ 선한 사람은 이웃의 보증인이 된다. 수치를 잃은 자는 그를 배신한다.
- ¹⁵ 네 보증인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는 네 생명을 바쳤기 때문이다.
- ¹⁶ 죄인은 보증인의 재산을 탕비한다.
- ¹⁷ 감사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구원한 자를 배신한다.
- ¹⁸ 보증은 번영하던 많은 이들을 망하게 하고, 바다의 파도처럼 흔들어 놓았다. 그것은 강한 자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외국 땅을 떠돌게 했다.
- ¹⁹ 보증에 빠져 일의 계약을 맡은 죄인은 소송에 휘말릴 것이다.
- ²⁰ 네 힘에 따라 이웃을 도우라. 그리고 너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 ²¹ 생명의 필수품은 물과 빵과 옷과 은밀함을 위한 집이다.
- ²² 나무로 만든 처소 아래서 가난한 자의 삶이, 타인의 집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하는 것보다 낫다.
- ²³ 적게 가지고 많게 가지고 만족하라.
- ²⁴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는 삶은 비참하다. 네가 손님으로 있는 곳에서는 입을 열지 못한다.
- ²⁵ 너는 손님을 대접하고 음료를 제공하지만, 감사도 받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너는 쓴 소리를 들을 것이다.
- ²⁶ "여기 와라, 유랑자여. 상을 차리고, 네 손에 무엇이 있거든 그것으로 나를 먹여라."
- ²⁷ "가라, 유랑자여. 존경받는 손님이 여기 있다. 내 형제가 내 손님으로 왔다. 내 집이 필요하다."
- ²⁸ 이러한 일들은 지혜로운 자에게 슬픈 일이다. 숙소를 둘러싼 꾸밈음과 채권자의 모욕이다.

집회서 30장

- ¹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끝내 그로부터 기쁨을 얻기 위해 그에게 꾸준히 매를 든다.
- ² 아들을 벌하는 자는 그로부터 이익을 얻고, 지인들 사이에서 그를 자랑한다.
- ³ 아들을 가르치는 자는 그의 원수를 질투하게 만들고, 친구들 앞에서 그를 기뻐한다.
- ⁴ 그의 아버지가 죽었지만 마치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는 자신과 같은 자를 남겼기 때문이다.
- ⁵ 그는 살아 있을 때 아들을 보고 기뻐했고, 죽을 때 후회 없이 죽었다.
- ⁶ 그는 원수들을 대적할 보복자와 친구들에게 은혜를 갚을 자를 남겼다.
- ⁷ 아들을 지나치게 아끼는 자는 그의 상처를 묶어두고, 그의 울음소리에 매번 마음이 괴롭다.
- ⁸ 길들지 않은 말은 고집스러워지고, 방임된 아들은 고집스러워진다.
- ⁹ 아들을 과도하게 애무하면 그가 당신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함께 놀아주면 그가 당신을 슬쁘게 한다.
- ¹⁰ 그와 함께 웃지 마라. 그래야 나중에 슬픔을 겪고 이빨을 갈아댈 것이다.
- ¹¹ 그의 젊은 시절에 자유를 주지 마라. 그의 어리석음을 무시하지 마라.
- ¹² 그의 어린 시절에 그의 목을 굽히고, 아이일 때 옆구리를 치라. 그래야 그가 고집스러워져 당신에게 불순종하지 않고, 당신의 영혼에 슬픔을 주지 않을 것이다.
- ¹³ 아들을 벌하고 일시켜라. 그래야 그의 무례한 행동이 당신에게 수치가 되지 않을 것이다.
- ¹⁴ 건강하고 튼튼한 가난한 자가, 몸이 아픈 부자보다 낫다.
- ¹⁵ 건강과 튼튼함이 모든 금보다 낫고, 강한 몸이 무한한 재산보다 낫다.
- ¹⁶ 몸의 건강보다 더 좋은 부는 없다. 마음의 기쁨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
- ¹⁷ 쓴 삶보다 죽음이 낫고, 영원한 휴식이 끊임없는 병보다 낫다.
- ¹⁸ 달린 입에 쏟아지는 좋은 것들은 무덤 위에 놓인 제물과 같다.
- ¹⁹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것은 먹지도 못하고 냄새를 맡지도 못한다. 주님께 벌을 받는 자도 마찬가지다.
- ²⁰ 그는 눈으로 보고 신음하며, 환관이 처녀를 안고 신음하는 것과 같다.
- ²¹ 당신의 영혼을 슬픔에 내주지 마라. 의도적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 ²² 마음의 기쁨이 사람의 생명이고, 사람의 즐거움이 그의 날들을 연장한다.
- ²³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라. 슬픔을 멀리 떠나게 하라. 슬픔은 많은 이를 파괴했고, 그것에는 이익이 없다.
- ²⁴ 질투와 분노가 생명을 단축시키고, 근심이 나이를 앞당긴다.
- ²⁵ 기쁘고 즐거운 자들은 그들의 음식으로부터 이득을 얻는다.

집회서 31장

- 1 부에서 오는 깨어남은 육체를 소모시키고, 그것에 대한 근심은 수면을 빼앗는다.
- 2 깨어 있는 근심은 잠을 갈망한다. 심한 병에 이르면 수면은 깨어진다.
- 3 부자는 돈을 모으기 위해 수고한다. 그가 쉴 때에는 자신의 좋은 것들로 채워진다.
- 4 가난한 자는 재산이 부족하여 수고한다. 그가 쉴 때에는 다시 가난해진다.
- 5 금을 사랑하는 자는 의로움을 얻지 못한다. 파멸을 따르는 자는 스스로 그 파멸로 채워질 것이다.
- 6 많은 이들이 금을 위해 파멸에 넘겨졌다. 그들의 파멸이 그들의 얼굴을 마주친다.
- 7 그것을 향해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모든 어리석은 자는 그것에 사로잡힐 것이다.
- 8 무죄함을 지키며 금을 추구하지 않는 부자는 복이 있다.
- 9 우리가 누구를 복이 있다 하라?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
- 10 그것으로 시험을 받고 완전함을 얻은 자가 누구냐? 그는 자랑하라. 권세를 가지고 죄를 범할 수 있었으나 죄를 범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악을 행할 수 있었으나 행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 11 그의 번영은 확실해질 것이며, 공동체는 그의 자선을 선포할 것이다.
- 12 큰 상에 앉았느냐? 거기서 탐욕스럽지 말라. '이것에 음식이 많구나!'라고 말하지 말라.
- 13 탐욕스러운 눈은 악한 것이니, 눈보다 더 탐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이 흐른다.
- 14 네 손을 네 눈이 보는 곳 어디에나 뻗지 말라. 그것으로 그릇에 뛰어들지 말라.
- 15 네가 느끼는 것을 이웃의 감정으로 생각하라. 모든 일에서 신중하라.
- 16 네 앞에 놓인 음식을 사람답게 먹어라. 탐욕스럽게 먹지 말라. 그래야 미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 17 예의를 위해 먼저 그만두어라. 배부르지 않게 하라.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 18 많은 사람 가운데 앉았다면, 그들보다 먼저 손을 뻗지 말라.
- 19 예의 바른 자에게는 아주 조금으로도 충분하다. 그는 침대에서 숨을 거칠게 쉬지 않는다.
- 20 적당한 식사에서 건강한 수면이 온다. 그는 일찍 일어나 정신이 맑다. 깨어 있는 고통, 복통, 경련은 배부르지 못한 자에게 따른다.
- 21 네가 먹기를 강요받았다면, 그 중간에 일어나라. 그러면 편안함을 얻을 것이다.
- 22 내 아들이야, 내 말을 들으라. 나를 경멸하지 말라. 결국 너는 내 말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네 모든 일에 능숙하라. 그러면 병이 너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 23 음식을 넉넉히 나누는 자는 사람들에게 축복받는다. 그의 훌륭함에 대한 증언은 믿어질 것이다.
- 24 음식을 인색히 대하는 자는 도시에서 속삭임을 받는다. 그의 인색함에 대한 증언은 정확할 것이다.
- 25 포도주 속에서 용감한 척 하지 마라. 포도주는 많은 이를 파괴해 왔다.
- 26 로는 강철의 경도를 담그어 시험하듯, 포도주는 교만한 자들의 다툼 속에서 마음을 시험한다.
- 27 포도주는 적당히 마실 때 사람에게 생명과 같으니, 포도주가 없는 사람에게 생명이 무엇이랴?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 28 적절하고 적당히 마신 포도주는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이다.
- 29 과도하게 마신 포도주는 영혼의 쓰라림과 자극과 갈등을 낳는다.
- 30 취한 상태는 어리석은 자의 분노를 더해 그를 해롭게 하고, 힘을 약화시키며 상처를 더한다.
- 31 포도주 잔치에서 이웃을 꾸짖지 마라. 그가 즐거워할 때 그를 경멸하지 마라. 그에게 책망의 말을 하지 마라. 그에게 요구를 하여 괴롭히지 마라.

집회서 32장

- ¹ 축제에서 당신이 지도자로 임명되었습니까?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들 사이에서 그들 중 하나처럼 행동하십시오. 먼저 그들을 돌보고 나서 앉으십시오.
- ² 당신이 모든 의무를 다한 후에야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래야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당신의 좋은 봉사에 관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³ 높은 자여, 말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지식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음악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 ⁴ 음악이 연주되는 곳에서 말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부적절한 시기에 당신의 지혜를 과시하지 마십시오.
- ⁵ 금으로 만든 고리에 보석 반지가 끼워진 것처럼, 포도주 잔치에서의 음악 연주도 그러합니다.
- ⁶ 금으로 만든 공예품에 에메랄드 반지가 끼워진 것처럼, 즐거운 포도주와 함께하는 음악의 선물도 그러합니다.
- ⁷ 젊은이여, 꼭 말해야 할 때에는 말하십시오. 그러나 두 번을 넘지 말고, 오직 질문을 받았을 때만 말하십시오.
- ⁸ 말을 간결하게 요약하십시오. 적은 말로 많은 것을 전하십시오.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다문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 ⁹ 위대한 자들 사이에서 그들과 동등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떠들지 마십시오.
- ¹⁰ 번개가 천둥보다 먼저 달린다. 겸손한 자에게는 찬사가 먼저 따른다.
- ¹¹ 적절한 시기에 일어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지 마십시오.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떠돌지 마십시오.
- ¹²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고, 당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교만한 말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 ¹³ 이 모든 일들로 당신의 창조주를 찬미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자신의 좋은 것들을 마음껏 마시게 하십니다.
- ¹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교육을 받을 것이며, 그분을 일찍 찾는 자는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 ¹⁵ 율법을 찾는 자는 그것으로 채워질 것이지만, 위선자는 그것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 ¹⁶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진정한 판단을 얻고, 의로운 행위를 빛처럼 밝힐 것입니다.
- ¹⁷ 죄인은 책망을 피하고, 자기 뜻대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 ¹⁸ 현명한 자는 생각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는 혼자서 조언 없이 행동한 후에도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 ¹⁹ 조언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행동한 후에는 후회하지 마십시오.
- ²⁰ 갈등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돌이 많은 곳에서 걸음이 헛되지 마십시오.
- ²¹ 부드러운 길에서 과신하지 마십시오.
- ²²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의하십시오.
- ²³ 모든 일에서 당신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 ²⁴ 율법을 믿는 자는 계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집회서 33장

- 1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어떤 악도 닥치지 않으며, 시험을 여러 번 겪더라도 그를 구원하시리라.
- 2 지혜로운 자는 율법을 미워하지 않으나, 그것에 대해 위선적인 자는 폭풍 속의 배와 같으니라.
- 3 명석한 자는 율법에 신뢰를 두리라. 율법은 그에게 충성하니, 마치 사람이 신의 예언을 묻는 것과 같으니라.
- 4 말을 준비하라. 그러면 네가 들릴 것이니라. 교훈을 묵어라. 그리고 네 대답을 하라.
- 5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수레바퀴와 같고, 그의 생각은 굴러가는 축과 같으니라.
- 6 수말은 조롱하는 친구와 같으니, 누구나 그 위에 앉으면 그는 울부짖으니라.
- 7 일년의 모든 날의 빛이 모두 태양에서 나오는데, 어찌 한 날이 다른 날보다 뛰어날 수 있느냐?
- 8 그들은 주님의 지식으로 구별되었고, 그분은 계절과 축일을 바꾸셨으니라.
- 9 그분은 일부를 높이고 성화하였으며, 일부는 평범한 날로 삼으셨으니라.
- 10 모든 사람은 땅에서 왔으며, 아담은 흙에서 지어졌으니라.
- 11 그분의 풍성한 지식으로 주님은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의 길을 달리하셨으니라.
- 12 그분은 일부를 복주고 높이며, 일부를 성화하여 자신께 가까이 이끌었으니라. 일부는 저주하고 낮추며, 그들의 자리에서 뒤집어엎으셨으니라.
- 13 도공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그의 모든 길은 그의 기쁨에 따라 이루어지듯, 사람들은 그를 지으신 이의 손에 있어, 그의 판단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지니라.
- 14 선은 악과 대비되고, 생명은 죽음과 대비되며, 죄인은 경건한 자와 대비되니라.
- 15 전능하신 분의 모든 행위를 이와 같이 보라. 그것들은 쌍을 이루며, 하나가 다른 하나에 대적하니라.
- 16 나는 포도 따는 자들이 끝난 후에 뒤늦게 줌의 자처럼 마지막으로 지켰으니라.
- 17 주님의 복으로 나는 그들보다 먼저 도달하여, 포도를 줌의 자처럼 내 포도주 틀을 채웠으니라.
- 18 내가 나를 위해만 수고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훈을 구하는 자들을 위해 수고하였음을 생각하라.
- 19 들으라, 백성의 위대한 자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공동체의 통치자들이여.
- 20 네가 살아 있는 동안, 아들과 아내, 형제와 친구에게 네 자신을 넘기지 말며, 네 재산을 다른 이에게 주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여 다시 그들을 구하게 될까 하노라.
- 21 네가 살아 숨 쉬는 동안, 누구에게도 너 자신을 넘기지 말라.
- 22 네 자녀들이 너에게 구하는 것이, 네가 네 자녀들의 손을 바라보는 것보다 낫니라.
- 23 네 모든 일에서 뛰어나라. 네 명예에 얼룩을 두지 말라.
- 24 네 생애의 날들이 끝나는 날, 죽음의 때에 네 유산을 나누어라.
- 25 사료와 지팡이, 그리고 짐은 나귀를 위한 것이다. 빵과 징계, 그리고 일은 하인을 위한 것이다.
- 26 네 하인에게 일을 시켜라. 그러면 네가 편안함을 얻을 것이다. 그의 손을 비워두면, 그는 자유를 찾으려 할 것이다.
- 27 요와 매는 목을 굽히게 한다. 악한 하인을 위해선 고문 기구와 고통이 준비되어 있다.
- 28 그를 일에 종사시켜 놀게 하지 마라. 놀기는 많은 악을 가르친다.
- 29 그에게 어울리는 일을 시켜라. 만약 그가 복종하지 않으면, 그의 족쇄를 무겁게 하라.
- 30 어떤 이에게도 지나치지 마라. 불의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마라.
- 31 네가 하인을 두었다면, 자신처럼 대우하라. 너는 그를 피로 산 것이기 때문이다.
- 32 네가 하인을 두었다면, 자신처럼 대우하라. 네 영혼처럼, 너는 그를 필요로 할 것이다. 만약 너는 그를 학대하고, 그가 떠나 도망가면,
- 33 네가 어디로 가서 그를 찾으랴?

집회서 34장

- ¹ 지혜 없는 사람에게는 허망하고 거짓된 희망이 있다. 꿈은 어리석은 자에게 날개를 준다.
- ² 그림자를 잡으려 하고 바람을 쫓는 자처럼, 꿈에 마음을 두는 자도 그러하다.
- ³ 꿈의 환상은 반사된 모습이며, 얼굴이 얼굴 가까이 있는 듯한 형상이다.
- ⁴ 부정한 것에서 무엇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가? 거짓된 것에서 무엇이 진실이 될 수 있겠는가?
- ⁵ 점치기와 점술과 꿈은 허망하다. 마음은 임신부처럼 환상을 꾀다.
- ⁶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방문이 아니라면, 마음을 그들에게 두지 말라.
- ⁷ 꿈은 많은 사람을 미혹하였다. 그들은 그것에 희망을 두고 실패하였다.
- ⁸ 거짓 없이 율법이 이루어진다. 신실한 입술에는 지혜가 완전하다.
- ⁹ 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안다. 많은 경험을 한 자는 지혜를 선포한다.
- ¹⁰ 경험이 없는 자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여행을 많이 한 자는 더 현명해진다.
- ¹¹ 내가 여행 중에 많은 것을 보았다. 내 지혜는 내 말보다 더 많다.
- ¹² 나는 종종 죽음의 위험에 처하였다. 그러나 이 경험들로 인해 내가 보존되었다.
- ¹³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영은 살 것이다. 그들의 희망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께 있다.
- ¹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겁쟁이가 되지 않는다. 그는 그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 ¹⁵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영혼은 복되다. 그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는가? 그의 지지자는 누구인가?
- ¹⁶ 주님의 눈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는 강력한 보호와 견고한 지지이며, 뜨거운 바람을 가리는 덮개요, 한낮의 태양을 가리는 그늘이며, 넘어짐을 막는 수호자요, 쓰러짐을 돕는 도움이다.
- ¹⁷ 그는 영혼을 일으키고 눈을 밝히며, 건강과 생명과 복을 준다.
- ¹⁸ 부당하게 얻은 것을 제물로 바치는 자는 조롱으로 제물을 드린다. 악인들의 조롱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¹⁹ 지극히 높으신 분은 불경한 자들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희생의 수가 많다고 해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 ²⁰ 가난한 자의 재산으로 제물을 드리는 자는 아버지의 눈 앞에서 아들을 죽이는 자와 같다.
- ²¹ 가난한 자의 빵은 그들의 생명이다. 그것을 빼앗는 자는 피를 흘리는 자이다.
- ²² 이웃의 생계를 빼앗는 자는 이웃을 살해하는 자와 같다. 노동자의 보수를 빼앗는 자는 피를 흘리는 자와 같다.
- ²³ 한 사람이 쌓고 다른 사람이 허무는 경우, 그들이 얻는 이익은 수고뿐이다.
- ²⁴ 한 사람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저주할 때, 주님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실 것인가?
- ²⁵ 죽은 자를 만진 후에 몸을 씻은 사람이 다시 그 죽은 자를 만진다면, 그의 씻음으로 무엇을 얻겠는가?
- ²⁶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뒤에 금식한 사람이 다시 돌아가 같은 일을 하면, 누가 그의 기도를 들으랴? 그의 겸손으로 무엇을 얻겠는가?

집회서 35장

- ¹ 법을 지키는 자는 희생 제물을 많이 드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화평 제물을 바친다.
- ² 은혜를 갚는 자는 고운 밀가루를 드리고, 자선을 베푸는 자는 감사 제물을 바친다.
- ³ 악에서 떠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고, 불의에서 떠나는 것은 속죄의 제물이다.
- ⁴ 공허한 손으로 주님의 앞에 서지 말아라.
- ⁵ 이 모든 일들은 계명 때문에 이루어진다.
- ⁶ 의로운 자의 제물은 제단을 부유하게 하고, 그 향기로운 냄새는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있다.
- ⁷ 의로운 자의 제물은 받아들여지며, 잊히지 않는다.
- ⁸ 관대함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네 손으로 얻은 첫 열매를 줄이지 말아라.
- ⁹ 모든 선물에는 즐거운 얼굴을 보이고, 십일조를 기쁨으로 바쳐라.
- ¹⁰ 그가 네게 준 대로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주어라. 네 손이 얻은 대로 관대히 주어라.
- ¹¹ 주님은 보답하시며, 일곱 배로 보답하실 것이다.
- ¹² 선물로 그를 매수하려 하지 말아라. 그는 그런 것을 받지 않으신다. 불의한 제물을 향한 마음을 두지 말아라. 주님은 심판자이시며, 그분 앞에는 사람을 존중하는 일이 없다.
- ¹³ 그는 가난한 자를 대적하여 어떤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억울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 ¹⁴ 그는 고아의 간구나 과부가 그 이야기를 쏟아낼 때 결코 경멸하지 않으신다.
- ¹⁵ 과부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흐르지 않는가? 그 눈물의 원인을 만든 자를 향해 그의 외침이 있지 않은가?
- ¹⁶ 자기 기쁨에 따라 하느님을 섬기는 자는 받아들여진다. 그의 간구는 구름에 이르는 것이다.
- ¹⁷ 겸손한 자의 기도는 구름을 뚫는다. 그가 가까이 오기 전까지 위로를 받지 못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방문하시고 공정하게 심판하고 판단하실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 ¹⁸ 주님은 불자비한 자의 허리가 부서질 때까지 느긋하지 않으시며, 교만한 자의 수를 줄이고 불의한 자의 왕권을 부수기 전까지 그들을 참아주지 않으신다.
- ¹⁹ 모든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보답하고, 사람들의 계획에 따라 그들의 행위를 갚으며, 자기 백성의 사건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그의 자비로 기쁨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 ²⁰ 그의 고통의 때에 자비는 가뭄의 때에 비를 내리는 구름처럼 반가운 것이다.

집회서 36장

- ¹ 모든 이의 하느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이 바라보소서.
- ² 모든 민족 위에 당신의 두려움을 보내소서.
- ³ 외국 민족들 위에 당신의 손을 들어, 그들이 당신의 위대한 힘을 보게 하소서.
- ⁴ 당신이 우리 앞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들 앞에서도 우리 앞에서 당신을 높이 드러내소서.
- ⁵ 그들이 우리처럼 당신을 알게 하소서. 주님, 당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소서.
- ⁶ 새로운 표적을 보이시고, 다양한 기적을 행하소서. 당신의 손과 오른손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 ⁷ 분노를 일으키시고, 진노를 쏟아부으소서. 적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멸망시키소서.
- ⁸ 때를 빨리 하시고, 당신의 맹세를 기억하소서. 그들이 당신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게 하소서.
- ⁹ 도망친 자가 격노하는 불에 삼켜지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해치는 자들이 멸망하게 하소서.
- ¹⁰ 적들의 지도자들의 머리를 부수소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 ¹¹ 야곱의 모든 지파를 모으시고, 처음과 같이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 ¹²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과, 당신이 만아들처럼 여기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소서.
- ¹³ 당신의 성소인 예루살렘, 당신의 안식처를 자비로이 돌보소서.
- ¹⁴ 시온을 채우소서. 당신의 말씀을 높이 드러내시고,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채우소서.
- ¹⁵ 처음에 당신의 피조물이었던 자들에게 증거를 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을 성취하소서.
- ¹⁶ 당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보답하시고, 사람들이 당신의 예언자들을 신뢰하게 하소서.
- ¹⁷ 주님, 당신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론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축복대로 하소서. 땅 위의 모든 이가 당신이 주님, 영원한 하느님임을 알게 하소서.
- ¹⁸ 배는 어떤 음식이든 먹지만, 어떤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낫다.
- ¹⁹ 입은 사냥으로 얻은 고기를 맛보듯, 지혜로운 마음은 거짓말을 알아챈다.
- ²⁰ 거스르는 마음은 무거움을 가져온다. 경험 많은 자가 그에게 갇아줄 것이다.
- ²¹ 여자는 어떤 남자라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딸 중 하나는 다른 딸보다 낫다.
- ²² 여자의 아름다움은 얼굴을 환하게 한다. 남자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
- ²³ 그 여자의 혀에 자비와 겸손이 있다면, 그의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 같지 않다.
- ²⁴ 아내를 얻는 자는 가장 풍부한 보물을 얻고, 그를 돕는 동반자이자 지지의 기둥을 얻는다.
- ²⁵ 울타리가 없는 곳에는 재산이 약탈된다. 아내가 없는 자는 방황하며 슬퍼한다.
- ²⁶ 누가 도시에서 도시로 뛰어다니는 민첩한 도둑을 신뢰하겠는가? 마찬가지로, 동지가 없고 저녁이 되면 어디서든 묵는 자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집회서 37장

- ¹ 모든 친구가 말한다. '나도 그의 친구다.' 그러나 이름만 친구일 뿐인 친구가 있다.
- ² 동반자이자 친구가 원수로 변할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슬픔이 아니라?
- ³ 오 악한 상상이며, 네가 왜 거짓으로 마른 땅을 덮으려고 만들어졌느냐?
- ⁴ 친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동반자가 있지만, 고난의 때에는 그를 대적한다.
- ⁵ 배를 채우려고 친구와 함께 힘쓰는 동반자가 있지만, 전투의 현장에서는 그의 방패를 들고 도망친다.
- ⁶ 네 영혼 안에서 친구를 잊지 말고, 네 부요함 속에서도 그를 잊지 말라.
- ⁷ 모든 조언자는 조언을 칭찬하지만, 일부는 자기 이익을 위해 조언한다.
- ⁸ 조언자에게 네 영혼을 조심하라. 그의 이익이 무엇인지 미리 알라. (그는 자기 이익을 위해 조언할 터이니,) 그가 너를 위해 불을 뿜게 하지 말라.
- ⁹ 그가 네게 말하리라. '네 길이 좋다.' 그런 다음 그는 네가 무슨 일로 끝나는지 보려고 곁에 서 있을 것이다.
- ¹⁰ 네게 시선을 비뚤어뜨리는 자와는 조언하지 말라. 시기하는 자에게는 네 조언을 숨기라.
- ¹¹ 경쟁자에 관해 여자와 조언하지 말고, 겁쟁이에게는 전쟁에 관해, 상인에게는 사업에 관해, 구매자에게는 판매에 관해, 시기하는 자에게는 감사에 관해, 자비 없는 자에게는 친절에 관해, 게으른 자에게는 어떤 일에도 관해, 네 집에서 고용한 자에게는 그의 일을 끝내는 것에 관해, 허송세월 보내는 하인에게는 많은 일에 관해 조언하지 말라. 이런 자들의 조언에는 아무것도 귀 기울이지 말라.
- ¹² 오히려 경건한 자와 항상 함께하라. 그는 계명을 지키는 자임을 네가 알고, 그의 영혼이 네 영혼과 같으며, 네가 실패할 때 함께 슬퍼할 자라.
- ¹³ 네 마음의 조언을 굳게 지켜라. 네게 더 충성스러운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 ¹⁴ 사람의 영혼은 때로 높은 망대 위에 앉은 일곱 명의 경비병보다 더 잘 알려줄 때가 있다.
- ¹⁵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으신 분께 간구하여, 그가 네 길을 진리로 인도하게 하라.
- ¹⁶ 모든 일의 시작은 이성이라야 한다. 모든 행동 앞에는 조언이 선행해야 한다.
- ¹⁷ 마음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징으로,
- ¹⁸ 네 가지 것이 일어난다. 선과 악, 생명과 죽음. 그것들을 항상 지배하는 것은 혀이다.
- ¹⁹ 지혜롭고 많은 이를 가르치지만, 자기 영혼에는 유익이 없는 이가 있다.
- ²⁰ 말로 교활한 이가 있다. 그는 모든 이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는 모든 음식을 빼앗길 것이다.
- ²¹ 그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은총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모든 지혜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 ²² 자기 영혼을 위해 지혜로운 이가 있다. 그의 이해의 열매는 입에서 신뢰할 수 있다.
- ²³ 지혜로운 이는 자기 백성을 가르친다. 그의 이해의 열매는 신뢰할 수 있다.
- ²⁴ 지혜로운 이는 축복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를 보는 모든 이가 그를 복되다고 부를 것이다.
- ²⁵ 사람의 삶은 날로 계산된다. 이스라엘의 날들은 수없이 많다.
- ²⁶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백성 가운데 신뢰를 얻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 ²⁷ 내 아들이야, 네 영혼을 네 삶에서 시험하여라. 그것에게 해로운 것을 보고, 그것에게 굴복하지 말아라.
- ²⁸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영혼이 모든 것을 즐기는 것은 아니다.
- ²⁹ 어떤 쾌락에도 탐심을 부리지 말아라. 네가 먹는 것에 대해 탐식하지 말아라.
- ³⁰ 과식은 병을 가져오고, 탐식은 구역질을 일으킨다.
- ³¹ 탐식 때문에 많은 이들이 멸망했으나, 주의하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것이다.

집회서 38장

- ¹ 당신의 필요에 따라 의료인에게 그가 받을 만한 존경을 베풀어라. 진실로 주님께서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 ² 치료는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서 오며, 그는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것이다.
- ³ 의료인의 기술이 그의 머리를 높이 들게 하며, 그는 위대한 자들의 눈에 존경받을 것이다.
- ⁴ 주님께서 땅에서 약을 창조하셨다.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경멸하지 않을 것이다.
- ⁵ 그 힘이 드러나게 하려고 나무로 물이 달아졌던가?
- ⁶ 그는 사람에게 기술을 주어 그의 놀라운 일들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 ⁷ 그 약으로 그는 치유하시고 고통을 제거하신다.
- ⁸ 이것으로 약제사는 혼합물을 만든다. 하느님의 일은 끝나지 않는다. 그분으로부터 평화가 땅 위에 흐른다.
- ⁹ 내 아들이아, 네 병이 있을 때 게으르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여라. 그분이 너를 치유하실 것이다.
- ¹⁰ 불의를 버리고 네 손을 의로움으로 인도하여라. 모든 죄에서 네 마음을 깨끗이 하라.
- ¹¹ 달콤한 향기와 고운 밀가루를 기억의 제물로 바치고, 네 능력에 따라 기름을 제물 위에 부어라.
- ¹² 그 후에 의료인을 불러라. 진실로 주님께서 그를 창조하셨다. 그를 떠나지 말라. 너는 그를 필요로 한다.
- ¹³ 회복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는 때가 있다.
- ¹⁴ 그들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진단과 치유에 대해 주님께 축복을 구할 것이다.
- ¹⁵ 자기 창조주 앞에서 죄를 지은 자는 의사의 손에 떨어지게 하라.
- ¹⁶ 내 아들이아, 죽은 자를 위해 네 눈물이 흘러내리게 하고, 심히 슬퍼하는 자처럼 애도를 시작하여, 그 시신을 존중 있게 감싸고, 장례를 소홀히 하지 말라.
- ¹⁷ 비통한 울음과 열정적인 탄식을 하라. 그의 덕에 따라 슬퍼하되 하루 이틀 동안만 하여,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그리하여 네 슬픔을 위로받으라.
- ¹⁸ 슬픔에서 죽음이 온다. 마음의 슬픔은 힘을 약하게 한다.
- ¹⁹ 재난 속에서도 슬픔은 남아 있다. 가난한 자의 삶은 마음에 비참하다.
- ²⁰ 네 마음을 슬픔에 주지 말라. 그것을 떠나보내고, 끝을 기억하라.
- ²¹ 그것을 잊지 말라. 다시 돌아올 길이 없기 때문이다. 네가 그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해칠 뿐이다.
- ²² 그의 끝을 기억하라. 네 끝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에게는 어제였고, 네게는 오늘이다.
- ²³ 죽은 자가 안식을 얻었을 때, 그의 기억도 안식을 얻게 하라. 그의 영이 그를 떠났을 때, 그를 위해 위로를 받으라.
- ²⁴ 서기관의 지혜는 여유 있는 시간에서 나온다. 일이 적은 자가 지혜로워진다.
- ²⁵ 곡괭이를 잡고 채찍의 손잡이를 자랑하며 소를 몰고 그들의 노동에 몰두하며 주로 소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어찌 지혜로워질 수 있겠는가?
- ²⁶ 그는 갈퀴 자국을 파는 일에 마음을 쏟을 것이며, 암송아지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잠을 줄일 것이다.
- ²⁷ 이와 같이 모든 장인과 명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보내며, 인장의 조각을 새기는 자들이다. 그들의 부지런함은 다양한 형태를 만드는 데 있다. 그는 자신의 초상화에서 형상을 정확히 표현하려 마음을 쓰고,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는 데 신경을 쓴다.
- ²⁸ 이와 같이 대장장이가 대석 옆에 앉아 다듬지 않은 철을 생각하며, 불의 연기로 그의 살이 닳고, 화로의 열기 속에서 수고하며, 망치 소리로 그의 귀가 멍청해지고, 눈은 그가 만드는 물건의 형상에 고정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완벽하게 다듬는 데 마음을 쏟고, 그것을 완벽하게 장식하는 데 신경을 쓴다.
- ²⁹ 이와 같이 도공은 앉아서 발로 바퀴를 돌리며, 항상 일에 안절부절못하고, 자신의 손길로 많은 작품을 만들어낸다.
- ³⁰ 그는 팔로 진흙을 빚고, 그 힘을 발 앞에서 굴린다. 그는 유약을 마무리하는 데 마음을 쏟고, 굴을 깨끗이 청소하는 데 신경을 쓴다.
- ³¹ 이 모든 이들은 자신의 손에 신뢰를 두며, 각자 자신의 일에 능숙해진다.
- ³² 이들이 없으면 어떤 도시도 거주되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은 외지인으로 머물거나 그곳을 오가지 못할 것이다.

³³ 그들은 백성의 회의에서 찾지 못할 것이며, 공동체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할 것이며, 재판관의 의자에 앉지 못할 것이며, 판결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교훈과 판결을 선포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은 비유가 전해지는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³⁴ 그러나 그들은 시대의 기반을 지탱하며, 그들의 기도는 자신의 손길로 만든 작품 속에 있다.

집회서 39장

- 1 그러나 하느님의 법을 묵상하며 자신의 영혼을 기울인 자는 그렇지 않다. 그는 옛 선조들의 지혜를 탐구하고 예언을 연구할 것이다.
- 2 그는 유명한 이들의 말을 지키고 비유의 미묘한 뜻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 3 그는 속임수의 비유 속에 숨겨진 뜻을 탐구하고 비유의 어두운 말에 익숙해질 것이다.
- 4 그는 위대한 자들 사이에서 봉사하며 통치하는 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는 외국 땅을 여행할 것이며, 인간 사이의 선과 악을 배웠기 때문이다.
- 5 그는 자신을 지으신 주님께 일찍 돌아가려고 마음을 기울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앞에서 간구하며, 입을 열어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사해 달라고 청할 것이다.
- 6 만일 위대한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차서 지혜의 말을 쏟아내고 기도로 주님께 감사할 것이다.
- 7 그는 자신의 조언과 지식을 이끌어내고, 자신의 비밀을 묵상할 것이다.
- 8 그는 배운 교훈을 드러내고 주님의 언약의 법을 자랑할 것이다.
- 9 많은 이들이 그의 지혜를 칭찬할 것이다. 세상이 계속되는 한, 그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그의 기억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세대에서 세대까지 살아있을 것이다.
- 10 나라들이 그의 지혜를 선포할 것이며, 공동체가 그의 찬양을 전할 것이다.
- 11 그가 계속된다면, 천 명보다 더 큰 이름을 남길 것이다. 그가 마침내 쉬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 12 내가 생각한 것을 더 말하리라. 나는 가득 찬 달처럼 채워졌다.
- 13 들어라, 거룩한 자녀들아. 물가에 자라는 장미처럼 싹을 틔워라.
- 14 향유처럼 달콤한 향기를 퍼뜨리고, 백합화처럼 꽃을 피워라. 달콤한 냄새를 흠뻑 맡아 찬양의 노래를 부르라. 그의 모든 행위를 위하여 주님을 찬미하라!
- 15 그의 이름을 높이고, 입술로 노래와 수금으로 그의 찬양을 전하라. 그를 찬양할 때 이렇게 말하라:
- 16 주님의 모든 행위는 매우 좋으며, 모든 명령은 그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 17 누구도 '이것은 무엇인가?' '저것은 왜 그런가?'라고 말할 수 없다. 제때에 모두가 탐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말씀으로 물은 산처럼 쌓였고, 그의 입술의 말씀으로 물 저장소도 쌓였다.
- 18 그의 명령으로 그의 모든 기쁨이 이루어진다. 그의 구원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 19 모든 육체의 행위가 그의 앞에 드러나 있다. 그의 눈에서 숨을 수 있는 자는 없다.
- 20 그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보신다. 그에게 놀라운 일은 없다.
- 21 누구도 '이것은 무엇인가?' '저것은 왜 그런가?'라고 말할 수 없다. 모든 것이 그 자체의 쓰임새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 22 그의 축복이 마른 땅을 강처럼 덮고 홍수처럼 적셨다.
- 23 그가 물을 짠맛으로 만든 것처럼, 이방인들도 그의 진노를 상속할 것이다.
- 24 그의 길은 거룩한 자들에게는 평탄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걸림돌이다.
- 25 좋은 것들은 처음부터 선한 자를 위해 창조되었고, 악한 것들은 죄인을 위해 창조되었다.
- 26 사람의 생명에 필수적인 주요한 것들은 물, 불, 철, 소금, 밀가루, 꿀, 우유, 포도즙, 기름, 옷이다.
- 27 이 모든 것들은 경건한 자에게는 선이 되지만, 죄인에게는 악으로 바뀌리라.
- 28 복수를 위해 창조된 바람들이 있으며, 그들의 분노로 인해 그들은 격렬히 매를 내리친다. 심판의 때에 그들은 힘을 쏟아내어, 자신을 만든 이의 진노를 진정시킬 것이다.
- 29 불, 우박, 기근, 죽음— 이 모든 것은 복수를 위해 창조되었다—
- 30 야수들의 이, 전갈, 뱀, 그리고 불경건한 자를 파멸로 이끄는 칼이다.
- 31 그들은 그의 명령을 기뻐하며, 필요할 때 땅 위에서 준비될 것이다. 제때에 그들은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 32 그러므로 나는 처음부터 확신하였고, 생각을 정리하여 기록하였다.

- ³³ 주님의 모든 작품은 선하다. 그는 각각의 때에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³⁴ 누구도 '이것이 저것보다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제때에 잘 받아들여질 것이다.
³⁵ 이제 너희는 온 마음과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축복하라!

집회서 40장

- ¹ 모든 사람에게 큰 수고가 주어진다. 아담의 아들들은 어머니의 품에서 나온 날부터, 모든 것의 어머니인 땅에 매장될 날 까지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다.
² 앞으로 올 일에 대한 기대와 죽음의 날이 그들의 생각을 괴롭히고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킨다.
³ 영광의 보좌에 앉은 자에서부터 땅과 재 속에 낮춰진 자에 이르기까지,
⁴ 자주색 옷과 왕관을 입은 자에서부터 베옷을 입은 자에 이르기까지,
⁵ 분노와 질투와 괴로움과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성내심과 다툼이 있다. 편안히 침대에 누워 있을 때조차 그의 밤잠 은 그의 인식을 바꾼다.
⁶ 그는 거의 쉬지 못하고, 잠들었을 때조차도 경비를 서는 날처럼 마음의 환상에 괴로워하며, 전장 앞에서 도망친 자처럼 떨린다.
⁷ 그가 구원을 받는 바로 그 순간에 깨어나, 그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놀라워한다.
⁸ 모든 피조물, 인간과 짐승에게,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일곱 배로,
⁹ 죽음과 학살과 다툼과 칼과 환난과 기근과 고통과 전염병이 닥친다.
¹⁰ 이 모든 것은 악인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다.
¹¹ 땅에서 온 모든 것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물에서 온 모든 것은 바다로 돌아간다.
¹² 모든 뇌물과 부정의는 지워질 것이고, 신실함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¹³ 불의한 자의 재산은 강처럼 마르고, 비 속의 큰 천둥처럼 시끄럽게 사라질 것이다.
¹⁴ 손을 펼치는 자는 기뻐할 것이고, 법을 어기는 자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
¹⁵ 불경한 자의 자녀들은 가지가 많지 않으며, 날카로운 바위 위의 약한 뿌리와 같다.
¹⁶ 물가나 강변의 갈대는 모든 풀보다 먼저 뽑힐 것이다.
¹⁷ 자비는 축복의 정원과 같고, 자선은 영원히 지속된다.
¹⁸ 수고하며 만족하는 자의 삶은 달콤해질 것이고, 보물을 발견한 자가 그 둘보다 낫다.
¹⁹ 자녀들과 도시의 건설이 이름을 세운다. 흠이 없는 아내가 그 둘보다 낫다.
²⁰ 포도주와 음악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그 둘보다 낫다.
²¹ 피리와 수금은 즐거운 멜로디를 만든다. 기분 좋은 말이 그 둘보다 낫다.
²² 당신의 눈은 은총과 아름다움을 원하지만, 푸른 곡식의 싹이 그 둘보다 낫다.
²³ 친구와 동반자는 항상 환영받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아내가 그 둘보다 낫다.
²⁴ 친척과 도우미는 환난의 때를 위해 있지만, 자선이 그 둘보다 더 나은 구원이다.
²⁵ 금과 은은 발을 굳게 세우지만, 조언은 둘보다 더 귀중하다.
²⁶ 부와 힘은 마음을 높이 들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둘보다 더 낫다. 주님을 경외하는 데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그 안에서는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다.
²⁷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복의 정원 같으며, 어떤 영광보다도 사람을 더 잘 덮는다.
²⁸ 내 아들아, 거지 같은 삶을 살지 마라. 구걸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²⁹ 다른 사람의 상을 바라보는 자의 삶은 삶이라 할 수 없다. 그는 남의 음식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힐 것이지만, 지혜롭고 잘 가르침을 받은 자는 그것을 피할 것이다.
³⁰ 수치를 모르는 자의 입에서는 구걸이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그의 배 속에서 불을 일으킨다.

집회서 41장

- 1 죽음아, 네 기억은 평화롭게 재산을 누리고 방해받는 것이 없으며 모든 것에서 번영하며 여전히 음식을 즐길 힘을 가진 사람에게 얼마나 쓰라린가!
- 2 죽음아, 네 판결은 가난하고 힘이 약하며 극심한 노년에 이르고 모든 일에 마음이 흐트러지고 꼬이며 인내를 잃은 사람에게는 받아들일 만하다.
- 3 죽음의 판결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보다 먼저 간 이들과 너보다 뒤에 올 이들을 기억하여라. 이는 모든 육체에 내린 주님의 판결이다.
- 4 그러면 왜 지극히 높으신 분의 기쁘신 뜻을 거부하는가? 삶이 열 년이든, 백 년이든, 천 년이든, 음부에서는 삶에 대해 묻지 않는다.
- 5 죄인의 자녀들은 가증한 자녀들이며 불경한 자들의 거처를 자주 드나든다.
- 6 죄인의 자녀들의 유산은 망하고 그들의 후손은 영원한 수치를 겪는다.
- 7 자녀들은 불경한 아버지에게 불평하며, 그들이 그 때문에 수치를 당하기 때문이다.
- 8 불경한 자들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율법을 버린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 9 너는 태어나면 저주로 태어나고, 죽으면 저주가 네 몫이 될 것이다.
- 10 땅에서 나온 모든 것은 땅으로 돌아가듯, 불경한 자들도 저주에서 멸망으로 돌아간다.
- 11 사람들의 애도는 그들의 몸에 관한 것이지만, 죄인들의 악명은 지워질 것이다.
- 12 네 이름을 소중히 여기라. 그것은 네가 가진 가장 큰 금 보물 천 개보다 더 오래 네 곁에 남아 있다.
- 13 좋은 삶은 그 날 수가 정해져 있지만, 좋은 이름은 영원히 남는다.
- 14 내 자녀들아, 평화롭게 교훈을 따르라. 그러나 숨겨진 지혜와 보이지 않는 보물은 무엇이 유익한가?
- 15 자신의 어리석음을 숨기는 자는 자신의 지혜를 숨기는 자보다 낫다.
- 16 그러므로 내 말을 존중하여라. 모든 수치를 간직하는 것이 좋지 않다. 모든 것이 모두의 선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17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는 음행을, 왕과 권세 있는 자 앞에서는 거짓을 부끄러워하여라.
- 18 재판관과 통치자 앞에서는 죄를, 공동체와 백성 앞에서는 불의를, 동반자와 친구 앞에서는 부정직한 행위를 부끄러워하여라.
- 19 거주하는 곳에서는 도둑질을 부끄러워하여라. 하느님의 진리와 그의 언약을, 식사 중에 팔꿈치를 기대는 것을, 주고받는 일에서 경멸적인 태도를 부끄러워하여라.
- 20 인사하는 자 앞에서는 침묵을, 창녀를 바라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여라.
- 21 혈족의 얼굴을 돌리는 것을, 몫이나 선물을 빼앗는 것을, 기혼 여인을 바라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여라.
- 22 그의 여종과 관계를 맺는 것을—그녀의 침대에 가까이 가지 말고, 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선물을 주고 나서 모욕하지 말며,
- 23 들은 것을 반복하고 말하며, 비밀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여라.
- 24 그러면 네가 올바른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은총을 얻을 것이다.

집회서 42장

- 1 이런 일들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얼굴을 지키려고 죄를 지으지 마라.
- 2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과 그분의 언약, 악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심판,
- 3 동업자와 여행자와의 계산, 친구들의 유산에서 오는 선물,
- 4 저울과 추의 정확성, 많거나 적게 얻는 것,
- 5 상인과의 거래, 자녀들의 자주적인 책망, 악한 종의 등을 피로 물들이는 것.
- 6 악한 아내가 있는 곳에는 봉인하는 것이 좋다. 많은 손이 있는 곳에서는 물건을 잠그라.
- 7 넘기는 모든 것은 수량과 무게로 하라. 주고받을 때는 모두 글로 기록하라.
- 8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가르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젊은이들과 다투는 노인도 가르쳐라. 그러면 너는 진실로 잘 가르침을 받고 모든 살아 있는 자 앞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 9 딸은 아버지에게 잠을 깨우는 비밀스러운 원인이다. 그녀를 돌보는 것이 잠을 빼앗는다—어릴 때는 그녀가 젊음의 꽃을 지나치지 않도록, 결혼했을 때는 미워받지 않도록.
- 10 처녀일 때는 그녀가 더럽혀지고 아버지 집에서 임신하지 않도록, 남편을 얻었을 때는 범죄하지 않도록, 결혼했을 때는 아이를 낳지 못하지 않도록.
- 11 고집 센 딸을 엄격히 감시하라. 그래야 네가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거나, 도시에서 회화화되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아지거나, 공공연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 12 아름다운 몸을 모두 바라보지 말고, 여자들 사이에 앉지 말라.
- 13 옷에서 나방이 생기듯, 여자에서 여자의 악이 생긴다.
- 14 남자의 악이 여자의 기쁨보다 낫다. 여자가 너를 수치롭게 하고 모욕하기 때문이다.
- 15 이제 나는 주님의 행위를 말하고 내가 본 일을 선포하리라. 주님의 행위는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
- 16 모든 것을 비추는 태양처럼, 주님의 행위는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 17 주님은 성인들에게 그분의 놀라운 모든 행위를 선포할 권한을 주지 않으셨다. 이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만물을 그분의 영광 안에 굳게 세우셨기 때문이다.
- 18 그분은 깊이와 마음을 탐구하시며, 그들의 비밀을 이해하신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모든 지식을 아시며, 세상의 징표를 보신다.
- 19 그분은 지나간 일과 올 일들을 선포하시며, 숨겨진 것들의 흔적을 드러내신다.
- 20 그분의 눈을 피할 생각은 없다. 그분에게 숨겨진 말은 하나도 없다.
- 21 그분은 자신의 지혜의 위대한 행위를 정하셨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 그분의 행위에는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았고, 빠지지도 않았다. 그분은 어떤 조연자도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
- 22 그분의 모든 행위는 얼마나 소중한가! 심지어 한 줄기 불꽃에서도 이를 볼 수 있다.
- 23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용도로 영원히 살아 있고 남아 있으며, 모두 복종한다.
- 24 모든 것은 쌍을 이루며, 하나는 다른 하나와 대조된다. 그분은 아무것도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 25 한 가지 일은 다른 좋은 것들을 드러낸다. 누가 그의 영광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겠는가?

집회서 43장

- ¹ 하늘 높이의 자량은 맑은 하늘, 하늘의 모습, 그 영광의 장관이다.
- ² 해가 떠올라 소식을 전할 때, 그것은 놀라운 도구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작품이다.
- ³ 한낮에 해는 땅을 말린다. 누가 그 뜨거운 열기를 이기겠는가?
- ⁴ 로를 지키는 사람은 뜨거운 열기에 있다. 그러나 해는 그 세 배나 더하여 산들을 태우고, 불꽃 같은 증기를 내뿜으며, 밝은 빛을 쏘아 눈을 멀게 한다.
- ⁵ 그것을 만드신 주님은 크시다. 그의 말씀으로 그는 해의 길을 재촉하신다.
- ⁶ 달은 계절의 변화를 표시하고, 때를 알리며, 세상의 표징이다.
- ⁷ 달은 축일의 표징이며, 그 길을 마칠 때 빛이 점점 사라진다.
- ⁸ 달은 그 이름으로 불리며, 변화할 때 놀라운 정도로 자라난다— 하늘 위의 군대의 도구로, 하늘의 구조에서 빛나며,
- ⁹ 하늘의 아름다움, 별들의 영광, 주님의 가장 높은 곳에서 빛을 주는 장식이다.
- ¹⁰ 거룩하신 분의 말씀으로 그들은 제때에 서 있다. 그들은 자기 지킴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다.
- ¹¹ 무지개를 보고 그 만드신 이를 찬양하여라. 그것은 그 빛깔에서 매우 아름답다.
- ¹² 그것은 영광스러운 고리로 하늘을 둘러싼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손이 그것을 펼쳤다.
- ¹³ 그의 명령으로 그는 눈을 내리고, 빠르게 그의 심판의 번개를 보낸다.
- ¹⁴ 그러므로 보관고가 열리고, 구름은 새처럼 날아간다.
- ¹⁵ 그의 강력한 힘으로 그는 구름을 강하게 하고, 우박은 조각나게 된다.
- ¹⁶ 그가 나타날 때, 산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의 뜻으로 남풍이 불 것이다.
- ¹⁷ 그의 천둥 소리는 땅을 꾸짖는다. 북풍과 회오리바람도 그러하다. 새가 날아내리는 것처럼 그는 눈을 뿌린다. 그것은 별레의 번개처럼 떨어진다.
- ¹⁸ 그 흰빛의 아름다움에 눈은 현혹되고, 떨어질 때 마음은 놀라움에 잠긴다.
- ¹⁹ 그는 또한 땅에 소금처럼 서리를 쏜다. 얼어붙을 때, 그것은 가시처럼 뾰족하다.
- ²⁰ 차가운 북풍이 불어 물 위에 얼음이 얼고, 모든 웅덩이 위에 정착한다. 물은 그것을 갑옷처럼 입는다.
- ²¹ 그것은 산들을 삼키고, 황야를 태우며, 불처럼 푸른 풀을 소멸한다.
- ²² 빠르게 다가오는 안개는 모든 것을 치유한다. 더위 뒤에 내리는 이슬은 기쁨을 가져온다.
- ²³ 그의 계획으로 그는 깊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그 안에 섬들을 심으셨다.
- ²⁴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은 그 위험을 말한다. 우리는 귀로 그것을 들을 때 놀라움을 느낀다.
- ²⁵ 그 안에는 또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의 다양함과 바다의 거대한 생물들이다.
- ²⁶ 그분 덕분에 그분의 사자들이 성공한다.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 ²⁷ 우리는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다 말할 수는 없다. 우리의 말의 요약은, "그분은 모든 것이다!"이다.
- ²⁸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찬양할 힘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분은 그분의 모든 작품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 ²⁹ 주님은 놀라우시고 매우 위대하시다! 그분의 힘은 놀라우시다!
- ³⁰ 주님을 찬양하고, 가능한 한 높이 칭송하라!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그 이상을 초월하실 것이다. 너희가 그분을 높일 때는 온 힘을 다해 부르라. 지치지 말라. 너희는 그분을 충분히 찬양할 수 없기 때문이다.
- ³¹ 누가 그분을 보아서 그분을 묘사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분의 진정한 모습대로 그분을 높일 수 있겠는가?
- ³² 이보다 더 큰 일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 중 단지 몇 가지를 보았을 뿐이다.
- ³³ 주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경건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셨다.

집회서 44장

- ¹ 이제 우리는 우리 조상들, 곧 그들의 세대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찬양하자.
- ² 주님은 그들에게 위대한 영광을 창조하셨다. 그들은 창세부터 그분의 위대한 힘을 나타내었다.
- ³ 어떤 이들은 그들의 왕국을 다스리며 힘으로 유명했고, 지혜로 조언을 주었다. 어떤 이들은 예언을 하였다.
- ⁴ 그들은 조언과 지혜로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백성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그들의 가르침은 지혜로웠다.
- ⁵ 어떤 이들은 음악을 작곡하고 시를 글로 기록하였다.
- ⁶ 능력이 풍부한 부자들이 그들의 집에서 평화롭게 살았다.
- ⁷ 이 모든 이들은 그들의 세대에서 존경받았고, 그들의 시대에 뛰어났다.
- ⁸ 어떤 이들은 후세에 이름을 남겨, 다른 이들이 그들의 찬양을 전하게 하였다.
- ⁹ 그러나 다른 이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은 마치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되었다.
- ¹⁰ 그러나 이들은 자비로운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의로운 행실은 잊히지 않았다.
- ¹¹ 그들의 자손에게는 좋은 유산이 남아 있다. 그들의 자녀들은 언약 안에 있다.
- ¹² 그들의 자손은 그들을 위해 굳게 서 있고, 그들의 자녀들도 함께한다.
- ¹³ 그들의 자손은 영원히 남을 것이며, 그들의 영광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 ¹⁴ 그들의 시신은 평화롭게 매장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살아 있다.
- ¹⁵ 사람들은 그들의 지혜를 전할 것이며, 공동체는 그들의 찬양을 선포할 것이다.
- ¹⁶ 에노크은 주님을 기쁘게 하여 하늘로 올려졌으며, 모든 세대의 회개의 본보기가 되었다.
- ¹⁷ 노아는 완전하고 의로운 자로 발견되었다. 진노의 시대에 그는 인류를 생존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홍수가 올 때 땅 위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
- ¹⁸ 그에게 영원한 언약이 맺어져, 홍수로 모든 육체가 다시 소멸되지 않게 되었다.
- ¹⁹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위대한 조상이었다. 그의 영광에서 그와 같은 자는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다.
- ²⁰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지켰고, 그분과 언약을 맺었다. 그의 육체로 그 언약을 세웠다. 시험을 받았을 때 그는 충성된 자로 드러났다.
- ²¹ 그러므로 주님은 그에게 맹세하여, 그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를 흙의 먼지처럼 많이 번성시키고, 별처럼 그의 자손을 높이며,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그들이 상속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 ²²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같은 약속과 모든 사람의 복과 언약이 세워졌다.
- ²³ 그는 그 약속을 야곱의 머리 위에 두었고, 그의 축복으로 그를 인정하며, 그에게 상속을 주고, 그의 몫을 나누어 열두 지파에 분배하였다.

집회서 45장

- 1 그는 그에게서 자비로운 사람을 끌어내어 모든 사람 앞에서 은총을 얻게 하였고,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곧 모세를 끌어내셨으니, 그의 기억은 복되다.
- 2 그는 그를 성인들의 영광과 같게 만들고, 그의 원수들의 두려움 속에서 그를 높이셨다.
- 3 그의 말로 기적들이 멈추게 하였고, 하느님은 그를 왕들의 눈앞에서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는 그에게 백성을 위한 계명을 주시고, 그의 영광의 일부를 보여주셨다.
- 4 그는 그의 충성과 온유함으로 그를 거룩하게 하였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선택하셨다.
- 5 그는 그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깊은 어둠 속으로 인도하시며, 직접 그에게 계명을 주셨으니, 곧 생명과 지식의 율법을 주어, 아굽에게 언약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판단을 알려주게 하셨다.
- 6 그는 아론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세의 형제이자 레위 지파의 성인이다.
- 7 그는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고, 백성의 사제직을 주셨다. 그는 그를 위엄으로 축복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셨다.
- 8 그는 그를 완전한 영광으로 옷 입히시고, 권위의 상징으로 그를 강화하셨으니, 세마포 바지와 긴 옷과 에포드이다.
- 9 그는 그를 석류로 둘러싸시고, 그의 주위에 많은 금 종을 달아, 그가 걸을 때 소리를 내게 하여, 성전에서 들릴 수 있게 하여, 그의 백성의 자손들을 위한 기억으로 하셨다.
- 10 그는 금과 푸른색과 보라색으로 만든 거룩한 옷을 입히셨으니, 자수공의 작품이며, 판단의 오라클, 곧 우림과 투민을 달았다.
- 11 공예가의 손으로 만든 홍색 실로 둘러싸고, 금 틀에 조각된 귀한 돌을 달아, 보석공의 작품으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기록된 기억을 새겼다.
- 12 모르라 위에 금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인장처럼 '거룩함'이라고 새기어, 존엄의 장식, 전문가의 작품, 눈의 갈망이 되는 아름답고 훌륭한 것으로 하셨다.
- 13 그 앞에는 이런 것이 결코 없었고, 타인은 결코 그것을 입지 않았으며, 오직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만이 영원히 입었다.
- 14 그의 제물은 매일 두 번 끊임없이 온전히 불태워진다.
- 15 모세가 그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을 부었으니, 이는 하늘의 모든 날 동안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어, 주님을 섬기고 사제로 봉사하며, 그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다.
- 16 그는 모든 살아 있는 자들 가운데서 그를 선택하여 주님께 제물을 바치게 하셨으니, 곧 향과 달콤한 냄새를 드려 기억으로 삼고, 너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다.
- 17 그는 그에게 명령을 통해 심판의 언약에 권위를 주어, 아굽에게 증거를 가르치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율법을 밝히게 하셨다.
- 18 외인들이 그를 대적하여 광야에서 시기하였으니,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무리, 그리고 고라의 회중이 분노와 성난 마음으로.
- 19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의 분노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셨다. 그는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여 불꽃으로 그들을 소멸하셨다.
- 20 그는 아론에게 영광을 더하시고, 유산을 주셨다. 그에게 첫 열매의 첫 몫을 나누어 주시고, 풍성한 첫 열매의 빵을 준비하셨다.
- 21 그들은 주의 제물을 먹으니, 그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주셨다.
- 22 그러나 그의 백성의 땅에서는 그에게 유산이 없고,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의 몫이 없으니, 주 자신이 너희의 몫과 유산이기 때문이다.
- 23 엘르아자르의 아들 비느하스는 세 번째로 영광스럽으니, 그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백성이 타락할 때 굳게 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였기 때문이다.
- 24 그러므로 그에게 평화의 언약이 세워져, 그가 성소와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였으며, 그와 그의 후손들이 사제직의 존

엄을 영원히 누리게 하셨다.

²⁵ 그는 유다 지파의 여세의 아들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다. 왕의 유산은 아들에서 아들로 그의 것뿐이며, 아론의 유산도 그의 자손에게 그러하다.

²⁶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사, 의로움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게 하시고, 그들의 복이 없어지지 않으며, 그들의 영광이 그들의 모든 세대에 이르도록 하소서.

집회서 46장

¹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용감하였고, 예언에서는 모세의 뒤를 이었다. 그는 하느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난 원수들에게 복수하며,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유산을 주기 위해 그의 이름에 맞게 위대하게 되었다.

² 그가 손을 치켜들고 도시들을 향해 칼을 뽑았을 때,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던가!

³ 그 앞에 누가 이처럼 굳게 서 있었는가? 주님께서 친히 그의 원수들을 그에게로 끌어오셨다.

⁴ 그의 손으로 해가 뒤로 물러서지 않았는가? 하루가 이틀처럼 되지 않았는가?

⁵ 그의 원수들이 사방에서 그를 압박할 때, 그는 가장 높으신, 능력 있는 분을 부르니, 위대한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⁶ 그는 강력한 우박으로 그 민족 위에 전쟁을 격렬히 일으켜, 경사지에서 저항하는 자들을 멸망시켜, 모든 민족이 그의 갑옷을 보고, 주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를 알게 하였다. 그는 능력 있는 분을 따랐기 때문이다.

⁷ 모세 시대에도 그는 자비의 일을 행하였다— 그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함께— 그들이 적대자에 맞서고, 백성이 죄를 짓지 못하게 막으며, 그들의 악한 불평을 잠잠하게 하였다.

⁸ 육십만 명의 보병 중, 그 둘만이 살아남아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였다.

⁹ 주님께서 갈렙에게 힘을 주셨고, 그 힘은 그의 늙음까지 함께하였다. 그래서 그는 산지에 들어가고, 그의 자손들이 그것을 유산으로 얻었다.

¹⁰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좋을 보게 하려는 것이었다.

¹¹ 또한 모든 재판관들, 그들의 이름마다, 그들의 마음이 음란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은 자들— 그들의 기억이 복되기를!

¹² 그들의 뼈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존경받은 자들의 이름이 그들의 자손들 속에 다시 새겨지기를.

¹³ 사무엘, 주님의 예언자, 그의 주님에게 사랑받는 자는 왕국을 세우고, 그의 백성 위에 왕들을 기름부었다.

¹⁴ 그는 주님의 율법으로 회중을 심판하였고, 주님께서 야곱을 지켜보셨다.

¹⁵ 그의 충성으로 그는 예언자임이 증명되었고, 그의 말로 그는 환상 속에서 충성된 자임이 알려졌다.

¹⁶ 그의 원수들이 사방에서 그를 압박할 때, 그는 어린 양의 제물을 바치며 주님, 능력 있는 분을 부르짖었다.

¹⁷ 그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치셨다. 그분의 음성이 강력한 소리로 들렸다.

¹⁸ 그는 시돈의 통치자들과 모든 블레셋의 왕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¹⁹ 그가 영원한 잠에 들기 전에, 그는 주님과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 앞에서 증언하였다. "나는 어떤 사람의 물건이라도, 신발 한 짝이라도 취하지 않았다." 그를 고발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²⁰ 그가 잠든 후에도 그는 예언하여 왕에게 그의 꿈을 보여주었고, 땅에서 예언의 목소리를 높여 백성의 악을 없애버렸다.

집회서 47장

- 1 그 후 나단이 일어나 다윗의 시대에 예언하였다.
- 2 평화의 제물에서 기름이 분리되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뛰어났다.
- 3 그는 어린 양처럼 사자들과 놀았고, 양 떼의 어린 양처럼 곰들과 놀았다.
- 4 그가 젊었을 때, 거인을 죽이지 않았던가? 그가 매를 던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백성의 수치를 벗겨내지 않았던가?
- 5 그가 가장 높으신 주님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에 힘을 주셔서 전쟁에서 강한 자를 죽이고, 자기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 6 그러므로 그들은 그를 만만의 수로 영광스럽게 여기고, 주님의 축복으로 그를 찬양하였으니, 그에게 영광스러운 관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 7 그는 사방의 원수들을 멸하고, 그의 적대자인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하였다. 그들의 뿔을 오늘날까지 부수셨다.
- 8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는 영광의 말로 거룩하고 가장 높으신 분께 감사하였고, 온 마음으로 그를 찬양하며, 자신을 만드신 이를 사랑하였다.
- 9 그는 제단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 그들의 음악으로 달콤한 선율을 낼 수 있게 하였다.
- 10 그는 축제에 아름다움을 더하고, 그들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때 계절을 완성하도록 질서를 잡았으며, 성소는 아침 일찍부터 울려 퍼졌다.
- 11 주님께서 그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의 뿔을 영원히 높이셨다. 그에게 왕들의 언약과 이스라엘에서 영광스러운 왕좌를 주셨다.
- 12 그 후 지혜로운 아들이 일어나, 그의 덕으로 안전하게 살았다.
- 13 솔로몬은 평화로운 시대에 왕이 되었고, 하느님께서 그를 사방에서 편안하게 하셔서, 그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세우고, 영원한 성소를 준비하게 하셨다.
- 14 네가 젊었을 때 얼마나 지혜로워졌던가! 네가 마치 강물처럼 지혜로 가득 찼던가!
- 15 네 영향력은 땅을 덮었고, 너는 비유와 난해한 말로 땅을 채웠다.
- 16 네 이름은 먼 섬들에 이르렀고, 너는 평화로 인해 사랑받았다.
- 17 네 노래와 속담과 비유와 해석으로, 모든 나라가 너를 놀라워하였다.
- 18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 불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너는 주석처럼 금을 모으고, 납처럼 은을 늘렸다.
- 19 너는 여자들에게 허리를 굽혔고, 네 몸은 복종하게 되었다.
- 20 너는 네 영광을 더럽히고, 네 자손을 더럽혀, 네 자녀들에게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나는 네 어리석음으로 인해 슬퍼하였다.
- 21 왜냐하면 왕권이 나뉘었고, 불순종하는 왕국이 에브라임에서 통치하였기 때문이다.
- 22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결코 그의 자비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일을 파괴하지 않으시며, 자기 택한 자의 후손을 지우지 않으신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의 후손을 빼앗지 않으신다. 그는 야곱에게 남은 자를 주시고, 다윗에게 자기 가족에서 뿌리를 주셨다.
- 23 그러므로 솔로몬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그의 후손 중 그는 르호보암을 남겼으니, 이는 백성의 어리석음이며, 지혜가 부족한 자로, 그의 계략으로 백성을 반역하게 만들었고, 또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에브라임에게 죄의 길을 열어준 네바트의 아들 여로보암을 남겼다.
- 24 그들의 죄가 심히 많아져, 그들이 자기 땅에서 쫓겨났다.
- 25 그들은 모든 악한 일을 추구하였으므로, 복수가 그들에게 내렸다.

집회서 48장

- 1 그리고 엘리야가 일어났다. 그는 불 같은 예언자였다. 그의 말은 햇불처럼 타올랐다.
- 2 그는 그들에게 기근을 내리고, 그의 열심으로 그들을 적게 만들었다.
- 3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닫고, 세 번이나 불을 내렸다.
- 4 엘리야여, 네가 기이한 일로 얼마나 영광스러웠던가! 네 영광과 같은 이가 누구이랴?
- 5 네가 가장 높으신 분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죽음, 곧 음부에서 일으켰다.
- 6 네가 왕들을 파멸로 이끌었고, 존경받는 자들을 병상에서 끌어내렸다.
- 7 네가 시내에서 책망을 들었고, 호렙에서 복수의 심판을 들었다.
- 8 네가 보복을 위해 왕들을 기름부었고, 너를 이을 예언자들을 기름부었다.
- 9 네가 불의 폭풍과 불말로 된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 10 네가 그들의 시기에 책망으로 기록되었으니, 분노가 격노로 터져 나오기 전에 분노를 진정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로 돌아서게 하며, 야곱의 지파들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 11 너를 본 자들과 사랑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도 분명히 살 것이다.
- 12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에 싸였고, 엘리사에는 그의 영이 가득했다. 그의 날들에 그는 어떤 통치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복종시키지 못했다.
- 13 그에게 어려운 일은 없었다. 그가 장사될 때, 그의 시체가 예언했다.
- 14 그가 살아 있을 때 기적을 행한 것처럼, 그의 죽음에서도 그의 행적은 놀라웠다.
- 15 이 모든 일에도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들은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들이 땅에서 약탈당해 온 땅에 흠어질 때까지 그랬다. 백성은 매우 적어졌으나, 다윗의 집에서 나온 통치자가 있었다.
- 16 그들 중 일부는 옳은 일을 하였으나, 일부는 죄를 더 많이 범하였다.
- 17 히즈기야는 그의 도시를 견고히 하고, 그 도시 가운데 물을 끌어들었다. 그는 철로 바위를 뚫고, 물을 저장하는 웅덩이를 지었다.
- 18 그의 날들에 세나케립이 침입하여 라브사케를 보냈고, 떠났다. 그는 시온을 향해 손을 들어 높고 교만한 말을 했다.
- 19 그때 그들의 마음과 손이 떨렸고, 그들은 분만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느꼈다.
- 20 그러나 그들은 자비로운 주님을 부르며, 그분께 손을 펼쳤다. 거룩하신 분이 하늘에서 곧장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야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 21 그가 아시리아 진영을 치셨고, 그의 천사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 22 히즈기야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하였고, 그 조상 다윗의 길을 굳게 지켰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가 명령한 것이었는데, 그는 그의 환상에서 위대하고 충성스러운 자였다.
- 23 그의 날들에 해가 뒤로 물러갔다. 그는 왕의 생명을 연장하였다.
- 24 그는 탁월한 영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을 보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였다.
- 25 그는 끝날까지 일어날 일들과 일어나기 전에 숨겨져 있던 일을 보여주었다.

집회서 49장

- ¹ 요시아의 기억은 향료 전문가가 만든 향의 조합처럼 아름답다. 모든 입에서 꿀처럼 달콤하고, 포도주 잔치에서의 음악처럼 들린다.
- ² 그는 백성을 개혁하여 올바른 일을 행하고, 불의의 가증한 일을 제거하였다.
- ³ 그는 주님께 마음을 바르게 했으며, 불법이 판을 치는 시대에 경건함이 승리하게 하였다.
- ⁴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악하였으니, 그들은 가장 높으신 분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유다의 왕들이 끝났다.
- ⁵ 그들은 자신의 권세를 다른 자들에게 내주고, 자신의 영광을 외국 민족에게 주었다.
- ⁶ 그들은 거룩함의 택한 도시를 불태우고, 그 거리들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니, 이는 예레미야의 손으로 기록된 바와 같다.
- ⁷ 그들은 그를 학대하였으나, 그는 태중에서 성화되어 예언자가 되었으니, 뿌리를 뽑고, 괴롭히고, 파괴하며, 또한 세우고 심는 자가 되었다.
- ⁸ 에제키엘은 그룹들의 수레 위에서 하느님께서 보여 주신 영광의 환상을 보았다.
- ⁹ 그는 진실로 비바람 속에서 원수들을 기억하고, 올바르게 길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었다.
- ¹⁰ 또한 열두 예언자들의 뼈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란다. 그는 야곱의 백성을 위로하고, 확신에 찬 소망으로 그들을 구원하였다.
- ¹¹ 어떻게 우리가 스룹바벨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그는 오른손의 인장 반지와 같았다.
- ¹² 요세덱의 아들 예수도 그와 같았으니, 그는 그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높이셨다.
- ¹³ 느헤미야의 기억도 위대하다. 그는 우리를 위해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고, 문과 빗장을 세우며, 우리 집들을 재건하였다.
- ¹⁴ 땅 위에 에녹처럼 지어진 사람은 없었으니, 그는 땅에서 끌어올려졌기 때문이다.
- ¹⁵ 요셉처럼 태어난 사람은 없었으니, 그는 자기 친족의 지도자요, 백성의 후원자였다. 심지어 그의 뼈들도 보호받았다.
- ¹⁶ 썸과 셋은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았으나, 창조된 모든 생물 위에 아담이 있었다.

집회서 50장

- ¹ 그는 고위 사제 온니아의 아들 시몬이었으며, 그는 살아 있을 때 성전을 수리하고, 그의 생애 동안 성전을 견고히 하였다.
- ² 그는 두 겹의 벽 높이까지 기초를 쌓아, 성전 뜰의 높은 방벽을 세웠다.
- ³ 그의 시대에, 바다처럼 돌레가 큰 낚그릇을 닮은 물받이가 파여졌다.
- ⁴ 그는 자기 백성을 멸망에서 구원하려 계획하고, 성을 포위에서 방어하기 위해 견고히 하였다.
- ⁵ 그가 망사 안에서 나올 때, 백성이 그를 둘러싸고 모인 그의 모습은 얼마나 영광스러웠던가!
- ⁶ 그는 구름 속의 아침별 같고, 만월 같으며,
- ⁷ 가장 높으신 분의 성전 위에 빛나는 태양 같고, 영광의 구름 속에서 빛나는 무지개 같으며,
- ⁸ 첫 열매의 날에 핀 장미 같고, 물가에 핀 백합화 같고, 여름에 향나무의 새싹 같으며,
- ⁹ 향로 속의 불꽃 향초 같고, 모든 귀한 보석으로 장식된 두드러진 금 그릇 같으며,
- ¹⁰ 열매로 무거운 올리브나무 같고, 구름 속에 높이 자란 전나무 같았다.
- ¹¹ 그가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완전한 위엄으로 몸을 단장하고, 성소의 제단에 올라갈 때, 성소 뜰을 영광스럽게 만들었다.
- ¹² 그가 제사장들의 손에서 나누어 받은 제물 부분을 드리며, 제단의 불가마 곁에 서서, 그의 친척들이 화관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는 종려나무 줄기들에 둘러싸인 레바논의 젊은 백향나무 같았다.
- ¹³ 아론의 모든 아들들이 그들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의 제물을 손에 들고 있었다.
- ¹⁴ 그는 제단에서 봉사를 마치고, 전능하신 가장 높으신 분의 제물을 정리하였다.
- ¹⁵ 그는 헌물의 잔을 손으로 들어, 포도주 잔을 부어, 제단 발치에 쏟았다. 그것은 가장 높으신 분, 만물의 왕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
- ¹⁶ 그러자 아론의 아들들이 외쳤다. 그들은 두드려 만든 나팔을 불어, 가장 높으신 분 앞에 기억될 만큼 큰 환호를 올렸다.
- ¹⁷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뛰어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 전능하신 가장 높으신 하느님을 경배하였다.
- ¹⁸ 노래자들도 목소리로 그를 찬양하였다. 성전 전체에 달콤한 선율이 흘렀다.
- ¹⁹ 그리고 백성은 자비로우신 분 앞에서 기도하며, 가장 높으신 주님을 간청하였다. 그들이 주님의 봉사를 마칠 때까지, 그들은 그의 봉사를 완수하였다.
- ²⁰ 그 후 그는 내려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위에 손을 들고, 입으로 주님을 찬미하며,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다.
- ²¹ 그는 다시 한번 몸을 굽혀, 가장 높으신 분의 축복을 선포하였다.
- ²² 모든 이의 하느님을 찬미하라. 그는 어디서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날들을 높이시고, 그의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시다.
- ²³ 그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이스라엘에서 영원한 날들 동안 평화가 있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 ²⁴ 그가 우리와 함께 그의 자비를 말기시고, 그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 ²⁵ 내 영혼은 두 민족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세 번째는 민족이 아니다.
- ²⁶ 사마리아 산에 앉아 있는 자들,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스캠에 사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다.
- ²⁷ 나는 이 책에 지혜와 지식의 가르침을 기록하였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온 시라크의 아들 엘라자르의 아들 예수이다. 내가 내 마음에서 지혜를 쏟아냈다.
- ²⁸ 이 일을 실천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이를 마음에 간직하면 지혜로워질 것이다.
- ²⁹ 그가 이를 행하면 모든 일에서 강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빛이 그의 인도자이기 때문이다.

집회서 51장

- 1 주님, 왕이신 주님, 내가 당신께 감사드리며, 하느님, 제 구원자여,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 2 당신은 나의 보호자이자 도우신 분이셨으며, 나의 몸을 파멸에서, 거짓말하는 혀의 올가미에서, 거짓을 꾸며내는 입술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둘러싼 자들 앞에서 도우셨습니다.
- 3 당신은 당신의 자비와 이름의 풍성함에 따라, 삼키려는 이빨의 갈기갈기힘에서, 나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서, 내가 겪은 많은 고난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 4 모든 쪽에서 나를 둘러싼 불의 질식에서, 내가 피운 것이 아닌 불의 한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 5 지옥의 배 속 깊이에서, 더러운 혀에서, 거짓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 6 불의한 혀가 왕에게 퍼뜨린 험담입니다. 내 영혼은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고, 내 생명은 지옥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 7 그들이 나를 사방에서 둘러쌌습니다.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인간의 도움을 찾았으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 8 그때 나는 주님, 당신의 자비와 영원히 이어진 당신의 행위를 기억했습니다. 당신은 기다리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 9 나는 땅에서 기도를 올렸고, 죽음에서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 10 나는 나의 주님의 아버지이신 주님을 불렀습니다. 고난의 날들에, 교만한 자들에게 대항할 도움이 없던 그때에,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 11 나는 당신의 이름을 끊임없이 찬양할 것입니다. 감사의 노래로 찬양할 것입니다. 내 기도는 들리셨습니다.
- 12 당신은 나를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악한 시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축복할 것입니다.
- 13 나는 젊었을 때, 외출하기 전, 기도 속에서 공개적으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 14 성전 앞에서 나는 그녀를 구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그녀를 찾을 것입니다.
- 15 처음 꽃에서부터 익은 포도까지, 내 마음은 그녀를 기뻐했습니다. 내 발은 정의로움을 걸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녀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 16 나는 귀를 약간 기울였고, 그녀를 받았으며, 나 자신에게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 17 나는 그녀를 통해 이득을 얻었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신 분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 18 나는 그녀를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선한 것을 위해 열심을 냈습니다. 나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19 내 영혼은 그녀와 투쟁했습니다. 내 행동은 정확했습니다. 나는 하늘 위로 손을 펼치며, 그녀를 알지 못한 나의 무지를 탄식했습니다.
- 20 나는 내 영혼을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순결함 속에서 나는 그녀를 찾았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녀와 함께하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 21 나의 배도 그녀를 찾으려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좋은 소유를 얻었습니다.
- 22 주님은 나에게 보상으로 혀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 23 너희 모두, 무지한 자들이여, 나에게 가까이 오너라. 교훈의 집에 거하라.
- 24 그러므로 너희는 왜 이 모든 것을 부족하게 여기며, 너희 영혼이 매우 갈증을 느끼는가?
- 25 내가 입을 열어 말했다. "돈 없이도 그녀를 얻어라."
- 26 너의 목에 멍에를 메고, 네 영혼이 교훈을 받게 하라. 그녀는 가까이에 있다.
- 27 내가 얼마나 조금만 수고했는지 눈으로 보아라. 나는 스스로 많은 편안함을 얻었다.
- 28 은을 많이 주고 교훈을 얻고, 그녀로 말미암아 많은 금을 얻어라.
- 29 네 영혼이 그의 자비를 기뻐하게 하며, 너희 모두가 그를 찬양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라.

³⁰ 때가 오기 전에 네 일을 하라. 그의 때에 그가 네게 보상을 주리라.

이사야서 | Isaiah

이사야서 1장

- 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보았던 환상은, 유다의 왕들인 우시야, 요담, 아하즈, 히스기야 시대에 주어졌다.
- 2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내가 아이들을 기르고 키워왔는데,
- 3 소는 주인을 알고,
- 4 아, 죄악의 민족이여,
- 5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으려 하는가?
- 6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다.
- 7 너희 땅은 황폐해졌고,
- 8 시온의 딸은 포도원의 초막처럼 남아 있다.
- 9 만군의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작은 잔여자를 남기지 않으셨다면,
- 10 소돔의 지도자들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 11 “내가 양의 번제와 수양의 번제를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주님이 말한다. “내가 양의 번제와 수양의 번제에 이미 싫증이 났다.
- 12 너희가 내 앞에 나아와서 보이려 할 때,
- 13 더 이상 허무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 14 내 영혼은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 15 너희가 손을 펼칠 때, 나는 너희를 보지 않겠다.
- 16 자기 자신을 씻어라. 깨끗해져라.
- 17 선을 행하는 법을 배워라.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라.
- 18 “이제 와서, 우리가 서로 말해보자.” 주님이 말한다. “비록 너희 죄가 붉은 자주색 같아도, 눈처럼 희어질 것이다. 비록 붉은 비단 같아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 19 만일 너희가 기꺼이 복종한다면,
- 20 만일 너희가 거부하고 반역한다면, 칼에 잡아먹힐 것이다.
- 21 어찌하여 신실한 도시가 창녀가 되었는가? 그녀는 공의로 가득 찼다.
- 22 너희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 23 너희 지도자들은 반역자이며 도둑들의 동료들이다.
- 24 그러므로 주님, 만군의 하느님은 말한다. “아,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위로를 얻으리라.
- 25 나는 내 손을 너희 위에 펼쳐 너희의 찌꺼기를 모두 제거하리라.
- 26 나는 너희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하리니, 그 후에는 너희가 ‘의로움의 도시’라 불리리라.
- 27 시온은 공의로 구속될 것이며,
- 28 그러나 범법자들과 죄인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며,
- 29 너희가 탐내던 참나무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니,
- 30 너희는 잎이 마르는 참나무와 같을 것이며,
- 31 강한 자들은 양초줄기와 같을 것이다.

이사야서 2장

- ¹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보았던 바는 이러하다.
- ² 마지막 날들에, 주님의 집이 산들의 꼭대기로 높이 세워질 것이며,
- ³ 많은 민족이 나아가서 말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 ⁴ 그분이 민족들 사이에서 재판을 베푸실 것이며,
- ⁵ 야곱의 집이여, 오라, 우리가 주님의 빛 속에서 걷자.
- ⁶ 너는 네 백성, 곧 야곱의 집을 버렸으므로,
- ⁷ 그들의 땅은 은과 금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보물도 끝이 없으며, 그들의 병거도 끝이 없다.
- ⁸ 그들의 땅은 우상으로 가득하다.
- ⁹ 사람이 낮아지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말라.
- ¹⁰ 바위 틈에 들어가라,
- ¹¹ 사람의 높은 눈빛이 낮아질 것이며,
- ¹² 모든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자들에게 주님 만군의 날이 올 것이니,
- ¹³ 높고 뾰은 레바논의 백향목들에 대하여,
- ¹⁴ 모든 높은 산들에 대하여,
- ¹⁵ 모든 높은 탑들에 대하여,
- ¹⁶ 모든 타르시스의 배들에 대하여,
- ¹⁷ 사람의 높은 자세가 굽혀질 것이며,
- ¹⁸ 우상들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 ¹⁹ 사람들이 바위 틈과 동굴로 들어갈 것이며,
- ²⁰ 그 날에 사람들은 은으로 만든 우상을 버릴 것이며,
- ²¹ 바위 틈과 동굴로 들어가,
- ²² 코에 숨이 있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이사야서 3장

- ¹ 보라, 주님,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식량과 지원을 빼앗으신다.
- ² 용감한 자를,
- ³ 오십 명을 이끄는 장관을,
- ⁴ 내가 어린이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주겠다.
- ⁵ 사람들이 서로 억압받을 것이다.
- ⁶ 사람이 아버지의 집에서 형제를 붙잡고 말할 것이다. "너는 옷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를 다스려라."
- ⁷ 그날에 그는 외칠 것이다. "나는 치유자가 되지 않겠다."
- ⁸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유다가 넘어졌다.
- ⁹ 그들의 얼굴 표정이 그들을 고발한다. 그들의 영혼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 ¹⁰ 의로운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 말하라.
- ¹¹ 악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 ¹² 내 백성아, 어린이들이 그들을 억압한다.
- ¹³ 주님께서 다투려고 일어나신다.
- ¹⁴ 주님께서 내 백성의 장로들과 다투실 것이다. "너희가 포도원을 먹어치웠다."
- ¹⁵ 내 백성을 짓밟는 것이 무엇이냐?
- ¹⁶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발에 장신구를 달고 꾸벅꾸벅 걷는다."
- ¹⁷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의 여자들의 머리꼭대기에 종기들을 내리실 것이다.
- ¹⁸ 그날에 주님께서 그들의 발목 고리와 머리띠와 달 모양의 목걸이를 빼앗으실 것이다.
- ¹⁹ 귀고리와 팔찌와 면사포를,
- ²⁰ 머리장식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기 병과 부적을,
- ²¹ 인장 반지와 코고리를,
- ²² 아름다운 옷과 겹옷과 외투와 지갑을,
- ²³ 손거울과 비단 옷과 관모와 스카프를 빼앗으실 것이다.
- ²⁴ 향기로운 향신료 대신에 썩음이 생길 것이다.
- ²⁵ 당신의 남자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며,
- ²⁶ 그녀의 문들이 슬피 울고 통곡할 것이다. 그녀는 황폐해져 땅에 앉을 것이다.

이사야서 4장

- ¹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빵을 먹고 우리 옷을 입을 터이니, 오직 우리를 당신의 이름으로 불러 주십시오. 우리 수치를 없애 주십시오."
- ² 그 날에 주님의 싹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며,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될 것이다.
- ³ 시온에 남아 있는 자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가 모두 성결하다고 불릴 것이며, 예루살렘에 살아 있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자가 그러할 것이다.
- ⁴ 주님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 내시고, 그 안에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하게 하실 때, 공의의 영광 태우는 영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 ⁵ 주님께서 시온 산의 온 전 지역과 그녀의 모임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불꽃의 빛나는 불을 창조하실 것이며, 모든 영광 위에 휘장이 있을 것이다.
- ⁶ 낮에는 더위로부터 그늘을 주는 초막이 되고, 폭풍과 비로부터 피할 곳과 보호처가 될 것이다.

이사야서 5장

- ¹ 내가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 그의 포도원에 관한 노래를 부르리라.
- ² 그가 그것을 파고,
- ³ “이제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유다의 사람들아,
- ⁴ 내 포도원에 내가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 ⁵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엇을 할 것인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 ⁶ 내가 그것을 황폐한 땅으로 만들리라.
- ⁷ 주님 만군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 ⁸ 집을 집에 붙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 ⁹ 내 귀에 주님 만군이 말하노니, ‘분명히 많은 집들이 황폐해질 것이며,
- ¹⁰ 열 아커의 포도원은 한 바트의 포도주만 내고,
- ¹¹ 아침 일찍 일어나 강한 술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 ¹² 그들의 잔치에는 하프와 수금과 북과 피리와 포도주가 있도다.
- ¹³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사로잡혀 간다.
- ¹⁴ 그러므로 스올이 그 욕망을 넓히고,
- ¹⁵ 그러므로 사람이 낮아지고 인류가 낮아지며,
- ¹⁶ 그러나 주님 만군은 공의로 높아지며,
- ¹⁷ 그때 어린 양들이 그들의 목초지에서 풀을 뜯으리라.
- ¹⁸ 거짓된 줄로 죄악을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 ¹⁹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속히 속히 그의 일을 이루게 하여 우리가 보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계획이 가까이 와서 일어나게 하소서.’
- ²⁰ 악을 선이라 부르고, 선을 악이라 부르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 ²¹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 ²² 술을 마시는 데 강한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 ²³ 뇌물로 죄인을 무죄로 풀어주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 ²⁴ 그러므로 불의 혀가 마른 풀을 삼키듯,
- ²⁵ 그러므로 주님의 진노가 그의 백성에게 타오르고,
- ²⁶ 그는 먼 곳에서 민족들을 향해 기치를 치울릴 것이며,
- ²⁷ 그들 중에 지치거나 넘어지는 자가 없을 것이며,
- ²⁸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 ²⁹ 그들의 으르렁거림은 암사자 같고, 젊은 사자처럼 으르렁릴 것이다. 그들은 으르렁릴 것이며,
- ³⁰ 그 날에 그들이 바다의 으르렁거림처럼 그들을 향해 으르렁릴 것이다.

이사야서 6장

- ¹ 우찌야 왕이 죽은 해에, 나는 주님께서 높고 들려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 ² 그 위에는 세라핌들이 서 있었다. 각각 여섯 날개를 지니고 있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았다.
- ³ 이것이 저것을 불러 외쳤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님!"
- ⁴ 부르는 자의 목소리에 문지방의 기초가 진동했고, 집은 연기로 가득 찼다.
- ⁵ 그때 내가 말했다. '화가 나에게 있다! 나는 망했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이고,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내가 만군의 주님, 왕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 ⁶ 그때 세라핌 중 하나가 날아와 내게로 왔다. 그 손에는 불단에서 붙잡아 온 살아 있는 숯이 있었다.
- ⁷ 그가 그 숯으로 내 입을 만지며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죄악이 사라졌고, 네 죄가 용서되었다.'
- ⁸ 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 ⁹ 그분이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분명히 듣지만,
- ¹⁰ 이 백성의 마음을 무겁게 하여라.
- ¹¹ 그때 내가 말했다. '주님, 얼마나 오래입니까?' '도시들이 거주자 없이 황폐해질 때까지,
- ¹² 주님이 사람들을 멀리 떠나게 하실 때까지,
- ¹³ 그 안에 십분의 일만 남아 있다면,

이사야서 7장

- ¹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즈와 우시야의 손자인 아하즈의 시대에, 시리아의 왕 레진과 이스라엘의 왕 레마리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올라왔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 ² 다윗의 집은 '시리아가 에브라임과 결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은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듯 떨렸다.
- ³ 그때 주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네 아들 세아야숨을 데리고, 위쪽 연못의 수로 끝과 염색공의 들 길로 나가 아하즈를 만나라."
- ⁴ 그에게 말하여라. "조심하고 평온하게 있어라. 레진과 시리아, 그리고 레마리야의 아들에 대한 격노 때문에, 이 두 개의 연기 나는 횃불 끝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이 약해지지 말아라."
- ⁵ 시리아와 에브라임, 그리고 레마리야의 아들이 너를 해치려 음모를 꾸미며 말한다.
- ⁶ "우리가 유다를 치고 그 땅을 갈라서 우리 사이에 나누고, 그 안에 타베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 ⁷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것은 서지 못할 것이며,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⁸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레진이다. 육십오 년 안에 에브라임은 산산조각 나서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 ⁹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며, 사마리아의 머리는 레마리야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 ¹⁰ 주님은 다시 아하즈에게 말씀하셨다.
- ¹¹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표징을 구하여라. 깊은 곳이나 높은 높이에서 무엇이든 구하라."
- ¹² 그러나 아하즈는 말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 ¹³ 그가 말했다. "이제 들어라, 다윗의 집아. 너희가 사람들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너희가 내 하느님의 인내까지 시험하려 하는가?"
- ¹⁴ 그러므로 주님 자신이 너희에게 표징을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는 임마누엘이라 이름할 것이다.
- ¹⁵ 그 아이가 악을 거부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때까지,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 ¹⁶ 아이가 악을 거부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가 싫어하는 두 왕의 땅은 버려질 것이다.
- ¹⁷ 주님은 너희와 너희 백성과 너희 조상의 집에, 에브라임이 유다에서 떠난 날 이후로 오지 않았던 날들을 가져올 것이다. 곧 아시리아 왕이 올 것이다.
- ¹⁸ 그날에 주님은 이집트 강들의 끝에 있는 파리와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을 부를 것이다.
- ¹⁹ 그들이 와서 모든 황폐한 골짜기와 바위 틈, 가시덤불의 모든 헤지, 그리고 모든 초지에 머무를 것이다.
- ²⁰ 그날에 주님은 강 건너편에서 빌린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사용하여 머리와 발의 털을 베고, 수염도 없앨 것이다.
- ²¹ 그날에 한 사람이 어린 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기를 것이다.
- ²² 그들이 내는 우유가 풍부하므로, 그는 버터를 먹을 것이다. 땅에 남아 있는 것 모두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 ²³ 그날에 천 달란트 은값에 팔리던 포도밭은 가시덤불과 가시나무가 될 것이다.
- ²⁴ 사람들은 활과 화살을 들고 그곳에 갈 것이다. 땅 전체가 가시덤불과 가시나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²⁵ 팽이로 경작하던 모든 언덕에는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못할 것이다. 가시덤불과 가시나무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그곳은 소를 풀어놓고 양이 밟는 곳이 될 것이다.

이사야서 8장

- ¹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큰 돌판을 가져다가, 사람의 붓으로 '마헬 살랄 하스 바즈'라고 써라."
- ² 나는 신실한 증인들을 불러서 증언하게 하리니, 그들은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르기야의 아들 스가랴이다.
- ³ 나는 예언자 여인에게 가서 그녀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다. 그 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 바즈'라 부르라."
- ⁴ 아이가 '내 아버지'라든가 '내 어머니'라든가 말할 줄 알기 전에, 다마스쿠스의 재산과 사마리아의 전리품이 아시리아 왕에게 빼앗길 것이다.
- ⁵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 ⁶ "이 백성이 조용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거부하고, 레진과 레마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므로,
- ⁷ 그러므로 보라, 주님은 강의 거대한 홍수 물을 그들에게 가져오실 것이다.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이 그것이다. 이 물은 그 모든 수로를 넘쳐 흐르고, 모든 제방을 넘을 것이다.
- ⁸ 이 물은 유다로 흘러넘쳐, 넘쳐 흐르고, 목까지 닿을 것이다. 그의 날개가 펼쳐지면, 오 이마누엘아, 네 땅의 넓이를 가득 채울 것이다.
- ⁹ 너희 민족들아, 소란을 일으켜라! 부서져라! 먼 땅들에서 온 모든 자들아, 들으라. 전쟁을 준비하여 부서져라! 전쟁을 준비하여 부서져라!
- ¹⁰ 함께 계획을 세워도 허사가 될 것이고, 말을 해도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 ¹¹ 주님께서 나에게 강한 손으로 말씀하시며, 이 백성의 길을 걷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 ¹² "이 백성이 음모라 부르는 것을 너희도 음모라 부르지 말라.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놀라지 말아라.
- ¹³ 만군의 주님을 너희가 거룩히 여겨야 한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무서워해야 한다.
- ¹⁴ 그분은 너희에게 성소가 되실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덩과 올가미가 될 것이다.
- ¹⁵ 많은 이들이 그 위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지고, 올가미에 걸리며, 사로잡힐 것이다.
- ¹⁶ 언약을 싸매고, 내 제자들 사이에 율법을 봉인하여라.
- ¹⁷ 나는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가리신 주님을 기다릴 것이며, 그분을 찾을 것이다.
- ¹⁸ 보라, 나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은, 시온 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표징과 기적이 된다.
- ¹⁹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음령을 가진 자들과 마법사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은 쯔르르 소리를 내며 속삭인다.' 하거든, 백성이 어찌하여 자기 하느님께 물어보지 않는가? 살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물어보는가?
- ²⁰ 율법과 언약으로 돌아가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결코 아침이 없을 것이다.
- ²¹ 그들은 그 땅을 지나며, 매우 고통스럽고 배고플 것이다. 배고플 때, 그들은 근심하며 자기 왕과 자기 하느님을 저주할 것이며, 얼굴을 하늘로 향할 것이다.
- ²² 그러고 나서 땅을 바라보면, 고통과 어둠과 괴로움의 어두움을 볼 것이며, 그들은 진한 어둠으로 쫓겨날 것이다.

이사야서 9장

- ¹ 그러나 고통을 겪던 자에게는 더 이상 어둠이 없을 것이다. 이전에는 그가 세불론 땅과 납탈리 땅을 비탄하였으나, 나중에는 바다 길을 따라 요르단 저편, 열국의 갈릴리 땅을 영광스럽게 하였다.
- ²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 ³ 당신은 이 나라를 많이 늘리셨습니다.
- ⁴ 그가 짊어진 멍에와, 그 어깨의 지팡이와, 그 억압자의 막대기를, 미디안 날처럼 부수셨습니다.
- ⁵ 전투에서 울려 퍼지는 무기와 피에 젖은 옷들은 모두 불에 타서 연료가 될 것이다.
- ⁶ 우리를 위해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를 위해 한 아들이 주어졌다. 그가 다스림을 어깨에 지니실 것이며, 그의 이름은 기묘한 자, 모사, 전능하신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 ⁷ 그의 다스림과 평화가 늘어나는 데는 끝이 없을 것이며, 다윗의 보좌 위와 그의 왕국 위에서, 그 왕국을 공의와 의로움으로 굳게 세우고 영원히 지켜낼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실 것이다.
- ⁸ 주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 ⁹ 모든 백성이 알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들도, 마음에 교만과 고집을 품고 말하는 자들이 알게 될 것이다.
- ¹⁰ “벽돌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을 것이다.
- ¹¹ 그러므로 주님은 레신의 원수들을 그 위에 일으키실 것이다.
- ¹² 앞으로 시리아인들이,
- ¹³ 그러나 백성은 자신을 친 자에게 돌아서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구하지 않았다.
- ¹⁴ 그러므로 주님은 하루 안에 이스라엘에서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어버리실 것이다.
- ¹⁵ 장로와 존경받는 자가 머리오,
- ¹⁶ 이 백성을 이끄는 자들이 그들을 미혹하기 때문이다.
- ¹⁷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의 젊은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고아와 과부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 ¹⁸ 악은 불처럼 타오르며, 숲의 두꺼운 수풀을 태운다.
- ¹⁹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땅이 타버렸다.
- ²⁰ 오른쪽으로 잡아먹고도 배가 고프고,
- ²¹ 마나세가 에브라임을 잡아먹고, 에브라임이 마나세를 잡아먹으며, 그들이 함께 유다를 치려 한다. 이런 일들로도 그의 분노는 돌이키지 않고, 그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다.

이사야서 10장

- 1 불의한 법령을 내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억압적인 법령을 기록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 2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공의를 빼앗고, 내 백성 중 궁핍한 자들의 권리를 빼앗아, 과부들을 그들의 노략물로 삼고, 고아들을 그들의 먹이로 삼으려 한다.
- 3 방문의 날에, 멀리서 올 황폐함에 너희는 무엇을 하려 하는가? 너희는 어디로 도망쳐 도움을 청할 것인가? 너희는 재산을 어디에 두려는가?
- 4 그들은 포로들 아래서만 엎드릴 뿐이다.
- 5 아, 아시리아여, 내 분노의 지팡이, 내 진노를 그 손에 맡긴 자여!
- 6 내가 그를 불경한 민족에게 보내고, 내게 분노를 일으키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노략물을 탈취하고, 포로를 잡으며, 거리의 진흙처럼 밟게 하리라.
- 7 그러나 그는 그런 뜻을 품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한다. 그의 마음은 파괴하고, 몇몇 민족을 끊어 버리는 데 있다.
- 8 그가 말하기를, '내 모든 통치자들이 왕이 아니냐?'
- 9 칼노는 카르케미시와 같지 아니한가? 하마트는 아르파드와 같지 아니한가? 사마리아는 다마스쿠스와 같지 아니한가?
- 10 내 손이 우상들의 왕국들을 찾아냈으니, 그들의 조각된 우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보다 더 많았으니,
- 11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도 하지 않겠느냐?
- 12 그러므로 주님이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모든 일을 마치신 후, 내가 아시리아 왕의 교만한 마음과 그의 고개를 높인 태도의 열매를 벌하리라.
- 13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행하였고, 내 지혜로 하였으니, 내가 통찰력이 있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를 옮기고, 그들의 보물을 탈취하였다. 나는 용감한 자처럼 그들의 통치자들을 무너뜨렸다.'
- 14 내 손이 민족들의 재산을 등지처럼 찾았고, 버려진 알을 모으듯이, 내가 온 땅을 모았다. 날개를 움직이는 자도 없었고, 입을 여는 자도 없었으며, 지저귀는 자도 없었노라.
- 15 도끼가 그를 베는 자를 자랑할 수 있겠느냐? 톱이 그를 톱질하는 자를 높일 수 있겠느냐? 지팡이가 그것을 드는 자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막대기가 나무가 아닌 자를 들어 올릴 수 있겠느냐?
- 16 그러므로 주님, 만군의 하느님은 그의 살쥔 자들 사이에 마른 기운을 보내실 것이며, 그의 영광 아래 불이 타오르듯 불이 불으리라.
- 17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성자는 불꽃이 되어, 하루 만에 그의 가시덤불과 가시나무를 불태워 삼키리라.
- 18 그는 그의 숲과 열매 맺는 들판의 영광을, 영혼과 육체 모두 소멸시킬 것이니, 깃발을 든 자가 기진맥진하는 것과 같으리라.
- 19 그 숲의 남은 나무들이 적어 어린아이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리라.
- 20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피한 자들이, 그들을 친 자에게 다시 의지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 이스라엘의 성자에게 의지하리라.
- 21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력하신 하느님께 돌아오리라.
- 22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그 중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파멸이 정해졌고, 의로움으로 넘치리라.
- 23 주님, 만군의 하느님께서 온 땅에 걸쳐 완전한 종말을 내리시고, 그 정해진 바를 이루시리라.
- 24 그러므로 주님, 만군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온에 거하는 내 백성아, 아시리아가 네게 지팡이를 휘두르고, 그의 막대기를 들어 네게 대는 것처럼 이집트가 하였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 25 곧 아주 잠시 후에, 너희에 대한 분노가 끝나고, 내 진노가 그의 파멸을 향해 향할 것이다.
- 26 주님 만군의 하느님은 그에게 마치 오렘 바위에서 미디안을 치던 것처럼 채찍을 일으킬 것이다. 그의 지팡이가 바다 위에 있을 것이며, 그가 이집트를 치던 것처럼 그것을 들어 올릴 것이다.

- 27 그 날에, 그의 짐이 너희 어깨에서 벗어나고, 그의 멍에가 너희 목에서 벗어날 것이며,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 파괴될 것이다.
- 28 그는 아이아트에 이르렀다. 그는 미그론을 지나갔다. 미스마스에서 그는 짐을 쌓아두었다.
- 29 그들은 고개를 넘었고, 게바에서 유숙하였다. 라마가 떨리고, 사울의 기브아가 도망쳤다.
- 30 갈림의 딸아, 큰 소리로 외쳐라! 라이사아여, 들어라! 너는 가난한 아나돗아!
- 31 마드마나는 도망자이다. 게빔의 주민들이 안전을 찾아 도망친다.
- 32 오늘 이 날, 그는 노브에서 멈출 것이다. 그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언덕을 향해 손을 흔든다.
- 33 보라, 주님 만군의 하느님은 공포로 가치를 베어낼 것이다. 키가 큰 자들은 베어지고, 높은 자들은 낮아질 것이다.
- 34 그는 철로 숲의 뺨뺨한 나무들을 베어낼 것이며, 레바논은 강대한 이의 손에 쓰러질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 1 한 줄기가 여세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며,
 2 주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무실 것이며,
 3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다.
 4 그는 의로움으로 가난한 자를 심판할 것이며,
 5 의로움이 그의 허리의 띠가 되고,
 6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7 암소와 곰이 풀을 뜯을 것이며,
 8 절먹이가 독사의 굴 가까이에서 놀며,
 9 내 모든 거룩한 산에서 아무도 해치거나 멸하지 않을 것이다.
 10 그 날에 열국이 여세의 뿌리를 찾을 것이며, 그는 민족들의 기표가 될 것이며, 그의 안식처는 영광스러울 것이다.
 11 그 날에 주님은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서, 아시리아에서, 이집트에서, 파트로스에서, 쿠시에서, 엘람에서, 신나르에서, 하마트에서, 그리고 바다의 섬들에서 남은 자기 백성의 잔여자를 회복하실 것이다.
 12 그는 열국을 위한 기표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땅의 네 모퉁이에서 모을 것이다.
 13 에브라임의 질투도 사라지고, 유다를 박해하는 자들도 끊어질 것이다.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으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박해하지 않을 것이다.
 14 그들은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를 타고 내려갈 것이며, 동쪽의 자녀들과 함께 약탈할 것이다. 그들은 에돔과 모압을 정복하고, 암몬 자손들이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다.
 15 주님은 이집트 바다의 혀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며, 그의 뜨거운 바람으로 강을 휘두르며 일곱 개의 시내로 갈라뜨리고, 사람들이 신을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다.
 16 그의 백성의 잔여자, 곧 아시리아에서 남은 자들을 위한 길이 있을 것이며, 마치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날과 같을 것이다.

이사야서 12장

- ¹ 그 날에 너희는 말할 것이다. "주님, 내가 당신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분노하셨지만, 당신의 분노는 돌이키셨고,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 ² 보라, 하느님이 내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주님, 주님은 내 힘과 찬송이시며, 내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 ³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끌어낼 것이다.
- ⁴ 그 날에 너희는 말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민족들 사이에 그의 행적을 선포하라! 그의 이름이 높이 들려졌음을 알리라."
- ⁵ 주님께 노래하라. 그가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이 일을 온 땅에 알리라.
- ⁶ 시온에 사는 자들아, 크게 외치고 기뻐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가운데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13장

- 1 바빌론에 대한 무계를 이사야, 아모스의 아들이 보았다.
- 2 고운 산 위에 깃발을 세우라! 그들에게 목소리를 높이라! 손을 흔들어, 그들이 귀족들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라.
- 3 나는 내게 성별된 자들을 명령하였고, 나의 진노를 위해 나의 강한 자들을 불렀다. 곧 나의 자랑스럽게 기뻐하는 자들을.
- 4 산들 위에 큰 민족의 소리, 열국의 왕국들이 모인 소란스러운 소리가 있다! 만군의 주님이 전투를 위해 군대를 모으고 있다.
- 5 그들은 먼 땅에서, 하늘 끝에서 온다. 곧 주님과 그의 분노의 무기들로, 온 땅을 멸망시키려 한다.
- 6 비명을 지르라!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전능자로부터의 파괴처럼 올 것이다.
- 7 그러므로 모든 손이 힘없이 떨리고, 모든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다.
- 8 그들은 놀라 떨 것이다. 고통과 슬픔이 그들을 붙잡을 것이다. 그들은 분만하는 여자처럼 고통받을 것이다. 서로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그들의 얼굴은 불꽃의 얼굴이 될 것이다.
- 9 보라, 주님의 날이 온다. 잔인하고, 분노와 격렬한 진노로,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안의 죄인들을 멸망시키려 한다.
- 10 하늘의 별들과 그 별자리들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해는 떠오를 때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 11 나는 그들의 악으로 세상을 벌하고, 악한 자들의 불의로 벌할 것이다. 나는 교만한 자들의 교만을 그치게 하고, 무서운 자들의 교만을 낮출 것이다.
- 12 나는 사람을 오피르의 순금보다 더 드물게 만들고,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 것이다.
- 13 그러므로 나는 하늘을 떨게 하고, 땅을 만군의 주님의 분노와 그의 격렬한 진노의 날에 그 자리에서 흔들어 떨어뜨릴 것이다.
- 14 그들은 사냥당하는 사슴처럼, 모으는 자 없는 양처럼, 각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각자 자기 땅으로 도망칠 것이다.
- 15 잡히는 자는 모두 찢려 죽을 것이고, 붙잡힌 자는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 16 그들의 어린 아이들도 그들의 눈 앞에서 부서져 흩어질 것이다. 그들의 집들은 약탈당하고, 그들의 아내들은 강간될 것이다.
- 17 보라, 나는 미디인들을 그들에게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들은 은을 귀히 여기지 않고, 금을 즐기지 않을 것이다.
- 18 그들의 활은 젊은이들을 부서뜨릴 것이고, 그들은 태의 열매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눈은 아이들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19 열국의 영광, 갈대아인들의 자랑의 아름다움인 바빌론은, 하느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었을 때와 같아질 것이다.
- 20 그곳은 결코 거주되지 않으며, 대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아라비아 사람은 그곳에 장막을 치지 않을 것이고, 목자들도 그곳에 양 떼를 눕히지 않을 것이다.
- 21 그러나 사막의 들짐승들이 그곳에 누울 것이고, 그들의 집들은 여우로 가득할 것이다. 타조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야생 염소들이 그곳에서 뛰어놀 것이다.
- 22 하이에나들이 그들의 요새에서 울고, 여우들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울 것이다. 그의 때가 가까이 왔고, 그의 날들이 길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14장

- 1 주님은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시며, 그들을 자기 땅에 안착시키실 것이다. 외국인도 그들과 합류하여 야곱의 집과 하나가 될 것이다.
- 2 민족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 땅으로 끌어올 것이며, 이스라엘의 집은 주님의 땅에서 그들을 종과 여종으로 소유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을 것이며, 자신들을 억압하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 3 주님이 너를 괴로움과 고통과 너를 억지로 노동하게 했던 무거운 노역에서 벗어나 안식을 주는 그 날이 오리라.
- 4 너는 바빌론 왕을 향해 이 비유를 들고 말할 것이다. "억압자가 어찌하여 멈추었느냐! 황금 도시가 어찌하여 멈추었느냐!"
- 5 주님이 악한 자의 지팡이와 통치자들의 홀을 꺾으셨다.
- 6 그는 분노로 민족들을 끊임없이 치고, 노여움으로 열국을 다스리며, 아무도 막지 못하는 박해를 일삼았다.
- 7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며, 노래를 터뜨린다.
- 8 레바논의 전나무와 백향목도 너를 향해 기뻐하며 말한다. "네가 낮아졌으니, 벌목꾼이 우리에게 올라오지 않았다."
- 9 아래의 스올이 너를 맞이하려고 움직이고, 너를 향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을 일으키며, 모든 민족의 왕들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으켰다.
- 10 그들이 모두 너를 향해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너도 우리처럼 약해졌느냐? 너도 우리처럼 되었느냐?"
- 11 네 화려함은 스올로 내려가고, 네의 수금 소리도 함께한다. 네 아래에는 벌레가 퍼지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다.
- 12 하늘에서 떨어진 너, 새벽의 아들, 반짝이는 자여! 땅으로 끌려내려간 너, 열국을 낮추던 자여!
- 13 네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가 하느님의 별들 위에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 끝에 있는 모임의 산에 앉으리라."
- 14 내가 구름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리라!"
- 15 그러나 너는 스올로, 구렁이의 깊은 곳으로 끌려내려갈 것이다.
- 16 너를 보는 자들은 네게 주목하며, 생각할 것이다. "이 사람이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든 자냐?"
- 17 이 사람이 세상을 황폐지로 만들고, 그 도시들을 무너뜨리며, 그의 포로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자냐?
- 18 모든 열국의 왕들은 영광 속에서 잠들고, 각자 자기 집에서 누워 있다.
- 19 그러나 너는 무덤에서 버려져, 칼에 찔려 죽은 자들처럼 비천한 가지가 되었으며, 구렁이의 돌들 아래로 내려가고, 밟히는 시체처럼 되었다.
- 20 너는 그들과 함께 장사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네 땅을 파괴하고, 네 백성을 죽였기 때문이다. 악행을 저지른 자의 자손은 영원히 이름을 남기지 못할 것이다.
- 21 그들의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자식들을 죽이기 위해 준비하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고, 세상의 표면을 도시로 채우지 못하게 하라.
- 22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주님의 군대가 말한다. "바빌론에서 이름과 잔존자, 아들과 손자까지 끊어버리리라." 주님이 말한다.
- 23 "내가 그것을 가시쥐의 소유로 만들고, 물웅덩이로 만들며, 파괴의 청소질로 쓸어버리리라." 주님의 군대가 말한다.
- 24 주님의 군대가 맹세하여 말한다.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한 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 25 내가 내 땅에서 아시리아를 꺾고, 내 산들 위에서 그를 짓밟을 것이다. 그때 그의 멍에가 그들에서 벗어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떨어질 것이다.
- 26 이것은 온 땅을 위해 결정된 계획이다. 이것은 모든 민족 위에 펼쳐진 주님의 손이다.
- 27 주님의 군대가 계획하셨으니,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의 손이 펼쳐졌으니, 누가 그것을 되돌릴 수 있겠는가?
- 28 이 짐은 왕 아하즈가 죽은 해에 내려졌다.
- 29 필리스티아여, 너는 모두 기뻐하지 말라. 비록 네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으나,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올 것이며, 그 열매는 불나는 날아다니는 뱀이 될 것이다.

³⁰ 가난한 자의 맏아들이 먹고, 궁핍한 자들이 안전하게 누울 것이며, 나는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이고, 네 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³¹ 문이여, 외쳐라! 도시여, 부르짖어라! 필리스티아여, 너희 모두가 녹아내리니, 북쪽에서 연기가 나와 그 군대에 떨어진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³² 그 민족의 사자들에게 무엇이랴 대답할 것인가? 주님이 시온을 세우셨고, 그곳에서 그의 백성의 고통받는 자들이 피난할 것이라고 대답하라.

이사야서 15장

¹ 모압에 대한 무게.

² 그들이 바이트와 디본으로 올라가, 높은 곳에서 울고 있다. 모압은 느보와 메데바를 위해 통곡한다. 그들의 모든 머리에 대머리가 있고, 모든 수염이 베어졌다.

³ 그들의 거리에서 그들은 베옷을 입는다. 그들의 거리와 집안 지붕에서 모두가 통곡하며 흐느낀다.

⁴ 헤스본이 에레레와 함께 외친다. 그들의 소리가 야하스까지 들린다. 그러므로 모압의 무장한 자들이 크게 외친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떨린다.

⁵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 통곡한다! 그녀의 귀족들이 소아르로, 에글라트 세리시야로 도망간다. 그들은 루히트의 오르막을 따라 울며 올라가고, 호로나임으로 가는 길에서 파멸의 외침을 올린다.

⁶ 니브림의 물들이 황폐해질 것이니, 풀이 마르고, 어린 풀이 쇠약해지며, 푸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⁷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풍성한 것과 저장한 것을 버드나무 시내를 따라 옮길 것이다.

⁸ 모압의 경계를 따라 외침이 퍼졌으니, 그 통곡이 에글라임까지, 그 통곡이 베에르 에글림까지 이른다.

⁹ 디몬의 물들이 피로 가득하니, 내가 디몬에 더할 것이며, 모압에서 도망친 자들과 땅의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사야서 16장

- ¹ 세라에서 광야로, 시온의 딸의 산으로, 땅의 통치자에게 양을 보내라.
- ² 나그네 새처럼, 흩어진 등지처럼, 모압의 딸들이 아론의 건너목에서 흩어질 것이다.
- ³ 조언을 주어라! 공의를 실행하여라! 한낮 한가운데에서 밤처럼 그들을 퍼라! 피난자들을 숨겨라! 도망자들을 배신하지 말아라!
- ⁴ 내 피난자들이 너와 함께 거주하게 하라! 모압을, 파괴자 앞에서 그를 숨길 은신처로 삼아라. 약탈하는 자는 없어졌고, 파괴는 멈추었으며, 억압자들이 땅에서 소멸되었다.
- ⁵ 사랑의 은총으로 왕좌가 세워질 것이다. 다윗의 장막에서 진실로 앉아서 심판하고, 공의를 구하며, 의로움을 빠르게 행할 자가 있을 것이다.
- ⁶ 우리는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그는 매우 교만하며, 그의 고집과 교만과 분노까지도 들었다. 그의 자량은 허무하다.
- ⁷ 그러므로 모압은 모압을 위해 울 것이고, 모두가 울 것이다. 너희는 키라헤레셋의 건포도 빵을 위하여 슬퍼할 것이며, 심히 상처를 입을 것이다.
- ⁸ 헤스본의 들이 시바마의 포도나무로 인해 힘을 잃는다. 열국의 영주들이 그 아름다운 가지들을 부수었으니, 그것들은 자이저에까지 이르고 광야로 퍼져나갔다. 그 새순들이 널리 퍼져 바다를 건넜다.
- ⁹ 그러므로 나는 시바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자이저의 울음으로 울 것이다. 내가 눈물로 너희를 적시리라, 헤스본아, 엘레아레아아. 너희의 여름 열매와 수확 위에 전투의 함성은 떨어졌기 때문이다.
- ¹⁰ 기쁨이 사라지고, 열매 많은 들에서 즐거움이 사라졌다. 포도원에서는 노래도, 즐거운 소리도 없을 것이다. 누군가가 양조장에서 포도를 밟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함성을 멈추게 하였다.
- ¹¹ 그러므로 내 마음은 모압을 위하여 하프처럼 울리고, 내 내면은 키헤레스를 위하여 울린다.
- ¹² 모압이 높은 곳에 나아가 몸을 피곤하게 하고, 성소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는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 ¹³ 이것은 주님이 옛적에 모압에 관해 말씀하신 말씀이다.
- ¹⁴ 그러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 해 안에, 계약된 노동자가 세는 것처럼, 모압의 영광은 비웃음을 받을 것이며, 그의 모든 큰 무리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매우 작고 약할 것이다."

이사야서 17장

- ¹ 다마스쿠스에 대한 무게. 보라, 다마스쿠스는 도시가 되지 못하고 폐허의 더미가 될 것이다.
- ² 아로엘의 도시들은 버려진다. 그것들은 양 떼를 위한 곳이 될 것이며, 양들이 누워 있을 것이고,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 ³ 에브라임의 요새는 사라지고, 다마스쿠스와 시리아의 잔여는 왕권을 잃을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처럼 될 것이다.
- ⁴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희미해지고, 그 육체의 기름진 것이 마르게 될 것이다.
- ⁵ 수확자가 밀을 거두고 팔로 곡식을 베는 것과 같을 것이며, 레파임 골짜기에서 곡식을 줍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 ⁶ 그러나 거두고 남은 것이 남아 있을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남은 것처럼, 가장 위쪽 가지에 두세 알, 가장 바깥가지에 네다섯 알이 남아 있을 것이다.
- ⁷ 그 날에 사람들은 자기의 창조주를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존중할 것이다.
- ⁸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들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며,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 즉 아세라 목상이나 분향 제단을 존중하지도 않을 것이다.
- ⁹ 그날에 그들의 강한 성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버린 산림과 산꼭대기의 버려진 곳처럼 되어 황폐해질 것이다.
- ¹⁰ 너는 너의 구원의 하느님을 잊었고, 너의 힘의 바위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아름다운 나무를 심고 외국의 묘목을 심는다.
- ¹¹ 너가 심는 날에는 너는 그것을 둘러싸고, 아침에는 너의 씨앗이 꽃을 피우지만, 슬픔과 극심한 고통의 날에는 수확은 도망가 버린다.
- ¹² 아, 많은 민족들의 소란스러운 소리, 바다처럼 울부짖는 소리와, 여러 나라의 빠른 움직임, 거대한 물결처럼 쏟아지는 소리여!
- ¹³ 나라들은 많은 물결처럼 쏟아지지만, 그분이 그들을 꾸짖으시면, 그들은 멀리 도망치고, 바람 앞의 산의 꼭정이처럼 쫓기며, 폭풍 앞의 휘날리는 먼지처럼 쫓기리라.
- ¹⁴ 저녁에는 보라, 공포가 있다! 아침이 되기 전에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를 약탈하는 자들의 몫이며, 우리를 강탈하는 자들의 분깃이다.

이사야서 18장

- ¹ 아, 날개가 스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며, 에티오피아의 강들 저편에 있는 그 땅이며;
- ² 바다를 통해 사자를 보내며, 물 위에 갈대로 만든 배를 띄우는 자들이 이르기를, "빠르게 달려가, 너희 신속한 사자들아, 키가 크고 매끄러운 민족, 그 시작부터 끝까지 무서운 백성, 측량하고 밟아 누르는 민족, 그 땅은 강들이 가르스 자들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 ³ 세상 모든 거민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아, 산 위에 깃발이 들려질 때 보아라. 나팔이 불릴 때 들으라!
- ⁴ 주님께서 내게 이르셨다. "나는 조용히 있겠고, 내 처소에서 바라보리라. 햇빛 아래 맑은 더위 같고, 수확의 더위 속 이슬의 구름 같으리라."
- ⁵ 수확 전에, 꽃이 지고 꽃이 익어 포도가 되었을 때, 그는 가지를 자르는 갈고리로 새싹을 자르고, 퍼진 가지들을 베어내어 치울 것이니,
- ⁶ 그것들이 산의 사나운 새들과 땅의 짐승들과 함께 남아 있을 것이니, 여름에는 사나운 새들이 그것을 먹고, 겨울에는 땅의 모든 짐승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 ⁷ 그때에, 키가 크고 매끄러운 백성, 그 시작부터 끝까지 무서운 백성, 측량하고 밟아 누르는 백성, 그 땅은 강들이 가르스 자들이, 주님의 만군의 이름을 지닌 곳, 시온 산으로, 주님의 만군께 예물을 바치리라.

이사야서 19장

- 1 이집트에 대한 무게. 보라, 주님은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내려오신다.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이집트의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다.
- 2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서로 대적하게 만들겠다. 그들이 형제마다 서로, 이웃마다 서로 싸우고, 성읍이 성읍에, 왕국이 왕국에 맞서 싸울 것이다.
- 3 이집트 사람들의 영이 그들 안에서 약해질 것이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파괴하겠다. 그들은 우상들과 점쟁이들과 유령을 부르는 자들과 마법사들을 찾을 것이다.
- 4 나는 이집트 사람들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넘기겠다. 잔혹한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 5 바다의 물이 말라 버리고, 강은 마르고 말라 버릴 것이다.
- 6 강물은 더러워질 것이다. 이집트의 시내들은 줄어들고 말라 버릴 것이다. 갈대와 부들마저 마르고 말 것이다.
- 7 나일 강가의 초지와 나일 강가의 모든 경작지가 마르고 사라져 더 이상 없어질 것이다.
- 8 어부들이 슬퍼할 것이며, 나일에서 고기를 잡는 모든 자들이 애통해 할 것이며, 물 위에 그물을 퍼는 자들이 힘을 잃을 것이다.
- 9 빗질한 대마를 다루는 자들과 흰 옷을 직조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 10 기둥들이 부서질 것이며, 모든 고용된 자들이 마음으로 슬퍼할 것이다.
- 11 조안의 귀족들은 완전히 어리석다. 파라오의 가장 지혜로운 조언자들의 계획은 어리석어졌다. 너희가 어찌하여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의 아들, 옛 왕들의 아들이다"라고 하는가?
- 12 그러면 너희 지혜로운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지금 너희에게 말해 보라. 만군의 주님이 이집트에 대해 계획하신 바를 그들이 알게 하라.
- 13 소안의 귀족들이 어리석어졌다. 멤피스의 귀족들이 속임을 당했다. 그들이 이집트의 부족들에서 기둥이 되는 자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 14 주님께서 그 안에 미혹의 영을 섞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의 모든 일에서 잘못된 길로 이끌리게 되었으니, 취한 자가 자신의 구토 속에서 해매는 것과 같다.
- 15 이집트에는 머리도, 꼬리도, 종려 가지도, 갈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 16 그 날에 이집트 사람들은 여자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흔드시는 손의 진동을 보고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 17 유다 땅은 이집트에게 공포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을 듣는 자마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에게 정하시려는 계획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다.
- 18 그 날에 이집트 땅에는 가나안 언어를 쓰고 만군의 주님께 맹세하는 도시 다섯 개가 있을 것이다. 그 중 하나는 '파멸의 도시'라 불릴 것이다.
- 19 그 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주님을 위한 제단이 있고, 경계에 주님을 위한 비석이 있을 것이다.
- 20 그것은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님을 위한 표징과 증거가 될 것이다. 그들이 억압자들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는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 21 주님께서 이집트에 알려지실 것이고, 그 날에 이집트 사람들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제물과 번제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킬 것이다.
- 22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실 것이며, 치고 낮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낮게 하실 것이다.
- 23 그 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길이 생길 것이며, 아시리아 사람이 이집트로 들어오고,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로 들어갈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 24 그 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함께 세 번째가 되어, 땅 위의 복이 될 것이다.
- 25 주님 만군의 하느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집트는 내 백성, 아시리아는 내 손의 일,

이스라엘은 내 유산이니, 그들 모두가 복받으리라."

이사야서 20장

- ¹ 아스돗에 타르탄이 온 해에, 아시리아 왕 산호립이 그를 보냈을 때, 그가 아스돗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였다;
- ² 그때 주님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다. "너는 허리에 두른 베옷을 풀고,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는 그렇게 하여 벌거벗고 맨발로 걸었다.
- ³ 주님은 말씀하셨다. "내 종 이사야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관한 표징과 기적을 위해 삼 년 동안 벌거벗고 맨발로 걸었듯이,
- ⁴ 아시리아 왕도 이집트의 포로들과 에티오피아의 유배자들을, 어른과 어린이를, 벌거벗고 맨발로, 엉덩이를 드러낸 채 끌고 가서 이집트의 수치가 되리라.
- ⁵ 그들은 에티오피아, 곧 그들의 기대와 이집트, 곧 그들의 영광 때문에 놀라며 수치를 느끼리라.
- ⁶ 그때에 이 해안 땅의 주민들이 말하리라. "보라, 이것이 우리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피난했던 기대였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도망치겠는가?"

이사야서 21장

- ¹ 바다의 황야에 대한 무게.
- ² 나에게 심각한 환상이 드러났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을 저지르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람아, 올라가라! 공격하라! 내가 모든 미디의 탄식을 멈추었다.
- ³ 그러므로 내 허벅지는 고통으로 가득하다. 고통이 나를 사로잡았으니, 분만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 나는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들을 수 없고, 너무도 놀라서 볼 수 없다.
- ⁴ 내 마음이 떨린다. 공포가 나를 떨리게 만들었다. 내가 바라던 저녁이 나에게서 떨림이 되었다.
- ⁵ 그들이 상을 차리고, 경비를 세우며, 먹고 마신다. 일어나라, 왕자들아!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 ⁶ 주님께서 내게 이르셨다. "가서 경비원을 세워라. 그가 보는 것을 선포하게 하라."
- ⁷ 그가 군대를 보고, 말 탄 자들이 쌍으로 다가오며, 나귀 무리와 낙타 무리를 보거든, 깊이 주의 깊게 들으라.
- ⁸ 그가 사자처럼 외쳤다. "주님, 나는 낮에는 망대 위에 서서 항상 경비하고, 밤마다 제 자리를 지킵니다."
- ⁹ 보라, 사람들이 군대를 이루고, 말 탄 자들이 쌍으로 다가온다." 그가 대답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빌론이여! 그녀의 모든 신상들이 땅에 부서졌도다."
- ¹⁰ 너는 내가 썰고 있는 곡식이요, 내 타작마당의 곡식이로다! 내가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였다.
- ¹¹ 두마에 대한 무게. 세일에서 한 사람이 내게 부르짖는다. "경비원아, 밤은 어떻게 되느냐? 경비원아, 밤은 어떻게 되느냐?"
- "
- ¹² 경비원이 말했다. "아침이 오고, 밤도 온다. 너희가 묻고 싶으면 묻고, 다시 오라."
- ¹³ 아라비아에 대한 무게.
- ¹⁴ 그들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가져다주었고, 테마 땅의 주민들이 도망자들에게 빵을 제공하였다.
- ¹⁵ 그들은 칼과 뽑힌 칼, 휘어진 활, 전투의 열기에서 도망쳤기 때문이다.
- ¹⁶ 주님께서 내게 이르셨다. "일 년 안에, 계약된 노동자가 세는 대로, 모든 카데르의 영광이 사라질 것이다."
- ¹⁷ 카데르의 아들들 중 활을 쏘는 자들의 잔여 수는 적을 것이며,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이사야서 22장

- ¹ 비전의 골짜기의 무거운 짐.
- ² 소리치며 떠돌고, 즐거워하는 도시여, 네게 죽은 자들은 칼에 죽지 않았고, 전장에서 죽지도 않았다.
- ³ 네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도망쳤고, 화살꾼들에게 붙잡혔으며, 네가 만난 모든 자들이 묶였고, 멀리 도망쳤다.
- ⁴ 그러므로 내가 말했다. "내게서 떠나라. 나는 슬피 울겠다. 내 백성의 딸이 파괴된 것을 보고 나를 위로하려 애쓰지 마라."
- ⁵ 이는 혼란의 날, 짓밟힘의 날, 만군의 주님께서 비전의 골짜기에서 일으키신 혼란의 날이다. 성벽이 무너지고, 산들에 향한 외침이 있다.
- ⁶ 엘람은 화살통을 메고, 병사들과 기마병들의 전차를 이끌었으며, 키르는 방패를 벗겼다.
- ⁷ 네 가장 아름다운 골짜기들은 전차로 가득했고, 기마병들이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서 있었다.
- ⁸ 그가 유다의 덮개를 벗겼고, 그날 너는 숲의 집에 있는 무기를 바라보았다.
- ⁹ 너는 다윗의 도시의 허물어진 곳이 많음을 보았고, 아래 연못의 물을 모았다.
- ¹⁰ 너는 예루살렘의 집들을 세우고, 성벽을 견고히 하기 위해 집들을 허물었다.
- ¹¹ 너는 옛 연못의 물을 위해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으나, 이를 행하신 분을 바라보지 않았고, 오래 전에 이를 계획하신 분을 존중하지 않았다.
- ¹² 그날 만군의 주님은 울음과 애도와 대머리와 베옷을 입음을 명하셨다.
- ¹³ 그러나 보라,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며,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 우리는 죽으니."
- ¹⁴ 만군의 주님께서 내 귀에 말씀하셨다. "분명히 이 죄악은 너희가 죽을 때까지 용서되지 않으리라." 주님,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¹⁵ 주님,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가서, 집을 맡은 이 세브나에게 가서 말하여라."
- ¹⁶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누가 너를 여기에 있게 했기에, 여기에 무덤을 파는가? 높은 곳에 무덤을 파고, 바위에 자기의 처소를 새기는가!"
- ¹⁷ 보라, 주님께서 너를 이기고 힘껏 던져 버릴 것이다. 그분은 너를 단단히 붙잡을 것이다.
- ¹⁸ 그분은 너를 끊임없이 감아서 큰 땅에 공처럼 던질 것이다. 거기서 너는 죽고, 거기서 네 영광의 전차들이 있을 것이며, 네 주의 집의 수치가 될 것이다.
- ¹⁹ 나는 너를 네 직위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는 네 자리에서 끌려 내려갈 것이다.
- ²⁰ 그날 내가 내 종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킴을 부를 것이다.
- ²¹ 나는 그에게 네 옷을 입히고, 네 띠로 그를 단단히 묶을 것이다. 내가 네 권세를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 ²² 나는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워 주리니, 그가 열면 닫는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여는 자가 없을 것이다.
- ²³ 나는 그를 단단한 곳에 못처럼 박을 것이다. 그는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 ²⁴ 그에게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 자손과 후손, 작은 그릇들, 잔에서부터 모든 향아리에 이르기까지 달릴 것이다.
- ²⁵ 그 날에, 만군의 주님이 말씀하신다. '한곳에 단단히 박힌 못이 흔들릴 것이다. 그것은 베어져서 떨어질 것이며, 그것 위에 짚어진 짐도 벗겨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사야서 23장

- ¹ 티레에 대한 무게.
- ² 해안에 사는 자들아, 조용히 하라. 너희는 바다를 건너는 시돈의 상인들로 인해 부유해진 자들이다.
- ³ 큰 물 위에서 시호르의 씨앗과 나일 강의 수확이 그녀의 수입이었고, 그녀는 열국의 시장이었다.
- ⁴ 시돈아, 부끄러워하라. 바다가 말했으니,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고통을 겪지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않았으며, 젊은이들을 기르지도 않았고, 처녀들을 키우지도 않았다."라고 하였다.
- ⁵ 티레에 대한 소식이 이집트에 이르면, 그들은 티레에 대한 소식에 고통을 느낄 것이다.
- ⁶ 타르시스로 건너가라! 해안에 사는 자들아, 통곡하라!
- ⁷ 이것이 너희의 즐거운 도시이냐? 그녀의 옛날은 오래된 날들이라, 그녀의 발이 멀리 떠나 여행하던 도시이냐?
- ⁸ 누가 이 일을 티레를 향해 꾸몄느냐? 그녀는 왕관을 주는 자요, 그녀의 상인들은 왕족이며, 그녀의 상인들은 땅의 존경받는 자들이다.
- ⁹ 만군의 주님이 이를 꾸몄으니, 모든 영광의 교만을 더럽히고, 땅의 모든 존경받는 자들을 비난하기 위함이다.
- ¹⁰ 타르시스의 딸아, 나일처럼 네 땅을 지나가라. 이제 더 이상 제한이 없다.
- ¹¹ 그가 손을 바다 위로 펴셨고, 왕국들을 흔들었다. 주님은 가나안의 요새들을 파괴하도록 명령하셨다.
- ¹² 그가 말씀하셨다. "시돈의 억압받는 처녀 딸아, 다시는 기뻐하지 말라. 일어나 키팀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편안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 ¹³ 보라, 갈대아 땅이다. 이 민족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사막에 사는 자들을 위해 그것을 세웠다. 그들이 탑을 세우고, 그녀의 궁전들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폐허로 만들었다.
- ¹⁴ 타르시스의 배들아, 외쳐라. 너희의 요새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 ¹⁵ 그날에 티레는 칠십 년 동안 잊혀질 것이다. 이는 한 왕의 날들처럼이다. 칠십 년이 끝난 후, 티레는 창녀의 노래처럼 될 것이다.
- ¹⁶ 하르파를 가져라. 잊혀진 창녀여, 도시를 돌아다니며 달콤한 선율을 연주하라. 여러 곡을 부르라. 그리하여 네가 기억되게 하라.
- ¹⁷ 칠십 년이 끝난 후, 주님이 티레를 돌아보실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몸값으로 돌아가, 땅 위의 모든 세계 왕국들과 창녀처럼 행동할 것이다.
- ¹⁸ 그녀의 상품과 그녀의 몸값은 주님께 성결할 것이다. 그것들을 쌓아두거나 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상품은 주님 앞에 거주하는 자들을 위해 먹을 양식과 튼튼한 옷이 될 것이다.

이사야서 24장

- ¹ 보라, 주님은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며, 뒤집어엎고 그 주민들을 흠으신다.
- ²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종과 그 주인이 같으며, 여종과 그 여주인이 같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으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주는 자가 같다.
- ³ 땅은 완전히 공허해지고,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다.
- ⁴ 땅이 슬퍼하고 시들며, 세계가 쇠약해지고 시들며, 땅의 높은 자들이 쇠약해진다.
- ⁵ 땅은 그 주민들 때문에 더럽혀졌으니, 그들이 법을 어기고 규례를 파괴하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 ⁶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안에 사는 자들이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타고, 적은 수의 사람만 남았다.
- ⁷ 새 포도주가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약해지며, 모든 즐거운 마음이 탄식한다.
- ⁸ 타북의 즐거운 소리가 끊어지고, 기뻐하는 자들의 소리가 그치며, 수금의 기쁨이 멈춘다.
- ⁹ 그들은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강한 술을 마시는 자들에게는 쓰게 될 것이다.
- ¹⁰ 혼란스러운 성은 무너졌고, 모든 집이 닫혀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 ¹¹ 포도주 때문에 거리에서 외침이 일어난다. 모든 즐거움이 어두워졌고, 땅의 기쁨이 사라졌다.
- ¹² 성은 황폐하게 남아 있고, 성문은 파괴로 인해 무너졌다.
- ¹³ 땅 위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니, 올리브나무를 흔드는 것처럼,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줍는 것처럼 될 것이다.
- ¹⁴ 이들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의 위엄을 위해 외칠 것이며, 바다에서 크게 외칠 것이다.
- ¹⁵ 그러므로 동방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바다의 섬들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 ¹⁶ 땅 끝에서 우리에게 노래가 들린다. 의로운 자에게 영광이 있도다!
- ¹⁷ 두려움과 구덩이와 올가미가 땅에 사는 너희에게 닥친다.
- ¹⁸ 두려움의 소리에서 도망치는 자는 구덩이에 빠질 것이고, 구덩이 가운데서 올라오는 자는 올가미에 잡힐 것이다. 하늘 위의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떨리기 때문이다.
- ¹⁹ 땅은 완전히 부서지고, 땅은 갈라지고, 땅은 심하게 흔들린다.
- ²⁰ 땅은 취한 자처럼 흔들리며, 그네처럼 앞뒤로 흔들릴 것이다. 그 불순종이 땅 위에 무거이 얹히고, 땅은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 ²¹ 그 날에 주님은 위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 ²² 그들은 구덩이에 갇힌 죄수처럼 모아지고, 감옥에 갇힐 것이며, 많은 날 후에 그들을 찾아볼 것이다.
- ²³ 그때 달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해는 수치를 받을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며, 그의 장로들 앞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서 25장

- ¹ 주님, 당신은 내 하느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높이겠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당신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완전한 신실함과 진리로 행하셨습니다.
- ² 당신은 도시를 더미로 만들고, 견고한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으며, 외국인의 궁전을 도시가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다시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 ³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당신을 찬양할 것이고, 놀라운 나라들의 도시가 당신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 ⁴ 당신은 가난한 자에게 요새가 되시고, 곤경에 처한 궁핍한 자에게 요새가 되셨으며, 폭풍의 피난처가 되시고, 더위의 그늘이 되셨습니다. 두려운 자들의 강한 바람이 성벽을 향해 폭풍처럼 몰아칠 때 말입니다.
- ⁵ 마치 건조한 땅의 더위가 외국인들의 소란을 누르듯, 구름의 그늘 아래의 더위가 두려운 자들의 노래를 누르듯, 당신은 외국인들의 소란을 누르시고 두려운 자들의 노래를 낮추실 것입니다.
- ⁶ 이 산에서, 만군의 주님은 모든 민족을 기름진 고기의 잔치와 오래 보존된 술의 잔치, 골골한 기름진 고기와 정제된 오래된 술의 잔치로 대접하실 것입니다.
- ⁷ 그분은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을 덮는 덮개와 모든 나라를 가리는 면을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 ⁸ 그분은 죽음을 영원히 삼켜 버리실 것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그분의 백성에 대한 수치를 온 땅에서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 ⁹ 그날에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보라, 이것이 우리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렸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렸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 ¹⁰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를 것이다.
- ¹¹ 그분은 그 가운데서 손을 펼치시리니, 수영하는 자가 수영하려고 손을 펼치는 것처럼, 그러나 그의 교만은 그의 손의 기교와 함께 낮아질 것이다.
- ¹² 당신의 성벽의 높은 요새를 무너뜨려 낮추고 땅에 내리고 흙먼지로 만들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 ¹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가 불리리라: "우리에게 강한 성이 있다. 하느님께서 구원을 담장과 요새로 정하셨다."
- ² 문들을 열어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하소서.
- ³ 당신은 마음이 굳게 서 있는 자에게 완전한 평화를 지켜 주십니다.
- ⁴ 주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 ⁵ 주님께서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과 교만한 성을 낮추셨습니다.
- ⁶ 그 성은 가난한 자들의 발로 밟히고, 궁핍한 자들의 발로 밟히리라.
- ⁷ 의로운 자의 길은 곧고, 당신은 정직한 자가 의로운 자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 ⁸ 주님, 당신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 ⁹ 내 영혼으로 밤에 당신을 사모하였습니다.
- ¹⁰ 악한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 ¹¹ 주님, 당신의 손이 높이 들렸으나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 ¹²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리이다.
- ¹³ 주 우리 하느님, 당신 외에도 다른 주들이 우리 위에 통치하였습니다.
- ¹⁴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리라.
- ¹⁵ 주님, 당신은 이 민족을 더불어 늘리셨습니다.
- ¹⁶ 주님, 그들은 고통 속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 ¹⁷ 임신한 여인이 임신 기한이 가까워져 고통을 겪듯,
- ¹⁸ 우리는 임신하였으나 해산하지 못하였습니다.
- ¹⁹ 당신의 죽은 자들이 살리라.
- ²⁰ 내 백성아, 너희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 ²¹ 보라, 주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와서 땅의 주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벌하시려 한다.

이사야서 27장

- ¹ 그 날에, 주님은 그의 단단하고 크고 강한 칼로, 도망치는 뱀과 꼬불꼬불한 뱀인 레비아탄을 벌하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일 것이다.
- ² 그 날에, 그녀에게 노래하라. "아름다운 포도원iero다!"
- ³ 나, 주님은 그의 지킴이이다. 나는 매 순간 그에게 물을 주겠다.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나는 밤낮으로 지킬 것이다.
- ⁴ 내게 분노가 없다. 그러나 내가 가시덤불과 가시나무를 만나면,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한꺼번에 태워버릴 것이다.
- ⁵ 아니면 그가 내 힘을 잡고 나와 화평을 이루게 하라. 그가 나와 화평을 이루게 하라.
- ⁶ 앞으로의 날들에, 야곱은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표면을 열매로 채울 것이다.
- ⁷ 그가 그들을 친 것처럼, 그가 그들을 친 자들을 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들을 죽인 자들도 죽임을 당한 것인가?
- ⁸ 너는 그들을 보내는 때에 측량하여 그들과 다투었다. 그는 동풍의 날에 그의 거친 바람으로 그들을 떠나보냈다.
- ⁹ 그러므로 이로 인해 야곱의 최악이 용서될 것이며, 이것이 그의 죄를 제거함으로 얻어지는 모든 열매이다.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백목돌처럼 만들고, 아세라 목상과 향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 ¹⁰ 요새 도시는 외로우며, 버려지고 버린 처소가 되어 광야와 같으니, 송아지가 그곳에서 풀을 뜯고 누워서 그 가지들을 먹을 것이다.
- ¹¹ 그 가지들이 마르면, 꺾일 것이다. 여자들이 와서 그것을 태울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지각이 없는 백성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만든 이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며, 그들을 빚어낸 이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 ¹² 그 날에 주님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곡식을 쓰러뜨리실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명씩 모일 것이다.
- ¹³ 그 날에 큰 나팔이 울릴 것이다. 아시리아 땅에서 멸망할 운명에 처한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사야서 28장

- 1 에브라임의 술에 취한 자들의 자랑의 면류관과, 그들의 화려한 아름다움의 시들어 가는 꽃, 곧 포도주에 취한 자들의 비옥한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것에게 화가 있을지이다!
- 2 보라, 주님께서 강하고 힘센 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는 우박의 폭풍, 파괴하는 폭풍, 그리고 넘쳐 흐르는 강한 물의 폭풍처럼, 손으로 그들을 땅에 던져 버릴 것이다.
- 3 에브라임의 술에 취한 자들의 자랑의 면류관은 밟힐 것이다.
- 4 그의 화려한 아름다움의 시들어 가는 꽃, 곧 비옥한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것은 여름이 오기 전에 누가 보자마자 곧 먹어 치우는 첫 열매 같은 무화과가 될 것이다.
- 5 그 날에, 만군의 주님께서서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움의 관이 되실 것이다.
- 6 심판하는 자에게는 공의의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전투를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실 것이다.
- 7 그들도 포도주에 취해 흔들리며, 강한 술에 취해 휘청거린다. 사제와 예언자도 강한 술에 취해 흔들린다. 그들은 포도주에 삼켜지고, 강한 술에 취해 휘청거린다. 그들은 환상에서 어긋나고, 심판에서 허물어진다.
- 8 모든 상이 더럽고 역겨운 구토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 9 누구에게 그가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그가 메시지를 설명하랴? 젖에서 떼어진 자, 젖가슴에서 떼어진 자에게랴?
- 10 그것은 계명 위에 계명, 계명 위에 계명, 선 위에 선, 선 위에 선, 여기 조금, 거기 조금이다.
- 11 그러나 그는 이 민족에게 말을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말할 것이다.
- 12 그가 이르기를, '이것이 실 곳이다. 피곤한 자에게 쉼을 주라.' 하며, '이것이 안식이다.'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 13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명 위에 계명, 계명 위에 계명, 선 위에 선, 선 위에 선, 여기 조금, 거기 조금이 될 것이니, 그들이 가서 뒤로 물러나 부서지고, 올라가미에 걸리고, 잡히게 될 것이다.
- 14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조롱하는 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 15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음부와 동의를 하였다. 넘쳐 흐르는 침략이 지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거짓 아래 숨었기 때문이다.’”
- 16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시온에 기초로 단단한 돌, 시험된 돌, 확실한 기초의 귀한 모퉁이돌을 놓는다. 그것을 믿는 자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 17 내가 공의를 측량줄로, 의로움을 수직줄로 삼을 것이다. 우박은 거짓의 피난처를 쓸어버리고, 물은 숨는 곳을 넘칠 것이다.
- 18 너희가 죽음과 맺은 언약은 폐지될 것이고, 음부와 동의는 서지 않을 것이다. 넘쳐 흐르는 침략이 지나갈 때, 너희는 그것에 밟힐 것이다.
- 19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붙잡을 것이다. 아침마다 지나가고, 낮과 밤에 지나갈 것이니,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오직 공포가 될 것이다.
- 20 침대가 너무 짧아 몸을 펴지 못하고, 이불이 너무 좁아 몸을 덮지 못한다.
- 21 주님께서서는 브라짐 산에서 일어나시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분노하실 것이다. 그분이 자신의 일을, 곧 특별한 일을 하시고, 자신의 행동, 곧 이례적인 행동을 이루기 위함이다.
- 22 그러므로 이제 조롱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결박이 굳어질 것이다. 나는 만군의 주 하느님께서 온 땅에 내린 파괴의 명령을 들었다.
- 23 귀를 기울이고 내 목소리를 들어라! 듣고 내 말을 들어라!
- 24 파종하기 위해 갈아엎는 자가 항상 갈아엎는가? 그는 항상 흙을 뒤집고 뭉치를 부수는가?
- 25 그가 그 땅의 표면을 평탄하게 한 후에, 대추냉이를 심고, 후추 씨를 뿌리며, 밀을 줄지어 심고, 보리를 정해진 곳에, 보리밭을 제자리에 두지 않느냐?
- 26 그의 하느님은 그에게 공정한 판단을 가르치시고, 그를 가르치신다.
- 27 대추냉이는 날카로운 도구로 탈곡하지 않으며, 수레 바퀴가 후추 위를 굴러가지 않는다. 대추냉이는 지팡이로 두드리고,

후추는 막대기로 두든다.

²⁸ 밀가루는 갈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그것을 탈곡하지 않는다. 비록 그가 탈곡용 수레의 바퀴를 그것 위에 굴리지
만, 그의 말들은 그것을 갈지 않는다.

²⁹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분은 계획이 놀라우시고 지혜가 훌륭하신 분이다.

이사야서 29장

- ¹ 아리엘아, 화가 있을지어다! 아리엘, 다윗이 진을 친 도시여! 해를 해에 더하고, 제사 날이 돌아오게 하라.
- ² 그러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히리니, 슬픔과 애곡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내게 제단의 불판이 될 것이다.
- ³ 내가 너를 둘러싸고 진을 치며, 병사들을 배치하여 너를 포위할 것이고, 너를 향해 포위 공격 시설을 쌓을 것이다.
- ⁴ 너는 땅에서 낮아지고, 땅에서 말할 것이며, 흙에서 중얼거릴 것이다. 네 목소리는 땅에서 나오는 유령의 소리 같고, 네 말은 흙에서 속삭일 것이다.
- ⁵ 그러나 네 원수들의 무리는 가루처럼 되고, 악한 자들의 무리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될 것이다. 곧,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 ⁶ 주님 만군의 하느님께서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와 폭풍과 소멸하는 불의 불꽃으로 그녀를 찾아오실 것이다.
- ⁷ 아리엘을 치려는 모든 민족의 무리, 곧 그녀와 그녀의 요새를 치고 괴롭히는 모든 자들은 밤의 꿈, 환상처럼 될 것이다.
- ⁸ 배고픈 사람이 꿈꾸어 먹는 것처럼, 그러나 깨어나면 배가 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꿈꾸어 마시는 것처럼, 그러나 깨어나면 기진맥진하고 여전히 목마른 것처럼, 시온 산을 치려는 모든 민족의 무리도 그럴 것이다.
- ⁹ 잠시 멈추어 놀라라! 눈을 멀게 하고, 멀어져라! 그들은 술에 취했으나 포도주 때문이 아니고, 흔들리지만 강한 술 때문이 아니다.
- ¹⁰ 주님께서 너희 위에 깊은 잠의 영을 쏟으셨고, 너희 예언자들의 눈을 닫으셨으며, 너희 환상가들의 머리를 가리셨다.
- ¹¹ 모든 환상이 너희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사람들이 지식 있는 자에게 책을 건네며 말하기를, "이 책을 읽어 주시오." 하면, 그가 말하기를, "못 읽겠습니다. 이 책은 봉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며,
- ¹² 책을 지식에 없는 자에게 건네며 말하기를, "이 책을 읽어 주시오." 하면, 그가 말하기를, "저는 읽을 줄 모릅니다." 합니다.
- ¹³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가까이 오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으며,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 명령에 불과하다."
- ¹⁴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리니, 놀라운 일과 기적일 것이다.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는 사라지고, 그들의 명철한 자들의 통찰은 숨겨질 것이다.
- ¹⁵ 주님께 자신의 계획을 깊이 숨기고, 자신의 행위를 어둠 속에 두며, "누가 우리를 보는가?" "누가 우리를 아는가?"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 ¹⁶ 너희는 일을 뒤집어 놓는구나! 토기장이가 흙과 같다고 여겨질 수 있느냐? 만들어진 것이 그를 만든 자에게, "당신은 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혹은 빚어진 것이 그를 빚은 자에게, "그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 ¹⁷ 아직 아주 잠시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레바논은 열매 맺는 밭이 되고, 열매 맺는 밭은 숲처럼 여겨질 것이다.
- ¹⁸ 그 날에, 귀머거리들이 책의 말을 듣고, 눈먼 자들이 어둠과 어두움 속에서 보게 될 것이다.
- ¹⁹ 온유한 자들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더하게 되고, 인류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성하신 분을 기뻐할 것이다.
- ²⁰ 악한 자는 없어지고, 조롱하는 자는 그치며, 악을 행하려고 애쓰는 모든 자들이 끊어질 것이다—
- ²¹ 말 한마디로 사람을 유죄로 정하고, 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함정에 빠뜨리며, 거짓 증언으로 무죄한 자에게 정의를 빼앗는 자들이다.
- ²²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야곱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야곱은 이제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얼굴도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 ²³ 그가 그의 자녀들, 곧 내 손의 작품을 그 가운데서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히 여기리라. 그들은 야곱의 성하신 분을 거룩히 여기고,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려워할 것이다.
- ²⁴ 영적으로 잘못된 자들도 통찰에 이르고, 불평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서 30장

- 1 “반역하는 자식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뜻을 구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며, 내 영과 결탁하지 않고 죄에 죄를 더한다.
- 2 그들은 내 조언을 구하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파라오의 힘에 의지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피난하려 한다.
- 3 그러므로 파라오의 힘은 너희의 부끄러움이 되고, 이집트의 그늘에 피난하는 것은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다.
- 4 그들의 지도자들은 소안에 있고, 그들의 사절들은 하네스에 이르렀다.
- 5 그들은 이익이 되지 않는 백성 때문에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도움도 되지 않고 이익도 되지 않으며, 오직 부끄러움과 모욕이 될 뿐이다.
- 6 남방의 짐승들의 무거운 짐.
- 7 이집트는 헛되이 도움이 되고, 아무런 효과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조용히 앉아 있는 라하브라 불렀다.
- 8 지금 가서, 그들 앞에 판에 기록하고 책에 새기어라. 이는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시대를 위한 것이다.
- 9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들, 주님의 율법을 듣지 않는 자식들이다.
- 10 그들은 보는 자들에게 ‘보지 말라’ 하고, 예언자들에게 ‘우리에게 옳은 것을 예언하지 말라. 기쁜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예언하여라.’라고 말한다.
- 11 길에서 벗어나라. 우리 앞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길을 떠나라.
- 12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경멸하고, 억압과 꼬임에 의지하며, 그것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 13 그러므로 이 최악은 너희에게 무너지기 직전의 틈처럼, 높은 담에서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되어, 갑작스럽게 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 14 그는 그것을 토기장이의 그릇처럼 부수어,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조각내실 것이다. 부서진 조각들 사이에 화로에서 불을 얻거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 수 있을 만큼 쓸 만한 조각 하나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 15 주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돌아와서 쉬면 구원을 얻을 것이며, 너희 힘은 침묵과 신뢰에 있다.” 그러나 너희는 거부하였다.
- 16 그러나 너희는 말했다. “아니,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도망칠 것이고, “우리는 빠른 말을 탈 것이다.”라고 말했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도 빠를 것이다.
- 17 한 명의 위협으로 천 명이 도망칠 것이며, 다섯 명의 위협으로 너희는 산꼭대기의 등불처럼, 언덕 위의 깃발처럼 남게 될 것이다.
- 18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 기다리실 것이며,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높이 올라가실 것이다. 주님은 정의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
- 19 그 백성은 시온,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는 반드시 너희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가 너희를 들으면,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 20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고통의 빵과 괴로움의 물을 주시더라도, 너희의 스승들은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며, 너희 눈은 너희 스승들을 볼 것이다.
- 21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돌 때, 너희 귀 뒤에서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것이 길이다. 이 길로 걸어라.”라고.
- 22 너희는 은으로 만든 조각상의 금장과, 주조한 우상의 금박을 더럽힐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부정한 것처럼 버릴 것이며, “가라!”라고 말할 것이다.
- 23 그는 너희가 땅에 뿌릴 씨앗을 위해 비를 주실 것이며, 땅의 수확물로 얻는 빵은 풍성하고 풍요로울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의 가축이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 24 땅을 갈아주는 소들과 어린 당나귀들도 삽과 포크로 털어낸 맛있는 사료를 먹을 것이다.
- 25 큰 학살의 날, 탐들이 무너질 때, 높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 위에 개울과 물줄기가 흐르리라.

- ²⁶ 또 달의 빛은 태양의 빛처럼 되고, 태양의 빛은 일곱 배로 밝아져 일곱 날의 빛처럼 될 것이니, 주님이 그 백성의 상처를 고치고 그들이 맞은 상처를 낫게 하는 그 날에 그러하리라.
- ²⁷ 보라, 주님의 이름이 멀리서 오며, 그의 분노로 타오르고, 질게 피어오르는 연기로 가득하다.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고, 그의 혀는 삼키는 불이다.
- ²⁸ 그의 숨은 범람하는 개울처럼 목까지 이르러, 파멸의 체로 민족들을 흠어버리며, 민족들의 턱에는 멸망으로 이끄는 말구두가 놓이리라.
- ²⁹ 너는 성스러운 축제가 지켜지는 밤처럼 노래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반석으로 향해 피리와 함께 나아가는 자처럼 마음에 기쁨을 느끼리라.
- ³⁰ 주님은 그의 영광스러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의 팔의 강림을 보이시며, 그의 분노와 삼키는 불의 불꽃과, 폭풍과 소나기와 우박으로 하시리라.
- ³¹ 주님의 음성으로 아시리아인이 놀라 떨어리라. 그는 그를 지팡이로 치리라.
- ³² 주님이 그에게 내리는 벌의 지팡이의 모든 타격은 타민과 수금의 소리와 함께 있을 것이니, 그는 무기를 휘두르며 그들과 전투를 벌이리라.
- ³³ 그의 타는 장소는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있나니, 참으로 그는 왕을 위해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으며, 불과 많은 나무로 화형대를 쌓았도다. 주님의 숨은 유향의 개울처럼 그것을 불태우리라.

이사야서 31장

- ¹ 이집트에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 ² 그러나 그도 지혜로우시니,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 ³ 이제 이집트인들은 사람일 뿐, 하느님이 아니다.
- 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사자와 그 새끼가 먹이 위에서 으르렁대듯,
- ⁵ 새들이 날개를 펼치며 떠다니듯, 만군의 주님도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 ⁶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깊이 배반한 그분께로 돌아오라.
- ⁷ 그 날에는 각자가 은으로 만든 우상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모두 버릴 것이다. 이 우상들은 너희 손이 스스로 만든 죄이다.
- ⁸ 아시리아 사람은 사람이 아닌 칼에 쓰러질 것이다.
- ⁹ 그의 바위는 공포 때문에 사라질 것이다.

이사야서 32장

- ¹ 보라, 한 왕이 의로움으로 통치할 것이며,
- ²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할 은신처가 되고, 비를 가릴 은신처가 될 것이며,
- ³ 보는 자들의 눈은 흐릿하지 않을 것이며,
- ⁴ 조급한 자들의 마음은 지식을 깨달을 것이며,
- ⁵ 어리석은 자는 더 이상 존귀하다고 불리지 않을 것이며,
- ⁶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 ⁷ 악한 자의 길은 악하며, 그는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요구할 때 거짓을 꾸민다.
- ⁸ 그러나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꾸민다.
- ⁹ 안일한 여자들아, 일어나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 ¹⁰ 일 년이 넘는 날들이 지나면, 안일한 여자들아, 너희는 괴로움을 겪을 것이며,
- ¹¹ 안일한 여자들아, 떨어라!
- ¹² 아름다운 들판을 위하여 가슴을 치라.
- ¹³ 내 백성의 땅에는 가시덤불과 가시나무가 자랄 것이며,
- ¹⁴ 궁전은 버려질 것이며, 큰 마을은 외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 ¹⁵ 높은 곳에서 성령이 우리 위에 쏟아질 때까지,
- ¹⁶ 그때에 공의가 광야에 머물 것이며,
- ¹⁷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가 될 것이며,
- ¹⁸ 내 백성은 평온한 거처에 살 것이며,
- ¹⁹ 비록 우박이 숲을 평평하게 만들지라도,
- ²⁰ 모든 물가 곁에 씨를 뿌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사야서 33장

- ¹ 너희가 파괴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파괴되지 않았지만, 너희가 파괴를 마치면 너희가 파괴될 것이다.
- ²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 ³ 천둥의 소리에 민족들이 도망쳤다.
- ⁴ 너희가 탈취한 것들은 메뚜기처럼 모아질 것이다.
- ⁵ 주님은 높이 올라 계신다. 그분은 높은 곳에 거하신다.
- ⁶ 너희 시대에 안정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 ⁷ 보라, 그들의 용감한 자들이 밖에서 외친다.
- ⁸ 대로들은 황폐하다.
- ⁹ 땅이 슬퍼하고 쇠약해진다.
- ¹⁰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높이 올라가겠다.
- ¹¹ 너희는 갈대를 낳을 것이다.
- ¹² 민족들은 석회를 태우듯 타버릴 것이다.
- ¹³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일을 들어라.
- ¹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한다.
- ¹⁵ 의로운 길을 걷는 자는
- ¹⁶ 그는 높은 곳에 거할 것이다.
- ¹⁷ 너희 눈은 아름다운 왕을 볼 것이다.
- ¹⁸ 너희 마음은 공포를 생각할 것이다. 계산한 자는 어디 있느냐? 저울에 달아본 자는 어디 있느냐? 탑을 세어본 자는 어디 있느냐?
- ¹⁹ 너는 더 이상 잔혹한 민족을 보지 않을 것이다.
- ²⁰ 우리가 정한 축일의 도시 시온을 바라보아라.
- ²¹ 그러나 거기서 주님께서 위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 ²² 주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시다.
- ²³ 너희 돛대가 풀렸다. 그때 큰 탈취물이 나누어졌다.
- ²⁴ 거주자는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34장

- ¹ 모든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들아, 들어라.
- ²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에 대해 분노하시기 때문이다.
- ³ 그들의 시체들도 버려질 것이다.
- ⁴ 하늘의 모든 군대는 녹아 없어질 것이다.
- ⁵ 내 칼은 하늘에서 이미 흠뻑 적셨다.
- ⁶ 주님의 칼은 피로 가득 차 있다.
- ⁷ 야생 소들도 그들과 함께 내려올 것이다.
- ⁸ 주님께서 복수의 날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 ⁹ 그 강물들은 비로 바뀔 것이다.
- ¹⁰ 그것은 밤낮으로 꺼지지 않을 것이다.
- ¹¹ 그러나 황새와 고슴도치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 ¹² 그들이 그 땅의 귀족들을 부르려 해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 ¹³ 그 궁전들에는 가시덤불이 자랄 것이다.
- ¹⁴ 사막의 들짐승들이 늑대들과 만나고, 밤의 생물이 그곳에 머무를 것이다.
- ¹⁵ 독사가 그곳에 둥지를 틀고, 매들이 모두 짝과 함께 모일 것이다.
- ¹⁶ 주님의 책을 찾아서 읽어라.
- ¹⁷ 그가 그들에게 제비를 뽑았다.

이사야서 35장

- ¹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며,
- ² 그곳은 꽃이 풍성히 피어나고,
- ³ 약한 손을 힘있게 하며,
- ⁴ 두려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해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 ⁵ 그때 맹인의 눈이 열릴 것이며,
- ⁶ 그때 나그네가 빠르게 뛰어넘을 것이며,
- ⁷ 태워지는 모래가 웅덩이가 되고,
- ⁸ 거기에는 길이 있을 것이며, 도로가 있을 것이며, 약한 자들은 그 길을 지나지 못할 것이다.
- ⁹ 거기에는 사자가 없을 것이며,
- ¹⁰ 그때 주님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서 36장

- ¹ 헤즈기야 왕의 십사년에, 아시리아 왕 세나케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 도시를 공격하여 점령했다.
- ² 아시리아 왕은 라브사게를 라키스에서 예루살렘으로, 헤즈기야 왕에게 보냈다. 그는 상수원의 물길 옆, 세탁부들의 들길에 서 있었다.
- ³ 그때 집무를 맡은 힐키야의 아들 엘리아김과 서기관 세브나, 기록관 아사프의 아들 요아가 그에게 나아갔다.
- ⁴ 라브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헤즈기야에게 전하여 말하라. 큰 왕,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의지하는 이 신되는 무엇이나?
- ⁵ 내가 말한다. 너희가 전쟁을 위한 계획과 힘은 단지 허튼 말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반역한 이유로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냐?
- ⁶ 보라, 너희는 이 상처 난 갈대 지팡이, 곧 이집트를 의지한다. 사람이 그것에 기대면, 그것이 손에 들어가서 찢어 넣는다. 이집트 왕 바론은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하다.
- ⁷ 너희가 내게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주님 하느님을 의지한다' 하지 않느냐? 그분이 바로 헤즈기야가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 숭배하라'고 말한 그 고상한 곳들과 제단들 아니냐?
- ⁸ 그러므로 이제 내 주 아시리아 왕에게 맹세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마병을 태울 능력이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을 두 천 마리나 주겠다.
- ⁹ 그러면 내 주의 가장 작은 종의 한 장군의 얼굴을 어떻게 뒤로 돌릴 수 있느냐? 너희가 병거와 기마병을 위해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냐?
- ¹⁰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주님 없이 올라왔느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 땅으로 올라가서 멸망시켜라.'"
- ¹¹ 그러자 엘리아김과 세브나와 요아가 라브사게에게 말했다. "우리 종들에게 아람어로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들리지 않게 유다 사람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 ¹² 그러나 라브사게가 말했다. "내 주가 나를 보내어 오직 너희 주와 너희에게만 이 말을 하려고 보냈느냐? 아니면 성벽 위에 앉아 있는 자들, 곧 너희와 함께 자신의 배설물을 먹고 자신의 소변을 마실 자들에게도 하려고 보냈느냐?"
- ¹³ 그러자 라브사게가 서서 유다 사람의 언어로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큰 왕, 아시리아 왕의 말을 들어라!
- ¹⁴ 왕이 말한다. '헤즈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 ¹⁵ 헤즈기야가 너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하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주님이 분명히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성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 못하게 하라.
- ¹⁶ 헤즈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 왕이 말한다. '나와 화평을 맺고 내게로 나오라. 너희 각자는 자기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먹고, 자기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먹으며, 자기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 ¹⁷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와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 빵과 포도원의 땅으로 데려갈 때까지.
- ¹⁸ 헤즈기야가 너희를 속여 말하기를, '주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지 못하게 하라. 이방 나라들의 신들이 그들의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한 일이 있었느냐?
- ¹⁹ 하마트과 아르파드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스바르바임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원했느냐?
- ²⁰ 이 나라들의 모든 신들 중에,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구원한 신이 누구냐? 그러므로 주님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 ²¹ 그러나 그들은 침묵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왕의 명령이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였기 때문이다.
- ²² 그러자 집무를 맡은 힐키야의 아들 엘리아김과 서기관 세브나, 기록관 아사프의 아들 요아가 옷을 찢고 헤즈기야에게 나아가 라브사게의 말을 전했다.

이사야서 37장

- ¹ 히스기야 왕이 이를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주님의 집으로 갔다.
- ² 그는 가정을 맡은 엘리아김과 서기관 세브나, 그리고 굵은 베를 입은 제사장들의 장로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 ³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히스기야가 말한다. 오늘은 고통과 책망과 거부의 날이다. 아이들이 태어나려 하지만 출산할 힘이 없다."
- ⁴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서 아시리아 왕, 당신의 주인에게 보내어 살아 계신 하느님을 모욕한 랍사게의 말을 들으시고,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들으신 그 말을 책망하실지 모른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 ⁵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의 하인들이 이사야에게로 왔다.
- ⁶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주인에게 말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아시리아 왕의 하인들이 나를 모욕하며 한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 ⁷ 보라, 내가 그에게 영을 넣어 그가 소식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자기 땅에서 칼에 쓰러뜨리리라."
- ⁸ 그러자 랍사게가 돌아가서, 아시리아 왕이 린바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라기스에서 떠났음을 알았다.
- ⁹ 그는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카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그가 나와 싸우려 나왔다." 그가 이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했다.
- ¹⁰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네가 의지하는 네 하느님이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지지 않으리라."
- ¹¹ 보라, 네가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땅에 행한 일을 들었으니, 그들이 모두 완전히 파괴하였다. 네가 구원받겠느냐?
- ¹² 내 조상들이 파괴한 고잔, 하란, 레스페, 텔아살르에 있는 에덴의 자손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하였느냐?
- ¹³ 하마트의 왕과 아르파드의 왕과 스페르바임의 도시, 헤나, 이바의 왕은 어디 있느냐?
- ¹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고 읽은 후,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주님 앞에 펼쳤다.
- ¹⁵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며 말했다.
- ¹⁶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그룹들 사이에 앉으신 분이시여, 당신은 하늘과 땅의 모든 나라의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 ¹⁷ 주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주님, 눈을 떠서 보소서. 아시리아 왕 세나케립이 살아 계신 하느님을 모욕하며 보낸 모든 말을 들으소서.
- ¹⁸ 진실로 주님,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나라와 그 땅들을 파괴하였습니다.
- ¹⁹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참 신이 아니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의 작품이었으므로, 그들이 그들을 파괴하였습니다.
- ²⁰ 이제, 우리 주 우리 하느님,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여 땅의 모든 나라가 오직 당신만이 주님임을 알게 하소서."
- ²¹ 그러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이 말씀하신다. 네가 아시리아 왕 세나케립을 향해 내게 기도하였으므로,"
- ²² 주님이 그에 관해 말씀하신다. 시온의 처녀가 너를 멸시하고, 예루살렘의 딸이 너를 비웃는다. 그녀가 머리를 흔든다."
- ²³ 네가 누구를 모욕하고, 누구를 훼방하였느냐? 네가 누구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높이 올렸느냐? 이스라엘의 성자에게.
- ²⁴ 네 하인들을 통해 네가 주님을 모욕하고 말하기를, 내 수많은 병거로 내가 산의 꼭대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올랐다. 그 높은 백향목과 그 선한 전나무를 베어내리라. 그 가장 높은 곳, 그 열매 맺는 밭의 숲에 들어가리라."
- ²⁵ 나는 웅덩이를 파고 물을 마셨으며,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을 말릴 것이다.

- 26 너는 내가 오래전에 이 일을 행하고 옛적부터 이를 이루어왔음을 듣지 못했느냐? 이제 내가 이를 이뤄내어, 네가 요새 도시들을 파괴하고 폐허 더미로 만들게 하였다.
- 27 그러므로 그들의 주민들은 힘이 약했다. 그들은 놀라서 당황했으며, 들판의 풀과 푸른 풀, 지붕 위의 풀과 곡식이 자라기 전의 들판과 같았다.
- 28 그러나 나는 네가 앓는 것, 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 그리고 나를 향한 분노를 알고 있다.
- 29 네가 나를 향해 분노하고, 네 교만이 내 귀에 이르렀으므로, 내가 네 코에 갈고리를, 네 입술에 말구속을 넣고, 네가 온 길로 되돌려보낼 것이다.
- 30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올해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다음 해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며, 세 번째 해에는 씨를 뿌리고 수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 31 유다 집안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 32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나갈 것이며, 시온 산에서 피난한 자들이 도망칠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 33 그러므로 주님은 아시리아 왕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는 이 성에 오지 않을 것이며, 여기에 화살을 쏘지도 않을 것이고, 방패를 들고 이 성 앞에 나아오지도 않으며, 이 성을 향해 흙무더기를 쌓지도 않을 것이다.'
- 34 그는 온 길로 돌아갈 것이며, 이 성에 오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 35 '내가 나의 이름과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지켜 구원할 것이다.'
- 36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일만 팔천오백 명을 치셨다. 아침에 일어난 사람들이 보니, 모두 시체들이었다.
- 37 이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은 떠나가서 니네베로 돌아가 거기 머물렀다.
- 38 그가 그의 신 니스로크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샬레제르가 칼로 그를 쳤다. 그들은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다. 그의 아들 에스르하돈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사야서 38장

- 1 그때에 히즈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집안을 정리하여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 2 그러자 히즈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돌려 주님께 기도하였다.
- 3 그가 말했다. "주님, 제발 기억하소서.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으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해왔사옵니다." 그리고 히즈기야는 크게 통곡하였다.
- 4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 5 "가서 히즈기야에게 말하여라. 네 조상 다윗의 하느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도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네 생명에 십오 년을 더하겠다."
- 6 나는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며, 이 도시를 지킬 것이다.
- 7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 8 보라, 내가 아하즈의 해시계를 따라 해가 내려간 그 그림자를 열 단계 되돌리겠다.'" 그래서 해가 내려간 해시계 위를 열 단계 되돌아갔다.
- 9 유다 왕 히즈기야의 글. 그가 병들었고, 병에서 나온 후에:
- 10 나는 말했다. "내가 삶의 중간에 스올의 문으로 들어간다."
- 11 나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 12 내 거처가 옮겨졌고,
- 13 나는 아침까지 참아 기다렸다.
- 14 나는 제비나 까마귀처럼 흐느끼고 울었다. 주님, 저는 억압받고 있습니다.
- 15 내가 무엇이랴 말할 수 있겠습니까?
- 16 주님, 사람들은 이 일들로 살아갑니다.
- 17 보소서, 평화를 얻기 위해 나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 18 저승은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 19 살아 있는 자, 살아 있는 자가 주님을 찬양하리니, 나처럼 오늘도 찬양합니다.
- 20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 21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와 떡을 가져다가 종기 위에 붙이면, 그는 낫게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 22 히즈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집에 올라간다는 표징은 무엇입니까?"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39장

- 1 그때에 바빌론 왕 벨사단의 아들 멜로다크-벨아단이 히즈기야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냈다. 그는 히즈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아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 2 히즈기야는 기뻐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보물 창고를 보여 주었다. 은과 금과 향료와 귀한 기름과 무기고와 재산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 주었다. 히즈기야의 집 안이나 자기 영토 전역에서 그가 그들에게 보여 주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 3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즈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 4 그가 또 물었다. "그들은 당신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 5 이사야가 히즈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 6 "보아라, 날들이 이르리니, 네 집 안의 모든 것과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둔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말한다.
- 7 "네가 낳을 네 아들들, 곧 네 몸에서 낳 자식들이 끌려가서 바빌론 왕의 궁전에서 환관이 될 것이다."
- 8 히즈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당신이 말한 주님의 말씀은 좋습니다." 그는 더하여 말했다.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화와 진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 1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당신의 하느님이 말씀하신다.
- 2 “예루살렘에게 위로의 말을 하여라. 그녀의 노역이 끝났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되었으며, 그녀가 주님의 손으로 모든 죄에 대해 두 배를 받았다고 외쳐라.”
- 3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기를,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 4 모든 골짜기는 높아지고,
- 5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 6 한 사람이 말하기를, “외쳐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 7 풀은 마르고,
- 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 9 시온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아, 높은 산에 올라가라.
- 10 보라, 주 하느님이 힘 있게 오신다.
- 11 그는 목자처럼 양 떼를 먹이실 것이다.
- 12 누가 그의 손바닥에 물을 재었으며,
- 13 누가 주님의 영을 인도하였으며,
- 14 그가 누구와 상의하였으며,
- 15 보라, 모든 민족들은 양동이의 한 방울 같고,
- 16 레바논은 불을 피우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 17 모든 민족들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 18 그러면 너희가 하느님을 누구에 비길 것인가?
- 19 공예인이 우상을 주조하며,
- 20 이러한 제물에 부족한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한다.
- 21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한처음에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부터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였느냐?
- 22 그는 땅의 원형 위에 앉으시며,
- 23 존귀한 자들을 공허하게 하시며,
- 24 그들은 거의 심기어지지 않았다.
- 25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에 비길 것인가?
- 26 하늘 높이 눈을 들어 보아라,
- 27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느냐, ‘내 길이 주님께 숨겨져 있다.’
- 28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 29 그분은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 30 젊은이들도 지치고 피곤해지며,
- 31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힘을 새로 얻을 것이다.

이사야서 41장

- 1 섬들아, 내 앞에서 침묵하여라. 가까이 오너라. 함께 모여 판결을 받자.
- 2 누가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는가?
- 3 그는 그들을 쫓아가며,
- 4 누가 이를 이루고 행하였는가?
- 5 섬들은 보고 두려워하며,
- 6 모든 이가 이웃을 돕는다.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용감해져라!’ 하고,
- 7 장인은 금세공인을 격려하고, 납땀하는 자가 말하기를, ‘좋다!’ 하고,
- 8 “그러나 너, 이스라엘, 내 종아,
- 9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잡고,
- 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낙심하지 말라. 나는 네 하느님이다.
- 11 보라, 너를 격노하는 자들은 모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 12 너는 그들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 13 나 주님, 네 하느님은 네 오른손을 잡으며 네게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 14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의 벌레여,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 15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롭고 이빨이 달린 타작 도구로 만들었다.
- 16 너는 그들을 풀어 흠을 것이며,
- 17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찾으나 없으리라.
- 18 내가 황폐한 산봉우리 위에 강들을 열겠다.
- 19 내가 광야에 전나무, 아카시아나무, 유향나무, 기름나무를 심겠다.
- 20 그들이 보고 알며 생각하고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 21 “네 변론을 내놓아라,” 주님이 말씀하신다.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네 강력한 이유를 제시하여라!”
- 22 “그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선포하고 밝혀라!
- 23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밝혀라,
- 24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 25 나는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으니, 그가 왔다.
- 26 누가 처음부터 그것을 선포하여 우리가 알게 했는가?
- 27 나는 시온에게 먼저 말한다. ‘보아라, 그들을 보아라.’
- 28 내가 살펴보아도 사람은 없고, 그들 중에도 내 물음에 한 마디라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다.
- 29 보아라, 그들의 모든 행위는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사야서 42장

- 1 보라, 내가 지지하는 나의 종,
- 2 그는 외치지 않을 것이며,
- 3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을 것이며,
- 4 그는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 5 하느님 주님,
- 6 “나, 주님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 7 맹인의 눈을 열며,
- 8 “나는 주님이다.
- 9 보라, 이전의 일들이 일어났고,
- 10 주님께 새 노래를 부르라,
- 11 광야와 그 도시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세라의 거민들이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외치도록 하라!
- 12 그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 13 주님은 용사처럼 나아가실 것이며, 그분은 크게 외칠 것이다.
- 14 “나는 오래동안 침묵해 왔고, 조용히 억누르고 있었으나, 이제 나는 분만하는 여인처럼 외칠 것이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헐떡일 것이다.
- 15 나는 산과 언덕을 파괴하며,
- 16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맹인들을 인도할 것이며,
- 17 “조각한 우상들을 신뢰하고, 부어 만든 우상들에게 ‘너희가 우리 신들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뒤로 물러날 것이며, 크게 실망할 것이다.
- 18 “들어라, 귀가 먹은 자들아,
- 19 누가 맹인인가? 나의 종이 아니겠느냐?
- 20 너는 많은 일을 보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 21 주님은 그분의 의로움을 위하여 법을 크게 하시고자 하셨다.
- 22 그러나 이 백성은 약탈당하고, 노략당한 자들이다.
- 23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것에 귀를 기울일 자가 있느냐?
- 24 누가 야곱을 노략의 대상으로 주었는가? 누가 이스라엘을 약탈하게 했는가? 바로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해 대적한 주님께 서 아니시냐?
- 25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분노의 격렬함을 그에게 쏟아부었다.

이사야서 43장

- ¹ 그러나 이제 너를 창조하신 주님,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이다.
- ² 물속을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내가 너를 붙들어줄 것이다.
- ³ 나는 주님, 네 하느님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네 구속자이다.
- ⁴ 내가 내 눈에 귀중하고 존중받는 자이므로, 내가 사람들을 네 대신에 주고, 사람들을 네 생명과 바꾸겠다.
- ⁵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 ⁶ 나는 북쪽에 말할 것이다. '그들을 내놓아라!'
- ⁷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만든 모든 자를 데려와라.'
- ⁸ 눈이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을 끌어내어라.
- ⁹ 모든 민족들이 모여라.
- ¹⁰ "너희는 내 증인이다," 주님이 말한다. "내가 택한 내 종과 함께."
- ¹¹ 나는 주님이다.
- ¹² 내가 선포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보여주었다.
- ¹³ 오래전부터 내가 그이니, 나 자신이다.
- ¹⁴ 너희의 구속자이신 주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말한다. "너를 위해 내가 바빌론으로 보내고, 그들의 기쁨의 배를 타고 모든 갈대아인을 도망자로 끌어내리겠다."
- ¹⁵ 나는 주님, 너희의 거룩한 분,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다.
- ¹⁶ 바다에 길을 내시는 주님,
- ¹⁷ 전차와 말을 끌어내시는 분—그들이 함께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 ¹⁸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마라.
- ¹⁹ 보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 ²⁰ 들짐승과 수리수리와 타조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며,
- ²¹ 내가 나를 위해 지은 백성이,
- ²² 그러나 너, 야곱아, 나를 부르지 않았고,
- ²³ 너는 번제로 내게 양을 바치지 않았고,
- ²⁴ 너는 돈으로 나에게 달콤한 갈대를 사지 않았다.
- ²⁵ 나, 곧 나만이 내 이름을 위하여 너의 범죄를 지워버린다.
- ²⁶ 나를 기억하게 하라.
- ²⁷ 너의 첫 조상이 죄를 지었고,
- ²⁸ 그러므로 나는 성소의 제사장들을 더럽히겠다.

이사야서 44장

- 1 그러나 이제 들으라, 내 종 야곱아,
- 2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야곱아,
- 3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쏟을 것이며,
- 4 그들이 풀 사이에서 솟아나며,
- 5 한 사람은 말할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 6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 7 나처럼 한 자가 누구냐? 내가 옛날부터 백성을 세웠기 때문이다.
- 8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오래전에 너희에게 선포하지 않았느냐,
- 9 모든 조각한 우상을 만드는 자는 허무하다.
- 10 누가 신을 만들며,
- 11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은 실망할 것이며, 그들이 모두 모여 서라.
- 12 대장장이가 도끼를 잡고,
- 13 목수는 줄을 펴고,
- 14 그는 자기를 위해 전나무를 베어내며,
- 15 그것은 사람이 태우기 위한 것이며, 그는 그것을 태우고 빵을 굽는다. 그는 신을 만들어 숭배하며,
- 16 그는 그 일부를 불에 태운다.
- 17 나머지를 신으로 만들어,
- 18 그들은 알지 못하며, 생각하지도 않는다.
- 19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그 일부를 불에 태웠고, 그 재 위에 빵을 굽기도 했다.'
- 20 그는 재를 먹는다.
- 21 이 일을 기억하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 22 내가 네 죄악을 두꺼운 구름처럼 지워버렸다.
- 23 하늘아, 노래하라.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이다!
- 24 너의 구속자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님이다.'
- 25 거짓말하는 자들의 표적을 무효로 만드시는 분
- 26 그의 종의 말씀을 확정하시는 분
- 27 심연에게 '마르라'고 말하는 분
- 28 고레스에게 '그는 내 목자이며, 내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하는 분

이사야서 45장

- 1 주님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시루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 앞에서 열국을 복종시키고 왕들의 갑옷을 벗기며, 그 앞에 문들을 열고, 문들이 닫히지 않게 하였다.
- 2 내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고,
- 3 내가 어둠의 보물을 네게 주고,
- 4 내 종 야굽을 위하여, 네가 나를 알지 못했음에도.
- 5 나는 주님이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네가 나를 알지 못했음에도.
- 6 그들이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 7 내가 빛을 만들고,
- 8 하늘들아, 위에서 비를 쏟아라. 땅이 열려 구원을 낳게 하며,
- 9 자기 창조주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 10 아비에게 '네가 무엇을 낳았느냐?' 하고, 어미에게 '네가 무엇을 낳았느냐?'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 11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 곧 이스라엘의 창조자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아들들에 관한 미래의 일을 내게 묻고,
- 12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다.
- 13 내가 의로움으로 그를 일으켰으며,
- 14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집트의 수고와 쿠스의 상품과 스바의 긴 허리띠가 너에게로 올 것이며, 그들이 너를 따르며 사슬로 묶여 오리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라. 진실로 하느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 15 진실로 너는 숨으신 하느님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다.
- 16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 17 이스라엘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라.
- 18 하늘을 창조하신 주님, 곧 땅을 만드시고 그것을 견고히 하시며, 그것을 허무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거주하게 하려 만드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주님이다.'
- 19 내가 은밀히 말하지 않았고,
- 20 서로 모여 나아오라.
- 21 선언하고 제시하여라. 그들이 함께 상의하게 하라. 내가 주님이 아니었느냐?
- 22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여 구원을 얻으라.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 23 내가 나 자신으로 맹세하였다.
- 24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의로움과 힘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
- 25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주님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서 46장

- 1 벨은 굽힌다.
- 2 그들은 함께 구부리고 몸을 굽힌다.
- 3 “내 말을 들어라, 야곱의 집아,
- 4 너는 늙을 때까지 내가 그대로 있겠다. 내가 메고 구원할 것이다.
- 5 “누구를 내게 비교하며 나와 같다고 여기느냐,
- 6 어떤 이들은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그들은 숭배한다.
- 7 그들은 그것을 어깨에 메고 다닌다. 사람이 그것에게 부르짖을 수 있지만, 그것은 대답하지 못한다.
- 8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남자답게 행동하라.
- 9 옛날의 옛일을 기억하라;
- 10 나는 시작에서 끝을 선포하고,
- 11 나는 동쪽에서 사나운 새를 부르며, 내가 말했다.
- 12 들어라,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아,
- 13 내가 내 의로움을 가까이 가져온다.

이사야서 47장

- 1 내려와 먼지에 앉아라, 바빌론의 처녀아.
- 2 밀을 갈아서 밀가루를 만들어라.
- 3 네 벌거숭이가 드러날 것이다.
- 4 우리의 구속자는 주님 만군의 주님이시다.
- 5 침묵 속에 앉아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 6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였다.
- 7 너는 말했다. ‘나는 영원히 왕비가 될 것이다.’
- 8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들어라, 즐거움에 빠진 자들아. ‘나는 그 자체이며,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 9 그러나 이 두 가지 일이 하루에 한순간에 너에게 닥칠 것이다.
- 10 너는 네 악행을 신뢰하였다.
- 11 그러므로 재앙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
- 12 지금이라도 네 마법으로 일어서라.
- 13 너는 네 수많은 계획으로 지쳐 있다.
- 14 보아라, 그들은 갈대처럼 되었다.
- 15 네가 힘써 일해온 것들은 이와 같을 것이다.

이사야서 48장

- ¹ 이것을 들어라, 야곱의 집아,
- ² 그들은 성읍의 시민이라 칭하며,
- ³ 나는 옛적부터 이전의 일을 선포하였다. 예, 그것들이 내 입에서 나왔고, 내가 그것을 드러냈다.
- ⁴ 너희가 고집스러운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 ⁵ 그러므로 내가 옛적부터 너희에게 선포하였다.
- ⁶ 너희가 들었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새롭고 이전에 없던 일을 보여주겠다.'
- ⁷ 이것들은 지금 창조되었고, 옛적부터가 아니다.
- ⁸ 예, 너희는 듣지 못하였다.
- ⁹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분노를 연기한다.
- ¹⁰ 보라, 내가 너희를 연단하였다.
- ¹¹ 내 이름을 위하여,
- ¹² '들어라, 오 야곱아,
- ¹³ 내 손이 땅의 기초를 놓았으며,
- ¹⁴ '모두 모여서 들어라!
- ¹⁵ 나, 곧 내가 말하였다. 예, 내가 그를 부르었다.
- ¹⁶ 내게 가까이 와서 이것을 들어라. 나는 처음부터 은밀히 말하지 않았다.
- ¹⁷ 주님, '나는 너희 하느님 주님이다.'
- ¹⁸ 너희가 내 계명을 들었더라면!
- ¹⁹ 너희 자손도 모래처럼 되었을 것이며,
- ²⁰ 바빌론을 떠나라!
- ²¹ 그가 그들을 사막을 지나 인도할 때, 그들은 목마르지 않았다.
- ²² '평화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악인에게는.'

이사야서 49장

- 1 섬들아, 나를 들으라.
- 2 그가 내 입을 날카로운 칼로 만들었으며,
- 3 그가 내게 이르셨다. "너는 내 종이니, 내가 너로 내 영광을 나타내게 하리라."
- 4 나는 말했다. "나는 헛되이 수고하였고, 헛되이 힘을 써서 소비하였도다."
- 5 이제 주님, 곧 나를 태에서부터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가 이르신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을 그에게로 모으라."
- 6 그가 이르신다. "너는 내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너 무 작으니, 내가 너를 열국의 빛으로 삼아, 내 구원을 땅 끝까지 미치게 하리라."
- 7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그의 거룩하신 이이신 주님께서 이르신다. "왕들은 보고 일어나며, 귀족들은 절하며,"
- 8 주님께서 이르신다. "내가 은총의 때에 너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으니,"
- 9 사로잡힌 자들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그들은 길가에서 먹으며,
- 10 그들은 주리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햇빛이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리니,
- 11 내가 내 모든 산을 길로 만들며, 내 길들을 높이리니,
- 12 보라, 이 자들은 멀리서 오며, 북쪽과 서쪽에서, 그리고 신토에서.
- 13 하늘아, 노래하라. 땅아, 기뻐하라.
- 14 그러나 시온은 말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 15 여자가 자기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 16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 17 네 자녀들이 서둘러 온다.
- 18 주위를 둘러보며 보아라.
- 19 너의 황폐하고 외로운 곳들로 말하면,
- 20 너의 아들을 잃은 슬픔의 자녀들이 네 귀에 말하리라. "이곳은 나에게 너무 좁습니다."
- 21 그때 네가 마음속으로 말하리라. "내가 아들을 잃고서, 이 아이들을 누구에게서 낳았단 말인가?"
- 22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민족들에게 내 손을 들고,
- 23 왕들은 네 양육부가 되고,
- 24 강한 자들의 전리품이 빼앗길 수 있겠느냐? 의로운 포로들이 구출될 수 있겠느냐?
- 25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다. "강한 자들의 사로잡힌 자들도 빼앗기고,
- 26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살을 먹이리라.

이사야서 50장

- 1 주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서류가 어디 있느냐?
- 2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느냐?
- 3 내가 하늘을 어둠으로 덮는다.
- 4 주 하느님께서 나에게 교훈을 받는 자들의 언어를 주셨다.
- 5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다.
- 6 나는 나를 치는 자들에게 등을 내어주었다.
- 7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 8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 우리가 함께 서자. 그가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자.
- 9 보라,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 10 너희 중에 누구나 주님을 두려워하는가?
- 11 보라, 너희 모두가 불을 피우는 자들아,

이사야서 51장

- 1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 2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바라보아라.
- 3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셨다.
- 4 내 백성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 5 내 의로움이 가까이 있다.
- 6 하늘을 올려다보아라.
- 7 의로움을 아는 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인간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 8 나방이 그들을 옷처럼 씹어먹을 것이며,
- 9 깨어나라, 깨어나라, 주님의 팔아, 힘을 입으라! 네가 아니 바로 라하브를 찢어버린 자냐?
- 10 네가 아니 바로 바다를 말려버린 자냐?
- 11 주님에게 속량된 자들이 돌아오리라.
- 12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이다.
- 13 너는 너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잊었느냐? 학대자의 분노는 어디 있느냐?
- 14 포로로 잡혀간 자가 빠르게 풀려나리라.
- 15 나는 너희 하느님 주님으로, 바다를 움직여 그 파도가 으르렁하게 하는 자이다.
- 16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 17 깨어나라, 깨어나라!
- 18 그가 낳은 모든 아들들 중에 그를 인도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 19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일어났다—
- 20 네 아들들이 기절하였다.
- 21 그러므로 이제 이 말을 들어라, 고난 받는 자들아.
- 22 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의 손에서 흔들리는 잔을 빼앗았다."
- 23 내가 그것을 너를 괴롭히는 자들의 손에 주리라.

이사야서 52장

- ¹ 깨어나라, 깨어나라! 시온아, 네 힘을 입어라.
- ² 먼지에서 일어나 털어라!
- ³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아무 대가 없이 팔렸고,
- ⁴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이 처음에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서 살았고,
- ⁵ "이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백성이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가고, 내 이름이 하루 종일 모욕받고 있다."
- ⁶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 ⁷ 산 위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 ⁸ 너의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 ⁹ 기쁨으로 노래하여라!
- ¹⁰ 주님은 모든 민족의 눈앞에서 자신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다.
- ¹¹ 떠나라, 떠나라! 거기서 나가라!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아라!
- ¹² 너희는 서두르지 않고 나갈 것이며,
- ¹³ 보아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동할 것이다.
- ¹⁴ 많은 이들이 나를 보고 놀라며 놀랐던 것처럼,
- ¹⁵ 그리고 그가 많은 민족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 ¹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는가?
- ² 그는 주님 앞에서 어린 식물처럼 자라났고, 건조한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되었으며,
- ³ 그는 멸시를 받고,
- ⁴ 우리의 병을 진짜로 짊어지셨으나, 우리는 그를 별받는 자라고 여겼다.
- ⁵ 그러나 그는 우리의 최악 때문에 찢리셨다.
- ⁶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자 제 길로 갔다.
- ⁷ 그는 억압을 받았고,
- ⁸ 그는 억압과 재판으로 끌려갔다.
- ⁹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무덤에 묻혔고,
- ¹⁰ 그러나 주님은 그를 상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 ¹¹ 그의 영혼이 고난을 겪은 후,
- ¹²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큰 자들 가운데서 나누어 받을 몫을 주리라.

이사야서 54장

- ¹ 아이를 낳지 못한 자여, 노래하여라.
- ² 너의 장막을 넓히고 아끼지 말며,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 ³ 너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니,
- 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수치를 느끼지 말라, 네가 실망하지 않을 것이니,
- ⁵ 네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요, 만군의 주님이 그의 이름이니,
- ⁶ 주님은 마음이 상하고 버림받은 아내처럼 너를 부르셨으니,
- ⁷ 작은 순간 동안 나는 너를 버렸으나,
- ⁸ 번민의 분노로 나는 잠시 너에게서 내 얼굴을 가렸으나,
- ⁹ 이것은 나에게 노아의 물들과 같으니,
- ¹⁰ 산들이 옮겨지며, 흔들릴지라도, 너를 자비로우신 주님의 말씀은 결코 옮겨지지 아니하리라.
- ¹¹ 고통받고, 폭풍에 흔들리며, 위로받지 못한 자여,
- ¹² 내가 너의 난간을 사파이어로 만들고,
- ¹³ 네 모든 자녀들은 주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며,
- ¹⁴ 너는 의로움 안에 굳게 서릴 것이니,
- ¹⁵ 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그것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며,
- ¹⁶ 보라, 나는 불을 일으키는 대장장이를 창조하였으며,
- ¹⁷ 너를 대적하여 만들어지는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이사야서 55장

- ¹ 보아라, 목마른 모든 이들아, 물로 나아오너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 ² 너는 왜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며, 배부르게 해주지 않는 것을 위해 수고하는가?
- ³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오너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 ⁴ 보아라, 내가 그를 민족들의 증인으로 주었으며,
- ⁵ 보아라, 네가 알지 못하던 민족을 부르리니,
- ⁶ 그가 발견될 수 있을 때 주님을 구하라.
- ⁷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 ⁸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아니하며,
- ⁹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 ¹⁰ 비가 하늘에서 내려 땅에 이르고,
- ¹¹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니,
- ¹² 너는 기쁨으로 나가고,
- ¹³ 가시나무 대신 전나무가 자라나고,

이사야서 56장

- 1 주님은 말씀하신다: "의로움을 지켜라"
- 2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 3 주님에게 붙은 외국인이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에서 떼어놓으실 것이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 4 주님은 말씀하신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기뻐하는 일을 택하는 고자들에게"
- 5 내 집 안과 내 담장 안에 그들에게 기억과 이름을 주리니, 아들과 딸들보다 더 나은 이름을 주리라.
- 6 주님에게 붙는 외국인들도,
- 7 내 거룩한 산으로 그들을 데려오리라,
- 8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는 주 하느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아직도 다른 자들을 그에게 모으리라."
- 9 들짐승들아, 다 와서 잡아먹어라,
- 10 그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꿈꾸며 누워서 잠자기를 좋아한다.
- 11 참으로 개들은 탐욕스럽다.
- 12 "오라," 그들이 말한다. "내가 포도주를 얻고,"

이사야서 57장

- 1 의로운 자가 죽으며,
- 2 평화 속에 들어가며, 각자가 자신의 정직함을 따라 걷는다.
- 3 "그러나 여기로 가까이 오너라, 마법사의 자식들아,
- 4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느냐? 너희는 불순종의 자식들이 아니냐?
- 5 참나무들 사이에서 너희가 열광하는 자들아,
- 6 계곡의 매끄러운 돌들 사이에 너희의 뭇이 있다.
- 7 높고 높은 산 위에 너희가 침대를 마련하였다.
- 8 문과 기둥 뒤에 너희가 기념물을 세웠다.
- 9 너희는 기름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다.
- 10 너희의 길이 길어져서 피로해졌다.
- 11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느냐? 내가 오래동안 침묵하지 않았느냐?
- 12 내가 너희의 불의를 밝히겠다.
- 13 너희가 부를 때, 너희가 모은 자들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 14 그가 말할 것이다. "높이 쌓아라, 높이 쌓아라, 길을 준비하라!
- 15 영원히 거주하시는 높고 높은 이가 말한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주하며, 겸손하고 마음이 상한 자와도 함께한다.
- 16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으며, 영원히 분노하지 않을 것이다.
- 17 내가 그의 탐욕의 죄악으로 분노하여 그를 치렀다.
- 18 내가 그의 길을 보았고, 그를 치유할 것이다.
- 19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주님이 말한다. "내가 그들을 치유하겠다.
- 20 그러나 악인은 잔잔하지 못한 바다와 같으며,
- 21 "평화가 없다." 내 하느님이 말한다.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이사야서 58장

- ¹ 소리 높여 외쳐라! 아끼지 마라!
- ² 그러나 그들은 매일 나를 찾으며,
- ³ ‘어찌하여 우리는 금식했더니 주님은 보지 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는 자기를 괴롭혔더니 주님은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들이 말합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는 너희가 기쁨을 찾고,
- ⁴ 보라, 너희는 다툼과 갈등을 위해 금식한다.
- ⁵ 이것이 내가 택한 금식이냐?
- ⁶ 내가 택한 금식이 이것이 아니냐?
- ⁷ 주린 자에게 네 빵을 나누어 주고,
- ⁸ 그러면 네 빛이 아침처럼 솟아나고,
- ⁹ 그러면 네가 부르면 주님이 대답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멍에를 제거하고, 손가락을 쓰며 비난하는 것과,
- ¹⁰ 주린 자에게 네 영혼을 쏟아 주면, 네 빛이 어둠 속에서 떠오르고,
- ¹¹ 주님이 항상 너를 인도하시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자가 되리라.
- ¹² 너희 중에서 나을 자들이 옛 폐허를 다시 세우리라.
- ¹³ ‘너는 안식일에 발을 돌려서 네 길을 밟지 않고,
- ¹⁴ 그러면 너는 주님을 기뻐하리라.

이사야서 59장

- ¹ 보라, 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할 것이 아니며, 귀가 무거워 듣지 못할 것이 아니다.
- ² 그러나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느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였다.
- ³ 너희 손들은 피로 더럽혀졌고, 너희 손가락들은 죄악으로 더럽혀졌다.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불의를 말한다.
- ⁴ 누구도 의로운 소송을 하지 않으며, 누구도 진실하게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허탄한 것을 신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다.
- ⁵ 그들은 뱀의 알을 낳고, 거미의 움직임을 품는다. 그 알을 먹는 자는 죽고, 그 부화된 자는 뱀이 된다.
- ⁶ 그들의 거미줄은 옷이 되지 못하며, 그들이 만든 것으로는 자기 몸을 덮지 못한다. 그들의 행위는 죄악의 행위이며, 손으로 한 일은 폭력이다.
- ⁷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고, 그들이 뛰어가는 길은 피를 흘리는 길이다.
- ⁸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걷는 길에 공의가 없다. 그들이 자기 길을 굳게 만들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모든 길은 허탄한 길이다.
- ⁹ 그러므로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났고, 의로움이 우리에게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기대하였으나 빛이 없고, 기다렸으나 어두움이 비추었다.
- ¹⁰ 우리는 눈먼 자처럼 벽을 더듬고, 눈이 없는 자처럼 더듬는다. 우리는 낮에도 어두운 곳을 헤매며, 우리 중 강한 자들도 죽은 자처럼 된다.
- ¹¹ 우리는 모두 곰처럼 으르렁대며,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기대하였으나 빛이 없고, 기다렸으나 어두움이 비추었다.
- ¹² 우리의 범죄가 주님 앞에 많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증거된다. 우리 범죄가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알고 있다.
- ¹³ 우리는 범죄하고 거짓을 말하며,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서서 우리 하느님을 떠났다.
- ¹⁴ 공의는 뒤로 물러나고, 진리는 거리에 서 있지 못하며,
- ¹⁵ 진실이 사라졌고, 선을 떠나는 자가 많아졌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 ¹⁶ 그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는 것을 보셨다. 그분의 오른손이 그분을 구원하고, 그분의 의로움이 그분을 붙들었다.
- ¹⁷ 그분은 의로움을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을 투구로 쓰셨다. 그분은 복수를 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외투로 입으셨다.
- ¹⁸ 그분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며, 원수들에게는 분노를, 적들에게는 보응을 내리신다.
- ¹⁹ 그러므로 서쪽에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며, 해가 지는 곳에서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원수들이 물결처럼 오고, 주님의 영이 그분을 몰아낼 것이다.
- ²⁰ “구속자가 시온에 이르리니, 야곱의 죄를 돌이키는 자가 이르리라.”
- ²¹ “나는 이 언약을 그들에게 맺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 위에 두는 내 영광, 내가 네 입에 둔 내 말이, 네 입에 서나 네 자손의 입에서나, 네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나, 이제부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60장

- 1 일어나 빛나라. 네 빛이 왔기 때문이다.
- 2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어두움이 민족들을 가릴 것이며,
- 3 나라들이 네 빛으로 나아올 것이며,
- 4 주위를 둘러보며 눈을 들어 보아라.
- 5 그때 네가 보고 기쁨에 찰 것이며,
- 6 낙타 무리가 너를 덮을 것이며,
- 7 케다르의 모든 양 떼가 너에게 모일 것이며,
- 8 “구름처럼 날아오는 이들은 누구인가?
- 9 섬들 역시 나를 기다릴 것이며,
- 10 외국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며,
- 11 네 문들은 항상 열려 있어 낮이나 밤이나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민족들의 재산과 그들의 왕들을 끌고 네게 가져오기 위함이다.
- 12 네가 섬기지 않는 나라와 왕국은 망할 것이며, 그런 민족들은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다.
- 13 레바논의 영광이 네게로 올 것이며, 전나무와 소나무와 상수리나무가 함께 모여 내 성소의 자리를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내 발의 자리에 영광을 주겠다.
- 14 네를 괴롭혔던 자들의 아들들이 네게 무릎을 꿇고 올 것이며,
- 15 “네가 버림받고 미워받았으나,
- 16 네가 민족들의 우유를 마실 것이며,
- 17 내가 구리 대신 금을, 철 대신 은을 가져올 것이며,
- 18 네 땅에 더 이상 폭력이 들리지 않을 것이며,
- 19 해가 다시는 네 낮의 빛이 되지 않을 것이며,
- 20 네 해는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며,
- 21 그때 네 백성 모두가 의로워질 것이며,
- 22 작은 자가 천 명이 될 것이며,

이사야서 61장

- 1 주님 하느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 2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 3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며,
- 4 그들은 옛 폐허들을 다시 건축할 것이다.
- 5 외국인들이 일어나 너희의 양 떼를 칠 것이다.
- 6 그러나 너희는 주님의 사제라 불릴 것이다.
- 7 너희의 수치 대신 두 배를 받을 것이다.
- 8 “나 주님은 정의를 사랑한다.
- 9 그들의 자손은 민족들 사이에서 알려질 것이다.
- 10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할 것이다!
- 11 땅이 싹을 내듯이,

이사야서 62장

- 1 시온을 위해 나는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 2 열국이 당신의 의로움을 보고,
- 3 당신은 주님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 4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자라 불리지 않을 것이며,
- 5 젊은이가 처녀를 맞이하듯,
- 6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내가 파수꾼들을 세웠습니다.
- 7 그가 세우기 전까지는 그에게 쉬게 하지 않겠습니다,
- 8 주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맹세하시기를, "내가 결코 더 이상 당신의 곡식을 당신의 원수들의 음식으로 주지 않겠습니다,
- 9 그 곡식을 거둔 자들이 그것을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 10 나가라, 나가라, 성문을 통과하라! 돌들을 치워라!
- 11 보라, 주님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셨다. "시온의 딸아, 보라, 당신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여라,
- 12 그들은 그들을 "성결한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사야서 63장

- 1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인가? 그의 옷은 붉고, 그는 의로움으로 말하는 이다.
- 2 어찌하여 네 옷은 붉고, 네 옷은 포도주 짜는 곳처럼 붉은가?
- 3 나는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다. 나 혼자서 그들을 밟았으니, 내 분노로 인해.
- 4 복수의 날이 내 마음에 있었고, 나의 구원의 해가 내게 이르렀다.
- 5 나는 주변을 보았으나, 도와줄 자가 없었고, 내 팔이 나를 구원하였다.
- 6 내 분노로 민족들을 밟아 엎드려뜨렸고, 내 진노로 그들의 피를 내게 마셨다.
- 7 나는 주님의 자비를 말하리라.
- 8 그가 이르기를, '그들은 분명히 내 백성이다.' 하고,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자들이라 하였다.
- 9 그들이 모든 고통을 겪을 때에, 그도 고통을 겪으셨다. 그의 사자가 그들을 구원하였고,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속 하셨다.
- 10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의 성령을 슬프게 하였으므로, 그가 그들의 원수가 되어 싸우셨다.
- 11 그때에 그는 옛날의 날들을 기억하셨다. '그가 양 떼의 목자들과 함께 바다에서 그들을 끌어올린 이는 어디 있는가? 그가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었던 이는 어디 있는가?'
- 12 그가 모세의 오른손에 그의 영광스러운 팔을 두게 하신 이는 누구인가?
- 13 그가 그들을 깊은 곳을 지나게 하신 이는 누구인가?
- 14 마치 가축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처럼, 주님의 영이 그들을 안식하게 하셨다.
- 15 하늘에서 내려다보소서.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위대한 행적은 어디 있습니까?
- 16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식하지 못하나,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시며, 주님은 우리 이름이시니이다.
- 17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당신의 길에서 떠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당신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 18 당신의 거룩한 백성은 그 땅을 잠시만 차지하였습니다.
- 19 우리는 당신이 결코 다스리지 않으셨던 자들처럼 되었고,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한 자들처럼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 ¹ 하느님, 하늘이 찢기고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 ² 불이 갈대숲을 태우듯이, 당신이 산들을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 ³ 당신이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실 때,
- ⁴ 옛적부터 사람은 듣지도 못했고, 귀로도 느끼지 못했으며, 눈으로도 당신 외에 다른 하느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 ⁵ 당신은 의로움을 행하며 기뻐하는 자를 맞이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진노하셨고,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 ⁶ 우리 모두는 부정한 자처럼 되었고, 우리 모든 의로움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 ⁷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 ⁸ 그러나 이제, 주님, 당신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 ⁹ 주님, 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소서. 보소서, 우리가 간청합니다.
- ¹⁰ 당신의 성한 도시들이 황폐가 되었고, 시온이 황폐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 ¹¹ 우리 조상들이 당신을 찬양하던 우리 성하고 아름다운 집이
- ¹² 주님, 이 일들로 인해 당신은 참으실 것입니까? 당신은 침묵하며 우리를 심히 벌하실 것입니까?

이사야서 65장

- ¹ 나는 묻지 않은 자들에게 찾아가고,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난다.
- ² 나는 하루 종일 나를 거스르는 백성에게 손을 펼쳤다.
- ³ 그들은 내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는 백성이다.
- ⁴ 그들은 무덤 사이에 앉아서,
- ⁵ ‘내 곁에서 떠나라.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너를 더럽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 ⁶ 보라, 그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다.
- ⁷ 너의 죄악과 네 조상들의 죄악을 모두 기록하였다. 주님이 말한다. 그들은 산들 위에서 향을 태우고,
- ⁸ 주님이 말한다. ‘새로 산 포도주가 덩굴에 남아 있듯이,
- ⁹ 나는 야곱에게서 후손을 내고,
- ¹⁰ 사론은 양 떼의 목장이 되고,
- ¹¹ “그러나 주님을 버리는 너희에게,
- ¹² 나는 너희를 칼에 넘겨주겠다.
- ¹³ 그러므로 주 하느님은 말한다. ‘보라, 내 종들은 먹을 것이고,
- ¹⁴ 보라, 내 종들은 기쁨으로 마음껏 노래할 것이며,
- ¹⁵ 너희는 내 택한 자들에게 저주로 쓰일 이름을 남길 것이다.
- ¹⁶ 그러므로 땅에서 축복을 구하는 자는 진실하신 하느님을 향해 축복할 것이며,
- ¹⁷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 ¹⁸ 내가 창조하는 것을 향해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라.
- ¹⁹ 나는 예루살렘에서 기뻐하고,
- ²⁰ “더 이상 몇 날만 사는 유아가 없고,
- ²¹ 그들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 ²² 그들은 집을 짓지만 다른 이가 거주하지 않을 것이며,
- ²³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을 것이며,
- ²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 ²⁵ 늙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을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사야서 66장

- ¹ 주님은 말씀하신다: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다."
- ²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니, 내가 이 사람을 돌아볼 것이다. 곧 겸손하고 정신이 낮으며, 내 말을 떨며 사는 자를.
- ³ 소를 잡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자와 같고, 양을 잡는 자는 개를 죽이는 자와 같으며,
- ⁴ 나도 그들의 허망한 생각을 택할 것이며,
- ⁵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쫓아내는 너희 형제들이 말하니,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게 하라."
- ⁶ 도시에서 소란의 소리가 나고,
- ⁷ 그녀가 고통을 겪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다.
- ⁸ 이런 일을 누가 들었는가?
- ⁹ 내가 임신하게 하지 않고 출산하게 하겠는가?
- ¹⁰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그녀로 인해 기뻐하여라.
- ¹¹ 너는 위로하는 것에 젖을 빨아 배부르게 되고,
- ¹²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그녀에게 평화를 강처럼 흘려보낼 것이다."
- ¹³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 ¹⁴ 너는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너희 뼈는 푸르게 자랄 것이다.
- ¹⁵ 보라, 주님은 불과 함께 오실 것이다.
- ¹⁶ 주님은 불과 칼로 모든 육체를 심판하실 것이다.
- ¹⁷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여 정원으로 나아가며, 한 사람을 따라가며, 돼지 고기와 기피할 만한 것들과 쥐를 먹는 자들은 모두 끝나리라." 주님의 말이다.
- ¹⁸ "내가 그들의 행위와 생각을 알고 있다. 내가 모든 민족과 언어를 모아 그들이 와서 내 영광을 볼 때가 올 것이다."
- ¹⁹ 내가 그들 가운데 표징을 세우고, 그들 중 살아남은 자들을 타르시스와 불과 루드, 활을 쏘는 자들에게, 두발과 야완, 멀리 떨어진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은 내 이름을 듣지 못했고, 내 영광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 내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 ²⁰ 그들이 말과 수레와 문상차와 노새와 낙타를 타고, 모든 민족에서 너희 형제들을 모두 데려와 내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제물로 바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의 집에 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다.
- ²¹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뽑겠다." 주님의 말이다.
- ²²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도 항상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 ²³ 새 달이 새 달을 따라, 안식일이 안식일을 따라,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아와 경배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 ²⁴ "그들은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않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않으며,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혐오스러울 것이다."

예레미야서 | Jeremiah

예레미야서 1장

- ¹ 아나돗에 있는 베냐민 땅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 ² 주님의 말씀이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재위 열세 번째 해에 그에게 임하였다.
- ³ 또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재위 시대를 거쳐,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재위 열한 번째 해 끝까지, 곧 예루살렘이 포로로 잡혀간 다섯째 달까지 임하였다.
- 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 ⁵ 나는 네를 태 속에 빚기 전에 네를 알았고, 네가 복장을 입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 ⁶ 그러나 나는 말했다. "아, 주님 하느님! 보십시오, 저는 말하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 ⁷ 그러나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네게 보내는 누구에게든지 네가 가야 하고,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을 모두 말해야 한다."
- ⁸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 ⁹ 그러자 주님은 손을 뻗어 내 입을 만지셨다. 그리고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넣었다."
- ¹⁰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열국과 열왕국 위에 세워, 뽑아내고 허물며 파괴하고 무너뜨리며 세우고 심게 하였다.
- ¹¹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 ¹² 그러자 주님께서 내게 이르셨다. "네가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이루기 위해 지켜보고 있다."
- ¹³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 ¹⁴ 그러자 주님께서 내게 이르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땅의 모든 주민 위로 터져 나올 것이다."
- ¹⁵ 보라, 내가 북방의 모든 왕국들의 가족들을 부를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와서 각자 자신의 왕좌를 예루살렘의 문들 입구에 놓을 것이다."
- ¹⁶ 내가 그들의 모든 악행에 대해 내 심판을 선포할 것이다,
- ¹⁷ 그러므로 너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야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 ¹⁸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에 대적하여, 유다의 왕들과 그의 방백들과 그의 사제들과 그 땅의 백성들에게 대적하여, 견고한 성과 철의 기둥과 놋의 담으로 만들었다.
- ¹⁹ 그들이 너와 싸우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레미아서 2장

- 1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 2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선포하여 말하여라. ‘주님이 말한다. 내가 너의 청춘 시절의 인자함과, 결혼하지 않은 시절의 사랑을 기억한다.’
- 3 이스라엘은 주님께 성결하였다.
- 4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족속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 5 주님이 말한다. “내 아버지들이 내게서 어떤 불의를 발견하였느냐?
- 6 그들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올려주신 주님은 어디 계신가?’ 하고 말하지 않았다.
- 7 내가 너희를 풍성한 땅에 이끌어 들어왔으나, 너희가 들어가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유산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다.
- 8 제사장들은 ‘주님은 어디 계신가?’ 하고 말하지 않았다.
- 9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다시 다투리라,” 주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 자녀들의 자녀들과도 다투는 것이다.
- 10 키팀의 섬들로 건너가서 보아라.
- 11 한 민족이 자기 신들을 바꾸었느냐?
- 12 “이 일에 대해 하늘들아, 놀라라.
- 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 14 이스라엘이 노예인가?
- 15 젊은 사자들이 그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 16 메멘과 타하페네스의 자녀들이 너희 머리의 관을 부수었다.
- 17 “네가 이 일을 스스로 가져왔지 아니하느냐?
- 18 이제 네가 시호르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서 무엇을 얻으려느냐?
- 19 “네 자신의 악이 너를 책망하고, 네가 배반한 일이 너를 고발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알라. 주님,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네가 나를 버리고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이 악이다.
- 20 “내가 오래 전에 네 멍에를 부수고, 네 결박을 풀어주었으나, 네가 말하기를, ‘나는 복종하지 않겠다.’ 하고, 모든 높은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뒤엎어졌으니,
- 21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으나, 어찌하여 너는 내게서 외국 포도나무의 타락한 가지가 되었느냐?
- 22 비록 네가 알칼리로 몸을 씻고, 많은 비누로 손을 씻는다 하더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남아 있다.
- 23 “네가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나는 바알들에게 물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네 길을 보라. 너의 산에서 네가 한 일을 보아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빠른 암나귀처럼 달려다녔고,
- 24 광야에서 살며 바람을 맡는 야생 당나귀처럼, 그 욕망을 향해 향기를 맡는다.
- 25 발을 벗지 마라.
- 26 도둑이 잡힐 때 부끄러워하듯,
- 27 나무에게 ‘너는 내 아버지다’ 하고, 돌에게 ‘너는 나를 낳았다’ 하는 자들이다.
- 28 너희가 스스로 만든 신들은 어디에 있는가?
- 29 어찌하여 너희는 나와 다투는가?
- 30 내가 너희 자식들을 헛되이 치었다.
- 31 세대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여라.
- 32 처녀가 그 장신구를 잊을 수 있겠느냐?
- 33 너는 사랑을 구하려고 어떻게나 잘 길을 준비하는가!
- 34 너의 옷자락에는 무죄한 가난한 자들의 피가 묻어 있다.
- 35 그러나 너는 말했다. ‘나는 죄가 없다.’ 보라,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 36 어찌하여 너는 이렇거나 자주 길을 바꾸려는가?
- 37 너도 손을 머리에 얹고 그곳을 떠날 것이다.

예레미아서 3장

- 1 “그들이 말한다.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그 여자가 그에게서 떠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는 다시 그녀를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런 땅이 크게 더럽혀지지 않겠는가? 그러나 너는 많은 연인과 음행을 했으나, 다시 내게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2 “눈을 들어 허허벌판을 바라보아라! 네가 어디에서 잠들지 않았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으니, 사막의 아라비아인처럼 되었고도다. 네 음행과 악행으로 땅을 더럽혔도다.
- 3 그러므로 비가 내리지 않았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았도다. 그러나 너는 음녀의 이마를 가지고 있어, 부끄러워하지 않았도다.
- 4 이제부터 너는 내게 부르지 않겠느냐? ‘내 아버지여, 당신은 제 젊음의 인도자이십니다!’?”
- 5 “그가 영원히 노여워하시겠는가? 그가 끝까지 그 노여움을 간직하시겠는가?” 보아라, 너는 말했고, 악한 일을 행하며, 네 뜻을 이루었도다.”
- 6 또 주님께서 요시아 왕 시대에 내게 말씀하셨다. “되돌아간 이스라엘이 무엇을 행했는지 네가 보지 못했느냐? 그녀는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올라가 거기서 음행을 했도다.
- 7 그녀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나는 말했다. ‘그녀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나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의 배신하는 자매 유다가 그것을 보았도다.
- 8 내가 보니, 이 이유로 되돌아간 이스라엘이 간음하였으므로, 나는 그녀를 버리고 이혼서를 주었으나, 그녀의 배신하는 자매 유다는 두려워하지 않고, 역시 나가서 음행을 했도다.
- 9 그녀가 음행을 가볍게 여겼으므로, 땅이 더럽혀졌고, 그녀는 돌과 나무와 함께 간음하였도다.
-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배신하는 자매 유다는 온 마음으로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겉으로만 돌아왔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11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되돌아간 이스라엘이 배신하는 유다보다 더 의로움을 보였도다.
- 12 가서 북쪽으로 이 말을 선포하여라. ‘되돌아오너라, 되돌아간 이스라엘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노려보지 않으리니, 나는 자비로우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노여움을 영원히 간직하지 않으리라.’
- 13 오직 네 죄악을 인정하여라. 네가 주 너의 하느님을 거스르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낯선 자들에게 길을 흩어 놓았으며,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14 “되돌아오너라, 되돌아간 자식들이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리라. 내가 너희 중 한 명을 도시에 서, 두 명을 가족에서 데려와 시온으로 데려가리라.
- 15 내가 너희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이해로 너희를 먹이리라.
- 16 그때에 너희가 땅에서 번성하고 증가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의 언약의 궤’라고 말하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그리워하지도 않으리라. 또 다른 궤도 만들지 않으리라.
- 17 그때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의 보좌’라 부르리라. 모든 나라가 주님의 이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리라. 그들은 더 이상 악한 마음의 고집스러움을 따르지 않으리라.
- 18 그때에 유다의 집은 이스라엘의 집과 함께 걸어, 북쪽 땅에서 내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함께 모이리라.
- 19 “그러나 나는 말했다. ‘어찌하여 나는 너희를 자녀들 가운데 두고, 만국의 군대가 누릴 만한 아름다운 땅, 좋은 유산을 주지 않겠느냐?’ 나는 말했다. ‘너는 나를 “내 아버지”라 부르고, 내 뒤를 떠나지 않으리라.’
- 20 “이스라엘 집아,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듯, 너희도 나를 배신하였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21 허허벌판에서 소리가 들린다. 이스라엘 자녀들의 울부짖음과 간구이다. 그들이 길을 꺾었고, 주 그들의 하느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 22 되돌아오너라, 되돌아간 자식들이여. 내가 너희의 배신을 고쳐주리라. “보아라, 우리가 당신께로 나아왔사오니, 당신은 주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 23 진실로 산들에서의 도움과 산들에서의 소란은 헛되도다. 진실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주 우리 하느님께 있도다.

- ²⁴ 그러나 부끄러운 것이 우리 어린 시절부터 우리 조상들의 수고를 삼켰도다. 그들의 양과 소와,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 ²⁵ 우리가 부끄러움 속에 누워서, 우리의 수치가 우리를 덮게 하소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주님 우리 하느님께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주님 우리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 1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고, 내 눈앞에서 네가 싫어하는 것들을 모두 치운다면, 네가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 2 네가 '주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진실과 정의와 의로움으로 맹세할 때,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그를 통해 자랑할 것이다.
- 3 주님께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의 갈아놓지 않은 땅을 갈아라. 가시덤불 사이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 4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주님을 위하여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살을 벗어버려라. 그래야 내 진노가 불처럼 타올라, 너희 악한 행위 때문에 꺼지지 않을 것이다.
- 5 유다에서 선포하고, 예루살렘에서 공포하여라. "땅 위에 나팔을 불어라!" 크게 외쳐라. "모여라! 견고한 성으로 가자!"
- 6 시온을 향해 기준을 세워라. 안전을 위해 도망쳐라. 기다리지 말아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을, 큰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 7 사자가 그의 수풀에서 올라왔고, 민족들을 파괴하는 자가 되었다. 그는 길을 떠났다. 그는 자기 곳에서 나와, 너희 땅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들을 폐허로 만들며, 아무도 거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 8 이 때문에 굶은 벼을 입고, 슬퍼하며 통곡하라. 주님의 격노가 우리에게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 9 "그때가 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왕의 마음도, 공작들의 마음도 소멸될 것이다. 제사장들은 놀라며, 예언자들은 놀라게 될 것이다."
- 10 그때 내가 말했다. "아, 주님, 주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습니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칼이 마음에 이르렀습니다."
- 11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게 말하라. "사막의 고원에서 뜨거운 바람이 내 백성의 딸을 향해 불어온다. 이 바람은 곡식을 헤치거나 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 12 이 바람이 나를 향해 온전히 불어올 것이다. 이제 나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것이다.
- 13 보라, 그가 구름처럼 올라오고,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으며,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우리에게 화가 있다! 우리는 파멸되었다.
- 14 예루살렘아, 네 마음을 악에서 씻어라. 그래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속에 악한 생각이 얼마나 오래 머무를 것인가?
- 15 다니에서 소리가 선포되고, 에브라임의 산들에서 재앙이 공포된다.
- 16 "민족들에게 말하여라. 보라,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하여라. '먼 나라에서 경비병들이 와서 유다의 성들을 향해 외치고 있다.'"
- 17 그들은 발을 지키는 자처럼 네 사방에 둘러싸여 있다. 이는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18 "네 길과 네 행위가 이 모든 일을 네게 가져왔다. 이것이 네 악이다. 그것은 쓰라리고, 네 마음에 이르렀다."
- 19 내 고통, 내 고통! 내 마음이 아프도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떨린다. 나는 잠잠할 수 없다. 내 영혼아,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고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 20 파괴가 파괴를 따르고, 온 땅이 황폐해졌다. 갑자기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내 휘장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 21 내가 언제까지 기준을 보고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 22 "내 백성은 어리석다.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어리석은 아이들이다. 그들은 지혜가 없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선을 행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
- 23 내가 땅을 보니, 보라, 공허하고 텅 빈 것이었고, 하늘도 빛이 없었다.
- 24 내가 산들을 보니, 보라, 그들이 떨어지고, 모든 언덕이 뒤로 뒤집혔다.
- 25 나는 보았더니, 사람은 없고, 하늘의 모든 새들이 도망쳤다.
- 26 나는 보았더니, 풍요로운 들이 황폐한 들판이 되었고, 그 모든 성들이 주님의 앞, 그 분의 격노 앞에서 무너졌다.
- 27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전 땅이 황폐해질 것이지만, 나는 완전히 끝내지 않을 것이다."
- 28 이 때문에 땅이 슬퍼하고, 위의 하늘은 어두워질 것이다.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내가 계획했고, 나는 회개하지 않으며,

그것을 되돌리지 않을 것이다.

²⁹ 모든 성이 기마병과 화살의 소리에 도망친다. 그들은 수풀로 들어가 바위 위로 올라간다. 모든 성이 버려지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³⁰ 당신이 황폐해졌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비록 당신이 붉은 옷을 입고, 금으로 장식을 단장하며, 눈을 눈화장으로 크게 만들더라도, 당신은 헛되이 아름답게 꾸민다. 당신의 연인들은 당신을 경멸하며, 당신의 목숨을 노린다.

³¹ 나는 임산부의 외침 같은 소리를 들었고, 첫아들을 낳는 여인의 고통 같은 소리를 들었다. 시온의 딸의 소리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손을 펼치며 말한다. "아, 지금 내게 화가 이르렀도다! 내 영혼이 살인자들 앞에서 기진막진하다."

예레미야서 5장

- 1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며 보고 알며 그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약 공정히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녀를 용서하리라.
- 2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말하지만, 실은 거짓으로 맹세한다.
- 3 주님, 주님의 눈은 진리를 보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그들을 치셨지만,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소멸 하셨지만, 그들은 교정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반석보다 더 단단한 얼굴을 만들었고, 돌아서기를 거부했습니다.
- 4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가난한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들은 주님의 길도, 그들의 하느님의 율법도 알지 못한다.'
- 5 내가 큰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주님의 길과 그들의 하느님의 율법을 알고 있으니.'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멩에를 부수고 끈을 끊어버렸다.
- 6 그러므로 숲에서 나온 사자가 그들을 죽일 것이고, 저녁의 늑대가 그들을 파괴할 것이며, 표범이 그들의 도시를 노려볼 것이다. 그곳으로 나가는 자는 모두 찢겨 죽을 것이다. 그들의 범죄가 많고, 그들의 배반도 심해졌기 때문이다.
- 7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너희 자녀들이 나를 버리고, 진실로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다. 내가 그들을 풍족히 먹여주었으나, 그들은 간음하고, 창녀들의 집에 무리를 지어 모였다.
- 8 그들은 배불리 먹은 수말처럼 방황하였다. 각자 이웃의 아내를 향해 울부짖었다.
- 9 내가 이런 일들로 그들을 벌하지 않겠느냐?
- 10 그녀의 성벽으로 올라가서 파괴하되, 완전히 끝내지 마라. 그녀의 가지들을 뽑아내라. 그것들은 주님의 것이 아니다.
- 11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나에게 매우 배신하였다.
- 12 그들은 주님을 부정하며 말했다. "그가 아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칼이나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다."
- 13 예언자들은 바람이 될 것이고, 그들 속에는 말씀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 14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하므로, 보라, 내가 너희 입속에 내 말을 불로 만들고, 이 백성을 나무로 만들어, 그것들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 15 보라, 내가 너희 위에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데려올 것이다, 이스라엘 집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은 강력한 민족이다. 그것은 오래된 민족이다. 그 민족의 언어를 너희는 알지 못하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 16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다. 그들은 모두 강한 용사들이다.
- 17 그들이 너희의 수확과 너희의 빵, 너희 아들과 딸들이 먹어야 할 것을 다 먹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의 양 떼와 소 떼를 먹을 것이며, 너희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먹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가 신뢰하는 요새 도시들을 칼로 무너뜨릴 것이다.
- 18 "그러나 그때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 19 너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왜 하셨는가?"라고 말할 때, 너희는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가 내게서 떠나 너희 땅에서 외국의 신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도 너희가 속하지 않은 땅에서 타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 20 "야곱의 집에서 이것을 선포하고, 유다에서 공포하여 말하라."
- 21 "이제 들어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않는 자들아,"
- 22 "내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앞에서 떨리지 않느냐? 내가 영원한 법칙으로 바다의 경계에 모래를 두어, 그것이 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파도가 몸부림쳐도 이기지 못하고, 그가 포효해도 넘지 못한다."
- 23 "그러나 이 백성은 반역하고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반역하여 떠났다."
- 24 그들은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자. 그분은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우리에게 수확의 정해진 주간을 지켜 주시는 분이시다."
- 25 당신의 최악이 이 모든 것을 막아섰고, 당신의 죄가 당신에게 선을 누르고 있습니다.
- 26 내 백성 가운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 사냥꾼처럼 은밀히 기다리며, 함정을 놓아 사람들을 잡습니다.

²⁷ 새가 가득 찬 우리처럼, 그들의 집들도 속임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커지고 부유해졌습니다.

²⁸ 그들은 살이 찌고 빛나며, 악한 일을 뛰어나게 행합니다. 그들은 고아의 권리를 변호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²⁹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해 벌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한다. "내 영혼이 이런 민족을 향해 보복하지 않겠느냐?"

³⁰ "이 땅에서 놀라우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³¹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사제들은 자기 권한으로 다스린다. 내 백성은 그런 일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 끝에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예레미야서 6장

- 1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앙에서 도피하여 안전을 찾으라! 테코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하케레무에서 신호를 올려라. 악이 북쪽에서 다가와 큰 파멸을 가져오고 있다.
- 2 나는 시온의 아름답고 부드러운 자를 끊어버릴 것이다.
- 3 목자들과 그들의 양 떼가 그녀에게로 올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장막을 칠 것이며, 각자 자기 자리에서 양을 먹일 것이다.
- 4 그녀를 향해 전쟁을 준비하라! 일어나라! 낮 한가운데로 올라가자. 우리에게 화가 이르렀도다. 하루가 저물고 저녁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다.
- 5 일어나라! 밤에 올라가자. 그녀의 궁전들을 파괴하자.
- 6 주님 만군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무를 베어라. 예루살렘을 향해 흙더미를 쌓아라. 이 도시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 안에는 억압이 가득하다."
- 7 우물이 그 물을 끊임없이 내놓듯, 그녀도 악을 끊임없이 내놓는다. 그녀 안에서는 폭력과 파괴가 들려오고, 병과 상처가 내 앞에 항상 있다.
- 8 예루살렘아, 교훈을 받아라. 그래야 내 영혼이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황폐하고 거주하지 않는 땅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 9 주님 만군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포도나무처럼 꼼꼼히 거두어라.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다시 바구니로 돌려라."
- 10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증언해야 그들이 들을까? 보라, 그들의 귀는 할레받지 않았으므로 들을 수 없다. 보라,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모욕이 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즐기지 않는다.
- 11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억누르는 데 지쳤다. "거리에서 어린이들에게 쏟아부어라,"
- 12 그들의 집들은 다른 이들에게 넘어갈 것이며,
- 13 "그들의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두 탐심에 빠져 있다.
- 14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겉으로만 치료하며, "평화로워, 평화로워!"라고 말한다. 그러나 평화는 없다.
- 15 그들이 가증한 일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움을 느꼈던가?
- 16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길에 서서 보아라. 옛 길을 묻고, 좋은 길이 어디인지 물어보아라. 그 길을 걷고, 너희 영혼이 편안함을 얻으라." 그러나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그 길을 걷지 않겠다."
- 17 나는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워 말했다. "나팔 소리를 들어라!" 그러나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듣지 않겠다."
- 18 그러므로 너희 열국아, 들어라. 너희 공동체야, 그들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알라.
- 19 땅아, 들어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악을 가져올 것이다. 곧 그들이 생각한 열매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 율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 20 세바에서 온 향유와 먼 땅에서 온 달콤한 갈대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의 번제는 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너희의 제물은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
- 21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할 돌을 놓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그 것에 걸려 넘어지고, 이웃과 친구가 함께 멸망할 것이다."
- 22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북쪽 땅에서 한 민족이 온다. 땅 끝에서 큰 나라가 일어난다."
- 23 그들은 활과 창을 잡고, 잔인하며 자비가 없다. 그들의 소리는 바다처럼 울려 퍼지고, 말을 타고, 모두 전투를 위한 병사처럼 정렬되어, 시온의 딸을 향해 나아간다."
- 24 우리는 그 소식을 들었다. 우리의 손은 힘을 잃었고, 고통이 우리를 사로잡았으며, 분만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우리를 괴롭힌다.
- 25 들판으로 나가지 말고 길을 걷지 마라. 적의 칼과 공포가 사방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 26 내 백성의 딸아, 베옷을 입고 재 위에 뒹굴어라! 외아들을 위한 슬픔처럼, 가장 비참한 애곡으로 울어라. 파괴자가 갑자기

기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²⁷ 내가 너를 금속을 시험하는 자와 내 백성 가운데 요새로 세웠으니, 그들의 길을 알고 시험하게 하려 한다.

²⁸ 그들은 모두 끔찍한 반역자들로, 험담을 일삼는 자들이다. 그들은 브론즈와 철과 같아, 모두 부패한 일을 저지른다.

²⁹ 풍로가 격렬하게 불을 붙인다. 남은 불 속에서 타버린다. 그들이 헛되이 정련을 계속하지만, 악한 자들은 뽑히지 않는다.

³⁰ 사람들은 그들을 버려진 은이라 부를 것이다. 주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예레미아서 7장

- 1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이다. 이르시기를,
- 2 "주님의 집 문에 서서, 거기서 이 말을 선포하여라. "이 문들을 통해 들어와 주님을 경배하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 3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 4 거짓된 말을 믿지 마라. 너희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마라.
- 5 만약 너희가 자신의 길과 행위를 진심으로 고치고, 사람과 이웃 사이에 공정한 재판을 실현한다면,
- 6 만약 너희가 타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해치기 위해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 7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 곧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옛적부터 영원히 거하게 하리라.
- 8 보라, 너희는 이익이 없는 거짓말을 믿고 의지한다.
- 9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으로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가?
- 10 그런 다음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에 와서 서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며,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는가?
- 11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이 되었느냐? 보라,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12 그러나 이제 내가 처음에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장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행한 악으로 인해 내가 그 곳에 무엇을 행했는지 보라.
- 13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에,
- 14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신뢰하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장소를, 내가 실로에 행한 것처럼 처리하겠다.
- 15 나는 너희를 내 눈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에브라임의 모든 자손, 곧 너희 모든 형제들을 쫓아낸 것처럼.
- 16 그러므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말고, 내게 간구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 17 유다의 모든 성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 18 아이들이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이 불을 피우며, 여자들이 반죽을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한 떡을 만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붓는다. 이는 나를 격노하게 하려는 것이다.
- 19 그들이 나를 격노하게 하는가?
- 20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 진노와 분노가 이 장소 위에, 사람 위에, 짐승 위에, 들의 나무 위에, 땅의 열매 위에 쏟아질 것이다. 그것은 타오르고 꺼지지 않을 것이다."
- 21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의 번제를 희생제물에 더하고 고기를 먹어라."
- 22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너희 조상들에게 번제나 희생제물에 관해 말하거나 명령한 적이 없다.
- 23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은 이것뿐이다.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길을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될 것이다."
- 24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자기들의 계획과 악한 마음의 고집을 따라 걸었고, 뒤로 물러서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 25 너의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내 모든 종 곧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다.
- 26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목을 굳혔다.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악행을 저질렀다.
- 27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하라. 그러나 그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나 그들은 네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 28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이 백성은 주님 그들의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교훈을 받지 않았다. 진리가 사라졌고,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다."

²⁹ 네 머리카락을 깎아 버리고, 그것을 던져라. 높은 곳에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라. 주님은 그분의 진노의 세대를 거부하고 버리셨기 때문이다.

³⁰ "유다 자손이 내 눈에 악한 일을 행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가증한 것을 두어, 그것을 더럽혔다."

³¹ 그들은 힌놈의 아들 골짜기인 도페트에 높은 곳을 세워, 자식들을 불에 태우고 있다. 나는 그 일을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도 떠오르지 않았다.

³²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라,"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때에는 그곳을 더 이상 도페트나 힌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학살의 골짜기라 부를 것이다. 그들은 도페트에 장사할 것이지만, 장사할 자리가 없을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³³ 이 백성의 시체는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³⁴ 그대에 나는 유다의 성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끊어버릴 것이다. 이 땅이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서 8장

¹ 그대에 그들은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귀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예언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들의 뼈를 무덤에서 꺼낼 것이다.

² 그들은 그것을 태양과 달과 하늘의 모든 별들 앞에 펼칠 것이다. 이들은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따라다니며 구하며 숭배한 것들이다. 그 뼈들은 모아지지도, 묻히지도 않을 것이며, 땅 위의 분노처럼 될 것이다.

³ 이 악한 가문의 남은 자들 중, 내가 쫓아낸 모든 곳에 남아 있는 자들은 생명보다 죽음을 택할 것이다.

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이 말한다.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는가?

⁵ 그러면 왜 예루살렘 백성은 끊임없이 배신하여 뒤로 물러서는가?

⁶ 내가 듣고 들었으나, 그들은 옳은 말을 하지 않는다.

⁷ 하늘의 백로는 제때를 알고 있다.

⁸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느냐, "우리는 지혜롭고, 주님의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

⁹ 지혜로운 자들은 실망한다.

¹⁰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자들에게 주겠다.

¹¹ 그들은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가볍게 치유하며, '평화, 평화'라고 말한다. 그러나 평화는 없다.

¹² 그들이 가증한 일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움을 느꼈던가?

¹³ 주님이 말하신다. '나는 그들을 완전히 소멸할 것이다.'

¹⁴ '우리가 어찌하여 가만히 앉아 있는가? 모여라!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자.'

¹⁵ 우리는 평화를 기다렸으나, 좋은 일은 오지 않았고,

¹⁶ 다니에서 그 말들의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¹⁷ 보라, 내가 뱀들을 보내겠다.

¹⁸ 내가 슬픔을 달래고 싶다!

¹⁹ 보라, 내 백성의 딸이 아주 먼 땅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주님은 시온에 계시지 않는가? 그녀의 왕은 그녀 안에 계시지 않는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새긴 우상으로 나를 격노하게 하는가?'

²⁰ 수확의 시기는 지나갔다.

²¹ 내 백성의 딸의 상처 때문에, 나는 상처를 입는다.

²² 길르앗에 연고가 없던가?

예레미야서 9장

- 1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샘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 2 내가 광야에서 머물렀다면,
- 3 그들은 자기 혀를 굽혔다.
- 4 너는 각자 이웃을 조심하여라.
- 5 친구들은 서로를 속인다.
- 6 네 거처는 속임수 한가운데에 있다.
- 7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은 말한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녹여 시험할 것이다.'
- 8 그들의 혀는 치명적인 화살이다.
- 9 내가 이런 일들로 그들을 벌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한다. '내 영혼이 이런 민족을 향해 보복하지 않겠느냐?'
- 10 내가 산들을 위해 울고 통곡하리라. 가축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이 모두 도망쳤다.
- 11 내가 예루살렘을 더미로 만들겠다.
- 12 이 일을 이해할 만한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주님의 입에서 말씀을 들은 자는 누구인가? 그가 이를 선포하게 하라. 어찌하여 이 땅이 멸망하고 광야처럼 타버려서 아무도 지나가지 않느냐?
- 13 주님이 말한다.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놓은 내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이다.'
- 14 그들은 오히려 자기 마음의 고집을 따르고, 그들의 조상들이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다.'
- 15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썩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 16 내가 그들을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나라들 사이에 흩어버리겠다. 내가 칼을 그 뒤에 보내어 그들을 다 소멸할 때까지.'
- 17 만군의 주님은 말한다. '생각하여라.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오라. 그들이 오게 하라. 능숙한 여인들을 불러오라.'
- 18 그들이 서둘러라.
- 19 시온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가 어떻게 망하였는가!'
- 20 여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귀가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가를 가르치고, 각자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쳐라.'
- 21 죽음이 우리 창문으로 올라왔다.
- 22 말하여라. '주님이 말한다. "사람들의 시체가 들판 위에 분노처럼 떨어질 것이며, 아무도 주워 담지 못할 것이다."'
- 23 주님이 말한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센 자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도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말라.'
- 24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 25 "보아라, 날이 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육체적으로만 할례를 받은 모든 자를 벌할 것이다.
- 26 이집트, 유다, 에돔, 암몬 자손, 모압, 그리고 머리 모서리의 머리카락을 깎아낸 자들, 광야에 거주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는 모든 민족이 할례를 받지 않았고, 이스라엘 온 집이 마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아서 10장

- 1 이스라엘 집안아, 주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들어라!
- 2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민족들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 3 민족들의 풍속은 허무하다.
- 4 그들은 그것을 은과 금으로 장식한다.
- 5 그것들은 조각한 종려나무와 같아서, 움직이지 않는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 6 주님, 주님처럼 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 7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 8 그들은 모두 어리석고 미련하며, 우상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 9 은은 타르시스에서 가져온 얇은 판으로 두들겨 만든 것입니다.
- 10 그러나 주님은 참 하느님이십니다.
- 11 "당신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어내지 않은 신들은 땅 위와 하늘 아래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 12 하느님은 자신의 힘으로 땅을 지으셨습니다.
- 13 그가 목소리를 내실 때,
- 14 모든 사람은 어리석고 지식이 없다.
- 15 그것들은 허무하고 속임의 작품이다.
- 16 야곱의 뭇은 이것들과 같지 않다.
- 17 땅에서 네 소유를 모아라.
- 18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때에 이 땅의 주민들을 던져낼 것이다,
- 19 내 상처 때문에 나는 고통스럽다! 진실로 이것이 내 슬픔이며, 내가 그것을 견뎌야 한다."
- 20 내 장막이 파괴되었다.
- 21 목자들이 어리석어졌기 때문이다.
- 22 소식의 소리, 보라, 그것이 온다.
- 23 주님, 사람이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함을 제가 압니다.
- 24 주님, 저를 책망하소서, 그러나 온화하게;
- 25 주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주님의 진노를 쏟으소서.

예레미야서 11장

- 1 예레미야에게 내린 말씀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 2 “이 계약의 말을 들어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전하여라.
- 3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약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 4 내가 그 조상들을 이집트 땅, 철로 된 풀무에서 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말을 들어라. “내 목소리에 복종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겠다.”
- 5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행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려는 것이다.’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 6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유다의 모든 성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라. ‘이 계약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여라.
- 7 내가 그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에게 단단히 경고하여 말하였다. ‘내 목소리에 복종하여라.’
- 8 그러나 그들은 복종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악한 마음의 고집스러움을 따라 걸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한 이 계약의 모든 말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
- 9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 사이에 음모가 드러났다.
- 10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던 조상들의 최악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그 조상들과 맺은 내 계약을 어겼다.
- 11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은 그 재앙에서 도망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
- 12 그때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들이 향을 바치는 신들에게 나아가 외칠 것이지만,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아무것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 13 유다야, 네 도시의 수만큼 네 신들이 있고, 예루살렘의 거리 수만큼 네가 부끄러운 것을 위해 제단을 세웠으니, 곧 바알에게 향을 바치기 위한 제단들이다.’
- 14 그러므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마라. 내가 그들이 환난으로 인해 내게 부르짖는 그때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 15 내 집에서 내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하려 하는가?
- 16 주님은 네 이름을 ‘푸른 올리브나무’라 불렀다.
- 17 너를 심은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스스로 행한 악, 곧 바알에게 향을 바쳐 나를 격노하게 한 죄로 인해 너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다.
- 18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고, 내가 알았다. 그때 너는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여 주었다.
- 19 나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온순한 어린 양 같았다.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꾸민 계획을 내가 몰랐다. 그들이 말하기를, ‘나무와 그 열매를 함께 없애자.’
- 20 그러나 만군의 주님, 의로우신 심판자여,
- 21 “그러므로 주님은 아나돗의 남자들, 곧 네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그래야 우리가 손으로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 22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은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 23 그들에게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아나돗의 남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의 방문의 해이다.”

예레미야서 12장

- ¹ 주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 ² 당신이 그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들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 ³ 그러나 주님, 당신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 ⁴ 이 땅이 얼마나 오래 슬퍼할 것입니까? 그들의 끝을 보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 ⁵ “너가 보통 사람과 달리 달렸다면,
- ⁶ 너의 형제들, 즉 네 아버지의 집조차도 너를 믿지 않으며,
- ⁷ “내가 내 집을 버렸다.
- ⁸ 내 유산이 내게 숲속의 사자처럼 되었다.
- ⁹ 내 유산이 내게 무늬 있는 맹금이 되었는가? 그 주변의 모든 맹금들이 그녀를 겨냥하는가?
- ¹⁰ 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원을 파괴하였다.
- ¹¹ 그들이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 ¹² 파괴자들이 사막의 모든 고원에 와서,
- ¹³ 그들은 밭을 심었으나,
- ¹⁴ 주님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물려준 유산을 건드리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들에 관해, 보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고, 유다의 집을 그들 가운데서도 뽑아낼 것이다.
- ¹⁵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아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내가 그들을 각각 자기 유산으로, 각각 자기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 ¹⁶ 그들이 내 백성의 길을 열심히 배워, 내 이름으로 맹세하여 ‘주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말한다면, 마치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을 향해 맹세하도록 가르쳤던 것처럼,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 ¹⁷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내가 그 민족을 뽑아내어 멸망시킬 것이다,” 주님이 말한다.

예레미야서 13장

- 1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베로 만든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고, 물에 담그지 마라."
- 2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베로 만든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고,
- 3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 4 "너의 허리에 두른, 네가 산 베로 만든 허리띠를 가져가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바위 틈에 숨겨라."
- 5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그 베로 만든 허리띠를 숨겼다.
- 6 많은 날이 지난 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내가 네게 숨기라고 명령한 그 베로 만든 허리띠를 거기서 가져와라."
- 7 그래서 나는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땅을 파서, 내가 숨긴 그곳에서 베로 만든 허리띠를 가져왔다. 그런데 보라, 그 허리띠는 망가져서 아무 쓸모도 없었다.
- 8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 9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와 같이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망가뜨리리라."
- 10 내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의 고집스러움을 따라 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는 이 악한 백성은, 아무 쓸모도 없는 이 베로 만든 허리띠처럼 되리라."
- 11 사람의 허리에 붙는 허리띠처럼,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을 내게 붙게 하였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나를 위한 백성이 되고, 나를 위한 이름이 되고,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 12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그릇은 포도주로 가득 차야 한다." 그들은 네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모든 그릇이 포도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 13 그러면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취하게 하리라."
- 14 내가 그들을 서로 부딪히게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까지도 함께 부딪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껴주지도, 자비를 베풀지도 않아,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다."
- 15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마라.
- 16 너의 하느님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 17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겠다면,
- 18 왕과 왕비에게 말하여라. "자신을 낮추어라."
- 19 남방의 도시들이 달히고,
- 20 눈을 들어 올려라. 너희에게 주어진 양 떼는 어디에 있느냐?
- 21 네가 스스로 친구로 삼으라고 가르친 자들이 너 위에 머리가 되면, 네가 무엇이라 말하겠느냐? 임신한 여인의 고통처럼, 슬픔이 너를 사로잡지 않겠느냐?
- 22 네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였는가?" 한다면,
- 23 에티오피아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 24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흠으리라.
- 25 이것이 네 몫이다. 네가 나를 잊었기 때문이다.
- 26 그러므로 나는 네 치마를 네 얼굴 위로 드러낼 것이다.
- 27 나는 네 가증한 일, 곧 네 간음들을 보았다. 너, 예루살렘아, 화가 있을지어다!

예레미야서 14장

- 1 이것은 가뭄과 관련하여 예레미야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이다.
- 2 유다가 슬퍼한다.
- 3 그들의 귀족들이 어린아이들을 물가로 보낸다.
- 4 땅이 갈라졌기 때문에,
- 5 들에 있는 암사슴조차 새끼를 낳고도 그 새끼를 버린다.
- 6 야생 당나귀들이 메마른 언덕 위에 서 있다.
- 7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대적하여 증언하지만,
- 8 이스라엘의 희망이시며,
- 9 어찌하여 당신은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되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 10 주님은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방황하는 것을 좋아한다.
- 11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을 위해 그들의 복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 12 그들이 금식할 때, 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그들이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 13 그러나 나는 말했다. "아, 주 하느님! 보소서,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칼을 보지 않을 것이며, 기근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당신들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겠습니다."
- 14 그러자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된 환상과 점치기와 허무한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속임수를 예언한다."
- 15 그러므로 주님은 내 이름으로 예언하지만,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이 말하는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예언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 16 그들이 예언하는 백성은 기근과 칼 때문에 예루살렘 거리에 버려질 것이다. 그들 자신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악을 그들에게 쏟아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 17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내 눈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소서,
- 18 내가 들로 나가면,
- 19 당신은 유다를 완전히 거절하셨습니까?
- 20 주님, 우리는 우리의 악행을 인정합니다,
- 21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싫어하지 마소서.
- 22 민족들의 허무한 것들 중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당신이 아니시면, 우리 하느님 주님,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서 15장

- 1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고 해도, 나는 이 백성에게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어 떠나게 하라!
- 2 그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죽음으로 정해진 자는 죽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살고, 칼에 맞아 죽으려는 자는 칼에 맞아 죽으며, 기아로 죽으려는 자는 기아로 죽고, 포로로 잡혀가려는 자는 포로로 잡혀간다."
- 3 "내가 그들에게 네 가지를 정해 주겠다." 주님의 말이다. "칼은 죽이고, 개는 찢고,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은 잡아먹고 파괴할 것이다."
- 4 내가 그들을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한 일 때문에, 모든 나라들 사이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 5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 6 너는 나를 버렸다." 주님의 말이다. "너는 뒤로 물러섰다.
- 7 내가 땅의 문들에서 부채로 그들을 흩어버렸다.
- 8 그들의 과부들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
- 9 일곱 자녀를 낳은 여자가 기진맥진한다.
- 10 내 어머니여, 나를 낳아 주어서 슬프구나. 나는 분쟁과 갈등의 남자로 태어났다.
- 11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분명히 선한 길로 강하게 만들겠다.
- 12 북쪽에서 온 철과 동을 누가 부수겠느냐?
- 13 내가 너의 재산과 네 보물을 값없이 노략질의 대상으로 주겠다.
- 14 내가 너의 원수들과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너를 끌고 가겠다.
- 15 주님, 당신은 아십니다.
- 16 당신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 17 나는 즐겁고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 않았습니다.
- 18 왜 내 고통은 영원하며,
- 19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 20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낯으로 만든 견고한 담으로 만들겠다.
- 21 내가 너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예레미야서 16장

- 1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 2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들이나 딸을 낳지 말아야 한다."
- 3 "주님은 이 땅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들과, 그들을 낳은 어머니들과, 이 땅에서 그들의 아버지가 된 아버지들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 4 "그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을 것이다. 그들을 애도하지도 않고, 장사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땅 위의 분노처럼 될 것이다. 칼과 기근에 의해 그들이 소멸될 것이며, 그들의 시체는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 5 "주님은 이렇게 말한다. 슬픔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애도하러 가지 말며, 그들을 위로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내 평화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사랑과 자비마저도."
- 6 이 땅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죽을 것이며, 장사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애곡하지도 않고, 몸을 베지 않으며, 머리를 밀지도 않을 것이다.
- 7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장례식에 빵을 나누어 주지 않으며, 죽은 이를 위로하지도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위로의 잔을 마시게 하지 않을 것이다.
- 8 "너는 잔치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고 마시지 말아야 한다."
- 9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말한다. 보라, 내가 이 땅에서, 너희 눈앞과 너희 생애 동안,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끊어 버릴 것이다."
- 10 "너는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할 때, 그들이 너에게 물을 것이다. '어찌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리셨는가?' 또는 '우리의 죄악은 무엇인가?' 또는 '우리가 주 우리 하느님께 범한 죄는 무엇인가?'"
- 11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렸다.' 주님의 말이다.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숭배하며,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 12 너희는 너희 조상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보라, 너희 각자가 자기 악한 마음의 고집을 따르므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 13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땅으로 쫓아낼 것이다. 거기서 너희는 낮과 밤을 통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기 때문이다.
- 14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라." 주님의 말이다. "그때는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올려주신 주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 15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과 내가 그들을 쫓아낸 모든 땅에서 올려주신 주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 16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낼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그들이 그들을 낚아올릴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많은 사냥꾼들을 불러낼 것이니, 그들이 모든 산과 모든 언덕, 바위 틈에서 그들을 사냥할 것이다."
- 17 내 눈은 그들의 모든 길을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내 얼굴 앞에서 숨지 못한다. 그들의 죄악은 내 눈에 가려지지 않는다.
- 18 먼저 내가 그들의 죄악과 죄를 두 배로 갚아주겠다. 그들이 내 땅을 그들의 가증한 것들의 시체로 더럽히고, 내 유산을 그들의 가증한 것들로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 19 주님, 나의 힘이시며, 나의 요새여, "우리 조상들이 얻은 것은 거짓뿐입니다."
- 20 사람이 스스로 신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 21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서 17장

- 1 유다의 죄는 철로 만든 붓과 연마된 황금으로 기록되어,
- 2 그들의 자녀까지도 제단을 기억한다.
- 3 내가 들에서 주는 산과, 내 모든 보물은
- 4 너는 스스로 너의 유산, 곧 내가 네게 준 것을 떠나게 될 것이다.
- 5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 6 그는 사막의 붉은 나무와 같아서,
- 7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 8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 9 마음은 모든 것보다 교활하며,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 10 "나 주님은 마음을 살피며, 그의 행위의 열매에 따라 보응한다."
- 11 자신이 낳지 않은 알을 낳은 것처럼 앉아 있는 파르티지처럼,
- 12 처음부터 높이 세워진 영광스러운 보좌,
- 13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주님,
- 14 주님, 나를 고쳐 주소서. 그러면 제가 낫겠습니다.
- 15 보라, 그들이 나에게 묻는다. "주님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 16 나는 당신을 따르는 목자로서 서두르지 않았고, 재앙의 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 17 나를 두려움으로 삼지 마소서.
- 18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놀라게 하소서.
- 19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가서 백성의 자녀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 유다 왕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 20 그들에게 말하여라.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아,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 21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조심하여 안식일에 짐을 메지 말고, 예루살렘 문으로 그것을 들여오지 말아라.'
- 22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어놓지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 23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았다.
- 24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듣고, 이 성의 문으로 안식일에 짐을 들여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날에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25 그러면 왕들과 공작들이 다윗의 왕좌에 앉아 수레와 말을 타고 이 성의 문으로 들어오며,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들어올 것이다. 이 성은 영원히 견딜 것이다.
- 26 그들은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 베냐민 땅, 평야, 산지, 남방에서 와서 번제와 희생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오며, 주님의 집에 감사 희생을 바칠 것이다.
- 27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며,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나는 그 문들에 불을 지를 것이다. 이 불은 예루살렘의 궁전들을 삼킬 것이며, 꺼지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서 18장

- 1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 2 “일어나, 도기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서 내가 네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
- 3 그러므로 나는 도기의 집으로 내려가니, 보라, 그가 수레 위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 4 도기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의 손에서 망가지자, 그는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어, 도기의 뜻에 맞게 만들었다.
- 5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 6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도기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겠느냐?” 주님의 말이다. “보라, 도기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너희도 내 손에 있다. 이스라엘 집아.”
- 7 내가 어떤 민족이나 왕국에 대해 파괴하고 허물며 멸망시키겠다고 말하는 순간,
- 8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그들에게 해하려고 생각한 악을 뉘우쳐 그치겠다.
- 9 내가 어떤 민족이나 왕국에 대해 건설하고 심겠다고 말하는 순간,
- 10 그들이 내 눈에 악한 일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였던 선한 일을 뉘우쳐 그치겠다.
- 11 “그러므로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꾸미고 너희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제 각각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쳐라.’”
- 12 그러나 그들은 말한다. ‘소용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을 따르며, 각자 자기 악한 마음의 고집을 따르겠다.’”
- 13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지금 민족들 사이에서 물어보아라.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가?
- 14 레바논의 눈이 들의 바위에서 녹지 않겠느냐?
- 15 내 백성이 나를 잊어버렸다.
- 16 그들의 땅을 놀라움의 대상으로 만들며,
- 17 내가 적 앞에서 동풍처럼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 18 그들이 말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를 향해 계획을 세우자. 율법은 사제에게서 사라지지 않고, 지혜의 조언은 지혜로운 자에게서 끊어지지 않으며, 예언자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는다. 자, 우리가 그의 혀로 치자. 그의 말을 아무것도 듣지 말자.”
- 19 주님, 나를 들어주소서.
- 20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옳으냐?
- 21 그러므로 그들의 자녀들을 기근에 내버려두소서.
- 22 그들의 집에서 비명이 들리게 하소서.
- 23 그러나 주님,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꾸민 모든 계획을 당신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당신의 눈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예레미야서 19장

- 1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토기장이의 흙으로 만든 그릇을 사고,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장로들을 데려가라.
"
- 2 그리고 하니놈의 아들 골짜기, 곧 하르시트 문 입구 근처로 나가서, 내가 네게 말할 말을 거기서 선포하라.
- 3 너는 말하라.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것을 듣는 자는 귀가 울릴 것이다."
- 4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 곳을 더럽히며, 그들도 그들의 조상들도 유다의 왕들도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이 곳에 무죄한 자들의 피로 채웠기 때문이다.
- 5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높은 곳을 쌓아, 자녀들을 불에 태워 바알에게 번제로 바쳤다. 나는 그 일을 명령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으며, 내 마음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 6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 곳은 다시는 '도페트'라 불리지 않고, '하니놈의 아들 골짜기'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학살의 골짜기'라 불릴 것이다."
- 7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이 곳에서 무효로 만들겠다.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칼 앞에서, 그리고 생명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넘어지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시체를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로 주겠다."
- 8 내가 이 도시를 놀라움과 비웃음의 대상으로 만들겠다. 이 곳을 지나가는 자는 그 모든 재앙 때문에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 9 내가 그들이 자기 아들들의 고기와 자기 딸들의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들은 성읍의 포위와 그들의 원수들과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그들에게 내리는 고통 속에서, 각자 자기 친구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 10 "그러면 너는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 그릇을 부수고,
- 11 그들에게 말하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백성과 이 도시를 토기장이의 그릇처럼 부수어, 다시는 고칠 수 없게 하겠다. 그들이 도페트에 시체를 묻을 것이지만, 묻을 곳이 없을 때까지 묻을 것이다."
- 12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곳과 그곳에 사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겠다. 내가 이 도시를 도페트처럼 만들겠다."
- 13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더럽혀져서 도페트의 장소처럼 될 것이다. 그 집들의 지붕 위에서 그들이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다.
- 14 그러자 예레미야는 주님이 그를 보내어 예언하게 하신 도페트에서 돌아와, 주님의 집 마당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 15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도시와 그 모든 마을에 내가 이에 대해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목을 굳게 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서 20장

- ¹ 그때 제사장 임멜의 아들 파스후르가 주님의 집에서 최고 관리로 일하면서 예레미야가 이 같은 일을 예언하는 것을 들었다.
- ² 파스후르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치고, 주님의 집 안 베냐민 문 위쪽에 있는 나무 갇힘에 넣었다.
- ³ 다음 날, 파스후르가 예레미야를 갇힘에서 풀어주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다. "주님은 네 이름을 파스후르라 부르지 않으신다. 네 이름은 마고르미사비브다."
- 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너 자신과 네 모든 친구들에게 공포로 만들겠다. 그들은 원수의 칼에 쓰러질 것이며, 네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유다를 모두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가 그들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끌고 가서 칼로 죽일 것이다."
- ⁵ 또 내가 이 도시의 모든 부와, 모든 수익과, 모든 귀중한 물건, 곧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이 그것을 약탈하고 빼앗아 바빌론으로 끌고 갈 것이다.
- ⁶ 너, 파스후르, 그리고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사로잡혀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너는 거기서 죽고, 거기서 묻힐 것이며, 너와 거짓으로 예언한 모든 친구들도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 ⁷ 주님, 당신은 저를 설득하셨고, 저는 설득되었습니다.
- ⁸ 제가 말할 때마다 외치게 되고,
- ⁹ 내가 그분을 말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 ¹⁰ 많은 이들이 저를 헐뜯습니다. "모든 곳에 공포가 있다!" 내 모든 친한 친구들이 말합니다. "아마 그는 설득될지도 모른다."
- ¹¹ 그러나 주님은 저와 함께 위대하고 강력한 분이십니다.
- ¹² 의로운 자를 시험하시는 만군의 주님,
- ¹³ 주님을 찬양하여라!
- ¹⁴ 내가 태어난 그 날은 저주받을지어다.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은 그 날은 복받지 못하게 하소서.
- ¹⁵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알려 주어 그를 크게 기쁘게 한 그 사람은 저주받을지어다.
- ¹⁶ 그 사람은 주님이 무너뜨린 도시들처럼 되게 하소서.
- ¹⁷ 그가 나를 태중에서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¹⁸ 왜 나는 수고와 슬픔을 보려고 태어났는가?

예레미야서 21장

- ¹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파스후르와 마아세야의 아들 스베냐 사제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말하게 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이다.
- ²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우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서 물러가실지 모릅니다."
- ³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 ⁴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 손에 있는, 너희가 바빌론 왕과 성벽 밖에서 포위하고 있는 갈대아인들과 싸우는 전쟁 무기를 뒤로 돌리고, 이 도시의 한가운데로 모아 들이겠다.
- ⁵ 내가 치밀어 오른 분노와 진노와 큰 노여움으로, 펼친 손과 강한 팔로 너희와 직접 싸우겠다.
- ⁶ 내가 이 도시의 주민, 사람과 짐승을 모두 치겠다. 그들은 큰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 ⁷ 그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이 도시에 남아 있는,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백성을 모두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칠 것이다. 그는 그들을 아끼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자비를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 ⁸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놓았다.
- ⁹ 이 도시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지만, 나가서 너희를 포위하는 갈대아인들에게로 나아가는 자는 살아서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 ¹⁰ 내가 이 도시에 복을 베풀지 않고 화를 내리기로 작정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도시는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져 불에 타버릴 것이다."
- ¹¹ "유다 왕의 집에 대해,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 ¹² 다윗의 집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침마다 공의를 행하여라,
- ¹³ 보라, 내가 너, 곧 골짜기 거민에게 대적한다. 너희는 말한다. "누가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겠는가?"
- ¹⁴ 내가 너희의 행위의 열매대로 너희를 벌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녀의 숲에 불을 지르겠다."

예레미아서 22장

- 1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왕의 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전하여라.
- 2 유다 왕이여, 다윗의 왕좌에 앉은 자여, 너와 네 신하들과 이 문으로 들어오는 네 백성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 3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의로움을 실현하고 정의를 행하여라. 억압자 손에서 약탈당한 자를 구출하여라. 악을 행하지 말고, 타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폭력을 가하지 말며,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 4 너희가 진실로 이 일을 행한다면,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들이 이 집의 문으로 들어와 병거와 말을 타고, 그들과 그들의 신하들과 그들의 백성이 들어오리라.
- 5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이 집은 황폐해지리라."
- 6 주님께서 유다 왕의 집에 관해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길르앗 같고,
- 7 내가 너를 치기 위해 파괴자들을 준비하리니, 각자 무기를 드리라.
- 8 많은 민족들이 이 성을 지나가며, 각자 이웃에게 묻겠으니, "어찌하여 주님이 이 큰 성에 이같이 하셨는가?"
- 9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리라. "그들이 주님, 그들의 하느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며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 10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 11 주님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살룸에 관해 말씀하신다. 그는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이 곳에서 나갔으니, "그는 다시는 이 곳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 12 그는 그들이 그를 사로잡아 끌고 간 곳에서 죽을 것이며,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 13 "불의로 자기 집을 짓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 14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넓은 집과 넓은 방을 지으리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 15 "네가 백향목으로 뛰어나기를 힘쓰므로 왕이 되는가? 네 아버지는 먹고 마셨으며,
- 16 그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사정을 판결하였으니,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었느냐?"
- 17 그러나 네 눈과 네 마음은 오직 탐욕뿐이다.
- 18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관해 말씀하신다.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아, 내 형제여!" 또는 "아, 내 자매여!"라고 말하는 자도 없고, "아, 주여!" 또는 "아, 그의 영광이여!"라고 말하는 자도 없으리라.
- 19 그는 나귀처럼 묻히리라.
- 20 "레바논으로 올라가서 외쳐라.
- 21 내가 네가 평안할 때에 네게 말하였으나,
- 22 바람이 네 목자들을 모두 먹어치울 것이며,
- 23 레바논에 거주하는 자여,
- 24 "내가 살아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내 오른손에 인장이 되더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뽑아내리라.
- 25 나는 너를 네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들의 손,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 26 나는 너를 너를 낳은 어머니와 함께, 너는 태어나지 않은 땅으로 쫓아낼 것이다. 거기서 너는 죽을 것이다.
- 27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돌아가고 싶어 하는 땅에는 그들이 결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 28 이 사람 고니야는 경멸받고 부서진 그릇이냐?
- 29 땅아, 땅아, 땅아,
- 30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로 기록하라."

예레미아서 23장

- 1 "내 목장의 양을 파괴하고 흩어버리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2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서 내 백성을 먹이는 목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어 내쫓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에게 악을 내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3 "내가 내가 쫓아낸 모든 나라들에서 내 양떼의 남은 자들을 모아 그들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번성하고 많아질 것이다."
- 4 내가 그 위에 목자들을 세워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으며, 아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5 "보아라, 날들이 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 6 그의 시대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다.
- 7 "그러므로 보아라, 날들이 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올려주신 주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 8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의 자손을 북쪽 땅과 내가 쫓아낸 모든 나라들에서 올려서 이끌어낸 주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말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자기 땅에 거할 것이다."
- 9 예언자들에 관하여:
- 10 "이 땅은 간음으로 가득하다.
- 11 예언자도 사제도 모두 더럽혀져 있다.
- 12 그러므로 그들의 길은 어두운 곳에서 미끄러운 길이 될 것이다.
- 13 "내가 사마리아의 예언자들 안에서 어리석음을 보았다.
- 14 예루살렘의 예언자들 안에서도 나는 끔찍한 일을 보았다.
- 15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께서 예언자들에 관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쓴 나물을 먹이며,
- 16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 17 그들은 나를 경멸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한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어떤 악도 닥치지 않을 것이다."
- 18 누가 주님의 모임에 서서 그의 말씀을 들었는가?
- 19 보아라, 주님의 폭풍, 그의 진노가 나왔다.
- 20 주님의 분노는 그가 그의 뜻을 다 이루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 21 내가 이 예언자들을 보내지 않았으나, 그들은 달려갔다.
- 22 그러나 그들이 내 모임에 섰다면,
- 23 "내가 가까이 계신 하느님이 아니고, 멀리 계신 하느님이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24 누가 은밀한 곳에 숨어서 내가 하늘과 땅을 채우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25 나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들었다. 그들은 '내가 꿈을 꾸었소! 내게 꿈이 나타났소!'라고 말한다.
- 26 이 거짓을 예언하는 예언자들, 곧 그들의 마음속 속임수를 예언하는 자들의 마음에 이 일이 얼마나 오래 있을 것인가?
- 27 그들은 각자 이웃에게 자신의 꿈을 말함으로써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한다.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 때문에 내 이름을 잊었듯이.
- 28 꿈을 본 예언자는 꿈을 말하라.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성실히 말하라. 깊은 밀과 무엇이 관련이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29 내 말이 불이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말이 바위를 부수는 망치가 아니냐?
- 30 그러므로 보라, 나는 각자 이웃에게서 내 말을 훔치는 예언자들에 반대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31 보라, 나는 내 입술을 사용하여 '그가 말했다'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에 반대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³² 보라, 나는 거짓 꿈을 예언하고, 그 꿈을 말하며, 그들의 거짓과 허망한 자량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에 반대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않는다.
- ³³ 이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물어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할 때, 너는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냐?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라.
- ³⁴ ‘주님의 메시지’라고 말하는 예언자, 제사장, 백성에게 나는 그 사람과 그의 집안을 벌하겠다.
- ³⁵ 너는 각자 이웃에게, 각자 형제에게 ‘주님은 무엇이라 대답하셨는가?’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라고 말하라.
- ³⁶ 너는 더 이상 ‘주님의 메시지’라고 말하지 말라. 각자의 말이 그 자신의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아 계신 하느님, 만군의 주님, 우리 하느님의 말을 왜곡하였다.
- ³⁷ 너는 예언자에게 ‘주님은 너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셨는가?’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라고 말하라.
- ³⁸ 비록 너희가 ‘주님의 메시지’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 “주님의 메시지”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주님의 메시지”라고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 ³⁹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도시와 함께 내 앞에서 버리겠다.
- ⁴⁰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수치와 끝없는 부끄러움을 안기리니, 그것이 잊히지 않으리라.’

예레미야서 24장

- ¹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 주셨다. 보라, 바빌론 왕 느부카드네자르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의 귀족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장인들과 쇠붙이 장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바빌론으로 데려간 후, 두 바구니 무화과가 주님의 성전 앞에 놓여 있었다.
- ² 한 바구니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들어 있었고, 그것은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좋았다. 다른 바구니에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들어 있었는데, 그 무화과들은 너무나 나빠서 먹을 수가 없었다.
- ³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 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 ⁵ "이스라엘의 하느님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좋은 무화과들처럼, 내가 이 땅에서 갈대아 땅으로 내보낸 유다의 포로들을 좋게 여기겠다."
- ⁶ "내가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그들을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허물지 않으며, 심고 뽑아내지 않겠다."
- ⁷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알게 하는 마음을 주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겠다. 그들이 온 마음으로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 ⁸ "나쁜 무화과들처럼, 곧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쁜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귀족들과, 이 땅에 남아 있는 예루살렘의 잔여자들과, 이집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겠다."
- ⁹ "내가 그들을 온 세상의 모든 왕국들 사이에 흩어져 떠돌게 하여, 악의 표본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쫓아내는 모든 곳에서 비방과 속담, 조롱과 저주가 되리라."
- ¹⁰ "내가 그들 사이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이르리라."

예레미야서 25장

- 1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으니, 이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김 네 번째 해, 곧 바빌론 왕 느부카드네자르의 첫째 해였다.
- 2 예레미야 예언자는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게 말하였다.
- 3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된 지 열세 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스물세 해 동안,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말해 왔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 4 주님은 너희에게 그의 모든 종 곧 예언자들을 아침 일찍 일으켜 보내셨으나, 너희는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 5 그분은 말씀하셨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너희 행위의 악함에서 돌아서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옛적부터 영원히 주었던 땅에 거할 것이다."
- 6 너는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일로 나를 격노하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 7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너희 손으로 만든 일로 나를 격노하게 하여 스스로 해를 끼쳤다."
- 8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 9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의 모든 족속을 불러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내 종 바빌론 왕 느부카드네자르를 보내어 이 땅과 그 땅의 주민들과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고, 놀라움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게 하며, 영원한 황폐함으로 만들리라."
- 10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즐거움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석밀을 갈아서 만드는 바퀴 소리와 등불의 빛을 빼앗아 버리리라.
- 11 이 온 땅이 황폐하고 놀라움이 될 것이며, 이 모든 나라들이 바빌론 왕을 섬기며 칠십 년을 지낼 것이다.
- 12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나라의 죄악을 벌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갈대아 땅을 영원히 황폐하게 만들리라."
- 13 내가 그 땅에 내가 그에 대하여 말한 모든 말씀, 곧 예레미야가 모든 나라에 대하여 예언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내리리라.
- 14 많은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손으로 한 일에 따라 그들에게 보응하리라."
- 15 이스라엘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라."
- 16 그들이 마시고, 흔들리며, 미치게 될 것이니, 내가 그들 사이에 보내는 칼 때문이라."
- 17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 주님이 나를 보내신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였다.
- 18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과 그 왕들과 그 지도자들을 마시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들을 황폐하고 놀라움과 비웃음의 대상, 저주가 되게 하였으며,
- 19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지도자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 20 모든 혼합된 백성과, 우스 땅의 모든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왕들, 아스켈론과 가자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남은 자들과,
- 21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 22 두르의 모든 왕들과, 시몬의 모든 왕들과, 바다 저편 섬의 왕들과,
- 23 데단과 테마와 부스와, 수염 끝을 깎는 모든 자들과,
- 24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사막에 거하는 모든 혼합된 백성의 왕들과,
- 25 짐브리의 모든 왕들과, 엘람의 모든 왕들과, 메디의 모든 왕들;
- 26 먼 곳과 가까운 곳의 모든 북방 왕들과, 서로 함께하며,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 세사크의 왕이 그 뒤에 마실

것이다.

²⁷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셔라. 취하여라. 토해내고, 쓰러져 일어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때문에.""

²⁸ 그들이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부한다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반드시 마실 것이다."

²⁹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에서 먼저 악을 행한다. 그런데 너희는 결코 벌을 받지 않을 것인가? 너희는 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땅 위의 모든 주민들에게 칼을 불러올 것이다.

³⁰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말을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울부짖으실 것이다,"

³¹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³²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악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퍼질 것이다,"

³³ 그날 주님의 살해된 자들이 땅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애도되지 않을 것이며, 모아지지도 않고 묻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땅 위의 분노가 될 것이다.

³⁴ 울부짖어라, 목자들이여, 외쳐라.

³⁵ 목자들은 도망갈 길이 없을 것이다.

³⁶ 목자들의 외침의 소리,

³⁷ 평화로운 양치기 마을은 침묵에 잠기고,

³⁸ 사자가 그 은신처를 떠났다.

예레미야서 26장

- ¹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즉위한 초반에,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 ² “주님은 이렇게 말한다. ‘주님의 집 마당에 서서, 주님의 집에 와서 예배하는 유다 모든 도시의 모든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모두 전하여라. 한 마디도 빠뜨리지 말아라.
- ³ 아마도 그들이 듣고, 각자가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그들이 행한 악으로 인해 그들에게 하려고 하는 악에서 돌이키게 될지도 모른다.’”
- 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가 너희 앞에 놓은 내 율법을 따라 걷지 않고,
- ⁵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내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면,
- ⁶ 내가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고, 이 도시를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가 되게 하겠다.’”
- ⁷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은 주님의 집에서 예레미야가 이 말들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 ⁸ 예레미야가 주님께서 그에게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말을 모두 마치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아 말했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 ⁹ 너는 어찌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 집은 실로처럼 되고, 이 도시는 거주자가 없이 황폐해질 것이다’라고 말하느냐?” 모든 백성은 주님의 집에서 예레미야를 둘러쌌다.
- ¹⁰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왕의 집에서 나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 주님의 집 새 문의 입구에 앉았다.
- ¹¹ 그러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죽을 죄를 범했습니다. 그가 너희가 귀로 들은 대로 이 도시를 향해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 ¹² 그러자 예레미야가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너희가 귀로 들은 모든 말을 이 집과 이 도시를 향해 예언하게 하셨다.
- ¹³ 이제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느님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여라. 그러면 주님은 너희를 향해 선포한 재앙에서 돌이키실 것이다.
- ¹⁴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보아라, 나는 너희 손에 있다. 너희가 너희 눈에 좋고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나에게 하여라.
- ¹⁵ 오직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만약 너희가 나를 죽인다면, 너희 자신과 이 도시와 그 주민들에게 무죄한 피를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진실로 주님은 너희 귀에 이 모든 말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 ¹⁶ 그러자 관리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 ¹⁷ 그러자 땅의 어떤 장로들이 일어나 모든 백성의 모임에 말했다.
- ¹⁸ “유다 왕 히즈기야 시대에 모르세테 미가가 예언하여 유다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주님 만군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은 발처럼 갈릴 것이며,”
- ¹⁹ 유다의 왕 히즈기야와 유다가 그를 죽였습니까? 그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간구하여 주님께서 그들에게 선고하신 화를 돌이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영혼에게 큰 악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 ²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그는 기리아트예아림의 세마야의 아들 우리야였으며, 그는 예레미야의 모든 말에 따라 이 도시와 이 땅을 향해 예언하였다.
- ²¹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들과 모든 관리들이 그의 말을 듣고, 왕은 그를 죽이려 하였다. 그러나 우리야가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이집트로 갔다.
- ²² 그러자 여호야김 왕은 아크보르의 아들 엘나탄과 몇 명의 사람을 이집트로 보냈다.
- ²³ 그들은 우리야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왔는데, 왕은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무덤에 버렸다.
- ²⁴ 그러나 사판의 아들 아히캄의 손이 예레미야와 함께 있었으므로, 그를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이지 못하였다.

예레미야서 27장

- ¹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초반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 ²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멩에와 줄을 만들어 목에 메어라."
- ³ 그런 다음 그 멩에와 줄을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르 왕, 시돈 왕에게 사신들을 통해 전하여라. 이 사신들은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예루살렘에 와 있다.
- ⁴ 너는 그 사신들에게 그들의 주인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주인들에게 말하여라."
- ⁵ "내가 내 큰 힘과 펼친 팔로 땅과 땅 위의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으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땅을 준다."
- ⁶ 지금 내가 모든 땅을 내 종인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겼다. 내가 들의 모든 짐승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다.
- ⁷ 모든 민족이 그와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손자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의 시대가 이르기까지이다. 그 후에 많은 민족과 큰 왕들이 그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 ⁸ "그러나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고, 그의 멩에를 목에 메지 않는 나라와 왕국에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을 내리겠다. 내가 그들을 그의 손으로 멸망시킬 때까지이다." 주님의 말이다.
- ⁹ 그러나 너희는 너희 예언자들과 점쟁이들과 꿈꾸는 자들과 주술사들과 마법사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너희는 바빌론 왕을 섬기지 말라"고 말한다.
- ¹⁰ 그들은 너희를 거짓으로 예언하여 너희를 땅에서 멀리 떨어뜨리려 하며,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 너희가 멸망하게 하려 한다.
- ¹¹ 그러나 바빌론 왕의 멩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에는 내가 그 땅에 머물게 하겠다." 주님의 말이다. "그들은 그 땅을 경작하고 거주할 것이다."
- ¹²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말을 하며 말했다. "너는 바빌론 왕의 멩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며 살아라."
- ¹³ 너와 네 백성이 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려 하는가? 주님께서 바빌론 왕을 섬기지 않는 나라에 대해 말씀하신 바와 같지 아니한가?
- ¹⁴ 너는 너희에게 "너희는 바빌론 왕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다.
- ¹⁵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주님의 말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여,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멸망하게 하려 한다."
- ¹⁶ 나는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예언자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보라, 주님의 집의 그릇들이 곧 바빌론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다."
- ¹⁷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바빌론 왕을 섬기며 살아라. 이 성이 어찌하여 황폐해지려 하는가?
- ¹⁸ 그들이 진정한 예언자라면, 주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다면, 그들이 지금 만군의 주님께 간구하여, 주님의 집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릇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라.
- ¹⁹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성에 남아 있는 기둥들과 바다와 받침대들과 나머지 그릇들에 관해 말씀하신다.
- ²⁰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를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을 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져가지 않은 그릇들이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들을 끌고 갔다.
- ²¹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집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릇들에 관해:
- ²² "그것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며, 거기서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는 날까지이다." 주님의 말이다. "그 때 내가 그들을 데려올 것이며, 이 곳으로 되돌려 주겠다."

예레미야서 28장

- ¹ 그 해, 유다 왕 시드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한 지 네 번째 해, 다섯 번째 달에, 기브온 출신의 예언자 아술의 아들 하나니아가 주님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나에게 말했다.
- ² “만군의 주이자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빌론 왕의 멍에를 부셨다.’
- ³ 두 해 안에 내가 바빌론 왕 느부카드네자르가 이곳에서 가져가서 바빌론으로 옮긴 주님의 집의 모든 기구들을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 ⁴ 내가 유다 왕 요아킴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모든 포로들을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주님의 말이다. ‘내가 바빌론 왕의 멍에를 부실 것이다.’”
- ⁵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제사장들과 주님의 집에서 있는 모든 백성 앞에서 예언자 하나니아에게 말했다.
- ⁶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이 예언한 그 말을 이루시어, 주님의 집의 기구들과 모든 포로들을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 ⁷ 그러나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말하는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 ⁸ 나보다 먼저 있었고, 옛적부터 있었던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들과 큰 왕국들에 대해 전쟁과 환난과 전염병을 예언했습니다.
- ⁹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 그가 진실로 주님께서 보내신 자임이 드러납니다.’
- ¹⁰ 그러자 예언자 하나니아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떼어내어 부수었다.
- ¹¹ 하나니아가 모든 백성 앞에서 말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와 같이 두 해 안에 바빌론 왕 느부카드네자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부수겠다.’” 그 후 예언자 예레미야는 길을 떠났다.
- ¹² 예언자 하나니아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부수고 난 후,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 ¹³ “가서 하나니아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무로 된 멍에를 부셨지만, 너는 그 대신 철로 된 멍에를 만들었다.”
- ¹⁴ 만군의 주이자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철로 된 멍에를 씌웠다. 그들이 바빌론 왕 느부카드네자르를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그를 섬길 것이다. 내가 들의 모든 짐승도 그에게 주었다.’”
- ¹⁵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자 하나니아에게 말했다. “들어라, 하나니야! 주님은 너를 보내지 않으셨다. 그러나 너는 이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고 있다.
- ¹⁶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땅 위에서 끌어내겠다. 올해 안에 너는 죽을 것이다. 이는 네가 주님께 반역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 ¹⁷ 그러므로 예언자 하나니야는 그 해 일곱 번째 달에 죽었다.

예레미아서 29장

- 1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간 예루살렘의 포로 가운데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낸 편지의 말이다.
- 2 (여호야긴 왕과 왕비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 3 사판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게마리야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 왕 시드기야가 보냈다. 그 편지는 이렇게 말했다:
- 4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간 모든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 5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정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 6 아내를 맞아들여 아들과 딸을 낳아라. 너희 아들들에게 아내를 주고, 너희 딸들을 남편에게 시집보내라. 그들이 아들과 딸을 낳게 하여,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 7 내가 너희를 끌려가게 한 그 도시의 평화를 구하고, 그 도시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여라. 너희가 그 도시의 평화를 누릴 때, 너희도 평화를 누릴 것이다."
- 8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을 속이지 말고, 너희가 꾸는 꿈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 9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주님의 말이다.
- 10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바빌론이 칠십 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약속한 선한 말을 이루어, 너희를 이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 11 내가 너희를 향해 품은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의 말이다. "그것은 화를 끼치려는 생각이 아니라, 평화를 주려는 생각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 12 너는 내게 부르짖을 것이며, 나아가 내게 기도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 13 너는 내게 간절히 구할 것이며,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는 나를 찾고 만날 것이다.
- 14 내가 너희에게 찾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너희를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쫓아낸 모든 곳에서 모아서, 내가 너희를 끌려가게 한 그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 15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바빌론에서 예언자들을 일으키셨다."
- 16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과, 이 도시에 거주하는 너희 형제들, 곧 너희와 함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모든 백성에 관해 말씀하신다.
- 17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어, 너무나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 18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쫓아, 내가 쫓아낸 모든 나라들 사이에 흩어져, 두려움과 놀람과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 19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보낸 나의 종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일찍이 일으켜 보내었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주님의 말이다.
- 20 그러므로 너희,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간 모든 포로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 21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내 이름으로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 코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관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그들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 22 바빌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들이 그들을 향해 저주를 외칠 것이다. "주님이 너희를 바빌론 왕이 불 속에서 굶힌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만들기를 원한다."
- 23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고, 내가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내 이름으로 거짓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알고 있으며, 증인이다." 주님의 말이다.
- 24 네헬라미트 사람 세마야에 관해 너는 이렇게 말하라.

- ²⁵ 주님 만군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말한다. ‘너는 너 자신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이렇게 말했다.’
- ²⁶ ‘주님께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자리를 대신하여 너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주님의 집에서 매일 미친 자나 스스로 예언자라 하는 자를 채찍에 매고 쇠사슬에 묶게 하려는 것이다.’
- ²⁷ 그러므로 너는 왜 너에게 예언자라 하는 아나돗의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는가?
- ²⁸ 그가 우리에게 바빌론에서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포로 생활은 길다.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라. 정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어라.’ 하기 때문이다.”
- ²⁹ 제사장 스바냐가 이 편지를 예레미야 예언자의 귀에 읽어 주었다.
- ³⁰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 ³¹ ‘포로들에게 보내어 말하여라. “주님이 느헬라미 사람 세마야에 관해 말씀하신다. ‘세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였으나, 나는 그를 보내지 않았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거짓을 신뢰하게 만들었다.”
- ³² 그러므로 주님이 말한다. ‘보라, 나는 느헬라미 사람 세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할 것이다. 그는 이 백성 가운데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는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할 선한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말한다. ‘그가 주님을 거스르는 반역을 말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서 30장

- ¹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린 말씀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 ²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이 말한다. 내가 네게 말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여라.
- ³ 보아라, 날들이 이르리라." 주님이 말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 된 상태를 되돌리리라." 주님이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 ⁴ 이것은 주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해 하신 말씀이다.
- ⁵ 주님이 말한다. "우리는 떨리는 소리를 들었다.
- ⁶ 지금이라도 물어보아라. 남자가 임신하는가?
- ⁷ 아, 그 날이 위대하도다. 그와 같은 날은 없도다!
- ⁸ 그 날에,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내가 너의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리리라.
- ⁹ 그들은 주님 자신의 하느님을 섬기리라.
- ¹⁰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야곱아." 주님이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 ¹¹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구원하리라." 주님이 말한다.
- ¹² 주님이 말한다. "네 상처는 낫지 아니하도다.
- ¹³ 네가 묵이게 해줄 이가 없고, 네게 치료약도 없도다.
- ¹⁴ 네 모든 연인들이 너를 잊어버렸도다.
- ¹⁵ 네 상처 때문에 어찌하여 울부짖느냐?
- ¹⁶ 그러므로 너를 삼키는 자들은 모두 삼켜지리라.
- ¹⁷ 내가 너에게 건강을 회복하리라." 그들이 너를 버린 자라며, "시온이라. 누구도 그를 찾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 ¹⁸ 주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야곱의 장막들의 포로 된 상태를 되돌리리라.
- ¹⁹ 감사의 소리가 그들 가운데서 나올 것이며,
- ²⁰ 그들의 자녀들도 이전과 같을 것이며,
- ²¹ 그들의 통치자는 그들 중 하나가 될 것이며,
- ²² "너는 내 백성이 되고,
- ²³ 보아라, 주님의 폭풍, 그분의 진노가 나가고,
- ²⁴ 주님의 격렬한 분노는 그분이 완수할 때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서 31장

- 1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 2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총을 받았다. 내가 그가 쉬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였다.”
- 3 주님께서 옛적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왔다.”
- 4 나는 너를 다시 건설할 것이다.
- 5 너는 다시 사마리아의 산들에 포도원을 심을 것이다.
- 6 에브라임의 언덕에서 파수꾼들이 외칠 날이 올 것이다. ‘일어나라! 우리 주님 하느님께 시온으로 올라가자.’
- 7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위해 기쁨으로 노래하여라. ‘주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 8 보아라, 내가 그들을 북쪽 땅에서 데려오고, 눈먼 자와 절뚝거리는 자를 함께 데려오겠다.
- 9 그들은 울면서 올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첫아들이다.
- 10 “나라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을 흠어 놓은 이가 그를 모을 것이다.
- 11 주님께서 야곱을 속량하셨다.
- 12 그들은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며 올 것이다.
- 13 그때 처녀가 춤으로 기뻐할 것이고,
- 14 나는 제사장들의 영혼을 기쁨으로 만족시키겠다.
- 15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 16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눈물의 소리를 그치라. 그들이 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 17 네 끝날에 희망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녀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 18 “내가 에브라임이 이렇게 슬퍼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당신이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 19 내가 돌아선 후에야 비로소 나는 회개했습니다.
- 20 에브라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인가?
- 21 “길가에 표지판을 세우고, 네가 갔던 길을 명확히 하라.
- 22 네가 언제까지 여기저기 헤매려 하는가?
- 23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포로 생활을 끝낼 때, 유다 땅과 그 도시들에서 이 말을 다시 쓰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복되게 하시고, 의로움의 거처요, 성결의 산을.’”
- 24 유다와 그 모든 도시의 농부들과 양 떼를 몰고 다니는 자들이 그곳에 함께 거주할 것이다.
- 25 내가 피곤한 영혼을 만족시키고, 모든 슬픈 영혼을 채웠다.
- 26 이것을 듣고 내가 깨어나 보니, 내 잠이 내게 달콤하였다.
- 27 “보라, 날이 이르리라.” 주님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것이다.”
- 28 내가 그들을 뽑아내고 무너뜨리며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괴롭히는 데에 주의를 기울였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주님의 말이다.
- 29 “그 날들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리라. ‘아버지들이 신맛 나는 포도를 먹었으니, 자식들의 이가 시다.’”
- 30 그러나 각자 자기 죄악 때문에 죽으리라. 신맛 나는 포도를 먹는 모든 사람은 그의 이가 시다.
- 31 “보라, 날이 이르리라.” 주님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 32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으리라. 그들은 내 언약을 어겼으나,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노라.” 주님의 말이다.
- 33 “그러나 내가 그 날들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주님의 말이다.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 34 그들이 더 이상 이웃이나 형제를 가르쳐 말하지 않으리라. “주님을 알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 35 주님, 곧 낮에는 해를 빛으로 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법칙으로 정하시며, 바다를 흔들어 그 파도를 소용돌이치게 하

시는 분이 말한다.

³⁶ "이 규례들이 내 앞에서 떠나간다면." 주님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자손도 내 앞에서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³⁷ 주님이 말씀하신다. "하늘 위를 측량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의 자손도 내 앞에서 버림받아 끝나리라."

³⁸ "보라, 날이 이르리라." 주님의 말이다. "그 도시는 하나넬의 망대에서 모퉁이 문까지 주님을 위하여 건축될 것이다."

³⁹ 측량 줄은 가렙 산을 향해 직선으로 더 나아가고, 고아를 향해 돌아설 것이다.

⁴⁰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키론 시내까지, 동쪽 말 문 모퉁이까지의 모든 들은 주님께 성결할 것이다. 이곳은 다시는 뽑히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서 32장

- 1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으로서 열째 해, 곧 네부카드네자르의 열여덟째 해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 2 그때에 바빌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전 안에 있는 경비대 마당에 갇혀 있었다.
- 3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를 잡아 놓고 말했다. "너는 왜 예언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도시를 바빌론 왕의 손에 넘기겠다. 그가 이를 점령할 것이다.'라고 말하는가?"
- 4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반드시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져 그와 대면할 것이며, 그의 눈으로 바빌론 왕의 눈을 볼 것이다.
- 5 그가 시드기야를 바빌론으로 데려가서, 내가 그를 방문할 때까지 그가 거기 머무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비록 너희가 갈대아인들과 싸우더라도, 너희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 6 예레미야가 말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 7 "보라, 네 삼촌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내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너에게 팔겠다. 그 밭의 구속권은 네게 있으니, 그것을 사라."라고 말할 것이다."
- 8 그러므로 내 삼촌의 아들 하나멜이 주님의 말씀대로 경비대 마당에 내게 와서, "내가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의 밭을 사라. 그 밭의 상속권과 구속권은 네게 있다. 너 자신을 위해 사라."라고 말하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알았다.
- 9 나는 내 삼촌의 아들 하나멜이 가진 아나돗의 밭을 사고, 은 열일곱 세겔을 그에게 저울로 달아 주었다.
- 10 나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것을 봉인하며, 증인들을 불러서, 그에게 은을 저울로 달아 주었다.
- 11 그러므로 나는 봉인된 계약서, 즉 조건과 규정이 기록된 계약서와, 개방된 계약서를 모두 가져왔다.
- 12 나는 내 삼촌의 아들 하나멜과,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 앞에서, 그리고 경비대 마당에 앉아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네리아의 아들 마세야의 아들 바룩에게 계약서를 넘겼다.
- 13 "나는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말하였다.
- 14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약서, 곧 봉인된 계약서와 개방된 계약서를 가져다가 흙항아리에 넣어, 오랜 날 동안 보존하라."
- 15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이 다시 사게 될 것이다."
- 16 나는 바룩, 네리아의 아들에게 계약서를 넘긴 후,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하느님!
- 17 "아, 주 하느님! 보소서, 당신은 당신의 위대한 힘과 펼쳐진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당신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 18 당신은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베푸시며,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의 품에 갇으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시고 강력하신 하느님, 만군의 주님입니다.
- 19 당신은 계획이 위대하시고 행위가 강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바라보시어, 각 사람의 길과 그가 행한 열매에 따라 보답하시는 분입니다.
- 20 당신은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기적을 행하셨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하셨으며, 오늘날과 같이 당신의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 21 당신은 표징과 기적과 강한 손과 펼쳐진 팔과 큰 두려움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 22 당신은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우유와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 23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였으나, 당신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 24 "보소서, 성채를 공격하기 위한 흙 언덕이 성을 향해 쌓였습니다. 성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그것을 보십니다.
- 25 주 하느님, 당신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밭을 사고 증인을 불러라.' 그런데도 이 도시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졌습

니다.

26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습니다.

27 “보아라, 나는 주님이다. 모든 육체의 하느님이다. 내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28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도시를 갈대아인의 손과 바빌론 왕 느부카드네자르의 손에 넘기겠다. 그가 이 도시를 빼앗을 것이다.

29 이 도시와 싸우는 갈대아인들이 와서 이 도시를 불태우고, 그 집들의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تن 집들을 불태울 것이다. 이는 나를 격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30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은 어릴 때부터 내 눈앞에서 악한 일만 해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손으로 한 일로 나를 격노하게 해왔다.” 주님의 말이다.

31 이 도시는 그들이 세운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격노와 분노의 원인이 되어 왔다. 그래서 나는 이 도시를 내 앞에서 제거하려 한다.

32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내게 격노를 일으키기 위해 행한 모든 악 때문이다. 그들 자신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들의 사제들과 그들의 예언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모두 그러하였다.

33 그들은 내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은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4 그들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가증한 것들을 세워 그것을 더럽혔다.

35 그들은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높은 곳을 세워 자기 아들과 딸들을 불을 통과시켜 몰렉에게 바쳤다. 나는 그들에게 이 일을 명령하지 않았고, 이 가증한 일을 하게 하여 유다가 죄를 범하게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36 그러므로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너희가 말하는 이 도시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이 도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졌다.’

37 “보아라, 내가 나의 격노와 분노와 큰 진노로 그들을 끌어내어 보낸 모든 땅에서 그들을 모아 이 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이 안전하게 거주하게 할 것이다.

38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39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내가 영원히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과 그 후손들의 복을 위해서이다.

40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41 내가 그들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복을 주고, 내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이 땅에 그들을 굳게 심겠다.

42 주님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43 너희가 말하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진 황폐한 땅’에서 밭이 사워질 것이다.

44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과 유다의 성들과 산지의 성들과 평지의 성들과 남방의 성들에서, 사람들이 돈으로 밭을 사고 문서에 서명하고 봉인하며 증인을 불러들일 것이다. 내가 그들의 포로 생활을 끝내겠다.” 주님의 말이다.

예레미야서 33장

- 1 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그때 그는 경비병의 마당에 갇혀 있었는데, 주님은 말씀하셨다.
- 2 "이 일을 행하시고, 이를 세우시는 주님, 그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다.
- 3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네게 보여 주겠다."
- 4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은, 이 도시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즉 흙무더기와 칼에 대항하여 허물어진 집들에 관해 말씀하신다.
- 5 "사람들이 갈대아인들과 싸우러 오며, 내가 내 분노와 진노로 죽인 사람들의 시체로 이 도시를 채우는 동안,
- 6 보라, 내가 이 도시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다줄 것이며, 그들을 고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평화와 진리의 풍성함을 드러낼 것이다.
- 7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운명을 회복하여 처음과 같이 그들을 세울 것이다.
- 8 내가 그들의 모든 죄악, 곧 내가 범한 모든 죄와 반역을 씻어낼 것이며,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할 것이다.
- 9 이 도시는 내 앞에서 모든 땅의 민족들 앞에서 기쁨의 이름과 찬양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을 듣고, 내가 이 도시에 주는 모든 선과 평화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 10 주님은 말씀하신다. "이곳에서 다시 들릴 것이다. 너희는 이곳을 말하기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폐한 곳'이라고 하였으나,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 즉 사람도 없고, 거주자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폐한 곳에서,
- 11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주님의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자비가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들은 감사의 제물을 주님의 집에 가져올 것이다. 내가 이 땅의 포로 된 자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하리라." 주님의 말이다.
- 12 만군의 주님은 말씀하신다. "이곳, 즉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폐한 곳과 그 모든 도시들에서, 다시 목자들이 양 떼를 눕히는 거처가 생길 것이다.
- 13 산지의 도시들, 평야의 도시들, 남방의 도시들, 베냐민 땅, 예루살렘 주변과 유다의 모든 도시들에서, 양 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을 지나갈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 14 "보라, 날들이 이르리라." 주님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관해 내가 말한 그 선한 말씀을 이루겠다.
- 15 "그때와 그 시기에,
- 16 그대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 17 주님은 말씀하신다. "다윗은 이스라엘 집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 18 레위인 사제들은 내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태우며, 끊임없이 제사를 드릴 사람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 19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 20 "주님은 말씀하신다. "너는 내 낮의 언약과 내 밤의 언약을 깨뜨릴 수 있느냐? 그리하여 그대에 낮과 밤이 없어지게 할 수 있느냐?
- 21 그러면 나도 내 종 다윗과의 언약을 깨뜨려, 그가 내 앞에서 왕좌에 앉을 아들을 갖지 못하게 할 수 있고, 레위인 사제들, 곧 나의 봉사자들과의 언약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 22 하늘의 군대는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는 측정할 수 없듯이, 내가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많이 늘릴 것이다."
- 23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 24 "이 백성이 말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말하기를, '주님이 택하신 두 가족을 버리셨는가?' 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을 경멸하여, 그들이 다시는 나 앞에 한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한다."
- 25 주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을 폐하지 않고, 하늘과 땅의 법칙을 정하지 않았다면,
- 26 내가 야곱의 자손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 그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을 다스리는 자를 뽑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예레미야서 34장

- 1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지배 아래 있는 온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들을 공격할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린 말씀은 이러하였다.
- 2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가 불로 그것을 태울 것이다."
- 3 너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반드시 잡혀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너는 바빌론 왕의 눈을 보게 될 것이며, 그는 네 입과 입을 맞대어 말할 것이다. 너는 바빌론으로 갈 것이다."
- 4 "그러나 듣거라, 유다 왕 시드기야야,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너에 관해 말씀하신다. 너는 칼에 죽지 않을 것이다."
- 5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네 조상들, 곧 너보다 앞선 이전 왕들이 죽을 때처럼, 그들도 너를 위해 불을 지를 것이다. 그들은 너를 위해 슬퍼하며 말할 것이다. "아, 주님!" 내가 말한 바를 내가 이루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6 그러므로 예레미야 예언자는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 7 바빌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남아 있는 유다의 모든 성들, 곧 라키스와 아제카를 공격하고 있을 때였다. 유다의 성들 중에서 이 두 성만이 요새로 남아 있었다.
- 8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후,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린 말씀이 있었다.
- 9 모든 남자는 자기 히브리인 남종과 자기 히브리인 여종을 자유롭게 보내야 하며, 유다 형제를 노예로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 10 언약에 참여한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모두 자기 남종과 자기 여종을 자유롭게 보내고, 더 이상 그들을 노예로 삼지 않기로 순종하였다. 그들은 순종하여 그들을 자유롭게 보냈다.
- 11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은 돌아서서, 자기들이 자유롭게 보낸 종들과 여종들을 다시 데려와서 노예와 여종으로 삼았다.
- 12 그러므로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 13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 땅, 노예의 집에서 그들을 데려낸 날에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어 말하였다.
- 14 일곱 해가 지나면, 너희 각자는 자기에게 팔려 와서 여섯 해 동안 너희를 섬긴 히브리인 형제를 해방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너희에게서 자유롭게 보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 15 지금 너희는 돌아서서 내 눈에 옳은 일을 하여, 각자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였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서 내 앞에 언약을 맺었다.
- 16 그러나 너희는 돌아서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너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보낸 종들과 여종들을 다시 데려와서, 그들을 너희의 노예와 여종으로 삼았다."
- 17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웃과 형제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의 자유를. 내가 너희를 세상 모든 나라들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 18 내가 어린 송아지를 둘로 자르고 그 사이를 지나간 자들, 곧 내 언약을 어기고 그들이 송아지를 자르고 그 사이를 지날 때 내 앞에서 맹세한 언약의 말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내게 넘겨주겠다.
- 19 유다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사제들과 땅의 모든 백성들, 곧 송아지를 둘로 자르고 그 사이를 지나간 자들을 내게 넘겨주겠다.
- 20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의 시체는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 21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지도자들을 그들의 원수들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너희를 떠나 간 바빌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주겠다."
- 22 보라, 내가 명령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을 이 성으로 되돌려보내겠다. 그들이 이 성을 공격하고, 빼앗고, 불로 태울 것이다. 내가 유다의 모든 성들을 황폐하게 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못하게 하겠다."

예레미야서 35장

- ¹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קים의 날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이다.
- ² "레가브의 자손들의 집으로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주님의 집으로 데려가서, 한 방에 들여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 ³ 그러므로 나는 하바진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지나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과 레가브의 온 집을 데려왔다.
- ⁴ 나는 그들을 주님의 집으로 데려가서, 하난의 아들 이그다랴, 곧 하느님의 사람의 방에 넣었다. 그 방은 왕자들의 방 옆에 있었고,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 문지기의 방 위에 있었다.
- ⁵ 나는 레가브의 자손들 앞에 포도주로 가득 찬 그릇과 잔을 놓고, 그들에게 말했다. "포도주를 마셔라."
- ⁶ 그러나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레가브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와 네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 ⁷ 너는 집을 짓지 말고, 씨를 뿌리지 말며, 포도원을 심지 말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 너희는 평생 천막에 거주하여,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오래 살게 하라."
- ⁸ 우리는 우리 아버지 레가브의 아들 요나답의 말을 모두 따랐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내들과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은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 ⁹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포도원도 들도 씨앗도 없습니다.
- ¹⁰ 우리는 천막에 거주하며, 우리 아버지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행했습니다.
- ¹¹ 그러나 바빌론 왕 느부카드네자르가 이 땅에 올라올 때, 우리는 말했습니다. '오라. 칼데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자.'"
- ¹²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 ¹³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 말을 듣기 위해 교훈을 받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이다."
- ¹⁴ "레가브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아들들에게 내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은 지금까지 이루어졌다. 그들은 아직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해 왔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말해 왔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 ¹⁵ 나는 너희에게 내 모든 중, 곧 예언자들을 아침 일찍 일으켜 보내며 말했다. '너희 각자는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너희의 행위를 고치며,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 너희가 거주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 ¹⁶ 레가브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명령을 지켰으나, 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 ¹⁷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¹⁸ 예레미야가 레가브의 집에 말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너희 아버지 요나답의 명령을 따르고,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했기 때문에,'"
- ¹⁹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레가브의 아들 요나답은 내 앞에 서는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서 36장

- 1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네 번째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 2 "서책 한 권을 가져와서,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들에 대해 네게 말한 모든 말을 그 위에 기록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하기 시작한 날,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말을 기록하여라."
- 3 "유다 집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는 모든 재앙을 듣고, 각자가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죄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 4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느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바룩이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입에서 듣고 서책에 기록하였다.
- 5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나는 제한되어 있어서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 6 그러므로 너는 가서, 네가 내 입에서 기록한 주님의 말을 주님의 집에서 금식하는 날에 백성의 귀에 읽어라. 또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도시에서 나올 때마다 그 말을 그들의 귀에 읽어라.
- 7 "그들이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 각자가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 모른다.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큰 진노와 분노를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 8 느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명령한 대로 모두 행하여,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말을 서책에 기록하여 백성의 귀에 읽었다.
- 9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다섯 번째 해, 아홉 번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백성은 주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였다.
- 10 바룩은 주님의 집, 서기관 샤폰의 아들 게마리야의 방, 주님의 집 새 문의 위쪽 마당에서, 모든 백성의 귀에 예레미야의 말을 서책에서 읽었다.
- 11 샤폰의 아들 게마리야의 아들 미가야가 서책에서 주님의 모든 말을 들었을 때,
- 12 그는 왕의 집으로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갔다. 보라, 모든 관원들이 거기 앉아 있었다. 서기관 엘리사마, 세마야의 아들 데라야, 아크보르의 아들 엘나단, 샤폰의 아들 게마리야,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그리고 모든 관원들이었다.
- 13 그러므로 미가야는 바룩이 백성의 귀에 서책을 읽을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알렸다.
- 14 그러므로 모든 관원은 쿠시의 아들 셀레미야의 아들 네다니야를 바룩에게 보내며 말했다. "네가 백성의 귀에 읽은 서책을 손에 들고 와라."
- 15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지금 앉아서 우리 귀에 읽어라."
- 16 그들이 모든 말을 들은 후, 서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바룩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을 반드시 왕에게 알릴 것이다."
- 17 그들이 바룩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해라.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네가 어떻게 이 모든 말을 기록했느냐?"
- 18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가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지시하였고, 나는 먹물로 서책에 기록하였다."
- 19 그러므로 관원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너와 예레미야는 숨어라. 누구도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라."
- 20 그들은 왕의 마당으로 들어갔으나,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서책을 두어두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귀에 모든 말을 전하였다.
- 21 왕은 여후디를 보내어 서책을 가져오게 하였다. 여후디는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서책을 가져와서, 왕과 곁에 서 있던 모든 관원의 귀에 읽었다.
- 22 왕은 아홉 번째 달에 겨울 집에 앉아 있었고, 화로에 불이 타고 있었다.
- 23 여후디가 세 네 줄을 읽을 때마다, 왕은 붓칼로 그것을 자르고 화로에 있는 불 속에 던져 넣었으며, 서책이 화로에 있는 불 속에서 모두 타버릴 때까지 그렇게 하였다.
- 24 이 모든 말을 들던 왕과 그의 신하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옷을 찢지도 않았다.
- 25 엘나단과 데라야와 게마리야가 왕에게 간청하여 그 문서를 불태우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 26 왕은 왕의 아들 여라멜과 아스리엘의 아들 세라야와 아브디엘의 아들 셀레미야를 보내어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

야를 체포하게 하였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²⁷ 왕이 그 문서를 불태운 후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²⁸ 다른 문서를 다시 가져와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태운 첫 번째 문서에 쓰인 모든 이전의 말을 그 위에 다시 써라.

²⁹ 유다 왕 여호야김에 관해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이 문서를 불태우며,

³⁰ 그러므로 주님은 유다 왕 여호야김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는 다윗의 왕좌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의 시체는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서리에 버려질 것이다.'

³¹ 나는 그와 그의 자손과 그의 종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벌할 것이다. 나는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³² 그러자 예레미야는 다른 문서를 가져와서 느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고, 바룩은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말을 모두 기록하여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로 태운 책의 모든 말을 다시 썼으며, 그 위에 비슷한 말들을 더 많이 추가하였다.

예레미야서 37장

- 1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바빌론 왕 느부카드네자르가 유다 땅에서 그를 왕으로 세운 대로 왕이 되었다.
- 2 그러나 그와 그의 신하들과 그 땅의 백성 모두가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
- 3 왕 시드기야가 세레마야의 아들 여후칼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보내며 말했다. "우리를 위해 우리 하느님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 4 예레미야는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 사이에 드나들고 있었다.
- 5 이집트의 파라오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갈대아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물러났다.
- 6 그때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려졌다.
- 7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나에게 보내어 내 뜻을 묻는 유다 왕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를 도우려 나온 파라오의 군대는 자기 땅인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 8 갈대아인들은 다시 돌아와 이 성을 공격할 것이며, 그것을 점령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
- 9 "주님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갈대아인들이 반드시 우리에게서 떠날 것이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 10 비록 너희가 너희와 싸우는 갈대아인의 모든 군대를 치고 그들 중에 부상자만 남았다고 해도, 그들은 각자 자기 천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로 태울 것이다."
- 11 갈대아인의 군대가 파라오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물러났을 때,
- 12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자기 몫을 받으려 했다.
- 13 그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지휘관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냐의 아들 세레마야의 아들 이리야였다. 그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붙잡으며 말했다. "너는 갈대아인에게 투항하려 한다!"
- 14 예레미야가 말했다. "거짓입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투항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 15 귀족들이 예레미야에게 분노하여 그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는데, 그 집이 감옥이 되어 있었다.
- 16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과 감방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그곳에 머물렀을 때,
- 17 왕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끌어내게 하고, 자기 집 안에서 은밀히 물었다. "주님께서로부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 "
- 18 예레미야가 왕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이 백성에게 어떤 죄를 지었기에, 저를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 19 당신이 "바빌론 왕이 너희에게 오지도, 이 땅에 오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예언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 20 내 주 왕이여, 지금 제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저를 다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거기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 21 그러자 왕 시드기야가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군대의 마당에 가두었고, 매일 빵 군에서 빵 한 덩이를 주어 그가 도시의 모든 빵이 다 떨어질 때까지 먹게 하였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군대의 마당에 머물렀다.

예레미야서 38장

- 1 마탄의 아들 세파티야, 파스후르의 아들 게다리야, 셀레미야의 아들 유칼, 그리고 말기야의 아들 파스후르가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말을 들었다.
- 2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도시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지만, 갈대아인들에게 나아가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여 살아날 것이다."
- 3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도시는 분명히 바빌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그는 이 도시를 점령할 것이다."
- 4 그러자 관리들이 왕에게 말했다. "이 사람을 죽여 주십시오. 그가 이 도시에 남아 있는 전사들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 5 스데키야 왕이 말했다. "보십시오, 그는 당신들의 손에 있습니다. 왕은 당신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 6 그러자 그들은 예레미야를 끌고 왕의 아들 말기야의 감옥으로 내려보냈다. 그 감옥은 경비대 마당에 있었다. 그들은 로프를 이용해 예레미야를 아래로 내려보냈다. 그 감옥에는 물이 없고 진흙만 있었으며, 예레미야는 진흙에 빠졌다.
- 7 그때 왕의 궁전에 있던 에티오피아인 에브드멜렉, 즉 환관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던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다.
- 8 에브드멜렉은 왕의 궁전에서 나와 왕에게 말했다.
- 9 "내 주 왕이여, 이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를 감옥에 던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기근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도시에선 더 이상 빵이 없습니다."
- 10 그러자 왕은 에브드멜렉 에티오피아인에게 명령했다. "여기서 당신과 함께 삼십 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죽기 전에 감옥에서 끌어올리십시오."
- 11 에브드멜렉은 사람들과 함께 왕의 궁전, 보물 창고 아래로 내려가서 거기서 헨 옷과 찢어진 옷을 가져와서 로프로 감옥 속 예레미야에게 내려보냈다.
- 12 에브드멜렉 에티오피아인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이제 이 헨 옷과 찢어진 옷을 로프 아래 거드랑이 밑에 받쳐 놓으십시오."
- 13 그들이 로프를 이용해 예레미야를 들어 올려 감옥에서 끌어올렸다. 예레미야는 경비대 마당에 머물렀다.
- 14 그때 스데키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 예언자를 데려와서 주님의 집 안 세 번째 문으로 데려갔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 15 예레미야가 스데키야에게 말했다. "내가 말한다면, 당신은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언을 해도,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겠지요."
- 16 그래서 스데키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비밀리에 맹세했다.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으며, 당신의 목숨을 찾는 이 사람들에게 당신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 17 예레미야가 스데키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네가 바빌론 왕의 관리들에게 나아간다면, 네 생명은 살아날 것이며, 이 도시는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너와 네 집은 살아날 것이다."
- 18 그러나 만약 네가 바빌론 왕의 관리들에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도시는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그들은 이 도시를 불에 태울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19 스데키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내가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한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나를 그들에게 넘겨주고, 나를 조롱할까 봐입니다."
- 20 그러나 예레미야가 말했다. "그들은 당신을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대로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고, 당신의 생명은 살아날 것입니다."
- 21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아가기를 거부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말이 이것입니다.
- 22 "보십시오, 유다 왕의 집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들이 바빌론 왕의 관리들에게 끌려갈 것이며, 그 여자들이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친한 친구들이 당신을 배반했습니다.'

- 23 그들은 당신의 모든 아내와 자녀를 갈대아인들에게 끌고 갈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빌론 왕의 손에 잡힐 것입니다. 당신이 이 도시를 불에 태우게 될 것입니다."
- 24 그러자 스데키아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 25 그러나 만약 관리들이 내가 너와 말했다는 것을 듣고 너에게 와서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네가 왕에게 한 말을 우리에게 밝혀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며, 왕이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도 우리에게 알 려라."라고 한다면,
- 26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나는 왕 앞에 간청하여, 내가 요나단의 집으로 돌아가 거기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 27 그러자 모든 관리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었고, 그는 왕이 명령한 대로 그 모든 말을 그들에게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와 말하지 않았다. 그 일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8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점령될 날까지 감시병 마당에 머물렀다.

예레미야서 39장

- 1 유다 왕 시드기야의 아홉 번째 해, 열 번째 달에,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그의 모든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하여 성을 포위하였다.
- 2 시드기야의 열한 번째 해, 네 번째 달 아홉 번째 날에 성벽에 틈이 생겼다.
- 3 바빌론 왕의 모든 관리들이 들어와 중문에 앉았다. 네르갈-사레제르, 삼가르네보, 랍사리스 사르세킴, 랍마그 네르갈-사레제르, 그리고 바빌론 왕의 나머지 모든 관리들이 함께 앉았다.
- 4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인들이 그들을 보고 도망쳐 밤에 성을 빠져나갔다. 왕의 정원 길을 따라 두 성벽 사이의 문으로 나가서 아라바 방향으로 갔다.
- 5 그러나 갈대아 군대가 그들을 쫓아가 예리코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붙잡았고, 그들을 데려가 하마트 땅의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이르렀다. 그가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 6 바빌론 왕은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죽였다.
- 7 그리고 그는 시드기야의 눈을 멀게 하고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 8 갈대아 사람들은 왕의 집과 백성의 집들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다.
- 9 그때 경비대장 느부사라단은 성에 남아 있던 나머지 백성과 그에게 투항한 탈영병들을 모두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끌고 갔다.
- 10 그러나 경비대장 네부자라다단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백성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주었다.
- 11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레미야에 관해 경비대장 네부자라다단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 12 그를 데려가서 잘 돌보아라. 해를 끼치지 말고,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하여라.
- 13 그러므로 경비대장 네부자라다단과 네부사잔과 랍사리스와 네르갈세레스와 랍마그와 바빌론 왕의 모든 주요 관리들이
- 14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시병 마당에서 데려와서 사판의 아들 아히캄의 아들 그달야에게 맡겼다. 그는 예레미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 머물렀다.
- 15 주님의 말씀이 감시병 마당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 16 "가서 에브드멜렉이라는 에티오피아인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도시에 대해 내가 말한 재앙을 내리고, 복은 내리지 않겠다. 그 말들이 그날 너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 17 그러나 그날에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네가 두려워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 18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는 칼에 쓰러지지 않고, 네 생명을 살려 내릴 것이다. 이는 네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레미아서 40장

- ¹ 네부자르다단 사령관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모든 포로들과 함께 사슬에 묶인 채 데려온 예레미야를 라마에서 풀어주고 난 후,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이 있었다.
- ²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말했다. "너의 하느님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재앙을 선언하셨다.
- ³ 주님께서 이를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너희가 주님께 죄를 지었고,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너희에게 닥쳤다.
- ⁴ 지금, 내가 오늘 너의 손에 묶인 사슬을 풀어준다. 너에게 나와 바빌론으로 가는 것이 좋다면, 가라. 내가 너를 돌보겠다. 그러나 나와 바빌론으로 가는 것이 네게 좋지 않다면, 가지 마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다. 네가 가는 것이 좋고 옳다고 여기는 곳으로 가라."
- ⁵ 그가 아직 돌아가지 않았을 때, 그가 말했다. "그러면 아히캄의 아들, 사판의 아들인 그달야에게 돌아가라. 바빌론 왕이 유다의 도시들 위에 그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거하라. 아니면 네가 가기로 좋은 곳 어디든지 가라."
- ⁶ 그러자 예레미야는 아히캄의 아들 그달야에게로 미스바로 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와 함께 살았다.
- ⁷ 지금 필드에 있던 모든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부대가 바빌론 왕이 아히캄의 아들 그달야를 땅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것이 아닌, 땅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인 남녀와 어린이들을 맡겼다는 소식을 듣고,
- ⁸ 그러자 네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탄후메스의 아들 세라야, 네토파티인 에파이의 아들들, 마아가 사람의 아들 예사니야가 그들의 부하들과 함께 미스바로 그달야에게로 왔다.
- ⁹ 그달야는 사판의 아들 아히캄의 아들로서 그들과 그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말했다. "칼데아인들을 섬기며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땅에 머물며 바빌론 왕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 ¹⁰ 나는 미스바에 머물러,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인들 앞에 서겠다. 그러나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열매와 기름을 모아서 그릇에 담고, 너희가 점령한 도시들에서 머물러라.
- ¹¹ 모압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암몬 자손 가운데 있는 자들과 에돔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땅에 있는 자들이, 바빌론 왕이 유다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고,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 사판의 아들 아히캄의 아들 그달야를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 ¹² 그러자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쫓겨났던 모든 곳에서 돌아와 유다 땅으로 와서 그달야에게 미스바로 모여 매우 많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모았다.
- ¹³ 또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는 모든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달야에게 와서,
- ¹⁴ 그에게 말했다. "아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어 당신의 목숨을 빼앗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¹⁵ 그러자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달야에게 속삭이며 말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네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그가 왜 당신의 목숨을 빼앗아, 당신에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들을 흩어뜨리고 유다의 남은 자들을 멸망시키려 합니까?"
- ¹⁶ 그러나 아히캄의 아들 그달야는 요하난의 아들 카레아에게 말했다. "너는 이 일을 하지 마라. 너는 이스마엘에 대해 거짓 말을 하고 있다."

예레미야서 41장

- ¹ 일곱 번째 달에,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일리사마의 아들로, 왕실 출신이며 왕의 주요 관리 중 한 사람으로, 그와 함께한 열 명의 사람들과 함께, 아히캄의 아들 게다랴가 있는 므사에 이르렀다. 그들은 므사에서 함께 빵을 먹었다.
- ² 그러자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일어나, 그와 함께한 열 명의 사람들과 함께, 사반의 아들 아히캄의 아들 게다랴를 칼로 쳐서 죽였다. 그는 바빌론 왕이 땅의 총독으로 임명한 자였다.
- ³ 이스마엘은 또 므사에서 게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과, 거기서 발견된 갈대아 군인들을 모두 죽였다.
- ⁴ 이스마엘이 게다랴를 죽인 이튿날,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 ⁵ 사람들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왔다. 그들은 팔십 명이었고,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베었으며, 손에 곡식 제물과 유향을 들고 주님의 집에 바치려고 왔다.
- ⁶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므사에서 나와 그들을 맞이하며 길을 따라 울었고, 그들을 만나자 그들에게 말했다. "아히캄의 아들 게다랴에게로 오십시오."
- ⁷ 그들이 성읍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죽이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그 시체들을 웅덩이 한가운데에 던졌다.
- ⁸ 그러나 그들 중 열 명이 이스마엘에게 말했다.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들은 저장고가 들에 숨겨져 있습니다."
- ⁹ 이스마엘이 게다랴 옆에서 죽인 모든 사람들의 시체를 던진 웅덩이는, 이스라엘 왕 바아사의 두려움으로 아사 왕이 만든 것이었다.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웅덩이를 죽인 자들로 채웠다.
- ¹⁰ 이스마엘은 므사에 남아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끌고 갔다. 그들은 바빌론 왕의 경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히캄의 아들 게다랴에게 맡긴 왕의 딸들과 므사에 남아 있던 모든 백성들이었다.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아 아몬 자손에게로 떠났다.
- ¹¹ 그러나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들이,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행을 듣고,
- ¹² 모든 사람을 이끌고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나아가, 기브온에 있는 큰 물가에서 그를 발견했다.
- ¹³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이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들을 보고 기뻐하였다.
- ¹⁴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므사에서 사로잡아 끌고 갔던 모든 백성들이 돌아와서,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왔다.
- ¹⁵ 그러나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은 여덟 명의 사람들과 함께 요하난에게서 도망쳐 아몬 자손에게로 갔다.
- ¹⁶ 그러자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들이,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캄의 아들 게다랴를 죽인 후, 기브온에서 데려온 모든 생존자들을 회수했다. 그들은 전사들과 여자들과 어린이들과 환관들이었다.
- ¹⁷ 그들은 떠나서 베들레헴 가까이에 있는 게루트 킴함에 머물며, 이집트로 들어가려 했다.
- ¹⁸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스마엘이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빌론 왕이 땅의 총독으로 임명한 아히캄의 아들 게다랴를 죽였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서 42장

- 1 그때에 모든 군대 지휘관들과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이스마야, 그리고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든 백성이 가까이 와서,
- 2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했다. "우리의 간구를 당신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이 남은 자 모두를 위해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많은 자들 중에서 겨우 몇 명만 남았으니, 당신의 눈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
- 3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게 해 주십시오."
- 4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다. 보라, 내가 너희의 말대로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 기도하겠다. 주님이 너희에게 대답하시는 어떤 일이라도 내가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 5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님 당신의 하느님이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 모든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참되고 신실한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6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리가 당신을 보내신 주님 우리 하느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 하느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우리가 잘되게 해 주십시오."
- 7 열흘 후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 8 그러자 그는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지휘관들과,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든 백성을 불러서,
- 9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보내어 그 앞에 너희의 간구를 바친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 10 "만약 너희가 이 땅에 머무르려 한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허물지 않으며, 너희를 심고 뽑아내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린 고통을 인해 내가 슬퍼하기 때문이다."
- 11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빌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 12 "내가 너희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가 너희에게 은총을 베풀고 너희를 너희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 13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하여 주님 당신의 하느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 14 "아니, 우리는 전쟁도 보지 못하고, 나팔 소리도 듣지 못하며, 빵의 기근도 없을 이집트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겠다."고 한다면,
- 15 이제 듣거라, 유다의 남은 자들아!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진심으로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려고 얼굴을 돌린다면,"
- 16 "그러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덮치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뒤따라잡아,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 17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려고 얼굴을 돌리는 모든 남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들 중 아무도 악을 피하여 살아남거나 도망치지 못할 것이다."
- 18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쏟아부은 내 분노와 진노처럼,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갈 때 내 진노가 너희에게 쏟아질 것이다. 너희는 끔찍함과 놀라움과 저주와 모욕이 될 것이며,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 19 "주님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관해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였음을 분명히 알라.'"
- 20 "너희가 스스로의 영혼을 속였으니, 너희가 나를 주님 당신의 하느님께 보내며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주님 우리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두 알려 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 21 "오늘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알려 주었으나, 너희는 그가 나를 보내어 너희에게 전하게 한 모든 일에 주님 당신의 하느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

²² 이제 분명히 알라. 너희가 거기서 살고자 하는 그 땅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예레미야서 43장

- ¹ 예레미야가 주님 곧 그들의 하느님의 모든 말씀, 곧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기 위해 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다 말한 후에,
- ² 그때 호사야의 아들 아사리아와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교만한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너는 거짓말을 한다. 우리 하느님 주님은 우리에게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살지 말라'고 말하라고 너를 보내지 않으셨다.
- ³ 오히려 느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우리에게 반대하도록 부추겨, 우리를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려 한다.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끌고 가려는 것이다."
- ⁴ 그래서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들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머무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 ⁵ 그러나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들이, 자신들이 쫓겨났던 모든 나라들에서 돌아와 유다 땅에 살게 된 유다의 남은 자들을 모두 데려갔다—
- ⁶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이들과 왕의 딸들과, 경비대장 느부자르아단이 아히캄의 아들 그달야에게 남겨둔 모든 사람들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었다.
- ⁷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으며, 타하파네스에 이르렀다.
- ⁸ 그때 주님의 말씀이 타하파네스에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 ⁹ "네 손에 큰 돌들을 가져다가 타하파네스에 있는 파라오의 집 입구 벽돌 공사 속에 시멘트로 묻어라. 유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렇게 하라.
- ¹⁰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나의 종인 바빌론 왕 느부카드네자르를 보내어 그의 왕좌를 내가 묻어 둔 이 돌 위에 놓을 것이다. 그는 그 위에 왕의 천막을 펼칠 것이다.
- ¹¹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칠 것이다. 죽음으로 정해진 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히게 된 자들은 포로로 잡히며, 칼에 맞게 된 자들은 칼에 맞을 것이다.
- ¹² 내가 이집트 신들의 집들에 불을 지를 것이다. 그는 그것을 태우고 그 신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을 입에 옷을 입듯이 입고 평안히 그곳에서 떠날 것이다.
- ¹³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벧세메스의 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 신들의 집들을 불로 태울 것이다."

예레미야서 44장

- ¹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 이는 이집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미글돌과 타하파네스와 멤피스와 파드로스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르렀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 ²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가 보았다. 보아라, 오늘날 그들은 황폐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다.
- ³ 이는 그들이 나를 격노하게 하기 위해 행한 악행 때문이다. 곧 그들이 알지도 못하던,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며 향을 피웠기 때문이다.
- 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모든 종 예언자들을 이른 아침부터 보내며, "이러한 나의 싫어하는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 ⁵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악에서 떠나 향을 피우며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 ⁶ 그러므로 내 진노와 분노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쏟아져 퍼졌고, 오늘날처럼 그들은 황폐하고 폐허가 되었다.
- "
- ⁷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어찌하여 자기 영혼을 해치며 유다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끊어버리려 하는가? 너희 자신을 남기지 않게 하려 하는가?
- ⁸ 너희가 이집트 땅, 너희가 거주하려고 온 곳에서, 너희 손으로 만든 일로 나를 격노하게 하여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니, 너희가 끊어지고 땅 위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모욕이 되려 하는가?
- ⁹ 너희 조상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그들의 아내들의 악행과 너희 자신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악행.
- ¹⁰ 오늘날까지 그들은 겸손해지지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 앞에 놓은 내 법과 내 규례를 따르지 않았다."
- ¹¹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향해 악을 내리려 한다. 곧 유다 전체를 끊어버리려 한다.
- ¹² 이집트 땅에 들어가 거주하려는 유다의 남은 자들을 내가 잡아내어 모두 소멸시키리라.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죽을 것이며, 칼과 기근으로 소멸될 것이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들은 끔찍함과 놀라움과 저주와 모욕이 될 것이다.
- ¹³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처럼, 이집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할 것이다.
- ¹⁴ 이집트 땅에 들어가 거주하려고 온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는 아무도 피하여 돌아가거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려는 자가 없을 것이다. 도망친 자들만이 돌아올 뿐이다."
- ¹⁵ 그러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는 것을 알고 있던 모든 남자와, 곁에 서 있던 모든 여자와, 이집트 땅, 파드로스에 거주하던 모든 백성들이 큰 무리가 되어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 ¹⁶ "주님의 이름으로 네가 우리에게 말한 그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겠다.
- ¹⁷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반드시 지키리라. 곧 하늘의 여왕에게 향을 피우고 그녀에게 술을 부어 제물을 드리리라. 우리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행한 대로 하리라. 그때 우리는 음식이 풍족하고 평안하였으며, 어떤 재앙도 보지 못하였다.
- ¹⁸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향을 피우고 그녀에게 술을 부어 제물을 드리는 일을 그친 이래로,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칼과 기근으로 소멸되었다."
- ¹⁹ 여자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향을 피우고 그녀에게 술을 부어 제물을 드릴 때, 우리 남편의 동의 없이 그녀를 위한 빵을 만들고 그녀에게 술을 부어 제물을 드렸던가?
- ²⁰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 모든 백성, 곧 남자와 여자와 그가 대답한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 ²¹ "너희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과 너희 왕들과 너희 지도자들과 땅의 백성들이 피운 향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셨느냐? 그것이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았느냐?

- 22 주님께서 너희가 행한 악과 너희가 행한 가증한 일을 인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땅이 오늘날처럼 황폐하고 놀라움과 저주가 되어 아무도 거주하지 않게 되었다.
- 23 너희가 향을 피우고 주님께 죄를 지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법과 규례와 증거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이 재앙이 너희에게 닥쳤다."
- 24 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 곧 모든 여자에게 말하였다. "이집트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 25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너와 네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그것을 이루어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녀에게 술을 부어 드리기로 맹세한 서원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니 너희의 맹세를 굳게 세우고, 그 맹세를 이행하여라."
- 26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거주하는 유다 모든 자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위대한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유다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이집트 땅 어디에서나 '주님 하느님이 살아 계신다'고 말하는 일이 결코 없어질 것이다.'"
- 27 보아라, 나는 그들을 해로움을 위해 지켜보고, 선을 위해 지켜보지 않는다. 이집트 땅에 있는 유다 모든 남자들이 칼과 기근으로 소멸될 때까지, 내가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 28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적은 수로 이집트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 들어가 거주하려고 간 유다 남은 자들 모두가, 내 말이 서고, 그들의 말이 서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 29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것이니, 내가 너희를 향해 말한 내 말이 반드시 서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 30 주님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집트 왕 호프라를 그의 원수들과 그의 목숨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마치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바빌론 왕 느부카드네자르의 손에 넘겨주었듯이, 그는 그의 원수였고 그의 목숨을 찾던 자였다."

예레미야서 45장

- 1 예레미야 예언자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네 번째 해에, 바룩, 느리야의 아들에게,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책에 기록할 때 전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다.
- 2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은 너, 바룩에게 이렇게 말한다.
- 3 '너는 말했다. "내가 화로다! 주님이 내 슬픔에 고통을 더하셨다. 나는 탄식으로 지쳤고, 쉴 곳을 찾지 못한다."
- 4 "너는 그에게 말하라. 주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건설한 것은 내가 무너뜨리고, 내가 심은 것은 내가 뽑아낼 것이다. 이는 온 땅에 대해 말이다.'
- 5 너는 큰 일을 네게 구하느냐? 그 일을 구하지 말라. 보아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주님이 말한다. '그러나 네 생명은 어디에 가든지 네가 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예레미야서 46장

- 1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이 나라들에 관해 내린 말씀이다.
- 2 이집트에 관한 것: 이집트 왕 느고의 군대가 카르케미시에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었고,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김 네 번째 해에 바빌론 왕 느부카드네자르가 그 군대를 치셨다.
- 3 방패와 투구를 준비하라.
- 4 말을 결박하고, 기병들이 일어나라.
- 5 어찌하여 내가 이것을 보는가?
- 6 빠른 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며, 용감한 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 7 이것은 누구인가? 나일 강처럼 일어나는가?
- 8 이집트가 나일 강처럼 일어난다.
- 9 말들아 올라가라! 용감한 자들이 나가라.
- 10 그 날은 주님, 만군의 주님의 날이다.
- 11 길르앗으로 올라가 향유를 가져오라, 이집트의 처녀 딸아.
- 12 나라들이 네 수치를 들었다.
- 13 주님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이다. 바빌론 왕 느부카드네자르가 이집트 땅을 치려고 올 것이라는 말씀이다.
- 14 이집트에서 선포하여 말하여라. '일어나라. 준비하라.'
- 15 왜 네 강한 자들이 쓰러졌느냐?
- 16 그가 많은 자들을 넘어지게 하였다.
- 17 거기서 그들은 외쳤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소음에 불과하다.'
- 18 내가 산다고 한다. 그 왕이 산들 사이에 타보르처럼 서 있으리라.
- 19 이집트에 거주하는 딸아,
- 20 이집트는 매우 아름다운 암소이지만, 북쪽에서 파멸이 왔다. 그것이 왔다.
- 21 그녀의 고용된 병사들은 중간에서 우리 속의 송아지들처럼 되었다.
- 22 그녀의 소리는 뱀처럼 들릴 것이다.
- 23 그들은 그녀의 숲을 베어낼 것이다,
- 24 이집트의 딸은 실망할 것이며, 북쪽 백성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 25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파라오와 이집트와 그 신들과 왕들, 곧 파라오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 26 내가 그들을 자기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과, 바빌론 왕 느부카드레자르의 손과 그의 종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 후에 그 땅은 옛날과 같이 다시 거주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 27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 28 "야곱, 내 종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서 47장

- 1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블레셋 사람들에 관해 내리신 말씀이다. 바로가 가자에 침공하기 전이었다.
- 2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물이 북쪽에서 솟아오르며,
- 3 그의 강한 자들의 말발굽이 땅을 밟는 소리로 인해,
- 4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려는 그 날 때문에,
- 5 가자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켈론은 폐허가 되었다.
- 6 "주님의 칼아, 네가 언제까지 잠잠할 것인가?
- 7 주님이 네게 명령을 내렸는데, 네가 어찌 잠잠할 수 있느냐?

예레미아서 48장

- 1 모압에 관한 말씀이다.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네보가 화롭다!"
- 2 모압의 찬양은 더 이상 없다. "오라, 그녀를 민족에서 끊어버리자."
- 3 호로나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 4 모압이 파괴되었다.
- 5 그들이 루히트의 오르막을 올라가며 끊임없이 울 것이다.
- 6 도망하여 생명을 구하라!
- 7 너희가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보물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 8 파괴자가 모든 성을 침범할 것이다.
- 9 모압에게 날개를 달아주어라.
- 10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 11 "모압은 어릴 때부터 편안히 지내왔다.
- 12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에게 술을 떠서 버리는 자들을 보내리니,
- 13 모압은 그의 신 켄오시에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 14 "어떻게 너희는 말하느냐, "우리는 용감한 자들이다."
- 15 모압이 황폐해졌다.
- 16 "모압의 화는 곧 닥쳐올 것이다.
- 17 그를 둘러싼 모든 자들아, 그를 애도하여라. "어떻게 강한 지팡이가 부러졌는가."
- 18 "디본에 거주하는 딸아,
- 19 아로엘에 사는 자여, 길가에 서서 지켜보아라. 말하여라. "무엇이 일어났는가?"
- 20 모압이 실망하였다.
- 21 평야에 심판이 내렸다.
- 22 디본에, 네보에, 벤디블라임에,
- 23 키리아타임에, 벵가물에, 벵메온에,
- 24 케리오토에, 보스라에.
- 25 모압의 뿔이 잘렸다.
- 26 그를 취하게 만들어라.
- 27 이스라엘이 너희에게 조롱거리가 아니었느냐?
- 28 모압의 거주민들아, 도시들을 떠나 바위에 거하라.
- 29 우리는 모압의 교만에 대해 들었다.
- 30 나는 그의 분노가 헛된 것임을 안다,
- 31 그러므로 나는 모압을 위해 통곡할 것이다.
- 32 야제르의 통곡보다 더 심하게
- 33 기쁨과 즐거움이 열매 맺는 들판에서 빼앗겼다.
- 34 헤스본의 외침이 에레레까지 이르고,
- 35 또 내가 모압에서 높은 곳에서 제물을 바치는 자를 끊어버리리라,
- 36 그러므로 내 마음은 모압을 위해 피리 소리처럼 울린다.
- 37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되었고,
- 38 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서,
- 39 어떻게 무너졌는가! 어떻게 통곡하는가! 모압이 수치로 뒤를 돌렸다!
- 40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그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이다.

- ⁴¹ 케리오트가 점령되었다,
⁴² 모압은 민족으로서 멸망할 것이다,
⁴³ 공포와 웅덩이와 덮이 너를 덮쳤다,
⁴⁴ 공포에서 도망치는 자가 웅덩이에 빠질 것이며,
⁴⁵ 도망친 자들이 헤스본의 그림자 아래 힘없이 서 있을 것이다.
⁴⁶ 오 모압아, 너는 화가 있을 것이다!
⁴⁷ 그러나 내가 후일에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예레미아서 49장

- 1 암몬 자손에 관한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아들이 없단 말인가?"
- 2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암몬 자손의 라바에 대해 전쟁의 함성을 들려주리라.
- 3 "헤스본아, 외쳐라. 아이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자루옷을 입어라."
- 4 너는 어찌하여 골짜기를 자랑하며, "누가 내게로 올 것인가?"라고 말하는가?
- 5 보라, 내가 네 주변 모든 자들로부터 두려움을 네게로 가져오리라.
- 6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 7 에돔에 관한 말씀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테만에는 더 이상 지혜가 없는가?"
- 8 도망하여 뒤로 물러나라!
- 9 포도 따는 자들이 너에게 왔다면, 그들이 남은 포도를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았겠느냐? 밤에 도둑이 왔다면, 충분히 훔칠 때까지 훔치지 않았겠느냐?
- 10 그러나 내가 에서를 벌거벗겼다.
- 11 고아들을 내버려라.
- 12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잔을 마실 자가 아니었던 자들도 분명히 마실 것이며, 네가 결코 벌을 받지 않을 자냐? 네가 결코 벌을 받지 않을 수는 없으니, 반드시 마실 것이다."
- 13 나는 나 자신을 가지고 맹세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보자라가 놀라움과 수치와 황폐와 저주가 될 것이다. 그 모든 도시들이 영원한 황폐가 될 것이다.
- 14 나는 주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서로 모이라."
- 15 "보라, 내가 너를 열국 중에서 작게 만들었다.
- 16 네 공포에 관하여,
- 17 "에돔이 놀라움이 될 것이다.
- 18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무너졌을 때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기에는 결코 사람이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 19 "보라, 그가 요르단의 풀무터에서 올라오는 사자처럼, 견고한 거처를 향해 올라올 것이다.
- 20 그러므로 주님이 에돔을 향해 세운 계획을 들어라,
- 21 그들이 무너지는 소리에 땅이 떨리며, 붉은 바다까지 들리는 외침이 있다.
- 22 보라, 그가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올 것이다.
- 23 다마스쿠스에 관한 말씀이다. "하마트와 아르파드가 당황하고, 바다에는 슬픔이 있다."
- 24 다마스쿠스는 힘을 잃고 도망치려고 몸을 돌린다.
- 25 찬양의 도시가 어찌 버려지지 않으리요?
- 26 그러므로 그 젊은이들이 그 거리에서 쓰러질 것이며,
- 27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벽에 불을 지를 것이며,
- 28 바빌론 왕 느부카드레자르가 친 케다르와 하소르의 왕국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일어나 케다르로 올라가,
- 29 그들이 그들의 천막과 양 떼를 빼앗을 것이다.
- 30 도망하여라! "바빌론 왕 느부카드레자르가 너희를 향해 계획을 세웠으니,
- 31 일어나라! 문과 문살이 없는, 평온한 민족으로 올라가라,
- 32 그들의 낙타들이 전리품이 될 것이며,
- 33 하소르는 여우들의 거처가 될 것이며,
- 34 유다 왕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처음에,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이르신 주님의 말씀, 곧 엘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 35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엘람의 활을 부수리니,
- 36 내가 하늘의 네 방향에서 네 바람을 엘람에 불어넣어,

³⁷ 내가 엘람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떨게 하고, 내 칼을 그 뒤에 보내리니,

³⁸ 내가 내 왕좌를 엘람에 세우리니,

³⁹ "그러나 후일에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예레미야서 50장

- 1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 바빌론과 갈대아 땅에 관해 말씀하신 말씀이다.
- 2 “나라들 사이에 선포하고 공포하여라. ‘바빌론이 붕괴되었다.’
- 3 북쪽에서 한 민족이 그녀를 향해 올라온다.
- 4 “그때에, 그 시기에,” 주님의 말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와서,
- 5 그들은 얼굴을 시온 향해 돌리며 묻고 말하리라. ‘오라. 영원한 언약으로 주님과 연합하자.’
- 6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들이다.
- 7 그들을 만난 자들은 모두 그들을 삼켰다.
- 8 “바빌론 중앙에서 도피하여라!
- 9 보라, 내가 일으키리니,
- 10 갈대아는 노략의 대상이 될 것이다.
- 11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했으므로,
- 12 너희 어머니는 완전히 실망할 것이고, 너희를 낳은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 13 주님의 진노로 인해 그녀는 거주되지 않을 것이며,
- 14 바빌론을 둘러싸고 진을 치고,
- 15 그녀를 둘러싸고 외쳐라.
- 16 바빌론에서 농부를 끊어버려라,
- 17 “이스라엘은 쫓기는 양이다.
- 18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말한다. ‘보라, 내가 바빌론 왕과 그의 땅을 벌할 것이며,
- 19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초지로 데려올 것이며,
- 20 그때에, 그 시기에,” 주님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 것이며,
- 21 “메라타임 땅에 올라가라.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여라.
- 22 땅에 전투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
- 23 전 세계의 망치가 어찌하여 부서지고 깨어졌느냐! 바빌론이 어찌하여 열국 사이에 황폐해졌느냐!
- 24 내가 너희를 위해 밋을 놓았다.
- 25 주님께서 자신의 무기고를 열었다.
- 26 가장 먼 경계에서 그녀를 향해 나아가라. 그녀를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 27 그녀의 모든 수소를 죽이라.
- 28 바빌론 땅에서 도망쳐 탈출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라.
- 29 “바빌론을 향해 활을 쏘는 자들을 불러 모아라.
- 30 그러므로 그녀의 젊은이들은 그녀의 거리에서 쓰러질 것이다.
- 31 “보라, 나는 너, 교만한 자에게 대적한다.” 주님, 만군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당할 날이 왔다.
- 32 교만한 자는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다.
- 33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억압받고 있다.
- 34 그들의 구속자는 강력하다.
- 35 “칼이 갈대아인들에게 닳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칼이 바빌론 거민들에게 닳쳤다.
- 36 칼이 자랑하는 자들에게 닳쳤다.
- 37 칼이 그들의 말들에게 닳쳤다.
- 38 그녀의 물들에 가뭄이 닳쳤다.
- 39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들
- 40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느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을 뒤엎은 것처럼, 거기에는 결코 사람이 거주하지 못

할 것이다.

⁴¹ "보라, 북쪽에서 한 민족이 온다.

⁴² 그들은 활과 창을 들고, 모두 진을 친 채로.

⁴³ 바빌론 왕은 그들의 소식을 듣고, 임산부의 고통처럼 괴로워한다.

⁴⁴ 보라, 적이 사자처럼 올라올 것이다.

⁴⁵ 그러므로 주님의 계획을 들어라.

⁴⁶ 바빌론이 함락된 소리에 땅이 떨린다.

예레미야서 51장

- 1 주님은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바빌론에 대적하여 "
- 2 나는 바빌론에 외국인들을 보내어 그녀를 흠을 것이다.
- 3 굽히는 자에게는 활을 굽히고, 갑옷을 입고 일어나는 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라. 그 젊은이들을 아끼지 말아라!
- 4 그들은 갈대아 땅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 5 이스라엘은 그의 하느님에게 버림받지 않았고, 유다도 그렇지 않다.
- 6 "바빌론의 한가운데서 도피하여라! 각자 자신의 생명을 구하라. 그녀의 죄악 속에서 끊어지지 말아라.
- 7 바빌론은 주님의 손에 있는 금 잔이었다.
- 8 바빌론은 갑자기 무너지고 파괴되었다! 혹시 그녀가 치유될 수 있을까.
- 9 "우리는 바빌론을 치유하고 싶었지만,
- 10 "주님께서 우리 의로움을 이루어내셨다."
- 11 "화살을 날카롭게 만들어라! 방패를 단단히 잡아라!"
- 12 바빌론의 성벽에 깃발을 세워라!
- 13 많은 물가에 거주하며 재산이 풍부한 자들아,
- 14 만군의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며 말씀하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사람들로 채울 것이다,
- 15 "그분이 자신의 능력으로 땅을 만드셨다."
- 16 그분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실 때,
- 17 "모든 사람은 어리석고 지식이 없다."
- 18 그들은 허무하다,
- 19 야곱의 몫은 이것들과 같지 않다.
- 20 "너는 내 전쟁용 도끼이자 무기이다."
- 21 너로 말미암아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 22 너로 말미암아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 23 너로 말미암아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 24 "내가 바빌론과 모든 갈대아 주민에게, 그들이 시온에서 네 눈앞에 행한 모든 악을 갚아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 25 "보라, 나는 너를 대적한다. 온 땅을 파괴하는 산이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26 너에게서 한 조각의 기초 돌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며,
- 27 "땅 위에 깃발을 세우고, 말들을 메뚜기 떼처럼 올라오게 하여라.
- 28 그녀를 향해 나라들을 준비시키고,
- 29 땅이 떨리고 고통스러워하며,
- 30 바빌론의 용감한 자들이 싸움을 멈추었고,
- 31 한 달려가는 자가 다른 달려가는 자를 만나러 달릴 것이며,
- 32 그래서 통로들이 점령되고, 갈대들이 불로 타버릴 것이다.
- 33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바빌론의 딸은 밭을 밟는 시기의 타작마당과 같다.
- 34 "바빌론 왕 느부카드네자르가 나를 삼켰다.
- 35 내게 행해진 폭력과 내 육체에 가해진 폭력이 바빌론에 돌아가기를! 내 피가 갈대아의 주민들에게 돌아가기를!
- 36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네 원한을 풀어주겠다.
- 37 바빌론은 더미가 될 것이며,
- 38 그들은 어린 사자들처럼 함께 울부짖을 것이다.
- 39 그들이 영광할 때, 내가 그들의 잔치를 베풀고,
- 40 "나는 어린 양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내려가듯 그들을 끌고 내려갈 것이며,

- 41 “어찌하여 세사크가 잡혔는가! 어찌하여 온 땅의 자랑이 점령되었는가! 어찌하여 바빌론이 민족들 사이에서 황폐해졌는가!
- 42 바다의 물이 바빌론 위로 밀려올 것이다.
- 43 그녀의 도시들이 황폐해졌으며,
- 44 나는 바빌론의 벨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며,
- 45 “내 백성아, 그녀 가운데서 떠나라,
- 46 너의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 땅에서 들릴 소식을 두려워하지 말라.
- 47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바빌론의 새긴 우상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며,
- 48 그때 하늘과 땅과,
- 49 바빌론이 이스라엘의 죽은 자들을 쓰러뜨렸듯이,
- 50 칼날에서 벗어난 자들아, 가라! 멈추지 말아라!
- 51 우리는 수치를 당했다.
- 52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이르리라. 주님께서 말한다. 내가 그녀의 새긴 우상들에게 심판을 내리리니,
- 53 비록 바빌론이 하늘까지 올라가더라도,
- 54 바빌론에서 외침의 소리가 들린다.
- 55 주님께서 바빌론을 황폐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 56 파괴자가 그녀에게 닥쳤기 때문이다.
- 57 내가 그녀의 왕자들과 그녀의 지혜로운 자들을,
- 58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바빌론의 넓은 성벽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며,
- 59 예레미야 예언자가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의 통치 네 번째 해에 바빌론으로 갈 때, 느리야의 아들 마세야의 아들 세라야에게 명령한 말이다. 세라야는 수리장이었다.
- 60 예레미야는 바빌론에 임할 모든 재앙, 곧 바빌론에 관한 이 모든 말들을 책에 기록하였다.
- 61 예레미야가 세라야에게 말하였다. "네가 바빌론에 도착하면, 이 모든 말을 읽어라,
- 62 그리고 나서 말하여라. "주님, 당신이 이 곳에 대해 말씀하시어, 그것을 멸망시키시고, 그곳에 사람이나 짐승이 결코 거주하지 못하게 하시며, 영원히 황폐하게 하셨나이다."
- 63 네가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돌을 그것에 매달아 유프라테스 강 한가운데에 던져라.
- 64 그리고 나서 말하여라. "이와 같이 바빌론은 가라앉아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내릴 악 때문이며, 그들은 지쳐 버릴 것이다."

예레미야서 52장

- 1 세드키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스물한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일 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리브나의 예레미야의 딸 하마달이었다.
- 2 그는 여호야김이 한 것처럼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 3 이는 주님의 분노로 인해 예루살렘과 유다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그분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기까지 계속되었다.
- 4 그가 통치한 아홉 번째 해, 열 번째 달, 그 달 열 번째 날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와서 그 도시를 둘러싸고 진을 치고, 그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 5 이러한 둘러싸임은 세드키야 왕의 열일한 번째 해까지 계속되었다.
- 6 네 번째 달, 아홉 번째 날에 도시 안에 기근이 심하여 땅의 백성에게 빵이 없었다.
- 7 그러자 도시에 틈이 생기고, 모든 군인들이 밤에 도시를 빠져나가, 왕의 정원 근처에 있는 두 벽 사이의 문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갈대아인들은 도시 주위에 둘러싸여 있었다. 군인들은 아라바 방향으로 향하였다.
- 8 그러나 갈대아 군대가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야에서 세드키야를 붙잡았고, 그의 모든 군대는 그에게서 흩어졌다.
- 9 그들은 왕을 붙잡아 하마트 땅의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가서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 10 바빌론 왕은 세드키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다.
- 11 그는 세드키야의 눈을 멀게 하고, 바빌론 왕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 12 다섯 번째 달, 열 번째 날, 이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열아홉 번째 해였는데, 바빌론 왕 앞에 서 있던 경비대장 느부사아단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 13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의 집,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 특히 큰 집들을 불태웠다.
- 14 경비대장과 함께 있던 갈대아 군대는 예루살렘 주위의 모든 성벽을 허물었다.
- 15 경비대장 느부사아단은 도시에 남아 있던 가장 가난한 백성과, 도시에 남아 있던 나머지 백성과, 바빌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나머지 무리를 모두 포로로 끌고 갔다.
- 16 그러나 경비대장 느부사아단은 땅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을 남겨 포도원 경비꾼과 농부로 삼았다.
- 17 갈대아인들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던 놋기둥들과 그 밀받침들과 놋 바다를 부수어 조각내고, 그 모든 놋을 바빌론으로 옮겼다.
- 18 그들은 냄비, 삽, 집게, 대야, 숟가락, 그리고 봉사에 쓰이는 모든 놋기구도 가져갔다.
- 19 경비대장은 잔, 불판, 대야, 냄비, 등잔대, 숟가락, 그리고 그릇들을 가져갔다. 금으로 된 것은 금으로, 은으로 된 것은 은으로 가져갔다.
- 20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위해 솔로몬 왕이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 그리고 밀받침 아래에 있던 열두 마리의 놋소들을 가져갔다. 이 모든 기구들의 놋은 무게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 21 기둥 하나의 높이는 열여덟 규빗이었고, 둘레는 열두 규빗이었으며, 두께는 네 손가락이었고, 안은 빈 것이었다.
- 22 그 위에는 놋으로 된 머리장식이 있었고, 머리장식의 높이는 다섯 규빗이었으며, 머리장식 주위에는 그물과 석류가 모두 놋으로 되어 있었다. 두 번째 기둥도 같은 모양이었고, 석류가 있었다.
- 23 옆면에는 석류가 아흔여섯 개 있었고, 그물 주위의 석류는 모두 백 개였다.
- 24 경비대장은 대제사장 세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 그리고 문지기 세 명을 잡아갔다.
- 25 그는 도시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관리 한 명을 잡아냈고, 왕의 얼굴을 본 일곱 사람을 도시에서 잡아냈으며, 땅의 백성을 정리한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한 명과, 도시 중앙에서 잡아낸 땅의 백성 육십 명을 데려왔다.
- 26 경비대장 느부사아단이 그들을 잡아서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데려갔다.
- 27 바빌론 왕이 그들을 치고, 하마트 땅의 리블라에서 그들을 죽였다.
- 28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간 백성의 수이다.
- 29 느부갓네살의 열여덟 번째 해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팔백삼십이 명을 포로로 끌고 갔다.

³⁰ 느부갓네살의 이십삼 번째 해에, 경비대장 느부사아단이 유대인 일백사백오 명을 포로로 끌고 갔다.

³¹ 유다 왕 여호야킨이 포로로 잡힌 지 삼십칠 년째, 열두 번째 달, 그 달 이십오 일에, 바빌론 왕 에빌멜로닥이 즉위한 첫 해에, 여호야킨 왕의 머리를 들어 올려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³² 그는 그를 친절히 대우하여, 바빌론에 함께 있던 모든 왕들의 자리보다 높은 자리를 주었다.

³³ 그의 옥중 옷을 갈아입혔다. 여호야킨은 평생 동안 그 앞에서 끊임없이 빵을 먹었다.

³⁴ 그의 생계비로, 바빌론 왕이 평생 동안 매일 일정한 몫을 주었으며, 그가 죽는 날까지 그 생계비가 계속되었다.

애가 | Lamentations

애가 1장

- ¹ 어떻게 도시가 외로이 앉아 있나!
- ² 그녀는 밤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한다.
- ³ 유다는 고난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
- ⁴ 시온으로 가는 길들이 슬퍼한다.
- ⁵ 그녀의 원수들이 머리가 되었다.
- ⁶ 시온의 딸에게서 모든 위엄이 떠났다.
- ⁷ 예루살렘은 그녀의 고난과 고통의 날들을 기억한다.
- ⁸ 예루살렘은 심히 죄를 지었다.
- ⁹ 그녀의 더러움이 치마자락에 묻어 있었다. “보소서, 주님, 내 고난을.
- ¹⁰ 원수가 그의 손을 펴서 그녀의 모든 즐거운 것을 차지하였다.
- ¹¹ 그녀의 모든 백성이 탄식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 ¹² “너희 지나가는 자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니냐?
- ¹³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내 뼈에 태웠다.
- ¹⁴ “내 최악의 멍에가 그의 손으로 묶였다.
- ¹⁵ “주님은 내 안의 모든 용사들을 무시하셨다.
- ¹⁶ “이 일들 때문에 내가 울었다.
- ¹⁷ 시온이 손을 펴고 있다.
- ¹⁸ “주님은 의로우시니,
- ¹⁹ “나는 내 연인들을 불렀다.
- ²⁰ “보소서, 주님, 내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 ²¹ “그들은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다.
- ²² “그들의 모든 악을 주님 앞에 내놓으소서.

애가 2장

- 1 주께서 진노로 시온의 딸을 구름으로 덮으셨도다!
- 2 주께서 야곱의 모든 처소를 삼켜버리셨도다.
- 3 주께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끊어버리셨도다.
- 4 주께서 원수처럼 활을 굽히셨도다.
- 5 주께서 원수처럼 되셨도다.
- 6 주께서 자신의 장막을 폭력적으로 빼앗으셨도다.
- 7 주께서 자신의 제단을 버리셨도다.
- 8 주께서 시온의 딸의 성벽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셨도다.
- 9 그녀의 문들이 땅에 잠겼도다.
- 10 시온의 딸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있도다.
- 11 내 눈은 눈물로 힘을 잃었도다.
- 12 그들이 어머니에게 묻되,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나?' 하니, 도시 거리에서 상처 입은 자처럼 기절하며, 그들의 영혼이 어머니의 품에 쏟아지도다.
- 13 내가 무엇을 너에게 증언할 수 있겠느냐?
- 14 너의 예언자들이 너를 위하여 거짓하고 어리석은 환상을 보았도다.
- 15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너를 보고 손뼉을 치며, '이것이 사람들이 아름다움의 완전함이라 칭한 도시냐?' 하도다.
- 16 네 모든 원수가 입을 크게 벌려 너를 비웃도다.
- 17 주께서 그가 계획하신 대로 행하셨도다.
- 18 그들의 마음이 주께 부르짖도다. 네 눈을 쉬게 하지 마소서.
- 19 일어나 밤에 외치며,
- 20 보소서, 주여, 주께서 이같이 행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 21 젊은이와 노인이 거리에 땅에 누워 있도다.
- 22 주께서는 정한 날의 모임처럼, 내 사방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셨도다.

애가 3장

- 1 나는 고난을 목격한 사람이다.
- 2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어둠 속으로 걸어가게 하셨다.
- 3 분명히 그분은 나를 향해 손을 돌리셨다.
- 4 그분께서 내 살과 피부를 늙게 하셨다.
- 5 그분께서 나를 향해 쌓아 올리셨다.
- 6 그분께서 나를 어두운 곳에 살게 하셨다.
- 7 그분께서 나를 울타리로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셨다.
- 8 내가 외치고 도움을 청할 때에도,
- 9 그분께서 내 길을 자른 돌로 막으시고, 내 길을 꺾어 놓으셨다.
- 10 그분은 나에게 숨어 있는 곰 같으시다.
- 11 그분께서 내 길을 뒤로 돌리셨다.
- 12 그분께서 활을 당겨 잡으셨다.
- 13 그분께서 내 콩팥에 화살을 쏘아 넣으셨다.
- 14 나는 내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 15 그분께서 나를 쓴 것으로 가득 채우시고, 쓴 쑥으로 가득 채우셨다.
- 16 그분께서 내 이빨을 자갈로 부수시고, 나를 재로 덮으셨다.
- 17 주님께서 내 영혼을 평화에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
- 18 내가 말했다. ‘내 힘이 소멸되었고, 주님에 대한 내 소망도 사라졌다.’
- 19 내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소서.
- 20 내 영혼은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한다.
- 21 이것을 내 마음에 떠올린다.
- 22 주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 23 그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다.
- 24 ‘주님은 내 뱀이다.’ 내 영혼이 말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바랄 것이다.’
- 25 주님은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선하시다.
- 26 사람이 소망을 품는 것이 좋다.
- 27 사람이 젊은 시절에 멍에를 지는 것이 좋다.
- 28 그는 혼자 앉아 침묵을 지켜야 한다.
- 29 그는 입을 흠에 대야 한다.
- 30 그는 치는 자에게 빵을 내줘야 한다.
- 31 주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
- 32 비록 그가 슬픔을 주더라도,
- 33 그는 기꺼이 괴롭히지 않으신다.
- 34 땅의 모든 포로를 발로 짓밟기 위해,
- 35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 위해,
- 36 사람의 소송을 뒤집어엮기 위해,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 37 누가 말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 38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악과 선이 나오지 않겠는가?
- 39 어찌 살아 있는 사람이 불평하리요?
- 40 우리가 우리의 길을 살피고 시험해 보자.

- 41 우리가 손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 향하자.
- 42 우리는 범죄하고 반역하였다.
- 43 당신은 우리를 진노로 덮으시고 쫓아내셨습니다.
- 44 당신은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셨습니다.
- 45 당신은 우리를 천한 쓰레기와 부스러기로 만들었습니다.
- 46 우리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 47 공포와 웅덩이가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 48 내 눈에서 물줄기가 흘러내립니다.
- 49 내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 50 주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 51 내 눈이 내 영혼을 괴롭힙니다
- 52 나를 무고하게 박해하는 자들이 새처럼 나를 끊임없이 쫓았습니다
- 53 그들이 나의 생명을 옥중에서 끊었습니다
- 54 물이 내 머리 위로 흘러넘쳤습니다
- 55 내가 가장 깊은 옥중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 56 당신은 내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내 탄식에 귀를 기울이지 마소서,"
- 57 내가 주님을 부르던 날, 당신은 가까이 오셨습니다
- 58 주님, 당신은 내 영혼의 사정을 변호하셨습니다
- 59 주님, 당신은 내 불의를 보셨습니다
- 60 당신은 그들의 모든 복수를 보셨습니다
- 61 주님, 당신은 그들의 모욕을 들으셨습니다
- 62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입술을
- 63 당신은 그들이 앉고 일어나는 것을 보십니다. 나는 그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 64 주님, 당신은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 65 당신은 그들에게 마음의 완악함을 주실 것입니다
- 66 당신은 분노로 그들을 쫓아가실 것입니다

애가 4장

- ¹ 어떻게 금이 흐릿해졌는가!
- ² 시온의 귀한 아들들,
- ³ 심지어 하이에나도 젖을 주며,
- ⁴ 수유하는 아이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 갈증으로 말라 있다.
- ⁵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거리에서 황폐해졌다.
- ⁶ 내 백성의 딸의 최악이 소돔의 죄보다 더 크니,
- ⁷ 그녀의 귀족들은 눈보다 더 순결했고, 우유보다 더 하얗고, 보석보다 더 붉었으며, 그들의 광택은 사파이어 같았다.
- ⁸ 그들의 모습은 숯보다 더 검다.
- ⁹ 칼에 죽은 자들이 굶어 죽은 자들보다 나은데,
- ¹⁰ 자비로운 여자들이 자기 아이들을 끓여 먹었다.
- ¹¹ 주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다 이루셨다.
- ¹² 땅의 왕들은 믿지 않았고,
- ¹³ 그녀의 예언자들의 죄로 인해,
- ¹⁴ 그들은 거리에서 눈먼 자처럼 헤매었다.
- ¹⁵ “떠나라!” 그들이 그들에게 외쳤다. “부정한 자여! 떠나라! 떠나라! 만지지 마라!” 그들은 더 이상 여기에 살 수 없다.
- ¹⁶ 주님의 진노가 그들을 흘으셨다.
- ¹⁷ 우리 눈은 여전히 허무하게 구원을 기다리며 힘겨워한다.
- ¹⁸ 그들이 우리 발걸음을 추적하며,
- ¹⁹ 우리의 추격자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다.
- ²⁰ 우리 코의 숨, 그분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민족들 가운데 살 것이다.
- ²¹ 에돔의 딸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 ²² 시온의 딸아, 네 최악의 벌이 끝났다.

애가 5장

- ¹ 주님, 우리에게 닥친 일을 기억하소서.
- ² 우리의 유산은 타인에게 넘어갔고, 우리의 집들은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 ³ 우리는 고아가 되었고, 아버지가 없습니다.
- ⁴ 우리는 물을 마시기 위해 돈을 내야 합니다.
- ⁵ 우리를 쫓는 자들이 우리 목에 얹혀 있습니다. 우리는 지쳐서 쉴 틈이 없습니다.
- ⁶ 우리는 이집트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 ⁷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죄를 떠안았습니다.
- ⁸ 종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이가 없습니다.
- ⁹ 우리는 생명을 위협받으며 빵을 얻습니다.
- ¹⁰ 우리의 피부는 화로처럼 검습니다.
- ¹¹ 그들이 시온의 여자들을 강간했습니다.
- ¹² 귀족들이 손으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 ¹³ 젊은이들이 밀을 갈고 있습니다.
- ¹⁴ 장로들이 문에서 잠잠해졌습니다.
- ¹⁵ 우리 마음의 기쁨이 끊어졌습니다.
- ¹⁶ 우리 머리의 왕관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화가 이르렀도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 ¹⁷ 이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 ¹⁸ 황폐해진 시온의 산 때문입니다.
- ¹⁹ 주님, 당신은 영원히 계십니다.
- ²⁰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 ²¹ 주님, 우리를 당신께로 돌아서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께로 돌아설 것입니다.
- ²² 그러나 당신은 우리를 완전히 거절하셨습니다.

바룩서 | Baruch

바룩서 1장

- ¹ 이것은 네리아의 아들 바룩, 마아세아의 아들 네리아, 세데키아의 아들 마아세아, 아사디아의 아들 세데키아, 헬키아의 아들 아사디아가 바빌론에서 쓴 책의 말들이다.
- ² 그때는 갈대아인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불로 태운 해의 다섯째 해, 일곱째 달 일곱째 날이었다.
- ³ 바룩은 유다 왕 요아킴의 아들 예고니아와, 이 책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책의 말들을 읽었다.
- ⁴ 그리고 모든 용사들과 왕자들과 장로들과, 바빌론의 수드 강가에 사는 모든 사람들,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귀에 읽었다.
- ⁵ 그러자 그들은 주님 앞에서 울며 단식하고 기도하였다.
- ⁶ 그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돈을 모았다.
- ⁷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헬키아의 아들 대제사장 요아킴과, 그와 함께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 ⁸ 그때는 그가 주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빼내어진 기구들을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는 날, 시반월 열째 날이었다. 이 기구들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세데키아가 만든 은기구들이었다.
- ⁹ 바빌론 왕 나부코도노소르가 예고니아와 귀족들과 포로들과 용사들과 땅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끌고 가서 바빌론으로 데려간 후였다.
- ¹⁰ 그들은 말했다. 보라, 우리가 당신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돈으로 번제와 속죄제와 향을 사서, 제물을 준비하여 주님 우리 하느님의 제단에 바치십시오.
- ¹¹ 바빌론 왕 나부코도노소르와 그의 아들 발타사르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날들이 하늘 위의 땅 위의 날들처럼 되게 하소서.
- ¹²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눈의 빛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빌론 왕 나부코도노소르와 그의 아들 발타사르의 그늘 아래서 살며, 그들을 많이 섬기고 그들의 눈에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 ¹³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 하느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님 하느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주님의 진노와 분노가 우리에게서 돌이켜지지 않았습니까.
- ¹⁴ 우리가 당신에게 보낸 이 책을 읽어, 축제의 날과 공식적인 모임의 날에 주님의 집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 ¹⁵ 당신은 말하십시오. 우리 주님 하느님께는 의로움이 속해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늘날과 같이 수치가 가득합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 ¹⁶ 우리 왕들과, 우리 귀족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예언자들과, 우리 조상들에게.
- ¹⁷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 ¹⁸ 우리는 그분을 거역하고, 우리 주님 하느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분이 우리 앞에 두신 주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 ¹⁹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 주님 하느님에게 불순종하였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게으름을 부렸습니다.
- ²⁰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분의 종 모세를 통해,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려하신 그날에 선포하신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습니다.
- ²¹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모든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 ²² 오히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의 생각을 따르며,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리 주님 하느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바룩서 2장

- 1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와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우리 판관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영주들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하신 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 2 이것은 하늘 아래 어디에서도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큰 재앙들을 우리 위에 내리셨으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과 같았습니다.
- 3 우리가 각자 자신의 아들의 고기를 먹고, 각자 자신의 딸의 고기를 먹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4 또 주님은 그들을 우리 주변의 모든 왕국들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으며, 주님이 그들을 홀으신 곳에서 모든 주변 민족들 사이에서 비난과 황폐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 5 그러므로 그들은 낮추어졌고 높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 6 우리 주님 하느님께는 의로움이 속해 있지만, 우리와 우리 조상들에게는 오늘날과 같이 수치가 있습니다.
- 7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모든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 8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악한 마음의 생각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 9 그러므로 주님은 재앙을 지켜보셨습니다. 주님은 그 재앙들을 우리 위에 내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에서 의로우십니다.
- 10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주님이 우리 앞에 놓으신 그의 명령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 11 이제, 오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강한 손과 표징과 기적과 큰 능력과 높은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날과 같이 당신의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 12 오 주님 우리 하느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불경건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규례들에 대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 13 당신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돌이키소서. 우리는 당신이 홀으신 이방인들 사이에서 겨우 몇 명 남았습니다.
- 14 오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끌고 간 자들 앞에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 15 이렇게 하여 온 땅이 주님이 우리 하느님임을 알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 16 오 주님, 당신의 성스러운 처소에서 내려다보시고 우리를 돌아보소서. 오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 17 눈을 뜨시고 보소서. 음부에 있는 죽은 자들은 그들의 몸에서 숨이 끊어졌으므로 주님께 영광도 의로움도 드리지 못합니다.
- 18 그러나 크게 괴로워하며 휘청거리고 약하며, 눈이 힘없이 떨어지고 굶주린 영혼은, 오 주님, 당신의 영광과 의로움을 선포합니다.
- 19 오 주님 우리 하느님,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의 의로움을 근거로 당신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다.
- 20 당신은 당신의 종들 곧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21 "너희는 어깨를 숙여 바빌론 왕을 섬기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머무르라."
- 22 그러나 너희가 바빌론 왕을 섬기기 위해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 23 유다의 모든 성들과 예루살렘 근처 지역에서 즐거움의 소리, 기쁨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질 것이다.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게 될 것이다."
- 24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바빌론 왕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종들 곧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어, 우리 왕들의 뼈와 우리 조상들의 뼈가 그들의 자리에서 끌려나가게 하셨습니다.
- 25 보라, 그들은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서리에 내버려졌다. 그들은 기아와 칼과 전염병으로 큰 고통 속에서 죽었다.
- 26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행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집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 27 그러나 우리 주 하느님, 당신은 모든 자비와 큰 은총을 따라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 ²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당신이 그에게 당신의 율법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날,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 ²⁹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이 매우 큰 무리가 내가 그들을 흠어놓을 열국 가운데서 적은 수가 될 것이다.
- ³⁰ 그들이 완고한 백성임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잡힌 땅에서 마음을 돌이킬 것이며,
- ³¹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마음과 듣는 귀를 주겠다.
- ³² 그러면 그들은 포로로 잡힌 땅에서 나를 찬양하고, 내 이름을 생각할 것이며,
- ³³ 그들의 완고한 마음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설 것이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조상들의 길을 기억할 것이다.
- ³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으로 다시 그들을 데려올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더하게 하여 결코 줄어들지 않게 하겠다.
- ³⁵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는 떠나보내지 않겠다."

바룩서 3장

- 1 주님, 전능하신 하느님, 고통에 시달리는 영혼과 괴로운 마음이 당신께 부릅니다.
- 2 들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은 자비로운 하느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 3 당신은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계속 멸망합니다.
- 4 주님, 전능하신 하느님, 이스라엘의 죽은 자들과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던 자들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들은 그들의 하느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이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 5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때에 당신의 힘과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소서.
- 6 당신은 우리 주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주님.
- 7 이 때문에 당신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포로 생활 중에 당신을 찬양하리니, 우리는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던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 8 보소서, 우리는 여전히 당신이 우리를 홀으신 이 포로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방과 저주가 되었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주 하느님을 떠나면서 범한 모든 죄악에 따라 벌을 받고 있습니다.
- 9 이스라엘아, 생명의 계명을 들어라!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라.
- 10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당신은 원수의 땅에 있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낯선 땅에서 늙었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죽은 자들과 더러워졌습니까?
- 11 어찌하여 당신은 지옥에 있는 자들로 여겨지십니까?
- 12 당신은 지혜의 샘을 버렸습니다.
- 13 당신이 하느님의 길을 걷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평화 속에 거할 것이었습니다.
- 14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힘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어디에 있는지 배우라. 그리하여 당신은 긴 생명과 삶, 눈의 빛과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 15 누가 그녀의 자리를 찾았는가? 누가 그녀의 보물창고에 들어갔는가?
- 16 이방인들의 왕들과 땅 위의 짐승들을 다스린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 17 공중의 새들과 즐기던 자들과 은과 금을 쌓아두어 사람들이 의지하는 자들, 그들의 재산은 끝이 없었는데,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 18 은을 열심히 추구하고 매우 걱정하며 그들의 행위가 찾을 수 없었던 자들이
- 19 사라지고 지옥으로 내려갔으며, 다른 이들이 그들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 20 젊은 자들이 빛을 보고 땅 위에서 살았으나, 지식의 길을 알지 못했고,
- 21 그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 22 지혜는 가나안에서 들리지 않았고, 테만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 23 땅에 있는 아가르의 아들들, 메란과 테만의 상인들, 우화를 지은 자들, 지혜를 탐구하는 자들—이 모든 이들 중 누구도 지혜의 길을 알지 못했고, 그녀의 길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 24 이스라엘아, 하느님의 집은 얼마나 크고, 그분의 소유지는 얼마나 넓은가!
- 25 그것은 크고 끝이 없으며, 높고 측정할 수 없다.
- 26 고대부터 유명했던 거인들이 태어났다. 그들은 키가 크고 전쟁에 능했다.
- 27 하느님은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지식의 길을 주지 않으셨다.
- 28 그러므로 그들은 지혜가 없어 멸망하였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멸망하였다.
- 29 누가 하늘에 올라가 그녀를 가져왔으며, 구름에서 내려왔는가?
- 30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녀를 찾아내어 귀한 금으로 그녀를 가져올 것인가?
- 31 그녀의 길을 아는 자도 없고, 그녀의 길을 깨달은 자도 없다.

- ³²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녀를 알고, 자신의 지혜로 그녀를 발견하셨다. 그분은 영원히 땅을 준비하시고, 네 발로 걷는 짐승으로 가득 채우셨다.
- ³³ 그분이 빛을 보내면 빛은 나간다. 그분이 그 빛을 부르면, 빛은 두려움으로 그분의 명령을 따른다.
- ³⁴ 별들은 자기 맡은 시간에 빛나며 기뻐하였다. 그분이 그들을 부르자, 그들은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으신 분 앞에서 기쁨으로 빛났다.
- ³⁵ 이분이 우리 하느님이시다.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 ³⁶ 그분은 지식의 모든 길을 찾아내어, 그의 종 야곱과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 ³⁷ 그 후 그녀는 땅 위에 나타나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바룩서 4장

- 1 이것은 하느님의 계명과 영원히 지속되는 율법의 책이다. 그것을 굳게 잡는 자들은 살 것이고, 그것을 버리는 자들은 죽을 것이다.
- 2 돌아오라, 야곱아, 그것을 잡아라. 그 빛의 밝음으로 향해 걸어가라.
- 3 네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말고, 네게 유익한 것을 외국 민족에게 내주지 말라.
- 4 이스라엘아, 우리는 기쁘다.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 5 기뻐하여라, 내 백성아, 이스라엘의 기억이여.
- 6 너희는 파멸을 위해 민족들에게 팔리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가 하느님을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적들에게 넘겨졌다.
- 7 너는 하느님을 향해 아니라 악마들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너를 만드신 이를 자극하였다.
- 8 너는 너를 기르신 영원하신 하느님을 잊었고, 너를 젖먹인 예루살렘을 슬프게 하였다.
- 9 그녀는 하느님으로부터 너희에게 내린 분노를 보고 말하였다. "시온 근처에 거하는 자들아, 들어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주셨다."
- 10 나는 내 아들과 딸들의 포로 생활을 보았다. 영원하신 분이 그들에게 내리신 것이다.
- 11 나는 기쁨으로 그들을 기르고, 울며 슬퍼하며 그들을 보냈다.
- 12 나를 과부이며 많은 이들에게 버려진 자라고 기뻐하는 자가 없어야 한다. 내 자식들의 죄로 인해 나는 황폐하게 남아 있다. 그들이 하느님의 율법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 13 그분의 율법을 무시했고, 하느님의 계명의 길을 걷지 않았으며, 그분의 의로움의 훈련의 길을 밟지 않았다.
- 14 시온 가까이에서 거하는 자들아, 나의 아들과 딸들이 겪은 포로 생활을 기억하여라. 영원하신 분이 그들에게 내린 것이다.
- 15 그분이 먼 곳에서 그들에게 한 민족을 보내셨으니, 그 민족은 수치를 모르고 낯선 언어를 쓰며, 늙은이를 존중하지도 않고 어린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
- 16 그들은 과부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끌고 가고, 그녀는 딸들 없이 외로이 남겨졌다.
- 17 그러나 나—내가 어떻게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냐?
- 18 이 재앙을 너희에게 내린 분이 너희를 너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 19 가라, 내 자녀들아. 가라. 나는 외로이 남아 있다.
- 20 나는 평화의 옷을 벗고 갈기로 된 기도의 옷을 입었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영원하신 분께 부르짖을 것이다.
- 21 용기를 내어라, 내 자녀들아. 하느님께 부르짖어라. 그분이 너희를 원수의 권세와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 22 나는 영원하신 분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믿었고,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쁨이 내게 임하였으니, 너희의 영원한 구원 자께서 곧 너희에게 베푸실 자비 때문이다.
- 23 나는 너희를 슬픔과 통곡으로 보냈으나, 하느님께서 너희를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다시 나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 24 지금 시온 가까이에서 거하는 자들이 너희의 포로 생활을 보았듯이, 곧 그들은 우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내리실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구원은 영원하신 분의 위엄과 빛나는 영광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 25 내 자녀들아, 하느님으로부터 너희에게 닥친 분노를 인내하여라. 너희 적이 너희를 박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그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을 밟을 것이다.
- 26 내 부드러운 자들은 험난한 길을 떠났다. 그들은 적들에게 끌려간 양 떼처럼 끌려갔다.
- 27 용기를 내어라, 내 자녀들아. 하느님께 부르짖어라. 너희를 이처럼 이르게 한 이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 28 너희가 하느님을 떠나 미혹된 길로 갔으니, 다시 돌아가 그를 열 배 더 간절히 찾으라.
- 29 이 재앙을 너희에게 내린 이가 너희 구원과 함께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을 다시 주실 것이다.
- 30 오 예루살렘아, 용기를 내어라. 너희의 이름을 부른 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 31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몰락을 기뻐한 자들은 불행하다.

- ³² 너희 자녀들이 섬긴 도시들은 불행하다. 너희 아들을 받은 자는 불행하다.
- ³³ 너희 몰락을 기뻐하고 너희 파멸을 즐거워한 그녀가, 자기 황폐함을 보고 슬퍼할 것이다.
- ³⁴ 내가 그녀의 거대한 무리에 대한 자부심을 빼앗고, 그녀의 자랑을 슬픔으로 바꾸겠다.
- ³⁵ 영원한 이의 불이 그녀 위에 여러 날 동안 내릴 것이며,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악귀들에 의해 거주될 것이다.
- ³⁶ 오 예루살렘아, 동쪽을 바라보아라. 하느님으로부터 너희에게 닥쳐오는 기쁨을 보아라.
- ³⁷ 보아라, 너희가 보낸 아들이 온다. 그들은 거룩한 이의 말씀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모여들며, 하느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있다.

바룩서 5장

- ¹ 예루살렘아, 네 슬픔과 고통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하느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입어라.
- ² 하느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영원하신 분의 영광의 관을 머리에 씌라.
- ³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모든 곳에서 네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 ⁴ 하느님께서 네 이름을 영원히 "의로운 평화, 신성한 영광"이라 부르실 것이다.
- ⁵ 일어나라, 예루살렘아. 높은 곳에 서서 동쪽을 바라보아라. 거기서 네 자녀들이 거룩하신 분의 말씀으로 해가 지는 곳에서 해가 뜨는 곳까지 모여 오는 것을 보아라. 그들이 하느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음을 기뻐하며.
- ⁶ 그들은 원수들에게 끌려 나갈 때 걸어가던 자들이었으나, 하느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높이 들어 올려 왕좌에 앉히며 너에게로 데려오신다.
- ⁷ 하느님께서 모든 높은 산과 영원한 언덕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워 땅을 평평하게 하여,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영광 속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셨다.
- ⁸ 또한 모든 나무와 향기로운 나무들이 하느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을 그늘로 덮었다.
- ⁹ 하느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빛 속에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자비와 의로움으로 이스라엘을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바룩서 6장

- 1 예레미야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명령을 전하기 위해 보낸 편지의 사본.
- 2 너희가 하느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너희는 바빌로니아 왕 나부코도노소르의 손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 3 그러므로 너희가 바빌로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많은 해 동안, 긴 기간 동안, 일곱 세대 동안 머무를 것이다. 그 후에 나는 너희를 평화롭게 그곳에서 데려낼 것이다.
- 4 그러나 이제 너희는 바빌로에서 은과 금과 나무로 만든 신들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을 볼 것이다. 이 신들은 민족들을 두려워하게 한다.
- 5 그러므로 너희는 결코 이 외국인들과 같아지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그들 앞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숭배하는 것을 볼 때, 그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 6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말하라, '주님, 우리는 오직 당신을 숭배해야 합니다.'
- 7 내 천사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나는 너희 영혼들을 돌본다.
- 8 그들의 혀는 장인의 손길로 다듬어졌고, 그들은 금과 은으로 덮여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허상일 뿐이며, 말할 수 없다.
- 9 그들은 마치 기쁨을 좋아하는 처녀를 위해 금을 가져다가, 그들의 신들의 머리에 관을 만든다.
- 10 가끔 사제들이 그들의 신들로부터 금과 은을 빼앗아 자기들에게 쓴다.
- 11 그들은 그 일부를 공공의 창녀들에게 주기도 한다. 그들은 그 창녀들에게 옷을 입히며, 심지어 은의 신, 금의 신, 나무의 신들까지도 남자처럼 옷을 입힌다.
- 12 그러나 이 신들은 자주색 옷으로 덮여 있다 하더라도, 녹과 나방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할 수 없다.
- 13 그들은 신전의 먼지가 그 위에 두껍게 쌓여 있기 때문에, 얼굴을 닦는다.
- 14 자기에게 범죄한 자를 죽일 수 없는 자가 마치 나라의 재판관처럼 지팡이를 잡는다.
- 15 그는 오른손에 단도와 도끼를 들고 있지만, 전쟁과 도둑들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없다.
- 16 이로써 그들이 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 17 사람이 쓰는 그릇이 부서지면 쓸모없게 되듯, 그들의 신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신전에 세워질 때, 들어오는 자들의 발걸음으로 인해 그들의 눈은 먼지로 가득 차 있다.
- 18 왕에게 범죄한 자가 사형을 선고받고 모든 측면에서 감시당하듯, 사제들은 신전에 문과 자물쇠와 막대기를 달아 도둑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한다.
- 19 그들은 그 신들에게 불을 켜는데, 자기들 자신보다 더 많이 켜며, 비록 그 신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음에도.
- 20 그들은 신전의 기둥처럼 되어 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땅에서 기어나오는 것들이 그들과 그들의 옷을 모두 먹어치우면서 그들의 마음이 썩어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 21 그들의 얼굴이 신전에서 나오는 연기로 검게 변할 때.
- 22 박쥐와 제비와 새들이 그들의 몸과 머리에 앉고,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이다.
- 23 이로써 너희는 그들이 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 24 그들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덮은 금이 있더라도, 누군가가 그 녹을 닦아내지 않으면 빛나지 않는다. 그들은 녹이 풀릴 때조차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 25 숨이 없는 것들은 어떤 비용을 들이더라도 사들여진다.
- 26 발이 없으므로 어깨에 메어 옮겨진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그것들이 아무 가치도 없음 알게 된다.
- 27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도 부끄러워한다. 만일 언제든 땅에 떨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굽혀지면 스스로 펴지지 못한다. 그러나 제물은 죽은 자처럼 그들 앞에 놓인다.
- 28 그것들에게 바쳐진 것들은 제사장들이 팔아 쓴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아내들도 그 일부를 소금에 절여 보관한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 29 월경하는 여자와 출산한 여자가 그들의 제물을 만진다. 그러므로 이 일들로 보아 그것들이 신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 30 어떻게 그들을 신이라 부를 수 있겠느냐? 여자들이 은과 금과 나무로 만든 신 앞에 음식을 놓기 때문이다.
- 31 그들의 사원에서 제사장들은 의복이 찢어지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앉아 있다.
- 32 그들은 죽은 자가 있을 때 축제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 신들 앞에서 외치고 울부짖는다.
- 33 제사장들은 그것들에서 옷을 벗어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입힌다.
- 34 사람이 그것들에게 해를 끼치든 이로움을 주든, 그들은 그에 보답할 수 없다. 그들은 왕을 세우지도 못하고 폐하지도 못한다.
- 35 마찬가지로 그들은 부와 돈을 줄 수도 없고, 사람이 그들에게 서원을 하여도 지키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36 그들은 아무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고, 약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구출할 수 없다.
- 37 그들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할 수 없고, 고통받는 자를 구출할 수 없다.
- 38 그들은 과부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고아에게 선을 행하지 못한다.
- 39 이 나무로 만든 신들은 산에서 잘라낸 돌과 같다. 그것들은 금과 은으로 덮여 있다. 그들을 섬기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 40 칼데아인들조차도 그들을 모독하는데, 어찌 사람이 그들을 신이라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겠느냐?
- 41 그들이 말을 못하는 자를 보고, 그를 데려와 벨에게 부르게 하며,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
- 42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버린다. 그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 43 여자들은 끈을 몸에 두르고 길가에 앉아 갈대를 태워 향으로 바친다. 그러나 그 중 한 여자가 지나가는 자에게 끌려 그와 관계를 맺으면, 자기 끈이 끊어지지 않았고 자신보다 덜 가치 있는 자라고 동료들을 책망한다.
- 44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거짓이다. 그러므로 어찌 사람이 그들을 신이라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겠느냐?
- 45 그들은 목수들과 금세공인들이 만든 것이다. 그들은 공예품들이 만든 대로밖에 될 수 없다.
- 46 그것들을 만든 자들조차도 오래 살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만든 것들이 어찌 오래 살 수 있겠느냐?
- 47 그들은 후세에 거짓과 모욕을 남긴다.
- 48 전쟁이나 전염병이 그들에게 닥칠 때, 제사장들은 자신들과 함께 숨을 곳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스스로 상의한다.
- 49 그러면 어찌 사람들은 그것들이 신이 아니며, 전쟁이나 전염병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 50 그것들이 단지 나무이며 금과 은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 51 모든 민족과 왕들이 그것들이 신이 아니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일이고, 그 안에 하느님의 작품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 52 그러면 누구나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 53 그것들은 땅에 왕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에게 비를 내리지 못합니다.
- 54 그것들은 자신의 사건을 심판하지도 못하고, 부당함을 바로잡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 사이의 까마귀처럼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 55 금이나 은으로 덮인 나무로 만든 신들의 집에 불이 떨어지면, 그들의 사제들은 도망쳐 피하지만, 신들 자신은 마치 들보처럼 타서 부서집니다.
- 56 게다가 그들은 어떤 왕이나 적대자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찌 사람이 그것들을 신이라고 인정하거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 57 금이나 은으로 덮인 나무로 만든 신들은 도둑이나 강도로부터 도망치지 못합니다.
- 58 그들이 입은 금, 은, 옷가지들을 강한 자들이 빼앗아 가고, 그것들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 59 그러므로 그런 거짓 신들보다는, 자신의 남성성을 드러내는 왕이 되는 것이 낫고, 혹은 집 안에서 주인의 필요에 맞는 유

용한 그릇이 되는 것이 낫습니다. 혹은 집 안의 문이 되어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그런 거짓 신들보다 낫고, 혹은 궁전 안의 나무 기둥이 되는 것이, 그런 거짓 신들보다 낫습니다.

60 태양과 달과 별들은 밝고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내졌으므로, 순종합니다.

61 마찬가지로 번개가 번쩍일 때는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바람도 마찬가지로 모든 땅에서 불어듭니다.

62 하느님이 구름에게 온 세계를 가로질러 가라고 명령하면, 그들은 그 명령을 따릅니다.

63 위에서 내려와 산과 숲을 태우도록 보내진 불도 그 명령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 신들에는 그것들과 비교할 만한 모습이나 힘이 전혀 없습니다.

64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것들이 사건을 심판하지도 못하고, 사람에게 선을 베풀지도 못한다는 것을 보고, 그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65 그러므로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66 그것들은 왕들을 저주하거나 축복할 수 없습니다.

67 그것들은 민족들 사이 하늘에서 표징을 보이지도 못하고, 태양처럼 빛나지도 못하며, 달처럼 빛을 주지도 못합니다.

68 짐승들이 그들보다 낫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으로 들어가 자신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69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신이라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70 오이발의 허수아비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듯, 금과 은으로 덮인 나무로 만든 그들의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1 마찬가지로 금과 은으로 덮인 나무로 만든 그들의 신들은 과수원의 흰가시처럼, 모든 새가 앓는 존재입니다. 또 어두운 곳에 버려진 시체와도 같습니다.

72 그들 위에 씌어가는 화려한 자주색을 보고,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소멸되어, 그 땅에서 조롱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73 그러므로 우상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 더 나으니, 그는 비난에서 멀리 떨어질 것이다.

에제키엘서 | Ezekiel

에제키엘서 1장

- 1 삼십 년째 되는 해, 네 번째 달, 그 달 다섯째 날에, 내가 카바르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 가운데 있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내가 하느님의 환상을 보았다.
- 2 그 달 다섯째 날은 여호야킨 왕이 포로로 잡힌 지 다섯째 해였다.
- 3 그때 주님의 말씀이 바즈의 아들인 제사장 에제키엘에게 갈대아 땅, 카바르 강가에서 임했다. 주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
- 4 나는 보니, 북쪽에서 폭풍 같은 바람이 불어왔다. 큰 구름과 번쩍이는 불꽃, 그 주위에는 빛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불꽃 속에서 끓는 금속처럼 빛나는 것이 보였다.
- 5 그 가운데에서 네 마리의 살아 있는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것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 6 각각 네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각각 네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 7 그들의 발은 곧았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처럼 보였으며, 황동으로 광택을 낸 것처럼 빛났다.
- 8 그들의 날개 아래, 네 측면에 모두 사람의 손이 있었다. 그 네 마리의 얼굴과 날개는 이와 같았다.
- 9 그들의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 방향을 돌리지 않았다. 각각은 앞쪽으로 직진했다.
- 10 그들의 얼굴의 형상은 사람의 얼굴이었고, 네 마리 모두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이 있었고, 왼쪽에는 소의 얼굴이 있었으며, 모두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 11 이것이 그들의 얼굴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었고, 각각 두 날개는 다른 날개에 닿았고, 두 날개는 몸을 가렸다.
- 12 각각은 앞쪽으로 직진했다. 영이 가려는 곳으로 그들이 갔고, 움직일 때 방향을 돌리지 않았다.
- 13 그 살아 있는 생물의 형상은 타는 숯불 같았고, 횃불의 모습과 같았다. 불이 생물들 사이에서 위로 아래로 움직였고, 불은 밝았으며, 불에서 번개가 튀어나왔다.
- 14 그 살아 있는 생물들은 번개처럼 빠르게 달리고 돌아왔다.
- 15 나는 그 살아 있는 생물들을 보고 있노라, 땅 위에 그 생물들 곁에 바퀴 하나가 있었는데, 각각의 네 얼굴마다 하나씩 있었다.
- 16 바퀴의 모습과 그 작용은 황옥 같았다. 네 바퀴 모두 같은 형상이었고, 그 모습과 작용은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는 것 같았다.
- 17 그들이 움직일 때, 네 방향으로 움직였다. 움직일 때 방향을 돌리지 않았다.
- 18 그 바퀴 테두리는 높고 무서웠으며, 네 바퀴 모두 테두리에 사방에 눈이 가득했다.
- 19 생물들이 움직일 때, 바퀴도 그 곁에서 움직였다. 생물들이 땅에서 떠올라 있을 때, 바퀴도 함께 떠올랐다.
- 20 영이 가려는 곳으로 그들이 갔다. 영이 가려는 곳으로 바퀴도 그 곁에서 떠올랐다. 이는 살아 있는 생물의 영이 바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 21 그들이 움직일 때, 바퀴도 움직였고, 그들이 멈출 때, 바퀴도 멈췄다. 그들이 땅에서 떠올라 있을 때, 바퀴도 그 곁에서 떠올랐다. 이는 살아 있는 생물의 영이 바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 22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의 형상이 있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투명한 수정처럼 보였고, 그들의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다.
- 23 창공 아래에서 그들의 날개는 곧게 펴져 있었고,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각각은 한쪽에 두 날개를 가지고 몸을 가리고, 다른 쪽에 두 날개를 가지고 몸을 가렸다.
- 24 그들이 움직일 때, 나는 그들의 날개 소리를 큰 물결의 소리처럼, 전능자의 음성처럼, 군대의 소란스러운 소리처럼 들었다. 그들이 멈추었을 때, 그들은 날개를 내렸다.
- 25 그들의 머리 위 하늘 위에서 소리가 났다. 그들이 서 있을 때, 그들은 날개를 내렸다.

- ²⁶ 그들의 머리 위 하늘 위에는 사파이어 돌처럼 보이는 보좌의 형상이 있었다. 보좌의 형상 위에는 사람의 형상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
- ²⁷ 나는 그의 허리 위로는 불처럼 빛나는 금속의 형상, 그 안에서 사방으로 불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고, 그의 허리 아래로는 불의 형상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주위에는 빛이 가득하였다.
- ²⁸ 비가 오는 날 구름 속에 보이는 무지개의 형상처럼, 그 빛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다.

에제키엘서 2장

- ¹ 그가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이여, 일어나 서라. 내가 너와 말하겠다."
- ² 그가 내게 말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나에게 말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 ³ 그가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이여, 나는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나를 거역하는 반역의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은 오늘날까지 나를 범해 왔다."
- ⁴ 그 자녀들은 뻔뻔하고 완고하다. 나는 너를 그들에게 보내며,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⁵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그들은 반역의 집이기 때문에—그들은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 ⁶ 너, 사람의 아들이여,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비록 가시덤불과 가시나무가 너와 함께 있고, 전갈들 사이에 살고 있더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낙심하지 마라. 그들은 반역의 집이기 때문이다.
- ⁷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그들은 매우 반역적인 집이기 때문이다.
- ⁸ 그러나 너, 사람의 아들이여,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들어라. 그 반역의 집처럼 반역하지 말라. 입을 열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 ⁹ 내가 바라보니, 내게로 손이 뻗쳐 나오는 것이 보였다. 보라, 그 손에는 책의 두루마리가 있었다.
- ¹⁰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쳤다. 그 안팎에 글이 쓰여 있었고, 슬픔과 애곡과 화가 기록되어 있었다.

에제키엘서 3장

- 1 그가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이, 네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여라."
- 2 그래서 나는 입을 벌렸고, 그가 나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셨다.
- 3 그가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이,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배와 창자로 가득 채워라."
- 4 그가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이, 이스라엘 집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 5 너는 말이 낯설고 어려운 언어를 쓰는 백성에게 보내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게 보내심이라—
- 6 너는 말이 낯설고 어려운 언어를 쓰는 여러 민족에게 보내심이 아니다. 그들의 말을 네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내가 만약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네 말을 들었을 것이다.
- 7 그러나 이스라엘 집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집 전체가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을 지녔기 때문이다.
- 8 보라, 내가 네 얼굴을 그들의 얼굴보다 견고하게 만들었고, 네 이마를 그들의 이마보다 견고하게 만들었다.
- 9 내가 네 이마를 화강암보다 더 단단한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었다.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 10 또 그가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이, 내가 네게 말하는 모든 말을 네 마음에 받고 귀로 들어라."
- 11 네 백성의 포로들, 곧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주님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하여라.
- 12 그때 성령이 나를 들어 올리니, 내 뒤에서 큰 소리로 휘몰아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이 찬미받으소서."
- 13 나는 살아 있는 존재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그 옆에 있는 바퀴들의 소리, 곧 거대한 휘몰아치는 소리를 들었다.
- 14 그러자 성령이 나를 들어 올려 데려갔다. 나는 슬픔과 마음의 격노로 갔다. 주님의 손이 나에게 강하게 미쳤다.
- 15 그 후 나는 강 체바르 가까이에 살고 있는 포로들, 곧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 가운데 일곱 날 동안 압도당한 채 앉아 있었다.
- 16 일곱 날이 끝나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 17 "사람의 아들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의 경비원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서, 내가 너를 통해 그들에게 경고하라."
- 18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고, 그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악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요구할 것이다.
- 19 그러나 네가 악인에게 경고했는데, 그가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거나, 자신의 악한 행위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악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네 영혼을 구했다.
- 20 "또한 의로운 자가 자신의 의로움을 버리고 죄를 범할 때, 내가 그 앞에 걸림돌을 놓으면, 그는 죽을 것이다.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죄로 죽을 것이고, 그가 행한 의로운 일들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요구할 것이다."
- 21 그러나 네가 의로운 자에게 경고하여 그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였고,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네 영혼을 구했다.
- 22 주님의 손이 나에게 임하였다. 그분이 내게 이르셨다. "일어나 평지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할 것이다."
- 23 나는 일어나 평지로 나갔다. 보라, 주님의 영광이 거기 서 있었는데, 내가 강 체바르 곁에서 본 영광과 같았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 24 그러자 성령이 나에게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분이 나와 말하며 이르셨다. "가서, 네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 25 그러나 너, 사람의 아들이아, 보아라, 그들이 너에게 줄을 두르고 그것으로 너를 묶을 것이니, 너는 그들 사이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 26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들어 놓아, 네가 말을 못하게 하여 그들을 책망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 27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는 네 입을 열어, 너는 그들에게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고 말할 것이다.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거부할 자는 거부할지어다.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에제키엘서 4장

- 1 “너도, 사람의 아들이아, 벽돌을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려라.
- 2 그 성을 포위하라. 그 성을 향해 요새를 쌓고 흙무더기를 쌓아 올려라. 또한 진을 치고 그 성을 둘러싸서 공성기들을 설치하라.
- 3 철제 대야를 가져다가 너와 성 사이에 철의 담처럼 세워라. 그리고 너는 얼굴을 그 성을 향해 돌려라. 그 성은 포위될 것이며, 너는 그 성을 포위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집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 4 “또한 네 왼쪽 옆으로 누워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그 위에 놓아라. 네가 그 위에 누워 있는 날의 수만큼 그들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다.
- 5 내가 그들의 죄악의 연수를 너에게 날의 수로 정하였으니, 삼백 구십 일이다. 너는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다.
- 6 “이 일을 마친 후에는 네 오른쪽 옆으로 누워 유다 집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사십 일을 정하였으니, 하루를 일 년으로 삼았다.
- 7 너는 팔을 드러내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그 성을 향해 예언하라.
- 8 보라, 내가 너에게 줄을 두르리니, 너는 포위하는 날이 끝날 때까지 한쪽 옆에서 다른 쪽 옆으로 돌아서지 못할 것이다.
- 9 “너는 밀, 보리, 콩, 콩류, 기장, 귀리도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아라. 그것으로 빵을 만들라. 네가 옆으로 누워 있는 날의 수, 곧 삼백 구십 일 동안 그 빵을 먹을 것이다.
- 10 너는 먹을 음식을 무게로 정하여 하루 이십 세켈씩 먹을 것이며, 정해진 시간에 먹을 것이다.
- 11 너는 물을 계량하여 힌의 여섯 분의 일씩 마실 것이며, 정해진 시간에 마실 것이다.
- 12 너는 보리 빵처럼 그것을 먹을 것이며, 사람의 배설물로 그것을 그들의 눈앞에서 굶을 것이다.
- 13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내가 그들을 쫓아갈 민족들 가운데서 부정한 빵을 먹을 것이다.
- 14 그러나 나는 말했다. “아, 주 하느님! 보소서, 제 영혼은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않았으며, 더럽고 꺼림직한 음식은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 15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보라, 내가 사람의 배설물 대신 소의 배설물을 네게 주었으니, 너는 그것으로 빵을 굶을 것이다.
- 16 그는 또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이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빵의 지팡이를 꺾을 것이다. 그들은 무게로 빵을 먹고 두려움 속에서 먹을 것이며, 계량된 물을 마시고 놀라며 마실 것이다.
- 17 그들이 빵과 물이 부족해지고 서로 놀라며, 자기 죄악 속에서 쇠약해지게 하리라.

에제키엘서 5장

- ¹ "너, 사람의 아들이, 날카로운 칼을 가져라. 그것을 이발사의 면도칼처럼 너 자신에게 사용하여 머리와 수염을 깎아라. 그 후 저울을 가져다가 머리카락을 달아서 나누어라."
- ² 너는 그 중 세 분의 일은 도시 한가운데에서 불에 태우되, 포위일이 끝날 때 하라. 또 세 분의 일은 칼로 주위를 치고, 나머지 세 분의 일은 바람에 흩어버려라. 나는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들리라.
- ³ 너는 그 중 소수를 가져다가 옷 주름에 묶어라.
- ⁴ 너는 다시 그 중에서 몇 가닥을 꺼내 불가운데에 던져 불에 태우라. 그 불로부터 불이 나와 이스라엘 온 집에 퍼지리라.
- ⁵ 주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녀를 열국의 한가운데에 두었고, 그녀 주변에 나라들이 있다."
- ⁶ 그녀는 나의 규례를 거역하며, 주변 열국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질렀고, 나의 법령을 거역하며, 주변 나라들보다 더 많이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규례를 거부했고, 나의 법령을 따라 살지 않았다.
- ⁷ 그러므로 주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주변 열국보다 더 격렬하며, 나의 법령을 따르지 않았고,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주변 나라들의 규례를 따르지도 않았다."
- ⁸ 그러므로 주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곧 너와 대적하며, 열국의 눈앞에서 너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 ⁹ 나는 네 안에서 내가 전에 하지 않았고, 앞으로 다시는 하지 않을 일을 행할 것이다. 이는 네가 모든 가증한 일을 저지른 때문이다.
- ¹⁰ 그러므로 네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먹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심판을 실행할 것이며, 너의 남은 자들을 모두 하늘의 네 방향으로 흩을 것이다.
- ¹¹ 내가 산다고, 주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모든 기피하는 것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나도 너희를 줄일 것이다. 내 눈은 아끼지 않으며, 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 ¹² 너의 삼분의 일은 전염병으로 죽고, 너의 안에서 기근으로 소멸될 것이다. 삼분의 일은 네 주위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며, 삼분의 일은 네 방향으로 흩어질 것이고, 나는 그 뒤에 칼을 빼들 것이다.
- ¹³ 내 진노가 다 이루어질 때, 내가 너희에게 쏟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 분노를 다 이루었을 때,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열정으로 말하였다.
- ¹⁴ 나는 너를 네 주변 모든 민족들 앞에서 황폐하고 모욕받는 대상으로 만들겠다. 지나가는 이들 모두의 눈앞에서.
- ¹⁵ 내가 분노와 진노, 격노의 책망으로 너희에게 심판을 실행할 때, 너는 네 주변 민족들에게 모욕과 조롱, 교훈과 놀라움이 될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내가 말하였다.
- ¹⁶ 내가 너희를 파멸하려고 보낸 기근의 사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를 파멸시키겠다. 내가 너희 위에 기근을 더하게 하고, 너희의 빵의 지팡이를 꺾을 것이다.
- ¹⁷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사악한 짐승을 보내어 너희를 고독하게 만들겠다. 전염병과 피가 너희를 지나갈 것이며, 나는 칼을 너희에게 끌어들일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내가 말하였다.

에제키엘서 6장

- ¹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 ² "사람의 아들이아,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여라.
- ³ 너는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느님께서 산들과 언덕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줄 것이며, 너희의 높은 곳들을 파괴할 것이다."
- ⁴ 너희 제단들은 황폐해지고, 향단들은 부서질 것이다. 내가 너희 우상 앞에 너희의 죽은 자들을 던질 것이다.
- ⁵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들의 우상 앞에 눕혀둘 것이며, 너희 뼈들을 너희 제단 주위에 흩을 것이다.
- ⁶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도시들은 황폐해지고 높은 곳들은 폐허가 될 것이며, 너희 제단들이 황폐해지고 폐허가 되며, 너희 우상들이 부서지고 사라지며, 너희 향단들이 베어지고 너희 행위들이 없어질 것이다.
- ⁷ 너희 가운데 죽은 자들이 쓰러질 것이며,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⁸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두겠다. 너희가 나라들 사이에 흩어질 때,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 ⁹ 살아남은 너희는 포로로 잡혀간 나라들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음란한 마음과, 나를 떠나 우상들을 따라 음란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들의 눈 때문에 얼마나 상심했는지를 기억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범한 모든 가증한 일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될 것이다.
- ¹⁰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악을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헛되이 말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 ¹¹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손을 치고 발로 땅을 밟으며, "아, 슬프도다!"라고 말하여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가증한 악 때문에. 그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쓰러질 것이다."
- ¹² 먼 곳에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쓰러질 것이며, 남아서 포위된 자는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이처럼 내가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다 이루겠다.
- ¹³ 그들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우상들 주위, 제단들 주위, 모든 높은 산 위, 모든 산꼭대기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모든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그들이 모든 우상들에게 향기로운 냄새를 올렸던 곳들에 누어져 있을 때,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¹⁴ 내가 내 손을 그들에게 펴서 땅을 황폐하고 폐허로 만들겠다. 광야에서 디블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거처에서. 그 때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에제키엘서 7장

- 1 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 2 “사람의 아들이여, 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끝이 다가왔다. 끝이 땅의 네 모퉁이에 이르렀다.’
- 3 이제 네게 끝이 다가왔다. 내가 내 분노를 네 위에 쏟아부을 것이며, 네 길에 따라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 위에 가져올 것이다.
- 4 내 눈은 너를 아끼지 않으며, 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길을 네 위에 가져올 것이고, 네 가증한 일이 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때 네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5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재앙이다! 유일한 재앙이다. 보아라, 그것이 다가온다.’
- 6 끝이 다가왔다. 끝이 다가왔다! 그것이 너를 향해 임했다. 보아라, 그것이 다가온다.’
- 7 거주자여, 네게 멸망이 다가왔다. 때가 왔다. 날이 가까워졌다. 산들 위에는 기쁨의 함성보다는 소란의 날이다.’
- 8 곧 내가 내 분노를 네 위에 쏟아부어, 네 위에 내 진노를 다 이루고, 네 길에 따라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 위에 가져올 것이다.
- 9 내 눈은 아끼지 않으며, 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길에 따라 너를 벌할 것이다. 네 가증한 일이 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때 네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10 “‘보아라, 그 날이다! 보아라, 그것이 다가온다. 네 멸망이 퍼져 나갔다. 지팡이가 꽃을 피웠고, 교만이 싹텄다.’
- 11 폭력이 악의 지팡이로 올라왔다. 그들 중 아무도 남지 않으며, 그들의 무리도, 그들의 재산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 12 때가 왔다. 날이 가까워졌다. 사는 자가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가 슬퍼하지 말라. 내 분노가 그 모든 무리 위에 있다.’
- 13 비록 그들이 살아 있더라도, 파는 자는 사는 것을 되찾지 못할 것이다. 이 환상은 그 모든 무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자신의 삶의 죄악으로 자신을 굳건히 하지 못할 것이다.’
- 14 그들이 나팔을 불고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아무도 전장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내 분노가 그 모든 무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 15 “‘외부에는 칼이 있고, 내부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다. 들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고, 도시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 삼켜질 것이다.’
- 16 그러나 살아남는 자들은 도망쳐 산들 위에 머물 것이며, 골짜기 비둘기처럼 모두 울며, 각자 자신의 죄악으로 슬퍼할 것이다.’
- 17 모든 손이 힘없이 떨리고, 모든 무릎이 물처럼 약해질 것이다.’
- 18 그들은 베옷을 입고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다. 모든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고, 모든 머리에 대머리가 생길 것이다.’
- 19 그들은 은을 거리에 버리고, 금을 부정한 것처럼 여길 것이다. 주님의 분노의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들은 그들의 배를 채우지도,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지도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 20 그가 자신의 장식의 아름다움을 위엄으로 삼았지만, 그들은 그 안에 자신의 가증한 것들과 미워할 만한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만들었다.’
- 21 내가 그것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 약탈의 대상으로 하며, 땅의 악한 자들에게 노략의 대상으로 줄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더럽힐 것이다.’
- 22 내가 또한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킬 것이며, 그들이 내 은밀한 장소를 더럽힐 것이다. 도둑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더럽힐 것이다.’
- 23 “‘사술을 만들라. 땅이 피의 죄로 가득하고, 도시가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 24 그러므로 내가 가장 악한 민족을 불러들여 그들의 집을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강한 자들의 교만을 그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성소들은 더럽혀질 것이다.
- 25 파괴가 온다! 그들이 평화를 구해도 없을 것이다.

²⁶ 화재가 화재 위에 닥치고, 소문이 소문 위에 퍼질 것이다. 그들은 예언자의 환상을 구할 것이지만, 법은 사제에게서 사라지고, 지혜는 장로들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²⁷ 왕은 슬퍼할 것이고, 왕자는 황폐함으로 옷을 입을 것이다. 땅의 백성의 손은 떨릴 것이다. 나는 그들의 길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들의 판단에 따라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 것이다.

예제키엘서 8장

¹ 여섯 번째 해, 여섯 번째 달, 그 달 다섯째 날, 내가 집에 앉아 있을 때,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주님 하느님의 손이 내 위에 내렸다.

² 그러나 내가 보니, 허리 아래로는 불처럼 보이고, 허리 위로는 밝은 금속처럼 빛나는 모습과 같은 불의 형상이 있었다.

³ 그분은 손의 형상을 내밀어 내 머리카락 한 줄을 잡으셨고, 성령이 나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려서, 하느님의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주셨다. 북쪽을 향한 안뜰 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는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의 자리가 있었다.

⁴ 보라,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는데, 내가 평야에서 본 모습과 같았다.

⁵ 그분이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이아, 이제 북쪽을 향해 눈을 들어라."

⁶ 그분이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이아, 그들이 하는 일을 보느냐? 이스라엘 집이 여기서 저지르는 그 큰 가증한 일들을 보느냐? 내가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야 할 이유가 이것인가? 그러나 너는 또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더 보게 될 것이다."

⁷ 그분이 나를 안뜰 문으로 데려가셨다. 내가 보니, 벽에 구멍이 있었다.

⁸ 그분이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이아, 이제 벽을 파라."

⁹ 그분이 내게 말했다.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서 저지르는 악한 가증한 일을 보아라."

¹⁰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보니, 벽 둘레에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과 가증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이 그려져 있었다.

¹¹ 이스라엘 집의 장로들 칠십 명이 그 앞에서 서 있었다. 그들 가운데서 사반의 아들 야아지냐가 서 있었고, 각자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다. 향 연기의 냄새가 올라갔다.

¹² 그분이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이아, 네가 이스라엘 집의 장로들이 어두운 곳에서, 각자 그들의 그림상 방에서 하는 일을 보았느냐? 그들은 말한다. '주님은 우리를 보지 못한다. 주님은 이 땅을 버리셨다.'"

¹³ 그분이 또 내게 말했다. "너는 그들이 저지르는 더 큰 가증한 일을 더 보게 될 것이다."

¹⁴ 그분이 나를 주님의 집 북쪽 문으로 데려가셨다. 내가 보니, 여자들이 거기 앉아 탐무즈를 위하여 울고 있었다.

¹⁵ 그분이 내게 말했다.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사람의 아들이아?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더 보게 될 것이다."

¹⁶ 그분이 나를 주님의 집 안뜰로 데려가셨다. 내가 주님의 성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이십 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 뒤를 향하고 동쪽을 향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동쪽을 향해 태양을 숭배하고 있었다.

¹⁷ 그분이 내게 말했다.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사람의 아들이아? 유다 집이 여기서 저지르는 가증한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냐? 그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우고, 다시 나를 노하게 하려고 돌아섰다. 보라, 그들이 코에 가지를 대고 있다."

¹⁸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대응할 것이다. 내 눈은 아끼지 않으며,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내 귀에 큰 소리로 외치더라도, 나는 그들을 듣지 않을 것이다.

에제키엘서 9장

- ¹ 그러자 그가 내 귀에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도시를 지키는 자들을 불러 모아라. 각자 자기 파멸의 무기를 손에 쥐고."
- ² 보라, 북쪽에 있는 위쪽 문으로부터 여섯 사람이 왔다. 각자 살상의 무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고, 옆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매달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 놋단 옆에 서 있었다.
- ³ 이스라엘의 주님의 영광이 그룹 위에서 집의 문턱으로 올라가셨다. 그분은 옆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매달고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을 불렀다.
- 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도시 중앙을 지나 예루살렘 중앙을 지나가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며 통곡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여라."
- ⁵ 그분은 내 귀에 들리도록 다른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뒤를 따라 도시를 지나가며 치라. 눈을 아끼지 말고 자비를 베풀지 말아라."
- ⁶ 늙은이도, 젊은이도, 처녀도, 어린아이도, 여자도 모두 죽이라. 그러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 서부터 시작하라.
- ⁷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집을 더럽히고, 안뜰을 시체로 채워라. 나가라!"
- ⁸ 그들이 죽이는데, 나는 혼자 남아서 땅에 얼굴을 대고 부르짖으며 말했다. "아, 주 하느님! 예루살렘에 당신의 진노를 쏟을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 ⁹ 그러자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이 매우 크고, 땅은 피로 가득하며, 도시는 부패로 가득하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주님께서 보지 못하신다.'"
- ¹⁰ 나도 눈을 아끼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내가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 위에 내리겠다.
- ¹¹ 옆에 잉크통을 매달고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보고하며 말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가 다 행했습니다."

에제키엘서 10장

- 1 그 후 나는 바라보니, 그룹들의 머리 위 하늘에 보좌의 형상처럼 푸른 보석이 나타났다.
- 2 그분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셨다. "회전하는 바퀴들 사이, 그룹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룹들 사이에서 불탄 숯을 두 손에 가득 채워 성읍 위에 뿌려라."
- 3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집의 오른쪽에 서 있었고, 구름이 안뜰을 가득 채웠다.
- 4 주님의 영광이 그룹 위에서 올라가 집의 문설주 위에 머물렀다. 집은 구름으로 가득 찼고, 안뜰은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찼다.
- 5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외부 뜰까지 들렸다. 마치 전능하신 하느님이 말씀하실 때의 음성 같았다.
- 6 그분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셨다. "회전하는 바퀴들 사이,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와라." 그가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서 있었다.
- 7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향해 손을 뻗어 그 불에서 일부를 집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의 손에 넣어 주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 밖으로 나갔다.
- 8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의 형상이 나타났다.
- 9 나는 바라보니, 그룹 옆에 네 개의 바퀴가 있었다. 한 그룹 옆에 하나의 바퀴, 또 다른 그룹 옆에 또 다른 바퀴가 있었다. 바퀴의 모습은 황옥처럼 보였다.
- 10 그 모습은 네 개 모두 같았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듯했다.
- 11 그들이 움직일 때, 네 방향으로 움직였다. 움직일 때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고, 머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따라갔다.
- 12 그들의 온 몸, 등, 손, 날개, 그리고 바퀴들까지도 사방에 눈으로 가득 찼다. 네 개의 그룹이 가진 바퀴들도 마찬가지였다.
- 13 바퀴에 관해, 내가 들은 바로는, 그것들을 "회전하는 바퀴"라고 불렀다.
- 14 각각 네 얼굴을 지녔다. 첫 번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의 얼굴이었으며, 세 번째는 사자의 얼굴이었고, 네 번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 15 그룹들이 올라갔다. 이는 내가 치바르 강가에서 본 살아 있는 존재이다.
- 16 그룹들이 움직일 때,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움직였고, 그룹들이 땅에서 올라설 때 날개를 치켜들자, 바퀴들도 그 곁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 17 그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었고, 그들이 올라가면,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올라갔다. 살아 있는 존재의 영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 18 주님의 영광이 집의 문설주 위에서 나와 그룹 위에 머물렀다.
- 19 그룹들이 날개를 치켜들고 내 눈앞에서 땅에서 올라서며, 바퀴들과 함께 나갔다. 그들은 주님의 집 동문 문설주에 서 있었다.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렀다.
- 20 이것은 내가 치바르 강가에서 이스라엘 하느님 아래에서 본 살아 있는 존재이며, 나는 그것들이 그룹임을 알았다.
- 21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를 지녔고, 그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의 형상이 있었다.
- 22 그들의 얼굴의 형상은 내가 치바르 강가에서 본 얼굴과 같았다. 그 모습과 그 자체가 모두 같았고, 각각은 앞쪽으로 직진했다.

에제키엘서 11장

- 1 또 성령이 나를 일으켜 주님의 집 동문으로 데려갔다. 그 문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 보라, 문 앞에 스물다섯 사람이 서 있었고, 나는 그들 가운데 아술의 아들 야아지냐와 베나야의 아들 벨라티야, 백성의 지도자들을 보았다.
- 2 그가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들은 이 도시에서 악을 꾸미고 악한 조언을 주는 자들이다."
- 3 그들은 말한다. "집을 짓는 때가 아직 멀었다. 이 냄비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는 그 안의 고기이다."
- 4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항하여 예언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 5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려, 내게 말했다.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말한 그대로이다. 나는 너희가 마음에 품은 일을 알고 있다."
- 6 너희는 이 도시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 거리에 시체로 가득 채웠다."
- 7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도시 한가운데에 뉘어 둔 시체들이 고기이고, 이 냄비가 너희를 위한 것이지만, 너희는 그 한가운데에서 끌어내어질 것이다."
- 8 "너희는 칼을 두려워하였으나, 내가 너희 위에 칼을 내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9 "내가 너희를 그 한가운데에서 끌어내어 외국인의 손에 넘기고, 너희 가운데 심판을 행할 것이다."
- 10 너희는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경계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11 이 냄비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는 그 한가운데의 고기도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경계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 12 너희가 내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내 규례를 실천하지 않았으며, 너희 둘레에 있는 민족들의 규례를 따라 행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13 내가 예언할 때, 베나야의 아들 벨라티야가 죽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아, 주 하느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완전히 끝내시려 하는가?"
- 14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했다.
- 15 "사람의 아들아, 네 형제들, 곧 네 친척들과 이스라엘 온 집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말하기를,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소유로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다."
- 16 "그러므로 말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을 민족들 사이로 멀리 떠나게 하고, 나라들 사이에 흩어졌으나, 그들이 간 곳의 나라들에서 내가 그들에게 잠시 성소가 될 것이다."
- 17 "그러므로 말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모으고, 너희가 흩어진 나라들에서 모아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
- 18 "그들이 거기로 가서, 그 땅의 모든 가증한 것과 모든 역겨운 것을 제거할 것이다."
- 19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안에 새 영을 넣겠다. 내가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겠다.
- 20 그들이 내 율법을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실천하게 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 21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증한 것과 역겨운 것의 마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 위에 돌리겠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22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바퀴는 그 곁에 있었다.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 23 주님의 영광이 도시 한가운데에서 올라가, 도시 동쪽 산 위에 서셨다.
- 24 성령이 나를 일으켜, 하느님의 영으로 환상 속에 갈대아 땅으로 데려가, 포로들에게로 이끌었다.
- 25 그때 나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일을 포로들에게 말했다.

에제키엘서 12장

- 1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 2 "사람의 아들이아, 너는 반역하는 집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다."
- 3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이아, 너는 이사할 때 쓸 짐을 준비하고, 그들의 눈앞에서 낮 동안 옮겨라. 너는 네 자리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라.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지만, 그래도 생각할지도 모른다."
- 4 너는 그들의 눈앞에서 낮 동안 이사할 때 쓸 짐을 꺼내라. 너는 저녁에 그들의 눈앞에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나가라.
- 5 그들의 눈앞에서 벽을 뚫고, 그 길로 짐을 꺼내라.
- 6 그들의 눈앞에서 너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어둠 속으로 옮겨라. 너는 얼굴을 가려서 땅을 보지 못하게 하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을 위한 표징으로 세웠기 때문이다.
- 7 나는 내가 명령받은 대로 하였다. 나는 낮 동안 이사할 때 쓸 짐을 꺼내고, 저녁에 내 손으로 벽을 뚫어 어둠 속으로 그것을 꺼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어깨에 메었다.
- 8 아침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 9 "사람의 아들이아, 반역하는 이스라엘 집이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 10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짐은 예루살렘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집을 가리킨다.'"
- 11 "말하여라. '나는 너희의 표징이다. 내가 한 대로 그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사로잡힐 것이다.'"
- 12 "그 가운데 있는 왕은 어둠 속에서 어깨에 짐을 메고 나갈 것이다. 그들은 벽을 뚫어 그 길로 물건을 꺼낼 것이다. 그는 얼굴을 가릴 것이다. 그가 눈으로 땅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 13 나는 그에게 내 그물을 칠 것이고, 그는 내 덩에 잡힐 것이다. 나는 그를 바빌론, 갈대아 땅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며, 거기서 죽을 것이다.
- 14 나는 그를 돕는 자들과 그의 모든 부대를 사방의 바람으로 흩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따라 칼을 빼들 것이다.
- 15 "그들이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민족들 사이에 흩어고 땅들 사이에 흩을 때이다."
- 16 그러나 나는 그들 중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몇 사람을 남겨 두어, 그들이 끌려간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가중한 일을 선포하게 하리라. 그때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17 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 18 "사람의 아들이아, 너는 떨면서 빵을 먹고, 떨며 두려움으로 물을 마셔라."
- 19 "이 땅의 백성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빵을 먹고, 놀라움으로 물을 마실 것이다. 그 땅은 그 안에 거주하는 자들의 폭력 때문에 황폐해질 것이며, 그 안의 모든 것이 황폐해질 것이다.'"
- 20 거주하는 성들은 황폐해지고, 땅은 황폐해질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21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 22 "사람의 아들이아,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말하는 이 속담이 무엇이냐? '날들이 길어지고, 모든 환상이 사라진다.'"
- 23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이 속담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하여라. '날들이 가까워졌고, 모든 환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 24 이스라엘 집 안에는 더 이상 거짓 환상이나 아침하는 점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 25 나는 주이다. 내가 말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더 이상 미뤄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 날들에, 반역하는 집아, 내가 그 말을 하여 그것을 이루어줄 것이다.
- 26 주님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하여 이르셨다.

²⁷ 사람의 아들이, 보아라, 이스라엘 집의 사람들이 말한다. '그가 보는 환상은 멀리 떨어진 날들을 위한 것이고, 그는 먼 미래의 시대를 예언한다.'

²⁸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말하는 어떤 말도 더 이상 미뤄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에제키엘서 13장

- 1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 2 "사람의 아들이아,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곧 자기 마음에서 예언하는 자들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
- 3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영을 따르며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 4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폐허 속의 여우들처럼 되었다.
- 5 너희는 틈에 올라가지 않았고, 주님의 날에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성벽을 쌓아 서지 않았다.
- 6 그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된 점치기를 하며,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다. 그들은 그 말씀이 확정될 것이라고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 7 너희가 거짓된 환상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거짓된 점치기를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말하지 않았다.
- 8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환상을 보았으므로, 보아라, 나는 너희를 대적한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9 "내 손이 거짓된 환상을 보고 거짓된 점치기를 하는 예언자들을 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의 회의에 들어서지 못하고, 이스라엘 집의 기록에 기록되지 못하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주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10 "그들이 내 백성을 속여 "평화가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는 없다. 그들이 성벽을 쌓을 때, 보아라, 그들은 석회로 그 위를 칠한다."
- 11 석회로 칠한 자들에게 말하여라. 그것은 무너질 것이다. 홍수가 쏟아질 것이고, 큰 우박이 떨어질 것이며, 폭풍이 그것을 흔들어 버릴 것이다.
- 12 성벽이 무너질 때, 너희에게 "너희가 칠한 석회는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것이다.
- 13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진노로 폭풍이 그것을 흔들어 버릴 것이고, 내 분노로 홍수가 쏟아질 것이며, 진노로 큰 우박이 그것을 삼킬 것이다."
- 14 내가 너희가 석회로 칠한 성벽을 무너뜨려 땅에 떨어뜨려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무너질 것이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소멸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15 내가 이 성벽과 석회로 칠한 자들에게 내 진노를 다 이루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성벽은 더 이상 없고, 석회로 칠한 자들도 없다."
- 16 곧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언하고, 그녀를 위한 평화의 환상을 보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다. 그러나 평화는 없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17 "사람의 아들이아, 너는 자기 마음에서 예언하는 네 백성의 딸들에게 얼굴을 돌려 예언하여라."
- 18 그러고 나서 말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든 팔뚝에 마법의 띠를 꿰매고, 모든 키의 사람들의 머리에 면을 만들어 영혼을 사냥하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여, 너희 자신은 영혼을 살려두려 하는가?"
- 19 너희는 작은 보리 한 줌과 빵 한 조각으로 내 백성 가운데서 나를 더럽히며, 죽지 않아야 할 영혼을 죽이고, 살아야 할 영혼을 살려두며, 내 백성, 곧 거짓말을 듣는 자들에게 거짓으로 속였다.
- 20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나는 너희가 영혼을 사냥하여 날아가게 하는 마법의 띠를 대적한다. 나는 그것을 너희 팔에서 떼어 버릴 것이며, 너희가 새처럼 잡아둔 영혼들을 자유롭게 풀어 주겠다."
- 21 내가 너희의 면을 떼어 버리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너희 손에 잡혀서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22 너희가 거짓으로 의로운 자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고, 나는 그를 슬프게 하지 않았다. 너희가 악인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고 살아남게 하였다.

²³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거짓된 환상을 보지 못할 것이며, 점치기도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에제키엘서 14장

- 1 이스라엘의 장로들 일부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앉았다.
- 2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 3 "사람의 아들이여,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들을 마음에 두고, 자기들의 최악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놓았다. 내가 그들에게 묻히어야 하겠느냐?
- 4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자기 우상들을 마음에 두고, 자기 최악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놓고 예언자에게 나아오면, 나는 주님으로서 그가 드린 우상의 수에 따라 그에게 대답하겠다.
- 5 이것은 이스라엘 집이 자기 마음속으로 나에게서 떠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모두 자기 우상들로 인해 나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 6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돌아오라. 너희 우상들에서 떠나라. 너희가 만든 모든 가증한 것들에서 얼굴을 돌이키라.
- 7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나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타국인 중, 나에게서 떠나 자기 우상들을 마음에 두고, 자기 최악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놓고 예언자에게 나아와 나를 묻는 자에게, 나는 주님으로서 나 자신이 그에게 대답하겠다.
- 8 나는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향하게 하고, 그를 놀라우고 상징과 속담으로 만들며, 내 백성 가운데서 그를 끊어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9 "만약 예언자가 미혹되어 말한다면, 나는 주님으로서 그 예언자를 미혹하였고, 나는 내 손을 그에게 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를 멸망시키겠다."
- 10 그들은 자기 최악을 짊어질 것이다. 예언자의 최악은 그를 찾아오는 자의 최악과 같을 것이다.
- 11 이스라엘 집이 나에게서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자기 모든 범죄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며,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느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12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 13 "사람의 아들이여, 땅이 내게 죄를 지어 불의를 저지르면, 내가 내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빵의 지팡이를 꺾고 기근을 보내어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끊으면,
- 14 비록 그 안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는 세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기 영혼만을 구할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15 "내가 악한 짐승들을 그 땅을 지나게 하여 그 땅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하여, 그 짐승들 때문에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면,
- 16 비록 그 안에 이 세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살아 있다고 하노니,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은 아들도 딸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만 구원될 것이고, 그 땅은 황폐해질 것이다.
- 17 "또 내가 그 땅에 칼을 보내어 말하기를, '칼아, 그 땅을 지나다니라. 내가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끊으리라.' 하면,
- 18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더라도, 주 하느님께서 말한다.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말한다. 그들은 아들도 딸도 구하지 못할 것이며, 오직 그들 자신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 19 또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내어 내 분노를 피로 쏟아,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린다면—
- 20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안에 있더라도, 주 하느님께서 말한다.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말한다. 그들은 아들도 딸도 구하지 못할 것이며, 오직 그들의 의로움으로 자기 영혼만을 구원할 것이다.
- 21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에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라는 네 가지 혹독한 심판을 내릴 때, 그곳에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리지 않겠느냐?
- 22 그러나 보라, 그 안에 남아서 끌려갈 유일한 남은 자, 곧 아들들과 딸들이 있을 것이다. 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올 것이며, 너희는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를 볼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가 그에게 내린 모든 재앙에 대해 위로를 받을 것이다.

²³ 너는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를 볼 때, 그들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때 네가 내가 그 안에서 내가 한 모든 일을 까닭 없이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예제키엘서 15장

¹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² 사람의 아들아, 삼림의 모든 나무들 사이에 있는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무엇이 더 낫느냐?

³ 이것으로부터 나무를 잘라 무엇을 만들겠느냐? 사람들이 이것에서 못을 뽑아 그릇을 걸어두겠느냐?

⁴ 보아라, 그것은 연료로 불에 던져졌다. 불이 그 끝을 모두 태우고 중간도 타버렸다. 이것이 어떤 일에 쓸모가 있겠느냐?

⁵ 보아라, 그것이 온전할 때조차도 어떤 일에도 쓸모가 없었다. 그런데 불이 그것을 태워 버리고 타버렸다면, 더욱 쓸모가 없지 않겠느냐?

⁶ 그러므로 주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삼림의 나무들 사이에 있는 포도나무를 연료로 불에 던진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그렇게 넘겨주겠다.

⁷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을 겨누겠다. 그들은 불에서 나올지라도, 불이 여전히 그들을 태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을 겨눌 때,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⁸ 그들이 불충실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에제키엘서 16장

- 1 주님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하여 이르셨다.
- 2 "사람의 아들이아, 예루살렘에게 그녀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라.
- 3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이르시기를, "네 근원과 네 출생은 가나안 땅에서 왔다.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히위 여인이었다."
- 4 네 출생 날에, 네 탯줄은 자르지 않았고, 네 몸은 물에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않았으며, 소금으로 치지도 않았고, 옷감으로 싸지도 않았다.
- 5 네게 이런 일을 하나라도 해주려고, 너를 불쌍히 여기려고 눈을 돌리는 이가 없었으므로, 너는 들판에 버려졌으니, 네가 태어난 날에 싫어받았기 때문이다.
- 6 "내가 너를 지나가며 네 피 속에서 뒹굴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비록 네 피 속에 있더라도 살아라!" 하고, 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비록 네 피 속에 있더라도 살아라!" 하였다.
- 7 내가 너를 들판의 식물처럼 번성하게 하였고, 너는 커지고 크며 아름다운 미모에 이르렀다. 네 가슴은 자라났고, 네 머리 카락은 길어졌으나, 너는 벌거벗고 허드렛말이었다.
- 8 "내가 너를 지나가며 너를 바라보니, 보라, 네 때는 사랑의 때였다. 내가 내 옷을 펴서 너의 벌거벗음을 덮어주었고, 너에게 맹세하여 언약을 맺었으니,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때 너는 내 것이 되었다.
- 9 "내가 물로 너를 씻었고, 네 피를 깨끗이 씻어내었으며, 너에게 기름을 바랐다.
- 10 내가 네게 자수로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가죽 신을 신겼으며, 고운 베옷을 입히고 비단으로 덮어주었다.
- 11 내가 너를 장식하고, 팔에 팔찌를 끼우며, 목에 사슬을 걸어주었다.
- 12 내가 너의 코에 반지를 끼우고, 귀에 귀걸이를 달며, 아름다운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주었다.
- 13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장식되었고, 네 옷은 고운 베와 비단과 자수로 수놓은 옷이었으며, 너는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다. 너는 매우 아름답고, 왕의 위업에 이르렀다.
- 14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네 명성은 여러 나라에 퍼졌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입힌 내 영광으로 인해 완전했기 때문이다. " 주 하느님의 말이다.
- 15 "그러나 너는 네 아름다움을 의지하고, 네 명성 때문에 창녀가 되어, 지나가는 이 모두에게 네 음행을 퍼뜨렸다. 그것이 그의 것이 되었다.
- 16 너는 네 옷을 가져다가 다양한 색으로 장식된 높은 곳을 만들고, 그 위에서 음행을 저질렀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 17 너는 내가 네게 주었던 내 금과 내 은으로 만든 아름다운 보물을 가져다가 남자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과 음행을 저질렀다.
- 18 너는 네 자수로 수놓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덮고, 내 기름과 내 향을 그것들 앞에 놓았다.
- 19 내가 너에게 주었던 내 빵,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너는 그것들 앞에 놓아 향기로운 냄새를 내었으니, 이것이 바로 일어난 일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20 "또 너는 내게서 낳은 네 아들과 네 딸들을 데려다가, 그것들을 불에 태워 바치고 삼켰다. 네 음행이 작다고 생각했느냐?
- 21 내가 내 자녀들을 죽이고, 그것들을 불을 지나게 하여 그들에게 바쳤느냐?
- 22 네 모든 가증한 일과 음행 속에서, 너는 벌거벗고 허드렛말이었으며, 네 피 속에서 뒹굴던 네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았다.
- 23 "네 모든 악행 이후에, 아, 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 24 "너는 스스로를 위해 휘어진 방을 만들고, 모든 거리에 높은 곳을 세웠다.
- 25 너는 모든 길의 끝에 높은 곳을 쌓고, 네 아름다움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만들며, 지나가는 이 모두에게 네 발을 벌려 음행을 더 많이 범하였다.

- 26 너는 육체가 큰 이웃 이집트인과도 음행을 범하고, 나를 격노하게 하려고 음행을 더 많이 범하였다.
- 27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너를 향해 내 손을 펼쳤으니, 너의 몫을 줄이고, 네가 미워하는 자, 곧 블레셋 자녀들의 뜻에 넘겨 주었다. 그들은 네 음란한 길을 부끄러워한다.
- 28 너는 만족하지 못하여 아시리아인과도 음행을 범하였고, 그들과 음행을 범했으나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였다.
- 29 너는 더하여 갈대아인의 땅, 곧 상인의 땅으로까지 음행을 더 많이 범하였으나, 이것에도 만족하지 못하였다.
- 30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이 모든 일을 행하며, 뻔뻔한 음녀의 행위를 하였으니, 네 마음이 얼마나 약한가."
- 31 너는 모든 길의 끝에 네 웅장한 곳을 쌓고, 모든 거리에 높은 곳을 세웠으나, 음녀처럼 보수를 받지 않고 멸시하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 32 남편 대신 외인을 받는 간통한 아내여!
- 33 모든 음녀에게는 선물이 주어지지만, 너는 모든 연인에게 선물을 주며, 그들이 네게로 오도록 뇌물을 주어 음행을 범하였다.
- 34 너는 다른 여자들과 달리 음행을 범하는데, 아무도 너를 따라 음행을 범하지 않는다. 너는 보수를 주지만, 누구도 너에게 보수를 주지 않으니, 그러므로 너는 다른 여자들과 다르다.
- 35 그러므로 음녀여,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 36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네 연인들과 음행을 범하며, 네 더러움이 흘러나고, 네 벌거벗은 몸이 드러났으며, 네 혐오스러운 우상들과, 네가 그들에게 바친 자녀들의 피 때문에,"
- 37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너와 즐거움을 나누었던 모든 연인들과, 너의 사랑을 받았던 자들과, 너의 미워했던 자들을 모두 모아, 네 주위에서 너를 향해 모으리니, 그들이 네 벌거벗은 몸을 보게 하기 위해 네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리라.
- 38 나는 간통하고 피를 흘린 여자들을 심판하듯이 너를 심판할 것이며, 분노와 질투의 피를 너에게 내리리라.
- 39 나는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들이 네 웅장한 곳을 무너뜨리고, 네 높은 곳을 허물며, 네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보물을 빼앗을 것이며, 너를 벌거벗고 헐벗은 채 버릴 것이다.
- 40 그들은 무리와 함께 너를 치러 올라와, 돌로 너를 치고, 칼로 너를 찌를 것이다.
- 41 그들이 네 집을 불태우고, 많은 여자들의 눈앞에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음행을 하지 못하게 하며, 더 이상 보수를 주지 못하게 하리라.
- 42 그러므로 내가 너를 향한 내 분노를 가라앉히고, 내 질투가 너에게서 떠나리니, 내가 조용히 하며 다시는 분노하지 않으리라.
- 43 "너는 네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네 길을 네 머리 위에 내리겠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네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더하여 음란한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 44 보아라, 모든 속담을 쓰는 자들이 너를 향해 이 속담을 쓰리니, "어머니가 어떠하면 딸도 그러하다."
- 45 너는 네 어머니의 딸이니, 그녀는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였고, 너는 네 자매들의 누이니, 그들도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였다. 네 어머니는 허위 족속이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었다.
- 46 네 큰 누이는 사마리아로, 네 왼편에 거하며 그녀와 그녀의 딸들이 있고, 네 작은 누이는 소돔으로, 네 오른편에 거하며 그녀와 그녀의 딸들이 있다.
- 47 너는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그들의 혐오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으나, 네 모든 길에서 그들보다 더 빨리 타락하였다.
- 48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누이 소돔과 그녀의 딸들이 너와 네 딸들이 행한 것처럼 행하지 않았다."
- 49 "보아라, 네 누이 소돔의 죄는 이와 같았다. 그녀와 그녀의 딸들은 교만하고, 식량이 풍족하며, 안락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녀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손을 도우지 않았다.
- 50 그들은 교만했고, 내 앞에서 가증한 일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을 제거하였다.
- 51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나 너는 그들보다 더 많은 가증한 일을 저질러, 네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네 누이들을 의로운 자처럼 만들었다.

- 52 너는 또한 네가 네 누이들을 판단한 대로 네 수치를 스스로 짊어졌다. 네가 그들보다 더 가증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보다 더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도 부끄러워하고, 네 수치를 짊어져라. 네가 네 누이들을 의로운 자처럼 만들었기 때문이다.
- 53 내가 소돔과 그녀의 딸들, 사마리아와 그녀의 딸들, 그리고 너의 포로들 중 그들 사이에 있는 자들의 포로 상태를 되돌릴 것이다.
- 54 너는 네 수치를 짊어지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인해 부끄러워할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 55 네 누이 소돔과 그녀의 딸들은 그들의 처음 상태로 돌아가고, 사마리아와 그녀의 딸들도 그들의 처음 상태로 돌아가며, 너와 네 딸들도 네 처음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 56 네가 교만한 날에 네 누이 소돔을 입으로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
- 57 네 악이 드러나기 전, 즉 시리아의 딸들과 그 주변 모든 자들, 곧 네 주변에서 너를 경멸하는 블레셋의 딸들의 비난을 받던 때처럼 말이다.
- 58 너는 네 음란함과 가증한 일을 짊어졌다,” 주님의 말이다.
- 59 “주 하느님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 언약을 어기고 맹세를 경멸했으니, 내가 너에게도 그대로 행하겠다.’
- 60 그러나 내가 너의 어린 시절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 61 그때 너는 네 길을 기억하고, 네 큰 누이들과 작은 누이들을 받을 때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너의 딸로 주겠지만, 네 언약으로는 아니다.
- 62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63 너는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며, 내가 너에게 네가 행한 모든 것을 용서했을 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예제키엘서 17장

- 1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 2 "사람의 아들이, 비유를 풀어 말하고 이스라엘 집에게 비유를 전하여라."
- 3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큰 독수리가 큰 날개와 긴 깃털을 지니고, 다양한 색깔의 깃털로 가득 차 있어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의 꼭대기를 뽑아갔다.
- 4 그는 그 나무의 가장 윗가지 끝을 잘라 상업의 땅으로 데려가서 상인들의 도시에 심었다.
- 5 "또 그는 그 땅의 씨앗을 조금 가져다가 비옥한 땅에 심고, 물이 풍부한 곳에 두었다. 그것을 버드나무처럼 심었다."
- 6 그것은 자라서 낮은 덩굴이 되었고, 그 가지들은 그 독수리 쪽으로 향했으며, 그 뿌리는 그 아래에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덩굴이 되어 가지를 내고 새싹을 뻗었다.
- 7 "또 다른 큰 독수리가 큰 날개와 많은 깃털을 지니고 있었다. 보라, 이 덩굴은 그 뿌리를 그 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 가지를 그 쪽으로 뻗어, 심긴 땅에서 그가 물을 주게 하려 하였다."
- 8 이 덩굴은 물이 풍부한 좋은 땅에 심겨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며 좋은 덩굴이 되려 하였다."
- 9 "말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번성하겠느냐? 그가 그 뿌리를 뽑아 열매를 자르지 않겠느냐? 그것이 마르게 하여, 그 모든 푸른 잎이 마르게 하지 않겠느냐? 강한 팔이나 많은 사람들로도 그것을 뿌리에서 일으킬 수 없다."
- 10 보라, 심어졌을 때, 이것이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닳을 때, 그것이 완전히 마르지 않겠느냐? 그것은 자란 땅에서 마를 것이다."
- 11 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 12 "반역하는 집에게 말하여라. "이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가 모르느냐?" 말하여라. "바빌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왕과 그의 귀족들을 끌고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 13 그는 왕실의 자손 중 한 사람을 뽑아 계약을 맺고, 그에게 맹세를 강요하며, 그 땅의 용사들을 빼앗았다.
- 14 그리하여 왕국이 낮아져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게 하고, 그의 계약을 지킴으로써 견고하게 하려 하였다.
- 15 그러나 그는 이집트로 사신들을 보내어 말과 많은 군대를 얻게 하려 하여 그를 배반하였다. 이것이 번성하겠느냐? 이런 일을 한 자가 도망치겠느냐? 그가 계약을 어기고도 도망치겠느냐?
- 16 "내가 산다고,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그를 왕으로 세운 왕의 거처, 그가 경멸한 맹세와 어긴 계약을 지킨 곳, 곧 바빌론 한가운데서 그가 죽을 것이다."
- 17 거대한 군대와 많은 병력을 지닌 파라오가 그를 전쟁에서 도우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흠무더기를 쌓고 요새를 쌓아 많은 사람을 고통을 줄 때 말이다.
- 18 그는 계약을 어기며 맹세를 경멸하였다. 보라, 그는 손을 내밀었으나,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 그는 도망치지 못할 것이다.
- 19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산다고, 내가 그가 경멸한 나의 맹세와 그가 어긴 나의 계약을 그의 머리 위에 반드시 내릴 것이다."
- 20 내가 내 그물을 그 위에 펼치고, 내가 치는 덫에 그를 잡을 것이다. 내가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내게 범한 죄악으로 그와 심판을 베풀겠다.
- 21 그의 모든 부대에서 도망친 자들은 모두 칼에 쓰러지고, 남은 자들은 모든 바람으로 흩날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22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도 백향목의 높은 꼭대기에서 한 줄기를 뽑아 심을 것이다. 내가 그 어린 가지의 가장 윗가지를 잘라 높고 높은 산에 심겠다."
- 23 나는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그것을 심을 것이다. 그것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며 좋은 백향목이 될 것이다. 모든 새들이 그 가지의 그늘에 거할 것이다.
- 24 들편의 모든 나무들은 내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를 푸르게 하

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이다. 내가 말하였고, 내가 이루었다."

예제키엘서 18장

- 1 주님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하여 이르셨다.
- 2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 비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너희가 말하기를, '아버지들이 싯밋 나는 포도를 먹었으니, 아들들의 이빨이 시다.'
- 3 "내가 산다고,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이 비유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4 보아라, 모든 영혼은 내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처럼, 아들의 영혼도 내 것이다. 죄를 지은 영혼이 죽는다.
- 5 "만약 어떤 사람이 의로우면,
- 6 산에서 먹지 않고, 이스라엘 집의 우상들을 향해 눈을 들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그 여자의 불결한 기간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 7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 8 이자로 돈을 빌려주지 않고, 그들에게서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 9 내 율법을 따라 걷고,
- 10 "그가 강도이며 피를 흘리는 아들을 낳고, 이 모든 일을 행하면,
- 11 또는 이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면,
- 12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면,
- 13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 14 "보아라, 그가 아들을 낳아,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며, 그와 같이 하지 않고,
- 15 산에서 먹지 않고, 이스라엘 집의 우상들을 향해 눈을 들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 16 아무도 괴롭히지 않고, 보증으로 무엇을 취하지 않으며, 강탈하지 않고,
- 17 가난한 자에게서 손을 떼고,
- 18 그의 아버지는 잔혹하게 압제하고, 형을 강탈하며, 그의 백성 가운데 선하지 않은 일을 행했으므로, 보아라, 그는 자신의 죄악으로 죽을 것이다.
- 19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어찌하여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짚어지느냐?' 아들이 공정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며, 내 모든 율법을 지키고 실천한다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 20 죄를 지은 그 영혼이 죽는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짚어지지 않으며, 아버지도 아들의 죄악을 짚어지지 않는다. 의로운 자의 의로움은 그에게 있고, 악한 자의 악은 그에게 있다.
- 21 "그러나 악한 자가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돌아서서, 내 모든 율법을 지키고, 공정하고 의로운 일을 행한다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는 죽지 않는다.
- 22 그가 지은 모든 범죄는 그를 향해 기억되지 않는다. 그가 행한 의로움으로 그는 살 것이다.
- 23 내가 악한 자의 죽음을 기뻐하느냐?"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아와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느냐?
- 24 "그러나 의로운 자가 자신의 의로움을 버리고 죄를 지으며, 악한 자가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그대로 행한다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일은 기억되지 않는다. 그가 범한 범죄와 죄로 인해 그는 죽을 것이다.
- 25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주님의 길은 공정하지 않다.' 이제 들어라, 이스라엘 집아, 내 길이 공정하지 않느냐? 너희의 길이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 26 의로운 사람이 자신의 의로움을 버리고 죄를 범하여 그 죄로 죽으면, 그는 자신이 범한 죄로 죽는다.
- 27 또 악한 사람이 자신이 범한 악에서 돌아서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하면, 그는 자신의 생명을 살릴 것이다.
- 28 그가 돌아보고 자신이 범한 모든 죄악에서 떠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 29 그러나 이스라엘 집은 말한다. '주님의 길은 공정하지 않다.' 이스라엘 집아, 내 길이 공정하지 않느냐? 너희의 길이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 30 그러므로 내가 너희, 이스라엘 집을 각자의 길에 따라 심판하겠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돌아서 너희가 범한 모

든 죄악에서 떠나라. 그래야 죄악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³¹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얻으라.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는가?

³² 내가 죽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에제키엘서 19장

¹ “또 이스라엘의 군주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² 이르기를, ‘너의 어머니는 무엇이었느냐?

³ 그녀는 자기 새끼 중 하나를 기르니, 그가 어린 사자가 되었고, 사냥하는 법을 배워 사람들을 잡아먹었다.

⁴ 이방 나라들도 그를 듣고, 그를 그들의 구덩이에 잡아넣었다.

⁵ “그때 그녀가 자신이 기다렸음을 보니,

⁶ 그는 사자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였다.

⁷ 그는 자신의 으르렁거림 소리로 그들의 궁전을 알게 되었다.

⁸ 그러자 이방 나라들이 지방에서 사방에서 그를 공격하였다.

⁹ 그들을 갈고리로 된 우리에 가두었고,

¹⁰ “너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았으니,

¹¹ 그것은 통치자들의 지팡이가 될 만한 강한 가지를 지녔다.

¹² 그러나 그것은 분노로 뽑혀졌고,

¹³ 이제는 광야에 심어졌으며,

¹⁴ 불이 그 가지에서 나와 그의 열매를 태웠다.

에제키엘서 20장

- ¹ 일곱 번째 해, 다섯 번째 달, 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의 몇몇 장로들이 주님께 묻기 위해 와서 내 앞에 앉았다.
- ²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 ³ "사람의 아들이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너니,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에게 묻기 위해 왔느냐?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말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묻게 하지 않겠다."
- ⁴ "사람의 아들이아,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그들에게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 ⁵ "그들에게 이르너니,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 자손에게 맹세하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를 알리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 하느님 주님이다."
- ⁶ 그 날에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어, 내가 그들을 위해 찾아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모든 땅의 영광으로 인도하리라 하였노라.
- ⁷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각자는 눈의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느님 주님이다."
- ⁸ "그러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눈의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았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버리지도 않았다. 그때 나는 이집트 땅 가운데서 내 분노를 쏟아 그들을 소멸하겠다고 말하였다."
- ⁹ 그러나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있는 민족들 앞에서 나를 알리었을 때, 그들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
- ¹⁰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어 광야로 인도하였다.
- ¹¹ 내가 그들에게 내 율법을 주고, 그들에게 내 규례를 보여 주었으니,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해 살리라.
- ¹² 또 내가 그들에게 내 안식일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이 되게 하였으니, 그들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임을 알게 하려 함이었다.
- ¹³ "그러나 이스라엘 집은 광야에서 나를 거역하였다. 그들은 내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내 규례를 거부하였으니, 사람이 이를 지키면 그로 인해 살리라. 그들은 내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그때 나는 광야에서 내 분노를 쏟아 그들을 소멸하겠다고 말하였다."
- ¹⁴ 그러나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끌어내어 그들 앞에 나타난 민족들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
- ¹⁵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여, 내가 그들에게 주려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모든 땅의 영광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니,
- ¹⁶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거부하고 내 율법을 따르지 않았으며, 내 안식일을 더럽혔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우상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 ¹⁷ 그러나 내 눈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멸하지 않았고, 광야에서 그들을 완전히 끝내지 않았다.
- ¹⁸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법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 ¹⁹ "나는 너희 하느님 주님이다. 내 율법을 따르고, 내 규례를 지키며, 그것을 행하라."
- ²⁰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가 내가 너희 하느님 주님임을 알게 하리라."
- ²¹ "그러나 그 자녀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들은 내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내가 주는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으니,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해 살리라. 그들은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때 나는 광야에서 내 분노를 쏟아 그들에게 내 분노를 다 이루겠다고 말하였다."
- ²² 그러나 나는 내 손을 거두고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끌어내어 그들 앞에 나타난 민족들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
- ²³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여,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에 흠어내고 여러 나라에 흠어버리겠다고 하였으니,
- ²⁴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실행하지 않고, 내 율법을 거부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그들의 눈이 조상들의 우상들을 좇았

기 때문이다.

²⁵ 또한 나는 그들에게 좋지 않은 법규와 그들이 그 안에서 살 수 없는 규례를 주었다.

²⁶ 나는 그들의 제물로 그들을 더럽혔다. 그들이 태어나는 모든 것을 불을 통과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내가 주님임을 알게 하려 하였다.

²⁷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이아,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 하느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모독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범죄하였다."

²⁸ 내가 그들을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데려왔을 때, 그들은 모든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물을 바치고, 거기서 제물의 모욕을 드렸다. 거기서 그들은 향기로운 냄새를 올리고, 거기서 술 제물을 쏟았다.

²⁹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가는 높은 곳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므로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 바마라 불린다.

³⁰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 하느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길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너희가 그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음행을 하느냐?"

³¹ 너희가 제물을 바치고, 너희 아들들을 불을 통과하게 할 때, 오늘날까지 너희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에게 묻겠느냐? 내가 산다고,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묻지 않겠다!

³² "너희가 생각하는 바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민족들과 같이 되고, 나라들의 가족들과 같이 되어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³³ 내가 산다고,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강한 손과 찢은 팔과 흘리는 분노로 너희 위에 왕이 되겠다.

³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희가 흠어진 나라들에서 강한 손과 찢은 팔과 흘리는 분노로 모아 들이겠다.

³⁵ 내가 너희를 민족들의 광야로 데려가서, 거기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하고 재판하겠다.

³⁶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의 광야에서 재판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재판하겠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³⁷ 내가 너희를 지팡이 아래로 지내게 하고, 너희를 언약의 결박에 이끌어 들이겠다.

³⁸ 내가 너희 가운데서 반역자들과 나를 거역하는 자들을 제거하겠다. 내가 그들을 거주하는 땅에서 끌어내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³⁹ "너희 이스라엘 집아, 주 하느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가서 각자 자기 우상을 섬기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겠다면, 앞으로도 너희 제물과 너희 우상으로 내 성명을 더럽히지 말라."

⁴⁰ 내가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거기서 이스라엘 집 모든 자가 그 땅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거기서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너희 제물과 너희 제물의 처음 익은 것과 너희 모든 성물들을 요구하겠다.

⁴¹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희가 흠어진 나라들에서 모아 들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겠다. 내가 너희를 통해 열국의 눈앞에서 거룩하게 될 것이다.

⁴² 내가 너희를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갈 때,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⁴³ 거기서 너희는 너희 길과 너희가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너희가 행한 모든 악으로 인해 너희 자신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⁴⁴ 너희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이나 너희의 부패한 행위를 따라 너희에게 행하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에게 행할 때,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⁴⁵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⁴⁶ "사람의 아들이아, 남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남쪽을 향하여 말하며, 남쪽의 들의 숲을 향하여 예언하여라."

⁴⁷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느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를 불로 지필 것이니, 너의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다. 불꽃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며,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얼굴이 그것에 타버릴 것이다."

⁴⁸ 모든 육체가 내가 주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⁴⁹ 그때 내가 말했다. "아, 주님 하느님! 그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는 비유를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합니다."

에제키엘서 21장

- 1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 2 "사람의 아들이아, 너는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성소들을 향해 예언하며, 이스라엘 땅에 대해 말하여라."
- 3 이스라엘 땅에게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나는 너와 대적하여 내 칼을 퇴에서 빼내어, 너에게서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끊어버리리라."
- 4 내가 너에게서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끊어버릴 것이므로, 내 칼은 남에서 북까지 모든 육체를 향해 퇴에서 빼나리라.
- 5 모든 육체가 내가 주님인 내가 내 칼을 퇴에서 빼냈다는 것을 알리라. 이 칼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 6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이아, 탄식하여라. 너는 그들의 눈 앞에서 상심하고 슬픔으로 탄식하리라."
- 7 그들이 너에게 "네가 왜 탄식하느냐?" 하고 묻거든, 너는 대답하여라. "이 소식 때문이라. 그것이 이르고 있다. 모든 마음 이 녹고, 모든 손이 약해지며, 모든 영혼이 기운을 잃고, 모든 무릎이 물처럼 휘청거리리라. 보라, 그것이 이르고, 이루어지리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 8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 9 "사람의 아들이아, 예언하여라. 그리고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칼이야, 칼이야!"
- 10 그것은 학살을 위해 날을 갈았다.
- 11 그것은 광택을 내기 위해 닦아졌으니, 곧 광택을 냈다.
- 12 사람의 아들이아, 외치고 탄식하여라.
- 13 "그것은 시험이다. 심판의 지팡이조차 사라질지라도 어찌할 것인가?" 주 하느님의 말이다.
- 14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이아, 예언하여라. 칼을 세 번이나 두 배로 하여라."
- 15 나는 그들의 모든 문을 향해 위협하는 칼을 세웠다. 보라, 그것은 번개처럼 되었다.
- 16 너희는 너희 얼굴이 향한 곳 어디에서나 모이라.
- 17 나도 내 손을 마주 칠 것이다.
- 18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시 임하여 이르셨다.
- 19 "또한, 사람의 아들이아, 두 길을 정하여 바빌론 왕의 칼이 오게 하여라. 두 길 모두 한 땅에서 나와서, 길을 표시하리라. 그 길을 도시로 가는 길의 머리에 표시하여라."
- 20 너는 칼이 암몬 자손의 라바와, 유다의 예루살렘, 곧 요새가 된 도시로 가게 길을 정하라.
- 21 바빌론 왕은 길이 갈라지는 곳, 두 길의 머리에 서서 점을 치고, 화살을 흔들며, 테라핌을 물어보고, 간을 살펴보았다.
- 22 그의 오른손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점이 떨어졌으니, 성벽을 부수는 기계를 세우고, 학살을 위해 입을 열며, 외치며 소리를 높이고, 성문을 향해 성벽을 부수는 기계를 세우며, 흙더미를 쌓고, 요새를 쌓기 위한 것이다.
- 23 그것은 그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한 자들에게는 거짓 점으로 보이겠으나, 그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들을 잡게 하리라.
- 24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너희 죄악을 기억하게 하였으니, 너희의 범죄가 드러나서, 너희의 모든 행위에서 너희 죄가 나타났으므로, 너희가 기억되었으므로, 너희는 잡히리라."
- 25 "너,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악한 자, 이스라엘의 왕이여, 네 날이 이르고 죄악의 끝 시대에,
- 26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두건을 벗어 버리고, 왕관을 벗겨라.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 낮은 것을 높이 올리고, 높은 것을 낮추어라.
- 27 나는 뒤집고, 뒤집고, 뒤집으리라. 이것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리라. 그에게 마땅한 자가 올 때까지. 그때에 내가 그것을 주리라.
- 28 "너, 사람의 아들이아,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아몬 자손과 그들의 모욕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칼이다! 칼이 뽑혔다!
- 29 그들이 너를 위해 거짓 환상을 보며,
- 30 칼을 그 자루에 되돌려 넣어라.

³¹ 나는 내 분노를 너 위에 쏟아부을 것이며, 너를 파괴하기에 능숙한 칼이 되리라.

³² 너는 불의 연료가 되리라.

에제키엘서 22장

- ¹ 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 ² “사람의 아들이여, 네가 심판하겠느냐? 네가 피로 가득한 이 도시를 심판하겠느냐? 그녀가 자기 모든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 ³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피를 흘리는 도시여, 그녀의 때가 다가왔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기 위해 우상을 만들었도다!
- ⁴ 네가 흘린 피 때문에 죄를 지었고, 네가 만든 우상 때문에 더럽혀졌도다. 네가 네 날을 가까이 이끌었고, 네 연세의 끝이 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열국의 비난거리와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도다.
- ⁵ 가까이 있는 자도 멀리 있는 자도 너를 조롱하리라. 소란으로 가득한 너, 치명적인 자여.
- ⁶ “이스라엘의 왕들이 각기 힘에 따라 너 안에서 피를 흘렸도다.
- ⁷ 너 안에서 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멸하였고, 너 안에서 그들은 타국인을 억압하였으며, 너 안에서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였도다.
- ⁸ 너는 내 성물을 경멸하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도다.
- ⁹ 너 안에서 험담하는 자들이 피를 흘렸고, 너 안에서 그들은 산에서 먹었으며, 너 안에서 그들은 음란한 일을 저질렀도다.
- ¹⁰ 너 안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냈고, 너 안에서 그들은 더러운 상태에 있는 여자를 모욕하였도다.
- ¹¹ 한 사람은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저질렀고, 또 다른 사람은 며느리를 음란하게 더럽혔으며, 또 다른 사람은 너 안에서 자기 누이, 곧 아버지의 딸을 모욕하였도다.
- ¹² 너 안에서 그들은 피를 흘리기 위해 뇌물을 받았고, 너는 이자를 취하고 이득을 챙겼으며, 너는 억압으로 이웃에게서 탐욕스럽게 얻었고, 나를 잊었도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¹³ “보라, 내가 너의 탐욕스러운 이득과 너 안에서 흘린 피를 향해 내 손을 치리라.
- ¹⁴ 내가 너를 대할 날에 네 마음이 견딜 수 있겠느냐? 네 손이 강할 수 있겠느냐? 나 주님이 말하였고, 내가 이를 행하리라.
- ¹⁵ 내가 너를 열국 사이에 흩어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리라. 내가 너의 더러움을 너에게서 씻어내리라.
- ¹⁶ 너는 열국의 눈앞에서 너 자신을 더럽히리라. 그때 내가 내가 주님임을 알리라.””
- ¹⁷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 ¹⁸ “사람의 아들이여, 이스라엘 집은 내게 씻물이 되었도다. 그들 모두는 화로 속에서 구리, 주석, 철, 납이니, 은의 씻물이라.
- ¹⁹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모두 씻물이 되었으니, 보라,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모으리라.
- ²⁰ 그들이 은, 구리, 철, 납, 주석을 화로 한가운데로 모아 불을 붙여 녹이듯, 내가 내 분노와 진노로 너희를 모아 그곳에 두고 너희를 녹이리라.
- ²¹ 내가 너희를 모아 내 진노의 불로 너희에게 붙여넣으리니, 너희는 그 한가운데서 녹으리라.
- ²² 은이 화로 한가운데서 녹듯, 너희도 그 한가운데서 녹으리라. 그때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리라. 내가 너희 위에 내 진노를 쏟았노라.”
- ²³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 ²⁴ “사람의 아들이여, 그녀에게 말하여라. ‘너는 분노의 날에 씻김을 받지 못하고 비를 받지 못한 땅이니라.’
- ²⁵ 그녀의 예언자들 사이에 음모가 있다. 마치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들은 먹이를 노리며, 영혼을 삼켰고, 재산과 귀중한 물건을 빼앗았다. 그녀 안에 많은 과부를 만들었다.
- ²⁶ 그녀의 사제들은 내 법을 위반하고 내 성물을 더럽혔다. 그들은 성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구분을 두지 않았고,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 사이에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지 않았으며, 내 안식일을 눈감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 사이에서 더럽힘을 당했다.
- ²⁷ 그녀 안의 지도자들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늑대 같다. 그들은 피를 흘리고 영혼을 파괴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 한다.
- ²⁸ 그녀의 예언자들은 흰 석회로 그들을 덧칠하며 거짓된 환상을 보고 거짓된 점치기를 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말

한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²⁹ 그 땅의 백성은 억압을 일삼고 강탈을 저지른다.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괴롭히고, 외국인을 부당하게 억압한다.

³⁰ 내가 그들 사이에서 땅을 위해 내 앞에 서서 담을 쌓고 틈을 메워 주어, 내가 그것을 파괴하지 않게 할 사람을 찾았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했다.

³¹ 그러므로 나는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었다. 내가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하였다. 내가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 위에 내렸다.

에제키엘서 23장

- 1 주님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하여 이르셨다.
- 2 사람의 아들이, 한 어머니의 두 딸이 있었다.
- 3 그들은 이집트에서 매춘부가 되었고, 젊었을 때에도 매춘부가 되었다. 거기서 그들의 가슴은 만져졌고, 그들의 젊은 젖꼭지는 쓰다듬어졌다.
- 4 그들의 이름은 오홀라라는 큰 딸과 그의 누이 오홀리바였다. 그들이 내 것이 되었고,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들의 이름을 말하자면, 사마리아는 오홀라이고, 예루살렘은 오홀리바이다.
- 5 오홀라는 내 것일 때 매춘부가 되었다. 그녀는 이웃 아시리아인들, 곧 자기 연인들에게 빠져들었다.
- 6 그들은 푸른 옷을 입은 지배자들과 통치자들로, 모두 매력적인 젊은이들이었고, 말을 탄 기사들이었다.
- 7 그녀는 그들 모두, 곧 아시리아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에게 몸을 바쳤다. 그녀는 자기가 탐내는 모든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혔다.
- 8 그녀는 이집트를 떠난 후에도 매춘을 그치지 않았다. 그녀가 젊었을 때 그들이 그녀와 함께 잤고, 그녀의 젊은 젖꼭지를 쓰다듬으며 그들의 매춘을 그녀에게 쏟아부었다.
- 9 그러므로 나는 그녀를 자기 연인들의 손, 곧 그녀가 빠져든 아시리아인들의 손에 넘겼다.
- 10 그들이 그녀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냈고, 그녀의 아들과 딸들을 빼앗아 칼로 그녀를 죽였다. 그녀는 여자들 사이에서 수치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들이 그녀에게 심판을 집행하였다.
- 11 그녀의 누이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았으나, 그녀의 탐욕은 그녀보다 더 심하고, 그녀의 매춘은 그녀의 누이보다 더 타락하였다.
- 12 그녀는 아시리아인들, 곧 지배자들과 통치자들, 즉 훌륭하게 옷을 입은 이웃 기사들, 모두 매력적인 젊은이들에게 빠져들었다.
- 13 나는 그녀가 더럽혀졌음을 보았다. 둘 다 같은 길을 걸었다.
- 14 그녀는 매춘을 더 많이 하였다. 그녀는 벽에 그려진 남자들의 그림, 붉은 색으로 그려진 갈대아인들의 형상을 보았다.
- 15 그들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흐르는 두건을 쓰고 있었으며, 모두 왕자처럼 보였고, 갈대아 땅, 곧 그들의 고향의 바빌로니아인들과 닮았다.
- 16 그녀가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빠져들었고, 갈대아로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전했다.
- 17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녀에게 와서 사랑의 침상에 이르렀고, 그들의 매춘으로 그녀를 더럽혔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더럽혀졌고, 그녀의 영혼은 그들을 싫어하게 되었다.
- 18 그러므로 그녀는 자신의 매춘을 드러내고,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냈다. 그때 내 영혼은 그녀를 싫어하게 되었고, 마치 내 영혼이 그녀의 누이를 싫어했던 것처럼 되었다.
- 19 그러나 그녀는 다시 매춘을 늘렸다. 그녀는 이집트 땅에서 젊었을 때 매춘부로 지냈던 날들을 기억하였다.
- 20 그녀는 그들의 연인들을 탐냈는데, 그들의 육체는 당나귀의 육체 같고, 그들의 정액은 말의 정액과 같았다.
- 21 이러므로 너는 이집트인이 너의 젊은 가슴을 쓰다듬으며 너의 어린 시절의 음란함을 기억하였다.
- 22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하느님께서 이르신다. 보라, 내가 너의 영혼이 싫어하는 연인들을 너를 향해 일으키고, 그들을 네 사방에서 몰아올리리라.
- 23 바빌로니아인들과 모든 갈대아인들, 베코드와 쇼아와 코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모든 아시리아인들, 모두 매력적인 젊은이들, 지배자들과 통치자들, 왕자들과 명망 있는 자들, 모두 말을 타고 있다.
- 24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 그리고 많은 백성의 무리와 함께 너를 향해 올 것이다. 그들은 너를 둘러싸고 방패와 투구와 헬멧을 두르고 맞설 것이다. 나는 심판을 그들에게 맡기리니, 그들이 그들의 판단에 따라 너를 심판할 것이다.
- 25 나는 너에게 내 질투를 향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분노로 너를 대할 것이다. 그들은 네 코와 귀를 베어낼 것이며, 네 남은 자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은 네 아들과 딸들을 빼앗을 것이며, 너의 나머지는 불에 삼켜질 것이다.
- 26 그들은 네 옷을 벗기고 네 아름다운 보석들을 빼앗을 것이다.

- 27 이렇게 하여 나는 네 음란함을 네게서 그치게 하고, 이집트 땅에서 네 창녀 행위를 없애며, 네가 다시 그들을 바라보지도, 이집트를 더 이상 기억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 28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나는 너를 네가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 네 영혼이 멀리 떠난 자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 29 그들은 네게 증오로 대할 것이며, 네 모든 수고를 빼앗고, 너를 벌거벗고 헐벗은 채로 버려둘 것이다. 네 창녀 행위의 벌거벗음이 드러날 것이며, 네 음란함과 창녀 행위가 모두 드러날 것이다.
- 30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 것은, 네가 민족들을 따라 창녀처럼 행동했고, 그들의 우상들로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 31 네가 네 누이의 길을 걸었으므로, 내가 그녀의 잔을 네 손에 주겠다.
- 32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네 누이의 잔을 마실 것이며,
- 33 너는 취하고 슬픔으로 가득 찰 것이며,
- 34 너는 그것을 마시고 다 마셔버릴 것이다.
- 35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나를 잊었고, 나를 뒤로 던졌으므로, 너도 네 음란함과 창녀 행위를 짚어질 것이다.
- 36 주님께서 나에게 더하여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겠느냐? 그들의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선포하여라.
- 37 그들은 간음하였고, 그들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다. 그들은 우상들과 간음하였으며, 나에게서 낳은 자기 아들들을 불을 통과시켜 그 우상들에게 바쳐 삼켰다.
- 38 그들은 또 이것을 나에게 행하였다. 같은 날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 39 그들이 자기 아들을 우상들에게 바쳐 죽인 후, 그날 바로 내 성소에 들어와 그것을 더럽혔다. 보아라, 그들이 내 집 한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였다.
- 40 게다가 너희 누이들은 먼 곳에서 올 자들을 불러들였으며, 사자가 그들에게 보내졌고, 보아라, 그들이 왔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몸을 씻고, 눈을 칠하며, 장신구로 몸을 꾸몄다.
- 41 그리고 아름다운 침상에 앉아, 그 앞에 상을 차려 놓고, 거기에 내 향과 내 기름을 올렸다.
- 42 그녀에게는 즐거운 큰 무리의 소리가 함께 있었다. 광야에서 온 보통 사람들과 취한 자들이 그녀에게로 끌려왔으며, 그들은 그들의 손에 팔찌를 끼우고,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웠다.
- 43 그러나 나는 음란한 오래된 여자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들이 그녀와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이며, 그녀도 그들과 할 것이다.
- 44 그들은 창녀에게 들어가듯 그녀에게 들어갔다. 그들은 오홀라와 오홀리바, 즉 음란한 여자들에게 들어갔다.
- 45 의로운 자들이 그들을 간음한 여자들과 피를 흘린 여자들의 심판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간음한 여자들이며, 그들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 46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무리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올리며, 그들을 뒤로 앞으로 던지고, 약탈하게 할 것이다.
- 47 무리는 그들을 돌로 치고, 칼로 죽일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죽이고, 그들의 집들을 불로 태울 것이다.
- 48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땅에서 음란함을 그치게 하여, 모든 여자들이 너처럼 음란하지 않도록 가르치게 할 것이다.
- 49 그들이 너의 음란함을 너에게 갚을 것이고, 너는 네 우상들의 죄를 짚어질 것이다. 그때 네가 내가 주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에제키엘서 24장

- 1 아홉 번째 해, 열 번째 달, 그 달 열째 날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 2 "사람의 아들이아, 이 날의 이름을 기록하여라. 이 바로 그 날에 바빌론 왕이 예루살렘을 향해 다가왔다."
- 3 "반역하는 집에게 비유를 전하여 말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뱀비를 불 위에 올려라."
- 4 "그 안에 모든 좋은 조각을 모아라."
- 5 "양 떼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라."
- 6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피로 얼룩진 도시여, 화가 있을지어다."
- 7 "그녀가 흘린 피가 그녀의 한가운데에 있다."
- 8 "그 피가 분노를 일으켜 복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 9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피로 얼룩진 도시여, 화가 있을지어다."
- 10 "나무를 더 쌓아라."
- 11 "그 뱀비를 비운 채 그 숲 위에 놓아라."
- 12 "그녀는 수고로 지쳐 있다."
- 13 "너의 더러움 속에 음란함이 있다.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려 했으나, 너는 정결해지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분노를 가라앉히기 전까지, 너는 더 이상 너의 더러움에서 정결해지지 못할 것이다."
- 14 "나, 주님이 말했다.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이를 행할 것이다. 나는 돌아서지 않으며, 자비하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는다.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시니,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 15 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 16 "사람의 아들이아, 보라, 내가 네 눈의 즐거움을 한 번의 치명적인 타격으로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슬퍼하지도, 울지도 말며, 네 눈물도 흘리지 말아라."
- 17 "한숨은 쉬되, 소리 내지 말아라. 죽은 이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아라. 네 머리에 두건을 묶고, 발에 신을 신어라. 네 입술을 가리지 말고, 슬퍼하는 자의 빵을 먹지 말아라."
- 18 나는 아침에 백성에게 말했고,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나는 아침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행하였다.
- 19 백성이 내게 물었다. "우리에게 이 일들의 의미를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왜 당신은 이렇게 행동합니까?"
- 20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 21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성소를 더럽힐 것이다. 그것은 너희 힘의 자랑이요, 너희 눈의 즐거움이요, 너희 영혼이 애통해하는 것이며, 너희가 남겨둔 아들과 딸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다."
- 22 "너는 내가 한 대로 할 것이다. 네 입술을 가리지 말고, 슬퍼하는 자의 빵을 먹지 말아라."
- 23 "너의 두건은 머리에 있고, 신은 발에 있을 것이다.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 않을 것이지만, 너의 죄악으로 인해 기진맥진하고, 서로 향해 탄식할 것이다."
- 24 이와 같이 에제키엘은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그가 한 대로 너희도 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면, 너희는 내가 주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25 사람의 아들이아, 내가 그들로부터 그들의 힘과 그들의 영광의 기쁨, 그들의 눈의 갈망,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두었던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빼앗는 그 날에
- 26 그 날에 도망친 자가 너에게 이르러 네 귀로 그 소식을 듣게 하지 않겠느냐?
- 27 그 날에 네 입은 도망친 자에게 열릴 것이며, 네가 말을 하게 되어 다시 말을 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제키엘서 25장

- ¹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 ² "사람의 아들이아, 아몬 자손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여라.
- ³ 아몬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성소가 더럽혀질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질 때, 유다 집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하하!" 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 ⁴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너희를 동방 자손들에게 넘겨 주어 소유로 삼게 하리라. 그들이 너희 가운데 진을 치고 너희 안에 처소를 세우며 너희 열매를 먹고 너희 우유를 마실 것이다.
- ⁵ 내가 라바를 낙타의 우마장으로 만들고 아몬 자손들을 양 떼의 쉼터로 만들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⁶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손을 치고 발을 으스러뜨리며, 너희 영혼의 모든 경멸로 이스라엘 땅을 향해 기뻐했기 때문에,
- ⁷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내 손을 너희 위에 펼치고 너희를 열국의 약탈물로 넘겨 주리라.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끊어 버리고, 너희를 땅들 가운데서 멸망시키리라. 내가 너희를 파괴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⁸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모압과 세일이 말하기를, "보아라, 유다 집은 모든 민족과 같구나." 하였기 때문에,
- ⁹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모압의 옆면을 그 도시들, 곧 그 경계에 있는 도시들, 곧 그 땅의 영광인 벵에시못과 바알메온과 키리아임을 열어 주리라.
- ¹⁰ 그것을 동방 자손들에게 주어 아몬 자손들을 치게 하리라. 내가 그것을 소유로 주어 아몬 자손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기억되지 못하게 하리라.
- ¹¹ 내가 모압에게 심판을 내리리라.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¹²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에돔이 유다 집을 치고 복수를 했고, 크게 죄를 지으며 그들에게 보복했기 때문에,
- ¹³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펼치고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 버리리라. 내가 테만에서부터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리라. 데단까지 칼에 쓰러지리라.
- ¹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에돔에 내 복수를 실현하리라. 그들이 내 분노와 내 진노에 따라 에돔에서 행하리라. 그러면 그들은 내 복수를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¹⁵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필리스티아인이 복수를 했고, 영혼의 경멸로 영원한 원한을 품고 파괴했기 때문에,
- ¹⁶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내 손을 필리스티아인 위에 펼치고, 그레트 사람들을 끊어 버리며, 바다 연안의 남은 자들을 파괴하리라.
- ¹⁷ 내가 분노로 책망하며 그들에게 큰 복수를 내리리라. 그러면 내가 내 복수를 그들에게 실현할 때,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에제키엘서 26장

- ¹ 십일 년 첫째 달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 ² "사람의 아들이아, 두로가 예루살렘을 향해 말하기를, "아하! 그녀가 무너졌다! 만민의 문이 나에게로 돌아왔다. 그녀가 황폐해졌으니, 내가 풍성해질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 ³ 그러므로 주 하느님은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 두로에게 대적하여 많은 민족들이 너를 향해 올라오게 하리니, 바다가 파도를 일으키듯이.
- ⁴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녀의 탑들을 허물며, 너의 흙을 긁어내어, 너를 벌거벗은 바위로 만들리라.
- ⁵ 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물을 펼치는 곳이 될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주 하느님의 말이다. 너는 민족들의 노략물이 될 것이다.
- ⁶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은 칼에 살해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리라.
- ⁷ "주 하느님은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북쪽에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들의 왕을 두로에게로 끌고 올리리니, 그는 말과 병거와 기마대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이다."
- ⁸ 그가 너의 들에 있는 딸들을 칼로 죽일 것이며, 너를 향해 요새를 쌓고, 흙무더기를 쌓으며, 방패를 들어 올릴 것이다.
- ⁹ 그가 너의 성벽을 향해 파괴 기계를 설치하고, 도끼로 너의 탑들을 부수리라.
- ¹⁰ 그의 말이 많으므로, 그 말들의 흙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가 네 성문으로 들어올 때, 파괴된 도시에 들어오는 자들처럼, 말과 병거와 전차의 소리에 너의 성벽이 떨어리라.
- ¹¹ 그가 말굽으로 네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너의 백성을 죽일 것이며, 너의 힘의 기둥들이 땅에 쓰러지리라.
- ¹² 그들이 너의 부를 노략하고, 너의 상품을 약탈할 것이며, 너의 성벽을 허물고, 너의 아름다운 집들을 파괴할 것이다. 그들이 너의 돌과 나무와 흙을 바다 한가운데에 던질 것이다.
- ¹³ 내가 너의 노래 소리를 멈추게 하리니, 너의 수금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으리라.
- ¹⁴ 내가 너를 벌거벗은 바위로 만들리라. 너는 그물을 펼치는 곳이 될 것이며,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 내가 주님으로서 말하였음이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 ¹⁵ "주 하느님이 두로에게 말한다. "네가 무너질 때, 상처 입은 자들이 신음하고, 네 안에서 학살이 일어나면, 섬들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 ¹⁶ 그때 바다의 모든 왕들이 그들의 왕좌에서 내려와, 옷을 벗고, 자수한 옷을 벗어 던지리라. 그들은 떨림으로 옷을 입고, 땅에 앉아, 끊임없이 떨며, 너를 보고 놀라리라.
- ¹⁷ 그들이 너를 향해 애가를 지어 노래하며 말하리라. "어떻게 네가 멸망하였느냐?"
- ¹⁸ 지금, 네가 무너지는 날에, 섬들이 떨어리라. 바다에 있는 모든 섬들이 네 떠남을 보고 놀라리라.
- ¹⁹ "주 하느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거주하지 않는 도시처럼 황폐하게 만들고, 깊은 바다를 너 위로 일으켜, 큰 물들이 너를 덮을 때,
- ²⁰ 내가 너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옛적부터 있는 자들 속으로 내려가게 하며, 옛적부터 황폐한 땅의 깊은 곳에 너를 살게 하리라. 너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살게 되며, 다시는 거주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살아 있는 땅에서 영광을 세우리라.
- ²¹ 내가 너를 공포로 만들고, 너는 다시는 존재하지 않으리라. 네가 찾을지라도, 다시는 발견되지 못하리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에제키엘서 27장

- 1 주님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하여 이르셨다.
- 2 “사람의 아들이여, 티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 3 티로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바다의 입구에 거주하며 여러 섬들에 이르는 여러 민족의 상인인 너는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 티로여, 네가 말하기를, ‘나는 아름다움이 완전하다.’ 하였도다.
- 4 네 경계는 바다의 중심에 있다.
- 5 그들이 네 갈대를 세니르의 전나무로 만들었도다.
- 6 그들이 네 노를 바산의 참나무로 만들었도다.
- 7 네 돛은 이집트의 자수한 고운 베로 만들었고,
- 8 시돈과 아르와드의 주민들이 네 노잡이었도다.
- 9 계발의 장로들이,
- 10 “페르시아와 루드와 푸트가 네 군대였고,
- 11 아르와드의 군인들이 네 성벽을 둘러싸고 네 군대가 되었으며,
- 12 “타르시스는 네 상인으로, 모든 종류의 부를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 그들이 은과 철과 주석과 납으로 네 물건을 거래하였도다.
- 13 “아완과 두발과 메섹이 네 상인이었으니, 그들이 사람과 놋그릇을 네 상품과 거래하였도다.
- 14 “토가르마의 집안에서 말과 전쟁용 말과 노새로 네 물건을 거래하였도다.
- 15 “데단의 사람들이 너와 거래하였고, 많은 섬들이 네 손의 시장이 되었으니, 그들이 네게 상아와 자목을 가져왔도다.
- 16 “시리아는 네 상인으로, 네 손길의 많은 공예품 때문에, 그들이 에메랄드와 자주색과 자수한 직물과 고운 베와 산호와 홍보석으로 네 물건을 거래하였도다.
- 17 “유다와 이스라엘 땅이 네 상인이었으니, 그들이 민니트의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향유로 네 상품을 거래하였도다.
- 18 “다마스쿠스는 네 상인으로, 네 손길의 많은 공예품과 모든 종류의 부를 이유로, 헬본의 포도주와 흰 양모로 네 물건을 거래하였도다.
- 19 “베단과 아완이 네 물건을 위해 실로 거래하였고, 네 상품에는 다듬은 철과 카시아와 갈모가 있었도다.
- 20 “데난은 네 상인으로, 타고 다니는 데 쓰는 귀한 안장 덮개를 가지고 있었도다.
- 21 “아라비아와 모든 케다르의 왕들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로 너의 가장 좋아하는 상인들이었으니, 그들이 네 상인이었도다.
- 22 “세바와 라마의 상인들이 네 상인이었으니, 그들이 모든 향료의 최고품과 모든 보석과 금으로 네 물건을 거래하였도다.
- 23 “하란과 카네와 에덴과 세바의 상인들과 아시르와 킬마드가 네 상인이었도다.
- 24 이들이 네 상품 속에 푸른색과 자수한 직물로 싸인, 향나무 상자에 담긴 풍성한 옷과 끈으로 묶인 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왔도다.
- 25 타르시스의 배들이 너의 상품을 운반하는 카라반들이었다.
- 26 네 노 젓는 자들이 너를 큰 물로 데려왔다.
- 27 네 재산과 네 물건과 네 상품은,
- 28 네 선장들의 외침이 들릴 때,
- 29 모든 노 젓는 자들이,
- 30 네 위로 그들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며,
- 31 그들이 너를 위해 머리를 밀고,
- 32 그들이 너를 위해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외칠 것이다. ‘티르스처럼 된 자가 누구냐?’
- 33 네 상품이 바다에서 나왔을 때,
- 34 네가 바다에 부서졌을 때,

³⁵ 섬들의 모든 주민들이 너를 보고 놀라며,

³⁶ 민족들의 상인들이 너를 흐흐 웃는다.

예제키엘서 28장

¹ 주님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하여 이르셨다.

² "사람의 아들이아, 시리아의 왕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은 이렇게 말한다.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네가 자기 마음을 하느님의 마음처럼 여기고,

³ 보아라, 너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⁴ 네 지혜와 명철로 네가 재물을 얻었고,

⁵ 네 위대한 지혜로,

⁶ 그러므로 주 하느님은 이렇게 말한다. 네가 하느님의 마음처럼 자기 마음을 여겼으므로,

⁷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외국인들을 너에게 이끌어 올 것이다.

⁸ 그들이 너를 구덩이로 끌어내릴 것이다.

⁹ 네가 죽이는 자 앞에서 "나는 하느님이다."라고 말할 것인가?

¹⁰ 너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의 죽음으로 죽을 것이다.

¹¹ 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¹² "사람의 아들이아, 시리아의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너라. 주 하느님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완전한 척도의 인장이었고,

¹³ 너는 에덴에 있었고, 홍옥, 황옥, 청옥, 황옥, 옥, 사마리온으로 가득 찼으며,

¹⁴ 너는 덮는 기름부음 받은 그룹이었고,

¹⁵ 너는 창조된 날부터 네 길에서 완전하였으며,

¹⁶ 네 상업의 풍성함으로 네 속이 폭력으로 가득 차서, 내가 너를 하느님의 산에서 더럽힌 자로 내쫓았다.

¹⁷ 네 아름다움으로 네 마음이 교만해졌다.

¹⁸ 네 최악의 많음으로,

¹⁹ 너를 아는 모든 민족들이 너를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²⁰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²¹ "사람의 아들이아, 시돈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그를 향하여 예언하여라.

²² 그러고 나서 말하여라. 주 하느님은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 시돈과 대적한다.

²³ 내가 그녀에게 전염병을 보내고,

²⁴ "이제 이스라엘 집에는 가시덤불도 없고, 그들을 비웃는 자들 주변에 상처 주는 가시도 없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주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²⁵ 주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집을 그들이 흩어져 있는 민족들 가운데서 모아서, 만국의 눈앞에서 그들 가운데서 내 거룩함을 드러낼 때,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²⁶ 그들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짓고 포도원을 심으며, 내가 그들을 멸시켰던 주변 모든 자들에게 심판을 내릴 때,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주님, 그들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에제키엘서 29장

- ¹ 십년째 해, 열째 달, 그 달 열둘째 날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 ² "사람의 아들이아,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등을 돌리고, 그와 이집트 온 땅을 향해 예언하여라.
- ³ 말하여 이르기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나는 너, 이집트 왕 파라오와 대적한다.
- ⁴ 내가 네 턱에 갈고리를 걸고,
- ⁵ 너를 광야로 던져버릴 것이다.
- ⁶ "이집트 온 땅의 모든 주민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집안에게 갈대 지팡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 ⁷ 그들이 네 손을 잡았을 때, 너는 부러지고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어버렸다. 그들이 너에게 기대었을 때, 너는 부러지고 그들의 모든 허벅지를 마비시켰다."
- ⁸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칼을 너에게 가져다줄 것이며, 너에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릴 것이다.
- ⁹ 이집트 땅은 황폐하고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 강은 내 것이며,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이다.
- ¹⁰ 그러므로 보라, 나는 너와 네 강들과 대적한다. 내가 이집트 땅을 완전한 황폐와 폐허로 만들겠다. 세헤네 탑에서부터 에티오피아 경계까지.
- ¹¹ 사람의 발도 그 땅을 지나지 못할 것이며, 짐승의 발도 그 땅을 지나지 못할 것이다. 사십 년 동안 그 땅은 거주되지 않을 것이다.
- ¹²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땅들 가운데서 황폐한 땅으로 만들겠다. 그 도시들은 황폐해진 도시들 가운데서 사십 년 동안 황폐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민족들 사이에 흩어버리고, 땅들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 ¹³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십 년이 끝나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그들이 흩어졌던 민족들 가운데서 모아낼 것이다.
- ¹⁴ 내가 이집트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그들을 파트로스 땅, 곧 그들의 태어난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거기서 그들은 낮은 왕국이 될 것이다.
- ¹⁵ 그것은 모든 왕국들 가운데 가장 낮은 왕국이 될 것이다. 그들은 다시는 민족들 위로 자라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작게 만들어, 더 이상 민족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 ¹⁶ 그것은 이스라엘 집안의 신뢰가 더 이상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최악을 떠올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주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¹⁷ 이십칠년째 해, 첫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 ¹⁸ "사람의 아들이아, 바빌론 왕 느부카드네자르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티로를 향해 큰 노역을 하게 하였다.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어깨는 닳아 없어졌으나, 그와 그의 군대는 티로를 향해 한 그 노역에 대해 보수를 얻지 못하였다.
- ¹⁹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집트 땅을 바빌론 왕 느부카드네자르에게 주겠다. 그는 그 땅의 무리를 끌어가고, 그 재산을 약탈하며, 그 전리품을 차지할 것이다. 그것이 그의 군대의 보수가 될 것이다.
- ²⁰ 내가 그에게 이집트 땅을 보수로 주었으니, 그가 나를 위하여 일했기 때문이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²¹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뿔을 싹틔우고, 내 입을 너에게 열어주겠다. 그때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에제키엘서 30장

- 1 주님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하여 이르셨다.
- 2 "사람의 아들이여,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통하게 울어라. 그날이 가까워 왔다!"
- 3 그날이 가까워 왔다.
- 4 칼이 이집트에 닥칠 것이다.
- 5 "에티오피아, 두, 루드, 모든 혼합된 백성, 쿠브, 그리고 그들과 동맹한 땅의 자녀들이 칼에 맞아 함께 쓰러질 것이다."
- 6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집트를 지탱하는 자들도 쓰러질 것이다."
- 7 "그들은 황폐해진 나라들 가운데 황폐해질 것이다."
- 8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9 "그날에 나의 앞에서 배를 타고 사신들이 나가서 무심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두렵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집트의 날처럼 고통이 닥칠 것이다. 보아라, 그것이 다가온다."
- 10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집트의 많은 백성을 끊어 버릴 것이다."
- 11 그와 그의 백성과 함께.
- 12 나는 강들을 말라 버릴 것이다.
- 13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우상들을 파괴할 것이다."
- 14 나는 파트로스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 15 나는 신에 내 진노를 쏟아부을 것이다.
- 16 나는 이집트에 불을 질러 버릴 것이다.
- 17 아웬과 피베세스의 젊은이들이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 18 테하페네헤에서도 그날은 물러갈 것이다.
- 19 이렇게 나는 이집트에 심판을 실행할 것이다.
- 20 십일 년, 첫째 달, 그 달 일곱째 날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 21 "사람의 아들이여, 나는 이집트 왕 파라오의 팔을 꺾었다. 보아라, 그것이 봉대를 두르거나 약을 바르거나 고정할 끈을 매어 힘을 얻어 칼을 잡게 되지 않았다."
- 22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나는 이집트 왕 파라오와 대적하여 그의 팔, 강한 팔과 꺾인 팔을 모두 꺾을 것이다. 그의 손에서 칼이 떨어지게 할 것이다."
- 23 나는 이집트 사람들을 민족들 사이에 흩어 버리고, 나라들 사이에 흩어 버릴 것이다.
- 24 나는 바빌론 왕의 팔을 강하게 하고, 내 칼을 그의 손에 쥐어 주겠다.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팔을 꺾어, 그가 바빌론 왕 앞에서 중상한 자처럼 신음하게 할 것이다.
- 25 나는 바빌론 왕의 팔을 힘 있게 하겠지만, 파라오의 팔은 약해지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칼을 바빌론 왕의 손에 쥐어 주고, 그가 그 칼을 이집트 땅 위로 펼칠 때,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26 나는 이집트 사람들을 열국 사이에 흩어 버리고, 여러 땅으로 흩어 버릴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에제키엘서 31장

- ¹ 십일 년 삼월 초하루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 ² "사람의 아들이아,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무리를 향해 말하여라. 네가 누구처럼 위대하냐?
- ³ 보라, 아시리아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으며,
- ⁴ 물이 그것을 기르고,
- ⁵ 그러므로 그것의 키는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아졌으며,
- ⁶ 하늘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고,
- ⁷ 그것은 그 위엄으로 아름다웠으며,
- ⁸ 하느님의 정원에 있는 백향목들도 그것을 가릴 수 없었고,
- ⁹ 내가 그 가지의 풍성함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었으니,
- ¹⁰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가 키가 높아서, 그 꼭대기를 두꺼운 가지들 사이에 달아놓고, 그 마음 이 그 높이 때문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 ¹¹ 내가 그를 민족들의 강대한 자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는 반드시 그를 대할 것이며, 나는 그의 악행 때문에 그를 쫓아내었 노라."
- ¹² 외국인들, 곧 민족들의 잔혹한 자들이 그를 베어내고 버렸다. 그 가지들은 산들 위와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모든 가지들은 땅의 모든 물줄기들에 의해 부러졌으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그늘에서 내려와 그를 떠났다.
- ¹³ 하늘의 모든 새가 그 폐허 위에 거할 것이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 위에 있을 것이며,
- ¹⁴ 이는 물가의 모든 나무들이 자기 키를 높이지 못하게 하고, 자기 꼭대기를 두꺼운 가지들 사이에 달지 못하게 하며, 그들의 강대한 자들이 높이에 서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물을 마시는 자들이 모두 죽음, 곧 인류 아래의 땅 깊은 곳,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 ¹⁵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스올로 내려가는 날, 내가 슬픔을 일으켰다. 내가 깊음을 그를 위해 덮었고, 그의 강들을 막아서 큰 물들을 멈추게 하였으며, 내가 레바논을 그를 위해 슬퍼하게 하였고, 들의 모든 나무들이 그를 위해 기진하였다."
- ¹⁶ 내가 그가 스올에 떨어질 때,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그를 던져 넣음으로써 민족들이 그의 쓰러짐의 소리에 떨 게 하였으니,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나무들, 모든 물을 마시는 자들이 아래 땅에서 위로 를 받았다.
- ¹⁷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로 내려가서, 칼에 맞아 죽은 자들에게 이르렀으며, 곧 그의 팔이 되어 민족들 가운데 그의 그늘 아래 살던 자들이었다.
- ¹⁸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서, 네가 누구처럼 영광과 위엄을 지녔느냐? 그러나 너도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아래 땅 깊은 곳 으로 끌려갈 것이며, 할례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 칼에 맞아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파라오와 그의 모든 무리이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에제키엘서 32장

- 1 십이년 십이월 초하루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 2 "사람의 아들이아, 이집트 왕 파라오를 위하여 슬픔의 노래를 지어라. 그에게 말하여라. "너는 민족들의 젊은 사자처럼 여겨졌으나,
- 3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많은 민족의 무리로 네 위에 그물을 펼치겠다.
- 4 내가 너를 땅 위에 버려두겠다.
- 5 내가 너의 살을 산들 위에 놓겠다.
- 6 내가 네 피로 네가 헤엄치는 땅을 적시겠다. 산들에 이르기까지.
- 7 내가 너를 꺼뜨릴 때, 하늘을 덮겠다.
- 8 내가 하늘의 모든 빛나는 별들을 너 위에서 어둡게 하겠다.
- 9 "내가 많은 민족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겠다.
- 10 내가 많은 민족이 너를 보고 놀라게 하겠다.
- 11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바빌론 왕의 칼이 너에게 달려오겠다.
- 12 내가 강한 자들의 칼로 네 무리를 쓰러뜨리겠다.
- 13 내가 그 물가의 모든 짐승들을 없애겠다.
- 14 그때 내가 그 물들을 맑게 하겠다.
- 15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하고 황폐하게 만들 때,
- 16 "이것이 그들이 부르는 슬픔의 노래이다. 민족들의 딸들이 이 노래로 슬퍼할 것이다. 그들은 이집트와 그 모든 무리에 대해 이 노래를 부르리라."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17 또 십이년 십오일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 18 "사람의 아들이아, 이집트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어라. 그녀와 유명한 민족들의 딸들을 지하 깊은 곳,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땅 아래로 던져라.
- 19 너는 누구보다 아름다운가? 내려가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누워라.
- 20 그들은 칼에 맞아 죽은 자들 가운데 쓰러질 것이다. 그녀는 칼에 넘겨졌다. 그녀의 모든 무리와 함께 끌어내려라.
- 21 강한 자들 중 강한 자들이 죽음의 땅 깊은 곳에서, 그를 돕는 자들과 함께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들은 내려갔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칼에 맞아 죽은 채 누워 있다.
- 22 "아시리아는 그 모든 무리와 함께 거기에 있다. 그녀의 무덤들이 그녀 주위에 있다. 그 모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이다.
- 23 그들의 무덤들은 구덩이의 가장 깊은 곳에 있으며, 그녀의 무리가 그녀의 무덤 주위에 있다. 그 모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이다. 그들은 살아 있는 땅에서 공포를 일으켰다.
- 24 "엘람과 그 모든 무리가 그녀의 무덤 주위에 있다. 그 모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이다. 그들은 할례받지 못한 채 지하 깊은 곳으로 내려갔으며, 살아 있는 땅에서 공포를 일으켰고,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그들의 수치를 지니고 있다.
- 25 그들은 엘람을 죽은 자들 사이에 그 모든 무리와 함께 침상으로 삼았다. 그녀의 무덤은 그녀 주위에 있으며, 모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해된 자들이다. 그들은 살아 있는 땅에서 공포를 일으켰으므로, 그들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그 수치를 짊어졌다. 그는 죽은 자들 사이에 놓였다.
- 26 거기에는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다. 그들의 무덤은 그들 주위에 있으며, 모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해된 자들이다. 그들은 살아 있는 땅에서 공포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 27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위대한 자들, 곧 무기와 함께 지옥으로 내려가서 칼을 머리 아래에 뉘어 놓은 자들과 함께 누우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최악이 그들의 뼈에 있다. 그들은 살아 있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공포였기 때문이다.
- 28 그러나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사이에서 부서져 칼에 살해된 자들과 함께 누우리라.
- 29 거기에는 에돔이 있고, 그의 왕들과 모든 영주들이, 그들의 힘으로 칼에 맞아 죽은 자들과 함께 누워 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³⁰ 거기에는 북방의 모든 영주들과 모든 시돈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죽은 자들과 함께 내려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일으킨 공포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그들은 칼에 맞아 죽은 자들과 함께 할례를 받지 않은 채 누워 있고,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수치를 안고 있다.

³¹ 바로가 그들을 보고, 자신이 칼에 맞아 죽은 모든 무리들로 인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가 칼에 맞아 죽었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³² 내가 그의 공포를 산 자들의 땅에 놓았다. 바로와 그의 모든 무리가 칼에 맞아 죽은 자들과 함께 할례를 받지 않은 채 누울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에제키엘서 33장

- 1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 2 "사람의 아들이, 네 백성의 자녀들에게 말하여 이르너니, 내가 칼을 한 땅에 내릴 때, 그 땅 백성이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 그들을 지키는 자로 삼으면,
- 3 그가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면,
- 4 그러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않는 자는, 칼이 와서 그를 잡아가면, 그의 피는 자기 머리에 있을 것이다.
- 5 그는 나팔 소리를 들었으나 경고를 받지 않았다. 그의 피는 그에게 있을 것이나, 만일 그가 경고를 받았다면 그는 자기 목숨을 구했을 것이다.
- 6 그러나 지키는 자가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를 받지 아니하면, 칼이 와서 그들 중 한 사람을 잡아가면, 그는 죄악으로 인해 잡아가지나, 나는 그 지키는 자의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겠다."
- 7 "그러므로 너, 사람의 아들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의 지키는 자로 세웠다.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서, 내게서 그들에게 경고를 전하여라."
- 8 내가 악한 자에게 이르기를, "악한 자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는데, 네가 가서 악한 자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악한 자는 죄악으로 인해 죽을 것이나, 나는 네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겠다.
- 9 그러나 네가 악한 자에게 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였으나, 그가 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으로 인해 죽을 것이나, 너는 자기 목숨을 구하였다.
- 10 "너, 사람의 아들이,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여 이르너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범죄와 죄악이 우리 위에 있고,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 쇠약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살아가리요?" 하니,
- 11 너는 그들에게 이르너니, "내가 산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악한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오직 악한 자가 그의 길에서 돌아서서 살기를 기뻐한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는가?"
- 12 "너, 사람의 아들이, 네 백성의 자녀들에게 말하여 이르너니, 의로운 자의 의로움이 그가 범죄하는 날에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며, 악한 자의 악함도 그가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날에 그를 넘어서게 하지 못할 것이며, 의로운 자가 죄를 지은 날에는 그의 의로움으로 살지 못할 것이다."
- 13 내가 의로운 자에게 그가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가 자신의 의로움을 신뢰하면서도 죄를 범한다면, 그가 행한 의로운 일은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으며, 그가 범한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 14 또 내가 악한 자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가 자신의 죄에서 돌아서서 옳고 정의로운 일을 한다면,
- 15 악한 자가 보증물을 돌려주고 강탈한 것을 다시 돌려주고 생명의 규례를 따라 걷으며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 16 그가 범한 죄는 그에게 기억되지 않는다. 그가 옳고 정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 17 "그러나 너희 백성의 자녀들은 말한다. '주님의 길은 공정하지 않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길은 공정하지 않다.
- 18 의로운 자가 자신의 의로움을 버리고 죄를 범하면, 그는 그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 19 악한 자가 자신의 악에서 돌아서서 옳고 정의로운 일을 하면, 그는 그로 인해 살 것이다.
- 20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주님의 길은 공정하지 않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 각자를 그의 길대로 심판하겠다."
- 21 우리가 포로로 잡힌 지 열두 해째, 열 번째 달, 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한 사람이 내게 와서 말했다. '도시가 함락되었습니다!'
- 22 그 도망친 자가 내게 오기 전날 저녁에, 주님의 손이 나에게 임했고, 그가 아침에 내게 올 때까지 내 입이 열렸다. 그때 내 입이 열려,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었다.
- 23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 24 "사람의 아들이, 이스라엘 땅의 황폐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한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뿐이었지만, 그가 이 땅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많다. 이 땅은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어졌다.'"

- ²⁵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피를 먹고, 너희의 우상들을 바라보며, 피를 흘린다. 그런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 ²⁶ 너희는 칼에 의지하고, 가증한 일을 저지르며, 너희 각자가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다. 그런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 ²⁷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말한다. 황폐한 곳에 있는 자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고, 들판에 있는 자는 짐승들에게 잡아먹힐 것이며, 요새와 동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 ²⁸ 나는 그 땅을 황폐하고 놀라운 곳으로 만들겠다. 그 땅의 힘에 대한 자랑은 끝날 것이고, 이스라엘의 산들은 황폐해져서 아무도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 ²⁹ 그들이 저지른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폐하고 놀라운 곳으로 만들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³⁰ ‘너, 사람의 아들아, 너의 백성의 자녀들이 담장 곁과 집 문에서 너에 대해 수다를 떨며, 서로에게 말하여, “오라. 주님께서 내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자.” 하고 있다.’
- ³¹ 그들은 내 백성처럼 너에게 와서 앉고, 네 말을 듣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그들은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보이지만, 마음은 이익을 쫓는다.’
- ³² 보아라. 너희는 그들에게 즐거운 목소리로 노래하고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노래처럼 보인다. 그들은 네 말을 듣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 ³³ 이 일이 일어날 때—보아라,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예언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제키엘서 34장

- 1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 2 "사람의 아들이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대항하여 예언하여라. 예언하여 그들에게, 곧 그 목자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아, 너희가 스스로를 먹이는 것에 화가 있을지이다.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않아야 하겠느냐?
- 3 너희는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으며, 살진 어린 양을 잡지만, 양을 먹이지 않는다.
- 4 너희는 병든 것을 강하게 하지 않았고, 아픈 것을 낫히지 않았으며, 부러진 것을 묶어 주지 않았고, 흩어진 것을 데려오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힘과 잔혹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 5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양들은 흩어졌고, 들의 모든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 흩어졌다.
- 6 내 양들은 모든 산과 높은 언덕 위를 방황하였다. 내 양들은 온 땅 위에 흩어졌으며, 찾거나 구하는 자가 없었다.
- 7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 8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들이 포로가 되고, 들의 모든 짐승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너희 목자들은 내 양을 찾지 않았고, 오히려 너희는 스스로를 먹이며 내 양을 먹이지 않았다.
- 9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 10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나는 목자들에게 대적한다. 내가 그들의 손에서 내 양을 요구하고, 그들이 양을 먹는 일을 그만두게 할 것이다. 목자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먹이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구원하여, 그들이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
- 11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그들을 찾아낼 것이다.
- 12 목자가 흩어져 있는 양 무리 사이에 있을 때 그 무리를 찾듯이, 나도 내 양을 찾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흐린 날과 어두운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 13 나는 그들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나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산들 위와 수로 곁, 그리고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먹일 것이다.
- 14 나는 그들을 좋은 풀밭에서 먹이고, 그들의 양우리는 이스라엘 높은 산들 위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좋은 양우리에 누울 것이며,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 풍성한 풀을 먹을 것이다.
- 15 나 자신이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내가 그들이 누워 있게 하겠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16 "나는 잃어버린 것을 찾고, 흩어진 것을 데려오며, 부러진 것을 묶어 주고, 병든 것을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기름진 것과 강한 것을 멸망시킬 것이다. 나는 공정하게 그들을 먹이겠다."
- 17 "너희, 내 양 무리아,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나는 양과 양 사이, 수양과 수염소 사이를 판단할 것이다.
- 18 너희가 좋은 풀밭을 먹으면서도, 너희 발로 그 풀밭의 남은 것을 밟아야 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면서도, 너희 발로 그 물의 남은 것을 더럽혀야 하느냐?
- 19 내 양들은 너희가 발로 밟은 것을 먹고, 너희가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신다."
- 20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곧 내가 기름진 양과 마른 양 사이를 판단할 것이다.
- 21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고, 모든 병든 양을 뿔로 밀어 흩어뜨렸기 때문이다.
- 22 그러므로 나는 내 양 무리를 구원하여, 더 이상 포로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양과 양 사이를 판단할 것이다.
- 23 나는 그들 위에 한 목자를 세우고,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다. 곧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먹일 것이며,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 24 나 주님이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이 그들 중에 군주가 될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하였다.
- 25 나는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땅에서 악한 짐승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들은 황야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며 숲에서 잠을 잘 것이다.
- 26 나는 그들과 내 산 주변의 모든 곳을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제때 비를 내리게 하여 복의 비를 내릴 것이다.
- 27 들편의 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수확을 내놓을 것이며, 그들은 자신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명

에의 막대를 부수고, 그들을 노예로 삼던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낼 때,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²⁸ 그들은 더 이상 민족들의 먹이가 되지 않을 것이며, 땅의 짐승들도 그들을 잡아먹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안전하게 거주하며 아무도 그들을 무서워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²⁹ 나는 그들에게 유명한 식물을 일구어 주어, 그들이 땅에서 기아로 소멸되지 않게 하며, 민족들의 수치를 더 이상 꺾지 않게 할 것이다.

³⁰ 그들은 내가 주님, 곧 그들의 하느님인 내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집은 내 백성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³¹ 너희는 내 양, 내 목장의 양들이다.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예제키엘서 35장

¹ 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² "사람의 아들이여, 세일 산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그것에 대해 예언하여라.

³ 그것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나는 너, 세일 산과 대적한다. 내가 내 손을 너에게 펼치리니, 내가 너를 황폐하고 놀라움의 대상으로 만들리라.

⁴ 내가 네 성들을 황폐하게 하여 네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네가 내가 주님임을 알리라.

⁵ 너는 영원한 적대감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환난과 마지막 최악의 때에 갈의 세력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⁶ 그러므로 내가 산다고,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피로 준비하리니, 피가 너를 쫓으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않았으므로, 피가 너를 쫓으리라.

⁷ 내가 세일 산을 놀라움과 황폐함으로 만들리라. 그 위를 지나가는 자도, 돌아오는 자도 내가 끊어버리리라.

⁸ 내가 그 산들의 언덕을 그의 시체로 채우리라.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이 네 언덕과 골짜기와 모든 물가에 쓰러지리라.

⁹ 내가 너를 영원한 황폐함으로 만들리라. 네 성들은 거주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네가 내가 주님임을 알리라.

¹⁰ 너는 말하기를, "이 두 나라와 이 두 땅은 내 것이 될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였으나, 주님께서 그곳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¹¹ 그러므로 내가 산다고,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분노와, 너의 증오로 인해 그들에게 보인 시기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너를 심판할 때, 그들 사이에서 내가 알려지리라.

¹² 너는 내가 이스라엘 산들에 대해 말한 모든 모욕을 모두 들었음을 알리라. 너는 말하기를, "그들이 황폐해졌다. 우리에게 넘겨져 먹히게 되었다." 하였으니.

¹³ 너는 입으로 나를 향해 자랑하고, 나를 향해 말을 많이 쏟아부었으니, 내가 그것을 들었다.

¹⁴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온 땅이 기뻐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¹⁵ 내가 이스라엘 집의 땅이 황폐해진 것을 보고 기뻐하였듯이, 내가 너에게도 그렇게 하리라. 네가 황폐하게 될 것이며, 세일 산과 예돔과 그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내가 주님임을 알리라.

예제키엘서 36장

- 1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 2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들이 너희를 향해 '하하!' 하고, '오래전 높은 곳들이 우리 소유가 되었다!' 하고 말하였다."
- 3 그러므로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고 사방에서 삼켰으니, 너희가 남은 민족들의 소유가 되고, 입에 오르내며, 백성들의 악한 소문이 되었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느님께서 산들과 언덕, 시내들과 골짜기, 황폐한 땅들과 버려진 도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들은 사방에 있는 남은 민족들의 노리개와 조롱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질투의 불로 남은 민족들과 에돔 전체를 향해 말하였다. 그들은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정신을 다해 경멸하여 내 땅을 자기 소유로 차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 6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대해 예언하여 산들과 언덕, 시내들과 골짜기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질투와 분노로 말하였다. 너희가 민족들의 수치를 겪었기 때문이다."
- 7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맹세하였다.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 자기 수치를 겪을 것이다."
- 8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들이 곧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 9 보아라, 내가 너희를 향해 있으며,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다. 너희는 경작되고 파종될 것이다.
- 10 내가 너희 위에 사람을 늘릴 것이다. 이스라엘 온 집, 곧 온 백성을 말이다. 도시들은 거주될 것이고, 황폐한 곳들은 재건될 것이다.
- 11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늘릴 것이다. 그들은 번성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전과 같이 거주되게 하며, 너희가 처음보다 더 잘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12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희 위로 걸어다니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소유할 것이며, 너희는 그들의 유산이 될 것이고, 너희는 다시는 그들의 자녀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 13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고, 네 민족을 빼앗는 자다.' 하고 말하였다."
- 14 그러므로 너는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말고, 네 민족을 빼앗지 말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 15 "내가 다시는 너희로 민족들의 수치를 듣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다시는 백성들의 비난을 겪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다시는 너희 민족을 넘어서게 하지 않을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 16 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 17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이 자기 땅에 살 때, 그들의 길과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그들의 길은 내 앞에서 월경하는 여자의 부정함과 같았다."
- 18 그러므로 내가 그들이 땅에 쏟은 피와, 그들이 우상으로 땅을 더럽힌 죄로 인해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었다.
- 19 내가 그들을 민족들 사이에 흩어버리고, 그들을 땅들 사이에 흩어버렸다. 내가 그들의 길과 행위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였다.
- 20 그들이 가는 민족들 가운데에 이르러, 내 성명을 더럽혔다.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말하기를, "이들은 주님의 백성인데, 그들의 땅을 떠났다." 하고 말하였다.
- 21 그러나 나는 그들이 가는 민족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성명을 존중하였다.
- 22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을 하지 않는다. 너희가 가는 민족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성명을 위해 하는 일이다."
- 23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내 위대한 성명을 거룩하게 하리라.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성명을 거룩하게 하리라. 그러면 민족들이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거룩하게 증명될 때이다."

- ²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데려내고, 모든 땅에서 모아 너희의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 ²⁵ 나는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려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 ²⁶ 나는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겠다. 나는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겠다.
- ²⁷ 나는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내 율법을 따라 걷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 ²⁸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거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될 것이다.
- ²⁹ 나는 너희의 모든 부정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나는 곡식을 불려 증가시키고, 너희에게 기근을 내지 않을 것이다.
- ³⁰ 나는 나무의 열매와 밭의 수확을 늘려, 너희가 이방 나라들 앞에서 기근의 수치를 더 이상 겪지 않게 할 것이다.
- ³¹ 그때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선하지 못한 행위를 기억할 것이며, 너희 죄악과 가증한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혐오하게 될 것이다.
- ³² 주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의 죄를 위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집아, 너희의 길로 인해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껴라.'
- ³³ 주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그 날에, 나는 성읍들을 거주하게 하고, 황폐한 곳들을 재건할 것이다.'
- ³⁴ 지나가는 이들의 눈에 황폐한 땅이 다시 경작될 것이다.
- ³⁵ 그들은 말할 것이다. '이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되었구나. 황폐하고 폐허가 된 성읍들이 견고해지고 거주하게 되었구나.'
- ³⁶ 그때 너희 주변에 남아 있는 모든 나라들은 내가 주님, 곧 황폐한 곳들을 재건하고 황폐한 것을 심은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님이 말했고, 내가 이를 실현할 것이다.
- ³⁷ 주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집이 나를 구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이를 실현하겠다. 나는 그들을 양 떼처럼 사람으로 늘릴 것이다.'
- ³⁸ 제물로 바치는 양 떼처럼, 예루살렘의 정해진 축일에 있는 양 떼처럼,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의 떼로 가득 찰 것이다. 그 때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에제키엘서 37장

- 1 주님의 손이 나 위에 있었고, 그분이 주님의 영으로 나를 데려다가 골짜기 한가운데에 세우셨다. 그곳은 뼈로 가득했다.
- 2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 뼈들 사이를 두루 돌아보게 하셨다. 보라, 골짜기 넓은 곳에 아주 많은 뼈들이 있었고, 보라, 그것들은 매우 마르고 말랐다.
- 3 그분이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이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 4 그분이 다시 내게 말했다. "이 뼈들 위에 예언하여라.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 5 주 하느님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 안에 숨을 넣어 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 6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올려주며, 피부로 덮어주고, 너희 안에 숨을 넣어 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7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다. 내가 예언할 때, 소리가 났고, 보라, 지진이 일어났다. 그 뼈들이 서로 맞물려 뼈가 뼈에 붙었다.
- 8 나는 보았다. 보라,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며, 피부로 덮였으나, 그 안에 숨은 없었다.
- 9 그때 그분이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이아, 바람에게 예언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네 가지 바람에서 와서, 이 죽은 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그들이 살게 하라.""
- 10 나는 그분이 내게 명령한 대로 예언했다. 그러자 숨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았고, 그들의 발에 서서, 아주 큰 군대가 되었다.
- 11 그분이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이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이다. 보라, 그들이 말한다. "우리 뼈는 마르고, 우리의 희망은 사라졌다. 우리는 완전히 끊어졌다."
- 12 그러므로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무덤에서 끌어올리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줄 것이다."
- 13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무덤에서 끌어올릴 때,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아.
- 14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겠다. 그 후에 내가 너희를 너희 땅에 두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님인 내가 말하고 이룬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 15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했다.
- 16 "사람의 아들이아, 한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것에 "유다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또 다른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것에 "요셉,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써라."
- 17 그리고 그것을 너 자신 앞에서 하나로 합쳐서, 네 손에 하나가 되게 하라.
- 18 "네 백성의 자손들이 너에게 말하여, "이것들이 네가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고 묻거든,
- 19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 지파들을 취하여, 그것과 유다의 막대기를 합쳐서, 하나의 막대기로 만들고, 내 손에 하나가 되게 하겠다."
- 20 너는 내가 쓴 막대기를 그들의 눈 앞에 들고 있어야 한다."
- 21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갓던 나라들 가운데서 데려와서, 사방에서 모아서, 그들의 땅으로 데려다줄 것이다."
- 22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산들 위의 한 나라로 만들겠다. 한 왕이 그들 모두를 다스릴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두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않을 것이다.
- 23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우상들과 가증한 것들과 그들의 모든 죄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이 죄를 지은 모든 거처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 24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한 목자를 가질 것이다. 그들은 내 율법을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실천할 것이다."
- 25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주었던 땅에 살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살던 그 땅에 그들이 살며,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임금으로 영원히 있을 것이다.

26 또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그것은 그들과 맺는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자리 잡게 하고, 그들을 번성시키며, 내 성소를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겠다.

27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28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 모든 민족은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제키엘서 38장

1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2 "사람의 아들이아, 마고 땅의 고그, 로스, 메세크, 두발의 지도자에게 얼굴을 돌리고 그를 향해 예언하여라."

3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나는 너, 로스, 메세크, 두발의 지도자 고그와 대적한다.

4 나는 너를 뒤로 돌려서 네 턱에 갈고리를 걸고, 너와 네 모든 군대, 말과 기마병을 끌어내리리라. 그들은 모두 완전한 갑옷을 입고, 방패와 흉갑을 든 큰 무리가 되어 칼을 다루리라.

5 페르시아, 구스, 두발도 그들과 함께 있으며, 모두 방패와 투구를 지니고 있다.

6 고멜과 그의 모든 무리, 북쪽 끝에 있는 도가르마의 온 집과 그의 모든 무리,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많은 민족들이다.

7 "너와 너와 함께 모인 모든 무리들을 준비하여라. 너는 그들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8 너는 여러 날 후에 방문을 받을 것이다. 말년에 너는 칼에서 돌아온 땅, 여러 민족에서 모인 자들이 이스라엘 산들에 이르러 살게 될 그 땅에 이르리라. 그 땅은 오래전부터 황폐하였으나, 이제 민족들로부터 끌어내어져 그들은 모두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9 너는 올라올 것이다. 너는 폭풍처럼 올라오고, 너와 네 모든 무리,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많은 민족들이 땅을 덮는 구름처럼 되리라.

10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날에 너는 마음속에 생각을 품고 악한 계획을 세우리라."

11 너는 말할 것이다. 내가 성벽 없는 마을들로 올라가리라. 내가 평안히 살고, 성벽도 없고, 문살도 없고, 문도 없는 자들에게로 가리라.

12 약탈을 탈취하고 노략을 하려 하며, 거주하는 황폐한 곳들과, 여러 민족에서 모인 자들, 가축과 재물을 얻어 땅의 중앙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손을 돌리려 하느냐?

13 세바, 데단, 타르시스의 상인들과 그 모든 젊은 사자들이 너에게 묻겠으니, 그들이 말하리라. 너는 약탈하러 온 것이냐? 너는 노략을 하려고 무리를 모았느냐? 은과 금을 빼앗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으며, 큰 약탈을 하려고 온 것이냐?

14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이아, 예언하여라. 고그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주하는 그날에,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15 너는 북쪽 끝에서, 너와 함께 있는 많은 민족들과 함께 말을 타고 올라오리라. 너는 큰 무리이자 강력한 군대가 되리라.

16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구름처럼 올라와 땅을 덮으리라. 말년에 내가 너를 내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 고그, 그들의 눈앞에서 거룩하게 되어 모든 민족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17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가 옛적에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내 종들을 통해 말한 그 자냐? 그들은 여러 해 동안 그날에 너를 그들에게 이끌어 올리겠다고 예언하였으니.

18 그날에 고그가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올 때,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진노가 내 콧구멍으로 치솟으리라.

19 내가 질투와 내 진노의 불로 말하였다. 그날에 이스라엘 땅에 큰 진동이 일어나리라.

20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리리라. 그때 산들은 무너지고, 모든 언덕은 쓰러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21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모든 산들 위에서 그를 향해 칼을 불러일으키리라. 각자의 칼이 형제를 향하리라.

22 나는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무리,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민족들 위에 홍수 같은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을 내리리라.

23 나는 나를 위대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며, 많은 민족의 눈앞에서 나를 알리리라. 그때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리라.

에제키엘서 39장

- 1 "너, 사람의 아들이여, 고그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님 하느님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나는 너, 로스, 메세크, 두발의 지도자 고그와 대적한다."
- 2 나는 너를 뒤로 돌리고 이끌어, 북쪽 끝에서 너를 끌어올리며 이스라엘의 산들 위로 데려다줄 것이다.
- 3 나는 네 왼손에서 활을 치켜차고, 네 오른손에서 화살을 떨어뜨릴 것이다.
- 4 너와 네 모든 군대, 그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질 것이다. 나는 너를 모든 종류의 맹금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먹히게 할 것이다.
- 5 너는 들판 위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님 하느님의 말이다.
- 6 "나는 마고그와 섬들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불을 보내겠다. 그때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7 "나는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알리겠다. 나는 더 이상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때 모든 민족들이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8 보라, 그것이 이르고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 하느님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말한 그 날이다."
- 9 "이스라엘 도시들에 거주하는 자들이 나와서 무기를 가져다 불을 피우고, 방패와 투구와 활과 화살과 전쟁 막대기와 창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들은 일곱 해 동안 그것들로 불을 피울 것이다."
- 10 그들은 들판에서 나무를 가져오지 않으며, 숲에서 나무를 베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을 약탈하던 자들을 약탈하고, 자기들을 강탈하던 자들을 강탈할 것이다." 주님 하느님의 말이다.
- 11 "그날에 나는 고그에게 이스라엘에 장사할 곳을 주겠다. 바다 동쪽을 지나가는 골짜기이다. 그곳은 지나가는 자들을 막을 것이다. 그들은 고그와 그의 모든 무리를 거기서 장사할 것이며, 그곳을 '하몬 고그의 골짜기'라 부를 것이다."
- 12 "이스라엘 집은 그들을 일곱 달 동안 장사할 것이며,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 13 "땅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할 것이다. 내가 영광을 받는 그 날에 그들은 유명해질 것이다." 주님 하느님의 말이다.
- 14 "그들은 땅을 지나다니며, 땅 위에 남아 있는 시체를 장사하는 자들과 함께 다닐 특별한 사람들을 둘 것이다. 그들은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일곱 달이 끝나면 그들은 수색할 것이다."
- 15 땅을 수색하는 자들이 지나다닐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의 뼈를 보면, 그는 그 곁에 표지를 세워두고, 장사꾼들이 그 뼈를 하몬 고그의 골짜기로 장사할 때까지 그대로 둘 것이다.
- 16 하모나도 한 도시의 이름이 될 것이다. 이처럼 그들은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 17 "너, 사람의 아들이여, 주님 하느님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모여라. 나를 향해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잡는 제물을 먹고, 고기를 먹고 피를 마셔라."
- 18 너는 용사들의 고기를 먹고, 땅의 지도자들의 피를 마실 것이다. 양과 어린 양과 염소와 황소, 모두 바산의 살찐 짐승들이다."
- 19 너는 내가 너희를 위해 잡은 제물의 기름을 먹고 배부르고, 피를 마셔 취할 것이다."
- 20 너는 내 상에서 말과 병거와 용사와 모든 전사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주님 하느님의 말이다.
- 21 "나는 내 영광을 민족들 사이에 드러낼 것이다. 그때 모든 민족들이 내가 내린 심판과 내가 그들에게 내린 손을 볼 것이다."
- 22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은 그날부터 내가 주님 그들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 23 민족들은 이스라엘 집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거역했고, 내가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겨주었고, 모두 칼에 쓰러졌다.
- 24 나는 그들의 부정과 그들의 범죄에 따라 그들에게 행하였다. 나는 얼굴을 가렸다.
- 25 그러므로 주 하느님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나는 야곱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온 집안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나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질투할 것이다.'
- 26 그들이 안전하게 땅에서 살게 될 때, 그들은 내가 향해 범한 모든 죄와 수치를 잊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 ²⁷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모아서, 많은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낼 때이다.
- ²⁸ 그들은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사로잡아 끌어갔고, 내 땅으로 모아왔음을 알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 중 누구도 더 이상 포로로 두지 않을 것이다.
- ²⁹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지 않겠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 내 영을 부어주었기 때문이다.' 주 하느님이 말한다.

에제키엘서 40장

- 1 우리가 포로로 잡힌 지 스물다섯 년, 그 해 첫째 달 열째 날, 도시가 침략받은 후 십사 년째 되는 그날,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고, 그분이 나를 그곳으로 데려오셨다.
- 2 하느님의 환상 속에서 그분이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시고, 매우 높은 산 위에 세우셨다. 그 산 위에는 남쪽에 도시의 틀 같은 것이 있었다.
- 3 그분이 나를 그곳으로 데려오셨다. 보라, 그곳에 동금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줄과 대나무 줄기로 만든 측량 막대기가 있었다. 그는 문 앞에 서 있었다.
- 4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이여, 네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듣고, 내가 네게 보여줄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라. 내가 너를 여기로 데려온 것은 네게 이것들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집에 알려라."
- 5 보라, 집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벽이 있었고, 그 사람의 손에는 육 큐빗 길이의 측량 막대기가 있었다. 한 큐빗은 한 팔꿈치와 한 손바닥 너비였다. 그가 건물의 두께를 측량하니, 막대기 하나 길이였고, 높이도 막대기 하나 길이였다.
- 6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계단을 올라갔다. 그가 문의 문턱을 측량하니, 너비가 막대기 하나였고, 다른 문턱도 막대기 하나 너비였다.
- 7 각 칸은 길이와 너비가 모두 막대기 하나였고, 칸들 사이에는 오 큐빗의 공간이 있었다. 집을 향한 문의 현관 앞 문턱도 막대기 하나 길이였다.
- 8 그가 집을 향한 문의 현관도 측량하니, 막대기 하나 길이였다.
- 9 그가 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여덟 큐빗이었고, 기둥은 두 큐빗이었으며, 현관은 집을 향해 있었다.
- 10 동쪽 문의 양쪽에 있는 옆방은 각각 세 칸씩이었고, 세 칸 모두 같은 치수였다. 양쪽 기둥의 치수도 같았다.
- 11 그가 문의 개구부 너비를 측량하니, 열 큐빗이었고, 문의 길이는 열세 큐빗이었다.
- 12 칸들 앞에는 경계가 있었고, 양쪽에 각각 한 큐빗의 경계가 있었다. 옆방은 양쪽에 각각 여섯 큐빗이었다.
- 13 그가 한 옆방의 지붕에서 다른 옆방의 지붕까지 문을 측량하니, 너비가 스물다섯 큐빗이었고, 문은 마주 보고 있었다.
- 14 그가 기둥을 육십 큐빗으로 만들었고, 마당은 문을 둘러싸고 기둥까지 이어졌다.
- 15 문 입구의 앞부분에서 안쪽 현관의 앞부분까지는 오십 큐빗이었다.
- 16 옆방과 문 안쪽 기둥 주위, 그리고 아치 주위에는 닫힌 창문이 있었고, 안쪽으로 향한 창문이 모두 둘러져 있었다. 각 기둥에는 야자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 17 그가 나를 바깥 마당으로 데려갔다. 보라, 마당을 둘러싸고 방들과 마당 바닥이 있었다. 바닥에는 삼십 칸의 방이 있었다.
- 18 바닥은 문 옆에 있었고, 문의 길이에 맞추어져 있었으며, 아래쪽 바닥이었다.
- 19 그가 아래쪽 문의 앞부분에서 안쪽 마당 바깥쪽 앞부분까지 너비를 측량하니, 동쪽과 북쪽 모두 백 큐빗이었다.
- 20 그가 북쪽을 향한 바깥 마당 문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했다.
- 21 그 문의 칸은 양쪽에 각각 세 칸이었고, 기둥과 아치는 첫 번째 문과 같은 치수였다. 길이는 오십 큐빗이었고, 너비는 스물다섯 큐빗이었다.
- 22 그 문의 창문, 아치, 야자나무는 동쪽을 향한 문과 같은 치수였다. 그 문으로는 일곱 계단을 올라갔고, 아치는 그 앞에 있었다.
- 23 북쪽과 동쪽에 안쪽 마당을 향한 문이 있었고, 그 문과 다른 문 사이를 측량하니 백 큐빗이었다.
- 24 그가 나를 남쪽으로 데려갔다. 보라, 남쪽을 향한 문이 있었다. 그가 그 문의 기둥과 아치를 이 치수대로 측량했다.
- 25 그 안과 그 둘레의 아치들에 창문이 있었고, 다른 창문들과 같았다. 길이는 오십 큐빗이었고, 너비는 이십오 큐빗이었다.
- 26 그것에 오르는 계단이 일곱 계단이었고, 그 아치들이 그 앞에 있었다. 기둥 양쪽에 야자나무 한 그루씩 있었다.
- 27 남쪽으로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다. 그가 남쪽으로 문에서 문까지 백 큐빗을 재었다.
- 28 그러고 나서 그가 나를 남쪽 문을 통해 안뜰로 데려갔다. 그가 남쪽 문을 이 치수에 따라 재었다.
- 29 그 문의 안치, 기둥, 아치들이 이 치수에 따라 있었다. 그 안과 그 둘레의 아치들에 창문이 있었고, 길이는 오십 큐빗이었

으며, 너비는 이십오 큐빗이었다.

30 그 둘레에 아치들이 있었고, 길이는 이십오 큐빗이었으며, 너비는 오 큐빗이었다.

31 그 아치들은 바깥쪽을 향해 있었다. 기둥에 야자나무가 있었다. 그 위로 오르는 계단이 여덟 계단이었다.

32 그가 나를 동쪽으로 안뜰로 데려갔다. 그가 문을 이 치수에 따라 재었다.

33 그 문의 안치, 기둥, 아치들이 이 치수에 따라 있었다. 그 안과 그 둘레의 아치들에 창문이 있었고, 길이는 오십 큐빗이었으며, 너비는 이십오 큐빗이었다.

34 그 아치들은 바깥쪽을 향해 있었다. 기둥 양쪽에 야자나무가 있었다. 그 위로 오르는 계단이 여덟 계단이었다.

35 그가 나를 북쪽 문으로 데려갔고, 그가 이 치수에 따라 문을 재었다—

36 그 문의 안치, 기둥, 아치들이 있었다. 그 안과 그 둘레에 창문이 있었고, 길이는 오십 큐빗이었으며, 너비는 이십오 큐빗이었다.

37 그 기둥은 바깥쪽을 향해 있었다. 기둥 양쪽에 야자나무가 있었다. 그 위로 오르는 계단이 여덟 계단이었다.

38 문 기둥 옆에 문이 있는 방이 있었다. 그곳에서 번제를 씻었다.

39 문의 현관에 이쪽에 두 개의 상과 저쪽에 두 개의 상이 있었고, 거기서 번제, 죄제, 범죄제를 잡았다.

40 북쪽으로 문 입구로 오르는 바깥쪽 한쪽에는 두 개의 상이 있었고, 다른 쪽, 즉 문 현관에 속한 쪽에도 두 개의 상이 있었다.

41 문 옆에 이쪽에 네 개의 상과 저쪽에 네 개의 상이 있었다. 모두 여덟 개의 상이었고, 거기서 제물을 잡았다.

42 번제를 위한 네 개의 짝은 돌 상이 있었고, 길이와 너비는 각각 한 큐빗 반, 높이는 한 큐빗이었다. 그들은 거기에 번제와 제물을 잡는 도구를 놓았다.

43 손바닥 너비 길이의 갈고리들이 그 안쪽 둘레에 달려 있었고, 제물의 고기는 상 위에 놓였다.

44 안문 밖에 안뜰 쪽, 북문 옆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한 방들이 있었고, 그 방들은 남쪽을 향해 있었다. 동문 옆의 한 방은 북쪽을 향해 있었다.

45 그가 내게 말했다.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집의 일을 맡은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다."

46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의 일을 맡은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레위 자손 중에서 주님께 나아가 그분을 섬기는 사독의 아들들이다.

47 그가 안뜰을 재었는데, 길이와 너비가 각각 백 큐빗으로 정사각형이었다. 제단은 집 앞에 있었다.

48 그가 나를 집의 현관으로 데려가서 현관의 각 기둥을 재었는데, 이쪽은 오 큐빗, 저쪽도 오 큐빗이었고, 문의 너비는 이쪽은 삼 큐빗, 저쪽도 삼 큐빗이었다.

49 현관의 길이는 스무 큐빗이고 너비는 열한 큐빗이었으며, 그 위로 오르는 계단이 있었다. 기둥 옆에 기둥이 하나는 이쪽에, 또 하나는 저쪽에 있었다.

에제키엘서 41장

- 1 그가 나를 중앙 성전으로 데려가서 기둥을 측정하니, 한쪽은 여섯 큐빗 너비이고 다른 쪽도 여섯 큐빗 너비였으며, 이는 천막의 너비였다.
- 2 입구의 너비는 열 큐빗이었고, 입구의 양쪽 측면은 각각 다섯 큐빗이었다. 그가 그 길이를 측정하니 사십 큐빗이었고, 너비는 이십 큐빗이었다.
- 3 그 후 그가 안으로 들어가 입구의 각 기둥을 측정하니 두 큐빗이었고, 입구는 여섯 큐빗이었으며, 입구의 너비는 일곱 큐빗이었다.
- 4 그가 그 길이를 측정하니 이십 큐빗이었고, 너비도 이십 큐빗이었으며, 이는 중앙 성전 앞이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 것이 가장 거룩한 곳이다."
- 5 그가 집의 벽을 측정하니 여섯 큐빗이었고, 모든 측실의 너비는 사 큐빗이었으며, 집 주위 모든 쪽에 걸쳐 있었다.
- 6 측실은 세 층으로 되어 있었고, 각 층마다 서른 개씩이었다. 그 측실들은 집의 벽 안으로 들어가 집 주위를 둘러싸며, 집의 벽을 뚫지 않고 지지되도록 하였다.
- 7 측실은 위로 갈수록 더 넓어졌는데, 그 이유는 위로 갈수록 벽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의 너비는 위로 갈수록 증가하였고, 가장 낮은 층에서 가장 높은 층까지 중간 층을 통해 올라갔다.
- 8 나는 집이 주위에 높은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도 보았다. 측실의 기초는 여섯 큰 큐빗인 한 레이드의 길이였다.
- 9 측실의 바깥 벽의 두께는 다섯 큐빗이었고, 그 남은 공간이 집에 속한 측실의 자리였다.
- 10 방들 사이에는 집 주위 모든 쪽에 이십 큐빗의 너비가 있었다.
- 11 측실의 문들은 남은 빈 공간을 향해 있었고, 하나는 북쪽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남쪽을 향하였다. 그 빈 공간의 너비는 주위 모두 다섯 큐빗이었다.
- 12 서쪽 쪽에 있는 별도의 장소 앞에 있는 건물은 칠십 큐빗 너비였고, 그 건물의 벽은 주위 모두 다섯 큐빗 두께였으며, 길이는 구십 큐빗이었다.
- 13 그가 성전을 측정하니 길이가 백 큐빗이었고, 별도의 장소와 건물 및 그 벽들도 길이가 백 큐빗이었다.
- 14 성전의 앞면과 동쪽의 별도의 장소의 너비도 백 큐빗이었다.
- 15 그가 뒤쪽에 있는 별도의 장소 앞의 건물과 그 양쪽의 복도를 측정하니, 내부 성전에서부터 안뜰의 현관까지 모두 백 큐빗이었다.
- 16 문턱들과 닫힌 창들과 그 세 층의 복도들이 문턱을 마주하고 있었고, 주위 모두 나무 천장이었으며, 바닥에서 창까지(이제 창은 가려져 있었다).
- 17 문 위의 공간에서 내부 성전까지, 그리고 바깥쪽과 집 주위 안팎의 모든 벽을 측정하였다.
- 18 그것은 그룹과 야자나무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룹 사이마다 야자나무 하나가 있었고, 각 그룹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 19 한쪽은 야자나무를 향해 사람의 얼굴이 있었고, 다른 쪽은 야자나무를 향해 젊은 사자의 얼굴이 있었다. 집 주위 모두 이와 같이 장식되었다.
- 20 그룹과 야자나무는 바닥에서 문 위까지 장식되었다. 성전의 벽은 이와 같았다.
- 21 중앙 성전의 문기둥은 정사각형이었고, 중앙 성전의 앞면은 성전의 모습과 같았다.
- 22 제단은 나무로 되어 있었고, 높이가 세 큐빗이었으며, 길이가 두 큐빗이었다. 그 뿔들과 기초와 벽은 모두 나무로 되어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놓인 상이다."
- 23 성전과 성소에는 두 개의 문이 있었다.
- 24 문은 각각 두 개의 문짝으로 되어 있었고, 두 개의 돌아가는 문짝이었다. 하나의 문에는 두 개, 다른 문에도 두 개의 문짝이 있었다.
- 25 그 문들 위에, 본당의 문들 위에, 그룹과 야자나무가 벽에 새겨진 것처럼 새겨졌다. 현관 바깥 입구에는 나무로 된 문지방이 있었다.

²⁶ 현관 양쪽 측면에는 닫힌 창과 야자나무가 있었다. 이처럼 성전의 측실과 문지방들이 배열되었다.

에제키엘서 42장

- ¹ 그 후 그가 나를 북쪽으로 향한 바깥 마당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나를 별도의 공간과 마주하고 북쪽 건물과 마주한 방으로 데려갔다.
- ² 북쪽 문은 길이가 백 큐빗이고 너비가 오십 큐빗이었다.
- ³ 안 마당의 이십 큐빗과 바깥 마당의 바닥과 마주하는 곳에, 세 층에 걸쳐 갤러리가 마주하고 있었다.
- ⁴ 방 앞에는 안쪽으로 이어진 너비 열 큐빗의 복도가 있었고, 그 길은 한 큐빗이었으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해 있었다.
- ⁵ 위쪽 방들은 더 짧았다. 갤러리가 아래쪽과 중간 방들보다 위쪽 방들에서 더 많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 ⁶ 이 방들은 세 층이었고, 마당의 기둥처럼 기둥이 없었다. 그래서 가장 위쪽 방은 바닥에서 아래쪽과 중간 방보다 더 안쪽으로 물러나 있었다.
- ⁷ 방 옆에 바깥 마당을 향해 있는 벽은 길이가 오십 큐빗이었다.
- ⁸ 바깥 마당에 있는 방들의 길이는 오십 큐빗이었다. 보라, 성전을 마주하는 방들은 백 큐빗이었다.
- ⁹ 이 방들 아래쪽 동쪽에 입구가 있었고, 그 입구는 바깥 마당에서 방들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 ¹⁰ 동쪽 마당 벽의 두께 안쪽, 별도의 공간과 건물 앞에 방들이 있었다.
- ¹¹ 그 방들 앞의 길은 북쪽 방들과 비슷한 모양이었다. 그 길이와 너비는 같았고, 모든 출구의 배열과 문들도 같았다.
- ¹² 남쪽 방들처럼, 동쪽 벽을 향해 바로 앞에 있는 길의 머리에 문이 하나 있었다.
- ¹³ 그가 내게 말했다.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 즉 별도의 공간과 마주하는 방들은 성소이다. 거기서 주님께 가까이 있는 사제들이 가장 성한 것을 먹는다. 그들은 거기서 제사 곡식과 죄 제물과 범죄 제물을 두는데, 그 장소는 성하다."
- ¹⁴ 사제들이 들어갈 때에는 그들이 그곳에서 섬기던 옷을 두지 않고는 성소에서 나와 바깥 마당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 옷은 성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옷을 입고서야 백성에게 속한 것을 가까이할 수 있다.
- ¹⁵ 그가 안쪽 집을 측정한 뒤, 동쪽을 향한 문으로 나를 데려가서 그 주변을 모두 측정하였다.
- ¹⁶ 그가 측정 막대기로 동쪽을 향해 오백 막대기를 측정하였다.
- ¹⁷ 그가 측정 막대기로 북쪽을 향해 오백 막대기를 측정하였다.
- ¹⁸ 그가 측정 막대기로 남쪽을 향해 오백 막대기를 측정하였다.
- ¹⁹ 그가 서쪽을 향해 돌며 측정 막대기로 오백 막대기를 측정하였다.
- ²⁰ 그가 네 방향을 모두 측정하였다. 그 주변에는 벽이 둘러져 있었고, 길이와 너비가 모두 오백 큐빗이었으며, 성한 것과 보통 것 사이에 구분을 두기 위한 것이었다.

에제키엘서 43장

- 1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려가 동쪽을 향한 문, 곧 그 문으로 나아갔다.
- 2 보라, 이스라엘 주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왔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의 소리 같았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밝아졌다.
- 3 그것은 내가 도시를 파괴하러 갔을 때 본 환상과 같았고, 내가 치바르 강가에서 본 환상과도 같았다. 나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 4 주님의 영광이 동쪽을 향한 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왔다.
- 5 그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려갔다. 보라, 주님의 영광이 집을 가득 채웠다.
- 6 나는 집 안에서 나에게 말하는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고, 한 사람이 내 곁에 서 있었다.
- 7 그가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이야, 이곳이 내 보좌의 자리요, 내 발바닥이 놓이는 곳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다. 이스라엘 집과 그들의 왕들은 더 이상 내 성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음행과 그들의 왕들의 시체를 높은 곳에 두어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 8 그들이 내 문지방 옆에 그들의 문지방을 두고, 내 문설주 옆에 그들의 문설주를 두었으며, 나와 그들 사이에 벽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가증한 일로 내 성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나는 분노로 그들을 소멸하였다.
- 9 이제 그들은 음행과 그들의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 10 "사람의 아들이야, 너는 이스라엘 집에게 이 집을 보여 주어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라. 그들이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 11 그들이 자신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집의 형식과 모양과 출입구와 입구와 구조와 모든 규정과 모든 형상과 모든 법을 그들에게 알려라. 그것을 그들의 눈앞에 기록하여 그들이 그 전체 형식과 모든 규정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게 하라.
- 12 "이것이 그 집의 법이다. 산 꼭대기에서 그 집의 모든 경계가 가장 성한 곳이 될 것이다. 보라, 이것이 그 집의 법이다."
- 13 "이것은 제단의 치수이다. 한 큐빗은 한 큐빗과 한 손바닥 너비이다. 바닥은 한 큐빗 높이이고, 너비는 한 큐빗이며, 그 가장자리 주위의 테두리는 한 손바닥이다. 이것이 제단의 밑받침이 될 것이다."
- 14 땅에서 바닥까지 아래쪽 테두리까지는 두 큐빗이고, 너비는 한 큐빗이다. 작은 테두리에서 큰 테두리까지는 네 큐빗이고, 너비는 한 큐빗이다.
- 15 위쪽 제단은 네 큐빗 높이이며, 제단 화로에서 위로 네 개의 뿔이 있다.
- 16 제단 화로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열두 큐빗이며, 네 면이 정사각형이다.
- 17 테두리는 네 면이 각각 열네 큐빗 길이와 열네 큐빗 너비이며, 그 주위의 테두리는 반 큐빗이고, 그 밑받침은 주위가 한 큐빗이며, 그 계단은 동쪽을 향한다."
- 18 그가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이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은 제단을 만드는 날에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릴 때의 규정이다."
- 19 너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내 앞에서 섬기는 사독의 자손인 레위 사제들에게 죄 헌물로 젊은 수소를 주어야 한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20 너는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테두리의 네 모서리, 그리고 그 주위의 테두리에 바르라. 그렇게 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속죄하라.
- 21 너는 죄 헌물로 드릴 수소를 가져다가 성소 밖, 집의 정해진 장소에서 태워 버리라.
- 22 "두 번째 날에는 흠 없는 수염소를 죄 헌물로 드리고, 그들이 수소로 제단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
- 23 너는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친 후에 흠 없는 젊은 수소와 양 떼에서 흠 없는 수양을 드리라.
- 24 너는 그것을 주님 앞으로 데려가고, 사제들이 그 위에 소금을 뿌려 주님께 번제로 드리라.
- 25 일곱 날 동안 매일 죄를 위한 제물로 염소 한 마리를 바치고, 흠 없는 어린 수소와 양 떼에서 온 수양도 바칠 것이다.
- 26 일곱 날 동안 그들은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때에야 그들은 그것을 성화할 것이다.
- 27 그들이 그 날들을 마친 후, 여덟째 날부터 사제들이 너희의 번제와 화평제를 제단에 바칠 것이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받

아들일 것이다.' 주 하느님이 말씀하신다.

에제키엘서 44장

- 1 그러자 그가 나를 동쪽을 향한 성소의 바깥 문으로 데려왔다. 그 문은 닫혀 있었다.
- 2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닫혀 있어야 한다. 열리지 말아야 한다. 아무도 이 문을 통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는 주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 문을 통해 들어오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은 닫혀 있어야 한다."
- 3 왕은 이 문 안에서 왕으로서 주님 앞에서 빵을 먹을 것이다. 그는 문의 현관을 통해 들어오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다."
- 4 그러자 그가 나를 집의 북문으로 데려왔다. 내가 눈을 들고 보니,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 5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아, 잘 보고, 네 눈으로 보며, 네 귀로 들어라. 내가 너에게 주님의 집과 그 모든 법규에 관해 말하는 모든 것을 잘 기억하여라. 집의 입구와 성소의 모든 출입구를 잘 살펴라."
- 6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범한 모든 가증한 일을 그만두어라."
- 7 너희는 마음과 육체가 할례받지 않은 외국인들을 데려와 내 성소에 들어, 내 집, 곧 내 성소를 더럽혔다. 너희가 내 빵, 곧 기름과 피를 바칠 때,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고,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을 더했다.
- 8 너희는 내 성물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내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을 성소에 세워 스스로에게 봉사하게 했다."
- 9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는 어떤 외국인이라도, 마음과 육체가 할례받지 않은 자는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 10 이스라엘이 미혹되어 떠날 때, 나에게서 멀어져 우상들을 따라 떠난 레위인들은 그들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다.
- 11 그들은 내 성소에서 봉사자로 일하며, 집의 문들을 지키고 집 안에서 봉사할 것이다. 그들은 백성을 위해 번제와 희생제 물을 잡을 것이며, 그들을 섬기기 위해 그들 앞에 서 있을 것이다.
- 12 그들이 그들의 우상 앞에서 봉사했고, 이스라엘 집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반대하였고,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다."
- 13 그들은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며, 내게 사제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내 성물, 곧 가장 성스러운 것들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범한 수치와 가증한 일을 짊어질 것이다.
- 14 그러나 나는 그들을 집의 봉사자로 삼아, 집의 모든 일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행하게 할 것이다.
- 15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서 떠날 때, 내 성소의 임무를 수행했던 사독의 아들들인 레위 사제들은 내게 가까이 와서 내 앞에서 봉사할 것이다. 그들은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바칠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16 "그들은 내 성소에 들어오고,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내 앞에서 봉사하며, 내 교훈을 지킬 것이다."
- 17 "그들이 안뜰의 문들로 들어갈 때, 그들은 베로 된 옷을 입을 것이다. 그들이 안뜰의 문들과 안쪽에서 봉사할 때, 그들은 양모를 입지 않을 것이다."
- 18 그들은 머리에 베로 된 두건을 쓰고, 허리에 베로 된 바지를 입을 것이다. 그들은 땀을 흘리게 하는 어떤 옷도 입지 않을 것이다.
- 19 그들이 바깥뜰, 곧 백성을 위한 바깥뜰로 나갈 때, 그들은 봉사할 때 입었던 옷을 벗어 성스러운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 것이다. 그래야 그들의 옷이 백성을 성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 20 "그들은 머리를 밀지 말고,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지도 말아야 한다. 그들은 머리카락을 단지 짧게 자를 뿐이다."
- 21 사제들은 안뜰로 들어갈 때 어떤 와인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
- 22 그들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집의 딸들 중 처녀를 아내로 삼거나, 사제의 과부만 아내로 삼을 수 있다.
- 23 그들은 내 백성에게 성스러운 것과 보통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구분을 가르쳐야 한다.
- 24 "그들은 분쟁이 있을 때 판단을 맡을 것이다. 그들은 내 법규에 따라 판단할 것이며, 내가 정한 모든 축일에 내 법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 안식일을 성결하게 할 것이다."

- ²⁵ 그들은 죽은 자에게 가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결혼하지 않은 자매에게는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
- ²⁶ 그가 정결해진 후에, 일곱 날을 그에게 계산할 것이다.
- ²⁷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 안뜰에 들어가는 날에는, 그는 자신의 죄 속건제를 바쳐야 한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²⁸ 그들은 유산을 가질 것이다. 나는 그들의 유산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그들에게 어떤 소유도 주지 말아야 한다. 나는 그들의 소유이다.
- ²⁹ 그들은 제물과 죄 속건제와 속건제를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바쳐진 모든 바친 것들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 ³⁰ 모든 첫 열매의 첫 부분과 너희가 바치는 모든 제물의 첫 부분은 사제를 위한 것이다. 너희는 또한 너희 반죽의 첫 부분을 사제들에게 주어, 너희 집에 복이 내리게 하라.
- ³¹ 사제들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새든 동물이든 상관없다.

에제키엘서 45장

- 1 “또한 너희가 땅을 제비로 나누어 기업으로 줄 때에, 주님께 성별된 땅의 일부를 드려야 한다. 그 길이는 이만 오천 레이드이고, 너비는 만 레이드이며, 그 경계 전체가 성결할 것이다.
- 2 이 안에서 성소를 위한 오백 레이드 오백 레이드의 정사각형 땅과, 그 주변에 오십 큐빗의 목초지를 두어야 한다.
- 3 이 치수로 길이 이만 오천 레이드와 너비 만 레이드를 재야 한다. 그 안에 가장 성결한 성소가 있어야 한다.
- 4 이것은 땅의 성별된 부분으로,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곧 주님을 섬기러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곳은 그들의 집터이자 성소의 성결한 땅이 될 것이다.
- 5 길이 이만 오천 레이드, 너비 만 레이드는 레위인, 곧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어질 것이며, 스무 칸을 위한 땅이 될 것이다.
- 6 “너는 성별된 땅과 마주하여 도시의 소유지를 너비 오천 레이드, 길이 이만 오천 레이드로 정해야 한다. 이 땅은 이스라엘 온 집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 7 “왕이 받을 땅은 성별된 땅과 도시의 소유지 양쪽에 위치할 것이며, 성별된 땅과 도시의 소유지 앞에, 서쪽에는 서쪽 끝까지, 동쪽에는 동쪽 끝까지 이어질 것이며, 그 길이는 한 부족의 분깃과 같아서 서쪽 경계에서 동쪽 경계까지 이어질 것이다.
- 8 이 땅은 그가 이스라엘에서 받을 소유가 될 것이다. 내 왕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을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 지파에 따라 땅을 이스라엘 집에 나누어 줄 것이다.
- 9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왕들아, 이만 하라! 폭력과 약탈을 그치고, 정의와 의로움을 실현하라! 내 백성을 빼앗는 일을 그치라!”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10 “너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바를 가져야 한다.
- 11 에바와 바는 같은 측정 단위가 되어야 한다. 바는 호머의 십분의 일이고, 에바도 호머의 십분의 일이다. 이들의 측정 단위는 호머와 같아야 한다.
- 12 세겔은 이십 게라이다. 이십 세겔과 스물다섯 세겔과 십오 세겔을 합쳐 너희의 미나로 삼아야 한다.
- 13 “이것이 너희가 드릴 제물이다. 밀 한 호머에서 에바의 육분의 일과, 보리 한 호머에서 에바의 육분의 일을 드려야 한다.
- 14 기름의 정해진 분량은, 코르에서 바의 십분의 일이다. 코르는 열 바와 같으니, 이는 호머와 같다. (열 바는 한 호머이다.)
- 15 또 이스라엘의 풍요로운 목초지에서 양 떼에서 이백 마리 중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드려야 한다. 이는 곡식 제물과 번제물과 화평제물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한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16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스라엘 왕을 위해 이 제물을 드려야 한다.
- 17 왕은 모든 정해진 축일과 월삭과 안식일에, 이스라엘 집의 모든 축일에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음료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는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죄 속죄 제물과 곡식 제물과 번제물과 화평제물을 준비해야 한다.
- 18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첫째 달 초하루에, 흠 없는 어린 수소를 잡아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
- 19 제사장은 죄 속죄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집의 문설주와 제단의 사면 난간의 네 모퉁이, 그리고 안뜰 문의 문설주에 바르고,
- 20 그리고 그 달 일곱째 날에는 잘못을 범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이와 같이 하여 성소를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 21 “첫째 달 열네째 날에는 유월절을 지켜 일곱 날 동안 축제를 열어야 한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 22 그 날에 왕은 자신과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하여 죄 속죄 제물로 수소를 준비해야 한다.
- 23 축제의 일곱 날 동안, 왕은 매일 주님께 번제물을 드려야 한다. 일곱 마리의 수소와 일곱 마리의 수양을 흠 없이 매일 드리고, 매일 죄 속죄 제물로 수염소를 드려야 한다.
- 24 왕은 곡식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 수소 한 마리당 에바 하나, 수양 한 마리당 에바 하나, 에바 하나당 힌 하나의 기름을 드려야 한다.
- 25 “일곱째 달 십오일에 축제 기간 동안 그는 이 일곱 날 동안 그와 같이 할 것이다. 그는 죄 제물과 번제물과 곡식 제물 및 기름을 같은 방식으로 준비할 것이다.”

에제키엘서 46장

- 1 '주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동쪽을 향한 안뜰의 문은 여섯 날의 일하는 날에는 닫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안식일과 월삭에는 열려야 한다.'
- 2 왕은 문 밖의 현관을 통해 들어와서 문 기둥 옆에 서야 한다. 사제들은 그의 번제와 화평제를 준비할 것이며, 그는 문 틀에서 경배할 것이다. 그 후 그는 나가지만, 문은 저녁까지 닫히지 않을 것이다.'
- 3 땅의 백성은 안식일과 월삭에 그 문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경배할 것이다.'
- 4 왕이 주님께 드리는 번제는 안식일에 드려야 한다.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수양 한 마리이다.'
- 5 그리고 그의 소제는 수양 하나에 에바 하나이며, 어린 양들에 대한 소제는 그가 줄 수 있는 대로 주고, 에바 하나에 힌 하나의 기름을 더할 것이다.'
- 6 월삭에는 흠 없는 젊은 수소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 수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다. 모두 흠 없어야 한다.'
- 7 그는 소제를 준비할 것이다. 수소 하나에 에바 하나, 수양 하나에 에바 하나, 어린 양들에 대해서는 그가 줄 수 있는 대로 주고, 에바 하나에 힌 하나의 기름을 더할 것이다.'
- 8 왕이 들어올 때에는 문의 현관을 통해 들어가고, 나갈 때에는 그 길로 나갈 것이다.'
- 9 '그러나 백성이 정해진 축일에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와 경배하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 것이다. 그는 들어온 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앞을 향해 직진하여 나갈 것이다.'
- 10 왕은 백성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가고, 백성이 나갈 때 함께 나갈 것이다.'
- 11 '축일과 정해진 명절에는 수소 하나에 에바 하나, 수양 하나에 에바 하나, 어린 양들에 대해서는 그가 줄 수 있는 대로 주고, 에바 하나에 힌 하나의 기름을 더할 것이다.'
- 12 왕이 자발적인 제물, 곧 주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번제나 화평제를 준비할 때에는 동쪽을 향한 문을 그를 위해 열어야 한다. 그는 안식일에 하듯이 자신의 번제와 화평제를 준비할 것이며, 그 후 나갈 것이다. 그가 나간 후에는 문을 닫을 것이다.'
- 13 '매일 아침, 주님께 드릴 번제로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 양 하나를 준비해야 한다. 아침마다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 14 매일 아침, 그와 함께 소제를 준비할 것이다. 에바의 여섯 분의 일과 힌의 삼분의 일의 기름을 고운 가루에 섞어 축축하게 할 것이며, 이것은 주님께 지속적으로 드리는 소제로,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 15 이처럼 그들은 아침마다 어린 양과 소제와 기름을 준비하여 지속적인 번제를 드릴 것이다.'
- 16 '주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왕이 자기 아들 중 한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그것은 그의 상속재산이 된다. 그 재산은 그의 아들들에게 속할 것이며, 그들의 상속재산이 될 것이다.'
- 17 그러나 왕이 자기 상속재산 중 하나를 자기 하인에게 선물로 주면, 그것은 그 하인이 자유의 해까지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 후에는 왕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상속재산은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 18 또한 왕은 백성의 상속재산을 빼앗아 그들을 자신의 소유에서 쫓아내지 말아야 한다. 그는 자기 소유에서 상속재산을 자기 아들들에게 주어야 하며, 내 백성이 각자 자신의 소유에서 흠어지지 않게 하라.'
- 19 그리고 나서 그는 문 옆의 입구를 통해 나를 이끌어 사제들을 위한 성소, 즉 북쪽을 향한 곳으로 데려갔다. 보라, 그 뒤쪽 서쪽에 한 공간이 있었다.'
- 20 그가 내게 말했다. "이곳은 사제들이 범죄 제물과 죄 제물을 끓이고, 소제를 굽는 곳이다. 그들은 이것들을 바깥 마당으로 가져가지 않아야 하며,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 21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바깥 마당으로 데려가서 마당의 네 구석을 지나게 하였다. 보라, 마당의 각 구석마다 작은 마당이 있었다.'
- 22 마당의 네 구석에는 사각형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당이 있었는데, 길이가 사십 큐빗, 너비가 삼십 큐빗이었다. 네 구석의 작은 마당은 모두 같은 크기였다.'
- 23 그 작은 마당들 사방에는 벽이 둘러져 있었고, 벽 아래 사방에 끓이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 24 그리고 나서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들이 바로 집의 봉사자들이 백성의 제물을 끓이는 끓는 집이다."

에제키엘서 47장

- 1 그가 나를 성전의 문으로 데려다주었다. 보라, 성전의 문지방 아래에서 동쪽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은 성전의 오른쪽, 제단의 남쪽에서 아래에서부터 흘러나왔다.
- 2 그가 나를 북쪽 문으로 데려가서 바깥쪽 길을 따라 동쪽을 향한 문으로 이끌었다. 보라, 물이 오른쪽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 3 그 남자가 손에 줄을 들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 큐빗을 재었고, 그가 나를 물속으로 통과하게 했다. 그 물은 발목까지 차 있었다.
- 4 그가 다시 천 큐빗을 재고, 나를 물속으로 통과하게 했다. 그 물은 무릎까지 차 있었다. 그가 다시 천 큐빗을 재고, 나를 물속으로 통과하게 했다. 그 물은 허리까지 차 있었다.
- 5 그 후 그가 다시 천 큐빗을 재었는데, 나는 그 물을 건널 수 없었다. 물이 불어나서 헤엄쳐야 할 정도가 되었고, 걸어갈 수 없는 강이 되었기 때문이다.
- 6 그가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아,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 7 내가 돌아서 보니, 강가 양쪽에 나무가 매우 많았다.
- 8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들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내려 아라바로 가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그 바다는 치유되어, 이 물들은 치유될 것이다."
- 9 강이 흐르는 모든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날 것이다. 물고기들이 매우 많아질 것이다. 이 물들이 그곳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바닷물도 치유되어, 강이 흐르는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 10 어부들이 그 강가에 서게 될 것이다. 에인게디에서 에인에글라임에 이르기까지 그물 펼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들의 물고기는 바다의 큰 물고기처럼 종류마다 많을 것이다.
- 11 그러나 그 강의 습지와 늪은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그곳은 소금으로 남을 것이다.
- 12 강가 양쪽에는 모든 식용 나무가 자랄 것이다. 그 잎은 마르지 않고, 그 열매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매달 새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먹을 것이고, 그 잎은 치유의 수단이 될 것이다.
- 13 주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따라 땅을 나누어 상속받을 경계가 될 것이다. 요셉은 두 몫을 받을 것이다."
- 14 너희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이다. 이 땅은 너희에게 상속될 것이다.
- 15 "이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북쪽은 큰 바다에서 헤슬론을 거쳐 세다드의 입구까지이다."
- 16 하마트, 베로타, 시브라임(이것은 다마스쿠스 경계와 하마트 경계 사이에 있다), 하자르 하티콘까지이다. 이것은 하란 경계에 있다.
- 17 바다에서부터의 경계는 다마스쿠스 경계의 하자르 에논이다. 북쪽으로는 하마트 경계가 있다. 이것이 북쪽 경계이다.
- 18 "동쪽 경계는 하란, 다마스쿠스,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다. 그것은 요르단 강이다. 북쪽 경계에서 동쪽 바다까지 재야 한다. 이것이 동쪽 경계이다."
- 19 "남쪽 경계는 남쪽으로 타마르에서부터 마리보트 카데스의 물까지, 시내를 거쳐 큰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이다."
- 20 "서쪽 경계는 큰 바다이다. 남쪽 경계에서 하마트의 입구 맞은편까지이다. 이것이 서쪽 경계이다."
- 21 "이러므로 너희는 이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들에 따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 22 너희는 그 땅을 제비로 나누어 너희와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타국인에게 상속으로 주어야 한다. 그들이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으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너희에게 속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너희와 함께 상속을 받을 것이다.
- 23 타국인이 거주하는 어떤 지파에든지, 그곳에서 너희는 그에게 상속을 주어야 한다." 주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에제키엘서 48장

- 1 “이제 이들은 지파들의 이름이다. 북쪽 끝에서 헤틀론 길을 따라 하마스 입구에 이르기까지, 하자 에난은 다마스쿠스 경계에 있으며, 하마스 옆 북쪽에 있다. (그들의 양쪽은 동쪽과 서쪽이 될 것이다.) 단이 하나의 몫을 얻는다.
- 2 “단의 경계를 따라 동쪽에서 서쪽까지, 아셀이 하나의 몫을 얻는다.
- 3 “아셀의 경계를 따라 동쪽에서 서쪽까지, 납탈리가 하나의 몫을 얻는다.
- 4 “납탈리의 경계를 따라 동쪽에서 서쪽까지, 므낫세가 하나의 몫을 얻는다.
- 5 “므낫세의 경계를 따라 동쪽에서 서쪽까지, 에브라임이 하나의 몫을 얻는다.
- 6 “에브라임의 경계를 따라 동쪽에서 서쪽까지, 르우벤이 하나의 몫을 얻는다.
- 7 “르우벤의 경계를 따라 동쪽에서 서쪽까지, 유다가 하나의 몫을 얻는다.
- 8 “유다의 경계를 따라 동쪽에서 서쪽까지, 너희가 바칠 예물이 있을 것이다. 너비는 이만 오천 레이드이고, 길이는 한 몫의 길이와 같아서 동쪽에서 서쪽까지이며, 성소가 그 가운데에 있다.
- 9 “너희가 주님께 바칠 예물은 길이 이만 오천 레이드, 너비 만 레이드가 될 것이다.
- 10 이 예물은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한 성물이다. 북쪽으로 이만 오천, 서쪽으로 만, 동쪽으로 만, 남쪽으로 이만 오천이다. 주님의 성소가 그 가운데에 있다.
- 11 이것은 사독의 자손 중 거룩하게 된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은 내 교훈을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이 타락할 때에 레위인처럼 빠져나가지 않았다.
- 12 이것은 레위인의 경계에 있는 예물 중 가장 성한 것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 13 “제사장의 경계를 따라 레위인은 길이 이만 오천 큐빗, 너비 만 큐빗을 얻는다. 전체 길이는 이만 오천, 너비는 만이다.
- 14 그들은 이것을 팔지도, 바꾸지도 않으며, 땅의 첫 열매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이는 주님께 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 15 “이만 오천에서 남은 너비의 오천 큐빗은 일반적인 용도를 위해, 곧 성읍과 거주지와 목초지로 쓰일 것이며, 성읍이 그 가운데에 있다.
- 16 이 성읍의 치수는 이러하다. 북쪽은 사천 오백, 남쪽은 사천 오백, 동쪽은 사천 오백, 서쪽은 사천 오백이다.
- 17 성읍에는 목초지가 있다. 북쪽으로 이백 오십, 남쪽으로 이백 오십, 동쪽으로 이백 오십, 서쪽으로 이백 오십이다.
- 18 성물의 옆에 있는 길이의 나머지는 동쪽으로 만, 서쪽으로 만이다. 이는 성물과 인접하며, 그 수확은 성읍에서 일하는 자들의 식량이 될 것이다.
- 19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온 성읍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것을 경작할 것이다.
- 20 모든 예물은 이만 오천 레이드의 정사각형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성물로 바치며, 성읍의 소유와 함께 드릴 것이다.
- 21 “남은 부분은 왕에게 주어질 것이다. 성물과 성읍의 소유 양쪽에 걸쳐, 예물의 이만 오천 앞쪽 동쪽 경계와, 서쪽 경계 앞쪽 이만 오천에 걸쳐, 몫들 옆에 왕이 가질 것이다. 성물과 성전의 성소가 그 가운데에 있다.
- 22 또한 레위인의 소유와 성읍의 소유는 왕의 영역 가운데에 있으며, 유다 경계와 베냐민 경계 사이에 왕에게 주어질 것이다.
- 23 “나머지 지파들은 이러하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베냐민이 하나의 몫을 얻는다.
- 24 “베냐민의 경계를 따라 동쪽에서 서쪽까지, 시므온이 하나의 몫을 얻는다.
- 25 시몬의 경계를 따라 동쪽에서 서쪽까지, 잇사갈이 한 몫을 얻는다.
- 26 잇사갈의 경계를 따라 동쪽에서 서쪽까지, 스불론이 한 몫을 얻는다.
- 27 스불론의 경계를 따라 동쪽에서 서쪽까지, 갓이 한 몫을 얻는다.
- 28 갓의 경계를 따라 남쪽으로, 남쪽 경계는 타마르에서 메리바 카데스의 물까지, 시내를 지나 큰 바다까지 이어진다.
- 29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제비로 나누어 주어 상속으로 주는 땅이며, 이것이 그들의 각 몫이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30 이 성의 문들은 다음과 같다. 북쪽 면에는 측량한 바 네 천 오백 리드이다.
- 31 성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며, 북쪽으로 세 문이 있다. 르우벤의 문 하나, 유다의 문 하나, 레위

의 문 하나이다.

³² 동쪽으로 네 천 오백 리드이며, 세 문이 있다. 요셉의 문 하나, 베냐민의 문 하나, 단의 문 하나이다.

³³ 남쪽으로 네 천 오백 리드이며, 세 문이 있다. 시몬의 문 하나, 잇사갈의 문 하나, 스불론의 문 하나이다.

³⁴ 서쪽으로 네 천 오백 리드이며, 세 문이 있다. 갓의 문 하나, 아셀의 문 하나, 납탈리의 문 하나이다.

³⁵ 이 성의 둘레는 만 팔천 리드이다. 그날부터 이 성의 이름은 ‘주님께서 거기 계신다’가 될 것이다.

다니엘서 | Daniel (Greek)

다니엘서 1장

- ¹ 유다 왕 여호야קים의 삼년에, 바빌론 왕 느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를 포위하였다.
- ² 주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קים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고, 하느님의 집에서 일부 그릇들도 함께 넘겨주셨다. 그는 그 그릇들을 신의 땅인 신나르 땅으로 옮겨, 자기 신의 집에 넣었다. 그는 그 그릇들을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가져다 넣었다.
- ³ 왕은 그의 내시장 아스펜아즈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왕실 후손과 귀족들 중 일부를 데려오게 하였다.
- ⁴ 그들은 몸에 결함이 없고, 외모가 아름답으며, 모든 지혜에 능하고, 지식을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며, 왕의 궁정에서 봉사할 능력을 지닌 젊은이들이어야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 ⁵ 왕은 그들에게 매일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주기로 정하고, 삼 년 동안 양육하게 하였다. 그 기간이 끝나면 그들이 왕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었다.
- ⁶ 이 중에는 유다 자손 중 다니엘, 하나니야,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다.
- ⁷ 내시장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다. 다니엘에게는 벨테사자르라 이름을 주었고, 하나니야에게는 산드락이라,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라, 아사랴에게는 아브드네고라 이름을 주었다.
- ⁸ 그러나 다니엘은 마음속으로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그는 내시장에게 자신이 더럽히지 않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하였다.
- ⁹ 하느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장 앞에서 은총과 자비를 얻게 하셨다.
- ¹⁰ 내시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내 주 왕이 당신의 음식과 음료를 정해 주셨으니, 내가 왕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당신들의 얼굴이 당신들과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못생긴 것을 보게 되면, 왕이 내 목을 빼앗을지도 모릅니다."
- ¹¹ 그러자 다니엘은 내시장이 다니엘, 하나니야, 미사엘, 아사랴를 감독하도록 임명한 집사에게 말하였다.
- ¹²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채소를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해 주십시오."
- ¹³ "그 후 우리 얼굴을 당신 앞에 보여 주고, 왕의 진미를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도 보여 주십시오.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처분하십시오."
- ¹⁴ 그러자 그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였다.
- ¹⁵ 열흘 후, 그들의 얼굴은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젊은이들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찼다.
- ¹⁶ 그러자 집사는 그들이 먹던 진미와 마시던 포도주를 빼앗고 채소를 주었다.
- ¹⁷ 이 네 젊은이들에게 하느님께서 모든 학문과 지혜에 대한 지식과 재능을 주셨다.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이해하는 능력을 얻었다.
- ¹⁸ 왕이 그들을 데려오기로 정한 기간이 끝나자, 내시장은 그들을 느부카드네자르 앞에 데려왔다.
- ¹⁹ 왕은 그들과 대화하였다. 그들 중에서 다니엘, 하나니야, 미사엘, 아사랴처럼 뛰어난 자는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섬기게 되었다.
- ²⁰ 왕이 그들에게 물어보는 모든 지혜와 이해에 관한 일에서, 그들은 왕의 온 나라에 있는 모든 마법사와 점쟁이보다 열 배나 뛰어났다.
- ²¹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원년까지 계속 섬겼다.

다니엘서 2장

- ¹ 네부카드네자르가 왕으로서 두 번째 해에, 네부카드네자르가 꿈을 꾸었고, 그의 마음이 괴로워하여 잠을 잊었다.
- ² 그때 왕은 마법사들과 주술사들과 마술사들과 갈대아인들을 불러서 그의 꿈을 알려 달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그들이 들어와 왕 앞에 서 있었다.
- ³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고 싶어 내 마음이 괴로워한다."
- ⁴ 그러자 갈대아인들이 아람어로 왕에게 말했다. "왕이여, 영원히 살아 계십시오! 왕의 종들에게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해석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 ⁵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했다. "그 일이 내게서 떠났다. 너희가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지 않으면, 너희는 조각나고, 너희 집들은 분노더미가 될 것이다."
- ⁶ 그러나 너희가 꿈과 그 해석을 보여 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보상과 큰 영광을 주겠다. 그러므로 내게 꿈과 그 해석을 알려 주어라."
- ⁷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말했다. "왕이 종들에게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해석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 ⁸ 왕이 대답했다. "내가 분명히 알지만, 너희는 시간을 끌려고 한다. 그 일이 내게서 떠났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 ⁹ 그러나 너희가 내게 꿈을 알려 주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한 가지 법밖에 없다. 너희는 거짓과 부패한 말을 내 앞에서 말하려고 미리 준비해 놓았다. 그러므로 내게 꿈을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그 해석을 보여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겠다."
- ¹⁰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했다. "땅 위에 왕의 일을 알려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왕이나 주나 통치자도 마법사나 주술사나 갈대아인에게 이런 일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¹¹ 왕이 요구하는 이 일은 드문 일입니다. 이 일을 왕 앞에 보여 줄 수 있는 자는 신들뿐입니다. 그 신들의 처소는 육체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 ¹² 이 때문에 왕은 분노하고 격노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 ¹³ 그래서 명령이 내려져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죽임을 당하려고 찾았다.
- ¹⁴ 그때 다니엘은 현명하고 신중하게 아리옥, 즉 왕의 경비대장에게 대답했다. 그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려고 했던 자였다.
- ¹⁵ 그가 왕의 경비대장 아리옥에게 말했다. "왜 왕의 명령이 이토록 급한가?" 그러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 주었다.
- ¹⁶ 다니엘은 들어가 왕에게 청하여 그에게 시간을 주기를 구했고, 그가 왕에게 해석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 ¹⁷ 그러자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의 동료인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려 주었고,
- ¹⁸ 그들이 하늘의 하느님께 이 비밀에 관해 자비를 구하게 하여,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해 달라고 간구하게 하였다.
- ¹⁹ 그러자 밤의 환상 속에서 그 비밀이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다. 그때 다니엘은 하늘의 하느님을 찬양했다.
- ²⁰ 다니엘이 말했다. "하느님의 이름이 영원히, 영원히 찬양받으소서.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습니다."
- ²¹ 그분은 시대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십니다. 그분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해하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 ²² 그분은 깊고 은밀한 일을 계시하시며,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빛은 그분과 함께 거합니다."
- ²³ 내 조상들의 하느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당신께 구한 것을 지금 내게 알려 주셨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왕의 일을 알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 ²⁴ 그러므로 다니엘은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도록 왕이 임명한 아리옥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했다.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왕 앞에 데려가십시오. 내가 왕에게 해석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 ²⁵ 아리옥은 즉시 다니엘을 왕 앞에 데려왔으며, 왕에게 말했다. "나는 유다 포로 중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는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 26 왕은 벨테사자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네가 내가 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려줄 수 있느냐?"
- 27 다니엘은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했다. "왕이 요구한 비밀은 현자들과 주술사들과 마법사들과 점쟁이들이 왕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 28 하지만 하늘에 비밀을 밝히시는 하느님이 계시며, 그분은 느부카드네자르 왕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왕이 침상에서 본 꿈과 머리 속의 환상은 이러합니다:
- 29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잠들었을 때, 장차 일어날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 왕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 30 "그러나 나에게 이 비밀이 밝혀진 것은 나에게 다른 살아 있는 자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왕에게 해석을 알려주고 왕이 마음속에 생각한 것을 알게 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 31 "왕이여, 왕은 보았습니다. 보라, 거대한 상이 있었습니다. 이 상은 매우 크고, 그 광채는 뛰어났으며, 왕 앞에서 있었고, 그 모습은 무서웠습니다."
- 32 "이 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허벅지는 동으로,"
- 33 "다리들은 철로,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 34 "왕은 손으로 깎이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상의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을 치고 그것을 부수는 것을 보았습니다."
- 35 "그때 철과 진흙과 동과 은과 금이 모두 함께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쪽정이처럼 되었습니다. 바람이 그것을 쓸어가서, 그가 돌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 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 36 "이것이 꿈입니다. 우리가 왕 앞에서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37 "왕이여, 왕은 왕들 중의 왕입니다. 하늘의 하느님이 왕에게 왕국과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 38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그분은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으며, 모든 것을 왕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왕은 바로 그 금의 머리입니다."
- 39 "왕 이후에 또 다른 왕국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왕보다 열등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온 땅을 다스릴 동의 왕국이 생깁니다."
- 40 "네 번째 왕국은 철처럼 강할 것입니다. 철은 모든 것을 부수고 굴복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치 철이 이것들을 모두 부수고 짓밟듯이, 그 왕국도 이것들을 부수고 짓밟을 것입니다."
- 41 "왕이 발과 발가락을 받은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반은 철이라고 보았으므로, 그 왕국은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철이 진흙에 섞인 것을 보았으므로, 그 안에는 철의 힘이 있을 것입니다."
- 42 "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듯이, 그 왕국은 부분적으로는 강하고 부분적으로는 부서지기 쉬울 것입니다."
- 43 "왕이 철이 진흙에 섞인 것을 보았으므로, 그들은 사람의 씨와 섞이겠지만, 서로 결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않듯이 말입니다."
- 44 "그 왕들이 있을 때, 하늘의 하느님이 결코 멸망하지 않고, 다른 백성에게도 넘겨주지 않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왕국은 이 모든 왕국을 부수고 소멸시킬 것이며,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 45 "왕이 산에서 손으로 깎이지 않은 돌이 나와서 철과 동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대하신 하느님이 왕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꿈은 확실하고, 그 해석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 46 그때 느부카드네자르 왕은 얼굴을 땅에 대고 다니엘을 숭배하며, 그에게 제물과 향을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 47 왕은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진실로 너희의 하느님은 하느님들 중의 하느님이시며, 왕들 중의 주님이시며,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시다. 이 비밀을 밝혀낸 것이 바로 너희 때문이니."
- 48 그때 왕은 다니엘을 높이고 많은 큰 선물을 주었으며, 바빌론 전체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빌론의 모든 현자들의 우두머리로 임명했다.
- 49 다니엘은 왕에게 청하여 산드라크, 메삭, 아베드네고를 바빌론 지방의 일에 임명하게 했고, 다니엘은 왕의 문에 머물렀다.

다니엘서 3장

- 1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높이가 육십 큐빗이고 폭이 여섯 큐빗인 금으로 된 우상을 만들었다. 그는 이를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원에 세웠다.
- 2 그러자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총독들과 부총독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지휘관들과 모든 지방의 통치자들을 불러 모아,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우상의 봉헌식에 참석하게 했다.
- 3 그러자 총독들과 부총독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지휘관들과 모든 지방의 통치자들이 모여,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우상의 봉헌식에 참석하였고, 그들은 네부카드네자르가 세운 우상 앞에 서 있었다.
- 4 그때 나팔수는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 민족과 나라들과 언어를 가진 자들아,
- 5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거문고와 하프와 관악기와 모든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일제히 엎드려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금 우상을 숭배하라.
- 6 그러나 엎드려 숭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화로 속에 던져지리라."
- 7 그러므로 그때 모든 민족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거문고와 하프와 관악기와 모든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으니, 모든 민족과 나라들과 언어를 가진 자들이 일제히 엎드려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금 우상을 숭배하였다.
- 8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아와 유다인들을 고발하였다.
- 9 그들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왕님, 영원히 살아 계십시오!
- 10 왕님,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거문고와 하프와 관악기와 모든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금 우상을 숭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 11 그러나 엎드려 숭배하지 않는 자는 불타는 화로 속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 12 왕님이 바빌론 지방의 일에 임명하신 유다인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님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님이 세운 금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 13 그러자 네부카드네자르는 분노와 격노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왕 앞에 끌려왔다.
- 14 네부카드네자르가 그들에게 말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의도적인가?
- 15 지금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거문고와 하프와 관악기와 모든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우상에 엎드려 숭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좋다. 그러나 숭배하지 않으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화로 속에 던져질 것이다.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누구냐?"
-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다. "네부카드네자르야, 이 일에 관해 우리가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 17 우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서는 불타는 화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왕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 18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왕님, 우리가 왕님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님이 세운 금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19 그러자 네부카드네자르는 격노로 가득 차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는 명령하여 화로를 보통보다 일곱 배 더 뜨겁게 달구라고 하였다.
- 20 그는 자신의 군대 안의 강한 자들을 불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불타는 화로 속에 던지라고 명령하였다.
- 21 그러자 이 사람들은 바지와 속옷과 겹옷과 다른 옷을 입은 채 묶여 불타는 화로 속에 던져졌다.
- 22 왕의 명령이 급했고 화로가 매우 뜨거웠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간 자들이 불꽃에 타 죽었다.
- 23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묶인 채 불타는 화로의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 24 그들은 불 속을 거닐며 하느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미하였다.
- 25 그때 아자리아가 일어나 이렇게 기도하였다. 그는 불가운데서 입을 열고 말하였다,
- 26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 당신은 영원히 찬양받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 27 당신이 하신 모든 일에서 당신은 의로우시며, 모든 당신의 행위는 진실하고, 당신의 길은 옳바르며, 모든 당신의 판단은 진리입니다.
- 28 당신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성읍, 예루살렘에 내리신 모든 일에서 당신은 진리의 판단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은 진리와 공의에 따라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 29 우리는 죄를 지었고, 당신을 떠나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 30 우리는 모든 일에서 범죄하였고, 당신의 명령을 듣지 않았으며,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 31 그러므로 당신이 우리에게 내리신 모든 일과 당신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진리의 판단이었습니다.
- 32 당신은 우리를 불법적인 원수, 가장 미워할 만한 반역자들과, 전 세계에서 가장 악한 불의한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 33 이제 우리는 입을 열지 못합니다. 수치와 모욕이 당신의 종들과 당신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닥쳤습니다.
- 34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언약을 폐기하지 마십시오.
- 35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당신의 성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 36 당신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들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들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 37 주님, 우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아졌고, 오늘날 우리 죄로 인해 전 세계에서 낮아졌습니다.
- 38 이제 우리에게는 족장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지도자도 없으며, 번제도 없고, 희생제물도 없고, 예물도 없고, 향도 없고, 당신께 나아가서 자비를 구할 장소도 없습니다.
- 39 그러나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정신으로 당신께 받아들여지기를 간청합니다,
- 40 수양과 황소의 번제와, 만 마리의 살진 어린 양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제물이 당신 앞에 올라가게 하여, 우리가 온전히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 41 이제 우리는 온 마음으로 당신을 따릅니다. 우리는 당신을 두려워하며,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 42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자비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를 대하소서.
- 43 당신의 놀라운 일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 당신의 종들을 해치는 자들이 모두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 44 그들이 자신의 모든 힘과 권능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그들의 힘이 무너지게 하소서.
- 45 그들이 당신이 유일하신 주님, 전 세계를 초월하여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 46 그들을 불에 던진 왕의 하인들은 나프타, 타르, 부싯돌, 작은 나무로 화로를 계속 뜨겁게 달구었으며,
- 47 불꽃이 화로 위로 사십구 큐빗이나 치솟았습니다.
- 48 불꽃이 퍼져 화로 주변에 있던 갈대아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 49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아자리아와 그의 동료들과 함께 불길 속으로 내려와 불의 불꽃을 끄고,
- 50 불길의 한가운데를 마치 습기 있는 바람처럼 만들어서, 불이 그들을 전혀 만지지 못하게 하였다. 불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괴롭히지도 않았다.
- 51 그러자 세 사람이 한 입으로 불길 속에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느님을 축복하며 말하였다,
- 52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 당신은 영원히 찬양받고 높이 들려야 할 분이시며, 복되십니다!
- 53 당신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이름은 영원히 찬양받고 높이 들려야 하며, 복되십니다!
- 54 당신의 거룩한 영광의 성전 안에서 당신은 영원히 찬양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며, 복되십니다!
- 55 깊은 곳을 보시고 그룹들 위에 앉으시는 분, 당신은 영원히 찬양받고 높이 들려야 하며, 복되십니다!
- 56 당신의 왕국의 보좌 위에 앉으신 분, 당신은 영원히 찬양받고 높이 칭송되어야 하며, 복되십니다!
- 57 하늘의 궁창 위에 계신 분, 당신은 영원히 찬양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며, 복되십니다!
- 58 주님의 모든 사물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 들라!
- 59 하늘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 들라!
- 60 주님의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 들라!

- 61 하늘 위의 모든 물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 들라!
- 62 주님의 모든 힘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 들라!
- 63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 들라!
- 64 하늘의 모든 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 들라!
- 65 비와 이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 들라!
- 66 모든 바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 들라!
- 67 불과 열기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 들라!
- 68 이슬과 눈보라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 들라!
- 69 밤과 낮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 들라!
- 70 빛과 어둠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 들라!
- 71 추위와 더위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 들라!
- 72 서리와 눈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 들라!
- 73 번개들과 구름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모든 것 위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 들어라!
- 74 땅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모든 것 위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 들어라!
- 75 산들과 언덕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모든 것 위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 들어라!
- 76 땅 위에 자라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모든 것 위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 들어라!
- 77 바다와 강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모든 것 위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 들어라!
- 78 샘들과 우물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모든 것 위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 들어라!
- 79 고래들과 물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모든 것 위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 들어라!
- 80 하늘의 모든 새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모든 것 위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 들어라!
- 81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모든 것 위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 들어라!
- 82 사람들의 자녀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모든 것 위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 들어라!
- 83 이스라엘이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모든 것 위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 들어라!
- 84 주님의 사제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모든 것 위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 들어라!
- 85 주님의 종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모든 것 위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 들어라!
- 86 의로운 자들의 영과 영혼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모든 것 위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 들어라!
- 87 마음이 겸손하고 거룩한 자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모든 것 위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 들어라!
- 88 하나니야와 미사엘과 아자리야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모든 것 위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 들어라! 그분이 우리를 음부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그분이 우리를 불타는 화로와 불꽃의 한가운데에서 건져내셨고, 불의 한가운데에서 구원하셨다.
- 89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다.
- 90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아, 하느님들의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여라.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다!
- 91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놀라서 재빨리 일어났다. 그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불 속 한가운데에 묶인 세 사람을 던져넣지 않았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왕이여."
- 92 그가 말했다. "보라, 나는 네 사람이 풀려서 불 속 한가운데를 걷는 것을 본다. 그들은 다치지 않았고,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하느님의 아들처럼 보인다."
- 93 그러자 네부카드네자르는 불타는 화로의 입구에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가장 높으신 하느님의 종들이여, 나에게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 한가운데에서 나왔다.
- 94 지방 관리들과 부관들과 총독들과 왕의 신하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들의 몸에 아무 힘도 없었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타지 않았고, 그들의 옷은 변하지 않았으며, 불의 냄새조차 그들에게 묻지 않았다.
- 95 네부카드네자르가 말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느님은 찬미받으실지이다. 그분이 자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을 신뢰한 종들을 구원하시고, 왕의 명령을 바꾸시며, 그들의 몸을 바쳐서 자기 하느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게 하셨도다."

⁹⁶ 그러므로 나는 명령을 내린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하느님을 헐뜯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해체되어 그들의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지어다. 이처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⁹⁷ 그러자 왕은 산드라크와 메삭과 아베드네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승진시켰다.

다니엘서 4장

- 1 나는 네부카드네자르 왕이니, 온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평화가 더해지기를.
- 2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표징과 기적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 3 그분의 표징은 얼마나 위대하며, 그분의 기적은 얼마나 위력적인가!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그분의 통치는 세대에서 세대까지 이어진다.
- 4 나, 네부카드네자르는 내 집에서 평안히 지내며 내 궁전에서 번성하고 있었다.
- 5 나는 두려움을 주는 꿈을 보았고, 내 침상에서의 생각과 머리 속의 환상들이 나를 괴롭혔다.
- 6 그래서 나는 바빌론의 모든 현자들을 내 앞에 불러들여 내 꿈의 해석을 알려주게 하였다.
- 7 그러자 마술사들과 주술사들과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이 들어왔고, 나는 그들 앞에서 꿈을 말했으나, 그들은 그 해석을 알려주지 못했다.
- 8 그러나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벨테사스아르, 곧 내 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며,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 9 "벨테사스아르,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여, 내가 알기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에게 있고, 어떤 비밀도 너를 괴롭히지 않으니, 내가 본 내 꿈의 환상과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어라."
- 10 내가 침상에서 본 환상은 이러하였다. 내가 보니, 땅 한가운데에 나무가 있었고, 그 높이가 매우 컸다.
- 11 그 나무는 자라서 튼튼해졌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고, 그 시야는 땅 끝까지 미쳤다.
- 12 그 잎은 아름답고, 그 열매는 풍성하여 모든 이에게 먹을 것이 되었다. 들의 짐승은 그 아래에 그늘을 삼았고, 하늘의 새들은 그 가지에 살았으며, 모든 육체가 그것에서 먹었다.
- 13 "내가 침상에서 본 환상에서, 보라, 하늘에서 한 지킴이와 거룩한 이가 내려왔다."
- 14 그가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나무를 베어 버리고, 그 가지를 끊어라! 그 잎을 흔들어 떨어뜨리고, 그 열매를 흠어라! 들의 짐승은 그 아래서 떠나고, 하늘의 새들은 그 가지에서 떠나라."
- 15 그러나 땅에 그 뿌리의 줄기를 남겨두어라. 철과 동으로 둘러싸고, 풀이 무성한 들판에 두어라. 하늘의 이슬로 그를 적시고, 그 몫을 들의 짐승과 함께 들판의 풀에서 누리게 하라.
- 16 그 마음을 사람의 마음에서 바꾸어 동물의 마음을 주어라. 일곱 번이 그 위를 지나가게 하라.
- 17 "이 판결은 지킴이들의 명령이며, 이 요구는 거룩한 이들의 말이며, 살아 있는 자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나 그것을 주시며, 가장 낮은 자를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 18 "나,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이 꿈을 보았으니, 벨테사스아르여, 내 왕국의 모든 현자들이 내게 그 해석을 알려줄 수 없으니, 너는 할 수 있으니,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에게 있기 때문이다."
- 19 그러자 그의 이름이 벨테사스아르인 다니엘이 잠시 말을 잃고, 그의 생각이 괴로워하였다. 왕이 말했다. "벨테사스아르여, 꿈이나 그 해석이 너를 괴롭히지 않게 하라." 벨테사스아르가 대답했다. "내 주여, 꿈은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그 해석은 당신의 원수들을 위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 20 당신이 보신 나무는 자라서 튼튼해졌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고, 그 시야는 온 땅에 미쳤습니다.
- 21 그 잎은 아름답고, 그 열매는 풍성하여 모든 이에게 먹을 것이 되었으며, 들의 짐승은 그 아래에 살고, 하늘의 새들은 그 가지에 머물렀습니다.
- 22 이 나무는 바로 당신, 왕이십니다. 당신은 자라서 강해졌고, 당신의 위대함은 하늘에 닿고, 당신의 통치는 땅 끝까지 미쳤습니다.
- 23 "왕이 하늘에서 한 지킴이와 거룩한 이가 내려와 말하기를, '나무를 베어 버리고, 그것을 파괴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줄기를 땅에 남겨두어라. 철과 동으로 둘러싸고, 풀이 무성한 들판에 두어라. 하늘의 이슬로 그를 적시고, 그 몫을 들의 짐승과 함께 있게 하라. 일곱 번이 그 위를 지나가기 전까지.'라고 하신 것을 보셨습니다."
- 24 "이것이 그 해석입니다, 왕이여. 이것은 내 주 왕에게 내려진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명령입니다."
- 25 당신은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들의 짐승들과 함께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소처럼 풀을 먹게 되고, 하늘의 이슬에 젖게

될 것이며, 일곱 번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장 높으신 분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나 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입니다.

²⁶ 나무의 뿌리 줄기를 남겨두라는 명령은, 당신이 하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야 비로소 당신의 왕국이 당신에게 확실히 돌아올 것임을 의미합니다.

²⁷ 그러므로 왕이여, 내 조언을 받아들이시고, 의로움으로 당신의 죄를 끊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당신의 불의를 없애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평안이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²⁸ 이 모든 일이 나부갓네살 왕에게 닥쳤습니다.

²⁹ 열두 달이 지나고 나서, 그는 바빌론의 왕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³⁰ 왕이 말하며 이르기를, "이 위대한 바빌론이 내 힘과 내 권능으로 건설하여 내 왕실의 거처로 삼은 것이 아니냐?"

³¹ 왕이 말을 마치려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나부갓네살 왕이여, 네게 말하노니, 왕국이 네게서 떠났다.

³² 당신은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들의 짐승들과 함께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이 지나갈 것이며, 그러다가 가장 높으신 분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나 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³³ 그때 바로 그 시각에 나부갓네살에게 이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었고, 그의 몸은 하늘의 이슬에 젖었으며, 그의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라고, 그의 발톱은 새의 발톱처럼 되었습니다.

³⁴ 그 날들이 끝나고 나서, 나, 나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고, 내 지성이 내게 돌아왔으며, 나는 가장 높으신 분을 찬양하고,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미하고 존경하였습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며, 그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기까지입니다.

³⁵ 땅의 모든 주민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는 하늘의 군대와 땅의 주민들 가운데서 자기 뜻대로 행하시며, 그의 손을 막을 자도 없고,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자도 없습니다.

³⁶ 그때 내 지성이 내게 돌아왔고, 내 왕국의 영광과 위엄과 광채가 내게 돌아왔습니다. 내 조언자들과 귀족들이 나를 찾았고, 나는 내 왕국에 다시 앉게 되었으며, 내게 뛰어난 위대함이 더해졌습니다.

³⁷ 이제 나, 나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존경합니다. 그의 모든 일은 옳고, 그의 길은 공정하며, 교만하게 걷는 자들을 그는 낮추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 ¹ 벨사자르 왕은 그의 영주 천 명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천 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셨다.
- ² 벨사자르가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 느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의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왕과 그의 영주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 그릇들에서 마시게 하였다.
- ³ 그러자 그들은 하느님의 집, 곧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들을 가져왔고, 왕과 그의 영주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 그릇들에서 마셨다.
- ⁴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며, 금과 은과 청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 ⁵ 그때 같은 시각에, 한 남자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 벽의 석고에 등불 가까이에 글을 썼다. 왕은 글을 쓰는 손의 부분을 보았다.
- ⁶ 그러자 왕의 얼굴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괴로워졌으며, 그의 허벅지 관절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 ⁷ 왕은 큰 소리로 마법사들과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였다. 왕이 말하여 바빌론의 현자들에게 이르기를,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여주는 자는 자홍색 옷을 입고, 목에 금 사슬을 걸며, 왕국에서 세 번째 통치자가 되리라." 하였다.
- ⁸ 그러자 왕의 모든 현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은 글을 읽지 못하고 왕에게 그 해석을 알릴 수 없었다.
- ⁹ 그러자 벨사자르 왕은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의 얼굴이 변하고, 그의 영주들은 혼란스러워하였다.
- ¹⁰ 왕과 그의 영주들의 말을 듣고 왕비가 잔치 집에 들어왔다. 왕비가 말하여 이르기를, "왕이여, 영원히 살아계소서. 당신의 생각이 괴로워하지 말고, 당신의 얼굴이 변하지 않게 하소서."
- ¹¹ 당신 왕국 안에 성스러운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 시대에 그 사람 안에 빛과 통찰력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느부카드네자르 왕, 곧 당신 아버지 왕이 그를 마법사들과 점쟁이들과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세웠습니다.
- ¹² 이것은 그 다니엘 안에 탁월한 영과 지식과 통찰력과 꿈의 해석과 어두운 말의 해석과 의심의 해소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그를 벨테사자르라 이름지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오십시오. 그가 그 해석을 보여줄 것입니다.
- ¹³ 그러자 다니엘이 왕 앞에 끌려왔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의 자손 다니엘인가?"
- ¹⁴ 나는 네가 신들의 영이 너 안에 있고, 빛과 통찰력과 탁월한 지혜가 너 안에 있음을 들었다.
- ¹⁵ 지금 나는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려고 현자들과 마법사들을 내 앞에 불러왔으나, 그들은 이 일의 해석을 보여줄 수 없었다.
- ¹⁶ 그러나 나는 네가 해석을 내리고 의심을 풀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린다면, 자홍색 옷을 입고, 목에 금 사슬을 걸며, 왕국에서 세 번째 통치자가 되리라.
- ¹⁷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선물은 당신에게 두고, 당신의 보상은 다른 이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왕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¹⁸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당신 아버지 느부카드네자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엄을 주셨습니다.
- ¹⁹ 그가 그에게 주신 위엄 때문에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자를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자를 일으키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낮추었습니다.
- ²⁰ 그러나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의 영이 완악해져서 자랑스럽게 행동하자, 그는 왕좌에서 쫓겨났고, 그의 영광이 빼앗겼습니다.
- ²¹ 그는 인간의 자녀들로부터 쫓겨나고, 그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과 같아졌으며, 그의 거처는 야생 당나귀들과 함께되었습니다. 그는 소처럼 풀을 먹었고, 그의 몸은 하늘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원하시는 자를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알 때까지 그랬습니다.
- ²² "당신, 그의 아들 벨사자르여,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 ²³ 오히려 하늘의 주님을 대적하여 마음을 높였습니다. 그분의 성전 그릇들이 당신 앞에 가져와졌고, 당신과 당신의 영주들

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 그릇들에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당신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은과 금과 청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으나, 당신의 숨결과 당신의 모든 길이 그분의 손에 있는 하느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²⁴ 그러므로 그분의 앞에서 손의 일부가 보내져서 이 글이 새겨졌습니다.

²⁵ "이것이 쓰인 글이다: '미네, 미네, 테켈, 우파르신.'"

²⁶ "이것이 그 뜻의 해석이다: 미네—하느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계산하시어 끝내셨다."

²⁷ "테켈—당신은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났다."

²⁸ "퍼레스—당신의 왕국은 나뉘어 메디아인과 페르시아인에게 주어질 것이다."

²⁹ 그러자 벨사살은 명령하여 다니엘을 자주색 옷으로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며, 그를 왕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통치자로 선포하였다.

³⁰ 그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³¹ 메디아의 다리우스가 왕국을 받았는데, 그는 약 육십이 살이었다.

다니엘서 6장

- 1 다리오스는 왕국 전체에 일백 이십 명의 지방 총독을 두어 다스리기를 기뻐하였다.
- 2 그 위에 세 명의 총재를 두었는데, 그 중 한 명은 다니엘이었다. 이는 지방 총독들이 그들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왕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 3 그때 다니엘은 총재들과 지방 총독들 위에 뛰어났다. 그에게 훌륭한 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왕은 그를 온 왕국 위에 세우려고 생각하였다.
- 4 그러자 총재들과 지방 총독들은 왕국과 관련하여 다니엘을 공격할 구실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어떤 구실이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어떤 잘못이나 허물도 발견되지 않았다.
- 5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다니엘을 공격할 구실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그의 하느님의 법과 관련하여서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6 그러자 총재들과 지방 총독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왕 다리오스여, 영원히 살아계소서."
- 7 왕국의 모든 총재들과 부총재들과 지방 총독들과 자문관들과 총독들이 모여서, 왕에게 명령을 내리고 강력한 법령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즉, 삼십 일 동안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간청하는 자는, 왕이신 당신을 제외하고는, 사자 굴에 던져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 8 이제 왕이여, 이 법령을 확정하시고 서명하여 주소서.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이 법령은 결코 변경되지 않게 하소서.
- 9 그러므로 왕 다리오스는 이 법령과 명령에 서명하였다.
- 10 다니엘이 그 법령이 서명되었음을 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그의 방 창문은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 있었다), 하루 세 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전처럼 하느님 앞에서 감사하였다.
- 11 그러자 그들은 모여 다니엘이 하느님 앞에서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 12 그들은 왕 앞으로 나아가 왕의 법령에 관해 말하였다. "왕이여, 당신이 삼십 일 동안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간청하는 자는, 당신을 제외하고는 사자 굴에 던져지게 한다고 법령을 서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결코 변경되지 않습니다."
- 13 그러자 그들은 왕 앞에서 대답하였다. "유다 포로에서 나온 다니엘이, 왕이여, 당신과 당신이 서명한 법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 세 번 간청하고 있습니다."
- 14 왕이 이 말을 듣고 매우 슬퍼하였고, 다니엘을 구출하려고 마음을 굳히었다. 그는 해가 지기까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애쓰었다.
- 15 그러자 그들은 다시 왕 앞으로 모여 왕에게 말하였다. "왕이여,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왕이 세운 어떤 법령이나 명령도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 16 그러자 왕은 명령하여 다니엘을 데려오게 하고, 사자 굴에 던지게 하였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느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 17 돌이 가져와서 굴 입구에 놓였고, 왕은 자신의 인장과 그의 귀족들의 인장을 그 위에 봉인하여, 다니엘에 관한 것이 아무 것도 변경되지 않게 하였다.
- 18 그 후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 그 밤을 금식하며 보냈다. 그 앞에 음악이 가져오지 않았고, 그의 수면은 떠나갔다.
- 19 그러나 아침 일찍 왕이 일어나 사자 굴로 빠르게 갔다.
- 20 그가 다니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외쳤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 살아 계신 하느님의 종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느님이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원할 수 있는가?"
- 21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였다. "왕이여, 영원히 살아계소서."
- 22 내 하느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닫아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죄가 없었고, 왕이여, 당신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 23 그러자 왕은 매우 기뻐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다니엘이 굴에서 끌어올려졌고, 그에게

는 아무런 해도 없었다. 그가 자신의 하느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²⁴ 왕은 명령하여, 다니엘을 고발한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아내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지게 하였다. 사자들이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의 모든 뼈를 부수어 버렸다.

²⁵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에게 쓰기를, "평화가 너희에게 더해지기를."

²⁶ "내가 명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지경에서 사람들이 다니엘의 하느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 계신 하느님이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멸망되지 않을 것이며, 그의 통치는 끝까지 이르리라."

²⁷ 그는 구원하고 건지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며, 다니엘을 사자들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신 분이시다."

²⁸ 이처럼 다니엘은 다리오의 통치 시대와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통치 시대에 번영하였다.

다니엘서 7장

- 1 바빌론 왕 벨사살의 첫째 해에, 다니엘은 침대 위에서 꿈과 환상을 보았다. 그는 그 꿈을 기록하고 그 내용의 요점을 말하였다.
- 2 다니엘은 말하였다. "나는 밤에 환상 속에서 보았다. 보라,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부딪쳤다."
- 3 큰 바다에서 네 마리의 큰 짐승이 올라왔는데, 서로 달랐다.
- 4 "첫째 짐승은 사자 같았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다. 나는 그 날개가 뽑히고, 땅에서 들어 올려져 두 발로 사람처럼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에게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 5 "보라, 둘째 짐승이 곰 같았다. 그것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 세 개의 갈비뼈가 있었다. 그들이 그것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 6 "이후에 나는 보았다. 보라, 또 다른 짐승이 표범 같았다.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네 개가 있었고, 그 짐승은 머리가 네 개였으며, 그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
- 7 "이후에 나는 밤의 환상 속에서 보았다. 보라, 넷째 짐승이 있었는데, 끔찍하고 강력하며 매우 강했다. 그것은 큰 철 이빨을 가졌고, 먹어치우고 부수며 잔여물을 발로 밟았다. 그것은 그 이전의 모든 짐승과 달랐고, 열 개의 뿔이 있었다."
- 8 "나는 그 뿔들을 생각해 보았다. 보라, 그들 사이에 작은 뿔이 하나 더 생겼고, 그 앞에서 첫째 뿔 세 개가 뿌리째 뽑혔다. 그리고 이 뿔에는 사람의 눈처럼 눈이 있었고, 큰 일을 말하는 입이 있었다."
- 9 "나는 보았다. 보라, 의자들이 놓였고,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다. 그의 옷은 눈처럼 희었고, 그의 머리카락은 순수한 양털 같았다. 그의 의자는 불꽃처럼 타올랐고, 그 바퀴는 타는 불이었다."
- 10 불꽃의 강이 그 앞에서 흘러나왔다. 수천만이 그를 섬기고, 수억만이 그 앞에 서 있었다. 재판이 벌어졌고, 책들이 펼쳐졌다.
- 11 "나는 그 뿔이 말하는 큰 말소리 때문에 그때를 지켜보았다. 나는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몸이 파괴되어 불에 타는 것을 보았다."
- 12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통치권을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일정한 기간과 때까지 연장되었다.
- 13 "나는 밤의 환상 속에서 보았다.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께 나아가, 그 앞에 데려왔다."
- 14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그를 섬기리라. 그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의 왕국은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 15 "나 다니엘은 내 몸 안에서 마음이 근심하고, 내 머리의 환상들이 나를 괴롭혔다."
- 16 나는 곁에 서 있는 이 중 하나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 모든 일의 진실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여 이 일들의 해석을 알려주었다.
- 17 "이 네 마리의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 18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왕국을 받고, 영원히, 영원히 그 왕국을 소유할 것이다."
- 19 "그러나 나는 넷째 짐승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매우 무서웠고, 그 이빨은 철이었고, 그 발톱은 놋이었으며, 먹어치우고 부수며 잔여물을 발로 밟았다."
- 20 그리고 그 머리의 열 개의 뿔과, 그 뒤에 일어나서 세 개의 뿔을 쓰러뜨린 다른 뿔, 즉 사람의 눈처럼 눈이 있고, 큰 일을 말하는 입이 있으며, 그 동료들보다 더 교만한 눈빛을 가진 뿔에 대해 알고 싶었다.
- 21 나는 보았다.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겼다.
- 22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시기까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재판이 주어졌고, 성도들이 왕국을 소유할 때가 이르렀다.
- 23 "그가 말하였다. "넷째 짐승은 땅 위의 넷째 왕국이 될 것이며,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먹어치우고, 밟아 부수며, 산산조각 낼 것이다.""
- 24 "열 개의 뿔은 이 왕국에서 일어날 열 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는 이전의 왕들과 달라서, 세 왕을

쓰러뜨릴 것이다."

²⁵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향해 반역하는 말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는 시기와 법을 바꾸려 꾸밀 것이며, 그들은 그의 손에 넘겨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머물 것이다.

²⁶ "그러나 심판이 벌어져 그의 권세가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되고 파괴될 것이다."

²⁷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하늘 아래 모든 나라의 왕국과 권세와 위엄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권세가 그를 섬기고 복종할 것이다.

²⁸ "이것이 이 일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내 생각이 나를 크게 괴롭히고, 내 얼굴이 변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다니엘서 8장

- ¹ 벨사살 왕의 세 번째 통치 해에, 내가 처음에 본 이상 이후에, 나 다니엘에게 이상이 나타났다.
- ² 나는 그 이상을 보았다. 내가 보고 있을 때, 나는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사 성채에 있었고, 이상 속에서 나는 올라이 강가에 있었다.
- ³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니, 강 앞에 뿔이 두 개 달린 수양이 서 있었다. 그 뿔들은 높았으나,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더 높았고, 더 높은 뿔은 나중에 올라왔다.
- ⁴ 나는 그 수양이 서쪽, 북쪽, 남쪽으로 밀어내는 것을 보았다. 그 앞에 서서 버틸 수 있는 짐승은 없었고,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도 없었으며,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였다.
- ⁵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보라, 수염소가 온 땅 위를 가로질러 서쪽에서 나와 땅에 닿지 않고 달렸다. 그 수염소의 눈 사이에 두드러진 뿔이 하나 있었다.
- ⁶ 그는 내가 강 앞에 서 있는 뿔이 두 개 달린 수양을 보았을 때, 그 수양에게 달려가서 자기 힘의 격노로 그를 치었다.
- ⁷ 나는 그가 수양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격노로 치는 것을 보았다. 그가 수양을 치고 그의 두 뿔을 부수었다. 수양은 그 앞에 설 힘이 없었고, 그는 수양을 땅에 던져 밟았다. 수양을 그의 손에서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었다.
- ⁸ 그 수염소는 매우 자기를 높였다. 그가 강해질 때, 큰 뿔이 부러졌고, 그 대신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 네 개의 두드러진 뿔이 일어났다.
- ⁹ 그 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해 매우 커졌다.
- ¹⁰ 그 뿔은 하늘의 군대까지 커졌고, 그 군대와 별들 중 일부를 땅에 던져 밟았다.
- ¹¹ 그것은 군대의 군주까지 자기를 높였고, 그에게서 지속적인 번제를 빼앗았으며, 그의 성소의 자리가 던져졌다.
- ¹² 불순종으로 인해 군대와 지속적인 번제가 그에게 넘겨졌다. 그는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기 뜻을 행하며 성공하였다.
- ¹³ 그때 나는 한 성스러운 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고, 또 다른 성스러운 자가 말하는 자에게 물었다. "지속적인 번제와 황폐하게 만드는 불순종이 성소와 군대를 밟히게 하는 이상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 ¹⁴ 그가 내게 말했다. "이천삼백 개의 저녁과 아침이다. 그 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 ¹⁵ 나, 곧 다니엘이 그 이상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보라, 사람의 모습 같은 이가 내 앞에 서 있었다.
- ¹⁶ 나는 올라이 강변에서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가 외쳐 말했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이상을 알게 하라."
- ¹⁷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에 가까이 왔을 때, 나는 무서워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그러나 그가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아, 깨달아라. 이 이상은 끝나는 때에 속한 것이다."
- ¹⁸ 그가 나와 말할 때, 나는 땅을 향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졌고, 그가 나를 만져 일으켜 세웠다.
- ¹⁹ 그가 말했다. "보라, 내가 노여움의 끝나는 때에 일어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니, 이는 정해진 끝나는 때에 속한 것이다."
- ²⁰ 네가 본 뿔이 두 개 달린 수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 ²¹ 거친 수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다. 그 눈 사이의 큰 뿔은 첫 번째 왕이다.
- ²² 부러진 뿔 대신 네 개가 일어난 곳에서는 네 나라가 그 민족에서 일어나겠으나, 그의 힘으로는 아니리라.
- ²³ "그들의 왕국의 끝나는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찰 때, 거칠고 교활한 얼굴을 지닌 자, 어두운 말을 해석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 ²⁴ 그의 힘은 강력하겠으나,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그는 꼼짝하게 파괴하며 자기가 하는 일에서 성공할 것이며, 강력한 자들과 성스러운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 ²⁵ 그는 그의 정책을 통해 속임수를 성공하게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높일 것이며, 많은 이를 안심한 상태에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는 왕들 중 왕과도 맞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힘 없이 무너질 것이다.
- ²⁶ "전해진 저녁과 아침에 관한 환상은 진실하다. 그러나 그 환상을 봉인하라. 그것은 많은 날들 뒤에 이를 일이기 때문이다."
- ²⁷ 나, 다니엘은 쓰러져 며칠 동안 병이 들었다. 그 후 일어나 왕의 일을 하였다. 나는 그 환상에 놀라웠으나,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서 9장

- 1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칼데아의 왕위에 오른 첫 해에,
- 2 그가 왕이 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책들을 통해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 3 나는 금식하며 굶은 배를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기도와 간구로 주 하느님께 나아갔다.
- 4 나는 주 나의 하느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말했다. "오, 주님, 크고 무서우신 하느님, 당신은 사랑하시는 자들과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 5 우리는 죄를 지었고, 악행을 저질렀으며, 악을 행하고, 당신의 명령에서 벗어나 당신의 법령을 거역했습니다.
- 6 우리는 당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이 우리 왕들과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온 땅의 백성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듣지 않았습시다.
- 7 "주님, 의로움은 당신께 속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당신이 쫓아낸 모든 나라들에 있는 가까운 자들과 먼 자들까지, 그들이 당신께 범한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 8 주님,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우리 왕들과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조상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 9 주 우리 하느님께는 자비와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 10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고, 그분이 당신의 종들인 예언자들로 우리 앞에 내놓으신 그분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시다.
- 11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당신의 율법을 어기고, 당신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돌아섰습시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저주와 맹세가 우리에게 쏟아졌습시다. 우리는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 12 그분은 우리와 우리를 심판하던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정하시고, 큰 환난을 우리에게 내리셨습시다. 하늘 아래 어디에서도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과 같은 일은 행해지지 않았습시다.
- 13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이 모든 환난이 우리에게 닥쳤습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죄악에서 돌아서서 당신의 진리 안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 주 우리 하느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시다.
- 14 그러므로 주님은 환난을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내리셨습시다. 주 우리 하느님은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당신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습시다.
- 15 "이제, 주 우리 하느님, 당신은 강한 손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날처럼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고, 악을 행했습니다.
- 16 주님, 당신의 모든 의로움을 따라, 당신의 성읍 예루살렘과 당신의 거룩한 산에 대한 당신의 분노와 진노가 돌이켜지게 하소서.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당신의 백성은 주변 모든 이들에게 모욕이 되었습니다.
- 17 "이제, 우리 하느님, 당신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소서. 당신의 황폐한 성소에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 18 내 하느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뜨고 우리의 황폐함과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을 보소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당신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크신 자비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 19 주님, 들으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귀를 기울여 듣고 행하소서. 나의 하느님, 지체하지 마소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성읍과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 20 나가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내 하느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고 있을 때,
- 21 나가 기도하는 동안, 처음에 내가 환상에서 본 사자 가브리엘이 빠르게 날아와, 저녁 제물의 시간에 내게 다가왔다.
- 22 그가 내게 말하며 가르쳐 주며 말했다. "다니엘, 내가 지금 와서 너에게 지혜와 이해를 주려 한다.
- 23 네가 간구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에 명령이 내려졌고, 나는 그 명령을 전하러 왔다.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이해하라.'
- 24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주간이 정해졌다. 불순종을 끝내고, 죄를 멈추며, 죄악을 속죄하고, 영원한

의로움을 가져오며,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가장 거룩한 이를 기름부을 것이다.'

²⁵ 그러므로 알며 분별하라.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복구하는 명령이 내려진 날부터 기름부음 받는 자, 곧 군주가 올 때까지 일곱 주와 육십이 주가 지날 것이다. 그 도시는 거리와 해자로 다시 건축될 것이며, 그 시기는 어려운 시기일 것이다.

²⁶ 육십이 주가 지난 후에 기름부음 받는 자가 끊어져서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 군주의 백성들이 와서 도시와 성소를 파괴할 것이다. 그 끝은 홍수로 이어질 것이며, 전쟁은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황폐함이 정해졌다.

²⁷ 그는 한 주 동안 많은 이들과 단단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는 그 주의 중간에 제사와 헌물을 그치게 할 것이다. 가증한 것의 날개에 황폐케 하는 자가 올 것이다. 정해진 끝까지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다니엘서 10장

- 1 고레스 페르시아 왕의 세 번째 해에, 벨테사즈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다니엘에게 계시가 주어졌다. 그 계시는 참되었고, 큰 전쟁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는 그 계시를 이해하고 환상을 깨달았다.
- 2 그때에 나는 다니엘로서 삼 주 동안 슬퍼하였다.
- 3 나는 맛있는 빵을 먹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삼 주 동안 온전히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 4 첫째 달 이십사일에, 나는 큰 강, 곧 히델렉 강가에 있었다.
- 5 나는 눈을 들어 보니,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이 보였고, 그의 허벅지는 우파즈 순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 6 그의 몸은 보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의 모습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의 햇불 같았다. 그의 팔과 발은 닳은 청동 같았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았다.
- 7 나 다니엘 혼자 그 환상을 보았으니,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 미쳐서 도망쳐 숨었다.
- 8 그러므로 나는 혼자 남아 이 큰 환상을 보았다. 내게 힘이 전혀 남지 않았고, 내 얼굴은 죽음처럼 창백해졌으며, 힘을 전혀 잃었다.
- 9 그러나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땅을 향한 얼굴로 땅에 엎드려 깊은 잠에 빠졌다.
- 10 보라, 한 손이 나를 만져, 나를 무릎과 손바닥 위에 일으켰다.
- 11 그가 내게 말했다. "다니엘,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다. 내가 네게 말하는 말을 이해하여라. 일어나서 서라. 내가 지금 너에게 보내졌기 때문이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하자, 나는 떨리며 서 있었다.
- 12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니엘. 네가 마음을 다해 이해하려 하고, 네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지기 시작한 그 첫째 날부터, 네 기도는 들렸다. 나는 네 기도 때문이라도 왔다."
- 13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지배자가 나를 이십일 동안 막았다. 그러나 보라, 미카엘, 주요 지배자들 중 한 명이 내게 도움을 주러 왔다. 나는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 14 지금 나는 네 백성이 나중에 겪게 될 일을 네가 이해하게 하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아직 많은 날들 후에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15 그가 내게 이 말을 하자, 나는 땅을 향해 얼굴을 숙이고 말을 잊었다.
- 16 보라, 사람의 아들들처럼 생긴 한 분이 내 입술을 만졌다. 그때 나는 입을 열고,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했다. "주님, 이 환상 때문에 제가 슬픔에 잠겼고,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 17 어떻게 주님의 종이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는 즉시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숨조차 끊어졌습니다."
- 18 그러자 사람처럼 생긴 한 분이 다시 나를 만지며 나를 힘차게 해주었다.
- 19 그가 말했다. "크게 사랑받는 자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화가 너와 함께하리라. 힘을 내어라. 네가 힘을 내어라." 그가 내게 말하자, 나는 힘을 얻어 말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힘차게 해주셨습니다."
- 20 그러자 그가 말했다. "내가 너에게 왜 왔는지 네가 알고 있는가? 이제 나는 페르시아의 지배자와 싸우러 돌아가겠다. 내가 떠나면, 보라, 그리스의 지배자가 올 것이다."
- 21 그러나 나는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네게 알려주겠다. 이 일들에 대해 나를 돕는 이는 네 지배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다니엘서 11장

- ¹ 나는 다리오 매드 사람의 첫째 해에 일어나 그를 견고히 하고 힘을 더해 주었다.
- ² 이제 내가 진실을 보여 주겠다. 보라, 페르시아에 세 명의 더 많은 왕이 일어날 것이다.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부유할 것이다. 그가 재산으로 힘을 얻으면, 그는 모두를 일으켜 그리스의 왕국에 대항할 것이다.
- ³ 강력한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신의 뜻대로 행할 것이다.
- ⁴ 그가 일어날 때, 그의 왕국은 부서져 하늘의 네 바람 방향으로 나뉘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손에게도, 그가 다스렸던 권세대로도 아니 될 것이다. 그의 왕국은 빼앗겨, 이들 외의 다른 이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 ⁵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다. 그의 한 고관이 그보다 더 강해져 권세를 잡을 것이며, 그의 권세는 큰 권세가 될 것이다.
- ⁶ 몇 해가 지난 뒤, 그들은 연합할 것이다.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의 왕에게 가서 화친을 맺으려 할 것이나, 그녀는 자신의 힘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도 서지 못하고, 그의 힘도 서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그녀를 데려온 자들과 그녀의 아버지가 된 자, 그리고 그 시대에 그녀를 견고히 한 자와 함께 버려질 것이다.
- ⁷ 그러나 그녀의 뿌리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그의 자리에 설 것이며, 그는 군대를 이끌고 북방의 왕의 요새로 들어가 그들을 공격하여 이길 것이다.
- ⁸ 그는 그들의 신들과 주조된 우상들과 은과 금의 귀중한 기구들을 이집트로 사로잡아 끌고 갈 것이다. 그는 몇 년 동안 북방의 왕을 견제할 것이다.
- ⁹ 그는 남방의 왕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나, 그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 ¹⁰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일으켜 큰 군대를 모을 것이며, 그 군대는 계속해서 밀려들어 넘쳐 흐를 것이다. 그들은 돌아와 전쟁을 일으켜 그의 요새에 이르게 될 것이다.
- ¹¹ 남방의 왕은 분노에 사로잡혀 나와 북방의 왕과 싸울 것이다. 그는 큰 군대를 보내며, 그 군대는 그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 ¹² 그 군대는 높아지고, 그의 마음은 교만해질 것이다. 그는 수만 명을 쓰러뜨릴 것이나, 이기지 못할 것이다.
- ¹³ 북방의 왕은 돌아와 이전보다 더 큰 군대를 보낼 것이다. 그는 시대의 끝, 곧 몇 해 뒤에 큰 군대와 풍부한 보급품을 이끌고 올 것이다.
- ¹⁴ 그 시대에 많은 이들이 남방의 왕에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다. 또한 너희 백성 중 폭력적인 자들의 자손들이 이 예언을 세우려 일어날 것이나, 그들은 쓰러질 것이다.
- ¹⁵ 그러므로 북방의 왕이 외성과 요새를 쌓아 잘 방어된 도시를 빼앗을 것이다. 남방의 군대는 서지 못할 것이며, 그의 선택된 백성도 서지 못할 것이고, 그 어떤 힘도 서지 못할 것이다.
- ¹⁶ 그러나 그를 공격하는 자는 자신의 뜻대로 행할 것이며, 그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땅에 서서 멸망을 손에 쥔 것이다.
- ¹⁷ 그는 자신의 온 왕국의 힘을 가지고 올 것이며, 공정한 조건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는 그것을 이행할 것이다. 그는 여자들의 딸을 보내어 그녀를 부패시키려 할 것이나, 그녀는 서지 못하고 그를 위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 ¹⁸ 이후 그는 섬들을 향해 얼굴을 돌려 많은 것을 빼앗을 것이나, 한 고관이 그가 가한 모욕을 끝낼 것이며, 더 나아가 그의 모욕을 그 자신에게 돌릴 것이다.
- ¹⁹ 그러면 그는 자신의 땅의 요새들을 향해 얼굴을 돌릴 것이나, 그는 넘어져 쓰러질 것이며,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 ²⁰ 그 후 그의 자리에 세금을 징수하여 왕국의 영광을 유지하려는 자가 일어날 것이나, 몇 날 안에 그는 진노나 전쟁이 아니라 파괴될 것이다.
- ²¹ 그의 자리에 비천한 자가 일어날 것이며, 그에게 왕국의 존엄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평안한 시기에 와서 아침으로 왕국을 얻을 것이다.
- ²² 그 앞에서 흐르는 군대가 흐르듯이 무너질 것이며, 언약의 고관도 무너질 것이다.
- ²³ 그와 계약이 맺어진 후, 그는 속임수를 쓸 것이다. 그는 소수의 백성과 함께 일어나 강해질 것이다.

- 24 평안한 시기에 그는 지방의 가장 부유한 곳에 이르러, 그의 조상들이나 조상들의 조상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할 것이다. 그는 그들 사이에 노략물과 약탈물과 재산을 흩어 뿌릴 것이며, 그는 강한 요새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계획을 세울 것이다.
- 25 그는 큰 군대를 이끌고 남쪽 왕에게 힘과 용기를 발휘할 것이다. 남쪽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벌일 것이지만, 그는 서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를 겨냥하여 계획을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 26 그의 진미를 먹는 자들이 그를 파괴할 것이며, 그의 군대는 쓸려가 버릴 것이다. 많은 이들이 살해되어 쓰러질 것이다.
- 27 이 두 왕 모두 악한 일을 꾀할 것이며, 한 상에서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끝은 여전히 정해진 시기에 이르기 때문이다.
- 28 그는 큰 부를 안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마음은 성스러운 언약을 향해 있을 것이며, 그는 행동을 취하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 29 그는 정해진 시기에 다시 돌아와 남쪽으로 올 것이지만, 그때는 이전과 같은 후기의 시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 30 키팀의 배들이 그를 향해 올 것이며, 그는 슬퍼하고 돌아서서 성스러운 언약에 분노를 품고 행동을 취할 것이다. 그는 다시 돌아와 성스러운 언약을 버리는 자들을 돌아볼 것이다.
- 31 그의 편에 군대가 서서 성소, 곧 요새를 더럽히고, 지속적인 번제를 빼앗을 것이다. 그들은 황폐하게 만드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 32 그는 언약에 반역하는 악한 자들을 아침으로 부패시킬 것이지만, 자기 하느님을 아는 자들은 강해져 행동을 취할 것이다.
- 33 백성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이를 가르칠 것이지만, 그들은 칼과 불과 포로와 약탈로 쓰러질 것이며, 많은 날 동안 그럴 것이다.
- 34 그들이 쓰러질 때, 조금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아침으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 35 지혜로운 자들 중 일부는 시련을 받아 정련되고, 순결해지고, 희게 되며, 끝의 시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정해진 시기이기 때문이다.
- 36 그 왕은 자기 뜻대로 행동할 것이다. 그는 자신을 높이고 모든 신들 위에 자기를 높이며, 신들의 신에 대해 놀라운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분노가 마쳐질 때까지 형통할 것이며, 정해진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 37 그는 조상들의 신들을 돌보지 않을 것이며, 여인들의 욕망도 돌보지 않고, 어떤 신도 돌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 38 그러나 그는 요새의 신을 존중할 것이다. 그는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즐거운 것들로 존중할 것이다.
- 39 그는 외국의 신을 도움으로 가장 강한 요새를 다룰 것이다. 그는 자신을 인정하는 자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들을 많은 이들을 다스리게 하며, 땅을 값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 40 끝의 시기에 남쪽 왕이 그와 다투는 것이며, 북쪽 왕은 회오리바람처럼 그를 향해 병거와 기마대와 많은 배를 이끌고 올 것이다. 그는 여러 땅에 들어가서 넘쳐 흐르고 지나갈 것이다.
- 41 그는 아름다운 땅에도 들어갈 것이며, 많은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주요 자들이 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 42 그는 또한 여러 나라를 향해 손을 뻗을 것이다. 이집트 땅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43 그는 이집트의 금과 은의 보물과 모든 귀중한 물건을 장악할 것이다. 리비아와 에티오피아가 그의 뒤를 따를 것이다.
- 44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온 소식이 그를 괴롭힐 것이며, 그는 큰 분노로 나아가 많은 이를 파괴하고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 45 그는 바다와 아름다운 성스러운 산 사이에 자기 궁전의 장막을 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국 끝을 맞이할 것이며, 그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 ¹ 그때에 미카엘은 일어날 것이며, 너의 백성의 자녀들을 위하여 서 있는 큰 천사가 될 것이다. 그때는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에 너의 백성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 ² 땅의 먼지 속에서 잠든 많은 이들이 깨어날 것이며, 일부는 영원한 생명으로, 일부는 수치와 영원한 경멸로 일어날 것이다.
- ³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이들을 의로움으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
- ⁴ 그러나 너, 다니엘아, 이 말을 달아두고 책을 봉인하여 끝의 시대까지 이르게 하라. 많은 이들이 왔다 갔다 할 것이며, 지식이 더해질 것이다.
- ⁵ 그때에 나 다니엘이 바라보니, 강가 이쪽에 한 명, 저쪽에 또 한 명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 ⁶ 한 사람이 물 위에 있는 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물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 ⁷ 나는 물 위에 있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하늘을 향해 오른손과 왼손을 들고, 영원히 사시는 분을 가리켜 맹세하며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성스러운 백성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질 때까지,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 ⁸ 나는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주님, 이 일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 ⁹ 그가 말했다. "가라, 다니엘아. 이 말들은 봉인되어 끝의 시대까지 닫혀 있을 것이다."
- ¹⁰ 많은 이들이 깨닫해지고, 회개 되며, 정련될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자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 ¹¹ 지속적인 번제가 없어지고, 황폐하게 만드는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그때부터 천이백구십 일이 될 것이다.
- ¹² 천삼백삼십오 일까지 기다리고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 ¹³ 그러나 끝까지 가라. 네가 편히 쉬다가 끝날 때에 네 분깃에 서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 13장

- 1 바빌론에 한 남자가 살았는데, 그의 이름은 요아킴이었다.
- 2 그는 헬키아의 딸인 수산나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여자였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
- 3 그녀의 부모도 의로운 자들이었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딸을 가르쳤다.
- 4 요아킴은 매우 부유한 자였고, 자기 집 옆에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그가 다른 누구보다 더 존경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왔다.
- 5 그 해에 백성의 장로 두 명이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빌론에서 나온 장로들이 재판관이 되어 백성을 다스려야 할 자들이었으나, 악행이 그들로부터 나왔다.
- 6 이 두 사람은 자주 요아킴의 집에 왔다. 어떤 소송이든 모두 그들에게 나아왔다.
- 7 낮에 사람들이 떠난 후, 수산나는 남편의 정원에 들어가 산책했다.
- 8 두 장로는 그녀가 매일 들어가서 산책하는 것을 보고, 그녀에 대한 정욕에 불타올랐다.
- 9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왜곡하고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며, 공정한 판단을 기억하지 않았다.
- 10 그들은 둘 다 그녀에 대한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으나, 서로에게 자신의 갈망을 드러내지 못했다.
- 11 그들은 자신들이 그녀에게서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 12 그러나 그들은 매일 그녀를 기다리며 은밀히 지켜보았다.
- 13 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말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
- 14 그들이 나가자, 각자 길을 갈라서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왔다. 서로에게 그 이유를 묻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욕을 고백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그녀를 혼자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정했다.
- 15 그들이 기회를 노리던 날, 그녀는 이전처럼 두 시녀만을 데리고 들어왔고, 더워서 정원에서 씻고 싶어 했다.
- 16 그곳에는 두 장로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숨어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 17 그러자 그녀는 시녀들에게 말했다. "올리브 기름과 향유를 가져다 주고, 정원 문을 닫아 주세요. 제가 씻고 싶습니다."
- 18 그들은 그녀의 말대로 하여 정원 문을 닫고, 그녀가 시킨 물건을 가져오려고 옆문으로 나갔다. 그들은 장로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 19 시녀들이 나간 후, 두 장로가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가며 말했다.
- 20 "보아라, 정원 문은 닫혀서 아무도 우리를 볼 수 없고, 우리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니 우리를 받아들여 우리와 함께 잠 자리에 들게 해라."
- 21 "만약 당신이 거절한다면, 우리는 당신과 젊은 남자가 함께 있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시녀들을 보냈다고 말이다."
- 22 그러자 수산나는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곤경에 빠졌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죽음이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 23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지는 것보다, 당신들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낫다."
- 24 이 말을 마치자 수산나는 큰 소리로 외쳤고, 두 장로도 그녀를 향해 외쳤다.
- 25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달려가서 정원 문을 열었다.
- 26 그러자 집안의 하인들이 정원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측문으로 달려 들어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려 했다.
- 27 그러나 장로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다 말한 후, 하인들은 크게 부끄러워했다. 이는 수산나에 대해 이런 소문이 결코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8 이튿날, 사람들이 그녀의 남편 요아킴에게 모여들었을 때, 두 장로는 수산나를 죽이려는 악한 의도로 가득 차서 왔다.
- 29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헬키아의 딸이자 요아킴의 아내인 수산나를 불러오라."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불러왔다.
- 30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과 모든 친척들과 함께 왔다.
- 31 수산나는 매우 아름다운 여자였고, 보기에 우아했다.

- 32 이 악한 자들은 그녀가 덮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그녀의 덮개를 벗기라고 명령했다.
- 33 그러므로 그녀의 친구들과 그녀를 본 모든 이들이 울었다.
- 34 그러자 두 장로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 35 그녀는 울면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 36 장로들이 말했다. "우리가 정원에 혼자서 걷고 있을 때, 이 여자가 두 시녀와 함께 들어와 정원 문을 닫고 시녀들을 보냈다.
- 37 그러자 숨어 있던 한 젊은이가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와 동침했다.
- 38 우리는 정원 한쪽 구석에 있었고, 이 악행을 보고 그들에게 달려갔다.
- 39 우리가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남자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는 우리보다 힘이 강했고, 문을 열고 뛰어나갔다.
- 40 우리는 이 여자를 붙잡고 그 젊은이가 누구인지 물었지만, 그녀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말을 증언한다."
- 41 그러자 공동체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장로이자 재판관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말을 믿었고,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 42 그러자 수산나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영원하신 하느님, 당신은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아십니다.
- 43 당신은 이들이 나에게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나는 이런 일을 결코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악의적으로 꾸며낸 죄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 44 주님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 45 그러므로 그녀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때, 하느님은 젊은 청년 다니엘의 성령을 일으키셨다.
- 46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이 여자의 피에 결코 관련이 없습니다!"
- 47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 돌려보며 말했다. "당신이 말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 48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두 어리석은가? 너희는 검토도 하지 않고 진실도 알지 못한 채, 이스라엘의 딸을 유죄로 정했느냐?"
- 49 심판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라. 이들이 그녀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했기 때문이다.
- 50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급히 돌아서서, 장로들이 그에게 말했다. "오라, 우리 가운데 앉아서 우리에게 이를 보여 주라. 하느님이 당신에게 장로의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다."
- 51 그러자 다니엘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을 서로 멀리 떨어뜨려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심문하겠다."
- 52 그들이 서로 떨어져 앉으니, 그는 한 사람을 불러서 말했다. "악한 삶을 오래 살아온 너여, 이제 네가 이전에 지었던 죄악이 되돌아왔다.
- 53 너는 부당한 판결을 내리며 무죄한 자를 유죄로 정하고, 죄인을 풀어주었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죄하고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하셨다.
- 54 그러니 이제, 네가 그 여자를 보았다면,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어느 나무 아래서 보았느냐?" 그가 대답했다. "마스트릭 나무 아래입니다."
- 55 다니엘이 말했다. "너는 네 머리 위에 거짓말을 했다.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천사가 하느님의 판결을 받았고, 너를 둘로 갈라버릴 것이다."
- 56 그는 그를 옆으로 물러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며 말했다. "오, 가나안의 자손이요, 유다의 자손이 아닌 너여, 아름다움이 너를 속였고, 음욕이 너의 마음을 왜곡하였다."
- 57 너는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이렇게 행해 왔고, 그들은 두려움에 너와 동침하였으나, 유다의 딸은 너의 악행을 용납하지 않았다.
- 58 이제 말해 보아라. 너희가 함께 동침하는 것을 어떤 나무 아래서 보았느냐?
- 59 그러자 다니엘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네 머리에 대해 분명히 거짓말을 했다. 하느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너를 둘로 쪼개어 멸망시키려 기다리고 있다."
- 60 이에 모든 공동체가 큰 소리로 외쳐 하느님을 찬양하였으니, 그는 희망을 두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셨다.

⁶¹ 그러자 그들은 두 장로를 향해 일어나, 다니엘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로 그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⁶²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려고 악의적으로 꾸민 대로 그들에게 행하였다. 그들을 죽였고, 그날 무죄한 피가 구원되었다.

⁶³ 그러므로 헬키아와 그의 아내는 딸 수산나를 위해, 그녀의 남편 요아킴과 모든 친척과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였으니, 그녀 안에 부정함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⁶⁴ 그날 이후로 다니엘은 백성 앞에서 큰 명예를 얻었다.

다니엘서 14장

- 1 아스티에이게스 왕은 조상들 곁으로 모여들었고, 페르시아의 코루스가 그의 왕국을 계승하였다.
- 2 다니엘은 왕과 함께 살며, 그의 모든 친구들보다 존중받았다.
- 3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벨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는데, 매일 고운 밀가루 열두 큰 그릇과 양 마흔 마리, 포도주 여섯 통을 그에게 바쳤다.
- 4 왕은 그 우상을 존중하며 매일 그에게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하느님께 예배를 드렸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왜 벨을 숭배하지 않는가?"
- 5 그가 대답했다. "손으로 만든 우상은 숭배할 수 없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육체를 다스리시는 살아 계신 하느님만을 숭배할 뿐입니다."
- 6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했다. "벨이 살아 있는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매일 얼마나 많이 먹고 마시는지 보지 못하는가?"
- 7 다니엘은 웃으며 말했다. "왕이여, 속지 마십시오. 이 우상은 안은 진흙이고 바깥은 청동일 뿐이며, 결코 무엇도 먹거나 마신 적이 없습니다."
- 8 왕은 화가 나서 벨의 사제들을 불러서 말했다. "이것이 이 비용을 모두 먹어치운 자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 9 "그러나 벨이 이것들을 먹어치운다는 것을 증명하면, 다니엘이 죽을 것이다. 그는 벨을 향해 모독적인 말을 했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다. "왕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 10 벨의 사제들은 칠십 명이었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도 함께 있었다. 왕은 다니엘과 함께 벨의 사당으로 들어갔다.
- 11 벨의 사제들이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왕이여, 음식을 차리고 포도주를 섞어 놓으시고, 문을 단단히 닫으신 뒤, 당신의 인장으로 봉하십시오."
- 12 아침에 들어가서 벨이 모든 것을 먹어치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거짓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다니엘이 죽을 것입니다."
- 13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테이블 밑에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들어와서 그 음식을 모두 먹어치웠기 때문이다.
- 14 사제들이 나간 후, 왕은 음식을 벨 앞에 놓았다. 다니엘은 자기 하인들에게 재를 가져오도록 명령했고, 그들은 왕 혼자 보는 앞에서 사당 전체에 재를 뿌렸다. 그 후 그들은 나가서 문을 닫고 왕의 인장으로 봉하고 떠났다.
- 15 그 밤, 사제들은 평소처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와서 모든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다.
- 16 아침에 왕이 일어나 다니엘과 함께 갔다.
- 17 왕이 말했다. "다니엘아, 봉인은 여전히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가 말했다. "네, 왕이여, 봉인은 그대로입니다."
- 18 문을 열자마자 왕은 테이블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벨이여, 당신은 위대하시며, 당신 안에는 전혀 속임이 없습니다!"
- 19 다니엘은 웃으며 왕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붙잡고 말했다. "보십시오, 바닥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발자국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십시오."
- 20 왕이 말했다. "나는 남자, 여자, 아이들의 발자국을 본다." 그러자 왕은 화가 났다,
- 21 사제들과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잡아서, 그들이 테이블 위 음식을 먹기 위해 들어온 비밀 문을 보여주게 했다.
- 22 그러므로 왕은 그들을 죽이고, 벨을 다니엘의 손에 넘겼다. 다니엘은 벨과 그의 사당을 무너뜨렸다.
- 23 그와 같은 장소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숭배하는 큰 용이 있었다.
- 24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너도 이 용이 청동으로만 되었다고 말할 것인가? 보라, 그것은 살아 있고, 먹고 마신다. 너는 이것이 살아 있는 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를 숭배하라."
- 25 그러자 다니엘이 말했다. "나는 내 하느님을 숭배하겠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신 하느님이십니다."
- 26 그러나 왕님, 저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칼이나 지팡이 없이 이 뱀을 죽이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내가 너를 허락한다."

- 27 그러자 다니엘은 타르와 기름과 털을 가져다가 함께 녹여 덩어리를 만들고, 그것을 뱀의 입에 넣었다. 뱀이 그것을 먹고 터져 죽었다. 다니엘이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모두 숭배하는 신들이다."
- 28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왕을 대적하여 모의하였다. 그들이 말했다. "왕이 유대인이 되었다. 그는 뱀을 무너뜨리고, 뱀을 죽이며, 사제들을 칼로 죽였다."
- 29 그러므로 그들은 왕에게 나아가 말했다. "다니엘을 우리에게 넘기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집을 파괴하겠습니다."
- 30 왕이 그들이 자신을 꺾어내고 있음을 보고, 억지로 다니엘을 그들에게 넘겼다.
- 31 그들은 그를 사자들의 굴에 던져 넣었고, 그는 여섯 날 동안 거기에 있었다.
- 32 굴 안에는 사자 일곱 마리가 있었고, 매일 두 마리의 시체와 양 두 마리를 주었으나, 이제는 그들에게 주지 않아,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게 하려는 의도였다.
- 33 유대 땅에는 예언자 하박국이 있었는데, 그는 국을 끓이고 빵을 한 그릇에 부수어 놓았다. 그는 밭으로 가서 수확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려고 했다.
- 34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하박국에게 말했다. "네가 준비한 식사를 바빌로니아로 가져가서, 사자들의 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주어라."
- 35 하박국이 말했다. "주님, 저는 바빌로니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굴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 36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 들고, 그의 숨결로 바빌로니아의 굴 위에 그를 놓아 주었다.
- 37 하박국이 외쳤다. "오 다니엘, 다니엘아, 하느님이 네게 보내신 식사를 받아라."
- 38 다니엘이 말했다. "오 하느님, 당신이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 39 그러자 다니엘이 일어나 먹었고, 하박국은 하느님의 천사에 의해 곧바로 자기 자리로 돌려보내졌다.
- 40 일곱째 날, 왕이 다니엘을 애도하러 왔다. 그가 굴에 이르러 안을 들여다보니, 보라, 다니엘이 앉아 있었다.
- 41 그러자 왕이 큰 소리로 외쳤다. "오 주님, 당신은 다니엘의 하느님이시며, 당신보다 위대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 42 그리고 왕은 그를 끌어내어, 그의 멸망의 원인들을 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그의 눈앞에서 한순간에 잡아먹혔다.

호세아서 | Hosea

호세아서 1장

- ¹ 유다의 왕 우시아, 요담, 아하즈, 히즈기야 시대와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베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주님의 말씀이다.
- ² 주님이 처음으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실 때, 주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음란한 여자와 음행의 자녀들을 아내로 맞아라. 이 땅이 주님을 버리고 큰 음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 ³ 그래서 그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녀는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
- ⁴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어라. 곧 잠시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후의 집에 갇고, 이스라엘의 집의 왕국을 끝내겠다."
- ⁵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부수겠다.
- ⁶ 그녀는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 ⁷ 그러나 나는 유다의 집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나의 하느님 주님을 통해 구원할 것이며, 활이나 칼, 전쟁, 말이나 기마병으로는 구원하지 않겠다.
- ⁸ 그녀가 로르하마를 떼어내고 나서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 ⁹ 그가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마미라 지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 ¹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져, 측정하거나 계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 장소에서, 그들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 ¹¹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한데 모여 한 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갈 것이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기 때문이다.

호세아서 2장

- 1 너는 네 형제들에게 말하여라. ‘내 백성!’
- 2 너는 네 어머니와 다투어라! 다투어라.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 3 내가 그녀를 벌거벗기지 않게 하기 위해.
- 4 내가 그녀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 5 그녀가 창녀처럼 행동했고, 그녀를 잉태한 자가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 6 그러므로 내가 너의 길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겠다.
- 7 그녀는 자기 연인들을 따라다닐 것이다.
- 8 그녀가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9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제때에 되찾겠다.
- 10 이제 내가 그녀의 음란함을 그녀의 연인들 앞에 드러내겠다.
- 11 내가 그녀의 모든 축제를 멈추게 하겠다.
- 12 내가 그녀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황폐하게 하겠다.
- 13 내가 그녀에게 바알들의 날들을 벌로 내리겠다. 그때 그녀는 귀고리와 보석으로 자신을 꾸몄다.
- 14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유혹하겠다.
- 15 거기서 그녀에게 포도원을 주겠다.
- 16 그 날에는,” 주님이 말한다.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 17 내가 그녀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하겠다.
- 18 그 날에 내가 들짐승들과 그들과 언약을 맺겠다.
- 19 내가 너를 영원히 내 아내로 삼겠다. 내가 의로움과 공정함과 자비와 자비로움으로 너를 내 아내로 삼겠다.
- 20 내가 신실함으로 너를 내 아내로 삼겠다.
- 21 그 날에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이 말한다. “내가 하늘에 응답하겠다.
- 22 땅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할 것이며,
- 23 내가 그녀를 땅에 뿌리겠다.

호세아서 3장

- 1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다른 남자에게 사랑받고 간음하는 여자를 다시 사랑하여라. 마치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듯이,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서 포도덩이 빵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 2 그래서 나는 은 열다섯 닢과 보리 한 호멜과 반을 주고 그 여자를 내 것으로 사들였다.
- 3 나는 그 여자에게 말했다. "너는 여러 날 동안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너는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지 말아야 한다.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 4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돌 기둥도 없고, 에봇도 없고, 우상도 없이 살 것이다.
- 5 그 후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와서 그들의 하느님 주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며, 마지막 날들에 떨리며 주님과 그분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다.

호세아서 4장

- 1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진실도 없고, 자비도 없으며,
- 2 저주와 거짓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만연하다.
- 3 그러므로 땅이 슬퍼하며,
- 4 그러나 아무도 고발하지 말고, 아무도 비난하지 말아라.
- 5 너는 낮에 넘어질 것이며,
- 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멸망한다.
- 7 그들이 많아질수록, 나를 향해 죄를 더하였다.
- 8 그들은 내 백성의 죄를 먹으며,
- 9 백성과 사제가 갈아질 것이다.
- 10 그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 11 음행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지혜를 빼앗는다.
- 12 내 백성이 나무 우상과 상의한다.
- 13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 14 내가 너희 딸들이 음행할 때 그들을 벌하지 않을 것이다.
- 15 이스라엘아, 비록 네가 음행하더라도, 벤아웬으로 올라가지 말고, '주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맹세하지 말아라.
- 16 이스라엘은 마치 고집 센 암소처럼 매우 고집이 세다.
- 17 에브라임은 우상과 결합하였다.
- 18 그들의 음료는 썩었다.
- 19 바람이 그녀를 그의 날개로 감싸고 있다.

호세아서 5장

- 1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사제들아!
- 2 반역자들은 깊이까지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
- 3 나는 에브라임을 알고 있다.
- 4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자기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하지 않는다.
- 5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 앞에서 증거한다.
- 6 그들은 양 떼와 소 떼를 데리고 주님을 찾으려 갈 것이다.
- 7 그들은 주님에게 불충실하다.
- 8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어라.
- 9 에브라임은 책망의 날에 황폐해질 것이다.
- 10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를 옮기는 자들처럼 되었다.
- 11 에브라임은 억압받고 있다.
- 12 그러므로 나는 에브라임에게 나방처럼 되겠다.
- 13 에브라임이 자신의 병을 보았을 때,
- 14 나는 에브라임에게 사자처럼 되겠다.
- 15 나는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겠다.

호세아서 6장

- ¹ 오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 ² 이틀 후에 그분이 우리를 살릴 것이며, 사흘 후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 ³ 우리가 주님을 알며, 그분을 알아가려 힘쓰자. 그분은 해처럼 떠오르시며, 비처럼 우리에게 내리시며, 땅을 적시는 가을 비처럼 우리에게 이르신다.
- ⁴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랴?
- ⁵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로써 그들을 베어 죽였으며, 내 입의 말로써 그들을 죽였다.
- ⁶ 내가 희생보다 자비를 원하며, 번제보다 하느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 ⁷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 ⁸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도시이다.
- ⁹ 도둑 무리가 사람을 기다리며 암습하듯,
- ¹⁰ 이스라엘 집안에서 나는 끔찍한 일을 보았다.
- ¹¹ 유다야, 너를 위한 수확이 정해져 있다.

호세아서 7장

- ¹ 내가 이스라엘을 치유하려 할 때,
- ² 그들은 내게 그들의 모든 악행을 기억하고 있음을 마음에 깨닫지 않는다.
- ³ 그들은 자신의 악행으로 왕을 기쁘게 한다.
- ⁴ 그들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다.
- ⁵ 우리 왕의 날에, 귀족들은 포도주로 인해 병들어 쓰러졌다.
- ⁶ 그들은 마음을 화로처럼 준비하였다.
- ⁷ 그들은 모두 화로처럼 뜨겁다.
- ⁸ 에브라임은 민족들 사이에 섞인다. 에브라임은 뒤집히지 않은 팬케이크이다.
- ⁹ 외국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
- ¹⁰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 앞에서 증거한다.
- ¹¹ 에브라임은 지혜 없이 쉽게 속는 비둘기 같다.
- ¹² 그들이 가면, 내가 내 그물을 그 위에 펼치겠다.
- ¹³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 ¹⁴ 그들은 마음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다.
- ¹⁵ 비록 내가 그들의 팔을 가르치고 힘을 주었으나, 그들은 나를 향해 악을 꾸미고 있다.
- ¹⁶ 그들은 돌아오지만, 가장 높으신 분께로는 돌아오지 않는다.

호세아서 8장

- ¹ 너는 나팔을 입에 대어라! 마치 독수리가 주님의 집 위에 날아오는 것처럼,
- ² 그들이 내게 외친다. ‘우리 이스라엘이 당신을 알겠습니까!’
- ³ 이스라엘이 선한 것을 버렸다.
- ⁴ 그들이 왕들을 세웠지만, 나는 그들을 세우지 않았다.
- ⁵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 우상을 버려라!
- ⁶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이다!
- ⁷ 그들이 바람을 뿌리니,
- ⁸ 이스라엘이 삼켜졌다.
- ⁹ 그들이 아시리아로 올라갔고, 에브라임은 자기에게 애인들을 빌렸다.
- ¹⁰ 비록 그들이 민족들 사이에서 팔렸지만,
- ¹¹ 에브라임이 죄를 지으려고 제단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 ¹² 내가 그에게 내 율법의 많은 내용을 기록했지만,
- ¹³ 내가 드리는 제물의 제사들은,
- ¹⁴ 이스라엘이 자기의 창조주를 잊고 궁전들을 지었기 때문에,

호세아서 9장

- ¹ 이스라엘아, 민족들처럼 기뻐하지 말고 즐거워하지 말아라.
- ² 작물 타작마당과 포도주 짜는 곳이 그들을 먹이지 못할 것이며,
- ³ 그들이 주님의 땅에 거하지 못할 것이며,
- ⁴ 그들이 주님께 술을 제물로 바치지 못할 것이며,
- ⁵ 대회 날에 너희가 무엇을 할 것인가?
- ⁶ 보라, 그들이 파멸을 피하여 떠날 때,
- ⁷ 그들의 벌을 위한 날이 왔다.
- ⁸ 예언자는 에브라임을 나의 하느님과 함께 지켜본다.
- ⁹ 그들은 깊이 부패하였다.
- ¹⁰ 내가 광야에서 포도를 발견하듯 이스라엘을 발견하였다.
- ¹¹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출산도 없고, 임신한 자도 없으며, 잉태도 없을 것이다.
- ¹² 비록 그들이 자녀를 기르더라도,
- ¹³ 내가 에브라임을 보니, 마치 아름다운 곳에 심긴 시돈 같도다.
- ¹⁴ 그들에게 주십시오—주님, 당신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 ¹⁵ “그들의 모든 악행은 길갈에 있다;
- ¹⁶ 에브라임은 치명상을 입었다.
- ¹⁷ 내 하느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그들이 나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세아서 10장

- ¹ 이스라엘은 풍성한 포도나무로, 그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열매가 풍성할수록 그는 제단을 더 많이 쌓았다.
- ² 그들의 마음은 갈라졌다.
- ³ 지금 그들은 분명히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⁴ 그들은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으며 거짓으로 맹세한다.
- ⁵ 사마리아의 주민들은 벳아웬의 송아지들 때문에 떨 것이다.
- ⁶ 그 송아지도 아시리아로 끌려가 큰 왕에게 선물로 바쳐질 것이다.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다.
- ⁷ 사마리아와 그 왕은 떠나가 버릴 것이다.
- ⁸ 이스라엘의 죄인인 아웬의 높은 곳들도 파괴될 것이다.
- ⁹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의 날부터 죄를 지어 왔다.
- ¹⁰ 내가 원할 때, 나는 그들을 벌할 것이다.
- ¹¹ 에브라임은 길들여진 암소로, 갈기 작업을 좋아한다.
- ¹² 의로움을 위해 너희는 씨를 뿌려라.
- ¹³ 너는 악을 갈아 왔다.
- ¹⁴ 그러므로 너희 백성 사이에 전쟁의 외침이 일어날 것이다.
- ¹⁵ 그러므로 벳엘은 너희의 큰 악으로 인해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호세아서 11장

- ¹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다.
- ² 그들이 부르짖었으나, 그들은 나에게서 떠나갔다.
- ³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걷는 법을 가르쳤다.
- ⁴ 나는 사람의 줄과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 ⁵ 그들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 ⁶ 칼이 그들의 성읍들에 떨어질 것이다.
- ⁷ 내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려고 굳게 결심하였다. 비록 그들이 가장 높으신 분을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 ⁸ 어떻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느냐, 에브라임아?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넘겨줄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너를 아담처럼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너를 세보임처럼 만들 수 있느냐?
- ⁹ 나는 내 분노의 격렬함을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 ¹⁰ 그들은 주님을 따라 건졌다.
- ¹¹ 그들은 마치 이집트에서 나오는 새처럼 떨며 올 것이다.
- ¹²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나를 둘러싸고, 이스라엘 집은 속임수로 나를 둘러싸며, 유다는 여전히 하느님에게서 벗어나 거룩한 분에게 불충성하다.

호세아서 12장

- ¹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 ² 주님도 유다와 다투시며, 그의 행위에 따라 그를 갚으실 것이다.
- ³ 태 속에서 그는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 ⁴ 그는 천사와 싸워 이겼으며, 울며 그에게 간청하였다. 그는 벳엘에서 그를 만나, 거기서 우리와 말하였다—
- ⁵ 곧 주님, 만군의 하느님이다.
- ⁶ 그러므로 너는 네 하느님께로 돌아가라. 자비와 정의를 지켜라,
- ⁷ 상인은 손에 부정한 저울을 들고 있다.
- ⁸ 에브라임이 말했다. ‘나는 부유해졌다.’
- ⁹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 너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 ¹⁰ 나는 예언자들에게도 말하였다.
- ¹¹ 길르앗이 악하다면, 그들은 허무하다. 그들의 제단들은 밭의 갈퀴 자국처럼 더미가 되었다.
- ¹² 야곱은 아람 땅으로 도망갔고,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기 위해 일하였다.
- ¹³ 주님은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올려보내셨다,
- ¹⁴ 에브라임은 격노를 심히 자극하였다.

호세아서 13장

- ¹ 에브라임이 말할 때에 떨림이 일어났다.
- ² 이제 그들은 더욱 죄를 더하고,
- ³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이슬 같을 것이다.
- ⁴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 너의 하느님, 주님이다.
- ⁵ 나는 광야에서 너를 알았다.
- ⁶ 그들이 목초지에 따라 배부르게 되었고,
- ⁷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사자처럼 될 것이다.
- ⁸ 나는 새끼를 잃은 곰처럼 그들을 맞이할 것이다.
- ⁹ 이스라엘아, 너는 네 도우미에게 대적하여 파멸되었다.
- ¹⁰ 지금 네 왕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네 모든 성에서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 ¹¹ 나는 내 분노로 너에게 왕을 주었다.
- ¹² 에브라임의 죄는 저장되어 있다.
- ¹³ 산고의 고통이 그에게 닥칠 것이다.
- ¹⁴ 나는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할 것이다. “내 눈에서 자비가 숨겨질 것이다.
- ¹⁵ 비록 그가 형제들 사이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나, 동풍이 불어와,
- ¹⁶ 사마리아는 그 죄를 짊어질 것이다. 그녀가 그녀의 하느님에게 반역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부서지고, 그들의 임산부들은 찢어질 것이다.

호세아서 14장

- ¹ 이스라엘아, 너는 주님 너의 하느님께로 돌아오라.
- ² 말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 말하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 ³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며,
- ⁴ "내가 그들의 배신을 고쳐 주리라.
- ⁵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처럼 되리라.
- ⁶ 그의 가지가 퍼져 나가며,
- ⁷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리라. 그들은 곡식처럼 소생하며,
- ⁸ 에브라임아, 내가 다시 우상과 무엇을 하려 하는가?
- ⁹ 누가 지혜로워서 이 일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요엘서 | Joel

요엘서 1장

- ¹ 페투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주님의 말씀이다.
- ² 이것을 들어라, 노인들이여,
- ³ 너희 자녀들에게 이를 전하여라,
- ⁴ 기생 벌레가 남긴 것을 큰 벌레가 먹었고, 큰 벌레가 남긴 것을 흙벌레가 먹었으며,
- ⁵ 취한 자들아, 깨어라. 울어라!
- ⁶ 내 땅에 한 민족이 올라왔으니, 강하고 수가 많다.
- ⁷ 그가 내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 ⁸ 벼을 입은 처녀처럼 슬퍼하라.
- ⁹ 제물과 술 제물이 주님의 집에서 끊어졌다.
- ¹⁰ 들판이 황폐해졌다.
- ¹¹ 농부들아, 부끄러워하라.
- ¹²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가 시들었으며,
- ¹³ 사제들아, 벼을 입고 슬퍼하라.
- ¹⁴ 금식을 성결하게 정하고, 노인들과 땅의 모든 주민들을 주님, 너희 하느님의 집에 모으라.
- ¹⁵ 아, 그 날이여!
- ¹⁶ 우리 눈 앞에 음식이 끊어지지 않았느냐?
- ¹⁷ 씨앗들이 흙 덩어리 아래서 썩는구나.
- ¹⁸ 짐승들이 얼마나 신음하는가!
- ¹⁹ 주님, 내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 ²⁰ 들짐승들도 당신을 향해 혈떡입니다.

요엘서 2장

- 1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땅의 모든 주민들이 떨리게 하라.
- 2 어두움과 어두침침한 날이니,
- 3 그들 앞에서 불이 태워 버리며,
- 4 그들의 모습은 말들의 모습 같고,
- 5 산꼭대기에서 수레의 소리처럼 뛰어넘으며,
- 6 그들의 앞에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
- 7 그들은 용감한 자들처럼 달린다.
- 8 서로 밀치지 않는다.
- 9 그들은 도시로 쏟아진다.
- 10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한다.
- 11 주님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올리신다.
- 12 “비록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마음을 다해 나에게로 돌아오라.
- 13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노하기를 천천히 하고 자비가 풍성하라.
- 14 누가 알겠느냐? 그가 돌아서서 마음을 바꾸어 줄지도 모른다.
- 15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 16 백성을 모아라. 신랑은 방에서 나와라.
- 17 주님의 사제들, 그 사역자들이 초석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그들의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외치게 하라.
- 18 그때 주님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질투심을 일으키셨다.
- 19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보아라, 내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 20 내가 너희에게서 북쪽 군대를 멀리 몰아내리라.
- 21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 22 들의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 23 “그러므로 시온의 자녀들아, 기뻐하여라.
- 24 타작마당은 밀로 가득 찰 것이며,
- 25 내가 메뚜기들이 먹어친 해들을 너희에게 되돌려 주겠다.
- 26 너희는 충분히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며,
- 27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요엘서 3장

- 1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 2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 3 하늘과 땅에 징조를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있을 것이다.
- 4 주님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두움으로 바뀌고, 달은 피로 바뀔 것이다.
- 5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는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들이 있을 것이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은 자들 중 주님이 부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요엘서 4장

- ¹ “보라, 그 날들에,
- ² 나는 모든 민족을 모을 것이며,
- ³ 내 백성을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며,
- ⁴ “그러니, 두르와 시돈아, 너희는 내게 무엇이냐?
- ⁵ 너희가 내 은과 내 금을 빼앗고,
- ⁶ 유다와 예루살렘의 아들들을 그리스인들에게 팔아, 그들을 자기 경계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
- ⁷ 보라, 내가 너희가 그들을 판 곳에서 그들을 일으켜서, 너희가 행한 보응을 너희 머리에 돌려주겠다.
- ⁸ 내가 너희 아들과 딸들을 유다 자손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그들을 세바 사람에게, 멀리 떨어진 나라에 팔게 할 것이다. 주님이 말했다.
- ⁹ 민족들 사이에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라! 용감한 자들을 일으켜라. 모든 전사들이 가까이 오라. 그들이 올라오게 하라.’
- ¹⁰ 보습을 칼로, 포도 따는 낫을 창으로 바꾸어라. 약한 자가 말하게 하여라: ‘나는 강하다.’
- ¹¹ 서로 둘러싼 모든 민족들아, 서둘러 와서 모여라.” 주님, 당신의 용감한 자들을 거기로 내려보내소서.
- ¹²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거기서 내가 모든 둘러싼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 앉을 것이다.
- ¹³ 낫을 대라. 수확이 익었으니. 와서 밟아라. 포도주 틀이 가득하고, 양동이와 넘치나니,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이다.
- ¹⁴ 결정의 골짜기에 무리, 무리가 많도다. 주님의 날이 결정의 골짜기에서 가까우니.
- ¹⁵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느니라.
- ¹⁶ 주님이 시온에서 울부짖고, 예루살렘에서 천둥을 치실 것이니,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나, 주님은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요새가 되실 것이다.
- ¹⁷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주님, 곧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예루살렘은 거룩해질 것이며, 더 이상 이방인이 그 안을 지나지 않을 것이다.
- ¹⁸ 그 날에 산들은 달콤한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언덕들은 우유로 흐르며, 유다의 모든 시내들이 물로 흐를 것이며, 주님의 집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시딤 골짜기를 적실 것이다.
- ¹⁹ 이집트는 황폐해지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될 것이니, 유다 자손에게 행한 폭력과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 ²⁰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주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세대에서 세대까지 있을 것이다.
- ²¹ 내가 아직 정화하지 않은 그들의 피를 내가 정화하리니, 주님이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아모스서 | Amos

아모스서 1장

- ¹ 테고아의 목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아모스의 말이다. 그는 유다의 왕 우자야와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관해 보았던 말씀이다. 이는 지진이 일어나기 두 해 전이었다.
- ² 그가 말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울부짖으실 것이다,
- ³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다마스쿠스가 세 번의 죄를 범했고, 네 번째로도 그 죄를 끊지 않았으므로,
- ⁴ 내가 하젤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
- ⁵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다마스쿠스의 문설주를 부수겠다.
- ⁶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가사가 세 번의 죄를 범했고, 네 번째로도 그 죄를 끊지 않았으므로,
- ⁷ 내가 가사의 성벽에 불을 보내겠다.
- ⁸ 주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아스돗에서 거주하는 자를 끊어버리겠다.
- ⁹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두르가가 세 번의 죄를 범했고, 네 번째로도 그 죄를 끊지 않았으므로,
- ¹⁰ 내가 두르가의 성벽에 불을 보내겠다.
- ¹¹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에돔이 세 번의 죄를 범했고, 네 번째로도 그 죄를 끊지 않았으므로,
- ¹² 내가 에돔에 불을 보내겠다.
- ¹³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몬 자손이 세 번의 죄를 범했고, 네 번째로도 그 죄를 끊지 않았으므로,
- ¹⁴ 내가 라바의 성벽에 불을 지피겠다.
- ¹⁵ 그들의 왕은 사로잡혀 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모스서 2장

- ¹ 주님은 말씀하신다. "모압이 세 번 죄를 지었고, 네 번까지 죄를 지었으니,
- ² 내가 모압 위에 불을 보내리라,
- ³ 주님의 말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심판관을 끊어버리리라.
- ⁴ 주님은 말씀하신다. "유다가 세 번 죄를 지었고, 네 번까지 죄를 지었으니,
- ⁵ 내가 유다 위에 불을 보내리라,
- ⁶ 주님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이 세 번 죄를 지었고, 네 번까지 죄를 지었으니,
- ⁷ 그들은 빈민의 머리를 땅의 먼지에 밟아놓고,
- ⁸ 그들은 물수한 옷을 제단 곁에 펴고 누운다.
- ⁹ 내가 그들 앞에서 아모리 사람을 멸망시켰다. 그의 키는 백향목처럼 높았고, 그의 힘은 참나무처럼 강했으나, 나는 그의 열매를 위에서 끊어버렸다.
- ¹⁰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으며,
- ¹¹ 내가 너희 아들들 중에서 예언자들을 일으켰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 ¹² "그러나 너희는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고,
- ¹³ 보아라, 내가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를 으스러뜨리리라,
- ¹⁴ 빠른 자의 도망도 사라질 것이며,
- ¹⁵ 활을 쏜 자는 서지 못할 것이며,
- ¹⁶ 용감한 자조차 용감한 자들 중에서도 도망치리라.

아모스서 3장

- ¹ 이 말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곧 내가 이집트 땅에서 끌어올린 온 가족을 향해 하신 말씀이다.
- ² 지상의 모든 가족 중에서 나는 오직 너희만을 택하였다.
- ³ 두 사람이 함께 걷지 않으면, 어찌 서로 만날 수 있겠느냐?
- ⁴ 사자가 숲에서 으르렁대지 않으면, 젊은 사자가 사냥한 것이 없는데도 그 굴에서 울겠느냐?
- ⁵ 새가 땅의 덮에 걸리지 않으면, 어찌 덮이 땅에서 튀어오르겠느냐?
- ⁶ 도시에서 나팔이 울리지 않으면,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 ⁷ 주님 하느님께서서는 자신의 비밀을 신하들인 예언자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시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 ⁸ 사자가 으르렁댔으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님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어찌 예언하지 않겠느냐?
- ⁹ 아스돗의 궁전들에서 선포하여라.
- ¹⁰ “그들은 정의를 알지 못하며, 그들의 궁전들에 악탈과 노략물을 쌓아두고 있다.”
- ¹¹ 그러므로 주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적군이 이 땅을 침범하여 그 위에 밀려들 것이다.
- ¹²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두 다리나 귀 한 조각을 구출하듯,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 ¹³ 들어라. 야곱의 집을 향해 증언하여라.” 주님 하느님, 만군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¹⁴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그에게 벌하는 그 날에,
- ¹⁵ 겨울 집과 여름 집을 모두 칠 것이다.

아모스서 4장

- ¹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궁핍한 자들을 짓밟으며, 남편들
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음료를 가져와라" 하는 자들이다.
- ²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시기를, "보라, 날들이 이르러 너희를 갈고리로 끌어낼 것이다."
- ³ 너희는 성벽의 틈으로 나가서, 각자 직전으로 끌려갈 것이다.
- ⁴ "베델로 가서 죄를 지어라. 매일 아침에 너희 제물을 바치고,
- ⁵ 누룩을 넣은 것을 감사제로 바치고,
- ⁶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이빨이 깨끗하다는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 ⁷ "내가 너희에게 비를 거두었으니,
- ⁸ 그래서 두 세 성읍이 한 성읍으로 흔들려 물을 마시러 갔으나,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였다.
- ⁹ "내가 너희 정원과 포도원에 여러 번 홍작과 곰팡이를 내리며 치렀으니,
- ¹⁰ "내가 이집트에 내렸던 전염병을 너희 가운데 보내었으니,
- ¹¹ "내가 너희 중 일부를 멸망시켰으니,
- ¹²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아, 너에게 이 일을 행할 것이다.
- ¹³ 보라, 산들을 만드시고, 바람을 창조하시며, 사람에게 그 생각을 알리시는 분이시다.

아모스서 5장

- ¹ 이스라엘 집을 위해 내가 슬픔의 노래로 불러낸 이 말을 들어라.
- ² 이스라엘 처녀가 쓰러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 ³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천 명이 나갔던 도시가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나갔던 곳이 열 명만 남을 것이다.
- ⁴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말씀하신다.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 ⁵ 베델을 찾지 말고,
- ⁶ 주님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 ⁷ 너희는 공의를 쫓으로 바꾸고,
- ⁸ 플레이아데스와 오리온을 만드신 분을 찾으라.
- ⁹ 그분은 강한 자에게 갑작스럽게 파멸을 내리신다.
- ¹⁰ 그들은 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
- ¹¹ 그러므로 너희가 가난한 자를 짓밟고, 그에게 밀 세금을 받는다.
- ¹² 내가 너희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다.
- ¹³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그런 때에 침묵한다.
- ¹⁴ 선을 찾고 악을 찾지 말라.
- ¹⁵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 ¹⁶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느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넓은 길에서 슬피 울부짖는 소리가 날 것이다.
- ¹⁷ 모든 포도원에서 슬피 울부짖는 소리가 날 것이다.
- ¹⁸ 주님의 날을 바라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 ¹⁹ 사람이 사자에게서 도망치듯,
- ²⁰ 주님의 날이 어두움이 되지 않고 빛이 되겠느냐?
- ²¹ 나는 너희 축제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 ²² 비록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바친다 하더라도,
- ²³ 너희 노래의 소리를 내게서 끊어라.
- ²⁴ 오직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 ²⁵ 이스라엘 집아,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내게 제물과 헌물을 드렸느냐?
- ²⁶ 너희는 너희 왕의 장막과 너희 형상의 성소, 곧 너희가 스스로 만든 너희 신의 별을 메고 다녔다.
- ²⁷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아모스서 6장

- ¹ 시온에서 안일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
- ² 칼네로 가서 보아라.
- ³ 악한 날을 멀리 밀어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 ⁴ 상아로 만든 침상에 누워 있는 자들에게,
- ⁵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자들에게,
- ⁶ 그릇에 와인을 마시는 자들에게,
- ⁷ 그러므로 그들은 먼저 사로잡혀 가는 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갈 것이다.
- ⁸ 주님, 만군의 하느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 나는 야곱의 교만을 싫어한다.
- ⁹ 열 명이 한 집에 남아 있어도 죽을 것이다.
- ¹⁰ 사람의 친척이 시신을 집 밖으로 옮기며, 그 시신을 불태우는 자와 함께 집 안 깊은 곳에 있는 이에게 묻는다. ‘너와 함께 있는 이가 아직 있느냐?’ 그가 대답한다. ‘아니오.’ 그러면 그는 말한다. ‘조용히 해라. 주님의 이름을 결코 말하지 말자.’
- ¹¹ 보아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큰 집이 부서져 조각나고 말 것이다.
- ¹² 말이 바위 언덕을 달리느냐? 소가 바위에서 갈기를 놓느냐?
- ¹³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뿔을 얻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는 자들아.
- ¹⁴ 보아라, 나는 너희, 이스라엘 집을 향해 한 민족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이 하마트 문부터 아라바 계곡까지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아모스서 7장

- 1 주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보여 주셨다. 보라, 그분이 늦은 풀이 돋아나기 시작할 때에 메뚜기를 만드셨다. 보라, 그것은 왕의 수확 이후의 늦은 풀이었다.
- 2 그들이 땅의 풀을 다 먹어치운 후, 내가 말했다. "주 하느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어찌 서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작습니다."
- 3 주님은 이 일에 관해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것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 4 주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보여 주셨다. 보라, 주 하느님께서 불로 심판을 불러오셨다. 그것이 큰 깊음을 말라죽게 하고 땅을 삼키려 했다.
- 5 그때 내가 말했다. "주 하느님, 제발 그치게 해 주십시오! 야곱이 어찌 서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작습니다."
- 6 주님은 이 일에 관해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것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주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 7 그분이 나에게 이것을 보여 주셨다. 보라, 주님께서 수직줄로 쌓은 벽 옆에 서 계셨고, 손에는 수직줄을 잡고 계셨다.
- 8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 9 이삭의 높은 곳은 황폐해질 것이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 10 그때 벳엘의 제사장 아마자야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집안 가운데서 당신을 반역하게 꾀고 있습니다. 이 땅은 그의 모든 말을 견딜 수 없습니다."
- 11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 끌려가리라."
- 12 아마자야가 아모스에게도 말했다. "보는 자여, 가서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빵을 먹고 거기서 예언하여라."
- 13 그러나 벳엘에서는 다시는 예언하지 마라. 그것은 왕의 성소이고 왕의 궁전이다!"
- 14 아모스가 아마자야에게 대답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었으며, 나는 소를 치는 목동이요, 무화과나무를 기르는 농부였습니다."
- 15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 떼를 따르던 곳에서 데려오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 16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대적하여 전하지 말라."
- 17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 아내는 도시에서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아들과 딸들은 칼에 죽을 것이며, 네 땅은 줄로 나뉘어질 것이며, 너는 부정한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 끌려가리라."

아모스서 8장

- ¹ 주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보여 주셨다. 보라, 여름 과일 한 바구니였다.
- ² 그분이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했다. "이스라엘 내 백성 위에 끝이 왔습니다."
- ³ "그날에 성전의 노래는 통곡이 될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신들이 많아질 것이다. 모든 곳에서 그들을 조용히 버릴 것이다."
- ⁴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싶어 하는 자들아,
- ⁵ 이르기를, "새달이 지나서 곡식을 팔 수 있을 때가 언제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 ⁶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 ⁷ 주님은 야곱의 자랑으로 맹세하시며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결코 잊지 않겠다."
- ⁸ 이 일로 땅이 진동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마치 나일강처럼 온통 솟아오르리라.
- ⁹ "그날에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정오에 해가 지게 하리라."
- ¹⁰ 내가 너희 축제를 슬픔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가로 바꾸리라.
- ¹¹ 보아라, 날들이 온다. 주 하느님이 말한다.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 ¹²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로 헤매며, 북에서 동으로 떠돌아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찾으려 할 것이다.
- ¹³ 그날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남자들은 목마름으로 기진맥진할 것이다.
- ¹⁴ 사마리아의 죄악으로 맹세하는 자들과, 베델의 길을 따라 맹세하는 자들과, 브엘세바의 길을 따라 맹세하는 자들은 모두 무너질 것이다.

아모스서 9장

- ¹ 나는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기둥 윗부분을 치라. 문지방이 흔들리게 하라. 그들을 모두 머리 위로 부수어라. 내가 칼로 그 끝자락을 죽이리라. 그들 중 누구도 도망치지 못할 것이며, 아무도 피하지 못하리라."
- ² 비록 그들이 죽음으로 파고들더라도, 거기서 내 손이 그들을 잡을 것이며, 비록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서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리라.
- ³ 비록 그들이 카르멜의 꼭대기에서 숨더라도, 내가 찾아내어 거기서 끌어낼 것이며, 비록 바다의 깊은 곳에서 내 눈을 피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뱀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물게 하리라.
- ⁴ 비록 그들이 원수 앞에서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거기서 내가 칼을 명령하여 그들을 죽이리라. 내가 그들에게 해로운 눈길을 보내고, 선한 눈길은 보내지 않으리라.
- ⁵ 만군의 주 하느님, 곧 땅을 만지면 그것이 녹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모두 슬퍼하며, 마치 이집트 강처럼 온전히 솟아 오르고, 다시 그 강처럼 가라앉는 이가 바로 주님이시다.
- ⁶ 그분이 하늘에 자기 방을 지으시고, 땅 위에 자기 궁전을 세우시며, 바다의 물을 불러 땅 위에 쏟아내시는 이, 그 이름은 주님이시다.
- ⁷ 이스라엘 자손아, 내게 너희는 에티오피아 자손과 같지 않느냐? 주님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 또 비록 블레셋 사람들을 카프토르에서, 아람 사람들을 키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
- ⁸ 보라, 주님 하느님의 눈은 최악된 왕국 위에 있으며, 내가 땅 위에서 그것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주님의 말이다.
- ⁹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집을 모든 나라 가운데서 곡식을 체로 흔들듯이 흔들리라. 그러나 가장 작은 알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 ¹⁰ 내 백성의 모든 죄인들은 칼에 죽으리라. 그들은 말하기를, '악이 우리에게 닿지 아니하며 우리를 만나지 못하리라'고.
- ¹¹ 그날에 나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그 틈을 메우고 그 폐허를 일으켜 옛날과 같이 그를 세우리라.
- ¹²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소유하게 하리라. 주님의 말이다. 이 일을 행하는 이가 주님이시니라.
- ¹³ 보라, 날이 이르리라. 주님의 말이다. 갈이하는 자가 베는 자를 따라잡고,
- ¹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 ¹⁵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라. 주님, 당신의 하느님의 말이다.

오바드야서 | Obadiah

오바드야서 1장

- ¹ 오바드야의 환상. 주님 하느님께서 에돔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었고, 민족들 사이에 사자가 보내져 말한다. "일어나라. 우리가 그녀와 싸우기 위해 일어나자."
- ² 보아라, 내가 너를 민족들 가운데 작게 만들었다. 너는 크게 경멸받는다.
- ³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너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처소를 두고, 마음속으로 말한다.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는가?"
- ⁴ 비록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비록 네 동지가 별들 사이에 있더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주님의 말이다.
- ⁵ 도둑들이 네게 온다면, 밤에 강도들이 온다면—오, 네게 닥칠 재앙이 얼마나 클까—그들은 충분히 훔칠 때까지 훔치지 않을까? 포도 따는 자들이 네게 온다면, 그들은 몇 송이 남겨두지 않을까?
- ⁶ 에사우가 어떻게 약탈당할 것인가! 그의 숨겨진 보물들이 어떻게 찾아질 것인가!
- ⁷ 네 동맹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길을 따라 경계까지 내쫓았다. 너와 평화를 맺었던 자들이 너를 속였고, 너를 이겼다. 네 빵을 먹는 친구들이 네 밑에 올가미를 놓았다. 그에게는 지혜가 없다.
- ⁸ 그 날에, 주님의 말이다. "내가 에돔에서 지혜로운 자들을 없애고, 에사우의 산에서 통찰을 끊어버리지 않을까?"
- ⁹ 네 용감한 자들, 테만이 놀라 떨리리라. 그 결과, 에사우의 산에서 모든 자가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 ¹⁰ 네 형제 야곱에게 가한 폭력 때문에, 부끄러움이 너를 덮을 것이며, 너는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
- ¹¹ 네가 저편에 서 있던 날, 외국인들이 그의 재산을 빼앗고, 이방인들이 그의 문을 들어서며 예루살렘을 위해 제비를 뽑던 그 날, 너도 그들 중 하나였다.
- ¹² 그의 환난 날에 네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고, 유다 자손이 멸망하는 날에 그들을 기뻐하지 말며, 고통의 날에 교만히 말하지 말라.
- ¹³ 그들의 환난 날에 내 백성의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고통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지 말라.
- ¹⁴ 그가 도망치는 자들을 끊기 위해 교차로에 서지 말라. 그의 남은 자들을 고통의 날에 넘겨주지 말라.
- ¹⁵ 모든 민족들 위에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네가 행한 대로 네게 행할 것이며, 네 행위가 네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다.
- ¹⁶ 네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끊임없이 마실 것이다. 그들은 마시고 삼켜,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될 것이다.
- ¹⁷ 그러나 시온 산에는 도망치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거룩해질 것이다. 야곱의 집이 그들의 소유를 차지할 것이다.
- ¹⁸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사우의 집은 마른 풀이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불태워서 삼켜버릴 것이며, 에사우의 집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 ¹⁹ 남방의 자들은 에사우의 산을 차지할 것이고, 평야의 자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차지할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 ²⁰ 이스라엘 자손의 이 군대의 포로들,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은 사라뵈까지 차지할 것이며, 예루살렘의 포로들,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게브의 성들을 차지할 것이다.
- ²¹ 구원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가 에사우의 산들을 심판할 것이며, 왕국은 주님의 것이 될 것이다.

요나서 | Jonah

요나서 1장

- ¹ 주님의 말씀이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 ² "일어나, 큰 도시 니네베로 가서, 그들의 악행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들에게 반대하여 선포하여라."
- ³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앞에서 도망치려고 타르시스로 가려고 일어났다. 그는 요파에 내려가서 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찾아내고, 배삯을 내고 그들과 함께 타르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랐다.
- ⁴ 그러나 주님은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셨고, 바다에 거센 폭풍이 일어나 배가 부서질 지경이 되었다.
- ⁵ 그러자 선원들은 무서워서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고, 배에 실린 짐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하려 했다. 그러나 요나는 배의 가장 안쪽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
- ⁶ 그러자 배의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자, 잠자는 자여,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네 신께 부르짖어라. 혹시 네 신이 우리를 신경 써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해 주실지 모른다."
- ⁷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오라, 제비를 뽑아서 이 화가 우리에게 닥친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자."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았고,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 ⁸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 화가 우리에게 닥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어느 민족의 사람이십니까?"
- ⁹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의 하느님,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 ¹⁰ 그러자 그 남자들은 매우 무서워하며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그가 주님의 앞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가 그들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 ¹¹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바다가 우리에게 고요해질 수 있습니까?" 바다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다.
- ¹²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에게 고요해질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이 거센 폭풍이 나 때문에 너희에게 닥친 것이다."
- ¹³ 그러나 그 남자들은 배를 저어 바다에서 땅으로 돌아가려고 힘껏 노력했으나, 바다가 그들에게 점점 더 거칠어져서 할 수가 없었다.
- ¹⁴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어 말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무죄한 피를 뒤집어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 ¹⁵ 그러자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고, 바다는 그 격노를 멈추었다.
- ¹⁶ 그러자 그 남자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며, 주님께 제물을 바치고 서약을 하였다.
- ¹⁷ 주님은 요나를 삼키도록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요나는 그 물고기의 뱃속에 사흘 밤낮을 있었다.

요나서 2장

- ¹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 자신의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 ² 그가 말했다. "내가 고통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죽음의 뱃속에서 외쳤습니다."
- ³ 당신이 나를 깊은 곳에 던지셨습니다.
- ⁴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쫓겨났습니다."
- ⁵ 물이 나를 둘러싸고,
- ⁶ 내가 산들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 ⁷ "내 영혼이 내 안에서 기진맥진할 때, 나는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 ⁸ 허탄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의 자비를 버립니다.
- ⁹ 그러나 나는 감사의 소리로 당신께 제물을 바칠 것입니다. 내가 맹세한 것을 갚겠습니다. 구원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 ¹⁰ 그러자 주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뱉어냈습니다.

요나서 3장

- ¹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 ² "일어나, 큰 도시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네게 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 ³ 요나는 일어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매우 큰 도시로, 삼 일이나 걸리는 거리였다.
- ⁴ 요나는 도시에 하루 걸음 들어가며 외쳐 말했다. "사십 일 안에 니네베가 무너질 것이다!"
- ⁵ 니네베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었고,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큰 자부터 가장 작은 자까지 모두 베옷을 입었다.
- ⁶ 니네베 왕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왕좌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고 베옷을 입은 채 재 위에 앉았다.
- ⁷ 그는 왕과 그의 귀족들의 명령으로 니네베에 공포를 내려 말했다. "사람이나 짐승,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맛보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 ⁸ 사람과 짐승 모두 베옷을 입고, 하느님께 크게 외쳐라.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손에 있는 폭력에서 떠나라.
- ⁹ 누가 알겠는가? 하느님께서 돌아서서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돌이키지 않으실까?
- ¹⁰ 하느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선 것을 알고, 내가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한 재앙을 그만 두셨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

요나서 4장

- ¹ 그러나 요나는 이 일로 심히 불쾌해하며 분노했다.
- ²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말했다. "주님, 제가 여전히 내 고향에 있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타르시스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주님이 은총과 자비로우시고, 노여움을 느끼시는 데 느리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고, 해를 끼치는 일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 ³ 그러므로 이제, 주님, 제 생명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 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
- ⁵ 요나는 도시를 나가 도시 동편에 앉아서 그곳에 초막을 지었고, 그 그늘 아래 앉아 도시가 어떻게 될지 보려고 기다렸다.
- ⁶ 주님 하느님은 콩나물을 준비하시어 요나 위로 자라나게 하셨다. 그것은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그의 괴로움에서 구해 주려는 것이었다. 요나는 콩나물로 인해 심히 기뻐했다.
- ⁷ 그러나 하느님은 다음 날 아침에 벌레를 준비하시어 그 벌레가 콩나물을 갉아먹게 하셨고, 콩나물은 마르고 말았다.
- ⁸ 해가 떠오르자, 하느님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고,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쬘어 그가 기진맥진하게 되었고, 자신이 죽기를 간청했다. 그는 말했다. "제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 ⁹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콩나물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
- ¹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도 하지 않고, 기르지도 않은 콩나물을 위해 신경 썼다. 그것은 하룻밤에 자라나 하룻밤에 죽어 버렸다."
- ¹¹ 내가 그 오른손과 왼손을 구별하지 못하는 십이만 명 이상의 사람과 많은 동물이 있는 큰 도시 니네베를 신경 쓰지 않아야 하겠느냐?

미카서 | Micah

미카서 1장

- ¹ 요담과 아하즈와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던 시대에 모라세스의 미가에게 임한 주님의 말씀으로, 그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해 보았다.
- ² 모든 백성들아, 다 들어라!
- ³ 보라, 주님은 그의 처소에서 나온다.
- ⁴ 산들이 그의 앞에서 녹고,
- ⁵ "이 모든 것은 야곱의 불순종 때문이니, 그것이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것이 예루살렘이 아니냐?"
- ⁶ 그러므로 나는 사마리아를 들판의 파편 더미로 만들겠다.
- ⁷ 그녀의 모든 우상들이 부서지고,
- ⁸ 이 때문에 나는 슬피 울고 통곡하겠다.
- ⁹ 그녀의 상처는 치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 ¹⁰ 가트에서는 그것을 전하지 말고, 전혀 울지 말아라.
- ¹¹ 샤피르의 주민들아, 벌거벗고 수치를 안고 지나가라.
- ¹² 마로스의 주민은 선한 일을 기다리며 불안에 떨고,
- ¹³ 라기스의 주민들아, 빠른 말에 수레를 매어라.
- ¹⁴ 그러므로 너는 모레세트 가트에 작별 선물을 바치리라.
- ¹⁵ 마레사의 주민들아, 내가 너희에게 정복자를 보내겠다.
- ¹⁶ 머리를 밀어라.

미카서 2장

- ¹ 악을 꾸미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 ² 그들은 밭을 탐내어 빼앗고, 사람과 그 유산을 빼앗는다.
- ³ 그러므로 주님은 말하신다. "보라, 내가 이 사람들에게 재앙을 꾸미고 있다."
- ⁴ 그날에 그들은 너희를 향해 우스갯소리를 할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멸망했다! 그가 내게서 그것을 빼앗아 배신자들에게 우리 밭을 나누어 주었다!"
- ⁵ 그러므로 너희는 주님의 공동체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는 자를 결코 만나지 못할 것이다.
- ⁶ "예언하지 마라!"—그들이 예언한다. "이런 일들에 대해 예언하지 마라."
- ⁷ 야곱의 집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영이 분노하셨는가? 내 말이 온전히 걷는 자에게 좋은 일이 아니냐?"
- ⁸ 그러나 최근에 내 백성이 적처럼 일어났다.
- ⁹ 너는 내 백성의 여자들을 그 아름다운 집에서 쫓아내고,
- ¹⁰ 일어나 떠나라!
- ¹¹ 만약 어떤 사람이 거짓의 영으로 걸어가며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와 강한 술에 대해 예언하겠다." 한다면,
- ¹² 내가 반드시 너희 모두, 야곱을 모아 모으겠다.
- ¹³ 길을 뚫고 올라가는 자가 그들 앞서 나간다.

미카서 3장

- ¹ 내가 말했다. "들으시오, 야곱의 수장들이여, 정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냐?
- ² 선을 미워하는 자들이여,
- ³ 내 백성의 고기를 먹고,
- ⁴ 그때에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것이나, 주님은 그때에 그들의 얼굴을 가리실 것이다.
- ⁵ 주님은 내 백성을 미혹하는 예언자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이빨을 채우면 평화라고 외치고, 그들의 입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 ⁶ 그러므로 너희 위에 밤이 오고, 환상은 사라지며,
- ⁷ 보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 ⁸ 그러나 나는 주님의 성령으로 힘차고,
- ⁹ 들으시오, 야곱의 집의 수장들이여,
- ¹⁰ 피로 시온을 세우는 자들이여,
- ¹¹ 그들의 지도자들은 뇌물로 재판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신가?" 하고 말한다.
- ¹²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시온은 발처럼 갈릴 것이고,

미카서 4장

- ¹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 ² 많은 민족이 나아가서 말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 ³ 그분이 많은 민족 사이에서 심판하시고,
- ⁴ 모든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 ⁵ 모든 민족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걸겠지만,
- ⁶ "그 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휘청거리는 자들을 모으고,
- ⁷ 나는 휘청거리는 자들을 남은 자로 만들며,
- ⁸ 너는 양 떼의 탐, 시온의 딸의 언덕이니, 이전의 통치가 돌아오리라.
- ⁹ 이제 왜 너는 크게 외치느냐?
- ¹⁰ 아픔을 겪고 고통 속에서 낳아라, 시온의 딸아.
- ¹¹ 이제 많은 민족이 너를 향해 모여들어 말한다. "그녀를 더럽히자.
- ¹²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
- ¹³ 일어나서 타작하라, 시온의 딸아.

미카서 5장

- ¹ 이제 너는 군대의 딸아, 군대를 모으라.
- ²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 ³ 그러므로 그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들을 버려두실 것이다.
- ⁴ 그는 서서 주님의 힘으로 양을 칠 것이다.
- ⁵ 아시리아가 우리 땅을 침입할 때, 그가 우리 평화가 될 것이다.
- ⁶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다스릴 것이다.
- ⁷ 야곱의 남은 자들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 ⁸ 야곱의 남은 자들은 열국 가운데 있을 것이다.
- ⁹ 네 손을 네 원수 위에 들라.
- ¹⁰ “그 날에”,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가운데 말을 끊어버릴 것이다.
- ¹¹ 내가 너희 땅의 성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 ¹² 내가 너희 손에서 마법을 파괴할 것이다.
- ¹³ 내가 너희 가운데 새긴 우상과 석주를 끊어버릴 것이다.
- ¹⁴ 내가 너희 가운데 아세라 목상을 뽑아버릴 것이다.
- ¹⁵ 내가 듣지 않는 민족들에게 분노와 진노로 보복을 행할 것이다.

미카서 6장

- ¹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일어나서 산들 앞에서 네 소송을 펼쳐라,’
- ² 들어라, 산들아, 주님의 고발을,
- ³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였는가?
- ⁴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올려왔으며,
- ⁵ 내 백성아, 모압 왕 발락이 꾸민 일을 기억하여라,
- ⁶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 ⁷ 주님은 천 마리의 수양이나 만 마리의 기름진 양으로 기뻐하실까?
- ⁸ 사람아, 주님께서는 네게 무엇이 좋은지 보여주셨다. 그것은 오직,
- ⁹ 주님의 목소리가 성을 향해 외친다— ‘지팡이를 들어라,’
- ¹⁰ 악인의 집에 아직도 악한 재산이 있는가?
- ¹¹ 내가 불공정한 저울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 ¹² 그녀의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고,
- ¹³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심각한 상처로 치셨다.
- ¹⁴ 너는 먹을 것이지만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 ¹⁵ 너는 씨를 뿌릴 것이지만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 ¹⁶ 오므리의 규례가 지켜지기 때문이다.

미카서 7장

- ¹ 내 고통이 크구나!
- ² 의로운 자가 땅에서 사라졌고,
- ³ 그들의 손은 악을 행하는 데 열심을 내며, 그들은 모두 음모를 꾸민다.
- ⁴ 그들 중 가장 좋은 자도 가시덤불과 같고, 네 감찰이 이르렀다.
- ⁵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신뢰하지 말라.
- ⁶ 아들이 아버지를 모욕하고,
- ⁷ 나는 오직 주님을 바라볼 것이다.
- ⁸ 내 원수여, 나를 기뻐하지 말라.
- ⁹ 나는 주님의 분노를 참고,
- ¹⁰ 그때 내 원수가 그것을 보고, '주님, 네 하느님은 어디 있느냐?' 할 것이다.
- ¹¹ 너의 성벽을 쌓을 날이 이르렀다!
- ¹² 그날에 그들이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성읍들에서 너에게로 올 것이며,
- ¹³ 그러나 그 땅은 그 안에 거하는 자들 때문에 황폐해질 것이다.
- ¹⁴ 네 지팡이로 네 백성을 목장치고, 그들이 풍요로운 초원 한가운데서 먹게 하라.
- ¹⁵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날들처럼,
- ¹⁶ 열국이 보고 그들의 모든 힘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 ¹⁷ 그들은 뱀처럼 흠을 핥을 것이다.
- ¹⁸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느님, 주님처럼 누구 있사옵나이까?
- ¹⁹ 그분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 ²⁰ 당신은 야곱에게 진실을 베푸실 것입니다.

나훔서 | Nahum

나훔서 1장

- ¹ 니네베에 관한 계시. 엘코시 사람 나훔의 환시 책이다.
- ² 주님은 질투하는 하느님이시며 보복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보복하시고 분노가 가득하시다. 주님은 그의 적들에게 보복하시며, 그의 원수들에게 분노를 유지하신다.
- ³ 주님은 분노를 느리게 하시고 힘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벌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회오리와 폭풍 속에서 길을 걸으시며, 구름은 그의 발걸음의 먼지이다.
- ⁴ 그는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모든 강을 말라 버리신다. 바산과 갈멜이 쇠약해지고, 레바논의 꽃이 시들어간다.
- ⁵ 산들은 그 앞에서 떨고, 언덕들은 녹아내린다. 땅은 그의 앞에서 떨리며, 세계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떨린다.
- ⁶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서서 견딜 수 있겠는가? 누가 그의 진노의 격렬함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의 분노는 불처럼 쏟아지며, 바위는 그의 손에 부서진다.
- ⁷ 주님은 선하시며, 환난의 날에 피난처이시며,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 ⁸ 그러나 넘치는 홍수로 그의 장소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그의 원수들을 어둠 속으로 쫓아가신다.
- ⁹ 너는 주님께 무엇을 꾸미는가? 그는 완전한 멸망을 이룰 것이다. 고통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¹⁰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얹히고, 술에 취한 것처럼 끝까지 소멸되어 마른 갈대처럼 타버릴 것이다.
- ¹¹ 너에게서 악을 꾸미고 악한 계획을 세우는 자가 나왔다.
- ¹² 주님은 말한다. "비록 그들이 강하고 많더라도, 그들은 베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비록 내가 너를 괴롭혔더라도, 나는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 ¹³ 이제 나는 네게 메인 멩에를 부수고, 네 결박들을 끊어 버릴 것이다."
- ¹⁴ 주님은 너에 관해 명령하셨다. "너의 이름을 이어받을 자손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너의 신들의 집에서, 새긴 상과 주조한 상을 끊어 버릴 것이다. 너는 비천하므로, 내가 너를 위한 무덤을 만들 것이다."
- ¹⁵ 보라, 산 위에 평화를 전하는 자의 발이 닿는다! 유다야, 너의 축제를 지켜라! 서원을 이행하여라. 악한 자가 다시는 너를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완전히 끊어졌다.

나훔서 2장

- ¹ 파괴하는 자가 너를 향해 올라왔다. 요새를 지켜라! 길을 주의하라! 허리를 단단히 묶어라! 힘을 크게 강화하라!
- ² 주님께서 야곱의 영화를 이스라엘의 영화로 회복하시니, 파괴자들이 그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들을 파괴하였기 때문이다.
- ³ 그 용사들의 방패는 붉게 물들었고, 용감한 자들은 자홍색이다. 그의 준비 날에 병거는 강철로 반짝이며, 전나무 창이 휘두러진다.
- ⁴ 병거가 거리에서 질주하며, 넓은 길을 왔다 갔다 한다. 그들의 모습은 햇불 같고, 번개처럼 달린다.
- ⁵ 그는 선발된 병사들을 불러 모은다. 그들이 길에서 허물어지고, 성벽으로 달려가며, 방어 방패가 설치된다.
- ⁶ 강의 문들이 열리고, 궁전이 무너진다.
- ⁷ 결정되었다. 그녀는 벌거벗겨지고 끌려간다. 그녀의 하인들이 비둘기의 목소리처럼 울며 가슴을 친다.
- ⁸ 그러나 니네베는 옛날부터 물웅덩이 같았으나, 그들이 도망친다. "멈춰라! 멈춰라!"라고 외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 ⁹ 은의 탈취물을 가져가라. 금의 탈취물을 가져가라. 그 보물이 끝이 없고, 모든 귀중한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 ¹⁰ 그녀는 텅 빈 채, 공허하며, 황폐하다. 마음이 녹고, 무릎이 떨리며, 몸과 얼굴이 창백해진다.
- ¹¹ 사자들의 굴과 젊은 사자들의 먹이터는 어디 있느냐? 거기서 사자와 암사자가 새끼 사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며,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곳이 어디 있느냐?
- ¹² 사자는 새끼들에게 충분히 찢어 먹었고, 암사자들에게 목을 졸라 죽인 먹이를 주었으며, 그 동굴을 잡은 먹이로 채우고, 그 굴을 사냥한 것들로 가득 채웠다.
- ¹³ "보아라, 나는 너와 대적한다." 주님의 만군이 말한다. "내가 그녀의 병거를 연기 속에서 불태우고, 칼이 네 젊은 사자들을 삼킬 것이며, 땅에서 네 먹이를 끊어버릴 것이다. 네 사자의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훔서 3장

- ¹ 피로 물든 도시여, 화가 있을지어다! 그곳은 거짓과 강탈로 가득 차 있고, 탈취할 것이 끝이 없도다.
- ² 채찍 소리, 병거 바퀴가 요동치는 소리, 뛰는 말들과 튀어오르는 병거들,
- ³ 기마병이 돌진하고, 반짝이는 칼과 빛나는 창, 수많은 시체와 거대한 시체 더미가 있으며, 시체들이 끝이 없도다. 그들이 시체 위에서 발을 헛디딘다.
- ⁴ 이 모든 것은 아름다운 창녀의 많은 음행과 마법의 여주인 때문이라. 그녀는 음행으로 민족들을 팔고, 마법으로 가족들을 팔았도다.
- ⁵ 주님의 만군이 말한다. ‘보라, 나는 너와 대적하리라. 내가 네 옷자락을 네 얼굴 위로 들어 올려, 민족들에게 네 벌거벗은 몸을, 왕국들에게 네 수치를 보이리라.’
- ⁶ 내가 네게 역겨운 더러움을 뿌려 너를 비천하게 만들고, 너를 구경거리로 만들리라.
- ⁷ 너를 보는 자 모두가 너를 피하고, ‘니네베가 파괴되었다! 누가 그녀를 애도하랴?’ 하고 말하리라. 내가 너를 위로할 자를 어디서 찾으랴?
- ⁸ 네가 강들 사이에 자리 잡고, 물이 네 주위를 둘러싸며, 방어벽이 바다이고, 성벽이 바다였던 노아몬보다 더 나은가?
- ⁹ 쿠프와 이집트가 그녀의 무한한 힘이었고, 푸트와 리비아가 그녀의 도움이었도다.
- ¹⁰ 그러나 그녀는 사로잡혀 끌려가고, 그녀의 어린아이들도 모든 거리의 앞에서 두들겨 죽었으며, 그녀의 존엄한 자들에게는 제비를 뽑았고, 그녀의 모든 위대한 자들이 쇠사슬에 묶였도다.
- ¹¹ 너도 취하게 될 것이며, 숨게 될 것이며, 적을 두려워하여 요새를 찾게 될 것이니라.
- ¹² 네 모든 요새는 익은 무화과나무와 같으리라. 그것들이 흔들리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지리라.
- ¹³ 보라, 네 군대는 여자들 같고, 네 땅의 문들은 적에게 넓게 열려 있으며, 불이 네 문설주를 태워버렸도다.
- ¹⁴ 포위 공격을 위해 물을 길고, 네 요새를 견고히 하라.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고, 벽돌 굽는 화로를 견고히 하라.
- ¹⁵ 거기서 불이 너를 태우고, 칼이 너를 끊어버리리라. 너를 메뚜기처럼 삼켜버리리라. 메뚜기처럼 번성하고, 벌레처럼 번성하리라.
- ¹⁶ 네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이 늘렸도다. 메뚜기는 베어가고 도망가리라.
- ¹⁷ 네 경비병들은 메뚜기 같고, 네 관리들은 메뚜기 떼 같으니, 추운 날에는 성벽에 앉아 있으나, 해가 떠오르면 도망가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도다.
- ¹⁸ 아시리아 왕이여, 네 목자들은 잠들었고, 네 귀족들은 누워 있다.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졌고, 그들을 모을 자가 없도다.
- ¹⁹ 네 상처는 치유할 수 없고, 네 부상은 치명적이니라. 너의 소식을 듣는 자는 모두 너를 향해 손뼉을 치리라. 네 끝없는 잔인함을 견디지 못한 자가 누구냐?

하바국서 | Habakkuk

하바국서 1장

- ¹ 예언자 하바국이 본 계시이다.
- ² 주님, 제가 폭력을 외쳐도 언제까지 들으시지 않으실까요? 제가 부르짖어도 구원하지 않으실까요?
- ³ 왜 저는 불의를 보고, 악행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다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 ⁴ 그러므로 법은 무력해지고, 정의는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정의는 왜곡됩니다.
- ⁵ 너희는 열국 사이를 보아라. 주목하고 놀라라. 내가 너희가 살아 있는 동안 일하는 일을 너희가 믿지 못할 것이다. 비록 너희에게 말해 주더라도.
- ⁶ 보라, 내가 갈대아인을 일으킨다. 그들은 쓰라리고 급한 민족으로, 땅의 넓은 곳을 지나, 자기 것이 아닌 거처를 차지한다.
- ⁷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다. 그들의 판단과 존엄성은 자기들로부터 나온다.
- ⁸ 그들의 말들도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늑대보다 더 사나우다. 그들의 기병은 자랑스럽게 나아간다. 그들의 기병은 멀리서 온다. 그들은 먹이를 향해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 ⁹ 그 모두는 폭력을 위해 온다. 그들의 무리는 앞을 향해 나아간다. 그들은 모래처럼 포로를 모은다.
- ¹⁰ 그들은 왕들을 조롱하고, 왕자들을 비웃는다. 그들은 모든 요새를 웃어넘기며, 흙으로 둔덕을 쌓아 그것을 점령한다.
- ¹¹ 그들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며 나아간다. 그들은 죄가 있다. 그들의 힘이 곧 그들의 신이다.
- ¹² 주님, 저는 영원히 계신 당신, 나의 하느님, 나의 성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그들을 심판하도록 정하셨고, 반석이신 당신은 그들을 벌하게 세우셨습니다.
- ¹³ 악을 보시기에는 너무 순결하시고, 악행을 바라보실 수 없는 분이시니, 왜 당신은 배신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며,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 악한 자를 보고 침묵하시는 겁니까?
- ¹⁴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다스리는 이 없는 생물처럼 만드시는 겁니까?
- ¹⁵ 그는 갈고리로 모두를 잡아 올리고, 그의 그물로 잡아들이며, 그의 그물을 써서 모은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 ¹⁶ 그러므로 그는 그의 그물에 제물을 바치고, 그의 그물을 향하여 향을 피운다. 그의 생활이 풍요롭고, 그의 음식이 좋은 것은 그들 덕분이다.
- ¹⁷ 그러므로 그는 계속해서 그의 그물을 비우고, 자비 없이 민족들을 죽일 것입니까?

하바쿿서 2장

- ¹ 나는 나의 망대에 서서 요새 위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할지, 내가 그의 불평에 대해 무엇이라 답할지 바라보리라.
- ²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환상을 기록하여 비석에 분명히 새겨라. 달려가는 자가 읽을 수 있도록."
- ³ 이 환상은 아직 정해진 때를 위한 것이며, 그 끝을 향해 빠르게 나아간다. 그것은 거짓이 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려라. 그것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 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게 부풀어 있다. 그 안에는 올바름이 없으나, 의로운 자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 ⁵ 또한 포도주도 배신적이다. 자기를 지키지 않고 집에 머무르지 않는 교만한 자로, 그의 욕심은 스올처럼 넓히며, 죽음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민족을 자신에게 모으고, 모든 백성을 자신에게 쌓아 올린다.
- ⁶ 이 모든 자들이 그를 향해 비유와 조롱의 속담을 들고 일어나,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늘리는 자, 불의로 부를 쌓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얼마나 오래 되겠느냐?"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 ⁷ 네 빛진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 너를 떨게 하는 자들이 깨어나, 너는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겠느냐?
- ⁸ 너는 많은 민족을 약탈하였으므로, 모든 남은 백성이 너를 약탈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피와 땅과 도시 및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행한 폭력 때문이라.
- ⁹ 자기 집을 위해 불의한 이득을 얻어, 높은 곳에 자기 동지를 세우고, 악의 손에서 벗어나려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 ¹⁰ 너는 많은 민족을 멸망시켜 네 집에 수치를 가져왔고, 네 영혼을 범하였다.
- ¹¹ 벽의 돌이 외치고, 나무 기둥이 그것에 대답하리라.
- ¹² 피로 도시를 세우고, 불의로 성을 세우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 ¹³ 보라, 만군의 주님께서, 민족들이 불을 위해 수고하고, 나라들이 허무를 위해 힘을 써서 지치게 하지 않으시겠느냐?
- ¹⁴ 땅은 주님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리라. 바다가 물로 덮인 것처럼.
- ¹⁵ "네 이웃에게 술을 주어, 그가 취하도록 네 화끈거리는 포도주를 붓고, 그의 벌거벗은 몸을 보려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 ¹⁶ 너는 수치로 가득 차고 영광이 없으리라. 너도 마시고 벌거벗게 되리라. 주님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와서, 수치가 네 영광을 덮으리라.
- ¹⁷ 레바논에 행한 폭력이 너를 덮칠 것이며, 짐승들의 파괴가 너를 무서워하게 할 것이니, 이는 그들의 피와 땅과 모든 도시 및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행한 폭력 때문이라.
- ¹⁸ "조각한 우상은 무엇의 가치가 있느냐? 그 만든 자가 그것을 조각하였고, 녹여 만든 우상, 거짚을 가르치는 자가, 그 형상을 만든 자가 그것을 신뢰하여, 말 없는 우상을 만들었으니."
- ¹⁹ 나무에게, "깨어나라!" 하고, 말 없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덮여 있으나, 그 안에는 숨결이 전혀 없도다.
- ²⁰ 그러나 주님은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 땅의 모든 자가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하바국서 3장

- ¹ 예언자 하바국의 기도로, 승리의 음악에 맞춘 것.
- ² 주님, 저는 당신의 유명함을 들었습니다. 해가 중간에 당신의 일을 다시 일으키소서.
- ³ 하느님이 테만에서 오셨습니다.
- ⁴ 그의 영광은 해돋이 같았습니다.
- ⁵ 전염병이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 ⁶ 그가 서서 땅을 흔들었습니다.
- ⁷ 나는 쿠산의 장막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⁸ 주님은 강들에 분노하셨습니까?
- ⁹ 당신은 활을 벗으셨습니다. 당신은 맹세한 화살을 불러들였습니다. 셀라. 당신은 강들로 땅을 갈라뜨리셨습니다.
- ¹⁰ 산들이 당신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 ¹¹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 ¹² 당신은 분노로 땅을 지나 걸으셨습니다.
- ¹³ 당신은 당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셨습니다.
- ¹⁴ 당신은 그의 장수들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꿰뚫으셨습니다. 마치 은밀히 가난한 자들을 삼키려는 듯 기뻐하며.
- ¹⁵ 당신은 말로 바다를 밟으시며 거대한 물결을 뒤집어엎으셨습니다.
- ¹⁶ 나는 듣고 내 몸이 떨렸습니다.
- ¹⁷ 비록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우지 않으며,
- ¹⁸ 그래도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 ¹⁹ 주님 하느님이 내 힘이십니다.

스바니아서 | Zephaniah

스바니아서 1장

- ¹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날들에, 쿠시의 아들, 게다랴의 아들, 아마랴의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 스바니아에게 임한 주님의 말씀이다.
- ²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땅의 표면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 ³ 나는 사람과 짐승을 쓸어버릴 것이다. 나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악한 자들과 함께 더미가 된 잔해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나는 주님의 말이다. 땅 위에서 사람을 끊어버릴 것이다.
- ⁴ 나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 손을 펼칠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바알의 남은 자, 곧 우상과 이방의 제사장들의 이름을 끊어버릴 것이다.
- ⁵ 하늘의 군대를 집안 지붕에서 숭배하는 자들과, 주님을 숭배하면서도 박람에도 맹세하는 자들
- ⁶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자들
- ⁷ 주님 하느님의 앞에서 침묵하라.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주님은 제사를 준비하셨고, 그의 손님들을 성별하셨다.
- ⁸ 주님의 제사 날에 내가 공주들과 왕의 아들들과 외국 옷을 입은 모든 자를 벌할 것이다.
- ⁹ 그 날에 내가 문턱을 뛰어넘고 주인의 집을 폭력과 속임으로 채우는 모든 자를 벌할 것이다.
- ¹⁰ 그 날에는 주님의 말씀이다. 물고기 문에서 외침의 소리가 나고, 둘째 구역에서 탄식이 일어나며, 산들에서 큰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
- ¹¹ 마케스에 사는 자들아, 외쳐라. 가나안의 모든 백성이 멸망했기 때문이다. 은을 가득 싣던 자들이 모두 끊어졌다.
- ¹² 그때에 내가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뒤져, 자기 찌꺼기 위에 안정을 누리며 마음속으로 말하는 자들을 벌하겠다. 그들은 '주님은 복을 주지 않으시고, 악도 행하지 않으신다'고 말한다.
- ¹³ 그들의 재산은 약탈이 되고, 그들의 집은 황폐해질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짓지만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심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 ¹⁴ 주님의 큰 날이 가까웠다. 그 날은 가까이 와서 매우 빠르게 달려오고, 주님의 날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곳에서 강한 자들이 비통하게 외친다.
- ¹⁵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고통과 압박의 날이요, 환난과 파멸의 날이요, 어둠과 암흑의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 ¹⁶ 그 날은 성읍의 요새와 높은 성벽을 향해 나팔과 경고의 소리가 울리는 날이다.
- ¹⁷ 내가 사람에게에 큰 고통을 내려, 그들이 눈먼 자처럼 걸어나니게 하리니, 그들이 주님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피는 흙처럼 쏟아지고, 그들의 육체는 분노처럼 될 것이다.
- ¹⁸ 그들의 은이나 금이 주님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땅 전체가 그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며, 그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모두 끝내고, 심히 끔찍하게 끝낼 것이다.

스바니아서 2장

- ¹ 수치를 모르는 민족아, 모여라, 모여라.
- ² 짚처럼 흩어지는 날이 지나기 전에, 주님의 격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주님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 ³ 땅의 온유한 자들아, 주님을 구하여라. 그분의 법을 지킨 자들아, 의로움을 구하고, 온유함을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님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겨질지도 모른다.
- ⁴ 가자는 버려지고, 아스켈론은 황폐해질 것이다. 아스돗은 낮시간에 쫓겨나고, 에크론은 뿌리째 뽑힐 것이다.
- ⁵ 해안 지방의 주민들, 크레티무스 민족아, 화가 있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너희를 향해 있다. 카나안, 블레셋 땅아,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한 명도 남지 않게 할 것이다.
- ⁶ 해안은 목초지가 되고, 목자들을 위한 오두막과 양 떼를 위한 우리가 될 것이다.
- ⁷ 그 해안은 유다 집의 남은 자들에게 속할 것이다. 그들은 목초지를 찾고, 저녁에는 아스켈론의 집들에서 누울 것이다. 그들의 하느님 주님이 그들을 찾아주어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 ⁸ 내가 모압의 비난과 암몬 자손의 모욕을 들었다. 그들이 내 백성을 비난하며 그들의 경계를 자랑하였다.
- ⁹ 그러므로 내가 산다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말한다. 모압은 소돔과 같아지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와 같아질 것이다. 엉겅퀴와 소금 구덩이의 소유가 되고, 영원한 황폐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내 민족의 생존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 ¹⁰ 이것이 그들의 교만의 대가이다. 그들이 만군의 주의 백성을 비난하며 자랑하였기 때문이다.
- ¹¹ 주님은 그들에게 무서우실 것이다. 그분이 땅의 모든 신들을 기아에 빠뜨리실 것이며, 모든 이방 땅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그분을 숭배할 것이다.
- ¹² 너희 쿠시 사람들도 내 곁에 살해될 것이다.
- ¹³ 그분이 북쪽을 향해 손을 뻗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니네베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처럼 마르게 하실 것이다.
- ¹⁴ 그 도시 한가운데에 무리가 누울 것이며, 모든 종류의 짐승이 있을 것이다. 황새와 고슴도치가 그 성문의 높은 곳에 거할 것이며, 그들의 울음소리가 창문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 문지방에는 황폐가 가득할 것이니, 그분이 전나무 지붕을 드러내 셧기 때문이다.
- ¹⁵ 이것은 안심하고 살며, 마음속으로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라고 말하던 즐거운 도시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는 황폐해져서 짐승들이 누울 곳이 되었는가? 그녀를 지나가는 모든 이가 휘파람을 불고 주먹을 흔들 것이다.

스바니아서 3장

- ¹ 반역하고 더러운 도시, 압제하는 도시여, 화가 있을지어다!
- ² 그녀는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책망을 받지 않았으며,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기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
- ³ 그녀 안의 지도자들은 울부짖는 사자들이고, 그녀의 재판관들은 저녁 늑대들이다. 그들은 다음 날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 ⁴ 그녀의 예언자들은 교만하고 속임수를 쓰는 자들이며, 그녀의 사제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학대하였다.
- ⁵ 그녀 안에 계신 주님은 의로우시며, 잘못을 범하지 않으신다. 매일 아침 그분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
- ⁶ 나는 민족들을 끊어버렸다. 그들의 요새는 황폐해졌고, 그들의 거리는 황폐하여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다. 그들의 도시들은 파괴되어 아무도 없고,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다.
- ⁷ 나는 말했다. '오직 나를 두려워하고 책망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 관해 정한 모든 것을 따라 그녀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모든 행위를 부패시켰다.
- ⁸ 그러므로 나를 기다리라,
- ⁹ 그때 내가 모든 민족의 입술을 깨끗이 하여,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여 그분을 섬기게 하리라.
- ¹⁰ 고스의 강들 저편에서, 내 백성의 흩어진 자들 중 딸이 내 제물을 바칠 것이다.
- ¹¹ 그날에는 네가 나를 거스려 행한 모든 일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너 가운데 교만히 기뻐하는 자들을 제거할 것이며, 너는 다시 내 성산에서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다.
- ¹² 그러나 내가 너 가운데 고통받고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리니,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것이다.
- ¹³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죄를 범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며, 그들의 입술에 속임의 혀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먹고 누워서 두려움 없이 살 것이다.
- ¹⁴ 시온의 딸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외쳐라! 예루살렘의 딸아, 기뻐하고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여라!
- ¹⁵ 주님께서 네 재판을 제거하셨고, 네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너는 다시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 ¹⁶ 그날에는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힘없이 든 채로 있지 말라." 할 것이다.
- ¹⁷ 너의 하느님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구원하시는 강력한 분이시며, 너를 기쁨으로 즐거워하시고, 사랑으로 너를 잔잔히 하시며, 너를 노래로 즐거워하실 것이다.
- ¹⁸ 나는 너에게서 정해진 축제를 슬퍼하는 자들을 제거하리니, 그들은 너에게 짐과 수치가 되었기 때문이다.
- ¹⁹ 보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에게 처벌을 내리고, 저는 자들을 구원하며, 쫓겨난 자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땅 전역에서 수치를 당했던 자들에게 명예와 찬양을 주리라.
- ²⁰ 그때 내가 너희를 데려오고, 그때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운명을 너희 눈앞에 회복할 때, 너희를 땅 모든 민족들 앞에서 명예롭고 찬양받는 자로 만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카이서 | Haggai

하카이서 1장

- ¹ 다리오 왕의 두 번째 해, 여섯 번째 달, 그 달의 첫째 날에, 주님의 말씀이 예언자 하카이를 통해, 유다 총독인 실아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전해졌다.
- ² “주님의 군대의 주님은 이렇게 말한다. 이 백성은 말한다. ‘주님의 집을 짓기 위한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 ³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예언자 하카이를 통해 전해졌다.
- ⁴ “너희는 스스로 마루판으로 단장된 집에 거주할 때가 되었느냐? 이 집은 황폐한 채로 남아 있다.
- ⁵ 그러므로 주님의 군대의 주님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의 행위를 생각해 보아라.’
- ⁶ 너희는 많이 씨를 뿌렸지만, 적게 거두었다. 너희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벌어진 임금은 구멍 난 주머니에 넣는다.’
- ⁷ “주님의 군대의 주님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의 행위를 생각해 보아라.’
- ⁸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집을 짓거라.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 ⁹ “너희는 많이 기대했지만, 보라, 적게 얻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오면 내가 바람에 날려버렸다. 왜냐하면?” 주님의 군대의 주님의 말이다. “내 집이 황폐한 채로 남아 있고, 너희 각자는 자기 집에만 정신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 ¹⁰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하늘은 이슬을 거두고, 땅은 그 열매를 거두었다.
- ¹¹ 내가 땅과 산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에서 나는 모든 것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하는 모든 노동에 가뭄을 불러 일으켰다.’
- ¹² 그러자 실아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남은 백성이 주님 그들의 하느님의 음성 과, 주님 그들의 하느님이 그를 통해 보낸 하카이 예언자의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 ¹³ 그때 주님의 사자 하카이가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여 말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주님의 말이다.
- ¹⁴ 주님은 유다 총독인 실아엘의 아들 스룹바벨의 영을,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영을, 그리고 모든 남은 백성의 영을 일깨우셨다. 그들은 와서, 그들의 하느님인 주님의 군대의 주님의 집을 건설하였다.
- ¹⁵ 다리오 왕의 두 번째 해, 여섯 번째 달, 그 달의 스물네 번째 날에.

하카이서 2장

- ¹ 일곱 번째 달, 그 달 스물하나째 날에, 주님의 말씀이 예언자 하가이를 통해 이르셨다.
- ² "지금 너는 유다 총독인 실아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라.
- ³ "너희 중에 이 전이 처음에 영광스러웠던 때를 본 사람이 누구냐? 너희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너희 눈에 아무것도 같지 않느냐?
- ⁴ "그러나 지금 너는 힘을 내라, 스룹바벨," 주님의 말이다. "힘을 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힘을 내라, 땅의 모든 백성들," 주님의 말이다. "일을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주님 만군의 주님의 말이다.
- ⁵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의 말이 이것이다. 내 영이 너희 가운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 ⁶ "주님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곧 한 번 더, 잠시 후에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리라.
- ⁷ "내가 모든 민족을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민족의 보물들이 오리라. 내가 이 전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주님 만군의 주님의 말이다.
- ⁸ "은은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주님 만군의 주님의 말이다.
- ⁹ "이 전의 나중 영광은 처음 영광보다 더 크리라." 주님 만군의 주님의 말이다. "이 곳에서 내가 평화를 주리라." 주님 만군의 주님의 말이다.
- ¹⁰ 다리오 왕의 두 번째 해, 아홉 번째 달 스물네째 날에, 주님의 말씀이 예언자 하가이를 통해 이르셨다.
- ¹¹ "주님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지금 제사장들에게 법에 관해 물어보아라.
- ¹² "누군가가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가지고 다니며, 그 옷자락으로 빵이나 국물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해지겠느냐?"
- ¹³ 그러자 하가이가 말했다. "죽은 시체로 부정해진 사람이 이것들 중 하나에 닿으면, 그것이 부정해지겠느냐?"
- ¹⁴ 그러자 하가이가 대답했다. "이 백성도, 이 민족도 내 앞에서 그와 같고, 그들의 모든 수고도 그와 같으니라." 주님의 말이다. "그들이 거기서 바치는 것은 부정하다."
- ¹⁵ 지금부터, 돌이 돌 위에 놓이기 전, 주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를 돌아보아라.
- ¹⁶ 그때에, 이십 바르의 곡식이 있는 더미에 가도 열 바르밖에 없었고, 오십 바르의 포도주를 뽑으려 가도 스물 바르밖에 없었니라.
- ¹⁷ 내가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흉년과 고평이와 우박으로 치렸으나,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이다.
- ¹⁸ "지금부터, 아홉 번째 달 스물네째 날부터,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날부터, 그 날을 돌아보아라.
- ¹⁹ 씨앗은 아직 공간에 남아 있느냐? 보아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를 복 주리라."
- ²⁰ 그 달 스물네째 날에, 주님의 말씀이 다시 예언자 하가이에게 이르렀다.
- ²¹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리라.
- ²² "내가 왕국들의 왕좌를 뒤엎고, 민족들의 왕국들의 힘을 파괴하리라. 내가 병거와 그 안에 탄 자들을 뒤엎을 것이며, 말과 그 탄 자들이 모두 형제의 칼에 쓰러지리라."
- ²³ "그 날에," 주님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내가 너, 내 종 스룹바벨, 실아엘의 아들을 취하여, 인장 반지처럼 만들리라.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주님 만군의 주님의 말이다."

즈카르야서 | Zechariah

즈카르야서 1장

- 1 다리오의 두 번째 해 여덟 번째 달에, 주님의 말씀이 베레가야의 아들이고 이도의 아들인 예언자 즈카르야에게 임하였다.
- 2 “주님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분노하셨다.
- 3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여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 4 너희는 이전 예언자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외친 바와 같이 같이 말아라. 그들이 외쳤다.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라.’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님이 말한다.
- 5 너희 조상들은 어디에 있느냐? 예언자들은 영원히 살아 있느냐?
- 6 그러나 내가 내 종 예언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규례가 너희 조상들에게 미치지 않았느냐? 그때 그들은 회개하여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 길과 우리 행실에 따라 우리에게 하려고 정하신 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셨구나.’
- 7 다리오의 두 번째 해 열한 번째 달, 즉 세바트 달 이십사 일에, 주님의 말씀이 베레가야의 아들이고 이도의 아들인 예언자 즈카르야에게 임하였다.
- 8 “나는 밤에 환상을 보았다. 보라,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으리으리한 나무 사이에 서 있었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갈색 말과 흰 말이 있었다.
- 9 그때 내가 말하였다. ‘내 주여, 이들은 무엇입니까?’
- 10 나무 사이에 선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들은 주님이 땅을 두루 다니게 보내신 자들이다.’
- 11 그들이 나무로 된 골짜기 사이에 선 주님의 천사에게 보고하여 말하였다. “우리는 땅을 두루 다녀보았습니다. 보라, 온 땅이 평온하고 편안합니다.”
- 12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대답하였다. “만군의 주님,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에 대해 당신이 이 일흔 년 동안 분노하셨는데, 언제까지 자비를 베푸시 않으실 것입니까?”
- 13 주님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자비롭고 위로하는 말로 대답하셨다.
- 14 그러자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외쳐라.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큰 열정으로 질투한다.”
- 15 나는 편안히 지내는 열국에 심히 분노한다. 나는 단지 조금만 분노했을 뿐인데, 그들은 재앙을 더했다.
- 16 그러므로 주님이 말한다. “나는 자비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내 집은 그 안에 지어질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예루살렘 위에 줄이 퍼질 것이다.”
- 17 “더하여 외쳐라.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내 성읍들은 다시 번영으로 넘쳐흐르고, 주님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 18 나는 눈을 들어 보니, 네 개의 뿔이 보였다.
- 19 나는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흠어버린 뿔들이다.”
- 20 주님은 네 명의 장인을 내게 보여 주셨다.
- 21 그때 내가 물었다. “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오는 겁니까?” 그가 말하였다. “이것들은 유다를 흠어버려서 아무도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 뿔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 뿔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유다 땅을 흠어버리려고 머리를 치켜든 열국의 뿔들을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다.”

즈카르야서 2장

- 1 나는 눈을 들어 보니, 손에 측량 줄을 든 한 사람이 보였다.
- 2 나는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 3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가자, 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이하여
- 4 그에게 말했다. "빨리 가서 이 젊은이에게 말하여라. '예루살렘은 성벽 없이 마을처럼 사람이 거주할 것이다. 그 안에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 5 주님의 말이다. '나는 그 주위에 불의 성벽이 되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다.'
- 6 "일어나라, 북방 땅에서 도망쳐라." 주님의 말이다. '내가 하늘의 네 바람처럼 너희를 흩어놓았기 때문이다.'
- 7 "시온아, 도망쳐라. 바빌론의 딸과 함께 거주하는 자들아."
- 8 만군의 주님은 말한다. '내가 너희를 노략한 민족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존중하게 하였다. 너희를 만지는 자는 내 눈동자를 만지는 자이다.'
- 9 보아라, 내가 손을 흔들어 그들을 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을 섬기던 자들의 노략물이 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10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시온의 딸아! 보아라,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거주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 11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님에게 붙어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내가 너희 가운데 거주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이 너희에게 나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12 주님은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자기 몫으로 얻을 것이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 13 모든 육체는 주님 앞에서 잠잠하라. 그가 자기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이다!

즈카르야서 3장

- 1 그가 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여 주었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었다.
- 2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주님이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님이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빼낸 타는 막대기가 아니냐?"
- 3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 4 그가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 내라."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네 죄악을 네게서 제거하였고,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 5 나는 말했다. "그의 머리에 깨끗한 두건을 씌우게 하라."
- 6 주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단단히 다짐하며 말했다.
- 7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네가 내 길을 걷고 내 지시를 따르면, 너도 내 집을 심판하고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네게 나 서 있는 자들 사이에 들어갈 자리를 주겠다."
- 8 이제 들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네 앞에 앉아 있는 동료들도 들어라. 그들은 징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보라, 내가 내 종, 싹을 내보낼 것이다.
- 9 보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이다. 한 돌 위에 일곱 눈이 있다.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내가 그 돌에 새길 것이며, 그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제거하겠다.
- 10 그 날에는,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너희는 각자 이웃을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불러들일 것이다.

즈카르야서 4장

- ¹ 나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나를 깨웠다.
- ² 그가 내게 말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 ³ 그것 옆에 두 개의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릇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다.
- ⁴ 나는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 ⁵ 그때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대답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 ⁶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루벨라벨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힘으로도, 힘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리라.'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 ⁷ 큰 산아, 넌 누구냐? 제루벨라벨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될 것이며, 그는 "은총, 은총, 그것에게!" 하고 외치며 꼭대기 돌을 내놓을 것이다.
- ⁸ 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했다.
- ⁹ "제루벨라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고, 그의 손이 그것을 마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주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음을 알게 될 것이다."
- ¹⁰ 작은 것들의 날을 누가 업신여기랴? 이 일곱은 기뻐하며 제루벨라벨의 손에 있는 추를 볼 것이다. 이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주님의 눈이다."
- ¹¹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등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나무는 무엇입니까?"
- ¹² 내가 다시 그에게 물었다. "황금 통에서 황금 기름을 쏟아내는 두 황금 통 옆에 있는 이 두 올리브 가지는 무엇입니까?"
- ¹³ 그가 내게 대답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 ¹⁴ 그러자 그가 말했다. "이것들은 온 땅의 주님 곁에 서 있는 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즈카르야서 5장

- ¹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보니,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보였다.
- ² 그가 내게 말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 ³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은 온 땅 위로 나아가는 저주이다. 도둑질하는 자는 이 저주에 따라 한쪽 면에서 벌을 받고, 내 이름으로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는 이 저주에 따라 다른 쪽 면에서 벌을 받을 것이다."
- ⁴ 주님의 만군이 말한다. "내가 이 저주를 보내어 도둑의 집과 내 이름으로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게 하리니, 그것이 그 집 한가운데 머물며 나무와 돌을 모두 파괴할 것이다."
- ⁵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와 내게 말했다. "이제 눈을 들어, 나타나는 이 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 ⁶ 내가 말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 ⁷ 보라, 한 탈렌트 무게의 납 덮개가 들어 올려졌고, 에바 바구니 한가운데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
- ⁸ 그가 말했다. "이것은 악이다." 그리고 그는 그 여자를 에바 바구니 한가운데로 밀어 넣고, 그 입구에 납 덮개를 얹었다.
- ⁹ 그러고 나서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두 여자가 보였다. 그들의 날개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으며, 그들의 날개는 백로의 날개 같았다. 그들이 에바 바구니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렸다.
- ¹⁰ 나는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말했다. "이들이 에바 바구니를 어디로 옮기고 있습니까?"
- ¹¹ 그가 내게 말했다. "신나르 땅에 그녀를 위한 집을 지어 주겠다. 그 집이 준비되면, 그녀는 그곳 자기 자리에 놓일 것이다."

즈카르야서 6장

- ¹ 다시 내가 눈을 들고 보니, 네 대의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고, 그 산들은 뚫산이었다.
- ² 첫 번째 병거에는 붉은 말들이 있었고, 두 번째 병거에는 검은 말들이 있었다.
- ³ 세 번째 병거에는 흰 말들이 있었고, 네 번째 병거에는 무늬진 말들이 있었는데, 모두 힘이 강하였다.
- ⁴ 그러나 나는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물었다. "주님, 이 것들은 무엇입니까?"
- ⁵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말했다. "이것들은 온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늘의 네 바람입니다."
- ⁶ 검은 말들은 북쪽 땅으로 나아가고, 흰 말들은 그 뒤를 따르며, 무늬진 말들은 남쪽 땅으로 나아갑니다.
- ⁷ 강한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며 왕복하려고 애쓰자, 그가 말했다. "땅을 두루 다녀라!" 그래서 그들이 땅을 두루 다녔다.
- ⁸ 그때 그가 나를 불러서 내게 말했다. "보아라, 북쪽 땅으로 나아간 자들이 내 영을 북쪽 땅에서 진정시켰다."
- ⁹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 ¹⁰ "포로에서 온 자들, 곧 헬다이와 도비야와 여다야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날에 가서 세파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으로 들어가라. 그들은 바빌론에서 온 자들이다."
- ¹¹ 은과 금을 받아 왕관을 만들고,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곧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우라.
- ¹²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님이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그 이름이 싹인 그 사람이다. 그는 자기 자리에서 자라 나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 ¹³ 그가 주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가 영광을 지니고, 그의 자리에 앉아 통치할 것이며, 그는 그의 자리에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 둘 사이에 평화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 ¹⁴ 그 왕관들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세파냐의 아들 헨에게 돌려져, 주님의 성전에서 기념이 될 것이다.
- ¹⁵ 먼 곳에 있는 자들도 와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너희는 만군의 주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군의 주님 너희 하느님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순종한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즈카르야서 7장

- ¹ 다리오 왕 네 번째 해 아홉 번째 달, 키스레브 달 사일에 주님의 말씀이 즈카르야에게 임하였다.
- ² 베델 사람들은 샤르세르와 레겔멜렉과 그들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님의 은총을 구하게 하였다.
- ³ 그들은 주님의 군대의 하느님의 사제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처럼 여러 해 동안 다섯 번째 달에 금식하며 스스로를 분리해 왔는데, 이제도 내가 다섯 번째 달에 금식해야 합니까?"라고 하였다.
- ⁴ 그러자 주님의 군대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 ⁵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사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 일흔 해 동안 다섯 번째 달과 일곱 번째 달에 금식하며 애도할 때, 너희가 진정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느냐, 나를 위하여 하였느냐?
- ⁶ 너희가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너희가 자기들을 위하여 먹고 자기들을 위하여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 ⁷ 예루살렘이 거주되고 번영하며 그 주변의 도시들과 남방과 평지가 거주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이 말들이 아니냐?"
- ⁸ 주님의 말씀이 즈카르야에게 임하였다.
- ⁹ "주님의 군대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정한 판단을 행하고, 각자 자기 형제에게 자비와 자비를 베풀어라."
- ¹⁰ 과부와 고아와 타국인,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며, 너희 마음속으로 형제를 해치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지 말아라."
- ¹¹ 그러나 그들은 듣기를 거부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아 들을 수 없게 하였다.
- ¹² 그들은 마음을 화강암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으니, 이는 주님의 군대의 주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 이전 예언자들을 통해 보낸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함이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군대의 주님께로부터 큰 진노가 일어났다.
- ¹³ 그가 부르짖었을 때 그들이 듣기를 거부하였듯이, 그들이 부르짖을 때 나도 듣지 않겠다." 주님의 군대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 ¹⁴ "내가 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한 모든 나라들 사이에 회오리바람으로 흩어버리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떠난 후 땅은 황폐해져서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즈카르야서 8장

- ¹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 ²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나는 시온을 크게 질투하며, 그녀를 위해 크게 분노한다."
- ³ 주님이 말한다. "나는 시온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거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불릴 것이며, 만군의 주님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 ⁴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앉을 것이다. 그들은 나이가 많아서 각자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을 것이다."
- ⁵ 그 도시의 거리에는 소년들과 소녀들이 그 거리에서 뛰어놀 것이다."
- ⁶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그때에 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그것이 기이하게 보이더라도, 내게도 기이하지 않겠느냐?"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 ⁷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 ⁸ 나는 그들을 데려와 예루살렘에 거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진리와 의로움으로."
- ⁹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날들에 예언자들의 입에서 들은 이 말들을 듣고, 만군의 주님의 집, 곧 성전이 땅을 파고 기초를 놓던 날에 있던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손을 강하게 하라."
- ¹⁰ 그 이전 날들에는 사람이 품삯을 얻지 못했고, 짐승도 품삯을 얻지 못했으며, 나가는 자나 들어오는 자에게 평화가 없었다. 적대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이웃을 대적하게 하였다."
- ¹¹ 그러나 이제 나는 이 백성의 남은 자에게 이전 날들처럼 하지 않겠다."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 ¹² 평화의 씨앗과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수확을 내놓으며,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나는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이 이 모든 것을 물려받게 할 것이다.
- ¹³ 너희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서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가 되었듯이,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축복이 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손을 굳세게 하라.
- ¹⁴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노하게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해를 끼치려고 생각했듯이, 나는 회개하지 않았다."
- ¹⁵ 이제 나는 이 날들에 예루살렘과 유다 집을 위해 선을 행하려고 생각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 ¹⁶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것들이다. 이웃과 진실을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과 평화의 판단을 실행하여라.
- ¹⁷ 너희 중 누구도 이웃을 향해 마음속으로 악을 꾸미지 말고,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한다.
- ¹⁸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 ¹⁹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사월, 오월, 칠월, 십월의 금식은 유다 집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즐거운 축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과 평화를 사랑하여라."
- ²⁰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많은 민족과 여러 도시의 주민들이 다시 올 것이다."
- ²¹ 한 도시의 주민이 다른 도시로 가서 말할 것이다. "우리가 가서 만군의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찾자. 나도 가겠다."
- ²² 많은 민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구할 것이다."
- ²³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그때에 모든 민족의 언어에서 열 명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옷자락을 잡고 말할 것이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자. 하느님이 너희와 함께하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즈카르야서 9장

- ¹ 계시.
- ² 그것과 경계를 이루는 하마트도,
- ³ 두르가 자기의 요새를 쌓았으며,
- ⁴ 보라, 주님께서 그녀를 몰아낼 것이다,
- ⁵ 아스켈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 ⁶ 아스돗에는 외국인이 거주할 것이며,
- ⁷ 내가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제거할 것이며,
- ⁸ 내가 내 집 주위에 군대를 둘러싸고,
- ⁹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여라!
- ¹⁰ 내가 에브라임에서 전차를 끄고,
- ¹¹ 너도, 너의 언약의 피로 인하여,
- ¹² 희망의 포로들아, 요새로 돌아오라!
- ¹³ 내가 유다를 내 활로 굽히며,
- ¹⁴ 주님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실 것이다.
- ¹⁵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지킬 것이다.
- ¹⁶ 그날에 주님, 곧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들의 백성의 양 떼처럼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 ¹⁷ 그의 선하심이 얼마나 큰가!

즈카르야서 10장

- ¹ 봄철에 주님께 비를 구하라.
- ² 터라핌이 허무한 것을 말했고,
- ³ 내가 목자들에게 분노를 품었으며,
- ⁴ 그에게서 모퉁이 돌이 나올 것이며,
- ⁵ 그들은 전장에서 진흙 흐린 길을 밟는 용사처럼 될 것이다.
- ⁶ 내가 유다의 집을 강하게 하며,
- ⁷ 에브라임은 용사처럼 될 것이며,
- ⁸ 내가 그들을 불러 모을 것이며,
- ⁹ 내가 그들을 민족들 사이에 뿌릴 것이다.
- ¹⁰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다시 데려올 것이며,
- ¹¹ 그가 고난의 바다를 지나며,
- ¹² 내가 그들을 주님 안에서 강하게 할 것이다.

즈카르야서 11장

- ¹ 레바논아, 네 문을 열어라. 불이 네 백향목을 삼켜버리리라.
- ² 전나무아, 외쳐라. 백향목이 쓰러졌으니,
- ³ 목자들의 통곡 소리가 들린다!
- ⁴ 주님 내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죽임을 당할 양 떼를 먹여라."
- ⁵ 그들을 사는 자들은 죽이고 벌을 받지 않는다. 그들을 파는 자들은 말한다. "주님을 찬미하라. 내가 부자가 되었구나."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 ⁶ 내가 이 땅의 주민들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각 사람을 이웃의 손과 그의 왕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치리라. 내가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 ⁷ 그래서 나는 죽임을 당할 양 떼, 특히 양 떼 속의 압제받는 자들을 먹였다. 나는 두 지팡이를 가져왔다. 하나는 "은총"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 부르며, 나는 양 떼를 먹였다.
- ⁸ 한 달 안에 나는 세 목자를 제거하였다. 내 영혼이 그들을 싫어하게 되었고, 그들의 영혼도 나를 싫어하였다.
- ⁹ 그때 나는 말하였다.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겠다. 죽을 자는 죽게 하고, 잘릴 자는 잘리게 하며, 남은 자들은 서로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 ¹⁰ 나는 내 지팡이 "은총"을 끊어 버려, 내가 모든 민족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 ¹¹ 그 날에 그 지팡이는 끊어졌다. 그래서 나를 듣는 가난한 양 떼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알았다.
- ¹²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 보수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어라." 그래서 그들은 나의 보수로 은 서른 닢을 달아주었다.
- ¹³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냄비꾼에게 던져라. 그들이 나를 평가한 아름다운 값이니!" 나는 은 서른 닢을 가져다가 주님의 집에서 냄비꾼에게 던졌다.
- ¹⁴ 그 후 나는 다른 지팡이, 곧 "연합"을 끊어 버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형제애를 깨뜨렸다.
- ¹⁵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를 네게 가져라."
- ¹⁶ 보아라. 내가 그 땅에 목자를 일으키리니, 그는 잘린 자를 돌보지 않고, 흠어진 자를 찾지 않으며, 상한 자를 치유하지도 않고, 건강한 자를 먹이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살찐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발굽을 찢어버릴 것이다.
- ¹⁷ 양 떼를 버리는 무가치한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칼이 내릴 것이다. 그의 팔은 완전히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은 완전히 멀게 될 것이다!

즈카르야서 12장

- ¹ 이스라엘에 관한 주님의 말씀의 계시: 하늘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세우며 사람 안에 그의 영을 만드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²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둘러싼 백성들에게 흔들리는 잔으로 만들겠다. 유다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도 그것이 될 것이다.
- ³ 그 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들에게 짐이 되는 돌로 만들겠다. 그것을 짊어지는 자들은 모두 심하게 다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것에 대항하여 모일 것이다.
- ⁴ 그 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모든 말에게 공포를, 그 기병에게 미친 듯한 정신을 내리겠다. 내가 유다 집을 돌아보며, 모든 백성들의 말들에게 눈 멀게 할 것이다.
- ⁵ 유다의 지도자들이 마음속으로 말하리라, "예루살렘 거민들이 나의 힘이니, 만군의 주님, 그들의 하느님 때문이다."
- ⁶ 그 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 속의 불판처럼, 더미 속의 불꽃처럼 만들겠다. 그들은 오른쪽과 왼쪽의 모든 둘러싼 백성을 삼킬 것이며, 예루살렘은 다시 자기 자리, 곧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다.
- ⁷ 주님도 유다의 장막들을 먼저 구원하시리니,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 높아지지 않게 하시리라.
- ⁸ 그 날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지키실 것이다. 그 날에 그들 중 약한 자도 다윗처럼 되고, 다윗의 집은 하느님처럼, 그들 앞의 주님의 천사처럼 될 것이다.
- ⁹ 그 날에 내가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올라오는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려 할 것이다.
- ¹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 주리라. 그들은 내가 찢린 이를 바라볼 것이며, 자기 외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고, 자기 만아들을 위하여 슬피 울듯 그를 위하여 슬피 울 것이다.
- ¹¹ 그 날에 예루살렘에는 메길도 골짜기의 하다드림몬의 애곡처럼 큰 애곡이 있을 것이다.
- ¹² 땅은 각 가족마다 따로 애곡할 것이니, 다윗의 집은 따로, 그들의 아내들은 따로; 나단의 집은 따로, 그들의 아내들은 따로;
- ¹³ 레위의 집은 따로, 그들의 아내들은 따로; 시므이의 집은 따로, 그들의 아내들은 따로;
- ¹⁴ 남은 모든 가족들이 각각 따로, 그들의 아내들은 따로 애곡할 것이다.

즈카르야서 13장

- ¹ 그 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죄와 부정을 위한 샘물이 열릴 것이다.
- ² 주님 만군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날에 내가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을 끊어버릴 것이며, 그 이름들은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예언자들과 부정한 영을 땅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 ³ 누군가가 여전히 예언하려 할 때,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할 것이다.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므로 죽어야 한다.'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가 예언할 때 그를 찢어 죽일 것이다.
- ⁴ 그 날에 예언자들은 각자 예언할 때 자신의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속이기 위해 털로 된 겹옷을 입지 않을 것이다.
- ⁵ 그는 말할 것이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땅을 갈아서 일하는 농부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노예가 되었다.'
- ⁶ 누군가가 그에게 물을 것이다. '네 팔 사이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인가?' 그는 대답할 것이다.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맞은 상처들이다.'
- ⁷ "칼아, 일어나 내 목자에게 치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 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땅 전체에서 두 부분이 끊어져 죽을 것이며,
- ⁹ 내가 세 번째 부분을 불 속으로 데려갈 것이다.

즈카르야서 14장

- ¹ 보라, 주님의 날이 온다. 그날에 너희의 전리품이 너희 가운데 나누어질 것이다.
- ² 내가 모든 나라를 예루살렘과 싸우게 모을 것이다. 그 도시는 빼앗기고, 집들은 약탈당하며, 여자들은 강간될 것이다. 도시의 절반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머지 백성은 도시에서 굶기지 않을 것이다.
- ³ 그때 주님께서 나가서 그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마치 전투의 날에 싸우시던 것처럼.
- ⁴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기름빛 산 위에 서실 것이다. 기름빛 산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를 만들 것이다.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 ⁵ 너는 내 산들의 골짜기를 통해 도망칠 것이다. 산들의 골짜기는 아젤까지 이어질 것이다. 너희는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지진 앞에서 도망친 것처럼 도망칠 것이다. 나의 하느님 주님께서 오시고, 너희와 함께 모든 성도들도 올 것이다.
- ⁶ 그날에는 빛이 없고, 추위도 서리도 없을 것이다.
- ⁷ 그날은 주님께만 알려진 독특한 날이 될 것이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지만, 저녁이 되면 빛이 생길 것이다.
- ⁸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살아 있는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물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럴 것이다.
- ⁹ 주님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 주님은 한 분이시며, 그분의 이름도 한 가지가 될 것이다.
- ¹⁰ 예루살렘 남쪽 게바에서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해질 것이다. 그 도시는 높아져 그 자리에 머물 것이며, 베냐민 문에서 첫 문까지, 모서리 문까지, 하나넬 탑에서 왕의 포도주 압착장까지 이어질 것이다.
- ¹¹ 사람들이 그 안에 거주할 것이며,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 ¹²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민족에게 내릴 재앙은 이러할 것이다. 그들이 서 있는 동안 그들의 육체가 썩어 없어지고, 그들의 눈은 눈구멍에서 썩어 없어지며, 그들의 혀는 입안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다.
- ¹³ 그날에 주님께서 그들 사이에 큰 공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들은 각자 이웃의 손을 잡을 것이며, 그의 손이 이웃의 손을 치게 될 것이다.
- ¹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다. 주변 모든 나라의 재산이 모아질 것이다. 금, 은, 옷이 풍성하게 모일 것이다.
- ¹⁵ 이와 같은 재앙이 말과 노새와 낙타와 당나귀와 그 진영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도 내릴 것이다.
- ¹⁶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나라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주님, 왕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 ¹⁷ 지구의 모든 족속 중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만군의 주님, 왕을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 ¹⁸ 이집트 족속이 올라오지 않고 가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모든 민족에게 주님께서 내릴 재앙이다.
- ¹⁹ 이것이 이집트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모든 민족의 벌이다.
- ²⁰ 그날에는 말의 종에 '주님께 성결하다'라고 쓰일 것이다. 주님의 집 안의 냄비들이 제단 앞의 그릇처럼 될 것이다.
- ²¹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냄비들이 만군의 주님께 성결할 것이다. 모든 제사하는 자들이 와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그 안에서 요리할 것이다. 그날에는 만군의 주님의 집에 가나안 사람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말라키서 | Malachi

말라키서 1장

- ¹ 이것은 말라키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님의 계시이다.
- ²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주님이 말한다. “에사우는 야곱의 형이 아니었느냐?” 주님이 말한다.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 ³ 에사우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의 유산을 광야의 여우들에게 주었다.
- ⁴ 에돔은 말한다. ‘우리는 무너졌지만, 다시 돌아와 황폐한 곳들을 재건할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은 말한다. ‘그들이 재건하겠지만, 나는 허물어뜨릴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을 ‘악한 땅’, 곧 주님이 영원히 진노하시는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 ⁵ 너희 눈이 보고, 너희는 말할 것이다. ‘주님은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까지 위대하시다!’
- ⁶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한다. 내가 아버지라면, 내 공경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주인이라면, 내게 마땅한 존경은 어디에 있는가?” 만군의 주님이 너희 사제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말한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경멸했습니까?’
- ⁷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친다. 너희는 말한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혔습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상은 경멸할 만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 ⁸ 너희가 눈먼 것을 제물로 바치면, 그것이 악이 아니냐? 너희가 불구자와 병든 것을 바치면, 그것이 악이 아니냐? 지금이라도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 보아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혹은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 ⁹ “이제, 너희는 하느님께 은총을 구하여,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라. 이와 같은 것을 바치면서, 그가 너희 중 누구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 ¹⁰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단 문을 닫아, 내가 제단에 헛되이 불을 피우지 않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너희 손으로 바치는 제물을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다.
- ¹¹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나의 이름은 열국에서 위대하다.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향이 바쳐지고, 순결한 제물이 드려진다. 나의 이름은 열국에서 위대하다,”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 ¹²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님의 상은 더럽혀졌고, 그 열매, 곧 그 음식은 경멸할 만하다’고 하여, 그것을 더럽힌다.
- ¹³ 너희는 말한다. ‘보아라, 얼마나 지루한가!’ 그리고 너희는 그것에 싫증을 느낀다,”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너희는 강탈한 것과 불구자와 병든 것을 가져와 제물을 바친다. 내가 너희 손으로 이것을 받아주겠느냐?” 주님이 말한다.
- ¹⁴ “내 무리 가운데 건장한 수컷이 있는데도, 서원을 하고서 주님께 흠이 있는 것을 바치는 속이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나는 위대한 왕이다,”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내 이름은 열국에서 두려움을 받는다.”

말라기서 2장

- ¹ 이제, 너희 사제들아,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 ² 너희가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아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축복을 저주할 것이다. 이미 너희가 마음에 새기지 않으므로, 내가 그것을 저주하였다.
- ³ 보아라, 내가 너희 자손을 책망하고, 너희 얼굴 위에 너희 축제의 배설물을 퍼부을 것이다. 너희는 그것과 함께 끌려가게 될 것이다.
- ⁴ 너희는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보낸 것이, 내 언약이 레위와 함께 있게 하려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 ⁵ 내가 그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였으며,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어 내가 두려워하게 하려 하였다. 그는 나를 두려워하였고, 내 이름을 공경하였다.
- ⁶ 그의 입에는 진리의 율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가 없었다. 그는 평화와 정의로 나와 함께 걸었으며, 많은 사람을 불법에서 돌이켰다.
- ⁷ 사제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한다. 그는 만군의 주님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 ⁸ 그러나 너희는 길에서 벗어났다. 너희는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넘어지게 하였고, 레위의 언약을 부패시켰다.
- ⁹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모든 백성 앞에서 천대받고 악한 자로 만들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고, 율법에서 사람을 편애하였기 때문이다.
- ¹⁰ 우리 모두 한 아버지가 있지 아니한가? 한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는가? 어찌하여 우리는 형제마다 서로 배신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히는가?
- ¹¹ 유다는 배신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일이 일어났다. 유다가 사랑하는 주님의 성결을 더럽히고, 외국 신의 딸과 결혼하였기 때문이다.
- ¹² 만군의 주님은 이 일을 하는 자, 깨어 있는 자와 대답하는 자를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며, 만군의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자를 끊어버릴 것이다.
- ¹³ 이제 너희는 또 이렇게 한다. 너희가 주님의 제단을 눈물과 통곡과 탄식으로 덮었으니, 그가 너희 손에서 드리는 제물을 더 이상 보지 않으며, 기꺼이 받지 않기 때문이다.
- ¹⁴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어찌하여 그런가?'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젊은 시절의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다. 너희는 그녀를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너희의 동반자이자 너희의 언약의 아내이다.
- ¹⁵ 그가 영의 남은 부분을 가지고도 너희를 하나로 만드셨다. 어찌하여 하나인가? 그는 경건한 자손을 구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영을 주의 깊게 지켜라. 누구도 자기 젊은 시절의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
- ¹⁶ '미워하고 이혼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는 자기 옷을 폭력으로 덮는다.' 그러므로 너희 영을 주의하여 배신하지 말라.
- ¹⁷ 너희가 말로 주님을 지치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어찌하여 우리가 그를 지치게 했는가?'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가 주님의 눈에 선하고, 그가 그들을 기뻐하신다.' 또는 '정의의 하느님은 어디 있는가?'

말라기서 3장

- 1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너희가 찾는 주님이 갑작스럽게 그의 성전에 이르리라. 보라, 너희가 바라는 언약의 사자가 오고 있다!
- 2 그러나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서 있을 수 있겠는가? 그는 금을 정련하는 불과 같고,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하는 비누와도 같으니,
- 3 그는 은을 정련하는 자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정결하게 하여, 금과 은처럼 그들을 정련할 것이다. 그때에 그들은 의로움으로 주님께 제물을 바칠 것이다.
- 4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 날들과 고대 해들처럼 주님께 기쁨이 될 것이다.
- 5 나는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 심판할 것이다. 나는 마술사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그리고 월급을 받는 자를 억압하고,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며, 나그네에게 정의를 빼앗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빠르게 증인이 될 것이다.
- 6 나는 주님으로서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도다.
- 7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리라.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 8 사람이 하느님을 흠칠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흠친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흠쳤습니까?" 십일조와 헌물로 말입니다.
- 9 너희는 저주를 받았다. 너희가 나를 흠쳤기 때문이다. 이 온 나라가 그렇다.
- 10 전 십일조를 창고에 가져오라. 그러면 내 집에 양식이 있을 것이니, 지금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보아라.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내가 하늘의 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그 양이 넘쳐서 수용할 곳이 없을 정도로 하지 않겠느냐.
- 11 나는 너희를 위해 소비자를 꾸짖어,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 포도나무가 들에서 시기 전에 열매를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리라.
- 12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니, 너희 땅은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13 "너희의 말이 내게 거슬리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대적하는 말을 했느냐 하니,"
- 14 너희는 말하기를,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의 천군 앞에서 슬퍼하며 걷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 15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들을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워지고, 하느님을 시험해도 구원받는다고 말하도다.
- 16 그때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였고, 주님께서 듣고 들으셨으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념책이 그분 앞에 기록되었도다.
- 17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 주님의 천군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가 만드는 날에 그들을 내 소유로 삼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마치 사람이 자기에게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아낄 것이니라.
- 18 그때 너희가 다시 나아가 의로운 자와 악한 자, 하느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 19 "보라, 날이 이르리니, 화로처럼 타오르리라. 그날에는 모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마치 겨가 될 것이니, 주님의 천군이 말하노니, 그 날이 그들을 태워 없애리라. 그들에게 뿌리도 가지도 남지 아니하리라."
- 20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해가 떠오르며, 그 품에 치유가 있으리니, 너희는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어나가리라.
- 21 너희는 악한 자들을 밟으리라. 내가 내가 만드는 날에 그들은 너희 발바닥 아래 재가 되리라," 주님의 천군이 말하노라.
- 22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여라. 내가 호렙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그에게 명령한 율례와 규례를."
- 23 보라, 내가 큰 놀라운 날,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 24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니, 그래야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아니하리라.

마태오 복음서 | Matthew

마태오 복음서 1장

- ¹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 ² 아브라함은 이사악을 낳았고, 이사악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 ³ 유다는 타마르를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으며,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 ⁴ 람은 아민나답을 낳았고, 아민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며,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 ⁵ 살몬은 라합을 통해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롯을 통해 오벧을 낳았으며, 오벧은 여세를 낳았다.
- ⁶ 여세는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다.
- ⁷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으며,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다.
- ⁸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았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으며,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 ⁹ 우시야는 요담을 낳았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았으며,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 ¹⁰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 ¹¹ 요시야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여고니야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 ¹²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니야는 스알티엘을 낳았고, 스알티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 ¹³ 스룹바벨은 아비우드를 낳았고, 아비우드는 엘리아김을 낳았으며,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았다.
- ¹⁴ 아소르는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김을 낳았으며, 아김은 엘리우드를 낳았다.
- ¹⁵ 엘리우드는 엘레아살을 낳았고, 엘레아살은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 ¹⁶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예수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라 불린다.
- ¹⁷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세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세대이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세대이다.
- ¹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였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후, 함께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
- ¹⁹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으므로, 그를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지 않으려고 비밀리에 그를 떠나려고 마음먹었다.
- ²⁰ 그가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했다. "요셉, 다윗의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 ²¹ 그녀는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 ²²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려 함이었다.
- ²³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 ²⁴ 요셉은 잠에서 일어나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여 아내를 맞아들였다.
- ²⁵ 그는 그녀가 첫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못하였다. 그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

마태오 복음서 2장

- ¹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헤로데 왕의 시대였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 ²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와서 그를 경배하러 합니다."
- ³ 헤로데 왕이 이 말을 듣고 불안해했고, 예루살렘 전체도 함께 불안해했다.
- ⁴ 그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물었다.
- ⁵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 ⁶ "베들레헴, 유다의 땅아,"
- ⁷ 헤로데는 박사들을 비밀리에 불러서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기를 물어보았다.
- ⁸ 그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어린아이를 정성스럽게 찾아내라. 너희가 찾으면 나에게 알려라. 나도 와서 그를 경배하러 한다."
- ⁹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갔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아가서 어린아이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다.
- ¹⁰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
- ¹¹ 그들은 집에 들어가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그를 경배하였다. 그들은 보물을 열어 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 ¹²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아서, 그들은 다른 길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 ¹³ 그들이 떠난 후,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라. 내가 너에게 말할 때까지 거기 머물러라. 헤로데가 그 어린아이를 찾아 죽이려 할 것이다."
- ¹⁴ 요셉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다.
- ¹⁵ 그는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렀다. 이는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 냈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 ¹⁶ 헤로데는 박사들이 자신을 속였음을 알고 매우 분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두 살 이하의 모든 남자 어린아이를 죽였다. 그는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기를 기준으로 했다.
- ¹⁷ 그때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한 바가 이루어졌다.
- ¹⁸ "라마에서 울부짖는 소리, 슬피 울고 큰 애도의 소리가 들렸다."
- ¹⁹ 헤로데가 죽은 후, 이집트에서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 ²⁰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어린아이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
- ²¹ 요셉은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
- ²² 그러나 그가 아르켈라오가 아버지 헤로데의 뒤를 이어 유대를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꿈에 경고를 받아서 그는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났다.
- ²³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도시에 와서 살았다. 이는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라는 말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마태오 복음서 3장

- ¹ 그때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자로 와서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였다.
- ²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 ³ 이 사람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말한 바와 같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 ⁴ 요한은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으며, 먹는 것은 메뚜기와 야생 꿀이었다.
- ⁵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지역 전체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왔다.
- ⁶ 그들은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였다.
- ⁷ 그러나 그가 바리사이들과 사두개인들의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미래의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었느냐?"
- ⁸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 ⁹ 자기들 속에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은 이 돌들로부터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일으킬 수 있다.
- ¹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대어져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나무는 베어내어 불에 던져진다.
- ¹¹ "나는 너희를 물로 세례를 베풀어 회개하게 한다. 그러나 나보다 뒤에 오는 이는 나보다 더 강하시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부족하다.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를 세례를 베풀 것이다."
- ¹² 그분의 풀무는 손에 있다. 그분은 자기 타작마당을 깨끗이 쓸어내고, 밀은 곳간에 모으지만, 겹질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 ¹³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르단 강으로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
- ¹⁴ 그러나 요한은 그를 막으며 말하였다.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주님이 제게 오십니까?"
- ¹⁵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대로 두어라. 우리가 모든 의로움을 이루는 것이 이와 같은 방식이다. 그러자 요한은 그를 허락하였다.
- ¹⁶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다.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그분 위에 내리셨다.
- ¹⁷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이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마음에 드는 자이다."

마태오 복음서 4장

- ¹ 그러고 나서 예수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올라가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 ² 사십 일 밤새 금식하신 후에 그분은 굶주리셨다.
- ³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분에게 말했다.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빵이 되게 명령하여라.”
- ⁴ 그러나 그분은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⁵ 그러자 시험하는 자는 그분을 거룩한 도시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 ⁶ 그분에게 말했다.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아래로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할 것이며, 그들이 너를 손에 메어 들 것이다.’”
- ⁷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네가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
- ⁸ 다시 시험하는 자는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
- ⁹ 그가 그분에게 말했다. “네가 내게 절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 ¹⁰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뒤로 물러서라, 사탄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네가 주 너의 하느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 ¹¹ 그러자 시험하는 자가 그분을 떠나갔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겼다.
- ¹² 예수가 요한이 잡혀간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
- ¹³ 나사렛을 떠나 카파르나움에 이르러 살았는데, 이곳은 해변가에 있으며, 제불론과 납탈리 지역에 속한다.
- ¹⁴ 이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 ¹⁵ “제불론 땅과 납탈리 땅, 바다 길가, 요르단 저편,
- ¹⁶ 어둠에 앉아 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에 앉아 있던 자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 ¹⁷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도하시며 말씀하셨다.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¹⁸ 갈릴리 바다를 지나 걷고 계실 때,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아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들이었다.
- ¹⁹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 ²⁰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 ²¹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분은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배에 앉아 그물을 고치는 것을 보셨다. 그분이 그들을 부르셨다.
- ²²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 ²³ 예수께서는 온 갈릴리에서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질병을 고치셨다.
- ²⁴ 그분에 대한 소문이 시리아 전역에 퍼졌다. 사람들이 모든 병자, 다양한 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자, 귀신에게 붙힌 자, 간질 환자, 중풍 환자를 데려왔고, 그분이 모두 고쳐주셨다.
- ²⁵ 갈릴래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강 건너편에서 온 큰 무리들이 그를 따랐다.

마태오 복음서 5장

- 1 무리들을 보시고, 그는 산으로 올라가셨다. 앉으신 후에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 2 그는 입을 열어 가르치며 말씀하셨다.
- 3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 4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 5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 6 의로움을 주리고 목마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 7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다.
- 8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복이 있다.
- 9 평화를 이루는 자들은 복이 있다.
- 10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 11 내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향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 12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 13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다시 맛있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아무 쓸모 없어져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밑에 밟히게 된다.
-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 밑에 두지 않고, 등대 위에 놓는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로 등불을 켜서 집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비추어 주어야 한다.
- 16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여, 너희의 좋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 17 나는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파괴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것이다.
- 1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한 자나 한 획이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 19 그러므로 이 가장 작은 계명들 중 하나라도 어기고,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작다고 불릴 것이고, 이를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서 크다고 불릴 것이다.
- 2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보다 더 훌륭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 21 너희는 옛사람들에게 이렇게 말된 것을 들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 2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원망 없이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형제에게 ‘라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힐 것이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자는 지옥의 불에 처할 것이다.
- 23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거기서 네 형제가 네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 24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와서 제물을 바쳐라.
- 25 길에서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빨리 화해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고발자가 당신을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이 당신을 간수에게 넘겨 감옥에 가두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 26 분명히 말해둡니다. 당신은 마지막 푼돈까지 갚을 때까지 그곳에서 절대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 27 “너는 간음하지 말 것이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28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자와 간음하였다.
- 29 네 오른쪽 눈이 너를 넘어지게 한다면 뽑아 버리고 멀리 던져라. 네 몸의 한 부분이 망하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 30 네 오른손이 너를 넘어지게 한다면 잘라 버리고 멀리 던져라. 네 몸의 한 부분이 망하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 31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서를 주어야 한다” 하고도 말하였으나,
 32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이유로 하지 않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를 간음하게 만들고,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한다.
 33 “옛 사람에게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주님께 네 맹세를 지켜라’ 하고 말하였다.
 34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느님의 보좌이니,
 35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니,
 36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를 하얗게도 검게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37 너의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라. 이것보다 더하는 것은 악한 자에게서 나온다.
 38 “눈에는 눈을, 이에는 이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에 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 대어라.
 40 누구든지 네 속옷을 빼앗으려고 소송을 걸면, 겉옷까지도 주어라.
 41 누구든지 너를 강제로 한 리디온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두 리디온을 가라.
 42 구하는 자에게 주고, 빌리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43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선을 베풀고, 핍박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45 이렇게 하여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라. 그분은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해를 뜨게 하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신다.
 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는가?
 47 너희가 너희 친구들만 인사하면 무슨 특별한 일을 하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는가?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듯,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마태오 복음서 6장

- 1 사람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어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상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 2 그러므로 너는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이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고자 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보상을 받았다.
- 3 그러나 너는 자선을 베풀 때,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 4 이렇게 하여 네 자선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게 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보상하실 것이다.
- 5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보상을 받았다.
- 6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네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보상하실 것이다.
- 7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해서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이 많으면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 8 그러므로 그들처럼 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신다.
- 9 이렇게 기도하여라.
- 10 네 나라가 오게 하소서.
-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 12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 14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 15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 16 너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얼굴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금식하고 있다고 보이려고 얼굴을 망가뜨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보상을 받았다.
- 17 그러나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 18 이렇게 하여 사람들이 너를 금식한다고 보지 못하게 하고, 은밀히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를 보상하실 것이다.
- 19 너는 땅에 재물을 쌓지 말아라. 거기에는 나방과 녹이 해치고 도둑이 들어와 훔친다.
- 20 하늘에 재물을 쌓아라. 거기에는 나방과 녹이 해치지 않고 도둑이 들어와 훔치지 않는다.
- 21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 22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건강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 23 그러나 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클까!
- 24 누구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의지하고 다른 쪽을 경멸할 것이다. 너희는 하느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
-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하지 말고,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아라. 생명이 음식보다 못한가? 몸이 옷보다 못한가?
- 26 하늘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가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은가?
- 27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신의 수명을 한 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 28 왜 옷에 대해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은 수고하지도 않고, 직조하지도 않는다.
-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을 누릴 때라도, 이 중 하나처럼 입지 못했다.

- ³⁰ 하느님께서 오늘은 존재하고 내일은 화로에 던져지는 들의 풀을 이렇게 입히신다면, 너희 같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더하지 않고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 ³¹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 ³² 이 모든 것을 이방인들이 찾는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 ³³ 그러나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 ³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 스스로 걱정할 것이다. 하루의 고난은 하루에 충분하다.

마태오 복음서 7장

- 1 너는 판단하지 마라. 그래야 너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 2 너는 어떤 판단으로 판단하든지, 그대로 판단받을 것이고, 어떤 재로 재든지, 그대로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 3 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왜 생각하지 않는가?
- 4 네가 어찌하여 형제에게 '내가 네 눈에서 티를 빼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보라, 네 눈에는 들보가 있다.
- 5 가식적인 자여,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 6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마라.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래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찢어죽이지 않을 것이다.
- 7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 8 구하는 자는 모두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 9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누구냐?
- 10 물고기를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누구냐?
-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선물을 자식에게 주는 것을 알지 않는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더욱 좋은 것을 주실 것이 아니냐?
- 12 그러므로 너희가 남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일은,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들의 뜻이다.
-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이 넓어, 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 14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길이 좁은가! 그것을 찾는 자는 적다.
- 15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속으로는 잔인한 늑대이다.
- 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며, 가시덤불에서 무화과를 따는가?
- 17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 18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 19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베어내어 불에 던져진다.
- 20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 21 내게 '주님, 주님' 하고 말하는 자가 모두 하늘의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뿐이다.
-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 23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겠다.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알지 못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 24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 25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으나,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 26 내 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 27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으나, 그 집은 무너졌고, 그 무너짐이 심각했다.
- 28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움을 느꼈다.
- 29 그는 서기관들과 같이 하지 않고,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다.

마태오 복음서 8장

- 1 산에서 내려오실 때, 큰 무리가 그를 따랐다.
- 2 보라, 한 나병 환자가 그에게 와서 절하며 말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원한다. 깨끗해져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 4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제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라."
- 5 그가 갈릴리 해변의 카파르나움에 들어오실 때, 한 백인장이 와서 도움을 청했다.
- 6 그가 말했다. "주여, 제 하인이 집에서 중풍에 걸려 심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 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그를 낫게 해주겠다."
- 8 백인장이 대답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제 집 안으로 들일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 9 저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인데, 제 아래에 병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에게 "오라" 하면 오고, 제 하인에게 "이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 10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놀라며 따라오는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 11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동쪽과 서쪽에서 많은 이들이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앉을 것이지만,
- 12 그 나라의 자녀들은 바깥 어둠으로 쫓겨날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 13 예수께서 백인장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네가 믿은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의 하인은 그때 낫게 되었다.
- 14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실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 15 그분이 그녀의 손을 만지시자, 열병이 떠나갔다. 그녀는 일어나 그분을 섬겼다.
- 16 저녁이 되자, 그들은 마귀에게 들린 많은 사람들을 그에게 데려왔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영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이를 낫게 하셨다.
- 17 이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우리의 약점을 짚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었다.
- 18 예수께서 주변에 큰 무리가 모인 것을 보시고, 다른 쪽으로 건너가라고 명령하셨다.
- 19 한 서기관이 와서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제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 20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는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은 둥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둘 곳이 없다."
- 21 그의 제자 중 다른 한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주여, 먼저 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 22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지내게 놔두어라."
- 23 그분이 배에 오르실 때,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 24 보라, 바다에 격렬한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였으나, 그분은 자고 계셨다.
- 25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일깨우며 말했다. "주님, 우리를 구해 주세요! 우리가 죽어 가고 있습니다!"
- 26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왜 두려워하느냐, 신앙이 약한 자들이냐?" 그 후 그가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큰 고요가 찾아왔다.
- 27 사람들이 놀라며 말했다.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 28 그가 다른 쪽 해안에 도착하여 게라세네인들의 땅에 이르렀을 때, 두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를 맞이했다. 그들은 매우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가지 못했다.
- 29 그들이 외쳤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시기 전에 고통을 받으러 이곳에 오셨습니까?"
- 30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돼지 무리가 많이 먹이를 먹고 있었다.
- 31 귀신들이 그에게 간청하며 말했다. "우리를 쫓아내신다면, 돼지 무리에게로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 32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가라!"

³³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쳐서 성으로 달려가서 모든 일을 말했다. 귀신에게 들린 자들에게 일어난 일도 포함해서.

³⁴ 보라, 성 전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맞이했다. 그들이 그를 보고, 그가 그들의 지경에서 떠나기를 간청했다.

마태오 복음서 9장

- 1 그는 배에 올라 건너가서 자기 도시에 도착했다.
- 2 보라, 그들은 마비된 한 남자를 침대에 눕혀 그에게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된 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용기를 내어라. 네 죄들이 용서받았다."
- 3 보라, 어떤 서기관들이 스스로 말했다. "이 사람이 모독한다."
- 4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가?"
- 5 어느 것이 더 쉬운가? "네 죄들이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하는 것인가?
- 6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졌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한다—"(그리고 그는 마비된 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 7 그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 8 그러나 무리가 이를 보고 놀라 하느님을 찬양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같은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다.
- 9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 세리라고 불리는 마태오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는 일어나 그를 따랐다.
- 10 그가 집에 앉아 있을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 11 바리사이들이 이를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다. "왜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 12 예수께서 이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자는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병든 자는 필요로 한다."
- 13 하지만 가서 이 말의 뜻을 배우십시오. "나는 희생보다 자비를 원한다."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러 왔다.
- 14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와 바리사이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랑과 함께 있는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이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 그들은 금식할 것이다."
- 16 누구도 새 천을 낡은 옷에 수를 놓지 않는다. 그 수는 옷에서 떨어져 나가서 더 큰 구멍을 만들기 때문이다.
- 17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진다. 오히려 그들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 그러면 둘 다 보존된다.
- 18 그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한 관리가 와서 그에게 절하며 말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와서 손을 그 위에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녀가 살 것입니다."
- 19 예수께서 일어나 그를 따랐고, 제자들도 그를 따랐다.
- 20 보라, 열두 해 동안 피가 나던 여자가 뒤에서 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다.
- 21 그녀는 스스로 생각했다.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될 것이다."
- 22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자는 그때부터 낫게 되었다.
- 23 예수께서 관리의 집에 들어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소란스러운 무리를 보셨다.
- 24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비켜라. 이 아이는 죽지 않고 잠들어 있다."
- 25 사람들을 모두 내보낸 후, 그는 들어가 그녀의 손을 잡으니, 소녀가 일어났다.
- 26 이 일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 27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 두 명의 맹인이 그를 따르며 외쳐 말했다. "다비드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28 그가 집에 들어오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일을 할 능력이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 29 그러자 그가 그들의 눈에 손을 대며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게 하리라."
- 30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령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일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31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그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

32 그들이 나가려 할 때, 보라, 귀신 들린 말을 못 하는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다.

33 귀신이 쫓겨나자, 말을 못 하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무리가 놀라며 말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은 결코 보지 못했다!"

34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말했다. "그는 귀신의 두목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35 예수께서 모든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느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병과 모든 앓음을 고치셨다.

36 그러나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지치고 흠어져서 목자가 없는 양같은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37 그러자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은 많으나 일꾼은 적다."

38 그러므로 수확의 주님께서 수확에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

마태오 복음서 10장

- 1 그는 자기 열두 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앓음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 2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이고, 그의 형제 안드레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이다.
- 3 필리포스, 바돌로메오, 도마, 세금을 걷는 자 마태오,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레바오, 곧 타대오라 불리는 자,
- 4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그를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 5 예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며 명령하셨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어떤 도시에도 들어가지 마라."
- 6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 7 가는 동안에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여라.
- 8 아픈 자들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무료로 받았으니, 무료로 주여라.
- 9 금이나 은이나 동을 너희 허리띠에 채기지 마라.
- 10 여행을 위한 가방도, 두 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일꾼은 그의 먹을 것에 합당하다.
- 11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안에서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라.
- 12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을 인사하여라.
- 13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의 평화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 14 누구든지 너희를 받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그 도시에서 나갈 때,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 16 보아라, 나는 너희를 늑대 사이에 양처럼 보내노니,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라.
- 17 그러나 사람들을 경계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이다.
- 18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 19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지,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가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다.
- 20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하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다.
- 21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줄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를 거스르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 22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 23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다음 도시로 도망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를 다 지나지 못할 것이다.
- 24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 25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집의 주인을 베엘제불이라 부르었다면, 그의 가족은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 26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려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 27 내가 어둠속에서 너희에게 말한 것을 빛 속에서 말하고, 귀에 속삭인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 28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 29 참새 두 마리가 아사리온 동전 하나에 팔리지 않는가? 그런데 하느님의 뜻이 없으면 그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 30 너희 머리카락조차 모두 세어져 있다.
- 31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참새 여러 마리보다 더 귀하다.
- 32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
- 33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
- 34 내가 땅에 평화를 보내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평화를 보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칼을 보내려고 왔다.

- ³⁵ 내가 사람을 그의 아버지와 대립하게 하고, 딸을 그의 어머니와 대립하게 하며, 며느리를 그의 시어머니와 대립하게 하려고 왔다.
- ³⁶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 ³⁷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으며,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 ³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 ³⁹ 자기 목숨을 찾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 ⁴⁰ 너희를 받는 자는 나를 받는 것이고, 나를 받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는 것이다.
- ⁴¹ 예언자의 이름으로 예언자를 받는 자는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로운 사람의 이름으로 의로운 사람을 받는 자는 의로운 사람의 상을 받을 것이다.
- ⁴²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차가운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마태오 복음서 11장

- 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지도하는 일을 마치고 나서, 거기서 떠나 그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며 전파하시기 시작하셨다.
- 2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 둘을 보내어,
- 3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오실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 4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요한에게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알리어라."
- 5 맹인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일어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 6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 7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께서 군중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보려고 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인가?
- 8 그러면 너희가 나가서 무엇을 보려고 했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인가? 보아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의 궁전에 있다.
- 9 그러면 너희가 나가서 무엇을 보려고 했느냐? 예언자인가?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훨씬 더 큰 자다.
- 10 이 사람은 기록된 바와 같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 11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 난 자들 중에 요한 세례자보다 큰 이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 12 요한 세례자부터 지금까지, 하느님 나라는 폭력당하며, 폭력적인 자들이 그것을 빼앗는다.
- 13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하였다.
- 14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곧 올 것으로 예언된 엘리야다.
- 15 귀 있는 자는 들어라.
- 16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시장에 앉아 있는 아이들과 같아서,
- 17 동료들에게 외친다. "우리가 피리 불어 주었으나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우리가 슬피 울어 주었으나 너희는 탄식하지 않았다."
- 18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왔으므로, 그들은 말한다. "그에게 귀신이 들렸다."
- 19 사람의 아들은 먹고 마시며 왔으므로, 그들은 말한다. "보아라, 이 사람은 먹보이자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나 지혜는 그 자녀들에 의해 옳다고 증명된다."
- 20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자기의 위대한 기적들이 대부분 일어난 도시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1 "화가 있을지어다, 고라자이나! 화가 있을지어다, 벳새다야! 만일 너희에게서 일어난 위대한 기적들이 두르와 시돈에서 일어났다면, 그들은 이미 옛날부터 굶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회개했을 것이다.
- 2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두르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 23 하늘까지 높임을 받은 갈릴리의 카파르나움아, 네가 음부까지 내려갈 것이다. 만일 네게서 일어난 위대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다면, 그 도시는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 2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 25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 일을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습니다."
- 26 네, 아버지, 이는 아버지의 뜻에 좋았던 것입니다.
- 27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저에게 넘겨졌습니다. 아들을 아는 이는 아버지뿐이며, 아버지를 아는 이는 아들뿐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에게만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이들아,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 29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쉬을 얻으리라.

³⁰ 내 멍에는 부드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마태오 복음서 12장

- 1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을 지나가셨다. 제자들이 배고파서 곡식 이삭을 뜯어 먹기 시작하였다.
- 2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3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배고플 때 다윗이 한 일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 4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고, 또 그와 함께한 자들도 먹었으며, 이 빵은 제사장들만이 먹도록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 5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사제들이 안식일을 더럽히더라도 죄가 없음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 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에 있다.
- 7 너희가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 말의 뜻을 알았더라면, 죄 없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 8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 9 그는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 10 그때에 한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이 합법합니까?" 그들은 그를 고발하려고 했다.
- 11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다가,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잡아서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 12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가!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법하다.
- 13 그러고 나서 그가 그 사람에게 말했다. "손을 뻗어라." 그가 손을 뻗으니, 다른 손처럼 완전히 회복되었다.
- 14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그를 어떻게 죽일지 모의하였다.
- 15 예수께서 그 일을 알고서 거기서 떠나셨다. 큰 무리가 그를 따랐고, 그는 모두를 고쳐주셨다.
- 16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 17 이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가 말하기를,
- 18 "보라, 내가 택한 나의 종ियो,
- 19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며,
- 20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라.
- 21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민족들이 소망을 두리라.
- 22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을 못 하는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다. 그가 그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 눈멀고 말을 못 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말하게 되었다.
- 23 모든 무리가 놀라며 말했다. "이분이 다윗의 아들일까?"
- 24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는 말했다. "이 사람은 베엘세불, 곧 귀신의 두목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 25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나라가 서로 맞서면 황폐해지고, 모든 집이나 성이 서로 맞서면 서지 않는다."
- 26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는 자신과 맞서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 27 내가 베엘세불을 통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자식들은 무엇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 28 내가 하느님의 성령을 통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 29 어떻게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재산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그 후에야 그는 그의 집을 약탈할 수 있다.
- 30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이다."
- 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모든 죄와 모독은 사람에게 용서될 것이지만, 성령에 대한 모독은 사람에게 용서되지

않는다.

³² 사람의 아들에 대해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지만, 성령에 대해 말하는 자는 이 세대에도, 올 세대에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³³ "나무를 좋게 만들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를 악하게 만들면 그 열매도 악하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아본다."

³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의 충만함이 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³⁵ 선한 사람은 선한 보물에서 선한 것을 내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물에서 악한 것을 내어놓는다.

³⁶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허탄한 말을 할 때마다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해 계산을 받을 것이다.

³⁷ 너희의 말로 너희가 의롭다 함을 받고, 너희의 말로 너희가 유죄를 선고받을 것이다.

³⁸ 그때 어떤 서기관들과 바리사이들이 대답하여 말했다. "선생님, 우리에게 당신에게서 표징을 보여 주십시오."

³⁹ 그러나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징을 구한다. 그러나 그 세대에게 주어질 표징은 오직 예언자 요나의 표징뿐이다."

⁴⁰ 요나가 큰 물고기의 배 속에 사흘 밤낮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땅의 심장에 사흘 밤낮 있을 것이다.

⁴¹ 니네베 사람들은 심판 날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⁴² 남방의 여왕은 심판 날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 끝에서 왔다.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⁴³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물 없는 곳을 지나며 쉼 곳을 찾지만 찾지 못한다."

⁴⁴ 그러면 그는 말한다. "내가 나온 그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돌아가 보니, 그 집은 비어 있고, 쓸고 정리되어 있다.

⁴⁵ 그러면 그는 자신보다 더 악한 다른 영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머무른다. 그 사람의 마지막 상태는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이와 같이 이 악한 세대도 될 것이다.

⁴⁶ 그가 무리에게 말하고 있을 때, 보라,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그와 말하고자 하였다.

⁴⁷ 누군가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당신과 말하고자 합니다."

⁴⁸ 그러나 그는 말하는 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는 누구인가? 내 형제들은 누구인가?"

⁴⁹ 그는 제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말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⁵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마태오 복음서 13장

- 1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해변에 앉으셨다.
- 2 많은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으므로, 그는 배에 올라 앉으셨고, 모든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다.
- 3 그는 비유로 그들에게 많은 일을 말씀하셨다. "보아라,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 4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치웠다.
- 5 어떤 씨들은 바위가 많은 땅에 떨어져 흙이 별로 없었으므로 곧 싹이 트었으나, 땅이 깊지 않아서였다.
- 6 해가 떠오르자 그 싹들은 타버렸고, 뿌리가 없어서 마르고 말았다.
- 7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져, 가시덤불이 자라나서 그것을 조여 죽였다.
- 8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으니,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였다.
- 9 귀 있는 자는 들어라."
- 10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와 말했다. "어째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11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 12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주어 풍족하게 될 것이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그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 13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14 그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 예언은 이렇게 말한다.
- 15 이 백성의 마음은 완악해졌고,
- 16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다.
-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로운 사람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 18 그러므로 너희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라.
- 19 누구든지 하느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 20 바위 위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이다.
- 21 그러나 그는 자기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견디다,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
- 22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에 말씀이 조여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이다.
- 23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로, 열매를 풍성히 맺어,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를 낸다.
- 24 그는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다."
- 25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 씨를 뿌리고 떠났다.
- 26 그러나 싹이 나서 곡식이 익어갈 때에 가라지도 나타났다.
- 27 집주인의 하인들이 와서 그에게 말했다. "주님, 당신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 28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원수가 이 일을 했습니다."
- 29 그러나 그가 말했다. "아니, 너희가 가라지를 줍다가 밀까지 뿌리째 뽑을까 염려된다."
- 30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수확꾼들에게 말하겠다. "먼저 가라지를 줍아 묶어 불태우고, 밀은 내 공간에 모아라."
- 31 그는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제시하며 말했다.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 32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라나면 풀들보다 커져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 33 그는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했다. "하느님 나라는 여자가 가져다가 세 말의 밀가루에 숨긴 누룩과 같다. 그것이 온 통 부풀어 오를 때까지."
- 34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 없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 35 이는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니,"
- 36 그 후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밭의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 37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다."
- 38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느님 나라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 39 그 씨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다. 수확은 이 세대의 끝이며, 수확꾼들은 천사들이다.
- 40 가라지가 좁혀 불에 타는 것처럼, 이 세대의 끝에도 그럴 것이다.
- 41 사람의 아들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나라에서 모든 걸림돌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모아낼 것이며,
- 42 그들을 불의화로에 던져넣을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 43 그때 의로운 자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 44 "또 하느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숨겼다. 기쁨에 겨워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
- 45 "또 하느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 46 그가 한 알 귀한 진주를 발견하자,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샀다.
- 47 "또 하느님 나라는 바다에 던져져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모아낸 그물과 같다."
- 48 가득 차면 어부들이 해변으로 끌어올렸다. 그들은 앉아 좋은 것은 통에 모으고, 나쁜 것은 버렸다.
- 49 그러므로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로운 자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갈라내고,
- 50 불의화로에 던져넣을 것입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 5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했느냐?"
- 52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의 제자가 된 서기관은 마치 집주인처럼, 그의 보물에서 새것과 옛것을 꺼내오는 사람과 같다."
- 53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모두 마치신 후, 그곳을 떠나셨다.
- 54 그분이 고향에 이르러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며 말했다.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 능한 일을 어디서 얻었는가?"
- 55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불리지 않느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 56 그의 모든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가?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는가?
- 57 그들은 그분께 걸림돌을 느꼈다.
- 58 그분은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능한 일을 하지 않으셨다.

마태오 복음서 14장

- 1 그때 헤로데 테트라코스는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고,
- 2 그의 하인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 3 헤로데는 요한을 잡아 가두었는데, 그 이유는 헤로디아, 즉 자기 형제 필리포스의 아내 때문이었다.
- 4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했다. "당신이 그 여자를 데리고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5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 했으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요한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 6 그러나 헤로데의 생일이 되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었고, 헤로데를 기쁘게 했다.
- 7 그래서 헤로데는 맹세하며 그 여자에게 무엇이든 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약속했다.
- 8 그 여자는 어머니의 부추김을 받아,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접시에 담아 여기다 주세요."라고 말했다.
- 9 왕은 슬퍼했지만, 자기 맹세와 함께 식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때문에 명령을 내려 주도록 했다.
- 10 그는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했다.
- 11 그 머리는 접시에 담겨 젊은 여자에게 주어졌고, 그 여자는 그것을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 12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가져가서 장사지내고, 나아가서 예수에게 알렸다.
- 13 예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가셨다. 무리가 이를 듣고 도시들에서 발로 따라갔다.
- 14 예수께서 나가서 큰 무리를 보셨다. 그분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든 이를 고치셨다.
- 15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말했다. "이곳은 한적한데,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 16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가서 먹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 17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 18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여기로 가져오게."
- 19 그는 무리에게 풀 위에 앉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축복하시고, 빵을 부수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 20 모두가 먹고 배를 채웠다. 그들은 부서진 조각들에서 남은 것을 열두 바구니 가득 걷어 올렸다.
- 21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약 오천 명이었다.
- 22 곧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배에 올라 그분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도록 명령하시고, 무리를 보내버리셨다.
- 23 무리를 보내신 후, 그분은 혼자 산에 올라 기도하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그분은 혼자 거기에 계셨다.
- 24 그때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거슬러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 25 밤 네 번째 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다.
- 26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다!" 하고 소리치며 두려움에 떨었다.
- 27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바로 그다. 두려워하지 마라."
- 28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 만약 당신이라면, 저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 당신께로 오게 명령해 주십시오."
- 29 그가 말했다. "오너라."
- 30 그러나 그가 바람이 강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빠져가기 시작하자, 소리쳐 말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 31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다. "믿음이 약한 자여, 왜 의심했느냐?"
- 32 그들이 배에 올라가자, 바람이 그쳤다.
- 33 배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를 경배하며 말했다. "당신은 진실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 34 그들이 건너편에 도착하여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 35 그 지역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주변 온 지역에 소식을 전해 모든 병자를 데려왔다.
- 36 그들이 그의 옷자락 끝이라도 만져보기를 간청했다. 그를 만진 이들은 모두 낫게 되었다.

마태오 복음서 15장

- 1 그때 바리사이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께 와서 말했다.
- 2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 3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 4 하느님께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하셨다.
- 5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네가 나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도움은 하느님께 바친 제물이다”라고 말하면,
- 6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느님의 계명을 무효로 만들고 있다.
- 7 가식적인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해 예언한 것이 참으로 옳았다.
- 8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지만,
- 9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공경하는 것도 헛된 일이다.
- 10 그가 무리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들어라. 이해하라.
- 11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 12 그때 제자들이 와서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 말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실망한 것을 아십니까?”
- 13 그러나 그가 대답하셨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모든 식물은 뿌리째 뽑힐 것이다.
- 14 그들을 방치해라. 그들은 눈먼 이들의 인도자들이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질 것이다.”
- 15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 1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 17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몸 밖으로 나가는 줄을 모르느냐?
- 18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 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들이다.
- 20 이것들이 사람이 더럽혀지는 원인이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 21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티레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 22 보라, 한 가나안 여자가 그 지역에서 나와 외쳐 말했다. “주님, 다윗의 아드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심하게 귀신에게 잡혔습니다!”
- 23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 24 그러나 그가 대답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이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 25 그녀는 나아가 그에게 절하며 말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 26 그러나 그는 대답했다. “아이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7 그러나 그녀는 말했다. “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탁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 28 그러자 예수는 그녀에게 대답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리라.” 그녀의 딸은 그때부터 나왔다.
- 29 예수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바다 근처로 가셨다. 그분은 산에 올라 앉으셨다.
- 30 많은 무리가 그에게 나아왔고, 그들과 함께 마비된 자들과 눈먼 자들과 말 못하는 자들과 불구자들과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들을 그분의 발 앞에 뉘어놓았다. 그분은 그들을 고치셨다.
- 31 그러자 무리가 말 못하는 자들이 말하고, 상처 입은 자들이 나아나고, 마비된 자들이 걷고, 눈먼 자들이 보는 것을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 32 예수는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들이 이미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고, 먹을 것이 없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 보내고 싶지 않다.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 33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이런 황폐한 곳에서 이처럼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일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³⁴ 예수는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빵이 몇 개나 있느냐?"

³⁵ 그분은 무리에게 땅에 앉으라고 명령하셨다.

³⁶ 그분은 일곱 개의 빵과 물고기들을 가져다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 부수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³⁷ 모두가 먹고 배불렀다. 남은 조각을 모아 일곱 바구니를 가득 채웠다.

³⁸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사천 명이었다.

³⁹ 그리고 그분은 무리를 보내고 배에 올라 마갈다 지경으로 가셨다.

마태오 복음서 16장

- 1 바리사이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를 시험하며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 2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저녁이 되면 너희는 말한다. '하늘이 붉으니 날이 맑겠구나.'"
- 3 아침이 되면, '오늘은 날이 흐리겠구나. 하늘이 붉고 위협적이기 때문이지.'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지만,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한다!
- 4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그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 5 제자들이 다른 쪽 해안에 도착했으나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
- 6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조심하고 바리사이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주의하여라."
- 7 그들은 서로 말했다. "우리는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 8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서로 말을 나누느냐?"
- 9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천 명을 위해 다섯 떡으로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 10 또 네천 명을 위해 일곱 떡으로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 11 내가 너희에게 빵에 관해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사이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주의하여라."
- 12 그제서야 그들은 그가 빵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리사이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신 것임을 깨달았다.
- 13 예수께서 카이사랴 필리피 지역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인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 14 그들이 대답했다.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 15 그가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당신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 17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피와 뼈가 이를 너에게 계시하지 않았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셨다."
- 18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공동체를 세우겠다. 지옥의 문들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 19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 20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예수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 21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보여 주기 시작하셨다.
- 22 베드로가 그를 끌어내어 책망하며 말했다. "주님, 그런 일은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소서!"
- 23 그러나 그는 돌이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뒤로 물러서라,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 24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 25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잃는 사람은 그것을 얻을 것이다.
-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 27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과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며, 그때 그는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줄 것이다.

2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사람의 아들이 그의 나라에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자들이 있다.

마태오 복음서 17장

- 1 여섯 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혼자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 2 그분이 그들 앞에서 변모하셨다.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희어졌다.
- 3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그분과 대화하고 있었다.
- 4 베드로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여기에 세 장막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요."
- 5 그가 아직 말을 마치지 않으셨을 때, 보라, 밝은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보라, 구름에서 소리가 나서 말했다. "이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마음에 드는 자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 6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땅에 엎드려 매우 두려워하였다.
- 7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을 만지시며 말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 8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 혼자만 보였다.
-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인자의 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까지 말이다."
- 10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 11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엘리야는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 1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는데,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였다. 인자의 아들도 그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것이다."
- 13 그제야 제자들은 그분이 요한 세례인을 가리켜 말씀하셨음을 알았다.
- 14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했다.
- 15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간질로 고생하며 심하게 고통받습니다. 그는 자주 불 속에 떨어지고, 자주 물 속에 빠집니다."
- 16 그래서 저는 그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이 고칠 수 없었습니다."
- 17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야! 내가 너희와 함께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 18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그에게서 나갔고, 그 아이는 그때부터 나았다.
- 19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께 혼자서 다가와 말했다. "우리가 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 20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에게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라고 말할 것이고, 그것도 옮겨질 것이다.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다."
- 21 하지만 이 종류는 기도와 금식 없으면 나오지 않는다."
- 22 그들이 갈릴리에 머무르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 23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고, 사흘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 24 그들이 카파르나움에 이르렀을 때, 두라크마 동전을 걷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의 선생님은 두라크마를 내십니까?"
- 25 그가 말했다. "네."
- 26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외인들로부터입니다."
- 27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바다로 가서 낚싯바늘을 던져서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라. 네가 그 입을 열면, 스타테르 동전 하나를 찾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와서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어라.

마태오 복음서 18장

- 1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 2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를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 3 그리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아서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처럼 겸손해지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자이다.
- 5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받는 사람은 나를 받는 것이고,
- 6 내게 믿음을 갖게 된 이 어린 아이들 중 하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면, 그에게는 큰 돌이 그의 목에 매달려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낫다.
- 7 "세상이 넘어짐의 유혹 때문에 화를 받을 것이다. 유혹은 반드시 오겠지만, 그 유혹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 8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넘어지게 한다면, 잘라내어 멀리 던져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불구나 절름발이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 9 네 눈이 너를 넘어지게 한다면, 뽑아내어 멀리 던져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 10 이 어린 아이들 중 하나라도 경멸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다.
- 11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러 왔다.
- 12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백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가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나서 길을 잃은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 13 만일 그가 그것을 찾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보다 그 하나를 더 기뻐한다.
- 14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은, 이 어린 아이들 중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 15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너와 그 사이에서만 그의 잘못을 지적하여라. 그가 네 말을 듣는다면, 너는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 16 그가 듣지 않는다면, 한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정되게 하라.
- 17 그가 그들을 듣지 않는다면, 공동체에 말하여라. 공동체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 1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어주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 19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둘이 땅에서 어떤 일에 관해 합의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다.
- 20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 21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나아와서 말했다. "주님, 내 형제가 저를 죄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입니까?"
- 2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곱 번까지가 아니라, 일흔 번 일곱 번까지이다."
- 23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어떤 왕이 자기 하인들과 계산을 하려고 한 것과 같다.
- 24 계산을 시작할 때, 만 달란트를 빚진 한 하인이 그에게 끌려왔다.
- 25 그러나 그가 돈을 갚지 못하므로, 그 주인은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팔아 상환하게 명령했다.
- 26 그 종은 그래서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며 말했다. "주님, 저를 참아 주십시오. 제가 모두 갚겠습니다!"
- 27 그 종의 주인은 자비를 느껴 그를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 주었다.
- 28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신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종을 만나 붙잡고 목을 졸라 말했다. "네가 빚진 것을 내게 갚아라!"

- ²⁹ 그러자 동료 종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며 말했다. "나를 참아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 ³⁰ 그는 듣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빛을 다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했다.
- ³¹ 그러자 그의 동료 종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매우 슬퍼하여 가서 주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렸다.
- ³² 그러자 주인은 그를 불러서 말했다. "악한 종아, 네가 내게 간청했기 때문에 내가 네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지 않느냐."
- ³³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듯이, 너도 네 동료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 ³⁴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를 고문자들에게 넘겨 주어 빛을 모두 갚을 때까지 갇히게 했다.
- ³⁵ 너희가 각자 마음에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마태오 복음서 19장

- 1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 갈릴리에서 떠나 요르단 강 건너편 유다 지경에 이르렀다.
- 2 많은 무리가 그를 따르며, 그가 거기서 그들을 고치셨다.
- 3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와서 시험하려고 물었다. "어떤 이유로든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법입니까?"
- 4 그가 대답하셨다.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의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 5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 6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한 몸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말아야 한다."
- 7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우리에게 이혼 서류를 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 8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기를 허락했지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
- 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이 아닌 이유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한다. 그리고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한다."
- 10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남자와 아내의 관계가 이와 같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 11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그에게 주어진 자들뿐이다."
- 12 태어날 때부터 유령인 자도 있고, 사람들이 유령으로 만든 자도 있으며,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유령이 된 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으라."
- 13 그때 어린아이들이 그에게 데려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 14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을 가만두어라,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느님 나라는 이런 자들 것이다."
- 15 그가 그들에게 손을 얹은 후 거기서 떠나셨다.
- 16 한 젊은이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 17 그가 그에게 말했다. "왜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선한 이는 한 분뿐이다. 곧 하느님이시다. 그러나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 18 그가 그에게 물었다. "어떤 계명입니까?"
- 19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 20 젊은이가 그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 21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하려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 22 그 젊은이가 이 말을 듣고 슬퍼하며 떠났다. 그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 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 24 내가 다시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 25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라며,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 26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 27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 2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따랐듯이, 인자의 아들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재생의 때에, 너희도 또한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 29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땅을 버리는 사람은 백 배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 30 그러나 먼저인 자들이 나중이 되고, 나중인 자들이 먼저가 될 것이다.

마태오 복음서 20장

- 1 하느님 나라는 마치 아침 일찍 포도원에 일꾼을 고하러 나간 한 집주인과 같다.
- 2 그가 일꾼들과 하루에 한데나리온씩 계약을 맺은 뒤,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 3 그가 세 시쯤 나가서 시장에 서서 빈둥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
- 4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네가 마땅히 받을 것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다.
- 5 그는 여섯 시와 아홉 시에도 나가서 똑같이 했다.
- 6 열한 시쯤 그가 나가서 또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왜 하루 종일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 7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아서입니다."
- 8 "저녁이 되자, 포도원의 주인이 관리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서, 마지막부터 시작하여 각자 월급을 주어라."
- 9 "열한 시쯤 고용된 사람들이 와서, 각자 한데나리온을 받았다.
- 10 먼저 고용된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이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도 각자 한데나리온을 받았다.
- 11 그들이 받고 나서, 집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 12 그들이 말했다. "이 마지막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우리가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지고 더위를 견뎌낸 것과 똑같이 대우하셨습니다!"
- 13 "그러나 그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대답했다. "친구야, 나는 너에게 불공평한 일을 하지 않았다. 네가 나와 하루에 한데나리온으로 계약하지 않았느냐?"
- 14 네 몫을 가져가서 가라. 나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너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주고 싶다.
- 15 내가 내 것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내가 선택한 것을 보고 네 눈이 악해졌느냐?"
- 16 그러므로 마지막이 먼저 되고, 먼저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지만, 선택된 사람은 적다.
- 17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열두 제자들을 따로 불러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18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사람의 아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며,
- 19 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받고 매를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 20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과 함께 와서 절하며 무언가를 청했다.
- 21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 22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느냐?"
- 23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분명히 내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미리 준비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 24 열 명이 이 말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노했다.
- 25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방 나라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백성 위에 권세를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알고 있다.
- 26 너희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사이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 27 너희 사이에서 먼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 28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러 왔다."
- 29 그들이 예리고에서 나올 때, 큰 무리가 그를 따랐다.
- 30 길 옆에 앉아 있던 두 명의 맹인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외쳤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아들!"
- 31 무리가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더욱 크게 외쳤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아들!"

³² 예수께서 멈추셔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무엇을 해 드리기를 원하는가?"

³³ 그들이 대답했다. "주님, 우리 눈이 보이게 해 주소서."

³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 즉시 그들의 눈이 보이게 되었고, 그들은 그를 따랐다.

마태오 복음서 21장

-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 산의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
- 2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너희 앞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라. 곧 나귀 한 마리와 그와 함께 있는 어린 나귀를 묶어 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 나에게 데려오라."
- 3 누가 무엇이랴 말하면, 너희는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곧 보내줄 것이다."
- 4 이 모든 일은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 5 "시몬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귀에 타고 들어오리니, 곧 어린 나귀에 타고."
- 6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 7 그들이 나귀와 어린 나귀를 데려와서 그 위에 자기 옷을 펴 놓고, 그는 그 위에 앉았다.
- 8 많은 무리가 자기 옷을 길에 펴 놓았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 길에 펴 놓았다.
- 9 앞서 가는 무리와 뒤를 따르는 무리가 모두 외쳤다.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 10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온 도시가 시끄러워져서,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물었다.
- 11 무리가 말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언자 예수이다."
- 12 예수께서 하느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모든 이를 쫓아내셨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었다.
- 13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 14 그 성전에서 눈먼 자들과 마비된 자들이 그에게 나아오자, 그분이 그들을 고쳐 주셨다.
- 15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가 행하신 기적들과 성전에서 외치는 어린이들의 소리를 듣고 분노하였다.
- 16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십니까?"
- 17 그분은 그들을 떠나 성을 나와 베다니로 가서 거기서 밤을 지냈다.
- 18 아침에 그가 성으로 돌아오던 중에 굶주렸다.
- 19 길가에 무화과나무 하나를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잎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 20 제자들이 보고 놀라며 말했다. "무화과나무가 곧 마르는 것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나무에게 한 것만이 아니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 22 너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다 받을 것이다."
- 23 그가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에게 나아와 말했다. "당신은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위를 주셨습니까?"
- 24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너희가 내게 대답하면, 나도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 25 요한의 세례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까?
- 26 만약 우리가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하면, 무리가 두렵습니다. 모두가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 27 그들이 예수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는 모릅니다.'
- 28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말했다.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서 일해라.'
- 29 그가 대답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가서 일했습니다.
- 30 그가 둘째에게 가서 같은 말을 했다. 그가 대답했다. '네, 주님, 가겠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았습니다.
- 31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습니까?

- ³² 요한이 의로움의 길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가 그것을 보고도 나중에 회개하지 않아 그를 믿지 않았다.
- ³³ 다른 비유를 들어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주위에 울타리를 쳐서, 안에 포도주 틀을 짚으며,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다른 나라로 떠났다.
- ³⁴ 수확 시기가 가까워지자, 그는 농부들에게 그의 열매를 받으려고 하인들을 보냈다.
- ³⁵ 농부들은 그 하인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 ³⁶ 그가 또 다른 하인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으나, 그들도 똑같이 대우받았다.
- ³⁷ 그 후에 그는 그들의 아들을 보냈다. 말했다. '그들은 내 아들을 존중할 것이다.'
- ³⁸ 그러나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서로 말했다. '이것이 상속자다. 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 ³⁹ 그래서 그들은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다.
- ⁴⁰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 그 농부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 ⁴¹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그는 그 불쌍한 자들을 비참하게 멸하고, 제때에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빌려줄 것입니다.'
- ⁴²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다. '성경에서 너희가 결코 읽지 않았느냐?'
- ⁴³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에게서 빼앗겨,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어질 것이다.
- ⁴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고, 이 돌이 누구에게 떨어지면 그를 가루처럼 흩어버릴 것이다.
- ⁴⁵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이들이 그의 비유를 듣고, 그가 자신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 ⁴⁶ 그들이 그를 잡으려 했으나, 무리를 두려워했다. 그가 예언자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마태오 복음서 22장

- 1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 2 "하늘나라는 마치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
- 3 그가 하인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된 자들을 불러오게 했으나, 그들은 오려 하지 않았다.
- 4 다시 다른 하인들을 보내며 말했다. "초대된 자들에게 전하라. 보라, 내가 식사를 준비하였다. 내 소와 살진 어린 양을 모두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혼인 잔치에 오너라!"
- 5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가볍게 여기고 떠나갔다.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또 하나는 자기 상업 활동으로 갔다.
- 6 나머지는 그 하인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 7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웠다.
- 8 "그리고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된 자들은 합당하지 못하다.
- 9 그러므로 도로의 교차로로 나가서, 너희가 만나는 대로 모두 혼인 잔치에 초대하여라."
- 10 그 하인들이 길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는데,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모두 모였다. 혼인 잔치는 손님들로 가득 찼다.
- 11 "그러나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갔을 때, 그 안에 혼인 잔치 옷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
- 12 그가 그에게 말했다. "친구야, 네가 어찌 혼인 잔치 옷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는 말이 없었다.
- 13 그러자 왕이 하인들에게 말했다. "그의 손과 발을 묶어 밖의 어둠으로 끌어내라. 거기서는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 14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으나, 적은 사람이 선택되었다."
- 15 그때 바리새인들이 모여 그를 말로 걸려게 하려고 꾀하였다.
- 16 그들이 제자들과 헤로데당 사람들을 보내며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진실하고, 어떤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느님의 길을 진리로 가르친다는 것을 압니다.
- 17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18 예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나를 시험하느냐, 위선자들이여?
- 19 세금 돈을 내어 보여 주어라."
- 20 그가 그들에게 물었다. "이 그림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 21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 22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서 그를 떠나 갔다.
- 23 그날 사두개인들이—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그에게 와서 물었다.
- 24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만약 어떤 남자가 자식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그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를 위해 자손을 일으켜야 한다."
- 25 우리에게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한 후 죽었고, 자식이 없어서 아내를 형제에게 남겼습니다.
- 26 둘째도 그와 같이, 셋째도 그 뒤를 따랐으며, 일곱째까지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 27 그 후 모두가 죽고 나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 28 그러므로 부활 때에, 그 여자는 일곱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모두가 그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다."
- 30 부활 때에는 그들은 결혼하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으며, 하늘에서 하느님의 천사들과 같아집니다.
- 31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 너희는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를 읽어보지 않았느냐?
- 32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셨다. 하느님은 죽은 자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느님이시다.
- 33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움을 느꼈다.
- 34 바리사이들은 그가 사두개인들을 침묵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다.
- 35 그들 중 한 명인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다.

³⁶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큼니까?"

³⁷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영혼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님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³⁸ 이것이 첫째이자 가장 큰 계명이다.

³⁹ 둘째는 이것과 같다.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⁴⁰ 모든 율법과 예언자는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⁴¹ 바리사이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다.

⁴² 그러며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⁴³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성령에 의해 다윗이 그를 어찌하여 '주님'이라 부르지 않았느냐?"

⁴⁴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⁴⁵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 부르는데, 어떻게 그가 그의 아들일 수 있느냐?"

⁴⁶ 그때부터 아무도 그에게 한 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로 아무도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했다.

마태오 복음서 23장

- 1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 2 “서기관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 3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여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따라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은 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 4 그들은 짐을 무겁게 메고 어깨에 지우지만, 자신들은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이지 않고 그것을 돕지 않는다.
- 5 그들은 사람들이 보도록 모든 일을 한다. 그들은 페릴라테리들을 넓게 하고, 옷자락을 길게 한다.
- 6 그들은 잔치에서의 상석과 회당에서의 최고의 자리를 사랑하며,
- 7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이 ‘라비, 라비’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 8 그러나 너희는 ‘라비’라고 불리지 말아라. 너희의 스승은 한 분뿐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 9 땅 위의 누구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며, 하늘에 계신 분이다.
- 10 또 너희를 스승이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스승은 한 분뿐이시니, 그리스도이다.
- 11 너희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 12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 13 “서기관들과 바리사이들, 가식적인 자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겉으로는 긴 기도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책망을 받을 것이다.
- 14 “서기관들과 바리사이들, 가식적인 자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사람들을 하느님 나라의 문 앞에 달아 버리기 때문이다. 너희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 15 서기관들과 바리사이들, 가식적인 자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바다와 땅을 두루 다니며 한 명의 개종자를 만들지만, 그가 개종하면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지옥의 아들로 만든다.
- 16 “너희 맹목적인 인도자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의무를 진다’고 말한다.
- 17 맹목적인 어리석은 자들아, 금과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 중에 무엇이 더 크냐?
- 18 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의무를 진다’고 말한다.
- 19 맹목적인 어리석은 자들아, 예물과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 중에 무엇이 더 크냐?
- 20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하는 것이다.
- 21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을 맹세하는 것이다.
- 22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느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맹세하는 것이다.
- 23 “서기관들과 바리사이들, 가식적인 자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민트와 딜과 후추를 십일조로 바치지만,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 곧 공의와 자비와 신실함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들을 해야 하며, 저것들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 24 너희 맹목적인 인도자들아, 모기 하나는 걸러내면서도 낙타는 삼켜 버리고 있다!
- 25 화가 있을지어다, 서기관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가식적인 자들아! 너희는 잔과 접시의 바깥을 깨끗이 씻지만, 안에는 탐욕과 부정의로 가득 차 있다.
- 26 눈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먼저 잔과 접시의 안을 깨끗이 씻어라. 그래야 바깥도 깨끗해질 것이다.
- 27 화가 있을지어다, 서기관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가식적인 자들아!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아서, 밖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자의 뼈와 모든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 28 이와 같이 너희도 사람 앞에서는 의로워 보이지만, 안에는 가식과 불의로 가득 차 있다.
- 29 화가 있을지어다, 서기관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가식적인 자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짓고 의로운 자들의 무덤을 장식하며,
- 30 이렇게 말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들과 예언자들의 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 ³¹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증거하여, 너희가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 ³² 그러니 너희 조상들의 측량을 채워라.
- ³³ 뱀들아, 악독한 뱀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 ³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그들 중 일부는 너희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일부는 너희 회당에서 매질하고 도시에서 도시로 박해할 것이다.
- ³⁵ 이로써 땅 위에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의로운 아벨의 피에서부터 바라하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너희에게 돌아가리니, 너희는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그를 죽였다.
- ³⁶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이 세대에 임할 것이다.
- ³⁷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내는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네 자녀들을 모아, 닭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에 모으듯이 모으고 싶었으나, 너희는 원치 않았다!
- ³⁸ 보라, 너희 집은 황폐하게 버려졌다.
- ³⁹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이제부터 내가 오기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되다!"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마태오 복음서 24장

- 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성전 건물을 보여주었다.
- 2 그러나 그분이 대답하여 이르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서 돌 하나가 또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허물어질 것이다."
- 3 그분이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당신의 오심과 세대의 끝은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 4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 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 6 너희는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 7 나라가 나라에, 왕국이 왕국에 대항하여 일어나고, 여러 곳에서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 8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고통의 시작이다.
- 9 그때에 그들은 너희를 괴롭힘에 넘겨주고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워받을 것이다.
- 10 그때에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서로를 넘겨주며 서로를 미워할 것이다.
- 11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 12 불법이 늘어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 14 이 왕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로 전해진 후에야 끝이 올 것이다.
- 15 "그러므로 너희가 다니엘 예언자가 말한, 파괴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아라),"
- 16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쳐라.
- 17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의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 18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져오려고 뒤로 돌아가지 말아라.
- 19 그때 임신한 자들과 젖 먹이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 20 너희가 도망치는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 21 그때에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니,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 22 그 날들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육체를 가진 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줄어들 것이다.
- 23 "그때 누구든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라고 말하면, 믿지 말아라."
-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가능하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 25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 26 그러므로 만약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면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안방에 있다' 하면 믿지 말라.
- 27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여 서쪽까지 비치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의 오심도 그러할 것이다.
- 28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 29 그러나 그 날들의 고난 직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 30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징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몸을 치며 슬퍼할 것이며, 그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의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사람의 아들을 볼 것이다.
- 31 그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의 네 바람 끝에서 끝까지 그의 택한 자들을 모을 것이다.
- 32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이미 부드러워지고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된다.
- 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 그가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 3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 ³⁵ 하늘과 땅은 지나가겠지만, 내 말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 ³⁶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며,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 ³⁷ 노아의 날들처럼, 사람의 아들의 오심도 그러할 것이다.
- ³⁸ 홍수 이전의 그 날들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랬다.
- ³⁹ 그들이 홍수가 와서 모두를 쓸어가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였다. 사람의 아들의 오심도 이와 같을 것이다.
- ⁴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것이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 ⁴¹ 두 여자가 손밀에서 갈고 있을 것이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 ⁴²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주님이 어느 시각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 ⁴³ 너희는 이것을 알라. 집 주인이 도둑이 밤의 어느 경비 시간에 올 것을 알았다면, 깨어 있었을 것이며, 그의 집이 흠쳐지지 않도록 막았을 것이다.
- ⁴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라. 너희가 생각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 ⁴⁵ 그러면 주인이 그의 집안을 맡아 제때에 음식을 주도록 세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누구인가?
- ⁴⁶ 주인이 왔을 때 이처럼 일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 ⁴⁷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주인의 모든 것을 다 맡게 될 것이다.
- ⁴⁸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고 있다’ 하고 말할 것이다.
- ⁴⁹ 그는 동료 하인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 ⁵⁰ 그 하인의 주인은 그가 기대하지도 않는 날, 알지도 못하는 시각에 올 것이다,
- ⁵¹ 그를 잘라서 위선자들과 함께 처분할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마태오 복음서 25장

- 1 그때 하느님 나라에서는 열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 2 그 중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지혜로웠다.
- 3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들고 나갈 때 기름을 함께 가져오지 않았다.
- 4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갔다.
- 5 신랑이 늦으므로 그들이 모두 졸다가 잠들었다.
- 6 그러나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 온다. 나가서 그를 맞으라!'
- 7 그러자 모든 처녀가 일어나 등불을 다듬었다.
- 8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등불이 꺼져 가니, 당신들의 기름을 조금 나눠 주십시오.'
- 9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기름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찌겠습니까? 오히려 장사하는 자들에게 가서 당신들 스스로 사십시오.'
- 10 그들이 가서 사는 동안 신랑이 왔고, 준비된 처녀들은 그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갔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 11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했다. '주님, 주님,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 주십시오.'
- 12 그러나 그는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 13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어느 날, 어느 시각에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14 하느님 나라는 마치 한 사람이 다른 나라로 떠나기 전에 자기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 15 그는 하나에게 다섯 달란트를, 또 하나에게 두 달란트를, 또 하나에게 한 달란트를,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고 떠났다.
- 16 곧 그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벌어들였다.
- 17 마찬가지로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또 두 달란트를 벌어들였다.
- 18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서 주인의 돈을 묻어 두었다.
- 19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다.
- 20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가 와서 말했다. '주님, 당신이 저에게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그 위에 또 다섯 달란트를 벌어들였습니다.'
- 21 그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좋은 일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 22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와서 말했다. '주님, 당신이 저에게 두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그 위에 또 두 달란트를 벌어들였습니다.'
- 23 그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좋은 일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 24 한 달란트를 받은 자도 와서 말했다. '주님, 저는 당신이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흩어지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엄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 25 두려워서 가서 당신의 타렌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것을 돌려드립니다.
- 26 그러나 그 주인은 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내가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흩어지지 않은 곳에서 모은다는 것을 알았으니,
- 27 그러면 내 돈을 은행가들에게 맡겨두었어야 했는데, 내가 왔을 때 내 것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았을 텐데.
- 28 그러므로 그에게서 타렌트를 빼앗아 열 타렌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 29 누구든지 있는 자에게는 더 주어 풍족하게 될 것이지만,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 30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에 내버려라. 거기에서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 31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그의 영광과 모든 성스러운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는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 32 그 앞에 모든 민족이 모일 것이며, 그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들을 서로 나눌 것이다.
- 33 그는 양을 오른쪽에, 염소를 왼쪽에 두겠다.

- 34 그때 왕은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세상 기초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 35 내가 주리고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르고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타국인이라 너희가 나를 맞아들였고,
- 36 내가 벌거벗었고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고 너희가 나를 찾아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었고 너희가 내게 왔다.'
- 37 그때 의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 38 언제 주님께서 타국인으로 계신 것을 보고 맞아들였으며, 벌거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 39 언제 주님께서 병드신 것을 보고 찾아드렸으며,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 40 왕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 41 그때 그는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 42 내가 주리고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르고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 43 내가 타국인이라 너희가 나를 맞아들여주지 않았고, 벌거벗었으니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혀주지 않았으며, 병들고 감옥에 있었으니 너희가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
- 44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도와드리지 않았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도와드리지 않았으며, 타국인으로 계신 것을 보고 맞아들여드리지 않았으며, 벌거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드리지 않았으며, 병드신 것을 보고 찾아드리지 않았으며,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드리지 않았습니까?'
- 45 그때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 46 이 자들은 영원한 벌로 가고,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다.'

마태오 복음서 26장

- 1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 2 "두 날 후에 유월절이 온다. 사람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박히기 위해 넘겨질 것이다."
- 3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카이아파라 불리는 대제사장의 안뜰에 모였다.
- 4 그들은 속임수로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 함께 의논하였다.
- 5 그러나 그들은 말했다. "축제 기간에는 하지 말자. 백성 사이에 소동이 일어날까 염려된다."
- 6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
- 7 한 여자가 아주 비싼 향유가 든 알라바스터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가 식탁에 앉아 계실 때 그의 머리에 부었다.
- 8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노하며 말했다. "왜 이런 낭비를 합니까?"
- 9 이 향유를 많이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 10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였다."
- 11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못하다.
- 12 그녀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 1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서 전파되는 어떤 곳에서든, 이 여자가 한 일이 그녀의 기념으로 말될 것이다."
- 14 그때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 15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은 서른 닢을 주었다.
- 16 그때부터 그는 예수를 배반할 기회를 찾았다.
- 17 무교절의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당신이 유월절 식사를 드릴 곳을 어디로 준비하게 하려 하십니까?"
- 18 그가 말씀하셨다. "성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네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전하여라."
- 19 제자들이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 20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 21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 22 그들은 매우 슬퍼하며 각자 물었다. "주님, 저가 아닙니까?"
- 23 그가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접시에 손을 담그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 24 사람의 아들은 기록된 대로 가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 25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대답했다. "선생님, 제가 아니겠습니까?"
- 26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는 빵을 가져 감사를 드리고 부수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 27 그는 잔을 가져 감사를 드린 후 그들에게 주며 말했다. "너희 모두가 이것을 마셔라."
- 28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내 피로 된 새 계약의 피이다.
- 2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실 그 날까지.
- 30 그들이 찬미 노래를 부른 후에 그들은 골바니 산으로 나갔다.
- 31 그때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 모두가 오늘 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 32 그러나 내가 일어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 33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했다. "비록 모두가 당신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 34 예수는 그에게 말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 35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비록 제가 당신과 함께 죽어야 한다 하더라도, 저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말했다.
- 36 그때 예수는 그들과 함께 게세마니아 불리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했다. "여기 앉아 있어라. 내가 저리 가서 기도할 것이다."
- 37 그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슬퍼하고 심히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 38 그러고 나서 예수는 그들에게 말했다. "내 영혼은 매우 슬프다. 죽을 지경이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 39 그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말했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하소서."
- 40 그는 제자들에게로 돌아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했다. "너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 41 깨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 영은 원하지만 육은 약하다.
- 42 그는 다시 떠나 두 번째로 기도했다. "내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지 못하려면 내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43 그는 다시 돌아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 44 그는 그들을 다시 떠나 세 번째로 기도하여 같은 말을 하였다.
- 45 그러고 나서 그는 제자들에게로 돌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아직도 자고 쉬고 있느냐? 보라, 그때가 가까이 왔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있다."
- 46 일어나자.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왔다.
- 47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보라, 열두 명 중 하나인 유다가 왔고, 그와 함께 대군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왔다.
- 48 그가 예수를 배반한 자는 그들에게 표를 주며 말했다. "내가 입맞추는 그가 바로 그이다. 그를 잡아라."
- 49 즉시 그는 예수께 다가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며 입맞추었다.
- 50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친구야, 왜 왔느냐?"
- 51 보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한 사람이 손을 뻗어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하인을 치고 그의 귀를 베어냈다.
- 52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제자리에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모두 칼에 죽는다."
- 53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게 열두 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다.
- 54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 55 그때 예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도둑을 잡으려고 칼과 지팡이를 들고 나를 잡으려고 나왔느냐? 나는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며 앉아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잡지 않았다."
- 56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언자들의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 57 예수를 붙잡은 자들이 그를 대제사장 가이아바에게 데려가니, 거기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 58 그러나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안뜰로 들어가 관리들과 함께 앉아 그 끝을 지켜보았다.
- 59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공회 전체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언을 찾았다.
- 60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왔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마침내 두 명의 거짓 증인이 나왔다.
- 61 그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느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했다."
- 62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63 그러나 예수는 침묵하셨다. 대제사장이 그에게 말했다. "살아 계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자 하느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말하십시오."

64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쪽에 앉아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65 그러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말했다. "그가 모독을 했다! 더 이상 증인이 필요하겠느냐? 보라, 이제 너희가 그의 모독을 들었다."

66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67 그러자 그들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일부는 그의 뺨을 때렸다.

68 말했다.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예언해 보아라. 누구에게 맞았느냐?"

69 베드로는 밖, 안뜰에 앉아 있었다. 한 여종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너도 갈릴래아의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70 그러나 그는 모두 앞에서 부인하며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71 그가 마당으로 나가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그곳에 있던 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도 나사렛의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72 그는 다시 맹세하며 부인했다. "그 사람은 내가 모른다."

73 잠시 후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말투로 당신이 그들임이 드러납니다."

74 그러자 그는 저주를 퍼부으며 맹세했다.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75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렸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가서 슬피 울었다.

마태오 복음서 27장

- 1 아침이 되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모의하였다.
- 2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인 본티오 빌라도에게 넘겼다.
- 3 그때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예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 후회하여 삼십 개의 은전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 4 말했다. "나는 무죄한 피를 배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 5 그는 은전을 성소에 던져놓고 떠나가서 목을 매달아 자살하였다.
- 6 대제사장들이 그 은전을 받아 말했다. "이것은 피값이므로 성전 보물함에 넣을 수 없다."
- 7 그들은 모의하여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외국인을 장사하기로 하였다.
- 8 그러므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의 밭"이라고 불리고 있다.
- 9 그때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삼십 개의 은전을 받아,
- 10 토기장이의 밭을 사기 위해 그 돈을 주었다."
- 11 예수는 총독 앞에 서 있었다. 총독이 그에게 물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 12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했지만, 예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 13 그러자 빌라도가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네게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듣지 않느냐?"
- 14 예수는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놀라워하였다.
- 15 명절마다 총독은 백성의 소망에 따라 한 명의 죄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다.
- 16 그때 그들에게 유명한 죄수 바라바가 있었다.
- 17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냐?"
- 18 빌라도는 그들이 질투 때문에 예수를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19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보냈다. "그 의로운 사람과는 아무 관계도 갖지 마라. 오늘 내가 꿈에서 그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
- 20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들을 설득하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게 만들었다.
- 21 그러나 총독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 22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에게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 23 그러나 총독이 말했다. "왜냐고?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 24 빌라도는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와 백성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다.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처리하라."
- 25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했다.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 26 그리고 그는 바라바를 그들에게 풀어주었지만, 예수는 매질한 뒤 십자가에 못박히게 넘겨주었다.
- 27 그러자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관저로 데려가서 온 부대를 모아 그에게 둘러쌌다.
- 28 그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붉은 옷을 입혔다.
- 29 그들은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주었으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조롱하며 말했다. "유대인의 왕이시여, 만세!"
- 30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들어 그의 머리를 치었다.
- 31 그들이 그를 조롱한 뒤,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다시 입히며 십자가에 못박으러 끌고 갔다.
- 32 그들이 나가던 중 시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붙잡아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 33 그들이 골고다라 불리는 곳에 이르렀다. 이는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다.
- 34 그들은 쓴 포도주에 달인 쓴 약을 섞어 그에게 마시게 했다. 그러나 그는 맛본 뒤 마시지 않았다.
- 35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박은 뒤,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았다.

- 36 그리고 그들은 그를 지켜보며 앉아 있었다.
- 37 그들은 그의 머리 위에 그의 죄명을 써서 달았다. "이것이 유대인의 왕 예수이다."
- 38 그리고 그와 함께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박혔는데,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있었다.
- 39 지나가는 자들은 그를 모욕하며 머리를 흔들었다.
- 40 그리고 말했다.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다시 세우는 자여, 네가 스스로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너라!"
- 41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사이들과 장로들도 조롱하며 말했다.
- 42 "그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다."
- 43 "그는 하느님을 의지한다. 하느님이 그를 지금 구원하시기를 바란다면, 그를 구원하시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으니."
- 44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강도들도 그를 향해 같은 비난을 퍼부었다.
- 45 여섯 시부터 아홉 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내렸다.
- 46 아홉 시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쳤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는 "내 하느님, 내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 47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그것을 듣고 말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 48 즉시 그들 중 한 사람이 달려가서 스폰지를 식초로 적신 뒤 갈대에 꽂아 그에게 마시게 했다.
- 49 나머지 사람들은 말했다. "그를 놔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보자."
- 50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영을 내어놓으셨다.
- 51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 52 무덤들이 열리고,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시체가 일어났으며,
- 53 그가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들에서 나와서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 54 예수를 지켜보던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을 보고 매우 무서워하며 말했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 55 멀리서 바라보며 지켜보던 많은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다.
- 56 그 중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 57 저녁이 되자, 아리마대에서 온 부자 한 사람이 왔는데, 그는 요셉이라는 이름이며, 자신도 예수의 제자였다.
- 58 이 사람이 피라토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피라토는 시체를 넘겨주라고 명령했다.
- 59 요셉은 시체를 받아 깨끗한 베옷으로 싸서,
- 60 자신이 바위에 새긴 새 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에 막은 후 떠났다.
- 61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 62 다음 날, 즉 준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피라토에게 모여서,
- 63 말했다. "주님, 그 속임꾼이 살아 있을 때에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일 후에 내가 다시 일어나겠다.'"
- 64 그러므로 무덤을 삼일 동안 안전하게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의 시체를 훔쳐가고, 사람들에게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였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마지막 속임수가 첫 번째보다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 65 피라토가 그들에게 말했다. "경비대를 줄 터이니,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지켜라."
- 66 그들은 경비대와 함께 가서 무덤을 안전하게 지키고 돌에 봉인을 했다.

마태오 복음서 28장

- ¹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첫날 아침이 밝아오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다.
- ² 보라,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 ³ 그의 모습은 번개 같았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었다.
- ⁴ 그를 두려워한 경비원들은 떨며 죽은 자처럼 되었다.
- ⁵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 ⁶ 그는 여기에 있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와서 그가 누워 있던 자리를 보아라.
- ⁷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여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보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거기서 너희는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 ⁸ 그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전할 말을 전하러 달려갔다.
- ⁹ 그들이 제자들에게 전할 때, 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기뻐하여라!"
- ¹⁰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거기서 그들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 ¹¹ 그들이 가는 동안, 일부 경비원이 도시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렸다.
- ¹² 그들이 장로들과 모여 의논한 후, 병사들에게 많은 은을 주며,
- ¹³ 말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 그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 ¹⁴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하지 않게 해주겠다."
- ¹⁵ 그래서 그들은 돈을 받아 지시한 대로 했다. 이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 ¹⁶ 그러나 열한 제자는 갈릴리로 가서, 예수가 그들에게 지시한 산에 올랐다.
- ¹⁷ 그들이 그를 보고 절했으나, 일부는 의심했다.
- ¹⁸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 ¹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 ²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마르코 복음서 | Mark

마르코 복음서 1장

- ¹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 ² 예언자들에 기록된 대로이다. '보라, 내가 너 앞에 내 사자를 보내어, 네 길을 준비하게 하리라.'
- ³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 ⁴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
- ⁵ 유다 전 지역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 ⁶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
- ⁷ 그는 이렇게 전했다. '나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더 강하시다.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어드리기조차 합당하지 않다.'
- ⁸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겠다.'
- ⁹ 그때에 예수는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와서, 요르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 ¹⁰ 물에서 즉시 올라오자, 하늘이 찢어지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내려왔다.
- ¹¹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자다.'
- ¹² 성령이 곧바로 그를 광야로 내보냈다.
- ¹³ 그는 사십 일 동안 광야에 있었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는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고, 천사들이 그를 섬겼다.
- ¹⁴ 요한이 잡힌 후, 예수는 갈릴리로 와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 ¹⁵ 말했다. '시대가 완성되었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¹⁶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며,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아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들이었다.
- ¹⁷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 ¹⁸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그를 따랐다.
- ¹⁹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시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고치는 것을 보셨다.
- ²⁰ 그는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배에 남겨두고, 고용된 일꾼들과 함께 떠나 그를 따랐다.
- ²¹ 그들은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 ²²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는 서기관들처럼가 아니라, 권위 있는 자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 ²³ 그때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한 사람이 있었고, 그가 외쳤다.
- ²⁴ "아!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왔느냐?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안다. 너는 하느님의 성자다!"
- ²⁵ 예수께서 그를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침묵하라. 그에게서 나오너라!"
- ²⁶ 부정한 영이 그를 격렬히 떨게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그에게서 나갔다.
- ²⁷ 모든 사람이 놀라서 서로 물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 새로운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가 부정한 영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니, 그것들이 그에게 복종하는구나!"
- ²⁸ 그의 소문은 곧바로 갈릴리 온 지역과 그 주변으로 퍼졌다.
- ²⁹ 그들이 회당에서 나와 곧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들어갔다.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였다.
- ³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그들이 곧바로 예수께 그녀의 일을 말했다.
- ³¹ 예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열병이 곧 떠나갔고, 그녀는 그들을 섬겼다.
- ³² 해가 지고 나서, 그들은 병자들과 귀신들에 붙잡힌 이들을 모두 예수께 데려왔다.
- ³³ 온 성이 문 앞에 모였다.
- ³⁴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많이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귀신들이 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지 못하게 하셨다.

- ³⁵ 아침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 ³⁶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이들이 그를 찾았다.
- ³⁷ 그들이 그를 찾아내어 말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 ³⁸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자. 이웃 마을들로 가서, 거기에서도 전도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나온 것이다."
- ³⁹ 그는 갈릴리 온 지역의 회당들에 다니며 전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 ⁴⁰ 한 나환자가 그에게 와서 간청하며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다.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⁴¹ 자비로우신 마음을 느끼신 예수께서 손을 뻗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원한다. 깨끗해지어라."
- ⁴² 그가 말씀하시자마자,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는 깨끗해졌다.
- ⁴³ 그는 그를 엄히 경고하시고 곧바로 내보내셨다,
- ⁴⁴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가 명령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네가 깨끗해진 증거로 삼아라."
- ⁴⁵ 그러나 그는 나가서 그 일을 널리 전파하고 소문을 퍼뜨려, 예수께서 더 이상 공개적으로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외딴 곳에 머무르셨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에게로 몰려왔다.

마르코 복음서 2장

- 1 몇 일 후 그가 다시 갈릴리의 카파르나움에 들어갔을 때, 그가 집에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 2 곧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밖까지도 공간이 없을 정도가 되었고, 그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 3 사람 넷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그에게로 왔다.
- 4 무리 때문에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자, 그들은 그가 계신 곳의 지붕을 걷어 올렸다. 지붕을 뜯어낸 후, 중풍병자가 누워 있던 자리를 내려놓았다.
- 5 그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셨다. "아들아, 네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
- 6 그러나 거기 앉아 있던 서기관 몇 명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 7 "이 사람이 어찌 이같이 모독적인 말을 하는가? 하느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 8 그는 즉시 그들의 영 안에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속으로 이런 일을 생각하는가?"
- 9 중풍병자에게 "네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가, 아니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가?
- 10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한을 가졌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한다." 그는 중풍병자에게 이르셨다.
- 11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 12 그는 일어나 즉시 자리를 들고 그들 앞에서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모두가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이런 일을 결코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 13 그는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모든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었고, 그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 14 그가 지나가실 때, 알파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그를 따랐다.
- 15 그가 그의 집에서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먹었다. 그들은 많았고, 그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 16 서기관들과 바리사이들이 그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 17 그는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왔다."
-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금식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그에게 물었다.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 19 그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 20 그러나 신랑이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오면 그들은 금식할 것이다."
- 21 누구든지 낡은 옷에 새 천을 꿰매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새 천이 수축하여 낡은 옷을 찢고, 더 나쁜 구멍이 생긴다.
- 22 누구든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고,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진다. 그러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 23 그가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밀 이삭을 뜯기 시작했다.
- 24 바리사이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하십니까?"
- 25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다윗이 필요할 때와 배고플 때, 그와 함께한 이들과 함께 무엇을 했는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 26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시절에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또 함께한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습니까?
- 27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고, 사람은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²⁸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님이십니다.

마르코 복음서 3장

- 1 그가 다시 회당에 들어가니, 손이 마른 사람이 한 명 거기에 있었다.
- 2 그들은 안식일에 그를 고치는지 살펴보며 그를 고발하려 했다.
- 3 그는 손이 마른 사람에게 말했다. "일어나라."
- 4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옳은가, 죽이는 것이 옳은가?" 그러나 그들은 침묵했다.
- 5 그는 그들을 둘러보며 분노하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슬퍼하여 그 사람에게 말했다. "손을 뻗어라." 그가 손을 뻗으니, 그 손이 다른 손처럼 건강하게 회복되었다.
- 6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즉시 헤로데파와 함께 모의하여 그를 어떻게 멸할지 논의했다.
- 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쪽으로 물러나셨다. 갈릴래아와 유다에서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 8 예루살렘과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주변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다. 그가 행한 큰 일들을 듣고 많은 무리가 그에게 나아왔다.
- 9 그는 무리 때문에 그를 놀러서는 안 되므로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가까이 대두라고 말했다.
- 10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병이 있는 자들이 모두 그에게 달라붙어 그를 만지려 했다.
- 11 부정한 영들은 그를 볼 때마다 그 앞에 엎드려 외쳤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 12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셨다.
- 13 그는 산에 올라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그에게로 나아왔다.
- 14 그는 열두 명을 세워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그들을 보내어 전파하게 하셨다.
- 15 그리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려 하셨다.
- 16 시몬(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
- 17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그에게 보아너게,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다);
- 18 안드레아, 필리포스, 바르톨로메오, 마태오, 도마,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타대오, 열성당의 시몬;
- 19 그리고 그를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이었다.
- 20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 그들이 빵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 21 그의 친지들이 듣고 그를 붙잡으러 나갔다. 그들은 말했다. "그는 미쳤다."
- 22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말했다. "그는 베엘제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귀신의 두목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 23 그는 그들을 불러내어 비유로 말했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 24 만일 어떤 왕국이 자기 안에서 갈라지면, 그 왕국은 설 수 없다.
- 25 집이 자기 안에서 갈라지면, 그 집은 서 있을 수 없다.
- 26 사탄이 자기에게 대적하여 갈라졌다면, 그는 서 있을 수 없고, 결국 끝을 맞는다.
- 27 누구도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재산을 약탈할 수 없으나,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 그 후에야 비로소 그의 집을 약탈할 수 있다.
- 2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자손들이 범하는 모든 죄와 비방은 용서받을 것이다.
- 29 그러나 성령을 비방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를 범한다.
- 30 이는 그들이 '그가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 31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밖에 서서 그를 불러 보내었다.
- 32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고, 그들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 33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누구인가?"
- 34 그는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³⁵ 누구든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마르코 복음서 4장

- 1 그는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어서, 그는 바다에 있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모든 무리는 바닷가 땅에 있었다.
- 2 그는 비유로 많은 일을 가르치셨으며, 그의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했다.
- 3 들어라. 보아라,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 4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치웠다.
- 5 어떤 씨는 돌이 많은 땅에 떨어져 흙이 얇았고, 곧 싹이 트었으니, 뿌리가 깊이 안았기 때문이다.
- 6 해가 떠오르자 타버렸고, 뿌리가 없어서 마르고 말았다.
- 7 어떤 씨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져 가시덤불이 자라나 그것을 조이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 8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자라나 풍성하게 결실하였다. 어떤 것은 서른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백 배를 내었다.
- 9 그가 말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 10 그가 혼자 계실 때, 열두 제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비유에 대해 물었다.
- 11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하느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졌지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이루어진다.
- 12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여, 혹시 돌아서서 죄 사함을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 13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 비유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모든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 14 농부가 말씀을 뿌린다.
- 15 길가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는 자들인데, 그들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 16 같은 방식으로 돌이 많은 땅에 뿌려진 자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 17 그들은 자기 안에 뿌리가 없고, 잠시 동안만 지속된다.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
- 18 다른 이들은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진 자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 19 이 세상의 염려와 부의 속임수, 그리고 다른 것들의 탐욕이 들어와 말씀을 조이고,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 20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어떤 것은 서른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백 배를 낸다.
- 21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등불을 양동이 밑이나 침대 밑에 두고 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등불대 위에 두지 않느냐?
- 22 숨겨진 것이 없어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은밀히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 23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 24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듣는 것을 조심하여라. 너희가 어떤 재로 재면, 그것이 너희에게도 그대로 돌아갈 것이며, 너희가 듣는 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다."
- 25 누구든지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가진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 26 그분이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마치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 27 그는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며, 씨는 싹트고 자라는데, 그는 어떻게 그런지 모른다.
- 28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먼저 잎이 나고, 그다음 이삭이 되며, 그다음 이삭에 알맞은 곡식이 익는다.
- 29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는데, 수확이 왔기 때문이다."
- 30 그분이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어떤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
- 31 그것은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는 모든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인데,
- 32 뿌려지면 자라서 모든 채소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게 한다."
- 33 그분은 이런 비유들을 많이 써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하셨다.
- 34 비유 없이 그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오직 제자들에게는 혼자서 모든 것을 설명하셨다.
- 35 그날 저녁이 되자,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 ³⁶ 무리들을 떠나 그분을 배에 태우고 떠났다. 그분이 그대로 계셨고, 다른 작은 배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 ³⁷ 거센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에 부딪쳐서 벌써 배가 가득 차고 말았다.
- ³⁸ 그분은 배 뒤쪽에서 베개 위에 자고 계셨다. 제자들이 깨워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죽어 가는데도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 ³⁹ 그분이 일어나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말씀하셨다. "조용해져라. 잠잠해져라." 바람이 그치고 큰 고요가 찾아왔다.
- ⁴⁰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 ⁴¹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서로 말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마르코 복음서 5장

- 1 그들은 바다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땅에 도착했다.
- 2 그가 배에서 나왔을 때, 즉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한 남자가 무덤에서 그를 만나러 나왔다.
- 3 그는 무덤에 살았다. 아무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을 수 없었다.
- 4 그는 자주 쇠사슬과 족쇄로 묶였으나, 그 쇠사슬은 그가 찢어버리고, 족쇄는 부서져 조각이 되었다. 아무도 그를 제압할 힘이 없었다.
- 5 그는 항상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외치며 돌로 자신을 치었다.
- 6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가 그에게 절했다.
- 7 그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가장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을 가리켜 맹세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 8 그는 그에게 말했다.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 9 그는 그에게 물었다. "네 이름은 무엇이나?"
- 10 그는 그에게 간청하며, 자신들을 그 땅에서 내쫓지 말아 달라고 많이 구했다.
- 11 그 산비탈에는 많은 돼지 떼가 먹이를 찾고 있었다.
- 12 모든 악귀들이 그에게 간청하며 말했다.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 13 즉시 예수께서 허락하셨다. 더러운 영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 들어갔다. 약 이천 마리의 돼지 떼가 가파른 언덕을 따라 바다로 뛰어내려 바다에 잠겼다.
- 14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쳐 도시와 시골에 그 일을 알렸다.
- 15 그들은 예수에게로 와서, 악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레기온이라 불리던 자였다. 그들은 두려워했다.
- 16 그 일을 본 자들이 악귀에게 사로잡혔던 자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에 관한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 17 그들은 그에게 자기 지역에서 떠나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 18 그가 배에 오르려고 할 때, 악귀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그와 함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 19 그는 그를 허락하지 않고 말했다. "네 집으로 가서, 네 친구들에게 주님이 네게 얼마나 큰 일을 하셨고, 네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말하여라."
- 20 그는 가서 데카폴리스에서 예수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를 선포하기 시작했고, 모든 이가 놀라워했다.
- 21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돌아오셨을 때,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고, 그는 바닷가에 계셨다.
- 22 보라, 회당의 한 지도자인 아이로가 와서 예수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 23 그는 간청하며 말했다. "작은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그녀 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래야 그녀가 나아서 살게 될 것입니다."
- 24 그는 그와 함께 가셨고, 큰 무리가 그를 따랐으며, 사방에서 그를 놀렸다.
- 25 열두 해 동안 피가 나던 한 여자
- 26 많은 의사들의 손을 거쳐 많은 고통을 받고, 가진 것을 모두 써버렸으나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더 나빠졌던 그 여자
- 27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무리 뒤에 따라가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 28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만 만져도 나아질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 29 곧 그 여자의 피 흐름이 마르고, 몸에 병이 나았음을 느꼈습니다.
- 30 예수께서 자신 안에서 힘이 빠져나간 것을 즉시 느끼고, 무리 속에서 돌아서서 '내 옷을 만진 이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 31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십니까?
- 32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일을 한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보셨습니다.

- ³³ 그 여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앞으로 나아가 예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 ³⁴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완전히 나았으니.'
- ³⁵ 그가 아직 말을 마치지 않았을 때, 회당 우두머리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 ³⁶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회당 우두머리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어라.'
- ³⁷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 ³⁸ 그가 회당 우두머리의 집에 이르러 소란과 울음과 큰 통곡을 보았습니다.
- ³⁹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지 않았고, 잠들어 있을 뿐이다.'
- ⁴⁰ 그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 ⁴¹ 아이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타리타 쿰미!' 이 말은 곧 해석하면, '아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 ⁴² 곧 아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녀는 열두 살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 ⁴³ 그는 그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고, 그녀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6장

- 1 그는 거기서 떠나 고향으로 들어가셨고, 그의 제자들도 따라갔다.
- 2 안식일이 되자 그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듣고 놀라며 말했다.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어디서 얻었는가? 이 사람이 받은 지혜가 무엇이기예, 그의 손으로 이런 큰 능력이 일어나는가?"
- 3 이 사람은 목수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걸림돌을 느꼈다.
- 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 안에서만 존경받지 못한다."
- 5 그는 거기서 큰 기적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다만 몇 명의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셨다.
- 6 그들은 믿지 않아서 그가 놀라셨다.
- 7 그는 열두 사람을 불러서 둘씩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며, 부정한 영들에게 권한을 주셨다.
- 8 그는 그들에게 여행에 필요한 것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빵도, 주머니도, 돈도 지니지 말고,
- 9 신을 신고, 두 벌 옷을 입지 말라고 하셨다.
- 10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든지 너희가 집에 들어가면, 그곳에 머물다가 떠날 때까지 그대로 있어라."
- 11 누구든지 너희를 받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발밑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 12 그들은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전파했다.
- 13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이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고쳐 주었다.
- 14 헤로데가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말했다. "요한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그에게서 일어나는 것이다."
- 15 그러나 다른 이들은 말했다. "그는 엘리야다." 또 다른 이들은 말했다. "그는 예언자이거나, 예언자들 중 하나다."
- 16 그러나 헤로데는 이 소식을 듣고 말했다. "이 사람은 내가 베어낸 요한이다.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 17 헤로데는 헤로디아를 위해 요한을 잡아가두었다. 헤로디아는 그의 형제 필리포스의 아내였는데, 헤로데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다.
- 18 요한은 헤로데에게 말했다. "너는 형의 아내를 가질 수 없다."
- 19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그를 죽이려 했으나, 할 수 없었다.
- 20 헤로데는 요한을 두려워했다.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알고, 그를 보호했다. 그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 일을 하였고, 즐겁게 들었다.
- 21 헤로데의 생일에 그가 귀족들과 고위 관리들과 갈릴리의 주요 인사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 22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자, 헤로데와 함께 앉아 있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왕이 그 소녀에게 말했다. "네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라. 내가 줄 것이다."
- 23 그는 그녀에게 맹세했다. "네가 내게 무엇을 요구하든, 내가 줄 것이다. 내 왕국의 절반까지도."
- 24 그녀가 나가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
- 25 그 여자는 곧 급히 왕에게 들어가서 청했다. "제가 지금 바로 요한 세례자의 머리를 접시에 달아 주십시오."
- 26 왕은 매우 슬퍼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과 식사 손님들을 위해 그녀를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 27 왕은 즉시 자기 경비대의 병사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는 가서 감옥에서 요한을 베어 머리를 가져왔다.
- 28 그는 머리를 접시에 담아 젊은 여자에게 주었고, 젊은 여자는 그것을 어머니에게 주었다.
- 29 그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안장했다.
- 30 사도들이 모여 예수께 나아가서 자신들이 한 일과 가르친 모든 것을 그에게 보고했다.
- 31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혼자서 황폐한 곳으로 떠나서 잠시 쉬십시오." 그들은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식사

할 시간조차 없었다.

32 그들은 배를 타고 혼자서 황폐한 곳으로 떠났다.

33 사람들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그를 알아보고 모든 도시에서 발로 달려갔다. 그들은 그들보다 먼저 도착하여 그에게 모여들었다.

34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보여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35 그날 저녁이 되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이곳은 황폐한 곳이고, 이미 저녁입니다."

36 "그들을 보내어 주변 시골과 마을로 가서 빵을 사게 하십시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37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당신들이 그들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을 주십시오."

38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빵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가서 보십시오."

39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모두 푸른 풀 위에 무리씩 앉게 하셨다.

40 그들은 백 명씩, 오십 명씩 줄지어 앉았다.

41 그는 다섯 개의 빵과 두 마리의 물고기를 잡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 앞에 놓게 하셨다. 그리고 두 마리의 물고기를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다.

42 모두가 먹고 배를 불렀다.

43 그들은 부서진 빵 조각과 물고기까지도 열두 바구니 가득 모아들였다.

44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다섯 천 명이었다.

45 그는 즉시 제자들에게 배에 올라 타고 저편 뱃새다로 먼저 가도록 명령하시고, 자신은 무리를 보내어 헤어지게 하셨다.

46 그들이 떠난 후, 그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47 저녁이 되자,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고, 그는 홀로 땅에 계셨다.

48 그들이 노를 저으며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바람이 그들에게 거스르므로 밤 네 번째 경에 그가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다. 그는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49 그러나 그들은 그가 바다 위를 걷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 생각하고 외쳤다.

50 그들은 모두 그를 보고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는 곧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셨다. "담대하라. 내가 바로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51 그는 그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다. 바람이 그치자 그들은 매우 놀라워하며 서로 감탄했다.

52 그들은 떡에 관한 일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은 딱딱해져 있었다.

53 그들이 건너가서 간네사렛 땅에 닿아 해변에 정박했다.

54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다.

55 그들은 그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며 병자들을 침상에 올려 그가 있는 곳으로 데려왔다.

56 그가 마을이나 도시나 시골 어디에 들어가든 병자들을 시장에 뉘어 놓고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에게 만진 이들은 모두 낫게 되었다.

마르코 복음서 7장

- 1 바리사이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일부 서기관들이 예수께 모여들었다.
- 2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 중 일부가 부정한, 즉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고 불만을 품었다.
- 3 (바리사이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고수하여, 손과 팔뚝을 씻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 4 시장에서 돌아오면 씻지 않고는 먹지 않으며, 그들은 잔과 항아리와 닢그릇과 침대의 씻음 같은 다른 많은 전통들을 받아 들여 지키고 있다.)
- 5 바리사이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 6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위선자들이여, 이사야가 너희에 관해 잘 예언하였다. 그가 기록하기를,
- 7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며,"
- 8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인 항아리와 잔의 씻음 같은 것을 고집하며, 이와 같은 다른 많은 일을 한다."
- 9 그가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느님의 계명을 잘 버리고 있다."
- 10 모세가 말하기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 11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드린 것이라' 하면,"
- 12 "그러면 너희는 그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한다."
- 13 너희가 전해 준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고 있다. 너희는 이런 일을 많이 한다."
- 14 그가 모든 무리를 불러 모아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모두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이해하여라."
- 15 사람 밖에서 들어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힌다."
- 16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 17 그가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자,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해 물었다.
- 18 그가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도 이해하지 못하는가? 너희는 사람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 19 그것은 마음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변소로 나가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한다."
- 20 그가 이르셨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힌다."
- 21 사람의 마음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며,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 22 탐욕, 악의, 시기, 음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 23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안에서 나오며 사람을 더럽힌다."
- 24 그곳에서 그가 일어나서 두레와 시돈의 경계로 떠나갔다. 그는 한 집에 들어가서 누구도 자기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했으나, 숨을 수 없었다.
- 25 한 여자가 자기 어린 딸에게 더러운 영이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 26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며, 시로페니키아 출신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기 딸에서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간청했다.
- 27 그러나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먼저 자녀들이 배부르게 먹어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 28 그러나 그녀가 대답하여 말했다. "예, 주님. 그러나 탁자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 29 그가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을 인하여 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 30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이 나간 것을 보았다.
- 31 그는 다시 두레와 시돈의 경계를 떠나 데카폴리스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로 갔다.
- 32 그들에게 귀가 먹고 말이 둔한 사람이 끌려왔다. 그들은 그에게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 달라고 간청했다.

³³ 그는 그를 무리에서 떼어내어 혼자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만졌다.

³⁴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쉬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에파타!" 곧, "열리어라!"

³⁵ 곧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의 묶임이 풀려서 그가 분명히 말하게 되었다.

³⁶ 그는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그가 명령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그것을 전파하였다.

³⁷ 그들은 매우 놀라며 말했다.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셨다. 귀먹은 자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셨다!"

마르코 복음서 8장

- 1 그때에 큰 무리가 있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 2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들이 이미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 3 "내가 그들을 굶은 채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힘을 잃을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멀리서 왔다."
- 4 제자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이런 빈 들판에서 어디서 이 사람들을 빵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 5 그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빵이 몇 개나 있느냐?"
- 6 그가 무리를 땅에 앉히라고 명령하고, 일곱 개의 빵을 잡으셨다. 감사한 뒤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셨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 7 그들에게는 몇 마리의 작은 물고기도 있었다. 그가 이를 축복하신 뒤에, 이것들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 8 그들이 먹고 배불렀다. 남은 조각을 일곱 바구니에 모아들었다.
- 9 먹은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다. 그 후에 그를 보내셨다.
- 10 곧 그는 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타 지역으로 갔다.
- 11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요구하며 물어보았다.
- 12 그가 깊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다. "이 세대가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는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에는 어떤 표적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 13 그가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다른 쪽으로 떠나셨다.
- 14 그들은 빵을 챙기지 않았고, 배에 있는 빵은 한 개밖에 없었다.
- 15 그가 그들에게 경고하며 말씀하셨다. "조심하여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경계하라."
- 16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가 빵을 챙기지 않아서 그렇다."
- 17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빵이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가?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는가?"
- 18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가?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가? 기억하지 못하는가?
- 19 내가 오천 명 사이에 다섯 개의 빵을 떼었을 때, 너희가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에 모아들었느냐?
- 20 일곱 개의 빵으로 사천 명을 먹었을 때, 너희가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에 모아들었느냐?
- 21 그가 그들에게 물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가?"
- 22 그가 베사이다에 이르렀다. 그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대어 달라고 간청하였다.
- 23 그가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가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손을 얹은 뒤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었다.
- 24 그가 눈을 들어 말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무처럼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 25 그리고 다시 그의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가 주의 깊게 바라보니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분명히 보았다.
- 26 그를 집으로 보냈으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고, 마을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다.
- 2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레아 필리피의 마을들로 나가셨다.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가?"
- 28 그들이 대답했다. "요한 세례자입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 29 그가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가?"
- 30 그가 그들에게 자기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 31 그는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거부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 32 그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그를 끌어당겨 꾸짖기 시작했다.
- 33 그러나 그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내 뒤로 물러서라, 사탄아!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³⁴ 그는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모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³⁵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의 이유로 자신의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³⁶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이익이 있겠느냐?

³⁷ 사람이 자기 생명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³⁸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그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성령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마르코 복음서 9장

- 1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권능으로 오는 하느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
- 2 여섯 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홀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 3 그의 옷이 눈처럼 매우 희게 빛나서, 땅의 어떤 세탁부도 것처럼 희게 할 수 없었다.
- 4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와 대화하고 있었다.
- 5 베드로가 예수에게 대답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장막 세 개를 지어,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만들겠습니다."
- 6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매우 무서웠기 때문이다.
- 7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에서 소리가 나왔다. "이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 8 그들이 주위를 둘러보니, 더 이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기 전까지, 너희가 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 10 그들은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있었다.
- 11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서기관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 12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는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경멸받아야 한다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 13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였다. 성경에 그에 관해 기록된 대로이다.
- 14 제자들에게 다가가자, 그는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았다.
- 15 모든 무리가 그를 보자 즉시 놀라서 달려가서 인사했다.
- 16 그가 서기관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에게 묻고 있느냐?"
- 17 무리 중 한 사람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에게 말을 못 하는 귀신이 들어 있습니다."
- 18 그 귀신이 그를 잡으면, 그를 땅에 던집니다. 그는 침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굳어집니다. 저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 19 그가 그에게 대답하셨다. "믿지 않는 세대야, 내가 너희와 함께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그를 내게 데려오너라."
- 20 그들이 그를 데려왔고, 예수께서 그를 보시자 즉시 귀신이 그를 격렬히 떨게 하여 땅에 쓰러지게 하고, 침을 흘리게 했다.
- 21 그가 그 아버지에게 물었다. "이 일이 그에게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 22 그 귀신은 그를 불과 물에 던져 죽이려고 자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
- 23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 24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곧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저는 믿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 25 예수께서 무리가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말도 못 하고 귀도 못 듣는 영아, 내가 네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오지 마라!"
- 26 그 영은 외치며 그 아이를 심하게 떨게 한 후에 그에게서 나갔다. 아이는 죽은 자처럼 되어, 많은 이들이 "그가 죽었다."라고 말했다.
- 27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 그는 일어났다.
- 28 그가 집에 들어가자, 제자들이 따로 물었다.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 29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 종류는 기도와 금식 없으면 아무것으로도 쫓아낼 수 없다."

- 30 그들은 거기서 떠나 갈릴래아를 지나갔다.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 했다.
- 31 그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말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가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 32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에게 묻는 것을 두려워했다.
- 33 그가 카파르나움에 이르러 집에 들어서자, 그들에게 물었다. "길에서 너희가 서로 무엇을 논쟁했느냐?"
- 34 그러나 그들은 침묵했다.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를 놓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다.
- 35 그는 앉아서 열두 명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누구든지 먼저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 36 그는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그들을 가운데 세우고, 그 아이를 안고 말했다.
- 37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받는 자는 나를 받는 것이고, 나를 받는 자는 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는 것이다."
- 38 요한이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 39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큰 일을 하는 자가 내게 악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40 "내게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다."
- 4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이유로 너희에게 물 한 잔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 42 "내 믿는 이 어린 아이들 중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그의 목에 큰 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낫다."
- 43 "네 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손을 가지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 44 "거기서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않고, 불은 꺼지지 않는다."
- 45 "네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발을 가지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 46 "거기서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않고, 불은 꺼지지 않는다."
- 47 "네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빼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을 가지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 48 "거기서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않고, 불은 꺼지지 않는다."
- 49 모든 이가 불로 소금칠을 받을 것이고, 모든 제물에는 소금이 칠해질 것이다.
- 50 소금은 좋으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간할 수 있겠느냐? 너희 안에 소금을 지니고 서로 화평하라.

마르코 복음서 10장

- 1 그는 거기서 일어나 유다 지경과 요단 강 저편으로 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에게 모여들었고, 그가 놀 하시듯이 그들을 가르치셨다.
- 2 바리새인들이 그를 시험하려고 다가와 물었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법입니까?"
- 3 그가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을 명령했느냐?"
- 4 그들이 말했다. "모세가 이혼 서류를 써 주고 그 여자를 버리게 허락했습니다."
- 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가 너희에게 이 명령을 써주셨다."
- 6 하지만 창조 초기부터 하느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 7 이 때문에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쳐져,
- 8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될 것이다.
- 9 그러므로 하느님이 한 몸으로 만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말라.
- 10 집에서 제자들이 그에게 다시 이 문제에 대해 물었다.
- 11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그 여자에게 간음한다."
- 12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한다."
- 13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기를 청했으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 14 그러나 예수께서 보시고 노여워하며 말씀하셨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들과 같은 자들이 하느님 나라의 소유자이다."
-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 아이처럼 하느님 나라를 받지 않는 자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 16 그분은 아이들을 팔에 안아 축복하며 손을 그들에게 얹으셨다.
- 17 그가 길을 떠나려 할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 1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선한 이는 한 분뿐이다. 곧 하느님이다."
- 19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 20 그가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것을 지켜왔습니다."
- 21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십자가를 지고."
- 22 그는 이 말을 듣고 얼굴이 처지며 슬픈 마음으로 떠났다. 그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 23 예수께서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부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 24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라워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아이들아, 재산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 25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 26 그들은 매우 놀라며 그에게 말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 27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 28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를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 29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와 복음의 이유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땅을 버린 이는,
- 30 이 시대에 이미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백 배나 받을 것이며, 박해도 함께 받을 것이고, 올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 31 하지만 먼저인 자들이 나중이 되고, 나중인 자들이 먼저가 될 것이다."

- 32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고, 예수께서는 앞서 가셨으며, 그들은 놀라 있었고, 뒤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 예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불러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 33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사람의 아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를 사형 선고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 34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침을 뱉고, 매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 35 제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께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36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는가?"
- 37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영광 안에서, 한 사람은 당신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당신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 3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 39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 40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 41 열 명이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하기 시작했다.
- 42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알고 있다."
- 43 그러나 너희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 44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먼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 45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왔다.
- "
- 46 그들은 여리고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 티마이오의 아들인 바르티마이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 옆에 앉아 있었다.
- 47 그가 나사렛의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외치기 시작하여 말했다. "예수여, 다윗의 아들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 48 많은 이들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했으나, 그는 더욱 크게 외쳤다. "다윗의 아들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 49 예수께서 멈추셔서 말씀하셨다. "그를 불러라. "
- 50 그는 외투를 벗어 던지고 일어나 예수께로 달려갔다.
- 51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무엇을 해 드릴까?"
- 5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나았다." 즉시 그는 시력을 회복하여 길을 따라 예수를 따랐다.

마르코 복음서 11장

-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다라 벳파게와 벳다니, 곧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그는 제자 둘을 보냈다.
- 2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들어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당나귀가 줄에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 데려오라."
- 3 누군가가 너희에게 "왜 이 일을 하는가?" 하고 묻거든,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곧 그를 여기로 돌려보낼 것이다."
- 4 그들이 가서 길가 문 앞에 줄에 매여 있는 어린 당나귀를 발견하고, 그것을 풀어냈다.
- 5 거기 서 있던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어린 당나귀를 풀어 무엇을 하려는가?"
- 6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답했고, 그들은 그들을 놓아주었다.
- 7 그들은 어린 당나귀를 예수께 데려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펴 놓고,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다.
- 8 많은 사람들이 길에 옷을 펴 놓았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끊어 길에 펴 놓았다.
- 9 앞서 가던 자들과 뒤를 따르던 자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되도다!"
- 10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복되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 이르러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 이미 저녁이 되었으므로 열두 제자와 함께 벳다니로 나가셨다.
- 12 다음 날, 그들이 벳다니에서 나왔을 때, 그는 배가 고팠다.
- 13 멀리서 앞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위에 무언가라도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가셨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 이르러 보니, 잎뿐이었고, 무화과가 익을 시기 아니었기 때문이다.
- 14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후로 누구도 너에서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어라!"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다.
- 15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들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들을 뒤엎으셨다.
- 16 그는 누구도 성전 안에서 물건을 메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다.
- 17 그는 가르치며 말씀하셨다. "성경에 ㄴ"내 집은 모든 민족의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ㄴ"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 18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 수 있을지 궁리하였다. 그들은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모든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라 있었기 때문이다.
- 19 저녁이 되자, 그는 도시를 나가셨다.
- 20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던 중,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았다.
- 21 베드로가 생각나서 그에게 말했다. "라비, 보십시오. 주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말았습니다."
- 2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을 향해 믿음을 가져라."
- 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에게 ㄴ"일어나 바다로 던져지라ㄴ"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그의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일에,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 25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누구에게라도 원망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 26 그러나 만약 당신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도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 27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가 성전에서 걷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 28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또 누구에게서 이런 권한을 받았는가?"
-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겠다.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 내가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 주겠다."
- 30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하라."

³¹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며 말했다. "만약 우리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그는 '그러면 왜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것이다."

³² "만약 우리가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하면"—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모두가 요한을 진정한 예언자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³³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12장

- 1 그가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주위에 울타리를 쳐서, 양조장을 위한 웅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다른 나라로 떠났다."
- 2 시기가 되어, 그는 농부들에게서 포도원의 열매의 몫을 받아오도록 하인을 보냈다.
- 3 그들은 그를 붙잡아 때리고, 공허한 채로 보냈다.
- 4 그가 또 다른 하인을 그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의 머리를 다치게 한 뒤, 수치스럽게 보냈다.
- 5 그가 또 다른 하인을 보냈더니, 그들은 그를 죽였고, 다른 많은 이들도 때리고 죽였다.
- 6 그래서 그는 여전히 한 명,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남겨두고, 마지막으로 그를 보내며 말했다. "내 아들을 존중할 것이다."
- 7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했다. "이것은 상속자다. 와서,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하자."
- 8 그들은 그를 붙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
- 9 그러면 포도원의 주인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와서 그 농부들을 멸망시키고,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주겠다.
- 10 너희는 이 성경을 읽지 않았느냐?
- 11 이는 주의 하신 일이다.
- 12 그들은 그를 붙잡으려 했으나, 무리를 두려워했다. 그들은 그가 이 비유를 자기들을 향해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를 떠나서 떠났다.
- 13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로데파의 일부를 그에게 보내어, 말로 그를 걸려게 하려 했다.
- 14 그들이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진실하고, 누구에게도 아첨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도 편애하지 않으시고, 진실로 하느님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허용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15 내야 할까요, 내지 말아야 할까요?
- 16 그들이 그것을 가져왔다.
-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쳐라."
- 18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어떤 사두개인들이 그에게 와서 물었다.
- 19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었습니다. '어떤 남자의 형이 죽고, 아내를 남기고 자식을 남기지 않으면, 그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의 후손을 일으켜야 한다.'"
- 20 일곱 형제가 있었다. 첫째가 아내를 취했고, 죽어서 후손을 남기지 않았다.
- 21 둘째가 그녀를 취하고 죽었으며, 후손을 남기지 않았다. 셋째도 마찬가지였다.
- 22 일곱 명이 모두 그녀를 아내로 삼았고, 후손을 남기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다.
- 23 부활할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날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일곱 명이 모두 그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 24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 25 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때에는 결혼하지도 않고 결혼시키지도 않으며 하늘의 천사들과 같습니다.
- 26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에 관해, 모세의 책에서 불꽃 속에서 하느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 27 하느님은 죽은 자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은 크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 28 한 서기관이 와서 그들이 서로 묻는 것을 듣고, 그가 잘 대답한 것을 알고서 그에게 물었다. "모든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큼니까?"
- 2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가장 큰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님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 30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 31 둘째는 이것과 같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 32 서기관이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진실로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시며,

- ³³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며,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 ³⁴ 예수께서 그가 현명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하느님 나라에서 가까이 왔습니다.
- ³⁵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대답하셨다.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 ³⁶ 다윗 자신이 성령으로 말하기를,
- ³⁷ 그러므로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 부르는데, 어찌하여 그가 그의 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 ³⁸ 그가 가르치며 그들에게 말했다.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인사를 받고 싶어 하는 서기관들에게 주의하라.
- ³⁹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를, 잔치에서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들에게 주의하라.
- ⁴⁰ 그들은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겉으로는 긴 기도를 한다. 이들은 더 큰 책망을 받을 것이다.”
- ⁴¹ 예수께서 재물함 맞은편에 앉아서 무리가 재물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 많은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
- ⁴²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작은 동전, 곧 쿼드란을 넣었다.
- ⁴³ 그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재물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 ⁴⁴ 그들은 모두 여유가 있어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궁핍함 속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살아가기 위한 생계까지도 넣었다.”

마르코 복음서 13장

- 1 그가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어떤 돌들과 어떤 건물들입니까!"
- 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위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에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허물어질 것이다."
- 3 그가 올리브 산에 앉아 성전과 마주하고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물었다.
- 4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징조는 무엇입니까?"
- 5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을 시작하셨다. "누군가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 6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 7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 8 나라가 나라에, 왕국이 왕국에 대적할 것이며,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고통의 시작이다.
- 9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들은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는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며, 내 이름 때문에 관리들과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 10 복음은 먼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 11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미리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거나 미리 준비하지 말고, 그때 주어지는 대로 말하여라.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서 말하기 때문이다.
- 12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줄 것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 13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 14 "그러나 너희가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파멸의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곳, 즉 마땅히 서야 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아라—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쳐라."
- 15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 16 들에 있는 자는 뒤돌아가서 겂옷을 가져오지 말아라.
- 17 그때 임신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 18 너희가 도망치는 일이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 19 그때에는 창조 이후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런 고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 20 주님이 그 날들을 줄이지 않으셨다면, 육체를 가진 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이셨다.
- 21 그때 누군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면, 믿지 말아라.
- 22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 가능하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 23 그러나 너희는 조심하여라.
- 24 그러나 그때 그 고난 이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 25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힘들이 흔들릴 것이다.
- 26 그때 그들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볼 것이다.
- 27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바람의 네 방향에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그의 택한 자들을 모을 것이다.
- 28 무화과나무에서 이 비유를 배우십시오.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아는 것처럼,
- 29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가까이, 문 앞에 왔음을 알라.
- 3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 31 하늘과 땅은 지나가겠지만, 내 말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 32 그 날이나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며,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 33 깨어 있으라. 경계하며 기도하라. 너희는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 34 사람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 집을 떠나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자에게 일정한 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도 깨어 있

으라고 명령한 것과 같다.

³⁵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 너희는 모르기 때문이다. 저녁이나 한밤중이나 닭 울 때나 아침일지니,

³⁶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³⁷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모두에게 말한다. 깨어 있으라!

마르코 복음서 14장

- 1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를 남았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속임수로 그를 붙잡아 죽이려고 꾀하였다.
- 2 그들은 말했다. "절 기간에는 하지 말자. 백성 사이에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 3 그가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알라바스터 병에 순수한 나드 향유를 담아 와서 병을 깨뜨리고 그의 머리에 부었다.
- 4 그러자 일부 사람들이 분노하며 말했다. "이 향유를 왜 이렇게 낭비합니까?"
- 5 "이 향유는 삼백 데나리오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들은 그 여자를 원망하였다.
- 6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녀를 놔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였다."
- 7 너희는 항상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으니, 원할 때마다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 8 그녀는 할 수 있는 대로 하였다. 그녀는 내 몸을 장사하기 전에 미리 기름을 부었다.
- 9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어디에서든 이 여자가 한 일을 기억하여 그녀를 칭찬할 것이다.
- 10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하였다.
- 11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는 어떻게 하면 편히 그를 넘겨줄지 찾았다.
- 12 무교절의 첫째 날,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유월절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서 준비해야 합니까?"
- 13 그는 두 제자를 보내며 말했다. "도시로 들어가라. 거기서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 14 그가 들어가는 곳 어디든지 집주인에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은 어디 입니까?'"
- 15 그가 너희를 위해 준비된 큰 윗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라.
- 16 제자들이 나가 도시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었고,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 17 저녁이 되자 그는 열두 제자와 함께 왔다.
- 18 그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와 함께 먹는 그자다."
- 19 그들은 슬퍼하며 하나씩 물었다. "저가 아닙니까?" 또 다른 이도 말했다. "저가 아닙니까?"
- 20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열두 제자 중 하나이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그는 그자다."
- 21 사람의 아들은 기록된 대로 가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더 나았을 것이다.
- 22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받아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 23 그는 잔을 받아 감사한 뒤 그들에게 주었고, 모두가 그 잔에서 마셨다.
- 24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이다."
- 2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롭게 포도주를 마실 그 날까지, 더 이상 포도나무의 열매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겠다.
- 26 그들이 찬미 노래를 부른 후에, 올리브 산으로 나갔다.
- 27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너희 모두가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 28 그러나 내가 부활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 29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비록 모두가 걸려 넘어진다고 해도, 저는 결코 그렇지 않겠습니다."
- 30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오늘, 이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

할 것이다."

31 그러나 그는 더욱 강하게 말했다. "비록 제가 당신과 함께 죽는다 해도, 저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32 그들은 게세마니아라는 곳에 도착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33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심히 슬퍼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34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내 영혼은 죽을 정도로 슬프다.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어라."

35 그는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가능하다면 이 시간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36 그는 말했다. "아바,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는 가능합니다.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37 그가 돌아와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했다. "시몬, 네가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38 깨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 영은 원하지만 육은 약하다.

39 그는 다시 떠나가 동일한 말로 기도했다.

40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눈이 매우 무거웠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몰랐다.

41 그는 세 번째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자고 쉬어라. 그만이다. 때가 이르렀다. 보아라,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있다."

42 일어나자. 가자. 보아라,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왔다.

43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열두 명 중 하나인 유다가 왔고,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부터 온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44 그 배반자는 그들에게 표식을 주며 말했다. "내가 입맞추는 그가 바로 그이다. 그를 붙잡아 안전하게 데려가라."

45 그가 오자마자 곧장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라비! 라비!" 그리고 그에게 입맞추었다.

46 그들이 손을 그에게 얹고 붙잡았다.

47 그러나 곁에 서 있던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하인을 치고 그의 귀를 베어냈다.

48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도둑을 잡으려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49 나는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가르쳤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체포하지 않았다.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50 그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도망쳤다.

51 어떤 젊은이가 그를 따라갔는데, 그는 벌거벗은 몸에 베로 싸여 있었다. 젊은이들이 그를 붙잡으려 하였으나,

52 그는 베를 버리고 벌거벗은 채 그들 앞에서 도망쳤다.

53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와 함께 모였다.

54 베드로는 멀리서 그를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안뜰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경비원들과 함께 앉아서 불빛으로 몸을 따듯하게 하고 있었다.

55 대제사장들과 전체 공회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 그를 고발할 증인을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다.

56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했으나, 그들의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았다.

57 어떤 이들이 일어나 그를 향해 거짓 증언을 하며 말했다.

58 "우리는 그가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손으로 지지 않은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59 비록 그래도 그들의 증언은 일치하지 않았다.

60 대제사장이 중원에서 일어나 예수에게 물었다. "네가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네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61 그러나 예수는 침묵하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제사장이 다시 그에게 물었다. "네가 축복받으신 분의 아들인 그리

스도냐?”

62 예수는 말했다. “내가 그렇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능력의 오른편에 앉아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63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말했다. “더 이상 증인이 필요하냐?”

64 너는 모독을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두가 그를 죽음에 합당하다고 정죄했다.

65 어떤 이들이 그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예언해 보아라.” 하고 말했다. 경비원들이 손바닥으로 그를 때렸다.

66 베드로가 아래 안뜰에 있었을 때,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 와서,

67 베드로가 불빛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68 그러나 그는 부인하며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는 욕상으로 나가 닭이 울었다.

69 여종이 그를 보고 다시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그들 중 하나다.”

70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했다. 잠시 후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다. “진짜로 너도 그들 중 하나다. 너는 갈릴리 사람인데, 네 말투가 드러난다.”

71 그러나 그는 저주를 하며 맹세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한다!”

72 닭이 두 번째로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가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렸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가 그 말을 생각하니, 울었다.

마르코 복음서 15장

- 1 아침 일찍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전체 공의회가 모여 의논한 뒤, 예수를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겼다.
- 2 빌라도가 그에게 물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 3 대제사장들은 그를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
- 4 빌라도가 다시 그에게 물었다. "네가 아무 대답도 없느냐? 보아라,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그대를 향해 증언하는가!"
- 5 그러나 예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아, 빌라도가 놀라웠다.
- 6 축제 때마다 그는 그들이 요청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곤 했다.
- 7 바라바라는 반란자들과 함께 결박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반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었다.
- 8 무리가 소리치며, 그가 늘 그들에게 해주던 대로 해달라고 청하기 시작했다.
- 9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풀어주고 싶은가?"
- 10 그는 대제사장들이 질투 때문에 그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다.
- 11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바라바를 그들에게 풀어주도록 만들었다.
- 12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는 자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
- 13 그들이 다시 소리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 14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어떤 악한 일을 그가 저질렀단 말이나?"
- 15 빌라도는 무리를 기쁘게 하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매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겼다.
- 16 군인들이 그를 안으로 끌고 가서, 곧 사령부 안으로 데려가고, 온 대대를 불러모았다.
- 17 그들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왕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웠다.
- 18 그들이 그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 19 그들은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했다.
- 20 그들이 그를 조롱한 뒤,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다시 입혔다. 그리고 그를 끌고 나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다.
- 21 그들은 길에서 지나가던, 시내에서 온 시몬이라는 자, 알렉산더와 루포스의 아버지를 붙잡아, 그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 22 그들은 그를 골고타라 불리는 곳으로 데려갔다. 이 말은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다.
- 23 그들은 몰약을 섞은 포도주를 그에게 마시게 하려 했으나, 그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 24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누어 각자 무엇을 가져갈지 제비를 뽑았다.
- 25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세 시였다.
- 26 그의 죄명이 그 위에 쓰여 있었다. '유대인의 왕'이다.
- 27 그들과 함께 두 명의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있었다.
- 28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말이 이루어졌다.
- 29 지나가는 자들은 그를 모욕하며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아,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지어 세우는 자여,
- 30 자기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 31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서로 조롱하며 말했다. '타인을 구원했으니,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 32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으리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도 그를 모욕했다.
- 33 여섯 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내렸고, 아홉 시까지 계속되었다.
- 34 아홉 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쳤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이 말은 곧, '내 하느님, 내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 35 곁에 서 있던 어떤 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보아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말했다.
- 36 한 사람이 달려가서 식초로 가득 찬 해면을 갈대에 담아 그에게 주며, '잠시 놔두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는지 보자.' 하고 말했다.

- ³⁷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 후, 영을 떠나셨다.
- ³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 ³⁹ 마침 그의 반대편에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가 이렇게 외치며 숨을 거둔 것을 보고, '진실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말했다.
- ⁴⁰ 멀리서 관망하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마리아 막달레나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다.
- ⁴¹ 이 여자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고, 또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다른 많은 여자들도 있었다.
- ⁴²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그것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 ⁴³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이 왔다. 그는 존경받는 원로였고,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그는 용감하게 피라토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청했다.
- ⁴⁴ 피라토는 예수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백인대장을 불러, 이미 오래 전에 죽었는지 물었다.
- ⁴⁵ 백인대장에게서 확인한 후, 피라토는 요셉에게 시체를 넘겨주었다.
- ⁴⁶ 요셉은 비단 베를 사서 예수를 내려서 그 베로 싸고, 바위에 파낸 무덤에 안치하였다. 그리고 무덤 문에 돌을 굴러 막았다.
- ⁴⁷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가 안치된 곳을 보았다.

마르코 복음서 16장

- ¹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향료를 사서 와서 그를 기름바르려 했다.
- ² 주일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뜨자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다.
- ³ 그들이 서로 말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의 돌을 굴려줄 것인가?"
- ⁴ 그 돌은 매우 컸다.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돌이 굴려져 있었다.
- ⁵ 무덤 안에 들어가자 그들은 오른쪽에 하얀 옷을 입은 젊은이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
- ⁶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놀라지 마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다. 그는 부활하셨다. 그는 여기에 없다. 그가 묻힌 곳을 보아라."
- ⁷ 하지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여라.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그를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다."
- ⁸ 그들은 나와서 무덤을 떠나 도망쳤다. 두려움과 놀라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 ⁹ 그가 주일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후, 먼저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녀에게서 그는 일곱 귀신을 쫓아내셨다.
- ¹⁰ 그녀는 가서 그와 함께 있었고 슬피 울던 사람들에게 전했다.
- ¹¹ 그들이 그가 살아서 그녀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 ¹² 이후 그는 두 사람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들이 시골로 가는 길을 걷고 있을 때였다.
- ¹³ 그들이 가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러나 그들도 그들을 믿지 않았다.
- ¹⁴ 그 후 그가 식사 중에 열한 명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불신과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하셨다. 그들이 그가 부활하신 후 보았던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 ¹⁵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 ¹⁶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책망을 받을 것이다.
- ¹⁷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새 언어로 말할 것이며,
- ¹⁸ 뱀을 잡을 것이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 ¹⁹ 이제 주님은 그들이 말한 후 하늘로 올라가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 ²⁰ 그들은 나가서 모든 곳에서 전파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징들로 그 말씀을 확증하셨다. 아멘.

루카 복음서 | Luke

루카 복음서 1장

- 1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질서 있게 서술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 2 이 일들은 처음부터 목격자이자 말씀의 일꾼이었던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 3 나도 모든 일을 처음부터 정확히 따라 살펴본 뒤, 가장 존경받는 데오필로님께 순서대로 쓰기로 좋게 여겼습니다.
- 4 이렇게 하여 당신이 배운 바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 5 헤로데가 유대의 왕이던 시절에 아비아 반의 사제인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가랴였습니다. 그는 아론의 딸 중 한 명인 엘리사벳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 6 그들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고,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을 흠잡을 데 없이 지켰습니다.
- 7 그러나 그들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고, 둘 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 8 그때 사가랴는 반의 순서대로 하느님 앞에서 사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 9 사제의 관습에 따라 그는 제비를 뽑아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 10 모든 백성은 분향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 11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단 오른쪽에 서 있었습니다.
- 12 사가랴는 그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 13 그러나 천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네 간구가 들렸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며,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야 한다."
- 14 너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고, 많은 이들이 그의 탄생을 기뻐할 것이다.
- 15 그는 주님 앞에서 위대할 것이며, 포도주나 강한 음료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 16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많은 이들을 주님 그들의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 17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불순종하는 이들을 의로운 자들의 지혜로" 돌키며, 주님을 위해 준비된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 18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늙은이이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 19 천사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보내어졌습니다."
- 20 보라, 당신은 말을 잃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들은 제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 21 백성들은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성전에서 오래 머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 22 그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그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손짓으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며 말을 잃었습니다.
- 23 그의 봉사 기간이 끝나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 24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하여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내며 말했습니다.
- 25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어 나의 인간 앞에서의 수치를 제거해 주신 이 날들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 26 여섯 번째 달에 하느님은 가리리아의 나사렛이라는 도시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다.
- 27 그는 처녀에게로 보내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집안 출신인 요셉과 약혼한 자였다.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 28 천사가 들어가 그에게 말했다. "은총을 받은 자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성들 가운데 네가 복받았도다!"
- 29 그러나 그가 그를 보고 그 말에 크게 당황하여, 이 인사가 무슨 뜻인지 생각하였다.
- 30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네가 하느님께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다."

- 31 보아라, 네가 태중에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 것이다.
- 32 그는 위대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님 하느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며,
- 33 그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고, 그의 왕국에는 끝이 없을 것이다.
-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다.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 35 천사가 그에게 대답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 36 보아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잉태하였다. 그녀는 잉태되지 않는 자라 불리던 자인데, 지금 여섯 번째 달이다.
- 37 하느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 38 마리아가 말했다. "보아라,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39 그때 마리아는 일어나 빠르게 유다의 산지로 가서,
- 40 자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들었을 때, 태중의 아기가 뛰었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
- 42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여성들 가운데 네가 복받았고, 태중의 열매도 복받았도다!"
- 43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시다니, 어찌하여 나는 이토록 은총을 받았습니까?
- 44 보아라, 네 인사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태중의 아기가 기쁨으로 뛰었도다!
- 45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자는 복받았도다!
- 46 마리아가 말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47 내 영이 나의 구원자이신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며,
- 48 그분께서 그분의 종의 겸손한 상태를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 49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 50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세대에서 세대까지 미칩니다.
- 51 그분은 팔로 힘을 나타내셨습니다.
- 52 그분은 권세 있는 자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내리셨습니다.
- 53 그분은 주린 자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셨습니다.
- 54 그분은 그분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시려고,
- 55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 56 마리아는 그녀와 약 세 달을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 57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시기가 되자,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 58 이웃들과 친척들은 주님이 그녀에게 자비를 크게 베푸셨음을 듣고, 그녀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 59 여덟 번째 날, 그들은 아기를 할례하러 왔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를 자카리아라고 부르려 했습니다.
- 60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아니오. 그는 요한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 61 그들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친척들 중에 이 이름을 가진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 62 그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손짓으로, 그가 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 63 그는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썼습니다.
- 64 곧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 65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이에게 두려움이 일어났고, 이 모든 일이 유다 산지 전역에서 전해졌습니다.
- 66 이 모든 말을 들은 이들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 67 그의 아버지 자카리아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하며 말했습니다.
- 68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미하라.

- 69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종 다윗의 집 안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 70 (옛적부터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 71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을 주시려고,
- 72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자비를 보여 주려고.
- 73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 74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되어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 75 우리의 평생 동안 그분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 76 너는, 아이야,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가 될 것이며,
- 77 그의 백성에게 죄의 용서를 통해 구원의 지식을 주기 위해
- 78 우리 하느님의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 79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려는 것입니다.
- 80 아이는 자라나 영이 강해졌으며, 이스라엘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 있었다.

루카 복음서 2장

- 1 그때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상의 주민을 등록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 2 이 등록은 큐리니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재직할 때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 3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속한 고향으로 가서 등록하였다.
- 4 요셉도 갈릴리 나자렛 성에서 올라가 유대 지방의 다윗 성인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는 다윗의 가문과 족속이었기 때문이다.
- 5 그는 약혼한 처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다.
- 6 그들이 거기 있을 때,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날이 되었다.
- 7 그녀는 첫아들을 낳아 옷감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다. 그들은 여관에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 8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양 떼를 지키고 있었다.
- 9 보라,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싸니 그들이 무서워하였다.
- 10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
- 11 오늘날 다윗의 도시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나셨다."
- 12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다. 옷감으로 싸인 아기 하나가 구유에 눕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13 갑자기 그 천사 곁에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 14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나이다."
- 15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자."
- 16 그들은 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찾았고, 아기는 구유에 눕혀 있었다.
- 17 그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들에게 말해진 이 이야기에 관한 말씀을 널리 전했다.
- 18 이 말을 듣는 모든 이가 목자들이 말한 일에 놀라워하였다.
- 19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며 생각하였다.
- 20 목자들은 그들이 들은 것과 본 모든 일을 따라 하느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
- 21 아기가 태어난 지 여덟 일이 되어 할례를 받을 때,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다. 이 이름은 그가 태중에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내린 것이었다.
- 22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의 정결한 날이 끝나자,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에 데려가 주님께 바쳤다.
- 23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남자 아이는 태를 여는 자마다 주님께 성별될 것이다.")
- 24 또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두 마리의 비둘기나 두 마리의 어린 비둘기"를 제물로 바쳤다.
- 25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다. 이 남자는 의로우며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성령이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 26 성령이 그에게 계시하여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
- 27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다. 부모가 어린아이 예수를 데리고 와서 율법의 관습에 따라 그에게 행할 때,
- 28 그는 그를 품에 안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말했다.
- 29 이제 주님, 당신은 당신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 30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 31 이 구원을 모든 민족 앞에서 준비하셨습니다.
- 32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계시를 위한 빛이요,
- 33 예수의 부모는 그에 관해 말하는 일들에 놀라워하였다.
- 34 시메온이 그들을 축복하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이의 넘어짐과 일어남을 위해 세우셨고, 반대받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 35 또한 당신의 마음에도 칼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 36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다. 그녀는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었고, 아주 나이가 많아서 처녀 시절부터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으며,
- 37 약 팔십사 년 동안 과부로 지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느님을 섬겼다.
- 38 그때 그녀가 다가와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에 관해 말하였다.
- 39 그들이 주님의 율법에 따라 해야 할 모든 일을 마친 후,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 고향 나사렛에 이르렀다.
- 40 아이가 자라며 힘을 얻고 지혜로 가득 찼으며, 하느님의 은총이 그에게 함께하였다.
- 41 그의 부모는 매년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 42 그가 열두 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관습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 43 그들이 명절 기간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요셉과 그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 44 그들은 그가 동행자들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갔다. 그리고 그들의 친척과 지인들 사이에서 그를 찾았다.
- 45 그들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았다.
- 46 사흘 후 그들은 성전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는 선생들 사이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고 질문을 하고 있었다.
- 47 그를 듣는 모든 이는 그의 이해력과 대답에 놀라워하였다.
- 48 그들을 보자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대하셨습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와 저는 당신을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 49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왜 나를 찾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느냐?"
- 50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 51 그는 그들과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이르렀고, 그는 그들에게 복종하였으며,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 52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느님과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받았다.

루카 복음서 3장

- 1 티베리우스 카이사르가 통치한 십오년째에, 유대아의 총독은 본티오 빌라토였고, 갈릴리의 분봉왕은 헤로데였으며, 그의 형제 필립은 이투리아와 트라코니티스 지역의 분봉왕이었고, 리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다.
- 2 아나스와 가이아파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광야에 임하였다.
- 3 그는 요르단 강 주변 온 지역에 나아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 4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라.'
- 5 모든 골짜기는 메워질 것이고,
- 6 모든 육체가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7 그는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했느냐?'
-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조상이다'라고 스스로 말하기를 시작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은 이 돌들로부터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
- 9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나무는 베어져 불에 던져진다.'
- 10 무리가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 11 그가 대답하였다. '두 벌의 옷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음식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여라.'
- 12 세금 징수자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 13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정해진 것보다 더 걷지 말아라.'
- 14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합니까?'
- 15 사람들이 기다리며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과연 그리스도일지 생각하였다.
- 16 요한은 모두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더 강한 이가 오신다.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나에게 없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 17 그의 쪽팔은 손에 있다. 그는 자기 타작마당을 깨끗이 쓸어내고, 밀을 자기 곳간에 모을 것이며, 겉껍질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울 것이다.'
- 18 그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권면하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 19 그러나 분봉왕 헤로데는 그의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와 헤로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들로 인해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 20 이 모든 일예다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더하였다.
- 21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은 후,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고 계셨다. 하늘이 열리고,
- 22 성령이 비둘기 같은 육체의 형태로 그에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에게 기뻐한다.'
- 23 예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약 서른 살이었으며, 요셉의 아들이라 여겨졌으니,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다.
- 24 헬리는 마타트의 아들이고, 마타트는 레위의 아들이며, 레위는 멜키의 아들이고, 멜키는 야나이의 아들이며, 야나이는 요셉의 아들이다.
- 25 마타티아의 아들, 아모스의 아들, 나훔의 아들, 에술리의 아들, 나이의 아들,
- 26 마앗의 아들, 마타티아의 아들, 세메인의 아들, 요셉의 아들, 유다의 아들,
- 27 요하난의 아들, 레사의 아들, 스룹바벨의 아들, 시알티엘의 아들, 네리의 아들,
- 28 멜키의 아들, 아디의 아들, 코삼의 아들, 엘모담의 아들, 에르의 아들,
- 29 요세의 아들, 엘리에제르의 아들, 요림의 아들, 마타닷의 아들, 레위의 아들,
- 30 시몬의 아들, 유다의 아들, 요셉의 아들, 요난의 아들, 엘리아킴의 아들,
- 31 멜레아의 아들, 메난의 아들, 마타타의 아들, 나탄의 아들, 다윗의 아들,
- 32 이새의 아들, 오벳의 아들, 보아스의 아들, 살몬의 아들, 나손의 아들,
- 33 아민나답의 아들, 아람의 아들, 헤스론의 아들, 베레스의 아들, 유다의 아들,
- 34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데라의 아들, 나훔의 아들,

- ³⁵ 세룩의 아들, 레우의 아들, 벨렉의 아들, 에버의 아들, 셀라의 아들,
³⁶ 카이난의 아들, 아르파크삿의 아들, 셈의 아들, 노아의 아들, 라멕의 아들,
³⁷ 메두셀라의 아들, 에녹의 아들, 예레드의 아들, 마할레엘의 아들, 카이난의 아들,
³⁸ 에노스의 아들, 셋의 아들, 아담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

루카 복음서 4장

- 1 예수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 요르단 강에서 돌아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가셨다.
- 2 사십 일 동안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 후에 그 기간이 끝나자 굶주리셨다.
- 3 사탄이 그에게 말했다.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도록 명령하여라."
- 4 예수는 대답하여 말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 5 사탄이 그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잠시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말했다.
- 6 사탄이 그에게 말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네게 주겠다. 이는 내가 그것을 넘겨받아 원하는 자에게 주기 때문이다."
- 7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서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 8 예수는 대답하여 말했다. "내 뒤로 물러서라, 사탄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네 주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 9 사탄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다.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아래로 떨어져라."
- 10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킬 것이다.'"
- 11 '그들이 네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 12 예수는 대답하여 말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네 주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
- 13 사탄이 모든 유혹을 마치고, 다음 기회까지 예수에게서 떠났다.
- 14 예수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고, 그에 관한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다.
- 15 그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 16 그는 자라난 나사렛에 이르러, 토요일마다 그의 관습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섰다.
- 17 예언자 이사야의 책이 그에게 넘겨졌다. 그가 책을 펴고 기록된 곳을 찾아냈다.
- 18 "주님의 영이 내 위에 있다.
- 19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러 나를 보내셨다."
- 20 그가 책을 닫아 서기관에게 돌려주고 앉았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바라보았다.
- 21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 22 모든 사람이 그를 칭찬하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에 놀라며 말했다. "이것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 23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분명히 너희는 이 속담을 내게 말할 것이다. '의사야, 너 자신을 치유하여라! 카파르나움에서 우리가 들은 일을 네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 24 그가 말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느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 2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삼년 여섯 달 동안 닫혀서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 26 엘리야는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고, 시돈 땅의 사레프타에 있는 한 과부에게만 보내졌다.
- 27 에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았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 28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회당에서 모두 분노로 가득 찼다.
- 29 그들은 일어나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내어, 그 도시가 세워진 언덕 끝으로 데려가서, 그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려 했다.
- 30 그러나 그는 그들 사이를 지나쳐 가셨다.
- 31 그는 갈릴리의 도시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셨다. 안식일에 그는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 32 그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라움을 느꼈다. 그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 33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 34 그가 말했다. "아, 나사렛 사람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³⁵ 예수께서 그를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침묵하라.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를 그들 가운데 던져 떨어뜨리고 나서, 그를 해치지 않고 떠났다.

³⁶ 모든 사람이 놀라 서로 말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명령하시니, 그들이 나오는구나!"

³⁷ 그에 대한 소문이 주변 지역 모든 곳에 퍼졌다.

³⁸ 그는 회당에서 일어나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시몬의 장모는 심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들은 그에게 도움을 청했다.

³⁹ 그는 그녀 위에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갔다. 그녀는 즉시 일어나 그들을 섬겼다.

⁴⁰ 해가 지자, 모든 병자들—다양한 병에 걸린 이들—이 그에게 데려왔다. 그는 그들 각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모두 고쳐주셨다.

⁴¹ 많은 이들로부터 귀신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외쳐 말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꾸짖어 입을 열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⁴² 아침이 되자, 그는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그를 찾아 나서서 그를 만나 붙잡아, 그가 그들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

⁴³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도시들에도 하느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⁴⁴ 그는 갈릴리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셨다.

루카 복음서 5장

- 1 한때 무리가 예수를 둘러싸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분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 2 그분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정박되어 있는 것을 보셨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들을 씻고 있었다.
- 3 그분은 시몬의 배 하나에 올라가서, 잠시 육지에서 떨어지게 해 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분은 배에 앉아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다.
- 4 가르치기를 마치신 후, 그분은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서 잡아 보아라."
- 5 시몬이 대답했다. "선생님, 우리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 6 그들이 그렇게 하자, 엄청난 수의 물고기를 잡았고,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 7 그들은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고 했다. 그들이 와서 두 배를 가득 채웠는데, 배들이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 8 시몬 베드로는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다.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 9 그들은 잡은 물고기의 수에 놀라 있었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놀라 있었다.
- 10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시몬의 동업자로서 같은 놀라움을 느꼈다.
- 11 그들이 배를 육지에 끌어당긴 후,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 12 한번은 예수가 한 도시에 계셨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가 한 명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간청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13 그분은 손을 뻗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원한다. 깨끗해져라."
- 14 그분은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정결을 위한 제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라."
- 15 그러나 그에 관한 소문이 더욱 퍼져 나갔고, 많은 무리가 모여 그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침받으려 했다.
- 16 그러나 그분은 황폐한 땅으로 물러나 기도하셨다.
- 17 어느 날, 그분은 가르치고 계셨는데, 갈릴리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그분과 함께 있어 그들을 고치셨다.
- 18 어떤 사람들이 한 마비 환자를 침상에 태워 데리고 와서, 그를 예수 앞에 끌어들이려 했다.
- 19 무리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길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내고 침상과 함께 환자를 중앙에 내려놓았다.
- 20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은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네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
- 21 서기관들과 바리사이들은 속으로 생각하며 말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는 신성모독이다. 하느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 22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셨다. "너희가 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가?"
- 23 "어떤 말이 더 쉬운가? 네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인가? 아니면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인가?"
- 24 "그러나 사람이 아들인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한을 가졌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한다." 하고는 마비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 25 그는 즉시 그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워 있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 26 모든 사람이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했다. "오늘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한 일을 보았다."
- 27 이 일 후에 그는 나가서 세리라 이름하는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르라."
- 28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그를 따랐다.
- 29 레위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고,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누워 있었다.
- 30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며 말했다.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 ³¹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자들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병든 자들은 필요로 한다."
- ³²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와서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 ³³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바리사이파의 제자들도 그러하지만, 너희는 먹고 마신다."
- ³⁴ 그가 그들에게 이르셨다.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 ³⁵ 그러나 신랑이 그들로부터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 ³⁶ 그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새 옷에서 조각을 떼어 옛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새 옷이 찢어지고, 새 조각도 옛 옷과 어울리지 않게 된다."
- ³⁷ 누구든지 새 포도주를 옛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흘러나가고, 부대도 망가지게 된다.
- ³⁸ 그러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러면 둘 다 보존된다.
- ³⁹ 누구든지 옛 포도주를 마신 후에는 곧바로 새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는 말하기를, "옛 것이 더 낫다."

루카 복음서 6장

- 1 첫 안식일 다음의 또 다른 안식일에, 그는 곡식밭을 지나가셨다.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비며 먹었다.
- 2 그러자 바리새인들 중 일부가 그들에게 말했다.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가?"
- 3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다윗이 배고플 때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한 일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 4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가져다가 먹고, 또 자신과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는데, 이는 사제들뿐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아십니까?"
- 5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 6 다른 안식일에도 그분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거기에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
- 7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이 안식일에 고쳐 주실지 보려고 그를 엄격히 지켜보았다. 그들은 그를 책잡을 구실을 찾고 있었다.
- 8 그러나 그분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리고 마른 손을 가진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운데 서라." 그가 일어나 서 있었다.
- 9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은가?"
- 10 그분은 모두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뻗어라." 그가 손을 뻗으니, 그 손이 다른 손처럼 완전히 회복되었다.
- 11 그러나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차서, 예수에게 무엇을 할지 서로 의논하였다.
- 12 그때에 그분은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셨다. 그리고 밤새도록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 13 아침이 되자, 그분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 중 열두 명을 골라 사도라 칭하셨다.
- 14 시몬을 베드로라 칭하시고, 그의 형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필리포스, 바르톨로메오,
- 15 마태오, 도마,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이라 불리는 시몬,
- 16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을 골라내셨다.
- 17 그분은 그들과 함께 내려와 평지에 서셨다. 그분의 제자들과 유다와 예루살렘과 두레와 시돈 해안에서 온 큰 무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침받으려고 모여들었다.
- 18 더불어 더러운 영에 괴로움을 받는 이들도 있었고,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 19 모든 무리가 그분을 만지려고 몰려들었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이를 고쳤기 때문이다.
- 20 그분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 21 지금 주린 너희는 복이 있다.
- 22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쫓아내며, 너희의 이름을 악한 것으로 비방하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배척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 23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너희의 보상이 하늘에서 크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똑같이 하였기 때문이다.
- 24 "그러나 너희 부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 25 지금 배부른 자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 26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에 화가 있을지어다.
- 27 "내가 너희 듣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선을 베풀며,
- 28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빌어주고, 너희를 나쁘게 대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 29 너의 빵을 치는 자에게는 다른 빵도 돌려주고, 네 걸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까지도 거부하지 말아라.
- 30 네게 구하는 자마다 모두 주고, 네 물건을 빼앗는 자에게는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지 말아라.
- 31 "너희가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받고 싶은 대로, 그들에게도 그대로 하여라.

32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그게 무슨 덕이 되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33 너희가 선을 베푸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면, 그게 무슨 덕이 되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34 너희가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며 빌려주면, 그게 무슨 덕이 되느냐? 죄인들도 죄인들에게 빌려주어 제대로 되돌려 받는다.

35 그러나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며,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빌려주어라. 그러면 너희의 보상이 커질 것이며,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감사하지 않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36 "그러므로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37 너는 판단하지 말아라,

38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좋은 재량으로,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어떤 재량으로 재면, 그 재량으로 너희에게도 되돌려질 것이다."

39 그분은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렁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40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으며, 모두 완전히 교육을 받으면 스승과 같아질 것이다.

41 너는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만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않느냐?

42 또 네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형제에게 "형제야, 내가 네 눈 속의 티끌을 빼주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여! 먼저 자기 눈 속의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형제의 눈 속의 티끌을 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43 "좋은 나무가 썩은 열매를 맺지 않으며,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도 않는다.

44 각 나무는 그 열매로 알려진다. 사람들이 가시덤불에서 무화과를 따지 않으며,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않는다.

45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보물에서 선한 것을 내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의 보물에서 악한 것을 내어놓는다. 마음의 충만함에 따라 입이 말하기 때문이다.

46 "너희가 나를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나?

47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자마다, 그가 누구와 같은지 내가 보여주겠다.

48 그는 바위 위에 기초를 놓기 위해 깊이 파고 건축하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일어나 강물이 그 집에 부딪혔으나,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기초가 바위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49 그러나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기초 없이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물결이 그 집에 몰아치자 곧 무너졌고, 그 집의 파괴가 심각하였다.

루카 복음서 7장

- 1 사람들에게 말을 마친 후에 그는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 2 어떤 백인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는 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 3 그가 예수에 대해 듣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어, 와서 그의 하인을 구원해 달라고 청했다.
- 4 그들이 예수께 와서 간절히 빌며 말했다. "그는 당신이 이 일을 해 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 5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주셨습니다."
- 6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인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그에게 말했다. "주님, 괴로움을 주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이 제 집 안에 들어오실 만한 자가 아닙니다."
- 7 "그러므로 저는 당신께 나아가기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말씀 한마디만 하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 8 "저도 다른 사람 아래에 놓인 사람으로, 제 아래에 병사들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오고, 제 하인에게 "이 일을 하라" 하면 그가 합니다."
- 9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그를 보고 놀라며, 뒤를 돌아서 자기 뒤를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에서도 이토록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 10 보내졌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병들었던 하인이 이미 나아 있었다.
- 11 곧 그 후에 그는 나인이라는 도시로 가셨다. 그의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함께 갔다.
- 12 그가 도시의 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보라, 한 시신이 나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외아들이었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 13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자비를 베푸사, "울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 14 그분이 가까이 다가가 관에 손을 대셨다. 그러자 운구하는 이들이 멈춰 섰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 15 죽었던 이가 일어나 앉아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자 그분은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 16 모든 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일어났다!" 하고, "하느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고 말했다.
- 17 이 소식은 유대 전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퍼졌다.
- 18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 19 요한이 자기 제자 둘을 불러서 그들을 예수에게 보내며 말했다. "당신이 오실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 20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러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실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 21 그대에 그는 많은 이들의 병과 악귀를 고쳐 주셨고, 많은 눈먼 이들에게 보는 눈을 주셨다.
- 2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요한에게 너희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알리어라. 눈먼 이들이 보고, 절름발이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듣고, 죽은 이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 23 "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 24 요한의 사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보려고 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였느냐?"
- 25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밖으로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자들은 왕들의 궁전에 있다.
- 26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밖으로 나갔느냐? 예언자인가?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 이상이다.
- 27 이 사람은 기록된 바와 같다.
- 2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난 자들 중 요한보다 더 큰 예언자는 없으나,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

다 크다.

29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이 말을 듣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므로, 하느님을 의로우신 분이라 칭하였다.

30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아서,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였다.

31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할 수 있느냐? 그들은 무엇과 같으냐?

32 그들은 시장에 앉아 서로에게 외치는 어린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슬퍼하며 울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33 요한 세례자는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말한다. '그에게 귀신이 들렸다.'

34 사람의 아들은 먹고 마시며 왔으므로, 너희는 말한다. '보라, 이 사람은 먹보이고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35 지혜는 그 자녀들 모두에 의해 옳다고 증명된다.

36 한 바리새이가 예수를 자기 집에 초대하여 식사하게 하였다. 예수는 그 바리새이의 집에 들어가 탁자에 앉으셨다.

37 그 도시에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자가 예수가 바리새이의 집에 누워 계신다는 것을 알고, 알라바스터 관에 향유를 가져왔다.

38 그 여자는 뒤에서 예수의 발 앞에 서서 울기 시작하여,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을 입으로 맞으며 향유로 바랐다.

39 초대된 바리새이가 이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사람이 예언자였다면, 자신을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그녀가 죄인임을 알았을 것이다.'

40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있다."

41 "어떤 빚 주인이 두 명의 빚진 자가 있었다.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다른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빚졌다."

42 그들이 갚을 수 없으므로, 그는 둘 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므로 어느 쪽이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43 시몬이 대답하였다. "저는 그가 더 많이 탕감해 준 자라고 생각합니다."

44 예수께서 여자를 향해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네가 내 발에 물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45 네가 나에게 입맞춤을 하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온 이래로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46 네가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바랐다.

47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다. 그녀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48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들이 용서되었다."

49 그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했다. "이 사람이 죄를 용서하기까지 하는 자가 누구인가?"

50 그가 그 여자에게 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루카 복음서 8장

- 1 그 후 곧 예수는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며 하느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며 가셨다. 그와 함께 열두 사도도 있었다.
- 2 또 악령과 병에서 치유된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마그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떠나간 여자였다.
- 3 또 헤로데의 집사 쿠자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 그리고 재산으로 그들을 섬긴 다른 많은 여자들도 있었다.
- 4 큰 무리가 모이고 각 도시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올 때, 예수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 5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밟히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치웠다.
- 6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져 자라나는데, 습기가 없어 말라 죽었다.
- 7 어떤 씨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져 자라나면서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것을 조여 죽였다.
- 8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을 하며 그는 외쳤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 9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다.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 10 그가 대답했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 주어진다. 이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 11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 12 길가에 떨어진 씨는 듣는 자들이다. 그 후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
- 13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듣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만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진다.
- 14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는 듣는 자들이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삶의 염려, 부와 쾌락에 억눌려 열매를 성숙시키지 못한다.
- 15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정직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며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 16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는다. 오히려 등불대에 놓아 들어오는 자들이 빛을 볼 수 있게 한다.
- 17 숨겨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은밀한 것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 없다.
- 18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지고, 가지지 못한 자는 자기가 가진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 19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에게 왔으나, 무리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
- 20 어떤 이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 21 그러나 그는 대답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들이다.
- 22 어느 날, 예수는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함께 탔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배를 띄웠다.
- 23 그들이 항해하는 동안 예수는 잠이 들었다. 갑작스러운 폭풍이 호수에 몰아치며 배에 물이 차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 24 제자들이 와서 그를 깨우며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습니다!” 예수가 일어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져 고요해졌다.
- 25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며 서로에게 말했다. “바람과 물조차도 그의 말을 따르니, 이분은 누구인가?”
- 26 그리고 나서 그들은 갈릴래아 반대편에 있는 가다라 사람들의 땅에 도착했다.
- 27 예수가 육지에 내리자, 오랫동안 귀신들린 한 남자가 도시에서 그를 만나러 나왔다. 그는 옷을 입지 않았고, 집에 살지 않고, 무덤에 살았다.
- 28 그가 예수를 보고 외치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했다. “가장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 29 예수께서 그 남자에게서 더러운 영이 나가게 하시려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 더러운 영은 자주 그 남자를 붙잡아, 쇠사슬과 족쇄로 묶어두었으나, 그가 족쇄를 끊고 광야로 쫓겨났다.
- 30 예수께서 그에게 물었다. "네 이름은 무엇이나?"
- 31 그들이 그에게 아비스로 들어가지 말라고 간청했다.
- 32 그때 산에서 많은 돼지들이 풀을 뜯고 있었다. 그들이 그에게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그는 허락하셨다.
- 33 귀신들이 그 남자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 무리가 가파른 언덕을 따라 호수로 뛰어내려 익사했다.
- 34 돼지들을 치던 자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도망쳐 도시와 시골에 그 사실을 알렸다.
- 35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왔다. 그들이 예수에게 와서 귀신들렸던 남자가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옷을 입고 정신이 정상인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 36 그 일을 본 자들이 귀신들렸던 자가 어떻게 치유되었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했다.
- 37 가다라 지역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보내 달라고 간청했다.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돌아가셨다.
- 38 그러나 귀신들렸던 남자가 예수와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보내며 말씀하셨다.
- 39 "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느님이 네게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알리어라." 그는 떠나서 온 도시에 예수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를 전파했다.
- 40 예수가 돌아오자, 무리가 그를 환영했다. 그들은 모두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 41 보라, 아이루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왔다. 그는 회당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집에 오시도록 간청했다.
- 42 그에게 열두 살밖에 안 된 외아들 딸이 있었는데, 그녀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가는 동안 무리들이 그를 에워쌌다.
- 43 열두 해 동안 피가 흘러온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의사들에게 써버렸으나, 아무도 그녀를 낫게 할 수 없었다.
- 44 그 여자는 뒤에서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 즉시 피 흐름이 멈췄다.
- 45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 4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 나를 만졌구나. 내가 힘이 나에게서 나간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 47 그 여자가 자신이 숨지 못했음을 알고 떨며 나아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께 왜 자신이 그를 만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즉시 낫게 되었는지를 말했다.
- 48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용기를 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 49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회당 우두머리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말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 50 예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대답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믿으십시오. 그러면 딸이 나을 것입니다."
- 51 그가 집에 도착하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 52 모두가 울며 애도하고 있었지만, 그는 말했다. "울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죽지 않았고,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 53 그들은 그녀가 죽었음을 알고 그를 조롱했다.
- 54 그러나 그는 모두를 밖으로 내보내고 아이의 손을 잡으며 불렀다. "아이야, 일어나십시오!"
- 55 그녀의 영이 돌아와 곧바로 일어났다. 그는 그녀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다.
- 56 그녀의 부모는 놀라워했지만, 그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루카 복음서 9장

- 1 그는 열두 사도를 불러모아 모든 귀신을 제압할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
- 2 그는 그들을 보내어 하느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게 하셨다.
- 3 그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여행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주머니도, 빵도, 돈도 가져가지 마라. 각자 두 벌의 옷을 입지 마라."
- 4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라.
- 5 너희를 받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그 도시를 떠날 때 발의 먼지도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 6 그들은 떠나서 마을들 전체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모든 곳에서 병자를 고쳤다.
- 7 이때 헤로데 사분자후가 그가 한 모든 일을 듣고 매우 혼란스러워하였다. 어떤 이들은 요한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였고,
- 8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였다.
- 9 헤로데가 말했다. "나는 요한을 베어 먹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소문을 듣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그를 보고 싶어 하였다.
- 10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한 일을 모두 그에게 보고하였다.
- 11 무리가 이를 알고 그를 따랐다. 그는 그들을 환영하며 하느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시고, 치유가 필요한 이들을 고쳐주셨다.
- 12 그날이 저물어가자, 열두 사도가 나아가서 그에게 말했다. "우리를 흠여보내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주변 마을과 농가로 가서 머물며 음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이 황폐한 곳이니깐요."
- 13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 14 그때 남자들이 약 오천 명이었다.
- 15 그들은 그대로 하여 모두 앉히고,
- 16 그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 하늘을 올려다보며 축복하시고, 부수어 사도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 17 그들은 모두 먹고 배불리었다. 남은 조각을 모아 열두 바구니를 채웠다.
- 18 그가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 곁에 있었고, 그가 그들에게 물으셨다. "우리가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가?"
- 19 그들이 대답했다. "요한 세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 20 그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가?"
- 21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경고하며,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 22 그는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많은 고난을 겪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거부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한다."
- 23 그는 모두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 24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상실한다면,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성스러운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 2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느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자들이 있다.
- 28 이 말을 한 지 약 팔일 후에,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 29 그가 기도할 때, 그의 얼굴 모양이 변하고, 그의 옷이 희고 빛나게 되었다.
- 30 보라, 두 사람이 그와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 31 그들은 영광 속에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의 죽음을 말하였다.

- 32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은 졸음에 지쳐 있었으나, 완전히 깨어나서 그의 영광과 그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 33 그들이 그를 떠나려 할 때, 베드로가 예수에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천막 세 개를 지어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만들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 34 그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다가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이 구름 안으로 들어가자 두려움에 떨었다.
- 35 구름에서 소리가 나서 말했다. "이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 36 소리가 나자, 예수는 혼자 계셨다. 그들은 잠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날들 동안 자신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 37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큰 무리가 그를 맞이하였다.
- 38 보라, 무리 중 한 사람이 외쳐 말했다. "선생님, 제 아들을 보아 주십시오. 그는 제 외아들입니다."
- 39 보라, 그에게 영이 들러붙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그를 떨리게 하여 거품을 토하게 하고, 거의 떠나지 않으며 그를 심하게 다칩니다.
- 40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 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 41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참아야 할 것이 얼마나 오래냐? 네 아들을 여기로 데려와라."
- 42 그가 아직 오고 있을 때, 악령이 그를 땅에 던지고 격렬하게 떨리게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소년을 고쳐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 43 그들은 모두 하느님의 위엄에 놀라워하였다.
- 44 "이 말을 너희 귀에 깊이 새기어라.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 45 그러나 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 말은 그들에게 숨겨져 있었으므로,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이 말에 대해 그에게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 46 그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자일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다.
- 47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어린 아이를 한 사람 데려다가 곁에 세우셨다.
- 48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받는 자는 나를 받는다. 나를 받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는다. 너희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곧 큰 자가 될 것이다."
- 49 요한이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습니다."
- 50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막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이다."
- 51 예수가 하늘로 끌려올 날이 가까워지자, 그는 얼굴을 단단히 예루살렘으로 향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 52 그는 그의 앞서 가도록 사자를 보냈다. 그들이 떠나서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에 들어가 그를 위해 준비하였다.
- 53 그들은 그를 받지 않았다. 그가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해 고정하고 여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54 그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요?"
- 55 그러나 그는 돌이켜 그들을 꾸짖으셨다. "너희가 자신이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
- 56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 57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 5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는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은 둥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둘 곳이 없습니다."
- 59 그가 또 다른 이에게 말했다. "나를 따르라!"
- 60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자들이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지내게 하라. 너는 가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라."

⁶¹ 또 다른 이도 말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 집에 있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⁶²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곡식을 가는 쟁기에 올리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루카 복음서 10장

- 1 이 일들 이후에, 주님은 또 다른 일흔 명을 더 임명하시어, 자기 앞서 각 도시와 자기가 가려는 모든 곳에 두 명씩 보내셨다.
- 2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은 많지만 일꾼은 적으니, 수확의 주님께 기도하여, 수확에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하라."
- 3 가라. 보라, 나는 너희를 양들 사이의 늑대처럼 보내고 있다.
- 4 주머니도, 가방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 5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여라.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 6 평화의 아들이 거기에 있다면, 너희의 평화가 그 위에 머무를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 7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은 그의 보수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집에서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아라.
- 8 어떤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면, 앞에 놓인 것을 먹어라.
- 9 거기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 10 그러나 어떤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거리로 나가서 말하여라.
- 11 "너희 도시의 우리에게 붙은 먼지조차도, 너희에게 떨어버리겠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 12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날에 소돔보다 그 도시가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 13 "화가 있을지어다, 고라자이나! 화가 있을지어다, 벳새다야! 만일 티로와 시돈에서 너희 가운데서 일어난 그 강력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다면, 그들은 이미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회개했을 것이다."
- 14 그러나 심판의 날에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 15 하늘까지 높임을 받은 너, 카파르나움아, 네가 음부까지 내려갈 것이다.
- 16 너희를 듣는 자는 나를 듣고, 너희를 거부하는 자는 나를 거부하며, 나를 거부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거부하는 것이다."
- 17 일흔 명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말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조차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 18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 19 보라, 나는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모든 적의 권세를 누리는 권한을 주었다.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 20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한다는 이유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이유로 기뻐하여라."
- 21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 아버지여, 이 일을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여, 이것이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이었습니다."
- 22 그가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내게 넘겨졌다.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는 아버지뿐이며,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는 아들과, 아들이 그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뿐이다."
- 23 그가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속삭였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들은 복이 있다."
- 2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했다."
- 25 어느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며 물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 26 그가 그에게 말했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 27 그가 대답했다.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님 당신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 28 그가 그에게 말했다. "네가 올바르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면 살 것이다."
- 29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예수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 ³⁰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에게 붙잡혔다. 그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떠나갔으며, 반쯤 죽은 채로 내버려두었다."
- ³¹ 마침 한 사제가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다.
- ³² 마찬가지로 레위인도 그 자리에 이르러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다.
- ³³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 자리에 이르렀다. 그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 ³⁴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었다.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 ³⁵ 다음 날, 그가 떠날 때에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며 말했다.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그 이상의 비용이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 드리겠습니다."
- ³⁶ 이제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들에게 붙잡힌 이에게 이웃이 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 ³⁷ 그가 말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 ³⁸ 그들이 길을 가던 중에 예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다. 한 여자 이름은 마르타가 그를 집에 모셨다.
- ³⁹ 그녀는 마리아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 ⁴⁰ 그러나 마르타는 많은 일로 마음이 분산되어 다가가서 말했다. "주님, 제 누이가 저 혼자서 일하게 내버려두신 것을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제게 도와달라고 그에게 부탁해 주십시오."
- ⁴¹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네는 많은 일로 걱정하고 번민하고 있구나."
- ⁴²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부분을 택했으며, 그것이 그녀에게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루카 복음서 11장

- 1 그가 어떤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 2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
- 3 하루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 4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 5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 중에 누가 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친구야, 빵 세 개를 빌려 주오.'라고 말하면,"
- 6 내가 친구가 여행에서 왔는데 내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면,
- 7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나를 괴롭히지 마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침대에 누워 있다. 일어나서 네게 주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비록 그가 친구라서 일어나서 주지 않더라도, 그가 끈질기게 구므로 일어나서 그가 필요한 만큼 주게 될 것이다.
- 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 10 모든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 11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되는 자가,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느냐? 또는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 12 또 계란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 13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법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더 잘 주지 않으시겠느냐?
- 14 그가 말이 없는 귀신을 쫓아내셨다. 귀신이 나간 후,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고, 무리가 놀라워했다.
- 15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말했다. "그는 베엘제불, 곧 귀신의 두목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 16 다른 이들은 그를 시험하려 하며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요구했다.
- 17 그러나 그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했다. "모든 나라가 자기 안에서 갈라지면 황폐해지고, 자기 안에서 갈라진 집은 무너진다."
- 18 사탄이 자기 안에서 갈라진다면, 그의 나라는 어떻게 서겠느냐?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 19 그러나 내가 베엘제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자녀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 20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 21 "무장한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잘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 22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공격하여 이기면, 그가 그를 믿고 의지했던 무기를 모두 빼앗아 가고, 그의 재산을 나누어 가진다."
- 23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 24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마른 땅을 거닐며 쉼 곳을 찾으나, 찾지 못하면, '내가 나온 그 집으로 돌아가리라.'라고 말한다.
- 25 그가 돌아오면, 집이 쓸려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본다.
- 26 그러면 그는 자신보다 더 악한 일곱 영을 데려와서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무르게 한다. 그 사람의 마지막 상태는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 27 그가 이 말을 하면서, 무리 속에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태어나신 배가 복되며, 젖을 먹인 가슴도 복되십니다!"

- 28 그러나 그는 말했다. "오히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받는다."
- 29 무리가 모여들 때,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이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이 세대에게 주어질 표적은 오직 예언자 요나의 표적뿐이다."
- 30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다.
- 31 남방의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심판에 서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 끝에서 왔다.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 32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심판에 서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 33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지하실에나 대야 밑에 두지 않고, 등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들어오는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다."
- 34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온전하면, 온 몸도 밝아질 것이지만, 네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워진다.
- 35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라.
- 36 그러므로 네 몸이 온통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다면, 등불이 밝게 빛나서 너를 비추듯 온몸이 밝아질 것이다.
- 37 그가 말할 때, 한 바리새인이 그를 자기 집에 초대하여 식사하자고 했다. 그는 들어가서 식탁에 앉았다.
- 38 바리새인이 그가 식사 전에 먼저 씻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다.
- 39 주님은 그에게 말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의 바깥을 씻지만, 너희 안은 탐욕과 악으로 가득하다."
- 40 어리석은 자들아, 바깥을 만든 이가 안을 만들지 않았느냐?
- 41 그러나 안에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너희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 42 하지만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민트와 딜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지만, 정의와 하느님의 사랑은 무시한다. 너희는 이것들을 해야 하고, 저것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 43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의 최고 자리와 시장의 인사말을 좋아한다.
- 44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가식적인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숨겨진 무덤과 같아서,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
- 45 한 율법사가 대답하여 말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모욕하시는군요."
- 46 그는 말했다. "너희 율법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견디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그 짐을 하나도 옮기려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 47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지어주지만, 너희 조상들은 그들을 죽였다.
- 48 그러므로 너희는 조상들의 행위를 증언하고 동의한다. 그들은 그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지어준다.
- 49 그러므로 하느님의 지혜도 말했다.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겠다. 그들 중 일부는 죽이고 박해할 것이다.'
- 50 세상 기초부터 흘린 모든 예언자의 피가 이 세대에 요구될 수 있도록.
- 51 아벨의 피에서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에 그것이 요구될 것이다.
- 52 법학자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 너희는 스스로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가려는 자들을 막았다.
- 53 예수께서 이 말을 하시는 동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심히 분노하여 그에게서 많은 것을 끌어내려 하였다.
- 54 그가 말하는 것을 기다리며, 그가 말하는 어떤 말을 잡아 그를 고발하려고 음모하였다.

루카 복음서 12장

- 1 한편, 수만 명의 무리가 모여서 서로 밟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것은 위선이다."
- 2 그러나 덮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 3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 속에서 한 말이 빛 속에서 들릴 것이고, 너희가 안방에서 귀에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 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들아,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그 후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 5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 준다. 죽인 후에 게헨나에 던질 권세를 가진 이를 두려워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를 두려워하여라.
- 6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 동전에 팔리지 않는가? 그런데 하느님께서도 그 중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
- 7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세어져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 여러 마리보다 더 귀중하다.
-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마다,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 9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될 것이다.
- 10 사람의 아들에 대해 말하는 죄는 용서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 11 그들이 너희를 회당과 관리들과 권세자들 앞에 끌고 갈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 12 그때 성령이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 13 무리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제 형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 14 그러나 그는 그에게 말했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자로 세웠느냐?"
- 15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조심하여라. 탐심에서 자신을 지켜라. 사람의 생명은 소유한 재물의 풍성함에 있지 않다."
- 16 그는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에게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다."
- 17 그는 스스로 생각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내 곡식을 저장할 공간이 없구나."
- 18 그는 말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내 공간을 헐고 더 큰 공간을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모아두리라."
- 19 내 영혼아, 너는 여러 해 동안 쓸 만한 재산을 많이 쌓아두었다.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 20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너에게서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준 비한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 21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않은 자가 바로 이런 자이다."
- 22 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 23 생명은 음식보다 더 귀하고, 몸은 옷보다 더 귀하다.
- 24 까마귀를 생각하여라. 그들은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창고도 없고, 공간도 없지만, 하느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중한가!
- 25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늘일 수 있느냐?
- 26 그러면 너희가 가장 작은 일조차 할 수 없다면, 어찌 나머지 일들에 대해 걱정하느냐?
- 27 백합화를 보아라.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아라. 그들은 수고하지도 않고 직직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중 하나처럼 입지 못하였다.
- 28 하느님께서 들의 풀을 이렇게 입히시는데, 오늘은 존재하고 내일은 화로에 던져지는 것인데, 너희를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 29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 30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민족들이 찾는 것이지만,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
- 31 그러나 하느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 32 작은 양 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하느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 33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 오래 가지 않는 주머니를 너희를 위해 만들고, 도둑이 가까이 오지 않고, 나방이 해치지 않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 34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 35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뒤라.
- 36 신랑의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즉시 열어줄 수 있도록.
- 37 주인이 왔을 때 깨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스스로 허리를 띠고, 그들을 편히 눕히며, 나와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 38 그가 둘째 혹은 셋째 경에 와서 것처럼 발견한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 39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것인지를 알았다면, 지켜서 집이 훔쳐지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 40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여라. 사람의 아들이 너희가 기대하지 않는 시각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 41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두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 42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주인이 그의 집안을 맡아 적절한 시기에 음식을 나눠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누구냐? "
- 43 주인이 왔을 때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그 종은 복이 있다.
- 4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그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 45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내 주인은 오시는 데 늦으신다' 하고, 하인들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한다면,
- 46 그 종의 주인은 그가 기대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와서 그를 두 조각으로 갈라, 불충성한 자들과 함께 처분할 것이다.
- 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많은 매를 맞을 것이다.
- 48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를 맞을 만한 일을 한 자는 적은 매를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되고, 많이 맡겨진 자에게는 더 많이 요구된다.
- 49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미 타오르기를 바란다.
- 50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괴로운가!
- 51 내가 땅에 평화를 주려고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주려고 왔다.
- 52 이제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을 텐데, 셋이 돌과 대립하고 둘이 셋과 대립할 것이다.
- 53 그들은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대립하며,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대립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대립할 것이다.
- 54 그분은 또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곧 '비가 온다'고 말하듯이, 그대로 된다."
- 55 남풍이 불면 '더위가 심할 것이다'라고 말하듯이, 그대로 된다.
- 56 가식적인 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를 어떻게 해석할 줄 알지만, 이 시대는 왜 해석하지 못하느냐?
- 57 어찌하여 너희는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느냐?
- 58 너는 원수와 재판관 앞에 나아가면서 길에서 그와 화해하려고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이 너를 간수에게 넘기며, 간수가 너를 감옥에 가두게 되지 않도록.
- 5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톨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절대 나오지 못할 것이다.

루카 복음서 13장

- 1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말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 2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 3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모두 이와 같이 죽을 것이다.
- 4 또 실로암 탑이 무너져 죽은 열여덟 명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 5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모두 이와 같이 죽을 것이다.
- 6 그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찾으러 와서 찾지 못하였다."
- 7 그가 포도원 일꾼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이 세 해 동안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러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베어버려라. 땅을 낭비하게 놔둘 이유가 무엇이냐?"
- 8 그가 대답했다. "주님, 올해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주변을 파고 비료를 주겠습니다."
- 9 만약 열매를 맺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 후에 베어버리십시오."
- 10 그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 11 보아라, 열여덟 해 동안 병의 영에 붙잡혀 있던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휘어져서 제대로 펴지지 못하였다.
- 12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러서 말씀하셨다. "여자야, 너는 병에서 해방되었다."
- 13 그가 그녀에게 손을 얹으니 즉시 그녀는 허리를 펴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 14 회당의 우두머리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고쳐 주신 것에 분노하여 무리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일할 날이 여섯 날이나 있는데, 그 날들에 와서 고침을 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하지 마십시오!"
- 15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가식적인 자들아, 너희 각자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우리에서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 16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인데, 사탄이 열여덟 해 동안이나 붙잡아 왔다. 이 여자를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풀어 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 17 그가 이 말을 하자, 모든 그의 적들은 부끄러워했고, 모든 무리는 그가 행한 위대한 일들로 인해 기뻐하였다.
- 18 그는 말했다. "하느님 나라는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내가 무엇에 비길 수 있겠느냐?"
- 19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고,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 20 그는 다시 말했다. "하느님 나라는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 21 그것은 누군가가 가져다가 가루 세 되에 섞어 숨긴 효모와 같다. 그것이 온통 부풀어 오를 때까지 이르렀다."
- 22 그는 도시들과 마을들을 지나 다니며 가르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다.
- 23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주님, 구원을 받는 이들이 적습니까?"
- 24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 25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님, 주님,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 주세요'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는 대답하여 '내가 너희가 누구인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 26 그때 너희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은 우리 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 27 그는 '내가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른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라고 말할 것이다.
- 28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자신들은 밖에 내쳐지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 29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서 와서 하느님 나라에 앉을 것이다.
- 30 보아라, 끝자리에 있는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있는 자들이 끝자리가 될 것이다.
- 31 그날 같은 날, 어떤 바리새이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말했다. '여기서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 ³²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사흘째에는 내 사명을 마칠 것이다.'
- ³³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 날도 나는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은 있을 수 없다.
- ³⁴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내진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아서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듯이 모으고 싶었으나, 너는 거절했다."
- ³⁵ 보아라, 너희 집은 황폐하게 버려졌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되다"라고 말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루카 복음서 14장

- 1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빵을 먹으러 들어가셨을 때, 그들은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 2 보라, 한 물혹 환자가 그 앞에 있었다.
-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이 합법한가?"
- 4 그러나 그들은 침묵했다.
- 5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라든지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 즉시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 6 그들은 이 일에 대해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다.
- 7 그가 초대받은 자들이 가장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 8 "너희가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가장 좋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어쩌면 너보다 더 존중받는 사람이 초대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 9 그러면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희 둘에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을 위해 자리를 비워라." 그러면 너희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가장 낮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 10 그러나 초대받았을 때는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래야 초대한 사람이 와서 "친구여, 더 위로 올라앉으시오."라고 말할 것이며, 그러면 너희는 함께 식사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존중받게 될 것이다.
- 11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 12 그는 또한 초대한 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녁이나 아침 식사를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아라. 그래야 그들도 너를 갚아줄 것이고, 너에게 보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 13 그러나 너는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절름발이들과 눈먼 자들을 초대하여라.
- 14 그러면 너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네게 보답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네가 의로운 자들의 부활 때에 보답을 받을 것이다."
- 15 식사에 함께 앉아 있던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그에게 말했다. "하느님 나라에서 잔치를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 16 그러나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 17 그는 식사 시간에 하인을 보내어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게 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 18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변명을 시작했다.
- 19 "한 사람이 말했다. '내가 소 다섯 쌍을 샀으니, 그것을 시험해 보러 가야 합니다. 나를 사양해 주십시오.'"
- 20 "다른 사람이 말했다. '내가 아내를 맞이했으므로, 올 수 없습니다.'"
- 21 "그 하인이 와서 주인에게 이 모든 일을 말했다. 그러자 집 주인은 화가 나서 하인에게 말했다. '빠르게 성안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절름발이들과 눈먼 자들을 데려오너라.'"
- 22 "하인이 말했다. '주님,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 23 "주인이 하인에게 말했다. '길과 담장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와라. 내 집이 가득하게 하려는 것이다.'"
- 2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받은 이들 중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부르는 자는 많으나, 택하는 자는 적다."
- 25 큰 무리가 그와 함께 가고 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26 누구든지 내게 오려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를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경시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 27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 28 누구든지 탑을 지으려고 할 때,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여, 마칠 만한 재산이 있는지 살피지 않겠느냐?
- 29 아니면 기초를 놓고도 마칠 수 없게 되면, 보는 이들이 모두 그를 조롱하여,
- 30 '이 사람이 지으려고 시작했지만 마치지 못했다'고 말할 것이다.
- 31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만 명으로서 이십 만 명을 이끌고 오는 상대를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생각하지 않겠느냐?
- 32 아니면 상대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사자를 보내어 화평의 조건을 청한다.

³³ 그러므로 너희 중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³⁴ 소금은 좋으나, 소금이 맛을 잃고 싱거워지면, 무엇으로 그것을 간을 하겠느냐?

³⁵ 그것은 땅에도, 비료 더미에도 쓸 수 없고, 밖에 버려진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루카 복음서 15장

- 1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 2 바리사이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한다."
- 3 그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 4 너희 중에 누가 백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리면, 아흔아홉 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 5 그가 찾게 되면, 그것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온다.
- 6 집에 돌아오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말한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다."
- 7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아흔아홉 의로운 자보다 하늘에서 더 큰 기쁨이 있다.
- 8 또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 동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서 집을 쓸고 꼼꼼히 찾지 않겠느냐?
- 9 그가 찾게 되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말한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다."
- 10 이와 같이,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죄인 한 명이 회개할 때 기쁨이 있다.
- 11 그는 말했다.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을 가지고 있었다."
- 12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에게 당신 재산의 저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그들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 13 그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났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했다.
- 14 그가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나서, 그 나라에 심한 기근이 들었고, 그는 곤경에 빠졌다.
- 15 그는 그 나라의 한 시민에게 붙어, 그에게 돼지를 치게 하려고 들로 보냈다.
- 16 그는 돼지가 먹는 꼬투리로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
- 17 그러나 그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조차도 빵이 넘쳐서 남을 정도인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고 말 것인가!"
-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당신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리라.
- 19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 중 하나로 대우해 주십시오."라고 하리라.
- 20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런데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쳤다.
- 21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당신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 22 그러나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말했다.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 23 "살진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 24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축하하기 시작했다.
- 25 그때 큰아들은 밭에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다가오자 음악과 춤 소리를 들었다.
- 26 그는 하인 중 한 명을 불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물었다.
- 27 그가 대답했다. "형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돌아온 형을 맞이하여 비단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 28 그러나 그는 화가 나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그를 간청했다.
- 29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보십시오. 저는 이 많은 해 동안 당신을 섬겼고, 당신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나에게 염소 한 마리조차 주지 않아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지 못했습니다."
- 30 그런데 이 아들이 왔습니다. 그는 창녀들과 함께 당신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를 위해 비단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³¹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모든 것이 네 것이다."

³²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루카 복음서 16장

- 1 그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어떤 부자에게 관리인이 있었다.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고발이 들어 왔다."
- 2 그는 그를 불러서 말했다. "네가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들었다. 네 관리 업무를 모두 보고하라. 이제는 더 이상 관리인이 될 수 없으니."
- 3 "관리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나의 관리직을 빼앗으려 한다. 내가 땅을 파는 힘도 없고, 구걸하는 것도 부끄럽다.₩"
- 4 ₩"내가 무엇을 할지 알겠다. 그러면 내가 관리직에서 떠난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받아줄 것이다.₩"
- 5 그는 주인의 빚진 자들을 하나씩 불러서 첫 번째에게 말했다. "네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 6 그가 말했다. "백 바타의 기름입니다." 그가 그에게 말했다. "네 빚 증서를 가져가서 빨리 앉아서 오십이라고 써라."
- 7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 말했다. "네가 얼마를 빚졌느냐?" 그가 말했다. "백 코르의 밀입니다." 그가 그에게 말했다. "네 빚 증서를 가져가서 팔십이라고 써라."
- 8 "주인은 이 불의한 관리인이 현명하게 행동했다고 칭찬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보다 자기 세대에서는 더 현명하다."
- 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여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래야 부유하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받아줄 것이다."
- 10 작은 일에 충실한 자는 큰 일에도 충실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 11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누가 진정한 부를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 12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충실하지 않았다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 13 한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할 것이거나, 한쪽을 붙잡고 다른 쪽을 경멸할 것이다. 너희는 하느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
- 14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그를 조롱했다."
- 15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사람들이 보기에 스스로 의롭다고 변명하지만, 하느님은 너희 마음을 알고 계신다. 사람들이 높이 여기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는 가증한 일이다."
- 16 "율법과 예언자들은 요한까지였다. 그 후로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며, 모든 사람이 힘을 다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 17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보다 율법의 한 자라도 사라지는 것이 더 어렵다."
- 18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한다.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한다."
- 19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 보라색 옷과 고급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았다."
- 20 나라에 라자로라는 이름의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그는 온몸에 상처가 나서 부자의 문 앞에 끌려다녔다."
- 21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어 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았다."
- 22 그 가난한 자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 23 그가 지옥에서 눈을 들어 고통 속에 있었고, 멀리서 아브라함을 보았으며, 아브라함의 품에 라자로가 있는 것을 보았다.
"
- 24 그가 외쳐서 말했다. ₩"아버지 아브라함,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자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식혀 주십시오. 이 불꽃 속에서 내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25 아브라함이 말했다. '아들아, 너는 평생에 좋은 것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가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다.'
- 26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틈이 고정되어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넘어가려는 자는 할 수 없고, 저쪽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는 자도 아무도 없게 되어 있다.'
- 27 그가 말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그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²⁸ 나는 형제가 다섯 명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의 장소에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²⁹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그들은 모세와 예언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³⁰ 그가 말했다. '아니오, 아버지 아브라함, 죽은 자 중에서 한 사람이 그들에게 가면,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³¹ 그가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 중에서 한 사람이 살아나더라도 그들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다.'

루카 복음서 17장

- 1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 2 그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의 목에 밀석을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낫다.
- 3 너는 조심하여라.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그를 책망하여라.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여라.
- 4 하루에 일곱 번 그가 너에게 죄를 지고, 일곱 번 돌아와서, "회개합니다"라고 말하면, 너는 그를 용서해야 한다.
- 5 사도들이 주님께 간청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 6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 7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들에서 돌아오면, '곧 와서 상에 앉아라'라고 말할 사람이 있느냐?
- 8 그가 오히려 종에게 '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제대로 옷을 입고, 내가 먹고 마실 동안 나를 섬겨라. 그 후에 너도 먹고 마셔라'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 9 그가 종이 명령받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 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라.
- 11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를 지나가고 있었다.
- 12 그가 한 마을에 들어서자,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를 만나 멀리서 서 있었다.
- 13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예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14 그가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제들에게 자신을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해졌다.
- 15 그들 중 한 명은 자신이 나아졌음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했다.
- 16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감사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 17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열 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 18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이가 이 외국인밖에 없었느냐?
- 19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 20 바리사이들이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물어보자, 그는 그들에게 대답했다. "하느님 나라는 관찰할 수 있게 오지 않으며,
- 21 그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거기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보라, 하느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 22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날들이 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사람의 아들의 하루 하나를 보고 싶어 할 것이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 23 그들이 너희에게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거기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떠나지 말아라,
- 24 하늘 아래 한쪽에서 번쩍이는 번개가 하늘 아래 다른 쪽까지 비치듯이, 사람의 아들도 그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 25 그러나 먼저 그는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거부받아야 합니다.
- 26 노아의 날들처럼,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 27 그들은 먹고 마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시집갔으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랬습니다. 그 후 홍수가 나서 모두를 멸망시켰습니다.
- 28 롯의 날들처럼 그랬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교 팔고, 심고 지었습니다.
- 29 그러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그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 30 사람의 아들이 드러나는 그 날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 31 그 날에 집 위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져오려고 내려오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 32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 33 자신의 생명을 살리려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잃는 자는 보존할 것입니다.

³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밤에 한 침대에 두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데려가지고, 다른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³⁵ 두 사람이 함께 곡식을 갈고 있을 것이다. 하나는 데려가지고, 다른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³⁷ 그들이 대답하여 물었다. "주님, 어디입니까?"

루카 복음서 18장

- 1 그는 또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지치지 말아야 한다는 비유를 말씀하셨다.
- 2 그분은 말씀하셨다. "어떤 도시에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 3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는 자주 그에게 와서 말했다. "내 원수에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 4 그는 잠시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스스로 말했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 5 "이 과부가 나를 괴롭히니, 내가 그녀를 지켜주리라. 그래야 그녀가 계속 찾아와 나를 지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 6 주님은 말씀하셨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 7 하느님께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자신을 향해 외치는 택하신 자들을 갱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은 그들에게 인내를 보이십니다.
-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은 곧 그들을 갱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
- 9 그분은 또한 자신이 의로우다고 확신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 11 바리사이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했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착취자들, 불의한 자들, 간음하는 자들, 혹은 이 세리처럼 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 12 "저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제가 얻는 모든 것의 십일조를 드립니다."
- 13 그러나 세리가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고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느님, 저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 1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로움을 얻고 집으로 내려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 15 사람들이 아기들을 데려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제자들이 보고는 그들을 꾸짖었다.
- 16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마라. 하느님 나라가 바로 이런 이들 것이라."
- 17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 아이처럼 하느님 나라를 받지 않는 자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 18 어떤 관리가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 19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선한 이는 한 분뿐이니, 하느님뿐이다."
- 20 "당신은 계명들을 알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 21 그가 말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것을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 22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다.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물이 있을 것이니, 와서 나를 따르라."
- 23 그러나 그가 이 말을 듣고 매우 슬퍼하였다. 그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 24 예수께서 그가 매우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부유한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 25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 26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말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 27 그러나 그는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느님께는 가능하다."
- 28 베드로가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 29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떠난 이는,
- 30 이 시대에 여러 배나 더 받고, 온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 31 그가 열두 제자를 따로 불러 말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예언자들이 사람의 아들에 관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 32 그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며 침을 뱉을 것이다."

- ³³ 그들은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사흘 후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 ³⁴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숨겨져 있었고, 그들은 말한 바를 이해하지 못했다.
- ³⁵ 예수께서 예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한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다.
- ³⁶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 ³⁷ 그들에게 나사렛의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 ³⁸ 그는 외쳤다. "예수님, 다윗의 아들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 ³⁹ 앞서 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는 더욱 크게 외쳤다. "다윗의 아들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 ⁴⁰ 예수께서 멈추셔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 ⁴¹ "내가 무엇을 해 드릴까?"
- ⁴²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게 되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 ⁴³ 즉시 그는 눈을 뜨고 예수를 따르며 하느님을 찬양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하느님을 찬양했다.

루카 복음서 19장

- 1 그는 예리코에 들어가 지나가고 있었다.
- 2 자개우스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장이었고 부유하였다.
- 3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보려 했으나 무리 때문에 볼 수 없었는데, 그는 키가 작았다.
- 4 그는 앞서 달려가서 숲양나무에 올라가 예수를 보려 했다. 그는 그 길로 지나가려 했기 때문이다.
- 5 예수가 그 자리에 이르러 위를 보니 그를 보고, 그에게 말했다. "자개우스야, 빨리 내려오거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 6 그는 빨리 내려와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였다.
- 7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이 속삭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고 있다."
- 8 자개우스가 서서 주님에게 말했다. "주님, 보십시오.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약 누구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 9 예수는 그에게 말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 10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습니다."
- 11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예수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으므로,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 12 그러므로 그는 말했다.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권을 받고 돌아오려 했다."
- 13 그는 열 명의 하인을 불러서 각각 한 미나를 주며 말했다. "내가 오기 전까지 장사를 하여라."
- 14 그러나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하여 사절을 보내어 말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위에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 15 "그가 왕권을 받고 돌아오자, 그가 돈을 맡긴 하인들을 불러서, 그들이 장사로 벌어들인 것을 알고자 했다."
- 16 첫째 하인이 나아와 말했다. "주님, 주님의 미나가 열 미나를 더 벌었습니다."
- 17 "그가 그에게 말했다. "좋은 종아, 잘했구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열 도시를 다스릴 권한을 주겠다."
- 18 "두 번째 하인이 나아와 말했다. "주님, 주님의 미나가 다섯 미나를 더 벌었습니다."
- 19 "그가 그에게 말했다. "너도 다섯 도시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 20 다른 하나가 나아와 말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의 미나입니다. 저는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 21 "저는 주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은 까다로운 분이십니다. 주님은 놓지 않은 것을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수확하시는 분이십니다."
- 22 "그가 그에게 말했다. "네 입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악한 종아. 네가 내가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놓지 않은 것을 거두고 뿌리지 않은 것을 수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 23 "내 돈을 은행에 맡겨두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왔을 때,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 24 그는 곁에 서 있는 이들에게 말했다. "그의 미나를 빼앗아, 열 미나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 25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주님, 그에게 열 미나나 있습니다!"
- 2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군가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고,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는 그가 가진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 27 그러나 나를 임금으로 삼기를 원치 않는 나의 원수들을 여기로 끌고 와서 내 앞에서 죽여라."
- 28 이 말을 마친 후, 그는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 29 그가 벳파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서 두 제자를 보내어,
- 30 이르셨다. "너희는 저편 마을로 가라.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와라."
- 31 누가 너희에게 "왜 그것을 풀어 끌고 가느냐?" 하고 묻거든, "주님이 필요로 하십니다."라고 말하여라."
- 32 보낸 자들이 가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모두 발견하였다.

- 33 그들이 어린 나귀를 풀고 있을 때,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왜 어린 나귀를 풀어 끌고 가십니까?"
- 34 그들이 대답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 35 그들이 어린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왔다. 그들이 자기 옷을 어린 나귀 위에 덮고 예수를 그 위에 앉히었다.
- 36 그가 가실 때, 그들이 자기 옷을 길에 펼쳤다.
- 37 그가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의 경사로를 내려올 때, 모든 제자들이 보았던 모든 위대한 일들로 인해 기쁨에 차서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다.
- 38 그들이 외쳤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평화가,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 39 무리 가운데 어떤 바리사이들이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 40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 41 그가 가까이 이르러 도시를 보시고 슬퍼하며 울었다.
- 42 이르셨다. "너도, 너 자신이 오늘 평화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은 그것들이 네 눈에 가려져 있다."
- 43 너를 향해 날들이 이르리니, 네 원수가 너를 둘러싸고 흠담을 쌓아 네 사방을 막고,
- 44 너와 네 안의 자녀들을 땅에 뒤엎을 것이다. 너 안에 돌 하나조차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네가 너의 방문의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45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고파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였다.
- 46 그들에게 이르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 47 그는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려고 꾀하였다.
- 48 그들은 그를 어떻게 할지 찾지 못하였다.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루카 복음서 20장

- 1 어느 날, 그가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사제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에게 왔다.
- 2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해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이런 권한을 주셨습니까?"
- 3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내게 말해보아라.
- 4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 5 그들이 서로 생각하며 말했다. "만약 우리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그가 '그를 믿지 않았던 너희가 어찌 그러냐?' 하고 말할 것이다.
- 6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백성이 모두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들은 요한이 예언자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 7 그들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 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내가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 9 그리고 그가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임대한 뒤, 오랫동안 다른 나라로 떠났다.
- 10 적절한 시기가 되자, 그는 포도원의 열매를 받기 위해 하인을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공수로 보냈다.
- 11 그는 또 다른 하인을 보냈으나, 그들도 그를 때리고 모욕한 뒤 공수로 보냈다.
- 12 그는 세 번째 하인을 보냈으나, 그들도 그를 상처 입히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았다.
- 13 포도원의 주인은 말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그를 보고 그들이 존중할지도 모른다."
- 14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 서로 생각하며 말했다. "이것은 상속자다. 와서,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 15 그리고 그들은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의 주인은 그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 16 그는 와서 이 농부들을 멸망시키고,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주실 것이다."
- 17 그러나 그가 그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 글이 무엇을 말하는가?
- 18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고, 이 돌이 누구에게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 19 사제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때 바로 그를 잡으려 했으나,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그가 이 비유를 자신들을 향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20 그들은 그를 엿보며 간첩들을 보내어, 의로운 척하며 그가 말하는 것을 통해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여, 총독의 권세와 권한에 넘기려 했다.
- 21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옳은 것을 말하고 가르치며, 누구를도 편애하지 않고, 진실로 하느님의 길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22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법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23 그러나 그는 그들의 교활함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시험하는가?
- 24 데나리온 하나를 내어보여라. 그것 위에 누가의 초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 25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면 가이사라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쳐라."
- 26 그들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에 걸려 넘어가지 못했다. 그들은 그의 대답에 놀라 침묵했다.
- 27 부활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두개인들 중 일부가 그에게 왔다.
- 28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남자의 형이 아내를 두고 아이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그 아내를 맞아들여 형의 후손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 29 그러므로 일곱 형제가 있었다. 맏이가 아내를 맞아들였으나 아이 없이 죽었다.
- 30 둘째가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나 아이 없이 죽었다.

- 31 셋째도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일곱 명 모두 아이 없이 죽었다.
- 32 그 후에 그 여자도 죽었다.
- 33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일곱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 모두 그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결혼하고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 35 그러나 저 세상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자들로 인정받은 이들은 결혼하지도, 아내를 맞아들지도 않습니다.
- 36 그들은 더 이상 죽지 않으며, 천사들과 같고 하느님의 자녀들이며, 부활의 자녀들입니다."
- 37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조차 모세도 가시나무에서 보여 주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 38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느님이십니다. 모든 이는 그분 앞에서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 39 어떤 서기관들이 대답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 40 그들은 더 이상 그에게 질문을 하지 못했다.
- 41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식이라고 말합니까?"
- 42 다윗 자신이 시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 43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 44 "그러므로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 부르는데, 어찌하여 그가 다윗의 자식이 되겠습니까?"
- 45 모든 백성의 듣는 중에 그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 46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를, 잔치에서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 47 "그들은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겉으로는 긴 기도를 한다. 이들은 더 큰 책망을 받을 것이다."

루카 복음서 21장

- 1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다.
- 2 그는 한 가난한 과부가 두 작은 동전을 넣는 것을 보셨다.
- 3 그분이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다."
- 4 이들은 모두 여유 있는 것에서 하느님께 헌금을 넣었지만, 그녀는 궁핍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을 넣었다."
- 5 어떤 이들이 성전과 아름다운 돌들과 헌물로 장식된 것을 말할 때, 그분이 말씀하셨다.
- 6 "너희가 보는 이 것들에 대해, 날들이 이르리니, 여기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질 것이다."
- 7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 8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말할 것이니,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 9 전쟁과 소요를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들은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 끝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 10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라가 나라를,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 11 여러 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하늘에서 끔찍한 일들과 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 12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아 박해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 주며,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고 갈 것이다."
- 13 그것은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 14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미리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하지 말고 굳게 잡아라.
- 15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를 주리니, 너희 모든 적들이 이를 대적하거나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 16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 주어, 너희 중 일부를 죽일 것이다."
- 17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 18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 19 "너희의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을 것이다."
- 20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 21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치고, 그 도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떠나고,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자 말아라."
- 22 이것은 보복의 날이니,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 23 그 날들에 임신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땅에는 큰 환난이 있고,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다."
- 24 그들은 칼날에 죽고, 모든 나라로 사로잡혀 끌려갈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며, 이방인들의 시대가 채워질 때까지 그러할 것이다."
- 25 해와 달과 별들에 징조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서는 열국이 근심하고 바다와 파도의 으르렁거림으로 혼란에 빠질 것이다.
- 26 사람들이 세상에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 때문에 기절할 것이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 27 그때에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인자의 아들을 볼 것이다.
- 28 그러나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머리를 들어 올리고 기뻐하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 29 그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 30 그것들이 이미 싹을 틔우면, 너희는 보고 스스로 여름이 가까워졌음을 알게 된다.
- 31 이와 같이 너희도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음을 알게 될 것이다.
- 32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 33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34 그러므로 조심하여, 너희 마음이 방탕과 취함과 이 생활의 염려로 무거워지지 않게 하라. 그래야 그 날이 갑작스럽게 너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³⁵ 그 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이에게 덮처럼 닥칠 것이다.

³⁶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여,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모두 피하여 인자의 아들 앞에 서게 되기를 능히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라.

³⁷ 예수께서는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매일 밤에는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으로 나가서 밤을 보냈다.

³⁸ 모든 백성이 아침 일찍 성전에 와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루카 복음서 22장

- 1 무교절, 곧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 2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를 죽일 방법을 찾았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 3 사탄이 이스카리옷이라 불리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는 열두 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 4 그는 떠나 대제사장들과 장관들과 만나, 어떻게 그를 그들에게 넘겨줄지 논의하였다.
- 5 그들은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 6 그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는 사이에 그를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 7 무교절의 날이 이르렀다. 이 날에는 유월절 양을 잡아야 했다.
- 8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여라."
- 9 그들이 물었다. "어디서 준비해야 합니까?"
- 10 그가 대답하셨다. "성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을 따라가라."
- 11 집 주인에게 말하여라. "선생님이 말한다.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은 어디입니까?'"
- 12 그가 큰 객실, 가구가 갖춰진 윗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준비하여라."
- 13 그들은 떠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찾아내어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 14 시간이 되자, 그는 열두 사도와 함께 앉으셨다.
- 15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진심으로 갈망하였다."
- 1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의 나라가 성취될 때까지, 나는 더 이상 이 유월절을 먹지 않을 것이다."
- 17 그는 잔을 받아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말씀하셨다. "이 잔을 받아서 너희 사이에서 나누어라."
- 1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나는 포도나무의 열매로 만든 것을 더 이상 마시지 않을 것이다."
- 19 그는 빵을 받아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하여라."
- 20 저녁 식사 후에 그도 잔을 받아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계약이다."
- 21 그러나 보라, 내 손과 함께 탁자 위에 있는 자가 나를 배반할 자이다."
- 22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가지만, 그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 23 그들은 서로 물어, 누구일지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 24 그들 사이에 또 논쟁이 일어났다. 누가 가장 위대한 자인지에 대해.
- 25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라들의 왕들은 그들을 다스리고, 그 위에 권세를 가진 자들은 은혜로운 자라고 불린다."
- 26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처럼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처럼 되어야 한다.
- 27 누가 더 큰가? 식탁에 앉는 자냐, 섬기는 자냐? 식탁에 앉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섬기는 자처럼 있다.
- 28 "그러나 너희는 내 시련 속에서 나와 함께 머문 자들이다.
- 29 내가 너희에게 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처럼 왕국을 주겠다.
- 30 내 왕국에서 너희가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의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 31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 시몬,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흔들려고 너희 모두를 요구했다."
- 32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네가 다시 돌아온 후에는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 33 그가 그에게 말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음에도 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34 그가 말했다. "내가 네게 말한다. 베드로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르는 줄 말할 것이다."
- 35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를 돈 주머니도, 가방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가 무엇이 부족했느냐?"
- 36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자는 그것을 챙기고, 가방도 마찬가지로 챙겨라. 없는 자는 걸 옷을 팔아 칼을 사라."

- 37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기록된 바가 나에게 아직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산되었다." 내게 관련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 38 그들이 말했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이 두 자루 있습니다."
- 39 그가 나가서 평소처럼 기름 부은 산으로 가셨다. 그의 제자들도 그를 따랐다.
- 40 그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말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 41 그는 그들로부터 돌 던지는 거리쯤 떨어져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 42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43 하늘에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힘을 더해 주었다.
- 44 그가 극심한 고통 속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자, 그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큰 피방울처럼 되었다.
- 45 그가 기도에서 일어나 제자들에게 이르러 그들이 슬픔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 46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잠들어 있느냐? 일어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 47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무리가 나타났다. 열두 명 중 하나인 유다라 불리는 자가 그들을 이끌고 왔다. 그는 예수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려 했다.
- 48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네가 사람의 아들을 입맞춤으로 배반하느냐?"
- 49 예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날 일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주님, 우리가 칼로 치겠습니다."
- 50 그들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하인을 치고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냈다.
- 51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귀에 손을 대시고 고쳐 주셨다.
- 52 예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지휘관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도둑을 잡으러 칼과 지팡이를 들고 나왔느냐?"
- 53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는 손을 내밀어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다.
- 54 그들은 그를 붙잡아 끌고 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리서 따라갔다.
- 55 그들이 안뜰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으니, 베드로도 그들 사이에 앉았다.
- 56 한 여종이 그가 불빛 속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 57 그는 예수를 부인하며 말했다. "여자야, 나는 그를 모르겠소."
- 58 잠시 후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말했다. "너도 그들 중 하나구나!"
- 59 한 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단단히 확신하며 말했다. "진실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는 갈릴래아 사람입니다!"
- 60 그러나 베드로는 말했다. "사람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그가 아직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닭이 울었다.
- 61 주님은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 62 그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
- 63 예수를 붙잡은 자들은 그를 조롱하며 때렸다.
- 64 그들은 그의 눈을 가리고 그의 얼굴을 때리며 물었다. "예언해 보아라. 누가 너를 치었느냐?"
- 65 그들은 그를 향해 수많은 말을 하며 모욕했다.
- 66 아침이 되자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두 모여서 그를 그들의 공회로 끌고 가며 말했다.
- 67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
- 68 내가 묻더라도 너희는 결코 내게 대답하지도 않고 내게 풀려주지도 않을 것이다."
- 69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하느님의 권능의 오른쪽에 앉아 있을 것이다."
- 70 그들이 모두 말했다. "그러면 네가 하느님의 아들인가?"
- 71 그들이 말했다. "더 이상 증인이 필요하랴? 우리가 그의 입에서 직접 들었으니!"

루카 복음서 23장

- 1 그들이 모두 일어나 그를 빌라도에게 데려갔다.
- 2 그들은 그를 고발하며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나라를 교란시키고,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지하며, 자 신이 그리스도이자 왕이라고 말합니다."
- 3 빌라도가 그에게 물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 4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했다.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어떤 유죄의 근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 5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외쳤다. "그가 유대 전역에 걸쳐 백성을 선동하며,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이곳까지 가르치고 있 습니다."
- 6 빌라도가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었다.
- 7 그가 그 사람이 헤로데의 관할 지역에 속한 것을 알고, 그때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으므로, 그를 헤로데에게 보냈다.
- 8 헤로데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를 보고 싶어 했고, 그에 대해 많은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 다. 그는 그가 어떤 기적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했다.
- 9 그는 많은 말로 그에게 물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 10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그를 강하게 고발했다.
- 11 헤로데와 그의 군인들은 그를 모욕하고 비웃었다. 그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 12 그날 헤로데와 빌라도는 서로 친구가 되었는데, 이전까지는 원수였던 것이다.
- 13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았다.
- 14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교란시키는 자로 내게 데려왔으나, 너희 앞에서 그를 심문해 보았더니, 너희가 고발하는 일들에 대해 이 사람에게 유죄의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 15 헤로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를 보냈더니, 그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 16 그러므로 나는 그를 벌하고 풀어주겠다."
- 17 매년 축제 때마다 그들에게 한 죄수를 풀어주는 것이 관례였다.
- 18 그러나 그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 사람을 끌어내라!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주어라!"
- 19 바라바는 도시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다.
- 20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며 예수를 풀어주려 했다.
- 21 그러나 그들은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 22 그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했다. "어째서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 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벌하고 풀어주겠다."
- 23 그러나 그들은 큰 소리로 재촉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들의 소리와 대제사장들의 소리가 승리했 다.
- 24 빌라도는 그들이 요구한 대로 행하기로 결정했다.
- 25 그는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를 풀어주었으나, 예수를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었다.
- 26 그들이 그를 끌고 가는데, 시몬이라는 자, 키레네에서 온 사람을 붙잡아, 예수 뒤에 짊어질 십자가를 그에게 지우었다.
- 27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갔고, 그 중에는 그를 애도하며 울부짖는 여자들도 있었다.
- 28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 29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한 자들이 복이 있고, 젖을 주지 않은 뱃속이 복이 있으며, 젖을 먹인 적 없는 가슴이 복이 있다" 할 것이다.
- 30 그때에 그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쓰러져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라!" 할 것이다.
- 31 그들이 녹색 나무에 이런 일을 하였다면, 마른 나무에는 무엇이 일어날까?
- 32 또 다른 죄수 둘이 함께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예정이었다.

- 33 그들이 "두개골"이라 불리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죄수 둘도 함께 못 박았으니, 하나는 오른 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었다.
- 34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 35 백성은 서서 지켜보았다. 지도자들도 그와 함께 비웃으며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다. 만일 이 사람이 하느님의 그리스도, 택하신 자라면, 자신을 구원해 보아라!"
- 36 군인들도 그를 비웃으며 다가와서 식초를 건네며,
- 37 말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자신을 구원해 보아라!"
- 38 그 위에는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쓰인 표지가 있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 39 매달린 죄수 중 하나는 그를 모욕하며 말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 40 그러나 다른 하나는 대답하여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네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같은 죄를 받고 있으면서도."
- "
- 41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 42 그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오실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
- 43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 44 이제 여섯 시쯤 되었고, 온 땅에 어둠이 덮였으며, 아홉 시까지 계속되었다.
- 45 해가 어두워졌고, 성전의 휘장이 가운데서 둘로 찢어졌다.
- 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숨을 거두셨다.
- 47 백부장은 일어난 일을 보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다."
- 48 이 일을 보기 위해 모인 모든 무리가 일어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다.
- 49 그의 모든 지인들과 갈릴리에서 그를 따라온 여자들이 멀리서 서서 이 일들을 바라보았다.
- 50 요셉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 51 (그는 그들의 계획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인의 도시인 아리마대에서 왔으며, 하느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 52 이 사람이 피라토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청했다.
- 53 그는 시체를 내려서 세마포로 싸서, 아직 아무도 안치지 않은 바위에 파낸 무덤에 안치하였다.
- 54 그날은 준비의 날이었고, 안식일이 가까이 왔다.
- 55 갈릴리에서 그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무덤을 보고, 그의 시체가 어떻게 안치되었는지를 보았다.
- 56 그들은 돌아가서 향료와 기름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루카 복음서 24장

- 1 그러나 일주일의 첫째 날, 이른 아침에 그들과 다른 몇 여자들이 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왔다.
- 2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 3 그들이 안에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 4 그들이 이 일에 매우 혼란스러워할 때, 환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었다.
- 5 그들이 무서워서 땅으로 얼굴을 숙였다.
- 6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일어나셨다. 그분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여라.
- 7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하셨다.
- 8 그들은 그분의 말을 떠올렸다.
- 9 무덤에서 돌아와서 이 모든 일을 열한 사도와 나머지 모든 이들에게 전했다.
- 10 그 여자들은 마리아 막달라와 요안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말을 사도들에게 전했다.
- 11 그 말들이 그들에게 헛소리처럼 들려서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 12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자루만이 혼자 놓여 있는 것을 보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 13 그날, 그들 가운데 돌이 예루살렘에서 육십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 14 그들은 일어난 모든 일을 서로 나누어 이야기했다.
- 15 그들이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와서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하셨다.
- 16 그러나 그들의 눈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막혀 있었다.
- 17 그분이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걷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며 슬퍼하고 있느냐?"
- 18 그들 중 한 사람인 클레오파스가 대답했다. "너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 중에서, 이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을 모르는 유일한 외지인인가?"
- 19 그분이 그들에게 물으셨다. "어떤 일들인가?"
- 20 주교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는 이야기다.
- 21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기대했다. 게다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지 벌써 사흘째이다.
- 22 또한 우리 중 몇 명의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가서,
- 23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 천사들은 그분이 살아 계시다고 말했다고.
- 24 우리 중 몇 사람이 무덤에 가 보니,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지만, 그들은 그분을 보지 못했다."
- 25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느린 것이냐?"
-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겪고서야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 27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그는 성경 전체에서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 28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더 나아가려는 척하였다.
- 29 그들이 그에게 간청하며 말했다.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해가 저물고 날이 이미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 30 그가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받아 축복한 후, 떼어 그들에게 주었다.
- 31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 그를 알아보았으나, 그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 32 그들이 서로 말했다. "길을 가며 그가 우리에게 말할 때와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 33 그들은 바로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열한 사도와 그들과 함께 모여 있는 이들을 발견하였다.
- 34 그들이 말했다. "주님은 진실로 부활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 35 그들은 길에서 일어난 일들과 빵을 떼실 때에 그를 알아보았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 36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 37 그러나 그들은 놀라서 무서워하며, 영을 보았다고 생각하였다.

38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왜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39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 자신이다. 내게 손을 대고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40 이 말을 마친 후, 그는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41 그들이 기쁨에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 있을 때,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42 그들이 구운 생선 한 조각과 꿀이 든 벌집을 드렸다.

43 그가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먹었다.

44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내게 관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45 그리고 그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이해하게 하셨다.

46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며,

47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의 사함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48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49 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나 위에서 온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50 그는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였다.

51 그가 그들을 축복하고 있을 때, 그분은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

52 그들은 그를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며,

53 계속해서 성전에 머물며 하느님을 찬양하고 축복하였다. 아멘.

요한 복음서 | John

요한 복음서 1장

- 1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느님이셨다.
- 2 이 말씀은 태초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 3 모든 것이 그를 통해 만들어졌고, 그가 없으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 5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어둠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였다.
- 6 하느님께로부터 보내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 7 그는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 8 그는 빛이 아니었고, 빛에 대해 증언하게 하려고 보내어졌다.
- 9 모든 사람을 밝히는 참 빛이 세상으로 오고 있었다.
- 10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를 통해 만들어졌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 11 그가 자기 것들에게 오셨으나, 자기 것들이 그를 받지 않았다.
- 12 그러나 그를 받은 자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 13 이들은 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느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으니, 아버지의 외아들로서의 영광으로, 은총과 진리로 가득하였다.
- 15 요한은 그에 대해 증언하였다. 그가 외쳐 말하였다. "내가 말한 이가 곧 이분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뛰어나신 데, 이는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 16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은총 위에 은총을 받았다.
- 17 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고,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었다.
- 18 누구도 한 번도 하느님을 보지 못하였다. 아버지의 품에 있는 외아들이 그를 밝히셨다.
- 19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그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묻는 그의 증언이다.
- 20 그는 부인하지 않고 분명히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 21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누구냐? 엘리야냐? 예언자냐?"
- 22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보낸 자들에게 돌려줄 대답을 주어라. 너는 자신을 어떻게 말하느냐?"
- 23 그가 말하였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하신 이사야 예언자의 말이다."
- 24 보내진 자들은 바리사이들이었다.
- 25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며, 예언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 26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신 한 분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 27 그는 나 뒤에 오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 28 이 일들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저편 베다니에서 일어났습니다.
- 29 다음 날, 요한은 예수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는 하느님의 어린 양."
- 30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분입니다. "나 뒤에 오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앞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 31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러 온 이유는,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 32 요한이 증언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성령을 비둘기처럼 보았습니다."

- 33 나도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신 분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
- 34 나는 보았고, 이분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증언했습니다.
- 35 다시 다음 날, 요한은 두 제자와 함께 서 있었다.
- 36 그가 예수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말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 37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 38 예수는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 39 그가 대답했다. "오너라. 보아라."
- 40 요한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아였다.
- 41 그는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말했다. "우리는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 42 그는 시몬을 예수에게 데려갔다. 예수는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곧 베드로라는 뜻이다.)
- 43 다음 날, 예수는 갈릴리로 나가기로 결심하셨고, 필리포스를 만나셨다. 예수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 44 필리포스는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베타사이다 출신이었다.
- 45 필리포스는 나다나엘을 찾아서 말했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쓴 그분을 찾았습니다.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 46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했다.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무엇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 47 예수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속임이 없다."
- 48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 49 나다나엘은 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라비,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 50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네가 믿느냐?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 51 그는 그에게 말했다.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곧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 복음서 2장

- ¹ 세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다.
- ²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다.
- ³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포도주가 없습니다."
- ⁴ 예수께서 그에게 말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 ⁵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했다. "그가 무엇이랴 하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 ⁶ 유대인들이 정결하게 하는 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각각 이 세 또는 삼 세 정도 들어갔다.
- ⁷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다. "물로 항아리를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 항아리들을 가득 채웠다.
- ⁸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지금 일부를 떠서 잔치의 주관자에게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가져갔다.
- ⁹ 잔치의 주관자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 (물만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주관자가 신랑을 불러서,
- ¹⁰ 그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보통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많이 마신 후에야 덜 좋은 것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셨습니까!"
- ¹¹ 이것이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이 표적을 통해 그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
- ¹² 이 일 후에, 예수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며칠을 지냈다.
- ¹³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 ¹⁴ 그가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들을 파는 자들과 돈을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 ¹⁵ 그는 줄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돈을 바꾸는 자들의 돈을 뒤집어 흘리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셨다.
- ¹⁶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십시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치는 시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 ¹⁷ 그의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바,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기억했다.
- ¹⁸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 주십니까?"
- ¹⁹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했다. "이 성전을 헐어 버려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 ²⁰ 유대인들이 말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사십육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합니까?"
- ²¹ 그러나 그가 말한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다.
- ²²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 ²³ 예수께서 유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 ²⁴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말하지 않으셨다. 그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 ²⁵ 그는 어떤 사람도 사람에게 대해 증언할 필요가 없으셨다. 그분 자신이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요한 복음서 3장

- 1 바리사이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 2 그는 밤에 예수에게 와서 말했다. "라비, 우리는 당신이 하느님께서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이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3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
- 4 니고데모가 그에게 말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 5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 6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 7 내가 "너희는 모두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놀라지 말아라.
- 8 바람은 뜻하는 대로 불어, 네가 그 소리를 듣지만,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자도 모두 그러하다.
- 9 니고데모가 그에게 대답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 10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 1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지만,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 12 내가 땅에서 일어난 일을 말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 13 하늘로 올라간 이는 단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뿐이다. 그는 하늘에 있다.
-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 역시 들어 올려져야 한다.
- 1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 16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 17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다. 세상이 그를 통해 구원받게 하려고 보내셨다.
- 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가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 19 이것이 심판이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였으니,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다.
- 20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으니, 그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21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아가, 그의 행위가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게 한다.
- 22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내려가셨다. 그분은 거기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세례를 베푸셨다.
- 23 요한도 살림 가까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 그곳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
- 24 요한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 25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례에 관해 다툼이 생겼다.
- 26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다. "라비, 당신이 요단 강 저편에 있었고, 당신이 증언했던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27 요한이 대답했다. "사람은 하늘에서 주어지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 28 여러분도 내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나는 그 앞에 보내어졌다"고 말했음을 증언합니다.
- 29 신부를 가진 자는 신랑이며,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내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 30 그는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 31 위에서 오는 자는 모든 이 위에 있습니다. 땅에서 온 자는 땅에 속하고 땅의 일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자는 모든 이

위에 있습니다.

³²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지 않습니다.

³³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느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의 증언에 인장을 찍습니다.

³⁴ 하느님이 보내신 자는 하느님의 말을 합니다. 하느님은 측량할 수 없이 성령을 주십니다.

³⁵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³⁶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아들을 복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느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릅니다.

요한 복음서 4장

- 1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세우고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아시고,
- 2 (예수께서는 친히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베풀었기 때문에),
- 3 그분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떠나셨다.
- 4 그분은 사마리아를 지나야 했다.
- 5 그래서 그분은 사마리아의 시카르라는 도시에 이르렀다. 이곳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가까이었다.
- 6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는 여행으로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 그때는 육시쯤이었다.
- 7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이 물을 길으러 왔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마실 것을 주십시오."
- 8 그의 제자들은 도시에 가서 음식을 사러 갔다.
- 9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라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 10 예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과,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네게 산 물을 주었을 것이다."
- 11 여자가 그에게 말했다. "주님, 물을 길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그 산 물을 얻으십니까?"
-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주고, 그와 그의 자손과 가축이 모두 이 물을 마셨는데, 당신은 그보다 더 위대하신가요?
- 13 예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 15 여자가 그에게 말했다.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물을 길지 않게 되겠습니까?"
- 16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 오십시오. 그리고 여기로 오십시오."
- 17 여자가 대답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 18 당신은 다섯 명의 남편을 가졌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은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한 것이 참입니다."
- 19 여자가 그에게 말했다. "주님, 저는 당신이 예언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숭배했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숭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21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를 믿으십시오. 때가 오는데,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너희가 아버지를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 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숭배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숭배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온다."
- 23 그러나 때가 오고, 지금이 바로, 참된 숭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숭배할 때이다. 아버지는 이런 자들을 숭배자로 찾으신다."
- 24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숭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숭배해야 한다."
- 25 여자가 그에게 말했다. "나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압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라 불립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 26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이다. 나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 27 그때 제자들이 왔다. 그들은 그가 여자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있느냐?" 또는 "왜 그녀와 말하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았다.
- 28 그러자 여자는 물동이를 그대로 두고 성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 29 "오셔서, 내가 한 일을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곧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 30 그들은 성에서 나와 그에게로 나아갔다.
- 31 그동안 제자들이 그에게 재촉하며 말했다. "라비, 먹으십시오."
- 32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것이 있다."

33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물었다. "누군가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준 것인가?"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다. "내 먹을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35 "너희는 '네 달이 지나야 수확이 온다'라고 말하지 않는가?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들을 바라보아라. 이미 희게 익어 수확할 준비가 되어 있다."

36 수확하는 자는 보상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열매를 모은다. 이는 뿌리는 자와 수확하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다.

37 이것은 진실한 말입니다. '한 사람이 뿌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38 나는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냈다. 다른 이들이 수고했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게 되었다.

39 그 도시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를 믿었다. 그 여자는 "그분이 내가 한 모든 일을 다 말씀해 주셨다"고 증언했다.

40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머물도록 간청했다. 그는 거기서 이들을 머물렸다.

41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믿었다.

42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접 듣고, 이분이 진실로 세상의 구세주인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43 이를 후에 그는 거기서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44 예수께서 자신이 자신의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이다.

45 그러므로 그가 갈릴리에 오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은 그를 맞이했다. 그들은 그가 유대에서 축제 동안 하신 모든 일을 보았고, 그들도 그 축제에 갔기 때문이다.

46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의 가나로 가셨다. 거기서 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캐파르나움에서 아들이 병든 한 귀족이 있었다.

47 그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나아가 아들을 고쳐 주시기를 간청했다. 아들은 죽게 되어 있었다.

48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49 그 귀족이 그에게 말했다.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50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말을 믿고 떠났다.

51 그가 내려오던 중, 그의 하인들이 그를 만나며 말했다.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52 그래서 그는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물어보았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어제 일곱 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53 그러므로 아버지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네 아들이 살아 있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임을 알았다. 그는 믿었고, 그의 온 집안도 믿었다.

54 이것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예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요한 복음서 5장

- 1 이 일들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고,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 2 예루살렘에는 양문 가까이에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못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르는 바, 다섯 개의 복도가 있다.
- 3 이곳에는 눈먼 자, 절름발이, 마비된 자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 4 어떤 때에는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흔들었고,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게 되었다.
- 5 그곳에 삼십팔 년 동안 병이 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
- 6 예수는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이미 오래동안 병이 있었음을 알고 그에게 물으셨다. "네가 낫고 싶은가?"
- 7 병든 사람이 대답했다. "주님, 물이 흔들릴 때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려고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 8 예수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라."
- 9 즉시 그 사람은 낫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 10 그러자 유대인들이 낫게 된 그에게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다. 자리를 들고 다니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 11 그가 대답했다.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라'라고 말했다."
- 12 그러자 그들이 물었다. "자리를 들고 걸어라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 13 그러나 낫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 예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 곳에서 떠나가셨기 때문이다.
- 14 그 후 예수는 성전에서 그를 만나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너는 낫게 되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래야 더 나쁜 일이 너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 15 그 사람은 떠나가서 유대인들에게 그가 낫게 된 이가 예수임을 알렸다.
- 16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박해하여 그를 죽이려 하였다. 그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이다.
- 17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하고 있다."
- 18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 하였다. 그가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느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여 자신을 하느님과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 19 예수는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만 한다.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
- 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자기가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 주신다. 그는 이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 주실 것이니, 너희가 놀라게 될 것이다.
- 21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생명을 주듯이, 아들도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준다.
- 22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 23 이는 모든 사람이 아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존중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 24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느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오고,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들은 자들은 살 것이다.
- 26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고 계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도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게 하셨다.
- 27 그분은 또 그에게 심판을 실행할 권한을 주셨다. 이는 그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 28 이것에 놀라지 마라.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올 것이다.
- 29 그러면 나을 것이다. 선한 일을 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위해, 악한 일을 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위해.
- 30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의로운데, 이는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다.
- 31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않다.

- 32 나에 대해 증언하는 이는 다른 분이다. 그가 나에 대해 증언하는 증언이 진실임을 나는 안다.
- 33 너희는 요한에게 보냈고, 그는 진실에 대해 증언하였다.
- 34 그러나 내가 받는 증언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을 하는데,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 35 그는 타오르고 빛나는 등불이었고,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에서 기뻐하려고 기꺼이 했다.
- 36 그러나 내가 받는 증언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크다. 이는 아버지가 내게 행하게 하신 일, 곧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이 내에 대해 증언하여,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 37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셨다. 너희는 그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고, 그의 형체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 38 너희는 그가 보낸 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지 않는다.
- 39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성경 안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연구한다. 이 성경들이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 40 그러나 너희는 내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 41 나는 사람들의 영광을 받지 않는다.
- 42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고 있다. 너희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 43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는 나를 받지 않는다. 만약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을 것이다.
- 44 서로로부터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너희가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 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한 분 있다. 바로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이다.
- 46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도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이다.
- 47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요한 복음서 6장

- 1 이 일들 후에 예수는 갈릴리 바다, 곧 티베리아스 바다의 저편으로 가셨다.
- 2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그들은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의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 3 예수는 산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
- 4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 5 예수는 눈을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이 먹게 하겠느냐?"
- 6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계셨으므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 7 빌립이 대답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을 만큼 빵을 사려면 이백 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 8 그의 제자 중 한 명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말했다.
- 9 "여기 한 아이가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 10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히게 하라."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남자들이 앉아서, 약 오천 명이 되었다.
- 11 예수는 빵을 받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은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셨다.
- 12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조각들을 주워 모아서 아무것도 버리지 말라."
- 13 그들이 모아서, 먹고 남은 보리 빵 다섯 개에서 열두 바구니에 가득 채웠다.
- 14 사람들이 예수가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참 예언자이다."
- 15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힘으로 끌고 와서 자기에게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 16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다.
- 17 그들은 배에 올라 카파르나움으로 건너가려 했다.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다.
- 18 바다는 강한 바람이 불어 거칠게 요동쳤다.
- 19 그들이 이십오 또는 삼십 스타디온을 노를 저은 후,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 20 그러나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러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 21 그들은 그분을 배에 태우려고 기꺼이 했다. 곧 배가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
- 22 다음 날, 바다 저편에 서 있던 무리가 그곳에 다른 배가 하나도 없고, 제자들이 탄 배밖에 없다는 것을 보았으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혼자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 23 그러나 티베리아스에서 온 배들이, 주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그들이 빵을 먹었던 곳 근처에 도착했다.
- 24 무리가 예수도 없고 제자들도 없다는 것을 보고, 스스로 배에 올라 카파르나움으로 가서 예수를 찾았다.
- 25 그들이 바다 저편에서 그를 만나자, 그들이 물었다. "라비, 당신은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 26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 27 썩어 없어질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까지 남아 있는 음식을 위해 일하라.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그 음식을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를 인봉하셨기 때문이다."
- 28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이란, 그분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 30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기 위해 어떤 표적을 보여 주십니까? 당신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 31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그가 하늘에서 빵을 주어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3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모세가 하늘에서 빵을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참된 빵을 너희에게 주신다."

33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34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주님, 항상 이 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3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않으며,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너희는 나를 보았지만 믿지 않는다.

37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모든 사람은 나에게 올 것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결코 내보내지 않겠다.

38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다.

39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그가 나에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모두 일으키는 것이다.

40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겠다.

41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그에 대해 수군거렸다.

42 그들은 말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그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가?"

43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그를 끌어오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겠다.

45 예언서에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운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온다.

46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느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48 나는 생명의 빵이다.

49 당신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습니다.

50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입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내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빵은 바로 내 육체이다.

52 그러자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며 말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육체를 먹게 할 수 있단 말인가?"

53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육체를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54 내 육체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켜 올릴 것이다.

55 내 육체는 참으로 진정한 음식이고, 내 피는 참으로 진정한 음료이다.

56 내 육체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른다.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산 것처럼, 나를 먹는 자도 나 때문에 산다.

58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같지 않다. 그들은 죽었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59 예수께서는 갈릴리의 카파르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이 말들을 하셨다.

60 이 말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말했다. "이 말은 어렵습니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61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말에 대해 속으로 불평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가?"

62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3 영이 생명을 준다. 육체는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64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

65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내 아버지께서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말이다."

- ⁶⁶ 이 말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 ⁶⁷ 그러자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도 떠나고 싶은가?"
- ⁶⁸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당신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 ⁶⁹ 우리는 믿고 알았습니다. 당신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 ⁷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열두 명을 택하지 않았느냐?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다."
- ⁷¹ 그분은 열두 명 중 하나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는 예수를 배반할 자였다.

요한 복음서 7장

- 1 이 일들 후에 예수는 갈릴리에서 다니셨다. 유대에서 다니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 2 유대인들의 명절, 곧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
- 3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말했다.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라. 그러면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하는 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4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알려지려 하면서도 비밀리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네가 이런 일을 한다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라.
- 5 그의 형제들조차도 그를 믿지 않았다.
- 6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고, 너희의 시간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 7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나는 그것을 미워한다. 내가 그것의 행위가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 8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는다. 내 시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9 이 말을 한 후에 그는 갈릴리에 머물렀다.
- 10 그러나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도 올라갔다.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비밀리에 올라갔다.
- 11 유대인들이 명절 동안 그를 찾으며 말했다. "그는 어디 있는가?"
- 12 우리들 사이에서 그에 관해 수많은 수군거림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아니, 그는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말했다.
- 13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그에 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 14 명절이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예수는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다.
- 15 유대인들이 놀라며 말했다. "이 사람은 배운 바가 없는데 어찌 글을 알까?"
- 16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 17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가르침이 하느님에서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 18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진실하며, 그 안에는 불의가 없다.
- 19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가?
- 20 우리가 대답했다. "네가 마귀에게 붙었구나! 누가 너를 죽이려 하는가?"
-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모두 기이하게 여기고 있다."
- 22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는데(그것이 모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온 것이다), 너희는 안식일에도 소년에게 할례를 베푼다.
- 23 소년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아 모세의 율법이 깨어지지 않게 한다면,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을 온전히 건강하게 만들었으므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는가?
- 24 겉보기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을 하라.
- 25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 중 일부가 말했다. "이분이 바로 그들이 죽이려 하는 사람 아니십니까?"
- 26 보십시오, 그분은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과연 지도자들이 이분이 진실로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 27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올 때는 아무도 그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 28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외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고 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진실하시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 29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나를 보냈다.
- 30 그러므로 그들은 그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그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 31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를 믿었다. 그들이 말했다. "그리스도가 오면 이 사람이 행한 표적들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지 않을까요?

32 바리새인들은 무리가 이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를 체포하려 사절들을 보냈다.

33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와 조금 더 함께 있을 것이다. 그 후에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34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지만,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35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 말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서 우리가 그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인가? 그가 헬라인들 사이에 흠어져 있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려 하는가?"

36 "그가 말한 이 말,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지만, 찾지 못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인가?"

37 축제의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셔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안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39 그는 이 말씀을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관해 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40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진실로 예언자다."라고 말했다.

41 다른 이들은 말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말했다. "그리스도가 갈릴래아에서 나오겠는가?"

42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오고,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43 그로 인해 무리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44 어떤 이들은 그를 체포하려 했으나,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45 그러자 관리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말했다. "어째서 그를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46 관리들이 대답했다.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결코 없었습니다!"

47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너희도 미혹당하려 하는가?"

48 지도자들 중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누구도 그를 믿었느냐?

49 이 무리는 율법을 모르므로 저주받은 자들이다.

50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는 밤에 예수에게 갔던 자로,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51 우리 율법이 먼저 그 사람에게서 직접 듣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을 판단하겠습니까?

52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아라.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53 모든 사람은 자기 집으로 갔다.

요한 복음서 8장

- 1 그러나 예수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 2 아침 일찍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오셨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로 나아왔다. 그분은 앉아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 3 서기관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녀를 가운데 세웠다.
- 4 그들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 5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여자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 6 그들은 그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말했고, 그를 고발할 근거를 얻고자 했습니다.
- 7 그러나 그들이 계속 물어보자, 예수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 8 그리고 그분은 다시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 9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양심에 책망을 받아, 어른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나가기 시작했다. 결국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가운데 서 있는 그 자리에 혼자 남으셨다.
- 10 예수께서 일어나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여자야, 네를 고발한 자들은 어디 있느냐? 네게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 11 그녀가 말했다. "아무도 없으니이다, 주님."
- 12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걸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 13 그러자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증언합니다. 당신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14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증언하더라도, 내 증언은 참이다.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 15 너희는 육신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 16 비록 내가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내 판단은 참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 17 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유효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 18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증언하는 자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하신다.
- 19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 20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보물고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그분을 잡는 자가 없었으니,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 21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떠나가고,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며, 너희는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 22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다. "그가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하니,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인가?"
- 23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나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의 것이고, 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 24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너희가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 하였으니, 내가 그이심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 25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 26 나는 당신에 관해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진실하십니다. 내가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내가 세상에 말합니다.
- 27 그들은 그가 아버지에 관해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 28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렸을 때, 내가 그임을 알게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 말을 합니다."

- 29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항상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 30 그가 이 말을 할 때,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다.
-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무르면, 진실로 내 제자들이 될 것이다."
- 32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 33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결코 누구에게도 종으로 팔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까?"
-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다."
- 35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 아들은 영원히 머문다.
-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 37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 38 나는 아버지께서 보신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보신 것을 한다.
- 39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 40 그러나 지금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 41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일을 한다.
- 42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다. "만약 하느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나는 하느님께로부터 나와서 왔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보냈다."
- 43 왜 너희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 44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의 자손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욕망을 행하려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 스스로 말한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 45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 46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망할 수 있는가? 내가 진리를 말하면, 왜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가?
- 47 하느님의 자손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이다.
- 48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당신은 사마리아인이고, 귀신이 들렸습니다."
- 4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존경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 50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구하고 심판하는 이가 한 분 계신다.
- 51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 52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네가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안다. 아브라함은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네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한다."
- 53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더 큰가? 그는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다. 너는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 5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는 너희가 우리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내 아버지이다."
- 55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를 안다. 내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을 지킨다.
- 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려고 기뻐하였다. 그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 57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아직 쉰 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나?"
- 5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다."
- 59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려 했지만, 예수는 숨으셔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그들이 사이를 지나가며 떠나셨다.

요한 복음서 9장

- 1 그가 지나가시면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은 사람을 보셨다.
- 2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습니까?"
- 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도 죄를 지지 않았고, 그의 부모도 죄를 지지 않았다. 다만 하느님의 사업이 이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 4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 5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 6 이렇게 말씀하신 후, 그분은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만들며, 눈이 멀은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다,
- 7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는 가서 씻고, 보게 되어 돌아왔다.
- 8 그러므로 이웃들과 그가 전에 눈이 멀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바로 전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 9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맞다." 하고 말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는 그와 닮았다." 하고 말했다.
- 10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네 눈은 어떻게 열렸느냐?"
- 11 그가 대답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만들어 내 눈에 바르고, 나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하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가서 씻었고, 보게 되었다."
- 12 그러자 그들이 물었다. "그는 어디 있느냐?"
- 13 그들은 눈이 멀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다.
- 14 예수가 진흙을 만들고 그의 눈을 열었던 날은 안식일이었다.
- 15 바리새인들이 다시 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 16 그러자 바리새인들 중 일부는 말했다. "이 사람은 하느님에서 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 17 그러자 그들이 눈이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네 눈을 열어 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 18 유대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 19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너희 아들인지?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고 말하는 그 아이가 맞느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 20 그의 부모가 대답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임을 알고,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을 압니다."
- 21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모르고, 누가 그의 눈을 열어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성인이니,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 22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은 이미, 누구든지 그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합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 23 그러므로 그의 부모는 말했다. "그는 성인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 24 그러자 그들은 눈이 멀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했다.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 25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그가 죄인인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는 알겠습니다. 내가 눈먼 채로 태어났으나,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 26 그들이 그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네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네 눈을 열었느냐?"
- 27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이미 말해 드렸는데, 너희는 듣지 않았다. 다시 듣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은가?"
- 28 그들이 그를 모욕하며 말했다. "네가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 29 우리는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우리는 모른다.
- 30 그 남자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너희는 그가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른 채, 그가 내 눈을 열었다."
- 31 우리는 주님이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 32 세상이 시작된 이래,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여는 일을 들은 적이 없다.
- 33 이 사람이 하느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 34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너는 온전히 죄악 속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가르치려는가?" 그리고 그들은 그를 내쫓았다.
- 35 예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며 말했다.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 36 그가 대답했다.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게 하려면요."
- 3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를 보았고, 지금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그이다."
- 38 그가 말했다. "주님, 제가 믿습시다!" 그리고 그는 그를 경배했다.
- 39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에 심판을 위해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고, 보는 자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고."
- 40 그와 함께 있던 바리사이들이 이 말을 듣고, 그에게 말했다. "우리도 눈먼 자입니까?"
- 4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먼 자였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우리는 본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죄가 남아 있다."

요한 복음서 10장

- 1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로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고 다른 길로 기어 올라가는 자는 도둑이고 강도이다.
- 2 그러나 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는 양의 목자이다.
- 3 문지기가 그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는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내어 놓는다.
- 4 자기 양들을 모두 내보낼 때마다 그는 앞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르며,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 5 그들은 결코 낯선 자를 따르지 않고 도망친다. 그들은 낯선 자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6 예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 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 8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고 강도들이다. 그러나 양들은 그들에게 듣지 않았다.
- 9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고 나가며 풀밭을 찾을 것이다.
- 10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왔다.
- 11 나는 좋은 목자이다.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는다.
- 12 사금은 목자가 아니고, 양을 소유하지도 않으며, 늑대가 오는 것을 보고 양을 버리고 도망친다. 늑대는 양을 빼앗아 흠여 버린다.
- 13 사금은 도망친다. 그는 사금이고, 양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 14 나는 좋은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 15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 놓는다.
- 16 나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그들도 데려와야 하며, 그들은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들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를 따를 것이다.
- 17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내 생명을 내어 놓고, 다시 얻기 때문이다.
- 18 누구도 내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내어 놓는다. 내가 내어 놓을 힘이 있고, 다시 얻을 힘도 있다. 나는 이 명령을 아버지께 받았다.
- 19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 20 많은 이들이 말했다. "그는 귀신이 들렸고, 미쳤다! 왜 너희는 그의 말을 듣느냐?"
- 21 다른 이들은 말했다.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눈먼 자의 눈을 열 수 있겠느냐?"
- 22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헌 축제가 있었다.
- 23 그때는 겨울이었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솔로몬의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
- 24 유대인들이 예수께 둘러싸여 말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는 겁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 25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만,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한다."
- 26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이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 27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28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으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
- 29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 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 31 이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집어 그를 쳐죽이려 했다.
- 3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 아버지로부터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 주었다. 그 중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는가?"
- 33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선한 일 때문에 네가 돌로 맞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 때문이다. 네가 사람인데도 스스로 하느님을 삼았기 때문이다."

³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³⁵ 하느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자들을 그가 신들이라 부르셨다면, 성경은 깨어지지 않는다.

³⁶ 그러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그분에게, 내가 '나는 하느님의 외아들이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너희는 '네가 신성모독을 한다'고 말하는가?"

³⁷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말아라.

³⁸ 그러나 내가 한다면, 비록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믿어라. 그리하여 너희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고 믿게 되기를 원한다."

³⁹ 그들은 다시 그를 붙잡으려 했으나, 그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갔다.

⁴⁰ 그는 다시 요르단 강 저편으로 가서, 처음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머물렀다.

⁴¹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아왔다. 그들이 말했다. "요한은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이 진실이다."

⁴² 거기서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다.

요한 복음서 11장

- 1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베다니에 사는 라자로였고, 그는 마리아와 그의 누이 마르타의 형이었다.
- 2 이 마리아는 주님에게 향유를 바르고 그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자였으며, 그의 형 라자로가 병들었던 자이다.
- 3 그 누이들은 그에게 보냈다. 그들이 말했다.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 4 예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음에 이르지 않으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니, 하느님의 아들이 이를 통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5 예수께서는 마르타와 그의 누이, 그리고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 6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자신이 있던 곳에서 이들을 더 머물렀다.
- 7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가자."
- 8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다. "라비, 유대인들은 방금 전 당신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거기서 가려 합니까?"
- 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에는 열두 시간이 있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으면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다."
- 10 그러나 사람이 밤에 걸으면 발걸음이 흔들리니,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 11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는 또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라자로를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잠에서 깨우려 한다."
- 12 제자들이 말했다.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나을 것입니다."
- 13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가 잠자며 쉬신다고 생각했다.
- 14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라자로를 죽였다."
- 15 너희가 믿게 하려고, 내가 그곳에 없었던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 16 디디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했다. "우리도 가서 그와 함께 죽읍시다."
- 17 예수가 도착했을 때, 라자로를 이미 무덤에 사흘 동안 있었다.
- 18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었고, 약 십오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다.
- 19 유대인 중 많은 이들이 마르타와 마리아 주변에 모여, 그들의 형에 대해 위로하였다.
- 20 마르타는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그를 맞이했지만, 마리아는 집에 머물러 있었다.
- 21 그래서 마르타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만약 여기 계셨다면, 제 형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 22 지금이라도 저는, 주님이 하느님께 무엇을 구하시든, 하느님께서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 23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 24 마르타가 그에게 말했다. "저는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 25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 26 나를 믿고 살아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 27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네, 주님. 저는 당신이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인 분, 세상에 오시는 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 28 그녀가 이렇게 말한 후, 떠나서 자기 누이 마리아를 불러 속삭였다. "선생님이 오셔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 29 그녀가 이 말을 듣고 곧 일어나 그에게로 갔다.
- 30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않으셨고, 마르타가 그를 만난 곳에 계셨다.
- 31 그때 집에 함께 있어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빠르게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를 따라갔다. 그들이 말했다. "그녀가 무덤에 가서 거기서 울려는 모양이구나."
- 32 마리아가 예수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말했다. "주님, 만약 여기 계셨다면, 제 형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 33 예수께서 그녀가 울고,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울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영 안에서 탄식하시며 슬퍼하셨다.
- 34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를 어디에 놓았느냐?"

- 35 예수께서 울으셨다.
- 36 유대인들이 말했다. "보아라,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 37 어떤 이들은 말했다. "이 눈이 멀었던 자의 눈을 열었던 이가, 이 사람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말인가?"
- 38 예수께서 다시 마음속으로 탄식하시며 무덤에 다가가셨다. 그 무덤은 동굴이었고, 돌이 그 입구에 놓여 있었다.
- 39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을 옮겨라."
- 40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 41 그들이 죽은 자가 누워 있던 곳에서 돌을 옮겼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42 저는 항상 저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주변에 서 있는 무리들이 당신이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했습니다."
- 43 그가 이 말을 마치자, 큰 소리로 외쳤다. "라자로야, 나와라!"
- 44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과 발은 붕대로 감싸였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여 있었다.
- 45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 46 그러나 그 중 일부는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모두 말했다.
- 47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이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가?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다."
- 48 만일 우리가 이렇게 그를 방치하면, 모두가 그를 믿을 것이고,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 49 그러나 그 해 대제사장이었던 그들 중 한 사람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 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리하면 온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 51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고, 그 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 나라를 위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 52 그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한 몸으로 모으기 위해 그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 53 그러므로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 54 그러므로 예수는 더 이상 유대인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다니지 않고, 광야 가까운 지방으로 떠나 에프라임이라는 도시에 머물렀다. 그는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 55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전에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했다.
- 56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서 서로 말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축제에 오지 않을까?"
- 57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이들은 누구든지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알려 달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예수를 잡으려 했다.

요한 복음서 12장

- 1 유월절 여섯 날 전에 예수께서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신 바 있는 라자로가 있는 베다니에 이르셨다.
- 2 그들이 그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였다. 마르타가 봉사하였고, 라자로도 그와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중 한 명이었다.
- 3 그러므로 마리아는 순수한 나드 향유 한 달란트를 가져와 예수의 발에 바르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 집 안에 향유의 냄새로 가득 찼다.
- 4 그러자 그를 배반할 예정이었던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 5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6 그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도둑이었고, 돈 상을 맡고 있었으므로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훔쳐 먹었기 때문이다.
- 7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방치하여라. 그녀는 내 장례를 위해 이 것을 간직해 두었다.
- 8 너희는 항상 가난한 자를 곁에 두고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다.
- 9 그러므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가 거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보기 위함뿐 아니라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린 라자로를 보기 위해 몰려왔다.
- 10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라자로까지 죽이려 음모를 꾸몄다.
- 11 그가 그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떠나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 12 다음 날, 큰 무리가 축제에 왔다. 그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 13 종려나무 가지를 잡고 나가 그를 맞이하며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복되도다!”
- 14 예수께서 어린 당나귀를 찾아 타셨다. 이는 기록된 바와 같다.
- 15 “시몬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네 왕이 오신다. 당나귀 새끼에 앉아서.”
- 16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 일이 그에 관한 기록이었고, 그들이 그에게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기억하였다.
- 17 그러므로 예수께서 무덤에서 라자로를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그와 함께 있었던 무리가 그 일을 증언하였다.
- 18 이 때문에 무리도 나아가 그를 맞이하였으니, 그가 이 표적을 행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 19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보라, 세상이 모두 그를 따르고 있다.”
- 20 그때 축제에 나아가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중 일부 그리스인이 있었다.
- 21 그들이 갈릴리 벳새다 출신인 필리포스에게 나아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보고 싶습니다.”
- 22 필리포스가 가서 안드레아에게 말하고, 안드레아가 필리포스와 함께 가서 예수께 알렸다.
- 23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 25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 26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하실 것이다.
- 27 “지금 내 영혼이 괴로워한다. 내가 무엇이랴 말해야 할까? ‘아버지, 이 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나는 바로 이 때를 위해 온 것이다.
- 28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 29 그러므로 곁에 서서 이 소리를 들은 무리 중 일부는 천둥이 친 것이라 말했고, 다른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라고 말했다.
- 3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 31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 32 내가 땅에서 들려올라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끌어당길 것이다.”
- 33 그는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이 말을 하였다.
- 34 무리가 그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머무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들려올라가야 한다’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 35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동안 빛이 너희와 함께 있다. 빛이 있을 때에 걸어라.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않도록 하라. 어둠 속을 걷는 자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 36 빛이 있을 때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떠나서 그들 앞에서 숨으셨다.
- 37 비록 그가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들은 여전히 그를 믿지 않았다,
- 38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 39 이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 이사야가 다시 말하기를,
- 40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 41 이사야는 그의 영광을 보고 그에 관해 이 말을 하였다.
- 42 그러나 많은 지도자들도 그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여 고백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였다.
- 43 그들은 하느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하였다.
- 44 예수께서 외쳐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 45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다.
- 46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나를 믿는 자가 어둠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47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자를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 48 나를 거부하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 49 나는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명령하셨다.
- 50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한다.

요한 복음서 13장

- 1 유월절 전에 예수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왔음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 2 식사 중에, 악마가 이미 시몬의 아들인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다.
- 3 예수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고, 자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느님께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고 계셨다.
- 4 그는 식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 5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 6 그러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주님, 저의 발을 씻으십니까?"
- 7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 8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절대로 저의 발을 씻지 마십시오!"
- 9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주님, 저의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 주십시오!"
- 10 예수께서 그에게 말했다. "이미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온전히 깨끗하다. 너희는 깨끗하지만,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 11 그는 자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12 그리고 그가 제자들의 발을 씻고 겹옷을 입고 다시 앉아서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가 아느냐?"
- 13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하고 "주님"이라 한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나는 그러하다.
- 14 내가 주님이며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 15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하도록 하라.
- 16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크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
- 17 이 일을 알았으니, 그것을 행하면 복이 있다.
- 18 내가 너희 모두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구를 택했는지 나는 안다. 그러나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내가 빵과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향해 발을 들었다."고 기록되었다.
- 19 지금부터 내가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하여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 20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낸 자를 받는 자는 나를 받고, 나를 받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받는다.
- 21 예수가 이 말을 하자, 그의 영이 괴로워져서 증언하며 말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 22 제자들은 서로 바라보며,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의아해했다.
- 23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하나가 식탁에 기대어 예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었다.
- 24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 주십시오."
- 25 그는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 누워서, "주님,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 26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을 담가서 주는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빵을 담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주었다.
- 27 그가 빵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 28 식탁에 앉아 있는 이들 중 아무도 그가 왜 이 말을 한 것인지 알지 못했다.
- 29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상자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여, 예수께서 그에게 "축제를 위해 필요한 것을 사라."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인가 주라."고 말씀하신 줄로 알았다.
- 30 그러므로 그가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나갔다. 그때는 밤이었다.
- 31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느님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 32 하느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느님께서도 그를 자기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며, 곧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 ³³ 작은 아이들아, 나는 너희와 조금 더 오래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며,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고 이제 너희에게 말한다.
- ³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³⁵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³⁶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 ³⁷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주님, 왜 지금 제가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 ³⁸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요한 복음서 14장

- 1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느님을 믿고, 나를 또한 믿어라.
- 2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자리를 준비하러 가고 있다.
- 3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자리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올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려는 것이다.
- 4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 길도 알고 있다.
- 5 도마가 그에게 말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 6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 아니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아오지 못한다."
- 7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알고, 그를 보았다.
- 8 필리포스가 그에게 말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 9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필리포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달라'고 말하느냐?"
- 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
-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들 때문에 믿어라.
- 12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며, 그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 13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너희가 구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겠다.
- 1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 15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 16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그분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 17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분을 받지 못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살며, 너희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18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 19 잠시 후에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너희도 살아 있을 것이다.
- 20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 21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 22 유다(이스카리옷이 아닌)가 그에게 말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우리에게만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 23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다."
- 24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 25 나는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말들을 너희에게 했다.
- 26 그러나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곧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 27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긴다. 내가 너희에게 내 평화를 준다. 세상이 주는 것처럼 주지 않는다. 너희 마음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 28 내가 '나는 가고,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내가 아버지

께로 간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기뻐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²⁹ 지금 내가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³⁰ 이제 나는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는데,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

³¹ 그러나 세상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한다. 일어나자. 여기서 떠나자.

요한 복음서 15장

- 1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포도원지기이다.
- 2 나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모두 그분이 잘라내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깎아 내신다.
- 3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 4 나에게 머물러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머물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 5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다. 나에게 머물고 내가 그에게 머무는 자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6 만약 사람이 나에게 머물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으로 던져져 마르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운다.
- 7 너희가 나에게 머물고 내 말이 너희에게 머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를 위해 이루어질 것이다.
- 8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처럼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 9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 10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처럼.
- 11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무르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 12 이것이 내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 13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 14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행한다면, 너희는 내 친구이다.
- 15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부르는 데,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렸기 때문이다.
- 16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나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의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가 너희에게 주게 하려는 것이다.
- 17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음을 알라.
- 19 너희가 세상의 것이라면, 세상이 자기 것들을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것이 아니니,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 20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을 기억하라. '종은 주인보다 크지 않다.' 그들이 나를 박해했다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 21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22 내가 그들에게 오지 않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죄를 핑계할 수 없다.
- 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 24 내가 그들 사이에서 다른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나와 내 아버지를 모두 보고도 미워하였다.
- 25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였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려 함이니라.
- 26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려는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오면, 그가 나에게 대해 증언할 것이다.
- 27 너희도 증언할 것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요한 복음서 16장

- 1 나는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 일을 말해 주었다.
- 2 그들은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심지어 때가 오면, 누구든지 너희를 죽이면 자신이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 3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것이다.
- 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 일을 말해 주었다. 때가 오면, 내가 이 일을 말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이 일을 말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 5 지금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가고 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지 않는다.
- 6 내가 이 일을 말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 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 8 그가 오면, 죄에 관해, 의로움에 관해, 심판에 관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 9 죄에 관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 10 의로움에 관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 11 심판에 관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 12 나는 너희에게 아직도 많은 일을 말할 것이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
- 13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면, 그는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대로 말할 것이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 14 그는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 15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가 내 것에서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 16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 잠시 후에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 17 그러므로 그의 제자들 중 몇몇이 서로 말했다. "그가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잠시 후에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 18 그들은 말했다. "그가 말하는 '잠시 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 19 예수께서 그들이 묻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잠시 후에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너희가 서로 묻고 있는가?"
- 20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고 슬퍼할 것이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슬퍼할 것이지만,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 21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는 고통을 겪는다. 그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더 이상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세상에 한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이며, 그 기쁨 때문이다.
- 22 그러므로 지금 너희는 슬픔을 겪고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아무도 너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 23 그 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는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 24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 25 나는 너희에게 비유로 이 모든 일을 말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오면, 더 이상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대해 분명히 알려 주겠다.
- 26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해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 27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 28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 왔고,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²⁹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소서, 이제는 비유 없이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³⁰ 이제 우리는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시고, 누구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당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오셨음을 믿습니다."

³¹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지금은 믿느냐?"

³² 보라, 시간이 오고, 이미 왔다. 너희는 각자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고, 나를 혼자 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³³ 나는 너희에게 이 모든 일을 말해 왔다. 그래야 너희가 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겪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복음서 17장

-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들이 또 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소서."
- 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에 대한 권한을 주신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께서 아에게 주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입니다.
- 3 영원한 생명은 그들이 유일한 참 하느님인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 4 나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완수하였습니다.
- 5 이제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으로, 아버지의 자신과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 6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이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 7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 8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고 믿었습니다.
- 9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 10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은 내 것이며, 나는 그들 안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 11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주소서.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소서.
- 12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들을 내가 지켰고, 그들 중 누구도 잃지 않았습니다. 단지 멸망의 아들뿐입니다.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 13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세상에서 하며,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게 하려 합니다.
- 14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세상의 일부가 아니듯, 나도 세상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 15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16 그들은 세상의 일부가 아니듯, 나도 세상의 일부가 아닙니다.
- 17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 19 그들을 위해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 20 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게 될 이들도 위해 기도합니다.
- 21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는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 22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 23 나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나 안에 계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은,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 24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들도 나와 함께 나의 있는 곳에 있게 하소서. 그들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 25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지만, 저는 당신을 알았고, 이들도 당신이 저를 보내셨음을 알았습니다.
- 26 저는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렸고, 앞으로도 알릴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저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제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서 18장

-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시내를 건너 그곳에 정원이 있는 곳으로 가셨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그 정원에 들어가셨다.
- 2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그 장소도 알고 있었다. 예수는 자주 제자들과 그곳에서 모이셨기 때문이다.
- 3 유다는 병사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파견된 관리들을 데리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곳으로 왔다.
- 4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 5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 6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이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쓰러졌다.
- 7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 8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내가 그이다라고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놓아주어라."
- 9 이는 내가 "너희가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 10 시몬 베드로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치고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냈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 11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칼을 그 자루에 넣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 12 그러므로 병사단과 지휘관과 유대인들의 관리들이 예수를 붙잡아 결박하였다.
- 13 그들은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다.
- 14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조언한 자였다.
- 15 시몬 베드로는 예수를 따랐고, 또 다른 제자도 따랐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알고 지내는 사람이었으므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안뜰에 들어갔다.
- 16 베드로는 바깥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알고 지내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안으로 데려왔다.
- 17 문을 지키던 여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냐?"
- 18 그때 종들과 관리들이 불을 피워 놓고 서 있었다. 날이 추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몸을 녹이고 있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 19 대제사장은 예수에게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 물었다.
- 2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에 공개적으로 말하였다. 나는 항상 회당과 성전 같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가르쳤고, 비밀리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 21 "왜 나에게 물어보느냐? 내가 그들에게 말한 것을 그들이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아라. 보아라, 그들은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 알고 있다."
- 22 예수께서 이 말을 하자, 곁에 서 있던 한 관리가 예수의 뺨을 치며 말했다. "네가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대답하느냐?"
- 2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악한 말을 했다면, 그 악한 것을 증언하여라. 그런데 내가 선한 말을 했다면, 왜 나를 때리느냐?"
- 24 안나스는 결박된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 25 시몬 베드로는 서서 뜨겁게 몸을 녹이고 있었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너도 그의 제자 중 한 사람 아니냐?"
- 26 대제사장의 하인 중 한 사람이, 베드로가 그의 귀를 자른 사람의 친척이었는데, 그가 말했다. "내가 네가 정원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 27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고, 곧 닭이 울었다.
- 28 그들은 예수를 가이사스에게서 총독관으로 데려갔다. 이때는 아침이었고, 그들은 총독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는 자신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 유월절을 먹기 위함이었다.
- 29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에 대해 너희는 어떤 고발을 하느냐?"
- 30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이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를 네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 31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너희 법에 따라 판단하라."

- ³² 이는 예수가 말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나타내며 말하였다.
- ³³ 빌라도가 다시 총독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서 말했다.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 ³⁴ 예수는 그에게 대답했다. "네가 이 말을 스스로 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네게 말한 것이냐?"
- ³⁵ 빌라도가 대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네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 ³⁶ 예수는 대답했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 왕국은 여기에서 온 것이 아니다."
- ³⁷ 빌라도가 그에게 말했다. "그러면 너는 왕이냐?"
- ³⁸ 빌라도가 그에게 말했다. "진리란 무엇이냐?"
- ³⁹ 너희는 내가 유월절에 한 사람을 너희에게 풀어주는 관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 ⁴⁰ 그러자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쳐 말했다. "이 사람을 놓아주지 말고, 바라바를 놓아줘!" 바라바는 강도였다.

요한 복음서 19장

- 1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매질했다.
- 2 병사들이 가시로 왕관을 꼬아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혔다.
- 3 그들은 계속해서, "환호하소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외치며 그를 때렸다.
- 4 그러자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그를 너희에게 데려와서, 내가 그에게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함을 알게 하겠다."
- 5 예수는 가시 왕관과 자주색 옷을 입은 채 밖으로 나왔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보아라, 그 사람!"
- 6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박아라! 십자가에 못박아라!"
- 7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우리에게 법이 있습니다. 우리 법에 따라 그는 죽어야 합니다. 그가 스스로 하느님의 아들 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 8 빌라도가 이 말을 듣자 더욱 두려워졌다.
- 9 그는 다시 판무관 저택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 10 빌라도가 그에게 말했다. "너는 나에게 말을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풀어주거나 십자가에 못박을 권한이 없음을 모르느냐?"
- 11 예수는 대답했다. "위에서 주어지지 않았다면, 너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 12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외쳤다. "이 사람을 풀어주면, 너는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자는 카이사르를 반대한다."
- 13 빌라도가 이 말을 듣자 예수를 데려내어, "바닥"이라 불리는 곳, 히브리어로는 "가바타"라 불리는 재판석에 앉았다.
- 14 그때는 유월절의 준비 날이었고, 대략 여섯 시였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보아라, 너희 왕!"
- 15 그들이 외쳤다. "그를 끌어내라! 그를 끌어내라! 십자가에 못박아라!"
- 16 그러자 빌라도가 그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박히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데려가서 끌고 나갔다.
- 17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서,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불리는, "해골의 장소"라 불리는 곳으로 갔다.
- 18 거기서 그들을 십자가에 못박았고, 그와 함께 다른 둘도 함께 못박혔는데, 한쪽에는 하나, 가운데에는 예수가 있었다.
- 19 빌라도는 표지판도 써서 십자가 위에 달았다. 그 위에는 "나자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다.
- 20 많은 유대인들이 이 표지판을 읽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힌 곳이 성에 가까웠고, 그 글은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다.
- 21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그가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쓰라."
- 22 빌라도가 대답했다. "내가 쓴 것을 내가 그대로 두겠다."
- 23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후,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부분으로 나누어 각 병사에게 하나씩 주었고, 속옷도 가져갔다. 그런데 그 속옷은 위에서 아래로 뜨개질한 것이었고, 틈이 없었다.
- 24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누가 그것을 가질지 정하자." 이는 성경에 기록된 바, "그들이 내 옷을 나누어 각자에게 나누어 주었고,"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 25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어머니의 자매와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와 마그달라의 마리아가 서 있었다.
- 26 그러므로 예수께서 어머니를 보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께 말씀하셨다. "여자여, 보라, 네 아들이다."
- 27 그리고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네 어머니이다." 그때부터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 28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마쳐졌음을 알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말씀하셨다. "나는 목마르다."

- 29 거기에는 식초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해면에 식초를 가득 적셔서 우슬초에 꽂고 그의 입에 대었다.
- 30 예수께서 식초를 받으신 후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내어놓으셨다.
- 31 유대인들은 그날이 준비일이었고, 안식일에 시체들이 십자가에 남아 있지 않게 하려 했으며, 그 안식일이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부수고 시체들을 치워 달라고 청했다.
- 32 그러므로 군인들이 와서 먼저 십자가에 매달린 자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다른 자의 다리를 부수었다.
- 33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와서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의 다리를 부수지 않았다.
- 34 그러나 한 군인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르자 곧 피와 물이 나왔다.
- 35 본 자가 증언하였고, 그의 증언은 참이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니,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 36 이 모든 일이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일어났다. "그의 뼈는 하나도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 37 또 다른 성경은 말한다. "그들이 내가 찢린 이를 바라볼 것이다."
- 38 이 일 후에 아리마대의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비밀리에 행동했다.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 달라고 청했다. 빌라도가 허락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 39 처음에 밤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도 와서 몰약과 알로예를 섞어 백 루마 파운드쯤 가져왔다.
- 40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받아 향료와 함께 베 옷에 싸서 유대인의 장례 관습대로 묻었다.
- 41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곳에는 정원이 있었다. 정원 안에는 아직 아무도 안치지 않은 새 무덤이 있었다.
- 42 유대인의 준비일이었고, 무덤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 안장했다.

요한 복음서 20장

- 1 주일 첫날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으로 갔다. 그리고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음을 보았다.
- 2 그녀는 달려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가 사랑하던 다른 제자에게 가서 말했다. "주님을 무덤에서 옮겨가셨습니다. 어디에 두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 3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향했다.
- 4 두 사람이 함께 달렸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
- 5 그는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았고, 세마포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 6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 무덤에 들어갔다. 그는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 7 또 예수의 머리에 싸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말아서 한쪽에 놓여 있었다.
- 8 그러자 무덤에 먼저 도착한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 9 그때까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알지 못했다.
- 10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 11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녀가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을 들여다보니,
- 12 흰 옷을 입은 천사 두 명이 앉아 있었는데, 한 명은 머리 쪽에, 한 명은 발 쪽에, 예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에 있었다.
- 13 그들이 그녀에게 물었다.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 14 그녀가 이 말을 하자 뒤를 돌아보니, 예수가 서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임을 알지 못했다.
- 15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 16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마리아."
- 17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붙잡지 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께, 내 하느님과 너희 하느님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 18 마리아 막달레나가 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고, 그가 나에게 이 말을 하셨다고 알렸다.
- 19 그날 저녁, 곧 주일 첫날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모인 곳의 문들이 잠겨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 20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분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 21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 22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분은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 23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 죄는 사해될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를 간직하면, 그 죄는 간직될 것이다.
- 24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도마, 디디모스라 불리는 이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
- 26 여덟 날 후에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었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문이 잠겨 있어도 들어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이라고 말씀하셨다.
- 27 그리고 그분이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손가락을 가져다 대어 내 손을 보아라. 여기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의심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 28 도마가 그분에게 대답했다. "내 주님, 내 하느님!"
- 29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 믿었구나.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 30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표적을 제자들의 앞에서 행하셨다.
- 31 그러나 이 기록들은 너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며, 너희가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 복음서 21장

- ¹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가 이렇게 나타나셨다.
- ²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갈릴리 가나의 나사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 ³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낚시하러 가겠다."
- ⁴ 그러나 날이 이미 밝았을 때, 예수께서 해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 ⁵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이들아, 먹을 것이 있느냐?"
- ⁶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 ⁷ 그러므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주님이시다!"
- ⁸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로 왔다. (그들은 땅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 약 이백 규빗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끌고 왔다.
- ⁹ 그들이 땅에 올라가자, 숯불이 피어 있고, 그 위에 물고기와 빵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 ¹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잡은 물고기 중 몇 마리 가져오너라."
- ¹¹ 시몬 베드로가 나아가 그물을 땅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일백 오십삼 마리나 큰 물고기가 가득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음에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 ¹²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 ¹³ 그러자 예수께서 나아가 빵을 받아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주셨다.
- ¹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을 나타내신 일이었다.
- ¹⁵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 ¹⁶ 그가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 ¹⁷ 그가 세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 ¹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옷을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었을 때에는 네 손을 펴고 다른 사람이 네게 옷을 입히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 ¹⁹ 이 말씀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를 가리키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 ²⁰ 그러자 베드로가 돌아서서 뒤를 따르는 제자를 보았다. 이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로, 저녁 식사 중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 누구께서 당신을 배반하겠습니까?" 하고 묻던 그이었다.
- ²¹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했다. "주님, 이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 ²²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가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 ²³ 그러므로 이 말이 형제들 사이에 퍼져서, 이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가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 ²⁴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하였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진실함을 안다.
- ²⁵ 예수께서 하신 다른 일들도 많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모두 기록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조차도 기록될 책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 Acts

사도행전 1장

- ¹ 티오페루스님, 제가 먼저 쓴 책은 예수께서 행하시기 시작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 ² 그분이 성령을 통해 자신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을 내린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의 모든 일입니다.
- ³ 그분은 고난을 받은 후에 많은 증거로 살아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느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 ⁴ 그분은 그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려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 ⁵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 ⁶ 그들이 모여서 그분께 물었습니다. "주님, 지금 이때에 이스라엘을 위해 왕국을 회복하시려는 것입니까?"
- ⁷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안에 두신 것이므로,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 ⁸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오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 ⁹ 이 말을 마치신 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은 올라가셨고, 구름이 그분을 그들의 시야에서 가렸습니다.
- ¹⁰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그분이 올라가시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 ¹¹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 ¹² 그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산은 예루살렘 가까이 있으며,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 ¹³ 그들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머무는 뒤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필리포스, 도마, 바돌로메오, 마태오,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열성당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었습니다.
- ¹⁴ 이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기도와 간구에 힘쓰며, 여зал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 ¹⁵ 그때에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때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수는 약 백이십 명이었습니다.)
- ¹⁶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유다가 예수를 잡는 자들의 인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¹⁷ 그는 우리와 함께 있었고, 이 사역에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 ¹⁸ 이 사람은 악행의 보상으로 받을 얻었고, 몸을 앞으로 떨어져 터져서 창자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 ¹⁹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 땅이 그들의 언어로 '아켈다마', 곧 '피의 밭'이라고 불리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²⁰ 시편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얻게 하소서.'
- ²¹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왕래하시던 온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 ²² 요한의 세례에서부터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날까지, 그들 중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 ²³ 그들은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요셉과 마티아입니다.
- ²⁴ 그들이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여, 이 두 사람 중 어느 하나를 택하셨는지를 보여 주소서."
- ²⁵ 유다가 떠나간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뽑으려는 것이라. 그는 제자리로 갔기 때문이다.
- ²⁶ 그들은 제비를 뽑아, 제비가 마티아에게 떨어졌고, 그는 열한 사도와 함께 수에 포함되었다.

사도행전 2장

- 1 오순절 날이 이르니, 그들이 모두 한곳에 모여 한마음이 되어 있었다.
- 2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서,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을 가득 채웠다.
- 3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나뉘어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앉았다.
- 4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그들에게 말할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 5 그때 예루살렘에는 하늘 아래 모든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즉 경건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 6 이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혼란스러워했다. 각자가 자기 고유한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 7 그들은 모두 놀라며 서로 말했다. "보라, 이 말하는 자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 8 우리가 각자 자기 고국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듣는가?
- 9 바르티아인들과 메디아인들과 엘람인들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유대아와 카파도기아와 본토스와 아시아,
- 10 프리기아와 파묵빌리아와 이집트와 쿠레네 주변 리비아 지역 사람들, 로마에서 온 방문객들, 유대인들과 개종자들,
- 11 크레타인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우리가 그들이 우리 언어로 하느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있다!
- 12 그들은 모두 놀라며 혼란스러워하며 서로 말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 13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말했다. "그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다."
- 14 그러나 베드로는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잘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 15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침 세 시에 불과하다.
- 16 이것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이다.
- 17 "마지막 날들에, 하느님이 말씀하신다.
- 18 그때에 내가 내 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 19 하늘 위에 기적을 보이리라. 피와 불과 연기의 구름이 있을 것이며,
- 20 해는 어두워지고,
- 21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 22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나사렛 사람 예수는 하느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능력과 기적과 표적들로 너희에게 인정받은 분이다. 너희도 스스로 알고 있다.
- 23 그분은 하느님의 정해진 뜻과 미리 아신 뜻에 따라 넘겨졌고, 너희는 불법한 자들의 손으로 그분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 24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분을 일으키셨다.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셨다. 그분이 죽음의 권세에 잡힐 수 없었기 때문이다.
- 25 다윗이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나는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보았다.'
- 26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다.
- 27 이는 당신이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28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 29 "형제 여러분, 저는 조상 다윗에 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장사되었으며,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 30 그러므로 그는 예언자였고, 하느님이 그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육신에서 나온 자손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일으켜 그의 보좌에 앉히실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 31 이 일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신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 32 이 예수를 하느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 33 그러므로 하느님의 오른손에 높임을 받으시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으신 그분은,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흘려보내셨습니다.
- 34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으나,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
- 35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 36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느님이 주님이며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 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말했다.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 38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회개하여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 죄가 사해지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그리고 멀리 있는 이들에게도 있나니, 곧 주 우리 하느님이 스스로에게 부르시는 모든 이들에게 있다.
- 40 그는 다른 많은 말로도 증언하고 권면하며 말했다. “이 굵은 세대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라!”
- 41 그러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은 이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약 삼천 명이 더해졌다.
- 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빵 나누기와 기도에 꾸준히 헌신했다.
- 43 모든 이에게 두려움이 일어났고,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
- 44 모든 믿는 이들이 한마음이 되어 함께 있었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 45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 46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꾸준히 모이고, 집에서 빵을 나누며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 47 그들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모든 백성에게서 칭찬을 받았다. 주님은 날마다 구원을 받는 이들을 공동체에 더하셨다.

사도행전 3장

- ¹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인 아홉 시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
- ² 어떤 남자가 어머니의 뱃속부터 절뚝발이였는데, 그들은 그를 날마다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문 앞에 놓고, 성전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구걸하게 했다.
- ³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청했다.
- ⁴ 베드로가 그를 응시하며 요한과 함께 말했다. "우리에게 눈을 돌리라."
- ⁵ 그는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받을 것이라 기대하며 그들의 말을 들었다.
- ⁶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다. "은이나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 ⁷ 그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 ⁸ 그는 뛰어 일어나 걸어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고 뛰며 하느님을 찬양했다.
- ⁹ 모든 사람들이 그가 걸으며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 ¹⁰ 그들은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에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느꼈다.
- ¹¹ 치유된 절뚝발이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마당으로 몰려들어 크게 놀라 있었다.
- ¹² 베드로가 이를 보고 백성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너희를 놀라게 하는가? 너희가 우리를 쳐다보는 것은 마치 우리 힘이나 경건함으로 이 사람이 걸어 다니게 했다고 생각하는가?"
- ¹³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너희는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그를 풀어주려고 결심했을 때 그를 부인하였다.
- ¹⁴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주기를 청하였다.
- ¹⁵ 너희는 생명의 원수를 죽였으나, 하느님이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 ¹⁶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이 사람을 강하게 하였으니,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이다. 그를 통한 믿음이 너희 모두 앞에서 이 사람에게 완전한 건강을 주었다.
- ¹⁷ 지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무지한 가운데 이 일을 행했음을 안다. 너희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이다.
- ¹⁸ 그러나 하느님이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일들을, 그분은 이렇게 이루셨다.
- ¹⁹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너희 죄들이 지워지게 하라. 그리하면 주님의 앞에서 기쁨의 때가 올 것이며,
- ²⁰ 그분이 너희를 위해 미리 정해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 ²¹ 그분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때까지 하늘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는 하느님이 오래전에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이다.
- ²² 모세도 조상들에게 말했다. "주님 하느님이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들어야 한다."
- ²³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모든 영혼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다.
- ²⁴ 사무엘과 그 후에 이어진 모든 예언자들, 그들이 말한 이들 모두가 이 날들을 예언하였다.
- ²⁵ 당신들은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하느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맺으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 ²⁶ 하느님은 당신들을 복되게 하려고, 먼저 당신들 앞에 그의 종 예수를 일으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너희 각자의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 1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사제들과 성전의 장교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 2 그들이 백성에게 가르치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에 의한 부활을 선포하자, 그들이 불만을 품었다.
- 3 그들은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그 말을 듣던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믿게 되었고, 남자의 수가 약 오천 명에 이르렀다.
- 5 아침이 되자, 그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 6 대제사장 아나스와 가이아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친척들이 모두 거기에 있었다.
- 7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당신들이 이 일을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 8 그때 베드로는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들에게 말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 9 오늘 우리가 한 마디로 약한 자를 치유한 선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심문받고 있다면,
- 10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리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느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당신들 앞에 건강하게 서 있습니다.
- 11 그는 당신들 건축자들이 버린 쓸모없는 돌이 되어, 모서리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 12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 인간들에게 주어진 다른 이름은 없으며, 우리는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 13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자들임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이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음을 알아보았다.
- 14 치유된 그 남자가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 15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게 명령한 후, 서로 상의하였다.
- 16 그들이 말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을 통해 분명히 모든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니,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 17 그러나 이 일이 더 이상 백성 사이에 퍼지지 않도록, 앞으로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협하자."
- 18 그들은 그들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는 전혀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 19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했다. "하느님 앞에서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 20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1 그들이 더 위협한 후, 백성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어, 그들을 풀어주었다. 모든 이가 그들이 행한 일을 보고 하느님을 찬양하였기 때문이다.
- 22 이 기적으로 치유된 남자는 사십 세가 넘었다.
- 23 풀려나서 그들은 자기들의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한 말을 모두 보고하였다.
- 24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한마음으로 하느님을 향해 소리를 높여 말했다. "주님, 당신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이십니다."
- 25 주님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분이시며, '어찌하여 이방들이 떠들고,
- 26 지상의 왕들이 일어나서
- 27 진실로 헤로데와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당신의 거룩한 종 예수, 곧 당신이 기름을 부어 세운 이에게 대항하여 모였으니,
- 28 당신의 손과 당신의 뜻이 미리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말입니다.
- 29 이제, 주님,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당신의 종들이 모든 담대함으로 당신의 말씀을 말하게 하소서.
- 30 당신의 손을 펴서 병을 고치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 31 그들이 기도한 후, 함께 모인 장소가 진동하였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서, 담대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말하였다.
- 32 믿는 이들의 무리는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썼다.

³³ 사도들은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큰 능력으로 증언하였다. 모든 이에게 큰 은총이 있었다.

³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이가 없었으니, 땅이나 집을 가진 이들은 모두 그것을 팔아,

³⁵ 그 수익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³⁶ 요세라는 자가 사도들에 의해 바르나바라 불리었는데, 이 이름은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는 레위 지파 출신으로 키프로스 출신이었다.

³⁷ 그는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사도행전 5장

- 1 어떤 남자 아나니아가 아내 사피라와 함께 땅을 팔았으나,
- 2 가격의 일부를 숨기고, 아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 3 베드로가 말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을 채워 성령을 거짓말하게 하고 땅의 값을 숨기게 하였느냐?
- 4 네가 그것을 가진 동안, 그것이 네 것 아니었느냐? 팔린 후에도 네 뜻대로 하지 못했느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이 일을 꾸몄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 5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쓰러져 죽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이에게 큰 두려움이 미쳤다.
- 6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를 싸매고 밖으로 빼내어 장사하였다.
- 7 약 세 시간 뒤, 그의 아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들어왔다.
- 8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내게 말해보아라. 땅을 것처럼 팔았느냐?"
- 9 베드로가 그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너희가 함께 뭉쳐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아라, 네 남편을 장사한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있다. 그들이 너도 빼내어 갈 것이다."
- 10 그녀는 즉시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죽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빼내어 그녀의 남편 곁에 장사하였다.
- 11 모든 공동체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이에게 큰 두려움이 미쳤다.
- 12 사도들의 손을 통해 많은 표적과 기적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솔로몬의 행각에서 한마음이 되어 함께 있었다.
- 13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하려 하지 않았으나,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였다.
- 14 주님께 더 많은 믿는 이들이 더해졌고, 남녀를 막론한 큰 무리가 되었다.
- 15 그들은 병든 자들을 거리로 빼내어 침상과 자리를 깔고 놓았으며,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어느 누구에게라도 비치기를 바랐다.
- 16 예루살렘 주변 도시들에서도 많은 무리가 모여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에게 괴롭힘을 받는 자들을 데리고 왔고, 모두 고침을 받았다.
- 17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는 사두개인들의 파당이다)이 질투로 가득 차서,
- 18 사도들을 잡아 공개적으로 감옥에 가두었다.
- 19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을 열어 그들을 데려내며 말했다.
- 20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라."
- 21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 가르쳤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들을 불러모으고, 감옥에 사람을 보내 그들을 데려오게 했다.
- 22 그러나 간수들이 감옥에 가서 그들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 보고하였다.
- 23 "우리는 감옥이 문이 잠겨 있고, 경비원들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나,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 24 이제 대제사장과 성전의 장과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일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매우 혼란스러워하였다.
- 25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너희가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
- 26 그러자 대장이 경비원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폭력 없이 데려왔는데, 백성이 그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서였다.
- 27 그들이 그들을 데려오자, 그들을 공회 앞에 세웠다.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었다,
- 28 말했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지 않았느냐? 보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너희의 가르침으로 가득 채웠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려 한다."
- 29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하느님을 따라야지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 30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일으켜 세우셨다. 너희가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 31 하느님께서 그분을 오른손으로 높이 들어 군주이자 구원자로 삼으셨다. 이는 이스라엘에 회개를 주시고 죄를 사해 주려 하심이다.

- ³²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 일들의 증인이다."
- ³³ 그러나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려 그들을 죽이려고 결심했다.
- ³⁴ 그러나 공회 안에 한 사람,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사이파 사람이 일어나,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율법 선생이었는데,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라고 명령했다.
- ³⁵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신중히 생각하라."
- ³⁶ 이전에 테우다라는 자가 일어나 자신을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꾸며, 약 사백 명의 남자들이 그에게 붙었다.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따르던 모든 이들이 흩어져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
- ³⁷ 이 후에, 인구 조사 시기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그도 죽었고, 그를 따르던 모든 이들이 흩어졌다.
- ³⁸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을 떠나 놔두어라. 이 계획이나 이 일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무너질 것이다.
- ³⁹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너희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하느님과 싸우는 자가 되어 버릴 것이다!"
- ⁴⁰ 그들은 그의 말에 동의했다. 사도들을 불러다가 매를 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뒤에 풀어주었다.
- ⁴¹ 그러므로 그들은 공회 앞을 떠나,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수치를 받을 만한 자로 여겨졌다는 기쁨으로 떠났다.
- ⁴² 그들은 매일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사도행전 6장

- ¹ 그때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 불만을 제기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배급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 ²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모임을 불러모아 말했다. "하느님의 말씀을 버리고 식사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적절하지 않다.
- ³ 그러므로 형제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로 가득한, 평판 좋은 일곱 사람을 뽑아라. 우리는 이 일에 그들을 임명하겠다.
- ⁴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봉사에 전념하겠다."
- ⁵ 이 말이 온 모임의 마음에 들었다. 그들은 신앙과 성령으로 가득한 스테파노와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그리고 안티오크에서 온 개종자 니콜라오를 뽑았다.
- ⁶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다. 그들이 기도한 후 손을 그들에게 얹었다.
- ⁷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퍼져나갔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많은 사제들이 믿음에 복종했다.
- ⁸ 스테파노는 신앙과 능력으로 가득하여 백성 가운데 큰 기적과 표징을 행했다.
- ⁹ 그러나 자유인 회당, 쿠레네 출신자, 아리산드리아 출신자, 그리고 실리키아와 아시아 출신자들 중 일부가 일어나 스테파노와 논쟁했다.
- ¹⁰ 그들은 그가 말하는 지혜와 성령을 이길 수 없었다.
- ¹¹ 그러자 그들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어 은밀히 이렇게 말하게 했다.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느님을 향해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 ¹²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그를 공격해 잡아서 공회로 끌고 갔다.
- ¹³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 말하게 했다. "이 사람은 이 성전과 율법을 향해 모독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다."
- ¹⁴ 우리는 그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이 장소를 파괴하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관습을 바꾼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¹⁵ 공회에 앉아 있던 모든 사람이 그를 응시하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다.

사도행전 7장

- 1 대제사장이 말했다. "이런 일이 사실입니까?"
- 2 그가 말했다. "형제들이요, 조상들이여, 들어보십시오. 영광의 주님이 하란에 살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계셨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 3 "너의 땅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4 그러자 그는 갈대아인의 땅을 떠나 하란에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느님이 그를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 5 하느님은 그에게 그 땅에서 유산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밭을 디달 만큼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식이 없을 때에도, 그와 그의 후손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 6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사백 년 동안 노예가 되어 괴롭힘을 받을 것이다."
- 7 "그들이 종으로 잡혀 있는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 그들은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 8 하느님은 그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 여덟째 날에 그를 할례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열두 명의 족장들을 낳았습니다.
- 9 "족장들이 요셉을 질투하여 이집트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 10 그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를 이집트와 그의 온 집안을 다 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 11 그때 온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고,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음식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 12 그러나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보냈습니다.
- 13 두 번째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드러나고, 요셉의 가족이 파라오에게 알려졌습니다.
- 14 요셉이 보내어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척을 불러, 일흔다섯 명을 이집트로 데려왔습니다.
- 15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자신과 우리 조상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 16 그들은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모르의 아들들에게 은으로 산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 17 "그러나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워지자, 이집트에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늘어났습니다.
- 18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났습니다.
- 19 그는 우리 민족을 이용하여 우리 조상들을 괴롭히고, 아이들을 버리게 하여 살아남지 못하게 했습니다.
- 20 그때 모세가 태어나서 하느님 앞에서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세 달 동안 아버지의 집에서 양육되었습니다.
- 21 그가 버려졌을 때,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와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 22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는 말과 행동에서 힘있었습니다.
- 23 그가 사십 세가 되었을 때, 그는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가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 24 그가 한 이스라엘 사람이 억울하게 대우받는 것을 보고, 그를 옹호하고 억압받는 자를 갚기 위해 이집트 사람을 쳤습니다.
- 25 그는 형제들이 하느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 26 "다음 날, 그는 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화해하라고 권면하며 말했다. '형제들아,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하여 서로를 해치는가?'
- 27 그러나 그 이웃을 해친 자는 그를 밀쳐내며 말했다. '누가 너를 우리 위에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 28 네가 어제 이집트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으려는가?
- 29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도망쳐 미디안 땅에 유민이 되었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았다.
- 30 "사십 년이 지나자, 주님의 천사가 시내 산의 광야에서 불꽃으로 타는 가시나무 속에 그에게 나타났다.

- 31 모세가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그가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려 할 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
- 32 ‘나는 네 조상들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모세는 떨리며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 33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땅은 성스러운 땅이기 때문이다.’
- 34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을 구원하러 내려왔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이집트에 보내겠다.’
- 35 “그들이 ‘누가 너를 우리 위에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고 거부했던 이 모세를, 하느님께서 가시나무 속에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해 통치자이자 구원자로 보내셨다.
- 36 이 사람이 이집트와 홍해, 그리고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며 그들을 인도하였다.
- 37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주님 우리 하느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실 것이다.’
- 38 이 사람은 시내 산에서 그에게 말씀하신 천사와 함께 광야의 공동체에 있었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살아 있는 계시를 받아 우리에게 전해준 자이다.
- 39 우리 조상들은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부하며 마음으로 이집트로 돌아갔다.
- 40 아론에게 말했다. ‘우리 앞서 갈 신들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라.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 41 그들은 그때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 손으로 만든 일을 기뻐하였다.
- 42 그러나 하느님께서 돌려보내시고 하늘의 군대를 섬기게 하셨다. 이는 예언서에 기록된 바와 같다. ‘너는 내가 희생제물과 제물을 드리기를 원했느냐?’
- 43 너는 물록의 장막을 들고,
- 44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그가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보여주신 형식대로 모세가 만든 것이었다.
- 45 이 장막도 우리 조상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가,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전해졌다.
- 46 다윗은 하느님의 눈에 은총을 입어 야곱의 하느님을 위한 처소를 마련해 달라고 청하였다.
- 47 그러나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지었다.
- 48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신다. 이는 예언자가 말한 바와 같다.
- 49 하늘은 내 보좌요, 내가 쉴 곳은 어디인가?
- 50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느냐?
- 51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며,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한다.
- 52 너희 조상들이 예언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의로운 분의 오심을 미리 말한 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이제 그분의 배신자이자 살인자가 되었다.
- 53 너희는 천사들을 통해 규정된 율법을 받았으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 54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려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
- 55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늘을 굳게 바라보며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보았다.
- 56 그러고 나서 말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의 아들이 하느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
- 57 그러나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귀를 막고 한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 58 그들은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은 자기 옷을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치에 두었다.
- 59 그들이 스테파노를 돌로 치는 동안 그는 외쳤다.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소서!"
- 60 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계산하지 마소서!" 이 말을 마치고 그는 잠들었다.

사도행전 8장

- 1 사울은 그의 죽음에 동의했다.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를 향한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지역으로 흩어졌으나 사도들은 제외되었다.
- 2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파노를 장사지내고 그를 위해 크게 애도했다.
- 3 그러나 사울은 공동체를 학살하며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옥에 가두었다.
- 4 그러므로 흩어진 이들은 다니며 말씀을 전했다.
- 5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한 도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
- 6 사람들은 필리포스가 행한 표적들을 보고 듣고, 그가 말한 것을 한마음으로 들었다.
- 7 많은 이들에게 붙어 있던 더러운 영들이 외치며 빠져나갔고, 많은 중풍병자와 다리가 마비된 이들이 낫게 되었다.
- 8 그 도시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 9 그러나 시몬이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도시에서 마법을 행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을 위대한 자처럼 꾸며댔다.
- 10 사람들은 모두 그를 따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이르기까지, "이 사람은 하느님의 위대한 힘이다."라고 말했다.
- 11 그들은 오랫동안 그의 마법으로 놀라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를 따랐다.
- 12 그러나 그들이 하느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좋은 소식을 필리포스가 전하는 것을 믿고, 남녀 모두 세례를 받았다.
- 13 시몬 자신도 믿었고, 세례를 받은 후 필리포스와 함께 머물렀다. 그는 일어나는 표적들과 위대한 기적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 14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 15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다.
- 16 그때까지 성령은 그들 중 누구에게도 내려오지 않았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었다.
- 17 그러자 사도들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 18 시몬이 사도들의 손을 얹음으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밀었다.
- 19 그가 말했다. "나에게도 이 힘을 주십시오. 제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 20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돈이 당신과 함께 망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돈으로 하느님의 선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21 당신은 이 일에 아무런 몫이나 분깃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느님 앞에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 22 그러므로 당신의 악한 행위를 회개하고, 혹시 당신의 마음속 생각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 간구하십시오.
- 23 나는 당신이 쓴 독과 불의의 사슬에 매여 있음을 봅니다.
- 24 시몬이 대답했다. "제가 말씀하신 그 어떤 일도 저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25 그들은 증거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의 많은 마을들에 복음을 전했다.
- 26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라. 이 길은 황폐한 땅이다."라고 하였다.
- 27 그가 일어나 가니, 에티오피아 사람 한 명이 있었는데,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케의 모든 재산을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내시였으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고 있었다.
- 28 그는 병거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 29 성령이 필리포스에게 이르기를,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붙어라."라고 하였다.
- 30 필리포스가 달려가서 그가 이사야 예언자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네가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라고 물었다.
- 31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누가 내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필리포스에게 와서 자기와 함께 앉아 달라고 간청하였다.
- 32 그가 읽고 있던 성경의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가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고,

³³ 그의 겸손 속에서 그의 재판이 빼앗겼다.

³⁴ 내시가 필리포스에게 말했다. "이 예언자가 말하는 이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인가?"

³⁵ 필리포스가 입을 열어 이 성경 구절에서 시작하여 예수에 관해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³⁶ 그들이 길을 가던 중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내시가 말했다. "보라, 물이 있다.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³⁸ 그가 병거를 멈추라고 명령하자, 필리포스와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서, 그가 그를 세례를 베풀었다.

³⁹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이 필리포스를 데려가 버렸고, 내시는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했다.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계속 갔다.

⁴⁰ 필리포스는 아소스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모든 도시를 지나며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사도행전 9장

- 1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위협과 살해를 노리며 대제사장에게 갔다.
- 2 그는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게 보낸 서신을 구하여, '길'에 속한 자를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다.
- 3 그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그를 둘러쌌다.
- 4 그는 땅에 쓰러져서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목소리가 말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가?"
- 5 그가 말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 6 그러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 7 그와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은 말없이 서서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 8 사울은 땅에서 일어났으나, 눈을 뜨고도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들은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 9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 10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제자가 있었다. 주님이 환상 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니아야."
- 11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직선 거리라 불리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타르소스 출신의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라. 보라, 그는 기도하고 있다."
- 12 그는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 13 아나니아가 대답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여러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 14 여기서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 15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할 내 선택의 도구이다."
- 16 내가 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보여줄 것이다.
- 17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다. "형제 사울, 네가 온 길에서 네게 나타나신 주님이 나를 보내어 네가 다시 볼 수 있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 18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고, 그는 시력을 회복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 19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지냈다.
- 20 그는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가 하느님의 아들임을 선포했다.
- 21 그를 듣는 모든 이가 놀라며 말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가 여기까지 와서 결박된 채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려고 왔던 사람이 아니냐?"
- 22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혼란에 빠뜨리며, 이 사람이 곧 그리스도임을 증명했다.
- 23 많은 날이 지나자,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그를 죽이려 음모를 꾸몄다.
- 24 그러나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하루종일 밤새도록 성문을 지켜 그를 죽이려 했다.
- 25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리고 성벽을 따라 아래로 내려보내어 바구니에 싣고 내렸다.
- 26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합류하려 했으나, 그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하여 제자라고 믿지 않았다.
- 27 그러나 바르나바가 그를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데려가고, 그가 길에서 주님을 보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으며,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파했다고 그들에게 알렸다.
- 28 그는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다니며
- 29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파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말하고 논쟁했으나, 그들은 그를 죽이려 했다.
- 30 형제들이 이를 알고 그를 케사레아로 내려보내어 타르소스로 보냈다.
- 31 이처럼 유대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모든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며 견고해졌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아 수가 늘어났다.
- 32 베드로가 그 모든 지역을 두루 다니며 릴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왔다.

- ³³ 거기서 그는 팔이 마비되어 여덟 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던 아이나스라는 사람을 만났다.
- ³⁴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아이나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네 침대를 정리하여라!" 즉시 그가 일어났다.
- ³⁵ 릴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 ³⁶ 요파에는 타비타라는 이름의 제자가 있었는데, 번역하면 도르카스이다. 이 여자는 그녀가 행한 착한 일들과 자비의 행위로 가득 차 있었다.
- ³⁷ 그때 그녀가 병들어 죽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씻은 후 윗방에 안치했다.
- ³⁸ 릴다는 요파 가까이에 있었으므로, 제자들은 베드로가 거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그가 서둘러 그들에게 오도록 간청했다.
- ³⁹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그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윗방으로 데려갔다. 모든 과부들이 그 옆에 서서 울며, 도르카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든 속옷과 다른 옷들을 보여주었다.
- ⁴⁰ 베드로가 모두를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시신을 향해 말했다. "타비타, 일어나라!" 그녀가 눈을 떴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 ⁴¹ 베드로가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녀를 살아 있는 상태로 보여주었다.
- ⁴² 이 일은 요파 전역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
- ⁴³ 그는 요파에서 가축 세탁부 시몬이라는 사람과 여러 날을 보냈다.

사도행전 10장

- 1 카이사레아에 코르넬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연대의 백인대장이었다.
- 2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함께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넉넉히 구제를 베풀고, 항상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 3 하루 아홉 시쯤, 그는 환상 속에서 하느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와서 "코르넬리오!" 하고 부르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 4 그는 천사를 굳게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주님, 무엇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 5 요파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 6 그는 가족 장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 7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난 후, 코르넬리오는 자기 집안의 하인 둘과 항상 그를 섬기던 경건한 병사를 불렀다.
- 8 그는 그들에게 모든 일을 설명한 후, 요파로 그들을 보냈다.
- 9 다음 날, 그들이 길을 가며 도시에 가까이 다가갈 무렵, 베드로는 정오쯤 지붕 위에 올라 기도하였다.
- 10 그는 배가 고파서 먹고 싶었으나,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정신이 멍해졌다.
- 11 그는 하늘이 열리고, 사방에서 끈으로 내려오는 큰 천처럼 어떤 그릇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 12 그 안에는 땅의 네 발짐승과 들짐승과 뱀과 하늘의 새들이 모두 들어 있었다.
- 13 그에게 음성이 들렸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잡아 먹어라."
- 14 베드로가 말했다. "아니옵니다, 주님. 저는 결코 더럽거나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 15 음성이 다시 두 번째로 그에게 들렸다. "하느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부르지 말아라."
- 16 이 일이 세 번 반복된 후, 곧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
- 17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코르넬리오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앞에 서 있었다.
- 18 그들은 불러서,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이 이곳에 머무는지 물었다.
- 19 베드로가 환상을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 20 그러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 21 베드로가 아래로 내려가 그들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무엇 때문에 왔느냐?"
- 22 그들이 말했다. "코르넬리오라는 백인대장은 의로운 사람으로, 온 유대 민족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당신의 말을 듣게 하려고 보냈습니다."
- 23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들을 안으로 불러들여 머무를 곳을 마련해 주었다.
- 24 다음 날, 그들은 카이사레아에 도착했다. 코르넬리오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모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 25 베드로가 들어가자, 코넬리오가 그를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 26 그러나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에 불과합니다."
- 27 그가 그와 대화하며 안으로 들어가니,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 28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알다시피, 유대인이 다른 민족의 사람과 함께 있거나 가까이 오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여 주셨다. 어떤 사람도 부정하거나 더럽다고 부르지 말라고."
- 29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부르자 불평 없이 왔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 30 코넬리오가 말했다. "네 날 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금식하고 있었는데, 아홉 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니,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 31 말했다. "코넬리오, 네 기도가 들렸고,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 자선이 하느님 앞에 기억되었다."
- 32 그러므로 요파로 사람을 보내어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를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가족 장수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그가 오면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 33 그래서 나는 즉시 너희를 불렀고, 너희가 와 준 것이 좋았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하느님 앞에 모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

- ³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다. "진실로 내가 알게 되었다. 하느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 ³⁵ 어떤 민족이든 그를 두려워하며 의로움을 실천하는 자는 그에게 받아들여진다."
- ³⁶ 그분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전하신 말씀—그분은 모든 이의 주님이시다—
- ³⁷ 너희도 알다시피,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난 후,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 땅에 전파된 일들이다.
- ³⁸ 하느님께서 나자렛의 예수를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으셨다. 그분은 모든 곳에서 선한 일을 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이들을 고치셨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하셨기 때문이다.
- ³⁹ 우리는 그분이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증인이다.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 ⁴⁰ 하느님께서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그분을 드러내게 하셨다.
- ⁴¹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곧 우리가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자들에게 드러내셨다.
- ⁴²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백성에게 전파하고, 그분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하느님께서 임명하신 임을 증언하라고."
- ⁴³ 모든 예언자들이 그분에 대해 증언한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죄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 ⁴⁴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이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내렸다.
- ⁴⁵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부어졌기 때문이다.
- ⁴⁶ 그들은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며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다.
- ⁴⁷ "이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다."
- ⁴⁸ 그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명령했다. 그 후 그들은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러 달라고 청했다.

사도행전 11장

- 1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 2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례를 받은 자들이 그와 다투며,
- 3 말했다.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 4 베드로는 시작하여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며 말했다.
- 5 "나는 요파라는 도시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환상 속에서 한 큰 천이 네 모서리에서 매달려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나에게까지 내려왔다."
- 6 나는 그것에 집중하여 바라보니, 땅의 네 발 달린 동물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 보였다."
- 7 나는 또 내게 소리가 들려왔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잡아서 먹어라!"
- 8 나는 말했다. "아니옵니다, 주님, 결코 더럽고 부정한 것이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 9 그러자 하늘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내게 대답했다. "하느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 10 이 일이 세 번 있었고, 그 후 모두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
- 11 보라, 내가 있는 집 앞에 세 명의 사람이 즉시 서 있었는데, 그들은 카이사레아에서 나에게 보내진 자들이었다."
- 12 성령이 나에게 그들과 함께 가서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갔고, 우리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 13 그는 우리에게 그의 집에 천사가 서서 그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요파로 가서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을 데려 오라."
- 14 그가 나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을 너에게 전할 것이다."
- 15 내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왔는데, 마치 처음에 우리에게 내려온 것처럼.
- 16 나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 17 그러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에게 우리와 같은 은사를 주신 하느님이 계신데, 나는 누구이기에 하느님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 1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침묵하며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으로 이끄는 회개를 주셨구나!"
- 19 스테파노로 인해 일어난 박해로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 and 안티오키아에 이르렀으나, 유대인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 20 그러나 그들 중 일부, 키프로스와 키레네 출신의 사람들이 안티오키아에 이르러 헬레니스트들에게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 21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고, 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 22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가 그 일에 대해 소식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까지 보내었다.
- 23 그가 이르러 하느님의 은총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는 모두를 격려하여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께 가까이 머물게 하였다.
- 24 그는 좋은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으로 가득 찼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더해졌다.
- 25 바르나바는 타르소스로 가서 사울을 찾았다.
- 26 그가 그를 찾아내자,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일 년 동안 교회와 함께 모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제자들이 안티오키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 27 그때에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키아로 내려왔다.
- 28 그들 중 한 명인 아가보가 일어나 성령을 통해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 기근은 클라우디오스 시대에 일어났다.
- 29 제자들 중 누구든지 넉넉한 자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를 보내기로 각자 결심하였다.
- 30 그들은 그대로 실천하여 바르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장로들에게 전달하였다.

사도행전 12장

- 1 그때 무렵, 헤로데 왕이 교회 일부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 2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 3 그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이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 4 그가 그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고, 네 명씩 네 조로 나눈 병사들에게 넘겨 지키게 했다. 그리고 유월절 후에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내려는 의도였다.
- 5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교회는 그를 위해 하느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다.
- 6 헤로데가 그를 끌어내려는 그 밤, 베드로는 두 병사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두 개의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 문 앞에는 경비병들이 감옥을 지켰다.
- 7 그때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그 곁에 서서, 감방에 빛이 비추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며 말했다. "빨리 일어나라! " 그러자 그의 쇠사슬이 손에서 떨어졌다.
- 8 천사는 그에게 말했다. "옷을 입고 신을 신어라." 그가 그렇게 했다. 천사는 또 말했다. "외투를 입고 나를 따라와라."
- 9 그는 나가서 그를 따라갔다. 그러나 천사가 하는 일이 실제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 10 그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경비를 지나자, 성으로 통하는 철문을 만났다. 그 문은 스스로 열렸다. 그들은 밖으로 나와 한 거리를 내려갔고, 즉시 천사가 그에게서 떠났다.
- 11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지금 내가 진실로 알겠다. 주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의 손과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셨다."
- 12 그가 이 일을 생각하며, 마르코라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 13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라호다라는 이름의 시녀가 나와 문을 열었다.
- 14 그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보자, 기쁨에 문을 열지 않고 안으로 달려가서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다고 보고했다.
- 15 그들이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미쳤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그렇다고 고집했다. 그들이 말했다. "그의 천사일 것이다."
- 16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다. 사람들이 문을 열고 그를 보자 놀라움에 잠겼다.
- 17 베드로는 손으로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하며, 주님이 어떻게 그를 감옥에서 구출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말했다. "이 일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그는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 18 그날 아침이 되자, 병사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큰 혼란이 일어났다.
- 19 헤로데가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경비병들을 심문하고 그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유대아에서 카이사레아로 내려가서 거기 머물렀다.
- 20 헤로데는 티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심히 분노했다. 그들은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 왕의 개인 보좌관인 블라스투스를 자신들의 친구로 삼고, 평화를 청했다. 그들의 땅은 왕의 땅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 21 정해진 날, 헤로데는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했다.
- 22 사람들이 외쳤다. "이것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느님의 음성이다!"
- 23 즉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치셨다. 그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잡아먹혀 죽었다.
- 24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자라나고 번성하였다.
- 25 바르나바와 사울은 봉사를 마치고 요한, 곧 마르코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사도행전 13장

- 1 안티오키아에 있는 공동체에는 몇 명의 예언자와 교사가 있었다. 바르나바와,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메온, 시레네의 루키오, 테트라르크 헤로데의 양자인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 2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다. "나를 위해 바르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내어, 내가 그들을 부른 일에 쓰라."
- 3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손을 그들에게 얹고, 그들을 보냈다.
- 4 그러므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은 세레우키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큐프로스로 배를 탔다.
- 5 살라미에 이르러 그들은 유대인 회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들과 함께 요한도 시종으로 따라왔다.
- 6 그들이 섬을 모두 지나 파포스에 이르렀을 때, 마술사이자 거짓 예언자인 바르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유대인을 만났다.
- 7 이 사람은 총독 세르기우스 바울로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
- 8 그러나 마술사 엘리마스(이 이름은 해석하면 그렇다)는 그들을 저지하며, 총독이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했다.
- 9 그러나 사울, 곧 바오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응시하며,
- 10 말했다. "네가 마귀의 아들이며, 모든 속임과 모든 악독으로 가득 찼구나. 모든 의로움의 원수여, 주님의 올바른 길을 왜 계속 꺾으려 하는가?"
- 11 보라, 주님의 손이 너에게 있으니, 네가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 12 총독은 그가 일어난 일을 보고 믿었고,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움을 느꼈다.
- 13 바오로와 그의 동행자들은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파묵리아의 베르가로 갔다.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 14 그러나 그들은 베르가를 지나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 15 율법과 예언서의 독서가 끝난 후, 회당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보내어 말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백성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다면, 말해라."
- 16 바오로는 일어나 손을 들어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 17 이 백성의 하느님은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이집트 땅에 유랑할 때 그 백성을 높이셨으며, 높이 든 팔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셨다.
- 18 그분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내하셨다.
- 19 그분이 가나안 땅의 일곱 민족을 멸하신 후,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 기간은 약 사백오십 년이었다.
- 20 이 일들 후에 그분은 사무엘 예언자 때까지 그들에게 심판관을 주셨다.
- 21 그 후에 그들은 왕을 달라고 했고, 하느님은 그들에게 기스의 아들 사울을,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사십 년 동안 왕으로 주셨다.
- 22 그분이 그를 제거하신 후,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분은 그에게 증언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발견하였다.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내 모든 뜻을 다 이루는 자이다."
- 23 이 사람의 자손 가운데서, 하느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이루셨다.
- 24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 25 요한이 자신의 임무를 다할 때에 말하기를, "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나 뒤에 한 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저에게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 26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서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이 구원의 말씀이 너희에게 보내졌습니다.
- 27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알지 못했고, 매 안식일에 읽히는 예언자들의 말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정죄함으로써 그 말씀들을 이루었습니다.
- 28 그들에게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청했습니다.
- 29 그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 그를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 30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 31 그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들과 함께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으며, 이들은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들입니다.
- 32 우리는 조상들에게 약속된 것을 너희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합니다.
- 33 하느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 곧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루셨습니다. 그분께서 예수를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둘째에 또한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 34 그분이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썩음에 돌아가지 않게 하셨다는 것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윗의 거룩하고 확실한 은총을 주겠다."
- 35 그러므로 그분은 다른 시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당신의 성자로 썩음을 보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 36 다윗은 자기 세대에 하느님의 뜻을 다 섬긴 후에 잠들고 조상들과 함께 안장되어 썩음을 보았습니다.
- 37 그러나 하느님이 일으키신 그는 썩음을 보지 못하였다.
- 38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사람을 통해 너희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게 하노니,
- 39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사람을 통해 의로움을 얻고,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로움을 얻지 못했던 모든 것에서 의롭게 되느니라.
- 40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하라, 예언자들에게 기록된 바가 너희에게 닥치지 않도록 하라.
- 41 보라, 조롱하는 자들아!
- 42 유대인들이 회당을 떠나자, 이방인들이 다음 안식일에 이 말을 다시 그들에게 전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 43 회당이 끝나자, 많은 유대인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따랐다.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며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러 달라고 권면하였다.
- 44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
- 45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고 질투에 사로잡혀 바오로가 말한 것을 반박하며 모욕하였다.
- 46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담대히 말하며 말했다.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스스로 거부하고 영원한 생명에 합당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하니,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 47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다."
- 48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정해진 이들은 모두 믿었다.
- 49 주님의 말씀이 그 모든 지역에 퍼졌다.
- 50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한 여성들과 도시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박해하고 그들의 경계 밖으로 쫓아냈다.
- 51 그러나 그들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코니온으로 갔다.
- 52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찼다.

사도행전 14장

- 1 이코니온에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함께 들어가서 말했더니, 많은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이 믿게 되었다.
- 2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괴롭혀 형제들을 대적하게 만들었다.
- 3 그래서 그들은 오래 머물며 주님을 향해 담대히 말했고, 주님은 그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그들의 은총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 4 그러나 그 도시의 무리가 갈라져 일부는 유대인을, 일부는 사도들을 따랐다.
- 5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합세하여 그들을 학대하고 돌로 치려고 폭력적으로 움직였다.
- 6 그들이 이를 알고 루카오니아의 루스드라, 데베, 그리고 그 주변 지역으로 도망갔다.
- 7 거기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
- 8 루스드라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발이 약하여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였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다.
- 9 그는 바오로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고, 바오로가 그를 유심히 보고 그가 낫게 될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 10 그러자 바오로가 큰 소리로 말했다. "네 발에 힘을 주어 일어나라!" 그는 뛰어일어나 걸었다.
- 11 무리가 바오로가 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카오니아어로 말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 12 그들은 바르나바를 "주피터"라 부르고, 바오로를 "머큐리"라 불렀다. 그는 말을 잘했기 때문이다.
- 13 주피터의 사제가 그 도시 앞에 있는 사원에서 소들과 화관을 문 앞에 가져와 무리와 함께 제사를 드리려 했다.
- 14 그러나 사도들인 바르나바와 바오로가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 외쳤다.
- 15 "사람들이여,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살아 계신 하느님께로 돌아서 이 헛된 것들을 버리라고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 16 과거의 세대 동안 그분은 모든 민족이 자기 길을 걷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 17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시지 않았습시다. 그분은 선을 행하시며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열매 맺는 계절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음식과 기쁨으로 채우셨습니다."
- 18 이러한 말을 하면서도 그들은 무리가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거의 막지 못했다.
- 19 그러나 안티옥과 이코니온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무리를 선동하여 바오로를 돌로 치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을 것이라 여겼다.
- 20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서 있었을 때, 그가 일어나 도시에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르나바와 함께 데베로 떠났다.
- 21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를 얻은 후, 루스드라, 이코니온, 안티옥으로 돌아갔다.
- 22 제자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권면하며,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 23 그들은 각 공동체에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 그들이 믿었던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 24 그들은 피시디아를 지나 판필리아로 갔다.
- 25 페르가에서 말씀을 전한 후, 그들은 아타리아로 내려갔다.
- 26 거기서 그들은 안티오키아로 향해하여, 자신들이 하느님의 은총에 맡겨져 수행했던 일의 시작지인 곳으로 돌아왔다.
- 27 그들이 도착하여 공동체를 모으고, 하느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으며,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셨다고 말하였다.
- 28 그들은 그곳에서 제자들과 오래 동안 머물렀다.

사도행전 15장

- 1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쳤다. "모세의 풍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 2 이에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들과 심각한 다툼과 논쟁을 벌인 끝에, 바오로와 바르나바, 그리고 그들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게 하였다.
- 3 그들은 공동체의 보내심을 받아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지나며 이방인들의 회개를 선포하였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 4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공동체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환영하였고, 그들은 하느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 5 그러나 믿게 된 바리사이파의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다.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해야 한다."
- 6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 7 많은 토론이 끝난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다. "형제들, 너희도 알다시피, 오래전에 하느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내 입을 통해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다."
- 8 하느님은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증거하셨다.
- 9 그분은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
- 10 그러므로 이제 왜 너희는 하느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질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우려 하는가?
- 11 우리는 주 예수의 은총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다. 그들도 그와 같이 받는다."
- 12 모든 무리가 침묵하고, 바르나바와 바오로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느님이 그들을 통해 행하신 표적과 기적들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 13 그들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말했다. "형제들, 내 말을 들어라."
- 14 시몬은 하느님이 먼저 이방인들을 찾아내어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뽑으셨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 15 이것은 예언자들의 말과 일치한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 16 "이 일들 후에 내가 돌아와서,
- 17 사람들의 나머지가 주를 찾게 하리라.
- 18 "하느님의 모든 행위는 영원 전부터 그분께 알려져 있다.
- 19 그러므로 내 판단은,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자는 것이다.
- 20 그러나 그들에게 우상의 더러움과 음행과 유기된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쓰라고 하자.
- 21 모세는 옛날부터 매 도시에서 전파되고 있으며, 매 안식일에 회당에서 읽히기 때문이다."
- 22 그러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공동체는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유다라 불리는 바사바와 실라로, 형제들 중에서 주요 인물들이었다.
- 23 그들은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보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일리키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인사드립니다.
- 24 우리는 우리 중 일부가 나가서 너희를 말로 괴롭히고, 너희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 25 우리는 한마음이 되어, 우리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바오로와 함께 너희에게 보낼 사람들을 뽑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 26 이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자들이다.
- 27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와 실라를 보냈는데, 이들도 입으로 너희에게 같은 일을 전할 것이다.
- 28 성령과 우리에게는 너희에게 이 필요한 것들 외에는 더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었다.
- 29 즉, 우상에게 바친 것들과 피와 목이 졸린 것들과 음행을 피하라. 너희가 이들을 지키면 잘될 것이다. 안녕히 가라.
- 30 그들이 보내어지자 안티오키아에 이르러 많은 무리를 모아 편지를 전하였다.

- ³¹ 그들이 편지를 읽고 위로 받고 기뻐하였다.
- ³² 유다와 실라 역시 예언자들이었으므로, 많은 말로 형제들을 격려하고 굳건히 하였다.
- ³³ 그들이 거기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후, 형제들로부터 평안히 사도들에게 보내어졌다.
- ³⁵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안티오키아에 머물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함께하였다.
- ³⁶ 어떤 날들 후에 바오로가 바르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도시로 돌아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자."
- ³⁷ 바르나바는 마르코라 불리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려고 계획하였다.
- ³⁸ 그러나 바오로는 파묵리아에서 그들을 떠나고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은 그를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 ³⁹ 그러자 그들의 갈등이 심해져서 서로 갈라졌다. 바르나바는 마르코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떠났다.
- ⁴⁰ 그러나 바오로는 실라를 선택하여 떠났고, 형제들이 그를 하느님의 은총에 맡겨 주었다.
- ⁴¹ 그는 시리아와 일리키아를 두루 다니며 공동체들을 굳건히 하였다.

사도행전 16장

- 1 바오로가데르베와 리스트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티모테오라는 이름의 제자가 있었다. 그는 믿는 유대인 여자와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 2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에 있던 형제들이 그에 대해 좋은 평가를 했다.
- 3 바오로는 그를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가고 싶어 했고,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을 위해 그를 할례받게 했다. 그들은 모두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4 그들이 도시들을 지나며 다닐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그들에게 전달하여 지키게 했다.
- 5 그러므로 공동체들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날마다 수가 늘어났다.
- 6 그들이 프리기아와 갈라티아 지역을 지나가던 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 7 그들이 무시아 앞에 이르렀을 때, 비티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 8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스로 내려갔다.
- 9 밤에 바오로에게 환상이 나타났다. 마케도니아 사람 한 명이 서서 그를 간청하며 말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 10 바오로가 환상을 본 즉시, 우리는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 11 그러므로 트로아스에서 배를 타고 사모트라케로 직행했고, 이튿날에는 네아폴리스로 갔다.
- 12 그리고 거기서 필리피로 갔다. 필리피는 마케도니아의 주요 도시이며, 그 지방의 첫 번째 도시이자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렀다.
- 13 안식일에 우리는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 14 두아티라 시에서 온 자주색 물감을 파는 여자 루디아가 우리 말을 들었다. 그녀는 하느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오로가 말하는 것을 듣게 하셨다.
- 15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그녀는 우리에게 간청하며 말했다. "당신들이 저를 주님께 충성된 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와서 머무르십시오." 그래서 그녀는 우리를 설득했다.
- 16 우리가 기도하러 가던 중, 점쟁이 영이 들린 한 소녀가 우리를 만나며, 그녀의 주인들에게 점치는 것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 17 그녀가 바오로와 우리를 따라다니며 외쳤다. "이 사람들은 가장 높은 하느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 18 그녀는 이 일을 여러 날 동안 계속했다.
- 19 그러나 그녀의 주인들이 그들의 이익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오로와 실라를 붙잡아 시장으로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 20 그들이 그들을 관리들에게 데려가며 말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도시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 21 "그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지킬 수 없는 관습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입니다."
- 22 무리가 함께 일어나 그들을 공격했고,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막대기로 쳐 달라고 명령했다.
- 23 그들이 그들에게 많은 대들보를 내리친 후,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라고 명령했다.
- 24 그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안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목책에 채웠다.
- 25 한가운데 밤에 바오로와 실라가 기도하며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
- 26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곧 모든 문들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쇠사슬이 풀렸다.
- 27 감옥지기께서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 했다. 죄수들이 도망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28 그러나 바오로가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자신을 해치지 마라. 우리는 모두 여기에 있다!"
- 29 그는 등불을 달라고 부르고 뛰어 들어가 바오로와 실라 앞에 떨어져 엎드렸다.

- ³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 ³¹ 그들이 말했다. "주님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 ³² 그들은 그와 그의 집안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 ³³ 그는 그 밤 바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어 주고, 자신과 온 가족이 곧 세례를 받았다.
- ³⁴ 그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차려 주었고, 하느님을 믿게 된 뒤 온 가족과 함께 크게 기뻐했다.
- ³⁵ 그러나 날이 밝으니, 관리들이 경비대를 보내어 말했다. "그 남자들을 풀어 주어라."
- ³⁶ 감옥지기가 이 말을 바오로에게 전하며 말했다. "관리들이 너희를 풀어 주라고 보냈다. 그러니 나가서 평안히 가라."
- ³⁷ 그러나 바오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없이 공개적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이제는 비밀리에 풀어 주려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직접 와서 우리를 데려내야 한다!"
- ³⁸ 경비대가 이 말을 관리들에게 전했고, 그들이 그들이 로마 시민임을 듣고 두려워했다.
- ³⁹ 그들은 와서 사과하고, 그들을 감옥 밖으로 데려낸 뒤 도시에서 떠나 달라고 부탁했다.
- ⁴⁰ 그들은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다. 형제들을 만나 위로한 뒤 떠났다.

사도행전 17장

- 1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테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
- 2 바오로는 평소처럼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 안식일 동안 성경을 근거로 그들과 논의하였다.
- 3 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설명하고 증명하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였다.
- 4 그 중 일부는 설득되어 바오로와 실라를 따르게 되었고, 경건한 헬라인 중 많은 이들과 귀부인들 중 일부도 그러하였다.
- 5 그러나 설득되지 않은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악한 자들을 데려와 무리를 모아 도시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들은 야손의 집을 공격하여 그들을 백성 앞으로 끌어내려 하였다.
- 6 그들이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몇 명의 형제들을 도시의 지도자들에게 끌고 가며 외쳤다. "세상을 뒤집어놓은 이들이 여기에도 왔다.
- 7 이들을 야손이 받아들였다. 이들은 모두 카이사르의 법령에 반대하여, 다른 왕, 곧 예수가 있다고 말한다!"
- 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무리와 도시의 지도자들은 모두 불안해하였다.
- 9 그들은 야손과 나머지 자들에게 보증을 받은 후 풀어주었다.
- 10 형제들은 즉시 밤에 바오로와 실라를 베로에로 보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다.
- 11 베로에의 사람들은 테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였는데, 그들은 모든 마음의 열정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매일 성경을 살펴 이 일이 참인지 확인하였다.
- 12 그러므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믿게 되었고, 귀족 헬라인 여성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 13 그러나 테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오로가 베로에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도 와서 무리를 선동하였다.
- 14 형제들은 즉시 바오로를 바다 쪽으로 보내고, 실라와 티모테오는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 15 바오로를 데리고 간 이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데려갔다. 그리고 실라와 티모테오에게 빨리 그에게로 오라고 명령을 받고 떠났다.
- 16 바오로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도시가 모든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격분하였다.
- 17 그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자들과 회당에서 논의하였고, 매일 시장에서 만나는 이들과도 논의하였다.
- 18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그와 대화하였다. 어떤 이들은 말했다. "이 떠들어대는 자는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 19 그들은 그를 붙잡아 아레오파고스로 데려가며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 20 당신은 우리 귀에 이상한 것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므로 이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1 아테네의 모든 사람들과 그곳에 사는 외국인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 시간을 보냈다.
- 22 바오로는 아레오파고스 한가운데 서서 말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가 모든 면에서 매우 신앙심이 깊음을 내가 인식한다."
- 23 내가 너희가 숭배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미지의 신에게"라고 쓴 제단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지하게 숭배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 24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께서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지 않으신다.
- 25 그는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가 무엇인가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 26 그는 한 피로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의 표면에 거하게 하였고, 그들이 거주할 시기와 경계를 정하셨다.
- 27 이는 그들이 주님을 찾게 하려는 것인데, 혹시 그를 만져서라도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

리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²⁸ ‘그 안에서 우리가 살며 움직이며 존재한다.’ 너희 중 일부 시인들도 말했다. ‘우리도 그의 자손이다.’

²⁹ 우리가 하느님의 자손이라면, 하느님의 본성은 인간의 예술과 기교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³⁰ 그러므로 하느님은 무지의 시대를 넘겨보셨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있든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³¹ 그가 정하신 날에, 그가 지명하신 사람으로 의로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사람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 확신을 주셨다.

³²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듣고, 어떤 이들은 조롱했지만, 다른 이들은 말했다. ‘이 일에 대해 다시 들어보고 싶습니다.’

³³ 이에 바오로는 그들 사이에서 나갔다.

³⁴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그에게 합류하여 믿음을 받았는데, 아레오파고의 디오니시오와 다마리스라는 여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이들이다.

사도행전 18장

- ¹ 이 일들 후에 바오로는 아테네를 떠나 코린토에 이르렀다.
- ² 그는 펜토스 출신의 유대인 아굴라를 만났는데, 그는 아내 프리스킬라와 함께 최근 이탈리아에서 왔다.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의 모든 유대인을 떠나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바오로는 그들에게 가서,
- ³ 같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며 일했다.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장인들이었다.
- ⁴ 그는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논의하며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했다.
- ⁵ 실라와 티모테오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오자, 바오로는 성령의 강권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했다.
- ⁶ 그들이 그를 반대하며 모욕하자, 그는 옷을 털어내며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 피는 너희 머리에 돌아가게 하리라. 나는 깨끗하다.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 ⁷ 그는 그곳을 떠나 하느님을 경배하는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의 집은 회당 옆이었다.
- ⁸ 회당의 우두머리 크리스포는 온 집안과 함께 주님을 믿었다. 많은 코린토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 ⁹ 주님이 밤에 환상으로 바오로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여라. 침묵하지 말아라.
- ¹⁰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누구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 나는 많은 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¹¹ 그는 그곳에서 일년 반 동안 머물며 그들 사이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 ¹² 갈리오가 아카이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한마음으로 일어나 바오로를 재판석으로 끌고 갔다.
- ¹³ 그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법에 어긋나 하느님을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 ¹⁴ 바오로가 입을 열어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만약 이것이 불법이나 악행의 문제라면, 너희 유대인들아, 내가 너희를 참아주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 ¹⁵ 만약 그것이 말과 이름과 너희 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들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다."
- ¹⁶ 그러자 그는 그들을 재판석에서 쫓아냈다.
- ¹⁷ 그러자 모든 그리스인들이 회당의 우두머리 소스테네를 붙잡아 재판석 앞에서 때렸다. 갈리오는 이런 일들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 ¹⁸ 바오로는 이 일 후에도 더 오래 머물다 형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프리스킬라와 아굴라와 함께 시리아로 향해했다. 그는 켄크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이는 서원을 지켰기 때문이다.
- ¹⁹ 그는 에베소에 이르러 그들을 거기에 두고, 자신은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논의했다.
- ²⁰ 그들이 그에게 더 오래 머물도록 요청하자, 그는 거절했다.
- ²¹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다가오는 축제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에서 항해를 시작했다.
- ²² 그가 카이사레아에 도착하자, 올라가 공동체를 인사하고 안티오키아로 내려갔다.
- ²³ 거기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후, 그는 떠나 갈라티아와 프리기아 지역을 지나며 모든 제자들을 견고히 했다.
- ²⁴ 아폴로라는 이름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말재주가 뛰어나고 성서에 능했다.
- ²⁵ 이 사람은 주님의 길을 배우고, 영적으로 열정적이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도 예수에 관한 일을 정확히 말하고 가르쳤다.
- ²⁶ 그는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그를 듣고 그를 데려가서 하느님의 길을 더 정확히 설명해 주었다.
- ²⁷ 그가 아카이아로 건너가려고 결심했을 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제자들에게 그를 환영하도록 편지를 보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은총을 통해 믿게 된 이들을 크게 도왔다.
- ²⁸ 그는 유대인들을 힘 있게 반박하며 성경을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공개적으로 증명했다.

사도행전 19장

- 1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오로는 내륙 지방을 지나 에페소에 이르러 몇 명의 제자를 만났다.
- 2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 3 그가 말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세례를 받았느냐?"
- 4 바오로가 말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로 세례를 베풀었으며, 그가 올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백성에게 말하였다."
- 5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 6 바오로가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며 예언하였다.
- 7 그들은 모두 열두 명이였다.
- 8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세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느님 나라에 관한 일을 논박하고 설득하였다.
- 9 그러나 어떤 이들이 완악해지고 불순종하며 도를 여러 사람 앞에서 비방하자, 그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떼어두고 티라노의 강당에서 매일 논박하였다.
- 10 이 일이 이년 동안 지속되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이가 주 예수의 말씀을 들었으니, 유대인과 그리스인 모두였다.
- 11 하느님께서 바오로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다.
- 12 그러므로 그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가져다 대자, 병이 떠나고 악령들이 떠났다.
- 13 그때 어떤 유대인 행방 주술사들이 자기들 스스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악령에 붙은 자들을 쫓아내려 하며 말했다. "바오로가 전파하는 예수를 향해 너희에게 맹세한다."
- 14 이 일을 한 사람은 유대인 대사제 세베의 일곱 아들들이였다.
- 15 악령이 대답하여 말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오로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 16 악령이 들린 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들어 그들을 제압하고 이기자, 그들은 그 집에서 벌거벗고 상처를 입은 채 도망쳤다.
- 17 이 일은 에페소에 사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모두에게 알려졌다. 모든 이가 두려움을 느꼈고, 주 예수의 이름이 존중받았다.
- 18 많은 믿은 이들이 와서 자기들의 행실을 고백하고 밝혔다.
- 19 마법을 행하던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책들을 모아 모두 앞에서 불태웠다. 그들은 책들의 값을 계산해 보니 은 오만 데나리온이었다.
- 20 이처럼 주의 말씀은 자라며 힘을 얻었다.
- 21 이 일들이 끝난 후, 바오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말했다. "거기서 다녀온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한다."
- 22 그는 자기의 종들 중 두 사람, 티모테오와 에라스투스를 마케도니아로 보냈다. 자신은 잠시 아시아에 머물렀다.
- 23 그때 도와 관련하여 큰 혼란이 일어났다.
- 24 아르테미스의 은 신상들을 만드는 은세공자 데메트리오라는 한 사람이 공예인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었다.
- 25 그는 같은 직업을 가진 일꾼들을 불러모아 말했다. "여러분, 이 사업으로 우리가 부를 얻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26 여러분은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의 거의 전 지역에서 이 바오로가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떠나게 하여,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 27 우리의 이 직업이 위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르테미스의 사원이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그녀의 위엄이 파괴될 위험도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분입니다."
- 2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에 차서 외쳤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르테미스가 위대하도다!"
- 29 도시 전체가 혼란에 휩싸였고, 그들은 한마음으로 극장으로 달려가서 바오로의 여행 동반자인 마케도니아 출신 가이오와 아리스투르코스를 붙잡았다.
- 30 바오로가 백성에게 나아가려고 하자, 제자들이 그를 막았다.

³¹ 아시아의 일부 관리들, 곧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보내어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청했다.

³² 어떤 이는 이것을 외치고, 어떤 이는 저것을 외쳤다. 모임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들 대부분은 왜 모였는지도 몰랐다.

³³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로를 무리에서 끌어내어 앞으로 세웠다. 알렉산드로가 손을 들어 백성에게 변명하려 했다.

³⁴ 그러나 그들이 그가 유대인임을 알고 나서, 약 두 시간 동안 한목소리로 외쳤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르테미스가 위대하다!"

³⁵ 도시 서기가 무리를 진정시킨 후 말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도시가 위대한 여신 아르테미스의 사원을 지키는 자이며, 제우스로부터 떨어진 그 상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³⁶ 이러한 일들은 부정할 수 없으니, 너희는 조용히 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³⁷ 너희가 이 사람들을 데려온 것은 사원을 훔치는 자도, 너희 여신을 모독하는 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³⁸ 그러므로 데메트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일꾼들이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다면, 재판관은 열려 있고, 총독도 있다. 그들이 서로를 고소하게 하라.

³⁹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안을 원한다면, 정기적인 모임에서 해결될 것이다.

⁴⁰ 우리는 오늘날의 소요에 대해 이유 없이 고발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혼란에 대해 우리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⁴¹ 그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모임을 해산했다.

사도행전 20장

- 1 소동이 끝난 후, 바오로는 제자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났다.
- 2 그가 그 지역들을 지나며 많은 말로 그들을 격려한 후, 그레스로 들어갔다.
- 3 그가 거기서 세 달을 보낸 후, 시리아로 항해하려던 차에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 음모를 꾸몄다. 그래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 4 그와 함께 아시아까지 간 이들은 베로이아의 소파테르, 데살로니가의 아리스타르코와 세쿰도스, 더베의 가이오스, 티모테오, 아시아의 티키코와 트로피모였다.
- 5 그러나 그들은 먼저 가서 트로아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 6 우리는 무교절이 끝난 후 필리피에서 떠나, 다섯 날 만에 트로아스에서 그들과 만났고, 거기서 일곱 날을 머물렀다.
- 7 첫째 날, 즉 주일에 제자들이 떡을 떼기 위해 모였을 때, 바오로는 다음 날 떠나려고 하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밤 중까지 말을 계속했다.
- 8 우리가 모인 뒤편에는 등불이 많았다.
- 9 유치우스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창가에 앉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바오로가 더 오래 말할수록, 그는 잠에 취해 삼층에서 떨어져 죽은 채로 옮겨졌다.
- 10 바오로는 내려가 그에게 엎드려 안으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
- 11 그가 올라가 떡을 떼고 먹은 후, 오랫동안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말한 후, 떠났다.
- 12 그들은 살아난 소년을 데려왔고, 크게 위로를 받았다.
- 13 우리는 먼저 배로 가서 아소스로 항해하여, 거기서 바오로를 태우려고 했다. 그는 땅으로 가기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 14 그가 아소스에서 우리를 만나자, 우리는 그를 배에 태우고 미틸레네로 갔다.
- 15 그곳에서 항해하여 이튿날 키오스 앞바다에 도착했다. 그 다음 날 사모스에 정박하여 트로길리온에서 머물렀고, 그 다음 날 미레토스에 도착했다.
- 16 바오로는 에페소스를 지나쳐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 했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 17 바오로는 미레토스에서 에페소스로 사람을 보내어 공동체의 장로들을 불러들였다.
- 18 그들이 그에게 왔을 때,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첫발을 디딘 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 19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 유대인들의 음모로 내게 닥친 시험 속에서 주님을 섬겼다.
- 20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도, 집집마다 가르쳤다.
- 21 나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모두에게 하느님께로의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로의 믿음을 증언했다.
- 22 이제 보십시오. 나는 성령에 묶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 23 오직 성령이 모든 도시에서 내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증언할 뿐입니다.
- 24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내 경주를 마치고,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하여, 하느님의 은총의 복음에 대해 완전히 증언하려 합니다.
- 25 지금 내가 너희 모두 사이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전하며 다녔는데,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안다.
- 26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다.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서 깨끗하다.
- 27 내가 하느님의 온전한 뜻을 너희에게 선포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 28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성령이 너희를 감독으로 세우신 온 무리에 주의하여라. 그 무리는 그가 자신의 피로 사신 주님과 하느님의 교회이다.
- 29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늑대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무리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 30 너희 자신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꺾인 말을 하며 제자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³¹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내가 삼 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모두를 권면한 것을 잊지 말아라.

³² 지금,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하느님과 그의 은총의 말씀에 맡긴다. 이 말씀은 너희를 세우고, 모든 성화된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기업을 주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³³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않았다.

³⁴ 너희 자신이 이 손들이 나와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의 필요를 채웠다는 것을 안다.

³⁵ 내가 모든 일에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이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라. ‘주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³⁶ 그가 이 말을 마치고 무릎을 꿇고 모두와 함께 기도하였다.

³⁷ 모두가 마음껏 울며 바오로의 목에 안기고 그를 입으로 맞았다.

³⁸ 그가 말한 바,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가장 슬퍼하였다. 그 후 그들은 그를 배까지 데려다주었다.

사도행전 21장

- 1 우리가 그들을 떠나 배에 올라선 후, 곧장 코스에 도착하고, 이튿날 로도스에 이르렀으며, 거기서 파타라로 향했다.
- 2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찾아 타고 출발했다.
- 3 키프로스가 보이자, 그것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향해 티로에 도착했는데, 그 배가 화물을 내리기 위해 정박해 있었기 때문이다.
- 4 제자들을 찾아 그곳에서 일곱 날을 머물렀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 바오로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했다.
- 5 그 날들이 끝나자, 우리는 떠나 길을 떠났다. 그들은 모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도시 밖까지 배웅했다. 해변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기도했다.
- 6 서로 인사한 후, 우리는 배에 올라탔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 7 티로에서의 항해를 마친 후, 우리는 톨레마이스에 도착하여 형제들을 인사하고 하루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 8 이튿날, 바오로의 동행자들은 떠나 케사레아에 도착했다.
- 9 이 사람에게에는 네 명의 처녀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언했다.
- 10 우리가 그곳에서 며칠을 머무르고 있을 때, 유다에서 아가부라는 이름의 예언자가 내려왔다.
- 11 우리에게 와서 바오로의 허리띠를 가져가 자기 발과 손을 묶으며 말했다. "성령이 말한다. 이 허리띠를 가진 이 사람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 12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우리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했다.
- 13 그러자 바오로가 말했다. "왜 울며 내 마음을 괴롭히는가? 나는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까지도 준비되어 있다."
- 14 그가 설득되지 않자, 우리는 그만두며 말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 15 이후 날들이 지나, 우리는 짐을 챙겨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 16 케사레아에서 온 제자들 몇 명도 우리와 함께 가서, 키프로스 출신의 오래된 제자 민사온을 데려왔는데, 우리는 그와 함께 머무를 예정이었다.
- 17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기쁘게 우리를 맞이했다.
- 18 이튿날, 바오로는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가서 모든 장로들이 함께 있었다.
- 19 그가 인사한 후, 그가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하느님이 이루신 일을 하나하나 보고했다.
- 20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말했다. "형제여, 유대인들 가운데 믿은 이들이 수천 명이나 되며, 모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 21 그들은 당신에 대해 들었는데, 당신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버리고, 자녀들을 할례하지 말고, 전통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 22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당신이 온 것을 들을 것이므로, 공동체가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 23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네 명의 사람이 서원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 24 그들을 데려가서 그들과 함께 정결하게 되고, 그들의 비용을 대어 머리를 깎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들이 들은 당신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25 그러나 믿는 이방인들에 관해 우리는 그들이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하여 서신을 보냈습니다. 단, 그들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죽인 것들과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 26 그러자 바오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각각을 위한 제물이 바쳐질 때까지 정결의 날들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 27 일주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 무리를 선동하여 그를 붙잡았습니다.
- 28 그들이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온 세상 어디서나 백성과 율법과 이 장소를 반대하도록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그리스인들을 성전에 데려와서 이 성스러운 장소를 더럽혔습니다!"
- 29 그들은 에페소의 트로피모스가 도시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오로가 그를 성전에 데려왔다고 생각했

습니다.

³⁰ 도시 전체가 요동치고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오로를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즉시 문들이 닫혔습니다.

³¹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연대장에게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³² 그는 즉시 병사들과 백인대장을 데리고 달려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대장과 병사들을 보고 바오로를 때리기를 멈추었습니다.

³³ 그러자 연대장이 가까이 다가가 그를 체포하고 두 개의 쇠사슬로 묶도록 명령하며, 그가 누구이며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³⁴ 무리 속에서 어떤 이들은 이 말을, 어떤 이들은 저 말을 외쳤습니다. 소란 때문에 진실을 알 수 없게 된 그는 바오로를 병영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³⁵ 그가 계단에 다다랐을 때, 무리의 폭력 때문에 병사들이 그를 들어 올렸습니다.

³⁶ 무리가 뒤따라 외쳤습니다. "그를 죽여라!"

³⁷ 바오로가 병영으로 끌려가려 할 때, 연대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과 말할 수 있겠습니까?"

³⁸ 당신은 아예 이전에 반란을 일으켜 사자단의 사천 명을 광야로 이끌었던 이집트인이 아니십니까?

³⁹ 그러나 바오로는 말했습니다. "나는 킬리키아의 타르소스 출신 유대인으로, 무시할 만한 도시의 시민이 아닙니다. 제발, 제가 백성에게 말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⁴⁰ 그가 허락하자, 바오로는 계단에 서서 손을 들어 백성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큰 침묵이 흐른 후, 그는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 1 "형제들과 아버지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변호하는 것을 들어 주십시오."
- 2 그들이 그가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더욱 조용해졌다.
- 3 "나는 실리키아의 타르소스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자라나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격한 전통에 따라 교육을 받았으며, 너희 모두가 오늘날처럼 하느님을 열심히 따르는 자였다."
- 4 나는 이 길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박해하여, 남녀를 모두 결박하여 감옥에 넘겼다.
- 5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도 증언하듯, 나는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에 있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벌을 받게 하려고 여행했다.
- 6 "내가 여정을 계속하며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한낮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내 주위를 비추었다."
- 7 나는 땅에 쓰러져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목소리가 내게 말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가?"
- 8 나는 대답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가 내게 말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의 예수이다."
- 9 "내와 함께 있던 자들은 그 빛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내게 말하는 자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다."
- 10 나는 말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이 내게 말했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네게 알려줄 것이다."
- 11 그 빛의 영광으로 나는 보이지 않게 되었고, 내 곁에 있던 자들이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려다 주었다.
- 12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자이며, 다마스쿠스에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았다."
- 13 그가 내게 와서 내 곁에 서서 말했다. "형제 사울아, 보기를 회복하여라!" 그때 바로 내가 그를 바라보았다.
- 14 그가 말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은 당신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운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게 하셨다."
- 15 너는 네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이다.
- 16 그러니 이제 무엇을 기다리느냐? 일어나 세례를 받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네 죄를 씻어라."
- 17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에 빠졌다."
- 18 그가 내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들은 네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 19 나는 말했다. "주님, 그들은 제가 당신을 믿는 자들을 각 회당에서 감옥에 가두고 매질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20 스테파노, 당신의 증인이 피를 흘릴 때, 저도 그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켰습니다."
- 21 "그가 내게 말했다. "떠나라. 내가 너를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 22 그들이 그가 그 말을 할 때까지 들었으나, 그 후에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이 자를 땅에서 없애버려라. 그는 살아갈 자가 아니다!"
- 23 그들이 외치며 옷을 벗어 던지고 공중에 흙을 뿌리자,
- 24 장교는 그를 병영으로 끌고 가서 채찍질하여 그들이 왜 그렇게 그를 향해 외치는지 알아보라고 명령했다.
- 25 그들이 그를 줄로 묶었을 때, 바오로는 곁에 서 있던 백인대장에게 물었다. "로마 시민이면서 유죄가 판명되지 않은 사람을 매질하는 것이 합법입니까?"
- 26 백인대장이 이 말을 듣고 사령관에게 가서 말했다.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하는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 27 사령관이 와서 그에게 물었다. "말해보시오, 당신은 로마 시민입니까?"
- 28 사령관이 대답했다. "나는 큰 대가를 치르고 시민권을 사들였다."
- 29 즉시 그를 심문하려던 자들이 그를 떠났고, 사령관도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묶었던 일을 떠올리며 두려워했다.
- 30 그러나 이튿날, 유대인들이 그를 어떻게 고발했는지 진실을 알고 싶어 그를 쇠사슬에서 풀어주고, 대제사장들과 모든 공

의회원을 불러모아 바오로를 데려와 그들 앞에 세웠다.

사도행전 23장

- 1 바오로가 공회를 굳게 바라보며 말했다. "형제들, 저는 오늘까지 양심에 거슬리지 않고 하느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 2 대제사장 아나니아스는 자기 옆에 서 있는 자들에게 바오로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다.
- 3 그러자 바오로가 그에게 말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흰 칠한 벽이여! 당신이 법에 따라 나를 심판한다고 하면서, 법에 어긋나게 나를 치라고 명령합니까?"
- 4 옆에 서 있던 자들이 말했다. "당신이 하느님의 대제사장을 모독합니까?"
- 5 바오로가 말했다. "형제들, 저는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를 향해 악한 말을 하지 마라.'"
- 6 바오로는 그들 중 일부가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가 바리사이인 것을 알고 공회에서 외쳤다. "남자들이여, 형제들, 저는 바리사이이며, 바리사이의 아들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과 소망 때문에 제가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 7 그가 이 말을 하자, 바리사이와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무리가 갈라졌다.
- 8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한다.
- 9 큰 소란이 일어나, 바리사이파의 일부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말했다. "이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악한 행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면, 우리는 하느님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 10 큰 다툼이 일어나자, 사령관은 바오로가 그들에 의해 찢어질까 두려워하여 병사들에게 내려가 그를 강제로 끌어내어 병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 11 다음 밤, 주님이 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바오로,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서도 증언해야 한다."
- 12 아침이 되자, 일부 유대인들이 모여서 저주를 받는 것으로 맹세하며, 바오로를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다.
- 13 이 음모에 참여한 자는 사십 명이 넘었다.
- 14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다. "우리는 바오로를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맛보지 않겠다는 큰 저주를 받았습니다."
- 15 그러므로 지금, 너희는 공회와 함께 사령관에게 가서 내일 그를 너희에게 데려오라고 요청하여, 너희가 그의 사건을 더 정확히 심문하려는 척하라.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
- 16 그러나 바오로의 누이의 아들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듣고, 병영에 들어가서 바오로에게 알렸다.
- 17 바오로는 한 중대장에게 불러서 말했다. "이 젊은이를 사령관에게 데려가라. 그가 그에게 전할 말이 있다."
- 18 그는 그를 데리고 사령관에게 가서 말했다. "죄수 바오로가 나를 불러서 이 젊은이를 당신에게 데려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 19 사령관은 그의 손을 잡고 옆으로 끌고 가서 속삭이며 물었다. "네가 전할 말이 무엇이냐?"
- 20 그가 말했다. "유대인들이 내일 바오로를 공회에 데려오라고 당신에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들이 그를 더 정확히 심문하려는 척하는 것입니다."
- 21 그러므로 그들의 말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사십 명이 넘는 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은 바오로를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들은 당신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22 그러자 사령관은 그 젊은이를 풀어주며 명령했다. "네가 이 일을 나에게 말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 23 그는 두 명의 중대장을 불러서 말했다. "이 밤 세 시에, 이백 명의 보병과 칠십 명의 기병, 그리고 창을 든 이백 명을 준비하여 케사레아까지 데려가라."
- 24 그들은 말을 준비하여 바오로를 한 마리에 태우고, 안전하게 총독 펠릭스에게 데려가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 25 그는 이렇게 편지를 썼다:
- 26 "클라우디오스 루시아스가 가장 훌륭한 총독 펠릭스에게 인사드립니다."
- 27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제가 군인들과 함께 달려가 그를 구해냈는데, 그가 로마 시민이

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²⁸ 그들이 그를 어떻게 고발하는지 알기 위해, 저는 그를 그들의 공회에 데려왔습니다.

²⁹ 저는 그가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로 고발되었을 뿐, 죽음이나 감금에 해당하는 죄목을 받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³⁰ 유대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즉시 그를 당신에게 보냈으며, 그의 고발자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고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안녕히."

³¹ 그러자 군인들은 명령을 수행하여 바오로를 데리고 밤에 안티파트리스로 떠났습니다.

³² 그러나 이튿날 그들은 기마병을 그와 함께 보내고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³³ 그들이 카이사레아에 도착하여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오로도 그에게 데려왔습니다.

³⁴ 총독이 편지를 읽고, 그가 어느 지방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그가 실리키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말했습니다,

³⁵ "당신의 고발자들도 도착하면, 당신의 말을 모두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헤로데의 궁전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 ¹ 다섯 날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일부 장로들과 한 변론가인 테르툴로가 내려와 바오로를 고발하였다.
- ² 부름을 받자 테르툴로가 그를 고발하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많은 평화를 누리며, 당신의 지혜로 이 나라에 번영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³ 이 모든 것을, 훌륭한 펠릭스여, 온갖 감사의 마음으로 어디서나 받아들입니다.
- ⁴ 그러나 제가 당신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우리 말을 조금만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 ⁵ 우리는 이 사람이 재앙이며, 온 세상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자이며, 나사렛 파의 두목임을 발견했습니다.
- ⁶ 그는 성전을 더럽히려 했고, 우리는 그를 체포했습니다.
- ⁸ 당신이 직접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모든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⁹ 유대인들도 함께 나서서, 이 모든 일이 사실이라고 증언하였다.
- ¹⁰ 총독이 말하라고 신호를 보내자, 바오로가 대답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오랜 세월을 보냈음을 알고 있으므로, 나는 기꺼이 변호합니다."
- ¹¹ 당신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드리기까지 불과 열두 날밖에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¹² 성전에서는 내가 누구와도 다투거나 무리를 선동하지 않았고, 회당이나 도시에서도 그러했습니다.
- ¹³ 그들은 지금 내가 고발당한 사항들을 당신에게 증명할 수 없습니다.
- ¹⁴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파라고 부르는 이 길을 따라, 나는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 ¹⁵ 나는 하느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있으며, 이들도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있는 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 ¹⁶ 이 때문에 나는 하느님과 사람 앞에 결함 없는 양심을 항상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 ¹⁷ 몇 년 후, 나는 내 백성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구제품과 제물을 가져오려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 ¹⁸ 그때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내가 정결하게 된 것을 발견했으나, 무리나 소란 없이 말입니다.
- ¹⁹ 그들이 나에 대해 무엇이든가 주장할 것이 있다면, 그들이 여기에 와서 당신 앞에서 고발해야 했습니다.
- ²⁰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를 공회 앞에 세울 때, 내가 어떤 부당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게 하십시오.
- ²¹ 그것이 단지 내가 그들 사이에 서서 외친 한 가지 일, 즉, "오늘 나는 너희 앞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말뿐입니다."
- ²² 그러나 펠릭스는 이 길에 대해 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미루며 말했다. "리시아스 장교가 내려오면, 너희의 사건을 판단하겠다."
- ²³ 그는 백인대장에게 바오로를 감금 상태로 두고, 일부 특권을 주며,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돕거나 방문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 ²⁴ 몇 날 후, 펠릭스는 유대인 여자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오로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에 관해 듣고자 하였다.
- ²⁵ 그가 의로움과 절제와 올 것인 심판에 관해 말하자, 펠릭스는 무서워하며 말했다. "지금은 가라. 내가 기회가 되면 너를 불러줄 것이다."
- ²⁶ 한편, 그는 바오로가 돈을 주기를 바랐고, 그 돈으로 자신을 석방하려 했다. 그래서 그는 바오로를 더 자주 불러서 대화했다.
- ²⁷ 그러나 두 해가 지나자, 펠릭스는 포르키우스 페스투스에게 물려받았고,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얻고자 바오로를 붙잡아 두었다.

사도행전 25장

- 1 페스투스가 지방에 도착한 지 사흘 후에 케사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 2 그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주요 인사들이 바오로를 고발하며 그에게 간청했다.
- 3 그들은 그가 바오로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오도록 요청하면서, 길에서 그를 죽이려 음모를 꾸몄다.
- 4 그러나 페스투스는 바오로를 케사레아에 구류해 두고, 자신이 곧 떠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 5 그는 말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서 권세 있는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잘못이 있으면 그를 고발하라."
- 6 그가 그들 가운데 열흘 이상 머무른 후 케사레아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 바오로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 7 바오로가 도착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증명할 수 없는 많은 심각한 혐의를 제기했다.
- 8 그러나 바오로는 변호하며 말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카이사르에게도 전혀 죄를 지은 바 없다."
- 9 그러나 페스투스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얻고자 바오로에게 말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네를 심문하기를 원하는가?"
- 10 그러나 바오로는 말했다. "나는 카이사르의 재판석 앞에 서 있다. 내가 심문받아야 할 곳이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으며, 너도 잘 알고 있다."
- 11 만일 내가 잘못을 저질러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면, 나는 죽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고발하는 일이 하나도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 나는 카이사르에게 상소한다!
- 12 그러자 페스투스가 의회와 상의한 후 대답했다. "네가 카이사르에게 상소했으니, 카이사르에게 가게 될 것이다."
- 13 몇 일이 지난 후, 아그리파 왕과 베르니케가 케사레아에 도착하여 페스투스를 인사했다.
- 14 그가 그곳에 여러 날 머무는 동안, 페스투스는 왕에게 바오로의 사건을 설명하며 말했다. "페릭스가 붙잡아 둔 한 남자가 있다."
- 15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에 대해 나에게 고발하며 그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 16 나는 그들에게 로마인의 관습은 피고가 고발자와 대면하여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얻기 전에는 아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답했다.
- 17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에 모였을 때, 나는 지체하지 않고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 그 남자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 18 고발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생각하던 그런 혐의를 그에게 제기하지 않았다.
- 19 그들은 다만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몇 가지 문제와, 죽은 자인데 바오로가 살아 있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 예수에 대해 그에게 질문을 했다.
- 20 이런 일들을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일들에 대해 심문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았다.
- 21 그러나 바오로가 황제의 판결을 위해 보류해 달라고 상소하자, 나는 그를 보류하여 그를 카이사르에게 보낼 수 있을 때까지 간수하라고 명령했다.
- 22 아그리파가 페스투스에게 말했다. "나도 그 사람을 직접 들어보고 싶다." 그가 말했다. "내일 네가 그를 들어볼 것이다."
- 23 그러므로 이튿날, 아그리파와 베르니케가 큰 화려함으로 도착하여, 사령관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청문회 장소에 들어섰다. 페스투스의 명령에 따라 바오로가 끌려왔다.
- 24 페스투스가 말했다. "아그리파 왕과 여기에 함께 있는 여러분, 이 남자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도 여기에 서도 모두 나에게 간청하여, 그가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 25 그러나 내가 그가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알고, 그가 스스로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 26 나는 주님께 쓸 확실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여러분 앞, 특히 아그리파 왕 앞에 데려왔습니다. 심문을 통해 제가 쓸 내용을 얻고자 합니다.

²⁷ 죄수를 보내면서 그가 어떤 혐의를 받는지 명시하지 않는 것은 제게 부당해 보입니다.

사도행전 26장

- 1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했다. "네가 스스로 말해라."
- 2 "아그리파 왕님, 오늘 제가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한 모든 일에 대해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되었으니,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 3 "당신은 유대인들 사이의 모든 풍습과 문제에 능통하므로, 제가 조용히 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 4 "유대인들은 모두 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삶은 제 고향 민족과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5 "그들이 증언하려고 한다면, 제가 우리 종교에서 가장 엄격한 파리사이파의 일원으로 살아왔음을 알 것입니다."
- 6 "지금 저는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바라며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 7 "우리 열두 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봉사하며 이 약속을 이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대해, 아그리파 왕님,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 8 "하느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면, 그것이 왜 당신들에게 믿기 어려운 일입니까?"
- 9 "나는 나사렛의 예수의 이름에 반대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확실히 생각했습니다."
- 10 "나는 예루살렘에서도 이 일을 했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음을 당할 때 투표로 그들을 반대했습니다."
- 11 "나는 모든 회당에서 그들을 자주 벌하며 그들이 모독하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을 향해 극심한 분노를 품고, 나는 심지어 외국 도시들까지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 12 "그러므로 내가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명령을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
- 13 "왕님, 낮에 나는 길에서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 주위에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 14 "우리 모두가 땅에 쓰러졌을 때, 나는 히브리어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는가? 가시에 발을 찌는 것이 네게 힘들다.""
- 15 "나는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 16 "그러나 일어나서 발에 서라. 나는 너에게 이 일을 하게 하려고 네게 나타났다. 너를 나의 일꾼과 증인으로 세우려는 것이다. 네가 본 것과 내가 네게 보여줄 것 모두에 대해."
- 17 "나는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구원하여, 내가 너를 보내는 곳으로 보내려 한다."
- 18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느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죄의 용서와 나를 믿는 자들 안에서 성화된 자들에게 상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 19 "그러므로 아그리파 왕님, 나는 하늘에서 온 환상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 20 "나는 먼저 다마스쿠스에 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과 유대 전 지역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여 하느님께로 돌아오고, 회개에 합당한 행실을 하라고 선포했습니다."
- 21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 22 "그러므로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나는 오늘까지 작고 큰 자들에게 증언하며, 예언자들과 모세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 23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야 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을 통해,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모두 빛을 선포하는 첫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24 "바울이 이렇게 변명할 때, 페스투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바울, 네가 미쳤다! 네가 너무 많은 학식을 쌓아 미쳐버렸다!"
- 25 바오로가 말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오, 가장 존경하는 페스투스님. 저는 진리와 합리적인 말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 26 이 일들은 왕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그분께 자유롭게 말합니다. 나는 이 일들이 그분께 숨겨진 것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 일들은 어두운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²⁷ 아그리파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나는 당신이 믿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²⁸ 아그리파가 바오로에게 말했다. "조금만 설득해서 나를 기독교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냐?"

²⁹ 바오로가 말했다.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조금이든 많은, 오늘 나를 듣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죄사슬은 제외하고요."

³⁰ 왕은 총독과 베르니케와 함께 일어나, 그들과 함께 앉아 있던 사람들과 함께 떠났다.

³¹ 그들이 물러간 후, 서로 말했다. "이 사람은 죽음이나 죄사슬에 걸맞은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시다."

³² 아그리파가 페스투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카이사르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이미 풀려났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 1 우리가 이탈리아로 항해하기로 결정되자, 그들은 바오로와 다른 일부 죄수를 아우구스투스 단의 중대장 율리오에게 넘겼다.
- 2 아드라미티온에서 나와 아시아 해안의 여러 지역으로 가려던 배에 탑승하여, 우리는 떠났고, 테살로니카 출신 마케도니아인 아리스타르코스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
- 3 다음 날, 우리는 시돈에 도착했다. 율리오는 바오로를 친절히 대우하여 친구들을 만나고 휴식을 취하게 허락했다.
- 4 거기서 출항한 뒤, 바람이 역풍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키프로스를 지나 항해했다.
- 5 킬리키아와 판필리아 앞바다를 항해한 뒤, 우리는 리키아의 도시 미라에 도착했다.
- 6 거기서 중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찾아 우리를 태웠다.
- 7 우리는 천천히 많은 날을 항해한 뒤, 크니도스 앞바다에 도달했으나 바람이 더 이상 진행을 허락하지 않아, 살모네 앞바다를 지나 크레타의 바람을 피하며 항해했다.
- 8 이 해안을 따라 힘겹게 항해한 끝에, 우리는 라세아 근처에 있는 '좋은 만'이라는 장소에 도착했다.
- 9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미 금식절이 지나서 항해가 위험해지자, 바오로가 그들에게 경고했다.
- 10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 항해는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 11 그러나 중대장은 바오로가 말한 것보다 배의 선장과 소유자에게 더 주의를 기울였다.
- 12 이 만은 겨울을 보내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시 바다로 나가, 어쩌면 페닉스에 도달하여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페닉스는 크레타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향하고 있었다.
- 13 남풍이 부드럽게 불자, 그들은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려 크레타 해안을 따라 가까이 항해했다.
- 14 그러나 곧바로, 유로클리돈이라고 불리는 폭풍우가 해안에서 몰아쳤다.
- 15 배가 폭풍에 휩쓸려 바람을 향해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우리는 바람에 몸을 맡기고 끌려다녔다.
- 16 클라우다라는 작은 섬의 바람을 피하며 항해하던 중, 힘겹게 보트를 확보할 수 있었다.
- 17 그들은 보트를 들어 올린 뒤, 선체를 견고히 하기 위해 케이블을 사용했다. 시르티스 모래톱에 좌초될까 두려워서 해양 닻을 내리고, 그대로 끌려다녔다.
- 18 폭풍에 힘겹게 대응하던 중, 다음 날 그들은 배의 화물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 19 세 번째 날, 그들은 스스로 배의 장비를 바다에 버렸다.
- 20 많은 날 동안 해와 별이 우리를 비추지 않았고, 심한 폭풍이 계속되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희망은 모두 사라졌다.
- 21 그들이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뒤, 바오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다. "여러분, 제가 말한 것을 들었더라면 크레타에서 항해하지 않고, 이 화물과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 22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용기를 내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며, 배만 잃게 될 것입니다.
- 23 이 밤, 나와 함께 선상에 선 천사가,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섬기는 하느님의 천사였습니다.
- 24 그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바오로. 너는 카이사르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이의 생명을 너에게 주셨다."
- 25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저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내게 말한 대로 그럴 것입니다.
- 26 우리는 어떤 섬에 좌초될 것입니다.
- 27 십사 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드리아해에서 흔들리고 있었는데, 밤중쯤 선원들이 어떤 땅에 가까이 다가왔다고 추측했습니다.
- 28 그들은 깊이를 재어 보니 이십 자였고, 잠시 후 다시 재어 보니 십오 자였습니다.
- 29 바위가 많은 곳에 좌초될까 두려워서 그들은 배 뒤쪽에서 네 개의 닻을 내리고 낮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 30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치려고 보트를 바다에 내리고, 배 앞쪽에서 닻을 놓겠다고 위장하고 있었을 때,
- 31 바오로가 백인대장과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머물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 32 그러자 군인들이 보트의 밧줄을 끊어 떨어뜨렸습니다.

- ³³ 낮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바오로는 모두에게 음식을 먹을 것을 간청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열네 번째 날을 기다리며 금식하고 있는 날입니다."
- ³⁴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기를 간청합니다. 이는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 ³⁵ 그가 이 말을 마치고 빵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느님께 감사한 뒤, 빵을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 ³⁶ 그러자 모두가 용기를 얻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 ³⁷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 모두 이백칠십육 명이었습니다.
- ³⁸ 그들이 충분히 먹은 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밀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 ³⁹ 낮이 되자 그들은 땅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해변이 있는 어떤 만을 알아보았고, 배를 그곳에 밀어넣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 ⁴⁰ 닻을 끌어올려 바다에 버리고, 횡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앞돛을 풀어 바람을 받고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 ⁴¹ 그러나 두 바다가 만나는 곳에 이르러 배가 좌초되었습니다. 선수는 부딪혀 움직이지 않았지만, 뒷부분은 파도의 세기에 따라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 ⁴² 군인들은 죄수들을 모두 죽여 아무도 수영해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 ⁴³ 그러나 백인대장은 바오로를 구원하고자 그들의 계획을 막고, 수영할 수 있는 자들이 먼저 바다로 뛰어내려 땅으로 향하게 명령했습니다.
- ⁴⁴ 나머지 사람들은 널빤지나 배에서 나온 다른 것들에 붙어서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안전하게 땅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 1 우리가 탈출한 후에 그들이 그 섬의 이름이 말타임을 알게 되었다.
- 2 현지 사람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불을 피우고 비와 추위 때문에 우리 모두를 맞이하였다.
- 3 바오로가 나뭇가지 한 묶음을 주워 불 위에 놓으니, 열기 때문에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붙었다.
- 4 현지 사람들이 그 생물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다. 바다에서 탈출했지만, 정의가 그를 살려두지 않았다."
- 5 그러나 그는 그 생물을 불 속으로 흔들어 떨어뜨렸고, 아무 해를 입지 않았다.
- 6 그들은 그가 부어 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오랫동안 지켜보아도 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자, 마음을 바꾸어 그가 신이라고 말하였다.
- 7 그 지역 근처에는 섬의 주요 인물인 푸블리오의 땅이 있었다. 그는 우리를 맞아들여 사흘 동안 우호적으로 대접하였다.
- 8 푸블리오의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로 병들어 누워 있었다. 바오로가 들어가 기도하고 손을 얹으니, 그를 고쳐 주었다.
- 9 이 일이 끝난 후, 섬에 있던 다른 병자들도 와서 치유를 받았다.
- 10 그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우를 베풀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 주었다.
- 11 세 달 후,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났다. 그 배의 선두에는 "쌍둥이 형제"라고 쓰여 있었다.
- 12 시라쿠사에 정박하여 사흘 동안 머물렀다.
- 13 거기서 우리는 둘러가서 레기움에 도착하였다. 하루 후, 남풍이 불기 시작하여 이틀째에 푸테올리에 이르렀다.
- 14 거기서 우리는 형제들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도록 부탁받았다. 그 후 우리는 로마에 도착하였다.
- 15 로마에서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우 시장과 삼개의 여관까지 나와 맞이하였다. 바오로가 그들을 보고 하느님께 감사하며 용기를 얻었다.
- 16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자, 백인대장은 죄수들을 근위대장에게 넘겼으나, 바오로는 자신을 지키는 병사와 함께 혼자서 머무는 것을 허락받았다.
- 17 사흘 후, 바오로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제 민족이나 조상들의 전통에 반하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인들의 손에 붙잡혀 온 것입니다."
- 18 로마인들이 저를 심문한 후, 저에게 사형의 이유가 없으므로 풀어주려 했습니다.
- 19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하자, 저는 제 민족을 고발할 이유가 없었지만,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20 이러한 이유로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대화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슬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제게 매인 것입니다."
- 21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유대아에서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지 않았고, 형제들 중 누구도 여기 와서 당신에 대해 나쁜 소식을 전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 22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 파당에 관해서는, 어디서나 비난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 23 그들이 그에게 날을 정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에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인용하여 하느님 나라에 대해 증언하고, 예수에 대해 그들을 설득하였다.
- 24 그 말을 듣고 일부는 믿었고, 일부는 믿지 않았다.
- 25 그들이 서로 합의하지 못하자, 바오로가 한 마디로 말을 마친 후에 떠났다. 그가 말했다. "성령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올바르게 말씀하셨다."
- 26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 27 "이 백성의 마음은 완악해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 어려워졌으며, 그들의 눈은 닫혔다."
- 28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리어 두노니, 하느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졌으니, 그들이 들을 것이다."
- 29 그가 이 말을 마치자, 유대인들은 서로 심한 논쟁을 하며 떠났다.

³⁰ 바오로는 자신의 빌린 집에서 두 해 동안 머물며,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받았다.

³¹ 그는 모든 담대함으로 하느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막힘 없이 가르쳤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 Romans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장

- ¹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에 특별히 구별된 자이다.
- ² 이 복음은 하느님께서 성서의 예언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바이다.
- ³ 그것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 ⁴ 그는 성령의 거룩함으로써 죽음에서의 부활을 통해 능력 있게 하느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 ⁵ 우리는 그분을 통해 은총과 사도의 사명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믿음의 복종을 이루게 되었다.
- ⁶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 ⁷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사랑하시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이들에게 은총과 평화가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함께하기를 빈다.
- ⁸ 먼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느님을 모든 여러분을 위하여 감사한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나기 때문이다.
- ⁹ 하느님은 나의 증인이시다. 나는 그의 아들의 복음을 통해 영으로 그분을 섬기며,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기억한다.
- ¹⁰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제 마침내 여러분에게 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 ¹¹ 내가 여러분을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이 굳건해지기 위함이다.
- ¹² 곧, 여러분의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 ¹³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다. 나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려고 계획했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아 왔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열매를 맺고자 했다.
- ¹⁴ 나는 그리스인들에게나 외국인들에게, 지혜로운 자들에게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모두 빚진 자이다.
- ¹⁵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한, 나도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 ¹⁶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는 하느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 이른다.
- ¹⁷ 이 복음 안에는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난다. 성경이 말하길,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였다.
- ¹⁸ 하느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불의한 자들이 진리를 억누르는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나타난다.
- ¹⁹ 하느님에 대해 알려진 바가 그들 안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 ²⁰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함이 창조된 만물에 의해 분명히 드러나므로,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
- ²¹ 그들은 하느님을 알면서도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무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다.
- ²² 그들은 지혜로운 자라고 자랑하면서도 어리석어졌다.
- ²³ 그들은 썩지 않는 하느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와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 ²⁴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들을 마음의 욕정에 내버려 두셨다. 그들이 몸을 더럽히게 하여, 서로에게 부끄러움을 받게 하였다.
- ²⁵ 그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다. 창조주는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다. 아멘.
- ²⁶ 이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다. 그들의 여자들은 자연스러운 기능을 자연에 어긋나는 기

능으로 바꾸었다.

²⁷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떠나 서로에게 향한 욕정에 타올랐다. 남자가 남자와 부적절한 일을 하며, 자기 안에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다.

²⁸ 그들이 하느님을 자기 지식에 두기를 원치 않았으므로, 하느님께서 그들을 버려서 합당하지 않은 마음을 갖게 하셨다. 그들은 마땅치 않은 일을 하게 되었다.

²⁹ 그들은 불의, 음행, 악행, 탐욕, 악의로 가득 차 있었고, 시기, 살인, 다툼, 속임수, 악한 습관, 은밀한 험담자로 가득했다.

³⁰ 비방하는 자들, 하느님을 미워하는 자들, 교만하고 거만하며 자랑하며,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

³¹ 이해력이 없고, 약속을 어기는 자들, 자연스러운 애정이 없는 자들, 용서하지 않는 자들, 자비롭지 않은 자들이다.

³² 그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죽음에 합당하다는 하느님의 법을 알면서도, 자기들도 그런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칭찬한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2장

- 1 그러므로 네가 누구든지 판단하는 자여, 핑계할 수 없다. 네가 다른 이를 판단하는 그 일로 자신을 정죄한다. 네가 판단하는 자는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 2 우리는 하느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
- 3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자신도 같은 일을 하는데, 하느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4 네가 그의 선하심과 인내와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경히 여기고, 하느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 5 그러나 네가 딱딱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분노의 날, 곧 하느님의 공정한 심판의 날에 자신을 향해 분노를 쏟아두고 있다.
- 6 그분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모든 이에게 보답하실 것이다."
- 7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엄과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 8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며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분노와 진노가 있을 것이다.
- 9 모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있으며, 먼저 유대인에게, 그 후 그리스인에게 미칠 것이다.
- 10 모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엄과 평화가 있으며, 먼저 유대인에게, 그 후 그리스인에게 미칠 것이다.
- 11 하느님께는 편견이 없다.
- 12 법 없이 죄를 지은 자들은 법 없이 망할 것이고, 법 아래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 13 법을 듣는 자들이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법을 실천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다.
- 14 (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상 법의 일을 행할 때, 그들은 법이 없어도 스스로 법이 되며,
- 15 그들의 마음에 법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 주며, 양심이 그들과 함께 증언하고, 그들의 생각이 서로를 책망하거나 변호하기 때문이다.)
- 16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복음에 따라 사람들의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그 날에.
- 17 네가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법에 의지하며, 하느님을 자랑하며,
- 18 그분의 뜻을 알고, 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우수한 것을 구별하며,
- 19 눈먼 자들의 인도자,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 되고,
- 20 어리석은 자들의 교정자, 어린아이들의 선생이 되며, 법 안에 지식과 진리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구나.
- 21 그러므로 네가 다른 이를 가르치는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가? 네가 사람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전하는 데, 도둑질하는가?
- 22 네가 사람이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데, 간음하는가? 네가 우상들을 미워하는 데, 사원을 훔치는가?
- 23 네가 법을 자랑하는 데, 법을 어김으로써 하느님을 모독하는가?
- 24 "너 때문에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느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다."고 기록된 대로이다.
- 25 할례는 실제로 유익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실천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자라면, 그의 할례는 할례가 아닙니다.
- 26 그러므로 할례받지 않은 자가 율법의 규정을 지킨다면, 그의 할례받지 않은 상태가 할례로 간주되지 않겠습니까?
- 27 육체적으로는 할례받지 않았으나 율법을 실천하는 자들이, 글자와 할례로는 율법을 어기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 28 바깥쪽으로 유대인인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바깥쪽에 있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닙니다.
- 29 오직 안쪽으로 유대인인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 영 안에서의 할례이고,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칭찬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3장

- 1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할례에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 2 아주 여러 가지면에서입니다. 우선 그들이 하느님의 계시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 3 어떤 이들이 믿음을 잃었다고 해도, 그들의 불신이 하느님의 성실을 무효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 4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진실하시고,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당신의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려고"
- 5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느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면,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분노를 내리시는 하느님께서 불의하시단 말입니까? 나는 사람의 말처럼 말합니다.
- 6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느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 7 내 거짓을 통해 하느님의 진리가 그분의 영광을 더해준다면, 어찌하여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판단받아야 합니까?
- 8 "선이 나게 하려고 악을 행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허위로 비난받고, 어떤 이들이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단정하듯이) 그런 자들은 마땅히 정죄받습니다.
- 9 그러면 어찌 됩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유대인과 그리스인 모두가 죄 아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 10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 11 이해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 12 모두가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 13 "그들의 목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뱀의 독이 있습니다."
- 14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쓸개로 가득합니다."
- 15 "그들의 발은 피를 흘리기 위해 빠릅니다."
- 16 파괴와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습니다.
- 17 평화의 길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 18 "그들의 눈 앞에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 19 이제 우리는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닫히게 하고, 온 세상이 하느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 20 율법의 행위로는 육체가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을 통해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21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별개로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으며,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합니다.
- 22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의로움입니다. 이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느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 그분의 은총으로 무상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 25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분을 속죄의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인내를 통해 이전 죄들을 용서하심으로써 그분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 26 이제 이 시대에 그분의 의로움을 드러내시어, 자신이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 27 그러면 자랑할 여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배제되었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입니까? 행위의 법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입니다.
- 28 우리는 그러므로 사람이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 29 하느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의 하느님만이십니까? 이방인들의 하느님도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의 하느님도십니다.
- 30 하느님은 한 분이시며, 할례받은 자는 믿음으로, 할례받지 않은 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십니다.

31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법을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법을 확립합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4장

- 1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것입니까?
- 2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는 자랑할 여지가 있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 3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움으로 계산되었다."
- 4 일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은총으로 계산되지 않고 빚으로 계산됩니다.
- 5 그러나 일하지 않고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움으로 계산됩니다.
- 6 다윗도 행위 없이 하느님께서 의로움을 계산하시는 사람에게 복을 선언합니다.
- 7 "죄악이 사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고,
- 8 주님이 죄를 결코 계산하지 않으시는 자가 복이 있다."
- 9 이 복은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움으로 계산되었다고 말합니다.
- 10 그러면 그것은 언제 계산되었습니까? 할례를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까?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다.
- 11 그는 할례의 표징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졌던 믿음의 의로움의 인치며,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자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도 의로움이 계산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 12 그는 할례를 받은 자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들은 단지 할례를 받은 자들일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졌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 13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14 만약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효과가 없어집니다.
- 15 율법은 진노를 낳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 16 이러한 이유로 약속은 믿음에 근거하여 은총에 따라 이루어지며, 모든 후손에게 약속이 확실하게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 17 기록된 바와 같이, "나는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다." 이는 그가 믿은 분, 곧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느님 앞에서입니다.
- 18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믿었으며,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 19 그는 믿음에 약해지지 않고, 이미 쇠약해진 자신의 몸, 약 백 세의 나이였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처럼 되었음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20 그러나 하느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불신으로 인해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힘을 얻어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 21 그가 약속하신 것을 그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 22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23 그것이 그를 위한 것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 24 우리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의로움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 25 우리의 죄를 위해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일으키신 분입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5장

- ¹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 ² 그분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총에 들어서서 서 있게 되었고,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 ³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입니다.
- ⁴ 인내는 검증된 성품을, 검증된 성품은 소망을 낳습니다.
- ⁵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주어진 하느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 ⁶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적절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 ⁷ 의로운 자를 위해 죽는 사람은 드뭅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 누군가가 감히 죽을지도 모릅니다.
- ⁸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 내셨습니다.
- ⁹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를 통해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 ¹⁰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화해한 지금은 그의 생명으로 더욱 확실하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 ¹¹ 이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을 기뻐합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화해를 받았습니다.
- ¹² 그러므로 죄가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죄를 통해 들어왔으며,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 ¹³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¹⁴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죽음이 통치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은 죄를 지은 자들조차도 죽음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올 것의 예표입니다.
- ¹⁵ 그러나 하느님의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하느님의 은총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사의 풍성함이 더 많이 많은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 ¹⁶ 은사는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심판이 내려져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지나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 ¹⁷ 한 사람의 범죄로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해 통치하였다면,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받는 자들은 더욱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 생명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 ¹⁸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향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 ¹⁹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로워질 것입니다.
- ²⁰ 율법이 들어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넘쳐나는 곳에 은총이 더욱 넘쳐났습니다.
- ²¹ 이리하여 죄가 죽음에서 통치하듯이, 은총도 의로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6장

- ¹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까? 은총이 더 넘치게 하려고 죄에 머무르겠는가?
- ²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아직도 죄 속에서 살 수 있겠는가?
- ³ 너희는 알지 못하는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의 죽음에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을?
- ⁴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죽음에 장사되었으니, 마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의 가운데서 걷게 되려는 것이다.
- ⁵ 우리가 그의 죽음의 형상으로 그와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또한 그의 부활의 형상이 되리라.
- ⁶ 우리의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죄의 몸이 소멸되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이 되지 않게 되었음을 알고 있다.
- ⁷ 죽은 자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 ⁸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믿는다.
- ⁹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아 더 이상 죽지 않음을 알고 있다. 죽음은 이제 그에게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¹⁰ 그가 죽은 것은 죄를 향해 한 번 죽은 것이고, 그가 사는 것은 하느님을 향해 산다.
- ¹¹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느님을 향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산 자로 여겨라.
- ¹² 그러므로 너희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그 죄의 욕심에 복종하지 말라.
- ¹³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처럼 하느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느님께 드려라.
- ¹⁴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총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 ¹⁵ 그러면 어찌할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총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라 하는가? 그럴 수 없다!
- ¹⁶ 너희는 알지 못하는가? 너희가 누구에게 복종하면, 그 복종의 대상의 종이 되는가? 죄에 복종하면 죽음의 종이 되고, 복종에 복종하면 의로움의 종이 되는 것이다.
- ¹⁷ 그러나 하느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너희가 전해진 바 그 교훈의 형태에 마음으로 복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¹⁸ 죄에서 해방되어 의로움의 종이 되었다.
- ¹⁹ 내가 너희의 육신의 악함을 따라 사람의 말로 말한다. 너희가 전에는 부정과 악행에 이르기까지 지체를 불의의 종으로 내주었듯이, 이제는 성결을 향해 지체를 의로움의 종으로 내주어라.
- ²⁰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움에서 자유로웠다.
- ²¹ 그때 너희가 지금 부끄러워하는 일들에서 어떤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죽음이다.
- ²² 그러나 이제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종이 되었으니, 성결의 열매와 그 끝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 ²³ 죄의 값은 죽음이지만, 하느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7장

- 1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 바이니라,) 율법은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그에게만 권세가 있다.
- 2 남편이 있는 여자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율법에 의해 남편에게 매여 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남편에 대한 율법에서 해방된다.
- 3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결합하면, 그녀는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어, 다른 남자와 결합하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
- 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에게 죽었으니,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난 이에게 결합하여 하느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다.
- 5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을 통해 일어나는 죄의 욕망이 우리 지체에서 일어나, 죽음으로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 6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가 매여 있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해방되어, 문자의 옛 방식이 아니라, 영의 새 방식으로 섬기게 되었다.
- 7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랴? 율법이 죄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나는 율법을 알지 못했으면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율법이 '네가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탐내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 8 그러나 죄는 계명을 통해 기회를 얻어, 내 안에서 모든 탐내는 욕망을 일으켰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어 있다.
- 9 나는 율법이 없을 때는 살아 있었으나,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 10 내가 생명을 주려고 한 그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서는 죽음이 되었다.
- 11 죄는 계명을 통해 기회를 얻어, 나를 속이고 그를 통해 나를 죽였다.
- 12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그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 13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이 되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죄는 죄임을 드러내기 위해, 선한 것을 통해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다. 이는 계명을 통해 죄가 지극히 죄스러워지게 하려는 것이다.
- 14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임을 안다. 그러나 나는 육신적인 자요, 죄 아래 팔린 자이다.
- 15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나는 한다.
- 16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고 동의하는 것이다.
- 17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이다.
- 18 내가 알기로, 내 안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원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을 찾지 못한다.
- 19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은 내가 한다.
- 20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한다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이다.
- 21 그러므로 내가 선을 하려고 할 때, 악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한다.
- 22 내 안의 사람으로서 나는 하느님의 율법을 기뻐한다.
- 23 그러나 내 지체 속에 다른 율법이 있어, 내 마음의 율법과 싸우며, 내 안에 있는 죄의 율법 아래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 24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이가 누구냐?
- 25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마음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8장

-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영을 따라 걷습니다.
- 2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 3 육신 때문에 약했던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느님은 하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정죄하시고,
- 4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영을 따라 걷게 하여 율법의 요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 5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 6 육신의 마음은 죽음이지만, 영의 마음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 7 육신의 마음은 하느님과 원수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으며,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 9 그러나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만일 하느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갖지 못한 자는 그의 것이 아닙니다.
- 10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육신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움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 11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도 너희의 죽을 몸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살리실 것입니다.
-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기 위한 빛진 자가 아닙니다.
- 13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 14 하느님의 영에 이끌리는 모든 자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 15 너희는 두려움의 영을 받아 종이 되지 않았고, 입양의 영을 받아, 그 영으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 16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함께 우리에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하느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 18 내가 생각하기에, 이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 19 피조물이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 20 피조물은 허무함에 복종하게 되었는데, 이는 자기 뜻이 아니라, 복종시킨 이의 뜻 때문이며, 그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 21 피조물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 부패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 22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압니다.
- 23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자로서, 우리 자신도 마음속으로 탄식하며, 곧 우리 몸의 구속, 곧 입양을 기다립니다.
- 24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누가 보는 것을 희망하겠습니까?
- 25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기다립니다.
- 26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 27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뜻을 아십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 28 우리는 모든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자들은 그분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 29 하느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어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아들이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 30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분은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그분은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자들을 그분은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 ³¹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랴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 ³²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그분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 ³³ 누가 하느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입니다.
- ³⁴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신 분, 오히려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 하느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 ³⁵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고통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벌거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 ³⁶ 기록된 바와 같이, "당신을 위하여 우리는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합니다."
- ³⁷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통해 승리자보다 더 승리합니다.
- ³⁸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통치자들도, 현재의 일도, 미래의 일도, 권세들도,
- ³⁹ 높은 것도, 깊은 것도, 그 밖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9장

- ¹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합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으며, 제 양심이 성령과 함께 증언합니다.
- ² 제 마음에 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 ³ 내가 내 형제들, 곧 내 육신의 친척들을 위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받는 자가 되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 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입양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의 수여와 예배와 약속이 있습니다.
- ⁵ 조상들이 그들에게서 나왔고,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초월하시어 영원히 찬미받으실 하느님이십니다. 아멘.
- ⁶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 ⁷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모두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 네 자손이 계산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 ⁸ 즉 육신의 자녀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이 후계자로 간주됩니다.
- ⁹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정해진 시기에 내가 돌아와서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하겠다.'입니다.
- ¹⁰ 그뿐 아니라 레베카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을 통해 잉태되었습니다.
- ¹¹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선이나 악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 때, 하느님의 택함의 뜻이 행위가 아니라 부르는 이에 따라 서게 하려고,
- ¹² 그에게 말하기를, '맏아들이 어린아이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 ¹³ 기록된 바와 같이,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입니다.
- ¹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랴 말할까요? 하느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 ¹⁵ 그분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긴다.'고.
- ¹⁶ 그러므로 그것은 뜻을 가진 자의 것이 아니고, 달려가는 자의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 ¹⁷ 성경은 바로 파라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일으킨 것은 바로 너를 통해 내 힘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해지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 ¹⁸ 그러므로 그분은 자기 뜻에 따라 자비를 베풀고, 자기 뜻에 따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 ¹⁹ 너는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왜 여전히 원망합니까? 누가 그분의 뜻에 저항할 수 있습니까?'라고 할 것입니다.
- ²⁰ 그러나 인간아, 네가 어찌 하느님께 대답할 수 있느냐? 형성된 것이 형성한 이에게, '왜 나를 이처럼 만들었습니까?'라고 묻겠느냐?
- ²¹ 혹은 공예인이 진흙 한 덩어리에서 한 부분은 존중받을 그릇으로, 다른 부분은 비난받을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 ²²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의 진노를 보이고 그분의 권능을 알리려고, 멸망을 위해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셨다면,
- ²³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미리 영광을 위해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 알리려 하셨다면,
- ²⁴ 우리, 곧 그분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로부터도 부르신 자들에게 말입니다.
- ²⁵ 호세아에게서도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 ²⁶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던 그 장소에서, 그들이 살아 있는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 ²⁷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관해 외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하더라도,"
- ²⁸ 주님은 그 일을 마치시고 의로움 안에서 그것을 단축하시리라."
- ²⁹ 이사야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만일 주님의 군대의 주님이 우리에게 씨를 남기지 않으셨다면,"
- ³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랴 말할까? 의로움을 추구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믿음의 의로움을 얻었고,
- ³¹ 이스라엘은 의로움의 법을 추구하였으나, 의로움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 ³² 어떤 까닭인가?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마치 율법의 행위로 구하듯이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걸려 넘어지는 돌에 걸려 넘어졌으며,
- ³³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시온에 걸려 넘어지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놓으리라."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0장

- ¹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 ² 나는 그들이 하느님에 대한 열심이 있음을 증언한다. 그러나 지식에 따라 있지 않다.
- ³ 그들은 하느님의 의로움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여 하느님의 의로움에 복종하지 않았다.
- ⁴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이에게 의로움을 이루기 위한 율법의 완성이다.
- ⁵ 모세는 율법의 의로움에 관해 이렇게 기록한다.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것들로 인해 살 것이다."
- ⁶ 그러나 믿음에 의한 의로움은 이렇게 말한다. "네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는가?'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는 그리스도를 아래로 내려오게 하려는 것이다.)"
- ⁷ 또 '누가 심연으로 내려가겠는가?'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올려오게 하려는 것이다.)"
- ⁸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말이 네게 가까이 있다. 네 입과 네 마음에 있다."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이다.

- ⁹ 네가 입으로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하느님이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음을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 ¹⁰ 마음으로 믿으면 의로움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 ¹¹ 성경은 말한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 ¹²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이의 주님이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하게 베푸신다.
- ¹³ 모든 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 ¹⁴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이 어찌 그를 부르겠느냐? 듣지 않은 자들이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
- ¹⁵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바와 같다. "평화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 ¹⁶ 그러나 모두가 기쁜 소식을 듣지는 않았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라고 했다.
- ¹⁷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며, 듣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에서 온다.
- ¹⁸ 그러나 내가 말한다.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분명히 들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으며,
- ¹⁹ 그러나 내가 묻는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나라도 아닌 것으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 ²⁰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는 나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발견되었으며,
- ²¹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 그는 말한다. "하루 종일 나는 거역하고 반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펼쳤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1장

- ¹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하느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 ² 하느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분이 미리 아신 그 백성을 말이다. 엘리야에 관해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네가 모르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향해 하느님께 간청하는 말을 보아라.
- ³ “주님, 그들이 당신의 예언자들을 죽였고, 당신의 제단들을 허물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고, 그들이 제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 ⁴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일만 칠천 명을 내게 남겨두었다.”
- ⁵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에서도 은총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 ⁶ 만일 은총에 의한 것이라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총은 더 이상 은총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은총은 더 이상 은총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 ⁷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그들은 얻지 못했고, 오직 선택된 자들만이 그것을 얻었으며, 나머지는 완악해졌다.
- ⁸ 성경이 말하듯이,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어리석음의 영을 주셨고, 보지 못하게 하는 눈과 듣지 못하게 하는 귀를 주셨으니, 오늘날까지 그러하다.”
- ⁹ 다윗이 말한다. “그들의 상을 울가미로, 덧으로 만들고,
- ¹⁰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보지 못하게 하소서.”
- ¹¹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그들이 넘어져서 떨어졌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고, 그들을 질투하게 하려는 것이다.
- ¹² 그들이 넘어짐으로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고, 그들의 손실로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으니,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가!
- ¹³ 내가 이방인들에게 말한다.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이므로, 내 사역을 영광스럽게 한다.
- ¹⁴ 내가 내 육체의 자손들을 질투하게 하여, 그들 중 일부라도 구원하려는 것이다.
- ¹⁵ 그들이 버림받음으로 세상이 화해되었으니, 그들이 받아들여짐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생명이 아니겠는가?
- ¹⁶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하다.
- ¹⁷ 어떤 가지들이 잘려나갔으므로, 너는 야생 올리브나무이면서도 그들 사이에 접목되어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게 되었으니,
- ¹⁸ 가지들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려면, 너는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지탱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 ¹⁹ 너는 말할 것이다. “가지들이 잘려나갔으므로, 내가 접목될 수 있었던 것이다.”
- ²⁰ 그렇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잘려나갔고, 너는 믿음으로 서 있다.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여라.
- ²¹ 하느님께서 자연적인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너를 아끼지 않을 것이니라.
- ²² 그러므로 하느님의 선하심과 엄중함을 보아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중함이요, 너에게는 선하심이니, 너는 그분의 선하심에 머무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릴 것이다.
- ²³ 그들도 믿지 않음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다시 접목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목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 ²⁴ 너는 자연적으로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나와, 자연에 어긋나게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목되었으니, 자연적으로 그 나무에 속한 가지들이 자기 나무에 다시 접목되지 않겠는가?
- ²⁵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이 신비를 알지 못하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해졌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 그러한 것이다.
- ²⁶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며,
- ²⁷ 이것이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다.

- 28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를 위해 원수들이다. 그러나 택함에 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 때문에 사랑받는 자들이다.
- 29 하느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뒤집히지 않는다.
- 30 너희가 전에는 하느님에게 복종하지 않았으나, 이제 그들의 불복종으로 인해 자비를 받았으니,
- 31 이처럼 이들도 지금 복종하지 않았으니, 너희에게 베푼 자비로 그들도 또한 자비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 32 하느님께서서는 모두를 불복종에 가두어,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셨다.
- 33 오, 하느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의 깊음이어! 그의 판단은 어찌 그리 측량할 수 없으며, 그의 길은 어찌 그리 찾을 수 없으랴!
- 34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가?
- 35 “누가 먼저 그에게 주어, 깊음을 받았던가?
- 36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고, 그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를 향해 나아간다. 그에게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아멘.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2장

- 1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느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산 제물, 거룩하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리기를 권한다.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이다.
- 2 이 세상과 같아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느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라.
- 3 내가 내게 주어진 은총을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지 말고, 오히려 하느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합당하게 생각하여라.
- 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지 않듯이,
- 5 우리도 많은 이들이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각자는 서로의 지체가 된다.
- 6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에 따라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예언이라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예언하고,
- 7 봉사라면 봉사에 헌신하고, 가르치는 자라면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며,
- 8 권면하는 자라면 권면에 헌신하고, 나누어 주는 자라면 관대히 하고, 다스리는 자라면 성실히 하며, 자비를 베푸는 자라면 기쁨으로 하라.
- 9 사랑은 거짓 없이 진실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들여라.
- 10 형제 사랑을 통해 서로를 정성스럽게 사랑하고, 존경에서는 서로를 앞서라.
- 11 게으르지 말고, 영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 12 희망 속에서 기뻐하고,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기도에 꾸준히 헌신하여라.
- 13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고, 손님 대접을 아끼지 마라.
- 14 너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어라.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마라.
- 15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 16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높은 것을 향한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한 자들과 사귀어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라.
- 17 누구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경받을 만한 일을 삼아라.
- 18 가능한 한,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라.
- 19 자기 자신으로 복수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자리를 내어라.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보복하겠다. 내가 갚겠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 20 그러므로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여 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 21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3장

- ¹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권세는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며, 존재하는 모든 권세는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 ² 그러므로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느님의 명령에 저항하는 것이며, 저항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³ 통치자들은 선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지만, 악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권세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 ⁴ 그는 당신을 위해 선을 이루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악한 일을 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칼을 허탄하게 차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느님의 종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베푸는 자입니다.
- ⁵ 그러므로 당신은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도 복종해야 합니다.
- ⁶ 이 때문에 당신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봉사에 종사하며, 이 일을 끊임없이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 ⁷ 그러므로 당신은 모두에게 빛진 것을 갚으십시오. 세금을 빚졌다면 세금을 내고, 관세를 빚졌다면 관세를 내며, 존경을 빚졌다면 존경을 하고, 공경을 빚졌다면 공경을 하십시오.
- ⁸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마십시오. 다만 서로를 사랑하는 빛만 지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 ⁹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들과 다른 어떤 계명들이든, 모두 이 한 마디로 요약됩니다. 즉,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 ¹⁰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 ¹¹ 이제는 이미 깨어날 때임을 알고 이 일을 하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 ¹² 밤은 깊었고, 낮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 ¹³ 우리는 낮처럼 올바르게 행합시다. 방탕과 음주, 음행과 탐욕, 다툼과 시기로는 행하지 말고.
- ¹⁴ 오히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육신의 욕망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마십시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4장

- 1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의견의 다툼을 위한 것이 아니라.
- 2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지만,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 3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경멸하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 4 당신은 누구이기에 남의 하인을 판단합니까? 그는 자기 주인에게 서거나 넘어집니다. 그는 서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서게 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 5 어떤 사람은 하루를 다른 날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깁니다. 각자는 자기 마음속에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 6 날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지키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지키지 않습니다. 먹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먹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 7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도 자신을 위하여 죽지 않습니다.
- 8 우리가 살면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으면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 9 그리스도께서 이 목적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의 주가 되기 위함입니다.
- 10 그러나 당신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합니까? 또 당신은 어찌하여 형제를 경멸합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 11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내가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 12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을 하느님께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 13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이 점을 판단하십시오. 누구도 형제에게 걸림돌이나 넘어지게 하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말입니다.
- 14 나는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합니다.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면, 그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 15 그러나 음식 때문에 형제가 근심한다면, 당신은 사랑 안에서 걸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를 당신의 음식으로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 16 그러므로 당신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십시오.
- 17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과 평화와 성령 안의 기쁨입니다.
- 18 이러한 일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느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에게에도 인정받습니다.
- 19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일과 서로를 세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 20 음식 때문에 하느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정결하지만, 먹음으로써 걸림돌을 만드는 사람은 악합니다.
- 21 형제가 걸리거나 실족하거나 약해지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22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느님 앞에서 자신에게 가지고 있으십시오. 자신이 승인하는 일에 대해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 23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은 먹으면서 정죄받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 24 내가 전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에 따라, 오랜 세월 동안 숨겨졌던 이 비밀의 계시에 따라, 당신을 굳게 세울 수 있는 분께
- 25 그러나 지금은 드러났으며,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성서를 통해 모든 민족이 믿음에 복종하게 되도록 알려졌습니다;
- 26 오직 지혜로우신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히 그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5장

- 1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며,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 2 각자 자기 이웃을 좋은 일로 기쁘게 하여 그를 세우도록 하십시오.
- 3 그리스도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 떨어졌습니다."
- 4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이니,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우리가 소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 5 그러므로 인내와 위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마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 6 이렇게 하여 여러분이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 8 내가 말하건대,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자손들의 종이 되셨으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려는 것입니다.
- 9 이로써 이방인들도 그의 자비로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었으니,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 10 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아, 그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 11 또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 12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예수의 뿌리가 있을 것이며,"
- 13 희망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모든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 14 나는 형제 여러분에 관해 스스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함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으로 채워져 있으며, 다른 이들을 경고할 능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15 그러나 나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 때문에, 여러분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조금 더 용감하게 씁니다.
- 16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고, 하느님의 복음의 사제가 되어, 이방인들의 제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느님께 받아들여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 17 그러므로 나는 하느님과 관련된 일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합니다.
- 18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방인들의 복종을 이루기 위해 하신 말씀과 행동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 19 그것은 표적과 기적의 능력, 하느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니,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일리리쿰까지 이르기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였습니다.
- 20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알려진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다른 이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 21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에게 소식이 이르지 않은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 22 그러므로 나는 여러 번 여러분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 23 이제 이 지역들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오랫동안 여러분을 방문하고 싶은 갈망을 품고 있습니다.
- 24 내가 스페인으로 떠날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 합니다. 나는 여정 중에 여러분을 만나고, 그곳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의 도움을 받기를 바라며, 먼저 여러분과 잠시 동안 함께 지내기를 바랍니다.
- 25 지금 저는 성도들을 섬기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 26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일정한 기부를 하기로 기뻐했습니다.
- 27 그들은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빛을 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그들에게 물질적인 것들로 섬기는 것도 마땅합니다.

- 28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나는 너희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 29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축복으로 너희에게 갈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 30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간청합니다. 나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힘써 주십시오.
- 31 내가 유대에서 불순종하는 자들로부터 구원받게 되고,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 드리는 봉사가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 32 내가 하느님의 뜻으로 기쁨으로 너희에게 이르러, 너희와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 33 평화의 하느님이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6장

- 1 나는 너희에게 우리 자매인 포베를 추천한다. 그녀는 켄크레아이에 있는 공동체의 봉사자이다.
- 2 너희는 주님 안에서 성도들에 합당한 방식으로 그녀를 환영하고, 그녀가 너희에게 필요로 하는 어떤 일에도 도와주기 바란다. 그녀도 많은 이들과 나 자신을 도운 자이기 때문이다.
- 3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하는 프리스카와 아굴라를 인사한다.
- 4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다. 나는 그들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공동체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 5 그들의 집에 있는 공동체를 인사하고, 내 사랑하는 에파이네토를 인사하라. 그는 아카이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열매가 된 자이다.
- 6 우리를 위해 수고한 마리아를 인사하라.
- 7 내 친척이자 동료 수감자인 안드로니코와 유니아를 인사하라.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유명하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 8 주님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플리아스를 인사하라.
- 9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하는 우르바누스와 내 사랑하는 스타키스를 인사하라.
- 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펠레스를 인사하고, 아리스토불루스의 가족을 인사하라.
- 11 내 친척 헤로디온을 인사하고, 주님 안에 있는 나르키소스의 가족을 인사하라.
- 12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트리파이나와 트리포사를 인사하고, 주님 안에서 많이 수고한 퍼시스를 인사하라.
- 13 주님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푸스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내 어머니를 인사하라.
- 14 아신크리투스, 플레곤, 헤르메스, 파트로바스, 헤르마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을 인사하라.
- 15 필로로고스와 줄리아, 네레우스와 그의 자매, 올림파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인사하라.
- 16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공동체가 너희를 인사한다.
- 17 형제들아, 너희가 배운 교리에 반대하여 분열과 걸림돌을 일으키는 자들을 주의하라. 그들에서 떠나라.
- 18 이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긴다. 그들은 부드럽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인다.
- 19 너희의 복종은 모든 이에게 알려졌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 그러나 너희가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원한다.
- 20 평화의 하느님께서 곧 너희 발밑에 사탄을 짓밟으실 것이다.
- 21 내 동역자 디모테오와, 내 친척인 루키오, 이아손, 소시파테르가 너희를 인사한다.
- 22 나 테르티오가 이 편지를 쓰는 자로서,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사한다.
- 23 가이오, 곧 나의 후원자이자 모든 공동체의 후원자가 너희를 인사한다.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투스와 형제 퀴르투스도 너희를 인사한다.
- 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너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빈다! 아멘.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 1 Corinthians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장

- ¹ 바오로는 하느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우리 형제 소스테네스도 함께합니다.
- ² 고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공동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이들과, 모든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보냅니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것이며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 ³ 당신들에게 은총과 평화가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함께하기를 빕니다.
- ⁴ 나는 당신들에 관해 항상 내 하느님을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느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 ⁵ 당신들은 그 안에서 모든 면에서, 모든 말과 모든 지식으로 부유해졌습니다.
- ⁶ 곧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당신들 안에서 확실히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 ⁷ 그러므로 당신들은 어떤 은사에도 뒤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⁸ 그분이 당신들을 끝까지 확실히 지켜 주실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흠 없을 것입니다.
- ⁹ 하느님은 신실하십니다. 당신들은 그분을 통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교제에 불리우셨습니다.
- ¹⁰ 내가 당신들 형제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당신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며, 당신들 사이에 분열이 없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완전히 뭉치기를 바랍니다.
- ¹¹ 내가 당신들 형제들에 관해, 클로에의 집안에서 온 이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당신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 ¹² 내가 말하려는 것은, 각자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오로를 따르고," "나는 아폴로를 따르고," "나는 케파를 따르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 ¹³ 그리스도가 나뉘어졌습니까? 바오로가 당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바오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 ¹⁴ 나는 당신들 중에서 크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음을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 ¹⁵ 이는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당신들을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¹⁶ (나는 스테파나스의 집안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외에는 내가 다른 이들을 세례를 베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¹⁷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허무해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 ¹⁸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 ¹⁹ 기록된 바,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없앨 것이다."
- ²⁰ 지혜로운 자는 어디 있느냐? 서기관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는 어디 있느냐? 하느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 ²¹ 하느님의 지혜로 보아, 이 세상은 자신의 지혜로 하느님을 알지 못했으므로, 하느님은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 ²²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 ²³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 ²⁴ 그러나 부름을 받은 자들, 곧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능력이자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 ²⁵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 ²⁶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아라. 육체적인 관점에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강한 자가 많지 않으며, 출신이 높은 자가 많지 않다.
- ²⁷ 그러나 하느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 ²⁸ 하느님은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무효로 만들려 하셨다.
- ²⁹ 이는 육체가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³⁰ 너희는 그분 덕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분은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

³¹ 기록된 대로,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향해 자랑하라."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2장

¹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말의 우수함이나 지혜로움을 가지고 가지 않고, 하느님의 증거를 전파하러 갔다.

² 내가 너희 사이에서 알지 못하기로 결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³ 나는 너희와 함께 약함과 두려움과 큰 떨림으로 있었다.

⁴ 내 말과 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의 증거로 이루어졌다.

⁵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서지 않고, 하느님의 능력에 서게 하려는 것이다.

⁶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자들 사이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며, 이 세상의 통치자들, 곧 사라져 가는 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⁷ 우리는 신비 속에서 하느님의 지혜를 말한다. 이 지혜는 숨겨졌던 것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광을 위하여 세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다.

⁸ 이 지혜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만일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⁹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눈이 보지 못한 것과 귀가 듣지 못한 것과,

¹⁰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성령으로 드러내셨다. 성령은 모든 것을 탐구하시며, 하느님의 깊은 것까지도 탐구하신다.

¹¹ 사람의 일은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는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느님의 일도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¹²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느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는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¹³ 우리는 또한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는 말로 이것들을 말하며,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한다.

¹⁴ 자연적인 사람은 하느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것들은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알 수 없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¹⁵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분별받지 않는다.

¹⁶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았기에,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3장

- ¹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영적인 사람처럼 말할 수 없었고, 육적인 사람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말하였다.
- ² 내가 너희에게 우유를 주었지, 단단한 음식을 주지 않았다. 너희는 아직 그럴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아직 그럴 능력이 없다.
- ³ 너희는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다. 너희 사이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길을 걷지 않는가?
- ⁴ 한 사람은 '나는 바오로를 따르는구나'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를 따르는구나' 한다고 말할 때, 너희가 육적인 사람이 아니겠는가?
- ⁵ 그러면 아폴로는 무엇이며, 바오로는 무엇인가? 너희가 믿게 된 도구일 뿐이다. 각자는 주님이 주신 대로 일하였다.
- ⁶ 내가 심었고, 아폴로가 물을 주었으나, 하느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 ⁷ 그러므로 심는 자도, 물을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뿐이다.
- ⁸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는 하나이지만, 각자는 자신의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이다.
- ⁹ 우리는 하느님의 동역자들이다. 너희는 하느님의 밭이고, 하느님의 건물이다.
- ¹⁰ 내가 받은 하느님의 은총에 따라, 나는 지혜로운 건축주처럼 기초를 놓았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지어간다. 그러나 각자는 어떻게 그 위에 지어가는지 신중해야 한다.
- ¹¹ 누구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 ¹²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귀한 돌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으면,
- ¹³ 각자의 공이 드러날 것이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리니, 그것은 불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불 자체가 각자의 공이 어떤 것인지 시험할 것이다.
- ¹⁴ 누구든지 그 위에 지은 공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 ¹⁵ 누구든지 그 공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이지만, 자신은 불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 ¹⁶ 너희가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모르는가?
- ¹⁷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 그를 파괴하실 것이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다.
- ¹⁸ 누구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지혜로워지도록 하라.
- ¹⁹ 이 세상의 지혜는 하느님 앞에서 어리석음이다. 성경에 '그가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의 교활함으로 사로잡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 ²⁰ 또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고 하셨다.
- ²¹ 그러므로 누구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 ²² 바오로나 아폴로나 베드로나 세상이나 생명이거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미래의 것들이나 모두 너희의 것이니,
- ²³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이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4장

- 1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들과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집사로 생각해야 합니다.
- 2 또한 집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 3 나에게는 여러분이나 인간의 법정에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심지어 나는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4 나는 내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로 인해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 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속의 생각들을 밝히실 것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 6 형제들아, 나는 이 모든 것을 나와 아볼로에게 비유하여 여러분을 위해 말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7 누가 여러분을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 8 이미 여러분은 배부르고, 이미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노릇을 하려 합니다. 네, 나는 여러분이 이미 왕노릇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을 텐데!
- 9 나는 하느님이 우리 사도들을 마지막으로 드러내어, 마치 사형 선고로 받은 자처럼 보이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 10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존경받고, 우리는 비난받습니다.
- 11 지금까지도 우리는 주리고 목마르며, 벌거벗고, 맞으며, 정해진 거처가 없습니다.
- 12 우리는 우리 손으로 수고하며 일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면, 우리는 축복합니다. 박해를 받으면, 우리는 참고 견딥니다.
- 13 비난을 받으면, 우리는 간청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 모든 사람에게 쓸어버리는 더러운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 14 나는 이 글을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경고하려고 쓰는 것입니다.
- 15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 명의 스승이 있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 16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을 간청합니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 17 이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인 티모테오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방식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 18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것처럼 교만해졌습니다.
- 19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곧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 20 하느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 21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매를 들고 여러분에게 갈까요,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영으로 갈까요?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5장

- ¹ 너희 가운데서 성적 부정이 실제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부정이다. 즉,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 ² 너희는 교만해 있고, 오히려 그가 이 일을 저질렀으므로 너희 가운데서 그를 제거하도록 슬퍼하지 않았다.
- ³ 나는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마치 내가 실제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이미 이 일을 저지른 자를 심판하였다.
- 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 모일 때에,
- ⁵ 이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 주어 육체는 파괴되게 하라. 그리하여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라.
- ⁶ 너희의 자량은 좋지 않다. 너희는 조금 된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리는 줄 모르느냐?
- ⁷ 옛 누룩을 제거하여 새 반죽이 되어라. 너희가 이미 누룩 없음을 상기하라. 우리 유월절 어린양인 그리스도께서 이미 희생되셨다.
- ⁸ 그러므로 우리는 옛 누룩이나 악의와 악행의 누룩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말고, 진실과 진정성의 누룩 없는 빵으로 유월절을 지키자.
- ⁹ 내가 이전 편지에서 성적 죄를 범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너희에게 썼다.
- ¹⁰ 그러나 이 세상의 성적 죄를 범하는 자들, 탐욕스러운 자들, 착취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할 것이다.
- ¹¹ 그러나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썼다. 형제라 불리는 자가 성적 죄를 범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비방자이거나, 술꾼이거나, 착취자라면, 그와 사귀지 말고, 심지어 그와 함께 먹지도 말라.
- ¹² 내가 외부에 있는 자들을 심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는 안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느냐?
- ¹³ 외부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이 심판하신다. "너희 가운데서 악한 자를 내쫓아라."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6장

- ¹ 어느 누구라도 이웃과 다툼이 있으면, 성도들 앞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소송을 걸어도 되겠습니까?
- ²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줄을 모르십니까? 세상이 너희에 의해 심판받는다면, 작은 일들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까?
- ³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줄을 모르십니까? 하물며 이 생명과 관련된 일들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 ⁴ 그러므로 너희가 이 생명과 관련된 일을 심판해야 한다면, 공동체에서 무가치한 자들을 세워 심판하게 합니까?
- ⁵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형제 사이의 분쟁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 ⁶ 형제가 형제와 소송을 걸고,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말입니다!
- ⁷ 그러므로 너희 사이에 소송이 있다는 것은 이미 너희의 큰 결함입니다.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 ⁸ 아니, 오히려 너희가 스스로 불의를 저지르고 속이며, 그것도 형제들에게 말입니다.
- ⁹ 또 너희가 불의한 자들이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줄을 모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간음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
- ¹⁰ 도둑들, 탐심을 부리는 자들, 취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갈취하는 자들은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 ¹¹ 너희 가운데 일부는 이런 자들이었으나, 너희는 씻어졌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 ¹²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것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 ¹³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것도 저것도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음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은 몸을 위한 것입니다.
- ¹⁴ 하느님께서 주님을 일으키셨고,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 ¹⁵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¹⁶ 또 창녀와 결합하는 자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 ¹⁷ 그러나 주님과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됩니다.
- ¹⁸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합니다.
- ¹⁹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 성령은 너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너희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 ²⁰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과 영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이 몸과 영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7장

- 1 너희가 나에게 쓴 일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 2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 각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각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어라.
- 3 남편은 아내에게 마땅한 사랑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마찬가지로 하라.
- 4 아내는 자기 몸에 권한이 없고, 남편이 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에 권한이 없고, 아내가 있다.
- 5 서로를 빼앗지 말라. 다만 동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만 떨어져서 금식과 기도에 힘쓰고, 다시 한데 모여 사탄이 너희의 절제 부족으로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 6 그러나 나는 이 말을 허락으로 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7 내가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자기만의 은사를 받았다. 이 사람은 이런 은사를, 저 사람은 저 은사를 받았다.
- 8 나는 미혼자와 과부들에게 말한다.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좋다.
- 9 그러나 절제하지 못한다면 결혼하라. 결혼하는 것이 불타는 욕정을 품는 것보다 낫다.
- 10 기혼자들에게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다. 아내는 남편을 떠나지 말라.
- 11 그러나 그녀가 떠난다면, 혼자 지내거나 남편과 화해하라. 남편도 아내를 떠나지 말라.
- 12 나는 주님이 아니라 말한다. 어떤 형제가 믿지 않는 아내를 두고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는 그녀를 떠나지 말라.
- 13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여자는 남편을 떠나지 말라.
- 14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인해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 거룩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부정할 것이지만, 지금은 거룩하다.
- 15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려 하면 떠나게 하라. 그런 경우에 형제나 자매는 종속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평화로 부르셨다.
- 16 아내야, 네가 네 남편을 구원할지 누가 알겠느냐? 남편이야,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누가 알겠느냐?
- 17 오직 주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느님이 각자를 부르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라. 나는 모든 공동체에서 이같이 명령한다.
- 18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벗지 말라.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 19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 20 각 사람은 부름을 받을 때의 상태에 머물러라.
- 21 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 그러나 자유가 되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여라.
- 22 주님 안에서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는 주님의 자유인이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 23 너희는 값으로 사신 자이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 24 형제들아, 각자는 부름을 받을 때의 상태에서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라.
- 25 처녀들에 관해선, 저는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주님의 자비를 받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므로 제 판단을 말합니다.
- 26 그러므로 저는 우리를 덮은 고통을 생각할 때, 사람이 현재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27 아내에게 매여 있습니까? 해방을 구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없습니까? 아내를 구하지 마십시오.
- 28 그러나 만약 결혼한다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육신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며, 저는 여러분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습니다.
- 29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형제들아, 때는 짧습니다. 앞으로는 아내가 있는 자들이 아내가 없는 자처럼 되고,
- 30 울고 있는 자들이 울지 않는 자처럼 되며, 기뻐하는 자들이 기뻐하지 않는 자처럼 되며, 사는 자들이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며,

- ³¹ 세상을 사용하는 자들이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형식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 ³²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는 주님의 일에 신경을 써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 ³³ 결혼한 자는 세상의 일에 신경을 써서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 ³⁴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주님의 일에 신경을 써서 몸과 영 모두 거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여자는 세상의 일에 신경을 써서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 ³⁵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꾀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람직하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³⁶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처녀를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여자가 청춘을 지나고, 필요가 그러하다면, 그는 자기 뜻대로 하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결혼하게 하십시오.
- ³⁷ 그러나 마음에 굳게 서서 급한 필요가 없고, 자기 뜻을 다스릴 힘이 있으며, 자기 마음에 처녀를 지키기로 결정한 자는 잘하는 것입니다.
- ³⁸ 그러므로 자기 처녀를 시집보내는 자는 잘하고, 시집보내지 않는 자는 더 잘합니다.
- ³⁹ 아내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법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원하는 자에게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입니다.
- ⁴⁰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그녀가 원래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저도 하느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8장

- ¹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 우리는 모두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식은 부풀리지만, 사랑은 세웁니다.
- ² 누구든지 자신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마땅히 알아야 할 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 ³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느님께 알려져 있습니다.
- ⁴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세상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한 분의 하느님 외에는 다른 하느님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 ⁵ 비록 하늘이나 땅에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고, 많은 ‘신들’과 많은 ‘주님’들이 있지만,
- ⁶ 우리에게는 한 분의 하느님, 곧 아버지가 계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또 한 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존재하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살아갑니다.
- ⁷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우상에게 바쳐진 것처럼 먹고, 그들의 양심은 약하므로 더럽혀집니다.
- ⁸ 음식은 우리를 하느님께 칭찬받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아도 우리가 더 나빠지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 ⁹ 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약한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 ¹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우상 사당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약한 이가 그의 양심을 강화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 ¹¹ 너희의 지식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은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 ¹² 이처럼 형제들에게 죄를 지으며, 그들의 양심이 약할 때 그들을 상처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지는 것입니다.
- ¹³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결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내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입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9장

- 1 내가 자유롭지 않느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게 주님 안에서 한 일이라 하지 않느냐?
- 2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더라도, 너희에게는 분명히 사도이다. 너희는 주님 안에서 내 사도직의 인장이다.
- 3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변명한다.
- 4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를 갖지 못하느냐?
- 5 우리가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못하느냐?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베드로처럼 말이다.
- 6 바르나바와 나만 일하지 않는 권리가 없느냐?
- 7 누가 자기 비용으로 병사로 복무하느냐? 포도원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먹지 않느냐? 양 떼를 치는 자가 그 젖을 마시지 않느냐?
- 8 내가 이 말을 사람의 관례에 따라 말하느냐? 법도 또한 같은 말을 하지 않느냐?
- 9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바, "황소가 곡식을 밟을 때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으니, 하느님이 황소를 위하여 신경 쓰시는가?
- 10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가? 맞다.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곡식을 갈아서 땅을 파는 자는 희망을 가지고 파고, 곡식을 타작하는 자는 희망을 가지고 타작해야 하며, 그 희망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 11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큰 일이냐?
- 12 다른 이들이 너희에게 이 권리를 누린다면, 우리도 훨씬 더 그러하지 않느냐?
- 13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성전의 것을 먹고, 제단에 봉사하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 14 이와 같이 주님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정하셨다.
- 15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한 번도 쓰지 않았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자랑을 무효로 만들게 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 16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강제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다.
- 17 내가 자발적으로 한다면, 보상이 있다. 그러나 자발적이지 않다면, 내가 맡은 것은 위탁된 직무이다.
- 18 그러면 내 보상은 무엇인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상으로 전하여 복음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다.
- 19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웠으나,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였다.
- 20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어 유대인을 얻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어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었으며,
- 21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되었으나, 하느님께는 율법이 없지 않고 그리스도께는 율법 아래 있었으니, 율법이 없는 자를 얻고자 하였다.
- 22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어 약한 자를 얻었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 어찌어찌 해서라도 어떤 이들은 구원하고자 하였다.
- 23 이제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한다. 나도 복음의 공동 참여자가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 24 경주하는 자들이 모두 달리지만,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도 그렇게 달려서 상을 받으라.
- 25 경기에서 싸우는 모든 사람은 모든 일에서 절제를 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 26 그러므로 나는 허무하게 달리지 않고, 허공을 향해 치지 않고 싸웁니다.
- 27 오히려 나는 내 몸을 치고 복종시켜, 내가 다른 이들에게 전한 후에 자신이 버림받지 않도록 합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0장

- 1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갔으며;
- 2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세례를 받았으며;
- 3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 4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영적인 바위에서 마셨는데,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다.
- 5 그러나 그들 대부분에게 하느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 6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였으니, 그들이 악한 것을 탐내듯 우리도 탐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7 너희는 그들 중 일부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백성은 먹고 마시며 일어나 놀았다."
- 8 우리는 그들 중 일부처럼 음행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 중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쓰러졌다.
- 9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 중 일부가 시험했더니 뱀들에게 멸망당했다.
- 10 너희는 그들 중 일부처럼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 중 일부가 불평했더니 멸망자에게 멸망당했다.
- 11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고,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이 끝 시대가 우리에게 이르렀다.
- 12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 13 너희가 받은 시험은 사람으로서 흔한 것뿐이다. 하느님은 신실하시니, 너희가 견디지 못할 만큼 시험하게 하지 않으시고,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마련하여, 너희가 견딜 수 있게 하신다.
- 14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에서 도피하라.
- 15 내가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을 판단하라.
- 16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 17 한 떡이 있으므로, 우리가 많으나 한 몸이다. 우리는 모두 한 떡을 나누어 먹기 때문이다.
- 18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지 아니하느냐?
- 19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우상에게 바친 것이 무엇이나? 또는 우상이 무엇이나?
- 20 내가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바치는 것들이 악령에게 바쳐지는 것이며, 하느님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악령과 교제하지 않기를 원한다.
- 21 너희는 주님의 잔과 악령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고, 주님의 상과 악령의 상을 함께 나눌 수 없다.
- 22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게 하려는가? 우리가 그분보다 강한가?
- 23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 24 누구도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고, 각각 이웃의 이익을 구하라.
- 25 고기집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 먹되, 양심을 위해 아무 질문도 하지 마십시오.
- 26 "땅은 주님의 것이고, 그 안의 만물도 주님의 것입니다."
- 27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을 초대하여 식사에 참여하려 하면, 당신이 가고 싶다면 앞에 놓인 것을 무엇이든 먹되, 양심을 위해 아무 질문도 하지 마십시오.
- 28 그러나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를 말한 이와 양심을 위해 먹지 마십시오. '땅은 주님의 것이고, 그 안의 만물도 주님의 것입니다.'
- 29 양심이라 하였으니, 곧 당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되어야 합니까?
- 30 만약 내가 감사하며 먹는다면, 내가 감사하는 것 때문에 어찌하여 비난을 받습니까?
- 31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 32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하느님의 공동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³³ 내가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이의 이익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1장

- 1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마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 2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전통을 굳게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느님이라는 것이다.
- 4 남자가 머리를 덮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신의 머리를 모욕하는 것이다.
- 5 그러나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신의 머리를 모욕하는 것이다. 이는 그녀가 머리를 깎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 6 만약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는다면, 그녀의 머리카락도 깎아야 한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카락을 깎거나 머리를 깎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그녀는 머리를 덮어야 한다.
- 7 남자는 머리를 덮을 필요가 없다. 그는 하느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 8 남자는 여자에서 나지 않았고, 여자는 남자에서 나왔다.
- 9 남자는 여자를 위해 창조되지 않았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다.
- 10 이 때문에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자신의 머리 위에 덮개를 가져야 한다.
- 11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여자가 남자 없이 독립되지 않으며, 남자도 여자 없이 독립되지 않는다.
- 12 여자가 남자에서 나온 것처럼, 남자도 여자를 통해 나온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느님에서 나온다.
- 13 자신들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 14 자연 자체가 너희에게 가르치치 않는가? 남자가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게 수치인가?
- 15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으면 그녀에게 영광이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그녀를 위해 덮개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 16 만약 어떤 사람이 다투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관습이 없고, 하느님의 공동체에도 그런 관습이 없다.
- 1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을 주는 동안,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너희가 모일 때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일을 하기 때문이다.
- 18 먼저, 너희가 공동체에 모일 때, 너희 사이에 분열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그 부분을 믿는다.
- 19 너희 사이에 파벌이 있어야만, 너희 가운데서 인정받는 자들이 드러나게 된다.
- 20 그러므로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너희가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다.
- 21 너희가 먹을 때, 각자가 먼저 자신의 식사를 한다. 한 사람은 배고프고, 또 다른 사람은 취해 있다.
- 22 너희는 먹고 마실 집이 없단 말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공동체를 경멸하고, 충분히 갖지 못한 자들을 수치스럽게 하려는 것인가? 내가 무엇이랴 말해야 할까? 너희를 칭찬해야 할까? 이 일에서는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 23 나는 주님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주님 예수께서 배반당하신 그 밤에 빵을 잡으셨다.
- 24 그분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빵을 떼시고,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부서지는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하여라."라고 말씀하셨다.
- 25 마찬가지로 저녁 식사 후에 그도 잔을 취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계약이다. 너희는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일을 하여라."
- 26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니,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러하라.
- 27 그러므로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지는 것이다.
- 28 자신을 시험한 후에야 비로소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한다.
- 29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먹고 마신다면, 그는 자신에게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 30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이가 약하고 병들었으며, 잠든 이들도 적지 않다.
- 31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분별한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³² 그러나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신다.

³³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여서 먹을 때에는 서로 기다리도록 하라.

³⁴ 만약 누구든지 배가 고프다면, 집에서 먹도록 하라. 그래야 너희가 모이는 것이 심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일은 내가 올 때에 정리하겠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2장

- 1 형제들아, 영적인 일에 관해 내가 너희가 무지하지 않기를 바란다.
- 2 너희는 이방인일 때, 어떻게든 이끌려서 말이 없는 우상들에게로 끌려갔음을 알고 있다.
- 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린다. 하느님의 영에 의해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지 않으며, 누구도 '예수는 주님이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4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성령은 하나이다.
- 5 봉사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님은 하나이다.
- 6 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모든 것을 모든 이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은 하나이다.
- 7 그러나 각 사람에게는 모두의 유익을 위해 성령의 나타남이 주어진다.
- 8 한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이 주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해 지식의 말이 주어진다.
- 9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해 믿음이 주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해 치유의 은사들이 주어진다.
- 10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주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예언이 주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주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양한 언어들에 주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언어들의 해석이 주어진다.
- 11 그러나 한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일으키며, 자기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 12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모든 지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 13 우리는 한 성령으로 모두 한 몸에 세례를 받았으며,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모두 한 성령으로부터 한 영을 받았다.
- 14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이다.
- 15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래서 몸의 일부가 아닌 것은 아니다.
- 16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래서 몸의 일부가 아닌 것은 아니다.
- 17 몸이 모두 눈이라면 들음은 어디에 있겠는가? 모두 들음이라면 냄새를 맡는 기능은 어디에 있겠는가?
- 18 그러나 지금 하느님께서서는 자기 뜻에 따라 몸 안에 각 지체를 하나하나 두셨다.
- 19 만약 모두가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에 있겠는가?
- 20 그러나 지금은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이다.
- 21 눈이 손에게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도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 22 아니, 오히려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더 필요하다.
- 23 우리가 덜 존중받는다고 여기는 몸의 부분들에 더 풍성한 존경을 주며, 우리 몸의 드러내기 부끄러운 부분들에 더 풍성한 수치심을 준다.
- 24 우리 몸의 드러내기 좋은 부분들은 그런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몸을 함께 조합하시며, 덜 존중받는 부분에 더 풍성한 존경을 주셨다.
- 25 몸 안에 분열이 없도록 하고, 각 지체가 서로를 동일하게 돌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 26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 27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자는 그 지체들입니다.
- 28 하느님께서서는 공동체 안에 일부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사도들, 둘째는 예언자들, 셋째는 가르치는 자들, 그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자들, 그다음은 치유의 은사, 돕는 일, 다스리는 일, 다양한 언어를 말하는 일입니다.
- 29 모두가 사도입니까? 모두가 예언자입니까? 모두가 가르치는 자입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자입니까?
- 30 모두가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양한 언어를 말합니까? 모두가 해석합니까?
- 31 그러나 가장 훌륭한 은사들을 열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더 뛰어난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3장

- ¹ 내가 사람들의 언어와 천사들의 언어로 말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동이거나 요란한 종이 될 뿐이다.
- ²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길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 ³ 내가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 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사랑은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 ⁵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악을 계산하지 않는다.
- ⁶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 ⁷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 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언은 폐지될 것이고, 여러 언어는 그치며, 지식도 폐지될 것이다.
- ⁹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 ¹⁰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폐지될 것이다.
- ¹¹ 내가 어린아이일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느끼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였다. 내가 이제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 ¹²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흐릿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내가 완전히 알 것처럼, 나도 완전히 알려질 것이다.
- ¹³ 지금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남아 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4장

- 1 사랑을 추구하고 영적인 은사를 열망하되, 특히 예언할 수 있기를 바라십시오.
- 2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느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는 영으로 신비를 말합니다.
- 3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합니다.
- 4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 5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더 많이 바라는 것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자보다 더 위대합니다. 단, 그가 해석하여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 한 말입니다.
- 6 지금, 형제들아, 내가 다른 언어로 말하며 너희에게 가면, 내가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으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 7 피리나 수금 같은 소리를 내는 무생물도, 소리에 구분이 없으면, 무엇이 피리로 연주되는지, 무엇이 수금으로 연주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 8 만일 나팔이 확실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 9 이와 같이 너희도, 이해하기 쉬운 말을 혀로 내지 않는다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너희는 공중에 말하는 셈이 된다.
- 10 세상에는 아마도 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으며, 그 중 어느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 11 그러므로 내가 그 언어의 의미를 모른다면, 말하는 자에게 나는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될 것이다.
- 12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인 은사에 열심이니,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더욱 힘쓰기를 구하라.
- 13 그러므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자는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 14 내가 다른 언어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이해력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 15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이해력으로도 기도하겠다. 내가 영으로 노래하고, 이해력으로도 노래하겠다.
- 16 만일 너희가 영으로 축복한다면, 무지한 자가 어떻게 너희가 감사할 때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는 너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17 너희는 분명히 잘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않는다.
- 18 나는 내 하느님께 감사한다. 나는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이 다른 언어로 말한다.
- 19 그러나 공동체에서는 내가 이해력으로 다섯 마디를 말하여 다른 이들도 가르치는 것이, 다른 언어로 만 마디를 말하는 것보다 낫다.
- 20 형제들아, 생각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의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그러나 생각에서는 어른이 되어라.
- 21 율법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나는 이상한 언어를 쓰는 자들과 외국인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그처럼 듣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22 그러므로 다른 언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징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표징이 아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징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징이다.
- 23 그러므로 공동체가 모두 모여서 모두가 다른 언어로 말하면, 무지한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들어오면, 그들이 너희가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 24 그러나 모두가 예언하면, 믿지 않는 자나 무지한 자가 들어오면, 그는 모두에게 책망을 받고 모두에게 판단을 받는다.
- 25 그러면 그의 마음속의 비밀이 드러나고,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느님을 경배하며, 하느님이 진실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선포할 것이다.
- 26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마다 각자가 시편을 가지고 있고,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계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해석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가 서로를 세우기 위해 이루어지게 하라.
- 27 누군가가 다른 언어로 말하려면, 둘 또는 최대 세 명만 말하고, 순서대로 하며, 한 사람이 해석해야 한다.

- 28 그러나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공동체에서는 침묵하고, 자기 자신과 하느님께 말해야 한다.
- 29 예언자 두 세 명이 말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판단하게 하라.
- 30 그러나 옆에 앉은 이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말한 이는 침묵해야 한다.
- 31 너희 모두가 하나씩 예언할 수 있으니, 모두가 배우고 모두가 권면받게 하라.
- 32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에게 복종한다.
- 33 하느님은 혼란의 하느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느님이시며,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그러하십니다.
- 34 아내들은 공동체에서 침묵해야 한다. 그들은 복종하는 자세로 말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으며, 율법도 그러하다고 말한다.
- 35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한다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아내가 공동체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36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느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만이 그것을 받았느냐?
- 37 누군가가 예언자이거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쓴 이 글들이 주님의 명령임을 알아야 한다.
- 38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한 자라면, 그는 무지한 채로 있으면 된다.
- 39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는 것을 열렬히 갈망하고,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지 마라.
- 40 모든 일을 적절하고 질서 있게 하라.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5장

-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너희에게 알린다. 이 복음은 너희가 받고, 또한 그 위에 서 있는 것이라.
- 2 너희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굳게 지키지 않는 한, 너희는 헛되이 믿은 것이다.
- 3 내가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받은 바 그것이다.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니,
- 4 장사지낸 바 되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며,
- 5 케파에게 보이셨고, 그 후 열두 사도에게 보이셨다.
- 6 그 후 한 번에 오백 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그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 있지만, 일부는 잠들었다.
- 7 그 후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으며,
- 8 마지막으로, 태어나기 시기 잘못된 자처럼 나에게도 보이셨다.
- 9 나는 사도들 중 가장 작은 자이며, 사도라 불릴 자격조차 없으니, 내가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다.
- 10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다. 내게 주어진 그 은총은 헛되지 않았다. 나는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일하였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었다.
- 11 그러므로 내가든 그들이든, 우리가 전하는 바는 같고, 너희도 그대로 믿었다.
- 12 그러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너희 중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가?
- 13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 14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될 것이다.
- 15 또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증언하였는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않으셨을 터이기 때문이다.
- 16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 17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 18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망해 버렸을 것이다.
- 19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에서만 소망을 두었다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 21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부활이 오기 때문이다.
-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 23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이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 후에는 그분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살아날 것이다.
- 24 그 후에 끝이 오리니, 그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없애고, 하느님 아버지께 왕국을 넘겨줄 것이다.
- 25 그는 모든 원수를 그의 발아래에 둘 때까지 다스려야 합니다.
- 26 없어질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 27 “그가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에 복종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모든 것이 복종했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킨 이가 제외됨이 분명합니다.
- 28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면, 아들도 자신에게 모든 것을 복종시킨 이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 29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왜 그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 30 우리가 매시간 위험에 처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3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 대한 자량으로 말하건대, 나는 매일 죽습니다.

- 32 내가 에페소에서 인간적인 목적으로 짐승들과 싸웠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먹고 마시자. 내일 우리는 죽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 33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물들은 좋은 습관을 망가뜨린다.’
- 34 의롭게 깨어 일어나 죄를 짓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이 말을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위해 합니다.
- 35 어떤 이는 말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어떻게 일어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 36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으면 살지 않습니다.
- 37 네가 뿌리는 것은 장차 될 몸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곡식 같은 한 알의 씨앗입니다.
- 38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자기 뜻에 따라 각 씨앗에 몸을 주시며, 각 씨앗마다 자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 39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으며, 어류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습니다.
- 40 하늘에 있는 몸과 땅에 있는 몸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몸의 영광은 땅에 있는 몸의 영광과 다릅니다.
- 41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으며, 별의 영광도 있습니다. 별과 별 사이에도 영광이 다릅니다.
- 42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썩을 것으로 뿌려지며,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납니다.
- 43 그것은 수치로 뿌려지며, 영광으로 일어납니다. 약하게 뿌려지며,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 44 그것은 자연적인 몸으로 뿌려지며, 영적인 몸으로 일어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 45 또 기록된 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하였고,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 46 그러나 먼저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며, 그 다음에 영적인 것입니다.
- 47 첫 번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지어졌고, 두 번째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주님입니다.
- 48 흙으로 지어진 자와 같이, 흙으로 지어진 자들이며,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됩니다.
- 49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자들의 형상을 입었듯이, 하늘에 속한 자들의 형상을 또한 입을 것이다.
- 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피와 살은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며, 썩을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한다.
-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신비를 말한다. 우리는 모두 잠들지 않을 것이지만, 모두 변화될 것이다.
- 52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나팔이 울릴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 53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것으로 입어야 하며, 이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으로 입어야 한다.
- 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입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으로 입힐 때, 기록된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죽음이 승리에 삼켜졌다.’
- 55 ‘죽음아, 네 승리는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승리는 어디 있느냐?’
- 56 죽음의 가시는 죄이고, 죄의 힘은 율법이다.
- 57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한다.
- 58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라. 너희가 알다시피, 주님 안에서 너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6장

- ¹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 내가 갈라티아의 공동체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 ² 매주 첫째 날마다, 각자 자기가 잘 되는 대로 저축하여, 내가 올 때에 모금을 하지 않게 하여라.
- ³ 내가 도착하면, 너희가 승인하는 사람을 서신과 함께 보내어, 너희의 자비로운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게 하리라.
- ⁴ 내가 함께 가는 것이 적절하다면, 그들도 나와 함께 갈 것이니라.
- ⁵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때에 너희에게 가리라. 나는 마케도니아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 ⁶ 너희와 함께 내가 머무르거나, 심지어 너희와 함께 겨울을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나를 떠나보내게 되리라.
- ⁷ 내가 지금 지나가며 너희를 보고 싶지 않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너희와 한동안 머무르기를 바란다.
- ⁸ 그러나 나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무르리라.
- ⁹ 나에게는 크고 효과적인 문이 열렸고, 많은 적대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 ¹⁰ 만일 티모테오가 온다면,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여라. 그도 나처럼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¹¹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경멸하지 말고, 평안히 그를 떠나보내어, 그가 내게로 오게 하여라. 나는 그를 형제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다.
- ¹²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 나는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도록 그를 간절히 권유하였으나, 그는 지금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회가 되면 그는 갈 것이다.
- ¹³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감하라! 강하게라!
- ¹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하여라.
- ¹⁵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청한다. 너희는 스테파나스의 집이 아카이아의 첫 열매이며,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기로 자원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¹⁶ 그러므로 너희도 이런 사람들을 복종하고, 모든 일에 힘쓰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복종하여라.
- ¹⁷ 스테파나스, 포르투나토, 아카이코스가 온 것을 나는 기뻐한다. 너희가 부족했던 것을 그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 ¹⁸ 그들은 나의 영과 너희의 영을 기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여라.
- ¹⁹ 아시아의 공동체들이 너희에게 인사한다. 아굴라와 프리스카가 주님 안에서 따뜻하게 너희에게 인사하며, 그들의 집에 있는 공동체와 함께 인사한다.
- ²⁰ 모든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한다. 성스러운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여라.
- ²¹ 이 인사는 나 바오로가 직접 손으로 쓴 것이다.
- ²²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 오소서!
- ²³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 ²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두에게 사랑을 보낸다. 아멘.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 2 Corinthians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장

- ¹ 바오로, 하느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자와, 우리 형제 티모테오가, 아카이아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코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공동체에게 보냅니다.
- ² 당신들에게 은총과 평화가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 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소서.
- ⁴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환난 속에서 위로를 주셔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통해, 모든 환난에 처한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 ⁵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 넘칩니다.
- ⁶ 우리가 환난을 겪으면, 그것은 당신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그것은 당신들의 위로를 위한 것이며, 이 위로는 당신들이 우리와 같은 고난을 인내하며 견디게 합니다.
- ⁷ 우리의 당신들에 대한 소망은 굳건합니다. 당신들이 고난의 동참자인 것처럼, 위로의 동참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⁸ 형제들아, 내가 당신들이 우리에게 아시아에서 일어난 환난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환난이 너무 심하여 우리 힘을 넘어서 견디기 어려웠고, 심지어 삶에 대한 희망까지도 잃었습니다.
- ⁹ 우리 자신도 죽음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느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¹⁰ 그분은 우리를 이처럼 큰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그분이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 ¹¹ 당신들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어, 많은 이들의 도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에 대해, 많은 이들이 당신들을 위해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¹² 우리의 자량은 이 것입니다. 우리 양심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결과 진정성으로 이 세상에서 행동했고, 특히 당신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행동했습니다.
- ¹³ 우리가 당신들에게 쓰는 것은, 당신들이 읽거나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이 끝까지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 ¹⁴ 당신들이 우리를 일부분이라도 인정한 것처럼, 우리는 당신들의 자량이 되며, 당신들도 우리에게 자량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말입니다.
- ¹⁵ 이 확신을 바탕으로, 나는 먼저 당신들에게 가서, 당신들에게 두 번째 이익을 주려고 계획했습니다.
- ¹⁶ 그리고 당신들을 거쳐 마케도니아로 가서,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당신들에게 돌아와, 당신들의 도움을 받아 유대로 떠나려 했습니다.
- ¹⁷ 그러므로 내가 이 계획을 세웠을 때, 나는 마음이 변덕스러웠습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육체의 생각에 따라 이루어져, 내게 '예, 예'와 '아니오, 아니오'가 함께 있습니까?
- ¹⁸ 그러나 하느님은 진실하시니, 우리에게서 당신들에게 전해진 말은 '예, 예'와 '아니오, 아니오'가 아닙니다.
- ¹⁹ 우리가 당신들 가운데 전파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예'와 '아니오, 아니오'가 아니었고, 그분 안에서는 '예'뿐입니다. 나와 실라노와 티모테오가 전파한 그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 ²⁰ 하느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 '아멘'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 ²¹ 당신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 ²² 그분은 우리를 인봉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 ²³ 내가 내 영혼을 증인으로 불러 하느님께 증언합니다. 내가 코린토에 가지 않은 것은 당신들을 괴롭히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²⁴ 우리는 당신들의 믿음을 지배하지 않지만, 당신들의 기쁨을 위해 당신들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당신들은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2장

- ¹ 나는 스스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슬픔으로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않겠다고.
- ² 내가 너희를 슬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할 이는 누구이겠느냐? 바로 내가 슬프게 한 그 사람일 것이다.
- ³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쓴 것도, 내가 갔을 때 내가 기뻐해야 할 이들에게서 슬픔을 받지 않기 위함이었다. 나는 너희 모두를 신뢰한다. 너희 모두가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줄 것이라고.
- ⁴ 내가 많은 고난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너희가 슬프게 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 ⁵ 누군가가 슬픔을 가져왔다면, 그는 나에게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너희 모두에게—슬픔을 가져왔다.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도록 말이다.
- ⁶ 많은 이들이 내린 이 처벌은 그 사람에게 충분하다.
- ⁷ 그러므로 오히려 너희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가 지나친 슬픔에 눌러 멸망하지 않도록 말이다.
- ⁸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그에게 향한 사랑을 굳게 하기를 간청한다.
- ⁹ 내가 이 글을 쓴 것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복종하는지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 ¹⁰ 너희가 무엇을 용서하는지, 나도 그 것을 용서한다.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를 위해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다.
- ¹¹ 이는 사탄이 우리에게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의 꾀를 모르지 않는다.
- ¹²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트로아스에 갔을 때, 주님 안에서 나를 위한 문이 열렸다.
- ¹³ 그러나 내 형제 티토를 만나지 못하여 내 영혼이 안심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떠나 마케도니아로 떠났다.
- ¹⁴ 하느님께 감사한다. 그분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의 행렬로 이끌어 가시며, 모든 곳에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지식의 달콤한 향기를 드러내신다.
- ¹⁵ 우리는 구원을 받는 이들과 멸망하는 이들에게 하느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이다.
- ¹⁶ 이들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저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달콤한 향기이다. 이런 일에 누가 충분하겠느냐?
- ¹⁷ 우리는 많은 이들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장사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정성으로,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3장

- ¹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합니까? 아니면 어떤 이들처럼, 당신에게나 당신으로부터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 ² 당신은 우리 편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쓰여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편지입니다.
- ³ 당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통해 봉사되며, 먹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느님의 영으로 쓰였고, 돌판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에 쓰인 것입니다.
- 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⁵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도 우리 것처럼 여기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분함은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 ⁶ 그분은 우리를 새 계약의 봉사자로 충분하게 하셨습니다. 글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입니다. 글자는 죽이지만, 영은 생명을 줍니다.
- ⁷ 만약 돌에 새겨진 죽음의 봉사가 영광스럽게 왔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사라져 가는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면,
- ⁸ 영의 봉사는 오히려 훨씬 더 큰 영광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 ⁹ 만약 정죄의 봉사가 영광스럽다면, 의로움의 봉사는 훨씬 더 큰 영광으로 넘쳐납니다.
- ¹⁰ 그러므로 영광스러웠던 것이 이 점에서는 영광스럽지 않은데, 그보다 더 큰 영광 때문입니다.
- ¹¹ 만약 사라져 가는 것이 영광스러웠다면, 남아 있는 것은 훨씬 더 큰 영광으로 있습니다.
- ¹²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큰 담대함으로 말합니다.
- ¹³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라져 가는 것의 끝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면체를 씌운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 ¹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졌습니다.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면체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¹⁵ 오늘날까지 모세가 읽힐 때, 그들의 마음에 면체가 덮여 있습니다.
- ¹⁶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면체가 벗겨집니다.
- ¹⁷ 주님은 곧 영입니다.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 ¹⁸ 우리 모두는 면체를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이는 주님, 곧 영으로부터입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4장

- ¹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를 받았듯이 이 사역을 맡았으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 ² 우리는 부끄러운 은밀한 일을 버리고, 교활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속여 다루지도 않으며, 오직 진리의 드러남으로 하느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자신을 추천합니다.
- ³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죽어가는 자들에게만 가려져 있습니다.
- 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느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 ⁵ 우리는 자신을 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우리는 예수를 위해 너희의 종이 됩니다.
- ⁶ 어둠에서 빛이 나게 하셨던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추셔서 하느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알게 하셨습니다.
- ⁷ 우리는 이 보물을 흙으로 만든 그릇에 가지고 있지만, 이 놀라운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 ⁸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압박을 받지만, 압살당하지 않으며, 혼란스러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 ⁹ 우리는 추적을 당하지만 버림받지 않으며, 쓰러지지만 파괴되지 않습니다.
- ¹⁰ 우리는 항상 우리 몸에 주 예수의 죽음을 지니고 있으니, 이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 ¹¹ 우리 살아 있는 자는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니, 이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몸에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 ¹²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생명은 너희에게 일어납니다.
- ¹³ 우리는 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말처럼, 우리도 믿으므로 말합니다.
- ¹⁴ 우리는 주님 예수를 일으키신 분이 우리도 예수를 통해 일으키시고, 너희와 함께 우리를 드리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 ¹⁵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은총이 더해져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 ¹⁶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바깥사람은 쇠퇴하지만, 우리 안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 ¹⁷ 우리의 잠깐 동안의 가벼운 고난은 우리를 위해 점점 더 커다란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일으킵니다.
- ¹⁸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시 동안의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5장

- ¹ 우리는 이 땅의 장막 집이 풀려지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하느님께로부터 얻음을 압니다.
- ² 우리는 이 몸 안에서 한탄하며, 하늘에서 온 우리 처소로 입히심을 갈망합니다.
- ³ 만일 입게 되면,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 ⁴ 우리는 이 장막 안에 있는 동안 한탄하며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벌거벗고 싶어서가 아니라, 입고 싶어서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 ⁵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느님이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분도 하느님이십니다.
- ⁶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용감하며, 몸에 머무는 동안 주님과 떨어져 있음을 압니다.
- ⁷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습니다.
- ⁸ 우리는 용감합니다. 오히려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 ⁹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머무르든 떠나든 주님께 기뻐받는 자가 되려고 애씁니다.
- ¹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하며, 각자는 몸에서 행한 바에 따라 선이나 악을 받게 될 것입니다.
- ¹¹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므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드러나 있으며, 우리가 너희 양심 앞에도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 ¹² 우리는 다시 너희에게 자신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희가 우리를 자랑할 근거를 얻게 하여, 겉모습으로 자랑하고 마음으로는 자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¹³ 우리가 미친 것이라면 하느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정상이라면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 ¹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 죽었으므로, 모두가 죽었음을 판단합니다.
- ¹⁵ 그분은 모두를 위해 죽으셨으니, 살아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 ¹⁶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누구도 육신대로 알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 ¹⁷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 ¹⁸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 ¹⁹ 곧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시고, 그들의 죄를 계산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 ²⁰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절이 되었습니다. 마치 하느님이 우리를 통해 간청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청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 ²¹ 죄를 모르신 분을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6장

- ¹ 우리는 함께 일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지 않도록 간청합니다.
- ²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은총의 때에 내가 너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고 하셨습니다.
- ³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걸림돌이 되지 않아, 우리의 봉사가 비난받지 않도록 합니다.
- ⁴ 오히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큰 인내로, 환난으로, 곤란으로, 압박으로,
- ⁵ 매질로, 옥중에, 폭동으로, 수고로, 깨어 있음으로, 금식으로,
- ⁶ 순결로, 지식으로, 인내로, 자비로, 성령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 ⁷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의로움의 무기를 지니고,
- ⁸ 영광과 수치로, 악명과 칭찬으로, 속이는 자처럼 보이지만 진실하며,
- ⁹ 알려지지 않은 자처럼 보이지만 잘 알려지고, 죽는 자처럼 보이지만 보라, 우리가 살아 있으며, 징벌받는 자처럼 보이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 ¹⁰ 슬퍼하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듯하면서도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 ¹¹ 코린토 사람들아, 우리 입은 너희에게 열려 있고, 우리 마음도 넓어졌습니다.
- ¹² 우리가 너희를 제한하지 않지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감정으로 제한받습니다.
- ¹³ 이제 너희도 우리에게 보답하듯,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너희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 ¹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메지 마십시오. 의로움과 불의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 ¹⁵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무엇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까?
- ¹⁶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속에 거하며 그들 사이를 걸어다니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 ¹⁷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떠나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 ¹⁸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7장

- ¹ 그러므로 이 약속들을 가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움을 정결히 하여 하느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완성합시다.
- ² 우리를 향해 너희 마음을 열어라. 우리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않았으며, 아무도 착취하지 않았다.
- ³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너희는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 자들이다.
- ⁴ 내가 너희에게 대해 말하는 용기가 크고, 너희를 위해 자랑하는 것도 크다. 나는 모든 환난 속에서도 위로로 가득 차 있고 기쁨으로 넘친다.
- ⁵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도 육체는 쉼을 얻지 못했고, 모든 면에서 환난을 당했다. 밖에서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었다.
- ⁶ 그러나 낮은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느님께서 티토의 도착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 ⁷ 그가 온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가 너희에게서 위로를 받으며 우리에게 너희의 갈망과 슬픔과 나에 대한 열정을 전해 줌으로써, 나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다.
- ⁸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했지만, 나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비록 내가 그것을 후회했으나, 내가 편지가 너희를 잠시 동안 슬프게 했다는 것을 안다.
- ⁹ 지금 나는 너희가 슬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도록 슬펐기 때문에 기뻐한다. 너희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슬픔으로 슬퍼하여, 우리로 인해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 ¹⁰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슬픔은 구원으로 이어지는 회개를 낳고, 후회가 없지만, 이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낳는다.
- ¹¹ 보라, 너희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슬픔으로 슬퍼한 이 같은 일은 너희 안에 어떤 열심을 일으켰는가. 어떤 변명과 분노와 두려움과 갈망과 열정과 처벌까지도 말이다. 너희는 모든 면에서 이 일에 대해 순결함을 보여 주었다.
- ¹²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 것은 잘못을 저지른 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고통을 받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열심을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었다.
- ¹³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다. 우리 위로 속에서 우리는 티토의 기쁨으로 더욱 크게 기뻐하였으니, 그의 영이 너희 모두에게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 ¹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해 자랑한 것이 무엇이든,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우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진실로 말한 것처럼, 내가 티토 앞에서 한 자랑도 진실로 드러났다.
- ¹⁵ 그는 너희를 향한 애정이 더욱 풍성해졌고, 너희 모두의 복종을 기억하며,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를 받았음을 생각한다.
- ¹⁶ 내가 너희에 대해 모든 면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뻐한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8장

- ¹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공동체들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을 너희에게 알리노니,
- ² 그들이 심한 시련 속에 있으면서도 기쁨이 풍성하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의 관대함이 풍성하게 나타났다.
- ³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힘에 맞게만 아니라 힘을 넘어서 자발적으로 주었으며,
- ⁴ 우리에게 간청하며, 이 은총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많이 부탁하였다.
- ⁵ 이것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달리,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드린 것이었다.
- ⁶ 그러므로 우리는 티토를 권면하여, 그가 먼저 시작한 것처럼 너희에게서도 이 은총을 완성하게 하였다.
- ⁷ 너희가 모든 일에서,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정과 우리에게 대한 사랑에서 풍성하니, 이 은총에서도 또한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 ⁸ 내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열정을 통해 너희 사랑의 진정성을 시험하려는 것이다.
- ⁹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느니라. 그는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다. 이는 너희가 그의 가난을 통해 부유해지려 하심이다.
- ¹⁰ 내가 이 일에 조언하노니, 일 년 전에 시작한 너희가 단지 행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려는 마음도 갖기를 바란다.
- ¹¹ 이제는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니, 그 능력에 따라 행함도 완성하여라.
- ¹²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가진 것에 따라 받아들여지며, 가지지 못한 것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¹³ 이것은 다른 이들이 편안해지고 너희가 고통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 ¹⁴ 평등을 이루려는 것이다. 지금 너희의 풍성함이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들의 풍성함도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여, 평등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 ¹⁵ 기록된 바와 같이, ‘많이 모은 자는 남은 것이 없었고, 적게 모은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 ¹⁶ 그러나 우리에게 너희를 위한 같은 열정을 마음에 두신 하느님께 감사한다.
- ¹⁷ 그는 우리의 권면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 매우 열정적이어서 자발적으로 너희에게로 떠났다.
- ¹⁸ 우리는 그와 함께, 복음에서 모든 공동체에서 칭찬을 받는 형제를 보냈다.
- ¹⁹ 그뿐 아니라, 그는 공동체들에 의해 이 은총을 우리와 함께 전달하도록 임명되었으며, 이 은총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기꺼운 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 ²⁰ 우리는 우리가 관리하는 이 풍성함에 대해 누구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일을 조심한다.
- ²¹ 주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존중받는 일에 유의한다.
- ²² 우리는 또 우리를 여러 번 여러 일에서 열정적임을 시험한 형제를 그들과 함께 보냈는데, 지금은 너희에 대한 큰 신뢰로 더욱 열정적이 되었다.
- ²³ 티토는 너희를 위한 내 동반자이자 동역자이며, 우리 형제들은 공동체들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 ²⁴ 그러므로 너희 사랑의 증거를 공동체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고, 우리를 위한 우리의 자랑도 증명하여라.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9장

- ¹ 성도들을 위한 봉사에 관해 너희에게 쓰는 것은 사실상 불필요하다.
- ² 내가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알고 있으며, 아카이아가 지난 일년 동안 준비되어 왔다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해 왔다. 너희의 열정이 그들 중 매우 많은 이들을 자극해 왔다.
- ³ 그러나 내가 형제들을 보내어 너희에 대한 내 자랑이 이 일에서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 내가 말한 대로 너희가 준비되어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 ⁴ 만일 마케도니아에서 누군가 나와 함께 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우리(더욱이 너희를 말할 것인가)가 이 확신 있는 자랑에 실망하게 될까 두려워서이다.
- ⁵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가 미리 약속한 그 풍성한 선물이 준비되도록 정리하게 하려 했다. 그것은 탐욕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베품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 ⁶ 이것을 기억하라: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둔다.
- ⁷ 각자는 마음에 정한 대로 줄지니,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느님은 기쁨으로 주는 이를 사랑하신다.
- ⁸ 하느님은 너희에게 모든 은총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 충분히 갖추어져서,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하게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 ⁹ 기록된 바와 같이, "그는 흠어 뿌렸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 ¹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를 공급하시고, 음식으로 빵을 주시는 분이, 너희가 뿌릴 씨를 공급하시고 늘리시며, 너희의 의로움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 ¹¹ 너희가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부유하여, 우리를 통해 하느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리라.
- ¹² 이 봉사는 너희가 행하는 선물의 봉사가 성도들의 부족함을 메울 뿐 아니라, 하느님께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¹³ 이 봉사로 인해 그들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앙의 순종과, 그들과 모든 이들에게 베푸는 풍성한 베품으로 하느님을 찬양한다.
- ¹⁴ 그들은 또한 너희를 위해 간구하며, 너희 안에 넘치는 하느님의 은총 때문에 너희를 그리워한다.
- ¹⁵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0장

- ¹ 나 바오로가 그리스도의 온화함과 겸손함으로 너희를 간청한다. 나는 너희 앞에서는 약하게 보이지만, 떨어져 있으면 너희에게는 담대하다.
- ²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담대하게 행동하려는 확신으로 너희에게 담대하게 보이지 않도록 간청한다. 그들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는다고 생각한다.
- ³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걸긴 하지만, 육신을 따라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
- ⁴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강력하여 요새를 무너뜨리는 힘을 지녔다.
- ⁵ 우리는 모든 교만한 생각과 하느님의 지식에 대항하여 높이 올라선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복종에 사로잡는다.
- ⁶ 너희의 복종이 완성될 때, 모든 불순종을 벌하려고 준비되어 있다.
- ⁷ 너희는 겉보기만 보고 판단하는가? 누구든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그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 ⁸ 내가 주님께서 너희를 세우기 위해 주신 권위에 관해 다소 과하게 자랑한다고 해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것이다.
- ⁹ 내가 너희를 편지로 무서워하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말이다.
- ¹⁰ 그들은 말한다. "그의 편지는 강력하고 무거우나, 그의 육신적 존재는 약하고, 그의 말은 경멸받는다."
- ¹¹ 그런 사람은 이 점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 있을 때 행동으로도 그와 같다.
- ¹²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수를 세는 데 담대하지 않다. 그들은 스스로를 기준으로 재고, 스스로와 비교하며, 무지하다.
- ¹³ 우리는 적절한 한계를 넘지 않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계 안에서만 자랑한다. 그 경계는 너희에게까지 이른다.
- ¹⁴ 우리는 너희에게까지 이르지 못한 것처럼 과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
- ¹⁵ 우리는 다른 이들의 수고를 넘어서 자랑하지 않으며,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영향력의 범위 안에서 너희를 통해 풍성하게 커지기를 바란다.
- ¹⁶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일을 자랑하지 않고, 너희를 넘어서는 곳까지도 복음을 전하려 한다.
- ¹⁷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 ¹⁸ 자신을 칭찬하는 자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인정받는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1장

- 1 나는 너희가 조금이라도 어리석은 일로 나를 용납해 주기를 바란다. 진실로 너희는 나를 용납하고 있다.
- 2 나는 하느님께로부터 온 질투로 너희를 향해 질투한다. 나는 너희를 한 남편에게 약혼시켜, 그리스도 앞에 순결한 처녀로 드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나는 두렵다. 뱀이 간교함으로 에바를 속였듯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오염될까 두렵다.
- 4 누군가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너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나.
- 5 나는 내가 가장 훌륭한 사도들보다 한 치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6 비록 내가 말하는 데 서투르더라도, 지식에서는 서투르지 않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드러냈다.
- 7 내가 너희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낮춘 것이 죄였는가? 내가 하느님의 복음을 무상으로 너희에게 전했기 때문인가?
- 8 나는 다른 공동체들에서 빼앗아, 너희를 섬기기 위해 그들로부터 보수를 받았다.
- 9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궁핍했지만,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았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 궁핍을 채워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다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 10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아카이아 지역에서 이 자랑을 막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 11 왜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 하느님께서 아신다.
- 12 내가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이는 자랑할 기회를 찾는 자들이 기회를 잃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자랑하는 바가 우리와 같다고 인정받게 하기 위함이다.
- 13 이런 자들은 거짓 사도들, 간사한 일꾼들로, 그리스도의 사도인 척하는 자들이다.
- 14 그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조차 빛의 천사인 척하기 때문이다.
- 15 그의 하인들이 의로움의 하인인 척하는 것도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의 끝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있을 것이다.
- 16 내가 다시 말한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래도 그렇다면, 나를 어리석은 자처럼 받아들여라. 그 래야 나도 조금 자랑할 수 있다.
- 17 내가 말하는 이 말은 주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 속에서, 이 자랑의 확신으로 하는 것이다.
- 18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 19 너희는 지혜로우니, 어리석은 자를 기꺼이 용납한다.
- 20 누군가 너희를 노예로 삼고, 너희를 삼키고, 너희를 사로잡고, 스스로 높이며, 너희의 얼굴을 치더라도, 너희는 그것을 용납한다.
- 21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며 말하건대, 우리가 약한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누구든지 용감하게 행동한다면(나는 어리석음으로 말한다), 나도 용감하다.
- 22 그들은 히브리인인가? 나도 그렇다. 이스라엘인인가? 나도 그렇다.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나도 그렇다.
- 23 그들은 그리스도의 하인인가? (나는 미친 사람처럼 말한다.) 나는 더하다. 수고는 그들보다 훨씬 많고, 옥중 생활은 그들보다 훨씬 많고, 매를 맞은 것도 그들보다 훨씬 많으며, 죽음의 위험도 자주 겪었다.
- 24 나는 유대인에게서 다섯 번이나 사십 대를 하나 뺀 매를 맞았다.
- 25 세 번이나 채찍을 맞았고, 한 번은 돌을 맞았으며, 세 번이나 배가 침몰했고, 하루 밤을 깊은 바다 속에 있었읍니다.
- 26 여행을 자주 하며,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내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황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읍니다.
- 27 수고와 애쓰는 일, 자주 깨어 있는 것, 굶주림과 갈증, 자주 단식, 추위와 벌거벗음 속에 있었읍니다.
- 28 바깥일 외에도, 매일 나를 압박하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입니다.
- 29 누가 약한가, 내가 약하지 않으랴? 누가 넘어지게 되는가, 내가 분노하지 않으랴?
- 30 만약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함과 관련된 일들을 자랑하겠습니다.
- 31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이시고 아버지이신 분,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아십니다.

³² 다마스코에서 아레타스 왕의 총독이 다마스코 시를 지키며 나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³³ 나는 바구니에 담겨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져 그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2장

¹ 사랑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주님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²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십사 년 전에 세 번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몸으로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느님은 아십니다.

³ 나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몸으로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느님은 아십니다).

⁴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은 사람이 말할 수 없습니다.

⁵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점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⁶ 만약 내가 자랑하고 싶어 한다고 해도, 나는 어리석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진실을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하려 합니다. 그래야 누구도 나를 내가 보이는 것보다 더 높이 평가하거나, 내가 들려주는 것보다 더 크게 여기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⁷ 그런 놀라운 계시 때문에 내가 지나치게 자만하지 않도록, 내 육체에 가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사자로서 나를 괴롭혀, 내가 지나치게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⁸ 이 일에 관해 나는 세 번이나 주님께 간청하여,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⁹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총이 네게 충분하다. 내 힘이 약함 속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점들로 인해 기뻐하며 자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힘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고 말입니다.

¹⁰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점과 모욕과 곤란과 박해와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한 것입니다.

¹¹ 나는 자랑하는 데 어리석어졌습니다. 너희가 나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칭찬받아 마땅했습니다. 나는 가장 훌륭한 사도들보다 한 치도 낮지 않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¹² 사도의 표징들이 너희 가운데 모든 인내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¹³ 너희가 다른 모든 공동체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오직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이 잘못을 용서해 주라!

¹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로 너희에게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너희를 구한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재산을 모으지 말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아야 한다.

¹⁵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해 기꺼이 쓰이고, 쓰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하면, 너희는 나를 덜 사랑하는가?

¹⁶ 비록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지만, 너희는 내가 교활하게 거짓으로 너희를 속였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¹⁷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 중 누구를 통해 너희를 속였느냐?

¹⁸ 내가 티토를 권면하고,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냈다. 티토가 너희를 속였느냐? 우리가 같은 영으로 걷지 않았느냐? 우리가 같은 길을 걷지 않았느냐?

¹⁹ 다시 말하지만,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러나 모든 일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²⁰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를 만나지 못하고,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자로 발견될까 두려워합니다. 혹시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분열과 비방과 중상과 교만한 생각, 또는 소란이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²¹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느님께서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시고,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었고, 아직 부정함과 음행과 탐욕을 회개하지 않은 많은 이들을 위하여 슬퍼할까 두려워합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3장

- ¹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로 가는 것이다.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정된다."
- ² 내가 전에 경고했고, 지금도 다시 경고한다. 내가 두 번째로 너희에게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떠나 있어도, 이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나머지 모든 이들에게 말한다. 내가 다시 오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 ³ 너희가 나 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너희 안에서 약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
- ⁴ 그분은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느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는 약하지만, 너희를 향해 하느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 ⁵ 자신을 시험해 보아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알아보아라. 너희가 자신을 모르는 줄 알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느냐?—단,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 ⁶ 그러나 나는 너희가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음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 ⁷ 내가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인정받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너희가 올바른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 ⁸ 우리는 진리에 반대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 일할 뿐이다.
- ⁹ 우리는 우리가 악할 때 너희가 강해지는 것을 기뻐한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한다. 너희가 완전해지기를.
- ¹⁰ 이 때문에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이 글을 쓴다.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엄하게 대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내가 세우기 위해 주신 권한을 따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 ¹¹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기뻐하라. 완전해지라. 위로를 받으라. 같은 마음을 품고, 평화롭게 살아라.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 ¹²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 ¹³ 모든 성도들이 너희를 인사한다.
- ¹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빈다. 아멘.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 Galatians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장

- ¹ 바오로는 사도입니다. 이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 온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느님 아버지께 의해 온 것입니다.
- ² 저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갈라티아의 모든 공동체들에게:
- ³ 당신들에게 은총과 평화가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 ⁴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바치셔서, 우리를 이 악한 시대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 ⁵ 그분께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 ⁶ 당신이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당신들을 부르신 분을 이렇게 빨리 떠나, 다른 ‘좋은 소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놀라웁게 생각합니다.
- ⁷ 그러나 다른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당신들을 괴롭히고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 ⁸ 비록 우리가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전한 것과 다른 ‘좋은 소식’을 당신들에게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 ⁹ 전에 우리가 말한 대로, 이제 다시 말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당신이 받은 것과 다른 ‘좋은 소식’을 당신들에게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 ¹⁰ 지금 저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합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기쁨을 구합니까? 아니면 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합니까? 만약 제가 여전히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 ¹¹ 형제 여러분, 제가 전한 좋은 소식이 사람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 ¹² 저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사람에게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 ¹³ 당신들은 제가 과거에 유대교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유대교 안에서 제 동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했습니다.
- ¹⁴ 저는 제 동년배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유대교 안에서 더 뛰어나게 성장했고, 제 조상들의 전통을 더욱 열성적으로 지켰습니다.
- ¹⁵ 그러나 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그분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 ¹⁶ 제 안에 그분의 아들을 계시하여 제가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분을 전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육과 피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 ¹⁷ 또 전에 사도들이었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아라비아로 떠났습니다. 그 후에 다마스쿠스로 돌아왔습니다.
- ¹⁸ 그리고 삼 년 후에 저는 베드로를 방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십오 일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 ¹⁹ 그러나 다른 사도들 중에는 제가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형제 야고보뿐이었습니다.
- ²⁰ 제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일들은 하느님 앞에서 거짓이 아닙니다.
- ²¹ 그 후에 저는 시리아와 기릴리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 ²²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의 공동체들은 저를 얼굴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 ²³ 그들은 단지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 그가 전에 파괴하려 했던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 ²⁴ 그래서 그들은 저로 말미암아 하느님을 찬양했습니다.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2장

- ¹ 그 후 십사 년이 지나서 나는 바르나바와 함께 티토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 ² 나는 계시에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인들 사이에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나는 명망 있는 자들 앞에서 비밀리에 그것을 말했다. 내가 헛되이 달리거나 이미 헛되이 달렸을까 두려워서였다.
- ³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인인 티토조차도 할례를 받도록 강요받지 않았다.
- ⁴ 이는 은밀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엿보려고 들어와서, 우리를 노예 상태로 끌어들이려 했다.
- ⁵ 우리는 그들에게 한 순간도 복종의 자리를 주지 않았다. 이는 너희에게 복음의 진리가 그대로 남아 있기 위해서였다.
- ⁶ 그러나 명망 있는 사람들—비록 그들이 무엇이었던, 나에게서는 그들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하느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그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 ⁷ 오히려 그들은 내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말김을 보았고, 베드로가 할례를 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말김을 보았다.
- ⁸ 할례를 받은 이들에게 사도직을 행하게 하신 분이 베드로 안에서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이방인들 안에서 일하셨다.
- ⁹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주어진 은총을 깨달았을 때, 기둥으로 알려진 야고보와 케파와 요한은 나와 바르나바에게 오른손을 맞잡아 주며,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그들은 할례를 받은 이들에게로 가기로 약속했다.
- ¹⁰ 그들은 다만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라고 부탁할 뿐이었다. 나는 그 일에 열심히 힘쓰고 있었다.
- ¹¹ 베드로가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그에게 맞서 말했다. 그는 책망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 ¹²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 그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떨어져 나와서 할례를 받은 이들을 두려워하여 혼자 있었다.
- ¹³ 나머지 유대인들도 그의 위선에 동참했고, 심지어 바르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다.
- ¹⁴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했다. "너는 유대인 이면서 이방인처럼 살고, 유대인처럼 살지 않는데,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는가?"
- ¹⁵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며, 이방인 죄인들이 아니다.
- ¹⁶ 그러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에게 믿음을 두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 ¹⁷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우리 자신도 죄인으로 드러났다면, 그리스도는 죄의 종이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 ¹⁸ 내가 내가 무너뜨린 것을 다시 쌓는다면, 나는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된다.
- ¹⁹ 나는 율법을 통해 율법에게 죽었으니, 하느님을 위해 살게 되었다.
- ²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내가 지금 육신에서 사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느님의 아들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 ²¹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거부하지 않는다. 만일 의로움이 율법을 통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다!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3장

- 1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너희 앞에 명백히 드러났는데, 누가 너희를 꾀어 진리를 따르지 않게 만들었느냐?
- 2 내가 너희에게 단지 이것만 알고 싶다. 너희는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의 청취로 받았느냐?
- 3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은가? 영으로 시작한 것을 이제 육으로 완성하려 하는가?
- 4 너희가 이토록 많은 고난을 헛되이 겪었느냐? 정말 헛된 일이라면 그렇다.
- 5 그러므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율법의 행위로 이것을 하시는가, 아니면 믿음의 청취로 하시는가?
- 6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었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움으로 계산되었다.
- 7 그러므로 믿음으로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알라.
- 8 성경은 하느님께서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하여,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다.
- 9 그러므로 믿음으로 있는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 10 율법의 행위로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기록된 바,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으니,
- 11 하느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으니,
- 12 율법은 믿음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는 그로 인해 살리라" 하였으니,
-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으니,
- 14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 15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로 말하자면, 사람이 정한 계약이라도 확정되면, 아무도 그것을 폐기하거나 더하지 않는다.
- 16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졌다. 그분은 "자손들"이라는 말로 많은 것을 가리키지 않고, "네의 자손"이라는 말로 한 사람을 가리켰다. 이 자손은 그리스도이다.
- 17 내가 말한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미리 확정하신 약속은, 사백삼십 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그것을 폐기하여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한다.
- 18 만약 유산이 율법에서 오는 것이라면, 약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주셨다.
- 19 그러면 율법은 왜 있는가? 그것은 범죄를 위해 추가된 것이며, 약속이 주어진 자손이 올 때까지 있었다. 그것은 천사들의 손을 거쳐 중보자에 의해 정해졌다.
- 20 중보자는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 21 그러면 율법은 하느님의 약속과 대립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의로움은 율법에서 났을 것이다.
- 22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려 하였다.
- 23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나중에 드러날 믿음에 이르기까지 지켜지고 있었다.
- 24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함이다.
- 25 그러나 이제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유치원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 26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 27 너희 중 누구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은 이는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 28 유대인도 없고,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으니,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 29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에 따라 유산을 이어받는 자들입니다.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4장

- 1 내가 말하건대,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종과 다를 바 없으나, 모든 것을 주인으로서 지배한다.
- 2 그는 아버지가 정한 날까지 보호자와 집무자 아래에 있다.
- 3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였을 때,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 아래에 종으로 억눌려 있었다.
- 4 그러나 시기가 가득 찼을 때, 하느님은 한 여자에게서 태어나 법 아래에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 5 이는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가 자녀로 입양받게 하려 하심이었다.
- 6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셨다. 그 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친다.
- 7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아들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의 상속자이다.
- 8 그러나 그때에는 하느님을 알지 못했으므로, 본질적으로 신이 아닌 자들에게 종으로 억눌려 있었다.
- 9 이제는 하느님을 알게 되었거나, 오히려 하느님께 알려지게 되었으니, 어찌하여 너희는 다시 약하고 가난한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려 하는가? 너희는 다시 그 원리 아래에 종이 되고자 하는가?
- 10 너희는 날들과 달들과 계절들과 해들을 지킨다.
- 11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 12 형제들아, 내가 너희처럼 되었듯이, 너희도 나처럼 되어 달라. 너희는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
- 13 너희는 내가 육체의 약함 때문에 처음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알고 있다.
- 14 내 육체가 너희에게 시험이 되었으나, 너희는 그것을 경멸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하느님의 천사처럼, 혹은 그리스도 예수처럼 나를 받았다.
- 15 그때 너희가 누렸던 복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건대, 가능하다면 너희는 눈을 뽑아 내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 1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원수가 되었는가?
- 17 그들은 나쁜 의도로 너희를 열심히 찾는다. 그들은 오히려 너희를 그들로부터 떨어뜨리려 하여, 너희가 그들을 찾게 하려 한다.
- 18 그러나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 19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다시 고통을 겪고 있다.
- 20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태도를 바꾸고 싶다. 나는 너희에 대해 혼란스럽다.
- 21 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너희에게 말하건대, 법을 듣지 않는가?
- 22 기록된 바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두 아들을 두었으니,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다른 한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 23 그러나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육체대로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약속대로 태어났다.
- 24 이 일들은 비유이다. 이 두 여자는 두 계약을 상징한다. 하나는 시내 산에서 나와 종이 되는 자들을 낳는 하갈이다.
- 25 이 하갈은 아라비아의 시내 산에 해당하며, 현재 존재하는 예루살렘과 같다.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은 노예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 26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다.
- 27 그것은 기록되어 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여, 기뻐하여라.
- 28 지금 우리 형제들은 이사악처럼 약속의 자녀들이다.
- 29 그때와 같이,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하였듯이, 지금도 그러하다.
- 30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노예 여자와 그 아들을 내쫓아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유산을 받지 못할 것이다."
- 31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는 노예 여자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들이다.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5장

- ¹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를 바탕으로 굳게 서라. 다시는 멍에의 종노릇을 하지 마라.
- ² 보아라, 나 바오로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할 것이다.
- ³ 내가 다시 모든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 증언한다. 그는 온 율법을 지켜야 할 빛진 자가 된다.
- ⁴ 너희는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는 자들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총에서 떨어졌다.
- ⁵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로움의 소망을 기다린다.
- 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사랑을 통해 일하는 믿음뿐이다.
- ⁷ 너희가 잘 달리고 있었는데, 누가 너희를 방해하여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했느냐?
- ⁸ 이 설득은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 ⁹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 ¹⁰ 주님 안에서 나는 너희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¹¹ 그러나 나 바오로가, 만약 내가 아직 할례를 전한다면, 왜 나는 여전히 박해를 받는가? 그렇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은 사라졌을 것이다.
- ¹²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끊어지기를 바란다.
- ¹³ 너희는 자유를 얻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육신을 위한 기회로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사랑을 통해 서로에게 종이 되어라.
- ¹⁴ 모든 율법은 한 마디로 이루어진다. 바로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 ¹⁵ 만약 너희가 서로를 물고 뜯는다면, 서로를 소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 ¹⁶ 내가 말한다. 성령을 따라 걷거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이다.
- ¹⁷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른다. 이 둘은 서로 대립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 ¹⁸ 그러나 너희가 성령에게 이끌린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 ¹⁹ 육신의 행위는 분명하다. 그것들은 간음, 음행, 부정, 음란,
- ²⁰ 우상 숭배, 마법, 원한, 다툼, 시기, 분노, 경쟁, 분열, 이단,
- ²¹ 질투, 살인, 술 취함, 방탕,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노니, 내가 미리 경고한 것처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 ²²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앙,
- ²³ 온유, 절제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이 없다.
- ²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육신과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박았다.
- ²⁵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걸어야 합니다.
- ²⁶ 우리는 교만해지지 말고, 서로를 자극하지도, 서로를 시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6장

- ¹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잘못에 잡히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도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 ² 서로의 짐을 지어 주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여라.
- ³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 ⁴ 각자 자신의 일을 시험해 보아라. 그러면 자신에게 자랑할 근거가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서 자랑하게 될 것이다.
- ⁵ 각자 자신의 짐을 지게 될 것이다.
- ⁶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이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라.
- ⁷ 속임을 받지 말아라. 하느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을 뿌리면,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 ⁸ 자기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음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뿌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다.
- ⁹ 우리는 선을 행하며 지치지 말자. 우리가 인내하면 제때에 거두게 될 것이다.
- ¹⁰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을 향해 선을 행하고, 특히 믿음의 가족을 향해 행하도록 하자.
- ¹¹ 내가 너희에게 내 손으로 쓴 이 글의 큰 글자들을 보아라.
- ¹² 육체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고자 하는 자들이 너희를 할례받게 하려고 강요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것이다.
- ¹³ 할례를 받는 자들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가 할례받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이다.
- ¹⁴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박혔고, 세상에게는 내가 십자가에 못박혔다.
- ¹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롭게 창조된 것이 중요하다.
- ¹⁶ 이 기준을 따라 걷는 모든 이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그리고 하느님의 이스라엘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 ¹⁷ 이제부터는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 ¹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너희 영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아멘.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 Ephesians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장

- ¹ 바오로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에페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이들에게 보낸다.
- ² 당신들에게 은총과 평화가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함께하기를 빕니다.
- 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 ⁴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 ⁵ 그분은 자기 뜻의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입양하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 ⁶ 이는 그분의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자유롭게 주셨습니다.
- ⁷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을 받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은총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 ⁸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통찰력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 ⁹ 자기 뜻의 기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 ¹⁰ 이는 때가 차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으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그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 ¹¹ 우리는 또한 그분 안에서 기업을 얻었으며, 모든 일을 자기 뜻의 계획에 따라 이루시는 분의 뜻을 따라 미리 정해진 자들입니다.
- ¹²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바라본 자들이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¹³ 당신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당신들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어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 ¹⁴ 이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하느님의 소유를 구속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 ¹⁵ 이 때문에 나는 주님 예수에 대한 당신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당신들의 사랑을 듣고,
- ¹⁶ 당신들을 위해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 ¹⁷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분을 알게 하시기를 빕니다.
- ¹⁸ 당신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 안에서 그분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 ¹⁹ 당신들이 믿는 자들에게 향한 그분의 힘의 위대함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게 하시기를 빕니다. 이 힘은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동적인 작용입니다.
- ²⁰ 그분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어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 ²¹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뿐 아니라, 이 세대뿐 아니라 올 세대에도 불리어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 ²² 그분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모든 것 위에 교회를 위한 머리로 그분을 세우셨습니다.
- ²³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모든 것 안에서 채우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2장

- ¹ 당신은 죄와 죄악으로 죽어 있었으나, 하느님께서 당신을 살어나게 하셨습니다.
- ² 당신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의 자녀들 속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 ³ 우리도 모두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의 욕망을 실행했고, 본성상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 ⁴ 그러나 자비가 풍성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 ⁵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어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 ⁶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 ⁷ 이렇게 하여 오는 세대들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풍성함을 보이려 하셨습니다.
- ⁸ 당신은 은총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 ⁹ 이는 공로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¹⁰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선한 일들은 하느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걷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 ¹¹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고, ‘할례’라 불리는 자들에 의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 불리던 자들이었습니다.
- ¹² 당신은 그때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고, 약속의 언약들에서 외국인이었으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느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 ¹³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당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 ¹⁴ 그분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돌을 하나로 만들고, 중간에 있는 분리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 ¹⁵ 그분은 자신의 육체로 원수됨, 즉 규정에 담긴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 돌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여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 ¹⁶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그 돌을 한 몸으로 하느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원수됨을 죽이셨습니다.
- ¹⁷ 그분은 와서 멀리 있는 자들에게도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 ¹⁸ 우리 둘 다 그분을 통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 ¹⁹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료 시민이 되었고, 하느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 ²⁰ 당신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모퉁이돌이 되었습니다.
- ²¹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서로 맞물려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자라납니다.
- ²² 당신도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거처가 되도록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3장

- ¹ 이 때문에 나 바오로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가 되었다.
- ² 너희가 나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의 직무, 곧 너희를 위한 그것에 대해 들었기를 바란다.
- ³ 이 신비가 내게 계시로 알려졌듯이, 내가 이전에 몇 마디로 썼던 바와 같다.
- ⁴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내 이해를 알게 될 것이다.
- ⁵ 이 신비는 이전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금은 성령을 통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다.
- ⁶ 이것은 이방인들이 동업자이며, 몸의 동일한 구성원이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약속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 ⁷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는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의 선물에 따라, 그의 능력의 역동에 따라 주어진 것이다.
- ⁸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지만, 이 은총을 받았으니,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 ⁹ 또한 모든 사람이, 옛적부터 하느님 안에 숨겨졌던 이 신비의 직무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 ¹⁰ 이것은 지금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주권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느님의 다양한 지혜가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다.
- ¹¹ 이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 ¹² 우리는 그를 통해 믿음으로 그에게 담대히 나아가며 접근할 수 있다.
- ¹³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너희를 위한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기를 간청한다. 이 고난은 너희의 영광이다.
- ¹⁴ 이 때문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는다.
- ¹⁵ 하늘과 땅의 모든 가족은 그분께 이름을 얻는다.
- ¹⁶ 그가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영으로 너희 안의 내적 사람을 능력으로 굳건히 하시기를 간구한다.
- ¹⁷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믿음으로 거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 ¹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 ¹⁹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너희가 하느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 ²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우리를 능히 하실 분께,
- ²¹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세대에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빈다. 아멘.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4장

- 1 그러므로 나는 주 안에서 갇힌 자로서 너희에게 간청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라.
- 3 평화의 매듭으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려고 힘쓰라.
- 4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듯이.
- 5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 6 모든 이의 한 하느님과 아버지이시며, 모든 이 위에 계시고, 모든 이를 통해 일하시며, 모든 이 안에 계신 분이시다.
- 7 우리 각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측량에 따라 은혜가 주어졌다.
- 8 그러므로 그는 말씀하신다. "그가 높이 올라가실 때,
- 9 "올라가셨다"는 말은 무엇이나? 그것은 곧 그가 먼저 땅의 더 낮은 곳들로 내려가셨다는 뜻이다.
- 10 내려가신 그분이 곧 모든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채우려 하신다.
- 11 그분은 어떤 이들을 사도로, 어떤 이들을 예언자로, 어떤 이들을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들을 목자와 교사로 주셨다.
- 12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 13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하나가 되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크기까지 자라나게 하려 하심이다.
- 14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리라. 교리의 모든 바람에 흔들려 떠돌며, 사람들의 교활함과 속임수에 따라 오류의 꼬임에 빠지지 않으리라.
- 15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면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리라.
- 16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관절을 통해 공급되는 바에 따라 잘 맞고 끈으로 연결되어, 각 부분이 그 측량에 따라 작용하여 몸을 세워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자라게 한다.
- 17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언한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마음의 허무함 속에서 겉듯이 더 이상 겉지 말라.
- 18 그들은 마음이 어두워져 하느님의 생명에서 멀어졌으며, 그들 안에 있는 무지와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러하다.
- 19 그들은 무감각해져서 탐욕을 따라 음란과 모든 더러움을 탐욕스럽게 행하였다.
- 20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 21 만일 너희가 그분을 들었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예수 안에 진리가 있음과 같이.
- 22 거짓의 욕심을 따라 부패해 가는 옛 사람을 너희의 이전 삶과 함께 벗어버리고,
- 23 너희의 마음의 정신을 새롭게 하며,
- 24 의로움과 진리의 성결함으로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 25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이웃과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 26 분노하되 죄를 지으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마십시오.
- 27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 28 도둑질하던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대신 손으로 일하여 좋은 것을 만들어, 필요한 이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 29 너의 입에서 부패한 말은 아무것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오직 상대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말만 하십시오. 필요에 따라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주게 하십시오.
- 30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그 성령으로 구속의 날을 위해 인치셨습니다.
- 31 모든 쓸개, 분노, 성내는 것, 외침, 비방을 모두 버리고, 모든 악의도 함께 버리십시오.
- 32 서로를 친절하고 자비롭고, 용서하십시오. 마치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5장

- 1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느님을 본받으십시오.
- 2 사랑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으며, 하느님께 달콤한 향기로운 제물과 번제로 바치셨습니다.
- 3 음행과 모든 부정함, 또는 탐심은 여러분 사이에서조차 이름조차 불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 4 또한 음탕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 희롱도 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적절하지 않지만,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 5 이것을 분명히 알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심 많은 자, 즉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나라에서 유산을 얻지 못합니다.
- 6 허탄한 말로 아무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일들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들의 자녀들에게 내립니다.
- 7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마십시오.
- 8 여러분은 전에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걸으십시오.
- 9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 10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십시오.
- 11 어두움의 열매 없는 행위들과 교제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십시오.
- 12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말하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 13 그러나 모든 것이 책망을 받으면 빛에 의해 드러납니다. 모든 드러내는 것은 빛입니다.
- 14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자고 있는 자들아, 일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실 것이다."
- 15 그러므로 어떻게 걸어가는지 신중히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처럼 하십시오.
- 16 때를 아끼십시오. 이 날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 17 그러므로 어리석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 18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방탕함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 19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말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연주하십시오.
- 2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모든 일에 대해 하느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 21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 22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하십시오.
- 23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듯 그리스도도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분은 몸의 구원자이십니다.
- 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 25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그녀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아내들을 사랑하라.
- 26 이것은 말씀과 물로 씻어 그녀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 27 이것은 흠이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자신께 드리려는 것이다. 그녀는 거룩하고 결함이 없어야 한다.
- 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 29 사람은 결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먹이고 돌보아 주듯이, 주님도 공동체를 그렇게 하신다.
- 30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 곧 그의 육체와 뼈이기 때문이다.
- 31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며,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 32 이 비밀은 크나, 나는 그리스도와 공동체에 관해 말한다.
- 33 그러나 각자도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며,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6장

- ¹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복종하여라. 이는 마땅한 일이다.
- ²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을 동반한 첫 번째 계명이다.
- ³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리라.”
- ⁴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격노하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그들을 기르어라.
- ⁵ 종들아, 육신의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여라.
- ⁶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만 복종하는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에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여라.
- ⁷ 기쁨으로 섬기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처럼 하라.
- ⁸ 각자가 좋은 일을 하면, 그가 주님으로부터 그 좋은 것을 다시 받을 것임을 알라. 그가 종이든 자유인이나.
- ⁹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같은 일을 하며 위협을 그만두어라. 그들의 주인이자 너희의 주인이신 분이 하늘에 계시며, 그분께는 편견이 없음을 알라.
- ¹⁰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와 그분의 힘의 힘으로 강건하여라.
- ¹¹ 하느님의 온전한 갑옷을 입어, 마귀의 교활한 꾀에 대항할 수 있게 하라.
- ¹²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적 세력들에 대한 것이다.
- ¹³ 그러므로 하느님의 온전한 갑옷을 입어,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마친 후에도 서 있을 수 있게 하라.
- ¹⁴ 그러므로 진리의 띠를 허리에 띠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어라.
- ¹⁵ 평화의 복음의 준비를 발에 신어라.
- ¹⁶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자의 불꽃 같은 화살을 다 꺼버릴 수 있게 하라.
- ¹⁷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느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가져라.
- ¹⁸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끈기 있게 깨어 기도하여라.
- ¹⁹ 내가 입을 열어, 용감하게 복음의 신비를 밝히도록 기도해 주라.
- ²⁰ 나는 이 복음의 사절로 사슬에 매여 있다. 내가 마땅히 말해야 할 대로 용감히 말할 수 있게 해 달라.
- ²¹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너희가 알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충성된 하인인 디키키스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 ²²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 목적은, 너희가 우리의 상황을 알고,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다.
- ²³ 형제들에게 평화와 믿음 안의 사랑이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함께하기를 빈다.
- ²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총이 함께하기를 빈다. 아멘.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 Philippians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장

- 1 바오로와 티모테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필리포스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들과 감독들과 봉사자들에게 보냅니다.
- 2 당신들에게 은총과 평화가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 3 나는 당신들을 기억할 때마다 내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 4 당신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 5 당신이 첫째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확장에 참여해 왔기 때문입니다.
- 6 당신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것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 7 나는 당신 모두를 마음에 품고 있으므로, 나의 옥중과 복음의 옹호와 확증에 당신 모두가 은총의 동반자임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8 하느님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자비로 당신 모두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증인입니다.
- 9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당신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분별력에서 더욱 풍성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 10 그러면 당신들이 더 나은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진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1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움의 열매로 가득 차, 하느님의 영광과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 12 형제 여러분, 내가 겪은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음을 알고 싶습니다.
- 13 내가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궁전의 모든 경비대와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14 주 안에서 대부분의 형제들이 나의 옥중을 보고 더 용감해져, 두려움 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 15 어떤 이들은 질투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이들은 선의로 전합니다.
- 16 전자는 사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며, 내 쇠사슬에 고통을 더하려고 합니다.
- 17 그러나 후자는 사랑으로, 내가 복음의 옹호를 위해 임명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 18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직 모든 방식으로,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면, 나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뻐할 것입니다.
- 19 내가 이 일이 당신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공급을 통해 나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압니다.
- 20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나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언제나처럼 지금도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든 죽음이든 말입니다.
- 21 내게 살기는 그리스도이고, 죽기는 이득입니다.
- 22 만약 내가 육신 안에서 계속 살아남는다면, 내 일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 23 그러나 나는 두 가지 사이에서 압박받고 있습니다.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갈망하는데, 그것이 훨씬 더 나은 일입니다.
- 24 그러나 육신 안에 머무는 것이 당신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 25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남아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어, 여러분의 신앙 성장과 기쁨에 이바지할 것을 압니다.
- 26 내가 다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통해 여러분의 자람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 27 오직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내가 와서 여러분을 보든 떠나 있어든, 내가 여러분의 상황을 듣게 되어, 여러분이 한 영과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힘쓰고 굳게 서 있는 것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 28 아무것도 적대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 29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는 것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은총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 30 여러분이 내게서 보았고 지금도 내게서 듣는 것과 같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2장

-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 2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뜻을 같이 하여,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 3 경쟁이나 허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
- 4 각자는 자기 일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바라보십시오.
- 5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십시오.
- 6 그는 하느님의 형체를 지니셨으나, 하느님과 동등함을 간직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 7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 8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는 자신을 낮추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입니다.
- 9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시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 10 예수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 11 모든 허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 12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들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은 더욱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 13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너희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뜻을 두고 행동하게 하신다.
- 14 모든 일을 불평이나 논쟁 없이 하여라.
- 15 너희는 흠 없고 순결한 자녀가 되어, 어그러지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하느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라.
- 16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높이 들고,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헛되이 달리지도 않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음을 자랑할 수 있게 하라.
- 17 내가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자신을 부어 드린다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즐거워합니다.
- 18 너희도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 19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티모테오를 곧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의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0 나는 너희를 진심으로 걱정해 줄 만한 다른 이가 없습니다.
- 21 모든 이들이 자기 일만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 22 너희는 그가 검증된 인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봉사하듯이, 그는 복음의 일을 위해 나와 함께 봉사했습니다.
- 23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될지를 보고 곧 그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 24 그러나 나는 주님을 신뢰하여 나 자신도 곧 너희에게 갈 것입니다.
- 25 그러나 나는 에바프로디토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 형제이자 동역자요, 동지이며, 너희의 사도이자 내 필요를 섬기는 자이다.
- 26 그는 너희 모두를 그리워했고, 너희가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걱정해 있었다.
- 27 실제로 그는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병들었으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사,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겹치지 않게 하셨다.
- 28 그러므로 나는 그를 더 성실히 보냈다.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되고, 내가 덜 슬퍼하게 되려는 것이다.
- 29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라.
- 30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고, 너희가 나를 섬기는 데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3장

- ¹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같은 일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나에게만 번거로운 일이 아니지만, 너희에게는 안전한 일입니다.
- ² 개들을 조심하여라.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여라. 거짓 할례를 조심하여라.
- ³ 우리는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영으로 하느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에 의지하지 않는다.
- ⁴ 나도 육신에 의지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육신에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 ⁵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다.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사이였고,
- ⁶ 열정에 관해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에 따른 의로움에 관해서는 흠이 없었다.
- ⁷ 그러나 내가 전에 이익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라고 여기게 되었다.
- ⁸ 아니, 오히려 나는 모든 것을 손해라고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뛰어남을 위하여. 나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
- ⁹ 내가 율법에서 난 나만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의로움을 얻고자 한다.
- ¹⁰ 내가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체가 되고자 한다.
- ¹¹ 어떻게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 ¹² 내가 이미 얻었거나 이미 완전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 목표를 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그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잡으신 목표이다.
- ¹³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한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 나아간다.
- ¹⁴ 나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 ¹⁵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자라면, 이와 같이 생각하자. 너희 중에 무엇인가 다른 생각을 하는 이가 있다면, 하느님께서도 그를 밝히 보여 주실 것이다.
- ¹⁶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이른 바에 따라, 같은 규칙으로 걸으며, 같은 마음을 품자.
- ¹⁷ 형제들아,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고, 이와 같이 걷는 이들을 주의 깊이 보아라.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처럼.
- ¹⁸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데, 나는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고, 지금도 눈물로 말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 ¹⁹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며, 그들의 신은 배이며,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며,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한다.
- ²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 ²¹ 그분은 우리 낮은 몸을 바꾸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능력의 역사로 이 일을 하신다.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4장

- ¹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갈망하는 자들, 내 기쁨과 면류관이며,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굳게 서십시오.
- ² 나는 유오디아와 신티케를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 ³ 진정한 동반자여, 나도 당신을 간청합니다. 이 여성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클레멘트와 함께, 그리고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의 일에 힘썼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 ⁵ 당신의 온화함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 ⁶ 아무것에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과 함께 당신의 요구를 하느님께 알리십시오.
- ⁷ 모든 이해를 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 ⁸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참된 것, 존경할 만한 것, 정의로운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어떤 덕이든, 어떤 칭찬받을 만한 것이든,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 ⁹ 내가 가르쳐 주고, 너희가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 ¹⁰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다시 일으켰음을,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너희는 실제로 나를 생각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 ¹¹ 내가 궁핍함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 ¹² 나는 낮은 처지에 있는 법을 알고, 풍요로운 처지에 있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배부른 법과 굶주린 법, 풍요로운 법과 궁핍한 법을 모두 배웠습니다.
- ¹³ 나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 ¹⁴ 그러나 너희가 나의 고난에 참여해 준 것은 잘한 일입니다.
- ¹⁵ 필리포스 사람들아, 너희도 알듯이, 복음이 처음 시작될 때,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나던 날, 나와 함께 기부와 수용의 일에 참여한 공동체는 너희뿐이었습니다.
- ¹⁶ 테살로니가에서도 너희는 한 번, 또 한 번 나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 ¹⁷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익이 되는 열매를 구합니다.
- ¹⁸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풍족합니다. 에파프로디토로부터 너희가 보낸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기쁘게 받으시는 헌물이 되었습니다.
- ¹⁹ 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 ²⁰ 우리 하느님과 아버지께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 ²¹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인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합니다.
- ²² 모든 성인들이 너희에게 인사합니다. 특히 카이사르의 가정에 속한 이들이요.
- ²³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너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 Colossians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장

- ¹ 바오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며, 티모테오는 우리 형제입니다.
- ² 콜로새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과 믿음직한 형제들에게: 은총과 평화가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너희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 ³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 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이는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품은 사랑을 듣고서입니다.
- ⁵ 이는 하늘에 너희를 위해 보관된 소망 때문입니다. 너희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 소망을 들었습니다.
- ⁶ 이 복음은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온 세상 어디에서나 열매를 맺고 자라듯이, 너희에게도 너희가 진리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듣고 알던 날부터 계속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습니다.
- ⁷ 이는 너희를 위해 사랑하는 동역자인 에파프라스로부터 배운 바입니다. 그는 너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입니다.
- ⁸ 그는 또한 너희가 성령 안에서 품은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⁹ 그러므로 우리도 너희가 듣던 날부터 끊임없이 기도하며 너희를 위해 간구합니다. 너희가 모든 영적인 지혜와 이해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 ¹⁰ 너희가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 모든 면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느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 ¹¹ 그분의 영광의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힘을 얻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인내를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 ¹² 너희를 빛 속의 성도들의 기업에 참여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 ¹³ 그분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 ¹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속량, 곧 죄들의 용서를 얻었습니다.
- ¹⁵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째 태어난 자입니다.
- ¹⁶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보좌나 주권이나 통치나 권세들이 다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 ¹⁷ 그분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며,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함께 존재합니다.
- ¹⁸ 그분은 몸인 공동체의 머리이시며,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이는 그분이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 ¹⁹ 하느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 ²⁰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을 자기에게 화해시키시려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 ²¹ 너희는 과거에 악한 행실로 인해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적대적인 마음을 품었으나,
- ²² 이제 그분은 자기 육체의 죽음으로 너희를 화해시키셔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받을 데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우셨습니다.
- ²³ 너희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너희가 들은 복음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말입니다. 나는 바오로로, 그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 ²⁴ 지금 나는 너희를 위해 내가 겪는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고난 중 내 육체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곧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 ²⁵ 나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너희를 위해 맡기신 성무를 따라 이 일의 봉사자가 되었으니,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 ²⁶ 이 비밀은 옛적부터 세대에 걸쳐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드러났다.

- ²⁷ 하느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비밀의 영광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리시기를 기뻐하셨으니, 그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 ²⁸ 우리는 그를 선포하며,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경고하고 가르쳐,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러려 한다.
- ²⁹ 이를 위해 나도 힘쓰며, 내 안에서 힘 있게 일하시는 그의 능력에 따라 노력한다.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2장

- ¹ 나는 너희와 라오디케아에 있는 자들과 내 육체로는 보지 못한 많은 이들을 위해 얼마나 힘겹게 애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 ² 그들이 마음을 위로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결합되어 지식과 이해의 모든 풍성한 확신을 얻어,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 ³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다.
- 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말의 설득력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 ⁵ 내가 육체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너희의 믿음의 굳건함을 보고 기뻐한다.
- ⁶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받았듯이, 그분 안에서 걸어가라.
- ⁷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고, 너희가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그분 안에서 풍성하게 되어라.
- ⁸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자연적 원리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철학과 허망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라.
- ⁹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주하신다.
- ¹⁰ 너희는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으니,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 ¹¹ 그분 안에서 너희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이는 육체의 죄악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 ¹² 너희는 그분과 함께 세례를 받아 장사지내어, 하느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부활하였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셨다.
- ¹³ 너희는 죄와 육체의 할례받지 못함으로 죽었으나, 그분과 함께 살리셨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 ¹⁴ 우리를 대적하는 규례에 쓰인 빚장을 지우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박아 길에서 제거하셨다.
- ¹⁵ 그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벗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조롱하시며, 그 안에서 그들을 이기셨다.
- ¹⁶ 그러므로 누구도 너희를 음식이나 음료나, 축제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해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 ¹⁷ 이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실체는 그리스도이다.
- ¹⁸ 누구도 자기를 낮추고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보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며 육체의 마음으로 허망하게 교만해져서,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 ¹⁹ 머리에 단단히 붙잡히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관절과 인대를 통해 공급되고 결합되어 하느님의 성장으로 자라나지 않는다.
- ²⁰ 너희가 세상의 초자연적 원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왜 마치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규례에 복종하는가?
- ²¹ “건드리지 말고, 맛보지 말며, 만지지 말라.”
- ²² (이 모든 것은 쓰임에 따라 멸망하는 것들인데)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을 따르는가?
- ²³ 이런 것들은 자발적인 경배, 겸손, 육체의 엄격함처럼 지혜처럼 보이지만, 육체의 탐욕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3장

- ¹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켜졌다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여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 ²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 ³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하느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다.
- ⁴ 너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이다.
- ⁵ 그러므로 너희 몸의 지체들을 땅에서 죽여라.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욕망, 그리고 우상 숭배인 탐욕을 죽여라.
- ⁶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내린다.
- ⁷ 너희도 그 안에서 살던 때에 그 일들을 따라 걸었으나,
- ⁸ 이제는 모두 버려라.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려라.
- ⁹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희는 자기 행실과 함께 옛 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이다.
- ¹⁰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자기 창조자의 형상으로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되어 가고 있다.
- ¹¹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방인과 스기스, 종과 자유인의 구분이 없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 ¹² 그러므로 하느님의 택하신 자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처럼,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어라.
- ¹³ 서로를 용납하고, 누군가가 누구에게라도 불만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 ¹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라. 사랑은 온전함을 결합하는 끈이다.
- ¹⁵ 하느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너희는 이 평화를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라.
- ¹⁶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라. 모든 지혜로써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마음으로 은총을 받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 ¹⁷ 무엇을 하든지 말로 하든지,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라. 그를 통해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하여라.
- ¹⁸ 아내들은 주 안에서 마땅한 대로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 ¹⁹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지 말아라.
- ²⁰ 자녀들은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복종하여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한다.
- ²¹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격노시키지 말아라. 그래야 그들이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 ²² 종들은 육신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서 복종하여라. 눈에 보일 때만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복종하여라.
- ²³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하여라. 마치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이.
- ²⁴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상속의 보상을 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 ²⁵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자신이 행한 불의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이며, 편대는 없다.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4장

- ¹ 주인들아, 너희 하인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것을 주어라. 너희도 하늘에 주인이 계심을 알기 때문이다.
- ² 기도예 꾸준히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 ³ 우리를 위하여도 함께 기도하여,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고, 내가 사슬에 매인 이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 달라.
- ⁴ 내가 마땅히 말해야 할 대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 ⁵ 밖의 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하고, 때를 아끼어라.
- ⁶ 너희 말은 항상 은총으로 가득하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각각에게 어떻게 답해야 할지를 알게 하라.
- ⁷ 내 모든 일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충성스러운 종이자 동료 종인 디키키스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 ⁸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 이유는, 너희의 상황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다.
- ⁹ 그와 함께 오는 충성스럽고 사랑하는 형제이자 너희 중 한 사람인 온시모스도 있다. 그들은 너희에게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려줄 것이다.
- ¹⁰ 내 동료 수감자인 아리스타르코스와 바르나바의 사촌 마르코가 너희에게 인사한다. 너희는 그에 관해 지시를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오거든 받으라."
- ¹¹ 또 의로운 자라 불리는 예수도 인사한다. 이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 중에서 내 유일한 하느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이며, 나를 위로해 준 사람들이다.
- ¹² 너희 중 한 사람인 에파프라스, 그리스도의 종이 너희에게 인사한다. 그는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힘쓰며, 너희가 하느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전히 서게 되기를 간구한다.
- ¹³ 내가 그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는 너희와 라오디케아에 있는 자들,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정을 가지고 있다.
- ¹⁴ 사랑하는 의사 루카와 데마스가 너희에게 인사한다.
- ¹⁵ 라오디케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니팸스와 그의 집에서 모이는 공동체에게 인사하여라.
- ¹⁶ 이 편지가 너희 가운데서 읽힌 후, 라오디케아인들의 공동체에서도 읽히게 하고, 너희도 라오디케아에서 온 편지를 읽어라.
- ¹⁷ 아르키포스에게 말하여라. "네가 주님 안에서 받은 사명을 주의 깊게 지켜, 그것을 다 이루어라."
- ¹⁸ 나 바오로가 이 인사를 내 손으로 쓴다. 내 사슬을 기억하여라. 은총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빈다. 아멘.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 1 Thessalonians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장

- ¹ 바오로와 실루아노와 티모테오는, 하느님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테살로니카 공동체에 인사합니다. 너희에게 은총과 평화가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있기를 빕니다.
- ² 우리는 항상 너희 모두를 위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기도에서 너희를 기억합니다.
- ³ 우리 하느님과 아버지 앞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 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느님께 선택된 자임을 우리는 압니다.
- ⁵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음을 알았습니다. 너희를 위해 우리 자신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으로 나타났는지 너희도 알고 있습니다.
- ⁶ 너희는 많은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의 본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 ⁷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 ⁸ 주님의 말씀이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뿐 아니라, 너희가 하느님께 향한 믿음이 있는 곳마다 퍼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 ⁹ 그들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우상에서 벗어나 하느님께로 돌아서서, 살아 있고 참된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직접 전합니다.
- ¹⁰ 그리고 하느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의 아들, 곧 장차 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하늘에서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2장

- ¹ 형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아시다시피, 우리에게서 여러분에게 온 방문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 ² 오히려 필리피에서 먼저 고통을 겪고 모욕을 당한 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담대해져서 많은 시련 속에서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 ³ 우리의 권면은 오류나 부정함, 또는 속임수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 ⁴ 우리는 하느님께 인정받아 복음을 맡겨진 자들처럼 말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시험하는 하느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입니다.
- ⁵ 우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언제나 아침의 말을 쓰지 않았고, 탐욕의 핑계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증인입니다.
- ⁶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이나 다른 이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 ⁷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부드럽게 지냈고, 마치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애지중지하듯이 했습니다.
- ⁸ 이처럼 여러분을 향한 깊은 애정으로, 우리는 단지 하느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⁹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기억하듯이, 우리에게는 수고와 애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여 아무도 무겁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 ¹⁰ 여러분은 하느님과 함께 증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흠 없이 행동했는지를.
- ¹¹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각자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며 간청했습니다.
- ¹²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느님을 부르신 그분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¹³ 이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받은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참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믿는 이들 안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 ¹⁴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아에 있는 하느님의 공동체들을 본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동족에게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받은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 ¹⁵ 그들은 주 예수를 죽이고 자기 예언자들을 죽이며, 우리를 쫓아내고, 하느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과 대립합니다.
- ¹⁶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막아, 항상 자기 죄를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마침내 이르렀습니다.
- ¹⁷ 그러나 형제 여러분, 우리는 잠시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마음으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보려고 더욱 힘썼습니다.
- ¹⁸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 바오로가 한 번, 또 한 번 가려고 했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 ¹⁹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기뻐하는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이 아십니까?
- ²⁰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자 기쁨입니다.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3장

- ¹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아테네에 혼자 남아 있게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 ² 그리고 우리 형제이자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하느님의 종인 티모테오를 보내어, 너희를 견고히 하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위로하게 하였습니다.
- ³ 누구도 이 환난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가 이 일에 부름을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 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미리 말해 주었으니, 그대로 일어났고, 너희도 알고 있습니다.
- ⁵ 이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해 티모테오를 보냈습니다. 혹시 시험자가 너희를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 ⁶ 그런데 티모테오가 지금 너희에게서 우리에게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기억하며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우리도 너희를 보고 싶어 합니다.
- ⁷ 형제들아, 너희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 ⁸ 지금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은, 너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 ⁹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하느님께 드릴 감사가 무엇이겠느냐? 우리는 너희를 위해 우리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 ¹⁰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완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¹¹ 우리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 ¹²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더욱 넘치게 하며, 우리가 너희에게 하는 것처럼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 ¹³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실 때, 너희 마음이 우리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있어 흠 없이 굳게 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4장

- ¹ 그러므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간청하고 권면한다. 너희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걸어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지를 배웠듯이, 더욱 더 풍성하게 하라.
- ² 너희는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해 너희에게 준 지시를 알고 있다.
- ³ 하느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음행을 피하는 것이다.
- ⁴ 각자가 거룩함과 존중을 가지고 자기 몸을 다스리는 법을 알도록 하라.
- ⁵ 하느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사욕의 열정으로 하지 말고,
- ⁶ 이 일에서 형제나 자매를 속이거나 해치지 않도록 하라.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보복자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하였다.
- ⁷ 하느님은 너희를 부정함을 위해 부르지 않으셨고, 거룩함을 위해 부르셨다.
- ⁸ 그러므로 이 일을 거부하는 자는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 ⁹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누군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너희는 스스로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아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 ¹⁰ 너희는 마케도니아 전 지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이미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권면한다. 더욱 더 풍성하게 하라.
- ¹¹ 조용한 삶을 살며, 자신의 일에 전념하며, 손으로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라.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하라.
- ¹² 밖의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걸으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게 하라.
- ¹³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가 잠든 자들에 대해 무지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희망이 없는 나머지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¹⁴ 우리가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으므로, 하느님께서도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을 예수와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 ¹⁵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잠든 자들보다 먼저 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 ¹⁶ 주님 자신이 큰 함성과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 ¹⁷ 그 후에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 ¹⁸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5장

- ¹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쓰여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² 너희 자신이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의 날은 밤에 도둑처럼 온다.
- ³ 그들이 '평화와 안전'이라고 말할 때,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며, 임산부에게 찾아오는 분만의 고통처럼 그들을 덮칠 것이다. 그때 그들은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 ⁴ 그러나 너희 형제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 그 날이 도둑처럼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 ⁵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 ⁶ 그러므로 나머지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려라.
- ⁷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 ⁸ 우리가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두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 ⁹ 하느님은 우리를 분노에 이르게 하시려고 부르지 않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려고 부르셨다.
- ¹⁰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가 깨어 있든 자고 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신다.
- ¹¹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우며, 너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하라.
- ¹²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너희 위에 있고, 너희를 경고하는 자들을 알아주기를 간청한다.
- ¹³ 그들의 일로 인해 그들을 사랑과 존경으로 존중하라.
- ¹⁴ 형제들아, 우리는 너희를 권면한다. 방종하는 자들을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약한 자들을 돕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 ¹⁵ 누구도 누구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하며, 항상 서로와 모든 이를 위해 선을 추구하라.
- ¹⁶ 항상 기뻐하라.
- ¹⁷ 끊임없이 기도하라.
- ¹⁸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느님의 뜻이다.
- ¹⁹ 성령을 꺼지지 말라.
- ²⁰ 예언을 경멸하지 말라.
- ²¹ 모든 것을 시험하고, 선한 것을 붙잡아라.
- ²² 모든 악의 형태에서 멀리 떠나라.
- ²³ 평화의 하느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하실 때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 ²⁴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도 이를 이루실 것이다.
- ²⁵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²⁶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십시오.
- ²⁷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엄히 명령한다: 이 편지를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읽게 하라.
- ²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빈다. 아멘.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 2 Thessalonians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장

- ¹ 바오로와 실바노와 티모테오가,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테살로니카의 공동체에 보냅니다.
- ² 당신들에게 은총과 평화가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³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항상 하느님께 감사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매우 커지고, 여러분 각자가 서로에게 품는 사랑이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 ⁴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느님의 모든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인내와 모든 박해와 고난 속에서 보여주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자랑합니다.
- ⁵ 이것은 하느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하느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 ⁶ 하느님께서서는 공의로우셔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괴로움을 갚으십니다.
- ⁷ 또한 주님 예수가 하늘에서 그의 강력한 천사들과 불꽃 같은 불로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는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 ⁸ 그는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님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 ⁹ 이들은 영원한 멸망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멸망은 주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 ¹⁰ 그가 그날에 나타나셔서, 그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을 믿은 모든 이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을 때입니다. 이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증언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 ¹¹ 이를 위해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 ¹² 이렇게 하여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 하느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2장

- ¹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 모임에 관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간청한다.
- ² 영이나 말이나, 마치 우리로부터 온 것처럼 말하는 편지로 인해, 너희 마음이 급히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날은 이미 왔다고 말하는 것 말이다.
- ³ 누구도 너희를 어떤 방식으로도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반역이 일어나고,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 날이 오지 않는다.
- ⁴ 그는 하느님이라 불리거나 숭배되는 모든 것에 대적하고 스스로를 높여, 하느님의 성전에 앉아 스스로를 하느님처럼 드러낸다.
- ⁵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 ⁶ 지금 너희는 그를 억누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가 자기 때에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 ⁷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다. 다만 지금 억누르는 이가 있으니, 그가 빼앗기기 전까지는.
- ⁸ 그리고 불법의 자가 드러날 것이다. 주님께서 그의 입의 숨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오심의 나타남으로 멸하실 것이다.
- ⁹ 그는 사탄의 역동적인 활동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따라 오는 자이다.
- ¹⁰ 그는 멸망받는 자들에게 온갖 불의의 속임으로 다가온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 ¹¹ 이 때문에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어,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신다.
- ¹²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 ¹³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인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느님께 감사드릴 의무가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너희를 처음부터 구원을 위하여 성령의 거룩함과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 ¹⁴ 그분은 우리에게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 ¹⁵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친 전통을, 말로나 편지로나 지켜라.
- ¹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총으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셨으니,
- ¹⁷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좋은 일과 말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바란다.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3장

- ¹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빠르게 퍼져 영광을 얻게 되며, 여러분에게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 ² 또한 우리를 비이성적이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³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시니, 여러분을 굳게 세우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 주실 것입니다.
- 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이 우리가 명령한 일을 이미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 ⁵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 ⁶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반역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 ⁷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있다.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반역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 ⁸ 우리는 누구의 손에서도 빵을 먹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우리는 밤낮으로 수고와 고생을 하며, 너희 중 누구도 무겁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
- ⁹ 이것은 우리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우리 자신을 본보기로 삼은 것이다.
- ¹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누구든지 일하고 싶지 않으면, 그는 먹지 말아야 한다.'
- ¹¹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반역적으로 살아가며, 전혀 일하지 않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 ¹²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권면한다. 조용히 일하여 스스로 빵을 먹어라.
- ¹³ 그러나 형제들아, 선을 행하는 데 지치지 마라.
- ¹⁴ 이 편지에 기록된 우리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알아두고 그와 교제하지 말아라.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
- ¹⁵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책망하라.
- ¹⁶ 평화의 주님께서 너희를 항상 모든 면에서 평안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 ¹⁷ 나 바오로가 이 인사말을 내 손으로 쓴다. 이것이 내가 쓰는 모든 편지의 표지이다.
- ¹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너희 모두와 함께하기를 빈다. 아멘.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 1 Timothy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장

- ¹ 바오로는,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과 우리 희망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 ² 믿음에서 진정한 아들인 티모테오에게: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³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려 할 때에 네게 권유한 것처럼, 에페소에 머물러서 어떤 사람들이 이교적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명령하여라.
- ⁴ 또 우스운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것들은 하느님의 섭리, 곧 믿음에 속한 일을 일으키지 않고, 논쟁만 일으킨다.
- ⁵ 그러나 이 명령의 목표는 순수한 마음과 좋은 양심과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 ⁶ 이것들을 떠난 자들 중 일부는 헛된 말에 빠졌다.
- ⁷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고 싶어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가 단정하는 것도 알지 못한다.
- ⁸ 우리는 율법이 선한 것임을 안다. 다만 사람이 그것을 올바르게 쓸 때이다.
- ⁹ 이는 율법이 의로운 사람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 불법과 불순종을 저지르는 자, 불경한 자와 죄인, 불결하고 더러운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자,
- ¹⁰ 음행을 저지르는 자, 동성애자, 노예 상인, 거짓말쟁이, 거짓 맹세하는 자, 그리고 건전한 교리에 반하는 다른 모든 것을 위해 마련된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 ¹¹ 이것은 복되신 하느님의 영광의 복음, 곧 내게 맡겨진 바에 따른 것이다.
- ¹² 나를 능력 있게 해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한다. 그분은 나를 신실하다고 여기시고, 나를 섬김의 직무에 임명하셨기 때문이다.
- ¹³ 나는 전에 하느님을 모독하고, 박해하며, 무례한 자였다. 그러나 나는 믿지 아니한 채 무지하게 행했기 때문에 자비를 얻었다.
- ¹⁴ 우리 주의 은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게 흘렀다.
- ¹⁵ 이 말은 신뢰할 만하고, 모든 사람의 받아들임에 합당하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그 죄인들 중 내가 가장 먼저이다.
- ¹⁶ 그러나 나는 이 일로 자비를 얻었으니, 이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모든 인내를 보이시는 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들을 위한 것이다.
- ¹⁷ 영원하고 불멸하고 보이지 않으며, 오직 한 분만이 지혜로우신 왕이신 하느님께 영원과 영원까지 존경과 영광이 있기를 빈다. 아멘.
- ¹⁸ 내가 너, 내 아들 티모테오에게 이 명령을 맡긴다. 이는 너에게 이전에 주어졌던 예언들에 따라, 그것들을 통해 네가 선했던 싸움을 싸우게 하려는 것이다.
- ¹⁹ 믿음과 좋은 양심을 붙잡아라. 어떤 이들은 이것들을 버려서 믿음에 대해 배를 좌초시켰다.
- ²⁰ 그들 중에는 히메나오스와 알렉산드로가 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 주어, 하느님을 모독하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게 하였다.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2장

- ¹ 그러므로 내가 먼저 권면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재와 감사가 드려지게 하라.
- ² 이는 왕들과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라. 이로써 우리는 모든 경건과 존경으로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 ³ 이는 하느님 우리 구원자 앞에서 좋고 받아들여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 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 ⁵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뿐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다.
- ⁶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한 속전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으며, 적절한 시기에 증거를 주셨다.
- ⁷ 이것을 위하여 나는 전도자와 사도로 임명되었으니—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거짓을 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이다.
- ⁸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분노와 의심 없이.
- ⁹ 이와 같이 여성들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겸손과 절제를 지니고, 맑은 머리카락이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장식하지 말고,
- ¹⁰ 오히려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성에게 어울리는 선한 행실로 장식하라.
- ¹¹ 여성은 온전한 복종으로 조용히 배워야 한다.
- ¹² 그러나 나는 여성이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조용히 있어야 한다.
- ¹³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그 후에 에바가 생겼다.
- ¹⁴ 아담은 속임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여자는 속임을 받아 죄를 범하였다.
- ¹⁵ 그러나 그녀는 자식을 낳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지속적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그리고 절제를 지킨다면.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3장

- ¹ 이 말은 믿을 만합니다. 누구든지 감독이 되고자 하면 좋은 일에 갈망합니다.
- ²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데가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며, 절제 있고, 정신이 바르며, 겸손하며, 손님 대접을 잘하고, 가르치는 데 능숙해야 합니다.
- ³ 술에 취하지 않으며, 폭력적이지 않고, 돈을 탐내지 않으며, 온화하고, 다투지 않으며, 탐욕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 ⁴ 자신의 집을 잘 다스리며, 모든 존경을 다해 자녀들을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 ⁵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 하느님의 공동체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 ⁶ 새로 신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 악마와 같은 심판에 빠질 수 있습니다.
- ⁷ 또한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며, 비난과 악마의 율가미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⁸ 부제들도 마찬가지로 존경받을 만하고, 두 입술을 쓰지 않으며, 술에 많이 취하지 않고, 돈을 탐내지 않아야 합니다.
- ⁹ 순결한 양심으로 믿음의 신비를 지켜야 합니다.
- ¹⁰ 그들도 먼저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흠이 없으면 봉사하게 하십시오.
- ¹¹ 그들의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존경받을 만하고, 험담하지 않으며, 절제 있고, 모든 일에서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 ¹² 부제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 ¹³ 잘 봉사한 자들은 좋은 지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있어 큰 담대함을 얻습니다.
- ¹⁴ 나는 당신에게 이 일을 쓰며, 곧 당신을 방문하기를 바라지만,
- ¹⁵ 만약 내가 오래 기다리게 되면, 당신이 하느님의 집, 곧 살아 계신 하느님의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토대입니다.
- ¹⁶ 의심할 여지 없이, 경건의 신비는 큼니다.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4장

- ¹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사기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훈에 마음을 쓰리라고 하셨다.
- ²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의 위선을 통해 일어나며, 그들의 양심은 뜨거운 쇠로 찌힌 듯하다.
- ³ 그들은 결혼을 금지하고, 믿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하느님이 만드신 음식들을 먹지 않도록 명령한다.
- ⁴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은 좋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은 아무것도 거부되지 않는다.
- ⁵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하게 된다.
- ⁶ 너는 형제들에게 이 일을 가르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종이 되어, 너는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리로 양육될 것이다.
- ⁷ 그러나 무의미하고 옛 여자들의 우스운 이야기는 거부하고, 경건함을 향해 자신을 연습하여라.
- ⁸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이익이 있지만, 경건함은 모든 일에 이익이 있고, 지금의 삶과 올 것의 삶에 약속을 지닌다.
- ⁹ 이 말은 믿을 만하고 모든 사람의 받아들임에 합당하다.
- ¹⁰ 우리가 이 때문에 수고하고 비난을 받는 것은, 살아 계신 하느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시며,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시다.
- ¹¹ 이 일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 ¹² 누구도 네 젊음을 경멸하지 못하게 하라. 오직 말과 생활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함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라.
- ¹³ 내가 올 때까지 읽기와 권면과 가르침에 힘쓰라.
- ¹⁴ 장로들의 손을 얹고 예언으로 네게 주어진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
- ¹⁵ 이 일을 성실히 하라. 그것들에 온전히 몰두하여, 네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 ¹⁶ 네 자신과 네 가르침에 주의하여라. 이 일을 계속하라. 네가 이것을 행할 때, 너 자신과 너를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5장

- ¹ 늙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라.
- ² 늙은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모든 순결함으로 자매처럼 대하라.
- ³ 진정한 과부들을 존중하라.
- 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먼저 자기 가족에게 경건함을 보이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이는 하느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일이니라.
- ⁵ 진정한 과부이면서 외로운 이는 하느님을 바라보고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에 힘쓰느니라.
- ⁶ 그러나 즐거움에 몰두하는 자는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자니라.
- ⁷ 이러한 일들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라.
- ⁸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특히 자기 집안을 돌보지 아니한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이며 불신자보다 더 나쁘니라.
- ⁹ 육십 세 이상의 과부만 등록하라. 그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여야 한다.
- ¹⁰ 좋은 행실로 인정받은 자라야 하니, 자녀를 키웠고, 나그네를 대접했으며, 성도들의 발을 씻었고, 고통받는 이를 돕고, 모든 좋은 일에 힘써 따랐던 자라야 하느니라.
- ¹¹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방종해지며 결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 ¹² 그들은 처음 약속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으리라.
- ¹³ 또 그들은 게으르게 되어 집집을 돌아다니며, 게으르기만 하지 않고, 수다를 떠들며 떠들석한 짓을 하며, 해야 할 일이 아닌 말을 한다.
- ¹⁴ 그러므로 나는 젊은 과부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집안을 돌보며, 적대자에게 모욕받을 기회를 주지 않기를 원하노라.
- ¹⁵ 이미 일부는 사탄을 따라 떠났으니라.
- ¹⁶ 믿는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가 있다면, 그들이 그들을 돕고, 공동체가 짐을 지지 않게 하라. 이는 진정한 과부들을 돕기 위함이라.
- ¹⁷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의 존경을 받을 만하니,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힘쓰는 자들이라.
- ¹⁸ 성경은 말하되, '소가 곡식을 밟을 때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또, '일꾼은 그 보수를 받을 만하니라.' 하였느니라.
- ¹⁹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세 증인의 말이 없으면 받지 말라.
- ²⁰ 죄를 지은 자들은 모두 앞에서 책망하여, 나머지 자들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라.
- ²¹ 나는 하느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명령하노니, 편견 없이 이 일을 지키고, 편파로 아무 것도 하지 말라.
- ²² 누구에게나 서둘러 손을 얹지 말라.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라.
- ²³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오는 병을 위해 조금의 포도주를 사용하라.
- ²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분명하여 심판 앞에 앞서고, 어떤 죄는 나중에 나타나느니라.
- ²⁵ 마찬가지로 명백한 선한 행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습니다.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6장

- ¹ 멍에 아래 있는 모든 종들은 자기 주인을 존경받을 만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이름과 교리가 모욕받지 않을 것입니다.
- ² 믿는 주인을 가진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그들을 경멸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더 잘 섬기십시오. 이는 이득을 받는 자들이 믿는 이요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일을 가르치고 권면하십시오.
- ³ 만일 누군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 ⁴ 그는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논쟁과 다툼과 말다툼에 빠져 있습니다. 이로부터 시기, 다툼, 모욕,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 ⁵ 부패한 마음과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의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그들은 경건이 이득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에서 떠나십시오.
- ⁶ 그러나 만족함을 함께 하는 경건은 큰 이득입니다.
- ⁷ 우리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가져오지 않았고, 또한 아무것도 데리고 나갈 수 없습니다.
- ⁸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 ⁹ 부유해지려고 애쓰는 자들은 유혹과 욕망과 여러 어리석고 해로운 탐욕에 빠집니다. 이 탐욕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뜨립니다.
- ¹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탐심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나, 많은 슬픔에 찢려 스스로를 꺾었습니다.
- ¹¹ 그러나 당신, 하느님의 사람아,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의로움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 ¹² 믿음의 좋은 싸움을 싸우십시오. 당신이 부르심을 받아 얻은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많은 증인 앞에서 당신은 좋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 ¹³ 모든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좋은 고백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명령합니다.
- ¹⁴ 당신은 흠 없고 흠결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까지 그 명령을 지키십시오.
- ¹⁵ 그는 적절한 시기에 자기 뜻을 보이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십니다.
- ¹⁶ 그분만이 죽지 않는 분이시며, 접근할 수 없는 빛 안에 거하시며, 아무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분께 존경과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 ¹⁷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 말고, 부의 불확실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풍성히 우리에게 즐겁게 주시는 살아 계신 하느님께 소망을 두게 하십시오.
- ¹⁸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나누어 주는 일에 능히 하고, 나누기를 기꺼이 하게 하십시오.
- ¹⁹ 그들이 미래의 시기에 대비하여 좋은 기반을 쌓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게 하십시오.
- ²⁰ 티모테오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거짓으로 지식이라 불리는 허탄한 말과 그 반대되는 것에서 떠나라.
- ²¹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습니다.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 2 Timothy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장

- ¹ 바오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있습니다.
- ² 티모테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³ 내 조상들이 섬기던 것처럼, 순결한 양심으로 하느님을 섬기며, 나는 그분을 감사합니다. 밤낮으로 당신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 ⁴ 당신을 보고 싶어 하며, 당신의 눈물을 기억하여, 내가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합니다.
- ⁵ 당신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떠올리며, 이 믿음은 먼저 당신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케 안에 있었고, 나는 당신 안에도 있음을 확신합니다.
- ⁶ 이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당신 위에 얹음으로써 당신 안에 있는 하느님의 은사를 불러일으키십시오.
- ⁷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 ⁸ 그러므로 우리 주의 증거나, 내게 붙잡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느님의 능력으로 복음에 따라 고난을 견디십시오.
- ⁹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라, 자기 뜻과 은총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은총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 ¹⁰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남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불멸을 빛으로 드러내셨습니다.
- ¹¹ 이 때문에 나는 이방인들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 ¹² 이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 ¹³ 내게서 들은 바른 말의 본을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지키십시오.
- ¹⁴ 당신에게 맡겨진 좋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지키십시오.
- ¹⁵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피겔루스와 헤르모게네스가 있습니다.
- ¹⁶ 주님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주 나를 위로하고, 내 죄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 ¹⁷ 그가 로마에 와서 나를 열심히 찾아내어 만났습니다.
- ¹⁸ (주님께서 그가 그 날에 주님의 자비를 얻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에페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는 당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2장

- 1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총으로 힘을 얻어라.
- 2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서 들은 바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말거라. 그들은 또한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다.
- 3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처럼 고난을 참아내라.
- 4 복무 중인 병사는 자기 생활의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자기에게 병사로 등록한 이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 5 또한 경기하는 자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
- 6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누려야 한다.
- 7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주님이 모든 일에서 너에게 통찰을 주시기를 바란다.
- 8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라. 이는 내 복음이다.
- 9 나는 범죄자처럼 사슬에 묶여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
- 10 그러므로 나는 택하신 이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아낸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 11 이 말은 믿을 만하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면,
- 12 우리가 참아내면,
- 13 우리가 믿지 않더라도,
- 14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주님 앞에서 그들이 무익한 말로 다투지 않도록 경고하여라. 그런 말은 듣는 자들의 신앙을 무너뜨린다.
- 15 하느님 앞에서 승인받는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다루어라.
- 16 그러나 허탄한 말을 피하여라. 그것은 불경건으로 더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 17 그 말은 종기처럼 퍼져 나가며, 그 중에 히메나오스와 필레토스가 있다.
- 18 이들은 진리를 벗어나,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며,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 19 그러나 하느님의 견고한 기초는 서 있다. 그것에는 이런 인장이 있다. ‘주님은 자기 것들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
- 20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뿐 아니라 나무와 흙의 그릇도 있다. 어떤 것은 존귀한 데 쓰이고, 어떤 것은 비천한 데 쓰인다.
-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존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에게 유용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자가 된다.
- 22 젊음의 탐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여라.
- 23 어리석고 무지한 논쟁을 거절하여라. 그것들은 다툼을 낳기 때문이다.
- 24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온화하고, 가르칠 수 있고, 인내하며,
- 25 온유하게 그를 반대하는 자들을 바로잡으십시오. 아마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진리에 대한 온전한 인식으로 이끄는 회개를 주실지도 모릅니다.
- 26 그들이 마귀의 덫에 사로잡혀 그의 뜻을 따르게 되었으나, 이제 자신을 되찾아 마귀의 덫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3장

- ¹ 그러나 이것을 알아라. 마지막 날들에 고통스러운 시대가 올 것이다.
- ²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스럽고, 교만하며, 신성모독을 일삼고,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을 것이다.
- ³ 자연스러운 애정이 없고, 용서하지 않으며, 험담을 일삼고,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며, 잔인하고, 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 ⁴ 배신자이며, 고집스럽고, 자만하며,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할 것이다.
- ⁵ 경건의 모양은 지키지만 그 힘을 부정할 것이다. 이런 자들에서라도 떠나라.
- ⁶ 이들 중 일부는 집에 몰래 들어가 죄로 가득한 어리석은 여자들을 사로잡고, 다양한 욕망에 이끌려 그들을 유혹한다.
- ⁷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 ⁸ 요안네스와 임브레스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이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다.
- ⁹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며, 그들의 어리석음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 ¹⁰ 그러나 너는 내 가르침과 생활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굳건함을 따랐다.
- ¹¹ 안티오키아, 이코니온, 루스드라에서 내게 일어난 박해와 고난을 따랐다. 나는 그 박해들을 견뎌다. 주님께서 나를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셨다.
- ¹²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 ¹³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고 또 속임을 받을 것이다.
- ¹⁴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 머물러라. 네가 누구에게서 그것을 배웠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 ¹⁵ 너는 어릴 때부터 성서를 알았으니, 이 성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것이다.
- ¹⁶ 모든 성서는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가르침과 책망과 교정과 의로움을 가르치는 데 유익하다.
- ¹⁷ 이는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갖추어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4장

- 1 그러므로 나는 하느님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에서 심판하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당신을 엄히 명령합니다.
- 2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때가 되었던 되지 않았든 항상 힘쓰고, 책망하고, 꾸짖고, 모든 인내와 가르침으로 권면하십시오.
- 3 때가 오겠지만, 그들은 건전한 가르침을 듣지 않으려 할 것이며, 가려운 귀를 가지고 자기 욕심에 맞는 선생들을 많이 모아둘 것입니다.
- 4 그리고 진리에서 귀를 돌려 거짓 이야기로 향할 것입니다.
- 5 그러나 당신은 모든 일에서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당신의 사역을 다하십시오.
- 6 나는 이미 제물로 쏟아지고 있으며, 제가 떠날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 7 나는 좋은 싸움을 싸웠고, 마침내 달려야 할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 8 이제부터 의로움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곧 의로운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도요.
- 9 빨리 내게 오도록 힘쓰십시오.
- 10 데마스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센스는 갈라티아로, 티토는 달마티아로 갔습니다.
- 11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루카뿐입니다. 마르코를 데려와 함께 오십시오. 그는 내게 봉사에 유용합니다.
- 12 나는 티키코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 13 당신이 올 때에, 내가 트로아스에서 카르푸스에게 맡긴 겹옷과 책들, 특히 두루마리를 가져오십시오.
- 14 동금장이 알렉산더는 나에게 큰 해를 끼쳤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에 따라 그에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 15 그를 조심하십시오. 그는 우리의 말을 심히 반대했습니다.
- 16 내 첫 재판 때, 아무도 내 편에 서지 않고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이 일을 죄로 돌리지 마십시오.
- 17 그러나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내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 18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원하시고, 그분의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 19 프리스카와 아굴라, 그리고 온니시포로의 집을 인사하십시오.
- 20 에라스투스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나는 트로피무스를 밀레토스에 병들게 둔 채 떠났습니다.
- 21 겨울 전에 빨리 오도록 힘쓰십시오. 유불루스와 푸덴스와 린우스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이 당신을 인사합니다.
- 22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과 함께하십시오. 은총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티토에게 보낸 서간 | Titus

티토에게 보낸 서간 1장

- ¹ 바오로는 하느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나는 하느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따른 진리의 지식을 따라 이 일에 임했다.
- ² 이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느님께서 세월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소망 때문이다.
- ³ 그러나 그분의 정한 때에, 우리 구원자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맡긴 메시지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드러내셨다.
- ⁴ 내가 진정한 아들처럼 믿음에서 함께하는 티토에게: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빈다.
- ⁵ 내가 너를 크레타에 남긴 이유는, 부족한 것을 정리하고, 내가 네게 지시한 대로 각 도시에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는 것이다.
- ⁶ 누구든지 흠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믿는 자들인 자녀를 두고, 방종하거나 불순종하는 행동으로 비난받지 않는 자여야 한다.
- ⁷ 감독은 하느님의 집무자이므로 흠이 없어야 한다. 자기 기쁨만을 추구하지 말고, 쉽게 분노하지 말며, 포도주에 빠지지 말고, 폭력적이지 말며, 부정한 이익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
- ⁸ 대신에 손님을 잘 받고, 선을 사랑하며, 절제 있고, 공정하며, 거룩하며, 절제된 자여야 한다.
- ⁹ 그는 가르침에 따라 신실한 말씀을 붙잡아야 하며, 건전한 교리를 통해 권면할 수 있고, 반대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
- ¹⁰ 많은 불순종하는 자, 허탄한 말을 하는 자, 속이는 자들이 있다. 특히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 ¹¹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그들은 집 전체를 뒤집어엎으며, 부당한 이익을 위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 ¹² 그들 중 한 명, 곧 그들의 예언자가 말했다.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며, 게으른 배부른 자들이다."
- ¹³ 이 증언은 참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단단히 책망하여,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되게 하라.
- ¹⁴ 유대인의 우스운 이야기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 ¹⁵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부정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하지 않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모두 부정해졌다.
- ¹⁶ 그들은 하느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행실로는 그분을 부인한다. 그들은 혐오스럽고 불순종하며, 좋은 일에 전혀 쓸모없다.

티토에게 보낸 서간 2장

- ¹ 그러나 건전한 교리에 어울리는 말을 하십시오.
- ² 늙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신중하며,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해야 합니다.
- ³ 늙은 여자들도 행동에서 경건하고, 험담하지 않으며, 술에 많이 빠지지 않으며, 선한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⁴ 그들이 젊은 아내들을 가르쳐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하며,
- ⁵ 정신 차리고, 순결하며, 집에서 일하며, 친절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여, 하느님의 말씀이 모독받지 않게 하십시오.
- ⁶ 젊은 남자들도 정신 차리도록 권면하십시오.
- ⁷ 모든 일에서 당신 자신을 선한 일의 본보기로 보이십시오. 당신의 가르침에서 성실함과 진지함과 부패하지 않음을 보이십시오.
- ⁸ 비난받지 않는 건전한 말을 하여, 반대하는 자가 우리에게 대해 나쁜 말을 할 것이 없게 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 ⁹ 종들에게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모든 일에서 기쁘게 행동하며, 반박하지 말라고 권면하십시오.
- ¹⁰ 도둑질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여, 우리 구원자 하느님의 교리를 모든 일에서 아름답게 하십시오.
- ¹¹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 ¹² 우리가 불경건함과 세상의 욕망을 거부하고, 이 세상에서 절제롭고, 의로우며,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십시오.
- ¹³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과 복된 소망을 기다리며,
- ¹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구속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만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 ¹⁵ 이러한 말을 하며, 모든 권위로 권면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경멸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티토에게 보낸 서간 3장

- ¹ 그들에게 지도자들과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으라고 상기시키십시오.
- ² 아무에게도 악한 말을 하지 말고, 다투지 않으며, 온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겸손을 보이십시오.
- ³ 우리도 한때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받고, 다양한 욕망과 쾌락에 종속되어, 악의와 시기 속에서 살며, 미워받을 만하고,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 ⁴ 그러나 우리 구원자 하느님의 자비와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셨을 때,
- ⁵ 우리가 스스로 행한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에 따라, 그분은 재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 ⁶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로 말미암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 ⁷ 이는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따라 후계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 ⁸ 이 말은 신뢰할 만합니다. 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굳게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을 믿는 자들이 선한 일을 돌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유익합니다.
- ⁹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다툼과 율법에 대한 분쟁을 피하십시오. 이들은 무익하고 허망합니다.
- ¹⁰ 한 번과 두 번 경고한 후에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피하십시오.
- ¹¹ 이러한 사람은 타락하고 죄를 지었으며, 스스로를 정죄하는 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 ¹² 아르테마나 티키코를 너희에게 보낼 때, 니코폴리스로 내게 오려고 힘쓰십시오. 나는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 ¹³ 변호자 젠아스와 아볼로를 그들의 여정에 빠르게 보내어,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십시오.
- ¹⁴ 우리의 사람들이 또한 필요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선한 일을 돌보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결실이 없지 않게 하십시오.
- ¹⁵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이 너희에게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인사하십시오.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 Philemon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1장

- ¹ 바오로,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와, 우리 형제 티모테오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필레몬에게.
- ² 사랑하는 아파이아와, 우리 동지 병사인 아르키포스와, 당신 집에 있는 교회에게:
- ³ 은총과 평화가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 ⁴ 나는 항상 내 하느님을 감사하며, 내 기도에서 당신을 기억합니다,
- ⁵ 당신이 주님 예수와 모든 성인들에게 품은 사랑과 믿음을 듣고,
- ⁶ 당신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모든 선한 일들을 아는 데에 효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 ⁷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당신을 통해 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여.
- ⁸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당신에게 마땅한 일을 명령할 수 있는 모든 담대함을 가지고 있지만,
- ⁹ 그러나 사랑의 이유로, 나는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나는 노인인 바오로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입니다.
- ¹⁰ 나는 내 죄사슬 속에서 아버지가 된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 ¹¹ 그는 한때 당신에게 쓸모없었으나, 이제는 당신과 나에게 모두 쓸모 있게 되었습니다.
- ¹² 나는 그를 보내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곧 내 마음 자체를 받으십시오.
- ¹³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싶었는데, 그가 복음 때문에 내 죄사슬 속에서 당신을 대신해 나를 섬기게 하려고 했습니다.
- ¹⁴ 그러나 당신의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는 당신의 선한 마음이 의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 ¹⁵ 아마도 그가 잠시 당신에게서 떠나게 된 것은, 당신이 그를 영원히 얻게 하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 ¹⁶ 이제 그는 종이 아니라, 종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특히 내에게는 그렇지만, 당신에게도 육신으로나 주 안에 서나 훨씬 더 그러합니다.
- ¹⁷ 그러므로 당신이 나를 동반자로 여기신다면, 나를 받듯이 그를 받아주십시오.
- ¹⁸ 그가 당신에게 해를 끼쳤거나 빚이 있다면, 그것을 내 계정에 붙여주십시오.
- ¹⁹ 나 바오로가 이 글을 내 손으로 씁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당신 자신까지 빚졌다는 말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²⁰ 형제여, 주 안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주 안에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 ²¹ 당신의 복종을 믿고 이 글을 씁니다. 당신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이 해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 ²² 또한 나를 위한 손님방을 준비해 주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통해 내가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 ²³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갇힌 자인 에파프라스가 당신에게 인사합니다.
- ²⁴ 마르코와 아리스탁과 데마스와 루카도, 나의 동역자들이 당신에게 인사합니다.
- ²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너희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 Hebrews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1장

- ¹ 하느님은 옛적에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번과 여러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² 이제는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하느님은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로 그분을 임명하셨습니다.
- ³ 그분의 아들은 하느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의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당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탱하시고, 죄를 스스로 정결하게 하신 후 높은 곳의 위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 ⁴ 그분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셨으므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 ⁵ 하느님은 어느 천사에게도 한 번이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 ⁶ 그분이 다시 처음 난 자를 세상에 인도하실 때, ‘하느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를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 ⁷ 그분은 천사들에 관해 ‘그분은 자신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 ⁸ 그러나 아들에 관해선 ‘하느님, 당신의 보좌는 영원무궁합니다.’
- ⁹ 당신은 의로움을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셨습니다.
- ¹⁰ 또 ‘주님, 한처음에 당신이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 ¹¹ 그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당신은 영원히 계십니다.
- ¹² 당신은 그들을 옷처럼 말아 버리실 것이며,
- ¹³ 그러나 하느님은 어느 천사에게도 한 번이라도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 ¹⁴ 그들은 모두 섬기는 영들입니다.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2장

- ¹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주의 깊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흘려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 ² 천사들을 통해 말한 말씀이 확실했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으니,
- ³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을 통해 말해졌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 ⁴ 하느님도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적과 다양한 능력의 행위와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그분의 뜻에 따라 말입니다.
- ⁵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계를 하느님은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않으셨습니다.
- ⁶ 어디선가 누군가 증언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이 그를 기억하시며,
- ⁷ 당신은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추셨나이까.
- ⁸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 ⁹ 우리는 죽음의 고난으로 인해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뵙습니다. 그분은 영광과 존엄으로 관을 쓰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이가 죽음을 맛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 ¹⁰ 모든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통해 하신 분에게는,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오실 때, 고난을 통해 그들의 구원의 주체를 완성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 ¹¹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 ¹² "내가 내 형제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 ¹³ "또 내가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또 보십시오, 제가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녀들과 함께 있습니다."
- ¹⁴ 자녀들이 피와 살을 함께 나누었으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나누어 받으셨습니다. 이는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무력화하시려는 것입니다.
- ¹⁵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생 종의 상태에 얽매어 있던 모든 이들을 해방하시려는 것입니다.
- ¹⁶ 그분은 천사들을 돕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 ¹⁷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이는 하느님 앞에서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입니다.
- ¹⁸ 그분 자신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겪으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3장

- ¹ 그러므로 성스러운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고백의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여라.
- ² 그분은 자신을 세우신 분에게 충성하였듯이, 모세도 그의 온 집에서 충성하였다.
- ³ 그분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만하다. 집을 지은 자는 집보다 더 큰 존경을 받기 때문이다.
- ⁴ 모든 집은 누군가가 지었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느님이시다.
- ⁵ 모세는 그의 온 집에서 하느님의 종으로 충성하였으니, 이는 나중에 말할 것들의 증거를 위해서였다.
- ⁶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의 집 위에 아들로써 충성하셨다. 우리가 그의 집이 되려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확신과 소망의 자량을 굳게 지켜야 한다.
- ⁷ 그러므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 ⁸ 광야에서의 반역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 ⁹ 여기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시험하였다.
- ¹⁰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를 싫어하였다.
- ¹¹ 내가 분노로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하였다.
- ¹² 형제들아, 너희 중 한 사람이라도 살아 계신 하느님에게서 떠나는 악한 마음, 즉 불신의 마음을 가질까 두려워하라.
- ¹³ 오늘이라는 날이 계속되는 동안, 너희가 서로 권면하여, 죄의 속임수로 인해 누구도 완악해지지 않게 하라.
- ¹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확신을 굳게 지키는 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 ¹⁵ "오늘 너희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의 반역처럼."이라고 말하는 동안에.
- ¹⁶ 들어본 자들 중 누가 반역하였는가?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들이 아니었는가?
- ¹⁷ 사십 년 동안 그가 누구에게 싫어하였는가? 죄를 지은 자들, 곧 광야에서 쓰러진 자들의 시체를 가진 자들에게 아니었는가?
- ¹⁸ 그가 누구에게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였는가? 불순종한 자들에게 아니었는가?
- ¹⁹ 우리는 그들이 불신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함을 본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4장

- ¹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여, 너희 중 어떤 이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자.
- ²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소식을 들었으나, 그들이 들은 말씀이 그들을 이롭게 하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과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³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데, 이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다. "내 분노로 맹세한 대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그 일들은 이미 완성되었다.
- ⁴ 그는 어딘가에서 일곱째 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은 모든 일을 마치신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 ⁵ 또 여기서도 그는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 ⁶ 그러므로 그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음이 분명하며,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하였다.
- ⁷ 그러므로 그는 또 다른 날을 정해, 다윗이 오랜 뒤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너희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
- ⁸ 만약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는 나중에 또 다른 날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 ⁹ 그러므로 하느님의 백성을 위하여 아직도 안식의 날이 남아 있다.
- ¹⁰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신도 하느님처럼 자신의 일을 그치고 안식하였기 때문이다.
- ¹¹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쓰자. 그리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그 예를 따라 누군가가 떨어질까 염려된다.
- ¹²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동적이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을 갈라 놓고, 관절과 골수를 뚫고 들어가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할 수 있다.
- ¹³ 그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은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벌거벗고 드러나 있어, 우리가 계산을 해야 할 분의 눈앞에 있다.
- ¹⁴ 우리는 하늘을 지나가신, 곧 하느님의 아들 예수를 큰 대제사장으로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고백한 것을 굳게 잡자.
- ¹⁵ 우리에게는 우리의 약점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대제사장이 있다.
- ¹⁶ 그러므로 우리는 은총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자비를 받고 때가 필요한 때에 도움을 얻을 은총을 얻자.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5장

- ¹ 모든 대사제는 사람 가운데서 뽑혀서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관련된 일을 수행하도록 임명되며, 죄를 위한 제물과 희생을 바칩니다.
- ² 대사제는 자신도 약함에 싸여 있으므로, 무지하고 길을 벗어나는 자들에게 자비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 ³ 이 때문에 그는 백성을 위한 죄의 제물뿐 아니라 자신을 위한 죄의 제물도 바쳐야 합니다.
- ⁴ 이 영광을 누구나 스스로 취하지 않으며, 아론이 그러했듯이 하느님께 불러야 합니다.
- ⁵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자신을 대사제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고, 그분에게 이르신 분이 이르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 ⁶ 다른 곳에서도 그분이 이르기를, "너는 영원히 사제이다."라고 하셨습니다.
- ⁷ 그분은 육신을 지니신 날들에,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강한 외침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그분의 경건한 두려움을 들어주셨습니다.
- ⁸ 그분은 아들이었으나, 격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습니다.
- ⁹ 완전하게 되신 그분은 그분을 복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 ¹⁰ 하느님께서 그분을 멜키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대사제라 칭하셨습니다.
- ¹¹ 우리가 그에 관해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기에 느릿느릿해졌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¹² 이제 너희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시기인데, 다시 하느님의 계시의 기본 원리의 초보를 가르쳐 주는 자를 필요로 합니다. 너희는 우유를 필요로 하고,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¹³ 우유를 먹는 자는 의로움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니, 그는 어린아이입니다.
- ¹⁴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자를 위한 것이며, 그들은 사용을 통해 감각이 연마되어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6장

- ¹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기본 교리들을 버리고,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죽은 행위에서의 회개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기초를 다시 놓지 말고,
- ² 세례의 가르침과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가르침을 넘어서자.
- ³ 만일 하느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리라.
- 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에서 온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며,
- ⁵ 하느님의 좋은 말씀과 올것인 세대의 능력을 맛본 후,
- ⁶ 그러나 떠나간 자들을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들은 스스로 하느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모욕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 ⁷ 비가 자주 내려 그 땅을 적시고, 그 땅을 갈아서 일구는 자들에게 어울리는 열매를 내는 땅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다.
- ⁸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버림받고, 저주에 가까우며, 그 끝은 불태워지는 것이다.
- ⁹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 더 나은 일과 구원과 함께하는 일들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 ¹⁰ 하느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을 섬기며 아직도 섬기는 사랑의 일과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 ¹¹ 우리는 각자가 끝까지 희망의 충만함을 향해 같은 열성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 ¹² 너는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 ¹³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보다 더 큰 자로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기 자신으로 맹세하셨습니다.
- ¹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되게 하며, 너를 꼭 번성하게 하리라."
- ¹⁵ 그러므로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얻었습니다.
- ¹⁶ 사람들은 보통 더 큰 자를 향해 맹세하며, 그들의 모든 다툼에서 맹세는 확정을 위한 최종 수단입니다.
- ¹⁷ 이러한 이유로 하느님은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그분의 계획의 불변함을 더욱 풍성하게 보여 주려고, 맹세로 중개하셨습니다.
- ¹⁸ 이렇게 하여, 하느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한 것—즉 약속과 맹세—을 통해, 우리가 피신하여 앞에 놓인 희망을 붙잡으려는 자들에게 강한 위로를 얻게 하셨습니다.
- ¹⁹ 이 희망은 우리의 영혼의 닻과 같아, 확실하고 굳건하며,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 ²⁰ 거기서 예비자로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고, 멜키세덱의 계보를 따라 영원히 대사제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7장

- ¹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자 가장 높은 하느님의 사제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다.
- ² 아브라함도 그에게 모든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의 이름은 먼저 해석하면 '의로움의 왕'이고, 다음으로는 '살렘의 왕', 곧 '평화의 왕'이다.
- ³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다만 하느님의 아들과 닮아 사제로 계속되어 있다.
- ⁴ 보라,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최고의 전리품에서 십분의 일씩 그에게 주었다.
- ⁵ 레위의 자손들 중 사제 직분을 받는 자들은 법에 따라 백성, 곧 그들의 형제들로부터 십일조를 받을 명령을 받았다.
- ⁶ 그러나 그는 그들로부터 족보를 계산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십일조를 받고 약속을 가진 자를 축복하였다.
- ⁷ 사실, 더 큰 자가 더 작은 자를 축복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 ⁸ 여기에서는 죽는 자들이 십일조를 받지만, 거기에서는 살아 있다는 증언을 받은 자가 십일조를 받는다.
- ⁹ 아브라함을 통해 십일조를 받는 레위조차도 십일조를 냈다고 말할 수 있다.
- ¹⁰ 이는 멜기세덱이 그를 만날 때, 레위가 이미 그의 조상의 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 ¹¹ 만약 레위 사제직을 통해 완전함이 이루어졌다면, 어찌하여 또 다른 사제가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일어나야 하며, 아론의 계보를 따르지 않아야 하는가?
- ¹² 사제직이 바뀌면, 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 ¹³ 이러한 일들이 말하는 그는 다른 지파에 속하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봉사한 적이 없다.
- ¹⁴ 우리의 주님이 유다에서 나셨다는 것은 분명하며, 모세는 그 지파에 관해 사제직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¹⁵ 만약 멜기세덱의 형체를 따라 또 다른 사제가 일어난다면,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하다.
- ¹⁶ 그는 육체의 명령에 근거한 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에 따라 사제가 되었다.
- ¹⁷ 그것은 증언하기를, '너는 영원히 사제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 ¹⁸ 이는 그 명령이 약하고 쓸모없었기 때문에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 ¹⁹ (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고), 우리는 더 나은 소망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 ²⁰ 그는 맹세 없이 사제가 되지 않으셨다.
- ²¹ (그들은 맹세 없이 사제가 되었지만, 그는 '주님이 맹세하시고 뒤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사제이다'라고 그에게 말하는 분의 맹세로 사제가 되었다.
- ²² 이러한 이유로, 예수는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
- ²³ 많은 사제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죽음으로 인해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²⁴ 그러나 그는 영원히 살아 계시므로, 그의 사제직이 변하지 않는다.
- ²⁵ 그러므로 그는 그를 통해 하느님께 나아오는 이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 ²⁶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죄없으며 더럽혀지지 않고 죄인들에서 분리되고 하늘들보다 높이 올라간 대사제가 마땅합니다.
- ²⁷ 그는 그런 대사제들과 달리 매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드릴 때 한 번만 이를 행하셨습니다.
- ²⁸ 법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대사제로 임명하지만, 법 이후에 온 맹세의 말씀은 완성된 아들을 영원히 대사제로 임명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8장

- ¹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의 핵심은 이롭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위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그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² 이 대제사장은 성소와 참된 장막의 봉사자입니다. 이 장막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 ³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을 드리기 위해 임명됩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 ⁴ 그가 땅에 있다면, 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제사장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 ⁵ 그들은 하늘의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봉사합니다. 이는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하느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네가 산에서 네게 보여 준 형식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
- ⁶ 그러나 지금 그는 더 훌륭한 사역을 얻었는데, 이는 그가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더 나은 약속들에 근거하여 주어졌습니다.
- ⁷ 만약 첫 번째 언약이 결함이 없었다면, 둘째 언약을 찾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 ⁸ 하느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날들이 이르리니, 주님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 ⁹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으리니,
- ¹⁰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 ¹¹ 그들은 각자 이웃이나 형제를 가르치지 않을 것이며,
- ¹² 내가 그들의 불의를 용서할 것이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 ¹³ 그가 ‘새 언약’이라고 말할 때, 첫 번째 것을 낡게 하였습니다. 낡아지고 늙어가는 것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9장

- 1 지금 첫 번째 언약에도 신성한 봉사의 규칙과 지상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 2 첫째 칸에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고, 이곳은 성소라고 불립니다.
- 3 두 번째 휘장 뒤에는 성소라고 불리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 4 거기에는 향단과 금으로 둘러싸인 언약의 궤가 있었고,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그릇과 꽃핀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의 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 5 그 위에는 영광의 그룹들이 은혜의 자리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는데, 이 일들에 대해 지금은 자세히 말할 수 없습니다.
- 6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준비된 후, 사제들은 끊임없이 첫 번째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수행합니다.
- 7 그러나 둘째 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일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며, 자신과 백성의 무지한 죄를 위하여 바칩니다.
- 8 성령께서 이 일을 가리켜, 첫 번째 성소가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십니다.
- 9 이것은 현재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때의 예물과 제물은 양심에 있어서 예배하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 10 이것들은 단지 음식과 음료와 여러 가지 씻음의 육체적인 규칙에 불과하며, 개혁의 때가 올 때까지 붙여진 것입니다.
- 1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더 완전한 성소를 통해,
-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로, 한 번에 영원히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 13 만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가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져 육체의 깨끗함을 거룩하게 한다면,
- 14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영원한 성령을 통해 흠 없이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셨으니, 그의 피는 죽은 행위에서 너희 양심을 깨끗이 씻어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 15 그러므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서 범한 죄를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유산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 16 유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유언을 만든 자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 17 유언은 그 유언을 만든 자가 죽었을 때에야 효력이 생기며,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결코 효력이 없습니다.
- 18 그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않았습니다.
- 19 모세가 모든 백성에게 율법에 따라 모든 계명을 선포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붉은 양모와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 20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이다."
- 21 그는 피로 성소와 모든 봉사의 기구를 같은 방식으로 뿌렸습니다.
- 22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 정결하게 되며,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 23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본은 이 것들로 정결하게 되어야 했고, 하늘 자체는 이보다 더 훌륭한 제물로 정결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 24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형상에 불과한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 25 또 그가 해마다 다른 이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처럼 자주 자신을 바쳐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 26 아니면 그는 세상 기초 이후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대의 끝에 한 번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죄를 없애셨습니다.
- 27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 28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한 번 바쳐지셨고, 죄를 처리하기 위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이 아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타나실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10장

- 1 법은 다가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그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같은 제사로는 가까이 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 2 아니면 그 제사들이 이미 멈추었을 텐데, 그 이유는 한 번 정결하게 된 예배자들이 죄에 대한 의식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3 그러나 그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 4 소의 피와 염소의 피로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 5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으며,
- 6 번제와 죄를 위한 제사에는 기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 7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제가 왔습니다. 책의 두루마리에 나에 관해 기록된 대로입니다."
- 8 이전에 "당신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죄를 위한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고, 그것들에 기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법에 따라 바쳐지는 것들입니다.)
- 9 그러면 그는 "보소서, 제가 당신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첫째를 없애고 둘째를 세우려 하십니다.
- 10 우리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 11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며, 이 제사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 12 그러나 그는 죄를 위한 제사를 한 번만 드리고,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 13 그 후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 14 그는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 15 성령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신 후,
- 16 "이것이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입니다.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 17 "그들의 죄와 불의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 18 이러한 죄의 사함이 있는 곳에는 죄를 위한 제사가 더 이상 없습니다.
- 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로 거룩한 곳에 들어갈 용기를 가지고,
- 20 그가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살아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니, 이 길은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한 길입니다.
- 21 우리 위에 위대한 사제가 계시므로,
- 22 우리는 진심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며, 악한 양심에서 뿌려진 마음과 순수한 물로 씻긴 몸을 가지고,
- 23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고백합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 24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 25 우리가 서로 모이는 것을 버리지 말고,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격려하며,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보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 26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후에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죄를 위한 희생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 27 오직 심판에 대한 무서운 기다림과, 적들을 삼킬 뜨거운 불만 남아 있습니다.
- 28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사람은 두 세 증인의 말에 따라 자비 없이 죽습니다.
- 29 하느님의 아들을 밟아 짓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더럽힌 것으로 여기며, 은총의 성령을 모욕한 자가 받을 벌이 얼마나 더 중할까요?
- 30 우리는 '나는 보복한다. 내가 갚겠다.'고 말씀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입니다. 또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 31 살아 계신 하느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 32 그러나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으로 큰 투쟁을 견뎌낸 옛날을 기억하십시오.
- 33 때로는 비난과 억압을 당했고, 때로는 것처럼 대우받는 이들과 동참했습니다.

³⁴ 너희는 내 죄사슬을 보고 나를 불쌍히 여기며, 재산이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니, 하늘에 더 나은 소유와 영원한 소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³⁵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은 큰 상을 가지고 있다.

³⁶ 너희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는 하느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이다.

³⁷ 잠시 후에,

³⁸ 그러나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³⁹ 우리는 파멸로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11장

- ¹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 ² 이 믿음으로 옛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다.
- ³ 믿음으로 우리는 세계가 하느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음을 이해한다. 이처럼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
- 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뛰어난 제물을 하느님께 드렸다. 이를 통해 그는 의로운 자임이 증명되었고, 하느님께서 그의 제물에 대해 증언하셨다.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말하고 있다.
- ⁵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끌려가서,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하느님께 옮겨졌기 때문이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느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증거를 받았다.
- ⁶ 믿음이 없으면 하느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심을 믿어야 하고, 또한 그분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 ⁷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배를 지어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다. 이로써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따른 의로움의 상속자가 되었다.
- 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자마자, 상속받을 곳으로 나아갔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 ⁹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았고,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에 거주하였다. 그들은 모두 같은 약속의 상속자였다.
- ¹⁰ 그는 기초가 있는 도시를 기다렸다. 그 도시의 건축자이자 제작자는 하느님이다.
- ¹¹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아이를 낳을 힘을 받았다. 그녀는 나이가 지나서도 아이를 낳았는데,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 ¹² 이러므로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이, 죽은 것처럼 보였던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
- ¹³ 이 모든 이들은 믿음으로 죽었고, 약속들을 받지 못했으나,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하였다.
- ¹⁴ 이러한 말을 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고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 ¹⁵ 그들이 떠난 곳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 ¹⁶ 그러나 지금 그들은 더 나은 고향, 곧 하늘에 있는 고향을 갈망한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그분을 그들의 하느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이미 그들을 위해 도시를 준비하셨기 때문이다.
- ¹⁷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다. 그는 약속을 기쁘게 받은 자가, 자신의 외아들을 드렸다.
- ¹⁸ 그에게는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¹⁹ 그는 하느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음을 생각하였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는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받았다.
- ²⁰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관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 ²¹ 믿음으로 야곱은 죽음에 임하여 요셉의 아들들 각각을 축복하고 지팡이 끝에 기대어 경배하였다.
- ²² 믿음으로 요셉은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남을 언급하며, 자신의 뼈에 관해 명령을 내렸다.
- ²³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세 달 동안 숨겼다. 그들은 그 아이가 아름답다는 것을 보았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 ²⁴ 믿음으로 성장한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하였다.
- ²⁵ 죄의 쾌락을 잠시 동안 누리는 대신, 하느님의 백성과 고난을 나누기를 선택하였다.
- ²⁶ 그는 이집트의 재물보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더 큰 부요로 여겼다. 그는 보상에 눈을 고정했기 때문이다.
- ²⁷ 그는 믿음으로 이집트를 떠나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듯이 인내하였다.
- ²⁸ 그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피를 뿌려, 만아들을 치는 자가 그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다.
- ²⁹ 그들은 믿음으로 붉은 바다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넜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삼켜졌다.

- ³⁰ 그들은 믿음으로 일곱 날 동안 둘러싼 후 예리코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다.
- ³¹ 믿음으로 음녀 라합은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탐꾼을 평화롭게 맞이했기 때문이다.
- ³² 더 말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기드온, 바라크,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예언자들을 말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 ³³ 그들은 믿음으로 왕국들을 정복하고, 의로움을 이루어, 약속들을 얻고, 사자의 입을 막으며,
- ³⁴ 불의 세력을 끄고, 칼날을 피하며, 약함으로 강해지고, 전쟁에서 힘을 얻고, 외국 군대를 도망치게 하였다.
- ³⁵ 여자들은 부활을 통해 죽은 자들을 받았다.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했으나, 그들의 해방을 거부하여 더 나은 부활을 얻으려 하였다.
- ³⁶ 다른 이들은 조롱과 매질, 그리고 결박과 감옥으로 시험을 받았다.
- ³⁷ 그들은 돌로 치고, 톱으로 쪼개고, 시험을 받고, 칼에 죽임을 당했다. 그들은 양 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다녔다. 가난하고, 괴롭고, 핍박받으며,
- ³⁸ 세상이 그들을 합당하지 않다고 여긴 이들—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의 틈을 떠돌았다.
- ³⁹ 이 모든 이들은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 ⁴⁰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나은 것을 준비하셨으니, 우리 없이 그들이 완전해지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12장

- 1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모든 무게와 쉽게 얹매는 죄를 벗어나고, 우리 앞에 놓인 경기를 인내로 달리자.
- 2 믿음의 주관자이자 완성이자 예수를 바라보며, 그는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그 수치를 경멸하시고, 하느님의 보좌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 3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이같은 대립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여, 너희가 지쳐서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라.
- 4 너희는 죄와 싸우면서 아직 피까지 흘리지 않았다.
- 5 너희는 자녀처럼 너희에게 말하는 이 권면을 잊어버렸다. '내 아들이,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 6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 7 너희가 인내하는 것은 바로 징계를 받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너희를 자녀처럼 대우하시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 8 만일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에서 제외된 것이니, 너희는 사생아이고 진정한 자녀가 아니다.
- 9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들에게서 징계를 받고 그들을 공경하였다면, 더욱더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 10 육신의 아버지들은 며칠 동안 자기가 좋은 줄 아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그분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
- 11 지금은 모든 징계가 기쁘지 않고 슬프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받은 자들에게 평화로운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다.
- 12 그러므로 처진 손과 흔들리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 13 너희 발을 곧은 길로 인도하여, 흰 것이 탈락되지 않고 오히려 낮게 하라.
- 14 모든 사람과 평화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이루어라. 이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 15 하느님의 은총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주의하고, 쓴 뿌리가 나서 너희를 괴롭히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
- 16 음행하는 자나 무례한 자가 없도록 하라. 예서처럼, 자기의 장자권을 한 끼 식사와 바꾼 자처럼 말이다.
- 17 그가 나중에 축복을 상속받고자 했을 때, 버림받았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는 눈물로 간절히 구했으나, 마음을 바꾸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 18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타오르는 산, 어두움, 어둠, 폭풍에 이르지 않았다.
- 19 나팔 소리와 말하는 음성에 이르지 않았다.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더 이상 한 마디도 그들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였다.
- 20 그들은 '비록 짐승이라도 산에 닿으면 돌로 쳐야 한다'는 명령을 건디지 못하였다.
- 21 모세는 '나는 무서워 떨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 모습이 무서웠다.
- 22 그러나 너희는 시온 산과 살아 있는 하느님의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수없이 많은 천사들의 모임에 이르렀으며,
- 23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축제 모임과 공동체에 이르렀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느님께, 완전하게 된 의로운 자들의 영들에게 이르렀으며,
- 24 새 계약의 중보자인 예수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말을 하는 뿌리는 피에게 이르렀다.
- 25 너희는 말하는 분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땅에서 경고하신 분을 거부한 자들도 피하지 못했다면, 하늘에서 경고하시는 분을 등지는 우리가 더욱 피하지 못하리라.
- 26 그의 음성은 그때 땅을 진동시켰으나, 지금은 그가 약속하시기를, "다시 한 번 내가 땅뿐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겠다."고 하셨다.

- ²⁷ "다시 한 번"이라는 이 말은, 창조된 것들처럼 진동하는 것들을 제거하여, 진동하지 않는 것들이 남게 하려는 것이다.
²⁸ 그러므로 진동하지 않는 왕국을 받았으니, 우리가 은총을 받아, 경외와 두려움으로 하느님을 기쁘게 섬기자.
²⁹ 우리의 하느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13장

- ¹ 형제애를 계속하십시오.
² 이방인을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일을 통해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³ 감옥에 갇힌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자신도 그들과 함께 갇힌 듯이 하며, 학대받는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도 육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⁴ 모든 이에게 결혼을 존중하게 하며, 혼인 침상은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느님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⁵ 돈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⁶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도우심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⁷ 너희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너희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활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시오.
⁹ 다양하고 이상한 교훈에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은총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음식에 집착한 자들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¹⁰ 우리는 성소를 섬기는 자들이 먹을 권리가 없는 제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¹¹ 대제사장이 죄를 위한 제물로 성소 안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동물들의 시체는 진영 밖에서 불태워집니다.
¹² 그러므로 예수도 백성을 자신의 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¹³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따라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분의 모욕을 떠안읍시다.
¹⁴ 우리에게 여기에 영속하는 도시가 없으므로, 우리는 앞으로 올 것을 구합니다.
¹⁵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 끊임없이 찬미의 제물을 드립니다. 곧 그분의 이름을 공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¹⁶ 선을 행하고 타인과 나누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제물은 하느님께 기쁨이 됩니다.
¹⁷ 지도자들을 복종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비를 서며, 장차 계산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슬픔으로 하게 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¹⁸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양심이 선하고 모든 일에서 존중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확신합니다.
¹⁹ 내가 너희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도록 간절히 권합니다.
²⁰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큰 양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평화의 하느님께서
²¹ 너희를 모든 선한 일에서 완전하게 하시어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 안에서 그분의 눈에 좋은 일을 이루게 하소서. 그분께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²²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짧은 말로 쓴 이 권면의 말씀을 참아내십시오.
²³ 우리 형제 티모테오가 풀려났음을 알게 하노니, 그가 곧 오면 너희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²⁴ 너희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이탈리아 사람들이 너희에게 인사합니다.
²⁵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 서간 | James

야고보 서간 1장

- ¹ 하느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산산이 흩어진 열두 지파에게 인사합니다.
- ²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는 온전히 기뻐하여라.
- ³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 ⁴ 인내가 완전한 일을 하게 하여, 너희가 완전하고 온전하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라.
- ⁵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느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어질 것이다.
- ⁶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의 파도처럼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자이다.
- ⁷ 그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 ⁸ 그는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진 자로, 모든 길에서 흔들리는 자이다.
- ⁹ 낮은 처지에 있는 형제는 그 높은 지위를 자랑하여라.
- ¹⁰ 부자는 그가 낮아졌음을 자랑하여라. 그는 풀의 꽃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 ¹¹ 해가 뜨며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고, 그 속의 꽃은 떨어지며 그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부자도 그의 모든 일에서 사라질 것이다.
- ¹² 시험을 참아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가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주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 ¹³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에, '나는 하느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하느님은 악에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자기도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 ¹⁴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고, 유혹을 당한다.
- ¹⁵ 그러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성되면 죽음을 낳는다.
- ¹⁶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 ¹⁷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 위에서 내려와,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그분 안에는 변함이나 그림자조차 없다.
- ¹⁸ 그분은 자기 뜻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 ¹⁹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모든 사람은 듣는 데 빠르고, 말하는 데 느리며, 성내는 데 느리게 하라.
- ²⁰ 사람의 분노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 ²¹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악의 넘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심어진 말씀을 받아라. 이 말씀은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 ²²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 ²³ 만일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는 자이지만 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는 거울에 자기 생긴 모습을 보는 사람과 같다.
- ²⁴ 그는 자기 모습을 보고는 가서 곧바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린다.
- ²⁵ 그러나 자유의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지속하는 자, 즉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 ²⁶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허사이다.
- ²⁷ 우리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 없는 경건은 이다: 고아와 과부가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돌보며, 자신을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야고보 서간 2장

- ¹ 형제들아, 우리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편견 없이 지키십시오.
- ² 만약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 ³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거나, 내 발받침 옆에 앉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 ⁴ 여러분은 스스로 사이에 편견을 보이고, 악한 생각으로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⁵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 ⁶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자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여러분을 억압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을 재판관 앞에 끌고 가지 않습니까?
- ⁷ 그들이 여러분이 불리는 존엄한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 ⁸ 그러나 성경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왕의 법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잘하는 것입니다.
- ⁹ 그러나 편견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죄를 지으며, 법에 따라 범법자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 ¹⁰ 누구든지 온 법을 지키다가 한 점에서 넘어지면, 그는 온 법을 어긴 자가 됩니다.
- ¹¹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간음은 하지 않지만 살인을 한다면, 여러분은 법을 어긴 자가 됩니다.
- ¹² 그러므로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 ¹³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도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가 심판을 이깁니다.
- ¹⁴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실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 ¹⁵ 만약 형제나 자매가 옷이 없고, 하루 식사도 부족하다면,
- ¹⁶ 여러분 중 누군가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되십시오." 하고 말하면서도,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¹⁷ 이와 같이 행실이 없는 믿음은 그것 자체로 죽은 것입니다.
- ¹⁸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실이 있습니다." 행실 없이 당신의 믿음을 내게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행실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 ¹⁹ 하느님은 한 분이시라고 당신은 믿습니까? 잘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떨립니다.
- ²⁰ 허탄한 사람아, 행실 없이 믿음이 죽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 ²¹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실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 ²² 보십시오. 믿음이 그의 행실과 함께 일했고, 행실로 믿음이 완성되었습니다.
- ²³ 이로써 성경이 말한 바,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었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움으로 계산되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느님의 친구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 ²⁴ 그러므로 행실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라는 것을 보십시오.
- ²⁵ 마찬가지로, 창기 라합도 정탐꾼들을 맞아들여 다른 길로 보내면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 ²⁶ 몸이 영에서 떨어지면 죽은 것처럼, 행위에서 떨어진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 서간 3장

- ¹ 형제들아, 너희 중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는 더 무거운 심판을 받을 것임을 알고 있다.
- ² 우리는 모두 여러 면에서 실수한다. 말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으로,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다.
- ³ 우리는 말의 입에 말자리를 넣어 그들이 우리를 따르게 하고, 온 몸을 인도한다.
- ⁴ 보라, 배들도 매우 크고 강한 바람에 밀려 다니지만, 아주 작은 헬로 원하는 곳으로 인도된다.
- ⁵ 이와 같이 혀도 작은 부분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작은 불이 어찌 큰 숲을 태울 수 있는지 보아라!
- ⁶ 혀는 불이다. 우리 몸의 불의의 세계가 곧 혀이며, 온 몸을 더럽히고 자연의 흐름을 불태우며, 지옥에서 타오르는 것이다.
- ⁷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바다의 생물은 길들여졌고, 사람의 길들이음을 받았다.
- ⁸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악이며, 치명적인 독으로 가득 차 있다.
- ⁹ 우리는 그것으로 하느님과 아버지를 찬미하고, 그것으로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을 저주한다.
- ¹⁰ 같은 입에서 찬미와 저주가 나온다. 형제들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¹¹ 한 샘에서 같은 문에서 담백한 물과 쓴 물이 나오겠느냐?
- ¹²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를 맺을 수 있느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소금물과 담백한 물이 같은 샘에서 나오지 않는다.
- ¹³ 너희 중에 누가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느냐? 그는 온유한 지혜로 그 행실을 보여야 한다.
- ¹⁴ 그러나 너희 마음에 쓴 질투와 이기적인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에 반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 ¹⁵ 이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고, 육체적이고, 악마적인 것이다.
- ¹⁶ 질투와 이기적인 야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행위가 있다.
- ¹⁷ 그러나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그 다음에는 평화롭고, 온유하고, 합리적이며, 자비로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많으며,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다.
- ¹⁸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평화 속에 뿌린다.

야고보 서간 4장

- ¹ 너희 안에서 전쟁과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이 너희 몸 안에서 싸우는 쾌락에서 오지 않느냐?
- ² 너희는 탐내지만 얻지 못하고, 살해하고 시기하지만 얻지 못한다. 너희는 싸우고 전쟁을 벌인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 ³ 너희가 구하지만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쾌락을 위해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다.
- ⁴ 간음하는 자들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며, 세상과 우정을 맺는 것이 하느님을 적대시하는 것임을 모르느냐? 그러므로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느님의 원수가 된다.
- ⁵ 성경이 헛되이 말하기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질투심으로 탐내신다'고 하지 않느냐?
- ⁶ 그러나 그분은 더 큰 은총을 주신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한다. '하느님은 교만한 자를 거부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총을 주신다.'
- ⁷ 그러므로 하느님께 복종하여라. 마귀를 저항하여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에게서 도망칠 것이다.
- ⁸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면 그분도 너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죄인들이여, 너희 손을 깨끗이 씻어라.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이여, 너희 마음을 정결히 하여라.
- ⁹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라. 너희의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의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 ¹⁰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어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 ¹¹ 형제들아, 서로를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판단하는 자는 율법의 실천자가 아니라 판단자이다.
- ¹² 율법을 제정하는 이는 한 분뿐이시다. 그분은 구원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 그런데 네가 누구이기에 남을 판단하느냐?
- ¹³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이 도시로 가서 거기서 일 년을 지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자' 하는 자들아.
- ¹⁴ 너희는 내일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너희의 삶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에 불과하다.
- ¹⁵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살아서 이 일을 하거나 저 일을 하리라.'
- ¹⁶ 그러나 지금 너희는 자랑으로 기뻐한다. 이런 자랑은 모두 악하다.
- ¹⁷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가 된다.

야고보 서간 5장

- ¹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닥칠 환난 때문에 울고 비명을 지르라.
- ² 너희의 재산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나방에게 먹혔다.
- ³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고, 그 녹이 너희를 증거로 삼아 불처럼 너희 육체를 먹어칠 것이다. 너희는 마지막 날들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었다.
- ⁴ 보라, 너희 밭을 베는 일꾼들의 임금, 너희가 사기로 갈취한 그 임금이 외치고, 베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어갔다.
- ⁵ 너희는 땅에서 사치스럽게 살며 즐거움을 누렸다. 너희는 마치 도살의 날처럼 너희 마음을 기름지게 키웠다.
- ⁶ 너희는 의로운 이를 정죄하고 죽였다. 그는 너희를 저항하지 않는다.
- ⁷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의 오심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는 귀한 땅의 열매를 기다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그 위에 인내한다.
- ⁸ 너희도 인내하라. 너희 마음을 굳게 하라.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다.
- ⁹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가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있다.
- ¹⁰ 형제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아라.
- ¹¹ 보라, 우리는 인내한 자들을 복되다고 부른다. 너희는 옴의 인내를 들었고, 그 결과에서 주님의 행하심을 보았으며, 주님이 자비롭고 자비로우심을 알았다.
- ¹²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형제들아, 하늘을 향해, 땅을 향해, 또는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희의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여, 너희가 위선에 빠지지 않게 하라.
- ¹³ 너희 중에 누군가 고난을 받고 있느냐? 그가 기도하라. 누군가 기쁘냐? 그가 찬미를 노래하라.
- ¹⁴ 너희 중에 누군가 병들었느냐? 그가 공동체의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이 그 위에 기름을 바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라.
- ¹⁵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이를 낫게 하고, 주님은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가 죄를 지었다면,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 ¹⁶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너희가 낫게 되라. 의로운 이의 간절한 기도는 힘이 크다.
- ¹⁷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비가 내리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땅에 비가 서른 육 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다.
- ¹⁸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그 열매를 내었다.
- ¹⁹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군가 진리에서 벗어나면, 누군가 그를 돌이키면,
- ²⁰ 그가 죄인을 그 길의 오류에서 돌이키면, 그는 한 영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이다.

베드로의 첫째 서간 | 1 Peter

베드로의 첫째 서간 1장

- ¹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본토니아, 갈라디아, 카파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선택된 이들에게 씁니다.
- ² 하느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성화를 통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그의 피로 뿌림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총과 평화가 너희에게 더해지기를 빕니다.
- 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찬미하십시오. 그분은 크신 자비로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 있는 소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 ⁴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유산을 하늘에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 ⁵ 너희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지켜져, 마지막 때에 드러날 구원을 받게 됩니다.
- ⁶ 이러한 일로 너희는 크게 기뻐합니다. 지금은 잠시 동안, 필요하다면 여러 시험으로 근심하게 되었지만,
- ⁷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썩어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하므로, 불로 시험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엄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 ⁸ 너희는 그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로 다할 수 없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 ⁹ 너희 영혼의 구원이라는 믿음의 결실을 받고 있습니다.
- ¹⁰ 이 구원에 관해 예언자들이 탐구하고 열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임할 은총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 ¹¹ 그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예고할 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시대를 가리키는지 탐구했습니다.
- ¹² 그들에게는 이 일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일들은 이제 너희에게, 하늘에서 보내진 성령을 통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이 일들을 천사들도 들여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 ¹³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줄 은총에 온전히 소망을 두어라.
- ¹⁴ 순종의 자녀처럼, 너희가 무지할 때에 따랐던 이전의 욕망에 따라 자기 자신을 맞추지 말고,
- ¹⁵ 너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듯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여라.
- ¹⁶ “너는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 ¹⁷ 너희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아버지로 그분을 부른다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과 경외로 생을 보내라.
- ¹⁸ 너희가 썩어 없어지는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아니라, 너희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허무한 생활 방식에서, 귀한 피, 고통이나 열락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었음을 알라.
- ¹⁹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었음을 알라.
- ²⁰ 그는 세상의 기초가 있기 전에 미리 알려졌으나,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를 위해 나타나셨다.
- ²¹ 그분을 통해 너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신 하느님을 믿게 되었으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느님께 있게 되었다.
- ²² 너희는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였으니,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여라.
- ²³ 너희는 썩어 없어지는 씨로가 아니라, 썩지 않는 씨로, 살아 있고 영원히 머무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태어났다.
- ²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 ²⁵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무릅니다.

베드로의 첫째 서간 2장

- ¹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모든 악한 말을 버리고
- ² 신생아처럼 순수한 영적 젖을 탐하여, 그것으로 성장하십시오.
- ³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맛보았다면.
- ⁴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사람들은 거부했지만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살아있는 돌, 귀중한 돌입니다.
- ⁵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 받들어지는 영적인 제물을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 ⁶ 성경에 '보라, 내가 시온에 주된 모퉁이돌을 놓으리니, 선택되고 귀중한 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 ⁷ 믿는 자들에게는 이 돌이 영광이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 ⁸ 그리고 '발목을 걸게 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 ⁹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족속, 왕실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어둠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분의 위대함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 ¹⁰ 과거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었습니다.
- ¹¹ 사랑하는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며, 영혼과 싸우는 육체의 욕망을 버리십시오.
- ¹² 이방인들 사이에서 선한 행실을 하여, 여러분을 악인처럼 비난하는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방문의 날에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 ¹³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모든 인간의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왕에게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로서,
- ¹⁴ 또한 관리들에게는 악인들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칭찬을 주기 위해 그가 보낸 자로서 복종하십시오.
- ¹⁵ 이는 하느님의 뜻이니,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를 침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¹⁶ 자유인처럼 살되, 악을 숨기기 위해 자유를 이용하지 말고, 하느님의 종처럼 살아야 합니다.
- ¹⁷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중하십시오.
- ¹⁸ 종들은 모든 존경을 다해 주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온화한 주인뿐 아니라, 악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 ¹⁹ 하느님을 향한 양심 때문에 부당하게 고통을 견디는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 ²⁰ 죄를 지었을 때 매를 맞고 인내하는 것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 고통을 인내할 때, 이는 하느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입니다.
- ²¹ 여러분은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기셨으니, 여러분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 ²² 그분은 죄를 지으시지 않았고, '그분의 입술에 속임이 없었습니다.'
- ²³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을 때 저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정히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 ²⁴ 그분이 나무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로움에 대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상처로 인해 여러분은 치유되었습니다.
- ²⁵ 당신들은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했으나, 이제는 당신들의 영혼의 목자이자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의 첫째 서간 3장

- ¹ 같은 방식으로, 아내들은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어떤 남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더라도, 아내들의 순결한 생활을 보고 말 없이도 얻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² 아내들이 두려움 속에서 순결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서입니다.
- ³ 당신의 아름다움은 머리를 땅고 금 장신구를 착용하거나 세련된 옷을 입는 외적인 꾸밈이 아니라,
- ⁴ 온화하고 조용한 영의 썩지 않는 장식으로, 마음속에 숨겨진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십시오. 이는 하느님 앞에서 매우 귀중합니다.
- ⁵ 이는 과거에 하느님을 바라본 성녀들이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며 스스로를 꾸땀던 방식이었습니다.
- ⁶ 사라도 아브라함을 복종하며 그를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당신들도 잘 행하고 어떤 두려움에도 떨리지 않는다면, 그의 자녀가 됩니다.
- ⁷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살며, 악한 그릇인 여성을 존중하십시오. 또한 생명의 은총의 공동 상속자임을 기억하여, 당신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 ⁸ 마지막으로, 모두 한마음이 되고, 자비롭고, 형제처럼 사랑하며, 연민이 많고, 예의 바르십시오.
- ⁹ 악을 악으로,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이는 당신들이 이 축복을 상속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¹⁰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 ¹¹ 악을 떠나 선을 행하며
- ¹² 주님의 눈은 의로운 자를 바라보시고,
- ¹³ 만약 당신들이 선을 본받는다면, 누가 당신들을 해치겠습니까?
- ¹⁴ 그러나 만약 당신들이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 ¹⁵ 그러나 마음속에서 주님 하느님을 거룩히 하십시오. 언제나 자신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겸손과 두려움으로 모든 질문하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 ¹⁶ 좋은 양심을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의 선한 생활을 비난하는 자들이, 당신들을 악행자라고 말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 ¹⁷ 하느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 ¹⁸ 그리스도도 한 번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의로운 분이 불의한 자들을 위해 죽으사, 당신들을 하느님께로 인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아나셨습니다.
- ¹⁹ 그분은 이 영으로 갇힌 영들에게도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 ²⁰ 이들은 노아의 시대에 하느님이 오래 참으실 때, 방주가 준비되는 동안 불순종했던 자들입니다. 그 방주 안에서 물을 통해 아주 적은 수, 곧 여덟 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 ²¹ 이것은 세례의 상징입니다. 지금 당신들을 구원하는 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좋은 양심의 답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²² 그분은 하느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하늘로 올라가셨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모두 그분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첫째 서간 4장

- ¹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육신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기를 갖추어라. 육신에서 고난을 받은 자는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 ² 이는 너희가 이제 남은 생애를 사람의 욕심을 따라 육신에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함이다.
- ³ 우리는 이미 이방인들이 원하는 대로 방탕과 음란과 술취고 놀이와 흥청망청한 잔치와 비열한 우상 숭배를 하며 지난 시간을 보냈다.
- ⁴ 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방탕한 방종에 뛰어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너희를 비방한다.
- ⁵ 그들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에게 계산을 해야 한다.
- ⁶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이유이다. 그들이 육신에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고, 영으로는 하느님처럼 살기 위함이다.
- ⁷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며 기도에 힘쓰어라.
- ⁸ 무엇보다도 서로를 향한 사랑을 진심으로 지켜라. 사랑은 많은 죄를 덮는다.
- ⁹ 불평 없이 서로를 환대하여라.
- ¹⁰ 각자가 은총의 선물을 받았으니, 그것을 서로를 섬기는 데 써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을 현명한 관리자처럼.
- ¹¹ 누구든지 말한다면 마치 하느님의 말씀처럼 하며, 누구든지 섬긴다면 하느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는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토록 있도다. 아멘.
- ¹²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닥친 시련을 마치 이상한 일인 양 놀라지 말라. 그것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한 불의 시련이다.
- ¹³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이므로 기뻐하여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도 기쁨이 넘치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¹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영광과 하느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그분이 모욕을 받으나, 너희에게는 그분이 영광을 받는다.
- ¹⁵ 너희 중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행을 저지르는 자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 ¹⁶ 그러나 너희 중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여라.
- ¹⁷ 심판이 하느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될 때가 되었다. 먼저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느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 ¹⁸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불경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 ¹⁹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자들은, 신실한 창조주께 자기 영혼을 맡기어라.

베드로의 첫째 서간 5장

- ¹ 그러므로 나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동료 장로이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격자이며, 또한 드러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권면한다.
- ² 너희 가운데 있는 하느님의 양 무리를 목자처럼 돌보며, 강제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위해가 아니라 기꺼이 감독하라.
- ³ 맡겨진 자들에게 지배자처럼 군림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어라.
- ⁴ 주목자께서 드러날 때, 너희는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 ⁵ 같은 방식으로,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복종하여라. 너희 모두는 겸손한 옷을 입고 서로에게 복종하여라. ‘하느님은 교만한 자를 거부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총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 ⁶ 그러므로 너희는 하느님의 강력한 손 아래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라. 그분이 적절한 때에 너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 ⁷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져라. 그분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 ⁸ 깨어 있고 절제하여라. 너희 적인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 ⁹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를 저지하여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겪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 ¹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너희를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부르신 모든 은총의 하느님께서, 너희가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며, 굳건히 잡아주실 것이다.
- ¹¹ 그분께 영원히, 영원히 영광과 힘이 있기를. 아멘.
- ¹² 나는 신실한 형제인 실루아노를 통해 너희에게 이 서신을 간략히 썼다. 나는 그를 신뢰하며, 너희가 서 있는 이 것이 참된 하느님의 은총임을 권면하고 증언한다.
- ¹³ 바빌론에 있는, 너희와 함께 택함을 받은 교회가 너희에게 인사한다. 내 아들 마르코도 그렇게 인사한다.
- ¹⁴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여라.

베드로의 둘째 서간 | 2 Peter

베드로의 둘째 서간 1장

- ¹ 시몬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는, 우리와 같은 귀한 믿음을 하느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얻은 이들에게 쓴다.
- ² 너희에게 은총과 평화가 하느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빈다.
- ³ 그분의 신성한 능력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영광과 덕을 통해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 ⁴ 이로써 그분은 귀하고 매우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약속들을 통해 너희는 세상의 정욕으로 인한 부패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 ⁵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더욱 힘써 행하되,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 ⁶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 ⁷ 경건에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에 사랑을 더하라.
- ⁸ 이러한 것들이 너희 안에 있고 풍성하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한다.
- ⁹ 이러한 것들을 갖지 못한 자는 시력이 없어 가까운 것만 보고, 옛 죄에서의 정결함을 잊어버렸다.
- ¹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과 택함을 더욱 힘써 확실히 하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 ¹¹ 이렇게 하면 너희는 우리 주이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풍성하게 들어갈 것이다.
- ¹² 그러므로 너희가 이미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 ¹³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는 너희를 기억으로 일깨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¹⁴ 내가 이 장막을 벗는 것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 ¹⁵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언제나 이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나는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
- ¹⁶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강림을 알릴 때, 꾸며낸 우스갯소리를 따르지 않았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다.
- ¹⁷ 그분은 위엄 있는 영광에서 나오는 소리로,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받으며 하느님 아버지께 존엄과 영광을 받으셨다.
- ¹⁸ 우리는 이 소리를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들었다.
- ¹⁹ 우리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이 말씀을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등불처럼 여기며, 날이 밝고 너희 마음에 아침별이 떠오를 때까지 주의 깊게 들어라.
- ²⁰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개인의 해석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 ²¹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하느님의 사람들이 하느님을 말한 것이다.

베드로의 둘째 서간 2장

- ¹ 그러나 백성 가운데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듯이, 너희 가운데에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은밀히 멸망을 가져오는 이단을 들고 들어와, 자기들을 산 자로 삼으신 주를 부인하며, 스스로 빠른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 ² 많은 이들이 그들의 음란한 길을 따르며, 그 결과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 ³ 그들은 탐욕으로 거짓말을 써서 너희를 착취할 것이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늦어지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도 결코 잠들지 않는다.
- ⁴ 하느님께서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타르타로스에 던져 어둠의 구렁이에 가두어 심판을 기다리게 하셨다.
- ⁵ 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의로움을 전파하는 노아와 그와 함께 일곱 사람을 보존하시며,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 ⁶ 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재로 바꾸어 멸망의 예로 삼으셨다. 이는 불경건하게 살려는 자들에게 예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 ⁷ 그리고 불의한 자들의 음란한 생활로 인해 심히 괴로워하던 의로운 롯을 구원하셨다.
- ⁸ (그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며,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보고 듣고, 그의 의로운 영혼이 괴로워하였다.)
- ⁹ 그러면 주님은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벌 아래에 간직해 두신다.
- ¹⁰ 그러나 특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권위를 경멸하는 자들을 말한다. 그들은 대담하고 자기 뜻을 따르며, 존엄한 이들을 향해 악한 말을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 ¹¹ 비록 힘과 능력이 더 큰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향해 비방하는 심판을 하지 않는다.
- ¹² 그러나 이 자들은 이성 없는 생물처럼, 태어날 때부터 잡혀 죽을 동물처럼, 자신이 모르는 일들에 대해 악한 말을 하며, 그들이 파멸하는 대로 파멸될 것이다.
- ¹³ 그들은 불의의 보수를 받는다. 그들은 낮에 즐거움을 삼아 놀며, 너희와 함께 잔치할 때 속임수로 놀면서 흥과 흥결이 된다.
- ¹⁴ 그들은 간음으로 가득 찬 눈을 가지고 있으며, 죄를 그치지 않고, 불안정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길들여진 마음을 가진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다!
- ¹⁵ 그들은 올바른 길을 버리고 길을 벗어나, 베오르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다. 그는 불의의 보수를 사랑하였다.
- ¹⁶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책망을 받았다. 말이 없는 당나귀가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여 그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았다.
- ¹⁷ 이 자들은 물이 없는 우물이며, 폭풍에 밀려 다니는 구름이다. 그들을 위하여 영원히 어두움의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 ¹⁸ 그들은 허탄한 큰 말로, 진실로 오류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방종으로 유혹한다.
- ¹⁹ 그들은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다. 누구든지 이긴 자에게 사로잡히는 것이다.
- ²⁰ 그들이 주이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그 안에 얽매어 정복된다면, 그들의 마지막 상태는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 ²¹ 그들이 의로움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 길을 알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을 버리는 것보다 낫다.
- ²²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진실한 속담대로이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씻은 돼지는 진흙에서 뒹군다.'

베드로의 둘째 서간 3장

- ¹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제가 여러분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저는 이 두 편지 모두에서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여러분을 상기시킵니다.
- ² 곧, 여러분이 전에 거룩한 예언자들이 말한 말씀들과 우리 주이자 구주인 주님의 사도들이 내린 명령을 기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³ 먼저 이것을 아십시오.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욕망을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 ⁴ 그들은 말하기를, ‘그분의 오심의 약속은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들기 시작한 이래로, 창조의 처음부터 모든 것이 그대로 계속되어 왔다.’고 합니다.
- ⁵ 그들은 의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옛적부터 하늘이 있었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물에서 나와 물로 둘러싸인 땅이 만들어졌다는 것을요.
- ⁶ 그러므로 그때 존재했던 세계는 물에 잠겨 멸망하였습니다.
- ⁷ 그러나 지금 존재하는 하늘과 땅은 같은 말씀으로 불을 위해 보존되어 있으며, 불경건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 ⁸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처럼 되고, 천 년이 하루처럼 됩니다.
- ⁹ 주님은 어떤 이들이 느끼는 것처럼 약속에 느리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 ¹⁰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밤에 올 것입니다. 그날 하늘은 큰 소리로 지나가고,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 풀려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타버릴 것입니다.
- ¹¹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불타 없어질 것이라면, 여러분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 ¹² 하느님의 날이 이르러 하늘이 불에 녹아 풀려나고,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기를 기다리며 열심히 간절히 바라십시오.
- ¹³ 그러나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는 의로움이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 ¹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분 앞에서 흠 없고 흠잡을 데 없이 평화롭게 발견되려고 힘쓰십시오.
- ¹⁵ 우리 주의 인내를 구원으로 여기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오로도 그에게 주어진 지혜를 따라 여러분에게 쓴 것처럼,
- ¹⁶ 그의 모든 편지에서 이 같은 일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무지하고 흔들리는 자들이 그것들을 다른 성경들처럼 왜곡하여 자기 멸망을 가져옵니다.
- ¹⁷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으니, 악한 자들의 오류에 끌려 넘어져 여러분의 굳건함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 ¹⁸ 그러나 우리 주이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지식 안에서 자라십시오. 그분께 영광이 지금도,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의 첫째 서간 | 1 John

요한의 첫째 서간 1장

- ¹ 한처음에 있었던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의 눈으로 본 것, 우리가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것, 곧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
- ² (생명이 드러났고, 우리가 보았으며, 증언하고, 너희에게 그 생명, 곧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우리에게 드러난 영원한 생명을 전한다);
- ³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는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 ⁴ 우리가 이 일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려는 때문이다.
- ⁵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메시지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다.
- ⁶ 우리가 그와 교제를 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을 걷는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 ⁷ 그가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속을 걷는다면, 우리는 서로 교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 ⁸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 ⁹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 ¹⁰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요한의 첫째 서간 2장

- 1 작은 자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구든지 죄를 지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자로 가지고 있다.
- 2 그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이니, 우리 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 3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이다.
- 4 '나는 그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
- 5 그러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느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다.
- 6 자기가 그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걸어온 대로 자신도 마땅히 걸어야 한다.
- 7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을 쓴다.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다.
- 8 다시 말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 새 계명은 그 안에서도, 너희 안에서도 참되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이미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 9 자기가 빛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안에 있다.
- 10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안에 머무르며, 그 안에는 걸려 넘어질 이유가 없다.
- 11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안에 있고, 어둠 속을 걷는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 12 작은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 13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있는 이를 알기 때문이다.
- 14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썼던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있는 이를 알기 때문이다.
- 15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 16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다.
- 17 세상과 그 안의 정욕은 지나가지만,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머무른다.
- 18 작은 자들아, 이는 마지막 때이다. 너희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들었듯이,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임을 안다.
- 19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만일 우리에게 속했다라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것은, 그들 중 아무도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 20 너희는 거룩한 이로부터 기쁨부음을 받았고, 너희 모두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
- 21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고, 거짓이 진리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22 누가 거짓말쟁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그이다. 이가 곧 적그리스도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이다.
- 23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가지지 못한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가진다.
- 24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것을 너희 안에 머물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머무를 것이다.
- 25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 26 나는 너희를 미혹하려는 자들에 관해 이 일을 너희에게 써 보냈다.
- 27 너희는 그에게서 받은 기쁨부음이 너희 안에 머무르므로,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기쁨부음이 모든 일에 너희를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 기쁨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 안에 머무를 것이다.
- 28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아, 그 안에 머무르라. 그가 나타날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29 그가 의로우심을 너희가 안다면, 모든 의로움을 행하는 자가 그에게서 난 것을 너희도 안다.

요한의 첫째 서간 3장

- 1 보아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으니, 이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2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와 같아질 것이다. 우리는 그를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 3 그에게 이 바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그가 깨끗한 것처럼.
- 4 모든 죄를 지는 사람은 법을 어긴다. 죄란 곧 법을 어기는 것이다.
- 5 너희는 그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드러나셨음을 알고 있다. 그 안에는 죄가 전혀 없다.
- 6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죄를 지지 않는다. 죄를 지는 사람은 그를 보지 못했고, 그를 알지 못한다.
- 7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여라.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것처럼, 그도 의로운 사람이다.
- 8 죄를 지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한처음으로부터 죄를 지어 왔다. 하느님의 아들이 드러난 목적은, 마귀의 행위들을 파괴하기 위함이다.
- 9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은 죄를 지지 않는다. 그의 씨가 그 안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그는 하느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 10 이것으로 하느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의로움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느님에게 속하지 않으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이다.
- 11 이는 한처음에 너희가 들은 메시지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 12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처럼, 그는 형제를 죽였다. 그가 왜 형제를 죽였는가? 그의 행위는 악했고, 그의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 13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놀라지 마라.
- 14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안다.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무른다.
- 15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이다. 너희는 살인자가 영원한 생명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다.
- 16 우리는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그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줄 의무가 있다.
- 17 세상의 재물을 가진 사람이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자비의 마음을 닫아 버린다면, 하느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안에 머무를 수 있겠는가?
- 18 어린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로 사랑하라.
- 19 이것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함을 알고, 그 앞에서 우리 마음을 설득한다.
- 20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지라도, 하느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아신다.
- 21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 담대할 수 있다.
- 22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눈에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에게서 받는다.
- 23 그의 계명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명령한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 24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 안에 머무르고, 그도 그 안에 머문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가 우리 안에 머무르심을 안다.

요한의 첫째 서간 4장

- ¹ 사랑하는 이들아,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느님에게서 왔는지 시험하여 보십시오. 이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 ² 이것으로 여러분은 하느님의 영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음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 ³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음을 시인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오리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미 세상에 있습니다.
- ⁴ 사랑하는 이들아, 여러분은 하느님에게서 왔고, 그들을 이겼습니다. 이는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 ⁵ 그들은 세상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의 일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을 듣습니다.
- ⁶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느님을 아는 자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은 자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알게 됩니다.
- ⁷ 사랑하는 이들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사랑하는 자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나 하느님을 압니다.
- ⁸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 ⁹ 이것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홀로 태어난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우리가 그를 통해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 ¹⁰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 ¹¹ 사랑하는 이들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 ¹² 아직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 ¹³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그 안에 머무르고, 그가 우리 안에 머무른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 ¹⁴ 우리는 보았고, 아버지께서 구세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음을 증언합니다.
- ¹⁵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는 자는 하느님께서 그 안에 머무르시고, 그도 하느님 안에 머무릅니다.
- ¹⁶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고 믿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도 그 안에 머무릅니다.
- ¹⁷ 이것으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이이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 ¹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에는 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 ¹⁹ 우리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합니다.
- ²⁰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지 못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 ²¹ 우리가 그에게서 받은 이 명령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첫째 서간 5장

- ¹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태어난 자도 사랑한다.
- ²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 ³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 ⁴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모두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곧 너희의 믿음이다.
- ⁵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냐?
- ⁶ 물과 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물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며, 성령은 진리이다.
- ⁷ 증언하는 이가 세 명이다.
- ⁸ 성령과 물과 피이며,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한다.
- ⁹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는다면, 하느님의 증언이 더 크다. 이는 하느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증언하신 증언이기 때문이다.
- ¹⁰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을 지니고 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느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으니, 이는 하느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주신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 ¹¹ 증언은 이러하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은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
- ¹² 아들을 지닌 자는 생명을 지니고 있다. 하느님의 아들을 지니지 않은 자는 생명을 지니지 못한다.
- ¹³ 나는 하느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글을 써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너희가 하느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을 계속하게 하려 한다.
- ¹⁴ 우리가 그분에게 가지는 담대함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무엇을 구하든 그분이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 ¹⁵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들어준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우리가 그분께 구한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을 안다.
- ¹⁶ 누군가가 형제가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죄를 지은 것을 본다면, 그는 기도할 것이며, 하느님께서는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죄를 지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죽음으로 이어지는 죄도 있다. 나는 그가 이 죄에 관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 ¹⁷ 모든 불의는 죄이며,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죄도 있다.
- ¹⁸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며, 악한 자는 그를 만지지 않는다.
- ¹⁹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다.
- ²⁰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를 주셨으며, 우리가 진실한 분을 알게 되었음을 안다. 우리는 진실한 분 안에 있으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분이 바로 참 하느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다.
- ²¹ 작은 자들아, 우상들에서 자신을 지켜라.

요한의 둘째 서간 | 2 John

요한의 둘째 서간 1장

- ¹ 노인은 진리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택하신 여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보낸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이도 그러하다.
- ²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무르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³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아버지 하느님과 아버지의 아들인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빈다.
- ⁴ 내가 당신의 자녀들 중 일부가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크게 기뻐한다. 이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이다.
- ⁵ 지금, 사랑하는 여인아, 내가 당신에게 새 명령을 쓰는 것처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곧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기를 간청한다.
- ⁶ 사랑이란 그분의 명령에 따라 걸어가는 것이다. 이 명령은 처음에 너희가 들은 대로, 너희가 그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 ⁷ 많은 속임꾼들이 세상에 나왔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음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속임꾼이요, 적그리스도이다.
- ⁸ 자신들을 주의하여, 우리가 이론 것을 잃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보상을 받도록 하라.
- ⁹ 가르침을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머무르지 않는 자는 하느님을 가지지 못한다. 가르침에 머무르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가진다.
- ¹⁰ 누구든지 너희에게 와서 이 가르침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를 너희 집에 들이지 말고, 그를 환영하지 말라.
- ¹¹ 그를 환영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에 참여하는 자이다.
- ¹² 너희에게 쓸 것이 많지만, 종지와 잉크로 쓰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 얼굴을 마주하고 말하기를 바라니, 우리의 기쁨이 완전해지기를 원한다.
- ¹³ 당신의 택하신 자매의 자녀들이 너희에게 인사한다. 아멘.

요한의 셋째 서간 | 3 John

요한의 셋째 서간 1장

- ¹ 노인은 진실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인사합니다.
- ²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모든 일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 ³ 형제들이 와서 네가 진실로 살아간다는 것을 증언할 때, 내가 크게 기뻐하였다.
- ⁴ 내가 내 자녀들이 진실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 ⁵ 사랑하는 자여, 네가 형제들과 나그네들을 위해 행하는 일은 모두 성실한 일이다.
- ⁶ 그들은 공동체 앞에서 네 사랑을 증언하였다. 네가 하느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그들을 여정에 보내는 것이 좋다.
- ⁷ 그들은 이름을 위하여 나갔으며,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 ⁸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들을 영접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진실을 위한 동역자가 되기 위함이다.
- ⁹ 나는 공동체에 썼으나, 그들 사이에서 먼저 되고자 하는 디오테레스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¹⁰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악한 일, 곧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는 일을 지적하겠다. 그는 이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을 스스로 영접하지 않으며, 영접하려는 자들을 막아 공동체에서 내쫓는다.
- ¹¹ 사랑하는 자여,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느님에게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느님을 보지 못하였다.
- ¹² 데메트리오는 모든 이의 증언과 진실 자체의 증언을 받았다. 우리도 증언하며, 너희도 우리 증언이 진실함을 알고 있다.
- ¹³ 너에게 쓸 것이 많았으나, 잉크와 붓으로 쓰는 것을 기피하지 않는다.
- ¹⁴ 내가 곧 너를 만나기를 바란다. 그때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친구들이 너를 인사한다. 친구들을 이름을 불러 인사하여라.

유다 서간 | Jude

유다 서간 1장

- ¹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아버지 하느님께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켜진,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 ²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더하게 되기를 빈다.
- ³ 사랑하는 이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구원에 관해 너희에게 쓰고 싶어 열심히 노력했으나, 너희에게 써서, 한 번에 성도들에게 전해진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도록 권면해야 했다.
- ⁴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으니, 이들은 이미 이 심판을 위해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이들은 하느님의 은총을 방탕함으로 바꾸고, 우리 유일한 주님 곧 하느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불경한 자들이다.
- ⁵ 너희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내가 너희를 기억하게 하려 한다. 주님은 이집트 땅에서 한 백성을 구원하신 후,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
- ⁶ 자기의 첫째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버린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을 위하여 영원한 결박과 어둠 속에 갇혀 있다.
- ⁷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음행에 빠져 이상한 육체를 추구하였으므로, 영원한 불의 벌을 받는 예가 되었다.
- ⁸ 이들도 마찬가지로 꿈속에서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경멸하며 천상 존재들을 비방한다.
- ⁹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은 마귀와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룰 때, 비난하는 말을 쓰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하고 말하였다.
- ¹⁰ 이들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악의적으로 말한다. 그들은 본성적으로 아는 것들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데, 이는 이성 없는 생물들과 같다.
- ¹¹ 화가 그들에게 있다! 그들은 카인의 길을 따라갔고, 빌람의 잘못을 금을 받고 따라다녔으며, 고라의 반역으로 멸망하였다.
- ¹² 이들은 너희 사랑의 잔치에서 숨은 바위이며, 함께 먹으면서 자신을 먹이는 두려움 없는 목자들이다. 물 없는 구름이며, 바람에 끌려 다니는 것이며, 열매 없는 가을 나무이며, 두 번 죽은 자이며, 뿌리에서 뽑힌 자들이다.
- ¹³ 바다의 격렬한 파도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거품으로 토해내며, 영원히 어두운 어둠이 예비된 헤매는 별들이다.
- ¹⁴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예언하여 말하였다. '보라, 주님께서 그의 성도들 만만히 함께 오셔서,'
- ¹⁵ 모든 이에게 심판을 집행하시고, 불경한 자들이 불경한 방식으로 행한 모든 불경한 행위와, 불경한 죄인들이 그분께 대해 말한 모든 거친 말을 책망하시리라.'
- ¹⁶ 이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며, 자기 욕망을 따라 걷고, 입으로 교만한 말을 하며, 이득을 얻기 위해 사람을 편애한다.
- ¹⁷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이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말한 말들을 기억하라.
- ¹⁸ 그들은 너희에게 말하였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생겨나, 자기의 불경한 욕망을 따라 걷게 될 것이다.'
- ¹⁹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혀 영이 없는 자들이다.
- ²⁰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이들, 너희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 ²¹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라.
- ²² 어떤 이들에게는 자비를 베풀되, 구별을 하며,
- ²³ 어떤 이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되, 두려움을 가지고, 육체에 더러워진 옷까지도 미워하라.
- ²⁴ 그분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그분의 영광 앞에서 흠 없이 기쁨으로 세우실 수 있으니,
- ²⁵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께, 오직 그분만이 지혜로우시니, 지금도 영원히 영광과 위엄과 통치와 권능이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 묵시록 | Revelation

요한 묵시록 1장

- ¹ 이것은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그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 주려고 보내신 계시이다. 그는 그의 천사를 보내어 그의 종 요한에게 이를 알리셨다.
- ² 요한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증언하여,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전했다.
- ³ 이 예언의 말을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 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공동체에게 보낸다. 은총과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분이신 하느님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부터 있기를.
- ⁵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는 진실한 증인으로, 죽은 자들 중 처음 나신 분이며, 땅의 임금들의 통치자이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 죄에서 씻어 주셨다.
- ⁶ 그는 우리를 왕국으로, 그의 하느님 아버지의 사제로 삼으셨다. 그에게 영원히 영광과 권세가 있기를. 아멘.
- ⁷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보고 슬퍼할 것이다. 아멘.
- ⁸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전능자.”
- ⁹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이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통과 왕국과 인내의 동반자이다. 나는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파트모스 섬에 있었다.
- ¹⁰ 나는 주님의 날에 영에 사로잡혀 있었고, 내 뒤에서 큰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
- ¹¹ 그 음성이 말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일곱 공동체에게 보내라.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모, 디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에게.”
- ¹² 나는 나와 말하는 음성을 보려고 돌아섰다. 돌아서자, 일곱 금 등불대가 보였다.
- ¹³ 등불대들 사이에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분이 서 계셨다. 그는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 띠를 두르고 계셨다.
- ¹⁴ 그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처럼, 눈처럼 희었다. 그의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 ¹⁵ 그의 발은 풀무에서 단련된 빛나는 구리 같았고,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았다.
- ¹⁶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들려 있었고,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양면 검이 나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날 때처럼 빛났다.
- ¹⁷ 나는 그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쓰러졌다.
- ¹⁸ 그는 살아 계신 분이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히 살아 있다. 아멘.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 ¹⁹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현재 있는 것과 장차 일어날 일을 기록하여라.
- ²⁰ 네가 내 오른손에 본 일곱 별과 일곱 금 등불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일곱 별은 일곱 공동체의 천사들이고, 일곱 등불대는 일곱 공동체이다.

요한 묵시록 2장

¹ 에베소의 공동체의 천사에게 쓰기를:

² 나는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으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스스로 사도라 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사도가 아니며 거짓임을 알아낸 것을 알고 있다.

³ 네가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꾸준히 견뎌 왔고, 지치지 않았다.

⁴ 그러나 네게서 한 가지를 탓한다. 네가 처음의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다.

⁵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빠르게 이르러 네 등불을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⁶ 그러나 네가 니콜라오파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점은 네게 있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⁷ 귀 있는 자는 공동체들에게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⁸ 스미르나의 공동체의 천사에게 쓰기를:

⁹ 나는 네 행위와 고난과 가난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부자이다.) 그리고 스스로 유대인이라 말하는 자들의 모독을 알고 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며, 사탄의 회당이다.

¹⁰ 네가 곧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일부를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 한다. 너희는 열 날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음까지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겠다.

¹¹ 귀 있는 자는 공동체들에게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죽음의 둘째 죽음에게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¹² 페르가모의 공동체의 천사에게 쓰기를:

¹³ 나는 네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 곧 사탄의 의자 있는 곳을 알고 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내 증인인 내 충성스러운 안티파스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날에도 내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¹⁴ 그러나 네게 몇 가지를 탓한다. 네게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는 발락에게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도록 가르쳤다.

¹⁵ 너희도 마찬가지로 니콜라오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¹⁶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빠르게 이르러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

¹⁷ 귀 있는 자는 공동체들에게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숨겨진 만나를 주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이 쓰여 있는데, 그 이름은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¹⁸ 디아티라의 공동체의 천사에게 쓰기를:

¹⁹ 나는 네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봉사과 인내를 알고 있으며, 네가 마지막 행위들이 처음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²⁰ 그러나 네게 한 가지를 탓한다. 네가 네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예언자라 칭한다. 그녀는 내 종들에게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가르치고 유혹한다.

²¹ 나는 그녀가 회개할 시간을 주었으나, 그녀는 음행에서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

²² 보라, 내가 그녀와 그녀와 음행하는 자들을 큰 고난의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들이 그녀의 행위에서 회개하지 않는 한.

²³ 나는 그녀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죽일 것이며, 모든 공동체들이 내가 마음과 마음속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각자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겠다.

²⁴ 그러나 너희, 디아티라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 곧 이 가르침을 가지지 않고 어떤 이들이 '사탄의 깊은 것'이라 부르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다.

²⁵ 그러나 너희가 가진 것을 단단히 잡고, 내가 올 때까지 지켜라.

²⁶ 이기고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나는 열국을 다스릴 권한을 주겠다.

²⁷ 그는 그들을 쇠지팡이로 다스려 도자기처럼 부수리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그러한 권한을 받았다.

²⁸ 나는 그에게 아침 별을 주겠다.

²⁹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라.

요한 묵시록 3장

- ¹ "사르디스 공동체의 천사에게 쓰기 바랍니다:
- ² 깨어나서, 아직 남아 있는 것을 강화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행위가 내 하느님 앞에서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³ 그러므로 당신이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며, 내가 어느 시각에 당신에게 임할지 당신이 알지 못할 것입니다.
- ⁴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을 것이며, 그들은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 ⁵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하겠습니다.
- ⁶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공동체들에게 하시는 말을 들으십시오.
- ⁷ "필라델피아 공동체의 천사에게 쓰기 바랍니다:
- ⁸ 나는 당신의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당신 앞에 열려 있는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힘이 적지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 ⁹ 보십시오, 내가 사탄의 회당에서,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몇 사람을 만들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당신의 발 앞에 절하며, 내가 당신을 사랑했음을 알게 하겠습니다.
- ¹⁰ 당신이 내 명령을 받아들여 인내했으므로, 내가 당신을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려 올 전 세계의 시험의 시간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 ¹¹ 내가 빠르게 올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무도 당신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 ¹² 이기는 자는 내가 하느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는 다시는 그곳에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 위에 내 하느님의 이름과 내 하느님의 도시, 곧 내 하느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내 새 이름을 쓰겠습니다.
- ¹³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공동체들에게 하시는 말을 들으십시오.
- ¹⁴ "라오디게아 공동체의 천사에게 쓰기 바랍니다:
- ¹⁵ 나는 당신의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습니다. 내가 당신이 차갑거나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 ¹⁶ 따라서 당신이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므로, 내가 당신을 내 입에서 토해낼 것입니다.
- ¹⁷ 당신이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고, 재산을 쌓았으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당신이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 ¹⁸ 내가 당신에게 권면합니다. 불로 정련된 금을 내게서 사서 부유해지십시오. 흰 옷을 사서 입으십시오. 당신의 벌거벗음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십시오. 눈에 바를 안약을 사서 보게 되십시오.
- ¹⁹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십시오.
- ²⁰ 보십시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겠습니다.
- ²¹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습니다. 마치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요.
- ²²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공동체들에게 하시는 말을 들으십시오."

요한 묵시록 4장

- ¹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열려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들은 음성이 나팔처럼 나에게 말하며, "여기로 올라오너라. 내가 이 후에 일어날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라고 하였다.
- ² 즉시 내가 영 안에 있게 되었다. 보라, 하늘에 한 좌석이 놓여 있고, 그 좌석에 앉아 계신 이가 있었다.
- ³ 그분의 모습은 옥과 홍석과 같았다. 좌석 주위에는 에메랄드처럼 보이는 무지개가 둘러 있었다.
- ⁴ 좌석 주위에는 스물네 개의 좌석이 있었고, 그 좌석 위에는 흰 옷을 입고 금 관을 머리에 쓴 스물네 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 ⁵ 좌석에서 번개와 소리와 천둥이 나왔다. 좌석 앞에는 일곱 개의 불빛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는 하느님의 일곱 영이다.
- ⁶ 좌석 앞에는 유리 바다처럼 맑고 투명한 것이 있었다. 좌석 가운데와 좌석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마리의 살아 있는 생물이 있었다.
- ⁷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으며, 넷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았다.
- ⁸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안팎으로 눈이 가득했다. 그들은 낮과 밤 쉬지 않고,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계셨고, 계시고, 오실 이여!"라고 말했다.
- ⁹ 생물들이 그 좌석에 앉아 계신 이, 곧 영원히 사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엄과 감사를 드릴 때,
- ¹⁰ 스물네 장로들이 그 좌석에 앉아 계신 이 앞에 엎드려 영원히 사시는 이를 경배하고, 그들의 관을 좌석 앞에 던지며 말했다.
- ¹¹ "우리 주님, 하느님, 거룩하신 분이여, 영광과 존엄과 권능을 받으실 만하십니다. 이는 당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뜻에 따라 그것들이 창조되고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 묵시록 5장

- ¹ 나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과 밖에 쓰여 있고 일곱 봉인으로 봉해져 있는 것을 보았다.
- ² 나는 큰 천사가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것을 보았다. "누가 이 책을 열고 그 봉인을 풀 수 있는가?"
- ³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누구도 이 책을 열거나 안을 볼 수 없었다.
- ⁴ 나는 아무도 이 책을 열거나 안을 볼 수 있는 자를 찾지 못하여 크게 울었다.
- ⁵ 한 장로가 내게 말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는 책과 그 일곱 봉인을 열 자이다."
- ⁶ 나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살해된 듯이 서 있는 어린 양을 보았다. 그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졌는데, 이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진 하느님의 일곱 영이다.
- ⁷ 그러자 그 어린 양이 나아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들었다.
- ⁸ 그가 책을 받자 네 생물과 스물네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각자 하프를 가지고 있고, 향이 가득한 금 그릇을 들고 있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다.
- ⁹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당신은 책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시고,
- ¹⁰ 우리를 우리 하느님 앞에서 왕과 사제로 삼으셨습니다.
- ¹¹ 나는 보고 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주위에 많은 천사들의 음성 같은 것을 들었다. 그 수는 만만과 천천이었다.
- ¹² 그들이 큰 목소리로 외쳤다. "살해된 어린 양이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엄과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 "
- ¹³ 나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영원히 존엄과 영광과 찬미와 권세가 있사옵니다! 아멘!"
- ¹⁴ 네 생물이 말했다. "아멘!" 그리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였다.

요한 묵시록 6장

- ¹ 나는 어린양이 일곱 봉인 중 하나를 열 것을 보았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보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² 그러자 흰 말이 나타났고, 그 위에 탄 자는 활을 들고 있었다.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겼다.
- ³ 그가 두 번째 봉인을 열 때, 나는 두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⁴ 다른 말이 나왔는데, 붉은 말이었다. 그 위에 탄 자에게는 땅에서 평화를 빼앗고,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게 할 권한이 주어졌다. 그에게 큰 칼이 주어졌다.
- ⁵ 그가 세 번째 봉인을 열 때, 나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보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보라, 검은 말이 있었고, 그 위에 탄 자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다.
- ⁶ 나는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한 덩이 밀에 한 데나리온, 세 덩이 보리에 한 데나리온!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 ⁷ 그가 네 번째 봉인을 열 때, 나는 네 번째 생물이 "오라, 보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⁸ 보라, 창백한 말이 나타났고,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죽음이었다. 음부가 그와 함께 따랐다. 그에게는 땅의 사분의 일에 권한이 주어져, 칼과 기근과 죽음과 땅의 들짐승으로 죽이게 되었다.
- ⁹ 그가 다섯 번째 봉인을 열 때, 나는 제단 아래에 하느님의 말씀과 어린양의 증거 때문에 살해된 이들의 영혼을 보았다.
- ¹⁰ 그들이 큰 목소리로 외쳐 말했다. "주님,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여,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피를 갚으시고 공의를 베푸실 때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 ¹¹ 각자에게 흰 옷이 주어졌다. 그들에게는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말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살해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이 그들의 수를 채울 때까지 말이다.
- ¹² 그가 여섯 번째 봉인을 열 때,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해는 털로 만든 자루처럼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붉어졌다.
- ¹³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마치 강한 바람에 흔들리는 무화과나무가 익지 않은 무화과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 ¹⁴ 하늘은 말아 올려지는 책처럼 사라졌다. 모든 산과 섬이 제 자리를 떠나 움직였다.
- ¹⁵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로운 자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 속에 숨었다.
- ¹⁶ 그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외쳤다. "우리 위로 쓰러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 ¹⁷ 그의 진노의 위대한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서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요한 묵시록 7장

- ¹ 이 일 후에, 나는 땅의 네 모서리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를 보았다. 그들은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 ² 나는 해가 뜨는 곳에서 올라오는 다른 천사를 보았다. 그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인을 가지고 있었고, 땅과 바다를 해치도록 허락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 ³ 그가 말했다.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 ⁴ 나는 인치어진 자들의 수를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인치어진 자가 십사만 사천 명이었다.
- ⁵ 유다 지파에서 십이천 명이 인치어졌고,
- ⁶ 아셀 지파에서 십이천 명이,
- ⁷ 시므온 지파에서 십이천 명이,
- ⁸ 스불론 지파에서 십이천 명이 인치어졌다.
- ⁹ 이 일들 후에, 나는 보았다. 보라, 모든 민족과 지파와 백성과 언어에서 온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양 앞에 서 있었다.
- ¹⁰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양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 ¹¹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들을 둘러싸고 서 있었고, 그들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느님을 경배하였다.
- ¹² 그들이 말했다. "아멘! 찬미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엄과 권능과 힘이 우리 하느님께 세세토록 있습니다! 아멘."
- ¹³ 장로들 중 한 사람이 내게 대답하며 말했다. "흰 옷을 입은 이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습니까?"
- ¹⁴ 나는 그에게 말했다.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 ¹⁵ 그러므로 그들은 하느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루 종일 밤종일 그의 성전에서 그를 섬긴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 위에 장막을 펼치실 것이다.
- ¹⁶ 그들은 다시는 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해나 더위가 그들을 태우지 않을 것이다.
- ¹⁷ 보좌 가운데에 있는 어린양이 그들을 목자로 이끌어 생명의 물샘으로 인도하시며, 하느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요한 묵시록 8장

- ¹ 일곱째 봉인을 열었을 때, 하늘에서 약 반 시간 동안 침묵이 있었다.
- ² 나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고,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다.
- ³ 다른 한 천사가 와서 제단 위에 서서 금 향로를 들고 있었다. 그에게 많은 향이 주어져,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 위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그것을 더하게 되었다.
- 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의 연기가 천사의 손에서 하느님 앞으로 올라갔다.
- ⁵ 천사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로 채운 후 땅에 던졌다. 그때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큰 소리가 일어났다.
- ⁶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 준비를 했다.
- ⁷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과 혈액이 섞인 우박이 땅에 떨어졌다. 땅의 삼분의 일은 타서 없어졌고, 나무의 삼분의 일도 타서 없어졌으며, 모든 푸른 풀도 타서 없어졌다.
- ⁸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불타는 산처럼 보이는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었다.
- ⁹ 바다에 있는 생물의 삼분의 일이 죽었고, 배의 삼분의 일이 파괴되었다.
- ¹⁰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햇불처럼 타오르며 강의 삼분의 일과 물의 샘에 떨어졌다.
- ¹¹ 그 별의 이름은 '아로마'였다. 물의 삼분의 일이 아로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물이 쓰게 되어 죽었다.
- ¹²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태양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받고, 달의 삼분의 일과 별의 삼분의 일도 타격을 받아 그들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졌으며, 낮의 삼분의 일은 빛을 발하지 못했고 밤도 마찬가지로였다.
- ¹³ 나는 보았고, 하늘 한가운데를 나는 독수리의 소리를 들었다. 그는 큰 목소리로 외쳤다.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아! 아직 나팔을 불지 않은 세 천사의 나팔 소리 때문에 화가 이르리라!"

요한 묵시록 9장

- ¹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내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을 보았다. 그에게 심연의 구덩이의 열쇠가 주어졌다.
- ² 그가 심연의 구덩이를 열자, 구덩이에서 연기가 올라왔는데, 불타는 화로에서 나는 연기 같았다. 구덩이에서 나는 연기 때문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 ³ 그러자 연기 속에서 땅 위로 메뚜기들이 나왔고, 그들에게 땅의 전갈들이 가진 힘이 주어졌다.
- ⁴ 그들에게 땅의 풀이나 모든 녹색 식물이나 나무를 해치지 말고, 다만 이마에 하느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고 명령을 받았다.
- ⁵ 그들에게 그들을 죽일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으나, 다섯 달 동안 괴롭히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들의 괴롭힘은 전갈이 사람을 쏘는 괴롭힘과 같았다.
- ⁶ 그때에 사람들은 죽음을 찾으나 결코 찾지 못할 것이며, 죽기를 원하겠으나 죽음은 그들에게서 도망칠 것이다.
- ⁷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준비한 말과 같았다. 그들의 머리에는 황금 같은 면류관이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
- ⁸ 그들은 여자의 머리카락처럼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다.
- ⁹ 그들은 철로 된 갑옷처럼 가슴을 덮었고, 그들의 날개 소리는 많은 병거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았다.
- ¹⁰ 그들은 전갈처럼 꼬리를 가지고 있었고, 꼬리 끝에 독침이 있었다. 그 꼬리로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 ¹¹ 그들에게는 심연의 천사가 왕으로서 다스렸다. 그의 히브리어 이름은 ‘아바돈’이지만, 그리스어로는 ‘아폴리온’이라고 한다.
- ¹² 첫 번째 화는 지나갔다. 보라, 이 뒤에 여전히 두 번의 화가 더 올 것이다.
- ¹³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내가 하느님 앞에 있는 황금 제단의 뿔에서 나는 목소리를 들었다.
- ¹⁴ 그 목소리가 나팔을 든 여섯 번째 천사에게 말했다. "큰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라!"
- ¹⁵ 그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그 시각과 날과 달과 해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고, 인류의 삼분의 일을 죽이기 위해.
- ¹⁶ 기마대의 수는 이억이었다. 나는 그 수를 들었다.
- ¹⁷ 이렇게 내가 환상 속에서 말들과 그 위에 앉은 자들을 보니, 그들의 갑옷은 불처럼 붉고, 자주색이며, 유향처럼 노랬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와 같았다. 그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향이 나오고 있었다.
- ¹⁸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인해 인류의 삼분의 일이 죽었다. 곧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향으로.
- ¹⁹ 말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다. 그들의 꼬리는 뱀과 같고, 머리가 있으며, 그것들로 사람들을 해친다.
- ²⁰ 이 재앙들로 죽지 않은 나머지 인류는 자기 손으로 만든 일들에서 회개하지 않았다. 곧 그들은 귀신들을 숭배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숭배하였다.
- ²¹ 그들은 자기들의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에서 회개하지 않았다.

요한 묵시록 10장

- ¹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한 천사를 보았다. 그는 구름에 덮여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았다.
- ² 그는 손에 열린 작은 책을 들고 있었다. 그는 오른발을 바다 위에, 왼발을 땅 위에 놓았다.
- ³ 그는 사자처럼 큰 소리로 외쳤다.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자기 목소리를 냈다.
- ⁴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낼 때, 나는 기록하려 했으나, 하늘에서 나는 목소리가 내게 말했다.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 ⁵ 바다 위와 땅 위에 서 있는 내가 본 천사는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었다.
- ⁶ 그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하늘과 그 안의 모든 것, 땅과 그 안의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을 가리켜 맹세하며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 ⁷ 일곱 번째 천사가 불기울이려 할 때, 그의 음성이 나면, 하느님의 신비가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그가 자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이다.
- ⁸ 하늘에서 내게 들려온, 다시 나에게 말하는 그 목소리가 말했다. "가서, 바다 위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든 열린 책을 가져라."
- ⁹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작은 책을 내게 주도록 요청했다.
- ¹⁰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 먹었다. 그것은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다. 내가 먹고 나니, 내 배가 쓰러려졌다.
- ¹¹ 그들이 내게 말했다. "너는 여러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 위에서 다시 예언해야 한다."

요한 묵시록 11장

- 1 나에게 갈대처럼 막대기 하나가 주어졌다. 누군가 내게 말했다. "일어나서 하느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숭배하는 자들을 측정하여라."
- 2 성전 밖의 안뜰은 빼고 측정하지 마라. 그것은 이미 민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성한 도시를 사십이 개월 동안 밟을 것이다.
- 3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어, 그들이 자루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 동안 예언하게 하겠다.
- 4 이들은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와 두 등불대이다.
- 5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킨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 하면, 그는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해야 한다.
- 6 이들은 하늘을 닫아, 그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물을 피로 바꾸고, 원하는 대로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칠 권능을 가지고 있다.
- 7 그들이 증언을 마치면,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이기고 죽일 것이다.
- 8 그들의 시체는 큰 도시의 거리에 있을 것이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며, 거기서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 9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바라보며, 그 시체를 무덤에 안장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 10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들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것이다. 이 두 예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 11 사흘 반 후,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의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일어나 서 있었다. 그들을 본 자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다.
- 12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여기로 올라오너라!" 그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보았다.
- 13 그날 큰 지진이 일어나 도시의 십분의 일은 무너졌고, 지진으로 칠천 명이 죽었으며, 나머지 자들은 무서워서 하늘의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다.
- 14 두 번째 재앙이 지나갔다. 보라, 세 번째 재앙이 빠르게 온다.
- 15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울려 퍼졌다.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 그분은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 16 하느님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스물네 장로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느님을 경배하였다.
- 17 그들이 말했다. "우리 주 하느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던 분이시여, 당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통치하시게 되었으니,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 18 민족들이 분노하였고, 당신의 진노가 이르렀으며, 죽은 자들을 심판할 때가 되었고, 당신의 종들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 작은 자와 큰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파괴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 19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주님의 언약의 궤가 그 성전 안에서 보였다. 번개와 소리와 천둥과 지진과 큰 우박이 이어졌다.

요한 묵시록 12장

- ¹ 하늘에 큰 표징이 보였다. 한 여자가 해를 입고, 발 밑에는 달이 있었으며, 머리에는 열두 별로 된 관을 쓰고 있었다.
- ² 그 여자는 임신하여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으려고 외쳤다.
- ³ 또 하늘에 다른 표징이 보였다.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었고, 그 머리들 위에는 일곱 관이 있었다.
- ⁴ 그 용의 꼬리는 하늘의 별들의 삼분의 일들을 끌어내어 땅에 던졌다. 용은 아기를 낳으려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그 아기를 삼키려 하였다.
- ⁵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다. 남자 아이였다. 그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였다. 그 아이는 하느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잡혀 올라갔다.
- ⁶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갔다.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장소가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천이백육십 일 동안 양육될 것이다.
- ⁷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웠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다.
- ⁸ 그들은 이기지 못했다.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었다.
- ⁹ 큰 용이 내던져졌다. 옛 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 불리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였다. 그는 땅으로 내던져졌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던져졌다.
- ¹⁰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제 우리의 하느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이 도래하였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 그가 하느님 앞에서 낮과 밤으로 그들을 고발하던 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 ¹¹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 ¹² 그러므로 하늘과 거기 거주하는 자들아, 기뻐하여라. 땅과 바다아, 화가 있을지어다. 마귀가 너희에게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는 큰 분노를 품고 있으며, 자기에겐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 ¹³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던져진 것을 보고,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였다.
- ¹⁴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날개 두 개가 주어져, 뱀의 얼굴로부터 그녀가 광야로 도망쳐 자기 장소로 날아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되게 하였다.
- ¹⁵ 뱀은 여자를 따라 입에서 강처럼 물을 쏟아내어, 그녀를 물살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였다.
- ¹⁶ 땅이 그 여자를 도와, 땅이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쏟아낸 강을 삼켰다.
- ¹⁷ 용은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그녀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떠났다. 그 자손들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언을 붙잡고 있다.

요한 묵시록 13장

- 1 그러나 나는 바다의 모래 위에 섰다. 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보았는데, 열 뿔과 일곱 머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 뿔들 위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 2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처럼 보였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았으며,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뱀이 그에게 자신의 힘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 3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치명상을 입은 듯 보였다. 그 치명상이 낫자, 온 땅이 그 짐승을 보고 놀라워하였다.
- 4 그들이 뱀을 숭배하였으니, 이는 그가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며, 그들이 짐승을 숭배하며 말하였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그와 싸울 수 있느냐?"
- 5 그에게 큰 일들과 모독을 말하는 입이 주어졌다. 그에게 사십이 개월 동안 전쟁을 벌일 권세가 주어졌다.
- 6 그가 입을 벌려 하느님을 모독하였으니, 곧 그의 이름과 그의 거처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였다.
- 7 그에게 성도들과 싸우고 이기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에게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다.
- 8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숭배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이름이 창세 전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뿐이다. 그 어린 양은 살해된 자이다.
- 9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 10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로 죽임을 당할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 11 나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지니고 있었고, 뱀처럼 말하였다.
- 12 그는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앞에서 행사하였다. 그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치명상을 입었다가 낫은 첫째 짐승을 숭배하게 만들었다.
- 13 그는 큰 표적들을 행하였으니,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였다.
- 14 그는 그에게 짐승 앞에서 행하게 허락된 표적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나의 백성을 속였다. 그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칼에 상처를 입었으나 살아난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다.
- 15 그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숨을 불어넣어, 그 우상이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 16 그는 모든 자, 작은 자와 큰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로운 자와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다.
- 17 그러나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가 아니면, 누구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다.
- 18 여기 지혜가 있다. 이해하는 자는 짐승의 수를 계산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이다. 그 수는 육백 육십 육이다.

요한 묵시록 14장

- ¹ 나는 보니, 어린양이 시온 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 ² 나는 하늘에서 큰 물의 소리와 같은 소리, 또 큰 천둥의 소리와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내가 들은 소리는 하프를 치는 자들이 자기 하프로 치는 소리와 같았다.
- ³ 그들은 보좌 앞과 네 생물 앞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었다. 이 노래는 땅에서 구속된 십사만 사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다.
- ⁴ 이들은 여자들과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다. 그들은 처녀들이다. 이들은 어린양이 어디에 가든지 따르는 자들이다. 이들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에게서 구속되어 하느님과 어린양의 첫 열매가 되었다.
- ⁵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다.
- ⁶ 나는 하늘 한가운데에서 날아다니는 한 천사를 보았다. 그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 ⁷ 그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의 심판의 때가 왔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샘들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여라!"
- ⁸ 다른 천사, 곧 둘째 천사가 뒤따라 와서 말했다.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그녀는 모든 민족에게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
- ⁹ 세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큰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하고, 그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라면,"
- ¹⁰ 그도 하느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이 포도주는 그분의 분노의 잔에 섞이지 않고 준비된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양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 ¹¹ 그들의 고통의 연기는 영원히 올라간다. 그들이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은 낮이나 밤이나 쉴 수가 없다.
- ¹² 여기서 성도들의 인내가 드러난다. 그들은 하느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 ¹³ 나는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다. 그것은 말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 성령이 말했다. "그들이 수고에서 쉬리니,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따르기 때문이다."
- ¹⁴ 나는 보니, 흰 구름이 있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처럼 앉아 있는 이가 있었는데, 그의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다.
- ¹⁵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이에게 큰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의 낫을 휘두르고 베어라. 베는 때가 왔으니, 땅의 곡식이 익었도다."
- ¹⁶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이가 땅에 낫을 휘두르자, 땅이 베어졌다.
- ¹⁷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또 다른 천사가 나왔고, 그도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었다.
- ¹⁸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였다. 그가 날카로운 낫을 가진 이에게 큰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의 날카로운 낫을 휘두르고, 땅의 포도나무의 열매를 모으라. 땅의 포도가 이미 익었도다."
- ¹⁹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두르자, 땅의 포도를 모아 하느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 ²⁰ 포도주 틀은 성 밖에서 밟혔고,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의 재갈까지 올라갔으며, 천육백 스타디온까지 이르렀다.

요한 묵시록 15장

- ¹ 나는 하늘에 또 크고 놀라운 표적을 보았다. 일곱 천사가 일곱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재앙들로 하느님의 진노가 마쳐졌다.
- ² 나는 불과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다. 그 위에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하느님의 수금을 들고 있었다.
- ³ 그들은 하느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이 말했다. "주 하느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당신의 행위는 크고 놀랍습니다."
- ⁴ 주님,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리이까.
- ⁵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렸다.
- ⁶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나왔다. 그들은 맑고 밝은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 띠를 두르고 있었다.
- ⁷ 네 생물 중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일곱 금 그릇을 주었는데, 그 그릇에는 영원히 사시는 분의 진노가 가득하였다.
- ⁸ 성전은 하느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에서 나는 연기로 가득 찼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쳐질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요한 묵시록 16장

- ¹ 나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와 일곱 천사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가서 땅 위에 하느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아라!"
- ² 첫째 천사가 나가서 자신의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형상을 숭배한 사람들에게 해로우며 고통스러운 종기들이 생겼다.
- ³ 둘째 천사가 자신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되었다. 바다 속의 모든 생명이 죽었다.
- ⁴ 셋째 천사가 자신의 대접을 강들과 물샘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었다.
- ⁵ 나는 물의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일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 ⁶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쏟았으니, 당신은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에 합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 ⁷ 나는 제단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네가 맞습니다, 주 하느님, 전능하신 분이시오. 당신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 ⁸ 네째 천사가 자신의 대접을 태양에 쏟으니, 태양은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한을 받았다.
- ⁹ 사람들은 심한 더위에 타들어가며, 이 재앙들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 ¹⁰ 다섯째 천사가 자신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이 고통으로 인해 혀를 깨물었다.
- ¹¹ 그들은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느님을 모독하였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 ¹² 여섯째 천사가 자신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쏟으니, 그 물이 마르고, 동쪽에서 오는 왕들이 올 길이 준비되었다.
- ¹³ 나는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그리고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세 개의 더러운 영이 개구리처럼 나오는 것을 보았다.
- ¹⁴ 이들은 악령의 영으로, 표적을 행하며 온 세상에 사는 왕들에게 나아가, 전능하신 하느님의 그 큰 날의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 ¹⁵ "보아라, 나는 도둑처럼 온다. 깨어 있어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는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그의 부끄러움을 사람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 ¹⁶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하르마게돈이라 불리는 곳에 모았다.
- ¹⁷ 일곱째 천사가 자신의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하늘의 성전에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 말했다. "이제 다 이루었다!"
- ¹⁸ 번개와 소리와 천둥이 일어났고, 세상에 사람이 있는 이래로 일어나지 않았던, 이처럼 크고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다.
- ¹⁹ 큰 도시가 세 부분으로 갈라졌고, 만국의 도시들이 무너졌다. 큰 바빌론이 하느님의 눈앞에 기억되어, 그분의 진노의 격렬한 포도주를 담은 잔을 그녀에게 주어졌다.
- ²⁰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않았다.
- ²¹ 한 탈렌트 무게쯤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쏟아졌다.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하느님을 모독하였다. 이 재앙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이다.

요한 묵시록 17장

- ¹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에게 말했다. "이리 와라. 내가 큰 음녀의 심판을 네게 보여 주겠다. 그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 ² 지상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을 저질렀고, 지상에 거하는 자들이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졌다."
- ³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데려갔다. 나는 붉은 빛의 짐승 위에 앉아 있는 한 여자를 보았다. 그 짐승은 모독적인 이름으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지니고 있었다.
- ⁴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되었으며, 손에 땅의 음행의 가증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금 잔을 들고 있었다.
- ⁵ 그녀의 이마에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신비로운 바빌론, 큰 음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 ⁶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그녀를 보고 매우 놀라움을 느꼈다.
- ⁷ 천사가 내게 말했다.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 여자를 메고 다니는 짐승의 신비를 네게 말해 주겠다. 그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지니고 있다."
- ⁸ 네가 본 짐승은 있었으나 이제는 없고,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갈 것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서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짐승이 있었으나 이제는 없고, 다시 나타날 것을 보고 놀라리라."
- ⁹ 지혜가 있는 자는 여기서 생각하라.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다.
- ¹⁰ 그것들은 일곱 왕이다. 다섯은 쓰러졌고, 하나는 현재 존재하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무를 것이다.
- ¹¹ 있었으나 이제는 없는 그 짐승은 또한 여덟째이며, 일곱 중 하나이며, 멸망으로 간다.
- ¹² 네가 본 열 뿔은 열 왕이다. 그들은 아직 왕국을 받지 않았으나, 한 시간 동안 짐승과 함께 왕의 권세를 받는다.
- ¹³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들의 권세와 힘을 짐승에게 준다.
- ¹⁴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려 할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다."
- ¹⁵ 그가 내게 말했다. "네가 본 물, 즉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 ¹⁶ 네가 본 열 뿔과 그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황폐하게 만들고, 그녀를 벗겨 벌거벗기며, 그녀의 육체를 먹으며, 불로 그녀를 완전히 태워 버릴 것이다."
- ¹⁷ 하느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 자기들의 왕국을 짐승에게 주고,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르리라."
- ¹⁸ 네가 본 그 여자는 지상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이다."

요한 묵시록 18장

- 1 이 일들 후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다른 천사를 보았다. 그는 큰 권세를 지니고 있었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밝아졌다.
- 2 그는 큰 목소리로 외쳐 말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빌론이여! 그녀는 악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모든 더러운 영의 옥소가 되었으며, 모든 더럽고 미워하는 새의 옥소가 되었고도다."
- 3 지상의 모든 민족이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은 그녀와 음행을 저질렀으며,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부함으로 부자가 되었도다.
- 4 나는 하늘에서 다른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가 말했다.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서,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의 재앙을 받지 말라."
- 5 그녀의 죄악은 하늘에 이르렀고, 주님은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도다.
- 6 그녀가 행한 대로 그녀에게 갚아 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두 배로 갚아 주라. 그녀가 섞은 잔에, 너희도 두 배로 섞어 주라.
- 7 그녀가 얼마나 자랑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그만큼 주라.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으며, 과부가 아니며, 슬픔을 결코 보지 않으리라." 하였도다.
- 8 그러므로 하루 안에 그녀의 재앙이 닥칠 것이다.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니,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타버릴 것이다. 그녀를 심판하신 주 하느님은 강하시도다.
- 9 그녀와 음행을 저질렀고 방탕하게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타는 연기를 보고 그녀를 위하여 울며 통곡할 것이다.
- 10 그들은 그녀의 고통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말하기를,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큰 성 바빌론, 강한 성이여! 네가 한 시간 안에 심판을 받았도다." 하리라.
- 11 땅의 상인들은 그녀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니, 그들의 상품을 더 이상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
- 12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고운 베와 자주색과 비단과 붉은색, 모든 귀한 나무와 상아로 만든 모든 그릇과 가장 귀한 나무로 만든 모든 그릇과 놋과 철과 대리석이니,
- 13 계피와 향신료와 향수와 유향과 포도주와 올리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사람의 몸과 영혼이니라.
- 14 네 영혼이 탐내던 열매들이 네게서 사라졌도다. 모든 아름답고 사치스러운 것이 네게서 사라졌고, 네가 다시는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 15 이 물건들을 취급하며 그녀로 인해 부자가 된 상인들은 그녀의 고통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울며 통곡하리라.
- 16 그들이 말하기를,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큰 성이여! 고운 베와 자주색과 붉은색으로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되었던 성이여!"
- 17 한 시간 안에 이토록 큰 부가 황폐해졌도다." 모든 선장과 모든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과 선원들과 바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자들이 멀리 서서,
- 18 그녀가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했다. "이런 큰 성과 같은 것이 어디 있느냐?"
- 19 그들은 자기 머리에 흙을 뿌리고 울며 통곡하며 말했다.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큰 성이여! 바다에 배를 가졌던 모든 자들이 그녀의 풍부한 부로 부자가 되었던 성이여!" 그녀가 한 시간 안에 황폐해졌도다.
- 20 "하늘아,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하느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심판을 내리셨으니, 그녀를 위하여 기뻐하라."
- 21 강한 천사가 큰 석밀을 닦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했다. "이와 같이 폭력적으로 큰 성 바빌론이 던져져서 다시는 발견되지 않으리라."
- 22 너는 더 이상 수금을 치는 자들의 음성과 무용수들의 음성과 피리 부는 자들의 음성과 나팔 소리도 듣지 못하리라. 너는 더 이상 어떤 기술자도 발견하지 못하리라. 너는 더 이상 석밀 소리도 듣지 못하리라.
- 23 너는 더 이상 등불의 빛도 보지 못하리라.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너에서 듣지 못하리라. 이는 네 상인들이 땅의 왕들이었

고, 네 마법으로 모든 민족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라.

²⁴ 그녀 안에는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있었다."

요한 묵시록 19장

¹ 이 일들 후에, 나는 하늘에서 큰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을 들었다. 그들이 말했다. "할렐루야! 구원과 권능과 영광이 우리 하느님께 속합니다.

² 그분의 심판은 진실하고 의로우니, 그녀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창녀를 심판하시고, 그녀의 손에서 자신의 종들의 피를 닦으셨기 때문입니다."

³ 또 다른 이가 말했다. "할렐루야! 그녀의 연기는 영원히, 영원히 올라갑니다."

⁴ 스물네 장로들과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느님을 경배하며 말했다. "아멘! 할렐루야!"

⁵ 보좌에서 음성이 나왔다. "내 종들 모두,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작은 자와 큰 자들아, 우리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라!"

⁶ 나는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의 음성 같고, 큰 천둥의 음성 같은 것을 들었다. 그들이 말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하느님,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십니다!"

⁷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어린양의 혼인식이 왔고, 그분의 아내가 스스로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⁸ 그녀에게 밝고 순결한 고운 베옷을 입게 해 주셨으니, 이 고운 베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⁹ 그가 내게 말했다. "기록하여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불림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말들은 하느님의 진실한 말씀이다."

¹⁰ 나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했다. 그가 내게 말했다. "보아라, 그만두어라!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지닌 네 형제들과 같은 종이다. 하느님을 경배하여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¹¹ 나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보라, 흰 말이 있고, 그 위에 앉은 이는 신실하고 진실하다고 불린다. 그는 의로움으로 심판하고 전쟁을 벌인다."

¹²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다. 그에게는 이름이 쓰여 있고, 그 자신만이 아는 이름도 쓰여 있다.

"

¹³ 그는 피가 뿌려진 옷을 입고 있다. 그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 불린다."

¹⁴ 하늘에 있는 군대들, 흰 고운 베옷을 입은 자들이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랐다."

¹⁵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열국을 치리라.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전능하신 하느님의 격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¹⁶ 그의 옷과 허벅지에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쓰여 있다."

¹⁷ 나는 해에 서 있는 천사를 보았다. 그가 큰 음성으로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에게 외쳤다. "오너라, 하느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¹⁸ 너는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용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위에 앉은 자들의 고기, 그리고 모든 사람, 자유로운 자와 종, 작은 자와 큰 자의 고기를 먹으리라."

¹⁹ 나는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말 위에 앉은 이와 그의 군대와 싸우려고 모인 것을 보았다."

²⁰ 짐승은 잡혔고, 그와 함께 그의 앞에서 표적을 행하여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미혹한 거짓 예언자도 잡혔다. 이 둘은 유황으로 타는 불의 연못에 살아서 던져졌다."

²¹ 나머지는 말 위에 앉은 이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임을 당했다. 이처럼 모든 새들이 그들의 고기로 배를 채웠다.

요한 묵시록 20장

- ¹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를 보았다. 그는 심연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쥐고 있었다.
- ² 그는 뱀, 옛 뱀, 곧 마귀요 사탄인 용을 잡아 천 년 동안 결박하였다.
- ³ 그는 용을 심연에 던져 넣고 봉인을 닫아, 천 년이 끝날 때까지 그가 다시는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에는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한다.
- ⁴ 나는 의자들을 보았다. 그 위에 앉은 이들이 있었고, 심판의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나는 예수의 증거와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을 보았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이들도 보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살아서 통치하였다.
- ⁵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 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 ⁶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는 복되고 거룩하다. 이들에게 둘째 죽음은 권세가 없다. 그들은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사제가 되어, 그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할 것이다.
- ⁷ 천 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 ⁸ 그는 땅의 네 모퉁이에 있는 민족들, 곧 고고와 마고그를 속여 모아 전쟁을 일으키려 나올 것이다.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 ⁹ 그들은 땅의 넓이를 가로질러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도시를 둘러쌌다. 하느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켰다.
- ¹⁰ 그들을 속인 마귀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졌다. 그곳에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도 있다. 그들은 낮과 밤을 막론하고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이다.
- ¹¹ 나는 큰 흰 의자를 보았고, 그 위에 앉은 분도 보았다. 그의 앞에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사라졌고, 그들을 둘 곳이 없어졌다.
- ¹² 나는 죽은 자들, 큰 자들과 작은 자들이 의자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책들이 펼쳐졌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다. 죽은 자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따라,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다.
- ¹³ 바다는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고, 죽음과 음부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다. 각자는 그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다.
- ¹⁴ 죽음과 음부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졌다. 이것이 둘째 죽음, 곧 불과 유황의 못이다.
- ¹⁵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모두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졌다.

요한 묵시록 21장

- ¹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사라졌고, 바다는 더 이상 없었다.
- ² 나는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그 도시는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있었다.
- ³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 "보아라, 하느님의 거처가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분이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시며,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느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느님이 되실 것이다."
- ⁴ 그분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죽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슬픔도, 애곡도,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은 모두 사라졌다.
- ⁵ 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 말들을 기록하여라. 이 하느님의 말들은 신실하고 진실하다."
- ⁶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내가 생명의 물의 샘에서 목마른 자에게 자유롭게 주겠다."
- ⁷ 이기는 자에게 나는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 ⁸ 그러나 겁쟁이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죄인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그 몫이 있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 ⁹ 일곱 대야에 일곱 마지막 재앙을 담고 있던 일곱 천사 중 한 명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이리 와라. 내가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네게 보여 주겠다."
- ¹⁰ 그가 나를 영으로 큰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는데, 그것은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 ¹¹ 그 도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띠고 있었다. 그 도시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즉 옥석처럼 맑고 투명했다.
- ¹² 그 도시는 높고 큰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열두 개의 문이 있었으며, 문마다 열두 천사가 서 있었고, 문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 ¹³ 동쪽에는 세 문이 있었고, 북쪽에는 세 문이 있었으며, 남쪽에는 세 문이 있었고, 서쪽에는 세 문이 있었다.
- ¹⁴ 도시의 담은 열두 기초를 지니고 있었고, 그 기초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 ¹⁵ 나와 말하던 이는 금으로 된 갈대를 가지고 도시와 그 문들과 그 담을 측정하였다.
- ¹⁶ 도시는 정사각형이었다. 길이와 너비가 같았다. 그가 갈대로 도시를 측정하니, 길이가 만이천 이백 스터디온이었다.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았다.
- ¹⁷ 그 담의 높이는 백사십사 큐빗이었고, 이는 사람의 측정 기준, 곧 천사의 측정 기준이었다.
- ¹⁸ 그 담의 재료는 옥석이었고, 도시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맑은 유리처럼 투명하였다.
- ¹⁹ 도시 담의 기초는 모든 귀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첫 번째 기초는 옥석이고, 두 번째는 사파이어이며, 세 번째는 칼세도니이며, 네 번째는 에메랄드였다.
- ²⁰ 다섯 번째는 사르도니크스이며, 여섯 번째는 사르디우스이며, 일곱 번째는 크리솔리트이며, 여덟 번째는 베릴이며, 아홉 번째는 탑자이며, 열 번째는 크리스프라즈이며, 열한 번째는 야아신스이며, 열두 번째는 아메스트이다.
- ²¹ 열두 문은 열두 진주였고, 각 문은 한 개의 진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도시의 거리는 맑은 유리처럼 순금이었다.
- ²² 나는 그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는 주 하느님인 전능자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 ²³ 그 도시는 태양이나 달의 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하느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비추고, 그 도시의 등불은 어린 양이기 때문이다.
- ²⁴ 나라들은 그 도시의 빛으로 걸을 것이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엄을 그 도시로 가져올 것이다.
- ²⁵ 그 문은 낮 동안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다(거기에는 밤이 없기 때문이다).
- ²⁶ 그리고 그 나라들의 영광과 존엄이 그 안으로 가져다바쳐질 것이며, 그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²⁷ 그 안에는 결코 더럽거나 가증한 일을 일으키거나 거짓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것이다.

요한 묵시록 22장

- 1 그가 내게 생명의 물의 강을 보여 주었는데, 유리처럼 맑고, 하느님의 보좌와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 2 그 강의 가운데 길이 있었다. 강 양쪽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었는데,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고, 매달 열매를 맺었다. 그 나무의 잎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 3 이제 저주가 없을 것이다. 하느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은 그를 섬길 것이다.
- 4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쓰일 것이다.
- 5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며, 그들은 등불 빛이나 태양 빛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주 하느님이 그들을 비출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히,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 6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의 영의 주 하느님이 그의 종들에게 일어나야 할 일을 속히 보이기 위해 그의 천사를 보냈다."
- 7 "보아라, 내가 속히 온다. 이 책의 예언의 말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 8 나 요한은 이 일을 들었고 보았다. 내가 들고 보고 나서, 이 일을 내게 보여 준 천사의 발 앞에 나아가 절하려 했다.
- 9 그가 내게 말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네 형제인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종이다. 하느님을 경배하여라."
- 10 그가 내게 말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을 봉인하지 마라.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 11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계속 불의를 저질러라.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워라.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로운 일을 하여라.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라.
- 12 "보아라,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지불할 보상이 나와 함께 있으며,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아 주겠다."
-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다.
- 14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생명의 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성문을 통해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15 밖에는 개들과 마법사들과 성적으로 부정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모든 자들이 있다.
- 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 이 일을 증언하기 위해 내 천사를 보냈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며, 밝고 아침별이다.
- 17 성령과 신부가 말한다. "오소서!" 듣는 자는 말하라. "오소서!" 목마른 자는 오라. 원하는 자는 생명의 물을 값없이 받으라.
- 18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느님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 19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에서 빼면, 하느님은 그의 몫을 생명의 나무에서와 거룩한 성에서, 이 책에 기록된 것에서 빼실 것이다.
- 20 이 일을 증언하는 이가 말한다. "네, 내가 속히 온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 2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빈다. 아멘.